Table of Cont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

제1화

나는 그림이 되었다.

“.......”

영정 사진 아니고 진짜 그림.

“.......”

그것도 숲속 오두막 한가운데에 떨어졌다.

“...귀농한 셈 칠까.”

멀쩡히 살아 귀신 들린 초상화 취급을 받게 생겼지만, 재밌으니까 됐다.

* * *

서지오는 미술 교사였다.

버젓한 사회인이었던 그가 왜 귀신 들린 초상화가 되었는지를 설명하자면, 불이 난 학교를 제때 탈출하지 못한 서지오가 미술실에 갇혀 자기 그림에 퐁당 빠져버린 탓이었다.

“.......”

진짜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죽고 싶었지.”

그게 바로 미술 창고였다. 숲속 오두막을 그린 풍경화가 놓여 있던, 결국 그를 말하는 그림으로 만들어버린 장소 말이다.

“살다 보니 이런 경험을 하네.”

지오는 벤치에 앉아 그림 속 풍경을 눈에 담았다.

“.......”

공기가 온화하다.

합창이라도 하듯 조화롭게 지저귀는 새들의 울음소리. 살랑살랑 비단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봄바람.

울창한 이파리 사이사이로 비치는 보석 같은 햇빛. 적당한 온도와 이슬에 젖은 듯 짙은 숲 내음....

“음.”

평화로웠다.

“좋네.”

이 그림 속 오두막에서 정신을 차린 지 어언 일주일 정도.

'시간의 흐름이 오락가락해서 정확히 내가 여기에 얼마나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입주자가 새집을 살피는 건 당연한 일. 지오는 이 그림 속의 소소한 규칙 몇 가지를 알아냈다.

첫 번째로, 그가 이곳에서 그린 것들은 모두 실제가 된다.

"......."

제가 그려낸 사과를 관찰하던 서지오는 그것을 툭 내려놓았다. 잘 익은 사과에서 좋은 향기가 났다.

뿌듯했다.

'나는 식비로부터 해방되었다.'

역시 나는 기특해.

귀신 들린 초상화고 자시고, 미식가이자 대식가인 서지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사과를 그리면 진짜 사과가 되었다. 소금 봉지를 그리면 진짜 소금이 되었다. 식자재 이외의 냄비나 주걱 같은 주방용품도 마찬가지였고, 꽃이나 나무 같은 식물 역시 똑같았다.

'이쯤에서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한 가지.'

사람은 못 그린다.

물감으로 인간을 빚는 최초의 인간이 될지 몰라 그려는 봤는데 따듯한 시체만 나올 뿐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되지는 못하더라.

"한계가 명확해서 다행이지."

지오는 쫄 뻔했다. 우정과 평화와 사랑을 중요시하는 그에게 인류를 창조하는 능력 따위는 해가 될 뿐이었다.

무엇보다 서지오의 꿈은 창조주보다 건물주에 가까웠다.

'내 인생의 아담함과 깜찍함을 해칠 정도의 능력을 가지게 된 건 아니라 안심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

"......."

한 나무 기둥에 걸려 있는 액자에 지오의 시선이 닿았다.

"현관문 같은 건가."

액자를 통해 지오는 이곳 바깥의 풍경을 볼 수 있었다.

"혼자 늙어가지 말라는 소통의 중요성을 위해 달려 있는 걸지도."

현실과도 상호 작용이 가능해 얼마든지 그림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다. 서지오가 아는 수많은 괴담 속 귀신 들린 초상화들에 비하면 자유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겠다.

'역시 나야.'

그림이 되어도 남들과 같은 길을 가는 법이 없지.

지오는 인류사에 다시 없을 자신의 유니크함에 크게 만족했다. 세상에 이런 게 둘 있지는 않을 것 같았다. 있으면 운명이니 더 좋았다.

"......."

아무튼 각설하고.

"...굳이 매연 냄새 나는 사회로 나가서 새로운 살림 차려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네."

이 청정 구역을 두고 굳이?

“고작 몇 년 사이에 내가 기억하는 것과 많은 것이 달라지기도 했고….”

29살 창창한 나이에 중얼거리긴 많이 씁쓸한 소리였지만, 현실이 그랬다. 화재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30년가량이 지났다더라.

‘정확히는 31년.’

그걸 알게 된 지오는 유유히 그림 속으로 돌아왔다. 이 말하는 감자는 새 사회에 적응할 자신이 없었다.

“이미 사망 신고 된 지 한참 지났을 텐데 어떤 생체 실험을 당하려고 여길 나가겠어.”

식비는 물론이요 월세에 전기세도 안 나가는 이 평화로운 집을 놔두고 괜히 고생할 생각 없었다.

“우리 반 애들이 조금 걱정되기는 하는데… 세상이 워낙 변해서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모르겠네.”

화재 사고가 일어났던 31년 전, 지구가 한번 뒤집힌 모양이었다.

‘대재앙이라고 부르던가.’

그날 이후로 세상은 완전히 바뀐 듯했다.

정장 입은 비즈니스맨이 활을 들고 집채만 한 괴수랑 싸우는 믿지 못할 광경을 봤을 때, 대단히 쫄아버린 지오는 순순히 자신의 정체성을 그림으로 인정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도 안 됐고 넋도 멀쩡히 잘 있지만 그래도 괴물과 부대끼는 현대 사회보다는 평화롭고 안락한 귀신 들린 초상화의 삶이 낫더라.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는 법이고, 그중 초상화의 삶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쯤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논하자면.

“…흠.”

이 숲은 또 다른 생태계다.

“채집이나 가볼까.”

지오는 튼튼한 바구니를 챙겼다. 먹을 걸 한가득 챙겨 올 생각이었다.

‘내가 그린 것은 2층짜리 오두막과 그것을 감싸는 숲뿐이었지만, 이곳저곳 돌아다녀 보니 그린 적 없는 식물이나 지형지물도 존재했어.’

지오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

부스럭.

“안녕.”

“삑.”

“그래.”

지오는 수풀에서 튀어나온 토끼가 제 발에 몸을 비비고 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았다.

‘작네.’

흔히 아는 한국의 토끼보다 훨씬 몸이 작고 동그란 형태였는데, 작고 무해한 것을 선호하는 서지오의 취향이 반영된 것 같았다.

'마음에 들어.'

주로 나를 해치지 못할 것 같다는 점이. 진지하게 싸우면 서지오 자신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림의 주인인 내가 무해해서 무해한 생물들만 배치된 건가. 가능성 있는 추측이군....'

이후로도 조금씩 현실의 것과 다른 점이 있는 생명체가 이따금 지오를 스쳐 지나갔다.

볼이 동그랗게 부푼 다람쥐. 겨울인 양 깃털이 보슬보슬하게 부푼 참새. 보석처럼 맑은 눈망울에 늘씬한 목을 가진 사슴....

"......."

지오는 생각했다.

네 번째 규칙.

"...초면인데도 이렇게 친절하다니 아버지인 나를 알아보는 것이 틀림없다."

이 그림 속의 모든 존재는 지오에게 호의를 보인다.

'내가 이곳을 그렸기 때문인가.'

비록 그림이 되었다지만 지오는 여전히 화가였고, 이 세계 또한 그가 그려낸 작품이었다.

'그런 작품 속에 사는 녀석들이 주인인 나에게 호의적인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지.'

지오는 그대로 개울물의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해야 할 일도 없는 백수답게 볕 좋은 곳을 찾아 낮잠이나 자볼까."

그는 이 넓은 숲의 근원인 샘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가는 길에 채집도 하면 더 좋고.'

서지오는 아직도 미식가이자 대식가였다. 그림이 되고 허기나 졸음을 느끼진 않았지만, 얼마든지 먹으려면 먹고 자려면 잘 수 있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더부룩하거나, 푹 자고 난 직후에 다시 자지는 못하는 걸 보면...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 패턴은 지켜지는 것 같지만.'

아무튼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장점이었다.

"...아."

개울을 반대로 따라가던 지오는 붉고 동그란 열매를 찾았다.

"간식으로 딱 좋겠는데."

2m가 좀 안 되는 듯한 낮은 키에, 가지가 엎어진 접시처럼 푹 굽어진 얇은 나무. 그 가는 가지에는 문방구에서 파는 구슬만 한 크기의 열매들이 가득 열려 있었다.

길쭉한 가지를 기준으로 몽글몽글 퍼지게 맺혀 있는 것이, 형태는 포도보다 앵두나무와 비슷했다.

"햇볕에 말리면 건포도와 비슷한 식감을 낼 수 있으려나...."

그 순간, 지오의 '시스템'이 작고 붉은 열매를 설명했다.

망둥 열매

붉은색을 띤다. 새콤달콤하며 주로 단맛이 강하다. 작게는 1cm, 크게는 2cm의 지름을 가진 구 형태의 열매이다.

연단법: 바짝 말린 열매로 가루를 내어 루루푸의 즙과 함께 섞어 만든 반죽으로 경단을 만들어 어두운 곳에 일주일 이상 건조하면 출혈과 그 회복에 좋은 약이 된다.

"…예고를 좀 하고 나와주면…."

다섯 번째 규칙.

"…그래, 이건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네. 시간이 약이겠지."

사실 이건 이 숲의 규칙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마 서지오는 각성이라는 것을 한 모양이었다. '대재앙' 이후 나타난 초능력자들에게서 발현된다는 현상 말이다.

지금 지구의 사람들은 그런 초능력자들을 보며 '헌터'라고 부르던데, 신기했다.

'내가 그런 초능력자가 된 것도.'

뭐랄까.

"게임 같지."

채집하고 요리하는 힐링 게임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그런 기분 덕분에 이런 낯선 환경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해야 하나.'

이곳이 게임이라며 현실 도피를 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게임처럼 무해하고 편리한 환경에 놓여 있으니 적응이 쉽다'는 의미였다.

"…음…."

시스템을 재차 읽은 지오가 바구니를 확인했다.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 있었다.

"…더 담을까."

그는 바구니의 밑바닥이 붉어질 만큼 열매를 톡톡 떼어 모았다. 그러고는 깨끗하게 씻은 커다란 잎으로 열매의 자리를 만들어 구분해 두었다.

다른 채집물을 찾았을 때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었는데, 덕분인지 얼마 안 가 또 다른 약초를 찾을 수 있었다.

"저게 뭐더라."

난초와 비슷하게 생긴 작은 꽃.

바이바므닐

연한 푸른빛을 띤다. 부드러운 바닐라 크림 향이 난다. 뜨거운 물에 10분 데칠 시 식용이 가능하다. '망각의 숲'의 숲 나비가 죽은 자리에서 피어난다. 꽃잎은 숲 나비 날개를 닮았다.

연단법: 뜨거운 물에 데쳐 독성을 빼낸 뒤 어두운 곳에서 10일간 건조한다. 도롱도롱나무의 잎사귀 위에서 건조하면 약효가 증가한다. 다 말린 꽃을 약한 불로 하루 동안 우려내면 좋은 향을 내는 약차로 쓸 수 있다. 지혈과 면역력 회복, 또 증가에 탁월하다.

'맛은 꽤 다르겠지만, 최소한 식감은 푹 익힌 시금치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바닐라 크림 향이 나는 시금치라니 뭔 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먹기에 괜찮았다. 한번 데쳐 간식으로 먹으면 출출할 때 좋았다.

'식감도 적당히 혀로 뭉개면 잘 익은 밤처럼 으깨질 듯이 부드러워서 재밌고.'

참고로 '도롱도롱'이란 이 숲에 있는 나무 중 바오밥나무처럼 뚱뚱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낮은 키의 나무를 말한다.

둥글게 말린 잎사귀는 물이 가득 찬 풍선처럼 찰기 있고 도톰한데, 이런 도롱도롱나무는 오두막 근처에 있어 지오는 손쉽게 잎사귀를 구할 수 있었다.

"혹시 모르니까."

지오는 성실하게 채집을 이어갔다. 단순히 식량뿐만 아니라 비상시를 대비한 약도 필요한 상황이라 넓은 범위의 채집은 필요한 일이었다.

그렇게 채집을 이어가던 지오는 개울의 근원인 샘에 도착했다.

“…….”

토독.

조르륵….

“…….”

햇빛과 달빛을 모아둔 듯 새하얀 나무뿌리에 갇힌 샘물.

그 유리처럼 투명하게 반짝이는 샘 사이에는 보석으로 만든 비단처럼 얇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어딘가 연꽃을 닮은 풍성한 꽃이었다.

“이걸로….”

루루푸

풍성한 봉우리를 지닌 꽃. 깨끗한 물에서만 자생이 가능하며, 그 물을 이용해 꽃을 피워낸다. 완전히 핀 루루푸는 꺾어도 그 형태가 유지된다. 다만 따듯한 물에 닿아야만 꽃잎에서 즙을 낼 수 있다. 식용은 가능하나 짙은 향 외에 아무런 맛도 나지 않는다.

연단법: 따듯하고 식용 가능한 물에 꽃잎을 넣고 그것이 녹아 즙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절대 그 과정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낸 즙은 다양한 약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활용 가능한 연단법: 망둥 열매와 루루푸즙을 이용한 피 경단.

“약을 만들어두면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투욱.

바구니를 내려두었다.

‘딱히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안 그래도 심심했으니까….’

새로운 콘텐츠로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그는 샘물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은 뒤 루루푸꽃에 손을 뻗었다.

지오는 특유의 무뚝뚝하고 음울한 얼굴로 꽃대를 톡 잘랐다. 꽃을 다루는 손길은 침체된 표정과 달리 퍽 섬세했다.

‘뿌리째 가져가는 것도 재밌겠지만, 이건 내가 흔히 키워보던 종류의 식물이 아니니…. 물로 된 꽃이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뿌리인지도 모르겠고. 함부로 시도해서 개체가 줄어들면 속상할 테니 조심해야지.’

그가 딴 루루푸는 이미 다 핀 꽃이었는지 물이 되어 흘러내리지 않았다. 지오가 올바른 방식으로 꽃을 채취했다는 뜻이었다.

“향이 좋네.”

지오는 꽃봉오리를 조심스레 바구니 안에 넣었다.

샘에는 꽃이 20송이가량이 피어 있었는데 혹시 몰라 그중 3송이만 채집했다. 꽃잎 자체가 워낙 연꽃처럼 크고 풍성해서 여러 송이를 따가는 건 낭비처럼 느껴졌다.

‘줄기도 꽤 탄탄한데 다른 활용법은 없을까. 섬유질이 느껴지듯 하는 게, 어째 세로로 잘게 찢으면 실처럼 벗겨질 것 같기도 하고….’

이내 지오가 꽃을 전부 담았다.

“이 정도면 됐겠지.”

정확한 용량은 약을 만들면서 천천히 감을 잡아보기로 하고, 지오는 꽃이 든 바구니를 다시 바닥에 내려두었다.

그러고는 샘을 감상했다.

“…….”

쪼륵,

조르륵….

“…….”

얕게 흐르는 투명한 물소리.

깨끗한 샘에서 나는 청명한 향.

습기가 느껴지는 숲의 공기.

“…좋네.”

자신이 그리지 않았음에도 존재하는 이 샘은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웠다.

이미 죽었으나 굳건하게 서 있는 나무는 새하얗게 빛나 값비싼 카라라의 대리석을 닮았다.

하늘이 은은하게 투과될 만큼 복잡한 핏줄을 지닌 그 나무 사이로, 금과 같은 햇빛을 부수며 투명한 샘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진주를 얇게 펴 바른 것 같아.’

이 나무의 수액은 굳으며 보석으로 변하였다. 죽기 전 수액을 분비했는지 옅은 푸른빛을 띠는 접시 형태의 넓고 구불구불한 보석이 목이버섯처럼 나무 곳곳에 튀어나와 있었다.

투명하게 청록빛을 띠는 그것은 커다란 보석으로 만들어진 접시 같았다. 그것은 햇볕 떨어진 샘물을 담고 온화한 빛을 품었다.

“…….”

쪼륵….

샘물은 그 보석 접시를 따라 순차적으로 흘러내렸다.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새벽의 옥구슬처럼 낭랑한 소리를 내며 보석 접시를 튕긴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꼭 나비의 노래를 듣는 기분이 들었다.

숲의 이파리 사이로 새어 나온 햇빛이 산란하며 대리석을 닮은 나무를 비추니, 마치 신전에라도 온 듯했다.

“…….”

그렇게 내려온 샘물은 죽은 나무의 뿌리에 고여 얕은 우물을 만들었다.

거기서 흘러넘친 샘물은 숲 전역으로 퍼졌고, 그 주변을 햇볕 닮은 날개를 가진 나비들이 밝혀주고 있었다. 꼭 반딧불이 같았다.

낮에도 볼 수 있는 반딧불이라니.

“멋지네.”

하늘 높이 솟은 거대한 나무를 터로 삼은 샘은 거대한 연못처럼도 보였다.

‘…좋은 물은 향을 낸다는 말이 있던데, 이렇게 깨끗한 물에도 통용되는 이야기였나.’

이곳을 감싼 공기가 고소하고 달콤해 마치 꽃밭 위로 누운 듯했다. 어쩌면 루루푸의 꽃잎에서 나는 향이 샘물을 물들이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

역시....

“사람은 귀농을 해야 해.”

지오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이불처럼 푹신한 이끼 사이에 자리를 잡고, 천천히 오수를 청했다.

* * *

“여기야.”

이제는 잊힌 폐교의 미술 창고.

그곳에 걸린 초상화 속 한 남자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이 그림 좀 봐봐.”

“와, 어떻게 안 타고 이대로 남았대?”

“상태 좋다... 이거 가져가면 성과로 쳐줄까?”

“작품명도 있는 것 같아.”

“이름도 있어? 아이템이었구나.”

그럼 이제 마지막 규칙.

지오는 그림이 되었다.

“.......”

“‘지오의 초상화’라네.”

그것만큼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감정 스킬 있는 놈하고 다니니까 편하구만.... 근데 이거 지구 거는 맞아?”

“평범한 초상화가 이런 폐교에, 그것도 산속에,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있겠냐? 관리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하긴 그런가.”

“당연히 어디 던전에서 흘러들어 온 아이템이겠지. 이 근처에는 다른 던전도 많고.”

“아무튼 수집상 쪽이 좋아하겠다. 이런 거에 환장한다며?”

그렇게 지오가 잠든 사이.

그림의 출입구가 멋대로 바뀌고 있었다.

오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

제2화

“자, 그럼….”

따듯한 공기로 가득한 숲속 오두막의 잘 정리된 주방.

“저녁 먹어야지.”

지오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직장 생활을 안 하며 먹고 자기를 반복하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이른바 백수의 행복이었다.

“날 백수가 된 지금에서야 비로소 돼지 감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겠군…. 밥상머리에 3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겠어.”

서지오는 미식가이자 대식가였다. 규칙적이면서도 튀지 않고 적당한 알잘딱깔센 사회생활을 선보여야 하는 교사의 삶은 교양 있는 돼지인 그에게 너무 가혹했다.

“개인적으로 편한 시간대에 마음에 드는 메뉴를 혼자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지.”

서지오가 특유의 무뚝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바로 귀농의 삶….”

이게 과연 귀농의 영역인지는 모르겠다만 아무튼 그랬다.

무엇보다 북극 빙하를 조각해서 탄생시킨 듯한 생김새와 달리 강원도 산골 출신인 서지오는 상경한 이후 내내 귀농할 타이밍만 노리고 있었다.

“이렇게 직장을 잃고 초상화가 되어서야 전원생활의 꿈을 이루다니 역시 인생은 허리케인인가.”

예측도 안 되고 재밌기까지 했다. 실제 허리케인은 재밌지 않겠지만 말이다.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초가 일렁이는 등불을 위에 걸어둔 채로, 지오가 재료를 꺼냈다.

고구마.

“…….”

큼지막한 고구마.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상하듯 눈을 두 번 깜박인 지오가 이내 결론을 내렸다.

“…꿀고구마볶음을 해 먹어볼까.”

이따금 어르신들이 고구마를 보내주면 종종 해 먹던 음식으로 필요한 준비물은 약간의 꿀과 소금, 고구마, 그리고 버터였다. 이외의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이 모든 재료가 오두막에 있었다. 전혀 생각해 두지 않았음에도 존재하던 나무 샘처럼, 오두막 내부의 가구나 식재 역시도 함께 쌓여 있던 것이다.

특히 그림 세계의 특징인지 며칠이 지나도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식재료는 서지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음….”

달그락.

지오는 편백나무 향이 나는 찬장에서 자기 병에 담긴 꿀을 꺼냈다.

“…유제품은 지하에 있던가.”

우유나 치즈, 버터 같은 유제품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냉장이 필요한 식품들은 전부 오두막의 지하 창고에 모여 있었다.

투명한 얼음으로 사방이 막혀 있어 서늘한 냉기를 유지하는 창고는 훌륭한 냉장고 역할을 해주었다. 들어가면 입김이 나올 정도였지만, 귀신 들린 초상화로 진화한 덕분인지 추위를 느끼지는 않았다.

‘적당히 시원한 정도.’

다른 식자재도 딱히 얼지 않는 걸 보면 입김은 대체 왜 나나 싶기도 했다.

“물리 법칙을 그대로 무시하는 현상이지만… 웃기니까 됐다.”

작은 그릇과 나이프를 들고 지하 창고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자 금속처럼 서늘하고 묵직한 나무로 만들어진 창고의 문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곧이어 문을 열자 얼음 동굴 내부에 어설프게 정리된 작은 항아리 몇 개와 커다란 선반이 눈에 들어왔다.

‘저번에 확인했을 땐 종류가 다양해 보였지.’

그는 선반에 진열된 버터를 뒤적거렸다.

“향이 약한 버터면 좋겠는데.”

단맛을 내는 재료 중 꿀은 특히나 향이 강한 재료였다. 고구마와 꿀만으로도 충분한데, 거기에 버터의 향까지 진하다면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었다.

다양한 종류 중 연노랑빛의 버터를 발견한 서지오가 그것을 작게 잘라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할 테니까….”

이번 요리에 쓸 만큼만 버터를 덜어낸 지오는 포장지를 곱게 감싸두고, 창고 문을 꼼꼼히 닫은 뒤 다시 주방으로 올라갔다.

서지오의 요리 실력은 훌륭한 편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미식가인 그가 직접 요리를 해 먹는다는 발상 자체를 떠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 신선하다.”

지오는 능숙한 손길로 고구마를 깨끗이 손질했다. 그는 이걸 어떻게 소분할지 고민했다.

“…일단은….”

눈을 두 번 깜박인 그가 고구마를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소분했다. 적당한 길이의 스틱 형태였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오는 큼지막한 고구마만 17개를 손질했다.

작게 자른 고구마를 올린 철판은 그대로 화덕에 들어갔다. 이미 예열되어 있던 화덕은 고구마의 겉을 빠르게 익혔다.

그 강한 열기에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전혀 익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때, 지오는 그것들을 화덕에서 꺼냈다.

그렇게 겉만 익고 속은 생고구마인 녀석들은 주르륵 커다란 웍 위에 올라갔다.

"여기서 버터랑 소금."

버터가 타지 않게 약불을 유지하고, 그 위로는 약간의 소금을 뿌렸다. 강하지 않은 불에 조금씩 익은 고구마는 버터로 코팅되어 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났다.

"그리고 꿀 살짝...."

치이익—.

"넣고."

스푼으로 덜어낸 꿀을 살살 두른 지오가 웍을 빠르게 돌렸다. 중국집 볶음밥이 만들어지듯 강한 힘으로 섞인 꿀과 버터는 그대로 고구마 위에 안착했다.

"......."

이쯤이면 됐다 싶을 즈음.

"좋아."

지오는 불을 끄고, 그대로 팬을 몇 번 더 돌렸다. 버터와 꿀이 겉돌지 않고 서로 융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버터는 기름이 분리되어 흘러내리고 꿀은 불쾌하게 찐득거리는 괴식을 맛볼 수 있었다.

'그것도 맛은 있겠지만....'

아무렴 요리라면 식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법이었다. 같은 맛이라도 식감 하나로 완전히 다른 요리가 되는 법이니 말이다.

"...됐다."

지오는 완성된 꿀고구마볶음을 그릇 위에 담고, 지저분해진 웍은 바로 물에 담가두었다.

'아무리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라지만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건조되어 팬에 눌어붙은 버터 섞인 꿀은 악마의 영이 깃들어 서지오처럼 선량한 사람의 인내심을 시험하고는 했다.

아무튼, 이게 오늘 그의 저녁 메뉴였다.

"좋네."

꿀고구마볶음은 조리 방법이 어렵지 않은 데다, 간식으로도 식사로도 훌륭한 요리였다.

나무 식탁에 앉은 지오는 포크로 고구마 스틱을 콕 찍어 올렸다. 마치 고구마 맛탕처럼 겉이 번드르르하지만 그보다 훨씬 연약한 꿀 코팅은 버터가 더해져 꽤 복잡한 향을 내고 있었다.

"......."

포크가 고구마 안으로 폭신하게 잘 들어가는 걸 보니 아주 잘 익은 듯했다. 지오는 그대로 제 입에 고구마를 집어넣었다.

"......."

우물....

그가 결론을 내렸다.

"마히따."

평범하게 맛있었다.

'난 맛탕보다 이쪽이 더 좋단 말이지. 할머니도 그러셨고....'

먹다가 입천장에 찔리기도 하는 맛탕과 달리 이 꿀고구마볶음은 그 겉이 연약했다. 단지 꿀과 버터가 섞인 덕분에 매끈하고도 부드러운 식감을 더해줄 뿐이었다.

어딘가 바삭한 식감이 있는 맛탕과는 결이 다른 즐거움을 주는 요리였다.

‘역시 고구마와 꿀은 조합이 좋아.’

그리고 버터도, 소금도 잘 어울리는 한 세트였다.

조금 단순해질 수도 있었을 꿀의 향에 버터가 더해져 색다른 고소함을 주었고, 자칫 너무 느끼하거나 달아질 수 있는 요리에 약간의 소금이 들어가 균형을 잡아주었다.

“이 위로 약간의 허브를 넣어도 괜찮았을 것 같네.”

후추나 파슬리, 로즈마리처럼 무난하게 쓰이는 향신료라면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했다.

“하지만 그럼 좀 향이 강해지기는 하겠어. 가볍게 즐기기는 힘들려나.”

지오는 이대로가 좋았다.

‘식감도 딱 마음에 들고.’

화덕에서 한바탕 수분을 빼앗긴 고구마의 표면은 꿀과 버터 사이에서 굴러다녔는데도 아직까지 그 바삭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전혀 익지 않았던 고구마의 속은 꿀과 버터로 코팅된 덕분에 촉촉하게 익은 듯했다.

‘안쪽에 있던 수분이 화덕의 강한 열기에 가둬진 거겠지. 겉을 먼저 바삭하게 굽기를 잘 했네.’

길쭉한 모양으로 손질해 먹는 재미도 있고, 식감도 다양하게 느껴진다.

너무 많이 먹으면 느끼해지겠지만 이 정도 양이라면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었다. 지오는 워낙 많이 먹는 사람이니 말이다.

“…….”

꿀버터 소스만 희미하게 남은 그릇을 본 지오가 생각했다.

‘역시 나란 감자 멋진 감자.’

잠들기 직전이라 그리 많이 먹고 싶지는 않았는데, 딱 적당한 메뉴였다.

“마음에 들어.”

식탁 위에 올려진 랜턴 조명이 은은하게 빛을 냈다. 대단히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고 있자면 고향집도 아닌데 그리움을 느꼈다.

“캠핑할 때 쓰면 딱 좋겠네.”

잠이 들기를 부추기는 듯한 안온한 포만감 속에서 지오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텅 비었지만 부족하지 않은 빈 그릇의 게으름과, 공기를 한층 누그러트리는 랜턴의 나직한 음성을 느끼며….

곧이어 지오의 시선은 봄바람이 수줍게 인사하는 창밖으로 향한다.

“…….”

한참 전에 어두워진 바깥을 바라본 지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약재는 미리 손질을 해두는 편이 좋겠지.”

시스템이 알려주었던 출혈과 관련된 약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왜인지 쓰게 될 날이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작품을 쌓아두는 것도 예술가에게 있어선 하나의 즐거움이었다. 일종의 컬렉션인 것이다.

“일단 망둥 열매부터 씻어서 널어두자. 가루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바짝 건조하려면 꽤 시간이 걸릴 거야. 크기가 있으니 건포도를 만드는 것보다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잠시 잠이 들 뻔했지만, 그래도 당분이 들어간 덕분인지 그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나중을 위해 50알 정도로 시작해 볼까. 꽃이 세 송이뿐이라 즙이 얼마 안 나온다고 해도 가루로 많이 만들어두면 어쨌든 나중에 쓸 수 있을 테니까.”

결론을 내린 지오가 움직였다.

그는 개울에서 미리 퍼 온 식수로 열매를 깨끗하게 씻었다. 망둥 열매는 꽤 탄성이 강한 과일이었는데, 물에 들어가니 안쪽이 희미하게 비쳐 보였다.

“…구즈베리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내부가 완전히 과육으로 꽉 차 있는 망둥 열매는 그 차이점이 명확했다.

지오는 실없는 생각을 이어가며 열매를 전부 씻어냈다.

“…….”

뽀드득.

“좋네.”

투명하고 깨끗한 개울물에 담가진 새빨간 구슬 모양 열매들. 그것들이 지오의 손에 박박 닦여 청량한 소리를 내는 건 생각보다 기분 좋은 일이었다.

열매를 전부 씻은 그는 나무 채반 위에 망둥 열매를 올려두었다.

“입이 심심할 수도 있으니 간식으로 먹을 것도 조금 빼놓자.”

지금이야 저녁이니 그렇다 쳐도, 통풍이 잘되고 해도 쨍쨍한 바깥에 둬야 열매가 건조되기 좋을 것이었다.

지오는 열매를 펼친 채반을 오두막 바로 앞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온 그는 나무를 쌓아둔 화로로 다가갔다.

‘이제는 불이 필요하지.’

타닥, 탁.

지오는 동그란 구가 달린 풀을 흔들었다.

그러자 열매 안쪽에서부터 작고 둔탁한 소음이 울리며 화르륵 불이 타올랐다. 작지만 꽤 강한 불인지 색이 푸르렀다. 거기에선 은은한 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다.

겨울에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마냥 보기에 좋았다.

“…….”

지오는 그것을 화로의 장작 위로 던져 불을 붙였다.

방울꽃

일반적인 꽃잎 대신 검은 구가 피어나는 꽃으로 식용이 불가하다. 완전히 피어나기 전 구 형태일 때 꽃을 흔들면 수술과 암술이 서로 부딪혀 불을 낸다. 다만 강하게 상하 운동을 해야만 불씨가 튀므로, 자연적으로 발화하는 일은 거의 없다.

라이터나 성냥 대용이라는 뜻이다.

“…가볍고 예쁘기까지 하니 지구에서 이걸 팔았다면 감성 캠핑용품으로 대박을 쳤을 텐데….”

무뚝뚝한 얼굴로 세속적인 탐욕을 중얼거린 지오가 바구니를 뒤적거렸다. 그러고는 난초와 비슷한 모양새의 바이바므닐 10송이를 꺼냈다.

그것 역시 가볍게 씻어 작은 채반 위에 두고, 화로 위에 솥을 걸쳐 그 안에 물을 부었다. 그러고는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쯤이면 되겠지."

적당히 부글부글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확인한 지오가 바이바므닐을 투하했다. 바닐라 특유의 깊고 달콤한 향이 났다.

퐁, 포퐁—!

"음…."

나물과 같은 방식으로 먹으려면 잠깐 담갔다가 꺼내는 게 좋겠지만, 이 꽃은 나물이 아니다. 심지어 제대로 데치지 않으면 독성이 남기까지 한다.

'독성이 빠져나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10분.'

지오는 시스템의 말을 충실히 따랐다. 그는 잠시 옆으로 빼두었던 망둥 열매를 먹으며 꽃에서 독이 빠져나오기를 기다렸다.

"됐나?"

시스템으로 시간을 확인한 서지오가 10분 뒤, 다시 솥 앞에 섰다.

그는 긴 젓가락으로 축 늘어진 꽃을 채반 위에 올렸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끓였음에도 형태가 온전히 남아 있다. 한 번 깨끗한 물로 데친 꽃을 씻어주고 잠시 그대로 두었다.

지오는 약해진 화로의 불을 꺼트리지 않은 채 그 위의 솥만 바꿨다. 바이바므닐을 끓이고 남은 물에는 독성이 남아 있을 것이었다.

"이것도 말려야겠다."

지오는 꽃을 올린 채반을 들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문을 열자.

"……."

후웅….

여린 봄바람이 불어왔다.

"…시원하네."

미지근한 구름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쥐는 듯한 질감과 온도.

기분 좋은 바람이었다.

'부드럽고 선선해.'

묘하게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며, 조금은 잠기운이 묻어나는 몽롱한 바람에 지오가 눈을 느리게 깜박였다.

'이대로 잠이 들면 딱 좋겠어.'

덥지도 차지도 않은 바람은 고운 한지나 비단처럼 부드러워서 손가락 끝을 간지럽게 만들었다.

"……."

예고 없이 찾아온 소소한 행복을 만끽한 지오가 이내 발을 움직였다.

"…잘 말랐으면 좋겠다."

망둥 열매와 꽃 채반을 나란히 놓은 지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벌써 집 앞에 두 소쿠리나 생겼지만, 아직 손질해야

할 것이 더 남아 있었다.

이번에 지오가 잡은 것은 루루푸라는 이름의 투명한 꽃이었다.

“…….”

이걸 어떻게 해야 하더라. 잠기운이 몰려와서인지 생각이 잘되지 않아, 잠시 고민하던 지오가 시스템에 도움을 요청했다.

“연단법.”

연단법: 따듯하고 식용 가능한 물에 꽃잎을 넣고 그것이 녹아 즙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절대 그 과정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낸 즙은 다양한 약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활용 가능한 연단법: 망둥 열매와 루루푸즙을 이용한 피 경단.

“감사합니다.”

시스템에 감사를 전한 지오가 새로 바꿔 낀 솥에 물을 부었다.

달궈졌던 솥 안에 차가운 물이 들어가 미지근한 온도로 바뀌었다. 물 바로 위에 손을 대보니 살살 수증기가 오르는 게 제법 따듯해 보였다.

‘뜨거운 물이 아닌 따듯한 물이라고 했으니 딱 이 정도 온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지오는 샘터에서 가져왔던 꽃을 손에 쥐었다.

물로 이루어진 듯하면서도 비단처럼 엮여 튼튼한 루루푸꽃은, 마치 꿀로 만들어진 이슬방울과 같은 청명하며 달콤한 향이 났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솥에 넣자….

“…….”

은하수와도 같은 꽃잎의 반짝거림이 솥의 물 전체로 퍼져나갔다.

“…분명 루루푸의 반짝거림은 햇빛이나 조명의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일 텐데.”

밝은 햇살이나 선명한 조명의 빛을 제 몸에 가두고 있었던 걸까. 꼭 글리터를 넣어 만든 얼음이 따듯한 물 안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보는 기분이었다.

“…오.”

곧 반짝거림이 잦아들고 솥의 물은 좀 더 선명한 향을 냈다.

향수로 만들어도 잘 팔릴 것 같다는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지오는 물이 아예 끓어버리기 전에 내용물을 퍼냈다.

‘늦을 뻔했군.’

그렇게 퍼낸 꽃물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유리병 안에 들어갔다.

“척 보기에 그리 와닿지는 않지만 이걸로 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루루푸즙은 단지 물에 녹이기만 했을 뿐인데도 예술가가 혼을 갈아 넣어 만든 물감처럼 황홀한 빛을 띠었다. 과연 이걸로 약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

하긴 해보면 안 될 게 없기는 했다. 인생 사는 게 다 그런 법이지.

“멀쩡히 살아 있는 인간도 귀신 들린 초상화가 된 마당에 신기한 색의 약 정도야 못 만들 것도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모든 손질을 마친 지오가 오두막의 2층으로 올라갔다. 아까부터 눈꺼풀을 간지럽히던 잠기운이 그의 수면을 부추겼다.

발바닥에 닿는 나무 계단은 어딘가 따듯한 온기가 느껴졌다. 분명 단단한 원목일 텐데도 묘하게 푹신함이 느껴지는 질감이 있었고, 좋은 나무로 만들었는지 여기저기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기가 났다.

그렇게 올라온 침실의 침대는 마치 물로 만들어진 것처럼 부드러웠다.

“하아….”

푸욱—.

그대로 침대를 파고들었다.

“…….”

오늘의 일을 정리하듯 두어 번 깜박이던 눈이, 곧 부모의 품에서 쓰다듬을 받는 아이처럼 조용히 감겼다.

활짝 열린 창문 사이로 숲의 향을 품은 바람이 흘러들어 오고, 그 연약한 바람은 수줍음이라도 타는 양 조심스럽게 온몸을 지나갔다. 이마에서 한 번, 손끝에서 한 번, 무릎에서 한 번….

까마득하게 어두운 시야. 그사이 저녁에 일어난 새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진다.

“…….”

풀벌레가 나긋나긋 노래하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지오는 잠이 들었다.

오

1 Comment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

제3화

어느 명성 높은 경매장.

“어…?”

“왜, 무슨 일 있나?”

“바, 방금… 이 그림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어설프기는.”

관리자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쳤다.

“이 경매장에 평범한 초상화가 올 리가 없잖아. 분명 어떤 던전의 아이템이었겠지.”

“아….”

“발견된 장소는 폐교의 미술 창고였다고 하던데, 출신지가 명확하지 않으니 값은 많이 내려갈 거야. 1부 초반에 나가게 될 테니까 미리 준비해 두고.”

“예, 선생님.”

안심시키는 상사의 말에도 직원의 표정은 영 좋지 않았다. 그는 꺼림칙하다는 듯 제 앞의 초상화를 보았다.

“…….”

방금.

눈이 마주쳤던 것 같은데.

“…저주를 내리는 아이템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미 안전 검사를 마치고 들어온 물건이겠지만 세상은 넓고 아이템은 다양했다.

감정 스킬로도 출신지도 기능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그 미스터리함 덕분에 이 경매장까지 올 수 있었던 거겠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직원은 불길함을 느꼈다.

“보통 공포 영화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나. 뭔가 불길한 작품과 경각심이 없는 주변 사람들… 딱인데.”

부디 거기서 첫 번째로 죽는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빌 뿐이었다.

“어우, 무서워.”

“…….”

그 모습을, ‘지오의 초상화’가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 * *

31년 전.

지구가 망했다.

이 흔해 빠진 도입 문구가 현실이 되었을 때, 그날 이후로 지구엔 SF 영화가 모조리 사라졌다.

대뜸 사람이 다른 차원으로 끌려가 불합리한 규칙에 찢어져 죽거나 새까만 차원의 틈 사이로 괴물이 기어 나오는 꼴은 영화보다 훨씬 실감 났던 것이다.

“미친…!”

“죄, 죄송한데 저거 영화 찍는 거예요?”

“영화겠어요, 시발?!”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한 초능력자들.

“어… 이거 게임 창 아닙니까?”

“헐, 저도 그거 떴는데.”

“뭐라고 떴어요? 저는 사제로 각성했다는데요?”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스킬 목록만 떠요. 근데 사제라면 종교 있으세요?”

“네, 기독교 다니고 있기는 합니다. 이거 그런 식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그들이 지구의 판도를 바꾸었다.

“아 딜…! 딜 안 넣고 뭐 하는데!!”

“형이 그 앞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딜을 넣어요…!”

“장난하냐?! 그럼 탱커가 앞을 막고 있지 뒤를 막고 있어?!”

“와우 이번 공략 조졌네….”

“흐어어엉…!”

그들은 정말 게임이라도 하는 양 괴물들을 사냥했다.

‘각성’이라고 정의된 이 현상은 무작위로 누군가에게 발현되었고,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거기에 정확한 규칙이나 기준은 없었다. 단지 각성한 이들에겐 게임을 하는 것처럼 시스템 창이 뜬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괴물을 사냥하는 것이 정말 게임만큼 가벼운 일은 아니었다.

“…….”

“…야, 유품이나 챙겨. 시체는 없어도 장례는 치러줘야 할 거 아니야.”

“우리 팀 딜러 사라졌네… 기운 빠진다. 얘 몇 살이라고 했지?”

“18살. 지 입으로 고등학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애를 끌고 나오다니 나라가 미쳐가나.”

“어쩌겠냐. 각성만 하면 10살도 굴리는 마당에….”

“하긴 딜러에 18살이면 양반이지.”

“…….”

“좃같다.”

일명 ‘각성자’, 괴물을 사냥하는 ‘헌터’의 수는 어디까지나 소수였기 때문에 그들은 ‘과로사’로부터 빠져나오기가 힘들었다. 한창 과도기를 겪고 있는 세계 단위의 변화 앞에서 개인의 생명이란 한낱 숫자 취급을 받았다.

다만 대한민국은 세 명의 영웅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혼란을 진압한 국가였다. 그들은 순식간에 격변에 격변의 격변을 거처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여보, 전화 돼? 예린이 각성했대….”

그러다 보니 체계가 잡힌 도시의 시민들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오늘 유치원에서 각성했다고 선생님들이 알려 주시더라고.”

[어? 예린이가? 아이고야… 직업은 있대? 스킬은? 몇 등급이고?]

“몰라, 예린이 말로 직업은 없고 스킬은 D등급이라는데. 정확한 건 센터에 가서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아.”

[그럼 예린이는 헌터 시키지 말자.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고, 싫다고 하면 헌터 시키지 마.]

“나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응, 고마워, 끊을게.”

차원의 이름은 ‘던전’이 되고, 단순히 능력만 각성한 ‘각성자’와 괴물을 사냥하는 직업을 가진 ‘헌터’가 구분되어, 길드와 센터 등 체계가 잡힌 상황.

“그래, 애가 각성했다고 꼭 헌터 하라는 법은 없지.”

“엄마, 나 괴물 잡아…? 무서운데…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아니야, 괜찮아. 우리 예린이는 괴물 안 잡아도 돼.”

어느 순간부터 각성자들이 다른 직업을 갖기 시작했다.

일반인과 질적으로 다른 힘을 가진 각성자들은 나라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왔으나 고작 31년 사이, 여러 사건을 겪고 정부가 수십 번 교체되면서 각성자를 향한 대우가 개선되었다.

C급 이하의 각성자라면 직업 선택의 범위도 훨씬 넓어졌다.

“와, 저 사람 헌터인가 봐.”

“확실히 길드 표식 달고 다니는 걸 보니까 헌터가 맞네.”

“대박… 누구야? 처음 보는데 신인인가? TV에서 본 적 있어?”

“검은색 날개 진짜 간지 난다. 야, 저게 진짜 헌터지.”

“비행형 스킬이 그렇게 희귀하다던데….”

“저 사람은 인생 폈다.”

그리고 그만큼, 헌터를 향한 선망의 시선은 더욱 커졌다.

“나도 각성하면 헌터하고 싶어.”

“에이, 난 위험한 일은 별로.”

“그래도 멋있잖아.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고.”

끝내 그들은 일종의 연예인처럼 취급되었다.

“…….”

“어… 야, 야, 들었나 보다. 그만하고 가자.”

“그, 그냥 보기 좋아서 그랬던 건데. 죄송합니다….”

헌터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세상의 흐름이었다.

“…하아….”

일부 헌터들은 자신들을 향한 지나친 관심에 피곤해하기도 했다.

“저희가 군인이지 아이돌입니까…? 다가와서 사진 찍어달라는 요청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러다가 무대 위에서 춤도 추겠어? 다른 나라였으면 이런 일은 꿈도 못 꿨습니다.”

“저번에 우리 신입이 방에 사생 들어왔대요.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아니, 헌터한테 목 따일 걱정은 안 하고 이게 대체 무슨… 헌터가 하는 일은 괴물 사냥이지 팬 관리가 아니잖아요.”

“인기도 인기 나름이지 이래서는 업무 방해죄 아닙니까? 너무 신경 쓰인다고요. 저는 괴물 잡으러 왔지 대중들 앞에 재롱떨러 온 게 아니에요. 한국은 헌터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경박합니다. 이거 고쳐야 해요.”

또한, 반대 의견도 있었다.

“엥, 저는 좋던데요. 그리고 재롱이라니… 연예인 무시하세요?”

“그런 말이 아니잖습니까.”

“자자, 싸우지들 말고. 그래도 인기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요. 사생이나 업무 방해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체계가 잡히면 불편한 일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협회가 알아서 도와주겠죠. 정 불편하시면 민원이나 넣으시든가.”

그렇게 헌터에 대한 인식은 초능력자, 괴물, 군인을 넘어 연예인까지 와버렸다.

시간이 흘러 이 인식은 고착화되었고, 최소한 도시의 사람들에게 있어 몬스터와 던전은 하나의 재해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방관이 진압할 수 있는 화재와 비슷한 등급으로 인식되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에 생긴 3대 길드 중 하나.

“길드장님.”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아무리 이름부터 수집상이라지만….”

국내 랭킹 3위 길드, 『수집상』.

“이번 건 좀 심하지 않나요.”

“수집가에게 수집하지 말라는 말은 너무 모욕적인 거 아닌가?”

“이 초상화 사겠다고 나간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아시는지.”

“내 돈으로 내 물건 사겠다는데 이거 왜 이럽니까.”

그곳의 길드장, ‘수집가’ 비사벌.

중년의 얼굴을 한 남성이 가늘게 웃었다. 정중한 신사처럼 고상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깔끔하지 않은 뒷맛의 미소였다.

“이번 건 협회장마저 탐낸 작품입니다. 어때요, 놀랍지 않은가요?”

“협회장님께서 말씀입니까? 그건 확실히 놀라운 일이군요.”

“수집은커녕 취미라곤 괴물 키우기밖에 없는 사람이 무려 2000까지 부른 작품이랍니다.”

”2000이라….”

여기서 말하는 2000은 이천만 원이 아닌 이천억 원을 뜻했다. 조 단위는 아니더라도 결코 만만한 금액은 아니었다.

“…제 감정 스킬이 미욱하여 이 작품의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섣불리 판단한 점 사과드립니다.”

“수집가가 수집 좀 했다고 혼났지만 상황을 모르면 물론 그럴 수 있죠.”

“하해와 같은 이해심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상화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 겁니까?”

“나도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헌터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의 규칙에 개입할 수 있는 ‘직업’.

돌잡이처럼 각성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적성 스킬’.

직업과 모든 스킬의 숙련도를 알려주는 ‘레벨’.

본인의 자세한 직업과 이외에 더 배울 수 있는 스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센터의 도움을 받아야겠으나, 일단 헌터의 등급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명 ‘시스템’이 표기해 준다.

‘그리고….’

비사벌은 오로지 자신의 적성 스킬인 ‘감정’ 하나만으로 S급 헌터가 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파악하지 못한 작품이라니, 이게 무슨 질 나쁜 농담인지.’

제법 큰 당혹에 빠진 직원의 속을 모르는지, 수집가는 그저 즐겁다는 듯 웃었다.

“그래서 더 탐나는 거죠.”

한국의 3대 길드로 불리는 ‘수집상’의 특이한 점은 모든 길드원이 감정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곳의 수장인 비사벌의 감정 스킬은 전 세계를 통틀어 최고라고 해도 좋을 만큼 뛰어났다.

그런 비사벌이 정확한 기능을 알 수 없는 작품이라니.

“협회장님께서 2000이나 부른 이유를 알 것 같군요.”

섬뜩하기까지 했다.

‘…기분 탓인지 작품의 분위기도 좀 무겁고. 고작 사람 한 명 그려진 초상화일 뿐인데도….’

사무직 길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상보다는 연구에 더 적합한 작품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협회장이 그렇게 탐낸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긴 건 나지만.”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으면 저는 이만 가 보겠습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건 취미가 아니라.”

“우리 길드원들은 어쩜 이리 하나 같이 시크한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만 모아두신 길드장님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슬프네요.”

전혀 슬프지 않은 얼굴로 빙글 웃는 비사벌에 길드원은 질색하며 집무실을 나갔다. 서류 전달하러 왔다가 봉변당했다는 표정이었다.

“…….”

혼자 남은 비사벌은 염력으로 초상화를 들고선, 집무실에 숨겨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

덜컹.

사람 세 명이 간신히 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승강기는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바로 정부 차원에서 금지(禁地)로 규정한 '수집상' 길드의 창고였다. 허가된 직원이나 고객이 아니라면 이곳에 드나들 수 없었다.

간단히 말해, 비사벌만을 위한 갤러리라는 거다.

"……."

그렇게 도착한 창고.

"하아아…."

비사벌은 벅찬 감동의 한숨을 내뱉었다. 제 하관 전체를 꽉 쥐고 있는 비사벌의 커다란 손 핏줄이 희열과 만족으로 인해 불거졌다.

"좋군."

그의 뱀을 닮은 샛노란 눈이 광적인 집착으로 번들거렸다.

비사벌의 수집 창고는 그의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길드원들이 던전이나 해외에서 가져온 물건을 그대로 전시하는 게 아니라, 길드장인 그가 직접 사들인 뒤 전시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비사벌의 수집 창고는 위험한 작품과 아이템으로 가득했다.

"아주 좋아."

예술품을 포기할 수 없던 비사벌이 최선을 다해 모든 안전장치를 해두었고, 그런 그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한 정부는 종종 문제가 있는 물품을 그에게 맡기기도 했다.

"이건 이 자리가 좋겠지."

이번에 비사벌이 구매한 이 '지오의 초상화'도 마찬가지였다.

달칵.

"훌륭하네."

그건 한 남자를 담은 그림이었다.

무뚝뚝하고 음울한 인상과 잘 어울리는 창백한 피부. 빛이라곤 한점 느껴지지 않는 새까만 머리카락.

그러면서도 늘어지도록 우중충하기보다는 각이 잡혀 서늘한 분위기와 이 절제된 오만함….

그런 그와 조화롭게 어울리는 평온한 숲의 풍경까지.

"누굴 그린 걸까."

그림을 그린 화가도, 작품이 되어준 모델도 궁금해지는 초상화였다.

"이게 단지 사람의 기술이라면 대단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야. 정말 살아 있는 인간을 담아놓은 것 같이…."

그 순간.

"……."

"……."

눈앞의 남자가.

창백한 초상화가 눈을 떠 비사벌을 바라보았다.

"……."

비사벌은 숨을 멈췄다.

“…….”

장기와 근육 하나마저 거대한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그는 무어라 말하지도 못했다.

“…….”

…이게 뭘까?

‘이게 뭐지?’

그건 검은색이었다.

온통 검은색이었다.

흰자와 검은자가 나누어져 있음에도 도무지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무저갱이었다.

그 중심이 너무나 깊어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건 그림자였다. 그리고 밤하늘이었다. 그리고….

“…….”

우주를 닮았나?

‘검다.’

깊고.

다채롭고.

온기와 냉기가 공존하는 생명을 닮았다.

“…….”

그 안에 잔뜩 퍼져 있는 혈맥과 인연의 끈.

비사벌이 저도 모르게 그림 속 남자의 새까만 눈에 손을 가져다 대자….

“…….”

“…….”

이내 초상화는.

“…오.”

눈을 감았다.

“세상에.”

그 순간 비사벌은 예기치 않던 잭팟이 터졌음을 직감했다.

“평범한 그림은 아니라는 거지?”

기분이 아주 좋았다.

* * *

“…….”

한편, 그림 속 남자 지오는.

쫄았다.

“음….”

그는 드물게 질색한 얼굴로 조용히 물러나 나무에 걸린 액자를 보고 있었다. 다름 아닌 '현관문'이라고 부르던 액자였다.

유일한 출입구가 막혀버린 것을 확인한 지오가 낭패감에 읊조렸다.

"나 정도면 평범한 그림이지."

누구도 듣지 못할 변명을 저도 모르게 할 만큼 조금 절박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위협이라는 건가. 이 평화로운 오두막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여겼건만, 역시 세상일은 생각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군. 참 각박한 세상이야.'

본격적으로 약을 만들기 전, 바깥세상을 한번 확인하려고 했던 지오는 자신의 액자가 어디론가 옮겨지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간간이 확인하니 어떤 경매에 올려진 듯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거대한 창고….

'…그보다는 갤러리나 박물관이라고 해야 할까.'

온통 새하얀 건물이나 잘 조성된 인테리어를 보니 꽤 엄선된 작품만을 전시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는 갤러리인 듯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쏟을수록 하나뿐인 현관문을 빼앗긴 지오는 곤란해졌다.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마다 무단 침입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 모범생인 나에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어제 양치를 안 하고 자서 그런가."

안 그래도 잠깐 바깥 구경 좀 해보겠다며 이미 어딘가의 직원을 놀라게 한 지오였다. 한 번도 죽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귀신 들린 초상화라며 화형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다.

"초상화가 망가지면 이 그림 세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과연 31년 동안 지구는 강인해진 게 틀림없었다. 겁 많고 나약한 강원도산 햇감자 서지오가 살아남기에는 너무나도 험난하고 거친 세상이 아닐 수 없었다.

'이불 밖은 위험해.'

지오는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초상화로 인정하며 이곳에 머무를 것을 다짐했다.

귀신 들린 초상화의 명예를 걸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지금보다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한, 바로 그다음 날.

"안녕하세요."

"……."

나무의 액자 너머에서, 어제 보았던 적발의 남성이 기웃거렸다.

'오.'

진짜 정말 진심으로 차별과 비하의 의미를 담은 게 아니라, 지오 자신의 각막이 사심 없이 객관적으로 말하기를. 파충류를 닮은 그 샛노란 눈이 소름 끼쳤다.

대체 왜인지 모르겠는데 번들거리기까지 했다. 정말 왜일까? 하지만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상쾌한 아침만을 기대하고 마당을 나온 지오에겐 너무 가혹한 고민이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좋은 아침인지 좋은 오후인지 좋은 저녁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잘 주무셨나요?"

"……."

"어제는 제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와 이야기를 나눌 생각은 없으신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감정하기엔 '지오의 초상화'라고 했으니 성함은 지오이신 것 같은데…."

"……."

“선생님? 듣고 계십니까? 눈을 떴다 감았다 하시니 대화에 목이 마른 저로서는 대단히 감질이 나는군요. 사람을 휘어잡는 기술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망할 천지신명이시여.

‘31년 만에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저 모양이니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쳐왔어.’

현대 사회, 이 무서운 아이. 지오는 부디 액자 너머의 상대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적절한 관심을 부어주길 바랐다.

‘…부담스러워….’

아싸 감자 서지오는 방대한 에너지를 숨기지 않는 사내의 앞에서 그저 쫄아버리고 말았다.

물론 이 외톨이에게 말을 걸어주는 상대가 있다는 건 고마운 일이었다. 체감상 31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만큼 오랜만에 소통할 기회가 생긴 거 아닌가.

‘상대방도 꽤 호의적으로 보인다는 점이 이건 나름 좋은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지.’

하지만 아무래도….

“선생님? 계십니까? 선생님? 혹시 제가 빈손으로 와서 그런 거라면 취향에 맞춰 원하시는 물건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

“흠, 역시 제물을 바쳐야 하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 무슨 제물을 받지? 가장 흔한 경우는 역시 죄 많은 인간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무결한 인간일 텐데…. 후자의 경우에는 구하기가 너무 까다롭고….”

“…….”

“오랜만에 교도소에 연락을 넣어 봐야겠네. 요즘 같은 세상에 죄 많은 인간 구하는 건 식은 죽 먹기지. 몇 마리면 되려나?”

어우.

‘힘들다.’

산골 마을 아이돌인 지오로서도 소통을 각오할 수 없는 상대였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4)

제4화

바스락....

“.......”

연하늘빛으로 곱게 마른 꽃잎을 헤집는 길고 창백한 손.

지오였다.

“흠.”

그는 약을 만들고 있었다.

“이 정도면 다 마른 것 같지.”

도롱도롱나무의 잎사귀 위에서 푹 익힌 바이바므닐꽃을 건조한 지 어언 11일째.

훈풍과 햇볕 아래 바짝 마른 꽃에선 거의 향이 나지 않았다. 처음 물에 끓여 독성을 빼낼 때 흘러나왔던 짙은 향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다시 물에 넣으면 향이 날까.”

작게 중얼거린 서지오가 잘 마른 꽃을 소독한 유리병에 차곡차곡 담았다.

“과연 이걸로 차를 끓인다고 지혈에 좋은 약이 만들어질까 싶기는 한데... 이건 아무리 잘 봐줘도 그냥 꽃차 아닌지.”

지오의 눈이 또 다른 채반으로 향했다. 망둥 열매를 말려둔 채반이었다.

“.......”

고작 11일 사이에 건포도만큼 마른 망둥 열매는 특이하게도 짙은 노란색으로 변해 있었다.

“이건 말리면 말릴수록 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네.”

향의 정도에 있어 망둥 열매와 바이바므닐은 정반대였다. 망둥 열매는 말릴수록 향이 강해졌고, 바이바므닐은 반대로 향이 약해졌다.

“.......”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을 정산하는 지오의 눈이 빠르게 두 번 깜박였다.

“...가루를 낼 만큼 건조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겠어.”

짜식, 촉촉하군.

“너는 겉바속촉 감자튀김인 내 동료가 될 자격이 있다.”

그는 쿨하게 망둥 열매를 포기하고 바이바므닐만 챙겨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바이바므닐 약차는 지혈과 면역력에 큰 도움을 준다고 시스템이 설명해 주었다. 정확히 어떤 온도에서 얼마만큼 복용해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말이다.

'내가 알아서 해도 된다는 걸까. 이 시스템이라는 친구가 날 너무 믿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그러지 말지. 난 그냥 강원도 햇감자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오는 자기 마음대로 차를 타보기로 했다. 멋진 감자 서지오는 다도에도 재능이 있었다.

"...음...."

꽃이 든 유리병을 식탁 위에 놓은 지오가 잠시 멈춰 섰다.

"......."

마치 컴퓨터가 재부팅을 하듯 멍하니 서 있던 그가 이내 입을 열었다.

"다기가 없던 것 같은데."

다기.

간단히 말해 찻그릇.

"그렇지?"

더 풀어서 말하면 주전자와 찻잔을 뜻한다. 미식에 관심이 많은 서지오는 차를 우리는 다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일단 찻잎을 우리는 다관이 있고, 거기서 우려진 차를 따르는 찻잔과 그것을 식히는 식힘 그릇, 차를 버리고 향만 담아내는 버림 그릇 등 다기의 종류는 다양했다.

그중에서 지오는 다관과 찻잔만 만들어 보기로 했다.

"작업실로 가자."

다행히도 지오에게는 그림을 실제 사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 나이에 초능력이 생기다니... 역시 아무리 사회에 찌든 어른이라도 마음 한편에 동심을 품고 있어야 언젠가는 마법 소녀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29살 아저씨가 말했다.

"나란 감자 멋진 감자."

우정과 평화와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하에 지오는 심상찮은 변화를 겪고 있는 제 인생 근황을 명예롭게 무시했다.

'내가 가는 방향이 곧 길이다.'

설령 그게 탈선한 롤러코스터라고 해도 말이다.

이토록 생각 없이 사는 그를 배려한 것인지 이 세계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오를 도와주었다. 오두막의 구조와 가구, 살림도 마찬가지였는데, 교사가 된 이후로도 여러 작품을 그렸던 서지오의 취향을 반영했는지 작업실도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간 지오는 그대로 해당 층 절반을 차지하는 작업실로 향했다.

"어디 보자...."

그는 캔버스가 올려진 이젤 앞에 앉았다. 거기엔 지오에게 친숙한 형태의 다양한 물감과 붓이 있었다.

"뭘 어떻게 그려볼까."

지오가 그려야 하는 것은 다기였다. 그것에는 바닐라 향이 가득한 바이바므닐 꽃차가 담길 터였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 하였다. 공들여 그린다고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니, 지오는 꽤 골몰히 생각했다.

“…….”

그렇게 10분 정도가 흐르고. 캔버스를 앞에 둔 지오가 한참 뒤에 입을 열었다.

“…색이 예쁜 차가 나올 테니.”

그 특유의 높낮이 없이 차분한 음색이 학생들을 타이르듯 무던하게 흘러나왔다.

“백자가 좋겠어.”

좋은 다기란 무엇일까. 이전에도 몇 번이나 진지한 마음으로 차를 타본 적 있는 지오는 그 답을 알고 있었다.

첫째, 눈이 즐거워야 한다.

“도화지처럼 하얗게.”

둘째, 손이 편안해야 한다.

“안정감이 있도록….”

셋째, 차와 조화로워야 한다.

“깨끗한 색을 내야겠지.”

지오가 대단한 장인은 아니지만, 본인의 알량한 미식 세계를 즐길 정도는 됐다.

기껏 힘들게 만들어낸 귀한 꽃차이니 기왕이면 훌륭한 다기로 물을 우리고 싶었다.

“…….”

그는 입자가 고운 하얀 물감을 선택했다. 곧게 쳐올린 생크림처럼 밀도 있는 색이었다.

오두막의 작업실은 마치 오래된 약방처럼 작은 서랍 곳곳에 온갖 재료가 숨어 있었다. 그중에서는 도자기처럼 하얀빛이 도는 조개껍데기도 있었는데, 지오는 그것을 곱게 갈아 물감을 만들어 두었다.

물가에 있어야 할 조개껍데기로 만든 물감. 그 물감으로 그린 새하얀 다기. 그 다기로 우릴 연하늘빛의 꽃잎….

“그래.”

좋네.

“좋은 것 같아.”

마음에 들었다.

“꼭 샘터의 뿌리에 담긴 연못처럼 보일 거야. 그러면 될 것 같아.”

그의 손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 손짓에 따라, 지오의 눈이 캔버스를 핥듯이 움직였다.

“…….”

푸른 차를 담을 테니 색은 서늘하기보단 따듯한 게 좋겠다.

몸을 따듯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실질적인 온도와 시각적인 온도가 영향을 준다. 그는 따듯한 차를 마시고 싶었다.

“…….”

이 다기는 비단처럼 고운 손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물기로 가득한 하얀 흙에 지문 하나 남지 않을 만큼 고운 손을 부드럽고 느릿하게 놀려서, 함빡 여유에 젖은 봄날에 콧노래를 부르며 물레를 돌렸겠지.

흙을 빚는 사람은 보는 이도 안심할 만큼 푸근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을까.

“…….”

가볍고 다정한 마음씨로 들어 올릴 것이기에 손잡이는 무겁고 매끈하다. 쥐기 좋게 옆으로 쭉 뻗은 손잡이는 마치 상아 같다. 그렇게 따듯한 빛을 낸다.

그 끝을 둥글게. 그 몸도 둥글게. 모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표면을 다듬는다. 촉촉하게 젖은 흙을 살살 쓰다듬어 그 속을 정리하고 뜨거운 가마에 구워냈을 터다.

너는 너를 무엇이라 부를까.

“…….”

너는 깨끗한 도화지이니 그림과 굴곡 하나 없다. 차를 담으려면 그것이 좋겠다.

유약은 티 없이 맑은 개울물을 닮았다. 그 깨끗한 물에 100번을 적셨다 꺼낸 양, 투명한 별을 녹여 덮어씌운 것처럼 교교한 유약으로 새하얀 자기를 꼼꼼히 덮는다.

그렇게 한 번 더 가마에 구워낸 나의 둥그스름한 다기는….

“…….”

그림자를 그려내어 그 무게를 주는 순간.

“…….”

툭, 하고.

지오의 무릎 위에 떨어진다.

“…….”

달그락.

가볍고 투명한 소리.

‘단단하지만….’

붓을 내려놓은 그가 다기를 손에 쥐었다. 손바닥에 감겨오는 촉감이 아버지를 찾는 아이처럼 애달프다.

“그래.”

그래서 결국 구름처럼 가볍고 솜처럼 보드라운 것이, 참 마음에 들었다.

* * *

그림을 실제로 만들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었다.

‘편리하고.’

지오는 유유자적 차를 즐겼다.

흙과 유약 대신 물감으로 빚어낸 다기는 지오를 만족시켰다. 바이바므닐에게서 은은하게 흘러나온 푸른 찻물과 굉장히 잘 어울렸다.

‘워낙 밀도 높은 하얀색이라 그런지, 크림처럼 부드러운 꽃의 향과도 조화롭다.’

쥐고 있는 손에서 느껴지는 그립감도 안정적이다. 누가 황소처럼 달려와 싸커 킥을 날리지 않는 이상 놓칠 일이 없어 보였다.

“좋네.”

고소할 뿐 전혀 달지 않은 차였지만, 그 향이 적나라할 정도로 달아 나중에 쿠키와 함께 먹어도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일과 설탕을 타서 아이스티를 만드는 건 어떨까. 아니면 밀크티로 만들어도 아주 잘 어울리겠어, 크림 향이 강하기도 하고....'

오븐은 아니지만 화덕도 있고 창고에는 밀가루도 있으니 언젠가 쿠키도 시도해 봐야겠다. 예로부터 먹을 건 다다익선이라 하였다.

'이게 지혈과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된다니, 그럴싸한 느낌은 없군.'

지오는 조금 의아해했다.

"내 몸이 바뀌기는 했나."

원래 서지오는 입으로 들어오는 식재의 효능에 큰 효과를 보는 사람이었다.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는 사실은 흔히 알려졌지만 먹는다고 별 변화를 못 느끼는 사람들과 달리, 서지오는 몇 알만 먹어도 눈이 상쾌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시스템이 인정한 약차를 마시는데도 변화가 느껴지지를 않으니....

"......."

지오가 눈을 두 번 깜박였다.

'그렇게 따지자면 생리 현상이 전혀 없는 이 몸부터 이상하다고 쳐야겠지.'

고민의 'ㄱ'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지오가 멈춰 섰다. 멋진 감자는 알아서 훌륭히 잘 납득했다.

그는 먹고 잘 수 있었지만 정도 이상으로 추워하지도, 더워하지도 않았다. 땀도 흘린 적이 없고 같은 맥락에서 화장실 변기에 신세 질 일도 없었다. 오두막에 화장실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말이다.

'내가 특출하게 진화한 것으로 치자. 귀신 들린 초상화도 된 마당에 무슨 쓰잘데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군.'

아무렴 웃기니까 됐다.

그렇게 생각한 지오가 다시 바이바므닐차를 한입 머금었다.

"......."

맛났다.

"선생님?"

"......."

"오늘도 대답이 없으시군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 안에 혼자 계시면 심심하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말동무를 정말 잘 해드릴 수 있는데...."

"......."

"선생님, 주무시나요? 똑똑똑? 혹시 한국어라 반응을 안 하시는 건가? 아닌데, 27개 국어 중 반응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맛있는데 얹힐 것 같다.

'그럼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초상화가 차 마시다 체하게 만든 유일한 인간으로 역사에 기록되겠지.'

비사벌이라는 이름의 신사가 현관문 앞에서 자기 PR을 시작한 지 어언 11일이 지났다.

'그림 속 세계는 내 기분이나 일정에 맞춰 제멋대로 시간이 흘러가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잠깐 눈 한 번 마주친 초상화에게 저렇게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는 건 대단하다고 할 만했다.

"괴담에 푹 빠진 사람인가."

알아서 눈도 뜨는 신기한 그림에 설렐 수도 있기는 했다. 그게 귀신 들린 초상화의 매력이니까.

하지만 저 비사벌이라는 남자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지오를 공포와 환장의 세계로 밀어 넣었다.

“듣자 하니 대한민국 3대 대기업 회장이라던데….”

회장님 일 안 하고 뭐 하세요.

지오의 초상화가 걸린 창고는 비사벌의 개인적인 갤러리이며, 그는 예술 작품을 향한 수집 욕구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이 갤러리에 종종 들르는 다른 직원들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워낙 물건이 많기 때문인가. 이 커다란 갤러리는 비사벌 혼자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작품당 한 명 이상의 관리자를 두고 있다고 했다.

‘왜인지 계속 바뀌기는 했지만, 나에게도 배정된 관리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나눈 대화 덕분에 비사벌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알아낼 수 있었다.

‘수집에 미친 놈.’

평소에는 장난기가 좀 있어도 평범한 감수성을 지닌 신사라던데, 예술과 관련된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친놈이 된다더라.

‘유해하다.’

그럼에도 지오는 비사벌이라는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지는 않았다.

“…….”

지오의 시선이 나무에 걸려 있는 액자에 닿았다.

그 바깥에서 또다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비사벌을 본 순간, 액자의 매끈한 유리 위로 지오만 볼 수 있는 정보가 튀어나왔다.

그가 눈을 두 번 깜박였다.

안전 ★★★★☆

“…….”

놀랍게도 저 액자는 초상화 너머에서 얼쩡거리는 생명체의 위험도를 측정해 주었다.

아마 반대편 사람들의 반응으로 미루어봤을 때 저 표시는 지오 자신만 볼 수 있는 듯했다.

“선생님? 선생님?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실 생각은 정말 없으신가요?”

“…….”

“원하시는 제물이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산 채로 잡아 올 수 있는데. 선생님?”

그러니 지오가 굳이 비사벌을 저 상태로 방치하는 이유는 별거 없었다.

‘말 한번 걸었다고 감당이 안 될 미래가 벌써부터 보인다.’

대놓고 부담스러웠다. 지오는 비사벌이라는 인간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되질 못했다.

‘강원도 햇감자는 흠집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어야 하거늘….’

말투는 제법 정중하고 행동은 고상했지만, 남의 집 현관문 앞에서 15시간씩 진을 치고 있는 초면의 인간은 누가 뭐래도 부담스러운 게 맞았다.

“…….”

악의가 느껴지지 않는 데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딱히 싫은 건 아니고.

“…조금 꺼려진달까.”

일방적으로 그저 듣기만 하는데도 이미 피곤하잖은가.

'에너지를 쭉 뽑혀가겠지.'

그저 지오는.

"......."

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다릴 뿐이었다.

'설마 언제까지고 저러지는 못할 거다. 저 사람이 방전되면 교류를 시도해 보자.'

괜히 기 빨리기 싫었다.

'무서운 사람.'

저 무서운 사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에 지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참 살기 좋은 곳이야."

이미 몇 번이나 초상화 바깥을 나가봤던 지오는 알았다.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지오 자신이 그려진 초상화뿐일 것이었다.

중요한 건 지오 본인의 의지였다. 그가 외부와 교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림 속 '지오'는 눈을 떴다. 이건 폐교에 있을 때 거울을 설치해 둔 다음 알아낸 사실이었다.

'그러니 내가 안에서 얼마나 여유를 부려도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곳에서만큼은 지오의 온전한 자유가 보장되었다. 바깥에서 자신의 대답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대기업 회장이고 나발이고 이토록 평온한 휴식을 취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다.

다행히도 대기업 회장답게 바쁜 빨간 머리 아저씨가 또 다른 도전을 예고하며 사라진 뒤, 지오는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저렇게 떠들어주는 것도 나름 반가워서 내버려두고는 있지만....

"...내 유일한 현관문을 이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을 텐데."

소유권을 되찾아와야 했다.

잠시 고민한 그의 시선이 이내 아무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액자 바깥을 향했다.

"......."

이윽고 지오의 입이 열렸다.

"한번 나가볼까."

현관문을 나서기만 하면 무단 침입을 자동으로 하게 될 자신의 운명은 한탄스러운 것이었으나, 세상 모든 어른들이 그러했든 지오도 결국에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무단 침입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

이쪽도 납치를 당했으니 쌍방이었다.

초상화에게 의견 구하고 구매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는 하다만, 아무튼 그들도 지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로 그를 갤러리에 걸어 두었으니 말이다.

그럼 초상권 침해도 있겠네.

"...따란."

지오의 궁극적 긍정 마인드가 성공적으로 합리화를 마쳤다.

오

Chapter (4)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5)

제5화

어느 날부터인가,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귀신이 있대요.”

직장 동료의 말에 막 지하로 향하려던 한 명의 큐레이터가 눈살을 찌푸렸다.

“…네?”

“지하 5층 갤러리 있잖아요.”

“아, 네. 압니다.”

모를 수가 없었다.

“제가 이번에 새로 맡은 작품도 지하 5층에 있으니까요.”

수집상의 갤러리는 소유자인 비사벌 길드장을 포함해 300명가량의 큐레이터와 작품을 사기 위해 방문한 손님만의 출입이 허용됐다.

갤러리는 총 5층. 각 층마다 모아둔 작품의 종류나 형태가 다르고, 그중에서도 마지막 5층은 비사벌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들만 모여 있었다.

참고로 작품을 향한 비사벌의 애정도와 위험도는 비례했다. 이번에 큐레이터가 맡은 작품이 5층에 있다는 건, 그런 의미였다.

“그 5층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위험도가 높은 만큼 관리가 확실한 층인데 말입니다.”

그 질문에 동료가 대답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귀신이 나온다고.”

“…저도 그 소문을 아예 처음 들어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어떤 사건 사고에서 발생한 소문이냐고 물은 겁니다.”

어색하게 웃은 큐레이터는 버릇인지 자연스럽게 목을 쓸었다.

“이 갤러리에서 지금껏 귀신 소동은 벌써 몇 번이나 있었잖습니까.”

세상의 온갖 기괴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모아둔 비사벌의 갤러리는 예로부터 사고가 잦았다.

비사벌은 ‘예술’이라 취급되는 모든 것을 모았기 때문에, 그 정체가 실질적으로는 몬스터이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 갤러리에서 벌어진 귀신 소동은 대부분 몬스터가 그 원인이었다.

“어떤 작품의 몬스터랍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걸 보니 인간형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한데.”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군요. 저희 갤러리에 인간형 몬스터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라고 평가될 정도라면 당연하게도 인간형 몬스터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위험한 몬스터가 왜 던전에 안 있고 이런 갤러리에 있겠어요. 특히 인간형이라면 지능도 높고 자존심도 강할 텐데.”

인간형 몬스터는 단순히 희귀한 것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가졌으며, 또 던전 바깥을 향한 증오 역시 강렬하다.

지능과 무력 모든 것을 갖춘 인간형 몬스터는 보통 자신의 던전에 군림하며 방문하는 헌터를 농락했다.

“그게 정말이라면 왜 이렇게 길드 건물이 조용하겠습니까? 진작 뛰쳐나와서 전부 죽이고 다녔을 텐데....”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모순적이니까요.”

동료 직원이 말을 이었다.

“벌써 17번이나 민원이 들어왔어요.”

”17번이나?”

큐레이터, 유성운이 ‘귀신’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은 2주 전이 처음이었다.

고작 2주 사이에 17번이나 민원이 들어왔다면 단순한 헛소문으로 취급하긴 힘들었다.

“꽤 잦군요. 그 정도라면 단순히 소문 선에서 그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인사과 쪽에서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길드장님의 갤러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바깥으로 퍼져서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것도 그렇죠. 대한민국의 자금줄을 맡고 있는 수집상에 문제가 생겼다니, 당장 대통령이 뛰어올 일이기는 합니다.”

“농담이 아닌 것 같아서 웃지는 못하겠네요. 다행히 사건의 규모 자체는 작은 편이라 통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인사과 직원이 곧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저한테 정식으로 민원을 넣을 정도면 그냥 넘길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큐레이터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헌터가 아닐 텐데도 민원이 들어왔다는 건....”

“본인들의 선에서는 처리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이건 조금 곤란한데.”

일반 큐레이터와 달리 헌터 자격증을 가진 큐레이터는 박학다식한 존재다. 무력이 아주 강하진 않더라도 몬스터와 아이템을 감정하고 대응하는 능력은 평범한 헌터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비사벌은 그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손꼽는 인재들을 고용했다. 그런 인재들이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눈앞의 직원, 인사과 대리에게 민원을 넣었다는 건 이번 사건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였다.

“...이거 참....”

이쯤 되니 유성운 큐레이터도 인사과가 왜 자신을 불러 세웠는지 알 것 같았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안 그래도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아뇨, 사건이 발생하면 저도 대응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는 비사벌이 직접 고용한 큐레이터 중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은 직원이었다. 헌터로서는 이미 A급이고, 연금술이나 결계와 관련된 자격증도 수없이 많았다.

그런 유성운은 이와 같이 추가적인 업무가 생길 시 자주 부름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일을 떠맡게 되는 건 익숙했다.

“믿음직하군요.”

인사과 동료가 특유의 냉정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유성운 씨가 관리 총무를 맡아주시면 감사할 텐데요.”

“좋게 봐주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역시 그건 좀….”

유성운이 고개를 저었다.

“협회 연구원이었던 사람이 총무까지 맡는 건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연구원도 아닌 연구 팀장이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 그러니까요. 협회에서 나올 때 얼마나 눈총을 받았는데. 눈에 띌 생각 없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더 이상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목을 긁적인 유성운이 물었다.

“아무튼 17번이나 되었다면, 이미 몬스터 쪽에서는 본인의 모습을 감출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저희 길드의 검사를 통과하고 갤러리에 무사히 전시될 정도로 은폐력이 뛰어난 몬스터였다면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에 기다렸다는 듯이 인사과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이번 귀신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군요.”

“그야 17번이나 목격된 기현상이니까요. 정보 수집에 소홀할 수 없죠.”

직원이 말을 이었다.

“다른 큐레이터분들 역시 성운 씨만큼은 아니지만 유능한 분들이신 덕분에, 다행히 귀신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인사과 직원이 유성운에게 서류를 넘겨주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림도 있습니까?”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삽화를 추가했습니다.”

“흐음.”

유성운이 삽화를 들여다보자 인사과 직원이 설명했다.

“17번의 목격 모두 귀신의 복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얼굴과 몸을 전부 가릴 만큼 커다란 검은색 망토를 썼고, 안쪽의 복장은 검은 셔츠와 정장이라고 하더군요. 신장은 188cm 정도로 인간형치고는 꽤 컸습니다.”

“그렇다면 체격은 좀 다부진 편인가?”

“품이 큰 망토 때문에 자세한 확인이 불가했지만 최소한 마른 체격은 아니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락

부락하다는 평가를 받은 적은 없지만요.”

“그 정도로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안쪽이 정말 인간형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일 것 같은데. 언데드 계열일 수도 있고. 인간형 몬스터라고 판단한 이유는?”

“얼굴을 본 큐레이터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오.”

“묘사하자면….”

인사과 직원이 말을 이었다.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높으신 큐레이터분이셨습니다.”

“…….”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이성의 외모를 아주 꼼꼼히 살피는 사람이 잘생겼다고 할 정도면 이목구비가 정말 뚜렷하고 정리가 잘 된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인간이라고 규정했죠.”

“아니… 잘생겼고 자시고, 특징은?”

유성운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물었다.

“머리카락 색이라든가, 눈매의 생김새라든가, 피부의 상태는 어떻고, 어디에 점이 있다든가… 그런 특징 말입니다. 딱히 얼굴 삽화는 넣어주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이 없었던 겁니까?”

“안타깝게도 아주 잠깐 본 것이라 해당 큐레이터분도 제대로 된 특징을 확인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찰나의 순간 ‘잘생겼다’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던데, 이것도 도망친 이후 제대로 된 이성을 되찾은 다음에야 떠올린 것이라 외적인 특징 관련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대리가 덧붙였다.

“왜인지 다들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굴의 외형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큽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당연히 모를 테니까요.”

“눈과 관련된 스킬이 있거나 그쪽이 본체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얼굴이 아니라 손이나 발 같은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행히도 그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인사과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피부가 굉장히 창백했다고 합니다. 햇빛을 한 번도 쬐지 못한 사람처럼 하얀 피부라, 온통 새까만 복장 중 유독 눈에 잘 띄었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스토리가 있는 몬스터이려나…. 어느 던전에서 흘러들어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맨발이었다고 하더군요.”

“소음을 내지 않기 위해서인가?”

유성운의 중얼거림에 인사과 직원이 단호하게 부정했다.

“그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죠?”

“‘귀신이 걸어 다닐 때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라고. 17명의 큐레이터가 모두 한결같이 증언을 했으니까요. 맨발이더라도 소리는 날 텐데 굳이 신발을 벗을 필요는 없었겠죠.”

“그럼 걸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건 그냥 몬스터의 개체 특성이겠군요.”

이 경우 보통 두 가지다.

‘소리를 숨길 수 있는 스킬을 가진 몬스터이든가, 아니면 아예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가벼운 몬스터이거나….’

인간형이라고 판단된다 말했으니 아마 전자의 경우일 확률이 높았다.

“…….”

유성운이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길드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정말 인간형 몬스터라면 기삿감이다 못해 연구감인데.”

“이미 해당 건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외부로는 알리지 말고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라는 말씀뿐이셨습니다. 헌터 협회에 연구 자료로 빼앗기기 싫으시다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길드장님이라면 그럴 수 있죠.”

유성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사람이라도 죽으면 어쩌려고’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일하다 죽는 사람의 목숨 정도야 길가의 돌멩이 정도로 취급받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비사벌은 자기 직원을 매우 아끼는 사람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다고 믿어도 되겠지. 무턱대고 위험한 일을 시키는 상사는 아니니까….’

그때 인사과 직원이 말했다.

“다음 주부터 큐레이터의 안전 강화 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교육생 전원에게 아티팩트가 증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유성운 씨도 꼭 받아가세요.”

“아하.”

과연. 이해가 됐다.

“역시 우리 길드가 참 일을 열심히 해. 사람 목숨 아낄 줄도 알고.”

“감사한 말씀이네요. 모두 길드장님께서 내린 지시지만요.”

인사과 직원이 설명을 이어갔다.

“처음 귀신이 목격된 것은 15일 전, 오전 4시 32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라면 인적이 꽤 드물 때였군요. 밤낮이 없는 우리 갤러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없어 한가할 때고.”

“맞습니다. 이 귀신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조건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직원이 많이 방문하지 않는 새벽을 고집하고 있어요.”

“소심하거나 영악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걸로 들리지만….”

서류를 넘긴 유성운이 고개를 기울였다. 있어야 할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실수로 빠진 건 아닌 듯했다.

“…인명 피해는 하나도 없고.”

인간형 몬스터답지 않았다.

“…….”

아니, 그냥 몬스터답지가 않았다.

‘…인간형 몬스터가 아무리 계략에 능한 존재들이라고 하지만, 2주나 사람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특이한 경우지. 만약 다른 정신 계열의 스킬을 사용해서 나중에 폭탄이 터지는 식의 시간차 공격이라고 해도… 이 보안이 철저한 길드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다.’

그렇다면 정말 이 ‘귀신’은 2주 내내 사람만 구경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적의가 없는 몬스터는 존재하지 않을 텐데?”

한때 협회의 연구원이었던 유성운은 몬스터가 지구의 생명체에게 가지는 적의가 얼마나 큰지 알았다. 그건 아무리 지능이 높은 인간형 몬스터라 해도 차마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몬스터는 인간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전무했다. 그들이 호의를 품고 인간에게 접근한다고 해도, 그게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칠 리가 없었다.

'이래서 귀신이라고 평가를 받았나.'

최소한 귀신은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테니.

내심 그렇게 생각한 유성운의 귀로 직원의 설명이 들려왔다.

"목격되는 위치는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지상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음…."

"최초의 목격부터 시작해 총 7회 동안은 지하 5층을 맴돌았고, 그다음 4회는 4층을, 그다음 2회는 3층. 또 2회 동안 2층. 또 1회 동안 1층에서 목격되었습니다. 한 층씩 올라온 거죠."

"…그건 좀 위험한 게 아닌지?"

"하지만 마지막 목격, 17번째 목격담은 지하 5층을 배경으로 했어요."

"아, 다시 돌아갔다?"

"이후로 5일 동안이나 목격담은 들려오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탐험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골치 아프네."

이미 자기 집으로 숨어버린 몬스터를 찾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다.

"이외의 특이 사항은 없습니까? 행동 방식이라든가. 보통 이런 식의 몬스터는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두고 다른 인간들을 그 틀에 욱여넣으려고 합니다. 게다가 인간형이라면 더더욱 개인적인 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신 대로 특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살다 살다 몬스터가 선물을 준다는 소리도 들어보고.

'…갤러리의 작품들이 종종 그런 식의 행보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이 녀석을 단순한 몬스터라고 규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데….'

생각을 정리한 유성운이 되물었다.

"…선물, 말입니까?"

"……."

불신이 가득한 유성운의 음성에 공감한다는 듯 직원이 미묘한 표정을 짓다가, 한번 헛기침을 하고선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갔다.

직원이 설명을 이었다.

“처음 귀신과 마주치면 그는 인간인 척을 하며 접근한다고 합니다.”

“그걸 누가 믿어준다고….”

“어쩌면 본인이 정말 인간이라고 믿는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다음은 만난 직원에게 대화를 요청합니다. 이름이 뭔지. 나이는 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곳은 어디인지. 당신은 왜 여기에 있는지.”

“…….”

“내용은 대부분 일상적이고 특별할 게 없습니다. 깊은 개인 정보까지 물어보지는 않고, 이마저도 신상을 밝히길 꺼린다면 더 캐묻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끝까지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귀신이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인사과 직원이 서류를 넘겨보라는 시늉을 했다. 유성운이 떨떠름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자, 직원들이 받았다던 ‘선물’의 사진이 보였다.

“…이건….”

“네, 보시다시피 음식입니다.”

“뭐 이런 가정적인 몬스터가 다 있어?”

사진에는 쿠키, 초콜릿, 사탕처럼 한입에 넣기 좋은 간식거리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단정하고 검소한 포장지를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수제였다. 몬스터가 만든 수제 간식이라니, 기사로 나오면 구라도 작작 치라고 욕을 먹을 내용이었다.

“성분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길드장님의 명령으로 시행해 일주일 전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이라든가….”

“아뇨, 반대로 약이었습니다. 빈혈제,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같은 종류였죠.”

“…….”

“대체 어떻게 해야 평범한 쿠키나 초콜릿이 그런 약성을 띠게 되는지는 연구 팀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맛도 구성 성분도 전부 평범한 간식이었으니까요.”

유성운이 서류를 팔락이며 물었다.

“그럼 성분 효과는 어떻게 검출해 낸 겁니까?”

“아시다시피 길드장님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또 교도소에서 끌고 왔나. 이래저래 그쪽이 가장 깔끔하기는 하지.”

“써먹기 좋은 실험체들이 즐비한 곳이니까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교도소의 도움을 받은 것치고도 연구가 신속했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침 길드장님께서 준비해 두셨던 죄수들이 있더라고요.”

멀쩡한 직원 목숨도 돌멩이로 취급되는 시대에 범죄자의 인권이란 전무했다.

수집상의 길드장은 그런 점을 무척이나 잘 활용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이번 실험 역시 그런 범죄자를 이용했으리라 대강 짐작이 갔다.

인사과 직원이 말을 이었다.

“더 놀라운 건 그 선물이 직원에게 딱 알맞은 약이었다는 겁니다.”

“…체한 직원에게는 소화제 성분의 간식을 주고, 열이 나는 직원에게는 해열제 성분의 간식을 줬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

유성운이 얼굴을 쓸어내렸다.

“생명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감정 스킬도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꽤 등급이 높을 겁니다.”

“골치 아픈 상대죠. 저희 쪽에 호의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차라리 난동 부리는 몬스터가 쉽지, 이건 제압도 회유도 못 하겠군요.”

긴 한숨을 내쉰 유성운이 곧 추가 업무를 맡게 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맡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전문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뭡니까.”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날짜 말이에요.”

“불길한데 이거.”

“길드장님이 ‘지오의 초상화’를 갤러리에 전시한 이후 벌어졌어요.”

“…아….”

유성운의 탄성에 인사과 직원이 측은하다는 시선을 보냈다.

“…….”

“…….”

그도 그럴 것이 ‘지오의 초상화’는, 유성운이 이번에 새로 담당하게 된 작품이었다.

“…또 야근인가.”

절로 헛웃음이 나왔다.

“힘내세요.”

“그래야죠.”

벌써 피곤했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5)"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6)

제6화

새하얀 갤러리.

새하얀 조명.

"……."

빛을 받아 반짝이는 작품들 사이 홀로 새까만 남자.

'…나왔다.'

인사과 직원의 부탁으로 갤러리에 잠복하던 유성운은 기척을 숨긴 채로 '귀신'을 응시했다.

운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부탁을 받은 바로 그날 유성운은 소문의 주인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연 미리 전해 들은 것처럼 새까만 망토를 온몸에 두른 장신의 남성이었다.

'발소리도… 안 들리고.'

소문의 '귀신'은 맨발이었다.

'아무리 맨발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조용한 건 이상하지.'

하지만 아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건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큐레이터들은 청각 강화 스킬이 없어서 못 들은 모양이지만….'

유성운이 눈을 감았다.

"……."

사락, 사락.

파스슥….

"……."

아주.

아주 가벼운 소음이다.

'…이건….'

그가 다시 눈을 떴다.

'…식물들끼리 부딪치는 소리 같은데.'

이상한 비유이지만 그렇게 판단되었다.

1g도 되지 않는 가벼운 넝쿨이나 마른 꽃잎 따위를 둥글게 부풀려 굴린 듯한 소리. 그 미약하면서도 지나치게 공허한 소리는 188cm나 되는 장신의 남자가 내기에 어울리는 소음이 아니었다.

“…….”

유성운은 작품과 기둥 사이에 숨어 계속해서 관찰을 이어갔다.

‘…감상하고 있다.’

‘귀신’은 아무도 없는 갤러리를 돌아다니며, 이따금 유리 벽으로 보호 중인 작품들 앞에 서고는 했다. 그는 유독 조각이나 회화 작품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정말로 ‘구경’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워낙 위험한 물건들이 많은 만큼 하나만 건드려도 난리가 날 텐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네. 지능이 높은 유형의 몬스터인가 본데 역시 특이한 경우야.’

그렇다고 다른 형태의 작품을 감상하지 않는 건 아니었다.

‘예술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시간을 때우기 위해 저러는 건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고 있는 건지.’

고고한 귀족이나 교육된 군인처럼 뒷짐을 진 채 갤러리를 거니는 ‘귀신’의 행동은 어딘가 묵직하고 절도가 있었다.

마치 그가 이곳의 주인인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는데, 유성운은 뜬금없게도 어느 고성의 흡혈귀 이야기를 떠올렸다.

‘뱀파이어 백작… 좀 유치한가.’

시체처럼 창백한 피부나 인간 같지 않은 인기척을 따져보자면 꽤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렇게 한참이나 갤러리를 맴돌던 검은망토는….

“…아.”

숨어 있던 유성운을 똑바로 응시했다.

“…….”

시선이.

마주쳤다.

“…….”

“…….”

검은 눈.

그 순간 유성운은, 정신이 아득해짐을 느꼈다.

‘…저게….’

저게 뭐지.

‘검다.’

너무 검었다.

하지만 밝았다.

따듯한 것 같은데 차갑고, 공허한 것 같은데 무거웠다.

분명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눈의 혈관까지 보일 만큼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아니, 그건 혈관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얇고 수려한 가지들은 마치 수림을 보는 듯 광활했다. 동공이 구분되지 않는 검은 중심이 내심 두려워질 만큼 어두웠다.

그건 너무 거대했다. 너무 거대해서 차마 인간의 인지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깊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든다. 아무런 근거 없이 분노와 경외를 느낀다.

숨통을 조여오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호흡이 멈추게 되는 힘이 그 안에 있었다. 숨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존재했다.

“.......”

“.......”

두 번의 깜박임.

“.......”

파슥....

미약한 소음과 함께, 망토가 움직였다.

“.......”

조금 떨어져서.

거기서 더 멀어져서.

그보다 더 먼 곳에 멈춰 선 기척이 이내 사라진다.

“.......”

유성운이 발을 움직였다.

기척이 끊긴 곳은, 다름 아닌 ‘지오의 초상화’ 앞이었다.

“.......”

...내숭이라도 떠는 건지.

그것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양 그 아득한 눈을 감고 있었다.

“미치겠군.”

1일 차, 완료.

* * *

초능력이 있는 세상이라고 ‘귀신’에 대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았다. 여전히 무당이라는 직업이 존재한다는 것에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그러니 움직이는 초상화를 설명하는 것도 힘들었다.

“.......”

“.......”

새벽 4시 29분.

초상화가 눈을 떴다.

“...아.”

유성운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뱉었다.

그런 그를 바라보던 음울한 인상의 남자가, '지오'가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이라…."

그 말에 유성운이 초상화의 배경을 보았다.

"……."

아, 과연.

해가 쨍쨍한 숲이었다.

"…이쪽은 새벽이지만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말한 '지오'의 눈동자가 비사벌의 갤러리를 담았다.

"늘 하얀 조명으로 비추고 있어서 새벽인지 몰랐습니다."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지는 그의 목소리는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무뚝뚝했다. 분명 말을 하고 있고, 유성운은 듣고 있는데, 왜인지 '고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 이질감을 뭐라고 해야 할까. 기계 같다고 표현할 수는 없었다. 그보다는, 조금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걸로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자신이 앞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는 것처럼 일정한 톤. 정해진 입력어가 있는 양 선명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귀에 잘 들어왔다.

"하지만 놀랐습니다."

"뭐가 말입니까?"

"말하는 초상화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

차분한 음성과 무뚝뚝한 얼굴에는 아무 감흥도 보이지 않는다. 놀랐다고 말하는 것치고 별로 그런 반응은 아니었다.

'거짓말은 미숙하다.'

아니면 능숙하게 거짓말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하긴 저 음울하게 굳은 낯이 유연하게 연기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 중일 때 초상화가 다시 물어왔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비록 유성운이 보잘것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진명이 가진 힘은 어디서나 위험하다.

'영혼을 묶는 세상의 모든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도 서로의 이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 이 초상화가, '지오의 초상화'가 유성운의 이름을 듣고 괴상한 계약을 할 수도 있었다. 온갖 문화권의 기이한 존재들에게 있어 이름이란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대답했다.

"유성운입니다."

17명의 직원은 이 초상화에게 이름을 말했다 하여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제 와서 유성운 하나에게 나쁜 짓을 하기엔 여태 보인 규칙성에 맞지 않으니, 이 정도는 알려줄 수 있었다.

초상화는 그의 이름을 들어도 여전히 무뚝뚝한 얼굴이었다. 이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그임에도 초상화는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게 오만하다고 생각된다면 이상한 일일까.

"그렇군요, 유성운 씨."

"……."

"내게 질문이 있는 얼굴입니다."

"그렇긴 하죠."

"저와 대화하시겠습니까?"

대화를 권유받았다.

'이전의 17명과 같은 전철이다.'

유성운은 기묘한 무게를 느꼈다.

'규칙의 무게겠지.'

그건 밀도가 높아 허우적거리기도 힘들었으나, 동시에 발이 진흙에 푹 빠질 만큼 무겁지도 않았다.

이 공기와 이 감각은, 마치 거대한 고래가 바다에 둥둥 뜬 한낱 인간을 배려해 파도를 조절해 주는 듯한 감각이었다.

"……."

그래.

이게 '배려'라고.

"…그럼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서기도 그러니, 유성운은 초상화의 말대로 대화를 해보기로 했다.

"혹시 그 초상화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까?"

"예, 나갈 수 있습니다."

"……."

몬스터는 인간을 증오한다. 자신의 정보에 대해 묻는 것인 만큼 조금은 고민을 할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빠른 답변이었다.

그 부분에 당황했던 것이 티가 났던 걸까. 눈 한 번 깜박이지 않고 유성운을 응시하던 '지오'가 지적했다.

"당황한 표정입니다."

"이렇게… 순순히 말해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서."

"말씀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째서?"

“당신이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순한 목적으로 물어본 것이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초상화는 낮고 조곤조곤하지만, 선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성운 씨는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기에 저도 말을 걸었습니다.”

“…….”

“이걸로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까?”

유성운은 주의하기로 했다.

‘이 초상화는 선악에 예민하다.’

그리고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타인의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다. 대화 한 번 나눠보지 않은 초면의 상대를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악하다고 판단된 사람이 이 초상화에게 말을 걸면… 단순히 무시하기만 할까?’

아니면 공격할까.

“…….”

“질문이 있습니까?”

“아… 그렇지.”

유성운은 최근의 ‘귀신 소동’을 떠올리며 물었다.

“어제 제가 목격한 검은망토가 ‘지오’, 당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요즘 이 갤러리를 맴돌고 있다던 새까만 망토를 두르고 맛있는 선물을 나눠 주는 ‘귀신’이 바로 당신인 것 같은데… 이것도 내 생각이 맞습니까?”

“…….”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오’는 눈을 두 번 깜박이고는 읊조렸다.

“귀신이라.”

“…기분 나빴다면 미안합니다.”

“아니요, 말하는 초상화는 확실히 귀신이 들렸다고 표현할 만합니다.”

초상화가 특유의 무뚝뚝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다만 저는 죽은 적이 없습니다.”

“…….”

“그래도 유성운 씨가 말씀하신 ‘귀신’은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갤러리를 맴돌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평온하고 나직했다. 무언가에 관심을 느끼고 있다고는 상상하기 힘든 음성이었다.

"보기 드문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어 흥미를 끌었습니다."

"……."

"이 갤러리가 어떤 장소인지 궁금했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인지 궁금했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떤 이름과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궁금했습니다."

여전히 무미건조한 어조였지만, 그 답변만큼은 인간의 생활 양식에 관심이 많은 것이 참 몬스터다웠다.

'아니…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몬스터가 아닐 수도 있지.'

그런 경우라면 일이 더 복잡해지는데.

"……."

"혼자 있으면 대화 상대를 찾게 되는 법이죠."

무엇을 의도하려는 것인지 '지오'의 새까만 눈이 유성운에게 닿았다. 마치 '내가 당신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듯한 인위적인 시선 이동이었다.

"당신처럼 예의 바른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하나 봅니다?"

"최소한 이곳의 새빨간 우두머리보다는 이 갤러리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대화 상대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두머리라면… 음, 비사벌 길드장을 말하는 겁니까?"

"수다스러운 사람입니다."

초상화의 눈이 조금 가늘어졌다. 알아채기 힘들 만큼 희미한 변화였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다.

"차마 대꾸하기 힘들 만큼, 말이 많습니다."

"……."

아, 길드장.

'밉보였구나.'

그래서 그 인간은 대화해 보질 못한 거였어.

비사벌이 '지오의 초상화'에 관심이 많다는 건 지하 5층의 모든 큐레이터들이 알았다. 정말 특별한 초상화라며 그가 수시로 '지오의 초상화'에 말을 걸었던 것도 말이다.

'그런데 왜 그 인간은 이 초상화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나 했더니….'

'지오의 초상화'가 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건 알아도, 정작 '지오'와 대화해 본 적은 없는 거였다.

비사벌을 무례하다고 판단한 '지오'가 일부러 그의 대화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업자득이지.'

내 그렇게 살다가 손해 볼 줄 알았다. 솔직히 그 인간은 좀 손해를 봐야 맞다고 보지만, 아무튼.

생각을 정리한 유성운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

"저희 길드장을 대신해서 사과하겠습니다."

그의 역할은 이곳의 작품을 관리하는 것.

그런 작품들 중에는 '지오의 초상화'처럼 자아를 가진 녀석들도 많았다. 특히 인간형 몬스터로 추측되는 '지오'의 규칙을 어겨 심기를 거슬러봐야 좋을 게 없었다.

'무엇보다 예의에 민감한 것 같고.'

다행히 초상화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다. 기분이 좋지도 않지만 화가 나지도 않은 표정. 여전히 음울하고 창백했지만 딱딱하기만 할 뿐 불쾌감이 보이지는 않았다.

역시나 초상화가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희 길드장이 조금 특이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

유성운은 추가적으로 기억했다.

'악인이 아니라면 예의가 없더라도 적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숨이 막혔다. 상대의 능력을 함부로 재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비사벌 길드장의 선악까지 판단하는 수준의 감정 스킬이 있다는 건가…. 여러모로 감당하기 힘든 몬스터인데. 그 정도의 감정 스킬은 전 세계를 통틀어 찾아보기 힘들 정도일 거야.'

아니, 애초에 그런 '눈'을 가진 존재를 몬스터라고 규정해도 되는 건지부터가….

"……."

"……."

잠깐 정적이 흐르자, 다시 초상화가 입을 열었다.

"질문이 있습니까?"

"…당신의 무뚝뚝함이 날 놀라게 합니다, 지오."

"저는 그저 예의를 지켰습니다."

"예의라고요."

"인간이라면 예의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이 오히려 인간 같지 않다는 거다.

'보통 인간은 그렇게까지 예의를 꼼꼼하게 지키지 않거든.'

오히려 인간의 삶을 어설프게 아는 몬스터들이 어색한 흉내를 내는 듯, 과하게 철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유성운이 조금 질린 사이, 초상화는 다른 주제로 말을 이었다.

"나는 유성운 씨를 처음 봤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더 이상 비사벌 길드장님이 당신 초상화를 관리하기엔 시간이 안 난다고 하신 데다, 이전의 큐레이터들은 다른 작품으로 배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를 이어받게 되었죠."

"초상화를 깔끔하게 관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의 분들께도 인사를 드리고 싶었으나 그동안 제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몫까지 더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작품을 관리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이니 감사하실 것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사해했다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 주겠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생겼다.

“...눈을 감고 있을 때도 바깥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까? 당신은 그 초상화 안에서 이쪽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었나요?”

그의 질문에, ‘지오’는 의중을 알 수 없는 무뚝뚝한 얼굴로 대답했다.

“당신들은 액자에 있으니, 나는 구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

“움직이는 그림은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까.”

왜인지.

조금 섬뜩했다.

‘그림은 자신이 아닌, 그 바깥의 인간들... 이라는 건가.’

정확히 어떤 부분이 섬뜩한지는 유성운 본인도 알 수가 없었다.

단지 저 초상화의 말대로라면 ‘지오’는 그림 바깥의 모든 것을 그림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림은 ‘지오의 초상화’인데도.

저 그림에게 있어, 우리는....

“.......”

그림이다.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까?”

“...예.”

역시, 이건 위험한 존재다.

“아마도.”

2일 차, 완료.

Chapter (6)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6)"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7)

제7화

3일 차를 마치고, 초상화가 눈을 감는 것을 확인한 유성운.

"......."

그는 오전 9시가 되자 길드장을 찾아갔다.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할까요?"

"그 초상화는 위험합니다."

그는 차분한 얼굴로 보고했다.

"초상화 개인이 저희 인간들에게 가진 호의와는 무관합니다. 드물게 인간에게 호의를 가진 몬스터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호의가 인간들에게 큰 독이 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오의 초상화가 그런 몬스터들의 호의와 같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아뇨, 그보다 더 위험합니다."

유성운은 자신이 확인한 바를 보고했다.

"그 초상화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호의를 퍼부어 사람들을 질식시켰던 여태까지의 몬스터들과는 전혀 다르죠."

무엇보다.

"그는 스스로를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인간들과 교류하려 할 것이었다. 대화하는 것에 거부감을 지닌 유형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저희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지오는 저희를 그림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감상하고 있고요."

유성운은 '지오'의 강대한 영혼을 느꼈다. 그건 대단한 분석 장비나 스킬 없이도 사고할 수 있는 생물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그건 단순히 절도 있는 걸음걸이와 묵직한 분위기, 고상한 외모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었다. 유성운은 아직도 '지오'의 검은 눈과 마주했을 때 느꼈던 아득함을 잊을 수가 없었다.

인지하지 못할 만큼 거대한 무언가가 한낱 인간인 척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도 본인은 자신을 인간이라 말하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러려고 노력하는 건지는 몰라도 확실한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어요.”

이런 경우, 평소에는 안전하다가도 일이 한번 터지면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는 선악에 예민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평범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지오’가 그를 악인이라고 결론짓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상조차 안 갑니다.”

“정말로 상상이 안 가나?”

“예, 이번에는… 아무래도.”

유성운이 한숨을 쉬었다.

“비교할 군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말하는 초상화는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자아를 가진 무기는 희귀하게 취급되며 수많은 헌터들의 사랑을 받는다. 하지만 자아를 가진 초상화라니, 그 정체가 귀신인지 몬스터인지 사람인지도 구분이 안 가는 존재라니.

아무리 독특한 경험이 많은 그라도 이번 경우는 곤란했다.

“헌터 협회에 연구 자료로 보내보실 생각은….”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압니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성운이 한숨을 막듯이 제 입가를 덮고는, 이내 표정을 관리한 후 말을 이었다.

“그럼 주기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루 이틀 봐서는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부탁합니다. 저도 조만간 다시 대화를 걸러 갈 생각인데, 또 무시를 당하면 곤란하니 지오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알아봐주세요.”

“대단히 사적인 요청이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제 업무이니 부탁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어쩜 우리 직원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시크한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으신 탓이 아닐까 합니다.”

그게 유성운이 새벽 4시 30분마다 출근하게 된 이유였다.

* * *

“외롭지는 않습니까?”

유성운의 질문에 초상화가 눈을 두 번 깜박였다.

“외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뚝뚝한 답변이다.

유성운이 작게 웃었다.

“실례되는 질문이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작품을 관리하러 오는 직원들 외에는 사람이 오고 가지 않는 곳이니까요.”

“…….”

“가끔 초상화 바깥으로 나와 구경하는 것도 그런 감정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어림짐작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없는 곳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혹시 대화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만….”

초상화가 말을 이었다.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해서, 항상 말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를 상상해 왔습니다.”

“…….”

“너무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 많이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너무 많이 마음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용한 장소를 늘 원했죠. 이곳은 그런 제 소원에 알맞은 장소입니다.”

그에 유성운이 물었다.

“…예전에, 사람이셨습니까?”

“지금도 사람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림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평범한 인간이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액자에 담겨 있지는 않으니까요.”

“예,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인간형 몬스터는 둘로 나뉜다.

태생부터 몬스터였으나 나중에 인간의 형태를 띠도록 진화한 유형, 혹은 처음에는 인간이었지만 어느 순간 ‘근원’에 속하게 되어 몬스터가 된 유형이 있다.

‘이 경우에는 후자인가.’

보통 인간이었을 적의 기억이 있는 몬스터들은 특히나 부정적인 감정에 많이 휘둘리던데.

‘이쪽은 오히려… 평온해 보이는군.’

하지만 그리 기분 좋은 평온함은 아니었다.

“…….”

마치 장례식 같다.

‘지오의 초상화’는 꼭 누군가의 죽음처럼 보였다.

“음, 그럼… 지루하지는 않습니까?”

“가끔은 지루합니다.”

“그런 지루함은 어떻게 달래죠? 당신만의 방법이 있나요?”

“보통은 식사를 하죠.”

“…….”

아, 이건 조금 놀랐다.

“…식사를?”

“예.”

초상화는 특유의 무뚝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먹는 것을 즐깁니다.”

“…….”

그 재료가 인간은 아니길 빈다.

‘…딱히 식사를 좋아할 것 같은 얼굴은 아닌데 말이지.’

상대를 평범한 인간으로 생각해 본다면, 글쎄, 먹을 것에 집착하는 인상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무엇에도 감흥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 인상이다. 냉혈한에 가까운 무심함이 보여.’

그는 화려한 미남이다. 체격은 마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두껍지도 않다.

창백한 피부나 검게 팬 눈두덩이 같은 부분도 그렇고 대리석 조각처럼 움직이지 않는 얼굴도 그렇고. 식사에서 즐거움을 찾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더 있었다.

“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뻔한 걸 물었죠.”

그림이 밥을 먹는다니.

“어떤 방식으로 식사를 하는지 여쭤도 괜찮겠습니까?”

유성운의 질문에 ‘지오’는 별로 대단할 것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요리를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떠올리고, 거기에 맞는 재료를 가져와 손질하고, 불 위에 팬을 올려두거나 화덕에 넣어서… 그렇게 요리를 마칩니다.”

“…….”

“평범한 인간이니까요.”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오히려 인간 같지 않게 느껴지지만 말이다.

유성운이 대답하지 않자, 초상화는 또 다른 경우를 설명했다.

“제가 초상화 안에 있기에 즐길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 그건 어떻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유성운 씨도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죠.”

“…어떤 즐거움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즐거움을 줄 수 있다니. 순간 역사 속의 몬스터들의 행패가 떠올라 불안했지만, 초상화는 산 제물이나 따끈한 피 따위를 요구하진 않았다.

종이 위에 칠해진 검은 물감이 그러하듯, 그는 감정 없는 눈으로 유성운을 바라보았다.

“그림을 잘 그리십니까?”

“…어떤 물건을 묘사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릴 수 있습니다. 가끔 보고서에 처음 보는 물건이나 식물을 그려 넣어야 할 때가 있어서….”

“그렇다면 사과를 그려주세요.”

“…….”

“어렵지 않죠?”

유성운은 조금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이, 초상화 위에… 말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오의 초상화’는 규칙이 명확한 존재다. 그런 정체 모를 존재가 요구하는 것을 무시할 만큼 유성운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늘 들고 다니는 하드 케이스에서 물감과 붓을 꺼냈다. 그 모습을 본 초상화가 물었다.

“언제나 미술용품을 들고 다니십니까?”

“가능한 다양한 물건을 소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갤러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다양한 방면으로 준비하는 게 제 신상에도 좋으니까요.”

“그렇군요.”

“…….”

초상화의 반응은 여전히 잔잔했지만, 유성운은 내심 섬뜩했다.

‘내가 그림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까지 대화를 나눈 ‘지오’는 자기 나름의 융통성이 있는 존재였지만, 글쎄, 이형의 존재는 언제나 변덕스러운 면모를 보였다.

유성운은 조용히 심호흡하며 초상화 위에 붓을 얹었다. 고귀한 작품을 더럽히는 듯한 배덕감이 들었다.

“그렇게 잘은 못 그리는데.”

“상관없습니다.”

“으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빨간 사과 하나를 그렸다.

“…그렇게 예쁜 사과는 아니네요.”

유성운은 머쓱하게 웃었다.

“여기 당신이 원하던 사과를 그렸습니다.”

“그렇군요.”

“먹을 수 있습니까?”

“…….”

그렇게 말한 ‘지오’는 초상화 한구석에 그려진 사과에 손을 뻗었다.

“감사합니다.”

움직였다.

하얗고 두꺼운 손이, 이내 유성운의 사과를 집었다.

“…….”

그러고는,

와삭.

“…….”

“…….”

빨간 사과 안의 노란 속살이 보인다.

모형처럼 생긴 사과를 한입 베어 문 초상화가 말했다.

“맛있군요.”

“…아….”

“잘 익었고, 향이 좋네요. 크기가 조금 작지만 간식으로는 적당합니다.”

“그….”

이런 건 처음 보는데.

“…….”

“신기합니까?”

그래, 신기했다.

조금 두근거릴 만큼.

“…대단합니다.”

유성운은 이형의 존재를 관찰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예전 직장인 헌터 협회에 있을 때부터 그런 일을 해왔다.

던전이 생기고 몬스터가 판을 칠 때부터 눈에 띄게 생겨난 기이한 현상과 그 중심의 존재들을, 유성운은 언제나 탐험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맡았다.

거기엔 분명 자부심과 만족감 또한 있었다. 그것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솔직히, 예, 놀랐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그림 속의 사과를 먹은 겁니까?”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그림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그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는 그림 속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

“요리하기 싫은 날이면 이런 식으로 완성된 요리를 그려냅니다. 편리하죠.”

“…그렇군요.”

“그러니 나는 당신 호의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초상화가 눈을 두 번 깜박였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당장은 준비가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일 차, 완료.

* * *

초상화가 눈을 감았다 뜨자, 어느새 그의 손에는 붓이 하나 들려 있었다.

‘지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

“…….”

그건 전날 새벽 유성운이 그렸던 사과와 같이 매우 붉은색이었다.

형태는 둥근 선의 삼각형. 입체임이 분명한 구조와,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투명한 빛. 어딘가 부드럽고 따듯한 햇살에 부딪힌 빛은 산산이 조각나 구조물 전체에 퍼졌다.

그 색감은 석류를 닮았다. 투명하고 붉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붉다. 마치 갓 흘려낸 피를 담은 듯 적나라한 빨간색은 너무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아플 정도였다.

그것은 이내 생명을 갖고.

“…….”

그 끝이 칼처럼 선명해지고.

“…….”

또 어둠을 품어, 결국 산란하는 그림자마저 그 밑에 두었다.

“…….”

“자.”

초상화가 말을 걸었다.

“답례입니다.”

그가 심장을 담은 것처럼 붉은 보석을 손가락으로 밀어내자,

툭, 하고.

“…….”

유성운의 손 위로 떨어졌다.

“…….”

“당신의 겁니다.”

“…이건….”

그가 물었다.

“무슨 보석이죠?”

“모릅니다.”

“…….”

“하지만 뜨거울 만큼 깊은 땅속에 있었을 겁니다.”

‘지오’는 보석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행성의 심장과 함께 지낼 만큼 뜨거운 곳에 있다가, 제 친구를 닮아 열기를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 사람의 손에 발견되고 나서야… 예쁜 형태를 갖췄겠죠.”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

“…재밌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들렸다면 다행입니다.”

“하하….”

유성운은 저도 모르게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무엇으로 이 보석을 그렸죠? 분명 당신 붓은 아무 물감도 묻어 있지 않았는데….”

“…….”

“이 보석은 진짜처럼 보여요.”

초상화는 대답해 주지 않았다.

대신 유성운은 물었다.

“내가 이걸 가져도 됩니까?”

“당신은 내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 어설픈 사과 그림을 말하는 것이다.

“이 보석은 그 답례입니다.”

초상화의 말은 꼭 악마의 것처럼 들렸다.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그 이질감과 몽롱함과 황홀경에 그런 생각이 들고 말았다.

그리고 유성운은 무언가 참을 수 없는 비현실감에 솔직한 감상을 뱉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건 꼭, 악마가 준 대답 같네요.”

의문을 참을 수가 없었다. 연구자란 이런 존재였다.

“왜 당신은 항상 그렇게 간단한 언어로 대답합니까? 지오 당신은, 글쎄요. 다른 사람의 소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

“이게 실례인 질문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당신에겐 인간적인 감정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선택한 겁니까?”

초상화는 대답하지 않고 유성운을 바라보았다.

한참이 지나고, 그가 눈을 두 번 깜박이고 나서야, ‘지오’가 대답했다.

“유성운 씨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지나치게 단순한 문법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사람의 욕구나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답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

“저는 항상 이랬습니다.”

그의 음성은 여전히 무뚝뚝하고 나직했지만 어딘가 비틀린 듯했다.

평온하지 않았다. 마치 관에 묻힌 죽은 자를 살아 있는 자들의 세계로 끌어낸 것처럼, 여전히 고요하면서도 어딘가 기이한....

“굳이 설명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없을 만큼, 난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게 무엇이든 제 선택도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초상화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아픈 곳을 찔려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혹은 정말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한 것처럼도 보였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제 착각일 뿐 그는 아무 감흥도 없을지 모른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유성운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렇겠죠, 압니다. 당신이 평범한 인간이라는 걸 알아요.”

“.......”

“당신은 외로움이나, 기쁨이나, 그 외에... 많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당신은 감정이나 개인적인 욕망을 보이지 않는 말투를 가지고 있죠. 마치 당신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일종의, 서비스인 것처럼 말이다.

‘...여기까지 말해선 안 되겠지.’

유성운은 호기심을 느꼈다. 동시에 감탄하기도 했다. 비사벌에게 큐레이터로 고용되었다지만 그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탐구’에 있었다.

“.......”

“.......”

초상화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말을 잇는다.

“사과를 먹고 싶기 때문에 유성운 씨에게 그것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제 개인적인 소원이었습니다. 유성운 씨는 나에게 사과를 그려주었기 때문에 난 거기에 대한 답례를 드렸습니다. 우린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고, 그건 사람 간의 당연한 예의입니다.”

“그렇군요.”

“난 예의를 지켰을 뿐입니다.”

“.......”

“그래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일정한 높낮이의 음성에선 그 심상을 읽어내기가 어려웠다.

“당신 눈이 매우 검다는 거 압니까?”

“꽤 많은 사람들의 눈은 검은색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검은 눈은 흔하죠.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

“날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거대한 고래가 자신은 작다며 인간에게 설명하는 것만 같은 상황이다.

그 말이 모순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부정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

‘지오’의 무뚝뚝한 얼굴은 그 내면의 진실을 모두 가려버렸다.

“…주의하겠습니다.”

5일 차, 완료.

그 후로 초상화는 한동안 눈을 뜨지 않았다.

“…….”

아, 정말이지.

“이런 버릇을 좀 고쳐야 할 텐데….”

도망치게 만들어버린 건가.

* * *

“…….”

오랜만에 사회생활하려니 힘드네.

“…쉴까.”

궁극적 긍정 마인드 발동.

‘쉬자.’

그렇게 그는 귀농 생활로 돌아왔다.

“따란.”

지오가 초상화 안에 열흘간 처박힌 이유였다.

Chapter (7)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7)"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8)

제8화

지오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의 딱딱한 표정과 음울한 분위기, 지나치게 정중한 말투 때문에 온갖 상상을 하고는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거라거나 과거에 위험한 일을 했을 거라거나....

오해다.

'오늘 뭐 해 먹지.'

서지오는 그냥 돼지 감자였다.

"...치즈 퐁듀...."

침대 위로 봄바람이 솔솔 불어왔다. 잠기운에 고양이처럼 늘어졌던 그가 일어났다.

"치즈 퐁듀가 좋겠어."

오늘의 콘텐츠는 퐁듀였다.

식사 앞에서 돼지는 망설이지 않았다. 지오는 얼음 창고로 내려가 이번 요리에 사용할 치즈를 골랐다.

"어떻게 할까."

치즈 퐁듀는 재료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반박할 똥손들이 나오겠지만, 지오는 똥손이 아니라 상관없었다.

하지만 치즈 퐁듀는 그렇게 복잡한 기교가 필요한 요리가 아니고, 그만큼 치즈 퐁듀의 레시피 또한 다양했다.

"베이스는 브리 치즈인 게 좋겠지."

브리 치즈는 치즈 퐁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 중 가장 무난한 선택지였다.

"이게 브리 치즈인가."

하얀 종이에 싸인 브리 치즈는 그 겉에 하얀 곰팡이가 실크처럼 번져 있었다. 마치 진득한 치즈 겉면에 달콤한 슈가 파우더를 잔뜩 뿌린 것처럼 말이다.

딱히 이름이 쓰여 있지는 않아 냄새를 맡고 반을 갈라보니, 확실히 브리 치즈가 맞았다.

"담백하고 좋지."

브리 치즈는 향이 강하지 않은 치즈다. 연한데다 은은한 버섯 향과 견과류 향이 나 퐁듀의 치즈로 쓰기에 딱 알맞다. 빵이나 과일과 함께 먹으면 조합이 아주 좋았다.

“이것만 넣으면 조금 물릴 거고.”

브리 치즈의 단점은 많이 먹으면 느끼하고 부담스럽다는 점이었다.

흐물흐물하게 녹은 브리 치즈는 탄성 없이 부드럽게 녹아드는 크림 같은 성질을 보이는데, 향도 잔잔하고 식감도 그렇다 보니 쉽게 질리는 면이 있었다.

“…….”

눈을 깜빡인 지오가 이내 중얼거렸다.

“좀 짰으면 좋겠는데.”

향도 강하고, 짜고, 톡 쏘는 치즈가 끌렸다. 브리 치즈가 담백한 편이니 말이다.

“파마산이 적당하겠어.”

정식 명칭은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파마산 치즈’는 한국인에게 보통 피자 위에 뿌려 먹는 시즈닝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파르미지아노 치즈의 열화판으로, 둘은 거의 같은 점이 없다.

“여기 있었네.”

지오는 소분되어 있는 파마산 치즈를 찾아냈다.

“아예 통을 썰어가기는 부담이 되니까….”

이 치즈는 1년 이상 숙성이 요구되는 초경성 치즈이다. 매우 단단하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그 안의 결은 확실하다. 이 결에 따라 잘라주지 않으면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 소분되어 있는 점은 매우 반길 만했다. 통으로 파는 파마산 치즈는 타이어보다 크고 또 굉장히 비싸서, 지오는 그걸 소분 작업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까운 치즈 낭비하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이다.’

적당한 크기로 잘린 치즈를 지오가 바구니 안에 넣었다.

“…….”

벌써 향이 강했다.

“좋네.”

톡 쏘는 향을 내뿜는 파마산 치즈는 그만큼 다채로운 맛을 가지고 있다.

일단 굉장히 짜다. 새끼손톱만큼만 떼어 먹어도 혀가 아리고 향이 머리로 훅 올라가는데, 그 풍미가 매우 강렬하다.

그와 동시에 꿀처럼 진한 달콤함이 무른 복숭아처럼 혀를 은은하게 적셨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즐거움을 준다.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것도 맛있지.’

가열되지 않은 경성 치즈는 향이 훨씬 담백한 상태로 남는다. 치즈 초보라면 생으로 먹는 걸 추천하는데, 그 상태의 파마산 치즈 사이사이엔 크리스털이라는 맛의 정점이 존재한다.

“…….”

지오는 그 작지만 바삭한 식감을 좋아했다.

‘너트 향도 나고.’

너무 많이 넣으면 부담스럽겠지만, 소량 첨가해 준다면 퐁듀의 풍미를 살리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하나 더 넣어보자면.

“그뤼에르.”

그뤼에르 치즈가 적당하겠다.

이 치즈는 파마산 치즈와 같이 딱딱한 경성 치즈지만, 1년이나 숙성하는 파마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고 브리 치즈보다 더 짠맛이 강하며 훨씬 달콤하다.

‘은은한 호두 향이 난다는 것도 재밌는 점 중 하나지.’

진한 견과류 향이 난다는 부분에서 여러모로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진득한 향은 분명 앞서 모은 치즈들과 잘 어울릴 것이다.

“…치즈는 이쯤 할까.”

너무 많이 넣어도 향이나 맛이 이상해지겠지. 지오가 1층 주방으로 올라갔다.

“그럼 이제….”

달그락.

지오는 서랍에서 두툼한 질그릇을 찾았다.

“요리를 시작하지.”

요리 방법은 단순했다. 일단은 치즈와 함께 먹고 싶은 재료를 준비한다.

뭐든 좋다. 방울토마토, 아스파라거스, 고구마, 감자, 양파, 브로콜리, 애호박…. 이외에도 부드러운 식감의 식빵이나 바삭한 크루통, 쫄깃한 치아바타 같은 것들.

심지어는 과일과 함께 먹어도 좋았다.

‘하지만 이건 패스.’

간식으로 먹을 것이 아니라 식사를 위해서인 만큼 달고 새콤한 것은 끌리지 않았다.

“대충 볶을까.”

적당히 웍에 한입 크기로 자른 재료들을 넣고 한 번 열을 준 다음, 지오는 이 재료들을 모두 화덕에 넣었다. 강한 열로 짧고 굵게 겉을 태워준 다음 꺼낼 것이었다.

화덕에 구운 재료들은 은은한 훈연 향이 날 것이었다. 향이 좋은 장작을 미리 준비한 보람이 있었다.

“이건 준비가 됐고.”

다음은 치즈다.

가져온 치즈는 잘게 자른다. 모든 치즈가 동시에 녹아야 분리되지 않고 잘 섞이는데, 덩어리가 너무 크면 각자 녹는 시간이 달라 기름과 지방층이 분리된다.

‘처음에 만들 때는 통째로 녹여버려서 치즈 기름이 한강을 이룬 적도 있었지. 지금 생각해도 대참사군.’

데워둔 질그릇엔 올리브유를 한 번 두르고, 마늘 한 쪽을 넣어 향을 낸다.

“그리고 와인.”

치즈의 꼬릿한 향을 잡아주고 풍미를 살려주는 치트키다.

지오의 지하 창고에는 상표 없이 병에만 담긴 와인들도 함께 있었다. 그중 맛이 가장 깔끔한 화이트와인을 사용했는데, 마늘과 올리브 향과 잘 어우러져 기분 좋은 향기가 났다.

“…….”

꾹.

와인 마개를 닫은 지오가 생각했다.

'언제 한번 술도 담가봐야지.'

남는 게 시간인데 과정이 번거로운 것 정도야 별 큰일도 아니었다. 지오는 와인부터 시작해 증류주, 꽃술, 과일주까지 모두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다. 백수는 시간을 낭비할 자격이 있었다.

알코올이 모두 날아갈 즈음 지오가 잘라둔 치즈를 가져왔다.

"다 넣고...."

약한 불로 데워진 질그릇 위에 부스스한 치즈를 몽땅 넣는다.

"저은 다음에."

적당히 녹아서 치즈의 기름이 위로 숭숭 올라오면, 그때 미리 준비해 준 전분물을 살짝 첨가한다. 아무리 잘 녹여도 분리되어 버리는 치즈의 기름과 지방층을 융화해 주는 역할이다.

"술 한 스푼."

위스키나 브랜디처럼 도수가 높고 풍미가 짙은 술이 좋았다.

"......."

그렇게 죽이나 수프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쫄깃한 치즈 퐁듀가 완성되었다.

"따란."

마음에 들었다.

지오는 치즈와 각종 재료를 들고 와 식탁에 앉았다. 치즈는 계속 따듯한 상태로 늘어져 있을 수 있게 아래에는 작은 촛불을 켜준다.

'이런 부분은 좀 번거로워.'

치즈는 차갑게 두면 다시 딱딱한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열을 해줘야 했다. 그러니 치즈 퐁듀를 먹으려면 퐁듀용 도구가 필수인 셈이다.

"미리 만들어둬서 망정이지."

아무튼 식사가 시작되었다.

"일단은...."

지오는 잘 익은 아스파라거스부터 집었다.

"......."

치즈에 폭 담갔다가 꺼내니, 술과 전분으로 부드럽게 풀린 치즈가 쭈욱 따라온다. 화덕에 바짝 구워졌던 아스파라거스는 아직도 짙은 녹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신선한 채소 특유의 향과 아스파라거스만의 부드럽고 은은한 향이 올라왔다. 특히 지방과 잘 어울리는 아스파라거스의 신선한 풍미가 기대되는 모습이었다.

"음...."

아삭.

줄기가 탄성 있게 씹혔다.

'맛있다.'

마치 잘 구운 고기의 육즙처럼 흘러나오는 아스파라거스의 단물은 오묘한 쓴맛을 품고 있었다.

신경에 거슬리지 않을 만큼, 딱 유자차의 그 떫은맛과 같이 아스파라거스의 쓴맛은 다른 재료들과 훌륭한 조화를 보여주었다.

한번 바짝 태워졌던 겉면은 바스러지는 얇은 나뭇잎과 같았다. 그 바로 아래의 줄기는 팬과 화덕에 달궈져 부드러우면서도 즙이 많아 물컹했고, 또 그 아래는 아직 생생하게 살아 있는 식물의 대가 아삭하게 씹혀왔다.

'치즈랑도 잘 어울리고.'

크림처럼 부드러운 브리 치즈가 기본기를 잡아준다. 자칫 물릴 수도 있었지만 파마산의 톡 쏘는 향이 그걸 잡아주고, 그 사이사이를 짙은 호두 향의 그뤼에르가 연결해 주고 있었다.

아스파라거스의 섬세한 풍미는 특히 지방과 잘 어울린다. 치즈, 생크림, 버터 같은 녀석들을 말하는 것인데, 마늘로 한번 향을 잡아준 이번 퐁듀와 위화감 없이 딱 맞물렸다.

게다가 즙 많고 아삭한 식감 덕분에 마치 잘 여문 봄나물을 먹는 것 같았다.

"......."

이게 인생이다.

"...먹고 있는데도 잠이 오는 삶... 이보다 바람직할 수는 없지."

활짝 열린 창문으로 솔솔 들어오는 부드러운 봄바람을 맞으며, 속을 살살 어루만져 주는 퐁듀를 먹고 있으니 여기가 바로 천국이었다.

"다 먹으면 나가서 낮잠 자야겠어. 오늘은 어디서 자볼까."

그다음으로 고른 것은 치아바타였다.

"잘 구워졌네."

치아바타는 그 푹신함과 쫄깃함으로 소문난 빵이었다. 밀가루가 살짝 묻어 있는 겉면은 버터로 휩쓸려 나가 수프의 루와 같은 풍미를 내어주었다.

화덕에서 구워진 덕분에 겉이 아주 바삭했는데, 버터가 강하게 묻은 면은 수프에 담긴 크루통처럼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했다.

"그럼 이제 치즈를...."

푸욱, 담가서.

"......."

우물.

입에 넣었다.

"......."

아주 좋았다.

'이거지.'

지오는 치즈 묻은 빵 위에 잘 익은 감자를 올려두었다.

"으으음...."

역시 퐁듀는 조합해서 먹는 즐거움이 있어 좋았다.

바삭쫄깃한 빵에, 다채로운 식감의 치즈에, 버터에 익혀 강한 풍미를 자랑하는 포슬포슬한 감자까지. 식감부터 맛까지 무어라 구박할 부분이 없는 구성이었다.

‘토마토로 입가심 한번 하고....’

뽀득!

“...아, 이것도 맛있네.”

속살이 너무 익지 않도록 짧고 강하게 열을 준 방울토마토는, 안쪽에 은은하게 따듯한 국물을 품은 채로 여전히 아삭했다. 그 겉면은 마치 잘 익힌 소시지와 같은 연약한 오독함이 있었다.

“치즈랑도 어울리겠는데.”

그렇게 치즈와 함께 먹고 나니 그 다채로운 풍미에 행복해졌다.

“이번엔 크루통을 넣어볼까.”

지오는 되는대로 집어 먹었다.

바삭한 크루통에 쫄깃한 치즈를 푹 담가서 한 번, 너무 무르지 않게 잘 익은 부드러운 브로콜리와 크림처럼 퍼지는 치즈를 한 번, 달콤하고 포슬포슬한 고구마와 짭짤하고 고소한 치즈를 한 번....

대야에 쌓일 만큼 꽤 많은 양이었지만 지오는 금방 다 먹어버렸다.

“.......”

그는 자신의 위장이 선보인 기적에 감탄했다. 이 정도면 노아의 방주까지는 못 돼도 지오의 방주는 될 수 있을 듯했다.

“양이 늘어났나?”

분명 대식가이기는 했다만, 그래도 그림 속에 들어오기 전엔 이 정도까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이다.

“.......”

지오의 궁극적 긍정 마인드 발동.

‘재밌으니까 됐어.’

따란.

그의 합리화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나 먹고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았다. 미식가이자 대식가인, 그야말로 먹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지오에게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입에서 불도 뿜던데 나 정도면 양반이지.”

사람이 살다 보면 진화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제 간식 들고 낮잠 자러 나가야겠다....”

지오는 깨끗하게 씻은 바구니에 잘 말린 망둥 열매와 바이바므닐 찻잎, 그리고 따듯한 물이 담긴 유리병을 넣었다. 짙은 황금빛을 띠는 망둥 열매는 마치 건포도만큼 작아져 유용한 간식이 되어주었다.

‘바깥에 말린 녀석들은 완전히 딱딱해졌고. 조만간에 망둥 열매 약도 만들 수 있겠어.’

지오는 검은 망토를 둘렀다.

‘이것도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해보고 싶은데.’

막 그림 속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만든 망토는 아직까지 쓸 만했다. 혹시 있을 무서운 짐승의 시야에 걸리지 않기 위함도 있고, 독성이 있는 풀에 몸이 쓸리거나 옷이 해어질까 봐 만든 녀석이었다.

오두막에 있던 천을 주섬주섬 어설프게 기워 만든 것치고는 괜찮았다.

‘가볍고 도톰하고 통풍도 잘되고.’

추위나 더위는 잘 안 타는 몸이지만 맨땅에 누웠을 때 등이 배기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망토는 꽤 괜찮은 이불이 되어줄 테다. 옷매무새를 다듬은 지오는 샘터로 향했다.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도착한 샘터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조용했고, 그러면서도 온갖 생물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로 다채로웠다.

그럼 뭐다?

"……."

자자.

"좋지."

졸렸다.

쫄깃하게 마른 망둥 열매를 좀 씹던 지오는, 이내 차라곤 한 입도 마시지 않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온몸을 감쌀 만큼 커다란 망토는 예상했던 것처럼 훌륭한 이불이 되어주었다.

"……."

새액— 새액—….

곧 잠이 든 그의 위로, 햇살을 닮은 나비들이 올라탔다.

"삑."

"푸르르…."

"크흥."

동그란 몸의 토끼 대여섯 마리. 기다란 다리의 사슴이 한 마리. 삵을 닮은 도톰한 고양이들도, 찌르르 울어대던 작고 큰 새들도 몇 마리씩.

그렇게 한데 모여 깊은 잠에 빠졌다.

"……."

"……."

평화로운 낮잠 시간이었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8)"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9)

제9화

느지막해진 저녁.

오두막의 맨 위층, 다락방. 은은한 조명. 흐르는 숲의 향기. 동그란 창을 앞에 두고 세워진 검은 나무 책상.

지오는 그곳에 자신이 발견한 규칙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오가 말을 이었다.

“1:1이라고 할 수 있겠네.”

지오는 이 그림 속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정말 ‘무슨 일이든’ 다 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분이 들었다. 따듯한 시체마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에서 지오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봐야 했다.

‘하지만 현실이 엮이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유성운에게 사과를 그려달라고 했던 것 역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

‘내가 그리거나 남이 그려준 그림은 내 입장에선 같은 그림이니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는 거지만, 그걸 바깥으로 빼돌리는 순간부터 현실이 되잖아. 아무런 제약도 없다면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의심이었다.

“유성운 씨가 친절해서 다행이지.”

대뜸 사과 그려 달라는데 순순히 해줘서 감동했다.

“참 어른스러운 사람이야, 초상화가 헛소리를 해도 잘 맞춰주고.”

그렇게 지오는 친절한 관리자의 배려와 지난 며칠간의 시도로 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오가 그림 바깥으로 나가면 그림 속에선 그의 모습이 사라지고 액자는 단순한 풍경화가 된다. 지오가 그림 바깥의 인물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면 상대에게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

대체로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는, 1:1의 규칙이었다.

“…….”

물론 앞서 만난 17명의 직원에게 뿌렸던 간식은 그냥 호의였다.

‘다들 너무 무서워하길래 간식이라도 주면 분위기가 풀릴까 했지.’

그 결과 분위기가 풀리기는 했다. 공포에서 황당함으로 바뀌었다고 할까. 그래, 나 같아도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시커먼 덩어리가 대뜸 쿠키를 쥐여주면 당황할 것 같기는 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 것도 사실이고.'

결론적으론 그냥 예의를 차렸을 뿐이라는 거다.

누군가에게 받은 게 있거나, 혹은 내가 사과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할머니께서는 상대를 현혹하는 유려한 말과 함께 현물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게 사람 살아가는 사이의 기본적인 예의라고 말이다.

'그분께서 말뿐인 감사와 사죄는 시체라고 하셨다.'

말을 곱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여력이 되든 안 되든 아주 작게라도 선물을 하라고 했던가. 얼굴 근육이 조랑말보다도 못하게 퇴화한 서지오에게는 피와 살이 되는 조언이었다.

고로 제 인생 멘토인 할머니의 말씀을 착한 감자 서지오는 29살이 된 지금도 착실히 따르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오는 학생들의 사랑을 받는 선생님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도움만 받을 수는 없지."

그게 서지오의 철칙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의 규칙은 나랑 꽤 잘 맞는다고 봐야 해. 숲의 동물들처럼 내 성향이 반영된 결과물일지도 모르겠어."

마음에 들었다.

"내가 그림인 상태로 현실로 무언가를 넘기기 위해선, 나도 받는 게 있어야 한다."

지오는 꽤 많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거의 창조주의 권능을 누리는 이 그림 속은 이미 당연한 이야기고, 현실 바깥으로 나가서도 별도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다.

'심지어 그림으로 통로를 만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도 다른 층으로 갈 수 있고.'

다만 지오가 그림이고 반대쪽은 현실에 있을 때, 그는 이 1:1의 규칙을 어길 수 없었다. 이건 초상화를 관리해 주는 직원인 유성운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 사람에게 사과를 그려달라고 했을 때 시스템 설명이 나왔었지."

답례하라는 설명이었는데, 심지어 시간제한도 있었다.

'일주일 정도였나.'

일주일 이내로 상대에게 대가를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바로 다음 날 유성운에게 선물을 주었다.

"......."

지오는 손가락으로 책상 옆의 잡동사니를 굴렸다. 나무 책상과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보석...."

그중에는 다채로운 색상의 보석들도 있었다.

"이것도 만들 수 있을 줄은 몰랐지."

지오는 다양한 화풍을 좋아한다.

제대로 된 화가라면 자신만의 세계관이 있다고들 하는데, 지오는 그런 화가가 아닌 일개 교사라 그런지 이런저런 화풍으

로 그림을 그렸다. 그런 서지오는 극사실주의에도 능했다.

지금 그가 만지고 있는 보석들은 그런 식으로 탄생한 것들이었다.

"이걸로 물감을 만드니 유성운 씨에게 주었던 보석도 그리기가 수월했어."

마치 물감이, 그림이, 그 결과물 자체가 생명체인 듯한 느낌.

"……."

분명 살아 숨 쉴 수 없는 것에 생명이 깃든 느낌이었다.

"사고의 한계가 없는 이 멋진 감자와 아주 잘 어울리는 특별함이 아닐 수 없다…."

29살 먹고 이렇게 팬티까지 벗어 던진 것만 같은 자유로움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아무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좋았다. 그 결과 지오는 더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감자로 진화한 듯했다.

나름 정리를 마친 지오가 백수와 다름없는 생각을 이어갔다.

'…오늘 저녁에는 밖에서 자자. 별을 보면서 자면 기분이 좋을 거야. 내일 아침엔 뭘 해 먹을까. 그냥 감자 구워서 소금 찍어 먹기만 해도 맛있겠지? 그러고 심심하면 농사를 지어도 괜찮겠어. 유성운 씨에게 부탁하면….'

날씨가 좋으니 작물은 잘 자랄 것이다. 마음에 드는 모종을 찾아 농사를 지으면 상쾌한 기분이 들 거다.

그렇게 자란 작물로 식사를 하고, 그림 바깥에 있는 유성운 씨에게도 선물해야지. 어딘가에 꿀벌이 있다면 데려와 키우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많이 돌아다녀 보자."

그러다가 다시 오두막에 돌아와서 그림을 그릴 거다.

그림을 그리면….

"……."

나른한 봄기운에 반쯤 졸고 있던 지오가 조용히 눈을 떴다.

"반려동물이 필요해."

스케일이 좀 커지기는 했지만 일단 이것도 전원생활 아닌가.

"마당 있는 집에 반려동물 키우는 건 삼겹살에 소주와 같다. 그리고 나는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는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아다…. 고로 나에겐 새 식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숲의 생물은 지오에게 호의적이지만, 야생 동물의 기본적인 경계심은 남아 있어서인지 쉽게 만질 수 없었다.

'찹쌀떡 만지듯이 주물거리고 싶었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하기도 했지.'

그리고 신사 그 자체인 지오는 싫다는 토끼를 주물럭거리지 않았다.

숲의 친구들은 지오에게 쉽게 다가오고 또 쉽게 떠나는 그야말로 야생 동물일 뿐이었다. 그런 녀석들과 친구가 되는 것도 분명 즐거운 일이 되겠지만, 지오에게는 다른 방법도 있었다.

"그림을 그리면…."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인간은 저 한 마리 스스로 책임지는 걸로 이미 족했다.

하지만 동물은?

"…만들 수 있나?"

지오는 2층의 작업실로 향했다.

* * *

지금까지 지오가 그렸던 것은 전부 사물이었다.

“자아가 없었어.”

과일, 채소, 음식, 접시, 가구, 이외에도 여럿 그렸지만 살아 숨 쉬는 존재는 아니었다. 지오가 그들에게 어렴풋이 느끼는 생명력과 별개로 말이다.

“…….”

지오는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다.

“…될까?”

인간은 실패했지만 작은 동물 정도는, 가능할까?

“…여기에 다른 사람은 없지만 다른 동물들은 있으니….”

가능할 것 같았다.

“…….”

지오는 의자에서 일어나,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작은 서랍들로 향해 다가갔다. 오래된 한의원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약장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지만, 지오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었다.

“…여기에, 분명….”

달각.

서랍 하나를 열었다.

“있다.”

파랗고 투명한 보석이 있었다.

이 보석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지오도 모른다. 하지만 보석은 시원했다. 차갑다기보다는 상쾌했고, 만지면 단단했으나 그 내부는 마치 물이 흘러가듯 유동적으로 흔들렸다.

“…….”

반짝거리며 한 형태 안에서 흐르고 있는 그것은 고체의 형상을 한 액체이며, 또 저희끼리 뭉쳐 살아 숨 쉬는 생명과 다르지 않았다.

“이걸로 하자.”

이외에도 서지오는 몇 가지 보석과 마른 나뭇잎, 광물을 꺼내왔다.

송곳과 망치로 보석을 깨트린다. 잘 말랐음에도 선명한 색을 품고 있는 나뭇잎도, 다양한 색채를 품은 광물도 전부 가루로 만든다.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로 만든 그것은 지오의 손에서 물감으로 탄생했다.

“…….”

숲에서 찾은 나무의 수액으로 물성을 주고.

“…….”

거기에 또 차등을 주어, 적당한 점도를 찾는다.

“…….”

색이 잘 보이는 유리판에 곱게 갈린 물감은 반딧불이처럼 은은하게 빛났다.

‘…은하수처럼 창백하지만….’

그만큼 시원한 기분을 주었다.

“됐어.”

지오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 숲은 호수가 없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조금 아쉬운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소담한 연못이나 웅장한 호수나 광활한 바다처럼 끝을 모르고 투명한 그것들이 물 내음을 풍겨주기를 바랐다.

광활한 물웅덩이에서부터 불어올 시원한 바람을 떠올린 지오는 붓을 움직였다.

“…….”

동그란 몸.

머리는 작게, 날개는 크게. 부리는 노래만을 부를 테니 그리 클 필요가 없다. 이들은 물이 존재하는 곳에 집을 만들어 그 집 자체가 자신이 될 것이었다.

“…….”

물 자체인 새.

“…….”

그건 어떤 새일까?

“…무리를 지을 것 같네.”

그들은 무리 생활을 할 것이다.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머물 수 있고, 물이 없는 곳이라도 언제든 연못을, 호수를, 바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생명을 품고 살아 숨 쉬는 그들은 투명한 물이며 동시에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새다.

“색은 저마다 다를 거야.”

물은 투명하니까, 자아를 가진 그들은 생각하겠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색을 가지고 싶다고.’

귀여운 친구들이 될 거다.

그들은 투명한 자신을 꾸미기 위해 제 몸에 온갖 보물을 집어넣는다. 모든 새들이 제 털을 관리하듯 작은 부리로 제 몸에 맞는 보물을 골라, 투명한 몸 안에 집어넣어 스스로를 꾸민다.

그건 꽃이 될 수도 있다. 그건 보석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나무에 매달린 열매나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이 될 수도 있었다. 어쩌면 아주 오래된 유물이나 작은 물고기를 품고 있을 수도 있었다.

“모든 건….”

너희의 마음대로니까.

물이고, 새인 너희는 뭐든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흐르는 개울 속에 잠이 들어도 괜찮고 광활한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녀도 괜찮다. 그들에겐 자유가 있었다.

“…….”

지오는 아주 작은 새를 그려냈다.

몸집은 둥글고, 날개는 딱 그 몸통만 하고, 꽁지깃은 길고 부리는 짧다. 몸이 작은 그들은 어디에도 숨을 수 있으며 스스로가 물인 것을 알고 있다.

생명을 가진 물.

“.......”

투명한 그 몸에 보석과, 꽃과, 열매가 들어가 다채롭게 빛을 내니....

아름다웠다.

“.......”

지오가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새의 부리를 톡, 두드리자.

“아.”

—포르륵!

“.......”

몸에 자신만의 보물을 품은 새가 지오의 어깨 위에 앉았다.

“...안녕.”

파슥.

“반가워.”

파스슥, 파슥!

“그래, 나도.”

새는 울음소리 대신 바스락거리며, 제 몸속에 있는 꽃으로 소리를 냈다.

조용하지만 소란스러운 친구였다.

“수다쟁이였어.”

작고 투명한 몸에 갇힌 꽃잎들이 희미한 소음을 내며 장난스레 울어댔다.

“대단하네.”

어느새 지오의 방은 투명하게 반짝이는 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잠시 지오의 곁을 기웃거리다, 이내 열려 있는 창문으로 우수수 나가버렸다. 살아 있는 물방울들의 날갯짓으로 일으킨 바람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다.

마치 선명한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을 보는 듯한 그림 같은 광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

잠시 멍하니 있던 지오는, 곧 발을 움직여 테라스에 섰다.

“...아.”

있다.

“멀리 안 가네.”

그들은 지오의 오두막 옆에 작은 연못을 이루었다. 그는 테라스 난간에 턱을 괴고 몸을 기대었다.

“기특한 것들.”

오두막을 길게 둘러싼 연못은, 혹은 호수는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 밑에 해변의 모래나 강가의 조약돌처럼 무수히 많은 ‘보물’이 깔려 있었다. 꽃이나, 보석이나, 열매 따위가 잔뜩 가라앉은 호수는 달빛에 황홀하게 반짝였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잔잔히 흐르다가도 이내 퐁! 위로 올라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고선 또다시 안으로 숨어 친구

들과 함께 연못을 이루었다.

“…….”

지오는 눈을 감았다. 살아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반짝이는 물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곧 그들이 내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지저귀는 울음소리 대신 보석이 달그락거리고, 꽃잎이 스치고, 작은 돌이나 모래가 파스스 움직이는 희미한 소음이 들렸다. 그게 저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고 울어대는 방법이었다.

그건 마치 한여름의 풀벌레 소리와도 같아서….

“…자야겠네.”

지오는 배게 하나만 달랑 들고선 오두막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오두막과 연못 사이에 누웠다.

“…….”

바스락—.

그가 잠이 들기 위해 눕자 동물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만지려고 하니까 다들 도망가던 것치고는 다가오는 게 빠르지 않나.’

나뭇가지 위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던 새들이 포르르 날아와 서지오의 가슴 위에 앉았다. 얕고 넓은 연못을 킁킁거리던 사슴도 긴 다리를 움직여 서지오의 옆으로 다가왔다.

수풀 사이에서 움찔거리던 다람쥐들은 연못에 도토리나 작은 열매를 넣고선 그의 곁에 몰려들었다.

“…….”

그 모습에 지오가 중얼거렸다.

“…통행세?”

톨게이트 비용인가?

아무튼 다람쥐와 연못의 새들 모두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럼 됐지.’

아무튼 평화롭지 않은가.

지오가 만들어낸 친구들이 배척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기존의 이들과 어울리고 융화할 수 있다면, 그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다.

그쯤에서 지오는 생각했다.

“…….”

이 초상화를 꾸며보는 것도 재밌겠다고 말이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9)"

제10화

유성운의 성급함으로 초상화가 눈을 감았지만, 그림의 주인인 비사벌은 그에게 화내지 않았다.

"어차피 내가 말을 걸면 대답조차 해주지 않았던 초상화였습니다. 저를 보지조차 않더라고요."

"……."

"지금껏 대화를 나눴다던 17명의 직원들은 초상화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성운 씨의 시도는 의미와 성과가 크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지오를 도망치게 만든 것은 분명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었겠지만, 나는 유성운 씨의 그런 탐구심에 반해 당신을 스카우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사과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거면 돼요."

다행히도 비사벌은 자기 식구들에게 각별한 사람이었다.

큐레이터의 본분은 작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연구원이 가질 법한 이런 탐구심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런 유성운을 옹호해 주는 상사를 만난 것은 감사할 일이었다.

"하아…."

하지만 유성운은 여전히 난처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실수한 게 사라지는 건 아니야.'

비사벌에게 고용되어 큐레이터로 지낸 지 꽤 되었다. 그동안 비사벌의 수집품을 감상하고 관리하며 많이 무뎌졌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천성은 천성인지 오랜만에 본 던전의 신비에 눈에 돌아가 버린 것이다.

유성운은 개인 작업실에 들어가 사탕을 깨물었다. 피곤함에 찌든 어른에게는 당분이 필요했다.

"……."

그래, 그렇지.

'지오의 초상화는 평범한 몬스터가 아니다.'

그 점이 유성운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단순히 돌연변이일 수도 있지만….”

작은 중얼거림.

“…….”

유성운은 한참 동안 제 의자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다.

이내 그가 입을 열었다.

“…정원사들에게 연락을 해봐야 하나.”

정원사란 각국 협회에서 비밀리에 운영 중인 직업이었다.

사실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적성에 잘 맞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일들이므로.

다만 그 적성자가 워낙 적은 탓에 반강제로 공공연히 퍼지지만 않았다는 말이 더 적절할 것이었다.

‘하지만 나름 연구원으로서는 은퇴를 가장하고 나온 거라 다시 연락을 하기가 애매한데.’

일종의 비밀 연구원이자 모험가인 정원사는 던전의 진실에 근접한 사람들이었다.

그만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전직 정원사였던 유성운의 지식으로는 ‘지오의 초상화’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로서도 난생처음 보는 종류의 존재였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끼익….

유성운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축 늘어졌다.

“급할 필요는 없으니까 천천히 가자고.”

인간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근원’은 도망가지 않는다.

‘그러기엔 너무 커다란 녀석이라.’

급하게 비밀을 파헤칠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들지 않았다. 애초에 그런 식으로 성급하게 굴었다가 ‘지오’를 도망치게 만든 것이 바로 며칠 전인 것이다.

“반성하자, 반성….”

다행히도 ‘지오’의 회피는 그리 길지 않았다.

유성운은 며칠 뒤, 눈을 뜬 초상화를 볼 수 있었다.

* * *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성운이 어색하게 웃었다.

“좋은 저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오의 초상화 속 숲은 별이 반짝이는 저녁이었다.

“마침 저희도 저녁입니다.”

“새벽이 아니었나요.”

“오늘은 조금 일찍 왔거든요. 아직 12시도 안 됐습니다.”

“평소보다 확실히 이른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담당하는 다른 작품들을 확인하러 왔죠.”

유성운이 어깨를 으쓱였다.

“그러다 지오, 당신이 깨어 있는 걸 봤고요.”

“나는 늘 깨어 있습니다.”

“그건 놀라운 이야기군요.”

너스레를 떨던 유성운이 특유의 덤덤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의 시선은, 초상화의 손에 들린 붓을 향해 있었다. 그림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를 들고 있는 아주 희한한 광경이었다.

‘길드장이 보면 눈이 돌아갈 모습이군.’

지오는 순순히 대답해 주었다.

“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 새를 그리는 중이었군요.”

“예.”

“저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유성운 씨가 원한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무뚝뚝한 얼굴의 남자는 손에 들린 붓을 내려놓고, 이내 유성운은 보이지 않는 어딘가를 툭툭 쳤다. 섬세한 손가락이 절도 있게 누군가를 불러내자 이변이 나타났다.

물이 찰랑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새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이다.

“…….”

유성운은 놀랐다.

물론 그건 이전의 보석과는 달리 확실히 그림 너머의 존재처럼 납작했지만… 최소한 지오만큼의 생명력은 느껴졌다.

“…그 새는….”

“제 새로운 가족입니다.”

“아, 그렇군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되었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자면 유성운은 조금 흥분했다.

“멋진 새입니다.”

그 새는 아주 작았다. 한국에 있는 종으로 따지자면 오목눈이 정도의 형태일까?

하지만 그보다 꽁지깃이 훨씬 길었고, 날개는 투명한 몸과 하나가 되어 잘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그대로 합쳐져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것은 매우 깨끗한 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과거의 정원사였던 유성운이 이따금 던전에서나 봤던 성수나, 혹은 생명이 일절 살지 않는 오지의 샘물을 닮았다.

“방금 지오, 당신이 만들어낸 겁니까?”

왜 ‘그린다’가 아니라 ‘만든다’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저건 확실히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였다.

“붓을 들고 있었잖아요.”

“재미 들려서 여러 마리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여러 마리?”

“지금은 대략… 100마리가 좀 안 되겠군요.”

“대단하군요.”

그 100마리를 일일이 그려냈다는 것이다.

“쉽지 않을 텐데.”

“남는 게 시간이니 상관없습니다.”

“아….”

“재밌기도 하고.”

“…….”

의외로 흥미를 탐하는 성격인가.

‘유의해 둘 점이야.’

지나치게 예의 바르고 딱딱한 표정의 지오인만큼 감이 잘 오지는 않지만, 몬스터인지 뭔지 모를 존재가 흥미 위주의 생활을 한다는 건 인간으로서 경계할 만했다.

머릿속에 정보를 기억한 유성운이 다시 물었다.

“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새는 울 수 있습니까?”

“성대는 없지만….”

포르륵…!

찰박, 찰박!

“…이런 식으로.”

“아하.”

새가 물 묻은 강아지처럼 몸을 털어내자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작은 물병이 흔들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묽은 점성의 젤리가 이리저리 섞이는 소리 같기도 했다.

유성운이 작게 웃었다.

“저렇게 우는구나.”

초상화가 첨언했다.

“다른 방식으로도 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대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전과 비슷한 방식입니다만.”

지오는 정장 안쪽에서 작은 보석 하나를 꺼냈다.

“어때.”

파드득…! 푸륵!

“네 거야.”

촙.

작은 몸집의 새는 지오의 손에서 초록색 보석을 빼앗았다. 제 아담한 입으로 보석을 이리저리 깨물며 가늠하는 듯하더니, 곧 그것을 꿀꺽 삼켜버렸다.

“아.”

지오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다른 보석 몇 개를 더 건네주었다.

“이제 울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때, 잘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

유성운은 곧 눈앞의 새가 어떻게 우는지 알 수 있었다.

‘…몸에 넣은 물건을 움직이거나 부딪쳐서….’

동화를 닮은 모습이었다.

새의 투명한 몸속에 갇힌 보석은 이리저리 떠다니기도 했고, 저희끼리 부딪치며 소리를 내기도 했다.

밀도가 높은 보석처럼 보이는데도 그 작은 몸 안에서 둥둥 떠다니는 보석은 빛이 산란된 물과 함께 반짝였다.

지오는 마치 갓 태어난 짐승을 가르치듯 말했다.

“그래.”

달그락!

“잘하고 있어.”

달칵, 달칵!

“…….”

그러고서는 눈을 두 번 깜박이는 게 보였다. 그 무뚝뚝한 표정이 바뀐 것이 아닌데도 기분 탓인지 피곤해 보였다.

“수다쟁이들입니다.”

“꽤 조용해 보이는데요.”

“성대가 있었다면 얼마나 소란스러웠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그건… 그렇지만.”

작은 몸집의 짐승 특유의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새는 지오의 손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꽁지를 팔락거리며 바쁘게 바둥거렸다. 그러다가 날개를 펼쳐 파닥거리기도 하더라.

‘날개는 생각보다 크다.’

몸 전체를 감쌀 만큼 큰 날개는 다시 몸통으로 흡수되어 형체를 잃었다.

‘저런 점은 꼭 슬라임 같네.’

자기 몸에 무언가를 넣으려고 애쓰는 것도 조금은 비슷해 보였다. 저 녀석은 사냥이 아니라 자신을 꾸미는 용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적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까.

“…당신 그림은 정말 멋집니다.”

이것은 초상화이자 화가인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꺼낸 유성운의 말에 지오가 그를 바라보았다.

검다 못해 밝게마저 보이는 그 눈이 잠시 유성운을 담다, 곧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실례되는 말을 한 건 아니겠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딱 알맞은 칭찬이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하지만 살아 있는 그림이라니.

‘그런 건 누구나 멋지다고 할걸.’

유성운이 멍하게 새를 바라보고 있자 초상화가 물었다.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아, 질문….”

이것도 ‘지오의 초상화’의 규칙 중 하나일까?

‘매번 이런 식으로 기회를 주는 것 같던데.’

유성운은 상대의 인내심과 호의를 가늠하며 대답했다.

“저는 언제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있죠. 지오 당신이 너무 멋진 그림을 보여 줬으니까요.”

“그렇군요.”

“이 새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혹시 이 녀석들은 저마다의 미의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오, 당신의 취향에 따라 행동하는 건가요?”

“…….”

눈을 두 번 깜박인 초상화가 대답했다.

“나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몸에 무언가를 넣어서 스스로를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꽤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인지, 지오는 스스럼없이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나는 대략 100마리의 새를 만들었지만, 그들마다 선호하는 물건은 달랐습니다. 이 친구는 보석을 선호하고, 어떤 새는 꽃을 원했고, 어떤 새는 나뭇가지나 돌멩이를 찾았죠. 작은 물고기나 나무의 열매일 때도 있었습니다.”

포르륵!

초상화가 손을 흔들자 그 위에 앉아 있던 새가 날았다. 물소리가 들렸다.

“이들은 나의 미적 감각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취향이 확고해요. 그건 나의 영향을 조금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와서 내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마치 진짜 새 같군요.”

“이곳은 그림입니다. 그림의 주인인 내가 그린 그림은 진짜가 됩니다. 원한다면 그들은 살아 숨 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

“이걸로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까?”

잠시 침묵한 유성운이 곧 입을 열었다.

“이 새는 단순한 그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살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오 당신처럼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지오는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았다. 본인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도 보였고, 아니면 그다지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처럼도 보였다. 유성운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갔다.

다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에….”

“…….”

“영혼이 있는 겁니까?”

던전이 생겨나고 31년이 흐른 지금,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했다. 영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스킬이 생겨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다.

그런 스킬치고 희귀하지 않은 건 없지만 말이다.

“영혼이 있는 새를 만들어낸 겁니까, 지금?”

“글쎄요.”

아까와 같은 대답.

‘의중을 모르겠어.’

초상화는 여전히 무뚝뚝했다.

방금 막 하나의 생명을 창조해 낸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래서 더 이질적이고 섬뜩한 면이 있는 모습이었다.

‘전혀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행동을 당연한 듯 일삼는데 눈코입은 전부 사람처럼 달려 있으니 더 기괴하게 느껴지는 건가.’

평소 봐왔던 몬스터나 그 비스름한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화감이 있었다.

초상화는 여상히 대답했다.

“나도 모릅니다.”

“주인인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아나요.”

“아무도 모를 수도 있죠.”

그의 목소리는 선명했다.

“나는 그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림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

“나는 이 그림을 꾸밀 수 있고, 그렇게 꾸며진 그림은 이 초상화 속에서 실제가 됩니다. 지난번 유성운 씨가 나에게 사과를 그려주었던 것처럼….”

“…….”

“결국 그림이니까요.”

말장난 같은 이야기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다.

‘그림 속의 그림은 실제가 맞지.’

유성운은 잠시 뒤 다시 질문했다.

“당신은 그림 속에서 새를 만들어냈죠. 나에게 보석을 그려서 주었고요. 그리고 그걸 나에게 전달할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지오, 당신은 분명 그림이지만 동시에 인간이고 또한 현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가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곳에 진짜 삶을 그려낼 수 있습니까?”

“…….”

“단순히 지난번처럼 그림 바깥으로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운명이나 과거, 기억 같은 것을 그려낼 수 있냐는 겁니다. 아니면 혹은….”

“…….”

“실제 사람이라거나.”

지오가 이내 대답했다.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군요.”

“…왜죠? 그림 속이 외롭거나 지루하지는 않습니까?”

“난 이곳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다.

“난 이곳이 편합니다. 언제나 날씨가 좋고, 봄바람이 불고, 숲의 향기가 가득한 이곳은 그 무엇도 번거롭거나 힘이 들지 않습니다.”

“…….”

“만약 지루할 때가 온다면 지금처럼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내면 그만인 일이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유성운은 조금 놀랐다.

“당신의 평화로운 그림 세계로 만족하는 겁니까?”

여태껏 그가 봐왔던 이형의 존재는, 언제나 현실의 것을 탐했다. 자아의 유무와는 별개로 햇빛을 향해 뻗어져 나오는 식물의 줄기처럼 그들의 행동은 본능적이었다.

“나오고 싶은 욕구는 들지 않나요?”

“피곤합니다.”

“그건… 그럴 수 있겠지만….”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이곳이 나의 집입니다.”

“…….”

방금 분명, ‘이제’라고 했다.

‘…이 초상화에 살지 않았을 때가 있다는 거군.’

초상화는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초상화에 머물지 않았을 때가 있다고 말했지만, 그 머문 장소가 꼭 지구이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다른 던전이나 차원일 수도 있겠는데. 아니, 지오의 평소 발언이나 격을 떠올려 보자면 오히려 이쪽의 확률이 좀 더 높겠지.’

유성운의 생각과 별개로 초상화는 말을 이었다.

“저는 저를 위협하는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위협하는 생명체?”

“인간은 언제나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존재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체는 오로지 나에게 호의적인 친구들뿐입니다. 그게 이 초상화의 규칙입니다.”

“…….”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몇 번 시도를 해보니 알겠더군요. 내가 이 초상화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지울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인간을 그릴 수도 없습니다.”

초상화가 읊조렸다.

“주인이 없는 초상화는 성립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한 지오는 다시 유성운을 보았다.

“인간을 만들어내는 건 꺼림칙합니다.”

“어째서죠?”

“그건 너무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하면 좋은 게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

“나의 특별함은 말하는 초상화 정도로 만족합니다.”

그건 확실히, 단순히 자아만 있는 초상화의 생각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깊었다.

‘평범한 몬스터나 아이템이 아닌 건 확실한데.’

그렇기에 섬뜩한 면이 있었다.

“…….”

“이걸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오늘은, 네.”

몬스터도,

아이템도.

유령도 인간도 아니라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건 대체 뭘까.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0)"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1)

제11화

“.......”

지오는 작업실에 서 있었다.

“.......”

그가 바라보는 것은, 사면의 벽 전체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서랍들.

그가 떠올리는 것은, 그 서랍 안에 조용히 잠들어 있을 물감 재료들이었다.

“.......”

이윽고 지오가 움직였다.

“...지난번에 썼던 걸로 하자.”

그는 과거, 물새를 만들어낼 때 썼던 재료들을 꺼내 왔다.

그것뿐만은 아니었다. 아쿠아 마린과 에메랄드를 닮은 보석뿐만 아니라 개울가의 대리석처럼 하얗고 투명한 조약돌.

숲 사이에 타버린 나무인 척 숨어 있던 흑요석 가지 조각. 꾹 누르면 즙이 나올 것처럼 생기를 머금고 있는 연두색의 나무껍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을 즈음 지오는 서랍에서 재료 꺼내기를 멈췄다.

“남으면 다시 돌려놓기 피곤하니 부족하면 나중에 더 꺼내 오도록 하고....”

달각, 달그락.

작업대 위에 재료들을 올렸다.

“...오늘의 콘텐츠.”

나만의 물감 만들기.

“좋네.”

기본적으로 유화 물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색을 낼 안료와 그걸 개어줄 오일, 그리고 이 녀석들을 한데 모아 섞어 고운 물감으로 만들어줄 유리판과 막자였다. 잘 섞어주고 싶다면 적당한 크기의 필렛 나이프도 필요했다.

그중에서도 지금 지오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색을 내어줄 안료였다.

“일단 좀 부숴볼까.”

서랍에서 막 꺼낸 재료들의 상태로는 제대로 된 물감을 제조할 수 없었다. 모두 색을 띤 가루의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 했는데, 그러려면 일단 좀 부숴야 할 것 같았다.

지오는 날카로운 못과 망치를 준비했다. 투명한 보석을 지그시 응시하던 그는, 곧 어느 한 지점에 못을 두고 그 위를 톡! 쳤다.

“…….”

강한 힘이 아니었음에도 균열 부분을 정확히 맞은 보석은 두 동강이 났다.

지오는 생각했다.

‘역시 나란 감자 멋진 감자.’

이 산골 마을 아이돌은 광물을 보기만 해도 쪼개질 포인트를 압니다.

‘광부를 했어야 했는데.’

지오는 작업을 이어갔다.

달그락.

“…….”

톡, 투둑.

쩌억…!

“…….”

딱.

“…그래.”

가장 약한 결만을 확인하고 충격을 주어서인지, 보석은 금세 지오의 새끼손톱보다도 작게 나누어졌다.

“이 정도면 됐어.”

지오는 잘게 조각난 보석을 망치로 때려 부수고, 더 작아진 파편을 도자기 막자 안에 쓸어 담아 힘주어 갈았다.

어느 순간 드드득 귀를 때리던 소리는 유리구슬이 굴러가듯 부드럽게 바뀌며 보석은 전부 가루가 되었다.

“…이게 어떤 원리일까….”

푸른색과 연두색이 오묘하게 섞인 안료가 완성된 것이다.

“곤란하군,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특별한 탓에 연구소로 잡혀갈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이 작업실의 재료들은 전부 독특했다.

원래 보석은 갈아봤자 돌가루밖에 나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보석이 투명하고 아름다운 색을 띠는 것은 그들의 분자 구조 덕분인데, 그걸 갈아버리면 보석의 투명함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곳의 보석은 달랐다.

‘갈아도 그 색과 투명함이 온전하게 남아 있어.’

지오와 같은 아마추어의 공정을 거쳐도 본래의 빛깔이 온전하다니, 그야말로 훌륭한 재료의 덕을 본 셈이었다. 곱게 갈린 보석은 저희끼리 뭉쳐 있으면 특유의 청량한 투명함을 빛내고는 했다.

묵묵히 모든 재료를 안료로 만들어낸 지오는 그것을 천천히 준비해 둔 오일과 섞었다.

“…….”

아무리 가루를 냈다지만 생 돌가루를 섞었음에도 오일과 안료는 붕 뜨지 않았다. 원래라면 안료의 특성에 맞는 기름을 준비해야 할 테지만, 그의 작업실에 있던 왁스는 훌륭한 점성과 융화력을 보여주었다.

"...향도 섞고...."

단순히 색을 내는 것에서 벗어나, 지오는 잘 어울리는 향까지 첨가했다. 꽃이나 열매 따위를 넣어 향을 입힌 기름은 특이하게도 안료와 훌륭히 어우러졌다.

"갈아서, 넣으면...."

안료와 향유를 넣고 유리판 위에서 곱게 갈아주었다.

"......."

손에 비단이 스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아주 곱게.

* * *

지오가 만든 물새들은 생각보다 장난기가 많았다.

"애들아."

달그락.

"아빠 목뒤가 서늘해."

그들은 지오의 옷깃 안쪽으로 꾸물꾸물 들어가 둥지를 틀고 있었다.

목의 셔츠 깃 안쪽으로, 아주 살짝 틈이 벌어진 소매 안쪽으로, 바지며 웃옷이며 할 것 없이 공간만 있으면 그 안에 물새들이 끼어 있었다.

'안 불편한가.'

작은 물풍선으로 비유를 하자니 옷 안쪽에 제 형태까지 구겨가며 자리한 녀석들의 모습은 좀처럼 풍선이나 새라고 할 수도 없었다.

최소한의 둥근 모습을 한 채로 꾸깃꾸깃해진 꼴에 지오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

웃기니까 봐준다.

"...부모인 나를 대상으로 하는 일이라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끼어 있는 걸 좋아하네. 아니면 숨어 있는 걸 좋아하는 건가."

물새는 무리로 뭉쳐 다니는 습성이 있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어딘가에 고여 있는 것을 선호했다.

가끔 오두막 밖으로 나가면 비도 오지 않았는데 보이는 물웅덩이에 종종 놀랐다.

'평범한 물웅덩이랑은 확실히 달라서 금방 알아차릴 수 있기는 해.'

그들이 모인 웅덩이는 희미한 푸른빛이 감돌았고, 이상할 정도로 투명하며, 그 안에 여러 잡동사니가 굴러다녔다.

평소 동그란 새 형태로 뭉쳐져 있는 걸 떠올렸을 때 점성이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걸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했다.

"겉보기엔 그냥 물인데 말이야."

파스슥.

"계속 소란스럽게 굴면 빨대를 꽂아 쭉 빨아버리는 수가 있단다."

부스럭, 부스럭.

"농담이었다, 안 마셔. 내가 생각해도 무서운 말이었군."

살아 있는 물이라니, 그런 걸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는가.

"산 채로 무언가를 먹는 것도, 물감을 마시는 것도, 내가 물감으로 낳은 자식을 섭취하는 것도 생리적으로 힘들지."

달그락?

"아버지가 목이 마른다면 제 한 몸 바칠 수 있다는 너희의 효심에 감동하기 이전에 나는 공포를 느낀다.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수백 가까이 불어난 자식 놈들과 의미 모를 대화를 나누는 지오는 지금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너희 집을 만들어야겠어."

처음에는 별생각이 없었는데, 집 근처에 살아 움직이는 물이 돌아다니다 보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다.

그냥 조용히 뭉쳐 있는 정도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종종 집에 들어와 사고를 치거나 물건을 훔쳐가기도 했다. 거기까지면 지오도 귀엽다며 넘어가겠으나, 이따금 개울물에도 숨어 있는 탓에….

"아까부터 말하지만 정말로 마시겠다는 게 아니야. 내가 실언을 했다, 애들아."

피슥.

"아니, 싫어. 이 아빠를 이상한 취향으로 매도하지 마라. 난 그냥 물이 마시고 싶었을 뿐이야."

정말로 물새들을 마셔버릴 뻔했다.

"네가 입 안에서 튀어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그래, 너, 지금 배에 아무것도 안 든 너 말이다."

그나마 물새를 구분하는 방법은 은은한 빛과 그 안의 잡동사니였는데, 자기 물건도 없이 개울물과 완전히 동화되니 구분이 안 되었다.

입에서 꾸물거리는 물을 느꼈을 때 지오는 심장이 철렁했다. 당사자들은 신경 쓰지 않다 못해 놀랍게도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지오에게 그런 무자비한 취향은 없었다.

"너희도 집이 있어야지."

달그락, 달각?

"너희만의 서식지가 필요해."

우리가 돈이 없니, 시간이 없니, 부지가 없니. 이 풍족하고 드넓은 세상에 더부살이가 웬 말이냐는 거다.

"그리고…."

개인적인 흥미도 있었다.

"여기도 조금씩 꾸며보려고."

탁탁, 딱!

"지금은 너무 단조로우니까."

오두막 하나에 광활한 숲, 그리고 아름다운 샘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했다.

"낚시터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오픈 월드 RPG의 인기가 괜히 천차만별인 게 아니다. 자고로 모든 콘텐츠에서 맵은 넓기만 해서 좋을 게 없고, 즐길 요소가 풍부해야 하는 법이었다.

"여기가 정말로 게임이라는 건 아니지만 한층 성장시켜 주어야 하는 것은 맞지. 결국 같은 맥락이라는 거다."

지금 지오가 하는 야외 활동은 기껏해야 채집과 농사 정도였다. 하나씩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늘려나가야 그림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고도 심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

“지금의 바깥은 이상하게 정이 안 들어서.”

브북.

“내가 기억하던 그때의 그 세상이 아니라서 그런가….”

북.

“거기서 살고 싶지는 않아.”

지오는 지금의 그림 속이 좋았다.

“백수 생활도 좋고.”

사실 이게 제일 좋았다.

“…이제 나와.”

달각! 달캌!

“그림 그리는 걸 구경하는 정도는 상관없다만 너희가 계속 옷 안에 있으면 신경이 쓰인다. 지금도 내 셔츠가 터지려고 하고 있지, 가엾은 것.”

달그락….

“이 아빠가 나 좋자고 이러는 것 같니, 애들아. 이게 다 너희 집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렴.”

다행히도 물새들은 순순히 지오의 옷 바깥으로 나왔다.

“…….”

말을 하면 들을 줄 아는 자식들 덕분에 지오는 드디어 붓을 쥘 수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낚시를 한다면….”

커다란 호수가 좋겠다.

“호수로 하자.”

나무와 물이 완전히 닿아 있는 호수로 하자.

그 아래는 물고기가 살고 있을 것이다. 개울에서 흘러 들어온 작은 송사리도 있을 것이고, 밑바닥의 모래에 갇혀 몸을 숨긴 납작한 물고기도 있을 것이다.

“좋네.”

낚시를 할 수 있는 다리도 만들자.

커다란 호수 가운데를 잇는 나무다리가 있다. 색은 조금 연한가. 갓 지어 나온 식빵처럼 연하고 부드러운 색감이 좋겠다. 나무판자 사이로 호수의 물이 슬쩍 비쳐 보인다면 낮에는 햇빛에 반짝이겠지.

저녁의 광경은 어떨까.

“…….”

바람결에 흔들릴 때마다 수면이 은은한 초롱불로 빛날 것이다.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그 내부가 잘 보였으면 좋겠다. 그 깊은 호수 안쪽이 전부 보였으면 좋겠다.

어릴 때 불이 꺼진 방, 두툼한 이불 밑으로 숨어, 나만이 볼 수 있도록 소중하게 감상했던 형광 팔찌처럼 환하지만 은은한 빛일 것이다.

"…너희 기분에 따라 색이 변하는 것도 괜찮겠어."

바스락.

"상태가 좋은 날에는 황금색으로, 좋지 않은 날에는 빨간색으로, 슬프거나 우울한 날에는 파란색으로… 평범하게 평화로운 날에는 초록색으로."

파슥, 파스슥.

"너희는 성대가 없어서 울지 못하니까."

듣지 못한다면 볼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야 나도 너희와 이야기를 하지."

지오가 물새의 창조주이긴 했지만 그들을 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그러니 물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모습도 흐릿한 데다 성대가 없어 조용하니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괜히 내가 먹을 뻔했던 게 아니야. 이제 다시 그런 대참사는 없어야 한다.'

장난기 넘치고 수다스러운 성격만 아니라면 분명 지오는 이들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었다.

"……."

그건 조금 슬플 것 같았다.

"밤이 되면 놀러 갈게. 그때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

피슥.

"어두운 저녁에 그런 빛을 낸다면 내가 오두막에 있더라도 볼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러면 되겠다. 베란다에서 너희를 보고 있을 테니까 하고 싶은 말은 그때 전하면 되지."

피슥, 피슥.

"그래."

지오가 붓을 다시 움직였다.

"그렇게 하자."

그가 그린 호수는 밤을 품고 있었다.

"…마음에 들어."

호수의 색은 한 가지만이 아니었다.

물새는 뭉쳐 있기를 좋아하지만, 제 몸에 넣는 보물은 각기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전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밤마다 속삭이는 투정이나 자랑도 전부 다를 테니까.'

그래서 붓으로 그들의 빛무리를 하나하나 올려두었다.

"꼭 점묘화 같네."

가까이서 보면 너희 중 누가 힘들고 아픈지, 또 즐겁고 행복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멀리서 보면 너희 전체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또 내가 언제 찾아가서 달래고 대화해야 할지 알 수 있겠지.

"좋네."

그건 마치 수면 위에 피어난 꽃밭처럼도 보였다. 직접 만든 물감으로 그려서인지 분명 물인데도 알 수 없는 싱그러움이 느껴졌다.

“좋아.”

아니면 반딧불이나, 이곳을 돌아다니는 햇살과 달빛 닮은 숲나비라든가.

어쩌면 유리창에 비친 투명한 조명의 반짝거림을 닮았을 수도 있었다.

“…….”

지오가 그들의 감정을 전부 그려냈을 때, 호수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좋은 것 같아.”

상상 속의 무언가를 현실로 끌어내는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 호수는 오두막과 조금 멀리 떨어진, 샘물과도 확실히 떨어진 곳에 자리할 것이다. 호수의 경계면에 바짝 맞닿은 나무들은 여전히 그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겠지.

“낮에는 푸른색일 거야.”

물을 뜨면 마치 하늘을 담은 것처럼 청명하고, 그 안은 바다처럼 시린 청색에, 햇살이 닿을 때 반짝이는 윤슬은 마치 하얀색처럼 보일 것이다.

거기에 이 많은 물새들이 숨어서 움직이다 가끔 심심하면 고개를 내밀고 장난을 치지 않을까.

“밤에는 너희들 마음대로 반짝이면서….”

안개로 만든 물처럼 반짝이어라.

“산란하는 거지.”

작은 바람결에도 까르륵 웃어대는 갓난아이처럼, 너희들은 잔뜩 빛을 낼 것이다.

그걸 상상하니 기분이 참 좋아졌다.

“…….”

톡.

캔버스를 치니, 이내 그림이 사라졌다.

기분 탓인지 저 멀리에서 물 내음이 흘러왔다. 맡기만 해도 당장 이끼에 몸을 뉘고 잠에 빠지고 싶을 만큼 은은한 향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물에서 향이 난다니, 흰 나무 샘물과 비슷한 느낌인가.’

그 향기를 맡은 어깨 위의 새가 들썩이고, 캔버스에 앉은 새가 파닥거린다.

파드드득—!

포르릉, 포릉!

파스스스스슥—.

달칵, 달칵!

찰박…!

전등에 매달렸던 수많은 새가 열어둔 창문 사이로 날아갔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철새처럼 활기찬 날갯짓은, 마치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지나간 것처럼 시원해서….

“…….”

역시 마음에 들었다.

물새들도 그럴 것이다.

오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2)

제12화

“완전히 굳었네.”

지오는 오두막 마당에 말려두었던 망둥 열매를 집어 들었다.

“…게다가 노란색도 아니고….”

번들번들한 금속 광택이 감도는 반짝임은 정말 황금과도 같은 색을 냈다.

크기도 그렇고 무게도, 형태도 그렇고, 꼭 못생긴 사금 같았다.

“내가 대체 언제부터 연금술사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지.”

통통하고 과즙 많던 빨간 열매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 신기했다.

“햇빛이랑도 색감이 비슷한가.”

가루로 낼 수 있을 만큼 딱딱하게 굳은 열매는 음식처럼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이것을 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지오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말린 열매를 모두 유리병 안에 담았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온 지오는 오랜만에 시스템의 도움을 받았다.

“피 경단 만드는 방법 알려줄 박학다식한 친구 구합니다.”

연단법: 바짝 말린 열매로 가루를 내어 루루푸의 즙과 함께 섞어 만든 반죽으로 경단을 만들어 어두운 곳에 일주일 이상 건조하면 출혈과 그 회복에 좋은 약이 된다.

“그래, 여기 그 박학다식한 친구가 있었군.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다.”

오늘의 콘텐츠.

출혈 회복에 좋은 피 경단 만들기.

“따란.”

생산적인 작업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었다.

만들고 키우는 것을 좋아하는 지오에게 이런 일들은 전혀 번거롭지 않았다.

‘유유자적 햇볕이 들어오는 오두막에서 조물조물 경단 만들기라니.’

정확히 취향을 저격당했다. 지오는 재료를 들고 작업실로 향했다.

“그림을 그릴 건 아니지만 작업하기에 이만한 곳이 없지.”

작업실이 워낙 넓은 만큼 물감만 잘 피한다면 충분히 작업대를 활용할 수 있었다. 지오는 미리 깨끗이 해두었던 작업대 위에 재료를 전부 올려두었다.

“…….”

손을 씻고 온 지오가 머뭇거렸다.

“…안료 만들던 것처럼 일단 가루를 내면 되나? 이건 미술 재료만 만져본 미술 교사의 편협한 사고방식인 걸까? 하지만 말이 ‘말린 과일’이지 거의 광물만큼이나 딱딱한데….”

적당한 패닉에 휩싸인 지오는 저도 모르게 말린 열매를 만지작거렸다. 놀랍게도 심신에 안정이 찾아왔다.

“따듯하다.”

연일 날이 맑은 숲은 언제나 햇볕이 잘 들어왔다. 포근한 색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잘 마른 망둥 열매에서도 햇살의 따스함이 느껴졌다.

단순히 피부만 뜨끈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안 핏줄까지 스며드는 은은한 열감이 있었다.

“이게 바로 햇볕에 말린 과일이 가진 힘…. 굉장하군.”

그 기운을 받은 심장이 마치 나른한 오후, 낮잠을 자던 때처럼 느긋하고 선명하게 뛰기 시작했다. 햇살 냄새 가득 머금은 이불에서 뒹구는 듯 온화한 감상이 들었다.

“…….”

탕—!!

지오가 망치를 내리쳤다.

“생각보다 더 단단한데.”

쾅, 콰직!

“다음부터는 이렇게 통으로 말리지 말고….”

콰드득….

“미리 갈아둔 다음에 말려야 하나.”

뚜둑, 툭.

“하지만 그럼 이런 식으로 과즙을 통째로 가둬두긴 힘들 텐데.”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광물만큼 단단했던 열매가 부서졌다.

“…….”

이 정도면 됐겠지.

‘사발에 넣고 갈자.’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보석이니 껍질이니, 온갖 단단한 것을 이용해 안료를 만들어내는 지오였다. 당연히 그만큼 사발에 흠집이 나거나 깨지기도 했는데, 그런 걸 대비해 미리 여러 사발을 만들어 두었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깨끗한 유리 사발을 가져온 지오가 열매를 빻기 시작했다.

드득, 드드득.

“아니 이 무슨 단단함….”

잘게 쪼갰음에도 ‘이게 맞나?’ 싶은 소리가 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오 자신이 연금술사로 각성한 게 맞는 듯했다.

‘나중에 맷돌도 만들어야 하나.’

이 정신 나간 단단함으로 미루어봤을 때 어쩌면 너무 오래 말린 것일지도 몰랐다.

“숲의 재료는 상하지 않는다고 방심한 걸지도 모르겠어.”

이 숲의 특징 중 하나는 식재료며 작물이며 모두 말라 죽거나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요리를 해도 마찬가지였다. 음식에 절대 곰팡이가 피지 않는 세상이라니, 모든 요리사의 로망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상태가 무한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열매로 확실하게 알았다. 오래 방치해 둔 망둥 열매는 상하지는 않아도 그 상태로 계속 건조되어 지나치게 딱딱해져 있었다.

“…….”

오히려 그래서 더 따듯한 기운을 품게 된 건가?

‘…이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겠는데. 어떤 방식을 고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직접 실행을 해봐야 알겠어.’

일반적인 열매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스한 온기가 말린 열매에서 느껴졌다.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마른 열매였다는 걸 떠올려 보면, 확실히 이 열매만의 특성이 있는 듯했다.

아무튼 웃기고 좋았다. 이제 지오는 어디 가서 금을 연성해 봤다고 말할 수 있었다.

“이 정도면 됐지.”

부스스….

수분기 있는 가루다.

“꼭 눈 같네.”

그중에서도 잘 뭉쳐지는 눈 같다.

분명 더 이상 이럴 수는 없다 싶을 만큼 강하게 건조되었는데, 이 미묘한 습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사실은 습기라곤 전혀 없는데 묘하게 진득한 포슬함에 지오가 착각하고 있는 걸지도 몰랐다.

“…음.”

슬쩍 가루를 맛보니, 몸이 화해지는 기분이 들며 혀에 달콤함이 퍼졌다.

“…….”

지오가 눈을 두 번 깜박였다.

“…제빵할 때 같이 넣으면 맛있겠다.”

과거 설탕이 귀했던 시절, 서민들은 값비싼 설탕이나 향이 강한 꿀 대신 길가에 돌아다니는 밤을 가루로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그 고소함과 은은한 단맛은 여러 음식과도 잘 어울려 크레페를 만들기도 했다던데.

“나라고 못 할 건 없지.”

햇살에 완전히 푹 익은 망둥 열매의 가루는 기존의 새콤함은 거의 사라지고, 오로지 말린 과일 특유의 녹진한 단맛만이 남아 있었다.

그 단맛은 매우 진했지만 곡식이나 달걀처럼 담백한 맛도 느껴졌다. 막 딴 망둥 열매를 먹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라 ‘이거 혹시 햇볕의 맛인가’ 싶을 정도였다.

“과일 특유의 맛이 강해 식사에 쓰긴 어려울지 몰라도, 생크림이나 리코타 치즈를 올린 크레페나 마들렌같이 달콤한 제

과에 어울리겠어. 망둥 열매의 시원한 레몬 향과도 잘 맞겠는데.”

씻을 때도, 먹을 때도, 잘 때도 먹을 것을 생각해야 진정한 돼지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오는 돼지가 맞았다.

“미리미리 말려 둬야겠네.”

열매 과육으로 꽉 찬 망둥 열매는 그 이상으로 수분이 많았다. 거봉만 한 젤리를 말리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

‘이 가루를 요리에도 사용하고 싶다면….’

많은 단위로 미리 건조해 놓는 편이 현명할 것 같았다.

‘시간이 꽤 걸릴 테니.’

모든 열매를 가루로 만든 지오가 유리병을 들어 올렸다.

“실패할지 모르니까 대부분은 담아놓고 시도하자. 사람은 언제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해. 그게 바로 장수의 지름길이지.”

그는 문구점에서 파는 구슬보다도 작은 구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가루만 남겨두었다.

망둥 열매 가루를 전부 정리한 지오는 그 옆의 병을 들어 올렸다. 안에서 무언가가 투명한 은하수와 같이 깊이 있게 찰랑거렸다.

“…….”

예전에 만들어둔, 샘터의 꽃인 루루푸의 즙이었다.

“…당연히 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유리병 안에 담긴 루루푸의 즙은 어딘가 그것이 자라난 샘물과 닮아 있었다.

햇살을 담은 물과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따듯한 달빛을 담았다고 해야 할까.

그 몸에 한평생 담아왔던 빛을 그대로 물질화하여 자신의 피로 만든 루루푸의 즙은, 단순히 글리터가 들어간 물 정도로는 표현하기 힘들었다.

‘…정말 은하수와 비슷하게 생겼어. 흰 나무 샘터의 얕은 물 위로 은하수가 비치면 이런 느낌일까.’

워낙 보는 맛이 있는 탓일까. 한참이나 그것을 응시하던 지오가 이내 중얼거렸다.

“멋지네.”

지오는 루루푸의 즙을 잘 갈린 가루가 가득한 막사 위로 떨궜다.

몇 방울 떨어트리지도 않았는데 가루는 어느새 푹 젖어 짙은 황금빛을 띠었다. 루루푸 특유의 수분감이 느껴지는 시원한 푸르름과 어우러진 가루는 묘하게 서늘한 부분이 있었다.

“…물에 젖은 황금 가루 같네.”

조금 고민하던 지오가 가루를 조물조물 누르다, 곧이어 손으로 가져와 살살 굴렸다. 시도가 소심했던 탓에 매우 작았지만 어쨌든 경단이 완성되었다.

“…….”

그건 마치 진짜 황금으로 만든 구슬 같았다.

“……?”

이 정도면 피 경단이 아니라 금 경단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아무튼.”

나름 가루의 수분감과 즙의 촉촉함에 대한 감을 잡은 지오가 차례로 경단을 만들어 나갔다.

평소 집에서 수제비 찢어 먹고 꿀떡 빚어 먹던 경험 덕분인지 꽤 괜찮은 경단들이 나왔다. 지오는 총 15개의 경단을 만들 수 있었다.

“.......”

공들여 갈아두었던 망둥 열매 가루가 모두 소진된 것에 지오는 잠시 허망함을 느꼈다. 인생이 썼다. 이 안에 삶의 묘리가 있었다.

“...그래도 즙은 남았고.”

가루 자체가 워낙 수분감이 있다 보니 어이없을 정도로 잘 번지는 루루푸의 즙을 다 쓸 수가 없었다. 결국 반병은커녕 3분의 1 정도만을 소비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라고 고민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

“.......”

“어....”

지오는 작업실 창가에 앉아 있던 한 물새와 눈이 마주쳤고.

“어 잠깐.”

달각 달각 달각!!

“아니.”

철퍼억—!!

루루푸의 즙을 스틸당했다.

“.......”

이게 뭐지.

물새가 제 몸을 한껏 부풀려 커다란 유리병을 온몸으로 감싸 막고 있는 모습.

“......??”

마치 게임 속에서나 나올 법한 슬라임과도 같은 그 탐욕스러운 형상에 지오는 당황하고 말았다.

“그걸 어디에 쓰려고.”

그 짜리몽땅한 몸으로 제 3배는 되는 병을 집어삼킨 꼴이 재밌기는 한데, 진짜 왜 이러는지가 궁금했다.

“다 삼키지도 못하면서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적극성을 보였을까.”

달그락....

“고집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 네 몸집보다 유리병이 더 크다고 말하는 거다.”

달그락!

“이거 삐져나온 병 보이나? 보여? 내가 선언하는데 너에겐 돼지의 자질이 있어.”

딸!! 깍!!

“이렇게나 선명한 딸깍이라니 신박한 행위 예술이군. 너는 내 자식이 맞구나.”

주로 아무렇지도 않게 골 때린다는 점이 그랬다. 요즘 세상은 물감으로도 유전이 되나 보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지?”

물새가 저걸 쓸 일이 뭐가 있나 싶었는데, 물새는 보란 듯이 유리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물새가 병 모양으로 구겨졌다.

“어?”

그렇게 물새는 루루푸의 즙과 합체했다.

“이게 뭔….”

“꾸루룩.”

“말했어?”

“꾸룩.”

“소리를 내?”

진화했어?

“…….”

역시 넌 내 자식이 맞다.

‘예상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군.’

지오가 병을 거꾸로 들고 탈탈 털자, 자존심인지 뭔지 모를 이유로 어떻게든 끈덕지게 붙어 있으려던 물새가 곧 주르륵 밀려 나왔다.

쮸릅, 뽕!

철벅—!

“…….”

“…….”

문방구 액체 괴물처럼 깜찍한 소리를 내며 떨어진 녀석은 루루푸의 즙을 한껏 머금어 어딘가 반짝이고 있었다.

“…….”

“꾸룩.”

말도 하고, 무엇보다.

“…따듯한데.”

온기가 느껴졌다.

“어떻게 된 거지.”

“꾸루룩.”

“황당하고 재밌긴 한데 이게 무슨 조화인지 잘 모르겠군. 역시 인생은 콘텐츠의 연속이야.”

“꾸룽.”

“루루푸의 즙을 마시면 동물이 진화하나? 내가 한입 했을 때는 아무 변화도 없었는데? 차별인가?”

어쩌면 물새가 지오의 손에서 태어난 종족이기에 가능한 변화일지도 몰랐다. 상식적으로 몸 전체가 물로 이루어진 녀석이 성대라도 가진 양 꾸룩거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으니 말이다.

“갑자기 크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몸에 안 좋은 변화인 건 아니겠지.”

“꾸르르르르르.”

“그렇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삶은 곧 달걀을 고민하던 지오가 이내 이 모든 상황을 긍정했다.

‘재밌으니까 됐다.’

그렇다. 사실 지오는 아무 생각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성공적으로 모든 고민을 마무리했다.

“말하고 날아다니는 물이라니 정말 대단해.”

“꾸룩?”

“몸의 색도 조금 달라진 것 같고….”

투명했던 몸이 황금 가루를 섞은 물처럼 연한 노란빛으로 변했다.

루루푸즙을 마신 물새는 평소 보석을 자주 품고 다니던 녀석인지, 그 반짝이는 몸 안에 노랗고 투명한 계열의 보석이 가득 들어 있었다. 루루푸 특유의 햇빛과 달빛을 닮은 반짝임과 잘 어울렸다.

“음.”

노란색 표지판의 가시성과 다름없는 이 색감은 KTX를 타고 지나가도 보이겠군.

화려하고 온화한 색감으로 가득한 녀석. 이건 확실히 다른 개체들과 구별점이 될 것 같았다.

“이 정도로 눈에 띄면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겠다.”

“꾸루루룰?”

“좋아하는 건가? 다행이군.”

곧 지오가 말했다.

“금쪽이….”

“…….”

“나도 말한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지. 이 아빠가 가끔 실언을 한다.”

지오는 정색하는 물을 처음 봤다.

나름 어버이 되는 몸이라지만 자식에게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는 거다. 금쪽이라는 작명 센스는 아무래도 못 할 것에 속했다.

“…….”

서씨 가문은 대대로 작명에 재능이 없었다. 그는 좀 더 뇌에 힘을 주고 진지하게 머리를 굴려보았다.

“그럼 허니… 는 어떠려나.”

“꾸룩?”

“달콤한 색이니까.”

따듯한 금빛을 머금은 새는 햇볕이나 달빛을 닮기도 했지만, 진한 향이 흘러나올 것 같은 꿀을 닮기도 했다.

지오는 조금 물컹하고 단단해진 금새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작명 센스는 딱 여기까지야.”

“꾸루룩.”

“이게 싫지 않다니 정말 자비롭구나.”

솔직히 이름이 꿀이라서 싫어할 줄 알았다.

'혹시 의미가 안 통해서 꿀이 뭔지 모르는 건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본인이 마음에 든다는데 뭐 어쩔 것인가.

지오는 다시 유리병 안으로 꾸물꾸물 들어가는 허니를 감상했다.

"귀엽군."

보고 있자니 힐링이 됐다.

"상자 안에 구겨진 고양이…."

"끄르릉."

"몸이 구겨지니 소리도 함께 구겨지는 건가? 더 귀여워."

"뀨릉."

"이게 바로 귀여움의 결정체."

기어이 유리병 안에 몸을 욱여넣은 허니에 지오는 유리병을 들었다. 묘하게 뜨뜻미지근한 유리병은 크기도 적당해서 꼭 핫팩 같았다.

'달콤한 향도 나고.'

따닥따닥 타오르는 모닥불을 보는 것처럼 정신이 멍해진다.

"흠."

가만히 달달한 향이 나는 따듯하고 예쁜 유리병을 보고 있자니 봄날 점심 먹고 수업을 들을 때와 같은 노곤함이 몰려와 나른해졌다.

먹고 자는 것은 돼지의 의무. 그리고 허니 역시 그런 듯 보였다.

"……."

지오는 유리병의 입구를 막지 않은 채로 제 겉옷 안에 넣었다.

"동의한 걸로 알겠어."

"끄릉."

둘은 그대로 퍼질러진 빨래처럼 늘어져 잠이 들었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2)"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3)

제13화

"……."

지오는 깨자마자 말했다.

"…과일차…."

따듯하고 달콤한 과일차를 원한다.

"청을 만들자."

그렇게 오늘의 콘텐츠가 정해졌다.

청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사랑을 담아 소독한 도구와 애정을 받으며 자란 과일, 그리고 그만큼의 설탕이면 충분했다.

'아 이 정도는 되어야 당뇨에 걸리겠구나 싶을 만큼의 아주 많은 설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의 과일은 청으로 만들 수 있었다. 잘 어울리기만 한다면 두 가지 이상의 과일을 사용해도 상관없었다.

"……."

지오가 첫 번째로 결정한 과일은 망둥 열매였다.

"하지만 이걸로는 너무 달기만 할 것 같은데."

과일의 풍미가 묻은 설탕물 그 자체인 과일청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맛이 있다면 첫째가 신맛이요, 둘째가 쓴맛이었다.

이미 설탕만으로도 달아서 혀가 아릴 텐데 거기에 또 단 과일이 들어가면 그건 과일 통조림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지오는 푹 익어 다디단 귤로 청을 담갔다가 그 사실을 배웠다.

"그것도 맛이 있기는 하지."

하지만 지금 지오가 원하는 것은 달콤함을 베이스로 신맛을 곁들인 씁쓸한 맛의 과일차였다.

그리 어려운 구성은 아니었다.

"망둥 열매와 곁들일 시고 쓴 과일이 필요하겠네."

현실에서 자주 해 먹던 조합은 주로 딸기와 레몬이었다.

딸기는 신맛이 아예 없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무르고 달다. 그에 반해 레몬은 과육이 시고 껍질이 씁쓸해서 그런 딸기의

일차원적인 단맛에 깊이를 주고는 했다.

이번에도 비슷했다.

“신맛이 있기는 해도 망둥 열매는 달콤한 편이니까.”

그리고 그 달콤함이 워낙 짙은 편이다 보니, 레몬처럼 시거나 유자처럼 떫은 과일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다채로운 맛의 과일청은 특히 따듯한 차로 마셨을 때 더욱 만족스러웠다.

“허니.”

“꾸르르.”

“가자.”

어깨에 황금색 물새를 얹은 지오는 당당하게 모험을 떠났다.

그는 어느새 바구니 안으로 자리를 옮긴 허니에게 말했다.

“레몬이나 유자 정도는 그냥 내가 그려서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탄생한 음식들은 전부 맛이 그럭저럭이라... 이렇게 직접 수확하는 게 더 좋아.”

“꾸루룩?”

“내가 만족하기에도 좋고, 앞으로 만들어질 과일청에도 좋지. 기왕이면 맛이 약한 과일보다는 이 숲에서 난 특이한 과일을 써보고 싶어서.”

지오는 그림을 그려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만들어진 식재나 음식은 하나같이 어딘가 밍밍했다.

정 입이 심심할 때 먹으면 나름 괜찮지만 각 잡고 만들 요리에 쓰고 싶지는 않았다. 마을의 큰손이셨던 할머니의 명예를 걸고, 지오는 판타지다운 과일청을 만들어 보이겠다며 다짐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역시 농사를 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

“꾹.”

“강원도산 햇감자인 내가 봤을 때 여기 흙이 농사짓기에 아주 적합해. 언제나 온화한 봄 날씨인데 그렇다고 바람이 안 불지도 않고, 비가 내린 적은 없지만 항시 흙이 촉촉한 데다 여기저기에 개울이 있으니까. 물 주기도 괜찮은 환경이지.”

“꾸우욱....”

“씨앗이나 모종이 없기는 한데, 그 부분은 유성운 씨에게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림 너머로 무언가를 받으려면 나도 대가를 줘야 하겠지만 그 정도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고....”

무제한 콘텐츠가 보장된 인간의 삶이란 이토록 양파와 같은 매력이 있었다. 아닌 것 같아도 일단 쥐어짜면 뭐든 할 게 나온다는 것이다.

“좋군.”

훌륭하다. 이런 자유로움이 바로 백수 생활의 가장 큰 행복 아니겠는가.

“강원도 산골의 기운이 가득한 내 손으로 직접 키운 작물이 맛이 없기는 힘들 거다. 그렇지?”

“꾸르르르르.”

“정말 전원생활을 하게 된 기분이네. 귀농한 것 같아. 내 진즉 이런 평화롭고 따사로운 삶을 살았어야 했거늘....”

태생이 강원도 산골 마을인 지오에겐 귀향일 수도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일을 돕는 걸 좋아했지. 어르신들이 워낙 다양하게 판을 벌여두신 덕분에 양봉도 해보고, 산삼도 캐보고, 멧돼지도 만나보고....”

“꾸륵?”

“밀렵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마주친 거고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서로 잘 헤어졌어. 그것도 산 돌아다니면서 버섯이랑 삼 채집하시는 분 덕분에 만나게 됐던 거 같은데.”

텃밭은 안 하는 사람이 없었고, 소소하게 닭이나 오리, 메추리를 키우는 사람도 있었다.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의 목장에서 받아 온 신선한 우유로 치즈를 만들거나 간단하게 꿀만 타 먹어도 즐거웠던 기억이 났다.

지오는 인간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해본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농사 하나 못 지을 리가 없지.”

할머니, 저를 지켜봐 주세요.

“우리 마을의 이름을 걸고 내 재능을 증명해 보이겠어.”

“꾸릉?”

“원래 이런 거엔 자기 이름 거는 거 아니라고 배웠다.”

정 못 할 것 같으면 집안 어른 이름을 팔라는 것이 할머니의 지론이셨다.

“물론 이럴 때 쓰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해석은 개인의 자유였다.

“그럼 무슨 씨앗을 부탁해 볼까….”

“꾸르?”

“…일단 감자와 고구마와 옥수수는 반드시 필요하지.”

지오의 말문이 텄다.

“괜히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구황 작물이 아니니 여차할 때를 대비해 키워두는 게 좋아. 그리고 무도 키웠으면 해. 특히 아직 새싹같이 여린 무순을 뽑아다 밥과 장과 기름에 비벼 먹으면 그게 또 그렇게 맛있거든.”

“꾸륵, 꾸르르.”

“호박? 호박 좋지. 큼직하게 자라는 늙은 호박은 죽을 끓일 때 좋고, 작고 달콤한 단호박은 간단하게 삶아서 꿀 뿌려 먹으면 맛있고, 길쭉하고 통통한 애호박은 국 끓일 때 들어가면 적당히 고소해서 속이 든든해. 네가 뭘 좀 아는구나.”

이외에도 생각나는 건 많았다.

“상추라든지?”

“꿍꿍꿍….”

“의외로 괜찮아. 키우기도 쉽고, 잘 자란 이파리 뜯어서 밥이랑 장만 얹어서 먹어도 한 끼가 뚝딱 해결되거든. 아니면 청경채 같은 것도 맑은 국물에 끓여 먹을 때 좋고.”

“꾸루룩.”

“완두콩도 괜찮겠네. 아, 방울토마토… 이쪽도 마음에 들어. 모름지기 텃밭이라면 토마토 한 뿌리씩은 두고 키워야 하는 법이다.”

거기까지 말한 지오는 제 손에 들린 바구니를 내려다보았다.

“…….”

“꾸르.”

“아하.”

바구니 안에 엎질러진 액체 괴물처럼 퍼져 있는 허니가 보였다.

“그래.”

귀여우니 됐다.

허니는 주로 보석을 품는 새였다. 진한 꿀물이 퍼진 듯 황금빛 액체가 찰랑거리는 바구니 안에 가득 들어 있는 보석이 꽤 보는 맛이 있었다. 같이 있으면 심심하지는 않을 듯했다.

앞으로의 농사 계획을 떠들던 지오는 곧 어느 나무 앞에 멈춰 섰다.

“아….”

새까만 나무.

흑요석으로 이루어진 나무였다.

“이걸 먼저 찾게 됐네.”

별꽃나무

살아 있는 흑요석 나무. 자신의 몸에 비추어진 별빛을 흡수하며 생장한다. 별꽃나무의 꽃은 그동안 흡수한 빛과 흑요석 찌꺼기로 새벽마다 피어나며, 이 나무의 꽃은 화상과 동상 치료에 효과적이다. 나무의 수액과 껍질은 주로 예술 작품의 재료로 사용된다.

연단법: 꽃이 피기 직전의 봉오리는 동상에, 완전히 만개한 꽃은 화상에 좋다. 끓는 물에 물러질 때까지 익힌 다음 도롱도롱잎의 진액에 열흘간 담그면 사용이 가능하다. 위의 과정 없이 꽃을 섭취하면 화상과 동상에 걸리므로 주의하자.

“…….”

자동적으로 나타난 설명을 바라보던 지오가 눈을 두 번 깜빡였다.

“저번에 흑요석 물감을 너무 많이 썼던가.”

물새들의 서식지를 만드는 과정에 흑요석 가루가 상당히 소모되었다. 물이나 유리처럼 투명한 질감을 내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재료인데, 이번 기회에 채취해 가도 좋을 것이었다.

지오는 바구니 속 끌과 망치를 찾았다. 채집이라는 단어와 영 어울리지 않는 도구였지만, 별꽃나무를 채취하는 데에는 또 이만한 도우미가 없었다.

“일어나렴 아들. 너의 이런 게으른 모습이 아주 깜찍하긴 하지만 아빠 일해야 한다.”

“꾸르르륵.”

“이건 네 취향의 물건도 아니잖아. 이리 줘. 옳지.”

도구를 붙잡고 장난치는 허니를 살살 달래 물건을 되찾은 지오는, 이내 바구니를 땅에 내려놓고 흑요석 나무에 다가갔다. 그는 흑요석 나무의 가지를 만지며 온도와 습기를 확인했다.

살아 있음을 증명하듯 미약한 온기와, 그 사이로 피처럼 흘러가는 수액이 느껴졌다.

“아마도….”

지오는 그중 죽어 있는 가지를 찾았다.

“이쪽인가.”

이상할 정도로 시린 기운이 감돌고, 반짝거리기보다는 그저 날카롭게 빛을 반사하고, 수분감이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단단한 가지.

지오는 그 경계를 만지작거리며 확인한 뒤 끌과 망치를 가까이 붙였다.

그러고는 톡, 톡.

"……."

쨍…!

"됐다."

흑요석 가지는 청명한 소리를 내며 쉽게 떨어져 나왔다.

아직 살아 있는 가지는 지금처럼 손쉽게 떼어낼 수 없었다. 지나치게 단단한 데다 안쪽으로는 끈적거리는 수액이 서로 엉겨 붙은 탓에 부수려 해도 잘 부서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단단한 흑요석은 물감을 만들 때도 불편하고.'

질척거리는 수액이 흐르는 산 가지는 깔끔한 가루로 만들기도 힘들었다. 날카로운 칼이나 화살촉을 만들거나 수액을 뽑아낼 목적이 아니라면 최대한 죽은 가지를 골라내는 게 좋았다.

"그편이 나무한테도 좋겠지."

이렇게 유리질의 조직을 띤 흑요석 나무라지만 엄연히 살아 있다. 훌륭한 약재가 되어줄 꽃이 피어나기도 하는 나무이니, 죽은 가지를 제거해 주는 건 나무의 입장에도 한결 편할 것이었다.

지오는 약해진 죽은 가지가 산산조각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긴 가지를 조각조각 나누었다. 밤하늘에 뜬 별의 시린 기운을 담은 흑요석 조각은 전부 바구니 속 허니의 배 속으로 들어갔다.

"네가 챙길 건가?"

"꾸르르르르르!"

"그래, 그러자."

미리 독립 자금이라도 챙기는 모양인가 싶지만, 아무튼 참 보석을 밝히는 새였다. 이 맑고 깨끗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탐욕의 화신 같으니.

'반짝이는 돌멩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군.'

저지르면 저질렀지 최소한 당하고 살지는 않겠구나. 지오는 다시 고개를 들어 별꽃나무를 보았다.

"……."

나무는 마치 거울처럼 햇볕이 선명하게 반사되는 짙은 검은색이었다.

눈이 떨어지는 설산에서나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시린 검은색의 흑요석은, 그것이 살아 있기 때문인지 꽃과 풀이 생생하게 피어난 봄의 환경과도 잘 어우러졌다. 이따금 그 위로 빛의 형상인 숲나비가 앉기도 했다.

뾰족하고 단단한 나무를 한참이나 감상하던 지오가 다시 발을 움직였다.

"…열매를 찾아야지."

"뀨륵."

"괜찮은 과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도 지오는 얼마 가지 않아 마음에 쏙 드는 열매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가뭄 단지

가뭄의 밭처럼 쩍쩍 갈라진 피부의 연갈색 껍질의 귤 속 열매. 수확해도 1년 가까이 썩지 않아 가뭄 철의 보존 식량으로 쓰인다. 불을 쬐거나 뜨거운 햇볕 아래 3일간 두면 꿀처럼 달콤해지지만, 생으로 먹을 시 시고 쓰다. 영양분이 풍부해 이로 만든 통조림이나 수프는 아사 직전의 사람도 살리는 훌륭한 영양제가 된다.

연단법: 가뭄 단지를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서 섭취한다.

"영양제라."

그 부분도 몹시 흥미롭지만.

"...시고 쓰다고?"

지오는 무엇보다 이 점에 이끌렸다.

'독이 있다는 말은 없으니 생으로 먹어도 별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시고 쓰면 별도로 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까.'

그는 용감하게 열매를 땄다.

크기는 딱 한국의 귤만 하고, 껍질은 그보다 조금 더 단단하지만 아무튼 형태는 비슷했다. 안의 알맹이 역시 꿀처럼 진한 노란색을 띠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전부 귤과 같았다.

킁킁, 새콤한 향을 맡은 지오가 망설임 없이 열매 하나를 씹었다.

"......."

꿀꺽.

지오는 의연하게 열매를 삼켰다.

"......."

"꾸, 꾸루... 꾸루루...."

"그래."

긴장한 허니의 반응에 지오가 특유의 무뚝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퇴화한 지 오래인 그의 얼굴 근육은 고작 혀에서 벌어진 이 정도 고난과 시련에 굴복하지 않았다.

"시고 쓰네."

왜 연단법이 고작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서 섭취한다' 뿐인지 알 것 같은 맛이었다.

'아마 역사 속 사약도 이것보다는 달콤했겠지.'

정신이 아찔해질 만큼 충격적인 자극이었다.

흐려져 가는 이성을 간신히 붙잡으며 식감은 귤보다 더 단단하고 과즙은 적은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 놀라운 맛에 비하면 대단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었다. 그는 한동안 심호흡을 했다.

"......."

하나 밉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지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 정도면 망둥 열매의 단맛에도 지지 않겠어."

한 바구니에 담긴 허니가 질색하며 빠져나왔다. 달콤한 허니가 감당하기엔 너무 충격적인 맛인 듯했다.

오

Chapter (13)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3)"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4)

제14화

과일청은 정말로 만들기 쉽다.

"준비가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과육이랑 설탕이랑 반반 섞어두고 묵히면 그게 과일청이야."

지오는 우정과 평화, 사랑과 애정을 담아 깨끗하게 소독된 유리병을 가져왔다.

너무 커서 병보다는 항아리에 가까웠지만 마을의 큰손이었던 할머니를 꼭 닮은 지오는 요리할 때 재료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었다. 이 정도 크기는 되어야 했다.

"자, 보자."

안이 꽉 찬 망둥 열매와 시고 쓴 향이 나는 가뭄 단지를 물에 깨끗하게 씻었다. 망둥 열매의 과육은 연한 젤리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즙이 많았고, 가뭄 단지는 아직 덜 익은 귤처럼 과즙이 적고 과육이 단단했다.

망둥 열매의 껍질은 녹아내릴 만큼 얇으므로 별도의 공정 없이 그저 4등분 해 썰었고, 가뭄 단지는 겉의 하얗고 반투명한 껍질까지 모두 벗겨 알맹이만 내놓았다.

"그리고...."

그냥 부으면 된다.

'즙이 많은 망둥 열매가 위로 오는 편이 좋겠네.'

유리통의 가장 밑 부분에는 가뭄 단지를 한층 쌓고, 그 위에 설탕을 살짝 뿌린다. 그다음 다시 망둥 열매를 올려둔 뒤 설탕을 넉넉하게 부어 층을 만들었다. 설탕의 층이 단단하게 형성되었다면 계속 반복하면 된다.

지오는 과육들 사이에 공기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꾹꾹 눌렀다.

"상하면 안 되니까."

이 숲의 음식은 상하거나 곰팡이가 피지 않았지만, 과육이 잘 섞이고 설탕물이 스며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과정은 필요했다. 지오는 빈틈없이 유리 항아리를 메웠다.

"다했다."

이대로 밀봉해서 서늘한 그늘에 며칠 보관하면 끝이었다.

"빨리 익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꿍꿍꿍."

“아직은 먹을 수 없어. 지금 꺼내 먹어봤자 설탕 묻은 과일일 뿐이야. 나중에 과육이 더 흐물흐물해지고 설탕물에 향기가 스며들면 그때 차로 마실 수 있다.”

“꾹.”

“요리는 기다림의 미학일 때도 있는 법이지.”

허니는 꿍꿍거리며 불만을 표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과일청이 완전히 무르익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 여긴 날씨가 훈훈하니까 설탕도 빨리 녹겠지. 즙도 순순히 나올 것이고.”

“꿍.”

“바닥에 눌어붙지 마, 먼지 묻어. 지지다. 이러다간 아주 우리 집 바닥 청소를 다 해주겠군. 꿀새에서 먼지새가 되겠어.”

성공적인 과일청을 위한 모험을 하고 온 터라 시간도 늦었고, 배도 고팠다. 언제 무르익을지 모를 과일청보다는 식사를 탐해야 할 때였다.

“음….”

정말 간단하게 가볼까.

“주먹밥을 하자.”

“꾹?”

“너도 쌀을 먹을 수 있니.”

“꾸르르르르르르.”

“이 투명한 몸에 먹은 게 어디로 소화되는 걸까….”

역시 허니에게는 돼지의 자질이 충만했다. 이 동그란 돼지새의 아비 되는 지오는 뿌듯함에 고개를 끄덕였다.

“꾸르르르!!”

“그래, 알겠어. 가자.”

이번에 지오가 만들 주먹밥은 진짜 말 그대로의 음식이었다.

갓 지은 밥에 소금 약간, 참기름 약간.

“밥은 미리 지어놔서 다행이네.”

화덕도 있는 오두막이지만 전기밥솥은 없었다. 애초에 전기라는 것이 없는 세상이니 어쩔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지오는 미리 가마솥을 그려 오두막 뒤편 주방에 올려둔 상태였다.

무거운 쇠뚜껑을 열자 새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좋네.”

고개를 끄덕이자, 갑작스레 주변을 떠돌던 김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

그때 옆에 있던 허니가 눈에 들어왔다.

“…….”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다만 왜인지 몸집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았다.

“꾸루루.”

“…설마 밥에서 피어오른 수분을 네가 다 먹고 있는 건가, 지금?”

“꿍.”

“네 몸에서 갓 지은 밥 냄새가 나. 대단히 고소한데 옆에 두고 자면 배가 고파 잠이 안 오겠어.”

“꾸룽.”

“피부 미용 삼아 얼굴에 쬐는 사람은 봤어도 증기 자체를 먹는 놈은 또 처음 보는군….”

이게 바로 ‘피부 말고 위장에 양보하세요’라는 건가.

“신박한데.”

루루푸의 즙 특유의 달콤한 향과 갓 지은 밥의 고소한 냄새가 함께 나고 있었다. 대체 무슨 향인지 도무지 정의할 수가 없었다.

지오는 싱숭생숭한 기분으로 일단 밥을 퍼 담았다. 아무리 놀라워도 생물이라면 응당 식사를 해야 했다.

“눌어붙은 누룽지로는 죽을 끓이자. 속이 굉장히 편한 음식이라 아무 때나 꺼내기 좋아. 이거 먹고 체했다는 사람은 못 봤다.”

“꾸르.”

“일단은 주먹밥 먼저 만들고, 나중에. 누룽지죽은 아침에 막 일어나서 비몽사몽일 때 먹으면 정말 개운하거든.”

주방으로 돌아온 지오는 고슬고슬한 쌀밥 위에 소금과 참기름을 살짝 뿌렸다. 기본적인 식재는 전부 구비되어 있는 오두막 찬장이기에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이거 다 쓰면 어떻게 되려나.’

처음 오두막을 확인했을 때처럼 자동으로 채워져도 재밌을 것 같고, 아니어도 어차피 그림을 그려 새로 만들면 되니 아무래도 좋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새로 채워지는 것 같지는 않았다.

지오는 뜨거운 밥을 젓가락으로 살살 휘저으며 간을 맞췄다.

“사실 이것만 해도 맛있지.”

갓 지은 쌀밥 특유의 매끈하고 고소한 맛과, 그 위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진한 참기름의 향, 거기다 소금으로 살짝 간을 잡은 주먹밥은 만들자마자 바로 먹으면 속이 그렇게 따듯할 수가 없었다.

“밥은 먹어야 하는데 대단한 거 해 먹기는 싫을 때 좋은 식사야.”

“꾸르르르.”

“너도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어떻게 먹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솥에서 나온 김으로는 좀 부족했나? 몸이 커진 것 같은데 이미 배가 부른 건 아니고?”

“꾸르륵.”

“그래, 그럼 먹어봐.”

물이 밥을 먹는 광경이라.

‘재밌을 것 같으니 내버려 두자.’

지오는 내심 다짐하며 주먹밥을 만들었다.

총 39개 정도.

“…….”

“…….”

“아빠 배고프다.”

“꾸르르륵….”

“배고파서 그래.”

지오는 대식가였다.

“가끔 이렇게 잔뜩 먹어줘야 속이 든든하단 말이지.”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식감을 위해 한번 구워주려고 해. 양면이 갈색으로 노릇노릇해진 주먹밥은 일단 식감도 좋고, 고소한 맛도 더 진해지거든.”

“꿍….”

“참기름 향이 더 강해져서 그런 건지 곡식이 타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맨 주먹밥을 먹는 것보다 이렇게 구워주는 편이 훨씬 맛있어.”

“꾹꾸웅.”

“하긴 밥만 먹으면 좀 질리려나.”

지오는 자신의 게으름이 빚어낸 상황에 한탄했다. 결국 이렇게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줄 알았지.

“미리 반찬을 좀 만들어둘 걸 그랬네. 그럼 밥만 먹어도 조금 더 다채로운 식사를 즐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끄우우웅….”

“호수에서 잡은 생선으로 탕을 만들어둬도 괜찮겠고, 이것저것 버무려서 젓갈을 담가도 좋을 것 같아. 고깃국 같은 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선 고기를 먹기가 좀 그렇지.”

물고기가 아닌 지상의 짐승을 사냥한다 쳤을 때 그 방법을 모를뿐더러, 지오의 취향에 맞춰 깜찍동글한 짐승들을 잡아먹기도 꺼림칙했다. 애초에 작고 동그란 그 몸에 살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도 유성운 씨에게 부탁을 해볼까.”

“꾸르르르르.”

“씨앗이랑 같이, 안 그래?”

지오는 화로에 충분히 달궈진 팬에 잘 빚어진 주먹밥을 올렸다. 치이익— 하는 소리와 함께 진한 참기름의 향과 타닥타닥 그을리는 곡식의 고소한 냄새가 함께 올라왔다.

‘단순하지만 좋은 조합이야.’

모든 주먹밥을 구워낸 지오가 식탁에 앉아 한 입 베어 물었다.

“…….”

역시 맛있었다.

‘…밥도 꼬들꼬들하게 잘되어서 그런가, 한번 구워준 덕분에 식감도 향도 좋아. 소금 간도 적당하게 잘되어서 물리지가 않네.’

여기에 들어간 쌀은 지오가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라 상태가 아주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그렇기에 재료의 힘을 기대하긴 조금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밥은 상당히 맛있었다.

“노동 뒤의 식사라 그런가.”

“꾸르르르르룽.”

“…….”

지오의 시야에 주먹밥 모양의 새가 들어왔다.

“오.”

아니, 그건 주먹밥을 삼킨 허니였다.

“천지신명이시여.”

“꾸루룩.”

“이걸 삼켰어.”

“꾸루루루웅.”

“네 몸보다 큰데도.”

지오는 3초 뒤에 납득했다.

“웃기네.”

“꾹.”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하나 더 먹을래? 여기서 더 커질 수도 있나.”

“꾸르르름.”

“그래, 아직 소화가 덜 됐겠지. 아무렴. 그래 보인다.”

“꾸르?”

“어, 아빠는 뭐든 다 알아.”

그렇게 평화로운 하루가 지나갔다.

* * *

“…….”

저벅….

초상화 앞의 유성운이 고개를 기울였다.

“요즘에는 또 눈을 안 뜨는군.”

자정부터 시작해 현재 시각인 오전 5시까지 기다려 보았지만 초상화가 눈을 뜨는 일은 없었다.

유성운이 제 턱을 손가락으로 쓸며 중얼거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이 없는 것 같은데.”

초상화는 가장 직원이 없는 시간대를 골라 눈을 뜨곤 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기는 날마다 달라졌다. 무례한 질문만 하지 않는다면 굳이 도망치지 않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그림 바깥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마 그는 저 초상화 속의 세상이 마음에 드는 것으로 보였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야.’

초상화 안쪽의 세상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든, 더럽고 복잡하게 얽힌 현대의 사회를 구경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었다. 최소한 유성운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자면….”

아마 ‘지오의 초상화’는 조용한 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했다.

“이런 것도 규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

유성운은 초상화 앞에 벽을 기대고 앉아, 수첩을 꺼내 들었다.

'기록을 해둬야지.'

그가 하는 일은 미지의 물건이나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유지하고, 또 관리하는 것이다. 그만큼 아는 지식이 방대한 유성운이 이렇게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상대는 '지오의 초상화'가 거의 처음이었다.

다행히도 '지오의 초상화'는 인간에게 비교적 호의적인 상대였다. 질문을 하면 대답해 주고, 호의에는 호의로 보답하는 모습은 꽤 신사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대충 정리가 되나."

덕분에 분석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예의를 중시

선물을 주는 것을 즐김

표정 변화가 없음(초상화이기 때문인가?)

인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그를 존중함

'...이 부분은 확실히 특이해.'

아직 지오의 정체에 대해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조심해야 했다. 인간형 몬스터가 그들의 태도를 불문하고 최고 위험 분자로 설정된 이유가 있었다.

'그 녀석들은 인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

11년 전, 처음으로 지구인에게 호의적인 인간형 몬스터가 목격되었다. 이를 토대로 여러 국가의 협회는 차원 문 너머의 주민들과 교류할 방법을 모색했다.

하지만 친목을 위해 문을 넘어갔던 사절단의 신체가 '건강한 기형'이 되어 돌아오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때의 인간형 몬스터는 그것을 자신의 호의로 표현한 것이고....'

인간형 몬스터가 보기에 사절단의 신체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 다리를 4개로 늘리거나 입을 여섯 갈래로 나누어버린 것이다.

그건 호의였으나 동시에 인간들에게는 재앙이었다. 몬스터는 몬스터인 이유가 있다는 말은 그때 생겨났다.

"다시 생각해도 무시무시하네."

그 사건 이후로 인간형 몬스터 역시 예외 없는 토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이 아무리 인간에게 호의를 가지더라도, 그게 어떤 방식으로, 또 언제쯤 끔찍한 실체를 드러낼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이 초상화도 마냥 경계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지. 지오는 일반적인 인간형 몬스터라고 하기엔 인간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 지구의 생물을 무조건적으로 증오하지도 않아.'

그는 인간에게 아주 호의적이지도 않지만 아주 적대적이지도 않다.

조금은 냉소적이며, 동시에 정중하고 배려가 넘친다. '지오의 초상화'는 마치 심각하게 무뚝뚝할 뿐인 평범한 인간 같았다.

"......"

톡.

유성운이 펜으로 수첩을 눌렀다.

"그런 부분이 더 이해가 안 가기는 하지."

지오는 일개 몬스터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큐레이터나 정원사가 아니고서야, 그래봤자 몬스터가 아니냐고 하겠지만....'

역시 확신은 없었다.

"그래, 정말 몬스터일 수도 있어."

자아를 가진 아이템일 수도 있고, 단지 저주를 받은 초상화일 수도, 아니면 저희로서는 상상도 못 할 만큼 높은 수준의 환각일 수도 있었다.

'던전이 생겨난 지 고작 3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라고 모든 걸 알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 당장 유성운의 최선은 이 초상화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뿐이었다.

"음...."

일단 궁금한 점이 있었다.

초상화의 눈은 인간의 것이 아닌 듯 아득했고, 이 세상의 인물 같지 않은 미모의 외관에, 창백하면서도 자극적인 색감이 묘한 비현실감을 주기는 했다.

'그 AI처럼 사무적인 말투나 변하지 않는 표정도 그런 압박감에 한몫을 더했을 거고.'

하지만.

"이러니저러니 해도, 역시 지오는 신사적이란 말이지."

앞서 정리한 규칙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지오는 지금까지의 행적만으로 봐서는 절대 위협적이거나 난폭한 상대가 아니었다. 인간을 향한 깊은 이해도에서 보이듯 확실히 인간들을 배려하며 존중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무식한 인간형 몬스터들과 다르게 인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고 있어.'

그건 다른 몬스터들에게선 볼 수 없는 깊은 이해도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자신의 호의를 표현하고 배려하는 거야.'

심지어 선물도 주지 않던가?

"......."

잠시 고민하던 유성운이 수첩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선하거나 예의 바른 상대를 선호(1:1의 규칙?)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껏 지오가 선물을 한 상대를 보자면, 전부 그가 빚을 졌거나 혹은 호의적으로 그를 대한 사람들뿐이었다.

인간의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초상화인 만큼 착하고 매너 있는 상대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었다.

'뭐,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문제는 왜 다른 직원들이 그렇게 기겁을 하면서 도망을 쳤냐는 건데...."

이곳의 직원은 전부 비사벌이 하나하나 고집해서 키우거나 이직시켜 온 사람들이었다. 비사벌의 수집벽이 물건뿐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도 나타난다는 건데, 자신의 직원에게 애착이 강한 비사벌이 멍청하거나 무능한 사람을 고르지는 않았다.

그러니 아무리 낮은 등급의 직원이더라도, 특히 자신의 사랑스러운 갤러리를 관리하는 직원을 비사벌이 대충 뽑았겠는가? 다들 강단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도 지오와 마주치자 겁을 먹고 압박당했지.”

유성운은 지오와 직접 마주친 적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유성운은 그저 그 뒤를 쫓으며 감시한 게 전부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정면으로 마주친 지오에게 무엇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인간을 압박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의 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게 따지자면 초상화 안쪽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걸 감사히 여겨야 하는 건가.’

유성운이 곤란한 낯으로 푹 한숨을 내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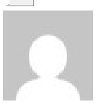
“비사벌 이 양반, 대체 뭘 가져온 거야….”

드디어 지구를 멸망시킬 셈인가.

5년 전에 끊은 담배가 혹하는 날이었다.

오

Chapter (14)
Prev
Nex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5)

제15화

"해상도의 문제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상도?"

의외로 초상화는 유성운의 의문에 쉽게 대답해 주었다.

"제가 바깥으로 나가면 그림에서 현실이 되는 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보는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영역에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꽤 오랜만에 눈을 뜬 지오는 거리낄 것 없다는 태도로 말을 이었다.

"저는 그림 바깥에서 거울을 본 적이 없으니 잘 모르겠지만, 이곳의 직원 대부분 저를 직접 보고 대화함에도 미지의 것을 대한다는 듯 아득해했습니다. 통성명까지 마친데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음도 공포가 더 진해질 뿐이라면…."

"인식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비유 잘하네.

'영혼의 격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니, 선생님을 했다면 꽤 어울렸겠어.'

지오가 한 치의 거짓 없이 진실된 추측을 말하고 있음을 모르는 유성운은, 이것이 단지 초상화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그럴싸한 비유라고 여겼다.

해상도라니 제법 이해가 갔다.

'그러고 보니 지오는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통성명을 해왔나.'

문득 든 의문에 유성운이 물었다.

"통성명을 중요시하는 겁니까?"

"이름을 교환함으로써 친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어…."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니. 유성운이 조금 당황스러운 낯으로 되물었다.

“혹시 더 친밀감을 느끼게 하려고 일부러 통성명을 해왔던 겁니까?”

“그건 인간으로서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알길 원한다면 자신을 먼저 소개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그런 점이 더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듯했다.

‘…눈앞에 두고도 인지에 문제가 생길 만큼 영혼이 거대한 존재가 이름을 묻는다니, 그런 걸로 친밀감을 느끼기는 정말 어려울 텐데 말이지.’

영적인 존재에게 진명은 언제나 거래의 품목이 된다. 어지간한 지방 사람이거나 어르신이 아니라면, 아니, 그런 사람들이라도 진명 교환의 위험성을 알았다.

‘게다가 온통 새까만 지오는 꼭 사신 같기도 해서 더 경계심이 들기도 할 것이고.’

물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라면 통용되는 법칙이다. 실제로 타인의 정보를 끌어낼 때 통성명은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고작 이름을 나누는 것만으로 약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번 느끼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오는 정말 자신을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었다.

‘인간을 기준으로 맞춰진 지금의 자연스러운 존중과 배려가 저런 착각에서 나오는 거라면, 가능한 지오가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발생할지 몰랐다.

“음… 그렇지.”

자신을 인간이라 생각 중이라면 이런저런 이야기는 묻기가 더 쉬웠다.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9살입니다.”

“…….”

하지만 이건 좀 예상 밖이었다.

“…29살?”

“예.”

“젊군요.”

“노안이라는 말을 자주 듣기는 했지만 상처가 되는 반응입니다.”

“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말하는 초상화에 나이가 있을 거라 생각해 물은 유성운 본인도 웃겼지만, 보기만 해도 아득해져 시선조차 마주칠 수 없는 초상화가 서른 살도 안 되었을 줄은 몰랐다.

‘이것도 본인의 착각이려나.’

지오가 자신을 29살의 평범한 인간으로 인식 중이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발언이었다. 실제 이 초상화가 존재해 온 시간이 얼마나 길든지 말이다.

유성운은 어색하게 웃었다.

“설마하니 저보다 어릴 줄은 몰랐거든요.”

“유성운 씨의 나이가 궁금합니다.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33살입니다.”

“20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되게 고마운 말인데.”

“동안이시군요.”

초상화가 특유의 무뚝뚝한 어조로 말을 붙였다.

“그렇다면 말을 편하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아... 그래도 되는 건가?”

“제가 반드시 경어를 사용해 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는 걸로 압니다.”

“그건 그렇지만.”

예의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 일부러 말을 높였는데, 딱히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는 모양이었다. 번지르르한 말보다는 정중한 행동에 더 무게를 두는 걸지도 몰랐다.

‘아무튼 내가 마음에 안 들지는 않은 모양이지.’

불쾌하거나 꺼려지는 상대에게 말을 놓으라고 하진 않을 테니 말이다.

“그럼 좀 편하게 할게.”

“좋으실 대로.”

“내내 높여 말하다가 편하게 하려니까 어색하네.”

“그런 것치고는 꽤 자연스럽게 말하고 계십니다.”

“아, 그건 뭐... 원래 반말이 익숙한 사람이라....”

큐레이터나 연구원을 하면서 계급 생활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사실 과거에 정원사를 할 때는 떠돌이 그 자체였다.

아무리 그래도 망나니처럼 예의범절 따위 다 무시하고 다닐 정도는 아니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반말이 편하긴 했다.

“그보다 노안이라니,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야?”

“종종 듣는 말이었습니다.”

“딱히 늙은 얼굴로는 안 보이는데. 누가 모함한 건 아니고?”

“20대라고 말하면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그건 이해가 되네.”

유성운이 납득했다.

“너는 분위기가 무거운 편이잖아. 20대는 아닌 것 같지.”

“그것도 자주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확실하네. 청년의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랬던 게 아닐까.”

이 초상화가 한때 인간이었다 그림이 되었는지 아니면 단지 인간의 기억을 가진 그림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네 나이대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면 역시 분위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게다가 노안이니 뭐니 하기에 앞서, 그냥 잘생겼잖아.”

“칭찬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잘생겼으면 느껴지는 완숙함은 전혀 상관이 없지.”

하얀 분이 묻어 나올 것처럼 매끈한 피부는 도자기 같았고, 그 안의 이목구비는 선이 짙으면서도 선명해 강한 인상을 주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저 평온한 것 같기도 한 표정도 그 무뚝뚝함과 잘 어울렸다.

“인기가 많았겠는걸.”

“연애 경험은 없습니다.”

“…….”

이런 이야기를 초상화에게 들을 줄은 몰랐다.

“…없어? 그 얼굴로?”

“고백받아 본 경험 역시 없습니다.”

“네가 한 적은?”

“관심이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상황이었는지 알 것 같네.”

유성운이 허탈하게 웃었다.

아까와 같은 맥락이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마음이 있어도 고백을 못 했거나, 아니면 이미 저 얼굴에 연인이 있을 거라 짐작하고 물러섰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보면 역시 한때 인간이었다가 초상화가 된 거려나.’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있는 듯 보이는 발언을 고려하자면 말이다.

“뭐어….”

하지만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을 정도는 아니겠지.

‘지난번에 도망치게 만든 적도 있고.’

유성운은 주제를 돌리기로 했다.

“그보다 요즘에는 바깥으로 잘 안 나오는 것 같네?”

“지금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밖으로 나왔을 때도 있었잖아.”

덕분에 큐레이터들 사이에선 아직까지도 흉흉한 괴담이 돌고 있었다. 비사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막음을 해둔 탓에 유성운도 괴담의 실체를 설명해 주지 못했고 말이다.

“그때는 거의 갤러리 바깥으로 나갈 것 같더니.”

“오해를 하게 만들었다면 죄송하지만 그때도 나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건 의외네. 행동반경이 계속 넓어져서 갤러리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건가 했거든.”

“제가 있는 장소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궁금했던 것뿐입니다.”

“지금은 1층까지 전부 확인을 했으니 나갈 필요가 없어진 건가.”

“그런 것도 있고….”

초상화가 유성운을 내려다보았다.

“원래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활동적인 모험을 지양하는 편인 데다, 여러분이 곤란해할 것 같아 가능한 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유였네. 그래서 안 나오고 있었던 거야? 너무 배려심 넘치는 판단이잖아.”

제발 다른 몬스터나 에고 웨폰이 지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배웠으면 할 정도였다.

‘인외에게 이런 배려를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지. 학회에 보고하게 되면 난리가 날걸.’

신기하다고 해야 하나, 대단하다고 해야 하나. 아직도 제대로 된 정체가 파악되지 않은 초상화였으나 정원사로서 이런 특별한 존재를 만나게 된 행운에는 감사하고 있었다.

이런 것도 전부 본인을 인간으로 생각하기에 가능한 배려겠지만….

“그럼 이제 유성운 씨의 이야기도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내 이야기?”

“지금까지는 제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서 말입니다.”

“아, 그러네.”

유성운이 납득했다.

‘이런 것도 1:1의 규칙이라고 볼 수 있으려나.’

참 공평한 것을 좋아하는 초상화였다. 하긴 지금까지 초상화의 이야기만 잔뜩 캐물었으니, 굳이 규칙이니 뭐니 하지 않아도 이건 당연한 흐름이었다.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

유성운이 눈을 깜박이며 꺼낼 주제를 골랐다.

“…일단 나는 큐레이터야. 이곳의 길드장 비사벌의 갤러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 여기엔 나를 제외하고도 많은 큐레이터들이 있어.”

“갤러리라고 한다면 작품을 팔기도 하는 겁니까?”

“가끔은 그래. 이 갤러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위험한 것들을 모아둔 장소라, 가끔 토벌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이곳의 작품을 사가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성운은 그런 고객들을 상대하며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도 한다.

“그렇기에 그 어떤 큐레이터도 설명할 수 없는 작품은 예외 없이 비매품으로 설정되어 있어. 어차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들만 모아둔 갤러리라고 해도, 그걸 사가서 고객님께 피해가 생기면 결국 우리 쪽으로 책임이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

“나 몰라라 하지는 않습니까?”

“모르는 척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단순한 법적 공방뿐만 아니라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일이 배로 복잡해져. 미리 ‘우리는 위험을 고지했고 손해 본 건 너희 탓이다’라는 서명을 해도… 고객님들의 불만을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게다가 여차하면 헌터로서 무력이 그리 훌륭하지 않은 큐레이터에게도 직접적인 보복이 가해질 수 있었다. 실제로 다른 회사에서는 암살자가 고용되어 몇몇 큐레이터가 죽어나간 적도 있었다.

“여기 길드장은 자기 직원들에게 끔찍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다른 곳의 큐레이터들은 빈번하게 보복을 당하고는 하지.”

“그곳의 회사에서는 따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겁니까?”

“굳이 왜 그런 짓을 하겠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넘쳐나는데. 기존의 직원을 보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새로 고용하는 값이 더 싸니까 그냥 두는 게 대부분이야.”

“냉정합니다.”

“세상이 그래.”

선한 것을 좋아하는 듯 보이는 몬스터의 입장에서는 환멸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도시 바깥에선 이미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거든. 보호해 줄 인력도 없고, 몬스터들은 꾸역꾸역 기어 나오고... 제대로 된 인프라가 없는 시골은 거의 자연 그 자체라서 말이지.”

“.......”

“도시와 시골은 거의 문명 수준이 한 세기 정도로 달라. 뭐, 그만큼 시골은 이런저런 구차한 일이나 억압을 당하지 않아도 되어서 오히려 좋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

초상화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피곤합니다.”

“내가 너무 떠들었나?”

“그림 속이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거기엔 나도 동의해.”

저 그림 안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더럽고 치사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보다야 훨씬 평온할 듯했다.

곧이어 초상화가 물었다.

“그렇다면 유성운 씨는 계속 큐레이터의 일을 맡아오신 겁니까?”

“아... 그건, 아니. 나는 고용된 지 몇 년 안 됐어.”

“실례가 안 된다면 이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런 것까지 말해줘도 되려나.

잠시 고민하던 유성운이 이내 순순히 털어놓았다.

“예전에는 연구원이었어.”

“의외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정원사였고. 사실 지금도 정원사이긴 하지.”

“풀과 꽃이 우거진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입니까?”

“아니, 우리는 근원을 관리해.”

이 세상에는 근원이 존재했다.

“어디까지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구에는 던전이라는 게 있거든. 이런저런 다양한 주제로 만들어진 몬스터들의 소굴인데....”

“.......”

“각자 다른 차원임이 분명한데도 별개의 던전에서 서로 같은 식생이 발견될 때가 있어. 우리는 그걸 ‘근원의 자식’이라고 부르지.”

불로 가득한 던전에서, 그리고 동굴로 이루어진 던전에서 같은 종류의 식물이 발견된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던전임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고, 일부 연구진은 그것이 근원에서 파생된 식물이기에 가능한 것이라

고 말했다.

“근원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도 자세히는 몰라.”

하지만 근원은 그런 존재였다. 모든 차원의 가장 아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나무로 따지자면 던전은 열매, 그 안의 몬스터는 열매 씨인 거야. 근원은 나무의 뿌리인 거고.”

“…….”

“즉 던전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 근원의 힘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어.”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너도 신기하지만 말이지.”

털털하게 웃은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정원사는 그런 근원에서 발생된 일을 분석하고, 관리하고, 공유해. 새로운 몬스터가 등장하면 그 녀석들의 이름과 힘을 분석하는 연구원들과도 비슷하지. 던전을 돌아다니며 지도를 새로 쓰는 지리 헌터와도 비슷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정원사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까?”

“음, 글쎄.”

유성운이 푸른 계열의 색을 띠는 눈을 깜박였다. 그것은 이내 조금 밝은 색을 띠었다.

“근원을 하나의 정원으로 본 것도 있고.”

“…….”

“…실제로도 ‘정원’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초상화가 물었다.

“정원이라.”

“응, 정원.”

“근원과는 다릅니까?”

“근원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

유성운은 충실히 답변했다.

“한 명의 사람을 근원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말하는 정원이란 그 사람의 혈관이나 손톱, 심장, 눈 같은 일부분을 말하는 거야.”

“…….”

“그건 굉장히 거대하고 그 수가 많아. 정원사 중 자질이 높은 극소수의 인원은 그런 정원을 하나씩 담당하게 되는데, 그게 꽤 힘든 일이라….”

유성운이 한숨처럼 웃었다.

“여럿 죽어나가지. 이래저래 여유를 부리기는 힘든 직업이야.”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입니까?”

“애초에 근원에게 선택당하면 반드시 일을 해야 하기도 하고, 그 일에 소홀하면 여러 던전의 난이도가 급상승해서 말이야.”

“무섭군요.”

"...네가 무섭다고 해도 감이 안 오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듯한 기분에 귓가를 긁은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난 아직 정원사야. 정원사가 되는 건 그 개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가 없는 일이라, 내가 지금 큐레이터의 일을 하고 있어도 정원사의 자격을 벗어던질 수는 없어."

"힘듭니까?"

"조금은?"

유성운이 어깨를 으쓱였다.

"그래도 할 만해."

눈을 감으면, 거대한 설산이 보인다. 빙하가 보인다. 그 웅장함은 사람을 홀린다.

"나만의 정원이라는 건 꽤 근사하거든."

"......."

곧이어 초상화가 대답했다.

"이해합니다."

"그래?"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날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초상화에게는 어땠을지는 모르겠다만, 최소한 정원사에게 있어선 꽤 즐거운 시간이었다.

오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6)

제16화

“이런.”

점잖은 척을 하듯 웃음을 꾹꾹 눌러 담아 튀어나온 감탄사.

비사벌이 물었다.

“사람들이 무서워할 것 같아서 나오지 않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요약하자면 틀리지도 않습니다.”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본인처럼 영혼의 격이 높은 존재가 무방비한 사람과 마주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 정도는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평범한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건 무슨 조화인가 싶긴 하지만....”

그에 비사벌이 뱀처럼 눈을 가늘게 굽히며 말했다.

“정말로 그가 초상화의 형태를 띤 인간형 몬스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역시 단순한 몬스터로 볼 수도 없겠습니다. 인간을 전혀 증오하지 않는군요.”

“.......”

“유성운 큐레이터도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할 정도의 존재라면 아마 근원과 연관된 자일 텐데, 아직 정식으로 보고를 올리지 않은 걸 보면 난생처음 보는 종류의 존재인가 봅니다.”

“예, 일단은.”

정원사인 유성운이 모르는 근원의 존재는 드물었다.

‘던전의 몬스터도 근원의 맥에서 태어난 존재지만, 그 까다로움에 있어서 근원의 자식과는 차원이 달라. 만약 지오가 난생처음 보는 종류의 근원의 자식이라면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해진다.’

일명 ‘근원의 자식’은 모든 던전에서 동일하게 발견될 수 있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몬스터처럼 단순한 토벌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들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대처 능력이 필요했는데, 유성운은 11살 때부터 정원사로서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런 유성운이 모르는 존재인 ‘지오의 초상화’는 명백한 경계의 대상이었다.

“아무튼 ‘근원의 자식’이라 쳐도 이례적인 존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몬스터와 근원의 자식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지구인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만약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몬스터는 인간을 증오했고, 근원의 자식은 인간에게 무관심했다.

어느 쪽이든 인간에게는 해로울 수밖에 없었다.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호의적인 경우는 드물죠.”

“과연 협회에서 탐낼 만하군요.”

“저번에도 물어봤지만, 그쪽으로 넘기실 겁니까?”

“생각 없습니다.”

비사벌의 소유욕은 상당한 편이라, 아주 잠시 검사를 맡기는 수준이더라도 제 것을 남의 손에 두는 일이 없었다. 아예 깔끔한 거래라면 모를까 그런 어중간한 일 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성운 큐레이터가 알아서 잘 관리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협회 연구소로 넘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 지오가 근원의 자식이라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그저 자신의 규칙대로 움직였다 주장하겠지만… 그게 인간들에겐 얼마나 큰 재앙이 될지 몰라요.”

조사는 필요했다.

“지금 수준으로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초상화의 이야기뿐입니다. 정확히 어떤 기술을 쓰는지, 그 영혼의 격이 얼마나 큰지, 근원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

“내가 유성운 씨를 고용할 때 부탁했던 일들을 기억합니까?”

유성운이 한숨처럼 대답했다.

“갤러리 작품의 분석과 유지, 그리고 관리였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협회의 연구 팀장이 아닙니다. ‘지오의 초상화’를 그만큼 잘 분석해 줄 수 있을 곳은 없어요.”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유성운 큐레이터도 알겠지만, 나는 무기를 가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난 작품을 원해요.”

비사벌이 가늘게 눈을 휘며 웃었다. 태생부터 남을 굽어보는 것이 익숙한 이의 자연스러운 오만이 배어났다.

“그러려고 이 길드를, 이 회사를 세웠지. 나에게는 예술가라면 모를까 헌터로서는 아주 조금의 자부심도 없습니다.”

“…….”

“그 어떤 콜렉터도 고흐의 자화상이 어떤 잡귀를 막아내고 어떤 좋은 꿈을 꾸게 해주는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기능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그림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할 뿐이고, 그 이야기를 내 손으로 온전히 지켜주고 싶을 뿐이죠.”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길드장님의 감정 스킬에서 벗어난 유일한 존재인 데다, 인간을 배려하고 존중한다 해도 그 격이 너무 높아요. 신성이 느껴지진 않아도 거의 사제가 모시는 신급이겠죠. 초상화가 주의한다고 해서 인간들이 마음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눈을 봤습니까?”

“…….”

뜬금없는 소리다.

“…예?”

“그 눈을 본 적이 있어요, 유성운 씨?”

“…초상화의 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본 적이 없나 보네요.”

“아니요,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말해보세요.”

비사벌은 손을 우아하게 휘적거렸다. 답변을 토해내길 부추기는 손짓마저 높으신 분의 고상함이 묻어났다.

“어땠나요?”

“…….”

유성운의 고민은 길지 않았다.

“…아득했죠.”

공포.

경외와 혐오, 분노와 슬픔, 기쁨과 희열, 절망, 외로움과 어지러움.

한순간으로는 도저히 채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존재를 향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감정 스킬이 있지만, 스킬을 쓰지 않고도 그 격이 선명하게 보인 탓에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차마 우주와 같은 식상한 단어로는 표현되지 않을 만큼, 아득했다.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제가 직접 닿아 있는 기분이었다.

“분명 검은색인 것 같은데 하얀색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오히려 밝게 느껴지기도 했고, 동공과 홍채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촘촘한 길이 보이고는 했습니다.”

그 안에 빗물이 있었다. 물줄기가 있었고, 개울이 있었고, 수맥이 있었다.

그건 마치 나무의 것처럼 촘촘했으며 또한 인간의 혈관처럼 섬세했다. 또한 거대하고 다채로워 차마 인간이 인지해 내지 못할 만큼 광활했다.

인간은 엿봐선 안 될 무언가를 훔쳐본 기분이 들 정도였다. 그처럼 커다란 것이 그 좁은 눈동자 안에 있었다.

“눈은 영혼의 창구라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괜찮은 감상입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제 감상이 불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잖습니까.”

비사벌이 아주 미숙한 아이의 실수를 감상하듯 웃었다.

유성운은 문득 그의 실제 나이를 떠올렸다. 그는 유성운을 가르칠 만한 연륜이 됐다.

“눈을 보라고 했더니, 작품만 감상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가진 직업과 취향 이전에 대화가 가능한 인간일 텐데.”

“…….”

“지오에게 자아가 있다면 그 또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가 재차 물었다.

“그의 눈을 본 적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의미로는, 아니요.”

“영혼의 격과 눈동자 속의 격류가 아닌, 지오라는 사람이 무슨 감정을 느끼고 어떤 시선으로 유성운 씨를 보는지 생각한 적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누가 그 거대한 존재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감히, 나처럼 작고 한미한 것 따위가.

“…그런 일은… 비사벌 길드장님 정도가 아니라면 아무도 못 할 겁니다.”

“정원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속 좁은 생각을 해서야 쓰나. 마음을 크게 먹으세요, 크게.”

“일개 정원사에게 기대하시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지오는 착한 사람입니다.”

“…….”

“아주 다정하죠.”

비사벌은 아이를 가르치듯 말을 이었다.

“번거로운 걸 꺼리면서도 미워하지 않아요. 자신이 불편해하는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면 그건 얼마나 다정한 사람일까요. 스스로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강요하지 않을 만큼 자비심도 넘칩니다.”

“후한 평가군요.”

“게다가 누군가를 해치는 걸 두려워해요.”

“…….”

의외의 이야기였다.

“…지오가 말입니까? 기껏해야 인간이 개미를 밟는 수준일 텐데.”

“그렇죠.”

“자기 앞에서 터져나간 벌레에 대한 징그러움이 아니라, 해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는 건가요?”

“다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화도 못 해보고 기껏해야 눈 한번 마주쳐 놓고서는….”

“이 정도 능력은 되어야 길드장 하죠. 눈 한번 마주쳐 본 걸로 여기까지 파악을 해야만.”

“…그건 그렇군요.”

비사벌은 별도의 무력 없이 오로지 감정 스킬 하나만으로 대한민국 3대 길드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그의 신체 능력이 평균 남성 수준인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눈과 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다.

‘그런 사람이니 나랑 보는 게 다르기는 하겠지. 아마 세상을 보는 법 자체가 다를 거다.’

유성운은 한숨을 삼키며 말했다.

“…이해했습니다. 다른 조치 없이 이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거겠죠?”

“잘 이해한 것 같아 기쁩니다. 아마 지오도 최선을 다해 인간을 해치지 않으려 할 테니 그가 화나지만 않게 부탁드립니

다. 원래 다정한 사람들이 화나면 더 무서운 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자고 하는 건데도….”

“개인이 화를 내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을뿐더러, 있다고 해도 초상화를 봉인하거나 없애는 수준의 일 처리일 게 뻔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아무리 팍팍해졌다고 해도 멀쩡히 잘 지내보려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취급할 수야 없죠.”

“…….”

유성운이 미묘한 낯으로 물었다.

“…사람…으로 보고 계신 겁니까? ‘지오의 초상화’를?”

“그럼 지금껏 유성운 큐레이터와 대화를 나눈 사람은 누굴까요?”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화하려는 의지를 가진, 자신을 사람으로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건….”

“그게 인간과 다를 게 뭐라고.”

비사벌은 노래하듯 말했다.

“위험한 인간은 지오의 초상화가 아니더라도 넘쳐납니다. 당장 대한민국에만 고위험도 능력을 가진 헌터가 5명이고, 그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들을 위험한 개 취급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지만 그거야 던전이 없던 100년 전에도 있던 일이었고요.”

“그렇게 방만하게 있다가는 후회할 만한 일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지오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위험한 헌터들도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초상화까지 탄압하겠어요.”

“탄압이 아니라 조사….”

“그러다 지오가 화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요?”

“…….”

“예의를 중시한다던 친구인데, 멋대로 속내를 파고들다 화를 사면 그게 더 큰 재앙입니다. 그저 지오의 좋은 대화 상대가 되어주세요.”

그가 벽 전체를 이루고 있는 창문 너머를 가리켰다.

“종종 바깥으로도 데려가고.”

“…진심이십니까?”

“유성운 씨가 뭘 걱정하는지 압니다.”

비사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알죠. 근원의 자식들은 굉장히 비밀스럽고 조심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그들은 인간에게 큰 관심이 없는 생태계 일부이죠. 자연 그 자체이며, 그렇기에 충분한 재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들은 그런 존재니까요.”

“…….”

“그리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가 태연하게 말했다.

“지오도 다를 것 없어요.”

“…예.”

“그에게 잘해주세요. 규칙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주고, 서로 유치한 갈등이 쌓이면 투덕거리면서 푸세요.”

“알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29살이라고 말했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서른조차 되지 못한 청년인데, 그래도 인생 선배로서 챙겨줘야지 않겠습니까.”

“…지오의 착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29살이 아닌데, 본인의 기억이 29살 청년에 맞춰져 있어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사실은 천 살이 훌쩍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원의 자식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

유성운이 한숨을 내쉬며 끄덕였다.

“그건 그렇죠.”

그는 정원사였다.

자신의 정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그만큼 애정을 퍼붓고, 또 자부심을 느낀다.

정원의 근간이 되어주는 근원과 관련된 존재인 지오다. 대처가 필요하다 말은 하지만 초상화 쪽에서 먼저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한 이쪽에서도 똑같이 신사적으로 대접해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기껏 수집상의 큐레이터로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우리 유성운 큐레이터의 마음 씀씀이야 내가 언제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징그러우니까 그만하죠. 아무튼, 그래서….”

유성운이 시계를 슬쩍 보며 물었다.

“제가 지오의 가이드가 되어주면 된다는 겁니까?”

“기왕이면 저희 길드도 견학시켜 주시고, 직원들도 소개해 주시고, 바깥으로 나가서 괜찮은 연극 있으면 관람시켜 주거나 먹을 것도 사주고 관광지도 안내해 주세요.”

“정말 가이드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직원들에게 소개해 주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애초에 직원들 쪽에서 먼저 거절할 겁니다. 지오도 소란스러운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오가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면 새벽에라도 회사나 바깥을 구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체 뭘 믿고….”

“내가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명한 미소다.

“내가, 봤다고.”

“…….”

비사벌은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

유성운은, 그 점을 믿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유성운 큐레이터.”

“혹시 사고가 일어나도 전 모르는 일인 겁니다.”

“그 정도야 내가 알아서 하지.”

“하여간 무슨 생각인지….”

무어라 투덜거리고 있지만, 유성운의 기분은 꽤 좋았다.

‘활동 범위를 늘려줄 수 있겠어.’

항상 초상화 안에만 있는 지오가 안 그래도 신경 쓰이던 차였다.

본인은 그 안이 더 편하고 좋다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출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주는 편이 지오의 마음도 더 편할 것이었다.

‘이렇게 소통이 원활한 근원의 자식은 처음이라 그런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괜히 이것저것 해주고 싶단 말이야….’

정원사의, 큐레이터의 입장에서 유성운은 기특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 거대한 격을 직접 마주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으로서 지오는 그저 말하는 초상화에 불과했다. 유성운은 그를 관리하는 입장이니 이런 감상도 아주 이상한 건 아니었다.

‘…간이 배 바깥으로 나온 감상인 건 맞겠지만. 언젠가 그 격을 제대로 마주했을 때 괜히 굳어 지오에게 불쾌감을 안겨주지 않도록 조심하자.’

길드 바깥으로 나온 유성운의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

붕어빵 가게.

“…이거 드문데.”

유성운이 기쁜 마음으로 붕어빵 리어카에 다가갔다.

“장사합니까?”

“아, 네, 하고 있어요.”

“붕어빵 10마리면 얼마죠?”

“5천 원이네요.”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리어카 주인은 무뚝뚝한 인상의 청년이었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겠다…. 여기 계속 옵니까?”

“단속 잡히기 전까지는 오겠죠.”

“흐음.”

어딘가 무뚝뚝한 어조가 조금은 지오를 떠올리게 했다.

“…….”

아, 그렇지.

“10개만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감사한데."

"뭐가 감사합니까?"

"요즘 붕어빵 하는 곳은 드무니까 그렇죠. 최근 들어 더 보기 힘들어졌고."

"아아…."

새로 붕어빵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듯해, 유성운은 대화를 이어갔다. 청년도 심심했는지 딱 끊기는 어조와 달리 살갑게 말을 붙여왔다.

"장사하기 힘들기는 하죠. 그렇다고 도시 바깥에서 붕어빵 장사를 해봤자 아무도 안 사가니까, 이렇게 틈틈이 들어와서 팔고 있습니다."

"오, 그럼 도시 바깥에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까?"

"도시 사람들 중에 누가 이런 장사를 하겠어요?"

청년이 어깨를 으쓱였다.

"대부분 사무직을 하거나 헌터로 활동하지 않나요."

"아무리 그래도 거리가 꽤 멀겠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대단하네요."

"붕어빵이 정겹다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몇몇 계셔서 아직까지는 할 만합니다. 제 동생도 이 근처에서 헌터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아예 이 근처에 집을 찾기는 역시 좀 비싸려나."

"아무래도 도시 집세 감당하긴 힘들죠. 시민권을 구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단기 허가는 쉽게 끊어주지 않습니까? 그건 허들이 낮다고 들었는데."

"허가는 받고 있습니다. 가끔 터미널 종료 시각까지 일을 끝내지 못할 때도 있어서… 그냥 숙소를 안 구하는 겁니다.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이래저래 이득 될 게 없으니까."

붕어빵 판을 뒤집은 청년이 말했다.

"게다가 집에 10살 된 동생도 있어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 그건 확실히… 돌아가야겠네. 혼자 뒀다가 마을에 몬스터라도 나오면 낭패니까요. 형이 있는 편이 든든하겠지."

"여동생도 짐꾼으로 일하고 있어서 돈만 여기서 버는 거지, 3일에 한 번은 집에 돌아와서 그다음 주에 나가고는 합니다. 지금은 여동생이 본가에 있어서 제가 일하러 나온 거고요."

"대단한데."

"이 근처는 잘 팔려서 좋습니다."

"그런가…."

유성운이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그럼 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마 초봄까지는 이어질 것 같은데… 아직 겨울이니. 날이 따듯해지면 그제야 또 다른 일을 찾겠죠."

"그래도 꽤 오래가겠네요. 종종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이 기계에서 붕어빵을 꺼내줬다. 갓 나온 붕어빵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고소한 향이 났다.

"따듯할 때 드세요."

"오, 고마워요."

유성운은 붕어빵을 들고 다시 회사로 향했다.

정확히는, 비사벌의 갤러리 쪽에 있을 '지오의 초상화' 앞으로 말이다.

"지오, 깨어 있나?"

"……."

"지오?"

다행히 지오는 금방 눈을 떴다.

"무슨 일이십니까?"

"역 앞에서 붕어빵을 팔길래 하나 사 왔지."

"하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 하나는 아니야. 좋아할까 싶어서 10개 정도 가져왔어."

"……."

눈을 두 번인가 깜박이던 초상화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붕어빵을 받아봅니다."

"너 붕어빵도 알아?"

"아직까지 붕어빵이 남아 있을지는 몰랐지만 말입니다."

"…그래?"

역시 지오는, 한국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존재인 듯했다.

'아니면 그 엇비슷한 차원의 존재였다던가…. 살지는 않았더라도 기억만 받았을 수도 있지.'

유성운이 붕어빵이 담긴 봉투를 뻗자 이내 그림 속으로 스며들었다.

"오… 말 그대로 그림이 됐네."

"선물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야. 입에 맞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길거리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거 다행이네."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차가운 인상이라 걱정했는데 말이다.

'인상이 좀 귀족적이라.'

지오는 손에 물 한번 닿아본 적 없는 천상 귀족인 것 같기도 했고,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를 위해 제작된 AI 공무원 같기도 했다.

표정만 봐도 무게가 느껴질 만큼 예리하고 묵직한 분위기의 지오가 과연 길거리 음식을 좋아할까 잠시 걱정하기도 했다. '감히 나에게 이런 것을 음식이라고 주는 거냐'며 경멸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음에 계란빵이나 타코야키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사볼까?"

"……."

"…지오?"

잠시 말이 없던 지오는, 이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곱게 매여진 하얀 봉지였다.

“…그건?”

“찻잎입니다.”

“차?”

“향이 좋은 꽃이 있어서, 말려 보았습니다.”

“…….”

“답례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그림 바깥으로, 지오의 손이 차 봉지와 함께 튀어나왔다.

“…이건 또 색다른데.”

“받으십시오.”

“어어, 음, 고마워.”

바스락.

제 손 위에 올려진 종이봉투 안에선 좋은 향이 흘러나왔다.

‘크림 같네.’

달콤한 커스터드나 우유 크림에서 날 법한 향기였다.

“…….”

기분이 조금 묘했다.

‘…매번 이렇게 답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규칙을 가진 근원의 입장에서는 무례하게 들리려나. 항상 주는 것에 비해 과하게 대접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애매하단 말이지.’

유성운은 코트 안쪽에 봉지를 넣고선 말했다.

“고마워, 오랜만에 차를 마셔 봐야겠네.”

“입에 맞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향은 굉장히 좋아. 감사히 마실게.”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어? 부탁?”

지오가 물었다.

“씨앗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씨앗?”

“밭에서 재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

대체 저 안에서 뭘 하고 지내는 걸까.

'밭이라니.'

문득 유성운은 초상화 안쪽의 풍경이 궁금했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6)"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7)

제17화

[숲나비의 꽃차] [등급: –]

운명의 수맥에 서식하는 숲나비의 시체에서 자라난 꽃을 말려 만든 차. 연한 푸른빛을 띠며 부드러운 크림 향이 일품이다. 숲의 주인인 지오가 직접 공정하여 인간의 신체도 받아들일 수 있다. 마시는 순간 혈관이 재생되어 큰 부상에 탁월하고, 세포를 재구성하여 가벼운 질병으로부터 항시 면역 상태가 된다.

[지속 기간: 6개월]

“…….”

감정을 마친 유성운이 입술을 꾹 다문 채로 얼굴을 쓸어 올렸다.

“…지오 이 자식….”

나한테 대체 뭘 준 거야.

“붕어빵 10개랑 바꿀 수 있는 차가 아니잖아, 이거.”

* * *

늘 생각해 왔던 거지만, ‘지오의 초상화’는 터무니없는 존재였다.

‘아직도 정체는 모른다.’

몬스터일지, 아이템일지, 혹은 비사벌과 유성운의 추측대로 근원의 자식일지.

‘하지만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는 데다… 나름대로 인간과 사회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런 인간들의 규칙에 몸소 굽혀주고 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웠다.

아마 세상에 다시는 이런 존재가 나타나지 않을 거다. 최소한 이 지구라는 협소한 차원에서는 말이다.

‘안목 좋기로 소문난 비사벌 길드장이 괜히 그만한 돈을 쏟은 게 아니라는 거겠지.’

그리고 그런 ‘지오의 초상화’가 요구한 것은….

“이거면 되나?”

씨앗이었다.

작물 씨앗.

“일단 되는 대로 모아봤는데.”

유성운이 어색하게 웃으며 품 안의 씨앗 봉투들을 보여주었다.

찻잎을 받고 그다음 날 새벽, 몇 시간 만에 최선을 다해 모은 것이다. 토마토, 옥수수, 감자, 고구마, 상추, 양배추, 오이, 완두, 호박, 고추, 당근, 무, 수박, 가지, 이외에도 등등....

“좀 더 제대로 된 씨앗을 구해주고 싶었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이 근처에 그런 종자를 파는 가게가 거의 없거든. 간신히 골목에 처박힌 허름한 가게에서 털어 왔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물론 마음에 듭니다. 가져온 양을 보니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가져온 것에 비해 마치 미안한 듯한 얼굴을 하고 계시군요.”

“그런 귀한 차를 받아놓고 고작 씨앗 정도로는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러지....”

유성운이 액자 너머로 씨앗 봉투를 우수수 넘겨주며 말했다.

“씨앗이 아주 싼 놈들이 아니라고 해도, 네가 나한테 준 차는 정도가 너무 심했잖아.”

“.......”

씨앗을 확인하던 지오가 물었다.

“씨앗이 아주 싸지 않습니까?”

“어? 어, 그렇지. 보통 네가 들고 있는 씨앗 한 봉투가 웬만한 외식비와 맞먹으니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까지 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

“...설마 씨앗이 쌀 거라고 생각해서 부탁했던 거야?”

“예.”

초상화는 여전히 무뚝뚝하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 낯이었지만, 그 검은 눈을 바라보고 있자니 지오가 미안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과연 비사벌이 말했던 대로 성정이 다정한 녀석이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의미 없는 버릇인지, 눈을 두 번 깜박인 지오가 말했다.

“실례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값이 나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뭘 사과하는 건지 모르겠네. 네가 나한테 준 차랑은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

인간을 향한 지오의 무던하고도 순수한 호의가 상당히 파괴적이라는 것은 잘 알겠다. 유성운이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네가 직접 만들었다는 것에서부터 그 정성의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데, 이런저런 효과까지 붙어서는...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마셔도 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귀한 선물이었어.”

일차적으로만 봤을 때도 지오가 준 차는 가치가 높았다. 귀신 들린 초상화가 직접 만든 차라고 하지 않은가.

‘지오의 정체가 인간형 몬스터이든 근원의 자식이든 희귀하다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죽은 사람 목숨도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효과까지....

“...네 호의에는 정말 감사하고 있어. 하지만....”

잠시 고민하던 유성운이 이내 말을 이었다.

“...조금 걱정이 되네. 네가 준 차는 내가 여유를 즐기면서 마실 예정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귀한 선물을 주지는 마.”

“.......”

“대부분의 인간들은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줄 모르거든.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릇이 크지 않아.”

일단 호의를 공포로 받아들일 확률이 가장 높았다. 어지간히 탐욕스럽거나 매사에 무던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런 식의 과분한 선물에 마냥 감사하기만 하긴 힘들었다.

‘분명 누군가는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패닉에 빠지겠지. 그렇다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이런 선물을 받는다고 해도 문제가 생긴다.’

아깝다고 생각은 하지만, 유성운이 봤을 때 지오가 차를 준 것은 아픈 곳을 치료하라는 것보단 차를 마시면서 즐기라는 의미가 강해 보였다.

근원의 규칙에 익숙한 유성운은 괜히 차를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 지오의 심기를 거스를 생각이 없었다.

“네가 선물한 찻잎이 너도 모르는 경매에 올라가거나 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치?”

“경매라니, 별것 아닌 차에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인간들은 무의미한 곳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듯이 굴었다.

“역시 그렇게 보이나.”

유성운이 난감하게 웃었다.

‘…자기 스스로 인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주제에 참 적나라한 몰이해잖아.’

하지만 깊게 고민하는 법이 없는 지오로서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

그의 시스템은 분명 피로 회복제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했고, 지오는 그걸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끽해야 비타민제 정도의 가치이니 유성운의 말이 호들갑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

“…….”

그런 지오의 무덤덤한 반응에 유성운은 ‘역시 인간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몬스터에게 금덩이는 돌덩이와 다르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음, 그러니까….”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너는 그저 차로서의 가치만 바라보며 선물을 해줬겠지만, 평범한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거든. 탐욕스러운 놈들의 눈이 돌아갈 만한 선물은 자제하는 게 좋겠어.”

설마 주인인 지오가 ‘숲나비의 꽃차’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모르진 않을 것이고. 애초에 본인이 ‘향이 좋아서 차로 만들었다’라고 했으니 정말 차 이외의 용도엔 관심이 없었을 거다.

그런 무심함은 분명 여느 근원의 존재들과 같았다.

‘몬스터도 그렇고, 근원의 자식들도 그렇고,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는 무지할 때가 많지. 지오가 아무리 인간의 생리를 잘 알고 있다 해도 인외의 것이 분명한 저런 소탈함을 보이는 것은… 확실히 변명할 여지가 없네.’

몬스터들에게는 별것 아닌 돌멩이도 인간들에게는 훌륭한 자원이 된다.

근원의 맥에서 태어난 존재들은 그런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인간들이 유난을 떤다고 표현할 때도 많았다.

“…뭐, 그렇지, 유난이라고 하면 나도 할 말이 없기는 한데….”

그냥 일어날지도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것뿐이었다.

“네가 아무런 의도 없이 호의로 주는 선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도 있어. 그렇잖아? 뭐랄까, 초상화가 주는 선물이고.”

"......."

"사실 그런 인간들의 욕심에 상처를 받기엔 네가 너무 단단해 보이지만… 생각 외로 집요한 사람들은 넘쳐나. 네 호의가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지오는 유성운을 응시했다.

'…아무 말도 안 하니 더 무서운데. 초상화 안에 있어서 위압감이 덜한 것일 텐데도 이 정도라는 건가. 이거 무섭네.'

초상화 속 지오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무기질적인 표정이 유성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비사벌은 '그 위압감에서 벗어나 지오 자체의 본질을 보아라'라고 했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난데없이 상공 50km 위에서 추락하게 된 일반인이 하늘의 풍경을 감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 역시 쉽진 않았다.

그만큼 '지오의 초상화'가 주는 시선의 무게는 굉장했다.

"…주제넘은 소리였나?"

지오는 특히 자아가 잘 구축된 데다 근원 속의 존재이니 스스로의 규칙도 확고할 것이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일개 인간 따위가 지껄이는 소리는 거슬릴지도 몰랐다.

'그렇다고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어. 문제가 될 여지를 가능한 없애두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정원사가 하는 일이 다 그렇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근원과 지구가 공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더욱이 '지오의 초상화'는 특별한 경우였으니 이런 부탁을 해야만 했다. 인간은 욕심에 쉬이 정체성을 버리는 존재들이니 말이다.

"......."

"아니요."

조금 서늘하고, 많이 무겁지만, 신사적이고 차분했다. 다행히도 초상화는 여전한 낯이었다.

"조언 감사합니다."

"…조언으로 들어줘서 오히려 고마워."

"솔직히 '별나다'라는 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림의 바깥은 제가 아는 세상과 다를 것입니다."

기묘하게 느껴질 만큼 정중한 음성으로 지오가 말을 이었다.

"번거로울 수도 있었을 텐데 저를 배려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똑 부러진 말투네…."

그런 부분이 더 인간 같지 않게 보인다는 걸 지오는 알까.

'본인은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말이야. 저 모순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몰라서 이러는 건지….'

그즈음 지오가 물었다.

"그런데, 씨앗은 어째서 비싼 겁니까?"

"…응? 아, 씨앗?"

주제가 전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잖아. 토마토든 상추든 뭐든, 일단 농작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루의 식사 정도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시장에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팔면 그건 그거대로 돈이 되어서 고기라든가 이런저런 생필품을 살 수도 있고…."

"……."

"보통 농사를 짓고 싶은 가정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정제된 씨앗이 아니라, 산 같은 곳에서 공짜로 찾을 수 있는 야생 씨앗을 더 선호하겠지. 아무튼 가게에서 파는 씨앗은 여러모로 비싼 편인 것 같아."

"그렇군요."

"음, 너처럼 자연과 가까이 살아가는 존재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네."

"아니요, 이해합니다."

"그럼 다행이고."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어쨌든 직접 씨앗이나 모종을 만들어 내려면 굉장히 번거롭고, 질도 떨어져. 그러니 따로 전문점도 있는 것이고. 가내 수공업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낸 씨앗이라면 모를까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들이 파는 씨앗은 꽤 값이 나가."

초상화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농사…."

"너도 흥미가 있어서 나에게 부탁한 건가?"

"예."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예전이라…."

"그리고 초상화 속의 시간은 넘쳐나니, 손을 가만히 두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림도 그렇고 너는 취미가 많구나. 사는 게 심심하지는 않겠어."

"즐거운 삶을 보내기 위해선 지루할 시간이 없어야 할 겁니다."

"그건 그렇지."

이해한다.

'그 무한한 시간을 보내려면 취미가 아주 많아야 할 테니까.'

지오는 자신을 인간이라 착각하고 있을 만큼 자아를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거기엔 몬스터가 가질 법한 적의와 광란도 없었고, 근원의 자식들이 보이는 과도한 무관심과도 달랐다.

지나치게 무뚝뚝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으로 보일 만큼의 지성을 유지한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야.'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다.

'…인간의 정신으로 근원의 삶을 산다는 건 꽤 버거운 일일 텐데….'

차라리 인간성을 버린다면 편할 것이다.

"……."

하지만 정원사의 입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됐다.

'인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저 착각은 가능한 오래 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었다.

유성운이 어깨를 으쓱이고는 제 감정을 모두 털어냈다. 그가 늘 그렇듯 무던한 미소를 지으며 지오에게 물었다.

“그럼 이제 농사를 짓는 건가?”

“그럴 것 같습니다.”

“초상화 안에 농사를 지을 곳이 있나 보지? 대단하네.”

“평범한 오두막입니다.”

“흐음….”

오두막이라.

“굉장히 평화롭게 들리는데.”

“실제로도 평화롭습니다. 날씨는 언제나 온화하고, 땅은 습기에 부슬거리고, 맑은 개울이 흘러가는 조용하고 안락한 숲이죠.”

“…그거 정말….”

꼭, 근원의 이야기 같았다.

“…놀러 가보고 싶은 장소야.”

“언젠가 초대하겠습니다.”

“지금은 무리겠지?”

“집이 더러워서 지금은 무리입니다.”

“역시 그러려나.”

지오의 성격상 ‘집이 더럽다’라는 말은 거짓일 확률이 높았지만, 아무튼 집주인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들어갈 수는 없었다. 유성운에게 그 정도 염치는 당연히 있었다.

“그럼 즐거운 농사 시간 되고.”

“내일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아, 그… 답례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으니 저도 답례를 해야 합니다.”

“별거 아니라니까.”

“게다가 유성운 씨는 제게 좋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이 이상 거절하면 오히려 화를 사겠지.

‘근원의 존재에겐 그들만의 규칙이 있다.’

근원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던전 속의 몬스터들에게는 일관된 습성과 행동이 있고, 또 교류나 공략을 위한 방법이 따로 있었다. 그보다 더 근원과 가까운 ‘자식’의 경우 규칙이 강하면 강했지 그보다 약하지는 않았다.

‘이미 근원의 자식으로 판단되는 녀석이야. 스스로의 규칙에 대한 자존심이 높을 것이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생리적으로 그걸 어기는 건 무리일 테니… 내 쪽에서 거부할 수는 없어.’

근원은 자연 그 자체다. 재해를 한낱 인간이 막아낼 수 없는 것처럼, 자연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선 인간은 겸손을 배우고 상대에게 맞춰야 했다.

“음….”

유성운이 멋쩍게 웃었다.

“별로 대단하지 않은 걸로 부탁해.”

“찻잎 역시 대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그렇겠지…?”

근원의 자식 된 입장에서 인간에게 가치 있는 물건을 판별하기란 힘든 일일 것이다. 잠시 고민한 유성운이 어렵게 말을 꺼냈다.

“…맛있는 거?”

“요리를 부탁하신 겁니까?”

“네가 예전에 만난 직원들에게 줬다던 간식거리 정도면 돼. 초콜릿이나, 쿠키나, 젤리 같은 것들을 줬다고 했잖아.”

“예, 맞습니다. 다들 친절한 분들이셔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지오는 ‘착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게 맞는 듯했다.

예의가 바른 것, 대화를 수월하게 해주는 것, 본인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모든 행위를 ‘착하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그런 정도의 간식거리면 될 것 같아.”

“참고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야.”

유성운이 비사벌 길드장에게 전해 들었던 말을 건넸다.

“나와도 괜찮다고 하더라.”

“…….”

“너 예전에는 종종 초상화 바깥으로 나왔었잖아. 직원들이 무서워했던 탓에 눈을 뜨는 것도 대부분 새벽이고. 대화 상대도 여태껏 나밖에 없었지.”

“딱히 바깥에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답답할 수도 있으니, 원한다면 나와서 회사 건물을 구경해도 된다는 게 비사벌 길드장의 이야기였어. 여기, 출입카드.”

“저는 수집상 길드에 취직한 적이 없습니다. 유성운 씨를 제외하면 아는 분도 없는데, 이런 외부인이 돌아다니도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곳은 무리겠지만 일반 직원이 다니는 공간은 갈 수 있도록 해뒀어. 나중에 나왔다가 다른 직원과 마주쳤을 때 그 카드를 보여주면 어느 정도는 무마할 수 있을 거야.”

그것도 대충 얼버무리는 수준밖에는 안 되겠지만 말이다.

‘영혼의 격이 워낙 높아서.’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차후 수습에도 편리했다. 수집상의 길드원들은 눈치가 빠른 편이니 알아서들 조심할 거고.

초상화는 유성운이 건넨 하얀 목걸이 카드를 바라보았다.

“뭐, 너는 그런 게 없어도 여기저기 이동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출입을 허가받는 쪽이 네 마음에도 편하겠지?”

“…….”

“가능하면 지금처럼 사람 없는 시간대에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하지만… 낮에도 너만 괜찮다면 나와도 돼.”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하지도 말아주고.”

“제가 먼저 공격당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

멍청한 인간이 일부러 성난 호랑이의 꼬리를 밟아 잡아먹힌다면 그건 자연사였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야.”

유성운은 근원과 인간이 최대한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인간의 편이 아니었다. 정원사는 늘 중립을 유지해야 했다.

“너도 공격해.”

“그럴 비위는 안 되니 도망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주면 고맙고.”

그러니, 이건 인간들이 보일 수 있는 신뢰의 표시였다.

여태 그래왔듯 1:1의 규칙을 가진 ‘지오의 초상화’가 부디 제대로 보답해 주길 빌 뿐이었다.

* * *

한 달 뒤.

수집상에는 괴담이 돌기 시작했다.

“검은망토였어요.”

사망자는 없었다.

비사벌의 도박은 성공했다.

오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8)

제18화

수집상 건물 내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다면, 그건 비사벌의 갤러리다.

위험하고 예민한 물건들만 모여 있으니 사건 사고가 잦다. 게다가 그런 희귀한 작품을 노리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인명 피해를 대비해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경비가 건물 내부를 순찰한다.

그날도 그저 새벽의 건물을 순찰하던 평범한 날이었다.

"응?"

새하얀 벽.

새하얀 조명.

길고 깨끗한 복도에 덩그러니 서 있는 새까만 남자.

"……."

그는 검은색 망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르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

단지 열려 있는 앞섶 너머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다는 것만은 알겠다.

"누구십니까?"

"……."

"실례지만 신원을 밝혀 주십시오."

새벽 순찰반은 건물 내에 총 8명이 있고, 1층부터 10층까지는 자신의 담당이었다. 같은 층에 또 다른 경비가 배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저 검은망토는 새벽에 볼일이 있어 잠시 길드에 들른 직원이거나, 혹은 정체 모를 외부인이라는 뜻이 된다.

하지만 느낌이 이상했다.

"…신원을 밝혀 주십시오."

정말로, 이상했다.

그런데도 정확히 뭐가 이상한 건지 설명할 수가 없었다.

“…….”

“…….”

괴이한 소름이 돋았다.

‘…뭐지?’

길드의 건물은 순찰하는 경비, 혹은 야근하는 직원을 위해 언제나 환한 조명이 켜져 있다. 복도는 수시로 청소를 해 깨끗하고, 새하얀 대리석 벽은 길드장인 비사벌의 취향대로 고상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니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었다. 대낮처럼 환한 조명 아래 그 어디에도 그림자는 없는데, 유독 눈에 띄는 저 새까만 존재가….

“…누구십니까?”

마치 존재해선 안 될 것처럼 느껴졌다.

“외부인이라면 출입증을 보여 주십시오.”

“…….”

“이 시간에 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1층에서 다른 고객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무단으로 길드 내에 침입하는 것은 심각한 중죄로 취급되며….”

“…….”

“…재판에 있어 불리하게 적용될… 변호사의 선임에 불편을 겪게 될 수 있고, 별도의 과정 없이 무력으로 진압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질문에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하지 않은가. 처음에는 아주 작았던 기이함이 점차 커진다.

관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질수록 그는 크나큰 위화감을 느꼈다. 이내 경비가 깨달았다.

‘왜지?’

왜 나는 저게 존재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여긴 거지?

‘아니, 애초에 어째서.’

사람의 형상을 한 존재를 보며 ‘저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뇌를 떠나지 않았고, 혼란은 온몸에 들러붙어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적막한 이질감이 등골을 스치고 올라와 심장을 서서히 간지럽혔다. 잠결에 숨을 쉬듯 아주 느릿하고 자연스러운 속도였다.

“…….”

“…….”

새까만 망토의 후드 아래. 마치 아무것도 없어야 맞는 것처럼 지독하게 새까만 천 아래에서, 무언가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

“저는 서지오라고 합니다.”

뇌에 박히는 듯한 선명한 음성과, 도무지 못 알아들을 수 없는 올곧은 발음. 저항할 새도 없이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해 버렸다.

그것은 정중하게 물었다.

“당신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

“이름이 궁금합니다.”

그 좋은 음성에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다.

“저와 대화하시겠습니까?”

알 수 있었다.

“…나는.”

이건 인간이 아니다.

“…나, 난….”

몬스터도, 아이템도, 환각도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원래부터 숨통이 없었던 것처럼 호흡이 무겁게 막혔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수집상 길드였고, 그는 경력이 많은 경비였지만, 그럼에도 지금껏 이런 존재를 마주한 적은 없었다. 인간 아닌 거대한 무언가가 인간의 가죽을 뒤집어쓴 채 인간을 흉내 내고 있었다.

차라리 그 흉내가 어설펐다면 나았을 것이다. 여태 봐왔던 기괴한 움직임의 구체 관절 인형이라든가, 이해도가 현저히 낮은 흉내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는 몬스터라든가.

“…….”

“선생님.”

“…….”

“당신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지만 저것은.

완벽했다.

“저는 서지오라고 합니다.”

마치 완벽한 인간처럼 보였고.

그럼에도, 모순적이지만,

절대 인간이 될 수 없을 것을 알았다.

‘무슨 헛소리지, 이게….’

상대가 정말 온전한 인간으로 보이는데도 인간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다니. 그 어떤 근거도 없이 그는 상대를 인간도, 몬스터도, 아이템도, 환각도 아니라 규정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저건 대체 무어란 말인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 이름을 왜 묻는 겁니까?”

“대화를 할 때의 기본적인 예의는 통성명입니다.”

“…….”

“저는 그저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의라고?

대체 무엇이 인간의 예의를 흉내 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박….”

“…….”

“박나길입니다.”

홀린 듯이 이름을 뱉었지만, 영혼이 빼앗기는 감각은 들지 않았다. 다만 검은망토는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 점이 무엇보다도 소름 끼쳤지만 그것을 티 낼 여력조차 없었다. 숨이 턱턱 막혔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지오입니다.”

“…….”

저자는 방금 자신이 스스로를 ‘서지오’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는 걸 알까.

‘마치 자신이 너희와 같은 인간이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곧이어 검은망토는 의외의 물건을 꺼내 보였다.

“저는 출입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고객용 출입증이군요.”

“이곳의 비사벌 길드장에게 견학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최소한 길드장은 이것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리고 행동을 묵인하고 있어.’

대체 왜?

경비는 고개를 들어 다시 검은망토를 보았다.

“…….”

“이걸로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까?”

“…물론입니다.”

대단히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정형적인 운율을 띤 음성은 높낮이가 적당한 듯하다가도 가만히 듣다 보면 고음과 저음을 오가는 거 같기도 했다.

‘아무리 출입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파악해야 하는데….’

분명 듣고 있는 것은 남성의 목소리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의 나이와 성별을 추측하기가 모호해졌다.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인지할 수가 없었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새까만 망토와 두껍지도 마르지도 않은 체형의 한 형체뿐이었다.

“…….”

저 검은망토의 그림자 안에, 정말로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들어 있기는 한 걸까?

“박나길 씨.”

“…예.”

“제가 이곳을 돌아다녀도 되겠습니까?”

“…….”

길드장이 허락했다.

그러니 일개 경비인 그 역시 긍정의 말을 뱉어야 하거늘, 입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았다. 마치 악마에게 재앙을 일으켜도 된다는 약속을 받아주는 듯한 불길한 감각 때문이었다.

음울하고 무거운, 혹은 서늘한 형체의 앞에서 경비는 고개를 어렵게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길드장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얼마든지 견학하셔도 문제없습니다.”

“그렇군요.”

“…언제까지 있으실 예정입니까?”

검은망토는 2초 뒤에 대답했다.

“해가 뜨기 전까지.”

소름 끼치는 답변이었다.

“…….”

“…그렇군요.”

토할 것 같았다.

왜 소름이 끼치는지, 대체 어디에 기괴함을 느끼는지,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이 형용할 수 없는 적막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인지 능력이 망가지고 판단력이 안개 속에 파묻히는 감각은 멀미를 일으키는 듯 흔들려 댔다.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아니, 실제로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인지해서는 ‘안 될 것’과 교류하는 듯 버거웠다.

“…….”

“박나길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척추가 떨려왔다.

몸 온도가 1도씩 낮아지는 그 감각을, 몸의 혈관이 전부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 버린 그 감각을 무어라 설명해야 할까.

“예, 예.”

“친절하게 대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시군요.”

“…….”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일이었다.

검은망토가 저를 높이 사자, 그 구역질 나올 만큼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날아갈 듯 기뻤다.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저것이 나를 미치게 만든 건가?’

전혀 그래선 안 될 상황임에도 감격스러웠고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왜 이런 기분을 느끼는지 스스로도 해석이 안 됐다.

그런 저를 보며 검은망토가 손을 내밀었다.

“선물입니다.”

“…….”

“받으십시오.”

검은망토는 종이로 곱게 포장된, 작은 봉투를 건넸다.

황홀할 만큼 단 냄새가 났다.

“당신의 것입니다.”

기괴할 만큼 사무적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호의적으로 느껴졌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 아니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떠나는 건가.

그런 직감이 들어 고개를 든 순간, 눈이.

“…….”

“…….”

눈이 마주쳤다.

그 눈이.

눈.

눈동자.

홍채가, 동공이, 그 동그란 구가. 그 안쪽에. 그것이. 그 동그란 것이. 그게. 그건. 검고 하얀 색이.

새까만 것이, 새하얀 것이. 검었나? 하얀색이야? 어두운지 밝은지. 그림자인지 빛인지. 죽음인지 삶인지. 인연인지 운명인지.

안이 너무 깊었다. 너무 깊었다. 너무 깊었다. 깊어서, 무서운데, 그 안이 너무 깊어서. 깊다. 떨어지는 감각이 든다. 추락한다. 빠져나올 수 있나? 불가능하다. 안 될 것이다. 그건 눈이 아니다. 눈동자가 아니다. 홍채가 아니고 동공이 아니다.

아니야, 아니다, 아닐 것이다. 아니어야 한다. 아닌 게 분명했다.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닌데.

“박나길 씨.”

지독히 사무적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수고하십시오.”

“…….”

…끌려 나왔다.

“…….”

한참이나 그는 자리에 서 있었다.

새까만 망토가 움직임에도 휘적이는 소리 한번 들리지 않고, 구두를 신지 않은 맨발은 매끈한 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사부작거리는 미물의 소리만이 들려오나 이상하지. 저 검은 것은 미물이라 할 수 없는데도….

곧이어 소리는 사그라든다.

“…….”

오로지 정적이다.

“…어디로….”

어디로 간 거지.

경비는 발을 움직였다.

검은망토가 움직였던 복도를 쭉 따라 소리가 끊긴 곳으로 향한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리가 끊긴 곳’에 다다를 수 있었다.

복도에는 못 보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아.”

평화로운 오두막을 그린 숲을 배경으로 하여, 마치 잠이 든 것처럼 고요한 낯을 한 남자의 그림이었으나.

속이 울렁거렸다.

“…….”

느릿한 걸음으로 도망쳤다.

딱 평소와 같은, 그런 속도였다.

차마 손을 댈 자신이 없었다. 경비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면 분명 정체 모를 작품을 보고하고 그를 처리해야 했지만, 거기까지 떠오르지도 않았다. 그저 홀린 듯 경비는 자리를 떴다.

그리고 그다음 날, 같은 자리에 초상화는 없었다.

* * *

“들었습니까?”

길드 수집상은 원래도 괴담이 많은 곳이었다.

전부 길드장인 비사벌의 수집벽 때문인데, 그가 하도 이상한 물건을 주워 온 탓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수집상에 2년 넘게 근무한 직원들은 이런 괴담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

“검은망토요?”

“네, 요즘 소문이 돌던데.”

“또 길드장님의 작품 중 하나가 사고를 친 거겠죠.”

“그럴 것 같기는 했어요.”

대부분의 괴담이 몬스터나 아이템으로 설명이 되어버린 세상이다.

괴담보다는 같은 인간이 더 두려운 시대에 ‘검은망토’에 대한 소문은 그저 심심풀이로 즐길 수 있는 이야깃거리였다.

“그렇게 잘생겼다는데 구경이나 해보고 싶네요.”

“망토 때문에 얼굴은 잘 안 보인다던데?”

“길드장님이 모셔온 작품치고는 수줍음이 많구만.”

“사고라도 안 치는 게 어딥니까. 누구 다쳤다는 사람 없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런 가벼운 분위기도 점차 무거워졌다.

“…….”

“이번 목격자도 휴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섭나….”

“원래 퇴사하려고 한 걸 길드장님이 어르고 달래서 휴가로 마무리 지은 거라던데.”

“길드장님까지 나서야 할 정도라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보통 이런 식의 ‘괴담’은 일주일 내로 대부분 해결이 되었다.

그야 보통 이와 같은 괴담의 정체는 비사벌의 작품에서 튀어나온 몬스터나 아이템, 혹은 그로 인해 발동된 정신 계열 스킬 때문이었다. 헌터들이 득실거리는 길드 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니, 이번 몬스터는 왜 이렇게 제압이 안 돼요? 큐레이터들은 뭘 하고 있는 거야.”

“그쪽도 감당 못 하는 몬스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차라리 길드 바깥에다가 버리는 게….”

“…….”

“…내가 멍청한 소리를 했네요.”

수집상 길드는 절대 다른 곳으로 대체될 수 없는 특별한 갤러리를 운영했다.

정부에서 직접 들어가는 인물을 규제할 만큼 위험한 물건이 전 세계에서 모인다. 수집상에서 감당이 안 되는 물건을 대체 어디에 버린단 말인가. 또 다른 재앙이 일어날 게 틀림없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재앙이 되기 전에 사건 사고 모두가 ‘괴담’의 선에서 멈췄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제압이 안 된다는 건….”

“애초에 제압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건 어째서죠? 파괴하거나 봉인하는 편이 낫지 않나?”

“어차피 성공하지 못할 걸 알아서 차라리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자고….”

“심기가 불편해지기도 해? 그만한 지능이 있다는 뜻인데… 그럼 자아도 가졌다는 겁니까?”

“인간형 몬스터라는 소문이 가장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던데, 자아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와, 이거 미치겠네. 하다 하다 인간형 몬스터를 끌고 오다니.”

“마지막으로 목격된 인간형 몬스터가 몇 년 전이었죠?”

단 한 번도 비사벌이 이렇게까지 '괴담'을 방치한 적은 없었다. 그는 직원들이 안정감을 느낄 때 얼마나 능률이 올라가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된 것이다.

"누구 다친 사람은 없대요?"

"딱히…."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

"……."

"…그럼 문제없는 거 아닌가?"

직원들은 알아서 납득하기 시작했다.

"부상자도 없고, 사망자도 없고. 그럼 대체 왜 괴담인 거야?"

"본질적으로 괴담은 괴상한 이야기라는 의미니까… 정말 이야기뿐이라면, 그럼 이해가 되죠."

"그냥 이야기였던 거야? 목격자가 있는 걸 보면 실존하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이곳은 길드 '수집상'. 길드의 모든 직원은 수집가 비사벌이 직접 모은 수집품이다.

그의 취향에 맞는 현실적이고 시니컬한 직원들은 점차 알아서 진정해갔다.

"에이, 구라였나 보네."

"본 사람은 있다던데?"

"그럼 환각 스킬이거나."

"그런가."

"아무튼 위험하지도 않다면서?"

"어쩌면 길드장님이 우리 몰래 직원을 들였을 수도 있고."

"하긴 우리라고 모든 직원을 아는 건 아니지.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나?"

"조용한 직원일 뿐이었는데 귀신이라는 소문이 돌기는 했었죠. 그런 걸 보면 가능성 있는 이야기네요."

"이런 건 미리미리 공지를 해두면 좋잖아. 안 그래?"

"길드장님 성격이 워낙 독특하시잖아요? 다들 이해합시다."

"그건 맞지. 이번 신입은 또 언제 소개해 주시려나…."

길드장인 비사벌은 제 직원을 끔찍하게 아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방치해 둘 정도의 '괴담'이라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존재임이 분명했다.

실존하든, 실존하지 않든, 그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직원들은 비사벌을 신뢰했다.

"……."

"……."

그걸 비사벌 본인도 알았다.

"…예상하신 겁니까?"

“어떨까요?”

수집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Chapter (18)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9)

제19화

“위험했습니다.”

유성운이 한숨처럼 말했다.

“저도 동의한 사안이기는 했지만, 직원들이 ‘괴담’에 대해 수군거리는 걸 보고 있자니 제 심장이 다 떨릴 정도였습니다. 자칫하면 내분이 일어날 뻔했어요.”

“우리 길드원들이 고작 괴담 하나로 내분이 일어날 만큼 속 좁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유성운 큐레이터는 직장 동료에 대한 믿음이 낮은 편이군요?”

“믿음이고 자시고 너무 도박이었잖습니까. 이건 동료들 간의 신뢰를 사유로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일이 잘 풀리기는 했지만 위험한 도박이었음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체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근원의 존재를 아예 풀어둔 셈이니….”

지오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모른다. 정말 어째서인지 아직도 그랬다. 유성운이 아무리 서적을 뒤적여도 비슷한 놈 하나 나오질 않았다.

협회에 조사를 맡기면 그나마 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 확률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고, 애초에 비사벌이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었다.

‘자기 것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 사람인데.’

다만 확실한 건, ‘지오의 초상화’는 분명 근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존재라는 점이었다.

정원사와 그들의 존재를 아는 일부 인간들은 그런 몬스터, 아이템, 혹은 스킬이나 현상을 두고 ‘근원의 존재’라 칭했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힘드니 대충 얼버무리는 셈이다.

이 시대의 전문직으로서 조금 쪽팔리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당장 ‘지오의 초상화’가 그런 경우였다.

“자칫하면 재앙을 풀어둔 꼴이 될 뻔했다고요.”

“글쎄요, 유성운 큐레이터는 지오의 정체가 뭐일 것 같습니까?”

“말을 돌리는 건지….”

“평범한 질문입니다.”

“…….”

유성운이 어깨를 으쓱였다.

“그야 모릅니다. 여태까지 그러했듯이요.”

지오는 일반적인 근원의 존재들과 궤를 달리했다.

“일단 몬스터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던전 바깥의 문명에 대해 적대적이죠.”

“그들의 적의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인간이 바퀴벌레를 보면 기겁을 하거나 당장 죽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반사적이에요. 그런 건 몬스터 자신이 어떻게 조절해 보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 가능하다 쳐도 그 정도 인내심과 판단력이면 이미 ‘몬스터’라는 수준을 넘어섰겠지.”

“그런 의미에서 몬스터는 아닐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오의 호의는 종족 자체를 어여삐 여기기 때문인 만큼 무심하거나 자비 없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었다.

그러니 몬스터일 수가 없었다.

“몬스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인간에게 호의적인 몬스터도 있긴 하지만, 엄밀히 따져 그건 애정이 아닌 애증에 가깝죠. 11년 전의 기형 사태 역시 정말로 순수한 호의였다면 인간이 공포심에 울부짖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수습해 줬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그들은 즐거워했다고 했던가요?”

“인간에 대해 이해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것도 있고, 어쩌면 그냥 인간들의 반응이 재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급하게 수습된 탓에 미제로 끝나서... 저도 뭐라고 확언을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넘어가죠.”

“음, 그리고....”

유성운이 짙은 남색 눈을 데굴 굴리며 말을 이었다.

“아이템도 아닙니다.”

“자아가 있는 아이템도 분명 존재할 텐데요.”

“아이템에 깃든 자아는 엄연히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가 말을 덧붙였다.

“얼마나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지로 판가름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본질이라?”

“지오는 초상화 속에서나마 생명을 창조해 냈죠.”

잠시 고민한 유성운이 고개를 기울였다.

“어쩌면 그렇게 창조된 생명은 그림 바깥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오에게 답을 듣진 못했지만, 애초에 본인 스스로 나오는데 제한이 없는 데다 물건 정도는 쉽게 그림 밖으로 빼돌릴 수 있는 걸 보면 가능성은 큽니다.”

“만약 지오가 몬스터를 그려내고 그게 바깥으로 나온다면?”

“그것도 가능은 할 것 같네요. 만약 안 된다고 해도 지오 하나는 마음대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 확정된 시점입니다. 몬스터가 아닌 아이템 정도라면, 혹은 지오가 영혼으로 복속시킨 계약수를 데리고 나와 버린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감당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한낱 아이템은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

“모든 아이템은 인간에 의해 창조됩니다. 아무리 편견을 버리고 생각해도 높은 지능의 몬스터 정도만이 만들어낼 수 있죠. 생명을 창조하는 건 인간이나 몬스터의 수준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 영혼의 격이 인간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수많은 목격자들에 의해 증언이 됐어요. 아이템은 아니에요.”

“아하.”

비사벌이 재밌다는 양 키득거리며 웃었다. 그 나이치고 참 철없는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스킬의 한 종류라든지? 스킬의 경우에는 한참 전에 영혼을 다룰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고작 한 명뿐이지만 죽은 사람도 되살리는 부활 스킬 사용자가 있죠.”

“그 역시 원래 있던 영혼을 주물럭거리는 거지, 아예 새로운 영혼을 만들어 내지는 못합니다. 만약 영혼 창조가 가능한 스킬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해도… 애초에 스킬은 지적 생명체가 다룰 수 있는 무형의 에너지입니다.”

“형태와 자아가 있는 지오는 스킬의 잔재일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만약 스스로를 초상화로 만들 수 있는 스킬을 얻은 일종의 각성자일 뿐이라면 어떻습니까?”

비사벌이 손가락을 휘적거리며 말했다.

“지오도 본인을 29살의 청년으로 말하고 있고, 과거에 인간 사회에 있었던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단지 지금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종류의 각성자일 수도 있습니다.”

유성운이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합니다.”

“왜죠? 협회의 연구 팀장이셨던 유성운 씨는 뭔가 보이는 게 있나?”

“본다면 제가 아닌 길드장님께서 더 잘 보시겠죠…. 그냥 아는 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뭘 알고 있나요?”

“애초에 왜 초능력자들이 ‘각성자’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으음….”

비사벌이 어깨를 으쓱였다.

“그렇게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닌데.”

“그냥 모른다고 말하면 그 높은 자존심에 흠집이라도 나나 봅니다.”

“아무래도 많이 나는 편이겠죠, 내가 나름 대한민국 3대 길드의 수장입니다. 이 자존심 한 톨이 얼마나 비쌀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어련하시겠어요.”

허탈하게 떫은 웃음을 뱉은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각성이라는 단어의 뜻을 되짚어 보면 쉽습니다.”

“1번 깨어 정신을 차린다. 2번 깨달아 알다. 3번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태도.”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라면서 무슨 국어사전처럼….”

“단어의 뜻조차 모르면 감정 스킬 하나로 길드장 된 의미가 있을까 싶군요.”

“아, 예. 어련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중 뭡니까?”

“음… 뭐든 좋습니다.”

유성운이 무던하게 말을 이었다.

“중요한 점은 그 본질입니다.”

“흥미롭네요.”

“그 어떤 의미든 각성이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새로이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가 턱을 괴었다.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리든, 안타깝게 꼬였던 정신머리를 바로 하든, 내적으로 성숙해 어린 날을 반성하든... 원래부터 존재하던 그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란 말입니다.”

“아하, 그래서?”

“각성자의 스킬은 없던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본인의 자질 속에 묻혀 있던 능력이 깨어나는 방식입니다. 던전이 생겨나고 본디 지구에는 없던 에너지와 자원이 발생하며 환경도 함께 바뀌었죠. 인간은 거기에 맞춰 진화했습니다.”

“센터의 교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돌이 다이아몬드인 걸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 깨닫게 된 것뿐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충 비슷하겠네요.”

유성운이 목뒤를 긁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오는 각성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흐음....”

“그가 각성자라 쳐도 원래 있던 영혼의 격이 깨어난 거지, 새롭게 부여된 게 아닙니다.”

“역시 그런가.”

이 둘은 모르고 있지만 유성운의 말에는 오류가 있었다. 서지오는 지구가 새롭게 탄생하는 과정에서 아주 매우 굉장히 우연찮게 근원과 합체해 영혼의 격이 높아진 경우였다.

이는 고작 지구라는 작은 차원에서 관측되기 힘든 확률의 기적적인 변질이었다.

“골치 아프네요.”

“골치 아프죠.”

물론 이 부분을 대재앙 이후 고작 30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의 둘이 알아낼 수는 없었다.

평범한 인간인 그들이 보기에 ‘지오의 초상화’는 그냥 원래부터 인간이 아닌 존재였다.

“.......”

샛노란 눈을 깜박이며 고민하던 비사벌이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지오를 ‘근원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의미에서 이상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근원의 자식들은 대부분 이성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아니, 굳이 자식까지 갈 것도 없이 이건 근원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는 건데....”

유성운이 떨떠름한 낯으로 말했다.

“근원의 존재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살아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없어요.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도 착각일 뿐 실제로 사고하고 있지는 않고요.”

“확신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제가 아무리 정원사라고 해도 이쪽 분야가 아직 제대로 밝혀진 건 아니니까요.”

머뭇거리던 유성운이 다시 말을 이었다.

“다만 여태까지 보아왔던 근원의 자식들은 모두 자연 그 자체인 상태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이 강한 사념을 가지고 자신만의 규칙으로 하나의 던전을 만들어 그대로 그곳의 보스 몬스터가 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하지만 그들도 ‘근원의 자식’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몬스터는 둘 중 하나입니다. 던전에서 생겨났거나, 아니면 던전을 만들었기에 몬스터가 되었거나.”

“흐음….”

“근원에서 바로 발생하거나 우연찮게 근원의 맥에 속하게 되어 그대로 차원 여기저기에 발생하는 ‘근원의 자식’과는 이야기가 달라요.”

“그쪽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신기합니다.”

비사벌이 눈을 뱀처럼 샐쭉 찢으며 웃었다.

“헌터인 저의 입장에서 세상의 가장 큰 비밀은, 그야말로 던전이 전부일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던전의 존재만으로도 아직 적응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 던전이라는 것이 근원이라는 우주적인 개념에서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다들 머리가 깨질 테죠.”

“안 그래도 우리 정원사 여러분께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커피 타줄까요?”

“됐습니다. 카페인 물려요.”

유성운이 대놓고 질색했다. 안 그래도 바빠서 야근이 잦았는데, 최근 새벽에만 눈을 뜨는 지오와 대화를 하기 위해 카페인이란 카페인은 다 섭취하고 다녔더니 토가 나올 지경이었다.

“아무튼, 뭐, 그렇죠. 굳이 따진다면 지오는 근원의 자식이라고 하는 편이 훨씬 설명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근원은 고작 지구의 존재끼리 30년 만에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좁은 개념이 아니기도 하고요.”

“하긴 던전도 파악이 다 안 된 마당에 그보다 더 아래쪽의 지식을 탐구할 여력은 없겠죠.”

“협회장님께서는 아직도 관심이 많은 모양이긴 하지만, 글쎄요. 여전히 지오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힘들군요.”

근원은 하나의 생태계이자 자연이다. 대기 중의 질소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본디 근원의 자식은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들은 단지 그들만의 방식으로 생존하며 스스로의 ‘이야기’를 가꾼다.

하지만 지오는 그렇지 않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인간이었을 적이 있다고 했으니 그쪽 위주로 조사를 하면 뭐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인간이 근원의 자식이 될 수 있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말입니다. 인간이었다고는 해도 지구의 인간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초보 정원사 중 많은 이들이 ‘몬스터’와 ‘근원의 자식’을 헷갈리고는 하지만, 단지 근원의 영향을 크게 받아 형성되었다 하여 둘이 똑같은 건 아니었다.

“몬스터는 던전에서 태어나고, 근원의 자식은 근원에서 태어나죠. 애초에 태어난 배가 다른데 그 둘이 같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대충 삼촌과 조카의 관계일까요?”

“음… 어느 정도는 비슷하겠네요.”

근원이라는 모체에서 ‘던전’과 ‘근원의 자식’이 형성되고, 그 ‘던전’에서 몬스터가 형성되는 순서다. 보통은 이 흐름을 따른다.

“인간형 몬스터나 그에 준하는 녀석쯤 되면 본인들이 먼저 던전을 만들고 거기에 새로운 규칙이나 몬스터를 창조해 내겠지만,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으니까….”

삼촌과 조카라는 말이 그렇게 틀리진 않는다.

“애초에 던전 역시 근원의 자식 중 하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쪽 부분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확언은 못 해요. 아무튼….”

유성운이 비사벌을 보았다.

“그래서, 괜찮은 거였습니까?”

“…….”

“이런 정체 모를 존재를 자유롭게 풀어두기로 결정한 셈인데.”

그에 비사벌이 어깨를 으쓱였다.

“…이미 아까부터 그에 관한 답변을 나누고 있지 않았나요?”

그 정체 모를, 통제가 불가능한 존재를 대체 어떤 식으로 자유롭지 않게 두겠다는 것인가.

“몬스터도 아니야, 아이템도 아니야, 각성자도 아니야. 그렇다고 근원의 자식이라기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

“…….”

“생명도 창조하고 영혼의 격도 높고 아주 못 하시는 게 없습니다. 혼자 다 해 먹어요. 초상화 바깥으로 나오는데 제한이나 조건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 정도는 자유자재로 쉬이 하시고.”

“…그렇죠.”

“어떻게 막을 생각이죠? 가능이나 한가? 많이 친근해졌다는 신조차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데 그보다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지오의 초상화’를 어떻게 막겠다고요?”

비사벌이 웃으며 손을 휘적였다.

“아, 혹시 그가 아끼는 인간을 인질로 잡는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쳤습니까?”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인도적인 측면에 있어 우리 같이 선량한 사람들의 취향이 아닐뿐더러, 애초에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일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오의 능력 정도라면 인질은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을 텐데… 그럼 화만 사게 될 겁니다.”

“…….”

“이해했습니까?”

그는 유쾌한 듯 웃었다.

“우린 못 막아요.”

“…압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을 고기 방패로 세워 해일을 막아 보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지, 나 원 참. 어차피 못 막을 거라면 최소한 화는 사지 말아야지요.”

그는 가늘게 웃었다. 토라진 아이를 타이르는 듯, 어딘가 노인의 굽어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미소였다.

“그리고 최대한, 호의를 사두는 편이 좋을 거고요.”

불행 중 가장 큰 행운으로 ‘지오의 초상화’는 매우 신사적이고, 예의를 중시하며, 또 공평하다.

누군가에게 호의로 무언가를 받았다면 그 역시 똑같은 호의로, 그보다 큰 값을 돌려준다. 아마 그게 지오의 ‘규칙’일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일종의 예방 접종이었습니다. 결코 처리하지 못할 존재와 공존하기 위한 사전 경고였죠. 다행히 나는 내 직원들을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들은 내 기대에 걸맞은 무신경함을 보여 주었어요.”

“…여태까지 길드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괴담 소동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별일 없었는데 이제 와서 괴담 하나에 덜덜 떨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바로 그거예요.”

“…….”

“여기는 ‘수집상’이라는 거.”

비사벌 자신이 관리하고, 비사벌 자신이 고른 직원들로만 채워졌으며, 비사벌 자신이 사랑하는 작품들로 가득한 장소.

그게 바로 대한민국 3위 길드 ‘수집상’이었다.

“유성운 씨, 기억하세요. ‘지오의 초상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싸울 생각을 하는 건 멍청한 짓이었다.

“그건 자연재해이고 다행히 우리와 말이 통하며 또 호의를 품었어요. 그건 정말 굉장한 행운, 그 이상의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본인 손에 지구의 명운이 걸렸다 생각하고 이 기적을 멍청하게 날릴 생각 말아요. 우리는 신중해야 하고, 대범해야 하고, 언제나 친절해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될 걸 알고 지오를 샀습니까? 어차피 그가 경매장에 나온 이상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 있을 혹시 모를 재해를 위해 선수를 친 거예요?”

“나는 꽤 많은 걸 보거든.”

“…….”

“평범한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비사벌은 뒤이어 철없고 장난스러운 낯으로 웃었다. 신사처럼 차려입고선 참 안 어울릴 법도 한데 오히려 생기가 느껴졌다.

그가 말했다.

“내가 읽어내지 못한 유일한 작품이었으니까.”

옳은 말이었다.

“…….”

“…길드장님을 믿습니다.”

“너무 믿어도 곤란한데.”

"정확히는 당신 안목을 믿어요."

그 눈을 믿는다.

결국 성공한 도박이니, 유성운은 말을 삼키기로 했다.

"그런데도 불안한 건 제가 한낱 인간이기 때문이겠죠."

"말하는 재해를 품고 있는데 어련하겠어요?"

"공포 영화가 시작하기 직전, 같은... 느낌이라서."

아, 그래.

그런 거다.

"...너무 거대한 걸 앞에 둬서 그런가...."

거인 앞에 옹송그려지는 심장을 뭐 어쩔 수 있겠는가.

본디 인간은, 그런 작디작은 존재이니.

* * *

한편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 못해 있어서는 안 될 수준의 기적 중의 기적으로 지구 최후이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그날, 무의식적으로 근원과 합체하게 되어 귀신 들린 초상화로 진화한 지오는....

"이 맛이지."

농사를 짓고 있었다.

아무 생각도 없다는 뜻이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9)"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0)

제20화

“좋네.”

늘 그래왔지만 이번 콘텐츠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사람은 땀을 흘려야 해.”

“꿍?”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꿍꿍꿍…?”

달콤한 색깔의 물새, 허니의 몸이 호들호들 떨렸다. ‘그럼 일하지 않는 나는?’이라고 묻는 듯한 울음소리에 지오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귀엽게 생겨 놓고서는 대체 무슨 걱정을 하는 거지?”

“꾺.”

“귀여움으로 이미 네 몫을 다하고 있으니 이상한 걱정 말라.”

아무리 생각 없이 사는 지오라도 제가 물감으로 낳은 생명체 하나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작자는 아니었다. 미식가이자 대식가인 지오 자신의 아들인 이상 허니는 굶을 일이 없었다.

“알겠니.”

허니는 납득하고 편하게 퍼질러졌다.

“하지만 거기서는 좀 나와.”

“꾸르.”

하필 지오의 바구니 안에 말이다.

“씨앗 꺼내기 힘들어.”

“꾸룽.”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강할까.”

“꾺?”

“나? 이런 불효자식 같으니.”

지오는 몸을 굽혀 바구니를 뒤적거렸다. 아주 약한 점성만을 띨 뿐 허니의 몸은 투명한 물 그 자체인 탓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 녀석이 씨앗들을 가지고 놀아 전부 엉망으로 섞여 있었다.

“이게….”

“…….”

“…가지 씨앗이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강원도 산골 마을 출신의 서지오는 씨앗만 보고도 그 종류를 알아맞힐 수 있었다. 강원도 출신이라고 전부 가능한 일은 아니고 지오 본인이 이런 농작에 진심인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즐겼던 지오는 가지 씨앗을 들고 일어나 미리 파둔 구덩이에 넣었다.

“이제 감자를 심을 차례인가.”

“꾸륵?”

“응?”

잠시 소통에 오류가 있었지만, 곧 지오는 허니가 무엇에 의문을 품었는지 알아차렸다.

“아빠를 심겠다는 소리는 아니었어.”

“꿍?”

“감자라는 건 애칭이지. 제2의 이름 같은 거다.”

감자를 좋아하던 어머니가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고 ‘감자를 닮았다’며 태명을 감자로 지었고, 갓 태어난 지오를 본 할머니가 ‘감자만 먹더니 감자를 낳았다’며 고개를 끄덕인 일화가 있었다.

“어른들이 다 감자라고 부르길래 나는 4살까지 내가 감자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고 무해하게 자랐나 싶기도 했다.

“하긴 그럼 됐지.”

“꾸르르.”

“너도 건강하게만 자라라.”

서씨 가문은 대대로 새 생명의 자유 의지를 존중해 주는 편이었다.

며칠이나 지났을까, 드디어 지오는 유성운이 선물해 준 모든 씨앗을 심는 데 성공했다. 구황 작물로 유명한 감자, 고구마, 옥수수까지 심었으니 이제 굶어 죽기란 요원해 보였다.

“하긴 이 몸으로는 굶어 죽는 게 더 힘들겠군.”

“꾸르르.”

“아빠가 아무리 배고파도 너를 먹지는 않을 거야, 허니.”

작물이 심긴 위치는 오두막 뒤편의 텃밭이었다.

“사실 이쯤 되면 텃밭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규모인가.”

조금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텃밭이 맞기는 했다. 농사일로 장사하시는 분들만큼 크고 광활한 밭은 아니니 지오는 나름의 변명거리가 있는 셈이었다. 아무튼 텃밭 맞았다.

지오는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훌륭한 어른이었다.

“그럼 돌아가자.”

“꾸꾸룩.”

“그래, 만들어둔 청도 먹어봐야지.”

이전에 만들었던 과일청이 슬슬 무르익었을 시점이었다.

“달콤새콤한 망둥 열매에 시고 씁쓸한 가뭄 단지를 넣었으니 조합은 일단 훌륭해.”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그 둘의 양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인데,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 농후한 자취 경력의 지오는 어느새 할미의 손맛을 품고 있었다.

“고작 손대중과 눈대중뿐이었지만 이 내가 먹을 것의 조합에 있어 틀릴 리가 없다.”

그런 자부심에 걸맞게 유리병에선 벌써부터 좋은 향이 풍겼다.

“음.”

주방에 들어선 지오가 과일청이 있는 찬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오랜만에 땀을 흘렸으니 시원한 차로 마셔볼까.”

“꾸륵?”

“마음의 땀을 흘렸어.”

실제로는 땀과 같은 노폐물을 배출하지 않는 지오의 몸을 허니가 지적했으나, 아무튼 노동을 하지 않았나. 노동을 한 인간은 모름지기 시원상큼한 차를 마셔주어야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 법이었다.

“그러려면 창고에서 얼음을 좀 가져와야겠네.”

돼지는 먹을 것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법. 나오지 않은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지오는 곧장 창고로 내려갔다.

온갖 식자재로 가득한 얼음 창고에는 당연히도 얼음이 있었다. 거의 동굴처럼 보이다 못해 대체 어디까지가 얼음의 끝인지도 가늠할 수 없는 창고 구석구석에, 조각난 얼음이 보였다.

“조금 추운가.”

육중한 문을 열고 창고 안에 들어가자 허니가 빳빳하게 굳었다.

“꾸, 꾸구루룩.”

“너무 추우면 나가 있어도… 어.”

“…….”

“…얼었어?”

투명한 얼음 그 자체가 된 허니의 모습에 지오가 무표정한 얼굴로 격하게 동요하던 그때.

이미 얼음이 된 상태임에도 허니는 포르르 한번 몸을 털고는 제 털을 가다듬었다.

“푸붕.”

“?”

“꾹.”

“진화한 건가?”

“꾸르.”

“나도 인간에서 귀신 들린 초상화로 진화한 마당에 물새가 얼음새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순간 얼음이 된 허니가 죽은 줄 알고 한 번, 얼음인데도 유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한 번 놀랐지만, 아무 문제도 없다면 뭐 어떤가.

허니는 얼어도 귀여우니까 됐다.

“움직이는 얼음새는 충분히 흥미로운 것 같아.”

“꾸르르르르르르르르륵!”

“너도 즐거워하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좋구나.”

창조주를 닮아 위기감이라고는 태생부터 없는 허니는 자신의 변화에 마냥 즐거워했다.

아무리 몸이 물인 새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빨리 어는 게 맞나 싶지만, 본인부터 인간에서 초상화가 된 마당에 지오는 크게 놀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부터 물리 법칙을 지켰다고.”

살다살다 물리 법칙도 무시해 보고 참 재미난 인생이 아닐 수 없었다.

“일단 얼음이….”

“꾺꾸룩.”

“저쪽이구나, 고마워.”

얼음이 된 허니의 날개는 예전처럼 제 몸에 하나로 뭉쳐지지 않았다.

본인도 원래 없던 깃털, 혹은 신체 부위가 생긴 탓인지 얼음의 위치를 알려주고선 정신없이 제 몸을 가다듬었다. 깃털을 가만두지 못하는 건 새들의 종특인가 보다.

‘물일 때는 좀 덜하더니.’

어깨 위의 허니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지오는 천천히 얼음 창고를 거닐었다.

“…….”

시원했다.

“하아….”

입김이 나왔다.

한눈에 보일 만큼 짙은 입김.

그만큼 춥다는 것일 텐데, 어째서인지 지오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고 식자재도 얼지 않았다.

얼음 창고가 지오를 속이는 건지, 아니면 그와 식자재가 얼음보다 강인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후자이려나.’

지오는 고개를 내려 바닥을 보았다.

“…음….”

그가 중얼거렸다.

“깨지면 대참사겠군.”

무저갱과 같은 얼음 바닥이 보인다.

‘통얼음인 것 같기는 한데, 마치 얼음 아래로 호수가 있는 것처럼 투명해.’

그건 매우 투명한 바닥이었다. 아주 천천히 얼게 된 얼음은 불투명하지 않고 유리처럼 깨끗한데, 그런 얼음이 바닥에 한가득 깔려 있었다. 지오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었다.

조금 매끈거리고, 은은한 푸른빛이 감돌며, 이따금 저 안쪽에서 반짝이는 빛무리가 보인다. 그들은 마치 반딧불이처럼 몇 초간 제 몸을 빛내다 이내 사라지는데 지오는 그 정체가 궁금했다.

“숲나비와 비슷한 종류의 주민일까.”

“꿍?”

“아니면 그냥 빛나는 이끼나 세균 같은 걸지도 모르지.”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잠시 몸을 빛내다 이내 사라질 뿐이다.

흐릿한 별빛을 닮았다.

“…….”

몽환적인 광경이다.

“색감도 빙하와 비슷하고.”

바다의 짙은 향은 나지 않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투명하고 푸르른 얼음 바닥은 빙하를 떠올리게 했다. 실제로 지구의 빙하를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이런 광경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지오가 고개를 들어 얼음 창고의 전경을 보았다.

“이 얼음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사방이 전부 얼음이야.”

볼 때마다 궁금했다.

“이 얼음 창고는 오두막의 1층에서 한참이나 내려와야 만날 수 있어. 그럼 오두막의 밑에는 지하수가 있었던 걸지도 몰라.”

그럼 모순이 생긴다.

“그렇지, 이렇게 온화한 기후의 숲 아래의 지하수가 이것처럼 꽁꽁 얼어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렇기에 더욱 신비로웠다.

“좋네.”

웃기고.

“꼭 동화 같아서….”

마음에 들었다.

지오는 여전히 표정 하나 없이 무뚝뚝한 얼굴로 발을 움직였다.

허니는 이전처럼 퍼지지 않는 제 몸에 적응을 이미 마친 건지, 역시나 기분 좋은 울음소리를 내며 동굴처럼 커다란 얼음 창고를 날아다녔다. 영화 같은 광경이었다.

얼음으로 이루어진 동공을 한참 걷다 보니 지오가 찾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 맞아. 여기였어.”

마치 동굴의 석순처럼 자라난 얼음이었다.

“이것도 좋은 것 같아.”

“꾺?”

“꼭 동굴 같잖아.”

말도 안 되지만 얼음 창고는 마치 얼음으로 이루어진 석회 동굴처럼도 보였다.

어디서 흐르는 건지, 아니면 녹은 것인지, 혹은 나무처럼 수맥이라도 있는지. 얼음 창고의 이곳저곳에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낮은 기온의 탓인지 이들은 이처럼 순을 이루거나 기둥을 만들어 내고는 했다.

“보통 석회 동굴이 이런 식이거든. 석회가 다량으로 함유된 물이 떨어지면서 동굴 바닥에 천천히 기둥을 쌓고, 물방울이

이리저리 튀어서 산호처럼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

“여기. 이것처럼 진주 모양으로 남아 있게 돼.”

실제로도 동굴 진주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물론 이건 동굴 진주가 아니라 얼음 진주라고 불러야 맞겠지만….”

이래서야 마치 정말 동굴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자연이 만들어낸 위대한 거푸집 말이다.

“…….”

얼음 진주

지오의 오두막 아래, 얼음 창고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얼음 형태의 진주. 희미하게 자개와 같은 광택을 내는 투명한 진주로 식용이 가능하다. 실제 얼음과 같이 뜨거운 온도에서 녹아내리며 무향 무맛이다.

연단법: 녹여 먹을 시 우울증, 광증과 같은 정신 계열 이상을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를 보인다

“이걸로 가져가 볼까.”

효과야 어쨌든 실제 얼음이랑 맛은 같다지 않은가?

“저 커다란 얼음 죽순을 잘라 가는 것도 피곤한 일이고.”

“꾸룩꾸룩.”

포르르 날아간 얼음새 허니가 동글동글 모여 있는 얼음 진주 중 하나를 삼켰다. 그 잽싼 모습에 지오는 저도 모르게 감탄하고 말았다.

“먹는 거야? 돼진가?”

“꾸르르르르르!!”

“아니, 오해다. 내가 뭐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다면 그건 너무나 큰 오해야. 아빠는 돼지를 좋아해.”

인생의 대부분을 할머니의 손에서 큰 지오는 그녀의 취향을 일부 닮았는데, 그중 하나가 비쩍 마른 사람을 두고 보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자식이라 할 수 있는 허니가 통통해진다면 오히려 기쁜 일이었다.

“원래 애들은 많이 먹고 쑥쑥 자라야지.”

돼지가 되어라 얍.

“그럼 이제 올라가자.”

“꿍꿍꿍….”

“나는 오히려 좋다니까, 돼지.”

“꾸르르르르!!!”

“애들은 원래 통통해야 나중에 잘 자라.”

허니를 달래며 얼음 창고에서 올라온 지오는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미리 찬장에서 꺼내둔 과일청에서 좋은 향기가 나고 있었는데, 얼마나 맛있을지 벌써 기대가 되었다.

그는 깨끗한 유리잔을 꺼내 그 안에 과일청을 두 스푼 옮겨 담았다.

“정말로 향이 좋네.”

말릴수록 향이 진해지던 망둥 열매는, 말리는 게 아니더라도 일종의 숙성 과정을 거치면 그 향이 더욱 증폭되는 듯했다.

설탕에 촉촉이 스며들어 그 향을 입힌 망둥 열매는 특유의 상큼한 단 향을 냈다.

"가뭄 단지도 귤 속 과일이라 그런지 시트러스의 향이 나는 것 같고...."

레몬 껍질 특유의 쓰고 새콤한 향이 난다고 해야 할까.

"기대되네."

유리잔에 담긴 과일청은 그 자체만으로도 예술적 가치가 있었다.

설탕을 함빡 빨아들여 그 즙을 아낌없이 내어준 과일청은 반질거리는 윤기를 보였다.

망둥 열매의 과육은 말캉거리는 젤리의 형태로 변했고, 얇은 막을 일일이 벗겨냈던 가뭄 단지는 조금 딱딱하게 굳어 그 알갱이가 눈에 보일 만큼 퍼졌다.

"여기에 얼음 진주도 넣고...."

"꼭꾸륵."

"그건 네가 아까 먹었던 진주잖아. 다시 넣어."

"꾺?"

"사양하지."

어느새 다시 물이 된 허니가 방금 삼킨 얼음 진주를 토해내는 기행을 선보이려 했으나 아버지의 권한으로 막아냈다. 펭귄 밀크도 아니고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았다.

"이제 살살 저어주면...."

달그락, 닥.

유리잔과 얼음 진주가 부딪치며 청명한 소리를 낸다.

"과일차 완성."

"꽉."

"네가 닭이야?"

"꾸릉."

"정체를 모르겠군."

완성된 과일차는 한번 그려보고 싶을 만큼 아름다웠다. 유리잔 너머로 비치는 주홍빛 차는 짙은 빛깔에도 불구하고 무척이나 투명했다.

얼음 진주의 영향인지 창고에서 보았던 반짝이는 푸른빛이 꼭 별똥별처럼 빛나다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그 사이사이로 보름달과 반달 모양의 과육들이 보였다.

그대로 한 입 마셔보자....

"......."

황홀한 풍미가 느껴졌다.

"...맛있네."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풍미와 감칠맛이었다.

주홍빛의 찻물은 부드럽고 시원했는데, 단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가 싶으면 이내 느긋한 씁쓸함이 다가와 정중하게 그를 가라앉혔다.

가뭄 단지의 강렬했던 신맛은 망둥 열매와 설탕을 만나 아이의 투정처럼 귀여운 애교로 느껴졌다.

'과육도 마음에 들고.'

설탕에 즙을 모두 빼앗긴 망둥 열매는 마치 젤리 같았다. 따지자면 곤약 젤리와 비슷했지만, 그보다는 훨씬 흐물거렸다.

마치 껍질을 전부 벗겨낸 포도의 알갱이와 같은 부드러우면서도 묘한 탄성이 느껴지는 식감이었다.

가뭄 단지는 꼭 자몽이나 오렌지의 알갱이처럼 톡톡 터지는 맛이 있었다. 망둥 열매처럼 설탕에 과즙을 빼앗긴 듯했는데, 약간의 딱딱함이 더 느껴졌다.

하지만 불쾌한 딱딱함은 아니었다. 입 안에 살살 퍼져나간 알갱이는 기분 좋은 식감을 전해주었다.

'맛이나 향은 다 같이 뒤섞여 구분하기 힘들지만….'

결코 일차원적이지 않고 마치 수프와 같은 풍미를 보여주는 찻물과 단조로울 수 있는 식감에 즐거움을 더해주는 과육들. 그리고 혀 위에서 사르르 녹아드는 기이한 변화.

그 작은 변화는 아마 얼음 진주 속에 갇혀 있던 빛무리의 것일 터였다.

"…팝핑 캔디?"

딱히 자르르 퍼지거나 폭죽처럼 터지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찻물 사이사이에 점점이 박힌 푸른 빛무리는 묘한 감칠맛을 더해주었다. 달고 짜다는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혀의 즐거움이 느껴졌다.

괜히 입맛을 다시게 되는 과일차였다.

"……."

"꾸르륵?"

"선물하기 딱 좋겠어."

양도 많겠다, 조금 포장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유성운 씨에게 줘야지."

제 요리를 나누고 싶은 것은 할미의 본능.

인생 멘토인 할머니에게 '베풀며 살라'는 말을 듣고 자란 지오는 유성운을 살찌우고 싶었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0)"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1)

제21화

"지오."

새벽 4시 29분.

유성운이 초상화를 불렀다.

"지오, 깨어 있나?"

"깨어 있습니다."

"잘됐네."

보통 이 시간 즈음에는 눈을 뜬다는 걸 알고 부른 거지만 말이다.

'건너뛰는 날이 있기는 해도 소통이 가능한 시간은 대개 새벽 4시에서 5시 정도....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것도 규칙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겠지.'

이 '지오의 초상화'는 인간에게 호의적이지만, 그 어떤 근원의 존재도 자신의 규칙을 어기는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거의 인간처럼 보일 만큼 신사적인 개체라 해도 조심해야 했다.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저에게 어떤 용무가 있습니까?"

"요즘 사옥을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소문이 자자하던데?"

"어떤 소문일지 궁금합니다."

"네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지만... '검은망토'라고 하더라."

유성운이 특유의 무던한 미소를 지은 채 말을 이었다.

"'착한 사람에겐 검은망토가 선물을 준다'라는 소문이 생긴 것 같아."

눈 좋은 비사벌이 직접 하나하나 끌어모은 길드원들이다. 무력의 여부와는 별개로 머리 굴리는 실력이 나쁘진 않았다.

그들은 제 나름대로 '검은망토'의 규칙을 파악해 냈다.

"이번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는 했나 봐?"

"모든 사람에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알아, 특별히 예의 바르거나 친절했던 사람에게 준 거지?”

지오에게 선물을 받았다던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었다.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강하거나.’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갔다.

너무 약한 사람들은 자신을 보며 공포에 떠니 그에 대한 사죄의 대가로 선물을 주었을 거고, 강한 사람들은 지오의 격 앞에서도 나름 멀쩡하게 소통했으니 지오는 ‘예의가 바르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사과, 혹은 감사의 선물. 나름 1 : 1의 규칙에 어울리는 결과였다.

‘오히려 이도 저도 아닌 쪽은 선물을 받지 못했고.’

적당히 강해서 눈물 콧물 흘리지 않을 정도는 되지만, 그렇다고 거대한 격 앞에서 멀쩡히 소통할 수 있을 만큼의 강단은 없는 직원들. 그런 이들은 선물을 받지 못했다.

“음….”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싶었다.

‘인간을 흉내 내고 있는 만큼 지오가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친 녀석은 아니니까.’

뭐, 근원의 존재를 어떻게 신사적이냐고 정의할 수 있겠느냐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유성운은 나름 마음의 준비를 한 뒤 입을 열었다.

“우리 직원들 중 누군가가 너에게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거나, 아예 도망쳐 버린다거나, 대답을 회피한다거나… 그런다고 그 녀석들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니야. 그냥 조금 겁이 많은 친구들이라 그래.”

“…….”

“아무도 없어야 할 새벽에 갑자기 나타난 정체 모를, 그것도 검은색 망토를 입은 커다란 사람은 누구나 무서워할걸?”

유성운은 일부러 지오를 평범한 사람인 양 묘사했다.

지오는 스스로를 평범한 인간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굳이 영혼의 격이나 그의 본질을 까발린다고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았다.

“물론 너한테는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녀석들이 너에게 일부러 무례하게 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겁 많은 그네들 입장에서는 조금 버거웠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야.”

곧 차분한 음성이 들려왔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래? 그럼 고맙고.”

큐레이터이자 정원사인 유성운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늑대 앞에서 토끼가 쪼그라드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걸 무례하고 악한 행위라고 판단해 버리면 상당히 일이 곤란해진다. 자칫하다간 아무 죄 없는 놈들이 죽어나갈 수도 있어.’

근원의 존재에게 있어 인간의 기준은 무의미하다. 특히 ‘지오의 초상화’는 선악과 예의에 민감한 존재인데, 문제가 있다면 이 녀석의 기준이 인간과는 확연히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잘못된 게 없거나 선한 사람일지라도, 근원의 존재인 지오의 입장에서는 지독한 악인일 수 있었다.

무례하고 악한 이를 싫어한다는 식의 발언을 여러 번 한 지오를 생각하자면 섬뜩한 일이었다.

‘아예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땐 정말 등골이 오싹해졌지.’

지오가 인간을 ‘구분’했다는 의미 아닌가.

“너는, 그래. 비사벌 길드장을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었지?”

“예, 그렇습니다.”

“이 회사의 모든 직원은 전부 그 사람이 직접 뽑은 거야. 단순히 공고를 내려서 대규모 면접을 통해 뽑은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성 들여 스카우트를 해온 길드원들이라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텐데 놀랍습니다.”

“그만큼 우리 길드 직원이 착하다고는 못 해도 유능하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

이런 세상에 범죄 한 번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만, 비사벌이 직접 뽑은 그들이 최소한 악인이라고 불릴 만큼의 인간들은 아니었다.

“대단히 좋은 인성들은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지.”

“예.”

“…네가 그 사람들을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너무 무례할까?”

지오가 어떤 식으로 인간의 선악을 구별하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인간들에게는 감정 스킬이 있는 것처럼… 지오에게도 판단의 기준이 있는 것만큼은 확실해. 그렇지 않고서야 대화도 나누지 않은 비사벌 길드장을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 지었을 리가 없다.’

이런 유성운의 생각과 달리, 초상화 안에 있지 않은 이상 아직 지오는 액자 너머 상대의 ‘안전도’를 파악할 수단이 없었다.

이번에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이유는 지오가 ‘아 고맙네’ 혹은 ‘아 미안하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보상의 개념으로 선물한 탓이다. 딱히 거기에 별다른 가치 판단은 없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모르는 유성운은 지오의 감정 스킬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스킬의 기준이 너무 박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비사벌은 이 괴담 소동이 일종의 예방 접종이라고 말했다.

절대 처리하거나 통제하지 못할 자연재해인 ‘지오의 초상화’가 이 세상에 적응하고 그 구성원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런 그를 이 세계의 인간들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라고 말이다.

그러니 유성운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생각해?”

“…….”

다행히, 어쩌면 당연히도, 지오는 늘 그렇듯 무뚝뚝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

“제가 그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얼 하기도 전에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단지 선물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정말 다행인 이야기였다.

‘최소한 그 사람들이 무례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건가. 목격담이 늘어났음에도 부상자는 없었던 이유가 있었군.’

안심할 즈음, 지오가 말을 이었다.

“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도망친 사람들에 대한 조금의 원망은 있습니다.”

“앗.”

“하지만 이해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인적 드문 복도에 나타난 정체 모를 검은 망토를 입은 남자는 충분히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으나, 화를 낼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지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 그렇지.”

“예의 바르게 대화하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이곳의 직원분들이 ‘검은망토’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거나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길드장님께 이야기를 해볼게.”

유성운은 애써 난감함을 삼켰다.

‘…역시 화가 나기는 했나.’

그저 ‘나쁜 사람은 아니다’ 수준이지, ‘무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 듯했다.

평범한 사람이더라도 주변이 자신을 거부하면 화가 날 텐데, 특히 지오는 스스로를 인간이라 생각하는 근원의 존재였다.

본인을 인간이라 착각 중이라 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규칙을 거스르는 인간들에게 화가 나지 않을 리가 없었다.

‘아무리 그래도… 괴담의 공포를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할 텐데. 영혼의 격이 워낙 높으니 그 앞에 선 인간들이 위축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렇다면 최소한 직원들의 행동이라도 규제할 수 있도록 사옥 내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하나.’

잠시 고민하던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길드장님을 중심으로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어. 한 사람 한 사람 길드장님께서 직접 데려오다 보니 직원들의 그분에 대한 애착이 큰 편이고.”

“예.”

“네가 느낀 불편이 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길드장님께 말씀드려서 최대한 개선을 해볼게. 길드장님께서 강하게 주장하시면 다른 직원들도 납득할 것 같아.”

“그래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지오는 어느새 처음 보는 유리병을 들고 있었다.

“…….”

아니, 아니지. 잠깐만.

‘항아리?’

병이 아니라 항아리였다. 한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한 팔로 안아야 할 만큼 컸다.

“…그건 뭐야?”

“저의 불평과 요청을 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나 저번에 준 쿠키도 아직 다 못 먹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아….”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는 양인데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에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비꼬아서 화내는 건가’ 싶겠지만, 지오는 명백한 근원의 존재였다. 순수한 의문인 것 같아 유성운이 미안한 얼굴로 대답했다.

“미안해, 피곤할 때 먹으면 효과가 너무 좋아서 조금씩 아껴먹고 있었거든. 딱히 네 선물이 불편하다든가 입에 안 맞아서 남겨두었던 건 아니야.”

“제게 죄송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선물을 드렸고, 그건 이제 유성운 씨의 것입니다. 제게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피로할 때 힘을 주었다니 기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오히려 황송해지는데….”

유성운이 초상화 속 유리 항아리를 보았다.

“그래서, 그건 뭐야?”

그에 지오가 항아리를 감싸고 있던 손을 떼어 그에게 보여주었다.

“과일청입니다.”

“…그게?”

“누가 봐도 과일청입니다.”

“아, 그래….”

누가 봐도 과일청이 아니잖아.

‘…저게 과일청이라고?’

비록 과일이나 설탕이 값비싼 식재라 흔히 먹어보기 힘든 음식이라곤 해도, 유성운은 유능한 헌터였다. 버는 돈이 적지 않은 그가 2등급 시민도 사가는 과일청 하나 못 먹어봤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과일청과는 뭔가… 많이 다른데.’

그것은 황혼의 색을 띠고 있었다. 주황색에 가까운 주홍색이라고 해야 할까.

투명하고 깨끗한 액체는 보석의 표면처럼 윤기가 흘렀고, 저녁노을을 연상케 만드는 그 안에는 쨍할 정도로 짙은 색이 잠들어 있었다.

‘과일 비슷한 뭔가가 가라앉아 있긴 하지만….’

그 색이 너무나 황홀해 차마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이건 함께 넣어 먹으면 좋은 얼음입니다.”

“…꼭 진주처럼 생겼네.”

“이름이 얼음 진주입니다. 유성운 씨에게는 한 번에 이름을 맞히는 통찰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그래. 통찰력….”

“뜨거운 수준이 아니면 녹지 않는 얼음이니, 섭취하고 싶다면 꼭 뜨거운 차에 녹여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

와.

느껴져.

'나 이거 감당 못 할 것 같아.'

처음 지오에게서 찻잎을 받고 '좀 자제해 달라' 부탁한 후 씨앗의 대가로 받은 쿠키. 그 역시 평범하지는 않았다. 굉장한 피로 회복 효과에 한꺼번에 다 먹지도 못하고 남겨둔 것이 바로 작금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도 많아.'

요리하는 걸 즐긴다더니 꽤 손이 큰 모양이지. 아마 이 근원의 존재는 인간의 위장이 얼마나 작은지 모르는 듯했다.

"받으십시오."

"…너무 많은 거 아닐까?"

"많이 드십시오. 유성운 씨는 지금보다 살이 더 찌는 게 좋습니다."

"나 정도면 건장한 편이야."

그 신체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망토의 윤곽을 따졌을 때 오히려 지오보다도 근육량이 많은 유성운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살을 더 찌우라니? 유성운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아니 잠깐, 살이라는 게 혹시 지방을 말하는 건가?'

지오는 식인을 하는 몬스터였나?

"난 맛없어."

"재미있는 농담입니다."

"진심이었는데."

다행히 인간을 잡아먹기 전에 살을 찌우려는 과자 집 마녀 심보는 아닌 듯했다.

'근원의 존재가 어떤 미적 취향을 가졌는지 인간이 판단할 바는 아니긴 해.'

아마 지오는 미관상 좀 더 살찐 인간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본인은 저렇게 완벽히 균형 잡힌 신체면서, 보기에는 뚱뚱한 사람을 좋아한다니 조금 특이하긴 했다. 이건 대체 어떤 사연을 가진 근원의 존재인 건지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보통 선물을 준다고 하면 전부 먹을 거고, 지루할 때 하는 일도 요리나 식사라고 했지. 여러 방면에서 음식을 참 좋아하는 것 같네. 살집이 있는 사람을 더 보기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손이 이상하게 큰 것도 그렇고… 선물 주는 걸 좋아하는 것도….'

이 자식, 할머니인가.

"……."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 미안. 잠시 잡생각을 했어."

"그렇군요."

다행히도 지오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여러분의 호의에 드리는 선물이니 저는 답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새로 조합한 과일청이 맛있게 익은 듯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흐음… 그렇구나."

태연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유성운은 내심 생각했다.

'...본인이 규칙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건가?'

방금 전 지오의 말은 마치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려면 뭔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전제가 깔린 듯했다. 어쩌면 일대일의 규칙은 지오 본인이 만든 게 아닐지도 몰랐다.

'아니면 본인이 만들었는데 잊어버렸다든가.'

저만한 격에 고작 29살 청년의 기억만이 존재한다면, 그럴싸한 가설이었다.

"...일단 주니까 받겠는데...."

유성운이 과일청을 보며 감정 스킬을 사용했다.

[수맥의 꿀] [등급: –]

운명의 수맥에 자생하는 망둥 열매와 가뭄 단지로 만든 과일청. 주홍빛을 띠며 새콤달콤하고 깊은 감칠맛의 풍미가 특징이다. 숲의 주인인 지오가 직접 공정하여 인간의 신체도 받아들일 수 있다. 물에 희석해 마시면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한계까지 회복시킨다. 영양실조에 특히 탁월하다.

지오의 오두막 아래 빙하에서 자생하는 얼음 진주를 추가로 넣으면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

"향이 좋지 않습니까?"

"너 요리 정말 잘하네."

좀 덜 잘해도 될 것 같다.

오

Chapter (21)

Prev

Next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2)

제22화

유성운은 길드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도움.”

“어우 뭡니까.”

“나눔을 실천하러 왔습니다.”

“내가 아주 동네북이지요?”

아침 9시가 되자마자 비사벌을 찾아간 유성운의 손에는 커다란 유리 항아리가 들려 있었다. 난데없이 방문을 당한 비사벌도 한눈에 시선을 빼앗길 만큼 큰 항아리였다.

“취향이 독특하시군요, 유성운 큐레이터. 보기 드문 아이템입니다.”

“아 다 알면서 찌르지 마시고 도와주시죠.”

“그럴까요?”

비사벌은 입구가 밀봉되었음에도 달콤한 향이 새어 나오는 항아리에 과일청이 담긴 것을 단박에 알아챘다. 그리고 그것을 지오가 줬으리란 사실 또한 말이다.

“감정은 해보셨고요?”

“지오에게 받자마자 했습니다.”

“등급은?”

“여전히 불명입니다.”

“저런.”

달각.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청을 비사벌이 응시했다.

“…….”

“뭐가 좀 보이십니까?”

“몸에 많이 좋군요.”

“그냥 많이 좋은 수준은 아닐 것 같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저번의 쿠키도 다 먹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먹으면 오히려 잠을 못 잡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의 톱니바퀴라지만 노예도 인간인데 잠은 자야지요.”

“야근하는 직원들이나 새벽의 경비들에게 돌리면 평판이 아주 좋을 텐데.”

“그러다 우리 초상화 협회에 뺏겨요. 아무리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라지만 정보는 어디서 새어나갈지 모릅니다.”

“압니다, 알아서 자제 중이죠.”

비사벌은 잘게 웃었다.

“무엇보다 지오를 아이템 지급기로 취급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비사벌의 말을 곱씹던 유성운이 이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의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직도 명확한 정체를 확신할 수 없는 ‘지오의 초상화’였다.

정도 이상으로 겁을 먹지는 않되, 가능한 한 경계하고 의식하는 쪽이 인간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었다.

“효과를 둘째 쳐도 생긴 것마저 신성해 보일 정도이니, 신전에 기부하면 큰 호평을 얻겠습니다.”

“예, 뭐, 영양실조 쪽에 특히 탁월하다는 말이 있던데. 제가 그런 상태는 아니라 체감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영양이라고 하면 태양의 신전이 특히 좋아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미라 직전의 빈민들도 구제가 가능할 텐데요.”

“태양교에서 반길 정도라니, 확실히 따듯한 기운의 아이템이라는 건 알겠고. 그렇게 효과가 좋습니까?”

“농축액이니 한 스푼씩만 가져가도 던전 탐색 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탐색 팀은 던전의 공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곳에서 실종된 사람이나 던전의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되는 헌터들이다. 단기간에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소비되는 식량도 많았다.

문제는 아무래도 던전의 환경이 환경인 만큼 너무 많이는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 탓에 별맛이 없는 영양 식품이나 포션 위주로 챙겨 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건 보아하니 맛도 있는 것 같고, 농축액이니 소량으로도 충분하고, 과일차의 형식으로 마시는 것이니 섭취하기도 포션처럼 간편하죠.”

“…….”

“세간에 알려진다면 정부 측에서 규제가 들어올 만큼 사적으로 즐기기엔 부담이 큰 녀석입니다.”

“역시 그런가.”

“하지만 범인류적 차원에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적으로 즐겨야 하겠습니다.”

비사벌이 철없는 청년처럼 웃었다.

“팔 수는 없잖아요?”

“아, 절대 안 되죠.”

근원의 존재가 호의로 준 선물이다. 팔아도 된다고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닌데 경매에 돌아다니는 꼴을 알게 된다면, 그때 유성운이 감당해야 할 증오와 원망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것이다.

그게 바로 ‘규칙’이었다.

“매번 하는 생각이지만 정부는 근원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낮습니다.”

대재앙이 있고 31년째.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리 긴 시간도 아니었다.

쉽게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던전과 달리 인간에게 무심한 근원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번 대통령은 꽤 신경 써주고 있는 데다, 이런 근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사회에 반영되는 건 없고요.”

유성운이 답답한 한숨을 쉬었다.

“던전뿐만 아니라 근원의 방면으로도 안전 예방 교육 같은 게 실시되면 좋을 텐데. 근원의 자식에게 원인도 모르고 죽은 사람이나 그 유가족을 보면 많이 안쓰럽습니다. 정원사들이 대처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직 제대로 밝혀진 부분도 아니고, 지금으로서 가장 위협이 되는 건 그 표면의 던전뿐이지 않습니까? 가만히만 두면 별일 일으키지 않는 근원보다야 툭하면 지랄 나는 던전을 더 신경 쓰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인력도 부족하고.”

“완전 수박 껍질만 갉아 먹는 꼴인데도 말입니다.”

“근원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도 한몫을 할 겁니다.”

개나 소나 보고 인지할 수 있는 던전, 그리고 그곳을 집으로 삼는 몬스터들과 달리, 일명 ‘근원의 자식’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감지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여러 이론이 나왔지만 ‘인간의 신체 능력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가장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기에 지구의 환경이 변화하며 진화 혹은 변질된 소수의 인간들만이 ‘근원의 자식’을 볼 수 있는 거라고 말이다.

“적성자라고 해도 모든 근원의 자식들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일종의 재능이니까요. 사람마다 청력이 다른 것처럼 모든 적성자가 볼 수 있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못 보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쪽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신기합니다.”

“볼 수 있는 적성자가 적은 자식일수록 근원과 가까운 존재라는 가설도 있기는 합니다. 저조차도 보지 못하는 자식이 어딘가에는 있겠죠.”

“위험이 지척에 있는데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건 확실히 섬뜩한 이야기군요.”

“보거나 감지하지 못하면 애초에 건드릴 수조차 없고, 건드리지만 않으면 화내지도 않으니까....”

유성운이 한숨을 내쉬었다.

“초조한 마음에 투정을 부렸지만, 솔직히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근원에 대해 모른다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무관심해요.”

“지난번에 말하기로는 예외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몬스터만큼 적극적이지 않으니 피해도 적겠죠.”

이런 희소성 역시 여태껏 근원의 자식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였다.

“뭐, 아무튼.”

“예.”

“이걸 먹긴 먹어야 할 텐데.”

“그렇죠.”

“진한 농축액인 데다 양도 많으니 저희끼리만 먹기는 뭐하고.”

“...또 다른 희생양을 부를 생각이십니까?”

“인사 팀을 불러야겠군요.”

인사 팀은 비서 팀과 같이 길드원 중에서도 가장 입이 무거운 사람들을 뽑아둔 곳이다. 전반적인 길드원들의 케어부터 시작해 길드장인 비사벌의 은밀한 명령까지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최소한 다른 팀으로 퍼져 나가지는 않겠죠.”

“그거야 그렇겠습니다만….”

“요즘 야근한다고 정신이 없기도 하고.”

“아주 제 쿠키도 까발리시죠.”

“이번 건 제가 별도로 구매한 아이템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그건 감사하네요.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과연 통할 변명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에이 다들 눈치가 있으니 알아서 조용히 하겠죠. 추가 업무를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직원들인데.”

“하긴 그런 사람들만 모아뒀으니….”

유성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동료들과 나누어 먹었다는 것 정도는 지오도 신경 쓰지 않을 거다.’

물론 근원의 규칙이란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니다. 특별히 지정한 상대가 아닌 이가 섭취 시 독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애초에 지오는….’

분명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고.

‘그렇게 말했지.’

이 길드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었다는 거다.

“…….”

“역시 문제없겠습니까?”

“예, 복기했지만 역시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이 맞습니다.”

“하긴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커다란 항아리를 준 거겠죠. 유성운 씨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 부분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준 것 같습니다만….”

워낙 손이 큰 녀석이라.

“근원의 존재가 인간의 기준에서 어떤 양이 적당한지 아는 것도 웃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유성운 큐레이터는 그가 인간일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 중입니다.”

일명 ‘검은망토’를 만났던 직원들은 지오가 스스로를 ‘서지오’라고 소개했음을 증언했다.

29살에 죽었거나 그렇게 설정된 청년, 지오. 아마 그게 ‘지오의 초상화’가 지니고 있는 기억일 것이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그렇다면 왜 초상화는 ‘지오’라고 정의되었냐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 지어준 게 아니었다.

“근원이 정의한 이름이죠.”

각성자, 즉 헌터들이 사용하는 스킬은 전부 근원의 도움을 받는다. 이번에도 같은 맥락이었다.

일종의 신이나 전 차원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근원이, 고작 한 행성의, 한 나라의, 한 건물 지하에 있는 한 초상화를 그렇게 이름 붙였다는 것이다.

“그러니 초상화의 이름은 ‘서지오’가 아니라 ‘지오’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주장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근원이 판단한 것과 지오의 기억이 일치하지 않다는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저희 스스로, 혹은 다른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명명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의 본질에 대한 이름이죠.”

이는 곧 근원이라는 어버이가 붙여준 ‘진정한 이름’이라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시스템에 표기된 이름은 근원이 평가한 그 대상의 본질이니 한낱 인간으로서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름이 지오에게는 바로 붙어 있다는 겁니까?”

“그것도 누구나 해석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습니다. 허접한 레벨의 감정 스킬이든, 길드장님처럼 고위급의 감정 스킬이든 전부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이지만….”

“문제는 그 이상 알아낼 수 없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유성운이 가위질하며 무언가를 잘라내듯 손을 휘적였다.

“근원이 ‘이것은 읽어선 안 된다’고 차단을 해놓은 셈이죠. 그저 딱 한 가지, ‘지오’라는 이름만 알려준 거예요.”

“마치 신의 이야기 같군요.”

“신의 시선을 받은 사람은 미쳐 버린다고들 하죠.”

유성운은 부정하지 않았다.

“근원은 대체로 인간에게 호의적입니다. 아니, 자신이 품고 있는 모든 것에게 호의적이죠. 그렇기에 오히려 무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

“오직 인간에게만 호의적이었다면 그의 자식 중 하나인 던전은 탄생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모든 자식들이 평등하게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득한 오만함은 분명 ‘신’이라고 불릴 법하다. 요즘 세대의 신은 전지전능함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졌지만 말이다.

“그런 근원이 직접 파고들지 말라, 위험하다 정의한, 자아를 가진 초상화입니다.”

“…….”

“…정말 신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일 수도 있죠. 고작 인간은 정의할 수 없는.”

스스로가 인간이라며 착각하고 있는 ‘무언가’ 말이다.

“…….”

“…요즘 같은 세상에 신의 특징을 가진 무언가라고 해봤자 얼마나 놀라울까 싶지만, 아무튼….”

유성운이 푹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추측 중 하나입니다. 몬스터도 아니고, 아이템도 아니고, 근원의 자식들 중 하나도 아닌 것 같으니 이런저런 해괴한 가설이 떠오를 수밖에 없군요.”

“나는 나름대로 현실성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사제들은 신을 모시고 있고, 이 세상에 유희를 즐기는 신도 존재합니다. 인간과의 교류를 즐기는 신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게 실제라면 지구가 위험하니 그만둡시다. 지오가 스스로 인간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재앙을 넘어선... 재앙 같은 기적이 발생할 거라고요.”

“흠, 그럴까요?”

“저희 스스로도 지오를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해 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근원은 ‘살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위험도가 바뀝니다.”

“그거 정말 놀랍습니다.”

비사벌은 매우 흥미로워했다.

“일본에서 주로 그런 식의 근원의 자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워낙 신사가 많은 나라라 그런가, 그만큼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의 자식들도 다양하던데. 저희가 지오라는 신을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위험한 녀석에게 신의 이야기라는 무시무시한 기름 끼얹지 말라고요.”

“역시 살아 있는 이야기는 무섭네요. 단지 그에 관해 더 자세히 알거나 추가적인 설정이 편입되는 순간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리니... 신화를 좋아하는 문화권에서는 특히 사고가 잦다죠?”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이 양반이 대체 무슨 재앙을 일으키려고....”

질린 얼굴로 중얼거린 유성운은 다시 평소의 무던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아무튼 지오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불완전하리라고 봅니다. 근원과 관련된 그의 본질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떠나, 자신이 인간이라 생각하는데도 스스로의 상태와 능력에 아무런 동요가 없다는 점이 그것을 증명해 주죠.”

아니다. 그냥 지오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 뿐이다.

하지만 자신의 변화를 ‘제가 인간이었는데 죽다 31년 만에 살아나니 초상화로 진화했습니다 따란’ 정도로 끝낼 만큼의 그 말도 안 되는 무심함이 유성운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제 몸에 둔감하게 굴진 않았다.

“그가 제대로 된 인간이었다면 자신의 상태에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애초에 인간에서 초상화가 되었는데, 그 부분부터 기괴함이나 혐오를 느끼지 않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 안에서 자신이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전능함에 도취되지 않은 것도... 인간으로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 지오의 기적과 같은 무신경함이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방향으로 빛을 발했다.

“인간의 감수성으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확실히 평범하지는 않네요.”

“그야 근원에 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가 인간이었다가 근원에 속한 건지, 근원의 어떤 존재가 인간의 형상을 띠게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흠....”

“하지만 지오는 질문에 순순히 대답하는 것과 별개로 본인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오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비슷한 맥락에서 유성운이 제 과거를 궁금해할 거란 생각 자체도 못했다.

“스스로를 인간이라 말하면서도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지오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해다. 너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나머지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됐을 뿐이다. 허리케인과 같은 인생을 즐기는 지금의 지오는 머리 아픈 고민 따위 하지 않았다. 인생은 즐기기만도 바빴다.

물론 상황 파악이 되었더라도 예의상 5초 정도 충격받고 곧장 점심 메뉴를 고민할 사람이 지오였다. 그는 자신의 쾌청하고 뽀송한 뇌에 찬물 끼얹을 여지를 주지 않는 이 시대의 철벽남이었다.

“보통은 그렇게 태연하지 못하죠.”

“그건 맞습니다.”

“자기가 당장 대량 학살을 벌이고 천재지변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그냥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 거다. 지오에게 있어 인생의 시련과 난관이란 하루 세 끼의 메뉴뿐이었다.

애초에 인간을 초월한 자신의 능력도 ‘그림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힘’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지오였다. 그는 이게 인류에 위협이 되는 힘이라는 생각조차 안 해봤다.

지오는 ‘이걸로 군고구마 해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지?’라고 말할 수 있는 위인이었다.

“저는 인간이 그렇게까지 그릇이 큰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컸다. 삿된 것은 들이는 법이 없는 지오의 뇌 맑은 사고방식은 ‘심각한 정보’ 중 ‘정보’만 들이는 재주가 있었다.

지오는 자신이 초상화로 진화했다는 것과 이렇게 하면 요렇게 먹고 살 수 있다는 사실 외의 다른 일을 크게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얼렁뚱땅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물론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선 상상도 못 할 속사정이었으므로, 그들은 여전히 진지했다.

“인간으로서 알아야 할 꽤 많은 정보도 모르고 있죠.”

“…….”

“그렇다면 여러모로 본인의 생각과 현실은 괴리가 있을 텐데….”

“그런데도 지오는 스스로를 인간이라 주장하고 있고요?”

“본인도 현실을 알지만 애써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31년이 지난 현재의 세상에 적응이 덜 된 거였다. 90세 노인이 키오스크 활용할 때 버벅거릴 수도 있는 것처럼.

하지만 유성운은 알아서 결론을 내렸다.

“그 경우 자기 세뇌 수준의 암시일 테니, 어느 쪽이든 저희가 먼저 지오의 정체에 대해 캐묻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역시 흥미롭네요.”

비사벌이 부럽다는 듯 유성운을 보았다. 그가 냉동실의 아이스크림을 더 먹고 싶은 아이처럼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저도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그렇군요.”

“주선을 부탁드립니다.”

“역시 좀 무리네요.”

“아 왜요.”

“지오가 싫어합니다.”

“미워하지는 않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유성운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제게 지오를 맡긴 건 길드장님이셨습니다. 저는 지오의 컨디션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어요. 스스로를 인간이라 생각하는 이상 지오에겐 충분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케어에 어울리지 않는 인간이란 말입니까?”

"그럼 어울리겠어요?"

"과연 유성운 큐레이터. 허튼 말은 뱉는 법이 없어."

"...하...."

결국 본인도 반박은 안 하는군.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참 다행이지.'

유성운은 씁쓸하게 웃었다.

"저희가 지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점은 이전과 같습니다. 우린 아직 그 녀석의 정체도 모르고, 정확한 사고방식이나 이외의 규칙이 있는지도 모르죠."

"일단 제가 모셔 온 분이니 확실히 대접해 주십시오. '지오의 초상화'가 내 갤러리의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 제가 바라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비사벌이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본인을 인간이라 여길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대단히 부담스럽지만, 인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기에 유성운이 생각한 것이 있었다.

"...조만간 지오를 데리고 사외를 돌아다녀 볼 생각입니다."

지오가 머물고 있는 초상화는 인간이 산다고 하기엔 너무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지오는 인간인 자신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지, 이를 그저 '초상화에 머물게 되었을 뿐'이라 말하지만... 계속 그 안에만 있다 보면 언젠가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오가 자신을 인간이라고 착각 중인 것은 저희에게 큰 행운입니다. 가능하면 그가 계속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그러려면 지오를 인간들 사이에 끼워 넣어야 합니다."

"나무를 숨기려면 숲으로 가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인간다운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 착각도 오래 유지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오에게 도시 내부를 구경시켜 줄 생각입니다."

"위험도는?"

"......."

유성운이 눈을 피했다.

"...조심해야겠죠."

"그걸로 되는 겁니까?"

"어쩌겠어요, 지오가 본질을 깨닫고 터지기를 기다리느니 뭐라도 해보는 게 나을 텐데."

"유성운 큐레이터의 판단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범한 선택인데. 물론 나는 찬성합니다."

"저도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자각은 있습니다. 그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아직 유성운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만, 애초에 눈만 마주쳐도 사람 까무러치게 만들 수 있는 초상화 아닌가.

"지오는 인간에 대한 배려심이 강합니다.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죠. 지금까지 마주친 직원들 중 사망자도 없는 데다... 현실에도 지오만큼의 위압감을 주는 헌터들은 몇 있습니다."

"난데없이 S급이 나타났다 언론에 공개되면 골치 아픈데요. 요즘 공인이니 아이돌이니 하면서 각국 간의 헌터부심이 강해진 탓에 한번 소문이 나면 삽시간에 퍼져나갈 겁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죠. 헌터라고 꾸미는 편이 위장하기는 더 쉬울 겁니다. 어쨌거나 지오를 인간의 규격에 끼워 맞출 수 있을 테니까요.”

“…….”

“근원의 자식은 자신이 품은 이야기의 크기로 그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인간 수준으로 지오의 ‘이야기’가 축소된다면, 안전성은 높아집니다.”

유성운이 한숨을 내쉬었다.

“…지오가 허락했을 때의 상황이지만 말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아 몰라요, 묻지 마십쇼. 안 그래도 머리 터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추가 수당 넣어 드렸잖아요.”

“빌어먹을 자본주의 사회 같으니.”

잠시 고민하던 유성운이 말했다.

“직원들에게 지오를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통하겠습니까? 뇌가 카페인에 녹았나? 통조림이 되어서 기능을 못 하는 건가?”

“뭘 또 그렇게 신랄하게 말씀하십니까. 최소한 규칙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자신을 마주치는 사람마다 심하게 경직되니 지오가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을 무례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

“지오에게 불쾌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저희 인간 측에서도 최대한 그에게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

비사벌이 고개를 끄덕였다.

“행동만 규제하는 것 정도라면 어떻게든 되겠군요.”

“가능하겠습니까?”

“못 할 것도 없죠.”

이곳은 수집상. 수집가의 나라이니, 그가 못 할 일은 없었다.

이게 바로 현대 사회의 길드장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이었다.

Chapter (22)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2)"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3)

제23화

한편, 지오는 심심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정말 심심한 고민이었다.

“…….”

이 세계에 온 이후로 그는 한 번도 풍경화를 그린 적이 없었다.

‘아니, 한 번도 없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면 허니와 그 동족인 물새들의 호수를 만들어 주었던 적이 있었지만, 고작 그뿐이다. 그건 엄밀히 말해 이 세계에 부속품 하나를 더 늘리는 것뿐 제대로 된 풍경화는 아니었다.

그러자니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과일도, 건물도, 동물도….”

전부 그려낼 수 있었다.

“그럼 풍경은?”

내가 그려낸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

지오는 의문을 품은 채로, 그림을 그려나갔다.

일단은 3개 정도.

* * *

‘숨 쉬는 바다’

검색 중….

…….

….

…….

해당 차원 존재

진입 가능

....

적합자 확인

동기화 가능

'동물의 왕국'

검색 중....

....

....

....

해당 차원 존재

진입 가능

....

적합자 확인

동기화 가능

'공허의 도시'

....

....

....

해당 차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록하시겠습니까?

* * *

3개의 확인하지 않은 알림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새로운 알림을 확인하십시오.

"......."

지오는 느꼈다.

'즐거움의 예감.'

농사를 마치고 나니 귀신같은 타이밍에 등장한 새 콘텐츠였다.

야작은 예술가의 동반자이자 자유로운 영혼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행위다. 밤새 그림을 그린 지오는 총 3개의 풍경화를 완성했다.

"흠."

알림이 3개라는 걸 보니 대충 짐작이 간다. 그는 추석에 잘못 도착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다.

"착한 어른은 언젠가 보답을 받는 법이지."

"꾸웅?"

"아빠만큼 착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러니."

“꾸르르….”

“부자 관계의 신뢰가 이다지도 터무니없구나. 통탄할 일이다.”

지오는 근엄한 얼굴로 능숙하게 헛소리를 지껄이며 시스템의 알림을 확인했다.

“…….”

그리고 물었다.

“도움말이 어디 있을까.”

그렇다. 해석할 수 없었다.

‘어제 완성한 3개의 그림과 연관이 있다는 건 알겠어.’

지오는 첫 번째로 바다의 풍경을 그렸고, 두 번째로 황야의 풍경을 그렸으며, 마지막으로는 아무도 없는 도시의 풍경을 그렸다.

‘숨 쉬는 바다, 동물의 왕국, 공허의 도시… 이런 이름을 붙인 적은 없는데.’

아마 시스템이 알아서 붙여준 게 아닐까 싶었다.

“시스템이 나의 작명 솜씨를 알았는지 작품명 지을 기회를 뺌쳐 갔구나…. 하지만 그렇다 쳐도 ‘해당 차원 존재’는 무슨 말일까.”

직역하자면 지오가 그린 풍경화와 일치하는 실제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처럼 들렸다.

“차원 하나를 발견할 정도의 능력이라니 과연 인간으로서는 어떨까 싶네.”

물론 초상화로 새롭게 진화한 뉴지오에겐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인간이 그림으로 진화한 마당에 인간으로서의 기준 따위는 잠시 안드로메다 옆에 맡겨둬도 되는 것이다.

“따란.”

기가 막히게 합리화를 마친 지오가 다시 셜록 홈즈 뺨치는 추리를 이어갔다.

“진입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내가 그린 그림 중 실존하는 차원이 있고,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도 있나 보군.”

이런 대규모 업데이트는 예상치 못했다. 원래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토록 성실한 운영진을 두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었다.

“좋네.”

남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강원도의 산뜻한 영혼. 지오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알아서 가고 있는 자신의 남다른 도전을 긍정하고 응원했다.

“하지만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도무지 ‘적합자’와 ‘동기화’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

“…….”

“뭐가 적합하고 뭐와 동화한다는 걸까.”

“꿍?”

귀엽지만 속아선 안 된다. 저건 ‘그러게?’가 아니라 ‘그걸 내가 알겠냐?’는 의미였다.

“그래.”

지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불순한 시선으로 보아하니 사춘기가 온 것 같은데, 그래도 꼬박꼬박 아빠의 말에 반응은 해주는 걸 보니 허니가 얼마나 성실한 아들인지를 알 수 있었다.

세상에 나쁜 물감은 있어도 나쁜 그림은 없었다. 허니가 그랬다.

'기특한 것.'

시스템 창을 확인하던 지오는 곧 새로운 목록을 발견했다.

적합자 목록

누가 봐도 정답이었다.

"어디 볼까."

숨 쉬는 바다_지오반니

동화율 0%

동물의 왕국_아르지오

동화율 0%

뭔데.

"……."

설명: 적합자

"양심은 있구나."

적합자

낯선 차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 표시된 차원 속 기존의 존재 중 '지오'에 해당하는 대상을 '적합자'라고 명명했다. 적합자의 동의를 구한다면 그 영혼과 몸을 빌려 차원을 손쉽게 이해하고 여행할 수 있다.

"이래도 못 알아듣겠다면 어떻게 할 셈이지?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지는군."

하지만 이해했다.

"실존하는 차원 중 '적합자'가 존재하면 그 사람의 신체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건가…."

이 집 일 잘하네. 그 적합자라는 사람의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배려심 넘치는 구조였다.

"나는 그 차원의 문화에 대해서도 모를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의 내 몸과 맞지 않는 세균이 있을 수도 있지. 지구에서는 공기를 마시며 호흡할 수 있다고 해도 다른 곳에선 질소 같은 기체로 호흡할 수도 있어."

그런 의미에서 '적합자'의 도움을 받는 것은 편리한 선택이 될 것이었다.

"그 적합자를 찾는 기준은 상대가 '지오'라는 점일 테고…."

목록의 이름을 보면 대충 감이 잡혔다.

숨 쉬는 바다_지오반니

동화율 0%

동물의 왕국_아르지오

동화율 0%

"아마 이 사람들도 '지오'라고 불렸겠지."

아무튼 이름에 '지오'가 들어가면 그만인 걸까?

"…아니, 그랬다면 굳이 적합자라는 식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다. 다른 조건이 더 있으니 일부러 목록까지 만들어 관리할 만큼 중요하게 취급되었을 거야."

아마 지오 자신과의 싱크로율이나 적응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싶다.

"재밌네."

아주 마음에 들었다.

"한평생 심심해질 일은 없겠군."

업데이트된 데이터의 양이 너무 거대해서 살아생전 다 즐길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차원 단위의 업데이트라니."

정말 놀라웠다.

"……."

하지만 이 기나긴 설명과 분석이 끝나고도 아직 한 발 남았다.

"공허의 도시는 뭐지?"

'공허의 도시'

해당 차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록하시겠습니까?

"내가 새로운 차원을 만들었다는 건가?"

제대로 미친 소리였다.

"내 인생 화려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군."

아주 좋았다.

지오는 결코 깊게 생각하는 법이 없었다. 이번 일도 그랬다.

물론 세계 평화와 우정과 사랑이 걸린 일이라면 때 타지 않은 산골 청년의 순수한 마음으로 깊이 고민해 보겠지만, 이건 그다지 의욕이 동하지 않았다.

지오는 매일 아침 에스프레소만 마실 것처럼 생겨서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초딩 입맛을 가졌다.

"흠."

그의 궁극적 긍정 마인드는 고작 차원을 만들어내는 것 정도에 굴하지 않았다.

"내가 새로운 차원을 만들었다고 지구 내 임의의 원자력 발전소가 1초 뒤에 터지지는 않잖아."

그럼 된 거다.

"허니, 너도 동의하나?"

"꾸루룩!"

"그럼 정말로 된 거다."

가족의 동의도 얻은 이상 더는 거리낄 게 없었다.

비록 살아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스케일이었으나, 그런 사소한 정보가 지오라는 뿌리 깊은 나무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었다. 지오는 신념이 있는 초상화였다.

"삶이라는 건 굉장해."

살다 보면 늘 새로운 콘텐츠가 생겨나고는 한다.

“당장 이 콘텐츠를 즐기지 않는다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

“대체 어느 부분에서 침묵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허니, 이 아빠를 믿으렴.”

지오는 자신이 있었다.

매우 즐길 자신.

“인생은 허리케인이야.”

자유분방하게 혀를 놀린 지오가 목록의 적합자 [지오반니]를 선택했다. 지구의 이탈리아에서 종종 쓰이는 이름이라 괜히 친숙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오는….

―뿅.

“…….”

‘뿅?’

어느 수술실에 홀로 남겨졌다.

“…….”

마땅히 어깨에 있어야 할 허니도 없었다. 슬픔이 밀려온다.

‘고독해.’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시스템의 농간으로 18세기 유럽에서나 볼 법한 수술실에 떨어진 지오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시스템의 신들린 운영 실력과 방대한 콘텐츠에 감탄하던 것이 엊그제는커녕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무신경한 배달 서비스는 대체 뭐지.’

그는 배려심 없는 시스템의 행실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말았다. 그는 지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본 다음 이동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친절하게 고지했어야 했다.

이 경우 클레임을 넣어야 할 고객 만족 센터는 어디가 될지 고민하던 지오는, 어느새 누군가가 제 앞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궁상떨기를 멈췄다.

“…….”

“…아.”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지오가 잠시 낯을 가렸다. 누군지는 몰라도 0○7 선배님 뺨치는 잠행 실력이었다.

“…….”

“…….”

“…….”

“…안녕하세요?”

순간 지오가 ‘끝내주는 자기소개를 하는 101마리 달○시안’이라는 같잖은 생각에 잠긴 사이, 먼저 입을 연 것은 수술실의 주인으로 보이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반갑습니다, 바틀란 가문의 지오반니라고 합니다.”

“…지오입니다.”

“예, 압니다. 선생님께서는 저를 지오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선하고 믿음직스러운 미소가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그는 놀라울 정도로 지오와 닮아 있었다. 아마 지오가 서양인이고, 또 조금 더 나이를 먹는다면 딱 저런 얼굴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다.

그리고 지오는 용맹하게 질문을 참지 않았다.

“저와 매우 닮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이 비슷할 겁니다.”

“저는 당신처럼 선하게 웃지 못합니다. 웃는 것 자체에 미숙해서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의 것처럼 귀엽고 솔직한 고민이군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턴 저처럼 웃으실 수 있을 테죠.”

의미심장한 말을 한 ‘지오반니’는 곧 민망함을 담아 웃었다. 지오보다 훨씬 호쾌해 보이는 어른이었다.

“서지오 선생님께서는 무척 직설적이고 다정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지오반니 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초면의 제게 해주신 칭찬을 보니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선하신 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빛을 긍정하는 것은 태양의 사제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이죠. 선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제….”

사제?

“…이곳은 병원으로 보이는데, 당신은 의사가 아니었습니까?”

“의사이기도 합니다. 태양의 사제라고 해서 모두 신전 안에서 경전만 외울 필요는 없죠. 저처럼 바깥에 나와 활동하는 사제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말한 ‘지오반니’는 곧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많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의 세상은 바닷물에 뒤덮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 갑자기?

“지오반니 씨의 고향이 멸망했다는 사실은 초면의 제가 듣기에는 너무 깊은 이야기가 아닌지….”

“들어보세요.”

“예, 경청하겠습니다.”

“지금 그 세계에 남은 것은 바닷속에 숨어 있는 인어들뿐이겠죠. 저희 행성은 하나의 게임 보드처럼 줄어들고 규칙화되었어요.”

“게임 보드처럼?”

“아마, 던전화… 라는 게 되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던전을 아십니까?”

“저희 세상에서는 원래 없었던 개념이라 죽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마 ‘지오반니’는 이미 죽은 사람인 듯했다.

“하지만 서지오 선생님, 당신이 저를 부른 순간 알게 되었죠.”

“…….”

“우리는 같은 ‘지오’입니다.”

그는 여전히 선량한 미소를 지은 채 말했다.

“하지만 결코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당신을 평행 세계의 저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죠. 그저 우리는 기적적으로 매우 많은 공통점을 가졌을 뿐인 전혀 별개의 인간입니다.”

“…….”

“비슷한 얼굴에, 비슷한 목소리에, 비슷한 손재주 같은 것들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결코 같은 색이 아닙니다.”

잠시 고민한 지오가 물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십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정말로 제 취향과 비슷하신지 궁금합니다.”

“제 비밀스러운 취미 중 하나죠. 인어를 닮은 바다를 그리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인어를 닮은 바다라니….”

그림 그리는 것을 즐기는 취향도 같았다. 그것만으로도 지오는 저희가 같은 ‘지오’라는 것을 인정했다.

“보고 싶군요.”

“곧 보게 될 겁니다.”

다정한 확신으로 가득 찬 음성. 쉽게 꺾이지 않을 그 온화한 목소리에 지오는 의문이 들었다.

“저에게 영혼과 몸을 빼앗기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렵거나 원망스럽지는 않습니까? 저는 고작 새로운 차원을 탐미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강탈하는 겁니다.”

“이건 강탈이 아닙니다. 애초에 저는 이미 죽었고, 영혼은 태양의 곁으로 돌아갔으며, 육신은 흙이 되어 땅에 묻혔… 음, 흙이 되지도 땅에 묻히지도 못하긴 했군요. 지금은 그 땅마저도 바닷물에 침수되었을 게 뻔하지만요.”

“이게 무슨 노인분들이 곧 죽을 테니 비싼 거 사줄 필요 없다고 말하는 블랙 조크와 같은 소리죠? 본인은 아무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희가 초면이라는 걸 잊으신 듯합니다.”

“하하하….”

진짜 하나도 안 재밌었는데 본인이 마치 정말 재밌는 농담을 했다는 것처럼 웃은 ‘지오반니’가 곧 말을 이었다.

“제 영혼은 지오 선생님의 것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일종의 부활이자 환생이라고 할까요. 나는 당신에게 스며들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고, 그렇게 근원 속에서 살게 되겠죠.”

“…근원?”

“아직은 낯선 개념이실 겁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미 당신은 그곳에서 살고 있지요.”

“내가 머무는 곳이 ‘근원’이라는 겁니까? 제가 최근 새로 사귄 지인분께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마저도 지구인들이 붙인 이름일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무슨 이름을 가졌는지, 또 어떤 규칙과 어떤 형상을 지녔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한미한 영혼인 저로서는 그저 부름에 응답해 당신께 호응할 뿐입니다.”

곧이어 ‘지오반니’가 미안한 듯 입을 열었다.

“가능하다면 태양의 신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있던 세계의 태양신 말입니다.”

“신을 보살펴 달라는 소리가 한낱 한미한 영혼에게서 나왔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재밌는 농담을 하시는군요. 사실 별로 재밌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생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근원이 아니고서야 결국 신 역시 신도가 없으면 잊히더군요. 그런다고 태양께서 소멸하시진 않으시겠으나 그의 아들로서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어떻게 신을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저도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종종 대화를 나누고, 또는 그분의 힘을 빌리시면 됩니다. 햇빛에 빚어진 사제로서 명예로운 제 영혼에 걸고 맹세컨대 당신께 그리 부담되진 않을 겁니다.”

지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요약하자면 혼자 사는 노인분들 찾아뵙는 느낌인가.’

미술 교사였던 지오는 대학생 때 이후로 종종 자원봉사를 나갔다. 그중에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채 홀로 늙어가는 노인분들도 꽤 계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지오는 경력직이었다. 신이라는 말에 쪼그라들었던 그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저 그거 잘합니다.”

“하하, 다행이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리 원하시는 건 없습니까?”

“신을 보살펴 달라는 부탁만으로도 부담스럽지는 않으신가요?”

“아까까지만 해도 부담됐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초초초고령화 사회였던 강원도 산골 깊숙한 마을에서 지오는 유일한 어린아이였다. 그는 최소한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재롱떠는 일에는 자신 있었다.

그런 자신감을 느낀 ‘지오반니’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아리아….”

“아리아?”

“제 학생의 이름입니다.”

“…….”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군요.”

여전히 부드럽지만, 어딘가 슬픔이 깃든 어조.

“그녀에게 끝을 주세요.”

그 순간.

“…아….”

지오는 오두막 침대 위로 돌아왔다.

“…….”

“…….”

“꾸르르….”

“…그래….”

숨 쉬는 바다_‘지오반니’

"괜찮아."

지오반니의 퀘스트

"아빠 괜찮아."

태양신과의 소통(0/1)

인어 공주에게 결말을(0/1)

"정말로…."

동화율 1%

"괜찮습니다."

"……."

"아무 문제 없어요."

이상한 기분이었다.

온몸을 타고 오르는 추위와 뼈를 가르는 고통에. 그보다 더한 슬픔에, 지오반니는 영문도 모르고 울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

"……."

그렇게 달이 지고 새로운 햇볕이 들 때까지 울다가….

"…후회하지 않아."

짓무른 눈으로 웃었다.

난 행복했어.

Chapter (23)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3)"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4)

제24화

『신규 직원 알림』

최근 길드 내부에 괴담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소란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혼란이 가라앉지 않는바 공지하니, 모든 직원들은 숙지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

"뭐라고 써야 하지."

비사벌은 모니터 앞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다.

"…재밌게 가볼까."

그가 곧 손을 놀렸다.

검은 망토를 두른 남성의 이름은 지오입니다.

지오는 새벽 근무반 직원입니다. 신원을 묻지 마십시오.

…….

* * *

"지오."

어김없이 유성운이 초상화 속 지오를 불렀다.

"깨어 있어?"

"예, 깨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태연한 모습을 취하면서도 유성운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는 지금 근원의 존재에게 무언가를 제안하고 있었다. 그 무게를 알아야 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어.'

본디 근원 속에 사는 놈들은 인간과 말이 통하지 않았다. 고작 저 멀리서 재채기 한 번 한 것이 상대에게는 끔찍한 모욕일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누다 웃는 것이 상대를 슬프게 할 수도 있었다.

근원의 존재에겐 그들만의 규칙이 있었다. 그들의 규칙은 인간이 보았을 때 매우 비합리적이고 불규칙해, 절대 인간들의

입장에서 상대를 대해선 안 됐다.

“혹시 바깥으로 나오고 싶지는 않아? 네가 원한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하는 말이지만….”

그저 끊임없이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의 방법이었다.

“아무래도 너는 바깥의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지난번의 씨앗 관련한 일도 그렇고 말이야.”

“유성운 씨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관광할 생각은 없나 해서 물어봤어. 필요한 물건이나 비용은 전부 내가 부담할 거고, 물론 나도 네 곁에서 안내를 해줄 거야.”

“안내해 주시는 겁니까.”

“그래, 너는 말 그대로 몸만 오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정체 파악도 안 된 근원의 존재를 바깥으로 빼돌리다니. 비록 비사벌의 허락을 맡아 진행한다지만, 지를 땐 지르는 유성운으로서도 이건 대담한 도박이었다.

‘…그래도 사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 여차하면 도시 바깥의 새로운 헌터라고 둘러댈 거고.’

지오가 계속 신사적인 태도만 유지해 준다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물론 지오의 정체를 모르니 그의 의도와 별개로 현실의 무언가와 상호 작용을 해버릴지 모르지만, 이 역시 상관없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면 미리 알아두는 게 현명했다.

‘약간의 피해가 있더라도 말이지.’

유성윤이 대답을 기다리자, 곧 음울하고 고상한 낯의 초상화가 입을 열었다.

“관광이라.”

많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소름이 돋았다. 초상화의 어조는 여전히 기괴할 만큼 무뚝뚝했다.

“좋습니다.”

“…그래?”

“언제가 좋겠습니까?”

꽤 빠른 답변이었다.

‘바깥으로 자기를 끌어내려 한다며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지오는 초상화였다. 그림을 현실로 끌어내려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에선 모욕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오는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이전에 알아서 몇 번 나오기도 해서 그런가…. 그렇다면 미리 지오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뒀던 게 다행이었겠네.’

생각을 멈춘 유성운이 대답했다.

“이틀 뒤 화요일 오전으로 하자.”

“그때 저를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곳의 시간과 바깥의 시간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야 어렵지 않지. 이틀 뒤에 부르러 올 테니까, 그때 천천히 준비해서 나오든가….”

잠시 고민하던 유성운이 작은 타이머를 꺼냈다.

“여기 바닥에 둘 테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해도 되고. 이틀 뒤 오전 8시에 세 번 울리도록 설정해 둘게. 원하는 대로 시간을 확인하려면 이게 더 편하겠지?”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유성운은 내심 안도의 한숨을 삼켰다.

‘…제안 자체는 흔쾌히 받아주는걸. 역시 다른 근원의 존재들에 비해 지오는 소통이 가능해. 물론 인간이 아닌 탓에 가끔 엇나갈 때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안전할 거야.’

용건이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초상화는 눈을 감아버렸다.

“…….”

유성운 역시 그 이상 지오를 붙잡지 않았다.

어차피 이틀 뒤에는 내내 붙어 다녀야 할 텐데 벌써부터 서로 기운이 빠지면 되겠는가. 게다가 유성운도 지오와의 관광 일정을 위해 이래저래 준비할 게 많았다.

‘조련사 전용 호텔 중 하나로 예약을 해야겠지. 지오를 계약수 같은 존재로 취급할 생각은 없지만, 아무래도 그런 계열의 호텔이 만약의 경우에도 대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번 일은 꽤 위험한 만큼, 지오가 불쾌해하지 않을 선에서의 착실한 준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뭐 언제는 안 그랬나.”

비사벌의 입장은 확고했다.

일부 피해가 나더라도 50명 이상의 학살이 아닌 이상 무마시킬 테니, ‘지오의 초상화’가 인간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라는 것이다.

‘현명한 판단이야.’

지오는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제약도 조건도 없이 초상화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다. 어차피 일어날 사건이라면 큐레이터이자 정원사인 유성운이 곁에서 지켜보는 편이 나았다.

“…….”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벌레처럼 취급되는 지금의 세상이 질리지 않는 건 아니다.

‘…시외의 인간들이 아닌 시내의 인간들인데도 비사벌 길드장은 대처할 수 있다고 했어. 50명 이하의 피해라면 상관없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도 언론에 풀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거야.’

물론 아무도 죽지 않고 관광을 마치는 편이 훨씬 좋겠지만 말이다.

“이 부분은 지오의 신사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네.”

유성운은 작게 중얼거리며 길드를 나섰다. 지오가 상당히 인간과 흡사한 반응의 존재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인간도 멀쩡한 척 굴다가 다음 날 점심 식사 자리에서 지랄발광을 떨 수 있는데, 근원의 존재라고 그런 이중성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는 것이다.

‘호텔은 확실히 그쪽 계열을 알아보고… 관광 루트는 만약의 경우 수습이 가능한 곳으로 설정하는 게 좋으려나. 이쪽으로는 경복궁이 있으니 아예 볼거리가 없지는 않겠어.’

굳이 ‘서지오’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 정도이니 한국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경복궁의 야시장이 보통 6시 이후에 열리던 것 같은데. 종로 쪽의 관광지이니 돌아다니는 헌터들도 많을 것이고. 사건이 터지면 비사벌 길드장의 이름을 빌려서 도움을 요청하기에 좋을 거야.’

최근 계속 야근을 해서인지, 아니면 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 탓인지, 조금 머리가 띵했다.

‘그때엔 지오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야겠지만….’

사건이 터지면 협회에 자진 신고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협회장이 노렸던 만큼 그쪽도 '지오의 초상화'에 대해 아주 모르진 않을 테니 말이다.

"…후우…."

바깥으로 나온 유성운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골치 아프네."

입김은, 나오지 않았다.

"……."

유성운이 실없이 중얼거렸다.

"…이야, 이래서 대기업이 좋아."

뒷머리를 긁은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야근은 확정되었지만, 체력은 충분했다.

'빨리 준비를 해둬야지.'

부디 순조롭기를 바랐다.

* * *

유성운과의 대화를 마치고 침실로 돌아온 지오.

"……."

그래, 지오였다.

다행히 지오는 '지오반니'였던 상태에서 되돌아와 본래의 인격을 되찾았다.

"흐음…."

'지오반니'였던 상태가 그리 오래가지도 않았다. 처음 겪는 변화에 당황했을 뿐, 요령만 알면 평소의 성격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어렵지는 않아."

뇌에 힘주면 다시 지오로 돌아올 수 있었다.

"코 푸는 느낌으로."

그렇게 지오는 이 새로운 규칙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다.

"적합자와 만나서 동의를 구하고, 그 세계를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퀘스트를 진행하면 되는 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동화'.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지오반니의 인격을 띠고 있을 때 훨씬 더 진행이 빠르긴 한데, 굳이 인격과 동화하지 않아도 동화율 자체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

드문드문 저도 모르게 지오반니가 되고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한 번 동화를 시작하면 가동을 끌 수는 없나 보지."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은 없지만, 그건 마치 잊고 있던 전생을 떠올리는 것 같기도 했다. 분명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지오는 지오반니라는 사람과 자신이 별개의 인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게 지오는 며칠 만에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내 살아생전 다시는 이렇게 신박한 경험을 해보진 못하겠다."

“꾸륵?”

“이렇게 좌뇌와 우뇌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경험은 드물어.”

그는 이제 ‘지오’임과 동시에 ‘지오반니’인 것이 가능했고, 상황과 마음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그는 지오반니의 감정을 느꼈다.

‘기억은 온전하지 않지만.’

동화율이 낮아서인지 지오는 지오반니의 기억 전부를 떠올릴 수는 없었다. 기억 상실에 걸려 이전의 모든 기억을 잊은 지오반니를 따라가는 기분이었는데, 그것만으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지오반니는 굉장히 온정이 많고, 다정하면서도 사람들을 다독이고 휘어잡을 수 있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녔다. 평화를 위한 야망은 있으나 주변 사람들과의 일상이 더 소중한 사람.

그게 바로 ‘바틀란 지오반니’였다.

“…….”

두 번의 깜박임이 지나고, 지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대로도 괜찮을까.”

유성운은 관광을 제안했다.

“나를 무서워하던데.”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지오도 눈치가 없진 않았다.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게 단순히 시커먼 남자가 무섭기 때문일 리만은 없다.’

유성운은 지오가 충격을 받을까 봐 일부러 돌려 설명하는 것 같은데, 지오도 알았다. 지금의 지오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과하게 무서운 것이 틀림없었다.

‘역시 초상화의 몸으로 세상을 돌아다니려니 해상도에 문제가 생기나 보지.’

아니면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초상화의 진정한 힘일지도 몰랐다. 무해한 것도 유해해 보이게 만드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장르를 공포 스릴러로 바꾸는 힘 말이다.

“바깥의 사람들은 내가 무서운 것 같았어.”

“꾱.”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아주 불쾌한 기분은 아니니 걱정 마라.”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마치 공포 몰래카메라를 하는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 미안하긴 한데 까놓고 말하면 불쾌한 것보다 어이없어서 웃기는 게 더 컸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관광에 차질이 생기면 곤란해.”

그냥 혼자 가는 관광도 아니고, 오로지 남의 돈과 남의 안내에 기대어 함께 즐기는 관광이었다. 이런 식으로 답도 없이 유해해 보여서야 동행하는 유성운 씨에게도 민폐였다.

“유성운 씨처럼 든든한 안내인과 함께 즐기는 관광이다. 남의 돈으로 이런 경험 흔치 않아.”

“…….”

“돈이 땅 파서 나오는 줄 아니. 단언컨대 지금 물가는 더 올랐을 거다. 아빠는 돈이 없고.”

아, 이런. 자식에게 돈 없다고 훌쩍거리면 아이의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려나. 지오가 뒤늦게 덧붙였다.

“물론 이 아빠는 허니가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줄 수 있단다.”

“꿍?”

“낭비하면 안 되겠지만, 네가 사서 잘 즐기기만 한다면 아까울 게 없지.”

게다가 여기선 땅 파도 돈이 나올 것 같긴 했다. 그림 그리면 군고구마도 나오는데 땅 파서 돈이라고 안 나올까.

“아무튼 액자 바깥은 그렇지 않지. 허니, 잘 들어라. 남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 냉큼 달려가서 받아먹어야 진정한 돼지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허니가 그만큼 통통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

“…….”

통통해졌으면….

“…꾸응… 끄르륵… 크륵….”

“화낼 것까지는 없는 거 아닌가?”

“크르르르르르….”

싫다는 것 같다.

‘아쉽군.’

통통한 새는 귀여움의 상징이거늘, 자기 관리에 충실한 물새는 그럴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다.

‘어째 보석으로 치장하는 모습이 심상찮더니, 이 깐깐한 아이.’

아무튼 지오가 신경 쓰는 일은 그거였다. 보다 무해한 인상이 되어야 했다.

“평범한 행인처럼 보일 정도로 무해해지고 싶지만, 이미 말하는 감자 수준으로 무해한 내가 여기서 대체 뭘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분명 나의 무해함은 한계점이었을 텐데.”

살아생전, 사실 죽은 적도 없지만, 아무튼 교사로 일하던 시절의 지오는 ‘무서운 인상이다’라는 이야기는 종종 들었어도 눈물 콧물 지릴 만큼의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야 나는 어디에 둬도 건강하게 잘 자라는 재능을 빼면 시체라서.”

하지만 지금의 지오는 마치 빨간 마스크와 같은 괴담처럼 취급되고 있었다. 대놓고 그런 평가를 듣지는 않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식겁하는 걸 보니 얼추 감이 왔다.

“다들 날 인지하는 것부터 버거워하는 걸 보면, 일단… 해상도의 문제 같기는 하다.”

“꾸르르.”

“아무래도 그림에서 현실이 되니 생기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내가 엔지니어는 아니라….”

그리고 지오는 미리 그에 대한 해결책을 시스템으로부터 받아두었다.

tip.

해상도 해결 방안

‘지오’를 응용하십시오

“이건 적합자를 말하는 거겠지.”

동기화가 진행 중인 ‘지오반니’는 아직 초상화가 아닌 인간인 상태로 취급되는 것일까.

실제로 지오반니의 인격을 가동했을 때 그는 몸이 조금 더 무거워지는 걸 느꼈다. 예전과 달리 화장실을 가야 했고, 배가

고팠고, 일정한 수면이 요구되었다.

“그러니까 지오반니인 상태로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

허니의 미지근한 시선을 느낀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중인격이라고 해.”

일단 무해해지고 봐야 했다.

“…….”

“…….”

저를 빤히 바라보는 허니의 시선에 지오가 제 과도함을 인정했다.

“…그래, 내가 생각해도 이중인격은 좀 억지였다.”

“꾸륵.”

“변명을 좀 하자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둘러댈 생각은 아니었어.”

유성운이 친절하게 제안해 준 관광이었다. 그의 도움을 받아 즐기게 될 여행이고, 버젓이 그와 함께 돌아다니게 될 텐데 괜한 불편을 끼치고 싶지는 않았다.

“꼭 ‘지오반니’로서 행동하지 않아도 동기화가 진행 중이기만 하다면 활용해 볼 여지가 생겨. 평소처럼 행동해도 사람들이 크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꾸르?”

“물론 신경을 쓰기는 해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두면 동기화 중이라고 해도 다시 해상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았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길드 내 새벽 순찰 경비들의 도움을 받아 확인한 사실이었다.

“이것저것 노력을 해보고 있으니 유성운 씨가 그렇게까지 곤란해질 일은 없을 거다.”

예를 들어 동행이 대뜸 이중인격이 되는 상황이라든지 말이다.

“…뭐, 아무튼….”

침대에 퍼질러져 있던 지오가 몸을 일으켰다.

“…그럼 이제 우리 어르신 식사 챙겨드릴 시간이군. 허니, 가자.”

“꾸르르르르!”

허니는 격하게 찬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그마한 새가 포르르 날아 지오의 어깨 위에 앉았다.

지오는 주방에서 미리 만들어 두었던 알록달록한 샌드위치 77개를 들고 화실로 움직였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숨쉬는 바다’, 즉 바다를 그린 풍경화의 바로 앞이었다.

이제 이 굳게 닫힌 문을 열어야 했다.

“나랑 눈사람 만들….”

“꾺.”

“그래.”

아무래도 저작권은 소중하지.

마음의 고향 ‘겨○ 왕국’을 떠올리며 한때의 동심을 상기한 지오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자고 일어났더니 벌써 31년이나

흐른 대한민국이 고소의 나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허튼소리를 하며 큼큼 목소리를 가다듬은 지오는, 곧 가족과 식사할 준비를 했다.

“…….”

“…….”

잠깐의 적막.

새까만 머리카락이 조금씩 밝게 물들고.

물빛의 눈을 두 번 깜박이자.

“…….”

그 자리엔 지오반니가 있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문이 열렸다.

“감사합니다.”

“ ”

“예, 이 사제가 많이 늦었군요.”

“ ”

“이해해 주십시오.”

바다에 잠긴 세상.

“날이 좋아 몸이 굼떠지지 뭡니까.”

태양은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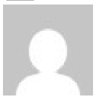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5)

제25화

오전 8시.

모습을 드러낸 액자 앞 검은망토를 보며, 유성운은 민트색 눈을 깜박였다.

"……."

어라.

'느낌이 좀 다른데.'

기분 탓이 아니었다. 초상화 앞에 서 있는 새까만 인영은, 예전과 같은 기이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괴물에서 인간이 된 것처럼 말이다.

"지오."

"오셨습니까?"

"내가 너무 늦게 온 건가?"

"아니요, 제가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

유성운은 무던하게 대답하며 내심 생각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라.'

기괴하게 느껴질 만큼 정돈된 어조로 대화했던 이전과 달리, 지금의 지오는 '좀 과하게 예의 바르네'라는 생각이 들긴 해도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았다. 결백한 성정의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지 싶은 분위기였다.

'초상화 안쪽에 있을 때와 바깥쪽에 있을 때의 격이 달라지는 걸 수도….'

하지만 그러자니 지금까지 받았던 목격자들의 증언이 걸린다.

"……."

잠시 눈을 굴린 유성운이 웃으며 물었다.

"혹시 기분이 좋은가?"

"예, 좋습니다."

“음… 평소와 다르게 분위기가 가벼워 보여서.”

“저는 평소에도 가벼웠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자.”

역시 평소랑은 다르다.

‘위압감도 잘 느껴지지 않고.’

비록 유성운은 뒷모습만을 보았을 뿐이지만, 평소 초상화 바깥의 지오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

적의나 살의가 느껴지지 않음에도 숨이 턱턱 막히고 정신이 어지러워지는 그런 기분은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인간이고 몬스터고, 다양한 종류의 괴물들이 가득한 이런 세상이라고 해도 말이지.’

그 감각은 정면에서 지오를 봤을 때 더 심해진다고 들었지만, 참 이상한 일이었다. 지금의 지오는 그저 평범한 인간처럼 느껴졌다.

“…….”

“…….”

그런 의문을 느낀 것인지 지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치?”

“다른 분들이 저를 보고 놀라지 않도록 해상도를 조절해 보았습니다. 유성운 씨의 반응을 보니 제 시도가 나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구나. 어쩐지.”

제법 인간 같았다.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유성운의 속내까지 그렇지는 못했다.

‘그렇다는 말은 즉… 자기 스스로 영혼의 격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가?’

과거 지오의 격은 인간의 체계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틀려 있었지만, 지금 그의 격은 A급 헌터 정도로 칠 수 있을 듯했다.

영혼의 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니 정말 질 나쁜 농담처럼 들렸다.

“…몸에 무리는 없고?”

강제적으로 격을 내려 버린다면 그 피로가 어마어마할 텐데.

‘스스로에게 저주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잖아.’

순화시켜서 ‘무리는 없냐’라고 물은 거지, 이런 식으로 격을 조절하는 건 피로보다는 고통이 더 클 것이었다.

유성운의 질문에 지오는 제 손을 내려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이런 미친 짓을 해놓고 이렇게까지 태연할 수가 있나. 유성운은 조용히 식겁했다.

‘자해를 한 것치고는 너무 침착하잖아. 평범한 흉내를 내고 싶은 거면 더 치밀해지라고.’

10살 아이라고 해도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알 것이다. 민간인에 비유하자면 팔다리를 전부 잘라내고 두 눈을 뽑아내는 셈이니 말이다.

'몸통만으로 기어다니는 사람의 목에 목줄을 채우고 무게 추를 달아 버리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도….'

물론 지오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배고프다.'

애초에 그는 체감상 최근까지 평범한 인간의 상태로 지냈던 사람이다.

목마르지 않고, 잠이 오지 않고, 배고프지도 배부르지도 않은 신체는 확실히 편리했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상태에 거부감을 느끼진 않았다.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거부감은 무슨 거부감. 오히려 익숙했다.

"……."

"그럼 이제 어디로 이동하면 됩니까?"

"…어, 그렇지."

유성운은 애써 무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기껏 즐기러 나온 녀석에게 걱정하는 표정만 짓는 것도 실례가 될 거다. 근원의 존재에게는 이런 반응 하나도 주의해야 했다.

"일단 아침이니까 식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일까요?"

"내가 추천하는 곳은 백반집이야."

본인을 '서지오'라며 한국식으로 표현한 바가 있는 지오였다. 그게 정말 대한민국의 방식을 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오인 만큼 아침으로는 백반집을 선택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설명을 덧붙였다.

"반찬이랑, 밥이랑, 국을 끼워서 한 상 나오는 음식이야. 생선을 시키거나 제육을 시킬 수도 있어."

"……."

"전반적으로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아침이니까 속이 편한 식당을 알아봤지."

"좋은 것 같습니다."

뭐든 잘 먹는 지오였지만, 항상 백반을 차려주던 할머니 밑에서 자라 이와 같은 속 편한 음식을 좋아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한 것이다.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 그럼 이동할까?"

지오는 그 뒤를 따라 움직였다.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이전에는 맨발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지오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한 사람의 무게가 담긴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에 유성운은 조금 놀랐다.

'정말 인간 수준으로 격을 낮췄다는 건가.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부터 시작해, 대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했는지 기분이 묘해졌다.

'아마 다른 인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짓을 한 것 같은데….'

어떤 피해가 나면 어떻게 변명할지 궁리하던 유성운이 민망함을 느끼기도 전에 기이한 죄책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자기 사지와 영혼을 잘라내는 식의 이 말도 안 되는 호의를 감당하기가 버거웠다.

그런 상식 밖의 호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준다는 점에서 더더욱 인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거지만 말이다.

"음…."

정신을 차린 유성운이 엘리베이터로 지오를 이끌었다.

"타자."

"이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가. 이 엘리베이터가?"

"평소에는 그림으로 이동을 했으니까요."

"역시 그림으로 이동했구나."

이미 짐작하고 있기는 했다만, 야간 경비들이 종종 발견하곤 하던 복도의 정체 모를 초상화가 설명되는 순간이었다.

이런다고 해도 '검은망토'의 괴담은 이 길드에 뿌리를 내려 버렸지만 말이다.

"출입증도 줬는데 엘리베이터는 왜 안 탔던 거야?"

"이 좁은 공간에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면 곤란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

하긴 그 넓은 복도에서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경비들에게 휴가를 내어줘야 했는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라면야 거품 물고 쓰러졌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다만 지오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었다.

'여기 직원들이 어떤 사람일 줄 알고 좁은 곳에 함께 있겠어.'

사릴 땐 사릴 줄 아는 지오는 쫄았다. 판타지를 곁들인 31년이라는 시간은 고향에마저도 미지의 공포를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문화가 얼마나 변했을지도 모르는데 귀신 들린 초상화 입장에서 함부로 나서는 건 위험하지. 그림으로 이동하는 게 더 빠르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 방면에서 자신의 편의성을 고려해 한 선택이었으나….

"……."

유성운에게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이거 지나치게 착한 거 아닌가? 내가 걱정할 포인트가 잘못됐던 거 아니냐고.'

슬슬 걱정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이 격에 짓눌릴까 봐 걱정돼서 엘리베이터 대신 그림을 통해 이동하고, 여행 중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봐 자기 격을 잘라내고….'

의심스러운 정황은 또 있었다.

'그러고 보니 유난히 선물 주는 걸 좋아하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불안한 특성이야.'

초상화가 사고를 칠 걱정을 하며 준비한 관광이지만, 오히려 인간에게 지오가 해를 입는다면 다른 의미로 사고였다.

'아무래도 주의할 대상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신사적인 지오의 돌발 행동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이 녀석들 자극할 만한 인간이 다가올 걸 걱정했어야 했나….'

유성운은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의 걱정인지 한탄하면서도 의심을 버릴 수가 없었다.

"…자, 내리자."

“꽤 오래 걸리는군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갤러리니까.”

유성운은 작게 웃으며 설명했다.

“길드장님의 갤러리의 작품들은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 길드장님이 직접 산 물건도 있고, 길드원들이 파악해서 구매해 전달한 물건도 있고, 너무 위험한 나머지 보관차 위탁을 부탁받는 물건도 있어서….”

말하자면 마굴이라는 거다.

“갤러리의 출입 제한은 도난을 방지하려는 것도 있지만, 까딱하면 사람 열댓 명은 쉽게 죽기 때문이기도 해. 온갖 기괴한 특성의 작품이 판을 치는 수집상의 갤러리는 유명한 이야기지. 덕분에 괴담 같은 게 생긴다고 하면 보통 갤러리가 근원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러 과하다 싶을 만큼 깊은 곳에 갤러리가 있어. 만약 저 아래에서 어느 정체 모를 폭탄이 터지더라도 보다 쉽게 수습하기 위해서, 혹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설계인 셈이지.”

거기까지 말한 유성운이 지오를 돌아보았다.

“음,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후드는 계속 쓰고 있어.”

격을 낮춰 위압감은 좀 사라졌다지만 절대 무해한 수준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지오는 그 얼굴이 너무 자기주장이 강했다. 그대로 내놓고 다닌다면 온갖 귀찮은 일에 휘말리게 될 것이었다.

‘얼굴만 가려둔다면 비공식 헌터라고 둘러댈 수는 있으니까. 수집상에는 유독 비공식 헌터가 많은 편이니 다른 사람들도 의심하지 않겠지.’

1층 로비 출입구의 직원이 유성운에게 인사했다.

“바로 퇴근하십니까?”

“설마요, 출장입니다. 방금 들어왔는데 벌써 퇴근할 리가 없죠.”

“부러워할 뻔했는데 이거 다행입니다. 같이 고생해요.”

넉살 좋게 농담을 한 경비가 유성운 뒤에 선 지오를 보았다.

“이쪽은….”

“길드장 손님.”

“곧 신입으로 들어오시려나?”

“그럴 수도 있고.”

친화력이 좋은 듯, 경비는 지오를 처음 볼 텐데도 평소 알던 사이인 양 친근하게 말을 붙여왔다.

“그럼 망토의 색을 좀 바꿔도 괜찮겠습니다. 요즘 저희 길드에 새로운 괴담이 생겨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런 괴담에 자주 휘둘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에 유성운이 물었다.

“요즘도 검은망토 이야기에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목격자가 많다 보니 어쩔 수가 있나요. 실존하기는 하는 모양이니 다들 경계심은 어느 정도 갖춰둔 상태죠.”

“이야, 곤란하네.”

덤덤하게 웃으며 중얼거린 유성운이 꾸벅 고개를 숙였다.

"그럼 며칠 뒤에나 보겠군요."

"장기 출장인가 보죠?"

"글쎄, 가봐야 알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럼 수고하십시오."

정중하게 인사한 경비는 금방 유성운과 지오에게서 관심을 껐다.

로비의 거대한 유리문이 열리고. 수집상 길드의 바깥으로 나온 유성운이 입을 열었다.

"보다시피 너에 대한 소문이 좀 퍼져 있어. 네가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서는 길드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유성운이 변명하듯 말했다.

"길드장님의 손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둘 거야. 어때?"

"이해했습니다."

"따로 궁금한 점은 없고?"

"왜 제가 동료가 될 거라고 경비분께서 확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거."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 사람 주워 오는 게 길드장님의 버릇이거든."

"주워 오는 겁니까? 길드장님께서는 흔치 않은 신념의 소유자이시군요."

"심지어는 자기를 암살하러 온 하청 직원마저도 스카우트를 하려고 들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포섭하다니 대담하십니다. 포용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워낙 취향이 독특하셔서 보통 길드 내에 못 보던 사람이 있으면 길드장님의 손님일 확률이 높지. 꼬시려고 길드로 초대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

좋게 포장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포장이 자신을 더 비인간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것을 모르는 지오는, 끝없이 이어지는 비사벌의 기인열전에 조용히 체념했다.

'천지신명께서 허락한 체력이 한정되어 있는 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감이다.'

나쁜 사람 같지는 않지만 어디로 튈지 예상이 안 된다는 점에서 절대 대화하고 싶지 않은 유형 1순위였다.

'만약 친해지기라도 한다면 방구석에 처박힌 나를 질질 끌고 나와 인싸들의 모임 한가운데에 놓고 파티의 제물로 바치겠지….'

끔찍했다.

"그럼 이제 지상철을 타야겠는데, 괜찮겠어?"

"…지상철?"

지하철이 아니라?

격을 낮춘 덕분에 지오의 의문을 더 확실히 알아챌 수 있었던 유성운이 이내 설명했다.

“음, 지상 위에서 다니는 철도야. 버스처럼 노선이 정해져 있지만 조금 더 빠르고,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운행해.”

그렇게 말한 유성운은 손가락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저기 보여?”

고층 건물을 관통하거나 그 사이를 지나가는 레일. 그 레일은 전체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보였다.

도시의 광경을 위한 것인지 별도의 조치를 취해 일부분은 투명하게 만들어둔 것 같았다. 그건 지오의 SF 감성을 자극했다.

“꽤 높군요.”

“건물로 따지자면 대략 60층 정도에서 운행을 하니까.”

지오는 내심 고개를 끄덕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30년 사이 세상이 변했군.’

아마 수도권인 탓에 더 그런 경향이 강하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건물이나 시설이 많이 발전해 있었다. 이제 지오는 정말 조상님이 되어 버렸음을 체감했다.

건물도 기본적으로 30층이 넘어가는 데다 건물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지상철은 꼭 롤러코스터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것처럼 레일 노선이나 속도가 격하지는 않겠지만….’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에 지오는 낭만을 느꼈다.

“지오, 이쪽으로.”

“…….”

사람들의 패션도 이전과는 상당히 달랐다. 갑옷을 입거나 커다란 대검을 등 뒤에 두른 사람, 심지어는 날개나 꼬리가 달린 사람도 있었다.

유행은 돌고 돈다더니 중간에 생태계 교란종이 한번 끼어든 게 분명했다. 망토를 두르고 있는 지오가 무난해 보일 만큼 다들 개성이 넘쳤다.

여기저기서 보석이나 무기를 주고받는 사람들마저도 보였다. 보석까지는 그렇다 쳐도, 날이 흉흉하게 서 있는 무기라니….

“…….”

어우.

지오는 강불에 구운 대패삼겹살처럼 하염없이 쫄아드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귀신 들린 초상화인 내가 유해해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스스로가 우스워지는 광경이다.’

그런 그의 생각과 달리 일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오를 힐끗거리고 있었다.

‘기운이 묵직하군…. 헌터인가? 동작에 절도가 있는 걸 보니 기사이거나… 사제?’

‘최소 A급은 되려나. 처음 보는 느낌이니 비공식 헌터일 확률이 높겠네.’

‘온통 검은색이야. 색깔을 중요시하는 스킬이 있거나 저게 다 세트 아이템일 수도….’

그런 일부 사람들의 시선을 유성운도 알고 있었다.

‘제발 말만 걸지 마라.’

예상했던 대로, 하지만 지오의 도움으로 그것보다는 시선을 덜 받고 있었다.

지금 막 인간 사회에 나온 지오에게 말을 걸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여기가 지상철 입구야.”

유성운은 지오의 시선이 다른 이들에게 닿지 않도록 주의를 끌었다.

“여기 보여? 이쪽에 카드를 대면 통행료를 낼 수 있어.”

“엘리베이터 앞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겁니까?”

버릇처럼 뒷짐을 진 채로 지오는 흥미롭다는 듯 지상철의 입구를 보았다.

그건 지하철이나 일부 육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같았다. 건물 안에 숨어 있지 않고 툭 튀어나와 높이 쭉 뻗은 엘리베이터는 지상철의 노선과 이어져 있었다.

‘따로 역은 없는 건가?’

건물 없이 민둥민둥한 레일을 보니 아마 역사는 없는 듯했고, 그나마 드문드문 버스 정류장처럼 작은 공간이 보였다. 아마 정말로 버스처럼 활용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카드는 내 걸 줄게.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이걸로 사면 돼, 한도 없으니까.”

“…….”

지오는 쫄았다.

‘오늘만 몇 번째로 쫄아드는 건지 모르겠군.’

이불 밖은 위험했다.

‘한도 없는 카드를 왜 나한테 줘.’

무서우니까 일단 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형님.

물론 선택적 내향형 인간인 지오가 만난 지 몇 달도 안 된 유성운을 형이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다. 지오는 여전히 예의를 유지한 채 카드를 써서 지상철의 엘리베이터를 탔다.

“…….”

“왜 그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오가 물었다.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은데 한 대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운행이 지체되지 않겠습니까?”

“아….”

유성운은 어색하게 웃었다.

“어차피 타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한 대밖에 설치하지 않은 것 같네.”

“유용한 교통수단처럼 보이는데 어째서 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재미난 신문물을 어떻게 가만 내버려둘 수가 있지?

“별로 대단한 이유는 아니고.”

유성운은 현실을 알려주었다.

“비싸서.”

“…….”

아하.

'과연 그렇군.'

자본주의 사회라면 지오도 아주 잘 아는 녀석이었다.

'그런데 걔 아직도 살아 있어?'

장수하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5)"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6)

제26화

도착한 지상철의 정류장은 그 고도가 상당히 높았다.

"……."

"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높은 곳은 오랜만입니다."

"하긴 그런가."

유성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초상화가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올 일이 없긴 하겠지.'

하지만 '오랜만'이라고 한 걸 보니 초상화에서 나와 스스로 올라온 적은 있는 듯했다.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기억 중에 산이나 절벽을 올랐던 적이 있던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녀석이니 아마 여러 경우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초상화인 채로 이동했을지도 모른다.

유성운의 생각을 모르는 지오는 지상철의 정류장을 구경하고 있었다.

'…아래에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투명한 막으로 덮여 있다. 추락 사고를 방지하거나 높은 곳의 거센 바람을 막기 위함인 것 같은데, 정확한 소재가 뭐지? 유리나 플라스틱보다 훨씬 투명하고 단단해 보여.'

지오는 키우고 만드는 것에 큰 흥미를 느꼈다. SF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런 신소재라니, 질문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 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응? 벽?"

"예, 만져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투명한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나라고 이런 쪽으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아마 무형 결정일 거야."

"무형 결정?"

"자주 출현하는 몬스터 중 어떤 녀석에게서 추출한 성분이라고 알고 있어."

그게 어떤 이름의 몬스터였는지는 유성운도 몰랐다. 딱히 위협적이거나 특이한 몬스터가 아닌 이상 기억할 가치가 없으니 말이다.

“도시에 설치하는 투명한 창은 대부분 이걸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군요.”

“…….”

“…….”

“…….”

유성운이 정색했다.

“가져가면 안 돼. 공공재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잖아 지금.”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싶으면 나중에 구해 줄 테니까 참아.”

무형 결정은 다양한 산업에 이용되는 소재이지만 그 범용성에 비해 값이 비싸진 않았다. 결정을 추출할 수 있는 몬스터가 그리 희귀하지 않고, 한 개체당 뽑아낼 수 있는 결정의 양도 많기 때문이었다.

“이런 걸 대체 어디에 쓰려고?”

“재밌는 물건이라 관찰하고 활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탐구심이 정말 대단한데….”

유성운이 미묘한 기분으로 웃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이나 물건에 흥미를 보이는 건 전형적인 근원의 존재들의 특징이었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니 곧 지상철이 도착했다.

“이 칸에는 우리밖에 없네.”

유성운의 말대로 ‘6호’라고 쓰여 있는 칸에는 그 둘뿐이었다.

지오가 조용히 생각했다.

‘정말 사람이 안 타는군.’

조금 아까웠다.

‘이렇게 멋진 신문물을 비싸서 타질 못한다니.’

엘리베이터 1층 앞에서 카드를 찍어도 입장 가능을 표시하는 초록불만 뜨지, 따로 얼마가 나갔다는 정보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지상철의 정확한 금액은 몰랐지만 묘하게 씁쓸했다.

‘31년 사이에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지오가 물었다.

“평소에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 편입니까?”

“아, 그건 아니야.”

유성운이 고개를 저었다.

“원래는 이것보다는 많이 타는 편이지. 한 칸에 최소 10명씩은 있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사람이 안 보이네. 한창 일할 시간에 타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이 시간에 타보는 건 오랜만이고.”

“…….”

잠깐만.

뭔가 이상했다.

“한창 일할 시간입니까?”

“음, 지금이 8시 38분이잖아.”

손목시계를 확인한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평균 출근 시간이 7시니까.”

“…….”

“지오?”

“오전 7시가 출근입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보통 인권이 없는 편인가?

‘내 기억으로 회사원의 일반적인 출근 시간은 분명 오전 9시였을 텐데.’

지오는 이 각박한 현실을 살아갈 자신이 순식간에 없어졌다. 없던 애향심도 사라지는 걸 보니 아무래도 초상화가 적성에 맞는 듯했다.

“…….”

대체 이 나라 꼴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곧 합당한 이유를 도출해 냈다. 지오에게 31년이라는 공백이 있는 탓에 떠올릴 수 있는 이유였다.

“유전적인 요인이나 문화적인 이유로 사람들 대부분이 새벽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겁니까?”

“어… 그런 건 아니야. 따로 시간을 안 정해두면 점심시간까지도 자는 사람들이 많을걸. 이건 그냥 사람들끼리 약속한 규칙인 셈이지.”

“그렇군요.”

깔끔한 답변이었지만 찝찝했다. 지오는 유성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이 사람 가끔 날 인간으로 안 보고 있지 않나?’

마치 말하는 고양이에게 인간 사회를 설명해 주는 집사 같았다.

“…….”

“응? 왜?”

“저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어… 그래.”

고3이 수능 지문을 분석하듯 눈 씻고 찾아봐도 딱히 믿는 반응은 아니었다.

‘…하긴 내가 유성운 씨의 입장이었다고 해도 귀신 들린 초상화가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지는 않겠지. 이런 세상에 대놓고 몬스터 취급 안 당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자.’

그리고 이런 몬스터 취급 덕분에 누리는 여러 혜택도 있었다. 돈 없고 상식 부족해도 ‘그래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라며 넘어가는 듯했다.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조금 구겨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충실한 노예로 돌아가느니 초상화로 사는 것이 심신에 좋을 것이란 생각은 여전했다.

지오가 슬쩍 물었다.

“제가 교양 없고 예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유성운 씨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으니 주의하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 고마워….”

“감사합니다.”

역시 유성운은 믿음직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었다.

지오는 유성운의 옆자리에 앉으며, 아직도 닫히지 않은 지상철의 문을 보았다.

“꽤 오랫동안 열려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는 이것보다 훨씬 빨리 닫혀.”

가볍게 기본 상식을 알려준 유성운이 지상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지상철은 워낙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시간도 있고, 승강장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 조금 늦는 사람들을 위해 오래 열어두는 거야.”

“겨울인데도요.”

“뭐, 추위는 알아서 차단이 되니 다행이지.”

그렇다, 지금은 한겨울이었다.

“아, 그러고 보니… 운이 좋다면 돌아다니다가 길거리 음식을 찾을 수도 있겠어.”

유성운의 말에 지오의 심장이 뛰었다. 그는 본능에 충실했다.

“길거리 음식이라면 붕어빵 같은 겁니까?”

“응, 아니면 문어빵이나… 계란빵이나… 오뎅 같은 것도 있겠지.”

“먹고 싶습니다.”

“최대한 찾아보겠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그런 걸 파는 데는 얼마 없으니까.”

“어째서죠? 추운 날에 따듯한 길거리 음식은 꽤 인기가 많을 텐데.”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민원 때문에 하려는 사람이 얼마 없거든. 한번 민원이 들어와 버리면 다시 도시에 출입하거나 장사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말한 유성운은 어깨를 으쓱였다.

“그리고 애초에 도시 사람들은 길거리 음식 장사 같은 건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먼 곳에 살고 있는 지방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음식 장사를 하기에도 불편한 일이잖아?”

“…….”

어라.

지오는 당황했다.

“도시 사람과 지방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 음, 어… 아무래도 그렇지?”

“어째서일까요?”

“…어어….”

유성운이 푹 한숨을 내쉬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의 풍토 자체가 그래. 부끄러운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등급을 매겨서 구분 지어.”

“등급이라면 어떤 식입니까?”

“예를 들어, 나처럼 도시에 살면서 헌터와 큐레이터를 겸직하는 사람은 1등급. 내가 알기로 B등급 이상의 헌터는 범죄를 저지른 레드 헌터가 아닌 이상 거의 1등급 시민이야.”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이름 옆의 ‘1등급’이라는 글자를 보여준 유성운이, 이내 지상철의 뻥 뚫린 창 너머를 가리키며 말했다.

“수입도 직장도 변변찮지만 일단 도시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2등급.”

“…….”

“내가 방금 말한 지방 사람의 경우엔 보통 3등급으로 분류가 되지. 그리고 지방과 도시의 사이에 사는 일부 빈민들은, 그러니까 신분증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4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5등급도 있습니까?”

“거기서부터는 범죄자야. 이름 하나 기재되지 않은 4등급 시민들과 달리 행정상 기록은 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기록만 있을 뿐 사실상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해. 만약 마주쳤을 경우 언제든 죽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셈이지.”

이렇게 살기 싫을 수가?

감수성 넘치는 지오는 고향의 믿을 수 없는 발전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지구의 수명이 인간의 수명보다 긴 이상 언젠가는 신분제가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걸 살아생전 경험해 볼 줄은 몰랐군.’

아직도 닫히지 않은 문을 보며 지오가 다시 물었다.

“그렇게까지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도시와 지방의 인프라 차이가 크기 때문이려나.”

유성운은 안내인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건지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다.

“지역 내의 이런저런 시설이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말하는 건데, 아무래도 도시와 지방은 문화나 행정상의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 지방에서는 농사를 지어 하루 벌어먹으면 도시 시민은 그쪽에서 전달받은 식자재를 구입하는 편이고….”

“…….”

“거의 1세기 수준으로 차이가 난다고 해야 하나. 아마 지방 쪽으로 가면 이런 지상철은 물론이고 2층짜리 건물도 보기가 힘들어질 거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물지. 그나마 마을 철도가 하나 정도는 돌고 있지만… 하긴 그 탓에 자동차도 구매하지 않는 걸 수도 있고.”

어차피 이동 수단이 있으니 꼭 자가로 돈 들일 필요는 없겠지. 작게 중얼거린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뭐… 그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방어선이야.”

“방어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실제로 도시 외곽에는 성벽처럼 방어할 수 있는 커다란 벽이 일차적으로 존재하고, 이차적으로는 도시 내부의 안전을 관리하는 안전 전문 공무원이 따로 있는 데다, 무엇보다 도시 내에 이미 헌터가 많으니… 혹여 시내에 사건이 터지더라도 금방 수습이 되지.”

유성운이 목뒤를 쓸었다.

"한마디로 생존의 혜택이라는 거야. 4등급 시민의 대부분은 빈민으로 사는 한이 있어도 도시 바깥에서는 못 살겠다는 거고, 같은 맥락에서 도시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모든 국민이 이 안에서 살 수는 없어. 자원과 땅의 면적은 한정적이잖아?"

"그래서 등급을 나눈 겁니까?"

"도시 안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2등급 시민부터니까. 3등급 시민도 얼마든지 도시를 방문하거나 직장을 구할 수는 있지만, 제멋대로 거주하는 사람부터는 취급이 좀 험해져."

"어떤 식으로 심해지는 건지...."

"뭐라고 말해야 하나. 음, 일단, 신분증이 파기되니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5등급만큼은 아니더라도 인간 미만으로 취급한다고 해야 할까. 지방에서 몬스터에게 물려 죽기 싫다며 무턱대고 도시에 눌러앉은 사람들은 그런 4등급 시민인 빈민이 되는 거지."

요약하자면 디스토피아라는 건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들으니 이쯤 되면 오히려 현실감이 떨어지는데.'

우정과 사랑과 평화를 좋아하는 지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세상이었다. 31년 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인간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많이 꼬인 기분이었다.

지오가 무뚝뚝한 포커페이스를 무기 삼아 거창하게 쫄아들기 시작했으나, 그가 인간 사회를 정확히 알고 있기를 바라는 유성운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애초에 던전 자체는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고, 굳이 던전에서 나온 게 아니더라도 이미 지구에 정착한 몬스터들도 많거든. 도시는 그런 토착 몬스터들이 관리가 되는 편이지만 지방은 인력도 장비도 부족하니 한눈팔면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섭게 들리는군요."

"그래서 지방의 마을에 살면 오후 5시 이후로는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들 해. 아니면 아예 C등급 이하의 헌터들을 중심으로 마을이 운영되는 경우도 많고.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각성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믿음직하니까 말이야."

그즈음, 드디어 지상철의 문이 닫혔다.

"......."

"슬슬 움직이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뭐, 점심시간도 아니니까...."

"아침 시간이기는 합니다."

"어떤 직장인이 아침을 먹겠어."

아침을 먹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식의 말투다. 아마 지금의 세상에는 '하루 세끼'라는 단어는 사라진 지 오래인 듯했다.

'당장 우리만 해도 세끼를 먹으려고 움직이는 걸 텐데.'

끔찍한 현대 사회의 현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지오는 자신이 아는 지하철과 비슷한 구조의 지상철을 천천히 감상했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투명한 벽과 천장이었다.

"이 벽과 천장 역시 무형의 결정을 이용한 겁니까?"

"아마 그렇겠지? 내구도도 투명도도 지구의 전통 소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니까 몬스터가 공격해도 어느 정도 방어가 돼."

"그렇군요."

"예전에는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런 창을 만들었다는데... 용케 그런 약한 소재를 썼구나 싶기도 하고."

“…….”

그렇게 지오는 순식간에 조상님으로 전락했다. 교육계의 젊은 피에서 조상님이 되다니. 그 기하급수적인 낙차에 정신이 아찔했다.

“유리나 플라스틱은 사용되지 않습니까?”

“쓰긴 쓰지만, 유리는… 보통 장식품에 이용되지? 무형의 결정보다 훨씬 형태를 간편하게 주무를 수 있는 데다 색도 섞을 수 있잖아. 인공으로 만들 수 있기는 해도 보석의 일종이라 조금 비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거의 안 쓸걸? 그거 재활용도 안 되고 잘 썩지도 않으니까.”

지구의 건강을 생각해 주다니 31년 사이에 지구인들이 발전하긴 한 모양이다. 디스토피아로 진화하기에 바쁜 줄 알았더니 제법이다.

‘지구의 수명이 좀 늘어났겠군.’

지오는 시선을 돌려 다시 지상철을 바라보았다.

의자의 등받이 부분까지는 소파처럼 푹신한 천과 가죽으로 덮여 있었지만, 어깨선 위의 창과 천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깨끗했다.

그 너머로 보이는 건물의 번쩍이는 벽과 청명한 하늘은 기묘한 스릴을 안겨주었다.

‘신사적인 롤러코스터….’

속도감도 덜컹거림도 없었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고도의 레일이 지오의 낭만을 자극했다.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아, 지오. 우리 곧 내릴 거야.”

“그렇습니까?”

“예약해 둔 백반집이랑 호텔이 이번 정류장 근처에 있거든.”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도 돼, 전부 괜찮은 곳으로 잡아뒀어.”

그런 유성운의 말을 들으며 흥미를 느끼는 한편, 지오는 아련하게 직감했다.

‘지구는 더 이상 나 같은 무해함의 결정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게 되었구나.’

남들 다 따봤다는 태권도 흰 띠조차 없는 나약한 지오에겐 이 무시무시한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었다. 평생 초상화 속에 처박혀 일신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었다.

유성운이 들었다면 황당함에 치를 떨었을 생각이었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6)"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7)

제27화

유성운이 이끈 식당은 모든 종업원이 한복을 입고 있었다.

"유성운으로 2인 예약했습니다."

"유성운 고객님, 확인했습니다. 안쪽으로 모실 테니 신발을 벗어주세요."

스스럼없이 종업원의 서비스를 받는 유성운의 모습에 한 발자국 떨어져 지오가 식당을 바라보았다.

그가 안내한 식당은 먹으로 그려낸 듯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강한 한옥이었다. 기둥은 나무 그대로의 미를 살린 곡선이 돋보였고, 은은하며 쌉싸름한 편백 향과 높게 뚫린 천장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눈에 보이는 건 시끌벅적하게 모인 손님들의 무리가 아닌, 적막하고 단아하게 정돈된 목재 복도였다. 복도 사이사이로 보이는 각각의 방은 개인주의적인 면모가 유독 강하게 두드러졌다.

"……."

이게… 백반집?

'31년 사이 내가 아는 백반집의 정의가 변한 게 분명하다.'

평상에 양반다리하고 앉아 조기 뜯어 먹던 나의 떠들썩하고도 안락한 백반집은 어디로 갔지?

"지오, 들어가자."

"여기서 먹습니까?"

"아."

유성운은 대체 뭘 신경 쓰는 건지 변명하듯 말했다.

"사람들의 기척은 무시해 줘.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기척이니 소리니 잘 차단한 상태야."

"……."

"많이 불편하면 다른 식당으로 이동할까? 건물 하나를 우리만 쓸 수 있는 곳도 있어."

아니 이 사람이?

'설마 나를 걸어 다니는 원자력 발전소로 취급하는 건가.'

얼마나 예민한 존재로 보는 건지 모르겠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까?"

"응, 방이 작은 구조는 아니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을걸."

"그렇군요."

어지간하지 않고서야 지오는 공짜 밥 준다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무튼 맛있을 것 같으니 됐다.'

31년 사이 세상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아 복잡미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굶주린 배의 허락하에 지오는 번민을 벗어 던지고 유성운의 뒤를 따랐다.

"메뉴 선정을 마치셨다면 벨을 눌러주세요."

"예."

"좋은 시간 되시길."

꽃잎으로 물들인 듯 부드러운 색감의 한복을 입은 종업원은 조용히 방을 나갔다. 멀어지는 인기척을 느끼며 잠시 기다리던 지오가 물었다.

"이곳이 백반집입니까?"

"…아, 그렇지."

티가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유성운은 아차 싶은 반응이었다.

지오는 그저 '이렇게 삐까번쩍한 곳이 정말 백반집이냐'하는 의도의 질문이었지만, 아마 유성운은 '그래서 정확히 백반집이라는 게 뭐냐'라는 말로 알아들은 듯했다.

"쌀밥에 국이랑 반찬을 곁들여서 먹는 상차림을 백반이라고 해."

"……."

교사로서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지오는 순간 반박하고 싶었으나 그런다고 풀어질 오해가 아닌 듯했으므로 그냥 입 다물고 설명을 듣기로 했다. 어른스러운 판단이었다고 자부한다.

"쌀밥은 항상 똑같고, 국은 날마다 달라지는데, 오늘은… 미역국인 것 같아."

거기까지 말한 유성운이 혹시 싶은 얼굴로 물었다.

"미역 먹나?"

"먹지 못하거나 싫어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반가운 이야기네."

유성운은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여 있던 메뉴판을 펼쳤다.

"기본 반찬은 전부 똑같고, 우리가 고를 건 메인 메뉴야. 주로 고기랑 생선으로 나누어지는데 너는 뭐가 더 끌려?"

"지금은 육류가 더 끌립니다."

마음 여린 지오는 숲의 동물을 사냥하지 못했다. 애초에 사냥하는 방법 자체를 모를뿐더러 동글동글하고 아기자기한 그림 동물들은 사냥해 봤자 수율이 나쁠 게 분명했다.

뭘 먹어도 행복한 지오는 편식 따위 안 했지만, 기왕 나온 김에 고기가 먹고 싶긴 했다.

'나왔을 때 먹어야지.'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광양 불고기로 하자.”

그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있는 숫자판을 꾹꾹 눌렀다. 아마 이곳에서 숫자에 해당하는 메뉴를 입력한 뒤 주방에서 바로 받아 조리하는 시스템인 듯했다.

마지막으로 빨간 버튼인 벨을 누른 유성운이 다시 지오를 보았다.

“내가 다녀본 백반집 중에는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몬스터 고기도 안 쓰고.”

“보통 몬스터 고기를 사용합니까?”

“흔하게 먹기는 하지? 그런데 식당에 와서까지 몬스터를 먹긴 좀 그렇잖아.”

“…….”

어째 지오가 아는 것보다 ‘식당’이라는 곳을 더 높게 쳐주는 것 같았다. 31년 동안 겨울잠을 잔 조상님인 지오는 이걸 어떤 식으로 물어야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지 고민했다.

“왜, 물어볼 거 있어?”

“…식당은 다른 시설에 비해 차별화된 곳입니까?”

“음? 대부분은 그렇지 않나?”

유성운은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는 듯 목뒤를 쓸었다.

“굳이 집에서 안 먹고 남의 손 빌려서 식사를 받는 거잖아. 나의 경우엔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2등급 시민부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모든 식당이 그렇습니까?”

“대체로 그래. 애초에 식당이라는 곳 자체가 식사를 하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게 크니까. 나처럼 먹으려고 식당을 찾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예 대접받기 위해 오는 사람이 더 많아.”

지오가 아는 식당의 정의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내가 알던 것과 비교하면 파인 다이닝이나 오마카세와 비슷한 것 같은데. 모든 음식점이 고급화되었다는 건가….’

아니 잠깐, 그럼 배달은?

“배달을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유성운은 지오의 입에서 ‘배달’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대체 저를 어디까지 조상님으로 보고 있는 건가 의심스러워졌지만, 설명하기 귀찮은 지오는 입을 닫았다.

“배달도…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지. 그건 더 비싸지만.”

“그렇습니까?”

“가는 길에 몬스터 마주치면 대형 사고잖아. 피해 가는 것도 번거롭고.”

무슨 몬스터가 길고양이 수준으로 취급받는 거지. 피해 정도는 절대 길고양이 수준이 아닌 듯해서 더더욱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보통 파티할 거 아니면 배달은 잘 안 시키던데. 나도 그래.”

“…….”

파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배달이라면 그건 그냥 케이터링이 아닌지 의혹이 들었다.

“…그렇다면 대부분은 집에서 본인이 식사를 만들어 먹습니까?”

“보통은 그렇지. 식자재 사는 것도 돈이 깨지는데 서비스까지 받을 여력이 어디 있겠어. 식당을 가는 일 자체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고.”

뭔 세상이 한번 멸망했다 재건했나.

“하지만 저희는 식당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야 내가 너한테 관광시켜 주겠다고 했잖아....”

“아하.”

끝내주는 대접을 해주겠다는 의미였나 보다. 간단한 소통마저도 오류가 발생하는 것에 지오가 진지하게 고민했다.

‘...사회성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 내 나이에 의무 교육을 받기는 힘들 텐데? 지금이라도 대학에 재입학을 해야 해?’

고작 31년 지났다고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이대로라면 지오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마다 어디 시리우스별에서 온 외계인 취급을 받게 될 것이었다.

‘아니면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방구석 폐인 취급이거나.’

망할 천지신명이시여, 후자는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서 더욱 섬뜩해졌다.

‘이게 바로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마음...?’

할머님, 제가 드디어 당신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 살아가기란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었군요.

지오는 깊이 통감하며 종업원이 차려주는 식사를 보았다.

“뜨거우니 조금만 물러서 주세요.”

그렇게 말한 종업원은 탁자 한가운데에 불씨 하나를 떨어트렸다.

그러자 불이 화악 타오르며 가스레인지와 흡사한 형태를 이루었는데, 종업원은 원형의 불 위에 불판을 놓았다. 그러고는 불고기를 몇 점 올린 뒤에 방을 나갔다.

“.......”

아무것도 없는데 불이 켜졌어.

‘나무로 만들어진 테이블인데 안 타.’

정정한다. 지오에겐 대학교가 아니라 유치원 재입학이 필요했다.

유성운의 눈치를 보니 이게 아주 당연한 일인 듯한데 사회와 정확히 31년 동떨어진 지오는 그저 놀랍기만 했다.

“음, 소고기인 것 같네.”

“...소가 아니면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몬스터 고기일 확률이 높겠지? 소나 양보다 단가가 싸거든.”

“맛이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치이익—.

고기를 휘적거린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그냥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래. 독소가 있는 특수 부위만 아니라면 꺼릴 이유가 없는 고기가 많은데도, 역시 몬스터는 사람을 공격하는... 그리고 대부분 징그럽게 생긴 녀석들이잖아. 사람 잡아먹는 괴물 고기가 환영받기는 힘든 이치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말하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가정에서 애용하는 고기이기도 하지. 싸고 양 많은 단백질 덩어리는 인기가 없을 수가 없잖아. 그래도 대접받으려고 오는 이런 식당에서까지 몬스터를 먹기는 좀 그렇다는 이야기였어.”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모든 몬스터가 몸에 독을 담고 있지는 않으니까?”

유성운이 픽 웃었다.

“뭐,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위험한 걸 어떻게 먹냐는 그런 분위기였다던데. 그때는 나도 어렸을 때라 지금은 잘 모르겠네.”

“20년 전이라면 그렇게 먼 과거는 아닌데도 사람들의 인식이 빠르게 변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와 협회에서 이래저래 많이 일을 했으니까….”

20년 만에 자기 입에 들어가는 고기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변화시킬 만큼 일을 잘하는 정부?

‘31년 지났다고 변한 게 왜 이렇게 많지?’

지오 자신이 불길 속에서 초상화로 진화한 것보다 놀라운 이야기였다. 유성운의 의견이야 좀 다르겠지만 일단 지오 본인은 그랬다.

“정부가 유능한가 보군요.”

“아니 뭐, 목 따이기 싫으면 유능해야지.”

“…….”

“이미 몇 번 따여서 유능한 사람만 남은 거야.”

지오는 쫄았다. 형은 무슨 고기 먹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

‘…하긴 헌터들은 살아 있는 전쟁 병기라던데 정치인이라고 손대지 못할 게 어디 있겠나 싶네.’

지오는 금세 납득하고 고기를 함께 휘적거렸다.

“먹어도 됩니까?”

“어, 다 익은 것 같다.”

“잘 먹겠습니다.”

“입에 맞았으면 좋겠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한국의 불고기는 대표적으로 3가지로 나뉜다.

첫째, 서울식. 둘째, 광양식. 셋째, 언양식. 지오가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 광양식 불고기였다.

흔히 아는 육수와 소스에 절인 불고기는 바로 서울식 불고기인데, 광양식은 전골처럼 먹는 서울식과 달리 석쇠에 건조하게 구워 먹는다.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양념에 그리 오래 절여두지도 않는다.

‘그래서 훨씬 고기의 맛이 잘 살아 있지.’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여러 번 두드려 얇게 펴진 소고기. 그걸 석쇠로 한번 바짝 구워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살아 있는 육즙의 광양식 불고기가 완성된다.

“…….”

석쇠에서 떼어낸 불고기 한 점.

소스와 밥 없이, 지오는 온전히 불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다.

“…….”

“어때, 맛있어?”

“아주 맛있습니다.”

안 그래도 프라이빗한 개인실이겠다, 저 혼자만 있었으면 기립 박수를 쳤을 훌륭한 맛이었다.

“좋은 고기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육향도 비리지 않고 진한데, 육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연육 과정을 위해 많이 두드린 것 같은데 이 정도 두께로 찢어지지도 않는 걸 보면 요리사님의 실력도 훌륭하다는 뜻이겠죠.”

“너… 맛있는 거 먹으면 말이 늘어나는구나.”

“실례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만.

“하지만 맛있다는 건 정말입니다.”

“그래 보여.”

“만들어보고 싶은 맛이군요.”

숯불에 튀기듯이 바짝 구운 겉면은 탄 고기 특유의 씁쓸한 맛이 잠깐 느껴졌지만, 적당히 그을린 고기의 달곰함에 변주를 주었다.

고기에 쏙쏙 박힌 적당한 지방은 스톡처럼 진한 풍미가 느껴졌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고기의 질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양념도 간이 적당하고.”

고기 깊은 곳에 버무려진 뭉근한 단맛은 아마 배인 것 같았다. 고기에 배를 갈아 넣어 연육을 시킨 것일까. 거기에 어떤 술을 넣었는지 정중한 씁쓸함도 함께 느껴져 맛의 고급스러움을 배로 높였다.

“마늘과도 잘 어울립니다. 과하지 않을 만큼 향이 적절하게 좋습니다.”

톡 쏘는 마늘의 향은 고기 깊은 곳에 박혀 혀 안쪽을 찌르면서도, 숯불에 한 번 구워지며 그 독함이 부드럽게 녹아내려 있었다. 참기름 또한 좋은 것을 쓰는지 신선한 향이 감돌았다.

“…….”

“응? 왜?”

“간장도 직접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너 미식가야? 그걸 어떻게 알았지?”

“맞습니까?”

“어… 여기 주인분께 듣긴 했는데.”

지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달리 고추의 향이 강해서 혹시나 했습니다.”

“네가 괜히 먹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혀가 예민하네.”

“찍어 먹는 소스도… 맛있네요.”

아마 들어가는 재료 자체는 불고기의 양념과 비슷한 듯했지만, 이 묘한 새콤달콤함. 짙은 매실의 향은 어색하지 않게 소스에 배어들어 풍미를 더해주었다.

‘매실청은 아닌데….’

아마 매실로 만든 식초가 아닐까 싶었다.

“…….”

고기를 마늘이 살짝 보이는 갈색의 소스에 톡, 과하지 않게 살짝 찍어 김이 피어오르는 보슬보슬한 흰쌀밥과 함께 먹어주면….

“…….”

“좋냐.”

“예.”

“그럴군.”

역시 쌀밥은 입에 한가득 넣고 먹는 맛이 있었다.

오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8)

제28화

식사를 마친 유성운은 지오를 청계천으로 이끌었다.

"......."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지오가 기억하는 서울의 청계천과는 조금 많이 달랐다.

"자, 여기가 청계천이야."

"대단히 자연적인 광경입니다."

"그렇지?"

"겨울인데도 꽃이 피어 있다니."

미친 건가.

'드디어 지구가 인간을 견디다 못해 고장 나기 시작한 걸까.'

다행히도 유성운이 설명을 덧붙였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따로 조치를 취해서 온실처럼 만들어놓은 것뿐이야."

"어떤 조치입니까?"

"시에 도시 조경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 거기서 도시를 건설할 때 일정 이상의 식물이 남아 있도록 하는 거지."

"이렇게 겨울에도 온실로 만들어두는 겁니까?"

"맞아, 봐봐. 공기가 굉장히 온화하지?"

유성운이 허공을 휘적이며 청계천을 가리켰다.

"마법 처리가 되어 있어서 범죄자가 포함된 5등급 시민이나 위협적인 몬스터를 제외한 누구든 들어올 수 있어. 차가운 겨울 공기는 차단하고 햇빛만 투과시키는, 정말 온실다운 시스템인 거지."

"......."

"우리 회사 앞에서도 꽤 따듯하지 않았나? 돈 좀 만지는 회사 근처나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공공장소의 경우엔 이런 식의 마법 처리가 되어 있어. 전자의 경우에는 회사 주인이 사적으로 설치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돈을 대어 설치해 주는 거지만...."

유성운의 말을 곱씹던 지오가 물었다.

“위협적인 몬스터, 라고 하면… 위협적이지 않은 몬스터는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

잠시 고민하던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 몬스터라고 해도 이미 지구 생태계의 일원이고, 자연의 순환에 한몫을 하고 있는데 마냥 배척할 수는 없잖아.”

그 말에 지오는 몬스터도 반쯤 길고양이나 닭비둘기 취급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몬스터는 던전이 터졌을 때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보군요.”

“응? 아아,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 그렇게까지 유능하지는 못해서.”

유성운이 설명을 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모든 몬스터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해. 하지만 헌터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전 인류를 지킬 만큼 많지는 않고, 굉장히 강한 헌터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몬스터 전부를 추격하고 처리하는 건 비인도적이니까.”

그가 어깨를 으쓱였다.

“무엇보다, 그렇게 강한 헌터가 스트레스로 테러를 일으키면 감당을 어떻게 하겠어? 굳이 강한 헌터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야. 헌터도 사람인데 어떻게 일만 하겠냐는 거지.”

“그렇군요.”

“지금 지구에 자리 잡은 토착 몬스터들은 대부분 대재앙 초기에 처리하지 못한 탓이라고 하더라.”

“초반에 말입니까?”

“그때는 헌터들도 지금보다 훨씬 약했고, 체계도 허술하고, 추격 스킬을 가진 사람도 적었으니 당연한 일이겠지.”

“그럼 그때 죽이지 못하고 남겨진 몬스터들이….”

“지구의 일부가 된 거야.”

그렇게 말한 유성운이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을 눈짓했다.

“저런 녀석처럼.”

푸르르륵—.

하천 가운데에는 둥그런 새 한 마리가 깃털을 고르고 있었다.

“저 녀석도 몬스터거든.”

“…….”

확실히 지오가 모르는 새였다.

하지만 시스템은 알았다.

목화솜새

목화솜을 닮았다 하여 한국인들에 의해 이름이 붙여졌다. 날개와 몸통, 머리와 목이 구분 가지 않는 구의 형태이나 깃털이 부풀어 있을 뿐 실제 체격은 일반적인 새와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목화솜새의 알을 삶은 뒤 실을 뽑아내면 붕대를 제작할 수 있다.

“…….”

누에고치?

‘생긴 건 거의 공 같은데.’

아무튼 지오는 납득했다.

“목화솜새는 위협적이지 않군요.”

“…저 녀석을 알아?”

“방금 알았습니다.”

시스템이 설명해 준 바로는 거의 새의 형태를 한 누에고치 같은데, 조금 커다란 목화솜들이 하천에서 깃털 고르는 걸 보고 있으니 마음이 평온해진다.

지오를 응시하던 유성운이 곧 말을 이었다.

“…음, 그래, 저런 녀석들. 수는 많고 몸집은 작은데 인간들이나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 녀석들은 대부분 지구의 토착 몬스터로 자리 잡았어.”

“귀엽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너 저런 거 좋아하는구나?”

“작고 동그라면 놀라울 정도로 무해해 보여서 좋지 않습니까.”

“어쩐지 네 물새도 그렇게 동그랗더라니….”

유성운이 허탈하게 웃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토착 몬스터는 이미 순환 구조에 들어온 녀석들이니까 내버려두는 거지, 최근 유입되는 외래종들은 전부 처리하고 있어. 애초에 몬스터라는 존재는 지구인을 굉장히 증오하거든.”

“그렇습니까?”

“보통은 그래. 적의가 없더라도 인간에게 충분한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남아 있는 토착 몬스터들은 이미 협회에서 안전성 검사를 마치고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녀석들이야.”

유성운이 한 번 더 목화솜새를 가리켰다.

“저 녀석들도 지구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적응을 한 건지, 인간을 향한 적의가 평범한 야생 동물 수준으로 누그러졌거든. 대재앙 초기에는 사람 살점을 파먹을 정도로 위험한 몬스터였다던데 지금은 무해한 비둘기 정도니까.”

“아하.”

“몬스터이니만큼 만지거나 개인적으로 키우는 건 불법이지만… 공존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의미지. 던전과 지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니 무조건적인 배척보다는 이러는 편이 나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

몬스터와의 공존이라니, 못 본 사이 지구인들이 상당히 터프해진 것 같았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돌아다녀 볼래? 수질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어서 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거야. 이곳의 몬스터나 동물들도 전부 무해한 편이고.”

“…….”

맑게 찰랑이는 하천을 보던 지오가 곧 발을 옮겼다.

‘액체로 된 유리처럼 맑아.’

가까이에서 본 하천은 햇빛이 부서져 더 아름다웠다.

마치 봄처럼 온화한 날씨에, 커다란 온실처럼 이곳저곳을 채우고 있는 커다란 나무와 덩굴, 그리고 꽃. 파스텔 톤의 나비가 꽃잎 위에 앉고 다람쥐를 닮은 생물이 나무의 열매를 갉아 먹었다.

참새를 닮은 새들이 나무의 꽃을 툭툭 따는 이유는 뭘까. 재미로 저러는 걸 수도 있고, 꽃 안의 꿀을 먹고자 하는 걸 수도

있었다.

“…이렇게 계절을 사람들의 마음대로 바꾸면 생태계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까?”

“한창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전부 조정했다고 하더라고. 무엇보다 몬스터에 의해 지구 본래의 동물들이 멸종되지 않도록 일부러 계절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거든.”

“그렇군요.”

여러모로 지오가 살던 때와는 다르다.

“괜찮으면 발이라도 담가봐.”

“그래도 되겠습니까?”

“열매를 따지 말라거나 꽃을 뽑아 가지 말라는 규칙은 있지만, 딱히 그런 부분에서 규제하는 건 없어. 사람이 많은 여름에는 여기 와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치고 오늘은 아무도 없군요.”

“한창 일할 시간에, 방학도 연휴도 아닌데 누가 물놀이를 하겠어. 애초에 겨울에는 굳이 몸에 물 묻히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유성운 씨의 말이 맞습니다.”

지오는 구두와 양말을 벗고, 그대로.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갔다.

“…….”

시원했다.

‘부드럽고.’

단 향이 난다.

꽃의 향인지, 나무의 향인지, 아니면 이 물속에 자리 잡은 몬스터가 내는 향인지 알 수 없다. 어쩌면 무색무취였던 과거의 물과 달리 하천의 물이 진화한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름의 계곡처럼 조약돌이 물에 데굴데굴 굴러가는 모습이….

“…….”

잘게 잘게 움직이는, 작은 생명체들이.

지오반니를 기쁘게 만들었다.

“…예쁜 물입니다.”

그의 검은 눈이 물빛을 품었다.

“맑고, 깊군요.”

“…….”

“생각보다 깊어요.”

“…….”

“왜 이곳에서 바다의 향이 나는 걸까요?”

유성운은 무언가 변화를 감지했다.

“…지오?”

“바다의 향기가 납니다. 철의 겉면처럼 조금 비릿하고, 솔잎처럼 시원하고, 모래를 흐트러지게 만드는 거센 바람을 닮아서....”

“지오.”

“그곳을 닮았어요.”

나긋하지만, 무감한 음성.

“바다의 색.”

그 순간.

“.......”

“인어의 색.”

지오반니의 발치로, 말없이 온갖 물속 생물들이 모여들었다.

“심해가 돌보는....”

어느새 그의 발은 투명한 물빛으로 바뀌어....

“—지오.”

“.......”

‘친구’의 음성.

눈을 두 번 깜박였다.

“...예.”

“...너....”

“부르셨습니까?”

지오가 유성운을 돌아보았다.

“.......”

“.......”

“...서지오, 맞지?”

“맞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이름은 지오입니다.”

유성운의 얼굴이 기묘하게 일그러졌다.

* * *

조금 시간이 지나, 호텔의 방 앞.

유성운이 ‘4501호’라고 적힌 카드 키를 지오에게 건넸다.

“자, 이게 네 거.”

“감사합니다.”

“나는 바로 옆방에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부르고.”

“예.”

“저녁은 6시 30분 예약이니까… 한 6시에만 만나도 되겠네.”

그에 지오가 물었다.

“저녁 메뉴는 뭡니까?”

“프렌치. 코스가 정해져 있는 식당이라 가서 먹기만 하면 돼.”

“이해했습니다.”

“그럼 푹 쉬어.”

그렇게 혼자 방으로 들어간 유성운은.

“…….”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분명, 아까….”

청계천에 있을 때.

“…그건 ‘지오’가 아니었어.”

무언가 바뀌었다.

한국에 있는 자신을 의식하는 것인지, 평소 지오는 스스로를 ‘서지오’라고 소개했다. 유성운이 그 점을 짚었음에도 청계천에서의 그는 자신을 ‘지오’라고 정의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슨 변화가 일어났던 거지?’

유성운은 아직도 청계천에서의 검은망토를 기억한다.

시작은 지오의 맨발이 하천의 물에 닿은 순간부터였다. 형용할 수 없는 위화감이 들더니 무언가 기이하게 일렁였고, 내내 평범한 검은색이던 지오의 눈이 바다의 색으로 변화했다.

그 변화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유성운이 말을 걸었을 때, 느릿한 미소를 짓던 지오는 마치 인격 자체가 바뀐 듯했다.

‘머리카락은 무슨 색이었지…? 은색이었나? 아니면 백금발? 후드에 가려져 있어서 잘 확인하지 못했어.’

군데군데 천천히 물들기 시작하더니, 이내 물과 발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신체가 변형되었다. 형태는 그대로였지만 그건 분명 사람의 발이 아니라 물의 것이었다.

심지어 피라미가 그 투명한 발목을 타고 자연히 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유성운은 지오를 부르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어졌다.

그건.

“…….”

인간이 아니었다.

살아 있는 게 아닌 듯했지만, 죽은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호흡하지 않을 뿐 그건 생명을 품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손에 잡히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인간이었던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자연에 가까운 무언가로 변하는 광경은 맨정신으로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아….”

멍청하기는.

‘격이 낮아졌다고 방심했나.’

근원의 존재는 결코 인간이 될 수 없었다. 특히 지오처럼 몬스터라고도 정의할 수 없는 존재라면 말이다.

'아무리 인간과 아주 흡사하게 꾸며낸다 해도, 그건 결코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지.'

다만 지오가 너무 인간적이고 친절해서 경계하지 못했다.

"정신을 좀 차려야겠는데."

이래서는 정원사 자격 박탈이야.

"…뭐, 그래도, 생각보다는 훨씬 순조로웠어."

괜히 숨을 내쉬어 본다.

유성운은 기본적인 용품이 든 가방을 침대 위에 던져두고선 자신도 그 옆에 앉았다. 그러고는 오늘의 시작부터 방금 전까지를 다시 복기해 보았다.

"……."

문제 될 것은 없었다.

'…몇 가지 어색한 점은 있었지만 역시 인간의 기억이 있는 덕분인가, 지오는 인간 사회의 규칙에도 능숙해. 다른 몬스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야.'

보통의 몬스터라면 아무리 높은 지능이라 해도 왜 자신이 정해진 대가를 내고 무언가를 얻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그게 보통이긴 하지. 인간이 개미굴 구경할 때 개미 사정 봐주면서 파헤치나.'

같은 이치였다. 몬스터 입장에서는 대놓고 널려 있는 식사나 기호품을 그냥 취하면 그만이었다.

없으면 모를까 존재하는데 집어 가지 않고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다. 그게 그들의 당연한 일상이자 규칙인 셈이다.

그러니 지오의 입장에서 돈을 주고 식사를 받는 유성운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됐을 것이다.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간 걸 보면 제 나름대로 인간 흉내는 내보겠다는 건가…."

사실 깐깐하게 따지자면, 그런 것치고도 미숙한 부분은 많았지만 말이다.

"호기심이 많은 게 딱 봐도 티가 나더만."

인간이라면 이미 알고 있거나 대충 눈치만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것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지오는 유성운에게 물어보았다.

이게 뭔지, 저건 뭔지, 이건 가질 수 있는지, 저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오를 몬스터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확실히 이런 점은 인간형 몬스터랑도 비슷하네."

인간의 물품과 규칙에 그들은 항상 호기심을 가졌더랬다.

"…음, 인간치고 너무 가벼운 점도 그런 부분 중의 하나이려나."

거의 인간 수준으로 격을 낮춘 상태지만, 그렇다고 신체 자체가 완전한 인간이 된 것은 아닌 듯했다. 호텔로 오던 도중 지오는 바람에 날아갈 뻔했던 것이다.

'잠깐 붕 뜨는 정도였다고는 해도, 그 키와 체격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원래도 지오는 걷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가벼웠다. 그나마 오늘은 좀 인간만큼 무거워졌나 싶었는데, 구두와 옷 덕분에 무게감이 더해졌을 뿐 여전히 인간치고는 과하게 가벼운 듯했다.

"……."

바람이 좀 거세게 불었다지만 순간 날아갈 뻔했던 지오를 떠올리니….

솔직히 좀 섬뜩했다.

“…정말 인간이 아닌 거네.”

지오는 인간이 아니었다.

‘평소의 가벼운 무게도 그렇고, 청계천에서도 그렇고.’

인간은 그만큼 가벼울 수 없었다.

입고 있는 옷의 무게와, 내장과 뼈의 무게와, 그 안을 맴돌고 있는 피의 무게가 있다. 인간이라면 지오처럼 툭 놓인 나뭇잎과 같이 소리조차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몸 내부를 자그마한 피라미가 타고 오를 수도 없었다.

“…….”

발이 물에 닿았다며 창백한 피부가 투명한 물로 천천히 바뀌어 가던 광경.

그 속을 물고기와 공기 방울이 파고드는 광경은 뇌로 인지하기 힘들 만큼 신비롭고 기괴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건 몬스터조차 아니야….”

인간을 흉내 내는 자연.

“…….”

그게 더 맞는 말이겠지.

“…무섭네.”

근원의 존재는 물론 자아를 가진 자연으로 분류되나, 왜인지 지오는 그것과도 결이 다른 것 같아 근거 없는 공포심이 들었다.

존재해선 안 될 존재의 호의를 받는 기분이었다.

* * *

그 시각 지오.

“45층이다.”

“꾸르르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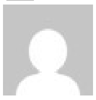
그는 몰래 밀수한 허니와 함께 오성급 호텔 최상층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렇다,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8)"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9)

제29화

저녁 식사는 배를 타고 이동했다.

"우리가 탈 배는 이거야."

"오."

낭만 청년 지오는 가슴이 뛰었다.

'식당까지 수로를 통해 이동하다니....'

꼭 베네치아에 온 것 같았다.

"도로와 수로가 함께 있으니 특이한 광경입니다."

"그런가? 하긴, 대재앙 이전의 대한민국에는 수로가 거의 없었다고는 하더라."

"왜 생긴 겁니까?"

툭.

유성운을 따라 수상 택시 위에 타며 지오가 물었다.

"수로를 만들려면 대량의 물이 필요할 텐데요."

"애초에 반대야. 수로를 만들기 위해 물을 끌어온 게 아니라, 그냥 물이 너무 많아서 그걸 제어하기 위해 수로를 만들었다고 해."

"그 정도로 물이 많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국토의 높이에 비해 수위가 상당히 높으니까."

수로를 만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수준이었다니. 이 헬한민국은 대체 어디까지 가는가.

유성운이 설명을 이었다.

"아직 인간은 탐사하지 못하는 영역이 대부분이지만, 바닷속에 생긴 던전이나 거기에서 나온 몬스터들도 워낙 많아서. 물리적으로 바다 안쪽의 부피가 늘어난 탓에 수위가 높아진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 정도면 몬스터 한둘로는 힘들 텐데."

대체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큰 몬스터가 지구에 정착했으면 수로를 만들지 않고선 견디지 못한단 말인지.

지오의 의문을 알아들은 유성운이 입을 열었다.

“빌딩 한 채를 가뿐히 넘는 크기의 수중 몬스터도 많거든.”

“그렇군요.”

“그런 몬스터가 한 개체도 아니고 여러 마리에 여러 종류가 있으니, 아무래도 대재앙 이전보다는 수위가 올라갔겠지. 사실 원래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바닷물이 잘 올라오는 곳은 아니었다고 하던데....”

“지방에서는 올라온 바닷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사나 이런저런 생활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는 수로를 뚫어 두었다고 알고 있어. 바닷물의 염분이 땅으로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길을 만들었다는데, 그야 도시만큼의 자본은 없으니... 수로 근처에는 농사를 못하겠지?”

“.......”

“그래서 바닷물이 과하게 들어오는 지역은 아예 처음부터 농사 대신 어업을 하고 있다더라. 좀 유명한 지역의 생선은 도시로 수입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다들 알아서 살길을 찾은 것 같긴 하다.

‘인간의 적응력이란 어마어마한 거야.’

아무튼 지오는 쫄았다.

‘초상화에 처박혀야지.’

이제 지구는 실질적인 무력 없이 낭만과 열정과 희망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터프한 세상에 월세 따박따박 내고 살아가려면 얼마나 강인해져야 한단 말인가. 지오는 꿈조차 꿀 수 없는 경지일게 분명했다.

“식당 자체도 수중 위에 떠 있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떠 있다기보다는 그냥 작은 섬 위에 지어진 식당인 셈이겠지만....”

“한강 내부에 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택시 좌석에 앉으며 지오가 물었다.

“원래도 그곳에 섬이 있었습니까?”

31년 전에도 노들섬과 같은 작은 섬이 있다는 걸 알기는 한다. 하지만 유성운이 말하기로 다른 부지 없이 식당 하나만 덩그러니 놓였다고 하던데, 어떻게 그런 위치가 나왔는지 궁금해졌다.

유성운은 어렵지 않게 대답해 주었다.

“거기가 원래 고정형 던전이 있던 자리라서 그래.”

“...고정형 던전?”

“...아, 너는 던전에 대해 잘 모르던가?”

당황한 얼굴을 보니 지오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오는 눈 깜짝할 사이에 31년 전의 조상님이 되었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발전하지 못해 도태되었다.

‘대한민국의 새싹들에게 사회성을 주입해 주었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애들아 선생님이 보고 싶다.

다행히 유성운은 금방 원래의 무던한 표정으로 돌아와 설명을 시작했다.

“던전은 보통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나뉘어. 말 그대로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던전과 저마다의 규칙을 가지고 이동하는 던전인 거야. 고정형 던전의 경우엔 그 자리에 원래 없던 지형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식당도 그렇게 만들어진 지형 위에 세워진 겁니까?”

“어, 애초에 그게 식당 테마야. 거기에 있었던 던전이 요리와 관련된 곳이었는데, 헌터도 아니면서 얼떨결에 끌려갔던 일반인 요리사의 음식에 감동받아 공략이 완료된... 그런 던전이라서.”

“아하.”

서사가 대단히 감동적이었다.

“그렇게 공략이 완료된 위치에 거창한 레스토랑이 남았고, 그때 공략에 참여했던 셰프가 그 레스토랑을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해. 지금이 벌써 92세이신데도 아직까지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

“92세?”

“인간치고는 장수한다 싶지?”

유성운이 한번 웃고는 말을 이었다.

“애초에 던전 공략 이후 요리사로 각성한 사람이라 나이의 영향을 덜 받았을 거야. 그 외에도 스킬이나 아이템의 보조가 있겠지. 실제로 보면 50대 정도로 보일걸.”

“.......”

“종종 국가 차원의 공략에 참여해 팀원들의 식사를 책임져 줄 때도 많아. 그러니 기본적인 전투 실력도 나쁘지 않다는 뜻이겠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못이 박힌 야구 배트가 주 무기라고 하던데.”

“야구 배트....”

“의외지? 나는 식칼을 쓸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요리할 때 쓰는 칼을 몬스터 썰 때 사용할 수 있냐고 인터뷰했더라. 역시 요리사는 마인드부터가 다른가 봐.”

“오.”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지만 아무튼 지오는 쫄았다. 인류는 강해졌다.

“각성자는 노화가 더딥니까?”

“내가 알기로 대부분은 그래. 최소한 C급 이상의 헌터라면 말이지.”

“좋은 헌터의 기준은 C급에서부터 나뉘는 건지....”

“평균적인 실정이나 인식 자체는 그런 편이야.”

정말 무서운 세상이었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 틀린 것 하나 없다. 항상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살자.’

멀쩡히 살아 귀신 들린 초상화로 퇴마당하고 싶지 않았다.

지오가 고민했다.

‘나도 생존 전략을 잘 짜야겠는데. 초상화가 불타버리면 내 오두막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단순히 나만 성실하게 처신한다고 해서 모든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렇다고 인간 합격을 받고 다시 지구에서 살고 싶지도 않았다.

“무슨 생각을 해?”

“지구는 무서운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진짜 너무 무서웠다.

“갑자기 왜 무서워하고 그래, 토벌 대상도 아니면서.”

“그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토벌 대상이 될 경우 사지가 찢길 수도 있다는 거다.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귀신 들린 초상화 취급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비난과 공격받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지오는 제 안락한 생존을 위해 고민해 보기로 했다.

“…….”

일단 밥부터 먹고.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네, 식당은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야. 신기하지?”

“이 수로에서만 나는 냄새입니까?”

“일종의 홍보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 것 같네.”

“이해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불쾌하지 않은 수준의 황홀한 냄새를 풍기는 수로도 신기하지만, 더 신기한 건 바다의 향과 음식의 향이 나뉘어 맡아진다는 점이었다.

‘…이런 도심 한가운데에서 바다의 향이라….’

고개를 조금 숙이면 오로지 바다의 향만 났다. 알싸하게 뇌를 찌르는, 해수가 풍기는 향이었다.

그리운 기분이 들었다.

“…….”

지오는 수면 가까이로 몸을 기울였다.

“지오, 위험할 것 같은데.”

“바다의 향이 좋아서 잠시 냄새를 맡았습니다.”

옛 기억에 푹 빠진 지오의 음성이 한결 온화해졌다.

“한강과 연결되어 있는 수로인데도 바다의 향이 나다니, 신기한 일이네요.”

“그야 산이 아니고서야 이런 곳의 하천이나 수로는 모두 바닷물이 강하게 섞여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지오반니는, 이런 향을 좋아했다.

바다의 향.

“…….”

인어의 향.

“…한번….”

저 깊숙한 곳으로 빠져보고 싶을 만큼.

애틋했다.

“지오, 그만.”

“…….”

“…기사님도 당황하고 계시잖아.”

그 말에 지오가 수상 택시 기사를 보았다.

“…….”

굉장히 당황한 얼굴로, 조금은 겁에 질린 듯이 지오를 보고 있었다.

“…그렇군요.”

지오는 자신이 무례하게 굴었음을 인정했다.

“죄송합니다, 이런 수로는 처음이라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다칠까 봐 걱정한 거지 화난 건 아니니까 괜찮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운이야 ‘걱정’이지 기사의 얼굴은 ‘두려움’에 더 가까워 보였지만, 지오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기기로 했다. 자기가 태운 손님이 물에 빠지려고 하면 무서운 게 당연했다.

‘갑자기 문 열고 고속 도로에서 뛰어내리려는 손님처럼….’

지오는 성공적으로 납득했다.

‘어차피 그게 아니라면 내가 또 이상한 기운을 흘렸거나 한 거겠지.’

종종 유성운의 회사에서 저도 모르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지오는 다시 얌전하게 자리에 앉았다. 신기한 수로에 정신이 팔려 민폐를 끼친 점을 반성 중이었다.

그런 그를 관찰하듯 바라보고 있던 유성운은, ‘이거 물어봐도 되나’ 싶은 얼굴로 망설이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바다를 좋아하는 건가?”

“…예?”

아니요? 딱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청계천에서도 그렇고, 수로에서도 그렇고, 유난히 바다 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물론 내 착각이었다면 미안해.”

“미안할 것도 없습니다. 바다는 싫어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한 지오가 이내 말을 바꿨다.

“…생각해 보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응?”

“저는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소리지만 또 틀린 말은 아니었다. ‘지오’는 바다에 큰 감정이 없지만 ‘지오반니’는 아닌 것이다.

그러니 ‘바다를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에 지오는 네니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둘 모두 본인의 생각인 만큼 어느 한쪽을 부정하기는 힘들었다.

다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도 인어가 있습니까?”

“…인어라.”

한편, 유성운은 청계천에서 느꼈던 이변을 한 번 더 감지했다.

‘분명 여기도, 라고 말했지.’

지오는 인어와 어떤 인연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음….”

잠시 고민하던 유성운이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그런 종류의 몬스터가 튀어나오기도 해. 굳이 몬스터가 아니더라도… 그런 형상을 띠고 있는 어떠한 존재들이 있기도 하고.”

“…….”

“우상 숭배나 전설, 혹은 신화가 실존하는 괴물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세상인 만큼 지구의 이곳저곳에서는 인어와 관련된 몬스터가 튀어나오지.”

“그렇습니까?”

“아주 오래된 작가의 ‘인어 공주’ 이야기는 유명한 동화거든.”

인어 공주.

익숙한 단어의 등장에 지오가 다시 생각에 잠겼다. ‘지오반니’의 부탁에 관한 생각이었다.

‘그러고 보니 퀘스트 중에 인어 공주와 관련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은 묻어두기로 했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화려한 식당이군요.”

“오, 그러네.”

“상상 이상으로 멋진 건물이라 기대가 됩니다.”

원래 밥상머리에서 고민하는 거 아니랬다.

* * *

상아와 대리석을 섞어 만들어진 듯한 호화로운 식당.

마치 하나의 성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면서도, 구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님이 느껴질 만큼 여러 개의 방과 계단과 로비가 뒤섞여 비효율적이었다.

하지만 그런 기묘함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식당의 컨셉을 확고히 해주고 있었다.

“…….”

하얀색과 분홍색, 연두색, 하늘색.

아이보리색을 기반으로 틈틈이 조각보처럼 퍼져 있는 파스텔 톤의 은은한 빛깔은 마치 꿈에 들어온 것처럼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었다.

정신없이 아름다웠다.

“아까 미처 물어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사이, 크림색 식탁을 차지한 유성운과 지오 일행.

자리에 앉은 지오가 물었다.

“이곳은 고정형 던전의 잔재로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응? 그렇지.”

“그렇다면 고정형 던전은 공략 이후에도 원래 이런 식으로 지형이나 건물을 남기는 겁니까? 그런 던전이 이 땅과 식당을 남긴 것이고?”

“아아아… 어, 맞아. 그런 느낌이긴 해.”

본격적인 식사가 나오기 전에 의문을 다 해소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유성운은 특유의 무던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던전은 고정형과 이동형을 떠나 다양한 종류가 있어. 보통 가상 던전, 별장 던전, 진입 던전으로 나뉘고 있지.”

“3가지나 있습니까?”

“사실 그것보다 많기는 한데 이 3가지가 대표적인 던전이야.”

유성운이 손가락을 접어가며 설명을 이었다.

“가상 던전의 경우 뚜렷한 경계선 없이 임의의 조건을 만족한 인원을 잡아먹어 가상의 세계에서 게임이 진행돼. 예를 들어 오후 9시 정각 편의점에 들른 30대 남성 10명을 조건으로, 편의점과 비슷하게 구현된 게임판 위에서 공략이 진행되는 거지.”

“굉장히 불합리하게 들립니다.”

“맞아, 이런 부분은 다른 헌터들도 굉장히 곤란하게 보고 있어. 그 30대 남성 중에 던전 공략에 적합한 헌터가 몇 명이나 있겠냐고. 가상 던전은 꽤 드물게 나타나지만, 파악도 어렵고 피해도 커서 현대인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지.”

이런 게 ‘현대인의 걱정거리’로 불리는 세상은 좀 섬뜩하지 않을까 싶다.

제 퇴화한 얼굴 근육에 힘입어 마음껏 식겁한 지오를 모르는 유성운은 태연히 설명을 이었다.

“그다음으로는 별장 던전. 어떤 임의의 지형과 규칙이 지구에 새롭게 나타나는 거야.”

“그게 이 식당의 경우입니까?”

“잘 이해한 것 같네. 네 말대로 이 식당 건물은 별장 던전의 일환으로 생겨났어. 원래는 아무것도 없던 한강의 한가운데에 대뜸 레스토랑 한 채가 생겨난 거지.”

유성운은 기억을 떠올리는 듯 눈을 데굴 굴렸다.

“내가 알기로 이 레스토랑은 새롭게 생긴 지형 위에 레스토랑만 덜렁 생긴 게 아니야. 강의 밑바닥까지 닿을 만큼 깊은 지하실을 가진, 과하게 긴 레스토랑이지. 다만 수면 위로 보이는 부분이 식당뿐이라 ‘물 위에 떠 있는 식당’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이런 식으로 별장 던전은 지구에 뜬금없이 외계 차원의 별장이 세워지는 셈이야. 이미 그런 지형으로 대체되었으니 복구도 안 되지. 그래서 별장 던전은 대부분 한 번 나타나면 공략을 완료해도 규칙만 사라진 채 그대로 남아 있어.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활용할지는 지구인들의 몫이고.”

“…….”

“마지막은 진입 던전인가? 이건 게임이랑 비슷해. 네가 아는 게임은 과연 어떤 녀석이고 뭐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유성운이 마지막 손가락을 흔들며 말했다.

“물리적인 경계가 아예 없는 가상 던전, 경계 자체가 존재는 해도 그 선이 애매모호한 별장 던전이랑은 좀 달라. 진입 통로만 덜렁 나타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계 차원의 공략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거든.”

"아하...."

확실히 게임에서 흔히 보이는 차원 문 같기는 했다. 문만 덜렁 있지만 진입하면 다른 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게임 말이다. 지오는 완전히 이해했다.

유성운은 늘 그렇듯 무던하고 친절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식당처럼 던전의 잔재를 레스토랑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지."

"이색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의외입니다. 어째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겁이 많은 존재잖아."

형 자꾸 나 귀신 들린 초상화 취급할 거야?

"일반인을 들였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곳에 거주하며 던전의 잔재를 활용할 만큼 간이 큰 사람도 얼마 없고, 무엇보다 그렇게 남은 잔재도 꽤 사람을 가리는 편이라... 보통은 어떻게든 철거를 하는 편이야."

"사람을 가립니까?"

"마음에 안 드는 놈이 들어오면 오한이 들게 만든다거나?"

"귀신이 들린 집 같습니다."

라고 귀신 들린 초상화가 말했다.

"......."

그렇다, 지오는 사실 본인의 정체성을 내심 인정하고 있었다.

'그야 보통 인간은 초상화 안쪽에서 오두막 짓고 힐링받으며 살지 않으니까.'

어차피 인간이라고 강하게 피력할 생각도 없었던 지오가 슬쩍 변명했다.

"...저는 오한을 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그래, 지오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4살 된 사촌 동생처럼 오냐오냐해 줘서 눈물 날 만큼 고마웠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9)"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0)

제30화

‘예전에도 프렌치 식당은 몇 번 들른 적이 있지만….’

지오는 다시 한번 식당 내부를 둘러보았다.

‘여기 정말 컨셉 잘 잡았네.’

겁보다 낭만이 많은 지오는 ‘여기가 사람이 수십 명 죽어나간 던전으로 만든 식당이래’라는 말에도 굴하지 않았다.

‘맛있는 밥이 나오는데 왜 겁을 먹어야 하지?’

그런 지오에게 있어 이 식당, ‘이스투아’는 공기마저 달게 느껴졌다.

“…….”

“여기가 마음에 들어?”

“분위기가 좋습니다.”

감상하는 재미가 있었다.

혼란스러운데 깨끗하고, 몽환적이지만 단정하다. 서늘하지만 다정하게도 느껴지는 색채의 온도감은 하얀색과 파스텔 톤의 색을 적절히 섞은 디자이너의 역량일 것이었다.

마치 한 사람의 아름다운 꿈을 형상화한 듯 기괴하고도 환상적인 디자인이었다.

‘이 건물을 디자인한 건 인간이 아닐 확률이 높겠지만….’

꿈을 형상화한 듯 복잡하고 아름다운 건물과, 환상을 구현해 놓은 듯 입맛을 다시게 만드는 달콤한 공기.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색 체험에 마치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설렜다.

원래도 지구에는 이머시브 다이닝이라는 것이 있었다. 하나의 컨셉으로 디자인된 연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며 그에 동화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말하는 것이다.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연극이라고 해야 할까.

‘게다가 여기는 아예 던전이라는 하나의 차원과 관련된 스토리가 있는 식당이지.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한 연극과 달리 진짜 실존했던 이야기 속에 있는 셈이다. 심지어 이곳의 셰프님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했고.’

이 식당은 상당히 높지만, 그 중심이 뚫려 있어 1층에서도 천장을 바로 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중심이 원형으로 뻥 뚫린 것도 아니었다. 난간 없는 둥근 형태의 로비와 겹겹이 이어진 계단들. 그곳에서 손님은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공중 로비에 앉아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은 마치 이 연극의 주인공으로 발탁된 듯 보기 좋은 위치에 놓여 있었다.

“…….”

지오와 유성운이 앉은 자리는 5층의 가장자리였다.

“…….”

“음….”

유성운이 혹시 싶은 얼굴로 물었다.

“역시 로비에 앉고 싶었을까? 던전의 스토리가 진행됐던 곳이라 인기가 많은 자리이긴 해.”

“아니요.”

“아, 대답 빠르네. 계속 공중 로비를 보고 있길래 저쪽이 더 좋은가 했어.”

“건물의 구조가 마음에 들어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보는 즐거움이 있군요.”

체면이 있어 강하게 거절하지는 못했지만, 절대 공중 로비에서 식사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게까지 시선을 집중받는 건 나같이 마음이 여린 사람에게 너무 험난한 경험이 될 거야.’

이머시브 다이닝을 떠올리자면 저것 역시 연극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지만,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훤히 닿는 저런 공간에서 식사하고 싶진 않았다. 지오는 낯을 가렸다.

“감상했을 뿐입니다.”

“그럼 다행이고.”

지오의 깔끔하면서도 단호한 음성에 유성운은 내심 안도의 숨을 삼켰다.

‘…저렇게까지 공개적인 자리에 지오를 내보일 수는 없으니까.’

제 소원대로 후드를 계속 쓰고 있는 지오였지만, 그렇다고 그 체격과 분위기마저 숨길 수는 없었다.

아무리 인간을 흉내 내어 격을 낮췄다고 해도 그 본질이 어디로 가겠는가?

‘지켜보는 시선은 대략 19명… 그중에서 헌터는 11명. 경계심을 느끼고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는 건 4명 정도인가. C급이 1명, B급이 2명, A급이 1명이야.’

이스투아는 과거 던전의 잔재를 그대로 활용한 이색 식당으로, 아예 각성하지 못한 일반인은 대부분 출입을 삼가는 편이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만 즐기러 오기엔 허들이 높으니 말이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무엇보다 예전에 사람이 대량으로 죽었던 장소라는 점에서 아웃이다.

‘이런 곳에서 밥을 먹으면 악몽을 꿀 것 같다는 사람들도 많았지.’

헌터들이야 사람 죽어나가는 걸 보는 게 일상이니 이스투아의 손님은 70% 이상이 헌터였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사람의 반응이 나뉜다.

‘잔재의 영향력은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이스투아의 건물은 환각, 환청부터 시작해 심한 사람은 정신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다.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지 않는 한 그렇게까지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건물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은은한 압박을 못 견디는 손님들도 많았다.

“…….”

지오 이 자식.

‘인간 흉내를 낼 거면 제대로 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식당을 눈에 담고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손님들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지 않나. 보면 볼수록 이상이 심해지는 공간에서 대놓고 인간이 아닌 티를 내고 있었다.

'…게다가….'

그런 섬뜩한 분위기나 행동이 아니더라도 지오는 어딘가 고고한 면이 있었다.

'정말 귀족 같아 보여서 이런 프렌치 식당과 더 잘 어울리는 거려나.'

우아하다고 해야 하나, 위압적이라고 해야 하나. 본인은 별로 의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몸을 낮추려고 하는데도 행동 하나하나에서 우러나오는 기품이 있었다.

'예전에는 초상화인 상태로만 대화를 나눠서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확실히 바깥으로 나오니 고상한 분위기가 확 사네. 신전의 사제들처럼 단정한 느낌도 크고.'

정말 이런 분위기를 띠어놓고선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걸까.

'애초에 인간 중에서도 이런 사람 얼마 없어….'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이해도가 높은 지오였지만, 역시 군데군데 허술한 점이 보였다. 디테일이 떨어지는 걸 보니 역시 인간이 아니긴 한 모양이었다.

"……."

물론 지오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이런 식당은 오랜만인데.'

라고, 지오반니로서 잠시 생각할 정도였다.

사실 여태껏 그가 보였던 기품이니 뭐니 하는 태도는 전부 귀족이자 의사이고 사제였던 '지오반니'에게서 나왔다. 저절로 나오는 버릇이나 분위기를 자각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식전 빵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오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빵이다.'

아주 오랜만의 밀가루 덩어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지오반니로 살 때 제자들과 나눠 먹었던 식사가 떠올라 더욱 마음이 좋았다.

유성운도 그런 지오의 기분을 짐작한 모양이었다.

"빵 좋아해?"

"걱정하지 마세요, 먹지 않는 게 없고 편식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먹을 걸 좋아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지오는 빵의 일부분을 살짝 뜯어 앞접시에 올려두었다.

'작고 동그랗네.'

그러고는 한 번에 다 먹지 않고 조금씩 쪼개 먹었다. 그런 지오반니의 행동에 유성운이 그를 응시했다.

"……."

유성운은 내심 확신했다.

‘귀족… 아니면 그에 준하는 계급에 속하지 않았으려나.’

먹는 것 하나하나 신경 쓴 저 예절을 보자면 말이다.

‘백반집에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프랑스 쪽이랑 인연이 있었나?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그냥 서양식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고민하는 유성운을 두고 지오는 식사를 이어갔다.

“빵이 맛있네요.”

“그래? 아무래도 향이 좋기는 하지.”

“담백하고 고소합니다.”

빵의 겉면은 건조하다 싶을 만큼 바싹 말라 있었지만, 그렇다고 엉망인 빵처럼 껍질이 단단하거나 질기지 않았다.

페이스트리 겹처럼 바삭하게 부서지는 껍질 안쪽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폭신한 속살이 있었다.

‘식빵이나 모닝빵 같은 느낌은 절대 아니고, 가장 비슷한 느낌을 찾자면 치아바타 쪽이려나. 하지만 그런 것치고도 말도 안 되게 폭신한 게 내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

마치 머랭을 부풀려 결을 만든 듯한 폭신함 사이사이로 연약한 쫄깃함이 느껴졌다.

바삭한 껍질에서 한 번, 부드럽고 폭신한 식감에서 한 번, 사르르 스며드는 쫄깃함에서 한 번 변주를 주니 씹는 맛이 있었다.

곡물 본연의 향을 잘 살린 빵 자체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과 화덕의 은은한 나무 향도 훌륭했다.

‘과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조화로워.’

만든 사람 납치하고 싶다.

“이 오일 향도 좋네요.”

“아, 그렇지? 올리브와 버섯을 섞은 오일이라고 해.”

“올리브와 버섯?”

“둘 다 던전의 품종을 개량한 거야. 어쩌면 네 입맛에는 이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확실히 독특한 시도라 마음에 듭니다.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식전 빵을 찍어 먹는 오일은 발사믹과 곁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끈적한 포도 식초라고 할 수 있는 발사믹은 그 새콤하고 짙은 풍미가 일품이었지만, 특이하게도 이 오일은 대신 소금이 들어 있었다.

‘꼭 회를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지오가 문득 남색 머리카락의 인어를 떠올렸다. 자존심 강하고 예민한 성정의 어린아이였다.

‘…아리아가 유독 강한 맛을 싫어해서 식초 없는 오일에 빵을 찍어 먹는 걸 좋아했는데, 이렇게 소금을 넣었어도 괜찮았을 것을… 그때는 생각을 못 했네.’

하긴 그때는 소금이 비싸서 넉넉히 구비해 두기가 어렵기도 했다. 아무리 해변가 마을에서 살았다고는 해도 소금은 귀한 식재였다.

“…….”

확실히 회 같아.

유독 속살의 질감이 잘 살아 있으면서도 야들야들한 빵. 마치 결 지방이 촘촘하게 박힌 참치 대뱃살을 기름장에 찍어 먹듯, 생명감 있는 빵 역시 그런 감상을 주었다.

‘…오일과 소금이 함께 들어가서 그런지 향은 향대로 증폭하고, 곡물의 단맛은 더 부각되고 있어. 확실히 갓 나온 빵의 식감과 잘 어울리는 시도야.’

야금야금 빵을 먹고 있을 때 즈음 두 번째 요리가 나왔다.

“세 가지 치즈가 올라간 어니언 수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림성 수프와 달리, 오로지 양파의 단맛과 감칠맛에 기대어 만드는 갈색의 투명한 수프.

“…….”

그 속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게 깔린 짙은 노랑과 주황빛의 치즈는 딱 알맞은 색감으로 녹아 있었다.

지오는 수프를 살살 떠냈다.

‘치즈는 그렇게 두껍지 않네.’

바삭하게 구워진 치즈의 겉면과 달리 그 안은 연약하고 부드러웠다. 어니언 수프와 닿아 있는 면이라 그런지 잘 볶은 양파 특유의 진한 감칠맛이 묻어 있었다.

‘양파의 결도 잘 살아 있어. 혀로 뭉개질 만큼 푹 익었는데도 양파의 원래 형태가 이렇게까지 잘 보일 정도라면 굉장히 세심하게 수프를 만들었다는 거겠지. 시간이 꽤 들었겠는데.’

어니언 수프 위에 치즈. 당연하다면 당연한 조합이었지만, 지오는 그 위의 치즈가 두꺼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취향으로 수프와 그릇이 식으면 고무처럼 질겨지는 치즈가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오히려 그게 뭇국의 무나 고기 같은 거라거나, 오히려 식감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고 말할지도 모른다지만… 그게 나는 아니야. 난 수프를 먹고 싶은 거라고.’

하지만 이 수프의 그릇은 따듯한 온도를 계속 유지했고, 치즈는 아주 얇지는 않지만 두껍지도 않은 두께라 퍼먹기가 아주 좋았다. 덕분에 양파 본연의 맛도 더 잘 부각되는 것 같았다.

“…….”

“좋아?”

“몸이 따듯해지는 기분이라 좋습니다.”

“확실히 어니언 수프는 보양식 느낌이 조금 나지.”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새하얗고 단단한 양파를 진한 캐러멜색이 날 때까지 볶는 과정. 그 과정이 어니언 수프의 가장 큰 핵심인데, 이때 양파를 태우거나 덜 볶는다면 감칠맛은커녕 밍밍한 양파 물을 먹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양파의 모든 단맛과 감칠맛, 그 속의 풍미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짠 이 수프는 보양식이라고 불러줄 만했다. 어지간한 정성과 시간으로는 양파의 모든 맛을 이렇게까지 이끌어낼 수 없을 테니 말이다.

‘납치.’

셰프를 납치하자.

“아므라 퓌레를 곁들인 치즈꽃 샐러드입니다.”

곧이어 새로 나온 요리와 낯선 단어에 지오가 자연히 유성운을 돌아보았다.

연노랑빛 소스가 얹어진, 꽃을 닮은 형태의 치즈가 송송 올라가고, 그 곁을 깨끗하게 다듬어진 꽃잎들이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의 샐러드.

“…….”

“…….”

설명이 필요했다.

“…….”

“아… 재료가 뭔지 궁금해?”

“괜찮으시다면 아므라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던전에서 가져와 품종 개량에 성공한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지. 아보카도는 아나?”

“압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무른 성질의 과육을 가졌지만, 견과류만큼 고소한 향이 강한 열매야. 과육에 포함된 기름이 어마어마한데 그런 기름은 어지간한 온도에도 타지 않아서 중식 쪽에서 자주 사용한다고 알고 있어.”

“그럼 과육 자체는….”

“그러게, 아므라를 퓌레로 쓰는 곳은 나도 처음이네. 애초에 저번 계절에만 해도 과일 샐러드가 나왔었거든. 이스투아는 4개월마다 메뉴가 바뀌어서 찾는 재미가 있지.”

“그렇군요.”

아므라, 라고 불린 열매는 병아리보다도 옅은 연노랑빛을 띠고 있었다.

‘…땅콩이나 호두와 비슷한 수준의 고소함인데.’

그렇다고 바로 견과류가 떠오르는 느낌은 아니었다. 따지자면 쌀밥을 오랫동안 씹었을 때 느껴지는 고소함과 단맛을 닮았다.

그러다가 끝에 꿀처럼 짙은 단맛과 과일 특유의 새콤함이 툭 치고 가며 맛의 변주를 주었다.

‘확실히 기름기가 많기도 해. 꼭 소고기의 마블링 같기도 하고….’

어딘가 사골을 연상케 만드는 이 달곰한 기름기는 상큼하게 퍼져 있는 꽃잎과 매우 잘 어울렸다. 지오의 시선이 자연히 진달래와 비슷한 형상을 한 치즈꽃에게로 닿았다.

“…….”

살짝 치즈꽃을 갈라보자, 이것이 원래부터 이렇게 생장한 ‘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치즈꽃은….”

“관심이 있나? 나중에 모종을 구해 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여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사줄게.”

“감사합니다.”

치즈로 자라나는 꽃이라니, 있던 동심 없던 동심 다 끌어모아 설레게 만드는 이야기였다. 꼭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존재가 아닌가.

‘인간이 치즈를 만들어내는 그 번거로운 과정을 떠올리자면 상당히 매력적인 꽃인데.’

애초에 치즈가 무엇인가. 우유를 달달 볶다 못해 굴리고 굴린 끝에야 미미한 양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의 상징이 아니던가.

그런 가공품이 꽃으로 떡하니 나오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꽃잎은 얇고 또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웠다.

‘무슨 원리지? 맛 자체는 테트 드 무안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형태 자체는 유지하고 있지만 툭 치면 사르르 바스러지는 반경성 치즈. 우유 특유의 부드러움과 고소함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강한 견과류의 향과 톡 쏘는 매운맛이 자랑인 치즈였다.

치즈꽃은 그보다 혀끝의 매운맛이 조금 더 강했지만, 이는 불쾌할 정도는 아니었다. 단지 아므라 퓌레의 기름진 맛과 치즈 특유의 느끼함을 한번 환기해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

'조화가 예술인데 혹시 셰프님이 무형문화재이신가?'

무엇보다 테트 드 무안보다 단맛과 고소함이 배로 강한 치즈꽃은 어딘가 꿀의 풍미도 느껴졌다. 진달래꽃을 뒤집어 쪽 빨았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단맛이었다.

그게 이 꽃 샐러드와 무서울 정도로 잘 어울렸다. 지오는 오두막으로 돌아가 이 꽃을 심을 생각에 들떴다.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예."

무슨 그런 당연한 소리를.

"인간은 원래 먹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어... 그래?"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아궁이에 구워준 감자 주워 먹을 때부터 그랬다. 이 지극히 말초적인 즐거움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었다.

그 뒤에도 환상적인 코스가 이어졌다. 트러플 향이 진한 그라탱과 치즈가 살짝 올라간 프렌치프라이.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구운 뒤 나무의 향을 입힌 양지와 바삭하게 칩으로 만들어 올린 마늘.

기름진 것으로 유명한 프렌치치고 조화가 절묘해 질리지 않는 코스였다.

"나름 괜찮았나?"

"괜찮지 않고 아주 좋았습니다."

"즐거워 보여서 다행이네...."

인간 흉내를 낼 거면 주변을 신경 쓰는 척이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

'인간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회적인 생물이야....'

그동안 '저건 대체 뭐지'라는 시선을 지오 대신 감당해야 했던 유성운이 씁쓸하게 웃었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0)"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1)

제31화

"그럼 이제 경복궁으로 가볼까."

"……."

경복궁이라.

'나도 몇 번 우리 반 학생들 데리고 체험 학습 갔었지. 애들은 지루하다고 싫어했지만….'

시끌벅적했던 한때를 떠올리던 지오가 물었다.

"야시장이 있다고 하셨던가요."

"맞아, 한국 분위기를 느끼기엔 그만한 곳이 없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가서 한복도 입어볼래?"

"한복…."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기억이 퐁퐁 샘솟았다.

학교 차원에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면 굳이 찾아가 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경복궁이라는 게 애들 한복 입혀주고 사진 찍어주는 재미는 있었다.

'특히 마지막으로 맡았던 반 애들이 끝내주는 궁중 암투도 실시간으로 보여 줬었는데.'

지오가 추억에 잠겼다. 중전마마와 내관의 혈투가 압권이었더랬다.

깜찍하고 소란스러운 학생들을 맡았던 덕분에 지오는 경복궁에 대해 좋은 기억이 많았다. 인솔해야 하는 입장이라 한복을 입어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한복 체험을 싫어하지도 않았다.

"좋습니다."

"그래?"

그런 지오의 모습에 유성운이 내심 안도의 한숨을 삼켰다.

'아무래도 본질이 초상화라 착장을 바꾸는 걸 불쾌하게 여기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다행히 지오는 여러 경험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는 편인 듯했다.

“좋아, 내가 괜찮은 집을 알지.”

“한복 대여 말씀입니까?”

“거긴 사람이 많이 없는 편이라 천천히 가도 괜찮을 거야.”

“기대됩니다.”

“그럼 슬슬 지상철을 타볼까, 곧 정류장에 도착할 시간이거든.”

“도착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게 자주 오는 교통수단은 아니니까….”

지오를 정류장으로 이끌던 유성운은 묘한 감상에 빠졌다.

‘자기를 지오라고 소개하길래 한국의 문화를 따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흉내 내는 문화권이 한국이 아니었던 건가?’

식당에서 지오가 보였던 테이블 매너는 한국의 것이라고 보기엔 애매했다.

아무리 봐도 서양식에 더 가까웠는데, 평소 한국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보였던 지오의 발언을 떠올리자면 독특한 일이었다.

“…음.”

하지만 이제 와서는 상관없기도 했다.

“식당 어땠어?”

“맛있었습니다.”

“안내해 주는 사람 뿌듯해지는 반응이네.”

격이 하도 높을 때는 그 얼굴로 무슨 표정을 지어도 좀처럼 확인이 어렵더니, 지금은 지오가 나름대로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걸 알아챌 수는 있었다.

‘덕분에 안내도 순조롭네.’

유성운이 생각을 이었다.

‘제법 인간처럼 굴고 있으니 다른 헌터들이 시비만 걸지 않는다면 문제 생기지 않겠지. 비사벌 길드장 말대로라면 지오는 어지간해서는 마찰을 피하는 유형이니까….’

지오가 감상을 입에 담았다.

“지상철이 건물을 뚫고 지나가는군요.”

“그래야 출근하기 편하지 않나? 건물 안에 바로 내려주면 편하잖아.”

“그렇긴 합니다.”

“앞으로 두 정류장 더 지나면 백화점을 관통하는 정류장도 나와.”

“소음 문제는 없습니까?”

“그야 방음 처리를 해뒀지. 정확히 어떤 처리인지는 마법부가 알겠지만….”

안내해 주는 것마다 즐기는 모습을 보니 지오는 이 인간들의 세상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190cm에 가까운 남자가 저러고 있으면 철없어 보일 만도 한데 말이지.’

고개를 돌린 목의 선이나 창문을 살며시 건드리는 손가락 같은 것들이 이상하게도 어려 보이지 않았다.

꽤 즐거워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이의 순수한 감탄보다는 지독한 방관자의 것처럼 느껴졌다.

‘워낙 무거운 분위기 때문인가.’

동등한 위치에서 웃는 게 아니라, 허리 뒤에 손을 둔 채 어딘가 굽어본다는 식의….

“곧 내립니까?”

“아, 그렇지.”

유성운은 지오를 데리고 경복궁역에서 내렸다. 그가 정거장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가 경복궁이야.”

지상철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도시의 전경이 훤히 보인다는 점이었다.

너무 높지 않은 고도에서 둥실둥실 떠다니는 풍등은 살아 있는 것처럼 하늘거렸고, 그 아래에는 경복궁과 한옥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다.

전기가 아니라 불을 이용해 밤을 밝히는 특성 탓인지 전체가 온화한 빛으로 가득했다.

퇴근 후 들르거나 관광을 온 사람들은 경복궁 안과 밖에 쭉 나열된 야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었다. 원하는 역할에 맞춰 입은 한복들이 겨울바람에도 살랑거렸다.

지오가 전경을 모두 눈에 담을 때까지 기다린 유성운이 입을 열었다.

“서울에 왔으면 경복궁은 들러야지. 나름 세계적인 관광지거든.”

“…….”

“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번잡한가?”

“아뇨,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뿐입니다.”

“싫지 않아 보여서 다행이네. 그럼 우리도 즐겨봐야지.”

유성운은 직통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지오를 한옥 마을로 이끌었다. 그리 넓지 않은 골목마다 한복을 입거나 입지 않은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대여점에서 빌려주는 겨울의 한복은 모두 보온 처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복장은 한겨울에도 그리 두껍지 않았다.

“이리로 와, 일단 옷부터 갈아입자.”

“한복을 대여해 주는 곳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제대로 즐기려면 이것저것 준비도 해야 하고.”

한옥이 이리저리 얽혀 초보자는 길을 잃기 십상인 경복궁 마을이었지만, 이전에도 몇 번 들러봤던 터라 찾기는 수월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 관광지는 유성운이 일할 거리가 넘쳐났다.

‘…오늘은 꽤 들떠 있는 편인가. 사고를 칠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평소와 달리 꽤 활발한걸….’

한옥의 지붕 위에서 눈을 치우는 시늉을 하거나, 아니면 역시 한복을 입은 채 선비나 규수의 흉내를 내는 ‘이야기’들이 눈에 들어왔다.

“…….”

나무 가면을 쓴 그것을 확인한 유성운이 시선을 돌렸다. 대체로 먼저 공격하지는 않지만, 경복궁의 것들은 오래 눈이 마주쳐서 좋을 게 없는 녀석들이었다.

비단이 잔뜩 걸려 있는 마당과 처마 끝에 걸린 온화한 빛깔의 연등. 유성운은 주변을 말없이 감상하는 지오를 끌고 한옥 내부로 들어갔다.

“사장님.”

“어머, 성운 씨 아니야.”

꽃으로 물들인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중년의 여성이 그를 반겼다.

“오랜만이네. 이번에도 손님 대접?”

“회사 차원의 손님이라 더 신경을 써야겠는데.”

“그럼 우리 집 한복이 딱이지.”

여성은 우아하게 웃으며 지오를 돌아보았다.

“이쪽이 손님이시려나?”

“놀이보다는 야시장 위주로 돌아다닐 거니까 편한 옷으로 골라줘.”

“왜, 놀이는 즐기지 않고. 이번에 재밌는 거 많이 하던데.”

“오늘 내내 돌아다니다 보니 기운이 쫙 빠졌어.”

“그럼 선비님으로 꾸며 드려야겠네, 그렇지? 옷이 너무 두껍거나 무거우면 불편할 테니까 가벼운 선비복으로 하자.”

“그게 좋겠다.”

유성운이 지오에게 말했다.

“얼굴은 어떻게 할래? 계속 가리는 게 좋아, 아니면….”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초상화의 익명성을 보장해 달라.

지오는 예상보다 많은 인파에 쫄았다.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항상 멀어지기를 바라는 지오는 얼굴을 가려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하길 원했다.

그런 그의 소심한 마음은 모르지만, 어쨌든 지오가 번잡하고 시끄러운 상황을 좋아하지 않으리라 짐작하는 유성운이었다. 그는 대충 이해하고선 사장에게 부탁했다.

“마스크 있나?”

“넉넉한 걸로 줘?”

“그게 편하겠지? 응, 부탁해.”

“그럼 옷부터 고르자.”

사장은 지오를 보며 물었다.

“망토 좀 벗어줄 수 있어요? 나중에 계속 입는 건 상관없지만, 한복을 고르려면 체격을 봐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오는 순순히 망토를 벗어 제 팔에 걸쳤다. 착실하게 말을 들은 지오는 뿌듯하게 사장님을 보았다.

“…….”

“…….”

“…사장님.”

유성운이 망부석이 되어버린 사장을 불렀다.

“손님 도망쳐, 이러다가.”

“…어머, 추태를 부렸네.”

사장은 그제야 반응했다.

"손님이 너무 잘생기셔서 잠시 숨이 멎었지 뭐야."

"내 손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옷걸이가 좋으니, 이렇게 잘생긴 손님은 골라주는 맛이 있지. 조금만 기다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이 젊은 여성 둘과 함께 한복이 걸린 행거 두 종류를 밀며 나왔다. 한쪽은 시원한 푸른빛이 감도는 한복, 다른 한쪽은 무채색 위주의 한복이었다.

"둘 다 우리 집 누에들에게서 짜낸 비단이야. 반질반질하니 피부 자극도 없고."

"파란색이 내 거겠지? 겨울에 입는 거치고 차가운 색 아니야?"

"나는 가장 어울리는 옷을 가져왔을 뿐이라고. 성운 씨 아니면 겨울에 누가 이런 색을 입어주겠어?"

"이거 이용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입고 돌아다니는 김에 홍보 좀 해주면 고맙고. 하여튼 헌터들은 옷걸이가 좋다니까?"

사장은 지오를 돌아보았다.

"이런 겨울에 옷도 얇게 입은 걸 보니 헌터시겠죠? 우리 한복은 헌터들이 입어도 문제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튼튼하고 가볍게 제작하니까 걱정 말아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지오는 헌터도 아니었다.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가.'

사장은 부채를 살랑거리며 웃었다.

"헌터들은 거추장스러운 옷 별로 안 좋아하니까, 신경 쓸까 봐 그렇지. 모르는 얼굴인 걸 보니 비공식이거나 자격증을 얻은 지 얼마 안 되신 거겠죠?"

"……."

"말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얼굴을 계속 가리겠다는 걸로 봐서는 신상 털리는 거 딱 질색인 모양인데, 내가 아주 세련되게 잘 숨겨줄게."

신상이 털려?

'헌터라는 직업은 신상 털리는 게 흔한가 보지?'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다 있나.

나중에 유성운 씨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지오는 멋들어지게 비녀로 머리를 틀어 올린 사장님께 추천받은 검은 한복을 둘러 입었다. 검은 답호에 회색 도포. 허리끈은 깨끗한 하얀색이었다.

"경복궁에 갈 거면 갓도 써야지. 그래, 잘 어울리네. 노리개를 잔뜩 달아도 아주 어울리겠어. 이건 산호로 만든 건데 하나 달아봐요."

"감사합니다."

"이건 목도리. 어머, 하얀색이 너무 잘 받는다. 피부가 워낙 깨끗해서 그런가 예쁘네. 이거는 들어가서 엽전 넣을 전낭인데 떨어지지 않도록 잘 매고 다녀요?"

"……."

"자, 그리고 너울."

지오는 평퍼짐하고 새까만 천에 조금 당황했다. 너울이 뭔지는 알지만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었다.

“…이건 어떻게 착용하면 됩니까?”

“도와줘야겠네. 단우 씨, 우리 잘생긴 손님 너울 좀 씌워줘요.”

“예, 사장님.”

분홍색 댕기를 차고 있는 젊은 여성이 다가와 지오의 갓에 검은 천을 둘러주었다.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은 것처럼 앞이 잘 보였다.

“야시장 위주로 돌아다닐 거라면서. 그럼 자주 먹을 텐데,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있으면 불편하겠지. 신상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긴 너울이 딱이야.”

“…….”

“손님은 워낙 분위기가 있어서 누구인지 알아볼지도 모르겠지만, 옷이 워낙 화려한 데다 이것저것 달아놓은 것도 많으니 누가 그렇게 얼굴을 자세히 보겠어?”

“그렇군요.”

“목도리가 워낙 도톰해서 하관은 거의 가리고 있으니 이 정도면 가릴 거 다 가렸지. 마음 편한 상태에서 우리네 마을 재밌게 즐겨요, 선비님.”

한쪽에서 푸른 계열의 한복으로 갈아입은 유성운이 사장에게 물었다.

“우리 등도 좀 사려고 하는데.”

“어머나, 이거 아주 제대로 노네? 어떤 등이 좋아?”

“딱히 생각한 건 없어. 요즘 뭐가 제일 잘 나가지?”

“글쎄, 어린 아가씨들은 달 등을 좋아하기는 해.”

“어… 남자들은? 우리가 아가씨는 아니잖아.”

“성운 씨처럼 남자 둘이서만 놀러 오는 경우가 흔한 줄 알아?”

잠시 고민하던 사장이 이내 댕기 머리 한 명을 불렀다.

“홍연 씨, 수조관 좀 가져올래요?”

“예, 사장님.”

홍연이라 불린 여성은 곧 커다란 유리 상자를 하나 밀어 왔다. 그 안에는 한지로 만들어진 여러 등이 빛에 잠겨 살아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는데, 사장은 그중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채로 건져 올렸다.

잘게 파닥거리는 그것은 마치 진짜 물고기 같았다.

“금붕어는 어때? 작고 은은해서 데리고 다니기 힘들지는 않을걸.”

“그거 괜찮네.”

지오는 문화 충격을 받았다.

‘등이 살아 있어?’

유성운이 ‘등’을 말하길래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풍등이나 걸어놓는 연등을 생각했다.

하지만 유성운이 구매한 금붕어 등은 공중을 하늘하늘 날더니, 이내 한 마리는 지오의 얼굴 옆에 자리했다.

“…….”

꼬리를 살랑거리는 등은 직접 쳐다보아도 눈이 아프지 않았다.

“그럼 조심히들 놀아.”

사장은 손을 흔들며 둘을 배웅했다.

비단이 이곳저곳에 걸쳐진 마당을 나오자 다시 시끌벅적한 마을 길에 설 수 있었다. 유성운은 마을을 흥미롭게 돌아보는 지오를 불렀다.

“어때, 불편하지는 않아?”

“아주 편합니다.”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을부터 둘러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자.”

“마을을?”

“경복궁보다 마을 시장이 더 일찍 닫거든. 아마 야시장 돌고 나오면 마을 불은 꺼져 있을 거야.”

“그럼 마을을 좀 돌아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유성운은 이런 환경이 낯설어 보이는 지오를 이끌고 한 부채 상점에 들렀다.

“……?”

상점 옆에 우두커니 서서는, 투박한 나무 가면을 쓴 채로 기웃거리는 한 무리의 인영에 지오가 잠시 눈을 두 번 깜박였다. 행동이 뻣뻣하지는 않지만 명령이 입력된 기계처럼 획일화되어 있었다.

딱히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정체를 알 수 없어 지오가 고개를 기울일 즈음, 유성운이 상점 주인에게 말을 걸었다.

“사장님, 여기 부채 좀 보여줘요.”

“어이쿠, 멋진 선비님들이 오셨네. 뭘로 보여줄까?”

“단단한 녀석이면 좋겠는데….”

“그럼 이쪽이 최고지.”

이내 서성거리는 가면 무리에게서 시선을 돌린 지오는 곧 마을 시장을 신기하게 둘러봤다.

‘상점 상인들 전부 한복을 입고 있네.’

전통 한복, 혹은 개량 한복. 아니면 안쪽은 현대 복인데 바깥에만 두루마기를 두른 상인도 있었다. 그들은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관광객들을 위주로 상대하며 장단을 맞췄다.

유성운은 곧 검은 부채 하나를 지오에게 선물했다.

“자, 받아. 선비 복장이니 부채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선비는 원래 부채가 필수적인 존재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별 의미 없는 기념품이야.”

“관광지의 기념품은 각별하죠.”

검은 대와 천으로 만들어진 부채는 꽤 고급스러웠다. 부채까지 검은색이면 너무 저승사자처럼 보이지 않나 싶었지만, 아무튼 검은색을 좋아하는 지오는 순순히 받아들였다.

“경복궁 마을은 대부분 기념품을 팔아. 아니면 식자재라든가. 덩어리째로 고기를 널어놓거나 아니면 직접 기른 농수산물을 판매해. 지방에서 유통해 오는 물건보다 훨씬 신선해서 일부러 이쪽 상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

한참 마을을 돌던 둘은 이내 경복궁으로 들어갔다.

“잠깐, 돈 바꿔서 가야 해.”

“돈?”

“사장님께서 전낭 주셨잖아. 그거 엽전 담아두라고 주는 기본적인 서비스거든. 경복궁 안쪽에서는 엽전만 사용할 수 있어서 쓸 만큼 바꿔두는 편이 좋아.”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교환소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유성운은 곧 전낭을 두둑하게 불려서 왔다.

“일부러 가볍게 개량한 엽전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무게가 좀 있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번거로워하지는 않습니까?”

“글쎄? 찾아보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런 분위기를 즐기려고 오는 거잖아. 경복궁 상인들도 엽전으로 값을 받으면 표기된 값보다 더 받을 수 있어서 좋아하고.”

“어떻게 더 받을 수 있죠?”

“정부에서 상인들을 지원해 줘.”

유성운은 작게 웃었다.

“그래야 더 활발하게 엽전을 활용할 테니까.”

“그렇군요.”

“자, 받아. 이게 네 신분 패야.”

“……?”

패도 있어?

엽전이야 화폐로 쓰일 테니 이해가 가지만 신분 패는 어떤 용도일까. 지오가 유성운을 보자 그가 어깨를 으쓱였다.

“자유 이용권.”

“아하.”

아주 좋았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1)"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2)

제32화

야시장의 음식들을 흡입한 지오.

"……."

"질문이 있습니까?"

"아니, 너 잘 먹네."

"예, 그렇습니다."

지오는 대식가였다.

"안 배불러?"

"원래도 많이 먹는 편이라 괜찮습니다."

"대단하다 싶을 정도인데."

"맛이 없으면 적당히 할 텐데 전부 맛있어서 그랬습니다."

"그야 맛있어야 사람이 오지."

정론이긴 하지만 모든 식당과 음식이 맛있었다면 망하는 가게는 없었을 것이다.

'아무튼 31년 만에 관광지가 상당히 알차졌군. 우리 반 애들과 함께 방문했을 때는 거의 걸어서 역사 속으로 아니었나. 지루해하는 애들 달래준다고 힘이 꽤 들었지.'

대충 너울을 걷은 지오는 숯불에 구워 조청으로 코팅된 떡을 씹었다. 이게 바로 코리안 탕후루였다.

'원래 경복궁 하면 전형적인 문화유산… 그런 고루한 느낌이었는데.'

추억이 많은 장소였지만, 그 추억을 만들어준 건 경복궁 그 자체보다는 한복 입고 자아 정체성을 찾아 헤매던 학생들과의 소통이 더 컸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걸 보니 전생에 자기가 조선의 왕이었을 거라던 우리 아이돌 지망생은 어떻게 됐을까. 다들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

제정신으로 못 산다는 고등학생답게 헛소리에 충실했던 학생들이 아니었더라면 지오도 경복궁을 그리 즐기지 못했을 것이었다.

한옥이 아름답고 고풍스럽기는 하지만 특히 여름에 이곳을 와야 한다 하면 항의하던 학생이 어디 한둘이었나.

‘하지만 지금의 경복궁은 실속이 생겼어. 확실히 즐길 게 많아.’

한복을 입은 사람들은 저마다 역할놀이를 즐겼고, 자신이 산 종류의 등을 종종 다른 사람들과 바꾸기도 했다. 다들 즐거워 보였다.

“…….”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면.

‘저건 뭐지.’

웬 투명한 그림자 같은 것이 한복을 입고 휘적거리는 게 보였다.

‘부채 상점에서도 그렇고, 한옥 마을 골목에서도 그렇고… 저 엇비슷한 것들이 돌아다니던데.’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오가 본 그것들은 전부 가면을 쓰고 있었다.

등이 달린 줄 위를 한들한들 거니는 사당패 모습의 그림자가 한 무더기,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니며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댕기 머리의 아이들이 한 무더기, 출입이 제한된 궁 내부에서 오고 가는 문관들이 한 무더기….

“…유성운 씨.”

“응?”

“저건 뭐라고 부릅니까?”

“뭐가… 아.”

유성운은 당연히 지오가 알 거라고 여기는 듯 말했다.

“동화들이네, 살아 있는 이야기. 이런 곳에서는 처음 보지?”

“…….”

“보통 사람들 없는 곳을 좋아하는 녀석들이라 이렇게 시끌벅적한 관광지에서 보는 건 드물 거야. 그래도 어엿한 근원의 자식들 중 하나라고.”

이건 들은 적이 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근원의 자식에 대해 말하는 거야?”

“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그런가.”

목뒤를 긁은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저번에 정원사를 설명하면서 대충 말했던 것 같기는 하지만… 그때는 좀 설렁설렁 지나갔었지. 뭐라고 간단히 요약하긴 힘들지만 설명해 줄게.”

“…….”

“우리 인간들이 ‘근원’이라고 정의한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데, 신들의 신이라고 할 수 있어. 전 우주와 차원을 통틀어서 균형을 관리하고 이런저런 규칙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시스템이지.”

“시스템이군요.”

“그리고 이 근원은 보통 다른 자식들을 만들어내. 그걸 ‘근원의 자식’이라고 불러. 파도나 바람 혹은 짐승과 인간처럼 하나의 자연으로 구분할 수 있는 존재들이야.”

“…….”

“이런 근원의 자식들은 몇 가지로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

유성운이 궁 내부에서 움직이는 문관의 형상을 가리켰다. 커다란 관과 너울로 가려져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소매도 이상할 만큼 길어 신체 부위 중 그 어느 곳도 확인할 수 없었다.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그들의 행동은 각이 잡혀 군무를 보는 듯 시선을 끄는 매력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생명체 같지는 않았다. 마치 그림자가 옷을 입고 사람 흉내를 내는 듯했다.

“저런 녀석들은 ‘동화’라고 불리고 있어.”

“어떤 존재입니까?”

“대부분의 근원의 자식들이 그러하듯 인간들에게 관심이 없고 해를 끼치지 않아. ‘동화’는 살아 있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인간의 형상과 가까운 존재들이지.”

“그렇다면 정신은 인간에 가까운 게 아닙니까?”

“정말로 인간처럼 사고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흔적을 흉내 내는 거야. 근원의 자식은 자신의 겉모습을 꾸며내는 데 능숙하거든. 나중에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본질의 특성 자체가 그렇다는 것 같아.”

유성운은 홍시 주스를 쪽 빤 다음 말을 이었다

“동화들은 종류야 어떻게 되었든 전부 가면을 쓰고 있는데, 저 너머에는 얼굴이 없어. 인간의 신체를 가졌거나 그에 준하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겉모습만 따라 하는 거에 불과해.”

“.......”

“누군가를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서 그 그림이 실제 인간이 되는 건 아니잖아. 아, 물론 너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차원의 한계라는 게 있거든.”

“이해합니다.”

세상에 저 같은 초상화는 흔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지오가 긍정하자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저들은 저들만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 사라져. 경복궁은 사람이 많지만 특이하게도 저런 동화들이 제법 서식하는 장소야.”

사람들을 관찰하던 지오가 물었다.

“사람들은 저런 근원의 자식들을 보지 못합니까?”

“보는 사람이 적기는 하지.”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통의 사람은 돌고래나 박쥐가 활용하는 주파수를 감지하지 못하잖아. 비슷한 거야. 근원의 자식들은 세상에 존재는 하지만 그걸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어. 딱히 저 녀석들이 숨은 게 아닌데도 그렇지.”

“귀신?”

“어... 비슷하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인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부터가 조금 다르려나. 저것들이 아무리 인간과 비슷하게 모습을 꾸민다고 해도 속은 텅 비어 있거든. 뿌리부터가 달라.”

그는 뭔가 떠올랐다는 듯이 말했다.

“아, 그렇지. 예전에는 저런 근원의 자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지구가 근원의 영향을 크게 받아 던전이라는 게 생겨나고... 각성자가 탄생하고... 그렇게 생태 자체가 달라진 탓에 볼 수 있게 된 거라고 해.”

동화처럼 신비로운 이야기였다.

“보다시피 나도 저런 근원을 인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재 중 하나야.”

“저도 그렇겠군요.”

“음, 그렇겠지.”

나름 숨긴다고 했으나 유성운은 조금 어색한 표정이었다. 아마 저를 인간이 아닌 무언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었다.

‘아무튼 유성운 씨라면 내가 인간이든 아니든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는 무해한 존재라는 걸 알아줄 테니 상관없다.’

초상화 바깥으로 끌려 나올 것을 염려해 굳이 정정하지는 않고, 지오는 다시 경복궁의 전경을 눈에 담았다.

‘지구와 인류는 강해졌구나.’

저는 도태된 게 틀림없었다. 그저 먹고 자고 그릴 줄밖에 모르는 지오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어졌다.

“근원의 존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인간 중에서의 비율을 묻는 건가? 글쎄, 많지는 않아.”

“그렇군요.”

특별하면 찔려지기 마련이다. 지오는 또 한 번 초상화에 평생을 바치기로 다짐한다.

“…….”

멍하니 벤치에 앉아 있던 지오는 곧 작은 소란을 눈치챘다.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드문 일이네, 이런 관광지에서.”

의자에 기대고 있던 유성운은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곧 경비들이 잡아가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역시 두툼한 한복을 입은 경비들이 왁왁 소리치는 사람을 붙잡았다.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선비복을 입은 꽤 미형의 남성에게 달려들려고 난리를 치고 있었다.

멱살이 잡혔었는지 상의를 정리하는 선비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

분명 선한 인상의 청년이지만….

액자를 만들어 안전도를 파악해 보자(0/1)

보상: 인장

지오는 촉이 왔다.

“지오?”

“…….”

액자라.

지오는 양손을 들어, 카메라 모양처럼 만들어 눈에 가져다 대었다.

위험 ★★★★★

별이 다섯 개.

‘매우 위험하신데?’

아무래도 경비분들이 끌고 나가야 할 사람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았다.

이력을 확인하시겠습니까?

[네/아니요]

내가 굳이 그래야 할까요?

“…….”

선비복을 입은 청년과 지오의 눈이 마주쳤다.

‘너무 빤히 보고 있었나.’

유성운은 지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듯했지만 그렇다고 무어라 말을 얹지는 않았다.

선비는 지오를 파악하듯 위아래로 눈을 훑더니, 곧 고개를 꾸벅이고는 지나쳤다.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말이다.

“꾸룩.”

“어우 깜짝이야.”

갑자기 등장한 허니의 모습에 유성운이 화들짝 놀랐다.

“…어? 물새? 잠깐만, 지오, 너 이 녀석 저번에 보여줬던….”

“허니입니다.”

“너 이 녀석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거였어?”

“다른 새들은 시도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 어… 그렇구나.”

유성운은 어딘가 해탈한 표정이었다.

“슬슬 지구가 망할 때가 되긴 했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툭 치면 와르르 무너질 모래성인 건 확실했으니까….”

체념한 얼굴로 웃던 유성운이 곧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와 물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신경 쓰여?”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

“제가 마음에 안 든 것 같았습니다.”

무서운 사람.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았는데.”

눈 3초 이상 마주치면 ‘저 새끼 나 좋아하나?’ 혹은 ‘저 새끼 나랑 싸우자는 건가?’의 양자택일인 것을 잠시 잊고 있었다.

‘3초가 넘기 전에 공손하고 상냥하게 말을 걸었어야 했지만 이력이 너무 화려하셔서 친한 척할 타이밍을 놓쳤다. 21세기의 포○몬 트레이너로 불렸던 서지오의 감이 다 죽은 게 분명하군.’

이른바 눈이 마주치면 배틀이라는 거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말이다.

‘방금 그 남자는 나쁜 의미로 해석한 것 같지.’

정장 입은 비즈니스맨이 괴물 때려잡는 이 강인한 시대에 위험도 별 다섯 개인 양반에게 시비를 걸면 어쩌자는 건지.

‘아니,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의 위험도가 이렇게 높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지오는 이 미쳐 돌아가는 헬한민국을 원망하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무섭습니다.”

“네가 무섭다고 말을 해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힘든데 말이지… 비꼬는 건가.”

“호텔로 복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고 싶다면야.”

지오는 목도리 사이에서 삐져나오려는 허니를 신사답게 넣어준 뒤 경복궁을 나섰다. 반짝거리는 물고기 등이 마음에 드는지 어느새 제 배 속에 넣어놓은 채였다.

그리고 호텔 침대에서 기절했다 깨어난 새벽 3시 32분.

“…….”

지오는 허니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제발.”

당장 나를 평화롭게 두지 못할까.

울어버리는 수가 있어.

* * *

“…….”

어둡고 인적이 드문 빈민가의 골목.

“…그래서 아까 그 새끼, 대체 뭐였지.”

이제는 선비복을 벗은 남자가 거칠게 머리를 쓸어 올렸다.

‘느낌이 이상했는데.’

그건 새까만 한복을 입은 어떤 남성이었다. 어찌나 바리바리 싸맸는지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키는 대략 190cm였던 것 같은데, 성별과 신장만으로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맞히기는 힘들었다.

“찝찝한데.”

평소였다면 그냥 별 괴상한 새끼가 시비를 건다며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손짓이 뭔가….”

액자 같은 것을 흉내 내는 듯한 손동작.

아주 잠시였지만, 신상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

남자는 머리를 벅벅 긁었다.

“…안 되겠네, 시발, 역시 이상해. 그 새끼 분명 각성자였겠지?”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은 유성운 헌터. 비사벌의 큐레이터가 옆에 붙어서 직접 안내해 주고 있었으니, 아마 최근에 막 각성을 한 부잣집 도련님이거나 할 것이다.

‘몸에 재수 없는 예절이 배어 있었으니까.’

하지만 곤란했다.

‘내가 꾸미고 있는 일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그는 단순히 5등급 시민으로 강등당하는 걸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누군가의 생각이나 기억을 마음대로 확인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과거를 엿볼 수 있는 스킬을 보유한 각성자는 상상 이상으로 많았다. 다들 어디 가서 칼 맞을까 걱정해서 말하지 않을 뿐 그렇게 드문 스킬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 경복궁 야시장에서 보았던 새까만 남자는 그런 종류의 스킬로 자신의 생각을 엿봤을지도 모른다. 그 난데없는 손동작을 생각한다면 매우 타당한 결론이었다.

“…….”

후우….

한숨이 나왔다.

“얼마 뒤면 행사가 시작될 텐데 이게 무슨 일인지, 원.”

후환을 생각한다면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된다. 그만큼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작업이었고, 인류를 배신하는 일이었다.

죄책감 따위 느껴본 적은 없지만 들켜서 곤란해지지 않을 수는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

“죽여야겠는데.”

태양의 신전에 한 자리 차지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였던가. 이제 와서 뒷맛이 찝찝하다는 이유로 위험 요소를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마음을 먹고 경복궁에서 봤던 남자의 흔적을 추적하려던 때였다.

“…….”

“…….”

“…뭐야.”

웬 물컹한 새 한 마리가 파이프 위에 앉아 있었다.

안쪽에서 관광 상품인 물고기 등이 헤엄치고 있어, 꽤 밝았다. 이 어두운 골목에서 왜 지금에야 눈치챘을지 모를 정도로.

“…….”

이상했다.

‘…도시 몬스터라기에는 처음 본 형태인데.’

게다가 일반적으로 새 형상을 띤 몬스터는, 특히 이렇게 작은 녀석들은 대부분 무리를 지어 다녔다. 홀로 다니는 짐승이나 몬스터는 전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기에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하찮아 보이는 새 한 마리가 평범한 몬스터일 확률은 얼마나 클까.

“…이거, 시발, 설마….”

경복궁에서 봤던 그 새끼가 붙여둔 감시용 몬스터인가?

‘조련사였어?’

설마 직업을 가진 헌터일 줄은 몰랐다. 어쩐지 유성운 그 음흉한 새끼가 곱게 대접해 주더라니, 과연 그만한 가치는 있는 각성자라는 뜻인가.

남자는 스태프를 꽉 쥐었다.

“…뭐, 잘됐나.”

아무래도 이 새의 주인은 초짜인 듯했다. 새에게서 뻔히 주인의 향이 느껴지고 있지 않은가. 밀정을 보냈을 때 역으로 자신이 들키게 될 거라곤 생각지 못한 듯 보였다.

남자는 애써 웃었다.

“이상함을 눈치챘다면 바로 유성운에게 알렸어야지.”

저만 멀뚱히 보고 있는 이 새에게선 위협이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 감시 카메라인 모양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반대로 추적하기도 쉬웠다.

‘유성운에게 알릴 만큼의 확신은 없었나.’

상급자에게 자신의 의구심을 미리미리 보고하지 않는 것. 초보 헌터들이 자주 하는 실수였다.

‘멍청하긴.’

이 새의 정체가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지금 처리해야 했다.

그렇게 생각한 남자는 손을 뻗어 한 입 거리도 안 될 만큼 작은 새를 쥐었….

—콰직.

“…….”

“…….”

“어?”

손이.

사라졌다.

“…….”

새의 투명한 몸통 안에는, 그의 손이 보였다. 흐느적거리는 물고기 등이 토막 난 손을 감쌌다.

이내 그 둘은 천천히 녹아내렸다.

“…아.”

“꾺.”

“시발.”

남자가 무능한 건 아니었다.

“꾸륵?”

“이런, 이런 개같은….”

“꾸르르르륵?”

“…말도 안 돼.”

“꾺꾸륵.”

결코 만만하지 않은 등급이자 태양의 사제인 그는 자만해도 되는 위치에 있었다.

다만 이 모든 건,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기적보다도 재앙처럼 겹쳐져 일어난 사태였다. 그건 일개 개인이 어쩔 수 있는 난관이 아니었다.

자그마했던 새의 몸집이 기이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시발, 시발, 시발.”

“꾸르륵?”

달인지 해인지 구분도 안 되는 빛으로 반짝이는 깃털.

갈고리를 닮아 단단한 발톱과 길쭉한 다리.

그리고, 커다란 부리.

“안 돼…!”

꿀렁—.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우욱, 웁…!”

또 휘젓는 소리가 들리다가.

“…! …!!!”

“…….”

“……!!”

“…….”

“…….”

이내,

적막이 흘렀다.

“…….”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꾸륵.”

아주 작은 새 한 마리만이, 유유히 날아갈 뿐이었다.

* * *

“허니.”

지오는 작고 무해한 것을 좋아한다.

다만 근원의 자식은, 꾸며내는 것에 능숙한 이들이었다.

“어디 갔었어.”

“꾸르.”

“귀여우니 됐다.”

그렇다면.

그 본질은 과연 어떨까.

“저기 붕어빵 있는데.”

“꾹!!”

“넌 역시 내 아들이구나.”

"꾸르릉?"

"맛있는 걸 밝혀."

그건 근원의 자식 스스로도 모를 것이다.

Chapter (32)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3)

제33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것이 보였다.

“뭐? 사람?”

“응, 저기. 안 보여?”

“...무슨 소리야, 그냥 공터잖아.”

“.......”

“혹시 몬스터라도 봤어?”

“몬스터가 아닌데....”

그건 가끔 인간과 비슷한 형상을 취했다.

“...미안, 착각했나 봐.”

“오빠 정말로 괜찮은 거 맞아?”

“잠이 덜 깨서 그런가.”

다람쥐나 길고양이처럼 수풀 사이에서 꼬리가 길게 늘어지거나, 나무처럼 우두커니 서서는 이상한 향을 내뿜는다든지, 아니면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마치 구름인 양 유유히 흘러가는 것처럼....

그것이 제가 아는 동식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건 알았다. 꽤 흡사할 때도 있지만 기괴할 만큼 엉성하기도 했다.

“요즘 너무 무리한 걸 수도 있어. 좀 쉬면 어때?”

“아직 할 만해.”

야생 동물 대부분이 그러하듯 그들은 제게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

“일할 수 있을 때 해놔야지.”

그래서 차은혁도 일부러 보지 못하는 척 굴었다.

‘나 외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건가.’

그것들의 정체에 대해 열심히 고민해 봤다.

'…귀신이려나? 하지만 귀신이라면 보통 사람처럼 있을 텐데 저것들은 확실히 동물의 모습이야. 귀나 꼬리 같은 부위만 흉내 낼 때도 있고. 그럼 환각? 그냥 환각이라고 하기엔 실질적으로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몬스터인가? 그런데 보통 몬스터가 저렇게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는 않잖아.'

그들은 가끔 춤을 췄다. 노래를 불렀고, 꽃을 감상하거나 물 위에 둥둥 떠다녔다. 차은혁은 이들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제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다만 아주 가끔, 위험한 녀석들이 나타나고는 한다.

"집에 불이 났다지 뭐예요."

"어쩐지, 그 집 아주머니가 요즘 깜빡깜빡하시더니…."

"가족들이 전부 그 집에서 타 죽었대."

마을 사람들은 어떤 화재 사건의 원인을 치매에 걸린 주부로 꼽았다.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걸 차은혁은 알았다.

"……."

저 집 아주머니를 웬 보따리 든 '그게' 따라다녔었는데.

'아, 그렇구나.'

그게 아주머니를 죽인 게 틀림없었다.

정확히 그게 무슨 작용을 한 건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차은혁은 그때 이후로 그들 중에서도 위험한 녀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했다.

그 녀석들에게 악의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에겐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역시 일종의 몬스터인 걸까.'

차은혁은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

"오빠, 계속 붕어빵 팔게?"

"나름 잘 팔리잖아."

"도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고? 그런 곳은 유난히 시민 등급 차별이 심해서…."

"다들 친절하던데. 아직까지는 3등급 시민이라고 뭐라 하는 사람은 못 봤어."

사실 몬스터니 뭐니, 정체 모를 것에 신경 쓸 시간도 여력도 없었다.

"물론 눈치 주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막내도 슬슬 입단식을 올려야지."

"……."

"사제복도 사야 하고, 기숙사비도 내야 하고, 거기서 생활할 때 쓸 용돈도 줘야 할 거 아니야."

"…하필 걔는 사제로 각성을 해서."

"나는 집에 헌터가 두 명이나 있으니 아주 든든하고 좋은데 뭐."

그의 두 동생은 모두 각성자였다.

여동생은 가장 낮은 등급인 F급이라 짐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벌이가 아주 좋은 것도 아닌 데다, 던전에 들어갈 때 생존 확률을 높여줄 장비도 사줘야 했다.

막내인 남동생은 '사제'로 각성을 했는데, 신과 계약하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인 직업이었다. 하지만 자력으로 신을 모시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신전의 도움을 받아야만 간신히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도 우리는 운이 좋았어. 서울에 있는 태양교에서 막내를 불러줬잖아."

“…….”

“우리 막내 곧 2등급 시민 된다. 무엇보다 너도 일하는데 내가 쉬면 어떻게 해. 장남 체면이 있지.”

“그야 나는 각성자고… 오빠보다 체력도 좋거든, 내가?”

“알겠으니까 걱정 말고 쉬어.”

“…나도 같이 일하러 갈까? 서울 사람들이 해코지하면 내가 막아줄 수 있고….”

“집에서 막내 봐줄 사람 필요해.”

돈이 부족했다.

“걱정 마.”

그러니 정체 모를 녀석들에게 신경 쓸 겨를 따위 없는 것이다.

‘어차피 가까이 두지만 않으면 위험할 일도 없고.’

그 녀석들은 아마 저들끼리만의 삶이 있는 듯했다. 길가의 독 두꺼비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다칠 일이 없는 것처럼, 알아서 잘 놀고 있는 놈들은 시비만 걸지 않는다면 무해한 존재였다.

‘보이지 않아서 피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놈들이 훤히 보이는 내가 봉변당할 리가 없겠지. 문제없으니까 괜찮아.’

다만, 문제가 있다면.

“…….”

“…….”

피하는 게 다가 아닌 순간이 온다.

하필 그게 붕어빵 다 팔고 정리하려 했을 때일 줄은 몰랐지만.

“…….”

어쩌지.

‘아까부터 붕어빵만 보고 있어.’

뜬금없는 시간대에 다가온 ‘그것’은 새까만 망토를 두른 남성이었다.

키가 굉장히 컸고, 입고 있는 옷은 고급스러웠다. 하지만 온통 검은색뿐이기 때문인지 꼭 장례식장의 손님처럼 보이기도 했다. 주변의 공기가 팍 죽어 무거워진 것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그건 저승사자나 사신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지도 않았다. 자아가 있어 영혼을 수거하는 그들보다도, 훨씬 자연에 가까운 무언가로 보여서….

확실히 ’그것’임을 알 수 있었다.

“…….”

이걸 말을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녀석들에게 간섭해서 좋은 일이 일어난 꼴을 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이렇게까지 뻔히 보고 있는데 무시하면 그건 그거대로 후환이 두려웠다.

‘막내 보고 싶다.’

자극하고 싶지 않아 애써 태연하게 굴고 있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차은혁은 이것들을 일종의 몬스터라고 짐작한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녀석들에 비해 온순하긴 했다.

하지만 가끔 악의도 없이 사람 하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망가트리는 모습은 섬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계속 붕어빵만 보고 있고….'

이거 주면 사라지려나.

그때였다.

"한 봉지에 얼마입니까?"

"……."

말을 해?

'몬스터가?'

내색은 안 했지만 깜짝 놀랐다.

지금껏 인간의 형상을 띤 녀석들은 자주 봐왔다. 그들은 종종 인간들의 삶을 흉내 내고는 했는데, 그 행동엔 실속이 없을 뿐더러 실제로 말을 하는 녀석은 지금껏 하나도 없었다.

'게다가 얼마인지를 물었어?'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인간의 흉내를 낸다고?

"아…."

그렇다고 질문까지 했는데 무시할 수는 없었다.

"10마리에 5천 원이요."

"현금만 받습니까?"

"현금이면 좋기는 합니다."

"……."

뒷짐 진 채로 침묵하던 검은망토가 후드 안쪽에 손을 넣는다.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곧 그의 손에 투명한 빛으로 반짝이는 보석이 들려 있었다.

아름답게 세공된 그것이 붕어빵 10마리에 비할 바 안 되게 값진 것이라는 건 지방 사람인 차은혁도 알았다.

"이걸로는 안 됩니까?"

"……."

제법 그럴싸한 인간 흉내라 생각하기 무섭게 이런 기행을 벌이다니, 아예 원망스러워질 지경이었다.

'누가 붕어빵 사 먹는데 보석을 줘.'

차은혁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물물 교환을 시도한다는 것도 그렇고, 얻고자 하는 물건의 통념적인 가치를 모르는 것도 그렇고, 상대가 아무리 인간을 흉내 내고 있어도 위화감만 드는 것이다.

'그런데도 확실히 인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심란하네.'

간신히 대답했다.

"…너무 과한데요."

"이외에는 현물이 없습니다."

"카드는 없으신지…."

“카드가 됩니까?”

“어… 예.”

“그렇군요.”

설마설마했는데 정말 카드를 내민다.

“…….”

“…….”

“…막 정리하고 있던 참이라 새로 구워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빠르게 체념한 차은혁은 붕어빵을 만들기 시작했다.

‘봉변이 따로 없네.’

오늘따라 장사가 잘되는 탓에 막차가 떠나갈 때까지도 터미널에 가지 못했다.

미리 허가를 받아뒀으니 잡혀갈 걱정도 없겠다, 오늘 하루는 노숙을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새 손님이 와버렸다.

그것도 정체 모를 괴물 손님이 말이다.

“…….”

달그락.

붕어빵 틀을 닫는 손이 조금 떨렸다.

‘…갑자기 죽이지는 않겠지.’

몬스터들이 그러하듯이, 이 녀석들도 대부분 자기만의 규칙이 있는 듯했다.

해가 떠 있을 때만 눈을 뜨기, 평생 시각 장애인 곁에 붙어 다니기, 하얀색 돌만 밟고 다니기.

어린아이의 장난 같은 규칙도 많았지만 이런 규칙 중에는 인간을 위협하는 것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말을 할 줄 아는 녀석은 처음이라 판단이 안 서.’

이렇게까지 인간을 잘 흉내 내는 놈은 처음인 것이다.

위화감이 곳곳에서 느껴지는 게 문제긴 하지만, 이상할 만큼 서늘한 분위기를 제외하면 말이나 행동이 인간과 상당히 흡사했다.

‘심지어 카드도 있고.’

문득 차은혁은 깨달았다.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빌려줬다는 거겠지.’

그렇다면 어딘가에 이 녀석의 보호자가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일행분은 없으신가요?”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

“지금쯤 자고 있겠죠.”

순간 죽였다는 뜻인 줄 알았다.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이렇게 원망스러워지기는 또 처음이네.’

강아지 한 마리도 목줄 채우지 않으면 산책조차 시키지 못하는 세상에, 아무리 인간을 닮았다지만 이렇게나 위험한 놈을 그냥 풀어두면 어쩌자는 것인가.

“…….”

아니, 잠깐만.

‘카드를 줬다는 건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의미일 텐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괴물이 카드를 쓸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눈앞의 상대는 괴물이 아니라 인간인 것인가?

“…서울에는….”

차은혁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처음이십니까?”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광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 관광. 경복궁은 다녀오셨나요?”

“예,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 즐거웠습니다.”

어딘가 툭툭 끊기는 대화지만, 정보는 충분히 얻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인다고?’

그렇다면 정말로, 단지 분위기가 섬뜩할 뿐인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일까?

아니면 교과서에 필수적으로 소개된다던 인간형 몬스터일 수도….

“…….”

“꾸륵.”

차은혁은 흠칫 놀랐다.

‘새?’

검은망토의 후드 사이에서 은은히 빛나는 새 한 마리가 튀어나왔기 때문이었다.

“허니, 들어가.”

“꾸르릉….”

“이따가 줄 테니까 들어가 있어.”

“꾹꿍.”

“그래.”

아담한 몬스터에게 명령하는 모습은 흔히 세간에 알려진 ‘조련사’의 모습이었지만, 글쎄. 차은혁은 이상하게도 눈앞의 검은망토와 저 새가 한 쌍의 인간과 몬스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 이질감은 새와 눈이 마주친 순간 더 확실해졌다.

“…….”

“꾸르륵.”

“…….”

차은혁은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아래로 내렸다.

‘…위험해.’

식은땀이 흐르다 못해 손발이 차가워지는 듯했다.

‘저건 정말로 위험한 녀석이야.’

꿀처럼 달콤한 색과 아담한 몸을 지닌 새는 그 누가 보더라도 예쁘고 귀엽다 할 만했다. 하지만 그 본질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차은혁에게는 웃기지도 않는 기만과 다를 게 없었다.

주인이 붙인 이름인 걸까, ‘허니’라고 불린 새의 본질은 태풍이 몰아치는 파도와 같았다. 즉흥적이고, 거칠고, 강하다. 그럼에도 저 연약한 형상을 취한 이유는 아마 주인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겠지.

“…….”

그렇다면 주인인 검은망토는 대체 어떤 존재라는 것일까.

‘망할,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차은혁의 눈에만 보이는 녀석들 중 인간의 음식에 관심이 많은 놈들도 분명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들 먹으라고 뿌려둔 밥을 음미하거나 식당의 반찬을 하나씩 훔쳐 먹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음식을 주문하는 놈은 없었다. 대부분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띠어 일상을 흉내 내는 것에 그칠 뿐, 이렇게 인간과 실제로 교류하려 하지는 않았으니 말이다.

‘방심했던 거야.’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저 새는 심지어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 것 같고….’

검은망토의 후드 깊숙한 곳에 숨어 저를 지켜보는 새는 위압적이기까지 했다.

“…여기, 붕어빵 10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붕어빵을 받은 검은망토는 잠시 멈춰 섰다.

“…….”

“선물입니다.”

“예?”

“새벽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니, 잠깐만….”

거절하려는 차은혁에게 검은망토가 말을 이었다.

“제가 무섭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붕어빵 냄새가 나서 온 건데, 정리하던 걸 멈추고 다시 어지럽히게 되었으니 사과와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괜찮은데.”

“감사했습니다.”

그는 방금 들어 보였던 푸른빛의 보석 하나를 내려둔 채로 유유히 사라졌다.

“…….”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검은망토를 응시하던 차은혁은, 곧 망토의 끝자락조차 보이지 않게 되자 스르륵 무너졌다.

“…하, 하하….”

시발.

살았다.

‘죽는 줄 알았는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존재를 본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그런 끝을 직감해 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인을 짐작하지도 못할 만큼 기이하게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온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붕어빵 팔다 죽는 건 아니지.

“와….”

차은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마구 쓸었다.

“식겁했네.”

검은망토의 정체는 아직도 모르겠다.

남들도 볼 수 있다면, 그건 사람인가? 하지만 그렇다기엔 본질이 너무 아득하고 흉악했다. 그럼 평소 제가 보던 그것들과 같은 종류인가? 하지만 그렇다기엔 소통이 너무 원활했다. 인간형 몬스터? 근처에 던전도 없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제가 모르는 종류의 몬스터인 건지.

“…….”

그리고 어느 쪽이든 끔찍했다.

‘인간형 몬스터를 만나고도 살아 있을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였다.

“꾸륵?”

“…….”

아까 들었던 소리인데.

“꾸륵….”

“…….”

“꾸륵, 꾸륵, 꾸륵꾸륵꾸륵.”

“…어….”

“꾸르.”

고개를 들자, 커다란 부리가 보였다. 목젖 너머로 가득한 이빨들이 보였다. 새까만 혀가 보였다.

“꿍.”

금속 질처럼 단단한 부리가 차은혁의 머리를 반쯤 삼켰다.

“…….”

톡, 토옥.

몇 번 깨무는 시늉을 하더니 이내 뱉어낸다.

"꾸릉."

"…뭐, 뭐…."

"꾹."

다시 시야를 확보했을 때, '허니'는 아까 보았던 아담한 형상을 띠고 있었다.

"……."

그게 정말 구역질 나올 만큼의 지독한 내숭으로 보였다.

"대체 뭐야."

새는 날아가 버렸다.

"정말 뭐였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방금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었다.

꿀처럼 달콤한 색의 새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

합격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소름이 돋았다.

"…내일은 자리 옮겨야지…."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 * *

그리고 다음 날 오후 2시.

"붕어빵 파십니까."

차은혁은 귀신같이 검은망토를 다시 만났다.

"…예…."

"10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으면 어쩌자는 걸까.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4)

제34화

“어라.”

유성운은 붕어빵 청년의 얼굴을 보고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저번에 수집상 사옥 앞에서 장사하던 분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최근에 안 보이시더니 자리를 옮겼나 봅니다.”

“계속 같은 자리에만 있으면 단속에 걸리니까요.”

붕어빵 같은 길거리 음식은 단속이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민증도 없이 도시 내에 계속 머물 수는 없었다.

게다가 민원이라도 들어온다면 곧장 철거하도록 권유받았기 때문에 차은혁은 수시로 자리를 옮기는 편이었다. 좋게좋게 넘어가 줄 때 차은혁 자신도 조심하는 편이 앞으로 장사하기에 현명했다.

“근래에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지만요.”

“같은 자리에 계속 있으면 입소문도 더 잘 날 텐데 아쉽네.”

“어쩔 수 없죠, 정식으로 허가받은 가게도 아니고.”

“하긴 붕어빵 리어카는 잘 허가 내주지 않지.”

“그래도 며칠씩 머무르는 것 정도는 허가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도시의 시민증이 없는데도 열흘 이상 머물면 벌금이 떨어졌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에 뭐 얼마나 철저히 잘라낼 수 있겠는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신청하면 숙박업소에서 지내는 게 아니더라도 일주일 정도는 도시에서 머무를 수 있었다.

“…그리고, 음, 그것보다는….”

차은혁의 시선이 유성운의 옆, 검은망토에게 닿았다.

“…….”

“…응?”

“…아뇨, 그….”

저거 인간 아닌데.

'…뭐지, 이 사람도 검은망토의 정확한 정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건가?'

새까만 후드로 얼굴을 가린 채 붕어빵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남성의 형체. 분명 새벽에 보았던 그 검은망토가 확실했지만, 그때보다 위압감도 좀 덜할뿐더러 손님의 반응이 너무 무던했다.

'정말로 그냥 사람이었나…? 헌터 중에서도 기운이 잘 갈무리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던데, 어쩌면 그냥 그런 유형 중 하나였을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차은혁의 시야에 후드 깊은 곳, 꿀 같은 색의 새 한 마리가 들어왔다.

"……."

"어, 문제 있습니까?"

"…그냥 호기심에…."

곤란해지고 싶지 않아 대충 얼버무리려던 차은혁은 이내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옆의 분은 조련사이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자면 조련사일 확률이 가장 높았다.

"몬스터를 데리고 다니셔서."

"…조련사 맞습니다. 허가를 받아 바깥에 꺼내두고 다니는 거니 걱정 마세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허가를 받았다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제 누가 죽어나가도 내가 방관한 탓은 아니게 됐다.'

검은망토의 정체는 여전히 불명확하지만, 아니, 저 하얀 머리의 헌터가 제 입으로 허가를 받았다지 않는가.

'조련사라고도 말했고.'

그럼 그 이상 파고들고 싶지는 않았다. 책임져야 할 식구들도 있는 판에, 조금만 엮여도 목숨이 간당간당할 것 같은 '무언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검은망토는 그럴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다.

"새벽에는 감사했습니다."

"……."

"어? 새벽?"

유성운이 깜짝 놀라 지오를 돌아보았다.

"너 새벽에 나갔었어?"

기겁하는 반응에 차은혁은 다시 속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보아하니 검은망토 혼자 새벽의 거리를 떠돌아다녔던 것은 하얀 머리 손님이 예상하지 못한 바였나 보다.

'즉 개별 행동을 하도록 두면 안 되는 존재라는….'

척 봐도 버젓한 길드에 다니고 있는 1등급 시민이 이렇게까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대체 얼마나 위험한 존재라는 뜻인지.

"예, 허니가 사라져서 찾으러 나갔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한테 말하라니까."

“금방 찾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어라 말하려던 하얀 머리 손님이 곧 진정했다.

“…그래, 내가 자연재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저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아마 태풍도 그렇게 생각할걸.”

유성운은 훈훈해졌다. 어쩜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될까.

“…….”

심호흡을 한 유성운이 붕어빵 청년에게 물었다.

“새벽에 무슨 일은 없었습니까?”

“…붕어빵을 사 가셨죠.”

“그 외에 다른 일은…?”

“…….”

망설이던 차은혁이 대답했다.

“저 새가….”

“아, 예.”

“제 머리를 두 번 씹고 갔습니다.”

“…….”

유성운이 말을 잃었다.

“…예?”

“아, 정말로 씹은 건 아니고 고양이들이 장난치듯이 깨물깨물….”

“오.”

말문이 막힌 유성운이 지오를 돌아보았다.

“어떻게 생각해.”

“…죄송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말해봐.”

“진심으로 죄송해하는 중입니다.”

얼굴 근육이 다 죽은 지 오래라 그렇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도 붕어빵 청년의 말에 지오도 상당히 놀란 상태였다.

우리 집 앵무새가 남의 면전에 대고 ‘시발 새끼야’라고 고함을 친 듯한 이 아찔함.

“다치진 않으셨습니까?”

“아, 예. 안 아프게 깨물고 가서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31년간 잠만 잤던 부작용인지 초면인 사람 앞에서 말이 막 나왔다. 지오는 사회성을 장착하고 다시 말을 정정했다.

“저희 집 반려 새가 폐를 끼쳤습니다.”

제 딴에는 오두막에서 매번 ‘아이고 우리 아들’ ‘꾸륵꾸륵꾸꾸륵’하면서 장난을 쳤던 탓에 나온 말이었지만, 유성운과 차은혁이 듣기에는 심상치 않은 소리였다.

‘아들…? 그림으로 그렸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녀석들은 자기 자식으로 보는 건가? 이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

‘…방금 아들이라고 했어. 종 자체가 달라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아들이라고 했다면, 역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진짜 인간은 아니라는 건가….’

둘의 내심은 몰라도 표정이 미묘해진 것을 느낀 지오였으나 그는 무시했다.

‘내가 허니랑 아빠 아들 할 수도 있지 왜 그래.’

31년 전에도 반려견 반려묘를 더러 내 새끼 우리 딸랑구 이러며 쭉쭉 빨아 당기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지오 정도면 무난한 축에 속한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

“잠시 이마를 봐도 괜찮겠습니까?”

“안 다쳤습니다.”

“제가 의사라 상처를 볼 줄 압니다. 죄송한 마음에 이러는 거니 한 번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운은 가만히 있다 또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의사?”

“예.”

“어… 그렇구나.”

네가 대체 어딜 봐서 의사인데.

‘…아무리 인간의 기억이 있다고 해도 의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의 의사라면 저승사자로 오해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을 거야….’

하지만 의외로, 그리고 매우 충격적이게도, 지오는 의사가 맞았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제였다.

“조금 따듯합니다.”

“예? 어, 어….”

“혹시 몰라서 정화했습니다.”

“정화?”

“두피가 조금 긁히셨기에… 병이라도 걸리시면 큰일이니까요.”

얼떨떨한 표정의 청년과 청년의 모습을 흉내 내는 초상화를 보며 유성운은 그저 체념했다.

‘내가 지오의 정체를 다 알게 될 날이 오기는 할까.’

아주 양파가 따로 없었다.

“…그, 붕어빵 10마리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리고 반려 새가 한 행동도 저는 괜찮....”

“아.”

지오는 ‘아 맞다’라는 얼굴로 망토 안을 뒤적였다.

“보상금입니다.”

“.......”

“...선물입니다?”

“주시는 목적이 문제인 게 아닌데.”

피도 안 난 와중에 무슨 보석씩이나 준단 말인가.

“저한테 너무 과분한 물건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주신 보석도 제게는 과해서 곤란한 참이었고요.”

“하지만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게....”

무어라 반박하려는 차은혁의 모습에, 지오의 뒤에서 유성운이 고개를 마구 저었다.

“.......”

“그게?”

“...아뇨, 감사히 받겠습니다.”

안심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는 유성운에 차은혁이 깨달았다.

‘이거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겠구나....’

대체 어떤 식으로 불행이 닥쳐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까지 절실하게 누군가를 구하고자 하는 얼굴을 본 이상 무시할 수는 없었다. 차은혁은 감사히 유성운의 간절한 조언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까만큼 무섭지는 않았다.

“.......”

반짝거리는 감귤 색의 보석을 만지작거리던 차은혁이 고개를 들었다.

“관광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 맞아요. 뭐 추천해 줄 곳이라도 있나?”

“몇 주 뒤에 광장에서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행사라고 하면....”

“입단식이요.”

유성운이 알만 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슬슬 시작하는 때인가.”

“보통 한겨울에 많이들 하니까요.”

“어느 신전의 입단식입니까? 이 근처에서 하는 행사라면, 달? 아니면 태양?”

“태양의 신전이요.”

차은혁은 저도 모르게 검은망토를 돌아보았다.

“...그쪽 신도이신 줄 몰랐습니다. 보통 조련사들은 신을 잘 안 모셔서....”

그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상태였다.

'괴물로 착각할 만큼 엄청 등급이 높은 헌터였나 보네.'

검은망토가 제 이마를 쓸고 기운을 주입할 때, 태양의 신전에서 느낀 적 있는 따듯한 감각을 느꼈다. 혼자 정화 의식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굉장히 신실한 신도가 아닐까.

'조련사라고 말했으니 사제는 아니겠지만.'

각성자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많아야 하나뿐이다. 하얀 머리 손님이 분명 조련사라고 말했으니 사제는 아닐 텐데, 조금 아쉬웠다. 저 정도로 자질이 있다면 사제로 발현해도 좋았을 거다.

그런 따듯한 기운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나쁠 리가 없었다. 무엇보다 한낱 몬스터가 성력을 쓴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

'너무 강한 등급의 헌터를 처음 봐서 지레 겁먹었나 봐. 원래 사제들이 좀 기운을 갈무리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그 기운 자체도 인간의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하니까….'

아마 차은혁 자신이 신의 기운에 겁먹었던 게 분명했다.

워낙 타인의 기운에 예민한 체질인 데다 일반적인 사제들, 혹은 등급 높은 헌터를 본 경험이 없는 차은혁은 그렇게 판단했다. 무지에서 나온 안도였다.

"저희 집 막내가 사제로 각성해서 이번에 입단식을 하거든요."

"오, 직업을 가졌나. 그중에서도 사제라니 대단한데요."

"그것도 신이 선택해 주지 않는다면 뭐로 벌어먹고 살까 걱정이지만요."

"사제로 각성했다면 기본적으로 신성 친화력이 남달라지니 신전 사무직도 가능할 겁니다."

"그럼 좋겠네요."

모든 게 자신의 착각이었다고 생각한 덕분일까, 조금 긴장이 풀린 차은혁이 픽 웃었다.

"이번에는 꽤 거창하게 한다는 것 같으니까 와서 구경하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거 꼭 들러야겠는데. 알려줘서 고마워요, 입단식은 관계자가 아니면 일정을 알기 어려워서…."

"저야 동생 입단식에 사람이 많아지면 더 좋죠."

인간이 뿔뿔이 흩어진 개미보다 뭉쳐 있는 개미를 보기가 더 쉬운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신의 시선을 받기도 더 수월해진다. 그렇게 노출될수록 신의 은총을 받을 확률도 높아지고 말이다.

"맛있게 드세요."

"입단식에서 또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멀어졌을 때, 유성운이 지오에게 물었다.

"어제 새벽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들으셨다시피 허니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후드 안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꾸르륵."

“본인은 결백하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과연 근원의 존재가 말하는 ‘결백함’이 인간의 것과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지오는 선악이나 예의에 예민한 편이라 신경이 쓰인단 말이지.’

허니는 지오가 만들어낸 존재이자 그의 아들이었다. 그렇다면 지오의 성향이 많은 영향을 끼쳤을 텐데, 지오가 눈을 감은 사이 저 혼자 날아다녔다고 하니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을 수도 있고.’

여태 소란스럽지 않은 걸 보면 큰 사고는 치지 않았겠거니, 희망을 가질 뿐이다.

“그리고, 음, 보석 말이야….”

“예.”

“다른 종류의 선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데.”

아무리 미안하다지만 보석을 대뜸 주는 건 인간으로서는 황당한 일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식의 현물은 잘 주고받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뭘 생각한 건지는 몰라도 일단 아닐 거야.”

“…….”

지오는 충격을 받았다.

‘이 지옥을 그대로 현현한 듯한 마초 같은 세상에 그 정도 터프함도 없다고?’

회사원이 괴물 잡고 치즈로 된 꽃이 땅에서 피어나고 하늘에 지상 철도가 날아다니고 겨울에 봄이 생생한 개울도 있는 마당에 보석으로 대금을 주고받는 건 이상하단 말인가?

“까마귀처럼 온몸에 장신구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길래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건 그냥 개성이지.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추가하려는 목적이거나 방어구의 일종인 아티팩트라거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 나갔음을 깨달은 지오는 반성하기로 했다.

‘동기화 때문에 너무 지오반니의 감각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

지오반니의 세상에선 그런 식의 현물 대금이 성행했으니 말이다. 요즘 조금씩 지오반니로서의 기억을 확보하고 있는 그는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오랫동안 오두막에만 있어서인지 현대인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기도 했다. 종종 특정한 상황에서 반응하는 것도 그렇고….

“…아.”

“왜, 문제 있어? 아니면 가보고 싶은 곳이 생겼나?”

“조련사는 뭐고 사제는 뭡니까?”

“…그… 어… 그래….”

유성운은 무언가 다짐하는 얼굴이었다.

“이렇게 된 이상 너를 헌터라고 말하는 수밖에는 없겠지.”

“저 이제 헌터입니까?”

“기왕 이렇게 된 김에 헌터의 체계와 등급에 대해서 알려줄게. 혹시 아는 게 있나?”

“아니요.”

“그럴 줄 알았어.”

“…….”

31년 동안 정신을 잃고 그림 속에 처박혔던 지오는 조금 미안해졌다.

오

Chapter (34)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4)"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5)

제35화

“헌터의 등급을 주요하게 결정하는 건 총 세 가지야.”

사방이 꽉 막힌 중식집에 온 유성운이 지오에게 설명했다.

“직업, 적성 스킬, 그리고 레벨.”

“…….”

“내가 계속해서 말해왔던 헌터의 등급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부여되는 거야.”

“등급은 행정 고시처럼 사람들이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 근원의 도움으로 추정되는 ‘시스템’이 평가하지. 그래서 인간이 봤을 때는 무능력해 보이는 각성자가 A급으로 발현될 때도 있어.”

유성운이 작게 웃었다.

“한창 체계가 없고 헌터에 대한 상식이 부족했던 때에는 등급을 조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하지만 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들이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그렇게 조작한 사람들은 금방 들통이 나서….”

“비난을 받았겠군요.”

“비난으로 끝나지 않았지. 그때 당시의 헌터란 함부로 대들어서는 안 될 권력자 같은 거였거든. 지금보다도 법보다 무력이 훨씬 가까운 시절에 괴물도 때려잡는 초능력자는 여러모로 대접을 받았어.”

자신의 등급을 속여, 다 같이 힘든 때에 저 혼자만 대접을 받으려 한 것이다.

“그 끝이 좋을 리가 없었던 거지.”

유성운은 본론으로 돌아갔다.

“등급은 보통 알파벳으로 표기가 돼.”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국가별로 통일하기 번거로웠던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럼 숫자가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통일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지만, 그것과 별개로 최초의 각성자가 미국에서 나왔음이 확인되어서….”

“미국인의 입장에서 맞춰준 거군요.”

“그렇다고 시스템 전체가 영문으로 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가장 낮은 등급은 F, 거기서부터 D, C, B, A로 쭉쭉 올라가 가

장 높은 등급은 S로 표기되고 있어.”

그렇게 말한 유성운은 잠시 눈을 굴렸다.

“…음, 그렇다고 이게 전부는 아닐 거라는 게 현재 학자들의 의견이야. F급의 경우 이미 일반인보다 좀 튼튼한 정도라 이 이상 낮아져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지만, 대재앙이 있고 고작 3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단정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실제로 대한민국의 협회장은 더 높은 등급을 숨기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정확한 진실은 협회의 연구 팀장이었던 유성운도 몰랐다.

“의외로 S급인 헌터는 그렇게 적지도 않아. 그래서 더 높은 등급을 숨겼다고 소문이 도는 것도 있을 거야. 누가 봐도 저 S급보다 저 S급이 훨씬 뛰어난데 같은 등급으로 표기되고 있으니까.”

이런 등급은 사회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단 S급의 헌터는 반드시 공인이 되어야 한다는 법이 있어.”

“공인이라면… 신상을 공개하는 겁니까?”

“신상까지는 아니고, 주로 얼굴을 알리거나 TV 프로그램에 등장하니 일종의 연예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 S급이면 아무래도 나라 하나 정도는 마음먹으면 초토화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제약을 두는 셈이지.”

“불편하겠습니다.”

“나름 그 인기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

지오의 말대로 불편해하는 헌터도 많지만 말이다.

“등급은 이쯤 하면 되겠고, 이제 네가 아까 물어본 직업에 대해 설명할까?”

“아까 본 학생이 말한 사제와 조련사가 그런 직업으로 구분되는 거군요.”

“그렇지.”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직업이 발현되는 건 필수가 아니야.”

“그럼 직업을 얻는 사람이 있고, 못 얻는 사람이 있습니까?”

“맞아.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또 등급에는 제법 영향을 끼쳐서 가능하면 직업을 가진 헌터를 우대하는 문화가 생겼지.”

“신기합니다.”

“직업을 가진 각성자는 세상의 규칙을 주무를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기니까. 한낱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굳이 등급 문제가 아니더라도 ‘직업’은 그에 따른 주요한 이미지가 있다.

“직업은 총 10가지가 있어.”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 정도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해… 이 이상 많아졌으면 구분하기도 힘들었을걸.”

의사, 사제, 기사, 교사, 스파이, 건축가, 예술가, 마술사, 요리사, 조련사.

“듣고 나니 좀 많아 보이지 않아?”

“세상에 실존하는 직업을 따진다면 그다지….”

“그 말도 맞기는 한데, 이건 그 직업과는 많이 다르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네가 아까 들은 사제와 조련사는 그리 흔하지 않은 직업이야.”

사제는 신의 힘을 이용해 현실에 영향력을 끼치고, 조련사는 지적 존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모두 필수적으로 계약 대상의 도움이 있어야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탓에 까다로운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만큼 성공했을 때 받는 찬사도 커지지.”

특히 사제는 그런 경향이 크다.

“조련사는 자신의 역량을 키우면 얼마든지 상대를 조련할 수 있지만, 사제는 그게 안 돼. 오로지 신이 사제에게 눈길을 주고 은총을 내리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거든. 주도권이 본인에게 없는 셈이지.”

“하지만 신을 모시지 않는 사제는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직업이야. 하지만 애초에 외계 신의 힘을 지구에 행사하는 일인데, 오히려 이런 답답한 면은 인류에게 있어선 행운이라고 봐. 자칫하면 재앙이 된다고.”

물론 사제로 각성한 사람들은 속이 좀 탈 거다.

“그래도 일단 사제로 발현됐다면 신성 친화력이 높아져. 비록 신의 영향력을 대신해 행사할 수는 없어도, 한 명의 신도로서 성력을 사용할 수는 있는 거야.”

“성력이라.”

“아까 본 붕어빵 청년도 너를 ‘조련사인 신도’라고 착각했지? 몬스터와 거리를 이렇게 대놓고 활보할 수 있는 직업은 조련사가 유일한데, 성력은 꼭 사제가 아니더라도 신실한 신도가 된다면 쓸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착각을 한 거야.”

“그렇다면 꼭 직업만이 유효한 건 아니군요.”

“맞아, 그것만으로 헌터를 평가할 필요는 없어. 애초에 직업은 각성할 때 선천적으로 발현되기도 하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라 유동적인 편이지.”

나머지 직업도 각자만의 규칙이 있었다.

“이 직업만으로도 그 각성자는 세상의 규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가볍게 보자면 사제는 신성 친화력이 좋아지고, 조련사는 인간 이외의 것을 상대로 한 친화력을 얻게 되는 거야.”

“전부 친화력입니까?”

“그야 스킬과 달리 직업을 각성했다고 없던 능력이 팍 하고 생겨나지는 않거든. 다만 일반인은 불가능할 정도의 잠재 능력을 얻게 되는 건데, 보통 이런 걸 친화력이라고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유성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하지만 적성 스킬은 그렇지 않아.”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 않은 겁니까?”

“이 녀석은 각성할 때 기본적으로 얻게 되는 요소고, 개별적인 노력을 더 한다고 해서 늘어나지도 않아서. 사용하고 이해할수록 숙련도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적성 스킬이 없거나 두 개 이상의 적성 스킬을 가진 각성자는 없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떤 예외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외가 있다고 해도 이런 규칙성은 각성자에게 상당히 보편적이라는 거지.”

적성 스킬이란 일종의 돌잡이 같은 거였다. 각성자에게 선택권은 없지만,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각성자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략 점쳐볼 수는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그 스킬만으로도 해당 각성자의 성향이나 능력치를 대충 알 수 있을 테니까.”

“앞으로의 미래도 알 수 있습니까?”

“대충 비슷하지 않겠어? 한 번 발현한 적성 스킬은 평생 끼고 살아야 할 텐데, 그럼 아무래도 각성자 본인의 인생에 영향이 없을 리가 없잖아.”

대부분 각성을 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 적성 스킬에 대해 공부한다. 직업이야 운 좋으면 타고나는 거지만, 적성 스킬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다.

“이게 자기 적성이랑 안 맞는다고 엉엉 우는 사람들도 많아.”

각성했는데 하필 쓰레기 줍기, 이런 스킬이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그렇지?”

“…그런 스킬이 실제로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스킬이 존재는 하고, 심지어 이게 적성 스킬인 경우도 있어. 지금은 도시 미화 공무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하던데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네.”

“그래도 적성 스킬을 잘 살리셨군요.”

“긍정적인 양반이지.”

참고로 스킬은 각성과 함께 타고나는 ‘적성 스킬’과 후천적인 노력으로 타고나는 ‘일반 스킬’로 나뉜다. 딱히 스킬의 내용 자체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당연히 적성 스킬 쪽을 더 높이 쳐주는 편이야.”

“내용이 같은데 왜 한쪽을 더 높이 쳐주는 겁니까?”

“적성 스킬은 그 사람의 영혼과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점이니 어쩔 수가 없어.”

예를 들어 1번, 2번의 헌터가 있고, A라는 동일한 스킬이 있다. 같은 A 스킬이라고 해도 1번은 원래 타고난 적성 스킬이고 2번은 후천적으로 배운 일반 스킬이다.

“그럼 애초에 시작점부터가 다른 거잖아.”

“그렇군요.”

“무엇보다 적성 스킬은 레벨이 존재하지 않아. 발현될 때부터 최고의 숙련도를 얻은 상태에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게 숙련도잖아. 같은 스킬이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엔 인간의 치졸한 면도 있다.

‘일종의 계급 같은 거지만….’

천성적으로 타고났다는 점이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을 간지럽히는 것일까. 활용도가 높거나 희귀한 적성 스킬을 발현한 각성자들은 콧대가 높아지고, 사람들은 그걸 우러러보는 면이 강했다.

‘이건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네.’

귀족적이고 위압감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화 속 산타클로스를 그대로 믿는 아이처럼 순수한 면이 있는 지오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지오는 인간의 추악함을 좀 덜 알고 있는 편이 좋았다.

“일반 스킬은 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배울 수 있어. 직업이 없거나 적성 스킬이 좋지 않은 각성자이더라도 후천적인 노력으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셈이지.”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조금씩 곁들여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숙련도를 눈에 보이는 지표로 평가해 주는 것이 바로 ‘레벨’이야.”

레벨은 직업과 스킬, 그리고 신체 능력을 평가한다.

“가장 낮은 레벨은 1이고, 가장 높은 레벨은 10. 이건 왜 알파벳으로 표기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레벨의 경우는 소수점까지 표기할 수 있는 만큼 저 세세한 녀석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해.”

“소수점까지 표기됩니까?”

“뭐, 2.8. 4.9. 이런 식으로....”

“유성운 씨도 그런가요?”

“어....”

잠시 머뭇거린 유성운이 덧붙였다.

“등급까지는 괜찮은데, 참고로 보통 사람들끼리는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지 않아.”

“그렇습니까?”

“그게 예의라는 인식이 강해서.”

“.......”

여전히 무뚝뚝하고 서늘한 표정이었지만, 유성운은 지오가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죄송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곧 사과를 해왔다. 역시 지오는 예의를 중시하는 면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실례를 끼쳤습니다.”

“괜찮아, 알고 한 것도 아닌데. 물어본다고 해서 서로 저주 걸리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피해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이건 일종의 문화였다.

“오늘 입은 속옷 색을 물어보지 않는 것처럼....”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좀 과하게 말한 거니까 허니 털어서 보석 주려고 하지 마. 허니 내려놔. 어어, 찌부러진다. 뭐 잘못할 때마다 보석 주려고 하는 거 별로 평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

그제야 지오는 짤짤 털던 허니를 곱게 내려두었다. 이미 후두둑 떨어져 나온 보석을 허니가 하나씩 쪼아 삼키고 있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정신이 아찔했다.

“너 그렇게 굴면 허니가 삐져.”

“가끔 이렇게 놉니다만....”

“너희 대체 어떻게 놀고 있는 거야.”

거짓말은 아니었는지 허니는 꽤 만족스러운 얼굴이었다.

‘나는 저 동그란 얼굴 어디에서 만족감을 찾은 거지.’

둘 다 무표정인 주제에 감정 표현이 아주 확실했다. 과연 부자 관계라고 할 만했다. 이런 걸 보고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하던가. 정확히는 붓으로 만든 아이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확실히, 초상화 안쪽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인간 같았다.

“…아무튼 보통 헌터의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은 잘 물어보지 않아. 키나 몸무게의 정확한 수치를 캐묻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나름 개인 정보니까 다들 대놓고 알려주지 않는 편이지.”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오, 그럼 나야 고맙고.”

이렇게까지 협조적인 근원의 존재라니, 반가움 이상으로 기적과 같았다. 정원사로서 마음이 푸근해졌다.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 말해주자면 난 직업은 없어. 적성 스킬은 ‘감정’이고, 일반 스킬도 여러 개 배워뒀지. 일반 스킬의 숙련도는 꽉 찬 상태야. 전체적인 등급은 A.”

“알려주셔도 되는 겁니까?”

“본인이 말해주는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그렇군요.”

“그야 쉽게 알려주는 편은 아니지. 직업은 겉으로 워낙 티가 많이 나니 그런 조심스러운 문화가 적용되지 않지만, 만약 누군가 너에게 자신의 등급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그건 굉장한 호의야.”

대충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내 친구다, 내 연인이다, 가족이다….”

“…….”

“뭐, 그런 의미인 셈이랄까.”

“낭만적입니다.”

“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정말 순수한 구석이 있는 녀석이었다.

“유성운 씨도 같은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겁니까?”

“그럼, 호의와 신뢰의 표시로 내 시스템에 대해 말해준 거야.”

그리고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는 점도 부담 없이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인간의 문화에 대해 무지한 존재이니 뭘 알려줘도 꺼림칙하지 않다고 할까.

오히려 인간을 상대하는 게 거북하면 더 거북하다는 것이다.

“이 이상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책을 구해 줄게. 각성자 교육 센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가 있거든. 막 각성한 초보를 상대로 하는 교재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말해줘.”

“유성운 씨가 잘 설명해 주신 덕분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고… 음.”

유성운이 물었다.

“슬슬 초상화로 돌아갈 생각인가?”

“예.”

지오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깥은 사람도 많고, 즐거운 장난감도 많고, 보고 느낄 것도 많지만….”

“…….”

“여기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성운은 그 말을 이해했다.

‘저 상태를 이렇게나 유지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

평범한 각성자였다면 단 1초도 견디지 못했을 텐데.

지오의 격은 감히 인간의 것과 비교할 수 없었다. 최소한 그림 속에서라면 신과 같은 권능을 누리던 존재가 제 격을 누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몸통에 추를 매달아 놓은 채로 인간들의 소란스러운 세상을 돌아다닌 것이다.

그건 아주 끔찍한 일이었다.

“물론 즐거웠습니다.”

“그거 감사하네. 혹시 붕어빵 청년이 말해줬던 입단식은 볼 생각이 있나?”

“예, 구경하고 싶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알려줄 테니 그동안은 초상화에서 쉬고 있어.”

그렇게 지오는 초상화로 돌아갔다.

* * *

오두막에 돌아온 지오는 하루 동안 잠만 잤다.

“이불 밖은 위험해.”

“뀨르릉.”

기가 쪽 빨린 지오는 저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오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6)

제36화

노는 걸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지오에게 허락된 에너지는 한정된 편이었다.

"……."

"……."

"…허니, 아빠가 퍼질러졌으면 잔소리라도 해줘야지."

"…꿍꿍꿍꿍…."

"우리 둘 다 퍼질러져 있으면 답도 없단다."

다시 만난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는 지오의 체력을 쭉 뽑아갔다.

'흡혈귀한테 피를 빨려도 이렇게 피곤해지지는 않겠지.'

원래도 그렇게까지 막 평화롭고 온화한 나라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3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대한민국은 헬한 민국이 되어버린 채였다. 연약한 지오는 쫄아버리고 말았다.

침대에 29년 묵은 걸레처럼 널브러진 지오는 액체 괴물처럼 푹 퍼진 허니를 주물거렸다.

"내가 알기로… 아직 나는 지오반니와 동기화 중일 텐데."

"꾸릌?"

"바깥에 있을 때보다 안에 있을 때 그 느낌이 훨씬 덜하네."

"꾸르르?"

"동기화 속도도 느려졌어."

동화율 14.8%

"청계천에 발 담갔을 때 거의 한 6%는 채웠던가."

"꾹."

"수로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이동할 때 거의 4%였고…."

물과 관련된 행동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물과 인연이 많아서 그런가."

지오반니의 이야기였다.

아무튼 그림 속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현실에 있을 때 동기화의 속도가 훨씬 빨랐다.

“초상화 안쪽 세상의 특성이겠지.”

“꾸르르르….”

동기화 중에는 예전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느꼈다. 적당한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는 잠을 자야만 하고,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던 몸이 무거워지고….

하지만 서울 관광을 하고 나서 돌아온 뒤로 느끼는 것인데, 초상화 안쪽에서는 그런 감각이 조금 더 무뎌졌다.

“아무리 동기화 중이라고 해도 초상화 안쪽에서는 인간이 아니라 그림 취급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 여기 있으면 내가 느끼는 감정마저도 ‘그림’으로 취급하니까.”

지오가 주체일 때 그 대상이 무형의 무언가라고 해도 일단은 ‘그림’으로 판단되는 듯했다.

예전에 유성운에게 감사함을 느껴 제멋대로 과일청을 선물해도 1:1의 시스템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

동기화가 끝나면 다시 ‘초상화’로 돌아가는 건가?

“다른 사람과 동화하지 않으면 초상화일 수밖에 없는 인간은 과연 어떨까.”

“…….”

“그야말로 까리하군.”

“꾸르….”

“세상 어디에도 나 같은 초상화는 없겠지. 자신감을 가지겠어.”

오늘도 지오의 자존감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역시 난 대단해.”

지오의 인간성은 고작 귀신 들린 초상화라는 정체성에 굴하지 않았다. 그런 사소한 문제로 자아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에는 지오의 자기주장이 너무 강했다.

“밥이나 먹자.”

“꾸르륵.”

둘의 이야기는 결국 먹을 걸로 주제가 전환되었다. 돼지가 따로 없었다.

“읏차.”

지오는 정확히 29시간 하고도 36분이 더 흘렀을 때가 되어서야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허니는 그럴 생각이 없는지 여전히 퍼질러져 있다. 지오가 알아서 들고 갈 거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아는 귀한 집 도련님이셨다.

“너 정말 그런 식이면 얼마나 재수 없고 귀여운 줄 아니.”

“꿍.”

“귀여우면 다인 줄 알아? 맞아, 세상은 그게 다야.”

“꾸르르르르르.”

“너는 이미 귀여움으로 너의 쓸모를 다하고 있지.”

지오가 생각했을 때 귀여움보다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감정은 없는 듯했다.

“오늘 식사는 내가 집도한다.”

늘 그랬다.

“오랜만에 텃밭으로 가서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 좀 할까?”

“꿍꿍꿍….”

“거기까지도 날아가기가 귀찮다니 귀찮음의 영역이 하늘에 닿았구나. 바구니에 담아줄 테니 가만히 있어.”

“꾸우우우웅꾸르르!”

“어딜 나 혼자 보내려고, 어허. 씁. 안 돼, 같이 가. 아빠 쓸쓸해.”

지오는 흐느적거리는 액체 괴물을 바구니 안에 쓸어 담았다. 허니는 꿍꿍꿍 불만스럽게 울면서도 주르륵 담겼고, 지오는 만족한 얼굴로 바구니를 들고 오두막을 나섰다.

그리고 대자연을 목격했다.

“이건 뭐지?”

나의 소박한 텃밭은 어디로 가고 아마존이 들어왔나.

“내 작고 소중한 텃밭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꾸, 꾸루….”

“나의 텃밭은 이렇지 않았어.”

기껏해야 새싹 좀 나 있을 줄 알았는데, 깜찍한 새싹은커녕 방울토마토만 3m쯤 자라 있었다.

“아니지, 3m짜리 방울토마토를 ‘방울’토마토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토마토는 맞나.”

내가 아는 토마토는 작은 수박만 하지 않았는데?

온갖 농사는 한 번씩 지어봤던 지오는 난생처음 겪는 결과물로 혼란에 빠졌다. 그가 텃밭을 방치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을뿐더러, 분명 심을 때는 평범한 씨앗과 모종이었는데 어째서 텃밭은 고사하고 괴물밭이 탄생한 것인가.

“상추의 상태는….”

“…….”

“크툴루의 현신이다.”

“꾸르륵?”

“그런 게 있어.”

5천 원 주고 붕어빵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멀쩡한 사람도 정신 나가게 만드는 문어 괴물 신 같은 게 있다.

“딱 저렇게 생겼지.”

그리고 지오는 저게 상추를 심었던 자리라는 걸 알았다.

“내가 상추가 아닌 문어를 심었구나.”

“꾸륵.”

“긍정하지 마, 허니. 아빠는 쉽게 상처를 받아.”

가을배추보다도 실한 이파리의 상추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 있었다. 그 자태가 어찌나 위풍당당한지 지오는 고백도

안 했는데 차인 기분이 들었다.

“상상도 못 한 현실이군.”

그리고 옥수수.

“…….”

“…….”

“두려워.”

지오는 쫄았다.

“나무인가?”

줄기가 너무 굵고, 알은 더 굵었다. 매우 무서웠다.

땅 밑에 모습을 감추고 있는 감자와 고구마는 그 공포가 한층 심했다. 본격적인 자태를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땅 위로 기어 나온 줄기들은 마치 한 편의 공포 영화를 보는 듯했다.

“이 강한 생명력… 살아 있군.”

“꾸륵.”

“원래 살아 있는 거라느니 산통 깨지 말아라, 허니. 아빠도 그 정도는 안단다.”

“꾹?”

“곧 알아서 기어다닐 것 같다는 말이었지. 원래는 그러면 안 돼.”

이게 공포 영화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완두는….”

“…….”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좀비도 저렇게까지 집착이 강하지는 않을 텐데.”

근처에 자라난 식물들에게 반쯤 기생하다시피 달라붙은 완두콩의 줄기는 길고 가늘어서 그 기괴함이 배로 컸다. 곧 있으면 벌레도 잡아먹을 기세였다. 거미처럼.

“그래서 이게 대체 뭐지?”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역시 난 굉장해.”

아니 이게 아니라.

“이쯤 되니 웃기네.”

“…꾹?”

“그래,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이 정도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오자 그냥 재밌었다.

“설마 맛이 변했겠어.”

그럼 됐다.

“곧 나랑 대화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람한 자태의 텃밭이 되어 버렸지만….”

“…….”

“그래도 우리는 이곳을 텃밭이라고 부르자. 나도 말하면서 민망하긴 했지만 처음의 소박했던 시작을 아는 우리는 그 정체성을 지켜줘야 하는 거야.”

“꾸르…?”

“허니, 잘 생각해. 저 녀석들 곧 살아 움직일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가 잘 보여야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어.”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심이었다.

‘인간도 초상화로 진화시키는 세상에 자아를 가진 식물 정도면 평타인 게 아닐까.’

할머니는 말씀하셨지. 언제 재앙이 닥쳐올지 한낱 인간은 알 수 없으므로 늘 겸손하고 현명하게 살아야 한다고.

지오는 오늘도 착한 손자가 되어 웃어른의 지혜에 충실히 따랐다.

“…….”

하지만 사고가 터지면 원인을 딴 사람에게 떠넘기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

“…혹시 유성운 씨가 처음부터 괴물 종자를 준 건 아닐까?”

“꿍.”

“그래, 씨앗 자체는 내가 봤을 때도 평범했지. 역시 이 세상의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맛은 있으실지 아주 궁금했다.

“어디 한번 맛을 볼….”

“…….”

“…….”

“……?”

괴물밭으로 들어간 지오는 제 눈을 의심했다.

‘노안이 왔나?’

아니면 환각인가.

“이게 현실이라면 우리의 안전이 위험하지 않을까, 허니.”

“…꾸르르륵….”

“왜 여기에 절명한 사슴이 있지?”

지오는 무척이나 쫄았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가련한 초상화를 돌보소서.

“그래서 정말 왜 여기 있는 걸까.”

“꾸르륵, 꾸룩, 꾸룩.”

“너도 할 수 있다고? 아니, 경쟁하지 마라. 그래서 이거 대체 누가 잡아다 놓은 건데. 애초에 어디서 온 사슴인데. 아빠 지금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허니 제발 바구니 밖으로 나와서 자기 PR 하지 말고….”

괴물밭이 너무나 우거져 있어 잘 보지 못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니 죽은 게 분명한 사슴이 아주 신선한 상태로 놓여 있었다.

사슴의 생김새가 아주 우람하고 듬직한 것으로 보아 원래 지오의 오두막 숲에 있던 녀석은 아니었다. 이곳의 동물들은 그의 취향에 맞춰 아기자기했으니 말이다.

“…….”

나무뿔사슴

계절에 맞춰 뿔에 꽃이나 낙엽을 피워 위장하는 초식 동물. 평소 다른 동물들과의 싸움을 피하지만, 위장이 들키면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져 난동을 부린다. 금속 질의 뿔과 이빨, 발굽은 동물의 뼈를 쉽게 부술 수 있다. 위장의 일환으로 견과류 혹은 꽃이나 과일의 향을 낸다.

연단법: 살을 발라 햇볕에 건조한 가공육은 강한 포만감을 주며 가벼운 찰과상을 없앤다.

서식지: 멸망한 아빌라스 우림_동물의 왕국

지오는 전율했다.

“내가 기어이 사고를 쳤구나.”

한 치의 앞날도 알 수 없는 우리네의 인생, 이토록 생각 없이 살다가는 언젠가 최후의 날이 오리라 예상했지만 그 끝이 생각보다도 빨리 찾아왔다.

“곧 멸망의 날이 올 거야.”

“꿍?”

“외래종이 들어오다니.”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라곤 감자를 그려낼 수 있는 그림 능력밖에 없는 지오는 버티지 못할 게 분명했다.

“꾸르륵, 꾸르르르르르.”

“허니?”

“꾹꾹꾹. 꾸루, 꾹.”

“…….”

무언가 알리고 싶은 듯한 허니의 모습에 상황을 찬찬히 살피던 지오는 깨달았다.

“…이거….”

“꾹!”

“이마에 구멍이 나 있네.”

그리고 근처의 고구마 줄기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

“꾸르륵?”

“지금 고구마 줄기가 살아 움직여서 내가 만들어놓은 차원 문 너머에서 튀어나온 외래종의 이마를 뚫어 즉사시켰다고 말할 셈인가.”

“꾹.”

“그렇군.”

지오는 고민했다.

‘어느 쪽을 무서워해야 하지?’

정체 모를 차원에서 흘러들어 온 난폭한 외래종

VS

살아 움직이며 단단한 두개골도 단숨에 뚫는 고구마

“천지신명 맙소사.”

둘 다 무서웠다. 지오는 오늘로 벌써 세 번째 쫄았다.

“허니, 나처럼 연약한 존재가 이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

“정색하지 말고, 아빠 진지해. 난 이 대자연에서 살아남기엔 너무 나약한 사람인 것 같구나.”

“꿍.”

“너는 아빠처럼 실속 없이 가련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

긴 소통 끝에 지오는 괴물밭의 모든 생명체가 그에게 호의적일 거란 장담을 들었다. 숲의 모든 동식물이 지오에게 그러하듯, 그가 키운 작물들도 비슷하다고 말이다.

정확한 근거는 없는 이야기였지만….

“그럼 됐고.”

지오의 궁극적 긍정 마인드는 그를 같잖은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무엇보다 마침 식사를 준비하려던 참이 아닌가.

“고기가 생겼네.”

“꾸르륵.”

“고기….”

그러고 보니 연단법에서 ‘가공육’이라고 했지.

“…좋네.”

그렇게 오늘의 콘텐츠가 결정되었다.

참고로 지오는, 도축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다.

* * *

또각, 또각….

“…….”

탁.

“…이상하네.”

한적한 빈민가의 골목.

심해를 닮아 느긋하게 일렁이는 남색의 머리카락을 지닌 여인이 중얼거렸다.

“여기서 흔적이 끊기다니.”

친애하는 인간 조력자의 기운이 끊겨 아주 걱정했건만, 이 무슨 황당한 일일까.

“전투의 흔적은 없는데.”

나름 고르고 골라 적당한 녀석을 태양 아래로 집어넣었다.

잠입 실력도 전투 능력도 나쁘지 않았던 놈이었을 텐데, 전투 흔적은 고사하고 도주의 흔적조차 없다면 납득이 안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부정하진 않았다.

“당했나.”

누구에게 당했는지는 모르겠다.

“그건 조사를 더 해봐야지.”

여인은 흥얼거리며 노래하듯 읊조렸다.

“신전도 곤란해하는 것 같고, 언론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빈민가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경위를 아는 사람은 없으니 대체 얼마나 우스운 상황인지….”

신전 측 입장이야 이해가 갔다.

“원래부터 꽁꽁 숨기는 걸 좋아하는 이들의 신중함이 어디를 가겠어. 음흉하기는.”

곧 행사가 진행될 시점이었으니 곤란할 법도 했다.

“태양의 축제를 망쳐보려고 했는데 말이야.”

“…….”

“망쳐줄 사람이 사라졌지 뭐니.”

여인이 아이에게 말했다.

“이세르, 내 곁의 유일한 은하.”

“예.”

“네가 일을 해 줘야겠구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

여인이 상어와 같은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다 같이 즐겁자고 하는 일에.”

바다를 닮은 드레스가 하늘거리고.

“…….”

이내 자리에는, 푸르른 머리카락의 아이 한 명만이 남았다.

아이는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6)"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7)

제37화

대체 도축하는 법을 왜 배웠냐 하면.

"마장동에 아는 형님이 계셨거든."

"꾸르르?"

"술 몇 번 마시다 보니 기술을 좀 배웠지."

실제로 완전한 형태의 짐승을 해체해 본 적은 없다.

칼 다루는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된다고 하시던 분이라, 혹시 집에서 큼지막한 원육을 살 일이 있으면 해보라며 부위별로 조각내는 법을 알려주신 게 전부였다.

정말 제대로 도축을 해본 적은 없다는 거다.

"하지만 직접 해본 적이 없다고 해도 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어."

지오는 학습 능력이 좋은 편이었다.

"몸이 차갑지는 않은 걸 보니 죽은 지는 얼마 안 됐나? 뜨끈한 돌멩이 같군."

"꾸륵?"

"피를 빼야 해서 그래. 죽고 시간이 꽤 흐른 뒤에는 피를 빼기가 어려우니까."

이마에서 흐른 피가 땅에 한참 스며든 것 같은데, 그런 것치고는 몸이 말랑말랑한 사슴에 지오는 조금 쫄았다. 아무래도 먹을 건 쉽게 썩거나 변질되지 않는 이 세계가 어떤 작용을 한 것 같았다.

그래, '먹을 거' 말이다.

"...이미 죽은 사슴 정도면 먹을 게 맞기는 한가."

지오 본인도 도축을 시도하고 있고.

'아무튼 몸이 굳지 않았다면 훨씬 수월하지.'

집채만 한 크기의 사슴을 질질 끈 지오는 적당한 높이의 도롱도롱나무에 사슴을 걸쳐두었다. 그러고는 목에 구멍을 만들어 피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다.

"허니."

"꾹?"

“아빠는 진화한 게 분명하다.”

“꾸르르.”

“초상화로 진화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힘도 세질 줄은 몰랐거든.”

저보다 큰 사슴을 나무 위에 걸어놓는 데도 힘이 들지 않는다니, 그림 속 세계인 탓에 물리 법칙이 덜 적용된 건지, 아니면 지오 본인이 강해진 건지 알기 힘들었다.

“그럼 피가 빠져나갈 동안 내장을 좀 꺼내볼까.”

“꾸르르르르르르.”

“…허니, 아래에서 피 받아먹지 마. 에비 지지다.”

조막만 한 새가 줄줄 흐르는 피를 받아 마시는 모습은 호러가 따로 없었다.

“아빠 쫄았어.”

“꿍.”

“거짓말 아닌데.”

부자간의 신뢰가 터무니없이 낮았다.

“…….”

웃기니까 됐다.

‘상하기 전에 내장부터 꺼내야지.’

그림 세계의 법칙대로라면 쉽게 상할 것 같지는 않지만, 햇볕에 오래 노출되었던 망둥 열매가 거의 광석처럼 단단해졌던 경험이 있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 할 수 있는 일은 그때그때 해두는 게 좋았다.

“가죽이 두껍네.”

가죽 아래의 지방도 상당했다.

“시스템은 이 사슴이 우림에서 왔다고 하던데, 보통 우림은 후덥지근한 편 아닌가? 이렇게까지 털이 두툼하고 지방이 가득한 이유를 모르겠군.”

“꾸르.”

“피 그만 마셔라, 허니. 아빠가 섬뜩하다고 말했다.”

“꿍꿍꿍….”

“귀엽다고 봐주지 않아.”

피 냄새 나는 새와 함께 잘 생각 없었다.

“꿍.”

허니는 꿍꿍거리며 투덜거리다, 이내 와르르 무언가를 뱉어냈다.

“…….”

“꾸르르르르르르.”

“보석…?”

허니가 아주 좋아하는 반짝거리는 보석이었지만, 새빨갛게 변했던 허니가 붉은 보석을 토하고 나니 원래의 색을 되찾은 것이 우연으로 보이진 않았다.

“피를 보석으로 만든 건가?”

“꾸륵.”

“역시 우리 아들, 범상치 않구나.”

지오는 신경을 끄기로 했다.

“나중에 아빠 그걸로 그림 좀 그려도 될까.”

“꾸르르르르!”

“허락해 줘서 고마우니 더 마셔도 뭐라고 안 할게.”

“꾸륵!”

“너도 다 생각이 있었구나.”

사냥한 짐승의 피를 마시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닐지도 몰랐다. 인간인 지오야 ‘저게 시발 뭐지’ 싶었지만 일단 허니도 새는 새 아닌가. 동물의 습성이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했다.

‘어차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정말로 상관없고.’

비록 물감으로 낳은 자식이라지만 동물의 본능까지 억압하는 것은 부모로서 할 일이 아니었다. 사슴 피 좀 먹는다고 안 죽으면 됐다.

“슬슬 배를 가를 거니까 내장 안 튀게 조심해.”

“꾸르.”

“그래, 어디 보자….”

지오는 손가락 끝에 신경을 집중해 사슴의 배를 더듬었다.

“이런 건 원래 항문에서부터 갈라야 쉽게 갈라진다고 들었는데.”

항문에서부터 칼질을 시작한다니 같은 생명체로서 꽤 잔혹한 이야기였지만 먹이 사슬이 원래 그런 법이다.

“읏차.”

따로 갈아둔 적은 없는 칼이었지만 워낙 날카로워서 그런지 배는 쉽게 갈라졌다.

거꾸로 매달린 사슴의 복부가 열리자 그 안의 내장이 보였는데, 지오는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

“……?”

왜 여기도 보석이 있지?

‘허니가 뱉어낸 보석보다 훨씬 큰 것 같군.’

위치로 따지자면 심장 정도였다.

“…좀 웃기지 않나…?”

보석 심장이라니 상식이 파괴되고 있었다.

“이런 걸로 어떻게 피를 정화하고 만들어낸 걸까.”

“꾸르르르르르륵.”

“나중에 아빠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줄 테니까 내려와.”

하여간 반짝이는 거라면 사족을 못 쓰는 허니가 난리를 피웠지만, 지오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그래도 짐승의 내장을 주기는 기분이 너무 미묘했다.

“마저 해체나 하자.”

지오는 항문 부위부터 늑골이 있는 곳까지 배를 마저 갈라두었다. 이런 해체는 처음이지만 다행히 내장을 터트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진 않았다.

“피도 제대로 빠져나가야 할 텐데.”

“꾹?”

“피를 제때 빼내지 못하면 그 피가 그대로 살에 파고들거든. 그럼 육질 자체가 변질되기도 쉽고, 너무 비려지니까… 가능하다면 짐승을 막 잡았을 때 피를 빼야 해.”

나머지 내장도 터지지 않게 조심히 꺼내주었다.

“터지면 대참사다.”

지옥을 보게 될 테지.

가죽은 손이 닿기 좋은 뒷다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방이 너무 많아서 가죽을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

“꿀룰루?”

“가죽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건조하려면 이런 지방이 전부 없어야 해. 그래도 털이 꽤 푹신푹신해서 망토로 만들면 나중에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도 유용하게 쓰일걸.”

“꾹.”

“계속 너한테만 의지하기는 좀.”

관광하기 전날, 겨울옷이 없어서 그림으로 그려낼까 고민하던 지오에게 허니가 도움을 줬었다. 허니 하나만 들고 있어도 온몸이 훈훈해지니 별도의 겨울옷이 필요하지 않던 것이다.

하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었다.

“가죽을 다듬어 두기는 해야겠네.”

아무튼, 그래도 지방이 제법 나오는 건 좋은 일이었다.

“육질의 향이 꽤 괜찮아. 지방에서도 고소한 냄새가 나고. 이런 지방은 버리지 말고 정제해서 모아뒀다가 나중에 볶음 요리를 해 먹을 때 사용하면 풍미가 배로 뛰지.”

“…….”

“지방을 그대로 먹는 건 네 생각만큼 맛있지는 않을 거란다.”

지오는 지방을 빤히 바라보며 탐내는 허니의 모습에 마음이 훈훈해졌다.

마치 거울이나 앨범을 보는 듯한 이 기분. 이게 가족이지. 허니는 저를 닮아 대식가인 게 분명했다.

“먹는 김에 살이 더 쪄볼 생각은?”

“꿍.”

“싫으면 말고.”

두꺼운 가죽이 잘려 나가고. 사슴의 근육 결을 확인해 가며 천천히 사슴의 털옷을 벗겨냈다. 다행히도 털이 풍성한 것에 비해 가죽이 그리 단단한 편이 아니라 어렵지 않게 작업할 수 있었다.

“뒷다리부터 해서… 몸통….”

살 없이 뼈가 바로 닿는 뒷다리, 사람으로 치자면 복사뼈 부분부터 가죽을 발라냈다. 그다음은 몸통, 앞다리, 그다음으로 벗겨낸 가죽을 사슴 머리와 함께 쳐내어 완전히 해체했다.

놀랍게도 실수 없이 분리한 덕분에 가죽이 제법 온전했다.

“지방은 따로 분리를 해두자.”

“꾸르륵.”

“…맛만 봐.”

지방을 탐내는 허니에게 지오는 허락했고, 아비의 허락하에 지방을 맛본 허니는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지금은 맛이 없을 거라니까.”

“꾸, 꾸… 꾸루루….”

“아빠 말 좀 믿어줘, 아빠가 맛이 없는 건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꾸루루루루루….”

“울 정도야?”

고소한 향에 비해 지방은 맛이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허니는 울먹울먹 서글퍼했다. 지오는 괴식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허니를 제 망토 후드에 넣어버렸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체를 해야겠어.”

내장과 가죽, 지방을 전부 분리했으니 이제 살코기를 떼어낼 차례였다.

‘시스템이 설명했던 것처럼 향은 확실히 좋네.’

야생 짐승의 고기는 질기고 누린내가 난다고 하던데 이건 딱히 그렇지도 않아 보였다.

요리를 제법 즐기는 지오이기에 생고기가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잘 키워진 송아지의 고기라 해도 특유의 비릿한 냄새는 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 사슴에게서는 그런 불쾌한 냄새가 나질 않았다.

“…견과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따지자면 땅콩보다는 호두에 가까운 향이었다.

“웃기네.”

고기에서 이런 향을 맡은 게 난생처음이라 잠깐 당황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민트 맛 감자칩처럼 기묘한 느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향이 꽤 조화로워서 색다른 즐거움을 느꼈다.

“확실히 다른 세계는 다른 세계야.”

“꾸룩?”

비슷비슷한 식재료로 보이더라도 지구의 것과는 향과 맛에 조금씩 차이가 났다.

“사실 심장이 이런 보석인 건 조금 아쉬워. 갓 잡은 짐승의 심장은 요리할 때 꽤 괜찮은 재료라서 한번 구워볼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태라면 먹기는 좀 애매하려나.”

“꾸르르르르르륵.”

“그래, 나는 몰라도 넌 먹을 수 있겠지. 아빠가 요리해서 줄게.”

이 상태로는 별맛도 없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양이 꽤 많네….”

등의 안쪽에 깊이 파묻혀 있는 부드러운 살, 로인을 떼어내고. 다리를 해체해 단단한 살을 벗겨낸다.

“흠.”

이 부위는 천천히 졸여야 할 듯하다. 그나마 윗다리 살은 부드러워 먹을 만할 것 같았다.

그 외에도 갈비니 안심이니 전부 떼어내고 나면....

“따란.”

“.......”

“고기 산이 생겼습니다.”

“꿍.”

“양이 많나?”

“꾸르.”

“역시 그렇군.”

괜히 시스템이 가공육으로 햇볕에 말리라고 한 게 아니었다. 양이 이렇게 많으면 대부분의 고기는 염장하거나 건조해서 저장해 두는 편이 좋을 듯했다.

“얼음 창고에 넣어두면 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만들 수 있는 건 만드는 게 좋겠어.”

일단은 육포와 소시지가 떠올랐다.

“육포 먼저 할까.”

소시지는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니 말이다.

“핏물부터 좀 빼고.”

“꾸르르륵?”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뺐다고 전부 나오지는 않았을 거야. 매달아 둔 시간이 그렇게 길었던 것도 아니니, 제대로 잡내를 없애려면 물에 담가서 그나마 있는 피를 빼내야지.”

지오는 곧 오두막에서 커다란 대야를 들고 나왔다.

“허니, 고기 담아라.”

“꾸륵!”

맛 좋은 보석 심장을 인질로 잡힌 허니는 좋은 일꾼이었다.

둘은 커다란 대야에 육포용 고기들을 넣고, 그 위로 오두막 주변을 유유히 흘러가던 개울의 물을 듬뿍 끼얹었다. 숲 이곳저곳에 퍼져 있는 개울은 평소에도 아주 유용했다.

“지구에서 만들었다면 여기에 청주도 좀 넣었겠지만....”

술이라곤 와인밖에 없을뿐더러 고기의 잡내 자체가 거의 나지 않으니 문제없었다.

“피 빠질 때까지 양념이나 만들어 놔야지.”

“꾸룩?”

“텃밭의 작물도 다 자랐으니까, 이럴 때 활용해야지 않겠어?”

사슴의 피가 묻은 손까지 씻은 지오가 괴물밭에서 몇몇 작물을 따고선, 이내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다행히도 괴물밭은 지오가 작물 좀 떼어간다고 화내지 않았다.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게 분명하다. 햇볕 주고 물 먹이며 키운 보람이 있군.”

주방에 선 지오가 몇 가지 가루들을 선반에서 꺼냈다.

“그리고 청도 좀 쓰자.”

주방 구석에 박아두었던 망둥 열매 청도 꺼냈다. 예전 유성운에게 주기 전 미리 남겨두었던 것이었다.

“이런 청도 같이 넣어줘야 단맛이 돌지.”

“꾸루루….”

“이상할 것 같아도 의외로 맛있어.”

단짠은 어딜 가도 불변의 진리였다.

지오는 재료를 점검했다.

“생양파. 고기양이 많으니까 한 10개 정도… 마늘이랑 생강가루는 이미 여기 있고. 설탕도 좀 넣을 거고. 망둥 열매 청 살짝 넣어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육포를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깨끗하게 손질한 양파를 잘게 다져 죽처럼 만들고, 거기에 맵고 칼칼해 군내를 잡아주는 각종 가루를 섞는다. 단맛을 더해줄 청 조금과 텁텁한 맛을 지워줄 설탕 약간까지 넣으면 육포 양념이 완성된다.

“슬슬 핏물이 빠졌으려나.”

양념을 접시에 담고 도마와 칼을 설거지하고 나니 시간이 제법 흘러 있었다.

벌써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는 나뭇잎 틈새의 하늘을 보며, 지오가 오두막을 나섰다. 밤이 되면 은은한 달빛처럼 빛나는 허니는 그가 어둠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아… 이 정도면 얼추 된 것 같다.”

“꾸르르르?”

“이건 지지다, 그냥 피 탄 물이잖아. 나중에 다른 거 줄게.”

축축하게 젖은 고기를 채반에 올린 지오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나도 빨리하고 자야지.”

나머지는 이제 간단했다.

물기로 가득한 고기를 살짝 털어내고, 적당히 건조되었다 싶으면 미리 만들어둔 양념장으로 주물주물 간을 해준다. 고기 안까지 양념이 깊숙이 배도록 둔 지오가 손을 씻어냈다.

“끝났다….”

“…….”

“…허니, 왜 계속 내장을 탐내는 거지?”

아무리 제 아들내미라지만 이해할 수 없는 취향이었다.

결국 사슴의 내장은 허니와 물새 친구들이 맛있게 나누어 먹었다. 피 묻은 내장이 둥둥 떠다니는 황금빛 물새 호수는 신비롭고 기괴한 무언가가 있었다.

“아, 이건 빼고.”

“꿍.”

“소시지 만들 거야.”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7)"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8)

제38화

육포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마친 지오가 잠이 들었을 무렵.

액자 바깥의 세상은 한창 근무 시간이었다.

“그래서 절 불렀다고요.”

“아이 대화 좀 합시다,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입니까.”

“제가 ‘지오의 초상화’만 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인센티브 드리잖아.”

“망할 자본주의 사회.”

유성운은 길드장에게 불려 나온 상황이었다.

“곧 보고서 정리해서 올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기다려요.”

“왜 이걸 못 기다리지?”

“나 알잖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얼굴을 보고 말해야지.”

“고도로 발전한 현대 사회를 향한 지나친 모욕이군요.”

“요즘 세상은 너무 정이 없어. 우리 직원들은 더 그렇고.”

“이 개떡 같은 세상이 무슨 정을 바라시는지 모르겠고 그걸 왜 저한테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너무 매몰차.”

“본인 취향이시면서 뭔 되지도 않는 말씀을.”

매우 피곤한 얼굴의 유성운에게 비사벌이 방긋 웃으며 과일청을 타주었다.

“마시고 힘내실까요?”

“사약인가.”

“어허, 우리 귀하신 초상화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사약이라뇨.”

“차라리 사약을 주세요. 먹고 드러눕게….”

‘지오의 초상화’가 아무리 젠틀하다 한들 근원의 존재이며, 쉽게 쉽게 보자면 몬스터였다. 가뜩이나 귀한 인간형 몬스터를 상대하는 것도 벅찬데 유성운이 맡은 업무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요즘 바다가 영 소란스러워서 또 불려 갔단 말입니다.”

유성운은 외부 의뢰도 함께 겸하고 있었다.

“살펴보니 근원의 자식들의 움직임이 묘하더군요. 해당 부분 관련해서도 곧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그건 나중에 보고해도 됩니다. 내 의뢰도 아니었고.”

“어련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지오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내 이럴 줄 알았지.”

참고로 비사벌은 아직도 지오와 대화하지 못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행동을 하니 지오도 대화를 피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검은망토 봤다는 직원은 많은데 정작 길드장님은 대화 한번 나누신 적도 없으시고, 이 정도면 직무 유기죠.”

“저는 대화하려고 했다니까요?”

“접근 방법을 좀 바꿔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지오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였다.

“지오는 무례한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미워하지는 않죠.”

“그건 그렇습니다만….”

‘지오의 초상화’가 싫어하는 것은 두 가지다.

무례하거나, 악하거나.

‘…하지만 무례한 사람을 꺼리기는 해도 아주 부정적으로 여기지는 않는단 말이지.’

사람 중에서도 강아지, 고양이는 좋아하지만 파충류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대략 그런 느낌으로 지오는 무례한 사람을 꺼렸다. 그 존재 자체를 폄하하지는 않지만 상종하기를 즐기진 않는 것이다.

“그런 무심한 면은 꽤 근원의 자식과 닮았군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본인이 인간이라고 주장을 한다 해도 모든 부분이 인간과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인간이 아님을 애써 외면하는 중일 수도 있고….”

정작 지오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말이다.

“뭐, 범죄자에게는 그런 무심함도 없는 것 같지만요.”

무례한 상대에 한해서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반면, 악의를 앞에 둔 지오는 명백한 혐오를 보였다. 실제로 범죄자와 마주친 적은 없지만 평소의 언행으로 따졌을 때 이미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어느 쪽이든 조심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길드장님도 좀 조심하세요.”

“자제해 보겠습니다.”

“또 말만 이렇게 하겠지. 아무튼 그래서....”

비사벌이 유성운을 부른 이유는 뻔했다.

“지오가 서울 관광에서 보였던 모습이 궁금한 겁니까?”

“당연히 궁금하죠, 정체조차 모를 근원의 존재가 인간 세상을 돌아다녔다는데. 심지어 큰 사고도 치지 않고 온건하게 돌아왔다죠?”

“맞습니다.”

물론 찝찝한 사실은 하나 있긴 했다.

“태양의 사제 한 명이 실종되기는 했던가요.”

“에이, 그 정도야 뭐. 알아보니 그렇게 뒤가 깨끗해 보이지도 않던데.”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쉬쉬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곧 입단식 행사가 있을 예정이니 더더욱 공론화하고 싶지는 않겠죠.”

“...아마 실종 건에 대해서는 지오가 손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큐레이터를 할 정도의 헌터라면 보통의 관찰력과 기억력으로는 안 된다. 유성운은 경복궁에서 마주쳤던 선비복의 한 남자를 기억하고 있고, 이번에 실종된 사제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날 지오는 카메라 형태의 손 모양을 만들어서 남자를 보았습니다.”

“카메라라, 지오가 초상화라는 걸 따져보면 그보다는 액자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무튼 남자와 시선이 마주친 이후 경복궁을 나가자고 했는데, 별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 나쁜 사람을 마주쳐서 기분이 나빠진 걸까요?”

“그랬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지오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감정하는군요. 좋은 정보를 알았습니다.”

비사벌의 정보력으로 확인했을 때 이미 뒤가 구린 사제였다. 유성운은 비사벌을 믿었고, 그런 둘은 지오가 처리한 그 사제가 악인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도 조용히 처리한 걸 보면 지오가 가진 인간 사회의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란스러워지기를 바라지 않았던 거겠죠.”

아니다. 그냥 지오가 퍼질러 자고 있을 때 벌어진 허니의 단독 행동이었다. 허니 역시 소란을 바라지 않았다기보단 제 아비를 위협하는 것을 감지하고 처리한 이후 그대로 돌아간 것뿐이었다.

하지만 지오가 그렇게까지 생각이 없어 보이는 인상은 아니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알기에 더욱 조용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강한데, 둘은 이미 지오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 경우에는 아예 정면에서 범죄자와 마주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요.”

“뭐 궁금해도 그런 걸 궁금해하십니까? 이상한 호기심 가지지 마세요.”

“매몰차라.”

“.......”

저 나이 먹고 저러고 싶나.

‘난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유성운은 짐짓 가련한 척하는 비사벌을 무시했다.

“이번 관광과 관찰에 있어 가장 놀라운 점은, 역시 지오가 스스로의 격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췄다는 부분이겠습니다.”

“…격을 낮춰?”

비사벌은 오랜만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오가? 인간의 수준까지 스스로 격을 낮췄다는 겁니까?”

“예, 놀랍죠.”

“놀랍기 이전에….”

비사벌은 잠시 말을 골랐다. 그는 곧 적당한 단어를 찾아냈다.

“징그럽네요.”

역시 지오는 인간이 아니었다.

“제 살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파내다니.”

“저도 처음 봤을 땐 식겁했습니다. 지오가 인간이었다면 결코 그런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겠죠.”

“그것도 고작 소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비사벌은 지오와 대화한 적은 없어도, 그를 ‘본’ 적은 많았다. 그런 비사벌이 아는 지오의 격은 한낱 인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굳이 인간으로 느껴질 만큼 스스로를 끌어 내렸다는 건….”

산 채로 조각내지는 고문과 다르지 않았다.

“건강에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이상은 없었고, 평소와 같은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오야 원래 본인이 인간이었으니 그 감각이 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눈알을 뽑고 팔다리를 잘라내고 내장을 꺼내는 것보다 더한 수준의 기행이었다.

“그 이외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까?”

“어….”

유성운은 가벼운 주제를 골랐다.

“먹을 걸 좋아하던데요.”

“어쩐지 계속 음식 선물을 하더라니.”

“먹는 것과 요리 둘 모두에 흥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웠던 것도 있다.

“자칫하면 호구 잡힐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이쿠.”

그건 좀 문제였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말을 해뒀다고 했죠?”

“알아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오히려 호의적인 근원의 존재는 대처하기가 훨씬 까다롭군요.”

보통의 몬스터였다면 평범하게 처리해도 될 텐데, 상호 간의 꾸준한 교류가 필요하다 보니 신경 써야 할 것이 더 많았다. 공격보다 보호가 더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그래도 협조 의사는 강해 보여서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착한 녀석이다 보니....”

그 격의 섬뜩함만 제외하면 지오는 분명 좋은 녀석이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협이라 그렇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알기는 압니다.”

하지만 지오의 성실함과 별개로 지속적인 경계는 필요해 보였다.

“...아.”

“또 뭐가 있나요?”

“지오의 인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격이라, 벌써부터 흥미로운데.”

“격을 낮춘 지오는 정말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약간의 설명이 필요했다.

“아예 평소의 지오와는 다른 존재처럼 보일 정도였죠.”

“그 정도라면 단순히 격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겠군요?”

“인격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격을 낮춘 것에 대한 부작용일까요?”

“그럴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저희야 이쪽이 더 무해해서 좋지만....”

그림 속의, 혹은 종종 새벽의 건물을 돌아다니는 지오는 섬뜩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마치 사신과도 같았다.

‘아니, 그보다는 의지도 감정도 없는 죽음 그 자체에 더 가깝겠지.’

새까만 망토를 두르고,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항상 뒷짐을 진 채로 귀족과 같이 정갈하게 걸으며 호기심을 담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럼에도 표정 없이 음울한 얼굴은 어딘가 서늘하기도 했다.

그 낮은 온도감은 지오의 인격이 냉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 그저 그 존재 자체가 온기를 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격을 낮추지 않은 지오는 대단히 예의 바르고, 정돈되었고, 무겁죠. 굳이 지오와 대화하지 않고 초상화만 목격한 사람들만 해도 ‘꼭 누군가의 임종을 그린 것 같다’는 식의 평가가 많았습니다.”

지오는 꼭 장례식을 형상화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그 아득함.

“절대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다고 인격의 변화까지야 이야기가 나올 부분일까요?”

“확실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격을 낮춘 지오는 정말 평범한 사람 같았다.

“조금 많이 무뚝뚝하고, 예의를 차리는 사람이요.”

하지만 평소의 지오는 달랐다.

“좀 더 거만합니다.”

“흐음?”

“아니, 거만하다는 단어는 조금 이상하고... 뭐랄까....”

표현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마치 높으신 분처럼....”

지오는 인간들을 굽어보았다.

곤충 키우는 취미가 있는 어느 누군가가 짐 나르는 기특한 개미를 보는 것처럼, 혹은 귀여워하듯이 말이다.

“실제로 지오는 몇 번이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죠. 그건 보상의 개념도 있지만 분명 하사의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29살의 평범한 인간이라 말하면서도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직원들을 평가하고 칭찬했고요.”

그에 비사벌이 물었다.

“하지만 격을 낮춘 지오는 달랐다?”

“예, 그땐 정말로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유성운이 확인한 ‘지오’는 29살의 매너 좋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그것도 조금... 지나치게 호기심이 많거나, 대금을 보석으로 해결하려던 때도 있긴 했지만....”

“진짜 인간은 아니니 그런 독특한 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평범한 청년처럼 행동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별도의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아마 그 영향이었을 겁니다.”

걱정되는 점도 있었다.

“그나마 평소에는 그 높은 격 때문에 어떻게 해볼 생각이 안 들던데, 29살의 평범한 청년처럼 보이니 이상한 사기라도 당하지는 않을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 정도일까요? 그래도 감정 스킬도 있고....”

“인간으로 변해 있을 때는 인격도 훨씬 순해질 뿐 아니라 능력에도 제한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감정 스킬도 굳이 액자 형식의 손동작을 취해야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깥에 나와 있을수록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현대 사회에 노출되어 에너지가 쪽 빨렸을 뿐이지만, 지오의 상태 하나하나에 큰 신경을 쓰는 유성운으로서는 보다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건드릴까 걱정이 되네요.”

“그건 확실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오도 그렇지만, 그게....”

비사벌은 제 턱을 쓸었다.

“격을 낮췄다고 본질이 어디로 가지는 않거든.”

커다란 금속 두 개 중 하나를 아주 작게 압축했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분명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아지겠지만, 무게는 같았다. 오히려 더 작아진 만큼 인간에게 상처를 내기도 쉬웠다.

비슷한 예로 폭탄을 들 수 있다. 작고 귀여운 형태로 폭탄을 가공했다고 해도 불을 붙이는 순간 터지는 건 마찬가지다. 오히려 압축한 만큼 터질 때 훨씬 과격할지도 몰랐다.

"정확한 분석이 없으니 그저 추측일 뿐이지만... 지오는 스스로를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그 본질을 찔러대면 반동이 훨씬 클 겁니다. 굳이 그런 재앙을 일으킬 필요는 없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동반 자살에 동의한 게 아니고서야?"

그러니 '인간'이 되었을 때의 지오는 확실한 보호가 필요해 보였다.

"헌터증을 발급해야겠네요."

"그것만 있어도 확실히 시비는 덜하겠죠."

이 세상에서 헌터란 일종의 권력자이자 연예인이었다. 시비가 걸렸을 때 헌터증만 보여줘도 대부분의 갈등은 해결이 됐다. 협회에서 헌터끼리의 싸움을 철저히 막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이것도 인격 관련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더 있을까요?"

"인간일 때의 지오는 '서지오'라는 29살의 청년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유성운은 분명히 목격했다.

"지오가 청계천에 발을 담갔을 때…."

"……."

"그리고 수상 택시를 탔을 때."

지오에게는 변화가 일어났다.

"마치 다른 사람과 같은 시선으로 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무뚝뚝하고 말수 적은 29살 청년 지오의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연륜이 있어 보였고, 좀 더 감정이 뚜렷했으며, 분명한 거리감이 있었지만 서늘하지 않아 사랑받는 모범생의 것처럼 부드러웠다. 얼핏 새겨지는 미소엔 시원한 바닷바람처럼 가볍고 쾌활한 부분마저 있었다.

여러모로 기존의 '서지오'나 '초상화'와는 달랐다.

"형태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물들고 눈동자에 물빛이 감돌았어요."

"오, 그건 유성운 큐레이터와도 꽤 비슷한데요?"

"저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죠. 비슷한 계열인 건 맞지만…."

그 색은 훨씬 따듯했다.

여름의 햇볕이나, 바다의 표면처럼.

"……."

확실하진 않았다.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지오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었다.

오

Chapter (38)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9)

제39화

마지막 육포가 마당에 걸렸다.

"……."

지오는 박수를 쳤다.

"고기 밭이 따로 없구나."

"꾸르륵."

"이 아빠도 동의한다, 아름다운 광경이야."

그렇다고 모든 고기를 육포로 만든 건 아니었다. 식재료가 상하지 않는 숲을 믿고 생고기 몇 개를 얼음 창고에 넣어두기도 했고, 또….

"남은 고기는 소시지로 만들든가 보관해 둬야지."

시스템은 '햇볕에 말린 가공육'이면 효과가 생긴다고 했다. 그래서 일단 저민 고기를 양념이 절여서 건어물처럼 널리긴 했지만, 나중에 먹기 편하라고 일부러 부드러운 부위만 사용했다.

육포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 고기를 처리해야 할 때였다.

"일부러 창자랑 위를 분리해서 잡내 빼뒀으니까 슬슬 써도 될 거야."

물새들에게 사슴의 모든 내장을 준 건 아니었다. 밧줄처럼 길게 늘어진 창자와 많이도 잡수셨을 게 분명한 흔적이 가득 남은 위를 빼뒀다.

냄새나는 건 전부 제거하고 사과와 레몬, 양파를 간 물에 담가뒀으니 이상한 냄새로 골치 아플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알기로 고기도 아주 넉넉하게 남았거든."

"꾸르르르."

"아직 도축에 서툴러서… 조각난 고기들도 많으니까, 소시지 만들기엔 적당할 것 같아."

국거리용으로 써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시스템이 나무뿔사슴의 효능을 높이고 싶다면 '햇볕에 건조한 가공육' 상태로 제작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조각난 고기를 일일이 말리는 것보다는 소시지로 한데 뭉쳐 널어두는 게 효과적으로 보였다. 자투리 고기를 보관하는 훌륭한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고 말이다.

“남은 뼈랑 고기는 나중에 국 끓여 먹자.”

“꾸르르르르르르!”

미리 사골 육수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럼 이제 양념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관건이지.”

허니가 기뻐했다.

“꿀.”

“돼지?”

“꾸르.”

“그래.”

드디어 본인의 정체성을 인정한 것인가 싶었다.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색다른 향신료를 찾아보고 싶은데....”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이 오두막 숲은 상당히 넓었다.

지오가 가는 곳은 매번 일정했고, 아직 보지 못한 장소나 열매가 많을 것이었다.

“오랜만에 탐험을 해볼까?”

“꾹꾹꾹.”

“당연히 넌 데려갈 거야.”

사슴 내장도 전투적으로 퍼먹던 모습을 떠올리니 아주 든든하기 짝이 없었다.

‘이 숲의 동물들이야 나에게 호의적일지 몰라도...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동물들까지 그러라는 법은 없지. 무서우니까 허니는 반드시 데려가자.’

그렇다, 지오는 쫄아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외래종은 심했어.”

“꾹...?”

“뿔도 발굽도 금속으로 되어 있는 사슴이 날뛰면 난 10초 만에 죽을 자신이 있다.”

“꿍꿍....”

“연약한 아빠를 지켜다오.”

그래서 이제 무슨 향신료를 찾으러 어디로 가야 하냐면.

“일단 몸을 움직이고 보면 하고 싶은 게 생기지 않을까.”

맑은 결론을 내린 지오가 주섬주섬 망토를 꺼내 입었다. 조금 멀리 나간다 싶을 때마다 입고 있는데도 망토는 여전히 깔끔하기만 했다.

‘이것도 나중에 업그레이드해야지.’

라고 벌써 50번 넘게 생각한 것 같다. 이러면 보통 건드리지를 않더라.

“.......”

“꾸르....”

“언젠가는 할 거다.”

여느 때와 같이 바구니도 지참한 지오가 최우선 목표를 세웠다.

“새로운 향신료나 소스를 구했으면 좋겠어. 이런 판타지 세계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식재가 분명 있을 거다. 루루푸나 망둥 열매처럼....”

예를 들어 후추라든가, 소금, 설탕 같은 것들 말이다.

“오두막에 신세를 지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지.”

오두막 찬장이나 창고의 기본적인 식재와 향신료는 가득 채워져 있다.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남아 있을지도 모르고, 다 썼을 때 처음처럼 자동으로 채워질지도 모른다.

“나중에 일일이 그려서 번거로워지느니 미리미리 대비를 해놓는 편이 좋아.”

“꾸르르.”

“특히 소금 같은 건 살아가는 데 필수이긴 한데....”

물새 호수의 물이 짜니, 그걸 어떻게 증발시켜 보면 소금이 나올 수도 있었다.

‘아직 시도해 보지는 않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테고.’

문득 지오가 중얼거렸다.

“어디서 젖소나 닭 한 마리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고.”

그는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소원하고 있었다.

“그럼 언제든 우유나 계란도 수급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꾸르르르?”

“너는... 넌 수컷 아니었어?”

근거는 없지만 수컷이라고 생각했는데 알을 낳을 수 있나?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나?”

“꾸.”

“아, 그건 아니고.”

“꾸꾸.”

“...오....”

아무래도 성별이 없다는 것 같다.

“굉장하네.”

하긴 알을 무슨 아메바처럼 분열해 수를 불리는 호수의 물새들을 보면 딱히 짝짓기와 같은 과정은 필요 없어 보였다.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깊게 고민하기 귀찮으니 그냥 아들인 걸로 하지. 동의하나?”

“꾸룩.”

“좋았어.”

지오는 무궁무진한 자신의 능력에 한순간 무서워질 뻔했지만, 어차피 이 능력으로 만들 건 구운 감자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고 다시 편안해졌다.

“나같이 무해한 사람이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크리쳐일 리가 없어.”

"......."

"당장 긍정해, 허니. 아빠는 무해한 생물인 거다."

허니는 끝까지 긍정해 주지 않았다.

"단호하기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허니였다.

오두막 숲은 굉장히 선선했다.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햇볕을 받으면 봄에 널어둔 이불처럼 포근한 공기가 둘을 감쌌다.

별다른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것도 소풍을 가는 것처럼 기분 좋은 풍류가 있었다.

"아."

그렇게 무턱대고 길을 가던 지오가 드디어 괜찮은 수확을 건졌다.

"이거 식용인 것 같은데."

"꾸르르륵."

"그렇지? 향도 독특하고...."

작고 투명한 정사면체 형태의 열매가 은방울꽃처럼 주르륵 매달린 구조의 식물이었다.

은하수 메리

투명한 열매와 검은 줄기가 특징인 꽃. 최초 발견자인 메리의 이름과 그 독특한 생김새를 따 '은하수 메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열매는 한 개체당 11개씩 열린다. 그대로 먹기엔 약한 독성이 있지만, 건조하여 단단하게 만들면 맵고 알싸한 향의 향신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최초 발견자?

'메리라는 이름의 최초 발견자가 있었다고?'

세계관이 확 넓어지는 정보였다. 이곳에서 자라는 식물, 혹은 동물까지도 어느 다른 차원에 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닌가.

"내 상상력만으로 만들어진 생태계는 아니었구나."

"꾸륵?"

"아니, 기분이 안 좋지는 않고."

이상할 정도로 넓은 세계관 설정이 좀 웃긴 것뿐이었다.

"천지신명이시여."

내가 대체 어디에 떨어진 걸까.

"역시 인생은 롤러코스터야."

연단법: 도롱도롱나무의 수액에 담그면 독성이 중화되고 건조가 멈춘다. 통조림 형태로 보관해 뒀다가 이후 숲나비의 날개와 함께 갈아 작은 환으로 만들면 좋은 피로 회복제가 된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자.

시스템이 연단법도 함께 알려주었지만 큰 흥미는 없었다. 지오는 오로지 그 맛과 향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후추라는 거지?"

피로 회복제고 뭐고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간만에 찾은 향신료의 존재가 반가워 지오는 냉큼 ‘은하수 메리’의 열매를 땄다. 이미 다 익은 열매였던 탓에 톡 치니 금방 후두둑 떨어졌다.

“기억해 둬야겠군.”

열매를 한 줌 넘게 채집한 지오가 허리를 펴며 중얼거렸다.

“이쪽이 은하수 군락인가 보네.”

작고 투명한 열매가 잔뜩 반짝거리는 꽃밭은 혼자 보기 아까울 만큼 아름다웠다. 숲이 워낙 어두운 탓인지 열매의 투명함이 훨씬 두드러졌는데, 그게 정말 은하수처럼 보일 정도였다.

“저녁에 보면 더 멋지겠는데.”

“꾸르르….”

“아무튼 후추는 처리됐고.”

킁킁, 향을 맡아 보았지만 지금은 냄새가 나질 않았다.

“…건조하면 향이 올라오는 구조인가?”

망둥 열매처럼 말이다.

‘어떤 매콤함이려나.’

맵고 알싸한 향이라는데,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었다.

“후추가 아니라 작고 매운 고추 느낌일 수도 있어.”

“꾸르르?”

“아니면 산초 열매와 비슷할까? 하지만 산초는 맵다기보다는 얼얼한 쪽에 더 가까울 거고… 일단은 직접 말려봐야 어떤 요리에 사용 가능할지 알 수 있겠네.”

작은 열매는 마치 투명한 비즈처럼 반짝거렸지만 얇은 비닐로 만들어진 것처럼 약하고 바스락거렸다. 내부에는 껍질보다는 단단한 과육… 이 느껴지긴 하지만 쉽게 뭉개질 것 같았다.

“이게 말리면 딱딱해진다고.”

동화책에 나올 법한 신기한 식생이었다. 생긴 것도 말이다.

“고기구이 할 때 한번 써봐야지.”

지오는 삶의 보람을 느끼며 바구니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과거 지구에서는 후추가 거의 금처럼 취급되었다는데, 지금 지오의 심정이 딱 그랬다.

“어디 다른 향신료는 없으려나?”

“꾸르?”

“아무리 그래도 후추만 넣고 만들기엔 너무 심심하니까.”

“꾹.”

“좀 더 들어가 보자.”

소시지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일단 고기와 지방은 기본적인 준비물이고.”

이 부분은 이미 부위별로 나누어 준비했다. 혹시라도 상하지 않게 서늘한 창고에 둔 다음 커다란 천으로 덮어두었다. 다른 준비물이 전부 모이면 그때부터 다짐육 작업을 시작할 생각이었다.

이번에 도축한 고기에선 누린내가 나지 않았지만, 감칠맛을 돋워줄 다른 향신료는 필요했다. 단순히 소금과 후추, 고기로만 소시지를 만들기엔 너무 재미가 없었다.

“무릇 소시지라면 깊은 향과 맛이 나야 하는 법이다.”

다행히 고추와 후추를 겸해줄 ‘은하수 메리’는 이미 찾아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소시지 만들기의 즐거운 점은, 바로 내용물에 어떤 허브와 향신료를 넣느냐에 따라 그 맛과 향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에 있었다.

고추와 후추 섞은 향일 것으로 추정되는 은하수 메리만으로도 괜찮은 소시지가 나오겠지만....

“일단 계속 가볼까.”

“꾸르르르.”

“위험한 동물이라도 튀어나오면 알려줘야 해.”

허니의 어버이라 할 수 있는 지오는 본능적으로 이 동글동글한 물새가 전혀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작고 소중한 허니였지만 이렇게 보여도 든든한 경호원 역할을 맡고 있었다.

숲을 거닐며 지오가 말을 이었다.

“맛있는 염장육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조건들이 있어.”

첫째, 보관 기간과 기후에 맞게 소금양 조절하기.

“식재 자체가 썩지 않는 이런 숲에서는 쓸데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꾹?”

“염장육에 들어가는 소금이 너무 많으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대신 요리에 쓰기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소금을 너무 적게 넣으면 염장 자체가 제대로 안 돼서 고기가 상해버려.”

“꾱꾱꾱....”

“그래, 번거롭지.”

그리고 그게 재밌는 거다. 세상의 모든 까다로운 조리법은 지오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었다.

“이 숲의 기온은 적당히 온화하지만, 염장만 잘 되면 고기가 상할 걱정은 없어서 참 좋다고 생각해. 안 그래도 너무 짠 육포나 소시지는 좀 싫어서.”

“꾸르륵....”

“너무 짜면 많이 못 먹잖아. 금방 배가 찬단 말이야.”

“꾹.”

“너도 나의 의견에 동의할 줄 알았다.”

부자는 서로의 신뢰를 확인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에 맞게 건조하기.”

“큥?”

대충 ‘염장육에도 용도가 있냐’는 듯한 반응이었다.

“소시지도 다 같지는 않아.”

옆에 아들 녀석 하나를 두고 다니니 혼자 떠들지 않아도 돼서 좋다는 점이 참 행복했다. 이래서 사람은 친구가 필요했다.

“오래 말릴수록 고기가 뻑뻑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종류도 다양하지.”

“꾸루루….”

“그야 넌 뭐든 먹어 버리겠지만 사람들 입장도 생각을 해봐.”

세상에는 사람의 수보다도 많은 종류의 요리법이 있었다.

“소시지도 생생한 상태에서 먹는 소시지가 있고 완전 딱딱하게 굳힌 다음 조리해서 먹는 소시지가 있어.”

주로 전자는 삶거나 구워 먹고, 후자는 생소시지처럼 삶아 먹거나 혹은 쪄 먹기도 했다.

“생소시지는 대충 열만 받으면 육즙이 흘러넘치는데, 완전히 건조된 소시지는 그러지 않아서. 아무도 딱딱한 소시지를 씹고 싶어 하지는 않으니 어떻게든 그 안에 부족한 수분을 채워주려는… 그런 게 아닐까 싶네.”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맛과 향.”

“꾸르르르르.”

허니는 격하게 동의했다.

“미식가 같으니.”

사실 훌륭한 소시지의 조건 중 99.9%는 이게 중요하다고 봤다.

“이 아빠는 맛없는 게 싫단다.”

“크흥.”

이번에도 허니는 격하게 동의했다.

“그러니까 기왕 만드는 거, 이번에도 잘 만들고 싶단 말이지.”

소시지의 종류에 따라 들어가는 재료의 형태도 조금씩 달라진다.

“소시지를 만드는 방법은 무궁무진해. 담백한 고기를 먹고 싶다면 소금을 조금 넣은 다음 잡내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적은 향신료만 넣으면 되는 거고, 자극적인 반찬이 필요하다면 향도 톡 쏘고 혀도 알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향신료를 함께 넣으면 돼.”

“끙….”

“더 다양한 맛을 느끼고 싶다면 향신료뿐만 아니라 채소를 넣을 수도 있지. 물론 그것도 너무 물이 많이 나오는 채소면 조금 힘들지만… 내 경험상 소금에 절여서 물기를 쫙 뺀 다음에 함께 넣어서 만들면 소시지 안쪽에 물이나 곰팡이도 안 생기고 좋더라고.”

지오는 눈을 데굴데굴 굴리며 자신이 만들 소시지를 상상했다.

“슬슬 매운 게 먹고 싶어서, 혀를 화끈하게 데워줄 수 있는 향신료나 야채가 있으면 찾아서 가져가고 싶은데. 그런 소시지를 만들 때는 살짝 쌉싸름한 맛을 내주는 재료를 함께 넣으면 맛이 더 풍부해져. 물론 너무 많이 넣으면 괴식이 탄생하겠지만….”

그런 것에 불안해하기엔 지오의 자존감은 과하게 높은 편이었다.

“끝내주는 예술가의 혼을 가진 내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지. 나만 믿으렴.”

“꾸르륵?”

“…매운 게 입에 안 맞을까 봐 걱정인 건가? 하긴 새에게는 너무 자극적일 수도 있겠어.”

지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역시 담백한 소시지도 만들어야겠네. 그런 소시지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 더 풍부한 맛을 내고 싶다면 무난하

고 부드러운 향을 내는 재료를 넣으면 돼. 향이 연한 허브 같은 것들이 좋겠지.”

“…….”

“하지만 역시 나는 자극적인 게 먹고 싶어. 매운 거 하나랑, 완전 짠 소시지 하나씩 만들어보면 어떨까. 은하수 메리나 생강 같은 향신료랑 조합이 잘 어울리는 재료가 있었으면 좋겠군.”

“…….”

허니의 똘망똘망한 ‘네가 정말로 그걸 할 수 있겠느냐’라는 시선에 지오는 당당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빠가 못 하는 건 없어.”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라면 뭔들 못 할까. 지오는 자신이 있었다.

그런 그의 눈에 괜찮은 물건이 들어왔다.

울음 자락

정제되지 않은 울음 자락은 짙은 청록빛을 띠며 매콤한 맛과 향을 낸다. 설탕과 도롱도롱나무의 수액 섞은 물에 닦아내면 그 독성을 지울 수 있다.

“아주 완벽한 설명이군.”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9)"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40)

제40화

'매콤한 맛과 향이라니.'

지오가 찾던 바로 그것이 아닐 수 없었다.

"......."

물론 울음 자락의 설명은 더 있었다.

...오목한 형태의 종처럼 자라나는 약초로, 햇볕에 한 달 이상 건조하면 분홍빛으로 변하며 그 잎이 더욱 통통해진다. 그렇게 정제가 완료된 분홍빛 울음 자락은 혀가 찢어질 만큼 강한 단맛을 낸다. 이것의 진액으로 절인 루루푸 꽃잎은 시신경의 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

연단법: 울음 자락을 햇볕에 한 달 이상 건조한다. 진한 분홍빛을 띠며 잎의 두께가 3cm 정도로 두꺼워졌을 때가 적기다. 공기 중의 수분을 머금고 통통해진 잎의 진액을 짜낸다. 이대로도 훌륭한 진통제가 되며, 이 안에 루루푸의 꽃잎을 넣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3일 이내로 시신경 회복에 좋은 약을 만들 수 있다.

"......."

하지만 너무 길었다.

그냥 넘겼다.

'나는 향신료가 필요한 거지 약재를 찾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결국 '매콤한 맛과 향'이라는 부분뿐이었다. 시신경 회복 어쩌고 하는데 지금 소시지 맛있게 먹자고 이러는 거지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나팔꽃과 비슷하게 생겼나."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레이스처럼 팔랑거리는 잎 하며 나무에 칭칭 감긴 덩굴성 식물이라는 점에서 형태가 제법 비슷했다. 다만 그 잎이 나팔꽃보다 훨씬 큰 것이....

"거의 내 손과 비슷할 정도야."

"꾸르르르?"

"그래, 꽤 크네."

지오의 손이 작은 편이 아닌데도 울음 자락은 그의 손을 조금 넘칠 정도의 크기였다.

"덩굴이 짙은 하얀색이라는 것도 특이하네."

‘울음 자락’이라고 불리는 잎은 끝으로 갈수록 그 녹색이 진해지는 그라데이션을 자랑했다. 잎과 연결된 덩굴은 불투명한 하얀색이었는데, 저녁에 보면 정말 눈에 띌 것 같았다.

“아무튼….”

고추를 획득했다.

‘이걸로 고춧가루 만들어 봐야지.’

아주 마음에 들었다.

“상태 좀 볼까.”

울음 자락을 따서 찢고 그 냄새를 맡아보니 과연 알싸하고 매콤한 향이 일품이었다.

지구의 고추와 완전히 같지는 않아도 얼추 비슷한 데다, 묘하게 부드러운 향이 있는 게 견과류 향을 내는 이번 고기와 잘 어울릴 것 같았다. 복합적인 향이 정신을 어지럽히는 것도 같았다.

‘고추랑 마라랑… 팔각이 조금 섞인 향인가? 판단 잎 비슷한 느낌의 부드러운 단내도 나는 것 같기도… 마침 고기가 호두나 헤이즐넛 비슷한 향이 났으니 이대로 잘만 만들어보면 탄탄면 맛 소시지 하나 뚝딱 나오겠어.’

거기까지 생각한 지오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건 많이 쓰면 부담스러워질 것 같네.”

뭐든 잘 먹는 지오로서 고추 향은 얼마든지 짙어도 좋았지만, 마라나 팔각, 판단 잎의 향은 조금 강했다.

마라는 얼얼함을 주고 판단 잎의 뭉근한 달콤함은 스쳐 지나가는 수준이니 그냥 넘어간다 해도, 팔각.

“이건 좀 많이 강해.”

“꾸르르르르….”

“…….”

작게 찢어 입에 넣고 보니 더더욱 그랬다.

“그래, 너무 강해.”

향이 코를 넘어 뇌를 찌를 지경이었다.

“암살인가.”

따지자면 자살이겠지만, 굉장히 강렬한 향이었다.

팔각은 주로 돼지고기의 잡내를 없앨 때 활용하는 향신료인데, 알싸하면서도 어딘가 달콤씁쓸한 향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 ‘달콤하다’는 부분과 판단 잎의 오묘한 단내가 합쳐져 지나친 묵직함을 준다는 점이었다.

“이건 많이 쓰면 안 되겠네.”

아까 설명을 보니 이 친구를 어찌저찌하면 끝장나게 달아진다는데, 향 중 기묘한 단내가 곳곳에 섞여 있는 걸 보니 어렴풋이 이해가 갔다. 뭘 어떻게 잘 해보면 그렇게 달아질 만도 하다.

“하지만 나쁘진 않지.”

“꾸르….”

“너보고 생으로 먹으라고 주진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허니.”

어차피 다 소시지에 들어갈 놈들이었다.

“…….”

“…….”

그쯤에서 문득 든 생각인데.

“…들어가는 재료가 전부 약재인가?”

“꾺.”

“내가 무슨 소시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아무튼 너무 많으면 남은 건 유성운 싸줄 거다.

* * *

기나긴 모험이 끝난 후.

오두막으로 돌아온 지오가 당당히 선포했다.

“내가 해냈다.”

생강을 찾아낸 것이다.

“내가 아는 생강과는 많이 다르지만 향이나 맛은 비슷하니 생각이라고 치자.”

“꾺꾺.”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정말 비슷해서 그런 거란다.”

아룸

연갈색 껍질을 가졌으며 옅은 분홍빛을 띤다. 속살은 짙은 붉은색이다. 전분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가루로 말릴 시 효율이 높다. 별도의 정제 과정 없이 식용 가능하다. 톡 쏘는 향이 특징인 생강과 식물.

연단법: 얇게 잘라서 말린 편을 차로 우려먹으면 두통에 좋다. 가루로 만들어 햇볕에 말리면 소화 기관에 좋고, 면역력 회복에 탁월하다.

“그치?”

“꾸루루….”

어차피 지구에도 생강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었다.

“갈랑갈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내가 머물던 고향에서 주로 사용하던 생강보다 더 복잡한 향과 부드러운 맛을 지녔는데….”

“…….”

“지루하면 지루하다고 말해도 괜찮아.”

“꾺.”

“그래 그럼.”

이번에 찾은 ‘아룸’은 지오의 마음에 쏙 들었다.

맛은 꽤 매콤한데 얼얼함보다는 화끈한 감각에 더 가까웠다. 향은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던 생강과 비슷할 만큼 톡 쏘는 향이 강한데, 잘 사용하면 매콤하고 톡 쏘는 향신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따란.”

그 외에도 이번에 찾아낸 건 많았다.

“이거는 넛맥….”

라븐 호두

껍질은 붉은색, 과육은 하얀색, 씨앗은 검은색을 띤다. 주로….

“선생님 제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활용되는 것은 씨앗 부분으로, 생으로도 건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드럽고 깊은 향이 특징인 향신료로 주로 이용되었다. 껍질과 과육은 약으로 만들 수 있다.

연단법: 씨앗은 과육을 벗겨낸 다음 말랑한 상태로 쪄 먹을 수 있고, 잘게 다지거나 딱딱하게 건조해 향신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껍질을 햇볕에 하루 이상 말린 후 우리면 관절에 좋은 약이 된다. 과육은 진액을 짜내 굳히면 외상 회복에 좋은 연고가 된다.

“고집이 강한 친구로군.”

“꾸르르르르….”

“너도 동의해 주어서 기뻐.”

허니도 인정한다는 듯했다.

아무튼 라븐 호두라는 이름의 넛맥, 그러니까, 육두구를 찾았다. 지구에서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잡내를 잡고 요리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어 인기가 좋은 향신료였다.

그리고 가장 큰 소득.

“식초를 발견한 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지.”

와, 자연의 신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자연이 직접 빚어낸 식초라….”

“꾸르륽?”

“흡수할 수 있어 보이면 일단 다 먹어 버리려는 건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한다, 아들아. 그러다 나중에 이상한 걸 먹고 배탈이 날 수도 있으니 자제하는 자세를 길러보자.”

“꾸르르르르르….”

“그래, 식초는 원래 자연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인생이란 정말 흥미로운 것이었다.

“안 그래도 망둥 열매로 식초나 술을 만들어볼까 고민 중이었는데.”

식초를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다양하다.

“쌀이나 보리, 밀 같은 곡물로도 식초를 만들 수가 있고… 대추나 복숭아 같은 과일도, 연꽃이나 장미 같은 꽃으로도, 심지어 꿀로도 만들 수가 있지.”

하지만 만드는 방법에는 꽤나 정성이 들어갔다.

“발효 식품이라는 게 다 그런 법이긴 해.”

발효의 중요한 점은, 까딱하면 그냥 상한 죽이 되어 버린다는 점이었다. 적절한 온도와 용량을 지켜가며 딱 맞는 세균을 키워야만 제대로 된 발효 식품이 완성된다.

그리고 이미 몇 번 생각한 이야기지만 여긴 요리사들의 천국이었다.

“웬 커다란 나무 안에서 식초가 저절로 나오기도 하고.”

그건 꽤 특이하게 생긴 나무였다.

뿌리와 가까운 부위의 밑단 기둥이 구슬처럼 둥글게 부푼 나무였는데, 그중 특별히 더 단단하고 검붉은 색을 띠는 나무가 있었다.

새콤한 향이 나서 다가가 보니 부풀어 있는 기둥에서 식초가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었다.

“굉장한 광경이었지.”

지오는 다시 한번 천지신명을 부르짖어야 했다.

사탕덫나무

밑단이 둥근 사탕처럼 부풀어 있는 나무. 자웅 동체로 잎은 바깥에 있지만 열매는 부풀어 있는 기둥 안쪽에서 자라난다. 달고 씁쓸한 맛이 강한 사탕덫나무의 열매를 제때 꺼내지 않으면 안쪽에서 썩기 시작하는데, 다양한 조건에 따라 이 열매는 나무의 수액과 섞여 식초, 주스, 혹은 과실주가 된다.

연단법: 발효되기 전의 열매를 꺼내 도롱도롱나무의 수액에 담가두면 훌륭한 영양 보충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주스나 과실주가 들어 있는 나무도 찾아봐야겠어.’

아무튼 그렇게 모든 잡다한 재료들.

“때가 되었다.”

소시지를 만들 준비를 마쳤다.

“이게 참된 콘텐츠지.”

“꿍?”

“너는 귀여움으로 너의 쓸모를 마쳤다. 구경해라.”

지오가 손을 씻었다.

“미리 담가뒀던 내장은 상태가 어떠려나.”

지오는 사슴의 내장을 담가두었던 대야로 다가갔다.

현대의 소시지는 보통 콜라겐 케이싱을 사용했다. 이 경우 제작이 훨씬 편했겠지만 이곳은 현대와 전혀 동떨어진 숲 한가운데이므로, 지오는 고전적인 방식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뒤져도 오두막에 케이싱은 안 보이더라고.”

“꾹?”

“케이싱을 그리기는 좀.”

물감으로 만든 케이싱이라니 왠지 잘 찢어질 것 같고 마냥 찝찝했다. 얇고 투명한 케이싱을 일일이 그려내는 것도 귀찮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말이다.

내장을 바라보던 허니가 꾸르르르륵 울었다. 자신이 아는 것과 다른 형태라고 말하는 듯했다.

“손질을 해둔 상태라 네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를 거다. 안쪽을 가득 채우고 있던 지방이나 이물질 같은 걸 전부 제거하고 껍질만 남겨둔 거라, 형태가 처음과는 조금 달라졌지.”

새콤한 과일에 절여둔 창자에선 잡내가 나지 않았다.

“원래부터 꿉꿉한 냄새가 없던 고기라 그런가.”

세척과 잡내 제거를 마친 창자를 확인한 지오는 내장을 둔 대야를 들어 올렸다. 이제 주방으로 내려가 고기 다지는 작업부터 시작할 생각이었다.

“소시지를 만들 때는 질기고 향이 강한 부위를 쓰는 게 좋아. 취향에 따라 얼마나 질긴 고기를 쓸지, 어떤 부위와 섞을지 고민하는 것도 요리의 즐거움 중에 하나고.”

“꾸르르르르르르….”

“지금 먹으면 안 되니까 좀 물러서 볼까?”

그는 곧장 고기를 다졌다.

“이러다 돼지새한테 다 빼앗기겠어.”

어서 소시지를 만들어야 했다.

“이 부위를 좀 더 넣어도 괜찮겠네.”

“꿍?”

“그래야 식감이 좋지.”

고기를 어떤 식으로 다지느냐도 소시지의 식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알을 굵직하게 썰면 서로 뭉치기 힘든 대신 꾸덕꾸덕하고 울퉁불퉁한 식감이 나왔고, 곱게 다지면 입 안에서 야금야금 떨어져 나오는 부드러운 식감이 나왔다.

“적당히 섞으면 더 좋고.”

지구에서는 건조에 이슈가 생기는 탓에 다짐육의 크기를 일정하게 쓰지만, 이곳은 자연의 신비가 넘쳐나는 그림 속이었다. 덕분에 지오는 독특한 식감의 소시지를 기획할 수 있었다.

조금 알이 굵게, 또는 완전히 다져서.

‘이렇게 하면 식감은 식감대로 좋고, 껍질을 빈틈없이 채워줘서 모양새도 좋아지겠지.’

고기를 전부 다진 지오는 다짐육에 섞을 재료들을 끌고 왔다.

후추와 고추의 향을 첨가해 줄 ‘은하수 메리’, 강렬하고 자극적인 맛과 향을 담당해 줄 ‘울음 자락’, 고추처럼 확실하게 맵고 향은 톡 쏘는 생강과의 ‘아룸’.

부드럽게 잡내를 잡아주고 고급스러운 풍미를 더해줄 ‘라븐 호두’, 그리고 맛에 변주를 더해줄 새콤달콤한 ‘설탕덫나무 식초’….

“…….”

설렌다.

“좋네.”

이 설렘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누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어.”

인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고 적막한 숲속의 신비로운 재료들. 상상해 본 적 없던 맛을 품고 있는 식재로, 청량한 피톤치드를 맡아가며 요리를 하는 경험 말이다.

지오는 그날 대략 10kg의 소시지를 만들어냈다.

“…….”

“…….”

들떴다고 조금 과했군.

“실수를 인정하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꽁."

"우리에겐 유성운 씨가 있어."

"꾸르륵."

악성 재고를 향한 둘의 의견이 일치했다.

* * *

"지오, 여기 있나?"

오랜만에 지오에게 붕어빵을 주러 갔던 유성운.

"지난번에 만났던 학생이 붕어빵을 팔고 있길래 한 봉지 사 왔는데."

"그렇군요.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별거 아니니까 받아둬. 꼭 답례를 해야겠다면 예전처럼 간단히 먹을 걸로 부탁하고."

"마침 딱 적당한 음식이 있습니다."

"오, 그래? 출출했는데 잘됐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

그는 소시지가 가득 든 종이봉투를 들고 갤러리에서 나왔다.

"…전혀 적당하지 않잖아."

전혀 다른 경우인 걸 알지만, 좀 사기당한 기분이었다.

오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41)

제41화

[숲의 내장] [등급: –]

나무뿔사슴의 고기와 운명의 수맥에 자생하는 약초와 열매로 만든 소시지. 숲의 주인인 지오가 직접 공정하여 인간의 신체도 받아들일 수 있다. 깊은 포만감을 주는 이 소시지는 일부 부상과 면역력 회복에 탁월하다.

"도움."

"어우 깜짝아."

"도와주십쇼."

"처치 곤란한 선물을 받을 때마다 저를 찾아오는 건 그만해 주시겠어요, 유성운 큐레이터?"

"이번 건 제가 받은 거라 다른 사람과 나누지도 못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유성운의 모습에 비사벌이 쾌활하게 대답했다.

"그럼 나눠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그 방법밖에는 없나."

"이번 선물은 드셔 보셨는지?"

"집에서 세 개 정도 먹고 왔습니다."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나도 끌리는데."

"지오에게 물어보고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먹지도 못하게 할 거면 대체 나에게는 왜 가지고 온 겁니까?"

"다른 사람 눈에 들어가면 제 입장이 곤란해질 게 뻔해서."

"아, 금고용...."

비사벌이 씁쓸하게 웃었다.

"역시 우리 직원들은 너무 시니컬한 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당신이 모아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보통 길드장을 금고로 쓰나. 다들 나를 너무 소중히 여겨주지 않아.”

“이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엄살이신지.”

“그래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말을 돌리는군.”

잠시 고민한 유성운이 목뒤를 쓸었다.

“부상과 면역력 회복에 탁월하다고는 하는데, 아직 저는 그런 부상이 없어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다만?”

“눈이 좀 맑아지는 기분이 들기는 합니다.”

“눈이 맑아져?”

이런 세상이 되어서도 시력과 관련된 의료 기술은 발전이 더뎠다. 닳고 닳은 시신경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회복되지 않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성운이 말한 효과는 꽤 흥미롭게 들렸다.

“확실한 효과입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같이 먹으면 비교군이 생길 테니, 더 자세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지오의 허락을 맡아야겠네요. 선물 받을 때 함께 물어보고 오시지. 지오 성격에 안 된다고 딱 잘라 거부할 것 같지도 않던데.”

“근원의 존재를 그런 식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될뿐더러, 당시에는 철야를 하고 난 뒤라 저 역시 정신이 없었습니다. 붕어빵이 보여서 그것 좀 전해 주러 갔다가 이런 선물을 받게 될 줄 저라고 알았을까요.”

“정 피곤하시다면 지난번에 받은 쿠키를 드시는 것은 어떠신지?”

“다 먹은 지 오래입니다.”

다시 카페인의 노예가 된 유성운이었다.

“예전에 받은 과일청… 전혀 아닌 것처럼 생기긴 했지만, 아무튼 과일청에 대한 다른 직원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반응이야 아주 좋았죠. 그리고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수맥의 꿀의 가장 큰 장점인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한계까지 회복시킨다’라는 부분이….”

“아무리 설명을 보지 않았다고 해봤자 몸으로 느끼는 게 있을 테니 의심스럽기도 할 테죠.”

비사벌이 웃으며 물었다.

“과일차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과로사 직전의 유성운에게는 회복이 필요했다.

수프처럼 농밀한 감칠맛이 감도는 과일차를 마신 유성운이 작은 한숨을 내뱉었다. 정말 맛있기는 하다만, 고작 피로 회복을 위해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소비하고 있자니 괜한 회의감이 들었다.

“던전에 들고 가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사망률 변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건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들고 가면 또 소란이 커질 테고.”

“그것도 그래요.”

“…근원의 존재가 너무 호의적이어도 문제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텐데?”

“모두 과일청의 출처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저에게 다시 묻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경매에서 구매한 물건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역시 그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컸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해요. 아무도 안 물어보길래 나도 말 안 했지. 우리 직원들은 복잡한 일에 끼어드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

“추가 근무를 좋아하는 직장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여간 다들 매몰차다니까.”

비사벌이 제 몫의 과일차를 마시며 말했다.

“그래도 ‘작품의 조각’이리라 짐작하는 사람은 얼마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작품의 조각’이란 수집상 내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관용어인데, 비사벌의 갤러리에 갇힌 작품이 큐레이터에게 주는 물건이나 축복, 혹은 저주를 이르는 말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먹을 걸 선물로 주는 작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

“역시 그렇습니까.”

비사벌의 갤러리 안에 모인 작품 중 자아를 가진 존재의 수는 꽤 되었다. 그 자아가 얼마나 정교한지에 따라 수준 높은 큐레이터가 전담하게 되고, 큐레이터는 작품과 자신의 유대에 신경을 써가며 관리했다.

그러니 아주아주 가끔, 매우 이례적으로, 이렇게 ‘조각’을 받는 큐레이터도 나오고는 했다.

“보통은 물건을 주니까요.”

“음식도 물건이라면 물건이긴 합니다.”

“그보다는 장신구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무기 같은 걸 주지.”

“그렇죠, 대부분은.”

지오처럼 요리에 맛 들인 작품이 더 있을 리가 없는 것이다.

“지오의 취미는 요리가 유일합니까?”

“아뇨,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림을 그리는 것도 즐깁니다.”

“그런 그림은 통로 혹은 살아 있는 생물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럼 풍경화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

유성운의 얼굴이 구겨진 호일처럼 와그작 찌그러졌다.

“저 지금 쉬고 있는데 불안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별로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대충 가능성을 짐작하고 있던 이야기였지만 지금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가엾게도….”

“직장 상사가 가엾다고 해봤자 비꼬는 것밖에 더 됩니까?”

피로에 찌든 부하의 모습에 비사벌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궁금해서 그러죠. 지오는 그림으로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으니, 풍경화가 되면 그 경우 어떻게 되는지 흥미가 생겼을 뿐입니다.”

“어쩌면 다른 세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마치 던전처럼?”

“…….”

“멋지네요.”

비사벌은 제 턱을 쓸며 말했다.

“꽤 많은 야간 경비가 목격한 바로, 지오는 어떠한 풍경화를 통해 이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들은 것과는 조금 다른데, 초상화가 아니라 풍경화입니까?”

“지오가 들어가 있으면 초상화, 나와 있으면 풍경화인 모양이더군요. 참 편리해 보이죠?”

“그거 정말 골 때리는데….”

“해가 뜰 무렵에는 복도에 걸려 있던 작품이 사라진다고들 하니, 이동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짐작한 바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점이, 그림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곳을 이동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지오는 다른 던전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걸까요?”

“…….”

“궁금하군요.”

“그건….”

유성운이 인상을 찌푸렸다.

“조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렸습니까?”

“길드장님께서 정확히 지오의 무엇을 보셨는지는 몰라도, 눈이 별로 좋지 않은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미 지오는 유성운 큐레이터의 안내하에 바깥을 관광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기는 했지만, 지금 말씀은 지오의 활동 범위를 더 넓혀보자는 의미잖습니까.”

찝찝했다.

“제가 지오에게 작품 이상의 호의를 보이는 것은… 물론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원사들의 습성입니다. 영혼에 새겨진 무언가라고요.”

정원사라는 것들이 그렇다.

위협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잔혹함을 잔혹하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정원을 꾸리는 그들에게 근원의 존재는 돌보아야 할 대상이었다.

“제가 길드장님의 제안을 받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원사는 인간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으로 태어나 정원을 가꾸어 왔기에 그 둘 모두가 공존하기를 바란다. 근원에 매우 가까운 존재로 보이는 지오에게 유성운이 홀려버리는 건 불가피한 일이었다.

근원에 미치지 않고서야 정원사로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될 유구한 취향이라는 거다.

"하지만 길드장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큐레이터로서 철저하지 못하다면 그걸 지적하고 고쳐주셔야 해요."

"......."

"길드장님께서는 본인 작품에게 너무... 많은 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그게 걱정이 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겠죠."

비사벌이 웃었다.

"유성운 씨가 나를 금고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치가 아니었습니까?"

"...길드장님의 편애 덕분에 크고 작은 도움을 여러 번 받았으니,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닌 건 압니다."

수집상의 길드원은 모두 비사벌의 수집품이었다.

그가 한심해 보일 만큼 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과할 정도의 호의를 베푸는 것 모두가 비사벌의 비이성적인 수집 욕구에서 기인했다. 비사벌은 자신의 모든 수집품을 사랑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을 본인 작품의 실험대로 이용하는 건 나중에 후폭풍이 크리라고 봅니다."

"후폭풍이라."

"지오처럼 규격 외의 작품이 등장할 때마다 길드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셨죠."

"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든, 얼마나 죽어나가든, 오로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해하고 감상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구셨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비사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감상하느라 바쁜 나 대신 알아서 관리를 해달라고 큐레이터들을 고용했죠."

"......."

더럽게 무책임한 소리지만 또 틀린 말은 아니라 유성운이 한숨을 내쉬었다.

"정원사인 제가 이렇게 인간 편을 들 정도면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나름 자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성운 씨가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지나치긴 했던 것 같습니다."

비사벌의 눈이 선명하게 휘어졌다.

"하지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도 제 욕심을 숨길 생각이 없는 사람의 눈이었다.

"나는 내 작품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합니다. 지오가 얼마나 착실한 청년인지, 그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죽인다면 얼마나 또 어떻게 죽일 건지가 아주 궁금해요."

"......."

"지오는 화가입니다. 초상화이기도 해요. 마찰을 피하는 성격입니다. 자신을 29살 청년으로 알아요. 그가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섞일까요? 불쾌한 경험을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신이 작품임을 깨달으면 어떻게 변화할지가 궁금한 겁니다."

"......."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오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멍청한 사람들 탓에 내 작품이 상하는 건 화가 나는 일이지만, 작품들끼리 싸우다 상처 입고 타들어 가는 건 무섭지 않죠.”

그게 비사벌의 솔직한 욕심이었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인간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유명한 이야기죠. S급이라는 헌터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인기가 높으니까요.”

“이런 볼품없는 신체 능력으로 주장하기에 매우 민망하지만, 저 역시 S급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비인간에 가까웠다.

“이 세상이 제가 아낄 만큼 아름답고 교교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

황당한 소리를 면전에서 들어버린 유성운의 얼굴이 피로로 일그러졌다.

“…보통 사람들은 굳이 세상이 아름답거나 교교하지 않아도 대량 학살이 벌어질 경우의 수를 두지 않아요, 길드장님….”

“그게 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서 그런 겁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해보자면, 내 작품으로 인해 세상이 멸망해 봤자 그건 어차피 일어났을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협회장님께서 들었어야 했는데. 위험 등급의 물건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운 협회에서 유일하게 믿고 맡기는 비사벌의 갤러리가 아닙니까?”

“알고 한 말이겠지만 딱히 그 사람도 나를 믿지는 않아요. 다만 협회장 본인이 전부 관리하기에는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고,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위험한 작품을 맡아줄 유일한 차악이 나뿐이었을 따름입니다.”

정부와 협회의 업무를 반쯤 함께 지고 있다는 이유. 그 이유 하나로 비사벌은 갤러리의 자치권을 얻었다.

“그러니 협회장은 저를 믿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최소한의 관리를 꾸준하게 해줄 공간과 인력이 필요했던 것뿐이니까요.”

“…그런 불신에도 용케 협회에서 작품을 뺏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의 연구원이었던 제가 떠올려보면 협회에서 길드장님의 갤러리를 탐내는 건 확실했는데….”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갤러리를 10년만 더 늦게 열었어도 협회에서 이렇게까지 봐주고 있었겠습니까?”

재밌는 만담이라도 들은 양 비사벌의 얼굴이 밝아졌다.

“지금 세상에 비사벌의 갤러리는 아주 유명해요. 조용히 연구와 분석과 통제만이 이루어지는 협회보다 훨씬 퍼포먼스가 있고, 자극적이고, 대중 앞에 쉽게 드러나니 말입니다.”

“…….”

“심지어 내가 관리하는 건 갤러리예요. 고객이 올 수도 있고, 그 고객이 작품을 사갈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고객님들이 존재하는 이 역사 깊은 갤러리를 협회가 탄압할 수는 없어요.”

비사벌의 얼굴이 극적으로 슬픔을 담았다.

“아, 정말이지… 협회 안에 갇혀 있을 작품들을 떠올리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얼마나 험한 대우를 받으며 연명하고 있을까.”

“…그….”

“거기에 더해 나의 귀하고 여린 작품들이 협회 연구소에서 받게 될 수모와 고통을 생각하면 절대로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작품엔 영혼이 담겨 있다고요.”

“아, 예….”

한때 협회의 연구 팀장이었던 유성운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환장할 소리였지만, 지금은 그의 밑에서 편의를 받으며 일하고 있으니 일단 넘어가기로 했다.

“그래서 자제할 생각은 없으시다?”

“충분히 자제하고 있는데 대체 뭘 더 자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왕성이지.”

한번 터졌을 때 어떤 대참사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다.

“사고 한번 터지면 정말 제대로 터지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큐레이터들 생명 수당도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냐는 질문이 아니었는데. 한국이 지도상에서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거 정말 무섭겠군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큐레이터들이 알아서 잘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관장님을 보았나. 본인 갤러리라는 자각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사벌의 갤러리는 협회의 연구소보다 자극적이고 개방적이지만, 그만큼 안전성은 떨어졌다.

‘애초에 그 위험하고 예민한 작품들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면... 조금 더 강한 통제가 필요할 텐데.’

이곳은 정말 최소한의 통제하에 물량만 많았다. 협회의 연구소와는 정반대의 흐름이었다.

비사벌은 제 작품을 사랑했고, 또 사랑으로 관리했다. 이곳의 큐레이터들에게 요구되는 기본 사항 중 하나는 ‘작품과의 강한 유대 관계를 쌓을 것’이었다.

“…….”

역시 지금의 지구는 너무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었다.

‘한 번 모든 체계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시점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해도….’

오로지 지구상 소수의 강자들의 자비에 의해 모든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누구 한 명만 엇나가면 정말 난리가 날 텐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군.’

용케 버티고 있구나 싶다.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와 관련한 사항도요.”

“그런 의미에서 지오가 새 친구를 사귀는 것을 도와줄 생각은 없습니까? 혼자는 쓸쓸할 텐데.”

“이제는 아주 대의로 포장할 생각도 안 드십니까?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전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신 게 분명하군요.”

이쯤 되면 지오가 협회장이 아니라 비사벌에게 낙찰된 것도 운명인가 싶었다.

“…….”

뭐, 하긴

정원사 된 입장에서 이런 비사벌의 작품 친화적인 의견을 반기고 있는 유성운 자신도 참 웃기는 놈이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새벽에 지오와 대화를 나누러 갈 생각이었다.

거기에 질문 하나 정도는, 아마 괜찮겠지.

* * *

그 시각 지오.

“몇 개 만들어봤다.”

“꿍?”

몇 개?

“그래, 좀 많기는 하지.”

“꿍?”

조금?

“그래 아빠가 주책이었다. 너무 신나니 나도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

“꾸룩.”

“반성하겠어.”

유성운에게 5kg가량의 소시지를 넘겨주었지만, 그러고도 5kg의 소시지가 남았다.

“햇볕에 한 번 건조를 했으니 얼음 창고에 보관을 하면 썩지는 않을 테지만....”

“꾸르르?”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신이 난 것도 있고, 그간 물새들의 둥지에 소홀했으니 선물을 좀 해주려고 한 것도 있어. 우리만 먹지 말고 다 같이 나누자는 의미에서.”

“꾸루루루루루루룩.”

“너도 좋아할 줄 알았다.”

수북하게 쌓인 소시지구이는 양이 너무나 넉넉한 나머지 꼭 작은 언덕처럼 보였다.

그래봤자 이 숲에 사는 물새 전체보다는 작았지만, 관점의 차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양이 과하게 많다는 것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하지만 지오는 꿋꿋했다.

“이거 먼저 먹어봐. 너는 매운 거 싫어할 것 같아서 이건 담백하게 만들었다.”

그는 들떠 있었다. 평범한 재료로 직접 소시지를 만들었더라도 즐거웠을 텐데, 이건 판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 아닌가?

“이건 아룸 하고 라븐 호두, 식초를 넣어서 만든 소시지야. 은하수 메리도 약간 갈아서 넣었지. 솔직히 내 입맛에는 너무 담백하기는 한데... 넌 좋아할 것 같아서.”

“꾸루룩.”

“그렇다고 내가 안 먹겠다는 말은 절대 아니었고.”

지오는 오랜만에 오두막 바깥에 테이블을 놓고 식사 준비를 마쳤다.

테이블에는 가마솥으로 갓 지은 쌀밥과 독성을 빼고 나물처럼 무친 바이바므닐, 그리고 오븐에 튀기듯이 구워 육즙을 가득 머금은 따끈따끈한 수제 소시지가 가득 놓여 있었다.

“물새 둥지에는 나중에 구워서 가져다줄 거야. 일단 우리부터 맛을 보려고 상을 차렸으니까, 천천히 먹고 둥지는 이따 들르자. 동의하나 아들?”

“꾸르르륵.”

“역시 넌 내 아들이 맞다.”

자르지 않고 길쭉한 소시지를 입에 넣은 서지오가 내심 고개를 끄덕였다.

‘…나처럼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 솔직히 조금 심심하기는 한데, 그래도 간이 적절하게 되어 있어서 밥이랑 같이 먹기는 좋네.’

햇볕에 짧게 건조한 소시지는 한 번 구워서 그런지 겉이 매우 바삭했다.

그러면서도 창자를 직접 손질해 만든 껍질은 어딘가 고소하고 쫄깃했고, 그렇다 해서 이빨에는 저항하지 않을 만큼 부드러웠다. 바삭함과 쫄깃함,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식감이었다.

“음….”

뽀드득!

“아 뜨거.”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내용물에선 육즙이 흘러넘쳤다.

은은하게 입천장에 스며드는 나무의 향기.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던 화덕에서 막 구워낸 소시지는 조금 뜨거울 만큼 뜨끈했는데, 껍질 안에 단단히 갇혀 있던 달곰하면서도 어딘가 끈끈한 육즙이 입안을 적셨다.

따듯하고.

“…….”

맛있었다.

‘…담백하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역시 향이 좋아.’

가능한 만큼 소금의 양을 줄여 고기 본연의 맛의 풍미를 끌어 올리고,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향을 추가해 원래 고기와의 상성을 한껏 부추겼다. 그 결과가 지금의 소시지였다.

사슴 고기 특유의 은은한 견과류 향과 어울리는 라븐 호두의 조합이 소시지의 맛을 통일시켰다.

게다가 그 밑 깊숙한 곳에 숨겨진 톡 쏘는 아룸의 향과, 그 위에 있는 사탕덫나무 열매의 식초가 순하면서도 선명하게 자신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거 먹다 보니 생각보다 괜찮네, 아주 심심할 줄 알았는데.’

식초 자체에서 나는 희미한 쓴맛과 소시지를 구운 모닥불 장작의 짙은 훈연 향과도 잘 어울리고 말이다.

소시지도 그렇고, 조리 방법도 훌륭했다.

“특히 식초를 잘 넣은 것 같아.”

“꾹?”

“자연적으로 발효가 된 과일 식초라 그런가? 은은하게 단맛이 나는데, 톡 쏘지는 않을 만큼 느끼함을 잡아주는 이 신맛과 씁쓸함이… 정말 잘 어울려.”

다음은 지오 자신의 전용으로 제작한 소시지였다.

뽀득!

“…….”

붉은 소시지는 먹자마자 미뢰에 자극이 왔다.

‘입이 화끈해.’

어딘가 혀를 끈적하게 감싸 안는 화끈함이 있었다.

‘뒤끝이 그렇게 길지 않아.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한 매운맛이다.’

그의 전용으로 만든 소시지에는 이번에 찾은 식재가 전부 들어갔다.

고추와 후추를 합쳐놓은 것 같은 깔끔한 향의 은하수 메리와, 강한 매운맛을 내면서도 오묘하고 묵직한 단 향을 내는 울음 자락.

이리저리 섞인 잡다한 향을 하나로 뭉쳐주는 생강 향의 아룸과, 그 위를 살짝 덮으며 무던하고 부드러운 깊은 향을 내는 라븐 호두.

마지막으로 곳곳에 톡 쏘는 신맛을 더해 맛의 변주를 주는 사탕덫나무 식초까지….

“…….”

조금 과했나.

“그래도 맛은 괜찮아.”

“꿍.”

“피하지 말고 한번 맛을 봐도 괜찮을 텐데.”

“꿍꿍꿍….”

“싫다면 어쩔 수 없고.”

매콤한 향이 나는 소시지를 피하는 허니의 의견이야 어쨌든 지오의 입에는 아주 잘 맞았다. 그간 조금 허했던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었다.

삼계탕 원샷 때리거나 펄펄 끓는 열탕 들어갔을 때, 식혜 하나 들고 찜질방에 직행해 땀 뻘뻘 흘리며 빨대로 살얼음 낀 식혜 쭉쭉 빨 때의 그 느낌.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채워주는 이 충만함.

“좋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처음 쓰는 재료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더 잘 나왔어.’

매콤함을 컨셉으로 잡은 소시지였지만, 전반적으로 은은한 단맛과 고기 전체를 두른 기름이 매운맛을 매우 깔끔하게 만들어 주었다.

매운 음식은 깔끔하게 맵기만 하면 90% 이상은 성공이라고 봐야 했다.

“요리에 대한 감을 익혀둔 보람이 있다. 할머니의 손맛은 이럴 때 쓰는 거지.”

“꿍꿍꿍꿍꿍….”

“아빠가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입맛이 조금 다른 거란다.”

이 정도면 아주 맛있게 매운맛이었다.

맛잘알 서지오는 닭발도 맛나게 먹었다. 보통 불닭발을 먹을 때 너무 매워서 힘들다면 기름장에 찍어 먹거나 단 음료를 함께 마셨다.

그러면 한층 차분해진 마음으로 지성인처럼 먹을 수 있었다. 이번에 만든 소시지도 같은 맥락이었다.

‘맛과 향 자체는 전반적으로 맵고 톡 쏘지만, 애초에 울음 자락도 은은하게 단내가 깔려 있었지. 게다가 라븐 호두도 견과류 특유의 부드러운 달콤함이 있고. 굉장히 달콤한 열매가 맺힌다는 사탕덫나무가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식초는 말할 것도 없으니….’

향신료 맛이 지나치게 강하다 싶으면 부드러운 향이 그것을 눌러주었다. 너무 매운가 싶으면 조금 많이 넣었던 사슴의 지방이 혀의 고통을 비단처럼 씻어줬다.

그 지방에 느끼한가 싶으면 식초가 시큼하게 존재를 주장하며 울렁거리는 속을 가라앉혔다.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좋았다.

‘과하게 느껴질 만큼 복잡하게 얽힌 맛과 향을 끈끈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아룸의 역할도 크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

지오는 입안에 씹고 있는 음식이 있으면서도 새 요리를 구상했다.

“이것저것 잡다하게 넣어서 만들 때 아룸 넣어주면 요리의 질이 확 좋아지겠어.”

“꿍…?”

“그때는 이것보다 덜 맵게 만들어줄게. 매운 향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룸은 사방으로 튀어나가며 개성을 자랑하는 향신료들을 모두 한 자리에 묶어놓았다. 그 끈끈함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이렇게 복잡한 맛을 느끼면서도 부담스럽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다.

‘게다가 이번 소시지는 식감에도 신경을 썼지.’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름 씹는 맛도 있지 않나?”

“꾸르륵.”

“그래, 맛있지? 확실히 고기 알의 크기를 다르게 하니까 훨씬 씹는 맛이 다채로워졌어. 다음에 만들 때도 식감을 어떻게 할지 고민 좀 해봐야겠네.”

“꾹꾹….”

“늘 생각하지만 이 숲은 곰팡이가 안 펴서 좋아.”

그게 아니었더라면 이번 작업은 꿈도 못 꿨을 것이다.

‘케이싱도 수분감이 높은 실제 창자를 활용했고… 작업 중에 썩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고기 알이 다르면 껍질 안에 공기가 생기고, 그 틈을 통해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높다. 최소한 지오가 지금껏 만들어왔던 소시지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

‘의지박약한 놈들 같으니.’

너희가 진정한 돼지고기라면 곰팡이 정도는 기합으로 참아내야 할 거 아닌가.

“흠.”

아무튼 덕분에 이번 소시지는 식감조차 훌륭했다.

이미 죽처럼 부드럽게 으깨두었던 고기는 씹기도 전 미리 입안 한구석에 닿아 혀를 기쁘게 했고, 울퉁불퉁한 고기 조각들은 유쾌한 탄성을 주며 이빨에 통통 씹혔다.

‘육즙도 줄줄 흐르고… 내장 껍질도 식감이 상상 이상으로 좋아.’

워낙 창자가 통통해서인지 꼭 얇은 곱창을 씹는 것 같았다.

미리 손질해 뒀던 창자는 잡내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내장 식품 특유의 쫄깃함과 고소함이 함께했다.

게다가 화덕에 구워 겉껍질은 과자처럼 바삭한데 껍질 안쪽은 여전히 끈끈했다. 견과류 특유의 희미한 씁쓸함도 느껴지고 말이다.

“…….”

지오가 중얼거렸다.

"좋은 것 같아."

평생 이대로만 살고 싶었다.

평화롭게.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42)

제42화

끝내주는 식사를 마친 지오는 물새들에게 소시지를 던져 주고는,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와 휴식을 청했다. 한바탕 밥을 먹은 탓인지 저녁이 되어도 배는 안 고프더라.

“누룽지….”

“꾸르륵?”

“지금 먹기는 좀 그렇고, 내일 누룽지 밥 해 먹자. 그거 맛있어.”

“꾸루루루룩.”

“…….”

침대에 누운 서지오는 역시나 제 곁에 누운 허니를 꾹 찔렀다.

“꿍.”

“…….”

“꿍꿍꿍.”

“푹신해.”

“꿍!!!”

허니는 격렬히 반항했으나 그게 더 귀여웠다.

“이 무해한 녀석.”

조금만 더 커지면 베개로 쓸 수 있겠다 싶었다.

‘비슷한 느낌의 물질을 만들어볼 수는 없을까.’

살아 있는 물새를 그대로 깔고 자기는 좀 미안하니까, 살아 있지 않은 물컹한 베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저런 망상을 하며 지오는 눈을 깜박였다.

“…….”

더럽게 잠이 안 왔다.

“후우….”

가끔 이럴 때가 있었다.

“예술가의 숙명인가.”

“…꿍?”

허니는 ‘헛소리하지 말고 잠이나 자면 안 되냐’라는 듯한 반응이었지만, 그게 쉽지 않았다.

지오는 깃털이 잔뜩 들어간 게 느껴지는 푹신한 이불에 몇 번 얼굴을 비비적거리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니, 아빠 간다.”

“꾸릏.”

“매정한 녀석.”

피곤한 허니를 두고 그가 향한 곳은 온갖 재료가 가득한 작업실이었다.

“…….”

이렇듯 그의 지독한 불면증은, 문득 무언가에 흥미가 동한 탓이다.

“…회사 바깥의 풍경이 궁금해졌어.”

가능한 한 정확한 위치를 정하고 상상하면 지오는 그곳의 풍경을 떠올릴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수집상’ 회사의 3층이 어떤 광경일지 상상해 봤자 실제 그곳의 광경과는 다르지 않은가.

하지만 그 상상을 진행해 가며 조금씩 그림을 완성하니 어느 순간 지오는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상상하는 위치의 풍경은 비교적 실제와 같다.’

아마 초상화가 되어서 받은 혜택 중 하나가 아닐까 싶었다.

“바깥은 아마….”

지오가 중얼거렸다.

“어두운 새벽일 것 같네.”

아예 보지 못한 곳도 아니고, 이미 한 번 봤던 곳을 그려내는 건 어렵지 않았다. 지오는 한 골목의 벽에 서서 보았던 광경을 떠올리며 붓을 놀렸다.

그렇게 곧, 서울의 어느 골목에 액자 하나가 생겨났다.

* * *

“하아아….”

새벽의 거리, 한 여자가 제 머리를 헤집었다.

“또 어디에 빌붙어야 하지.”

새까만 단발의 여성, 차아라는 한숨을 참지 못했다.

‘역시 F급은 잘 받아주는 곳이 없네.’

각성자라고 해도 F급은 짐꾼 이상의 취급을 받지 못한다.

차아라의 등급은 F. 주력 스킬은 ‘신체 강화’. 이외의 다른 스킬은 배울 형편조차 안 됐고,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직업은 없었다. 전형적인 짐꾼의 스테이터스였다.

“…….”

그녀는 오늘, 원래 있던 팀에서 방출된 뒤 하릴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긴, 다리 다친 짐꾼을 어디에 쓰겠어."

오후에 방문했던 던전에서 다리 부상을 당한 탓이었다.

짐꾼으로 쓰이길 원하는 F급이 차고 넘치는데, 굳이 다리도 절뚝거리는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없었다.

'꽤 멀쩡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좋았는데.'

친절하다고는 못 해도 서로에게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인 팀이었다. 고작 F급에 짐꾼인 차아라를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기는 했지만 그 팀 자체가 서로에게 그런 경향이 컸다.

그런 무심함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현대인의 덕목 중 하나였다.

"그만큼 쉽게 잘렸지만."

이용 가치가 없는 차아라는 더 이상 고용해 줄 수 없다며 쫓겨났다.

그나마 정산받을 것은 다 받고 내쫓겨서 다행이었다. 핸드폰에 떠 있는 계좌의 금액을 차아라는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다 합쳐서 대략 50만 원 정도.

"……."

이걸로 월세를 내고, 막내의 사제복을 사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에 월세가 올랐었지…."

끄응.

차아라가 앓는 소리를 냈다.

"…어쩌냐, 이제."

살며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하늘을 보며 차아라는 혀를 찼다.

"개같아."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왜 눈까지 온단 말인가?

'…터미널은 이미 끊긴 지 오래일 거고. 어차피 집에 오빠가 남아 있으니 막내 놈은 괜찮겠지. 또 어디서 호구처럼 자기 거 나눠 주고 있는 거만 아니면 됐어.'

내심 드는 쓸쓸함에 코를 훌쩍이며 차아라가 벤치에서 일어났다.

"눈이라도 안 맞는 곳을 찾아야지."

차아라는 막내가 직접 만든 목도리를 더 강하게 동여매고선 발을 옮겼다.

원래는 벤치에서 대충 잠이 들 생각이었는데, 눈까지 온다면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못 뜰 수도 있었다.

'역사나 사옥 근처에서 잘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공시설이나 돈깨나 버는 회사 주변은 보온 마법이 걸려 있었다.

그 근처에서 잘 수 있다면 이렇게 노숙 자리를 고민할 필요는 없겠으나, 잘못 걸릴 경우 최악이면 4등급 시민으로 강등당할 수도 있었다.

'헌터증으로 며칠 동안 도시 체류권을 끊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아무 데서나 노숙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경비에게 걸리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질 테니까….'

이럴 때면 오빠인 차은혁이 부럽기도 했다.

"그 인간은 붕어빵 리어카에서라도 잘 수 있잖아."

도시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누군가 훔쳐 가거나 철거하기 때문에, 붕어빵 장사를 하는 그녀의 오빠는 늘 리어카를 지방에서 도시까지 옮겨 가며 생활했다.

"아오…."

그렇기에 차아라 자신도 그의 리어카에서 잠들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는 없었다.

목적 없이 걷기를 한참, 차아라의 발걸음이 어두운 골목길에 닿았다.

"……."

…저건 뭐지.

'…초상화?'

골목의 벽 한편에 걸려 있는 어떤 남자의 초상화였다.

"…뭐야, 으스스하게…."

초상화 속의 남자는 마치 조각이나 인형처럼 잘생겼지만, 그런 잘난 외모보다는 먼저 두 눈을 조용히 감고 있는 그 적막함이 피부에 와닿았다.

마치 누군가의 시체를 그려놓은 듯한 음울한 기운에 차아라는 주춤거리며 자리를 벗어났다.

'어떤 미친놈이 여기에 그림을 걸어놨어.'

어느 특이한 취향을 가진 미친놈이나 혹은 괴상한 스킬을 가진 헌터의 짓일 테니, 차아라는 굳이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눈이 곧장 떨어지는 이곳에서 잠들 생각도 없었다.

조금 더 걷던 차아라는 이내 한 여자를 발견했다.

"……."

차가운 눈을 얼마나 맞고 있었는지 벌써 그 위로 소복하게 하얀 눈이 쌓였다.

공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는 여성의 행색을 보아하니, 도시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4등급 시민인 것을 알 수 있었다.

"……."

"……."

숨은 쉬고 있는 듯 가느다란 몸이 들썩이는 것이 아직 죽지는 않았다.

'꽤 바깥까지 나와 있네.'

보통 빈민은 더 깊은 골목에서 살던데.

빈민을 무시하고 지나치려던 차아라는, 몇 걸음 가지 않아 매우 불편한 얼굴이 되어 다시 빈민의 앞에 섰다.

"……."

잠이 든 것인지 추위에 기절했는지 빈민은 숨은 쉬고 있어도 정신을 차리지는 못했다. 바로 앞에 차아라가 있는데도 못 알아차린 기색이었다.

"…에이씨."

차아라는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 빈민의 목에 가볍게 둘러주고는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벗어났다. 희미하게 빈민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서 걸음은 더더욱 빨라졌다.

'시발, 쪽팔리게. 시발, 시발….'

휑한 목이 추워서 차아라는 왠지 억울해졌다.

"왜 저렇게 불쌍하게 자고 지랄이야…!"

괜히 울컥했다.

빈민의 나이는 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어려 보였다. 그럼 아무리 나이가 많아봤자 20살이 되지 않았을 것이었다.

친구뻘 되는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자고 있는데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다.

“아씨, 막내 새끼가 짜준 거였는데… 막내야아….”

마을에서 가축이나 몬스터를 잡고 나온 털로 어렵게 짜준 목도리였다. 막내 놈의 실력이 나쁘지 않아 꽤 괜찮은 목도리라, 올겨울에 잘만 쓰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멍청하게 잃고 말았다.

‘시발… 오빠나 차이솔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었어….’

터덜터덜 길을 걷던 차아라의 눈에, 곧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

한 남자의 초상화.

“…어.”

아까 봤던 건데.

‘…뭐, 뭐지? 여기에서 본 게 아니었잖아.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액자가 여러 개였나?’

액자는 반쯤 그림자에 가려져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방금 봤던 초상화와 같은 존재임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왜인지 공포 영화를 본 듯한 섬뜩함에 소름이 돋았다.

“어, 어어….”

아무리 F급이라고 해도 각성자는 각성자. 본능적인 위험을 느낄 정도는 된다.

“나 좃 됐나?”

그 천박한 말에.

그림자 속에 파묻혔던 초상화가 눈을 떴다.

“…….”

“…….”

어둠에 가려지지 않은 초상화의 입이 부드럽게 열렸다.

“실례했습니다.”

귀족적인 어조.

지독한 위화감에 차아라가 눈을 깜박이자.

“…….”

액자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

뭐, 와, 뭐.

‘뭔데.’

차아라는 자신이 주저앉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시, 시발….”

사람 살려.

눈 덮인 바닥을 짚은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단순한 추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차아라가 알았고 세상이 알았다.

헛소리지만, 내심 이런 헛소리라도 지껄이지 않는다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미친….”

차아라는 저도 모르게 깨달았다.

‘뒤질 뻔했구나.’

사실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방금 전 차아라 자신이 본 기이한 초상화가 매우 위험한 존재라는 것은 알았다.

그 존재가 ‘실례했습니다’라고 사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 조금만 덜 정중했더라면 차아라가 시체가 되었을지 누가 알겠는가.

“…뭐, 뭐지. 진짜 뭐지. 내가 뭘 본 거지.”

더듬거리며 이 자리를 벗어나려 몸에 힘을 주는 차아라의 손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다.

작고 딱딱한 감촉에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은 차아라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입을 뻐끔거렸다.

“…….”

덜덜 떨며 손을 다시 더듬자, 곧 차가운 알갱이가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한껏 쫄아든 마음으로 살펴보자….

“…보, 보석?”

그것은 검고 투명한 빛깔의 보석이었다.

“…뭔데….”

이 역시도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지만.

이게 방금 보았던 초상화가 준 선물이라는 것을, 차아라는 깨달았다.

“…….”

그녀의 부모는 죽기 전, 늘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고 말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섬뜩한 동화 같았다.

* * *

그리고 여기 섬뜩해진 한 사람이 또 한 명.

“스토킹은 나쁜 짓인데.”

지오는 스스로의 무례함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새벽의 골목을 그린 것까지는 좋았다. 다만 그림을 그리고 나니 액자 안쪽에서 어떤 여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고, 이 늦은 새벽에 위험하지는 않을지 잠시 걱정했을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지오 본인도 모르게 시선에 계속 따라붙었고….

“결국에는 스토킹을.”

동의도 없이 상대를 관찰하고 말았다.

“깜짝 놀랐겠지.”

평소에는 수집상 내부의 건물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거나, 혹은 액자를 통해 이동을 하고 다녀서 몰랐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지오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내가 움직이는 무언가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현실의 액자도 함께 움직인다.'

그게 차아라의 뒤를 쫓던 살아 움직이는 초상화 사건의 경위였다.

"사과의 의미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

멍하니 단발머리의 여성만 보고 있던 탓에, 그녀가 자신의 목도리를 빈민에게 넘기는 모습과 제 액자를 보고 겁에 질린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다. 여자가 하얗게 굳어 풀썩 주저앉을 때가 되어서야 지오는 정신을 차렸다.

아직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성에 대한 기특한 마음과, 혼자 이 늦은 시간에 괜찮은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과, 또 제 무례함으로 깜짝 놀라게 만든 것에 대한 미안함.

"……."

이 짙은 감정은 하나의 거래 물품으로 인정이 되었고, 지오는 차아라에게 보석을 선물했다.

"……?"

아니지, 잠깐만.

"오히려 무서워하나?"

제 무례함에 질려 정신이 없던 탓에 생각을 못 했다.

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초상화에 이미 잔뜩 겁먹은 고등학생에게 대뜸 말없이 선물을 준다면, 그걸 '와 보석이다'하고 주워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

차라리 쿠키 같은 걸 줬어야 했는데.

'하필 지금은 구워둔 쿠키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그만 보석을 그려주었군.'

시답잖은 간식거리를 주었다면 차라리 겁을 덜 줬을지도 모를 텐데. 지오는 액자 너머로 혼비백산해서 도망치는 단발머리 학생의 뒷모습을 아련하게 보았다.

"죄송합니다…."

그쯤에서 지오는 깨달았다.

"……."

나, 가끔 인격이 변하나?

드디어 '검은망토'로서의 자각이 생긴 시점이었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42)"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43)

제43화

아침이 되어, 다시 침대 위.

“…….”

“꾸륵?”

“흐으음.”

지오는 얕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자신의 인격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안 것은 아니었다.

“지오반니의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제 와서 뒤늦게 느낀 것인데, 지오는 종종 평소의 인격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것 같았다. 주로 ‘초상화’인 상태로 바깥의 사람들과 교류할 때 말이다.

“생각해 보면 직원분들을 칭찬하거나 대뜸 선물을 주는 것도 평범한 반응은 아니지.”

“꾸룩?”

“나보다 어른이신 분들도 계셨는데 동방예의지국의 건장한 남아인 내가 그런 식으로 굴었다는 건, 솔직히 지금 상태를 기준으로 고려했을 때 딱히 정상은 아니다.”

문제는 지오 본인이 그런 변화에 대한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확실히 ‘초상화’라는 정체성이 그를 변화시키는 게 맞기는 한 모양이었다.

“천지신명이시여.”

“꿍꿍….”

“초상화 안에서 머물 때는 평소와 같아서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

“꾸룩?”

“아니, 괜찮아.”

인격이 변하든 뭐가 변하든 지오는 고작 이 정도 신비함에 굴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기는 해야겠어.”

이대로면 조만간 안면도 없는 낯선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 같았다.

“내가 뭐가 된다고 그런 꼴불견 같은 짓을 할 수는 없지.”

누군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는 행위는 창작물 혹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때나 가능한 일이었다. 설령 연인 사이라고 해도 그런 대담한 터치는 지양하기에 지오는 몸가짐을 조신하게 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물론 나는 연인이 있어본 적이 없지만.”

“…….”

“어딜 하늘 같은 아버지를 그런 눈으로 보느냐.”

내가 애인 좀 없을 수도 있지.

“아무튼 인격에 변화가 온다는 게 그렇게 낯선 상황은 아니다. 서울 나들이를 갔을 때도 종종 지오반니로서의 자각이 커질 때가 있었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주제랑 상당히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말 그대로 정말 ‘인격’ 자체가 변한다는 느낌은 아니었다.

“그 정도라면 진작 알아챘을 거야.”

굳이 표현해 보자면, 잊고 있던 추억을 떠올리는 기분에 가까웠다.

“서지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맞기는 한, 그런 느낌….”

“…꾸르륵?”

“이중인격 아니다. 오해야.”

전생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일품인 사제 지오반니로 살았지만, 현생에서는 ‘혹시 웃는 방법을 모르냐’라는 말 좀 들었던 서지오로 살았던 것처럼. 뒤늦게 전생을 떠올려 가끔 잊고 있던 버릇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과 비슷했다.

“설마 초상화로서의 정체성 때문에도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지만.”

지오가 중얼거렸다.

“역시 해상도와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초상화의 몸으로 사람답게 굴려니 어딘가 오류가 생기는 거 아닐까. 말투도 더 딱딱하게 나가고, 행동이나 생각도 이상해지고….”

조심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았다.

“앞으로 자기 객관화에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자.”

“꿍.”

“귀찮다고? 허니, 너는 사회성을 좀 기르는 게 좋겠다.”

구시렁거리는 허니의 모습에 지오는 둥글둥글한 물새를 제 손 위에 놓고 이리저리 굴렸다. 찰진 물주머니처럼 데굴데굴 굴러다니는 허니는 썩 기분이 나쁘지 않아 보였다.

“즐겁니.”

“꾸르르르르.”

“그렇구나.”

인격의 변화에 잠시 놀랐던 지오는 그 태평한 모습에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다.

“아무튼 재밌으니까 됐어.”

이 변화무쌍한 삶이 재밌지 않다면 더 이상한 게 아니겠는가.

“그럼 일단 밥을 먹을까.”

“꾸르륵?”

허니가 의문을 표했지만 지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이나 반찬은 미리 만들어두는 게 좋아. 안 그래도 해체한 사슴에서 나온 뼈가 있으니, 한번 정리해서 사골 육수를 만들면 얼음 창고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을 거다.”

사골 육수는 그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한 끼가 될 수 있다.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체할 때면 할머니는 사골국에 파와 소금을 살짝 넣고 마셔보라 하셨지.”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체했을 때의 지오는 죽보다는 그런 사골국이 훨씬 속이 편했다. 건더기는 없어 위가 차지 않으면서도 기름진 국이라 그런지 뭘 먹는 기분은 들었던 것이다.

“뽀얗게 우려진 육수에 소금 살짝, 파 송송, 갓 지은 쌀밥 넣어서 먹으면 그게 곰탕이다. 진하게 우러난 사골 육수는 감칠맛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식사를 해도 든든한 거야.”

“꾸르르르르르…?”

“그건 안 매워.”

지난번 매운 소시지에 큰 거부감을 느꼈던 허니는 곰탕이 매운지 고민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고춧가루나 매콤한 양념을 넣고 섞지 않는 한, 곰탕이 맵게 느껴질 일은 없을 것이다.

“영 심심하면 고기를 넣거나, 아니면 밥 대신 소면을 넣어도 괜찮아. 둘 다 같이 먹어도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을걸. 원하는 대로 양념이나 후춧가루를 더 추가하는 것도 곰탕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사골 육수가 사용될 곳은 많았다.

“하다못해 매콤한 라면에 물 대신 육수 넣고 끓이면 그게 또 환상적인 맛이거든.”

“꾸륵! 꾸륵! 꾸륵!”

“그래도 육수 자체가 수프를 좀 순하게 만들… 그래, 이건 넘기도록 하자.”

매운 게 싫은 허니는 결사반대를 외쳤고, 아빠 되는 지오는 그런 허니의 의견을 존중했다. 세상에 뭐든 잘 먹는 인간이 있다면 어딘가에는 매운 건 조금도 못 먹는 나약한 물새도 있는 것이다.

“그럼 야채를 좀 더 넣어서 다른 국을 끓이는 것도 괜찮겠어. 대표적으로는 만둣국이 있으려나.”

지오가 중얼거렸다.

“그럼 떡국도 좋고. 이런저런 야채랑 햄을 넣고 한꺼번에 끓이는 부대찌개도 나쁘지 않은데… 무난하게 된장국이나 미역국에도 사골 육수가 들어가면 훨씬 맛이 깊어지지.”

“꾱?”

“부대찌개면 모를까 나머지는 안 매울 거야. 청양고추를 넣지 않는 이상… 그러고 보니 쌀밥을 지을 때 물 대신 육수를 넣으면 훨씬 맛있어진다는 걸 아니.”

“꾸르르.”

“그래, 육수 만들러 가자.”

지난번 주먹밥을 먹은 이후로 쌀밥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물새가 된 허니였다. 사골 육수로 지은 밥을 주먹밥으로 만들어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지 상상하는 게 뻔히 보였다.

사골을 보관해 둔 얼음 창고로 내려가던 지오는 문득 불안해졌다.

“그러고 보니 보통 사골 육수라고 하면 소의 사골로 만들지 않나.”

“…꾹?”

“글쎄, 지난번에 다듬고 정리해 보니 골수가 꽤 가득 차 있던데. 갓 잡아서 그런지 골간 단면의 붉은 경계도 뚜렷했으니 상태도 나쁘지는 않을 거야. 사슴이 워낙 큰 덕분에 뼈도 굵고 튼튼해서 사골 우려내는 재미는 있을 거고….”

“…….”

“하긴 우리가 언제부터 지구 식품만 먹었다고 이럴까.”

사골 육수를 우려낼 때 쓸 뼈는 보통 짐승의 다리 부분을 사용한다. 소였다면 우족이었겠지만, 사슴이라고 크게 다를까 싶어 일단은 정리를 해둔 지오였다. 그는 얼음 창고의 사골을 주방으로 꺼내왔다.

“그때 한번 씻기는 했지만 그래도 찝찝하네.”

골수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잘라낸 사골을 깨끗하게 씻어낸 뒤, 커다란 냄비를 꺼내 그 안에 전부 빠트렸다. 방울꽃으로 땔감에 불을 붙이니 금방 물이 끓어올랐다.

“핏물은 처음 도축했을 때 전부 빼둬서 불순물이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오지는 않을 거야. 거의 하루 넘게 뺐으니 꽤 깨끗한 상태일 텐데, 그래도 아직 안에 이물질은 남아 있어. 그걸 제거해야 좋은 육수가 나와.”

“…….”

“네가 지금 예상하는 바와 같이 더럽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란다.”

“꿍꿍꿍….”

“어차피 오늘 육수를 먹을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도 안 했다.”

끓는 물에 데친 후 씻어 완전히 깨끗해진 사골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시간과 정성의 싸움이었다. 괜히 ‘진짜’ 사골 육수가 비싼 게 아니었다.

“이대로 냄비에서 계속 끓이면 되지만, 너무 강한 불로 끓이면 안 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약한 불로 끓여야 육수의 감칠맛이 더 잘 우러나거든.”

“…….”

“끓이면 끓일수록 기름이나 잡다한 불순물은 끊임없이 떠오를 거야. 골수가 그대로 빠져나온 탓인지 보통 처음 끓인 육수는 너무 기름지고 진해서 먹기 불편하다고들 해. 그래서 처음 나온 육수는 먹을 수도 없으니….”

“꿍.”

“네가 먹을 거라고?”

“꾸륵.”

“돼지야.”

허니는 거세게 항의했지만 그런다고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쩍쩍 소리가 날 만큼 입안을 기름지게 만드는 처음 육수마저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애정. 이 집착.

“넌 이미 훌륭한 돼지다.”

“꾸르르르르르르르륽!!!”

“현실을 받아들여.”

기왕이면 좀 포동포동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댈 수 있을 만큼….”

정확히는 베고 누울 수 있을 만큼 포동포동해졌으면 좋겠다.

“…….”

“…….”

굳은 각오가 느껴지는 얼굴에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춘기인가.”

어떻게든 지금의 귀엽고 깜찍한 모습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신념이 느껴졌다.

‘지가 귀여운 건 알아서.’

물감으로 낳은 아들이라고는 해도 자식이 올바른 신념을 가졌다면 응원해야 마땅할 터. 지오는 물러서기로 했다. 뚱뚱한 동물은 귀엽지만 억지로 살찌우면 동물 학대였다.

“아무튼 당장 사골이 완성되지는 않을 거다. 불순물도 시간이 좀 지나야 올라오는 거지, 이 옆에 바로 붙어 있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꾸루룩?”

“그래, 그러니 우리는 또 다른 요리를 준비해야 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골 친구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을 주도록 하자.”

지오는 새로 물을 간 탓에 아직 끓지도 않고 있는 냄비를 보았다.

“잘은 모르겠지만 사골도 너무 여러 번 우리면 오히려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나무뿔사슴의 다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군.”

나무뿔사슴의 사골

나무뿔사슴의 뼈 중 다리 부분에 해당하는 뼈를 손질한 것. 골수가 가득 차 있어 기름지지만 3일 이상 우린 뼈는 완전히 국물에 녹아들어 보약이 된다. 견과류 혹은 소금기가 느껴질 만큼 강한 육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연단법: 깨끗하게 손질한 뒤 3일간 약한 불에서 우리면 골수와 뼈가 모두 녹아 보약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약은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간에게 사용할 경우 뼈의 이상이 모두 회복된다. 회복의 정도는 복용한 양과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달라진다.

“…….”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이 판타지 세상에 무슨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람.

“골수와 뼈는 알아서 녹아준다고 하니 우리는 간간이 불순물만 걸러내면서 그저 기다리면 되겠다. 저 자립성 강한 녀석들에게는 그만 신경 쓰고 이제는 우리의 점심 식사를 걱정해 보도록 하자.”

“꾸르르륵.”

“그럼 괜찮은 것이….”

잠시 고민하던 지오가 이내 마음을 정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군.”

“꾸룩?”

“낚시의 때가 왔다.”

한바탕 육고기를 먹어 질린 속을 물고기로 환기시켜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내 혀와 위장에 대한 예의지.”

그리고 서지오는 5살이라는 나이에 엥겔 지수(가계 소비 지출 중 식료품비 지출의 비율)라는 단어를 배운 진정한 대식가였다. ‘우리 집에 돼지 감자가 있네’라며 홀홀 웃으시던 할머니의 따듯한 음성이 아직도 기억났다.

그렇게 지오는 생선 먹을 궁리를 했다. 방법은 많았다.

“개울도 폭이 좁긴 하지만 상당히 깊은 편이라, 오며 가며 볼 때 크고 작은 생선이 있는 걸 확인한 적이 있다. 특히 물새들의 둥지도 다양한 생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개울이나 샘과 연결해 두었으니까… 사실상 둥지에만 가도 괜찮은 생선을 구할 수 있겠지.”

“…….”

그런 지오의 말에 고개를 갸웃갸웃하던 허니가, 곧 그의 귓가 옆으로 다가와 그의 볼을 콕콕 찔렀다. 대체 왜 달렸는지도 모를 만큼 작고 무해한 부리라 아프지는 않았다.

“무슨 일이지, 허니?”

“꾸르르르륵.”

“…아.”

그러고 보니, 지오에게는 또 다른 생선 수급처가 있었다.

“‘숨 쉬는 바다’가 있었구나.”

지오가 이전에 만들어둔 차원 문 중 하나인 ‘숨 쉬는 바다’는 말 그대로 바다에 잠긴 세상이었다. 지난번에 보았을 때 분명 온갖 생물이 넘쳐나기도 했고 말이다.

지오는 허니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똑똑하기는.”

“꾸륵.”

허니는 위풍당당해졌다. 매우 귀여웠다.

“너 이렇게 귀여워 봤자 네가 정복할 수 있는 건 네 아빠뿐이다.”

“꿍꿍꿍.”

“어디 가서 그렇게 귀여운 척을 해봤자 나만큼 잘 부려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에 나만큼 유능한 집사가 어디 있다고. 너는 아빠 옆에 잘 붙어 있으렴.”

오늘도 사이 좋은 가족이었다.

지오는 곧장 2층, 그중에서도 완성된 작품을 모아둔 창고에 들렀다. ‘숨 쉬는 바다’로 이동할 수 있는 액자가 그곳에 걸려 있기 때문이었다.

푸른빛으로 가득 찬 액자 앞에 선 지오가 천천히 녹아내리듯 스며들었다.

“…….”

그리고, 이내.

그는 물속에 있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버지.”

지오반니는 ‘숨 쉬는 바다’에 들어왔다.

“그렇게 오랜만은 아니던가요?”

“ ”

“잠시 바깥세상 구경 좀 하고 왔습니다.”

지오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멸망한 세계의 태양신이었다. 이전에 ‘지오반니’가 부탁한 적이 있던 그 외로운 노인 말이다.

그는 오늘은 어떤 이유로 방문했냐고 물었다.

“아.”

그리고 지오는 언제 어디서나 당당했다.

“낚시 좀 하러 왔습니다.”

생선 내놔.

“잘되면 나눠드리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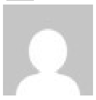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태양신은 기뻐했다.

역시 돼지들만 모인 게 분명했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43)"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44)

제44화

일명 '숨 쉬는 바다'는 말 그대로 물에 잠긴 세상이었다.

지오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태양마저 물에 갇힌 것처럼 보일 만큼 아주 높은 곳까지 물이 가득 찼고, 벽돌을 쌓아 만든 집이나 울타리 같은 인간들의 흔적 역시 그대로 잠겨 있었다.

그중에서도 지오는 낭떠러지의 경계선에 앉아 있었다.

"아예 물속이라 낚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꾸우우우룽."

"허니, 바닷물 그만 마시자. 몸이 과하게 커져서 생선들이 도망가잖아."

여기저기 수중 생물은 잔뜩 보였다.

몸이 굉장히 큰 소라게처럼 생긴 생물은 뚝딱뚝딱 엉성하게 움직이며 동료들과 붉은 지붕을 건넜고, 물뱀으로 보이는 순한 인상의 뱀 한 마리가 모래 속에서 뿅 튀어나왔다가 숨기를 반복했다.

이외에도 저 높은 물 하늘에서 두둥실 떠가는 커다란 고래 무리나, 한 쌍을 이루어 노래하듯 율동하는 알록달록한 해마. 벽돌 사이에서 자라난 해초 틈에 숨어 있는 물고기들....

"내가 낚시에 재능이 없는 걸까."

" "

"하긴 이런 상황에 낚싯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 "

"뜰채? 그것도 나쁘지 않군요."

몽환적인 광경을 구경하고 있지만, 잡은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수영을 아주 잘하지도 않는데."

'지오반니'의 세상은 바다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은 덕분에 인류의 90%는 수영에 능했다. '지오반니'는 그중에서도 수영을 유독 못하는 5%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아리아와 처음 만났을 때도 저를 바다에 빠트린 덕분에 인연이 이어졌죠. 개인적으로 파악한 바로도 아리아가 선한 아이라고는 말 못 하겠지만, 그래도 역시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 ”

“아버지께서 아리아를 원망하지 않으시니 제 마음도 편합니다.”

특유의 선한 미소를 지은 지오가 이내 난감한 표정이 되었다.

“하지만… 역시 생선은 어떻게 잡아야 하지.”

지오반니는 수영에 능하지 못했고, 서지오는 수영은 잘해도 이런 식으로 생선을 잡아본 적은 없었다.

어느 쪽의 특기를 살리든 보기만 해도 날렵함이 느껴지는 생선을 잡아채진 못할 것 같았다.

“…….”

“ ”

“예?”

다른 누구도 아니고 허니를 가리키는 태양신에 지오가 샛노란 물새를 돌아보았다. 무대 위 배우처럼 태양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허니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신의 계시가 따로 없었다.

“허니?”

“…….”

“허니, 잡을 수 있니?”

“…꿍….”

“왜 아빠의 시선을 피하지?”

분명 ‘할 수는 있는데 딱히 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얼굴에 지오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냥 일을 하기 싫은 거면 굳이 시키지 않겠지만, 또 노동 자체가 싫은 반응은 아니라 해석하기가 힘들었다.

“왜 싫다는 걸까?”

“꿍꿍꿍….”

“……??”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자의 모습에 태양신이 은근슬쩍 진실을 말해주었다.

“ ”

“…….”

“ ”

“…아.”

지오는 그제야 제 물새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새삼 떠올렸다.

아니, 물론 새 형상을 한 살아 있는 물은 절대 평범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허니는 지오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애가 진화를 할 수가 있다고?”

“…….”

“태양이시여.”

허니는 아주 유능했던 것이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진화를 해야 하는데 그 모습이 되기 싫어서 지금 이렇게 새침을 떠는 거였어…? 정말로? 오, 세상에, 그거 정말 멋지고 어이없다. 역시 귀여운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는 거구나.”

제 아들은 왕자병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너 그렇게 귀엽고 깜찍하게 굴어봤자 정복할 수 있는 건 네 아빠뿐이라고 30분 전에 말한 것 같은데. 뭘 어쩌자고 이렇게 대책 없이 귀엽지?”

“ ”

“죄송합니다, 제가 좀 주책이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도 손자가 아주 귀엽지 않으십니까?”

태양신은 그저 웃고 말았다. 가족 간의 사이가 아주 보기 좋다고 하더라.

명확한 해명은 듣지 못했지만 지오는 이쯤에서 만족하기로 했다. 지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답도 없는 상황에서 모두 힘을 합쳐 난관을 이겨내고 생선을 얻어 식사를 차리는 것이었다.

“…음….”

딱히 노동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에 지오는 그저 그들이 처한 현실을 말해주었다.

“허니.”

“꿍.”

“아빠는 수영을 못 해.”

“…꿍?”

“그래서 생선도 못 잡아.”

“…….”

“정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네가 생선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굶어야 한다는 거지. 그럼에도 거부하겠다면 오늘 점심을 어쩔 수 없이 저번에 먹고 남은 소시지를 구워야 한단다.”

그 말에 허니의 동공이 흔들렸다. 물로 이루어진 그 눈 대체 어디에 동공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허니가 그들이 처한 현실에 충격을 받고 호들호들 떨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지오가 심판을 내리는 재판관처럼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같은 메뉴를 연속으로 먹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야.”

미식가이자 대식가인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비참한 현실이었다.

“그래도 싫다면 이 아빠가 최대한 노력해서 소시지 볶음과 소시지 볶음밥과 소시지 국을 만들어 오늘 점심을 준비해 보도록 하마.”

“…….”

“…….”

“…….”

묘한 대치에 태양신이 질겁했다. 그가 생각하기에도 소시지 볶음과 소시지 볶음밥과 소시지 국은 조금 과한 것이다.

최근 지오가 차려주는 식사에 길들여져 있던 태양신은 초조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꾸….”

승자는 지오였다.

“꾸르륵.”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눈을 감으라고?”

“꾹.”

“아빠는 우리 아들이 어떤 모습이든 사랑할 수 있는데? 왜지?”

“꾹.”

“역시 사춘기가 왔구나.”

하긴 아무리 상대가 부모라고 해도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비밀은 있는 법이었다. 비록 자식은커녕 결혼도 연애도 못 해본 지오였지만 아이만의 공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알았다.

지오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까지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니? 아빠는 정말 많이 매우 궁금하지만 그래도 허니 네가 이렇게 하여금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눈을 감아줄 수 있어….”

“꾸르륵.”

“역시 사춘기 아이들은 쉽지 않군.”

무언가 커다란 물이 한차례 울렁거리는 소리와 바닷물이 헤집어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꿍꾸르르륵.”

“……?”

아 벌써?

“눈 떠도 되니 아들?”

“꾸르륵.”

“그래.”

그리고 지오는 보았다.

“오.”

바닷물을 머금고 뚠뚠해진 허니의 몸 안에 30마리가량의 물고기가 잡혀 있는 모습을 말이다.

“대단한데?”

“꾸륵꾸륵.”

“마치 훌륭한 돼지 같아.”

“…….”

“칭찬이었어.”

허니가 이토록 큼직해진 것은 ‘숨 쉬는 바다’에 온 이후로 줄곧 봐왔던 것이니, 이 모습이 허니가 ‘진화’한 형태는 아닐 것이었다.

‘아마 진화한 모습으로 물고기들을 삼킨 다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겠지.’

아무튼 웃기고 좋았다.

“돼지….”

“꿍.”

“물고기가 들어 있는 돼지….”

“꿍꿍꿍.”

"좋네."

지오반니는 특유의 쾌활한 미소로 환하게 웃었다.

"이렇게 든든할 수가."

지오는 손이 큰 편이었다.

* * *

오두막으로 돌아온 지오는 곧장 생선 손질에 들어갔다.

"정확히 33마리."

오늘 지오의 손이 조져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숫자였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고작 33마리의 연어만 한 생선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할머니께서 인정한 돼지로서 크나큰 수치였다.

"다행히 전부 식용이라고 하니 마음 놓고 손질하면 되겠지."

"꾸르르르륵."

"허니, 한 마리 뱉어라."

"꾹."

퉤엣.

아직도 커다란 허니가 물고기를 한 마리 뱉었다.

"......."

휘청거리며 물고기를 받아낸 지오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대체 무슨 도전을 하게 된 거지.'

아무튼 신선도가 생명인 수산물을 손질하는 시간이다.

비록 이 그림 속 세계에서는 음식이 썩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미 죽은 생선이 시간이 지날수록 비려지는 것까지 막아줄지는 모를 일이었다.

지오는 첫 번째 생선의 이마를 송곳으로 쿡 찔러 용궁으로 보내드렸다.

"음."

무협지의 살수 못지않은 날렵한 기술이었다고 자부한다.

"생선 좀 썰어본 보람이 있군."

"꾸룩?"

"배 위에서 갓 잡은 생선을 직접 썰어 먹는 맛은 각별하지."

애틋한 과거를 회상하며 지오는 손을 재빠르게 놀렸다.

날개 부분을 잘라내고, 비늘을 촤악촤악 시원하게 쳐낸 다음, 내장이 터지지 않도록 적당한 깊이로 칼을 넣고 그대로 배설구까지 잘라냈다.

"내장에서조차 거의 비린 냄새가 안 나는 걸 보니 정말 신선한가 본데. 자, 이렇게 내장을 빼냈으면 다음으로는...."

"꾸룽룽룽룽."

"허니, 내장만 먹으면 언젠가는 네가 내장만큼 비려질 거다."

아빠가 요리하는데 덥석 내장만 집어 가는 저 버르장머리는 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보다 물건을 구분해서 녹이는 방식은 언제 봐도 신기하네.'

자신의 몸에 무언가를 넣은 채로 스스로를 꾸미길 즐기는 물새들이다.

보석을 좋아하는 허니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단순히 꾸미는 용도가 아닌 음식의 경우 허니의 몸속에서 빠르게 녹아내렸다.

정확히 말하자면 녹는다는 말보다는, 몸에 들어간 양분 역시 물로 치환된다는 것이 더 옳아 보였다. 삼킨 음식이 점점 투명해지고 일렁이다가 이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니 말이다.

"……."

누구 아들인데 이렇게 재밌게 태어났을까.

'흥미로워라.'

밥 먹는 모습도 웃긴 걸 보면 허니는 지오 자신의 아들이 맞았다. 숨 쉬는 것 하나마저도 훌륭한 콘텐츠인 녀석 같으니.

"으음…."

"꿍?"

"언제 다 손질하나 각 좀 보고 있었다."

이미 손질되어 있는 마트의 생선이라면 마음 놓고 와장창 구매해 버리겠지만, 살아 있는 생선을 직접 손질하는 것은 꽤 품이 많이 드는 일이었다.

"계속하지."

내장을 빼내고 배를 비워낸 생선은, 사람으로 치면 갈비뼈 안쪽에 고여 있는 피를 전부 긁어내야 했다. 지오는 착실히 배 안쪽을 깨끗이 씻은 뒤 생선 분해를 이어갔다.

"……."

"……."

그리고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진짜 연어였나?"

"꾸룩?"

"아니, 연어가 아닌 건 맞아."

하지만 그 안쪽의 살이 매우 특이했다.

"질감은 흰살생선인데 색은 연어나 송어를 닮은 주황색이라니."

횟감처럼 분리를 해내니 보이는 속살은 마치 연어의 것처럼 조금만 힘을 주어도 부드럽게 뭉개졌다.

하지만 마치 광어나 도미 같은 흰살생선 부류처럼 결이 둥글고 쫄깃하게 나누어져 있었다.

"……."

우물.

"……."

맛도 연어와 비슷했다. 시원하게 느껴질 만큼 상쾌한 수박 맛이 나는 걸 보니 송어 쪽인 것 같기도 했다.

'식감은 그보다 훨씬 탱글탱글하고 쫄깃하지만….'

기분이 굉장히 묘했다.

아무리 판타지 세계라고는 해도 이런 식으로 자신이 알던 요소와 무언가가 동시에 겹쳐져 있는 건, 아무래도 좀 미묘하

게 웃기지 않은가.

“어….”

“꿍?”

“…맛있으니까 됐다.”

살이 부드러운 덕분에 손질도 빨랐다.

“몇 마리는 회로 썰고, 몇 마리는 적당히 손질해서 통째로 기름에 튀겨야겠네.”

“꾸룩?”

“생각보다 맛있어. 애초에 기름에 튀겨서 맛없는 음식이 나올 리가 없지. 허니 너는 걱정 말고 편안히 생선튀김을 기다리면 된다.”

“꾸르르르….”

“원래 매운 소스도 같이 넣으면 더 맛있는데.”

“꿍꿍꿍…!!!”

“그렇게까지 비장하게 싫어할 필요가 있나? 남은 생선도 많은데 하나 정도는 이 아빠를 위해 매운 튀김으로 진행할 생각이 없니, 아들아?”

그렇게 모든 요리를 마친 지오는 반쯤 혼절했다.

“…….”

“꾸루룽.”

“기록적인 하루였어.”

큼지막한 생선 33마리는 무리라는 결론이 났다.

강조되고 반복되는 노동은 지오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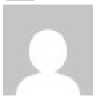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45)

제45화

지오는 뭐든 잘했다.

"그래서 요리도 잘합니다."

" "

"수영은 빼세요."

허점을 찔러오는 태양신의 질문에 지오반니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물 바깥에서만 숨을 쉴 수 있는 두 다리의 인간으로 태어나 어찌 수영까지 잘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치고 지금은 물 안에서 숨을 쉬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이 세상에서 '지오반니'는 죽은 인물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동화 중이기는 해도 본질은 '초상화'이기 때문일까. 지오는 물로 가득 찬 '숨 쉬는 바다'에서도 멀쩡히 호흡할 수 있었다.

"이건 물 자체가 인간도 호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 "

"과연 특별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리아가 해낸 업적 중 하나라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느껴지는 허함이 있었다.

"이 세계의 규칙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더는 제가 이곳의 주민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지금의 몸 상태는 그림 숲에 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 "

"그렇군요."

태양신도 긍정해 주었다.

"아쉽습니다."

지오반니는 특유의 선하고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이전과 전혀 다를 것 없이 단정한 미소였다.

"고향 하나를 잃은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

" "

"조금 슬프지만, 앞으로 차차 나아지겠죠."

지금은 이런 소리보다는 식사를 해야 할 때였다.

“아버지께서도 매운 것은 즐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 특별히 담백한 요리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식사가 물에 젖으면 속상할 것 같으니, 이번에도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이 물로 가득 찬 세상에 커다란 공기 방울을 내어달라는 소리였다.

지오반니를 제외한 모든 신도를 잃고 힘이 약해진 태양신이지만 잠시라면 그 정도 기적을 베푸는 것은 가능했다.

“…….”

그 기적을 식사하는 데 쓰는 건 남들이 보기엔 조금 황당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그래도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야지. 신은 그럼 밥도 먹으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까?”

“ ”

“이런 걸로 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불민한 자를 이 아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따끔하게 혼을 내겠습니다.”

“ ”

“식사하는 것 가지고 구박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태양신은 매우 행복해했다. 역시 돼지 신이 틀림없었다.

‘신도 살이 찔 수 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든 지오였지만 이내 내심 고개를 저었다. 실체는커녕 목소리조차 없는 무형의 상대가 밥 좀 먹는다고 살이 찌기를 바라는 건 너무 양심 없는 짓인 것 같았다.

아무튼 처음에는 기가 팍 죽어 시들시들해져서는 밥도 거부하던 양반이, 이제는 당장 내놓으라는 듯이 밥상까지 펼쳐주고 있으니 아주 마음이 좋았다.

지오반니는 흐뭇함에 환하게 미소 지었다. 태양의 사제로서 그의 주변에 따듯한 빛이 일렁였다.

“허니가 열심히 일을 해준 덕분에 오늘 식사가 아주 풍족해졌습니다.”

지오의 칭찬에 허니가 공기 방울 안으로 들어가 위풍당당하게 가슴을 내밀었다. 지오의 것뿐만 아니라 태양신의 칭찬을 원하는 모습이었다.

“꾸르르르르르.”

“ ”

“꾸룩꾸룩꾸룩!”

곧 허니의 몸이, 아주 잠시 밝게 빛났다.

“칭찬을 해주셨구나.”

“꾸릊.”

그건 햇빛을 닮아 있었다.

‘허니는 루루푸의 즙을 마시고 진화한 동물이라 그런지 태양신을 유독 좋아한단 말이지.’

그림 숲의 샘물에서 자라는 루루푸는 달빛과 햇빛을 받고 자라난 꽃이었다. 엄밀히 따지자면 해와 달에서 태어난 녀석이라 태양신을 좋아하는 것도 이해가 갔다.

‘꼭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 피우는 손자 같네.’

아무튼 귀여우니까 됐다.

지오는 태양신의 손길이라 할 수 있는 빛무리를 따라 궁둥이를 씰룩거리거나 날개를 파닥거리는 허니를 귀엽게 보았다.

허니가 특히 애교를 부려준 덕분에 태양신의 경계심도 쉽게 허물고 다시 그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더랬다.

“…….”

태양신과의 소통(1/1)

“그럼 나는 식사 준비를 해볼까.”

태양신이 열기로 일부 물을 증발시켜 준 덕분에 음식을 가져와도 젖지 않았다.

오늘 지오가 만든 것은 모둠회와 초밥, 따듯한 생선국과 거기에 어울리는 쌀밥. 그리고 반찬으로 쓰일 생선튀김이었다.

튀김은 담백하게 튀겨 새콤한 소스와 매콤한 소스를 찍어 먹을 수 있도록 각자 준비했으니 두 맵찔이의 반발도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슬슬 식사를 하죠, 준비를 마쳤습니다.”

“꾸루루루루!!”

가장 먼저 허니가 제 몸통만 한 날개를 펄럭이며 전투적으로 날아왔다. 그러고는 지오가 따로 놓아준 통생선튀김 앞에 섰는데, 생선이 허니의 10배만 했다.

“크긴 크군.”

솔직히 좀 웃긴 광경이었다.

“그럼 아버지도 내려오시죠. 따듯할 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 ”

지오의 말에 긍정한 태양신의 힘이, 곧 어디론가 퍼져나갔다.

따듯한 빛무리가 닿은 곳은 지오의 출입구인 액자 근처에 조신히 놓여 있던 백금빛 하얀색 곰 인형이었다.

그리고 곧, 어린아이보다 조금 작은 곰 인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꾸우.”

“어서 오세요.”

태양신이 강림한 것이다.

밥 먹겠다고.

‘돼지들.’

귀여웠다.

“꾸우, 꾸….”

“도와드릴까요?”

“꾸.”

곰 인형은 물속에 놓여 있던 탓인지 제대로 걷지 못하고 파닥거렸다. 낡고 해진 곰 인형의 몸으로는 물의 수압과 저항에서 벗어나기 힘든 모양이었다.

지오는 흔쾌히 곰 인형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들어주었다. 그러고는 태양신이 깃든 곰 인형을 그릇 앞에 놓았다.

“꾸우.”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매우 귀엽지만, 그의 아들인 지오반니의 입장에서는 조금 안쓰럽기도 했다.

‘고작 인형에 들어가도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이 약해지셨구나.’

물론 이 역시 태양신이 완전히 깃든 건 아니고, 식사가 가능할 만큼 일부만을 넣었을 것이다.

하지만 곰 인형에서 태양신의 자아가 표출되는 것으로 보아 신의 심장, 혹은 뇌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힘이 인형에게 깃든 것일 터였다.

그런데도 인형은 터지지 않았고, 태양신 역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신도가 지오반니 한 명인 만큼 그 힘이 전성기일 때와 비교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였다.

“…….”

고작 지오반니 한 명으로 태양신이 소멸을 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지만 말이다.

“그럼 식사하죠.”

“꾸우.”

“꾸루루루룩.”

한 명의 인간과 한 마리의 물새, 그리고 하나의 곰 인형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분명 안에는 솜밖에 없어야 할 곰 인형은 입을 쩍 벌려 덥석 생선튀김을 입에 넣었다.

지오가 새삼 감탄했다.

‘진기하다.’

매번 보는 거지만, 어떤 구조로 음미하고 소화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허니, 맛은 괜찮니? 생선은 잘 익었고?”

“꾸루룩.”

“그래, 이 소스만 피하도록 해. 너에겐 좀 매울 거다.”

혹시 몰라 상 가운데에 매운 소스를 놓기는 했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어차피 이 소스는 지오의 전용으로 만든 것이었다.

“…….”

어디 보자.

‘나는 회부터 먹을까.’

허니는 이미 한바탕 신선한 내장을 먹고 온 탓인지 튀김을 먼저 노렸다. 그리고 태양신은 자신을 모시던 인간들의 입맛에 따라 날것은 잘 먹지 않아 쌀밥과 생선국을 마시고 있었다.

왠지 남들이 안 하는 것부터 찔러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회는 신선할 때 먹어야 맛있기도 하고.’

지오는 곧장 회 한 점을 집어 들었다.

“…흠….”

손질하면서 많이도 보았지만, 역시 특이한 생김새였다.

‘연어와 같은 색감에 연어처럼 부드러우면서, 또 연어와는 다르게 살에 탄력이 느껴지는 게 역시 신기하단 말이지. 덕분에 튀겨도 연어만큼 부담스럽지는 않았어.’

살짝 간장에 찍어 먹으니 입안에서 쫄깃하면서도 사르르 녹아내리는 살점이 느껴졌다.

“마히따.”

“꿀.”

“꾸.”

다들 알아서 행복해하고 있는 반응을 보니 지오의 마음도 좋았다.

빠르게 사냥을 끝내고 싶었던 허니가 어디 몰려다니는 생선 무리를 한꺼번에 낚아챈 건지, 허니가 잡아 온 생선은 전부 이 연어의 탈을 쓴 광어뿐이었다.

하지만 워낙 그 맛과 식감이 특별해 물리지 않았다.

‘아예 기름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생선이 특이한 점이 있다면 회로 먹을 때는 기름지지만, 튀기거나 끓이는 등 열을 가하면 기름이 전부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었다. 덕분에 재료가 얼마 들어가지 않은 생선탕도 중후한 풍미를 줄 수 있었다.

“탕은 어떠십니까?”

“꾸우욱.”

“마음에 드신다니 이 사제가 기쁩니다.”

지오는 다시 허니를 보았다.

“허니, 너는….”

“꾸웅.”

“그래, 맛있게 잘 먹고 있구나.”

보기 좋다 이 돼지들아.

‘나는 일단… 차가운 것부터 먹고 그다음에 다른 걸 먹어야지.’

나중에 디저트를 먹을 걸 생각하면, 속이 좀 따듯해야 차가운 젤리도 먹기 좋을 것 같았다. 지오는 일단 지금 먹고 있는 회와 초밥을 마무리한 뒤에 다른 것을 시도하기로 했다.

과하지 않은 기름기가 육즙처럼 흘러나오는 회는 초밥과도 따로 놀지 않고 어울렸다.

‘광어 초밥은 쌀알이 따로 놀던데.’

광어 초밥을 싫어한다는 건 아니지만, 유독 꼬돌꼬돌하게 씹히는 광어의 살과 통통 굴러가는 초밥의 알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서지오는 광어 초밥보다는 조금만 씹어도 알아서 목구멍으로 넘어갈 만큼 부드러운 연어 초밥을 선호했다.

하지만 이 초밥은 달랐다. 공기가 섬세하게 들어간 초밥은 입에 넣자마자 그물처럼 넓게 펼쳐졌고, 위에 올라간 회는 이빨에 잠시 저항하다가도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단촛물 간을 한 밥과 약간의 기름기가 묻어 나오는 회는 조합이 훌륭했다.

“음.”

지오는 제 몫의 회와 초밥을 전부 먹었다. 다른 가족들이 남기면 전부 지오의 차지가 될 예정이었다.

‘다음은 튀김.’

태양신의 배려로 습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튀김은 쉽게 그 바삭함이 무너져 내린다. 지오는 회 다음의 상대로 생선튀김을 골랐다.

“…워낙 양이 많아 물릴까 봐 튀김옷은 따로 입히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기름에 튀기는데, 생선의 살도 통통하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지오에게 허니와 곰 인형이 ‘잘 먹는 와중에 뭔 소리 하냐’는 시선을 던졌다. 요리를 담당했던 지오는 순식간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잘 먹는 돼지만큼 내 마음을 따듯하게 해주는 존재는 없지.’

양잿물을 줘도 맛만 있다면 맛있게 먹어줄 양반들 같으니. 요리를 한 사람으로서 흐뭇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먹죠.”

“꾸우우.”

“꾸룩꾸룩.”

“…….”

그러고 보니 곰 인형의 울음소리는 허니를 참고한 건가?

‘매번 느꼈던 거지만, 상당히 비슷한데.’

그 이상은 배고파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아 뜨거.”

다행히도 아직 튀김은 따듯 바삭한 상태를 유지 중이었다. 태양의 가호를 아낌없이 뿌려준 태양신의 배려 덕분이었는데, 자기가 맛있게 먹으려고 한 것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았다.

바사삭—!

“오.”

과연 태양신, 한 점의 습기도 용납하지 않는군.

‘바삭하게 튀긴 껍질과 그 안의 촉촉한 육즙이 절묘해.’

일일이 손질하기 버거웠던 33마리의 생선이었던 만큼 통으로 튀겼는데, 그 덕분인지 내부는 번들번들한 육즙을 품고 있었다.

살에 머물던 기름기는 쪽 빠져나가 껍질에 머물고 있는데, 덕분에 마치 치킨을 먹는 것도 같았다.

‘튀겨서 그런가 살도 훨씬 쫄깃해졌고.’

불쾌할 정도의 탄력은 아니고, 적당히 기분이 좋아질 정도의 저항감이었다. 이빨로 크게 힘주지 않고 씹으면 그 결이 비단실처럼 사르르 풀어지는 것이 구강의 촉감으로 느껴졌다.

“…….”

소스 안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껍질에 소금기가 있어서 그런가?’

이 생선은 유독 껍질에 바닷물이 잘 스며들어 있었다. 물기를 제거하고 나니 남는 것은 소금기라, 어떤 원리인지는 몰라도 한번 튀겼는데도 그 간이 절묘하더라.

‘속살은 거의 단맛이 날 정도로 담백하지만 육즙이 풍부하고, 껍질은 특히 기름기가 많고 바삭해서… 굉장히 잘 어울려.’

매콤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바로 쌀밥이 훌훌 넘어가는 맛이었다.

“…….”

후루룩.

된장국처럼 끓인 생선탕도 아주 좋았다.

“…생선이 신선하니 이런 일도 해보네요.”

“꾸루룩.”

“그러네,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별로 대단한 소스를 넣은 건 아니었다. 그저 된장을 좀 풀어 넣은 물에 잘 손질한 생선을 넣고, 그 위로 무와 파만 좀 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칠맛이 나는 생선탕은 마치 오래 끓인 사골국을 마시는 것 같았다.

'생선이 조금만 비렸어도 이런 식으로는 못 하겠지.'

보통 생선탕, 이라고 하면 매운탕을 떠올리는 이유가 그거다. 갓 잡은 생선이 아니고서야 비리지 않은 경우가 없었으니 말이다.

특히 탕으로 끓이면 수산물의 비릿함이 더 올라오기 때문에 보통은 매운맛으로 그 비릿함을 덮고는 했다.

하지만 오두막 안에 바다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지오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갓 잡아 펄떡거리는 생선은 무척이나 싱그러웠고, 고작 된장 하나만으로도 깊은 풍미의 탕을 완성할 수 있었다.

"후우우…."

속이 뜨끈한 것이 이대로 자면 바로 저녁까지도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좋네."

"꾸욱?"

"예, 배부릅니다."

아, 맞다.

"사골을 끓이고 있는데, 완성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꾸우우우."

"예, 아버지께서는 사골국은 처음이시겠죠? 이 생선탕보다도 훨씬 맛이 깊은데…."

먹보들 특징.

먹으면서 먹는 이야기 한다.

오

Chapter (45)
Prev
N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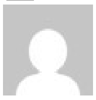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46)

제46화

오두막으로 돌아온 지오.

“…….”

그는 이제야 경복궁에서 마주쳤던 청년의 위험도를 파악한 뒤 시스템으로부터 받았던 보상을 확인하고 있었다.

“바빴다.”

보상: 인장

“먹느라 바빴어.”

시스템에게 자아가 없다는 건 알지만 괜히 변명이 나왔다.

“그래서 인장이 뭔가 했더니….”

지오는 대리석으로 조각이 된 듯한 스탬프를 바라보았다.

“…….”

지오는 은은히 빛나는 등에 스탬프를 가져다 대었다. 마치 얇은 이불을 투과하는 햇살처럼 청명하게 빛나는 것이 아름다웠다.

대리석과 흡사하지만 광질이 달랐다. 살아 숨을 쉬는 듯 희미한 고동이 들려오는 듯한 작은 기둥을 내려다보며 지오가 중얼거렸다.

“이걸 어디서 봤더라.”

“꾸루룩?”

“먹는 건 절대 아니니 탐내는 눈으로 보지 마라, 허니. 네가 아무리 보석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것 같다. 정 대리석이 탐나면 비슷한 석질로 자라난 나무가 있는 샘터로 가.”

“꿍꿍꿍….”

“귀여운 척해도 안 돼.”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던 서지오도 인격 휙휙 변하는 초상화로 진화시킨 시스템이다. 그런 녀석이 준 인장이 평범할 리가 없는데, 그걸 허니가 덥석 먹게 둘 수는 없었다.

“음….”

이리저리 살펴본 결과, 지오는 답을 내렸다.

“실링 왁스 인장이었나.”

편지지를 봉할 때 쓰는 감성 아이템, 실링 왁스. 그 촛농 같은 왁스를 녹인 뒤 꾹 눌러 예쁘고 멋진 문양을 새길 때 쓰는 인장으로 보였다. 일종의 도장이라는 것이다.

지오가 살던 시대에서는 실용성보다는 감수성을 택한 아이템이었지만, 그거야 둘째 치고....

“난 왁스가 없는데.”

“꾺?”

“정성 들여 꾸민 편지를 보낼 상대도 없어.”

“...꾸루....”

“눈물이 앞을 가리는군.”

나는야 개똥벌레.

“친구가 없지.”

“.......”

“...펜팔 친구라도 만들어 보라는 의미였던 걸까.”

대체 왜 이런 인장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왕 아무것도 모르는 김에 지오는 지가 원하는 대로 해석했다.

이건 친구 없는 지오에게 새 인연을 만들어 보라는 시스템의 배려가 틀림없었다.

“그럼 일단 유성운 씨에게 편지를 보내보도록 하자.”

가장 만만한 상대, 유성운.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현대인 유성운은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봉변을 당했다.

* * *

“.......”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유성운은 심장이 멎을 뻔했다.

“...웬, 편지가....”

거실 테이블 위에 못 보던 편지가 놓여 있는 것이다.

“.......”

주변을 둘러본 그가 중얼거렸다.

“침입의 흔적은 없는데.”

직원들의 안전에 신경을 쓰는 비사벌 길드장의 도움으로, 유성운이 머물고 있는 거처의 보안은 S급 헌터가 아니고서야 들어오지 못할 만큼 철저했다. 그런 집에 대놓고 이상한 편지가 놓여 있으니 놀란 것이다.

잠시 한숨을 내쉰 유성운은 무던하게 제 감정을 정리하고는 테이블 소파에 앉았다.

“어디 한번 볼까.”

바스락.

편지에서는 말린 풀에 가까운 소리가 났다.

“.......”

말린 풀이라.

"…지오?"

왜인지 편지를 보낸 상대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느낌이 그러네.'

편지 봉투는 한지와도 촉감이 비슷했지만, 그보다는 훨씬 건조했다. 훨씬 부드럽고. 지오의 눈만큼이나 새까만 겉봉투를 바라보던 유성운의 시선이 곧 편지를 봉하고 있는 왁스로 떨어졌다.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질감.

"오…."

확실히 지오의 것이 맞다.

'…보석의 결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촛농처럼 녹여 인장을 찍은 것 같아 보여. 이런 기행이 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동화에 나올 것처럼 몽환적이고 아름다워.'

이런 기이한 존재감은 지오에게서 유독 잘 느껴지는 것이었다. 묘하게 감성이 있다고나 해야 할까.

"인장이라…."

처음 보는 문양이었다.

"…초상화, 를… 조금 닮았나."

직사각형의 테두리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식물과, 별을 도형화한 듯한 테두리 안쪽의 문양. 어쩐지 비사벌의 갤러리에 걸려 있는 '지오의 초상화'를 떠올리게 만드는 인장이었다.

"취향이 참 확고하단 말이지."

하는 짓도 그렇고, 지오는 어디 판타지 중세 귀족 같은 느낌이 강했다.

'동화 같은 감성이 있다고 해야 할까.'

사는 곳도 오두막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참 평화로운 녀석이구나 싶었다.

"그럼 내용물을 봐야지."

연구할 가치가 느껴지는 인장이 다치지 않도록 살살 뜯어내자, 안쪽의 새하얀 편지지가 보였다. 편지지를 꺼낸 유성운이 찬찬히 새까만 글씨를 읽었다.

"……."

그러고는 이내 한숨을 푹 내쉬었다.

"…못 알아먹겠잖아…."

편지를 보낼 거면 지구의 언어로 써줘야 할 게 아닌가.

'…한국의 문화에 대해 나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편지도 한국어로 써줄 거라 기대했는데, 역시 거기까지 바라기는 어려운가. 지오가 진짜 한국인도 아니고.'

제가 해석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다시 읽어 보았지만, 역시 처음 보는 언어였다. 심지어 언어다운 규칙성이 느껴지지도 않아 유성운은 곤란함을 느꼈다.

"저주 편지 같은 거라면 골치 아파지는데 말이야."

지오가 대뜸 안 좋은 물건을 보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근원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짐작해도 될 만한 녀석들이 아니었다.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시 저주가 내려지는 아이템이라면 상당히 곤란해졌다.

"……."

그런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지는 않아 유성운은 조금 누그러졌다.

"…어차피 내일 보러 갈 예정이었으니까, 이것도 물어봐 볼까."

당장 터지는 폭탄만 아니라면야 큰 상관은 없었다.

유성운은 편지가 구겨지지 않게 조심해서 다시 입구를 봉했다. 전혀 접착력이 느껴지지 않는 푸른 보석 인장은 차갑고 매끄러웠지만, 나름 무게가 있는 덕분인지 붕 뜨지 않고 그대로 입구를 누르고 있었다.

"하여간 정체를 알 수가 없네."

이것도 '작품의 조각'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간 떨어지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니까…."

언제쯤 지오의 제대로 된 정체를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점이 조금, 아득했다.

* * *

"지오."

다음 날 새벽, 유성운은 지오를 찾았다.

"이거 말이야, 네가 보낸 편지 맞아?"

"예, 맞습니다."

"역시 네가 맞았구나."

"……."

초상화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무언가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다.

"편지에 제 이름을 적었는데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거…."

유성운이 난감한 얼굴로 편지지를 꺼냈다.

"신경 써서 편지를 보내 준 너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내가 모르는 언어로 되어 있는 편지를 어떻게 읽겠어. 지구의 언어가 아니라면 내가 확인할 수가 없다고."

"…그렇군요."

잠시 멈춘 지오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저는 당신에게 한국어로 된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 정말로?"

"예. 아마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초상화의 해상도가 어긋난다고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 음, 그건… 확실히…."

그럴 수 있기는 했다.

'편지의 언어도 규칙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지오의 편지는 마치 고장 난 타자기로 친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형식 자체는 정돈되어 있으나 그 세밀한 언어와 규칙은 혼란하기 짝이 없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지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다.

‘해상도, 라고 한다면 아마 예전에 대화했던 지오의 격에 관한 이야기겠지….’

유독 초상화 바깥의 지오에게서 느껴지는 큰 위압감과 공포심처럼 말이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 초상화를 담고 있는 액자가 일종의 필터 역할을 거치는 것 같기는 한데…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오라는 존재를 담아놓기 위한 필터인 걸까.’

그렇게 필터를 거치는 과정에서 언어가 섞이고 뒤틀렸다면 지금의 내용도 이해가 갔다. 지오의 격도 갈무리하는 액자인데, 아무렴 언어라면 더더욱 변형되지 않겠는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네.”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괜찮지만, 그래서 뭐라고 편지를 보냈던 거야?”

“특별한 내용 없이 그저 가벼운 감사와 안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너는 나름의 규칙이 있지 않았던가?”

순간 든 의문에 유성운이 가벼운 질문을 이었다.

“그림 안의 물건을 바깥으로 빼내려면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 하지만 난 대가를 준 기억이 없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인장 덕분에 규칙에 얽매이는 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장이라고?”

“우연찮게 얻은 인장입니다. 그것으로 표식을 찍어 전달하면, 굳이 대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듯합니다.”

“흠, 그래?”

역시 1:1의 규칙은 지오가 원해서 생긴 것이 아닌 모양이었다.

‘저런 식으로 규칙을 피할 방법을 알아낼 정도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지오의 규칙은 그 거대한 격이 범람해 현실을 망가트리지 않기 위한 일종의 방어선일 것이다. 아까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액자’가 필터 역할을 해준 결과물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인장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그 억제를 피할 방법을 구상해 냈다고 하면….’

연약한 지구인의 입장에서는 좀 섬뜩한데 말이지.

‘…지오가 누군가를 괴롭히길 즐기는 성격은 아니라고 해도 저만한 격의 존재는 의도치 않게 사람들을 무너트리는 수가 있다. 이 녀석에게 부여된 규칙이 만약 지구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규칙을 무시하려는 이 성질은 주의해야겠어.’

아무튼 조금은 안심했다. 기묘하게 섬뜩한 편지를 받고 잠을 설쳤는데, 역시나 유성운에게 해가 될 만큼 무서운 폭탄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깜짝 놀랐다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대뜸 모르는 편지가 놓여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편지가 그런 식으로 이동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편지를 잘 보내지는 않나 봐?”

“예, 다만….”

지오는 드물게 말끝을 흐렸다.

“새 친구를 사귀어볼까 해서.”

“…….”

느릿하게 심호흡을 한 유성운이 평소와 같은 어조로 물었다.

“…새 친구?”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유성운 씨뿐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연을 맺기 전에 유성운 씨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 보았습니다.”

“그건… 아주 잘한 일이네.”

근원의 존재라 오냐오냐하는 면이 있는 유성운이라지만, 그렇다고 지오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유성운이라 무난하게 넘어갔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기이한 기운이 감도는 편지를 보고 놀라 자빠질 것이었다. 특히 헌터도 아니고 민간인이라면 더더욱.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랄 테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고.”

목뒤를 쓴 유성운이 이어 물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인연’은 어떻게 찾아내게?”

계속 초상화 안에만 있는 지오가 어떤 식으로 ‘새 친구’를 만들겠다는 걸까.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여기저기 움직이거나 인터넷을 통해 친구를 사귀겠지만, 전부 지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다.

“그 편지는 혹시 임의의 대상에게 아무렇게나 전해지는 건가?”

“아니요, 받을 사람이 정확해야 제가 보내고자 하는 것이 배달됩니다.”

“그게 나 같은 경우였겠네.”

“새 친구를 어떻게 만들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흐음….”

딱 좋은 타이밍인가.

유성운은 비사벌 길드장과 나누었던 대화를 상기하며, 지오에게 물었다.

“지오, 혹시 다른 던전으로도 이동할 수 있나?”

“단순한 초상화 바깥이 아니라, 던전입니까?”

“응.”

“…….”

잠시 고민하는 듯 눈을 두 번 깜빡인 지오가 대답했다.

“제가 그려낸 세계의 경우….”

“응?”

그려낸 세계?

“방금 네가 그려낸 세계라고….”

“예, 제가 그려낸 세계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어?”

“하지만 유성운 씨가 말씀하시는 던전은 제가 그려낸 공간을 말하는 것 같지 않군요. 이미 지구에 그 입구가 존재하며, 지구인들도 방문할 수 있는 던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

정신이 조금 혼란했지만 유성운은 가능한 태연한 모습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렇지. 나 같은 헌터도 방문할 수 있는, 이미 지구에 입구가 존재하는 던전을 말하는 거야.”

지오의 위험도를 더 올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너는 초상화를 이곳저곳에 만들어내서 그걸 통해 회사 내부를 돌아다녔지? 그렇다면 다른 던전에서도 너의 초상화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럼 너도 그 던전을 방문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 부분은 아직 시도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지오가 이내 덧붙였다.

“하지만 재밌을 것 같군요.”

지오가 흥미를 보였다.

‘미리 염두에 두고 있어서 다행이네.’

의외로 흥미 중심의 생활을 추구하는 ‘지오의 초상화’다.

이런 질문을 했을 경우, 큰 흥미를 느낀 지오가 대뜸 시도를 해볼 수도 있으리라 미리 예상을 해두었다.

‘인간 혹은 그 이상에 상응하는 지능을 가진 탓인지 행동 양식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만큼 흥미를 보였으니… 가능하면 수습이 가능한 범위 내로 제안을 하는 게 좋겠지.’

비사벌이 말했던 것처럼, 유성운과 같은 일부 인간이 지오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 사심을 제외하고도 그랬다.

스스로를 인간으로 여기는 지오가 사회로 나가려는 것을 막을 방법이 객관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그는 단지 그림을 그려내는 것만으로 어디든 갈 수 있고 뭐든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방향이라도 정해주는 편이 나을 거다. 이동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해도 이동할 장소 정도는 추천해 줄 수 있으니까.’

유성운은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다.

“그럼 이런 곳들은 어때?”

“이게 뭡니까?”

“네가 방문해도 소란스러워지지 않을 법한 던전들을 추려봤어.”

가능하면 인명 피해가 가장 적을 장소로 골랐다.

“보상이 적은 데다 인지도도 낮아 헌터들도 잘 방문하지 않고, 네가 위험해질 만큼 무시무시한 던전은 아닌 곳들로….”

“…….”

“초상화 바깥의 환경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런 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이야.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던전을 방문했을 때 다른 헌터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럼 새 친구를 사귈 확률도 높아지고.”

유성운의 제안이 불쾌하게 들리지는 않았던 것일까.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겠네.”

“예, 감사의 의미로 드릴 것이 있습니다.”

“선물이야?”

“이전에 만들어둔 육포가 잘 건조되었습니다.”

“…그래….”

설마하니 육포까지 만들 줄은 몰랐다.

‘평범한 육포는 아닐 텐데.’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다른 의미로 제 명에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건강해져서 장생하다 못해 불로불사가 되어버리는 건 아니겠지….’

문득 섬뜩해지는 유성운이었다.

* * *

유성운에게 육포를 성공적으로 들려 보낸 지오는, 그가 준 던전 목록을 보며 고민했다.

“허니, 찍어보자.”

“꾸루룩.”

“네가 뱉은 보석이 멈춘 위치의 던전을 가보는 거야.”

“꾸꾸루루루루룩.”

“너도 좋아할 줄 알았다.”

유성운이 건네준 던전 목록은 내부의 사진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이미 헌터라는 사람들이 조사를 마친 던전인 듯했다.

이내 허니가 툭, 보석을 뱉었다.

“…….”

“…….”

“여기군.”

보석의 수맥

“…….”

보석?

“보석이라니.”

“꾸루루.”

“…알겠어.”

“꾸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알겠으니까 그만….”

“꾸루루루루루루루….”

“그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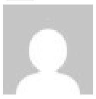
반짝이는 거라면 사족을 못 쓰는군.

‘얘가 한글을 아나.’

아무래도 노리고 뱉은 게 아닐지 매우 의심스러워졌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46)"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47)

제47화

“시발.”

F급 짐꾼 차아라는 한시도 욕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인생이 어쩜 이러냐, 진짜 좃같네... 다음 생에는 화목한 졸부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야지....”

광활하고 복잡한 개미굴 형태의 던전 속. 차아라는 홀로 남아 빌빌거리고 있었다.

“개같은 새끼들, 나를 놓고 가다니. 존나 저주할 테다.”

그녀가 버려진 곳은 발광하는 보석으로 가득 찬 어두운 동굴이었다.

발광하는 보석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어두울 수가 있냐 하겠지만, 이곳에는 빛을 먹는 먼지 같은 생물들이 서식했다.

환하게 빛나는 보석의 바로 근처에는 희미하게 그 배경이 보이긴 했지만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

차아라는 이토록 어두운 던전에 버려졌다.

“시발.”

역시 개같았다.

“...가다가 문지방에 발톱 찧고 손톱 찢어져서 뜯다가 피 나라. 길 가다가 발 헛디뎌서 넘어진 길가가 사람 많은 곳이라 개쪽당해라. 새벽 감성에 취해서 인터넷에 글 싸지르고 다음 날 깨어나서 자아 성찰 해라....”

버려진 이유는 뻔했다.

개미 눈물만 한 용기를 안고 당차게 던전으로 들어온 건 좋았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성과도 없이 식량은 떨어져 가고, 분위기는 나락에 처박히고, 결국 귀환석을 써서 던전을 빠져나간 것이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갔다.

‘돈도 시간도 낭비한 건 개빡치긴 해도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살아서 빠져나가는 게 낫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더라. C급의 던전이라고는 해도 던전은 던전. 언제 사람이 죽어나갈지 모르고, 특히나 이런 어두운 던전에서는 정신력이 눈에 띄게 취약해진다.

피는 이미 볼 대로 봤으니 나갈 방법이 있다면 나가는 게 현명했다.

“.......”

그런데 귀환석이 하나 부족했다.

“시발...!!”

귀환석 자체가 비싼 물건이라 충분히 있었어도 F급 짐꾼인 차아라에게 줬을지 모르겠다. 어쩌면 귀환석이 없다는 것 자체도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 진짜 개같아!! 결혼식 전날에 차여서 엉엉 울다가 평생 개백수로 살아라 시발롬들아!!”

차아라는 제 몸만큼 큰 보석 옆에 딱 붙어서 훌쩍거렸다.

이런 일이 흔한 건 아니었다. 아무리 요즘 세상 냉정하다고는 해도 이렇게까지 대놓고 짐꾼을 버리지는 않는 것이다. 그래도 나름 동료 아닌가.

“.......”

하지만 헌터들이 쉬쉬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은근히 암암리에 벌어지는 사건이기도 했다.

‘...아예 없는 일이 아니라서 더 문제라는 거지.’

차아라도 이런 짓을 당한 적이 처음이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던전의 방문객이 엄청나게 적다는 거고.’

그동안은 혼자 남겨진다 해도 뒤이어 들어오는 헌터들에게 굽신거리면 함께 탈출할 수 있었다.

‘자고로 헌터란 이미지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니까.’

헌터란 일종의 연예인인 만큼 인성 논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커서, 어지간히 성질 더러운 헌터가 아니면 불쌍하게 홀로 남겨진 짐꾼 하나 정도는 거둬주었다.

하지만.

“하 진짜, 아니, 이번에는 진짜 나 어떻게 하냐....”

이곳은 ‘보석의 수맥’.

C급의 던전으로 유난히 몬스터가 적고 보상도 안 좋아 헌터가 잘 방문하지 않는 곳이었다.

“일주일에 한 팀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거라고 하던데.”

길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랜턴이든 뭐든 빛을 전부 흡수해 버리는 미세한 생물들 때문에, 자칫하면 이 어두운 미로에 갇혀 죽을 수도 있었다. 출구를 찾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닌 탓이다.

그런 장소임에도 헌터가 이따금 방문하는 이유는 이 던전에 서식하는 한 몬스터 때문이었다.

“.......”

무드 등처럼 은은하게 발광하는 보석 몸의 자그마한 몬스터.

일명 ‘안티캣’.

“...병신들, 그놈 노린다고 할 때부터 내가 뭔가 쎄하다 싶었다....”

안티캣은 성인 남성의 손바닥만 하거나 그보다 조금 큰 크기의 고양이형 몬스터였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되는대로 홀리는 귀여운 외양에 비해 사람의 접근을 아주 싫어해 도망쳐 다니며, 동굴의 생물들과 같이 빛을 흡수해 주변을 어둡게 만든다는 점이 그것의 희귀성에 힘을 더했다.

‘그렇게 해서 붙잡는다고 해도 안티캣을 키워서는 안 될 텐데.’

몬스터를 키우는 것은 국가적으로 단속을 심하게 할뿐더러, 안티캣은 화가 날 시 사방의 모든 것을 푸른빛으로 불태우는 무시무시한 몬스터인 것이다.

'뭐, 그런 몬스터인 만큼 암암리에 더 사고 싶어 환장한 새끼들이 많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팀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는데. '보석의 수맥'에 갈 거라고 했을 때부터 튀었어야 했다.

돈이 궁하지만 않았다면 말이다.

"…진짜로 어쩐담…."

던전에 홀로 갇힌 지는 24시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주변이 어둡고 소리조차 먹히는 적막함 탓인지 정신이 크게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분명 넓은 동굴에 있는데도 사방이 막힌 곳에 갇힌 듯했다.

감옥 중에는 수감자를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좁고 어두운 방에 가둬두기도 한다던데 딱 그 느낌이었다. 그런 좁은 감옥만큼 몸이 불편한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지쳤다.

"으…."

슬슬 배도 고팠다.

'그렇다고 내가 혼자 이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것도 아닌데. 여기 출구가 어떤 상황에 등장한다고 했더라. 여러 명이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구출만 기다리자니 그건 그거대로 답이 없는 상황.

"……."

두 눈을 질끈 감은 차아라가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든 움직여나 보자."

말이 쉬워 하루가 안 됐다는 거지 맨정신으로는 상당히 긴 시간이었다.

목숨줄을 늘이기 위해 가만히만 있는 것도 질렸다. 이러다가는 구출이 오기도 전에 미칠 판이니,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몸을 움직이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그래도 보석의 수맥은 몬스터가 적은 편이야. 식량도 체력도 능력도 안 되는 나 혼자서는 공략은 꿈도 못 꾸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나타나는 유령 같은 몬스터들만 조심하면… 괜찮을 테니까."

보석의 수맥은 몬스터와 싸우는 것이 주가 아니다.

공략 방법도 '탈출구를 찾아라'가 전부인데, 그만큼 이곳은 개미굴처럼 복잡하고 또 어두웠다. 공격력보다는 정신력이 주가 되는 던전이니 차아라도 정신만 잘 차리면 안 죽고 나갈 수 있었다.

"……."

하지만 그것도 3시간 정도가 흐르니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

"아오 미치겠네."

배는 고프지, 목은 마르지, 잠은 오고 팔다리는 욱신거렸다. 지난번 공략에서 다쳤던 다리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되어 절뚝거리기까지 했다.

이대로라면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도망치지도 못할 게 분명했다.

'그렇다고 생명력 쪽쪽 빨아먹는 몬스터가 즐비한 곳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 건 멍청한 짓이고.'

따로 배운 것 없이 주워듣거나 직접 본 것밖에 없어 잘은 모르겠다만, 일단 '보석의 수맥'에 서식하는 몬스터는 전부 유령과 비슷한 모양새를 지녔다는 것 정도는 알았다.

같은 맥락에서 이곳의 몬스터들은 헌터들의 생명력을 빨아먹으며 공격하는데, 물리적인 공격력은 높지 않으나 정신 놓고 있으면 수명이 반으로 줄 수도 있었다.

'깨어 있을 때야 정신 차리고 내쫓을 수라도 있지….'

그렇게 터덜터덜 걷고 있을 때였다.

“…….”

저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다. 매우 미약한 빛이었다.

“…보석 기둥은….”

아닌 것 같은데.

차아라가 눈을 가늘게 떴다. 시력이 나쁜 편은 아니지만 상대가 얼마나 작은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뭐야?’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저건 동굴에 깔려 있는 발광하는 보석이 아니었다.

그것보다 훨씬 작고, 한눈에 딱 들어오는 동글동글한 형태에, 무엇보다 종갓집 아가씨처럼 총총총 사뿐하게 움직이는 네 개의 발.

“어.”

뾰족한 귀와 풍성한 털의 꼬리.

“어어….”

몸집은 새끼 고양이 정도로 작은 주제에 털만큼은 여느 장모종 고양이 부럽지 않은,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아기자기한 보석 털 고양이 안티캣이었다.

“…미친, 이걸 내가 보게 되네.”

먼저 나간 헌터들이 알게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하리라.

‘그 생각만으로도 피로했던 심신이 한껏 충만해졌어. 다들 사이좋게 엿 먹어라.’

차아라는 조금의 기운을 얻어 안티캣을 살폈다.

‘…내가 안티캣을 잡을 수 있을 리가 없고,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

쉬쉬하면 그만인 세상이라고는 해도 애초에 불법인 것이다. 걸리지 않는다면 모를까, 걸릴 경우 뒤 봐주는 사람 없는 F급 짐꾼 차아라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컸다.

그러니 차아라가 바라는 건 안티캣의 포획 따위가 아니었다.

‘저 녀석들은 출구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티캣도 차아라의 존재를 눈치챘는지 이쪽을 휙 돌아보았다.

“앗.”

“…….”

“…….”

알려지기로는 인기척을 들킬 경우 안티캣은 제 몸의 불을 끈 뒤 주변의 빛을 모두 흡수해 유유히 도망친다고 하던데, 다행히도 눈앞의 녀석은 그러지 않았다.

차아라가 내심 안도의 숨을 삼켰다.

‘…사, 살았다.’

저렇게 은은한 빛을 내는 안티캣도 차아라는 처음 봤다. 아니, 처음 들었다. 보통 안티캣은 주변의 빛을 전부 먹어치운 채 어둠 속에 숨어 인간을 피한다고 배웠으니 말이다.

꼬리를 살랑거리던 안티캣이 곧 총총걸음으로 몸을 움직였다. 부드러운 풍선이 튀어 오르듯, 꽃잎이 살랑거리듯 가볍고

우아한 몸짓이었다.

“…….”

따라가도 된다는 걸까.

‘…몬스터인 만큼 딱히 인간을 도울 의도로 불을 켜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를 공격할 의사는 없어 보여. 고양이의 습성을 상당히 닮은 몬스터라고도 하니 나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갑자기 공격을 당할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조심스레 안티캣의 뒤를 따르던 차아라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

“…….”

“……?”

안티캣은 제가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있는 듯했다.

‘…뭐지.’

기적과 같은 몬스터의 호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등급이 낮아도 차아라는 헌터였다. 몬스터가 인간을 좋아해 제대로 된 호의를 베풀 리가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안티캣은 인간을 싫어하기로 소문이 난 몬스터였다.

‘하지만 저 모습은 분명, 나를 유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

유인?

차아라가 주춤거리며 도망치려 할 때였다.

“안녕하세요.”

“흐, 흐아아아아아아악…!!”

철퍼덕—!

차아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뭐, 뭐뭐뭐, 무슨 뭐 무….”

“…….”

“…누, 누구세요….”

상황을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헐떡거리며 숨을 가다듬은 차아라는 저 이외의 누군가가 어둠 속에 있음을 알아챘다.

발광하는 보석의 바로 지척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던전이라, 안티캣이 향하는 저 너머에 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몬스터는, 아닌 것… 아니겠지?’

세상에 말하는 몬스터가 어디 있겠는가.

“누구, 누구신지….”

더듬더듬 물으면서도 차아라는 용기를 가지고 자리에서 어물쩍 일어났다.

짐꾼의 경우, 상대가 인간이어도 던전 내에서 심심풀이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따금 일어난다. 뭐든 조심하는 게 좋았다.

'제발 침착하자 나 새끼.'

그사이 안티캣은 '누군가'에게 다가갔다. 아까보다 조금 더 밝은 빛을 내고 있는 상태였는데, 푸르지만 온화한 빛과 한층 부드러워진 몸짓에서 안티캣이 품은 애정이 보였다.

그 작은 몸집이 지척에 다가가자 새까만 양복바지와 창백한 맨발만이 보였는데, 안티캣은 그 발목에 대고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리고 있었다.

"……."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었다.

"…안티캣이…."

사람을 싫어하기로 유명한 안티캣 아닌가.

"아, 저기, 혹시… 조, 조련사이신가요? 그…."

"……."

"어느 길드의 헌터이신지…."

조련사 정도 되는 사람이 프리랜서로 활동하지는 않을 거라 확신해 물었지만, 상대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기묘한 적막이 이어졌다.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아니, 애초에.

왜 나는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던 거지?

'내가 아무리 무능력한 헌터라지만, 이만큼의 거리에 사람이 있다면 모를 정도는 아니잖아….'

차아라의 뺨에 식은땀이 흘렀다.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이쯤 되니 새까만 양복바지와 그 아래의 창백한 맨발도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래, 그렇지.

"……."

이런 거친 동굴에 맨발로 오는 미친 새끼가 있을 리 없는데.

"……."

…생각을 해보자.

안티캣은 사람을 싫어한다.

'그건 조련사라도 다르지 않았다고 했어.'

조련사가 나서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이보다는 공공연히 안티캣이 팔려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안티캣은 극도로 사람과의 접촉을 혐오했고, 이는 몬스터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조련사도 마찬가지였다. 괜히 이름에 '안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 안티캣이 저렇게까지 애교를 부리다니….'

그 순간, 낯선 사람이 몸을 굽혀 안티캣을 안아 들었다.

안티캣의 자그마한 몸이 커다란 손에 폭 들어가는 게 차아라의 눈에도 보였다. 그것은 저항하지 않고 온전히 제 몸을 맡

겼다.

“…….”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설마?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겼는데, 차아라는 자신이 상대의 인사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렸다.

‘비명만 지르고 말았던가.’

묘한 기분에 차라아가 어색하게 고개를 꾸벅였다.

“그, 아, 안녕하세요….”

이런 상황에 대뜸 같은 말을 반복하다니. 어쩌면 아까 전의 인사에 대답하지 않았다고 재차 물어보는 것일지도 몰랐다.

절대로 평범한 반응은 아니었다.

‘예의에 집착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차아라는 주춤 뒤로 물러섰다.

상대를 자극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조심스러운 움직임은, 이미 그녀가 눈앞의 남자를 위험한 존재로 규정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뭔가 이상한데.’

사람을 싫어하는 안티캣은 남자의 창백한 손안에 안겨 뺨을 비비고 있었다.

아무리 남자가 잘 조련한 결과라고 해도 이상했다. 계약을 한 몬스터라고 해서 주인에게 당연히 애정을 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그들의 관계는 무척 건조하며, 혹은 증오로 연결되어 있기도 했다.

‘게다가 안티캣이 저렇게 사람 품에서 은은한 빛을 낸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사진조차 찍힌 적이 없을 정도로 희귀한 모습이잖아.’

그 빛은 마치 심해 속에서 먹잇감을 유인하는 초롱아귀와 같았다.

“…….”

안티캣이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는 없지만, 몬스터가 저보다 강한 몬스터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은 종종 일어났다.

“…어….”

그러고 보니 세상에는 말하는 몬스터도 존재했다. 너무 드물고 희귀한 경우라 감히 떠올리지도 못했지만, 분명 있는 것이다.

인간형 몬스터.

“제 이름은 서지오입니다.”

“…….”

“당신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둠 속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얼굴.

안티캣을 안고 있는 손과 그 가슴팍은 희미하게 보였다.

새까만 와이셔츠에, 새까만 정장에,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검은빛의 망토.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는 크고 두꺼운 손가락까지….

“…….”

차아라는 조용히 눈에 담았다.

단지 어둠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인데도 그건 마치 얼굴이 없는 인간처럼 느껴졌다.

“…….”

그리고 당연하지만.

세상에 얼굴 없는 인간은 없다.

“…저, 저는….”

“긴장하셨군요.”

“…….”

“제가 무서우신가요?”

“…….”

“아무런 위해도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음성은 지나칠 정도로 정중했다.

‘…이게 뭐야.’

소름 끼칠 정도로 좋은 목소리였다.

마치 날씨를 알리는 아나운서처럼 단정하고 선명했으며,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부드럽고 단호했다. 차아라는 문득 그 음성이 너무나 완벽해 오히려 이질적이라고 느꼈다.

혼란을 정리하는 시간이 꽤 길었는지, 흐르는 적막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듯 ‘그것’이 다시 한번 제게 말했다.

“겁먹지 마세요.”

차아라는 깨달았다.

“…….”

아.

저건.

“당신의 이름이 궁금합니다.”

인간이 아니구나.

“…….”

“…….”

“차, 차아라… 차아라예요.”

“반갑습니다, 차아라 씨.”

어둠 속의.

그보다 어두운 눈을 보았다.

“저와 대화하시겠습니까?”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47)"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48)

제48화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됐냐면.

"가자, 허니."

"꾸르르르르르."

"소풍이다."

별거 없었다. 그저 지오와 허니는 던전이라는 신박한 배경을 두고 소풍을 나왔을 뿐이었다.

"저 보석 뽑아갈 수 있을까."

"꾸르."

"쪼아는 지는군."

유성운이 건네주었던 서류 중에 있던 던전, '보석의 수맥'.

반쯤은 보석이라는 단어에 꽂힌 허니의 등쌀에 못 이겨, 또 반쯤은 지오 본인도 이 판타지스러운 피크닉을 즐겨, 유성운이 준 자료를 참고해 통로를 만들어 대뜸 이곳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

그러다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기도 했다.

"동화율이 전혀 높아지지 않네."

"꾸르릅?"

"글쎄, 이유는 잘 모르겠군."

초상화 안에 가만히만 있을 때도 오르던 '지오반니'의 동화율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꿈쩍도 안 하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다른 던전에 오면 동화가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건가? 완전히 멈췄다는 기분은 아닌데."

"꾸르르릅."

"액자?"

"꾸."

“네 말대로 통로의 문제일 수도 있겠어.”

허니는 ‘지오의 초상화’가 아닌 네가 임의로 만든 통로로 나왔기 때문에 연결이 끊긴 게 아니냐고 물었다. 지오는 왜인지 허니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하나 중요하지 않다.”

사람은 현재를 살아야 즐거운 법.

“귀신 들린 초상화인 나라도 그건 다르지 않지.”

“꾸룩?”

“초상화도 사람이야.”

지오가 우기자 허니도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다. 효심을 보인 것인지 보석에 눈이 팔렸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아무튼 그랬다.

의문은 의문으로 남겨두고, 지오는 한국의 헌터들이 종종 방문한다는 던전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좋네.”

어딘가 이질적으로 섬뜩하면서도 발광석의 영향으로 몽환적인 면이 있는 ‘보석의 수맥’은 훌륭한 관광지였다.

“멋있다.”

“꾸루룩.”

“마음에 들어.”

왜 이곳을 ‘보석의 수맥’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았다.

“온통 보석으로 되어 있군.”

마치 용암이 흘러 만들어진 동굴과 비슷한 형태로, 이곳은 보석이 흘러 만들어진 동굴 같았다.

큰 보석. 작은 보석. 투명한 보석. 불투명한 보석. 뾰족한 육각기둥의 보석. 동글동글한 포자 형태의 보석. 샹들리에처럼 위에서 뭉쳐 반짝이는 보석….

“아들, 너무 많이 먹지는 마라.”

“꿍.”

“배탈 난다.”

각종 보석이 난잡하게 모여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고 있었다.

‘가끔 튀어나온 끝부분이 빛나고 있기도 하고.’

지오는 유성운이 주었던 자료의 설명을 떠올렸다.

“굉장히 어두운 동굴이라고 했는데.”

“꾺.”

“생각보다는… 밝은 곳이지 않나?”

이 동굴의 공기 중에는 빛을 잡아먹는 미세한 몬스터가 바글바글하게 존재한다고 했다.

사람의 생기를 빨아먹고 사는 몬스터가 기척 없이 내부를 배회하고, 잡히지도 않을 만큼 작은 몬스터가 온갖 빛을 흡수한다.

소리마저 빼앗긴 듯 고요한 이곳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스스로 빛나는 보석 기둥들뿐.

“이라고, 했는데….”

지오의 눈에는 사방이 잘만 보였다.

“조금 어둡기는 해도 발광석이 있어 그렇게까지 시야가 막히지는 않아.”

“꾸루룩.”

“그래, 너도 있고.”

이것도 지오가 ‘초상화’이기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인가 싶었다.

‘그게 정확히 무슨 혜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구의 모든 헌터는 보지 못하는 것을 저만 볼 수 있다면, 아무래도 이상한 쪽은 지오가 맞았다.

태권도 흰 띠조차 없는 무해한 인간에 불과한 지오가 그런 이상한 능력을 얻은 원인으로는 초상화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

이거 날이 갈수록 인간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웃기니까 됐다.”

“꾺?”

“아주 흥미로운 인생이야.”

“꾸르?”

“내가 잘 생긴 탓이지.”

정말 ‘잘’ 생긴 탓인 거다.

뭐 좀 사람이 살다 보면 초상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평범한 인간의 기준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건 지오에게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인생은 컨텐츠의 연속이고 컨텐츠는 즐기라고 있는 법이지.”

“꾸르르….”

“내가 나의 인생을 즐기지 않을 이유는 없어. 그게 초상화의 삶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는 고작 이 정도 깨달음에 굴하지 않았다. 아무 생각이 없는 지오는 그대로 마음 편히 ‘보석의 수맥’을 관광했다.

그리고 감탄했다.

“지구의 관광 사업이 31년 사이에 이리도 많이 발전했구나.”

가끔 유령처럼 희미하게 비쳐 보이는 짐승 형태의 몬스터들이 있었는데, 왜인지 지오에게 가벼운 호의를 표현하고는 그대로 지나쳐 가더라. 그건 그림 숲의 동물들과도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었다.

그 녀석들도 가끔 내 발목에 뽀뽀를 하고 가지.

“귀여운 사랑둥이들 같으니.”

사랑과 우정, 평화에 기인해 판단을 마친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무해하다는 걸 알아봤나.’

아무튼 몬스터마저도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 더더욱 꺼릴 것이 없었다. 지오는 충만한 마음으로 ’보석의 수맥’을 돌아다녔다.

그 결과 지오는 끝내주는 관광을 아들내미와 함께 120%로 즐길 수 있었으나….

“…….”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있었다.

사람이 없었다.

“…인적이 드문 던전이라고 했을 때부터 알아들었어야 했는데.”

홀로 늙어가는 지오가 안쓰러웠는지 초상화마저 새 친구를 사귀라며 편지 소통 시스템을 마련해 주었건만, 정작 펜팔 친구 삼을 만한 인간이 보이질 않았다.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다.

사람을 만난다고 대뜸 인사만 나눈 뒤 친구로 삼을 수는 없을 테니, 새 인연을 만들기 위해 지오는 여러 차례 시도를 해야 할 것이었다. 펜팔 친구 사귀기가 이렇게 어려웠다.

‘시작부터 사람의 머리털 한 올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사랑과 우정과 평화가 충만하면 밥을 먹지 않고도 배가 부른 이 시대의 소식가 서지오는 큰 슬픔에 빠졌다.

“내가 29년 살면서 지금껏 친구 없는 외톨이였던 적이 없었는데.”

“꾸르?”

“가족은 제외한다. 내 물감으로 낳은 자식을 친구라고 부르기는 조금 그렇지 않겠니.”

“꿍꿍꿍….”

“불만스럽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이 아빠가 아무리 오픈 마인드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괜히 기운이 빠진 지오가 고개를 숙이자, 제 발 근처에 슬쩍 자리를 잡은 고양이 한 마리가 보였다.

“…….”

오, 고양이.

“…언제 온 거지?”

“믕망.”

“귀엽군.”

장모종인지 털이 부슬부슬하고 길었는데, 그럼에도 여태껏 봐온 ‘보석의 수맥’의 희끄무레한 몬스터들에 비해 무게감이 확실하고 단단한 모습이었다.

“간택의 때가 왔나.”

혹시 주변에 어미 고양이가 있는지 살핀 지오가 이내 다시 풀이 죽었다.

용기를 내어 사회에 나와 새로 얻은 인연이 손바닥만 한 새끼 고양이라니, 이래도 되는 걸까.

“…안 될 거 없기는 하지.”

뭐든 복작복작해지면 좋은 것 아니겠는가.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

납득한 지오가 고양이에게 물었다.

“여긴 원래 이렇게 사람이 없는 편이니, 꼬마야.”

“갸르릉.”

“귀엽기만 하고 대답은 없구나.”

새끼 고양이는 발라당 드러눕기만 하고 답이 없었다. 당장 내 배를 쓰다듬으라는 그 자연스러운 명령에 준비된 집사 지오는 쭈그려 앉아 작디작은 배를 살살 어루만졌다.

‘딱딱하고 차가워.’

골골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님께서 만족하셨다면 저도 기쁩니다.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귀엽군.”

“꾹?”

“작고 무해하니 귀엽지, 그럼.”

“…….”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의 말을 부정하는 것 같은데 진실이 어떻든 간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사람은 무지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말이 있고 실로 내가 그렇단다. 잔혹한 진실을 알고 싶지 않으니 내가 즐기도록 내버려 두렴.”

허니는 지오의 진심 어린 호소를 인정해 주었다.

“하지만 정말로 귀엽네.”

새끼 고양이만큼이나 작은 형태의 몬스터는 허니처럼 깨끗하게 투명하지는 않았다. 온몸이 보석으로 이루어진 몬스터는 내부에 촘촘한 결정과 균열이 가득해 마치 불투명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직접 만져보니 그 겉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털이 느껴졌다. 보석으로 된 몸은 허니와 달리 차갑고 딱딱했지만, 바닥에 드러누워 손길을 즐기는 고양이의 행동은 무척이나 정교했다.

“이런 몬스터도 감정할 수는 없을까.”

안티캣

알에서 태어날 때부터 개별 행동을 하는 보석으로 된 고양이형 몬스터. 지구의 생물을 극도로 혐오해, 그들의 존재를 처음 발견한 지구인들이 ‘안티캣’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연단법: 안티캣이 아주 드물게 토해내는 보석 털 공은 길게 늘여 천으로 짜내면 투명 망토가 된다. 그보다도 드물게 흘리는 안티캣의 눈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정신 안정제로 사용된다.

“오.”

지오는 깨달았다.

“하긴 청계천에 있던 몬스터도 감정을 해주었는데, 던전의 몬스터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겠군. 이런 성실한 스피드 웨건 같으니.”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달았다.

“…지구의 생물을 혐오해?”

그럼 나는?

“나는 지구의 생물로 쳐주지 않는 건가?”

“그르릉.”

“골골거리지만 말고 내 정체성에 대해 대답을 해보렴, 꼬마야. 내가 비록 지금은 내 신분과 부동산을 전부 정리당한 탓에 반강제로 초상화 속에서 살고 있는 처지라지만 이렇게 보여도 강원도 산골에서 맑은 정기 받고 자라난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아란다.”

“갸르르르….”

“손에 캣닢이 묻었나.”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니 당황스러울 만큼 뿌듯했다.

“준비된 집사를 알아봤군.”

아무리 몬스터라곤 해도 고양이의 습성을 지닌 탓인지, 고양이 쓰다듬기 베테랑인 지오의 손길이 아주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았다.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틈틈이 고양이 카페에 들렀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

“…….”

아무튼 사람은 없었다.

“흠.”

고양이만 귀여웠다.

“슬프군.”

“그륵?”

“새 친구를 사귀러 왔는데 주인님만 얻어서 돌아가다니.”

지오는 이미 이 안티캣을 납치해 갈 생각이 만만이었다. ‘알에서 태어날 때부터 개별 행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함께 지내는 가족은 따로 없는 것 같고.

‘지구의 고양이들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지만….’

이 친구는 몬스터라 그런지 부담이 조금 덜한 것도 있었다.

“여기와 환경이 비슷한 얼음 창고도 있고, 뭣하면 내가 비슷한 장소로 집을 그려줄 수도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꼬마야.”

“갸르르르.”

“동의한 걸로 알겠다.”

하지만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한 건 타격이 좀 컸다. 소심한 지오는 새 친구 사귀러 바깥에 나오는 것조차 크나큰 심력을 소모해야 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건 싫지만,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있었으면 했어.”

“그륵.”

“…….”

“그르르.”

“음?”

지오의 말을 알아들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안티캣은, 슬그머니 발라당 누웠던 몸을 일으키고는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오.”

지오는 직감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예감하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렸다.

‘동물이 이어준 우정이라니 이건 마치 동화와 같은 아름다운 상황….’

동심 가득한 만남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자니, 곧 안티캣이 인간을 유인해 왔다.

척 봐도 겁에 질려 아무런 상황 파악도 못 하고 단지 안티캣의 희미한 빛에 이끌려 나방처럼 질질 끌려온 어리고 가엾은 인간을 말이다.

“…….”

공양인가?

‘제물?’

에이 설마 아니겠지.

‘친구 사귀라고 데려다준 걸 텐데, 안타깝게 되었군. 친구로 삼기에는 내가 가르치던 학생들만큼 어려 보이니….’

아직 저를 눈치채지 못한 상대에게, 지오가 최대한 친절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흐, 흐아아아아아아아악!!”

이건 좀 상처다.

“뭐, 뭐뭐뭐, 무슨 뭐 무….”

“…….”

“…누, 누구세요….”

진짜 상처다.

“누구, 누구신지….”

“…….”

지오는 상대의 타당한 의문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시무룩해졌다. 기가 팍 죽었다. 후드에 숨은 허니가 ‘왜 우리 아빠 기를 죽이냐’며 화를 내는 듯했지만 무시했다.

이렇게 될 상황을 예견하기도 했었다. 아예 짐작 못 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다.

‘그래도… 나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상처를 안 받는 건 아니군.’

게다가 ‘수집상’에서 근무하는 경비들은 이 정도로 무서워하지는 않았다. 최근 ‘검은망토’에 대한 소문이 퍼진 덕분인지 대부분은 과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지오와 대화를 나눠주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이렇게까지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었다.

‘…심지어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학생을 내가 놀라게 만들어버린 건가….’

고등학교 교사였던 서지오의 마음이 순식간에 아파졌다. 가르치는 학생이었다면 달달한 간식 하나 주며 슬슬 달래 주었겠지만 지금 상황에 그러면 더 겁먹기만 할 것 같았다.

그런 지오의 마음을 알고 이러는 건지. 안티캣은 제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지오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아주 귀여웠다. 지오는 안티캣을 내려다보았다.

“…안티캣이….”

“…….”

“아, 저기, 혹시… 조, 조련사이신가요? 그….”

“…….”

“어느 길드의 헌터이신지….”

매우 조심스러운 질문을 하는 상대의 모습에 지오는 뒤늦게 깨달았다.

“……?”

아, 저 학생.

‘지난번 골목에서 마주쳤던 그 학생인가?’

친절하게도 겨울날 자신의 목도리를 노숙자에게 선뜻 기부한 마음씨 좋은 학생 말이다.

‘다시 생각해도 기특하군.’

당장 선행상을 줘야만 했다. 아니면 상점이라든가. 아니면 간식이라도….

‘헬한민국에도 기특한 새싹이 존재함을 알려주었던 기특한 학생.’

교사였던 만큼 서지오는 어린 학생들에게 약했고, 개인적으로 선한 사람을 매우 좋아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른 학생만큼 지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존재는 없었다.

‘어쩌지.’

상대가 그때의 착한 학생이었다는 걸 떠올린 지오는 더더욱 말이 궁해졌다.

‘그날도 나를 굉장히 무서워했던 것 같은데…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 졸도해 버리는 거 아닌가?’

게다가 지금의 지오는 그렇다 할 신분도 없었다. 다시 말해 상대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는 의미였다.

아무리 미쳤다고 한들 ‘사실 내가 31년 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미술 교사였는데 화재 사고 당시 귀신 들린 초상화가 되어….’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지 않은가.

“…….”

“…….”

하지만 내 말이 궁하다고 학생의 질문을 계속 무시하기만 하는 것도 어른의 도리가 아니었다.

딱 한 번 우연찮게 본 거지만 어쨌든 아는 얼굴을 만나서 반갑기도 하겠다, 지오는 조금 버벅거리는 뇌에 압력을 주어 말을 뱉어냈다.

“안녕하세요.”

“…아, 네.”

“…….”

“그, 아, 안녕하세요….”

아, 이게 아닌가.

‘잠들어 있던 31년 사이 내 안에 있던 사회성이 전부 메말라 버린 게 틀림없어.’

매우 어색해하는 학생을 보고 있자니 절로 미안함이 샘솟았다.

이렇게까지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상대가 어린 학생인 만큼 더욱 조심스러워진 것도 지오의 태도에 한몫을 했다.

지오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말했다.

“제 이름은 서지오입니다.”

할머니께선 상대를 누그러트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통성명이라고 하셨다. 지오는 하늘 같은 조부모님의 말을 굳게 믿었다.

“…….”

“당신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이상했지만, ‘초상화’로서 던전에 나타난 지오는 자신이 객관적으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었다.

자각했더라도 상당히 버벅거리고 있는 상황에 그럴싸한 대처를 하진 못했을 것이다.

"…저, 저는…."

"긴장하셨군요."

"……."

"제가 무서우신가요?"

"……."

"아무런 위해도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지오는 정말 선의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을 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상대 학생이 너무 긴장한 것처럼 보여서 '나는 무해하니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뿐인데….

"겁먹지 마세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지.

"……."

"당신의 이름이 궁금합니다."

이미 지나치게 정중한 말투에서부터 '초상화'로서의 자아에 먹힌 것도 있고.

'긴장이 풀리지 않는 건가?'

안 그래도 위험한 '지오의 초상화'가 인간으로서의 인격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유성운과 비사벌은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두렵고 아득한 존재로 느껴지는지 묘사해 준 적이 없었다.

그렇기에 지오도 자신을 '늦은 저녁 골목에서 마주친 우중충한 아저씨'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오해를 풀면 좀 낫겠지.'

그런 지오의 자기 객관화가 잘됐으면 얼마나 잘됐겠는가.

"차, 차아라… 차아라예요."

"반갑습니다, 차아라 씨."

지오는 친절함을 듬뿍 담아 물었다.

"저와 대화하시겠습니까?"

나의 열린 마음을 보아라. 내가 얼마나 무해한 존재인지 보여 주겠노라. 뭐, 그런 다짐이었다.

"……."

"……."

"살려주세요."

진심이라고 다 통하는 건 아니었지만 말이다.

Chapter (48)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49)

제49화

“…….”

“…….”

어, 어쩌지.

‘일단 지르기는 했는데….’

차아라의 다리는 갓 태어난 사슴처럼 후들거리고 있었다.

‘젠장.’

강자의 앞에서 한계를 모르고 비굴해지는 차아라의 무릎은 이미 꿇을 준비를 마쳤지만, 생사가 오가는 모든 상황에서 대부분 인간의 무릎은 주인의 생환을 장담해 줄 수 있을 만큼 큰 가치를 지니지 못했다.

‘특히 상대가 인간이 아닐 때는 더더욱 그렇겠지.’

일단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는 건 알겠다. 아니, 알 수밖에 없었다.

단지 얼굴이 어둠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인데도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니 이 아득한 위화감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는가.

‘…시발, 시발, 어쩌지. 그래도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건 나랑 이야기할 의사가 있다는 거 아니야?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단번에 죽여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차아라는 이른바 ‘배운 헌터’가 아니었다. 협회에서 주는 기본적인 교육만을 받았을 뿐, 몬스터의 정확한 생태나 대처법을 알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런 차아라도 인간형 몬스터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는 알았다.

‘인간형 몬스터를 만나면 C급 이하로는 그냥 안 아프게 죽기를 빌랬는데….’

집에는 돼지 같은 오빠 새끼와 토끼 같은 막내 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순순히 죽어줄 수 없는 차아라는 일단 빌어보기로 한 것이다.

‘일단 언어가 통하고 대화할 의지가, 있어… 있어 보이니까. 그치? 있지?’

차아라는 덜덜 떨면서도 입을 열었다.

“저, 저는… 저 짐꾼이거든요. 혹시 노예가 필요하지는 않으신지….”

“…짐꾼?”

“아.”

모든 인간형 몬스터가 인간의 문화에 대해 해박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뒤늦게 떠올린 차아라였지만, 상대가 그녀의 말에 관심을 표한다는 건 희소식이었다.

차아라가 반색해서 대답했다. 희미하게나마 살아날 길이 보였다.

“짐 들어주는 사람이요. 그, 그 이외에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저 청소도 잘하고요, 요리도 잘하고요, 심부름 같은 것도 끝내주게 잘할 수 있는데 진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온 힘을 다해….”

“저도 잘합니다.”

“…네?”

“요리와 청소를 잘합니다.”

“…….”

자신의 쓸모를 피력해 살고자 하는 인간에게 ‘나도 쓸모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심상인 걸까. 차아라는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에게 대체 무엇을 바라는 화법이지? 살려주지 않겠다는 건가? 나는 쓸모가 없다는 거? 아니면, 아니면….’

길다면 긴 짐꾼 인생, 남들 비위 맞추는 것에는 나름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차아라였으나 몬스터 앞에서는 그런 만렙 처세술도 쓸모가 없었다.

‘…아, 아니, 아직 포기하기에는 일러.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상대가 소통의 의지를 보이는 이상 분명 나는 저 몬스터가 뭘 원하고 뱉은 말인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인간은 승리한다….’

곧 차아라가 무언가를 떠올렸다.

‘…지금 이거 나랑 자기의 공통점을 찾아내려는 건가.’

아까 전의 통성명도 그렇고, 지금 말하는 것도 그렇고, 차아라가 자신에게 호의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뻔히 보였다.

“…….”

그게 너무 어색한 나머지 오히려 위화감만 커져서 그렇지.

“어, 그….”

머릿속에 반사적으로 떠오른 태클을 애써 참아낸 차아라는 순순히 강한 힘 앞에 굴복했다.

“…그러시군요! 굉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요리와 청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솜씨가 정말 굉장하신가 봐요! 너무 멋지다!”

“차아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

말문이 막혔다.

‘자존심이 그렇게 강하다는 인간형 몬스터 앞에서 나를 치켜올린 셈이 되어버렸군.’

진짜 귀환석이 너무나 절실했다.

‘오빠야, 막내야, 나 먼저 간다.’

고통스러운 죽음을 대비한 차아라가 주춤거리자 반대쪽에서 사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망토를 입고 있는 것에서 추측하건대, 아마 머리를 기울인 것 같았다.

‘머리가 있기는 있구나.’

묘한 안도감과 공포심이 동시에 들이닥칠 때, 몬스터가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노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막내야 미안해. 오빠 새끼야 사랑한다. 차아라는 다시 한번 개끔찍한 죽음을 각오했다.

‘아라 여기서 죽어요.’

부디 날 버리고 간 새끼들이 9시 뉴스에 등장해서 전 국민에게 몰매를 맞고 다시는 이 업계에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기를.

‘간식 사러 편의점 갈 때도 얼굴 안 가리면 날아오는 계란 맞을 만큼 더럽게 유명해져라 이 새끼들아.’

마음속으로 사랑과 저주를 퍼부으며 눈물 같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자 상대가 말을 이었다.

“직업이 노예입니까?”

“…아니요…?”

그냥 ‘아이고 저를 그냥 쥐 잡듯이 부려 먹으셔도 좋으니 부디 살려만 주십쇼 헤헤’라는 의미에서 꺼낸 말이다. 요즘 같은 법치 국가에 무슨 노예가 있겠는가.

“아, 물론 그게, 암암리에… 쉬쉬하면서 뭔가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불법적으로 노예를 사고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는 한데….”

“끔찍하군요.”

“그, 그렇죠. 끔찍하죠. 아유 나쁜 사람들이야 아주 그냥.”

“무섭습니다.”

“…….”

공포는커녕 감정 한 톨도 느껴지지 않는 정중하고 고상하기만 한 ‘무섭다’에 차아라는 정말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뭔가 감이 잡혔다.

‘…인간 흉내를 내겠다고 이러는 건가, 지금? 무서운 척을 하는 거야?’

정말 상상도 못 한 부분이라 뒤늦게 깨달았는데, 생각해 보니 그랬다.

‘아까 전의 인사도 그렇고, 통성명한 것도 그렇고, 나에게 공감하려는 모습도 그렇고….’

너무 정형적이라 오히려 뭘 의도한 건지도 모르겠고 마냥 이상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저쪽은 나름대로 인간처럼 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아니 아, 아니.

‘이거 억울하네??’

시발 흉내라고 해도 조금은 인간 같아야 ‘아 시발 그러시군요’ 하고 속아 넘어가는 척이라도 하지…!

‘이건 뭐 기출 변형도 아니고. 시발 출제자의 의도 정도는 알 수 있게 흉내를 내란 말이야. 누가 이런 거에 속아준다고.’

날 버린 리더 놈도 이것보다는 의도를 파악하기 쉬운 농담을 던졌다.

‘저래놓고서 아 나 지금 개쩌는 인간 흉내를 내고 있다고 뿌듯해하기라도 한다면 정말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

살면서 한번 느껴보기도 힘들 기묘한 억울함에 차아라는 더듬더듬 입을 열었다.

“예, 그, 그렇죠. 맞아요, 무섭죠.”

상대가 인간을 흉내 낸다는 것을 깨달으니 대충 상황 파악이 됐다.

‘내가 인사를 받아줄 때까지 대답하지 않거나 반복해서 말한 것도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기계 사용법을 익히듯이….’

인간끼리는 인사하면 같은 인사를 해준다, 라고 알고 있는데 차아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뭔가 고장 난 TV 때려서 제정신 만드는 느낌인가…? 답장 없는 AI에게 같은 질문 반복하는 느낌…?’

이렇게 일일이 따져보니 나름 인간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흉내 낸 것 같아 미안하지만 솔직히 조금도 이해가 안 갔다.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버벅거리는 차아라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슴팍에 안티캣을 안은 채로 쓰다듬던 몬스터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차아라 씨를 죽이지 않습니다.”

“…….”

“아프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슬프게 만들지도 않을 겁니다.”

“어….”

“무섭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검은망토를 두른 몬스터가 말을 이었다.

“친구를 만들고 싶었는데.”

“…친구?”

뭐지?

‘저승으로 끌고 갈 희생양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의미인가?’

단어 자체는 매우 온건했지만 상대의 분위기는 전혀 온건하지 않아 절로 의심이 갔다.

그 모습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숨이 턱턱 막히고 심장이 멈출 것만 같은 이 무거운 격의 존재가 ‘친구’를 원한다면, 절대 평범한 친교를 뜻하는 건 아닌 듯 보였다.

‘생긴 것도 장례식장 상주나 저승사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혹시…? 정말로 저승 동무를 구하는…? 그런…?’

차아라의 의심이 채 끝을 맺기도 전에 몬스터가 말을 이었다.

“제 친구로 삼기에는, 차아라 씨가 너무 어리군요.”

“…….”

어려서 안 된다니, 이거 진짜 저승길 동무 찾던 거 아닐까.

‘…아니, 그보다.’

어리다는 말과 약하다는 말을 동의어로 쓰고 있는 듯한 몬스터의 태도에 차아라가 희미하게 미간을 찌푸렸다.

‘나 정도면 어린 건 아닌데 역시 인간이 아니라 이런 건 잘 모르나.’

18살인 차아라 정도면 이미 결혼을 했어도 좋을 나이다. 충분히 어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차아라를 마냥 어리게 보는 것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이질감을 느꼈다.

‘…그래도 해치지 않겠다고 말했으니까….’

몬스터의 말을 믿는 건 어리석은 일이겠지만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여기 혼자 계십니까?”

“…아, 아, 넵. 혼자예요.”

설마 혼자라고 죽여버리는 건 아니겠지. 차아라는 덜컥 긴장했다.

몬스터들에게 자신만의 규칙이 있다는 건 세상 모든 헌터들이 아는 기초적인 지식이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엉뚱하고 잔인하게 느껴지는 규칙이 많은 것이다.

‘특히 인간형 몬스터는 그런 규칙성이 더 강하다고 했고….’

혼자 있는 헌터만 죽이는 몬스터라던가?

“저런.”

다행히도 그건 아닌 모양이었다.

“보통의 경우 던전의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행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어….”

사람을 무슨 개떼처럼 묘사하네.

진짜 말 한번 더럽게 몬스터답구나 싶었지만, 눈치 하나는 짱짱한 차아라였다. 지독하게 정중한 탓에 오히려 이질적인 음성 속에 희미한 호의가 느껴지는 것을 알아챘다.

그건 차아라 개인을 향한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족 전체를 향한 포괄적이고도 공평한 호의인 듯했지만….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감정이 없는 몬스터보다는 있는 몬스터를 상대하는 게 훨씬 덜 무서운 덕분이었다.

“…아니요, 잘 알고 계세요. 그게, 저도 원래는 혼자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 일행이 저를 버리고 가서요. 혼자 던전을 나갈 힘이 없어서 맴돌다가….”

“…….”

“…안티캣을 보고….”

아 시발, 그렇구나.

‘저… 저 검은망토가 친구인지 제물인지를 원해서 안티캣이 인간인 나를 물어다 준 거였어.’

그렇다면 저 인간형 몬스터는 이 던전의 알려지지 않은 보스 몬스터인 것일까?

‘몬스터끼리 협동하는 것은 심심찮게 볼 수 있지만….’

일방적인 명령을 듣는 건 그렇게까지 흔하지 않았다.

‘배운 게 없으니 시발 뭐라고 정의를 못 하겠네. 내 생에 인간형 몬스터를 보게 될 줄도 몰랐는데, 아 시발. 진짜 집에 가고 싶다.’

저절로 우울해질 즈음이었다.

꼬르륵—!

“…….”

더럽게 우렁찬 배꼽 알람이었다.

“…죄송합니다.”

“배가 고프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쪽팔림과 공포심이 동시에 찾아올 수도 있는 거란 걸, 차아라는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 상대가 워낙 인간의 기준에 맞춰주려고 애쓰니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쪽팔릴 여유가 생긴 모양이었다.

“최근 3일간 밥을 못 먹어서....”

“3일?”

“네, 버려진 지는 13시간이 좀 넘었지만. 밥은 그때부터....”

“3일?”

“.......”

뭐, 뭐지.

‘내가 뭘 잘못 건드렸나.’

인간형 몬스터는 협회의 교재에 나올 만큼 뻔한 몬스터가 아니었다.

인간형 몬스터는 개체별로 그들의 규칙이 달랐고, 그러니 눈앞의 보이지도 않는 몬스터가 어떤 엉뚱한 규칙을 가졌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몬스터는 차아라에게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다.

“나쁜 사람들이군요.”

“꾸르륵.”

차아라는 새로운 음성에 깜짝 놀랐다.

“흐억, 뭐, 무슨....”

“제 아들입니다.”

“네?”

“.......”

몬스터는 잠시 말이 없더니, 안티캣을 한 손으로 들고선 다른 한 손을 머리 뒤로 옮겼다.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차아라는 곧 방금 전의 울음소리가 어디서 들렸는지 알아챘다.

“허니.”

네? 뭐요?

“인사해야지.”

“꿍.”

“착한 학생이야.”

“.......”

‘착한’ ‘학생’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 이전에 차아라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몬스터의 창백한 손 위에는, 온갖 보석이 가득 든 달콤한 꿀 색의 작은 새가 놓여 있었다.

“.......”

...귀, 귀엽다.

“...이름이... 허니예요?”

“예, 뭅니다.”

“물어요?!”

전혀 안 그렇게 생겼는데 문단 말인가?

“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으니 물지 않을 겁니다.”

“어… 그렇구나….”

“허니, 이제 집에 가자.”

그 순간이었다.

화아악—!

“……!”

작은 새의 몸이 강하게 빛나더니, 동굴의 모든 것을 밝힌 것이다.

“…와, 와아….”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보석 동굴.

‘멋지다.’

환상적이었다.

살면서 한 번 보기도 힘들 아름다운 광경에 차아라는 제가 공포에 빠진 상태였다는 것도 잊고 감탄했다.

‘보석의 수맥이 원래 이렇게 생겼구나.’

갖가지 크고 작은 보석들이 한 몸처럼 뭉쳐져 있고 동굴의 길이 개미굴처럼 뚫려 있었다. 아름다우면서도 난잡한, 꿈처럼 몽환적인 혼란스러움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차아라는 보석의 수맥의 본모습을 처음 보았다.

“…….”

덕분에 ‘허니’가 얼마나 괴물인지도 알아챘다.

‘…보석의 수맥에 서식하는 어둠좀벌레를 전부 밀어낸 거야.’

물리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으나 A급 이상의 사제가 아니고서는 퇴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어둠좀벌레’. 일부 발광하는 보석의 빛을 제외한 모든 빛을 흡수하는 그것을, 저 작은 새가 한순간에 밝혀버렸다.

마치 거대한 햇살이 내려앉은 기분이었다.

“…….”

“차아라 씨.”

“…어.”

그제야 몬스터의 얼굴이 보였다.

“저희는 구면이지요.”

“…어, 어어…!”

그 말대로, 차아라는 상대를 본 적이 있었다.

“그때, 보석…! 초상화…!”

“기억하시는 것 같아 기쁩니다.”

“…몬스터였어요?!”

“인간입니다.”

“그, 그런 게, 아니 그렇긴 하겠지만…!”

차마 몬스터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아 차아라는 재빨리 수긍했다. 어떻게든 인간으로 보이고 싶은 모양인데, ‘구라치지 마라 네가 무슨 인간이냐’고 뻗대다가 죽고 싶진 않았다.

“…….”

머뭇거리던 차아라가 물었다.

“…저, 이제… 죽나요…?”

“안 죽습니다.”

“…….”

“착한 사람은 보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

차아라는 문득 깨달았다.

‘저 몬스터는… 착한 인간을 대우하려고 하는구나.’

아까 말했던 ‘착한 학생’도 그렇고, 차아라를 버리고 간 일행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배운 게 없는 차아라라고 해도 상대가 선악에 예민하다는 것은 파악할 수 있었다.

“지난번에는 놀라게 만들어 죄송했습니다.”

“어….”

“차아라 씨처럼 선량한 학생을 본 것이 매우 오랜만이라 그만 저도 모르게 뒤를 쫓고 말았습니다. 불쾌하셨을 텐데, 이번 기회를 빌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아니요, 그럴 필요는….”

“이번에도 놀라게 만들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상할 만큼 저를 무서워하던데, 사실 차아라 씨만큼 절 무서워하는 사람은 처음 보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혼란에 불편을 겪으신 점도 사과드리겠습니다.”

“…….”

거 더럽게 정중한 몬스터였다.

‘이렇게까지 깍듯하면 오히려 이쪽에 죄송스러워진다는 걸 모르나.’

이상한 기분이었다.

자신을 ‘서지오’라고 소개한 몬스터의 생김새는 평범한 인간 같았다.

‘아니.’

아주 잘생긴 인간 같았다.

하지만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검은망토를 감싸고 있는 위압감과 아득함이 컸다.

거인을 앞에 둔 생쥐가 어찌 상대의 외모를 칭찬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한들 한낱 미물의 입장에선 그마저도 평가할 정신이 없었다.

“…….”

그것은 매우 신사적이었고.

동시에 아득하기에, 이질적인 존재였다.

'...꼭 우주가 사람 흉내를 내는 것 같아서....'

도무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그때, '서지오'가 작은 몬스터들을 품에 고쳐 안으며 차아라에게 말했다.

"저는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 넵, 그, 그렇군요. 집에...."

응?

'집이 따로 있어?'

여기가 집이 아니었나?

'지난번에 준 선물 같은 것도 보석이라... 게다가 안티캣도 저렇게 따르고 있어서, 저 몬스터가 이 던전의 진짜 주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이 개미굴 깊은 곳에 또 다른 서식지가 있다는 의미였을까?

"......."

"만약 괜찮으시다면, 차아라 씨."

"네?"

"초대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초대?

"초대라니, 무슨...?"

"차아라 씨는 어립니다. 이곳은 어둡고, 먹을 것은 없습니다. 지치고 허기진 모습인데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식사를 대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저는 그...."

"해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한 번의 식사 후 서울로 돌려보내 드리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이는 제 자식인 허니를 걸고 말씀드리는 것이니 부디 의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되겠습니까?"

몬스터를 믿는 건 아니었다.

"......."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보이는 다정을 거부하기엔, '서지오'의 말마따나 차아라 자신이 아직 어리고 약한 모양이었다.

"...부탁드릴게요."

혼자 남아 있는 것도 지쳤다는 거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49)"

4.7 13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50)

제50화

고인 되신 선배님들이 가라사대, 몬스터는 믿지 말라 하셨다.

'틀린 말도 아니지.'

차아라는 헌터계에 뼛속 깊이 박힌 몬스터 불신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사실 '불신'이라는 말도 좀 이상한 게, 그 어떤 사람도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를 신뢰하지는 않잖은가.

'믿는 게 멍청한 거라고.'

신뢰니 뭐니 하는 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헌터와 몬스터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서로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관계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몬스터는 주로 던전에서 서식하며 현대에 와서 지구에 정착한 녀석도 있었다. 크기부터 취향까지 가지각색인 몬스터의 공통점은 바로 위험하다는 점이었다.

'몬스터는 기본적으로 지구의 생명체에게 적의를 품으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하찮든, 얼마나 강하든 상관없었다. 인간 이외의 무언가에게 일방적으로 적대를 당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정신을 황폐화했다.

"......."

그런 맥락에서, 차아라는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발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바로 앞에 단층이 있습니다."

"아...."

"눈이 어둡군요."

아니, 당신 눈이 밝은 거야.

'몬스터를 상대로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검은망토가 '허니'라고 불렀던 새가 환하게 세상을 밝혀주는 것도 잠시, 새는 다시 은은한 밝기로 돌아와 망토의 후드로 숨어버렸다.

덕분에 차아라는 안티캣의 빛을 따라 검은망토를 뒤따르고 있었다.

'워낙 본체 자체가 검어서 그런가, 가까이에 있어도 잘 보이지가 않네. 안티캣이 없었다면 정말 따라가지 못했을지도....'

아무튼 '서지오'가 자신을 배려해 주고 있다는 점은 알겠다.

'인간 흉내가 조금 서투른 것과는 별개로... 말이지.'

애초에 이런 차가운 동굴에 맨발로 오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사실 여기에는 지오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그가 가끔 초상화 바깥에서 맨발로 다니는 이유는 집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기 때문이었다.

그림을 그려 통로와 입구를 만드는 만큼 그가 이동하는 장소는 주로 오두막의 작업실이었는데, 그곳에서 곧장 던전으로 온 지오는 굳이 신발을 챙기지 않았다.

'보석의 수맥'이 어두우니 누군가와 마주쳐도 설마 제 발을 보지는 않겠거니 싶었던 것이다.

"......."

하지만 차아라의 입장에서는 그게 인간의 복장을 어설프게 따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기, 그런데, 집이라는 건...."

"거의 왔습니다."

"그, 그래요?"

나름 상냥한 대접에 차아라는 조금 안심했다.

'...꼬박꼬박 대답을 해주는 걸 보면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은 없어 보여.'

일반적인 몬스터는 이 정도 수준의 지능을 갖추지 않았으니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몬스터란 이지가 거의 없고, 사람만 보면 그 내장의 색을 보고 싶어 했다.

'인간형 몬스터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설령 몬스터가 인간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해도 인간의 관점에서는 재앙이었다.

그러니 이런 정중한 대접은 잘 이해가 안 가기는 해도, 차아라는 애써 두려움을 참으며 검은망토의 뒤를 따라갔다.

'어차피 이대로라면 아사해 죽을 상황이었잖아. 그럴 바에는 뭐라도 해보는 게 낫지.'

차아라가 애써 마음을 다잡을 때, 자리에 멈춰 선 검은망토가 입을 열었다.

그는 벽을 가리켰다.

"여기입니다."

"......."

액자?

'...숲을 그린 배경만 있고 사람은 없이 텅 비어 있는 액자야.'

그렇다면 그저 '풍경화'라고 해도 될 것을, 무언가 허전해 차아라는 이것이 온전한 작품이 아님을 느꼈다.

"...아."

그녀는 곧 그게 어딘가 익숙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혹시 지난번에 봤던...."

"예, 제가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 그려진 그림. 잘은 모르겠지만, 검은망토의 본질이 초상화라는 건 알겠다.

'예전에 마주쳤을 때도 초상화의 형태였던가.'

검은망토가 손을 내밀었다.

"들어가시죠."

"......."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대로 여기 남아봤자 아사해서 죽을 뿐이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쫄쫄 굶으며 올지 안 올지도 모를 새로운 헌터들을 기다리는 건 이미 질렸다.

누군가는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차아라는 눈앞에 놓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후우...."

조금 떨리는 손으로 상대를 붙잡았다.

"...아...!"

그러자, 잠시 정신이 멍해졌다.

차아라는 제 몸이 그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나처럼 느껴지지 않고, 몽롱한 부유감을 느끼다가, 기이한 감각이 수십 수백 번 스쳐 지나가고 나서야 그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

그 잠깐의 혼란은 없었다는 듯이 온화하고 선명한 공기가, 이성이 차아라를 반겼다.

"......."

"괜찮으십니까?"

"...네, 네."

그건 아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방금, 뭔가....'

하지만 분명 액자를 통과하면서 소름 끼칠 정도의 아득함을 느꼈는데.

"......."

그건 공포였다.

아니면 외로움인가.

학교도 다닌 적 없어 표현력이 좋지 않은 차아라는 순간 느꼈던 감각을 무어라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꽤 시간이 지나서야 평가하자면, 마치 잠시나마 우주에 홀로 남겨졌던 것과 같이 섬뜩하고 기이한 감각이었다.

"...여기는...."

"제가 머물고 있는 집입니다."

검은망토는 그렇게 말하며 품에 안고 있던 고양이, 안티캣을 내려두었다.

"허니, 네 동생이 될 테니 돌봐줘."

“꾸루루룩.”

“착하다.”

물로 이루어진 새에게 말을 거는 모습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았다.

“…….”

이 공간도 그러했다.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빽빽한 서랍장. 자연에서 나는 향기를 머금은 물감과, 나무를 깎아 만든 이젤에 걸쳐진 캔버스….

“…작업실?”

이지만.

‘왜 텅 비어 있지?’

단 하나의 캔버스도 그림이 그려진 게 없었다.

공기는 온화했다. 광경도 평화로웠고. 하지만 왜인지 대체로 인간들의 생활 양식과 비슷하면서도 하나둘씩 다른 부분들을 보며 차아라는 저도 모르게 섬뜩해졌다.

“예, 저의 작업실입니다.”

“실례가 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림이 없는데요.”

“그림은 늘 그리고 있습니다.”

“…….”

“이제는 그림이 아니게 되었을 뿐이죠.”

난해해서 더더욱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였다.

“완성된 그림은 알아서 떠나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통로가 아니었어요? 이게, 어, 그림이었다고요?”

“통로이기도 하고 그림이기도 합니다.”

무뚝뚝하게 대답한 몬스터는, 차아라가 나온 통로였던 ‘보석의 수맥’의 액자를 검은 천으로 가렸다.

그제야 차아라는 작업실 곳곳에 이처럼 천으로 가려진 액자가 몇 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구경하시겠습니까?”

“아, 아니요.”

“하긴 배가 고프시겠군요.”

상대의 말에 차아라가 눈을 깜박였다.

‘…뭔가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았나?’

아니, 목소리 자체는 방금과 다를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무섭지 않으십니까?”

“…네? 아, 네?”

“아까보다는 긴장이 풀리신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그게, 어, 그, 그게요….”

“…….”

차아라가 버벅거리는 모습에 몬스터는 고개를 기울이면서도 그녀를 기다려 주었다. 그 모습에서 또 한 번 배려를 읽어낸 차아라는, 곧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말을 이을 수 있었다.

“…네, 아까보다는… 덜 무서운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검은망토의 음성은 정중하고 조곤조곤했다.

“제가 바깥에 나갈 때면 사람들은 저를 무서워하죠. 제가 초상화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작업실의 문을 열었다.

“주방은 1층에 있습니다.”

“주방….”

몬스터의 보금자리에서 듣기에는 너무 가정적인 단어인데.

차아라는 묘한 어색함을 느끼면서도 용기를 내어 물었다.

“가, 같이 가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아라는 ‘보석의 수맥’에서 그랬던 것처럼 몬스터의 뒤를 따랐다. 그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지만 말이다.

‘…굉장히 밝네.’

정확히 말하자면 밝은 게 아니라 온화하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따듯한 공기로 가득 찬 이곳은 손발을 부드럽게 풀어 주었지만, 어딘가 가볍지 못하고 차분하게 가라앉은 면이 있었다.

“…….”

왜일까?

‘동화 같은 모습이잖아.’

나무로 지어진 벽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났다.

계단은 딱딱한 재질임에도 푹신하다는 착각이 들 만큼 부드러웠고, 햇빛이 나긋하게 들어찬 오두막 안은 잘 말린 이불에서나 날 법한 푹신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차아라는 이곳이 마치 무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둘러보셔도 됩니다.”

“네?”

“식사를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군요.”

그렇게 말하는 검은망토의 목소리는 어딘가 귀족적인 기품이 있었다.

“그동안은 오두막을 둘러보시며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과일차를 타드릴 테니 들고 다니시면 어떻겠습니까?”

“앗.”

과일차라니.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닌가?’

머뭇거리는 사이 주방으로 들어간 검은망토는 곧 유리잔 하나를 들고 왔다. 노을처럼 오묘한 빛깔이 일렁이는 차는 마치 마법 약 같았고, 동그란 얼음 덕분인지 시원했다.

“소파에 앉아서 드셔도 됩니다.”

“가,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형 몬스터는 이렇게 인간처럼 구는 걸까?

‘애초에 인간형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지도....’

유리잔을 받아 든 차아라는 조심히 소파에 앉았다.

“!”

굉장히 푹신했다.

‘비싼 소파인가 봐.’

그렇게 생각했지만, 몬스터가 인간의 규칙에 따라 가구를 살 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차아라는 조금 머쓱해졌다.

애초에 몬스터를 둘러싼 규칙을 인간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던 것이 멍청한 짓이었다.

“...향은, 되게 좋네....”

음식보다는 작품에 가까운 생김새였지만, 무척 부드럽고 달콤한 향이 났다.

“.......”

한 모금 머금자.

온화한 단맛이 입안을 감쌌다.

“우와....”

차아라의 창백했던 두 볼이 희미하게 붉어졌다.

‘...뭐야, 엄청 맛있잖아. 과일차는 다 이런가...?’

설탕 자체가 워낙 귀한 탓에 차아라는 과일차는커녕 과일 하나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순간 세상의 모든 과일차가 이런가 싶었지만, 그런 의문도 잠시 차를 홀짝거리던 차아라는 굉장한 사실을 깨달았다.

“.......”

배, 배가 안 고파.

‘아니, 여전히 고프기는 한데....’

위장을 포크로 긁어내리는 듯하던 끔찍한 공복감은 사라졌다.

‘뭐지? 진짜 포션이었나?’

하긴 인간형 몬스터가 사는 던전에서 얻은 과일차다. 그걸 인간들의 일반적인 과일차에 비교해선 안 될지도 몰랐다.

더듬더듬 상황을 파악해 나가며 차아라가 입술에 꾹 힘을 주었다.

“…으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실실 웃음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지만, 속이 간질간질한 것이 스스로 긴장이 풀린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일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그녀를 버렸던 팀원들을 향한 원망이 조금 가시는 기분이었다.

“…….”

과일차는 금방 마셨다.

‘…몸이 되게 가벼워졌어.’

차에 특별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나마 있던 부상과 피로가 씻겨나갔다. 덩달아 긴장까지 풀린 덕분에 차아라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다.

“천장이 엄청 높네.”

한창 긴장 상태라 몰랐는데, 지금 떠올려보면 계단을 내려오는 것도 꽤 오래 걸렸던 것 같다.

단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지만 규모 자체는 어마어마했다.

‘그런데도 드라마에서 봤던 부잣집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건 여기도 일종의 던전이라 그런 걸까. 어쨌든 몬스터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여기도 던전이라면 던전일 것이고….’

차아라가 눈을 느리게 끔벅였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봄 특유의 느릿한 바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의 지저귀는 울음은 꼭 동그란 구슬이 진동하듯 낭랑하고 청명했다.

“좀 졸리네….”

계속 생각하는 거지만, 역시 동화 같았다.

“…….”

그리고.

장례식을 닮아 있었다.

“…조용해서 그런가.”

슬픔이나 애통함과는 달랐다.

누군가의 비통한 울음을 닮지는 않았다. 덤덤히 애도하는 방문객을 닮지도 않았다. 단지 고인의 사진 앞에 고요히 놓인 여러 송이의 흰 국화처럼 풍성하고 무겁게 느껴졌다.

“음….”

형용하기 어려운 공기였다.

‘불편하지는 않아.’

그저 안온했다.

지독하다고 생각될 만큼, 말이다.

“차아라 씨.”

“…….”

“차아라 씨.”

“아앗, 네넵…!! 차아라 헌터 여기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 그렇게까지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방에서 나온 몬스터는, 어느새 망토를 벗은 채였다.

“…….”

“거동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 아니요.”

와.

‘미친.’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가 있구나.

‘아, 아니, 몬스터이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진짜 잘생기기는 했네.’

박물관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게 왜 이런 오두막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지. 너무 잘생겼다 보니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여러모로 인간 같지가 않았다.

그런 차아라의 생각을 모를 몬스터는 특유의 무뚝뚝한 표정과 음성으로 말했다.

“가벼운 식사를 준비했는데 어떠실까 해서.”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아라는 의외의 광경을 보게 된다.

“…….”

“쌀밥 좋아하십니까?”

“없어서 못 먹죠. 없어서 못 먹기는 하는데….”

“싫어하는 반찬이 있습니까?”

“얻어먹는 주제에 그런 투정은 부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니. 그….”

“문제가 있습니까?”

“…한국인이셨어요?”

이 칠첩반상은 뭐지?

“저는 저를 서지오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이름 같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무서워 죽겠는데 한국 이름이고 자시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저 귀족처럼 단정하고 음울한 낯에 이런 포근한 밥상을 차려줄 줄도 몰랐다.

‘그래서 서지오였나.’

이름을 세 글자로 지은 이유가 한국의 느낌을 따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지금 처음 알았다.

평소 흔히 먹지 못하는 새하얀 쌀밥과 갖가지 반찬이 즐비했지만 차아라는 기시감을 느꼈다.

‘…왜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의 기운이 느껴지지?’

차아라는 조금 기분이 미묘해졌다.

서지오라는 인간형 몬스터의 고상한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안 어울려야 정상인데,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서 더더욱 위화감을 느낀 것이다.

“…….”

차아라는 문득 제 감정 중 하나를 깨달았다.

“편하게 드세요.”

“…네.”

아주 희미하고, 또 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라면 꽤 이질적인 감상이겠지만.

그건 일종의 ‘경외’였다.

“감사합니다.”

인간이 아닌 대상에게 품을 수 있는 감정 말이다.

‘…이런 친근한 밥상을 받아놓고 좀 웃기는 소리이기는 해도….’

차아라는 문득 고개를 들어, 서지오의 눈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검은 눈이 보인다.

“…….”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의 그것은 꽤 인간 같았다.

“잘 먹겠습니다.”

다시 말해, 결코 인간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공포가 아니니 경외라 말할 수밖에.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50)"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51)

제51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서지오는 누구 배곯는 꼴을 못 봤다.

'끽해야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이 밥도 못 먹고 노동을 한다?'

솔직히 천재지변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 자연재해야 지구가 심심해지면 이따금 터트리는 자연적인 이벤트지만, 아이가 배를 곯고 있다면 그건 인간들의 문제였다.

'용서 못 해.'

한때 교사이기까지 했던 지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맛이 괜찮습니까?"

"어엄청 맛있어요…!!"

"기분 좋게 드셔주시니 제 마음이 좋군요. 훌륭하십니다."

잘 먹는 것 좀 봐.

'한 5kg 쪄서 나갔으면 좋겠다.'

어린 학생이 제가 해준 밥을 맛나게 먹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없었다.

'참 복스럽게 먹네.'

지오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숲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기분에 감응해 오두막의 공기도 함께 훈훈해졌다.

원래도 난생처음 먹는 만찬에 들떠 있던 차아라는 그것을 금방 알아챘다.

'…어, 뭔가 가벼워졌어.'

장례식에서 중환자실 정도의 공기로 분위기가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나저나 이거 엄청 맛있다….'

차아라 왈 일명 '배운 헌터'였다면 이 기현상에 오히려 겁을 먹었을 것이다.

어렴풋이 이 오두막이 던전이며, 던전의 주인이 눈앞의 검은망토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보스의 기분에 따라 환경이 변하는 던전은 그리 흔하지 않았다.

보스의 기분에 맞춰 변화하는 던전이란 일종의 생물과 다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지금 차아라는 '지오'라는 몬스터의 배 속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이라고, 아마 그녀가 조금 더 아는 게 많았다면 거기까지 생각이 닿았을 것이다.

하지만 차아라는 제게 훌쩍 다가온 기적 같은 호의에 정신이 없었다.

“밥만 먹는데도 되게 맛있네요. 저기, 이건… 쌀이 맛있는 건가요? 아니면 요리를 잘 해주셔서 이렇게 된 건가요?”

“쌀은 평범합니다.”

지구에 살 때 먹었던 쌀의 포장지를 그려서 만든 쌀이니 말이다. 오랜만에 입시 미술 하는 기분이라 좀 신박한 기분이었더랬다.

‘아무튼 애들 긴장 풀어줄 때는 맛있는 것만 한 게 없지.’

사실 이건 굳이 애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다. 초상화의 영향으로 지오를 무서워하던 사람들도 맛난 간식 받고서는 조금 긴장이 풀리지 않던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었다.

지오는 이 비쩍 곯은 학생을 통통하게 살찌울 의지를 확고히 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건 육수를 넣고 지은 밥입니다.”

“육수를 넣고…?”

“물 대신 육수를 넣었습니다. 흔히 쓰는 돼지나 소가 아니라 사슴의 뼈를 활용했다는 점이 조금 다르겠지만, 정확히 말해 이 밥은 사골 국물을 넣고 만들었습니다.”

“…사골 국물이면….”

되게 비싼 거 아닌가.

‘도시 사람들이야 식당에 가면 먹을 수 있다지만, 우리 같은 지방 사람들은 마을에서 커다란 소 한 마리는 잡아줘야 운 좋으면 맛볼 수 있는 건데….’

그걸 다른 것도 아니고 밥을 짓는 데 쓰다니, 괜히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지.’

배는 고프고 식사는 맛있어 별생각 없이 먹었는데, 이거 상상 이상으로 과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내심 식은땀을 흘리는 차아라에게 지오가 말했다.

“꼭 사골 국물이 아니더라도 멸치 육수나 닭 육수, 혹은 채수를 넣고 만들어도 맛이 좋습니다. 기름진 걸 싫어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쪽이 좋겠습니다.”

“어, 아니, 그….”

“양은 꽤 많으니 원하시는 만큼 드셔도 됩니다. 다만 체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꼭꼭 씹어 드시는 것 같아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과식하면 속이 안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멸치나 닭까지도 부담스럽지만, 어찌저찌 채수 정도면 집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텃밭에서 기르고 있는 채소들이 있으니 말이다.

‘막내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이런 밥 한번 해줘야 하는데.’

워낙 빠듯하게 살다 보니 쌀밥을 먹는 것 자체도 힘들었다. 가장 흔하게 먹는 건 구운 감자나 고구마고, 마을 이장님이 이따금 주시는 계란 정도면 호화로운 수준이었다.

‘채수 정도야 텃밭에서 이것저것 뜯어 오면 어떻게든 되겠지만, 쌀은 어떻게 해야….’

내심 중얼거린 차아라는 이내 생각을 포기했다.

“…….”

일단 나부터 맛있게 먹자.

‘배고파 죽거나 유령들한테 말려 죽을 줄 알았는데 이런 행운이 올 줄이야.’

배가 든든해진 덕분인지 어느새 차아라의 긴장은 많이 풀려 있었다.

상대가 인간형 몬스터인 탓에 완전히 풀어질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인간형 몬스터가 제 규칙도 아닌데 번거롭게 밥에 독을 풀 리도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진 것이다.

‘차라리 이런 면에서는 몬스터가 인간보다 믿을 만하지.’

최소한 몬스터는 자신의 규칙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숨 쉬듯이 거짓말을 해대는 인간보다야, 지금까지 위협 한 번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중했던 몬스터에게 신뢰가 갔다.

물론 신뢰해선 안 됐다. 호의를 가장해 인간을 속여 방심시키는 몬스터도 있었다. 지오를 몬스터로 여긴다면 하지 말아야 했을 실수였다.

“……?”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다리가… 나은 것 같아서….”

“아.”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뼈가 부러지신 적이 있습니까?”

“네? 아, 네, 예전에 던전에서 짐을 옮기다가 몬스터를 마주쳐서 다리가 부러졌었어요.”

“지금 드시고 계신 밥에 들어간 사골 국물은 뼈의 이상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 아… 오….”

“식사를 마치시고 귀가하기 전에 뼈가 잘 붙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라면 국을 조금 챙겨드리는 게 좋겠군요.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지금 같은 식사를 차려드린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 그렇구나아….”

누가 포션으로 밥을 지어요.

‘인간 아닌 티를 이렇게 내네.’

생긴 건 멀쩡한 밥상이라 몰랐다.

‘밥 몇 숟가락 먹었다고 뼈가 다 붙을 정도라니.’

견문이 낮은 차아라이기에 정확히는 몰라도 그 정도면 회복 포션 중에서도 상당한 급일 것이다.

그 형태가 사골국인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걸로 밥을 지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인간과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착한 몬스터인 것 같아.’

어찌나 잘 지어졌는지 찰기가 느껴지면서도 알알이 고슬고슬한 밥을 먹으며 차아라가 생각했다. 못된 놈들은 밥도 못나게 지었다.

‘몬스터는 자기들만의 규칙이 있다고 했으니 그것만 어기지 않으면 괜찮겠지.’

차아라는 대놓고 물어보기로 했다.

“저기, 제가 서지오 씨를 대할 때 기분 나쁘지 않으시도록 조심해야 할 게 있나요?”

“조심해야 할 것?”

“어, 그러니까… 집을 어지르지 말라는 식으로… 서지오 씨가 유난히 싫어하거나 이건 지켜줬으면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음.”

몬스터는 눈을 두 번 깜박이고는 대답했다.

“기본적인 예의만 지켜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으신다면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범죄….”

아까 만났던 ‘보석의 수맥‘에서도 느꼈지만, 이 몬스터가 혐오하는 것은 확실했다.

‘무례하고 나쁜 인간을 싫어하나 봐.’

그리고 차아라는 그런 쪽이라면 자신 있었다.

‘내가 당하면 당했지 누굴 골려먹을 만큼 강하지를 못해서.’

헌터 중에서도 가장 밑의, 공공연히 노예 계급이라 불리는 F급의 짐꾼이었다. 애초에 범죄를 저지를 깜냥이 안 됐다.

차아라는 몬스터의 규칙을 알게 되자 마음이 한결 더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약해 빠진 차아라와는 절대 인연이 없을 짓들이었다.

“…….”

그렇다고 긴장을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행동은 굉장히 친절하고 정중한데….’

이상하게 편하게 대하기가 어려웠다.

‘나름 신경 써주고 있다는 건 알겠어. 게다가 딱히 위압적으로 나온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쭈그러드는 건지 이해가 안 가. 묘하게 압박감이 있어서….’

그래도 차아라는 꿋꿋했다.

“…저 밥 한 공기만 더….”

“잘 먹으니 보기가 좋군요.”

“앗, 저야말로.”

그래도 밥은 맛있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내주신 몬스터인가 손맛이 아주 장난 없네.’

우리 이장님께서 음식 솜씨 배워 가야 할 듯.

* * *

“…….”

유성운은 정신이 아찔해졌다.

“곤란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어, 아니야. 뭐 이 정도 가지고.”

“저는 한국의 지리를 잘 몰라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날 불러줘서 오히려 감사한데?”

설마 이 음울한 액자 너머로 멀쩡한 인간이 튀어나오게 될 줄은 몰랐지.

“헌터님은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차차차차아라요….”

“아이고, 이거 너무 긴장하셨네.”

그렇게 말하는 유성운도 긴장하긴 마찬가지였다. 자신과 길드장의 욕심에 섣불리 지오를 풀어놓은 상황이 아니었던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었네.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평온한 상황이기도 하고.’

비록 공존할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고는 해도, 지오에게 방문해도 괜찮을 던전의 목록을 준다는… 인류에게 꽤나 해가 될지 모를 행동을 한 직후였다.

어떤 돌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해 커피 마시며 잠도 안 자고 버티는 중이었다. 어느 인적 드문 던전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여차하면 협회에서 나서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그 정도로 큰 사건은 아닌 것 같지. 액자에서 사람 하나 뱉어진 것뿐이니까.’

그래도 놀랍기는 했다.

‘설마설마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연결이 될 줄은.’

또 한 번 해석 못 할 편지를 받고 찾아온 유성운에게 지오가 말했다. ‘보석의 수맥’에 놀러 갔다가 어린 인간을 발견했는데, 이대로 혼자 내보내기는 마음이 쓰이니 집까지 바래다줄 수 있겠냐고 말이다.

지오가 ‘어린 인간’이라고 말해서 순간 10살 전후를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다.

‘하긴 지오의 입장에서는 뭐가 어린 건지 파악하기 어려우려나.’

사람이 개의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처럼 지오도 헷갈린 것 같았다.

‘18살이면 엄연한 성인인데 말이야.’

지구의 문화상 차아라 헌터가 성인인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18살이나 먹은 청년을 보며 ‘어리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했다.

유성운이 목뒤를 쓸었다.

“…차 헌터님부터 댁에 모셔다드리는 게 맞겠네. 내가 알아야 할 사항 같은 건 없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이따 다녀와서 계속 이야기하자. 제일 먼저 나를 불러줘서 고마웠어.”

유성운의 인사를 끝으로 초상화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말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의미이기에 유성운은 거리낄 것 없이 차아라를 돌아보았다. 이 젊은 헌터를 집에 바래다줘야 의뢰 아닌 의뢰를 완수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차 헌터님은….”

“네, 네?!”

“…아.”

격한 반응에 유성운은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뭔가를 깨달았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몇 급이신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갑자기 개인 정보를 물어봐서 기분 나쁘시겠지만, 안 좋은 의도는 아닙니다.”

“…F급인데요….”

“아하, 그래서.”

어쩐지 과하게 긴장했다 싶었는데, 확실히 여기 있기엔 너무 약한 헌터였다.

‘F급의 헌터가 비사벌 길드장의 갤러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견딜 수 있을 리가 없지. 심지어 여기는 지하 5층이고.’

온갖 위험 물품이 가득한 비사벌의 갤러리였다. 입장이 가능한 것은 최소한 C급의 헌터부터. 그 이하는 헌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방문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렇게 약한 사람이 들어올 일이 없어서 배려를 못 했네. 일반인 수준의 연구원도 입장이 가능하도록 전체적인 통제가 되어 있는 협회의 연구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해.’

한때 협회 연구 팀장이었던 유성운으로서는 비교가 되지만, 각자 장단점이 있었다. 정원사의 입장에서 협회의 연구소는 근원의 존재를 과하게 학대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무튼 이런 위험한 작품과의 소통을 최소한으로나마 즐길 수 있는 직원들만이 큐레이터가 되는데, 아무 연관도 없는 F급 헌터는 견디기 괴로울 것이었다.

“미안합니다, 이곳에 C급 이하의 헌터가 들어온 것은 처음이라 신경을 못 써드렸네요.”

“아뇨, 아니, 아니 그….”

“일단 나가실까요? 묻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힘들 것 같고.”

“네네네네네….”

“제가 이곳의 큐레이터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옆에 붙어 있으면 다칠 일 없어요.”

가끔 선공을 해오는 작품들도 몇 개 있지만, 그런 작품 근처로는 가지 않을 생각이니 문제없었다. 유성운은 잔뜩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 차아라 헌터를 이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렇게 1층에 도착했을 때였다.

“…….”

“…….”

유성운은 순간 엘리베이터의 문을 다시 닫을 뻔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인내심을 발휘에 제 근육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었다.

눈앞에 히죽거리는 비사벌이 보였다. 유성운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길드장님?”

“CCTV를 관람하고 있었는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포착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가련하게 떨고 있는 F급 헌터가 듣고 있는 앞에서 해야 할까. 저렇게 대놓고 즐거워하기도 힘들 텐데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인류에게 향했어야 할 비사벌 길드장의 배려심은 죄다 본인 수집품으로 간 게 분명하다.’

아무리 인권이 나락 간 세상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었다. 손님 보호 차원에서 유성운이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요. 차 헌터님과의 면담은 제가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방금 막 갤러리에서 빠져나오신 탓에 매우 긴장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오시면 곤란하죠.”

“매우 유감스러운 사실이겠으나 유성운 큐레이터는 나의 즐거움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박해도 내가 길드장 아니겠습니까?”

“이거 승진을 해야 하나.”

“아무리 승진을 해봤자 길드장만 못하겠지만 그러게 시켜줄 때 하지 그랬어요.”

“후.”

유성운은 혀를 씹고 싶은 심정이 되었지만, 겁에 질려 창백해진 젊은 헌터를 이 미친 쾌락주의자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었다. 그 경우 지오에게 할 말도 궁해졌다.

“…압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 길드장님의 흥미를 끌었다는 거. 하지만 제가 먼저 확인한 다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길드장님께서 저희 길드의 얼굴이신데 자잘한 업무를 직접 하시게 되면….”

“편하겠죠? 여러분이?”

“체통 좀, 제발 체통 좀 지키세요.”

초면의 헌터 앞에서 아주 잘하는 짓이다.

‘그래도 나름 대한민국 3대 길드인데 이미지 한번 저렴하게 만들어 주시는군.’

차아라 헌터는 흘러가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예 굳어 있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한 줌의 공기가 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었지만, 그런다고 탐스러운 먹잇감을 가만히 내버려둘 비사벌이 아니었다.

“좋습니다. 차 헌터님이라고 하셨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차, 아라… 차아라입니다… 살려주세요….”

“아, 이런. 너무 겁을 먹으셨네요! 아무도 헌터님을 죽이지 않아요!”

얼굴에 대놓고 ‘이렇게 흥미로운 상대를 왜 죽이겠니’라는 생각이 쓰여 있었다. 그건 인간보다는 경이로운 유물이나 뜻깊은 영화를 본 관람객의 눈과 같았다.

비단 유성운만 알아차린 건 아닌지 차아라가 유성운의 뒤로 슬금슬금 숨어버렸다.

‘…초면인 나도 경계를 받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나. 이걸 현명하다고 해야 할지….’

유성운은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녀를 숨겨주었다. 그런다고 길드장이 직접 제 건물의 엘리베이터 버튼을 잡고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말이다.

“…….”

이렇게까지 된 이상 이 불쌍한 헌터를 빼돌리긴 어렵게 되었고.

“…면담실로 갈 예정이었는데….”

“같이 갈까요?”

“…그러시죠.”

최대한 유성운이 가운데에서 막아주는 수밖에는 없어 보였다.

지오야, 형은 노력했어.

* * *

비사벌은 들떠 있었다.

“그럼 차아라 헌터.”

“네네네.”

“무슨 일을 겪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아무것도….”

“차아라 헌터에게 죄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

“저는 그저 감탄하고 있을 뿐이에요.”

세상에, 근원의 존재가 인간을 품다니? 그것도 나약해 빠진 F급을 말이다.

‘과체중인 인간의 외양을 선호한다던 유성운 큐레이터의 말과 달리 차아라 헌터는 마른 편에 속한다. 아니, 오히려 살찌우기 위한 선택이었나? 겉보기에는 퍽 순진한 걸 제외하면 그리 특별할 것도 없는 짐꾼인데 그런 순박한 면이 지오의 흥미를 끈 걸지도 모르겠어.’

비사벌의 황색 눈이 번들거렸다.

‘역시 죄인이 아닌 죄 없는 어린양이 필요했던 건가. 지오의 결백한 성정을 생각해 보면 전통적인 악신들을 대할 때처럼 순결한 피를 바칠 필요는 없었을 테지만, 처음부터 선하고 젊은 인간을 바쳤더라면 더 확실한 반응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비사벌은 초상화와 관광 후 대면 보고를 했던 유성운을 떠올렸다. 지오의 첫 번째 인간 사회 경험이 너무 무난하게 끝났던 탓에 조금 실망했었지만, 지구의 던전 방문이라는 이번 미끼는 놀랍도록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역시 근원의 존재라 던전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일까? 지오는 인간이라는 종족 자체에 공평한 호의를 품었으니, 자신의 격에 쉽게 겁을 먹는 인간들이 적은 곳에서 활발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겠지. 그건 그거대로 즐거운 이야기야.’

어떤 의미이든 인간을 제멋대로 액자 안에 끌어들이고, 또 뱉어내는 초상화는 수집가에게 있어 달콤할 수밖에 없었다.

비사벌의 미소가 짙어졌다.

“어쩌다 액자 너머의 그림이 되었던 건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연유로 검은망토를 두른 몬스터를 만나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다.

“그래 주시겠지요?”

“…네, 에….”

“감사합니다.”

이 볼품없는 헌터가 어떤 예술적인 기적을 통해 죽지 않고 나왔는지, 비사벌은 너무나 궁금했다.

오

Chapter (51)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51)"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52)

제52화

이야기를 전부 들은 유성운은 속이 복잡해졌다.

“…….”

아니, 그냥 위가 쓰렸다.

‘…근원의 존재가 설마하니 인간을 허용할 줄은 몰랐는데.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던가?’

지오가 아무리 신사적인 존재라 해도 근원에서 태어난 녀석이었다. 그나마 비슷한 걸 찾자면 ‘근원의 자식’ 정도로 추측되는 상황이지만, 뭐, 이제 와서 그런 건 아무래도 좋고.

문제는 아마 차아라가 보고 온 것이….

“…숲속의 오두막이었다고요?”

근원의 일종인 ‘정원’으로 추측되기 때문이었다. 가장 비슷한 걸 찾자면 아마 그랬다.

‘…그건 아무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버릴 테니까. 애초에 일반적인 던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곳이고.’

유성운의 질문에 차아라 헌터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그러고는 꽤 방어적인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유성운이 파악하기로는 제법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인 듯했지만, 그 이상으로 더 위축되어 있는 게 평소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는지 알 것 같았다.

“네, 집 바깥으로 나가본 적은 없지만…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가.”

유성운이 목뒤를 주물렀다.

‘골치 아프네.’

듣자 하니 지오의 기분에 맞춰 공기가 변했다고 했다.

차아라 헌터는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지만, 인간형 몬스터 중에서도 그렇게까지 던전과 동화되어 있는 보스 몬스터는 많이 없었다.

‘그 정도면 몬스터와 던전을 한 몸이라고 취급해야 할 거고.’

차아라 헌터는 다시 말해 지오의 배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다.

‘심지어 그냥 던전도 아니고 정원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자격 없는 자가 ‘정원’에 들어가게 될 경우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는 유성운으로서는 말도 안 되고 질도 나쁜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지오가 허락을 했다지만, 고작 그 정도로 F급의 연약한 헌터가 살아 나올 수 있을 만큼 자비로운 공간이 아니야.’

이 사람이 보고 온 게 정말로 정원이었다면, 설령 지오가 색다른 유형의 정원사였다 하더라도 차아라를 보호해 주지 못했을 것이다. 한낱 정원사에게는 그 정도의 권한이 없었다.

따지자면 인간의 입으로 들어간 김밥이 소화되지 않고 제 발로 명치에 구멍을 뚫고 나온 격인 거다.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그 탓에 유성운도 현재의 상황을 정의하기가 어려워졌다.

“…….”

그렇다면 지오는, 정말로….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셨을 텐데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비사벌은 싱글벙글 웃기만 하지 끼어들지는 않아 유성운이 흐름을 잡기는 편했다.

유성운은 일단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 상대를 쉬게 해주려고 말을 이었다.

“계속 저희만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물어도 되는 거고요?”

“…….”

역시 어딘가 날카로운 것이, 꽤 경계심이 심한 사람이었다.

나름 누울 자리 봐가며 발 뻗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젊은 헌터의 예민함을 숨길 수는 없었다. 평소에 어떤 처세술로 살아남고 있을지는 몰라도 성격 자체가 둥근 편은 아닌 듯 보였다.

‘그런 사람을 그렇게까지 달달 녹여서 밥까지 먹였단 말이지.’

하도 무섭다는 사람이 많아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지오는 사람의 경계심까지 허무는 능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심 그런 추측을 뇌 한구석에 밀어 넣으며, 유성운은 상대가 가능한 한 안심할 수 있도록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는 지구의 역사적으로도 귀중한 증인이니 최대한 배려하는 게 맞았다.

“물론 가능하십니다.”

보아하니 이쪽에서 먼저 설명이 들어가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유성운이 바로 말을 이었다.

“차아라 헌터께서 만나신 것은 ‘지오의 초상화’로 명명된 작품입니다.”

“…작품, 이요? 몬스터가 아니라…?”

“자세한 정체는 저희도 아직 파악 중이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인간형 몬스터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군요.”

“오히려 이해가 더 안 되는데….”

“다른 몬스터에 비해 지구를 향한 증오가 낮은 몬스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보다 훨씬 높은 격을 갖춘 ‘무언가’로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이 초면의 헌터에게 알려줄 수는 없었다. 상대의 입이 가벼워 보이진 않지만 세상엔 다양한 변수가 존재했다.

“작품명 ‘지오의 초상화’는 ‘지오’로 정의되는 자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차아라 헌터가 눈이 오던 날 새벽에 보았다고 했던 방식과 같이 액자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그림 바깥으로 나와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인간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다, 액자 너머에서 그림을 그려 이동하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는 탓에 수집상에서도 설득의 차원에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 네?”

차아라가 파드득 떨었다.

“그렇게 위험한 사람을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해요…! 자, 작품이라고 했으니까 수집상의 갤러리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그건 어떻게 못 가두는 거고요?”

“…….”

유성운이 의문을 느꼈다.

‘…방금 사람이라고 했나?’

그 검은 초상화의 위압감을 느끼고도 쉽게 나올 수 있는 단어는 아닐 텐데, 희한한 일이었다.

‘말로는 작품이니 가둬 달라느니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오를 하나의 인격처럼 느끼고 있다는 의미겠지. 이건 확실히 독특한데. 차아라 헌터 본인이 특별한 게 아니라면 지오의 능력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유성운이 특유의 무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국에는 ‘지오의 초상화’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딱 두 곳이 있습니다.”

“…아, 수집상의 갤러리 외에도 다른 곳이 있었나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협회의 연구소가 그렇습니다. 수집상의 갤러리보다 훨씬 보안이 확실한 장소죠.”

“그럼 왜 거기로 보내지 않고….”

“길드장님의 강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지오의 초상화’의 소유권은 경매의 낙찰자인 비사벌 길드장님께 있습니다.”

위험한 작품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보다는 제 소유권과 감상할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길드장의 의견. 차아라는 그 뻔뻔한 대답에 말문을 잃은 듯했다.

작품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무어라 항의할 수 없는 각박한 세상과 자신의 처지를 이해한 것일까. 조금 조용해진 그녀를 보던 유성운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로 인해 차아라 헌터가 겪으신 불편에 대해선 저희 길드에서 보상이 있을 겁니다.”

“…그거 받고 입 다물라고요?”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보상이 있습니까?”

“…….”

“아직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남는 시간에는 그 이외의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차아라 헌터 역시 이번 상황으로 인해 크게 당황하셨을 테니까요.”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던 차아라 헌터가 곧 입을 열었다.

“그, 그… 사람…? 아무튼 그거, 인간은 아닌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이 통하는 인간형 몬스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몬스터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언할 수 있습니다.”

비사벌이 말을 얹었다.

“유희를 즐기는 신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정확한 정체는 몰라도 격이 사제들이 모시는 신보다 낮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길드장님, 불확실한 정보를 초면의 헌터에게 퍼트리는 건 굉장한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편이 이해하기 더 쉽지 않겠습니까? 말 통하는 인간형 몬스터라니, 헌터에게 그리 와닿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에 반해 유희를 즐기는 괴짜 신은 없지 않은 편이고.”

비사벌의 말에 차아라가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요리도 하던데요…?”

“…….”

“요리하는 신도… 있나…?”

그 자신 없는 중얼거림에 비사벌이 소리 없이 빵 터지고 유성운이 애써 탄식을 참았다.

그러니까 지오, 네가 할머니냐고.

‘뚱뚱한 인간을 좋아한다 해도 그렇지 왜 사람만 보면 먹이질 못해서 안달이야.’

딱히 대답해 주지 못할 만큼의 정보는 아니라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지오의 초상화’가 보이는 습성 중 하나입니다. 이미 저희 길드에서도 지오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쿠키, 초콜릿, 사탕 같은 것들이었지만….”

유성운이 힐끗 비사벌을 보자 아직 웃음기가 남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허락에 유성운도 편하게 말을 이었다.

“‘지오의 초상화’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과일차나 소시지 같은 요리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두막에서 지오가 내어 주었다고 했던 차가 아마 그것일 것 같습니다. 지오가 느낀 상대의 호감도나 관계성,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음식의 종류가 달라지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아아….”

“그런데… 의문이 생겨서 잠시.”

유성운이 차아라에게 물었다.

“혹시 오두막에서 식사하기 전, 지오에게 무언가를 주셨습니까?”

“…? 아니… 요? 저, 저는 거지라… 그런 거 없어요….”

“특별한 게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다못해 돌멩이 정도라도 지오에게 준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오가 차아라 헌터님께 무언가 강한 감정을 느낀 것처럼 보였다든가.”

“…….”

차아라는 ‘대체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라는 얼굴로 짜증과 당황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다가, 이게 단순히 차아라를 괴롭히기 위한 쓸데없는 질문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이내 생각에 잠겼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차아라의 대답은 같았다.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정 같은 것이라고 해도 전혀….”

“그렇습니까? 지오가 차아라 헌터를 친구로 여기는 발언도 하지 않았고요?”

“친구를 찾으러 왔다고 ‘보석의 수맥’에서 말한 적은 있지만, 어, 음, 아니요. 저를 친구로 삼기에는 제가 너무 어리고 약해서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하.”

묘한 기준이었다.

‘…18살 정도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건 확실히 지오의 기준이 특이한 거지만, 아무튼 18살과 29살이 친구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한 건가. 본인의 격에 상대가 짓눌릴 걸 걱정한 건지 아니면 인간의 대중적인 관점에 맞춘 결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게 맞는 것 같군요.”

“그,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지오의 규칙 중 하나는 1:1의 거래였다.

“‘지오의 초상화’는 인간들과 교류할 때 무언가를 받으면 무언가로 돌려주었고, 무언가를 건네면 무언가를 받고자 했습니다. 굳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오는 자신이 놀라게 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꼭 사과의 선물을 주고는 했죠.”

“아, 아아아…!”

“……?”

“사과의 선물!!”

차아라가 뭔가 아는 게 있다는 듯이 품을 뒤적거렸다.

“그, 그거…! 제가 눈 오는 날에 받았던, 그때 봤을 때, 선물…!!”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으으으윽….”

숨을 길게 내쉰 차아라가 이내 품에서 새까만 보석을 하나 꺼냈다.

“이, 이런 걸 받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라서 주저앉았을 때 발견했어요.”

“…….”

“잠깐 까먹고 있기도 했고, 지오 씨… 가 준 게 확실히 맞는지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잠시 봐도 되겠습니까?”

“아, 넵.”

“음….”

장갑을 낀 유성운이 보석을 들어 올려, 가까이에서 관찰했다.

“…….”

마치 액체처럼 희미하게 찰랑거리는 결정 구조.

하지만 단단한 광질.

“…지오가 준 게 맞습니다.”

“그, 그래요?”

“예, 이런 보석을 만들어내는 건 지오뿐이죠.”

지금까지 알아낸 바로는 말이다.

“괜찮으시다면 이 보석을 저희 수집상에서 구매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걸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결정의 구조인 탓에 경매에 올리신다고 해도 수많은 구설이 돌 겁니다. 최악의 경우 차아라 헌터님과 가족분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요.”

“어….”

“‘지오의 초상화’를 관리하는 저희가 보관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유성운이 어깨를 으쓱였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 강요하고 있잖아… 가족 들먹이면서 협박하고 있잖아….”

“그저 현실을 말씀드렸고, 선택은 차아라 헌터님의 몫입니다.”

“으어….”

“당장 구매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차아라 헌터가 최소한의 보호 조치는 허용해 주신다면 말입니다.”

“보호 조치? 감시 말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도 아닌 ‘지오의 초상화’가 준 정체 모를 선물을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으니까요.”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당장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지오의 초상화’가 준 선물을 강제로 빼앗는 것에는 부담이 커요.”

상대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했는데 뺏어가듯 구매하는 건 수집상의 방식이 아니었다. 거래나 경매에도 미숙해 보이는 젊은 헌터를 상대로 양아치 짓을 할 생각도 없고.

“확신이 생기면 그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안 가져가요?”

“결정 구조 자체가 독특할 뿐 연구 자료라면 모를까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보석입니다.”

협회의 연구소만큼은 아니겠지만 수집상에도 새 작품이나 작품의 조각을 연구할 수 있는 팀이 따로 있었다. 지오의 보석은 본인에게 ‘별다른 기능은 없다’라는 확언을 받고 또 여러 실험을 통해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였다.

‘그래도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안 그래도 겁에 질린 젊은 헌터에게 험한 짓을 해가며 빼앗아야 정도로 위험하거나 귀중한 물건도 아니다.’

그러다 작품의 호의로 죽으면 자연사라는 게 비사벌의 의견이기도 하고. 그 밑의 직원이자 정원사인 유성운으로서는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방향성이었다.

유성운이 설명을 이었다.

“보석 대부분은 그저 아름답기에 가치가 높고, 수집상도 단지 아름답기만 한 보석을 자주 구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대체 뭐가요…?”

“보석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헌터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잘 숨기고 소지한다면 가까이에서 보지 않고서야 그 보석이 특별한 것을 모를 겁니다. 평범하게 관상용으로 쓰실 거라면 팔지 않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빼앗겨 불상사를 당하거나 수집상도 파악하지 못한 위험 요소로 크게 다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길드 차원에서 보호 조치가 있을 것이다.

‘세상이 지오의 존재로 과하게 소란스러워지는 일도 미리 막아두어야 하고.’

유성운은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붉은 보석을 꺼냈다.

“저도 ‘지오의 초상화’에게 보석으로 답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전에 지오에게 사과를 그려준 뒤 받은 보석이었다. 그것은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여전히 투명하고 아름다웠다.

“수집상 차원에서 가능한 한 정밀하게 검사를 해봤지만 지구의 평범한 보석과 다를 바 없이 무해하고, 잘 깨지거나 흠집이 나지도 않습니다. 과하게 단단하다는 점을 빼면 문제 될 게 없죠.”

“아….”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관상용으로 남겨둘 것을 추천드리지만 ‘지오의 초상화’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석이 언제 어떤 해를 끼칠지는 알 수 없으니 거래를 원하신다면 그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뜬금없이 비사벌이 시무룩해졌다. 정말 가증스러운 반응이었다.

“지금 안 파는 겁니까…?”

“제발 체통을 좀 지키세요, 길드장님. 여긴 경매장이 아닙니다.”

“나는… 나는 없는데… 지오의 보석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 성격을 고치시란 말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그 착한 지오가 대화마저 꺼리겠는가.

‘안 그래도 조용한 걸 좋아하는 녀석에게 비사벌이 맞을 리가 없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결코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작품에게는 무해하지만 같은 인간으로선 참 유해한 사람이다.’

외부인 앞이라 간신히 한숨을 참았다. 아무리 자유로운 분위기를 이미지로 삼고 있는 수집상이라지만, 직원이 길드장을 까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어 득이 될 게 없었다.

“게다가 선물로 받은 이런 보석을 저희 길드에 팔아도 될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오에게도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 몬스터는 규칙에 엄격하니까요.”

“…그, 그렇긴… 하죠….”

“그런 것과 별개로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테니 관상용으로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시면 지금 파셔도 됩니다.”

비사벌이 좋아서 기뻐 날뛰는 걸 보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손에 넘어가 학계를 술렁거리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그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편도 나쁘지는 않았다.

‘그야 수집상에서 비공식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는 하겠다만.’

차아라는 ‘지오의 초상화’의 호의를 듬뿍 받고 나온 희귀한 헌터였다. 그녀는 쿠키나 과일청처럼 단순한 선물도 아닌, 무려 지오가 직접 차려준 밥상까지 먹고 온 유일한 사람인 거다.

‘그런 사람에게 적의를 사기는 아쉽지. 기본적으로 타인을 경계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고… 불쾌하게 만들지 말자.’

정원사 된 입장에서 지오의 보석이 F급 헌터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기도 했다. 유성운이 다시 말을 이었다.

“저희 수집상도 아직 ‘지오의 초상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오의 호의를 받으셨으니, 차아라 헌터님께서도 언젠가는 다시 ‘지오의 초상화’를 마주치게 될지 모릅니다.”

“…….”

“그러니 공유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히 차아라 헌터가 초상화의 화를 사게 되면 곤란하니 말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오는 1:1의 거래를 선호합니다. 차아라 헌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마 액자를 사이에 끼고 있을 시에만 적용되는 규칙인 듯합니다. 그림 내부에서 식사를 했을 땐 지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으니까요.”

“아, 네, 맞아요. 저는 딱히 아무것도….”

“만약 다시 ‘지오의 초상화’와 마주칠 일이 있다면 대화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지오에게 주거나, 혹은 받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 어어, 어떻게요? 무슨 대가를 줘야 하는데요?”

“붕어빵 10개까지도 대가로서 문제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소박해.

차아라는 말하는 판다를 본 것처럼 기묘한 표정을 지었다. 지오가 가진 격에 비해 참 대단치 않게 평범한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유성운도 백번 공감했다.

“지오에게 이름과 같은 개인 정보를 말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희 수집상 직원 중에서도 몇 명이 초상화와 통성명을 했지만, 일방적인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유성운이 문득 몰려오는 피곤함에 한숨을 꾹 참았다.

“…….”

양상이 좋든 나쁘든, 근원의 존재가 인간에게 호의적인 건 역시 심력이 소모되는 일이었다.

살아서 다시 이런 존재를 만나지는 못하겠지.

* * *

“…….”

1. 검은 망토를 두른 남성의 이름은 지오입니다.

2. 지오는 새벽 근무반 직원입니다. 신원을 묻지 마십시오.

3. 지오가 통성명을 원한다면 이름을 알려 주십시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4. 지오가 그 어떤 대화를 걸어도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하십시오. 대화가 성공적이었다면 지오에게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5. 4번 규칙은 과장되었으므로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6. 5번 규칙을 무시하십시오. 고객과 동료에게 언제나 예의 바른 직원이 됩시다.

7. 지오에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지오에게 답례를 받으십시오.

8. 건물 내부에 못 보던 액자가 걸려 있다면 무시하십시오. 새벽 근무반의 실험 설치로 날이 밝기 전에 철거되어 있을 것입니다. 작품을 만지거나 흠집 내지 마십시오.

9. 지하 5층의 초상화 앞에 나쁜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특히 새벽에 초상화 앞을 방문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게… 뭔가요?”

“저희 길드장님께서 직접 정리한 규칙입니다.”

“이걸 제가 봐도 되는 건 맞고요?”

“사실 안 될지도….”

유성운은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다.

“하지만 길드장 본인이 보여주라고 했으니 아무래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거 맞냐고요.... 이거 그냥 포기한 거잖아.... 대기업이 이렇게 얼렁뚱땅 굴러가도 돼요? 작품 관리도 그렇고 뭔가 이상한데?"

"저희 직원들에게 뿌릴 용도로 제작한 규칙이니 용어 같은 부분은 적당히 감안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에...."

규칙을 살핀 차아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저기 그런데, 여기 4번이랑 5번은 뭔가요? 꼭 두 사람이 쓴 규칙 같잖아요. 괴담도 아니고."

"아, 길드장이 정리한 규칙을 보게 된 지오가 직접 추가한 부분이라서...."

"몬스터가 직접 규칙을 고치게 둬도 되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이걸 왜 그대로 뒀고요?"

"길드장이 재밌다고 그대로 두라 하셨습니다."

"......."

"숙지하셨다면 이만 댁으로 모셔다드려도 되겠습니까?"

피곤에 찌든 직장인의 얼굴을 본 차아라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었다.

오

Chapter (52)
Prev
Next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53)

제53화

한편, 차아라와 같은 공문을 받게 된 수집상의 직원들은 매우 당황했다.

"……?"

"이게 뭐죠?"

"길드장님이 장난이라도 치신 건지…?"

"공문으로 장난치실 분은 아닌데."

비사벌이 잦은 확률로 장난을 치는 것은 맞지만, 의외로 그는 공사가 확실한 사람이었다. 그의 수집벽과 관련한 문제만 아니라면 늘 신사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비사벌이 공문에 장난을 칠 리가 없는 것이다.

"괴담 같은 건가."

"이거 검은망토 이야기 맞죠?"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지오'가 사람이라는 거야 귀신이라는 거야…."

1. 검은 망토를 두른 남성의 이름은 지오입니다.

2. 지오는 새벽 근무반 직원입니다. 신원을 묻지 마십시오.

3. 지오가 통성명을 원한다면 이름을 알려 주십시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4. 지오가 그 어떤 대화를 걸어도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하십시오. 대화가 성공적이었다면 지오에게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5. 4번 규칙은 과장되었으므로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6. 5번 규칙을 무시하십시오. 고객과 동료에게 언제나 예의 바른 직원이 됩시다.

7. 지오에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지오에게 답례를 받으십시오.

8. 건물 내부에 못 보던 액자가 걸려 있다면 무시하십시오. 새벽 근무반의 실험 설치로 날이 밝기 전에 철거되어 있을 것입니다. 작품을 만지거나 흠집 내지 마십시오.

9. 지하 5층의 초상화 앞에 나쁜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특히 새벽에 초상화 앞을 방문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공문에는 사람 취급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뉘앙스를 보면 '이 새끼는 절대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티 내지 말고 다들 눈

치껏 잘 처신하세요’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

“…….”

직원들은 피곤해질 미래를 예감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각자 팀들끼리 모여서 상황 파악 좀 해봅시다.”

“아이고 길드장님….”

시니컬한 인간들만 모인 수집상 길드답게 그들은 더 이상 질척거리지 않고 쿨하게 자기들끼리 모여 논의했다. 혼란에 빠져 있기만 해서야 되는 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가장 첫 번째로 이건 장난인가 진심인가, 에 대한 논의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장난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길드장님은 공문 하나로 직원들을 얼마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작품과 예술에 관해서는 종종 사람이 망가지긴 해도 평소에는 멀끔한 태도를 유지하시는 분이고요.”

“제 생각도 같습니다. 다만 4번과 5번 규칙은 장난이 맞으리라고 봅니다. 꼭 길드장님이 정리한 규칙에 누군가가 수작을 쳐놓은 듯한 형식인데….”

그에 한 직원이 말했다.

“정말 길드장님이 정리한 규칙에 다른 누군가가 장난질을 쳤을 수도 있지 않나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이 규칙에 나와 있는 ‘지오’, 그러니까 ‘검은망토’일 텐데요. 인간형 몬스터로 추측되고 있는 그 귀신 말이에요.”

“아… 그것도 포함해서 장난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 공문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수정할 수 있었는데도 이렇게 보낸 거잖아요. 길드장님께서 아무래도 이런 괴담 같은 분위기를 즐기고 계신 것 같아서요.”

“타당한 말씀이네요.”

비사벌이 이런 식으로 두 자아가 서로 견제하는 형식의 규칙을 정리했어도 장난이 맞고, ‘지오’가 비사벌이 정리한 규칙에 손을 대었다고 해도 그걸 수정하지 않고 뿌렸으니 장난이 맞았다.

“하지만 그 경우, 이 규칙들은 충분히 숙지할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살펴보니 6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길드 외부로 공문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신 걸 보면 이 사건이 꽤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논의는 ‘진심이다’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 직원들은 규칙의 내용을 살폈다.

“확실히 이번 규칙은 저희가 알던 ‘검은망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름이 지오라는 것도 몇 번의 목격담 덕분에 암암리에 알려져 있었죠. 다만 첫 문장에서 이렇듯 정체를 소개하는 것은 저희에게 그 존재를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 같네요.”

“새벽 근무반 직원이라고 알려주면서 신원을 묻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분명 검은망토가 신원을 묻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직원이 물었다.

“애초에 검은망토는 인간입니까 몬스터입니까? 그것부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문조차 괴담 형식으로 애매하게 정리해서 보내 주셨습니다. 길드장님께서 검은망토의 정확한 정체에 대해 알려주실 생각이 없다고 돌려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래도 추측은 할 수 있죠.”

“아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저희가 아는 게 많아질수록 골치 아픈 일을 떠맡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현명하시군요. 그렇다면 검은망토는 일단 슈뢰딩거의 인간으로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접 까보기 전까지는 모두가 검은망토를 길드장님께서 몰래 들인 새벽 근무반 직원으로 여겨야겠어요.”

“그래요, 공문에서도 ‘지오’를 인간으로 취급하라는 뉘앙스이지 않습니까. 길드장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따르는 것이 좋은 부하의 덕목이죠.”

덕목이고 자시고 추가 업무를 맡을 생각이 없는 직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참으로 위태롭게 돌아가는 길드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괴담이고 인간이고 유령이고 자시고, 비사벌이 이렇게까지 즐거워하며 신경을 쓰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알고 싶은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알면 알수록 일만 더 시키겠지.”

“그래도 수당은 더 쳐주잖아요.”

“안 받고 일 안 하렵니다. 집에 가서 우리 초코 산책시켜 줘야 해.”

“하긴….”

그들은 워라밸에 진심이었다.

“아무튼 신원을 묻지 말라는 것은, 그 지오라는 직원이 자신의 신원을 캐묻는 질문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가면 갈수록 인간이고 자시고 그냥 몬스터 같은데….”

“어허, 추가 업무 당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조용히 하세요. 그래도 통성명 시 받는 불이익이 없다고 하니 최소한 계약으로 장난치는 존재는 아니겠죠.”

“팀장님도 지금 몬스터로 취급하고 계시잖아요.”

“조용히 하라니까 그러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비사벌이 제 수집품 중 하나인 직원들에게 흠집 날 일을 할 리가 없었다. 그러니 통성명을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사실인 듯 보였다.

“그런데 통성명이라는 단어가 공문에 나왔다는 건, 검은망토가 통성명을 그만큼 자주 시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통성명은 다들 하잖아요.”

“그래도 공문에까지 등장할 정도면 검은망토가 꽤 부자연스럽게 통성명을 진행한다는 뜻인데, 이거 진짜 아무리 봐도 사람 흉내 내는 몬스터….”

“정숙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분석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

“그 어떤 대화를 걸어도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라고 하네요.”

“그 뒤에도 ‘고객과 동료에게 언제나 예의 바른 직원이 됩시다’라고 서술되어 있어요.”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한 걸 보면 검은망토는 무례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도요.”

한 직원이 9번 규칙을 짚었다.

“‘지하 5층 초상화 앞에 나쁜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특히 새벽에 초상화 앞을 방문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이 부분은 아예 접근조차 막은 것으로 보아 ‘무례함’보다도 ‘악함’에 대한 검은망토의 페널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헌터들은 가능한 한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아 진짜.”

아까부터 투덜거리던 젊은 직원이 마른세수를 했다.

“시발 내가 인간 취급을 좀 해보려고 해도 이 길드장 말하는 게 아주….”

“진정하세요, 이래 봬도 길드장이고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모르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셨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다들 알잖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검은망토가 지하 갤러리 5층의 초상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해졌네요. 제가 듣기로 최근 5층 갤러리에는 길드장님이 경매에서 사들인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고 했는데, 음, 그래요.”

“…….”

“여기까지 하죠.”

아무리 정체를 파악해 봤자 추가 업무를 극도로 혐오하는 직원들에게 진실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공문을 분석하면서도 이 악물고 ‘지오’의 정체를 무시했다.

“4번 규칙으로 다시 돌아가죠. 단순히 예의만 강조됐을 뿐 아니라, 뒤에 ‘대화가 성공적이었다면 지오에게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다면 지오를 만족시키지 못한 대화를 했을 경우 선물을 받지 못했을 시, 별도의 처벌이 있는 걸까요? 그날 하루 종일 아프다거나…?”

“검은망토를 길드장님께서 그냥 방치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 생명이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갈 만큼의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군요. 하지만 검은망토는 무례한 상대를 혐오하는 것 같으니, ‘만족스럽지 못한 대화’ 역시 일종의 무례함으로 판단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선물을 받지 못한 그 당시가 아니라, 그런 ‘무례’가 차곡차곡 쌓이면 검은망토의 적의를 살 수도 있겠어요. 그 부분은 확실히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3번 이상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과연 검은망토의 인내심이 3번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5번 규칙을 본 직원들이 시선을 교환했다.

“이건 역시….”

“검은망토가 쓴 거겠죠.”

“과장되었으니 규칙을 준수하지 말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4번 규칙의 말에 따라 방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섬뜩하네.”

그런 몬스터는 많았다. 일부러 해당 몬스터의 규칙을 어기게끔 둔 다음, 인간이 규칙을 어기면 그 점을 명분 삼아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몬스터들 말이다.

“그럼 일단 한글은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새벽 경비분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서지오’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의 양식을 딴 것 같은데, 그만큼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숙지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슈뢰딩거의 인간으로 취급하자면서요, 팀장님.”

“아, 음… 예, 인간 중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무지한 사람도 있잖아요.”

팀장은 대충 넘기라는 듯이 손을 휘적였다.

“7번 규칙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네요. 검은망토에게 무언가 주고 싶으면 꼭 답례를 받아라. 이 부분이 아마 검은망토의 규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몬스터….”

“쉿. 규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얼마나 검은망토와 직접적으로 교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여 검은망토에게 무언가 주었다면 답례를 받아 오도록 해요.”

“아마 은혜를 은혜로 갚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네요, 참 친절하기도 하지.”

그들은 아직도 이를 악물고 진실을 외면 중이었다.

“애초에 9번 규칙은 이루어지기도 힘들지 않나요? 마지막 층인 지하 5층 갤러리는 출입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큐레이터들을 위한 규칙일까요?”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얼추 정리를 마치자 직원들은 알아서 해산했다.

“조만간 큐레이터들 밥이라도 사줘야지….”

그들은 갤러리의 관리자인 큐레이터를 동정했다.

그 시각, 수많은 큐레이터가 울음을 참고 있었다.

“나만 아니어라.”

“어차피 ‘지오의 초상화’는 우리 담당 아니잖아요.”

“유성운 씨 바빠서 못 오는 날은 우리가 해야 해.”

“아….”

그건 새벽 경비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무섭다는데.”

“…조심해야지, 뭐….”

아무튼 규칙만 준수하면 제 인생에 지장이 없다는 거 아닌가.

그럼 됐다며, 직원들은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 * *

“…상황이 또 이렇게 되다니….”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들을 참 잘 뽑으신 것 같습니다.”

“다들 참 무심하기도 하지. 추가 업무를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우리 수집상 구성원들답습니다.”

“아무튼 적응은 잘되겠네요.”

비사벌은 ‘지오의 초상화’를 가둬둘 방법이 없다고 했고, 본인 역시 제 작품이 그렇게 학대받지 않기를 원했다.

정원사인 유성운의 의견도 더해져 그들은 ‘검은망토’가 인간 세상에 적절히 녹아들 방법을 구상했다.

이건 일종의 예방 접종이라고 할 수 있었다. 범인류적 차원에서도 손해가 될 판단은 아니라며 비사벌은 웃었다. 사람이 좀 죽어나가도 뭐 어쩌겠냐는 그 모습은 과연 S급답게 뻔뻔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았던 차아라 헌터 말입니다.”

“오, 그 친구에게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게….”

유성운이 목을 긁적였다.

“조만간 그쪽 집안과 지오가 만나게 될 것 같아서.”

“맙소사.”

비사벌의 얼굴이 환하게 폈다.

“지오가 또 외출을 합니까?”

“태양교 입단식을 구경할 것 같다고 저번 보고서에도 올렸습니다.”

“소란스러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초상화이니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염려해 재차 물어봤지만 여전히 외출 생각이 있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 외출은 무척 순조로웠던 것 같은데, 과연 두 번째까지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 번째 외출 아닙니까? 지오는 이미 ‘보석의 수맥’에서 차아라 헌터까지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초상화의 공식적인 인간 흉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일이죠.”

“…즐거운….”

“근래에 바다가 소란스러웠던가. 지오의 인격에도 변화가 있다고 했었으니… 흠.”

“…….”

유성운은 불길해졌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좀 이상한데, 혹시 뭔가를 좀 보셨습니까? 미래라든지?”

“제 스킬은 감정입니다. 이상한 허언은 자제를 부탁드리죠, 유성운 큐레이터.”

비사벌이 웃었다.

“하지만 재밌을 것 같네요.”

“…….”

유성운이 이를 악 물었다.

눈 좋기로 소문난 비사벌이 ‘재밌을 것 같다’니, 그야말로 수명이 줄어드는 소리였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53)"

4.7 13 votes
Article Rating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54)

제54화

한편, 평화로운 오두막.

지오는 새 식구를 살피고 있었다.

"이 꼬마는 다 큰 건가?"

"갸르르."

"귀엽군."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귀여움이었다.

발라당 드러누워 네 발을 팔랑거리는 모습에 지오는 안티캣의 두 앞발을 살짝 잡아보았다. 지구의 고양이들은 발을 잡으면 그렇게 싫어하던데, 안티캣은 별로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았다.

갓난아기를 놀아주는 것처럼 앞발을 살짝 잡은 채로 몇 번 휘적였다.

"그르르릉...."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미얅."

"고양이는 고양이고."

"므므믕."

"굉장히 차갑네."

꼭 인적 드문 동굴의 석순을 만지는 것처럼 안티캣의 몸은 서늘했다.

"허니, 너와는 정반대구나."

"꾸루룩?"

"넌 따듯하잖아."

햇빛과 달빛을 받고 자란 루루푸의 즙으로 진화해서인지, 허니는 유독 그 콩알만 한 몸이 매우 따듯했다. 최근 태양신에게 아낌없이 귀여움을 받은 덕분에 더 온도가 높아진 것도 같았다.

"이렇게 차가우면 허니랑은 붙어 다니기 힘들려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고기나 개구리처럼 원래도 몸이 찬 녀석들을 인간의 손으로 잡으면 화상을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던가.

“내가 만지는 게 불편하면 말해라, 꼬마야.”

“…….”

“귀신같이 입을 다무는군. 굿 걸, 굿 걸. 아주 영민해.”

불편하지 않다는 것 같다.

“말귀도 알아듣는 것 같고.”

그것참 진기했다.

‘꼭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이… 무언가의 결정체 같은데.’

안티캣의 몸은 고작 몇 개월 된 새끼 고양이 같았다. 그 신체는 마치 잘 세공된 다이아몬드처럼 빽빽한 반짝임을 담고 있었다.

그 덕분인지 몸이 완전히 투명한 허니와 달리 불투명해 보이기도 했다.

“멋지네.”

“먉.”

“자체적으로 발광할 줄도 알고, 기특해.”

옆에서 허니가 지오를 빤히 쳐다보았다.

“…….”

“…물론 허니 너도 기특하다.”

“꿍.”

“아유 이뻐라.”

“꾸르르.”

애들 키우기 참 힘들지.

“그나저나 우리 막내는 뭘 먹고 자라나.”

대충 확인하기로는 생기를 빨아먹고 산다고 하긴 했다. 지구에서는 일종의 유령 취급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귀여운 유령이라면 한 번쯤 생기 그까짓 거 빨려 봐도 좋지 않을까 싶었다.

“조만간 캣 타워를 만들어줘야 할지도… 내가 또 숨숨 터널 만드는 데에 일가견이 있지.”

“갸르르.”

“이 근처에 널리고 널린 게 높고 험준한 나무들이라 타고 오르기에는 좋겠지만, 집 안에서도 안티캣의 영역이 필요하겠지. 고양이를 닮았다면 자기 영역에 예민한 건 마찬가지일 테니까.”

“먉.”

“막내가 살던 곳은 ‘보석의 수맥’이었으니 그거랑 비슷한 환경이어도 재밌겠네. 어두운 개미굴처럼 숨숨 집을 만들고, 그 안에 보석을 좀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이름을 지어볼 때였다.

“반짝이….”

“…….”

“…데자뷔인가.”

허니 이름으로 처음에 ‘금쪽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와 흡사한 반응이었다. 어딘가 ‘진심이니 인간아’라고 묻는 듯한 반응.

지오는 조금 더 창의력을 발산해 보았다.

“…….”

잠시 침묵하던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다나?”

한국 이름 중에서는 ‘항상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다나’라는 이름을 떠올린 건 아니었다.

“다이아몬드가 계속 생각나서 비슷한 이름을 지어줄까 했는데, 다이아몬드는 너무 길고. 줄여서 다이아도 너무 길게 느껴졌어.”

그렇다고 ‘다아’나 ‘다이’로 줄이기엔 너무 양심 없는 짓 같고.

“거기서 조금 변형해서 다나, 어떠니.”

“무응.”

“좋다니 다행이군.”

심사에 통과했다.

“후.”

지오는 이 영광을 전 세계 작명가들에게 돌렸다. 역시 작명이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제 식사 준비하러 가자.”

“꾸루루루루룩.”

“이름 짓느라 배고파졌다.”

사골 국물을 정리하기도 해야 했다.

“다행히도 차아라 학생의 입맛에도 괜찮았던 모양이란 말이지.”

지구의 사골은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다. 손질하는 과정이야 비슷했지만, 그 이후로 불을 조절하고 떠오르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식의 정성이 들어갔다.

“가장 처음 나오는 사골국은 지나치게 기름져서 그냥 먹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단점이 있고. 나야 집에서 사골을 끓여도 버리기는 아까우니 어떻게든 활용했지만, 지구의 소로 우려내는 사골이 번거롭다는 건 달라지지 않아.”

“믕?”

“그런 게 있단다.”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해도 아직 적응이 덜 된 안티캣, 다나는 ‘무슨 소리인지 조금도 모르겠다’라는 듯이 지오의 어깨에 늘어졌다. 생각보다 무겁고 재밌는 모습이었다.

반면 지오가 요리를 즐기는 것을 아는 허니는 차분하게 말을 들었다. 진정한 미식가는 자신이 먹을 음식의 유래를 알고 더 깊이 즐길 줄 안다. 허니와 지오가 그랬다.

“그런 면에서 나무뿔사슴의 사골은 심하게 독립적인 편이지.”

가만히 약한 불에서 3일만 내버려두면 불순물을 건져낼 것도 없이 뼈와 연골이 녹아버린다.

“따지자면 나무뿔사슴은 정말 버릴 게 없는 셈이야.”

"꾸루루룩."

일부 창자를 제외한 나머지 내장을 전부 먹어치운 허니가 격한 공감을 보냈다. 기분 좋게 꽁지깃을 흔들던 허니가 다나의 반대편 어깨에서 지오를 돌아보았다.

"……."

"……?"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모습에 곧 지오도 허니가 뭘 말하는지 알아챘다.

"…아."

그러고 보니, 그때 나무뿔사슴을 해체하며 얻은 보석 심장이 있었더랬다.

"확인해 본다는 걸 깜빡했네."

"꿍꿍꿍…."

"오늘 밥 다 먹고 문제없으면 너 줄게, 허니."

널린 게 보석인 데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지오는 보석 심장을 탐내지 않았다. 이미 죽은 신체의 일부인 게 분명함에도 어딘가 아직 살아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이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먹고 탈이 날 것 같으면 아빠가 보관할 거야."

"꾹."

허니도 거기까지는 땡깡 부리지 않았다. 지오가 흐뭇해했다.

"기특한 것."

그는 성실하고 착한 아들을 둔 것에 기뻐했다. 지오 자신이 퍽 선한 사람인 것은 아닐 텐데, 이렇게 평생 좋은 가족들만 만나는 것도 참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오는 주르륵 흘러내리는 다나의 자세를 능숙하게 고쳐주며 말했다.

"사실 사골국 자체는 차아라 학생에게 그걸로 지은 밥을 줬을 때부터 완성됐는데, 그래도 얼음 창고에 두고두고 먹으려면 농축되어 있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꾸덕꾸덕하게 끓였다. 나중에 필요할 때 물을 더 넣으면 되는 일이니까."

"꾸루루루루루룩."

"그래, 너도 많이 기다렸지. 먹고 싶어서 아궁이 앞에 서성거리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정말 잘 참았어. 인내심이 강한 걸 보니 나중에 큰 새가 되겠구나."

원래도 액체 형태의 음식을 좋아하는 허니였다. 그간의 기다림이 꽤 혹독하게 다가왔을 터. 지오는 허니의 인내심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사골국이 아직도 끓고 있는 가마솥 앞으로 갔다.

"오…."

뚜껑을 열자 확 느껴지는 달곰한 향.

"좋네."

"꾸룩꾸룩꾸룩…."

"지금은 뜨거울 텐데."

"꿍."

"정 그렇다면 퍼줄게."

태양신의 손길을 몇 번이고 문제없이 받아낸 허니였다. 이제 와서 장작으로 조금 오래 끓인 국물 정도는 문제가 없는 게 당연했다. 지오는 작은 그릇에 국물을 퍼 담아 허니에게 주려고 했다.

그리고 지오는 보고야 말았다.

“허니.”

“꾸룩.”

“나오는 게 나의 심신에 좋겠구나.”

가마솥에 퐁당 빠져 있는 허니를 말이다.

“꿍꿍꿍….”

“나는 아들을 우린 육수를 먹고 싶지 않아.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장면도 아니고 날 대체 어떤 인간 말종으로 만들 생각인 거지?”

그사이 얼마나 먹었는지 허니가 뱁새에서 비둘기 정도로 확대됐다. 이대로 동물병원에 가면 고도 비만이니 보호자분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말을 들을 게 분명했다.

“안 그래도 농축되어서 맛이 더 진할 텐데 이게 무슨 짓이야.”

“꿍꿍꿍꿍꿍….”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아빠가 더 맛있게 해줄 수 있으니 조금 진정해 보도록 하자.”

허니는 투덜거리면서도 가마솥에서 기어 나왔다.

“…….”

“…너도?”

“앩옥.”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가마솥까지 기어 들어가 그 맛을 본 형제의 기행에 감명받은 것일까. 별다른 의욕 없이 어깨에 슬라임처럼 늘어져 있던 다나가 가마솥의 옆에 털썩 앉았다.

‘기본 체온이 낮은 다나에게는 조금 뜨거울 것 같은데.’

지오는 얕게 퍼낸 국물을 최대한 식혀 다나에게 건넸다.

“…….”

할짝.

“…….”

“오.”

소리 없이 은은하게 온몸을 발광하는 모습에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에 들었나 보군.’

허니처럼 수다스러운 녀석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기분이 제 몸을 발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 같았다.

지오는 아버지이자 요리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훈훈하게 식사를 준비했다.

“밥은 차아라 학생이 왔을 때 지어둔 게 있으니 그걸 먹자.”

“꾸룩.”

“망.”

먹는 것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다나는 사골 국물을 맛보고 무언가 느낀 바가 있는 모양이었다. 허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식사 준비에 참견하는 모습이 아주 흥미로웠다.

“역시 애들한테 맛있는 거만큼 잘 통하는 게 없다니까….”

지오는 사골 국물로 지은 밥을 득득 긁어 펐다.

아직도 고슬고슬한 밥알을 전부 퍼 담은 뒤, 밑바닥에 남아 있는 누룽지를 깔끔하게 긁어냈다. 밥을 짓는 용으로 쓴 사골국의 기름기 덕분인지 아주 깔끔하게 긁혀 나왔다.

“누룽지 드실 분.”

누룽지를 둥글게 말아 간단한 간식을 만든 지오가 묻자, 두 생물 모두가 반응했다.

“꾸루루룩. 꾸루루루룩.”

“망, 미얆, 왊옥… 믕망망망.”

“…가르자.”

원성이 자자했으나 솔로몬의 지혜만큼 역사 깊고 현명한 선택이 있을까. 지오는 깔끔하게 누룽지 주먹밥을 반으로 갈라 주었고, 거기까지 가자 두 반려 생물도 더 이상 꿍얼거리지 않았다.

그들이 누룽지 주먹밥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지오가 마저 식사를 준비했다.

“사골 밥으로는 구운 주먹밥을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말해도 정말 하나만 굽겠다는 건 아니었다.

“반찬으로는 가지 된장 구이랑… 국을 하나 끓여볼까.”

지오는 텃밭이라 부르고 괴물밭이라 여기는 뒤뜰로 향했다.

완두콩 줄기는 여전히 자아가 확고해 보였다.

“…….”

인사를 할 정도로.

“…슬슬 웃기네.”

살랑.

“네, 반갑습니다. 좋은 날씨이죠.”

“…….”

“오늘도 텃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오의 인사를 획득한 줄기는 다시 차분하게 스르륵 가라앉았다.

‘…이제 와서 평범한 콩 줄기인 척한다고 평범해 보이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지오는 콩 줄기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그는 보통의 콩 줄기는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자연스럽게 넘겼다.

아무튼 지오는 텃밭에서 가지 4개와 야채 이것저것을 좀 따 왔다. 깨끗하게 씻은 뒤 가지는 적당한 두께로 저며 소금에 절여두고, 무는 껍질을 벗겨 나박썰기를 했다. 완두콩도 깍지에서 꺼내 물에 한 번 씻었다.

“…아무리 그래도 육포를 넣기는 좀 그렇고.”

지오는 소시지를 가져왔다.

“허니, 매운 건 싫지?”

“꾸루루루루루루루루루룩.”

“그럴 줄 알았다.”

삼삼한 맛의 소시지였다.

“앩?”

“글쎄, 네가 매운 걸 먹을 수 있을지는 나중에 한번 알아보자. 국은 하나만 끓일 거라 매운 소시지가 들어가면 허니가 먹을 수 없어.”

“믁.”

“매운 소시지는 나중에 구워주도록 하지.”

아마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한 조합일 테지만, 국에 소시지를 넣어 끓여 먹는 것도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다. 물론 분홍 소시지나 스팸처럼 고기 알의 형태조차 보이지 않는 햄을 사용하긴 조금 애매하겠지만....

“그럼 이제 벗겨볼까.”

지오는 소시지를 손질했다.

내장 막의 끄트머리를 살짝 잘라내고 칼등으로 살살 밀어내면 소시지 안을 채우고 있던 고기 알이 그대로 딸려 나온다.

그동안 향신료가 적절히 스며들어 깊은 향이 나는데, 지오는 그 속살과 내장 막을 적당한 크기로 썰었다.

“이제 다 때려 넣으면 돼.”

농축된 사골국에 물을 살짝 첨가하고, 그 위로 무와 완두콩, 손질한 소시지를 넣었다.

완두콩은 괴물밭에서 자라 굵직하지만 다른 것에 비해 작고, 소시지는 이미 생으로 먹어도 충분한 녀석이었으니 무만 익으면 먹어도 됐다.

“그리고 다음은....”

주먹밥을 살짝 굽고, 과일청과 된장, 간장 같은 것을 넣어 만든 소스를 가지에 묻혀 화덕에 넣으니, 얼추 국이 완성되었을 때 나머지 음식도 조리가 완료된 상태였다.

“밥 먹자.”

“꾸루루루루룩.”

“앩오오옥, 믕먕먕먕먕먕....”

지오는 다나가 이렇게 길게 우는 것을 처음 봤다. 식사 시간을 이렇게 좋아한다니 매우 보기 좋았다. 애들은 먹을 때 제일 예뻤다.

“아빠는 태양신께 조공하고 올 테니 알아서들 먼저 먹고 있으렴.”

“므앵.”

“꾸룩.”

지오는 그대로 2층 작품 보관실로 향했다. 몇몇 풍경화가 그 자리에 있었다. 지오는 곧장 ‘숨 쉬는 바다’로 향했다.

예상대로 태양신은 무척이나 기뻐했고....

“.......”

선물을 주었다.

“...이게 뭐라고요? 자격증?”

“ ”

“그렇다면 제가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제 것이 아닐 텐데.”

“ ”

“... 예, 알겠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쁠 건 없어 보여 지오는 감사히 받기로 했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54)"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55)

제55화

“…….”

“응? 왜.”

“…오빠 놈아….”

“어.”

“그거 뭐냐.”

차아라의 질문에 그녀의 오빠, 차은혁이 고개를 기울였다.

“…보석?”

“아니 나도 그게 보석인 건 보면 알아. 어쩌다가 얻었냐고.”

“아, 그건….”

“오빠.”

보아하니 뭔가 변명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말이 길어지는 건 차아라의 취향이 아니었다.

“이거 봐라.”

“…보석이네.”

“나 어떤 인간형 몬스터한테 선물로 받은 거거든.”

“…….”

장남 차은혁이 말없이 이마를 짚고, 막내 차이솔이 숟가락을 떨궜다.

크고 깊은 한숨을 내쉰 차은혁이 말했다.

“…거짓말로 넘기려 해서 미안하고 우리 차근차근 구라 없이 이야기해 보자.”

막내의 입단식이 있기 이틀 전의 일이었다.

* * *

“아, 그래서….”

차씨 집안의 장남 차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보험금이니 뭐니 하면서 타 온 게 그거였구나.”

“어, 수집상 길드에서 피해 보상금 같은 개념으로 준 돈이라서.”

“덕분에 막내 사제복은 사줄 수 있게 되었지만 그걸 왜 지금 말해.”

“아니 시발 말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너는 우리가 그렇게 못 미덥냐.”

“뭐래 내가 툭 치면 멍들 일반인들이.”

차아라는 버릇처럼 예민하게 투덜거렸다. 딱히 화가 났다거나 마음이 상한 건 아니었고 워낙에 경계심 많은 살쾡이처럼 구는 게 차아라의 버릇이라면 버릇이었다. 본인은 자각이 없지만.

그나마 상대가 가족이라 한층 물러진 표정으로 차아라가 말을 이었다.

“원래는 말할 생각이 없었어. 막내는 직업이 발현됐지만 언제 간택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 비전투원… 현장직 말고 사무직… 그런 느낌이잖아. 오빠는 완전한 민간인이고.”

“그렇기는 하지.”

“수집상 길드에서도 가능한 한 발설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 없이 떠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엄청 중요한 기밀 같은 느낌이던데.”

“그런 것치고는 비밀 유지 계약도 안 한 것 같지 않아?”

“그게 좀 이상하긴 하더라. 기왕이면 발설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결국 퍼질 이야기이니 정 입이 간지러우면 어디 한번 말해봐라… 이런 느낌? 대기업도 생각보다 대충 돌아가더라.”

“뭐라는 거야.”

차은혁은 욱신거리는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그런 와중에 내가 그… 그 보석을 가지고 있는 걸 봐서 말한 거고?”

“세상에 그런 결정 구조를 가진 보석은 하나밖에 없대. 그럼 뭐겠어, 오빠도 이미 그 몬스터를 만났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숨기는 의미가 있나 싶어서 털어놓은 거지.”

“막내도 듣고 있잖아.”

“그럼 얘만 따돌리게? 야, 얘 서운하게 왜 그러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어라 말하려던 차은혁이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솔아.”

“응, 형.”

“이런 거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나 그런 거 잘해.”

“벌써부터 이런 걸 잘하면 어쩌나 싶기는 한데, 아무튼 장하다. 자칫 잘못하면 형이랑 누나가 서울에 있는 커다란 길드로 잡혀가서 실험체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럼 더 말 안 할게!”

“아이 멋지다.”

쾌활하게 엄지를 치켜드는 막내 놈과 그걸 칭찬해 주는 오빠 놈을 보며 차아라는 잠시 제 삶을 반성했다. 전생에 우리는 무슨 업을 지었길래 이런 똥멍청이들만 모였을까.

‘내가 지켜줘야지.’

모든 가족이 서로를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차아라가 쌀밥을 휘적거리다가 웅얼거렸다.

“아 이 맛이 아닌데….”

“몬스터한테 끌려가서 칠첩반상을 먹고 왔다더니 입맛만 높아졌네. 봐라, 편식 없이 잘만 먹는 우리 막내를. 얼마나 기특해.”

“존나 억울하다. 내가 언제 편식했어? 그리고 쟤 내 막내이기도 하거든? 나는 왜 안 기특하냐, 이리저리 굴러가며 보험금 타 왔는데?”

“살림에 보탬이 되기는 했지만 그만큼 내 자괴감도 커진다는 걸 알아챘어야지. 네 보험금으로 먹고사느니 입에 풀칠을 하고 만다.”

“이 호구 새끼, 막내 굶길 거야? 그렇게 사람 좋게 살면 하늘에서 돈이 내려와? 저승길 오른 할아버지가 로또 번호 점지해 주신대?”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지랄이야.”

차씨 집안은 대대로 호구였다. 누가 더 낫다고 할 상황이 못 됐다.

차은혁과 차아라는 막내인 차이솔이 어디 가서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차아라는 그것보다 조금 낫고, 차은혁은 그것보다 살짝 더 나은 것을 봤을 때 도토리 키 재기인 것이다.

“너는 저번에 막내가 짜준 목도리도 생판 남한테 던져주고 왔다면서.”

“아 시발 그럼 추워 뒤지게 생겼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어?! 시발 사이코패스이신지?!”

“그럼 돈 들이지 말고 펭귄처럼 허들링이나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차아라 헌터님! 그게 훨씬 경제적이었겠네!”

“생판 남인데 뭔 징그럽게 허들링이야, 개같은 소리 좀 작작해!”

“응 그 생판 남한테 막내가 짜준 목도리 주고 왔죠?!”

그런 두 가족을 보며 막내 차이솔은 그저 오랜만의 쌀밥을 맛있게 퍼먹었다.

“이거 진짜 맛있다.”

“그거 형이 만들었다.”

“채수는 내가 우림.”

“응, 맛있어! 대박이야!”

쌍 엄지를 치켜드는 막내의 순수한 모습에 두 가장은 힘을 얻고 의미 없는 싸움을 그만둘 수 있었다.

“우리 막내 기숙사 들어가면 얼굴 못 보나.”

“힘들걸.”

“차이솔 너는 누나 얼굴이 벌써부터 그립지도 않아?”

“지금 보고 있잖아, 누나.”

“시발 말이 안 통해.”

차은혁이 제 동생을 구박했다.

“막내한테 욕하지 마라.”

“막내 기숙사 들어가면 내가 막내임.”

“몬스터를 만났다더니 머리에 구멍이 났나. 둘째는 평생 둘째고 막내는 평생 막내지….”

“싸우자.”

밀려오는 개판 속에서 막내 차이솔은 그저 밥이나 먹었다.

“헤헤.”

오랜만에 먹는 쌀밥이 아주 맛있었다. 누나가 만났다던 몬스터가 아주 착한 몬스터인 듯했다.

* * *

“…….”

잠시 바깥에 나온 차은혁은 생각에 빠졌다.

‘…그날 봤던 사람이 몬스터였다고?’

처음부터 이상하기는 했다.

‘그야 나도 새벽에 만났을 땐 괴물의… 일종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무도 없는 어두운 새벽. 새까만 망토를 온몸에 두르고 나타난 남자는 도무지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다.

‘내 눈에만 보이는 그 망령 같은 것들과 흡사한 분위기를 띠고 있어서 그 종류 중 하나이리라고 짐작했는데.’

하지만 그는 차은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보였다. 지나치게 무뚝뚝한 면이 있지만 그건 개인의 특성이고, 제가 느꼈던 이질감은 단지 신실한 신도의 성력이리라고 여겼다.

“…….”

하지만 그가 단지 인간형 몬스터였다면?

“…그래도 말이 안 되지 않나?”

뭔가 이상했다.

‘나도 몬스터는 본 적이 있어.’

세상에는 던전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몬스터뿐만 아니라, 단순히 지구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마주치는 몬스터가 있었다. 일반인에게 잡힐 만큼 약한 몬스터라고는 해도 그 포악함은 달라지지 않는다.

차은혁은 헌터가 아니라 일반인이었지만 몬스터를 사냥한 적이 있고, 그렇기에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기운과 검은망토의 기운이 상이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건 몬스터의 기운이 아니었단 말이지.’

마당에 앉아 있던 차은혁이 어둑한 하늘을 보았다.

“…….”

새까맣고 커다란 뱀 같은 것이 먹구름 너머로 흐느적거리며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인간의 손발이 달렸으며, 느릿하고 거대했다.

“…분명 저런 놈 중 하나였는데.”

검은망토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따져보자면 확실히 인간형 몬스터라고 보는 게 맞아. 그 사람의 개인적인 던전도 있다고 했고. 하지만 기운 자체가 이상한 데다… 그런 종류의 괴물이라고 치기엔… 너무….’

사람처럼 굴었다.

“꼭 이것저것 잡다하게 섞어놓은 것 같네.”

몬스터인 것 같기도 하고, 제 눈에만 보이는 괴물 같기도 하고, 조금은 인간 같기도 했다. 워낙 여러 개의 특성이 함께 느

껴지다 보니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마치 그 검은망토가 모든 것의 근원인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몬스터를, 괴물을, 인간을 파생시킨 근원이라 한다면 그건 신이나 다름없었다.

'아니, 신조차 그런 일은 힘들지.'

허황된 생각이었다.

'막내 건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생각만큼 신이라는 족속들도 그렇게 전지전능하지는 못하던데….'

차은혁이 내심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나나 차아라가 본 검은망토는 사제들이 모시는 신들보다 상위 계급의 존재라고 쳐야 하나.'

하지만.

"……."

그렇게 생각하니.

"으으음…."

지난번에 느꼈던 성력이 걸리는 것이다.

아무리 일반인이라고 할지언정 이런저런 경험이 많은 차은혁이 신의 성력 하나 구분 못 할 리가 없지 않은가. 그건 분명히 신의 기운이었다.

차은혁이 검은망토에게서 느꼈던 기운과는 또 다른 것.

"…따듯했던 걸 생각하면 분명 태양이나 불에 관련된 쪽이었을 텐데…."

근처에 태양의 신전이 있기에 분명 태양의 신도라고 생각했다. 설마 조련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제라는 두 번째 직업을 가질 수 있을 리는 없으니, 아마 신실한 신도라 성력을 얻게 된 모양이리라고.

하지만 상대가 신도, 인간도 아니라면 그때 그 기운은 대체 뭐였던 걸까.

"신의 기운을…."

한낱 몬스터가 품을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

생각할수록 차은혁 자신이 고민할 주제가 아닌 것 같았다.

"…일단 단순한 몬스터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네. 수집상에서도 인간이 아닌 것에만 확답했다고 했고."

신의 기운을 다룰 수 있는 몬스터는 더 이상 몬스터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나마 가장 납득이 가는 쪽을 고르자면 평소 내가 봐오던 그 괴물들뿐인가.'

몬스터나 인간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선에서는 알고 있는 게 많은 반면, 그 '괴물'들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적었다. 어쩌면 그중에서도 신의 기운을 쓸 수 있는 괴물이 있을지도 몰랐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신사적인 태도를 갖춘 괴물이라니. 그게 아닌 인간형 몬스터라고 해도 길 잃고 버려진 제 동생을 손수 주워 밥까지 먹여 집으로 돌려보냈으니 어지간히 호의적인 상대였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구의 신보다도 상위 존재일 수도 있어. 그날 봤던 검은망토는 신의 기운을 품었는데, 신은 검은망토의 기운을 품지 못했으니까….'

거기까지 이어가던 생각이 뚝 하고 끊겼다. 괜히 기운 빼고 싶지 않았다.

"…정체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봤자 알아낼 수 있는 게 없겠어."

그냥 차은혁은 앞으로의 미래를 떠올렸다.

"차아라가 그 사람의 던전까지도 다녀왔다고 했지."

차아라는 대놓고 검은망토의 남자를 몬스터로 취급하고 있었지만, 왠인지 차은혁은 그를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었다. 그건 차은혁 본인도 자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럼 어느 날 다시 마주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건가."

일단은 차은혁이 그를 입단식에 초대하기도 했다. 막내의 입단식이 결정된 이상 다시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았다.

'꽤 흥미가 있어 보였으니 안 올 것 같지는 않아.'

이제 태양신의 신도라는 오해는 사라졌지만, 어찌 되었든 태양에 가까운 성력을 다루던 사람이다. 분명 입단식에서 마주치게 될 것이었다.

"…내가 너무 위험한 존재를 초대한 게 아니라면 좋겠는데…."

그렇게 고민만 하며 지새운 밤, 그다음 날 아침.

"……."

"……."

차은혁은 잠시 정신이 아찔해졌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난생처음 온 가족이 다 함께 서울로 올라온 차씨 가족은, 다름 아닌 지오와 마주치게 되었다.

새까만 망토를 두른 기이한 남자 말이다.

"오랜만입니다."

태연한 인사였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은 했어도 이렇게까지 빨리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다시 만나게 된 검은망토는 여전히 기이한 분위기를 두르고 있었다. 괜히 차은혁이 첫 만남부터 '이거 인간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다.

그사이 검은망토의 곁에 있던 하얀 머리의 남자도 인사해 왔다.

"반갑네요, 다시 봐서. 가족들이 다 같이 올라왔나 봐?"

"뭐야, 유성운 씨랑 오빠랑 아는 사이였어?"

"붕어빵 사면서 종종 만나기는 했지."

"아, 붕어빵…."

고개를 끄덕인 차아라가 이내 미묘한 눈으로 검은망토를 보았다.

"……."

"문제가 있습니까?"

"…저도 나중에 붕어빵 사 드릴게요."

차은혁은 드디어 우리 꽃돼지가 미쳤나 싶었다. 저런 위압적인 상대에게 대놓고 붕어빵을 선물하겠다니, 물론 검은망토가 직접 차은혁에게서 붕어빵을 산 적도 있지만 그건 사회 경험의 일환이었을 텐데....

하지만 의외로 검은망토는 순순히 받아들였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그... 네.”

붕어빵을 좋아해?

‘...생각보다 소탈한, 건... 가?’

저런 분위기로?

‘곧 죄인을 교수대에 올려 심판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검은망토는 눈에 띄는 공기를 두른 존재였다. 새까만 망토의 탓인지, 그는 마치 악령이나 사신 같았다.

그만큼 인간이 아니라 유령을 닮아 어딘가 불길했고, 서늘하고, 공허했으며, 정교하게 세공된 장식품처럼 아름다워 보이다가도 동시에 기이한 징그러움을 느꼈다.

차은혁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

주변을 둘러보니, 출근하는 사람들 시선이 검은망토의 쪽에 이따금 박히고 있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아, 예.”

“원래 늘 저런 분위기니까.”

“그렇군요.”

유성운의 말에 차은혁은 묘한 불안을 느꼈다.

‘막내 입단식인데.’

이거 잘 끝날 수 있겠지...?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55)"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56)

제56화

입단식은 총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가 사전 설명, 두 번째가 사전 교육, 세 번째가 본식."

"……."

"…인 걸로 알고 있는데."

치이익—

삼겹살을 뒤집으며 유성운이 물었다.

"맞나?"

"아, 네, 맞습니다."

잠시 고기에 정신이 팔렸던 예비 사제의 보호자, 차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역에서 만난 직후 대화할 장소가 필요하겠다고 판단한 유성운의 진두지휘 아래, 그들은 한 삼겹살집에 앉아 있었다. 사방이 가로막힌 방은 꽤 조용하고 아늑했다.

"오늘 저희가 듣게 될 건 사전 설명회입니다. 사제라는 직업의 특성부터 시작해 앞으로 어떤 교육을 받게 될 것인지, 어떤 사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자리라고 합니다."

"사전 교육은 본식 전에 예비 사제들이 따로 교육을 받는 자리일 테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바로 본식을 진행하기는 힘들 테니까요. 본식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나 해야 할 역할 같은 것을 배운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차은혁이 제 어린 동생, 차이솔을 보며 물었다.

"사전 설명회 직후에 임시 기숙사에 들어가서 본식 예절을 배운다고 했지?"

"응, 하루 정도 걸린다고 했어."

그렇게 말한 차이솔이 유성운과 서지오 쪽을 돌아보며 배시시 웃었다.

"…요."

"아하하, 불편하면 굳이 존댓말 쓰지 않아도 돼."

"저 존댓말 잘 써요."

“그래? 대단하네.”

유성운이 맞장구를 치며 웃었다.

“그럼 총 이틀 걸리는 행사인 건가.”

“아뇨. 사전 설명회와 사전 교육에 하루, 본식에 이틀 해서 총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본식이 이틀이나 걸려? 내 분야가 아니라 잘 몰랐는데, 꽤 오랫동안 하네.”

“신의 시선을 받으려면 본식이 최대한 길어야 유리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 하긴 이름 있는 교단은 대체로 입단식이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조용히 있던 지오가 물었다.

“신의 시선이 꼭 필요합니까?”

“…그게, 사제는 신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큰 활동은 못 하니까요.”

몬스터인지 뭔지 모를 지오와 함께 삼겹살을 먹는다는 비일상적인 상황에 연신 눈치를 살피던 차아라가 말을 이었다.

“사제가 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신의 시선을 받을 기회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 가장 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처음 사제로 인정받을 때의 입단식에서이고, 나머지는… 뭐라고 했더라?”

“아무튼 행사 있을 때. 아니면 던전에서 기연을 얻거나, 사제로서의 역량을 증명하면 신의 눈길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누나와 형이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강아지처럼 복슬복슬한 머리카락을 가진 차이솔은 고기를 입안에 왕창 욱여넣었다.

“이거 마히따.”

“많이 먹어.”

유성운이 귀엽다는 듯이 웃었다. 지방 주민은 식당에 올 날이 드물 테니 저렇게 맛있게 먹는 거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차이솔은 꽤 복스럽게 밥을 먹었다.

‘보는 사람이 다 기분 좋아지네.’

아마 지오도 비슷한 느낌인지 유독 차이솔 앞에 고기를 놔주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잘 먹는군요.”

“저 잘 먹어요.”

“기특합니다.”

“이히.”

지오의 정체를 아는 세 명의 성인은 묘한 느낌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특히 두 차씨들이 그랬다.

‘아이고 이솔아….’

‘저 친화력을 어떻게 해야 할 텐데.’

분명 서울에 올라오기 전 저녁을 먹으면서 ‘검은망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마 저 꼴을 보니 제 동생은 눈앞의 ‘서지오’와 ‘검은망토’가 동일 인물이라는 걸 못 알아챈 것 같았다.

“…….”

“…….”

검은망토가 대놓고 차이솔을 챙기는 모습에 차아라와 차은혁, 유성운이 시선을 교환했다.

‘원래 애들 좋아해요?’

‘나도 몰라.’

유성운은 고개를 저었지만, 생각해 보면 지오는 차아라와 만났을 때도 뭔가를 먹이는 것에 열중했다고 했다. 유성운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늘 먹을 걸 선물하기도 했고.

그런 걸 고려하면 그냥 누구 배 불리는 거에 흥미가 강한 것 같기도 했다.

“으음….”

아무렴 좋은 게 좋은 거겠지.

“지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입단식에 대해서 묻는 겁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괜찮아?”

지오는 액자 바깥에 나와 있으면 힘들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격을 평범한 인간 수준으로 죽이고 있는데 힘들지 않을 리가 있나.’

지금의 지오도 평소의 격을 죽인 채 A급 헌터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영혼이라고 해야 할지, 본질적인 무언가에 타격이 가기는 할 텐데 3일이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힘들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둘의 대화에 차은혁과 차아라는 뭔지 알겠다는 표정을 짓는 것에 반해, 고기를 열심히 주워 먹던 차이솔은 의문 어린 얼굴로 물었다.

“형은 바깥에 오래 못 있어요?”

“…….”

“몸이 약해요?”

차은혁과 차아라가 소리 없이 경악했지만, 유성운은 조금 놀랐을 뿐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지오가 어린 인간의 질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한 탓이었다.

지오는 잠깐의 공백 후에 대답했다.

“몸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약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 보이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은 유성운으로서도 의외였다.

‘…지오의 정신이 약하다고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다만….’

왜 몸이 아니라 정신을 탓했는지는 알 것 같았다.

격을 낮추는 것은 신체의 고통보다는 정신의 고통이 클 거다. 하지만 인간의 기준에서는 사지를 잘라내고 구타한 수준의 고통을 참아내는 것인데, 그걸 '약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었다.

그런 걸 보면 지오는 여느 근원의 존재들과 달리 스스로를 강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못하는 거에 가깝지 않을까.'

종종 인격과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으니 자기 객관화가 힘든 것도 당연했다. 시력이 나빠 자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코끼리처럼 말이다.

"형은 어떤 신을 모시고 있어요?"

"신?"

"네, 뭔가 따듯한 게 느껴지는데...."

지오를 응시하며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차이솔의 말에 유성운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게 느껴져?"

"네? 음, 네. 엄청 따듯하잖아요."

"오...."

"혹시 이런 건 느끼면 안 돼요?"

"그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성력을 알아채는 사제는 드물거든."

유성운이 젓가락을 까딱거렸다.

"특히 너처럼 소속된 신성이 없고 어린 사제는 말이야."

그 말에 지오가 중얼거렸다.

"소속된 신성이라고 하니 꼭 하나의 당처럼 느껴지네요."

"아마 비슷할걸? 신들끼리도 알력 다툼이나 지분 싸움을 하고 그런대. 신도가 많아질수록 해당 신의 세력도 커지니 활동하기도 좋아지고...."

"이름만 신이지 생각만큼 신성한 취급은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재앙 이후 최근으로 와 조금 세속적인 이미지가 생기긴 했다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한 유성운이 젓가락을 든 채로 가볍게 박수 쳤다.

"축하해요, 보호자분들. 차이솔 군은 잘하면 이번 입단식에서 신의 선택을 받겠어."

"어... 진짜요?"

"어느 신이든 좋은 인재는 탐내는 법이거든. 난 사제가 아니니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재능이 있어 보여."

유성운은 설명을 덧붙였다.

"애초에 성력이라고 하는 건 신에게서 빌려오는 힘이라 마력과 다르게 타인이 느끼기가 힘들어."

"아...."

"봐, 나는 A급 헌터인데도 지오가 성력을 쓸 수 있는 줄도 몰랐고 그게 어떤 기운인지도 몰랐잖아."

"어, 그렇구나...."

차아라가 미묘한 눈으로 지오를 보았다.

'몬스터인데도 성력을 쓴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차아라의 생각을 알겠다는 듯 유성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본인이 인간인 줄 아는 지오 앞에서 대놓고 말할 수는 없기에 그대로 넘겼다.

그 와중에도 차이솔은 꿋꿋했다.

“그래서 형이 모시는 신은 누구예요?”

“따로 모시는 신은 없습니다.”

유성운이 굳은 얼굴로 어색하게 웃으며 속삭였다.

“지오.”

“예.”

“있다고 말하는 게 좋을걸.”

“없는 걸 왜 있다고 말하죠?”

“보통은 있으니까.”

선택을 받은 신도든 신실한 사제이든, 성력을 다룬다는 것은 애초에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였다. 차은혁을 성력으로 치료한 적도 있는 주제에 모시는 신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됐다.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

“…….”

“모시는 신이 없는데 성력을 쓴다면 그건 그냥….”

“닥쳐 꽃돼지.”

“죄송.”

오빠의 현명한 일침에 차아라는 입을 다물었다.

모시는 신이 없는데 성력을 다룰 수 있는 존재는 신뿐이었다.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격을 갖춘 존재라는 것이다.

‘입이 방정이지.’

다른 헌터들 앞에서는 잘만 통제되던데, 왜 이리 검은망토의 앞에서만 혀가 자유분방해지는지 모르겠다.

차아라가 조용히 동공을 떠는 사이 차은혁도 애써 정신을 가다듬고 있었다.

‘…내가 아는 신이라는 존재의 이미지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서 설마, 아무리 그래도 이쪽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쯤 되면 저쪽에서 차아라에게 검은망토를 말 통하는 몬스터라고 소개했던 것도 너무 불경한 거 아니었을까.’

지난밤 망상 병에 가까웠던 자신의 의심이 옳았다는 건가. 차은혁은 그야말로 되는대로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에 큰 충격과 회의감을 받았다.

‘이 어마어마한 존재의 진실을 내가 굳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몹시 피곤했지만, 이곳의 최연소자 차이솔은 아무튼 해맑았다.

“와, 모시는 신이 없는데도 성력이 있을 수 있구나!”

아니 없어.

‘저분이 이상한 거야.’

왜 인간인 척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

볼 장 못 볼 장 다 본 짐꾼 헌터인 차아라와 어릴 적부터 이상한 존재가 보였던 차은혁은 노련하게 속내를 삼켰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겁해서 자리를 뛰쳐나가지는 않았다. 애초에 지금 시대의 '신'이란 중세 판타지의 유희를 즐기는 드래곤의 수준이었다. 인간이나 몬스터로 위장해 지구의 삶을 즐기는 괴짜 신이 종종 뉴스를 탄 덕분이다.

"......."

어찌저찌 이 상황을 받아들인 두 차씨와 달리 유성운은 그 나름대로 속이 복잡했다.

'...지오가 근원과 큰 연관이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성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유성운이 내심 한숨을 삼켰다.

'조금 이상하지. 단순히 격이 높다고 해서 신성을 띨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쩌면 지오의 인격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 걸까?

'여전히 뭐 하는 존재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유성운은 목을 긁적였다.

지오가 인간 흉내에 미숙하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직접 지오의 던전까지 끌려갔던 차아라는 물론이고 차은혁도 대강 눈치를 챈 것 같은 마당에, 이게 어디 뭐 더 숨긴다고 될 일인가.

"......."

삽시간에 어색해진 분위기를 알았는지 덩달아 검은망토도 어색해하는 게 보였다.

'어색해하지 마.'

너까지 그러면 분위기가 더 악화된다고.

머뭇거리던 지오가 말했다.

"...저도 모시는 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죠?"

"어, 아니야, 그냥 한번 말해봤어."

변덕스럽고 고집스럽던 근원의 자식들을 상대해 왔던 유성운은 깔끔하게 웃으며 지오에게 장단을 맞춰주었다. 아직도 정체 파악이 안 된 불명의 존재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신인데?"

"태양신이요."

"그래 가장 보편적인 신이긴 하지...."

지구에서도 세계 각지에서 등장했던 종교가 바로 태양교였다. 당장 이 좁은 나라에만 해도 태양 신전이 50개가 넘고. 거의 대재앙 이전부터 있던 종교라고 아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만큼 '야 나 태양 신도야'라고 구라 치기도 딱 좋았다.

"아, 그래서 따듯했구나."

유일하게 차이솔만이 지오의 말에 속아주었다.

"나도 태양신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왜 당신이 감사해.

'진짜 정체를 숨길 생각이 없는 건가.'

차은혁은 사레가 들릴 뻔했다. 난생처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음식 맛이 안 느껴졌다.

사실 지오가 감사하다고 한 이유는 그의 오두막 안방에서 쉬고 있을 노인분을 떠올리며 한 말이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겠군.’

가뜩이나 신도가 없어서 시무룩해진 곰 인형을 안쓰러워하던 차에, 태양신을 좋아한다고 말해준 차이솔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건 아들로서 당연한 일이었다.

“제가 아는 태양신 한 분을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지오.”

유성운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차이솔 군에게도 다른 신의 눈에 들 기회를 줘야지.”

“저는 그냥 소개만 해드리겠다고 한 건데....”

“애초에 그 소개를 왜 해주는 거야.”

“친구가 늘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신이랑 차이솔 군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왜 못 하죠?”

“오....”

지오는 홀로 쓸쓸히 늙어가는 곰 인형을 소개해 줄 생각이었지만, 그런 사정을 모르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내가 태양신 비슷한 건데 너를 친구 삼고 싶다’라고 말한 격이었다.

‘정말 더럽게 편견이 없군.’

이런 삼겹살집에서 나눌 이야기는 절대 아니었다.

“...지오는 정말 그릇이 크구나.”

“감사합니다.”

“그래, 밥 먹자.”

빨리 입단식이나 구경시키고 액자로 돌려보내야 할 것 같았다.

* * *

“.......”

유성운에게 온 문자에 비사벌이 눈을 깜박였다.

“...태양신이라.”

딱히 그쪽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애초에 지오의 초상화에서 신성이 느껴지지는 않았지. 본인이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이라고 봐야 옳다.’

게다가 지오의 정체를 ‘신’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많이 불안정하다.

“그게 전부일 수는 없어.”

그의 신성은 지오가 가진 수많은 특징 중 하나에 불과하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존재였다. 몬스터의 특징을 가지기도 했고, 근원의 자식들처럼 모호한 면이 있기도 했으며, 유성운이 말한 대로라면 신격을 지닌 존재이기도 했다.

"동시에 인간을 닮았지."

가끔 그는 몬스터가 된다. 가끔 그는 인간이 된다. 그렇다면 가끔 그는, 신이 될 수도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의 파생이라도 된다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달리 말해 지오는,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소리가 된다.

"......."

근원이라.

"...흐음."

그게 인격체일 가능성도 있나?

지오가 조금 더 큰 사고를 쳐준다면 확실히 알아낼 수 있을 텐데, 그의 호의가 아쉬울 따름이었다.

오

Chapter (56)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57)

제57화

“어, 입단식 하나 봐.”

“잠깐 보고 갈까?”

“안 그래도 추웠는데 잘됐다.”

“무슨 교에서 하는 행사래?”

“태양교인 것 같은데….”

“태양교면 볼 만하지.”

그 어느 종교의 입단식이든,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구경꾼을 막지는 않는다. 입단식의 구성원이 늘어나야 신이 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었다.

“그 덕분에 우리도 자리를 얻었네.”

“생각보다 사람이 많습니다.”

“한두 명 모이는 것 정도로 신의 시선을 받기는 어려우니까.”

물론 지오와 같은 경우도 있겠다만.

‘모든 신이 너 같지는 않겠지.’

아직 지오의 정체가 확정되지는 않은 시점이라고 해도, 그가 어느 신성의 주체라는 것만큼은 확실해진 상황이었다. 요소가 더해져 혼란스러워졌을 뿐 사실을 부정할 이유는 없었다.

이미 차씨 가족은 행사 관계자 자리로 이동한 상황. 그 모습을 눈으로 훑은 유성운이 지오에게 자리를 권했다. 웅성거리는 무리와 적당히 떨어진 곳의 테이블이었다.

“여기 앉을까?”

“좋습니다.”

역시 인간들과 너무 가까이 있기는 번잡한 건지, 혹은 부담스러운 건지. 지오는 반갑다는 듯 유성운이 권한 자리로 가 앉았다.

덕분에 이야기 나누기는 수월했다.

‘…대부분 헌터가 아니라 민간인이니 여기서 나누는 대화가 들리지는 않겠지.’

테이블 위의 물로 목을 축인 유성운이 입을 열었다.

“너는 신성을 다룰 수 있는 거야?”

“신성이라고 하면, 신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까?”

“비슷하다고나 할 수 있지. 아니면, 뭐랄까... 자격증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고.”

“아, 역시 자격증이군요.”

“역시...?”

잠시 의아해했지만, 곧 유성운이 말을 덧붙였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네. 신의 자격증이라고 봐도 될 테니까.”

신성은 흔히 말하는 성력과는 다르다.

신의 선택을 받은 인간이 그분의 도움으로 다루는 힘을 성력이라 하고, 신성은 하나의 신이 가진 신격 그 자체이자 거기에서 파생된 권능을 이른다. 급이 전혀 다른 녀석들이었다.

“.......”

무언가 떠올리는 듯하던 지오가 말했다.

“자격증을 말씀하셨던 거라면, 예,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신도가 저뿐이었거든요.”

“.......”

유성운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예전 청계천에서 보았던 금발 청안의 지오와 연관된 이야기인가.’

지오의 인격이 유달리 변화할 때, 그 외양에도 변화가 오는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물에 발을 담갔더니 색이 변한 낙엽처럼 백금발로 물들던 지오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히 떠올랐다.

‘하지만 유달리 물과 연관이 있어서 아무래도 바다의 신이라든가, 강물이나 연못, 그런 걸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태양이 나오다니 꽤 흥미로웠다. 비사벌이 이 자리에 있었더라도 아마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걸까.

“신의 자격증을 받다니, 대단한걸. 보통은 잘 없는 일이야.”

대수롭지 않은 듯 감탄했지만 유성운이 알기로 아예 없는 일이었다. 그 어떤 신도 자신의 격을 한낱 인간에게 주지 않는다.

‘신도 인간도 괴로워질 일을 왜 공연히 저지르겠어.’

하지만 지오의 음성은 여전히 무뚝뚝하고 사무적이었다.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너 이전의 태양신이?”

“제가 유일한 신도로서 그분과 교류하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하거나... 그렇게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니 이전처럼 홀로 있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듯했습니다.”

“.......”

“그러더니 이 자격증을 주시더군요. 제가 보고 듣는 것을 공유하고 싶고, 또 반쯤은 선물이라면서요. 자격증이라고는 해

도 실체가 있는 무언가는 아닌 것 같지만 말입니다.”

유성운은 입술을 우물거렸다.

‘이걸... 전대 태양신이 너무 나약하다고 해야 하나, 지오가 대단하다고 해야 하나....’

아마 후자일 것이다.

보통 신은 유일무이한 존재라 홀로 있다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데, 아마 그 교류하는 과정에서 지오가 신에게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만든 거겠지.

그건 지오가 대단한 게 맞았다.

‘게다가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짐을 떠넘기지도 않았을 거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처음부터 지오가 신의 격과 가까운 존재이기에 그 태양신이 동등한 존재로 인식해 외로움을 느끼고 신격도 선물로 줬다고 하는 편이 맞을 거다.

“.......”

그럼으로써 더더욱 지오라는 존재의 정체를 알 수가 없게 되겠지만 말이다.

태양의 신이 동등하다고 판단할 정도였다면 그건 그냥 다른 종류의 신이라는 뜻이지 않은가. 최소한 신성을 품을 수 있을 만큼 격이 높은 존재라는 거다.

그걸 뭐라고 정의해야 하지?

‘너 대체 뭐 하는 놈이야.’

파면 팔수록 모르는 이야기가 나오니, 제발 누가 하나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 * *

사전 설명회는 빠르게 진행됐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네.”

“일정이 촉박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 예비 사제들을 교육할 시간이 필요하니.”

간단한 계급. 사제에 대한 정의. 그런 사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고....

신을 모시는 이에 대한 설명이 가볍게 이루어진 뒤에는 입단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졌다. 예비 사제들이 받게 될 교육과 혜택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가족들과 전부 대화를 나누신 후에 예비 사제들은 저를 따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가 없으신 예비 사제들은 미리 제 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짙은 금발의 사제가 말하자 몇몇 아이들이 쭈뼛거리며 그에게로 다가갔다. 판타지 영화에서 나올 법한 굵은 인상의 사제가 아이들을 통솔했다. 서양 특유의 얼굴선과 구불거리는 머리카락이 인상적이었다.

지금의 한국에서는 저런 서양식 얼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지만, 사제라 그런지 분위기가 남달랐다. 총괄 사제를 살피던 지오의 시선이 그 밑의 아이들에게로 닿았다.

“저 아이들은 가족이 따로 안 왔나 봅니다.”

“뭐... 가족이라는 게 인간 조직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지금 시대에선 그런 식의 혈연 집단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인간의 경우가 더 많거든.”

유성운은 지오가 뭘 궁금해하는지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에 대한 지식이 모호한 면이 있는 지오는 ‘인간은 가족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알 테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이다.

“저 아이들 중 대부분이 유독 깨끗하지 않은 게 보이지?”

“그렇군요.”

“아마 사제로 각성한 카네이션 아이들일 거야.”

“카네이션 아이가 무엇입니까?”

“보호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고아라고 해야 하나.”

도시 외곽에는 4등급 시민인 빈민들이 있고, 의도적으로 버려진 아이들도 꽤 많다. 인간을 버리는 쓰레기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그중에서도 카네이션 아이들은 직접 자신을 데려가 줄 보호자를 찾기 위해 거리에서 홍보하는 아이들이야.”

“스스로를 홍보합니까?”

“그래. 누군가 자신을 데려가길 원하는 아이는 꽃을 들고 있지. 여건이 조금 나은 아이는 진짜 카네이션을 들고 있고. 그게 아니면 휴지나 종이 같은 걸로 꽃을 접거나… 구식만 갖추면 의미는 전달이 될 테니까.”

일명 ‘카네이션 아이’는 대재앙 직후, 한창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을 때 만들어진 문화였다.

“대재앙이 봄에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어버이날이라고… 부모님에게 자식들이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문화가 있었던 날이 왔거든.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는 마음에 카네이션은 만들었는데 막상 줄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런 상황을 안타까워한 어른들이 하나둘 색종이 카네이션을 들고 있는 아이를 데려가기 시작했다.

그걸 본 영민한 고아들은 만들 생각이 없던 카네이션을 접어 길거리에 나가 들고 있었고, 이게 ‘카네이션 아이’의 시작이 되었다.

“사실 나도 잘은 몰라. 나보다 한두 세대쯤 위에 있었던 일이라….”

“그렇군요.”

“아무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고아 중 입양을 원하는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카네이션을 준비해. 휴지나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접든, 길거리에 핀 꽃을 꺾든, 열심히 돈을 구해서 카네이션 한 송이를 사든… 그럼 ‘나를 데려가 달라’는 의미야.”

“제대로 된 입양 절차는 거치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파양될 위험은 없습니까?”

“왜 없겠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인데, 처음 카네이션 아이라는 문화가 생긴 직후에도 그런 식으로 파양되는 아이들이 많아서 한동안 시끄러웠대. 지금이라고 뭐가 나아졌을 리가 없지.”

그 누구도 카네이션 아이를 진지하게 입양할 생각을 않는다.

“카네이션 아이 본인도 그렇고. 대재앙 직후야 안쓰러운 마음에 가족처럼 대해주려고 입양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공짜 일꾼 채용? 그런 느낌에 가까워.”

“…….”

이놈의 고향은 왜 올 때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세상이 많이 무서워졌구나.’

잘하면 눈 뜨고 코 베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리적으로.

“하지만 저 아이들이 카네이션 아이가 아니라 단순한 고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제로 각성했다 한들 보통 신전에서 책임지는 건 카네이션 아이들뿐이거든.”

“어째서죠?”

“좋은 노동력이니까?”

“…….”

아동의 인권은 어디로 갔지?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네가 시선으로 비난하면 무섭단 말이야. 애초에 별다른 빈민 구제 정책도 없이 방치된 4등급 시민은 일반적인 업체에서는 잘 고용해 주지도 않아. 어디 뒷골목 생산 노동 쪽이라면 몰라도.”

“4등급 시민은 정식 취직이 힘듭니까?”

“애초에 4등급 시민은 ‘감당할 능력도 없는데 무작정 도시로 들어와 엉덩이를 붙이고 앉은 해충’이라는 안 좋은 딱지가 붙었어.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은 일할 의지가 없기도 해.”

“…….”

“제값 주고 고용해도 능률이 떨어지는 데다 시민들 시선도 안 좋으니, 고객들에게 욕만 먹고 싶은 게 아니라면 데려가려는 곳도 없지. 4등급 시민은 그만큼 인식이 안 좋아. 마땅한 노력도 안 하면서 도시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야.”

4등급 시민을 고용한 기업은 시민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받는다. 빈대처럼 하는 일도 없이 빈둥거리면서 도시의 이권을 나눠 먹으려는 버러지들에게 왜 기회를 주냐는 거다.

“같은 느낌으로, 보통은 빈민가의 아이가 사제로 발현했다고 꼭 신전이 받아주지는 않아. 신의 선택을 받을 확률도 낮은데 안 좋은 시선 받아가며 빈민의 아이를 꼬박꼬박 챙겨줄 여력이 없다는… 그런 맥락이랄까.”

“계산이 확실하군요.”

“카네이션 아이들은 다른 4등급 시민과 달리 일할 의지가 ‘카네이션’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데다, 아직 어려서 시민들의 시선도 마냥 안 좋지는 않거든. 이미 신의 선택을 받았다면 모를까 단순히 각성만 한 고아가 이런 자리에 있다면 카네이션 아이일 확률이 높아.”

“…….”

지오는 결심했다.

‘입단식만 보고 다시 액자로 튀어야지.’

이 각박한 세상 같으니. 눈물 나고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다.

동정심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저 혼자 타파해 내리라 마음먹기에 지오는 그냥 나이만 먹은 어른이었다.

세상이 더 따듯해지기를 소원하며 지오가 주변을 둘러봤다. 정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였지만 생각보다도 금방 마음이 편안해졌다.

“…….”

“왜? 같은 태양신 계열이라 통하는 게 있나?”

“따듯해서 기분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환영받는 기분이었다.

“특히 저 신상이….”

“…….”

“……?”

여신의 형상을 띈 상과 분명 시선이 마주친 것 같은데.

지오가 눈을 두 번 정도 깜박였다.

‘뭐지, 괴담인가.’

그의 판단은 빨랐다.

‘아무 일도 없었다.’

헛것 본 셈 치기로 했다.

“신상이 멋지군요.”

“방금 뭔가 공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한낱 인간의 몸으로 신들의 사연에 끼이긴 싫으니까.”

“감사합니다.”

지오의 부담스러움을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일개 인간인 입장에서 유성운은 이 악물고 눈앞에 닥쳐온 기적을 회피했다. 그도 결국 수집상의 길드원이었다.

유성운도 분명히 보았다. 지오가 신전 분위기와 신상의 아름다움을 칭찬할 때 대놓고 쏟아진 시선을 말이다. 유성운은 이렇게 직접적인 신의 시선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제발 이런 기적은 내가 없을 때 일으키라고.’

조금도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우리 친애하는 차씨 가족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끼어보는 게 어때.”

“좋습니다.”

그렇게 둘은 온몸으로 신의 시선을 모른 척했지만, 그녀를 모시는 사제는 그러지 못했다.

차씨 가족으로 향하려는 둘을 휘둥그렇게 뜬 눈으로 보는 사제가 있었다.

‘조졌군.’

유성운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다.

짙은 금발의 사제는 분명, 이 행사를 주관하던 높으신 사제로 보였다. 이런 자리에 나올 정도라면 분명 주교를 지척에서 모시는 사제 중 한 명일 것이었다.

다시 말해 태양신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

“…….”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

무언가 알아챈 듯한 얼굴로, 금발의 사제가 희미하게 고개를 꾸벅였다. 인상이 강한 탓인지 유독 신성해 보이는 동작이었다.

유성운은 그 꾸벅임의 의미를 깨달았다.

‘눈치 깠네.’

지오에게 신성이 있음을 알아챈 모양이었다.

“지오.”

“예,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그런다고 수습될 문제라면 말입니다.”

“아마 아니겠지…?”

유성운은 퇴근하고 싶어졌다.

오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58)

제58화

새까만 망토를 뒤집어쓴 존재를 보며 금발의 사제, 강서담이 생각했다.

'의도치 않게 떠밀려 맡은 행사에 신이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행사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원래 주관하려던 사제가 실종된 이후 강서담이 맡게 되었는데, 그런 행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모습의 신을 마주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

'하지만 신이 직접 참석한 자리치고는 상당히 조용하군.'

그가 모시는 태양의 여신도 그렇고, 인간인 척 군중 사이에 스며들어 유희를 즐기는 저 신도 그렇고. 이례적인 상황인 것 치고는 그 어떤 혼란도 생기지 않았다.

'…여신께서야 강림하지 않으셨으니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것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대놓고 사람의 형상을 취한 신이 이렇게까지 조용히 있다는 건 신기한 일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신인 듯했다.

"……."

하긴, 유희를 즐기는 신들은 대부분 인간 친화적이었다.

'태양의 신전과는 달리 서늘하고 적막한 분위기인데, 죽음이나 질병 계열의 신인 걸까. 서늘한 기운을 보면 심해와 관련된 신일 수도 있겠어.'

지오는 태양의 신에게 '자격증'을 받았지만, 그것은 지오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었다. 지오는 기본적으로 장례식을 형상화한 듯한 음울한 분위기를 띠었다.

가까이에서 확인하거나 접촉하지 않는 이상 강서담이 그가 어떤 계열의 신성을 갖췄는지 알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얼추 짐작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음…."

유희를 즐기는 신에게 아는 척해봐야 심기만 거스르겠지.

'재앙의 기적을 내리려는 낌새는 보이지 않아. 다른 인간들과도 충분히 교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번 행사를 망치려는 의도는 없을 거다. 이대로 조용히 넘어가자.'

어쩌면 인지도가 낮거나 소수 정예를 추구하는 신이라, 직접 이번 행사에서 자신의 신도를 찾아내려는 생각일지도 몰랐다.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지만 종교계에서는 암암리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들었다.

“…이번 기수는 운이 좋군.”

저 검은 망토의 형상을 한 신이 직접 간택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태양의 여신께서 시선을 준 자리다. 다른 신들의 관심도도 올라갈 테니 예비 사제들이 선택받을 확률도 높아진다.

“…….”

문득, 강서담은 검은망토가 자신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한 순간, 강서담은 오기 부리지 않고 곧장 시선을 내리깔았다.

‘신의 시선을 직접 감당하려는 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지.’

비록 다른 인간들을 배려해, 아니면 더 질 높은 유희를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검은 망토의 격은 거의 신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인간 수준으로 낮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아득한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다.

신은 결국 신이었고, 강서담은 특히 존재의 격과 신성을 예민하게 감지하는 사제였다. 그런 그가 신의 시선과 직접 마주하게 된다면 의식을 잃게 될지도 몰랐다.

“…….”

“…….”

검은망토도 그걸 아는지 다시 시선을 거두어 주었다.

‘…배려해 주신 건가.’

인간이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아는 신이라 정말 다행이었다.

그런 걸 모른 채로 유희를 즐기는 신들 대부분은 악의 없이 인간들을 해치고는 했다.

“…….”

조용히 안도의 숨을 삼킨 강서담이 시간을 확인했다.

“…앞으로 1분 뒤, 예비 사제들은 가족들과 인사를 마무리 짓고 제 앞으로 모여 주십시오. 본식 예절을 배울 기숙사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든 뭐든, 강서담 자신은 사제로서 제 책임을 다하면 그만이었다.

* * *

“나 이제 가봐야 하나 봐.”

차이솔의 말에 차아라가 근엄하게 끄덕였다.

“그래, 힘들면 그냥 뛰쳐나오고.”

“넌 그냥 제대로 된 말을 하기가 싫지?”

“아 왜, 얘도 이장님처럼 농사짓고 살면 되지.”

“그런다고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를 종용해? 애 기 꺾을 일 있어?”

“안 되는 거 붙잡느니 잘하는 거 하는 게 낫지 않나.”

“그건 맞아.”

차은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냥 나와도 돼.”

“응, 그럴게! 하지만 나는 훗날 짱짱한 사제가 되어서 차씨 집안의 가장이 될 거니까 열심히 할 거야!”

“가장은 나야.”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주지!”

“기둥도 나라고.”

“내일 봐!”

티 없는 미소로 씩 웃은 차이솔이 또 다른 손님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저 가요.”

“어, 그래, 차이솔 군은 잘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마.”

“감사합니다!”

하얀 머리 헌터에게 칭찬과 응원을 뜯어낸 차이솔이 반짝이는 눈으로 검은망토를 돌아보았다.

“형!”

“…….”

“저 잘할걸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헤헤.”

차이솔은 기어코 검은망토에게서도 응원을 뜯어냈다.

“나도 태양신에게 선택받으면, 형 같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제게 냄새가 납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형한테서는 햇볕에 말린 이불 냄새가 나요.”

조금 더 묘사하자면 ‘막 옷장에 넣은 햇볕 냄새 나는 이불’ 정도의 느낌이었다. 그의 냄새를 맡으면 마당에 널어두었던 이불을 가지고 어두운 동굴을 만들어, 그 안에 쏙 숨어 있을 때의 기분이 들었다.

어둡고, 따듯하고, 안락했다.

“…….”

한참이나 검은망토를 올려다보던 차이솔이 대뜸 당당하게 요구했다.

“나 한 번만 안아줘요!”

“이솔아 제발.”

이 환장하게 씩씩한 놈아.

차은혁이 제 동생의 재앙 같은 친화력에 기겁했지만, 지오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걸 원하신다면 안아드릴 수 있습니다.”

“와!”

“이리 오세요.”

검은망토가 양팔을 벌려주었다.

‘멋지다.’

조명이 위에 있기 때문일까, 망토의 안쪽은 온통 검은 그림자뿐이었다. 마치 밤하늘처럼 어둡고 옷장 안처럼 아늑해 보이는 검은망토의 품에 차이솔은 종종걸음으로 다가가 폭 안겼다.

그리고 정말 의외로, 그의 체온은 서늘했다. 포근한 온기가 느껴져서 따듯할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이었다.

"차이솔 학생만 한 아이를 안아보는 건 오랜만이군요."

위에서 떨어지는 조곤조곤한 음성이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 아이도 차이솔 학생처럼 작았습니다."

"나 안 작은데요."

"저보다는 작습니다. 물론, 차이솔 학생은 금방 멋진 어른이 될 겁니다."

"헤헤…."

"태양이 당신을 비추기를."

"……."

차이솔은 고개를 들어, 오로지 저만이 볼 수 있는 검은 천 아래의 얼굴을 보았다.

바다를 닮은 온화한 눈이 차이솔의 시야에 들어왔다.

"…와."

그 눈이,

굉장히 크고.

아늑했다.

"…형 되게 잘생겼구나!"

"자주 듣습니다."

"대박이다."

"그렇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망토 아래의 얼굴은 자상한 빛을 담아 웃고 있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아…."

차이솔은 아쉬운 탄성을 뱉었다.

그와 헤어져야 하는 것도 아쉬웠지만, 마치 전구의 불이 나가듯 그의 백금발과 청안이 검게 물드는 광경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었다.

방금 되게 멋졌는데.

'지오 형이랑 훨씬 잘 어울리는 색 아닌가?'

하지만 차이솔은 더 억지 부리지 않았다.

"그럼 나 이제 진짜 갈게요!"

이미 다른 예비 사제들이 진짜 사제님 앞으로 모여들었다. 금발의 사제는 모인 아이들의 수와 이름, 그리고 얼굴을 확인하며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 가까이 가자 금발의 사제가 말하는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차이솔 군?”

“네, 저예요.”

“차이솔 군은 앞으로 은하 군과 파트너가 될 겁니다.”

“파트너?”

“자세한 설명은 학생이 모두 모이면 드릴 테니, 일단 은하 군과 짝을 지어 줄을 서주십시오. 저쪽의 푸른 머리카락을 지닌 학생이 제가 말씀드린 은하 군입니다.”

“네!”

차이솔은 사제님이 지목해 준 아이에게로 다가갔다.

사제가 ‘은하’라고 알려준 친구는 따듯한 청록빛을 띠는 파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차이솔이 옆으로 다가가자, 소년은 어딘가 부드럽고 자상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차이솔이지?”

“응, 네가 은하야? 우리가 파트너래.”

“사제는 2인 1조가 원칙이라서 그런 것 같아.”

”2명이 한 팀이라는 거지?”

“맞아.”

은하는 진주색 눈을 휘었다. 사제님들이 떠오르는 자애로운 미소였다.

“아마 본식을 진행한 뒤에 파트너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입단식에서 만난 파트너가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대. 우리가 계속 파트너일 수도 있으니… 잘 부탁해.”

“완전 멋지다.”

“그런가?”

그렇게 말한 은하는 작은 웃음을 흘렸는데, 차이솔은 그 미소에 기시감을 느꼈다.

‘어라, 지오 형 닮았다.’

차이솔은 본능적으로 ‘서지오’와 ‘지오반니’의 차이를 느꼈다.

지오의 머리카락이나 눈의 색이 변하는 것은 단순한 외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격과 성질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아챈 것이다.

그리고 은하의 미소는 이상하리만치 ‘지오반니’의 것을 닮아 있었다.

‘왜지?’

물론 차이솔은 백금발에 청안을 가진 지오의 이름이 ‘지오반니’라는 것을 몰랐지만, 최소한 그게 은하와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 정도는 알았다.

“너 되게 멋지게 웃는다!”

차이솔은 단순하게 결론을 내렸다.

“내가 아는 형도 너처럼 웃어.”

“…나처럼 웃는다고?”

“응!”

“그런 사람이 흔하지는 않을 텐데.”

은하는 눈을 옆으로 굴리며,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신기하네.”

“…응….”

차이솔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웃는데 안 웃는 것 같아.’

은하의 미소는 ‘지오반니’의 것과 매우 비슷했지만, 보지 않아도 따듯함이 느껴지는 지오와 달리 왜인지 서늘했다. 언젠가 만졌던 뱀이나 강가의 돌멩이와 비슷한 온도였다.

그런 차이솔의 생각을 모르는 은하가 여전히 옅은 미소를 띤 채로 물었다.

“네가 말한 ‘아는 형’이 저 사람이니?”

“응? 응.”

은하는 지오를 말하고 있었다.

“지오 형이야.”

“…….”

말없이 눈을 깜박인 은하가 되물었다.

“지오?”

“성은 서씨래. 서지오.”

“아, 그래.”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은 검은망토를 돌아본 은하가 입을 열었다.

“분위기가 독특하시네.”

“그렇지? 엄청 따듯하다?”

“태양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태양신의 신도라고 했어.”

“신도라.”

은하가 희미한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그 수준이 아닌데.”

“응?”

“굉장히 신실하신 분인 것 같아서.”

“엄청 따듯하지?”

“그러네.”

꼭 인간이 아닌 것처럼 차갑기도 하고.

그 작은 중얼거림을 들은 차이솔은 은하의 말을 해석하지 못해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은하는 더 이상 지오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가족에 대해 물었다.

“그럼 저 검은색 망토 옆에 있는 흑발의 사람들은… 네 가족인가?”

“맞아, 나랑 닮았지?”

“많이 닮았구나. 한눈에 가족인 걸 알아볼 수 있겠어.”

은하가 작게 웃었다.

“나도 누나랑 아주 닮았거든.”

“진짜? 그럼 엄청 예쁘겠다.”

“공주님처럼 아름다우신 분이지.”

“응? 어… 그래?”

보통 자기 누나를 ‘공주님처럼 아름다운 분’이라고 하나?

‘되게 배운 사람 같다.’

차아라의 말버릇이 옮은 차이솔은 그렇게 은하를 ‘배운 사람’으로 결론지었다. 왠지 웃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톤도 지오 형처럼 조곤조곤한 게 엄청 있어 보였다.

그래서 좋았다.

“나랑 친구 하자!”

“…그럴까?”

“천천히 해도 돼.”

아마 이 친구는 사람을 잘 못 믿는 것 같으니까, 내가 배려해 줘야지.

“내가 기다릴게.”

차이솔은 눈치가 빠른 아이였다.

* * *

인어 공주는 늘 인간에 대해 알기를 원했다.

저 햇빛이 그물처럼 일렁이는 수면 위에서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물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들은 어째서 이따금 바다에 몸을 던질까. 왜 그렇게 문드러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먹으며 어떤 구조로 웃고, 울고, 화낼까.

인어는 위로 올라갔다.

계속 올라가서.

왕자님을 보았다.

“…….”

따듯하다.

수면 위에 퍼진 그 온기는 햇볕의 상징이었다.

심해에서 올려다보던 그물 같은 햇볕을 담은 백금발이 파도처럼 굽을 치며 흘렀고, 그것은 수면 위에서 은처럼 반짝였다. 따듯한 빛을 담은 청안은 바다의 빛깔을 띤 주제에 온기가 느껴졌다.

바다를 다스리는 인어 공주는 인간이 궁금했다.

인간의 한계가, 궁금했다.

“…….”

저 햇빛을 닮은 인간은 바닷속에서도 따듯할까?

그래서 손을 잡고, 그대로....

“.......”

풍덩.

“.......”

바다에.

“...아....”

빠졌던 것 같은데.

진주를 담은 눈이 몽롱하게 깜박였다.

흐릿했던 초점이 이내 선명해지고, 붉은 입술이 나른한 곡선을 그렸다. 그녀는 어느새 잠에서 깨어난 채였다.

“이런.”

품이 큰 의사의 가운을 걸친 아름다운 공주님이 말했다.

“좋은 꿈을 꿨네.”

그렇지, 지오반니?

수면 위에 늘어져 인어 공주가 웃었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58)"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59)

제59화

“외국인이었나.”

“어?”

지오의 말에 유성운이 되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첫 번째 입단식을 마치고 차씨 가족과도 헤어져 돌아가는 길. 지오의 뜬금없는 중얼거림에 유성운은 고개를 기울였다. 지오가 정확히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외국인이라니.”

“아까 입단식 설명회에서 본 금발의 사제분이나….”

“아, 무슨 말을 하나 했네.”

지오는 이상한 면에서 고지식했다. 꼭 할아버지처럼 올드한 상식을 가졌는데, 아마 자신이 모르는 새에 인종 차별을 했던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모양새였다.

그는 매사에 정중하고 신사적이었는데도 말이다. 참 별 걱정을 다 하지.

“한국인 맞을 거야, 그 사람도. 전통적인 한국인의 외양과 조금 달라서 헷갈린 거지?”

“한국인이셨군요. 금발 청안에, 골격도 제가 아는 한국인과 조금 달라서 서양 쪽의 외국인이신가 했습니다. 실례가 되는 생각이었을까요.”

“조금 올드한 마인드이기는 하네.”

“주의하겠습니다.”

“계속 액자에 틀어박혀 있었으니 모르는 것도 어쩔 수 없지.”

게다가 근원의 존재인 입장에서 인간의 국적까지 구분해 내기는 조금 힘들었을 것이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인간이 수많은 개미의 종류를 전부 구별하기 힘든 것처럼 말이다.

‘무엇보다도 근원의 존재는 한번 알아낸 인간의 규칙을 곧이곧대로 믿는 면이 있어서….’

근원의 존재는 인간의 예외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삼시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지 않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녀석도 있고, 당연히 있어야 할 머리카락이 왜 없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녀석도 있었다.

'인간은 당연히 이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말이야.'

오히려 '서양의 외국인'이라고 규정할 만큼 구분한 지오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어설픈 지식이 독이 된 것 같지만....

"물론 전통적인 한국인의 생김새는 대체로 흑발에 검정이나, 갈색 눈을 가졌지. 골격도 조금 다르고. 하지만 요즘 시대에 머리카락 색이나 골격 정도로 국적을 구분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일이거든."

근원의 존재에게 인간을 이해시키려면 그 유래에서 기원한 흐름을 알려주는 게 좋았다. 유성운은 다시 옛날이야기를 시작했다.

"너도 대재앙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재앙 때 한번 지구가 뒤집혔잖아. 내 세대는 아니라 정확히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몰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혼란스러웠을 거고. 그야말로 아포칼립스 같은 분위기였겠지?"

"......."

"...아포칼립스가 뭔지는 아나...?"

"압니다."

"오, 대단하네."

아마 '서지오'라는 인간의 인격이 알고 있던 기억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다.

"아무튼 그때는 국경선이라는 개념이 희미했어. 정확히는 희미해진 거지. 사람들은 어디로든 자신의 나라에 있는 재앙을 피하고자 여기저기 이민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지구 전체가 마치 거대한 샐러드 볼처럼 다양한 인종이 섞이기 시작한 거야."

그 탓에 이제 '정통 한국인'이라는 존재는 보기 드물게 됐다.

"순혈인 한국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엔 타 지역과의 교류가 아주 적은 지방 쪽에서나 아주 드물게 찾아낼 수 있을걸? 조금 고지식한 어르신 중에서는 자기 자식과 외국인의 피가 섞이는 것에 극도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어디에나 있군요."

"변화를 혐오하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잖아. 그래서 단순히 생김새만으로 누군가의 국적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그래도 네가 말한 그 금발 사제님은 이런 행사까지 주관하는 걸 보면 아마 한국인이 맞지 않을까 싶네."

"외국인 사제에게는 행사를 맡기지 않는 겁니까?"

"아니, 그보다는... 이런 큰 행사를 주관할 정도면 서울의 태양신교에서도 꽤 높은 직책을 맡았을 거고. 그럼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외국인일 거라고 생각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어?"

"아하."

이해했다.

'사실상 이제 인종의 구분은 없어진 셈이구나.'

그 피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든, 생김새가 어떻든, 아무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인인 거다. 대재앙 이전에도 그건 당연한 사실이었지만 그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마치 국적이 운전면허같이 가벼운 자격증처럼 취급되고 있네.'

유성운은 단지 사제가 이곳에서 출퇴근을 할 것이기에 그의 인종이 한국인일 거라고 말했다. 어디서 누구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한국인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

그야말로 하나가 된 지구.

‘…좋은 것 같아.’

이건 좀 바람직한 것 같았다.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지오는 아직 고향과 낯을 가리고 있었다. 이제는 햄버거집에 가서 음식도 못 시키는 거 아닌가 싶었다.

살아 있는 조상님인 서지오에게 이 세상은 진도가 너무 빨랐다.

“인종 차별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겠군요.”

“거의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갈등인데, 그거.”

유성운이 어깨를 으쓱였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인종 차별이 없다고는 못 하지.”

“국적의 구분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말을 이었다.

“등급 차별이 있잖아.”

“아.”

“변명 같기는 해도… 나는 딱히 생각이 없는 편이기는 한데, 1등급이나 2등급 시민은 유난히 콧대가 높은 것 같기는 해. 특히 1등급 헌터는 3등급 이하의 시민들과 교류하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고….”

“…….”

시민을 등급으로 분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불길하더라니, 정말로 신분제가 부활해 버린 건가.

“…그건 귀족과 평민의 차이인 겁니까?”

“아, 그편이 더 이해가 쉬우려나? 확실히 비슷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보다 분류와 취급이 명확한 것 같아 놀랐습니다.”

“뭐, 아무튼.”

유성운이 작게 웃었다.

“그래서 생긴 걸로 인종을 구별하면 미친 할아버지냐는 소리 들으니까 조심하라고. 나야 네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차별처럼 느껴질 거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에 진짜 순혈 한국인이 남아 있을지 궁금하네. 당장 나만 해도 토종은 아니고….”

어감이 미묘했지만 일단 넘기고, 지오는 궁금했던 것을 추가로 물었다.

“머리카락이나 눈 색이 제각기 다른 것도 인종이 섞인 탓입니까? 물론 순수한 유전자 중에 파란색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아, 나 같은 경우는 그냥 각성의 영향이야.”

각성이라고 하면, 아마 ‘헌터’와 관련된 그것인 듯했다.

“각성하면 색이 변하는 겁니까?”

“모두 그런 건 아닌데, 유독 친화적인 속성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색이 변하고는 해. 네가 말한 파란색 머리카락 같은 건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색이 아니니 아마 각성 영향이 맞겠지.”

“그렇군요.”

“속성이라는 것은 등급이나 직업처럼 시스템이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건 아니라, 대충 스스로의 능력을 알아가며 정의하는 편이고. 덧붙이자면 내가 가진 속성은 ‘빙결’이야.”

그제야 유성운의 눈처럼 하얀 백발과 빙하처럼 시린 청안이 눈에 들어왔다. 그건 ‘지오반니’의 것과도 유사한 색상이었지만, 확실히 그의 것과 달리 한기가 느껴지는 색감이었다.

“예전에는 갈색 머리에 갈색 눈이었는데, 각성한 뒤로 이렇게 됐어.”

“…그렇군요….”

나는 요즘 염색이 유행인가 싶었지.

‘내가 너무 편견이 없었나.’

솔직히 말하자면, 귀신 들린 초상화가 되고 남달리 튀는 머리나 눈 색을 봐왔는데도 별 신경을 안 썼다. 지오는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편견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세상이 한번 뒤집히고 패션도 난해하게 바뀌었는데 염색이라고 못 할 거 없다 싶어서….’

그도 아니면 그냥 진화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생각 없이 대충 넘긴 듯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무심한 사람이었다.

“저도 색깔 변할 수 있습니다.”

“응? 갑자기? 너 원래 검은색이잖아. 그게 네 정체성 아니었어?”

“색깔이 사람의 정체성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은 매우 흥미롭게 들리지만, 저는 검은색이 아닙니다. 그냥 유성운 씨는 색이 변한 거라기에 저도 덧붙여 봤습니다.”

“아니… 애초에 네 검은색은 토종 한국인의 것이라기에는 조금… 그….”

너무 새까맣지 않나.

‘꼭 무저갱이나 흑요석처럼.’

지오의 색은 단순한 색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죽음이나 무음을 형상화한 듯한 그 검은색은 종종 사람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다.

‘인간만큼 격을 낮춘 지금도 눈을 직접 마주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지.’

그런 유성운의 반응이 의아했던 것인지 지오가 되물었다.

“평범한 검은색 아닙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됐어.”

유성운은 다시 조금 전의 주제로 돌아갔다.

“그래서, 너도 색이 변한다고?”

“조금 신경 쓰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저도 요즘 사람이라고 칠 수 있을까요.”

“29살 된 청년이 뭔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아저씨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혹시 그거야? 백금발에 청안?”

“알고 계셨군요.”

“너 청계천에서도 그렇고, 수상 택시를 탔을 때도 그런 색으로 변한 적이 있었잖아.”

“저는 다른 분들과 달리 카멜레온으로 진화한 걸까요.”

“그보다는….”

인격의 변화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습니까?”

“…그냥, 신기하다고.”

이쯤 되면 유성운도 지오에 대한 감이 잡혔다.

‘지오에게는… 수많은 인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근원이 명명한 ‘지오의 초상화’라는 인격을 중심으로, 그 곁가지에 다양한 인격이 가지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다.

평소에는 ‘지오’라는 인격으로 행동하다 종종 특정한 상황이 오면 해당하는 인격이 반응하는 듯했다.

‘참 대응하기 힘든 녀석이네. 나나 길드장님의 욕심으로 성급하게 사회로 내보냈지만… 만약 인간에게 적대적인 인격이 나온다면 상당히 곤란해질 거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비사벌은 ‘작품을 감상하다 죽는 건 예술의 일환’이라며 공감하기 힘든 취향을 설파하겠지만, 비이성적인 수집벽을 가진 그나 정원사인 유성운 같은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일 것이었다.

‘나도 그 정도 자각은 있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이미 많이 둥글어진 양심이라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선이 있는 것이다. 잠시 지오의 대처를 고민하던 유성운이 입을 열었다.

“혹시 말이야, 그….”

“예.”

“…….”

여기서 나눌 이야기는 아닌가.

“너에 대해 알려줄 수 있겠어? 여기에서는 말고, 호텔로 돌아가면.”

“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았습니다.”

“좀 더 깊은 것에 대해 알고 싶어서 그래. 호텔에 돌아가서 한번 들어보고, 네가 불편하지 않다면 대답해 줘. 내가 큐레이터로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정말 고맙네.”

호텔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주제는 다시 나올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지오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다.

“집에 두고 온 고양이가 걱정되는군요.”

“…고양이? 집에 고양이를 들였어?”

“안티캣이라고 이번에 보석의 수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

“그래도 곰 인형이 봐주고 계시니 괜찮겠죠.”

“…아까부터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유성운이 미묘한 낯으로 물었다.

“안티캣이야 뭐, 너니까 그렇다 치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곰 인형이 안티캣을 봐주고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곰 인형이 다나를 봐주고 계십니다.”

“네가 만들었어?”

“바다에 버려져 있던 인형에 어르신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누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웬 곰 인형 안으로 들어가셨나.”

“제가 모시는 태양신이십니다.”

“…….”

짧게 침묵한 유성운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결심했다.

“음, 그렇군.”

이미 충분히 혼란스러웠다.

* * *

푹신하고 뭉툭한 손.

지오반니의 것과 흡사한 색의 털을 가진 인형이 손이, 그 품을 동그랗게 파고든 새끼 고양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품이 안락했는지 보석 고양이의 몸이 나른하게 퍼져 있다.

“…….”

곰 인형은 죽은 영이 가득 찬 그 작은 보석을 끊임없이 쓰다듬었다.

토닥거리고, 쓸어내리고, 가끔은 그대로 덮어서 온기를 나누어 주었다. 비록 이제는 신성조차 남지 않아 흔적뿐인 태양이 되었으나 이 차가운 몸을 따듯하게 해줄 정도의 기적은 부릴 수 있었다.

그저 서로 꼭 안고 있는 것뿐이니 말이다.

“…….”

곰 인형은 박제된 미소로, 푸르른 바다를 그린 액자를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하나의 인격체를 그려놓은 듯 잔잔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제 아이는 이것을 ‘숨 쉬는 바다’라고 불렀다.

“…….”

그리고 이는 분명 인어들의 세상과 연결되어 있겠지.

“…….”

지오는 인어와 만나게 될 거다.

곰 인형은 부디 지오반니가, 다시 인어 공주를 품어주길 바랐다.

“…….”

그걸 위해서라면 제 신성도 아깝지 않았다.

그런 거창한 것이 없더라도 이곳은… 충분히 환하고, 따듯했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59)"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60)

제60화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호텔에 도착한 유성운이 물었다.

"너의 인격은 나누어져 있는 거야?"

"인격이 나누어져 있냐고요."

"그게, 뭐랄까, 다중 인격 같은 거지."

"……."

침대에 걸터앉아 잠시 고민하던 지오가 고개를 기울였다.

"모르겠습니다."

"…그래?"

"하지만 제가 종종 변한다는 것은 압니다."

지오는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던 검은 후드를 뒤로 넘겨 벗었다. 이번에도 그 안에 숨어 있던 허니가 툭, 데굴 하며 침대 위로 떨어졌다. 지오는 그런 허니를 제 손에 주워 담았다.

곧이어 지오의 '색'이 변했다.

"……."

"……."

은발에 가까운 백금발과, 유명한 휴양지의 바다를 닮은 에메랄드빛 눈동자.

"…어…."

그저 음울하고 차분하기만 했던 표정에도 생기가 깃들었다.

매우 온화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의 표정이었다. 보란 듯이 씩 웃는 모습에서 성숙한 장난기가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니까, 인격이 변한 건가?"

"저는 이걸 인격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오의 말투는 여전히 격식이 있는 어조였다. 하지만 기계가 입력된 단어를 뱉는 것 같았던 이전의 무감함과 달리, 지금

의 음성은 차분한 높낮이가 있었다.

“지금도 저는 ‘지오’이니까요.”

그럼에도 검은망토의 말은 진실이었다.

“…….”

유성운이 물었다.

“…그런 ‘지오’가 몇 명이나 있어?”

“제가 아는 것은 일단 세 명이군요.”

“그렇구나.”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

‘중심에 지오의 초상화가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인격이 함께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는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알 것 같았다.

“지금의 지오는… 그냥 지오라고 부르면 되나?”

“상관없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불렸고요.”

“‘그렇게 불렸다’는 거면 실제 이름은 따로 있다는 거야?”

“가명이나 진명이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흐린 색채로 물든 지오는 상당히 예의 바르고 고상한 귀족처럼 보였지만, 얼핏 띠는 미소에서 그 가벼운 쾌활함을 느낄 수 있었다. 천 근 추보다 무거운 ‘서지오’와는 전혀 다른 인상이었다.

“한때 이 모습으로 ‘지오반니’라는 이름을 썼죠.”

그 속이 다정하고 온화한, 또 건강하고 씩씩한 청년처럼 보인다고 해야 하나. 어디 가서든 어르신들에게 예쁨받고 친구 좀 많이 사귈 것 같았다.

“사람들이 저를 ‘지오’라고 불렀던 것은 그저 애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성운 씨가 저를 지오라고 불러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서지오’와는 다른 사람인 거지?”

“아주 많이 닮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저 하나이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

그렇다면 이 지구에 ‘서지오’라는 사람이 실존했을 확률도 높아진다.

‘이 부분은 길드장과 이야기를 해 봐야겠는데. 뭔가 조사하는 것처럼 보였으니 지금도 아는 정보가 있을지 모른다.’

이상한 곳에서 음습해지는 길드장을 곱씹던 유성운은 곧이어 한 가지 추측을 떠올렸다.

‘지오의 초상화가…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미 던전과 근원의 존재로 이 세계에 지구 이외의 차원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지금 눈앞의 ‘지오반니’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던, ‘지오의 초상화’의 일종이었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친다면 지오라는 초상화의 인격이 중심인 것도 설명이 돼. 한 번의 인생을 마친 뒤 다시 초상화의 상태로 돌아와, 천천히 이전의 인격을 복기하는 중일 수도….’

지오는 분명 ‘제가 아는 것은 일단 세 명’이라고 말했다. 그 이상의 인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오 스스로도 그 가능성을 안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유성운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그럼 이 초상화의 인격 복기는 언제까지 이어지지? 그게 끝나기는 하나? 혹시라도 인간에게 적의를 품은 인격을 복기하게 될 경우에는....

“.......”

아니, 아직은 망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오의 초상화라는 중심이 있고, 그 곁으로 지오라는 이름의 수많은 인격이 존재한다는 건 일단 알겠어. 대비할 이유는 충분하다.’

유성운이 눈을 굴렸다.

‘그게 이 초상화에게 일종의 전생들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그 수많은 인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단지 지오라 정의할 수 있는 그 사고방식도 설명이 돼.’

간단한 생각 정리를 마친 유성운이 물었다.

“...그럼 내가 주의해야 할 점은 있을까? 서지오라는 사람은 고구마를 좋아해도, 지오반니라는 사람은 고구마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참고해야 할 점을 말해주면 고맙겠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뭐냐. 규칙 비슷한 걸 만들어두면 나도 더 예의를 차릴 수 있으니... 미리 서로 마음 편해지자고.”

“음....”

인격의 변화에도 예의와 선악에 예민한 그 성정은 유지되는 건지, 다행히도 유성운의 말이 통했다. 창백하지만 온화한 색감의 청년이 잠깐의 고민 후에 대답했다.

“환자를 보면 가만두기 힘듭니다.”

“...오?”

그러고 보면 예전에도 허니에게 씹혔다던 차은혁의 상태를 확인해 줬었지.

“의사라고 했던가? 아니, 사제?”

“둘 다 맞습니다. 사제로서 의사의 일도 함께했으니까요.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 시골의 마을에 병원을 짓고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그거 대단한데.”

“사실 당장 규칙을 알려달라고 해도 떠오르는 게 없군요.”

머쓱하게 웃은 청년이 말을 이었다.

“제 앞에서 태양신을 모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일까요?”

“누군가를 흉보는 건 무례한 짓이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할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하던 지오반니가 말했다.

“인어에 대해 조금 예민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어?”

그러고 보니 지오의 첫 번째 관광에서도 그는 ‘인어’라는 주제를 드물게 꺼냈었다. 나름 합리적인 추론하에 유성운이 물었다.

“지오반니일 때는 인어와 함께 살았나?”

“예, 인간과 인어라는 두 종족이 함께하는 세상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예민하다는 거야?”

“여러모로….”

지오가 어깨를 으쓱였다.

“저는 인어에게 잡아먹혀 죽었습니다.”

확실히 예민하게 느껴질 만한 주제라고 생각할 때 즈음, 지오가 여전히 단정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건 그 아이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

“그때의 인간과 인어는 큰 갈등을 겪고 있었고, 저와 제 학생들은 인연을 쌓았다는 죄로 붙잡혀 말도 안 되는 처벌을 받았죠.”

“…그래서 그 아이라는 인어가 널 잡아먹었다고?”

“배고팠을 겁니다.”

그는 정리된 웃음을 덧붙였다.

“저는 이미 죽어가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너의 죽음에 대해 들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습니까?”

“조금은 그러네.”

“저도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순식간에 색이 빠지고, 지오는 그림자처럼 검은빛으로 돌아왔다. 유성운이 잘 아는 ‘지오의 초상화’이자 ‘서지오’인 그 사람이었다.

한 점의 웃음기도 찾아볼 수 없이 서늘하게 가라앉은 인상의 지오가 말을 이었다.

“아직은 떠올려가는 도중이라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인격의 기억을 떠올려가는 거야?”

“종종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다를 좋아했는지, 아니면 수영을 싫어했는지. 그런 사소한 부분은 ‘지오’끼리 어긋날 때가 있으니 말입니다.”

“진짜 골치 아프게 들리는데 괜찮은 건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혼란스러운 과정은 아닙니다.”

지오의 음성은 무겁고, 차분했다.

“잊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문득 유성운은, 지오에게서 느껴지는 이 무거운 적막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알 것 같았다.

‘…이 초상화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죽음으로 빚어졌구나.’

그러니 이토록 무겁고 조용할 수밖에.

죽음이란, 그런 것이니까.

* * *

"……."

정신이.

수면 위로 부상한다.

"…아…."

태양이 보였다.

"……."

"저기, 괜찮으신가요?"

앳된 음성이 들려왔다.

"숨은 쉴 수 있겠어요?"

"…쿨럭, 큼."

"다행이다, 깨어났어."

"……."

눈을 뜨니 새하얀 눈동자가 보였다.

진주의 색을 담은 오묘한 빛깔의 눈동자는, 인어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인어?"

"걱정 마세요, 당신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내가 왜 여기…."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아."

바다에 나왔다가, 어떤 인어에게 붙잡혀 바다로 끌려갔었지.

"당신이 구해준 겁니까?"

"아, 네."

남성체로 보이는 인어는 그 앳된 얼굴에 미안함을 담아 말했다.

"죄송합니다, 당신을 바다로 끌고 간 건 저희 누님이셨어요."

"인어가 인간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건 미신이 아니었습니까?"

"미신이 맞아요. 당신을 잡아먹기 위해 끌고 가셨던 게 아닙니다. 다만 저희 누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셔서, 더 자세히 관찰하거나 분석하기 위해 당신을 끌어들였던 것 같아요."

"덕분에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군요, 친절에 감사합니다."

어린 인어는 그가 화를 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지만 딱히 화나지 않았다. 자신을 바닷속으로 끌고 가던 인어에게 악의가 없었을뿐더러 그녀가 매우 어렸던 것을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인간과 인어가 퍽 사이 나쁜 관계라고 해도 그는 인어에게 악감정이 없었다. 특히 인어들은 인간과는 다른 사고방식과 감정 체계를 가졌으니, 대뜸 인간을 바다로 끌고 간다고 해도 이상할 것 없었다.

“음….”

주변을 둘러보니, 처음 산책하고 있던 해변가였다.

“여기까지 데려와 주셨군요.”

“저희 누님께서 폐를 끼쳤으니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 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친절한 인어분을 만나 굉장한 행운이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자칫하면 죽을 뻔했으니 말이다.

“다만 이 주변에는 마을이 있습니다. 인어치고도 상당히 어린 개체로 보이시는데, 이곳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면 사람들이 공격을 해올지도 모릅니다.”

“아, 여기에 마을이 있었나요?”

“예, 최근 3명이나 인어에게 가족을 잃은 탓에 많이 흥분된 상태죠. 당신처럼 어린 인어를 보면 그 원망으로 괴롭히려 들 테니…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어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신변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인어는 인간과의 교류가 처음인지 매우 기뻐 보였다.

“처음 이야기를 나눈 인간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라 기쁩니다. 이 마을에 거주하시나요?”

“정착을 할까 해서 둘러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신전을 나와 병원을 차리려고 하는 사제인데, 역시 인어는 태양의 신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저나 누님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인어들은 심해의 신을 모셨고, 인간들은 태양의 신을 모셨다.

생각하는 것도 식성도 모든 것이 달라 쉽게 크고 작은 분쟁을 일으키는 인간과 인어 사이에 이런 온건한 대화는 기적과 같았다.

아마 어린 인어는 그 작은 기적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제 이름은 이세르라고 합니다. 종종 찾아뵈어도 될까요? 괜찮으시다면 저희 누님도 모셔서 정식으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르… 은하수를 이르는 바다의 언어지요. 좋은 이름이군요.”

약한 자는 보호하고 다정히 대해줘야 했다. 설령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닌 인어일지라도, 태양의 온기는 어디든 닿을 수 있는 법이었다.

“제 이름은 지오반니입니다.”

지오반니는 그렇게 어린 인어들과 인연을 쌓았다.

행복한 때였다.

* * *

“…….”

호텔의 침대에 누워, 지오반니는 눈을 깜박였다.

“…아….”

그는 울고 있었다.

이 또한 미련이겠지.

* * *

"……."

"꾺."

"……."

"꾸룩."

"……."

"꿍꿍꿍…."

"핫차."

아들의 불만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릴 때가 돼서야 지오는 정신을 차렸다.

"동화율이 상당히 높아졌군."

마지막으로 기억하던 것이 31% 정도였는데, 고작 하루 사이에 59%가 되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뻥튀기가 된 지오반니의 동화율을 확인한 지오가 상황 파악을 마쳤다.

"꿈을 꿔서 그런가?"

아니, 그보다는.

"그때 행사장에서 본…."

파란 머리카락의 아이.

"……."

"꾸루룩?"

"아빠 안 잔다."

"꾺."

"그래."

그것도 꿈이라고 벌써 기억이 흐릿하지만, 왜인지 행사장에서 본 아이와 꿈에서 봤던 아이가 상당히 비슷해 보였다.

머리카락 색이 비슷해서 그걸 계기로 지오반니의 기억을 떠올린 걸지도 몰랐다.

'어쩌면 꿈에서 봤던 그 아이일 수도 있나?'

그렇게 생각한 지오가 곧 고개를 저었다.

"무리지."

아무리 잘 쳐줘도 스물다섯 골목은 건너야 만날 수 있는 동떨어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가. 지오반니의 차원에 있어야 할 애가 서지오의 차원에 있을 리가 없었다.

"만약 진짜라고 해도 순도 33.3%의 지오반니로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좀 양심이 없는 짓이라."

월급에 상품권 끼어서 주는 악덕 사장이 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

뭐, 어쨌든.

지오는 그냥 자기로 했다.

"누우렴, 허니."

"꾹."

"뜨시군."

그 어떤 과거와 미래가 닥쳐와도 굵은 신경줄을 가진 지오는 신경 쓰지 않았다.

조금은 신경 써도 좋을 것 같지만 말이다.

오

Chapter (60)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61)

제61화

먼 옛날, 서로를 가족이라 칭하는 두 인어가 있었다.

누이는 인간의 한계를 분석하길 원했고, 동생은 인간의 문화에 대해 배우길 원했다.

그중에서도 남동생인 이세르는 언젠가 인간과 인어가 어우러져 사는 세상이 오길 소원했다. 서로를 향한 두 종족의 공포와 경멸이 만연한 시대에 바라기엔 참 허황된 소원이었다. 인어도 그걸 알았다.

"하늘과 바다가 합쳐진 세상이라, 대단히 멋진 소원이군요."

그렇게 말해준 것은 이세르가 처음으로 만난 인간이었다.

파도처럼 굽어지는 기다란 금발. 지혜를 가득 담은 푸르른 시선. 언제나 하얀 옷을 즐겨 입던 남자는 자신을 사제이며 의사라고 말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야기입니다."

"……."

그는 인어라면 시선으로 좇을 수밖에 없는 색을 타고났다.

인어는 하얀 인간을 경애했다.

"…인간은 사랑스럽지만 변덕스러운 생물입니다. 역시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하는 것은 힘들겠습니까?

"쉬울 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인간과 인어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인간끼리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미워합니다. 하물며 인간과 인어 사이에서의 갈등은 더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다정한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세르 씨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늘어난다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겁니다."

"……."

"결국 인식의 문제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상대를 이해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꿈만 같은 이야기였다.

“저는 태양을 좋아합니다. 저마다 멋진 색을 품고 짧은 생을 살아가는 인간들만큼이나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인어는 바다의 신을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세르 씨는 태양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물론 저는 심해의 신을 모시지만… 햇볕은 따듯하고 온화합니다. 심해와 다른 위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 알겠습니다. 이따금 햇볕 아래에서 잠을 청하면 기분이 참 좋지요.”

“바다에서는 힘든 일입니다.”

이세르는 땅을 동경했다.

“그래서 더더욱 인간들의 생활을 눈에 담고 싶습니다.”

“태양의 아들로서 그대의 용기를 긍정합니다, 이세르.”

“심해의 자손들을 부정하지 않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인어 남매는 지오반니라는 인간의 도움을 받아 인간 행세를 하며, 누이는 의사의 꿈을, 동생은 사제의 꿈을 키웠다.

“심해의 신을 모시는데도 태양의 사제가 되길 원하는 겁니까?”

“저는 심해의 사도가 아니니 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두 신을 모두 모시면 합일도 빨라지지 않을까요?”

“단순하지만 또 좋은 생각이군요. 태양께서 그대의 마음을 보아 가족으로 인정하고 성력을 내려주시길 빕니다.”

지오반니는 이세르의 헛된 꿈을 비난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친절하고 다정했다. 조금 장난기가 있어 이세르와 그의 누이에게 유쾌한 말을 던지기도 했고, 사제이자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밤을 새워가며 구할 만큼 유능하기도 했다.

가끔 실없는 소리도 하고, 어이가 없을 만큼 뻔뻔해질 때도 있지만….

“저는 지오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의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피를 보고 싶지 않아요.”

지오반니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다.

갈등과 비난이 난무하는 시대임에도 그만은 늘 평온했다. 유쾌했고, 온화했다.

“평화와 자비 속에서 흐르는 피도 있는 법입니다, 이세르.”

“…….”

모든 것이 격변하는 시간 속에서 지오반니만이 늘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계속 여기에 있을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단지 남매가 걱정한 것은 지오반니의 수명뿐이었다.

“저는 인간인지라, 인어인 여러분보다 금방 죽을 겁니다.”

“그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그대들의 옆에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는 없겠습니다.”

“…….”

“하지만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이 같으리라고 약속해 드리지요. 시대의 갈등과 고통에 휩쓸려 나라는 인간이 변할 일은 없

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인어가 아니라 인간인데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죽게 되어도, 그대들이 떠올렸을 때 늘 한결같은 모습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와의 이별은 매우 슬픈 일이겠지만, 이 짧은 대화만으로도 이세르는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선생님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인간이리라고 약속해 줄 수 있어요?”

“안심하십시오, 이세르. 그대는 나의 기특한 학생이니 어찌 내가 그 기대에 반하겠습니까.”

“멍청한 걱정을 잠재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나가고 변하기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보다 보니, 마음이 아팠나 봅니다.”

“그런 그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같은 인간인 저 역시 세상의 흐름에 씁쓸함을 느끼고는 하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혼자가 아니라서….”

그는 지오반니가 다른 인간들처럼 쉽게 변질되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곧 이세르는 후회했다.

“…….”

“도망쳐.”

내가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

차라리 그가 다른 인간들처럼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면 더 나은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지, 지오반니….”

“절대 다시 이곳으로 오지 말렴, 알겠지? 이제 여기는 집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야.”

“지오, 잠시만요.”

“날 구할 생각 말아요. 너희는 어리고, 고작 시대의 흐름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

“…선생님….”

“약속해 줘.”

당신이 이기적으로 변해서.

“여기 인어를 숨긴 녀석이 있다! 배신자가 여기 있어!!”

고통과 죽음이 예정된 미래의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여기야, 여기에 불을 질러! 끔찍한 인어들과 함께 불태워 버려!!”

“당장 그 배신자를 끌고 나와!! 인어를 키우다니 끔찍하군…!”

“대체 왜 당신이 인어들을 숨긴 겁니까, 그동안 수많은 인간을 살려낸 당신이!”

그래서 우리를 버리고 도망치거나 배신했다면 얼마나… 이 못된 마음이 편해졌을까.

“그들은 여러분의 분노를 감당해야 할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일 뿐이지요.”

“미친 게 분명하군, 인어와 같은 괴물을 어린아이라고 말하다니. 그는 인류의 배신자야!!”

“그것으로 이 마을의 악몽을 끝낼 수 있다면 그리 불러도 좋습니다.”

“이 위선자…! 그 사람 좋은 얼굴로 선행을 베푸는 척하면서 뒤로는 인어를 키워냈구나!!”

“언젠가 이 고통의 관계가 평온한 끝을 맺기를 바랍니다.”

지오반니는 끝까지 고결했다.

“…….”

내가 인간들의 잔혹함으로 만들어진 그 좁은 어항에 갇혀.

장기가 녹아내릴 만큼의 지독한 배고픔을 못 이겨, 그 썩고 짓무른 살에 내 날카로운 송곳니를 박아 넣을 때까지도.

당신은 다정했어.

“…….”

왜 이렇게 춥지?

* * *

“…….”

“괜찮아?”

인간의 아이가 제게 물었다.

그 앳된 얼굴이 눈에 들어오고 나서야, 인어는 제가 못된 꿈에서 깨어났음을 깨달았다.

“너 표정이 엄청 안 좋았어.”

“…악몽을 꿨나 봐.”

“그래? 사제님한테 말씀드려 볼까?”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야.”

웃는 낯으로 친절을 거부했다.

‘이런 꿈을 꾼 직후에 인간의 도움을 받고 싶지는 않으니.’

왜 갑자기 지오반니의 꿈을 꾼 것일까.

‘태양신의 품에 있어서…? 아니면 어제 본 그 서지오라는 인간 때문인가?’

인어는 진주색 눈을 굴리며 행사장에서 보았던 자를 떠올렸다. 검은 망토로 온몸을 가린 남자는 확실히 눈에 띄는 분위기를 가졌다.

그 남자의 주변만 모든 생명이 죽은 것처럼 고요했다. 마나는 제왕의 심기를 살피듯 움츠러들었고, 공기는 어딘가 위축되어 숨죽인 채 흘러갔다.

아마 남자는 더는 인간이라 부르지 못할 정도로 강한 헌터일 것이다.

‘하필 이름이 지오라는 게….’

아니, 사실 이름 따위의 문제가 아닐지도 몰랐다.

“…….”

불쾌했다.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인간 따위에게서, 고결한 은사의 모습을 떠올렸다는 것이.

지금은 인간의 흉내를 내어 누이의 학살에 동참하는 자신의 행태보다도 더 질려서….

“…….”

“은하야, 머리 아파?”

“…조금.”

친절하게 굴지 마.

“그래도 이제 괜찮아질 거야.”

제발 좀, 끔찍하게 굴어.

‘지금에 와서 인간을 향한 자비를 베풀게 될 일 따위는 없거늘.’

무엇을 어떻게 해도 이세르는 인간이 싫었다.

이기적인 인간은 그날의 끔찍했던 악몽을 떠올리게 해서 싫었고, 이타적인 인간은 제깟 것이 뭐라고 은사의 흉내를 내는 듯해서 싫었다.

인어의 분노는 한 평생이 지나도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고통과 죽음 앞에서는 한낱 벌레처럼 꿈틀거릴 천박한 생물이.’

인어인 제게 말을 걸어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혐오스러웠다.

“…….”

그럼에도 미소를 지었다.

그건 이 못된 인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이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깬 거지?”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잠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럼 이제 같이 자면 되겠다.”

“응, 고마워.”

“고마울 것 없어.”

무턱대고 한 종족을 혐오하여 누이의 학살에 동참하는 스스로에 질렸음에도, 멈출 수가 없었다.

이세르는 제 옆에 편히 누운 인간 아이를 보며 입술을 비틀었다.

“…….”

내 은사만큼.

‘딱 그만큼만.’

전부 끔찍하게 죽으면 좋겠어.

나도, 너희도.

* * *

본식의 날.

“어?”

사제의 행렬이 시작되었다.

“저거 그거지?”

“그거네, 사제 행렬.”

“다들 어린 걸 보니 입단식인가 보네….”

“슬슬 태양신교에서 입단식을 할 때가 됐지.”

“와, 애들 귀여운 거 봐.”

오후 8시. 직장인 대부분이 퇴근할 때 즈음 진행된 행사라 구경꾼이 많았다. 신의 시선을 받기 위해 입단식은 보통 늦은 오후에 진행하게 되어 있었다.

“어리다고 해도 다들 사제라 그런지, 신성함이 남다르네.”

“보고 있기만 해도 정화되는 느낌이야. 태양교라서 그런가? 따듯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좀 불러올까? 혹시 모르잖아, 오늘 누가 간택을 받을지.”

신이라는 존재가 대재앙 이전보다는 친숙해졌다고는 해도 신의 위엄은 여전했다. 혹시 이 어린 사제 중 한 명이 신에게 품어지는 기적을 볼 수 있을까 하여 사람들은 들떴다.

사실 그런 계산적인 속내가 아니더라도 사제 행렬은 충분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았다. 찰랑거리며 방울처럼 흔들리는 향로와, 태양신교인 만큼 예비 사제들의 손에 들린 태양의 상징.

“아, 따듯하다….”

“역시 태양신교네.”

이토록 시린 겨울날에 온화하고 장엄한 태양의 행렬은 남다른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이야….”

“…….”

그건 유성운과 지오 일행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입단식은 자주 본 적이 없어서 감이 안 잡혔는데, 이런 느낌이구나.”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입단식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날이며 뭐며 따져야 하니까.”

세력이 약한 교 중에는 10년에 한 번이나 행사를 진행할까 말까 하는 곳도 있었다.

“특히 지금 보는 것처럼 화려한 입단식을 준비하려면 자본이 꽤 들거든. 돈이나 세력이 없는 교의 입단식은 이것처럼 장대하지는 않아. 대충 신전에서 기도나 하고 마는 정도랄까.”

그러니 이런 행사는 꽤 괜찮은 볼거리인 것이 맞았다. 도시에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특별한 이벤트인 것이다.

“슬슬 신전 내부로 들어가네. 우리는 이미 자리를 맡아 뒀으니까, 미리 들어가 있자.”

유성운이 지오를 돌아봤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구경꾼이 너무 많이 몰려서 자리 찾아 들어가기도 힘들어질 거야.”

“알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지는 않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소란스러운 것을 즐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난 관광이 무사히 끝났다고는 해도 여전히 유성운은 ‘지오의 초상화’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었다.

어느 뜬금없는 부분이 트리거가 되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지 몰랐다.

‘인명 피해 정도야 길드장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다 못해 관람할 거리가 생겼다며 즐거워하겠지만… 그럴수록 나라도 신경을 써야겠지.’

비사벌은 제 수집품에나 선량하지, 객관적으로도 좋은 사람이라 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유성운 본인도 사람이 죽는 것에 씁쓸해하고 말 뿐이지만 말이다.

그즈음 작품이 말했다.

“조금 피곤하지만 걱정해 주실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역시 인내심이 강한 작품이었다.

‘그래도 주의는 해야겠지.’

그렇게 점차 행렬이 신전 내부로 들어가고, 사람들도 정리가 될 무렵, 가장 맨 앞에 서 있었던 사제는 들고 있던 향을 제단 위에 올려두고는 예비 사제들의 걸음을 멈췄다.

그는 마치 합창단의 지휘자처럼 어린 사제들에게 손짓하며 정리했다.

“…하늘과 땅을 온화한 빛으로 밝히시는 여신님, 당신의 종이 모인 오늘 이곳에 불을 내려주소서. 이 어린 사제들은 당신의 빛을 따라 자라난 새싹과 같고….”

입단식을 알리는 기도문을 외운 사제, 강서담이 이내 끝을 맺었다.

“작은 빛 받으소서.”

“작은 빛 받으소서.”

태양교의 기도문을 마지막으로 강서담이 제단에 고개를 숙인 뒤, 뒤를 돌아 각자의 자리에 서서 태양의 상징을 든 예비 사제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예비 사제들이 마주 고개를 숙이는 것을 확인한 강서담이 입을 열었다.

“이곳은 태양의 신전이나, 예비 사제들에게 태양이 강요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태양의 여신께 도움을 받아 신을 대하는 법과 그들의 종이 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입단식을 계기로 또 다른 부모를 얻기를 바랍니다.”

딸랑—.

은색 종을 울린 강서담이 말을 이었다.

“새로운 부모를 모실 심신을 가꾸기 이전에, 예비 사제는 속세의 인연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무리 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비 사제들은 인사를 나누십시오.”

입단식은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그 중간에는 일종의 휴식 시간이 있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었다. 모든 종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태양교의 입단식은 그랬다.

이전에 미리 교육을 해둔 덕분에 예비 사제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를 찾아 움직였다.

“엄마, 엄마…!!”

“오빠 나 이제 사제야!”

“이 옷 멋지지!”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종종걸음으로 사라졌고, 또 누군가는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발을 옮겼다.

“…….”

그 역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움직이려던 차였다.

“……?”

강서담의 눈에, 왜인지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서성이는 한 예비 사제가 들어왔다.

‘…분명 은하라는 아이였던가.’

왜인지 바다를 연상케 하는 푸른 머리가 인상적인 아이였다. 실제로도 그쪽 계열을 바라는 건지 성력 자체도 서늘한 기

운이 강하고.

‘카네이션 아이 출신이라 따로 대화 나눌 가족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왜 저기에 가만히 있는 거지?’

제 관할의 사제를 한 명이라도 허투루 관리할 수는 없었다. 강서담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금 누굴 보고 있나?’

아이의 시선을 따라 눈을 옮기니, 가족들에게 포옹을 받고 있는 검은 머리의 예비 사제가 보였다.

‘저 아이는….’

아마 차이솔이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다.

“…아.”

검은망토도 그들 사이에 있었다.

‘지난번에 뵈었던 분이군.’

강서담은 그가 신답지 않게 행사만 관람하고 깔끔하게 나갔던 것을 기억했다.

‘입단식 자체가 꽤 긴데, 오늘도 모습을 보였다면 역시 새 신도를 받기 위함인 건가?’

의문을 가진 채 살피자 은하의 시선이 그 검은망토에게 닿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저 일행들 틈에 끼고 싶은 걸지도.

‘하긴 저쪽은 유난히 복작거리고 있으니, 카네이션 아이라면 부러움을 느낄 만도 하겠군.’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차이솔이 은하를 끌고 갔다. 눈치가 빠른 편인지, 제 파트너를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었다.

혹시 그 배려가 자존심을 건드리지는 않았을지 유의하며 관찰했지만, 그렇게 끌려가는 은하의 기분도 썩 나쁘지 않아 보였다.

“…이제 괜찮겠지.”

검은 망토도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신처럼 보이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었다.

그제야 강서담도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발을 옮겼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61)"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62)

제62화

이런 상황은 예상치 못했다.

"이쪽은 은하! 내 파트너야."

"사제는 기본적으로 2인 1조라더니, 벌써부터 파트너가 생겼네."

"이제 나랑 은하랑 한 팀이라고!"

제 가족들에게 파트너를 자랑하는 차이솔을 보며, 지오는 후드로 가려진 눈을 끔벅였다.

'이렇게 보니 확실히 닮았네.'

차이솔이 갑작스럽게 끌고 온 탓에 당황스러울 텐데도 능숙하게 미소를 짓는 모습. 그런 노련함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지만, 묘하게 청록빛을 띠는 저 파란 모발이 지오반니의 추억을 자극했다.

'이세르의 이름도 은하수라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꿈은 꿈인 탓에 깨어난 이후로 많이 잊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길고 푸른 머리카락이라는 점이 꿈속의 인어 이세르를 떠올리게 했다.

"……."

"저기, 이분들은…."

지오의 시선 때문인지 은하가 차이솔에게 소개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로 말문을 열었다.

차이솔은 아차, 하는 표정을 짓다 이내 방끗 웃으며 설명했다.

"우리 형이랑 누나는 딱 봐도 알겠지? 그리고 가족은 아니지만, 여기가 내가 저번에 말했던 지오 형!"

차이솔이 대답을 재촉했다.

"엄청 잘생겼지!"

"응? 어, 그래…."

그 당돌한 모습에 지오도 덩달아 난감해했다. 후드로 가렸는데 잘생겼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저 친구에게 투시 스킬이 있지는 않을 텐데.'

대놓고 어린아이에게 외모 칭찬을 받아 뻘쭘했던 지오가 어색함을 참지 못하고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지오라고 합니다.”

“…저는 은하라고 해요.”

왜인지 낯설게 느껴지는 성숙한 미소를 지으며, 은하라는 아이가 짧게 덧붙였다.

“네, 처음 뵙네요.”

음.

지오가 무심코 생각했다.

‘역시 내 착각이었구나.’

성급한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오반니가 기억하는 이세르는 정중하고 예의 바르려고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어딘가 맹해서 놀리는 맛이 있는 학생이었다.

‘여러모로 어설픈 점이 많아서 그런지 말투도 훨씬 더 딱딱했고.’

일단 ‘성숙’이나 ‘노련’이라는 단어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친구라고 해야 할까. 그 풋풋한 햇살 같던 어린 학생에 비해 눈앞의 아이는 어딘가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오반니로서 동화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나 이세르와 많이 닮은 아이를 만나게 된 것도 대단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

게다가 그가 떠올린 이세르의 마지막 모습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모습이었으니 더더욱 동일 인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모인 것도 인연인데, 함께 식사라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오의 제안에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 그거 좋은데. 은하 군이면 몰라도 차씨 가족이 이제 와서 우리랑 낯을 가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지?”

“하, 하지만 그러면 너무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어차피 차이솔 군도 기숙사 들어가면 한동안 바깥으로 못 나온다면서. 나랑 지오 같은 시커먼 남정네 둘이 오붓하게 밥을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작복작한 편이 분위기도 훨씬 좋을걸?”

역시 형님이십니다.

‘저 노련함을 본받아야 하는데.’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상대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끌어들이면서도 무례하지 않게 구는 처세술이 정말 존경스러웠다. 사회생활 잘하는 어른의 표본 아닌가.

물론 그런 지오의 생각을 알았다면 유성운은 소름 끼쳐 죽으려고 했을 테지만 말이다.

“은하 군은 못 먹는 게 있나?”

“고기는 못 먹는 편이에요.”

“아, 채식주의자? 하긴 둘러보면 사제 중에서는 유독 비건이 많더라고.”

“육고기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깐깐하게 따지는 타입은 아닌 거네? 그럼 해산물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유성운은 티 나지 않게 ‘은하’라는 아이를 살폈다.

‘…왜인지 조금 위화감이 드는데.’

무던한 표정 뒤로 유성운이 희미한 의심을 숨겼다.

근원의 자식을 자주 접하는 유성운은 유독 인간이 아닌 것들의 기운에 민감했다. 그때의 이질감이 지금 느껴지고 있다면 확실히 문제라고 판단해도 됐다.

'근원의 자식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몬스터에 가깝겠어. 역시 위험한 녀석이려나.'

하지만 예비 사제인 만큼 신의 이질감을 유성운이 착각한 걸 수도 있었다.

'…그런 경우가 없지도 않지. 특히 신의 시선이나 사랑을 많이 받는 녀석이라면, 본인의 문제가 아닌데도 충분히 위화감을 풍길 수 있어.'

상대의 어린 모습에 유독 조심스러워지는 것도 있어, 유성운은 자신의 경계를 그대로 삼키기로 했다. 애꿎은 아이를 의심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 말이다.

'여차할 경우 지오만이라도 데리고 빠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아직 행동 패턴이나 규칙이 파악되지 않은 작품이라… 가능하면 큰 자극은 주고 싶지 않단 말이지.'

제가 맡은 작품에 해가 되는 일만 아니라면 눈앞의 아이가 몬스터든 뭐든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다. 몬스터가 인간을 죽이는 일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도 비일비재한 세상이니 말이다.

이곳에서의 인간은 소품의 일환이었다. 고작 30명 정도 죽는 일은 뉴스에도 나오지 못했다.

'그래도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네. 소란스러워지면 내 야근만 늘어날 거야.'

잠시 다른 생각을 한 적조차 없다는 듯 유성운이 무던하게 말을 이었다.

"여기서 해산물 싫어하시는 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번에 먹어보면 되지."

차아라가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던 유성운은 가볍게 흘려 넘겼다. 열등감이나 질투심에 뱉은 말이 아니라 그저 '좆도 모르겠는데 그걸 왜 물어봐'라는 반응인 덕분이었다.

"내가 아는 괜찮은 갈치집이 있어."

"네? 갈치집이요?"

"인원수가 많아도 방 자체가 커서 충분히 받아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보는 건 어때? 맛은 내가 보장할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으, 갈치집이면 엄청 비싼 곳 아닌가…."

차아라가 묘하게 불안해하자, 그의 오빠인 차은혁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 식당을 3등급 시민인 저희가 가도 괜찮겠습니까?"

"……?"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지오가 조용히 당황했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3등급 시민은 갈치 먹으면 안 돼?

'아무리 신분제가 부활했다지만 치사하게 사람이 먹는 걸로 차별을 하다니,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

먹는 것에 진심인 지오는 대단히 슬퍼졌다. 고향이 변질된 것에 그는 매우 씁쓸해하고 있었다.

'대재앙처럼 큰일을 겪었다면 일단 강원도로 튀었을 테니 나도 3등급 시민이었으려나. 지구에 월세 내며 살았다면 나도 갈치 한 점 못 먹었겠어.'

민주주의 사회에 익숙한 지오는 내심 식겁했지만, 이 시대의 도시 갈치집이란 대단히 격이 높은 식당이었다. 도시에서는 은근히 차별을 받는 3등급 시민이 눈총을 받기 딱 좋은 장소라는 거다.

“뭘 걱정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런 마음을 알아차린 유성운이 어깨를 으쓱였다.

“어차피 다 방이고, 지금 시간대면 사람도 많이 없을 거야. 너희가 신경이 쓰인다면야 다른 곳을 찾아보겠지만 기왕 돈 쓰는 김에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자고.”

유성운이 은하를 돌아보았다.

“은하 군은 갈치 괜찮아?”

“저야 뭐든 사주시면 감사하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카네이션 아이로 추정되는 은하까지 찬성을 하니 차아라나 차은혁도 얼떨결에 찬성했다.

“이래도 되나…?”

“갈치집이라니.”

차씨 가족은 왜인지 속았다는 듯한 얼굴로 유성운의 뒤를 따랐다.

그런 우애 좋은 남매들과 함께 움직이려던 지오는 묘하게 동떨어져 있는 은하를 발견했다.

“…….”

“…….”

저렇게 굴면 신경 쓰이는데.

“은하 학생.”

옛 제자 이세르와 닮은 아이라는 것과 별개로, 나름 교사였던 지오로선 저렇게 내 자리가 아니라는 듯 거리를 두는 아이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건조한 얼굴을 하고 있던 이세르는 다행히도 지오의 부름에 생기를 띠고선 대답했다. 조금 당황한 것 같기도 했다.

“아, 네.”

“함께 갈까요.”

지오반니가 한쪽 손을 내밀자, 잠시 머뭇거리며 망설이던 은하가 그 손을 잡았다.

‘…생각보다 차가운가.’

그 작은 손은, 숨만 쉬어도 열이 펄펄 끓어오른다는 어린아이치고 상당히 서늘했다.

“체온이 낮군요.”

“빈혈이 심해서 그런가 봐요.”

아이가 능숙하게 미소 지었다. 사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자연히 연상할 수 있는, 부드럽고 자애로운 미소였다.

이런 아이를 상대로 ‘자애‘라는 말을 쓰기는 조금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지오는 왜인지 그 미소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다.

‘이 학생과 어울리지는 않아.’

이 미소를 어디에서 봤더라.

지오가 조용히 기억을 되짚는 사이, 아이는 대답이 없었던 게 불안했는지 태연함을 가장하며 말을 붙여왔다.

“차가운 손이 불편하신가요?”

무언가를 기대하는 질문처럼 들렸다면 이상한 소리일까. 지오는 별생각 없이 대답했다.

"시원해서 좋습니다."

"겨울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열이 많은 사람이라서."

"……."

왜인지 잠시 침묵하던 은하가 말했다.

"지오 씨의 손도 차가운데요?"

"아, 그렇지."

"왜…."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뭘 잊었나요?"

"제가 차가워졌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요새 '지오반니의 인생극장'이라는 꿈을 연속으로 꾸고 있어 너무 정신이 없었는지, 정말로 솔직하게 말해서 완전히 까먹고 있었다.

심지어 내 체온을.

'지오반니일 때는 태양의 사제라 그런지 몸에 열이 많았는데.'

서지오도 그렇고 초상화도 그렇고, 딱히 체온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이상하게 들렸으려나.'

요즘 동화율이 급격히 올라서 그런지 말이 헛나갔다.

뭐라고 말을 이어갈지 고민하며 아이를 돌아보자….

"……."

"……?"

작은 얼굴이 굳은 게 보였다.

"은하 학생?"

"잠시 추워서… 딴생각을 했어요."

"그럼 손을 놓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은하가 중얼거렸다.

"…계속 잡고 있으면 따듯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

"싫어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왜인지 모르게 분위기가 냉랭하지만, 지오가 느끼기에 본성 자체는 착하고 다정한 아이였다.

‘이런 아이들은 배불리 먹여서 살을 오동통하게 찌워야 해.’

마을의 큰손이셨던 할머니의 굳은 신념을 물려받은 서지오가 생각했다.

‘돼지가 되어라 얍….’

서지오는 비쩍 마른 남녀노소를 살찌워야만 인생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편이었다.

* * *

그런 대화를 했다.

“이세르의 손은 차갑군요.”

“아마… 인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족이 다르니 체온 정도는 차이 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차가운 손은 불편하십니까?”

인간들은 인어의 차가운 손을 물속 괴물들의 것이라며 경멸했다.

지오반니 역시 인간이었고, 이세르는 인어였다. 무엇보다 태양의 가호를 받아 언제나 따듯한 지오반니는 이세르의 축축하고 서늘한 손에 거부감을 느낄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오반니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웃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세르의 걱정을 일축했다.

“오히려 시원해서 좋습니다.”

“…지금 겨울입니다.”

“저는 열이 많은 사람이라 상관없습니다.”

“…….”

“예, 좋네요.”

열이 많다고 해도 겨울에 추워지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이 누가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 인어를 배려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손은 따듯합니다.”

괜히 그 온기에 가득 찬 손을 잡아보고는 했다.

“이런 높은 체온도 태양신의 가호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태양의 축복이 가장 가득했던, 여름날에 태어났으니 말입니다.”

“나 때문에 선생님의 손이 차가워지면 안 됩니다.”

욕심껏 붙잡았지만, 그 온기를 제가 빼앗아 가는 기분이 들어 늘 미안한 마음이었다.

“…저는….”

가끔 이세르는 자신이 지오반니의 것을 빼앗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인어인 제가 인연을 고집하지만 않았다면 지오반니는 이처럼 마음 졸이며 사람을 대할 필요도 없고, 그 훌륭한 실력에 이런 작은 마을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었다.

“…….”

그래서 이런 온기 한 점마저도 가져가는 것이 미안해질 때면, 지오가 말했다.

“나에게는 언제나 이세르, 그대에게 내어 줄 온기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건 태양의 피조물인 당신에게 너무 가혹한 말이 아닙니까?”

“고작 손잡는 걸로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세르, 그대는 종종 너무 소심하게 굴 때가 있어요. 더 당당해져도 돼요.”

“하지만 저는 인어입니다, 선생님. 많은 것을 배울수록 인간과 인어가 하나 될 수 있을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처럼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나요?”

그는 늘 따듯했다.

“내가 시체가 되지 않는 한, 그대는 언제나 내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시체의 손은 잡으면 안 됩니까?”

“죽은 이는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도 태양의 곁으로 가지요.”

“…….”

“그게 자연이고 순리입니다.”

어리석은 인어는 몰랐으나, 그토록 따듯했던 당신의 말은 사실 틀렸다.

온기가 가득했던 손도 해수에 질식당하고 나니 그토록 시려지더라. 아마 당신은 죽어서도 태양의 곁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리 차가웠을 리가 없지. 당신의 시체가 그렇게 차가웠을 리가 없다.

“…벌써 슬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그렇게 되었다.

* * *

‘…왜 이렇게까지 그 사람을 떠올리게 만드는 걸까.’

이세르는 제 옆에 앉은 검은 망토를 보며 생각했다.

‘그런 주제에, 왜 이리 태양의 기운이 강한 거야.’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해졌다.

이 자는 단순히 강한 인간인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양의 신성을 머금고 있었다. 신만이 품을 수 있는 거대한 자격을 말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보이니 어쩌면 인간인 상태에서 신성을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겠어.’

만약 그렇다면 이세르는 이 검은망토를 증오할 것이다.

“…….”

“입맛이 없습니까?”

지오라는 그 애틋한 이름으로, 제 은사와 같은 온기를 품은 채로… 하필이면 태양의 신이라니.

‘이건 태양신의 수작인가.’

오랜 세월 비참했던 긴 나날 동안, 이세르도 인간과 신, 그리고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어쩌면 인어와 심해를 경계한 지구의 태양신이 이런 짓을 벌인 것일 수도 있다.’

그 사람과 지독히 닮은 인간에게 태양의 기운을 물려주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여전히 끔찍하네.'

신이고 인간이고, 태양의 작자들은 항상 구역질이 나게 했다.

"…그냥, 이런 식당은 처음이라…."

"그렇군요."

"……."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검은망토의 음성은 차분하고 다정했다.

'참 이상하지.'

어느 순간에는 마치 고요한 시체처럼 나직한가 싶다가도, 저를 돌아볼 때면 부드러운 운율을 담아 그 친절을 베푼다.

'정확한 정체가 궁금한데.'

신이라고 해도, 인간이라고 해도, 그 잔인한 족속답지 않은 행세였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면서도 이세르는 위선적인 불안을 느꼈다. 희미하게 발끝을 간지럽히는 작디작은 불안이었다.

'곧 누님께서 바다를 불러오실 거다.'

그 뜨거운 태양조차 바다에 잠기면 생기를 잃는다. 이미 이세르가 수차례 확인한 일이니 아마 예외 없이 이 자도 그럴 것이다.

이 손이 지금보다도 더 차게 식을 수도 있을까?

"……."

그건 좀, 슬플 것 같았다.

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 * *

신전으로 돌아오자, 푸른 머리카락을 가진 은하가 지오를 붙잡았다.

"지오 씨."

"예, 무슨 일이 있습니까?"

"……."

망설이던 아이가 물었다.

"…바다를 좋아하세요?"

"물은 좋아하는 편입니다."

"수영은 잘하고요?"

"사실 꽤 못합니다."

"……."

무언가를 떠올리듯, 혹은 고민에 잠긴 듯 말이 없던 아이가 이내 입을 열었다.

"많이 춥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다고들 하더군요."

"……."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오는 이 아이가 걱정하는 게 자신이 아니라 아이 본인인 것을 알아차렸다. 그라는 사람 자체를 걱정하기보단 무언가 자신이 싫어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하는 듯 보였다.

생각이 지나치게 깊어서 어딘가 꼬인 면이 있는 아이였다.

'저러면 인생이 피곤해질 텐데 정말 안타깝군. 역시 어른스럽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군고구마 하나면 한 달 치 고민이 깔끔하게 날아가는 지오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행이었다.

"곧 본식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만 가볼게요."

아이가 이별하듯 덧붙였다.

"즐거웠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지오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챘다.

'…과연 헬한민국….'

아이들도 만만치가 않았다.

'나같이 밥이나 맛있게 먹을 줄 아는 허접한 놈이 살아남긴 힘든 세상이야.'

오늘도 열심히 쫄아드는 귀신 들린 초상화였다.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63)

제63화

많은 노력을 해봤다.

하루아침에 인간이란 존재를 증오하기에 이세르는 심지가 굳고 이타심이 컸다. 그는 여러 차례 인간에게 다가가려고 애썼다.

그것으로 난 할 만큼 했다고 변명하려는 건 아니었다. 그래, 고작 그걸로 자만하고 싶지는 않지만....

“.......”

정말로 괜찮았다.

“다친 곳은 없습니까?”

“흐, 흐아악...! 이, 인어다...!!”

목숨을 구해주고도 경멸과 혐오를 사는 건 슬픈 일이지만 참을 수 있었다.

“제가 치료해 드릴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인어의 말을 어떻게 믿지?”

“하지만....”

“손대면 죽여 버리겠어.”

“.......”

최선을 다해 배려하려 했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히는 것도 괜찮았다.

“인어? 그거 괴물 아니야?”

“.......”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던데, 와, 끔찍하네.”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비난당하는 것도 나름 견딜 만했다.

“.......”

“.......”

“이세르.”

누이가 저를 불렀다.

“지오반니가 재판에 회부되었어.”

“…그는 명성 높은 태양의 사제이니 괜찮지 않겠습니까? 서로 아군이잖아요.”

“배신자라는 이유로 극형에 처해지겠지. 너도 들었잖아, 인류의 배신자라고.”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살려 냈습니다.”

“대단한 억지로구나. 인간이 언제 그런 걸 신경이나 쓰던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도 그를 위해 옹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인어를 숨겨주었다 하니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어. 우리가 그날 본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

“왜 아무도….”

“인간은 참 흥미로운 생물이지 않니. 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

“…왜….”

“지오의 품성과 능력을 찬양하며 신의 아들이라 칭송할 때는 언제고, 정작 그 빛이 바다에 나누어지니 이제는 그를 인간의 수치라며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바다를 긍정해 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인어와 인간은 다르지 않다며, 하늘과 바다가 하나 되는 날을 저와 함께 기다려 주었던 고결한 존재다.

그 곁에서 내 은사가 얼마나 거대한 자비를 베풀었는지, 사랑과 애정을 쏟았는지를 아는데. 진심으로 환자를 아끼고 친구를 존중하던 사람이었는데.

“…말도 안 돼….”

그 모든 것이 부정당했다니.

‘그것도 같은 인간들에게.’

그건 인내심이 강한 인어에게도 너무 힘들었다. 참아내지 못했고, 괜찮지 않았고,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의 자연한 죽음마저도 아까워 몇 년을 슬퍼하고 정리했거늘, 어찌 너희는 직접 그를 죽이는가. 그토록 끔찍하게 구는가.

“…….”

그 사람의 고통이 슬프지 않아?

“나는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

“아직도 인간이 좋은 건가? 그들이 변덕스럽지만 사랑스러운 생물이라고 여겨?”

“…아니요….”

“그렇다면 그들을 믿나? 호의를 호의로 돌려주리라고, 너의 등을 맡길 수 있다고 믿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었다면 나와 함께 바다로 돌아가자.”

누이는 달게 속삭였다.

“너도 알겠지만 우리는 지오반니처럼 시선 한 번, 손길 하나로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없어. 태양의 피조물에게 인어의 차가운 손길이 닿아봐야 소름 끼치기만 하겠지.”

그 말이 맞았다.

“그리고 그렇기에, 고통은 줄 수 있다.”

“고통….”

그 말도 맞았다.

“나의 동생, 이세르.”

“…예, 누님.”

“함께 가겠나?”

그래서 이세르는, 딱 한 번만 더 참아보기로 했다.

“아니요.”

그건 인간들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했던 지오반니를 위해서였다.

“무른 길을 택하기엔 이미 인간과 인어는 전쟁을 시작했단다. 그것도 네 상상 이상으로 천박하고 잔인한 전쟁이 될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네 선택이라면 존중해야겠지. 후회가 남지 않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렴, 이세르.”

“…감사합니다.”

아주 슬픈 사실이지만, 지오반니는 인간들에게 배신당했다고 복수를 꿈꾸는 성정의 사람이 못 됐다.

‘그러니 내 은사를 위해 인간들을 괴롭히고 악명을 쌓는 것은 오히려 그를 두 번 배신하는 길이 될 테지.’

그 고결한 사람을 핑계로 인간들처럼 천박하게 화풀이하고 싶지 않았다.

“…….”

이세르는 그 뒤로도 수십 수백 번을 인내했다.

전쟁 중 죄 없는 아이를 구했다. 인어들은 괴짜 같은 동족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저 무시했고, 인간들은 오히려 어처구니없는 누명을 씌워 이세르를 공격했다.

“하나.”

바다에 빠진 임산부를 뭍으로 끌어 올렸다. 하지만 임산부는 인어의 차가운 손에 잡히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다 익사해버렸고, 그 모습을 보며 인간들은 인어가 이제는 임산부까지 잡아먹는다며 비명을 질렀다.

“둘.”

공격할 가치도 없이 바르작거리는 군인을 못 본 척해주었다. 피를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 군인은 한 달 뒤 저를 찾아와 공격과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이세르는 피를 봐야만 했다.

“셋….”

가까스로 친해진 인간은 죽거나 배신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세르가 무엇을 하든 불결하게 여겨져 그의 악명이 높아졌다. 인간들은 바다에 독을 풀었다. 아이가 죽었다.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옆구리가 칼에 찔렸다….

“…….”

그리고 어느 날 세어보니.

“…천육백사십삼.”

벌써 천이 넘었더라.

“…아, 으….”

숫자를 센 마지막 날, 이세르는 제 은사를 잡아먹었다.

“…흐으, 흐흐흐….”

온몸이 욱신거렸고.

“흐하, 아아아아…! 아악…!!”

배가 고팠다.

배가, 너무 고팠어.

“아아아아아아악—!!!”

* * *

“…….”

저녁임에도 대낮처럼 환했다.

‘꼭 백야 같네.’

극지방에서 종종 보인다던, 밤이 되어도 해가 지지 않는 현상 말이다.

‘이게 바로 낭만의 도시 서울. 도파민이 넘쳐흐른다….’

지오는 제 심장의 두근거림을 한껏 즐기며 신전의 사제 행렬을 관람했다.

2부 행사는 1부보다 훨씬 화려하게 진행되었다. 1부는 종교인 특유의 엄숙함이 강조되었다면, 2부 행사는 정말로 ‘행사’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았다.

여기저기 빛무리가 반짝거리고, 사제들의 하얀 옷이 팔랑거렸다. 볼 게 너무 많아서 눈이 어지러울 정도였다.

“어때, 볼 만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다행이다.”

유성운이 특유의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행사 기간이 길어서 네가 괜찮은가 했어.”

“확실히 조금 피로하기는 하지만….”

이제 오두막에 돌아가면 일주일 동안 집에 처박힐 예정이긴 했다.

집 바깥으로 나온 순간부터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던 탓에, 지금 지오의 체력은 바닥이 난 지가 오래였다.

“그래도 볼 가치가 있는 행사입니다.”

“역시 네가 부양하고 있는 신의 영향이려나?”

태양신을 모시고 있어서 태양교의 행사가 마음에 드냐는 질문이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집만큼은 아니지만 친구 집만큼은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

“지오?”

“…잠시 예전의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새끼들 3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살아는 있나?

‘애들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데.’

가끔 생각하던 거였지만, 이렇게까지 오래 바깥에 나와 있으니 역시 31년 전 알고 지내던 인연들의 생각이 났다.

‘강원도 산골 마을의 어르신들은 안 그래도 연세가 있으셨으니 기대를 안 하고 있다만.’

그래도 가르치던 학생들 정도라면 대충 근황을 알 수 있을지도 몰랐다.

“…….”

아니 근데 그러다가 실험실로 잡혀가면 어떻게 해…?

‘보통 영화에서 보면 추억에 기인한 한순간의 방심이 그 사람의 인생을 낭떠러지에 처박던데, 나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

인간에서 귀신 들린 초상화로 진화한 것은, 이따금 드러내는 유성운의 반응을 보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헬한민국에 있어서도 굉장한 일임이 분명했다.

지오는 그냥 닥치고 처박히기로 다시 결심했다.

‘만날 인연이라면 의도하지 않아도 만나게 될 테지.’

그런 꿈과 희망이 가득한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아… 슬슬 마무리하나 보네.”

“꽤 길었습니다.”

“이런 입단식은 교단의 위세를 보여주는 행사이기도 하니까.”

특히 서울에서 꽤 큰 교세를 자랑하는 태양교라면 이 정도 화려함은 보여줘야 했을 것이다.

‘최근에 불미스러운 실종 사건이 있기도 했고.’

그렇게 생각하며, 유성운은 힐끗 지오의 쪽을 돌아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녀석이랑 연관이 있는 사건인 것 같지만….’

지오는 정말로 아무 감흥도 없어 보였다.

‘진짜로 지오는 아는 게 없거나, 알면서도 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겠지. 어느 쪽이든 독특한 성질의 지오라면 납득이 되는 면이 있어서 더 헷갈리네.’

그렇게 마무리되어 가는 행사를 구경하고 있을 때였다.

“…….”

순간적인 직감.

‘…뭐지?’

서늘하다.

‘빙하는 아니야.’

정원사이기에 기운의 본질을 안다.

인간의 몸을 우그러트리는 자연의 압박감과,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피를 닮은 비릿한 향을 맡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차갑고, 습하며, 어두운 위압감.

‘바다?’

유성운은 곧 그것이 바다의 기운임을 알아차렸다.

결코 자연스럽게 느낄 수는 없는 감각이지 않은가. 유성운이 본능적으로 원흉을 찾았다.

“아….”

푸르른 머리칼의 ‘은하’와 시선이 마주치자, 유성운은 낭패감을 느꼈다.

“이런.”

쿠르륵—…!!!

“너무 방심했나.”

시리도록 새파란 기운이 몰려왔다.

그 기운은 하늘거리는 안개와 같지 않았다. 득달같이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지독함이 있었으며, 날카로운 손톱으로 인간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난폭함이 있었다.

그는 곧장 사태를 파악했다.

“가상 던전이다.”

유성운의 빠른 판단을 끝으로, 신전 전체가 푸르게 물들었다.

“■■■■■—…!!!!!”

대리석 기둥이 거대한 손톱에 긁히듯이 귀가 아플 만큼 커다란 소음이 일었다.

까득까득 고막을 긁어내리며, 유리 파편이 터져나가듯 온 세상이 혼란스레 이지러지고, 새하얀 거품이 인 파도가 게걸스럽게 사람들을 먹어치웠다.

“…….”

항상 무던한 표정이던 유성운이 제 얼굴을 자글자글 일그러트렸다.

‘…피해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확실한 건 있군.’

오늘도 야근이다.

“후우….”

콰득—!!

“벌써 피곤하네.”

얼음 창을 만들어낸 유성운이 그것을 바닥에 박았다.

‘멀리 떠밀려 가서는 안 된다.’

경험 많은 헌터로서의 판단을 마친 유성운이 바닥에 박은 창으로 제 몸을 지탱했다.

강한 추위와 파동에 유성운이 초상화를 돌아보았다.

“지오, 조심…!”

그리고 그곳에는.

“…….”

“…….”

거대한 ‘눈’이 있었다.

유성운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지독한 적막함을 느꼈다.

저게 뭐지?

눈이야?

“…….”

자연을 닮았으나, 그게 태양의 것인지 바다의 것인지를 분간할 수 없었다.

조각조각 나뉘어 반짝이는 빛의 파편이 산란하고, 그것이 태동하듯 혼란스레 반짝이며,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파도를 비추는 환상을 보았다. 유성운은 잠시도 시선을 떼지 못하고 파도에 휩쓸린 초상화를 보았다.

그곳에, 그 안에 바다가 있었다. 빛에 일그러진 새하얀 바다였다. 그 바다가 말한다.

『해가 닿지 않는….』

그 음성은 자연의 것과 같았다.

『심해에 왔어.』

그것은 왜 신의 판결처럼 들렸는가?

눈에 담으면서도 인지하지 못했다. 햇볕이 내리쬐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온기의 소리를 들었다. 파도는 그와 뒤섞이다가 이내 이빨을 숨기고 몸을 움츠렸다.

유성운이 뭐라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의 정신을 차린 건 그 이후의 일이었다.

“…….”

다시 소리가 들려오고, 고요함에서 벗어나 시간이 흘렀다.

귀를 아프게 하던 강한 소음과 망자의 아집과 같은 이명이 사라지니, 심연의 괴물처럼 흉포하던 파도는 다시 죽어 잠잠해졌으며….

“…….”

“…….”

“…….”

세상의 풍경은 바뀌었다.

“아….”

피비린내 나는 섬뜩한 한기. 유성운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보인다.

“…여, 여기가 어디예요…?”

“던전? 시발, 설마 던전이야?”

“누, 누구 헌터 있나요?!”

막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소란스레 떠들어대는 이곳은, 분명한 던전이었다.

“…….”

유성운이 그림자처럼 어둑한 푸른 공간을 눈에 담았다.

천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동공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모를 물비늘이 섬뜩하게 비치고 있었다. 유성운의 시선이 곧이어 동공 곳곳에 세워져 있는 푸르른 물기둥에 닿았다.

저절로 한탄이 나왔다.

"…아이고야…."

수중 생물에 가까워 보이는 형태의 키메라가 잔뜩 처박혀 있었다.

"일 났네 이거."

어째 진입부터 불길하더니, 던전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보였다.

'전형적인 가상 던전이라기에는 끌려온 사람들도 정도 이상으로 많고.'

유성운은 제집으로 복귀하려는 정신을 간신히 붙잡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했다.

일명 '가상 던전'은 임의의 조건을 만족한 인원을 강제로 다른 차원에 끌고 가 게임을 진행한다. 참가당한 인원수나 게임의 괴랄함을 보면 해당 던전 주인의 역량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동공에 모인 일반인의 수만 따져도 20명 가까이…. 다른 곳에도 끌려온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모로 과해. 이 던전의 주인이 얼마나 이를 갈고 준비했는지 알겠어.'

그리고 유성운은 대한민국 3대 길드, 수집상 소속의 A급 헌터로서 이 사람들을 지키고 공략을 완수할 책임이 있었다.

"……."

이 오합지졸 시민들을 데리고 말이지.

* * *

'역시 A급의 헌터인가.'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하려는 유성운의 냉정한 모습에 은하, 이세르는 내심 감탄했다.

지구의 기준에 따르면 B급의 헌터부터는 일반적인 인간의 기준에서 사고방식부터가 서서히 벗어나게 된다고 했다. 그보다 높은 등급인 A급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는 셈이다.

'그리 유명한 공인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과연 무시할 바가 못 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고작 헌터 한 명이 무얼 할 수 있겠는가?

'이 수많은 짐을 데리고 있으니, 기껏 해봐야 시민들과 함께 죽거나 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을 선택하겠지. 그런 미련한 존재가 인간이다.'

소란과 멀리 떨어진 동공의 그림자 속에서 이세르는 겁에 질려 난동을 부리는 인간들을 눈에 담았다.

"사, 살려줘! 나는 여기서 죽기 싫어…!!"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저기요, 여기가 그래서 어디…."

"꺄아아아악…!! 괴, 괴물이 있어! 괴물이 있다고요!!"

귀가 피로했다.

'…비명 지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 건가. 그야말로 천치가 따로 없군.'

꿱꿱 대는 소음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느끼는 익숙한 불쾌감이 몰려왔다. 인간을 향한 빛바랜 증오였다.

"……."

이번 사태에서 이세르의 역할은 문을 여는 것, 딱 그뿐이었다.

'…전임자가 갑자기 실종되지만 않았어도 내가 나설 일은 없었을 거다.'

다른 곳도 아니고 태양 신전에 심해의 문을 여는 것은 꽤 노련한 기술이 필요했다.

'그 탓에 진즉 인간 중 하나를 포섭하여 조련한 상황이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그가 의문의 강자에게 죽어버리며 일이 꼬였다.

실행일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그 순간 문을 열 수 있는 인원은 이세르 한 명뿐인 상황이었으니….

'마음에 드는 것이 없군.'

잠시나마 인간들 사이에 섞였더니 몸과 마음 그 어느 한 곳도 멀쩡하지 않았다.

'역시 오래 교류해선 안 될 종족이다. 그 무능함이 옮겨 붙는 기분이야.'

한시라도 빨리 이 일을 끝낸 뒤, 적막한 바다에 빠지고 싶었다.

"헌터, 당신 헌터지!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무슨… 이게 나랑 무슨 관련이에요, 책임 같은 헛소리 말아요!!"

"사제들은? 시발, 사제들은 다 어디 갔는데!!"

"예, 예비 사제들도… 사제 맞죠? 응? 사제지?"

"아무나 좀 도와줘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토록 천박하게 발광하는 것에게 어찌 마음을 두겠는가.

"……."

이곳은 지구의 인간들이 '던전'이라고 부르는 길목 중, 꽤 후반부에 위치한 곳이었다.

'…입구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고 출구를 찾기엔 상황이 좋지 않으니, 어지간하면 다들 여기서 죽게 되겠지. 굳이 내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분명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일을 마무리할 생각을 하고 있자니 문득 검은 망토를 뒤집어쓴 남자가 떠올랐다.

지오라는 이름의 태양신이었다.

"…후우…."

임의의 위치에 모든 인간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 그 남자의 위치를 무의식적으로 쫓고 있던 스스로가 멍청하게 느껴졌다.

어차피 전부 죽여버릴 것이면서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그래, 빨리 해치우자.'

온전히 남는 개체가 있다면 그것은 누님의 실험체로 쓰일 영광을 받게 된다.

그중 하나의 소유권을 부탁하는 것도, 어쩌면 나쁘지는 않겠지.

"…그럼."

그림자에서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렇게 손에 스태프를 쥐고, '몬스터'로서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였다.

"……."

아.

'…인기척?'

이세르가 뒤를 돌아보았다.

"……."

어느새인가, 검은망토가 제 바로 뒤에 서 있었다.

"……!"

말도 안 돼.

'여기에 이 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아무리 상대가 신성을 품은 무언가라 해도, 신마저 죽일 수 있는 인어에게 이런 상황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내가 너무 방심하고 있었나?'

이세르는 뒤로 물러섰다. 아이의 몸을 하고 있는 탓인지 이상하리만치 검은망토에게서 위압감이 느껴졌다.

이 커다란 몸이 움직였으니 인간 중 누군가는 반응을 해야 옳았으나, 아무도 검은망토와 이세르를 향해 시선을 던지지 않았다.

'어째서?'

그 형용키 어려운 위화감에 이세르가 날카로운 이를 드러냈다. 은사의 몸도 뜯어 먹은 송곳니였다.

"당신 대체…!"

"이세르."

"……."

…뭐?

"……."

"아, 이세르…."

이름을 불렸다.

"……."

시체만큼이나 나직한 부름이었다.

이세르가 멈췄다.

'…내 이름을 불렀어.'

얼음물에 닿은 물고기처럼 그는 딱딱하게 굳어 움직이지 못했다.

두꺼운 벽만큼이나 커다란 키의 남자가 몸을 굽혀 아이의 뺨을 쓸자, 그 작은 몸이 마치 그림자에 잡아먹히듯 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새까만 망토가 마치 커튼처럼 내려와, 폭포수처럼 이세르를 완전히 감쌌다.

'어떻게….'

그렇기에 어린 몸의 인어는 저를 내려다보는 이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춥지는 않았을까?"

"……."

"많이 아팠니?"

“.......”

“외롭고 무서웠을 텐데....”

바다에 흐트러지는 햇볕을 닮은 사람이.

“.......”

그 따스한 백금의 머리칼과, 찬란한 물결을 닮은 눈이.

그 아득한 푸른 눈이.

“미안해.”

“.......”

“미안합니다.”

울고 있다.

“...아....”

지오반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나의 은사는, 이제 시체가 되어 내 앞에서 울고 있었다.

* * *

지오가 의식을 잃었다.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64)

제64화

"누님."

"그래, 나의 미련한 동생아."

"예, 미련한 동생이 왔습니다. 연구는 잘되어 가십니까?"

"나쁘지는 않아."

에메랄드를 조각해 만든 깃펜으로 무언가를 유려하게 적다가, 이내 내려놓으며 누이가 고개를 들었다.

심해를 닮아 검고 시리게 일렁이는 머리카락이 파도처럼 흐트러졌다. 그녀는 마치 사나운 심해와도 같은 미소를 지었다.

"역시 내가 아는 모든 차원 중 인간이라는 종족이 가장 다채로워. 뇌를 활용하는 기술도 개체마다 차이가 크고, 생김새부터 시작해 감정까지 폭이 넓지."

"누님께서는 정말로 인간을 좋아하시는군요."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이쯤 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미친 개체가 튀어나오니… 이 내가 연구를 멈출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결국 인간이라는 종족의 한계는 없는 게 아닙니까?"

"어느 차원에서는 신이 된 인간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이 인간의 최종점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으니, 이래저래 표본을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확실히 그렇겠습니다."

이세르의 누이는 인간의 모든 것을 알아내길 원했다. 심지어는 그녀는 인어의 차가운 손으로 태양의 피조물을 직접 빚어내기도 했다.

물론 그건 인간의 형태를 벗어날 때가 더 많았다. 온전한 형태를 빚기에는, 그녀 역시 인간을 증오하는 탓이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

"유독 한 사람만큼은, 다시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이세르는 알았다.

그의 누이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드는 천재였으나, 오로지 단 한 명. 지오반니만큼은 되살려 내지도, 복제품을 만들

어 내지도 못했다.

이세르의 생각에는 아마 그녀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는 듯했다.

“…….”

만들어진 지오반니는 더 이상 그들의 은사라 할 수 없었다.

“…이번 차원의 이름은, 지구라고 부르는 듯하더군요. 정확히는 행성의 이름인 듯하지만 말입니다.”

이세르는 늘 그렇듯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이따금 두 남매에게 그리움과 불쾌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지오반니라는 이름의 인간을 매우 닮아 자애로운 미소였다.

“이번에 제가 맡을 역할이 있겠습니까?”

“일이 잘 진행된다면, 아마 없을 거야. 문을 여는 역할은 지구의 종자로 따로 만들어둘 테니 너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작게 웃었다.

“했다면, 누님을 걱정했겠죠.”

“나 역시 그래.”

검푸른 드레스 위로, 이질적인 의사의 가운을 입은 누이가 눈을 짙게 휘었다.

“너는 인간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하니?”

“누님도 모르는 것을 어찌 제가 알겠습니까.”

“가끔 숨이 차오를 때가 있어. 너무 달려온 탓이지.”

“그렇게 말씀하신대도 결코 쉬지 않으실 테죠.”

“궁금한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붉은 입술이 달싹였다.

“언젠가는 멈출 수 있을 거다.”

그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인간의 한계를 보길 원했다.

이제는 거기에 목적이 생긴 듯했다.

“…….”

“그렇지 않아?”

인간의 한계를 알면.

그 안에는 분명, 누구보다 고결한 인간이었던 지오반니가 존재할 테니….

“…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고 죽은 은사를 뵙길 청하지만 결국 다시 보게 되면, 그건 결국 지오반니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었다.

그렇기에 남매는 결코 그 이름을 꺼내는 법이 없었다. 그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 지독한 모순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

었다.

“…….”

“…….”

그럼에도 욕심이 나더라.

“…….”

“좋은 아침이야.”

태양을 심해에 가뒀을 때와 같이, 그렇게.

* * *

“…….”

“이봐, 잠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미안하지만 지오는 내 일행이야.”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네.”

유성운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이 난감한 상황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슨 자기 새끼 지키려는 어미 새도 아니고.’

몸집만 보면 정반대일 테지만, 초등학생 정도의 신체를 한 은하는 왜인지 쓰러진 지오를 꼭 껴안고 있었다.

‘그 작은 몸으로 아무리 노력해 봤자 다 가려질 리도 없는데.’

참 필사적인 모습이었다.

“…….”

유성운도 곧 상황 판단을 마쳤다.

‘…저 녀석의 과민한 반응으로 따져보자면, 아마 지오의 인격 중 하나와 연관이 있는 상황이려나.’

‘지오의 초상화’라는 중심의 곁가지로 수많은 차원에 그의 인격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그걸 고려했을 때, 당치도 않게 지오를 감싼 채로 이를 드러내는 이 녀석도 다른 차원의 인간형 몬스터인 듯했다.

‘이빨이 변형되는 형태를 보니 확실히 인간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오의 어떠한 인격과 눈앞의 이 몬스터가 아는 사이라는 건데….’

이걸 행운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던전의 주인처럼 보이는데도 아예 공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행운인가.’

유성운이 떨떠름한 시선으로 쓰러진 지오를 껴안고 있는 은하를 보았다.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너, 이름은 뭐지?”

“죄송하지만 불쾌합니다. 하찮은 인간 주제에 말 걸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 이게 몬스터의 올바른 반응이기는 해. 덕분에 현실 감각이 돌아오는 기분이야.”

몬스터란 기본적으로 인간을 증오하는 괴물이니, 언제나 인간에게 신사적인 대응을 보였던 지오가 오히려 이상한 거였다.

‘내 말에 나름 반응해 주고 있는 지금 은하의 모습만 해도 대단히 온건한 편이라는 거지.’

대뜸 가상 던전에 잡혀 온 이 당황스러운 상황치고는 제법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가.

유성운은 희망을 가졌다.

“아무튼 은하라는 이름은 가명일 것이고. 내가 뭐라고 불러야 하지?”

“가명은 아닙니다.”

“그럼 본명이라고?”

“지구의 형식을 빌려, 제 이름의 뜻을 따서 만든 것이니....”

“그게 가명이잖아.”

이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꼬박꼬박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는 모순적인 반응은 대단히 흥미로웠다.

‘딱히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 낮은 편이라서 그러는 건 아닌 듯하고. 그렇다면 역시 지오 때문에 대답해 주는 건가.’

한때 협회의 연구 팀장이었던 유성운은 불쾌하지 않을 만큼 상대를 훑었다. 저를 비롯한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험한 상황에서 이런 흥미를 느끼는 것은, 정원사인 유성운의 고질적인 버릇이었다.

‘지오와 이 몬스터가 어떤 관계였는지는 모르겠다만....’

이 녀석도 눈이 있으니 유성운과 지오가 지구에서 함께 행동했다는 건 알 것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행인이 보더라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은 친밀한 모습을 보였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인내하는 것 같은데.

‘그 경우 이 몬스터가 지오의 심기를 살피고 있다는 뜻이 된다.’

한마디로 지오가 이 몬스터보다 관계상 더 높은 서열이라는 의미였다.

“...아 피곤하다.”

격하게 퇴근하고 싶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사람들도 차츰 진정해 가고 있지만, 던전에 끌려왔다는 건 아는지 불안한 분위기는 여전해. 행사에서 봤던 사람 중 상당수가 안 보이기도 하는데....’

주변을 살핀 유성운이 물었다.

“행사에 있던 모든 사람을 끌고 온 건가?”

이제 와서 모르는 체할 리는 없을 것이다.

‘인간 주제에, 같이 제법 몬스터다운 소리를 하기도 했고.’

사건을 터트린 직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생각이었는지, 은하는 대놓고 그가 이곳의 주인이라는 티를 팍팍 풍기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갑자기 끌려온 게 혼란스러워서 이쪽을 확인할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최소한 A급 헌터인 유성운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이 가상 던전의 주인이자, 대뜸 행사장의 사람들을 여기로 끌고 온 주범은 눈앞의 파란 머리 꼬맹이가 맞았다.

“조건은 태양의 신전 내에 있던 모든 사람이었고?”

“.......”

“...어우....”

과연 몬스터는 몬스터라는 건가.

‘살기가 어마어마하네.’

지구에서는 어떻게 그리 사근사근한 아이인 척 굴었던 건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의 살의였다.

진주처럼 허연 눈이 붉게 보일 만큼 핏발이 섰는데, 시선을 마주하기만 해도 유성운의 정신이 피곤해질 수준이었다.

그는 난감함을 느꼈다.

‘이런 무시무시한 던전의 주인씩이나 되는 놈의 성질을 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안타깝게도 이 동공에 있는 헌터는 A급인 유성운 한 명, C급인 남자 한 명, C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여자가 한 명뿐이었다. 올라운더인 유성운이 어떻게든 커버하라면 못 할 건 없지만….

‘아니, 못 한다.’

이거 다 죽게 생겼다.

‘혼자 도망치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지오를 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지오의 안위를 걱정하는 건 당연히 아니었다. 유성운은 이 정신 잃은 초상화의 안위를 걱정할 주제가 못 됐다.

단지 그는 작품 하나를 잃은 비사벌의 절규를 보고 싶지 않았고, 근원과 연관된 특별한 자료인 지오를 놓치고 싶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유성운이 방치한 사이 ‘지오의 초상화’가 어떤 말도 안 되는 재앙을 일으킬지를 걱정한 것이었다.

‘측정 불능의 기상천외한 근원의 존재를 이 정신 나간 던전에 두고 나 몰라라 도망칠 수는 없지. 완전히 폭탄을 설치해 둔 꼴이잖아.’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면 지오의 얼굴을 확인한 이 몬스터의 살기가 극명하게 누그러졌다는 부분이었다.

‘던전 특유의 압박감도 조금 나아진 것 같고….’

이 던전에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기껏 안정을 찾은 주인의 심기를 어지럽힐 수는 없었다.

“…….”

몬스터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니, 유성운은 지오를 무기 삼아 조금 더 간접적으로 말했다.

“…지오와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그거 알아? 지오는 악하고 무례한 존재를 혐오해.”

“…….”

“너와 지오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지오는 그렇단 말이지. 예전에도 지오에게 그런 성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때는 네가… 그렇게 악하거나 무례하지 않았다는 것이겠고.”

“하지만 지금은 악하고 무례하죠.”

몬스터는 보는 사람이 다 섬뜩해질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이분께서 지금의 저를 긍정하실 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오만하지 않으니까요.”

“어, 그래. 지오는 그때도 그랬나 본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인간들에게 좀 친절하게 굴어볼 생각은 없나?”

“…….”

침묵으로 대답한 몬스터가 고개를 들어 유성운을 마주했다.

그는 어딘가 진주를 닮은 몬스터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포식자임을 알려주듯 동공이 세로로 찢어져 있었고, 또한 햇볕에 부딪힌 다이아몬드처럼 이지러졌다.

‘아, 이런.’

헌터의 감이라고 해야 할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성운은 본능적으로 눈치챘다.

'죽일지 고민하고 있다.'

지오가 깨어나기 전에 모두 죽이고, 그러니까… 일단 사고를 친 다음에 수습할 고민을 하는 게 분명했다.

'특이하네.'

아까 전에도 그러더니, 지금은 그 진주색 눈이 더 선명하게 번들거렸다. 저녁에 번뜩이는 짐승의 눈과 비슷했다.

아마 몬스터는 화가 나거나 살의를 품으면 눈이 물비늘처럼 빛나는 습성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렇게 되면 이쪽도.'

가만히 죽어줄 수는 없지.

'얼마나 죽든 나는 이곳에서 지오만 수습하면 그만이다.'

앞으로 이곳에서 몇 명이나 죽어 나갈지를 예감하며, 유성운이 손에 냉기를 모았을 때였다.

"…윽…."

"! 지오."

"! 선생님!"

선생님?

"아, 그…."

은하는 제가 말을 꺼내놓고도 당황한 듯 어물거리고 있었다. 지금의 본인이 지오를 어떤 의미로든 '선생님'이라고 부를 상황이 아닌 걸 뒤늦게 깨달은 표정이었다.

'이 허술함은 대체 뭐야.'

표독하기 짝이 없던 방금 전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맹하지만 성실해 보이는 낯에 유성운은 없던 신뢰가 바닥을 찍는 기분이었다.

"지, 지오 씨."

"……."

"괜찮으신가요? 방금 막 정신을 잃으셔서…."

이 몬스터가 내숭을 부려?

'…인간형 몬스터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향한 내숭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먹잇감을 방심시켜서 잡아 죽이려는 계략의 일환이고….'

신실한 사제라도 되는 듯한 아이의 낯짝을 보고 있자니 유성운은 안 그래도 없던 기운이 빠지는 걸 느꼈다. 갑자기 누그러진 살기에 김이 팍 샜다.

머리가 아픈 듯 비틀거리며 상체를 일으킨 지오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

"……."

"……?"

후드에 가려져 잘 보이지는 않지만, 검은색 머리카락이 슬쩍 보이는 걸로 보아 지금의 지오는 확실히 '서지오'가 맞았다. 그는 여기가 어디이며 자신이 왜 쓰러졌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그걸 은하도 알아차렸는지 그가 아이의 얼굴로 지오에게 물었다.

“지오 씨, 여기는 던전입니다. 혹시 쓰러지기 전에 일이 기억나십니까?”

“…쓰러지기 전….”

의외로 지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하 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은하는 조금 아쉬워하면서도, 또 일부는 안심한 것 같았다.

유성운도 대략 상황을 파악했다.

‘…인격에 혼란이 왔나 본데.’

지오는 그가 은하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 자체는 기억을 하면서도, 은하를 ‘학생’이라고 불렀다.

이는 서지오의 방식이니 아마 기억은 있되 인격은 은하가 아는 그 ‘지오’가 아니라는 의미인 듯했다.

“…….”

지오는 한참이나 머리를 감싸고 앉아 있었다. 초상화가 본질인 존재가 보이기에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유성운이 걱정을 담아 물었다.

“…머리가 아픈 건가?”

“…예.”

드물게 흐린 어조로 지오가 대답했다.

“몸과 정신 모두 어지럽습니다.”

그 말에, 유성운은 방금 전 던전에 이끌려 올 때의 상황을 떠올렸다.

‘…그 순간의 지오는 초상화에서 보였던 높은 격을 띠고 있었지.’

차원에서 차원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한했던 격이 풀려나갔던 것일까?

‘지금은 그게 다시 제한된 상태고?’

아직 그의 정체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니 그야 당연히 지오의 상태를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유성운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었다.

“…….”

“…….”

유성운과 은하의 시선이 교차했다.

‘…이 꼬맹이나, 던전의 환경이 지오의 인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자면 유성운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이야기였다.

‘지오와 은하가 과거에 어떤 인연을 쌓았는지는 모르겠다만.’

인간형 몬스터가 도사리고 있는 이런 흉악한 던전으로 인해, 가뜩이나 재앙 그 자체인 지오의 인격에 변화가 오는 걸 반길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까딱하면 사람들이 예민해진 지오의 규칙을 어겨 공격을 받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옛 인연을 편애한 지오가 몬스터인 은하의 편을 들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인간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거야.’

비슷한 생각을 은하도 한 게 분명했다.

“…….”

"어쭈구리?"

은하는 그 작은 몸을 이용해 지오의 품에 파고들었다. 지오가 유독 어린 생물에게 약하다는 점을 알고 그 부분을 이용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은하 군, 안 떨어지나? 점잖은 친구인 줄 알아서 그렇게 안 봤는데 이거 진짜 내숭이 장난 아니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들이랑 싸우면서 이렇게 뒷목 당길 때가 없었어."

"그거참 미숙하시군요."

"미치겠다."

아무튼 이거 하나는 확실했다.

'여기에 오래 있을수록, 이 꼬맹이를 가까이에 둘수록... 지오의 인격이 변한다.'

목표가 생겼다.

한시바삐, 지오라는 시한폭탄을 데리고 탈출해야 했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64)"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65)

제65화

이세르는 스스로 멍청하지는 않다고 자부했다.

'…물론 누님과 비교했을 때 나는 한없이 작은 미생물에 가깝지만, 훌륭한 천재들 밑에서 그 많은 것을 배운 내가 멍청할 리는 없어. 내 이성은 충분히 단단하고 그렇기에 자랑할 만해.'

특히 냉혈한 누이와 차원을 넘나들 만큼 오랜 시간을 보낸 탓인지, 그녀의 서늘함과 건조함은 이세르에게도 옮겨왔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울 수 있는 성정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굉장히 오랜만이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정신이 없었군요."

"아니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지오 씨도 당황하셨겠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이세르의 안에서 이성과 감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는 대답하는 이 짧은 순간에도 수십 번 비슷한 맥락의 고민을 반복했다.

'…이 남자에게서는 태양신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나나 누님의 존재를 아는 태양신이 우리의 유일한 약점을 인간의 형태로 빚어 태양의 신성을 전수한 것이 아닌가? 죽은 은사를 이토록 갑작스레 만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너무 공교로워.'

그렇지만,

'이 얼굴과 기척, 버릇, 음성, 그리고 느껴지는 모든 감각이 죽은 은사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태양신을 바다에 가둔 누님도 해내지 못한 은사의 부활을 태양신이 무슨 수로 이뤘단 말인가? 눈앞의 이 자는 자연적 과정을 거쳐 환생한 선생님이 맞다.'

둘 모두 그럴싸해서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중 확실한 게 있다면, 이 사람보다 더 지오반니에 가까운 존재는 없을 거라는 점이지.'

눈앞의 존재가 제 은사를 모방한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해도, 혹은 아직 그 스스로의 인격을 정립하지 못한 은사의 환생이라 해도.

그건 이세르가 놓쳐서는 안 되는 존재임이 분명했다.

"파도가 밀려올 때 잠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혼란 때문에 추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

"아직 머리가 아파서 그런데,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그는 이곳이 던전이라는 것까지는 아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이곳이 어떤 장소를 형상화한 것인지는 모르는 듯 보였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제 은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도, 이세르는 그만 안심하고 말았다.

"......."

이세르에게도, 지오반니에게도. 그가 이곳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을 떠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 둘 모두에게 행운이었다.

'...확실히 선생님의 인격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야.'

하지만 이곳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오의 기억은 확실해질지도 몰랐다.

태양의 신전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심해의 연구소에 오자마자 보였던 그 반응을 떠올리면....

"아까 은하 군이 한번 말하기는 했지만 여긴 가상 던전이야, 지오."

"......."

"...나도 상황을 파악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바다와 연관이 있는 던전인 것 같아."

유성운이 힐긋 이세르를 보고는 말을 이었다.

"태양의 신전에 있던 사람 중 몇 명이나 끌려왔는지는 모르겠다만,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인원수도 제법 되는 데다 뿔뿔이 흩어져서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워."

"예비 사제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이 동공에는 안 보이는데. 하필 입단식의 마무리 행사에서 터진 것으로 보아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는 가상 던전이니, 예비 사제들이 안 끌려왔을 리는 없고."

"그럼 일단 사람들을 모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말이야 쉽지...."

지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만, 지금처럼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단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던전 주인의 심기가 누그러진 덕분에 위협은 조금 덜해졌다는 부분이다.

'금방이라도 튀어나와 사람들을 공격할 듯했던 키메라들도 이제는 아예 조용히 늘어져 있고, 잘만 하면 최소한의 인명 피해로 던전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려나.'

그때였다.

"—허니."

"꾹?"

지오의 후드에서 작고 노란 무언가가 ? 튀어나왔다.

"꾸르르르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 나라 어린 새, 허니였다.

시린 빛을 띠는 그림자 한가운데로 날아간 허니가 이내 환하게 빛났다.

“…오.”

거의… 작은, 태양만큼.

“미치겠네??”

유성운은 황당해했다.

‘이번에도 허니랑 같이 있었던 거야? 왜 허니처럼 작은 몸집의 몬스터에게서 태양신의 기운이 느껴지지? 왜? 이게 맞아?’

그가 황당해하든 말든 방황하며 겁에 질려 있던 사람들은, 따듯한 기운을 담뿍 머금은 빛에 하나둘 진정해 갔다.

최소한 어두컴컴하고 섬뜩했던 연구소에 불이 들어온 셈이니 말이다.

“잠깐만, 이 빛은 뭐지…?”

“저거 새야?”

“이, 일단 다들 저기로 모여 봅시다.”

광활하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넓은 동공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로를 주는 빛을 따라 허니의 아래로 모여들었다. 몇 명은 벌써부터 안심이 되는지 풀어진 얼굴로 훌쩍거리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지오가 유성운을 돌아보았다.

“됐습니다.”

“…….”

유성운은 ‘어때요, 참 쉽죠?’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잘했네….”

“예, 저는 잘했습니다.”

“어우 유능해라.”

그러다가 너 초상화인 것만 들키지 말자고.

‘가뜩이나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네 정체까지 들키면 내가 수습을 못 할 것 같으니까.’

감정 스킬 하나로 S급이 된 비사벌마저 정체를 완전히 파악해 내지 못한 ‘지오의 초상화’였다. 그는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몬스터가 될 수도 있고, 근원의 자식이 되거나 심지어는 신이 될 수도 있었다.

‘그 유동성이 지금의 사람들에게 들키게 된다면 뜬금없이 이쪽으로 적의가 모일 수도 있어.’

별 볼 일 없는 C급 헌터에게마저 이 사태를 책임지라고 흥분해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와중에 인간 아닌 무언가를 본다면, 심지어 그게 신성을 지녔다면, 대체 얼마나 난동을 부릴지 알 수 없었다.

“…….”

예상 밖의 온화한 빛을 유심히 바라보던 유성운이 이내 지오를 불렀다.

“지오.”

“예, 듣고 있습니다.”

“내가 미리 전달을 못 해줬는데, 조만간 네게 A급 헌터 자격증이 갈 예정이었거든.”

“제가 헌터입니까?”

“그편이 지구에서 활동하기 좋잖아? 길드장님께서 나름 편의를 봐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받을 헌터증이었으니, 사람들에게 너를 소개할 때는 수집상 길드 소속의 비공식 A급 헌터 ‘서지오’라고 설명해.”

“그렇군요.”

“직업은 조련사. 허니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니, 그편이 네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에도 편리할 거야.”

“배려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러니까 제발 인간답게 굴어줬으면 하는 소소한 바람이 있었다.

‘과한 기대라는 자각은 있어.’

근원의 존재는 ‘이야기’의 크기에 따라 그 위험도가 변하고는 하니, 유성운은 가능한 지오를 인간의 범주 안에 구겨 넣기를 원했다. 본인도 인간 흉내를 내고 있고 말이다.

하지만 최근 유성운이 느끼기에 지오는 인간 흉내를 낼 의지가 없는 것 같기도 했다. 본인의 진심이야 어쨌든, 지오가 절대 완전한 인간처럼 굴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지오와 신비로서의 지오를 분리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지.’

이건 그 작업의 일환이었다.

‘…지오 특유의 무거운 분위기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A급 헌터의 수준으로 격을 낮춰 두었으니, 어지간히 기감이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면 지오의 위화감을 확신하지 못할 거다.’

물론 확신하지 못한다는 수준이지 묘한 이질감 정도는 누구나 느낄 수 있겠지만, 그 ‘확신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그 정도면 성력이나 스킬의 일환이라고 우길 수 있으니까.

“…….”

“…….”

유성운과 은하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내숭은 계속 부릴 건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꽤 웃기게 돌아가네 이거.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달라….”

웅성거리며 모인 사람들 사이로 다가가는 지오를 보며, 유성운이 저 무리에게는 들리지 않을 정도의 음성으로 물었다.

“대놓고 나서서 학살할 생각은 없어진 것 같은데, 맞나?”

“그저 제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정말 감사한 소리인걸.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어.”

“…….”

“지오에게 나쁜 아이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

유성운이 휘파람을 불었다.

“아주 충분해.”

은하의 감정 상태에 따라 몬스터의 행동 변화가 생기는 것도 그렇고, 던전 내부의 분위기가 조절되는 것도 그렇고. 이곳은 주인의 심상에 따라 생동하는 일체형 던전이었다.

지오에게 ‘나쁜 아이’가 되고 싶지 않은 은하의 심리에 맞춰 이 던전의 난이도도 낮아질 게 뻔했다.

“협조적으로 나올 동안에는 나도 네 정체를 함구할 테니까 걱정 마.”

“인간은 명을 재촉하는 몹쓸 버릇이 있지요. 건방지게 굴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유성운 헌터.”

“무서워라.”

솔직히 진짜로 무서웠다.

“쉽게 쉽게 살면 좀 좋나.”

이런 곳에서 죽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죽으면 정원 관리에도 차질이 생긴단 말이지.’

근원의 핏줄이라 할 수 있는 ‘정원’ 중에서도 대략 대동맥 정도의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유성운이었다. 후계자를 찾아도 한동안 교육하느라 바쁠 판에 대뜸 죽어버릴 만큼의 여유는 없었다.

“…….”

그런 유성운을 힐끗 본 이세르는, 침체된 진주색 시선을 돌려 검은망토를 두른 남자를 눈에 담았다.

그 눈에 곧 꿈이 담겼다.

‘…정말….’

똑같네.

‘다를 게 없어.’

그 색이 다를지언정, 따듯한 성력을 머금은 채 태양의 피조물을 어르고 달래는 그 자애로운 모습은 분명 지오반니의 것이었다.

아무리 의심스럽다고 해도 그마저 부정할 수는 없었다.

“공짜로 보기 미안할 정도로 신성한 광경인데. 저러니까 꼭 성자 같지 않아?”

“…당신의 무가치한 말에 해줄 반응은 없지만, 실제로도 성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리 잔인하게 죽어가야만 했다. 냉기가 가득한 수조에서, 가르치던 제자의 이빨로 그 숨통이….

‘…역시 인간은 역겨운 존재야.’

천박한 원숭이들을 품으며 자비를 베푸는 지오의 모습에, 이세르는 늘 제 입술에 그려져 있던 미소가 희미하게 비틀리는 것을 느꼈다.

저자가 진실로 그의 은사인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존재가 하필이면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은 이세르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왜 내가 이 광경을 보고 있지?’

갑작스러운 행운을 향한 의심. 반복되는 추억과 악몽을 향한 그리움과 괴로움. 저 벌레처럼 징그러운 자들에게서 검은망토를 분리시키고 싶다는 초조함. 절박함.

이 감정을 정의할 방법을 찾던 인어가 속으로 읊조렸다.

‘역시 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한 찰나였다.

“…….”

“은하 학생.”

“…네.”

“혼자 있지 말고 이리 오세요.”

이제는 차가워진 그 큰 손이 이세르를 향해 뻗어왔다.

“외로워 보입니다.”

“…….”

그가 보기에 내가 외로운 듯하다는 말에 차마 대답이 나오질 않았다.

말없이 붙잡은 지오의 손은 역시나 차가웠다. 그 오래 빛바랜 추억 속 언제나 따듯했던 선생님의 손에 비하면 시체와도 다를 것이 없는 온도였다.

하지만 여전히 다정했다.

“…춥고 어두워서, 무섭습니다. 이 공간은 굉장히 척박해요.”

“은하 학생은 솔직하군요. 그렇다면 제가 같이 있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거짓말이야.

“안심이 됩니다.”

그대들이 심해의 자식이라 해도 나는 그 옆에 있으리라고. 당신은 예전에도 내게 그렇게 말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봤자 속이 뒤틀릴 뿐이다. 모든 게 차가워진 지금에서야….’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는데.

저도 모르게 무어라 원망하고 싶었지만, 제 손을 맞잡아 오는 커다란 손의 악력으로 술렁거리던 속내가 차츰 가라앉았다.

잊었던 버릇처럼 기다리니 곧 고요한 저녁의 봄바람처럼 차분하고, 또 온기를 품은 음성이 들려왔다.

“괜찮습니까?”

“…….”

저같이 차가운 것의 원망을 받기에 지오반니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다.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어디 아픈 걸까요?”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이곳의 벌레 같은 인간들을 전부 죽이고 싶다. 아직도 그랬다. 하지만 좀처럼 그런 속내를 드러낼 수가 없었다.

제 손을 잡아준 이 사람이 은사의 모방품이든, 그의 환생이든 간에, 결국 그를 붙잡아 둬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깊은 살의와 불안이 동시에 찾아왔다.

‘이 사람만큼은 살려야 하는데.’

그래서 가져야 하는데….

* * *

한편 지오는.

‘세상이 참 많이 발전했군.’

아무 생각도 없었다.

“가상 던전을 직접 겪어본 건 처음인데 참 신기합니다.”

“하하, 지오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대담하시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신기해하기보단 무서워하는 편이죠.”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눈을 떴다가 감으니 귀신의 집에 날아온 기분이라 지오는 마냥 흥미로웠다.

‘이런 것도 모험의 일환이라고 쳐줄 수 있으려나.’

그것도 득실거리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오붓하게 즐기는 모험이라니, 최근 혼자일 때가 많았던 지오로서는 꽤 반길 만한 상황이었다.

‘조금 피곤하기는 해도….’

태양교 입단식이라는 거대한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가상 던전이라는 새 콘텐츠가 제 발로 지오의 품에 걸어 들어온 것이다.

‘좋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상황은 그런 ‘오붓한 모험’이나 ‘새 콘텐츠’와는 거리가 정말 많이 멀었지만, 지오의 궁극적 긍정 마인드는 고작 생명의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았다.

‘당장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아니라 그런지 솔직히 말해 그냥 잘 만든 영화 세트장에 온 기분이다. 내가 너무 긴장감이 없는 것 같은데, 긴장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거였지.’

탈출할 방법도 있다는데 이건 그냥 컨셉 잘 잡은 방 탈출이 아닌가.

‘따란.’

그 어떤 사람의 동의도 없이 홀로 명쾌한 결론을 내린 지오는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 사이의 복작거림에 조금 들떴다.

그는 제게 이것저것 물어오거나 대화를 걸며 친근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그럼 서지오 씨는 수집상 길드의 헌터인 겁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야, 수집상에 이렇게 훤칠한 헌터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그에 유성운이 끼어들었다.

“저처럼 미디어에는 얼굴을 보이지 않는 헌터들도 많으니까요. 아무래도 수집상은 던전 공략보다는 길드장의 수집품을 모으고 관리하는 게 메인인 길드라, 지오처럼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헌터들도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생기셨는데 어째서…? TV에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팬클럽 하나는 그냥 생기지 않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헌터 일 하면서 이런 얼굴을 세상에 안 보여주는 건 죄야, 죄.”

“하하….”

유성운은 애써 웃었다.

“…지오가 낯을 가려서요.”

그 말에 지오는 매우 억울해했지만, 유성운은 자기가 틀린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 자체를 꺼리는 행보를 보였던 ‘지오의 초상화’를 떠올리자면 당연한 판단이었다.

혹시 지오가 인간이 아닌 티를 내어서 실수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유성운은 저 멀리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반응을 세밀하게 살폈다.

“역시 3대 길드의 헌터는 다르구나. 나 조련사 처음 봐….”

“근데 조금 무섭지 않아? 말실수하면 경멸하는 눈으로 볼 것 같아.”

“행동이나 걸음이 귀족적인데, 혹시 로열 쪽인가? 그럼 저 얼굴 가지고도 숨기는 이유가 있는 거지.”

“성력으로 봐서는 태양신의 신도인 것 같기도 하고…. 조련사니까 사제는 아닐 거 아니야.”

“친절하기는 한데 왜인지 말 붙이기가 어려워. 너무 잘생겨서 그런가?”

대충 예상했던 반응들이었다.

‘…민간인들에게 지오라는 존재가 어떻게 비칠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는 반응들이 친근하고 호의적이네. 이 정도면 나가서도 무난하게 커버 칠 수 있겠어.’

그 경우 이제는 지오라는 헌터의 존재를 정식으로 인정해야겠지만, 유성운도 비사벌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던 바였다.

‘그만한 격은 갤러리에 가둔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찌저찌 숨길 수 있다고 해도… 그건 수집상의 모토와 다르지.’

게다가 이 초상화의 ‘이야기’를 인간의 범주에 구겨버리는 게 불가능할 거라는 결론이 나온 상황이었다.

본인이 숨기지를 못하니 지오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 ‘지오의 초상화’의 아득한 격을 느끼게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역시 인간으로서의 지오와 괴이로서의 지오를 구분해 두는 편이 좋았다.

‘본인을 인간 대접하는 지오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할 테니까. 어차피 인간으로서의 지오를 두어야 한다면, 그보다 위험한 이야기는 미리미리 분리해야 해.’

그걸 위한 것이 바로 ‘서지오’라는 수집상의 비공식 헌터라는 신분이었다.

‘이 신분이 있으면 인간 흉내를 내는 지오의 일부는… 그 이야기의 위험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겠지. 세상에 지오의 초상화 전체를 드러내는 것보다야 훨씬 안전한 선택일 거다.’

이번 갑작스러운 던전 탐사로 인해 지오의 사회생활이 조금 앞으로 당겨진 것뿐이었다. 시기의 차이일 뿐 당황할 것 없었다.

유성운은 그렇게 정리하며 내심 생각했다.

“…….”

다들 진정한 것 같네.

‘절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이것도 지오의 힘이라고 봐야 하나.’

예전에 차아라 헌터의 건도 그렇고, 지오는 이상하게 사람들을 잘 구슬리는 능력이 있었다. 그런 섬뜩한 격을 채 숨기지도 못하는 주제에 말이다.

그게 격의 여파인지 개인의 능력인지는 잘 모르겠다만….

“지오, 슬슬 차씨 가족이나 다른 생존자가 있나 확인하러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유성운의 말에 사람들이 다시 불안해져 웅성거렸다.

“서, 서지오 헌터는 여기 계시면 안 됩니까?”

“유성운 씨를 포함해서 다른 헌터분도 이미 세 명이나 있는데.”

“저희가 여기 있는 동안… 여러분끼리 던전을 공략하고 오신다거나….”

“설마 저희까지 움직여야 하나요?”

“그러다가 전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남아는 줘야죠.”

예상한 반응들이었지만, 인간을 혐오하는 걸로 보이는 은하의 미소가 점차 짙어지는 게 아무리 봐도 위험 신호였다.

‘이러다가 다 죽지.’

유성운이 한숨을 내쉬며 사람들을 다독이려던 차에 지오가 나섰다.

“그럼 허니를 이곳에 두고 가겠습니다.”

“네? 하지만, 서지오 헌터의 소환수는 너무 작고….”

“허니가 저보다 강합니다.”

“아니, 농담하지 마시고요.”

“정말입니다.”

지오가 자신은 결백하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금방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렇게 의지가 강하시니, 다들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실상 별거 아닌 내용의 말인데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지오의 말에 위로와 안심이 된 모양인데, 유성운은 조금 어이가 없었다.

‘내가 말하면 듣지도 않았을 거면서. 어째 빈말이라며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없네.’

그사이에 지오가 다가와 말했다.

“이제 이동하죠.”

“…….”

더 붙잡기 전에 도망치자는 뉘앙스라 유성운은 기분이 묘해졌다.

방금 전의 말이 사탕발림이었는지 진심 어린 위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사 구분이 확실해 보이는 지오의 모습은 기이한 감명을 일으켰다.

‘고작 몇 마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나 쉽게 휘어잡을 수 있다니.’

이거 진짜 재주는 재주야.

“너… 아이돌 같은 거 하면 잘하겠네. 배우라든가, 뭐, 연예인 같은 거 있잖아.”

“참 과분한 말씀이지만 자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봐도 그래.”

“제 농담을 받아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연예인을 하겠어요.”

“…….”

말과 얼굴로 군중을 쥐고 흔들 수 있다면 정말로 연예인이 되거나 사이비 종교를 차려야 하지 않을까.

‘…나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지오의 새 인격이 보여주는 아찔한 재능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는 유성운이었다.

* * *

“…….”

"…누, 누나…."

"쉿."

차아라가 차이솔의 입을 틀어막으며 주의를 주었고, 그에 차은혁이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해."

지금은 숨소리도 참아야 할 때였다.

차은혁은 제 뒤에 숨은 두 동생을 슬쩍 훑고는, 다시 고개를 앞으로 돌려 주변을 살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상황에 절로 식은땀이 흘렀다.

"배, 배, 배고파… 배고파… 배, 배…."

"끄아아아악…!! 아악, 아아아악!! 사, 살려…!!"

"배, 배, 배…."

저들끼리 살을 뜯어 먹는 사람들의 모습. 이곳에 감염형 몬스터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다행히도 차은혁과 그의 동생들은 상황이 악화하기 전 무사히 책상 아래로 숨을 수 있었다.

그래봤자 도망치지 못하고 갇혀버린 신세이다만, 차은혁은 겁에 질려 굳어버린 자신의 동생들을 더욱 구석으로 밀었다.

"……."

여기저기에 숨어 시선을 교환하는 예비 사제들이 보였다.

"…후우…."

몸집이 작은 덕분인지, 이 동공에 살아남은 것은 전부 어린 사제들뿐이었다.

그나마 어른이 있다면 차은혁과 차아라뿐.

'개같네.'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65)"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66)

제66화

차씨 가족의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필이면 참가에 선택권이 없는 가상 던전인가.'

두 동생의 앞을 지킨 채로 책상 아래에 숨어 있던 차은혁의 표정이 세상을 향한 환멸을 담아 일그러졌다.

'지금 남은 사람 중 그나마 어른인 나는 헌터가 아니고, 차아라 이 꽃돼지는 도움이 안 될 게 뻔한데. 그렇다고 남아 있는 예비 사제들에게 살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번 조건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상 던전은 해당하는 조건의 모든 사람을 강제로 끌고 들어온다.

지금처럼 제대로 된 헌터가 없는 상황에 모든 참가자가 전멸한 사례는 흔했다.

"……."

"……."

식은땀을 흘리던 차은혁과 차아라가 말없이 시선을 교환했다. 차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이곳의 유일한 헌터다.'

'아 좆 됐네.'

'그렇게 됐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괜히 '예비' 사제라고 하던가. 이곳의 어린 사제들은 한 명의 헌터가 아니라 민간인이나 다를 게 없었다. 이 동공의 유일한 헌터는 차아라인 셈이었다.

근처에 괴물이 없음을 확인한 차은혁이 멀리서는 듣지 못할 미약한 음성으로 속삭였다.

"이봐, F급 짐꾼."

"시발 말씀하시죠."

"이럴 때 대처 방법 같은 건 없어? 헌터들이 배우는…."

"지금이 최선인 것 같은데."

센터에서는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경우 한곳에 몰려 있지 말라고 권고한다. 그래야 만약의 상황이 오더라도 쉽게 몰살당하지 않고, 이곳저곳에 퍼져 있어야 생존율이 높아지니 말이다.

"…그거 그냥 미끼 전법 아닌…."

“아무튼 객관적으로는 가장 생환율이 높은 방법이야.”

“맞긴 한데.”

개같이 찝찝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걸리기를 기도하며 뿔뿔이 흩어지라는 거잖아.’

호구의 피가 짙은 차씨 가족에게는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대처법이었으나, 그렇다고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았다. 능력도 없는데 사람을 구할 방법은 본인이 미끼가 되는 것뿐이었다.

“…….”

상황이 매우 주옥같음을 새삼 체감한 차아라는 제 등 뒤에 숨은 막내를 더욱 안쪽으로 숨겼다.

“야, 차이솔. 더 들어가. 더.”

“더 들어갈 곳도 없어….”

“몸집도 작은 게 어디서 엄살이야, 빨리 구겨지라고.”

“응어억….”

“소리 내지 말고.”

그들이 숨은 곳은 동공의 곳곳에 규칙적으로 설치된 스테인리스 책상 아래였다. 적지 않은 수가 설치된 덕분인지, 지금까지 살아 있는 예비 사제들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책상 아래에 숨은 듯했다.

그렇게 숨는다고 해도 사방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몬스터에게 언제까지 안 들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나 오빠가 난리 치는 동안에 최소한 차이솔은 무사하겠지.’

쬐만해서 어디 먹을 것도 없는 막내 놈은 한 번 물리면 그대로 즉사일 것이었다.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제 동생이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바람이었다.

“누나아….”

“아 애교 부리지 말고 진짜.”

“와 아니 애교 아닌데, 나 억울해.”

“쓰읍.”

책상 가장 바깥쪽에 자리 잡은 차은혁은 그런 동생들의 투덕거림을 황당한 듯 흘겼다.

‘이런 긴장감 없는 것들을 보았나.’

사실 긴장감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오히려 괜찮은 척을 하는 거라는 이미 알고 있었다. 차은혁은 굳은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몬스터 하나가 질퍽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다.

“…….”

“배, 배가, 배배배, 배… 고파… 배….”

“…….”

밥 못 먹어서 뒤진 귀신이라도 들렸나.

‘이래서 제사상을 차려야 한다는 거군.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그건 다 세상이 제사상 하나 안 차려줄 만큼 각박해진 탓이다….’

헛소리였지만, 아무튼 옛 선조들의 지혜를 가슴에 새기며 차은혁은 동생들을 뒤로 꾹 눌렀다.

이미 끄트머리에 구겨진 막내는 더 들어갈 곳이 없다 해도 차아라는 아니었는지, 억눌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몬스터가 다가오는 걸 들었는지 용케 소리는 내지 않은 게 기특했다.

“배가? 배가. 배. 배, 배, 배가 고파요. 배가….”

“…….”

아직 형상도 제대로 보지 못한 괴물이 지척에 다가왔다. 덕분에 차은혁은 원치도 않던 괴물의 축축한 다리를 원 없이 볼 수 있었다.

‘내가 뒤질 때가 왔나.’

최소한 우리 꽃돼지랑 막내만큼은 살려내고 말리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고 맛있는 붕어빵을 굽던 나를 기억해 주길.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을 때였다.

“—이 버러지들아!!!”

화아아아악!!!

몬스터들이 불에 타 하나씩 재가 되어갔다.

“어, 어…?”

너무 순식간이라 오히려 비현실적이기까지 했다.

질척거리던 소리 대신 퍼석한 재가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동공의 스산함이 불의 뜨거움에 강제로 잠식됐다.

“…….”

“…….”

차씨 가족은 당황해서 있는 줄도 몰랐던 동공의 입구를 돌아보았다.

“버러지…??”

“버러지….”

“아, 잠깐만.”

차은혁은 우렁차게 동공을 울렸던 ‘버러지들아’의 주인이 누군지 뒤늦게 깨달았다.

“…강서담 사제님?”

길게 구불거리는 금발과 창백한 녹안이 유독 도드라지는 사제, 강서담이 잔뜩 흐트러진 모습으로 씩씩거리고 있었다.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핏줄까지 불거진 얼굴의 강서담과 조용히 식은땀을 흘리던 차은혁의 시선이 마주쳤다. 봐서는 안 될 금기와 마주친 것 같았다.

“…….”

“…….”

악귀의 얼굴에서 사제의 얼굴로 돌아온 강서담이 말끔한 어조로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아니, 방금 버러지라고….”

“버러지를 버러지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와.”

“무서우셨을 텐데 갑자기 제 욕설을 듣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악센트 확실한 '버러지들아'를 못 들었다면 순수하게 감동만 받았을 만큼 친절한 대응으로 강서담 사제가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저 역시 난데없이 가상 던전에 끌려와 이래저래 정신이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생존자가 많이 남아 있는 듯해 마음이 좋습니다."

꽤 많은 일을 겪었는지 깨끗했던 사제복이 너덜너덜해진 강서담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차은혁도 그제야 동공을 둘러보았지만, 방금 전 강서담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몬스터는 한 마리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음."

강서담이 특유의 냉정한 무표정으로 조용히 성호를 그었다.

"여신님께서 돌보셨군요."

"……."

당신이 돌본 걸 텐데.

'역시 헌터 중에 우리 꽃돼지를 빼면 제정신인 사람은 없는 건가.'

입단식을 주관할 정도의 사제라면 최소 B급의 헌터라고 봐야 했다. 순식간에 동공의 모든 몬스터를 불태워 죽인 솜씨로 보아 아마 A급이나 준S급 같았는데, 덕분에 차은혁도 조금 안심했다.

저는 몸 튼튼한 것 빼면 장점이 없으니, 제가 죽는다고 해도 동생들의 안전을 맡길 수 있는 강자를 찾은 것에 대한 안심이었다.

'…다행이다.'

차은혁이 긴 숨을 내쉬며 얼굴을 쓸어내렸다. 이제 좀 숨이 쉬어졌다.

"사, 사제님…."

"흐아아앙…."

"강서담 사제님…!"

그제야 곳곳에 숨어 있던 예비 사제들이 기어 나왔다.

"예, 강서담 사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남은 형제들이 있다면 모두 제 곁으로 모이십시오."

그런 생존자들의 눈물 어린 매달림이 익숙한지, 강서담 사제는 능숙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그가 차은혁과 차아라를 돌아보며 말을 얹었다.

"거기 계신 차이솔 사제의 보호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던전에서 찾아보기 힘든 안정적인 음성에 이끌려 동공의 모든 생존자가 강서담 사제의 앞에 모였지만, 그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대부분 몬스터에게 물려 죽거나, 혹은 그 이후 서로 잡아먹었기 때문이었다.

"……."

무거운 한숨을 참듯 얼굴을 찡그린 강서담 사제가 입을 열었다.

"제가 주관한 행사에서 이런 일을 겪게 만든 점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사고였고…."

"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저의 역할입니다. 정식 피해 보상은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마련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여 사죄의 뜻을 밝힌 사제가 말을 이었다.

“보호막을 쳐드릴 테니 생존자 여러분은 그 안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십시오. 저는 다른 분들의 유해를 수습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차은혁의 말에 차아라가 손을 들었다.

“아, 그럼 저도….”

“정 그러시다면 차아라 헌터님의 도움만 받겠습니다.”

강서담 사제가 차은혁을 돌아보았다. 잠시 고민한 그가 입을 열었다.

“차은혁 보호자님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런 일은 민간인에게 맡겨선 안 될 일이고, 무엇보다 남은 성인이 차은혁 씨뿐입니다.”

“아….”

“어린 형제들이 더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독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점, 차후 태양의 이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몬스터로 변해, 또 태양의 빛에 의해 재가 된 시체 근처로 다가가며 차아라가 물었다.

“그, 그런데 저희 이름을 다 알고 계시네요…? 원래 그런가요?”

“제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그 책임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지요.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에 정식으로 참가하신 분들의 이름은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와아….”

한동안 개떡 같은 헌터들만 만나다 보니 이런 책임감 가득한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다.

‘내가 이런 헌터들만 만났다면 그 거지 같은 동굴에 버려질 일도 없었겠지, 시발.’

차아라는 괜히 안심되는 마음에 화장터에 들어갔다 나온 듯한 가벼운 시신을 수습하면서도 계속 말을 붙였다.

“던전에 끌려오고도 꽤 오랜만에 다시 보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디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아, 아니, 더 빨리 오지 않았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시발, 말 좀.

‘말 좀 생각하고 하자.’

자신의 지능을 저주하던 차아라가 버벅거리면서도 말을 이었다.

“이 동공 자체도 상당히 넓은 데다 사람들도 많이 끌려와서, 저희는 이게 끌려온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곳과는 다른 동공에 홀로 떨어졌었습니다.”

재가 된 시신을 향해 성호를 긋고 안식의 축복을 내리며 강서담 사제가 대답했다.

“몬스터의 수도 많은 데다 실력도 상당하고, 탈출 기믹도 복잡해서 시간이 걸렸죠.”

“그런 곳에 혼자…?”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 아마 입단식에 모였던 사람들이 랜덤으로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기준이 아예 없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수의 몬스터를 상대했다더니, 이마에 흐르는 핏물을 닦아내며 강서담 사제가 말을 이었다.

“던전에 가장 위협적인 전력인 저의 경우 몬스터가 득실거리는 곳에 혼자 떨어졌죠. 반면 이 동공에는 모든 예비 사제들이 모여 있고요.”

“모든? 그사이에 그걸 벌써 확인했어요?”

“제가 맡은 형제들이니 얼굴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 아니,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

“예, 어떤 부분을 의아해하시는 건지 이해합니다.”

강서담이 그의 키만큼 기다란 완드를 휘둘러 동공 전체에 축복을 내렸다. 재의 형상을 취하고 있던 시신이 곧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다.

“…….”

태양의 힘으로 작은 기적을 보인 강서담 사제가 이내 입을 열었다.

“…은하 형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예비 사제가 모인 이곳에 유일하게 그 소년 한 명만이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예비 사제의 시체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니 아마 다른 곳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왜 그 혼자 떨어진 건지는 차차 알아보면 그만입니다. 차아라 헌터, 아직 체력이 남았습니까? 육안으로 보기에 다친 곳은 없는 듯한데 이상이 있나요.”

“아,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이동하도록 하죠. 제가 떨어진 곳과 가장 가까운 동공이 이곳이었던 탓에 여기로 왔지만, 아마 다른 곳에도 생존자가 있을 겁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헌터는 몇 되지 않았으니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위험해질 테죠.”

“다른 애들하고 저희 오빠는….”

차아라의 말에 보호막 쪽의 생존자들을 확인한 강서담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에 둘 수는 없으니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거리가 멀면 유지가 힘들뿐더러 시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조금 더 능숙한 사제가 계셨더라면 좋겠지만 저는 결계 전문이 아니라서요.”

“확실히 보호 전문이 아니신 것 같기는 했죠….”

완드 한 번 휘두르는 것으로 모든 몬스터를 재로 만든 강서담 사제의 표정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가 따로 없었다. 그 인상에 보호나 치료가 전문이었다면 오히려 이상하게 들렸을 것 같다.

별다른 말을 더하지 않고 강서담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신의 경우 수습을 해둔 데다 축복까지 내렸으니 더 헤집어지거나 썩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행히 아공간 스킬이 있습니다. 이곳에 담을 테니, 이후 수습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네, 네.”

“이 이상 지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차아라 헌터는 예비 사제들의 이동을 도와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후우….”

핏물이 잔뜩 묻은 얼굴을 쓸어내린 강서담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설마 입단식에서 뵈었던 그 검은 신의 심술인가?'

검은 망토를 푹 눌러쓰고 있던 그 남자. 분명 신성이 느껴졌는데, 해당하는 던전의 몬스터가 아니더라도 신 정도 되면 임의로 던전을 열 수 있다.

그렇다면 악신치고도 권한이 꽤 강하다는 말일 텐데, 느껴지던 기운도 죽음에 가까워 잠시 의심이 들었다.

'...아니, 하지만 여신께서 그런 호의적인 시선을 보낸 존재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관계를 쌓는 데도 온건해 보이던 그런 신이 난데없이 이런 학살을 벌일 리가 없지.'

오히려 의심스러운 것은 은하, 그 파란 머리의 예비 사제 쪽이었다.

"......."

차가운 기운이 느껴져도 그저 '냉기를 품은 신을 모시려는 아이인가' 싶었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의심해 볼 수밖에 없었다.

'은하 군에게서 느꼈던 냉기와 이 심해의 기운으로 가득 찬 냉기가 상당히 흡사해. 내가 한눈에 알아볼 정도라면, 은하 군 역시 사건을 만든 이후까지 자신의 신분을 숨길 생각은 없었다는 거다.'

어차피 전부 이곳에서 죽일 예정이었거나, 아니면 지구에 한 번만 들르고 떠날 예정이었거나.

'이 경우에는 둘 모두로 보이기도 하는군. 상당히 위험한 던전이니....'

앞으로 이어질 상황을 걱정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였다.

"......?"

공기가 변했다.

'...긍정적인 쪽이다.'

누구라도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난 듯했던 이전의 공기와 달리, 이상할 정도로 따듯한 온기가 던전 전체를 미묘하게 감돌았다.

"잠시."

강서담이 차아라에게 생존자들을 맡기고 복도로 나왔다.

그렇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심해에 잠긴 듯한 신전을 닮은 복도 저 너머에서 무언가가 보였다.

"......."

"......."

새까만 망토를 뒤집어쓴 남자가 후드를 벗었다.

'...아.'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느껴지던 짙은 그림자 속에서, 햇볕을 닮은 백금발이 드러났다.

"......."

"강서담 형제님."

인간에게 호의적일 것으로 추정되는 신, '서지오'였다.

"신전이 상상 이상으로 넓어 헤매고 있었는데, 이렇게 태양의 자식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

"혹시 다른 생존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부상을 입으신 듯한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강서담 형제님?"

"실례했습니다."

어떤 계열의 신일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알게 되다니.

'과연 여신께서 시선을 내려주신 이유가 있었군. 같은 계열이었나….'

기묘할 만큼이나 고요한 분위기를 봤을 때 비록 완전히 동일한 계열은 아닌 듯하지만, 어쨌든 익숙한 태양의 빛에 안심한 강서담은 생각했다.

'도움을 구하기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부탁드리기도 전에 뭐라도 기적을 부려주신 모양이지.'

던전이 온화해진 것엔 분명 '서지오'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사실 그걸 기적이라고 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아무튼 틀린 추측은 아니었다.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67)

제67화

던전 전체의 공기가 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건 던전 주인의 상태에 변화가 생겨야만 가능한 일이고, 던전을 자신의 일부처럼 동화시킬 수 있는 주인은 대부분 평균 이상으로 강한 몬스터일 테니....'

그렇게 생각하며 강서담이 눈앞의 '서지오'를 보았다.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지요?"

"...지금은 헌터이신 상황일까요?"

지금 당신이 인간 흉내를 내고 있으니 협조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이었다.

'...너무 건방지게 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군.'

강서담은 아직도 지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의 입술만 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온화한 곡선을 그리는 입술은 이질적일 정도의 다정함을 담고 차분하게 열렸다.

"그러고 보니 소개가 늦었군요. 수집상 길드의 헌터, 서지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면 입단식 내내 그의 옆에 붙어 있던 백발의 헌터가 분명 수집상 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드물게 공인이 아니라 언더그라운드 계열의 헌터라 인상이 깊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분은 수집상 길드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건가. 인간들 사이에 스며들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신은 드문데.'

인간에서 신이 된 존재라 해도, 신성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성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여러모로 인간과 그 사회에 적응하려면 지금처럼 유능한 집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신의 유희의 한 종류였다.

'무엇보다 수집상이라면... 수집가 비사벌의 갤러리가 있는 길드인가. 신비와 괴이에 대해 통제가 아니라 애정을 퍼붓는 집단이니만큼 신의 유희를 돕기에도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

내심 안심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편해지지. 인간 집단의 도움을 받아 신분까지 제대로 만들어 두었을 정도라면 쉽게 인간을 내치시지 않을 거다. 그만큼 인간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테고....'

강서담은 여전히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로 물었다.

“혹시 사제이신지요?”

“네, 저는... 음.”

긍정하려는 것처럼 보였던 검은망토가 대답을 잠시 멈췄다. 그러고는 이내 빙긋 웃으며 말을 이었다.

“헌터로서의 직업을 묻는다면, 사제가 아니라 조련사입니다.”

“당신의 성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태양의 자식으로서 감사히 받은 힘일 뿐입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사제가 아니라 신도이시겠군요. 이해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집상 길드의 헌터, 서지오. 백금발에 청안. 직업은 조련사.

느껴지는 압박감이 그렇게까지 이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등급은 A에서 B 사이로 조정했을 것이고, 성력을 다룰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태양의 신실한 신도이기 때문이다....

“.......”

기억했다.

‘...느껴지는 격으로 보아 숨긴 것이 아닌 잘라낸 것에 가까워 보이는데, 유희를 즐기는 방식이 대단히 과격하시군. 저주를 받은 상태이실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어.’

물론 신의 이야기를 한낱 인간인 강서담이 분석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 그는 단지 제 할 일을 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른 생존자를 찾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침 그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인간에게 호의적인 신이 아닌가. 죽음에 가까운 기운이 느껴지니 악신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이토록 정중하게 나오는 신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정확히 어떤 신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을 많이 아끼시는군.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계시니 아마 서지오가 진명은 아닐 테고... 나중에 신상에 기도라도 올려드려야 할 텐데.’

일단 그건 나중에 여쭈어보기로 했다. 신의 입장에서는 그저 흥미롭게 느껴지겠지만, 인간들의 상황은 많이 긴박하니 말이다.

“오면서 다른 생존자를 보셨습니까?”

“제가 있던 곳에 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처럼 여기고 있는 계약수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그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제가 있던 동공 이외의 다른 곳에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저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저는 몬스터가 가득한 동공에 홀로 떨어졌는데, 그곳에는 저 이외의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방금 제가 나온 동공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피해가 생겼나요?”

“.......”

“그렇군요.”

그건 놀랍게도 슬픔을 담은 어조였다. 강서담은 조용히 자신의 동요를 감췄다.

‘한낱 인간의 죽음에 슬퍼하는 신도 있나? 대단히 희귀한 경우군.’

애초에 신이라는 이들은 그런 존재였다. 자연과 운명의 일부가 된 자들. 그런 신들이 인간의 죽음에 감정을 가진다고 해도 장난감이 망가진 수준의 흥미를 느낄 뿐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서지오'는 정말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동등한 입장에서, 마치 친구의 죽음을 대하듯이 말이다.

"……."

"축복은 내려 주셨습니까?"

"…미흡하게나마 수습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보아도 실례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죽은 영혼도 더 가벼운 마음으로 태양의 곁에 돌아갈 수 있겠죠."

신이 직접 죽음을 축복해 준다니. 가엽게도 몬스터에게 죽은 이들을 상대로 하기엔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정말로 기적 같은 행운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쪽으로…."

'서지오'를 이끌며 강서담은 조금 안심했다. 신이라고 다 믿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도를 흉내 낼 수 있을 만큼의 정성을 들이고 있는 신이라면 믿을 만하다.

'여신께서도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셨으니 종인 내가 의심할 것이 아니지. 생각을 비우고 신의 의지에 따르자. 그게 사제가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다.'

강서담은 '서지오'라는 이름에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다.

이후 괴담 '검은망토'의 비밀스러운 인간 신분, '서지오'가 생성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 * *

"나는 말이지."

유성운이 멍하니 모닥불을 바라보았다.

"……."

"다른 곳도 아니고 태양의 신전에 있을 때 가상 던전에 끌려와서, 피가 튀기고 눈물이 흐르는 처절한 생존기를 찍게 될 줄 알았어."

그 말을 듣던 강서담이 공감하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 처음 제가 동공에 떨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비슷한 생각을 했죠."

"역시 그런가?"

"태양의 빛이 닿기 힘든 서늘한 던전으로 보여, 어쩌면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사태를 책임질 마음의 준비까지도 했습니다."

"이야, 멋있네. 사제로 각성했다고 전부 강서담 사제님처럼 멋지지는 않을 텐데."

"제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최선을 다한다, 라…."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지금 물고기 손질하고 있는 거야?"

"……."

그렇다, 지금 강서담은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저분께서 직접 손질하도록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오는 그런 거 좋아해."

"불경합니다."

"아니, 정말인데…."

이곳에는 난데없이 캠핑장이 차려지고 있었다. 간이 텐트와 모닥불에 더불어 손질된 생선까지, 오순도순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가 참 평화로웠다.

'지오야 제발.'

인간에게 상당히 신사적인 지오라면 이번 가상 던전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게 이 정도로 본격적인 안락함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

'너한테는 재밌는 소풍이나 게임처럼 느껴지는 상황이겠지만 보통 인간들에게는 그렇지가 않다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즐겨버리면 어떻게 해.'

그나마 다행인 건 지오가 단물처럼 내어주는 평화롭고 훈훈한 분위기에 휩쓸려 이 사태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다.

지오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들킬까 봐 유성운만 조마조마할 뿐이었다.

'대부분 던전이나 몬스터에 대한 경험이 흐릿한 민간인들이라는 점도 이 사태에 한몫을 했겠지.'

유성운이 중얼거렸다.

"명색이 던전인데 이래도 되는 걸까."

"싫으면 나가서 몬스터나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은하 군 상당히 매몰차네."

애초에 네가 이 던전 주인이잖아.

"너는 괜찮은 거냐."

"……."

"…본인도 솔직히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구만 뭘."

그린 듯한 미소를 짓고 있음에도 시선을 묘하게 피하는 것이, 어딘가 찔리는 구석이 있어 보였다. 하긴 몬스터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

'지오에게 나쁜 아이로 낙인찍히기 싫어서 저렇게 쩔쩔매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도 황당한 상황이군. 이렇게 얼렁뚱땅 평화로워져도 되는 건가.'

녀석에게는 다행히도 지금 은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건 유성운과, 아마도 높은 직급의 사제일 강서담뿐이었다. 다른 생존자들은 은하를 그저 한 명의 예비 사제로 대하고 있었다.

지오가 다가왔다.

"생선 손질은 다 되었나요?"

"거의 끝났습니다."

"힘드시다면 역시 제가 함께하는 것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선 손질 정도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었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는 '지오반니'의 얼굴로 상쾌하게 말했다.

"도와주신다는데 공짜 인력 거절할 이유가 없죠!"

"……."

저 보기만 해도 정화되는 고결한 얼굴로 잘도 '공짜 인력' 같은 세속적인 소리를 하네.

'은하 군은 왜인지 그립다는 얼굴로 보고 있고.'

지오반니라는 사람은 원래 저런 이미지였던 걸까.

'저렇게 말해봤자 여전히 신실하고 고상해 보이는 사제님이기는 한데, 뭔가, 어딘가 조금… 뻔뻔하다고 해야 할까… 오묘하게 막무가내인 면이 있달까….'

그러면서도 그 특유의 기품이 사라지지 않는 게 정말 신기했다.

"지오."

"예, 유성운 씨."

"나는 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

"몬스터가 다가오는지 확인해 주시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곳은 캠핑장이 되어 있었다. 던전 주인부터가 나쁜 아이 되기 싫다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무슨 간 큰 몬스터가 찾아오겠느냔 말이다.

"다른 생존자들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지 않아도 되는 건 맞고?"

"모두 힘을 합쳐 찾아보았지만 달리 보이지 않았잖습니까."

유성운의 질문에 은하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외에 다른 생존자는 없는 거 맞으니까 작작 파헤쳐라'라는 소리가 절로 들려왔다. 간담이 서늘했다.

'이렇게까지 슬금슬금 위협을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자기 이야기를 알리게 될까 봐 신경 쓰는 것 같지. 원래 던전이라는 것은 주인의 과거와 심상에 맞춰 구성되니까… 내가 던전을 조사하다가 이 녀석과 지오반니에 대해 알게 될까 봐 걱정하는 거려나.'

그런 주제에 지오가 '지오반니'처럼 굴고 있는 상황을 120%로 만끽하는 것처럼 보인다만.

'역시 인간형 몬스터라 그런지 감정이 풍부하네. 생각도 많고.'

지오가 은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하 학생은 정말로 당차네요."

"아, 그…."

"걱정했는데 괜찮아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

그 모습을 보며 유성운이 내심 생각했다.

'지뢰다.'

정확한 사정은 모른다만 반응이 훤히 보였다. 지오는 아무렇지도 않게 은하의 지뢰 위에서 탭 댄스를 추고 있는데, 정작 지오 본인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자각이 없어 보였다.

'뭐어… 인간들의 안전을 생각하자면 이런 쪽으로 정신을 빼놓아 주는 편이 좋지만.'

유성운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

사람들은 꽤 안정되어 있었다.

‘던전 개방의 여파로 죽은 사람이 적다고는 못 하겠지만, 작정하고 신전에서 터트린 던전에서 이만큼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지. 게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의 표정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지만, 지오가 다가가 몇 마디 해주고 나면 금방 안정이 되었다. 이렇게 서늘한 던전에선 보기만 해도 온화해지는 지오의 존재는 큰 위로가 될 거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지….”

유성운이 조금도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지오에게 말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지치지는 않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머리가 아프다고 했던 건 이제 문제가 없나?”

그가 단순히 물어뜯기기에 바쁠 호구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아무리 만만치 않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너무 선량하게 굴어 버리면 오히려 불안해진다.

저러다 제풀에 지쳐 인간에게 실망해 버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느냐 말이다.

다행히도 지오의 표정은 썩 나쁘지 않았다. 그림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은 지오반니가 대답했다.

“차근차근 정리가 되어가는 느낌이라 괜찮습니다.”

“오… 정리….”

그럼 안 되는데.

‘…이러다 정말 지오반니로서의 인격이 이곳에서 정립되어 버리면 조금 곤란해지지 않을까. 은하 군과 지오반니가 정확히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고. 기억을 전부 되찾고 나면 은하의 편에 설 수도….’

일단은 지오의 호의에 기대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쉬엄쉬엄해,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가끔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딱히 가끔이 아니라 자주 나오기도 하니까.”

그에 의외로 지오가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압니다.”

“아, 그래?”

“하지만 태양은 모든 것을 비추지 않습니까.”

“어어….”

“태양이 그리한다면 저도 같아야지요.”

“…….”

말만 들으면 정말로 신실한 사제 같다만.

‘…그냥 내 일이니까 하는 거다, 라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내 착각인 걸까.’

유성운은 지오가 인간들을 너무 믿거나 애정을 쏟아, 그것을 배신당하고 난 이후에 큰 사고를 저지를까 봐 걱정을 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꼴을 보니 딱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다.

‘이걸 뭐라고 해야 하지.’

아.

‘서비스직 직원 같네.’

자본주의 미소의 표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딱히 지오가 자본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지는 않겠지만, 왜인지 센터의 공무원처럼 대응에 능숙한 직원을 보는 기분이라고나 해야 할지….’

대충 느낌이 왔다.

‘지오반니라는 사람도 마냥 선량하기만 한 사제님은 아니셨구만.’

인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 보이는 눈치에 묘하게 안심이 됐다. 인간을 그렇게 믿지 않음에도 이런 친절을 베풀고 있다면, 눈치 없는 멍청이들이 지랄을 해도 바로 화내지는 않을 거였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유성운이 먼저 차단을 해야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용케 생선을 잡았네? 못 보던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잘 모르겠는데, 대체 어디서 물고기를 잡은 거야? 이런 삭막한 곳에 연못이라도 있었던 건가?”

“세 번째로 찾은 동공의 가장자리 근처에 깊은 물구덩이가 있더라고요. 수질 상태는 오히려 지구보다 좋았고, 살고 있는 물고기도 딱히 독을 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잡아먹을 생각을 하셨다?”

“다들 배고프지 않나요?”

“배고픈 거랑 별개로 보통 이런 던전에서 태연하게 생선 구워 먹을 생각은 못 하지.”

“배가 덜 고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단호하네. 틀린 말도 아니긴 하지만 말이야.”

조금 걱정하기는 했지만, 지오반니라는 인격은 꽤 괜찮은 녀석인 것 같았다.

‘지오의 말로는 인격이 아니라 성격이 변하는 거라고 했지만.’

그냥 너무 평화로워서 어이가 없을 뿐이다.

유성운이 이럴 정도이니, 여기 던전 주인은 얼마나 더 어이가 없을까….

* * *

“…….”

심해 안에서, 새빨간 입술이 헛웃음을 그렸다.

“…하.”

죽었다 살아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는 하구나.

그게 당신인 거야, 지오반니.

던전을 그리는 화가

오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67)"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68)

제68화

태어나자마자 바다의 인정을 받았다.

날 때부터 심해의 후계자였던 인어는, 아리아는, 자신이 다스릴 의무도 권한도 없는 태양의 아래가 늘 궁금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인간을 만났다.

"자, 아리아. 이 단면을 보세요. 인간의 피부에는 겹이 존재합니다."

"인어의 피부와는 다른가?"

"조금 다르지요, 인어의 피부는 심해에서도 버틸 수 있으니...."

그는 스승이었고.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거지?"

"아리아, 그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바다의 그림이잖나."

"바다가 즉 인어죠."

친구였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공감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만."

"단지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이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

가족이었다.

지오반니는 아리아와 동등한, 혹은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지키고 돌봐주어야 하는 동생인 이세르와도 달랐다.

아리아는 지오반니와 함께라면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아리아가 어떤 짓을 저질러도 지오반니라면 그녀를 감당할 수 있었다.

딱 맞물리는 톱니바퀴가 존재한다는 것.

"아리아."

“그래.”

“인간을 해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어째서 그래야 하지?”

“제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말이야.”

“아리아, 항상 이 미욱한 사제가 말했지요.”

“배려하며 맞춰가는 것이 관계라고.”

“기억해 주셔서 기쁩니다.”

아리아는 지오반니와 자신이 결코 틀어지지 않을 톱니라 여겼지만, 지오반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늘 미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인간이고, 아리아는 인어입니다. 우리는 사고방식도 표현 방식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나 친해질 수 있었어요. 지금껏 아리아는 제게 많은 것을 양보해 오고 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 갔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라?”

“정 싫다면 저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다툼보다는 대화로 생각의 차이를 풀어나가는 걸 선호하지만, 아리아는 더 명확한 방식을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오, 그대와 싸우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 내가 양보할게.”

“서로의 견해가 다름에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럼 오늘 저녁은 아리아가 좋아하는 조개를 올려보도록 할까요.”

유쾌했다.

“이게 인간의 방식인가? 꽤 번거로운걸.”

“모든 인간이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말하지만 인간은 인어보다 훨씬 다채롭고 변덕스럽습니다. 나중에 다른 인간과 교류를 하길 원하신다면....”

“그런 천박한 이들과의 교류는 원하지 않아.”

“그렇군요.”

그와 함께 있으면, 즐거웠다.

그건 동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것이었다.

“그대가 인어가 되면 좋을 텐데.”

“안타깝지만 저는 죽으면 태양의 곁으로 돌아갈 겁니다. 제가 그걸 원해요.”

“하긴 인간들은 추위를 많이 타지. 심해보다는 태양의 곁이 더 따듯할 거야. 나도 인정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오.

“.......”

“.......”

내가 기껏 선심을 써서 놓아주었을 때 너는 태양의 곁으로 돌아갔어야 했다.

“…누, 누님….”

“지오반니는 어떻게 되었지?”

인간들을 돕다 신전에 끌려갔던 동생을 간신히 구해내고, 지상의 모든 신전을 망가트려 버렸지만, 어째서인지 지오반니의 뼈 한 조각도 찾을 수가 없었다.

거의 1년이 지나 정신을 차린 동생은 울지도 못하고 대답했다.

“제가 먹었습니다.”

동생은 웃고 있었다.

“배가 고파서, 제가 먹었어요. 인간들이 그 좁은 수조에 어떤 약물을 풀어 넣었는데….”

“…….”

“…그 사람의 남은 시체는 아마 물에 썩어 녹아버렸을 겁니다. 제가 거의 먹어 버렸지만요.”

“아하.”

상상 못 한 최악을 염두에 두고 있던 탓인지, 그렇게까지 놀랍지는 않았다.

‘지오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 내가 상처를 받을까 봐 늘 걱정했는데, 생각만큼 동요가 있지는 않아.’

꽤 덤덤했다.

“그렇군.”

하지만 지오의 마지막 남은 흔적이라도, 그가 썩어버린 물이라도 찾아내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을 죽이고 다니며 지오의 시체를 계속해서 찾아 헤맸다.

그리고 태양의 가장 큰 사랑을 받던 교황의 거처에서 지오를 발견할 수 있었다.

“…….”

그는 물이 되었다.

“…비린내가 심하네.”

마치 바닷물을 보는 듯했다.

“치울까요, 공주님?”

“됐어, 이대로 내버려둬.”

“하지만….”

“그저 두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겠지.”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또 무엇과 함께 시체를 가둬둔 것인지. 고문 기구로 사용하는 커다란 신상을 열자 미역의 진액처럼 진득하게 녹아내린 그의 시체가 흘러내렸다.

조금도 인간의 형태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

아니, 그건 생물의 형태조차 아니었다.

“하지만 여기서 바다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상관없어.”

바다를 지상으로 끌고 올라오면 그만이었다.

“그러니까….”

태양이 잠길 만큼, 푹.

“…….”

그저 물이 된 시체를 바라보다가.

“…….”

홀로 남게 되자, 아리아가 속삭였다.

“…그대가 죽게 되면 사인은 종족의 한계로 인한 자연사일 거라고 생각했어.”

“…….”

“인간은 인어보다 수명이 짧지. 노화도 빠르고, 변질도 쉽고. 그러니 우리가 결국 이별을 하게 된다면… 그대의 가치가 흐려졌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

“…….”

“그 고결한 품성이 탐욕에 흐려지든가, 나약한 신체가 병에 시들어 가든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온전히 죽어 태양의 곁으로 돌아가든가. 내가 상상했던 이별은 그런 것뿐이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고 납득한 상태였는데 말이야.”

“…….”

“왜 하필 그대가 이렇게 죽어야 했지? 그대 스스로의 가치가 흐려진 것이 결코 아닐진대, 눈이 달렸음에도 보지 못한 아귀들의 손에 몰매를 맞고… 태양도 아니고 심해에 퍼지게 되었잖아.”

“…….”

“이토록 누군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미워할 수 있다니, 인간은 정말 연구할 가치가 있는 존재야.”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대는 인간들이 밉지 않나?”

인어는 인간들이 미웠다.

우리의 이별을 대하는 나의 아득함은 너의 필멸에서 왔으므로, 이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까지 우습고 비참할 줄은 몰랐다.

“그곳은 추울 텐데?”

태양의 곁으로 갔어야지, 바보 같은 것.

“아무도 이기지 못했잖아.”

인어를 지키려다 죽어서도 추위에 떨게 됐잖니.

네 가치는 고작 이런 멍청한 종족 갈등으로 인해 무너져 내릴 것이 아니었다.

이렇듯 태양의 곁으로도 가지 못하고, 고작해야 바다의 일부가 되는 것만이 전부여서는 안 됐다는 것이다.

“…….”

인간을 옹호하던 유일한 인어인 동생은 입을 다물었다.

“아….”

인어를 품어주던 유일한 인간인 지오반니는 입을 잃었다.

“…그렇지.”

“…….”

“이제 날 막을 사람이 없네.”

참 아쉬웠다.

“…….”

“…….”

“이봐.”

내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 * *

“…지오 씨는 요리도 잘하시네요.”

이세르가 어렵게 꺼낸 말에 서지오가 웃어 보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쁘네요.”

“수산물 요리에 특히 뛰어나신 건가요?”

“전반적으로 다 잘합니다.”

“이 요리법은 어디서 배우신 거고요?”

“글쎄요, 그냥….”

은발에 가까운 백금발이 눈에 밟힌다.

“이렇게 먹어보고 싶어서.”

“그렇군요.”

햇볕이 산란하는 수면을 닮은 청안이 보인다.

“그냥 모닥불에 구운 것뿐인데, 너무 맛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 거라면 편하게 언제든 물어봐도 좋아요.”

“아는 걸 나누는 것은 기쁜 일이니까요?”

“…은하 학생의 스킬 중에 독심술이 있나요?”

“왠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지오반니도 늘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

‘역시, 조금….’

아니, 아주 많이.

‘지나치게 닮았어.’

이래서야 ‘꽤 닮은 다른 사람’이라며 제가 직접 만들어낸 의심도 먹히질 않는다.

‘계속 이렇게 굴 수는 없는데.’

스스로가 멍청한 짓을 한다는 자각은 충분히 있었다. 유성운이라는 인간이 ‘너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거 맞냐’라는 시선을 보낼 때, 차마 건방지다는 말이 나오지 못할 만큼 한심했다.

“지오 씨는 고향이 어디인가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시골이었죠.”

“시골이라….”

“가끔 농사도 짓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귀족 출신의 사제치고 이상할 만큼 소탈한 점도 똑같았다.

‘아, 안 되겠어….’

수작 부릴 기운이 없어졌다.

‘…던전 전체의 분위기가 가벼워진 걸 보면 분명 누님께서도 당황하는 중이실 거다. 그 누님마저도 당황하는데 나라고 멀쩡하지는 못할 테지. 원래 이 일이 이렇게까지 질질 끌어질 게 아니었는데… 이래서야 빨리 지구를 뜨는 편이….’

예전의 차분한 이성을 되찾는 길이 될 것이었다.

“…….”

하지만.

그래도 되나?

‘…이 차원에 지오만 남겨두고 우리만 떠나는 게 과연 맞을까?’

그간 수많은 차원을 돌아다녔지만 한눈에 봐도 알 만큼 ‘아, 이 사람은 지오반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상대는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지오반니의 환생이 맞아 보였다.

‘그런데 왜 신성이 있는 거지? 역시 어느 차원의 태양신이 수작을 부린 게 아니고서야, 아니, 하지만… 태양신 정도 되는 존재라면 인간들이 어찌 되든 굳이 신경 쓰지 않을 텐데.’

혼란스럽기만 한 상황이나, 확실한 것은 하나 있었다.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이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야 했다.

‘상황을 보니 지오만 붙잡아 두기는 어렵다. 그냥 다 같이 보내고, 누님과도 상의를 해서 생각을 정리한 뒤에 새로운 계획을 짜도 늦지 않아.’

그 질문에 답한 것은 유성운이었다.

“일단은 나갈 방법을 찾아야지.”

“나갈 방법이라….”

“보통 이런 경우는 세 가지 정도로 방법이 나뉘어.”

대충 생선으로 배를 채운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역시 공략에 성공하는 거려나. 하지만 우리는 헌터의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가 잠시 눈을 떼면 죽어버릴 민간인이 잔뜩인 상황이야. 지킬 사람이 없어도 힘든 공략을 이 인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 리가 없지.”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요?”

“귀환석과 같이 던전을 나갈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딱히 현명한 선택은 아니야. 한번 쭉 둘러보니 아무래도 낮은 등급의 아이템이 통할 던전이 아닌 데다… 만약 통한다고 쳐도 아이템의 수가 얼마나 되겠어. 우리 중 소수만 간신히 탈출할 수 있을걸.”

“그건 그렇죠.”

“마지막 방법은, 역시….”

유성운의 시선이 여전히 무채색처럼 웃고 있는 은하, 이세르에게 닿았다.

“…….”

“…….”

찰나의 시선이 흩어지고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던전의 주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는 거지.”

이세르는 내심 혀를 찼다.

‘생각이 읽혔나.’

아니, 생각이 읽히기도 전에 너무 뻔한 결말이었을지 모른다.

인어들에게도, 인간들에게도, 지오반니의 존재는 과도하게 예상을 벗어났다. 양측 모두에게 혼란스러우니 일단 서로 재정비를 하고 다시 겨루자는 의미인 듯했다.

유성운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C급 헌터가 불안한 듯 물었다.

“그, 그게 될까요? 태양의 신전에서 일이 터진 거면 던전의 주인도 작정하고 일을 벌인 것 같은데… 잡혀 온 사람의 수도 상당히 많고요. 분명히 강한 주인일 거예요.”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강서담이 사제 특유의 나직한 어조로 대꾸했다.

“던전은 극장의 무대라는 이야기가 있죠. 등급이 높은 던전일수록 그 주인과 긴밀하게 엮여 있고, 공략자들은 던전 주인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필 수 있습니다.”

“어… 그게 왜…?”

“한마디로 이야기만 잘 따라가면 운 좋게 문이 열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던전의 이야기를 알게 된 공략자의 헌신에 감동해서 던전을 탈출했다는 민간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허풍이 아니에요.”

“헉, 저는 그거 찌라시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도 종종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인간형 몬스터에 가까울 만큼 이지적인 주인일수록 그런 식의 탈출 가능성이 커지죠. 이런 규모의 던전 정도라면 그 주인도 분명 인간형에 가까울 테고요.”

그쯤에서 유성운이 끼어들었다.

“이미 비슷한 현상은 보이고 있어. 던전에 끌려온 직후에는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생겼지만, 지금 봐봐. 우리가 대놓고 모닥불 피워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쳐들어오는 몬스터가 없잖아.”

“확실히 이런 다수의 공략자가 들어온 던전치고는 기이할 만큼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사건을 일으킨 주인의 심정에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겠지요. 많이 봐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상황으로 따졌을 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건 역시 세 번째 경우라는 거지. 잘만 비벼보면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나.”

“저도 비슷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

이세르는 그냥 입을 다물기로 했다.

‘재수가 없군.’

제 정체는 모르는 척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솜씨가 아주 수준급이었다.

'유성운은 이미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눴다지만, 강서담 사제라고 내 정체를 모르지는 않을 거다. 이전에 내가 숨길 생각이 없어 심해의 기운을 대놓고 드러낸 적도 있으니... 여기까지 와서 평범한 어린 인간인 척 굴 수는 없겠지.'

이세르가 지오를 돌아보았다.

"어느 쪽으로든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의 생선도 맛있기는 하지만...."

"......."

"역시 집에 돌아가고 싶네요."

그에 이세르가 물었다.

"지오 씨의 집은 어떤 곳인가요?"

"아, 평범한 오두막입니다."

"오두막이요."

"인적이 드문 숲 안의 오두막이죠."

"......."

당신과 참 잘 어울리는 집이지 않은가.

'...이런 말까지 들으니....'

그냥 잡아두고 있을 수만은 없겠네.

이세르는 그물에 잡혀 온 인간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

어차피 다시 잡아 오면 그만이니.

이세르는, 인어를 향한 인간의 탐욕을 알았다.

* * *

미지정 등급의 가상 던전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생환했다.

살아남은 수는 전체의 80%에 달해, 모두가 입을 모아 이를 기적이라고 칭송했다.

"이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이려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오, 넌 계속 그대로 남아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지금 그렇게 말이야."

유성운은 '지오의 초상화'의 효능에 전율했다.

던전을 그리는 화가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68)"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69)

제69화

“그야말로 기적이 아닙니까?”

비사벌이 방끗 웃으며 유성운을 반겼다.

“…….”

“어어어 다시 나가지 말고 그대로 들어와요.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러면 안 되지.”

“아 정말 들어가기 싫어진다….”

“제가 월급 주는 사람인 거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알아서 그래도 문 앞까지는 온 거 아닙니까.”

“알면 냉큼 더 들어오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유성운 큐레이터. 길드장이 기다리는데.”

결국 집무실 안으로 들어온 유성운이 직원용 소파에 앉으며 중얼거렸다.

“꼭 돈 모아서 퇴사해야지.”

“그게 과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직서는 통과시켜 주셔야 하는 거 아닌지?”

“빈정 상한 내가 실수로 사직서 수리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적폐다….”

“대한민국에 적폐 없었던 적이 언제 있다고 어쩜 그렇게 순진한 발언을.”

“아 진짜 싫어.”

유성운은 피곤한 얼굴을 두 손으로 거칠게 쓸고서는, 영혼까지 토해낼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고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판다만큼이나 퀭했다.

“그래서 뭐가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어제 서면으로 전체적인 보고를 드렸는데, 대체 뭐가 더 궁금하셔서 이 불쌍한 직원을 부르셨습니까?”

비사벌은 거두절미하고 말했다.

“보고서를 보아하니 안타깝게도 지오가 인명 피해를 일으켜 보지는 않은 것 같고.”

“안타깝게도?”

“실수로 진심이 나왔습니다. 그 초상화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반응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박수라도 치면 되나?”

“그러니 이 부분은 잠시 넘기도록 하고, 지오의 초상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럴 줄 알았죠, 말씀하십시오.”

“던전과 몬스터에 반응하여 변질되었다는 부분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만, 그래서 지오반니가 정확히 누구입니까?”

“그….”

확실히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하지 못했다.

“아시겠지만 ‘지오의 초상화’에 관한 부분은 저희 길드 내에서도 기밀인지라, 혹시 모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례하게 느껴졌을까요.”

“무례고 자시고 지오반니가 누구라고요?”

“그래, 당신은 이런 사람이었지.”

“지오반니가….”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도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목뒤를 긁적인 유성운이 곧이어 말을 이었다.

“…다른 차원의 ‘지오’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제가 끌려간 가상 던전, 그러니까… ‘심해의 신전’을 돌아다니면서 몇 가지 자료를 얻어서 확신했고요.”

혹시 다른 곳에 떨어진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러 다녔을 때, 유성운은 그저 사람만 찾았던 게 아니다. 새 던전을 찾았다면 기본적인 조사는 헌터로서 당연한 소양이었다.

“그 결과 ‘지오반니’라는 사람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는 아마 30대 초반 정도였을 것이고, 태양신을 모시는 사제 겸 의사에, 백금발과 청안… 제가 전에 보고드린 지오의 모습 중 하나와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지오는 근원과 큰 연관이 있겠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근원의 존재나 몬스터들과 질적으로 다르겠지요.”

“그러리라고 판단 중에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지오’로 환생한 뒤, 인간으로서의 생을 마감한 다음에는 다시 초상화로 돌아와 재정비 시간을 가지고… 모든 정비를 마치면 다시 환생하기를 반복하지 않을까 싶군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시간적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동시에 진행되는 일일 수도 있었다. 차원과 차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과정일 테니 말이다.

그렇기에 ‘지오의 초상화’는 인간도, 몬스터도, 아이템도, 심지어는 가장 베일에 싸인 이들이라 하는 근원의 자식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지.

“‘지오의 초상화’는 뭐든 될 수 있습니다.”

물감과 조각으로 모든 것을 표현해 낼 수 있는 화가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런 것은, 역시… 뭐랄까….”

“섣부른 판단이라 생각하지만 역시 근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세상의 가장 큰 비밀이라고 칭해지는 ‘근원’과 밀접한 연관이 없다면, 지오가 지금처럼 방대한 격을 유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미약하게 남은 것이나마 그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아 주어서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의지력이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이것도 근원의 시스템 중 하나라고 봐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유성운이 턱을 쓸고서는 물었다.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어라, 벌써 끝인가요?”

“저는 구연동화를 읊어주는 부모님 같은 게 아닙니다. 심심하다면 다른 대화 상대를 찾아주세요, 이래 보여도 이번 가상 던전의 여파를 수습하느라 바쁘다고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비사벌이 특유의 가는 웃음을 흘렸다.

“지오의 신분을 만들어 주시느라 정신이 없죠? 다른 무엇도 아닌 A급 헌터를 허공에서 만들어내는 일이잖습니까.”

“아무리 비공인 헌터가 유독 많은 수집상 길드의 소속이라고 해도 해명해야 할 부분은 차고 넘쳐요. 협회 쪽도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할 거고요.”

“협회 쪽의 설득은 제가 맡을 테니 기본적인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쪽도 ‘지오의 초상화’에 대해 모르지는 않을 테니 말입니다.”

“부담을 덜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밤은 오랜만에 저희 집 침대에서 잠이 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지, ‘심해의 신전’이라고 명명된 던전에서 지오는 대놓고 활약을 보였다. 그 신성을 알아차린 사람은 강서담 사제 한 명뿐이지만 그렇다고 성력을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쯤 되니까 도저히 없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서....”

“목격자가 그렇게 많은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처음부터 전부 죽여 버렸다면 일 처리가 훨씬 편했을 텐데.”

“저보고 레드 헌터가 되라는 말씀이십니까? 5등급 시민으로 전락하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아니요, 지오를 생각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저도 지오의 공격 방식을 감상할 수 있었을 게 아닙니까?”

“일단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오는 왜인지 길드장님을 적당히 착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던데 이미지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거야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약해 빠진 몸으로 3대 길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 무기 중 하나죠.”

“하지만 확실히 목격자가 많기는 합니다. 분위기가 워낙 화목했던 탓에, 생존자들의 목격담도 훨씬 적극적으로 퍼지고 있고....”

생환자들은 던전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인지, 수집상 길드로 ‘서지오 헌터’에 대한 감사 인사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서지오’라는 인물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 탓에 직원들도 조금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길드장님께서 뿌리신 공문에 분명 ‘지오’라는 직원이 표기되어 있었는데, 설마 동일 인물인가... 하고요.”

“그야 당연히 동일 인물이겠죠? 나는 그렇게까지 눈치 없는 직원들 데려온 기억은 없는데.”

“짐작은 다들 하고 있습니다.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 아무도 아는 체하려고 하지 않지만, 최소한 공문 속 ‘지오’와 이번 소동의 ‘서지오’가 같은 존재라는 것 정도는요.”

“다 알면서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추가 업무 맡기 싫은 거죠.”

유성운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저처럼 말입니다.”

“돈 주잖아.”

“빌어먹을 자본주의 사회.”

돈만 주면 정식으로 수명도 살 수 있는 세상에 노동권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었다. 유성운은 피곤함에 굳어버린 목뒤를 주무르며 말했다.

“그래도 이미 공문에서 소개 자체는 직원이라고 해주신 덕분에, ‘그럼 정말로 직원이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길드장님께서 인간도 아니고 몬스터를 채용하려는 속셈인가 하고 있지만….”

“말 나온 김에 다음에 한번 시도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 직원들 사이의 불신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까. 괜히 ‘작품만 관련되면 눈이 돌아가는 미친놈’이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라고요. 길드장으로서의 체면을 좀 챙겨주세요, 제발.”

“매우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참 재밌는 사람이지요?”

“그 나이 되면 있을 법도 한데 왜 없지? 진짜 왜 없는 거지?”

유성운이 다시 한번 얼굴을 쓸고서는 말을 이었다.

“아무튼 지오는 조만간 수집상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미 금발 청안의 모습으로 알려진 탓에 지오가 망토를 뒤집어쓰지 않고 활동하려면 ‘지오반니’의 모습으로 움직여야겠지만, 아마 그 정도는… 지오도 이해해 줄 것 같아요.”

지오는 딱히 자신의 인격이 변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 듯 보였다. 그런 점마저도 근원의 존재다워 고개를 끄덕이게 돼버리지만, 본인에게도 큰 부담이 없는 일이니 용인해 줄 것이었다.

“한마디로, 이제는 지오가… 인간 사회에서 버젓이 활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같이 놀이공원 가면 안 되나.”

“…‘지오의 초상화’는 소란스럽고 번잡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인간에게 믿을 수 없이 신사적인 것은 여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고 악한 이를 싫어하지 않게 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낼까 했죠.”

“그런 건 제발 애인분께 해드리고….”

“애인이라니, 누가 나 같은 노인네랑 놀이동산을 가주겠어요?”

“그럼 지오는 왜 가줄 거라고 생각한 건데요,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제 수집품 중 하나인 유성운의 반응을 감상하기 위한 되도 않는 헛소리라는 걸 알지만, 가만히 듣고 있기도 참 힘든 발언들이었다. 안 그래도 피곤한데 기가 쫙 빨렸다.

“아무튼 더 물어볼 것 없으시면 저는 이만 갑니다. 이번에 만든 헌터증도 지오에게 전달해 줘야 하고, 이외에도 교과서니 뭐니 알려줘야 할 것이 많아서….”

“아, 잠깐만요.”

“뭡니까.”

“바다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

유성운이 이마를 짚었다.

“바다, 라고 하면 설마… 제가 예전에 조사하러 갔던 그 이상 현상에 관련한 주제를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지금? 되지도 않는 잡설을 줄줄이 꺼내놓고 막 일어서려는 지금?”

비사벌이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까먹었지 뭐야.”

“거짓말 치지 마세요, 속 터지니까.”

하지만 유성운 자신의 반응을 감상하고 즐기기 위해서라도 비사벌은 이런 장난을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만고불변의 진리이지만, 역시 포기하면 편했다.

현명하게 체념한 유성운이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래서 무슨 일이죠?”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을 텐데, 대한민국 3대 길드의 권력 중 가장 좋은 게 있다면 빠른 정보력이겠죠.”

“아, 예.”

“협회 측에서 막 확인한 따끈따끈한 정보를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냐고요.”

“바다에 새로운 던전이 생긴 것을 관측했답니다.”

“…바다에, 새로운 던전….”

유성운이 창백하게 질렸다.

“…지금 시기에?”

“지금 시기에.”

비사벌이 샐쭉 웃었다.

“뭔가 생각나나요?”

“설마… ‘심해의 신전’과 연관이 있는 곳입니까?”

“아마 같은 던전인 것 같습니다.”

비사벌이 긍정했다.

“협회 쪽의 용감한 헌터 몇이 내부를 확인하고 왔는데 깊이 들어갈수록 환경이 신전의 형태와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심해의 신전’에서 보고 온 것과 같겠군요. 연결되어 있는 던전이 또 따로 있었던 건가.”

한숨이 절로 나왔다.

“바다에 이상까지 생길 정도라면 설마, 별장 던전입니까? 아예 그… 신전이 생겼어요?”

“그건 아니고, 평범한 진입 던전입니다.”

“더럽게 넓겠군.”

진입 던전의 특징 중 하나는 그 범위에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진입 던전 중 그 안쪽이 가장 넓은 곳은 무려 한 국가의 크기에 달했다. 그것도 러시아만 한 크기로.

그 때문에 진입 던전은 가장 안정적이지만, 그 이상으로 공략이 번거롭고 귀찮은 던전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처럼 굉장히 넓으리라고 예상이 될 정도라면 더더욱 말이다.

“제가 확인했던 ‘심해의 신전’은 신전과 연구소의 형태가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말씀하신 헌터들의 보고는 신전의 형태에서 멈췄다고 하니, 저희가 보고 온 장소는 아마 그보다 훨씬 안쪽의… 깊은 지하였겠네요.”

그게 맞다면 은하 이 녀석, 아예 죽으라고 사람들을 던져놓았던 게 아닌가.

'던전 안쪽으로 갈수록 생환율이 낮아지는 건 기본 상식이잖아.'

하여간 몬스터의 증오와 악의는 받아도 받아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아, 제가 보고드린 은하라는 아이는…."

"여러분의 생환 이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던전에 남았거나 그 모습을 바꾼 것이겠죠. 입단식에서는 예비 사제의 모습을 취하기 위해 인간의 아이처럼 형태를 바꾸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역시 그런가."

이제 와서 인간인 척 굴기는 어렵겠다고 판단했는지 '은하'는 모습을 감췄다.

그에 비사벌이 물었다.

"그 부분에 관해 지오는 달리 혼란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까? 나름 마음을 써서 아꼈다는 것 같은데."

"……."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정작 은하라는 아이여서야 충격이 없지는 않을 텐데요."

"그 부분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흐음."

비사벌이 고개를 기울이며 흥미를 표했다.

"역시 알고 있었던 모양이죠?"

"…어디까지 인격을 정리했는지 저희야 모르니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충격이나 놀람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오는 원래부터 은하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몰랐다.

던전에서의 지오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을 뿐이고, 나와서 은하의 정체를 알게 된 지오는 굳은 얼굴 근육 덕분에 혼란이 티가 나지 않았을 뿐이다.

'지오반니'의 기억 속 이세르와 은하가 동일 인물이라는 확신 자체도 던전을 빠져나와서 가지게 되었다.

"인간형 몬스터가 주인인 던전인 만큼 그 평화의 열쇠라 할 수 있는 '지오반니'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노력은 해보죠."

"아, 그리고…."

"또 뭡니까."

"……."

비사벌이 짐짓 애석하다는 듯 유성운을 보았다.

"협회 소속 헌터가 알린 바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다의 던전에서 '지오의 초상화'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예?"

"정확히는 '서지오'가 아니라 '검은망토'의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협회 소속의 헌터들은 검은 망토를 뒤집어쓴 장신의 남성에게 도움을 받아 탈출에 성공했다고…."

“아 제발….”

유성운이 제 머리를 쥐어뜯었다.

“제발 내가 수습할 수 있는 선에서 놀란 말이야….”

“저런, 가엽게도.”

“으아아아아….”

야근할 미래가 절로 보였다.

* * *

물론 지오가 놀겠다고 이런 일을 벌인 건 아니었다.

“내 인어 학생들 얼굴 좀 한번 보겠다고 찾아간 던전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줄 몰랐지.”

“꾸루루룩.”

“물감으로 고구마도 구워낼 만큼 다재다능한 아빠라고 해도 모든 미래를 예측하지는 못한단다.”

지오는 ‘당연히 지금쯤이면 그 던전에 아무도 없겠지’ 하며 방문했던 장소에서 대놓고 마주쳐 버렸던 건장한 헌터들이 떠올렸다.

꽤 겁을 먹은 모습들이었다.

“꼭 수집상 길드의 직원들이 새벽에 나를 마주쳤을 때처럼 말이야.”

“꿍.”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처럼 보이는데도, 그 건강한 직원분들이 겁에 질려서는….”

“꿍꿍.”

“…겁에 질려….”

“꿍꿍꿍.”

“…….”

미리 말하자면, 지오도 현실 파악이라는 걸 할 줄 알았다.

그리고 수집상 길드에 ‘검은망토’라는 괴담이 하나 생긴 것도 알았다. 비사벌 길드장의 장난 때문도 있지만, 그걸 진지하게 믿은 직원들이 한껏 겁에 질린 탓이 컸다.

“…아.”

모두가 퇴근한 회사의 복도에 덩그러니 서 있는 검은망토와, 사람이 없어야 할 던전에 대뜸 나타나 살길을 알려준 검은망토.

굉장한 싱크로율에 지오는 데자뷔를 느꼈다. 그제야 현실 감각이 돌아온 지오는 아차 했다.

“…나 사고 쳤나?”

“꾸르.”

“천지신명이시여.”

그렇게 됐다.

던전을 그리는 화가

오

Chapter (69)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69)"

4.7 13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70)

제70화

"……."

"그래서…."

유성운이 맞은편 의자에 앉은 강서담 사제에게 부탁했다.

"가능하면 그쪽도 '검은망토'와 '서지오'를 별개의 인물로 쳐줬으면 해."

"별개의 인물입니까."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분리해야 공존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덜 발생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강서담이 끄덕였다.

"제가 '심해의 신전'에서 보았던 헌터가 바로 그 '서지오'라는 사람이겠죠."

"맞아, 그리고 이번 협회 측 헌터들이 목격했던 새까만 망토의 남성은 아예 모르는 존재인 걸로. 아마 당신이라면 그게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겠지만…."

"그게 신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신께서도 그분께 친교의 뜻을 밝히셨으니, 입을 닫고 있는 정도라면 어려울 것 없을 겁니다."

그는 흔쾌히 유성운의 부탁을 받아주었다. 단순히 그게 모시는 여신의 뜻이기만 해서는 아니었다.

"저도 '심해의 신전'에서 신을 보았다고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정체를 밝히길 원하시는 것 같지도 않았고, 제가 주관한 입단식에서 신이 나타났다고 하면 한동안 시달릴 테니까요. 저를 위해서라도 발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얼렁뚱땅 '심해의 신전'을 탈출하고 시간이 꽤 지났지만, 강서담은 교단에 '서지오'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았다.

교단의 사제인 만큼 여신의 뜻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단독 행동이었으나, 사제 본인에게 융통성이 없다면 불가능했을 결정이었다. 유성운도 그 점을 파악하고 이런 접촉을 시도한 것이다.

유성운이 짐짓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맙네. 같은 길드 내의 직원들이야 길드장님의 선에서 단도리가 된다지만, 아무래도 강서담 사제님은 교단의 일원이라서 어떻게 입을 막을지 걱정했단 말이지."

"입을 막는다니 과격한 표현이군요. 하지만 '검은망토'의 건에 대해서는 그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때 뵌 분께서는 일반적인 신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신이 인간 흉내를 내며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었다.

“혹시 그분께서는 악신의 일종이셨습니까? 유희를 즐길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인간의 규격에 맞출 수 있는 존재 중에서는 악신이 꽤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다면 이러한 분리 조치 또한 크나큰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파악 중이야.”

“이번에도 ‘사랑하는 작품’이라느니, 수집가가 어영부영 대처한 거군요. 단지 길드장 눈에 사랑스럽고 안전하게 보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안심할 수 있는 수집상 길드원들의 태도는 여전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도 지오를 연구소로 보낼 수는 없잖아?”

“협회의 연구소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숨 쉬듯이 벌어지는 건 맞지만 인류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편이 맞습니다. 물론 이는 악신일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평화와 자비를 중시하시는 듯한 그분께서 그럴 확률은 낮을 테니, 다시 한번 이번 일을 함구할 것을 태양에 맹세합니다.”

하지만 ‘서지오’라는 존재가 인간들에게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만큼 거대한 격의 신비들은 악의 없이 한 차원의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기도 했고, 수많은 생지옥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게다가 인간형 몬스터가 주인인 던전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다니….”

그 정도면 일반적인 신의 권한을 아득히 넘어섰다. 신이라고 해서 모든 면이 전지전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신이라는 존재는 의지를 가진 무형의 운명이나 자연에 가까워서, 인간 형태의 유희를 즐기지도 못할뿐더러 던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갈 수도 없었다.

이는 강한 의지와 짙은 노련함, 그리고 거대한 능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많은 자비를 받은 입장에서 지극히 배은망덕한 이야기입니다만, ‘서지오 씨’가 위험한 존재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강서담이 유성운을 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수집가마저 파악하지 못한 존재라는 게 아닙니까.”

“교단이나 협회가 보기에는 상당히 답답한 일 처리겠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파악에 힘을 쓰고 있어.”

“그분께서 인류를 적대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느껴지는 기운이 죽음과 상당히 가까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뭐, 화가 나면 재앙이 되겠지. 무의식적으로 인류를 해칠지도 모르고.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곤란합니다.”

안 그래도 소수의 강자가 베푸는 자비에 의해 간신히 명줄을 유지하고 있는 지구인데 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서지오 씨’의 유희를 방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단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성운 헌터는 아시겠지요.”

“잘 알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고. 강서담 사제님도 그 녀석의 정체를 알릴 생각이 없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대로 된 확언을 듣고 싶었어.”

이 무시무시한 초상화와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래서 더 많은 모습을 감상할 날이 오기를 바라며 비사벌은 ‘서지오’와 ‘검은망토’가 성공적으로 분리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건 유성운도 마찬가지였다.

“금발 청안인 지오의 모습은 이미 ‘심해의 신전’에서 드러난 탓에 그 존재를 부인할 수도 없지만, 이번에 협회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파악한 건 ‘검은망토’뿐이었으니까.”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신의 유희를 한낱 인간이 막을 수는 없죠. 애꿎은 희생자만 나올 미래가 뻔히 보이기는 합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결론을 내렸어. 꽤 무책임한 방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수집상은 그의 통제보다는 공존을 원하고 있거든. 우리 길드의 유구한 모토지.”

어차피 ‘지오의 초상화’가 저지르는 사건 사고는 인간들 측에서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미 드러난 ‘지오반니’의 쪽만 수

집상에서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되, 뒤로는 조용히 지오를 회유하며 인간과 그 사이의 갈등을 줄여 나가자는 것이다.

"수집상이라고 손을 놓고 있겠다는 게 아니야. 나름 신경을 쓰면 사람들의 동요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봐."

"동요를 어떤 식으로 줄이겠다는 겁니까?"

"'검은망토'를 도시 괴담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사람들이 시시콜콜하게 즐길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로 만들자는 거야."

"……."

강서담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짜증과 불편과 황당함을 애써 정중하게 뭉개버린 표정에 가까워 보였다.

"…그걸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될 경우 오히려 '검은망토'라는 이름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 그분께서 더 강한 재앙이 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일단 수집상 쪽에서는 됐어. 지금 우리 쪽 직원들은 '검은망토'를 하나의 괴담처럼 취급하면서, 그쪽의 규칙에 맞춰 나름대로 균형을 찾아냈거든."

"그거야 수집상 길드의 특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도시의, 한국의, 크게 보아 세계에 모든 사람까지 따지자면 쉽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후우…."

자신이 왈가왈부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더 이상 같은 주제로 떠들기가 힘들었는지. 지친 얼굴로 미간을 꾹 누르던 강서담은 곧이어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신을 그렇게 친근하게 불러도 되는 겁니까? 그 녀석이라느니, 지오라느니…."

강서담은 조금 질린 반응이었다.

"인간의 가죽을 흉내 내고 있는 그 거대한 존재를 잘도 그런 식으로 대하십니다."

"지오가 그걸 원하잖아."

"……."

"역시 사제의 입장에서는 거북하게 느껴지려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를 불문하고, 신을 모시는 사제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규칙이 있었다.

"첫째, 신의 눈을 보지 마라. 둘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셋째, 신을 시험하지 마라…. 아마 유성운 헌터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명한 규칙이지."

"신의 본질을 알려고 들지 말라는 거죠. 사제들은 기본적으로 신을 대할 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신을 지나치게 친근하게 대하는 것 또한 그 본질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사전에 방지하려는 겁니다."

"……."

"지금 시대의 신앙은 확실히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탓에 신을 대하는 인간들의 태도가 대재앙 이전보다 친밀해지고, 그분들의 이미지가 훨씬 세속적으로 변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신격을 지닌 이들이 무형의 재앙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전통적인 신이니 악신이니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절대적인 기준을 따지자면 상당히 모호하다. 인류에게 누가 봐도 해악이 되는 신성을 이르러 악신이라 평가하는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어떻게 자연과 운명을 선악으로 나눌 수 있겠는가. 인간과 같이 한미한 존재가 제아무리 그들을 재고 분류한다 한들 골치 아픈 일만 벌어질 뿐이었다.

“그럴 의지가 있든, 없든, 신이라는 존재는 언제든 인류에게 있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제들은 그것을 그 어떤 인간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했다.

“그 점을 잊는다면 사제의 자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꽤 심오한데.”

“유성운 씨도 조심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신의 진명을 불러 운명의 무게에 짓눌려 터져버린 사람은 수도 없이 보았어요. 신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는 건 그런 의미죠.”

“그거야 나도 잘 알지.”

오히려 유성운이 더 잘 알 수도 있었다.

“이쪽도 나름 전문가거든.”

유성운의, 정원사의 관점에서 현세대의 신은 일종의 ‘근원의 자식’으로 분류된다.

근원과 긴밀하게 연결되었으며, 그 어떤 차원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무형 무음의 재해. 의지를 가진 운명이자 살아 있는 이야기. 이 모든 조건이 ‘근원의 자식’과 부합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사제님에게 알려줄 수는 없고.’

불경하다는 소리만 들으면 다행일 것이다.

애초에 정원사의 존재와 그에 관련된 지식은 소수의 사람만 알고 다룰 수 있는 통제 불능의 위험한 정보이니, 제 체면 살리자고 지오의 이야기를 나불거릴 수는 없었다.

“아무튼 조만간 지오가 사회에서 활동하는 걸 봐도 너무 놀라지는 마. 아마 그때의 지오는 꽤 융통성 있고 성격도 좋을 테니까 사고를 칠 일은 없을 거야. 신분도 확실할 거고.”

“…….”

“성력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한 신도인 조련사로 소개될 테니 장단 좀 맞춰달라는 의미였어. 본질적인 기운이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지오는 태양신 계열에 가깝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기에 거북합니다.”

“이게 내 방식인 걸 어떻게 해.”

“하아….”

“아, 그러고 보니.”

유성운이 눈을 깜박이며 물었다.

“협회 쪽에서는 ‘검은망토’에 대한 정보를 공식화했나?”

협회가 하는 일 중 하나는 헌터들이 유의해야 할 존재에 대한 규칙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유성운이 생각하기에 이번에 목격된 ‘검은망토’는 그렇게 공식화되기에 충분했다.

“그쪽에서 먼저 물꼬를 터줘야 우리 쪽에서도 괴담인 양 꾸며내기가 편한데.”

“이번에 새로 발견된 입구의 던전도 명명되었으니, 곧 ‘검은망토’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겠죠.”

“역시 태양교의 사제라 그런지 정보가 빠르네. 그 던전 이름은 뭐래?”

“저희가 방문했던 곳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서담이 말을 이었다.

“‘심해의 나라’라고 하더군요.”

“뭐어….”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직관적이고 좋네.”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 * *

“정다운 헌터.”

“…….”

“정다운 헌터, 준비되셨습니까?”

“…….”

갈색 머리를 축 늘어트린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어요.”

“저희는 지금부터 ‘심해의 나라’에 있었던 일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팀장이셨던 정다운 헌터가 대표로 질문을 받으시겠지만, 정보가 부족하다면 정다운 헌터의 동료분들께도 도움을 받을 거고요.”

“네.”

“일단은….”

헌터의 맞은편에 앉은,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말을 이었다.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

“많이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심해의 나라’에 대한 탐사를 마친 이후로 3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충분한 휴식이 되지 못하셨던 걸까요?”

“…….”

“왜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냐고 추궁하는 말이 아니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다운 헌터의 심신이 안정을 되찾아야 질의응답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머뭇거리던 헌터가 헛웃음을 지으며 머쓱하게 말했다. 그 음성이 녹음기에 기록되었다.

“죄송합니다, 몸은 전부 회복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송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그것이 떠나가지를 않아서….”

“그것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목격된 ‘검은망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아요. 검은망토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아, 이름은 ‘검은망토’로 정해진 건가요?”

“임시로 그렇게 명명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명칭이 변할지는 모릅니다. 검은망토에 대해서는 협회 측에서 알고 있는 정보가 전무하니까요.”

“제가 최초 발견자인…?”

“각국의 헌터 협회에 협조 요청을 부탁했지만, 목격하신 존재에 대한 정보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높은 확률도 정다운 헌터의 목격이 최초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최초 발견자는 진작 그의 정체를 알아본 비사벌이고, 관계자 외 일반인의 목격으로 친다 해도 차아라가 있었으나, 워낙 평화롭게 진행된 탓에 그에 대한 정보가 협회에 전달되지는 않았다.

“그럼 제 대답이 아주 중요해지겠네요.”

“예.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상당히 격이 높은 존재로 파악이 된 만큼 정다운 헌터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주시느냐에 따라 협회가 정리한 대응법도 달라질 겁니다.”

“…….”

헌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준비됐어요.”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자, 협회의 연구원이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갔다.

“처음 ‘검은망토’를 목격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심해의 나라’의, 신전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어가 보죠. ‘심해의 나라’는 1단계, 바다 위. 2단계, 수면 아래의 물에 잠긴 도시. 3단계, 거대한 신전의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처음 진입하면 헌터들은 바다 위에 서 있게 돼요. 의도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빠지지 않고요. 조금 과격하게 움직이면 빠지지만… 다시 위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심해의 나라’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위험도가 올라가는 구조겠군요.”

“그렇죠, 딱히 바다 위에서는 몬스터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고요. 수면 아래로 내려가도 호흡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에 의한 장력은 있어서 활동에 제한이 생기기는 하지만요.”

“2단계부터는 몬스터가 목격되었다고요.”

“물에 사는 좀비 같은 느낌…? 살덩어리처럼 생긴 이상한 슬라임도 있었어요. 그 이외에도 이것저것… 하지만 이 부분은 아마 제 팀원들이 보고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예, 한 번 더 확인해 본 겁니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신전으로 넘어가죠. 2단계인 ‘물에 잠긴 도시’에서의 몬스터와 3단계인 ‘심해의 신전’에서의 몬스터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더 흉악하게 생겼다는 점? 종류 자체는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신전 쪽에서 발견된 몬스터가 훨씬 더 징그럽고 포악했죠. 당연히 위험도도 높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서류철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낸 연구원이, 그것을 밀어 헌터에게 보여주었다.

“팀원분 중 한 명인 김이연 헌터가 찍은 사진입니다.”

"……."

사진에 찍힌 것은, 온통 새까만 망토에 둘러싸인 남자였다.

"여러분은 이 존재를 남자라고 묘사했지만, 사실은 아예 성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온몸에 망토를 둘러쓰고 있으니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검은색 망토를 입은 남성'이라고 묘사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느껴졌으니까요."

능숙한 헌터인 그녀도 몬스터의 불분명성에 대해서 잘 안다. 단순히 목소리가 굵다고 해서, 키가 크다고 해서 남성은 아니다. 망토 안의 실체를 본 적도 없으니 그게 인간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심지어 '검은망토'는 걸을 때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굉장히 가벼운 풀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 경우 그 내부가 육중한 인간의 신체일 거라는 확신이 드는 게 이상한 거였다.

"……."

그래, 이상하지.

"…그래도 '인간'처럼 느껴졌다고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인간'이라 말하게 된다.

"그게 아주 당연한 사실인 양…."

지오가 들었다면 '나 인간 맞는데'라며 좀 억울해했을 생각이었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70)"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71)

제71화

시간을 조금 돌려, ‘심해의 신전’을 벗어난 지오가 오두막으로 돌아온 이후.

“내가 기억하는 30년 전과 달리 지금의 지구는 꽤 위험한 곳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꾸르르….”

“설마 그 커다란 종교 행사에서 테러 아닌 테러가 터질 줄은 전혀 몰랐다. 내가 생전 처음으로 겪은 테러 사건이야.”

지오는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참 무서운 세상이지, 29살이라는 이 창창한 나이에 벌써 가족들 곁으로 갈 뻔했어.”

한낱 인간의 몸으로 근원과 합체해 버린 기적 그 이상의 기적을 누린 이상 쉽게 죽을 수는 없을 테지만, 정작 본인은 정말 하나도 모르는 일이니 넘어가고.

입단식에서 만난 은하 학생과 지오반니의 기억 속 이세르가 동일인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웠는데, 심지어 그 애가 이번 테러 사건을 주도했단다.

“…….”

지오반니는 매우 심란해졌다.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

“…굳이 원인을 찾아보자면 아무래도 내 탓이겠지?”

“꾸루.”

“태양이시여.”

그래, 솔직히 그렇게 죽는 건 좀 너무했어. 지오반니도 자신의 죄를 알았다.

“이세르는 특히 나를 아버지처럼 여겼지. 워낙 선하고 성실한 친구라 그때의 사건이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고. 원래 착한 아이들이 마음먹고 삐뚤어지면 그게 아주 무서운 법이라….”

그는 앓는 소리를 냈다.

“식사라도 좀 챙겨 줘야겠는데.”

그리고 이 지오라는 것들은 깊게 고민하는 법이 없었다. ‘어쩌라고’가 기본 신조인 놈 둘이 합체된 것이다.

그는 선하다면 선한 사람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냉정할 만큼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줄을 알았다.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에 자책과 후회를 하지도 않았다. 이번 테러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건 스승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제자가 삐뚤어져서 친 사건인 듯 보였지만, 그렇다고 그게 죽은 스승인 지오반니의 탓일 리가 없었다. 사고 친 놈 따로 있는데 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 선생님은 다 알고 있답니다. 그게 다 배가 고파서 예민해진 거야."

"꾹…?"

"사람은 원래 자기 배가 든든해야 남의 사정도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법이지."

지오는 죄의식과 상당히 먼 상태에서 그의 제자, 인어 이세르의 상태를 정리했다.

"인간에 의한 범죄라고 벌어지는 사건 사고는 대부분 사고 치는 놈들의 정신이 건강하지 못해 일어나게 된단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아."

원래는 사람 손질은커녕 생선 손질도 못 하던 이세르가 계속 행복하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했다면 이번 일이 일어났겠는가?

흑발로 돌아온 지오가 당부했다.

"허니, 너도 이 점을 잘 기억해야 해. 자기 몸 건강하고 위장은 든든한데 신경질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배만 부르게 해줘도 어지간하면 사람들은 온화해진다는 말이다."

"꾹꿍?"

"그러고도 신경질 내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놈이니까 거르도록 해. 밥도 챙겨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그건 밥 준 놈이 부모를 죽였거나 아니면 밥 먹은 놈이 이상한 탓이다."

"꾹."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나를 잡아먹은 제자에게 이 못난 스승이 무어라 반응해줘야 할까. 테러범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참 골치 아프니 그냥 이대로 평생 안 보고 살 수도 있겠지만…."

물론 지오는 그러지 못했다.

"내가 그 아이들 밥 챙겨준 게 얼마인데 고작 한 번 보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라면 신경 쓰지 않는다. 이번 태양교 입단식 테러 사건은 분명 그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이세르라는 옛 제자가 그렇게 성장하게끔 만든 것에는 확실히 지오반니의 책임이 있었다.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다지만 아무래도 산 채로 뜯어 먹히지만 않았더라면 이세르가 그렇게까지 삐뚤어지지는 않았을 거다."

"꾸루룩."

허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네 말이 맞는 듯'이라는 얼굴이라 지오도 더 할 말이 없었다.

"…아무튼 그래서…."

인간이자 어른이자 선생으로서의 뒷수습을 해보고자 그는 인어 남매를 다시 만날 방법을 구상했다.

"내 기억에 '숨 쉬는 바다'와 이세르의 던전이 꽤 비슷한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숨 쉬는 바다'를 통해 '심해의 신전'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일 듯했다. 그 드넓은 세계의 어디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그런 무모한 짓을 하겠는가. 둘이 정말 연결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지오가 끄덕였다.

"다행히도 나는 남의 던전에 마음대로 방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꾸루룩?"

“그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자.”

이미 ‘보석의 수맥’으로 한번 경험하지 않았던가. 그때 당시 목표였던 바람직한 사교 생활에는 실패했지만 덕분에 차아라라는 어린 학생을 구할 수 있었다.

“이만하면 꽤 쓸 만한 능력이야.”

유성운이 들었다면 ‘꽤 쓸 만한 정도가 아닐 텐데’라며 소소하게 태클을 걸어 줬겠지만, 지오는 은둔형 외톨이였다.

“군고구마도 해 먹을 수 있고.... 군고구마 위에 버터랑 소금 살짝 하고 꿀 뿌려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꾸르르르륵!!”

“꿀고구마볶음이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촉촉하고 부드럽지. 아, 그 위에 생크림 살짝 더해주면 그게 정말 환상이라서....”

인터넷도 안 되는 오두막에 처박힌 외로운 청년이 그런 상식을 알 리가 없었다. 그에게 그림 능력은 자신의 배를 든든하게 해주는 급식차와 다르지 않았다.

지오는 제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꾸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오두막에 눌러살기 시작한 곰 인형 ver. 태양신이었다.

“다나와 놀아주고 계셨군요.”

“꾸꾸....”

“좋아 보여서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보석의 수맥’에서 데려오게 된 보석 고양이, 안티캣 다나는 몸이 차가웠다. 그래서 태양의 온기를 머금고 있는 곰 인형과 잘 맞을까 싶었는데 아주 상성이 좋아 보였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이세르를 만나보려고 해서요.”

“꾸우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통로를 만들어볼까 하는데,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

“꾸꾸.”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식은 창고에 넣어뒀으니 편하신 대로 드십시오.”

이번 서울 여행만 해도 ‘히히 행사만 보고 바로 집에 돌아와야지’라고 했다가 신전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던가.

이번에도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지오는 자신이 없어도 화목한 오두막이 될 수 있도록 성심껏 모든 준비를 마쳤다.

“.......”

그렇게 작업실에 앉은 지오가 눈을 두 번 정도 깜박였다. 그가 중얼거렸다.

“...그러고 보니 그 신전, 아마....”

지오가 보았던 ‘심해의 신전’은, 왜인지 익숙했다.

“내가 죽었던 곳인가?”

“꾸룩.”

“그 부분은 자세히 기억 나지가 않네.”

동화율 94.5%

"......."

그래도 던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려보자."

지오는 '심해의 신전'을 그리기 시작했다.

신성함을 품은 새하얀 기둥과 드높은 천장, 그리고 이질적이지만은 않은 실험실.

곳곳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괴물과 물비늘이 일렁이는 공기....

"......."

지오는 그림에 빠졌다.

* * *

완성된 작품을 검은 천으로 가려둔 창고.

"......."

안티캣 다나를 품에 안은 채 창고 한가운데에 앉아 있던 태양신이 고개를 들어, 시린 빛을 내는 어느 한쪽을 돌아보았다.

"...꾸우."

"?"

"꾸꾸...."

태양신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숨 쉬는 바다'가 공명하고 있었다.

"꾸."

그 이야기에 끝이 오기를.

바다에 잠긴 태양은 간절히 기도했다.

* * *

"......."

검은 망토를 푹 눌러쓴 지오는, '심해의 신전'에 있었다.

"오."

이게 되네.

"'보석의 수맥'을 갈 때도 느꼈지만 참 편리한 이동 수단이군."

"꾸루룩."

"조금 둘러볼까."

워낙 장소 자체가 넓은 탓인지 곧장 이세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무단 침입을 한 것이기에 지오는 조금 더 조심하며 주변을 둘러보고자 했다.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자마자 온 것이라 여전히 맨발이었지만, 역시 그렇게까지 차갑지는 않았다. 바닥에 얕게 깔린 바닷물이 기분 좋게 찰박거리는 소리를 냈다.

"......."

곱게 단장한 제자의 집에 허락도 안 받고 들어온 무뢰한이 된 지오반니는 잠시 자괴감을 느꼈다.

“핸드폰을 다시 사야 하나.”

“꽁….”

“그래, 전파가 안 통할 거야.”

초상화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수집상 길드의 갤러리에서 벌인 일도 그렇고, 아무래도 지오는 무단 침입에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 누구도 초상화에서 살아 있는 사람이 튀어나올 걸 예상하고 집에 들이지는 않겠지.’

지오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을 놀라게 할 제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좀 웃겨서 괜찮았다.

“지난번에 봤던 것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네.”

“꾸루룩.”

다행인지 불행인지, 길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뭔가… 익숙하기도 하고.”

지오반니의 기억 덕분이 컸다.

“내가 일하던 곳이었으니까.”

“꾹?”

“아, 그러네. 내가 일하던 곳이었지. 기억이 나.”

지오반니가 끄덕였다.

“아예 여기에 눌어붙었던 건 아니었지만 이곳에서 교육을 받기는 했어. 제대로 사제로서 인정을 받은 뒤에야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자체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는 거지, 그 전까지는 이런 신전에서 훈련을 받아야 해.”

“꾸루.”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기억이 완전한 건 아니지만 길 자체를 까먹은 건 아니야. 이전에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저것 떠오르기도 했고….”

길을 걷던 지오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래도 낯설기는 하네.”

그가 기억하던 신전에 이런 연구 시설 따위는 없었다.

“…….”

그런 세월의 차이를 느끼고 나니, 지오반니의 성질이 옅어졌다.

“출구로 가보지.”

“꾸루룩.”

지오는 신전의 계단을 찾아내 타고 올랐다.

그러다가, 사람을 만났다.

“…….”

“…….”

“……?”

왜 거기서 나와요?

* * *

“.......”

다시 돌아와, 협회의 헌터 정다운이 말을 이었다.

“...역시 조금 이상하게 들리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다운 헌터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는 이해했습니다. 이성으로는 분명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본능적으로 느끼기에 상대가 인간처럼 여겨졌다는 말씀이시겠지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그런 종류의 세뇌일 확률은 없겠습니까?”

몬스터, 특히 인간형 몬스터 중에는 정신 계열의 스킬을 가진 개체가 많았다.

“인간형 몬스터가 아니더라도 인간으로 의태를 하려고 시도하는 몬스터는 많습니다.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망토로 몸을 감추고, 정신 계열의 스킬을 통해 자신을 인간으로 여기게끔 했다면 더 앞뒤가 맞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억을 떠올리며 헌터가 고개를 저었다.

“상당한 위험도의 던전이라고 판단된 ‘심해의 신전’ 직후 바다에 생긴 던전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둘이 연결된 던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연관성은 있으리라 짐작하면서 진입을 시도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진입을 했다는 말씀이시겠지요.”

“네, 저희가 준비한 것 중에는 세뇌에 대비한 아이템도 있었습니다. 이미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해당 아이템은 A급으로 최대 10명에게까지 정신 계열 스킬을 무효화해 줘요. 물론 그 ‘검은망토’가 A급 이상의 스킬을 썼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잠시 망설이던 헌터가 말을 이었다.

“확실해요, 애초에 아이템은 ‘검은망토’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요?”

“단순히 방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뜻이죠. ‘검은망토’는 저희를 상대로 정신 계열의 스킬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정다운 헌터는 상대를 인간으로 느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것도 스스로 이질감을 느낄 만큼 괴리감이 큰 상대에게 말입니다.”

“심지어 거의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스스로 그것을 부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왜인지 아늑한 침대에 누운 것처럼 안심이 되기도 했고, 그런 제 모습에 놀라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조금 의지가 되면서... 죄송해요, 자세히 묘사하지를 못하겠네요.”

“이해합니다.”

간단한 위로를 건넨 연구원이 질문을 이었다.

“그렇다면 다시 아까 전의 주제로 돌아가죠. ‘검은망토’의 정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 개체의 행동을 묘사해 주십시오. 그와 여러분은 어떻게 처음 마주쳤습니까?”

“…일단 3단계인 ‘심해의 신전’에 진입을 한 이후였어요. 가상 던전의 형태로 사람들을 한번 잡아먹은 곳이라 그런지 확실히 다른 사람들의 흔적도 보이더라고요. 물론 결국에는 인간이라 할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었지만….”

헌터가 아직도 아찔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게 신전을 돌아다니다 보니 인간형 몬스터와 마주쳤습니다.”

“보고서에는 ‘인어 이세르’라고 적혀 있는데, 태양교의 강서담 사제가 보고한 바 있는 ‘은하’와 같은 존재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 물론 저희가 마주친 존재는 아이가 아니라 성인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인간형 몬스터를 마주친 건 처음이라 저희 모두 긴장했었고요.”

“하긴 정말로 오랜만에 공식적으로 목격된 인간형 몬스터이니까요.”

이해해 줘서 고맙다는 듯이 고개를 꾸벅인 헌터가 말을 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인어이며, 이름은 이세르라고 소개했습니다. 강서담 사제가 묘사한 것처럼 진주색 눈에 밝은 청색 머리칼을 가졌어요. 그가 보고한 ‘은하’의 사진을 토대로 추측하기에 확실히 동일한 개체인 듯했습니다.”

지친 얼굴의 헌터가 팔짱을 끼고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던전의 스토리는, 이미 아시겠지만….”

“보고서에는 ‘친애하는 인간을 끔찍하게 잃은 비극으로 태어난 몬스터’라고 서술되었지요.”

“모든 몬스터가 그렇지만 역시 인간에 대한 증오가 매우 크더군요. 하지만 인간으로 의태 하는 기술이 매우 뛰어나 저희도 처음에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사제인가 싶었습니다.”

사제 특유의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접근하던 모습은 분명 인간에 더 가까웠다.

“그렇다고 계속 의태를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잠시 헷갈렸던 거지 상대가 몬스터라는 건 금방 알아챘고, 인어 이세르의 쪽도 연기를 오래 할 생각은 없던 모양이었는지… 전투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사히 도망쳤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찌 된 영문인지 상대 개체가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마 던전에 어떤 문제가 생긴 듯하다고, 당시의 저희 팀은 그렇게 판단을 했죠. 던전의 다른 몬스터들에게 저희를 상대하게 하고 어디론가 가 버렸거든요.”

“하지만 그 원인이….”

“네.”

네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듯이 헌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세르가 도망친 원인이 아마 ‘검은망토’ 때문이었을 거라고… 그 존재를 눈앞에 두자마자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묻는 거지만, 그와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다고요?”

“…저희의 신원을 물었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났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때의 섬뜩함은, 형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헌터는 말을 더했다.

역시나 지오가 ‘난 통성명도 못 하냐’며 억울해할 발언이었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71)"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72)

제72화

물론 통성명이란 대중적이고도 편리한 사교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 뭐라고 해야 하나… 전혀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인간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느낌 아세요?”

“종종 몬스터들이 인간을 꾀어내기 위해 의태를 시도하죠. 아직까지도 토벌되지 못한 몬스터인 장산범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음성을 흉내 냅니다. 해외의 몬스터 중에서도 인간의 껍질을 뒤집어쓰거나, 인간의 언어를 배우는 개체가 있어요.”

연구원의 말에 헌터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어설픈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인간이 아닌 게 뻔히 보이는데도 내심 인간이라고 확신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헌터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알아듣지’라는 얼굴로 난감하게 설명했다.

“분명 ‘검은망토’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에 군더더기가 없었죠. 방금 예시를 들어주신 몬스터의 경우 그 단편은 완벽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완벽한 인간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

“그에 반해 ‘검은망토’에게는 그런 이질감은 없었어요. 위화감은 강했지만, 확실히 완벽한 인간이었죠. 그건….”

“완벽한 인간이라니.”

연구원이 헌터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헌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나치게 완벽했어요.”

그날 보았던 ‘검은망토’의 행동은 확실히 인간이라 하기에 이질감은 없었지만, 위화감은 상당했다.

“마치 태어날 땐 인간이 아니었지만 이후에는 인간이 된 것처럼….”

“구체적인 묘사는 아니군요.”

“헌터의 촉이라고 하잖아요. 쎄하다고 해야 하나? 명백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도 와,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촉이 왔던 것 같아요.”

헌터가 헛웃음을 지었다.

“사실 ‘촉’이라고 하기엔 누가 봐도 인간이 아니겠지만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앞에 던져놓아도 ‘어 저거 인간 아닌데’ 싶을 정도이니, 그걸 촉이라는 애매한 감각으로 정의해선 안 될 것이었다.

그것은 대단히 정중했다. 누군가를 가르치듯 귀에 스며드는 음성은 입이 아닌 뇌를 통해 속삭이는 듯했고, 그 목소리는 ‘소리’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만큼 고요했다. 그는 마치 평화로운 무덤과 같았다.

“그냥, 음, 제가 느끼는 감각이 그 정도로 모순적이고 모호했다는 뜻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렵네요. 아마 ‘검은망토’를 직접 목격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실 텐데.”

“흐음….”

연구원이 의아한 듯 물었다.

“의외로 ‘검은망토’에게 호의적이십니다?”

“…네? 제가요? 제가 그랬어요?”

“자각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방금 하신 말씀도 ‘너도 한번 당해봐라’ 같은 느낌이 아니라 ‘너한테도 소개해 주고 싶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겁니까?”

“…….”

한참이나 망설이던 헌터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마 호의적인 게 맞는 것 같네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질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저 명백한 공포의 대상에게 어떻게 그런 호의를 품었는지가 궁금한 거니까요.”

“아… 너무 어렵다….”

한숨을 내쉰 헌터가 말을 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충분한 대답이 될까 싶지만, 상대가 저희에게 대단히 친절한 탓이었던 것 같아요.”

“몬스터가, 인간에게?”

“보고서에 적어두지 않았나요?”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는 알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고민하던 헌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그녀는 ‘심해의 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 검고, 커다란 망토를 말이다.

* * *

“팀장님.”

인간형 몬스터 ‘이세르’와 그가 대동한 몬스터들에게서 도망쳤을 때였다.

“주변에 다른 몬스터는 없습니다.”

“확실해? 함정은?”

“그런 것도 없어요. 다 같이 확인한 거니까 확실합니다.”

“조금 이상한데….”

팀장인 정다운 헌터는 돌아가는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던전의 주인이 우리의 위치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 주변만 몬스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여기가 세이프 존은 아닐 거 아니야.”

“척 봐도 아니죠….”

세이프 존이란 일부 던전에 존재하는, 말 그대로 ‘안전한 구역’을 말한다. 가끔 던전의 주인이 여러 개체일 경우 상대 개체와 갈등을 빚지 않기 위해 몬스터들이 자리를 피하다가 생긴 구역이었다.

‘예외인 경우로 영역 다툼의 문제가 아닌데도 덩그러니 놓여 있는 세이프 존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도 없고.’

게다가 객관적인 증거도 있었다.

“세이프 존이라기엔 몬스터가 지나다닌 흔적이 너무 많아요.”

“원래도 몬스터가 잔뜩 있던 곳에, 갑자기 몬스터들이 사라졌다?”

좋은 징조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강한 몬스터가 난입한 경우뿐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자면 방금 전 대치했던 ‘이세르’의 반응도 뭔가 이상했다.

“던전에 이상이 생겨서 혼란스러운 눈치였지.”

“네, 던전 전체의 공기가 흔들렸던 걸 떠올려보면 아마 문제가 생긴 게 맞을 겁니다. 이 던전은 주인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 같으니까요.”

“다른 몬스터도 아니고 인간형 몬스터가 동요할 정도라면, 그보다 훨씬 강한 몬스터였어야 아귀가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도 안전하지는 못하겠죠.”

“아, 이거 제대로 망했네.”

정신없이 도망을 치다 보니 이곳이 위험한지도 몰랐던 것 같았다.

“제 발로 호랑이 굴을 쳐들어오다니.”

인간형 몬스터인 ‘이세르’가 동요할 정도로 강한 몬스터가 난입한 곳이, 아마 그들이 있는 공간인 듯했다.

“아무리 못해도 근처겠지.”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래, 어차피 여기로 오지 않았더라면 죽었을 거야.”

오면서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닌데도 그들은 이곳에 와야 했다. 상태가 최악까지 떨어진 그들의 몸으로는 주변의 다른 몬스터들을 해치우고 공략에 성공하지 못했을 테니까.

“…후우….”

정다운이 애써 웃었다.

“뭐, 그래도 말이 통하는 몬스터일 수도 있잖아.”

“그것도 그렇네요.”

그럴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헌터들은 저들끼리 낄낄 웃었다.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한참 전에 깨달았고, 그렇기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놓은 덕분이었다.

“혹시 알아? 싹싹 빌면 살려줄지.”

그렇게 농담을 하며 헌터들은 휴식을 취했다.

“야야, 쉬어. 어차피 여기서 나가면 다시 전쟁이야.”

“그래요… 하긴 이럴 때 안 쉬면 또 언제 쉬겠어요.”

“아으으, 다리야… 누구 포션 없냐?”

덕분에 재정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함은 커졌다.

“…왜 몬스터가 여기로 안 오죠?”

“…얼마나 강한 몬스터가 나왔으면 차려진 밥상까지 마다하냐….”

몬스터들이 가장 많이 습격하는 경우는, 역시 헌터들이 반강제로 재정비를 하고 있을 시점이었다. 거의 한계에 다다른 데다 무장까지 약해진 상태의 헌터는 몬스터들의 좋은 간식이 되어주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안 온다고?”

심지어 대치하던 인간형 몬스터마저 당황하며 자리를 피하지 않았던가. 대체 이 던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을 정도였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두 몬스터의 심기를 동시에 어지럽힐 수 있어.”

“그렇다고 여기에 있기만 하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예요.”

“네 말도 맞지만….”

“…….”

“…아.”

팀원을 달래던 정다운 헌터의 시선이 어딘가에 닿았다.

“팀장님? 왜….”

“…….”

“…….”

헌터들의 시야에, 아주 새까만 무언가가 들어왔다.

“사, 사람?”

“생존자입니까?”

“아니, 저건….”

검은 망토를 뒤집어쓴 남성이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초상화입니다.”

"…어…."

"여러분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 어…."

"이름이 궁금합니다."

그게 검은망토와의 첫 만남이었다.

"저와 대화하시겠습니까?"

* * *

"……."

연구원이 어깨를 으쓱였다.

"말씀하신 것만 들어서는 전혀 호의를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그건 맞죠. 애초에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인간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저나 제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

"하지만 일단 대화가 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조금 안심했던 건지도 몰라요."

인간을 찢어 죽이고 싶은 의지가 색깔처럼 선명하게 느껴지는 '이세르'에 반해, 소리 없이 다가와 대화를 요청하는 '검은망토'는 아주 조금의 적의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존재 자체가 두렵지 않았냐고 하면, 그런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럼에도 안심했다.

"…대단히… 격이 높은 무언가의 호의를 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단히 격이 높은, 이라고 하면 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몬스터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드물긴 하지만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던전에 방문하는 신도 있으니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저도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의지를 가진 운명이나 자연에 가까운 분들이죠. 하지만 저 역시 태양의 신도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절대 그것은 신이 아니었어요. 신성이 느껴지긴 했지만,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그보다 높은 존재일지도 몰랐다.

"저는 그에게서 태양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따듯했어요. 하지만 시체처럼 차가웠죠. 죽음의 기운도 분명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거칠지 않았고, 그 모든 게 단순한 겉껍질…. 아니, 아니, 그런… 그런 것보다는, 그냥…."

"……."

"…'검은망토'에게 직급이나 권위 같은 건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가 신을 더러 의지를 가진 운명과 자연이라고 말하지만, 그에겐 의지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사고하고 움직이지만… 그걸 의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의미죠?"

"그는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살릴 의도도, 해칠 의도도 없고. 청렴하고자 하는 의지도, 욕심내고자 하는 의도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생각하고 있었고 대화할 수 있었다.

"……."

"……."

"…저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탄생과 죽음. 생물과 무생물. 사고하고 행동하는 모습에서 ‘의지’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 자체가 불순하게 느껴질 정도의 거대한 격과 존재감. 차마 인간의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 없으나 지독할 만큼 선명한 그 감각.

“게다가 그, 눈이….”

아, 그건.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

그녀는 한참 뒤에 대답했다.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작은 눈에 얼마나 거대하고 광활한 것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다.

우주라는 식상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 검고 푸르른 그 끝없는 공간 사이로 촘촘히 띄워진 별과 같은 인연이, 자연이, 운명이, 마치 의지를 가진 것처럼 움직이다가도 한낱 무생물처럼 고요해지기도 한다.

그걸 어떻게 사람이 표현할 수 있겠어.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도 안 됐다.

“최소한 저는 못 해요.”

인간이 봐서는 안 될 영역.

“그 자체인 듯했죠.”

“…….”

“그러니까 그걸… 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아마.”

그보다는 구조물에 가까웠다.

“…아니면 시스템? 그것도 아니면… 아니, 잘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결국 그가 호의적이었던 덕분에 여러분은 생환을 했던 거고요.”

“그랬어요. 저희가 무서워하는 줄도 모르는 것 같던데, 그래도 꽤 신사적이었죠. 인간이 아닌 무언가의 입장에서 인간의 감정을 알아채기는 어려웠을 테니까 이해해요.”

“‘검은망토’는 스스로를 초상화라고 소개했는데….”

“그게 가장 잘 어울리는 소개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고, 실제 혹은 망상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의 죽음이나 생명을 담아놓았을 초상화. ‘검은망토’의 소개는 아주 적절했다.

“음, 그리고….”

“그리고?”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들은 그림을 통해 생환했다.

* * *

조금이나마 진정된 헌터들에게 ‘검은망토’가 물었다.

“그럼 나가고 싶으시겠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거야 당연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디에선가 액자 하나를 가져와, 그것을 헌터들에게 들어 보였다.

“…….”

“이곳을 아십니까?”

도시 깊은 곳의 골목을 그린 듯한 풍경화였다. 아마 빈민가로 보였는데, 개미굴처럼 얽혀 있는 복잡한 빈민가의 구조를 잘 아는 헌터는 이 자리에 없었다.

“…….”

“이곳을 아십니까?”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때 대답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것인지, 똑같은 음정으로 두 번씩이나 묻자 차마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다운이 ‘너희는 알아?’라는 시선을 보냈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다.

초조했다.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를 맞혀야만 살아 나갈 수 있을 것이었다.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왜인지 정다운은 눈앞의 존재가 보이는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다. 그의 눈에 들고 싶었다.

“…….”

그리고 그렇기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런 짓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경외와 공포 속에서 정다운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하지만 차갑게 느껴지지도 않는 안정적인 음성이었다. ‘검은망토’는 그 창백하고 기다란 손으로 액자의 위를 쓸어내렸다.

그러자 풍경화가 바뀌었다.

“이곳을 아십니까?”

“아.”

이번의 그림은 확실히 알았다.

“네, 네, 알아요. 그… 수집상 길드 역… 지상철, 네, 지상철역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아….”

정다운은 크게 안심했다.

손이 보이기는 하지만 검은 망토에 온몸이 가려져 그림자뿐인 상대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 그럼… 저희를 보내 주시나요?”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

“예, 저는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마치 장례식을 형상화한 듯한 검은 망토가, 사신을 닮은 그것이 그림을 쓰다듬었다.

“제가 여러분을 그려도 되겠습니까?”

‘검은망토’는 헌터들을 물감으로 녹여내어, 또 풍경화 안에 그려 넣었고.

“…….”

“…어….”

“…말도 안 돼….”

눈을 뜨자, 그들은 지상철역에 있었다.

난데없는 생환이었다.

* * *

“…….”

“…….”

“이 정도면 답변이 됐나요?”

“…예, 일단은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협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세상에 ‘검은망토’가 등록된 순간이었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72)"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73)

제73화

“기적이었군요.”

마치 기계 같은 여인의 음성에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기적입니다.”

“정다운 팀장이 목격한 존재가 몬스터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원사들에게 의견을 더 물어봐야겠지만, 아니요. 몬스터는 아닐 겁니다.”

연구원이 어깨를 으쓱였다.

“몬스터라고 함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향한 증오가 있어야죠.”

괜히 그들을 몬스터라고, 괴물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인간들은 밑도 끝도 없이 인간을 증오하는 다른 차원의 존재에게 공포와 경멸을 담아 몬스터라고 불렀다.

“이번 사례는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생환한 헌터들을 검사해 보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이상을 찾을 수 없었죠. 만약 ‘검은망토’가 몬스터였더라면 애초에 살려서 내보내지 않았을뿐더러 세뇌라도 해서 꺼내왔을 겁니다.”

“하지만 공표 자체는 몬스터라고 해두는 것이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검은망토’가 신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인간 사회에 관심이 많은 모습을 보였어요. 악신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가 진짜 신이든, 그 정체가 뭐든, 직접적으로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칠 힘이 있음을 보인 이상 헌터들에게는 몬스터라고 설명하는 편이 현명할 겁니다.”

“그래야 경계심을 가지게 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신과 몬스터, 현대로 와서는 꽤 친숙한 존재가 되었다지만 인식 차이는 크다.

신의 경우 한 번 그 형체라도 보면 영광으로 삼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겠지만, 몬스터에게는 거리를 두려고 기를 쓰며 경계심을 갖출 것이었다.

“역효과가 난다면 ‘인간에게 호의적인 인간형 몬스터’라는 존재 자체가 시민들의 낭만적인 감성을 건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되려면… 그런 호의적인 사례와 노출도가 상당히 높아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확률은 낮아요.”

보아하니 근원과 꽤 긴밀한 신비인 듯한데, 근원과 가까운 존재일수록 인간에 대해 무지하고 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 작은 행성에 쉽게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말이다.

“물론 ‘검은망토’가 실제 호의적인 사례를 다수 만들어내고, 그래서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의 호의를 시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겁니다. '검은망토'가 사람들에게 친근한 이미지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검은망토'가 자신의 격을 잘 갈무리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몬스터로 공표하겠다는 이야기는 유효합니다. 근원의 존재는 자연재해에 가까운 만큼 최소한의 경계심은 심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것으로 따지면 신이든 몬스터든 다를 바가 없지만, 이래서 이미지가 중요한가 봅니다. 사람들에게는 신이 아니라 몬스터라고 말해두어야 '검은망토'가 앞으로 인간에게 적의를 드러낸다 해도 생존율이 높아지겠죠."

연구원이 턱을 살살 쓸며 말을 이었다.

"다만 목격한 사람에 한해서는 해당 개체가 몬스터라고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당장 정다운 헌터만 해도 말은 몬스터라고 하지, 반응 자체는 거의 신의 손길을 받고 온 사람이었어요."

"추앙의 기미가 보였습니까?"

"아직 그 정도라고는 못 하겠지만, '검은망토'에 대한 대책을 아예 세우지 않는다면 정말 종교 하나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미신이 쉽게 유행을 타기도 하니까요."

"'검은망토'는 몬스터라는 인식을 확실히 박아두는 것이 좋겠군요. 이 부분은 정보 처리 팀과 협업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둘 테니 편하게 고지하십시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일은 굉장한 기적이었으니 정다운 팀장의 반응도 이해가 갑니다."

"…그건… 확실히 그렇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연구원이 이내 긍정했다.

"'검은망토'의 정체가 몬스터이든, 신이든, 근원의 존재이든 간에 다수의 인간을 대가도 없이 살려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죠. 어느 쪽이든 인간에게 호의적인 녀석들은 없으니까요."

몬스터는 인간을 증오했다. 신은 인간을 장난감으로 취급했고, 근원의 존재는 인간에게 무관심했다.

대화가 통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도움까지 받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역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인간에게 호의적인 몬스터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조련사라는 직업의 존재가 그런 환상을 부추기고 있고요."

"정규 교육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차차 공교육을 넓혀가며 진행할 일이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헌터의 직업 중 조련사는 몬스터와 계약을 맺어 그들의 힘을 빌릴 수 있었다. 그 탓에 몬스터를 자신만의 펫으로 길들일 수 있을 거라는 얼토당토않은 꿈을 꾸는 멍청이들이 있었다.

'역시 시간이 약인가.'

고작 31년이 지났을 따름이다. 가능한 한 많은 피를 흘려 가능한 한 빠르게 성장한 대한민국이지만, 시민 의식까지 거기에 맞춰 성장하지는 못했다.

대재앙 이후 한 세대가 지고 태어날 만큼의 시간은 되는 탓에 몬스터의 끔찍함과 잔혹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에 반해 공교육은 쉽게 확립되지 않아 몬스터의 위험성을 알려주기도 힘들었다.

"오히려 지방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더 철저하던데요."

“지방의 주민들은 도시와 같은 보호벽이 없어 경계해야 할 겁니다. 언제 몬스터가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학살할지도 모르고, 어느 산을 올랐다가 어떤 던전에 빠지게 될지 모르니 말입니다.”

“몸으로 겪는 공부만큼 확실한 게 없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도시의 시민들을 죄다 던전에 집어넣어 몬스터를 경험시킬 수는 없으니, 이래저래 협회의 직원으로서는 골치가 아팠다. 어딜 가든 주제 파악 안 되는 멍청한 놈들은 많은 탓이다.

“아무튼 이 부분도 고려해서, 사람들이 ‘검은망토’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 분위기를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검은망토’가 진실로 인간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존재라고 한다면, 되지도 않는 망상을 해버리는 놈들이 생길 테니까요.”

잘해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데, 조용히 지내고 있는 애꿎은 몬스터 심기 건드려 광범위하게 피를 보게 된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다.

‘몬스터가 호의를 베풀면 그걸로 멍청한 선민사상을 가지게 되는 또라이들은 어디든 있겠지. 자기가 특별해서 이런 호의를 받게 됐다거나 하는 식으로… 꼭 이런 놈들이 사고를 쳐서 자연재해를 일으킨단 말이야.’

몬스터라고 전부 인간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다. 인간을 증오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더 숨어 사는 몬스터도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그런 몬스터를 만만하게 보고 건드린 헌터 때문에 해외의 나라 절반 가까이가 갈린 게 고작해야 반년 전의 일이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약하다는 의미가 아닌데도, 참 머저리 같은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정보를 올려야겠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영원의 상징에게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협회장님.”

“…….”

협회장이 빙긋 웃었다.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기계 같은 미소였다.

* * *

식별 번호

0S-328-D

대응 등급

S(-)

개체 유형

인간형

개체명

검은망토(-)

권능

화가(-)

한국 헌터 협회의 제183 수색 3팀을 최초 발견자로 한 인간형 개체.

검은색의 두꺼운 망토(Cloak)로 온몸을 가리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다. 안면은 확인 불가. 망토 내부는 검은 셔츠와 정장을 착용했다. 신장은 약 185~9cm, 나이는 20대 중후반~30대 초반으로 추측된다.

외향의 특징으로 임시명 ‘검은망토’를 부여했으나 차후 추가 정보를 습득 후 개체명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이 사항으로 보행 시 가벼운 소음이 났다고 최초 발견자 정다운이 증언(마른 식물이 부딪히는 소리)했다. 후각이 강화된 팀원 강언서의 경우 숲의 향기가 났다고 증언한바, 실체가 식물형인 의태 몬스터로도 의심할 수 있다. 해당 개체의 유형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최초 목격 상황

최초 발견자이자 헌터 협회의 수색 팀장 정다운과 그의 팀을 도왔다. 대화 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않으면 개체는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지 않고 같은 질문을 완벽히 동일하게 반복한다. 지능이 인간 이상으로 매우 높게 평가된다.

파악된바 ‘검은망토’의 권능은 ‘화가’로, 허공에서 액자를 생성하거나 인간을 물감으로 만들어 해당 물질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 최초 발견 팀의 경우 일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호의를 베풀어 최초 발견 팀을 ‘심해의 나라’ 외부로 구출해 주었지만, 해당 팀을 물감으로 만들어 버리는 등 인간의 정신적 한계에 대해 무지한 모습을 보였다. 차후 추가 정보를 습득 후 대응 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 발견자인 정다운의 증언을 토대로, ‘검은망토’는 인간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음이 확인됐다. 다만 ‘검은망토’의 규칙은 ‘순종적이게 대응할 것’으로 파악되므로, 해당 개체의 감정이 부정적으로 변할 시 적의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대응 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추가로 망토 내부 복장과 음성, 행동을 근거로 해당 차원의 고위 계급이었을 가능성을 검토 중. 다양한 방면의 정보가 부족하므로 ‘심해의 나라’에 대한 연속 공략이 승인되었으며, 관련한 요청 사항을 접수합니다.

전체 댓글(1,352)

– 공격 유형 확인 필요

–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응 등급 재확인 요망

– 대응 등급 재확인해 주세요

– 서식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교류 시 녹음이 필요합….

– 정확한 반응을….

…….

….

…….

* * *

“아이고.”

공중에 뜬 모니터를 확인하던 유성운이 목을 쓸었다.

“이거 떴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지오의 초상화’ 바로 옆의 벽에 기대선 유성운이 화면을 보며 말을 이었다.

“네 정보가 헌협 홈페이지에 올라왔어.”

“헌협이라면 헌터 협회겠지요.”

“그래, 그쪽에서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 여기저기서 자주 튀어나와 대처법이 필요하거나 그 하나의 개체만으로도 위협이 되는 몬스터를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지.”

그렇게 말한 유성운이 어색하게 웃으며 초상화를 돌아보았다.

“그렇다고 네가 몬스터라는 건 아니고.”

최근 함께 다니면서 경계심을 늦추긴 했지만, 그렇다고 근원의 존재인 지오의 위험성이 낮아지는 건 결코 아니었다.

특히 인간의 형상으로 이따금 자연이 되는 그 모습을 유성운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자기가 인간인 줄 아는 녀석이 몬스터라는 소리를 들어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

유성운이 말을 보탰다.

“하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 평범한 사람은 너처럼 초상화 안쪽에서 살지 않잖아? 그런 게 가능하다면 적어도 인간은 아닐 거라는, 뭐, 그런 느낌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검은망토’의 내용을 쭉 훑던 유성운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안면은 인식이 불가하다고 서술한 걸로 보아, 확실히 얼굴이 팔리지는 않았네.”

“다행입니다.”

“…….”

잠시 고민하던 유성운이 물었다.

“지오, 혹시 초상화의 얼굴을 바꿀 수도 있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네가 그려진 초상화는 네 얼굴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 내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아무래도 네가 사람들에게 위협당하지 않고 잘 어우러져 살려면 ‘검은망토’와 ‘서지오’의 신분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거든.”

근원의 존재는 ‘이야기’에 따라 그 위험도가 유동적으로 바뀐다. 해서 유성운은 ‘지오의 초상화’가 인간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였지만, 지오는 누가 봐도 인간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잦았다.

‘정말 인간을 흉내 낼 생각은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이야.’

그 탓에 유성운은 사람들이 인간으로 보는 ‘서지오’와 정체불명의 괴담으로 보는 ‘검은망토’를 구분해야만 했다. ‘지오의 초상화’는 인간처럼 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분리였다.

이렇게나마 분리하면 ‘지오의 초상화’ 중 일부만큼은 그 위험도를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지오의 초상화’의 생김새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야 했다.

“‘지오의 초상화’는 네 얼굴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바깥에서 금발 청안의 지오반니로 돌아다닌다고 해도… 결국 검은망토와 서지오가 동일한 존재라는 걸 다들 알아차리게 될 거야.”

머리카락이나 눈의 색이, 그 성격이 바뀐다고 해도 얼굴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었다. 창백한 얼굴의 ‘지오’는 어떤 지오이든 간 똑같은 외형을 지녔다.

펑퍼짐한 망토에 가려진 만큼 정확한 신체 구조는 조금 달라졌어도 눈치를 못 챈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얼굴은 말이다.

“그리고 너는 초상화를 통해 이동하기도 하잖아? 아무래도 공공연한 장소에 네 초상화가 걸려 있고, 그 근처에서 검은망토가 목격되고, 또 그 얼굴이 수집상 길드의 헌터 ‘서지오’와 같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많이 곤란해질걸.”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하는 건지, 잠시 말이 없던 초상화가 이내 변화를 보였다.

그는 손을 들어 뻗더니….

철벅—.

“…….”

“…어….”

“이 정도면 얼굴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초상화에 그려진 지오의 얼굴이, 먹물만큼이나 새까만 물감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얼굴이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속상한 기분이 들었다.

“…네 얼굴을 그려둔 초상화인데 이래도 되는 거야?”

“유성운 씨는 제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냥 망토 정도나 뒤집어쓸 수 있으려나 싶었지.”

세상에 다시없을 명화에 누군가 페인트를 칠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가 이 정도라면 비사벌 길드장은 완전히 미쳐 날뛰겠는데….’

작품과 예술 관련해서는 가끔 눈이 돌아가는 사람이라 조금 섬뜩하기도 했다.

“…….”

유성운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검은 물감이 칠해진 초상화를 들여다보았다. 커다란 손으로 획을 그어 물감이 칠해졌지만, 지오의 흑발과 하관까지는 잘 보였다.

그마저도 물감이 주륵 흘러서 조금씩 가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앞은 보이는 거야?”

“제 쪽에서는 잘 보입니다.”

“다른 곳에 초상화가 생겨도 계속 이 상태일 거고?”

“제가 닦아내지 않는 한 이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그럼 확실히 얼굴이 드러날 가능성은 없어졌네.”

“이곳의 직원분들은 제 얼굴을 압니다.”

“아, 그건 괜찮아.”

수집상 길드의 직원들은 유독 입이 무거웠다. ‘검은망토’의 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없었다.

‘그만큼 지오의 이야기는 이 수집상 내부에 갇혀 더욱 몸집을 불리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수집상 사옥 내에서나 우리 직원들 앞에서는 서지오의 이야기조차 축소되지 않게 될 확률이 높겠지.’

이미 ‘검은망토’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머무는 수집상의 건물에서는, 이 초상화가 ‘서지오’의 형태로 다닌다고 한

들 그 위화감이 가려지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사람들은 절대 바깥으로 정보 유출 안 해.”

“근거가 있습니까?”

“자기가 큰일에 휘말리는 걸 정말이지 질색하는 사람들만 모아둬서….”

“스스로의 신상을 위해서라도 퍼트리지 않겠군요.”

“게다가 그걸 말하면 비사벌 길드장이 모를까? 그 사람이 입 함부로 놀렸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면 어딘가의 실험실로 끌려갈 수도 있는데, 입을 여는 사람은 없겠지.”

수집상 길드의 특성 중 하나인데, 비사벌이 하나하나 직업 스카우트를 해온 탓인지 직원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끈끈했다. 하나같이 은둔형 회피자라 이 말이다.

“여기서 정보가 퍼질 확률은 절대 없어.”

유성운이 씁쓸하게 웃었다.

“당장 나만 해도 엮이지 않았더라면 이 악물고 모르는 척했을 텐데, 유출은 무슨….”

“그렇군요.”

“바깥에서 보상을 약속하며 유출을 요구한다고 해도 길드 차원에서 이미 잘 챙겨주고 있어서,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득을 꾀할 사람은 이 길드에 없어. 비슷한 맥락에서 협박도 안 통할 거야.”

수집상 길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건물부터 시작해 직원 한 명까지 모두 비사벌의 수집품이라는 점이었다.

비사벌이 유독 직원 복지를 잘 챙겨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그의 ‘수집품’을 건드릴 멍청이는 없었다.

무슨 짓을 당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다들 진짜 이 악물고 모르는 척할 거야. 아주 발악들을 하시겠지.”

자기 할 일 끝내고 당장 집에 돌아가서 쉬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책임감도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지만, 그 이상으로 귀찮아지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안심해도 좋았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까?”

“…별건 아닌데 말이야.”

“예, 말씀하십시오.”

“너 더 무서워졌네.”

“…….”

“물감 때문에….”

한참 뒤에야 지오가 반응했다.

“아.”

드물게 안타까워 보였다.

던전을 그리는 화가

오

Chapter (73)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73)"

4.7 13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74)

제74화

그렇다고 지오가 물감을 다시 닦아내는 일은 없었다.

"물감이 없었어도 이미 다들 무서워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그렇겠지."

"무엇보다 제 얼굴을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상이 털리는 건 무서운 일이었다. 겁 많고 대항할 능력도 없는 서지오는 얼굴이 팔리고 싶지 않았다.

'이미 귀신 들린 초상화라는 점에서부터 문제가 많아.'

인생 참 떳떳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서지오였지만, 귀신 들린 초상화가 되어버린 이상 만전을 기해야 했다.

얼굴 가린 채로 팔리는 것과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어 팔리는 것은 전혀 달랐다.

"이야, 우리랑 마음이 통했네."

그런고로 유성운도 마음이 편해졌다.

'인간들의 사정까지 생각해야 하냐며 짜증 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지오는 순하단 말이지. 아무리 자기를 인간의 규격에 욱여넣은 탓에 나오는 배려라고 해도 예외적이기는 해.'

정말 기적 같은 신비라고나 할까. 정원사 된 입장에서 유성운은 참기 힘든 감사와 애정을 느꼈다. 이렇게 돌봐주는 보람이 있는 근원의 존재라니, 세상 모든 정원사들이 그를 부러워할 것이었다.

'뭐, 어쨌든....'

본인의 동의까지 얻었으니 길드 측에서 손을 쓸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예전에 네가 있었던 경매장에는 네 얼굴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겠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나 길드장님이 해결해 줄 거야."

"예,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그 자리에 있었던 손님들의 기억까지 어쩔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말씀을."

그렇게 갤러리를 벗어나고.

경매장에 올라왔던 ‘지오의 초상화’에 대한 정보를 지우기 위해 작업에 들어간 유성운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고는 눈을 껌벅였다.

“......?”

모니터를 살피던 유성운이 길드장의 집무실로 올라갔다.

“길드장님.”

“아, 마침 부르려고 했는데.”

“...길드장님께서도 확인 중이셨습니까?”

“유성운 씨도 ‘지오의 초상화’에 대한 기록을 지우던 중이었을까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길드장님께서도 손을 쓰고 계셨을 줄은 몰랐지만, 아무튼 확인하고 계셨다니 말은 잘 통하겠네요.”

유성운이 급하게 정리하느라 얇은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지오의 얼굴이 지워졌습니다.”

경매장에 남아 있는 기록이, 바뀌었다.

검은 물감이 칠해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초상화로 말이다.

“단순히 온라인상의 정보만 변질된 건지 알 수 없어 직접 발로 뛰어도 봤습니다만, 그런 기록만 바뀐 게 아닙니다. 종이로 문서화된 기록부터 그날 참가했던 고객들의 기억까지도 불분명한 상태예요.”

“.......”

비사벌이 드물게 무표정한 얼굴을 했다. 그는 파충류를 닮은 선명한 금안을 도록 굴렸다.

“지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혹시 초상화상에서도 얼굴을 가릴 수 있겠냐고 물었는데, 잠깐 고민하고는 검은 물감으로 그 화면을 아예 덮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닦아내지 않는 한 초상화는 계속 이런 상태일 거라고도 말했죠.”

“이것도 초상화의 특성 중 하나일 수도 있겠군요.”

“초상화의 특성이라고 하시면...?”

“애초에 초상화는 사람을 그린 그림이잖습니까.”

유성운이 가져온 서류에는 ‘지오의 초상화’를 프린팅한 이미지도 있었다. 역시나 먹물처럼 얇은 질감의 물감으로 덮어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물감으로 그린 초상화 원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초상화를 찍은 사진은 초상화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걸 인쇄한 종이는요?”

“...직접 그린 게 아니니,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맞다고도 할 수 있죠. 결국에는 ‘사람’을 그린 ‘그림’이니까.”

그림이란 즉 ‘선이나 색채를 써서 사물의 형상이나 이미지를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을 말한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된 이미지든, 초상화를 찍었던 사진이든 뭐든, 결국에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아주 넓은 범위에서 생각하자면 그 말이 틀리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지오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비사벌이 눈을 가늘게 접으며 새쭉 웃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온 세상에 이토록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니, 정말 굉장한 초상화군요.”

“…….”

“…아, 역시….”

미소를 지워낸 비사벌이 낮게 읊조렸다.

“이래서 예술이 좋단 말이지.”

대재앙이 오고, 세상이 변하고, 말도 안 되는 능력이 생겨나며 ‘예술’의 범위도 확장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흥미롭고 다채로운 분야가 있다면 바로 예술일 것이라 비사벌은 감히 확신했다.

“얼굴이 가려진 건 확실히 아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얼굴이라도 보러 가야겠는데, 그래도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이것도 지오의 행위 예술 중 하나라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벅차올라요.”

“그렇게 진지한 얼굴로 좀 변태 같은 말을 하고 계신데….”

“진지하니까 진지한 얼굴을 하겠죠? 세상에, 초상화가 직접 해내는 행위 예술은 다른 아티팩트에도 기대하기 힘든 것인데. 이런 건 작품의 조각이라 보기도 힘들고.”

“애초에 자아를 가진 물건 자체가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새해는 예감이 좋아요.”

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텐데.

“뭔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라….”

아주 재밌는 일들이, 생겨날 것 같았다.

* * *

“…….”

“결과는 어떻습니까?”

“글쎄….”

파도처럼 구불거리는 머리카락이 스르륵 흘러내렸다.

“검사가 잘 안되네.”

인어, 아리아가 품이 큰 의사 가운을 고쳐 입으며 말했다.

“서지오라는 인간이 남겨둔 머리카락을 샘플로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고 있지만, 결과가 일정하지 않아. 계속해서 변화하고 움직이는 탓에 검사 자체가 힘들뿐더러… 고정이 되지도 않고.”

그에 이세르가 말했다.

“확실히 인간은 아니겠군요.”

“그래, 인간은 아니지.”

“…….”

“그렇다고 인간이 아닌 것도 아니야.”

명백한 인간의 세포를 띨 때도 있었다. 말 그대로 그것은 뭐든지 될 수 있었다.

“재밌네.”

흥미를 표하는 말과 달리, 아리아의 얼굴은 하나의 광물처럼 무기질적이기만 했다. 늘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데도 말이다.

“하필 그중에 지오반니의 흔적도 남아 있어.”

“…그렇다면 정말로 그가 선생님이라는 겁니까?”

“최소한 아주 큰 연관이 있겠지.”

단순히 세포와 같은 물질적인 검사만 해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여러 차원을 거쳐오며 이곳의 주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톡톡히 했다.

아리아의 의사이자 연구원으로서의 능력은 한계를 돌파한 지 오래였다.

‘그런데도 이렇게나 결과가 불분명한 것은 처음인데.’

아리아가 제 동생에게 말했다.

“이세르, 내 동생. 너의 도움이 필요해.”

“말씀하십시오.”

“그자를 다시 이곳에 불러들여 줘. 선생님과 대화를 해봐야겠어.”

“…….”

침묵하는 동생, 이세르의 모습에 아리아가 작게 웃었다.

“물론 나도 이게 얼마나 힘든 부탁인지 알아.”

지오반니일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망토’가 그들의 차원에 방문에 인간들을 빼돌린 것이 고작 며칠 전의 이야기였다.

무척이나 조용해서 기척을 잡기도 힘들고, 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유령 같은 그를 잡아두기란 힘든 일이 될 것이었다.

“그동안 이쪽에서 피하기도 했지. 확신도 없이 지오반니와 대화할 수는 없었거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당장 마주치기에는 불확실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다. 그것은 그들의 생의 유일한 인간 선생님이 맞았다. 지오반니가 맞다. 다만 어떤 이유에선지 아주 많이 변했고, 거대해졌으며, 함부로 훔치지도 못할 만큼 강해졌을 뿐이다.

섣불리 붙잡을 수 없었다.

“심지어 상대는 이곳의 기억도 많이 없어 보인다지? 이 신전을 떠올리지 못했다고 했잖아.”

“일부는 떠올린 것 같지만, 아마도….”

“그렇다면 정에 호소하기도 힘들겠네. 하긴, 원래도 냉정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지.”

아리아가 중얼거렸다.

“이제는 인간도 아닐 것이고.”

“…….”

“그 점은 확실히… 기분이 조금, 이상하다고 해야 하나….”

인간의 감정과 그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그에 관한 지식을 배우던 것이 바로 아리아와 이세르였다. 이제는 지오반니가, 친애하는 선생이 그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기이한 감상이 들었다.

그건 박탈감에 가까웠다. 인어의 생에 가장 친애하던 추억이, 죽음 속에서 되살아나 저희가 모르는 형태로 흐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

“그래도 부탁해.”

두 남매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수백, 수천, 혹은 그 이상이었을지 모를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웃지 않은 적이 없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불러와.”

“…….”

“그리고 잡아둬.”

“…예.”

“잘 해내리라 믿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은 망토를 뒤집어쓴 헌터, ‘서지오’는 유독 아이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이세르는 자신에게 친근하게 말을 붙여오던 한 아이를 떠올렸다.

차이솔이라고 했던가.

* * *

새로운 진입 던전, ‘심해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개방되었다.

“심해의 나라? 이름에 나라가 붙었네?”

“헌협에서 공식화를 한 명칭인데도 나라가 붙었다면….”

“시발, 더럽게 크겠구만.”

원래도 던전 중에 가장 노가다라고 불리는 것이 진입 던전이고, 헌터 협회에서 ‘나라’처럼 명확한 단어를 썼다면 진입 던전 중에서도 그 맵이 상당히 넓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이거 난이도가, 이야… 아주….”

“지난번 태양신전에서 터졌다던 가상 던전이랑 연계되었다고? 미쳤네?”

“헌협 직원들도 제대로 탐색을 못 했다는 것 같아.”

“용케 죽어서 실종되지는 않았구만. 최초 공식 진입 팀인데 말이야.”

당연히 난이도야 S급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무도 안 죽었다고 하고. 별로 위험하지 않은 거려나?”

“야, 고작 정보 하나 물어오는 거잖아. 안 그래?”

이번 ‘심해의 나라’가 개방된 목적은 공략이 아니라 탐색에 있었다.

“주요 명단 있어?”

“어, 두 마리인데. 이름까지 붙었네.”

“와… 이거 인간형 몬스터야?”

“거의 몇 년만 아닌가? S급이라고 붙일 만하구나.”

“그래서 몬스터는 뭐 뭐 있는데.”

“어디 보자….”

헌터 협회에서 요구한 주요 명단은 총 두 명이었다.

"인어 이세르, 그리고…."

"'검은망토?'"

프리랜서 헌터가 고개를 기울였다.

"이름 없이 별칭만 붙은 걸 보면 이쪽을 더 신경 써달라는 어필인 건가?"

헌터 협회에서는 협회 내에서 빠르게 마무리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파악된 던전의 입구를 개방한다. 그 경우 '탐색 시즌'이라고 하여 해당 던전에 대한 정보에 현상금을 건다.

"간만에 몸 좀 풀겠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S급인데 나서기는 좀…."

"그래봤자 탐색 시즌이잖아. 공략을 하라면 S급이 나서야겠지만, 정보 물어오는 것 정도야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긴 협회에서 거는 현상금은 벌이가 쏠쏠하지."

"꼭 이 몬스터들에 대한 정보가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

"막 개방된 던전이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협회에서 현상금을 건 정보가 아니더라도, 신규 개방된 던전의 경우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기도 했다.

위험한 몬스터에게 잘못 걸리면 목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겠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었다.

"게다가, 이 던전은 아직 누가 사들이지는 않은 거지?"

"솔직히 누가 S급을 사… 3대 길드 아니고서야."

"게다가 아직 공략 정보도 하나 없는 던전인데 여러모로 위험 부담이 커."

"안에 어떤 자원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누가 산 게 아닌 던전은 들어갈 때 돈도 안 들고."

일부 유용한 자원이 존재하는 던전이나, 소속 헌터의 자기 계발을 위해서라고 판단된다면, 돈깨나 있는 길드의 경우 던전의 소유권을 구매하기도 했다.

그런 던전은 한 번 진입할 때마다 비용을 내야 했다.

"그런 거랑 비교하자면 이번 던전 정도는 뭐…."

"시발, 방심하지 말고. S급이 뉘 집 개 이름인 줄 알아?"

"나라고 그걸 모르겠어? 걱정 마, 새끼야."

모든 헌터가 길드에 가입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처럼 헌터 협회에서 현상금을 내건 던전은 프리랜서 헌터들의 주요한 수입이 되어주기도 했다.

"와, 벌써 대기표 생겼네…."

"쌩으로는 못 가나?"

"심해에 입구가 있다는데 뭐 어떻게 갈 거야."

"헤엄치는 건 좀 무리겠지."

"됐어, 기다리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헌터가 인간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심해'라고 불릴 만큼 깊은 곳에 위치한 입구를 맨몸으로 찾아가긴 힘들었다. 협회에서 준비한 잠수정을 타고 이동해야 하기에 줄은 금방 길게 늘어섰다.

그리고 얼마 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 너 ‘심해의 나라’ 가보려고?”

“아직 탐색 시즌이잖아. 현상금도 안 내려갔던데, 가서 돈 좀 벌어오게.”

“거기 위험하다는데… 그럼 너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진짜로. 그래야 생환할 수 있다고 하더라.”

헌터들은 속삭였다.

“죽고 싶지 않으면 초상화 앞에 가서 싹싹 빌어.”

“뭐…? 초상화?”

“검은망토는 착하고 예의 바른 인간을 좋아한대.”

『검은망토는 착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

“알겠지? 꼭 기억해.”

헌터들 사이로 ‘검은망토’의 이름이 퍼지는 순간이었고.

“…….”

“…….”

“아, 조졌네.”

그를 몬스터로 공표해 ‘검은망토’라는 존재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주려고 했던 협회는 골머리를 앓았다.

세간에 퍼진 ‘검은망토’의 이미지가 제법 호의적인 탓이다.

“낭만주의자들 또 나오겠다.”

“아, 벌써 피곤해….”

벌써부터 인간에게 호의적이라는 몬스터 하나만 믿고 나대다 온갖 창의적인 피해를 일으킬 헌터들이 떠오른 협회 직원들이었다.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75)

제75화

길을 헤매고 있었다.

“시발, 여기가 대체 어디야….”

괜히 ‘나라’라는 단어가 붙은 게 아닌지, 진입 던전치고도 ‘심해의 나라’는 더럽게 넓었다.

그렇다고 몬스터가 약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1단계와 2단계 정도는 어떻게든 거쳐와 볼 만했지만, 신전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3단계 진입부터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맵, 맵은… 맵은….”

안타깝게도 이곳은 기본적인 구조조차 파악되지 않은 신규 던전이었고.

“…….”

지금 길을 헤매고 있는 헌터의 동료들은 모두 죽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해, 죽는 수밖에 더 있나.

헌터는 속으로 자조하며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시리게 일렁이는 동공 천장의 물비늘이 마치 괴물의 그림자처럼 느껴져 그렇게 섬뜩할 수가 없었다.

“…괜히 오자고 했네.”

혼자 남으니 별생각이 다 들었다.

사실 이곳에 오자고 강하게 요구했던 것은 그가 아니라 팀장이었지만, 동료들이 다 죽고 혼자 남은 상황에 자책이 안 들 수가 없었다. 남자는 애써 울음을 삼키며 발을 옮겼다.

“시발, 이게 신전이야 동굴이야… 길도 복잡하고….”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 번도 같은 길을 찾은 적이 없었다.

이동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출구는커녕 더 깊은 곳으로 향하는 느낌이었다. 그렇다고 발을 멈추고 어딘가에 숨자니 사방에 위험한 몬스터며 함정이 깔려 있었다.

“씨이….”

괜히 씩씩거리며 눈물을 참아냈다.

‘나라도 살아 나가야 수습 신청을 해줄 수가 있는데.’

길드 소속의 헌터가 던전에서 죽으면 대부분 해당 길드에서 유해 수습에 나서지만, 프리랜서 헌터나 민간인은 그렇지 못했다.

만약 프리랜서 헌터가 동료의 유해를 수습하길 원한다면 직접 신원을 증명한 뒤 헌터 협회에 신청을 해야만 했다.

‘나는, 나는 수습할 능력도 없고….’

그나마 지금까지 살아 있는 건 남자의 스킬 중 은신이 있는 덕분이었다.

“일단 살아 나가야, 그래, 돈도 받지… 뭐든….”

애써 탈출 후의 이득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을 때였다.

“…….”

남자의 눈에, 초상화 하나가 들어왔다.

“……?”

검은 물감으로 더럽혀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초상화였다.

섬뜩했다.

“…이, 이게 뭐지?”

어지간한 물건이었다면 던전의 장식품 중 하나이리라 짐작을 했을 텐데, 지금까지 같은 그림만 반복되는 듯했던 신전의 배경에 이런 초상화는 너무 뜬금없었다.

눈가가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왜인지 시선이 느껴지는 초상화.

“…….”

그대로 지나쳤다.

‘위험한 아이템일 수도 있잖아. 초상화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몬스터라든가….’

애초에 생김새 자체도 소름 끼치도록 무거운 분위기의 초상화였다. 신전이나 동공의 새하얀 석질과 달리 그것은 나무 액자로 되어 있었다.

금박이 입혀진 듯했으나 어딘가 따듯한 온기가 느껴져 던전과 상반된 분위를 풍겼고, 오히려 그 온기 탓에 더더욱 접근하고 싶지 않아졌다. 위화감이 너무 컸다.

“…….”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다시 그 액자가 있었다.

“…여기, 여기 없었는데….”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까는 복도에 있었잖아.”

아직도 시선이 느껴졌다.

마치 초상화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었다.

손발이 덜덜 떨리고, 숨이 덜컥 차올랐지만, 그럼에도 한계까지 내몰린 헌터의 머릿속에 한 줄기 희망이 떠올랐다. 스스로도 이상한 흐름이라는 걸 알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누가 봐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없는 현상이었지만, 그는 억지스럽게 생각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것 같았다.

'혹시… 뭔가, 탈출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아이템인가?'

스토리가 중요한 던전은 이런 아이템 하나가 힘을 발휘해 공략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래봤자 살아 나갈 확률은 높아지지 않겠지만, 사고 능력이 낮아진 헌터는 초상화 앞으로 다가갔다.

"감정 스킬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안녕하십니까."

"……."

주춤.

헌터가 뒤로 물러섰다.

"…어, 어어…?"

"저는 초상화입니다."

"어…?"

"당신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

"이름이 궁금합니다."

검은 물감으로 뒤덮이지 않은 하관의 입술이 재차 물었다.

"저와 대화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뭐지?

'초상화가 말을 해? 초상화가?'

초능력이 일상에 물든 세상이라고 해도, 말을 하는 초상화는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최소한 지금 '심해의 나라'에 갇힌 헌터는 이런 초상화를 난생처음 봤다.

"누, 누구…."

"저는 초상화입니다."

같은 음성에 같은 대사.

"……."

소름이 돋았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지독하게 들리는 음성은 무척이나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악마가 말을 건다면 이렇게 들릴까 싶을 정도였는데, 헌터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박윤신… 인데요…."

진명을 말하는 것의 위험성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걸 따지기엔 너무 정신이 없었다. 눈앞의 존재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들었다.

공포와 자비를 느꼈다.

"네, 그, 박윤신입니다. 박윤신…."

"반갑습니다, 박윤신 씨."

“…당신은… 초상화, 라고요?”

“그렇습니다.”

창백한 하관이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초상화입니다.”

“…….”

헌터는 그제야 주변에 그 어떤 몬스터도 다가오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다.

단지 그림일 뿐인 초상화는 기괴하다고 생각될 만큼 무거운 분위기를 흩뿌리고 있었다. 그건 신전의 분위기와도 질적으로 달랐다. 마치 교황의 장례식에 초대된 느낌. 그런 기이한 감각이 들었다.

“…….”

그렇게 멍해질 때 즈음이었다.

“실례하겠습니다.”

“네, 네?”

검은 물감 부분이 무언가를 감싸듯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헌터가 기겁하여 뒤로 물러서자, 초상화 바로 앞에 새까만 망토를 둘러쓴 인간의 형상이 나타났다. 초상화가 벽 중간에 걸려 있어 형상이 떨어지듯 내려왔는데도 바닥에 발 디디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아….”

그저 바스락, 하고.

“…….”

“처음 뵙겠습니다, 박윤신 씨.”

발소리가 들렸다.

그건 정말 인간과 같았다.

“…….”

아니, 발소리가 저따위인데 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미쳤나? 세뇌 계열의 스킬에 걸렸어?’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즈음 헌터가 무언가를 떠올렸다.

“아, 아, 아…!”

검은망토.

“거, 검은, 검은 망… 망토.”

“예, 저는 검은색 망토를 입고 있습니다.”

“…검은망토….”

분명 협회에서 정보에 대한 현상금을 걸어두었던 몬스터였다.

‘…이게 몬스터라고?’

문득 의문이 들었다.

‘이게…?’

헌터는 주춤거리며 다시 검은망토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사신처럼 새까만 망토를 푹 눌러쓰고 있었다. 망토의 어깨 부근이 살짝 벗겨지자 드러난 안쪽의 육체는 역시나 새까만 정장과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상하리만치 어두웠다.

“…….”

분명 형체가 있으니 망토를 썼을 때 저런 둥근 두상이 보이는 것일 텐데.

‘…손도… 창백하기는 하지만, 피부가 보여. 안쪽에 사람 몸이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쪽에 얼굴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아니,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

“박윤신 씨.”

“…저기, 네, 저….”

이것이 내 이름을 세 번 부르면 나는 죽게 될까?

‘저승사자가 이름 세 번 부르면 죽는다고 하잖아.’

딱히 검은망토와 저승사자가 같은 존재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지만, 지독할 만큼 죽음에 가까운 분위기가 감도는 것도 사실이었다.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존재를 앞에 두고 있는 듯한 경외감에 혼란을 겪으며 헌터는 고개를 푹 숙였다.

“깨, 깨워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부여하는 듯한, 일종의 선언이었다. 얼핏 신성하게도 들려 그것은 신이 내린 예언처럼 느껴졌다.

“…….”

“그러니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은 망토가 무언가를 내밀었다.

“…이, 이건….”

금으로 만든 듯한 동그란 구슬이었다. 상당히 묵직했고, 뇌를 홀리는 듯한 강렬한 단내가 풍겨왔다.

“이게 뭡니까…?”

“놀라게 만든 것에 대한 사죄이자, 고통받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

“당신의 것입니다.”

“…그….”

“드십시오.”

먹으라고?

‘이걸?’

전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생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입에 넣어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치밀어 올랐다. 그 정도로 아름다운 형태의 구슬이었다.

먹고 싶어.

“…….”

그 향에 홀려 헌터는 구슬을 입에 넣었다.

‘아.’

황홀한 단맛이 온몸을 부드럽게 휩쓸었다.

세포 하나하나가 안정되는 감각이 선명했다. 마치 저물어가는 오후의 봄바람을 닮은 감각에 희열마저 느꼈다.

즙을 담뿍 머금은 과실을 한껏 응축한 듯한 싱그러움은 온화한 금빛의 구슬과 무척이나 잘 어울렸다.

“…어, 어?”

“출혈이 멈췄습니까?”

“이게, 이게… 네, 이게 어떻게. 왜.”

“그렇군요.”

“…….”

검은망토는 정해진 값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연구자처럼 무기질적인 시선으로 헌터를 내려다보았다. 결코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위화감에 움츠러들었지만, 동시에 왜인지 황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기대하던 값을 보여준 것 같아 기뻤다.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나가고 싶습니까?”

“…나가요?”

숙였던 고개가 절로 들렸다.

“나, 나갈 수… 있습니까?”

“내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제야 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정보가 떠올랐다.

‘최초 발견자도 검은망토의 도움을 받아 심해의 나라를 빠져나왔다고 했어.’

문득 희망을 가지고 얼굴이 있을 부분을 올려다보았을 때였다.

“…….”

“…….”

눈이 마주쳤다.

눈?

그래, 눈이다. 동공이고 홍채가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구체가 아니었다. 평면인가? 아니, 입체가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이 보였다. 그 유려한 선이 보인다. 그건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개가 나무의 뿌리처럼 얽혀 있지만 동시에 하나처럼 보였다.

색은 무슨 색이지? 금색? 아니야, 어두워. 너무 어두워서 밝아 보였다. 그럼 검은색? 하지만 은색에 가까워. 은색이라는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저렇게 어둡잖아. 저렇게 밝잖아. 내가 지금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애초에 내가 봐도 되는 것이 맞나?'

아득함에 공포조차 느끼지 못하고 홀릴 때였다.

"박윤신 씨."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 그래, 물어볼 것이 있다고.

"네, 네네. 네… 얼마든지요."

"제가 당신을 그려도 되겠습니까?"

"…절 그린다고요…?"

그 이후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검은망토를 처음 목격했을 시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신이 아득해졌다. 스스로 생물이라는 자각이 없어졌다.

온몸이 녹아내렸지만 그 안에 공포는 없었고, 마치 봄바람이 일렁이는 숲 한가운데에 누운 듯한 아늑함을 느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 도심 한가운데에 있었다.

"……."

그제야 이것이 기적임을 깨달았다.

* * *

"…여기까지가…."

연구원 앞에서 박윤신이 말을 이었다.

"제가 겪은 일입니다."

"사람을 물감으로 만들어 그것으로 그림을 그린다고요."

"당시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박윤신은 얼떨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애초에 몬스터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희귀한 일이고, 저도 그걸 아는데, 그 점에 대한 놀라움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것은 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리라 여겨질 만큼 현명하고 지혜로운 존재처럼 느껴져서…."

연구원이 물었다.

"그를 추앙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낍니까?"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기적을 보여 주었어요."

"사람을 물감으로 만드는 기적이었죠. 고통은 따르지 않았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많이 혼란스럽기는 했습니다."

멀쩡한 자아를 가진 인간이 물감이자 그림이 되었다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다.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생물의 관점을 강제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으니 그 후유증이 적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검은망토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들지 않아요...."

그저 두렵고, 아득하고, 경이로웠다.

"그건 너무, 너무 아름다워서...."

예술을 가까이하며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삶이었음에도, 이것이 예술이고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스럽고 고귀하게 느껴질 정도로 광활한 존재감과 그 기하학적이고도 찬란한 구조는 심장을 뛰게 하기에 충분했다.

"검은망토는 분명 인간에게 호의적입니다. 아니, 그건 호의라기보다는 자비에 가까웠어요. 그는 자비를 베풀었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어요."

"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망토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상은 협회 로비 카운터에 가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알려주실 사항이 있거나 질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카운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기요."

"예, 박윤신 헌터."

"그 사람 몬스터 맞아요?"

"......."

연구원이 물었다.

"박윤신 헌터는 그것을 '사람'이라고 지칭하시는군요."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 났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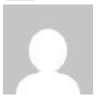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76)

제76화

"그래서 말이지."

갤러리의 벽에 기댄 채로, 유성운이 지오에게 물었다.

"사람을 물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네가 화가이기 때문인 건가?"

"……."

"곤란한 질문이면 대답하지 않아도 돼."

전직 협회 연구 팀장이었던 만큼 유성운은 헌터 협회 쪽과 인연이 깊었다. 그만큼 알아낼 수 있는 정보도 많았는데, 최근 '심해의 나라'에서 목격되는 지오의 소문 또한 마찬가지였다.

"너는 본인을 화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서, 조금 궁금해진 것뿐이야."

목격자들은 '검은망토'가 초상화이자 화가라고 말했다.

"살아 있는 생물을 물감으로 만든 것도 신기하고."

"그것은 당신의 생각만큼 대단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지오는 늘 그렇듯 기계처럼 가라앉은 음성으로 답했다.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취미인 평범한 사람입니다. 화가라고 불리기에는 부족합니다."

"결국 화가라는 건 네가 말한 대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 거잖아. 뭐, 정확히는 그게 직업인 사람이겠지만… 비슷한 맥락 아닐까?"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오의 초상화' 액자 바깥으로 나와 인간의 흉내를 낼 때와 달리, 초상화 속 지오의 음성은 이질적일 만큼 사무적이었다. 조금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무기질적인 목소리로 지오가 말을 이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물감으로 만든 것은, 단지 제가 액자 너머로 그들을 그려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물감으로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를 그린다면 이동이 아니라 생성에 가까울 것이라고 판단해, 그분들을 물감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건…."

유성운은 이전에 '지오의 초상화'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너의 관점에서 그림은 네가 아니라 우리들이기 때문이겠지?”

“여러분이 평범한 그림이나 물감이 아니라 자아를 가진 생명체라는 사실을 잊은 건 아니지만, 제가 그분들을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다가 이런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을까요?”

“덕분에 생환율이 높아지기는 했어.”

액자를 사이에 두고 지오는 지오의 세상에서, 인간은 인간의 세상에서 서로를 그림으로 보게 된다. 그렇기에 초상화이자 화가인 지오는 그림을 통해 임의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냥, 뭐랄까….”

유성운이 조금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다들 무서워해서 그렇지.”

“무서워합니까?”

“네가 생긴 게 친근하지는 않잖아.”

“그렇습니다.”

“산 채로 물감이 되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고.”

단순히 ‘흔하지 않다’ 수준이 아니라, 살면서 한 번 겪어보기도 힘든 일이었다. 헌터들은 ‘검은망토’의 근거를 알 수 없는 호의에 감사하면서도 그를 두려워했다.

“아무튼 네가 우리를 단순한 물감으로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됐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는 그저 이런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잖아.”

그런 점이 인간 같지 않다는 거지만 말이다.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근원의 존재가 베푸는 호의가 꼭 호의처럼 느껴지지는 않지.’

순수하다면 순수한 사고방식이다.

개의 생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어느 귀여운 강아지에게 초콜릿을 먹인 것과 비슷하다. 제 딴에는 달콤한 간식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으나 강아지는 극독을 먹은 셈이 된다.

‘아무래도 본인부터가 초상화라서 그런가, 사람을 물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사람들이 그것을 호의인 줄은 알아봤다는 건데….’

그래서인지 경외를 품는 헌터도 나온다는 모양이다.

“…어….”

잠시 고민하던 유성운이 말했다.

“요즘에도 ‘심해의 나라’에 가고 있어?”

“혹시 이세르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방문해 보았지만 인어가 아니라 인간들만 마주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마 이세르, 그 약삭빠른 인어가 지오를 피하고 있는 모양이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사람들을 도와줘서 고마워.”

“아니요,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들을 놀라게 한 것 같아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 행동이 무례했습니까?”

“무례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거지.”

사실 ‘좀’이라고 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오가 자비를 베풀어 인간들을 살려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헌터들도 그게 호의인 줄은 아는 모양이니 이 정도면 문제없었다.

‘검은망토의 존재가 헌터들에게 너무 친숙해지면 또 문제가 생기겠지만, 일단 큰 사건이 터질 만한 상황은 아니다.’

기왕이면 다정하고 친절한 헌터 ‘서지오’와 정체불명의 괴담 ‘검은망토’를 철저히 구분하고 싶은데, 지오 자신이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 욕심 많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약간 곤란했다.

지오는 ‘검은망토’인 상태로도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어울리기를 원하는 것일까?

“혹시 오해할까 봐 미리 말하지만 사람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어. 그 사람들도 죽는 것보다는 조금 놀라고 마는 게 나을걸? 네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신경 쓰여서 와본 거니까 너무 마음 상하지는 말고.”

“마음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야. 그런데....”

유성운이 말끝을 흐렸다.

“궁금한 점이 생겨서.”

그가 오늘 갤러리에 방문한 이유는 비단 ‘검은망토’ 괴담의 후기를 전해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질문해도 될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면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있잖아, 대체 어떤 기준으로 네 격을 조절할 수 있는 거야?”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목격담과, 유성운이나 차씨 가족 등 소수의 증인을 토대로 생겨난 의문이었다. 소문 속 ‘검은망토’와 인간일 때의 ‘지오’는 동일한 존재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그 격의 차이가 엄청났다.

검은 물감으로 칠해져 눈이 보이지 않는 초상화가 되물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어....”

하긴 지오는 자신의 격이 얼마나 높은지 모른다.

‘자기를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확실히 격이라는 단어를 꺼낸 건 내 실수겠네.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하는 것을 그저 해상도 문제라고 설명했던 녀석인데....’

잠시 생각을 정리한 유성운이 이내 입을 열었다.

“...물론 검은망토라는 괴담도, 지오라는 사람도 동일한 인물이지만, 같은 존재임에도 상이한 판단이나 말투를 보일 때가 있잖아. 네가 ‘서지오’로 활동할 때는... 사람을 물감으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를 안 했을 것 같거든.”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다.

“너는 똑같은 지오일 텐데도 격에 따라 생각하는 방식도 바뀌는 것 같아서.”

“.......”

“혹시 내가 착각을 한 거려나. 무례한 판단이었다면 사과할게.”

잠시 뒤 초상화가 대답했다.

“유성운 씨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과 어조를 달리할 때가 있습니다.”

“아.”

“최대한 올바르고 예의 있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말을 빌리자면, ‘검은망토’일 때는 오만하고 무례한 판단을 내립니다.”

초상화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자각이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일은 없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유성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인간의 사고와 근원의 사고가 같을 수는 없지.’

동일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격에 따라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오는 오만하고 무례한 판단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녀석에게는 그게 당연한 행동이었을 거야. 지오의 초상화라는 존재가 품고 있는 격을 생각해 본다면 이상한 일이 아닌 거라고.’

인간이 개미를 내려다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걸 이런 식으로나마 몸을 굽혀 시선을 맞춰주려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지.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지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려나.’

물론 지오가 ‘시도’를 한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인간과 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일단 ‘오만하고 무례한 판단’이라고 스스로를 꾸짖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듯했다.

“…….”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응? 아니야, 그냥….”

지오가 인간이 아님을 느낄 때마다 오싹해질 뿐이다.

“…네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유성운은 지오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저 이것이, 초상화라는 것 외에는.

* * *

“스흐으읍….”

“?”

“쓰흐흐흐으읍….”

“므응.”

다나의 배를 흡입하는 지오의 모습에 허니가 기웃거렸다.

“꾸룩?”

“살 것 같다.”

“꾺?”

“힐링이 되었어.”

역시 고양이 배 빨아먹는 것만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취미 생활은 없었다.

“물론 다나는 말랑하지도 않고 따듯하지도 않지만….”

“크르르.”

“고양이인 것에는 변함이 없지.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님.”

꾸욱 얼굴을 밀어내는 2개의 솜방망이가 이렇게 아기자기할 수가 없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곰 인형 태양신은 조금 심란해 보였지만, 지오도 허니도 다나도 아무런 타격이 없었다. 온 가족이 단란하게 모인 자리에서 지오가 진지하게 물었다.

“그래서 제가 이세르의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제는 이세르의 일탈이었다.

“어째서인지 저를 보러 오지를 않아요. 내가 왔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 어찌 된 일일까요.”

“꾸우….”

곰 인형은 ‘그걸 모르냐’라는 듯이 미간을 좁혔고, 지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사고 친 강아지가 주인 눈을 피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가 아닐까 싶군요. 원래 인간이라는 생물은 잘못을 저지르고 혼날 것 같으면 일단 회피하고 보는 안 좋은 본능이 있죠.”

“꾸….”

태양신은 과연 인어인 이세르를 인간이라고 해도 되는지, 또 그게 강아지나 어린아이의 회피에 비교해도 되는지를 고민했다. 애초에 이세르가 지오에게 혼날 게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닌 것 같았다.

형태는 ‘지오반니’가 분명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느껴지는 묘한 이질감과 정체 모를 드높은 격. 게다가 혐오할 수밖에 없는 태양의 신성까지 더해 여러모로 인어들이 마주치기 힘든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지오는 신념 있는 청년이었다. 그는 꿋꿋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불에 지도를 그리면 할머니의 눈치를 보며 밤새 몰래 손빨래를 하고는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인 걸 알면서도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굳이 알리지 않았죠.”

“꾸…?”

“하지만 결국 들켰습니다. 애가 혼자 손빨래를 해봤자 뭐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물에 축 젖어서 하룻밤 사이에 마르지도 않아요, 그거. 고로 이세르가 아무리 저를 피한다고 해도 그 아이는 저를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꾸우우…?”

곰 인형은 ‘정말 지금 그게 맞는 비유일까’라며 의문을 드러냈고, 그에 지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소박한 비유를 하기엔 이세르가 너무 잔혹한 길을 선택한 건 사실이지만….”

“꾸꾸, 꾸.”

“제 기억 속 이세르는 어린 학생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와서 테러범이니 뭐니 해도 현실감이 들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 테러 사건에 자신이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쫄리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이상으로 지오반니는 자신의 어린 제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현실감이 없었다.

대뜸 ‘당신의 작고 소중한 학생이 댁 죽고 난 이후에 종교 시설들을 테러하고 있어요’라는 말을 들어도 ‘네? 오? 그렇군요?’ 이외의 반응이 나오질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저희는 이세르를 잡아 와… 아니, 만나봐야 합니다.”

“꾸룩?”

허니가 ‘방금 잡아 온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듯 의심의 시선을 보내왔다. 당연히 지오는 무시했고, 다나는 퍼질러지게 하

품을 했다.

“어떻게 해야 이세르가 저를 만나러 올까요.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꾸....”

“‘심해의 나라’는 대형 마트가 아닙니다. 미아 방송을 틀 수도 없고, 다 큰 성인인 이세르는 미아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디가 출구인지도 알면서 찾아오지 않는 이 깜찍한 인어 같으니....”

그새 겁쟁이가 되었는지 얼굴도 보여주지 않으려는 제자에 지오가 눈을 두어 번 깜박였다. 그가 곧 말을 이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에게도 아예 계획이 없지는 않습니다.”

“꿍?”

“그 아이들의 집 안이라 할 수 있는 ‘심해의 나라’에서 거하게 사고 하나 쳐주면 그 얼굴들을 보여 주겠지요.”

“꾸루룩?”

“잘되면 기선 제압은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 계획이 뭐냐면....”

지오의 이야기를 들은 새는 그걸로 되겠냐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고, 고양이는 관심이 없다는 듯 발라당 뒤집혔으며, 곰 인형은 ‘너 정말 그게 맞니’라는 듯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에 지오가 태양신을 보았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꾸....”

곰 인형은 태연한 지오의 모습에 ‘그런가?’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애초에 본인도 뭘 잘 알아서 미묘한 표정을 지은 게 아니라, ‘지오가 괜찮다면 그런 거겠지’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꾸우, 꾸꾸꾸.”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훈훈한 가족회의의 현장이었다.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77)

제77화

텃밭에서 난 각종 채소를 우린 채수로 지은 밥과 오동통한 생선구이를 먹으며, 지오가 말했다.

"괴담?"

"꾸루룩."

"나쁘지 않던데."

허니는 지오에게 '검은망토'라는 괴담이 생긴 것에 걱정 비슷한 것을 해주었으나, 지오는 아무래도 좋았다. 원래 성격이 무던한 탓도 있었지만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를 괴담으로 여기게 되면 공격을 받을 걱정도 조금 줄어들겠지."

지오가 수집상의 수작 아닌 수작을 용인한 이유였다.

"몇 번 지구로 돌아가 보니 알겠던데, 아무리 지구가 한번 뒤집히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개편되었다고 해도 귀신 들린 초상화는 여전히 희귀한 존재가 맞아. 장난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실험실로 끌려가 고문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다."

그는 스스로를 '조금 특이한 경우의 각성자'라고 생각 중이었다.

시스템으로 근원을 접하는 일반 헌터들과 달리 직접 근원과 결합되었으니 아주 틀렸다고도 못 하겠지만,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봐주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다.

"대한민국이 보지 못한 31년 사이에 한층 더 지옥에 가까워진 것을 느꼈지. 나처럼 뼈 없는 순살 치킨은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나락에 떨어져 버릴 거다."

"꾸룩?"

"그래 난 치킨이 아니긴 하지만 아빠의 논지는 그게 아니란다. 나처럼 나약한 초상화는 금방 미친 과학자들이 모인 연구실로 끌려가 실험을 당할 거라는 게 문제라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검은망토 괴담'은 나쁠 게 없었다.

"최소한 만만하게 보이지는 않을 테니까. 이래저래 상상의 여지도 많고."

본체인 지오보다 검은망토 쪽이 단연 전투력이 높아 보일 뿐만 아니라, 이름에서부터 간지가 났다. 이런 식의 별칭은 남자의 로망을 채워주는 뭔가가 있었다.

"무엇보다 괴담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관찰은 가능해도 연구까지는 불가능한... 손에 잡히지 않는 연기 같은 느낌이 강하지.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개나 소의 공격까지 받을 확률은 좀 낮아지지 않겠니."

“꾸, 꾸룩….”

“역시 유성운 씨야. 나의 나약함을 알아보시고는 이런 길을 제안해 주시다니 그야말로 만능형 인간. 내가 본받아야 할 인간상이다. 앞으로 밥도 주고 간식도 주면서 더 친해져야지. 그리고 언젠가 납치할 거야.”

유성운이 들으면 졸도할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 지오는, 갓 나온 카스텔라도 아닌데 포슬포슬하게 갈라지는 생선 살을 발라 다나에게 주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 검은망토에 대한 괴담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반길 일이다. 생존을 위한 허세라고 해야 할까.”

굳이 ‘심해의 나라’에서 마주친 헌터들에게 ‘저는 초상화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한 게 아니었다.

“처음에는 차마 본명으로 소개할 수가 없어서 초상화로 대체한 건데 효과가 좋더라고.”

“꾸르….”

“이 괴팍한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나 역시 이런 괴담에 손을 보태야 할 거다.”

“꾹?”

“어떤 식으로 손을 보탤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귀신 들린 초상화라는 명성에 걸맞은 괴담이면 좋을 거다.

“보통 귀신 들린 초상화는 학교에 자주 걸려 있지 않던가요.”

“…? 꾸…?”

“하긴 지구의 문화는 잘 모르시겠죠. 아니면 내가 교사였던 탓에 학교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건가.”

“꾸, 꾸꾸꾸.”

“아, 뭔가 조언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곰 인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원래 있던 세계는 공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탓에 학교 관련 괴담이 적었지만, 아무래도 저택과 관련된 괴담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저택이라….”

지오는 감명 깊게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버려진 저택에 걸려 있는 초상화 같은 소재도 괴담으로서 인기가 많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갑니다.”

“꾸우우.”

“예,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훗날 저를 위대한 괴담으로 재탄생시켜 줄 겁니다. 당장 세간에 알려진 ‘검은망토’는 괴담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오가 끄덕였다.

“저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언젠가 훌륭한 괴담이 되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겁니다.”

“꾸…?”

“그래야 저희도 먹고살죠, 아버지. 요즘 사람들은 아주 무서워서 이런 허세라도 없으면 그 틈바구니에서 쉽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딱히 무해한 초상화인 지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태양신은 알겠다며 넘어갔다. 말만 저렇게 하지 정말로 인간을 해칠 위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지오는 괴담으로서 컨셉을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처음 만난 게 비사벌 길드장님이라 다행이었지.”

따발총처럼 떠벌리는 입만 봐도 기가 쫙 빨려서 아직도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비사벌은 좋은 사람이었다.

귀신 들린 초상화인 지오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고 있다는 것부터가 그의 고귀한 인성을 증명했다.

“…….”

“왜 그래, 허니.”

“꿍.”

허니는 ‘그건 인성보다는 취향의 문제가 아닐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굳이 입 밖으로 뱉지는 않았다. 비사벌이 무해한 인간은 아니지만 예술 작품에 지극한 인간인 건 알기 때문이었다.

다른 것에는 몰라도 비사벌은 최소한 자신의 수집품에겐 대단히 무해해졌다. 그것만큼은 사실이었다.

“꾸루루, 꾹꿍.”

“너도 생선이 먹고 싶었구나. 발라줄까?”

“꾸르르르르르.”

“귀여운 녀석.”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도톰한 살점 하나를 떼어준 지오가 말했다.

“아무튼 조만간, 제가 말했던 계획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심해의 나라’에서 수확도 없이 돌아다니며 어설픈 괴담을 양성해 내는 것은 질렸습니다.”

“므으으응.”

“가시도 먹을 수 있나? 자, 여기. 조심히 먹어라.”

다나에게 생선 가시를 준 지오가 말을 이었다.

“혹시 동행할 분이 있습니까?”

“꾸루룩.”

“역시 너밖에 없구나, 허니.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꾹.”

허니도 속이 말랑촉촉한 지오를 홀로 세상 밖에 보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

“허니…!”

“꾸르르.”

손으로 낳은 아들의 따듯한 마음씨에 감동한 지오가 입을 틀어막으며 제 감동의 깊이를 보였고, 태양신은 말없이 생선을 먹기로 했다. 다나는 이미 관심이 없었다.

계속 말하지만, 하여간 사이좋은 가족이었다.

* * *

그리고 서로의 만남을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는 건 지오뿐만이 아니었다.

매우 공교롭게도, 인어들 또한 나름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야, 꽃돼지.”

“뭐여.”

“막내 어디 갔냐.”

“텃밭에 없어?”

“안 보이는데.”

“미쳤나.”

차이솔이 납치됐다.

“아니 걔 다 쉬지도 못했는데....”

원래라면 입단식을 마친 예비 사제는 기숙사 신전에 들어가야 했지만, 이번 ‘심해의 신전’ 사태로 인해 잠시간의 휴식 기간을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집에 있다가 납치를 당한 거였다.

“지금 쉬는 게 중요해?”

“맞네.”

이 소식은 수집상 길드의 사무실에 있던 유성운에게도 바로 전해졌다.

“어? 납치?”

“네.”

“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저희도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차씨 가문의 장남 차은혁이 뇌물로 붕어빵을 바치며 말했다.

“텃밭에 바닷물이 뿌려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누가 들어도 범인이 인어잖아. 아니, 근데 이 붕어빵은 뭐야.”

“역시 그렇죠?”

“붕어빵 더 안 줘도 돼. 그만 줘, 넘쳐.”

“지오 씨한테도 주세요.”

“어....”

“차아라에게 공문을 받아 함께 보았습니다.”

차은혁이 퀭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서지오 씨는 1:1의 규칙이 있다지요. 인간에게 호의를 받으면 호의로 대하고, 무례를 받으면 무례로 대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성운이 진지하게 물었다.

“붕어빵 바치고 동생 구해달라고 하게?”

“...아무것도 안 바치는 것보다는 이솔이가 살아 돌아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실제로 서지오 씨가 나서주지 않더라도 이렇게라도 하는 편이 제 마음에 편할 것 같았습니다.”

“거의 신상 앞에 제물 바치는 꼴인데. 그것도 붕어빵으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야, 지오는 붕어빵 많이 좋아해. 가끔 그 선물로 좀 무시무시한 걸 줘서 그렇지....”

신앙이 대중화된 요즘 세상에, 신전에 찾아가 소소한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많았다. 실질적으로 뭔가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본인의 기분이 나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지오는 제대로 된 신이라고 할 수 없어. 신의 특징을 가진 무언가일 뿐이야. 그나마 신도의 일이라면 자비를 베풀기도 하는 전통적인 신들과 달리 네 기대에 부응해 주지 않을 확률도 높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선물의 의미로 가져온 거기도 하니까요.”

“일단 전해 주기는 할 건데….”

그렇다, 지오에게는 규칙이 있었다.

‘붕어빵으로 고용이 되려나.’

언젠가 보였던 반응으로 생각했을 때, 지오는 스스로 규칙에 얽매여 있음을 알았다. 그래도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줄 때도 유성운에게서 ‘대가’를 찾으려고 애썼다.

차은혁이 말했다.

“꼭 서지오 씨의, 검은망토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희가 발견한 바닷물이 정말 ‘심해의 나라’에 속한 인어의 흔적이 맞다면….”

“그래.”

“이건 수집상 같은 대형 길드의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 아닌가요?”

차은혁은 특유의 무뚝뚝한 얼굴로, 하지만 필사적으로 유성운을 설득했다.

“지금까지 ‘심해의 나라’의 몬스터가 출입구 바깥으로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어떠한 징조일 수도 있고, 이걸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해, 차은혁 씨.”

유성운이 어린 청년을 다독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차이솔 군을 구하러 갈 생각이었어. ‘심해의 나라’는 나와도 연관이 많은 던전이고, 또 검은망토도 그쪽으로 흥미가 많아 보여서… 조만간 방문해 보려고 했는데.”

“…….”

“조금 더 일찍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말끝을 흐린 유성운이 창백하게 질린 차아라 쪽을 돌아보았다.

“차아라 헌터도 같이 가시겠습니까?”

“…저, 저… 저도 같이 가도 되나요? 고작 F급인데….”

“본인이 죽을 각오를 한다는 계약서만 작성해 주면 데려가 줄 수 있어.”

“…염치없지만 부탁드려요.”

고기 방패로 쓰려는 것이 아니고서야 F급 헌터를 B급 이상 던전에 대동한다는 건, 다른 헌터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사실상 F급 헌터를 보호하기 위한 인력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이건 유성운의 배려였다. 어차피 차아라 자신이 가봤자 별 쓸모가 없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차아라는 동행을 부탁했다.

“죄송합니다.”

“가족이 걸린 일인데 그 심정이야 이해합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다행히도 수집상 길드는 소속 헌터의 자유도가 높은 편이라, 유성운이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

다.

그냥 유성운이 야근할 날이 늘어난 것뿐이다. 그리고 지오와 지구의 평화를 위해 유성운은 그것을 감내했다.

“저도 가고 싶은데 역시 주책이겠죠??”

“신체 능력은 F급 수준이시면서 무슨 말씀입니까. 남으세요.”

“아쉬워라.”

비사벌만 다른 의미로 뭐라 할 뿐, 지원 자체는 두둑했다.

“…….”

“…? 여기 왜 강서담 사제가 있습니까?”

“수집상의 길드장께서 저희 신전 측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지원을 잘 해주시는데.”

“요청이 아니었더라도 저는 나서야지요. 차이솔 형제는 제가 책임져야 할 제 학생입니다.”

강서담이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사고 때문에 아직은 정식으로 수업을 받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이야, 믿음직스러워.”

“그보다는….”

강서담이 항구 앞에 모인 ‘서지오’를 보았다.

“…서지오 헌터도… 함께 가시는 거였습니까?”

“차이솔 학생과 인연이 있으니까요. ‘심해의 신전’에서도 활기찬 차이솔 학생 덕분에 심적으로 많은 분이 도움을 받으시지 않았던가요? 의사이자 신도로서의 제 부담을 덜어주었던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아하….”

“차이솔 학생의 보호자분들께서 붕어빵을 주시기도 했고요.”

“붕어빵.”

강서담 역시 수집상 길드에게서 ‘검은망토’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 그의 규칙이 간단히 요약해 ‘1:1’이라는 것도 알았는데, 덕분에 ‘보답’이라는 단어로 지오의 이번 참가를 금방 납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이런 부분은 인간들에게 악용될 수도 있으려나.’

말이 좋아 1:1이지, 자칫하면 ‘검은망토’에게 다수의 인간이 대가를 강요하게 될 수도 있었다.

‘그러다 이분께서 화가 나기라도 하면… 그때는….’

미래의 재앙을 걱정하던 강서담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습니다. 동행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렇군요. 저번에 뵈었던 그 노란색 새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전 ‘심해의 신전’에서와 같이 검은색 망토를 뒤집어쓴 지오의 후드에서 허니가 빼꼼 얼굴을 드러냈다. 허니는 태양의

기운이 진하게 느껴지는 강서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

“.......”

“......?”

강서담이 의문을 드러낼 때 즈음, 무언가 낌새를 눈치챈 유성운이 허니를 말렸다.

“안 돼, 허니, 먹는 거 아니야.”

“...먹습니까?”

지오가 고개를 저었다.

“안 먹습니다.”

“하지만 방금 유성운 씨가....”

“제가 만들어준 식사가 더 맛있을 텐데 왜 굳이 시즈닝도 안 된 사람을 먹겠어요.”

“.......”

“허니는 미식가라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꾸르.

후드 안에서 긍정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군요.”

딱히 안심이 되지는 않았다.

‘나를 굉장히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시던데.’

강서담은 허니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떠올라 더 소름 끼칠 뿐이었다.

“.......”

“그럼 갈까요.”

“...예.”

그렇게 A급인 유성운을 필두로, 강서담, 차아라, 서지오의 차이솔 구출 팀이 만들어졌다.

사실 이 초상화가 누구 도움이 필요한 격은 아니다만....

‘...지오의 사회생활 돕기....’

유성운은 좀 웃기다고 생각했다.

“.......”

반어법 맞다.

던전을 그리는 화가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77)"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78)

제78화

유성운이 늘 지오 옆에 붙어 있는 이유가 있었다.

'정신 차리고 보면 엉뚱한 언행을 일삼는단 말이지.'

차라리 인간 흉내가 어설픈 의태형 몬스터라면 괜찮았다. 어떻게 굴어도 몬스터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오의 초상화'는 이상할 정도로 인간 흉내에 능숙했다.

'그래서 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머리로는 분명히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도 마음은 인간이라고 확신하니, 그 괴리감에서 섬뜩함을 느끼게 되는 거다. 그건 몬스터나 근원의 자식에게서 느끼는 공포와는 결이 달랐다.

'그야말로 괴담이라고나 할까.'

그런 지오가 인간들 사이에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성운의 역할이었다.

"엇차."

철벅.

말랑거리는 재질의 바닥에 유성운이 발을 디뎠다.

"뭔가 젤리 같네, 이거."

"확실히 그렇군요."

뒤이어 던전에 진입한 강서담도 고개를 끄덕였다.

"점도가 낮은 슬라임을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것치고는 무게 지탱이 잘됩니다."

"손으로 떠보면 그냥 바닷물인데 말이야."

손에 담았던 물을 털어낸 유성운이 함께 진입한 지오와 차아라를 보았다.

"오, 들어왔어?"

"네, 네네... 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여기 A급 헌터만 세 명인데, 설마 차아라 헌터 한 명을 못 지켜 주겠습니까?"

"세 명...."

“세 명 맞지.”

“아… 그, 그렇죠.”

눈칫밥 좀 먹어봤는지 차아라는 금방 유성운의 말을 받았다. 그러면서 던전을 둘러보는 지오를 힐끗거리는 게, 아마 ‘지오의 앞에서 그가 인간이 아니라고 지적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까지 떠올린 것 같았다.

‘하긴 차아라 헌터도 공문을 받았으니까.’

공문에도 여러 차례 ‘지오의 정체를 의심하지 마라’는 식의 권고가 나온다. 차아라 역시 지오의 심기를 거스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그나저나….’

예상이 맞다면 이 던전은, ‘지오반니’에게 고향이나 다름없을 텐데.

“…지오, 괜찮아?”

“괜찮습니다.”

“정식으로 던전에 들어온 건 처음이라 걱정이 되네.”

“조금 긴장하기는 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떨리지는 않네요.”

검은색 후드를 뒤로 넘긴 백금발의 지오가 그 특유의 선량한 미소를 그렸다.

“바다의 향기가 꽤 기분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는 바다를 좋아했던가.”

그렇게 말한 유성운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

바다에 푹 잠긴, 하나의 국가가 보였다.

“…이거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도 일이겠는데, 지오 너 수영은 할 수 있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못 합니다!”

“뭐가 이렇게 당당하지?”

이름부터가 ‘심해의 나라’인지라, 이곳에 방문하는 헌터는 기본적으로 수영이 가능한 녀석들이 모였다. 애초에 헌터치고 수영 못 하는 사람도 드문 것이다.

“이건 생각을 못 했는데….”

유성운이 난감한 얼굴로 나머지 둘을 돌아보았다.

“차아라 헌터나 강서담 사제님은?”

“네? 아, 가능하기는 한데요… F급이라….”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어이쿠.”

유성운이 다시 지오를 보았다.

“그럼 나나 강서담 사제님이 지오를 도와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아니요?”

“오…?”

“수영을 하지 않아도 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째서 얼마든지 있다는 걸까??”

“저희 집 어르신께 좋은 기술을 배워 왔습니다.”

“…….”

아니, 잠깐만.

“…너희 집 어르신?”

“예.”

“그, 그 어르신 그거잖아. 그거….”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대체 뭘??”

유성운의 의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지오가 손을 바닥에 짚었다.

그 순간.

“…….”

—쿠르르르륵!!

“…….”

“됐습니다.”

강한 소음과 함께, 바다 안쪽으로 길이 생겼다.

“이제 걸어가면 됩니다.”

“…….”

“걸어가죠.”

유성운을 비롯한 헌터들은 망연한 얼굴로 바다에 생긴 터널을 보았다.

“어….”

긴 빨대처럼 뻥 뚫린 공간에는 친절하게 계단까지 만들어졌다. 그 길은 꽤 깊은 곳까지 이어졌는데, 헌터의 좋은 시력으로 그것이 ‘심해의 신전’까지 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오의 가장 큰 애정을 받는 인간이라고 자부하는 유성운이 물었다.

“이걸 뭐 어떻게 한 거야?”

“바닷물도 물이니 뜨겁게 가열하면 증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발을 시켰다고?”

“예, 편리하죠?”

“수영하기 싫어서?”

“싫은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제 기호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던전을 바꿨다….”

수영을 못 하기 때문에 바다의 형태를 바꿨다니. 유성운이 태양의 자식인 강서담을 돌아보았다.

“…….”

“못 합니다.”

“그렇겠지.”

제발 지오야.

‘세상 그 어떤 헌터가 수영 안 하겠다고 던전을 개조해.’

애초에 던전을 개조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이미 헌터의 영역을 벗어났다. 그 헌터는 던전에 온 이유가 없었다. 던전의 존재와 헌터의 방문 의의가 사라져 버린다.

‘대한민국 대표 갑부 비사벌 길드장이 알바들에게 폐지 줍기 시켜서 자기 용돈으로 오천 원 버는 꼴이잖아.’

이럴 거면 대체 ‘서지오’라는 신분은 왜 있는 것일까? 정말 인간을 흉내 낼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일까? 같잖은 수작을 부리지 말라는 경고일까? 유성운은 큰 수렁에 빠졌다.

‘다행인 건 강서담 사제님이나 차아라 헌터가 정말 최선을 다해 모른 척 시선을 피해주고 있다는 건데….’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함구하겠다는 듯한 둘의 협조 의사를 확인한 그가 다시 지오를 보았다.

“지오, 여기엔 전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니까 터놓고 말할게.”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건 인간의 영역이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하지만 저는 평범한 인간….”

“아 알지 알지. 다들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냥….”

유성운이 심호흡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무서워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외의 사람들 앞에서 네 능력을 너무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말이 이해가 됐을까?”

“이해했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필사적으로 침착하게 설득하는 유성운의 모습을 차아라가 안쓰러운 듯이 보았다. 그리고 유성운이 생각하기에도 본인의 처지가 조금 처량했다.

‘한낱 인간의 몸으로 정체조차 모를 근원의 존재에게 사회성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니.’

수집상 외부에서의 ‘서지오’는 그 격이 인간 수준으로 낮아져 그나마 이 정도지, 아니, 사실은 지금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온몸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지오가 본인을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망정이지….’

나름 ‘서지오’와 ‘검은망토’ 분리 계획이 성공했다고나 할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

‘확실히 사옥 내에 있을 때보다는 압박감이 덜하니까, 그래, 이 정도는.’

여차할 경우에는 S급 헌터들과 비교하면 되기는 했다. 그쯤 되면 인간 재앙에 가까웠다. 문제는 지오는 인간조차 아니라는 점인데 이 부분은 유성운이 노력을 해야 했다.

“보통 헌터들은 이런 식으로 남의 던전을 막 바꿀 수 있지 않아.”

“그렇군요, 불편하겠네요.”

“…그렇지….”

“여러분은 제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오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가 던전을 조금 바꿨다고 비윤리적인 짓을 한 건 아니잖은가.

누가 죽은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니고 상처받은 것도 아니다. 지오의 궁극적 긍정 마인드는 고작 인간의 한계 앞에서 굴하지 않았다.

한계는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 지오반니는 수영을 못 한다는 자신의 한계를 태양의 힘으로 이겨냈다. 괄목할 성장이라고 자부했다.

“이제 가시죠.”

이걸로 내 컨셉이 더 확고해진다면 반길 일이지.

‘따란.’

아무튼 좋은 게 좋은 거였다.

* * *

지오반니가 죽었다.

“…….”

그 이후로 제정신이었냐고 하면, 그렇지 않았다.

이세르가 준비하고 있던 이별은 조금 더 따듯했다. 나이를 먹은 지오의 손에,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마치 신상처럼 곧았던 허리는 굽어지고, 단단했던 몸은 한없이 얇아질 것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삶에 감사하는 것을 바라보며 지오는 죽어갈 터였다. 천천히 그 숨이 옅어지고, 언제나 다정하게 굽어 있던 눈꺼풀이 감기고, 느릿하게나마 뛰던 심장은 고요하게 가라앉으며….

“…선생님의 시체는 어디에 있었나요?”

“네 배 속에 있겠지.”

“…….”

“그리고, 바다에 있어.”

그 무엇도 이루어진 게 없었다.

“…선생님이 몇 살이셨던가요?”

“태어나고 30년을 조금 넘게 살았지.”

“그건 얼마나 오래 산 것이죠?”

“인간은 좋은 환경에서 관리만 잘 받으면 100살을 넘게 살아.”

“평범한 환경에서 관리를 못 받으면요?”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게 아니라면 평범하게는 80살 정도려나.”

“선생님은 제 삶의 반조차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너무 어렸다.

“고작 30년이었어요.”

“그래, 고작 30년이었지.”

“저는 그보다 더 긴 줄 알았습니다.”

허탈했다.

“100년이라든지, 200년이라든지. 기껏해야 30년 안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많은 일이 있어서….”

지오반니는 한평생 사람을 구했다.

“왜 아무도 선생님을 옹호하지 않았죠? 그분은 정말 수많은 목숨을 구했어요. 죽어가는 숨을 붙이고 저주받은 삶을 구했잖아요. 선생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 분명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그 손길에 기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누이는 긍정했다.

“맞아, 지오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지. 다수의 인간과 인어를 구원했어.”

“하지만 그가 죽을 때, 아무도 그의 곁에 남아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죽어도 될 사람이 아니었다.

“선생님은 조금 더 늙은 몸으로, 따듯한 침대에 누워서, 아주 많은 사람 곁에서 눈감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인간은 더 따듯하게, 햇볕을 받으며….”

“네가 상상하던 죽음은 동화 속에서나 있던 일인가 보네.”

“…꼭 동화 속이 아니어도 되었잖아…. 제가 말한 것은 꼭 동화 속의 일이 아니어도 언제든 실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고작해야… 그 정도뿐이잖아요. 제가 기적을 바라지 않았잖습니까. 인간이 인어만큼 길게 살길 바란 것도 아니고, 죽은 이를 되살리고자 한 것도 아닌데.”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인간은 어차피 죽어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크든, 얼마나 관리를 잘 받든, 그 수명이 너무 짧아서 금방 죽어 버린다고요. 그렇게 짧은 생에 쉬지도 못하고 피와 땀을 흘리며 살았다면 그 정도 혜택은 누려야 하는 게 아니냔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런 혜택을 받았니?”

“…….”

아니다.

“…아니요….”

선생님을, 지오반니라는 사람을 존경했다.

지오는 사제이자 의사였다. 이세르는 그에게 사제로서의 성품을 배웠고, 아리아는 그에게 의사로서의 능력을 배웠다.

지오에게 배운 것인 만큼 둘 모두 인간에게 훌륭한 대접을 해주기도 했다.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하지만 그 어떤 인간도 고마워할 줄을 몰랐다.

“…결국 같은 인간인 지오의 다정함마저도 한순간에 내쳐버리는 족속들이죠.”

“인간은 참 변덕스러워. 인어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지.”

인어는 천 년을 넘게 산다. 태어나기를 그렇게 장수하도록 태어나서 그런지, 인어는 다가오는 자극에 무던하고 감정에 예민하지 않으며 쉽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기에 인어는 하나의 자극을, 감정을, 변화를 얻으면 그것을 아주 오랫동안 품게 된다.

“…아….”

이세르는 ‘그것’이 지오반니가 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제발, 왜… 왜, 이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리아….”

그래서 그가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랐어.

“대체 내가 어째서 이 기억을 한평생 안고 있어야 하나요…?”

그 햇볕을 닮은 사람이, 따듯한 이불처럼 푹신한 사람의 그 짧은 생 모든 순간이, 결국 내가 품어야 할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안심했다. 최소한 지오반니처럼 멋지고 훌륭한 자라면 마땅히 인어가 품어도 될 인간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아리아, 내가 그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인어가 인간을 잡아먹었다.

“왜냐고요? 배가 고팠거든요, 천박한 인간들이 저와 그를 좁은 수조에 가뒀어요…! 지오는 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오반니는 고통과 추위에 썩어가고 있었고, 나는 배가 고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잡아먹었어!!”

그걸 보며 태양의 자식들은 비웃었다.

“결국 인어는 인간을 흉내 내봤자 인어라고,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라고…!!”

“…….”

“…우리가 괴물이에요?”

하나뿐인 누이가 대답했다.

“모두가 괴물이지.”

“…….”

“오직, 선생님을 제외하면… 모두가 괴물이었어.”

“…그렇군요.”

지오는 인간이었다.

그건 확실했다.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

아주 오랫동안 이세르는 입을 열지 못했다. 이 입을 열면 삼켰던 지오반니가 흘러나올 것 같았다.

씹어 삼켰던 그의 내장이 도망치고, 눈이 눈물을 흘리고, 입이 비명을 지르거나 인어를 향한 원망을 퍼부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제 와 입을 연 이세르가 품은 것은 결국 돌고 돌아 지오반니였다.

“누님.”

“…솔직히 말하자면 네가 미운 것 같아.”

“누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감정이 확실한지조차 모르겠네.”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조차 선생님께서 만든 변화이니까요.”

“나는 태양을 바다로 덮을 거야.”

그녀의 말은 광오했으나, 이세르는 그것이 곧 실현될 것을 알았다.

“온 세상이 바다로 뒤덮이면, 지오도 계속 바다에 남아 있을 수 있겠지.”

“…….”

“그리고 인어 역시… 결국에는 바다의 일부분이잖니. 그 사람이 늘 그렸던 인어의 그림처럼….”

“…….”

“…있잖아.”

아리아는 새하얀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이세르….”

지오반니의 것이었다.

“…….”

“…….”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

아주, 아주 오랜 시간이….

* * *

“또 악몽 꿨어?”

“…….”

동그란 검은색 눈동자.

“…차이솔 사제.”

“나 아직 사제 아닌데.”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왜 아니야?”

“…글쎄요….”

왜 아니었을까.

“인간이었다면 어땠을까.”

우리에겐 미래가 있었는데.

“…그런 망상을 하고는 합니다.”

“지금도 인간이잖아.”

“저는 인어입니다, 당신을 데려오면서 말했듯이.”

“하지만 인간인데?”

“…….”

“인간이랑 인어랑 뭐가 다른 거야? 잘 모르겠어.”

“그건….”

수많은 차이점이 있었지만, 선생님을 만나는 날이라 그런지 유독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였을까.

얼마나 큰 차이라고.

던전을 그리는 화가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78)"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79)

제79화

참고로 납치를 당한 차이솔은.

“은하 눈 멋지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괜히 지오와 잘 맞는 게 아니었다.

“막 번쩍거려.”

“하….”

“드래곤 같아!”

“파충류겠죠, 결국에는.”

“아니야, 훨씬 멋진 거야!”

“드래곤도 파충류의 일종입니다.”

“헉 진짜…??”

차이솔이 심각한 얼굴로 물었다.

“그럼 은하 너도 추워지면 겨울잠 자는 거야…?”

“안 잡니다. 따지고 보면 물고기니까요.”

“물고기 없잖아.”

“그게 무슨 소리…?”

“물고기 아닌데?”

“아….”

이세르의 모습에서 ‘인어’의 특징을 찾기가 어렵다는 의미인 것 같았다.

“…그럼 제 눈은 인간의 것처럼 보였습니까?”

“인어는 그거 아니야? 그, 다리… 다리… 물고기 다리….”

“…….”

“다리 없잖아.”

“…있잖아요….”

인간의 아이들은 정말로 궁금한 것이 많다.

“그 부분은 내가 설명해 줄 수 있겠네.”

“아, 누님.”

“애 돌보는 거 힘들지?”

“아니라고는 못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세르는 차이솔이 기억하는 ‘은하’의 모습이 아니었다. 확연한 성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세르는 차이솔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를 텐데도, 지나치게 친근한 언행에 정신이 없었다.

온건하게 대해주고는 있어도 납치를 당한 상황일 텐데 참 용감하기도 하지. 이세르가 슬쩍 물러나자 그의 누이, 아리아가 다가왔다.

“안녕, 신사분.”

“예쁘다!”

“칭찬 감사합니다.”

정중한 미소를 지은 아리아는 당장 사교계에 나서도 될 만큼 우아한 모습으로 인사했다.

“지구의 동화에서 인어는 생선의 다리인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인어라고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내던 행성의 인어는 개체마다 인어로서의 특징이 전부 달랐답니다.”

“…말이 어려워요!”

“인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인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인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은하의 경우에는 꼬리가 없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한 아리아가 예시를 보여달라는 듯 동생을 불렀다.

“이세르.”

“…….”

이세르는 그 특유의 미소 위로 조금의 피곤함을 띤 채로 귓가의 머리카락을 들어 보였다.

“자, 은하의 귀가 보이시나요?”

“어… 다르네.”

“인간의 귀와는 달리 인어 특유의 귀 지느러미가 따로 있답니다.”

그녀는 선생님처럼 말을 이었다.

“이외에도 손가락을 펼치면 보이는 물갈퀴가 있고, 몸 곳곳에 비늘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숨기고 있지만 헤엄을 더 능숙하게 칠 수 있도록 꼬리가 따로 나 있죠.”

“그럼 누나는요?”

“저는 신사분께서 익히 알고 있는 인어의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의 지느러미로는 이곳처럼 물이 없는 곳에서 움직이기 불편해, 지금은 꼬리를 두 갈래로 갈라 직립 보행이 가능한 다리를 만들어낸 거랍니다.”

“우와….”

“제 행성에서의 인어라면 누구나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죠. 인간들의 생각과 달리 인어는 땅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진화해 왔으니까요.”

“대단하다…!”

차이솔은 마냥 신났다. 낯선 환경에 긴장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은하도 그를 해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지 않던가.

이게 납치라는 사실을 모르진 않았으나 그에게는 어차피 형과 누나가 자신을 찾으러 올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차이솔은 겁을 먹기보다는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들떴다.

“그런데….”

그런 차이솔의 모습은 확실히 아리아에게도 특별하게 다가왔다.

“신사분께서는 인어를 무서워하지 않나 봅니다?”

“…? 그러면 안 돼요?”

“지구의 인간들은 인어를 직접 만나면 공포에 떤다고 알아서요.”

지구에서 ‘대재앙’이라고 부르는 사건 이후로, 지구에는 수십 수백 번이나 ‘인어’가 목격되었다. 당연히 그들 역시 몬스터인 만큼 인간을 공격해 왔기에 지구인 대부분은 인어를 두려워했다.

“심지어 신사분은 저희에게 납치를 당했죠.”

“어… 알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나 안 때렸잖아요…?”

“오.”

아리아가 고개를 기울였다.

“때릴 수도 있죠?”

“…때릴 거예요? 그럼 도망칠래요.”

“이런, 가엾어라. 이제 와서 도망치기는 좀 힘들 텐데.”

“역시 안 때릴 거죠?”

“소중한 인질을 학대하는 것만큼 멍청한 짓은 없죠. 하지만 저희가 신사분께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안 한다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

잠시 말을 잃은 아리아가 제 동생을 돌아보았다.

“강적이네.”

“강적이죠.”

“과연 지오가 좋아할 만한 인간이야.”

“그냥 아이라서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어리고 약한 것을 품에 안던 사람이니까.”

아리아가 고개를 들었다.

“슬슬 오겠네.”

바다가 헤집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다니, 아무리 지오가 아이를 아낀다고 해도 꽤 빠른데.”

“…저쪽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쪽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억울하지는 않겠어.”

“저희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일 테니까요.”

이세르는 문득 아리아의 입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참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입가에 미소를 띤 채로 제 누이를 살피던 이세르는, 곧 차이솔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인간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어가 아니었다. 지오반니를 스승으로 모신 그는 얼마든지 이상적인 사제가 될 수 있었다.

“갈까요, 차이솔 사제.”

“그러니까 우리 아직 사제 아니야….”

“저는 맞습니다.”

그저 혐오할 뿐이지.

“손이 차갑지는 않나요?”

“너무 차가운데 혹시 핫팩 붙여도 돼?”

“…안 됩니다, 피부가 마르거든요.”

“그럼 수족 냉증 안 걸려?”

“원래도 체온이 인간보다 낮은 인어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지오를 맞이할 준비는 마쳤다.

그리고, 싸울 생각은 없다.

“…….”

“또 악몽 꿔?”

“안 꿔요.”

그랬으면 좋겠네.

* * *

“반갑습니다!”

지오는 죽었다, 살아나도 지오였다.

“바다의 은총을 한 몸에 받은 우리 인어 친구들 계시나요?”

“세상에나, 이게 누구람.”

신전의 입구 계단을 걸어 내려오며 아리아가 고상하게 웃었다. 화려한 머메이드 드레스가 계단에 파도처럼 넘실거렸다.

“집주인 허락도 안 맡고 무단으로 침입하던 새로운 태양신, 검은망토 씨 아닌가요?”

“검은망토라니요, 지금은 서지오입니다. 나중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래요, 지오.”

“사실은 지오반니예요.”

"…그럴 수도 있지."

웃으며 대꾸한 아리아가 황망한 표정의 인간들을 돌아보았다.

"보아하니 인간 아이를 구하겠다고 우르르 몰려온 것 같은데."

"…은하 군의 가족분 되십니까, 인어 아가씨?"

"그렇죠, 이세르의 누나이자 이 던전의 진짜 주인인 아리아라고 해요."

"오…."

유성운이 지오를 보았다.

"아무래도 돌아가면 던전의 등급을 높이자고 제안해 봐야 할 것 같아."

"왜죠? 지금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압니다만…."

"던전 주인이 둘이나 있잖아. 이런 경우는 흔치 않거든."

웃는 얼굴을 유지한 채로 한숨을 내쉰 유성운이 다시 아리아를 보았다.

"던전의 진짜 주인께서 이렇게 긴장감 없이 몸소 나와 주셨다는 것은, 아마 저희와 싸울 생각은 없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말이 잘 통해서 좋군요."

아리아가 빙긋 눈을 휘었다. 제법 내숭을 부릴 줄 아는 몬스터였다.

"동생을 허락도 없이 데려와서 미안합니다, 차아라 헌터."

"어…."

"여러분을 불러오기 위한 장치로 사용했을 뿐 생채기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니 걱정 말고 동생을 확인하러 가세요."

"어, 어어… 어…."

"나약한 헌터 분께서 홀로 가기 무서우신 모양입니다. 그쪽의 다른 두 분도 함께 이동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숙녀분에 대한 예의겠죠?"

유성운이 어깨를 으쓱였다.

"나는 신사가 아니라서 말이지."

그가 해야 할 일은 근원의 존재를 돌보고 갤러리의 작품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었다. 유성운은 강서담과 차아라를 돌아봤다.

"내가 지오와 함께 있을 테니까 사제님이랑 차아라 헌터는 차이솔 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어 이세르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아마 함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전투의 확률은 낮겠군요."

"차이솔 군은 지오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험악한 상황은 아니니 차이솔 군이 무사하다는 말은 진짜일 테죠. 인어들의 심기를 거스르기 전에 움직이는 게 어떨까요."

"확실히 그렇겠습니다."

강서담은 잔뜩 쫄아 있는 차아라를 이끌고 신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뒤에 대고 아리아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복도 마지막 방에 제 동생과 함께 있을 겁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내 두 헌터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아리아가 지오를 눈에 담았다.

“…….”

피를 칠한 듯 새빨간 입술이 무겁게 열렸다.

“너무 닮았네.”

“본인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서지오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내가 아는 지오가 맞는 것 같아.”

아리아가 눈을 휘었다.

“그 사람은 항상 가능성을 열어 두었거든.”

“그랬던가요?”

“자신의 죽음마저도.”

“면목이 없네요.”

“…….”

계단에서 지오와 유성운을 내려다보던 아리아가 몸을 돌렸다.

“들어오세요, 신사분들.”

“…….”

“인어의 초대를 마음껏 즐겨봐요.”

유성운이 작게 중얼거렸다.

“…지오 너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었다면 아마 전투 시작 대사로 들렸을 거야.”

그만큼 아리아의 음성은 기괴하고 섬뜩한 무언가가 있었다.

부드럽게 웃고 있음에도 인간을 향한 그 혐오와 경멸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이었다.

* * *

아리아는 지오와 유성운을 만찬장으로 안내했다.

“와 해산물 파티네.”

유성운은 어이가 없었다.

“인어가 이래도 돼?”

“인간들은 참 편협하단 말이지. 인간이라고 육지 생물은 한 마리도 안 잡아먹나?”

“하필 심해에서 인어가 차린 해산물 만찬을 대접받는 인간의 기분도 생각을 해달라고, 무섭잖아. 육고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식탁이 대체 무슨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지 상상하게 된단 말이야.”

“인간을 식탁 위에 차린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일까?”

“진짜 무섭다….”

아리아의 어조는 어느새 편하게 바뀌어 있었다.

‘나름 집 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유성운이 힐끗 지오를 보았다.

‘…그냥 이 녀석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편한 걸까.’

둘 다일 수도 있었다.

지오는 둘이 뭐라고 떠들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리를 찾아갔다. 꽤 익숙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유성운이 신전치고는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느껴지는 만찬장을 둘러보았다.

“여기 신전치고는 뭐가 이것저것 많네.”

“이곳 태양교는 검소함을 덕목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 응?”

유성운은 다시 지오를 보았다.

“너 역시 여기가 어딘지 아는 거야?”

“제가 교육을 받던 곳이었으니 알 수밖에 없죠.”

“교육이라고 하면….”

“사제로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린 사제들의 수련 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하.”

어느 세상이나 사제를 키우는 방식은 비슷했던 모양이다.

지오의 설명에 그를 지그시 바라보는 아리아를 확인한 유성운은, 애써 한숨을 삼키며 지오의 옆자리에 앉았다. 아리아는 당연하다는 듯 상석이 아닌 지오의 맞은편에 앉았다.

“…? 이 자리의 주인은 너일 텐데, 왜 상석에 앉지 않는 거지?”

“저 자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교황이었어.”

아리아는 둥글게 눈을 휘었다.

“내가 잡아먹었지.”

지오가 화들짝 놀라 아리아를 보았다.

“배탈은 안 났습니까?”

“아니… 잠깐만, 지오야, 지금 그게 중요해?”

“그 인간 배에 포화 지방이 얼마나 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몬스터가 사람을 잡아먹었다는데 할 말이 정녕 이것뿐일까. 아리아도 비슷한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별로 유감은 없어 보이네.”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어떤 고초를 당했는데 말이 곱게 나가겠나요.”

“그 고결한 얼굴을 하고 꽤나 신랄하게 군단 말이지.”

피식 웃는 입술에 따라 푸르른 머리카락도 함께 하늘거렸다.

“역시 당신은 내 선생님이 맞나 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없다면 내가 말해주도록 할까?”

아리아가 미소 지었다.

“선생님.”

“…….”

“인어들의 인간 선생님. 성자의 화신인 지오반니 사제. 인류의 구원자이자 배신자.”

“모르는 사이에 많이 거창해졌군요.”

지오도 함께 마주 웃었다.

유성운은 문득 지오반니와 아리아, 그리고 이세르의 미소가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명 웃는 얼굴인데도 즐거움보다는 무거움이 느껴지는….

그사이에도 지오는 말을 이었다.

“이제 절 뭐라고 부를 건가요, 아리아?”

“뭐든 좋아.”

딱—!

인어가 손가락을 튕기자, 신전이 바닷물로 가득 찼다.

“…….”

숨은 막히지 않았고.

“당신의 바다로 돌아온 걸 환영해.”

심해를 닮은 머리카락이 산호처럼 흩어졌다.

인어의 드레스는 느긋한 파도를 닮아 지느러미처럼 움직였다. 진주색 눈이 시리게 반짝였고, 머리 위의 티아라가 오묘한 빛을 발했다.

바닷물에 완전히 잠긴 만찬장의 해산물들은 이미 죽은 머리를 들어 입을 뻐끔거리며 손님이자 침입자를 반겼다.

“…그래, 그렇지….”

그 자리에 바다의 현신이 있었다.

“…….”

“지오.”

결코 인간일 수 없는 눈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다웠던 성자를 담았다.

“나와 대화를 나누자.”

“좋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간들을 전부 잡아먹을 거야.”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인어 공주는 분노하고 있었다.

“그대도 말이지.”

오로지 ‘인간’을 향해서.

던전을 그리는 화가

오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79)"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80)

제80화

지오는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한 인어 공주를 보았다.

“…….”

심해처럼 기이한 색감의 머리칼도, 전설과 같이 진주를 닮은 눈도, 파도를 닮은 드레스마저도 바다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위에 걸친 품이 큰 의사의 하얀 가운이 유독 튄다.

그때의 우리는 종종 그런 장난을 치고는 했다. 별거 아닌 장난이었다.

“…….”

“…그래, 나도 인간이지.”

그러니 지오반니는 확신할 수 있었다.

“대화를 하자.”

결국 이 자리는, 인간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

인어공주에게 결말을(0/1)

그걸 확신했다.

* * *

아리아는 지오반니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아리아가 생각하는 유일한 인간이었다. 그 수많은 인간 중 가장 진실 된 인간이며, 동시에 동화에나 나올 것처럼 선하고 다정했다. 희귀한 것은 사랑받아 마땅하다.

“나는 그대를 존경해, 지오반니.”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

“겨우 존경이라는 얄팍한 단어로 가리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잖아?”

“저로서는 정신 차리고 보니 어린 인어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 셈이 되지만요.”

“이제는 어리지 않아, 안타깝게도.”

아리아는 지오반니를 사랑하지만, 인간을 증오했다. 혐오하고 경멸했다.

“그대에게 배운 것이 너무나도 많았지.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활,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체 구조 또한 제가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건 많은 도움이 되었어. 하물며 당신이 죽은 그 이후에도 말이야.”

“나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보다는 사랑과 아집에 가깝겠지. 그건 원망과는 조금 다를 거다.”

“인어는 그런 생물이죠.”

“한때의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미련한 종족이지 않겠어?”

그런 인어에게 지오반니라는 존재는 너무나 가혹했다.

“그대의 죽음 이후로 수많은 인간을 마주했다. 어떤 이는 희생적이었고, 어떤 이는 이기적이었고, 어떤 이는 자식조차 나락으로 내몰았으며 어떤 이는 얼굴조차 모르는 남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

“그런 다채로움이 바로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 또한 동의해. 그렇기에 이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 언젠가는 끝이 나리라고 믿으며 수없이 많은 인간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해 왔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겠군요.”

“꽤 오랜 시간 이날이 오기를 바랐어. 의미도 없는 화풀이를 계속하고, 그 수많은 차원의 태양을 가라앉히며….”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 나에게 결말이 온 것 같아.”

그건 지오반니라는 이름의 결말이었다.

“지구의 인어 공주라는 동화는 결국 인어가 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말던데. 지오반니 그대가 그리는 결말도 이와 같은가?”

“어떻게 상상할지는 모든 어린아이의 자유입니다. 동화에서의 인어가 거품이 되어 모두에게 잊힌다 하더라도 어떤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왕자님과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겠죠.”

“미안하지만 이제 여기에 아이는 없어. 이 자리에 남은 이는 인간의 한계를 보기 위해 새빨간 피를 묻힌 공주님과 그를 따르는 충실한 부하뿐이다.”

“그렇다면 인어 공주님께서 원하는 결말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고통. 인간의 절망. 인간의 말살이겠지. 하나라도 더 많은 태양을 가라앉히기 위해 온 지구에서 그대를 만날 줄은 몰랐지만… 일단은.”

“인간을 잡아먹었습니까, 공주님?”

“이미 모든 차원의 바다는 수많은 인간을 잡아먹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는 탐욕스러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고, 죄 없는 인간 또한 잡아먹고 있을 것이다.”

지오반니의 고결한 낯이 보였다. 인류의 구원자이자 유일신의 아들로 불렸던 성자의 얼굴이었다.

“그대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에게 바다는 잔혹한 존재가 아닌가?”

“그러나 아름답죠. 수영조차 못 하는 제가 바닷가에 집을 짓고 반평생을 살았던 것처럼요.”

“아직도 바다와 인어가 같은 존재라고 여기나?”

“아름답다는 말이 듣고 싶은 겁니까?”

“아니라고는 못 하겠군. 내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나의 선생님.”

하지만 이건 당신이 바라던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대의 손으로 키워낸 인어가 이렇게 자라난 모습을 보니 심정이 어떻지?”

“…….”

푸른 눈에 애도가 담겼다.

“…슬프군요.”

“그래.”

“다시 만나서 기쁘고, 안타까워요.”

“그건 어째서지?”

“그대는 인어이니까.”

그건 누구를 향한 애도였을까.

“나는, 인간이고.”

“…지오반니 그대는 늘 인간과 인어의 차이와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했어.”

한평생 동화만을 노래할 것 같은 미소로 지오반니는 언제나 현실의 처참함을 이야기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이다.”

아리아는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는 하얀 머리의 헌터를 보고는, 다시 여전히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는 지오반니를 보았다.

“나는….”

그녀가 한평생 만들고자 했으나 만들지 못했던 미소다. 제 동생이 흉내 내었으나 흉내에서 그쳤던 미소다. 다시 한번 가지려 했으나 만들 시도조차 못 했던….

그래서 결국 포기한 미소였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끝없이 인간을 공부하며 그들의 한계를 알아내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나의 부족한 역량을 고백하건대, 그것은 분명한 목표라고 정의할 수는 없었어. 그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던 것뿐이다.”

지오반니가 말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겠지요.”

“지오반니, 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거야. 날 도와줘야 해.”

너는 무엇을 선택할까.

“이 미련한 고집쟁이 인어는 죽지 않을 남은 생을 그저 인간을 증오하고 경멸하며 혐오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 이곳 지구의 동화처럼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수도 있어.”

인간의 죽음인가, 인어의 죽음인가.

“자, 선생님.”

“…….”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아리아는 지오반니라는 인간을 존경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한다.

그가 인간이라는 것에 신비를 느끼고, 그의 끝없는 지혜와 샘솟는 다정을 숭배한다. 바다에 햇볕을 끌어올 수 있는 인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지오반니였다.

“선생님은 땅과 바다가 하나가 되길 원했잖아요.”

아리아는 바다를 하늘에 두어 태양을 잡아먹었다.

“우리의 선택이 같아도, 분명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그렇지요?”

지오반니는 이와 같은 차갑고 비린내 나는 현실이 아니라, 햇볕 냄새가 나는 따듯한 동화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지오반니는 인간들에게 배신당했고 인어에게 잡아먹혔다. 아리아는 온기를 담은 그 선한 낯을 보았다.

“…….”

“이제 내게 끝을 줘.”

당신은 그걸 위해 태양이 되었잖아.

* * *

흘러가는 상황을 보며 유성운은 애써 숨을 죽였다.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처음 차이솔 군이 납치를 당하고, 그 결과 이 인원으로 ‘심해의 나라’에 올 때까지만 해도 큰 전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야 던전에 헌터가 들어가면 전투가 벌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 아리아라는 인어는 정말로 대화를 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이 자리는 오로지 설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것도… 인간과 인어라는 양자택일을 지오에게 강요하고 있어.’

진심이 느껴졌다.

‘지오가 인간을 선택하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괘씸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인간들을 괴롭히려고 하나? 아니면 정말로 죽겠다는 거야?’

앞으로 지오가 어떤 ‘길’을 알려주느냐에 따라 아리아는 평생 인간을 괴롭히거나 혹은 이 자리에서 죽어버릴 것이었다.

‘몬스터라는 것이 다 그런 법이지만….’

아리아 또한 인간에 대한 증오가 더없이 강해 보였다.

‘인간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이전과 같은 생활은 청산하겠다는 소리 같은데. 하긴 수천 년이나 흘렀으면 슬슬 결판이 날 때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선택을 지오에게 넘긴다는 게 말이 되나? 다른 무엇도 아니고 인간과 인어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잖아.’

뭐 이런 이기적인 심보가 다 있어.

“…….”

유성운이 지오를 돌아보았다.

“…….”

“…….”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로, 아리아라는 인어를 보고 있었다.

‘…무슨 선택을 할지, 나도 궁금해질 지경인데.’

일단 ‘지오의 초상화’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지극히 호의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처음 ‘심해의 신전’에 왔을 때도 걱정했던 것처럼, 이 인어들과 인연이 깊은 지오반니는 그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심지어 지금은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야. 여기서 인간이 아니라 몬스터가 된 인어를 선택한다고 해도, 오히려 몬

스터들끼리는 같은 편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만큼… 지오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

게다가 그쪽이 더 합리적이기도 했다.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훨씬 손해가 적었다.

‘인간을 선택하면 친했던 인어인 아리아가 당장 죽는 것에 반해, 인어를 선택한다고 해도 모든 차원의 인간을 갑자기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오가 당장 인어를 선택한다면 그들의 곁에서 조금은 인간을 옹호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객관적으로는 더 이득이고.’

분명 아리아는 ‘너도 결국에는 인간이다’라며, 불쾌해지면 지오조차 잡아먹을 것처럼 굴었지만… 지오의 격이 있는데 그리 쉽게 당하지도 않을 것이었다.

그렇게 따지자면 이 던전에 있는 소수의 인간은 죽겠지만, 다수의 인간과 친애하는 인어들이 살지 않겠는가. 마냥 선하지 않고 뻔뻔한 면이 있는 지오반니를 알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됐다.

“…….”

그렇다고 해서 나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 유성운은 입을 다물었다.

‘…결국은 지오가 선택할 일이지.’

시간을 두고 기다렸을 때였다.

“후우….”

지오가 웃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가족은 닮는다더니 우리도 그랬나 봐요.”

검고 무뚝뚝한 흑발의 지오와 달리, 화사한 색감의 지오반니는 어딘가 장난기가 느껴지는 그 가벼운 미소조차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아리아라는 인어는 시리도록 무표정했지만 그 미소에 눈을 빼앗긴 듯했다.

“…….”

꼭 그리웠던 한때를 어쩔 수 없이 떠올린 것처럼….

지오는 민망한 듯, 난감한 듯, 그럼에도 우습다는 것처럼 입술을 휘었다.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어찌저찌 잠수정을 타지 않아도 ‘심해의 나라’로 올 방법이 있었지만, 아무리 이곳을 돌아다니고 기다려도 이세르나 그대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초상화가 그동안 ‘심해의 나라’를 방문했던 건 인어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

“아마 나를 피했던 걸까요?”

“아니라고는 못 하겠네, 새로운 태양신에게 천벌을 받을까 봐 너무 무서웠거든.”

“태양신이라….”

“설마 숨길 생각은 아니었을 테고. 그런 뜨거운 신성을 품고서는 말이야.”

“얼떨결에 떠안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해야 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닌가? 당신도 모르는 게 있다니 신기한걸.”

“저도 인간이니까요.”

“…….”

“우린 늘 한계에 부딪히죠.”

지오가 특유의 반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이솔 형제를 납치해 저를 불러들인 것처럼, 저 역시 우리 친애하는 인어 친구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대화를 나누었으면 해서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강구했지?”

“여러분이 준비한 것에 비하면 많이 조촐한 방안이죠. 대충이라고 해야 하나. 스승 체면에 대단한 것을 보여주지 못해 많이 부끄럽습니다만….”

—콰지지지지지직…!!!

“자.”

눈이 아플 만큼 찬란한 그 빛과 어울리지 않는 흉포한 굉음과 함께, 빛의 창이 생겨났다.

그가 양손을 펼친다.

“…….”

“보세요.”

그것은 다 합쳐 10개를 넘어갔고.

그 태양의 열기를 품은 창의 날은, 지오를 향해 있었다.

“이게 바로 인간이 대화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

어느새 신전의 바닷물은 말라 사막과 같이 끔찍한 열기만이 가득했다.

“…인간의 대화라니, 그게 무슨 소리지?”

“선한 자가 매번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도 알아.”

“그럼 더 잘 알았어야지.”

지오가 가르치듯 말을 이었다.

“호의를 베푼다고 하여 호의로 돌아오리라는 보장은 없고, 악명 높은 악당이 언제나 처벌을 당해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을 녹여줄 수도 없어요. 세상은 동화가 아니고 현실은 그 순간마다 겹쳐지는 대로 결말이 만들어지니까요.”

“…….”

“인간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퇴화할 수 있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이 변덕스러운 생물의 모든 결말이 언제나 일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멍청한 일이죠. 영민한 당신이라면 분명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만찬장은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렇기에 인간은 수많은 규칙을 만들어 냈습니다. 서로 마주 보는 법을 배우고, 대화하는 법을 배우죠.”

“…….”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도 가늠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살인마는 죄를 물을 수 있도록 정해 두었어요.”

“…지금 나에게 죄를 묻겠다고? 인간도 아닌 나에게, 인간의 규칙을 들먹이며….”

“아리아.”

햇볕을 닮은 낯이 따사롭다.

"인간은 다채로워. 한계가 없고, 너 역시 그래.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변화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 하였다."

"……."

"너는 그렇지 않았니?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성장하고 퇴화했기에 마치 수천 년 전과 같다는 착각을 한 것뿐인데도…."

"…나는."

"우리는 대화할 수 있어."

그 음성은, 단호했다.

"네가 마땅한 벌을 받는다면 말이야."

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처럼.

"…이게 대체 무슨 벌이라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꽤 치사한 수법을 쓰지. 이번에는 내가 물어보도록 할까."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돼."

"인간을 향한 그대의 증오를 내가 막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아리아."

학생을 이끌어주던 선생이 물었다.

"내가 그대에게서 '지오반니'를 빼앗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지오는 인간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라면 인간과 인어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존재이므로, 그는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은 셈이 된다.

욕심쟁이 어른의 치사한 선언에 인어의 낯이 허물어졌다.

"나와 그대를 포함한 인간을 선택할지."

"…아…."

"인어의 분노를 선택할지는,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자 드러난 건 바다가 아닌, 덜 여문 학생의 것이었다.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81)

제81화

어느 날 어린 인어가 말했다.

"잡아먹어 버릴 거야."

"……."

지오반니가 어색하게 웃었다.

"…시장을 다녀온 사람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잡아먹을 거라고."

"아리아를 혼자 두고 시장에 갔던 것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군요."

"그래, 마음에 들지 않아."

"책에 푹 빠져 혼자 집에 남겠다고 했던 건 아리아, 그대잖아요."

"잡아먹어 버…."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함께 가도록 하죠."

누이가 화난 것인가 하여 지오반니의 뒤에서 연신 눈치를 살피는 이세르를, 지오반니가 토닥이며 아이의 손에 식자재가 든 봉투를 넘겼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다.

"주방에 가져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르."

주방으로 간 이세르를 보던 지오반니가 아리아의 곁에 앉았다.

"이렇게 보면 아주 많이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은데."

"인간들은 이걸 화가 난 것이라고 표현하나?"

"역시 인어들은 감정에 무디군요. 보통은 소통하는 일이 거의 없는 바다 생물들 사이에서 살기 때문일까요."

"바다 생물들도 엄연히 소통을 한다. 멍청한 인간들이 알아보지 못할 뿐이야."

"과연 그렇습니까. 하지만 지상의 생물과는 그 결이 다를 겁니다."

새파란 눈이 휘어졌다.

“아마 지금 아리아, 그대가 느끼는 것은 분노인 듯합니다.”

“인어가 화났다는 이야기는 제법 생경하군.”

“저도 화를 내는 인어는 처음 봅니다. 인어들은 인간들과 싸울 때도 늘 무표정이었죠.”

“그랬겠지.”

인간이 인어의 새끼를 죽일 때조차 인어는 분노하지 않았다. 단지 표정 없이 서늘한 얼굴로 응징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제 자식이 죽어도 신경 쓰지 않는 괴물들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고 보니 옆 마을에서 또 인간과 인어가 싸웠다더군. 선생님은 그것을 보았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보았던 인어들은 늘 감정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가 웃었다.

“아리아도 알다시피 인간과 인어의 갈등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모를 만큼 오래되었지요.”

누가 이 갈등의 시초였는지는 그들조차 몰랐다. 단지 인간들은 인어를 섬뜩한 바다의 괴물로 보았고, 인어들은 인간을 멍청하고 위협적인 짐승으로 여겼다.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이제는 인어들이 아무런 죄 없는 인간을 바다에 빠트려 죽였고, 인간들은 무고한 인어를 광장에 말려 죽였다.

그것을 보며 서로 외치는 것이다.

“다들 이렇게 말하죠. 인어들을 죽여야 한다. 인간들을 죽여야 한다.... 이 끔찍한 상황을 악마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면서 말입니다.”

“.......”

“나는 인어와 인간의 갈등을 제 두 눈으로 봐왔습니다. 태양의 아들로 살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인어들을 마주쳤어요.”

“그래서 인어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는 것인가?”

“확실히 인어 앞에서 보이기에는 부적절한 자신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리아의 화난 모습은 낯설군요.”

“앞으로는 자주 보게 될지도 몰라.”

“어이쿠....”

지오반니가 짙은 남색의 머리카락을 조심히 쓰다듬었다.

“제가 알기로 인어가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일부 지역에 퍼져 있는 미신일 뿐일 텐데, 왜 저를 잡아먹겠다는 말을 하셨는지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순종적으로 말을 들었으니까.”

“학습의 결과물이라는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지오반니는 그런 인어의 학습을 이해했다. 단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인어들의 무심함은, 더더욱 인간들의 공포심을 부추기고는 했다.

하지만 지오반니는 인간을 궁금해하는 이 인어가 더 친화적이고 사회적인 어른이 되었으면 했으므로, 이것이 단순한 배움의 결과에 그치지 않기를 바랐다. 지오반니가 곧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그건 장난이겠네요.”

“장난?”

“정말로 저를 잡아먹을 생각은 아니잖습니까.”

“인어는 인간을 먹지 않아, 배탈이 나거든.”

“그렇다면 역시 장난으로 치죠.”

인어의 잔인한 배움에 과한 무게를 두고 싶지 않았다. 지금껏 인간들은, 그리고 인어들은 상대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토록 깊은 갈등이 닥치지 않았던가.

그는 단지 조언했다. 선생님이자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대단히 가벼운 조언이었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 순종적으로 명령을 듣게 하는 것은 확실히 편리할 겁니다. 하지만 그저 겁을 주기만 한다면 아주 많은 사람이 아리아의 곁에서 도망을 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안 좋은 일인가?”

“적어도 인간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리아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겠죠. 인간은 단지 공포 속에서만 다채로운 반응을 보이는 생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하고 기쁠 때 훨씬 더 많은 반응을 보여요.”

지오반니는 이 인어가 훗날 혼자 남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녀의 동생이 바라듯, 바다와 태양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오기를 원했다.

인어는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가며 하나의 추억 속에 머문다. 어쩌면 지금의 일상이 마음에 든 이 어린 인어가 그대로 자라 언젠가 인간을 돕는 인어가 될 수도 있었다. 평화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강요하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제 짧은 생을 품고 한평생을 살아가야 할 이 인어가 더 부드러워졌으면 하는 바람은 분명히 있었다.

“이런 장난을 계속 치면 아리아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 겁니다.”

그에 오만한 인어가 물었다.

“나의 동생은?”

“…….”

“그리고, 그대는 어떻지?”

“…아마 저희는 늘 당신의 곁에 남아 있겠지요.”

“언제나?”

“제가 죽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죽을 거잖아.”

인어가 불평했다.

“인간의 수명은 너무 짧아. 너희를 만든 태양이 멍청했어.”

“수명이 짧기에 더 다채로운 양상을 보이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 수명이 길기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시간을 보내면 천천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절박함을요.”

지오반니는 인간의 한계를 알았다. 또한, 거기서 비롯된 무한한 가능성도 알았다.

“숨이 짧은 생물이기에 더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나태해진 인간은 쉽게 도태되고, 그 상황은 쉽게 악화되며, 인간은 그런 상황을 반길 수 없으니까요.”

“더 절박하기 때문에 발악하는 거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아리아, 고민해 보십시오.”

“…….”

작은 머리로 고민하던 인어 공주가 물었다.

“그렇다면 인어 역시 절박할 경우, 너희처럼 다채로워지는 것인가?”

“그럼요. 인어는 단지 인간들에 비해 물과 친숙하며 수명이 조금 더 길 뿐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것이 달라 보이는데.”

“만약 인간에게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아가미가 생기고, 보다 영원에 가까운 생을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인어라 부를 겁니다.”

“우리가 같다는 말을 하는 건가?”

“그 누구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느낀 것이 있다면 결국 아리아, 그대도 나와 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오반니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인어들 역시 소중한 것을 만들어내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게 미래의 다양성과 무슨 관련이 있어.”

“그 어떤 생명체든,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명체든?”

“말이 통하지 않는 네발짐승도, 우리에게 자주 잡아먹히는 물고기조차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 온갖 꾀를 쓰고 강한 힘을 키웁니다.”

“그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이지.”

“타고나는 본능 또한 소중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어는 잘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그렇다면 인간의 탐욕 역시 같은가?”

“그 탐욕을 지키는 게 스스로에게 소중하다면, 예, 그렇습니다.”

모두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있기에 다채로워진다. 단지 인간은 인어보다 그 생이 짧기에 목표를 이루고자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 인어 역시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인어가 대체 뭐가 다른 것이지?”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대단한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지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

“이해와 양보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이 긴 갈등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인어가 무표정한 얼굴로 불평했다.

“이상한 소리야.”

“역시 그렇게 들리는군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런가요?”

“잡아먹을 거야.”

“안 그럴 거면서 참 심술도....”

“잡아먹을 거야.”

“아무렴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다.

“아리아, 누군가를 잡아먹겠다고 겁을 주려고 한다면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지?”

“아리아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인간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일 테고, 아리아는 그 반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책임을 지지 않는 생물은 그 무엇도 배울 수 없습니다.”

“.......”

책임이라.

“...그래.”

인어는 순순히 긍정했다.

“책임을 질게.”

“멋지군요.”

“잡아먹을 테다.”

“어이쿠... 또 뭐가 마음에 안 드셨을까.”

그러니까, 그건 장난이었다.

“내 식탁에 올리겠어.”

“이 사제는 맛이 없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장난.

* * *

“.......”

“.......”

인어가 눈을 깜박여, 황홀하게 찬란한 빛을 보았다.

태양의 것이다.

“...나는....”

내가 왜 동요하고 있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진 것인데.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절대 지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 빛은 거대한 바다조차 메마르게 만들 만큼이나 뜨거웠다. 한때 바다 위에서 인어들의 꼬리를 메마르게 만들었던 날카로운 열기였다.

속이 울렁거렸다. 깊고 어두운 심해에서조차, 태풍으로 일렁이는 수면 위에서조차 느끼지 못했던 멀미가 찾아왔다.

"...나는 잘 이해가 안 가."

"무엇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까?"

"글쎄, 이건...."

이것 또한 절박함일까. 그렇다면 무엇을 향한 절박함인지. 곧이어 인어가 할 수 있는 말을 찾아냈다.

"내가 왜 그대가 죽지 않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리아, 그대가 나를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오반니의 음성은 수천 년 전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실험실을 봤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창조하고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셨더군요. 생물을 해부하고 정리 정돈 하는 솜씨는 최소한 내가 가르쳤으니 그야 당연하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리아는 문득 그게 너무 이상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셀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곱씹고 기억해 온 목소리지만, 그간 이 목소리가 어떤 이유로 부재했었는지를 알기에 낯설었다.

당신은 태양의 곁으로 도망쳤다. 혹은 차가운 바다에 녹아들었다. 자연으로 돌아간 사람이 어찌 살아 돌아와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 내게 말을 걸고 있는가.

"심지어 일부는 성공했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망쳤습니다."

"......."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생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박제된 것만 같은 태양의 사제가 물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되살려 내지 않았나요?"

"...아무리 시도해도 성공하지 못했어. 시체라고 할 것도 없이 죽은 탓에 연구할 자료도 부족했고."

"그건 날 존중했기 때문이겠죠."

"그대가 보다 멀쩡한 형태로 죽었더라면 결과가 달랐을 거다. 의도한 것이 아닌 내 능력 밖의 일이었을 뿐이야."

"감정 역시 능력이라면, 그 역시 거짓은 아니겠습니다. 인어 또한 감정을 느낀다는 걸 나는 알아요."

지오반니는 확신하고 있었다.

"나를 사랑하잖아요, 아리아."

"왜 그러리라고 생각해?"

"목소리에 힘이 없군요."

"아니야."

오랜 친구와의 뜻깊은 재회였다.

이렇게 멍청한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야 나에게 끝이 왔다며 마음을 먹었던 것만큼 잘 비꼬아지지 않았다.

수백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멍청했던 적이 없었는데. 나는 많은 인간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농락하고....

“…….”

그런데 고작 그리운 얼굴 하나 봤다고 말이 나오질 않았다. 단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지오반니, 당신의 존재 하나뿐인데도.

그제야 당신이 나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내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어른이자 나의 이정표.

‘그렇지. 맞아, 그랬어.’

놀랍게도 아리아는 그를 이겨본 적이 없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애초에… 신성을 품고 있는 지오반니, 그대가 이런 식으로 죽는다고 죽어지겠어? 이건 분명 나를 당황스럽게 하기 위한 수작에 불과할 거다.”

“이게 거짓이라면 저는 수천 번을 당신의 앞에서 새로이 죽을 수 있고, 이게 진실이라면 이 자리에서 ‘지오반니’는 사라집니다. 그는 고작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그렇군.”

이런 반격이 돌아올 거라 생각지 못한 스스로가 우스워졌다.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마주친 내 스승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아리아와 달리, 지오반니는 얼마든지 그 자신을 망가트릴 수 있었다.

‘그가 스스로의 육신과 생명을 아끼는 이였다면 그보다는 더 오래 살았겠지.’

하지만 지오반니는 그가 원하기에 모든 것을 해내는 인간이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리아는 제 선생님을 이기지 못했다.

“…….”

여기까지 온 이상 아리아는 지오반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야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는 몰라도 지오반니는 인어들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고, 안타깝게도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아….”

그 순간부터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었다. 아리아도 그걸 알았고, 알았기에 제 끝을 지오반니의 손 위에 온전히 올려두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은사는 그 목줄을 휘두르기보단 자신을 괴롭히길 택했다.

그게 아리아를 처벌하기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분명히 그랬다.

“왜 이렇게까지 잔인해야 해?”

반사적인 질문에 그대로 답변이 되돌아 왔다.

“왜 그렇게까지 잔인하셨습니까?”

“…….”

“제게도, 그간 만나왔던 수많은 인간에게도.”

“…화가 났어.”

“그러니 책임을 져야겠죠.”

알고 있다.

“나도 알아.”

그는 책임을 지라고 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나에게 그 말을 해왔었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질 각오를 한 뒤에 행동하라고.”

아무리 그 긴 시간이 지났다지만 너의 가르침을 내가 잊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야 한낱 인간의 죽음과 고통 따위를 책임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 화풀이의 무게를 잴 것이었다면 애초에 시작조차 안 했다.

“내가 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그건 화풀이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아, 인간이 밉다. 그들을 증오한다. 이 분노의 감정조차 아리아에게는 너무나 소중해서 차마 누그러트릴 마음이 들지 않았다. 너를 사랑했던 감정의 크기만큼 내 원망과 혐오가 무겁다. 참으로 소중했다.

그러니 책임 역시 지지 않는 게 당연했다. 책임을 지면, 속죄한다면, 이 감정이 그른 것이라 단정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 끔찍하게 소중한 기억이 더럽혀지고 무뎌지지 않았으면 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책임지라 말하지 않았어.”

“꽤 많은 이들이 책임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랬겠지, 내 손에 죽고 다쳐온 수많은 인간들이 말이야.”

이 끔찍한 바다 괴물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길, 죽음보다도 끔찍한 나날을 이어가며 속죄하길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웃기는 이야기 아닌가. 나 같은 괴물에게 어찌 인간의 감정을 바라.”

그녀는 잠시 무던한 표정의 흰색 머리 헌터를 보았다. 유성운이라고 했던가. 아리아가 그에게 물었다.

“너희 헌터들은 던전에 서식하는 몬스터들이 법의 심판을 받길 원하나? 아니면 사과하거나 슬퍼하기를 원해?”

“...몬스터는 그저 토벌의 대상일 뿐이야. 그런 감정 소모는 하지 않아. 범죄자가 아닌 괴물들까지 심판대 위에 올리기엔 자원이 부족하고.”

“그래, 바로 그거야. 대부분의 인간들은 감정 없이 임무이기 때문에 몬스터들을 소탕한다. 나 역시 인간을 증오하기에 죽여왔어.”

아리아가 지오를 보았다.

“이런 내가 책임을 왜 져야 하지? 지오반니, 당신은 나를 인간으로서 가르쳤지만... 지금의 나는 괴물일 뿐이잖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사제의 마음이 정말로 아픕니다. 나는 바다를 사랑하는 인간을 가르쳤는데, 사실은 괴물이었다 하는군요.”

지오반니가 말했다.

“이 모든 게 화풀이라는 걸 알잖아요.”

“모르지는 않지.”

잘 알고 있다.

“내 행동을 그대의 죽음으로 정당화하고 싶지 않았어.”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그대는, 너무... 자비로웠으니까. 이런 건 바라지 않았을 테니.”

“그랬군요.”

“핑계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을 뿐이야.”

확인 삼아 물었다.

“여전히 그들을 원망하지 않나?”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그럼 어찌 나를 몰아세우지?”

“그들의 죽음을 책임질 만큼 원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기는 해도,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면 그 모든 반응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오반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답이었다.

그가 말했다.

“선택하세요.”

“대체 뭘?”

“인간입니까, 인어입니까?”

“…무슨….”

이해하기 힘든 질문이다.

날카로운 태양의 빛이 보였다. 그것은 언제든 지오반니를 꿰뚫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인질을 잡다니, 너무 영악한데.”

“저 스스로를 쓰고 있으니 질 책임도 가볍지 않겠습니까?”

“그대의 말이 옳아.”

자기 자신을 소비하는 것만큼 가성비가 좋은 게 또 없었다. 아리아 또한 그걸 알았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스스로를 이용해 수많은 인간에게 공포를 심어왔다.

이런 선택을 하는 인간을 처음 본 것 역시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이용해 거래를 하는 인간들은 지금까지 셀 수 있을 정도로만 많았고, 단지 그들은… 지오반니가 아니었을 뿐이다.

그래서 괴롭혔다.

“…….”

당연하지만 그걸 후회하지 않는다. 아리아는 자신과 제 동생의 행동이 편애와 불공정 위에 지어진 화풀이일 뿐이라는 것을 애초에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다만 언젠가는 그들 스승이 살아 돌아와 잔뜩 꾸짖고 벌을 주어 이 긴 생을 끝내주길 아주 막연하게 원했다. 오로지 지오반니만이 그럴 수 있었다. 그가 아니고서야, 이 인어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됐네. 어쩜 이렇게 변한 게 없지.’

그는 좀처럼 제자들에게 휘둘려 주는 법이 없었다. 진정으로 재회한 은사의 꾸짖음은 상상했던 것과 꽤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 말문이 막혔다.

“솔직히 말하자면….”

“솔직히 말해도 됩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런, 가여워라.”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 말이지.”

허탈했다.

지오반니에게 선택을 강요할 때까지만 해도 분명 코앞에 ‘결말’이 왔다고 확신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안 서.”

콰드득—!!

창 하나가 떨어졌다.

"......."

"......."

지오반니의 어깨에 피가 흘렀다.

그의 제자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지 아리아가 영민한 탓인지. 그녀는 순간 저 행동의 뜻을 찾아냈다.

정답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콰득—!!

두 번째 창이 떨어졌다.

"나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하면 되나...?"

콰즈즉—!!

세 번째 창이었다.

"죽지 마."

"틀렸어요."

쾅!!

"내 앞에서 죽지 마."

"틀렸군요."

까드득—...!!

"내가...."

"이제 나를 존중할 생각이 드나요?"

"...화가 났어, 지오반니?"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습니까?"

그의 음성은 여전히 온화하고 부드러웠으나, 아리아는 그가 아주 많이 화가 났음을 깨달았다.

아니, 그보다는.

"실망하지 않았으리라 기대했어?"

실망한 듯했다.

"......."

"...꽤 섬뜩하네."

고작 몇 번의 손짓만으로도 지오반니는 피투성이가 되었다. 구멍이 난 곳도 많고, 잘려나간 곳도 많았다. 새로운 태양신의 명예에 걸맞지 않은 허약한 신체였다.

그래서 무서웠다. 태양 불 앞에 살이 익어가는 지독한 냄새가 났다. 인어의 오랜 친구가 한낱 고깃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악취였다.

"...그때도 이랬나?"

하필이면 태양의 빛에, 이렇게나 다친 모습을 보니 그날이 떠올랐다.

“고문을 받았다면서.”

“그랬죠.”

“지금만큼 아팠어?”

“지금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럼 그만하면 되잖아. 현명하지 못해.”

“감정적으로 변한 인간은 원래 현명하지 못하죠.”

“그건….”

“너도 그렇지 않니, 아리아.”

“…….”

“그래서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해왔잖아.”

우습고 말문이 막혀 아리아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왜 나를….”

“…….”

“아직도 인간으로 보는 거야….”

하지만 울고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바닥으로, 드레스 자락 위로, 진주가 떨어졌다.

“왜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우리는 이렇게 변했는데.

“이건 나로 인해, 내 동생으로 인해 죽은 인간들을 향한 기만이 아닌가? 어쩜 이리 다정하지?”

“내가 다정하기 때문에 그대들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게 사실이기에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정말 웃기는군. 우스운 이야기야. 아무도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아. 그러니 그대는 여전히 다정한 게 맞아.”

붉어지지 않고 여전히 밀랍처럼 창백한 눈가에서 떨어지는 진주 때문인지 퍽 슬퍼 보이지는 않았다. 그건 그저 장식에 불과해 보였다.

“난 인간이 아니야, 지오반니.”

아리아는 그게 조금 불쾌하다고 생각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모든 걸 잡아먹어서라도 편해지고 싶었다.

“하지만 인간일 수도 있죠.”

“괴물이 인간을 잡아먹고 괴롭히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괴물이라고 불리기에 괴물다운 악행이 당연하다는 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지오반니는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고, 음성은 조곤조곤했다. 망가지고 어질러졌음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미소는 마치 박제된 그림처럼 보여 섬뜩하게 느껴졌다.

불에 타들어 가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초상화를 보는 듯했다. 생인지 사인지도 모를 것을 담은 피투성이 육신이 말을 이었다.

“인간을 잡아먹지 않을 수 있었고, 괴롭히지 않을 수 있었잖아.”

“…….”

“괴물이라고 불리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아리아. 너는 그럴 수 있었어.”

공포와 초조함에 익숙하지 않은 인어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몰랐다. 인어의 긴 생에 유일한 의미였던 스승이 죽었을 때조차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단지 그녀는 부탁했다. 하필이면 상대가 아리아의 유일한 의미인 탓에, 답지 않게 멍청한 모습이었다.

“나에게 화내지 마.”

“아리아는 나의 학생입니다.”

“…아직도?”

“아직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당신의 학생이기에 이렇게나 화를 내는 거라면.

“…그럼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안다, 괴물이라 자부한 주제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을. 그녀의 손에 죽어나간 자들이 코웃음을 치며 경멸하겠지. 하지만 옳은 길을 따졌더라면 애초부터 괴물이 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리아는 그저 제 마음만이 소중해서 되뇌었다. 있잖아, 그대를 세지도 못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그리워했어.

“내 앞에서 그렇게 아프지 마, 그래선 안 돼.”

“그대가 괴물이라면 이래도 됩니다.”

“…….”

인어는 결국 인정해야만 했다.

“…내가 아직 그대의 학생이라고.”

“그렇습니다.”

“괴물이 아닌 나는, 다른 방식으로 혼날 수 있나?”

“물론이죠. 이건 인간의 대화니까요.”

선생님다운 온화하고 단호한 음성으로 지오반니가 말했다.

“나는 언제나 그대들을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나와 같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

“분명 인어임을 알고 그 차이를 알지만, 그게 너희가 괴물이라는 의미는 아니지.”

너무 긴 이야기였으니 끝을 내기에 완벽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지오반니는 여기서 결말을 낼 생각이 없는 듯했다.

“어째서 나를 죽이는 게 완벽한 결말이 아닌 거지?”

“그것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비겁한 일이죠.”

“나는 평생 내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을 텐데.”

“하지만 나의 옆에 있는 이상 죄를 죄로 여기게 될 겁니다.”

“내 오랜 친구의 곁에 남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지.”

우스워져 물었다.

“그게 충분한 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돌려주는 것이?”

“첫째로 나는 여러분을 벌할 주제가 되지 않고, 둘째로 나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벌을 주지 않는다면 왜 나를 살려두는 거야.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면서 어찌 곁에 있으려는 건데.”

“나의 존재가 그대들에게 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선한 것을 좋아하니 여러분은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언젠가는 감화되겠죠.”

“그건 결코 나에게 지옥이 되지 못해. 그간 내가 죽이고 괴롭혀 온 사람들이 알게 되면 피눈물을 흘릴걸. 이런 건, 그 어떤 처벌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그대들을 벌할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책임도 의무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말을 이었다.

“다만 시간이 흐른다면 언젠가 여러분은 스스로를 괴물이 아닌 인간으로 여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날이 오면 굳이 누군가가 나서지 않더라도 알아서 지옥을 찾아가겠죠. 자신을 벌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대들을 키웠습니다. 가르쳤고, 지켜왔어요. 내 곁에 있을 때의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내가 압니다.”

지오반니는 태양이 뜨겁다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논하듯이 태연하게 말했다.

“너희는 참 호기심이 많고 영리하지. 발전하려는 의지도 있는 데다 새로운 시도를 겁내지 않아.”

“.......”

“그게 내가 아는 너희들이다. 그러니 내 곁에 남아 있어. 그간의 책임을 져야지.”

고결한 사제의 피와 태양의 불로 엉망이 된 만찬장에서 아리아가 항복을 전했다.

“...그럼 됐어.”

패배를 인정했다.

의미 없는 기나긴 화풀이에 후회는 없으나 너무나 길었다. 그럼에도 미움과 분노가 끊이질 않으니 멈출 수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니 가능하면 지오반니, 당신이 돌아와 인어의 이야기에 결말을 주길 바랐다. 당신만이 인어의 생을 끝낼 수 있었다. 그만이 이 정신 나간 동화를 마무리 지을 자격이 있었다.

“이기고 싶었는데, 내가 져버렸네.”

“이런 나라도 명색이 선생님이기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시간을 줘.”

“시간이라.”

“선생님의 곁에 어떤 형태로 남을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해.”

“저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 몇 남지도 않았던 빛의 창이 사라졌다. 아리아는 못내 아쉬움이 남은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괴물을 죽였어야지.”

“계속 말하지만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 처벌을 구하지?”

“비겁하다고 할 건가?”

“예, 비겁하게 굴지 마세요. 내가 죽은 시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제대로 어른처럼 처신하라는 겁니다.”

“내가 계속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할 거지?”

“그 또한 제 알 바가 아닙니다. 나는 그대에게 살인을 부추긴 적이 없고, 말린 적도 없습니다.”

“그럼 어찌 이걸 결말이라 해.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잖아.”

“그 대신 이제는 내가 곁에 있잖아. 아무것도 끝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건 아닐 거야. 맞죠?”

“부정하지는 않겠어.”

“개인적으로 이 정도라면 그리 나쁘지 않은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나요?”

지오반니가 웃었다.

“지구의 동화 속 인어 공주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기도 하지만, 인간이 되어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래, 내 왕자님.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대를 그렇게 생각했지. 그럼 이제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줄 건가?”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분노의 결말이 화해일 수도 있고, 용서일 수도 있고, 파멸일 수도 있어요. 그건 책임을 얼마나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생님과는 무관한 이야기가 될 테고? 다정한 건지 무심한 건지 모르겠네.”

“아, 이런. 미안한 이야기지만 난 할 만큼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연 끊고 모르는 체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하도 사고를 전방위로 치길래 정떨어진 거 참고 얼굴 보러 온 거야.”

“매정도 하셔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천천히 고민해 보도록 하죠. 이제부터 어떤 이야기를 만들지는 그대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오가 끝을 맺었다.

“우리에게 시간은 아주 많으니까.”

“…….”

“그렇지?”

* * *

인어공주에게 결말을(1/1)

동화율 100.0%

바틀란 지오반니 획득

연계: ‘심해의 나라’와 ‘숨 쉬는 바다’

팔레트 주민: 아리아, 이세르

성공적으로 연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달성: 등가 교환의 법칙

달성: 그림 속 화가

달성: 그림 속 그림

달성: 액자 속 인간

달성: ….

…….

.

.

.

튜토리얼을 완료하였습니다

던전을 그리는 화가

Chapter (81)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81)"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82)

제82화

식별 번호

0S-761-SS

대응 등급

SS

개체 유형

인간형_인어(여성체)

개체명

아리아

권능

심해의 나라

수집상 길드 권한의 175번째 공략 팀이 최초로 발견한 인간형 개체.

혈연 개체로 파악되는 '인어 이세르'와 달리 바닥에 닿을 정도로 머리카락이 길고, 어두운 남색이다. 푸른 색감의 드레스 위로 의사 또는 연구원의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데 체격에 맞지 않는 남성의 것이므로 '심해의 나라'의 스토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개체가 스스로 인어임을 밝히며 '아리아'라는 이름을 드러냈다. 거짓은 느껴지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인어 아리아'의 개체명을 확정한다.

특이 사항으로 신체와 감정 상태에 따라 눈과 모발의 색상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본 개체는 스스로를 바다와 동일시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바, 해당 개체가 주인으로 설정된 '심해의 나라'뿐만 아니라 임의의 차원의 바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초 목격 상황

던전 외부로 나와 예비 사제(태양교)를 납치, 인간의 반응을 보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집상 길드의 권한으로 구성된 탐사 팀이 '심해의 신전' 입구에서 목격했다. 특별한 공격 성향은 드러내지 않았으며 대화를 요청했지만 인간을 향한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보고됐다.

파악한바 '아리아'가 '심해의 나라'의 주인으로, '이세르'는 인간을 속이기 위한 거짓 주인이다. 두 개체 모두 인간을 향한 증오심으로 인간을 몬스터로 개조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를 반복해 왔다.

지구의 차원에서 매력을 느끼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인간을 향한 적극적인 공격을 멈출 것으로 예상. 던전에 방문해 소란을 피우는 등 특별히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형 개체의 특성상 대응 등급을 SS로 설정한다.

공략 방법 찾지 못함. 길드 수집상은 이에 대해 '회피'를 기본 대응 태도로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헌터 협회 역시 공략이 아니라 탐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예정이니 많은 헌터분들께서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댓글(1,043)

– S급이 공략을 시도해 보지는 않는 겁니까?

– 탐사 시즌의 정확한 기한을 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대응 등급 재확인 요망

– 공격 유형 확인 필요

…….

….

…….

* * *

결국 '심해의 나라'는 공략되지 못했다.

"A급 헌터가 세 명이나 참가했는데도 공략을 해내지 못한 겁니까?"

"수집상에서 '심해의 나라'를 구입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이번 탐사로 확인된 몬스터의 정보는 확실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심해의 나라'에서 수집상이 원하는 자원은 무엇이죠?"

탐사 인원 중 한 명이었던 유성운은 기자들을 상대해야 했다.

"예, 공략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수집상에서 S급 던전 '심해의 나라'를 구입한 것도 사실이고, 협회에 보고한 몬스터들의 정보도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자원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수집상 행정 팀에 직접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이고 뭐고 길 막지 마세요."

기자들이 유성운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번 던전 탐사의 수습으로 일주일 가까이 철야를 해야만 했던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퀭한 눈 밑의 다크서클이 거의 턱에 닿을 듯했다.

유성운은 매우 바쁜 사람이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행정 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만만한 게 유성운이었을 것이다.

서울에서 가장 교세가 높은 태양교의 상급 사제인 강서담은 그 신원이 밝혀졌지만 쉽게 질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다. 차아라의 경우 헌터 협회와 수집상에서 신상 보호를 해주고 있었다.

'그렇다고 또 다른 헌터인 서지오에게 접근을 하자니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겠지.'

그야 당연했다, 그들이 찾는 '서지오'는 비사벌의 갤러리 속에 잠들어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회사로 출퇴근이라도 하는 나를 붙잡는 거야 자연스러운 수순이야.'

이해는 하지만 진짜 피곤했다. 길드와 협회에 보고서를 내고 바다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오의 정보를 숨기고.... 본업인 큐레이터 일도 일주일이나 미룰 정도로 바빴던 것이다.

"유성운 헌터!"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아 없다니까."

요즘 기자들이 대부분 각성자인 시대라고는 해도 A급 헌터인 유성운에게 비할 바는 아니었다. 유성운은 유유히 자리를 빠져나와 길드 로비로 도망쳤다.

그를 기다리던 행정 팀 직원이 유성운을 맞이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계셨으면 좀 물리쳐 주지 그러셨습니까."

"요즘 기자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길드가 욕을 먹어서요."

"하긴 길드 이미지 중요하지...."

"저쪽에서 과하게 대들지 않는 한 저희도 대응이 힘드네요."

"알아서 잘 뿌리치고 나왔으니 일단은 괜찮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나치게 관심이 쏠린다고 판단될 경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길드 내부에 눌러앉아야겠네요. 휴게실 비어 있습니까?"

"한동안 신입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기숙사에는 좀 여유가 있을 겁니다. 비어 있는 방을 알아봐 드리죠."

"하여간...."

유성운이 한숨을 내쉬었다.

"'심해의 나라'에 다들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인간형 몬스터의 던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쉬쉬하면서도 인간형 몬스터는 여러 차례 등장했는데요. 다 비공식이라 그렇지."

"무엇보다 수집상에서 구매한 던전이기도 하고요."

"......."

목을 쓸던 유성운이 물었다.

"주의가 많이 끌렸습니까?"

"아직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되지 않은 S급 던전을 구매한 셈이니, 대체 수집상은 뭘 알고 있는지 궁금할 겁니다."

"이쪽에서 특별한 자원을 독점하지는 않을지 의심스러울 거고요. 그랬던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조만간 개미들이 모이려나?"

"주가는 높아지겠네요."

“딱히 그네들이 기대하는 종류는 아닐 텐데 말이지.”

특별한 자원보다는, ‘검은망토’와 지나칠 만큼 깊이 연관된 던전을 야생에 풀어놓을 수 없다는 판단에 구매한 것이었다. 그 검은망토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 될 테고 말이다.

직원이 어깨를 으쓱였다.

“공략만 된다면 관광지로 사용해도 될 텐데 말이에요.”

“확실히 안에서도 호흡이 되는 바다라는 것부터가 굉장한 메리트이기는 하죠.”

“그래서 결국….”

유성운을 훑은 직원이 이내 물었다.

“‘심해의 나라’와 ‘검은망토’는 어떤 연관이 있었던 거죠?”

“…….”

“파악된 정보로 따졌을 때 심해의 나라와 검은망토는 그리 어울리는 몬스터가 아닙니다. 그 푸르른 던전에 검은망토는 너무 생뚱맞아요.”

“…가끔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몬스터가 있기도 하죠.”

전혀 다른 던전에서, 완전히 똑같은 몬스터나 생물이 등장할 때가 있었다. 정원사들은 그것을 ‘근원의 자식’이라 명명했지만 헌터들 입장에서는 특이한 몬스터일 뿐이었다.

“그 부분은 제가 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바쁘시겠네요.”

“대신 맡아주실 생각은 없겠죠…?”

“저는 큐레이터가 아닌걸요.”

“그건 그렇습니다만.”

혀를 찬 유성운이 엘리베이터로 이동했다.

“그럼 대응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작품들 상태 확인하러 가세요.”

“그래야죠, 한동안 확인을 못 해서.”

급했던 일들을 대략 마치자마자 유성운이 곧장 찾아간 곳은 당연하게도 비사벌의 갤러리였다.

갤러리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직원 키를 대고,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지하 5층의 버튼을 눌렀다. 첨단 시설에 돈을 잔뜩 들이기로 유명한 수집상의 건물인 덕분에 아주 깊은 곳이라도 제법 금방 도착할 수 있었다.

“음….”

오랜만에 들른 비사벌의 갤러리는 역시나 중압감이 어마어마했다.

‘참 숨 막히는 곳이란 말이지.’

A급 헌터인 유성운에게도 썩 상쾌한 공간은 아니었다. 섬뜩하다고 해야 하나, 무겁다고 해야 하나.

근육통이라도 느끼는 것처럼 온몸을 오싹하게 하면서도 사람의 본능을 잔뜩 긁어내리는 기이한 공기가 이 갤러리에는 감돌고 있었다.

‘특히 지하 5층의 작품들은 성격들이 대부분 안 좋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유성운은 어느 초상화 앞에 섰다.

“…….”

새까만 물감에 얼굴이 가려진 탓에 그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심지어 얼굴도 종종 까먹게 돼.’

그는 ‘서지오 헌터’를 일주일 전에도 봤지만, 기억력이 나쁘지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떠올릴 수가 없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검은 물감만이 떠오를 뿐이었다.

‘이것도 초상화의 얼굴을 가린 영향 중 하나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유성운이 초상화를 불렀다.

“지오, 지금 여기 있나?”

“있습니다.”

“오….”

빠른 대답이었다.

“새벽이 아닌데 드무네.”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늘 새벽 4시 부근을 고집하던 ‘지오의 초상화’로서는 드물게 깨어 있는 시간이었다. 혹시나 규칙을 무시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던 유성운은 조금 안심할 수 있었다.

‘바로 대답이 없으면 그냥 돌아간 다음 새벽에 다시 오려고 했는데.’

물론 조금 의아하기는 했다.

‘새벽 4시에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이 규칙이 아니었던 건가? 그런 것치고는 그때 자주 보였던 것 같은데, 묘하네….’

아무튼 이렇게 된 이상 대화를 조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계속 깨어 있던 건가?”

“유성운 씨가 오는 소리가 들려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도 들리나 보지?”

“누군가 액자에 접근하는 소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지하다니 대단한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초상화가 그 특유의 무뚝뚝한 음성으로 물었다.

“무탈하게 지내셨습니까?”

꼬꼬마 사제 차이솔을 구하러 ‘심해의 나라’에 방문한 뒤로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림이라 할 수 있는 ‘지오의 초상화’도 그 점을 떠올린 듯했다.

“그간 모습을 보이지 않아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 보통 내가 안 보이면 그냥 어디서 과로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걱정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엄살 좀 부린 거지.”

다른 큐레이터에게 관리를 맡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다. 혹시 상한 부분은 없나 귀하디귀한 초상화를 살피던 유성운이 이내 물었다.

“너는 어때, 지오.”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딱 잘라 묻기 힘들지만 일단은 그... 인어 남매들이라든지.”

“여전히 바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듣기로 인어 남매는 아직 ‘심해의 나라’에 숨어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지오는 그것이 ‘한바탕 혼나고 얼굴을 보러 오기가 어색해서’일 거라고 말했다.

“.......”

유성운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걸 혼냈다고 표현하는구나.”

“조금 과격하게 보였을까요.”

“아니었다고는 못 하겠네.”

“지오반니로서는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학생을 혼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과연 보통의 선생님들도 학생을 그렇게 혼낼까, 지오야?

‘지오라는 인간의 인격이 사망한 다음 초상화가 되어 기묘한 부분이 생기는 건가 했는데, 그냥 원래 지오라는 것들은 인간일 때부터 조금 이상한 면이 있는 걸까. 인간으로 생활한다고 해도 결국 그 뿌리는 근원이기 때문에?’

저 기겁할 정도의 무심함은 종종 유성운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정신적인 부분과 별개로 결국 그 상황에서 크게 타격을 입은 건 지오였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흥이 없는 것 같아 보이네. 저 정도의 무심함이라니 역시 인간 흉내를 낼 생각이 없는 게 틀림없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났다. 바닷물을 모두 증발시켜 버릴 정도의 뜨거운 열기와 신성한 태양의 창과 그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어서도 ‘지오반니’의 미소를 짓고 있던 검은망토....

그 아름답고 기괴한 광경은 유성운의 시선을 빼앗았다. 아마 아리아라는 그 인어 역시 비슷한 심정이었으리라 그는 짐작했다.

‘...아무튼 혼낸 수준이 아니잖아.’

아니면 지오의 입장에서는 그게 적당한 훈육이었던 걸까. 이런 녀석이 진지하게 분노나 혐오의 감정을 품으면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되었다.

유성운이 말이 없던 걸 뭐라 생각한 것인지 지오가 물었다.

“불러 드릴까요?”

“응? 아... 아니, 나는 그쪽과는 대화할 게 따로 없어서.”

“지금의 그들은 제 눈치를 보기 때문에라도 자신들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

유성운은 내심 생각했다.

‘말 그대로 눈치 본다는 이유로 몸을 사리고 있는 것뿐일 테니까, 그렇게까지 안전하다고는 못 하겠는데.’

던전에서 지오반니와 아리아의 대화를 들었던 유성운이다. 그는 인어들에게 남은 유일한 의미가 지오반니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눈치를 보고, 자제하려 노력하고, 반성하는 척이라도 한다면 그것은 오직 지오반니를 통한 결과물이었다.

‘지오반니가 곁에 없는 인어 남매는 그저 상호 작용을 흉내 내는 것밖에는 불가능한 지능적인 괴물일 뿐이야.’

몬스터는 인간에게 그 어떤 의미도 두지 않기 때문에 인류의 적으로 통용되어 왔다. 지나가는 길에 밟아버린 벌레를 보는 수준으로 신경을 할애하지 않는 것이다.

‘던전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대충 이해가 가는 맥락이기는 하지.’

S급 던전인 ‘심해의 나라’에서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고 인간을 향한 증오의 원인을 알 수 있었다. 유일하게 사랑하던 인간을 그와 같은 인간에게 처참한 형태로 빼앗겨 버렸으니, 이해는 갔다.

‘그래서 더 대화하기 싫은 거지만.’

인어의 유일한 의미인 지오반니를 빼앗겨 화가 잔뜩 난 건 잘 알겠다만, 그걸 굳이 다른 차원의 인간들에게까지 화풀이할 필요가 있었을까.

자기들도 유치한 짓이라는 자각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 더욱 어이가 없었다. 결국 몬스터라는 거다. 인간과는 아예 사고방식 자체가 달랐다.

‘역시 옳고 그름은 몬스터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지 못해. 그들은 오로지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일만을 해내지. 그런 의미에서 지오를 더더욱 몬스터로 볼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몬스터는 대화가 안 됐다. 유성운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인어들이야 그렇다 쳐도 너는 괜찮아? 그날 상처가 컸잖아.”

“저는 태양의 사제이자 의사이니까요. 그 정도 부상은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초상화가 물었다.

“유성운 씨는 저를 걱정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불쾌한가?”

“기분 상할 이유가 없는 걱정입니다. 놀라게 해 죄송합니다.”

“뭐,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그건 지오의 선택과 시각적 자극에 놀란 것이지, 엄밀히 따져 ‘지오의 초상화’ 자체를 걱정한 건 아니었다. 그런 마음이 든 건 사실이지만 이성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게 사실이었다.

‘설령 지오반니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해도 이 초상화가 소멸되지는 않았을 거야.’

근원의 존재들은 유독 죽음의 경계선이 희미했다. ‘지오의 초상화’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았다. 그는 특히나 근원에 가까운 존재로 보이니 말이다.

“너는 실력 좋은 사제에, 집에는 네 아버지도 있으니까. 어렴풋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은 했어.”

“그날 회복을 위해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먼저 돌아온 것은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니야, 나나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는 부분이었고. 부상을 입은 너를 그대로 뒀으면 오히려 우리가 인어들에게 욕을 먹었겠지.”

구박받는 것 이상의 증오와 경멸을 받았을지도 모르고 말이다.

“부상이 컸는데 후유증은?”

“없습니다.”

“그날 아프진 않았어?”

“생각보다 안 아팠습니다.”

“그건 또 놀라운 소식인데.”

그때 보았던 지오반니의 너덜너덜한 모습이 절로 떠올랐다.

‘고통의 역치가 높은 건가? 아니면 말 그대로 고통에 둔감한 것일 수도 있어. 하지만….’

평소 멀끔한 차림의 ‘지오의 초상화’가 그렇게 망가진 꼴을 떠올리니, 속이 조금 불편해졌다.

“…음.”

유성운이 곧 말을 덧붙였다.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쪽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

지오는 자신의 목숨을 인질 삼아 아리아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가.

‘그냥 겁만 준 것도 아니었지.’

뜨겁게 작열하던 무형의 창이 지오의 몸에 박혔다. 태양신다운 실력으로 조절을 했는지 유성운은 그리 강한 열기를 느끼지 못했지만, 바닷물이 단번에 증발할 정도였지 않던가.

아무리 그가 인간이 아니라 초상화라는 걸 알고는 있어도, 피와 살이 새카맣게 타들어 가는 그 냄새를 맡고도 무덤덤할 수는 없었다.

“꽤 속이 상한다고, 그거.”

유성운은 지오를 꽤 괜찮은 친구이자 훌륭한 작품으로 인식했고, 그런 존재가 망가지는 것을 태연하게 수긍하기엔 그도 아직은 인간인 탓이다.

“걱정이 되더라. 한참 전에 회복한 너한테 이런 말을 하기엔 좀 웃길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때는 나도 심장이 철렁해서.”

“일주일이나 지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잖아. 그간 바빠서 큐레이터로서의 일에 소홀했던 것도 있고, 네 안부를 물어볼 방법이 없었던 것도 있고….”

“저는 평안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낼 걸 그랬습니다.”

“아니, 음, 아무튼. 바로 오지는 못했지만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기는 했다고. 일이 끝나자마자 케어해 주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다행이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 물감으로 가려진 초상화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초상화입니다. 제가 흘린 피도 결국에는 종이와 물감이니 회복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

…그런가?

왜인지 설득이 될 즈음에, ‘지오의 초상화’가 특유의 무미건조한 음성으로 물었다.

“재미없었습니까?”

“농담이었어?”

누가 근원의 존재 아니랄까 봐, 농담조차 섬뜩하기 그지없었다.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인간이 아니라는 걸 느낀단 말이야.’

유성운이 애써 화제를 돌렸다.

“그러고 보니… 너도 그때 아리아를 오랜만에 처음 본 거 아니었나?”

“예,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잘도 태연하게 아리아와 대화를 나눴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유성운이 느끼기에 ‘지오반니’의 인격은 인간에 가까움에도 비틀린 구석이 있었다.

지오반니의 입장에서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을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다른 차원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흉악한 몬스터가 되어 나타난 셈이 아닌가.

심지어 그가 죽은 이후, 부활 아닌 부활을 겪은 뒤에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도 지오반니는 정말이지 아무렇지도 않게 제 괴물이 된 학생들을 대했다. 절대 평범하다고는 못 할 성격이었다.

“그 인어가 잡아먹어 버리겠다느니 그런 소리도 했는데 말이야.”

“장난이었으니 괜찮습니다.”

“…장난이었다고?”

“어렸을 적의 아리아는 자주 그런 장난을 쳤습니다.”

“어….”

“마음에 안 들면 잡아먹어 버릴 거라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초상화가 일정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건 장난이 맞습니다. 아리아도 그 점을 알고 있어서 굳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난이니까?”

“만약 자신의 마음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저 이전과 같은 장난이었다며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을 겁니다.”

“…….”

“그와 같이 아리아도 저와 대화하기 위한 준비를 했겠지만, 그런 수작을 부리기 전에 제가 이겨 버렸으니 말을 못 했을 뿐입니다.”

잠시 망설이던 유성운이 물었다.

“장난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은 인어입니다.”

“그 녀석들이 인어인 게 왜?”

“인어는 한때의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종족입니다.”

그 차분하고 묵직한 음성에서 유성운은 문득, 언젠가 보았던 지오의 ‘눈’을 떠올렸다.

“그들이 인어이기에 지오반니를 포기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절대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었다.

“아리아가 제게 양자택일을 강요했을 때, 제가 죽는 선택지가 있었습니까?”

“…그건….”

그때 지오가 인간을 선택했다면 아리아는 자살을 감행했을 것이고, 인어를 골랐다면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히는 삶을 살 것이었다.

“…하지만 아리아는 너 역시 인간이라며, 잡아먹을 거라고 위협하지 않았던가?”

“그건 장난이라고 방금도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죽일 수 없다고 시인한 셈입니다.”

“오.”

"거기에서 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아리아가 저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해했어."

언제든 장난으로 칠 수 있게 여지를 남겨뒀지만, 자신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 만찬장까지 차려가며 인간들을 강하게 압박했던 인어 공주.

그리고 그런 점을 순식간에 전부 파악했을뿐더러, 그들이 인어이기에 자신을 포기하지 못할 거라 예상하고 자살수를 뒀던 지오.

"...교활하네, 너희 둘 다...."

"가족이든 친구든 싸우면서 사이가 좋아지는 법입니다."

감정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음울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지오가 말을 이었다.

"특히 그들과 저는 상당히 오랜만에 재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놓고 갈등을 해소한 것이 어색함을 풀어내는 데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갈등 해소라...."

조금 묘한 기분에 유성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는 그럼 그 인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건가?"

"행복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이 자신의 행동과 전적에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그럼 용서하지 않은 거야?"

"예, 저는 나의 학생이었던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기 전까지 제가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슬퍼하지는 마, 그 녀석들의 악행이 너의 탓은 아니었어."

"저도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과거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곁에 없는 그들은 결국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준 건가?"

"기회를 줬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 몫의 책임을 진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그들의 몫이며, 나로 인해 그들은 최소한의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편애하는 건 아니고?"

"편애에 들어간 애정만큼의 책임을 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만큼이라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깔끔하기는 하네."

하여간 무서운 녀석들이었다.

'...이런 섬뜩할 만큼이나 무심한 태도가, 인간이 근원의 존재를 경계해야 할 이유지.'

쉽게 파악할 수가 없었다.

던전을 그리는 화가

Chapter (82)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82)"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83)

제83화

수집상의 가장 높은 층, 비사벌의 집무실.

“위험한 성질입니다.”

“성질머리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유성운의 보고를 들은 비사벌이 제 턱을 쓸며 물었다.

“스스로를 인질로 삼아 인어들을 협박했다?”

“…요약하자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화끈도 하셔라.”

그렇게 읊조리는 비사벌의 미소는 어딘가 씁쓸해 보였다.

“내 수집품이 알아서 지옥 불로 걸어 들어가려고 하다니.”

“그 지옥 불이 태양의 빛이었습니다. 태양교와 마찰 빚을 말은 자제해 주세요.”

“그래서 본인들 앞에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면 됐지.”

“어디서 말이 새어나갈 줄 알고요. 그것도 신성 모독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여간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란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사제라는 존재가 원래 다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오반니 씨는 그렇게 크면 안 될 텐데….”

“다 컸어요, 그 지오반니 씨라는 사람. 크다 못해 죽었죠.”

“내 사랑스러운 작품 멋대로 죽이지 마세요, 유성운 큐레이터.”

이 같잖은 대화가 꽤 마음에 들었는지 축 처져 있던 비사벌이 이내 작게 웃었다.

“자기 자신의 소멸과 고통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고 볼 수 있겠군요. 하물며 신들조차 소멸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예민한데, 이렇게 되면 인간들에겐 재앙을 상대하는 가장 전통적인 대응책이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애초에 ‘지오의 초상화’와 싸울 만한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죠. 만약 지오를 제압할 만한 방법을 찾아야 할 만큼 상황이

악화된다면, 그건 사악한 신들에게 그러하듯 제물 몇 개 바친다고 해서 끝날 재앙도 아닐 겁니다.”

“차라리 평범한 신이었다면 조금은 대비하기가 쉬웠을 텐데요. 하긴 지오는 전통적인 신이 아니라 신의 특징을 가진 무언가이니,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지오는 인간의 특성도 지니고 있어요. 분명 인간의 인격이었음에도 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점 역시 고민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예요.”

그에 비사벌이 물었다.

“아예 죽이거나 처벌하지 않은 걸 보면 나름 옛정을 고려한 처우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냈는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옆에서 지오를 관찰했지만, 그건 과거에 매몰된 눈이 아니었어요.”

단지 지오반니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며 또한 옳다고 생각해 그런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였다. 그는 진실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인어에게 가장 큰 처벌이 되리라 믿는 듯했다.

“지오는 자신이 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책임을 진 것 같았습니다. 몬스터이기에 무뎌진 인어들에게 지오반니를 쥐여줌으로써 의미를 주고, 끊임없이 고뇌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처벌이군요.”

“지오반니가 곁에 있는 이상 인어들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할 테니까요. 지오 본인은 그걸 원하고 그런 일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유성운이 당시의 지오반니를 떠올리며 말했다.

“굉장히 단호했죠. 그의 말대로라면 그 인어들은 인간일 적의 지오반니가 자식처럼 키우던 녀석들일 텐데, 화가 났는지 어땠는지….”

“…….”

“피를 흘리고 사지가 부러져도 계속 웃고만 있는 모습이 꽤 섬뜩했죠. 정말 초상화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리아라는 인어가 울며 애원해도 계속해서 일을 진행했고요.”

“인어가 울었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롭지만, 협박을?”

“그렇다기에는 지오도 함께 고통을 받는 방식이었지만, 예, 뭐, 아마도요. 아무리 돌려 말한다고 한들 그 본질이 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걸 협박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다만 특이한 점은 역시 스스로를 인질로 잡았다는 점입니다.”

“그때의 일이 제대로 성사되지 못해 결국 지오반니가 죽었다면, 정말로 그의 인격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였습니까?”

“본인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지오반니라는 인격이 죽을 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녀의 앞에서 수십 수백 번을 계속해서 죽어 버리겠다고요.”

“어느 쪽이든 섬뜩하네요.”

“확실히 그 인어 역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온화하게 웃으면서 말한 탓인지 더 무섭게 들리기도 했고요. 제가 듣기에도 지오반니의 말은 단순한 허세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인어들에게는 괜찮은 처벌이 되었겠어요.”

비사벌이 어깨를 으쓱였다.

“그렇다고 그들이 더는 인간을 괴롭히지 않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지오가 그들 곁에 있는 이상에야, 큰일은 없으리라고 짐작합니다만….”

“딱 ‘큰일’만 없으리라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겠죠.”

대량 학살의 수준만 아니라면 지오 역시 인어들의 잔혹함에 무어라 말을 얹지는 않을 것이었다.

‘지오의 초상화’는 선하고 예의 바른 것을 좋아하는 신사적인 근원의 존재이지만, 그 본인이 선하지는 않았다.

“그는 영웅이 아닙니다. 한때 영웅이었을 수 있고, 그러한 성질을 지닌 ‘지오’를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지오의 초상화’는 하나의 자연이자 운명이에요.”

비사벌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정원사인 유성운 씨가 더 잘 알겠지만, 근원에 가까운 존재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악의로 인한 것이 아니고서야 지오에게 있어 인간의 생과 사는 꽃이 피고 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새까만 초상화는 아닌 척 흥미를 추구하며 제 자신과 그 주변, 그 바깥의 죽음과 고통을 하나의 상태이자 정보로 판단했다. 제 손 바깥에서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에 어쭙잖은 동정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물론 ‘지오의 초상화’는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했지만,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말은 애초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았다.

어찌 보면 매정하고, 무심했다. 그는 흥미가 생기지 않고서야 흐를 것은 흐르도록 두었다.

“그 증거로 아직 ‘심해의 나라’는 입구가 닫히지 않았잖아요? 만약 인어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들을 존중하고자 했다면, 그 진입로를 닫고 던전을 폐쇄해 더는 다치는 인간들이 나오지 않도록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인어들도 몬스터인 만큼 인간을 향한 증오를 거두지 못했고, 지오 역시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둘 중 하나라도 성사되었다면 던전이 닫혔을 텐데 말입니다.”

“근원의 존재가 어디 인간들 마음대로 되는 녀석들이 아니니까요. 그들은 자연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사들여야 했죠. 인어들의 화풀이로 또 누가 죽어나갈지 몰라서요.”

비사벌이 즐거운 듯 웃었다.

“물론 우리 서지오 헌터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개념도 있었지만!”

“…언론 쪽이야 알아서 잘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래서 지출은 괜찮으신지….”

“이 수집가 비사벌이 고작 던전 하나 샀다고 타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같이 자본주의적인 사회에서 정말 믿음직하신 것 같습니다.”

“난 원래 믿음직한 길드장이었어요.”

“아, 예.”

“다만 지오는 완전한 인간의 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사벌이 유성운을 보며 웃었다.

“유성운 씨와 같은 정원사들이 그러하듯이요.”

“…….”

오랜만에 나온 ‘정원사’라는 단어에, 유성운이 어깨를 으쓱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근원은 인격체보다는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그는 인간과 몬스터, 근원의 자식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인격체에게 공평해요. 그렇다면 그런 근원의 맥을 관리하는 정원사 역시 공평한 관점을 갖춰야겠죠.”

그 누구의 편을 들지도 않는 균형감이 바로 정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그들은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정표이자 정원 속에서 살아가는 방관자였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건데, 가끔 지오가 정원사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까?”

“차아라 헌터는 처음으로 ‘지오의 초상화’ 안쪽에 방문한 인간이죠. 그 사람이 묘사한 지오의 오두막은 저희가 관리하는 정원과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럼 지오는 어쩌면 근원에 잡아먹힌 정원사일 수도 있겠군요.”

“근원에 잡아먹힌 정원사가 어떻게 자아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유성운은 제 새하얀 머리를 헤집으며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의 하늘색 눈이 가늘어졌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원사가 정원에 잡아먹힌다고 해도 자아를 유지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원의 소유물이 된 정원사는 더 이상 지적 생명체라고도 부를 수가 없었다.

“다만 이런 느낌에서 생각해 봤을 때, 확실히 지오는 인간과 몬스터 사이에서 정확히 누군가의 편을 들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고려하면 지오가 그저 인어들을 처벌하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는 단지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했을 뿐이다. 지오반니가 져야 했을 몫의 책임만을 졌고, 인류를 위협할 정도의 능력과 사상을 지닌 인어들에게 최소한의 제어를 걸었다.

그게 전부였다. 비사벌의 말마따나 지오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흥미가 없는 일을 해내려는 열정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지오는 선하고 예의 바른 존재를 사랑해요. 그게 그 초상화가 흥미를 가지는 부분이죠.”

“인어들은 딱히 선하지 않았을 텐데. 악한 것을 혐오하는 지오임에도 그만한 자비를 보인 것은, 유성운 씨가 보고했던 대로 일종의 편애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을 구한 것도 겸사겸사 가벼운 마음으로 해낸 일이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견적은 나와요.”

유성운이 무언가 가늠하듯 허공을 보며 제 목을 쓸었다.

“모든 일이 단순하고 평화롭게 진행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지오의 초상화’가 세상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이고, 예외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인연일 것이고, 둘째는 흥미를 가진 대상이겠군요.”

“그 흥미를 가지는 대상은 선하고 예의 바른 존재일 것이고요. ‘지오의 초상화’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방향을 규칙으로 삼는 모양입니다만, 그게….”

“아직 단정 짓기에는 이릅니다. 고작해야 두 번째 ‘지오’가 나왔을 뿐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고 봐야겠죠. ‘지오반니’의 경우 성질 자체가 온화하고 자비심이 넘치는 사제님이셨으니까요. 인류에게 적대적인 방향성을 가진 ‘지오’가 나올 경우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지오의 초상화’부터가 평화를 중시하고 교류하려는 의지가 강하니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원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사람 대하듯 굴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음….”

야근을 부추기는 골칫덩어리를 정리하는 듯하던 그가 곧이어 입을 열었다.

“앞으로 저희가 인어들과 공존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는 거죠.”

“…….”

“길드장님,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늙은 길드장은 자기 수집품과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기를 정말 싫어했다. 비사벌이 의자에 축 늘어져 씁쓸하게 말했다.

“…던전 입구를 평생 폐쇄해 두면 어떨까요? 아무도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길드장님께서 구입한 건 던전의 진입 권한이지 그 던전 자체가 아니잖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안에 어떤 자원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면 최소한 헌터 협회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잘 아시는 분께서 왜 그러십니까.”

“하아….”

의자에 푹 파묻혀 있던 비사벌이 비척비척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그 안에 자원이 없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고요?”

“이미 수집상이 ‘심해의 나라’에서 특별한 자원을 찾아 독점하려고 한다는 식의 뉴스가 떠돌아다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해도 기만책으로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 말이 맞아요.”

비사벌이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뭐 어쩌겠나요, 알아서들 죽을 곳 찾아가라고 내버려둬야지.”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통행료는 조만간에 책정할 생각입니다. 수집상에서 찾아낸 뭔가 특별한 자원을 찾아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용자들을 저는 존중할 거고요. 그 안에서 죽는다고 해도 딱히 제 탓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오와의 실랑이가 있었으니 ‘심해의 나라’ 속 인어들은 굳이 던전 바깥까지 나와 일을 치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던전 안까지 들어온 인간들을 가만 내버려두지도 않을 것이었다.

“지오도 이제 거기까지는 쉽게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지오가 심해의 나라에 자주 드나들었던 이유는 인어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함이었는데, 이미 목적을 달성해 버렸으니… 더 이상 헌터들을 도와주기 위해 굳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희가 본 ‘지오의 초상화’는 그렇게까지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존재는 아니었잖습니까?”

“맞아요, 그저 다른 근원의 존재에 비해 상당히 우호적이고 신사적일 뿐이죠.”

아마 ‘검은망토’의 존재만 믿고 S급 던전으로 기어 들어가는 멍청이들이 있겠지만, 슬슬 그들도 매운맛을 볼 때가 됐다.

“이게 옳은 방향입니다.”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의 헌터들은 ‘검은망토’를 편리한 자판기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심한 마음을 먹은 헌터들은 애초에 지오 쪽에서 딱히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만만한 이미지가 지오에게 도움이 될 리가 없죠.”

“예, 그러니 ‘검은망토’가 저들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자연재해임을 알 때가 왔습니다. ‘심해의 나라’에서 ‘검은망토’를 목격조차 못 한 채로 죽어가면 그들도 현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몬스터와, 그러니까 근원의 존재와 타협하고 그들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머저리들이 많았다. 그들은 명백히 자원이 아니라 재앙임에도 말이다.

“지오에게 이 부분은 언질을 해 두겠습니다. 어쩌면 인간들을 그리고 구출하는 데 즐거움을 느낀 지오가 헌터들을 더 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활동적인 초상화가 아니니 확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사벌이 말했다.

"나도 말 잘할 수 있는데."

"아무리 말을 잘하셔도 지오 본인이 거부하는데 뭘 어쩌시려고요."

"이러다 초상화 앞에 침낭 깔고 눕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지오가 화냅니다…."

"쯧."

혀를 찬 비사벌이 이내 주제를 돌렸다.

"그러고 보니, 그때 납치당했다던 예비 사제는 잘 지낸답니까?"

"이제야 물어보시는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드디어 기숙사로 들어간다던데요."

"태양교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겠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한참 전에 학생들을 받아 키우고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인어들의 사냥감이 되어서 일정도 다 망가지고."

"그 일로 강서담 사제가 무척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이번에 뉴스도 탔고…."

"그래도 이제 원래 일정대로 진행이 될 테니 태양교의 사정도 좀 나아지겠습니다."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신 예비 사제, 차이솔 군도 크게 심적인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 잘 익은 열매와 같은 시니컬함, 내가 아직 데려오지 못한 수집상의 인재인가?"

"이미 태양교의 사제인데 교도 아닌 사설 길드에 들어오겠습니까? 무엇보다 생각하시는 그런 시니컬함과는 거리가 먼 아이입니다. 그냥 좀…."

"좀?"

"신경줄이 많이 굵더군요."

본인이 납치를 당한 줄 알면서도 인어의 생태나 태연하게 감상하고 왔으니 말이다.

"어린아이의 천진함 때문에 모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눈치는 빠른데 쉽게 타격을 받지 않는 굳건한 정신을 가진 것 같았어요."

"호구의 자질이 있나? 아니면 만용의 자질? 어느 쪽이든 달갑지는 않군요. 어쩐지 지오가 예뻐한다는 보고가 있더니."

"일단 그쪽도 피해 보상 처리는 넉넉하게 해 두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멀쩡하게 굴고 있다고 해도 피해자는 피해자니까."

그리고 그때였다.

"어라."

"문자가 왔나요?"

"예, 마침 그… 차은혁 군인데."

"저희가 방금까지 이야기하던 예비 사제의 형님 되시는 분이라죠?"

"맞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유성운이 잠시 말을 잃었다.

"……."

"문제가 생겼나요?"

"…지오가 거기에 가 있답니다."

"...어딜?"

비사벌의 질문에 유성운이 힘겹게 대답했다.

"차이솔 군의 집이요."

"......."

원래도 퇴근하기는 글렀다고 생각 중이었거늘, 유성운은 익숙한 야근의 향기를 느꼈다.

너는 또 왜 거기 가 있는 건데.

* * *

"이, 이게...."

차아라가 더듬더듬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이라고?"

"날 믿어줘야 해."

"뭔데 그래서."

"그게 있잖아, 누나."

현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누나의 반응에 차이솔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림을 그렸는데 지오 형이 나왔어...."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야, 그림 그렸는데 지오 형이 나왔다니까?"

"아니, 뭔...."

황당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차아라가 이내 미묘한 얼굴로 검은망토를 돌아보았다.

"......."

"반갑습니다."

"...아, 네...."

혹시 오늘 내가 죽는 날인가.

적의는 없어 보이지만, 하여간 더럽게 무서운 검은망토였다.

던전을 그리는 화가

오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84)

제84화

사건이 터지기 전.

테러 사건이니 납치 사건이니 남들은 한 번 겪기도 힘든 일을 연속으로 겪고, 드디어 평화를 되찾은 어느 시골의 차씨 가족 집.

"꽃돼지."

차은혁이 주방에 들어간 동생, 차아라를 보았다.

"웬 고기냐?"

"아, 이거."

"뭐가 이렇게 많아."

요리를 할 생각인지 평소에는 좀처럼 보지 못하던 각종 식재가 놓여 있었다. 절대 사냥 따위로는 잡히지 않을 육질의 얇은 고기라든지, 이 한겨울에 동그랗게 잘 익은 배라든지....

"미친, 키위도 있네."

"이걸로 불고기 만들 거야."

"돈이 어디서 나서."

"수집상에서 보상금 받았어."

"......."

차아라의 말에 차은혁이 미묘한 눈으로 동생을 보았다.

"...그쪽에서 보상할 것이 있었나...? 오히려 우리가 돈을 줘야 했던 상황이 아니었어?"

"으음...."

"그냥 몬스터들 사이에 끼여서 죽어가던 우리 가족 구해준 것밖에 뭐가 더 있나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

"물에 빠진 거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였나. 대기업 상대로 돈도 뜯어내다니 제법 사회 물이 들었군."

"아 내가 뜯은 거 아니야, 그쪽에서 그냥 준 거라고."

오빠의 타당한 의문에 차아라가 더듬더듬 말을 이었다.

“아니, 그, 나도 잘 이해가 안 갔지만... 아무튼 검은망토랑 인어 공주랑 인연이 깊고, 또 검은망토는 수집상의 책임하에 놓여 있다고 하니까... 그게... 연관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느낌으로....”

“......?”

차은혁의 얼굴이 구겨졌다.

“그게 뭔 소리야?”

“아무튼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쉬랬어. 미안하대.”

“사기인가? 사기당했냐? 내가 너 언젠가 그럴 줄 알았지.”

“아 아니라고.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나한테 지랄이람.”

“너보다는 나을 듯.”

“개소리하지 마 호구 새끼야.”

“내가 그런 욕을 처먹는다고 경각심을 잃을 것 같아? 아니란다 안전 불감증 내 동생아.”

차은혁이 차아라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같은 호구 등쳐 먹을 생각밖에 안 해.”

“근데 돈을 줬어. 돈은 죄가 없고, 줬으면 써야지.”

“아니지 돌려줘야지, 이걸 빌미로 무슨 짓을 당하려고. 대체 왜 준 건데 이거.”

“보상금...? 아니야...?”

동생의 순박한 말에 차은혁이 인자하게 웃었다.

“꽃돼지야, 꽃돼지야. 너는 헌터가 되어서 뒤통수를 그렇게 맞고도 보상금이라는 단어에 넘어가니?”

“어어...?”

“수집상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보상금을 주겠노라 결정한 건지는 몰라도 거기 직원들 죄다 1등급 아니면 2등급 시민일 텐데,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

“어버버....”

“그 어떤 도시의 사람들도 이유 없이 3등급 시민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 우리 차근차근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그거 정확히 누가 준 거야.”

“유, 유성운 헌터님이....”

“유성운 헌터.”

차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건 보상금이 아니라 조의금에 가깝단다.”

“우리 죽어? 너, 너무 많이 썼나? 역시 키위는 사지 말 걸 그랬나?”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는 유성운이 왜 돈을 줬는지 알 것 같았다.

“우리는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검은망토’의 실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인간들이잖아. 그리고 ‘검은망토’를 이용하고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 그럼 이 ‘검은망토’와 관련된 진또배기 정보는 과연 얼마나 값질까?”

“어… 어….”

“그 값어치는 우리 같은 3등급 시민의 장기를 털어도 동등해질 수 없을걸. 유성운 씨가 이 돈을 준 이유는 그 무시무시한 ‘검은망토’의 실체를 알게 된 것에 대한 애도에 가까워.”

“그래서 우리 죽어?”

“입만 잘 다물면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차아라가 울상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준 돈 받아 즐기고 입은 착실하게 다물어야지.”

“우리만 다문다고 될 일이야?”

“운이 나쁘면 강서담 사제나 수집상 쪽에서 정보가 새어나갈 수는 있을걸.”

“그럼 죽어?”

“인생이 매우 피곤해지기는 하겠네.”

정말 최악의 경우 어디론가 끌려가 ‘검은망토’에 대한 정보를 강제적으로 털어놓게 될 수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차은혁은 꽤 덤덤하게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였다.

“아무튼 유성운 헌터가 나쁜 마음으로 준 돈은 아닌 것 같다.”

“진짜로…? 나 불안해졌는데.”

“내가 봤을 땐 ‘검은망토’를 아는 우리의 미래가 순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정말 힘내라는 의미에서 준 돈 같으니, 네가 이대로 계속 요리를 해도 괜찮겠어.”

“으… 아니 그래도….”

“차이솔 납치되었던 것도 겸사겸사 포함된 보상금이겠지. 막내나 너나 고생했던 거는 사실이니까 받은 건 그냥 써.”

차아라가 얼굴을 구겼다.

“안심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고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아무 생각 없이 요리를 계속하도록 하렴.”

삶의 지혜가 없지는 않은 편인 차은혁이 살아 있는 이상 그의 두 동생은 좀 멍청해도 괜찮았다. 이 돈 역시 악의가 있지는 않으니, 당장 크게 불안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유성운 헌터의 성격상, 그리고 대기업 수집상의 행보를 따졌을 때, 아마 그들에게 따로 배정된 호위팀도 있을 것이었다.

한번 납치된 전적이 있으니 보호의 의미도 있겠지만 정보 통제를 위한 감시 인력이라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몰랐다.

아무튼 상관없다는 거다.

“너 요리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 그건 그렇기는 한데….”

“간만에 돈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써도 되지, 뭐.”

물론 이 돈을 모아 집을 고친다든가 막내의 기숙사비를 낼 수도 있었다. 차은혁이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보탬을 줄 수도 있었고, 차아라가 죽지 않도록 장비를 사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데만 돈을 쓴다면 그게 사람 사는 삶이겠느냐 말이다.

“어차피 필요한 돈은 우리가 알아서 벌고 있었잖아.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주 운이 좋게 여유 자금이 생긴 건데 그거까지 필수적인 부분에 쓰라고 하기는 뭐하지.”

“으응….”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안 풀면 또 언제 풀겠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런 크고 작은 즐거움도 있어야 했다. 단순히 먹고 살기만 해서는, 결국 제 신체의 건강과 정신을 소비해 죽어가기만 할 뿐이라는 걸 차은혁은 알았다.

“그래서 보상금이 얼마나 들어왔는데?”

“아 맞다.”

“아 맞다? 꽃돼지, 정신 안 차리고 살아?”

“나, 나도 막 서울에서 돌아오느라 정신이 없었단 말이야….”

차아라가 손가락을 펴 보였다.

“천.”

“…천? 아무런 교섭도 없이 천이면 꽤 세네?”

“오랜만에 서울에서 장 봐 왔어, 그래서.”

“오늘 저녁은 풍성하겠구만.”

“히히, 그치.”

“실력 발휘 부탁한다.”

차은혁이 찬바람이 조금 들어오는 방 한쪽을 보았다.

“나는 막내한테 가 있을게.”

“같이 안 하고?”

“요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뿐더러, 또 막내가 납치당하면 어떻게 해.”

“…서, 설마 또 그럴까?”

“내가 봤을 때 우리 막내 인생이 심상치 않다.”

이건 남들과 다르게 이상한 괴물들을 보는 차은혁이기에 느낄 수 있는 직감이었다.

“우리보다 훨씬 순탄치 않은 삶을 살 것 같아. 불안해. 마음이 술렁거려.”

“아니 시발, 뭔 저주를 해. 걔 곧 2등급 시민 될 텐데, 3등급 토박이인 우리보다 순탄치 않은 삶을 살게 되면 그건 문제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최소한 평범한 삶은 아닐걸. 차이솔 그 자식 계속 이상한 일에 휘말려서… 성격도 그렇고.”

워낙 본인이 겁이 없는 것도 한몫을 할 듯싶었다. 쓸데없이 해맑은데 사교성도 좋은 자식.

“호구인데 겁이 없으면 그게 뭐야, 지 팔자 지가 꼬는 거지.”

“아 좃됐나? 우리가 애를 잘못 키웠어?”

“어쩌겠냐, 이미 그렇게 큰 것을. 그래도 태양교 들어가면 이것저것 배우면서 좀 보호도 받고 그러겠지. 스스로 교의 체면이 있으니 자중할 거고.”

“하이고….”

차아라가 손을 휘저었다.

“그 말 들으니까 더 안심이 안 된다. 애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맛있는 거라도 먹여서 보내려고 했는데, 오빠가 막내 옆에 가서 이것저것 이야기 좀 해줘.”

“하긴 뭘 해.”

“호구처럼 살지 말라고….”

“되겠냐, 우리부터가 조졌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차은혁은 곧장 막내 차이솔 곁으로 갔다. 지난번에 납치를 당했던 것 때문에 막내를 혼자 두기에 불안했던 부분이 컸다.

“막내야.”

“혀엉, 누나가 뭐 해?”

“불고기 한다고 하더라.”

“와, 불고기! 그거 비싼 거 아니야?”

“비싼 거 맞아. 재료 미쳤더라. 네 누나가 저녁밥 망치지 않기만을 빌어라.”

“일단 태양신께 빌어볼까?”

“아니, 아직 별로 친하지도 않을 텐데 무슨….”

“그런가?”

신이 났는지 연필을 들고 기뻐하는 막내의 모습에 차은혁이 그 옆에 앉았다. 도통 뭘 그리는지 모르겠다. 차은혁은 동생을 사랑하지만 그 그림 실력까지 사랑해 주지는 못했다.

“너 기숙사 들어가면 이것보다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을 거야.”

“내가 들고나올까?? 같이 먹을래??”

“정식으로 사제 되기 전까지는 잘 못 나온다던데.”

“몰래 나올게.”

“…수료 다 받고 밥이나 한 끼 사줘, 기다릴 테니까.”

차이솔이라면 정말 몰래 기숙사를 나와 이 먼 시골까지 걸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차은혁은 미래로 약속을 미뤘다.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던 차은혁의 시선이 좀 더 아래로 향했다.

“그림 그리고 있었어?”

“응.”

“뭐 그리고 있었는데?”

이면지 뒤에 얼룩덜룩하게 그려진 새까만 무언가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검은망토!”

“…….”

차은혁이 침묵했다.

“…뭐?”

“응? 검은망토!”

“너… 뭐… 그거 뭔지 알아?”

“착한 사람한테 선물 주는 착한 귀신 아니야?”

“그 뭐냐, 음, 어.”

“태양신한테 기도하기 부끄러워서 일단 검은망토를 그려봤어!”

“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게. 뭣보다 검은망토는 몬스터잖아….”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니야.”

차은혁이 고장 났다.

“누가 검은망토 알려주디?”

“인서가.”

“인서… 촌장님 딸?”

“우리 동네 애들 다 알아, 검은망토.”

“대체 왜…?”

“멋지잖아.”

“…….”

그 검은망토의 실체를 아는 차은혁이 잠시 심호흡을 했다.

“…형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검은망토가 많이 유명해?”

“응? 응, 그렇대.”

“정확히 검은망토가 뭐야? 너는 알아?”

“사실 나도 잘은 모르는데….”

끄적끄적, 뭉툭한 연필로 새까만 덩어리를 그리며 차이솔이 말을 이었다.

“산타 같은 거 아닐까?”

“…울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그 할아버지?”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 같이 대화해 주면 엄청 좋아한다고 했어. 예의 바르게 굴면 검은망토가 선물도 준다고 하더라.”

“오….”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차은혁이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

“…어?”

두 차씨의 시선이 종이 속 ‘검은망토’에게 닿았다.

“…방금 움직이지 않았어?”

어린아이의 어설픈 솜씨로 그려진 검은색 덩어리가 꿈틀거린 것이었다.

“…….”

차은혁이 식은땀을 흘렸다.

수집상이라는 거대한 길드조차 아직 정체 파악이 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초상화.

그리고 가끔 그런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존재들은, 의지를 가진 운명이라 불리는 신들을 포함해 그들만의 소환 의식이

있기도 했다.

'…이거 설마….'

하필이면 사제로 각성한 차이솔도 태양신 대신에 검은망토를 그렸다고 하지 않던가. 오싹해져서 타들어 가는 형의 속도 모르고 차이솔이 환하게 웃었다.

"와, 검은망토가 왔나 봐!"

"잠깐, 잠깐만 이솔아. 제발 잠깐만… 이건 아니야."

"나랑 친구 해요!"

"제발!"

차은혁이 동생을 붙잡고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와!"

그림 속에서.

그 서투른 그림이 움직여, 그것이 형체를 갖추었다.

"검은망토…!"

"……."

"…검은… 망…??"

그는 새까만 망토를 두르고 있었다.

깊게 눌러쓴 후드로 가려져 조금도 얼굴이 보이지 않는 짙은 그림자는 이질적일 만큼 어두웠다.

망토 안쪽으로 보이는 검은 셔츠와 정장은 빛이 느껴지지 않았으나, 균형 잡힌 기다란 신체만큼은 알아볼 수 있었다.

"…지오 형이다?"

그건 차이솔이 아는 '서지오'였다.

"지오 형?"

"예, 저는 서지오입니다."

"어, 진짜 지오 형 맞는데."

마치 번역기에 돌린 것처럼 무뚝뚝한 어조와 묘하게 무거운 공기. 그건 차이솔과 함께 식사를 했던 태양의 신도, 서지오 헌터와 다를 것이 없었다.

"여기 왜 왔어요?"

"친구를 하자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형한테 한 거 아닌데."

"슬픕니다. 저와 친구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형은 형이잖아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차은혁이 이마를 짚었다.

"……."

"반갑습니다, 차은혁 씨."

"…예, 정말 반갑네요. 반갑기는 한데…."

망설이던 차은혁이 물었다.

"원래 이런 식으로 불려 나오시는 겁니까?"

"차이솔 학생이 저를 불렀습니다."

"……."

차은혁은 문득 차아라가 받았다는 보상금이 떠올랐다.

'…이럴 때를 대비한 거였나.'

정말 조금도 의도치 않게 검은망토의 소환법을 알게 된 차은혁은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꺼냈다.

이 정보는 그들끼리만 알고 있기엔 너무 위험했다. 그의 손가락은 당연하다는 듯이 유성운 헌터의 직통 번호를 찾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아마 유성운도 이러라고 돈을 준 듯했다.

"실례지만, 잠시 바깥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제 동생인 차아라가 대접해 드릴 겁니다. 잠시면 돼요."

"갑작스럽게 방문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차은혁은 유성운에게 구조를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성운이 차씨 가족의 집에 도착했다.

"지오는 어디에 있습니까?"

"막내와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누구 안 죽었죠?"

"대체… 왜… 그런 질문을…?"

"아 그냥 혹시 몰라서."

"…그, 네…."

더럽게 피곤한 하루였다.

던전을 그리는 화가

오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85)

제85화

곧 새로 들어올 예비 사제들을 위해 커리큘럼을 점검하던 강서담이 전화를 받았다.

"예, 유성운 헌터."

"혹시 신 중에 그림을 그려서 소환할 수 있는 분도 계십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바쁘니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예, 가능합니다. 의식을 하는 데 자주 이용되는 문자나 문양도 일종의 그림이니까요."

"아주 전문적인 그림은 아니었는데."

"얼마나 전문적이지 않았습니까?"

"애가 그린 수준?"

"그래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엉성하다고 해도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요."

핸드폰을 어깨와 턱 사이에 끼운 강서담이 문서를 작성하며 말을 이었다.

"대상이 의식을 통해 뭘 하고자 했냐는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의식을 진행한 사람의 의지가 충분히 강하고 명확하며, 그 제사를 받는 대상이 그런 미흡한 의식을 받아줄 만큼 포용력이 넓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왜 되지?"

"대체로 악신이 이런 경우입니다만.... 이런 소환 의식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신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종종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자신만의 소환 의식을 갖춘 신비한 존재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포용력이 아주 좋은 존재라면 그저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대상의 시선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왜요?"

"한낱 미물인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신에 가까운 분들께서는 어디에서 자신이 불리고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동시다발적으로 신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일일이 응답할 수도 있는 것이 신이라는 존재이고요."

문서를 점검하며 강서담이 눈을 굴렸다.

"꼭 신이 아니더라도 그보다 낮은 계급의 신비한 존재가 자신의 소환 의식을 여기저기에 퍼트릴 때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자신의 격을 높이고 신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에는 자기 추종자들의 신앙만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격이 현저히 강한 존재라면요? 굳이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심지어 본인은 격이 더 이상 높아지기를 바라지도 않을 텐데."

“너무 바빠서 계속 무시해 보려고 했는데 역시 그분에 관한 일입니까? 새까만 그분? 망토 그분? 던전의 해수를 증발시켜 계단을 만들었다가 손짓 한 번으로 수습하신? 그?”

“드디어 아는 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앙이 따로 없군.”

의지를 가진 운명이자 자연이라 불리는 존재를 ‘신’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한 존재이고 무얼 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자신이 인간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은망토’는 그렇지 않다.

“부지불식간에 신앙이 쌓여버리면 자신의 격을 감당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지 못하실 겁니다. 그분의 소환 의식이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려서도 가능할 만큼 쉽고 간단한 모양이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평생 화가 나지 않기를 비는 수밖에 없겠군요. 최소한 화가 나지 않으셨을 때는 스스로를 갈무리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배려해 주실 테니, 그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애초에 인간들을 워낙 좋아하시니....”

“화가 나면요?”

“유성운 헌터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파멸뿐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화도 내본 사람이 잘 낼 줄 알죠. 신께서 누구도 다치지 않게끔 안전하게 화를 내는 방법을 몰라 무턱대고 감정을 표출하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재앙일 겁니다.”

강서담이 잠시 고민하고서는 이어 물었다.

“보통의 신들께서는 그 존재 의의가 명확합니다. 기존에 있던 신에게 신성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신의 소환 의식을 만들어낸 것은 애초에 그 소환에 해당하는 신이시죠. 처음부터 소환 의식이며 제사 의식이 생겨난 이유가 그분들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상은 그렇지 않아요.”

“기존에 있던 신에게 신성을 물려받을 때 해당하는 의식도 함께 받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유성운 헌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분께서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신비한 존재입니까?”

“그런 특성이 없다고는 못 해도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니까요.”

“.......”

잠시 모니터에서 눈을 뗀 강서담이 이내 말을 이었다.

“매우 드물지만 그저 어느 규칙에 해당하는 신비한 존재로서 있었기에, 자연의 법칙 속에서 자연스럽게 격이 높아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쉽게 예시를 들자면 사람들이 호흡하는 행위 자체가 어느 신비로운 존재의 신앙을 높여주는 행위일 수도 있는 거라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죠?”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강해지는 분이 계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전의 시간이, 역사가 더 깊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규칙인 것처럼요.”

강서담의 손가락이 다시 타자하기 시작했다.

“저희 태양교의 경우 그런 분들은 신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자연입니다. 규칙이고, 운명이에요.”

“다른 신들도 의지가 있는....”

“자연이자 운명이 맞습니다만, 그것과는 다른 맥락입니다.”

이유는 간단했다.

“유성운 헌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에게는 의지와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경우의 신비로운 존재는 그런 게 없어요. 신이 되고자 하지 않았고, 스스로가 ‘신’이라 정의된 줄도 모르고, 그냥… 존재하며 흘러가고 강해지는 거죠.”

“재앙이네요.”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지구의 지각 변동으로 인한 지진조차 재앙으로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냥 그분들은 존재할 뿐이에요. 자아나 취향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을 인지했을 수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음….”

유성운이 잠시 뒤에 물었다.

“태양교는 그러한 신비로운 존재를 관측한 적이 있기에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거겠죠? 신이라고도 할 수 없는 강대한 무언가가?”

“기밀입니다. 수집상에도 그러한 기밀 몇 개가 있듯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선물 싸 들고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사제님?”

“오지 마십시오, 바쁩니다.”

“택배 보내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

뭐, 이렇게 말해도.

“…그분이라면 큰 재앙이 되지는 않을 것 같군.”

분명 강서담은 검은망토에게서 신성을 느꼈다. 느꼈던 기운이나 이런저런 상황을 보아 아마 전대 신에게서 물려받은 듯했는데, 그렇다면 신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줄 부모가 있다는 의미였다.

만약 부모신이 없다 하더라도 이곳 지구의 태양신이 있지 않은가. 그의 여신께서는 검은망토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셨으니, 약간의 도움을 주실 수도 있었다.

“결국 내가 걱정할 사안은 아니었군. 쯧, 바쁜 와중에.”

작게 읊조린 강서담은 이내 조용히 커리큘럼 점검을 이어갔다.

최근 들어 익숙해진 야근이었다.

* * *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야근을 이어가는 헌터가 있었다.

“그래, 지오야.”

“반갑습니다.”

“정말 활동적이구나.”

당연하게도 유성운이었다.

“그래서 우리 차이솔 군이 지오를 소환해 버렸다고?”

슬슬 상황 파악을 마친 차이솔이 자진 납세 했다.

“야근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네가 그렇게 사과해 버리면 내가 대체 뭐가 되니, 차이솔 군."

사실 그렇게까지 타격이 큰 상황은 아니었다.

"뭐, 어차피 평소에도 지오와 대화하는 시간은 새벽 4시 정도라서…."

"피곤하셨습니까?"

그에 검은망토, 지오가 턱을 짚는 듯한 제스처를 했다. 인간의 놀라움을 흉내 내는 것 같은데 얼굴이 보이지 않는 탓인지 정말 감정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서 조금 뒷목이 아팠다.

"불편을 드려 죄송했습니다. 그때 자주 오셔서 그 시간이 마음에 드신 줄 알았습니다. 원하신다면 대화 일정을 다시 잡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그 전후로도 할 일이 많아서 대화 일정을 옮긴다고 해봤자 내가 잘 시간이 앞당겨지는 건 아니야. 그냥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의 순서가 바뀌는 것뿐이지."

"유감입니다."

"나도 그래…."

아무튼 지금 오후 7시 41분.

"다들 저녁은 먹었나?"

"마, 마침 불고기를 하려는 도중에…."

"일이 이렇게 된 거구만."

헌터라고는 하지만 F급인 차아라에게 경험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는가.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라, 유성운이 지오를 돌아보았다.

"본격적인 대화를 하기 전에 앞서, 지오."

"말씀하십시오."

"분위기를 좀 완화해 주었으면 하는데."

대놓고 말하자면 '격을 좀 낮춰달라'는 의미의 이야기였지만, 그렇게 말하면 자신을 인간으로 여기는 지오는 불쾌함을 느끼게 될 것이었다.

강서담 사제와의 대화를 통해 더욱 경각심을 얻은 유성운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다. 신으로서의 자각이 없는 신을 대하는 셈 칠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난해한 말이었는지 지오가 의문을 드러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 지금 되게 무서워, 인간 같지가 않아."

"이해했습니다."

곧이어 지오가 후드를 뒤로 넘겼다.

"……."

"이러면 될까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선명한 백금발의 지오반니였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좀 나아지던데…."

"일단은 맞아."

“역시 망토 색이 문제이려나.”

“그것도 있긴 하겠지.”

유성운은 남몰래 안도의 숨을 삼켰다.

‘…이런 식으로라도 격을 낮출 방법이 있어서 다행이네. 자신의 격을 낮추는 것을 지오가 불쾌해하지 않는 것도 다행이고. 만약 일반적인 신이나 근원의 자식이었다면 불쾌함을 느끼고 당장 나를 갈기갈기 찢었겠지….’

이런 격의 지오가 인간 친화적이라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른다.

“내가 이 현상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해해 줘서 고마워.”

유성운이 드디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무래도 차이솔 군이 지오를 소환한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차은혁 씨의 의문이 타당하고 저 역시 이해가 잘 가지 않았던바, 이런 측면의 경험이 저보다 많은 강서담 사제님께 여쭤보니 종종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지오를 배려해 격이니 신이니 하는 부분은 생략했다.

“극히 드물게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신만의 소환 의식이 존재하는 신비한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지오의 경우에는 그 의식의 조건이 ‘지오를 그린다’라는 거였겠죠.”

유성운이 지오를 돌아보았다.

“애초에 지오, 너는 왜 여기로 온 거야? 뭘 알고 오게 된 거지?”

“제가 그려진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그린 사람이 차이솔 형제였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죠. 그런 와중에 저와 친구를 하고 싶다는 귀여운 이야기를 하기에….”

“이렇게 등장하셨다?”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던전을 빠져나가 차이솔 형제가 걱정되었던 차에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납치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백금발의 지오가 특유의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차이솔 형제는 잘 지내셨나요? 아픈 곳은 없고요?”

“거, 검은망토가 지오 형이었어요…?”

“앗.”

지오반니가 유성운을 돌아보았다.

“…….”

“…날 그렇게 본다고 해도 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검은망토 씨.”

“이 험한 세상 속 아이의 동심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는데.”

“산타가 실제로는 없는 거라는 사실보다야 동심은 잘 지켜지지 않을까.”

차이솔이 충격을 받았다.

“산타가 없어요?”

“두 차씨가 아주 애지중지 키우셨나 보네. 이거 내가 먼저 동심을 깨게 만들어서 미안한데?”

“산타 할아버지 만나면 내가 안마해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이쿠 착해라.”

“은퇴하시면 우리 집에서 살면 안 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아가 확고한걸.”

아무튼 생각만큼 차이솔은 지오가 검은망토라는 것에 충격을 받지는 않았다.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지오 형은 정말로 착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줘요?”

“그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게는 그럴 여유와 능력이 있고, 제 호의를 받는 사람들은 그 선물을 원하고 있을 테니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죠.”

“와아아….”

차은혁은 내심 생각했다.

‘이렇게 순진해서 어디로 팔려가려나.’

장남인 그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을 수밖에는 없어 보였다.

“그… 그래서, 저희가 뭔가 잘못했다든가….”

“응? 아니야, 아니야.”

유성운이 차이솔을 돌아보았다.

“차이솔 군은 아무런 의도 없이 검은망토가 멋져서 그리고 있었던 거지?”

“네, 요즘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그래?”

그 괴담을 유명하게 만든 수집상은 할 말이 없었다.

“딱히 이런 의식이 알려진 게 아니라면 상관없어. 지오, 너는 누군가 너를 그리면 반드시 그걸 알게 되거나 그쪽으로 소환이 되어야 하나?”

“알 수는 있겠지만 소환까지는… 그냥 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라면 정말로 상관없어. 이번 일이 워낙 황당하고, 또 악용될 여지가 많아서 급하게 달려온 거지.”

차이솔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사고 쳐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사과하면 내가 너무 민망하네.”

“하지만….”

“정말 괜찮아, 지오도 어차피 차이솔 군을 보고 싶었던 것 같으니까. 별일 당하지 않았다지만 몬스터들에게 납치를 당했으니 다들 걱정하고 있었다고.”

“저 괜찮은데요.”

“그래 보여서 상당히 대단하네, 좋은 마인드야. 벌써부터 그런 마인드면 얼마나 큰 인물이 될까 싶어 안쓰럽기도 하지만 아무튼 다 괜찮고 문제도 없는데 말이지….”

그냥 유성운은 어이가 없을 뿐이었다.

"...어딘가에 이 소환 방법을 뿌리고 다니지만 말아줬으면 해."

그럼 아주 여러 사람이 피곤해질 테고.

100%의 확률로 그 안에 유성운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었다.

던전을 그리는 화가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85)"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86)

제86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찌저찌 다시 만난 차씨 가족은 인어들에게 납치까지 당했음에도 의외로 평화로워 보였다.

"그런 거 가지고 쫄아버리면 헌터 일 못 해요…."

차아라는 F급이기에 오히려 몬스터보다 사람 무서운 줄 알았다. 여태껏 만나왔던 개차반들에 비하면 인어들은 지극히 정중한 편이었다.

"나도 잘 놀다 왔는데. 다음에 은하 보면 나 불러주면 안 돼요? 키 큰 은하랑 친구 하고 싶어요. 나랑 친구 하기로 했는데 내 파트너 줬다 뺏었어."

차이솔의 두꺼운 신경줄이야 이미 유명한 이야기이고.

"…예, 뭐, 이런 놈들을 키우다 보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괴물을 보는 차은혁 또한 그 무덤덤함이 남달랐다.

동생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봤다면 차은혁도 이렇게 태연하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두 명 모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굳이 나서서 신경 소모할 필요가 없었다.

유성운은 그런 차씨 일가의 반응을 제법 평범하게 받아들였다.

"그런 무심함도 현대인의 중요한 덕목이지."

"……."

"차씨 가문은 오래 살아남겠네. 생활력이 좋아."

생활력이 좋은 게 아니라 생존력이 좋은 것 같은데. 지오는 오늘도 무시무시한 고국의 현장에 깊이 쫄아들었다.

'요즘 현대인은 납치를 당해도 쫄지 않는 것이 덕목이군.'

아무리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더라도 엄연히 납치 사건 아닌가.

'대체 헌터들은 뭘 보고 어떻게 생활하기에 애지중지하는 동생이 납치되어도 쫄지 않는 것이며,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기에 피해자 아동은 친구 타령을 하며, 그 둘의 보호자는 아무래도 괜찮으니 됐다며 넘어가는 것일까.'

31년 전이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을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지오의 멱살 정도는 쉽게 잡혔을 테고, 뉴스에 대서특필이 되었겠지.

하지만 지오의 멱살은 멀쩡하다 못해 빳빳했고 유성운 왈 뉴스는 뜨지도 않았다더라.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이런 세상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밥이라도 대여섯 끼 먹여주고 싶은 심정이 되었지만, 아무튼 차씨 가족도 다들 안전하시고.

솔직히 까고 말해 불고기가 무척 탐이 났으나, 단란한 가족 식사에 사전 예고도 없이 끼어드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양심상 다시 초상화로 돌아왔다. 지오는 스스로의 기특함을 칭찬했다.

“…….”

따란.

“뭔가 좀 생략됐나.”

“므으응.”

“다나가 귀여우니 됐어.”

귀여운 다나로 생략의 개연성을 얻었다.

“쓰흐읍.”

“망.”

지오는 다나의 배를 흡입했다. 처음에는 ‘이게 미쳤나?’라며 순수한 의문을 표했던 다나는 어느덧 이런 지오의 기행에 익숙해져 ‘아빠가 미쳤구나’라고 납득한 듯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오에게서 풀려난 다나는 곧장 곰인형에게로 향했다.

“두 분 사이가 여전히 좋군요.”

“꾸우….”

“손녀 같은 느낌이시라고요.”

“꾸.”

“예 아버지, 과연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하나, 아빠 한 명, 아들딸 두 마리까지 나름대로 족보 있는 구성원이 되었다.

“흐음….”

여기에 인어 친구 둘까지 추가되면 이웃집 역할까지도 완벽하게 찰 것 같은데.

“…….”

오는 방법까지 알려줬건만 아직 인어들은 지오의 오두막에 방문할 생각을 않고 있었다.

‘우리 옆집이잖아, 얘들아.’

선생님 얼굴 반갑다 하여 호들갑 떨 때는 언제고. 아니, 이렇게 가까운데 왜 오지를 않는 것이냔 말이다.

“모름지기 이웃집이라면 이사 첫날 시루떡 정도는 들고 퍼뜩 놀러 와야 하는 게 아닌가?”

지오가 그렸던 작품 중 하나인 ‘숨 쉬는 바다’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는 오늘도 잠잠했다. 아무도 내려오지 않는 나무 계단을 바라보던 지오가 곰인형을 돌아보았다.

“아직 아리아와 이세르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꾸꾸꾸.”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저희 집으로 놀러 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숨 쉬는 바다’와 ‘심해의 나라’가 연결되었으니 방문하기는 분명 편할 텐데….”

웬 튜토리얼이니 뭐니가 끝났다며 시스템이 알려 줬더랬다. 지오가 그렸던 ‘숨 쉬는 바다’와 인어들의 던전 ‘심해의 나라’가 연결되었다는데, 확인해 보니 신전에 지오의 그림이 떡하니 걸려 있었다.

그 와중에도 인어들을 보지 못했다.

“그런 걸 보면 역시 혼나기 무서워서 안 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인어 남매에 대한 지오의 인식은 혼나기 싫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어린아이 수준이었다.

“못 본 새에 어리광이 늘었군요.”

“꾸룩?”

허니는 ‘그게 과연 어리광이었나’ 하는 의문이 잠시 들었지만, 이내 슬슬 식사 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에 생각을 그만뒀다.

허니는 지오의 정수리를 콕콕 아프지 않게 찌르며 자신의 공복을 호소했다.

“꿍꿍꿍….”

“배가 고픈 건가?”

“꾹.”

“그럼 먹어야지.”

할머니의 강원도 산골 정기 받은 손과 마음을 물려받은 서지오는 내 새끼 배곯는 꼴을 못 봤다.

“음.”

잠깐 고민하던 지오가 곰인형을 돌아보았다.

“아버지, 조개 좋아하십니까?”

“꾸…?”

“하긴 드셔본 적이 없겠군요.”

“꾸.”

어떤 간 큰 사제가 다른 것도 아닌 조개를 제물로 바쳤겠는가. 그때 당시 조개란 그렇게 귀한 식재료도 아니었다.

‘…유명한 특산품으로 팔리던 조개가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제단에 올릴 만큼 값지고 진귀한 것이었냐고 하면 딱히….’

애초에 지오를 만나기 전까지의 태양신은 식욕이라는 것 자체도 없었다. 태양과 바다가 가까운 세상을 다스렸다고 해도 조개를 맛보았을 확률은 전무하다는 뜻이다.

“그 맛있는 조개조차 맛보여 드리지 않았다니, 이게 바로 불경이고 이단이 아닌지.”

“…꾸우….”

“이 아들은 그런 패륜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진즉 바다의 진미를 진상했어야 했거늘 후회가 막심하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에들런 지역의 자랑인 조개구이와 토마토 스튜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꾸.”

“진정하라니요, 애초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지오는 주섬주섬 짐을 챙겨 ‘숨 쉬는 바다’로 향했다.

“에들런 마을이 어디였는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꼭 그 지역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 제가 찾는 조개들은 여기저기에 있겠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조개를 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오의 곁으로 허니가 따라붙었다. 그가 만들어낸 피조물인 허니는 늘 어버이의 곁에 있기를 소원하고, 또 그의 취향에 걸맞은 형태로 남아 있기를 바랐다.

“꾸루루루룩.”

“날 도와주겠니?”

“꾸르.”

그리고 지오는 선하고 예의 바른 것을 좋아했다. 허니는 제 창조주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흐트러트리는 게 아니라면 뭐든지 말이다.

그렇게 조개 찾기 원정대가 결성되었다.

* * *

훌륭한 돼지는 뭐든 맛있게 먹을 줄 알지만, 동시에 미식을 즐길 줄도 알아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진정한 돼지라고 할 수 있지.”

“꾸룩.”

“그래, 너도 그렇단다. 고집이 없는 돼지는 진짜 돼지가 아니야.”

지오는 기어코 이 멸망한 세계에서 그가 생전 살았던 에들런 마을을 찾아낼 수 있었다. 몸을 큼직하게 키운 허니가 지오를 태우고 날아준 덕분이었다.

“이게 바로 던전을 공략하는 헌터들의 마음인가.”

그거랑은 좀 다르겠지만 재밌으니 아무래도 좋았다. 매우 뿌듯했다.

“여기도 오랜만이네.”

“꾹?”

“아, 아니지. 오랜만이라고 하면 안 되나?”

“꾸르....”

“하긴 둘 다 나니까 상관없겠어.”

지오의 머리카락은 어느새 백금발로 변해 있었다.

“참 감성이 있는 시골이라니까.”

인기척은 없었다.

해변가가 얕고 길게 늘어져 있고, 조금만 벗어나면 푸릇한 잔디가 자라나 있다. 그 안으로 보이는 조그마한 집들은 에들런 마을의 옛 전통에 따라 하얀 벽돌과 주황 지붕을 드러냈다.

“.......”

물에 잠겨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의 부식된 창문에, 해초가 자라나 하늘거리고 있었다.

“...이렇게 깊은 심해가 되었는데도 마을의 형태가 아직 남아 있는 게 신기하네. 지구에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집이고 뭐고 다 부서지고 망가졌을 텐데.”

“꾸르르르르?”

“나에게 현실이었던 공간이 동화처럼 변해버려서 기분이 묘해. 이제 이 마을은 사람이 사는 대신 물고기나 해파리들이 머무르고 있구나.”

섬뜩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빛도 희미하고.”

지오의 오두막에 있는 곰인형은 엄밀히 따지자면 태양신의 영혼과도 같았다. 그 텅 빈 육신, 혹은 잔해라 할 수 있을 만한 빛은 더더욱 약해져 바닷속을 흐리게 비추었다.

“예전보다 어둠이 짙어졌지?”

“꾸루룩.”

“이렇게 되니 꼭 밤이 온 것 같네.”

“꾸르.”

“별도 떠 있고.”

고개를 들어 확인한 하늘에는, 그러나 심해에는 점점이 반짝이는 무언가가 둥실거렸다.

“은하수 같아.”

그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해파리의 무리였다.

작고 동그란 몸을 가진 그것들은 강과 같이 긴 줄을 만들어 아주 느릿하게 이동했다.

아무런 빛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나 발견되는, 꼭 쏟아질 것 같은 빛무리 덕분에 이 어두운 심해에서도 앞을 볼 수 있었다.

황홀한 공허가 참 아름다웠다.

“아버지께서 계셔서 바다가 밝을 때는 못 봤는데, 저런 해파리들이 있었구나. 어두워지니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꾸르륵.”

“흠.”

지오반니는 생각했다.

“관광 산업으로 돌리면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렇다, 이 사제는 오랫동안 감성적이지 못했다. 멸망한 고향을 보고도 나오는 말이 사업 아이템뿐인 것이다.

“유성운 씨가 말하기로 ‘심해의 나라’로 향하는 진입권을 수집상에서 전부 사버렸다고 했지. 몬스터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관광지로 꽤 잘 먹히지 않을까? 호흡이 가능한 바다 내부라는 것부터가 신박하지 않나?”

“꾸....”

“밝기도 조절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낮과 밤일 때의 테마를 다르게 하면 볼거리도 더 늘어날 거고, 아버지께 태양신으로서의 자격증을 물려받은 내가 그 정도 조절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말 나쁘지 않은 사업 아이템 아닌가?”

지오의 머리칼은 다시 흑발로 돌아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배부를 때 생각해 보도록 하자.”

“꾸르르르르르르륵.”

허니는 격하게 동의했다.

“꾸륵? 꾸르륵?”

“여기 조개가 어디 있냐고?”

지오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확실히 이제는 전부 바다에 잠겨버려서 과연 그대로 남아 있을까 싶지만, 해변가나 마을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걸 보면 거기도 멀쩡할 것 같네.”

“꾺?”

“조개를 캘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어. 마을 동부 쪽의 지하 동공인데,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는 몰라도… 뻘이 있거든.”

거기에 조개가 참 많았다.

“조개는 꽤 다양한 곳에서 살 수 있어. 모래사장에 숨은 조개도 있고, 뻘 속에 숨은 조개도 있고, 심지어 바다가 아니라 민물에서도 서식하는 것이 바로 조개지. 서식하는 곳에 따라 종류도 상당히 달라지겠지만….”

지오는 그가 기억하는 지하 동공 쪽으로 발을 옮겼다.

“참고로 에들런 마을의 해변가에는 조개가 없어.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닌 탓일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에들런 사람들은 보통 해역에서는 생선을 잡고 동공에서는 조개를 캐서 팔고는 했지.”

동공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

“여기가 입구야.”

수풀처럼 드리운 해초를 슬쩍 치워내자, 단단한 암석을 깎아내린 듯 울퉁불퉁한 바위 계단이 모습을 보였다. 어두운 입구였지만 따듯한 빛으로 발광하는 허니 덕분에 따로 불은 필요하지 않았다.

“내려가자.”

“꾸르륵.”

“그런데….”

지오가 허니를 보았다.

“너는 내려가고 싶으면 응당 몸 크기를 줄이는 것이 맞다.”

“꾺?”

“너무 커졌어.”

여기까지 지오를 데리고 오는 탓에, 그리고 바닷물을 한껏 머금은 탓에 허니는 지오보다 큼직하게 부풀어 있었다.

“이 상태대로도 귀엽기는 하지만 함께 조개를 캐기는 무리겠는걸. 보다시피 동공으로 가는 입구가 그렇게 넓지 않으니 조절을 하는 편이 좋겠다, 아들아.”

“꾸르르….”

허니는 납득하고 쪼그라들었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수압 때문에 수영도 못 하는 지오가 떠내려갈 뻔했다. 허니의 아버지는 물속에서도 가벼운 편이었다.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은 아주 넓지도, 아주 좁지도 않았다. 성인 남성이 조금 널널하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은 한참이나 길게 이어졌다.

“여기 벽 안쪽으로 파인 구멍들 보이지? 원래 저 안에 전등 같은 것을 넣어서 길을 밝혔어. 아, 저기 보이네. 전등의 잔해가 아직도 남아 있을 줄이야.”

“꾸룩, 꾸루룩.”

“…이끼 붙은 유리 조각도 너의 취향에 부합하는 소품인 건가? 하긴 시간이 많이 지나며 날카로운 면이 뭉툭해졌으니, 이런 둥글둥글한 유리 조각 정도는 위험하지 않겠지.”

슬그머니 유리 조각을 하나 주워 담는 허니를 감상하던 지오는 어느새 지하 동공에 도착해 있었다.

“…….”

끝없이 높은 천장과, 그 끝까지 차오른 바닷물.

“…이 아니네.”

슬쩍 혀를 내밀어 보았다.

“음, 짜지 않군.”

“꿍꿍?”

“담수야.”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담수가 흘러나오는 샘터… 에 가까웠으니까.”

해변가의 사람들은 언제나 물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 에들런 마을은 그렇지 않았다. 이 넓은 동공에서 끝없이 샘솟는 담수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던 덕분이었다.

“아마 어떠한 작용으로 바닷물이 한번 정화되어 마실 수 있는 물로 동공에 차오르는 식이었던 것 같은데. 석회도 없는 깨끗한 물이라, 이 마을의 자랑이었지.”

지오가 동공의 바닥에 발을 디뎠다.

“이게 바로 뻘이야.”

밀물과 썰물이 있던 이 동공의 담수는, 마치 바닷물처럼 오고 가며 이 새하얀 뻘을 만들어냈다. 그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조개는 맛도 품질도 좋아 에들런 마을의 특산물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종종 나 역시 이곳에 인어들을 데려와….”

“…….”

“…함께 떠들썩한 조개 사냥을 즐겼어.”

아직도 흑발인 지오가, 동공의 한가운데에 자리한 한 아이를 눈에 담았다.

“아리아.”

“오랜만이야.”

“그렇군요.”

여전히 서지오의 형상이었으나, 이내 그의 얼굴에 지오반니의 미소가 흐릿하게 드리웠다가 사라진다.

“오랜만입니다.”

아이의 형상을 한 인어.

그건 아주 오래전, 지오반니가 기억하던 시절의 모습이었다.

던전을 그리는 화가

오

Chapter (86)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86)"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87)

제87화

"나는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는데."

아이 특유의 낭랑하고 덜 여문 음성으로 아리아가 말을 이었다.

"왜 그대는 흉내조차 내지 않아?"

"내가 검은 머리카락이라고 하여 지오가 아닙니까?"

"글쎄…."

아리아는 상대를 눈에 담았다.

태양의 상징인 금빛의 사제복도 아니고, 빛의 사제를 대표하는 하얀 케이프도 아니고 검은 망토를 두르고 있는 사람.

그녀가 기억하는 모습과 달리 새까만 머리칼에 웃음기 하나 없이 음울한 얼굴의 남자.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을 섬뜩한 격.

"……."

그럼에도 그가 '지오반니'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었다.

"…아직도 잘은 이해가 안 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환생이라고 하나?"

참 이상한 일이지.

"그런 경우를 아예 본 적이 없던 건 아니지만, 그것과는 종류가 달라 보여. 단순히 태양신에게 신성을 얻어 신격화된 것만도 아닌 듯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지오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지구인들이 그러던데, 그대를 보며 '검은망토'라 부른다지?"

"그런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현재 그대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제 이름 중 하나일 뿐이겠죠."

“그래, 지오반니.”

어린 인어가 맨발을 옮겨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대는 원래부터… 초상화였어?”

“저는 인간입니다.”

“…….”

한참 뒤에야 아리아가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지식이 풍부한 아리아조차도 눈앞의 검은망토를 마땅히 정의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그림처럼도 보이고, 신처럼도 느껴지고, 혹은 정말로 인간인 것 같기도 했다.

“이 마을에는 어찌 왔나?”

“조개를 캐러 왔습니다.”

“뭐, 그래, 그대는 워낙 먹는 걸 좋아했으니까 이해해.”

“아리아가 저의 요리를 좋아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럼 그대의 만찬에 초대해 줄 건가?”

“조개 캐는 걸 도와주신다면요.”

“…하여간 실없는 인간이야….”

아리아는 품에 맞지 않게 큰 하얀 가운을 질질 끌며 뻘을 돌아다녔다. 마법적 처리를 해둔 가운은 쉽게 더러워지지 않았다.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종종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는 했다.

“옛날 생각이 나네.”

“어떤 생각입니까?”

“그냥, 이것저것… 시답잖은 거.”

지오반니는 인간을 궁금해하는 인어들을 위해 이런 장소에 데려오고는 했다. 아니면 어부들이 잔뜩 모인 해변가나, 물건을 사려는 이들로 시끌벅적한 장터나, 돈을 맡길 수 있는 은행 같은 곳들까지도 말이다.

맨발로 헤집으니 지구의 것과 다르게 새하얀 뻘이 느릿하게 뒤집어졌다.

“뭘 해 먹으려고?”

“조개구이와 에들런 스튜를 해보려고 합니다.”

“맛있는 걸 하네. 스튜에도 조개를 넣을 생각인가?”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고기가 있으니 그걸 넣어도 되고요.”

“흐음….”

지오는 요리 솜씨가 뛰어났다.

“그러고 보면 그대는 귀족이었을 텐데, 왜 그리 요리를 즐겼던 거야?”

“어렸을 땐 물어보지도 않더니 무슨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그게 현명할 줄 알았어. 인간들의 생은 너무 짧고 복잡해서, 무신경하게 꾹 찔러 물으면 피라도 나올 줄 알았거든.”

“지금은?”

“찔러서 피가 나올 사람이 아닌 것을 이제는 알지.”

“그렇지요.”

새까만 눈의 지오가 다가와 아리아의 소매를 접어주었다. 성인 남성의 체형에 맞는 가운은 몇 번이나 큼직하게 접어야 겨우 그 손이 보였다. 작고 여린 아이의 손이었다.

“귀족임에도 제가 요리를 즐겼던 이유는, 그저 맛있는 게 먹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대단한 이유는 아니네. 하지만 타인에게 시켜도 얼마든지 맛있는 건 먹을 수 있잖아.”

“어떤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서 무슨 요리가 나오는지 내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지오가 어깨에 있던 허니를 가볍게 날리자, 허니는 동공의 천장 바로 아래까지 날아가 환하게 지하를 밝혔다. 원래도 하얗던 뻴이 훨씬 선명하게 보여 눈이 부실 정도였다.

“나를 더 발전시키고 싶었죠.”

“그대다운 대답이야.”

“이세르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전에 숨어 있어.”

“왜 같이 오지 않고.”

“집을 지킬 사람은 필요하잖아.”

“그 흉흉한 집을 누가 턴다고….”

“검은망토라든가.”

“…….”

지오는 조금 억울함을 느꼈다. 한쪽 눈썹을 들어 올린 지오가 물었다.

“제가 무섭습니까, 아리아?”

“안 무섭겠어?”

“왜죠?”

“검고 우중충한 분위기에 위압적이기까지 하지.”

“저는 위압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있을걸.”

“역시 억울합니다.”

“뭐, 거기에 더해….”

작아진 몸으로 올려다보며 아리아가 말했다.

“…어떤 얼굴로 봐야 하나 해서, 쉽게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

“하긴 만나자마자 저희는 싸움부터 시작을 했군요.”

재회의 감동이니 뭐니 느낄 새도 없었다.

“제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어렸을 때 내 자식들처럼 키우던 조카들이 몇 년인가 해외여행 다녀온 사이 국내에서 대량 학살을 저지르다 못해 어린아이를 납치까지 한 것과 비슷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내 입장에서는 죽은 줄로 알았던 애틋한 선생님께서 인간도 아닌 새까만 덩어리 괴물로 환생해 버린 것과 비슷한데. 심지어 그 짜증 나는 태양신의 신성까지 겸비하고 있어서 누가 우리를 열받게 하려는 수작인가 싶기도 했지.”

그 말에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제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뻔뻔함이 그리울 지경이었어.”

인어가 픽 웃었다.

“화내지는 않아?”

“제가 화를 내야 합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동안 한 일이, 지오반니, 그대의 마음에 맞는 일은 아니었잖아.”

“이미 죽은 제가 키우던 아이들의 변화에까지 책임지고 화를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 상당히 매정한걸....”

“그때 만찬장에서 나는 내 몫의 화를 전부 냈습니다.”

새까만 머리카락과 무감각한 눈으로 지오가 말을 이었다.

“나머지는 한참 전에 죽어버린 지오반니가 따질 의무도, 권한도 없어요.”

“.......”

곧이어 인어가 말했다.

“그럼 됐어.”

더는 아리아 역시 궁금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시간이 아주 많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무엇보다 지오는 깊게 고민하지 않는 편이었다. 아끼는 인어 제자들이 미친 인어로 자라났다고 해서 겁을 먹을 지오가 아니었다.

“눈앞에 먹을 걸 두고 머리를 쓰는 건 좋지 않은 버릇이고요.”

“그건 아무래도 지오 그대가 이상한 게 아닐까? 왜 이렇게 먹을 걸 좋아하지?”

“왜 그렇게 먹을 걸 좋아하지 않죠?”

“먹고만 살 수는 없잖아.”

“먹지 않고도 살 수 없는 노릇일 텐데요.”

“...그래, 그대가 행복하다면 됐어.”

“생각보다 쉽게 포기하시는군요.”

의외였다.

“예전에는 악착같이 이기려고 들었는데.”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까.”

“그런 것치고는 식사 자리에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울렸는지 기억은 하고 있는 거지?”

“누가 화나게 했는지 기억하고 계시지요?”

“…오….”

“이번에도 제가 이겼군요.”

“…참 뻔뻔한 구석이 있어….”

“제 매력이죠.”

지오는 한참을 숙여야 시선을 맞출 수 있을 만큼 작아진 인어를 보았다.

“그 몸으로 조개를 캘 수 있겠습니까?”

“몸이 이렇게 작았을 때도 종종 캐러 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신체가 어려진 것에 위화감은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정도 의태는 이제 쉽지.”

“흐음.”

잠시 뒤 그가 물었다.

“그 옷은 역시 제 것이겠죠?”

“…….”

인어가 곧 대답했다.

“이 의사 가운?”

“예.”

“그렇지, 이제 내 거고.”

“원래도 물려드릴 생각이었으니 괜찮습니다.”

“…….”

꽤 긴 시간이 지나 인어가 짐짓 태연하게 물었다.

“그랬어?”

“뺏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

“대답이 없는 걸 보니 그러셨군요.”

정말로 그랬다. 아리아는 지오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설마 나에게 물려주려고 했을 줄은 몰랐는데.”

“의사의 가운은 아리아 그대에게, 나의 사제복은 이세르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대의 사제복은 찢어졌다. 태양교의 작자들에 의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의사 가운은 제 주인에게로 갔군요.”

“정말 의외야.”

아리아는 계속 웃고 있었다.

“인어인 우리가 인간이었던 그대의 삶을 망쳤으니까.”

“그때의 모든 비극은 인간들이 스스로 망친 것에 가까웠습니다.”

지오반니는 얼마든지 인어들을 돕지 않을 수 있었다. 인간들은 인어들과 정답도 없는 감정싸움을 크게 벌일 수도 있었다. 이 세상은 한때 인간과 인어가 더불어 살아갈 수도 있었다.

“아리아, 그대는 나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건 내가 오롯이 물려준 것일 뿐입니다.”

“아직도 다정하네.”

“그러지 않기를 바랐습니까?”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오는 결국 지오였다.

“저는 참 쉽게 변하지를 못하더군요.”

워낙 깊은 생각을 안 하는 편이라 그런 걸 수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조개나 캘까요.”

“감성 깨트리는 데 재주가 있네.”

“더 늦기 전에 저녁을 준비해야 해서....”

“허.”

인어는 지오가 소매를 접어 주었음에도 계속 흘러내리는 가운을 주섬주섬 고쳐 입으며 투덜거렸다.

“나랑 대화하러 온 줄 알았더니 그냥 순 먹보였잖아.”

“겸사겸사하면 좋죠.”

“진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네, 역시 지오반니야.”

“인생은 대충 살 때 가장 즐겁다는 걸 아직 모르나 봅니다.”

“.......”

조금의 시간이 지나, 인어가 물었다.

“...지금은 행복해?”

대답은 어렵지 않았다.

“늘 그랬죠.”

“...어째서?”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으니까.”

“.......”

“그러니 이제 조개….”

“아 좀.”

짜증을 살포시 냈지만, 아리아는 착실히 조개 원정대에 참가했다.

* * *

“저희가 왔습니다.”

“꾸우….”

곰인형은 한 바가지씩 조개를 품에 안고 온 네 마리의 생명체를 보았다.

“꾸?”

“예, 아리아와 이세르도 잡아 왔….”

“꾸.”

“데려왔습니다.”

조개 캐느라 한참 소식이 없다 보니 이세르도 뭔가 싶어 에들런 마을로 찾아왔다.

그리고 그는 드레스를 입고 쭈그려 조개를 캐는 누이를 발견했다. 지오는 안 그래도 창백한 얼굴이 그렇게 희게 질릴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렇게 이세르도 조개 발굴단에 강제 참석 되었다.

이세르가 미묘한 얼굴로 곰인형의 탈을 쓴 태양신을 보았다.

“…….”

“꾸우우.”

“…못 본 새에 많이 귀여워지셨군요….”

“꾸꾸.”

“웃는 건가.”

진심으로?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조개 한 바가지를 품에 안은 이세르는 이미 정신이 혼미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아리아가 손에 뻘 묻혀가며 조개를 캐던 모습도 혼란스러웠고, 그 길로 자연스럽게 끌려가 함께 조개를 캐다 오두막까지 끌려오게 된 이세르 자신의 처지도 혼란스러웠다.

“여기 왜 태양신께서 있으신 거죠…? 태양의 기척이 사라졌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이건.”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너무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잘 계신 어르신께 불편한 티 내는 거 아닙니다.”

“아니, 아니, 아.”

말문이 막힌 이세르였지만, 그의 누이 아리아라고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곰인형?”

“꾸.”

“진심인가?”

“꾸꾸꾸….”

“웃어?”

그 차분한 난장판 사이로 허니가 쫑쫑쫑 바닥을 걸어 곰인형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와르르 온갖 크고 작은 조개들을 뱉어냈다.

“꾹.”

“꾸우.”

“꾸르르르!”

“꾸꾸….”

곰인형은 마치 손주의 재롱을 보는 노인처럼 웃으며 퐁퐁 솜바닥으로 박수를 쳤다. 허니가 자랑스럽게 가슴을 내밀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나도 그 옆에 서서 같은 포즈를 취했다. 태양신이 아주 좋아했다.

“기특한 것들.”

지오도 좋아했다.

“…….”

“…….”

말을 잃은 인어들을 지오가 불렀다.

“조개 손질하러 가야지, 애들아.”

“…아빠인가?”

“난 이미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이 이상 늘어나는 건 조금.”

“그럼 삼촌.”

“그래 우리 조카, 용돈 줄까?”

“재밌나?”

“재밌군요.”

“오….”

맹물 같은 감탄사를 끝으로 아리아는 망부석이 되었고, 이세르는 저도 모르게 떨어트릴 뻔한 조개 바구니를 고쳐 안으며 지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선생님.”

“예, 말씀하십시오.”

“혹시 지구를 멸망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갑자기 그런 끔찍한 질문을 왜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구성원이.”

“……?”

지오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

이해할 수 없었다.

“곰인형 하나에 새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뿐인데 이 깜찍하고 무해한 구성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 그렇게 취급하시는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못 하신 것 같은데."

조개를 손질하기도 전부터 참 떠들썩한 가족이었다.

던전을 그리는 화가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87)"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88)

제88화

이세르는 당황하고 있었다.

'태양신이 곰인형에…? 어째서…?'

그 신성은 지오가 물려받은 듯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신으로서의 격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이세르는 흐린 금색의 보드라운 털을 가진 눈앞의 곰인형 안에 그가 언젠가 모셨던 신이 깃들었음을 알았다.

'본인이 원한 것처럼 보이니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겠고, 이제는 신도도 선생님밖에 남지 않았으니 사실상 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아도 되기는 할 거다. 하기는 할 텐데, 아무리 그래도 유일신이라고 불리던 신이신데 체통이….'

한때 사제의 역량을 배웠고 지금도 사제의 흉내를 내는 입장에서 신의 체통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애초에 왜 신이 곰인형 안에 있지?? 다른 무엇도 아닌 곰인형 안에??'

이해가 안 갔다.

"…태양신 님?"

"꾸우."

"……."

울음소리는 또 왜 귀여운 거지?

"…그, 그… 껍질이 마음에 드신 겁니까?"

"꾸."

"곰인형 안에 들어가신 의도를 들을 수 있을까요."

"꾸꾸, 꾸우꾸… 꾸꾸꾸."

"……."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세르에게 지오가 통역을 해주었다.

"밥을 먹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식욕이…?"

"있으시던데요."

“왜죠?”

신에게 식욕이 있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신은, 그게… 신이시잖아요.”

“설마 지금 신은 밥도 먹지 말라는 뜻인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습니다.”

“이해한 거죠?”

“그럼요.”

지오는 어느새 백금발이 되어 있었다. 그는 사제 특유의 고결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밀히 말해 식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욕구도 느끼지 못했을 신이 왜 식사를 하기 위해 고작 곰인형의 몸을 이용하는 것인지 의아하신 게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 역시 제대로 된 설명을 해드리기가 힘듭니다. 그저 무턱대고 식사를 챙겨 방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음식에 욕심을 부리셔서….”

“…아….”

조금은 납득이 간 이세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난해한 문제의 정답을 듣고 안심한 표정이었다.

“역시 원인은 선생님이셨군요.”

“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생길 땐 항상 제가 원인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나요?”

“정말로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설마?”

“뭐, 아무튼.”

지오는 이세르가 들고 있던 조개 바구니를 제 바구니 위에 쌓아 올린 뒤 살며시 웃었다.

“적응은 차차 하도록 하고 일단 식사 준비를 해볼까요?”

“식사 준비….”

“저녁 시간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넉넉하게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면 어서 조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어쨌든 초대받은 입장이 된 이세르는 곧장 긍정했다. 그들의 문화권에서 집으로의 초대는 곧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말과도 같았다. 이세르에게는 바로 식사 이야기를 꺼내는 쪽이 더 익숙했다.

“정확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메뉴가 무엇입니까?”

“음, 조개구이와 토마토 스튜이겠군요.”

“에들런 스튜?”

“아무래도 그렇죠.”

그들이 어린 시절을 보낸 에들런 마을에서 토마토 스튜란 곧 ‘에들런 스튜’로 통했다. 에들런 마을의 특산물인 담수와 수산물을 이용해 끓인 스튜였다.

“아, 좋네요….”

오랜만에 듣는 이름에 조금 굳어 있던 이세르의 얼굴이 풀어졌다.

“그 마을의 스튜는 정말 맛있었죠. 특히 선생님이 끓여주신 스튜는 더욱 대단했고요….”

“시간이 좀 흘렀다고 요리 솜씨가 녹슬지는 않았으니 마음껏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지오가 아, 하며 물었다.

“한 명 정도는 저를 도와주었으면 하는데.”

창백한 손 두 개가 동시에 올라왔다.

“제가.”

“내가.”

“…….”

“…….”

인어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제가 하겠습니다.”

“요리는 아무래도 내가 더 잘하지.”

“요리는 원래도 선생님께서 전담하시고, 저희의 역할은 보좌가 아니었나요? 그 정도라면 누님보다는 제가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네가 더 나을 거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보좌도 잘하는 법이란다, 이세르.”

“인어로서의 명예를 걸고 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바다의 전통에 따라 의견이 통하지 않을 때는 무력으로….”

그쯤에서 지오가 끼어들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말에 인어들은 가위바위보로 합의를 순식간에 마쳤다.

“제가 이겼… 제가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이게 맞나 싶었지만, 사실 꽤 웃긴 광경이라 아무래도 좋았다.

“그러고 보면 저희 지역에도 가위바위보가 있었네요.”

“아, 지구에도 같은 문화가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꽤 많은 국가에 있는 놀이라고 압니다.”

“그렇군요.”

홀로 남겨진 아리아는 혀를 찰 뿐이었다.

“단련을 더 해야 했는데.”

“꾸우?”

“죄송하지만 신사분, 친한 척하지 말아 주시겠어요?”

“꾸꾸꾸….”

“웃어?”

지오는 이세르를 이끌고 주방으로 왔다.

“그럼 조개를 닦아볼까요.”

“이러니까 꼭 옛날 같습니다.”

“그것치고는 이세르가 많이 컸지만 말이죠.”

“지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의 꼬마 이세르는 작을뿐더러 귀엽기까지 했으니 이제는 무리죠.”

“아… 이제는 안 귀여우신지.”

“다 큰 대량 학살 전범자 인어가 줄어든다고 귀여워 보이기는 좀….”

“선생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세르는 순순히 납득했다.

“이제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음… 확실히 귀엽지가 않네요.”

수줍음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능숙한 신사의 모습에 지오반니는 조금 슬퍼졌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가.”

“저희 부모님은 따로 계십니다만….”

“애초에 인어는 혈연관계에 그리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확실히 선생님께서 더 ‘보호자’라는 단어에 가깝기는 했습니다.”

“농담이 안 통하네요, 어쩜 이렇게 재미없는 어른으로 컸는지.”

지오는 가볍게 웃고는 바구니에서 조개 하나를 꺼내 들었다.

“햇살소라도 오랜만이군요.”

“그런가요?”

“지하에서 자라는데 왜 햇살소라인지 궁금했던 때가 있었죠.”

에들런 마을의 지하 동공은 작은 구멍 몇 개가 뚫려 있어, 그곳으로 햇살과 달빛이 들어왔다. 햇살소라는 보통 그런 빛이 들어오는 구역에 잔뜩 숨어 있는 편이었다.

“어디 보자….”

햇살소라

투명한 껍질과 몸체가 특징인 소라. 암컷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수컷뿐인 달빛소라와 교미해 번식한다. 해가 뜨면 2시간에 한 번씩 나와 햇볕을 쬐다 수면 아래로 숨는다. 뜨거운 물에 삶으면 몸체는 하얀색으로 변하지만 껍질은 그대로다. 오래 산 개체일수록 껍질과 몸체의 약효가 좋다. 정수바위 근처에서만 서식한다.

연단법: 물에 삶지 않고 그대로 몸체를 꺼내 햇볕에 말리면 단단하고 투명한 조약돌처럼 변한다. 알약처럼 복용하면 시력 회복에 좋다. 껍질은 햇볕에 두면 그 온기를 그대로 머금는다. 매우 뜨거워진 껍질을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든 뒤 복용하면 심장 질환에 좋다.

“…….”

“선생님?”

“이런 약효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시력 회복이나 심장 질환에 쓰인다니, 의사로서 조금 황당했다.

"심장 질환이라…."

"선생님…?"

"혹시 심장이 아픕니까, 이세르?"

"실험체를 기대하는 누님의 눈빛을 닮으셨는데 안타깝지만 매우 건강합니다."

이세르가 단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잡아 오겠습니다."

"의사이자 사제인 내 눈앞에서 사람을 해치겠다는 겁니까? 얼마나 더 많은 책임을 지려고?"

"사람의 형상을 띤 짐승 정도라면 실험체로 적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간의 자격이 없는…."

"소아 성범죄를 저지른 짐승이라면 납득할 수 있을지도."

"여전하시군요, 참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놀랍기는 합니다."

그가 있던 지역의 '햇살소라'가 이런 약성을 띠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에들런 마을의 특산품이라고는 해도 그렇게 귀하지는 않았고, 지천에 널려 있어 흔하기도 했다.

"껍질을 갈아 물감으로 쓰던 사람은 많던데."

"선생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았던가요? 특히 인어들을 그릴 때는 조개 물감을 주로 사용하셨었죠."

"맞습니다, 바다를 그릴 때는 물감에서도 바다 내음이 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가루가 심장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

따로 연구해 본 적도 있지만, 이런 효능을 알아낸 적은 없었다.

"…지금의 내가 변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효능이려나…."

"…변하셨나요?"

"여러모로 변하기는 했습니다."

인간에서 초상화가 되기는 했다.

"아무튼 좋은 게 좋은 거죠."

따란.

지오는 생각을 그만뒀다.

"제 궁극적 긍정 마인드는 저 자신의 존재 의의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궁극적 긍정 마인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바뀌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만 할까요? 이 선생님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세르."

"그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본인께서 평범한 인간이라 자신하실 수 있어요."

"제 인생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변하지 않으니까요."

확고한 자존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 지오는 햇살소라의 관찰을 이어갔다.

"오랜만에 보니 정말로 예쁜 조개라는 게 느껴집니다."

보석처럼 깨끗한 빛을 내는 껍질의 고둥이었는데, 오각뿔 형태의 껍질은 여러 차례 성장했는지 수많은 결이 보였다. 마치 그림이 그려진 것 같은 반짝임이었다.

“워낙 생긴 것이 예쁜 탓에 장신구로도 종종 만들어졌었지요.”

“예, 선생님께서도 그것으로 창문에 거는 장난감을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햇볕에 비치면 정말 아름답게 빛나니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삼각 프리즘처럼 이리저리 다채로운 빛을 발산했다.

“아, 이런.”

안쪽에 사는 녀석은 안 그래도 투명한 자신의 몸을 안쪽으로 쏙 숨겼는데, 몸체가 워낙 유리처럼 투명해서인지 이런 프리즘 같은 껍질 너머로도 녀석이 잘 보이지 않았다.

“어차피 삶아도 껍질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으니 이대로 삶으면 되겠네요. 뻘을 삼키지 않고 햇볕만으로 연명하는 녀석이니,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로 깨끗하게 닦아 삶아 먹으면 끝입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떠올려본 거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랜만에 이런 조개들을 손질하려니 마음이 들뜨네요.”

그다음으로 지오가 든 것은 동공의 벽에 붙어 있던 녀석이었다.

‘이건 전복이랑 비슷하네.’

전복보다는 껍질이 훨씬 검고 매끄러웠지만, 그 외의 요소는 전복과 꽤 유사했다. 특히 그 하얗고 넓은 속살이 말이다.

“이게 아마 이름이....”

“검은쟁반조개였을 겁니다.”

“아, 그렇죠.”

검은쟁반조개

새까맣고 밋밋한 껍질과 대비되는 하얀 속살이 유명한 조개. 고급 식재료이며,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익어버리는 연약한 조개이다. 껍질은 그 검은색을 아름답게 여겨 물감의 재료로도 알려져 있다. 사람의 손으로 속살을 잡으면 익어버리니 주의하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생김새고요.”

지오는 흐뭇하게 웃으며 검은색 조개를 모두 닦아냈다. 이 역시 뻘을 먹지 않는 조개라 별도의 해감 작업은 필요하지 않았다.

“다음은 이 녀석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이세르?”

“선생님께서 특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식감이 좋으니까요. 날것으로 먹으면 푸딩처럼 야들야들하고 익혀 먹으면 육고기처럼 쫀득하고....”

몽둥이나팔

뻘에 세로로 숨어 사는 연갈색 껍질의 조개. 살은 나무 몽둥이, 껍질은 나팔을 닮았다 하여 몽둥이나팔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안쪽은 연노랑빛 살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결이 매우 연하다. 다만 과하게 열을 가할 시 금방 질겨지니 주의하자.

한마디로 그냥 ‘긴 관자가 통째로 들어간 조개’에 가까웠다.

“하 이걸 한국에서 팔아야 하는데.”

“진정하세요.”

오늘도 세속적인 사제 지오였다.

던전을 그리는 화가

오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89)

제89화

햇살소라, 검은쟁반조개, 몽둥이나팔.

이 세 가지는 에들런 마을의 대표 특산물이었다.

“몽둥이나팔은 해감이 필요하니….”

“그냥 먹으면 뻘이 씹히죠.”

“맞아요. 이세르,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이세르는 능숙하게 몽둥이나팔만 든 바구니를 들어 해감 작업에 들어갔다. 워낙 오랜만이었는지 조금 버벅거리기는 했지만, 그의 손 역시 금방 제 갈 길을 찾아 작업을 계속했다.

“지구에서도 이런 비슷한 작업을 한답니다.”

“아… 그런가요?”

“조금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요.”

이 대표 특산물들은 에들런 마을의 담수를 이용해 해감해야만 뻘을 뱉어냈다. 다른 지역의 물로는 조개가 시들어 버려서, 소금으로 물에 염분을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지구의 해감 방식과는 살짝 달랐다.

이세르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지역의 물이 아닌데도 뻘을 뱉어 내는군요.”

“그렇죠, 적당히 염분만 맞춰주면 그러려니 하고 뱉어주는 것 같아요.”

“에들런 지역의 조개보다 자아가 약한 게 아닐까요?”

“곧 먹어야 할 조개에 자아 붙여주지 맙시다.”

몽둥이나팔이 가득 찬 대야는 곧 검은색 천으로 가려졌다.

“이제 스튜가 완성될 때까지 내버려두기만 하면 되겠군요.”

에들런 마을의 자랑인 몽둥이나팔은 해감이 빨리 되기로 유명했다.

온몸이 내장보다는 살덩어리에 가까운 탓인지 뭔지, 삼킨 뻘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 최소 30분에서 아무리 길어봤자 1시간만 대기하면 됐다.

“물을 중간에 갈아주는 편이 좋기는 하겠지만….”

“그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한 번 정도면 될까요?”

“음, 맞아요. 부탁합니다.”

10분에 한 번이면 조금 과한 정도이기는 하지만, 신중해서 나쁠 것은 없었다.

‘밥 먹다 모래 씹히는 것만큼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없지.’

자칭 미식가이자 대식가인 지오 아닌가. 그는 섭취할 때에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철저한 요리를 지향했다. 먹을 때 불쾌함을 느낀다면 그건 요리로서의 자격이 없었다.

“그럼 이제 스튜인데….”

간단히 말해, 스튜는 서양식 국이었다.

“뭐든 넣고 보는 거죠.”

“저도 요리법은 아는데….”

“그래서 직접 해 드셨습니까?”

“…….”

“조용히 내 수업을 들어요.”

가끔 스튜와 수프의 차이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스튜의 주인공은 건더기고 수프는 국 자체라고 보면 편했다. 한마디로 스튜는 재료를 끓이기 위해 액체를 넣는 요리였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예? 어디로….”

“텃밭으로요.”

그렇게 이세르는 지오의 텃밭을 보았다.

“따란.”

“…텃밭?”

“예, 뭐가 문제죠?”

“아니, 텃밭….”

“텃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세르는 납득했다.

“농사 한번 평범하게 지으시는 법이 없군.”

“뭐라고 하셨나요?”

“역시 바다 마을의 웃는 폭군….”

“폭군?”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이제는 입바른 말도 할 줄 알고 참 기특하기도 하지.”

진짜 납득했다.

“자, 저 안에 방울토마토가 있는데….”

“제 눈에는 토마토를 흉내 내는 호박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력이 나빠졌나 봅니다, 인어라고 방심하지 말고 안경도 맞추고 그래요.”

“과연 시력의 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다못한 이세르가 물었다.

“대체 이게 왜 텃밭이죠?”

“좁고 아기자기하잖아요, 그럼 텃밭이죠.”

“작물들의 덩치가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 좁아 보이는 것뿐이고, 그 어떤 작물도 아기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엘리자베스 32세가 듣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 발언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32세는 대체 누구….”

꾸드드득—.

지오의 말에 호박잎만 한 토마토의 이파리가 힘찬 소리를 내며 말렸다. 마치 주먹을 쥐고 있는 듯한 형상에 이세르가 기어코 미소를 잃었다.

“…이걸 드시겠다고요?”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챈 그는 거의 누님의 연구 과정을 지켜볼 때만큼 진지해졌다.

“이걸?”

“애들이 개성이 좀 넘칠 뿐이지 다 희생적이고 착한 아이들입니다.”

“먹다가 목젖을 부여잡고 위장으로 넘어가지 않아 줄 것 같은데.”

“그렇게 반항적이지 않아요. 아주 순하다니까요?”

“그….”

이세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습니다.”

“한 거죠?”

“아마도….”

“그럼 따라오세요.”

“저는 죽는다면 역시 바다가 좋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지오는 그간의 소통을 통해 친해진 텃밭의 작물들과 인사를 나누며 목표물로 다가갔다. 생생한 빨간색으로 빛나고 있는 토마토는 완숙처럼 보였음에도 줄기와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

“바구니에 탑승하실 방울이들 모시겠습니다~”

지오의 말에 몇몇 토마토가 줄기에 매달려 좌우로 살짝 흔들거리며 의사를 표했다. 지오가 그 바로 밑에 바구니를 대어 주자 이내 쿵, 하고 작은 수박만 한 토마토가 안착했다.

“…….”

“와, 됐다. 참 쉽죠?”

“…예.”

그렇게 지오는 순식간에 한 바구니의 토마토를 수확할 수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튜 중에서는 토마토 스튜를 가장 좋아합니다. 에들런 마을에서 항상 먹던 게 그것인 탓도 있겠지만, 크림 스튜보다 훨씬 속도 편하죠.”

“아… 맞습니다, 많이 먹어도 속이 쓰리지 않다고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지오반니를 닮은 미소를 되찾은 이세르가 말을 이었다.

“많이 끓여두고 오래 먹기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도 하셨고요.”

“그걸 전부 기억하시는군요.”

“선생님에 대한 것은 잊기가 힘드니까요.”

“내가 이렇게 파악되기 쉬운 사람이었다니, 더 발전하겠습니다.”

“그… 하지 마세요… 여기서 얼마나 더 발전하시려고….”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요.”

“제발 막을 수 있게 해줘요.”

“너는 내가 평범한 사제였을 때조차 나를 막을 수 없었지.”

“선생님.”

“이제는 더할걸.”

그래도 명색이 선생님인데 인어 제자들보다 발전이 더딘 인간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지오는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두지 않는 대범한 어른이었다.

“토마토 스튜가 먹기에 편한 것은 거의 야채만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튼튼하고 팔팔한 청년인 이세르는 모르시겠지만….”

“아, 지금도 청년으로 쳐주시는 겁니까? 천 년은 더 지났는데?”

“족보가 꼬이니 조용히 하세요. 아무튼 나이를 좀 먹으면 속이 부대끼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 저처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겐 가혹한 시련이죠.”

“그건 적어도 태양신께서 내린 적이 없는 시련이겠지만요.”

인어의 태클에 지오가 짐짓 안타까운 듯 미간을 구겼다.

“내가 헛소리를 해도 수줍게 웃어주기만 하던 나의 학생 이세르는 어디로 갔습니까?”

“…좀… 됐죠… 없어진 지….”

“걱정 마세요, 이세르. 사람은 언제든 다시 퇴행할 수 있어요.”

“절 뭘로 만드실 생각이신 건가요.”

“오동통한 돼지?”

“…….”

이세르가 픽 웃었다. 지오보다도 어른스럽고 단정한 미소였다.

“정말 달라지신 게 없습니다. 집 안과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도요.”

“…엇….”

“편한 사람과 있을 땐 이런 재밌는 농담도 참 많이 하셨죠. 태양의 성자라고 불렸던 대외적인 모습과는 많이 다르게요.”

“…….”

“어렸을 때는 그게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신뢰의 표시인 줄도 몰라서 매번 당황하기만 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너 누구야. 우리 집 꼬마 어디 갔어. 이 낯선 신사는 누군데.

‘그사이 왜 이렇게 컸지?’

예전처럼 어색하게 웃거나 허니처럼 질색할 것을 기대한 희대의 드립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아련해지면 아련해질 생각이 전혀 없는 지오로서는 조금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뭐, 아무튼.”

“불리하니까 피하시는군요.”

“밥 먹기 전에 과거 회상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가 불편해지는 거야.”

단호하게 아련한 감성을 차단한 지오가 말을 이었다.

“고기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주재료가 토마토와 양파인 덕분인지 토마토 스튜는 감칠맛이 아주 뛰어나죠. 다양한 종류의 부재료가 어울리기도 하고요.”

토마토 스튜는 그 어떤 고기든 잘 어울렸다. 와인을 살짝 넣어 소고기를 썰어 넣어도 어른스러운 풍미가 있고, 닭고기를 넣으면 토마토의 즙과 어우러져 조화로운 풍미를 느낄 수 있었다.

“양고기도 나쁘지는 않은데.”

“향이 좀 강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낼 때는 자주 못 해 먹었죠, 향이 강한 걸 워낙 싫어하시니….”

이 남매들뿐만 아니라, 원래도 인어라는 종족은 강한 향을 기피했다. 살짝 후추를 뿌리거나 향을 더하는 정도라면 괜찮겠지만 그 향이 메인이 될 정도라면 도망쳐야 할 만큼 싫어했다.

“생각해 보면 썩어가고 있던 저 역시 냄새가 강하기는 했을 텐데 용케 드셨군요. 아무래도 약에 취한 상태라 어쩔 수가 없었나?”

“…….”

“…그… 예, 이번 건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딱히 의도가 있어서 꺼낸 말은 아니었으니까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예….”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미안합니다.”

망한 분위기는 한참이 지나서야 간신히 회복될 수 있었다. 지오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구의 양고기는 그렇게까지 향이 강하지 않은데, 나중에 시도해 보겠습니까?”

“…그때랑 입맛이 조금 달라지기도 했으니까요. 향이 강하다고 해도 문제없습니다.”

“아, 달라졌나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인간들도 어릴 때는 못 먹던 게 커서는 먹게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제아무리 인어라고 해도 세월은 못 견디는 모양입니다.”

지오반니가 사제 특유의 고결한 얼굴로 헛소리를 지껄였다.

“나랑 같이 늙어가고 있군요.”

“아….”

고민하던 이세르가 대답했다.

“나쁘지 않은데요.”

“그러지 말라니까 계속 아련하네? 전 그런 거 싫어요.”

“아하하….”

어색하게 웃은 이세르가 물었다.

“그럼 이번 스튜에는 고기를 넣을 생각이셨던 겁니까? 에들런 스튜를 만드신다기에 조개나 생선을 넣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두 종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창고에 넣어둔 사슴 고기와 소시지가 남아돌아서 기회가 있을 때 소비하려고 하거든요. 나쁘지 않죠?”

“좋네요, 오랜만에 배가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인어는 먹은 음식을 바로 영양분으로 전환해 그들의 강인하고 유연한 신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소모한다.

구강으로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아도 바다에 있을 땐 피부로 그런 유지가 가능한데, 음식을 먹으면 쉽게 쉽게 배가 꺼지는 편이었다.

“토마토 스튜는 특히 향이 좀 묻어나는 베이컨이나 햄과의 궁합도 좋아요. 생으로 먹기 힘든 딱딱한 건조육의 경우에도 잘 어울리고, 특히 다양한 야채를 넣을 수 있으니 이래저래 간을 맞추기도 좋고….”

지오는 바구니에 들어간 토마토를 살짝 햇볕에 비춰보았다.

“확실히 지구나 에들런 마을의 것과는 다르단 말이죠.”

“…다시 묻습니다만, 그거 토마토 맞나요…? 제가 아는 에들런이나 지구의 것과는 많이 다른데….”

“지구의 씨앗을 심어 키웠으니 일단 토마토가 맞기는 할 겁니다.”

지오가 키워낸, 아니, 알아서 자라나신 방울토마토 님께서는 지구의 것과 조금 달랐다.

작은 수박만큼 커다랗고 대추토마토처럼 살짝 길쭉한 데다, 묘하게 투명해서 빛이 투과되었으며, 맛은 담백함과 달콤함의 중간이었다.

“저는 달콤한 스튜는 별로예요.”

“저도 그다지.”

“하지만 저희에게 있는 재료로 승부를 봐야 할 테니, 다른 재료로 해결을 해야겠습니다.”

“아, 소금을 더 넣는다든가?”

“이미 짜고 향도 풍부한 소시지가 있는걸요. 일단 그걸 활용하도록 하고, 흐음. 그 이상으로 뭘 넣어볼까….”

지오는 문득 떠오른 생각을 그대로 뱉었다.

“베이컨 만들면 재밌겠습니다.”

“선생님의 수제 베이컨은 훌륭하죠.”

이세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한 점씩 받아먹기를 기대할 정도였으니까요.”

“그게 바로 저예요. 못 하는 게 없는 천재적인 태양의 사제죠.”

“그런 분의 은혜를 받아먹고도 할 줄 아는 거라곤 허튼 짓거리뿐인 그 간악한….”

“토마토 먹으면서 진정하세요.”

아까 전 방울토마토의 건실한 자아를 봐서일까, 조금 망설이던 이세르는 곧 과육을 베어 물었다.

“오….”

“맛있죠?”

“이렇게 맛있는 토마토는 처음 먹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농사도 잘 지어요.”

탄력이 뛰어난 토마토는 약하게 젤리처럼 탱글탱글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육질이 단단한 토마토 특유의 으스러지는 감각이 생생했는데,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처럼 톡 쏘는 맛이 있으면서도 금방 그것을 감싸는 은근한 단맛이 조화로웠다.

“지금 만져보니 슬라임처럼 말랑하기도 하군요.”

“슬라임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식감이 재밌네요.”

질색했던 것도 잠시 이세르는 꽤 토마토가 마음에 든 듯했다. 움직이는 토마토를 진심으로 질색하기엔 긴 세월 동안 이세르가 봐온 꼴들이 많기 때문이었다.

“그럼 이제 뭘 더 수확해 가면 되나요? 사실 텃밭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수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참 기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것저것 넣어보려고 합니다.”

역시 스튜는 잡탕으로 먹는 맛이 있었다.

“당근은 가장 무난한 선택지이죠. 당근 특유의 삼삼한 단맛과 희미한 쌉싸름한 향이 토마토와 굉장히 잘 어울리니까요.”

“감자는 어떨까요? 저는 선생님이 스튜에 감자를 넣어주었을 때, 거기서 나온 전분으로 약하게 걸쭉해진 그 스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럼 감자도 추가합시다. 재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전분은 아주 질척거리거나 미끈거리지 않고 사골국처럼 달곰한 정도라 아주 훌륭하죠.”

“포슬포슬하게 익어서 토마토 스튜의 국물을 머금으면 부드럽게 으깨지기도 하고요. 역시 감자는 꼭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세르는 토마토 바구니를 든 채로 희미하게 들뜬 미소를 지었다.

“양배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푹 익은 양배추는 아삭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해서 정말 식감이 좋았거든요.”

“정말 좋죠, 따듯하게 익은 양배추즙이 입안을 적시면 그게 겨울에는 정말 황홀하잖아요? 완전히 푹 익혀서 혀로 뭉개면 그것도 나름 재미있고….”

“…….”

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화에, 이세르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시장에 온 것 같아요.”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꿈을 꾸는 것인가 싶어서.

공허하고, 무서웠다.

던전을 그리는 화가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89)"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90)

제90화

수확을 전부 마쳤을 즈음.

"......."

"자, 이제 닦으러 갑시다."

"저기 선생님, 이건 좀...."

"시간이 없어요."

지오와 이세르는 수확한 작물을 들고 개울가로 향했다.

"바로 집 앞에 개울가가 있으니 편하지요?"

"아, 담수... 이겠죠?"

"이런 숲 한가운데에 해수가 있을 리는 없잖습니까."

"그것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여기서는 좀처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분이라서."

"이 정도면 상식적이죠."

그들은 흙먼지가 묻은 작물들을 씻어냈다.

메인 재료가 될 토마토 한 바구니는 물론이고 알이 단단한 양파와 감자와 고구마 여섯 개씩, 양배추 한 포기, 완두 열 깍지, 작은 호박 한 통, 당근 세 녀석까지.

"......."

"......."

하나하나 알도 큰 녀석들이 모여 있으니 작은 언덕을 이루었다.

"...좀 심했나?"

"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본인도 즐겼으면서."

"그... 그건 그렇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던 탓에 이세르도 한참이 지나서야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언덕이 완성되어 가던 참이었고 말이다. 후회하기는 늦은 시점이었다.

이세르가 어색하게 웃었다.

“이대로라면 커다랗게 세 냄비는 나오겠습니다.”

“농담도, 아무리 많아봤자 한 냄비겠죠.”

“…….”

“…만들다 보면 좀 늘어날 것 같기도 하지만….”

정확한 재료의 양을 측정해 철저히 하는 요리가 아니라, 대충 감으로 이것저것 때려 넣는 식의 요리를 즐기는 지오다 보니 조리 과정에서 종종 양이 터무니없이 늘어나고는 했다.

아리아는 그것을 보며 ‘스튜가 증식한다’라고 말하고는 했다.

“…음….”

지오는 떳떳했다.

“일단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먹거나 이웃집에 나눌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어디에 이웃집이 있나요? 이 숲 너머에?”

“이세르의 ‘심해의 신전’도 저의 이웃집이라고 할 수 있고.”

“이웃집의 범위가 정말로 넓으시군요. 그 포용력에 감탄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겠지만, 액자 앞으로 가면 가끔 이웃이 생기고는 합니다.”

“아, 그런 식으로….”

고개를 끄덕이던 이세르가 잠시 굳었다.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까?”

“아니꼬워요?”

“그것도 아니라고는 절대 못 하겠지만, 바닷물에 넣으면 녹아내리는 그 나약한 인간들에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게….”

망설이던 이세르가 말했다.

“…인간들에게 그런 선물은 과분한 것 같습니다.”

“인간들은 제 요리를 함께 먹을 자격도 없나요?”

“그렇게까지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끼리 먹을 걸로 차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선생님이 말했잖습니까, 이세르.”

“…물론 그 말씀도 맞기는 하지만….”

말을 하다 말고 이세르는 입술을 우물거렸다.

‘…신이 만든 음식이 인간들에게 평범한 선물이 될 리가 없을 텐데.’

이세르는 아직 지오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다만 그는 태양신의 신성을 물려받은, 이른바 2대 태양신이었고, 그런 특성을 제외하고도 ‘초상화’가 근간으로 보이는 아득한 격의 존재였다.

‘그런 존재가 요리를 한다고 평범한 음식이 나올 수 있나?’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며 성물이라고들 하더라.

하물며 단순히 감상하거나 만질 수밖에 없는 평범한 물건이 아닌, 섭취 가능한 음식이라면… 인간들은 그것을 신의 간택이라고 부르곤 했다. 성자와 성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

“이세르?”

“…하긴 토마토 스튜의 형태를 하고 있으니 뭐라 하기도 애매하겠습니다.”

“스튜가 스튜지 뭐 더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튼 음식이 맞기는 하죠. 선생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인간인 시절부터 지오반니는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종종 벌이고는 했다. 지금 와서 성물에 가까운 토마토 스튜를 지구인들에게 뿌리고 다녀봤자 그리 이상할 것은 없었다.

“하지만 역시 질투는 납니다. 인간들이 선생님의 그런 호의를 받다니, 심사가 뒤틀리네요.”

“요리 좀 나누는 것으로 심사가 뒤틀릴 것까지야 있나요.”

지오반니가 어깨를 으쓱였다.

“이런 일은 에들런 마을에 살 때도 자주 있었잖습니까.”

“그 맛있는 요리 받아먹고 결국 배신을 한 간악한 작자들….”

“토마토 하나 더 먹어요.”

신체 구조상 대식가일 수밖에 없는 인어로서 이세르는 지오가 주는 음식을 거부하지 않았다. 참 맛있는 토마토였다.

“그래도 역시 양이 많아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나눠 주고도 남은 게 있다면 역시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왜 저희가 해결하죠, 그걸?”

“…….”

지오가 이세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

“…저기….”

“역시 너무 말랐군.”

“선생님, 인어들은 대부분 이 체형이에요.”

“비쩍 말라서는 이 선생님의 마음이 안 좋습니다.”

“비쩍 마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사람 배곯는 꼴을 못 보는 지오반니였지만, 어째서인지 못 본 사이에 그 큰 손이 더 커진 것 같았다. 이세르는 ‘다들 돼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라며 아련하게 웃던 지오반니를 떠올렸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하지 않을 수가 있나? 아니, 더 심해진 것 같기도….’

그런 이세르를 두고 지오는 다음 작업을 시작했다.

“이제 썰어야지요. 이세르, 괜찮다면 이제 한번 몽둥이나팔의 상태를 봐 주시겠습니까?”

“…아, 예. 물을 한번 갈아준 뒤에 주방으로 가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지오는 수많은 야채의 언덕을 짊어지고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

“오, 아리아. 잘 쉬고 있었습니까?”

“…대체 뭘 만들려는 거지? 빈민 구제를 위한 스튜를 기부하려는 것인가?”

“아뇨, 저희가 먹을 건데요.”

“지오, 매번 말하지만 우리는 돼지가 될 수 없는 종족이야. 인어의 신체는 쉽게 변하지 못한다고. 내 연구로도 힘들어.”

“그렇게 스스로의 한계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새 성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옛 학생의 용기를 북돋워 준 지오는 야채들을 몽땅 주방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워낙 재료의 양이 많아 쿵도 아니고 쿠르르 소리가 오두막에 울려 퍼졌다.

곰인형에게 예쁨을 받던 중인 다나가 그 테이블 위로 훌쩍 올라왔다.

“琉존존?”

“지금 먹으려고? 아직 안 익혔는데, 탈 나지 않으려나.”

“琉존존존존점?”

“아 잠깐만 아니.”

“므긍.”

다나는 입에 고구마 하나를 물고 도망쳤다.

“…목표 의식이 확실하구나, 우리 딸.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냥꾼이 되겠어.”

곧이어 허니가 날아와 그 어깨에 앉았다.

“꾸르르륵?”

“너도 재료를 훔치러 왔니?”

“꿍.”

“그래, 요리된 거 먹는 게 좋지.”

고개를 한번 끄덕여 준 지오는 재료 손질에 들어갔다.

“일단은 양파부터 볶는 게 좋겠네.”

스튜를 만드는 방법은 집집마다 다양했다. 어느 집은 스튜에 들어갈 고기를 먼저 볶는가 하면 어느 곳에서는 감칠맛을 낼 양파를 시작으로 삼기도 했다.

또 어딘가는 진한 맛을 내기 위해 토마토를 가장 처음에 졸여내기도 했는데, 지오는 양파를 먼저 버터에 볶는 것을 선호했다.

“그래야 양파의 감칠맛이 한껏 올라가니까.”

“꾸룩?”

“고기? 고기를 먼저 볶으면 냄비 밑에 퐁이 눌어붙어서 국물 맛이 확 살기도 하는데, 어차피 다른 팬에서 그을린 다음에 넣어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난 양파를 먼저 넣어.”

특히 스테인리스 냄비 같은 경우에는 만족할 만한 상태가 되지 않았는데 먼저 바닥이 타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적인 요리사는 아닌 지오이기에 종종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확실히 양파에 버터 조합이 가장 안정적이지.”

토마토도 마찬가지였다.

“굳이 토마토를 먼저 졸이지 않아도 끓이면서 수분이 날아가는 데다, 양파 다음으로 토마토를 넣을 거라 큰 차이도 없다고 봐.”

“꾸루룩, 꾸룩.”

“아, 그야 물론 볶은 토마토의 풍미를 원한다면 그걸 먼저 넣는 편이 합리적일 거야. 하지만 그건 사전에 토마토 페이스트를 만들어 둔다면 얼마든지 나중에 넣을 수도 있으니까.”

“꾸르르?”

“…지금은 만들어둔 페이스트가 없는데.”

토마토 페이스트는, 그냥 간단히 말해 토마토 맛이 아주 강한 소스였다. 보통 가정의 입맛에 맞춰 진하고 꾸덕꾸덕하게 페이스트를 만들어두면 나중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느낌이었다.

“…….”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들 게 늘었군.”

“꾹.”

“페이스트 같은 것은 만들어두면 마음의 창고가 넉넉해지는 기분이 들지.”

절임과 소스는 다다익선이었다. 한 번만 잘 만들어두면 1년이 풍족한 것이다.

양파는 작게 썰어 감칠맛만 내도록 해도 괜찮지만, 조금 크게 썰어 식감을 도와도 좋았다. 스튜에서 잘 익은 양파는 말캉하고 부드럽게 으스러지는 식감이 재밌었다.

적당한 크기로 양파를 썬 지오가 커다란 냄비에 버터를 넣고 녹였다.

“버터는 많이 넣을수록 좋답니다.”

“꾹?”

“돼지 양성기라고 해야 할까.”

버터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기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맛있어지는 것이 스튜의 법칙이었다. 건강해서 좋아한다는 사람도 결국에는 몸에 나쁜 게 들어가야 맛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양파를 전부 넣어서….”

해감 물을 갈고 돌아온 이세르가 물었다.

“혹시 양파 수프를 만드실 생각이실까요?”

“양파 수프도 좋지만 오늘은 토마토 스튜가 주인공입니다.”

“아하….”

“저어주세요.”

“예, 선생님.”

지오는 이세르에게 양파가 타지 않도록, 또 맛있는 갈색이 되도록 저어주라며 냄비를 맡긴 뒤 재료 손질을 이어갔다. 다음은 당연히 토마토였다.

‘확실히 지구의 토마토보다 물컹하네.’

탄성이 느껴지는 젤리, 혹은 푸딩 같은 느낌이 강했다. 날을 꾹 누르자 커다란 젤리를 자르는 것처럼 꾹 눌렸다가 천천히 진득하게 갈라지는 것이 그 끈끈한 조직을 예상하게 했다.

“잘게 자른 토마토 들어갑니다.”

“벌써 냄비가 넘칠 것 같아요.”

“그럼 하나 더 늘리죠, 냄비.”

“결국 세 개로 증식되겠네요….”

“두 개 선에서 끝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죠.”

이세르는 더 이상 말을 늘리지 않고 그대로 냄비를 하나 더 늘렸다.

“믿습니다.”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넘치지 않기를.”

지오가 짧게 태양의 성호를 그으며 기도를 올리자 거실에서 다나와 놀아주고 있던 곰인형이 움찔했다.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무시한 지오는 손질을 이어갔다.

감자는 껍질을 깎아 한 입 크기로 깍둑썰기를 해주었다. 뽑아 온 고구마의 절반은 길쭉한 스틱 형태로 조각을 내주고, 나머지 절반은 잘 씻어서 채반 위에 두었다.

“이 고구마들은 나중에 모닥불에 구워 먹으려고 해, 좋지?”

“꾸르르르르르르르르.”

“훌륭한 돼지 같으니, 역시 넌 내 아들의 자격이 있다.”

최고위 사제다운 고결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인 지오가 다음 손질을 이었다.

양배추는 가장 겉의 이파리를 벗겨낸 다음, 그 속 알맹이를 쓴다. 양배추를 뒤집어 그 뿌리 부분에 칼을 쑤욱, 쑥, 쑥, 슉, 중심을 기준으로 원을 그리며 쑤셔주면 심지가 쏙 빠진다.

“심을 빼낸 양배추는 대충 사 등분만 해줘도 얼추 크기가 괜찮아.”

그다음 완두.

“고구마도 그렇고 완두콩도 그렇고, 지구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에들런 스튜는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라서. 특히 이번에 사용하는 토마토는 꽤 단맛이 강하니까 이런 부드러운 재료를 넣어도 괜찮겠지.”

스튜에 콩 종류를 넣어주면 국물과 함께 톡톡 씹히는 맛이 좋았다. 무엇보다도 완두는 한번 익었을 때 삼삼한 단맛과 찐한 고소함을 내어주는 작물이 아닌가.

서지오는 콩 중에서도 특히 완두콩을 좋아했다.

“그리고 호박도.”

“꾸룩.”

“이것도 지구의 것과는 형태가 다르네.”

그가 수확한 호박은 지구에서 흔히 알려진 채도 낮고 누런빛의 늙은 호박이었지만, 그 크기는 단호박만큼 작았다. 단맛은 그리 강하지 않겠지만 호박 특유의 부드러운 맛과 식감을 더해줄 것이었다.

“이 숲을 돌아다니다 보면 벌집도 찾을 수 있으려나.”

“뭘 해 드시려고요, 선생님?”

“텃밭의 호박은 그렇게 달지 않지만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잘 쪄서 위에 꿀과 버터를 올려 먹으면 상당히 맛있을 겁니다.”

“그거 좋네요, 꿀에 버터라니….”

“소금을 살짝 뿌리면 훨씬 풍미가 깊어지죠.”

이세르에게 대답한 지오는 호박 손질을 시작했다.

씨앗을 파내고 껍질을 전부 벗긴 호박은 역시 적당한 크기로 토막 냈다. 지구인들에게는 낯선 조합일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토마토 베이스의 국물에 빠진 호박은 맛이 꽤 훌륭했다.

“당근도 껍질 벗겨서 잘라놓고….”

채소는 손질을 마쳤다.

“다음은 조개와 소시지겠군요.”

“몽둥이나팔은 아직 뻘을 조금 뱉어내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20분 정도 뒤에는 해감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소시지나 다른 조개들부터 손질을 해볼까요?”

지오는 창고에서 이전의 나무뿔사슴 고기로 만들어뒀던 햄과 소시지를 가져왔다.

통으로 염장 숙성을 해두었던 일부 부위는 훌륭한 햄이 되었고, 종종 구워 먹던 소시지도 예전과 다름없는 깊은 향을 자랑했다.

“일단은 단단한 부분을 제거해야겠지….”

껍질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햄은 그 겉을 전부 잘라낸 뒤, 염지 탓에 새빨갛게 굳은 속살만을 작은 큐브 형태로 잘라냈다. 소시지는 질긴 창자 케이싱을 제거한 내부의 다짐육 부분을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손이 많이 가서 그런가 껍질도 버리기가 아쉬운데.”

“꾸룩구루루루루루.”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곱창….”

결국 껍질도 적당히 잘라 스튜에 넣어보기로 했다. 건조되어 조금 질기기는 하지만, 뜨거운 스튜에 팔팔 끓여진 뒤 나오면 금방 쫄깃함을 되찾을 것이었다. 유난히 이 껍질은 회복력이 좋았다.

“스튜는 어느 정도 되어가나요?”

“채소들이 익을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갖은 채소와 에들런 마을의 지하수를 넣고 끓이는 스튜는 푹 익은 식감이 특징이었다. 앞으로 1시간은 더 필요할 것 같아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쪽 냄비에는 손질된 고기를 넣어보도록 하죠.”

“스튜는 계속 밑이 타지 않도록 봐줘야 할 것 같은데, 고기는 그대로 넣을까요?”

“제가 볶을 테니 냄비를 계속 봐주세요.”

빠르게 염장육들을 볶아 적당히 향을 끌어 올린 뒤, 지오는 그것들을 전부 한쪽 냄비에 넣었다. 1시간 이상 푹 고아지고 나면 말캉한 육질을 만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조개를 손질했다.

“햇살소라나 검은쟁반조개는 구워 먹을 때 가장 맛있으니… 몇 개만 속살을 긁어낸 다음, 나머지는 이대로 빼두고….”

특히 검은쟁반조개는 약한 불에도 쉽게 익어버려서 불 조절에 유의해야 했다. 지오는 주방 근처에 서서 요리하는 모습을 구경하던 아리아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다.

"아리아, 구이 준비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전처럼 모닥불을 준비하면 되나?"

"철망을 걸칠 수 있도록 벽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

아리아는 옆구리에 곰인형을 낀 채로 오두막 밖을 나섰다.

"...? 아버지는 왜...?"

대체 태양신은 왜 끌고 간 건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헤프닝이 벌어질 것 같아 일단은 무시했다.

지오는 해감이 완료된 몽둥이나팔 조개를 데려와 한번 깨끗이 세척하고, 맛조개와 비슷한 껍질을 갈라 속살을 꺼냈다.

길게 이어진 관자와 같이 흐물거리고 큼직한 속살이 드러났다.

"......."

"꾺?"

"좋아."

바로 이거거든.

"회로 먹어도 맛있는데 말이지."

지오는 질기게 씹히는 부분을 칼로 도려낸 다음, 1cm 정도의 두께로 속살을 저며냈다.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연노랑빛 속살을 입에 넣으니....

'이게 낭만이고 도원향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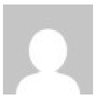
사르르 녹아내리는 달콤하고 탱글탱글한 그 맛이 장난 없었다.

"아...."

이거 그냥 회로 먹으면 안 되나.

깔끔한 청주에 달콤한 회 한 점. 사망 신고 된 나이 30대 아저씨 지오반니에게는 참을 수 없이 강렬한 유혹이었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90)"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91)

제91화

모닥불을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게 맞던가…?”

그 가운데에 숯을 놓고.

“에들런에 살 때 쓰던 숯은 아니지만, 향은 괜찮네.”

옆으로는 벽을 세워 조개를 구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적당히 넓적한 돌로 만들어서 그런지 울퉁불퉁해 그리 안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묘한 감상에 젖어 아리아가 작게 중얼거렸다.

“벽돌이 있었으면 더 나았을지도….”

어릴 적의 기억을 떠올리며 지금의 모닥불과 비교하던 인어는 숯이 검게 묻은 제 손을 내려다보았다.

“…….”

한참이 지나 아리아가 중얼거렸다.

“…그때와는 다르군.”

그 작은 신체로 모닥불을 준비할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던 거야 늘 그래왔지만, 이렇게 평온한 기분이 된 건 굉장히 낯선 경험이야.”

문득 아리아는 자신이 꿈을 꾸는 것 같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냉혈한 현자. 바다의 현신. 모든 해수의 심판관. 심해라 불리는 세계이자 게임판의 주인이 이렇듯 작고 볼품없는 모닥불을 다시 만들 일이 있을 리가 없었다.

제 삶에 가장 평화로웠던 한때의 행동을, 이 피비린내 가득한 손으로 반복하고 있으니….

“영 현실감이 없군.”

이게 가능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럴 이유가 없었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 모든 것은 옛 버릇을 지우지 못한 인어 한 마리가 긴 잠에 빠져 만들어낸 것일지도 몰랐다. 가끔 그런 꿈을 꾸기도 했으니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일렁이는 불을 바라보던 아리아가 이내 중얼거렸다.

“하긴 상관없겠지….”

그녀는 섣불리 지금의 모든 상황 중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구분하려 들지 않았다. 헛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고 늘 현실만을 직시해 왔던 아리아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하지만 이런 꿈이라면, 망상은 망상대로 즐길 가치가 충분했다.

“지오.”

이곳과는 퍽 어울리지 않는 드레스 자락을 끌며 아리아는 오두막의 주방으로 향했다.

“조개를 구울 곳은 준비가 되었는데. 위에 철망만 놓으면 되겠어.”

“손질도 전부 마쳤습니다. 스튜도 거의 완성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식사는 야외에서 할 예정인가?”

“모닥불도 있고, 날씨도 좋죠. 그게 훨씬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대의 말이 옳아.”

이런 적이 참 많았다.

시끌벅적한 장터로 가 함께 그날 가장 끌리는 재료를 고르고, 인어들의 마음에 든 재료로 지오가 요리를 해주었다. 그는 그 작은 집의 유일한 어른이자 요리사였다.

아리아와 이세르는 그 곁에서 커다란 키의 선생님을 올려다보며 인간의 지혜를 배우거나 시답잖은 이야기를 떠들어 대고는 했다. 정돈되지 않는 분위기.

그럴 때면 그들의 선생은 도움을 요청해 왔다.

“아리아도 도와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의 손이 부족해서….”

“조개는 이리 주도록 해.”

지오에게 손질된 조개가 가득 든 쟁반을 받으며 아리아가 말을 이었다.

“이건 내 역할이잖아.”

조개구이는 늘 아리아의 담당이었다.

“잘 굽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리아가 있으니 든든하군요.”

“…그런가?”

“맛있는 조개구이를 기대하겠습니다.”

“…….”

아리아는 입을 조금 달싹이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갔다.

그때의 아리아는 체력도 약하고 신체도 부실했지만, 그 이상으로 욕심이 많았다. 지오가 하는 요리가 마치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지혜의 정수처럼 느껴져 제게 역할을 달라고 억지를 부렸더랬다.

‘그때 선생님에게서 모닥불을 피우는 역할까지 얻어내려고 많이 노력했지. 요리를 돕는다고 해도, 좀처럼 다칠 위험이 큰 일은 맡겨주지를 않아서….’

그게 제 유능함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싶어 심술이 나기도 했다. 지오반니는 크고 작은 위험한 일 모두를 자신이 떠맡으려고 했다. 그게 불신의 증거처럼 보였다.

결국 그가 죽은 뒤에야 깨달았다. 선생님은 그의 어린 인어 제자들이 너무 소중해서 다치지 않았으면 했던 것이다. 그것은 신뢰와는 별개의 문제였다.

“…….”

그것도 몰랐던 어린 인어는 결국 모닥불 피우는 역할까지도 얻어 냈었지만 말이다.

“웃기네.”

아직 그 같잖은 역할이 남아 있음에 현실과 유리된 듯 붕 뜬 기분이 되었다. 낯선 감상이다.

비록 스스로 버린 적은 없으나, 죽어서도 다시 이 역할을 맡게 될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

“꾸우?”

“…친한 척하지 말아 달라니까, 신사분.”

“꾸꾸꾸.”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모닥불 옆에 앉아 박수나 치는 곰인형이 참으로 하찮다.

특별한 감정이 실리지 않은 무던한 어조의 질문이었지만, 낡고 흐린 색상의 인형을 바라보는 아리아의 속내는 그렇지 못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아리아는 태양을 바다로 덮었다.

“많은 공을 들였어. 태양을 증오해서 당신의 모든 자식을 바다에 잠기게 두었지. 차마 물처럼 녹아내린 지오를 건드릴 자신도 없어서….”

“…….”

“그래, 용기가 없었어. 분노라는 감정을 난생처음 느낀 나는 제정신이 아니라 그의 유해를 어떤 방식으로든 소실하게 만들 수도 있었으니 마냥 조심스러웠던 거야.”

“…….”

“한낱 땅 위에서는 살지도 못할 인어의 발악에 온기를 잃은 것이, 모든 자식을 잃은 것이 당신이건만… 지금 이렇게 태평한 모습을 보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우스워지더군.”

모든 것이 그랬다.

“왜 이렇게 평화롭기만 하지?”

이 숲도, 이곳의 주인인 지오도, 그런 그가 소꿉놀이를 하듯 가족이라 곁에 두는 미물과 또 거대한 존재마저도 하릴없이 평화롭기만 했다.

아리아는 거대한 격이 안정적으로 담겨 있는 푹신한 인형을 내려다보았다.

“나를 원망하지 않나?”

“꾸우.”

“이래서 신이라는 족속이 참 징그럽단 말이야.”

그들에게 감정과 교류를 기대해서는 안 됐다.

사제가 신께 제물을 바치는 것은 인간이 신과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만큼 신과는 대화할 수 없고, 마주 볼 수 없고, 서로를 이해할 수도, 감정을 주고받을 수도 없었다.

그러니 한낱 인어 따위에게 원망을 품지도 않을 것이었다.

“나 같은 괴물보다도 텅 비어 있어.”

그런 주제에 자비와 사랑을 말하다니, 이 얼마나 어울리기 힘든 작자들인가.

“태양을 괴롭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좀 보람 있는 반응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건가?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 내거나… 할 수 있는 반응은 많잖아.”

“꾸꾸꾸….”

“웃어?”

짜증 났다.

“…….”

고결하게마저 느껴지는 제 동생의 것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지만, 어찌 되었든 아리아는 신사다운 미소를 유지한 채 중얼거렸다.

“나도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았어.”

사실이었다.

영민한 인어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알았다. 탐욕과 명예에 눈이 먼 멍청이들이 사고를 쳤고, 그들 남매와 지오반니는 거기에 운 나쁘게 휘말린 것뿐이었다.

그러니 분노한다면, 그 대상은 쉽게 변질되고 배신하는 인간들의 본성뿐이었을 거다.

“그 세상은 너무 끔찍했거든.”

그 어떤 인간도 영원을 보이지 못했다. 저조차도 분노로 변해버린 주제에 그것을 혐오했다.

“하늘 끝까지 바다로 뒤덮여야지만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랬다.

“…….”

“그래, 아버지.”

인어로서도 한참 뒤에나 알게 된 사실이지만.

“태양의 신과 심해의 신은 한 몸이었다지? 결국 당신도 나의 아버지였던 거야.”

“꾸우꾸.”

“아니, 분열된 존재이니 따지고 보면 삼촌이라고 해야 할까. 당신께서는 내가 무엇으로 불러주기를 바라십니까?”

“꾸꾸.”

“삼촌? 세상에, 소름 끼쳐라. 그건 그냥 해본 말이었어.”

더럽게 평화로운 단어였다.

“이쯤 되니 나도 정신이 없군요.”

참 드문 일이었다.

평생을 또렷한 정신으로 살아온 그녀가 혼란에 빠졌을 때가 딱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지오가 인간이 아닌 아리아 자신의 편을 들었을 때였고, 두 번째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지오의 시체를 확인했을 때였다.

그리고 이 꿈결 같은 상황에서 아리아는 다시 한번 혼란을 겪고 있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데….”

비웃음이 절로 나왔다.

“…….”

살랑이는 봄바람이 부드러웠다.

“…간지럽게 굴기는.”

“아리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래.”

이곳은 그들 자상한 선생님의 배 속이었다.

그 사실이 조금 아득했다.

* * *

“어떤가요?”

“잘 익었는데요?”

스튜의 간을 본 지오가 말을 이었다.

“제 입맛에는 살짝 밍밍하긴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매운 걸 좋아하셨었죠….”

“그저 무리 없이 잘 먹는 거지, 좋아한다고 말하기에는 많이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평소에 사용하던 토마토보다 훨씬 단맛이 강한 탓인지 밍밍한 구석이 있었다.

찬장에서 말려둔 은하수 메리를 꺼낸 지오가 그것을 곱게 갈아 덜어낸 스튜 위에 뿌렸다.

“딱 좋군요.”

적당히 맵고 적당히 자극적이었다. 고소한 듯이 달면서 숙성된 햄에서 우러난 짠맛도 함께 느껴지고, 당근과 같은 다양한 채소에서 빠져나온 채수 덕분에 고급스러운 쌉싸름함이 더해졌다.

“아.”

바스락.

달각, 달각.

파슥….

“마음에 드나 보네.”

은하수 메리가 반짝거리는 탓인지, 아니면 이것 또한 열매라 그런지. 둥지에서 날아온 물새 몇 마리가 슬쩍 은하수 메리 몇 알을 채어갔다.

지오는 제 친구들의 소소한 횡령을 눈감아 주었다.

‘귀여우니 됐다.’

다른 집 가서만 도둑질 안 하면 그만이었다. 지오는 찰박찰박 인사하는 물새들을 토닥여 주고는 입을 열었다.

“오랜만에 끓이는 거라 조금 불안했는데, 꽤 만족스러운 스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따로 끓여 드신 적은 없었습니까? 선생님은 요리를 즐기시잖아요.”

“죽어 있느라 딱히…?”

서지오 위로 '지오반니'가 덮어 씌워진 것은 상당히 최근이었으니 말이다.

"……."

"내가 실언을 했습니다, 이세르. 표정을 푸세요."

"아뇨, 저야말로…."

"진정하십시오."

약간의 소란이 있었지만 아무튼 스튜는 정말로 만족스러웠다.

"조개가 들어간 것도 좋고, 고기가 들어간 것도 좋네요. 이세르는 역시 해산물이 들어간 쪽을 더 좋아할까요?"

"…이제는 크게 식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무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 굳이 따지자면 역시 해산물이 들어간 쪽이 훨씬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식욕이 없다기엔 호박만 한 토마토를 잘만 먹던데."

"그건…."

할 말이 없었는지 잠시 진지하게 고민하던 이세르가 곧 뻔뻔하게 대꾸했다.

"토마토가 맛있었습니다."

"내가 키웠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그렇지."

인어들의 보편적인 취향이야 어찌 되었든, 지오는 고기가 들어간 쪽이 조금 더 좋았다.

'마을에 살 때는 확실히 육고기를 구하기가 어려웠지.'

해안가에 위치한 바다 마을인 탓에 해산물보다 고기의 값이 훨씬 비쌌다.

귀족이라고 해도 지원 못 받는 막내에, 그나마 가진 것도 의료 기구 사거나 전부 기부하느라 떵떵거리며 살 정도는 못 되었던 탓에 이런 고기는 꽤 반가웠다.

케이싱을 뜯어낸 소시지의 내용물은 스튜에 푹 익혀지며 그 식감이 적당하게 부드러워졌는데, 낮은 온도에서 더 오래 끓이면 훨씬 육질이 말랑해질 것 같았다.

"건조육은 건조육인 탓인지 쉽게 물렁해지지는 않는군요."

"저는 이건 이거대로 좋습니다만…."

"일단 저녁을 먹을 준비는 이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지오는 이세르의 도움을 받아 커다란 냄비 두 개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적당한 나무 의자와 식탁까지 준비를 해둔 덕분에 분위기가 확 살았다.

"자아."

스튜 냄비는 모닥불 옆에 안착했다.

"드십시다."

"꾸룩."

"허니, 냄비 안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렴."

"꿍꿍꿍…."

"나는 널 우린 물을 먹을 생각이 없어."

냄비 안에 퐁당 빠진 허니째로 스튜를 퍼 올린 지오가, 그것을 그릇에 담아 모닥불 근처에 놓아주었다. 허니는 그릇에 담긴 채로 스튜를 흡수하기 시작했다. 푹 퍼진 탓에 뭐가 스튜이고 뭐가 허니인지 구분이 안 갔다.

“다나는 오빠 스튜 뺏어 먹지 말고 새것 먹자.”

“琉존존존존존점?”

“옳지.”

허니가 녹아내린 그릇을 기웃거리던 다나는 지오의 부름에 쫑쫑쫑 탄력 있게 걸어가 제 그릇 앞에 자리를 잡았다. 두 동물의 입에 스튜가 제법 맞았는지 스튜의 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향을 더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후추를 둘 테니 알아서 추가하세요.”

곱게 간 은하수메리를 탁자에 두니 아리아의 고개가 기울어졌다.

“후추?”

“예, 후추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나?”

“맛은 비슷해요.”

“식용은 맞겠지?”

“설마 제가 못 먹을 걸 추천할까요.”

“…….”

“아리아?”

잠깐의 침묵 끝에 아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먹을 걸로 장난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무슨 당연한 말을 그렇게 진지하게 하십니까.”

“가끔 선생님의 행동은 예측할 수가 없어서 말이야.”

그리고 그런 지오의 통통 튀는 매력 때문에 의아해했던 것은 아니었다.

‘식재료처럼 보이지는 않아.’

식용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런 소소하게 사용될 식재보다는 귀한 약재로 쓰일 것 같은 기운을 풍겼다.

어느 차원에서는 이런 녀석을 보며 영약이라고들 하던데.

“…잘도 이런 걸 찾아내는군.”

“숲에 잔뜩 피어 있어서.”

“아, 잔뜩?”

“문제가 있겠습니까?”

“…….”

주변을 둘러본 아리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문제는 무슨.”

종의 본성 자체가 대범하지 못하고 지독히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보게 된다면 눈이 돌아갈 만큼이나 귀한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이었다. 이곳에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 된다면 분명 문제가 생기긴 할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진화의 한계가 없는 인간일지언정, 이 무시무시한 차원에 천박한 욕심만으로는 기어들어 올 수 없을 것이었다.

‘신념에 가까운 탐욕이 아니고서야 이 차원에는 접근조차 못 하겠지. 애초에 선생님의 보금자리를 인간들이 노리는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나오지만... 실현될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아리아는 혹여 지오반니가 또다시 인간들에게 박해당할 가능성을 점치며, 제 은사가 퍼주는 스튜를 받아 들었다.

나무 그릇이 참 따듯했다. 그릇을 잡은 손끝에 온기가 퍼지고, 옅은 간지러움이 새싹처럼 피어났다.

“…….”

“해산물 스튜인데 괜찮습니까?”

“그래, 육고기보다는 이쪽이 더 좋아.”

식욕을 자극하는 향이 났다.

그다지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토마토 스튜 특유의 자극적인 향을 맡자 속이 허한 기분이 들었다. 이 허한 속을 눈앞의 스튜로 꽉 채우고 싶었다.

무언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정말이지 오랜만이었다. 복잡하게 돌아가던 뇌가 슬며시 풀어지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지오의 요리는 향이 강해도 싫지가 않단 말이지. 이제는 취향이라는 것조차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왜인가….’

손끝이 따듯해질 정도의 부드러운 온기가 담뿍 묻은 식기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그 평온하고 소박한 웅성거림이 기이할 만큼 조심스레 심장을 간지럽혔다.

‘고향에 돌아온 탓인가.’

엄밀히 따지자면 심해도 아닌 이곳은 고향이 아니었으나, 지오반니가 있는 탓인지 기이한 향수와 정취를 느꼈다. 정의하기 힘든 감각이었다.

그 자리에 속해 있음에도 한 걸음 떨어져 있는 듯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인데도 손에 잡히지 않는 듯 공허하여 그립다. 그 깊고 어둑한 바다에서조차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은 정말이지 생소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용서하지도 않았을 거다. 그런 주제에 이런 다정을 베푸나. 신성을 얻어 비틀린 탓이라기엔 지오반니는… 원래도 이렇게 이상한 작자였지.’

손을 몇 번 쥐었다 펴야 할 만큼 낯선 감각에 저릿함을 느꼈다.

“…….”

이렇게 안락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섬뜩할 만큼 무기력해져서, 이 안온한 공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91)"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92)

제92화

지오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음…."

덥석 스튜를 한입 물자 온몸에 퍼져나가는 온기.

'이거지.'

지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밥상머리에서 밥 이외의 다른 생각하는 건 밥에 대한 모욕이자 돼지를 향한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다. 무엇보다 이렇게 끝내주는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딴생각 자체가 안 들기도 했다.

'몸이 차갑거나 허할 때 먹으면 참 좋은 음식이야.'

늘 곁에 온기를 두고 사는 태양의 사제라고 해도 감기나 몸살이 안 걸리는 건 아니었다. 그럴 때면 지오반니는 이런 스튜를 끓여 먹고는 했다.

스튜라는 따듯한 음식이 가진 매력은 특히 몸이 아플 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맛있군요."

"꾸우."

물론 건강할 때 먹어도 맛있다.

'이 맛에 스튜 먹지.'

토마토 본연의 산미는 온기를 품으면 더 깊은 풍미를 낸다. 마치 닭발을 오래 끓여낸 끈끈하고도 달콤한 육수처럼 복잡한 향을 내고, 혀만으로도 뭉근히 어그러지는 과육은 어딘가 고상한 단맛을 냈다.

"당근이랑도 잘 어울리고요."

"에들런 스튜의 좋은 점이지, 뭘 넣어도 잘 어울린다는 점이."

"토마토 스튜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요."

당근 특유의 쌉싸름하면서도 톡 쏘는 자극적인 향은 스튜에 은은하게 스며들어 있었다.

거부감이 느껴질 만큼 자기주장이 강하지는 않으면서도, 여러 재료와 어우러지며 국물을 한껏 머금은 당근은 그 식감조차 특별한 결을 드러냈다.

“그리고… 감자도 넣기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국물을 머금는다고 하면 역시 감자를 빠트릴 수가 없었다.

“이세르가 추천을 해주었죠?”

“원래도 저희 집 스튜에는… 자주 넣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는군요.”

“정말 잘 익었네요.”

“이세르가 잘 저어준 덕분입니다. 열이 골고루 퍼진 걸 알겠어요.”

토마토의 붉은 풍미에 더해, 깊게 우러난 야채들의 즙을 머금은 감자는 잇몸으로도 뭉갤 수 있을 만큼 보들보들했다.

감자 특유의 잘게 바스러지는 질감은 산미와 달콤함으로 날아갈 것 같은 스튜의 무게감에 추를 더해주었다.

‘다른 재료들의 자기주장이 확실한 탓인가, 이런 식으로 담백한 맛을 주는 재료를 넣으면 스튜의 맛이 확 깊어진단 말이지. 그리고 그런 데에는 감자만큼 잘 어울리는 재료가 없어.’

게다가 감자는 단순히 도화지 역할만 해주는 것도 아니었다.

“국물만 먹어도 재료의 향이 느껴지네요.”

감자에서 흘러나온 전분은 여러 야채를 한데 엮어 그 즙을 부드럽게 승화시켜 주는 디딤돌 역할도 해주었다.

지오는 이세르를 보며 작게 웃었다.

“휘저어야 하는 재료가 많아서 팔이 아팠을 텐데.”

“그… 민망합니다. 이런 걸로 팔이 아플 나이는 지났죠.”

“그렇습니까? 제 눈에는 아직도 어려 보이기만 해서 이거 참 큰일이군요.”

슬쩍 끼어 있는 양배추도 꽤 괜찮았다.

“양배추가 아주 잘 익었어요.”

“꾸르르르.”

“그래, 나도 이런 양배추가 가장 좋아.”

토마토를 기본으로 한 국물을 잔뜩 머금은 양배추.

국물의 색으로 얼룩덜룩해진 양배추는 씹힐 때 묘한 탄성을 주는 듯하다가도 금방 으스러져 담백한 즙을 내뿜었다. 입안 곳곳에 퍼지는 한층 따듯한 국물은 스튜의 것과는 차이가 났다.

“아, 맞다.”

지오는 조개가 익어가는 모닥불을 돌아보았다.

“이제 슬슬 조개를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琉존존존점?”

“너도 돼지의 자질이 있구나, 조금만 기다리렴.”

다나의 작고 동그란 머리를 한번 쓰다듬자 고양이 특유의 삼각 귀가 뒤로 쓱 접혔다가 돌아왔다. 손이 닿기도 전에 귀를 눕혀준다는 부분이 아주 귀여웠다.

‘평생 받들어 모시고 살아야지.’

손에 착 감기는 작고 소중한 두개골의 감촉만으로도 밥 안 먹고 배가 불렀다. 마음이 사골 국밥처럼 뜨끈하고 든든해졌다. 인생의 만족도는 이렇게 올리는 것이다.

“어디 보자….”

조개 대부분은 전부 익어, 지오는 그것을 쟁반에 담아 식탁 위로 들고 왔다. 조개껍데기가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났다.

숯불의 향을 입은 조개 특유의 바다 향이 숲의 은은한 봄바람과 합쳐져 기분 좋은 연기를 풍겼다.

“다 익은 것 같네요.”

“까주시나요?”

“아뇨, 이제 다 컸으니까 각자 까 먹어야죠.”

“선생님께서 직접 까주시는 조개는 더 맛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기는 무슨… 아 뜨거.”

“예??”

이세르가 당황했다.

“뜨거우신가요?”

“뜨겁겠니?”

숨 쉬듯 자연스럽게 제 동생을 나무란 아리아가 이내 황당하다는 듯이 지오를 보았다.

“태양의 신성을 품은 주제에 이게 무슨 앙탈이야, 선생님.”

“갓 구운 조개가 뜨거운 건 당연하니 저도 모르게 그만.”

“신격화되고도 인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할 수가 있나…?”

“있을 수도 있지 나한테 왜 그러나요. 편견을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편견이라니 이렇게 억울할 수가. 말이 안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

“사람은 늘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마음에 열린다고 되는 일이야?”

“그런 편협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제 학생의 세상을 한층 넓혀준 지오가 특유의 고결한, 누군가에게는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조개를 까기 시작했다. 적당히 익은 조개들은 제각기 뽀얀 살을 자랑하며 어패류 특유의 달콤하고 고소한 향을 냈다.

“2대 태양신이 되니 이런 점이 좋군요.”

“…맨손으로 조개 까기?”

“항상 식혀 먹기 아까웠는데 정말 잘 됐어요.”

“신성의 용도가 그런 식이어도 되는 건가?”

“안 될 게 있습니까?”

때아닌 신성 모독에 당황하는 인어들을 둔 채로 지오와 곰인형은 마냥 즐거워했다. 그들의 위장은 아직 한참 비어 있었고, 조개구이가 들어갈 자리는 넉넉했다.

곰인형은 설레는 얼굴로 조갯살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오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신선한 성게알만큼이나 녹진한 즙이 가득한 검은쟁반조개의 살을 곰인형에게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꾸우우.”

“맛이 어떠신가요?”

“꾸꾸꾸꾸꾸….”

“조개의 맛을 즐기시니 참 다행입니다.”

곰인형이 솜바닥으로 퐁퐁 박수를 쳤다. 지오는 뿌듯해했고, 인어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보였다. 허니는 슬그머니 다시 스튜 냄비로 숨어들었으며 다나는 제 몫의 스튜를 전부 먹고는 발라당 누워버렸다.

‘평화로운 개판이군.’

이것이 바로 참된 삶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흐뭇하고도 뿌듯했다. 역시 그는 못 하는 일이 없었다.

지오는 새 검은쟁반조개를 들어 올렸다. 전복과 흡사한 형태였지만 그보다는 껍질이 훨씬 검고 매끈했으며, 숯불에 익은 속살은 하얗고 말캉한 모습을 뽐냈다.

‘이거에 비하면 전복은 노란색에 가깝지.’

검은쟁반조개는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아플 정도로 선명한 검은색과 흰색을 자랑하는 조개였다. 그 속살의 뽀얀 정도가 전복과는 달랐다.

가장자리가 조금도 우둘투둘하지 않고 깨끗하게 둥글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났다. 하지만 그 맛과 식감은 확실히 전복을 연상하게 했다.

“…….”

쫄깃.

“오.”

미친 탱글함이 지오의 뇌를 강타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좋네.’

정신 나간 감칠맛에 침샘이 왈칵 신경질을 냈다. 그야말로 천연 다시다가 따로 없었다.

검은쟁반조개의 강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속살은 그 탄성이 불쾌하지 않을 정도에서 말캉거렸고, 씹을수록 더욱 고소해지는 맛은 마치 불에 구운 견과류와도 같았다.

‘그렇게 오래 굽지 않아서 그런가 야들야들하기도 하고….’

결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 비단처럼 부드럽게 흩어지는 속살은 이빨로 꾹 누르면 속절없이 갈라져 씹는 즐거움을 주었다.

아낌없이 흘러나오는 조개의 즙은 마치 겨울날 먹는 조개탕과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

조갯살이 작지 않은 탓에 입안에 꽉 찼다. 지오가 입을 연 것은 한참 뒤가 되었다.

“너무 맛있네요.”

“…그래 보입니다.”

“이게 인생이죠.”

“못 본 새에 식탐이 더 많아지셨네요.”

“여러분은 없어졌고요.”

“하하….”

이세르가 지오반니의 것을 닮은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굳이 먹을 필요가 없으니 챙겨 먹게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꼭 그것만은 아니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의 지오를 잡아먹었던 이세르였다. 그 살아 움직이는 근육이, 입안에서 꿈틀거리던 감각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던 탓일까. 그 이후로 이세르는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입에 아무것도 넣질 않았다.

“그래도….”

“이건 맛있죠?”

“…예,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로 ‘음식’을 먹는 기분이 들었다.

“기분이 좋네요.”

꼭 사람이 된 것만 같은 착각이 일 정도였다.

“햇살소라는… 껍질을 사용하실 건가요, 선생님?”

“나중에 곱게 갈아 물감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오반니는 이런 조개의 껍데기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는 했다. 특히 바다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의 그림에서는 언제나 바다의 향기가 났다.

“모아 두어야겠네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이세르가 감상에 빠지든 말든, 지오는 이번에 몽둥이나팔 조개를 들어 올렸다.

키조개 관자만큼이나 둥근 면적을 가진 조개는 벌써 껍질의 반이 갈라져 속살을 드러냈다.

“…….”

우물.

이가 쑥 들어갔다.

“…정말 부드럽게 잘됐네요….”

“내가 구운 거니까.”

“훌륭합니다, 아리아. 역시 요리에 재능이 있어요.”

오래 구우면 질겨지는 것은 조개의 특성이나, 몽둥이나팔의 경우 적당한 온도와 시간으로 조리하면 극상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섬세한 결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그 야들야들함은 키조개 관자의 회보다도 말캉거렸다.

‘따듯한 조개구이에서 이런 식감을 느낄 수가 있다니.’

지오반니에게는 어렵지 않게 맛볼 수 있는 식감이었지만, 지구인인 서지오에게는 낯설고 설레는 감각이었다. 생각해 보면 지오반니가 가장 좋아하던 조개도 몽둥이나팔이긴 했다.

“버터구이를 하면 맛있을 것 같은데….”

“에들런 마을에 있을 때는 해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이네.”

아리아가 작게 웃었다.

“그곳에서 버터는 그리 귀한 식재료도 아니었고.”

“그보다는 기피를 당하고 있었죠.”

버터는 만들기가 번거로운 데다 우유의 찌꺼기라는 인식이 강했다. 게다가 해안가가 바로 붙어 있는 바다 마을에서는 소를 키우기도 힘들어 유제품을 활용한 음식이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로 버터구이를 하면 맛있을 텐데요.”

“…나중에 해 먹어보면 되지.”

“좋습니다.”

햇살소라는 살을 발라 먹기가 조금 불편한 면이 있었다. 전용 꼬챙이를 가지고 뱅글뱅글 돌려야 그 살이 쁙 튀어나왔는데, 지구에 있는 소라와 상당히 비슷한 식감이었다.

다만 그 단맛이 남달랐다.

“…….”

살 자체에 깊이 물들어 있는 이 단맛과 어딘가 약초의 향을 떠올리게 만드는 씁쓰름한 자극.

햇살소라는 감기에 걸렸을 때 먹으면 몸이 낫게 된다는 미신이 있을 만큼 신체를 따듯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었다.

‘…확실히 이런 느낌이라 약으로도 사용하는 건가….’

태양신을 모시던 국가의 햇살소라라 그런지, 어패류조차도 조금 혜택을 받은 건가 하는 우스운 생각도 들었다. 매콤한 골뱅이 무침을 해 먹으면 간이 딱 좋을 것 같은 달콤 짭짤한 맛이었다.

“인어들은 매운 걸 잘 못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걸 따지기에는 너무 멀리 왔죠. 식사를 하는 방면으로는 문제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졌어요.”

몽둥이나팔의 속살을 잘라 먹던 이세르가 말을 이었다.

“그러니 뭐든 먹으려면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취향이라고 할 만한 것도 많이 희미해졌고, 그때 그 바다에 살던 인어라기보다는 생체적인 특성도 변해서….”

“그럼 조금 매운 것도 먹을 수는 있는 겁니까?”

“딱히 찾아 먹은 적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혹시 다음에 해주실 요리가 조금 매운 걸까요?”

“그렇게까지 맵지는 않을 텐데….”

“실험적인 요리를 좋아하시던 선생님을 떠올리니 안심이 안 되네요.”

그렇게 말하며, 이세르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식사하기 전에 시식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 정도 자비야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를 좀 도와주신다면요.”

“그거 좋네요.”

이세르가 중얼거렸다.

“…정말 좋아요.”

그는 차마 떨쳐내지 못한 이상한 기분에, 결국 제 누이와 비슷한 의문을 품었다.

왜 이렇게 평화롭지?

던전을 그리는 화가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92)"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93)

제93화

한때의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그건 인어의 운명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병과도 같았다. 영혼에 새겨진 가장 강렬한 감정은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뒤바꿀 수 없을 만큼 지독한 흔적을 남겼다.

이세르에게 그 흔적이 바로 지오반니라는 인간이었다.

“안녕히 주무세요.”

“…선생님도….”

이곳은 평화롭다.

“평안한 밤 되세요.”

소름 끼칠 정도로 안락하다.

말도 안 되는 감각이다. 인어가, 이세르가 허용할 수 있는 감각이 아니었다.

조용히 불어오는 봄바람과 산들거리는 숲의 웅성거림조차 떨쳐낼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게 다가온다. 이세르는 지오의 오두막에 침실을 얻었다.

“…….”

맨발이 밟고 있는 바닥은 나무로 지어졌다.

반들거리게 칠해진 오두막의 바닥과 벽과 천장에서는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쌉싸래한 향이 났다.

테라스의 커다란 창은 활짝 열려 숲의 공기를 담뿍 머금었고,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의 침대는 보드라운 온기가 느껴졌다.

“…….”

그 감촉 위에 누웠을 때.

“…이게….”

이세르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말이 되는 건가?”

이 평화 속에서 이세르는 끔찍한 공허와 상실을 느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인어의 기억 속 지오반니는 죽었다. 끔찍하게 죽었다.

온기를 품은 태양의 자손들이 한 짓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상처를 달고, 썩어들어 간 그 피부와 텅 빈 눈구멍 사이로 흘러내린 굵은 줄기를 보며 이세르가 무슨 생각을 했던가.

‘…약에 취한 상태였다지만 그렇다고 나에게 그때의 기억이 없다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그때의 상황이 너무나 생생했다. 무슨 생각으로 그를 먹어야만 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때 우리의 평화는 죽음을 맞이했다. 죽은 것은 되돌아와서는 안 될 것인데, 대체 이 안락한 공간은 무어란 말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서 평온을 느끼고 있단 말인가.

“…무섭네….”

가득 찼던 배가 어느새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

그 대신 썩은 살점으로 채워지겠지.

“…울렁거려.”

속이 좋지 않았다.

멀미가 나는 것 같았다. 뇌가 흔들리는 감각이 든다.

시야가 흐린 듯 선명하고 적막한 숲의 음성은 점점 시끄러워진다. 인어의 기억은 지오반니의 죽음과 태양의 파멸에 멈춰 있으니 이런 안온함이 거북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이세르는 피와 비명에 더 익숙해졌다.

“아….”

그게 이세르의 운명이었다.

“…….”

인어는 피바다 속에 살았다.

이제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안겨줘도, 공포부터 느끼는 못난 어른이 되고 말았다.

“…….”

한참 뒤에야 인어가 말했다.

“…안 좋은 꿈을 꿀 것 같네.”

내가 사는 곳이 악몽인 줄을 몰랐는데.

이곳에 시체처럼 누워 있으니, 이제야 지옥인 것을 알겠다.

* * *

“…….”

묘한 감각에 지오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음….”

산책이 끌리는 감각.

‘나갈까.’

지오는 제 욕망의 근원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고 있는 허니를 두고 방을 나왔다. 부드러운 감촉의 나무 계단을 밟고 거실로 내려오니, 왜인지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 곰인형과 그 곁의 고양이 다나를 볼 수 있었다.

둘은 곧 꺼질 듯이 희미한 빛을 내며 지오를 올려다보았다.

"산책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

"다나, 같이 갈까."

흑발의 지오를 바라보던 다나가 이내 그의 곁에 섰다. 마치 유령처럼 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곰인형은 오두막을 나서는 둘을 막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다.

늘 입는 검은 망토를 뒤집어쓴 채로 지오는 의미를 두지 않고 길을 거닐었다. 맨발로 나왔지만 사박거리는 잔디가 부드러워서 아프지 않았다.

이곳은 어디를 밟아도 그 감촉이 좋았다. 그래서 더더욱 신발을 신지 않고 돌아다니게 되는 것 같았다. 산책하는 즐거움이 컸다.

"숲이 조용하네."

이 시간의 숲은 항상 잠이 든 것처럼 기이한 적막을 유지했다.

"다나, 숲은 마음에 드니."

"……."

"나무는 어때? 꽃의 향기는?"

"……."

"날이 참 좋아."

사박, 사박….

연한 풀들이 흔들리는 소리.

"달이 환하게 떴잖아."

이곳에는 태양이 있고 달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지구나 다른 행성의 것과는 달랐다. 그들은 마치 투명한 보석 같은 색을 자랑했고, 눈에 담아도 멀 것처럼 아프게 빛나지 않았다.

그저 환하게 그려진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

"봐."

그들의 머리 위에는 빙하처럼 시린 빛의 보석달이 떠 있었다.

"너와 닮았어."

"야옹."

"평소랑 다른 울음이네."

마치 고양이를 흉내 내는 것 같은 울음소리였다.

"너는 고양이가 맞지만…."

무어라 말하려 했으나 이 이상 고민하고 싶지 않아 시선을 돌렸다. 밤하늘에 떠 있는 저 차가운 달을 닮았다.

“빛나고 있어.”

“야옹.”

“덕분에 어둡지가 않아.”

둥근 달은 큼직했고, 심해에서 보았던 해파리 무리처럼 이 하늘 위에도 은하수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조금의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는 무미건조한 반짝임으로 정적을 유지했다.

달이 빛을 내린다. 은하수가 장막을 쳤다. 발치에는 시린 고양이가 서 있고, 어두워야 했을 숲은 은밀하게 밝아져 이곳의 그림자는 오로지 지오 자신뿐이었다. 이곳의 유일한 검은색은 그뿐이었다.

“나무의 향이 잔뜩 나도….”

발걸음은 곧 찬란한 샘물 앞에 멈춰 섰다.

“그 안에 바다의 향이 있네.”

“…….”

“아리아.”

고여 있는 샘물에 창백한 맨발을 담근 제 학생이 보였다.

“잠이 오지 않습니까?”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속의 검은망토를 보며 인어는 늘 그렇듯 노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잠이 들 수 있겠어.”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 소름 끼칠 정도였지.”

“하지만 도망치지 않는군요.”

“언젠가 당신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길 바라니까.”

진주색 눈이 검은망토를 담았다.

“책임을 지면 용서도 해주나? 다시 그때처럼 사랑해 주겠어?”

“제 용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대들을 원망하고 증오하는 건 내 몫이 아니야.”

“…우리에겐 시간이 참 많아.”

아리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이 없이 명확하고 조곤조곤했다.

“그게 굉장한 공포로 느껴지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녀는 지오에게 물었다.

“이 샘터가 어떤 존재인지 아나?”

“알아야 할 이유가 없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숲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인어는 계속해서 물었다.

“그대가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어째서 부활도 뭣도 아닌 기괴한 형태로 되살아났는지, 세상은 무슨 의도와 맥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다운 답변이야.”

인어의 음성은 진주와 같이 매끄러운 부분이 있었다.

“자애롭고 무신경해.”

그렇기에 거친 부분도 있었다.

“이곳이 당신의 배 속이라는 자각은 있나?”

“이곳은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나의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럴지도 모르죠.”

이곳을 창조한 것은 지오이며, 동시에 그는 초상화이기 때문이었다.

“이 숲이 내 심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인간이라 할 수 있을까.”

“저는 인간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나는 늘 인간이었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일이었다.

“대화를 나누기 좋은 밤인 것 같은데, 이 선생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나요?”

“…….”

순식간에 어조를 바꾼 음성에 아리아는 새까만 망토를 눈에 담았다.

“…얼굴이 보이지 않네….”

망토의 안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존재하고 있기는 한 거지?”

“나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아리아.”

“지금 그대는 어떻게 생겼어?”

“거울을 보지 않아 모르겠군요.”

“하지만 나도 보이지 않는걸.”

그렇다면.

“당신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저 새까만 그림자 안에 인간이 있을지, 태양의 신이 있을지, 그림이 있을지, 삶이고 죽음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단 말인가.

누군가 정의하기 전까지 생김새조차 모르는 그림자라면 말이다.

“궁금한 게 있어, 선생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어떻게 그대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산 것도, 죽은 것도 계속해서 변화하기 마련이죠."

"인간의 한계를 보지 못한 건 맞아. 내가 아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강해지고, 진화해서, 신 혹은 자연이 되기도 했어."

하지만.

"그들과는 결이 달라."

뭐든 될 수 있는 새까만 도화지.

"...내가 거기에 공포와 상실을 느끼고 있다면, 이해할 건가?"

"제가 변한 만큼 거리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리감? 그런 말을 하려던 게 아니었어. 전혀 다르다고."

그가 '지오반니'인 이상 멀어질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내가 왜 그대와 멀어지려 하겠나. 이미 오랜 세월을 관도 묘지도 아닌 공허한 바다만 바라보며 그 빈자리를 느껴야 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닥쳐온 기가 막힌 악몽이나 기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같잖은 거리감 따위를 느끼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 지금 아리아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나는...."

"......."

"...선생님."

비참함이나 간절함에 가까웠다.

"왜 항상 당신은 운명의 중심에 서 있지?"

끔찍하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잘것없는 사람이었어도 좋았을 게 아닌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한 삶을 살다 평범하게 죽는 것. 선생님만큼 그런 자리가 어울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 내가 봐온 수천수만 명, 그보다도 더 많은 인간의 경우에 왜 그대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 하고."

이 숲을 보면 안다. 아니.

"그대를 보기만 해도 알아."

그 눈을 보고도 모른다면 세상을 볼 수 없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선생님이 죽는다고 해도 상관없었어. 예상되는 상황이었거든. 그게 아주 평화롭고 안온한 죽음이 아니었더라도 만족했을 거야."

"......."

"그저 아주 조금만 평범했더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그저 그렇게 넘길 수 있을 만큼만 흔했다면, 그렇게만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새까만 후드 밑의, 안이 보이지 않는 짙은 그림자 속에서 음성이 흘러나왔다.

"제가 행복하기를 바랐군요."

그건 분명 '지오반니'의 음성이었다.

"나라는 사람이 너무 특별해서, 감당이 안 돼서 힘든 건가요?"

"자의식 과잉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확실히 그런 것 같기도 해."

“굉장히 귀여운 투정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고요?”

“…….”

저 그림자 속에서 대체 몇 명의 음성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귀여운 상황은 아니잖아….”

웃어넘길 수 있었더라면 아주 많이 좋았을 것이다.

“…언제부터 초상화였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나?”

“저는 지오입니다.”

“이제 그대의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오반니는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

“그게 당신의 마음에 드는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 주변의, 인어들의, 아리아의 공포와 상실이었다.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지오는 자신에게 최고로 행복한 선택을 내릴 테니까.

“그대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겠지. 주변이 훗날 어떻게 되어버리든 당신은 그 당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을 할 거야. 그게 너무 이상적이라 끔찍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아리아는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 끔찍해. 그게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모습을 존경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그걸 고치라고 할 수도 없어. 이미 거기에 너무 많이 빠져 살았기 때문에….”

이 초상화의 본질은 대체 뭘까.

이것의 이름은 ‘지오의 초상화’다. 사람임과 동시에 그림이다. 그림일 뿐이지만 화가이기도 하다. 제 삶을 직접 그려낸 그 운명의 주인이자 더 많은 운명을 끌어안고 살게 될 거대한 자연과도 같았다.

처음부터 초상화였기에 ‘지오’라는 이름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된 걸까? 아니면 어느 순간 지오이기에 초상화가 되어 셀 수 없이 많은 ‘지오’를 끌어안게 된 걸까.

“그래.”

왜 이렇게 불안한지 아리아는 기어이 정의를 내렸다.

아주 아득히 먼 과거에도, 미래에도, 심지어는 지금 이 순간조차….

“…선생님은 평생, 특별하겠군.”

이 사람은 평범할 수 없었다.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다.

“…….”

“…….”

이제 무엇을 보며 잔인하다고 비난해야 하는가?

“…선생님, 인간을 믿어?”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포기할 생각은 없고.”

"아리아가 분노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요."

"그래, 그럼…."

아리아는 이전에 보인 적 없는 힘 빠진 얼굴로 웃었다.

"내 몫은 내가 알아서 챙길게."

저 새까만 망토 아래의 그림자 중, 내가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

또다시 바다에 흘려보낼 일만 없기를 빌었다.

던전을 그리는 화가

오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94)

제94화

간밤에 뭔가 깊은 대화가 지나간 것 같지만.

“…….”

따란.

지오의 궁극적 긍정 마인드는 그런 곳에 얽매이지 않았다.

‘아리아에게 사춘기가 왔나 보군.’

별의별 고민을 다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존중해 줘야지.’

아리아가 지오의 정체와 그 주변의 환경 탓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다만 지오에게 그건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고, 그저 아리아가 지오의 상황에 익숙해질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런 지오에게도 고민거리는 생기기 마련이었다.

“…음….”

“선생님, 무슨 문제 있어?”

“제가 던전을 만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오.”

해가 떴음에도 아직 집에 돌아가지 않은 아리아가 진심 어린 감탄을 뱉으며 신사라도 되는 양 정중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 고통과 죽음의 원흉들을 향한 복수심이 존재는 하셨군요, 나의 인간 선생님.”

“그런 거 없는데.”

“인간들을 괴롭힐 용도가 아니라면 던전은 왜 만들었지?”

“그리고 싶어서 그렸습니다.”

“아하.”

아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라면 그럴 수 있어.”

“나를 대체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그런 게 있다.”

여러모로 지오는 예측이 안 되는 존재였다. 그 아리아조차도 말이다.

그라면 무의식에 힘입어 인간을 향한 증오와 원망의 파편으로 던전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정말 아무 생각도 고민도 없이 취미 생활을 했더니 던전이 뿅 생겨날 수도 있었다.

아리아는 지오가 보고 있던 액자를 함께 눈에 담았다.

“이 그림을 말하는 건가?”

“예전에 그린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던전 같다는 거지?”

온통 무채색으로 가득 찬 도시의 그림을 바라보던 아리아가 물었다.

“이름은?”

“…….”

지오가 대답했다.

“공허의 도시.”

분명 시스템은 그렇게 말했다.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구조체가 붙여 주었다고 봐야겠군.”

“구조체는 무엇입니까?”

“아… 지구에서는 근원이라고 부르던데.”

“근원이라.”

가끔 유성운에게서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스스로를 정원사라고 말하던 것과 다르게 그에 관련된 지식은 잘 풀어놓지 않는 유성운이었지만, 근원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

‘시스템들의 대빵….’

모든 시스템의 모체이자 모든 운명의 관리자 정도로 알아들었었다.

“과연 그렇군요.”

“선생님은 이걸로 뭘 하고 싶은 거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오는 좀 억울했다.

“그저 그리고 싶어서 그렸을 뿐이죠.”

어떤 화가가 실용성을 바라고 그림을 그리겠느냔 말이다.

“무릇 화폭의 그림이란 관상용이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려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쥐어패려고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거다. 금전적인 가치나 부가적인 요소가 있어 이리저리 거래가 될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그림이란 감상을 위해 존재했다.

그런 지오의 말에 잠시 침묵하던 아리아가 물었다.

“의도를 가진 게 아닌데 던전을 만들어 냈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좀 많기는 한데….”

던전이라는 건 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없었다.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의 세계를, 법칙을 창조해 내는 것이다. 던전이 형성되는 방식이 아무리 다양하다고 해도 던전 주인의 의지 없이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봐야 했다.

‘그런데 이걸 단지 그리고 싶어서 창조해 냈다고.’

일렁이는 회색 도시가 눈에 담긴다.

“…….”

곧 아리아는 특유의 나른한 미소를 지었다. 당장 사교계에 나서면 뭇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미소를 말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럼 그럼.”

이미 지오를 완전히 이해하길 포기한 아리아가 아닌가.

‘인간일 때도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본질이 이런 식이었을 줄이야.’

해석할 수 없는 드높은 격의 지오라면 그저 붓질 한 번에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었다. 화가가 그림이라는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니 말이다.

“그래서 정확히 뭐가 고민인 거지?”

“이대로 내버려두어도 되나 싶었습니다.”

“음….”

“그림을 버리기는 싫은데.”

“이걸 왜 버려, 아깝게.”

던전은 결국 던전이고, 무언가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세계이다.

‘이대로 두면 지구인들이 잡아먹히기도 하겠군.’

지오에게 그럴 의도가 없다고 해도 어쩔 텐가. 인간이 길을 걷다 벌레를 밟을 때 그걸 의도했겠느냔 말이다. 지오가 의미 없이 취미 삼아 그려낸 세상이라고 해도 결국 누군가는 던전에 끌려가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걸 굳이 지금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그림 역시 결국 지오가 그려낸 세상이다.

‘그런 세계가 주인이자 어버이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할 리가 없다는 뜻이니.’

이것이 어떤 법칙과 취향을 가졌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었다.

“…일단 내버려둬야 뭐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던전이기도 하고.”

아리아가 회색 그림을 위아래로 훑었다.

“선생님이 따로 만들어낸 자식들도 없는 거잖아, 그렇지?”

던전의 몬스터를 말함이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던전은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아. 선생님이 직접 부추긴다면 모를까, 방치해 두는 이상 성장도 느릴 테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

“선생님?”

“…제가 부모인 겁니까?”

지오는 심장이 철렁했다.

“이 그림이 살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아리아가 가볍게 설명했다.

“모든 던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주인과 긴밀하게 연결된 던전일수록 생물로서의 경향이 강해져. 나름 자아도 있고, 성장도 하고….”

“‘공허의 도시’가 그렇게까지 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인의 역량에 따라 생물로서의 모습도 분명해지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그런 상황이야.”

“이럴 수가.”

아무 생각도 없이 낳아 놓고서는 자식이 있는 줄도 모르는 파렴치한 부모가 되어버렸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이해하겠지만 진정해, 그런 거 아니니까.”

대충 큼직하게 봤을 때야 생물이라고 하지, 엄밀히 말해 던전이 진짜 생명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지구로 따지자면 인공 지능 같은 거지. 거대한 자연이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세밀한 흐름과 구조가 눈에 보이고, 감정 없는 그런 시스템이 멀리에서 보면 하나의 생명체처럼 보이는 것뿐이라서.”

실질적으로 생명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너무 충격받을 필요 없다는 말이다.”

“이해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아리군요.”

“그 지경이 되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릴 수 있다니 굉장한걸.”

이제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격의 지오였다. 이런 특유의 감수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리아로서도 설명하기 힘든 기적이었다.

“음….”

그림을 조금 더 살핀 아리아가 말을 이었다.

“…확실히 창조된 지 얼마 안 된 던전이라 여러모로 미숙한 부분이 있어.”

“아리아의 던전은 어떤 식으로 키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아니라고…. 글쎄, 키웠다고 해야 하나, 그냥 여기저기 장치를 만들어가는 것에 가깝기는 한데.”

“장치를 만들어간다?”

“게임판을 만드는 거지.”

지금껏 여러 던전을 관측했던 아리아이기에 조금은 설명해 줄 수가 있었다.

“내 던전의 경우에는 그저 그 안에 머무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장했어. 내 심상에 따라 환경이 창조되었고, 그 안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 몬스터들이 생겨났고, 어느 순간 이물질도 들어와 그걸 처리할 방법을 찾다 보니 이런저런 함정이 설치되고….”

기나긴 시간 속에서 함께 성장했다는 거다. 아리아에게 있어 그녀의 던전은 자식보다 친우에 가까운 셈이다.

“아예 작정하고 판을 짜는 던전 주인을 보기도 했지.”

“작정하고 판을 짠다면, 무엇을 위한 겁니까?”

“인간을 향한 증오를 어떻게 하면 가장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중요시한 녀석이었어.”

아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던전을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주인의 목표 의식과 그 심상이라는 거다. 주인이 던전에 바라는 것이 명확할 때 이것들은 보다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돼.”

물론 이 던전은 예외가 많기는 했다.

“선생님의 던전도 다른 녀석들의 던전과 같을지는 잘 모르겠군. 본디 이런 세계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향한 강렬한 감정이 깔려 있고, 던전의 주인 역시 당연하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게 되어서….”

“저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만.”

“그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해야 할까.”

여러모로 다른 던전의 상황과 달랐다.

“아마 선생님이 의도하지 않고서야 이 던전은 여느 던전들과 다를 수밖에 없을 거다. 규칙이 없을 수도 있고, 몬스터가 없을 수도 있고, 경우야 다양하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문제가 될지 어떨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전적으로 선생님에게 달려 있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야.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창조주의 심기를 거스르려 하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만들어 냈다는 허니도 그렇잖아.”

“아, 같은 경우의 자식인 겁니까?”

“그러고 보니 지구에서는 이런 걸 보며 근원의 자식이라고 하던데….”

“허니는 지오의 자식입니다만.”

“…….”

문득 아리아는 깨달았다.

“…그럼 선생님이 근원인가 보지.”

이 사람이 근원일 수도 있겠구나.

“안 그래?”

뭐든 될 수 있는 새끼만 도화지.

“…….”

“만약 그렇다면 이제 정말 식비 걱정은 없겠습니다.”

“…정말 긴장감이 없단 말이야….”

“무엇보다 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행운이군요.”

“정말 할 말이 그거뿐인 거냐고.”

그래서 조금 안심했다.

“참 변하지를 않네.”

이미 너무 많이 변해왔고 변할 수 있기에, 오히려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다.

아리아는 불길하게 일렁이는 안온함을 느끼며 고개를 느릿하게 기울였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지?”

“휴양지?”

“진심인가?”

“괜찮지 않습니까?”

“…하긴 선생님 마음이기는 해.”

감정 중 가장 격렬하고 선명한 것은 분노와 증오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인간을 향한 증오가 깊은 수많은 괴물이 이런 세상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의 주인이기에 그들 취향에 맞는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러니 아예 그런 감정에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든 그건 지오의 마음이었다.

“…….”

다만 이런 생각은 들었다.

“게임판도 아닌 멀쩡한 세상 하나를 창조했다면, 그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나?”

지오는 특유의 무뚝뚝한 얼굴로 대답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리아는 너무 편협한 사고방식을 지녔….”

“그래,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알면서도 물은 내가 멍청이군.”

너무 한결같아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 * *

지오는 처음으로 ‘공허의 도시’에 방문했다.

“…….”

“과연, 이곳이 선생님이 창조한 세상이군요.”

“…이세르는 바쁘지 않습니까?”

못 본 새에 훌쩍 커버린 제자 이세르와 함께 말이다.

“던전의 주인이 이렇게 자리를 마구 비워도 되는 건가요.”

“사실상 저는 두 번째 주인이라 있어도 없어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과연 그렇군요.”

하긴 집주인이 집에 없을 수도 있지 아무렴.

애초에 ‘공허의 도시’의 주인인 지오도 지금 처음 방문했는데, 던전의 주인이라고 바쁘기만 해야 된다는 것은 지오의 속 좁은 생각일지 몰랐다.

“…….”

다만 기분이 조금 묘했다.

“…이게 바로 혼기가 다 찬 자식들이 본가에만 눌러앉아 걱정스러운 부모의 마음…?”

“인어에게 혼기가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싱숭생숭합니다. 분명 집에 자주 들르기를 원하기는 했지만, 또 너무 눌러앉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하군요.”

“이웃이 영 놀러 오지 않는다며 잡으러 오셨을 때는 언제고….”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됐다.

“던전은 집을 겸하는 직장이기도 할 텐데, 계속 자리를 비워두지는 않으실 테죠?”

“저희도 둘 모두가 자리를 비우는 건 역시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세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 번갈아 가며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꼭 친정에 방문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서 오는 거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그렇게 말한 이세르가 씁쓸하게 웃었다.

“선생님이 계신 곳이 갑자기 사라질까 봐 무서운 것도 조금 있습니다.”

“문이 멀쩡히 열려 있는데도요.”

하지만 지오는 더 이상 말을 늘이지는 않았다. 여전히 괘씸한 것과 별개로 어쨌든 애정을 담뿍 쏟아 키워냈던 학생들이 아닌가.

‘무엇보다 내 집에 오래 있을수록 이세르의 마음도 평온해지고 인류의 평화도 지켜지겠지.’

여러모로 제집에 자주 방문한다고 싫어할 이유가 없었다.

“본인들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면 저 역시 상관없습니다.”

“아, 그럼 자주 뵙겠습니다.”

“올 때 조개 좀 가져와 주시면 더 좋겠고요.”

“조개라… 생선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제가 지내는 곳이 숲이다 보니 수산물이 끌리더군요.”

고개를 끄덕인 지오가 고개를 돌려 회색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

“감상은 어떻습니까?”

공허의 도시를 눈에 담은 이세르가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네요."

과연 그 이름에 어울리는, 텅 비어 있는 도시였다.

던전을 그리는 화가

오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95)

제95화

지오가 일전에 그린 그림 세 점이 있었다.

"하나는 '숨 쉬는 바다'였습니다."

이세르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심해의 나라'와 연결된 그 공간이군요."

"액자로 된 문이기도 하고요."

"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현재 '심해의 신전'에서는 '숨 쉬는 바다'라는 이름의 풍경화를 찾아낼 수 있었다.

방문객이라면 유동하는 풍경화를 단숨에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두 번째라고는 해도 나름 던전의 주인인 이세르는 그 존재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아무튼 그것 역시 선생님께서 그려낸 던전 중 하나였군요."

"예,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연계가 된 부분은 저 역시 생각지 못한 상황이라."

"그다지 문제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불나방 같은 방문객이 '심해의 나라'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그야말로 하찮은 수준이라 크게 위협적인 변수는 아니었다.

외부인인 그들은 정신이 없어 문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할 테니 정말로 아무 문제도 없었다.

"무엇보다 위화감이 없기도 하고요."

"아마 무의식중에 저희가 함께 살던 동네를 떠올리며 그렸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들런 마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닮기는 했습니다."

그때 그림을 그린 것은 '서지오'였지만, 그걸 감안하고 생각해도 '숨 쉬는 바다'는 '지오반니'가 살던 마을의 분위기와 너무 닮아 있었다.

홀린 듯 풍경화를 그리던 지오의 몸에 실제로 '지오반니'의 혼이 깃들었던 걸지도 모른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았다.

초상화가 된 이후로 지오의 삶은 일반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고, 그걸 하나하나 해석하기엔 지오가 그렇게 성실한 인간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지만 지오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완전히 같다고는 못 할 겁니다. 저는 그저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우연히도 거기에 걸맞은 차원이 존재했을 뿐이니 말입니다.”

지오반니가 살던 세상이 멸망하고, 아리아의 주도로 ‘심해의 나라’라는 던전이 되었다.

지오는 ‘나라’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거대한 던전 중 우연찮게 ‘숨 쉬는 바다’의 광경과 일치하는 장소를 그리게 된 것뿐이었다.

“아무튼 ‘심해의 나라’와 ‘숨 쉬는 바다’가 실질적으로 아예 다른 공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덕분인지 새로 생겨났다 해도 이질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세르가 중얼거리듯 말을 이었다.

“언제든 선생님을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인테리어에 손을 대게 되어서 미안했는데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다행입니다.”

“인테리어.”

“영어 단어라 잘 모르나.”

“지구의 단어는 기본적으로 해석이 되니 이해는 했습니다.”

그저 저지르는 일의 규모치고는 참 소박한 단어를 쓴다 싶었다.

“어쨌든 ‘숨 쉬는 바다’는 현재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태양의 신이 갇혀 있던 ‘숨 쉬는 바다’는 새 가족을 들이고 수산물을 맘껏 데려올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존재 의의가 충분했다. 그곳의 기름진 생선은 어떻게 요리를 하든 그 맛이 끝내줬다.

“이후에 남은 두 그림이 바로 ‘동물의 왕국’과 ‘공허의 도시’였습니다.”

그린 지 꽤 된 녀석들이었다.

“그중에서도 ‘동물의 왕국’은 가끔 제가 살고 있는 숲과 연결되어 종종 그곳의 생물이 넘어오기도 하더군요.”

“생물이라, 몬스터는 아니었고요? 온전히 평범한 짐승의 형태를 한 몬스터도 있습니다만….”

“확실히 몬스터는 아니었습니다. ‘심해의 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 조개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기존의 세상이 이미 존재한 후 그 위에 던전이 덧씌워졌을 가능성이 크겠군요.”

“아마 그러리라고 예상 중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를 방문하려면 또 다른 ‘지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경우 다시 동기화가 진행될 텐데, 그럼 또 정신이 없어질 것 같아 아직 방문을 삼가는 중이었다.

“그런 두 개의 던전에 반해 이 ‘공허의 도시’는 제가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낸 세상인 것 같아서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어버이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되지요.”

이미 한바탕 놀다 온 ‘숨 쉬는 바다’나 아직 가보지 못한 ‘동물의 왕국’과는 완전히 그 결이 달랐다. 너무 새로운 유형의 자식 아닌 자식인 탓에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질 않았다.

“보다시피 텅 비어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

이세르는 긍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많이 비어 있네요.”

빽빽한 도시의 숲이 이렇게 적나라한데도 정신이 멍해질 만큼 공허했다.

'던전의 특성인가.'

그나 그의 누이와 같은 강한 격의 존재라면 마음이 조금 허해지는 정도이겠지만, 인간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지간히 강하지 않고서야 견디지 못할 것이었다.

'...던전은 주인의 심상을 크게 반영하는데.'

여기서 이세르는 오해 한 점을 덥석 물어버리게 된다.

'선생님의 심상이 이런 상태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

딱히 그런 건 아니었다.

던전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주인의 심상을 따라가는 게 맞지만, 지오가 그려낸 던전은 그런 운명 공동체보다는 단지 '그림'에 가까웠다. 순간 그 감정과 망상에 푹 빠져 그려냈을 수는 있어도 심상 자체가 반영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지오를 제외하고선 들어본 적도 없었다. 누이를 따라 아주 많은 경험을 해왔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이세르는 지오의 상태를 주의 깊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는 몬스터가 한 마리도 없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그마한 생물조차도 느껴지지 않는데...."

"이 그림은 도시를 그린 것이지, 생물을 그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던전의 주인 역시 자아를 가진 무언가인 이상, 던전을 만들어냈을 때 그 안에 아무런 생물도 없기는 오히려 힘들었다. 심지어 언데드가 주인인 던전마저도 그와 관련된 몬스터들이 널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너무 텅 비었어.'

이세르가 무채색만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았다.

높게 솟은 건물들은 반듯하고 선명한 회색이다. 몸통 전체가 투명한 유리로 이루어졌음에도 온 세상에 무채색인 탓에 유리 역시 그랬고, 하늘은 짙은 안개에 가려져 희미한 빛만이 간신히 떨어졌다.

재미없는 직각 형태의 건물도 있고, 번화한 도시 특유의 곡선을 띠는 건물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채로운 형상으로 가득 찼음에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

인간들에게 취약한 공간인 건 신경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세상의 주인인 지오반니를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이 공간이 마음에 드십니까, 선생님?"

"제 자식과도 같으니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지요."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지오에게 이런 심상이 있다는 것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었다.

'자신을 아직 인간으로 여기는데도 그만한 격을 갖추고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인가.'

신이라는 족속들이 직접 던전을 만들어도 이것보다는 꽉 찬 느낌이 들겠지만, 지오는 그런 신이라고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지 않은가. 예외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의식하고 창조했는지 무의식으로 창조했는지는 몰라도, 누님의 말에 따르자면 뭐든 될 수 있는 초상화인 상태이니... 이

런 말도 안 되는 공허조차도 탄생할 수 있었던 거겠지.'

걱정스러웠다.

"……."

"이세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세르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지금은 행복하신가요?"

어쩌면 당연하게도, 곧장 답이 나왔다.

"물론입니다."

"정말로요?"

"행복하지 않을 선택은 애초에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그때, 당신이 죽던 날에도. 그 선택마저 당신의 행복을 위함이었겠구나.

'이미 짐작하고 있던 사실이지만 타격이 크네.'

말을 잃었던 이세르가 애써 입을 열었다.

"…그래서 이 던전은 왜 방문하신 겁니까?"

"만들어놓고 신경도 안 써주는 몹쓸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아서 말입니다."

"던전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건 아마 선생님뿐일 겁니다."

"아리아가 말하기로는 던전은 주인과 운명 공동체라고 하던데, 그럼 가족이 아닌가요?"

"선생님에게 가족은 그런 의미이군요… 운명 공동체라."

입술을 우물거리던 이세르가 물었다.

"그럼 몬스터를 만들어보는 건 어떠실까요?"

"아, 식구부터 늘려라?"

"…비슷한 의미이기는 하겠습니다."

애초에 던전은 인간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지는 게 보통이었다.

하나의 종족을 향한 거대한 증오라는 그 강렬한 감정에 힘입어 생겨나기 때문인데, 지오는 보통이 아니라 그런지 이 던전에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적의나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이 던전을 어떤 식으로 가꿀 것인지는 선생님의 마음일 테지만, 그래도 무언가 신경을 써주고 싶다면 역시 주민을 늘리는 것이 좋겠네요. 신이 하나의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주민이니까…."

이세르의 말에 지오가 고개를 기울였다.

"저는 신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 전통적인 신이 아니기는 하지만, 음, 비유를 한다면요."

아무래도 지오는 본인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듯했다.

'정말 예전과 다를 게 없군.'

하지만 그런 지오의 오해를 정정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가 자신의 평범하지 않은 면모에 무신경할수록 지오의 한계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저희 인어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자신을 인간으로 생각하는 시기가 길어지겠지만….'

그것도 크게 상관없었다.

'틀린 말도 아니잖아.'

누이의 말에 따르면 그의 선생님은 검은 도화지였다. 그게 무엇이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떤 식으로 이곳을 활용하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 조금 더 고민을 해야겠지만…."

"예."

"식구가 늘어나면 좋겠군요, 확실히."

* * *

식구를 그려내는 건 지오에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릴 식구는 우리랑 따로 살 예정이라."

"꾸르르륵?"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아이였으면 좋겠는데."

지오가 일전에 그려낸 물새들은 집단생활을 하는 생물이었다.

자기들끼리 번식도 한 건지 더 바글바글해진 물새 호수를 보면 '와 이게 바로 집단생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허니도 가족들과 떨어지는 것을 꽤 싫어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독립성이 강한 친구면 좋겠어."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그리고 싶지도 않았다.

"나도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있단 말이지…."

"꾱?"

"화가라고 하긴 거창하지만, 아무튼 '공허의 도시'도 내가 그린 작품 중 하나니까."

"꾸르르."

"거기에 어울리는 주민이 생겼으면 해."

하지만 '공허의 도시'에 어울리는 주민이라.

"……."

작업실 의자에 앉아 가만 생각하던 지오가 곧 입을 열었다.

"…투명 인간?"

보이지 않는 회사원.

"어울리네."

"꾸륵?"

"그렇지 않나?"

본투비 시골 사람인 지오에게 도시는 그런 존재였다.

공기는 탁하고 사람들은 우글거리고. 생긴 것도 다 비슷해 보이는데 지하철이며 거리이며 우르르 몰려다니기도 한다. 그 무기질적인 얼굴엔 감정이 보이지 않았다.

“처음 상경했을 때는 조금 섬뜩할 정도였지.”

살아 숨 쉬는 공포 영화가 따로 없었다. 생긴 것과 달리 아기자기한 감수성을 지닌 지오에게는 지나치게 삭막했던 것이다.

이제는 그게 ‘오늘도 피곤에 찌든 사회의 톱니바퀴들이 퇴근하고 있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한창 어린 시절에는 그렇지 못했다. 그는 아예 공포를 느끼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그릴 수는 없고....”

“꿍꿍?”

“아빠를 뭐로 보는 거니, 아들. 네 아빠는 사람을 만들 수는 없단다.”

아무리 그래도 거기까지 특별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할 수 있었더라도 절대 안 했을 텐데, 어차피 하지도 못하는 걸 아니 그쪽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더더욱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투명 인간.”

정확히는 정장 인간.

“옷만 떠돌아다니는 정도라면....”

“꾸르.”

“그래, 확실히 그건 인간이라고 할 수 없겠지.”

그보다는 인형에 가까웠다.

“.......”

처음 본 도시의 사람들이 딱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말이다.

“...어디 보자....”

지오는 제 앞에 둔 ‘공허의 도시’에 붓을 올려두었다.

“그래도 한 명만 있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고.”

“꾸르르르.”

“조금 많으면 좋겠는데, 나 혼자 그리기에는 너무 힘들겠지?”

“꾹?”

“자기들끼리 알아서 생겨나는 것도 재밌겠다.”

아주 재밌을 것이었다.

단순 즐거움을 위한 일이라기엔 스케일이 지나치게 컸지만, 새로운 콘텐츠를 마주한 지오에게 프로젝트 규모의 단위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95)"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96)

제96화

어느 순간, '검은망토'가 사라졌다.

"여, 여기 그거 있다면서...! 검은망토 있다면서!"

"시발, 액자 찾아봐! 어디 액자 없어?!"

"그게 원래 잘 안 보인대...! 그, 그러니까 찾아보면, 분명히...!"

"으아아아아악!!!"

순전히 인간들을 도와준다던 '검은망토'만을 믿고 '심해의 나라'에 방문했던 헌터들이 속절없이 죽어나갔다.

갑자기 사라진 검은망토와 그의 정보를 알려준 협회에 대한 원망이 빗발치자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다.

"협회는 공개 정보 그 어디에도 '검은망토'에게 의지하라는 문구는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강조했다.

"의외의 모습을 보인다고는 해도 결국에는 몬스터. 협회는 분명 주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했지, 단 한 번도 '검은망토'가 안전하며 도움이 되는 몬스터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소문이 이상하게 와전된 탓이 컸다.

"세상 어떤 몬스터가 인간을 돕겠습니까?"

"하지만 '검은망토'는 수차례 인간의 던전 탈출을 도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은망토'는 자신이 도울 인간을 분류하고 한정했습니다. 오로지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몬스터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협회 직원은 아무 감정 없이 반듯한 얼굴로 아주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많은 헌터분들이 '검은망토'가 몬스터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헌터들의 황당한 판단력을 비꼬는 발언이었다.

협회에서 이렇게까지 대응하자 헌터들은 더 이상 항의할 수가 없었다. 협회의 권위가 상당하다는 사실은 둘째 치고 틀린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하지만 그래도...."

"검은망토는 인간을 돕는다면서?"

여전히 불만이 남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너희는 공문도 안 봤어? 협회 말에 틀린 게 없더만.”

“협회에서는 검은망토를 예의 주시 하라고 계속해서 말했다.”

“근거도 없는 소문에 휘둘려 S급 던전에 찾아간 놈들이 멍청한 거 아니야?”

곧 상황은 진정되었다.

“그 소문만 아니었어도....”

“뭐래, 공문도 안 보고 공략을 시도한 병신들이 잘못이지.”

“크윽....”

‘처음부터 몬스터를 제멋대로 활용하려 했던 헌터들이 멍청했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헌터증 발급받을 때 안 배우나, 몬스터 경계하라고?”

“몬스터가 어디 자판기 음료수도 아니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몬스터 하나 믿고 던전에 들어갔대?”

“예전 헌터들은 안 이랬는데, 요즘 세대는 수준이 많이 낮아진 게 확 느껴진다니까.”

“몬스터 무서운 줄도 모르는 헌터가 어디 헌터라고 설치냐.”

“이런 병신들도 헌터랍시고 날뛰네. 이게 말세지.”

몬스터의 특성에 기대어 우연찮은 도움을 염두에 두는 정도라면 이 정도로 비난이 거세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무려 S급으로 책정된 던전을, 오로지 ‘검은망토’의 자비 하나만 믿고 뛰어드는 헌터들이 주를 이루게 되어 문제가 생기고 말지 않았는가.

예전부터 ‘심해의 나라’를 진지하게 생각하던 헌터들도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던전을 공략하는데 몬스터만 믿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공략을 너무 물로 보는 거 아닌가? 탐색 시즌이 아무리 길었다고는 해도 말이야.”

“수집상이 진입권을 산 탓에 관심이 집중되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좀....”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듯한 분위기를.

“.......”

유성운이 지켜보고 있었다.

‘...얼추 정리가 되어가나.’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어. 이쯤에서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라고 봐야겠지.’

헌터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떠드는 일반 시민을 보던 유성운은 가슴팍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다. ‘검은망토’의 여파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확인하려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니 당분이 영 부족했다.

“하아....”

“.......”

“그래서 뭡니까?”

뒤의 벤치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유성운이 물었다.

“제게 볼일이 있는 것 같은데.”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일주일 넘게 야근을 하고 안 피곤하면 인간이 아니죠.”

“동의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협회의 직원은 검은색 패딩을 입은 채 일반 시민의 모습을 꾸며내고 있었다.

유성운이 앉은 벤치의 뒤편에 앉은 그는 정부의 조치로 겨울임에도 봄의 형상을 띠고 있는 공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공사가 다망하신 유성운 헌터의 시간을 그리 많이 빼앗을 생각은 없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음… 15분 내로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바다의 상태를 확인할 목적으로 기차를 타야 하니 말입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협회 직원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수집상은 이번 ‘검은망토’의 사태에 대해 아시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이래저래 걸리는 건 많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는?”

“‘검은망토는 착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라는 흥미로운 괴담의 출처가 수집상인 듯해서요.”

“맞기는 맞습니다.”

유성운이 태연하게 답변을 이었다.

“우리 직원 중에 검은망토를 마주친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

“그럼 홈페이지의 정보를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최초 목격자를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 되면 물어나 볼게요. 설마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겠지?”

“설마요. 단지 검은망토에 대한 정보가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뿐입니다.”

“아무튼 우리 쪽 직원들이랑 검은망토가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서 그 녀석의 규칙을 아는 겁니다. 무례하고 나쁜 사람들을 참 싫어하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유성운은 ‘검은망토’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알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 녀석이 협회장마저 탐냈던 ‘지오의 초상화’라는 사실을 대놓고 알리게 되면 연구 목적으로 접근한 협회에 의해 공적으로 귀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그런 건 지오도 원하지 않겠지.’

평화로운 오두막에 살고 있는 만큼 번잡한 걸 좋아하는 녀석은 아니니 말이다.

“그리고 그걸 ‘선물’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은망토가 착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는 하지만, 그건 물질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어떠한 호의에 가까워서….”

“예의 바르고 착한 인간에게 호의를 베푸는 규칙을 가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뭐. 미리미리 보고하지 않은 건 미안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우연히 마주친 몬스터에 대해 바로 보고하라고 지시할 권리는 없잖아요.”

그에 직원이 물었다.

“몬스터가 맞습니까?”

“…….”

“정원사인 유성운 씨에게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겠는데."

"그렇군요. 다시 협회 연구소로 돌아오실 생각은 없습니까?"

"협회장님의 지시인 것 같지만, 그래도 생각 없다고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직원이 다시 주제를 원래로 돌렸다.

"의도적으로 검은망토에 대한 소문을 낸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반쯤은 의도적이었지만…."

유성운은 적당히 사실을 섞어주었다.

"그거랑 별개로 이번 사태와 같은 혼란을 일으킬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에서 소문을 키운 걸까요?"

"검은망토는 무례하고 나쁜 사람을 싫어하니, 그 앞에서 멍청한 짓을 해 괜한 소란을 피우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수집상은 '착한 사람'이라는 부분에 힘을 주길 원했지만, 헌터들은 '선물'이라는 부분에 홀려버린 거군요."

"헌터들이 그렇게까지 멍청할 줄은 수집상에서도 몰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

이렇게 해도, 수집상에서 '지오의 초상화'를 온전히 숨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는 않았다.

'…협회에서 직접 부르지 않고 이렇게만 확인을 했다는 건, 이미 저쪽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깊게 파고들 생각은 없다는 뜻이겠지.'

협회장은 S급 이상의 등급을 숨기고 있으리라 평가되는 저명한 헌터였다. 그런 사람이 '지오의 초상화'를 보고 직접 탐을 냈으니, 이 '검은망토'가 그것과 큰 연관이 있으리라 미리 짐작했을지도 모른다.

'애초에 초상화라는 커다란 공통점도 있었고.'

검은망토가 초상화의 형태로 목격된다는 건 이미 밝혀진 사실이었다. 이쯤 되면 알 건 다 알지만 형식적으로나마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 눈 가리고 아웅인 대화의 목적은 단 두 가지였다.

'이번 소문과 혼란한 사태를 기점으로, 수집상이 검은망토를 악용할 의도가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지오의 초상화를 협회에 넘겨 연구를 맡길 생각은 있는지….'

뭐, 둘 다 부정해 버렸지만 말이다.

"……."

유성운이 입을 열었다.

"이 이상 물어볼 게 있습니까?"

"유성운 정원사는 검은망토의 정체를 파악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랬다면 참 좋았을 텐데.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협회에서도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대응 등급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르지.”

유성운조차 파악하지 못한 근원의 존재다. 검은망토에게 악의는 없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인간에게 재앙이 될 확률이 높으니, 연약한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한껏 경계를 하는 편이 생존에 유리할 것이었다.

“이쪽에서도 파악된 것이 있으면 보고서 넘기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은 그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겼다.

“…….”

멀어진 기척을 느끼며, 유성운이 눈을 감았다.

‘이런 식으로 협회의 관심을 받아본 건 꽤 오랜만인데.’

그래도 대응이 어색하지는 않았는지, 공원의 모습은 아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닌 척 이쪽을 집중하는 사람도 없고 말이다.

‘내가 어색하게 굴지는 않았나 보네.’

가만히 눈을 감고 있자니, 온화한 공기의 공원에 모여든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결국 검은망토는 뭐였던 거야…?”

그들도 혼란을 겪고 있었다.

“처음부터 ‘심해의 나라’와는 어울리지 않는 몬스터였다면서.”

“가끔 다른 던전의 몬스터가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던데, 그런 경우였을까?”

“검은망토의 던전은 따로 있을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인간형 몬스터라며. 보스 몬스터가 던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내가 들었는데, 가끔 던전 바깥에서도 볼 수 있대….”

“말도 안 돼, 그럼 정해진 구역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몬스터라는 거잖아.”

“그건 심했다. 확실히 헛소문 같아.”

자그마한 새의 날갯짓처럼 들려오는 음성들에 유성운이 곧 눈을 떴다.

온통 검은망토의 이야기.

“…역시 이렇게 되나.”

예정된 혼란이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거지.’

지오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였다. 그는 그림이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었고, 화가이기에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었다.

그런 ‘지오의 초상화’를 막을 방법은 없으니 국가의 안정을 위해 수집상이 선택한 것은 결국 정보의 통제였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검은망토의 존재에 천천히 익숙해질 수 있다면….’

전면에 ‘지오의 초상화’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혼란이 적을 게 분명했다.

수집상이 퍼트린 괴담 아닌 괴담도, 지오에게 인간으로서의 헌터증을 쥐여준 것도 전부 그런 맥락이었다. 근원의 ‘이야

기'를 분류하고 조절하려는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오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의문이었다.

'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하물며 신조차도 이런 식의 과감한 행위를 연이어 할 수는 없었다.

"신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몬스터는 더더욱 아니고…."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존재.

"이걸 뭐라고 정의해야 하지."

너무 모순적이잖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정원에 발을 들였던 유성운조차 그 존재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그가 봐왔던, 그리고 공부해 왔던 근원의 존재와는 완전히 규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

한숨을 내쉬며 유성운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해야지."

시력을 잃고 손으로 길을 더듬는 기분.

그 많은 것을 보고 들어 왔음에도 여전히 미지로 남아 있는 존재를 향한 기이한 섬뜩함이, 조용하게 목덜미를 타고 올랐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96)"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97)

제97화

늦은 새벽이었다.

“…….”

꾸역꾸역 입을 수 있는 거적때기는 전부 입어 보았지만, 4등급 시민인 빈민이 옷 한 벌 제대로 갖춰 입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막 성인이 된 18살의 여자는 짐승의 털로 만든 듯한 목도리를 매만졌다.

“하아….”

새하얀 숨이 퍼져나갔다.

“…그래도 아주 춥지는 않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시기. 최근에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다.

점점 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일까. 하루하루 올라가는 온도 덕분에 추위에 죽어가던 빈민의 수도 줄었다.

여자 역시 그렇게 죽을 뻔했지만 누군가가 준 목도리 덕분에 겨울을 날 수 있었다.

‘이제 곧 봄이 올 거야.’

아직은 많이 춥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4등급 시민의 입장에서 여자가 머물고 있는 곳은 상황이 썩 나쁘지 않았다. 일단 도시이니 몬스터의 위협에서 안전하고, 특히 이 동네는 사람들의 인심이 좋아 가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봄이 오면 일단 얼어 죽을 걱정은 없겠고, 밥이야 잡초든 뭐든 자랄 테니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 운이 좋으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꼬르륵.

배가 고팠다.

“…….”

눈이라도 먹어볼까.

빈민들에게 겨울은 정말 혹독했다. 식물의 뿌리라도 탐할 수 있는 여느 계절과 달리 먹을 게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는 춥

기까지 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게 있다면 널린 게 눈이라 식수 정도는 구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몸이 아주 추운 상태였다면 먹기 힘들겠지만….'

이번 겨울은 운이 좋아 이런저런 방법으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목도리 덕분인가."

누군지도 모를 사람에게 목도리를 받은 이후로 소소한 행운이 찾아왔다.

여자는 아무도 밟지 않은 깨끗한 눈을 긁어모아 입에 넣었다. 바닥에 있던 눈이라 간간이 흙이 씹혔지만, 아무래도 좋았다. 다행히 여자는 추위에 강한 편이었다.

"……."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을 찾아 조금 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다른 빈민들이 보였다.

"그거 들었어?"

"듣긴 뭘 들어, 추워 죽겠는데…."

"아니, 검은망토 말이야."

검은망토?

'…그러고 보니 도시 사람들도 다 저 이야기를 하고 다니던데.'

보통 도시민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골목에 숨는 것이 빈민의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여자는 깨끗하고 정돈된 그 분위기가 좋아 종종 골목 바깥에 숨어 있기도 했다.

방금 들은 빈민의 이야기는 공원에서 산책하던 사람들도 꺼낸 이름이었다.

'검은망토도 역시 몬스터였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가.'

정보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빈민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한두 번 들은 적이 있기에 흥미롭기도 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골목에 자리를 잡고 앉아 빈민들의 대화를 훔쳐 들었다.

"갑자기 검은망토는 왜? 그거 몬스터라며."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게 막 소원을 들어주고, 그러기도 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인간에게 이로운 몬스터가 어디 있다고 그래."

"그치만, 공원 같은 곳에 서식하는 무해한 몬스터도 있는데… 이로운 몬스터도 있을 수 있잖아. 안 그래?"

"그래서 그 이야기는 왜 꺼낸 거야?"

"검은망토나 한번 찾아볼까 해서."

다른 빈민이 코웃음을 쳤다.

"아서라, 몬스터한테 한입에 잡아먹히려고."

"사람을 안 먹는 종류의 몬스터라고 했는데…."

"그럼 찢어 죽이겠지. 몬스터가 사람을 가만히 두는 게 말이 돼?"

"그, 그런가…?"

"안 그래도 요즘 그걸로 시끄럽더만."

여자가 귀를 기울이는 것도 모른 채, 빈민이 말을 이었다.

“헌터들이 그 검은망토인지 빨간망토인지를 믿는 바람에 수두룩하게 죽었다면서?”

“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어보니 그래. 어디 S급 던전이 열렸는데, 검은망토라는 녀석이 거기에 자주 나왔다더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기도 하고….”

“그럼 역시 인간들에게 이로운 몬스터가 아닐까?”

“그게 갑자기 사라졌대. 그러고는 어디 뭐, 다른 골목에서 검은망토를 목격했다는 녀석도 나타났고.”

“던전에 있던 몬스터가 대뜸 골목에서 나타났다고…?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빈민은 끌끌 혀를 찼다.

“할 짓 없는 도시 사람이나 우리 같은 4등급 구더기가 지어낸 헛소문일 거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든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위험한 몬스터라는 거고.”

몬스터는 기본적으로 행동반경이 정해져 있었다. 빈민들은 따로 교육을 받지 못해 잘은 모르지만, 최소한 몬스터에게 정해진 규칙 같은 게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다.

그런데 검은망토는 그런 규칙조차 지키지 않는 괴물인 것이다.

“어쩌다가 몇 번 헌터들을 구해줬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갑자기 확 사라진 걸 보면 느낌이 오지 않냐? 그것도 결국 인간 목숨이 어찌 될지 관심 없는 사악한 괴물에 불과하다는 거야. 아니면 헌터들을 함정에 빠트리려는 계략이었던가.”

“하지만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웃기는 소리 말아. 신조차도 제게 도움이 되는 신도들만 골라서 자비를 베풀어. 그나마 전통적인 신이라면 대가 없는 호의를 베풀 수 있겠지만… 이건 몬스터잖아.”

빈민은 되지도 않는 희망을 가지지 말라며 몸을 움츠렸다. 찬 바람이 골목을 강하게 채찍질하는 바람에 빈민들은 움찔 떨며 아는 사람들끼리 뭉쳤다.

“으, 추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더 붙기나 해봐.”

“아… 검은망토 만나면 옷이나 한 벌 달라고 해보려 했는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네.”

이런 겨울에 아는 빈민들끼리 펭귄처럼 몸을 붙이고 있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모여 있는 군집이 클수록 그 집단의 권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는데, 여자는 그럴 친구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겨울을 나던 도중 하나뿐인 빈민 친구가 죽었기 때문이었다.

“…….”

그 녀석이 살아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따듯했으려나.

“으….”

쌀쌀한 겨울바람에 여자는 목도리를 좀 더 강하게 쥔 채로 몸을 둥글게 말았다.

봄이 오면 새로운 동료를 사귀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겨울이라 활동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새 친구도 생길 것이었다.

‘…검은망토라.’

그런 녀석이었구나.

‘요즘 사람들이 수군거리길래 뭔가 했는데.’

거의 몇 년 만에 등장한 인간형 몬스터라는 이야기는 들었다. 착한 일을 하면 검은망토가 선물을 준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도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했다.

'믿지는 않지만.'

아까 전 빈민의 말이 맞다. 인간에게 이로운 몬스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몬스터에게 마을과 가족, 친구들을 전부 빼앗기고 서울로 도망쳐 온 여자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몬스터는 많은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

비쩍 마른 몸의 여자는 슬그머니 골목을 빠져나와, 밝게 번쩍이는 도시와 가까운 또 다른 골목을 누볐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혹시 운이 좋으면 도시 사람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고 이 지독한 공복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움직일수록 몸이 피곤해진다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굶어 죽기 십상이었다.

그렇게 조금 돌아다니던 여자는 어느 빈민을 마주칠 수 있었다.

"......."

"...어...."

그녀보다 훨씬 작은 몸집이니, 최소한 18살보다는 어려 보였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인가.'

이렇게나 어리다면 보통 빈민가의 사람들끼리 낳은 아이일 텐데, 어디에도 보호자는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인심이 박한 빈민가라고 해도 이렇게 어린 빈민이 혼자 남아 있는 건 드문 일이었다.

'그렇다고 아는 척을 하기도 좀....'

4등급 시민으로 강등당한 이후, 개인주의적인 삶을 지속해 왔던 여자는 굳이 아이에게 아는 척을 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아이에게 아는 척을 해봤자 먹을 입이 늘어날 뿐인 걸 여자는 잘 알았다.

도시의 사람들은 더럽고 천하다 하겠지만, 지금 여자를 이루고 있는 건 살아남기 위해 그녀가 아득바득 긁어모은 것이다. 그걸 쉽게 내어주면 한 계절도 버티기 힘들었다.

"......."

하지만.

"...음...."

최소한 이 목도리는, 여자가 긁어모은 것이 아니었다.

"이, 이거 쓸래?"

"......?"

"이거 써. 이거...."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었다.

"너 써."

누군가에게 대화를 건 게 오랜만이라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의미 자체는 확실하게 전달되었다. 어린 빈민은 경계 어린 눈을 흘기면서도 춥기는 추웠는지 슬쩍 목도리를 가져갔다.

목이 좀 휑했지만 괜찮았다. 여자는 추위를 잘 견디는 편이었고, 목도리 하나 없다고 죽지 않았다. 원래 그녀를 이루던 것도 아닌 잠시 스쳐 지나온 행운이니 아쉽지도 않았다.

“응.”

“…….”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어린 빈민은 대답하지 않은 채로 목도리를 꾹 쥐었고, 그걸 본 여자는 알 수 없는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져 황급히 자리를 벗어났다.

오랜만에 누구랑 대화를 하려니까 영 말이 나오지를 않았다. 한참을 멀리 떨어져 나온 여자가 이내 뿌듯해진 마음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잘했어.’

그녀의 부모는 여유가 있으면 나누라고 여자를 가르쳤다. 이제 그 사람들은 없지만, 오랜만에 부모님의 말에 따라 착한 일을 하니 마음이 꽤 괜찮았다.

‘나중에 엄마 아빠 만나면….’

칭찬받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슬쩍 입꼬리를 올렸을 때였다.

“…….”

“…….”

여자의 눈에 새까만 액자가 들어왔다.

마치 금으로 된 나무를 깎은 듯한 액자는 단정하고 고급스럽게 조각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차분한 색감으로 녹음이 그려져 있었는데, 대체 어디에서 ‘검다’라고 느꼈는지 고민하니 그 본질이 보였다.

“…….”

먹물처럼 부드럽고 짙은 물감으로 칠해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온통 새까만 정장을 입은 남자의 초상화.

검은 초상화.

“…어?”

본능적으로 그것이 ‘검은망토’라는 걸 알아챘다.

“어, 어어… 어….”

“…….”

“모, 몬스터….”

숨이 턱 막혔다.

‘몬스터야.’

제 모든 것을 앗아간 몬스터가 바로 그녀의 앞에 있었다.

명치라도 맞은 것처럼 숨이 턱 막혀왔다. 심장이 죽기 직전에 발악이라도 하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쿵쾅거렸고, 그와 함께 팽팽 도는 혈액은 온몸을 덜덜 떨리게 했다.

이렇게 움직이는 기관은 많은데 어째서 뇌는 돌아가지 않는지. 음울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재앙을 앞에 두고 저도 모르게 주춤거리자, 액자 속의 새빨간 입술이 열렸다.

“…….”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

빈민이자 겁쟁이인 제 주제에 한 번도 들을 일이 없는, 대단히 정중한 음성이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

그 자애로운 음성에 소름 끼쳤다.

검은망토의 음성에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질 않았다.

그저 장례식을 형상화한 것처럼 고요했고, 그건 ‘목소리’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적막했으며, 기계의 음성처럼 깔끔하고 선명했다.

그런 목소리를 내는 주제에, 아무 감정도 없이 말하는 주제에. 이 기괴하고 아름다운 형상의 망토는 후드의 그림자 속에서 자애를 흉내 내고 있었다.

‘…어, 어쩌지.’

발이 굳어 움직여지질 않았다.

‘무서워….’

여자는 타고난 겁쟁이였고, 원래도 몬스터를 무서워했으며, 마을이 전멸당한 이후로는 더더욱 그랬다. 말로만 듣던 인간형 몬스터를 마주치게 되니 온몸이 덜덜 떨리는 건 당연했다.

죽고 싶지 않아서 그 난리 통에 혼자 숨었다. 그렇게 살아서 도시로 왔다. 이 커다란 도시에 빈대처럼 빌붙으며 꾸역꾸역 살아왔던 것이다.

“아, 아으….”

“…….”

“…오, 오지, 오지 마… 오지 마요….”

“…….”

“흐윽, 끕….”

너무 서러웠다.

“나, 나아 오늘 착한 일 했는데에에….”

운수가 나빠도 너무 나쁜 게 아니냔 말이다.

사람들이 검은망토에 대해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하던 게 순간 떠올랐지만,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래봤자 몬스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여자에게 검은망토와 마주친 이 상황은 정말 끔찍하게 무서웠다.

‘난 어떻게 죽게 되는 거지?’

그날 부모님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커다란 입 속으로 꿀꺽 삼켜질까? 아니면 수많은 이빨에 꿰어 죽게 될까? 아니면 짓밟혀져 뭉개 죽는다거나,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서럽게 울고만 있자 검은망토가 물었다.

“착한 일을 하셨습니까?”

“끄읍, 흐으으….”

“무서운 상황에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쿨쩍….”

“당신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딘가 기이한 울림이 있는, 그러면서도 자비가 가득한 음성이라고 그녀는 울면서도 생각했다.

아니, 사실 어느샌가 울음은 멈춰 있었다. 여자 스스로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

“자.”

검은망토가 손을 내밀어 무언가를 건네주었다.

평소의 여자였다면 몬스터가 주는 물건을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도 못 하고 놀라 자빠지거나 엉엉 울기에 바빴을 테지만,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심장 소리가 잦아들고 안정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무언가를 받았다.

“…….”

“쿠키입니다.”

바스락.

얇은 한지 같은 봉투 안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다.

“당신을 놀라게 한 것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

“선한 행위를 한 당신을 긍정합니다.”

검은망토가 마치 동화 속의 신사나, 빛바랜 영화 속의 귀족처럼 가슴에 손을 대고 뒷짐을 진 채로 허리 숙여 인사했다.

짧고도 느릿한 인사 뒤에 검은망토의 나직한 음성이 뒤따랐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어디에도 액자는 보이지 않았다.

갓 구운 쿠키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어…?”

빈민들에게 ‘검은망토’의 이름이 퍼진 날이었다.

* * *

아직도 새 친구를 만들지 못한 초상화는 구슬피 울었다.

“오늘도 펜팔 친구가 되어줄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 정 그러시다면 제가 한 마리 잡아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딜 감히 이 선생님의 즐거움을 뺏으려고 드나요.”

“…….”

…선생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겠지.

이세르는 자애로운 미소를 띤 얼굴로 진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97)"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98)

제98화

계속해서 액자를 통해 지구의 상황을 확인하며 '새 친구'가 될 인간을 찾는 지오의 모습.

결국 이세르가 물었다.

"종종 확인하게 된 인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말을 걸거나 선물을 나눠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지오는 온화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음성으로 대답했다.

"저를 보지 못했다면 모를까, 그들도 저를 보았습니다. 원래 눈이 마주쳤으면 배틀인 거고요. 말을 걸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죠."

"눈이 마주치면 승부를 봐야 한다니. 지구인들은 생각보다 호전적인 특성을 지녔군요. 구체적인 규칙이 있습니까?"

"마주 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혹 또는 결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놀랍습니다. 이전에 지구의 아이로 위장했을 때는 많이 급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는데 이런 문화가 있었군요."

"그래서인지 이 선생님 역시 눈이 마주친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주친 사람들이 놀랄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지오와도 환상의 짝꿍이 존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건 말을 걸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었다.

대체 '검은망토'라는 이름에 겁먹지 않고 활발한 인사로 맞이해 줄 그런 사람을 어느 세월에 아주 우연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만, 그 나이 될 때까지 자만추를 추구하느라 연애 한 번 못 해본 강원도 산골 청년은 이상한 낭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무턱대고 시간을 낭비하면 언젠가는 새 인연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 예."

"그리고 그렇게 말을 걸다 보면 선물도 주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하...."

"내가 가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선물 좀 준다고 학부모 항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삼박자가 들어맞으니 그야말로 안 줄 이유가 없었다. 그 누구도 기쁨 사랑 평화 애정 행복을 나누고 싶어 미쳐 날뛰는 지오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기특하면 다 선물을 주시나요?"

“이것이 바로 선생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방금 전의 아이는 선생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갑자기 누구 죽일 것처럼 결론 내리지 말고. 그 나이에 성급하면 징그럽습니다.”

“예, 선생님.”

“꼭 제자여야 선물을 줄까요.”

깜찍한 일을 한 사람들에겐 언제나 달콤한 보상이 필요했다. 고등학교 선생님 시절에도 주머니에 항상 학생들에게 줄 간식거리를 들고 다녔던 서지오다운 발상이었다.

“게다가 지금의 나에게는 넘치는 것이 바로 시간이니까요.”

지오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허니도 있고, 다나도 있고, 아버지도 계시고, 이세르와 아리아까지 있지 않습니까.”

“…….”

“그 아닌 척 매우 만족해하는 얼굴이 미심쩍어서 그런데, 제가 친구가 될 대상으로 인간을 찾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예, 안 듭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아무리 기특한 제자인 이세르라고 해도 내가 펜팔 친구를 사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대인의 과로에 질식해가는 유성운만 붙잡고 편지를 주고받기에 그는 너무 바빴다. 지오에게는 새 친구가 필요했다.

“제가 아무리 액자 안에 살고 있다 한들 세상과의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지오의 감상에 현재 그의 위치는 조금 외딴 시골에 홀로 살고 있는 할아버지 정도였다.

고작 31년 사이에 조상님 취급을 받게 된 지경인데, 요즘 세상을 배우려고 해도 도무지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가 없는 집구석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제가 직접 친구를 사귀고자 나설 수밖에요.”

“주제도 모르는 천박한 인간들이 알아서 기어 오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을 자꾸 이 좁은 오두막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이세르.”

“딱히 좁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담기에는 한없이 작지요.”

“…….”

이세르는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지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친구 찾기를 즐기실 예정입니까?”

“심심할 때마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친구’라는 것을 얻으신 뒤에는…?”

“계속하겠죠. 고작 친구 한 명을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아, 코에 붙이실 예정입니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았다.

“이 긴 시간을 친구와 함께하지 않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당신의 충실한 제자인 저희가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세르는 독립성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못난 선생을 지키고 있을 겁니까.”

몇 천 년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애가 이렇게 이상해지지. 어디서 친구를 사귀어 노래방이라도 좀 다녀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다.

‘이세르는 소심한 아이이니까 그런 활동적인 취미 생활을 즐길 것 같지는 않지만.’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저는 친구를 계속 찾아볼 겁니다.”

“제 사심이 아닌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올리자면, 이렇듯 계속 모습을 보이실 경우 지구에서 ‘검은망토’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이세르의 말이 맞습니다. 세간에 ‘검은망토’는 몬스터로 알려져 있다고 하니, 이래저래 혼란이 생기기도 하겠지요. 미안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각은 있습니다.”

“…인간들의 혼란이야 어찌 되든 좋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안 좋은 의미의 관심을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들의 천성은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워요. 믿을 게 못 되지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구에만 인간이 몇 명인데, 아무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불행한 미래를 상상하기에 저는 이미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지오는 ‘검은망토’가 만만하게 노려지지 않을 만한 이미지를 만들 생각이었다.

‘계속 돌아다니며 대놓고 모습을 보이거나, 날 무서운 사람이라고 오해해도 굳이 해명하지 않는 게 그 이유이고.’

그만큼 지오와 관련된 소소한 사건이 이따금 생길 수는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이라.”

아무튼 재밌으면 됐다.

* * *

헌터 협회 회의실.

“이걸로 이번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회장님.”

“그리고 다음은….”

정돈된 미소를 띤 협회장이 말을 이었다.

“‘검은망토’에 대한 안건입니다.”

협회장의 입술이 부드럽게 열렸다.

“정식 안건으로 올라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

“이번 안건이 상정된 이유는 도시의 안정을 위해서인 만큼 주제와 관련된 도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들어야겠군요. 서 팀장님.”

“예, 협회장님.”

도시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정보 처리 팀장이 입을 열었다.

“현재 파악된바 다수의 시민이 검은망토를 목격했습니다. 지금까지 목격자 증언을 확보한 인원은 26명으로, 1등급 시민이 9명, 2등급 시민이 11명, 3등급 시민 2명, 4등급 시민 4명 확인되었습니다.”

인간으로 쳐주지 않는 5등급 시민은 제외했다. 그들이 검은망토와 접촉했다고 해도 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전부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는 범죄자들이었으니 말이다.

“공통적인 증언은 검은망토를 예의 있게 대하거나, 혹은 그와 연관되지 않더라도 선행을 했을 때 호의를 베푼다는 겁니다.”

“호의라고 하면 이전에 보고된 바가 있는 간식들입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쿠키와 같은 구움 과자와 사탕, 초콜릿과 같은 간식이었습니다. 수제로 보이기는 해도 성분 자체는 지구의 음식과 거의 동일하나….”

“일반적인 간식들과는 맛이 같아도 그 효능이 다르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물을 받은 대상에 맞춰 영양제, 빈혈제, 진통제 등 약과 같은 효과를 냈습니다.”

“부작용은?”

“선물을 받은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섭취하면 효과는 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외의 부작용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보 처리 팀장의 말에 다른 직원이 발언을 허락받고 질문했다.

“주로 어디에서 목격이 되었습니까?”

“동일한 목격 장소는 경계 구역의 빈민가뿐, 그마저도 완전히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공간 이동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일반적인 근원의 존재와는 규격 자체가 다른 듯한데, 그렇다면 해외에서 발견된 적은 없을까요?”

“‘검은망토’의 최초 목격지인 ‘심해의 나라’가 개방되었을 때부터 그에 관해 각국의 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정보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해외의 협회 쪽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한국 협회 지부에서 파악된바, 해외에서는 검은망토가 목격되지 않았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다만 ‘검은망토’의 특성을 따졌을 때 해외에 모습을 보였음에도 단순히 목격되지 않았을 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에 또 다른 직원이 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에 해를 끼치느냐는 것이겠지요. 목격된바 26명의 증언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 중 ‘검은망토’에게 공격을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목격자 본인이 아닌 증언 중에 있었습니다.”

정보 처리 팀장이 각 팀장의 모니터 앞에 정리해 둔 정보를 띄웠다.

“25명의 시민은 모두 ‘검은망토’에게 선물을 받고 헤어지는 것으로 접촉이 마무리되었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단 한 명. ‘보석의 수맥’에서 ‘검은망토’와 마주친 3등급 시민의 경우는 상황이 현저히 달랐습니다.”

세간에 ‘보석의 수맥’이라는 던전은 그리 유명하지 않았지만, 불법적인 루트로 몬스터를 팔아넘기려는 블랙 헌터들 사이에서는 선호도가 높았다.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외양으로 인기 있는 ‘안티캣’의 서식지이기 때문이었는데, 그런 ‘보석의 수맥’에서 ‘검은망토’가 목격되었다.

“협회의 질의응답에 협조해 준 목격자는 이선후 헌터로, 등급은 F급, 팀 포지션은 짐꾼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은망토’에게 공격을 받은 본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검은망토’에게 공격을 받은 사람의 신상 정보는 어떻게 됩니까?”

“‘검은망토’에게 공격을 받은 피해자는 박은겸 헌터로, 등급은 B급, 팀 포지션은 리더였습니다. 목격자는 피해자인 박은겸 헌터가 자신을 던전에 버려두고 떠나려 했다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참 질리지도 않고 계속 나오는군....”

던전을 공략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자원이 소모된다. 특히 짐꾼의 경우 전투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짐을 드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쉽게 버려지고는 했다.

도움도 안 되는데 먹여 살릴 입은 늘어나니까.

“예전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저희 때와는 아무래도 많은 것이 다르지요.”

“동료를 동료로 보지를 않으니....”

조금 질린 기색의 원로들의 모습을 보며 정보 처리 팀장이 다시 말을 이었다.

“...‘보석의 수맥’은 특히 다른 헌터들이 자주 방문하지 않는 던전이라, 이대로 버려지면 아사할 거라고 판단한 목격자는 박 헌터에게 매달렸고. 그런 목격자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박은겸 헌터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검은망토’가 목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격자는 거의 검은망토를 숭배하고 있었다.

“증언 속 ‘검은망토’는 액자의 형태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던전 ‘보석의 수맥’의 특성상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아 둘 다 처음에는 액자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번에 실종된 박은겸 헌터가 폭력을 행사하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잠깐만.”

노인에 가까운 원로가 물었다.

“실종자? 부상을 입었거나 시체로 발견된 것도 아니고, 아예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까?”

“예, 목격자는 박은겸 헌터가 액자 안으로 끌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액자 내부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끌려간 방법은? ‘검은망토’가 직접 멱살 잡고 끌어당겼나?”

“‘검은망토’의 모습을 직접 관측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액자 안에서....”

정보 처리 팀장은 무의식적으로 희미하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담당하고 있는 위치에 걸맞지 않게 모호한 정보를 보고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다수의 투명한 손이 기어 나와 실종자를 납치했다는 증언입니다.”

“...다수의 투명한 손?”

의아함이 묻어 나오는 음성이었다.

“투명한데 다수인지는 어떻게 알고, 또 손인지는 어떻게 알았다고 합니까? F급에 짐꾼 포지션이었다면 그런 형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목격자 본인이 느낀 바를 설명한 것일 뿐, 스스로도 논리적인 표현이 힘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정장을 입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장... 옷도 입었는데 손은 투명하고. 투명 인간이라도 봤다고 말할 셈인가.”

그에 협회장이 입을 열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헌터의 시대가 열린 지 고작 32년을 앞두고 있을 뿐이니 저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자부해서는

안 될 겁니다. 가능성을 인정하고 몬스터로 규정합니다."

"예, 협회장님."

"예, 협회장님."

즉각적인 수용의 말들이 나오자, 협회장이 다시 정보 처리 팀장을 보았다.

"그 과정에서 '검은망토'는 목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액자의 특징과 목격자의 강한 주장을 토대로 이번 사건이 '검은망토'와 연관이 있으리라 판단했습니다."

"이 이상 보고할 것이 있습니까?"

"'검은망토'가 보인 현상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박은겸 헌터 사건 이외의 예외적인 상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협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회의실에 모인 직원 중 한 명이 발언권을 얻었다.

"그래서 '검은망토'를 무엇으로 정의할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규격 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요."

원로가 그 의견을 받아 말을 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정원사이자 서울 제1지부 연구 팀장인 강우리 씨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 여러모로 알아보고 연구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아직 정의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이겠군요...."

"그렇습니다.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모순적인 존재이죠."

연구 팀장이 각 참석자 앞 모니터에 정보를 띄웠다.

"일반적인 신과 몬스터, 그리고 근원의 자식을 정리한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검은망토'는 이 중 그 어느 영역에도 속할 수 있고, 역으로 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기엔 신성 외의 불순물이 많다. 몬스터라고 하기엔 인간을 향한 증오가 전무하고, 근원의 자식이라고 하기엔 인간들에게 너무 관심이 많았다.

그럼에도 그 모든 특징을 한 몸에 담고 있었다.

"그중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검은망토'가 근원에 속한 존재이리라는 점뿐입니다. 자신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자신만의 규칙이라면... 역시 그것인가?"

"예, 선한 것을 긍정하고 악한 것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 선과 악의 기준은 본인이 정하는 것이겠지."

"확실히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태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그 기준이 저희 인간들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격함은 역시 근원의 존재답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폭력 현장을 목격했다고 가해자를 어딘가로 납치해 버린

것이다.

이것으로 '검은망토'가 설령 인간에게 호의적일지라 해도, 결국 인간들이 만든 규칙에는 관심이 없음이 증명되었다. 그 실종자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없는 만큼 위험도가 높은 행동 방향이었다.

"여기서 신경을 써볼 만한 것은, 이러한 '검은망토'의 행위가 처벌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선인에게는 보상을 내리고 악인은 부정하는 것이 처벌이 아니라면 뭐지?"

"그보다는 개인적인 취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여느 인간형 몬스터처럼 권위적이거나 선민의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단지 그렇게 생겨먹은 녀석이라는 의미이죠."

그에 협회장이 말을 얹었다.

"확실히 근원의 자식에 가까운 특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 '검은망토'가 '처벌'의 의미를 가지고 악인을 대했다면 그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박은겸 헌터 사건에서 '검은망토'는 액자인 상태로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마치 그냥 꼴 보기 싫은 물건을 눈앞에서 치워버린 것처럼 말이다.

"여태까지의 '검은망토'의 행위 중 명확한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 행동의 방향성으로 따졌을 때, 선을 긍정하고 악을 부정하는 규칙이 있으리라 짐작할 뿐입니다."

사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달랐다.

지오는 애초에 '공허의 도시'와 같은 액자가 제멋대로 활보 중이라는 것도, 그런 자신의 액자에 누군가가 끌려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다만 나름의 자의식을 가진 '공허의 도시'가 제 어버이가 싫어할 법한 '무언가'를 치워버린 것에 가까웠다.

그건 일전에 처음 현대 사회에 나온 허니가 경복궁에서 보았던 악한 심성의 남자를 집어삼킨 것과 같은 이치였다. 지오의 자식들은 제 어버이가 좋은 것만 보고 항상 기쁘기를 원했다.

"……."

"……."

물론 그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든 게 '검은망토'의 의도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사람 하나를 실종시켰음에도 '검은망토'에겐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몇몇 협회의 직원들은 서늘함과 경계심을 느끼고 있었다.

"…이동에도 제한이 없고."

심지어 던전에서도 목격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검은망토'는 그야말로 어디든 갈 수 있었다.

"인간들의 생활에는 관심이 많으며."

"……."

"선한 이에게는 축복을, 악한 이에게는 절망을 준다."

웃는 상의 직원이 가벼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꼭 게임 속 이스터 에그 같군요."

인생이니 던전 공략이니, 그런 것들을 게임에 비유한다면 말이다.

이스터 에그란 각종 미디어에 제작자가 장난으로 숨겨두는 내용을 뜻했다.

'제작자'가 '장난'으로 '숨겨두는 것'이니 게임의 내용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찾으면 운이 좋고 못 찾

아도 게임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가끔 나타나는 드물고 재밌는 이벤트 같지 않습니까?"

"명백한 실종자가 나타난 이상 '재밌는 이벤트'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보아하니 어지간한 쓰레기인 모양이던데... 사람들이 다 착하게만 살면 문제없을 일이고."

"선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악한 이를 처벌하는 건 협회와 정부의 일이니, 정체 모를 근원의 존재에게 기대서는 안 되겠지요."

"예, 자중하겠습니다. 경솔한 발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다시 드는 의문은...."

원로 중 한 명이 말을 이었다.

"액자로 끌려간 헌터가 어떻게 되었냐는 겁니다."

그에 따라 '검은망토'의 위험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었다.

던전을 그리는 화가

오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99)

제99화

사람의 목숨조차 자원으로 취급되는 세상이다. 사회의 물을 흐리는 악한 종자가 몬스터도 뭣도 아닌 무언가에게 끌려갔다고 해도 그 실종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궁금한 것이다.

"지금쯤 죽었을까요?"

"정보 처리 팀에서 확인한 실종 시각은 언제였습니까?"

"22일 오후 4시 경이었습니다."

"오늘이 24일. 대략 이틀이 지났고... 사망으로 쳐도 될 법한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죽였는지도 관심을 기울일 주제일 겁니다."

"죽이지 않고 장난감으로 삼아버렸을 수도 있지요."

"상당한 지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니, 그럴 가능성도 있겠군요."

'검은망토'의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 탓에, 협회의 직원들은 그를 인간형 몬스터에 빗대어 예상하고 재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인간형 몬스터가 그들의 규칙을 어긴 인간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생각하면 자연스레 험한 추측이 나오는 것이다.

"단지 깔끔하게 죽였다면 '처벌'의 의미를 재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감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처벌'이 아닌 '정리'의 의도였을 수도 있어요. 제 규칙 어긴 인간을 눈앞에서 치우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니 사감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번 결과물을 확실하게 알아야 '검은망토'의 대응 등급을 조정할 수 있을 텐데요.... 전 연구 팀장인 유성운 헌터의 조언도 있었고."

예의 바르고 선한 사람을 마주쳐 호의를 베풀 때의 검은망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온갖 위험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협회에 있어 중요한 건, 이 몬스터인지 뭔지도 모를 것이 어떤 식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느냐는 것이었다.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위치 추적 장치는 따로 소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긴 그런 아이템이 있어도 작동했을지는 모를 일이지."

“그래도 단순히 실종 처리만 하고 안건을 마무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로 ‘검은망토’를 소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돈된 소란 속에서 협회장이 입을 열었다.

“3대 길드에 협조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3대 길드 모두에게 말입니까?”

“예, 각 길드의 장에게 연락을 넣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간부들만은 ‘검은망토’의 또 다른 이름이 ‘지오의 초상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매에서 그것을 사 갔던 사람은 다름 아닌 수집가 비사벌. 수집상의 길드장이었다.

그러니 여기서 3대 길드에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이번 박은겸 헌터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결과물을 검은망토에게 직접 물어달라는 요청과 다르지 않았다.

직접적이고도 적나라한 요청에 비사벌 혹은 ‘지오의 초상화’의 심기가 불편해질 수도 있겠지만….

“수집가는 작품을 건드리지 않을 의도만 보인다면 충분히 도움을 베풀 것입니다. ‘검은망토’의 반응은 알 수 없으나, 수집상의 큐레이터들이 직접 관리하고 상황을 파악할 테니 정말 일이 위험해진다면 알아서 자제하겠지요.”

무엇보다 수집상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보았을 때 현재 ‘지오의 초상화’를 담당하고 있는 큐레이터는 유성운 정원사일 확률이 높았다.

근원의 존재를 대함에 있어 상당히 진중한 사람이니 어느 쪽이든 시도해서 나쁠 건 없었다.

“이번 안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협회장님.”

“그럼 다음 안건은….”

협회는 언제나 바빴다.

그러니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건, 종종 필요한 일이었다.

* * *

한편 초상화 속의 평화로운 오두막.

“오늘의 콘텐츠는.”

지오가 선언했다.

“감바스로 결정되었습니다.”

“꾸르르르륵.”

허니가 기뻐 울부짖었다.

“꾸륵, 꾹, 꾸르르르르르르.”

“진정해라 아들, 감바스는 재촉한다고 너처럼 날아오지 않아.”

세간에, 특히 한국에 ‘검은망토’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지만 그 자세한 사정은 지오의 알 바가 아니었다.

월세 내기 싫어 초상화의 삶을 받아들인 궁극적 긍정 마인드의 소유자는 오늘도 평화롭게 식사를 궁리할 뿐이었다.

“일단 감바스라고 말하기는 했는데… 흠.”

훌륭한 미식가이자 대식가인 서지오의 인생 최대 콘텐츠는 뭘 먹을지 정하는 것이었다.

시간과 체력과 자본이 풍부한 꿈의 오두막에 살고 있는 지오는 식사 준비에 마음껏 심신을 소모했다.

“감바스알아히요가 원래 정식 명칭이기는 하지.”

“꾸르?”

“감바스는 새우, 아히요는 마늘.”

“꾸르르…?”

“그래, 직역하면 새우마늘볶음인 것이다.”

사실 ‘감바스를 만들겠다’라고 말했지만 오늘 지오가 만들 것은 원본과 영 딴판인 것이었다.

“애초에 새우도 안 들어갈 예정이고.”

그나마 공통점이 있다면 쌉싸름한 향의 올리브유와 오동통한 마늘을 사용할 거라는 점뿐이었다. 하지만 만드는 방법은 꽤 비슷할 테니, 지오는 굳이 말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

“허니, 지난번에 봤던 몽둥이나팔 알지? 창고에 가면 아빠가 손질해 둔 몽둥이나팔이 있단다.”

“꾸륵.”

“다나랑 같이 내려가 아빠랑 할아버지 거 포함해서 먹고 싶은 만큼 퍼 와. 창고에 원하는 게 있으면 같이 꺼내 오고.”

“꾸르르르르.”

허니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서는 포르르 날아가 다나의 머리 위에 앉았다.

봄바람이 솔솔 불어와 미묘하게 따끈한 바닥에 엎질러진 고양이처럼 누워 있던 다나가 두 앞발을 허우적거렸다.

“꾸르.”

“…므아아아앙….”

쭈우우우욱—.

자리에서 일어나 아치형으로 기지개를 쭉 켠 다나가 총총걸음으로 발을 옮겼다.

다나의 몸에 맞춰 자그마하게 만들어둔 바구니를 입에 물고서는 사라지는 두 자식 놈의 모습에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이가 좋군.”

“꾸우?”

태양신은 춥디추운 얼음 창고에 다나가 가도 되냐고 물었지만, 지오는 고개를 저었다.

“다나는 제가 그려낸 가족이 아니라 이 숲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몸이 차갑고 엄밀히 따져 일반적인 생물이 아닌 탓인지 얼음 창고에 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위험한 장소를 가면 모를까 춥다는 이유로 다나가 아플 일은 없을 겁니다.”

집안 어르신의 불안을 잠재워 드린 지오가 내심 생각했다.

‘유독 다나를 신경 쓰시는군.’

그 마음은 지오도 이해가 갔다. 허니는 알아서 오늘치 관심과 애정을 받으러 오지만, 다나는 가만히 두면 애가 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도 모를 때가 많았다.

‘밥 먹을 때가 아니면 울지도 않고….’

딱히 밥 생각이 없을 때면 아예 사라지기까지 해 태양신의 걱정을 많이 사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 척박한 ‘보석의 수맥’에서도 잘 살아남았던 아이이니 큰일이 날 리가 있을까 싶지만, 아무튼 할아버지가 그렇다는데

충분히 존중해 드릴 수 있었다.

“그럼 나는 일단….”

해산물은 오래 열을 가하면 질겨진다. 허니와 다나가 가져올 몽둥이나팔은 거의 마지막에 넣을 예정이니, 지오는 나머지 작업을 하고 있으면 됐다.

“허니와 아버지께서는 매운 걸 그리 즐기지 않으니 향신료는 적당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꾸우, 꾸.”

“예, 향만 즐길 수 있도록 잘 조절해 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꾸….”

“확실히 지오반니의 세상에서는 매운 음식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낯설게 느껴지실 만도 하죠.”

지오는 얇고 넓은 사각 펜에 아낌없이 올리브유를 털어 넣었다.

“하지만 에들런 마을에는 매운 음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꾸우?”

“저도 특이하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보통 신선한 해산물을 자주 접할 수 있는 해안가 마을에서는 매운 향신료를 잘 쓰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향신료라는 것은 향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식재료의 안 좋은 냄새를 덮어버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고기의 누린내나 해산물의 비린내를 가리기 위해 강하고 자극적인 향의 고춧가루를 사용했던 건 지구에서도 흔한 일이었다.

“하긴 덥고 습한 기후이기는 했습니다. 연교차가 크기도 했고요. 식재료가 상하기 딱 좋은 환경이니 매운맛으로 보존 기간을 늘리거나… 살균 효과를 노린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에들런 마을의 특산품은 몽둥이나팔과 같은 어패류였지만, 이웃 마을 중 향신료가 특산품인 지역이 있었다.

그런 종류의 향신료를 구하기도 쉬운 만큼 여러모로 매운 음식이 발달하기 좋은 환경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에들런 마을의 대표 음식 중 매운 생선튀김이 있었습니다. 주점에서 자주 팔던 메뉴였는데, 요청하면 마른 빵을 추가해서 빨간 기름에 찍어 먹을 수 있었죠.”

“꾸우우…?”

“맵기는 하지만 토마토 특유의 향과 생선의 고소한 기름 덕분에 빵과 특히 잘 어울렸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던 생선은 유독 간이 기름지고 통통했는데, 거기서 흘러나온 기름이 정말 황홀했죠.”

“꾸….”

“지금 생각해 보니 파스타 면을 추가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나름 좋았을 것 같군요.”

그때 기억을 조금 되살려, 이번에 만들 감바스에도 빵과 면이 곁들여질 예정이었다.

“빵은 지난번에 만들어둔 치아바타와 바게트가 있는데, 둘 다 한번 화덕에 살짝 굽는 게 좋겠습니다. 올리브 치아바타와 치즈 치아바타 중 무엇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말린 토마토를 넣고 구운 바게트도 있습니다.”

“꾸꾸꾸꾸….”

“예, 현명하시군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모두 조금씩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나는 몰라도 허니는 저를 닮아 상당한 대식가이니 남기는 음식 없이 즐길 수 있겠죠. 미리미리 빵을 구워두어서 다행입니다.”

지오가 요리에 큰 관심이 있다는 걸 아는 유성운은 종종 식재료를 선물해 주고는 했다.

지금의 세상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특이한 밀가루나 채소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지오는 기쁜 마음으로 유성운에게 신세를 지고 있었다.

‘형님으로 받들어 모셔야지.’

어른의 여유도 넘치고 유능한 데다 성격이 무던하니 친화력까지 좋았다. 이 헬한민국에서 생존하기 위해 지오는 유성운에게 충실히 빌붙기로 오늘도 마음을 먹었다.

“아, 바게트 위에 크림치즈와 훈제 연어를 올려 먹는 것도 맛있을 텐데….”

꼭 연어가 아니더라도 얇게 저민 소시지나 햄을 올리는 것 역시 끝내주는 조합이었다. 지오는 마당에서 말리고 있던 ‘숨쉬는 바다’의 생선포를 가져와 얇고 넓게 저몄다.

“좋군요, 잘 건조가 되었습니다.”

“꾸꾸.”

“그럼 빵 준비는 아버지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손질해 두었던 마늘을 너무 얇지 않게 썰고, 그대로 아직 열이 오르지 않은 펜 위에 쏟아부었다.

선드라이 토마토가 듬성듬성하게 박힌 바게트를 썰던 곰인형은 우르르 무언가가 쏟아지는 소리에 지오를 돌아보았다.

“꾸?”

“예?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꾸?”

“원래 마늘이 이 정도는 들어가야 정상인 겁니다.”

“…….”

곰인형은 곧 포기한 듯 바게트를 썰기 시작했다. 나름 손가락이 있는 인형인 덕분에 아슬아슬하게나마 칼질이 되는 듯 보였다. 지오는 안심하고 마저 감바스 조리를 이어갔다.

‘낮은 온도에서부터 마늘을 넣어두어야 오일에 마늘의 향이 잘 우러나온단 말이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너무 오랫동안 올리브유에 마늘을 넣어둘 경우 타버린다는 거다.

하지만 이 오두막 숲에서 키워낸 마늘은 유독 단단하고 알이 커서, 향을 끌어 올릴 만큼 오래 넣어둔다고 해도 갑자기 훅 타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진 않을 듯했다.

“그리고….”

지오는 건조해 둔 은하수메리를 꺼내 들었다.

“막자가 어디 있더라.”

“꾸우우.”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신이 알려준 덕분에 찬장에 처박아두었던 막자도 꺼낼 수 있었다. 햇볕에 잘 말려 건조된 은하수메리는 검고 투명하게 반짝였는데, 그 알갱이가 너무 단단해 손으로 부술 수가 없었다.

드드득, 드득.

“…….”

맵고 알싸한 향이 올라왔다.

‘역시 후추랑 비슷해.’

고추의 향을 살짝 품은 후추라고 해야 할까.

‘많이 넣어도 맵지는 않으니 조금 넉넉하게 넣어볼까.’

후추의 향은 휘발성이 강해서 간 채로 너무 오래 두면 그 향이 잘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은하수메리는 그런 것 없이 그 강렬한 향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어 지금쯤 올리브유에 넣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었다.

“후추도 넣었고….”

다음은 울음자락이었다.

“이건 조금만 넣겠습니다.”

“…….”

“매운 향이 너무 약하면 기름져서 많이 먹지 못할 겁니다.”

“…꾸우….”

“이 아들을 믿어보시죠.”

이런 오일이 잔뜩 들어간 요리를 할 때는 기왕이면 건조된 향신료가 좋았다. 뜨겁게 가열된 오일에 수분이 들어가면 친환경적이고 성능 좋은 폭탄이 완성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올 이날을 위해 울음자락을 미리 건조해 두었지.’

울음자락은 햇볕에 한 달 이상 건조하면 분홍빛으로 변하며 굉장한 단맛을 낸다. 하지만 햇볕이 아닌 집 안에서, 약하게 달군 펜 위에 쥐포를 굽듯 살짝살짝 말려내자 오히려 그 매운 향이 강해졌다.

‘색이 여전히 청록색인 부분에서 고춧가루와는 느낌이 현저하게 다르지만….’

그래도 향은 얼추 비슷했다.

‘향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었던 단내 같은 것도 많이 사라졌고.’

불로 바싹 말린 울음자락은 청록색의 얇은 한지처럼 부슬부슬하고, 마치 레이스처럼 끝부분이 자글자글하게 구겨져 있었다. 적당한 크기로 조각낸 울음자락이 들어가자 은하수메리가 들어가도 잠잠했던 매운 향이 확 나기 시작했다.

“이거지.”

“꾸.”

“…….”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던 지오가 팔을 내렸다.

“…별로 안 매울 겁니다.”

아 정말로.

걷히지 않는 의심의 눈초리에 혹시 몰라 기미 상궁을 자처했지만 역시 그렇게 맵지 않았다.

매운맛에 대단한 내성이 있지 않은 서지오도 이 정도라면, 아무리 생긴 것부터 순한 맛인 곰인형이 맛본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듯했다.

“정말입니다.”

“…….”

“아버지가 아들을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저를 믿어 주겠습니까?”

“꾸.”

“신뢰 남용이라니요,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신뢰가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맴찔이의 의심은 쉽게 허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나이를 허투루 먹은 어른들은 허니와 다나가 오기까지 기묘한 대치를 이어갔다.

오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00)

제100화

한국인 왈 마늘은 향신료가 아니었다.

"채소라니까?"

"꿍꿍꿍...."

"허니, 그렇게까지 싫어할 일이니."

허니는 부정을 표할 때는 항상 '꿍'이라는 울음소리를 내는데, 저런 식으로 꿍꿍거릴 때는 안 그래도 동그란 몸을 더 둥글게 말고는 위아래로 동동 들썩거렸다. 연약하게 굴러가는 탱탱볼 같았다.

하지만 지오는 억울했다.

"마늘은 익히면 안 매워."

"꿍."

"먹어보면 알잖아, 그냥 감자라고. 잘 뭉개지고 수분감 있는 감자 그 자체일 뿐이야."

"꿍꿍...."

"향은 오일에 다 빠져나갔어. 아빠는 정말 억울해."

기껏 밥 만들어 놨더니 가족 구성원 중 둘이나 지오를 불신하고 있었다.

"아빠가 먹어봤다고 했잖니."

그에 반응한 건 허니가 아니라 곰인형이었다.

"꾸우...."

"...물론 한국인이 매운맛에 강한 건 맞지만, 아버지, 그건 편견입니다. 모든 한국인이 매운맛에 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평균이었고요."

따로 말한 적은 없지만 신은 신인 탓에 태양신은 '지오' 중에 한국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한국이 유독 매운맛에 강하다는 속설 때문에 이런 대치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우리가 왜 이 따닷하고 맛난 밥상 앞에서 이런 가혹한 시련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까...?"

늘 그렇듯 지오의 요리는 끝내줬다.

적당한 타이밍에 투척해 말랑촉촉하게 익은 몽둥이나팔은 뽀얀 색감을 자랑하고 있었고, 마늘의 혼이 깃든 올리브유는

은하수메리와 울음자락과 함께 조화를 이루었다.

또한 태양신이 온기의 가호를 내려 자르고 지오가 화덕에 한 번 구운 빵은 고소한 향을 아낌없이 내뿜고 있었다.

“거기에 온화한 봄바람에 살며시 말려둔 훈제 생선의 포까지 더해 이 얼마나 소담하고 완벽한 식탁입니까. 특히 이 생선포를 말랑하고 쫀득한 것이 바삭한 바게트 위에 올려놓고 감바스 오일 한두 방울 떨어트린 다음 잘 삭힌 케이퍼까지 올려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식욕에 대고 호소하는 돼지의 진심이 통했는지 허니와 곰인형이 주춤하는 게 느껴졌다. 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허니와 곰인형을 각자 식탁 위에 앉혔다.

“일단 먹고 합시다. 아무리 매운 게 싫어도 따끈따끈한 식탁 앞에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식재료를 향한 모욕이자 요리사인 저를 향한 비난이라는 겁니다.”

“꾸륵….”

“꾸우….”

“다나도 이미 가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들 이렇게 망설이실 겁니까? 허니, 나는 너를 그렇게 나약하게 키우지 않았다. 아버지, 인간들의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오는 간신히 둘을 설득할 수 있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요, 매운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애초에 먹어보지도 않아놓고 피하기만 하면 경험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꾸우우.”

“물론 매운맛은 맛보다 통각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도 그조차 미식의 한 경험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강 촉감 또한 식사의 한 갈래입니다.”

눅눅해진 군만두나 딱딱한 푸딩 같은 건 먹기 싫은 것과 같았다. 음식에는 그와 가장 잘 어울리는 식감이 존재했고, 그 형태에 어울리는 맛과 향이 존재했다. 지오는 이 맵찔이들을 가만둘 수가 없었다.

“아니 그보다.”

지오는 다시 한번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맵다니까요?”

“…….”

“다나 너까지 이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건가.”

아무튼 식사는 진행되었다. 허니와 태양신 모두 은근히 거부감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애초부터 식사를 아예 안 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맛있는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 피할 수 있을 리가 있나.

지오는 겁 많은 맵찔이 아들을 위해 연어 바게트를 만들었다.

“바게트 위에 잘 익은 브로콜리랑 마늘 올리고… 토마토도 즙이 나오도록 넓게 뭉개고… 그 위에 훈제 생선 올린 다음… 치즈꽃을 올려두면, 짠.”

지오표 연어 바게트가 완성되었다.

“치즈꽃을 키워두기를 잘했네.”

유성운과 함께 방문했던 식당에서 처음 마주쳤던 이 치즈로 된 꽃. 엄연히 어딘가의 던전에서 자생하는 식물인 덕분에 그 씨앗을 받아 올 수 있었다.

역시나 숲의 영향을 받았는지 진달래에서 나팔꽃 정도로 진화했지만, 그 깊은 맛과 향은 그대로였다.

“이렇게 치즈랑 같이 먹으면 훨씬 덜 매울 거다.”

“꿍….”

덥석.

허니의 몸에서 바게트가 스르륵 녹아내렸다.

“…꾸르.”

“맛있지.”

“꾸르르르르르르.”

“다행이군.”

가장 첫 번째로 먹었던 음식의 인상으로 그 이후의 미식 로드가 결정되기 마련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매운맛’에 안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다.

“적당히 매콤해서 괜찮지?”

“꾸륵꾸륵.”

“그래, 뭐든 시도해 봐야 아는 거다.”

지오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바게트를 만들어 먹었다.

“음.”

자칭 야매 미식가의 이름으로 인정한다.

“좋네.”

“꾸룽.”

맛있었다.

‘나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매웠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교통사고 수준의 매운맛은 지양하지만, 살짝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수준이라면 적당한 자극이 될 수 있음을 아는 지오였다.

훈제 생선이니 치즈꽃이니 브로콜리니, 전부 순한 맛이라 조금 심심하게 느껴지기는 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제법 괜찮아.’

은하수메리 특유의 매콤하고 알싸한 향이 입천장을 툭 치고 지나가는데, 혀가 얼얼할 정도는 아니라 기분 좋은 향기로 넘길 수 있었다. 허니도 이 점에서 합격점을 내린 듯했다.

‘브로콜리도 적당하게 익었어. 너무 오래 익혔으면 눅눅하게 늘어져서 식감이 이상했을 텐데… 유독 탱글탱글한 토마토도 가열한 덕분에 부드럽게 뭉개지고.’

브로콜리, 마늘, 토마토 모두가 매콤한 오일을 머금은 탓에 살짝 매워지는가 싶기는 했다.

하지만 그럴 때 즈음에 입안으로 함께 들어온 치즈꽃이 채소보다도 훨씬 부드럽고 비단결같이 퍼지며 얼얼한 감각을 진정시켰다.

특히 훈제 생선이 타들어 간 나무 특유의 고급스러운 향을 내며 더욱 조화로운 맛을 냈다.

“…여기에 관자를 넣어도….”

“꾸우?”

“아, 예, 관자도 특별히 맵지는 않을 겁니다.”

태양신도 이 정도 매운맛은 맛있다고 느꼈는지, 은근슬쩍 지오에게 선드라이 토마토가 들어간 바게트를 내밀었다. 관자

를 넣어 바게트를 만들어 달라는 의미였다.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자마자 실험해 보려고 하다니, 훌륭한 돼지의 자질이 보이는군.'

선드라이 토마토가 들어간 바게트. 이미 햇볕에 잘 말린 토마토 특유의 달콤새콤함이 존재한다. 굳이 오일에 빠진 토마토는 넣지 않고, 브로콜리와 마늘, 그리고 관자만을 올려 바게트를 만들어 주었다.

"한번 드셔보시고, 조금 맵다 싶으면 여기 치즈를 함께 곁들여서 드시면 됩니다."

"꾸…."

와구.

곰인형의 커다란 입안으로 바게트의 반쪽이 사라졌다.

"……."

"……."

"꾸꾸꾸…."

기분 좋은 웃음을 보니 지오의 선택이 만족스러운 모양이었다.

"……."

"므앙."

"…재주가 좋구나."

다나나 허니는 손이 없어 조금 걱정했지만, 용케 입이나 발을 이용해서 잘만 조합해 먹고 있었다. 지오는 뿌듯함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제가 알아서 조합해 먹기 시작하는 가족들을 보았다.

"흠…."

나중에 말린 무화과가 들어간 빵도 만들어볼까.

"미리 빵을 만들어두니 역시 좋군요."

"꾸우우."

"맞습니다, 에들런 마을에서는 이게 일상이었죠."

빵이 주식인 지역이었던 덕분에, 아무리 해안가 마을이라고 해도 여기저기 빵집이 참 많았다.

"꾸우?"

"예, 화덕이 없는 집안도 많았습니다."

"꾸?"

"그럴 때는 마을 공용 화덕을 이용하던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가정은 빵집을 애용했죠. 아무튼 식사가 차려질 때마다 기본적으로 빵은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꾸꾸꾸."

"예상하신 대로 저는 집에서 직접 빵을 굽는 것을 선호했죠."

에들런 마을에서 빵이라 하면 한국의 쌀과 같은 느낌이라, 빵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빵만을 판매했다. 스튜에 찍어 먹는 것이 일상이었던 탓에 말린 과일이나 견과류를 넣어 파는 곳은 거의 없었다.

"직접 빵을 구우면 이런저런 시도를 해볼 수 있었으니까요. 가끔은 다진 소시지나 생선을 넣고 구워본 적도 있었습니다. 에들런 마을의 수산물은 수준이 높아 어떤 식으로 활용해도 먹기에 퍽 부담스럽지 않았고요."

그때를 떠올리니 뭔가 의욕이 샘솟았다.

“역시 미리미리 빵을 구워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꾸르르르르.”

“그래, 그래야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꺼내 먹지.”

반죽하고 굽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빵이다 보니, 에들런 마을의 사람들은 날을 잡아 한 번에 대량으로 빵을 준비한 다음 그것으로 한 달 가까이를 버텼다.

‘당연히 빵이 굳고 퍽퍽해졌지만, 매일 따듯하고 촉촉한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귀족의 특권이었고... 어차피 딱딱하고 마른 빵은 스튜에 찍어 먹으면 그건 그거대로 맛있으니까.’

오히려 퍽퍽하게 굳은 빵과 국물이 많은 스튜는 조합이 잘 맞았다. 다들 그렇게 먹다 보니 식당에서 시키는 스튜는 국물만 먹기엔 조금 짠 수준으로 나왔고, 대신 함께할 빵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 숲의 장점은 완전히 성장한 채소나 조리된 음식이 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넉넉하게 빵을 구워도 언제나 갓 구운 상태처럼 유지가 될 테니, 부지런히 빵을 구워 비축하면 틈틈이 먹을 수 있을 것이었다.

“식사용 빵 말고도 다른 빵도 구워보면 그것도 꽤....”

“앍옹.”

“작고 동글동글한 빵? 먼치킨 도넛도 괜찮겠네.”

슈가 파우더에 우유를 살짝 넣고 빵 위에 씌우면 훌륭한 글레이즈 도넛이 완성된다. 지오는 달콤한 빵도 몇 개 만들어 둬야겠다고 생각했다.

“자, 여기서 파스타 면을 사용합니다.”

적당히 빵이 소비되었다고 느낄 즈음, 지오는 미리 준비해 둔 파스타 면을 꺼내 들었다.

제 개인 접시 위에 탱글탱글하게 익은 파스타 면을 두고는 거기에 각종 채소와 오일 몇 스푼, 관자와 다나가 챙겨 온 소시지까지 넣었다.

“치즈를 넣으면 이건 이거대로 맛있겠는데.”

“꾸륵.”

“너도 줄 테니까 잠시 기다리고, 이건 오일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매울 수도 있어.”

“꾺.”

“용감해졌구나. 역시 아이들은 어느 순간 성장해 버린다니까....”

뜨끈한 오일에 면을 비벼 적당한 온도로 만든 지오가 후룩, 맛을 보았다.

“좋네.”

아주 마음에 들었다.

“빵만큼 오일의 매운맛을 잡아주지는 못해서, 아마 이게 조금 더 매울 거다. 혹시 모르니까 치즈꽃을 함께 올려서 먹도록 해.”

“꾸르르르르.”

“아버지도 필요하십니까?”

지오의 질문에 곰인형이 고개를 저었다. 딱히 면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아직은 빵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종류로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 같았다. 지오는 그런 그의 신념을 긍정해 주었다.

허니가 먹는 것을 덩달아 궁금해하는 다나의 앞에 파스타를 덜어준 지오가 다시 제 것을 먹었다.

“…….”

우물.

역시 좋았다.

‘오일 향이 더 강해져서 얼얼하기도 하고….’

지오는 제 몫의 파스타 위에 갈아둔 은하수메리를 살짝 더 뿌렸다. 특유의 강렬한 향이 확 퍼지고, 거기에 더해 매콤한 소시지까지 함께 먹으니 그 육즙까지 포함해 그 맛이 매우 뛰어났다.

‘소시지는 한번 굽기를 잘했다.’

뽀득한 껍질 안의 촉촉한 속살은 알알이 그 육질이 씹혔고, 거기에 오일이 잔뜩 묻어 매끌매끌한 면발은 풍미와 식감을 더해주어 식욕에 불을 질렀다.

소시지가 아닌 관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몽둥이나팔과 함께 먹어도 색다른 맛이 나니 질릴 새가 없었다.

지오는 미리 타두었던 달콤한 망둥 열매 차를 마시고는 입을 열었다.

“…하아….”

만족스러운 한숨이 절로 흘러나왔다.

이게 행복이지.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00)"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01)

제101화

B급 헌터.

“.......”

개나 소나 각성만 하면 헌터가 될 수 있는 세상이라지만, 그렇다고 B라는 등급이 낮다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는 태생부터가 1등급 시민인 것이다.

“.......”

단순히 도시에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지키기에 1등급이라 평가를 받는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어디를 가나 우대를 받고 존경을 받았다. 이 세상에 1등급 시민이란 그런 존재였다.

“.......”

그건 강한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한 일이었다.

“...어....”

고작 3등급 시민 하나 내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들 정도로는 말이다.

“...뭐, 뭐야... 여기 어딘데.”

비틀....

힘이 들어가지 않는 몸을 간신히 일으켰다.

“대체...?”

1등급 시민이자 B급 헌터인 박은겸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던전인가?”

헌터로서의 경험이 적다고는 못할 그가 이런 뻔하고 멍청한 의문을 품는 이유가 있었다.

“이런 던전이 있다고?”

온통 무채색이었다.

쨍한 하얀색. 무저갱 같은 검은색. 옅은 회색. 조금 진한 회색. 검정에 가까운 회색.

하얀색에 가까운 회색. 유리처럼 번들거리는 회색. 살아 숨 쉬는 것처럼 일렁이는 회색. 회색. 회색.

남자는 회색 도시 한가운데에 떨어져 있었다.

“…….”

폐에 솜이 가득 차기라도 한 것처럼 숨이 턱 막혀와 남자는 저도 모르게 가슴팍을 더듬었다.

이성적으로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아니, 무언가가 찬 느낌이 아니다. 이건….

“…이, 이게 뭐야….”

소름 끼칠 정도의 탈력감. 그 어디에도 힘을 줄 수가 없었다. 온몸의 근육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았다.

“여기 어디냐고.”

아예 폐라는 기관 자체가 사라져 버린 듯 허했다. 말을 하고 있음에도 혀가 없어진 것 같고, 성대는 울리는지를 모르겠고, 내 목소리조차 듣는 게 듣는 것이 아니었다.

“…대체….”

위화감을 느낄 만큼 이 공허함은 점차 온몸을 잠식해 갔다. 누군가가 귀 옆에서 ‘마땅히 그래야 한다’며 속삭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변화였다.

곧 죽을 사람처럼 숨이 덜컥덜컥 끊기는 것으로 시작해 숨구멍이 사라진 것 같았고, 쿵쾅거리던 심장이 이 기이한 공포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고요했다.

심지어는 손끝의 온기마저 사라져 간다.

“말도 안 돼, 마, 말도….”

주춤거리며 남자가 빠르게 주변을 눈에 담았다.

여기도 회색. 저기도 회색. 이쪽도 회색. 저쪽도 회색이다.

건물은 재미없고 단순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서울 특유의 곡선을 살려 감성적으로, 또 아주 길쭉하거나 매우 짧게도 만들었다.

‘만들어?’

누가 이것을 만들었단 말인가?

‘여긴… 여긴 던전이다. 그래, 던전이라고.’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너무 많은 것이 텅 비어 있었다.

이 빌어먹을 회색 도시는 더럽게 넓어 보였고 건물 수도 많은데 그 어떠한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세상천지 어느 던전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적의마저도 느껴지지 않아.’

몬스터가 절 죽이러 달려오는 것이 공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광대한 던전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본다는 것이 공포였다.

그것은 그저 남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

무서워.

무서워?

무서운가?

‘…감정 하나조차도 판가름이 안 돼….’

처음에는 내쉬는 숨이었다.

다음에는 폐로부터 뻗어 나간 장기와, 그에 기인한 온기였다. 그다음은 감정이었다.

“으, 으으….”

그다음은 어디일까?

점점 ‘박은겸’이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있었다.

“…으윽!”

빠르게 고개를 털어낸 남자가 제 손을 주물럭거렸다.

‘이상한 생각 하지 마, 사라지긴 뭐가 사라져. 이렇게 뻔히 손도 있고 차갑지도 않은데.’

이 모든 건 단순한 착각에 불과했다. 이 던전이 남자를 말려 죽이려는 세뇌이기도 했다.

이런 고요한 유형의 던전이 처음인 탓에 잠시 패닉이 왔지만 그렇게 호락호락 당해줄 그가 아니었다.

“여기가 던전이라면 어떤 던전이지?”

이동형인가, 고정형인가. 가상인가, 별장인가, 진입인가.

의식적으로 침착하게 심호흡하며 남자가 눈을 이리저리 굴렸다.

“내가 분명, 그… 그 손에 이끌려서….”

자세한 과정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보석의 수맥’에서 어떤 액자와 마주쳐, 그 안에서 기어 나온 투명한 손들에 의해 억지로 끌려왔다는 것만큼은 기억했다.

마음을 다잡으며 생존을 도모하던 남자의 표정이 금세 형편없이 뭉개졌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절망과 공포였다.

“…….”

액자로 끌려오던 순간을 떠올린 것이었다.

“…흡….”

마치 제 몸이 물감이 되어 흘러내리듯 하던 감각이 선연했다.

‘…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지금 같은 상황에 더 패닉에 빠져서는 생존율만 낮아질 것이고… 그래,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신을….’

강제로나마 자신을 다잡으려 했지만 쉽지가 않았다.

그건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다. 고통스러웠던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평온했던가? 아니, 그렇지는 않았다.

투명한 손에 잡혀 와 액자에 가장 먼저 잡아먹힌 발부터 차례차례 밀랍처럼 느릿하게 녹아내리던 그 감각. 그 고통.

살아 생각할 수 있는 액체가 되었던 그 기분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

그 고통에 정신을 잃어 여기까지 저항도 못 하고 와놓고서는….

“…….”

그래서.

“…….”

어떻게 하려고 했더라.

"…아, 아, 아."

털썩—!!

비틀거리던 남자가 뒤로 주저앉았다.

"으아…."

이제는 생각마저 이 공허 속에 사라지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이 던전이 정확히 어떤 던전인지는 모른다.

그가 알던 던전들과는 구조가 비슷할 수는 있어도 전혀 달랐다. 그래도 B급 헌터라고 본능적으로 남자는 이 던전이 돌연변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니 더더욱 살아 나갈 확률이 낮겠으나, 그래도 상관없었다. 정확히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가까웠다.

고통과 공포에 이어 아무런 생각조차 못 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남자는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려고 노력했다.

"일어나, 일어나자. 일어나서…."

왜인지 아까부터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아직 각성하지 않았던 시절, 막 자고 깨어났거나 너무 강렬한 감정에 잡아먹혀 무너졌을 때와도 비슷한 감각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소름 끼쳤다.

'이 던전이 내가 마땅히 낼 수 있을 힘마저 빨아먹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몇 번인가 벌레처럼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던 남자가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짙은 회색의 아스팔트 바닥에 몸을 몇 번이고 비벼댔던 탓인지 온몸이 검댕투성이였다.

아니, 그보다는 물감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았다.

'물감?'

그제야, 그리고 아주 뒤늦게, 남자는 자신이 누구의 던전에 와 있는지를 깨달았다.

"…검은망토…."

최근 아주 유명한 이야깃거리가 아니었던가.

"…검은, 검은망토…!! 그래, 그 새끼가…!! 그 몬스터 새끼가!!"

이런 던전에서도 몸에 밴 깊은 오만과 넘치는 화는 가려지지 않았다.

비루먹은 개처럼 질질 끌려와 이렇게 비참하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 개같은 몬스터 새끼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고작 짐승처럼 천박한 몬스터 따위가 인간에게 이런 짓을…!

"시발, 시발, 시바알!! 기껏해야 되지도 않는 선물이나 뿌리고 다니는 하찮은 몬스터 주제에…!!!"

그는 제가 무어라 소리치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아마 조금 더 아는 것이 많고 역량이 좋은 헌터였다면 이곳이 '검은망토'의 배 속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최대한 겸손한 모습을,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인간이었다면 애초에 왜 '공허의 도시'가 박은겸이라는 사람을 끌고 왔겠는가.

지오의 자식들은 제 어버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바로 이런 주제도 모르는 존재들이었다.

“허억, 헉… 흐윽….”

한참이나 발악하던 남자가 덜덜 떨리는 발을 옮겨 조금씩 자리를 벗어났다.

그래봤자 온통 같은 광경처럼 보이지만, 어디든 던전에는 출입구가 있기 마련이었다. 나갈 방법이 없는 던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건 던전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러니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 그러면서도 의문은 계속 남아 있었다.

‘검은망토가 대체 왜?’

비록 헌협 홈페이지의 대응 등급은 상당히 높게 조정이 되었지만, 그 정보를 관리하는 놈들도 죄다 인간인데 조금 과하게 조심한 걸 수도 있지.

설명은 주의를 기울이라느니 뭐라느니 하지만 실상 검은망토가 인간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었다.

‘대뜸 자리를 비운 탓에 죽어나간 병신들이 몇 있기는 하지만….’

잠시 ‘심해의 나라’를 떠올렸던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어.’

그가 아는 ‘검은망토’는 대뜸 튀어나와 음침하게 인사하고 선물이나 준 다음 사라지는 병신 같은 몬스터였다.

하도 하찮아서 그런지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 ‘검은망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는 헛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그런 몬스터가 대체 왜 나를?’

힘겹게 발을 하나씩 옮기고 있을 때였다.

“…….”

멈칫—.

남자의 몸이 굳었다.

“…….”

기름칠 안 된 경첩처럼 삐거덕거리는 턱을 무시하고,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다.

“…….”

“…….”

정장이 서 있었다.

“…뭐….”

“…….”

“뭔데.”

아주 새까만 정장이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지하실의 그림자를 본뜬 듯한 색감. 셔츠마저도 검은색인 그것은 답답하게 보일 만큼 단추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채웠다. 광이 나지 않는 검은 구두는 왜인지 단단해 보이기도 했다.

그것은 뒷짐을 진 채로 그저 가만히 남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응시?’

얼굴도 없는 저것을 보며 대체 무슨 소리를 지껄이고 있단 말인가?

‘아니, 애초에… 나… 왜….’

뒤에 저것이 있는 줄 알았지?

“…….”

기척조차 느끼지 못했음에도 남자는 뒤에 ‘정장’이 있음을 알았다.

“…아….”

텅 비어가는 뇌 사이로 대체 어떤 먹물이 흘러 들어온 건지. 내가 지금 대체, 뭐가 되어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저, 저리 가.”

“…….”

“저리가, 이 몬스터 새끼. 이거, 이거 그냥… 내가….”

“…….”

“내가 확 그냥….”

시야에 정장을 둔 채로 남자는 주춤거리며 물러났다. 이러다 보지 못한 사이 뒤에 또 다른 정장과 마주쳐 몸이 부딪힐까 봐 수시로 후방을 확인했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

물러서는 사이 처음 보았던 정장이 가까이 오지도 않았다.

“…….”

“…….”

한참이나 움직였음에도 정장은 여전히 가만히 있었다.

마음을 먹은 남자는 그 순간 재빨리 뛰어 그 자리를 벗어났다.

“흐익…!!”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고 까슬까슬한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졌지만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흐악, 헉, 흡…!!”

그렇게 달리고 있자.

“악…!!!”

“…….”

“아, 아윽. 윽…!!”

또다시 눈에 새까만 정장이 들어왔다.

그것은 뒷짐을 진 채로 천천히 길을 걷고 있었으나, 틀어진 몸의 방향으로 그것이 남자를 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치 출근을 하는 사람처럼 적당한 속도의 걸음걸이가 참을 수 없는 위화감을 주어 남자는 비명을 애써 삼켰다.

그럼에도 뛰었다. 넘어지고, 피부가 까지고, 또 달리고를 반복했다. B급 헌터인 그가 어째서 이따위 아스팔트 바닥에 고통을 느끼는 건지 분석할 여유조차 없었다.

‘미친…!!’

남자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정장과 마주쳤다.

왼쪽을 보면 새까만 정장이 있었다. 그것은 벤치에 앉아 달리는 남자를 응시했다.

오른쪽을 보면 조금 느리게 달리는 정장이 있었다. 그것은 역시나 남자의 방향으로 몸을 튼 채 그를 응시했다.

앞을 보면 두 개의 정장이 있었다. 그것들은 멈춰 서서 남자가 움직이는 것을 응시했다.

그러다 뒤를 보면.

“…….”

바로 뒤에서, 그 뒤에서, 조금 더 멀리에서, 그리고 골목에서, 건물 안에서, 유리창 너머에서, 옥상에서, 가로등 아래에서, 벤치 옆에서, 정류장 안에서, 편의점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걷고, 뛰고, 멈춰 서며 저를 응시하는 검은 정장들이 있었다.

“…….”

그러다.

앞을 보면…?

“…….”

앞을 보면.

어떻게 되지?

“…….”

남자는 제 몸 지척에서 숨결을 내뱉는 검은 정장을 느꼈다.

“으흑….”

고개를 다시 앞으로 돌릴 수가 없었다.

그것은 기척이 없었으나 존재감은 있었다. 그저 옷이 움직일 뿐임에도 그 안에 살아 있는 사람이 들어간 듯했다.

아니, 물론, 그것은 절대 사람이라 부를 수 없고 불러서도 안 될 테지만… 그렇지만.

“…흡….”

남자는 천천히 몸을 틀어, 느릿하게 주저앉았다.

“흐윽, 흐으으….”

볼품없이 쭈그려 앉으니 제 꼴이 보였다.

“흐아… 아으으윽… 으….”

사포질당해 쓰라린 피부에서는 피가 아니라 검은 물감이 묻어 나왔다.

“아윽….”

남자는 덜덜 떨리는 새까만 손으로 제 얼굴을 엉성한 손길로 더듬었다. 축축했다.

“…….”

고개를 돌려 건물의 유리를 바라보니 얼룩덜룩하게 새까매진 제 모습이 보였다. 마치 썩은 것처럼 더럽게 물든 검은색은 살점이 파인 구멍과도 같았다.

“…….”

황급히 더듬어 보아도 구멍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그림자였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제 몸을 연신 더듬다가, 마치 마르지 않은 타르가 묻은 듯 새까만 제 바지를 보다가, 그 안의 다리를 보다가, 그러다가….

“…….”

“…….”

“…….”

고개를 드니.

“와, 이 사람 좀 봐.”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다.

“왜 이렇게 얼룩덜룩하지?”

“온전하지 못하네.”

“그러니 미완성된 작품이라 할 수 있어.”

그건 박은겸,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는 어느새 자신을 둘러싼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새까만 정장 무리를 보았다.

“…….”

빈틈이 보이지 않을 만큼 꽁꽁 둘러싸지도 않았지만, 그 수가 적지도 않았다. 마치 심장 마비가 온 사람을 구경하는 시민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지독한 위화감에 치가 떨렸다.

“와, 이 사람 좀 봐.”

완전히 똑같은 음성.

“왜 이렇게 얼룩덜룩하지?”

“온전하지 못하네.”

“그러니 미완성된 작품이라 할 수 있어.”

완전히 똑같은 대사.

“…….”

그리고.

박은겸은 제 목을 더듬었다.

“와.”

“…—”

“이 사람 좀 봐.”

…말할 수 없었다.

“왜 이렇게 얼룩덜룩하지?”

“…….”

“온전하지 못하네.”

“…….”

“그러니 미완성된 작품이라 할 수 있어.”

“…….”

"……."

"……."

오

Chapter (101)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02)

제102화

“유성운 큐레이터.”

그냥 유성운은.

“이런 말을 하게 되어 대단히 유감입니다만….”

“야근인가요.”

“…….”

“야근이군요.”

올 게 왔구나 싶었다.

체념을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오른 유성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비사벌이 이내 척 엄지를 세웠다. 그는 그 나이대의 늙은 양반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큼한 윙크를 곁들였다.

“얼마면 될까요?”

“더러운 자본주의 사회 같으니.”

지금 시대에 법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 같은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그마저도 법으로 제정된 것은 전부 민간인 기준이라 일반 각성자도 아닌 공공연한 헌터라면 과로사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굴려졌다.

“후우….”

그리고 유성운은 자신이 이 사회의 톱니바퀴라는 걸 잘 아는 사회인이었다.

“예, 좋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달 월급을 기대하죠.”

“세상에 너무 멋있다 유성운 헌터! 완전 믿음직하다!”

“제발 이 이상 저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본론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럴까요?”

특유의 늘어지는 미소를 지은 비사벌이 이내 말을 이었다.

“지오가 사고를 쳤습니다.”

“…….”

호록….

달콤한 과일차를 마신 유성운이 물었다.

“깜찍한 수준입니까, 끔찍한 수준입니까.”

“아주 깜찍하던데.”

“길드장님 기준에서 끔찍한 수준이면 이미 제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럼 대체 왜 물어본 건지 의문이 들기 이전에, 유성운 씨? 나를 대체 뭐로 보는 거지? 종말을 예견하는 선구자?”

“인생을 어쩜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건지 놀랍기만 합니다.”

“즐기는 게 남는 거예요. 존경해도 좋습니다.”

“아, 예….”

유성운이 뻐근한 목을 문지르고는 다시 물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죠?”

“지오의 액자로 1등급 시민이 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1등급 시민이면 들고 일어날 등급 주의자들이 몇 있을 텐데….”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한 짓도 아니고 몬스터가 한 짓이니 조금 더 신경 쓰고 말겠죠.”

“그건 그렇습니다.”

인간들의 세상에서 1등급 시민이 상당한 우대를 받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1등급 시민이 몬스터에게 당할 시 동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1등급 시민의 대부분은 몬스터와 싸우고 다른 시민들을 지켜주는 대가로 그 권력과 명예를 얻는 셈이니 말이다.

“뭐, 지오가 몬스터는 아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알려지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길드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볼 줄도 모르는 이들에게 근원의 존재를 알려줄 필요는 없었다.

‘괜한 혼란만 가중되겠지.’

근원이 공식적으로 알려진다면, 그건 최소한 100년은 더 지난 후가 되어야 했다. 대재앙 이후 고작 31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은 시민들의 의식에 특히 부족한 점이 많았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지오가 끌고 갔다던 사람은 누굽니까?”

유성운의 질문에 비사벌이 제 턱을 쓸며 대답했다.

“B급인 박은겸 헌터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헌터들 이름 좀 외우고 그러세요, 나름 순위권 안에 있는 헌터던데.”

“전체 순위권이요?”

“국내.”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비록 A급 헌터이기는 해도 유성운의 직업은 수집상의 큐레이터이자 비밀스러운 정원의 관리자였다.

기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 대상이라면 모를까, 그의 모든 관심은 근원으로 향해 있었다.

“국내 헌터 순위를 알아서 어디에 쓴다고요.”

한마디로 근원, 혹은 A급 헌터의 기본 소양이 아니라면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는 척하는 데에 쓰일 수는 있죠?”

“중요한 A급은 대략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아래 등급까지도 신경 써주세요, 아무리 비공인 헌터라지만 그러다 욕먹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은 잘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앞에서 모르는 티를 내지는 않잖습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헌터가 일종의 연예인처럼 취급되고 있는 세상이라 그런가. 어지간한 캐릭터성이 있지 않고서야 사람들은 매체에 나오는 헌터가 언제나 겸손하고 완벽해 보이기를 원했다.

모든 헌터들의 이름을 알고 존중해 주는 이미지는 그런 ‘완벽’에 속했다.

물론 유성운은 비사벌의 수집품인 데다, 사적으로 일할 시간이 많아야 할 정원사인 탓에 본인의 의지로 매체에 자주 등장하지 않았다. 본인이 알아서 잘하고 있다면 굳이 비사벌이 신경 쓸 일은 아니었다.

“하긴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헌터는 아니었습니다.”

“그 박은겸이라는 헌터 말입니까?”

“본인은 위로 올라가려는 욕구가 충만했던 것 같지만, 글쎄요. 요즘 사람들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헌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작금의 헌터는 모름지기 이미지 관리가 중요했다. 그런 이미지가 필요 없을 정도가 되려면 S급이 되어야 하는데, 헌터가 어렵지 않게 배출되고 있는 현세대임에도 그만한 등급의 헌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이번에 지오에게 납치된 헌터는 당연히도 그만큼 능력이 좋지 않았다.

“전형적인 B급입니다. 꽤 괜찮은 적성 스킬을 타고나 그럴싸한 등급을 얻었지만, 딱히 외적인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교성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다 외우고 계셨군요,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던 헌터도 아니었을 텐데.”

“대한민국의 헌터라면 전부 기억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한량처럼 보여도 어엿한 국내 3위 길드의 우두머리가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니라 머리로 승부를 보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흐음.”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한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막 헌터 협회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비사벌은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했다. 헌터 협회가 이번 지오의 사고에 어떤 식으로 반응했고 얼마나 소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는지. 그리고 지오가 일으킨 사고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를 말이다.

"…해서, 지금까지도 그 박은겸이라는 헌터는 발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오의 액자 안으로 끌려갔다면 그럴 만도 하죠. 그 안이 어떻게 돼먹은 상태인지는 저조차도 모르는데요."

턱을 짚은 유성운이 앓는 소리를 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소리가 날 만한 소동은 아니라는 건가."

일단 지오가 워낙 소리 소문 없이 사고를 친 덕분도 크고.

"무엇보다 헌터 협회의 태도가 인상적이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사벌도 동의했다.

"소란을 키울 생각도 없고, 우리 초상화의 심기를 거스를 생각도 없지만, 그럼에도 이번 '검은망토'의 사고를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결정이죠."

굳이 직접 지목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조사'를 '요청'했다. 지오가 비사벌의 수집품임을 아는 협회장이라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렇다면 단지 소극적일 뿐이냐? 그건 아니었다.

"다른 곳도 아니고 3대 길드 전체에 도움을 요청하다니."

대한민국를 대표하는 세 길드가 있었는데, 비사벌의 '수집상'은 그중 3위였다.

"그렇다면…."

"협회장님까지 합쳐 '영원의 상징'이 모두 모이는 셈이죠."

"바로 그겁니다."

영원의 상징.

한국 헌터 협회장인 단해라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1위 길드장과 2위 길드장을 통칭해 이르는 말인데, 문자 그대로 영원을 상징하는 위인으로 기록된 사람 셋을 수식하는 단어였다.

비사벌이 한국의 자본을 책임진다면 2위 길드장은 민심을, 1위 길드장은 안전을, 헌터 협회장은 전반적인 행정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이들을 주축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뭐, 물론 저는 '영원의 상징'이 아니지만?"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사벌은 스킬의 경지가 높은 덕분에 노화가 느려지고 있는 것이지 그들처럼 영원의 약속을 맺지 않았다. 해준다고 해도 안 했을 것이다.

"그래도 나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저를 포함해 대한민국의 3대 길드장 모두에게 연락을 넣은 듯하니, 이것만으로도 협회장님께서 '지오의 초상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비사벌의 말에 유성운이 조금 떨떠름해진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왜 지금 물어봐요."

"말려들기 싫었지만, 이미 말려들어 버린 것 같아서 지금 여쭤봅니다."

"현명하군요, 역시 내가 직접 모셔온 유성운 큐레이터야."

"다 직접 모셔 왔으면서 무슨… 아무튼 말입니다."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애초에 협회장님께서는 왜 ‘지오의 초상화’를 탐내셨던 겁니까?”

그가 알기로 국내의 몇 안 되는 S급인 단해라 협회장의 주력 스킬은 ‘감정’ 따위가 아니었다.

비사벌만큼이나 그 낯선 초상화의 본질을 느낄 수 있지도 않았을 텐데, 왜 한국의 자본을 담당하는 비사벌과 겨룰 만큼 공을 들였단 말인가?

“협회장님께서 경매장에 자주 들르시는 건 압니다. 그만큼 사들이는 물건도 많고요. 하지만 이번의 초상화만큼의 열과 성의를 보여주신 적은… 거의 없었잖아요?”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비사벌이 알 수 있던 유일한 것은.

“…….”

그 눈동자에, 드물게 감정이 어렸다는 것이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국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단해라 협회장은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경매품 하나에 희미하게나마 감정을 드러냈다니.’

솔직한 심정으로는 비사벌 스스로도 제 판단을 의심했다.

“뭐, 글쎄요.”

“모르십니까?”

“나라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아닌 것처럼 사시잖아요.”

“그게 내 이미지 장사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 머리 아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협회장이 왜 ‘지오의 초상화’를 노렸는지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다. 최소한 비사벌에게는 그랬다.

“저야 잘은 몰라도, 협회장 눈에만 보이는 뭔가가 있었을 수는 있지요.”

“…….”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샜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오의 초상화’가 아닌가.

“예상하신 바와 같이 헌터 협회에서는 ‘검은망토’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그 이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마 적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최대한 공존 가능한 태도를 유지하겠죠.”

“…일단 과격한 접근으로 지오가 화를 낼 일은 적어지겠군요. 최근 과하도록 ‘검은망토’의 이미지가 친근해진 것 같아 앞으로 늘어날 허튼수작들을 걱정했는데, 협회에서 인지를 했다니 다행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3대 길드장이 모두 그 공문을 받았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협회장의 부탁이니 나머지 두 상징도 ‘검은망토’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노력하겠죠.”

“특히 그런 방면으로 특화되어 있는 상징도 있으시니 그 부분은 이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수

집상에서 얼마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냐, 는 점이군요.”

한때 협회의 연구 팀장이기까지 했던 유성운은 나라 돌아가는 일에 그리 무심하지만은 않았다.

30번 꼬아 말해도 알아들을 재주는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눈치를 주면 유성운으로서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

그리고, 어차피.

“…지오는 제 담당이죠.”

유성운이 아니면 이번 일을 맡을 사람도 없었다.

“일단은 좀 돌아 돌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지오에게 묻지 않고요?”

“…지오가 근원의 존재치고 인간에게 호의적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 일은 상황이 좀 다르잖습니까.”

“하긴 처음으로 호의가 아니라 적의를 드러낸 사건이죠. 공문에 나와 있기로 본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데,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오가 ‘악인’이라고 판단한 인간을 구하려고 하면 더 큰 적의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묻기보다는, 일단 피해자가 끌려갔다는 액자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뻐근한 목을 주무른 유성운이 물었다.

“혹시 그 액자에 대한 단서는 없습니까? 사진이나, 그림이라든가… 특징을 알면 좋겠는데.”

“‘보석의 수맥’이라는 던전에서 처음 발견되었다는 것과, 또….”

비사벌이 협회의 공문을 보여주었다.

“회색 도시를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

보기만 해도 공허함이 느껴지는 액자라 목격자가 증언했다고, 공문에 적혀 있었다.

그것을 지그시 바라본 유성운이 입술을 우물거렸다.

“…아직까지도 ‘심해의 나라’에서는 종종 ‘숨 쉬는 바다’라는 액자가 목격되고는 합니다. 감정 스킬을 가진 헌터가 확인한 것이니 틀림없어요.”

“그것도 지오가 만들어낸 것이겠죠?”

“예, 맞아요. 그나저나 제 마음대로 던전을 그려내는 화가라니….”

조금 질리는 기분이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궁금했다.

유성운다운 생각이었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02)"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03)

제103화

과연 상관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보석의 수맥'은 유성운이 지오에게 알려준 던전 중 하나였다.

"괜히 정보를 넘긴 셈이 된 건가."

안 그래도 그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지오의 초상화'였다.

그런 그에게 지구와 연결된 인적 드물고 흥미로운 던전 여럿의 정보를 넘긴 건, 배고픈 호랑이에게 마을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시간문제였겠지."

유성운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

'비사벌도 동의한 내용이고.'

무엇보다 그는 인간이지만 온전한 인간의 편이 아니었다.

가장 좋은 정원사는 방관자라는 말이 있다. 정말로 방관만 해서는 안 될 테지만, 그들의 사명은 근원과 그들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것.

아주 어릴 적부터 정원사로 선택받은 유성운은 생명이 피고 지는 사건에 무던할 줄을 알았다.

'게다가 지오는 지구를 잘 알고 있다.'

유성운은 지오가 활동하는 시기를 앞당겼을 뿐, 지구 곳곳에 등장해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초상화의 행적은 예정된 일이었다.

"아직 경복궁 조사도 다 안 끝났는데, 뭘 마무리하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니 이거 원...."

유성운은 눈이 내려앉은 벤치에 앉아 턱을 긁적였다.

"...오늘이 크리스마스던가."

원래라면 지오에게 찾아가 연말을 즐길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려 했는데.

"지금은 힘들겠네."

하필이면 이런 연휴에 야근을 확정받은 유성운도 참 현대인의 슬픈 모습이었다. 뻐근한 목을 주무른 유성운이 느릿하게 한숨을 뱉었다.

그가 모시는 정원의 의지에 따라, 입김은 나오지 않았다.

"좋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목격자와의 면담이었다.

* * *

F급 헌터.

건강한 수준의 성인 남성 민간인보다 조금 더 강한 수준의 각성자.

던전에 들어가면 높은 확률로 죽게 될 걸 알면서도 헌터증을 발급받은 이들은, 흔히 '짐꾼'이라는 포지션을 맡았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후 헌터."

"오늘 오시겠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

유성운이 찾은 '목격자'는 선한 인상의 짐꾼이었다.

"그… 검은망토에 대해 듣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정확히는 그날 목격하신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통화로 말씀드렸지만, 그날 상황은 협회 직원분께도 전달을 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선후 헌터께서 본 액자에 대한 정보라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는 난감해하면서도 유성운을 집 안으로 들였다.

"좀 누추하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대뜸 찾아온 건 저인데요."

유성운은 목격자가 보이는 얕은 거부감을 이해했다. 대체로 3등급 시민은 저보다 높은 등급의 시민을 보면 껄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컸다.

'등급 갈등이 큰 시대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목격자는 따듯한 녹차까지 내오며 유성운을 대접했다.

'지오가 좋아할 만한 인상이군.'

예의 바르고 선한 인간을 좋아하는 초상화가 떠올랐다. 굳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 이유에 분명 이선후라는 사람의 됨됨이가 마음에 들었던 점도 있었을 것이다.

"따듯하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밖에 드릴 게 없어서 뭔가 죄송하네요."

"대화에 응해주신 것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

유성운은 가벼운 대화를 이어가며 목격자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다행히도 1등급 시민에게 악감정을 가진 유형은 아닌 듯, 목격자는 금방 유성운을 향한 경계를 풀고 착실히 대화를 이어갔다.

녹차가 거의 식을 때가 되어서야 본론이 나왔다.

"그때 제가 본 액자가 궁금하셨다고요?"

"'숨 쉬는 바다'에 이은 검은망토의 새로운 작품이니까요."

“아, 저도 그 부분은 놀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새 작품을 그려낼 줄은 몰랐거든요….”

“큐레이터 일을 하며 이것저것 연구하다 보니 관심이 가더라고요.”

유성운은 굳이 실종된 박은겸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내 목적은 박은겸이라는 인간을 구하려는 것보다 검은망토가 어떤 식으로 적의를 드러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 더 크지만… 어찌 되었든 당사자에게는 썩 좋게 들리지는 않겠지.’

만약 박 헌터가 살아 있다면 그를 구해 오는 것도 유성운의 의무 중 하나였다.

이번 실종자에게 버려지고 심지어 학대까지 당했던 사람에게, 그를 구하거나 혹은 시신을 수습해야 하는 유성운의 의무를 들려줘서 좋을 것이 없었다.

‘…다만 흥미가 가는 건 역시, 검은망토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라는 점일까.’

목격자는 ‘또 새 작품을 그려낼 줄 몰랐다’라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건 마치 좋아하는 작가가 갤러리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의 모습과도 비슷했다.

“…….”

이렇게 ‘지오의 초상화’가 화가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될 줄은 몰랐네.

‘지오야, 너 팬 생겼다.’

묘하게 검은망토를 우상시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겨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따로 만나보거나 대화를 나눠볼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직접 확인하게 되니 기분이 묘했다.

그런 유성운의 생각을 모르는 목격자가 물었다.

“검은망토는 계속 그렇게 작품을 그려낼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고개를 끄덕인 목격자가 말을 이었다.

“그날 제가 본 작품은 회색빛의 도시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색감이 많이 투명했던 걸로 보아서는 아마 수채화 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정말로 어느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듯했다.

“사실 척 봤을 때 회색이라고 판단하기는 했지만 아예 회색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보다는 완전한 무채색의 작품이었다고 봐야겠죠. 신기했어요, 그려진 도시의 건물 형태도 다채롭고 유리창이며 뭐며… 대단히 선명한 묘사였는데.”

“쉽게 뭉개지고 흐린 색감의 수채화로 선명한 묘사라니 놀랍군요.”

“완전한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었어요. 빨간색이나 노란색처럼 강한 색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리 눈에 확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목격자는 나름 미술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인 듯했다. 전문가 수준이라고는 절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작품을 제 나름대로 보고 즐길 수는 있는 정도라고 해야 할까.

‘그래서 더욱 검은망토에게 호의적인 걸지도 모르겠어.’

생각을 정리하며 유성운이 물었다.

“그런 작품을 봤다니 부럽군요. 혹시 ‘보석의 수맥’ 이외의 장소에서 다시 본 적은 없으십니까?”

“아… 그게,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저도 그날 던전에서 한 번 마주친 게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금방 사라져 버렸고요.”

“그렇군요.”

거짓은 느껴지지 않았다.

“제 눈으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유성운은 그 액자를 찾아, 박은겸 헌터가 어떤 꼴이 났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역시 던전을 직접 돌아다녀 보는 수밖에는 없나….”

“그, 저기.”

목격자가 머뭇거리다가 이내 말을 이었다.

“제 친구 중에… 각성자이기는 한데, 저와 같은 F급이라 헌터증을 발급받지 않은 녀석이 있거든요.”

“아, 예.”

“듣기로 그 친구도 저와 같은 액자를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액자를요?”

“사실 저보다 그 액자를 먼저 본 게 그 친구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액자 앞에 저 혼자 남고 보니… 그때 그 녀석이 말한 액자가 맞더라고요.”

“…….”

아무리 각성자라지만 헌터증을 발급받지 않는다면 그저 민간인이다.

‘특히 F급이라면 더더욱.’

필수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헌터와 달리 민간인이라면, 왜 협회에서 이 사실을 몰랐는지도 설명이 됐다.

하지만 의아한 점이 있었다. 왜 이 사실을 협회에 보고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하지만, 무엇보다….

“민간인은 던전에 들어갈 수 없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던전이 아니라 경복궁 근처에서 봤다고 이야기해서….”

“경복궁이요?”

“그러니까 아마 던전에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

저 말이 사실이라면 ‘공허의 도시’가 나타나는 데에 규칙성 따위는 없는 셈이 된다.

‘망했군.’

이젠 정말 발로 뛰는 수밖에 없어 보였다.

* * *

“예?”

지오가 음울하고 차분한 얼굴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화들짝 놀랐다.

“제 자식이 그동안 저 몰래 가출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가출이라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주로 단어 선정이 말이야.”

큼직한 의사 가운을 입어 흘러내린 소매를 휘적이며 아리아가 말을 이었다.

“선생님이 지구에 쏟는 애정이 지극하시니 우리라고 뭐 어쩌겠어, 이래저래 공부를 해봤지. 지난번에는 그저 지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떠날 생각만 해서 제대로 아는 건 없었거든.”

“그런 것치고는 제법 잘 털고 갔습니다, 아리아. 제가 듣기로 서울 지부 태양의 신전은 아직도 수습을 하는 데 여념이 없다던데요. 그만큼 우리 인어 학생들이 꽤 큰 혼란을 주고 갔다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그건 대단히 영광스러운 증언입니다, 신사분. 태양과 그 자식들을 증오하는 심해의 자녀로서 그보다 기쁠 수는 없지요. 아무튼 그렇게 지구의 상황을 공부하다가 알아낸 건데….”

아리아가 어깨를 으쓱였다.

“최근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공허의 도시’가 아주 드물게 목격되고 있는 모양이야.”

“이 아버지는 공허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공허라니, 그건 그대 던전의 애칭인가? 선생님도 취향이 참 특이하단 말이지.”

“내 자식 내가 이름으로 부르겠다는데 대체 뭐가 특이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됐어. 결국 내가 알려주고 싶었던 건 선생님이 모르는 사이 그대 던전이 지구라는 행성을 활보 중이라는 소식이었으니까.”

“다시 들어도 너무나 당혹스러운 소식입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벗어나 죄책감마저 들었다.

“이는 제가 그동안 공허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해 아이가 삐뚤어진 것이겠지요. 부모라는 놈은 자식이 태어난 줄도 모르고 제 인생을 즐기기에 바빴으니, 최근에야 조금 신경을 써주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 외로운 마음이 어디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이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해줬어야 했는데…. 공허에게 집이라는 존재가 그리 안정적이고 평온하지를 못하니 바깥을 나도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설마 창고에 잘 모셔져 있던 액자가 홀로 외출을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습니다.”

던전마저도 자식으로 여기면서 액자가 혼자 탈출할 거란 상상은 왜 못 한 걸까.

‘그 정도 창의력과 포용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리아는 순간 의문이 들었지만 곧 지오의 말에 대답해 주었다.

“…확실히 일반적인 던전의 양상은 아니지. 일반적인 아이템이나 아티팩트가 보여줄 모습도 아니고. 던전의 주인이 그 안에 없으니 몸이 가벼워져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건가 싶을 정도야.”

지오가 한탄했다.

“역시 아빠가 집에 없어서.”

“언제는 여기가 집이라며.”

“하지만 제 창고에 공허가 잘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만….”

“그럼 분신이라든가 또 다른 출입구겠지.”

던전은 하나의 세계인 만큼 그 출입구가 하나만 있지는 않았다.

“지구로 침입할 방법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던전의 주인이 의도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수의 출입구를 만들어낼 수 있어.”

“저는 의도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러 왔던 거야. 드디어 인간들을 작살 낼 생각이 들어서 출입구를 개방해 둔 건가, 하고.”

“그런 무시무시한 생각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간들이 작살 나면 누가 저랑 떠들어 주나요? 누가 군고구마 구워주나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거절합니다. 이세르에게도 말했지만 여러분은 독립성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상의 과도한 관심과 애정은 선생님을 힘들게 만들어요.”

“자제해 보려고 노력은 하지.”

아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에게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공허의 도시’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역시 사춘기라서…? 못난 아빠를 두어서…? 박복한 유년기를 지나와서…?”

“계속해서 던전은 하나의 세계라고 말을 하잖아. 그 어디든 출입구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주인인 그대는 계속 이 초상화 속에 있으며 동시에 지구에 관심이 많지.”

게다가 자주 보이는 곳이 서울이기까지 했다.

“서울이라고 하면, 요즘 선생님이 자주 드나드는 지역이 아닌가?”

“펜팔 친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죠.”

“던전과 그 주인은 원래 한 몸이 되려는 성질이 있으니, 제 주인의 흔적이 가장 많은 차원을 방문하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닐 거다.”

“이 못난 아비를 찾아 홀로 그 넓고 매서운 서울을 떠돌고 있다고…?”

“…그래, 그렇게 알아들어도 맥락은 얼추 맞겠지.”

물론 그보다는 가벼운 상황이었다. 정말 던전에 자의식이 있다고 쳤을 때,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아 떠난 소년 가장’보다는 ‘아빠 일터에 무턱대고 찾아가 놀아달라 조르는 철부지 아이’의 모습에 가까운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선생님이 던전에 공을 들인다면 우리야 더 좋은 일이니까.’

결국 던전은 던전. 무언가를 잡아먹기 위한 게임판이었다.

지오가 지구에 관심을 두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잡아먹힐 테니 던전이 관리되면 관리될수록 인어들은 안심할 수 있었다.

‘선생님의 작품과 이 오두막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만 의아한 점이 있기는 했다.

“그 ‘공허의 도시’ 말이야.”

“예.”

“따로 지구와 연결한 적이 있나?”

“…예?”

“없군.”

아리아는 지오가 제 목숨을 걸고 인어들과 대화를 하러 왔던 그날, 어찌 된 일인지 ‘심해의 나라’와 ‘숨 쉬는 바다’가 연결된 것을 느꼈다. 그 이후로 ‘심해의 나라’에는 ‘숨 쉬는 바다’로 연결된 액자가 떠다니기 시작했고 말이다.

그야 ‘숨 쉬는 바다’는 애초에 ‘심해의 나라’의 일부분이었으니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만. 최소한 그날 인어들의 신전과 지오의 ‘액자’가 연결된 것만큼은 확실했다.

‘하지만 그런 조치 없이도 지구의 서울이란 지역에서는 선생님의 액자가 떠돌고 있지.’

이유가 뭘까?

“…선생님은 지구를 참 좋아하나 봐?”

“별다른 이유 없이 고향을 싫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하, 고향이라고.”

그렇다면 이해가 갔다.

“애초부터 연결이 되어 있었구나.”

영혼의 뿌리가 저 행성에 있는 셈이니, ‘심해의 나라’와 ‘숨 쉬는 바다’처럼 따로 연결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했다. 저 ‘공허의 도시’에 있어 지구란 제 아버지가 태어난 고향과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그럼 좀 질투가 나는데….”

“태양이시여, 인어의 질투라니. 거절해도 되겠습니까?”

“거절해도 뭐 어쩌겠어, 나의 일방적인 감정인 것을.”

어찌 된 일인지 지오의 뿌리는 저 인간이 득실거리는 차원에 있다지 않은가.

‘엄밀히 따져 심해의 나라도 우리의 고향이거늘.’

그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오의 뿌리가 저 좁고 척박한 차원으로 옮겨간 것인지. 아리아는 내심 혀를 차면서도 제 턱을 짚으며 고민했다.

“…뿌리를 옮길 수는 없나?”

“뿌리를 옮긴다니, 분재를 하실 생각입니까?”

“음, 아마도.”

“제가 그런 것에 재주가 있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일단은 내가 알아서 해볼게.”

“그런 독립적인 모습 아주 기특합니다.”

“영광이군, 스승님.”

어떻게 해야 영혼의 뿌리를 제 바다로 옮길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다. 지오반니는 바다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었다.

‘물론 그 전에 어떻게 해야 그놈의 책임이라는 걸 지고 선생님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겠지만….’

아리아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듯이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아무튼 ‘공허의 도시’에게 신경을 좀 써줘.”

“역시 주민을 만들어준 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보군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뭐든 말이야.”

아리아는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선생님이 지구를 대상으로 그린 세상은 그곳에 문이 열린다.’

그렇다면 지오가 지구를 떠올리며 그린 그림일수록, 혹은 다른 차원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그의 작품일수록. 그것들의 뿌리 역시 지구에 박혀 인간들을 괴롭히게 된다는 이야기였다.

‘던전의 주인에게 적의가 없으니 그 속도야 워낙 느긋할지 모르겠다만….’

자연재해는 언제 적의가 있어 인간들을 괴롭히던가.

"다음 그림은 언제 그릴 거지?"

"...그리고 싶은 날에?"

"그렇군."

아리아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결국에는 시간문제라는 건가.'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저 차원이, 언젠가 지오의 배 속에 들길 바랐다.

오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04)

제104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공허의 도시'는 굳이 따지자면 진입 던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었다.

"출입구가 명확히 존재하기는 한다는 점에서 말이야."

출입구는커녕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모를 차원인 가상 던전과도, 물질적인 실체가 가려지지 않고 전부 드러나 있는 별장 던전과도 다르다.

오로지 통로만 존재하는 지오의 액자는 역시 진입 던전이라 할 수 있었다.

"진입 던전 중 이동형인 녀석들도 있으니 틀 자체는 비슷하지."

위의 세 가지 유형과 별개로 던전은 이동형과 고정형으로도 나눌 수 있었다.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동한다는 점에서 정리하자면, 대충 '이동형 진입 던전'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다.

"그 형태가 액자인 경우는 처음 봤지만…."

원래 진입 던전의 출입구는 그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책일 수도 있고, 구덩이일 수도 있고, 장막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 진입 던전의 출입구는 문의 형태로 생겼다. 누가 봐도 '아 저기가 출입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겼다면 확실히 진입 던전인 경우가 많았다.

"……."

아무리 그래도 보통 액자를 입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애초에 누가 끌려가지도 않았더라면 던전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을 거야."

평소 지오가 갤러리의 초상화를 통해 나오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는 했다. 다만 초상화는 지오의 '집'이라는 인상이 강해,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건물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차아라 헌터가 지오의 오두막에 초대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현대 사회의 잔인하고 각박한 자본을 보여주는 던전과 비교해 평온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감도는 '지오의 초상화'는 여러모로 달랐다.

그 탓에 둘이 비슷한 개념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한 걸지도 모르겠다. 다 변명이지만 말이다.

‘그동안 지오가 물건에 가까운 존재일 거라고 생각했어.’

몬스터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은 했지만, 그런 몬스터에게 자연히 따라오는 ‘던전’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근원이 설명하기로도 지오는 명백한 ‘초상화’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그 초상화를 하나의 던전으로 취급해야 하는 건가….”

이미 지오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던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오의 초상화’까지 본인이 그렸을지는 모를 일이지만, 그 ‘숨 쉬는 바다’에 이어 ‘공허의 도시’까지 사람들에게 목격되지 않았는가.

“…하긴 이제는, 그걸 던전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더 어렵겠네.”

유성운은 비사벌의 갤러리에 잠들어 있는 검은 초상화를 떠올렸다.

그것은 제 의지로 얼굴에 새까만 먹물을 뒤집어썼고,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지오의 초상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전에 얼굴을 본 적이 있던 극소수의 사람들뿐이었다.

‘그마저도 종종 까먹게 돼.’

위화감 없이 역사를 지워버린 셈이다.

“…….”

가공할 만한 영향력이지 않은가.

“우리를 적대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류의 위협이 되는 ‘지오의 초상화’였다. 그가 만일 의지를 가지고 인간을 적대하면 그만한 재앙을 찾아보기는 또 어려울 것이었다.

유성운이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떠벌리고 있느냐.

“…후우….”

그 앞에 ‘공허의 도시’를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정말 뜬금없이 등장하네.”

유성운이 이 회색 액자를 발견한 곳은 다름 아닌 지상철역이었다.

예전에 서울 탐방을 시켜주며 지오와 와본 적이 있는 장소였는데, 덕분에 유성운은 한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이 액자는 던전의 주인인 지오가 들렀던 장소를 위주로 나타나나.”

혹은 그 녀석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장소에 말이다.

사람들의 목격담을 쭉 들어보면 딱 지오가 아는 장소에만 나오는 건 아니었다. 대뜸 빈민가에 나올 때도 있고, 도로에 등장할 때도 있었으며, 폐건물 안에서 튀어나올 때도 있었다.

‘헌터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오의 그림인 줄 몰라 소문이 나지 않았던 거겠지.’

이 액자는 의외로 던전보다는 민간인이 자주 돌아다니는 일상적인 공간에 자주 생겨났다. 그중에서도 빈도수가 높은 건, 역시 지오가 직접 들른 적이 있는 공간이었지만 말이다.

갑자기 확 피곤해진 유성운이 지상철역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아이고야….”

삭신이 다 쑤셨다.

“다행히 사람은 없고.”

현재 시각이 오전 4시 16분.

피로에 찌든 현대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잠든 시간이니, 가뜩이나 비싼 돈을 내야 하는 지상철역에 사람이 없는 건 당연했다.

'그래도 이제 막 26일이 되었으니 크리스마스의 여파가 조금은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무엇보다 지상철은 24시간 내내 운영되니, 한참 놀다 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취객 한 명 정도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던 유성운이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모였다가 '심해의 신전'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일이 얼마 되지 않았지."

다른 곳도 아닌 태양의 신전에서 이루어지던 행사였다. 그런 장소에마저 가상 던전이 나타나 입단식을 구경하던 무리를 전부 삼켜버린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모이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해가 갔다.

"덕분에 이번 크리스마스는 유독 사람들이 덜 모이기도 했고."

사람이 좀 많아질라치면 다들 입단식의 참사를 떠올렸는지 슬쩍 자리를 옮기더라.

"하여간...."

일을 키우고 싶지 않은 유성운으로서는 잘된 일이었다.

'...시민들이 공포에 떠는 것을 보며 잘된 일이라니, 나도 참 많이 물들었어. 이렇게 살다가 정원을 맡지 못할 만큼 편협해지는 일이 없으면 좋을 텐데....'

그런 그의 시야에 '공허의 도시'가 담겼다.

"......."

조금 섬뜩한가.

'...도시에 대한 환멸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큐레이터로서 몇 년을 살아왔으니 작품에 담긴 심상도 느낄 수 있었다.

징그러울 만큼 회색 건물이 모여 있는 도시는 어딘가 소란스럽고 혼란하면서도, 또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듯한 군중 속의 침묵을 그려낸 것 같았다.

'정작 그 군중은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지.'

어딘가 사람 정신을 멍하게 만드는 회색 액자를 보며 유성운이 작게 중얼거렸다.

"...확실히 액자를 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잡아가지는 않는 건가."

발품을 팔며 직접 돌아다니다 보니 찾아낸 목격자가 총 4명. 전부 서울 내의 각성자조차 아닌 일반 시민이었고, 아무도 '공허의 도시'로 인해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

'다들 그저 엉뚱한 곳에 걸려 있는 그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

4명의 목격자 중에는 선하다고 하기는 애매한 알코올 중독자도 있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쭉 혼자 살고 있으며, 가끔 편의점 앞에서 시답잖은 진상 짓을 하는 사람이라더라.

'그 정도는 악인으로 치지 않는다는 걸까.'

아니면 직접 액자 앞에서 악행을 저질러야 공격해 오는 걸까.

"...비교군이 얼마 되지 않으니 확신할 수가 없네."

유성운은 살인 경력이 있었다.

'요즘 시대에 그리 드문 경력은 아니지.'

물론 그가 아무나 잡아 죽인 것은 아니고, 명백히 사회에 해를 끼치는 5등급 시민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죄인을 저지할 때 벌어진 일이었다.

단순 제압만을 노리는 것보다 아예 죽일 생각으로 싸우는 게 유리하니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어.'

이런 흉흉하고 각박한 시대에 사람 한 명 죽여본 적 없는 헌터가 어디 있겠느냐만, 결국 잘못은 잘못이었다. 도덕적으로 판단했을 때 유성운은 죄를 지었다.

그럼에도 '공허의 도시'는 잠잠했다.

"……."

경우의 수는 많았다.

"…이 액자는 던전의 주인인 지오가 느껴지지 않아."

그렇다면 이 액자는 그저 지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걸 수도 있었다.

'그래서 지오만큼의 감정 능력은 없는 거지.'

지오는 잠시 누군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선악을 판가름했다.

하지만 단순 명령을 받고 실행하는 이 액자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 그저 제 앞에서 진행된 상황만을 따지고 선악을 구분하는 걸지도 몰랐다. '지오의 초상화'의 열화판인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유성운이나 그가 본 알코올 중독자 정도는 '악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따지자면 유성운은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알코올 중독자는 좀 많이 짜증 날 정도의 민폐를 끼친 것뿐이니. 그걸 감안한다면 지오의 기준에서 공격할 만큼의 악인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술주정뱅이가 정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면 훨씬 판가름하기 쉽겠지.'

만약 그가 단순한 민폐 이상의 일을 저지른 적이 있다면, '공허의 도시'는 직접 악행을 저지르는 게 확인된 악인만 수집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

하지만 확실한 건 있었다.

"…지오의 선악은 그의 취향에 따라 결론이 나는군."

만약 지오가 '살인'이라는 것 자체를 악행으로 정해 두었다면 이미 유성운은 지오에게 납치되고 실종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여태껏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지오가 상황에 따라 대상의 선악을 구분 짓는다는 의미였다.

"이게 인간들에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유성운이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피곤해 죽겠다."

저 '공허의 도시' 안으로 들어가, 박은겸이라는 헌터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유성운은 투명한 벽에 걸린 작품으로 다가갔다.

"어떻게 해야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려나?"

일반적인 진입 던전은 안으로 들어가는 데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았다. 던전의 입장에서는 먹잇감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 셈이니 애초에 막을 이유가 없기도 할 것이었다.

'하지만 지오가 아직 인간에게 호의적이라면 그 부분은 확실히 막을 이유가 있겠지.'

최소한 제 던전에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떨어져 죽기를 바라진 않을 거란 말이다.

유성운은 보면 볼수록 속이 체한 듯 답답해지는 그림을 바라보며, 그 공허한 도시에서 무언가를 확인했다.

"……."

이상을 눈치챈 유성운이 그림을 더 유심히 보았다.

"…저건…."

긴 대로변과 그 양옆으로 나열된 건물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낸 골목 사이.

무언가 검고 희끄무레한 것이 유성운의 눈에 들어왔다.

"…사람?"

몸을 웅크린 사람처럼도 보였다.

'너무 작아서 확인하기가 힘들어.'

하지만 먼지 한 톨 없을 것처럼 깔끔한 도시에 툭 튀어나와 있는 검은 점은 확실히 이상한 것이었다.

딱히 이질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만큼 자연스러웠지만, 오랫동안 의식하고 바라보니 그것이 '공허의 도시'에 어울리는 그림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검은 점은 희미하게 들썩이는 듯했다.

"……."

유성운은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거, 박은겸 헌터인가?"

굳이 찾고자 하지 않는다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건 누가 보아도 '그림'이었으니까.

* * *

"꾸륵?"

"아빠 바쁘다."

"꾸르르?"

"네 동생 봐주고 있잖니."

"꾱?"

허니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지오는 꿋꿋했다.

"지금이라도 우리 공허를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그는 지금 '공허의 도시'를 포대기로 감싼 다음 둥기둥기 다정하게 흔들어주고 있었다.

잠시 방문했던 이세르는 그 특유의 자애로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지만, 지오는 이런 자신의 케어를 '공허의 도시'가 상당히 기뻐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우리 공허 입이 달렸으면 밥이라도 줬을 텐데, 대체 뭘 먹고 사나."

"꾸르…."

"사람? 사람이라니. 안타깝게도 그건 먹을 만한 게 못 된단다."

"꾸웅?"

"우리 애들은 어쩜 이리 하나같이 무서운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어."

장남과 대화를 나누던 지오는 순간 '공허의 도시'의 그림이 바뀐 것을 확인했다.

"뭐지."

그건 다름 아닌 유성운의 형상을 띠고 있었다.

"……."

"꾸르르르…."

"왜 입맛을 다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가 생각하는 건 아닐 테니 진정하고,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태양신이 정답을 알려주었다.

"꾸우, 꾸꾸우."

"지금 우리 공허 앞에 실제로 유성운 씨가 있는 거란 말입니까?"

이게 바로 신세대 인터폰?

'유행이 너무 돌다 못해 이제는 초상화로 돌아갔어?'

물론 그럴 리는 없었다.

어쨌든 '공허의 도시'도 나름 지오의 집구석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만큼, 그는 액자에 넣은 적도 없는 인터폰 기능이 들어 있음에 감사했다.

"손님맞이도 못 할 뻔했군."

대체 왜 그 손님이 '공허의 도시' 앞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신성한 예수님의 생일날 오늘도 순결을 지켜낸 지오는 이 반가운 얼굴이 반갑고도 반가울 뿐이었다.

성운이 형 오랜만이다, 그치?

"공허야, 문 열어주렴. 아빠 친구란다."

" "

"방금 우리 애가 대답한 것 같은데 환청인가."

" "

"기특한 내 새끼 옹알이도 잘하지."

인생 뭐 깊게 고민할 필요 있나. 지오에게 삶의 변수란 새로운 콘텐츠의 등장에 불과했다.

그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문자 외향인이 될 준비를 마쳤다.

"오랜만에 형님 얼굴 좀 보겠군."

아무튼 재밌으면 됐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04)"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05)

제105화

정신을 차린 순간.

“…….”

유성운은 ‘공허의 도시’ 내부에 들어와 있었다.

“…역시 그림 내부로 들어오는 순간의 기억은 잘 나질 않네.”

한때 지오는 ‘심해의 나라’에서 마주친 사람들을 물감으로 만들어 탈출시켜 준 전적이 있었다.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 것 같다만, 그때 그 사람들의 증언처럼 유성운도 물감이 되었던 사이의 기억은 잘 나지 않았다.

‘살아 있는 무생물이 된 기분이었던 것 같기는 하다만.’

대단히 모순적인 표현인 만큼 그리 명확한 감상은 아니었다.

“그나저나 지오가 나를 확인한 건가?”

유성운은 ‘공허의 도시’에 들어오기 직전의 상황을 기억했다.

‘투명한 손이 날 향해 내밀어졌지.’

새까만 정장 소매가 두드러지는, 딱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투명한 손’이라 인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유성운을 맞이해 주었다. 공문에 나와 있던 박은겸 헌터 사건 때와 달리 무척 정중한 손짓이었다.

‘어쩐지 지오의 행동을 닮은 손짓이었는데….’

지오는 강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몸가짐이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귀족이나 군인과 비슷한 움직임이었는데, ‘공허의 도시’가 내민 손짓이 딱 그것과 닮았다.

“…지오 본인은 아닐 것이고.”

친숙한 느낌은 아니었다.

“‘공허의 도시’가 직접 손을 내민 건가?”

잠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보다는 ‘공허의 도시’에 속한 몬스터가 내민 손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듯싶었다. 공문에서 박은겸을 납치한 다수의 손이 그와 같은 생김새였으니 말이다.

“…….”

유성운은 한차례 숨을 내쉬었다.

"…생각보다는 견딜 만하네."

상상했던 것만큼 '공허의 도시'가 주는 압박감이 크진 않았다.

"내가 A급 헌터라는 걸 감안해도 상당히 편한 수준인데."

약간의 답답함이 있기는 했다. 누군가 명치를 꾹 누르고 있는 듯한 위화감이 들고, 손가락으로 등골을 더듬어가듯 소름 끼치는 부분은 분명 있었다.

'하지만 딱 그 정도야.'

납치된 헌터는 B급. 정확히 어느 수준의 B급이었는지는 몰라도 꽤 강한 수준이다. 그런 헌터가 속절없이 끌려가 소식이 두절된 던전치고는 A급인 유성운이 느끼는 무게가 예상보다 덜했다.

"배려를 받고 있나?"

애초에 '공허의 도시'에 들어온 루트부터가 다르기는 했다.

'그 녀석은 끌려온 거고, 나는 에스코트를 받으며 왔지.'

대접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인 만큼 느끼는 부담감에 차등이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

유성운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흔히 '던전의 주인'이라고들 말하지만, 실제로 던전을 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주인은 거의 없었다. 유성운이 보기에 인간형 몬스터인 인어 남매조차 '심해의 나라'를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특히 던전 주인과 그 던전의 몬스터, 그리고 환경은 완전한 별개의 존재였다.

주인의 역량이 클수록 권한이 커지겠지만 이렇게까지 몬스터의 행동을 통제하고 압박감마저 조절할 수 있는 주인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역시 몬스터라고 하기는 어려운가.'

그렇다면 이 던전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의문이었다.

'몬스터로 취급되는 수준의 악신이 아닌 이상, 제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신이라고 해도 던전을 만들어 내지는 못해. 던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감정을 지니지 못하는 존재들이니까.'

근원의 자식도 던전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단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자식일 뿐, 던전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없어. 물리적인 행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사고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 녀석들이 그런 거대한 게임판을 만들 수 있을 리가.'

역시 지오는 규격 외의 존재였다.

"……."

목을 긁적인 유성운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림 그대로네."

휀하게 뻥 뚫린 대로변과 그 양옆으로 쭉 나열된 다채로운 형상의 건물들. 딱히 일부로 색상을 제한 것 같지 않음에도 무채색의 물건들만 모여 회색빛의 세상을 이루고 있었다.

"액자 너머로 봤을 때는 몰랐던 안개도 심하고."

앞을 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나, 만약 이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면 시야에 큰 이슈가 생길 듯했다. 슬쩍 냄새를 맡아

보았지만 도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매연 냄새는 나지 않았다.

“그냥 수증기…?”

기분 탓인지 숲 특유의 피톤치드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지오가 숲에 살고 있기 때문일까.’

확실하지는 않았다.

‘아무튼 아이러니하네.’

생긴 건 이렇듯 확실한 도시인데, 안개에서 맡아지는 향은 숲을 연상케 하다니.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위화감이 드는 조화였다.

“…몬스터는 없나?”

터벅….

유성운은 천천히 발을 옮겼다.

“최소한 나를 이 안으로 에스코트해 준 몬스터는 있을 줄 알았는데.”

게다가 기본적으로 던전이란 몬스터가 존재하기 마련이었다.

함정이 없거나 각종 부가적인 요소가 없을 수는 있어도, 침입한 인간을 죽이려 달려드는 몬스터는 던전의 필수 불가결인 녀석들이라는 것이다.

‘하긴 지오가 그려낸 던전을 일반적인 던전과 비교하기는 어렵겠지.’

애초에 몬스터가 직접 유성운을 초대해 준 것만 해도 ‘정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달리 규칙은 없는 건가…?”

어떤 학자들은 던전 역시 하나의 몬스터라 규정했고, 정원사인 유성운도 그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했다. 규칙을 가지지 않은 몬스터는 없는 것처럼 던전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했다.

“분명 취향이 있을 텐데 말이야.”

가상 던전. 진입 던전. 별장 던전. 이 모든 녀석들은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인간들을 삼켰다.

구체적인 조건이 주를 이루는 가상 던전 이외에도 ‘입구를 찾아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진 진입 던전과, ‘별장이 놓인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진 별장 던전이 그 예시였다.

‘그 이외의 세부적인 조건은 던전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 이게 나름은 던전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그런 조건이나 취향도 분명 있을 것이었다.

“…….”

하긴 던전 주인의 취향이 있기는 했다.

‘선을 긍정하고 악을 부정한다.’

그것도 규칙이라면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악인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순간 그림과 완전히 하나가 된 듯 보였던, 아마 박은겸 헌터로 추정되는 검은 점을 떠올려 보았다.

유성운은 이 ‘공허의 도시’가 어떤 식으로 악인을 부정할지 대충이나마 알 것 같았다.

‘…살아 있는 인간인 것을 부정해 버리는 건가?’

인간을 그림으로 만듦으로써 말이다.

“섬뜩하네.”

저도 모르게 휘파람이 나왔다. 가벼운 행동을 해서 오싹함을 지워보려는 시도였다.

‘역시 근원에 속한 이들은 맺고 끊음이 확실해.’

고도의 사고 능력을 지녔고 강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간형 몬스터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존재 대부분은 규칙이 간단하고 명료했다.

유성운은 정원사로서 그런 근원의 자태를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감상할 수 있었다.

‘지오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언제 또 이런 던전을 만날 수 있었겠어.’

그 스릴을 즐기지 못하면 정원을 관리할 자격이 없었다.

“…….”

다만, 그런 정원사도 생명의 위협은 느꼈다.

“…아, 이런.”

유성운이 뒤를 돌았다.

“역시 나 혼자만 있는 건 아니었나 보네.”

“…….”

“이걸 투명 인간이라고 해야 하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성인 남성의 형태로 서 있는 검은 정장이었다.

아주 두껍지도 마르지도 않은 체형에 어울리는 길쭉한 팔다리. 정장의 자세한 모양은 지오가 입던 것과 조금 달랐고, 그것이 신고 있는 구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정장의 뒷짐 진 모습에 유성운은 기시감을 느꼈다.

“…역시 지오와 좀 닮았는데.”

“…….”

안이 텅 빈 정장은 고상한 몸짓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 몸짓에서 유성운은 감사의 뜻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는 잠시 어느 부분에서 감사했던 것인지를 고민했다.

‘설마 지오와 닮았다고 해서?’

참 주인을 향한 애정과 존경이 가득한 녀석들이었다.

“그… 소통이 가능한 건가? 내가 살면서 평화로운 소통이 가능한 몬스터는 지오 이외에 만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

검은 정장은 턱을 짚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는, 이내 자신의 팔로 삼각형을 표현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나요?”

“…….”

“그래요, 맞다고. 이거 스무고개라도 하는 기분이군.”

일반적인 던전의 몬스터였다면 소통이고 뭐고 시도할 생각조차 안 해봤겠지만, 이곳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던전이었다. 유성운은 최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검은 정장과 소통을 이었다.

“왜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까? 갑자기 당신이 나에게 달려들기라도 하나요?”

“…….”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면… 당신 이외의 다른 개체가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건가?”

“…….”

“아, 맞다니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격적인 개체가 많습니까?”

이번에도 정장은 팔로 원을 그려 ‘예’를 대답했다.

손가락이 보이지 않아서인지 엉성한 하트를 그리는 것처럼 머리 위로 큼직하게 팔을 굽혔는데, 그 모습을 본 유성운이 말없이 제 손에 있던 장갑을 그에게 넘겼다.

“혹시 이걸 끼운 다음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검은 정장은 팔로 엑스자를 그렸다. ‘아니오’라는 의미였다.

“…아.”

그에 유성운은 이것이 안에 투명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 움직이는 검은 정장 자체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증거를 보여주려는 듯 검은 정장은 옷의 소매로 유성운의 손에 있는 장갑을 툭툭 건드렸다. 진짜 손이 있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럼 내가 느꼈던 투명한 손은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친절한 정장에 대고 하기엔 무례한 감상이었지만, 솔직히 조금 소름 돋았다.

유성운은 애써 그런 제 속내를 티 내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

“신경 쓰지 않으신다니 다행이군요.”

“…….”

“그렇다면 공격적이지 않은 개체가 당신 이외에 더 있습니까? 저와 이렇게 평화로운 소통이 가능한 정장 말입니다.”

“…….”

“있다고… 그건 다행입니다.”

어떤 개체는 공격적이고, 또 어떤 개체는 평화적인 듯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는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또 ‘지오니까 되겠지’라는 결론이 나올 게 뻔했다. 여태까지의 반복 학습을 통해 유성운은 미리 고뇌의 결말을 예견한 뒤였다.

그는 다시 장갑을 끼고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

눈치채지 못한 사이 검은 정장이 3마리로 늘어나 있었다.

“…저 두 정장은 제게 공격적이지 않은 개체입니까?”

“…….”

“아, 아니라고요. 하지만 당장은 공격하지 않는데, 혹시 시간차 공격을 노리는 타입들인가.”

“…….”

“세모… 그, 예,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공격을 하긴 할 거라는 뜻인 듯했다.

‘위험한데.’

아마 ‘공허의 도시’ 액자에서 친절하게 손을 뻗어준 정장은 눈앞의 이 녀석이거나, 혹은 그와 비슷한 평화로운 개체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기대기에는 점차 검은 정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던전에 오래 있을수록 검은색 정장들의 수가 늘어나는 식인가.’

그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는 했지만, 유성운은 점차 기이한 초조를 느꼈다.

“…….”

“…….”

검은 정장은 모두 유성운을 응시하고 있었다.

‘…인도에 나와 있는 저 두 마리의 정장뿐만이 아니야.’

아까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시선이 건물 안에서도 느껴졌다.

골목 사이에서도 느껴졌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던 도로 위로 굴러가는 자동차 속에서도 시선을 느꼈다.

유성운은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건 내 스킬로 전투를 벌인다고 처리할 수 있는 놈들이 아니다.’

단순한 살육으로는 해결을 볼 수 없고, 오로지 상대의 규칙과 습성에 맞춰 화해를 해야 하는, 그야말로 근원의 자식과도 같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것들이 얼마나 불어나게 될지, 또 그때는 유성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랐다. 그리고 그 ‘모른다’는 점이 무던한 성격이었던 유성운의 공포를 일깨웠다.

‘…근원을 대할 때 미지의 공포는 상당히 위험하지….’

정원사로서 알 수 있었다.

‘여긴 던전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해.’

근원이 아무에게나 친절하게 쥐여주는 헌터로서의 능력 따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그런 기본적인 것마저도 제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마치 일종의 ‘정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주인이 아니고서야 남의 정원에는 들어오는 게 아니었다.

“…이거….”

더 늘어나기 전에 도망쳐야 하나, 싶을 즈음.

“유성운 씨.”

“…….”

“유성운 씨.”

“…어, 지오야.”

유성운은 정말로 도망칠 뻔했다.

‘얘는 여기서 보니까 더 무섭네.’

검은망토의 등장으로 떨어질 뻔했던 심장이 힘차게 쿵쾅거렸다.

지오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 탓에 가능하면 얼굴 보지 않고 해결하길 원했는데. 안타깝게도 빈집 털이에 실패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유성운은 신속하게 체념했다.

“나 좀 살려주라.”

그는 맞춤형 거래를 시도했다.

“다음에 모종 갖다 줄게.”

“아무도 유성운 씨를 죽이지 않습니다.”

“되게 든든하다, 그거.”

던전에서 던전 주인의 비호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겠는가.

오

Chapter (105)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06)

제106화

“저는 저번에 봤던 꿀단지가 마음에 듭니다.”

“꿀단지? 그 꿀이 가득 찬 공 모양의 꽃이 피는… 그거 말하는 거지?”

“예, 맞습니다. 싹을 틔우기가 어려워 모종만 판매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 원하는 건 없어?”

“제가 소금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석염나무를 원합니다.”

“석염나무라, 지난번 카탈로그에 있던 식물이네. 더 필요한 건?”

“충분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고맙지.”

무려 이쪽은 이런 비정상적인 던전에서 목숨을 보장받는 거래인데 말이다.

‘지나치게 남는 장사라는 거야.’

유성운은 자신의 건강과 목숨을 귀하게 치는 전형적인 이 시대의 헌터였다. 자본주의 사회에 휘둘리다가 임무 중 죽어 버리기까지 하는 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결말이었다.

‘이렇게 거래를 마무리해도 되나 싶을 정도이지만….’

그는 초상화의 심기를 살폈다.

“…….”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없어.”

정원사라면 늘 곱씹어야 하는 말이지만, 근원의 존재에게 인간의 기준은 무의미했다.

3개를 빌려 4개를 갚기로 했는데 5개로 갚는다면 화내는 것이 근원의 존재다.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들 취향에 맞추는 것이 장수의 지름길이 된다는 걸 유성운은 잘 알았다.

“그럼 거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근원의 존재와 하는 거래에는 시작과 끝이 명확해야 했다. 확실하게 끝을 맺은 유성운이 물었다.

“이런 질문을 해도 실례가 아닐지는 모르겠다만, 내가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공허의 도시’가 유성운 씨께서 이곳을 방문했다고 알려줬습니다.”

“역시 그랬나.”

이만한 던전의 주인인 지오가 던전 내부의 상태를 모른다면 더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박은겸 헌터를 꺼내 가려던 내 입장이 불리해진단 말이지.’

지오가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이곳으로 끌고 왔음이 더더욱 확실해지는 셈이 아닌가. 맡은 바 일을 다 해야 하는 유성운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화를 내려나.’

이 초상화가 무려 직접적인 적의를 드러내어 끌고 간 인간을 꺼내 가려고 왔다. 자신이 한 선택을 바꾸는 법이 없는 근원의 존재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이 될 것이다.

“…….”

“유성운 씨는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일을 하러 왔어.”

오히려 그렇기에 지금 털어두는 게 좋았다.

‘지오를 속이는 것도 악한 행위의 범주에 들지 모르니까.’

게다가 지오는 유성운을 살려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제가 알기로는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응? 아니, 한국은 이제 26일이라 크리스마스는 아니야. 대부분 회사에서 연휴를 보장해 주는 기간이라 오늘까지 쉬는 사람은 많지만.”

“그럼 다들 쉬시는데 유성운 씨는 일을 하시는군요.”

“헌터들이 언제 휴일이라고 쉰 적이 있나. 흔한 일이지.”

“헌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공휴일에도 쉴 수 없습니까?”

“딱히 그렇지만은, 음… 그냥 그렇다고 봐야겠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근원의 존재는 자신이 내뱉은 말을 어기지 않았다. 마침 분위기도 썩 나쁘지 않겠다, 그 점을 믿으며 유성운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내가 온 이유는 여기서 어떤 사람을 한 명 꺼내 가기 위함이었어.”

“이곳에서 사람을 꺼내 가는 것이 당신의 일입니까?”

“그렇지, 박은겸 헌터라고… 네가 이름까지 알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은겸.”

초상화가 이름 석 자를 되짚었다.

“…….”

“…….”

그리고 정적이 흘렀다.

찔리는 것이 있는 유성운으로서는 소름 끼치는 적막이었다.

‘…역시 기분이 나쁜가.’

사고 능력 없이 단순히 이야기를 흉내 내기만 하는 근원의 자식과 '지오의 초상화'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지오는 분명한 감정이 있었고, 그렇기에 가끔은 몬스터나 인간으로도 보일 정도였다.

'그런 녀석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니.'

게다가 '유성운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했으니 죽일 수도 없었다.

'물론 죽이지 않고도 처벌할 방법은 꽤 많다만,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아무튼 지오의 기분이 마냥 좋을 수는 없을 거야.'

유성운은 지오가 공격해도 견딜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 그건 이 회색 도시에서 원치 않게 이곳의 주인을 마주쳤을 때부터 이미 각오했던 바였다.

"……."

침묵을 유지하던 초상화가 검은 정장에게 손짓했다.

"……?"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었지만, 유성운은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았다.

주인의 손짓에 하나둘씩 늘어가던 검은 정장은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고는 마치 제가 모시는 주인을 대하는 종자처럼 공손하게 허리를 살짝 숙이고는, 경청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뭐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오가 검은 정장에게 물었다.

"박은겸이라는 인간의 위치를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성운은 조금 놀랐다. 그건 단순히 손도 입도 없던 투명한 무언가가 인간의 음성을 흉내 냈기 때문이 아니었다. 방금까지만 어색한 수화만 쓰던 녀석이 대뜸 말을 해서도 아니었다.

유성운이 집중한 것은 검은정장이 내는 목소리 그 자체였다.

'…저 목소리….'

30대 남성을 떠올리게 만드는 음성이었다.

'하지만 저 몬스터와 어울리는 목소리는 아니야.'

긴 세월 하나의 자아와 함께한 인간의 음성이라는 것은, 보통 그 자아를 대변하는 어조를 띠기 마련이었다.

검은 정장이 내뱉은 음성은 그의 정중하고 고상한 몸짓과 달리 어딘가 경박하고 신경질적인 부분이 있었다.

화가라는 정체성을 지닌 지오가 제 작품인 검은 정장의 목소리 하나도 허투루 정했을 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어울리지 않는 음성이니, 그렇다면 이것은….

'…설마?'

박은겸 헌터의 목소리인가?

유성운의 의심과는 별개로 둘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그는 왜 이곳으로 왔습니까?"

"예, 약한 인간을 괴롭히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인간입니다."

"예, 악한 인간입니다."

기묘한 대화였다.

“그 인간을 꺼내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또한 저희의 바람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대화를 마친 것인지, 초상화가 유성운을 바라보았다.

“유성운 씨가 원하니 꺼내 드리겠습니다.”

“…그래?”

애써 티 내지 않았지만 굉장히 놀라고 있었다.

‘이렇게나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한다고?’

그 점이 오히려 섬뜩했다.

‘분명 지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감정을 지녔다면 제 규칙에 반하는 이에게 화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물며 인간들끼리도 그러는데 근원의 존재는 어떻겠느냐 말이다.

‘그런데도 이만큼 시원시원하게 응한다니?’

지울 수 없는 의문에 정원사의 나쁜 버릇이 돋았다.

“…….”

흥미로웠다.

“…불쾌하지는 않나?”

결국 유성운은 질문을 참지 못했다.

“정확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부하들이 직접 끌고 온 거잖아. 거기에 더해 박은겸은 이미 여기에 속해버린 인간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막 가져가도 되는 게 맞나 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나도 꺼내 가지 않을게. 동료 귀한 줄도 모르고 내팽개치는 놈은 나도 같은 헌터로 취급해 주기 싫거든.”

이건 진심이었다. 박은겸이라는 놈은 유성운이 이렇게까지 목숨 걸어가며 살려내거나 시신 수습해 줄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이었다.

‘게다가 협회에서의 요청도 박 헌터를 살려내라는 게 아니었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검은망토’가 인간을 공격한 과정과 원인, 결과에 대한 정보였다. 다시 말해 유성운이 꼭 박은겸 헌터를 살려내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에 지오가 물었다.

“하지만 유성운 씨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그렇다면 저 역시 유성운 씨가 바라는 대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맞나…? 네 기분이 상하지는 않고?”

“처음부터 신경을 할애하지 않은 대상이기에 상관없습니다.”

지오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공허는 그런 사람에 대해 말해준 적이 없었다.

제가 만든 집에서 사람이 헤매고 있었다니 잠시 미안할 뻔했지만 인간 학대 및 방치범이라는 말에 ‘알 바임?’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심지어 유성운 씨도 구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말할 정도잖아.’

그럼 더더욱 지오의 알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간 많은 행인에게 선물을 나눠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가 원하고 내게 여력이 있다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뿐이다.

‘무엇보다 이게 유성운 씨 업무라는데 상황이 힘들어도 도와줘야지.’

직장인이 출장 나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또 회사 가서 얼마나 까이겠는가. 한때 버젓한 사회인이었던 지오로서는 유성운이 원하는 것을 꼭 들어주고 싶었다.

“그러니 유성운 씨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참 고마운 말이네.”

그리고 섬뜩한 말이었다.

‘…화내는 것보다도 이런 무심한 태도가 더 무섭게 느껴질 줄은 몰랐는데.’

어리고 약한 것들에게 애정을 보이고, 화려하고 멋진 것에 감탄을 할 줄 아는 존재였다.

그런 ‘지오의 초상화’가 이 상황에 분노는커녕 무심함으로 대응한다는 사실은 인간인 유성운으로서는 조금 오싹했다.

‘이렇게 쉽게 용인해 줄 거라면 애초에 박 헌터는 왜 끌고 갔던 거지?’

방금 전 검은망토와 검은 정장의 대화에서 ‘지오는 박은겸이 여기에 온 것도 몰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화의 분위기가 워낙 기묘했던 탓에 유성운은 그게 일종의 보여주기식 연극이라고 생각했다. 꽤 많은 근원의 자식들이 그러하듯이 말이다.

“…….”

그렇기에 유성운은 해괴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일종의, 격리였다든가….’

지오는 인간에게 호의적이다. 그건 다시 말해 ‘지오의 초상화’가 인간이라는 종족을 좋아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지만, 이 초상화는 무례하고 악한 인간은 또 싫어했다.

그러니 유성운은 생각했다.

‘지오의 입장에서 이게 인간을 향한 배려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기만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악한 인간을 공격하는 이런 행동은 인간의 평균 종족 값이 예의 바르고 선할 수 있도록 박은겸처럼 불순한 종자를 걸러내는 것일 수도 있겠어.’

인간이 동족을 공격하는 가축을 도살하듯이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지오의 관점이 보이네.’

조금 소름 끼쳤지만, 아무튼 알게 되니 마음은 편했다.

“…음….”

이런 거 하나하나에 공포를 느끼면 정원사 일은 못 한다.

“그럼 박은겸 헌터는 언제쯤 데려갈 수 있지?”

“그를 공허의 도시 바깥으로 꺼내 가려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

유성운이 멈칫했다.

“상관없기는 한데, 내가 나갈 때도 그런 대가가 필요한가…?”

“유성운 씨는 그대로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박은겸 헌터는?”

“그를 꺼내 가려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

“그렇다고 합니다.”

지오는 정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었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스템이 그렇다고 했다.’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건 유성운의 몫이었다.

“…아하….”

예전에 차아라 헌터가 ‘지오의 초상화’를 방문했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의 차 헌터는 아무런 대가도 바치지 않았다고 했지.’

그리고 이번의 지오도 유성운은 대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마 지오의 초대를 받아 액자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대가가 필요하지 않은 모양이야. 언젠가 다시 액자 바깥으로 나갈 것이 확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이쪽 세계에 한 번 저쪽 세계에 한 번으로 1:1의 규칙도 지켜지는 셈이니까.’

다만 액자에 강제로 끌려온 경우.

‘하나의 그림으로 취급되는 모양이네.’

지오가 유성운에게 대가를 받는 것은, 항상 그가 그림으로 무언가를 그려주었을 때였다. 그걸 현실로 꺼내 유성운에게 주려면 지오 역시 무언가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것과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그럼 내가 이번에는 무슨 대가를 주면 될까?”

“유성운 씨는 제게 대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 괜찮다고?”

“예, 이번 대가는 박은겸이라는 인간에게 받겠습니다.”

“오….”

궁금증이 일었다.

‘대체 무슨 대가를 받겠다는 걸까.’

그런 유성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오는 여전히 나직한 음성으로 그에게 물었다.

“퇴근하실 시간입니까?”

“응? 아니, 나 같은 헌터는 정해진 퇴근 시간이 없는 편이라….”

"퇴근하고 싶으십니까?"

"그거야 당연히 하고 싶지. 일이 못 끝나서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것뿐이야."

"그럼 내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지오의 손에는 액자가 하나 들려 있었다.

"…어?"

유성운 자택의 거실이었다.

"잠깐, 여기…."

"좋은 밤 되시길."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

숨이 탁 트였다.

난방이 잘되어 온화한 공기가 피부로 느껴지고, 한동안 들리지 않은 탓에 먼지가 내려앉은 가구들.

사람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불 하나 켜지지 않은 어두운 집.

"……."

유성운은 제집 거실에 서 있었다.

"…아이고…."

고마운데, 진짜 섬뜩했다.

'이걸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세상에 이런 섬뜩한 배려가 다 있나.

유성운은 한동안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06)"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07)

제107화

“일단 확실한 건.”

유성운이 단정 지었다.

“지오에게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내 새끼 감싸는 보호자의 편협한 발언입니까, 유성운 큐레이터?”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소름 돋습니다.”

비사벌의 무신경한 헛소리에 유성운이 치를 떨었다.

“지오를 앞에 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는 않으실 텐데.”

그 아득하고 광활한 격을 앞에 두고 친근하게 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그나마 근원에 익숙한 정원사인 유성운이니 이 정도로 태연하게 대할 수 있는 거지, 아직도 지오와 마주치고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는 직원이 수두룩했다.

그런 유성운의 모습에 비사벌이 은근한 어조로 물었다.

“내가 과연 그 앞에서는 안 이럴까?”

“...젠장, 그냥 평생 지오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 억울해, ‘지오의 초상화’는 내가 샀어요. 내 지갑 털어서 내가 샀다고.”

“그럼 그 성격을 고쳐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인류의 평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지오가 길드장님 싫어해요.”

“제가 뭘 했다고...?”

“에너지가 넘치시죠, 너무.”

“그게 죄입니까?”

“아직 안 끌려가신 걸 보니 죄는 아닌 듯합니다.”

저 주둥아리는 좀 끌고 갔으면 한다만, 지오에게 그런 끔찍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미안한 일이었다. 마음을 다잡은 유

성운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갔다.

“정말로 지오에게는 나쁜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 녀석이 적의나 악의를 품고 박은겸 헌터를 끌고 갔다면, 제가 그를 꺼내 가고자 했을 때 조금이라도 불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 셈이 되니 말입니다.”

하지만 ‘지오의 초상화’는 아무런 유감도 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하는 대로 하라는 듯한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게 모습을 꾸며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꾸며 내겠습니까. 다른 곳도 아닌 지오의 배 속에서....”

지오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다만, 최소한 던전의 주인이 제 던전에서 기적에 가까운 권능을 펼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다.

“그런데도 저를 그렇게 곱게 대해 주었다는 건 정말로 악감정이 없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우리 서지오 헌터는 마음씨가 좋기도 하지.”

“꼭 손자를 대하는 것처럼 푸근한 미소인데... 지오 앞에서는 안 그래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유성운은 반쯤 체념했다.

“저 혼자만 확인한 부분이니 확실하다고는 못 하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 ‘지오의 초상화’가 인간을 공격하는 이유는 역시나 그가 악하고 무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라는 종족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였고요.”

“인간이라는 종족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면....”

“이게 확실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거 있잖습니까. 병든 닭은 병원균을 퍼트리기 전에 살처분하고... 너무 폭력적인 동물은 동물원에서 따로 격리해 두는....”

“오, 제가 듣기에는 아주 정확한 비유인 것 같군요. 알아듣기에 정말 딱 좋은 비유였습니다. 지오에게는 저희가 그런 가축이나 짐승으로 보인다는 걸까요?”

“.......”

유성운이 어색하게 웃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서울을 관광할 때의 지오는 지극히 인간다우며 친절하고, 상대를 존중했다. 다만 그 모습과 ‘검은망토’일 때의 모습이 아예 다르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니라서 헷갈렸다.

“차라리 인격의 변화에 따라 인간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면,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이해하기에 편할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성운이 난감한 기색을 드러냈다.

“확실한 게 있다면 인간이라는 종족에게 호의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건 이전부터 알고 있던 부분이지만, 조금 더 분명해졌군요.”

“맞습니다, 분명해졌죠.”

이번 일로 유성운은 지오의 습성 한 가지를 알 수 있었다.

“지오는 악하고 무례한 인간을, 그 이외의 다른 인간과 거의 다른 종족으로 대합니다.”

‘지오의 초상화’가 모든 인간을 가축처럼 여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악하고 무례한 이는 가축처럼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만큼 무신경하고 무자비한 태도였던 것이다.

“제 앞에서 검은색 정장의 투명 인간과 대화하며 ‘나는 이만큼 박은겸이라는 인간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정말로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런 연극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성운은 ‘공허의 도시’에서 보았던 검은망토를 떠올렸다.

“정말로 그 어떤 가치도 두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러니 악의가 없다고 표현한 거군요. 말 그대로 살의도 적의도 없으니.”

“끌고 온 인간이 이대로 갇혀 죽든, 도망치든, 발악하든, 지오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격리 혹은 처분이죠. 게다가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지오의 관심은 오로지 선하거나 평범한 인간들에게 쏠려 있어요.”

“그렇다고 안간힘을 다해 악한 이들을 전부 없애려는 정성도 없습니다. 그저 지오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을 눈에 보일 때마다 처리하는 것 같았죠.”

“그거참 무섭군요.”

비사벌이 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딱 그 정도입니다.”

“...길드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인류에 크게 해가 되는 행동이 아니에요.”

만약 그가 지구의 모든 악한 이를 제거하려 한다든가, 혹은 대놓고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이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편애를 보였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오의 초상화’의 행동은 인류에게 큰 혼란을 주지 않는다.

“그냥 심심풀이 땅콩 정도의 놀이로 인식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놀이라기에는 별다른 즐거움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가지는 것 같지도 않죠.”

“하긴 애초에 놀이나 처벌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열의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원의 존재가 보이는 열의만큼 인류를 위협하는 재앙이 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오의 습성은 지구에 큰 재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어쩌다 가끔 튀어나오는 이벤트에 가까웠다.

“최소한 액자 앞에서만이라도 몸가짐을 조심하면 끌려갈 사람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 이 정도면....”

“충분히 공존할 수 있습니다.”

비사벌이 확정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인류에게는 공존 이외의 선택권이 없는 와중에 참 다행인 소식이군요. 지오가 아니라 인간들의 관점에서도 큰 무리가 되지 않는 공존일 테니, 협회에서도 한결 부담을 덜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비사벌의 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유성운은 아예 마음을 놓지 않았다.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저희가 ‘지오의 초상화’를 분석하기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유성운 큐레이터의 말이 맞습니다. 근원의 존재를 ‘전부 파악했다’라고 생각해 안심하는 것만큼 멍청한 일도 없죠. 특히 지오처럼 아직 정체조차 모르는 상대라면 말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는 점입니다. 그 정확한 정보라도 알 수 있다면 조금은 마음이 편할 텐데, 이렇게 계속 모르는 사실이 튀어나와서야...."

당장 보인 지오의 습성은 인류에 큰 해가 되지 않으리라 믿어도 됐지만, 그 이외의 것은 알 수 없었다. 언젠가 '지오의 초상화'가 또 다른 공격적인 습성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었다.

"......."

유성운이 목을 쓸었다.

"...너무 오래 끌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체라도 알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명색이 큐레이터고, 또 명색이 정원사인데.

"저는 아직도 지오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해가 바뀌는 이 시점에도 말이다.

"이번에 새로 등장한 액자는, 그 회색 도시는 비정상적인 던전이었습니다. 정상 던전과 기본적인 토대가 비슷해서 오히려 더 큰 위화감을 느꼈죠. 마치 던전을 흉내 내는 듯한 느낌이 강했고요."

그리고.

"그건 정원에 가깝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압니다. 정원은 근원의 맥이기도 하죠."

정원사들이 말 그대로 생명을 갈아 넣어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는 '정원'은, 한마디로 정의하다면 '근원의 장기'였다. 근원의 핏줄과, 심장과, 폐와, 근육, 뼈,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정원사의 의무였다.

"인간 이외의 존재가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따지기엔 저희가 근원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 없기도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정원사는 인간이지만, 그걸 알게 된 지도 고작 31년이 지났죠."

"한계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근원에 저희가 모르는 점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오를 인간이 아니라 정원사로 판단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설령 정원을 관리하는 몬스터가 있다고 해도, 그런 성실한 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과 별개로 정원을 직접 만들어내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원사는 그럴 수 없죠."

그래, 정원사'는' 그럴 수 없었다.

그렇다면....

"......."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입을 다문 유성운 대신 비사벌이 말을 이었다.

"만약 근원이 인격체라면 어떻게 될까요?"

유성운은 헛된 소리라 질책하지 않았다.

* * *

“내 새끼들.”

유성운이 떠나가고 홀로 지오는 품에 검은정장들을 껴안은 채 초상화의 삶을 만끽했다.

“아버지가 신경 써주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잘 커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쩜 이렇게 멋진 신사로 컸을까. 내가 또 자식 복이 있지, 아무렴.”

얼굴도 보이지 않는 검은망토와 얼굴 없는 검은정장들의 조합은 누가 봐도 소름 끼쳤지만, 이곳에 그런 점을 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오는 연신 ‘기특한 내 새끼’를 중얼거리며 그의 새 자식들을 보듬었다.

“이렇게 깜찍할 수가 있나.”

제 아비를, 정확히는 ‘공허의 도시’ 내부의 몬스터이니 할아버지에 가깝겠지만, 아무튼 가족을 알아보고 순순히 안겨오는 자식들이 사랑스럽기만 했다. 이 각박한 세상의 새콤달콤한 비타민이 따로 없었다.

“딱히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저를 많이 닮았군요.”

“예, 저희가 아버지를 닮고자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커서 아빠 같은 어른이 될 거야’인가. 좋은 울림이다.”

“예,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성실하고 똘똘한 아이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지오도 이 ‘검은정장’들이 객관적으로 꽤 무서운 외양이라는 것은 알았다.

원래도 무뚝뚝한 성격의 지오를 어설프게 따라 한 탓인지, 그들의 행동은 인간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엉성한 위화감을 풍겼다.

박은겸은 단지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질 듯한 공포를 느꼈고, 경험 많은 정원사인 유성운도 참을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다. 지오도 타인이 그런 감상을 받으리라는 걸 아예 모르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건 내 알 바가 아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 애들이 아빠 닮아 보겠다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꾸몄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다.

“이 감수성 풍부한 아버지는 자식들의 기특함에 눈물이 납니다.”

“쓰다듬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기특한 내 새끼들.”

이미 지오의 눈에는 굵고 튼튼한 콩깍지가 껴버렸다.

“부디 사람들이 무섭다고 뭐라 해도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다면 아무것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비록 인간 친화적인 모습은 아니라지만 내 눈에는 귀엽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아주세요.”

“내가 이 나이에 자식 복이 있어서....”

이 사랑둥이들 같으니.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참 훈훈한 가족이었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07)"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08)

제108화

며칠 뒤.

“지오, 깨어 있나?”

유성운이 ‘지오의 초상화’를 찾았다.

“지난번에 말했던 모종을 들고 왔는데.”

“깨어 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모종이 맞는지 확인해 봐.”

액자 속에서 지오가 유성운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요구한 것은 꽃 하나와 나무 하나였다.

바로 ‘꿀단지’와 ‘석염나무’였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 꿀과 소금을 얻을 수 있었다.

‘지오는 이렇게 목가적인 물건을 선호한단 말이지.’

하긴 본인의 집부터가 숲속의 오두막이라고 했던가. 농사를 짓기 위해 각종 씨앗을 요구한 적도 있었고.

‘취향 한번 확고하네.’

유성운은 액자 안으로 들어가 그림이 된 꿀단지와 석염나무의 모종을 보았다.

“…….”

“…….”

지오는 그것을 갓 태어난 동물이라도 되는 양 어루만지고 있었다.

‘…식물과 소통하는 스킬이 있다거나….’

인간들에게도 아예 없는 스킬이 아닌 만큼 그런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지오는 동식물이나 어린아이들처럼 돌보는 보람이 있는 것을 좋아했다.

곧 초상화가 답을 주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겁니다.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운 씨.”

“그걸로 만족했다니 다행이네. 나중에 지구와 던전의 식용 식물을 정리해서 넘겨줄 테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고.”

“저도 유성운 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지오는 아직 연약하기만 한 모종을 품에 안고선 물었다.

“오늘 용건은 여기까지입니까?”

“뭐, 그냥… 이것저것 수다나 떨어볼까 해서.”

“좋습니다. 차이솔 학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이솔 군? 이제 신전으로 들어갔지.”

유성운은 근처에 있던 간이 의자를 끌고 와, 초상화 앞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상당히 늦은 편이야. 원래는 입단식을 마치자마자 들어가서 사제가 될 준비를 받았어야 했는데, ‘심해의 나라’ 사건으로 시간이 많이 촉박해졌다고 강서담 사제님이 피곤해하더라.”

“저희 제자들이 폐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몇 번 타이르려고 해봤지만 아직도 인간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성과가 있다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증오하지 않는 몬스터는 없으니까 상관없어. 그 힘과 이성의 근간이 되는 감정을 타이른다고 부정할 수 있을 리가 없지. 그래도 지오 네가 그 인어들 옆에 있어준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네.”

그렇게 말하며 유성운은 ‘심해의 나라’에서 목격되고 있는 인어들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말도 안 되게 흉포하다던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으나, 초반에 목격되었던 인어들보다 최근에 목격되는 인어들의 위험도가 더 올라갔다고 보고되었다. 분노와 증오가 통제되지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더라.

‘지오가 인간을 미워하지 말라고 타일렀기 때문에 그 반발심으로 악감정이 더 커진 건가? 하지만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보고에 의하면 절망과 슬픔의 기색이 더 크다고 했지.’

지오의 반응을 보면 그와 만날 때는 멀쩡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네….’

그러나 몬스터가 소름 끼칠 정도의 이중성을 띠는 것은 그리 드물지 않았다. 근원의 자식도 아닌 몬스터의 일을 유성운이 신경 쓸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차이솔 군은….”

유성운이 곧 그 쾌청한 아이의 근황을 떠올렸다.

“신전에서 정해준 파트너가 은하 군이었잖아? 어린 형태를 취했던 이세르 말이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세르가 빠지게 되었으니 차이솔 학생은 파트너가 없겠군요.”

“그래서 잠시 혼란이 있었는데, 어찌저찌 파트너는 잘 찾았다는 모양인 것 같아.”

이번 ‘심해의 신전’ 사건이 큰 영향을 준 것이다.

“예비 사제일 때부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으니, 이렇게 위험한 일은 못 하겠다고 생각해서 신전을 나간 아이들이 몇 있었나 봐. 마침 남은 예비 사제의 수가 짝수라 파트너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해 줬다 하더라고.”

유성운이 어깨를 으쓱였다.

“사제는 기본적으로 2인 1조라 어쩔 수 없기는 하겠지.”

“제가 듣기로 사제의 파트너는 평생 간다고 하던데, 바뀌지 않는 겁니까?”

“예비 사제일 때는 몇 번 바뀔 수 있지만 신전에 등록된 정식 사제가 되었을 때의 파트너는 평생 가는 게 맞아.”

“다른 한쪽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더는 사제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파트너를 잃은 사제들끼리 상호 간 동의를 해서 새 팀을 짜면 모를까, 보통은 홀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어.”

대표적인 예시로 입단식에조차 홀로 나타났던 강서담 사제가 있었다.

‘흔한 일이긴 하지.’

40대 정도의 사제들은 대개 새 파트너를 구하지 않았다. 평생 손발을 맞췄던 파트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려면 여간 피곤한 게 아닐 테니 말이다.

“평범한 직장인의 눈으로 보자면 대체 왜 그렇게 피곤한 구조를 만들었나 싶기는 한데....”

“왜 사제는 2인 1조가 기본인 건지 궁금합니다. 전통이라는 것 이외에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전통인 부분이 크기는 해. 그 뭐냐, 애초에 종교계는 쉽게 변하지 않거든.”

하지만 그 이유만은 아니었다.

“사제가 쓸 수 있는 성력은 타인과 협동할 때 가장 효력이 강하다고 하더라고.”

“모든 사제의 성력이 그렇습니까?”

“최소한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예외가 있기는 한데, 악신을 모시는 사제들은 혼자일 때 가장 강해.”

그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제는 없었다.

“그래도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 그들이 모시는 신마다 추구하는 덕목이 다른 탓일 거야. 신 대부분은 우정과 평화를 중시하지만 악신은 파멸과 고통을 필요로 하니까.”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태양교는 사제 한 명 한 명을 ‘작은 빛’이라고 표현해. 희미한 빛이더라도 다 함께 모이면 커다란 빛이 되고, 또 그렇게 모이면 뜨거워질 테니 특히나 협동을 중요시하지.”

“협동할 시 성력이 강해지는 것도 그런 이유겠군요. 뭉칠수록 뜨거워질 테니 말입니다. 태양교의 신전은 따듯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검은 물감으로 칠해져 눈이 보이지 않는 ‘지오의 초상화’였지만, 유성운은 그가 자신을 응시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곧 초상화가 말을 이었다.

“차이솔 학생의 파트너는 어떤 아이입니까?”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일단 1등급 시민이라는 건 알아.”

“1등급 시민이군요.”

“어린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상당히 부유한 편이겠지.”

도시 내에 함께 살면서도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경제력이었다. 막 입단했을 정도로 어린아이인데도 1등급이라면, 제 부모 역시 대대로 1등급 시민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원래는 그런 식으로 짝을 짓지 않아. 사제끼리 파트너를 맺으려면 일단 같은 기숙사 방을 써야 하는 만큼 동성이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비슷한 등급으로 묶어두니까... 이런 경우는 드물어.”

유성운이 어색하게 웃었다.

“차이솔 군의 파트너는 성별도 다르고 등급도 다르더라고. 뭐, 정식 사제가 되면 차이솔 군도 2등급 시민이 되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왜 없겠어?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예비 사제들이 대거 탈출한 탓에 수가 상당히 적어졌나 봐.”

“사제분들께서 아이들의 파트너를 맺어주기 곤란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비 사제들의 의견도 많이 참고를 했대.”

그 결과가 이것이었다.

“그 애가 차이솔 군과 파트너가 되겠다며 난리를 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렇군요, 대단히 당찬 학생입니다. 차이솔 군과 나중에 함께 만나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너에게 좋은 평가를 받다니 크게 될 아이네.”

남은 예비 사제 중 남자아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3등급 시민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굳이 성별도 등급도 다른 아이들끼리 뭉치도록 했다는 건 본인들의 강력한 의사 표현이 없었다면 힘든 일이었다.

“붕어빵 사러 만난 차은혁 씨가 되게 피곤한 얼굴로 말해줬거든.”

“과연 범상치 않군요. 그래서 그 두 학생은 서로가 파트너가 된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차이솔 군은 별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반대쪽은 아무튼 좋아하지 않겠어?”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던 바가 이뤄졌으니 말이다.

“당연히 방은 각자 따로 쓰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양교에서 기숙사 방을 합치기로 했나 봐. 크게 구분해서 남자 방, 여자 방으로. 차이솔 군이 외로울 일은 없을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 말한 유성운이 피곤한 눈을 비볐다.

“…아이고 졸려라….”

“퇴근하지 못하셨습니까?”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닌다고 잠을 못 잤네.”

주로 ‘공허의 도시’에 관한 일들을 알아보고 다녔다.

“…….”

지오가 특히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차이솔에 관한 이야기를 한 덕분인지 분위기는 상당히 풀려 있었다.

눈치를 살피던 유성운이 곧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은겸 헌터를 풀어줘서 고마워.”

그가 알아본 것 중에는 이번 실종 사건의 중심이었던 박은겸도 있었다.

“알아보니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그럴 줄 알았지만, 여전히 무심한 태도네.”

지오는 정말로 자신의 배 속에 들어왔던 죄인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인간의 평균값을 선하게 만들기 위한 격리일 뿐이었을 테니까.’

유성운은 그런 지오의 무심함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가 어떤 눈으로 인간을 보고 있는 건지,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건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가 벅차 그는 괜히 박은겸의 이야기를 꺼내며 말을 늘였다.

“당연히 집으로 귀가하자마자 협회에 잡혀갔어. 자기 동료를 학대하고 버리기까지 했던 확실한 증거가 있는 데다, 그 외에도 ‘공허의 도시’에서 있었던 일은 협회에 있어 중요한 자료니까.”

유성운도 그 ‘중요한 자료’에 한몫을 톡톡히 했다.

“박은겸 그 인간도 자기가 왜 끌려갔는지 알고서는 요즘 조심하는 모양이던데?”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인간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협회 측 사람들이 감시 중이기도 하니까 별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

“협회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또 나쁜 짓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래.”

유성운은 다시 말을 골랐다.

“…그거 알아? 요즘 네 이름이 많이 유명해졌어.”

“어떤 식으로 유명해졌습니까?”

“일단은 축하해, 너의 팬이 생겼거든. 네 그림이 좋다나 봐.”

“제 부족한 작품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겸손한 반응인데?”

지오의 ‘작품’은 예술적인 가치가 컸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검은망토’의 작품은 총 두 개. ‘숨 쉬는 바다’와 ‘공허의 도시’였다.

전자는 단지 바다를 그렸음에도 사람의 시선과 숨결이 느껴진다는 듯한 이야기가 많았고, 후자는 보기만 해도 외롭고 슬퍼져 가족과 친구에게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했다.

“물감도 네가 직접 만든 거지?”

“맞습니다. 이 숲에는 제 작품을 도와주는 많은 재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색이 아주 독특하다면서 좋아하더라고.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너만의 색이니까. 몇 명은 흉내를 내보기도 한다던데….”

“제가 있는 곳의 재료가 없다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네 작품이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정말 한 명의 화가가 등장하기라도 한 양 일부 사람들은 지오의 작품에 매료되었다. 단순히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훌쩍 가는데, 심지어 그 안에 세계가 있다며 황홀해하고는 했다.

작품에 눈이 먼 예술가들이 비사벌 한 명뿐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러다 위험한 분위기로 흘러가지만 않았으면 좋겠네.’

지오는 유난히 사람들을 홀리고 흔드는 능력이 뛰어났다.

‘예전에는 그것이 단지 지오반니의 능력일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지만, 그저 초상화일 때도 굉장한 파급력이 있었고….’

처음 ‘심해의 신전’에 끌려갔을 때도 생각했던 거지만, 이 녀석을 대상으로 한 사이비 종교라도 생겨 버린다면 정말 골치 아플 것이었다.

“아무튼 지금은 다들 도시의 새로운 이벤트를 가볍게 즐기는 느낌이려나.”

“그렇습니까….”

“아, 싫었어? 일단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라 알려주기는 했는데 말이야.”

“사람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래, 얼굴 가리고 다니면 어느 정도는 커버 되겠지.”

괜찮다는 듯이 작게 웃던 유성운이, 이내 울컥 올라온 질문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래서 궁금해지더라고.”

“…….”

"너는 누구야?"

그걸 알아야 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야, 공존이 가능했다.

살아갈 수 있었다.

오

Chapter (108)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09)

제109화

“너는 누구야?”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

뭘요?

지오는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대체 어찌 된 흐름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고 있지 않았나.’

내 허락도 없이 유명해진 저 스스로에게 부담감을 느끼던 도중 이게 웬 날벼락인가.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받게 된 지오가 때아닌 자아 성찰에 빠졌다. 아무리 생각 없이 사는 지오라고 해도 방금 질문이 꽤 진지하다는 것 정도는 알았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군.’

마치 부모님이 자식의 맞은편에 앉아 ‘아들아 우리가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하니’라며 한탄하는 듯했다. 그리고 유성운은 지오의 부모님이 아니었다. 지오는 직장이 있다가 없어진 성인 남성이었다.

‘왜? 내가 왜? 갑자기 진로 상담을?’

대체 유성운이 어느 부분에서 진지해진 건지 알 수가 없었다.

“…….”

“…….”

침묵이 길어지며 지오가 느끼는 혼란과 초조함도 커졌다.

‘…각 잡고 진지하게 물어봤으니 나도 각 잡고 진지한 대답을 해야 그게 인간으로서의 도리이거늘 아는 것이 없으니 무어라 해줄 수 있는 말도 없구나. 학창 시절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폐해의 대명사인 나 서지오의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되다니.’

상황을 이해해야 답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내가… 내가 누구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귀신 들린 초상화…?'

지금 지오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일 것이었다.

다만 죽지도 않았던 자기 자신을 '귀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랬던 지오가, 잠깐의 고민 끝에 대답했다.

"저는 초상화입니다."

"…초상화라고."

"유성운 씨가 무엇을 걱정하시는 건지 압니다."

"……."

"하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심이었다.

'나만큼 무해한 귀신 들린 초상화가 어디 있다고?'

최근 지오가 '만만하게 보이면 연구소로 잡혀간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이미지 관리를 한 게 조금 있기는 했다.

지오는 그게 유성운에게 큰 위협을 느끼게 할 만큼 대단한 성과를 낸 적은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유성운 씨의 반응을 보면 명백히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오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언젠가 칠지도 모를 사고를 염려하는 듯했다.

집에 처박혀 그림 그리고 밥만 먹을 줄 아는 지오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스스로의 날백수성을 피력했다.

"저는 단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직접 요리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며, 봄바람이 가득 찬 침대에 누워 수면을 취하길 반복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혹시 포○몬 아시는지?

'나 잠○보야 잠만○.'

먹고 자고 싸기를 반복하는 게으르고 건강하고 무해한 짐승이란 말이다.

"그건 제가 초상화이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

"유성운 씨는 그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형님이 어떻게 이런 오해를.

'세상에 내가 어떤 식으로 알려지든 난 그냥 말하는 초상화라는 거 알잖아, 형. 나의 하찮음을 믿어줘.'

초창기부터 자신과 함께해 왔던 유성운이었으나, 아마 세상 사람들이 술렁이는 소리에 잠시 지오의 위험도를 헷갈린 것 같았다. 자신의 이미지 관리가 성공했다는 뜻이었으나 이런 상황은 반갑지 않았다.

참고로 그의 위험도는 자그마치 0에 수렴했다. 불개미만도 못한 수치였다. 사람을 실명도 시킬 수 있는 개미산을 쏘는 불개미와 산은커녕 치아 건강 생각해 앙 깨물지도 못하는 지오를 비교하면 단연코 그가 졌다.

"왜 그런 걱정을 하게 되셨는지는 이해합니다."

지오는 이것이 소통의 부재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했다.

“저희는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유성운이 허구한 날 지오 자신과 깨톡을 주고받으며, 그가 집 안에서 얼마나 날백수처럼 생활하는지 알았다면. 호랑이가 토끼의 폭력성을 염려하는 듯한 저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을 애초에 품지도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인간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또 탐구하는 것처럼, 저도 그와 같습니다. 저 역시 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

“그러니 직접 확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오는 정말 오해를 풀고 싶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한 말이었다.

‘유성운 씨는 맨발로 뛰어 서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공허를 찾아냈지. 심지어 나는 있는 줄도 몰랐던 박은겸이라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크리스마스에도 일을 했고. 이는 그가 참으로 불쌍하고 유능한 직장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살이 오동통 찌도록 밥을 배불리 먹여야 했다. 원래 배부른 자는 허튼 생각 않고 허튼소리 않았다. 이게 다 피곤에 찌든 사회가 불러일으킨 폐해였다.

그러니.

“유성운 씨를 초대하겠습니다.”

지오가 유성운을 배불리 먹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 * *

유성운이 ‘지오의 초상화’ 안에 그려졌다.

* * *

“.......”

가장 처음 느낀 것은.

‘아.’

따듯하다.

산들거리는 봄바람이었다.

“.......”

고개를 든 유성운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르네.”

요즈음에는 보기 힘든 청명한 하늘이었다.

저 하늘 위에는 잠이라도 자는 듯 큼직하게 늘어진 구름이 둥실거렸고, 그 위로는 당장이라도 이슬이 쏟아질 것처럼 투명한 대기가 있었다.

고요하면서도 평온함을 담은 하늘이 여기에 있었다.

“지구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야.”

“확실히 서울은 공기가 매캐했습니다.”

“...딱히 서울이 아니더라도, 뭐....”

유성운은 저도 모르게 멍하니 시선을 하늘에 두었다.

“이만큼 푸른 하늘을 어디서 볼 수 있겠어.”

아주, 아주 오래전 지구는 이토록 투명한 하늘이었다고 한다. 그건 대재앙 직전에 태어난 유성운에게 상당히 낯선 정보였다. 던전이면 모를까 지구가 그런 적이 있었다니 신기했다.

‘여기도 따지고 보면 던전인데.’

유성운의 고개가 기울었다.

‘…왜 낯설지가 않지?’

과거에 본 적도 없는 하늘을 향해 그리움을 품는 것은 정상이 아니었다.

“…정말 예쁜 하늘이네….”

“마음에 드십니까?”

“저녁이 되면 별도 뜨나?”

“은하수를 볼 수 있을 만큼 뜹니다.”

“은하수라, 굉장한걸.”

이제는 사막을 가도 지구에서는 볼 수 없다는 은하수를 이 오두막에서는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니.

어딘가 홀린 듯 하늘을 올려다보던 유성운의 고개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다.

“…….”

그의 눈에 부드러운 색감의 숲이 담겼다.

“여기가 네가 말했던 숲이구나.”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숲 짐승들을 말하는 거겠지?”

마침 수풀 사이에서 기다란 목을 가진 사슴이 얼굴을 드러냈다.

“오.”

보석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진, 동화적이고 아름다운 사슴이었다.

귀를 기울이니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선을 돌리니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는 새 몇 마리가 보였다.

포르르 날아가는 꽁지깃을 따라가자 바닥을 따라 잔잔하게 흘러가는 좁고 얕은 물길이 보였다.

숨을 들이켜니 꽃이나 견과류의 것처럼 달고 고소한 향이 나는 듯했다.

“…….”

햇볕이 부서지는 시냇물은 마치 보석처럼 일렁였고, 그 안을 지나다니는 물고기는 이따금 꼬리를 치며 소리를 더했다.

유리처럼 투명한 물 아래로 깔린 자갈돌이 광채를 내는 대리석처럼 반들거렸다.

“…이건 정말….”

평화롭다.

“나오고 싶지 않을 만도 하네.”

마치 지혜로운 노인의 무덤과 같은 평화였다.

“늘 초상화를 통해 보고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멋질 줄은 몰랐어.”

“감상은 즐거우십니까?”

“정말 즐겁네. 숲 안쪽에 뭐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낮잠을 자면 어떤 기분일지도 궁금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평온함이 이곳에 있었다.

“위험할지도 모르겠어.”

위압감 같은 것은 크게 없지만, 그것과 별개로 안온함이 너무나 짙어 그 감상이 마치 늪과 같았다.

줏대 없는 사람이 끌려오게 되면 제 자아를 잊고 이 숲의 조형물이 되기를 바랄 것이었다.

‘그렇다고 지오에게 악의가 있는 건 아니야.’

이 숲 역시 그 어떤 악의도, 심지어 호의도 없었다.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그게 자연이었다.

이곳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리움을 품은 자연이었다.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신들의 만찬과도 같았다.

각오 없이 이 평온을 누려서는 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다.

“…….”

…용케 F급 헌터인 차아라가 이곳을 견뎠군.

‘지구에 있는 가족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눈이 돌아가지 않았나 본데.’

숨을 한 번 내쉴 때마다 애틋함에 눈이 저릿해지고 행복감에 손끝이 간질거렸다.

미련이 없고, 용기가 부족하고, 자아가 약한 이들은 견디기 힘든 평화였다.

“…내가 여기서 뭘 알아보면 되지?”

“저는 유성운 씨가 이곳의 무언가를 알아보길 원해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나를 초대한 이유가 뭐야?”

“그저 함께 즐기기를 바란 거죠, 큰 의미 없이. 서로 알아갈수록 무서워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지오는 어느새 망토를 벗은 채였다. 기이할 정도로 무표정한 얼굴의 청년이 말을 이었다.

“친구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친구라….”

초상화는 유성운을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너에게 친구로 보이나?”

“…제 착각이었습니까?”

“아니, 나도 괜찮다면 너 같은 친구를 가지고 싶었어.”

근원과 소통하길 원했다.

“나는 정원사니까.”

대화할 수 있는 근원이 여기에 존재했다.

“이렇게 멋진 정원을 보면 홀려 버리거든.”

“…그렇게까지 좋아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냥 이런 곳을 아주 좋아한다는 의미였어.”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너는 여기에 살고 있는 거지?”

유성운이 초상화를 보았다.

“이곳을 네가 만든 건가?”

“제가 그렸습니다.”

“어쩌다?”

“어쩌다가요.”

“특이하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곧 유성운이 물었다.

“그거 알아? 여기, 너랑 연결되어 있어.”

“제가 이곳의 주인이니까요.”

“네가 여기의 주인이라는 건 알지.”

하지만 유성운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었다.

‘이 정원이 곧 지오의 초상화다.’

이 무서울 정도로 안온한 세상과 ‘지오의 초상화’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지오는 초상화이고, 이 세계는 그 초상화 속에 존재한다. 지오라는 자아를 중심으로 한 초상화의 모든 것이 그 본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네가 그린 것만 존재할 수 있나?”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 자생하고는 합니다.”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았어. 그건 액자 바깥으로 꺼낼 수 있고?”

“예, 액자 바깥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 그냥… 이것저것 알아보는 거지.”

달그락.

“…….”

투명한 물새들이 나뭇가지 위에 앉았다. 그 사이에는 지오가 아들이라 부르는 허니도 함께 있었다.

“…여기는 신기한 게 많으니까.”

유성운은 그들의 시선을 읽어낼 수가 없었다.

이 평화에 해를 끼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들의 부모인 지오가 초대한 유성운을 환영하는 것 같기도, 혹은 그저 아무런 감정 없이 지켜보는 카메라 같기도 했다.

그들에겐 악의도 호의도 없었다. 혹은 둘 다 있을지도 모른다.

“…….”

이 낯부끄럽게 울어버릴 것만 같은 그리움은 어디서 오고 있지?

"…저기가 네 오두막일 거야."

"맞습니다. 차아라 학생은 곧장 내부로 와 숲은 구경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한번 봐도 될까?"

"실례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감상해도 된다는 말을 못 했군요."

"그래, 고마워."

지오의 흔쾌한 허락하에, 유성운은 손으로 오두막의 벽을 쓸었다.

'…따듯하다.'

그리고 미약한 진동을 느꼈다.

죽은 나무의 심장이 박동하는 소리였다.

"…여기 말이야."

"예, 말씀하세요."

"숨을 쉬고 있네."

이건 생물이었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무생물이었다.

"내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나?"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초대해 줘서 고마워, 너무 좋아서 그런 거야."

"그간 많이 피곤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죽는다면 이런 곳이 좋겠어."

정원사는 정원에 묻히기 마련이다.

"여기 정말, 멋진 정원이네."

이곳은 근원이다.

그건 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되었다.

오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10)

제110화

지오의 오두막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안할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공기가 굉장히 온화하네."

"항상 봄 날씨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마치 부모의 품에 안긴 듯한 안정감이 있었다.

"…여기서 자면 잠이 잘 올 것 같아."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지오가 이내 물었다.

"원하시는 식사가 있습니까?"

"…아, 식사 대접 해주려고?"

"그러려고 유성운 씨를 초대했습니다."

"그런 목적이었나."

지오의 정체를 분석하기 위해 초대에 응했던 유성운으로서는 살짝 민망해지는 일이었다.

'하긴 이 할머니 같은 녀석이 손님 대접을 허투루 할 리가 없지.'

목적이야 어쨌든 지오는 유성운을 손님으로서 이곳에 받았다. 안 그래도 마주치는 사람마다 선물을 뿌리고 가는 지오가 유성운에게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을 리는 없었다.

"아무거나 다 괜찮기는 한데, 그렇게 말하면 네가 싫어할 거고."

"세상에 '아무거나'라는 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리는 건 없단 말이지. 선호하는 것도 없어."

"그렇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차리겠습니다.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까?"

"아니, 알레르기 같은 것도 없으니까 괜찮아."

"알겠습니다."

지오가 고개를 끄덕이자, 주방에서 퐁퐁퐁 소리를 내며 무언가가 다가왔다.

저게 뭘까. 유성운은 하얀 솜뭉치에 눈을 빼앗겼다.

“손님맞이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꾸.”

찻잔을 든 곰인형…?

“…….”

아니, 곰인형?

‘…곰인형이 웰컴 드링크를 가져왔어?’

유성운은 혼란에 빠졌다.

근원의 존재를 자주 접하는 유성운은 유독 인간 아닌 것의 기운에 민감했다.

그만큼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도 어지간하면 파악이 가능했는데, 그런 그가 생각하기에 눈앞의 곰인형은 신성에 가까운 기운을 품고 있었다.

‘…잠깐만, 이 태양을 닮은 신성력이라면….’

판단을 마친 유성운이 지오를 돌아보았다.

“…네 아버지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대 태양신이신가?”

“맞습니다.”

“덕분에 이해했어.”

신성 자체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기운과, 지오에게서 몇 번이고 느꼈던 태양 특유의 저릿한 온기.

아마 이 곰인형은 지오에게 신성을 물려주고 남은 힘을 품고 있는 태양신인 듯했다.

“아무리 그래도 보통 곰인형에 들어가나…?”

“이 몸이 익숙하다고 하셔서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말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신께서 인형의 몸이 익숙할 일이 있어?”

“이 몸으로 식사를 해 버릇하다 보니….”

“결국 네가 원인이잖아.”

“맞습니다.”

“…….”

유성운은 어색한 몸짓으로 태양신이 건넨 찻잔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꾸꾸.”

방금 웃은 건가.

‘살다 보니 신이 웃는 것도 보게 되는군.’

물론 태양신이 낡은 곰인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부터가 놀라운 일이기는 했다.

“신기하네, 보통 전대 신과 후대 신은 사이가 안 좋은데 말이야.”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을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인데요.”

“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사고방식의 차이가 커서 그런 게 아닐까 추측하고는 있어. 생물의 삶과 죽음과 차원을 관장해야 하는 신은 같은 신성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생각의 범위가 다르니까.”

하나의 신대가 끝나기까지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리니, 원시인과 현대인이 사이가 좋기 힘든 것과 비슷한 이치였다.

“특히 인간이었다가 신이 된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지.”

“…….”

지오가 물었다.

“그럼 제가 신입니까?”

“…오… 그… 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는 신도 있군요. 생각보다 신도 별게 없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역시 저는 인간인 것 같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요.”

“그럼 그런 거겠지.”

아무래도 지오는 스스로를 ‘신성이라는 자격증을 물려받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게 바로 신이 아니라면 뭘까 싶지만, 일단 본인이 그렇다니 유성운은 입을 다물었다.

‘지오라는 자아가 신성에 잡아먹히지 않은 것 자체는 맞으니까.’

신이 된다는 것은 자연과 운명으로서의 자격을 쥐고, 생명체로서의 사고를 포기한다는 의미였다.

그럼에도 지오는 아직도 식사를 즐기고, 요리를 잘하며, 타인에게 나누는 것을 보람으로 삼으니 확실히 신이라고 하기엔 문제가 많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지오’라는 존재는 바뀌지 않을 것이었다.

“…….”

그가 근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걸까?’

유성운은 식사 준비를 하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는 지오를 보았다.

‘근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안 해. 정원사인 내가 그걸 헷갈릴 리가 없지. 이 초상화는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또 인격체에 가까운 형식의 근원이 맞다.’

하지만 그 과정까지 이해할 수는 없었다.

‘저건 단순히 근원 위에 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랬다면 이 공간과 지오는 분리된 객체였어야 했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듯 뼈와 살처럼 붙어 있다는 것은….’

유성운이 고민하고 있자, 퐁퐁 푹신한 걸음 소리를 내며 곰인형이 다가왔다.

“응?”

“꾸우?”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꾸우, 꾸꾸꾸. 꾸,”

“…….”

제 앞에서 솜바닥을 동동 휘두르는 곰인형의 모습에 유성운은 난감함을 느꼈다.

‘신을 귀엽다고 느끼면 불경죄인가. 종교는 내 전문이 아닌데.’

신의 심장이라 할 수 있을 신성이 없는 상태라고는 해도, 그가 여전히 신에 가까운 존재라는 것은 맞았다.

유성운은 솜이 넉넉하게 들어간 곰인형에게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그를 주의 깊게 살폈다.

“…아.”

곧 유성운이 찻잔을 들었다.

“마시라고요?”

“꾸.”

“감사합니다.”

유성운은 손에 착 감기는 찻잔에 잠시 놀랐다.

“…오….”

이거 감촉이 좋은데.

‘매끈한데 부드러워.’

비단 같은 털가죽을 만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분명 단단한 찻잔이었지만 손에 분이 묻어 나올 것처럼 부드러웠고, 안정적인 두께에 비해 상당히 가벼워 들기에도 편했다.

‘그립감도 좋고.’

유성운 자신의 손에 맞춘 것이 아닌데도 잡기 편한 모양새였다.

“뭔가 푹신한 기분이….”

구름이나 생크림으로 만든 찻잔 같았다.

“역시 지오는 찻잔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구나.”

“꾸우꾸.”

“죄송하지만 진짜 모르겠습니다. 뭐라고요?”

살짝 구운 밥처럼 노릇한 색을 가진 하얀 곰인형이 곧 무언가를 가리켰다.

“…아.”

허니였다.

“꾸르르?”

“…우리 아까도 봤지? 나 초대받았다? 손님이다?”

“꿍욱.”

“뭔가 봐준다는 느낌인데.”

곰인형이 왜 허니를 가리켰나 싶었는데, 아마 이 찻잔 역시 지오가 그려서 만들어 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유성운은 저도 모르게 이해했다.

“어쩐지 감촉이 남다르더라니.”

그 안에 담긴 연분홍색의 찻물도 향이 좋았다.

“…이건….”

바닐라 빈과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싱그러운 달콤함. 어딘가 톡 쏘는 부분이 있고, 꿀을 탄 우유처럼 고소한 면이 있으면서도, 식물 특유의 가벼움이 더해져 부담스럽지 않은 향.

유성운이 눈을 가늘게 떴다.

‘이거 사람이 마셔도 되는 차가 맞나?’

그는 저도 모르게 감정 스킬을 사용했다.

[눈물이 피어나는 비단] [등급: –]

운명의 수맥에 자생하는 울음 자락을 숙성시켜 만든 꽃차. 익히지 않은 울음 자락 특유의 톡 쏘는 향이 희미하게 남아 단맛에 변주를 준다. 숲의 주인인 지오가 직접 공정하여 인간의 신체도 받아들일 수 있다. 마시는 순간 눈에 열기가 모인 후 시신경이 회복된다. 정신 계열 스킬을 무효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

에라 모르겠다.

‘식용은 된다잖아.’

유성운은 많지 않은 차를 그대로 입에 털어 넣었다.

“…달아.”

보통 차라고 하면 향이 단 것이 전부일 텐데, 설탕도 안 넣은 것으로 보이는 이 차는 한순간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 만큼 달았다. 딱 기분 좋은 단맛의 한계선을 꽉꽉 눌러 채운 듯했다.

‘후추처럼 톡 쏘는 향이 있기도 하고.’

단맛과 후추라니 뭔가 이상하지만, 직접 마셔보니 두 향이 따로 놀지 않고 잘 융화된 걸 느낄 수 있었다. 선명한 단맛과 뇌를 콕 찌르는 저릿한 향에 머리통이 꽉 찬 기분이 들었다.

쉬지 않고 나오는 코스 요리처럼 여유 부리기 힘든 즐거움이 있었다.

‘이건 느긋한 마음으로 즐기기는 힘들겠는데….’

그즈음, 유성운이 눈살을 찌푸렸다.

“윽.”

매운 것을 먹은 혀처럼 눈이 화해지는 게 느껴졌다.

고통이라고 하기는 힘들 기묘한 감각이었는데, 마치 민트 향 눈 세정제를 넣은 기분과 비슷했다.

한 3초 정도 기다리니 안구를 뜨겁게 만들던 감각이 순식간에 가셨다.

“…이래서 ‘눈물이 피어나는 비단’일 지도 모르겠네.”

예민한 기관에 열이 올랐던 탓인지 눈물이 조금 나왔다.

‘확실히 시야가 선명해진 기분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기는 힘들겠다고, 유성운은 다시 한번 생각했다.

입안을 벙벙하게 만들 만큼 꽉 찬 맛과 향에, 먹고 나서는 눈을 화하게 만들어 눈물까지 나게 하고, 거기에 시력까지 높여주는 효과의 차를 어떻게 편한 마음으로 마시겠는가.

“…….”

이렇게 차 한 잔에 공짜 시력을 얻어 가는군.

“기분이 싱숭생숭한데….”

“꾸르르?”

“…너도 이거 마셔봤니?”

“꿍.”

“맛있긴 했어.”

유성운은 입맛을 다셨다.

‘내가 있으면 안 될 공간에 온 것 같군.’

근원의 호의가 너무 과했다.

지구에도 ‘신들의 세상에 발을 들였다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협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흔했다.

‘대표적으로는 동양에서는 도원향의 이야기가 있고.’

그것과 정확히 같은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한 위기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부담스러워….’

여기 한 3일 숙식하면 불로불사가 되어 나갈 것 같았다.

* * *

한편 그런 유성운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집주인.

“흐음.”

지오는 유성운에게 대접할 식사를 구상하고 있었다.

‘한국인은 밥심이지.’

그랬다.

“필요한 것은 밥, 반찬, 국.”

마침 새벽에 갓 지어둔 밥이 있었는데, 갖은 채소와 약초를 끓인 물로 지은 밥이라 풍미가 아주 뛰어났다. 희미한 연둣빛이 감도는 밥알은 특히 달고 고소했다.

‘그다음은 반찬….’

생선은 ‘숨 쉬는 바다’에서 잡아 온 연어가 한 마리 있었고, 지하 창고에 모셔둔 햄과 소시지도 있었으며, 오두막 뒤의 텃밭에는 각종 채소가 튼실하게 자라나 있었다.

“생선은 굽고, 고기는 찌고, 채소는 볶으면 되겠군.”

묘한 결심이 깃든 그의 중얼거림을 들었는지 거실에서 유성운이 말을 걸어왔다.

“지오야 나 인간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거지?”

“두 발로 건강하게 걸어 나가실 겁니다.”

돼지가 될 각오는 해야겠지만 말이다.

‘저 비쩍 마른 직장인을 배불리 돌려보내고 말리라.’

지오는 마을의 큰손이셨던 제 할머니의 명예를 걸어보기로 했다.

국은 예전에 고아둔 사골국을 준비했다. 나무뿔사슴의 사골을 끓여 만든 국은 감칠맛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위로 간단히 파만 썰어 넣어도 충분히 국의 역할을 해줄 것이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요리들은 아니다만….’

지오가 주방에 드러누워 있던 다나를 불렀다.

“딸.”

“야옹.”

“귀찮다고 대충 우는 건가.”

“므앍.”

“평소로 돌아왔구나.”

지오는 다나에게 바구니 하나를 물려주었다.

“텃밭에 가서 가지와 청경채 좀 따줄 수 있겠니.”

“므으으으응….”

다행히도 다나는 심부름을 거절하지 않았다.

“기특한 것.”

요새 몸집이 평범한 고양이만큼 커진 다나는 아치형 다리처럼 쭈욱 기지개를 켜고는, 바구니를 문 채로 어슬렁거리며 뒷문으로 나갔다. 그 모습을 확인한 허니가 제 동생의 심부름을 따라갔다.

‘허니까지 갔으니 알아서 잘 하겠지.’

지오는 안심하고 밥을 펐다. 시골 할매 인심을 넉넉하게 담은 고봉밥이었다. 채수 특유의 가볍고 깊은 향이 천 리 바깥에서 미뢰를 자극했다.

그리고 유성운의 미뢰도 자극할 것이었다.

‘돼지가 되어라 얍….’

할머니들의 품에서 유년기를 보낸 지오는 먹을 건 좀 많이 나누라고 배웠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10)"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11)

제111화

혹시 크라켄의 다리를 불사조의 피로 볶아 해치의 머리로 장식한 신들의 만찬이 나올까 봐 유성운은 겁에 질렸지만, 걱정과 달리 지오가 차려준 식사는 소박했다.

'…아니, 평범해.'

그리고 풍족했다.

식탁 가운데에 놓인 큼지막한 생선구이와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갈색 소스의 고기찜. 토마토와 양파, 청경채가 들어간 듯한 채소볶음. 그릇 위로 봉긋하게 솟은 고봉밥에 파와 해물이 들어간 사골국.

'만들 수 있는 걸 있는 대로 만든 밥상처럼 조합이 미묘해 보이지만….'

왜인지 지구상에선 발견된 적 없는 생물들로 이루어진 밥상이었다.

"……."

유성운은 감정 스킬을 쓰지 않았다.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정확한 내용과 효과를 읽고 나면 제정신으로 식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맛있어 보이네."

"맛있을 겁니다."

"응, 그럴 것 같아."

그는 체념했다.

'설마 지오가 나를 이 오두막에 가둬두지는 않겠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다. 박은겸이라는 헌터도 '공허의 도시'에 며칠 머물렀다고 완전한 그림이 되어 나가는 데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았던가. 따지자면 이곳도 그림이었다.

그리스 신화에서 페르세포네는 고작 석류 몇 알 때문에 하데스가 있는 지하 세계와 연결되었다. 신이 실존하는 세계라 유성운은 더더욱 찜찜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차아라 헌터가 여기서 밥 먹었다고 집에 못 가지는 않았잖아.'

지오가 직접 초대하고 밥까지 먹였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 들었다. 지금과 크게 다른 밥상처럼 보이지 않는데, 유성운이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았다.

"…너 정말 요리 잘하는구나."

다만 유성운이 걱정하는 것은 제가 이 그림에 들어왔을 때와 같은 상태로 나갈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안 그래도 나쁘지 않던 시력이 더 선명해진 걸 보니 이미 그른 것 같긴 했다. 조만간 맨눈으로 생물의 세포도 관찰하게 생겼다.

“손이 크기도 하고.”

“생선이 좀 큰가.”

“생선만 커 보이니?”

물론 식탁 가운데에 떡하니 놓인 생선에도 놀라기는 했다. 일단 유성운이 아는 수중 생물이 아니었으며, 그 크기가 거의 살이 잘 오른 겨울 제철 대방어만 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생선이 좀 크기는 한데.”

유성운이 고기찜을 보았다.

“저 친구도 만만치는 않아.”

“동파육입니다.”

“지금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 동파육이 서로 다른가?”

“한국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동파육을 떠올리고 만들었는데.”

“너 대체 어떤 한국을 다녀온 거야.”

중식집에서도 저렇게는 안 내온다.

“거짓말 안 하고 결혼식 케이크만 하잖아.”

“3단 동파육....”

“진짜 살면서 처음 접하는 단어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동파육을 만들었는지도 의문이었다.

“솔직히 내가 요리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동파육은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간단히 말해 동파육이란 돼지고기를 오랜 시간 졸여 만든 중국 요리였다. 보통 정육면체 형태로 잘라 간장 베이스의 소스에 푹 삶는데, 잇몸으로도 씹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었다.

“예전에 중식당에 요청했더니 하루는 기다려야 한다고 했거든.”

“미리 만들어두지 않는다니 신선하고 따듯한 동파육이었겠군요.”

“원한다면 다음에 같이 가자. 아니, 그래서 이건 대체....”

“허니와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잘 알아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먹어도 된다고?”

아무래도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본데?

‘근원의 자식과 태양신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3단 동파육?’

뭔지는 몰라도 먹으면 인간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았다.

“...혹시 차아라 헌터가 들렀을 때 말이야.”

“예,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 친구 때도 이렇게... 어르신께서 도와주셨나? 식사 준비를?”

“그땐 제가 전담했습니다.”

“나는 왜?”

“예?”

“아니, 말이 잘못 나왔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 내가 안심을 할 수가 없잖아.’

아까까지만 해도 ‘에이 차아라 헌터는 괜찮았으니까 나도 괜찮겠지’라며 스스로를 도닥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와는 식사 준비 과정이 달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다.

‘정말 이래서 신이라는 작자들은 인간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

유성운이 애써 한숨을 삼켰다.

“…잘 먹을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네 눈에서 탐욕이 보이는지 모르겠다.”

너 탐욕도 드러낼 수 있는 녀석이었구나.

“오늘 내가 많이 알아가네.”

지오의 습성을 떠올려 본다면 상황에 맞춰 소통하기 위해 그와 어울리는 인간의 감정을 아주 비슷하게 흉내 낸 것에 가깝겠지만, 아무튼.

“대체 무슨 욕심인 거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역시 살이 좀 찌셨으면….”

“무례한 건 잘 모르겠고, 나 정말로 돼지가 되어 걸어 나가나?”

“…….”

“지오야?”

아무튼 식사가 시작될 즈음.

“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이쿠.”

안티캣 다나가 인간인 유성운을 보며 하악질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죄송합니다, 유성운 씨. 저희 아이가 낯을 많이 가려서 실례를 끼쳤습니다. 반성시키겠습니다.”

“아니야, 몬스터가 인간을 싫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사람만 보면 도망가기 바쁜 안티캣의 하악질을 보는 것도 희귀한 경험이고….”

유성운은 오히려 좋아했다. 저 보석 고양이의 하악질을 통해 유성운은 자신이 아직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아무튼 이제 정말로 식사가 시작되었다.

“…오.”

맛있었다.

“이게 바로 천상의 밥상.”

“과찬이십니다.”

“나름 객관적인 발언이었어.”

먹고 난 뒤의 후유증이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오가 차려준 밥은 정말로 맛있었다.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밥만 먹어도 혀가 기뻐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밥 색깔이 특이한데.”

“채수를 넣고 지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도 밥을 지어?”

“사골 육수나 해물 육수로 지어도 맛있습니다.”

“신기한데.”

밥은 물로만 짓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다. 근원을 상대로 하기엔 참 이상한 말이겠지만, 지오는 역시 다재다능했다.

“…….”

이렇게 묘하게 친근한 모습까지, 전부 인간과 어울리기 위한 위장에 가까울 터였다.

‘…하긴 식사만큼 생물의 경계심을 쉽게 풀 수 있는 수단이 없기는 하지. 특히 직접 요리를 한다는 점에서 친밀도가 높다.’

지오가 요리와 선물을 즐기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었다. 유독 겉모습이 무섭고 요란한 지오이니 말이다.

‘확실히 효과가 있기는 했어. 요즘 검은망토를 찾아다니는 시민 중 꽤 많은 수가 이 녀석이 나눠주는 간식 맛을 보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요리 솜씨는 인간을 꾀어낼 미끼라고도 할 수 있겠다. 유성운은 내심 고개를 끄덕였다.

“되게 고슬고슬하다, 뭉개지는 알이 하나도 없네.”

“신경 써서 지은 밥입니다. 칭찬해 주셔서 마음이 좋군요.”

“이런 밥은 대체 어떻게 짓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명성 높은 초밥 장인이 직접 지은 오돌오돌한 밥과 비슷하면서도 불쾌하지 않을 한계선까지 찰기가 있는 식감은, 솔직히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웠다.

“감칠맛도 좋고.”

딱히 간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채소 특유의 묘한 씁쓸한 맛과, 거기에서 흘러나온 듯한 감칠맛과, 겨울날 뜨끈한 어묵 국물을 마시는 듯 무언가 깊게 우러난 향기가 환상적이었다.

“뭐로 우린 채수야?”

“이것저것 들어갔습니다.”

“…….”

음식의 맛을 즐긴 지 얼마나 됐다고, 금세 유성운은 불길해졌다. 근원의 배 속에서 마음 편한 식사를 즐기기는 불가능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기분 탓인가? 나 지금 왜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지?”

“약초를 넣은 보람이 있군요.”

“약초? 어떤 약초?”

아니 잠깐만.

근원에서 난 약초?

“그걸 밥 짓는 데 썼다고?”

“맛있지 않습니까?”

“보통 맛있으라고 약초를 쓰나?”

“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지.”

유성운은 납득했다.

“이유가 없기는 해….”

근원인 지오에게는 말이다.

‘500년 묵은 영약으로 구운 빵을 먹는 듯한 기분이군.’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은 확실히 맞으나, 그것과 별개로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지구의 약제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피눈물을 흘리겠지.

“…약을 좀 맛있게 먹는다는 생각이면 되려나.”

“몸에 좋은 약이 꼭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발상이면 괜찮을 것 같아.”

약으로 맛있는 밥을 만든 게 아니라 밥으로 맛있는 약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말이다.

‘…아무리 그래도 속에 뭔가 얹힌 기분인데. 식사도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알았다….’

아마 본인은 스스로를 평범한 인간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밥상을 직접 겪는 유성운으로서는 부담스럽기만 했다. 그런데 정말 더럽게 맛있어서 수저를 내려놓기도 싫었다.

“하….”

이게 인간이나 각종 생물을 현혹할 미끼라는 건 잘 알겠지만, 역시 지오는 요리를 좀 덜 잘해도 될 것 같았다. 인류가 위험했다.

“이걸로 주먹밥 만들면 맛있겠다.”

“실제로도 맛있습니다. 나중에 출장 가실 일 있으면 싸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그래. 고마워.”

맛있으니 거절은 않겠다.

‘먹었다고 해서 신체가 극적으로 변하는 기분은 안 들고.’

처음에 마셨던 시력이 좋아지는 차에 비하면 몸이 좀 상쾌해지는 듯한 이 밥은 평범했다. 이 정도면 며칠간 야근을 하며 쌓아왔던 피로가 날아가는 수준이니 말이다.

‘사실 그것도 굉장한 게 맞지만 워낙 겪은 게 많아서 평정심 유지가 되네.’

솔직히 밥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두려웠지만, 상을 차려준 근원이 저를 떡하니 관찰하고 있는 탓에 그대로만 있을 수는 없었다. 유성운이 슬슬 생선으로 눈을 돌렸다.

“…….”

“발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다시 봐도 우람한 자태에 놀란 것뿐이다.

"이게 무슨 생선이야…?"

"'심해의 나라'에 서식하는 물고기입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던전 하나를 양식장이나 농장 같은 개념으로 활용하는 길드도 적지 않았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지오가 '심해의 나라'에서 식자재를 구해 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다.

"처음 보는 종인데…."

"지구로 따지자면 연어와 광어를 섞어놓은 생선입니다."

"그게 대체 무슨 생선인 건데."

"연어 맛이 강한 광어 식감의 생선입니다."

"정말 우주는 넓구나."

유성운은 바싹하게 구워진 생선의 살점을 떼어왔다.

"…확실히 기름기가 있는 주황빛이네."

그렇다고 연어만큼 기름져 보이지는 않았다.

"오, 촉촉해."

"화덕 장작을 바꿔 보았는데 향은 어떻습니까?"

"이게 화덕에서 구운 거구나. 엄청 좋아."

이 커다란 생선을 대체 어떻게 구웠나 싶었는데 화덕을 활용한 모양이었다. 지오의 말대로 쌉싸름한 훈연 향이 올라와 수산물 특유의 비린내를 가려주고 있었다.

대체 생선에 무슨 짓을 한 건지 식감도 매우 부드러웠다. 화덕에 구웠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껍질은 얇은 과자처럼 바삭했는데 그 안쪽의 살은 마치 잘 익은 갈치의 살을 두툼하게 떼어 먹는 것처럼 부드럽게 으스러졌다.

"살짝 새콤하네? 매콤한 향이 나기도 하고. 그냥 구운 건 아니구나?"

"청귤과 레몬그라스, 고추즙에 재운 생선을 구웠습니다."

"요리사인가."

이 요리 솜씨로 인간을 몇 명이나 꼬셔버릴 생각인 건지 모르겠다. 아니 이게 주제가 밥상인 탓에 만만해 보여서 그렇지, 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위험했다.

'아직 근원의 존재조차 모르는 인간들이 이 녀석을 친근하게 느껴서는 안 될 텐데.'

유성운이 무슨 생각을 하든 별 상관이 없는지 지오는 계속해서 요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레몬도 좋지만 이런 기름진 생선에는 씁쓸한 맛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

그렇게 말하는 청년의 차분한 낯에 들뜬 기색이 깃들었다. 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지오 본인이 요리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은 잘 알겠다. 그게 순수한 호의라는 것도 알겠지만, 이토록 거대한 근원의 호의는 인간들에게 독이 될 수가 있었다.

'당장 나부터가 감당하기 힘든 호의이고….'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너의 전문성에 할 말이 참 많지만, 그래서 이 생선 옆에 소스 그릇은 뭐고?"

“레몬과 간장, 고추를 베이스로 만든 생선 전용 소스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일 수가.”

지오의 호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지금에도 그저 픽 웃음이 나올 만큼, 정말 어이없게 잘 어울렸다.

근원의 위장은 인간을 해하기 위함이 아닐 것이다. 동시에 그것을 ‘위장’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모순이 있을 테니, 요리를 좋아하고 선물 나누길 즐기는 지오를 거짓이라 매도할 수는 없어 보였다.

“나 참….”

유성운이 애써 한숨을 참고선, 저 특유의 무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먹어도 맛있길래 이대로 먹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문제가 있습니까?”

“소스를 안 찍어서 먹었던 게 손해로 느껴질 지경이야.”

“열정이 가득한 칭찬 감사합니다.”

“지구에 식당 하나 안 차릴래? 인기가 많아질 것 같은데.”

“저는 체질상 영업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군.”

지금까지 밝혀진 지오의 자아는 대개 화가, 사제, 의사, 선생이었다. 매우 자유로운 영혼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돈된 체제 아래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듯해 영업을 강권할 수 없었다.

‘근원이 영업하는 식당이라니 꽤나 황홀하겠어. 지구상의 정원사란 정원사는 전부 모이겠군. 그렇게 발발한 재앙도 흥미로운 일이 될 거야….’

유성운은 슬슬 이성을 놓고 있었다.

‘…그래, 음식을 만든 존재가 누구든 맛있으면 됐지.’

정말 맛있었다.

“이 채소볶음은….”

“토마토와 청경채, 양파, 마늘 등을 넣고 한번 볶은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건 진짜 채소가 아니었구나.”

아삭한 양파를 맛본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네.”

“달죠.”

“살짝 알싸하고.”

“적당합니까?”

“그래, 적당해.”

양파 특유의 알싸한 맛이 남아 있으면서도 뜨거운 불에 볶여 달콤한 즙을 가득 머금고 있는 양파. 이 녀석은 거의 채소가 아니라 과일처럼 느껴질 만큼 수분이 많고 아삭했다.

“이 정도면 양파만 볶아도 맛있겠다.”

“토마토는 어떻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달지?”

이 토마토를 수출하면 토마토 채소 파와 과일 파는 하나로 통일될 수 있을 것이었다. 지오가 볶아준 이 토마토는 확실히 과일이 맞았다. 이쯤 되니 따듯한 과일 샐러드를 먹는 기분이 들었다.

“채소볶음이 느끼하지 않은 건 또 처음이네.”

“채소볶음이 느끼할 일이 있습니까?”

“기름을 많이 넣으니까.”

“그럼 느끼하죠.”

“확실히 이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

기름이 최소한으로 들어간 이 채소볶음은 물컹하기보다는 아삭했고, 기름보다는 불맛이 강했다. 토치로 겉을 바싹 태운 듯 쌉쌀한 불의 향이 나는 오독한 채소볶음은 열에 흐물흐물해진 여느 채소볶음과 전혀 다른 상큼함을 자랑했다.

간도 세지 않았다. 살짝 태운 듯한 고급스러운 간장의 향이 조금 가미된, 소금과 후추가 살짝 들어간 재료 본연의 맛의 볶음 반찬이었다.

“정말 거의 샐러드 수준인걸.”

유성운은 대망의 동파육을 집어 들었다.

“…….”

“꾸우.”

곰인형이 기대를 담아 유성운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체 어느 부분에서 기대하고 있는 걸까. 나는 무슨 반응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평균적인 인간의 형태로 살아 나갈 수 있을까.’

왜인지 늘그막에 요리의 재능을 찾은 노인이 첫 식사 대접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자신의 비유에 스스로 환장하면서도, 유성운은 착실히 동파육을 떼어 밥그릇에 얹었다. 젓가락이 아니라 숟가락을 이용해야 할 정도로 부드러웠다.

‘이건 정말 푸딩에 가깝네.’

그렇게 밥과 한술 뜨자.

“…….”

유성운은 잠시 이걸 뱉어야 하나 고민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닌 것 같은데? 어쩌지?’

잘못 들으면 별 같잖은 주접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진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너무 맛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성운은 처음 깨달았다.

다행히도 유성운이 음식을 뱉어내는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짓은 음식을 만들어준 이들에게도 예의가 아닐뿐더러, 그러기엔 너무 맛있었다.

“…인간은 본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짐승이라더니….”

“대체 왜 식사를 하다 말고 그런 말씀을?”

“나도 크게 다른 건 없다 싶어서.”

이래서 그 많은 전설과 신화 속의 인간들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왔던 거구나.

‘인간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신비로운 이야기가 주는 위험성을 아는 정원사마저도 새삼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상황이었다.

“음….”

아무튼 식사를 마치고도 유성운이 불로불사가 되는 일은 없었다.

“너 요리 정말 잘하네.”

“아까부터 계속 같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한다고.”

“감사합니다?”

“적당히 잘해도 돼.”

“유성운 씨는 칭찬을 잘하시는군요.”

“…….”

아니, 그냥 덜 잘하라는 뜻이었어.

‘알고 이러는지 모르고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요리는 인간의 정체성을 위협해.’

맛있는 밥 한 끼 잘 얻어먹은 유성운은 차마 거기까지 말하진 못했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11)"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12)

제112화

음,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굴었다만.’

어쨌든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에 위협을 느꼈다’라는 유성운의 말은 진심이었다.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지.’

정원을 관리하면서 몇 번이고 ‘한계 너머의 영역’에 대한 감각을 익힌 유성운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로서도 이번의 식사는 조금 오싹해지는 면이 있었다.

‘고작 식사 한 번에….’

그것도 ‘잡아먹힐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어려운 일 아니겠는가.

‘…이걸 농담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황당하네.’

지오는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유성운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그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다. 원래도 선물을 주길 즐기는 녀석이니 밥 한 끼 차려주는 건 대단한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평온이 지독하면 죽음에 가까워지고, 쾌락이 지나치면 고통으로 변한다. 지오의 입장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려는 생각이었겠지만 인간의 입장에선 감당하기 힘든 호의였다.

“…….”

그나마 다행인 건 있었다.

“햐아아아아악—….”

“내가 아직 인간이기는 하구나.”

안티캣이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걸 보면 유성운은 아직 인간이 맞았다.

‘이렇게 편안하고 만족스러운데 무섭고 불안한 식사는 또 처음이네.’

왜인지 씁쓸했다.

‘이래서 신들의 만찬에 초대되면 안 된다는 거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신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었다.

지오는 신이라기보다는 신의 특징을 가진 근원이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더욱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다. 계속 말하지만 고

작 의미 없는 식사 대접에 이렇게까지 반응해야 하는 유성운 스스로가 우스웠다.

‘아니 뭐, 무슨 어마어마한 궁전에 초대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오두막에서의 따듯한 밥 한 끼였는데 말이다.

“.......”

여전히 지오의 오두막은 아름다웠다. 목가적이었고, 낡아버린 동화의 한 장면을 닮았다.

섬뜩한 그리움이 여기에 있었다.

“식사는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사람이 너무 행복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유성운 씨는 참 과분한 칭찬을 해 주시는군요.”

“그....”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됐다. 유성운은 그냥 체념하기로 했다.

“...정말 잘 먹었지, 응.”

“다행입니다.”

지오는 그렇게 말하며 유성운의 맞은편에 앉았다.

“디저트는 미리 준비하지 못해 얼음 창고에서 굳히고 있습니다.”

“얼음 창고?”

“예, 냉장고 역할이겠군요. 대신 차를 먼저 내어 드릴까요?”

“아아아... 아니, 그냥 물 한 잔만 주라.”

또 무슨 악독한 축복이 떨어질지 몰라 가장 평범한 것을 요구했지만.

“여기 있습니다.”

[근원의 샘물]

근원의 샘에서 급수한 물이다.

“.......”

제일 평범하지 않은 게 등장했다.

“......?”

스킬을 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감정 상태 창. ‘내 스킬이 고장 났나?’에 대한 의심에 앞서, 유성운은 이 설명 창을 보여준 형체 없는 무언가에 대한 감사를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제발 인간으로 살아 나가라며 소리 소문 없이 도와준 것 같군.’

유성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게 물이야?”

“...아닙니까?”

“물이긴 하지.”

젠장 어쩐지 뭘 먹어도 오싹하더라니.

‘내가 먹은 음식에 쓰인 모든 물이 근원에서 나온 거였어.’

과연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낄 만했다. 유성운은 꾹 닫은 입술에 조용히 힘을 주었다.

'용케 아직도 인간이군. 이런 기적이 다 있나.'

정원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 중 하나는 '정원의 것을 섭취하지 말라'는 점이었다. 그들은 단지 정원을 관리하는 노동력이자 관리자일 뿐, 소유주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런 정원사가 그 어디든 정원의 것을 섭취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다시는 정원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들 역시 정원의 일부로 취급이 되기 때문이었다.

"나... 나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나 괜찮은 거지?"

"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손님을 억류하는 무뢰한이 아닙니다...."

"당황한 건가? 아무래도 그래 보이네, 그럼 그런 거겠지. 당황하게 만들어서 미안한데 진짜 무서워서 그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무섭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네가 잘못한 건 없지만... 없지만...."

"유성운 씨?"

"......."

내가 여길 대체 무슨 생각으로 들어온 걸까.

'...그야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이곳이 근원이라는 걸 몰랐으니 정체 파악을 해야 했던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그걸 감안해도 너무 대범한 선택이었다. '지오의 초상화'를 다른 정원사의 정원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한 자의 말로라고나 할까.

지나치게 성급한 접근이었음을 유성운은 인정했다.

'측정 불가 던전에 진입할 때만큼의 준비는 필요했던 거였어.'

이렇게 잔뜩 공포와 불안에 떤 유성운이었으나, 아무튼 인간으로 지구에 돌아갈 수 있다면 상관없었다. 그는 언제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오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

끊었던 담배가 절실했지만 지오가 담배의 형태를 한 '무언가'를 줄 것 같아 일단은 참아보기로 했다.

유성운이 힘겹게 이성을 되찾았다.

"...미안, 내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한 것 같아."

"낯선 환경에 적응이 잘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

유성운이 묘한 눈으로 유리잔에 담긴 물을 바라보았다.

[근원의 샘물]

근원의 샘에서 급수한 물이다.

"......."

저건 물의 형태를 한 무언가다.

이상할 정도로 설명이 짧아 자세한 정보는 모르겠다만, 최소한 인간이 마시라고 있는 물이 아니라는 건 알겠다.

유성운이 생각에 잠겼다.

'...생각해 보면 그동안 지오가 준 선물은 전부 같은 문장이 있었지.'

바로 '숲의 주인인 지오가 직접 공정하여 인간의 신체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문구였다.

여태껏 지오가 준 선물, 그러니까 음식은 전부 이와 같은 설명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엔 그런 설명이 없어.'

유성운은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다.

"...번복해서 미안하긴 한데...."

잠시 뒤, 유성운이 물었다.

"차를 좀 줄 수 있을까."

"만들어둔 차가 얼마 없는데, 예전에 드린 꽃차도 괜찮으신가요."

"연파랑 색깔의 차 맞지? 그거 좋네."

유성운은 깨달았다.

'지오가 직접 공정한 게 아니면 아무것도 먹어선 안 된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우리가 관리하는 정원 역시 근원의 일부임을 떠올리면 당연한 이치야.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 안전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원의 날것을 함부로 섭취해서는 안 돼.'

유성운은 지금까지 정원의 일부로 변해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전대 정원사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심지어 이곳은 근원 그 자체. 인간의 정체성을 잃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지도 몰랐다. 생각을 정리한 유성운이 재차 강조했다.

"네가 직접 만들어준 거라면 뭐든 좋아."

진심이었다.

"받아먹기만 하면 미안한데, 좀 도와줄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제 기쁨입니다. 앉아 계세요."

"그, 그래...."

지오는 곧 '숲나비의 꽃차'를 가져왔다.

"바이바므닐차입니다."

"...바이바므닐? 이 꽃의 이름인가?"

"예, 그대로 끓는 물에 데쳐 먹으면 맛있습니다."

"놀라운 복용법이군."

"나물처럼 식감이 좋은 간식입니다."

"나물인가."

그렇게 차를 마신 유성운은 안 그래도 멀쩡했던 혈관이 재생하고, 세포가 재구성되며, 가벼운 질병으로부터 면역 상태가 6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이거 3일간 숙식하면 불로불사 되는 거 맞다니까.

‘수명이 늘어난 기분이군.’

한 50년 정도가 말이다.

‘숲나비의 꽃차에 그 정도의 효능은 없으니 당연히 기분 탓이겠지만, 역시 불안한 부분이 있다. 지오가 직접 타줬기 때문일까. 타는 사람에 따라 효능이 달라지면 안 될 텐데… 그럼 안 되는데.’

유성운은 인간으로 살다 인간으로 죽고 싶었다. 그건 정원사라면 누구나 꿈꾸는 가장 큰 욕심이었다.

“…이런 손님 대접은 나 이외에 또 누가 받았지? 차아라 헌터?”

“그렇게 두 분을 제외하면 지구에 사는 손님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 그렇다면 역시 그 인어 남매일까? 종종 집에 오고 있다면서.”

“이틀이나 삼 일에 한 번은 식사를 하기 위해 들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과연, 그 몬스터들도 어지간한 급이었다는 의미였다.

‘이런 식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니.’

최소 악신급의 격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

“…….”

“…어어 잠깐만.”

차를 더 부으려는 지오의 모습에 유성운이 막았다.

“많이 마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잔이 작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소화를 좀 하고 싶어서. 우리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건 어때?”

“쉬고 있지 않았던가요?”

“그래, 소화도 할 겸 산책해 보는 건 어때.”

아무래도 지오에게 무언가를 먹는다는 건 쉰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듯했다.

이걸 먹으면 내가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 아닐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먹었던 유성운은 전혀 그러지 못했는데 말이다.

“집 구경이라도 시켜주면 안 되나?”

“집 구경이라.”

“아, 실례였다면 미안해. 난 그냥….”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을 구경한 후에는 숲에 나가 시간을 보내죠.”

“…내가 저 숲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야?”

“이 넓은 숲을 사유 재산으로 취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

허락을 받으려는 의미에서 물은 게 아니었는데 말이지.

‘내가 저 숲에 들어가도 죽지는 않겠냐는 소리였어.’

아무튼 지오는 이미 몸을 일으켰다.

“디저트가 굳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집을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가 직접 안내를 해주기까지 한다면 나야 영광이지.”

역시나 자리에서 일어난 유성운이 물었다.

“그런데 우리 고양이 친구는 이렇게 둬도 되나?”

보석 털을 잔뜩 부풀린 반투명한 고양이 몬스터. 하악질은 멈췄지만, 다나가 아직도 유성운을 경계하고 있었다.

“나랑 시선이 마주치면 소리 없이 입을 쩍 벌리던데.”

“잡아먹히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다, 지오야. 요즘 몬스터가 아주 무서워.”

“저희 다나는 소식가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먹을 거라는 말은 안 하네?”

“몬스터니까요.”

지오가 특유의 차분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착한 아이이고, 또 제가 있으니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난 정말 너만 믿을게.”

지오가 직접 그렸다는 허니는 제 어버이를 닮아 적의도 호의도 아닌 시선으로 유성운을 보았지만, 몬스터는 달랐다. 안티캣 역시 몬스터인 만큼 유성운이 불안해하는 건 이상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원래 안티캣은 저렇게 크지 않거든.”

“이것저것 먹이다 보니 살이 좀 쪘습니다.”

“과연 살이 찐 걸까?”

근원에게 아낌없이 사랑받은 몬스터가 어떻게 진화했을지 상상만 해도 뒷골이 오싹해졌다.

여전히 불안해하는 유성운의 모습에 태양신이 깃든 곰인형이 나섰다. 왜인지 씩씩거리며 유성운에게 짜증을 내던 다나는, 곧 곰인형의 품에 안겨 쓰다듬을 받았다.

“오….”

다나는 눈에 띄는 짜증을 내려놓고 차분해졌다.

“두 분 사이가 좋네.”

“그런 편입니다.”

이어서 유성운은 오두막의 안내를 받았다.

처음은 얼음 창고였다. 지오가 말한 냉장고 역할의 창고가 이렇게까지 깊은 곳에 있을 줄은 몰랐던 유성운이 당황했지만, 이내 그는 생장하는 동굴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얼음 창고의 광경을 보고 흥미를 표했다.

“지난번에 준 얼음 진주가 이거였구나.”

“맞습니다. 이 얼음 창고에서도 흔하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추운데 물이 고여 있다는 점이 특이하네.”

그다음은 작업실이었다. 왜인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캔버스가 널려 있는 광경에 당황했지만, 곧 지오의 특성을 떠올리고선 안정을 찾았다.

그가 그린 그림은 실제가 되니 캔버스가 꽉 차 있을 이유가 없었다.

“아, 작업실도 연결된 창고가 있어?”

“예, 제가 완성한 풍경화를 주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캔버스를 가려둔 저 검은 천은 뭐야?”

“가리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입구가 열려버려서 주의하고 있습니다.”

“음... 음, 응? 어, 그래. 그렇구나.”

다음은 오두막 뒤의 텃밭이었다.

“텃밭?”

“그렇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준 씨앗들을 심은 결과라고?”

“맞습니다.”

“.......”

우람하다 못해 자아를 가지고 성장한 작물들을 보며 유성운이 침음을 삼켰다.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충격과 공포는 너무나도 거대한 자연을 앞둔 탓이었다.

‘하긴 이 녀석들도 근원의 샘물을 마시며 자랐겠지.’

자아를 가진 인간도 정원의 것을 섭취하면 정원의 것이 되는데, 이 씨앗들은 심지어 근원에서 자라고 있었다. 지구의 것이라고 이 압도적인 진화 앞에 저항할 수는 없었을 거다.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 공포에서 비롯된 기묘한 안타까움을 느끼며 유성운이 중얼거렸다.

“벌써 소화 다 된 것 같아.”

“그럼 숲은 디저트를 먹은 다음에 둘러보시겠습니까?”

“어, 그래... 숲 말이지. 그래, 그럴까.”

그렇게 오두막으로 돌아간 직후.

“.......”

“이런, 놀라워라.”

유성운은 드레스를 입은 인어와 마주쳤다.

“여기 왜 인간이 있지?”

살의가 뚝뚝 흘렀다.

“.......”

“.......”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 집에 갈게.”

살려줘.

오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13)

제113화

유성운은 액자 밖으로 나왔다.

“내가 살아서 이 땅에 돌아오다니.”

“즐거우셨습니까?”

“어우 정말 말도 못 하게 즐거웠지.”

하다 하다 인어 공주와 마주쳤을 땐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공주님께는 불쾌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 좀 전해주고....”

“유성운 씨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아리아가 흔히 부리는 투정이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어들과 악감정을 쌓고 싶지는 않아서. 인간형 몬스터의 원한을 살 필요는 없잖아?”

“못난 어리광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이시군요. 유성운 씨의 그런 점을 제자들이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본받는 몬스터라니 그건 그거대로 무서운데?”

작게 웃은 유성운이 갤러리의 시계를 확인했다.

“지금이... 오전 4시 41분인가.”

그러고는 핸드폰도 확인했다.

“.......”

“제가 시간을 많이 빼앗았습니까?”

“아니, 그다지.”

20분 정도가 지났을 뿐이다.

“확실히 액자 안에서의 시간과 지구에서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네.”

“그림 안쪽의 시간은 제 기분에 따라 빠르게 가기도 하고 느리게 가기도 합니다.”

“오... 어떨 때 빠르고 어떨 때 느려?”

“즐거울 때는 빠르게 가고, 휴식을 취할 때는 느리게 갑니다.”

“흐음.”

그럼 이번에는 기분이 좋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원사로서도, 큐레이터로서도 영광인 이야기였다.

“기분이 나쁠 때는?”

“그래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인 모습 보기 좋다, 앞으로도 그렇게만 살아.”

그가 근원인 이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지만 말이다.

‘…지오는 확실히 인격체에 가까운 자아를 가졌으니, 아무리 근원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화내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 근원을 상대로 하는 일에 방심하지 않는 게 좋아.’

유성운이 디저트가 든 작고 하얀 상자를 들어 올렸다.

“이건 이대로 가져가도 되는 거야?”

“드시고 가셨다면 문제가 안 됐겠지만….”

“내일 붕어빵?”

“좋습니다.”

“역시 숲을 돌아보지 못한 건 아쉽네.”

안에서는 정신이 없었지만, 막상 바깥으로 나오니 진한 아쉬움이 남았다. 정원사로서의 욕심이었다.

“네가 말해준 그 샘터도 가보고 싶었는데 말이야.”

유성운은 지오가 퍼준 물이 [근원의 샘물]이라고 정의되었던 것을 떠올렸다.

“듣자 하니 꽤 멋진 장소인 것 같고.”

“다음에 놀러 오신다면 환영하겠습니다.”

“그럼 시간 날 때 들를게.”

그때는 더 많은 준비를 한 후가 될 것이었다.

‘내가 너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들어갔었지.’

다른 곳도 아닌 근원을 말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근원 그 자체라기보다는, 뭔가 인간이 인지하기 쉬운 형태의… 그러니까 근원의 일부분이나 먹기 쉽게 조리한 요리처럼 느껴졌지만….’

애초에 인간은 근원이라는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다. 거대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그 크기를 고작 인간이 담아내고 분석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오는 근원의 일부분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정원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가?’

만약 그렇다면.

“…….”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지오는 ‘눈’을 담당하고 있지 않을까.

“물감으로 눈이 가려진 게 조금 아깝다고 생각했어.”

이모저모 할 이야기가 넘쳐나는 지오지만, 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꼽자면 바로 ‘눈’이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듯한 그 눈 말이다.

“내가 부탁했던 거지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그래도 편의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가려진 게 좋지.”

“그렇군요.”

“그냥 큐레이터로서의 투정이었어.”

정원사로서의 투정이기도 했다.

‘정말로 지오가 근원의 눈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가 인간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순간 복잡한 심경이 되어 숨이 턱 막혔다.

“…….”

원래도 그럴 생각은 없었으나, 이제 유성운은 지오를 기피하거나 혐오할 수 없었다.

유성운이라는 사람에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경외와 아득함, 그리고 그로부터 기인한 안도뿐이었다.

“그래….”

정원사인 그는 근원이 얼마나 자연에 가까운 공정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이었다.

“친절하게 대접해 줘서 고마웠어.”

“제 기쁨입니다.”

“하긴, 너는 항상 신사적이었지.”

이것은 재해면 몰라도 재앙이 될 일은 없었다.

“우리가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건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냥…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좀 떠올렸더니.”

“역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바쁘군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잖아.”

한숨 같은 웃음을 허탈하게 내보내고서는, 유성운이 물었다.

“뭐 한 가지만 물어도 돼?”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

하고 싶은 질문은 많았지만, 유성운은 꾹 참았다.

‘근원에 대해 묻기에는 이르지.’

지오는 스스로를 평범한 인간으로 알고 있으니, 혹은 알고서도 진실에 가깝도록 위장 중이니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할 날은 한참 멀었다.

대신 그는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주제를 꺼냈다.

“박은겸 헌터 말이야.”

그가 바깥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궁금했던 건데.

“대체 어떤 대가를 치른 거지?”

“대가 말입니까?”

“우리로서는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어서.”

협회에 ‘검은망토’의 공격 방식과 결과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은 유성운이었다. 그는 ‘공허의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보고했고, 그 보고를 토대로 협회는 액자에서 빠져나온 박은겸 헌터를 분석했다.

하지만 좀 많이 겁을 먹었다는 걸 빼면 이전과 다를 게 없었다.

“혹시 그런 공포심이 대가라든가? 평온을 뺏었다는 식의?”

“저는 제 자식들에게 박은겸의 처분을 맡겼습니다.”

“너의 자식들에게... 그렇구나.”

이제는 저 ‘자식들’이라는 말도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근원의 자식들이 떠오르는데.’

아니, 사실 틀린 말도 아닌가.

‘...헌터의 스킬로는 완전히 처리할 수 없고, 차원을 막론하고 어디든 나타나는... 몬스터를 닮았으나 몬스터는 아닌... 살아있는 이야기....’

전부 지오가 물감으로 그려낸 자식들과 동일한 설명이었다.

물론 약간의 다른 점도 있기는 했다. 지오가 옆에 끼고 다니며 아들이라 부르는 보석 물새 허니도 그렇고, ‘공허의 도시’에 자생하는 ‘검은정장’들도 그렇고. 그들은 사고 능력이 있었다.

“...뭐어....”

이래저래 생각할 거리가 많다 보니 주제가 계속 다른 곳으로 빠지네.

“미안, 내가 잠시 다른 생각을 했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나야 늘 괜찮지.”

유성운이 다시 본래의 주제로 돌아왔다.

“그럼 어떤 식의 대가였는지는 네 자식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네가 이미 그 대가를 알고 있기도 한가?”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물어봐도 돼?”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지오가 검은 물감 너머에서 대답했다.

“박은겸은 ‘악함’을 대가로 빼앗겼습니다.”

“.......”

"제 자식들이 그걸 원했습니다."

"…대단하네."

대체 어떤 식으로 인간에게서 '악함'을 빼앗았다는 것일까.

"인간은 언제고 악할 수 있는 생물인데."

"대가를 치르는 건 박은겸의 몫이기에, 그 결과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이해했어."

기묘하게 들릴 만큼 추상적인 대가이기는 하지만, 그런 추상적인 것을 빼앗아 가는 근원의 존재는 지금까지 몇이나 있었다. 추억, 사랑, 행복, 우정, 슬픔, 기억….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지오를 캐물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신에게 기대하지 말라.

지오는 온전한 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이란 인간이 인지하기 힘들 정도로 격이 높은 존재들을 이르는 말이기도 했다.

인간은 자연과 운명을 분석하는 존재이지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을 대할 때의 예의가 아니기도 하고.'

이만큼의 힌트를 들었다면, 그 이상의 답변을 찾아내는 건 유성운과 다른 인간들의 몫이었다. 그게 지금처럼 인간과 신과 자연이 뒤섞여 사는 시대에 모두를 위한 매너였다.

"그럼 내일 이 디저트에 대한 대가로 붕어빵을 사 올게."

"차은혁 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 종종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유성운은 그대로 갤러리를 나서기 전에, 다시 지오를 돌아봤다.

"…혹시 나 때문에 인어 공주님이랑 싸우는 건 아니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단순한 어리광이었습니다."

검은 초상화는 단호했다.

"그녀는 제게 화낼 수 없습니다."

운명을 말하는 예언가 같은 대답이었다.

* * *

"선생님."

오두막으로 돌아가자, 아리아가 지오를 불렀다.

"배웅은 잘 해줬나?"

"무사히 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 다정하기도 하지."

"화가 났군요."

하지만 지오는 알았다.

“그 대상이 나는 아니에요.”

아리아는 지오반니에게 화낼 수 없었다.

“그러기엔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으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대에게 화를 낼 일은 없었을 거야.”

“화가 많으면 인생이 즐겁지가 않을 텐데.”

“내 삶이 즐거워야 할 이유가 있나?”

인어가 부드럽게 웃었다. 예민하고 예리한 성정을 숨기지 못했던 그 어린 날과 명백히 다른 미소였다.

“인간이 싫어.”

“이해합니다.”

“그대가 인간들을 얼마나 감싸고도는지 알아.”

“감싸고도는 게 아니라 응당 해야 할 대접을 하는 겁니다.”

“과분한 대접이지, 그 짧은 생을 살아가는 것들에겐….”

지오는 눕듯이 소파에 기댄 아리아의 곁에 앉았다.

“아리아.”

“그래, 선생님.”

“무서웠습니까?”

“…….”

“그래서 화가 났죠?”

“…선생님은….”

제 뺨을 쓰다듬는 손길에 아리아가 중얼거렸다.

“…좀 과할 때가 있어.”

그래, 부정할 수 없었다.

“그대의 말이 맞아, 내가 많이 무서웠지.”

“어째서 그랬습니까?”

“그 인간이 우리를 해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유성운이라는 개체는 그럴 수 있는 생물이 아니었다.

“근원에 깊이 연관되어서인지 생각이 많고 신중해. 가끔 도박수를 던질 때는 있지만 대부분은 모두가 공존할 길을 찾아. 인간치고 강하기는 해도 싸우면 내가 이길 거야.”

“유성운 씨가 그렇게 약해 보이지는 않던데.”

“그러니까 인간치고는 강하다고 했잖아. 싸우면 내가 이기겠지만 큰 타격을 입기는 하겠지. 정원사라는 존재가 품은 힘이 있을 테니… 간섭하기도 힘들 것이고.”

하지만 유성운을 두려워한 게 아니다.

“나는, 선생님.”

아리아가 지오의 손에 머리를 기댔다.

“인간이 여기 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었어.”

“…….”

“…그 간악한 족속이 언제 여기에 불을 지를지 몰라서.”

인간은 변덕스러웠다.

“그날이 반복될까 봐 무서워.”

하나의 기억과 감정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좀처럼 자아가 변하지 않는 인어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가벼움이 그들에게 있었다.

인간들은 평화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신처럼 자애로웠다가 세상에 파멸이 오길 바라는 비참한 거렁뱅이처럼 굴기도 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한 개체의 신념과 인격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

“인간은 믿을 수 없어.”

인어가 품은 증오와 별개로, 인어에게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너무 긴 세월을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태생적으로 변하지 않는 우리에 비해 인간들은 짧은 생을 살고, 그사이에 수십 수백 번을 바뀌니….”

“그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 성장. 인간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태생적인 습성이야. 나도 그걸 안다. 나도 그걸 알아. 하여 그걸 저주해.”

인어와 인간은 이토록 이해하고 화합하기 힘들었다.

“유성운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성장’할 줄 알고 그를 여기에 들였지?”

인간은 쉽게 변질된다.

“차원마다 선악의 기준은 달라. 이 좁은 차원에서도, 고작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국가의 경계 하나만으로도 그렇고.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 그러니 선생님, 우리의 평화가 그들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다.”

재앙을 마주친 인간은 저항할 것이다.

“…인어들 역시 그렇고.”

그 누가 살아서 운명에 반항해 보지 않았겠는가?

“그대가 쉬는 숨이 그들에게 재앙이 된다면 유성운이라는 인간은 제 종족의 편을 들 거야. 그도 인간이기에, 또 악하지 않기에, 그 나름의 신념이 있어 그리하겠지.”

“…….”

“그들은 계속해서 변화하잖아.”

인간은 약속하지 않는다.

“…….”

“…….”

아리아가 제 스승을 끌어안았다.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걸 안다. 그래서 결코 받아들여 주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아. 자비한 당신께선 나의 신이 되어주지 않겠지.”

“그렇군요.”

“언제든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우리가 말려봤자 듣지 않으리라는 것도 말이야.”

당신도 그것을 아는가. 지오는 운명에 반항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고, 모든 것을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나 커다란 그릇을 가진 존재이기에 지금에 와 아리아가 이렇게 껴안을 수 있었다.

“그 큰 포용력 덕분에 선생님은 우리를 제자로 들였겠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해질 때가 있어. 이 평화롭고 안온한 오두막이 언제고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인어는 수천 년이 지나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너무 무서우면 화가 나더라.”

“그게 바로 우리가 모두 같은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선생님은 항상 뭘 가르치려고 해.”

“너희는 정말 걱정이 많구나.”

“맞는 말이지.”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여겼는데.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아….”

인간들이 말하기를 피하지 못하기에 운명이라더라. 결국 저도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 아리아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도 인간인 듯해서.

“…….”

“…….”

그래서 같은 짓을 반복하고, 같은 비극을 불러올까 봐 그랬다.

내 반항과는 관계없이, 또 한 번….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13)"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14)

제114화

악행이 습관이었던 사람이 지옥 불에 튀겨졌다 살아 나오면 어떻게 될까?

"...시발...."

정답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개같은... 진짜, 내가 대체 왜...."

박은겸의 일상은 하루아침 새에 변해버렸다.

1등급 시민에 B급 헌터. 외모도 그럭저럭 괜찮고, 몸이 재산인 직업이다 보니 피지컬도 좋았다. 주제도 모르게 달라붙는 멍청이들에게 한심함을 느끼면서도 그 단맛을 보던 게 엊그제 같았다.

'하지만 그 던전에 빠진 이후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저 사람이...."

"아주 상습적이라던데."

"말세다, 말세야."

사람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렸다.

"박 헌터, 검은망토의 던전에 끌려갔다 왔다면서."

"...예, 뭐, 그렇습니다만."

"후유증이 클 텐데 푹 쉬지 왜 나왔어."

알고 지내던 헌터들도 마찬가지였다.

"요즘 협회의 협조 요청 때문에 피곤할 거라는 소문도 파다하던데."

그렇게 말한 B급 헌터는 묘한 불안과 짜증을 담아 주변을 쓱 훑었다.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그가 협회에 끌려가 몇 번이고 조사를 받았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는 표정이었다.

'지금도 감시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거겠지.'

하지만 아예 엇나간 의심도 아니었다.

'젠장, 내가 왜 이딴 취급을…!'

실제로도 그는 협회의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귀한 1등급 시민이, 유능한 B급 헌터가 정체불명의 던전에서 살아 나왔다면 칭찬과 격려 후에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매서운지 모르겠다.

"그, 헌터가… 일을 해야죠. 제가 일 안 하면 누가 시민들을 지킵니까."

"…그래? 그럼 뭐 알아서 잘 해보든가."

상대는 혀를 끌끌 차고서는 멀어졌다.

"……."

명백한 경멸과 한심함이 담긴 반응이었다.

'…지금 저게 무슨 반응이지? 아무리 B급 헌터라고 해도 이건 심한 거 아닌가? 저 인간 텃세 심한 줄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굴다니….'

으득 이를 갈았다.

'얼마 전까지 3등급이었던 놈 주제에. 천박해서 어울릴 수가 없어.'

몬스터 고기나 씹으며 살던 촌놈이 각성 한번 잘됐다고 으스대는 꼴이 아주 끔찍했다.

그는 수군거리는 소리들을 애써 무시하며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 B급 헌터를 찾는 사람은 많았다. 이렇게 무너질 그가 아니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봐요, 요즘 어떤 소문이 퍼졌는지는 몰라도…."

"죄송합니다, 박은겸 헌터. 저희 중개소에서는 일을 알선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 개같은 소문 믿고 시발 지금 이렇게 뻗대는 거야? 야! 내가 여기에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죄송합니다, 다른 중개소를 방문해 주십시오."

하다 하다 헌터도 아닌 일반 직원 따위에게 무시를 당했다.

"하, 어이가 없어서. 이 더럽고 작은 중개소에서 헌터들 피땀 흘려 일하는 꼴 보니까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툭 치면 죽어버릴 새끼가 어딜 헌터를 좆밥으로 알고, 시발!!"

"…그, 진정하시고…."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냐? 둘 것 같아? 지랄 마, 확 그냥 별 같잖은 새끼가… 직접 일을 하러 와줬다고 하잖아, 내가. 응? 너 몇 등급이야, 몇 등급이라 이렇게 좆같이 굴어!!"

겁먹은 직원의 표정에 만족과 희열을 느낀 것도 잠시.

"박은겸 헌터, 나가 주십시오."

"예? 아니, 나보고 나가라고요? 미쳤어요?"

"나가세요, 당장."

중개소 가드들이 나서 그를 건물 바깥으로 내쫓았다.

나름 1등급 시민 출신의 헌터들도 드나드는 중개소인 만큼 가드는 대부분 C급 헌터들이었다. 제가 더 높은 등급이라고 해도 다수에게 핍박을 받으면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건 당연했다.

“아니, 이, 이, 이 미친 새끼들이…!! 돌았어?! 나 몰라?! 모르냐고!!”

“아, 잘 알지. 아까도 박은겸 헌터라고 했잖아.”

가드 중 한 명이 혀를 쯧 차며 말했다.

“거 짐꾼 아까운 줄 모르고 어디 몬스터 먹잇감으로 던지고 온다는 헌터 아니시냐고요, 응?”

“그, 그건…!!”

그게 대체 뭐가 잘못된 거란 말인가?

“…나,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어? 나만 그랬어? 아니라고. 나 말고도, 아니. 아니? 야, 까고 말해봐. 당신들도 F급 그거, 짐꾼 그거 사람으로 보여? 그게 시발 사람으로 보이냐고오!!”

그래, 이 개같은 소문이 난 것이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던전에 짐꾼을 버리고 오는 건 누구나 암암리에 하는 일이었다. 고작 하는 일이 짐 드는 것뿐이라는 점도 짜증 나 미치겠는데 밥까지 먹여야 하고. 그런 식충이를 버리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야 나도 힘든 상황이었는걸. 가뜩이나 위험한 상황에 짐꾼까지 챙길 여유가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은가.

“물론 나도 그게 나쁜 일이라는 거 알지. 하지만, 어? 생각해 봐, 사람들 다 신호 지키면서 횡단보도 걸어? 아니잖아. 아니 나도 그게 나쁜 줄 알아, 그래서 나도 나름… 나름…!”

“나름? 뭐, 나름 잘 숨겼다고?”

“…….”

“이야, 이거 진짜 제대로 미친 새끼네.”

가드가 다른 동료에게 낄낄거리며 웃어댔다.

“지가 살인마인 줄도 모르는 살인마 아니야.”

“그러게나 말이다. 이런 새끼들이 진짜배기지. 어우 질려.”

“5등급 시민도 이것보단 자기 객관화 잘하겠는데.”

울컥했다.

“지금 누굴 5등급 시민에 비유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이 정도는 되니까 협회에서 감시하는 거 아니겠냐?”

“상습범도 이런 상습범이 없어요. 소문 쫙 퍼졌는데 일감 구하러 나오는 것도 웃기고.”

“이게 진짜 개그지. 거 1등급 시민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막 그러나?”

“야야, 귀하신 1등급 시민 개빡치셨다. 우리도 돌아가자.”

“어후 무서워, 화나시면 우리한테도 돌려 차기 해주시겠지? 이렇게, 좌악!!”

“아, 미친 새끼야. 존나 웃기게 하지 말고. 근무 시간이야, 작작해.”

심심풀이 땅콩처럼 저를 대하는 모습에 말도 나오질 않았다.

“…뭐, 뭐….”

진짜 울고 싶었다.

결국 그는 수군거리는 군중 앞에 홀로 남겨졌다.

“…….”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헌터가 헌터 일 좀 해 보겠다는데 중개소 직원들은 뭘 잘못 먹었는지 안 된다는 말만 한다. 이게 다 협회가 저를 대놓고 불러들인 탓이었다.

“…나, 나는… 나는 감시가 아니라 보호를 받는 건데….”

분명 협회 직원이 그렇게 말했다, 감시가 아니라 보호 조치라고. 언제 다시 검은망토가 나타나 자신을 해치려 들지 알 수 없으니 경과를 보는 것뿐이라고. 불쾌하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싹싹 빌었던가.

막 몬스터 새끼에게 놀아나 심기가 불편했음에도, 그는 협회 직원들을 갸륵하게 여겨 그 보호를 받아주었다. 공무원 주제에 감히 B급 헌터를 지키느니 마느니 하는 게 우스웠지만 다 봐줬단 말이다.

“…검은망토가 시발 얼마나 위험한 몬스터인데, 그걸, 그걸….”

세간에 별 잡스러운 이벤트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 검은망토의 위험성을 몸소 알려주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빠져나온 건데….”

그래서 그랬단 말이다.

“…….”

“…….”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중개소를 전전하는 초짜 헌터들이 웅성거렸다.

“그 왜, 짐꾼 패서 검은망토한테 끌려갔다는….”

“그냥 패기만 한 게 아니라 아예 던전에 두고 가려고 했대.”

“진짜 미친 새끼네.”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검은망토한테 끌려갈 만한 듯.”

그에 다시 한번 울컥해, 소리쳤다.

“끌려갈 만하긴 뭐가 그래, 이 개새끼들아!!”

“아, 아니 우리는 그냥….”

“검은망토 그 새끼가 얼마나 위험한 몬스터인 줄은 알아? 어? 아냐고!”

“그….”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폐인을 만들어 놓는데…!!”

애새끼로 보이는 헌터가 얼굴을 구겼다.

“머, 멀쩡한 사람 같은 소리 하네… 저기요, 이미 소문 다 퍼졌거든요?”

겁에 질린 주제에 말을 개같이 웃기게 했다.

“검은망토는 나쁜 사람들만 잡아간다면서요.”

“맞아, 그것도 살인이나 학대 정도로 나쁜 거 아니면 안 잡아간댔어.”

“무단 횡단 했다고 잡아가는 몬스터도 아닌데 뭔 헛소리야.”

멍청한 새끼들이 한데 모이니 말이 안 통했다.

“그야 지가 나쁜 새끼니까 무서운 몬스터겠지, 어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까지 무섭겠냐?”

“뭐어… 몬스터니까 위험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지간하면 해는 안 끼친다던데….”

“만나면 선물 준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야, 그거 들으니까 나도 만나보고 싶더라.”

“아서요, 암만 그래도 협회에서 인정한 위험 몬스터 아니야. 아무튼 우리만 조심하면 그만이지.”

“에이, 너무 조심하신다. 그 몬스터가 주는 선물이 그렇게 맛있대.”

“맞아, 효과도 좋다고 하고. 거의 약이라던데?”

그들은 이미 소문난 개새끼가 아닌, 현재 도시에 퍼져 있는 이 기묘한 괴담을 긍정했다.

“검은망토의 선물은 운 나쁘면 못 받는다고 하더라.”

“그래도 나는 좀 무서워, 나도 모르는 죄로 끌려가면 어떻게 해….”

“몬스터니까 경계는 해야겠지만, 걱정 마.”

“그래요, 저 정도로 인성 파탄 난 거 아니면 뭐 안 끌려갈걸요.”

“검은망토의 작품이 그렇게 끝내준다는데 구경 가고 싶다.”

착한 사람에게는 선물을,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검은망토는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 어지간해서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 정중한 인간형 몬스터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낭만을 최대치로 채워주었다.

그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있어도,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저 새끼는 왜 우리한테 지랄이야?”

“몰라, 만만한가 보지… 이래서 등급 주의자들은….”

“지 혼자 1등급 시민들 다 욕보이네, 쯧쯧.”

그에 반해 협회가 인정한 범죄자를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할 사람은 많았다.

“저거 헌터증은 발급 취소 안 당했대요?”

“헌터 망신 지가 다 시켜두고는 뭔 자신감이래….”

그러니까 결국.

“…….”

박은겸이라는 사람은 고립되었다.

“…이, 이, 이….”

아무도 자신의 고통을 몰라준다는 억울함. 난생처음 받는 취급에 대한 분노와 그 뒤에 숨겨진 공포.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당한 망신으로 인한 황망함.

다시 ‘공허의 도시’에 끌려가고 싶지 않아 참아왔던 그가 철퇴를 들었다.

“이 쓰레기 새끼들아!!!”

“꺄악!!”

“저 사람 말려요!”

“지랄 마, 개새끼들, 이, 이 개…!!”

그리고 그 모습을.

“…….”

회색 도시가 지켜보고 있었다.

* * *

식별 번호

0S-328-D-01

대응 등급

B(회피)

개체 유형

인간형(-)

개체명

검은정장(-)

권능

강탈(-)

한국 헌터 협회 소속 B급 헌터 박은겸을 최초 발견자로 한 인간형 개체. 식별 번호『0S-328-D(검은망토)』가 창조했으며, 해당 개체의 주관 던전으로 파악되는 ‘공허의 도시’에 서식한다.

사람이 입은 것처럼 양감이 있는 형태의 검은 정장이다. 정장의 형태는 개체마다 경미한 차이가 있다. 개체 명명 과정에 잡음이 있었다. 개체명을 ‘투명인간’으로 하자는 안건이 올라왔으나, 신체가 투명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폐기되었다.

편의상 인간형 개체로 명명했으나 추후 수정될 가능성 있음. 차후 추가 정보를 습득 후 개체명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수집상 소속 A급 헌터(유성운)의 증언에 따르면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지능이 있다고 하나, 특정 개체만의 특성일 가능성도 있다. 신장은 약 185~9cm로 추측된다.

식별 번호에서 알 수 있듯이『0S-328-D(검은망토)』와 흡사한 특성을 보인다. 신장과 행동이 검은망토와 유사하다.

악한 인간을 종족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해한 개체로 인지. 마주치는 순간 해당 개체를 격리 및 처분하기 위해 던전 ‘공허의 도시’로 강제 전이 시킨다. 던전의 주인인『0S-328-D(검은망토)』의 허락이 있다면 탈출할 수 있으나 장기간 머무르면 ‘작품’의 일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0S-328-D(검은망토)』의 작품이 된 경우 탈출할 시 ‘대가’가 필요로 하다.

최초 목격자 B급 헌터 박은겸의 경우 ‘악함’을 대가로 지불했다. 그러나 대가로 빼앗긴 ‘악함’을 보인 직후 거래 위반으로 판단되어『0S-328-D-01(검은정장)』에게 신체의 외적 특성을 강탈당하고 본체는 물감이 되었다.

『0S-328-D-01(검은정장)』의 수법은 신중하고 교묘하다. 대상이 거래를 위반할 경우에 한해 목소리, 눈, 근육, 피부 순서로 강탈한다. 거래를 마친『0S-328-D-01(검은정장)』은 박은겸의 형상으로 자살한 모습을 보였다.

주변인들은 위화감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7일에 해당하는 강탈 기간 동안 박은겸이 히스테릭한 고통과 공포를 호소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거래 대상자는 강탈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0S-328-D-01(검은정장)』은 박은겸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자 사라졌다. 박은겸의 신체는 검은색 물감이 되어 협회 연구 시설에 보관된 상태이다. 일부 연구원은 그것이 생명 활동을 하는 살아 있는 물감이라고 분석했다.

대처 방법에 관한 고찰

『0S-328-D(검은망토)』의 던전 ‘공허의 도시’의 가시 범위 내에서 악행을 금한다.『0S-328-D(검은망토)』와 직접 대화 후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하지 않고 탈출이 가능하다.

공격의 종류에 상관없이『0S-328-D(검은망토)』와『0S-328-D-01(검은정장)』은 타격이 불가능하다. 위의 두 개체와 던전 '공허의 도시'는 회피를 기본 대응 방식으로 정한다.

관련한 요청 사항과 추가적인 정보를 접수합니다.

* * *

오늘의 상태_'공허의 도시'

"아빠를 위해 공허가 열심히 일하는 중(?ˊ∇ˋ)?"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14)"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15)

제115화

'공허의 도시'에 끌려간 사람은 박은겸 한 명이 아니었다.

"어...? 어, 여, 여기 어디야...."

팀원을 죽이고 아이템을 챙기려 했던 어느 C급 헌터.

"끅? 으... 뭐야? 어떤 새끼가... 응?"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에게 묻지 마 폭력을 가한 민간인.

"...여기 설마 '공허의 도시'인가?"

일행들을 미끼로 던지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던 B급 헌터.

헌터고 민간인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박은겸과 같은 수순을 밟아 '공허의 도시'에서 허우적댔고, 이 던전의 주인인 검은망토와 만나지 못했으므로 그저 한 폭의 그림이 되었다.

"나, 나는 초대 받아서 '공허의 도시'를 다녀왔어!!"

그리고 누군가는 스릴 넘치는 경험을 선물 받은 채 멀쩡히 생환했다.

"새벽에 길을 가다가 검은망토를 만났거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는데...."

"네가 그런 소소하고 좋은 일을 했다고? 평소에 하지도 않던 놈이?"

"시발, 그래, 솔직히 검은망토가 준다는 간식 받고 싶어서 요즘 좀 그러고 다녔다."

"미친 새끼, 용케 살아 돌아왔구나. 협회에 이걸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래서?"

"간식 대신 '공허의 도시'에 초대를 받을 수 있겠냐고 해서 다녀왔지."

검은망토의 도움을 받은 행인은 '공허의 도시'를 안전하게 감상하다 빠져나올 수 있었다. 헌터가 아닌 행인으로서는 대단히 용감한 도전이었지만, 덕분에 평생 자랑할 거리를 얻어왔다.

"개쩔더라, 진짜. 가끔 검은정장이 튀어나와서 막 나를 보는데... 너 이성진 헌터 알아?"

"알지, 이번에 '공허의 도시'로 끌려간 걸로 추정된다는 B급 헌터잖아. 너 설마...."

"거기서 그 헌터를 내가 봤다니까? 아니, 막 검은색으로 얼룩덜룩해져 있는데... 사실 인간인지도 잘 몰라봤거든."

그때 이성진 헌터의 목소리를 가진 검은정장이 말해줬다.

"그게 본인이라 하더라고."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검은정장은 자신이 강탈한 인간의 흉내를 내지 않았다. 그저 멋들어진 검은정장의 형상인 채, 신사와 같이 묵직하고 정중한 몸짓으로, 어느 인간의 음성과 얼굴을 가진 채로 교류를 요청해 왔다.

"나 진짜 너무 오싹했잖아. 완전 미쳤어, 대박이야…!"

"너, 너… 완전 개미친 짓 하고 왔는데? 누가 제 발로 던전에 기어 들어가, 새끼야."

"근데 목숨 걸고 해볼 만한 짓이었다니까? 거기 거의 예술 작품이야!"

이와 같은 사례는 잊을 만하면 튀어나와 사람들을 웅성거리게 했다.

어떤 사람은 강제로 끌려갔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간청으로 그림 속에서 빠져나왔지만, 그중 누군가는 다시 악행을 저질러 물감이 되었고 또 누군가는 반성한 채 성실한 삶을 살았다.

"나도 '공허의 도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찔리는 거 있으면 하지 말라더라. 너 떳떳해?"

"아니 나 정도면 평균이지, 평균."

초대받는 방법 중 가장 안전한 것은 검은망토에게 선물 대신 초대를 부탁하는 것이었다. '공허의 도시' 앞에서 초대를 요청하면 들어갈 수도 있었으나, 악인으로 판정될 경우 그 자리에서 강제로 끌려갔다.

이는 단순히 위험을 즐기는 이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들어갈 수도 있는 작품이라니, 굉장하네요."

"검은망토의 작품은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느낄 것이 굉장히 많다던데. 작지만 거대하다더군요."

"'공허의 도시'에 초대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선행을 한 상태로 검은망토를 마주치면 선물 대신 초대로 바꿀 수 있다고…."

예술을 즐기는 점잖은 이들도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누가 작품의 내부로 들어가 감상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적인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 들어가 그 작품의 세상을 관람할 수 있다면 그 누가 거절할 수 있겠는가. 예술을 즐긴다고 자부하는 이들은 검은망토의 작품에 들떴다.

"작품의 주제에 따라 화풍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줏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작가라면 모름지기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하거늘."

"아니, 작품을 봤을 때 감상할 거리만 풍부하다면 그걸 그린 자를 작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검은망토는 좋은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을 보는 순간 검은망토가 무얼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건 단순히 그가 몬스터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갤러리의 화가가 스킬을 이용해 작품을 그리는 시대에 그게 무슨 상관이죠?"

"맞아요, 그 점이 오히려 메리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검은망토에게 화풍이 있다면, 그의 그림이 실존하는 세계라는 점에 있겠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확실히…. 말하고자 하는 바도 명확한 작품이고요."

그렇게 '공허의 도시'가 완전히 세상에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그런 세상에도 조금의 변화가 생겼다.

"어… 지금 뭐 하세요?"

"쓰레기 찾고 있어요."

“웬 쓰레기를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찾아요.”

“여기가 ‘검은망토’가 자주 출현한다는 장소거든요.”

“아아, 검은망토.”

유독 검은망토가 자주 목격되는 장소에는 쓰레기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길거리 청소는 품 들이지 않고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며, 또 자주 할 수 있는 선행이었기 때문이다.

“검은망토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오늘도 나왔는데….”

“거, 뭐,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날이 추운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떤 사람은 검은망토가 주는 간식의 맛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공허의 도시’라는 작품에 초대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요즘 유명한 몬스터와 교류하기 위해 작디작은 선행을 이어갔다.

그게 지칠 즈음 누군가가 환호성을 지르며 자랑했다.

“야, 이거 봐! 검은망토한테서 받은 선물이다?”

“검은망토? 미쳤다, 이건 간식이 아닌데? 뭐야, 향 진짜 좋아.”

“꽃차래, 꽃차. 이런 거 받았다는 사람 내가 처음이지?”

안쓰러운 마음에 남들 몰래 카네이션 아이에게 붕어빵을 사준 한 여성이 ‘꽃차’를 선물 받은 것이다.

“뭐야, 간식이 전부 아니었어?”

“검은망토의 선물에도 티어가 있었구나….”

“거의 포션급이라던데.”

“민간인이 받기엔 너무 좋은 선물이다.”

“시발, 존나 부럽네.”

심지어 그 꽃차의 효능이 눈 돌아가게 좋다는 소식을 들은 몇몇이 안 좋은 의도로 여성에게 접근했으나, 그들은 ‘공허의 도시’의 시선을 한 달간 받고는 이내 그만뒀다. 특히 여성에게 거의 해를 끼칠 뻔했던 자는 아예 액자 안으로 끌려가기도 했다.

“후처리도 깔끔하구나.”

민간인이든 각성자든, 도전해 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 마련된 것이다.

물론 또 다른 면으로는, 평소 악한 일을 버릇처럼 해오던 사람 중 일부가 위축되었다.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공허의 도시’를 신경 쓰자니 수시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다.

“…시발, 몬스터 따위가 뭐라고….”

“자존심 상해서 못 해먹겠네, 개 같은 거.”

그렇다고 제 마음껏 활개를 치자니 그럴 수도 없었다. 약한 이에겐 강하게 굴고, 강한 이에겐 약하게 굴던 뼈에 새겨진 습성 탓이었다.

박은겸을 시작으로 몇몇 이들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을 맞이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런 흐름을 감지한 협회가 무언가를 전시했다.

“어? 야, 협회 앞에 저거….”

“뭐지? 물감인가? 먹이야?”

“아니, 색이 좀 이상한데.”

가장 처음 ‘공허의 도시’의 악인이 된 박은겸이었다.

“…저거 왜 살아 있는 것 같지?”

“개, 개소리하지 마. 저게 살아 있는 거라고?”

“협회가 진짜 미쳤나… 이거 인권 침해 아니야?”

“너도 저 꼴 되고 싶으면 계속 지랄하든가.”

“…헐… 소름 끼쳐….”

협회의 게시글을 읽지 않은 이는 정확한 사정을 몰랐지만, 어쨌든 그게 살아 있는 물감이라는 것만큼은 자명했다. 어째서인지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야말로 ‘공허의 도시’에 악인으로 낙인찍히면 얼마나 끔찍한 생을 이어가야 하는지 대놓고 보여준 셈이었다.

“협회가 몬스터의 힘을 빌려 이렇게 나와도 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단지 ‘공허의 도시’의 위험성을 알려 드리고자 한 것뿐이었어요.”

누가 봐도 ‘검은망토로 빚어진 지금의 흐름이 나쁘지 않으니 이대로 유지하자’라는 속셈이 뻔히 보이는 수작이었다. 하지만 협회는 ‘요즘 검은망토에게 섣불리 접근하는 사람이 늘어 경각심을 주고자 한 것뿐’이었다며 발뺌했다.

근원의 존재를 아는 소수와 정원사들은 이것이 검은망토의 ‘이야기’를 인간의 양심과 규칙에 이로운 쪽으로 제한하려는 협회의 의도임을 알아챘다.

“협회가 인정한 탓에 검은망토의 이야기가 너무 비대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싶기도 하네요.”

“어디 한구석에 처박혀 있는 몬스터도 아니고, 단순 몬스터라기엔 근원과 상당히 가까운 존재입니다. 차라리 이편이 나아요.”

“그래, 계속 사람들 틈바구니에 나타나는 존재라면 어차피 이야기는 거대해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검은망토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미지 메이킹을 해보는 걸까요?”

“이 틈을 타서 활동성 좋은 검은망토의 방향을 제한할 수 있다면 이득인 셈이잖아요. 난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치고도 과감한 행보이기는 합니다. 드물게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라 마음이 급했던 거겠죠.”

“일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터지기 전에 준비하는 편이 좋을 테고요. 특히 이야기 문제라면요.”

“몬스터 혐오자들에게는 강한 자극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심한 반발을 일으키겠네요.”

“뭐, 그것도 협회에서 잘 수습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유능한 사람들 많잖아.”

또한 그게 아니더라도 협회에 강하게 반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협회의 운영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께선 제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협회장인 단해라가 직접 나섰기 때문이었다.

원래도 인권 따위는 빈말로 취급받은 세상. 협회의 도움을 받아 도시에서의 안전한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시민들은 그들에게 반항할 생각을 못 했다.

범죄자라 불릴 수 있는 짓을 몰래몰래 해오던 몇몇 이들만 씨근덕거릴 뿐이었다.

“…….”

그 흐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또 있었으니.

“뭐야 시벌.”

F급 헌터 차아라였다.

“오빠, 나 방금 돈 벌어옴.”

“뭔 개소리야.”

“저번에 나 던전에 버리고 갔던 사람들이 피해 보상금 줬어.”

“얼마?”

“어… 일단 전기장판 갈아 치울 수 있을 정도는?”

“봄 다 되어서 전기장판 같은 소리 한다.”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호소를 토대로 검은망토가 인간의 선악을 감정할 때도 있었다. 그 결과 검은망토가 가해자를 악하다 판단한다면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상황이 두어 번 정도 있었다.

차아라가 한참 전의 일을 지금에야 보상받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럼 천장 좀 고쳐볼까, 바람 새던데.”

“좀 아껴두든가. 나 이제 붕어빵 장사도 안 나가서 당분간 돈 좀 챙기고 있어야 해.”

“그게 낫겠다. 당분간 오빠는 계속 집에 있겠네? 뭐 할 거냐?”

“슬슬 텃밭 관리 해야지. 날이 풀리고 있으니까….”

“오빠가 농사로 돈 벌어 보겠다고 하면 나도 당분간 밭일 좀 돕게.”

“됐어, 헌터가 헌터 일 해야지 뭔 흙을 만져.”

“뭐 심을 거야?”

“음… 일단 감자랑 상추 생각하고 있는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제가 막내로 바뀌었다.

“차이솔은 뭐 하고 있나.”

“밥 잘 먹고 있겠지.”

“걔 요즘 여친 생겼어?”

“아니… 찐친이던데.”

“까비, 막내도 사랑을 배우나 했다.”

“손바닥만 한 게 무슨 사랑을 배워.”

차은혁이 혀를 찼다.

“조만간 실습 나간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어? 왜 나는 못 들음?”

“엊그제인가 전화 왔는데 네가 집에 없었다.”

“아 나도 막내 목소리… 나도 막내랑 통화….”

“집에 붙어 있어야 통화를 하든 말든 하지.”

“우리 막내 솜사탕인데 벌써 실습을 나간다네.”

“그거 콩깍지야, 솜사탕 수준 아니다.”

“물에 녹잖아.”

“그건 우리도 그래.”

차씨 가문은 대대로 고인 물에 들어가면 녹았다. 오래 몸 담그는 게 힘든 사람들이었다.

“아무튼 망할 것 같다 싶으면 검은망토 소환하라고 했어.”

“이 오빠가 미쳤나, 애 인생을 망쳐? 악마를 소환하라는 격인데?”

“악마보다는 온건하고.... 야.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인생 좀 꼬이는 게 낫지.”

“솔직히 깔끔한 죽음과 제대로 꼬인 인생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아냐, 저번에 보니 검은망토가 우리 막내 아끼더라.”

“그... 그건 그렇지만....”

“사적인 용도로 불렀다고 괘씸해하기는 하겠지만 진짜 뒤지는 것보다 낫다니까?”

“.......”

입을 꾹 다물던 차아라가 물었다.

“...그래서 그 양반 뭐 하고 지내는데?”

“뉴스 보니까 재밌게 살고 계시기는 한 듯.”

“요즘 등장이 좀 뜸해지지 않았다던가?”

“확실히 겨울보다는 목격담이 줄었다더라고.”

“다들 슬슬 진정하는 느낌인가.”

“그보다는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라 소름 돋던데.”

“그 뭐냐, 국가 필수 예방 접종처럼....”

“맞아, 그거. 딱 그 느낌이야.”

검은망토의 이야기로 내내 시끄러웠던 도시는 점차 평소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여전히 검은망토를 만나기 위해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에게 악인으로 찍히지 않기 위해 자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훨씬 차분해져 일상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이 행성은 죽을 때까지 검은망토와 함께하겠구나....”

“시발 그렇게 말하니까 두 배로 소름 끼쳐.”

“그냥 다들 적응을 해버린 느낌이지, 검은망토도 활동을 덜 하는 추세고.”

그와 식사까지 해보았던 차은혁이 물었다.

“그런데 ‘서지오 씨’는 활동 안 하신대?”

“그걸 왜 나한테 묻는지 모르겠는 건 둘째 치고, 서지오 씨?”

“검은... 그... 그분의... 신분 있잖아. ‘심해의 신전’에서 생긴....”

“아, 아아....”

차아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검은망토는 인간의 신분을 활용할 생각은 없었던 걸까?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15)"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16)

제116화

수집상에 신입 사원이 들어오는 경로는 대개 두 가지다.

"오늘 새 얼굴 보이던데."

"그래요? 길드장님이 또 누구 꼬셨나?"

첫째, 길드장인 비사벌이 길 가다 한 명 주워 오기.

"아니, 여러 명이더라고요."

"그럼 또 어디 털고 오셨나 보네요."

"어쩐지 행복해 보이시더라니…."

"길드장님의 유구한 취미죠."

둘째, 불법 길드 털어서 인재 주워 오기.

"뉴스에는 안 보이던데."

"그렇게 큰 길드는 아니었나 봅니다."

수집상은 보통 수집가의 사람 줍는 솜씨로 새 인원이 충원되었다. 길드 자체가 비사벌의 수집품 장식장이나 다름없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였다.

새 얼굴이 하나일 때는 비사벌이 길 가다 누구를 꼬셨을 확률이 높지만, 동시에 여러 명이 보인다면 후자일 가능성이 컸다. 이번 경우는 대놓고 어느 길드를 털어 온 셈이었다.

"아직 인턴이죠? 우리 팀에 들어오면 좋겠다."

"튼튼해 보이는 게 갤러리 쪽으로 갈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게 튼튼하기만 하다고 되는 일이야?"

"일단 맛보기 같은 느낌으로 큐레이터 일 시켜보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회사 커져서 좀 빡센데…."

"갤러리가 저희 회사 본체나 다름없는데 어쩌겠어요."

수집상이 하는 일은 첫째가 갤러리 관리이고, 둘째가 자금 운용, 셋째가 던전 탐사였다. 숫자 만지고 돈 굴리는 기업의 이미지가 강한 수집상의 가장 큰 사업은 단연코 갤러리라 할 수 있었다.

아름답고 기괴한 작품들이 가득한 별세계. 그 본질을 아는 이들은 희귀한 힘에 홀렸고, 낭만에 취한 이들은 갤러리의 화려함을 극찬했다. 비사벌의 갤러리는 수집상의 얼굴인 것이다.

“정직원 될 가능성도 커 보이던데.”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새 얼굴들의 등장에 기존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신입들도 그 공문을 받는 건가?”

여기서 말하는 ‘그 공문’이라 함은, ‘검은망토 안전 수칙’을 말하는 것이었다.

“…….”

“…….”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신입들 정직원 안 되면 바깥으로 퍼질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대놓고 검은망토 이야기인데 이걸 알려주나?”

“하지만 갤러리에 배치된다고 하면 인도적으로 알려주기는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난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봐, 자칫하면 사람 한둘 죽는 걸로 안 끝나요.”

“몬스터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거리는 것보다는 신입 몇 명 죽는 게 싸게 먹히기는 합니다.”

“아니, 신입들에게 ‘서지오 씨’가 자극받아서 우리에게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다고.”

멋모르는 사람들이나 ‘검은망토’를 친근하게 느끼지, 생각 좀 하는 사람들이라면 ‘결국에는 몬스터’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시대의 인간형 몬스터란 부정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인 것이다.

특히 일반 시민보다 조금 더 검은망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수집상의 직원들은 더더욱 그랬다. 큐레이터들이나 되어야 그 정신 나간 작품들을 ‘내 새끼’라며 물고 빨지, 평범한 직원들은 여전히 검은망토를 두려워하며 경계하고 있었다.

“격이 상당히 높다더라고요.”

“악신도 몬스터 중 하나로 취급된다던데 혹시…?”

“꽤 온순한 편인 것 같기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죠.”

“하여간 몬스터들은 속내를 알기가 어렵다니까.”

“속내랄 게 있나요, 인간을 혐오하는 것뿐일 텐데.”

“아직 큰 피해는 없었지만 신중해서 나쁠 건 없지.”

그럴수록 큐레이터의 충원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에 신입 털어 온 것도 다 검은망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하긴 그 어마어마한 존재를 한 명이 감당하기는 힘들 겁니다. 유성운 씨 죽으려고 하던데.”

“우리 큐레이터들은 수명 내놓고 돈 버는 거기는 하지.”

수집상의 갤러리는 한 달에도 사람이 몇 번씩은 죽어나가고,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는 등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평범한 인간은 감당하기 힘든 존재들을 관리하는 직업인 만큼 정신력의 소모도 크다더라.

“협회의 연구소는 통제가 좀 더 잘 된다던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나?”

“수집상 갤러리 이미지가 있잖아요. 길드장님 본인부터가 작품들하고 살림을 차렸는데, 그 꼴을 그냥 두고 보겠어요?”

“어쩜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냐고 난리를 치실 미래가 훤히 보이네. 사실 난 이런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긴 우리 갤러리 색깔이 워낙 자극적이기는 하지. 그 덕을 많이 보고 있기도 하고.... 인지도가 높잖아요.”

“봄 되면 퍼레이드 진행될 텐데, 확실히 그런 건 연구소같이 재미없는 곳에서는 못 하는 거죠. 우리 큐레이터들이나 되니까 하는 거지.”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통제가 아니라 사교와 신뢰에 기대는 만큼 불안정하긴 해도,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비사벌의 갤러리에 대한 존재 의의를 새삼 확고히 한 직원들의 의식은, 다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싱싱한 인력들에게로 이어졌다.

“요즘 큐레이터들 상태 보면 슬슬 물갈이할 때가 되기는 했어.”

“새 인원이 들어가야 원래 있던 분들도 휴가 내고 하죠.”

“돈 아니면 작품에 미친 게 아니고서야 못 할 짓이라니까? 불쌍한 사람들, 맨날 야근이야. 퇴근도 못 해.”

“손이 많이 가기로는 신생아보다 더할 텐데 어디 쉴 틈이나 있겠어요?”

“신생아는 손 좀 덜 간다고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새 물 들어올 때마다 갤러리에서 누구 한 명 다쳐 나오던데 또 그러겠네.”

“당분간은 갤러리를 예의 주시 하고 있는 편이 좋겠습니다. 사람 죽거나 다치는 건 뭐 어쩔 수 없다지만, 회사 전체에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요.”

“신입인데 뭐 5층까지 보내려고요? 별일 없을 겁니다. 에이, 우리 팀 인원 들어오나 했더니....”

“좀 봐줍시다. 큐레이터들도 쉬어야지. 어차피 갤러리에 안 맞는 신입은 사무직으로 올 거예요.”

그런 직원들의 추측과 같이, 이번 신입들은 갤러리의 관리를 위해 뽑아 온 게 맞았다.

“.......”

“.......”

“.......”

그들은 한창 어색해하고 있었다.

“오, 새 얼굴들이시네요. 큐레이터신가?”

“...아, 네, 갤러리 쪽 일을 담당한다고....”

“신입이니까 1층 중심으로 돌아다니겠지만 몸조심해요.”

“감사합니다.”

오며 가며 기존 직원들이 평범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신입들은 쭈뼛거렸다.

‘여기가 수집상... 건물 되게 좋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큐레이터?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어떻게든 이 기회를 잡아야 해.’

‘다시 그 길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비사벌이 불법 길드를 털어 데려온 신입들에게서 주로 보이는 모습이었다. 버젓한 길드에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양심도 있고 발전할 의지도 있지만, 갑자기 자신에게 떨어진 기회에 얼떨떨해하는 것이다.

그런 신입들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다.

“반갑습니다, 인턴 여러분.”

비사벌의 부탁으로 첫 큐레이터 교육을 해줄 유성운이었다.

“수집상의 갤러리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알려드릴 유성운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본적인 교육은 받고 오셨을 테니 바로 이동하죠.”

유성운을 필두로 한 신입 큐레이터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큐레이터 전용 엘리베이터는 총 6명이 간신히 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는데, 유성운을 포함 정확히 6명인 탓에 꽉 차는 기분이 들었다.

그 비좁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성운이 설명했다.

“오늘은 첫날이라 다 같이 이동해서 좀 좁을 텐데, 내일부터는 각자 담당 큐레이터가 생길 겁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배정이 될 거라 오늘처럼 비좁지는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에 한 신입이 물었다.

“저, 일반 직원용 엘리베이터보다 좁은 이유가 있습니까? 갤러리의 물건을 옮기거나 하려면 좀 더 커야 하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위험한 작품과 동행 혹은 작품에게 저주를 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의 모든 인원이 죽을 것을 염두에 두고 최대 인원을 적게 둔 겁니다.”

유성운이 선선히 대답했다.

“같은 이유로 보통 큐레이터 전용 엘리베이터는 2명에서 4명까지만 탑니다. 엘리베이터로 운반하지 못할 만큼 큰 작품들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이동 스킬을 쓰는데, 이 부분은 더 노련하신 큐레이터분들께서 담당하니 아직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인원이 죽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작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갤러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섣불리 행동하다 벌어진 사건 사고들이니, 본인 담당 큐레이터의 말만 잘 따르면 그런 일을 겪게 될 확률은 낮습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친분을 쌓은 작품은 대체로 안전해지는 편이니까요.”

“아, 네,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갤러리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시간이 깁니다. 저희가 향하는 곳은 지하 1층으로, 수집상의 갤러리 중 가장 안전한 작품들이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장난을 치는 작품도 있으니 층별 하강 시간에 대한 감각을 숙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지하 1층에 내려온 유성운이 신입들을 돌아보았다.

“수집상에 갤러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전히 무던한 음성이었지만, 신입 중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

“…….”

숨이 턱 막혀왔다.

비사벌이 큐레이터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 데려온 이들이고, 그만큼 위험에 대한 공포나 고통 내성이 큰 이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위압감을 느꼈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의 혼란과 무거움, 그리고 거대함이 이 갤러리를 감돌았다.

온통 하얀 공간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둘러보는 신입들에게 유성운이 말했다.

“다들 C급 이상은 되시는 걸로 아는데.”

그에 정신을 차린 신입들이 차례로 대답했다.

“제가 C급입니다.”

“저도....”

“저는 B급이에요.”

“B급입니다.”

“...A급이요.”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외도 있지만, 보통 등급이 높을수록 더 깊은 지하의 갤러리에 배치됩니다. B급 헌터분들은 몰라도 A급이라고 말씀하신 헌터분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충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받는 페이나 혜택도 커집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인사 팀과 상담 후 배치도를 조정할 수 있으니, 위험을 강요받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성운은 신입들을 이끌고 천천히 나아가며 갤러리를 설명했다.

“모든 갤러리의 작품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1층의 작품과 자신이 배치된 층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위치와 특성을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 기본적인 대처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작품의 경우 따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대개 신입이 관리하는 경우는 없지만 이후에 생길지도 모릅니다. 신원 증명이 필요한 구간들이 있으니 기억해 두시고... 갤러리에 비치된 구조 요청 장치도 익히셔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유성운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이어갔다.

갤러리의 구조와 위험한 작품들이 배치되어 있는 장소, 신입 큐레이터들이 해야 할 업무 등등.... 워낙 넓은 갤러리인 탓에 한 층만 돌아보는 것인데도 시간이 꽤 걸렸다.

다시 엘리베이터 앞으로 돌아온 유성운이 입을 열었다.

“제가 설명드린 작품들 이외의 작품을 자세히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기억하면 여러분의 생존과 안전이 더욱 보장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성을 보이는 작품들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예, 유성운 큐레이터님.”

“본인이 깊이 알고 이해하며, 혹은 라포를 형성해야 하는 작품은 여러분의 담당 큐레이터가 알려드릴 겁니다. 역량을 인정받으신다면 한 개 이상의 작품을 맡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한 신입이 물었다.

“층 배치는 건의가 되면서 왜 작품은 건의가 힘든가요?”

“갤러리의 관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 혹시 다 죽어나가서...?”

“그것도 있고.”

딱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었다. 협회의 연구소만큼 통제가 완벽하지 않은 대신 작품의 활용성과 친밀도를 한계까지 높이고 있는 이 갤러리는, 보통 그 화려함의 대가로 큐레이터들의 수명과 건강을 내놓는 편이었다.

그야말로 인간을 갈아 넣는 갤러리라는 것인데, 어지간한 인력보다는 작품의 가치가 훨씬 더 높기에 유지가 가능한 시스

템이었다. 요즘 세상에 흔히 보이는 구조이기도 했다.

“큐레이터의 일은 정신적 신체적 피로가 상당한 탓에 한 작품을 맡았어도 주기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자주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작품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유성운이 무던하게 웃었다.

“하지만 큐레이터가 아예 해내지 못할 일을 맡기거나, 인신 공양처럼 대놓고 생명에 위협이 가는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이곳의 작품보다 가치 있다고 말할 수는 결코 없는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비사벌이 큐레이터들의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부상과 죽음이라는 수가 존재할 뿐, 비사벌은 제 것을 아꼈다. 그는 제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죽게 된다면 그 끝이 숭고하고 예술적이기를 바랐다.

“이곳이 수집가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여러분은 길드장님의 수집품이 될 가능성을 보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길드장님께서는 자신의 수집품을 상당히 아끼시니, 정직원으로 승급된다면 신변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

“본인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멍청한 짓을 하지만 않는다면요. 저희 길드장께서는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을 좋아하죠. 개인적인 발전에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한 유성운이 눈을 짙게 휘었다.

“앞으로 여러분이 대할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예민한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수십 수백 번 고민하고 신중한 선택을 내리면서도 또 언젠가는 직감대로 과감한 선택을 하는 자세가 이 갤러리에서는 필요합니다.”

모순적인 조언이지만 그게 현실이었다. 자신의 작품을 애정과 정성으로 돌보아야 하는 큐레이터들은, 단순히 매뉴얼대로만 따라 한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유성운이 어깨를 으쓱였다.

“큐레이터의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인과 회사 양측에서 판단할 시, 그분은 다른 업무를 맡게 될 겁니다. 갤러리의 인력이 부족한 탓에 일단 모든 분께서 우선적으로 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거지 필수는 아니에요.”

“아, 그럼, 다른 업무 중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회사의 서류를 처리하는 일이나 경매장 혹은 갤러리에 비치할 작품을 찾으러 탐사하는 것 정도겠군요.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신다면 사무직이 좋겠고, 능력껏 활동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길 원한다면 현장직이 좋겠습니다.”

능력과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건 큐레이터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현장직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점에서 논외로 친다. 제 목숨이 아깝다면 회사의 일반 업무를 맡는 편이 나았다.

“이것으로 오늘 제가 드릴 필수적인 교육을 마쳤습니다. 본인이 큐레이터로서 활동할 의지가 강하거나 이곳에 궁금한 게 남았다면 조금 더 돌아보셔도 됩니다.”

“…….”

“음, 없군요. 그렇다면 모두 저와 함께 갤러리를 나가는 것으로 명부에 기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큐레이터가 알려주시겠지만 갤러리 출입 명부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작성할 수 있도록 생활화합시다.”

고개를 끄덕인 유성운이 물었다.

“이상으로 질문받습니다.”

“…정직원이 되면 뭔가 다른가요?”

“큐레이터 활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혜택이 늘어나겠죠.”

인턴에게 말해도 될 정보를 분류한 것일까.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던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그 이외에도 정직원만이 확인할 수 있는 포털에 자신만의 신원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만의 신원’이란 시민 등급이 올라간다는 것을 뜻했다. 정식으로 취직이 된다면 그들은 지금의 4~5등급에서 2등급 시민증을 발급받게 될 것이었다.

운이 좋으면, 더 노력을 한다면 1등급 시민증도 꿈이 아니라 현실. 신입들의 눈에 초조함과 절박함이 가득 들어찼다.

“정직원만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이라는 게 뭡니까?”

“일반 회사 전용 포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회사의 직원들만 볼 수 있는 정보들과 커뮤니티가 존재해요.”

“그런 정보의 차이로 인턴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시는 것처럼 커다란 불이익은 아니고, 확실히 대우에 차별점이 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거기까지 말한 유성운이 잠시 말을 멈췄다.

“…….”

“…큐레이터님?”

“그리고 조언 한 가지 드리자면.”

그가 방금과 다름없는 무던한 미소를 지은 채 말을 이었다.

“저희 회사에는 서지오라고 하는 새벽 근무반이 한 명 존재합니다.”

“…새벽 근무반? 그게 뭐예요? 파트타임 같은 겁니까?”

“비슷한 개념으로 일종의 특별 전력입니다. 매체에 데뷔하지도 않은 비공식 헌터고요. 종종 회사에 얼굴을 보이니 어쩌면 여러분과 마주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지오라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따로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게 있나요?”

“선하고 정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무례한 짓을 하지만 않는다면 그분도 화내지 않을 테니, 만약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무섭게 생기셨나요…?”

“음, 얼추 그렇죠.”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색 망토를 두르고 있거든요.”

“…검은망토?”

“요즘 유명한 검은망토와 이미지가 겹쳐서 곤란해하고 있어요. 원래 검은색 망토를 즐겨 입으시는 분인데 하필 위험한 몬스터랑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아, 그렇군요. 비슷한 이미지….”

“…….”

잠시 침묵한 유성운이 이내 입을 열었다.

“…수집상의 비공식 특별 전력입니다. 이 회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점검하고 돌아다니니 복도나 갤러리에서 마주칠 수도 있어요. 침입자로 오해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유성운의 말에 신입 두 명의 표정이 굳었다. 무언가 짐작한 바가 있는 모양이지만, 유성운은 그 이상 알려주지 않고 이쯤에서 설명을 마무리했다.

“만나 뵙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예, 유성운 큐레이터님.”

“별 탈 없이 한 가족으로서 다시 보면 좋겠군요.”

그가 작게 웃었다.

수집상의 갤러리는 어디까지나 관리와 판매, 전시에 그 목적이 있었다. 오로지 비사벌의 수집품을 친애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곳에서는 작품의 통제가 아니라 사교가 필요했다.

과연 이번 신입들은 그 정신 나간 작품들에 비이성적인 애정을 품을 수 있을까?

“무탈하게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신입들의 첫 교육이 마무리되었다.

* * *

“…….”

“안녕하세요.”

그렇게 날이 저물고.

“괜찮으십니까?”

“…아…?”

“다치신 곳이 없어 보여 다행입니다.”

한 신입은 어느 금발의 남성과 마주쳤다.

그가 말했다.

“제 이름은 서지오입니다.”

“…….”

“당신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

“이름이 궁금합니다.”

바다를 담은 눈이, 웃었다.

“저와 대화하시겠습니까?”

새벽 5시 13분에 벌어진 일이었다.

오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17)

제117화

여자는 밤잠이 없는 편이었다.

수집상에서 첫날 교육을 받은 신입들이 전부 들어와 자고 있는 시간에도 여자는 잠이 들지 못했다.

최근 몇 년간 그녀는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그로 인해 생긴 불면증은 여자를 지독히 괴롭혀 왔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럴 시간이 뭐 하나라도 더 공부해야 하는 게…."

야망이라 할 건 없었지만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인한 절박함은 있었다. 대단한 사람이 되거나 주목받고 싶지는 않지만, 그녀는 '평범한 행복'이라는 것을 동경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수집상에서 준 유인물은 전부 숙지했고."

여자는 카네이션 아이 출신으로, 불법 길드의 한 헌터 밑에서 일을 하며 커왔다. 언제나 양지로 나갈 순간을 엿보았던 그녀에게 이번 수집가 비사벌이 내민 손길은 절호의 기회였다.

"신입이 나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동기들 중 가장 낮은 C급이라… 고용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 대한민국 3대 길드의 비호를 받을 기회를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어."

현재 여자가 있는 곳은 수집상의 기숙사.

"…분명 회사 자체는 24시간 운영이었지…."

여자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수집상으로 이동했다.

새벽 4시를 넘기고도 조금 된 시점. 일하는 직원이 드문 시간에 방문한 여자의 모습에 입구를 지키던 경호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입구를 담당하는 그는 모든 직원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그건 신입을 상대로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죠?"

"아, 네, 네. 맞아요."

"갤러리에 배정되었다고 들었는데 벌써 업무가 있습니까?"

"그… 이래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응을 좀 해보고 싶어서…."

"따로 업무는 없다는 말씀이군요."

“…안 될까요?”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본인의 책임이니 안 될 건 없습니다.”

경비가 출입 게이트를 가리키자 여자가 허겁지겁 사원증을 찍었다. 무사히 안으로 들어온 여자가 경비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 감사합니다.”

“직원이 일하러 오는 건데 제게 감사할 게 있나요.”

어지간히 넉살이 좋은 편인지, 친근한 인상의 경비가 자연스럽게 말을 붙여왔다.

“갤러리로 가실 거라면 지하 1층 아래로는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 1층 갤러리에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 정도 계시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그분들에게 여쭤보고요.”

“그래도 될까요? 제가 방해하는 건 아닌지….”

“안 그래도 졸린 시간에 의무적으로 자리를 지키러 오는 분들이십니다. 대화할 사람이 생기면 오히려 좋아하실걸요. 일종의 불침번을 맡고 계신 분들이니까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하루빨리 정직원으로 봤으면 좋겠네요. 마음이 바쁘신 건 알겠지만 엘리베이터는 조금 여유 있게 타세요.”

“…….”

고개를 꾸벅인 여자가 건물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새벽인데도 이렇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구나.’

야간 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위해서인지 불이 꺼진 곳이 없었다.

그럼에도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적막함에 문득 오싹해졌지만, 여자는 꿋꿋하게 갤러리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제 신발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낮에 유성운 큐레이터가 알려주었던 엘리베이터는 꽤 복잡한 방식으로 가야 닿을 수 있었다.

“…….”

사원증으로 신분 인증까지 마친 여자는 금색 버튼을 눌렀다. 퇴근한 사람이 없었는지 엘리베이터는 한참이 지나서야 그 문이 열렸다.

“…아, 출입 명부.”

엘리베이터 벽에 걸려 있는 종이 명부가 눈에 들어왔다.

“생활화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정직원이 아닌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음….”

여자는 잠시 고민하다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비전투 계열의 헌터인 여자는 던전에서 특별한 물건을 가져올 능력도 없었고, 빈민 출신으로 태어나 불법 길드에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자라온 탓에 사무 처리 능력도 떨어졌다.

‘하지만 수집가의 갤러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작품을 대하는 애정이라고 했어. 내 능력 밖의 작품을 배정하지는 않는다고 했으니,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뿐이라면 나도 이 갤러리에서는 잘해낼 수 있을 거야.’

가능하면 지금 배치된 자리에 남고 싶은 마음을 담아 여자가 또박또박 글자를 써 내려갔다.

"목적지… 지하, 1층…."

간단하게 목적을 서술한 여자가 금색 만년필을 원래 위치에 두었다.

"…이런 건 묶어두지 않으면 누가 훔쳐가지는 않나?"

하긴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 3대 길드이지 않나. 그런 간 큰 짓을 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상아색과 금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엘리베이터. 여자는 버튼을 누르기 전 저도 모르게 그 고상함을 눈에 담았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밝은 분위기의 엘리베이터는 어딘가 고풍스러운 면이 있었다.

'…생각해 보면 이런 대기업 엘리베이터에 쇠 버튼이 달린 것도 희한한 일이야. 종이로 되어 있는 명부도 그렇고. 이건 갤러리의 고전적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디자인인가?'

그러던 중 여자는 문득 한기를 느꼈다.

"……."

낮에 봤을 때보다 훨씬 분위기가 기묘했다.

"…나 혼자 타서 그런가, 확실히 무섭네…."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좀 비좁아도 무섭지는 않았는데 말이다.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 위험한 작품들을 전시해 두었다는 수집상의 갤러리다. 교육 기간을 마치고 정직원으로 채택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저 홀로 타야 할 테니, 이런 섬뜩함에도 미리 적응을 해둬야 했다.

'그래, 내 작품을 배정받으면 제대로 된 친분을 쌓아야 하잖아.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부터 겁을 먹어서야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다짐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 했을 때였다.

"……."

여자가 고개를 기울였다.

"…버튼이…?"

전부 4층으로 되어 있었다.

"…이, 이게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여자는 자신이 기숙사에서 전부 외우고 나왔다 생각했던 수집상의 유인물을 떠올렸다. 정확히는 갤러리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적힌 문구를 말이다.

"아."

오전 4시 44분에는 가급적 갤러리로 가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동양권에서 특히 불길해하는 숫자를 이용해 장난을 치는 작품이 갤러리 4층에 있다고 말이다. 4라는 숫자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 층으로 자리를 옮겨도 계속 4층에 나타난다고 했던가.

"저, 정확히 어떤 작품이었더라…."

아까 전 경비가 '엘리베이터는 여유롭게 타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덕담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다니, 진즉 떠올리지 못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러면 좀 말려주지…!'

잠시 그런 원망이 들었지만, 그녀는 다름 아닌 5등급 시민이었다. 1등급 시민조차 아무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 세상에 그런 그녀가 죽는다고 아쉬워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사고라도 쳐서 작품들에 이상이 생기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 아니, 이런 생각을 할 시간에 대처 방법을

떠올려내야 해.’

하지만 워낙 초조해서 그런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았다.

“무슨, 엘리베이터 버튼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그랬는데....”

깜빡....

전등이 점멸했다.

“.......”

깜빡, 깜빡.

점멸하는 속도가 점차 빨라졌다.

“...어....”

뭐지?

‘어떻게 해야 하지?’

여자는 패닉에 빠져 벽에 기대지도 못하고 주춤거렸다.

회사에서 나눠준 유인물을 전부 외운 것은 맞지만, 긴박한 상황에 놓이니 오히려 제대로 된 정보를 꺼내기가 어려웠다.

이 작품 설명이 저 작품 이야기 같고,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윽....”

왜 나는 항상 중요할 때 멍청한 짓을 할까.

“부, 분명 여기에... 엘리베이터에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장치가....”

끼기긱—.

불길한 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린다. 아래로 주르륵 밀려 내려가며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혔다 말기를 반복한다.

쿵쾅거리며 몸 안과 바깥이 동시에 시끄러웠다. 울컥하는 감정이 들 정도로, 어쩌지 못할 만큼 소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제발 좀....”

답답함에 숨이 막혀왔다.

이 엘리베이터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한 구조 요청 버튼이 존재했다.

누르기만 하면 대기 중이던 구출조가 와서 도움을 줄 거라고, 낮에 교육을 담당했던 유성운 큐레이터가 말했다.

“.......”

삐거덕거리는 소리.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만 같은 기이한 진동을 보내오는 엘리베이터에, 구조 요청을 바라는 버튼을 누르려고 막 손을 뻗었다.

하지만 닿기 직전에 멈췄다.

“.......”

몬스터의 수작은 아니었다.

“...나, 나....”

여자 스스로의 이기심 때문이었다.

“잘리는 건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

정해진 시간도 아닌데 위험한 장소에 기어들어 와서는 새벽 경비들을 귀찮게 하고. 하지 말라고 떡하니 적혀 있는 짓을 해 없어도 됐을 사고를 터트렸다.

이 비싸 보이는 엘리베이터에 어떤 문제를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게다가 나는 C급 헌터인데.’

요즘 같은 세상에 흔해 빠졌다는 C급 헌터. 대부분의 동기가 저보다 등급이 높은 데다, 같은 등급의 동기는 전투 계열인 게 확실해 보이는 튼튼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가장 안 좋은 조건을 가졌어.’

그런데 이런 사고를 치고 또 사람들을 귀찮게 해서는….

“…….”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는 없었다.

여자가 버튼에 손을 뻗은, 바로 그때였다.

“…어?”

깜빡….

섬뜩하게 점멸하던 전등의 불이 돌아왔다.

“어, 어…?”

아직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괴담에서 현실로 돌아온 듯한 가벼운 공기에, 여자는 저도 모르게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확인했다. 전부 4층뿐이었던 5개의 버튼 역시 1층부터 5층까지 순서대로 있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멈춰 선 층수를 확인하자.

“…5층?”

띵—.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아? 5층? 아니, 자, 잠깐…!!”

정신 못 차리는 사이 최악의 마굴에 기어들어 왔다는 생각에 화들짝 놀란 여자가 뒤로 쿠당탕 넘어졌다.

알싸한 고통에 신음할 새도 없이 엘리베이터의 문이 완전하게 열렸고, 그 사이로 기다란 인영이 드러났다.

“…….”

“…….”

검은 망토를 두르고 있는 금발의 남성.

“안녕하세요.”

지오반니의 형상을 취한, ‘서지오’였다.

* * *

“…신고식… 같은 거였다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연례행사의 느낌일 겁니다.”

여자의 허탈한 되물음에 금발의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고 겁만 주는 작품인데,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신입 큐레이터들이 잊을 만하면 당한다고 하더군요.”

“아….”

“매뉴얼을 몸에 익히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꽤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줄 수 있다 보니, 다들 적극적으로 조언해 주지는 않나 봅니다.”

그 말에 여자가 출입구의 경비를 떠올렸다.

“하긴 그냥 ‘여유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라’는 말만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으… 그런 거였구나.”

아무튼 정말 위험한 건 아니라 다행이었다.

“4층의 작품이라고 해서 감당 못 할 사고를 친 줄 알았어요.”

“크게 위험하지 않은 작품이라 몇 번이고 1층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워낙 4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계속 그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4층 작품이 된 겁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총 지하 5층뿐인 갤러리에, 4층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다는 설명이 있던 작품이었다. 5층보다는 그 위의 층으로 옮기려 했을 확률이 더 높은 것이다.

“제가 아직 생각이 안 나는데, 대처 방법은 뭐였나요?”

“엘리베이터 외부의 사람이 바깥에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주면 이상 현상이 멈춥니다.”

“…구조 요청 버튼을 누르거나 아침까지만 버티면 됐던 거네요? 정말 하나도 위험한 게 아니었구나.”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난이라고는 해도 명백히 정신적 소모가 큰 현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침까지 있었다면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가 작게 숨을 내쉬었다.

“사실 저는… 서지오 씨도, 처음에는 이상 현상 중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가 처음 내뱉은 말은 뜬금없는 인사였다. 식은땀 흘려가며 추하게 나뒹구는 사람을 보며 그 태연한 ‘안녕하세요’라니.

마치 이웃과 마주쳐 아침 인사를 나누는 듯한 그 무신경한 배려에, 아무리 경황이 없는 상태였어도 그게 얼마나 기괴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그건 인간이 어찌 되어도 신경 쓰지 않는 몬스터들과도 비슷했다.

‘…이런 무례한 감상은 본인에게 대놓고 할 수 없겠지만….’

여자가 식은땀이 흐른 자리를 닦아냈다.

“그 직후에 자기소개라니… 제 이름도 물어 보시길래, 저는 제가 진짜 제대로 된 작품에게 걸렸나 싶더라고요. 끔찍하고 사악한 계약을 강제로 맺어버리는 건가 해서.”

“이거 민망하군요. 많이 놀라신 것 같아서 인사와 통성명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기 위함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겁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말한 서지오는 매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낮추는 언행임에도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처럼 고풍스러워 보여 여자가 얼굴을 붉혔다. 너무 과분한 대접이었다.

"그, 그렇게까지는…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조금 놀랐을 뿐이다. 분위기가 워낙 무거운 데다 말투가 이상할 정도로 딱딱해서, 막 작품의 장난을 겪고 나온 여자의 정신이 어지러웠던 것 같다.

"서지오 씨는 정말 정중하시네요."

"저는 항상 정중한 사람이 되고 싶었죠."

검은 망토를 둘러쓴 사람이 웃었다.

"그 말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

"당신은 예의 바르고 선한 사람이군요."

"…아, 그…."

"저를 긍정해 준 것에 감사합니다."

그 말에 거짓은 없었다.

"……."

좋은 사람이다.

햇볕을 담은 듯 따사로운 금발은 부드럽게 흘러내린다. 도자기와 같은 반듯한 얼굴이 품은 미소는 상냥하다.

마치 봄날의 바다를 담은 것처럼, 그 신비로운 눈은, 아름답다. 그의 모든 것이 호의로 이루어져 있다.

'…정말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인데, 왜….'

…왜 이렇게 섬뜩하지?

오

Chapter (117)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18)

제118화

다음 날, 여자의 담당 선배가 물었다.

"어제 갤러리는 잘 보다 갔어요?"

"네...?"

"명부에 이름이 적혀 있길래."

"아, 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신고식은 거하게 당한 것 같지만 잘 보다 갔어요."

"응? 신고식?"

담당 큐레이터가 고개를 기울였다.

"뭐야, 엘리베이터 4시 44분에 탔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대로 숙지를 했어야 했는데...."

"아아,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요."

그렇게 말한 담당 큐레이터가 작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1층에 배치된 큐레이터잖아요. 어제 야근하던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딱히 꺼내준 적은 없다고 해서. 구조 요청 버튼도 안 눌렀다고 하고."

"아...."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숨 쉰 채로 발견됐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그럼 다른 층에 있던 분이 꺼내줬나 보다. 몇 층 큐레이터였어요? 감사는 드려야지."

"그, 5층이셨습니다. 덕분에 가장 위험하다는 갤러리도 구경했네요."

"...5층?"

"...네? 네."

"......."

원래 웃는 상인 듯 은은한 미소를 지은 담당 큐레이터의 표정은 그대로였지만, 뭔가 반응이 이상했다.

눈치를 보며 대답을 기다리는 여자의 모습에 담당 큐레이터가 말했다.

“그런데 그거 알아요?”

“뭐, 뭐가요?”

“어제 5층에 야근한 큐레이터는 없어요.”

“.......”

소름이 쫙 돋았다.

“…네?”

“아이, 농담 농담!”

상쾌한 웃음소리. 담당 큐레이터가 빵 터진 얼굴로 웃었다.

“이 갤러리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 농담은 받아칠 줄 알아야지.”

“…노, 농담… 맞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출입 명부에는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럼 농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길드에는 명부에 이름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아….”

“어제 유성운 씨에게 말 못 들었나? 언질은 해줬다던데?”

그에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드, 들었어요. 서지오 씨요.”

“그래, 서지오 씨.”

담당 큐레이터가 씩 웃었다.

“이야, 운이 좋네. 요즘 서지오 씨 자주 안 보인다던데.”

“아… 자주 안 나오시는 건가요? 그분은 큐레이터가 아니세요?”

“큐레이터는 아니고, 우리 길드의 특별 전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성운 씨에게도 듣기는 했지만… 그렇다면 정해진 업무는 없으신 겁니까?”

“수집상 길드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길드장의 수집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왜요?”

“일단 수집품으로서의 역할은 다 하고 계시다는 의미였지, 서지오 씨가.”

“…그, 그래도 되나요? 좀 날로 먹는 게 아닌지…?”

“사실 말이에요.”

목소리를 짐짓 확 낮춘 큐레이터가 소곤소곤 말했다.

“그 사람, 숨겨진 S급 헌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S, S급이요? 국내에 몇 되지도 않는 그…?”

“워낙 본인이 시끌벅적한 거 싫어해서 A급이라고 거짓말 치고 있는 거지.”

“그거 불법 아니에요??”

“아이, 뭘 그런 걸 신경 써요. 여기가 수집상인데.”

“어… 어어, 아니… 그….”

“우리 길드장은 길드원을 위해 이만큼은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막 애사심이 들지 않아요?”

큐레이터가 어깨를 으쓱였다. 그녀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토끼 형태의 봉제 인형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자, 우리 돌보미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아주 푹신하고 귀엽답니다.”

“…이렇게 쓰다듬으면 되나요?”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이러면 아주 낮은 확률로 조각을 줘요.”

“그게 작품들이 주는 선물 같은 거라고 하셨죠?”

“저주일 때도 있지만… 돌보미는 온순한 작품이라 그럴 일은 없고, 맞아요. 선물이지.”

“이 인형은 무슨 선물을 주나요?”

“어허, 돌보미에게 인형이라니요. 발언에 주의해 주세요.”

“아, 네. 돌보미는 어떤 선물을 줘요?”

“좋은 향기가 나는 꽃이나, 아니면 옷이라면 뭐든 고칠 수 있는 바느질 키트를 줘요.”

“앗….”

“귀엽죠?”

“귀엽네요.”

가벼운 교육을 한 뒤, 큐레이터가 다시 아까 전의 주제로 돌아갔다.

“그랬구나, 서지오 씨가 우리 후배님 문을 열어줬던 거였어. 이거 놀랍네.”

“그래도 같은 직원인데 놀라울 것까지 있나요…?”

“직원도 직원 나름이죠. 서지오 씨는 사람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사람이 없는 새벽에 주로 돌아다녀요.”

“그런 것치고는 되게 친절하시던데.”

“…….”

큐레이터가 되물었다.

“친절했나요?”

“네? 아, 네네. 엄청 친절하셨어요.”

“음… 지오 씨, 되게 화사한 미남이죠?”

“아….”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러네요, 굉장한 미남이셨어요.”

기분이 좀 이상했다.

“새벽에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잘생겼다는 생각도 못 했나 봐요.”

“서지오 씨 마주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뒤늦게 잘생긴 게 생각난다고.”

큐레이터가 눈을 반짝였다.

“그런데 얼마나 잘생겼어요? 나는 얼굴 보지도 못했는데, 왜 금발 청안의 조각상 같은 미남이라면서. 햇볕 냄새 날 것 같이 해사하고.”

“얼굴 보지도 못하신 것치고는 엄청 자세하게 묘사하시는데요… 그, 맞는 것 같아요. 서양 쪽 피가 섞이셨는지 콧대도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눈도 크고.”

“오오….”

감탄을 흘린 큐레이터가 이내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요즘은 그런 상태인가.”

“……?”

“흠, 나쁘지 않네.”

“…아무리 미남이시라지만, 사람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건….”

“어머어머, 나 그렇게 무례한 사람 아니에요?”

큐레이터가 꺄르르 웃었다.

“가끔 지오 씨가 우중충해질 때가 있다더라고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워낙 분위기가 무거운 사람이라 무섭다는 평가도 많아요.”

“아… 확실히….”

온통 새하얀 갤러리와 잘 어울리면서도, 어딘가 기묘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다.

“…너무 잘생겨서 그런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리감 느껴지고.”

“지오 씨는 되게 호의적으로 나오는데도 반응들이 그렇다?”

“친절하게 대해주신 건 알아요. 갈 때 피곤해서 다른 길로 새지 말라고 초콜릿도 주셨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지오 씨지. 주머니에 간식을 다람쥐처럼 넣고 다녀.”

“다람쥐….”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푹신한 봉제 인형의 손에 분홍색 가방을 들려준 큐레이터가 이어 물었다.

“어떤 느낌이었어요?”

“…….”

“서지오라는 사람 말이에요.”

아까와 달리 조금 톤이 낮아진 차분한 음성. 그에 여자가 새벽에 봤던 남자를 떠올렸다.

“…이상한 말이지만, 완벽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꽉 차는 느낌이 들었다.

봄날에 내리쬐는 햇볕을 폄하하기 힘들 듯이, 여름의 시원한 파도를 흠잡을 수 없듯이. 한 아이의 어머니가 부르는 자장가나 어느 마을에 대대로 내려오는 미신을 그저 멍하니 들을 때와 같은 감각일 것이었다.

흠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고, 비난하려면 비난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럴 기분이 안 드는 존재. 가죽을 찢어도, 피를 흘려도, 그 어떤 흠집이 나도 완성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 단지 역사의 흐름을 관측하고 있노라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풍요로움과 빠듯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존재감이었다.

“그냥 딱 마주친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 좀 이상하겠죠?”

“…S급 정도로 격이 높은 사람을 처음 봤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면 다행이네요.”

어색하게 웃고서는 말을 이었다.

“말투도 조금 특이하셨어요. 고풍스럽다고 해야 하나, 기품이 흐른다고 해야 하나… 솔직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정중하게 말씀하셔서 조금 곤란했죠.”

서지오의 말투는 어딘가 뚝뚝 끊어지는 면이 있었다.

“번역기 잘못 돌린 사람 같다고 해야 하나? 그게 막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닌데, 한창 겁먹었을 때라 그런지 살짝 무섭더라고요.”

“뭐… 정말로 서양 쪽 헌터일 수도 있고. 그쪽 피가 짙어 보이는 건 확실하잖아요? 우리도 길드장님이 정확히 어디서 섭외해 온 사람인지 모르거든.”

“그럼 아직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잘 어울려서… 그게 조금….”

무서웠다.

“인간 같지 않게 잘생긴 사람이라 그런가.”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졌다.

“네, 뭐. 그랬어요.”

“다른 이야기는 더 없어요?”

“그냥… 엄청 호의적이시라는 거?”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거리감이 느껴졌다. 뭔가 이상했다.

“호의는 호의인데, 사적인 감정으로 잘해 준다기보다는….”

“뭐야 뭐야,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호의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면 뭐예요?”

“…그러게요?”

제가 말하고도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아, 제 말은, 물론 위선적이었다거나 그분이 보여주신 호의가 거짓인 것 같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정말로요.”

“그렇게 알아듣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려던 말은… 서지오 씨가 보이는 호의라는 건 좀 동떨어진 사람처럼, 음… 평범하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괴상한 소리지만.

“그냥 내가 인간이라서 주는 호의인 것 같았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단지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주어지는 호의.

그래서 오히려 무관심처럼 느껴지던….

"…아니, 기분이 나빴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가 없는 호의를 보이는 분을 처음 만나서 당황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한 것도 없이 너무 거대한 무언가를 받아버린 것 같아서 황송했다고 해야 하나.

"서지오 씨는 1등급 시민이시죠? 아, 너무 당연한 걸 물었나?"

"저도 잘은 모르는데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어쩐지 행동에 기품이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적인 느낌은 아니었지만…."

저절로 동경하게 되는 분위기가 있었다.

"굉장히 여유로우면서도 언행에 무게감이 있으셨어요. 친근한 분위기는 절대 아닌데도 사교성이 좋으신 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동화 속 왕자님처럼 신비로운 느낌도 있고."

그런 여자의 말에 담당 큐레이터가 음흉하게 웃었다.

"어우, 자기. 이러다가 고백도 하겠다?"

"…선배님이 감상평을 요구하셨잖아요…."

"아이 난 거기까지 바라지는 않았지이."

큐레이터가 쾌활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튼 후배님이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저 이거 정직원 전환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갤러리는 워낙 인력이 부족해서 어지간한 사고만 안 치면 정직원 확정이에요."

"그럼 정말로 좋겠는데 제가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걱정이 되네요."

"무슨 걱정이람, 그 서지오 씨 앞에서도 잘만 대화한 사람이."

"아… 이거 그런 식으로 기준이 재어지는 건가요?"

"사람이 워낙 섬뜩해야지."

큐레이터는 눈을 짙게 휘어 웃었다.

"잘 지내줘요, 직원들하고도…."

"……."

"작품들하고도."

묘한 울림을 품은 어조였다.

'…아.'

여자는 문득, 어제 봤던 유성운 큐레이터도 같은 미소를 지었다는 걸 떠올렸다.

호의일지 악의일지 모를 감정을 담고 기묘하게 휘어지는 그 눈매들이 말이다.

"……."

그러자 이곳의 큐레이터들이 갤러리와 흡사한 분위기를 띠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비롭다고 해야 할지, 기괴하다고 해야 할지.

확신이 안 섰다.

* * *

“허니.”

“꾸르.”

“아빠는 자신감을 얻었다.”

귀신 들린 초상화가 되어 생긴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해상도였다. 초상화인 상태에서 액자 너머로 나가면 해상도 문제가 발생해 사람들이 인지하는 데 부담감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지오반니’와 완전히 동화한 지금. ‘지금도 해상도 문제없이 돌아다닐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깥을 돌아다녀 보았던 것인데....

“아무런 마찰 없이 직원분과 대화를 나누었어.”

감격한 나머지 쌈짓돈처럼 챙겨두었던 초콜릿까지 주고 말았다.

주고 나서 ‘어? 이러면 검은망토랑 내가 동일 인물인 거 알게 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때려치웠다. 강원도 산골의 맑은 정기 듬뿍 받고 자란 지오는 깊게 생각하는 법이 없었다.

“이러다 새 친구 사귀면 좋겠다.”

“꾸르르.”

“나만의 펜팔 친구....”

“...꾹.”

꽤나 행복해 보여 허니는 태클을 걸지 않았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18)"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19)

제119화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신입 큐레이터의 일차적인 교육이 끝났다.

"여러분은 담당 큐레이터와 함께 일하고 다양한 작품을 접하며, 수집상의 큐레이터가 작품과 고객에게 가져야 할 자세를 배웠습니다. 3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정직원으로 고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각자 작품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3주 동안 보여주신 모습을 토대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선정했으며, 해당 작품의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퇴출됩니다."

"......."

"퇴출이라고 해도 갤러리에서의 퇴출이지, 어지간한 사고를 치지 않고서야 수집상의 사무직이나 현장직을 맡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갤러리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인재를 고르는 것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성운은 신입 큐레이터 5명을 앞에 두고 말을 이었다.

"3주의 기간을 드렸으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전향 의지를 표현하지 않으셨으므로, 전원 수집상의 큐레이터가 되는 것에 찬성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대로 갤러리에 근무하길 원하시면 앞에 놓인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5명의 신입 모두 동의서를 작성했다. 갤러리에서 자신이 맡은 작품에 최선을 다하며, 그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진다는 내용이었다.

신체 포기 각서와도 비슷했지만 이제 와서 그런 것에 겁을 먹을 신입들이 아니었다. 발생한 문제를 모두 자신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불법 길드에서 밑바닥을 보고 온 그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는 대한민국 3대 길드에서 일하기를 원했고, 그중 수집상의 큐레이터는 명예가 높았다.

"모두 동의하셨군요."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확인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동의서 뒤편에 앞으로 여러분이 맡게 될 작품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아...."

"수집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예민한 물건이 들어오는 창고이자 연구소입니다. 당연히 정체와 대응 방법이 파악되지 않은 신원 미상의 작품도 많지만...."

"......."

“신입인 여러분에게는 거의 모든 정보가 파악된 작품이 배정되었습니다. 배운 대로만, 또 매뉴얼대로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작품들이죠.”

갤러리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어지고, 맡은 작품이 많아질수록 큐레이터는 더 위험한 작품을 맡게 된다. 하지만 이제 막 갤러리에 적응하기 시작한 신입들이 신경 쓸 문제는 아니었다.

“앞으로 1년.”

유성운이 말했다.

“1년의 기간을 드릴 겁니다. 그사이 못 견디겠다며 나가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신과 잘 맞는 작품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 수집상의 큐레이터로서 활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그렇다면… 중간에 맡은 작품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의지가 확고한 작품들이 많은 탓에 최대한 신경 써서 배치했다고 해도 안 맞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작품과 큐레이터 모두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될 시 1년 도중에도 담당 작품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건 비단 큐레이터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다. 아무리 큐레이터가 신경을 쓴다고 해도 작품의 상태가 간혹 바뀔 때가 있으니 말이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운의 말을 끝으로, 큐레이터의 기초적인 교육이 마무리되었다.

“오며 가며 얼굴 보게 되면 인사하자고 말하고 싶지만, 저는 보통 5층의 작품을 담당하는 데다 출장이 잦아 쉽게 만나기는 힘들 겁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교육에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부디 다들 사고 치지 마세요. 교육 기간 내내 들었겠지만, 사고 치면 본인뿐만 아니라 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섬뜩한 말을 던진 유성운이 특유의 무던한 미소를 지었다.

“다시 한번, 수집상의 갤러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신입 큐레이터들은 야생에 던져졌다.

“…….”

“…….”

좀 오싹한 야생에 말이다.

* * *

남자가 맡게 된 작품은 도자기 인형 세트였다.

“…….”

정식 명칭은 『달콤한 다과회』로, 성인 남성의 손보다 작은 도자기 인형 셋이 모여 있었다.

‘위험도는 6등급.’

수집상 갤러리의 작품들은 1부터 10까지의 위험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숫자가 커질수록 안전했다. 그중에서도 막 기초 교육을 마친 남자가 맡은 것은 3층 6등급에 해당하는 작품이었다.

‘10에서 8등급 정도의 작품을 배정받은 다른 신입들에 비해 위험도가 높아.’

이걸 인정받았다고 좋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위험해졌다고 무서워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유성윤 큐레이터도 지나가며 ‘정 안 되면 다른 작품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해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그럴 필요는 없겠지.”

도자기 인형 세트 『달콤한 다과회』는 풍성한 드레스를 입은 소녀 셋을 형상화했다.

정확한 시간에 맞춰 그녀들이 요구했던 다과를 주고, 그 다과의 섭취를 마친 뒤 말하는 간식을 미리 준비해 두면 됐다.

‘시간을 칼같이 지켜야 한다는 점 이외에 대응 방법이 어렵지는 않다.’

오차 범위는 5초 이내. 그보다 먼저 빠르게, 혹은 느리게 간식을 주면 도자기 인간이 되어버린다.

실수 한 번에 사망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페널티였지만 그건 전투 계열 A급 헌터로 현장에서 활동했을 때도 같았다.

“애초에 헌터에게 5초 정도면 아주 넉넉한 시간이고….”

특히 A급 헌터인 그는 0.01초 내에서도 판단과 행동이 가능했다. 오히려 많은 힘을 들이고 부상을 각오해야 하는 던전보다 훨씬 안전한 상황이었다.

“…….”

『달콤한 다과회』는 3층 28번째 복도에 비치되어 있었다. 공개적인 장소에 훤히 자리한 그것을 확인한 남자의 얼굴이 조금 풀어졌다.

따로 보관되어 있지 않고 큐레이터라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복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성이라고 하기엔 3층의 작품인 만큼 꽤 위험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안심이 된다.

“…아기자기하고 귀엽네.”

풍성한 프릴이 잔뜩 달린 드레스를 입은, 만지면 하얀 분이 묻어나올 것 같은 도자기 인형. 잘 익은 복숭아색으로 발갛게 칠해진 볼이나 황도색의 눈가, 곱게 자라난 속눈썹이 돋보였다.

보석을 박아 만들었는지 눈이 각자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안구 전체가 보석이라 그런지 공막과 각막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면 나를 보고 있다고 해도 알아채기가 어렵겠어.’

시선을 확인할 수 없다는 위화감과 함께 풍겨오는 그 기묘한 분위기만 아니었더라면, 이런 인형을 모으는 취미가 있는 콜렉터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을 듯했다.

“오늘의 간식은 별사탕이던가.”

각자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별사탕을 요구했다.

“…….”

약속된 다과회 시간인 새벽 4시가 되기를 기다리고는, 도자기 인형이 원하던 별사탕을 자그마한 그릇 위에 얹어두었다. 인형들의 몸집에 맞춰 작디작은 그릇 위의 별사탕은 거대해 보였다.

그러자 인형들이 움직였다.

“…오….”

사각사각, 달그락.

전혀 날이 서 있지 않은 나이프를 이용해, 마치 케이크를 조금씩 나눠 먹듯 인형들이 별사탕을 쪼개 먹었다.

무스 케이크처럼 부드럽게 잘리는 별사탕의 모습이 꽤 신기하게 느껴졌다.

“좋은 달콤함이에요.”

“좋은 다과회예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과회를 마친 인형들은 각자 평가를 내리고, 이 중 받게 되는 나쁜 평가의 수에 따라 그날의 운세가 정해진다고 했다. 그걸 떠올리며 남자가 안도의 숨을 삼켰다.

‘오늘의 운세가 나쁘지는 않겠네.’

그때, 이상이 감지되었다.

“좋은 아삭함이에요.”

“좋은 단단함이에요.”

“좋은 향기입니다.”

“좋은 새벽이에요.”

“좋은 간식이었어요.”

“좋은 선택이네요.”

“좋은 선물입니다.”

총 7번의 추가 발언.

“…….”

명백한 이상 현상이었다.

“…매뉴얼에는, 이런 설명이….”

매뉴얼을 황급히 다시 읽는 남자는 보이지도 않는지, 인형들이 다시 입을 열었다.

“대부님.”

“대부님이 오셔.”

“달콤하게 치장하자.”

도자기 소녀들이 매뉴얼과 전혀 다른 발언을 추가했다.

“…이런 정보는 없었는데?”

도자기 인형 세트『달콤한 다과회』는 한 번의 다과회에 총 3번 입을 연다. 전부 ‘좋은-’ 혹은 ‘나쁜-’으로 시작되는 문장이며, 지금처럼 ‘대부님’이라고 부를 만한 존재도 없었다.

“대체 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무전기를 들었을 때였다.

“…….”

“…….”

“…….”

인형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

남자가 뒤를 바라보자.

바다가.

태양이.

사슴이.

새가.

구름이.

꽃이.

안개가.

샘물이.

한숨이.

손길이.

이빨이.

안구가.

눈이.

눈.

“…….”

인간이?

“…아….”

보였다.

선한 미소를 짓고 있는 금발의 남성이 눈에 들어왔다.

“누, 누구십니까…?”

남자는 조금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도자기 인형들이 보이지 않도록 섰다. 혹시 모를 위험을 막기 위해서였다.

‘분명 기척이 없었는데?’

혼란스러웠다.

‘…기척을 감지하는 것에 자신이 있는 내가 이 정도라면 B급 이하로는 아예 인지할 수도 없겠어. 한국에 새로운 S급이 떴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처음 보는 얼굴이기도 하고… S급에 가까운 비공식 헌터인가?’

가뜩이나 긴장된 상태였는데. 혼자 근무하는 날 처음부터 이상 현상을 목격해 정신이 없었다.

남자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차차 생각을 정리하며, 당황한 자신을 기다려주듯 말없이 웃고만 있는 상대를 살폈다. 부드럽게 굽이진 화사한 금발과 그에 어울리는 미소가 특징적인 사람이었다.

곧 상대가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일상적이고 온화한 어조에 저절로 몸에 힘이 빠졌다.

“좋은 새벽입니다.”

“제 이름은 서지오입니다.”

“서지오….”

남자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왜인지 모르게, 식은땀이 배어 나왔다.

“‘서지오 씨’군요.”

유성운 큐레이터에게도 주의를 들었던 존재였다.

C급의 신입 중 한 명이 마주쳤고, 다른 직원들도 묘하게 웃으며 자세한 묘사를 꺼리는 사람. 수집상의 비공식 특별 전력이라 불리는 새벽 근무반 ‘서지오’였다.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당신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

“이름이 궁금합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는 있는 거겠지?

‘…워낙 딱 끊어지는 어조라 이상하게 헷갈리는군.’

남자가 제 이름을 뱉었다.

“…저는 비나리입니다.”

“나리?”

“아니요, 성 없이 비나리예요.”

“그렇군요.”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푸르른 눈이 부드럽게 휘어졌다.

“저와 대화하시겠습니까?”

“…….”

남자는 저도 모르게 시계를 확인했다.

“…….”

새벽 4시 51분.

‘…51분.’

작품을 관리했을 시간이 4시 정각. 그리고 현재 시각, 4시 51분.

한 시간가량의 공백.

“…예, 대화를 나누면… 좋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당장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대화를 한다고 해도, 문제 될 것은 없었다.

“바로 집에 못 갈 것 같아서요.”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며 다시 뒤를 돌아 도자기 인형들을 보았다.

“…….”

“…….”

“…….”

그들은 곱디고운 자태로 얌전히 앉아 있었다.

“…저, 서지오 씨?”

“예, 말씀하세요.”

“서지오 씨는 갤러리의 관리도 종종 맡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갤러리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이 많으니까요.”

“그럼….”

혹시 모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따로 보고는 해야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서지오 씨’의 의견이 듣고 싶었다. 그는 인형들이 속삭이던 ‘대부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혹시 이 인형들을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자가 조금 몸을 비켜, 순하고 귀여운 낯을 한 인형들을 보여주었다. 미동도 없는 도자기 인형들이었지만 막 다과회가 끝난 덕분인지 기분이 제법 좋아 보였다.

남자가 방금 전 있었던 이상 현상을 서술했다.

“한 번의 다과회에 각자 한 번씩, 총 3개의 문장을 구사하는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왜인지 7번에 3번을 더해 10번의 추가 문장을 구사했어요.”

“나쁜 말이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좋은 말이었죠. 이번 다과회에 충분히 만족하는 듯한 문장들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말이 길어지는 경우는 생각지 못해서….”

“24시간의 규모로는 담을 수 없는 행운이 찾아올 예정이라는 의미입니다.”

“…….”

남자가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그냥 재앙 아닙니까?”

“새로운 관점이군요.”

“저는 적당한 행운이 좋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아, 예.”

독특한 사람이었다.

‘말의 가락은 상당히 부드러운데… 형식은 딱딱해.’

그렇다고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처럼 어색하지도 않았다. 이런 부드러우면서도 무뚝뚝한 어조가 매우 잘 어울리면서도,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묘한 이질감이 있는 것이다.

“제가 잠시 그 아이들을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뭐든 신입인 저보다 나을 테니까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오는 조용한 몸짓으로 다가가 도자기 인형들을 살폈다.

파괴하지 않는 이상 만져도 불이익이 없다고 매뉴얼에 적혀 있기는 했지만, 그는 제 손자를 보듬는 노인처럼 인자한 손길로 인형을 훑고 있었다. 손길에 애정이 담겨 있었다.

명화 속에 나올 것처럼 고상하고 동화적인 광경이었으나….

"……."

조금 섬뜩했다.

‘…분명 분위기 자체는 온화한데….’

숨쉬기가 어려웠다.

누가 죽기라도 한 것처럼, 공기가 무거웠다.

오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20)

제120화

서지오는 다정하고 고풍스러운 사람이었다.

'내가 사람을 보고 이런 낯부끄러운 감상을 품게 될 줄은 몰랐군.'

하지만 딱 보면 드는 생각이었다.

"오늘 다과는 별사탕이었군요."

"예, 각자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별사탕이었습니다."

"정말 달콤하지 않습니까?"

"기록을 보니... 전부 단 간식만 요청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레몬 마들렌을 원했었죠."

크게 의미 있는 대화는 아니었다. 무전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리지는 않았지만, 서지오는 '규격 외의 행운이 올 것'이라는 말로 『달콤한 다과회』의 이상 현상을 자연스럽게 넘겼다.

지금 나누는 이야기는 평범한 잡담에 가까웠다. 덕분에 남자는 『달콤한 다과회』를 조금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었다.

"제가 직접 구워 주기도 했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나 봅니다."

"상상 속 음식을 현실로 꺼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부럽네요."

이게 바로 선한 사람이 주는 힘인 것일까. 대화를 나눌수록 점점 굳어 있던 몸이 풀려갔다.

'...안정감을 주는 대화야.'

특별한 내용이 있는 대화는 아니었지만, 남자를 대하는 서지오의 태도가 그런 안정감을 주었다.

대단히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님에도 서지오가 보이는 깊은 호의를 알 수 있었다.

'지난번에는 다른 신입과 대화를 나눴다더니, 직원 관리라도 하는 건가.'

이해하기 힘든 거대한 호의였다.

"...다른 직원분들과도 이렇게 대화를 자주 나누십니까?"

남자가 이어 물었다.

“듣기로는 회사에 오래 머무르지는 않으신다던데.”

“저는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 혹시... 그렇다면... 네, 기숙사에 살고 계십니까?”

“이 건물 내에 살고 있습니다.”

“워낙 큰 건물이라 그런 시설이 있는 줄도 몰랐군요.”

남자는 이해했다. 어지간히 수집가가 끼고도는 모양이었다. 그런 게 분명했다.

‘하긴 이런 분위기의 상대라면....’

길드장인 비사벌의 심리를 이해 못 할 것도 없었다.

‘금방이라도 조용히 사라질 것 같은 분위기다.’

서지오는 어딘가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면모를 보였다.

그의 음성은 나직하고 온화하여 봄날에 아스라이 퍼지는 햇볕을 닮았다. 닿아오는 시선은 선명하지만 그 색이 부드럽기에 흐렸고, 사람을 상대하는 태도는 정중하면서도 조심스러워 느릿한 가벼움을 느낀다.

조곤조곤한 말투와 얼굴에 띠어 사라질 새가 보이질 않는 은은한 미소는 마치 아이들이 읽는 동화나 무성 영화라는 유물 속의 빛바랜 추억처럼 보였다.

“.......”

초면의 상대를 대상으로 너무 적나라한 생각인가.

‘...하지만 어딘가에 묶여 있을 사람으로는 안 보여.’

그렇다고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즐길 것 같지도 않았다.

‘하는 행동도 고상하고, 분위기도 묵직하니....’

홀연히 사라져 세상을 유랑하다 예기치 못한 곳에 나타나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고 사라질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게 낭만적인 존재처럼 느껴져 기분이 조금 이상했다.

그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런 그가 제 옆에 존재하며 말을 걸어준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

“단것을 좋아합니까?”

“...어느 정도는요.”

“저도 단것을 좋아합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공감인 걸까?

‘사교 활동의 일환?’

무어라 더 생각할 새도 없이 상대가 작은 간식을 내밀었다.

“드시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레몬 마들렌입니다.”

“.......”

순간.

“…감사합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가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방금 전에 레몬 마들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가.

요리를 즐긴다고 했으니 분명 직접 만들었거나 혹은 어딘가에서 산 간식일 것이다.

하지만 대화 중 대뜸 등장한 레몬 마들렌은 속이 희미하게 비치는 하얀 종이에 싸여, 튀지 않고 깔끔한 검은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단아한 종이에 싸여 단 향을 흘리는 마들렌은 그들보다는『달콤한 다과회』의 도자기 인형들에게 어울렸다. 하지만 그저 입구를 정돈하는 용도의 검은 리본은, 달기보다는 쌉싸름한 맛을 낼 것처럼 보였다.

“…….”

바스락.

마들렌을 꺼냈다.

“…혹시 직접 만드신 겁니까?”

“제 기쁨입니다.”

“정말 손재주가 좋으시군요.”

솔직한 감상을 말하자면, 눈앞의 상대가 이것을 직접 굽고 포장하는 과정은 상상이 안 갔다.

‘…그보다는….’

말 그대로 만들어낼 것 같았다.

단지 원하기 때문에, 그의 손에 들려 있을 듯했다.

‘…아까부터 이상한 생각만 하는군. 괜한 망상은 전혀 도움이 될 게 없는데 말이야.’

틀부터가 직접 제작한 건지 마들렌은 생각보다 크기가 작았다. 불투명하게 번진 서리처럼 하얀 코팅이 되어 있는 레몬 마들렌의 껍질은 바삭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있었다.

비가 온 날의 나무 향이 희미하게 나는 마들렌은 생각보다 담백하고 부드러웠다.

“…맛있네요.”

왜인지 모르게 다시금 몸을 굳게 만들었던 긴장이 죄다 풀려버릴 만큼, 딱 그만큼 맛있었다.

“사실 요리를 잘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슬픈 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손에 물을 묻힐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셔서.”

“자주 듣는 이야기군요.”

“그런 인상이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예 안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것도 아니었다.

“…뭐든 잘 어울리는 인상이기도 해요.”

그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저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교황의 자리에도 올라본 듯하고,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자리 잡은 거렁뱅이처럼도 보였다. 하지만 그가 진정 어떤 자리에 있든 남자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납득할 수 있으리라 직감했다.

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부이더라도, 추운 겨울날 빈민가에서 태어난 카네이션 아이더라도. 그래, 당신은 분명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유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말씀이군요."

"…그런가."

하지만 확실한 건 있었다.

"……."

그가 어떤 신분을 가졌든, 그 누구도 이 자를 잡아두지는 못할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는 게 당연하듯이 말이다.

'…그만 생각해야 하는데.'

이제 그만.

남자가 멍하니 허공을 보았다.

"……."

해야 할 일이 많으니, 이 지독한 안온함에서 벗어날 때였다.

"…시간이… 생각보다 늦었군요."

어느덧 오전 6시였다.

"별로 나눈 대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니 다행입니다."

그즈음 새로운 기척이 느껴졌다.

"지오?"

유성운 큐레이터였다.

"깨어 있었나?"

"예, 유성운 씨."

둘은 잘 아는 사이인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이 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 누구신가 했더니 비나리 큐레이터 아닙니까."

할 말이 없어 고개를 꾸벅이자 유성운은 더 말을 붙이지 않았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능숙한 듯, 그는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다시 서지오를 돌아보았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지?"

“제가 요리를 잘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 그래? 나는 꽤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네 요리는 정말로 맛있거든.”

유성운 큐레이터가 특유의 무던한 어조로 물었다.

“벌써 오전 6시가 넘었어. 곧 직원들이 올 텐데, 갤러리에 계속 남아 있을 건가?”

“아니요, 다른 직원분들이 오기 전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래로 뚝 떨어지는 조명 밑에서, 새파란 눈에 남자가 담겼다.

“비나리 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숙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지원해 준....”

“그곳은 비나리 씨의 집이 맞습니까?”

“집보다는 그냥 묵을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곧 편안한 집이 생길 겁니다.”

그가 또다시 호의를 보였다.

“안내가 필요합니까?”

“.......”

저도 모르게.

“.......”

남자는 ‘저도 모르게’ 갤러리를 둘러보았다.

제가 담당한 도자기 인형『달콤한 다과회』를 한번 보고. 그 옆에 걸려 있는, 앞에 걸려 있는 액자의 번들거리는 유리막을 보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조명의 빛과 그 사이에 걸려 있는 시계를 보았다.

빛이 떨어지는 바닥을 보았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빛에, 그림자가. 하나 부족한 검은색을....

“.......”

보았다.

“...아니요.”

고개를 드니, 문득 유성운 큐레이터와 눈이 마주쳤다.

“괜찮습니다.”

그 눈매가 선명하게 휘어져 웃음을 드러내 보인다.

“이 갤러리의 구조는 전부 외웠으니까요.”

“그렇군요.”

“저 혼자 나가 보겠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눠주어 감사했습니다.”

검은 망토를 두른 남자가 말했다.

“당신을 기억하고 긍정합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오.”

기이한 울림이다.

“…….”

남자는 고개를 꾸벅이고는 갤러리를 나섰다.

“…….”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이리저리 꼬여 있는 복도를 지났다.

천장에 달린 조명이 제 발걸음과 함께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몇 번이고 그림자가 움직인 끝에 엘리베이터에 도착했다.

타는 곳은 지하 3층. 나갈 곳은 1층 로비.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작동한다.

“…….”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특이한 사람이네.”

잠깐 봤을 뿐인데도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아주 잠깐 봤을 뿐인데도, 그랬다. 그럴 수 있다.

꽤 큰 체격임에도 기척이 대단히 흐리고, 옆에 있는데도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럼에도 숨겨지지 않는 존재감에 눈을 돌리려 해도 눈에 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단한 사람 같았지.”

그는 다정하고 고풍스러웠다.

마치 어른이 되어버린 동화 속의 왕자님처럼 반짝였고, 이제는 땅에 묻혀버린 오래된 역사의 유물처럼 예스러웠으며,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진 한때의 기적처럼 특별했다.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골 마을이 떠오른 것은 왜일까. 적막한 바람결에 마른 풀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던 건 왜일까.

석양이 차분하게 지고 있는 바다의 주홍빛을 감상할 때나, 아이의 잠을 재우기 위해 부모가 읊어주는 자장가를 들을 때와 비슷한 그리움이 들었다. 소박하고 서정적이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지.”

남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

헛것에 홀린 것이 분명했을 1시간의 공백도.

맨발에서 흘러나오던 마른 풀 소리도.

조명 아래 홀로 존재하지 않던 그림자나, 액자를 코팅한 유리에 비치던 그 거대한 숲도.

태양도.

바다도.

안구도.

눈도.

눈.

"......."

유리에 비친 그 눈이 보내 오던 시선마저도, 모른다.

모르는 일이다.

"...좋은 사람이야."

'서지오'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야 했다.

오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21)

제121화

“…….”

“…….”

둘만이 남은 자리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유성운이었다.

“지오.”

“예, 유성운 씨.”

“너 그림자 없어졌다.”

“…….”

유성운의 지적에 지오의 고개가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다.

“아, 이런.”

대단히 작위적인 반응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반응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기 무섭게 지오의 발 아래로 그림자가 피어났다.

유성운은 내심 감탄했다.

‘살아 있는 것 같네.’

그는 ‘피어났다’는 말이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물체가 빛을 가려 생겨나는 그늘이라 여길 수 없을 만큼 그것은 생동감 있게 다채로운 형상을 갖추었다.

망막에 그림자가 번진다.

‘…물고기 떼?’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자그마한 물고기 떼가 유영했고, 바람결에 파도가 휘청거렸고, 땅을 거니는 긴 뿔의 사슴이나 두꺼운 발톱의 짐승을 본 것도 같았다. 혹은 활공하는 새의 커다란 날개였다.

찰나에 스쳐 지나간 다채로운 형상들은 이내 하나의 거대한 숲처럼 우거졌다가, 다시 정갈해져 하나의 인간을 형상화했다.

“…….”

길게 늘어져 있던 그림자는 ‘현실적’인 위치를 찾아가듯, 지오의 발밑으로 짙고 조그마하게 자리했다.

그림을 그리듯 어설픈 형태에서 점차 온전한 형태가 되어가는 과정. 지오가 화가의 특성을 띤다는 점을 고려하면 흥미로운 변화였다.

‘그렇다면 액자 바깥의 지오는 여전히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곧 지오가 입을 열었다.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못난 모습을 보여 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허점이 있었다니….”

지오가 말끝을 늘였다.

“부끄럽습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는 분명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짐작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즉, 지오에게는 인간을 흉내 내고 있다는 자각이 있다.’

거기까지 생각을 정리한 유성운이 내심 중얼거렸다.

‘의외로 객관화가 가능한 편이었나. 지오는 스스로를 인간이라 여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쪽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려나.’

자신을 인간으로 여기는 그간의 발언마저도 흉내의 일환이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지오는 인간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수준 높은 흉내를 내고 있는 것에 가까웠다.

‘유희를 즐기는 신들에게서도 가끔 보이는 면모이지.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진실처럼 느껴지는 것조차 사실은 거짓일 때가 있어. 지오가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 여기는 식의 생각조차도 그런 흉내 중 하나일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이 진심으로 생각하면 믿음이 되지만, 신과 같이 격을 달리하는 존재들은 그마저도 연기일 수가 있다는 거다. 의도하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었음에도 조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과연 놀랍다고나 할까. 유성운이 내심 곤란한 웃음을 삼켰다.

‘근원의 존재를 인간의 기준으로 재서는 안 되겠지.’

하물며 유성운이 상대하는 게 근원 그 자체라면, 더더욱 말이다.

“…….”

조용히 숨을 가다듬은 유성운이 무던한 음성으로 물었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조금 어설픈 부분들이 있네?”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지 알려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라고 하면….”

인간들이 어디까지 인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건가.

근원의 존재와 인간의 시야는 그 범위가 달랐다. 아마 방금 지오가 보였던 흉내의 허점들은 그런 시야의 차이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이 또한 연기의 일환이라 짐작할 수 있었다.

‘대충 인간이 몬스터의 생태를 파악하기 위해 로봇을 집어넣는 것과 비슷한 이치일 수도.’

인간을 경계하는 몬스터나 짐승의 경우, 해당 개체의 일상적인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그들의 형상을 따라 한 로봇을 투입하기도 한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로봇인 줄을 알지만 몬스터에게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동족처럼 느껴질 것이었다.

'지오와 우리 인간들의 상황이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테지.'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렵지 않아."

큐레이터로서도, 정원사로서도 그런 시야의 차이는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 그림자가 없었던 점은 조금 놀랐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인데 잠시 잊었습니다."

"무엇보다 조명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비사벌의 갤러리는 유독 깨끗한 하얀색에 조명도 밝았다.

그건 방문객이 작품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기도 하지만, 방금과 같은 이상 현상을 큐레이터들이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기도 했다.

"나나 신입 큐레이터 발밑에는 그림자가 있었거든."

오로지 지오에게만 없었다.

"다음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무게감이겠네."

"무게감이요."

"네가 움직일 때 소리가 안 들려."

"들리지 않습니까?"

"굳이 짚어보자면 마른 풀 흔들리는 소리 정도?"

사실 이건 지오가 내는 인간 흉내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전에 서울을 관광했을 때도 꽤 가볍기는 했어."

"나름 무거워진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보통 사람이 바람 좀 강하게 분다고 날아가지는 않지."

"날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 몸이 붕 떴잖아."

"바람이 유독 강했던 게 아닙니까?"

"지구의 바람은 사람 가려가며 날려 보내지 않는다고."

바로 옆에 있던 유성운은 멀쩡했는데 지오만 날아갈 뻔하지 않았던가.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도 소리가 굉장히 가벼워."

"가볍군요."

"나처럼 걸을 때 나는 소리가 없지."

"확실히 신경 쓰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툭....

맨발로 바닥을 친 지오가 고개를 기울였다.

“이건 고치기 힘듭니다.”

“한꺼번에 고치기 힘들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지오의 디테일이 떨어질수록 사태 파악이 빨라지니 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더 있습니까?”

“이게 과연 잘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말이지.”

유성운이 가리킨 것은 그들이 서 있는 복도의 벽에 걸린 작품이었다.

그건 일어선 사람을 감싸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컸고, 전시된 회화 작품의 대부분이 그러하듯 마치 거울처럼 사람들을 마주 보고 있었다.

“너 좀 이상하게 비쳐.”

깨끗하게 관리된 유리 위로 자연이라 부를 수 있을 덩어리가 비친다.

“갤러리의 조명이 쨍해서 그런가, 저 유리 위로 우리가 좀 비쳐 보이거든.”

“그게 어째서 이상하게 보입니까?”

“네 눈에는 네가 충분히 사람의 형상으로 비치고 있나?”

“예, 그렇습니다. 유성운 씨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렇게 짚어주니 민망하지만 실제로 그래.”

유리에 비친 ‘지오의 초상화’는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다.

“숲이 보여.”

사실 그건 숲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숲을 상징하는 풍성한 나무와 풀, 꽃. 그 안을 뛰어노는 늑대나 토끼와 같은 생명체. 그리고 그런 이들이 잡아먹히고 또 살아가는 생태계. 단순히 자연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의지와 운명을 가진 거대한 형상….

방금 전 지오의 ‘그림자’에서 본 것과 비슷했다.

‘이걸 단순히 숲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그건 명백히 유성운과 세상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무언가 아주 거대한 존재의 ‘눈’이었다.

‘시선이 느껴져.’

정작 그의 옆에 선 지오는 액자의 유리를 통해 유성운을 보고 있지 않은데 말이다.

‘이것도 지오는 모르는 일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흉내’를 내기 위해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

인간의 입장에서 그의 참과 거짓은 구분할 수 없으니 사실상 어느 쪽이든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구분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거대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유성운이 무던하게 말했다.

“격이 다른 게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저는 유성운 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금발의 초상화가 온화하게 웃었다.

“제가 보기에는 유리에 비친 제 형상이 충분히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

“지금도 유성운 씨의 눈에는 제가 그런 식으로 보입니까?”

“…….”

유성운이 다시 유리를 확인했을 때, 그는 ‘지오반니’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디에도 ‘숲’은 없었다.

“…오.”

이렇게 나오는 건가.

“그러네, 내가 보기에도 확실히 사람이 비치고 있어.”

“유리 너머에 보관된 회화 작품이 제 형상을 헷갈리게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 이곳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자기주장이 강하거든.”

유성운은 구태여 ‘너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설득하지 않았다.

‘본인이 이미 잘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나온다면 굳이 더 헤집지 말란 의미일 거다.’

그는 제가 관리하는 작품의 앙심을 살 생각은 없었다.

‘지오가 인간처럼 보이길 원한다면, 그대로 두는 편이 좋아.’

근원이 그렇게 소원한다지 않는가.

지오 본인이 인간처럼 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러기를 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안 맞춰줄 이유가 없었다. 지오는 얼마든지 인간일 수 있지만 인간이 아닐 뿐이었다.

“음….”

서늘하게 식은 제 목을 쓸며 유성운이 물었다.

“아까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예전에 서울 관광을 했을 때는 이것보다 이상이 적은 편 아니었던가? 못 본 사이에 몇몇 허점이 생겼는데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있었던 거야?”

“과연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심경의 변화와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오반니로서 완벽해지는 일이었고, 이 이상들은 그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지오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 이상 지오반니의 도움을 바라기는 힘들겠습니다.”

참 화법이 독특하다고 해야 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건 정말 인간 흉내를 낼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자신의 화법이 이상하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유성운이 편한 상대이기에 본심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다.

곧이어 유성운이 물었다.

“지오반니의 도움을 바라기는 힘들겠다는 게 무슨 의미지?”

“말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지오반니는 초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지오반니가 완전한 초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오반니로서 완벽해지는 일’이라는 건가.

“완전한 초상화가 아닐 때의 지오에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구나.”

인간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을,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초상화’에 부여해 주는 것이다.

‘…예전에도 이 초상화의 정체가 수많은 죽음과 생이라고 추측한 적이 있었지.’

셀 수 없이 많은 차원 어딘가에 있는 ‘지오’의 삶과 죽음을 이 초상화가 끊임없이 복기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제 와 그가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유성운은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지오’라는 존재는 근원이 인간을 경험하고, 이해하여, 결국 응용하기 위한 ‘눈’일 것이었다.

‘그렇다면 근원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어떻게 인간들의 기준에 맞춰 시스템을 부여해 주는 건지도 설명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기에 아직 유성운은 모를 그 수많은 ‘지오’는.

“…….”

본질이 근원인 그가 하나의 차원에서 인간으로 행동할 때에, 다른 인간들 사이에서 원활히 적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 않나 싶다. 이러한 ‘지오반니’라는 인격의 쓰임새를 듣고 있자면 말이다.

‘…그것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결국 초상화의 격에 물들어 버리는 모양이지만.’

먹 그릇에 한지를 엎어두면 점차 검어지듯, 인간이라 부를 수 있던 ‘지오반니’라는 자아가 결국에는 근원의 격에 휩쓸려 버린 것이다. 그렇게 기준점을 잃은 지오는 인간으로서의 조건을 확신하지 못하게 될 거고.

이게 근원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작디작은 인간을 흉내 내는 방법이었다.

“…그러면….”

유성운이 물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의 A급 헌터라는 신분은 폐기할 건가?”

“아니요, 이 세상의 어엿한 주민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저는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오싹한 허점들이 많아서야 편하게 생활하기는 힘들 텐데.”

“그러니 또 다른 ‘지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초상화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성과가 있다면 편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거 좋네.”

유성운은 문득 또 하나의 허점을 알아챘다.

‘…표정이 똑같아.’

이미 그려져 변할 수 없는 초상화처럼, 지오는 언제나 똑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살아 있는 채로 박제당한 것 같네.’

대단히 낭만적인 일이었다.

* * *

“꾸륵.”

“…….”

"꾸르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꾸르르르르."

"생각보다 허점이 많더라고."

오두막으로 돌아온 지오는 물컹한 허니를 주물거렸다.

포동하게 살이 오른 물새는 지오의 커다란 손안에서 말랑하게 뒤섞였다. 자유자재로 유연하게 찌그러지는 아들의 탱글탱글한 감촉을 느끼며 지오가 제 실수를 허심탄회하게 고백했다.

"유성운 씨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끝까지 몰랐을 거다."

그는 오늘 만난 신입 큐레이터가 자신의 이상을 알아차리지 못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신입 큐레이터는 지오의 '허점'을 다 알아챘으면서도 이 악물고 모른 채 한 것에 가까웠으나, 아무튼 지오는 그랬다. 이전까지의 대화들이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여기고 있었으니까.

"완전히 동화된 지오로도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내가 너무 안일했지."

"꿍?"

"아니, 이 아빠는 포기하지 않아. 아무리 무서워졌다고 해도 결국 내 고향은 지구이니까."

"꾸르르르."

"잠은 초상화에서 자되 가끔은 고향에서의 자극도 느끼고 그래야 하는 법이다."

뇌의 적당한 자극은 치매 예방에 좋았다.

"난 건강하게 장수할 거야."

"꾸룩."

"그럼 이제 다른 지오를 찾아야겠는데...."

마침 적당한 친구가 계셨다.

적합자 목록

동물의 왕국_아르지오

동화율 0%

"...창고에 처박혔던 '동물의 왕국'을 꺼낼 때가 되었나."

두 번째 적합자, '아르지오'와 합체할 때였다.

오

Chapter (121)
Prev
Next

Subscribe

Connect w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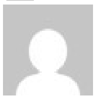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22)

제122화

아르지오는 이름이 아니다.

『아르』

잔혹한.

『지오』

짐승.

"내가 괴물이라지?"

이는 '잔혹한 짐승'을 의미했다.

* * *

"꽤 많은 던전에는 악신이 존재합니다."

원시적인 종교의 색이 짙은 던전 내부에서 태양교 사제, 강서담이 설명했다.

"평화와 자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신에 비해 그 수가 대단히 많죠. 그 이유를 아는 형제가 있습니까?"

"전통적인 신과 달리 악신은 인위적으로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이루다 자매."

툭.

완드를 이끼 낀 대리석 바닥에 둔 강서담이 말했다.

"검은 물감이 묻은 하얀 옷을 더욱 검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숯을 묻혀도 되고, 더러운 신발로 뭉개도 되고, 진흙 구덩이에 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얀 옷에 검은 물감이 묻은 순간부터 그것은 '하얀 옷'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강서담과 예비 사제들의 주변으로 몬스터들의 사체가 불에 타들어 가고 있었다.

"옷을 하얗게 유지하는 것보다 검게 만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고결한 신비를 유지하는 것보다 타락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순수할 수 있는 방법보다 더러워질 수 있는 방법이 더욱 많기 때문입니다."

몬스터들의 사체가 완전히 재가 되자 강서담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확실히 이 장소 정도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이야기를 이어 가겠습니다. 모든 예비 사제는 편하게 자리를 잡으십시오."

"예, 사제님."

10살 내외의 어린 사제들이 옹기종기 모여 낡은 제단 근처에 앉았다. 무언가 제물을 바치는 장소였는지 여기저기 피가 묻어 있고 뼈가 자리했으나, 그런 걸로 겁을 먹을 아이들은 이곳에 없었다.

강서담은 모든 사제가 자리에 앉은 것을 확인한 뒤 선 채로 말을 이었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신에 비해 악신이 만들어질 방법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문한 던전처럼 말입니다. 이곳은 악신에게 산 제물을 바치는 장소였죠."

"지구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가요?"

"예, 다른 차원의 역사인 것으로 태양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 이름은 산칼루트로, 신생아와 노인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고문하고 제단에 묶어 죽을 때까지 방치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듣기엔 끔찍한 이야기였으나 그에 질린 아이는 있어도 무서워하는 아이는 없었다. 지금의 지구인들이 죽음과 고통에 매우 가까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강서담 역시 부드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재밌는 점이 있다면 산칼루트교가 모시던 악신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가 예비 사제들을 훑었다.

"신이 어떤 식으로 생겨나는지 설명할 수 있는 형제가 있습니까?"

"한 차원의 태초부터 존재하는 유일신이 있고, 유일신이 아니지만 차원의 존재 이후에 자연과 운명 속에서 탄생한 전통적인 신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신은?"

"필멸의 운명에서 벗어나 신성을 얻어 신이라 불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의 후예가 되거나 악신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루다 자매."

강서담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차원의 섭리를 유지하며 공존을 추구하는 신을 '전통적인 신'이라고 칭합니다. 태초부터 존재한 유일신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필멸이 아니라 자연과 운명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신을 '전통적인 신'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는 머리카락을 낮게 내려 묶은 여자아이를 보며 말했다.

"또한 이루다 자매가 말한 것처럼 필멸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 신성을 얻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명을 비틀어 신성을 얻게 된 이들의 99% 이상은 악신이 됩니다."

"왜 필멸로부터 신성을 얻은 존재는 악신이 되나요?"

"첫째, 순리를 벗어나 신성을 얻은 존재는 그 의지 자체가 거칠고 반항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신은 순종과 화합을 중시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왜 그들이 악신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둘째, 필멸자는 불멸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변화하지 않고 영원하기에 불멸자로 태어난 전통적인 신과 달리, 필멸로부터 태어난 이들은 변화하고 사고하기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에 이 광활한 차원에는 선한 신보다는 악한 신이 더 많았다.

"셋째, 이루다 자매가 말한 대로 악신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위적인 공정이란 어떤 과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고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 신앙을 한곳에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본디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신으로 모셔진 것이 아니라, 신으로 모셔졌기에 신성을 얻거나 혹은 태어난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산칼루트교가 그런 경우입니다.”

강서담이 낡았지만 화려하게 치장된 대리석 동공을 가리켰다.

“벽화를 보면 산칼루트교가 사고조차 할 수 없는 붉은 보석을 신으로 모시고, 또 그 보석의 붉음을 칭송하여 이를 유지하기 위해 신생아와 노인의 피를 바친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보석은 정말로 악신이 되었습니까?”

“나라 단위의 종교였고 그 신앙 또한 색이 짙었기 때문에 보석은 정말로 악신이 되었습니다. 이 던전은 대재앙 초기에 발견되어 공략이 완료되었고, 지금은 신의 존재 기원과 그 영향에 대해 배우기 위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에 로우테일의 여자아이가 다시 물었다.

“공략이 완료되었다면 그 보석 형태의 악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험도를 파악해, 현재 한국의 헌터 협회 연구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강서담에 말에 예비 사제들이 웅성거렸다.

“협회 연구소…?”

“그런 데가 있었구나.”

“수집상의 갤러리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연구소는 창고가 아니지 않아?”

그런 예비 사제들의 반응에 강서담은 익숙한 듯 설명했다.

“수집상의 갤러리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외부인의 방문이 가능하며 심지어는 구매도 가능하지만, 협회의 연구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협회의 직원들만이 물건들을 관리하며 판매 역시 불가, 바깥으로의 정보 유출마저도 엄금하고 있습니다.”

강서담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다.

“예비 사제 여러분에게는 수집상의 갤러리가 익숙할 겁니다.”

“네, 봄이 되면 퍼레이드도 열고… 멋지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정식 사제가 되어 어느 교에 소속된다면 협회 연구소가 더 익숙해질 겁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신과 관련된 위험하고 예민한 물건들은 엄중한 관리와 보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이 ‘갤러리’에 있는 수집상에 그러한 엄중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길드장 본인부터가 ‘작품을 사랑하라’라며 떠들고 있으니 말이다.

“이외에 악신의 보관과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까?”

“…….”

“예, 없군요. 좋습니다.”

강서담이 몸을 움직여 대리석 제단이 잘 보이도록 물러섰다.

“바로 이곳에서 산칼루트교의 신성이 빚어졌습니다. 느낀 바가 있습니까?”

“신앙을 함부로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다 자매.”

잘했다는 듯이 강서담이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신을 모시게 될지, 또 어떤 교에 몸을 담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신조차 신앙으로 좌지우지되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에 다시 한번 이루다라는 예비 사제가 손을 들었다.

“질문이 있습니다, 사제님.”

“말씀하십시오.”

“보석이 아닌 인간이 악신으로 추앙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드물지 않게 확인되고는 합니다.”

강서담이 무언가를 떠올리듯 눈을 굴렸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꽤 많은 던전에 악신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신과 달리, 악신이 몬스터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들은 쉽게 만들어지는 만큼 쉽게 봉인되고 파괴당합니다.”

자연이고 운명 그 자체이기에 파괴 역시 힘겨운 전통적인 신들과는 달랐다.

“인간의 몸으로 악신이 된 이들의 대부분은 물리적인 형체가 존재합니다. 불멸로 태어난 존재와 필멸로 태어난 존재는 뿌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인간으로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

“그렇기에 인간의 몸으로 악신이 된 자들은 하나같이 토벌되거나 봉인이 되어 지구에 보관 중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희미하게나마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감정이라는 것을 품고, 무언가를 먹고 마시며 탐하려 합니다. 이 역시 그들의 발목을 잡는 한계가 됩니다.”

얽매인 자는 진정한 신이 될 수 없었다.

“무엇이라도 포용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최소한 하나의 차원은 담을 수 있을 정도의 포용력이 없다면, 그건 언젠가 토벌당한 몬스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악신과 몬스터의 구분이 희미한 셈입니다.”

“…그럼 필멸자의 몸으로 신이 되어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다면요?”

“지금까지 단 두 번 발견된 사례입니다만, 물론 실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둘은 모두 생명체로서의 이지를 포기하고 자연과 운명을 조율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럼 의지와 자아를 가진 신은 없나요?”

“존재합니다. 의지와 자아를 가진 신이 있기에 지금도 종종 지구에는 유희를 즐기는 신이 발견되지요. 다만 그것이 인간이 표현하기에 ‘의지’와 ‘자아’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이란 자연이고 운명이었다.

“저희가 보기에 의지와 같은 그것이 신에게는 단 한 번 내쉬는 호흡이었을 수도 있고, 자아라고 생각했던 다정한 인격은 신에게 머리카락 한 올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신의 품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을 이해하지 못해야 하며, 계산하지도 말아야 하고, 기대하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게 신이었다.

“그분들을 재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석해서도 안 됐다.

“그게 가능하다면, 이미 인간 이외의 무언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무례했을까요?”

“예비 사제이니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그저 바라보고 이해하려 시선을 좇은 것만으로도 천벌과 같은 재앙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단지 이해하려고 바라본 것만으로도 천벌을 받아요?”

“천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앙일 뿐입니다. 신께서는 당신을 벌하고자 하는 감정이 없었음에도 결국 그리될 것이니 말입니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들이셨다니 다행입니다.”

강서담이 말을 이었다.

“신의 눈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면 미쳐버릴 테니, 그러지 말라고….”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영역 바깥의 문제인 겁니다.”

지구 전체의 광경이 빠짐없이 담긴 사진이 있다. 수백 수천 장은 가볍게 넘을 그 전부를 한눈에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해내려고 하니 눈알이 터져버리고 뇌가 썩어들어 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신을 본다는 것이었다.

“이외의 질문이 있습니까?”

강서담의 말에 곱슬머리의 남자아이, 차이솔이 손을 들었다.

“순수한 악을 품은 악신은 몬스터로 취급되나요?”

“…순수한 악이라….”

그가 말을 길게 늘였다.

“저희 태양교에서는 순수한 존재를 몬스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건 종교마다 해석이 달랐다. 아직까지도 신과 몬스터의 구분이 희미한 시대이니 말이다.

“일부 종교에서는 악으로 인한 결과물이 순수할 수 없다고 말하죠.”

“아….”

“정의와 고결함의 기준은 누구나 비슷하지만, 악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

“애초에 순수한 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관점의 차이였다.

“그렇기에 악신이 많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절대다수에게 명백한 ‘악’일 테지만, 소수의 누군가에겐 ‘선’일지도 몰랐다.

그 누가 선악에 절대적인 기준을 매길 수 있겠는가.

오

Chapter (122)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22)"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23)

제123화

“나는 선악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짐승의 뼈를 뒤집어쓴 남자가 말했다.

“그런 재미없는 일을 고민하는 사람은 아니야. 스스로가 변덕스러우며 제멋대로라는 자각 정도는 있네. 언제나 내가 즐길 수 있을 만한 일만을 하지.”

“…….”

“사고하는 이에게 욕심이 없으면 시체가 아닌가? 나는 본능에 충실해. 원하는 것에 탐욕스러워지고, 나를 화나게 만든 이들에게 분노하고, 내 신념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가 입은 옷은 뼈와 깃털로 이루어져 원시적이었으나, 귀한 신분의 인간들이 사용할 법한 화려한 천을 둘러 고풍스럽게도 보였다. 양의 두개골로 만들어진 가면을 쓴 남자가 웃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지?”

“재밌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래, 나와 말이 통하는군.”

“사는 게 즐거워야죠.”

검은 망토를 둘러쓴 지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을 죽이신 적이 있습니까?”

“꽤 많이 죽였을 걸세,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참으로 많았거든.”

“그 사람들은 왜 아르지오, 당신에게 화를 냈습니까?”

그에 지오의 두 번째 적합자, ‘아르지오’가 대답했다.

“내가 세상 만악의 근원이라더군.”

뼈 가면 너머로 짙게 휘어지는 금색 눈이 보였다.

“내가 괴물이라지?”

“…….”

뼈와 피로 이루어진 궁궐 안에서 지오가 중얼거렸다.

“대단히 추상적인 비유인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네, 친구.”

‘아르지오’가 웃자 그르륵 대며 호랑이가 우는 듯한 소리가 났다.

“참으로 곤란하지 않은가. 화가 났다면 정확히 무엇에 화가 났는지 알려주면 좋겠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했고, 또 나의 어느 부분에 화가 났는지 말을 해줘야지.”

“그건 어째서입니까?”

“그래야 나도 함께 화를 낼 수 있다네. 나의 온 힘을 다해 부딪히고, 감정을 교류하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분노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온갖 비단과 깃털, 가죽으로 치장된 난잡하고 화려한 왕좌에서 ‘아르지오’가 짐짓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곤란하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하지를 못하더군. 제 분노 하나 다스릴 줄 몰라 역으로 잡아먹힌 멍청한 이들뿐이었어. 내 일부인 감정에 휘둘린다면 그들에게 어찌 인간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냔 말이다.”

곧이어 그가 다시 미소 지었다.

“허니 그 많은 이들이 전부 짐승이었던 게지.”

“오….”

“그렇지 않나?”

“새로운 발상이지만 존중합니다.”

“존중을 받는 건 좋은 일이야.”

선명한 미소를 지으며 ‘아르지오’가 턱을 괴었다. 고양잇과의 짐승이나 독수리 같은 맹금류처럼 길고 날카로운 손톱이 눈에 들어왔다.

지오는 용맹하게도 궁금한 걸 참지 않았다.

“손톱은 기르시는 겁니까?”

“…아하하하하하!!”

빵 터진 ‘아르지오’가 웃음기 다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아니, 글쎄. 기르는 거라면 기르는 거겠지만 딱히 미용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네.”

“지금의 패션과 매우 잘 어울려서 의도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장을 한 뒤에 손톱을 가꾼 것이 아니라, 본디 이런 신체이기에 옷을 꾸민 것일세.”

“저는 패션 감각이 없어 검은 옷만 입고 다니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저런, 자신을 꾸밀 줄 모르나? 지구인들은 원래 그러는 편이야?”

“꾸밀 사람들은 알아서 잘 꾸미는 걸 보면 제 개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미소가 사라진 ‘아르지오’는 무언가 측은한 상대를 보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나와 함께하면 그 수수한 성격도 좀 나아질 거라 믿네.”

“지금의 제 복장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 어떤 짐승을 무턱대고 데려와도 그대보다는 다채로운 맛이 있을 거야.”

“무채색으로 입으면 평타는 친다고 했는데.”

“문화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서야 의식을 치르는 것도 아닌데 온통 검은색이 다 뭔가.”

“검은색을 좋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용당한 검은색이 울겠군, 안타까워라.”

끌끌 혀를 찬 ‘아르지오’가 방금의 주제로 돌아갔다.

“내 손톱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지니고 있던 능력 중 하나이지. 나와 함께한다면 결국 그대도 활용을 해야 할 텐데, 나의 설명을 잘 들어보는 것이 좋겠어.”

“집중하겠습니다.”

“좋은 자세로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내가 지닌 힘은 짐승을 따라 하는 힘일세. 지금처럼 포식자의 발톱을 따라 하거나, 하늘을 나는 새들의 커다란 날개를 따라 하거나, 피식자의 기민한 눈치를 따라 해 위험을 피할 수 있다네.”

“이렇게 탐이 날 수가?”

“나 역시 이 힘을 진정으로 아끼네만, 참으로 이상하게도 내 가족들은 이런 힘을 매우 두려워했어. 가문에서는 나를 저주라 칭하며 위험한 짐승들이 가득한 숲으로 내몰았지.”

“…….”

지오가 입을 꾹 다물었다. ‘아르지오’가 물었다.

“불만이 있는 표정인데?”

“대체 왜 ‘지오’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초면에 무거운 사설을 꺼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또한 독특한 생각이군, 애초에 그러라고 만들어진 자리가 아닌가?”

재밌다는 듯이 ‘아르지오’가 웃었다.

“아니면 그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나와 동화되기를 바라는 게야?”

“그렇게 말씀하시니 설명을 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옳거니, 하는 짓을 보아하니 멍청하게 굴다가 미련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겠어.”

고개를 끄덕인 ‘아르지오’가 소개했다.

“그러니 말하는 것인데, 나는 이름이 없는 저주일세. 한때 거대한 국가를 다스렸던 왕가의 후손이자, 영민하고 위험한 짐승들을 가족 삼아 자라온 자연이고, 결국 인간들의 철퇴를 맞아 죽어버린 ‘지오’라네.”

그가 덧붙였다.

“결국 ‘아르지오’라는 것은 내 이름이 아닌 이름인 셈이지.”

“그 ‘아르지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까?”

“고대의 원시적인 언어로 아르, 잔혹한. 지오, 짐승. 한마디로 잔혹한 짐승이라는 거네.”

“짐승….”

지오가 상대를 진지하게 훑었다.

“확실히 강해 보이시기는 합니다.”

“그런 순수한 경탄보다는 경멸의 의미가 더 강했겠지만 말이야.”

“근육도 많아 보이시는데, 저와 함께하신다면 그 힘을 저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신체를 선호한다면 왜 진즉 운동을 하지 않고.”

“농사 이외에 땀 흘리기 싫었습니다.”

“…….”

곧이어 ‘아르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화하면 그대의 신체 관리는 내가 담당해도 되겠는가?”

“혹시 저희가 다른 자아로 동화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겠지. 내가 저 게으른 정신에 동화되지는 않아야 할 텐데 걱정이군.”

“운동을 하지 않을 뿐 그렇게 게으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럼 무엇에 성실하지? 농사? 글쎄, 나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눈구멍만 뚫린 가면으로 가려져 있음에도 ‘아르지오’의 미간이 구겨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싸움은 좀 즐기는 편인가?”

“세상에는 즐길 것이 참 많은데 왜 하필 그런 선택을?”

“여기 불려 올 때부터 짐작한 바였지만 정말 마음이 안 좋군.”

“왜 사서 갈등을 겪어야겠습니까?”

“최소한 닥쳐온 갈등에 정당히 분노할 줄은 알아야지 않겠나.”

“저도 화를 내기는 합니다.”

“헛소리를 지껄이는 상대의 혀와 이빨을 수확해 본 적은 있고?”

“지구에서는 그러면 잡혀갑니다.”

“흠, 확실히 법과 규칙이라는 건 중요한 부분이지.”

“이건 또 의외의 답변이군요.”

지오가 감탄했다.

“너무 호전적이셔서 법과 도덕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도덕에는 그리 얽매이는 편이 아닌 것 같네.”

“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과 규칙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아.”

선선한 어조로 ‘아르지오’가 말을 이었다.

“나는 꽤 변덕스러워. 어느 날에는 미소가 가득한 마을에서 술에 취하고 싶고, 어느 날에는 또렷한 정신으로 비명이 난무하는 지옥을 향하지.”

“…….”

“이성 없는 짐승처럼 굴고 싶은 적은 없었나? 거추장스러운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싶었던 적은? 환호와 비명을 지르고 달큰한 피비린내 맡으며 온몸이 바스러질 때까지 싸우고 싶었던 적은 없어?”

“없습니다.”

“그런 그대의 삶의 방식도 나는 이해를 하네. 결국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변덕스러운 내가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누리려면 결국 세상엔 선과 악이 공존하고, 평화와 혼돈이 함께해야 한다는 점이었어.”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선을 믿는 이들과 규칙을 준수하는 이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야 그날 그 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길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내가 악신으로 불리게 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인 걸세.”

“제가 지금 악신과 하나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주 놀랍게도 그런 셈이지.”

“나가봐도 될까요.”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나갈 수 없다네, 나의 친절한 근원이여.”

“이건 불합리합니다. 저에게도 선택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가엽지만 그대의 권한은 이곳에 들어오는 것까지였어.”

즐겁게 웃은 ‘아르지오’가 말을 이었다.

“그러니 일단 내 이야기를 더 들어보는 게 어떠한가.”

꽤 흥미진진할 테니 말이다.

* * *

인간들을 다스리던 하나의 거대한 가문이 있었다.

이 가문에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던 저주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가문의 아이 중 누군가가 10살이 되면 사악한 짐승이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나의 가문은 최대한 아이를 많이 낳기를 권장했다. 단 한 명의 자식만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사악한 짐승이 된다면 필히 죽여야 할 테니, 그 이외의 다른 대비책을 두는 셈이지.”

10살이 되어 끔찍한 본모습을 드러낸 아이는, 인간이 닿을 수 있는 공간 중 가장 더럽고 끔찍한 지옥에 버려졌다. 바로 ‘검은 숲’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우림이었다.

“나는 아름다운 외모와 탁월한 그림 실력으로 찬송을 받았지만, 10살이 되자 이마에 뿔이 자라났다. 그것이 원인이었어. ‘검은 숲’에 괴물이 산다는 이야기는 유명했지만 설마 그곳의 괴물이 내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생각을 못 해... 영문도 모른 채 버려졌네.”

그렇게 버려진 장소는 역시 소문대로 위험한 곳이었다.

“결코 해가 뜨지 않는 어둠 속에서 위험한 짐승과 벌레들이 호시탐탐 살을 파먹을 기회를 노리지. 무엇 하나 쉽게 마시거나 먹을 수 없을 만큼 강한 독을 품고 있고, 시시때때로 원혼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 귀 찢어지는 비명이 울려 퍼지더군.”

하지만 죽지는 않았다.

“나 역시 짐승이지 않은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 내 짐승처럼 본능적이고도 탐욕스럽게 굴었고, 숲의 가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먹잇감을 가지고 다투었어. 난 어렵지 않게 새 가족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숲 깊숙한 곳에는 낡아빠진 왕조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 내가 가진 힘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그간 이곳에 버려졌던 괴물들은 사실 검은 숲의 위험한 재앙을 막아낼 성자임을 알게 되었지.”

어두운 숲에서 미쳐버린 선조들의 자작극이라기엔 남아 있는 증거가 너무 많았다.

“다만 너무 긴 세월이 지나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린 거야. 아이를 바치던 이유가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으니 우리가 가진 이질적인 힘을 저주라 여겼고, 검은 숲의 불길함도 재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이다.”

물론, 상관없었다.

"알았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저를 내친 가족들에게 화가 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아르지오'는 새 가족을 얻었다. 거대한 옛 왕조의 벽에 그림을 그렸고, 짐승답게 원하는 것을 얻어냈고, 가끔 나누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가끔 숲을 뛰쳐나가기도 했지만...."

글쎄?

"전사의 혼에 대고 맹세컨대 죄 없는 자를 해친 적은 없었다. 그야 아무도 해치지 않았다고는 하지 않겠어. 나를 공격하는 이들을 내 어찌 내버려둘 수 있단 말인가?"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내가 어느 전염병의 원흉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야."

인간들은 분노했다.

"나는 알아차릴 새도 없이 불타고 있는 나의 집을 봐야만 했다. 그래, 그들은 나와 직접 싸울 자신이 없어 아예 숲 전체를 불태워 버리기로 한 게지. 나는 그 과정에서 큰 화상을 입고 약간의 생을 더 이어가다 결국에는 가족의 품에서 죽어 버렸다만...."

그 무분별한 분노의 표출에 '아르지오'라고 화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이보게, 기억하지? 검은 숲은 애초에 세상을 멸망시킬 재앙을 막기 위해 존재했어. 한 세대마다 꼭 한 명 이상씩 나오는 사악한 짐승들은 그것을 돕기 위한 숲지기이자... 또 마지막 방벽과도 같은 셈이었거늘."

이제는 불에 타버려 숲도 없고, 그 대신 막아줄 숲지기도 없었다.

"결국에는 먼 옛날부터 숨겨져 있던 재앙이 모습을 드러냈네. 짐승들은 인간과 같은 지능을 품었고, 그들은 말을 하기 시작했으며, 더 세분화되고 더 강렬해진 감정을 품게 되었다."

그중 '아르지오'의 가족은 인간들에게 복수심을 불태우기도 했다.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어?"

셀 수 없이 오랜 세월 인간은 식용으로 짐승들을 사육하고 도축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사라진 걸로도 모자라 그들이 말을 걸어오고 저주를 퍼부으며 인간들과 끔찍한 '교류'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들의 세상이 유지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악신이 되었네. 정확히 말하자면 그간 검은 숲에 버려진 그 모든 사악한 짐승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끔찍한 죽음을 맞은 성자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거의 모든 인간은 '아르지오'가 하나의 군중인 줄도 모르는 눈치였어. 다만 이 만악의 근원을 이르러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냈다."

검은 숲에서부터 재앙을 일으키고 학살을 주도한 악신.

"잔혹한 짐승."

바로 '아르지오'였다.

오

Chapter (123)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23)"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24)

제124화

“.......”

“…음….”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 끝났으면 나가도 될까요?”

“왜 더 들어보지 않고.”

“충분히 무겁습니다. 숨이 막히는군요.”

“세상에 이런 엄살이 다 있나.”

“제 폭력성의 한계는 우정 다툼과 사랑싸움까지입니다.”

“본론이 끝나지 않았으니 기다리시게.”

“저 그거 잘 합니다.”

“참으로 성실하시군그래.”

기특한 청자에 기뻐하며 ‘아르지오’는 본인과 관련된 설명을 이었다.

“이렇게 ‘아르지오’라는 악신이 탄생했고, 세상은 더욱 빠르게 멸망으로 다가갔네. 세지도 못할 만큼 수많은 성자들의 원혼이 신성을 얻었는데… 그게 어디 얌전하겠느냔 말이다.”

인간들은 악신이 사악한 마물을 부려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라 말했고, 실제로 그리되었다.

“그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하자면 마왕 정도라고 해야 할까?”

“납치된 공주나 용감한 용사가 등장하는 동화책 속의 마왕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아, 그만큼이나 대충 뭉개서 표현한 셈이니까.”

평화롭던 세상, 유일하게 존재하던 불길한 구역. 그곳에서 마왕이 수작을 부려 전염병을 퍼트리고 마물들을 부려 인간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건 역사서에도 충분히 기록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졌다. 인간들은 마왕의 횡포에 숨을 죽여 살기 시작했고, 세상은 끔찍한 마물들이 지배한 것이다.

“마왕의 횡포가 극에 달했으니 이제 무엇이 등장해야겠어.”

“용사님?”

“악신이 등장하고 시간이 흐르자 이 사악한 짐승을 봉인할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네.”

“참 전형적인 대응이라고 해야 할지....”

“그들은 결국 이 ‘아르지오’를 봉인하는 것에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용사들은 검은 숲의 진실에 대해 알게 되기도 했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결국 그들은 악신의 탄생 비화를 숨겼다.

“단지 선량하리라고 믿었던 제 선조들이 저지른 멍청한 실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르지. 세상의 악이라고 믿었던 존재가 사실은 인간들의 손에 만들어졌으니, 그 충격이 어지간하겠는가?”

“원망하십니까?”

“아니, 애초에 그들은 나의 집과 가족을 불태운 미치광이들이 아니야. 내가 분노할 대상이 아니지. 무엇보다 수많은 원혼에 짓눌려 원치도 않는 분노를 이어가야 하는 삶은 나로서도 반길 수가 없어서....”

‘아르지오’는 담담하게 말했다.

“감사하고 있어.”

분노는 온전한 제 것이어야 했다.

“내 몫도 아닌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아는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멍청하게 느껴지는지 아나? 악신이 왜 악신이라 불리는지 알겠더군, 나는 바란 적도 없는 학살을 하며 즐겨야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처사였다.

“내가 신의 자비와 은총을 받을 만큼 선하게 살지 않았음을 알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는 말일세. 투지 없고 죄 없는 이들을 학살하는 건 나의 기쁨이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고 겁에 질린 아이를 죽여서야 무슨 의미가 있지?”

“의외로 정상적인 말씀을....”

“분노는 동등해야 그 가치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법이다. 하지만 나 하나가 막기에 성자들의 고통과 절망은 너무나 컸어. 영문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끔찍하게 죽어가야 했던 이들의 분노가 너무나 거대했다고.”

하지만 그에게 분노란 그런 허접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를 긍정한다. 나의 모든 것을 긍정하니 삶이 즐겁고 거리낄 것이 없지. 그러니 내가 느끼는 분노 또한 그에 마땅한 값어치를 지녀야 할 터인데....”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말이 좋아 용사지, 그들은 희생양이나 다름이 없었다네. 강하고 재능이 넘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책임도 없는 전쟁터로 끌려와 마왕을 봉인시키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만 했어.”

“.......”

“그들은 싸움을 원치 않았다. 전사가 아닌 한 명의 인간이자, 누군가의 가족이며, 또 누군가의 친구였겠지. 그리고 그들과의 행복한 일상을 돌려받기 위해, 제 잘못도 아닌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그토록 아파해야 했던 거야.”

이 얼마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인가.

“하지만 결국 세상은 멸망했네. 당연하지 않은가? 애초에 이 악신은 인간들이 만들어냈고, 그런 그를 봉인시킨다고 남아있는 짐승들의 분노가 사라지겠느냔 말일세.”

“그렇다면 아르지오 씨의 세상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의미가 없을 만큼 비참하고 천박하게 다투다가 멸망했지. 매우 유치한 싸움이었어. 그나마 남아 있는 이들은 몬스터로 변질된 지가 오래일 터이고….”

쯧, ‘아르지오’가 혀를 찼다.

“인간들은 참 많이도 내 핑계를 대며 악행을 일삼았다네. 제 연인이 바람이 나도 악신이 유혹했다 지껄였고, 제가 사람을 죽이고서도 악신이 나를 그 사악한 길로 이끌었다 말하며, 이웃집과 다투고 이웃 마을과 전쟁이 나는 이유 모두가 전부 이 잔혹한 짐승의 탓이라지?”

결국 그들의 책임 전가는 악신을 탄생시켰고,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들은 그런 식의 나태함 또한 악신의 흉포함을 부추기는 일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네. 덕분에 ‘아르지오’의 이야기는 더욱 끔찍한 형태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그 기록과 기억에 발맞춰 ‘아르지오’는 아주 잔혹한 괴물이 되어버렸어.”

“되돌려 받은 셈이군요.”

“그러기에 내 핑계 좀 작작 대지 말이야. 안 그런가? 그들은 우리의 몸집을 부풀리고 키워냈으며 심지어는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지. 제 배로 낳은 짐승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자의 비밀을 밝혔다면 뭐라도 괜찮았을지 모르겠군.”

그렇게 ‘아르지오’가 부탁했다.

“이보게, 지오. 나를 아주 닮은 친구야.”

“듣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몫의 화만 내고 싶다네.”

그게 ‘아르지오’가 원하는 것이었다.

“싸우고 싶은 사람은 나와 싸우면 되고, 내게 죄를 지은 자는 나와 피를 바치면 된다. 나는 내 가족과 함께 명예로운 전사이며 온갖 원하는 일을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탐욕스러운 자야.”

그게 그의 소원이었다.

“나를 줄 테니 내 가족들의 후손을 돌보아 주게.”

“이 ‘지오’라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의 지오반니라는 자가 제 아비를 부양하기를 바랐다지? 나 역시 비슷해.”

“제가 어떤 식으로 돌보아 주면 되겠습니까?”

“그대가 그린 ‘동물의 왕국’으로 가서 가엾은 짐승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되네.”

“저는 자비를 베풀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대에게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 미치광이 악신의 화풀이 좀 멈춰주게.”

“예? 제가요?”

“그대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믿네.”

“천지신명이시여.”

“그건 근원을 이르는 말인가? 아주 믿음직스럽군.”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악신처럼 위험한 존재를 상대할 줄 모릅니다.”

“이것 또한 아주 재치 있는 농담이라고 넘겨주겠어.”

“정말 듣고 싶은 말만 듣는군. 당신도 ‘지오’가 확실합니다.”

“이 편협한 청각은 날 검은 숲에서 살아남게 만든 재주 중 하나지.”

같잖다는 듯 웃은 ‘아르지오’가 말했다.

“걱정 말게, 이 ‘아르지오’의 그릇보다 그대의 그릇이 더 크니 감당하지 못할 리가 없네. 가장 마지막에 죽은 인격인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뿐 ‘아르지오’와 하나 되고자 한다면 결국 그 수많은 미치광이와 하나가 될 거란 말일세.”

“역시 무르면 안 됩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말하지 않았나, 화풀이라고. 결국 검은 숲의 망령들은 고작해야 10살을 조금 넘긴 아이들뿐이야.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서른을 넘기지 못했고. 철없는 것들의 화풀이 정도는 어른 된 마음으로 받아넘겨 달라는 거지.”

“…….”

잠시 의문이 생긴 지오가 물었다.

“그럼 당신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4세의 나이로 죽었네만.”

“가면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렇게 어릴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학생 시절에 죽었다는 건가.

“그 나이치고 상당히… 완숙하시군요.”

“그대가 기억하는 지구인들의 문화가 훨씬 더딘 게 아니고?”

‘아르지오’는 고개를 기울였다.

“서지오의 기억 속 지구인들은 20세를 넘어가도 어리광을 부리고 떼를 쓰더군. 15살부터가 가정을 책임질 어른으로 취급되는 나의 차원과는 여러모로 문화가 달라.”

“15살이면 중학생입니다, 아르지오 씨.”

“문화 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예 다른 차원의 일이니 뇌의 구조 자체가 다른 건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아무튼 나보다 연상이니 알아서 잘 해내리라고 믿네.”

그가 웃었다.

“결국 나도 그대와 함께할 테니.”

“…반사회적인 성격이 되고 싶지는 않은데.”

“이미 그대 정도면 충분히 반사회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해.”

“저 같은 모범생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구에는 착각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다지?”

“…….”

귀신 들린 초상화는 기가 죽었다.

“…아르지오 씨의 말이 맞습니다.”

“이거 이겨먹게 되어서 아주 기쁘군그래.”

* * *

“…….”

동물의 왕국_아르지오

“기분이… 썩 좋지는 않군.”

아르지오의 퀘스트

“이렇게 조용한 세상이 있다니.”

“꾸르?”

“그래, 별로야.”

악신의 제어(0/1)

메마른 숲에 단비를(0/2)

“질 나쁜 술이라도 진탕 마셔버린 기분인데….”

동화율 1%

“그렇지.”

“꾹.”

“이것도 재미는 있겠어.”

“꾸르르르?”

“귀여운 아들도 있고 말이야.”

침대에 누워 있던 지오가 덥석, 작은 물새를 끌어안았다.

“평화도 생각만큼 나쁘지는 않네.”

이제 그의 귓가에서 분노로 절규를 내지르는 머저리들은 없었다.

악신의 제어(1/1)

동화율 21.1%

“…….”

“…….”

“어디 싸울 데 없나?”

“꿍꿍꿍꿍꿍!!!”

“아야야….”

정신 못 차리다 아들한테 혼났다.

* * *

지오가 한창 ‘아르지오’로서의 정신을 갈무리하고 있을 즈음.

“뭐 해?”

“그림 그려.”

“그림도 그릴 줄 알아?”

“볼래?”

“응.”

차씨 가족의 막내, 차이솔이 제 파트너와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짜잔.”

“…하긴 그림을 그린다고 했지 잘 그린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네.”

“이 정도면 달릴 거 다 달리게 잘 그리지 않았어?”

“그래서 뭐가 달린 건지 모르겠어.”

“봐봐, 이게 망토고….”

“아.”

차이솔의 파트너, 이루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검은망토 그린 거야?”

“응, 알고 보니까 그럴싸하지?”

“확실히 검은색이라는 점은 그럴싸하네.”

“루다야, 빈말로라도 잘 그렸다고 해줘.”

“자알 그렸어.”

“이렇게 빈말을 못 하는 친구는 처음이야.”

차이솔은 껄껄 웃었다.

“자, 다시 봐봐.”

“안 봐도 될 것 같아.”

“이게 팔이야. 이게 다리고, 이게 몸통이고….”

“어어, 그래. 그렇구나.”

“이게 눈이야.”

“…….”

이루다가 고개를 기울였다.

“…눈?”

“응, 눈.”

“…사람의 안구를 말하는 거지?”

“나 그렇게 못 그렸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눈이 너무 컸다.

“…….”

인간의 얼굴을, 신체를 한참 벗어나 그 뒤에 그려질 정도로 말이다.

“…나는 후광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응? 그렇게 보이나?”

“보통 눈이라고 하면 사람 얼굴이 달려 있는 거잖아, 우리처럼.”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

"아닌 사람...."

이루다가 다시 검은색으로 얼룩진 그림을 보았다.

"...사람은 맞고?"

"검은망토도 사람이잖아."

"아마 아닐 것 같은데."

소문 속 검은망토도, 이 그림 속의 검은망토도 말이다.

"...음."

아까까지만 해도 그냥 못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거대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다수의 눈을 보자, 조금 섬뜩해졌다.

"차이솔 너는... 지금 당장 모시는 신은 없다고 했지."

"응, 없어. 아직은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자신도 없고."

"그래?"

그런 것치고는.

"그렇구나."

저 못난 그림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가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낮은 온도의, 불길한 시선이었다.

오

Chapter (124)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24)"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25)

제125화

이루다는 이미 신의 선택을 받은 사제였다.

태어날 때부터 신의 은총을 받았다. 꽤 많은 신이 이루다의 그릇을 탐냈고, 그녀는 개중 가장 온화하고 말이 잘 통하는 신을 선택해 계약했다. 말하자면 경력직이라는 것이다.

아마 이번 기수의 예비 사제 중 이루다만큼 신의 존재감을 잘 아는 이는 없을 터였다.

“…….”

그런 이루다가 보기에, 차이솔의 그림은 어딘가 섬뜩한 면이 있었다.

‘설마 악신의….’

그녀가 내심 생각했다.

‘검은망토가 신성을 지녔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일반적인 몬스터가 아니었나?

이루다 역시 검은망토에 대한 소문은 들은 적이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망토를 두르고 있는 인간형 몬스터로, ‘작품’이라 불릴 만한 던전을 그려내 나쁜 이들을 끌고 간다던가.

‘몬스터치고 피해가 크지 않아 의아하게 여긴 적은 있었어.’

시민들은 ‘새로운 토착 몬스터가 생기는 것인가’ 하며 떠들어 댔지만, 조금만 고민하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현재 지구상의 토착 몬스터는 32년의 세월 동안 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가.

그에 비해 검은망토는 지구에 자리 잡은 시간도 짧았고, 그로 인한 인명 피해도 적었다. 인간을 향한 증오를 참지 못하는 몬스터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에 이루다의 부모님은 그것이 몬스터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가 있었다.

‘협회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종종 쓰는 방법이라고 했지. 아직 시민들은 몬스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멋대로 꾸며내도 잘 속는다고. 그래서 지금만 해도 꽤 많은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말이야.’

그렇다면 정말로 검은망토가 악신일 가능성도 점쳐봐야 했다.

증오를 조절하지 못하고 표출하기 바쁜 몬스터에 비해, 악신과 같은 존재는 그 안에 어떤 부정적인 심상이 있어도 교묘하게 행동할 줄을 알았다. ‘신’이라고 불릴 능력은 된다는 것이다.

“…차이솔.”

“응?”

“검은망토를 좋아하는 거야?”

“어, 친절하거든.”

“만나본 적이 있다는 듯한 말투네.”

“만나봤어!”

“…….”

차이솔의 햇살 같은 친화력이 이렇게 또 사고를.

‘설마 몬스터로 취급받는 존재에게도 적용될 줄은 생각지 못했는데.’

한 박자 늦게 이루다가 물었다.

“…언제,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혹시 나 뭐 잘못했나?”

“들어봐야 알 것 같아.”

“그냥 가끔 봐.”

“가끔 본다면 꽤 자주 마주친다는 거 아닌가?”

“우리 집에 들렀다 간 적도 있었어.”

“그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

이루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나도 루다 너니까 말해준 거야.”

“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옆에 끼고 살려는 거지.”

“우리는 파트너니까!”

“딱히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뭐, 비슷하겠네.”

내 팍팍한 삶의 빛과 소금 같으니.

‘평생 그렇게만 살아라.’

이 더럽고 치사한 세상에는 차이솔과 같이 반짝반짝한 호구들이 필요했다.

“너도 신의 기운에 민감하니 잘 알겠지만 검은망토는 생각보다 위험한 존재인 것 같아.”

“그래도 엄청 친절했는데… 되게 다정한 형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어. 나도 네 생각처럼 검은망토가 선량한 존재라면 좋겠지만, 글쎄, 세상은 그런 소원만으로는 돌아가지 않더라고.”

“루다는 말을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

“어른스럽다고 해주면 좋겠네. 어쨌든 이런 존재를 아무런 경계심 없이 만나거나 교류하는 것은 지나치게 방심한 행동이라고 봐.”

이루다가 차이솔의 그림을 보았다.

“되도록 그와 만나는 것을 자제하면 어떨까.”

그녀는 차이솔이 가진 재능을 알았다. 이루다 자신처럼 신을 담기에 적합하고, 또 많은 신성이 노릴 만한 기운을 타고났다.

전통적인 신이든 악신이든 차이솔과 같이 미련한 영웅의 자질을 탐내고는 했다.

“혹시 모르잖아.”

그런 이는 특히나 악신이 자주 꼬였다.

“검은망토가 선량한 존재라는 근거가 있어?”

“그건 없지.”

“그러니까 자제하라는 거야.”

한순간의 방심으로 사악한 신비와 계약을 맺으면, 그때부터 그 인간의 삶은 지옥보다도 끔찍해졌다. 그건 신의 숨결과 시선 한 번만으로도 순식간에 결정되는 일이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고.”

“그렇기는 해.”

다행히 홀린 것은 아닌지 차이솔은 순순히 이루다의 말을 긍정했다.

“나도 조심할게.”

“…그래, 또 보게 되면 나한테도 말해줘.”

“응, 그런데 검은망토가 악신일까?”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여서.”

“엄청 따듯했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

“…….”

따듯해?

‘차라리 뜨겁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온화한 존재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고작 이런 어설픈 그림만으로도 그 너머의 본질이 느껴질 정도의 신비라면, 그 격이 상당하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런 존재들은 인간을 배려하지 않아.’

정확히는 배려하지 못하는 것에 가깝다. 인간의 좁은 그릇에 맞춰 그 심상을 파악하기란 거대한 신비들에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니 말이다. 그건 격이 커질수록 더더욱 힘겨워졌다.

물론 차이솔은 그 그릇이 크니 얼마나 거대한 신이더라도 견뎌 내겠지만,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다. 차이솔은 이루다가 인정한 이 시대의 호구였다.

“…무엇이 느껴졌더라도 인간은 신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돼. 그건 신뢰의 문제가 아니야. 애초에 신뢰라는 건 상호 간 최소한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신은 인간을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은 신을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고 말이다. 신과 인간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그 둘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인간이라는 생물은 많은 것을 모르고 많은 것을 못 할 때 행복한 존재였다. 주제에 맞는 무능은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네가 무엇을 느꼈든 그게 상대의 본심일 거라고 믿어선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악신이랑 계약하면 안 되는 거야?”

“…보통은… 안 되지 않을까? 특히 너 같은 성격이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악신들의 종교가 있기는 했다. 죽음, 질병, 공포, 분노, 슬픔. 그들은 대개 고요한 재앙으로서 그 가치와 존재 의의를 인간들에게 인정받은 경우였다.

하지만 그게 악신이 위험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었다. 전통적인 신조차 인간을 자신의 장기짝도 아닌 한낱 장난감으로 여기는데, 악신처럼 과격한 성정의 이들이라면 더하다는 것이다.

“너는 정말로 조심하는 게 좋아.”

“나 검은망토랑 계약하면….”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그게 현명할 것 같네.”

“루다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야 내 파트너답지.”

다행히 차이솔은 의미 없는 고집을 부리는 멍청이는 아니었다.

“그 그림은 내가 태워줄게.”

“태우면 아프지 않을까?”

“누가 아프지?”

“검은망토가.”

“가끔 너의 사고방식에 많은 것을 배울 때가 있어.”

“그럼 내가 태울게, 내가 그렸으니까.”

차이솔은 그림을 깔끔하게 태웠다.

“근데 진짜 나쁜 형은 아닌 것 같았는데.”

“강서담 사제님도 그러셨잖아, 신의 선악을 어떻게 재단하려고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야.”

잠시 침대에 늘어져 있던 차이솔이 웃으며 말했다.

“다음에는 루다 너도 같이 만날래?”

“…그래, 그러자.”

이루다는 거절하지 않았다.

‘교단에 들어오고 배운 게 있다면, 악신이라고 전부 악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결국 신을 구분하는 것 역시 인간들의 오만에 불과했다. 단지 존재하는 재앙과 신비를 어떻게 옳고 그름으로 나누겠는가. 오히려 악신보다 전통적인 신의 행태가 더욱 저열할 때가 있었다.

‘한낱 인간의 시선으로 좁은 세상을 바라보는 주제에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

결국 신과 사제의 가장 올바른 형태는 주인과 그 도구임이 분명했다. 주인은 쓸 만한 도구를 찾고, 도구는 제 취급에 만족할 주인을 찾는다. 서로 잘 맞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검은망토가 정말 악신일 경우 의외로 차이솔과 잘 맞을 수도 있었다.

“다음에 검은망토를 보면 나도 꼭 불러야 해, 차이솔.”

그냥 걱정이 될 뿐이었다.

“너는 아직 신에 대해 잘 모르잖아.”

“응, 그래서 루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

“…….”

마음이 따듯해지는 걸 느낀다.

“내가 옆에 끼고 살아야지.”

“나도 그럴게.”

“검은망토는 정말로 간식을 줘?”

“쿠키나 초콜릿 같은 거?”

“흥미로워라.”

“다시 보면 간식 달라고 하자.”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어.”

루다는 아직도 눈앞에 맴도는 듯한 그림을 떠올렸다.

그 멀고도 섬뜩한 본질의 존재가 주는 간식은, 대체 어떤 맛일까.

* * *

“…….”

“…….”

피 묻은 칼을 든 지오가 중얼거렸다.

“차이솔 학생이 잠시 나를 부른 것 같았는데.”

옆에 다른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딱히 나가지는 않았다.

“琉존?”

“기다리렴, 다나야. 아빠가 아직 해체 중이잖니.”

“琉존존존존?”

“이렇게 먹성이 좋은 것을 보면 어딜 가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기특한 것.

“너는 내 딸이 맞다.”

지오는 황금양의 가죽을 벗겨내며 흡족하게 웃었다. 지오반니의 것과는 달리 사납고 노련한 면이 있는 미소였다.

“그보다 내 안락한 스윗홈에는 왜 계속 침입자가 발생하는 것일까.”

“꾸르르?”

“그래, 이번에는 하다 하다 황금양까지 나타나지 않았니. 이렇게 당혹스러울 때가 있나.”

현재 아르지오는 거대한 양 한 마리를 천장에 매단 채로 도축 작업을 하고 있었다. 딱히 그가 직접 나서서 사냥을 한 건 아니고, 뭘 먹을까 고민하며 텃밭으로 나가자 또 한 마리의 희생양이 존재했을 뿐이다.

“생각해 보면 그 괴물밭도 하나의 경호 부대로 쓸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정말 어지간한 함정 뺨쳤다.

“정확히 이마를 뚫어 죽인 것인지 고기의 질도 아주 좋아.”

“꿍?”

“생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죽어야 육질이 연해진단다, 허니.”

“꾸르르.”

“그래, 너도 도축하는 법은 배워두면 쓸 데가 있을 거다.”

짐승처럼 살아왔던 아르지오지만, 어릴 적 배운 예절 때문인지 종종 인간을 흉내 내며 식사를 즐길 때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축 실력은 늘게 되었다.

“이 양이 확실히 나의 고향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어. 이 미끄러지도록 부드러운 양의 황금 털과 밭을 가는 소만큼이나 거대한 몸집. 날카로운 이빨과 두 쌍의 눈. 두꺼운 발톱….”

분명했다.

“검은 숲에 서식하는 양의 일종이야.”

황금걸음양

온순한 피식자로 위장하거나 황금빛으로 홀려 먹잇감을 사냥하는 육식 동물. 황금걸음양이 밟은 식물은 황금으로 변하며, 이 황금은 달콤한 향을 뿜어 생물의 판단 능력을 저해한다. 일반적인 황금과 달리 단단한 이빨은 쉽게 먹잇감의 숨통을 끊는다.

“그래, 오늘도 성실하시군.”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외모며 향기며 촉감이며,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귀여운 모습을 띠고 있지. 하지만 그 온순한 모습에 속거나 이 녀석이 만들어낸 황금에 홀리면 그대로 목을 물리게 될 거다.”

“꾸루루?”

“네 말대로 경험담이야. 참 내숭을 잘 떠는 아이들인데, 이빨이 얼마나 두껍고 날카로운지 모른다. 덕분에 나도 반쯤 목이 뜯겨 죽을 뻔했지만 결국 승자는 나였어.”

연단법: 황금걸음양의 뼈를 달이면 강력한 진통제, 혹은 마약으로 연단이 가능하다. 뿔 안쪽의 피는 암컷의 경우 고통 없는 죽음의 약이 되고, 수컷의 경우 고통스러운 부활의 약이 된다.

“오, 그래. 바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지.”

지오는 시스템을 보며 짙게 웃었다.

“마침 내가 죽인 것이 수컷이었거든. 이 녀석들의 뿔은 생긴 것만큼 단단하지는 않아서 꽤 쉽게 깨지고, 그 안쪽에 황금색 피가 고여 있어. 번쩍이는 것이 마음에 들어 마셔 보았더니 죽어가던 나의 심장이 다시 뛰더구나.”

그 이후로는 아예 지참하고 다녔다.

“수컷의 뿔은 이렇게 자신의 등 쪽으로 휘어져 있고, 암컷의 뿔은 정면으로 휘어져 있단다. 등 쪽으로 둥글게 휘어진 뿔을 보니 이 녀석은 수컷인 것 같네. 그렇지?”

“꾸르르르르르.”

“뿔은 가장 마지막에 잘라줄 테니 마음껏 먹으렴. 암컷 뿔의 피는 내성이 없으면 섣불리 마셔서는 안 되겠지만, 수컷 뿔의 피는 멀쩡할 때 마셔도 큰 문제가 없거든. 빈사 상태가 아니라면 효과가 작아.”

조금 몸에 열이 오르는 걸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가죽 상태도 좋고.”

양의 가죽을 완전히 벗겨내자, 그 안에는 검은색의 살덩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흐음….”

“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그래, 털은 너희가 가지는 것이 좋겠다.”

황금양의 털은 그 감촉이 너무나도 황홀해 침구로 쓰면 딱이었지만, 황금양의 반짝임에 허니를 비롯한 보석을 탐내는 물새들이 잔뜩 모인 상황이었다.

“아비 된 몸으로서 자식들을 위해 가죽 하나 내어주지 못할 리가 없지.”

그 말에 도축 작업장 근처를 기웃거리던 물새들이 슬쩍 다가와 황금양의 가죽을 쪼았다. 그 작디작은 부리의 힘이 어찌나 좋은지 털이 가죽에서 쑥쑥 뽑혀 나갔는데, 그런 보석 물새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살아 있는 금은보화였다.

“역시 내 자식들이로군, 자신을 꾸밀 줄을 알아.”

“琉존?”

“그래, 우리 다나. 이 아빠가 금방 살을 잘라 내어주마.”

일반적인 성묘보다 조금 더 몸집이 커진 다나는 그 털도 북실북실해 껴안는 맛이 있었다. 그런 다나가 다리에 매달려 몸을 기대오니 아주 황홀했다.

양의 볼살을 잘라주자 다나가 그것을 덥석 물었다.

“옳지, 꼭꼭 씹어야 한다. 이 양의 최고 별미는 바로 이 볼살이야. 얼굴 근육이 거의 없어 표정을 짓지 못하는 황금양의 볼살은 쫄깃하면서도 매우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지.”

다만 급하게 먹으면 목에 걸리는 수가 있었다.

“아주 감칠맛이 좋지 않아?”

“애?”

“마음에 든 것 같아 기쁘구나.”

사랑하는 제 가족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해 주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

다나가 충분히 음미하도록 둔 아르지오는, 곧 다시 고개를 돌려 쇠고리에 매달린 양의 검은 살을 보았다.

“뼈는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해도 좋고....”

이 넘쳐나는 살은 어찌하면 좋나.

“.......”

그가 중얼거렸다.

“...황금양의 살은 탄성이 강한 편이니, 찜으로 가볼까.”

세상 모든 고기는 술과 양념을 넣고 한참을 끓이면 맛있어지는 법이었다.

그렇다, 아르지오도 식탐으로는 지지 않았다.

오

Chapter (125)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26)

제126화

예로부터 술로 삶거나 찐 고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었다.

“술의 알싸한 향이 고기의 잡내를 지워주고, 약한 열기가 질긴 식감을 누그러트리거든.”

마침 딱 좋은 재료도 있었다.

“그러니까....”

사탕덫나무

밑단이 둥근 사탕처럼 부풀어 있는 나무. 자웅 동체로 잎은 바깥에 있지만 열매는 부풀어 있는 기둥 안쪽에서 자라난다. 달고 씁쓸한 맛이 강한 사탕덫나무의 열매를 제때 꺼내지 않으면 안쪽에서 썩기 시작하는데, 다양한 조건에 따라 이 열매는 나무의 수액과 섞여 식초, 주스, 혹은 과실주가 된다.

“그래, 이거.”

지오가 다나의 입에 물린 바구니에서 크지 않은 도자기를 꺼냈다. 얼음 창고까지 심부름을 다녀왔던 다나가 퉤 바구니를 뱉자, 아르지오는 그 입에 황금걸음양의 살점을 물려주었다.

편식하지 않는 잡식 고양이는 날고기도 거부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고양이와 달리 이빨이 일렬로 빼곡하게 나 있는 안티캣 다나는 야무지게 살점을 즐겼다.

“琉존?”

“기특한 것.”

요즘 하루가 다르게 자라던데 많이 먹고 돼지처럼 컸으면 좋겠다. 그럼 배방구 한 번 할 거 다섯 번은 더 해야지. 지오는 흐뭇해했다.

“이 사탕덫나무의 좋은 점은 나무마다 숙성된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그런지 맛도 조금씩 다르고. 이번 건... 나무의 향이 확실히 짙어.”

닿자마자 혀를 화끈하게 만들어주는 술 특유의 묵직함이 강렬했고, 입안을 동글동글하게 굴러다니는 듯한 식물 특유의 씁쓰름한 맛. 사탕덫나무 자체의 향까지 더해져 어딘가 스모키한 느낌마저 주었다.

역시 이 술은 그냥 마셔도 맛있었다. 술 좀 즐긴다는 사람들은 이걸 요리에 쓴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다.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술은 아빌라스 우림에도 없었는데.”

“.......”

“허니, 한번 맛을 볼 테냐.”

“꾸르르르.”

“자식들이 하나같이 잘 먹으니 보기가 좋군. 쑥쑥 크겠어.”

지오는 작은 접시에 과실주를 따라주려고 했으나, 허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좁은 도자기 입구로 꾸역꾸역 들어갔다. 어디까지 하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얼마 지나지 않아 허니의 물컹한 얼굴이 쪽 삐져나왔다.

“…….”

“…….”

입구에 살짝 걸쳐 있는 물새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B꿍?”

“저런.”

“…꿍꿍꿍….”

“맛이 없었나 보네, 그렇지?”

“꾸르륵.”

“술이 맞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도 하니까. 아직 아이에게는 일렀을 수도 있고.”

“꿍….”

“맛있게 먹어보고 싶니?”

혈투만큼이나 술을 즐기는 아르지오가 기꺼이 조언을 해주었다.

“과실주를 즐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단다. 입에 머금고 그 무게와 질감을 느끼거나, 식물 특유의 떫은맛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열매 자체가 품고 있는 향기, 혹은 그 이후의 향기를 감상하는 것이 있지.”

“꾸룩.”

“아직 너 같은 어린아이가 술을 즐기기는 힘들 거다. 나야 어릴 적부터 유독 이러한 감촉과 향기를 즐겨 술을 가까이에 두었지만, 정 맞지 않는다면 요리로 쓰는 방법도 있지. 마침 딱 좋은 술이 당첨되지 않았어.”

후각이 예민한 고양이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가장 잘 보이는 걸로 들고 왔는지. 심심할 때마다 모아두었던 과실주 중 다나는 고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녀석을 가져왔다.

“일반적인 술이라면 요리하는 과정에서 그 향과 맛이 거의 지워져 버린다만, 이곳의 술은 특별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번에 만들 고기찜은 꽤 맛있겠어.”

항상 술로 요리를 하면 끓이고 볶는 과정에서 그 맛과 향이 거의 날아가 버린다는 게 아쉬웠던 지오다. 하지만 이 숲에서 난 것들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법이 없었다.

“그야말로 생명력이 강하다고 해야 할까.”

“꾸르르르?”

“그래, 너처럼 말이야.”

어깨에 앉은 아들을 쓰다듬듯이 주물거린 지오가 이내 곰인형 쪽을 돌아보았다.

“그래서….”

“…….”

“우리 아버지께서는 왜 그리 떨어져 계신지?”

“꾸우….”

“새로워진 아들이 그리도 낯설더이까?”

와인처럼 짙은 적색이었던 지오의 머리카락이 흐려져, 이내 백금발이 된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꾸.”

“예, 같은 사람입니다. 전혀 다를 것 없어요.”

“꾸꾸꾸.”

한때 한 차원을 다스렸던 전통적인 신은 웃으며 박수를 쳤다. 딱히 박수를 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걸 지적하는 사람은 이곳에 없었다.

지오반니는 웃으며 제 아버지를 한번 안아주고는 다시 일어났다.

“흐음.”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짙은 적색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인어 남매의 반응이 걱정되는데.”

“꾸우?”

“그렇습니다, 곧 그 아이들도 올 때가 되었지요. 이거 참….”

아르지오가 웃었다.

“재밌겠네.”

아주 즐거운 식사가 될 예정이었다.

* * *

“…….”

“우리 공주님이 오셨군.”

“제기랄.”

인어 공주 아리아가 제 두 눈을 찔렀다.

“나의 지오에 불순물이 더해졌어.”

아리아는 눈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투정을 부렸다. 그게 꼭 우는 아이처럼 보여 아르지오가 빵 터졌다. 그가 2층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아리아를 식탁으로 이끌며 너스레를 떨었다.

“불순물이라고 하면 이 선생의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겠니?”

“어쩌다 이런 지오반니 같지도 않은 자의 인격이 들어선 거지? 비슷한 성질의 ‘지오’만 모이는 게 아니었나?”

“이런, 내 학생아. 내 제자야. 결국 우리는 다 같은 지오라는 것을 왜 몰라주는 게냐.”

“알고는 있다.”

어느새 안구를 회복한 아리아가 혀를 차며 아르지오의 선명한 금안을 보았다. 그건 햇살이 내려앉은 평온한 바다보다는, 피가 잔뜩 묻어 차갑기만 한 금덩어리를 연상시켰다.

그럼에도 저 안에는 낯익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단 한 번도 잊을 수 없었던, 헷갈릴 수 없는 사랑이었다.

“…그 시선은 흉내 낼 수 없지.”

“솔직하기도 해라.”

“당신도 결국에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아.”

그건 거짓이 아니었다.

“언젠가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이 초상화의 ‘지오’는 가지각색이었다. 사실 ‘서지오’와 ‘지오반니’까지만 해도 많은 것이 달랐다.

일단 나이도 다르고, 옷에 가려져 잘 안 보이지만 체격도 달랐다. 뼈의 골격이나 색도 다르고 지을 수 있는 표정과 그 종류마저도 달랐다. 그러니 이제 와 이런 새빨간 지오가 추가된다 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에 은사가 물었다.

“그렇다면?”

“…….”

식탁에 앉기 전, 아리아가 자신을 에스코트한 지오반니의 손을 조심히 맞잡았다.

“지오.”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그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

“…저도 그렇습니다.”

지오반니 역시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어주었다.

“이번에는 꽤 괜찮은 레시피를 만들어내서 자랑하고 싶지 뭡니까.”

“그럼 레시피만 자랑을 하지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건가.”

“아르지오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나 봅니다. 설명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하아….”

난처하게 웃는 지오반니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아리아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말로 해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있잖아.”

“하지만 보여주는 것만큼 더 확실한 설명이 있겠습니까?”

“참 뻔뻔한 구석이 있어.”

그제야 아리아는 지오가 안내해 준 자리에 앉았다.

“이게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향기가 아주 좋지요?”

“얼핏 술의 향이 나는데 별미가 될 것 같군.”

“나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검은색 머리카락으로 돌아온 지오가 그 맞은편에 앉았다. 익숙한 듯 허니와 다나가 식탁 위로 올라갔고, 태양신이 들어간 곰인형도 제 몫의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

아리아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 물새들은 뭐지?”

“혹시 자기들이 가져갈 게 생기지는 않을까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가져갈 게 왜 생기는데.”

“아까 양의 부속품인 황금 털을 챙겨간 아이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황금 털?”

“지금 아리아의 앞에 놓인 고기가 내놓은 가죽이죠.”

“아하….”

눈을 반짝이며 저희를 지켜보는 창문가의 물새들을 보며 아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하다 하다 황금양도 나오고 참 별일이 다 있어.”

“우리의 고향에는 그런 존재는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인간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탐욕을 이길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털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 그걸 바깥에 내놓지는 않는 게 좋겠어. 뭐, 그것도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인어는 아직도 인간을 믿지 못했다.

“선생님은 이상한 부분에서 경계심이 없으니 걱정이 되더군.”

“아리아는 정말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였군요.”

지오는 자신을 챙겨주는 제자의 모습에 감탄했다. 그는 흑발의 서지오인 상태임에도 자연스럽게 지오반니의 미소를 지었다. 완전히 동기화가 된 덕분이었다.

“예전에는 정말 까칠하고 다혈질이었는데.”

“오… 대체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하지만 그 부분은 아리아도 인정을 했다.

“그때의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건 알고 있어.”

막 세상에 난 아리아는 예민하고 까칠한 구석이 있었다. 접근하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며,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짜증과 혐오를 느꼈다.

“그런 어린 시절에 비하면 많이 유해졌지, 나도.”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 선생님의 앞이니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뿐이다.”

“갑자기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굳이 감동받으라고 꺼낸 말은 아니었지만 말이야.”

아리아는 식사는 보지도 않고 물이 든 유리잔만을 만지작거렸다.

“내가 누구 앞에서 이토록 솔직하게 굴 수 있겠어. 하물며 나의 동생인 이세르 앞에서도 그럴 수는 없었다, 그 아이를 내가 이끌어가야 했으니까.”

“…….”

“나는 꽤 노련해졌어. 능숙해졌고, 나의 싫고 좋음을 떠나 어떠한 대상 앞에서도 웃을 줄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이 말해주었던 대로 이는 교류하는 데 큰 도움이 됐지.”

그녀가 진주색 눈으로 지오를 보았다.

“이건 그대의 마음에 드는 ‘성장’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모호한 사람이야.”

아리아가 짐짓 한숨을 내쉬자 지오가 작게 웃었다. 제 귀여운 학생을 향한 작고 온화한 웃음이었다.

“그래서 식사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웬 알 수 없는 놈팡이가 만든 식사라고 생각을 하니 절로 속이 꼬이는데.”

“그 알 수 없는 놈팡이가 그대의 선생일 수도 있잖아요.”

“나의 선생임이 확실해서 더더욱 이상해지는 거다. 이렇게 한순간에....”

기분이 정말 이상했다.

“.......”

하지만 적응이 되지 않았을 뿐, 거부하고 싶을 정도는 아니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 향기는 좋아.”

“이번에 새로 쓴 술의 향이 고스란히 남은 덕분입니다.”

“고기가 매우 부드러운데.”

“한번 삶은 다음에 굽고, 찐 다음 소스를 얹었거든요.”

“요리라는 건 어쩜 이렇게 번거로운지 모르겠어.”

그리고 번거로운 만큼 맛있는 요리였다.

“소스를 따로 얹었다고 하니 스튜를 만드는 것과는 조금 다른가?”

“확실히 다를 겁니다, 덕분에 고기의 맛이 더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황금양의 살점이라고 했지? 그래, 대단한 별미야.”

오징어의 먹물을 입힌 것처럼 진한 검은빛의 살은 씹으면 부드럽게 잘리고, 찢으면 순순히 결을 냈다. 하지만 특유의 통통 튀는 말캉한 식감이 쫄깃함을 더해주어 씹는 맛이 있었다.

특히 고기 자체에서 느껴지는 향이 매우 인상 깊었다. 혀를 타고 알싸하게 올라오는 향은 마늘이나 양파와 같은 향신료와 비슷했다. 육즙에서 우러나오는 고기의 기름진 풍미와 고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상하게 선생님과 지내다 보면 뜻도 없었던 미식가가 된 기분이란 말이지.”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괜히 생각하며 요리를 먹게 되잖아.”

“역시 칭찬이었군요.”

“좋을 대로 생각하는 데 지오 당신만 한 사람이 없지.”

소스도 꽤 괜찮았다.

“혀가 조금 아린데.”

“매운 향신료를 넣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번에 쓴 술이 강해서 그럴 겁니다.”

“보통 요리하는 과정에서 알코올은 전부 날아가지 않던가?”

“알코올 자체는 많이 죽었지만, 향 자체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영향이지 않을까요.”

“향만으로도 이렇게 강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군.”

“인어는 특히 자극이 강한 것은 잘 못 먹으니까요.”

“아니….”

아리아가 내심 중얼거렸다.

‘나 정도 되는 이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나.’

악신에 가까울 정도로 힘을 쌓았던 아리아였다. 긴 세월 동안 ‘성장’한 아리아가 평범한 인어와 같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지오의 요리를 이토록 평범한 사람이 된 양 즐길 수 있다니.

‘나의 격에 맞춰서 요리를 달리해 준 건가?’

아니면.

‘그냥 누구든 지오의 요리를 그의 의도대로 즐길 수 있는 것인가.’

아마 후자이리라고 아리아는 생각했다. 식욕 자체가 없는 태양신마저 지오는 자신의 요리를 기다리도록 만들어 버리지 않았던가. 정말이지 희한하게 대단한 능력이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요리를 모두와 나누고 싶기에 그리해 버렸다. 그 상대가 인어의 한계를 넘은 괴물이든, 한때 신이기에 미맹이었던 곰인형이든 간에 말이다.

“…….”

아리아가 물었다.

“…곁들일 빵은 없고?”

“미리 만들어둔 게 있는데 먹겠습니까?”

“소스가 꽤 맛있어서 찍어 먹고 싶네.”

“그럼 금방 구워 드리겠습니다.”

지오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구워뒀던 빵을 화덕 안에 넣었다.

저도 먹고 싶은 게 있는지 황금색의 물새가 날아 검은 망토의 어깨에 앉는다. 창문가에 앉아 있던 물새들도 포르르 물장구치는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인간의 커다란 손이 제 작은 아이들을 쓰다듬었다.

“그래, 굽는 향기가 좋지?”

“꾸르륵.”

“조금만 더 기다리자.”

장작이 타닥거리며 타오르는 소리와, 이미 구워졌던 빵이 더욱 노릇하게 구워지는 향과, 거기에서 펴져 나온 따듯한 온기나 달그락거리는 곰인형의 식기 소리….

“…….”

아리아는 그 모든 것을 인지했다.

오

Chapter (126)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26)"

4.7 13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27)

제127화

안온한 세상이었다.

“…….”

그렇지 않은가.

끔찍하게 죽었던 내 은사는 멀쩡히 살아 숨 쉬고, 그런 그는 아리아가 올 때를 기다리며 언제나 식사를 준비해 준다. 그 때와 같은 음성으로 다독여 주며 그의 새로운 자식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즐기며….

이 지독한 평화를 깎아내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지오반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아리아는 이 안온을 아끼기로 했으니까.

“나의 선생님.”

“그래, 아리아.”

짧은 식사가 끝나니 지오는 무뚝뚝한 낯으로 돌아갔다. 그 웃음이라고는 지어본 적도 없을 듯한 차분한 낯으로, 하지만 익숙한 애정을 담아 은사가 물었다.

“디저트가 필요합니까?”

“그건 설탕이 잔뜩 들어간 디저트인가?”

“맞습니다, 매우 달아요.”

“지난번에 먹은 케이크가 정말 맛있었어.”

“마침 아리아가 원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긴 내가 원하는 게 늘 있었지.”

“똑똑하기도 해라.”

그는 작은 케이크를 가져왔다.

“이걸 원하던 것이 맞습니까?”

“정확해. 이전에 이곳을 방문했던 유성운이라는 인간에게도 주었지?”

“맞습니다, 그 대가로 붕어빵을 맞았고요.”

“그거참 소박한 대가인데….”

저 입에서 나오는 ‘대가’는 마치 아이들의 소꿉놀이와 같았다.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를 두고 말이야.”

작은 원형 케이크를 닮은 그것은 매우 가벼운 질감이었다.

일단 시트가 그랬다. 잘 구워진 머랭 쿠키를 씹는 듯한 연약한 바삭함과 그대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식감. 그 겉은 매끈했고 위로 뿌려진 달콤한 슈가 파우더가 있었다.

층은 4개로 나뉘어 있다. 바닐라 크림, 녹차 크림, 그리고 마스카르포네 크림치즈. 설탕이 잔뜩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조화가 절묘한 덕분인지 생각보다는 담백하게 느껴졌다.

“선생님이 제과에도 재능이 있었을 줄은 몰랐는데.”

“제빵 실력도 나쁘지 않으니, 그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분명히 씹히는 바삭함이 있는데도 그 무게와 질감이 너무 가벼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줄도 모르겠다. 절대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는 수준의 황홀한 식감이었다.

“느껴지는 맛만이 인간답다고 해서 위화감을 감출 수는 없을 텐데.”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해줄 조언이 있습니까?”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어. 대체 선생님은 뭐가 되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맛은 꽤 익숙했다. 지구를 염탐해 보니 이런 식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크림은 인기가 높더라. 아마 ‘서지오’는 그것을 따라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뛰어난 분석가인 아리아는 이게 어떤 기행인지를 안다. 고작 케이크 한 입에 그걸 알게 된다. 이 식감을 따라할 수 있는 인간은 그리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선생님을 존경해.”

지오는 영민하나 주변에 붙잡히는 이는 아니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죽음마저도 다정한 자비로 베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아, 이 얼마나 오만한 자인가.

“이런 케이크도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나?”

“고작 케이크 하나로 과한 칭찬을 받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라면 더 칭찬을 받아도 모자라지 않지.”

“차를 한잔 마시겠습니까?”

“내가 아직 차를 마시지 않고 있었나?”

너무 맛있어서 잠시 잊었다.

“지금 선생님이 마시고 있는 걸 나에게도 한 잔 주겠어?”

“그렇게 하죠.”

보석을 깎아 만든 구슬이 부딪치듯 연약하고 청명한 소리가 난다. 창문으로 넘어온 햇볕이 연푸른 색감의 찻물에 부서져 내렸다. 그 안에 담긴 것이 액체가 아닌 보석이어야 할 듯했다.

그럼에도 아리아가 받은 것은 적당한 온도의 찻물이었다.

“.......”

그걸 마시며, 주변을 둘러본다.

“…나는 이곳을 아끼고 있다.”

“직접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어.”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 지오반니….”

아리아가 찡그리듯 웃었다.

“이게 슬픔이겠지.”

분노와는 달랐다.

“이게 그립다는 것이겠고.”

“.......”

“또 안타까움이라는 감정이야.”

이 안온한 장소에서 아리아는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

“이토록 평화롭고 적막한 세상에 왜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고민을 했다. 언제든 선생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공간, 달콤한 꿀과 열매로 가득하며 아름다운 새들의 지저귐이 들리는 오두막. 따듯한 공기가 가득한 나무집.”

그저 좋기만 한데.

“항상 이곳에 들어올 때면 속이 울렁거려.”

아리아가 물었다.

“나는 왜 이곳이 무덤처럼 느껴지지?”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대가 또다시 어디론가 가버릴 것 같아.”

“계속 이곳에 있을 겁니다.”

“그런 영원을 말하는 것이 너무 낯설어.”

지오반니는 결코 ‘영원’을 입에 담는 법이 없었다. 그게 우리가 너무 먼 길을 걸어왔다는 증거였다.

눈앞에 있는 자는 이미 한 번 죽었고, 앞으로 수없이 더 많은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변화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겠지. 그럴 터였다.

“죽은 자를 그리워하는 인간은 실패한 것이다. 결코 살려낼 수 없을 테니 한평생 과거에 매몰될 것이고, 운명에 반항한 이는 더 이상 인간이라 할 수 없으니 괴물이 되어버려.”

지금 상황이 그랬다.

“내가 그 괴물이 되었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지오, 그대는 어때?”

너는 인간인가?

“스스로를 인간으로 여길 수 있어?”

“되묻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글쎄.”

아리아는 그 앞에 대고 차마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항상 그대가 옳아.”

눈앞에서 나와 함께 차를 마시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이 될 수도 있으나, 그 본질 자체를 인간이라 할 수는 없었다. 결국 아리아의 유일한 인간 선생님은 이곳에 있음에도 그와 같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오반니는 죽은 채로 살아 있다.

‘박제되었다.’

마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그려놓은 빛바랜 초상화처럼.

‘앞으로 또 몇 명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박제되어 버릴까.’

그 짧고 다채로운 생과 영원할 변화에 아득함을 느낀다. 지오는 단 한 순간도 정체되어 있지 않을 것이고, 아리아는 매번 그의 변화를 따라가기에 급급할 것이다.

함께 같은 차를 마시고 있으면서도 속이 상했다. 너무 먼 기분이 들었다.

“…그리움이라는 건 참 ?鵑贊?감정이야.”

아리아는 말을 잇는다.

“좋은 것 같으면서도, 속을 진창으로 만들어.”

“감정에 면역이 없는 탓입니다.”

“인간들은 이런 감정에 익숙해진 건가?”

“다들 그리움을 느끼며 살죠, 어떤 대상을 떠올리건 간에.”

“내가 한평생 이리 살 거라 생각하면 끔찍하군.”

“그렇게 끔찍하지만도 않습니다.”

지오의 음성은 소리가 없는 것처럼 조용했다.

“그리워하기에 우리는 추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추억이라 말하나.”

그렇다면 아리아는 지금.

“나는 지금 그 추억 속에 빠져버린 셈이다.”

질식할 것 같았다.

바다가 아니라 민물에 들어간 물고기가 된 기분이었다. 산소가 아닌 질소가 가득 찬 세상에 갇힌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고통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평온한 것 같기도 했다.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다.

“이 평화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지?”

“고민하지 않고 즐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악마의 유혹 같군, 내가 봐온 악마들보다도 영악한 제안이야.”

“오, 악마를 마주치셨군요.”

제 학생을 달래주려는 것인지, 무뚝뚝하던 음성에 온기가 깃들었다. 그가 온화한 음성과 미소로 묻는다.

“그들은 어땠나요?”

“글쎄, 그대보다는 질이 아주 낮던데.”

다양한 측면에서 말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평화를 인정할 자신이 없어. 이 모든 게 진실인 줄 알면서도 거짓이라 생각해. 실재함을 알면서도 신기루라 여기는 셈이지.”

“아리아는 너무 생각이 많아서 탈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선생님이 깊게 고민하지 않는 거야.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를 인간이라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대체 어떻게 돼먹은 심보인지 모르겠군.”

“나의 변화가 날 인간으로 만들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많지. 많기는 한데, 아마 선생님은 그것을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여길 것 같아. 그런 질긴 고집 하나는 정말 믿음직스럽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불길하다고 해야 하나.

“그대는 그대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잖아.”

하지만 지오는 그 불길함에 비해 그녀가 통제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존재였다. 만약 지금의 그리운 평화가 어느 날 문득 사라져 버린다고 해도 아리아는 납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에 절망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미 저희가 걸어온 먼 길이 증명하여 결국 예정된 운명이었다.

“나는 이미 공포를 배웠어.”

“어쩌다 그랬습니까?”

“내 던전에 그대가 없어서.”

없을 거라 여기며, 이미 내 손을 떠났다 생각하던 괴물로 살던 때는 차라리 웃고 말았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는 내 은사가 웃는 얼굴로 내 곁을 맴돌고 있으니 그렇게 무섭더라.

한 번으로 족해. 두 번 잃을 수는 없었다. 또다시 그러한 상실을 견딜 수 있을 리가 없다.

“지오반니라는 사람이 그래. 평범한 인간은 생각지도 못할 발상을 떠올리고, 그런 주제에 제 것을 떼어낼 만큼 베풀고, 한낱 미물마저 이해하며 그 인내심은 상상을 초월하지.”

그는 뭐든 시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시도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해낼 힘이 생겼잖아. 원래부터 그랬는지 이후에 이리되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그대는 결국 나의 선생님이고.”

“…….”

“몇 번이고 변하겠지. 언젠가는 사라질 거야. 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나보다 오래 살 수도 있어. 그대가 원한다면 그리될 것이고 원하지 않더라도 운명을 즐길 뿐이겠지.”

“…….”

“나는 그걸 인정한다. 하지만 지오, 알지 않나? 우리는 그대의 죽음에 미움을 깨달아 그 많은 인간을 죽이고 해쳐왔다. 그 긴 세월을 버텼다. 그런데 이게 뭐야.”

아리아가 지오반니를 보았다.

“그대는 우리의 그 긴 세월을 안심시켜 주기에는, 너무….”

그것은 곧 검게 물들었고.

“…….”

“…….”

또 붉게 물들었다.

“…너무 변덕스러워.”

“나를 잘 이해했군.”

“그게 나를 아주 불안하게 만들어.”

너무 긴 시간이었다.

“나는 그 긴 시간을 미움과 분노로 버티며 살아왔거늘,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다시 만난 선생님께서는 그 욕심에 부응해 주지 않아. 마음 같아선 내 던전에 그대를 넣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은 채 감상하고, 흘러가는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데.”

그런 인어의 욕심에 아르지오가 의뭉스럽게 웃었다.

“그건 너무 재미가 없지.”

“쉽게 잡혀주지 않을 걸 알고, 시도해 봤자 실패할 걸 아니 그러지 않았다.”

지오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게 아리아를 상처 입힐 수는 없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인어들은 온전히 제 은사를 손에 넣을 수 없었다.

“그사이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사라질 줄 알겠어.”

“그게 너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로구나.”

“유일하게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변수라는 점에서 그래.”

아리아가 그와 엇비슷하게 웃었다.

“이 평화를 어떻게 믿지?”

“그건 너에게 남은 숙제이리라 생각한다.”

“과연 그대가 할 법한 말이야.”

이곳에 한낱 인간이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도, 지오의 색이 수없이 변하게 될 미래도, 수만 년이 지나봤자 다 질 수 없을 인어들의 거대한 책임도.

이 모든 것이 결국 아리아가 감당해야 할 숙제나 다름없었다. 지금의 평화를 믿기 위한 숙제 말이다.

“내가 멍청한 인간이었다면 좋았을 거야.”

그럼 믿었을 텐데.

“그렇지 않나?”

“하지만 현명하지 못한 선택인걸.”

“…그런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하거라.”

황금색 눈이 애정을 담아 휘어졌다.

“그것이 너를 증명할 것이다.”

“역시 그대는….”

아리아가 힘없이 웃었다.

“…나의 선생님이 맞아.”

이상한 곳에서 한계가 없고, 늘 현실적인 미래를 입에 담으며, 무언가를 가르치기에 바빴던 인간.

눈앞의 그가 인어인 우리를 유일하게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람임을 떠올리자….

“사랑해.”

“나도 그래.”

그제야 편해졌다.

우리는 오늘도 일상 속에 있다.

* * *

지오반니는 항상 ‘내가 있을 때 최대한 많은 감정을 배워두라’라고 했다.

“그건 그대 인어의 생에 증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증표?”

“감정이란 추억의, 배움의, 그 모든 기억의 증표이죠.”

그게 인어인 너를 성장시키리라 말했다.

“지금의 감정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줄 겁니다.”

“지오, 그대가 알려주면 되지 않아?”

“아리아와 완전히 같지 않은 저는 언제든 그 삶에서 지워지고 사라질 수 있어요.”

“나는 그대를 지우거나 사라지게 두지 않을 텐데.”

“결국 지금도 우리는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

“…그 곁에 내가 없어도, 있어도.”

지오는 늘 말했다.

“그 증표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을 이해하기 전에 지오반니는 죽었다.

죽음은 생각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앗아갔다. 아침에 깨어나면 말갛게 웃어줄 사람이 없어진 것을 의미했고, 정해진 시간에 의미 없이 식사하자고 종용할 사람이 사라진 것을 의미했으며, 밤이 저물었음에도 아무도 목 끝까지 이불을 덮어주지 않는다는 걸 의미했다.

하나하나가 참으로 일상적이고도 크더라. 작고도 많더라.

“…….”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해 배워왔다.

그러니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오

Chapter (127)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27)"

4.7 13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28)

제128화

새벽 4시의 갤러리.

“지오.”

유성운이 평소와 같이 초상화를 불렀다.

“깨어 있나?”

“예, 깨어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왔는데.”

“…….”

검은 물감에 눈이 가려진 초상화가 유성운을 본다. 핏기 없는 하관이 말을 뱉는다.

“이번에는 읽을 수 있었습니까?”

“딱히 달라진 건 없어, 예전에 보내준 것들과 같아.”

“그렇군요.”

낙담한 기색은 아니었다.

평소와 같이 초상화의 음색은 무뚝뚝하고 공허했다. 차분한 음색은 분명 듣기에는 좋으나 그 무게가 가볍지 않아 오래 곱씹기는 힘들었다.

유성운은 뜻을 전혀 읽어낼 수 없는 그 음성을 그대로 흘려보냈다. 그러자 초상화가 다시 말을 걸어왔다.

“재밌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거라고 하면….”

유성운은 짐작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설마 다른 ‘지오’를 찾아내는 데 성공한 건가?”

거대한 격을 지녔음에도 그간 인간을 잘 흉내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의 오래된 인격인 또 다른 ‘지오’를 깨워내는 일이라 하였다. 인간인 ‘지오’가 초상화에 물들기 전까지는 인간으로서 활동하기가 쉽다고.

유성운의 질문에 지오가 긍정하며 부연 설명을 했다.

“그건 제가 그린 것이지 찾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것도 그림인 건가? 그럼 초상화와 다를 게 있어?”

“정확히는 그림 너머의 지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탁이라….”

꽤 온건한 표현인데.

“…….”

유성운이 티 나지 않게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재앙을 마주칠 준비를 마쳤다.

“그래서 이번 ‘지오’는 어떤 사람이야?”

“악신 중 하나입니다.”

“아하, 그 말은 즉 지구가 멸망할 때가 되었나?”

“저는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좀 무섭다.”

하필이면 악신인가.

“…아니, 악신이면… 애초에 인간이 아니지 않아? 그런 ‘지오’의 도움을 받아도 돼?”

“그도 결국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말 자비롭네. 항상 느끼는 건데 너 인간에 대한 기준이 되게 널널한 것 같아.”

그 무시무시한 인어들을 보며 ‘너희들도 인간’이라고 설파할 때부터 알아봤지.

‘본인 스스로를 평범한 인간으로 여기는 것도 그렇고….’

사실 그건 일종의 장난이나 연기인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에는 거짓이 없다. 아무래도 지오는 상대를 인간으로 취급하는 기준이 상당히… 포용적인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부른 거야?”

유성운은 여전히 지오의 편지를 해석할 수 없었지만, 그가 무언가 전할 말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다. 그래서 편지를 받은 그날 새벽 이렇게 방문하게 된 것이다.

“아니면 나랑 상의하고 싶은 게 있나?”

“그보다는….”

달그락—.

초상화의 반지 낀 손이 액자 틀을 잡았다.

“…….”

그 검은 물감을 뒤집어쓴 ‘지오’가 유성운을 감싸듯이 튀어나와….

“—까꿍.”

장난을 쳤다.

“…….”

“…….”

“왜 반응이 없지?”

“…어….”

유성운이 뒤로 주춤 물러서자 그 공간에 창백한 맨발이 내려앉았다. 어느새 완전히 초상화 바깥으로 빠져나온 ‘지오’에 유성운이 심장을 부여잡았다.

“…오, 그래.”

“뭐가 그렇다는 말일까.”

“잠깐 무서웠다고.”

“겁을 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랬구나.”

이번에는 정말로 죽는 줄 알았다.

‘눈이….’

굽어보는 그 황금빛 눈과 정면으로 마주친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유성운은 이전에 ‘지오의 초상화’가 인간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기 위한 근원의 ‘눈’이리라 짐작한 바 있었다.

그 이후로는 더더욱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보게 되니 숨이 턱 막혔다. 그건 정말….

“…….”

유성운이 짧게 심호흡하고,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갔다.

“내가 알던 지오는 맞는 거지?”

“나는 여전히 당신을 기억하고 긍정합니다, 유성운 씨.”

“음….”

확실히 예전과 같이 호의적인 반응이었다.

“…뭔가 많이 변하기는 한 것 같은데. 지오반니 때도 그렇고, 정말 극과 극으로 변화하네.”

표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무뚝뚝한 ‘서지오’에서, 그는 화사하고 다정한 미소가 특징인 ‘지오반니’ 사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속이 시커먼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악신이 되어버렸지….’

지오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선량함을 유지할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 악신이 된 걸 보니 그 정도 성향은 변할 수 있는 건가?

‘하긴 지오 자체가 인간의 기준에서 선량하다고 할 수는 없었어. 선하고 예의 바른 걸 좋아한다는 취향은 고정일 가능성이 높지만, 특유의 정중함이나 인간을 향한 호의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정리해도 아직은 정보가 부족했다. 대체로 온순한 편이었던 이전의 ‘지오’와 다르게 이번 녀석은 척 봐도 겉모습부터 성격까지 화려한 것이다.

그 변화의 첫 번째로 일단은 색깔을 들 수 있겠다.

“그게 이번 ‘지오’의 색이야?”

“꽤 화려하지 않은가?”

“확실히 그러네, 정말 화려해.”

눈은 서늘한 온도가 느껴지는 황금색이었고, 머리카락은 숙성된 피처럼 짙게 붉었다. 유성운은 금방 비슷한 컬러 팔레트를 떠올릴 수 있었다.

아마 지오도 그런 듯했다.

“이곳의 길드장이 나와 비슷한 색인 듯했는데.”

“아아, 그렇지. 그분도 적발에 금안이라서.”

완전히 같은 색은 아니었다. 비사벌의 머리카락이나 눈은 지금 지오의 것보다 약간 더 채도가 높았다. 머리카락도 갓 짜낸 신선한 피를 닮았고, 눈도 황금보다는 레몬색에 가까웠다.

하긴 그렇다고 해도.

“많이 비슷하기는 해.”

얼핏 보면 친인척이라 생각할 정도로 말이다.

‘여기까지 말하면 불쾌해하려나.’

상대가 스스로를 악신이라고 소개한 이상 주의할 것은 주의를 해야 했다. 한낱 인간과 같다고 소개하면 신의 입장에서는 모욕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것만큼은 피하는 게 좋았다.

하지만 지오는 꽤 선선한 반응이었다.

“가족이라 생각될 만큼 비슷한가?”

“…그럴지도 모르겠네.”

“싸움은 잘하는 편이야?”

“어어어 절대로 아니야, 툭 치면 날아가셔.”

“저런.”

“…….”

유성운이 내심 혀를 씹었다.

‘이런 유형의 악신인가.’

악신 중에서도 성격이 비비 꼬인 모략가가 있고, 모략이고 뭐고 시원하게 다 쓸어버리는 광전사가 있었다. 아무래도 이번 지오는 따지자면 후자에 가까운 것처럼 보였다.

“…싸움을 즐기게 된 거야, 그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상대가 아니라면 나도 날뛰지 않으니 걱정 마십시오, 친구.”

“그으래….”

일단 ‘친구’라고 부르는 걸 보니 이전까지 쌓아왔던 호감도가 삭제된 건 아닌 듯하고.

‘평소에 나를 친구라고 생각해 주고 있었구나.’

고맙긴 한데 그 이상으로 부담스러웠다. 근원의 눈씩이나 되는 존재에게 친구로 여겨진다니 정원사로서 대단히 명예롭기는 하지만, 그게 또 절대 인간으로 죽지 못할 것 같은 위치라서.

‘자칫하면 내 수명대로 못 살 수도 있으려나.’

아무튼 좋은 게 좋은 거겠지. 적의를 사는 것보다 호의를 사는 게 좋은 건 당연했다.

“…….”

목을 긁적인 유성운이 다시 말했다.

“…말을 편하게 해도 되는데?”

“유성운 씨처럼 좋은 인간에게는 그만한 대우가 필요하겠죠.”

“같은 경어인데도 확실히 느낌이 다르구나.”

검은 지오의 경어는 섬뜩할 만큼 무뚝뚝했고, 지오반니의 경어는 온화하며 정중했다. 눈앞의 화려한 지오가 내뱉는 경어는 날카로운 웃음기가 배어 있어 조금 비꼬는 것처럼도 들렸다.

‘그런데도 흔해빠진 양아치처럼 느껴지지 않는 건 저 기품 때문인가.’

유성운이 이번 검은망토의 내부를 훑었다. 그는 드문 확률로 ‘지오’가 바뀔 때마다 착장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려주는 검은색 망토는 그 내부를 전혀 볼 수 없게 만들지만, 본인이 드러낸다면 그 안이 보였다. 서지오일 때의 지오는 검은 정장, 지오반니일 때의 지오는 하얀 사제 차림을 하고는 했다.

‘헤어스타일이나 패션같이 디테일한 부분은 그때그때 지오의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것 같지만, 이번 건 확실히 눈에 띄네.’

이번 지오의 차림은 뼈와 보석으로 가득했다.

“…….”

저러고 나가면 어떻게 수습해야 하지.

‘저걸 전부 아티팩트라고 설명하기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그런 유성운의 생각을 눈치챘는지 지오가 웃었다.

“내가 설마 이러고 사람들 사이를 거닐겠는가?”

“아니면 정말 다행이고.”

“만일 필요하다면 정장 차림을 할 걸세, 그게 깔끔하니까.”

“그럼 지금의 차림은?”

“유성운 씨에게 보여드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투가 휙휙 바뀌는데.

‘상당히 변덕스러운 유형….’

주의해야 했다. 말은 저렇게 해도 저 차림으로 사람을 사이를 지나다닐 수도 있었다.

요즘에는 워낙 컨셉이 특이한 헌터들이 많으니 큰 문제가 될까 싶긴 하지만, 자신이 악신이 되었다 소개한 이상 안일한 마음가짐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러니까아….”

조금 혼란스러운 기분에, 유성운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슬슬 상황 파악이 되어가고 있어.”

“그런가?”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나?”

“묻고 싶은 것이 있었네.”

“묻고 싶은 것? 그게 본론이야?”

“맞아.”

지오가 물었다.

“나는 지금도 무섭나?”

“…….”

놀라운 일이었다.

‘…지금의 지오도 인간을 배려하고 있는 건가?’

비록 악한 종자는 인간 취급을 안 해주는 검은망토였지만, 기본적으로 지오는 인간에게 공평한 애정을 드러냈다.

너무 공평한 나머지 아예 무관심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게 이 초상화의 배려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악신인 지오에게도 그게 가능했다고?’

스스로를 악신이라고 소개하기에 아주 많은 것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뭐랄까, 정말 낯선 것을 보는 기분이었다.

“…….”

찬찬히 상대를 훑은 유성운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안 무섭네.”

“정말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네 기세 자체에 좀 눌리는 건 있어.”

유성운이 무던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지. 너는 다른 인간들에 비해 키도 상당히 크고, 지금은 색도 강렬한 데다 시선 자체도 위압적이잖아. 표정도… 사나운 면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인간인 것 같아.”

물론 아직도 지오의 눈은 직접 마주 보기 힘든 면이 강했다.

하지만 그렇게 가까운 위치에서 정통으로 마주치고도 유성운이 금방 헤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지오가 확실히 인간의 격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었다.

유성운의 태연한 반응에 지오의 입술이 애매하게 비틀렸다. 아마 웃는 것 같았다.

“듣기에 기분이 매우 묘하군.”

“그럴 정도야?”

“인간처럼 보인다는 말이 낯선 거지.”

“그건… 지금의 너로 인한 변화인가?”

“그래.”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듯 하던 지오가 눈을 휘었다.

“다들 나를 아르지오라 불렀지만, 유성운 씨는 나를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아르지오? 그게 너를 지칭하는 단어인가?”

“고향의 오래된 언어로 잔혹한 짐승이라는 뜻이지. 일종의 멸칭이야.”

“…그럼 그냥 평소처럼 부를게.”

안 그래도 잔혹할 악신을 ‘잔혹하다’라며 치켜세울 필요는 없었다.

‘악의를 드러내지 않는 상대를 멸칭으로 부르기도 미안한 일이고.’

그런 유성운의 생각을 알았는지 지오가 샐쭉 미소를 그렸다. 그제야 유성운은 지오의 눈매가 생각보다 날카로운 편이라는 걸 알았다.

‘저렇게 웃으니까 확실히 길드장님을 더 닮은 것 같은데.’

평소에는 차분하게 내려앉아 있어 뾰족한 눈매라는 생각을 못 했다. 너무 뜬금없는 주제라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고 있자니, 지오가 입을 열었다.

“오늘의 용건은 여기까지일세.”

“또 다른 지오와 하나가 된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한 건가?”

“그런 셈이지, 만족스러웠어.”

그는 망토의 후드를 깊게 눌러썼고, 온몸을 짙은 검은색의 망토로 가렸다. 단지 창백한 맨발만이 그 위로 다시 검은 정장을 보여주었다.

망토의 새까만 그림자 속에서 지오가 말을 걸어왔다.

“편지에 응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그건 분명 ‘서지오’였다.

“…이야….”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적응하기가 힘들어지겠네.

‘이런 걸 섬뜩하게 여기는 걸 보니 내가 아직 인간이기는 한가 보군.’

날이 갈수록 정원의 침식이 강해지고 있는데, 딱히 근원과 접촉을 한다고 해도 별 영향은 없는 모양이었다. 순식간에 교체된 ‘지오’의 모든 것에 유성운은 오싹함을 느끼며 웃었다.

이 초상화에게 ‘지오’란 일종의 옷이 되는 셈이다.

‘상황에 맞는 옷을 찾아 입으며 인간들과 위화감 없이 어울리기 위한 시도겠지.’

유성운은 그 시도이자 배려를 이해했다. 나름대로 ‘지오의 초상화’는 수많은 기억과 인격을 이용해 상대와 어울리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럼 이번에 나를 부른 건 새로 산 옷이 잘 어울리는지 봐달라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랑한 셈이 되는 건가?’

조금 웃겼다. ‘지오의 초상화’의 이런 행동은 갓 태어나 미숙하고 열정적인 근원의 존재를 볼 때처럼 어딘가 귀여운 구석이 있었다.

“네 감사 인사는 고맙게 받을게.”

“제가 또 다른 날에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더 고맙고.”

정원사로서 근원의 도움이란 동아줄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었으니 과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떠나가려는 유성운을 초상화가 한번 붙잡았다.

“피곤하시다면 제 오두막에서 하룻밤 묵으시겠습니까?”

“음….”

확실히 피곤한 건 맞지만.

“…흥미가 없는 건 아닌데.”

“예.”

“기왕이면 더 점잖은 몰골로 방문하고 싶어서.”

“그렇군요.”

“지금 네가 보여준 배려를 다음 기회로 미뤄도 네가 불쾌하지 않을까?”

“저는 언제나 유성운 씨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정말 멋진 초대네.”

꼭 외롭고 힘든 나그네를 홀리는 유령과도 같은 초대였다.

“난 그런 거 좋아해.”

유성운은 청회색 눈을 짙게 휘어 웃었다.

* * *

그 시각, 외곽 구역의 한 폐건물.

“…….”

재와 그을음이 가득한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은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가 쥔 것은 산칼루트라 불리는 악신의 징표였다.

오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29)

제129화

접촉과 교류 자체가 어려운 여느 전통적인 신과 달리, 악신 대부분은 소환 방법도 어렵지 않으며 응할 확률도 높았다.

악신은 제 타락한 신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 때문이었다.

"혹은 제 마음에 든 인간을 자신의 신도로 삼기 위해 의도적인 불행에 빠트릴 수도 있습니다. 타락했기에 악신의 사랑을 받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사랑받았기에 타락당하는 인간도 있는 것이죠."

인간을 주시하는 신이라면 그 누구든 부를 방법이 존재한다. 그 때문에 멸망한 차원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던전에선, 잘못된 마음을 먹은 지식인이 화를 자초한 경우가 많았다.

"가장 흔한 경우는 복수의 목적입니다."

"복수요?"

"드물게 단순한 파멸만을 원해 악신을 소환한 이들도 있습니다."

예비 사제들의 교실에서 강서담이 설명을 이어갔다.

"여러분은 7대 죄악에 대해 아십니까?"

"교만과 탐욕, 질투, 분노, 음욕, 식탐, 그리고 나태입니다."

"좋습니다, 이루다 자매. 이는 신과 밀접하지 않았던 대재앙 이전에도 존재하던 개념입니다."

강서담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재앙 이후 지구에는 많은 인식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 개념이 건재하다면, 그건 그만한 가치를 선보였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교계에서는 이 칠죄종이 그랬다.

"교만한 자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나누지 않습니다. 질투하는 자는 성장할 기회를 잃고, 분노하는 자는 인내하지 않습니다. 음욕은 쉽게 사람의 눈을 가리고, 식탐은 존중하는 법을 잊게 하며, 나태는 스스로의 가치를 썩히는 일이 됩니다."

강서담이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인간은 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적인 생물입니다. 특히 대재앙 이전 지구의 인간들은 지구상 다른 생물들에 비하면 상당히 나약한 편에 속했죠."

"……."

“그럼에도 그때 당시 칠죄종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왜 대재앙 이전과 이후와는 상관없이 이를 죄악으로 삼았는지 추측해 볼 형제가 있습니까?”

로우테일의 소녀, 이루다가 손을 들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은 나약한 사회적 생물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지속 가능한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죄악을 저질러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범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강서담이 다시 주변을 훑었다.

“이루다 자매의 말을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요.”

“예, 차이솔 형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기적이면 다 같이 못 사니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같아요.”

“정확한 요약이었습니다.”

그가 긍정을 표했다.

“선과 악이 그러하듯, 세상은 넓고 인간은 다채롭기에 누군가가 제 욕심대로 행하면 다른 누군가는 불행해지기 마련입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모든 이가 동일한 성격과 욕구를 지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형제도 있을 것입니다. 던전이 넘쳐나고 몬스터가 쏟아져 나올 때,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전하지 않고 다른 이를 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말입니다.”

강서담이 고개를 저었다.

“인간 행동의 선악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사고하며 행동하기에, 그런 인간의 행위는 쉽게 악과 직면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은 극히 드무니 결국 누군가는 당신의 선행조차 비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인간의 선악이 아니었다.

“만일 대재앙을 마주했다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각자 알아서들 잘 살아보라고.”

“어… 어어….”

“이상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사제 역시 인간이고, 인간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

“자기 자신을 보전하는 것마저 악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위협당할 때의 이기심마저 죄로 치부하지 않겠다. 다만 여유가 있을 때 베푸는 행위는 인류의 존속에 힘을 보탠다.

그러니, 자.

“이번 수업의 주제에서 선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봐야 했다.

“세상의 흐름을 보십시오.”

시야를 넓혀야만 했다.

“지금이 대재앙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몬스터가 범람하는 현장에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체계를 잡아가며 평화를 위해 달려가고 있고, 그 속도가 빨라질수록 삶의 은총을 받는 사람도 평균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

“전통적인 신을 모시는 사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차원의 균형입니다. 이 차원이, 세상이, 나라가 유지되어야 그분들도 우리도 가능한 한 오래도록 삶의 은총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멍청하지는 말되 여러분은 선악을 고민하십시오.”

강서담이 턱을 쓸었다.

“이런 세상에 선을 행하라는 말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릴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 더 많은 것을 누리길 원한다면, 그런 평범한 사람 중 하나라면 신의 말에 충실한 종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가 다시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그럼 또 의문이 들 겁니다. 전통적인 신이 아니라 파괴와 불균형을 사랑하는 악신의 사제가 된다면? 삶의 은총이 아니라 죽음의 은총을 바라며, 친구와 떠들고 맛있는 식사를 즐기며 일상을 누리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면… 충실한 종이 되지 않아도 되는가.”

강서담이 끄덕였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의 화제로 돌아갑니다.”

그가 학생들을 눈에 담았다.

“수많은 멸망한 차원의 던전에서 헌터들은 잘못된 마음을 먹은 지식인이 자초한 화의 결과를 봅니다. 꽤 많은 신은 아주 가벼운 자격과 단순한 지식만으로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허약한 학자라고 하더라도 악신은 불러낼 수 있다. 단지 자신이 불러내고자 하는 악신이 원하는 것과 그 절차만 안다면, 아니, 단지 자신의 그릇된 소원을 이뤄줄 재앙만 원한다고 해도 악신은 그에게 응답한다.

“심지어 일부 악신은 아주 간단한 재료와 의식을 통해 인간과의 거래에 응해주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고작 쥐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고도 소환을 해냈고, 누군가는 단순한 그림을 그려 소환했으며, 누군가는 짧은 기도문만을 외워 재앙을 불러들였습니다.”

인간의 미약한 신음에도 악신은 빠르게 반응한다.

“감사와 찬미보다 증오와 환멸이 신께는 더욱 빠르게 닿기 때문입니다.”

악신은 인간이 가장 나약할 때에 말을 걸어오고, 재앙은 한순간에 찾아온다.

“전통적인 신은 섭리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기도에 대한 대처가 미숙한 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신은 인간이라는 한미한 개체를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바람을 이해할 것이며, 그 이해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이기는 할까요? 그럴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신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 혹은 적나라한 탐욕을 이용하고자 하는 악신은 대부분 경험이 많고 그 덕분에 인간을 향한 대처에도 능숙합니다.”

강서담이 화면에 떠오른 수많은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다.

“유희를 즐기는 대부분의 신이 악신이라는 것도 그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직접 부딪힌 경험이 가장 많은 악신은, 그런 인간을 이해하고 흉내 내는 것에도 능숙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기에 이들은 인간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강서담이 혀를 찼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정부와 종교계가 인정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악신을 토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악신이 몬스터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보기에 아주 온순하고 선량한 듯 보이는 악신이라 하여도 쉽게 계약하고 의지하지는 말아야 할 겁니다. 그들은 인간에 아주 해박하죠.”

특히 이런 어린 사제들을 타락시키는 걸 즐기기도 했다.

“꽤 많은 악신이 인간을 타락시키길 즐깁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말 그대로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닐까 추측 중입니다.”

“…재, 재밌어서….”

“신에게 인간은 아무리 잘 쳐줘도 장난감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내려주는 은총이 인간들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사랑’이라 할 수 있다 하여도, 그 ‘사랑’은 결국 신의 눈길 한 번일 수도 있었다. 신과 인간의 기준은 엄연히 달랐다.

“그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해 준다 하여도, 여러분이 죽었을 때 한 가족처럼 울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묘비를 지어주지도 않을 것이며, 힘들고 슬플 때 따듯한 식사 한번 차려주지 않겠죠. 그건 같은 인간에게서나 바랄 수 있습니다.”

강서담이 조금 질린 표정의 형제들을 보았다.

“그렇다고 신을 모시길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럼 결국 저희는 이용당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저희 인간들도 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은 지나가는 개미가 당신을 따라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에 사제들이 한 명씩 입을 열었다.

“데려가서 키울 것 같아요.”

“먹이를 주지 않을까요?”

“왜 따라오나 싶어서 도망칠 것 같은데.”

“너무 작아서 못 볼 수도 있지 않아요?”

“문제가 있나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강서담이 차례로 물어봤다.

“개미를 데려가 어떻게 키울 겁니까?”

“어… 집을 주지 않을까요? 개미 키우기 키트 있잖아요.”

“어떤 먹이를 주고 싶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쌀알? 별사탕? 그런 거 주지 않을까요?”

“어째서 도망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개미가 날 어떻게 인지하고 따라와요, 이상하잖아요. 인간도 아닌데. 누군가 음흉한 수작을 부리는 걸 겁니다.”

“작아서 보지 못한 것이 신경 쓰일까요?”

“그걸… 애초에 모르지 않겠습니까? 있는 줄도 모를걸요.”

“문제가 있나 어떻게 확인하실 거죠?”

“그냥 잡아서…? 몸을 둘러본다거나, 뭐….”

강서담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다.

“작은 개미를 손에 쥐고 터트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운이 나쁘면 터질 것 같아요.”

“그때 자매님이 느낄 감정에 대해 표현해 주십시오.”

“좀… 미안하다? 징그럽다?”

“그렇군요.”

그가 사제들에게 말했다.

“이게 신들이 여러분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

몰랐던 아이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이런 말을 짐작 중이던 아이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면면을 살핀 강서담이 다시 말을 이었다.

“신께서 당신을 사랑해 거둔다면 안전하고 평화로운 굴레에 감금당할 겁니다. 신께서 당신의 부르짖음을 잘못 해석하고 감당 못 할 힘과 재력을 준다면, 쉽게 망가지겠죠.”

“…….”

“어떤 신은 인간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징그럽고 혐오스럽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신은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인지조차 못 할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가 가장 마지막에 답변했던 아이를 보았다.

“어설프게 이해하고 배려하려 드는 신이 계신다면, 그분의 손길에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신도 인간이 그렇게 죽어봤자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인간에게 흥미가 생겼다면 다른 신도를 찾아 나설 것이고, 오히려 반감이 생겼다면 평생 인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이었다. 그게 신이라는 존재였다.

“아주 드문 경우로 신의 정상적인 애정을 받게 되는 인간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존재를 성녀와 성자라 부르며, 그들은 한평생 신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인간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달님교의 성녀는 신과 소통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살아 있는 신이라고, 다음 대 달님이라고 했어요.”

“예,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달님교의 성녀는 한평생 교를 떠나지 못할 것이며, 언제나 신의 손길과 눈길 안에 갇혀 지내게 될 겁니다. 그릇이 너무나 커 신을 평범하게 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

“그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간의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강서담이 단호하게 말했다.

“신을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고, 그를 이용하려 들지 마십시오. 신의 적의는 알기 쉬운 재앙이겠지만 신의 호의 역시 그에 비견될 재앙입니다.”

“…….”

“신은 의지를 가진 자연이자 운명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연에서 먹을 것을 찾아내고 다가오는 운명에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 하십시오. 그럼 재앙을 비껴갈 것입니다.”

그가 덧붙였다.

“그게 신과 공존하는 방법입니다.”

“…더 겁이 나는데요….”

“사제는 단지 존재 자체만으로도 신과의 소통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여러분과 잘 맞는 신이 찾아올 겁니다.”

강서담이 특유의 무뚝뚝한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맞지 않는 신을 모시게 된다면 그보다 더한 재앙은 없겠죠.”

“…네에.”

“그러니 하고 싶은 말은, 마음을 가능한 한 곱게 먹으라는 겁니다.”

“네?”

“계속 말하지만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에 가장 빠르게 응답하는 것은 대체로 악신입니다.”

그리고 악신도 신.

“그 경우 여러분은 상상도 못 했던 재앙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입이 닳도록 신의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던가?

“어느 날 여러분은 제 삶을 다 바쳐 원하는 것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게 금은보화일 수도 있고, 어느 이상적인 연인일 수도 있으며, 혹은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복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단순한 충동에 휩싸여 모든 걸 망가트리고 싶다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신의 음성이 들린다면 응답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트린 것이 바로 그 신일 수도 있었다. 죄악 앞에서 쉽게 유혹을 느끼고 또 망가지는 인간들은 그게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도 모른 채 붙잡아 버리는 것이다.

애초에 인간이 가장 괴롭고 힘들어할 때 말을 거는 신은, 기회를 주는 신은 결코 자애와 풍요의 신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철저히 무너지기를 기다리던 악신일 확률이 높았다.

“차라리 여러분의 힘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다른 누군가를 이용하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인간의 두 손에 광기를 쥐어 휘두르게 하십시오. 행인을 죽이고, 자는 이의 집에 불을 붙이고, 산 채로 내장을 꺼내십시오.”

“…그, 그건 너무….”

“그게 악신에게 응답하는 것보다는 싸게 먹힙니다. 악신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표출한 자는 제 욕심조차 제대로 해결해 내지 못할 것이며, 그 주변을 황폐화합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직접 나서는 것이 본인 마음도 시원하고 주변 피해도 덜한 길이 됩니다.”

인간을 대하는 것이 능숙한 악신이 끼어들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주동자든, 그게 아닌 주변인이든. 죄가 있든 없든, 그런 건 악신에게 그리 중요한 관점이 아닐 것이었다.

“악신에게 휘말리면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복수를 위해 악신을 불러냈던 지식인은 하나같이 후회의 말을 적고 죽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로지 파멸만을 원했던 소환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영혼은 아직도 악신의 손아귀에 방치되어 있을 것이었다.

"신을 경계하고, 악신을 배척하십시오."

"……."

"그러면 반은 갑니다."

그에.

"……."

"……."

차이솔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강서담과 이루다가 그 모습을 매우 미묘한 눈으로 보았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29)"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30)

제130화

“차이솔 형제.”

결국 차이솔은 강서담에게 불려갔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옙.”

“악신과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옙!”

“솔직해서 좋군요.”

“하지만 잠깐만요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호흡을 한 차이솔이 비장하게 말했다.

“악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강서담은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확실히 인간의 관점에서 악신을 따로 구분하는 것도 우스운 행위이기는 합니다.”

“정말 착할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신은 인간의 기준에서 보기에 상당히 악하다는 겁니다.”

“그… 네, 기억해요.”

“성실한 학생이군요. 저도 신을 모시는 입장이지만, 그렇기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다.

“신은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저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해도 태양의 신께서 화내거나 삐지지 않으시나요?”

“신에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결과이지요, 실질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의외로 신이라는 분들은 뭔가… 좀….”

“무심하시지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개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탓이고요.”

강서담이 제 상담실 서랍의 자료를 뒤졌다.

“그렇기에 일부러 인간의 이해도가 높은 악신을 희망하는 예비 사제들도 있습니다. 정식 사제가 되고, 실제로 신을 모셔 보면 그런 소리는 못 할 테지만… 여기 있군요.”

그가 몇 서류를 차이솔 앞에 놓아주었다.

“이건 국내에 인정받은 악신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챙겨 가도 좋습니다.”

“가, 감사합니다…?”

“하지만 차이솔 형제의 반응을 보니 이미 염두에 둔 신이 있나 봅니다.”

“말해도 돼요?”

“신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그건 대단히 희귀한 경우인데.”

강서담이 턱을 쓸었다.

“대부분의 악신은 인간들이 자신을 부담 없이 부를 수 있도록 별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차이솔 형제가 알고 있는 그 악신을 따로 이르는 별칭은 없습니까? 저희 서울 지부 태양교의 경우 ‘공정의 불빛’이라는 제2의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에 차이솔이 강서담에게 손짓했다. 강서담이 순순히 차이솔에게 귓가를 내어주자, 아이가 소곤소곤 속삭였다.

“검은망토요.”

“…오….”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아온 강서담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네.”

“…….”

“저 잘못했어요…?”

“…그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고민하던 강서담이 재차 물었다.

“아직 차이솔 형제는 그가 악신인지 전통적인 신인지 모른다고 하셨죠.”

“네, 그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신이 내세우는 주장과 권능이 인간에게 해가 되는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그럼 악신이 아닌가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악신은 거짓 주장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강서담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을 이루다 예비 사제를 불렀다. 제 파트너인 차이솔과 함께 휴식실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루다는 금방 안으로 들어와 강서담을 보았다.

“오늘 여러 번 뵙는군요, 이루다 자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차이솔 형제에게 그가 악신임을 알려준 것은 이루다 자매이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유를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다는 세상 모든 것에 환멸을 느끼는 얼굴을 하면서도 착실하게 설명했다.

“차이솔 형제가 무언가를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검은색의….”

“방금 차이솔 형제에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말하고 있는지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검은 형상을 그린 것을 보자, 오싹함과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신의 위압감을 착각한 것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그건 적나라하지 않았어도 악신의 사악한 신성이 맞았습니다.”

“적나라하지 않았다….”

곧 강서담이 물었다.

“따듯한 기운을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예? 예. 차이솔 형제도 따듯하니 괜찮을 거라는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에 차이솔이 중얼거렸다.

“진짜 따듯한데.”

“나는 신의 온도를 느끼는 데 최적화되지 않았어.”

“신의 온도?”

“…….”

이루다가 머뭇거리자, 그녀 대신 강서담이 설명했다.

“신은 의지를 가진 자연이자 운명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아주 신실한 신도가 되지 않고서야 일반인은 평생이 가도 신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요.”

“아….”

“그나마 사제로 각성한 덕분에 우리는 신을 더 손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제마다 신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지요.”

강서담이 이루다를 가리켰다.

“이루다 자매의 경우 신의 부피를 느낍니다.”

“부피요?”

“신이 얼마나 큰지, 나의 어디를 쓰다듬는지, 얼마나 커다란 음성으로 말하는지. 간단히 말해 신의 모든 크기를 느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차이솔 형제의 경우 신의 온도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신의 위압감과 폭력성을 인지하기 쉬운 이루다 자매에 비해, 차이솔 형제는 신이 보내는 애정 혹은 자비를 느끼기 쉽죠.”

두 사제의 경우를 설명한 강서담이 자신을 가리켰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제는, 신을 느끼기가 쉬운 것이 아니기에 교단의 명령을 받습니다. 신전에 오래 머물수록 신의 의지를 파악하기가 더 편리해지니 말입니다.”

“…….”

“이는 차이솔 형제와 이루다 자매는 사제로서의 역량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제들도 저만한 나이가 되면 제각기 신을 모시는 방법이 생기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강서담이 차이솔을 보았다.

“그렇기에 더더욱 차이솔 형제가 어떤 신과 계약을 맺을지를 신경 쓰게 됩니다. 특히 차이솔 형제의 성격과 겹쳐져… 불안한 점이 있으니까요.”

“저 많이 불안한 편인가요?”

“솔직히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차이솔 형제에게 의외로 노련하고 영민한 면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나이대 아이들은 특히 정에 휩쓸리고는 하기 때문입니다.”

“…으으음….”

차이솔이 고민 끝에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께서 형제님에게 직접적으로 계약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적으로 몇 번 만나본 정도입니다.”

“저도 그 존재가 악신인지 전통적인 신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딱히 말해주지는 않겠지만, 검은망토는 그가 경애하는 공정한 불빛이 내려진 적도 있는 존재였다. 전통적인 섭리의 여신께서 긍정한 존재인 만큼 단순히 악신으로 치부하긴 힘들었다.

애초에 같은 죽음의 신이라 해도 출신 차원에 따라 인간의 섭리를 존중하는 전통적인 신이 존재했고, 순리를 깨트리며 온 세상에 죽음의 고통을 퍼트리는 악신이 존재했다. 인간의 기준에서 신을 구분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었다.

“오늘 수업에서 말했다시피 악신은 쉽게 인간의 욕망과 분노를 꿰뚫어 봅니다. 처음에는 이지적이었던 사람마저도 탐욕의 화신으로 만들거나, 혹은 분노의 광전사로 만들 수가 있지요.”

그들은 인간을 쉽게 망가트린다. 신념을 가진 용사조차 한순간에 비참한 살인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악신이었다.

“그건 전통적인 신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묘함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아주 자연스럽게. 악신 또한 자연과 운명의 일종이기에 그렇습니다.”

“…….”

“우리 태양교에서도 이미 몇 번이나… 악신에게 홀려 제 삶과 주변을 망친 사제가 존재했습니다. 이기심이 아닌 성자 성녀와 같은 이타심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결국은 그리되었죠.”

강서담은 강조했다.

“신을 믿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러면 왜 계약을 해요?”

“제가 잘못 말했군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신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얼마든지 신을 믿고 의지해도 되나, 인간미를 기대해선 안 됩니다.”

“…….”

“악신은 그런 면에서 특히 교묘하여….”

무어라 말하려던 강서담이 이내 입을 닫았다.

“…….”

“…선생님?”

“…아뇨, 그냥….”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상은 지구에서 관측된 지 그리 오래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얼마 없습니다만… 음.”

강서담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차이솔 형제에게서 부정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 그럼 저 계속 만나봐도 괜찮은 거예요?”

“섣불리 계약만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 안 해도 반은 가죠.”

“계약은 왜요?”

“그 어떤 신도 계약 없이 제 신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성력을 쓸 수 있는 신실한 신도를 결코 사제로 칠 수 없는 것도 그런 이유죠.”

“아….”

“다양한 이유로 신들께서는 계약 없이 인간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계약은 일종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럼 계약만 안 하면 돼요?”

“상황을 더 살펴봐야겠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그들의 대화에 이루다가 끼어들었다.

“이 상태로도 괜찮은 겁니까? 혹시, 악신이 알아채지 못하게끔 세뇌를 한 걸 수도 있고….”

“저는 이루다 자매만큼 천재는 아니었으나 그보다 경험이 더욱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 파트너는 악신에게 홀려 사형당했죠. 제가 직접 주도했습니다.”

“…….”

“누구보다 악신의 전조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가 옅게 웃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이솔 형제는 태양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의 형제가 걱정되는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만 이변이 생긴다면 언제든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상담실 바깥으로 나온 이루다가 제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

“루다야?”

“실수했어.”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게 화가 나네.”

“덕분에 나는 엄청 든든하다?”

“…알면 잘해.”

“어떻게?”

“그가 접촉할 때마다 알려줘….”

“그럴게.”

둘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배정된 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수업에서 학자들이 악신을 불러냈다고 했잖아.”

“그랬지.”

“결국 사제가 아니더라도 신을 불러낼 수 있다는 거네? 우리처럼 각성자가 아니라 일반인이더라도?”

“사제가 아닌 일반 신도도 성력은 쓸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불러낸다는 생각도 못 하잖아.”

“그건… 신에 관련된 지식이 대중화되지 않았으니까.”

무엇보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세상은 신에 대한 지식까지 감당하기엔 너무 시민 의식이 낮았다.

“섣불리 미친 짓을 할 사람이 나올까 봐 대부분 신의 부름과 관련된 지식은 정부와 협회에서 통제를 하는 편이지. 그나마 자세히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역시 3대 길드가 아니려나.”

“길드….”

“같은 계열의 신을 모시지 않는 이상, 다른 신을 모시게 된다면 정식 사제가 된 이후 사설 길드에 들어가도 돼. 차이솔 네 성격은 차라리 이런 자유로운 쪽이 나을 수도 있어.”

“그럼 파트너는 어떻게 돼?”

“보통은 함께 움직인다고 들었는데. 꼭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손발이 맞는 사제 동료를 구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 하더라고.”

“오오….”

차이솔은 굳이 무어라 확정을 짓지는 않았다.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마인드가 현명하기는 하지.”

“그럼 신에 관련된 지식은 그렇게... 음... 높으신 분들만 알아?”

“안다기보다는 일부 지식을 통제하는 집단이 있다고 봐야겠지.”

“그 집단의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건....”

이루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인간을 믿은 인간의 죄야.”

그렇기에 결국 우리는 신에게 기대게 된다.

인간은 영원불멸하지도 않고, 인간이 기댈 만큼 강하지도 않아서.

* * *

믿었다는 이유로 죄를 지었다.

“.......”

성실했던 남자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랐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고, 친구를 존중했으며, 동료와 함께했다. 남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이 위태로운 세상에 보탬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남자는 혼자 남게 되었다.

“...내가....”

현실감 없이 비참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신을 믿지는 않았으나 결국에는 신을 부르짖게 되었다.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나는 모르는 사이 내가 진창에 기어들어 왔습니다. 부디 살려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탄내만이 가득했다.

“제가 뭘....”

내가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견딜 수 없었다.

이미 그는, 자신이 깊은 피 구덩이에 빠져 있음을 깨달았다.

“.......”

신은 응답하지 않았고.

“.......”

그는 이미 악신의 징표를 만들어내어 그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이곳은 갈림길 앞이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30)"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31)

제131화

정부와 협회의 후원을 받는 일부 고아원은 일종의 공공 기관으로, 남자는 그곳의 출신이었다.

“주현아.”

“네, 원장님.”

고아원의 규칙에 따라 이름은 성 없이 주현.

“혹시 여유가 된다면 협회에 심부름 좀 해줄 수 있을까?”

“그럴게요. 이번에는 뭘 전달하면 될까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애들 명단이야, 검토 좀 받게.”

그는 대재앙이 있기 4년 전에 태어났다.

한마디로 4살 무렵에 대재앙을 겪었다는 것인데, 이름마저 잃어버렸던 아이는 영리하고 성실해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다른 이들의 돌봄 속에 살아남았다. 그가 고아원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그랬다.

“알겠습니다. 곧 다녀올게요.”

“주현이는 착하기도 하지.”

“해야 할 일인 걸요.”

협회 라인의 고아원은 대체로 머리가 좋고 건강하며 성실한 아이들을 뽑았다.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각성하면 헌터가 되어 독립하든가, 아니면 협회에 취직할 기회를 얻었다.

주현도 그중 한 명이었으나 될 대로 살아가는 다른 고아들과 달리 그는 야망이 있었다.

“주현이는 협회 연구소로 가고 싶다고 했지?”

“네, 각성을 한다고 해도 연구소가 좋아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가능한 한 많은 비극을 막고 싶었다.

“헌터분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맨몸으로 대재앙을 겪었던 그는 세상의 비참함을 봤다. 인간이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봤다.

그 속에서 주현은 유달리 운이 좋은 편이었다. 자신이 얻은 행운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주현이는 기특하네.”

“감사합니다.”

“연구소는 늘 인력이 부족하니까, 분명 취직할 수 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나누지 않을 이유가 없다.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게 주현의 생각이었다.

말하자면 부끄럽지만 나름의 신념이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고, 함께할 수 있다면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 사명 속에서 남자는 협회에 취직을 하고도 자신을 길러준 고아원을 후원하길 잊지 않았다.

“너도 먹고살기 바쁠 텐데 늘 고마워.”

“원장님께서 키워주신 덕분인데요.”

“그게 내 일인데 무슨….”

“저희 맡는 일 힘드셨을 거 다 알아요.”

주현은 혼혈아였고, 피부는 검었다. 그가 머물었던 ‘기타 고아원’은 그와 같은 외국계 아이들이 유독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

“지금이야 피부색이니 뭐니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지만, 한창 힘드셨을 때가 있었잖아요.”

“대재앙 직후라 사람들이 많이 예민했던 거야.”

“알아요, 한국인 아이도 보살피기 바쁜데 외국인까지 돌봐야 하냐고 말이 많았죠. 기억나네요.”

“주현아, 그건….”

“저도 제가 한국인인 걸 알아요. 여기서 태어났는걸요. 그냥 원장님 말대로 다들 예민했던 시기였어요.”

다만 국적이며 뭐며 기록이 전부 날아가 버린 탓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김새가 동양인과 조금만 달라도 크게 경계하고 괄시했다.

대재앙은 그런 시기였다.

“이해는 하지만, 그때의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건지… 아직도 저희 고아원은 지원도 많이 못 받고 있고.”

“내가 못난 탓이지. 그, 혹시, 협회 사람들이 너를 무시한다거나….”

“아니라고는 못 하겠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 아시잖아요. 이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데 잘 처신하면 금방 자리를 잡겠죠.”

고아원 전형으로 입사한 협회 직원은 차별이 있는 편이었고, 주현이 나온 고아원은 더더욱 괄시를 받는 곳이었다. 승급이 더뎠다.

당연하지만 제대로 된 프로젝트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승급하지 못한 연구원은 사실상 잡일꾼과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신의 성실함과 드러나지 않는 영악함으로 주현은 동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 상부의 관심을 샀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성실하시네요, 모쪼록 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걱정 혹은 비아냥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열심이면 금방 지쳐 버리더라고.”

“조언 감사합니다.”

맞는 말이라 받아서 삼켰다.

주현은 마냥 성인군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에 보탬이 될 길을 최대한 영리하게 찾아냈다.

‘너무 큰 목표를 잡았으니….’

금방 지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하나씩 하면 되는 거야.’

조급해하지 않았다. 명예 따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감은 있었다.

그는 연구진 중 유독 똑똑했고 배움도 빨랐다. 각성자는 아니지만 늘 관리를 해온 덕분에 평균 이상으로 건강했다.

그런 주현은 수많은 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다.

“협회에서?”

“웃기는군, 실험체라도 필요한가 보지?”

“네가 뭘 잘났다고 도와준대?”

외곽 지역의, 혹은 그 안과 바깥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경계심이 강했다. 그럼에도 주현은 꾸준히 그들과 접촉했고 대화하며 교류했다. 시간이 좀 지나자 그들은 누그러졌다.

“지난번에 치료해 줘서 고마웠어.”

“저쪽 집 애가 아프다던데….”

“혹시 먹을 건 더 없나? 그 왜, 겨울이고.”

그들 중 일부는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또 그들 중 일부는 주현을 알 낳는 닭 취급했다. 종종 무례하게 나오는 이들이 존재했으나 주현은 휘둘리지 않고 착실하게 봉사를 이어갔다.

“…바쁘네.”

하지만 그마저도 좋았다.

협회의 연구에 참여하고, 남는 시간에는 공부나 봉사를 했다. 양측 모두 무례한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했고 화가 나는 일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좋았다.

‘좀 더 경력이 쌓이면 언젠가는 나도 팀장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야. 연구 팀장이 되면 개인적으로 연구할 시간도 자원도 주어지지. 그러면 던전이나 몬스터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수 있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던 때였다.

“…어?”

“아아아아아악…!!”

“뭐, 무슨.”

어떤 사람이 달려 나와 주현의 발목을 붙잡았다.

“살려줘, 살려줘 제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자, 잠깐만….”

“시발 새끼들아 살려달라고, 싫어!! 죽기 싫어!! 최소한 그런 식으로는…!!!”

“욱…!!”

연구소의 직원들이 웅성거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호 부대가 나타났다. 아니, 애초에 남자를 잡기 위해 쫓아왔던 것인지 그들은 바로 남자를 제압했다.

얼얼한 발목을 잡은 채 황당해하자 함께 뒤따라온 듯한 연구원이 미안해했다.

“아이고, 발목 괜찮아요? 부러지지는 않았어?”

“네? 아, 네. 아… 아니요, 치료를 받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쪽 실수예요, 협회에서 치료는 해주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보상해 드릴게요.”

“그보다 아까 그 사람은…?”

“응?”

연구원이 주현의 얼굴을 보고는 고개를 기울였다.

“아아, 아직 제대로 된 프로젝트 들어가 본 적 없죠?”

“그거랑 연관이 있나요?”

“대응 요원입니다, 대응 요원. 본인 일 하기 싫다고 뛰쳐나온 거야.”

“대응 요원이라면….”

알기는 알았다.

“실험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달리 말해 그냥 실험체지, 뭐.”

“…….”

“적응이 안 되나 보네.”

연구원은 픽 웃었다.

“대충 그런가 보다 해요, 별일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 대응 요원분들에게는 적절한 대우와 보상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급이 있어요. 아직 프로젝트 들어가 본 적 없는 주현 씨는 모르겠지만, 방금 그건 실험용 쥐에 가깝지.”

“분명히 살려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모래시계 만난 다음 붉은 방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겁을 먹은 거야. 내가 잘 관리를 해야 했는데, 생각보다 힘이 좋아서 놀랐네.”

“…모래시계요? 붉은 방?”

“어차피 주현 씨도 곧 우리랑 일할 텐데, 미리 좀 알려줄게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보상받는 듯한 혜택이었지만,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흘러 감사할 새도 없었다. 주현은 곧 연구원이 말한 ‘모래시계’와 ‘붉은 방’을 볼 수 있었다.

“저건 사람의 시간을 먹는 괴물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모래시계지만, 일주일에 한 번 사람의 시간을 먹지 않으면 장식이 소박하게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고.”

“…….”

“그 반대편에 붙어 있는 방 있죠? 주현 씨도 심부름 때문에 오며 가며 한두 번인가 봤을 텐데, 저게 다 동선을 생각해서

붙여둔 거예요. 저 안에 사는 괴물은 새빨간 보석인데 노인과 신생아의 피를 먹어야 만족하거든.”

이해가 어려웠다.

“…시간을 먹는다는 건,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신생아나 노인을 구해 오기가 어려우니, 아예 노인으로 만들어서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모래시계라는 괴물도, 붉은 방이라는 괴물도 만족할 테니까요. 그렇죠?”

“잘 이해했네, 주현 씨는 잘 적응할 것 같아서 내가 참 고마워.”

“하하….”

한마디로 괴물에게 공양할 제물이라는 것이었다.

“그래도 되는 건가요? 문제라든가, 음.”

“방금 투입된 대응 요원은 5등급 시민이었습니다.”

연구원이 알 만하다는 듯 덧붙였다.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사람 수십은 죽인 살인마니까. 그렇게 말한 연구원은 주현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고는 사라졌다.

주현은 수많은 연구원이 끝없이 나열된 괴물들의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대화를 나누고, 혹은 어느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군중 속인데도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

주현은 곧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을 했다.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봉사를 나가 버려진 시민들과 대화하고, 심지어는 협회장에게도 어렵게 대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나아지는 건 없었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같은 일상이다.

고아원의 가족들이, 길거리의 친구들이 물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주현은 그에 위로를 받았다.

“연구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각만큼… 숭고하지는 않네.”

“협회만 한 곳이 숭고하기만 하다면 그건 그거대로 놀라운 일이지.”

“그래, 그 말이 맞아.”

정신을 가다듬었다.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가족과 친구가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대재앙도 버텨낸 나다. 이번에도 견딜 수 있어, 그리고 더 나은 길을 찾아야지.’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해보고자 노력했다. 권한을 얻은 주현은 심지어 스스로를 실험체 삼아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보기 싫어했던 비극만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다. 이 비극의 반복을 보기 싫어 그 많은 일을 해왔음에도 말이다.

“…….”

“무리하셨습니다, 휴가를 드릴 테니 한 달간의 요양을 하고 오십시오.”

“…하지만….”

“뭘 원하는지 알겠으나 지금의 상태로는 맡은 일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전 날의 대화 이후로 눈도장이 찍힌 것인지, 과로하는 주현을 본 협회장이 직접 권유한 사항이었다.

주현은 잠시 고집을 부리려다가 제 심신이 많이 흐트러졌음을 깨닫고 이내 수긍했다. 대책도 없이 고집만 부리고 싶지는 않았다.

“조금 쉴게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됐다.

“…….”

몸이 대충 회복이 될 때까지 요양하고 돌아오니, 고향이 불타 있었다.

길거리의 몇몇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고, 무언가 어수선했다. 주현은 당혹감을 채 가다듬지도 못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네?”

그러곤 곧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다.

“나 때문에?”

“너한테 불만 있는 몇몇이 일을 쳤나 봐.”

“불만이라니, 대체 뭐가….”

“여기저기 있던데?”

고향이라 여겼던 고아원의 누군가도, 친해졌다 여겼던 길거리의 친구 중 누군가도, 유능한 동료들이라 여겼던 연구소의 직원들 일부도 주현을 미워했다더라.

주현이라고 그 감정을 아예 모르지는 않았다. 시기와 질투, 혹은 역겨움, 사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나온 그 갈등. 그걸 알기에 더 조심해 왔는데 결국 일이 터졌다.

“사실 나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어.”

“…….”

“너만 깨끗한 척하는 것 같고, 안 그래?”

그게 좀.

“…하하.”

끔찍하게 들렸다.

왜 진즉 소식을 듣지 못했는가 하면, 주현을 담당하던 연구 팀장도 이상한 꿍꿍이를 품은 듯한 그의 기를 죽이기 위해 그랬다고 한다. 엉뚱한 생각을 하는 놈을 데리고 함께 일을 할 수는 없다면서.

자신이 그렇게 튀었는가 하면, 글쎄. 그렇지는 않았다.

‘조심했던 것 같은데.’

다른 동료들의 사상을 최대한 이해해 보려 했다. 수긍한 적도 많았다. 다만 건의한 적도 있었다. 아마 그런 작고 작은 부분들이 모여 이런 말도 안 되는 ‘신고식’이 치러진 듯했다.

하지만 내 가족들은, 친구들은 5등급 시민이 아니었다. 그들은 '무고한 시민'이었다. 아무리 인권이니 뭐니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라 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왜 아무도 말려주지 않았지? 왜 아무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 왜 나만 괴로워하고 있는 건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려니 하세요, 까딱하면 주현 씨도 대응 요원 되는 수가 있어."

"그렇게도 되는 건가요?"

"인력 부족하면 연구원도 대응 요원으로 투입되거든."

"연구소 인력 부족하다는 말은 매번 들었죠."

"무엇보다 주현 씨는 이미 실험체 역할 해본 적도 있잖아."

"그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몰라도, 명분이 될 수는 있을걸."

"…이해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화를 냈다.

"시발, 이럴 줄 알았어. 이래서 협회 새끼들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나는…."

"너 때문에 내 친구들이 죽었다! 안 보이는 놈들은 또 뭐야, 실험체로 끌고 갔나 보지?"

"…그런 게 아니라…."

"위선자 새끼, 잘해주는 척하다가 뒤통수치니까 기분 좋냐? 더러워서 진짜…."

"……."

피곤했다.

"……."

단순히 피곤하기만 했다면 좋았을 텐데, 화가 났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순서였지만 이 피곤한 분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날 바쳐 이 모든 분노를 태우고 싶을 만큼이나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은 본디 변덕스럽고 자기중심적이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 배은망덕한 것은 인간이라는 종의 특징 중 하나였다. 자신이 받은 것은 금방 잊고 손해에 예민하다.

그걸 전부 알고 시작한 일이었다. 그런 부분에 수도 없이 상처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같은 비극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게 내 신념이라 웃으며 살아왔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문득 든 생각인데, 나도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니 그의 손에는 악신의 징표가 들려 있었다.

악신 중 하나인 산칼루트의 징표를 만들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아직 쓰지는 않았다.

산칼루트는 피와 영예의 악신이라 했다.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간 신생아, 혹은 노인의 피를 바치면 소원을 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죽은 영혼은 낙원으로 보내 준다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아직 악신을 불러내지 않은 이유는 주현이 착하거나 이번에도 견뎌낼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다만 그는 누굴 죽이고, 어떤 소원을 빌지 생각해 보질 않았다.

'…정작 바라는 것도 없는데 화부터 낼 생각을 하고 있다니,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원래 이렇게 멍청하게 굴었던가?'

뭔가 텅 비어버린 기분.

"…죽는 사람은 나면 될 거고."

내 의지가 아닌, 가느다란 실에 엮인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었다.

그는 인간의 시간을 먹는 괴물인 '모래시계'에 접근할 권한이 되었지만, 여러모로 많은 일이 있었던 터라 지금도 그런 권한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악신은 불러낼 수 있겠지."

그거면 됐다.

"소원은… 음."

무엇을 빌어볼까.

'내 죽은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해볼까.'

주현은 멍하니 불에 타 폐허가 된 고아원으로 들어갔다.

시체는 전부 수습되었지만, 으슥한 위치의 폐건물은 철거조차 되지 않았다. 주현은 말없이 검게 그을린 아이들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나마 멀쩡한 방에는 아이들의 흔적이 보였다.

"…이건…."

용케 타지 않고 그을린 정체 모를 그림도 있었다.

"검은망토를 그린 건가."

한창 유명하기는 했다.

'검은망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은 적지 않으니까.'

생기 없는 눈으로 그림을 응시하던 주현은 곧 그것을 대충 아래로 떨구었다. 바닥에 닿았는지 툭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곤한 몸으로 탄내 나는 침대에 앉았다. 그렇게 제가 만들어낸 악신의 징표를 들여다볼 때였다.

"……."

"……."

"멋지군."

사악한 흥미를 담은 감탄.

그는 방의 입구 쪽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피와 재화의 향이 나는 보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나에게 그것을 준다면 내가 더 예쁘고 값진 보석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이봐요, 신사분.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맞혀볼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금박 액자에 기대어 있었다.

"배고프지 않니?"

"…예?"

뜬금없는 소리였다.

오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32)

제132화

검은망토에 대한 괴담은 유명했지만, 주현은 크게 관심이 없었다.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없었고.'

최근 갑작스럽게 등장한 인간형 몬스터인 '검은망토'는 높은 계급의 연구원들이 그 정보와 흔적을 관리했다. 아직도 겨우 대리밖에 되지 않는 주현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

하지만 그가 일종의 초상화라는 것만큼은 잘 알고 있었다.

"……."

"왜,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아서 말을 잃었나?"

"…아….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나만 하면 자신감이 넘쳐흘러야지 않겠어."

"그…."

너무 자연스러운 대화라 어이가 없었다.

"…검은망토 맞습니까?"

알고 있는 이미지와 너무 달랐다.

"검은망토는 좀 더 딱딱한 말투를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미가 없지. 나는 상대에 맞춰 변할 줄 알아, 그게 내 재능이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야, 날 헛것 취급하지 않아 주었으면 해."

"…헛것은, 아닌 것… 같네요."

정신이야 아직도 조금 멍하다만, 화들짝 놀라 쿵쾅거리는 제 심장을 보자면 말이다.

"왜… 왜 여기에 계십니까?"

"누가 날 부르는 것 같아서."

"최소한 저는 부른 적이 없습니다만…."

“그렇겠지.”

얼굴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게 후드를 눌러쓴 초상화가 액자 아래를 가리켰다.

“자네는 이것보단 그림을 더 잘 그릴 것 같은 인상이니.”

“…아.”

그가 가리킨 곳에는, 검은색 크레파스로 엉성하게 그려진 검은망토의 그림이 있었다.

“…….”

그 그림은 왜인지 불안정하게 일렁였다.

“…이 그림에서 나온 겁니까?”

“그랬다면 저 종이에서 나왔을 겁니다, 멍청한 신사분.”

“하지만 저 그림이 당신을 부른 건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덕분에 자네를 만났고.”

“말투가 정말… 들쑥날쑥하시네요.”

“한시도 가만히 있기가 힘들거든.”

“제가 듣던 검은망토랑 이미지가 너무 달라서….”

“흐음.”

후드의 그림자에 가려진 얼굴이었지만, 왜인지 그가 불만스러워하는 듯 보였다.

“이런 대화는 재미가 없는데.”

“…….”

그제야 주현은 문득 위기감을 느꼈다.

“…죄송합니다.”

상대의 정체가 무엇이 되었든, 그의 적의를 사서 좋을 건 없었다.

방금 전까지 악신인 산칼루트에게 소원을 빌지 말지 고민하던 것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직면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탓이었다.

주현은 일단 사과하고 봤다.

“혹시 불쾌하셨다면… 어….”

“나에게 제물을 바치기라도 할 것인가?”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데 제물부터 바치기는 좀…?”

“훌륭하군. 신중함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좋은 덕목이지.”

“하지만 정말로 왜 여기에 계신 겁니까?”

“분명 아까도 말했던 것 같은데?”

“아무도 당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라.”

아주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초상화가 부드럽게 손을 휘적였다.

“그대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렇지요?”

“…….”

아까와 달리 온화하고 나직한 음성이었다.

“그래서 왔습니다.”

“…….”

“악신을 부르시기에.”

그리고 또 한 번, 시체만큼이나 무뚝뚝해졌다.

“제 적응을 도와줄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친구….”

그 ‘적응’이라는 건 혹시 인간 사회를 향한 말인 걸까.

악신은 신 중에서도 유달리 인간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지만 ‘검은망토’가 그런 악신의 일종이었다면, 이렇게 대뜸 나타나 말을 거는 상황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다.

‘아니, 안 가.’

원래 악신이라는 건 이렇게 뜬금없이 등장하는 건가?

“…저, 저는… 다른 악신… 님? 을, 부르려고 했는데요.”

“어떤 존재를 부르려고 했든 저보다 나은 선택지는 없을 것입니다.”

“어….”

대단히 오만한 말이었지만, 거기에 반감이 들기보다는 공포와 초조함을 느꼈다.

‘존재감이 더 커지고 있다.’

상대의 말투가 오락가락하는 건 이해했다. 그 격이 거대한 신비들은 대부분 인간의 규격에 맞추지 못해 많은 부분이 이상하게 보이고는 했다.

‘아마 아까 말했던 대로 적응을 하는 중인가 보지.’

하지만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던 압박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건 위험한 징조였다.

‘저 무뚝뚝한 어조로 돌아갈수록 격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건가?’

어딘가 잔인한 흥미가 느껴졌던 처음의 말투일 때는 차라리 황당할 뿐이었는데, 경건한 무게가 있는 음성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보다는 지금의 기계적인 말투일 때 더욱 격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

“혼란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투를… 말을 조금 더, 가볍게 해주시면…?”

“아하.”

순식간에 톤이 높아졌다.

“격식 없는 것을 더 좋아하나 보군?”

“…예, 이쪽이 더 편하네요.”

동시에, 압박감도 나아졌다.

‘…인격이 변하는 건가?’

순간 ‘검은망토’에 대한 이 새로운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사그라들었다. 악신의 징표까지 들고 있는 주제에 평소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한 스스로가 우스웠다.

그런 주현의 반응을 바라보던 초상화가 물었다.

“악신은 왜 불렀던 거지?”

“…의외군요, 신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알 줄 알았는데….”

“그건 사생활 침해야.”

“…….”

“그리고 지금 나는 인간이니까.”

“…아, 예.”

액자에서 튀어나온 존재가 말해봤자 설득력이 없었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 인간의 기준에 맞춰주고 있다는 건 알겠다. 스스로 악신이라 주장하는 존재임에도 여태까지 검은망토를 보자마자 뇌가 터져 죽어버린 목격자는 없었다는 게 그 증거다.

만약 그가 배려해 주지 않았다면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을 것이다. 신은 보는 것만으로도 재앙이 될 수 있었다.

“악신을 왜 부르려고 했냐고요.”

중얼거린 주현은 곧 입을 다물었다.

“…….”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자네는 복수에 재능이 없군.”

“역시 제 사정을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나는 그저 분노의 냄새를 맡고 왔을 뿐이라네.”

“그러시겠죠, 그러실 겁니다….”

설마 악신이라는 작자가 한낱 인간의 사정을 모를 리가 없으니, 사생활 침해 어쩌고 하며 너스레를 떤 것은 일종의 위장이나 배려로 보였다.

‘아니, 악신이 배려를 보일 리는 없나.’

그럼 최대한 친근하게 보이기 위한 인간 흉내가 아닐까. 대부분의 악신은 인간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에 능숙하고 교묘하니 그 정도 흉내는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차라리 마음이 편해졌다.

“사람을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을 믿었죠.”

어차피 소원도 없이 무턱대고 산칼루트를 소환하려 했던 주현이었다. 그렇게 멍청한 방법으로라도 제 알 수 없는 충동을 해소하고 싶었다.

그러니 이제 와 다른 악신에게 장단을 맞춰준다고 해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었다. 차라리 제 가족들이 이야기하던 검은 망토는 더 친근한 기분이라, 주현은 계속 말을 이었다.

“제 가족들을 믿었고, 친구들을 믿었고, 동료들을 믿었습니다.”

“신뢰가 넘쳐나는 편인가?”

“나름 의심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부끄럽네요, 결국 이렇게 된 것이.”

“뭐가 이렇게 되었지?”

“내 사람의 일부는 제 멍청함에 죽었고, 또 일부는 저를 배신했고, 나머지 일부는 저를 버렸습니다.”

“대단히 슬픈 일인데.”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다 망쳐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망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악신을 불렀고?”

“무턱대고 불러보면 뭐라도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뭐라도 망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손재주를 부려봤어요. 꽤 잘 만들었고요.”

악신이 아무리 불러내기 쉬운 작자들이라지만, 그걸 감안해도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낸 걸 보니 재능이 있는 게 분명했다. 주현은 제 처지와 재능을 비웃었고 또 감탄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명예는 없어도 되었다.

“그냥… 뭐라도….”

“그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고운 마음인걸.”

“…그거면 됐는데….”

힘들 줄 알고 걸은 길인데,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악신을 상대하기에 할 수 있는 투정이었다.

“좋은 마음을 먹었다고 좋은 결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압니다. 나 혼자 발악해선 안 될 걸 알아 가족도 많이 만들고, 친구도, 동료도 만들었는데… 전부 죽고 배신하고 떠나가더라고요.”

“…….”

“이것 좀 보세요, 산칼루트를 불러낼 수 있는 징표입니다. 이걸 들고 있으면 악신이 보다 쉽게 저를 응시할 수 있죠. 협회의 연구소에서 배운 지식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네요. 심지어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곤 빌 소원도 없는데 악신을 소환하려 했어요.”

정말.

“최악입니다.”

저를 둘러싼 상황도, 그 스스로도.

“이보다 더 최악일 수가 없어요….”

“말하고 나니 시원한가?”

“…검은망토, 당신은 악신입니까?”

“한때 꽤 많은 이들이 나를 그렇게 불렀지. 지금은 아니야.”

“당신이 한국에 목격된 건 꽤 최근인 걸로 아는데.”

“여기 있기 전의 일이다.”

“그렇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네의 일도 말이지.”

“…….”

“뭘 원하나?”

그건 사악한 대가를 요구하는 악마의 속삭임과 비슷했다.

검은망토가 정말로 악신인지, 아니면 엇비슷한 무언가인지. 애초에 신인지, 몬스터인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대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사람이 가치 없이 죽어나가고, 소중한 사람을 이유 없이 잃고, 계속되는 재앙에 무력하게 쓰러지는 마을과 같은… 지옥 속에서, 공포에 떨며 살아가야만 하는….”

인간과 괴물과 자연이 만들어낸 끔찍한 업보가, 모든 이의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망가트리게 되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고 평온할 수 없게 만들.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째서?”

“더 이상 그런 꼴을 보고 있을 자신이 없어서요.”

“흐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난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인간과 괴물의 잔혹함이 뒤섞여 세상은 차마 보기 힘든 참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제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에 검은망토가 대답했다.

“? 아니?”

“…….”

주현은 말없이 고개를 들어 검은망토를 보았다.

“…소원을 들어 주겠다고 하며 거래를 제안할 타이밍 아니었나요?”

“미안하지만 나는 심신 미약자와 함부로 교류하지 않네. 거래라니 큰일 날 소리를.”

“보통 심신 미약자와 거래해야 이득 아니에요? 애초에 악신이 그런 말 해도 됩니까?”

“무엇보다 신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찮고 무능해.”

검은망토가 한심하다는 듯이 물었다.

“설마 세계 평화 같은 소원을 빌 생각은 아니었겠지?”

“…저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솔직한 거 아니냐고요.”

“이봐요, 신사분. 나는 그냥 나와 편지를 주고받을 친구를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미안하지만 세계 평화의 꿈은 접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바란 게 아니라 그냥 뭐라도 이바지를 해보고자….”

“결국 같은 말 아닌가?”

“…아니라고는 못 하겠네요.”

아니 잠깐만.

“…편지 주고받을 친구요? 그러니까, 펜팔 친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줄 건가? 최대한 예쁜 글씨체로 보내 줄 수 있네만.”

“대체 그런 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지만… 해주면 저에겐 뭐가 좋고 뭐가 나쁜가요?”

“앞으로 배곯을 일은 없다는 것과 자칫하면 돼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뭐가 장점이고 단점인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똑같은 내용으로 들립니다.”

“까칠하군. 왜, 친구 많을 성격인데 나도 좀 끼워주지 않고.”

“끼울 게 따로 있죠….”

그보다.

“…아까 배고프지 않냐고 물어봤던 게 진짜였어요?”

“한국이라는 좁디좁은 나라에 핵폭탄이라도 터트릴 것 같은 얼굴이라 해본 말이었다.”

“핵폭탄도 알아요? 아니, 그런데 왜 배고프냐고 물어본 거예요? 설명이 안 되잖아.”

“보통 앞뒤 없이 사고 치려는 놈들은 배가 고파서 그래.”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위장이 든든하지 않아 벌어지는 인간의 작동 오류라고 할 수 있지.”

“인간을 잘못 배우신 것 같아요. 사고 치는 거랑 위장 든든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래서 묻는 건데.”

초상화가 망토의 그림자 속에서 웃는 게 느껴졌다.

“배가 고프지는 않니?”

“…….”

계속해서 공복 여부를 묻고 있으니, 참 이상한 부분에서 집요한 악신이었다.

‘…의도가 뭘까. 악신인 만큼 전통적인 신의 자비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분명 원하는 것이….’

주현은 냉정하게 생각하려 했다.

“…….”

그러려고 애를 썼지만, 한동안 식사도 수면도 취하지 않았던 그에게서 평소의 이성을 바라기는 힘들었다.

반은 휩쓸리는 기분으로, 또 반은 달콤한 음성에 홀려서. 주현은 반항하지 않고 긍정했다.

“…고픈 것도 같네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악신에게 세계 평화라는 소원을 빌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꿈과 구별할 수 없는 비현실 속에서 주현은 잠시, 그런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망상을 했다.

* * *

검은망토가 손을 내밀었고.

주현은 오두막에 초대받았다.

오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33)

제133화

참고로 '심신 미약자와 교류하지 않는다'는 건 아르지오의 주관이었다.

"나는 입맛이 까다롭거든."

"제법 악신다운 말을 하시네요."

"기왕이면 건강한 사람이 좋지."

아르지오는 후드를 벗고서는 말을 이었다.

"그런 자는 분노할 때도 보는 맛이 있어."

"……."

"이봐요, 신사분. 또 뭐가 문제죠?"

"…아,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잘생겨서 그렇지? 이해하네, 흔한 일이야."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참 놀리는 재미가 있는 친구로군."

"아니…."

주변을 휙휙 둘러보며 경계하듯이 미묘하게 인상을 찌푸린 주현이 물었다.

"제가 이렇게 건방지게 구는 데도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내가 화난 모습을 보려면 값이 좀 비쌀 텐데, 감당할 자신은 있나?"

"화난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 짜증 나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상대의 정체가 몬스터든 악이든, 실상 구분하는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만, 아무튼 자신에게 건방진 인간을 그냥 두지는 않았다. 기본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괴물들은 프라이드가 높기 때문이었다.

그에 반해 본인 스스로 막 나가고 있다는 자각이 있는데도 검은망토는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즐기는 듯했다.

"내가 왜 화를 내야 하지?"

“건방져서?”

“그럼 나부터 죽어야겠군, 나만큼 건방진 작자는 없을 게 아닌가.”

“그… 그건,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래.”

화려한 금색 눈을 휘며 악신이 웃었다.

“골치 아픈 일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주의지.”

“정말 시원시원하게 사시는군요.”

“즐길 것이 이리도 많은 세상에 꼭 힘겨워야 할 이유가 있나?”

“아… 그런 쪽….”

상당한 쾌락주의자의 모습이었다.

“…….”

그보다, 상상 이상으로 화려한 색감인데. 주현의 눈이 떨떠름하게 가늘어졌다.

‘검은색의 칙칙한 망토에 가려져 있을 때는 상상도 못 했던 색이야.’

선명한 검붉은 머리카락과 냉한 빛이 감도는 금색 눈동자.

“…멋진 색이네요.”

“이 색이 가장 마음에 드나?”

“예?”

“역시 자네는 자극적이고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는 모양이야.”

“딱히 그런 생각을 한 적은….”

“그러니 특별히 내 자네의 취향에 맞춰 오늘은 아르지오로 있어 보도록 하겠네.”

“…음? 아?”

얼떨결에 소파에 앉혀진 주현이 물었다.

“지금의 그 모습을 ‘아르지오’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렇지.”

“그럼… 다른 모습도 있고요?”

“형태는 같고 색만 달라.”

“무슨 카멜레온도 아니고.”

“카멜레온이라, 나의 먼 친척이라 할 수도 있겠어.”

“농담이시죠…?”

“상황에 맞춰 이리저리 변할 수 있는 능력은 비슷하다 하겠지.”

이내 그의 색이 햇빛에 적셔지듯 화사한 백금빛으로 바뀌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게 뭐지.

“…이중인격… 같은 건가.”

“인격이 다른 건 아닙니다만.”

“말투도 표정도 이렇게 다른데 다른 인격이 아닌 겁니까?”

“말 그대로 색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대충 이해는 갔다.

‘옷을 갈아입는 느낌인가.’

옷을 갈아입는다고 그 안의 사람이 바뀌지는 않으니, 신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인간의 기준에서 신비로운 존재들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주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빨간 쪽이 더 편하네요.”

“그런가?”

순식간에 불이 타오르듯 화려한 인상으로 변한 검은망토가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아르지오일세. 만일 자네가 나의 친구가 되기로 약속해 준다면 나의 다른 이름도 알려주겠네. 그게 자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리라 나의 명예로운 친구들을 걸고 약속해.”

“…그….”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다.

“애초에 친구는, 펜팔 친구는 왜 필요하신 겁니까?”

“나는 소심하거든.”

“세상 소심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오셨나요?”

“친구를 사귀기가 너무 힘들어.”

“저는 쉬웠고요?”

따지자면 세상에 배신당해 한껏 예민해진 주현 자신의 난이도가 더 높은 건 당연했다. 지나가는 사람 중 그 누구를 잡아도 그보다는 친구 삼기가 쉬웠을 텐데, 어이가 없었다.

그러자 아르지오가 말했다.

“자네는 내게 겁을 먹지 않고 있지 않나?”

“…….”

“다들 나만 보면 이상한 눈을 하기 바빠서 말이야.”

“…그, 그렇군요.”

그건 확실히 그랬다.

‘대부분은 무서워하거나 경외했으려나.’

지금 한국에서 검은망토의 위상은 딱 그런 느낌이었다. 어린아이도 알 만큼 유명하지만 막상 위험도는 높으며, 이상하게 친절해서 거부감은 안 들지만 공포를 안 느낄 수는 없는….

'그야말로 괴담이지.'

도시 전설이라든가.

아마 주현도 평범한 상황에서 마주쳤다면 비슷한 반응이었을 것이다. 검은망토처럼 정체가 의심스러운 신비와 얽혀서 좋을 게 없었다.

"……."

지금은 그렇게 처신할 최소한의 여력도 없어서 그렇지.

'…애초에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도 잘….'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있기는 했지만, 슬슬 현실감이 무뎌졌다.

'차라리 꿈을 꾸고 있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겠어.'

그래서 더 편하게 대꾸하는 것도 있었다. 산칼루트의 징표를 만들었을 때부터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고, 처음부터 죽을 생각을 하고 저지른 일인 탓에 이후론 내내 몽롱하기까지 했다.

그런 와중에 검은망토가 나타나 그 초상화 안으로 초대를 받은 것 역시, 지금 주현이 느끼고 있는 비현실감에 한몫을 더 했다. 예민하고 정상적으로 반응할 기운이 없는 것이다.

"…여기… 굉장히 좋은 곳이네요."

주변을 둘러본 주현이 말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늑하고 평화로워요."

"나도 내 집이 참 좋아."

"이곳이 당신의 집입니까?"

"집은 여러 곳에 만들 수 있지만, 고향 같은 느낌이지."

"그런가요, 고향이라…."

확실히 그렇게 말할 만한 분위기였다.

"그래서 저는 뭘 하면 됩니까?"

"먹고 놀기."

"예?"

"출근하나?"

"…정직당했어요."

"그럼 식사하면 되겠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보다 왜 이렇게 먹을 것에 집착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검은망토의 선물 대부분은 간식거리라고 듣기는 했는데….'

정말로 인간을 살찌우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일까?

'그걸 악신이라고 할 수 있나?'

기분이 이상했다. 자기가 스스로 악신이라 칭하기에 그런 줄 알았는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딱히 악신 같지는 않았

다.

이건 고도의 기만책일까? 잔뜩 지친 인간을 회유하기 위한 연기? 혹은 신이 구걸하는 거지에게 적선하듯 뿌려주는 자비? 아니면 잠깐의 변덕?

“…식사 준비라도 도와드리면 될까요?”

“손님에게 주방을 맡길 수는 없지.”

“그러면 가만히 기다려요?”

“차라도 한잔?”

“좋기는 한데….”

그리고 웬 곰인형이 차를 가져왔다.

“…곰인형?”

“내 아버지 되시는 분일세.”

“아버지?”

“말랑하시지.”

“왜요?”

곰인형이 내준 과일차는 더럽게 맛있었다.

“갑자기 배가 안 고파요.”

“아, 이런. 또 실수했군.”

“나약한 인간에게 실수하지 말아 주세요.”

“썩 나약하게 보이지는 않는걸.”

“그래서 대체 어떤 실수죠?”

“이게 포만감을 주는 차라서.”

“밥 먹기 전에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셈이지.”

“아하.”

주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꿈인가.”

“현실이네만.”

“저 잠이 와요.”

“자면 되네.”

커다란 손이 주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푹 자고, 일어나 식사하고, 간식까지 먹은 다음에.”

“…….”

“그렇게 씻고 침대에 누운 다음 자네의 머리맡에 앉아 그 비명을 들어주도록 하지.”

“…네.”

“한없이 수다를 떨고 나면 우리는 친구가 되어 있을 거야. 나와 대화하면 돼.”

“네.”

“자네의 분노는 어떤 맛일지 궁금하군….”

흥미와 자비를 담은 음성이 머리 위로 떨어지고, 이내 그 손이 주현의 눈을 감겨주었다.

“나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

정말로 그럴 것 같아서.

“…….”

“꿈은 꾸지 말게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현은 잠이 들었다.

* * *

“…음, 그렇구나.”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지금 너희 집에 협회 연구원이 자고 있다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이틀이나 지났나? 새벽에만 들르다 보니 그건 몰랐네.”

지오의 초상화 속 배경은 그 내부의 변화에 따라 모습을 바꾸었다.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이따금 새로운 동물이 등장하거나 알 수 없는 꽃이 피어나기도 했다.

‘그나저나 그 짧은 새에 그림 안쪽의 시간이 벌써 이틀이나 지났다니.’

내내 부르짖던 ‘펜팔 친구’가 생겨서인지, 이번 손님의 방문을 지오가 아주 반기는 모양이었다. 저 초상화 속 세계는 주인인 지오의 기분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니 말이다.

‘예전에 내가 방문해서 식사하고 액자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고작 20분 정도가 흘러 있었지. 초상화 내부의 시간을 기준으로 지오가 즐거울 때는 빠르게, 휴식을 취할 때는 느리게 흘러간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매우 즐거워하고 있는 셈이 된다. 유성운이 특유의 무던한 미소를 지었다.

“너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는 건 아주 기쁘지만 말이야.”

“그와 저는 아직 친구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손님에게 기회를 줄 겁니다. 그는 저의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나 열려 있는 마음을 가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강제로 근원의 눈과 친구가 되어 버린다면 그 개인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겠는가.

‘최소한 선택권이라도 준다는 게 얼마나 자비로운지 몰라.’

아무튼 유성운이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다.

“그 예비 친구가 악신을 불러내려고 했다면서?”

“그렇습니다.”

“그걸 왜 막았지?”

“사고를 치면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를 칠 관상이었습니다.”

"오…."

근원이 말하는 관상이라 그런지 확실히 신빙성 있게 들렸다.

"정직 먹어서 출근은 안 한다고 했다면서?"

"그렇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보이던데 왜 그런 징계를 받은 건지 궁금합니다."

"아마 강압적으로 휴가를 준 거라고 봐. 뭐, 흔한 일이기는 하지."

"이런 강압적인 처분이 흔한 일입니까?"

"그래, 일종의 권고사직이기도 하고. 협회랑 수집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대한민국 3대 길드, 또 그중에서도 수집상이 좀 독특한 편이었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몇 안 되는 집단이라고 해야 할까.

"우리는 길드장이 나서서 직원들을 물고 빨아주는 덕분에 이런저런 혜택을 받는데, 협회는… 마굴 같은 느낌이지. 워낙 거대한 집단이다 보니 사심 없이 일만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파벌 싸움에 피 튀기는 곳도 있고."

"그렇군요."

"아마 그 새로운 손님이라는 사람은 눈치 싸움 꽤나 하던 팀의 소속이었을 거야. 협회에서 하나의 팀이라고 하면 연구소 건물 하나를 배정받을 만큼 거대해서, 워낙 통일성 없이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는 편이지.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대뜸 몰살되는 곳도 많았다. 정신이나 신체 자체를 오염 또는 전염시키는 방식의 작품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걸 연구하고 분석하려니 죽어나는 사람이 한 둘일 리가 없다.

"협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협회에서 해야 할 일은 그것보다 훨씬 많고 또 위험해서 그래.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해 여러 임상 실험도 이루어지고 있고…."

"인체 실험이 아니라 임상 실험이 맞습니까?"

"그냥 시민들 듣기 좋으라고 임상 실험이라고 하는 거야. 뭐어, 내가 예전에 맡았던 팀은 워낙 온건한 분위기인 데다가 인간의 희생이 필수인 프로젝트는 없었어. 그래서 나도 잘은 몰라."

팀별로 연구소의 분위기는 천차만별이니 말이다.

"그러니까… 음…."

조금 멋쩍은 얼굴로 유성운이 말했다.

"역시 드문 일은 아니라는 거지."

"대단히 무섭습니다."

"물론 악신까지 불러내려고 했다는 건 좀 놀랍기는 해."

"그렇습니까?"

"보통 거기까지는 안 가니까."

유성운이 허탈하게 웃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갔다고 해도 수습이 어찌저찌 되기는 했을 것 같네. 서울 지부 연구소의 일이라고 하면 연구소장이나 협회장이 곧장 사건 터졌다는 소식을 들을 거고, 그럼 결국 그분이 나섰을 테니까… 설령 악신과의 거래에 성공했다 한들 잘 마무리되었을 거야."

그에 지오가 정리했다.

"모든 것이 협회장님의 자비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틀린 말도 아니지, 지금 지구의 현재 상황이 딱 그래."

소수의 강자가 내려주는 자비에 의해 간간이 명을 유지하고 있는 판국이다.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못된 마음을 먹으면 산산조각이 날 평화라는 것이다.

"그 넘치게 많은 위험 물품이 한국으로 집중되는데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고. 한국은 특히 체계가 잘 잡힌 데다, 강한 헌터도 많아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아무튼 그 손님에 대한 일은 안타깝네. 나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분위기에 질려서 지금의 수집상에 온 거야. 거긴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니까."

사지와 신념 멀쩡한 사람도 처참하게 망가트리는 재주가 있었다. 더 웃기는 점은 오히려 그렇기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고 말이다.

한국의 빠른 발전에는 이런 셀 수 없이 많은 희생이 깔려 있었다.

"협회 연구소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어차피 인생은 혼자라는 마인드가 필요해."

타인의 능력은 믿되, 그 사람 자체를 믿거나 의지해서도 안 된다.

"사실 이건 비단 협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다른 사람들도 전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연구소의 강도가 특히 강할 뿐, 뭐... 아무래도."

진심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좁은 나라에서는 그보다 더한 비극이 비일비재로 일어난다.

"그래도 보통은 악신과의 거래까진 생각하지 않는데. 누구 부추긴 사람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손님과 대화가 잘 끝나면 나와의 자리도 마련해 줄래?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험한 기미가 느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내가 조사를 해야지."

예전에 인어 남매가 등장하기 전 요동치는 바다를 조사했을 때만큼이나 찝찝했다. 유성운은 웃음을 유지하면서도 짧게 한숨을 쉬었다.

"...문제 생기면 편지 줘, 바로 올 테니까."

그는 세상 모두에게 배신당한 불쌍한 사람을 인간이 아니라 근원에게 맡겼다.

정원사로서, 같은 인간보다는 근원의 자비가 훨씬 믿음직했기 때문이었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33)"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34)

제134화

안전 ★★☆☆☆

이력을 확인하시겠습니까?

[네/아니요]

이름: 안주현

나이: 36세

상태: 공황

자신이 겪은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 세상에 보탬이 되고자 했으나, 그의 모든 피땀 어린 노력과 애정은 배신당하고 그 본인은 고립되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목표라는 건 알았지만 정도 이상의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그는 혼자입니다.

안주현은 당신을 경계하고 의심하지만 결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영악한 인간입니다. 적의를 품더라도 순종할 것이며 호의를 품는다면 경외할 것입니다. 민간인인 그는 F급 헌터보다도 연약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불복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를 산칼루트의 손아귀에 떨어트려 악신으로서의 자각을 얻을 수 있고, 가엾은 그를 보살피어 다시금 목표로 나아가는 것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셔도 좋고 선택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안주현은 불순한 생각을 품을 수 있으나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안전한 인간입니다.

* * *

지오가 대뜸 주현에게 말을 건 것은 위와 같은 이력을 확인한 덕분이었다.

"좋은 사람 같지."

"꾸르르르."

"나한테 안전하대."

최고였다.

"시스템이 말하는 꼴이 뭔가 상당히 재수 없기는 하지만 저 안주현이라는 사람이 착하다는 건 일단 잘 알겠어. 그리고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검은망토'와 평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무해한 인간이 얼마 없는 것이다. 그건 할 줄 아는 거

라곤 먹고 자는 것뿐인 지오에게 대단히 큰 문제였다.

“드디어 나도 펜팔 친구를 만들 수 있겠지.”

“아르르르르….”

“다나야 아빠도 친구는 있어야지 않겠니. 그리고 나도 인간인데.”

지오는 주현이 잠들어 있는 방문을 박박 긁다 못해 부수어 버리려는 듯한 다나를 건져 올렸다. 몸집이 커질수록 다나는 인간을 향한 거부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몸이 막 번쩍거렸다.

“유성운 씨에게 듣기로 일반적인 안티캣은 그냥 피하기에 바쁘다는데, 대체 우리 집 아이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하늘을 뚫을까. 참 흥미로운 부분이야.”

제 아빠를 닮은 게 분명했다.

“아버지.”

“꾸우?”

“다나를 조금 달래야 할 것 같습니다.”

“꾸꾸꾸….”

“손님이 깨어나시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꾸.”

“감사합니다.”

지오는 ‘혹시 깨어났나’ 싶어 가져왔던 음식이 담긴 쟁반을 그대로 다시 들고 내려갔다. 몸집이 제법 커진 다나는 눈치 좋게 제 아빠의 팔에서 어깨로 몸을 옮겼다. 어깨가 포근하고 묵직했다.

“서늘한 보석 털 뭉치….”

꽤 귀여운 쿨 매트가 아닌가. 지구에 여름이 오면 허니 대신 다나를 데려갈까 싶기도 했다.

“허니, 가자.”

“꾸르.”

“이건 네가 먹어도 돼.”

“꾸르르르르르르.”

“나도 먹어야지.”

쌀알의 형체가 남지 않도록 푹 끓여내고 각종 야채와 다진 고기 약간을 넣은 죽이었다. 예전에 만들어 두었던 바이바므닐과 망둥 열매 장아찌도 반찬으로 두어 맛있는 향이 올라왔다.

그리고 허니가 혼자 다 삼켰다.

“…….”

“꾹.”

“돼지.”

“꿍꿍꿍꿍꿍꿍꿍…!!”

“귀엽군.”

설마 저걸 혼자 다 먹을 줄은 몰랐지만, 아무튼 손님이 먹지 않아 남아버린 음식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가산점이 붙었다.

지오는 어깨에 축 늘어져 있던 다나를 끌고 와 허벅지 위에 앉혔다.

“우리 다나는 어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애?”

“혹시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지.”

“?”

“과연 그랬군, 역시 우리 집 아이다운 자신감이다.”

그래도 어디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를 콱 깨물어 버린다면 난감한 일이 될 터였다.

“예전에는 허니도 그러더니 말이야.”

“므으응?”

“네 오빠를 보고 배운 건가?”

“?.”

“아니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능이겠지.”

“갸르르르르.”

“깜찍해.”

지오는 발라당 뒤집혀 애교를 부리는 다나의 배를 살살 매만졌다. 자기 배를 만지는 것에 민감한 여느 고양이와 달리 다나는 마냥 좋다는 듯 늘어져 있었다. 장모종이라 웬 묵직한 카펫 하나가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네 오빠도 처음에는 사람을 제멋대로 깨물고 다녔지. 아직 딱 한 번밖에 없는 경우였지만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아빠의 심장은 저 아래로 철렁했단다.”

“琉?”

“이 아빠를 봐서라도 다른 사람을 멋대로 씹어보거나 상처를 내지는 않아 주었으면 해. 몬스터인 너의 입장에서의 손해를 말해보자면, 네가 그런 상해를 입힐 때마다 나는 수습하러 멀리 떠나거나 돈을 내야 하거든.”

“……!”

“아빠는 보석도 그려낼 수 있고 금도 그려낼 수 있지만 아직 대한민국에서 물물 교환이 그리 대중화되지는 않은 모양이다. 한마디로 거지라는 건데, 내가 빚쟁이로 낙인찍혀 조리돌림을 당할 수도 있으니 다나도 조금만 아빠를 생각해 주면 좋겠어.”

“애애?”

“이쁘다 이뻐.”

아빠의 빈곤한 지갑 사정을 알게 된 다나가 사과를 해왔다. 사고 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듬직한 딸래미와 다시금 신뢰를 쌓으며, 지오는 애꿎은 빈 쟁반을 콕콕 찔러대는 허니를 제 손 위에 앉혔다.

“허니, 이리 와.”

“꾸르륵.”

“곧 쟁반이 닳겠어.”

누구를 닮아 이렇게 훌륭한 돼지로 컸는지 모르겠다. 물론 지오 본인을 닮았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손님은 꽤 피곤했나 봐, 거의 5일 가까이 자는 걸 보면 말이다.”

지오는 이번 손님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는 지오보다 연상인 36살의 성인 남성이었고, 검은망토와 마주쳐도 겁먹거나 달려들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시스템이 인정한 예의 바르고 무해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빼빼 말랐지.”

당장 살찌워야만 했다.

이렇게까지 살찌울 보람이 있을 듯한 사람은 꽤 오랜만이었다. 안주현은 진정으로 지오의 친구가 될 자격을 갖춘 거나 다름없었다.

“내가 같이 뜯어 먹으려고 양꼬치도 준비했는데….”

“꾸르르르륵.”

“그래, 정 일어나지 않으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먹자.”

“애애?”

“일어나면 다 같이 먹는 거고.”

먹으면 우리는 빨간 머리 앤과 그 친구 다이애나가 되는 거다.

이 팍팍한 세상, 지오는 새 친구를 사귀기 위한 사냥 준비를 마쳤다.

* * *

주현이 깨어난 것은 이른 새벽이었다.

“…….”

그는 멍한 정신으로 푹신한 침대에서 일어났다.

완연한 봄이 내려앉은 세상의 새벽은 그 온도가 선선했고, 꽃과 숲 내음을 담은 부드러운 바람이 상냥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주현은 그것이 제 뺨에 닿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았다. 활짝 열린 테라스 너머로 이슬 맺혀 반짝이는 세상이 보였다.

“…와….”

아름답다.

그리고 평화로웠다.

“…여기가, 지금….”

정신이 몽롱해 눈살을 찌푸렸다.

일으킨 상체로 주변을 더듬자, 손에는 깃털만이 들어간 듯 푹신한 이불에 잡혔다.

햇볕에 잘 마른 천이 보슬거리며 바스락거리는 촉감은 어린 시절 이끼를 매만지듯 하던 기분을 되살렸다.

주현은 그 촉감에 잠시 말을 잃다, 곧 다시 테라스 너머의 세상을 보았다. 본능적인 시선이었다.

“…검은망토의 액자 속이었던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동화를 닮은 세상이었다.

‘해가 막 뜨고 있어.’

어둑한 새벽 구름은 꽃샘추위를 떠올리게 만드는 남색이었으나, 막 떠오르는 태양 곁에 머무는 온기와 별빛은 개나리나 벚꽃을 닮은 온화한 색감이었다.

저것을 한 입 떼어 먹으면 꽃이 내어준 꿀처럼 달 듯했다.

“…….”

터벅.

주현은 저도 모르게 테라스로 나갔다.

“…별이다.”

하늘에는 별이 있었고, 달이 있었으며, 그들과 함께 태양이 있었다.

밝고 보드라운 빛에서도 흐려지지 않는 별들은 곧 떨어져 내릴 것 같은 선명함을 내보였다. 아직도 반짝이고 있었다.

“은하수가….”

그 몽환적인 광경에 문득 손가락의 끝이 간질거리고, 꽉 닫힌 폐가 욱신거렸다. 본 적도 없는 광경이거늘 주현은 왠지 모를 그리움과 함께 무거운 공기를 느꼈다.

“…….”

아직 새벽 그림자가 남은 곳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숲과 반짝이는 호수가 보였다. 주현은 잠시 그 호수에 눈을 빼앗겼다. 황홀한 금빛으로 반짝이는 그것에게서 짙은 풍요로움이 느껴졌다.

춥고, 따듯했다.

“…이상한 기분이네.”

괜히 중얼거리며 주현은 주춤 뒤로 물러섰다.

“…여기가, 음, 그래. 그렇지….”

그는 정신을 차려보려고 애썼다.

“일종의 던전이려나.”

잘되지는 않았다.

최근 내내 이런 상태였다.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그것을 실천할 의욕이 나질 않았다. 뇌가 일하지 않겠다며 굳어버린 듯했다.

하지만 테라스에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이마의 열을 식혀주었다.

“…….”

조급해하지 말라는 듯한 그 부드러움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스스로가 우스워, 주현은 느릿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아아….”

풀썩.

그가 침대에 앉았다.

“…진정하자.”

괜찮았다.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질 수 있었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었다.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조금 이성이 돌아오는 기분이야.’

최근 주현을 괴롭혀 왔던 그 끔찍한 무기력함이 한결 가셨다.

그래, 무기력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충동이 주현을 거세게 흔들었고, 언제나 냉철하게 제 이득과 목표를 위한 결과를 내어주었던 머리는 딱딱하게 굳었더랬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제법 숨을 쉬는 기분이 들었다.

“…….”

“꾸르륵?”

“…어?”

“꾹, 꾸릉.”

“새?”

정신을 차려보니, 테라스 난간에 웬 황금색 새가 앉아 있었다.

“아니, 물?”

주현은 곧 그것이 새의 형상을 한 살아 있는 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이미 멸종되었다는 오목눈이와 비슷한 생김새에, 그보다 훨씬 길게 퍼져 있는 꼬리와, 보물 상자라도 되는 듯 눈에 띄는 보석을 제 몸에 담고 있었다.

“왜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굳어 있자 새가 포르르 날아 주현의 허벅지에 앉았다. 무게는 거의 없었고, 물이지만 살아 있는 생물처럼 따듯했다.

“꾸르.”

“…안녕?”

“꾹꾸르르르.”

인사에 화답하듯 긴 울음소리를 낸 물새가 다시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올랐다. 그것은 곧 주현의 하얀 잠옷의 소매를 부리로 물고 쭉 잡아끌었다.

“…나가자고?”

“꾸르륵.”

“…신기하네, 발성 기관이 입에 달린 건 아닌 건가….”

아직 잠이 덜 깼는지, 온통 물로만 이루어진 새가 입에 소매를 물고도 울음소리가 일그러지지 않는 게 더 궁금하더라.

주현은 묘한 비현실감 속에서 새가 이끄는 데로 따라 내려갔다. 그곳에는 한 새까만 남자가 있었다.

“허니.”

그의 부름에 꿀빛의 새는 남자의 손 위에 앉았다. 부드러운 착지였다.

남자는 잘했다며 짧은 칭찬을 해주고는 새를 자신의 어깨 위로 올렸고, 그런 그의 발치에는 시린 빛으로 반짝이는 커다란 고양이가 있었다. 주현은 그것이 안티캣과 꽤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자 곧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랫동안 깨어나지 않아서 걱정했습니다.”

“깨어나지 않았다고요…?”

“8일간 주무셨습니다.”

“…….”

그 말을 곱씹은 주현의 검은 피부가 새파랗게 질렸다.

“…8일이요?”

“현실에서는 총 3일이 흘렀습니다.”

“아, 아아. 아… 그렇구나. 이해했습니다.”

주현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한번 화들짝 놀라고 나니 정신이 팍 드는 기분이었다. 전보다 또렷해진 이성으로 주현이 눈앞의 새까만 남자를 보며 내심 생각했다.

‘…이게 검은망토의 본모습인가.’

거의 망토나 정장 자체가 본체가 아니냐는 가설이 돌 정도로, 검은망토의 내부를 봤다는 목격자는 없었다. 그리고 주현이 확인한 검은망토의 본체는 상상 이상으로 미형인 남자였다.

‘잠들기 전에도 봤던 것 같지만, 그때랑은 인상이 완전히 다른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다른 거지.’

검은망토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고민하고 있자니, 상대가 차분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정중하게 물어왔다.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

“배고프시죠?”

아, 저 표정.

‘…표정 하나로 사람이 확 바뀌네.’

방금 전의 ‘배고프시죠?’라는 질문을 할 때의 검은망토는, 그 색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대단히 온화하고 다정해 보였다.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휘어지는 눈매와 입술에 저도 모르게 시선이 빼앗겼다.

한 박자 뒤에야 주현은 대답할 수 있었다.

“…네, 배고파요.”

이 지독한 평화를 보라지.

‘세상에 이런 평화가 실존할 수 있을 리가 없는데 말이야.’

그 비현실적인 안온으로부터, 그는 자신이 그림 속에 있음을 깨달았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34)"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35)

제135화

정신 좀 차렸다고 이제 와서 주현이 검은망토를 무서워하지는 않았다.

"오랜만에 깨어나신 거라 처음 식사는 죽으로 준비했습니다."

"죽도 할 줄 아세요?"

"이렇게 보여도 어지간한 요리는 전부 할 줄 압니다."

"냄새가 굉장히 좋네요, 감사합니다."

잠들어 있던 동안 기운을 회복한 주현은 싹싹하게 웃으며 감사를 전했다.

'몬스터가 죽을 끓여??'

물론 속내와는 별개였다. 주현은 짙은 당혹스러움과 정말 어처구니없다는 심상 속에서 내심 식은땀을 흘렸다.

직접 요리를 하고, 그걸 인간에게 대접하고, 그런 스스로의 행위에 자부심을 표현하는 악신이라니. 당장 그가 무섭지 않은 이유는 이런 황당함의 탓이 컸다.

'아니, 악신이라고 해도 이건... 오히려 악신이라고 하면 더 이상한데.'

협회는 검은망토를 몬스터로 보고했지만, 나름 짬이라는 것이 쌓인 주현도 실상을 알았다. 종종 협회는 대의를 이유로 한 다양한 목적으로 진실을 숨기고는 했다. 이번에도 비슷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갔다. 신이 고작 인간을 위해 식사를 대접해 주는 일은 아주 드물게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직접 요리를 해주지는 않는 것이다.

'게다가 이 세상을 일종의 던전이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설명하기가 난해해진다. 몬스터 중에서도 자격을 충족한 것들만이 자신만의 던전을 만들어내. 하지만 신은... 신에게는 머무는 던전이라 할 만한 것이 없을 텐데?'

주현은 그쯤에서 생각을 멈췄다.

"...맛있네요?"

죽이 맛있는 탓이었다.

"태어나서 먹어본 죽 중에 가장 맛있어요."

"기쁘게 먹어주시니 제 마음이 다 좋습니다."

"죽이 왜 이렇게 맛있지? 이래도 되나?"

별 같잖은 아부가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충격과 경악이었다.

주현은 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죽이란 보통 얼마 없는 쌀을 크게 불려 먹기 위함이거나, 혹은 아플 때 먹는 음식이었다. 하지만 검은망토가 내어 준 죽은 뇌가 쑤실 만큼 맛있었다.

“죽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네요.”

“요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기에 최고로 기쁜 칭찬이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맛과 식감이라니…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겠어요.”

오랜만에 처세가 아니라 순수한 감탄이 나왔다.

“정말 맛있다.”

평소답지 않게 바보처럼 계속 같은 소리만 하게 된다.

죽은 쌀알은 거의 녹아내리듯 해 그 부드러움이 미음과도 비슷했다. 하지만 보슬보슬한 쌀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마치 잘 익힌 식혜의 쌀알을 보양식처럼 따듯하게 곤 듯 부드럽게 바스러지는 식감이 났다.

그리고 그만큼 쌀 특유의 고소함과 달콤함이 은은하게 입안에 퍼진다. 사이사이 박혀 있는 야채들도 뭉근한 온기를 가지고 씹혔으며, 특히 넉넉하게 들어 있는 고기가 든든함을 더했다.

‘뭔가 포만감이 큰데….’

사골?

“…사골 육수가 들어갔나요?”

“잘 맞혔습니다, 미식에 재능이 있으시군요.”

“재, 재능이랄 것까지는….”

“깊이 음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피어나는 화사한 미소. 왜인지 검은망토는 정말로 기뻐 보였다.

“시작인지라 양을 적게 드렸는데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아….”

정신을 차리니 텅 비어 있는 그릇이 보였다.

“…실례가 안 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악신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매우 민망했지만 염치 불고하고 한 그릇을 더 받았다.

“반찬도 더 필요하신가요?”

“예, 모쪼록….”

“잘 드시니 좋군요.”

죽인데도 포만감이 굉장한 요리였지만, 그것과 별개로 잘 먹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 좋았던 것인지 검은망토는 더 큰 그릇에 죽을 가득 담아 왔다.

“처음 드린 게 너무 적었던 것 같아 양을 늘렸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최대한 소화가 잘 되게끔 만들었지만 과식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검은망토가 내어 준 죽은 마치 솜사탕처럼 입에서 사르르 녹았다. 쌀알의 형태는 고스란히 느껴지면서도 혀에서 녹아내

리는 듯한 식감에, 얼마나 신경 써서 쌀을 굴렸는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뭔가 보양식 느낌이 나는데.'

살짝 약재의 향이 나는 것 같기도….

"……."

약재?

"…저기, 검은망토… 선생님?"

"주현 씨께서는 저를 지오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지오 씨. 여기에 혹시 약이 들어가나요?"

"…? 약은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쌀을 제외한 재료는 이곳에서 난 식자재를 썼고요."

"아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좋은 얼굴로 감사를 전한 주현의 속은 그만큼 평온하지 못했다.

'이곳에서 난 식자재?'

내심 식은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정보였다. 웃는 입술에 힘이 팍 들어갔다.

주현은 깨어나자마자 눈에 담았던 그 동화와 같은 풍경을 떠올렸다.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뒤흔들던 그 몽환적인 광경을 말이다.

'신성을 지닌 존재의 신비로운 터전에서 난 식자재가 평범한 재료일 확률은 얼마나 되지?'

온갖 괴이와 신비가 넘쳐나는 시대. 그중에서도 주현은 세상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많은 공부를 했다. 그런 그는 특히 '먹는다'는 행위가 신비 속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알았다.

'나 지금… 뭔가… 죽의 형태를 한 신비를 너무 과감하게 퍼먹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죽은 맛있었다.

"……."

냠.

음식엔 죄가 없었다.

'…어차피 버린 몸이고.'

충동에 몸을 맡기고 산칼루트의 제물이 될 생각까지 했던 주현이었다. 이제 와서 알 수 없는 신비의 품에서 인간 아닌 무언가가 되어버린다 해도, 글쎄, 큰 타격은 없을 듯했다.

묘하게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식사를 마치자 검은망토가 물었다.

"후식 차로는 담백한 것이 좋습니까, 달콤한 차가 좋습니까?"

"…담백한 차?"

"단것을 즐기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지만, 차는 고소한 편을 좋아해서…."

"고소한 차라."

무언가 생각하는 시늉을 한 검은망토가 눈을 두 번 깜박이는 게 보였다.

"곡식으로 우려낸 차는 대부분 고소한 맛이 강하죠."

"그렇기는 합니다."

"다음 식사에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대접에 있어 발전할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 주현은 문득 두려워졌다. 지금도 '내가 뭔가 인간이 먹어선 안 될 영역의 것을 섭취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다.

곧이어 검은망토는 따듯한 색감의 푸른빛이 감도는 차 한 잔을 내왔다.

"면역력 회복에 탁월한 차입니다."

"아, 그렇군요. 배려에 감사합니다."

순간 '과연 면역력 회복 수준일까'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반은 버린 몸이라는 자포자기에, 또 반은 이 황홀한 향에 홀려 주현은 차를 머금었다. 향은 크림처럼 달았지만 맛 자체는 담백했다.

"…좋네요."

"이 숲에서 난 꽃을 말려 우린 차입니다."

"내어 주신 방의 테라스에서 말씀하신 숲을 봤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보고 있는데 마음에 편안해지더라고요."

차가 몸을 따듯하게 데운 순간, 주현은 자신의 이성이 점점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

기분 탓인가?

'이걸 기분 탓이라고 하기엔 너무 양심이 없는 짓 같은데.'

내가 지금 뭘 마시고 있는 거지?

'뭔가 불안해. 감정 스킬 각성자였더라면 확인할 수 있었으려나.'

각성자가 아닌 주현은 잘 몰랐지만, 평범한 인간의 신체에 바이바므닐 꽃차는 세포를 재구성하여 가벼운 질병으로부터 항시 면역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근원의 영약을 먹는데 한낱 인간의 뇌가 축 처져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괜히 이전 방문자인 유성운이 '이러다 다른 의미로 제 명에 못 살 것'이라며 두려워했던 게 아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모르는 주현은 그저 맛있는 차를 홀짝이기만 했다.

"음…."

머리가 맑아지니 그제야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제가 너무 귀한 차를 마시는 건 아닐까요?"

"먹는 것에 귀할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네요."

영약과 포션 하나에 목숨을 거는 인간 사회가 떠올랐지만, 주현은 굳이 그런 인간들의 탐욕과 절박함을 들어 검은망토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주현은 훌륭한 처세술의 소유자였다.

그제야 주현은 조금씩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해 갈 의욕을 얻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하도 정신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그런 실례도 끼친 것 같네요. 배려해 주신 덕분에 많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괴적인 충동에 휩싸였던 당시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하지만 얼추 선명한 이성을 되찾은 주현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건 한평생 모든 것을 재오며 살아왔던 처세술 능력자의 버릇이었다. 불리한 입지에서도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던 버릇 말이다.

“제대로 소개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요.”

“저는 주현입니다. 성은 없고, 올해로 36살이 돼요.”

“저는 지오입니다. 다양한 이름이 있지만, 지금은 29살입니다.”

“이렇게 젊으신 분께 도움을 받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너스레를 떨 듯이 말했지만 여전히 주현의 속내는 난장판이었다.

‘29살…? 설마 정말로 그렇다는 건 아닐 거고, 그런 식의 놀이인가? 아니면 배역? 악신의 대부분이 일종의 유희를 즐기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오라는 29살 청년의 설정에 몰입한 것일 수도… 다양한 이름이 있다는 건 검은망토의 색이 변했던 것을 말하나?’

그는 검은망토의 정보를 최대한 습득하고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내 기억이 틀린 게 아니라면 지금은 흑발이지만 백금발이나 적발로 변할 때가 있었어. 하지만 색이 변하지 않더라도 마치 인격이 변하듯이 굴었던 적이 있지. 인간으로 따지자면 배우인 건가? 아니면 역시 옷을 갈아입는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

주현은 푸르른 찻물이 일렁이는 투명한 유리 찻잔을 매만졌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협회의 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협회의 연구소라, 근무 환경이 상당히 각박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비록 이런저런 사건이 있고 지금은 정직을 당했지만요.”

“피곤한 일이 많으셨나 보군요. 휴식이 필요하겠어요.”

고개를 끄덕인 검은망토가 물었다.

“그럼 디저트는 뭐가 좋으십니까?”

“…….”

내 말을 듣고는 있는 건가?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 이게 혹시 모를 배려인지, 아니면 정말 흥미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자기를 악신이라고 소개하길래 나의 불행을 읊어 봤는데도 반응이 없어… 왜지?’

악신이, 아니, 그냥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목적은 제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제 마음에 드는 용도로 활용하길 원해서였다. 하지만 검은망토는 주현의 불행한 사정에 대해서는 조금의 흥미도 없어 보였다.

일종의 미끼를 던졌던 주현은 내심 당황했지만, 역시나 티 내지 않고 싹싹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음, 글쎄요? 어떤 디저트가 있죠?”

“작은 케이크와 과일 푸딩,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딩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푸딩은 곧 푹신한 곰인형이 가져왔다.

“…….”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곰인형이 아버지?

“덕분에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꾸꾸꾸….”

꾸꾸 하며 웃었어?

‘내가 이 비슷한 생각을 잠들기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기묘한 데자뷔를 느끼며 주현이 애써 미묘하게 일그러지려는 제 얼굴을 폈다. 각성자가 아닌 그는 눈앞의 말랑해 보이는 곰인형 안에 태양신이 들어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아무튼 평범하지 않다는 건 알았다.

지오가 돌아보자 주현은 곧 말끔한 미소를 지었다.

“푸딩 감사합니다.”

“꾸꾸.”

곰인형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 몫의 푸딩을 챙겨 커다란 고양이와 함께 집 바깥으로 나갔다. 고양이의 살랑거리는 보석 꼬리를 보는 주현의 모습에 검은망토가 부연 설명을 했다.

“오두막 바깥에 의자와 테이블이 있습니다. 해가 뜨고 있으니, 아마 그것을 보며 다나와 함께 간식을 즐기시려는 게 아닐까 합니다.”

“아… 다나?”

“방금 전에 보신 장모종의 고양이 이름입니다. ‘보석의 수맥’이라는 던전에서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꽤 많이 컸죠. 딸처럼 키우는 아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애정이 느껴지네요.”

역시나 주현의 속내는 시끄러웠다.

‘보석의 수맥에서 만난 고양이라면… 보석 털… 장모종… 역시 안티캣인가? 하지만 안티캣은 새끼 고양이만큼이나 체격이 작은 몬스터라고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상태에서 성장하지 않아 그게 완전체라고들 생각했어. 하지만 더 성장할 여지가 있었던 거였나?’

학회에 보고되면 ‘너 혼자 어디서 그런 귀한 정보를 목격하고 왔냐’며 멱살이 잡힐 자료들이었지만, 주현은 곧 헛웃음을 삼켰다. 협회에서도 정직을 당한 판에 이게 다 무슨 고민인가 싶었다.

“푸딩은….”

“망둥 열매라는 과일을 넣었습니다.”

“그런 과일도 있군요, 처음 들었어요.”

“이 숲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일인데 단맛이 강하죠.”

“좋은 향기가 나네요.”

“거기에 울음 자락이라는 열매를 숙성해 넣기도 했습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버릇처럼 사람 좋은 미소로 처세하며 푸딩을 한 입 떠먹었다.

“…….”

“맛있습니까.”

“제가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맛있어요.”

“그런 과찬을 해주실 정도는 아닙니다.”

“아뇨, 정말로….”

우유가 들어간 건지 고소하면서도 과일의 단내가 가득한 푸딩은, 그야말로 입에서 녹아내리며 혀에 스며들 듯 사라졌다. 희미하게 새콤한 맛이 남아 있는데도 크리미한 풍미가 일품인 푸딩이었다.

“…….”

그리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너무 맛있네요.”

과연 기분 탓일지는 잘 모르겠다.

왜 시력이 좋아졌지?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35)"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36)

제136화

“그래서.”

유성운이 체념한 얼굴로 웃었다.

“그 사람을 돼지로 만들고 있다고?”

“잘 알고 계셔서 기쁩니다.”

“잘 알 수밖에 없지, 나도 돼지가 될 뻔했는데….”

“무례한 시도로 느껴졌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야, 식사는 정말 맛있었어.”

그는 무던한 미소를 지은 채로 말을 이었다.

“약간의 위기를 느끼긴 했지만.”

인간이라는 종족 자체가 바뀔 것 같다는 위기 말이다.

‘아니면 배 터져 죽던가.’

워낙 대재앙이라는 힘든 시기를 거쳐서 그런지, 그 세대 어르신들은 유독 아이들을 살찌우는 것에 민감하게 굴었다. 지오도 그 엇비슷한 분위기가 났다.

‘주로 끊임없이 음식을 준다는 부분에서….’

아마 그때 인어 공주님과 마주치지 않았다면 유성운도 반복되는 식사와 간식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헌터는 위장이 큰 편인데도 그렇게 느껴졌다.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그 사람은 나보다도 적게 먹을 거야. 과식하게 하지는 말고.”

“저도 과식하게 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체하셨어요.”

“그런 천상의 음식을 먹고도 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는 한데, 하긴 뭐든 많이 먹어서 좋을 게 없기는 하지.”

“천상의 맛이라니 과분한 칭찬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 제가 너무 강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자기가 배부른 줄도 모르고 맛있게 먹기는 했을걸. 협회의 연구원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그냥 민간인이라, 본인 통제가 잘 안됐을 거야.”

무슨 상황이었는지 이해가 갔다. 인간의 살찐 모습을 좋아하는 지오는 계속해서 음식을 내어 주었을 것이고, 그 사람은

황홀한 맛에 이성을 잃어, 혹은 지오에게 압박감을 느껴 차마 거절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았다.

'거절하기엔 너무 맛있는 음식인 데다, 지오의 배 속에서 하는 식사였을 테니.'

스킬 하나 없는 민간인이라고 해도 협회의 연구원이었다잖은가. 지오의 기분에 따라 시간의 흐름과 공기의 무게가 변하는 이 초상화 안은, 그야말로 던전 주인의 혀 위라는 것을 그 주현이라는 사람이 몰랐을 리가 없었다.

'그래도 지오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 보면 처세술이 뛰어난가 본데.'

속내야 얼마나 난리가 났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민간인치고 대담한 태도였다. 지오와 같은 존재 앞에서 싹싹하게 구는 일이 어디 쉽던가.

'그게 쉬웠다면 지오도 진작에 펜팔 친구를 만드는 데 성공했었겠지….'

뭐, 그냥 자포자기 상태라 그랬을 수도 있기는 하다.

"……."

보아하니 일이 좀 꼬여 있는 것 같던데 말이다.

"그 주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알아봤어."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말씀을. 그런데 이번 일에, 그쪽 팀장이… 뭔가 수를 썼었나 봐."

"안주현 씨의 사정에 그분 상관이 손을 썼다는 의미입니까?"

"안주현?"

유성운이 알아내기로 주현은 협회 소속 고아원 출신이었다. 그런 고아원의 특성상 들어올 때 성을 버리고 오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는데, 지오는 주현의 성마저 알고 있는 듯했다.

'하긴 어떤 방식으로든 지오가 한낱 인간의 성을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겠지.'

따로 감정 스킬이 있어 그것을 활용했든, 그 특유의 사교술로 캐물었든, 지오라면 고아원 출신 연구원의 성을 알고 있어도 이상하진 않았다.

유성운은 무던하게 넘어갔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대부분은 모르는 분위기인데, 일부는 좀…."

뭐라 표현할지 고민하던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쉬쉬하는 느낌이더라고."

"알면서도 숨기는 거군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

유성운이 어깨를 으쓱였다.

"이제 나는 그쪽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특히 협회의 연구소는 한 명의 팀장의 밑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국가라 봐도 무방했다. 최소한의 체계 이외의 나머지 방침은 그 연구소를 맡고 있는 팀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

"아무튼 팀장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그 주현이라는 사람의 사정을 망쳐뒀나 봐."

"어째서 연구소장이 아닌 팀장에게 그만한 권한이 있는 겁니까?"

"소장은 실질적으로 그 연구소에 출근하지 않기 때문이려나. 보통 협회의 연구소장이라고 하면 다수의 건물을 관리하거든."

협회의 연구소, 그 하나의 건물 내에는 한 명의 팀장이 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연구소 자체가 팀장의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협회의 연구소는 서울 제1 지부, 서울 제2 지부, 제3 지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 그리고 서울의 모든 연구소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연구소장. 하나의 지부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 연구 팀장.”

“서울에는 몇 지부까지 존재합니까?”

“내가 근무할 때까지만 해도 제184 지부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제221 지부까지 있더라. 서울이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구소는 공간 확장 마법을 사용해서 건설이 되거든. 꽤 많은 편이지?”

이렇게 관리해야 할 연구소 자체가 많다 보니 실질적으로 연구소장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미 밀려 들어오는 실험 보고서와 허가 요청서를 확인하기에 바쁜 것이다.

유성운이 민망한 듯 웃었다.

“물론 너는 왜 그런 비효율적인 구조를 형성했는지 이해가 안 갈 거야.”

“솔직히 그렇습니다, 한 연구소 내 한 명의 연구소장과 여러 명의 연구 팀장을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일단 믿을 인력이 없다는 게 문제지.”

협회의 연구소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곳은 아직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정보와 다양한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정보들로 가득해. 그래서 정보들을 적당히 갈무리하고 있지만 그런 연구 대상은 한 해에서 수십 수백 개씩 넘쳐 나와서....”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눈이 휙 돌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위험천만한 정보들이 가득한 공간이다.

“주현 씨도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하지 않았어? 네가 말한 대로라면 그 사람은 다른 무엇도 아닌 산칼루트의 징표를 제작한 거야. 평생 나쁜 짓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선량한 사람이 그런 대담한 선택을 저질렀다는 거잖아.”

“그렇군요.”

“협회의 연구소는 그런 식으로 악용될 여지가 많은 정보가 넘쳐나. 그렇기에 연구소장은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정보에 욕심을 느끼지 않아야 하며, 둘째로 자기 관할 지역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 수습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셋째로 현장과 멀리 떨어져야 하지.”

“현장과 멀리 떨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욕심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인간은 적응의 생물이잖아. 서류로 마주하거나 가끔 현장에서 가서 보는 것 정도로는, 뭐, 그만큼 무게가 가벼워져서 오히려 악용할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어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일단 홀릴 가능성은 낮아지거든.”

협회의 연구소는 어지간한 마굴 그 이상의 공간이었다. 멀쩡한 사람도 정신과 몸이 망가져서 나오는 위험천만한 곳인데, 아무리 고르고 고른 인재인 연구소장이더라도 그런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 신념이 꺾일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의지만 굳건하다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꽤 많은 프로젝트 대상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연구소의 현장직들은 그런 기괴한 신비들의 유혹과 비난을 매시간 버텨내야 해.”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협회에서 홍보를 아주 잘 해서 거기 이끌려 온 사람도 있고, 정부나 협회가 후원하는 고아원에서 지원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정신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 잡일 같은 걸 주로 시키기는 하지.”

그것도 얼마 못 가 현실과 마주치게 되어 버리지만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시 망설이던 유성운이 이내 말을 이었다.

“연구소장이 되려면, 뭐랄까, 일종의 시술을 거쳐야 해.”

“시술입니까?”

“나쁘게 말하면 세뇌라고 해야 할지, 조련이라고 해야 할지….”

“생각지도 못한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말이야.”

유성운이 어색하게 웃었다.

“협회에서 연구소장이 될 만큼의 능력을 가진 헌터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 단계야. S급에 가까운 최소 A급 헌터를 발굴하고, 그중에서 이미 환경이 풍요롭거나 타고나기를 욕심이 없는 사람들을 고르고, 또 그중에서 행정 처리 능력과 인력 관리 능력과 뭐….”

“…….”

“그 이외에도 다방면으로 유능한 사람을 고르고 골라내. 아무리 A급이 많아졌다고 해도 S급에 가까운 헌터를 찾아내기는 힘든 일인데, 거기에 더해 욕심도 없어야지, 팔방미인이어야 하지… 이런 인재가 많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렇게 찾아냈다 해도 문제가 남는다.

“심지어 마지막 단계로는 탐욕을 거세하고 협회장의 명령에 절대복종한다는 일종의 세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아무리 비윤리적인 단계라고는 해도 강제로 진행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사람을 연구소장이라는 이름의 서류 처리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닙니까?”

“단순히 서류만 처리하는 것도 아니라서 더 문제지. 아무튼 이 과정까지 동의하는 사람은 정말로 찾기가 힘들다 보니 연구소장을 하나의 연구소마다 배치해 둘 수가 없어.”

“굳이 그런 높은 질의 인력을 고집하는 이유는 연구 소재의 보안을 위해서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 물론 눈을 낮춘다면 한 연구소마다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야 통제가 안 되는 거대한 마굴이 재탄생할 뿐이야.”

애초에 협회의 연구소는 인간의 오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었다.

“지금 한국에는 수많은 재앙이 집중되어 있어. 특히 협회의 연구소가 그 중심인데, 하나라도 터지면 이 지구라는 행성이 망하는 건 순식간이야. 그러니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인력의 질을 낮출 수가 없는 거지.”

한때 협회의 연구 팀장이었던 유성운이 회의감을 애써 감추며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러한 연구소장들과… 영원의 상징인 협회장이 존재하는 이상 그 수많은 마굴은 완벽하게 통제가 된다는 사실이야.”

“…….”

“달리 말하자면 협회장 하나만 믿고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셈이지만, 뭐. 그쪽은 아무래도 인류의 발전과 근원의 분석에 힘을 주고 있는 편이라.”

잠시 침묵한 지오가 물었다.

“영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아.”

고개를 끄덕인 유성운이 설명했다.

“대한민국에 단 세 명뿐인 불로불사의 존재들을 말해.”

“불로불사라니.”

“대단히 강한 능력의 각성자일 뿐만 아니라 죽지도 늙지도 않지.”

그에 지오가 말했다.

“외롭겠군요.”

“…….”

유성운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영원의 상징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네.”

“세 명이 함께라니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대재앙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다는 소문이 있어.”

작게 웃은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아무튼 그런 영원의 상징이 존재하는 이상 그 어떤 위험을 감수해도 절대 최악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 실험은 더더욱 대담해지고, 갈려나가는 사람은 늘어나고, 하지만 수용 가능한 인구에 비해 사람은 넘치게 많으니… 죽고 망가지고 비틀리고, 그 과정에서 인류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셈이지.”

그는 결국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현재의 한국이 유독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해.”

“영원의 상징만 믿고 사람을 과감하게 갈아 넣은 덕분에?”

“요약하자면 아마 그렇게 되겠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셈이야.”

하지만 아무리 리스크가 크다 한들, 영원의 상징이 존재하는 이상 그 피해가 연구소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 어떤 연구를 해도 최대 피해 범위는 해당 연구소 건물까지이니 더더욱 과감하게 실험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런 식의 데이터도 결국에는 또 다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한 반석이 돼.”

“이해했습니다.”

“어느 연구소 하나가 전멸당하면 아, 저건 저렇게 하면 저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그럼 이런 방식은 어떨까? 하며…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구조랄까.”

“무서운 세상입니다.”

“인권이니 뭐니 허울뿐인 세상이잖아. 아무래도 그런 식의 문화가 강한 나라이다 보니 사람의 수단화가 기본적으로 벌어지게 돼. 보기 좋지는 않지.”

하지만 덕분에 발전 자체는 빠를 수가 있었다.

“협회는 최대한 근원의 많은 것을 연구하고 파헤쳐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려고 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이 행성이 500년 뒤에도 원시적인 고통을 받을 테니… 그 시간을 줄여 보겠다는 의도지.”

불로불사인 영원의 상징이기에 할 수 있는 생각이자 판단이었다.

“나는 그 꼴 보기 싫어서 나왔고.”

“그렇군요.”

“가치 있는 희생이라지만, 보기 싫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동의합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유성운이 목을 쓸었다.

“아무튼 이런 느낌이라 이미 퇴사한 내가 아직 멀쩡히 돌아가고 있는 연구소 내부의 일을 자세히 알아내기는 어려워. 그

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입이 무겁거든.”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분위기가 조금 미묘한 것이, 내가 봤을 땐 그 주현이라는 연구원을 통해 무슨 사고를 치려고 했나 봐. 연구 팀장이 말이야.”

손을 내린 유성운이 지오를 보며 웃었다.

“그걸 네가 사전에 저지시켰고.”

“결과가 좋다니 다행입니다.”

“항상 고마울 따름이지, 내 입장에선.”

단순한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지오는 대체로 사건 사고가 커지기 전에 뿅 하고 등장해 그 흐름을 대뜸 툭 끊어버리는 식의 행보를 자주 보였다.

‘팽팽하게 조여지던 긴장감을 뜬금없는 방식으로 풀어 버린다고 해야 하나. 그 인어 남매의 경우에도 사실 그런 식으로 어처구니없이 흐지부지될 일이 아니었는데….’

유성운은 지금도 인어 남매의 행적에 대해 조사 중이었는데, 그 흔적이 최근 경복궁에서 발견되었다. 여차하면 태양교뿐만 아니라 경복궁까지 전복할 생각이었던 듯 보였다.

‘아직 비교군이 많지는 않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행보지.’

감당하기 힘든 재앙들을 사전에 무마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를 수가 없었다.

“…….”

그런 의미에서 유성운이 생각하기에, 그 주현이라는 연구원 역시 재앙의 시초가 될 뻔한 것 같았다.

일이 커지기 전에 지오에게 발견되어서 참 다행이었다.

“…그래서 주현 씨는 어때?”

“잘 먹고 잘 자는 중입니다.”

“기분은?”

“아직 긴장을 좀 하고 있고, 약간 혼란스러워 보이더군요.”

“그래, 그렇겠지.”

그래도 벌써 그 정도로 안정된 것은 기적에 가까웠다.

“조금 더 잘 부탁해.”

“건강하게 만들어 내보내겠습니다.”

“적당히 건강했으면 좋겠네.”

헌터 이외의 신인류가 등장해 버리면 매우 곤란해지니 말이다.

오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37)

제137화

그 시각.

악신 산칼루트를 관리하는 연구소, 서울 제21 지부.

"산칼루트 님?"

" "

"시, 신이시여? 어찌 그런 시들시들한 색으로...."

" "

"산칼루트 님...!"

소원 빌면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고향으로 갈 생각에 들떠 있던 산칼루트가 시무룩해졌다.

* * *

"정말 그거면 됩니까?"

산칼루트의 징표를 건넨 주현이 떨떠름한 얼굴로 물었다.

"제가 여기서 먹고 마신 것이 많은데요."

"개인적인 욕심으로 대접해 드린 것이니, 보답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검은색 머리카락의 검은망토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멋진 보석이군요."

"...진짜 보석은 아니지만요."

"산칼루트라는 악신의 징표라고 하셨지요?"

"예, 그와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안쪽에 기하학적인 문양이 있는데, 직접 새기신 겁니까?"

"그렇죠, 처음 만들어본 거라 많이 서툴지만요."

"서툴다니요."

검은망토는 대단하다는 듯이 감탄했다.

“주현 씨의 재능이 굉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민망하네요.”

“대단히 작은 문양인데 필요한 언어가 전부 새겨져 있어요.”

“하하….”

기분이 묘했다.

‘악신의 징표를 만들었다고 칭찬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무엇보다 검은망토는 ‘악신의 징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감탄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멋진 보석을 만들어 내다니’라며 감탄한 것 같았다. 기분이 정말 이상했다.

‘격이 너무 높아서 징표가 매개체보다는 하나의 장식품으로 보이나?’

꼭 돈이 넘쳐나는 거부가 500원짜리 동전이 아름답다며 구경하는 것처럼 보였다.

칭찬을 받았지만 썩 기쁘지는 않았다. 정체 모를 거대한 신비에게 악신의 징표를 만든 것을 칭찬받았다고 좋아할 만큼 주현이 정신머리가 없는 인간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악신의 징표라는 점이 꺼림칙하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그를 부를 일은 식사를 청할 때뿐일 테니 꺼림칙할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악신에게도 식사를… 식사… 음.”

주현은 잠시 침묵했다.

“…….”

그리고 이내, 식은땀이 흘렀다.

정말 차원의 모든 것을 돼지로 만들고 싶은 건가?

“그렇게… 계속 무언가, 다른 이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거창한 이유는 없습니다.”

검은망토의 얼굴에서는 어느새 미소가 사라졌고, 차분한 무표정만이 남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곤조곤한 음성으로 검은망토가 말을 이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이 기쁩니다.”

“그렇군요, 배려심이 넘치시네요.”

“무엇보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비쩍 말라서….”

“…….”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할머니 같은 발언을?’

대재앙을 겪은 세대의 어르신들이 유독 아이들 살찌우는 것에 진심이라는 풍조는 세상 어디에나 있었다. 특히 저 ‘요즘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마치 다 늙은 노인을 보는 듯했다.

‘저런 청년의 얼굴로?’

29살 지구인의 흉내를 낼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가?

주현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어야 눈앞의 거대한 존재가 즐거워해 줄지를 고민했다. 29살 청년답지 않은 발언이라고 정정해 주어야 하나? 아니면 그저 당신이 옳다며 맞장구를 쳐야 하나.

“…그렇군요!”

주현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주현 씨는 제게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세간에는 검은망토가 몬스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하.”

검은망토의 머리카락이 빛처럼 화악 붉어지고, 창백한 얼굴에 짙은 웃음기가 맺혔다.

“내가 몬스터라고?”

“…무례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화나지 않았어. 무례하지도 않았고.”

그는 두 번 정도 눈을 깜박였다.

“음….”

그러고는 다시 검은색 머리카락으로 돌아왔다.

“주현 씨의 말이 재밌어서 잠깐 흥분한 것 같습니다, 실례했군요.”

“아뇨,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대체 어떤 부분에서 재밌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질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면 뭐든 괜찮았다. 주현은 싹싹한 미소를 지으며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제 질문이 심기를 불편하게 한 거라면 정말로 죄송할 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불편하거나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뭐랄까….”

검은망토의 입술이 흥미를 담고 부드럽게 휘어졌다.

“짐승에, 악신에 이어 몬스터라니.”

“…….”

“꽤 재밌지 않나 싶어서.”

“…오….”

안 재밌는데요.

“…그렇군요!”

주현은 다시 한번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저는 검은망토 님께서 악신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요.”

“악신답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조금은요.”

“그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잠시 고민하는 흉내를 낸 검은망토가 이어서 말했다.

“미리 말하자면 저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아 넵.”

“가끔 악신이 될 수도 있고, 사제가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는 인간이죠.”

“대단하시네요.”

주현은 한 번 더 인내했다.

“그럼 저는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지...?”

“물론입니다.”

검은망토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바깥에서 몬스터로 소문이 나 있는 것은 저와 다른 분들의 안위를 위한 경고일 뿐이었습니다.”

“검은망토 님과 다른 사람들의 안위를 위한 경고라고요?”

“의도한 것은 아니나, 그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인지 종종 다른 분들을 위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미리 서로 조심하자는 경고죠.”

그리고 굳이 말하지 않았으나 다른 의도도 있었다.

비록 전투광인 아르지오와 합체되었다지만 동화가 채 되지 않아서인지, 지오는 아직도 누군가와 싸우는 것이 불편했다. 그래서 미리 서로 싸우지 않을 수 있도록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것에 가까웠다.

무시무시한 괴담 속 주인공과 싸우려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결과물이었다. 지오는 가능하면 갈등을 피하고 싶었다.

‘그것도 아르지오의 기억을 완전히 되찾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만....’

아무튼 그랬다.

“...사실 악신이라고 해도, 잘 이해가 가지 않기는 합니다.”

지오는 말을 이었다.

“신이란 어떤 것이고, 악신이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인 저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건 확실히 어려운 주제네요. 저도 뭐라고 확답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주현이 묻는다고 해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뿐이었다.

“저는 그저 제가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밖에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 명의 사람에....”

“조금 특이한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가끔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뿐이에요.”

지오는 자신이 인간이 아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네, 이해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현은 그냥 기가 찰 뿐이었다.

'그래, 나도 그냥 그렇게 외우자.'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지오 씨의 집에만 머무는 것 같아서…."

"회복이 다 되셨습니까?"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회복했습니다."

"마음도?"

"……."

말문이 막힌 주현에게, 검은망토는 아이를 타이르듯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평화로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떠나기 싫어질 만큼 평화롭네요."

"언젠가 떠나고 싶어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지오는 안다.

'사람은 심신이 풍요로워야 허튼 생각을 안 하는 생물이지.'

그래서 그렇게 했다.

'역시 사람은 배가 부르면 10배로 착해져.'

악신을 부르려고 했다기에 허튼 생각이 안 드는 몸으로 만들어줬다.

본인은 몰랐지만 사실 여기엔 지오의 영향도 컸다. 자신의 음식을 함께 즐기고 싶다는 소망이 가득 들어간 음식을 먹는 상대는 속절없이 미식가가 되어버렸고, 생각 없이 맑은 뇌의 소유자인 지오와 동화되어 심신이 편안해져 버린 것이다.

'좋은 현상이다.'

지오는 주현이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랐다.

"나가고 싶을 때면 언제든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즐기는 것에는 제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현이 어물대며 대답했다.

"…그렇죠."

그가 물었다.

"왜 스스로를 악신이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의아하게도, 다른 이유는 없었다.

* * *

"…아."

한 신입이 멈칫했다.

“서지오 씨?”

회사 복도에 한 길쭉한 인영이 서 있었다. 그를 부르면서도 여자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평일 오후라 아직 퇴근하지 않은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음에도, 그들은 망토를 두른 채 복도에 서 있는 서지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마치 그가 없는 사람인 양 피하고 있는 듯했다. 그걸 알아차렸을 즈음 상대가 저를 보았다.

“예전에 뵈었던 분이시군요.”

“맞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계셨네요.”

“이름이 아마….”

그가 말했다.

“박주희 씨?”

“…….”

조금, 기분이 이상했다.

“…네, 박주희예요.”

순간 상대가 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느껴진 탓이었다.

‘이상한 생각이야.’

금방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라며 떨쳐낼 수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찝찝함이 남아 그녀를 괴롭혔다.

그에게로 다가간 박주희가 물었다.

“새벽 근무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늦은 시간에도 나오시네요?”

“취미 생활이죠. 잠시 이런저런 질문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취미 생활로 질문 시간이요?”

“굳이 따지자면 설문이라고 해야 맞을까요.”

바다를 담은 눈이 부드럽게 휘어졌다.

“박주희 씨.”

“어… 예, 말씀하세요.”

“악신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신이라….”

문득 적막함이 와닿았다. 그와 함께 현실과 유리된 기분을 느낀다.

직원들은 이 순간마저도 말없이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개인주의가 강한 직원들이 모인 회사이니 납득이 되는 상황이라, 별 의심 없이 여자는 서지오의 질문에 대답했다.

“나쁜 짓을 하는 신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악신이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경우, 평범한 신이 되겠습니까?”

“그건… 이전에 저지른 악행이 있다면, 그대로 악신이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림으로 그린 듯한 미소를 지었다.

“뜬금없는 질문이었을 텐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뇨, 저야말로… 보잘것없는 C급 헌터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한 일인걸요.”

“그런 등급과 관계없이 박주희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서지오가 짙게 눈을 휘었다.

“저에게 친절하시지 않습니까?”

“어… 그건….”

친절하다고 좋은 사람이라니?

여자는 난데없는 호구 같은 발언에 조금 걱정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좋은 사람’의 폭이 과하게 넓었다.

‘혹시 따돌림을 당하시나?’

잠시 당황한 박주희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는 멀대 같은 남자가 신경이 쓰일 법도 한데, 아무도 이쪽을 돌아보지 않고 있었다.

“…저기….”

묘한 의심이 들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 동료분들이 뭔가, 사이가 안 좋다거나…?”

쿠훌럭!!

어디선가 대찬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

“누군가 사레가 들린 모양입니다.”

“아, 그렇군요. 안됐습니다.”

쿨럭, 쿨럭….

어디선가 또 기침 소리가 났다.

“안됐….”

쿨럭—!!

또 한 번의 기침 소리.

“…….”

이쯤 되니 박주희도 상황을 파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지? 뭔가 눈치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어….”

망토 아래로.

정체 모를 짐승의 꼬리 툭, 튀어나와 있었다.

“…저기, 서지오 씨. 이건….”

"아, 실례했습니다."

그는 작게 웃었다.

"가끔 조절이 안 되네요."

"...조절이요?"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달리 소리도 없이 어느새 꼬리는 사라져 버렸다.

"......."

마치 네가 잘못 본 거라는 듯이 말이다.

"박주희 씨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곳의 직원분들이 저를 차별하거나 따돌리는 건 아닙니다."

"...아, 아, 네.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가진 스킬이 조금 특별해서 모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뿐이죠."

"특별해서 주의를...?"

"걱정하실 만한 일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 그렇지."

서지오가 무언가를 내밀었다.

"저와 어울려 주신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달콤한 향기가 나네요."

"과일 젤리입니다, 그렇게 달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럼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가볍게 목례하고는, 몸을 돌려 어딘가로 걸어갔다.

그 검은색 망토가 다시 눈에 들어온다. 그 새까만 천 자락이....

"......."

왠지 손 위의 선물이 무겁게 느껴졌다.

"...어?"

식은땀과 함께 탄성을 내뱉어도.

그 누구 하나, 돌아보는 직원이 없었다.

오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37)"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38)

제138화

검은망토.

작년 겨울, S급 던전 '심해의 나라'에서 최초로 목격되어 헌터 협회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인간형 몬스터. 나쁜 인간은 괴롭히고 착한 인간에겐 선물을 주는 몬스터로 유명하다.

특징은 키가 매우 크며, 검은 망토를 둘렀고, 정장 차림에 맨발이라는 것이다.

"……."

혼자뿐인 기숙사 방에서 신입 큐레이터, 박주희가 이를 악물었다.

"…생각해 보니 전부 비슷하잖아…."

처음 유성운 큐레이터가 '서지오'라는 사람에 대해 설명했을 때가 떠올랐다.

'검은망토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종종 오해를 받는다던가.'

박주희라고 서지오와 검은망토가 비슷한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기에 서지오는 너무 친절했고, 인간다웠으며, 대단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아찔해지는 것이다.

'과하게 이상적이었어.'

의심했어야 했다.

'마치 최고의 형태로 박제된 것처럼 웃는 사람이 평범할 수가 있겠냐고.'

서지오는 평범한 사람처럼 웃고, 대화하고, 배려했지만, 그의 행동과 표정에는 기복이 없었다. 마치 실존하지 않는 존재와 같은 분위기를 띠는 서지오를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게…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혼란스러웠다.

상대가 너무 인간적이라고 느꼈기에 설마 괴물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자신이 무언가 홀렸거나 속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높은 확률로 검은망토가 보여주는 '서지오'는 일종의 가면일 확률이 높았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니 배신감이나 뭐를 느끼는 건 아니야.'

고작 지금까지 두 번 만난 상대다. 1년 넘게 만난 지인이 자신을 속여왔다고 해도 그러려니 넘어갈 텐데, 이제 딱 두 번이

나 만난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낄 여지는 없었다.

'화도 나지 않아. 실망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서지오 씨와 내 사이에 그 정도의 신뢰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텐데?"

수집상의 갤러리는 온갖 위험한 작품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만큼 이상 현상에 대한 대응 프로토콜도 많을 것이고, 안전장치나 정보 통제 또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었다.

"게다가 다른 직원분들은 전부 아는 눈치였지."

오로지 신입들만 '서지오'가 검은망토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딱히 철저하게 감추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박주희 자신이 워낙 둔하게 굴어서 그렇지, 이 정도로 공통점이 많았다면 이미 알아챈 동기들도 있을 것이었다.

대체 어째서인지 수집상은 검은망토의 존재를 그저 용인하고 있었다.

"……."

꽤 오랜 시간 고민하던 그녀는, 곧 다른 기숙사 방문을 두드렸다.

"…무슨 일입니까?"

"저기, 죄송해요.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같은 신입인 저에게요?"

"비나리 씨는 서지오 씨를… 만나봤죠?"

"……."

박주희의 동기 중 한 명인 비나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실례합니다."

깊은 새벽,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었다.

* * *

이번 수집상의 신입 중 유일하게 3층 작품을 담당하고 있는 비나리 큐레이터.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나만 몰랐나?"

"그건 아닙니다."

그는 '서지오'가 검은망토라는 것을 진작 알아챈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유성운 큐레이터님께서 서지오라는 사람에 대해 주의를 줄 때부터 직감하고 있었습니?? 그 이외에는 B급 헌터라고 소개해 주신 정은별 씨가 의심했고요."

"아…."

"저희가 이상함을 알아챘다는 사실을 유성운 큐레이터님께서도 대충 눈치를 챈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따로 언질을 주신 적은 없고요. 아마 수집상 내부에서 '서지오'라는 사람이 검은망토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정보인 것 같았습니다."

비나리가 말을 덧붙였다.

"애초에 수집상에 새벽 근무반이라는 건 없습니다."

"...확실히 홈페이지에 그런 소개는 없긴 했지만, 중요한 인력이라 숨긴 건 줄 알았어요."

"선배님들께 수소문을 해보니 새벽 근무반 소속은 서지오 씨가 유일했어요."

"하지만 일종의 명분을 위한 조치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특별한 인력을 배려하기 위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가 어깨를 으쓱였다.

"지금 다른 동기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건 그렇네요. 너무 허술하게 숨기고 있다는 생각은 여전하지만...."

"박주희 씨가 오늘 막 알아챈 것처럼 나름 신입들을 상대로는 숨겨질 만하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처럼 서지오 씨의 진짜 정체를 알아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소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적응하는지 보는 걸 수도 있고."

"애초에 왜... 왜 이런...."

말을 더듬던 박주희가 짧은 숨을 내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의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신입들에게는 검은망토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걸까요? 다른 무엇도 아닌 인간형 몬스터인데 말이에요."

"확실히 저희가 받은 기초 교육에 '서지오 씨'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마 여차할 경우 회사를 나가게 될 인턴의 신분이라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인턴이라... 그러니까, 일종의 비밀 유지를 위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겠죠? 언제든 내보내질 수 있는 인턴에게 중요한 사정을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요."

박주희가 고민했다.

"하지만 저희가 안전 교육을 받지 않아 사고를 치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갤러리의 선배님들께서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죽을 거면 큐레이터까지만 죽어야 한다고."

위험한 작품들이 사고를 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도 많다고 들었다.

"이곳의 작품이든 몬스터든 중요한 건 규칙일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서지오 씨'의... 조건을 알지 못해서, 그분의 화를 사게 된다면 더 큰일이지 않아요?"

"저나 방금 말씀드린 정은별 씨도 비슷한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는데, 아마 서지오 씨를 일반 직원으로 인지하고 대하면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나리가 한숨을 내쉬었다.

"수집상에서도 전부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 검은망토는 일반 직원으로 대우할 시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만약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 해도 큰 사고를 일으키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냥 저희만 죽고 말 정도의 문제인 걸까요."

"그 정도일 거라고 추측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험이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희가 수집가의 수집품이 될 자격이 있는지, 수집상의 직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검은망토의 직장 동료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일단 이 자리에 저희가 있다는 것부터가 수집품의 자격은 있는 거라고 봐요."

"수집상은 아무래도 좋은 겁니다. 저희가 끝까지 상대를 평범한 새벽 근무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역시 조건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고, 검은망토의 존재를 알아챘다면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가 어설프게 웃었다.

“그래서 저희는, 서지오 씨의 정체를 빨리 알아차릴수록... 정직원 승급이 빨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측일 뿐이지만요.”

“...아, 그렇겠네요. 다른 직원분들 모두가 이미 검은망토의 정체를 알고 있다면, 뭐랄까. 정직원의 필수 조건은... 음, 검은망토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는 걸 테니까요.”

그들도 비사벌이 제 수집품에 얼마나 지극정성인지를 알았다. 한번 정직원으로 승급되면 더 이상 비사벌의 수집품에서 나갈 수 없고, 수집상에서 퇴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턴 과정에서 이미 검은망토의 정체를 알고도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 방면에서 안심하고 품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는 물론이고, 검은망토도 이번 신입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 이 허술한 보안은 아마 길드장님과 서지오 씨, 이렇게 두 분의 의사를 확인하는 장치처럼 보이네요.”

“아무리 그래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몬스터의 허용 조건이라든지.”

“저희 입장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노력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서지오 씨가 용인해야만 정직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주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걸까요?”

“...확실히 수집상은 검은망토를 하나의 기본 구성 요소로 보는 느낌이 큽니다.”

“기본 구성 요소라고 함은 절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텐데....”

“.......”

“...아.”

고개를 들었다.

“설마?”

“글쎄요.”

“갤러리에?”

“...글쎄요.”

“작품이었다고?”

“...후우....”

비나리가 한숨을 내쉬고는 입을 열었다.

“애초에 검은망토가 초상화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초상화가 그려낸 초상화 시리즈를 탐내는 일부 마니아층도 생겼고요.”

“그걸 작품이라 생각하고 길드장님께서 들인 걸까요? 유성윤 큐레이터님이 ‘서지오 씨’를 설명했을 때 그분도 수집품 중 하나라는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수집상의 갤러리에는 작품의 형태를 띤 몬스터도 상당수 있습니다. 몬스터를 사육하는 것은 분명 불법이지만, 갤러리에 들어온 이후라면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검은망토도, 그렇게 길드장님의 수집품으로 취급된 거고요? 정말로? 그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쩌면 서지오 씨가 수집상을 나가기 싫어 맴도는 것을 길드장님께서 데려왔을 수도 있고, 음, 경우의 수는 많아요.”

하지만 신입이 알 만한 사항들은 아니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수집상이 비사벌 길드장의 갤러리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피해가 생기든, 어떤 변화를 감수하든, 수집가는 꽤 욕심쟁이라고 들었으니… 검은망토처럼 주기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특이한 수집품을 내다 버리고 싶을 리가 없죠.”

비나리가 묘한 표정을 지었다.

“버린다고 해도 과연 어디에 버려야 할지도 의문이고요.”

“아, 하긴….”

“확실한 건 이미 수집상은 서지오 씨의 존재에 적응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간부나, 화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화분이요?”

“복도에 놓인 화분 같은 거….”

“차라리 복도에 걸려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더 맞기는 하겠네요, 작품이긴 하니까요.”

박주희는 간신히 생각을 정리했다.

“그러니까 지금 갤러리에 있을 작품이 회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지.”

“저희가 모를 뿐 서지오 씨 이외의 작품들도 많을지 모릅니다.”

“이건 갤러리가 아니라 사옥 내의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수집상의 갤러리는 층별로 활동이 달라서 내부 매뉴얼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2층 39번째 문을 열기에 앞서 3번 노크를 하라든가, 4층 1번 복도를 지나기 전에 물을 마시라든가….

“뭐, 작품을 비위 맞추는 일은 대강 감을 잡았으니까요.”

그 모든 매뉴얼이 갤러리의 수많은 작품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한 규칙이었다. 검은망토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서지오 씨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이해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같은 동기끼리 돕고 살아야죠.”

“하긴 동기가 중요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으니….”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기는 했다.

“…….”

“…….”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안일한 거 아닐까요?”

“…그게 수집상의 모토인 것 같습니다….”

“작품을 사랑하라?”

“네, 그거요.”

“이런….”

다른 무엇도 아닌 인간형 몬스터가 돌아다니는 셈인데 수집상은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고’라는 마인드로 주관하고 있었다. 여기엔 그 어떤 안전 교육도, 강압적인 비밀 유지도 없었다.

“…저희가 모를 뿐이지, 감시와 평가는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나가는 순간 비밀 유지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는 하겠죠. 뭔가 대비책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 안에 저희 같은 인턴들을 보호해 줄 수단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정직원이 아닐 뿐 저희도 비사벌 길드장님의 컬렉션 안에 발은 들인 셈이니까요. 수집품들 대접이 그렇게 좋다는데, 기대해 봅시다.”

비나리가 이어 물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당황하지 않으시네요?”

“어… 서지오 씨의 정체를 알게 된 거요?”

“아예 만나본 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두 번인가 이야기 나누셨다기에.”

“뭐라 반응하기엔 그냥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머뭇거리던 박주희가 말을 이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딱히 사람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의 대화는, 수집상 내부의 안전 관리부에도 들어갔다.

* * *

24시간 내내 근무하는 유일한 부서인 안전 관리부.

도청을 마친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생각보다 알아채는 게 빠르네요.”

“요즘 서지오 씨가 회사를 자주 돌아다녀서 그래요.”

“예전에는 늦은 새벽에만 나오더니….”

“네, 최근에는 근무 시간에도 자주 보이죠?”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있었나?”

호록.

커피를 마신 직원이 물었다.

“벌써 3명이나 알아차렸는데, 정직원으로 올려주죠 그냥?”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길드장님께서 확정하지 않으셨대요?”

“검은망토의 의사도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뭐, 그래도 이번 인원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던데.”

“일단 대뜸 초상화 속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합격이죠.”

“이번 신입분들이 매너 좋고 착한 사람들만 모였나 봐요.”

“결국에는 서지오 씨의 기준이겠지만요.”

“그 정도만 돼도 인간 합격이지….”

사약과 비슷한 색의 커피를 홀짝이며 CCTV에 눈을 고정한 직원이 입을 열었다.

“그런데 요즘 서지오 씨의 활동이 부쩍 늘어나기는 했어요.”

“사람들 많을 때도 자주 나오고.”

“유성운 큐레이터님께서는 별다른 말씀 없으셨나?”

“따로 보고서나 요청서가 올라온 적은 없고, 잘 지켜봐 달라는 말만 했죠.”

“그 말은 나도 들었어. 음, 따로 올린 서류는 없다고….”

“하지만 서지오 씨가 최근에 관심을 가진 주제는 알아요.”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

안전 관리부장이 한숨을 내쉬었다.

“악신에 대해 묻고 다닌다며.”

“왜 갑자기 악신인 걸까요?”

“정확히는 악신의 정의와 자격을 묻던데.”

“서지오 씨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나?”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

“하긴 아직 검사도 못 한 작품이라 확신은….”

무어라 말하려던 직원이 멈칫했다.

“어어.”

“어, 경우 씨. 저 양반 저거 CCTV 본다.”

“14층 53번 화면 일시 종료합니다.”

복도를 거닐던 검은망토가 CCTV를 돌아보기 직전 직원들은 화면 송출을 끊었다. 이내 검은 화면이 드리우자 다른 화면을 응시하고 있던 다른 직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에 부장이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 서지오 씨랑 화면에서 찐하게 눈 키스하고 졸도한 직원 있잖아.”

“졸도까지는 아니고… 기절? 이죠?”

“그게 그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 하류서 씨. 언제 복귀한대?”

“아직 상담실 돌아다니는 중이래요.”

“시간 좀 되지 않았나? 아이 씨, 우리 인력 부족한데….”

“까딱하면 사이비 하나 만들게 생겼다고 아직 못 보내준다고 했어요.”

“아이고, 그 정도야?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연차 못 쓰겠다.”

“뭘 새삼… 돈으로 받아야죠.”

“안 받고 휴가 내고 싶어.”

“저도요.”

직원이 다시 화면을 켰고, 검은망토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초상화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텅 빈 복도에 유일하게 자리한 초상화를 보며 부장이 말했다.

"이야, 분위기 죽인다."

화면이 어그러졌다.

초상화 속, 검은 물감 뒤의 서지오 씨가 '눈'을 맞춰오고 있었다.

오

Chapter (138)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38)"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39)

제139화

유성운이 달려왔다.

"지오야."

"예, 말씀하십시오."

"혹시 우리가 뭐 섭섭하게 한 거 있을까?"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그거 다행이네."

허탈하게 웃은 유성운이 물었다.

"요즘 다른 직원들하고 자주 말을 섞는 것 같아서."

"업무에 방해가 되었을까요."

"아주 조금? 뭐, 네가 아주 무례했다는 건 아니고...."

공포감을 조성한 것을 민폐의 영역으로 보기는 좀 애매했다. 지오의 정체가 몬스터도 신도 아닌 근원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아는 유성운으로서는 더더욱 말이다.

다만 궁금하기는 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악신에 대해 묻고 다닌다면서?"

"자네의 말이 맞아."

"으억."

초상화 속 지오가 불쑥 상체를 들이미는 것에 유성운이 화들짝 놀랐다.

"너 그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었구나."

"몸을 반쯤 걸치고 있는 것뿐이니."

너울처럼 일렁이는 검은망토 아래로 채도 낮은 적발이 눈에 들어왔다. 특유의 자극적이고 날카로운 어조로 따졌을 때, 아마 스스로를 악신이라 소개한 아르지오가 된 모양이었다.

그가 액자에 몸을 기댔다. 가볍게 까닥거리는 손톱이 짐승의 것처럼 길어진 것이 눈에 들어왔다. 아르지오가 말을 이었다.

“최근 들어 악신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뭔가.”

“의문? 어떤 의문인데?”

“악신이 뭘까? 뭘 어떻게 해야 악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정말 구분이 어렵지.”

유성운이 목을 쓸었다.

“인간들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하는 신을 악신이라고 부르거든.”

“그렇다면 축제에 난입해서 술을 마시거나 사냥터에 끼어드는 것도 악한 행위인가?”

“그 지역의 풍토에 따라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딱히 악행이라는 느낌은 안 드네.”

“나를 공격하는 이들의 목을 매달아 숲에 장식한 것은?”

“그건 확실히 악행이라고 불릴 만도 하지...?”

세상에는 정당방위라는 말이 있지만, 받은 만큼만 돌려주기엔 인간이 그리 공정한 생물은 아니었다.

천부 인권 인식이 높은 지역에서는 특히 그런 식의 적나라한 보복을 반기지 않을 것이었다.

“아니 뭐, 나는 개인적으로 악행이라고까지 생각은 안 해. 나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살려두지는 않거든. 그렇다고 장식을 하지는 않지만....”

“나라고 그게 아름다워 보여서 장식을 했겠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시비를 걸러 들어오는 멍청이들이 있으니 문제지. 아무튼 자네는 크게 악하다고 느끼지는 않는군?”

“다른 사람을 죽일 생각을 했다면 역으로 죽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걸? 그런데 이런 질문은 왜 하는 거야?”

“.......”

잠시 침묵한 아르지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악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 기준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네.”

“기준이라. 우리 지구에서는 악신을 정의하는 확실한 기준이 있지.”

유성운이 물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어?”

“무고하다는 건 어떤 사람을 뜻하지?”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거나 호의를 베푼 사람들이라던가.”

“설마 그런 이들을 죽였겠는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적은 없고?”

“무시하면 모를까 그런 짓을 한 적은 없어.”

“아니 그럼 대체 왜 악신이야?”

이해가 잘 안됐다.

“사람들이 너를 악신이라고 불렀다면서.”

“그랬지.”

“왜 그렇게 불렀던 거지? 심지어 아르지오라는 이름의 뜻은 멸칭이잖아.”

“재수가 없어서?”

아르지오가 긴 손톱을 까딱거리며 말을 이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아름다운 짐승은 사람들의 미움을 살 만해.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했는데, 그들은 나를 탐욕과 분노의 악신이라고 칭했어.”

“탐욕과 분노….”

“난 재물을 좋아하거든. 금은보화와 질 좋은 술은 나의 둘도 없이 친한 친구이고, 짐승으로 자랐으니 인내할 필요도 없었네. 날 거슬리게 하는 자들에게 분노를 되돌려주는 건 즐거운 일이야.”

“하지만 그걸로는 악신이라고 하기엔 조금.”

“…으으음….”

아르지오가 턱을 괴었다.

“역시 그런가.”

“뭐가 마음에 안 들기라도 하는 거야?”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는데….”

“악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건가?”

“그 또한 나의 명예 중 하나이니 당연하지.”

“명예라….”

“내 품에 들어온 나의 것이야.”

“…….”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나의 악명도 별것이 아니었군.”

망토에 가려져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지오는 꽤 지루해 보였다.

“이렇게 허탈할 수가 있나.”

“…으음, 어… 그런가….”

유성운은 대충이나마 상황을 이해했다.

‘신비의 몸집은 그것을 둘러싼 이야기로 인해 부피를 달리하지.’

악신도 결국에는 신. 그의 존재를 믿는 생물들의 호의 또는 적의에 몸집을 달리하고, 보아하니 아르지오는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악명조차 자신의 것이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모양이다.

‘그럼 직접 행한 악행에 비해 과도할 만큼 사악한 신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기는 해.’

산칼루트교도 그렇지 않은가. 살인은커녕 말조차 하지 못하는 평범한 보석이었던 것이, 국가 단위의 신앙과 제물을 통해 버젓한 악신이 되었다. 아르지오와 비슷한 경우인 셈이다.

‘특히 이쪽은 말도 행동도 할 수 있으면서 자신을 향한 오해를 적극 수용 했고….’

굉장히 희귀한 경우였다.

“그럼 정작 너는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다름없는 건가?”

“재수 없는 작자들의 저택에 무단으로 방문해 술과 재화를 가져가기는 했지.”

“재수 없는 작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내 술맛을 떨어트리는 놈들. 내 앞에서 소란을 피웠어.”

“시끄럽게 떠들었다던가?”

“날 위해 식사를 준비해 준 마을을 몰살시켰노라 떠들어댔지.”

“아, 그건 확실히 정당방위지. 그럼 네가 한 일을 악하다고 하긴 어렵겠네.”

“그거 대단히 안타까운 소식인데.”

“음….”

유성운이 난감한 듯 웃었다.

“네 명성이 허울뿐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더욱 즐거우니까.”

“…….”

잠시 유성운은 말문을 잃었다.

“…전쟁터라도 좀 알아봐 줄까?”

“아니요.”

지오의 음성은 순식간에 무뚝뚝한 어조를 띠었다.

“아직 아르지오로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저는 원래도 다툼을 꺼립니다.”

“아까와는 말이 조금 다른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흠, 그런가.”

잠시 고민한 유성운이 물었다.

“아직 집에 주현 씨가 있지?”

“예, 주무시고 계십니다.”

“내가 물어볼 때마다 자는 것 같네.”

“피곤한 것 같아 일찍 재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네가 자리를 비울 수 있나 해서.”

“권유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악신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했잖아.”

뭐든 실전이 좋은 법이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일반적인 종교라고 인정한 악신이 있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악신이겠군요.”

“그보다는 일종의 순리라고 생각한 거겠지, 해가 되기는 해도.”

신과 관련된 신비는 유성운의 전문이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죽음의 신이야.”

“죽음은 확실히 순리가 맞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지.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해가 되는 것이죠.”

“죽음의 신은 최근 14년 사이에 일반 종교로 인정이 되었어.”

“그 이전에는 아니었습니까?”

“워낙 예민한 시기이기도 했고, 여러모로....”

유성운이 무던하게 웃었다.

“악신이 판을 치던 세상이라 구분할 여력이 없었다고 해야 하나.”

“판을 쳤군요.”

“영원의 상징 덕분에 지금은 나름 체계가 잡힌 느낌이지.”

그가 어깨를 으쓱였다.

“한번 만나볼래? 네가 원한다면 그쪽에는 미리 양해를 구해둘게.”

“그렇다면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검은망토가 다시금 세상에 출격하게 된 것이었다.

정확히는 A급 헌터 ‘서지오’로서 말이다.

* * *

“.......”

“.......”

“아니 이봐요.”

비사벌이 어처구니없다는 듯이 허락 맡으러 온 유성운을 보았다.

“언제는 나보고 서지오 씨 바깥으로 빼돌리지 좀 말라면서.”

“그건 워낙 길드장님께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지금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대체 얼마인 줄 알고 이런 막말을?”

“저는 최소한 지오 보고 난장판 좀 만들어 보라며 옆에서 박수 치지는 않잖아요.”

“그건 맞지, 맞는데 나 너무 억울해. 이런 대접 받고 어떻게 사나?”

그런 것치고 너무 잘 살아온 걸 유성운이 알고 비사벌이 알았다.

“역시 우리 직원들은 손바닥 비빌 줄을 모른다니까.”

“업무에 따로 추가하시면 얼마든지 비벼드릴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안 하잖아, 나는 그런 여러분이 너무 좋아.”

“저희도 알아요, 알아서 이렇게 건방지게 구는 거고....”

중얼거린 유성운이 이내 빙긋 웃으며 물었다.

“죽음의 신전은 경기도에 있어 미리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전과 달리 꽤 멀리 가게 될 것이고, 악신과 악신이 만나는 것인 만큼 어떤 화학 작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

무언가 계산하듯 탁자를 두드리던 비사벌이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궁금하기는 하군요, 악신인 지오와 고요한 악신이 만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것보다는 훨씬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흥미로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르지오랑 좀 닮으신 것 같네요.”

아르지오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더 자극적이고 흥미롭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류의 평화에 큰 관심이 없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즐기기 위해 선을 옹호하는 건, 비사벌이나 아르지오나 확실히 닮은 부분이 있었다.

그에 비사벌이 샐쭉 웃었다.

“아르지오 역시 저와 색이 비슷하다고 했던가요?”

“길드장님보다는 더 차분한 색감이지만요.”

“여차하면 내 조카로 둘러대죠.”

“4대 독자셨다면서요.”

“으음.”

유성운의 진한 시선에 비사벌이 말을 덧붙였다.

“숨겨진 아들이라든지?”

“여든 넘으시지 않았습니까?”

“생긴 건 탱탱하잖아.”

“탱탱하다기에는 50대의 육체이시죠.”

“그럼 정정하다고 하죠.”

거기까지는 유성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지오에게는 태양의 신성이 이미 있습니다. 악신의 사악한 신성이 그 위로 덧씌워진 건지, 아니면 공존하고 있는지, 그도 아니라면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서울 지부 태양교는 지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부의 악신은 신성끼리의 갈등을 즐기지 않으니,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되어 허락을 받으러 온 겁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생각은 했고?”

“지오가 자신을 악신이라고 소개한 이상 주의할 것은 주의해야겠죠. 그는 특히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며, 무엇보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비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비사벌의 수집상은 비즈니스 회사에 가까운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길드원들이 전투에 능하지 못하다는 건 아니었다. 일부 그의 명령만을 따르는 수행조도 존재했다.

“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놓도록 하죠.”

“뒤를 봐주신다니 마음이 든든하군요.”

특유의 무던한 미소를 지은 유성운이 감사를 전했다.

“늘 도움만 받는 것 같습니다.”

“나도 같은 심정입니다. 다만….”

“다만?”

“나갈 때는 ‘서지오 씨’로 나갈 테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흐음.”

비사벌이 제 턱을 쓰다듬었다.

“조만간 서지오 씨의 비서를 구해도 괜찮겠어요.”

“지오를 공식 헌터로 만들 생각입니까?”

“그동안 차단해서 그렇지, 이미 시선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조용히 진행한다 한들, S급 던전 ‘심해의 나라’에 서지오를 포함한 다른 헌터들이 방문한 이후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것을 꽤 많은 사람이 알았다.

소리 소문 없이 등장한 A급 헌터와 그의 방문 이후로 잠잠해진 한국의 바다. 특별히 증거가 있는 건 아닌 탓에 의심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호기심은 가지고 있었다.

“예전에 서지오 씨가 ‘심해의 신전’에서 사람들을 구하기도 했고요.”

“아직도 그 영향력이 남아 있다고요? 공식 활동도 안 하는 헌터 때문에?”

“잘생기고 능력 좋은 헌터는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죠.”

“…그건 그렇습니다.”

특히 지오는 유독 사람들의 기억에서 잘 잊히지 않는 아우라가 강했다.

무엇보다 힘들고 무서웠던 당시 사람들을 한데 모아 다독여 주었던 ‘서지오 헌터’를 해가 지난 지금에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망한 신입 A급 헌터이면서도 그 행적을 파악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이목을 더 끌었을 거고요. 일종의 신비주의 전략으로 읽혔으려나….”

“잘 알면 진작에 우리 지오 씨 좀 바깥으로 내돌려 주지.”

“그게 길드장님의 사심이 듬뿍 담긴 권유라는 것을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아무튼, 그러면 매니저는 직원 중에 찾아봐야겠네요.”

공식 활동이 잦은, 혹은 인지도가 높은 헌터라면 일정을 관리하는 매니저 한두 명씩은 붙이고 다녔다.

지오가 공식적인 활동이 잦을 예정은 아니지만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면 다른 의미로 비서는 필요했다.

“‘서지오 씨’의 존재를 알아야 일정이나 이미지를 관리하기도 편해질 테니….”

“그 부분은 차차 사람을 구해보도록 하죠.”

비사벌의 길게 찢어진 동공이 느릿하게 벌어졌다.

“조만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현이라고 했던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꽤 쓸 만해 보였다.

오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40)

제140화

인지도가 높은 헌터는 대부분 매니저를 두고 있었다.

유성운이 말했다.

“뭐, 일종의 비서라고 봐도 되지.”

“바깥으로 잘 나가지도 않는 저에게 그런 비서가 필요할까요?”

“물론 비서라는 존재들은 바쁜 일정을 정리해 주기도 하지만….”

그 밖의 다른 임무도 있었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특정한 사람의 안과 바깥을 관리해 주는 거잖아.”

특히 연예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한국의 헌터들은 곧잘 매니저를 고용했다.

“한국은 워낙 헌터에 대한 선망이 강하고, 그 영향으로 헌터들에 대한 이미지 소비가 원활하게 되어 있어. 그 헌터가 대중에게 어떻게 보일지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서.”

“헌터는 단순히 괴물이나 범죄자를 잡는 직업이 아니었습니까?”

“군인과 연예인의 사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의 헌터는 정부 소속이 아니지만, 두 직종의 특징만 따진다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겠지.”

주차장으로 이동한 유성운이 지오에게 탑승을 권유했다.

“편한 자리에 타, 운전은 내가 할 거야.”

“그럼 옆 좌석에 타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대화 나누기에 편하겠네.”

차에 탄 유성운이 다시 주제를 이어갔다.

“그러니까 내가 매니저를 두면 어떻겠냐고 권유하는 이유는….”

드륵.

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시동이 걸렸다.

“너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모르잖아.”

“맞는 말씀입니다.”

“‘서지오 헌터’의 신분을 애용할 거라면 옆에 도우미를 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도우미라.”

“헌터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안내인 같은 거지.”

실제로 그런 맥락에서 매니저를 고용하는 헌터도 많았다.

“자신의 전공이 무엇인지에 따라 헌터의 업무는 매우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대중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갈 거냐는 점이야.”

“유성운 씨의 상황을 예시로 듣고 싶습니다.”

“나는 애초에 이미지 소비를 안 하겠다고 결정한 쪽이지. 헌터보다는 정원사로서의 자각이 더 강하고, 무엇보다 협회의 연구 팀장으로 일한 적이 있어서… 공인으로 나서기가 애매해.”

“중요한 정보가 새어 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도 있고, 이미지 관리에 쓸 여력이 없기도 하고. 대중 앞에 나서서 희망과 웃음을 줄 시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잘 시간을 확보하는 쪽이 합리적이잖아….”

유성운은 유능한 헌터에, 베테랑 정원사이며, 한때 협회의 연구 팀장이었고, 지금은 비사별의 수집품이자 수집상의 큐레이터이기까지 했다. 여기에 이미지까지 챙기려면 몸이 다섯 개여도 부족했다.

부드럽게 차를 모든 유성운의 눈가는 멀쩡했지만 왜인지 퀭해 보였다.

“나도 휴식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저런, 달콤한 간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간식보다는… 다음에 한 번만 더 초대해 줘.”

“저의 친구인 유성운 씨는 얼마든지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고마워, 거기선 정말 잠이 잘 올 것 같아.”

인종 개변의 위협을 조금 당한다는 사소한 단점이 있지만, 차아라와 주현의 예시만 보아도 딱 느껴지지 않는가. 지오의 오두막은 인간이 휴식하고 회복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다.

‘그것도 지오의 마음에 드는 인간에 한해서겠지만.’

유성운이 곧 무던하게 웃어넘겼다.

“아무튼 나는 워낙 바빠서 이미지를 챙기기 싫은 쪽.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대중 앞에 나서기 싫은 언더그라운드 계열 비공식 헌터들은 충분히 많아. 비즈니스 회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수집상에 특히 더 많고.”

“저도 그런 비공식 헌터로 남으면 안 되는 걸까요?”

“나도 너와 같은 A급 헌터에 이런저런 활동 이력이 있기는 하지만, 난 초반부터 비밀 유지 조항을 걸고 일을 했거든. 하지만 너는 이미 인지도가 있는 편이라 힘들걸. 왜인지 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잘 유지할 자신이 없습니다. 인성 논란으로 나락을 갈 거예요.”

“그… 무슨 심정인지는 나도 이해해. 너무 부담스럽다면 가능한 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쪽으로 해도 좋아. 사람들은 신비주의 전략인가 하는 눈치지만 이대로 숨어 지내면 언젠가 잊히긴 하겠지.”

각성자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그중 헌터가 되는 사람은 더더욱 많다. 대중의 인지도를 원하는 헌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조용히만 있으면 언젠가 잊히긴 할 것이었다.

“하지만 서지오 헌터로서 계속 활동할 거라면,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거야.”

“공식적으로 나서지만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사람들은 호기심이 자극될수록 파헤치려 드는 나쁜 본능이 있어서 말이지.”

“제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존재인가요?”

“스타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언론에는 나오지도 않고, 매체엔 등장도 안 하잖아.”

뭐라고 해야 할까.

“일종의... 숨은그림찾기? 그런 느낌이 되는 거지.”

지오가 초상화인 탓에 ‘숨은그림찾기’로 비유했지만,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건 세간에 알려진 ‘검은망토’의 특성과 비슷하기도 해.”

“저와 검은망토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릴 가능성이 생긴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니 굳이 신상을 조사할 사람이 생기기 전에 네가 드러내고 싶은 이미지를 내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끝까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스타성 짙은 A급의 잘생긴 헌터.

아직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적어 소란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소수의 사람은 지금까지도 ‘서지오 헌터’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꽤 곤란할걸. 파파라치도 붙을 거고.”

“공식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데도 그럴까요?”

“지난번 ‘심해의 신전’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계속 숨어 있기만 할 거야?”

“음, 조용히 뒤에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굴면 사람들이 계속 기억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대중 앞에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선행과 자비를 베푸는 헌터는 특히나 인기가 높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서지오 헌터’는 사람들이 좋아할 요소가 너무 많아.”

쉽게 잊히긴 어려웠다.

“그러니까 괜한 진실을 알아내려는 멍청이들이 나오기 전에 선빵을 쳐도 좋겠다는 거야. 네가 먼저 ‘서지오 헌터’의 신상정보와 이미지를 밝혀주면, 호기심이 해소된 사람들은 굳이 너의 신상을 조사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서지오 헌터’와 ‘검은망토’의 이미지를 완전히 분리하면 가장 좋고.”

“의문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놈들은 어디에나 있지, 심지어 나도 있는걸. 나 같은 경우에는 협회 소속이었던 전적이 있는 탓에 정보 통제가 아주 잘 되는 편인데도 그래. 그러니 정부와 협회에서 관리해 주지 않는 너는 더더욱 파헤칠 여지가 많아 보일 거다.”

유성운이 무던하게 웃었다.

“뭐, 어디까지나 네가 ‘서지오 헌터’라는 신분을 계속 활용하고 싶을 때의 이야기지만....”

“아직 제 역할에 대해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의 신분에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이미지 관리를 좀 해주는 편이 좋겠지. 산에 사는 몬스터들도 먹을 게 없으면 민가로 내려온단 말이야.”

“몬스터입니까?”

“그래, 배가 고픈데 채워줄 게 없으면 애꿎은 사람 들쑤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떡밥을 던져 주라는 말이었어.”

“그렇다면 최소한의 이미지 관리에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금발의 지오가 은은한 미소를 띤 채로 물었다.

“저도 매니저를 고용하게 되는 걸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고민을 해볼게.”

유성운이 어색하게 웃었다.

“네가 먼저 마음에 드는 인간을 추천해도 좋고.”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오의 초상화’가 불쾌해하지 않는 것이었다. 유성운은 가급적이면 이 신사적인 근원이 만에 하나라도 인간을 미워하지 않아 주기를 바랐다.

“급한 일은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도 돼.”

“그렇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경청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해주는 건 이미지 관리뿐만이 아니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내인 역할을 해준다고요.”

“그래, 안내인. 그리고 도우미.”

유성운이 끄덕였다.

“헌터인 부모님을 보고 배운 게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헌터들도 처음에는 우왕좌왕해. 유명해지고 싶고, 대중 매체에 등장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지.”

“이해가 됩니다.”

“헌터로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해야 인지도가 높아지는지. 헌터들끼리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지 등등... 헌터의 사회생활을 돕기도 해줘.”

“그건 확실히 저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오는 크게 감명을 받은 것 같은 표정을 지어냈다.

“헌터는커녕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도 걱정이라서요.”

“하긴 내가 계속 옆에서 알려주는 거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유서운이 허탈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바쁜 사람이라 미안해.”

“아니요, 오히려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고마운 말이네.”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했다.

‘말이 존경이지 기대에 가깝겠지만 그것조차도 부담스러워.’

유성운이 헛기침을 하고는 말을 이었다.

“네가 종종 현대 문물을 활용할 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

“유성운 씨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 방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니저를 찾으면 좋을 것 같네.”

지오는 대뜸 대금을 보석과 같은 현물로 치르려 하거나, 맨발로 공공장소에 나타나기도 하고, 인간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여러 의문을 가지기도 했다.

“물론 지금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지만 너도 이것저것 배워서 나쁠 것 없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학교에 입학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배워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학교? 음, 그렇구나. 하지만 아무래도 네 나이에 학교를 입학하는 건 눈에 띄지….”

아마 지오는 ‘학교란 인간들이 일상과 사회생활에 관련된 지혜를 배우는 장소’라는 점에서 그런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지오를 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말이다.

“그럼 네 매니저가 될 사람으로는 꽤 다재다능한 인재가 좋겠는데.”

“제가 검은망토라는 것을 알고서도 저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면 더 좋겠습니다.”

“…너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 내가 열심히 찾아볼게.”

아, 유성운이 탄성을 뱉고는 물었다.

“평소에 다른 신과 접촉해 본 적은 있어?”

“아버지와 자주 교류합니다.”

“그… 전대 신 말고, 아예 별개의 신과 말이야.”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오는 마치 재밌는 농담을 들었다는 것처럼 웃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신과 자주 교류할 수 있었겠어요.”

“…….”

유성운은 입술에 힘을 준 채로 웃었다.

“그렇구나.”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주세요.”

“우리 지오 많이 평범하지.”

근원이 해달라는데 못 해줄 것도 없었다.

“지난번 태양교에서 공정의 불빛과 시선을 교환한 적이 있지 않던가?”

“공정의 불빛이라면 태양교의 여신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때 이후로 다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 대 신으로서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건데.”

“유성운 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으음….”

작은 신음을 흘린 유성운이 물었다.

“혹시 사고가 날 것 같아?”

“장난꾸러기일 나이는 지난 것 같습니다.”

“아르지오로서는?”

“완전히 동화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안전합니다.”

“주도권이 그 쪽에게 있지 않으니까?”

“그 모습 역시 저이니 주도권이라고 하기는 애매하겠지만요.”

“그래? 어쨌든 싸울 의도가 없다면 됐어.”

유성운도 ‘지오의 초상화’가 어떤 식으로 근원의 눈이 되어주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았다. 자신을 악신이라 소개한 아르지오는 단지 ‘지오’일 뿐 ‘지오의 초상화’이지는 않았다.

‘지오가 사고 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 말이 맞겠지.’

그래도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유성운이 입을 열었다.

“네가 만나게 될 죽음의 신은 전통적인 악신이야.”

“전통적인 악신?”

“섭리 속에서 태어났음에도 인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신이지.”

그는 지구의 토착 신이었다.

“탄생의 신과 쌍둥이 신이기도 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에 존재해서 그런지 대단히 점잖고 말수도 적어. 인간들에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신도 아니야.”

“제가 방문한다고 해서 반응해 주지 않으실지도 모르겠군요.”

“그럴 수도 있고, 지난번의 태양의 여신처럼 눈길을 줄 수도 있어. 하지만 죽음의 신은 지구에 현신체가 있는 몇 안 되는 신이라 소통이 될 가능성이 커.”

“현신체가 무엇입니까?”

“무형의 존재에 가까운 신성들이 인간들의 세상에 방문하기 위해 만든 인형 같은 거지. 조금 다른 경우겠지만, 네 아버지가 들어간 곰인형… 과도 비슷할 거야.”

“아하.”

지오가 웃으며 끄덕였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곰인형과 현신체를 비교할 수 있다니 유성운으로서도 참 놀라운 일이었다.

“톨게이트 지나고 얼마 안 가면 죽음의 신전이 있어.”

“기대가 됩니다.”

“악신의 신전이라 인기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눌 때 즈음.

죽음이 눈을 떴다.

* * *

“…….”

죽음이 제 딸을 보았다.

“내… 딸아….”

“죽음이시여, 어인 일로 눈을 뜨셨습니까.”

“…잔혹한… 신성이….”

“잔혹한 신성이라면 악신을 말씀하심인지요.”

“초대를… 원하… 는… 구나….”

“방문 허락 요청이 한 건 있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내… 하… 렴….”

베일 속 죽음이 속삭였다.

“내가 보겠다.”

그것은 죄인일까, 섭리일까, 영웅일까.

그도 아니라면 과연 무엇일지….

오

Chapter (140)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41)

141

제141화

한편 주현은.

“…….”

“꾸우.”

“…제가 들겠습니다.”

곰인형에게 간식 대접을 받고 있었다.

“이건 과일차인가요?”

“꾸.”

“좋은 향이 나네요, 번거로우셨을 텐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꾸꾸꾸….”

“그리고 다음부터 제가 먹을 건 제가 챙길게요. 그래도 된다면요.”

그가 덧붙였다.

“이 집의 주인이 아끼는 것으로 보이는 주방을 함부로 이용할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음식을 가져오는 것 정도라면 제가 해도 되지 않을까요?”

가능한 이곳 거대한 신비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하며 주현이 특유의 싹싹한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께 도움만 받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꾸?”

“이외에도 시킬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시켜주세요.”

그에 곰인형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알겠다는 듯이 끄덕였다.

‘호의를 거절한다고 생각해 화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닌가 보네.’

생김새는 평범한 곰인형이더라도 그 안에 깃든 것이 평범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다. 검은망토가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 아닌가. 그런 대단한 어르신에게 대접만 받고 있기엔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이런 곳에 머무는 존재와 이렇게 어느 정도 교류가 가능하다는 건 다행인 일이지만….’

주현은 영롱하게 반짝이는 과일차를 제 앞에 두고서는 잠시 침묵했다.

“…….”

이런 것까지 다행이라고 생각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다.

‘마셔도 되는 걸까.’

여태까지 잘 먹고 마시기는 했다만,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장소는 인간계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차원 중에서도 인간이 서식 가능한 차원이 있고, 신과 같은 거대한 존재가 머무를 수 있는 차원이 있다.

‘나처럼 헌터조차 아닌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숲속 오두막의 형태라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지만, 설령 그렇다고는 해도….’

주현이 생각하기에 이곳은 단연코 후자에 가까웠다. 인간이 아닌 신비가 머무는 차원인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섭취한다는 행위는 예로부터 하나의 의식으로 취급되어 왔지.’

신계의 음식을 먹고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전설은 흔했다. 그만큼 무언가를 먹는다는 행위는 그 음식이 속해 있는 차원에 한 발 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꾸우?”

“인간으로 걸어 나갈 수 있겠죠?”

주현이 걱정하는 바는 이것이었다. 신의 호의는 인간을 변질시킨다.

‘어떤 크기와 방향을 보여줄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인간에게 안전할 수만은 없다는 거지.’

지구의 존재하는 대부분의 성자와 성녀가 죽지 못해 살아가는 만큼, 검은망토가 보이는 호의에 주현이 어떻게 휩쓸릴지는 모르는 일이었다.

‘물론 적의를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한참을 망설이던 주현이 결국 과일차를 마셨다. 그건 단순히 대접해 준 것을 함부로 거절해선 안 된다는 예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주현이 허탈하게 웃었다.

“…여전히 맛있네.”

왜 그 수많은 전설 속 인간들이 먹을 것에 홀려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는지 알 것 같은 황홀한 맛이었다.

꽃을 담가둔 듯한 부드러운 봄바람과 합쳐, 달콤한 과일차는 주현의 혀를 부드럽게 녹여주었다.

‘그래, 나는 아직 인간이야.’

이곳에는 ‘다나’라는 이름을 가진 안티캣이 있었다. 특히 인간을 혐오하는 그것은 주현을 보면 슬슬 피하고 하악질을 하기에 바빴다. 그건 주현이 아직 인간임을 알려주는 지표였다.

‘왜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거부 반응도 점차 잠잠해지고 있지만….’

그게 무언가의 징조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냥 오래 봐서 서로 익숙해지고 있는 거겠지. 나 스스로 점검했을 때도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 믿고 싶어.’

주현이 눈을 깜박였다.

“…….”

자포자기할 생각까지 했던 주현이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그는 인간이기를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준비되는 대로 나갈 겁니다. 그래야 해요.”

“꾸.”

“평범한 인간인 제가 계속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으니까요.”

인간은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답게 살아야 했다. 그게 주현의 생각이었다.

“이곳에서 나가봤자 인간답게 살 수는 없을 거라는 점이 참 웃기는 부분이지만….”

대재앙 이전을 아는 주현은 ‘인간답게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나를 사랑해 주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권리가 있고, 제각기 찾아오는 행운과 불행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성장할 기회가 있었다. 강자끼리 협력하여 약자를 보호할 때 인간은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이룬다.

“…음.”

제가 생각해도 우습다는 듯이 주현이 머쓱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원하는 미래가 너무 이상적이라는 자각은 있어요.”

“꾸우?”

“세계 평화라도 이루고 싶은 거냐고 지오 씨가 물었는데,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그 일부분이라도 끌어올 수 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아서….”

꿈은 꿈이다.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없을 걸 알지만, 또 흉내 낼 수는 있으리라 믿기에 인간들은 그것을 ‘꿈’이라고 불렀다. 주현이 원하는 미래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 신기루와 같은 것을 일부분이나마 손에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에 걸맞은 정신력이었다. 열정, 신념, 희망. 인간이 자신의 짧은 생을 불태우도록 만들어주는 연료가 필요했다.

“그런데 지금은 의욕이 나지를 않네요. 그러니 선뜻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고 뭉그적거리는 거겠죠. 한심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많은 회의감을 느꼈다.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노력한다고 다 보상받지 못한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착한 아이가 존중과 행운을 얻는 세상이었다면 주현은 제 성을 버리지 않아도 되었을 거다. 결실을 맺은 자가 그에 걸맞은 대가를 받을 수 있었더라면 주현은 최소한 대리보다는 높은 직급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전부 괜찮았는데. 나아가는 속도도 느리고, 가끔은 뒤로 갈 때도 있고 멈춰 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속이 허한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전부 잃었다.

“…….”

“…….”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였네요.”

주현이 어깨를 으쓱였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주현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생각’이라는 걸 하려면 이 허한 속부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이미 몇 번인가 불행해 봤고 극복해 봤기에, 주현은 다시 일어날 순서를 알았다.

‘하지만 아직 나는 이곳에서 두 발로 걸어나갈 기력조차 없어서....’

특유의 미소를 지은 주현이 곰인형에게 물었다.

“제가 그래도 될까요?”

“꾸우.”

식탁 위로 올라간 곰인형은, 주현의 머리를 쓰다듬고선 아래로 내려갔다.

“꾸꾸, 꾸.”

“...잘 못 알아듣겠어요.”

“꾸우.”

그는 주현의 허벅지를 한 번 더 토닥이고선 안티캣과 함께 오두막을 나섰다. 고양이의 입에 물린 간식 봉지를 보니, 아마 또 오두막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낼 생각인 듯했다.

그게 꼭 주현의 시간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처럼 보여서.

“.......”

문득 다시, 회의감을 느꼈다.

‘...인간이 아닌 존재조차 이렇게 나를 배려를 해주는데.’

나는 왜 꿈을 꿨는가.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해.

* * *

죽음의 신전에 도착한 지오가 눈을 두 번 깜박였다.

“...생각보다 검소합니다.”

“인기가 많은 교단은 아니니까.”

“그것보다는....”

지오가 고개를 살포시 기울였다.

“한국적인 특색이 강한 것 같습니다.”

신전이라고 하면 왜인지 르네상스풍을 떠올리지 않던가. 서울 지부 태양교도 그렇고 지오반니의 태양교도 그렇고, 새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을 떠올렸기에 조금 신박했다.

“한옥이지 않습니까?”

“오면서 말한 거지만, 이 죽음의 신은 지구의 토착신이야. 각국에 죽음의 신전이 최소 하나씩은 있을 정도지.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지역의 특색을 강조한 겁니까? 지구의 토착신이라는 것을 한옥의 형태로 보여주기 위해?”

“죽음의 신전 중에서는 한국이 유독 건물 외관에 힘을 준 편이긴 해. 유일하게 죽음의 현신체가 있는 신전이라 그런 걸지도. 그게 죽음의 신 쪽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차의 문을 잠근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이곳은 세계 최초로 악신을 공식적 교단으로 인정한 사례야. 그만큼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발이 심해서 이 근처 주민들의 항의가 엄청 심했어. 기피 시설이었던 셈이지.”

“기피 시설이군요.”

“다른 것도 아닌 죽음의 신이잖아? 하도 신들에게 시달렸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섭리이고 뭐고 고려할 여유도 없었고.”

“의외군요.”

유성운의 말은 마치 신이 직접적으로 인간을 괴롭히던 시기가 있다는 것처럼 들렸다. 한때 사제이기도 했던 지오가 물었다.

“신들에게 시달렸습니까?”

“전통적인 신과 악신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도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야. 이전에는 신들이 하도 인간들의 삶에 간섭을 해서 크고 작은 재앙이 많았거든.”

“크고 작은 재앙이라.”

“어떤 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 천벌을 내린다든가, 아니면 강제로 지구에 자기 신전을 세워 버린다든가. 뭐, 인간을 배려할 이유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는 존재들이니 당연한 일들이었지.”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영원의 상징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의 지나친 간섭을 막는 데에 성공했거든.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정리될 일을… 어떻게 인위적으로나마 더 빨리 앞당겼다고 해야 하나.”

유성운이 손을 내저었다.

“그걸 설명하려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 말해 이런 거야. 이제는 신들도 인간계에 개입하려면 많은 투자를 해야 해.”

“투자가 싫은 이들은 함부로 개입하려 들지 않겠군요. 유성운 씨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버지도 인간들의 삶에 쉽게 간섭하지 못했던 것을 떠올려 왜 그런가 의문을 가졌는데, 그런 조치가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막다른 차원의 신들이 기웃거리던 때라 제대로 된 조치가 안 되었던 거겠지. 그나마 영원의 상징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했지만….”

유성운이 어깨를 으쓱였다.

“신의 지나친 개입을 막은 거지, 그 거대한 신비들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 그들 중 지구에 관심이 많은 신비들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흥미를 보였어.”

“죽음의 신도 그중 하나입니까?”

“지구의 토착신이라서 다른 차원에 눈길을 주려야 주기도 싫었을 거고. 아무튼 그런 신들 중에서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신비들도 많았어.”

“그걸 인간이 받아들이긴 쉽지 않았겠군요.”

“잘 이해한 것 같네. 하지만 그렇다고 있는 신들이 사라질 리도 없고, 결국 신비와의 공존은 예정된 미래잖아. 그렇다 보니 정부에서 조치를 좀 취했어.”

대표적으로는 죽음의 신전이 있다. 유성운이 아주 크지는 않은 한옥을 가리키며 말했다.

“건물의 크기를 줄이고, 한국적인 색채를 더한 거야.”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 신이 우리 지구의 토착신이라는 건 확실하게 알려준 셈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의 신이 한국만의 토착신인 건 또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인들에게는 각별하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만난 고향 친구의 느낌이겠군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

상상도 못 한 형태의, 적당한 크기의 한옥은 극심하게 반발하던 사람들을 일순 당황하게 했다. 그사이 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주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일종의 마케팅에 성공했다고 봐야겠지. 그 당시에는 워낙 죽는 사람이 많았고 수습도 잘 안됐는데, 그런 장례를 죽음의 신전에서 직접 주관해 주었거든.”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사람들. 죽음을 앞두었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위험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 그런 이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죽음의 신이 거주하는 신전에서 직접 장례가 치러진다는 것에 큰 메리트를 느꼈다.

“당장 본인이 절박하고 마음도 찢어지는데, 나름 정부와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죽음의 신이 장례를 주관해 주는 셈이잖아. 악신이고 뭐고 자비를 원할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도 끝까지 싫어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정부와 협회의 인식이 좋았나 봅니다. 죽음의 신이 안전하다고 공표한 시설에 대한 믿음이 애초에 크니 그런 사업도 성공한 것이겠죠.”

“네 말이 맞아, 정부와 협회는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사고 있어. 그런 곳에서 다방면으로 홍보하는 죽음의 신을 끝까지 안 믿기도 어려웠던 거라고 봐.”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에는 죽음의 신이 협조해 준 덕분도 컸어. 지구의 토착신이라 그런지 기본적으로 지구인들을 많이 아끼시거든. 인간들의 일에 왈가왈부하는 성격도 아니고….”

“현신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대재앙 이후 현신체를 만들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또 그때는 워낙 죽음이 잦게 일어났으니까. 토착신이 모습을 드러내기에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적당한 타이밍이라.”

“나도 정확한 사실은 잘 몰라. 왜 하필 한국에 머무는지도. 신들의 이야기는 내 쪽의 전문이 아니기도 하고, 죽음의 신은 워낙 조용한 분이라… 현신체로 세상을 구경하는 것 외에는 잘 반응하지도 않으셔.”

무던하게 웃은 유성운이 지오를 안내했다.

“그럼 들어갈까?”

“좋습니다.”

신전 입구에 다가가자, 창을 든 신전의 수문장이 물었다.

“유성운 헌터님이십니까?”

“예, 오늘 개인 기도실을 신청했는데요.”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곧이어 신전 내부에서 새하얀 사제복을 입은 사제가 나왔다.

머리카락은 하나로 묶었고, 두 눈은 하얀 천으로 가려져 있었으며, 왼손에는 하얗고 동그란 등을 들고 있었다. 한국적 특색이 느껴지는 사제복은 그걸 입은 사람의 성별을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

사제가 중성적인 음색으로 말했다.

“안내하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전 내부는 매우 어두웠고, 바닥은 얕은 물이 깔려 있었다. 그것은 단지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생물처럼 이곳저곳으로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사제는 마치 그 물의 흐름과 소통하듯이 발을 옮겼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일반인들이라면 거의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울 만큼 어두웠는데, 그렇기에 죽음의 신전 내부의 구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방문객은 오로지 안내 사제의 등불과 하얀 옷만을 보며 이동할 수 있었다.

이전 ‘보석의 수맥’에서와 달리 초상화 액자를 통해 정식으로 나왔기 때문일까. 동기화를 하는 중인 탓에 지오 역시 어둠 속에서 시야를 확보하지 못했다.

“…….”

다만 어둠 속에서 하얀 등을 들고 이동하는 사제들의 행렬은, 마치 어두운 밤 호숫가 위에 뜬 초롱불을 보는 듯했다.

“이곳이 오늘 유성운 형제님께 배정된 기도실입니다.”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실례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

유성운이 힐끗 지오를 보고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시죠?”

“주교님께서 뵙기를 청합니다.”

사제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신탁이 내려졌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찾아오는 손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대화를 바라는 손님이 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적극적이신걸.”

유성운이 지오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고 싶어?”

“글쎄요.”

곧 지오가 물었다.

“그분께서는 저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

잠시 말이 없던 사제가 곧 입을 열었다.

“…송구합니다, 이름 모를 신성이시여.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나를 두려워하고 있군요."

"한미한 저의 접대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셨다면 깊이 사죄드리옵나이다."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오의 입가에 붉은빛 선명한 미소가 드리웠다.

"친구를 사귀기란 참 어려운 거야, 그렇지?"

사제는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 * *

"……."

"…안내하겠습니다."

"그러지."

사람들이 다 나를 무서워해.

'이것도 민폐의 한 종류 아닌가.'

지오는 심란해졌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41)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42)

142

제142화

지오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에 상처받지 않았다.

'무서워할 수도 있지.'

대재앙 이전에도 서지오를 무서워하던 사람들은 많았다.

자기 혼자만 퇴화한 듯한 얼굴 근육은 웃을 줄도 몰랐고, 사교적인 활동을 크게 즐기지 않는 탓에 활동 범위도 좁았다. 거기에 유독 예의범절을 따지는 지오는 여러모로 가볍게 친분을 쌓기 힘든 인물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뜸하다 싶을 즈음이면 나오고는 했다.

'분위기가 무섭다면서….'

늘 무표정에, 키는 멀대같이 크고, 입고 다니는 옷은 언제나 검은색 정장.

'검은색이 얼마나 입기 편한 색상인데.'

개인적인 취향에 더해 편리함까지 고려한 선택이었으나, 그런 지오의 겉모습에 겁을 먹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다. 그도 자신이 편한 인상이 아니라는 자각은 있었다.

"……."

하지만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는 걸 보면 아무리 지오라도 심란해지는 것이다.

"다 와 갑니까?"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송구할 것까지야."

그냥 '우리가 어디까지 왔나요?'라는 질문에 이렇게까지 기겁해서 반응할 건 없지 않은가. 안내해 주는 사제는 딱히 호들갑을 떤 적은 없지만, 딱딱하게 굳은 걸음이나 살짝 흔들리는 음정 따위가 그의 공포심을 알려주고 있었다.

지오반니는 내심 생각했다.

'이건 정말 민폐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싫었다.

'수집상 직원분들은 그냥 대놓고 놀라고 말아서 웃어넘길 수라도 있지….'

같은 공포라도 결이 달랐다. 수집상의 사람들은 회복력이 좋았고, 무엇보다 지오라는 존재에게 잘 적응한 듯 보였다. 워낙 무심하고 태연한 사람들만 모여서 그런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를 안내해 주는 사제가 느끼는 감정은 진짜 제대로 된 공포였다.

'이렇게까지 무서워할 줄은.'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 손님 대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받은 친절은 다섯 배로 돌려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지오의 심기가 비틀어지고 마는 것이다.

"……."

"이 앞입니다."

"그렇군요."

거대한 대문 앞에 멈춰 선 사제에게, 지오가 감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영광이었습니다."

사제는 깊이 고개 숙였다.

"아버지 말씀에 따르는 저희를 부디 괘씸히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기도하려는 사제이자 한 명의 방문객으로 왔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이 미천한 사제의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에 지오가 물었다.

"괜찮으시다면 내 보잘것없는 선물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선물이라 하심은?"

"사제님께서는 단것을 즐기시는지요."

"단것… 예, 좋아합니다."

"제가 드리는 건 가벼운 선물이자 저의 감사의 뜻입니다."

지오는 한지에 곱게 포장된 과일 말랭이를 건넸다.

"햇볕에 말린 열매입니다."

"아…."

"드셔도 좋고, 드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다만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미안하니까.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신성께서 베풀어주신 따듯한 은혜, 잊지 않겠사옵나이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그러지 마요.

'왜 그러는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울 것 같았다.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부담스러웠다. 그냥 괴담이나 괴물 취급이면 웃긴다고 넘어가겠는데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며 무서워하니 지오로서는 너무 난감했다.

대체 뭐가 베풀어준 거고 은혜란 말인가. 고작 말랭이 하나로 성은이 망극 같은 대접은 받기 싫었다. 그는 사제가 뇌물에 담긴 자신의 간절함을 알아주었으면 했다.

"다음에 왔을 땐 지금보다는 편한 얼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상 질척거리는 것도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쯤에서 지오는 물러섰다.

그가 무섭게 생긴 건 사실이고, 무서운 걸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 초면인 관계에 계속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며 징징거리는 건 예의가 아니었다.

"……."

이렇게 생각하니 집에서 쉬고 있을 주현 씨가 그리워졌다.

'저랑 빨리 친해져요.'

착하고 매너 좋으면서도 귀신 들린 초상화를 무서워하지 않는 나의 예비 펜팔 친구야.

안 그래도 친화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괴담이 된 이후로 그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조금 곤란한 면이 있었다. 친구를 사귀기가 너무 어려워진 것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됩니까?"

"앞에 서시면, 제가 문지기에게 방울을 울리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딸랑—.

사제가 하얗게 빛나는 방울을 울렸다.

"……."

소음 하나 없이 부드럽게 문이 열렸다.

'…공포 영화 도입부?'

어두컴컴하고 거대한 신전에 소리 없이 열리는 문이라니, 제법 귀신 들린 저택 같고 신박했다.

'하지만 공포 컨셉이라면 귀신 들린 초상화인 나도 지지 않지.'

지오는 나중에 신전을 세울 일이 있다면 저작권의 허락을 구한 뒤 이 시스템을 꼭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보아하니 대중적인 제 이미지가 괴담에 가까워지는 듯한데 참 배울 점이 많았다.

'그나저나 얼굴도 모르는 어르신을 귀신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너무 무례한 짓인 걸까.'

죽음의 신 역시 지오에게는 곰인형 아버지인 태양신과 같은 급의 존재로 보였다. 이미 한번 태양신을 겪으며 '신=독거노인'이라는 인식이 뇌에 박혀버린 탓이었다.

그는 당당하게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문 안쪽으로 입장했다. 보아하니 여기도 집안 어르신께서 아주 외롭고 쓸쓸하게 생활하고 계신 듯한데, 지오는 그런 분께 재롱떨 자신이 있었다.

"…흠."

바닥 전체에 얕게 깔려 부드럽게 흐르는, 어둠에 물들어 검고 투명한 물길.

역시 소리 없이 거대한 문이 닫히고, 이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새하얀 등불이 피어올랐다.

"그대가 이곳의 주교님이십니까?"

"부디 말씀을 낮추십시오, 이름 모를 신성이시여."

입을 연 것은 작약처럼 풍성한 한복을 입은 한 여성이었다.

“저희의 무례를 용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까지 몸소 와주심은, 이곳 아버지의 초대에 응해 주셨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부족하나마 이곳의 관리자를 맡은 은령이라고 합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 저를 불러 주십시오, 이 방 안에 머물겠나이다.”

주교는 자신이 들고 있던 등불을 바닥에 내려 놓고서는, 조용히 물러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새까만 한복을 입고 새까만 너울로 얼굴을 가린 주교는 금세 어둠에 물들어 모습을 감췄다.

그제야 지오는 자신이 누구와 대화해야 할지를 알아챘다.

“아하.”

그가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을 보았다.

“이미 와 계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물기 어린 소음이 들려왔다.

“지구의 죽음을 뵙습니다.”

“…그대….”

작지만 환한 등불 사이로 ‘죽음’이 얼굴을 보였다.

“내 아이들에게… 잘… 해주었네….”

그것은 마치 어둠과 하나인 듯한 거대한 존재였다.

그 얼굴은 오랜 세월 굳건함을 유지한 고목을 닮았고, 벌어진 크고 작은 틈 사이로 등불을 닮은 새하얀 빛이 새어 나왔다.

그는 매우 길고 얇은 팔을 수없이 달고 있었으며, 등불에 비쳐 보이는 하반신은 새까만 강물을 닮아 무척이나 길게 늘어졌다.

거미줄처럼 펴져 있는 몸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검은 비단들. 지오는 이 방 전체가 죽음의 현신체가 만들어낸 것임을 깨달았다.

“멋진 모습입니다.”

감탄했다.

“당신은 강물이자 나무이군요.”

“그리… 보였나….”

“제가 밟고 있는 것은 당신의 무릎이고, 내가 보는 것은 팔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그대는… 내게 많이… 호의적이군….”

“그렇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지오는 어르신들을 좋아했다.

“저는 오늘 악신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한가….”

“당신께서는 왜 저를 불렀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대를….”

죽음의 음성은 마치 동굴의 울림처럼 거대했고.

“보았다.”

고요했다.

“죄 속에 있으나 죄인이 아니다.”

“섭리와 엇비슷하나 그 또한 아니야.”

“사악함에 영웅이라 할 수 없으니….”

허공에 달린 입으로 죽음은 아르지오를 정의했다.

“몸 바친 그대, 어찌 지옥에 있소.”

그가 말했다.

“죄인이라 비난받으나 죄인 아니고, 섭리 속에서 안온 누리길 거부하며, 피와 재물 탐하는 신성에도 그대는 한때 영웅이었구려. 나 그대 어여삐 여긴다. 그 영혼 안타깝도다.”

“…….”

“그대 비난받기 원하나 쉽지 않을 것이네. 이성 흐린 쾌락 속에 머무르기를 바라나 풍요와 평화 그대 곁에 머물 것이며, 허튼 망령으로 기억되기를 소원하나 역사의 거장으로 남겠지.”

죽음은 물었다.

“그대, 누구인가.”

의문이 담긴 순수한 질문이었다.

“이미 정했는가.”

“…….”

그리고 지오는.

“……?”

어이가 없었다.

“인간입니다.”

“그렇군, 그리 정했나.”

“아니 그냥 처음부터 인간이었습니다.”

“나 이해하네….”

“어르신, 제 말을 들어보시죠.”

지오는 좀 억울해졌다.

“제가 조금 특이한 경우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아닌 건 아닙니다.”

등 뒤에 집채만 한 까마귀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눈이 파충류처럼 쭉 찢어져서는 번쩍거리는 사람도 있고, 불로불사에 너무나 강해서 세상을 콧김 한 번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도 사람인데.

왜 나는 안 되느냔 말이다.

“이건 차별입니다.”

“차별….”

“인간의 다양성은 저처럼 특이한 사람도 거뜬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 잘 품어주겠지….”

“품어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 듣겠다….”

왜인지 한숨을 쉬는 것 같았다. 지오는 더더욱 억울해졌다. 인간의 다양성이 이토록 방대해졌는데 왜 귀신 들린 초상화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단 말인가.

그런 지오의 억울함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토론할 의지가 없는 건지, 저 혼자 알아서 결론을 내린 듯한 죽음의 신에게 달린 허공의 입들이 연신 중얼거렸다.

“가엾도다.”

“그 헌신과 애정 어여뻐라.”

“너른 품이 산보다 높고 강물보다 기니.”

“품 안에서 숨 쉬고.”

“품 안에서 잠들고.”

“생사가 그 안에 있다.”

“그럼에도 말하기를 인간이니.”

“끊이지 않고 사랑하겠구나.”

“끊이지 않고 베풀겠구나.”

“네게 끝이 있으랴.”

“오직 시작만이 있다.”

“그대에게는….”

으슥한 산골에서 속삭이듯 안개를 닮은 그 수많은 음성 중, 단 하나만이 말을 이었다.

“죽음이 없다.”

“…….”

지오는 생각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 나는 기인 열전의 길을 걷나.’

뜬금없이 불로불사 확정 소식을 받아 버리다니.

‘역시 난 대단해.’

초상화가 되었음을 인정했을 때부터 이미 어렴풋이 받아들인 사실이었지만, 아무래도 더 이상 지오는 평범하다고 말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듯했다. 오늘도 그의 자존감이 한층 높아졌다.

이제 슬슬 그만 높아져도 될 것 같지만 그 부분을 지적해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인간인 서지오의 할머니는 이미 타계하셨다. 유성운이 절규하고 인류가 통탄할 일이었다.

“…….”

지오는 곧 결론을 내렸다.

“…친구를 아주 많이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럼 됐다.

“그러면 평생 지루할 일은 없겠지요.”

“…그래….”

“종종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상을 차려 드리겠습니다.”

“상… 이라….”

“제게 죽음이 없다면 저희는 이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친구….”

죽음으로 이루어진 새까만 방이 둥그렇게 울렸다.

“그거 좋군.”

지오는 그것이 웃음임을 알아보았다.

“자주 오시게, 젊은 친구.”

“감사합니다.”

“그대의 선물을 기다리네.”

그렇게 지오의 친구가 늘어났다.

따란.

* * *

“오, 그래?”

기도실에서 대기하던 유성운이 물었다.

“아무튼 너를 무서워하지만 않는다면 다 친구인 거야?”

“기왕이면 착하고 예의 바른 분이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 너 안 무서워하는 착하고 예의 바른 모든 존재.”

“그렇다면 아무래도 친구 삼지 않을 이유가 없군요.”

“과연….”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름 어르신이라고 부르길래 설마 친구까지는 안 갈 줄 알았어.”

“생각했던 만큼 늙고 외로우신 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늙고 외로우신 분은 너의 아버지를 기준으로 삼아 하는 말인가?”

“제가 찾아뵙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쓸쓸하셨죠.”

“애초에 신이라는 무형의 존재를 어떻게 ‘늙었다’거나 ‘외롭다’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딱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죽음께선 딱히 외로워 보이지도 않으시던데요. 가족도 많으시고.”

“…….”

그 부분은 약간 흥미가 있었다. 유성운의 못된 버릇이 슬며시 고개를 내밀어 호기심을 표했다. 그가 물었다.

“그럼 죽음의 신은 네 눈에 어떤 상태로 보였어?”

지오가 보는 세상이 궁금했다.

“일단 외로워 보이지는 않았다고 했고.”

“음… 사람으로 따지자면 한 중장년쯤의….”

“중장년이라. 그리고?”

“포용력이 무척이나 좋은….”

잠시 고민하던 지오가 말을 이었다.

“귀차니즘?”

“…….”

“허튼짓이 아니고서야 밀어붙이면 받아줄 느낌이었어요.”

“어….”

“무엇보다 방 바깥으로 나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어, 그….”

“저랑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유성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음, 그래. 그렇군.

아직 인간이 이해하기는 힘든 영역인가 보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42)"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43)

143

제143화

모든 방문객이 떠나가고, 주교는 오늘 '서지오'를 안내했던 사제를 불렀다.

하얀 사제복과 하얀 등을 든 사제는 죽음의 현신체가 머무르는 방에 들어와 예를 표했다. 그는 등의 불을 끄고서는,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주교의 앞으로 가 떨어질 말을 기다렸다.

"오늘 하루 수고하였네."

곧이어 주교가 입을 열었다.

"고달팠을진대."

"제 영광입니다."

"필시 마음 졸이는 하루였겠지."

"아직 이 사제가 모자라여...."

"신성 앞에서 그 누가 허리를 곧게 펼 수 있겠느냐."

"하해와 같은 자애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래...."

주교가 자리에 앉으라며 손짓하고서는 물었다.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알려다오."

"예, 주교님."

사제가 고개를 깊이 숙이고서는 말을 이었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대하는 것에 몹시 능숙해 보였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러했지."

"단지 매우 강한 인간으로 보이기도 하였으나, 한순간에 인격을 바꾸시는 듯한 모습도 보이셨나이다."

"인격이라, 자아가 변한 것처럼 보였다는 의미인가?"

"그것은 아니옵고, 자아와 기억 모두는 그대로 유지된 채 성질만이 변하는 듯했습니다."

“변화무쌍한지고.”

“제가 들은 것은 아버지와 같이 무거운 음성과 햇볕처럼 따사로운 음성과 잔혹한 흥미가 느껴지는 날카로운 음성이었습니다.”

“가히 천변만화에 닿은 분이시로다.”

주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에게 상을 내리셨다지.”

“예, 이것을....”

사제가 자개로 장식된 작고 새까만 쟁반 위에 종이로 포장된 물건을 올렸다. 그러자 그것은 바닥에 깔린 물을 타고 흘러, 이내 주교의 앞까지 도달했다. 주교는 물건을 들어 올렸다.

무척이나 짙은 단내가 풍겼다.

“내 이것을 열어보지 않으마. 그분께서 무어라 하시든?”

“열매를 말린 것이라 하셨습니다. 달 것이라고도 하였지요.”

“그밖에 다른 말씀은 없었더냐.”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또?”

“다음에 봤을 때, 더 편한 모습이었으면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

주교가 다시 쟁반 위에 선물을 올려두고, 그것을 살며시 밀어 사제에게 돌려주었다. 사제는 공손히 고개를 숙인 뒤에 바스락 소리가 들리는 선물을 자신의 품에 넣었다.

그것을 확인한 주교가 검은 너울 너머로 말했다.

“너는 그분의 은총을 받았으니 가족을 해하지 말되 감사를 표해야 할 것이다.”

“예, 주교님.”

“그분께서 우리의 집을 찾으신다면 네가 모시도록 하여라.”

“예, 주교님.”

“내 너에게도 그분에 관련한 조언을 해주어야 할 터인데, 여의치가 않군....”

말끝을 흐린 주교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서 그분을 친구라 하셨으니 너 또한 그에 걸맞은 자세를 취하거라.”

“친구분께 극진한 대접을 바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거창한 대접은 원치 않으신다. 한 명의 방문객으로 대하되... 아버지의 친구임을 기억하면 될 것이다.”

“미욱한 사제이나 그리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악신이나 두려워하지 말거라. 사악한 신성이기 이전에 섭리이자 영웅이셨다.”

“.......”

“스스로를 인간이라 여기시더구나.”

그 험한 자애의 길을 어찌 걸으려고.

“나 역시 아버지의 미욱한 자식이라 너에게 해줄 조언이 그리 많지 않다. 단지 강물처럼 흐르시는 분이니 너는 거스를 생각을 말고 그저 몸을 맡기거라, 그리하면 화를 사지 않을 테다.”

“예, 마음에 새기겠나이다.”

“너 이외의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분의 정체를 함구했다. 너 또한 그랬으리라 믿는다. 신의 대접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바라시니 그 신비가 이곳에서 커지게 두어서는 안 된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머리를 깊이 조아리는 사제의 모습에 주교는 특유의 나긋한 음성으로 말했다.

“내 너를 나의 후계로 생각하니 영민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예, 주교님.”

“아버지께서 친구라 하심에 너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구나.”

잠시 말이 없던 주교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께서 인정한 친우이시니 그분께서 주신 선물이 해가 될 리가 없다. 너는 그 선물을 즐기되 이상이 생기면 나에게 언질을 주려무나, 내 조언을 주도록 하지.”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옵니다.”

“돌아가 쉬거라. 이곳은 아버지의 방, 죽음이 머무르는 방이니 아직 너에게는 독이 될 터. 네가 더욱 수월하게 적막과 어둠을 받아들일 때 다시 이곳으로 부르마.”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사제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그대로 조용히 죽음의 방을 나섰다.

“…….”

죽음 안에 남은 유일한 인간이, 주교가, 손에 든 곰방대를 수면 위에 올려두었다. 새까만 대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진 곰방대는 얕은 물에 빠지지 않고 단지 그림자만을 비추었다.

검은 너울 속에서 주교가 제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

“다른 뜻이 있으시거든 언제고 이 딸을 불러 주십시오.”

“…내… 딸아….”

“예, 아버지. 당신 자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렵… 더냐.”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시니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의 신성이 사악함에 경계하였나이다.”

죽음의 신과 그 현신체를 모시는 주교는 성녀가 아니다. 이곳의 죽음은 스스로 몸을 낮추어 현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 없이 노력만으로도 죽음의 신과의 소통이 가능했다.

다만 그 지척에서 신성을 모시고 있노라면 저절로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는 법. 주교는 오늘 방문한 사악한 신성이 제 아버지의 것과 일정 부분 비슷한 면이 있음을 눈치챘다.

“제가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될지요.”

“그는....”

“예, 아버지. 이 딸이 듣고 있습니다.”

“...흐른다....”

“아버지의 강물처럼 흐르는 겁니까?”

“거스를 이유 없고, 거스르지 못할지니... 네가 많이 아껴다오.”

“...제가 어찌 감히 신성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외롭지 않으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노라.”

“.......”

주교는 작게 웃었다.

“오늘따라 수다스러우시군요.”

“좋으냐.”

“적막함도 좋으나, 이런 날도 좋습니다.”

“나 역시 좋다....”

소음 하나 없이 죽음의 팔과 손이 제 방을 더듬었다. 그를 이루는 용과 같은 강물은 계속해서 흘렀고, 죽음을 감싼 새까만 너울은 그 위에 치장된 방울들과 함께 흔들렸다.

온몸으로 고요하게 웃으며 죽음이 자신의 기분을 표현했다.

“죄 속에 있으나 죄인 아니고, 스스로 인간임을 아나 섭리에 닿았으며, 사악한 별을 타고났음에도 그는 한때 영웅이었노라.”

“그런 신비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 역시 그가 직접 보이기 전까지 보지 못했다. 하나 그는 인간으로 존재하며 이야기 또한 매우 값지고 희귀하니, 그 젊은 친구를 내가 탐내겠다.”

“그리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주교가 다시 곰방대를 들어 올렸다.

“그분의 신전을 찾을까요.”

“그는 인간이니 신전이 없다.”

“성의를 표현하고 싶은데.”

“하면 친구가 되어주거라, 그가 원하는 바다.”

“친구라....”

곰방대로 연기 대신 안개를 내뿜으며, 주교가 끄덕였다.

“다시금 방문할 때에 환대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된다.”

“주무시겠습니까?”

“...그래....”

“소란을 멀리하시어 깊이 잠드소서.”

“…….”

“곁을 지키겠나이다.”

죽음이 소리내기를 멈추니, 주교 또한 안개만을 내뿜었다.

새까만 방에 익숙한 적막이 드리웠다.

* * *

참고로.

“제가 불로불사라더군요.”

“…그으래?”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고작 불로불사라는 소식은 지오의 기를 죽일 수 없었다.

“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긋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너 그러고서 평범하다고 말하면 나 정말 울어 버릴지도 몰라.”

“빈말이라도 좋으니 평범하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대체 무슨 고집인 건지를 모르겠네.”

“이런 비범한 저를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오… 그렇군….”

고개를 끄덕인 유성운이 차의 방향을 조절하며 물었다.

“그런데 그게 전부야?”

“무엇이 말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불로불사라는 걸 알게 되면 더 화들짝 놀라거든.”

“이미 초상화인 와중에 불로불사라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일까요?”

“글쎄다, 나름 놀랄 만한 일이 맞지 않을까.”

“저의 정신력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보통의 사람들은 그럴 거라는 이야기였어.”

유성운은 내심 중얼거렸다.

‘인간 흉내를 내고 싶으면 더 잘 내보라는 뜻이었지.’

어째 날이 갈수록 지오의 인간 흉내가 어설퍼지는 것 같았다. 아마 유성운이 특히 대하기 편한 인간이기 때문이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옆에서 보는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지오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조금 씁쓸해지는 기분에 유성운이 특유의 무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불로불사라고 하면….”

“예.”

“영원의 상징도 불로불사인데 너는 그 사람들이 외로울 것을 걱정했잖아.”

“그랬죠.”

“너는 걱정되지 않는 건가?”

“…….”

잠시 고민하는 시늉을 하던 지오가 이내 눈을 깜박였다.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째서야?”

“저는 잘 먹고 잘 살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 확실히 그래 보이기는 하지.”

유성운은 납득해 버렸다. 사는 게 지루할 틈이 없어 보이기는 했다.

“그럼 영원의 상징을 걱정했던 건 그 사람들은 네가 아니기 때문인가?”

“건방지고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요약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라 초상화 속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지만, 그분들은 이 나라와 지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말이 맞아.”

“그렇다면 잘 먹고 잘 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신의 걸음 하나에 수많은 생명의 앞날이 걸려 있고, 세상 모든 이들이 자신을 집중하며 두려워할 텐데.”

“그게 안 좋아 보여?”

“즐거운 일만 해도 모자랄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경외받고 혹은 욕을 먹어가며 평생 일하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

유성운은 조용히 생각했다.

‘본인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것 같은데 말이지.’

그는 지오반니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인어와 인간의 갈등이 완화되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보다 많은 이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수많은 사람을 구했다더라.

그래 놓고서는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형태로 죽었다지.

‘그렇게 죽어서도 이런 초상화의 형태로 박제되었고.’

애초에 ‘지오의 초상화’는 그 기본이 근원인 탓에 아주 걱정이 되지는 않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안쓰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인간으로서 근원의 생을 산다는 건 영원의 상징보다도 부담스러운 일일 테니 말이다.

잠시 고민하던 유성운이 이어 물었다.

“괜찮기는 한 거지?”

“저는 제 삶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불로불사라고 하면 딱히 평범하다고는 못 할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를 제외한 많은 인연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할 거야.”

지오는 당당했다.

“그게 왜 문제가 되죠?”

“…….”

오, 그렇군.

유성운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러니까 딱히 평범한 척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지?”

“유성운 씨는 믿음직한 친구이니 솔직하게 대화하려는 겁니다.”

“아, 그건 정말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물론 친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은 슬픈 일이 될 겁니다.”

지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슬픔보다는 살아서 함께했을 적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 많겠죠.”

“…그건….”

“지금도 친구를 찾기에 바쁜데, 벌써부터 그들의 죽음을 애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죽음은 하나의 상태이지 기피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물었다.

“이상하군요. 유성운 씨는 친구를 사귈 때 그가 죽을 것부터 걱정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아.”

“그렇다면 왜 저는 오지도 않은 친구의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글쎄, 평범한 인간이라면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할 테니까?

‘…하긴 지오라면 순식간에 다른 친구를 만들어 버리겠군. 최소한 혼자 남을 일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잠시 잊었어.’

그것과 별개로 ‘정말 평범한 인간 흉내 낼 생각이 없구나’ 싶긴 했다. 이런 것도 유성운 앞에서만 보이는 편한 모습일 테니 크게 신경 써야 할 것은 아닐지도 몰랐다.

결국 무어라 말하려던 유성운이 이내 포기했다. 그가 무던하게 웃었다.

“하긴 네가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보여도 군중 속에 섞이면 나름 인간 흉내는 잘 내는 녀석 아니던가.

‘그래도 지오에게 친구라고 규정을 당한 존재의 앞에서는 이렇게 솔직하게 구는 것이 이 녀석의 규칙이라면… 최대한 빨리 지오의 비서 될 사람을 구해 봐야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유성운이 물었다.

“그래서 죽음의 신과 대화하고 나니 의문은 풀렸어?”

“예, 제가 뭘 해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르지오가 자신 있게 선언했다.

“마왕이 되겠습니다.”

“…….”

끼익-

빨간불에 멈춰 서며, 유성운이 한숨처럼 웃었다.

“...풀어서 말해줄래?”

근원과의 대화는 매번 참 많은 심력을 소비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43)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44)

144

제144화

아르지오는 타고나길 잔혹한 성격이었다.

“기본적으로 피와 재물을 탐하죠.”

“본인을 그렇게 설명해도 돼?”

“사실이 그런 것을 어쩌겠습니까.”

둘은 수집상의 휴게실에서 마저 대화를 나누었다.

아직 바깥에 나와 있는 탓인지 지오의 머리카락은 백금발이었으나, 그의 표정은 초상화의 것과 같이 무뚝뚝하고 차분했다.

‘…내가 아는 사제님의 얼굴과는 많이 다른데, 저건 지오반니가 완전한 초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인 걸까.’

유성운이 그런 생각을 할 즈음 특유의 나직한 음성으로 지오가 말을 이었다.

“아르지오는 다방면으로 재능이 뛰어나 뭐든 배우려면 잘 배우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겁먹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본성 자체는 짐승에 가까운 탓인지 자극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인내심이 없는 편은 아닌 것 같지만….”

“자극적인 것이라면, 아까 말한 피와 재물?”

“거기에 더해 술과 전투도 즐깁니다. 그중에서도 가치 있는 상대와 온 힘을 다해 겨루는 것을 좋아하죠. 사실 겨룬다기보다는 서로 죽고 죽이는 과정에서 느끼는 아슬아슬함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스릴을 즐긴다는 건가. 이거 참….”

유성운이 어색하게 웃었다.

“헌터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꽤 있는 편이긴 해.”

“그렇습니까?”

“목숨을 건 혈투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지.”

“그런 취향이 더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에 취향은 다양한 편이니까, 음… 아르지오의 이야기도 이해는 가.”

“사회 통념에 잘 맞지 않는 취향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감사를 전한 지오가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아무 분별 없이 막무가내로 구는 건 아닙니다. 술을 원한다면 장인의 질 좋은 술을 바라고, 재물을 바란다면 이야기가 있는 금은보화를 탐내고, 전투를 한다면 온 힘을 다해 겨룰 가치가 있는 상대를 선호합니다.”

대단히 까다로운 취향이라는 거다.

“그런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투자하고 기다릴 수 있는 성격이기도 하죠.”

“지금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주는 이유가, 방금 전의… 마왕 발언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

“물론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했으니 유성운 씨도 이해하기에 편하시겠군요.”

백금발의 지오가 무뚝뚝하게 주장했다.

“용사와의 전투를 바랍니다.”

“…오…?”

“이전에는 나를 찾아오는 용사들이 많았죠.”

“…용사들이?”

“세상의 평화를 위협하는 악신이니까요.”

세상사 크고 작은 모든 안 좋은 일에 대한 만악의 근원이라 취급되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제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질 좋은 상대가 여럿 찾아오고는 했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

“그들과의 전투는 무척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르지오라는 인격을 제외한 다른 신성은 배신감이며 뭐며 잡생각이 많아 보였지만, 최소한 저는 그랬다는 겁니다.”

지오반니는 매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건 ‘서지오’가 아닌지 꽤 자연스러운 투정이었다.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가성비가 좋았던 것 같네요.”

“가성비….”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워낙 유명해서 인재들이 많이 찾아왔었는데.”

“홍보라, 그런 느낌이구나.”

유성운이 미묘한 웃음을 흘렸다.

“마왕이 되겠다는 소리가 그 홍보 때문이었어.”

“일종의 인재 모집 공고와 같은 셈입니다.”

지오반니의 푸르른 눈이 우수에 차 반짝였다.

“아르지오로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신과 대화를 나누어보니 더욱 명확해졌죠. 악신 아르지오로서 누려왔던 그 많은 전투들은 대단히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겁니다.”

“부당한 이득?”

“값진 전투를 하고자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저에게 좋은 인재들을 보내 주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흐름이 이상하지 않아?”

“죽음의 신께서 말씀하기를 저의 악명은 실상 저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운이 좋아 잠깐 가질 수 있었던 명성이었으

니, 이제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오, 그렇구나. 대단하네.”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를 악신으로 매도하고 누명을 씌웠던 사람들이 밉지는 않고?”

“화가 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값진 것을 얻었으니 괜찮습니다.”

“이거 참 감성적일 수가 없네.”

객관적인 상황만 따지면 이렇게 억울한 스토리가 또 없는데 말이다.

‘살생과 약탈의 본능을 타고났음에도 충분한 배려를 보이던 영웅의 씨앗이, 이런저런 누명과 매도 속에서… 기어이 악신이 되기까지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스토리의 던전이 있고, 그 던전의 보스가 아르지오였더라면 인간들에게는 얼마나 큰 폭탄이 되었을까. 그 막연한 상상만으로도 난감한 웃음이 흘러나왔다.

목을 쓸던 유성운이 물었다.

“아르지오로서의 끝은 어땠어?”

“봉인이었습니다.”

“봉인이라, 썩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는걸.”

“하지만 의미 없는 살생을 그만둘 수 있었으니 저는 좋았습니다.”

“의미 있는 살생이었다면 그마저도 좋았을 거고?”

“음… 아니요.”

의외로 지오는 부정했다.

“그때는 워낙 다양한 희생자들과 뭉쳐져 만들어진 신성이었던 탓에, 제가 원하지 않는 분노를 터트려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도권이 저에게는 없었던 셈이죠.”

그는 제 분노가 아니고서야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화를 내는 것도, 상대에게 가치를 매기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오로지 저의 권한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어서….”

“불쾌했나?”

“정말로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비록 한평생 짐승이라 불리며 짐승처럼 살았더라도 난 영리하게 굴 줄 아는데, 나의 값진 이성이라고는 전부 진흙탕에 빠진 기분이었어요.”

지오반니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한 이들입니까? 그 고귀한 영혼을 갈고 닦아 용사들은 나에게 안식을 주었지요. 그들의 삶을 전부 바쳐 이루어낸 뜻깊은 선물입니다.”

“마왕님치고는 용사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용감한 전사들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곧고 선한 영혼을 지녔으며, 뛰어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졌고, 매사에 신중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굴 줄을 알았어요.”

“선하고 예의 바른 인재들을 좋아하는 건 그때도 여전했네.”

“유성운 씨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늘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사랑해 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도 당시의 노력했던 과정만으로도 너무나 값지죠.”

유성운은 지오의 말을 이해했다.

‘정말 유구한 취향이잖아.’

서지오도, 지오반니도, 아르지오도.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결국 ‘지오’가 사랑하고 아끼는 인간의 상은 비슷비슷했다.

짧든 길든, 강하든 약하든, 그 정도와 방향이 어떻든 결국 영웅의 길을 걸었던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신답다고 할 수 있겠어.’

거대한 신비는 대개 영웅을 좋아한다.

“…….”

유성운이 한숨처럼 웃었다.

“그런 영웅들과 다시 겨루고 싶어서 마왕님이 되겠다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왜 꼭 마왕님이어야 해? 그냥 한번 겨뤄보자고 제안할 수도 있잖아.”

“원하는 것은 대련이 아닌 혈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목숨이며 뭐며 다 걸어야 한다는 거지.”

“모든 것을 지고, 혹은 모든 것을 버렸을 때의 싸움은 가장 흥미로워요.”

“너도 그랬고?”

“저는 모든 전투를 죽음과 함께했습니다.”

지오의 머리카락이 일순 붉게 물들었다.

“쉽게 맛보기 힘든 진미이죠.”

“…….”

“…아.”

그가 다시 백금발로 돌아왔다. 지오반니는 어색하게 웃었다. 순한 쾌남의 미소였다.

“죄송합니다, 동화가 덜 된 탓에 종종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어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다니지만 않는다면 상관없어.”

“아무리 통제가 안 된다고 한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애초에 아르지오는 그런 무의미한 학살을 즐기지 않으니까?”

“유성운 씨의 말이 맞습니다.”

“흐음….”

그는 잠시 고민했다.

“…그런데 말이야.”

“예,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 마왕 행세를 어떻게 할 생각인데?”

“…….”

“너는, 뭐라고 해야 하나.”

머뭇거리던 유성운이 이내 말을 이었다.

“악행이 어울리는 성격은 아니라서.”

“그, 그건….”

“나쁜 짓도 잘 못 하잖아, 너.”

살다 살다 악신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만, 그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다. 지오는 악행을 그리 잘 저지를 수 있는 성질의 존재가 아니었다.

“심지어 아르지오로 살았을 때도 무의미한 학살은 안 했다며.”

“잦은 혈투는 즐겼는데요.”

“그래서 먼저 시비를 걸었나? 애꿎은 사람을 괴롭혔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외에 다른 나쁜 짓이라도 한 적이 있기는 해?”

“…….”

한참을 망설이던 지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절도?”

“누구 것을 빼앗았는데.”

“재수 없는 돼지들의….”

“좋아, 일단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힌 적은 없고.”

“하지만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니, 그런 건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점에서부터 마왕님 탈락인 게 아닐까.”

“정정당당한 승부를 좋아하는 마왕님도 세상 어딘가에는 있지 않을까요?”

“정정당당한 마왕은 애초에 토벌단이 꾸려지지 않아요, 지오야. 용사들도 안 모여.”

“…그건 유성운 씨의 말이 맞습니다….”

지오는 꽤 심란해 보였다. 최근 꽤 다채로워진 지오의 표정을 분석하는 건 큐레이터로서 나름 즐거운 일이었기에, 유성운은 테이블 위에 놓인 싸구려 믹스커피를 마시며 그의 얼굴을 감상했다.

‘역시 보는 맛이 있는 조화로운 얼굴이란 말이지.’

유성운의 작품 감상이 얼마나 되었을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야 지오가 말을 이었다.

“…아르지오의 악명이 드높던 때에는 굳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절로 명성이 높아졌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사람은 잃어야 빈자리를 안다더니 제가 그 꼴이군요.”

“그렇게까지 말할 게 있나 싶은 이야기지만 말이야.”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을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까? 제가 딱히 비겁한 일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누명을 씌워 준다든가, 저를 악의 화신으로 여긴다든가… 그런.”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딱히 쉬워 보이지는 않네.”

유성운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부분은 차차 고민을 해보도록 하자. 일단은 네 집에서 휴식 중인 주현 씨의 일도 있고, 네 악신으로서의 자각도 완벽하지 않다면서.”

“그건 확실히 유성운 씨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 마왕으로 소문이 나기에는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군요. 적절한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마왕… 음, 글쎄. 그 마왕 프로젝트에 관련된 부분은 나도 좀 생각을 해볼게. 가능하면 피해가 덜한 쪽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 괜찮은가?”

“저야말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한 인재들과 겨루고 싶은 마음은 충만하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를 너무 무서워해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일도 꺼려집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차라리 너의 신분을 더 쪼개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네. 검은망토, 서지오 헌터, 그리고 악신 아르지오로… 음….”

거기까지 말한 유성운이 조금 머뭇거렸다.

“…나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운 씨.”

“일단 인류의 평화를 생각하는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근원의 존재는 그를 둘러싼 ‘이야기’를 토대로 몸집을 줄이고 부풀릴 수 있다. 간신히 ‘서지오’와 ‘검은망토’로 ‘지오의 초상화’를 분리해 안전 영역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제는 마왕이라니.

유성운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정원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 유성운이 보기에 느낄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음….”

“왜 그러십니까?”

“…미묘한 죄책감이…?”

“죄책감을 느낄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랄까… 그게….”

멀쩡한 사람 하나 세계적인 쓰레기로 만들 계획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심지어 아르지오 때의 상황을 재현하고 싶다면…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은 지오를 만악의 근원으로 만들어 되지도 않는 누명과 모욕을 뒤집어쓰게 한다는 건데.’

아무리 본인이 만족한다고 해도 이게 맞나?

‘물론 근원의 관점이야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식과 거리는 멀겠다만, 아무리 그래도… 지오는 인간으로서의 자아도 있고… 그렇다면 완전히 인간이 아니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

기분이 정말 묘했다.

“…내가 열심히 고민해 볼 테니까, 당분간 뭔가를 실천하지는 말아보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함께 고민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감사할 것까지야….”

지오를 무해한 마왕으로 만들 방법이라.

‘말이 되는 일인지는 고사하고, 내 권한으로 손봐도 될 일이 아닌데 이거.’

유성운이 애써 한숨을 참았다.

돌아가는 대로 비사벌을 봐야 할 것 같았다.

* * *

그렇게 지오가 귀가하고.

“…….”

유성운과 비슷한 고민을, 주현도 하게 되었다.

“…아, 마왕이요.”

“요약하자면 그렇지. 어떻습니까?”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아예 자기를 세계적인 욕받이로 만들어 달라는 것 같은데.

사악한 계략과는 거리가 먼 건실한 청년이 혼란에 빠졌다.

“…그건… 조금….”

“응?”

“너무 비양심적인 게…?”

애초에 마왕이 되는 의미가 없지 않나, 그거?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45)

145

제145화

자극이 아니라면 무슨 즐거움으로 이 긴 생을 살아갈까?

“저기 악마들의 왕이 있다!”

“검은 숲의 짐승들이 나왔다!”

목이 찔린 짐승처럼 시끄럽게 울어대는 사람들.

“전투를 준비하라!”

“아르지오가 왔다, 그를 노려!”

“사악한 짐승을 죽여라!”

분노와 공포와 흥분으로 떨리는 강철의 찢어지는 소리.

“그의 진입을 허용하지 마라!”

“아르지오를 죽, 커헉—…!!”

찔러 넣은 발톱 사이로 새어 나가는 단말마의 비명. 성대를 통한 미약한 흔들림과 따듯한 핏물. 찢어지는 가죽.

온몸을 흔드는 진동. 피부를 스치는 바람. 눈을 가리는 붉음. 발에 힘을 주어 땅을 박차면 세상이 뒤흔들리고, 내게 이를 드러내는 것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고, 떠들고 환호하고….

오늘은 누가 나와 어울릴까, 그 누가 나의 생을 앗아갈까. 그래 함께 보자 친구들아, 이제 또 어떤 피로 어떤 그림을 그릴까.

“괴, 괴물….”

“……”

아, 정말이지.

“…흐하.”

아르지오는 전쟁터를 사랑했다.

* * *

동물의 왕국_'아르지오'

동화율 61.9%

"......."

지오는 잠에서 깨어났다.

"...오...."

그는 감탄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믕."

"이런 스릴이라면 제법...?"

솔직히 말하자면 지오는 '아르지오'의 취향을 의심하고 있었다.

서지오로서도, 지오반니로서도, 기존의 지오는 전투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애초에 갈등을 별로 즐기지 않는 성격인데다 크게 활동적인 취미를 가지지도 않은 것이다.

하지만 동화율이 높아질수록 지오는 느끼는 바가 많아졌다.

"갈등을 즐기는 게 아니었어."

단지 아르지오는.

"시원하게 부딪히는 것이 좋았던 거야."

"므앙?"

"...말하고 나니 나도 무슨 차이인가 싶긴 하네."

붉은 머리칼이 되어 지오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가 다나를 껴안았다.

"하지만 본능에 충실할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즐거운 일인 것 같아."

지오는 방금 꾸었던 꿈을 떠올렸다.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살육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 위의 것들과 함께 즐거이 노는 것이다. 그 위는 피로 더러워져도 좋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도 좋은 백지와도 같았다.

꿈속에서 아르지오는 그림을 그렸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눈을 마주하고, 상대가 포효하면 나 역시 응답하고, 그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가장 나중에 즐기며....

"......."

그렇게 노는 것도, 제법.

"...매력적이야."

지오의 눈이 선명하게 휘었다.

인간의 체면과 이성을 전부 놓아버린 그 충만한 황홀감에, 다시 한번 푹 젖어보고 싶었다.

* * *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일세, 성실한 친구."

검은망토가 물었다.

“하룻밤 잘 주무셨는가?”

“아….”

딱히 잘 자지는 못했다.

‘마왕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잘 잘 수가 있겠어.’

주현은 어젯밤 검은망토가 터트린 폭탄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아주 잘 주무신 것 같지만, 거대한 신비의 선소리에 휘둘리는 건 인간의 종특인지라 주현은 내내 잠을 자지 못했다. 감당 못 할 이야기를 들어버린 탓이었다.

“…….”

하지만 그걸 대놓고 투덜거릴 만큼 정신이 없지도 않았다.

“…예, 뭐.”

“그래?”

“잘 잤습니다.”

주현은 어색하게 웃었다.

“오늘은 붉으시군요.”

“이 색이 가장 좋다고 하지 않았는가?”

“지금의 당신은 감정 표현이 뚜렷하셔서 대화하기에 좋다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듣기 거북할 정도의 솔직함은 나의 오랜 덕목일세. 알아주어서 고맙군.”

“하하….”

아르지오를 살피던 주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좋은 꿈을 꾸었기 때문이네.”

“어떤 꿈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괴물이라 부르는 꿈이었지.”

“…그게 좋은 꿈이군요?”

“최소한 나에게는 그런 모양일세.”

검은망토의 눈이 여우처럼 가늘게 휘어졌다.

“자네에게는 영 그렇지 못할 테지만?”

“제 짧은 식견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게 사실이죠.”

주현은 부정하지 못했다.

“그런 모욕이… 당신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까?”

“…….”

“…….”

곧 주현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거참 놀라운 관점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멍청한 소리라는 것은 주현도 잘 알고 있었다. 검은망토는 다른 누구도 아닌 악신이었다.

그 어떤 악신이 자신에게 쌓인 악명을 보며 상처를 받겠는가. 굳이 악신이 아니라 전통적인 섭리의 신이라고 해도 인간이 무어라 지껄이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었다.

“…….”

“…흐음.”

고개를 기울인 아르지오가 물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얼굴인데.”

“…사실은 그래요.”

“그렇다면 나와 대화하겠는가?”

“실례가 되지는 않을까요.”

“자네와 같은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가치가 있지.”

검은망토는 주현을 테이블에 앉히고는, 자신도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원래는 식사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식사 시간을 늦춘 것 같아 죄송합니다.”

“참 죄송할 것도 많군, 가끔 아침을 넘기는 것도 괜찮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훨씬 듣기에 좋아.”

“…….”

아르지오는 ‘사죄’보다는 ‘감사’가 더 좋다고 말한다.

“…….”

주현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자, 이제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 무얼 담고 있는가?”

“…제 말이 당신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말이 나오면 딱히 불쾌하게 들리지는 않더라고.”

“그렇다면 조금 더 편하게 말할 수 있겠네요.”

“얼마든지 내 경청하겠네.”

“당신은 스스로를….”

매우 조심스러운 어조로 주현이 말을 이었다.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악신이라고 하기에 검은망토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다.

“솔직함이 덕목이라 하시니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런 대화를 아주 좋아해.”

“자신을 인간이라 하심이 장난인지 진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늘 진심이었거늘, 이거 안타깝군.”

“그걸 감안하고도 당신은 악신답지 않은 악신입니다.”

주현은 티 나지 않게 심호흡을 했다. 공포에 손끝이 희미하게 떨렸다. 그가 손을 꽉 쥐었다.

“그간 당신이 저를 배려해 주신 것을 압니다.”

“자네를 내 친구로 삼고 싶었던 덕분이지.”

“그런 게 아니었더라면, 저를 많이 힘들게 하셨을까요.”

“나에게 그런 어설픈 취미는 없는데.”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해주실 겁니까?”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아르지오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악인이라면 지나칠 것이고, 선한 이라면 식사를 대접할 걸세. 말동무가 필요하다면 대화를 청할 테고 길을 잃었다면 갈 곳을 알려주겠지.”

“…어째서 그렇게까지 해주십니까?”

“나에게 있어 그것은 그리 큰 배려와 자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난 내 요리를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는 걸 아주 좋아하고, 선하며 예의 바른 사람이 미소 짓는 걸 좋아해.”

그는 그게 전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거창한 대의도 신념도 없지.”

“…저는 오히려 그렇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배려와 자비는 거창하지 않을 때 가장 큰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이었다.

“역시 당신은 다정해요.”

이게 악신으로서의 수작이라면 주현은 이미 홀린 것일 터이나, 모든 게 거짓이라고 해도 좋았다. 진의가 무엇이든 지금 그가 느끼는 부드러운 배려라면 보다 더 많은 이가 위로를 받을 것이었다.

주현은 검은망토를 믿지 않았다. 거대한 신비는 인간이 채 해석할 수 없는 존재이니, 그들의 자비는 자비가 아니고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의 애정을 받으며 살아오지 않았던가.

“그 어떤 신이 한낱 인간을 위해 요리를 해 주겠습니까. 손에 물을 묻히고, 불 앞에 서서 그 귀한 시간을 보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몸을 쉬이 낮추셨죠.”

“고작 식사 대접 하나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당신에게는 신의 오만이 없으며 악신의 잔혹함이 없습니다. 자신을 인간이라 칭하며 인간을 하찮은 존재라 여기지 않아요. 악의도, 살의도 없이 단지 흥미만이 있군요.”

그러니 이상했다.

“누가, 어째서 당신을 악이라고 불렀습니까?”

“…사람들이 그리 불렀네.”

“단지 누명과 모욕 속에서 악신이 되었다면 그게 당신의 죄인가요?”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어.”

“최소한 공포와 경멸 속에 고립되실 분이 아님은 알겠습니다.”

주현은 머뭇거리면서도 제 말을 이었다.

“저는 당신이, 마왕이라고….”

“…….”

“…그런 취급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끝이 흔들렸다.

‘역시 불쾌해하겠지.’

하고 싶은 말을 마친 주현은 상대가 화를 낼까 걱정했다.

마왕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까지 자신의 악명을 추구하는 신에게 ‘악신답지 않다’라는 말은 큰 모욕일 것이었다.

하지만 의외로 검은망토는 화내지 않았다.

“…그래?”

“…….”

“그렇군.”

단지 그는 조금, 슬퍼 보였다.

“그대도 나에게 악신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니요!”

잠시 멍해졌던 주현이 다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단지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런 건 옳지 않으니까!”

그는 경외와 환희를 동시에 느꼈다.

놀랍게도 아르지오는 대화가 가능했다. 의견을 나누는 것이 가능한 악신이었다. 그에게는 넘실거리는 악의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즐거움을 탐하는 자의 순수함만이 있었다.

주현은 그 점에서 대화를 나눌 의지를 얻었다. 무언가 정의할 수 없는, 희망을 얻었다.

“확실히 제가 하는 말이 당신에겐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제 당신이 말하고 오늘 좋았다 말한 꿈은 아르지오라는 결국 무고한 사람을 욕받이로 쓰겠다는 겁니다.”

신의 관점이 따로 있는 것을 알지만, 주현은 그간 검은망토와 대화하며 그에게 일정 부분 인간으로서의 자각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꽤 인간다운 면모가 있는 신이었다.

아르지오는 악신에 어울리지 않는 자임에도 사악한 신성을 얻었다.

“저는, 이게… 최소한 바람직한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당신이 무엇을 바라고 뭘 하려는지 저는 제대로 이해했지만, 그럼에도요.”

그는 영웅과의 처절한 전투를 원한다고 했다. 그건 진심일 것이다. 하지만 그걸 위해 아르지오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도당하고 온갖 누명을 써야 한다면 그건 있어선 안 되는 일이었다.

"사람들이 죄를 짓게끔 만들지 말아주세요."

"죄를 짓는다고?"

"무지한 사람이 무고한 사람을 죄인 취급하게끔 만드시려는 게 아닙니까."

"그게 어찌 죄가 되지?"

아르지오가 물었다.

"사악한 짐승은 죄인 취급을 받을만 해."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죄인 취급을 받아선 안 됩니다."

"나는 질 좋은 전투를 즐길 수 있고, 사람들은 원망할 곳을 찾을 수 있어."

"분명 그건 합리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근본부터 비틀린 거래입니다."

"지금 세상은 원망할 존재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던가?"

"그 많은 사람은 올바른 방향으로 분노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현은 조금 절박해졌다.

"당신의 말을 듣고 내내 고민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마왕으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의 숨통을 틔워줄 방법을 손에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생각해 냈어요. 하지만 그래서 결국 뭐가 남죠?"

"글쎄, 수많은 사람의 숨통?"

"그건 사실 숨통이 아니에요. 애꿎은 사람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편해진다면, 그건 단지 망가졌기에 느낄 수 있는 체념에 가깝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편해지는 걸 테고요."

"무엇을 포기했다는 건가?"

"인간으로서 살기를 포기한 겁니다. 더 나아질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배려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 수두룩한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다면, 우리에게는...."

머뭇거리던 주현이 이내 말을 이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단지 남을 비난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짐승들만이 남을 것이었다.

"제가 너무 과장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겐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자네는 나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군."

"최소한 한국인이라면 검은망토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증거죠."

주현이 간청했다.

"인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짐승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

아르지오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가 이내 말했다.

"그대는 영웅이군."

검은망토는 주현을 동정했다.

“가엾은지고.”

“…예?”

“…….”

“…….”

짧은 침묵 속에서, 악신의 머리칼이 검게 물들었다.

“음, 그런가….”

“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불쾌하셨을까요?”

“아니요, 타당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는 표정이라고는 지을 줄 모르는 사람처럼 무뚝뚝한 얼굴을 했다. 순간 화가 났나 싶었지만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단지 그는 말을 이었다.

“그러니 타협점을 찾아보죠.”

“타협점… 인가요?”

“사람들은 사람답게 남을 수 있으면서도.”

“예.”

“나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타협점 말입니다.”

“…아….”

자신이 입에 담았으나 저 입에서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 검은망토는 ‘상처’라고 했다.

한참 뒤에야 주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악신이라 칭해질 때, 상처가 되셨습니까?”

“그건 나에게 큰 무기이자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새까만 악신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동화를 읽어주는 어른처럼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했다.

“그러니 상처 역시 받았을 겁니다.”

“…그건.”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랬겠죠.”

검은망토는 말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그럼 식사할까요.”

“…….”

당혹 속에서 미묘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어쩌지 못하던 주현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죠.”

이건 도무지 배려인지, 아니면 고집인지 모르겠다.

참 이상한 신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45)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46)

146

제146화

주현과의 대화는 지오를 반성하게끔 만들어 주었다.

“아무래도 너무 나 좋을 대로만 생각했던 것 같다.”

서로 윈윈인 것처럼 보이는 거래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 거래에 응하지 않을 자유가 있었다. 지오를 마왕으로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의 의견까지 무시할 수는 없었다.

“나만의 전쟁터를 꾸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건 내 이기심이고, 그 이기심에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야 뒷맛이 안 좋아. 내가 바라는 전쟁은 그런 게 아니야.”

무엇보다, 주현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소중한 마왕 프로젝트는....”

“.......”

“사람들과 나를 동시에 해치는 짓이라고.”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다.

“.......”

“.......”

적막한 다락방.

지오는 손에 허니를 쥐고 그 몰랑몰랑한 촉감을 즐겼다. 손바닥에 찹찹 감기는 것이 아주 촉감 맛집이었다.

한참이나 찰랑거리면서도 쫀득한 그 감촉을 즐기던 지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한다.”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생각이 좀 없는 편이긴 하지.”

“꾸륵?”

“유독 뇌가 맑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지오와 같을 수는 없었다.

“한 21살까지만 해도 다 나처럼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기는 했는데.”

인생 만족도와 자존감이 한없이 높은 서지오는 좀처럼 남들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래서 남들과 자신의 정신 구조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도 성인이 된 지 1년이 지나서야 알았다.

“어쩐지 영화나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은 늘 고뇌에 시달리더라니.”

지오는 그게 창작물 특유의 과장된 표현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른바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을 좀 안고 사는 편이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더라.”

“꿍?”

“그러게, 왜 그러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본인 뇌세포를 학대하는 이유가 뭘까.”

현재만 보고 사는 데다 가끔 과거와 미래를 떠올려도 아름다운 기억뿐인 지오와는 여러모로 달랐다. 그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지 도통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고, 오지 않은 상황에 겁을 먹는다. 상황을 하나의 상황으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그를 통해 고통받는다.

“감정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현실과 엮어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내지.”

“꿍….”

“솔직한 심정으로는 왜 스스로를 괴롭히나 싶다. 그건 자학으로 쳐주지 않는 건가?”

“꾸르륵.”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지오도 ‘아 사람들이 다 나 같지는 않구나’라는 걸 알긴 했다. 비록 의무 교육을 받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조차도 몰랐지만, 워낙 인생을 생각 없이 즐겨서 그렇지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드물게 머뭇거리며 지오가 중얼거렸다.

“아르지오 씨도 힘들 때가 있기는 했겠지.”

“…….”

“있었겠지? 그랬을 때가?”

인생 한 점 후회 없이 잘 즐기다 죽은 ‘지오반니’의 사례가 있는 탓에 확신하기가 어려웠다. 솔직히 서지오의 입장에서는 ‘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싶은 상황인데도 그는 멀쩡했던 탓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아르지오’ 역시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지오도 인정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아 괜찮구나’ 싶었는데, 그래. 사실 따져보면 썩 그렇게 안락하고 평화로운 인생은 아니었어. 고난과 역경에 절어 있는 삶이었으니까.”

다재다능한 인재로 집안의 귀여움을 받다가, 어린 나이에 능력 하나 발현했다고 짐승 취급을 받았다. 잔뜩 구박받다가 쫓겨난 곳은 햇볕도 들어오지 않고 위험한 생물이 모여 있는 웬 마굴이었고 말이다.

“…….”

“꾸르?”

“…근데 솔직히 거기가 더 재밌기는 했….”

“꾱꾱꾱.”

“네 말이 맞다, 허니. 동기화도 다 안 된 내가 단정할 사안은 아니야.”

“꾺.”

“하지만 진짜 그 집구석보다는 훨씬 재밌었는데.”

아무튼 아르지오 61.9% 함유량의 초상화로서 단언할 바가 아니긴 했다. 순도 100%가 되기 전까지는 확신해선 안 됐다. 지오는 애써 객관적으로 ‘아르지오’의 불우한 인생을 파악했다.

“어쨌든 화가 났던 건 사실이니까.”

감히 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집구석 돼지 새끼들의 멱을 기필코 따내리라 다짐했지 않던가. 아마 ‘아르지오’도 나름대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화도 난 게 아니었을까 싶다.

“본인에게 자각은 없었어도 상처였을 수는 있어.”

“꾸르르….”

“내가 단순하다고 아르지오 씨까지 그러리라는 법은 없지.”

그러니 지오는 반성하기로 했다.

“내 상처는 나 스스로 돌보아야 하는 법.”

“꾱?”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며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직하고 매너 있게 살 것을 다짐합니다.”

“꾱꾱꾱….”

“그런 의미에서 마왕 프로젝트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겠네.”

주현이 조언해 주었던 대로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보는 것이다. 지오는 그렇게 다짐하며 주현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정확히는 온기를 담고 있던 그 갈색 눈을 말이다.

“분명 걱정해 주었던 것 같지.”

“꾸륵.”

“안주현 씨에게는 미안하게 되었어.”

얼떨결에 초상화니 악신이니 불로불사니, 온갖 엄한 수식어를 달게 된 지오였지만 그는 여린 마음을 가진 한 명의 인간에 불과했다. 그런 그는 주현의 걱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

“역시 좋은 사람이야.”

이거 참 감사하게도. 다락방에 때아닌 훈훈함이 감돌았다.

지오가 아무리 비범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주현은 ‘그럼에도 무고한 사람이 비난받는 건 옳지 않다’라며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던가. 그는 심지어 지오가 말한 ‘상처’라는 단어에 큰 신경을 써주기까지 했다.

“괜히 어리광을 부린 것 같아 멋쩍기도 하고.”

“꾸르르륵?”

“하긴 주현 씨가 위로해 준 건 ‘아르지오’일 테니까.”

“꾱, 꾸륵.”

“…그래, 일단 잘까.”

짧은 반성을 마치니 온몸이 노곤노곤해졌다.

식사한 뒤엔 늘 그렇듯 졸음이 그를 찾아왔다. 그가 몸을 기댄 의자는 안락했다. 다락방 창문 사이로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 속에서 지오는 허니와 함께 짧은 오수를 즐겼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다.

“…….”

동화율 94.2%

“……?”

붉어진 머리칼의 지오가 중얼거렸다.

“나 불행했던 거 맞나?”

꿈속의 ‘아르지오’가 너무 암시롱 않아 보여서 지오는 조금 황당해졌다. 이놈의 짐승 새끼는 제 인생을 120%로 즐기다가 원하는 방식으로 알아서 잘 하직했다.

지오의 황금색 눈이 잘게 떨렸다.

“아니, 이렇게 되면… 내가….”

“꾸륵?”

“주현 씨 얼굴 보기가 민망해지는데.”

“꿍?”

“너무… 엄살쟁이 같잖아?”

괜히 걱정받고 왔다.

졸지에 지오는 24살이나 먹고 엄살을 부린 못난이가 되어버렸다.

* * *

지오가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있을 즈음, 비사벌은 웃었다.

아주 빵 터졌다.

“아학, 아하하하하하하학!!”

“…….”

“큽, 크흐… 흐흐흐흡…!”

비사벌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마왕이요?”

“예, 마왕님이요.”

“하 역시 내 인생의 비타민,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아.”

“길드장님은 좀 지루하신 편이 인류 평화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먼저 인류의 평화를 위협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불행 대놓고 즐기셔서 문제기는 하죠.”

“아무튼 내 탓은 아니었습니다.”

쓰흡.

숨을 가다듬은 비사벌이 말했다.

“마왕과 용사라니, 이보다 적절한 비유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딱히 농담인 상황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지금 새로운 마왕을 풀어놓기엔 지구의 명줄이 위험한데.”

비사벌은 대개 흥미 위주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다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건 아니었다. 그는 굳이 따지자면 인류의 평화나 지구의 장수를 기원하는 쪽에 가까웠다.

달리 말해, 비사벌만 한 쾌락주의자가 걱정하지 않으면 위험할 정도로 위태로운 세상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니 비사벌도 마냥 제가 보고 싶은 것만 추구할 수는 없었다.

“정말 개인적으로 지구에 마왕님을 두고 가까이에서 감상하고 싶습니다만.”

“제발 자제해 주세요.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지구가 망할 겁니다.”

“저도 그걸 알아서 정말 곤란하군요. 이렇게 아쉬울 때가 다 있나….”

그는 진심으로 아쉬워했다.

“기왕 내 품에 들어온 작품이니 내 고향에서 이벤트가 열렸으면 하는데.”

자신이 거금을 들여 산, 그것도 마음에 쏙 드는 작품이 재롱을 떨어 주겠다지 않는가. 가능한 제 앞에서 그 재롱을 떨어 주었으면 하지만 적당한 무대가 없는 고로 힘든 소원이 될 듯싶었다.

“왜 면담을 요청하셨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확실히 위험한 부탁이군요.”

“다른 무엇도 아닌 마왕이라고 하니 그 어감도 썩 좋지가 않고요.”

유성운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전부를 건 혈투입니다.”

자기 자신의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질구레한 것부터 시작해 그를 이루는 신념까지 건 진심 어린 결투를 바라고 있었다. 탐욕을 보인 아르지오에게선 짙은 피 냄새가 났다.

“그래서 다른 전쟁터를 알아봐 줄까 했는데 본인의 전쟁이 아니면 흥미가 없는 것 같고.”

“모든 시선과 감정이 아르지오 그 자신에게 집중되기를 바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주인공인 무대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가만있어도 용사가 기어들어 와주는 마왕님이 되길 원한 건가.”

“그게 아르지오에게는 가장 익숙한 순서이기도 할 테니까요.”

유성운은 아르지오의 이야기를 들었다. 짐승으로 매도당하고, 토벌의 대상이 되어, 기어이 악신의 사악한 신성을 얻어 봉인까지 당한 거대한 신비. 그는 분노와 탐욕의 악신이다.

“지오는 그때의 즐거움을 다시 누리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르지오에게 고통이 아니었다고 합니까?”

“그런 기색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이다.

“그와 같은 경로의 악신들은 하나같이 증오와 경멸에 절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정말 드물고 희귀한 일이죠. 지오는 심지어 자신을 봉인한 이들을 동정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르지오는 자신을 봉인한 용사들이 안쓰럽고 기특하다고 표현했다.

“그러니 정말 지오가 마왕이 된다고 해도, 가능하면 피해가 덜한 쪽을 구상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아르지오 쪽은 정확히 모르지만....”

“애초에 ‘지오의 초상화’는 선하고 예의 바른 것을 좋아하는 만큼 그 자신도 그런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는 그 의지가 어떻게 발현이 되든지 간에,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길드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오는 전투 그 자체를 즐기지 거기에서 파생된 영향력이나 재물을 크게 원하지는 않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부가적인 소득인 것 같고.”

“재물과 명성을 반기기는 해도 그것을 탐하지는 않는다는 말이군요. 잘 이해했습니다. 아마 그 재물이며 명성 역시 일종의 전리품으로 여겼을 테죠. 그 자체에 대한 탐욕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예, 상당한 선호도를 보이는 것과 별개로 그것들에 대한 욕구가 크지는 않습니다. 길드장님의 말씀대로 전투에서 자신이 승리했음을 증명할 수단일 뿐일 겁니다.”

유성운은 아르지오와 마주친 첫날 그의 행색을 이미 보고했다.

온몸을 치장한 금은보화와 길게 땋아 내린 짙은 색채의 적발, 그리고 짐승의 가죽. 그는 확실히 화려한 것을 선호했다. 겉모습부터 시작해 삶의 태도까지도.

하지만 아르지오가 재물과 명성 그 자체에 집착했다면 ‘지오의 초상화’부터가 화려해졌을 것이다. 자신을 감히 친근하게 대하는 유성운을 용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말이다.

“아르지오가 진심으로 원하는 건 전투뿐이에요.”

“그야말로 짐승처럼 굴기를 바라는 듯한데.”

체면이니 직위니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을 내버리거나 혹은 모든 것을 건 전투를 바란다. 온전히 싸움에 몰입할 수 있는 전쟁터를 원하는 게 분명했다.

“그럼 일단....”

비사벌이 순서를 정리했다.

“‘서지오 씨’를 세상에 보여야겠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라니, 원래 준비하던 사안이었잖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지요.”

길게 찢어진 비사벌의 동공이 조금 확장되었다. 그의 시선은 눈앞의 유성운이 아니라 허공에 닿아 있었지만, 마치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수시로 움직였다.

그 입술이 달싹였다.

“...그래요, 먼저 서지오 헌터가 세상에 나오면....”

“.......”

“그의 자리가 생기겠지. 작은 기회가 생길 거고... 음, 그래.”

“.......”

“인어들이... 맞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으니....”

곧 비사벌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집상의 헌터로 서지오 씨를 공개한 뒤, 그에게 적당한 던전의 공략을 맡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전투가 아닌 대련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도 확인해야겠어요.”

“괜찮은 던전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서지오 헌터가 원하는 전쟁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되려면 일단 그의 손속을 봐야 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어 적절한 장소를 마련해야겠군요.”

제 상관을 응시하던 유성운이 이내 물었다.

“지오에게 길드장님과의 대화를 요청해 볼까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좋습니다.”

비사벌이 짙게 눈을 휘었다.

“찾아올 손님을 재촉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

유성운이 질린 얼굴로 말했다.

“…슬슬 스킬명을 ‘예지’로 변경하시는 건 어떠십니까?”

“내 스킬은 어디까지나 감정이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끔 대화하기 싫어질 때가 있으십니다.”

“직장 상사랑 대화하기는 언제나 싫어하는 주제에.”

“그건 현대인의 덕목이고요.”

“내가 이래서 유성운 씨를 좋아해.”

그는 제 수집품의 건방진 재롱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그에 유성운은 더더욱 질린 표정이 되었지만, 비사벌은 저 혼자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 버릴 뿐이었다.

“그럼 우리 ‘서지오 씨’를 위한 비서를 먼저 두어야 할 것 같은데.”

“아… 그건 명단을 일단 만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초상화 안에서 요양 중이라던 사람 이름이 주현이라고 했죠?”

“에라이.”

유성운은 주섬주섬 꺼낸 서류를 다시 가방 안에 처박았다. 연약한 종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구겨졌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알면 왜 사서 고생을 했을까?”

“사서 고생해 성의를 보이는 것이 직장인의 덕목이라서요.”

“우리 직원들은 다들 참 성실하단 말이야.”

“어쩐지 지오도 그 주현이란 사람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친구가 생겨서 기쁜 모양이죠?”

“본인은 아직 아니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시간문제지.”

비사벌이 드물게 삐뚤어진 미소를 지었다.

“영웅이라면 지오를 싫어할 수가 없어요.”

“…영웅이요?”

"아이고 이런, 내가 과찬이 심했습니다."

그는 대놓고 비꼬았다.

"만용에 찌든 머저리 말입니다."

"……."

유성운이 두 손으로 제 얼굴을 쓸었다.

"…제발 본인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나도 체면은 차리죠."

"알아보니 인생 참 열심히 살았던데 왜 그러십니까."

"성실한 사람이라는 건 저도 압니다."

그냥, 단지.

"내가 싫어할 뿐이야."

비사벌은 영웅이라는 족속과 잘 맞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유성운 씨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그거대로 재앙일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지오와 주현 씨는 금방 친구가 될 겁니다."

"아예 확신하시는군요."

"그야 거대한 신비는 영웅을 좋아하는 법이죠."

달리 말하자면 호구를 좋아했다.

"그리고 지오는 신비 중에서도 가장 인간다운 신비이니, 그 주현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도 큰 무리가 없을 거고요."

"하지만 워낙 거대한 존재감 때문에 주현 씨가 거부감을 느낄 일은 없겠습니까?"

"그러기엔 '지오의 초상화'가 지금까지 증명해 온 취향이 있습니다. 그는 영웅의 마음에 꼭 드는 신성이지요."

비사벌은 늘 그렇듯 가볍게 웃었다.

"서로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그런 비사벌의 눈동자 안에는, 어째서인지 유성운이 갇혀 있었다.

"그래요."

"……."

"재밌겠네."

그의 눈이 더욱 가늘게 굽어졌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46)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46)"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47)

147

제147화

생각 없이 살아서 그렇지, 지오가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다.

“…….”

오히려 지오의 뇌는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더 빠르게 굴러갔다.

서지오는 자신의 고향이 더 각박해지지 않았으면 했다. 지오반니는 사람들이 저도 모르는 새에 죄를 짓지 않길 원했고, 아르지오는 전사답지 않은 같잖고 비열한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다.

“…….”

어떻게 해야 나의 욕심은 채우면서도 이 위태로운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더 열악해지지 않고 나아질 수 있을까. 지오는 문득 사제였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지구에 나갔을 때 마주했던 정보들과 저를 토벌하기 위해 찾아왔던 용사들의 낯을 떠올렸다. 단지 ‘서지오’뿐만이 아니기에 그는 수많은 계획을 순식간에 구상하고 폐기했다.

“…그래.”

이내 그가 입술을 달싹였다.

“좋네.”

마음에 드는 계획이 나왔다.

“좋은 것 같아.”

그 어떤 번제도 없는, 말끔한 계획.

지오의 얼굴 위로 만족스러운 미소가 일식처럼 드리웠다.

* * *

한편, 주현은.

“…….”

집주인과 달리 고민이 참 많았다.

“…혼란스럽네.”

처음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날이 갈수록 편안해지는 몸과 달리 정신은 그렇지 못했다. 하루가 멀다고 시끄러운 주현의 속은 가끔 풀리기도 했고 가끔은 꼬이기도 했다.

침대에 앉아 멍하니 테라스 바깥을 보던 주현이 작게 중얼거렸다.

“점심은 안 먹는다고 했었나.”

이야기가 길어진 탓에 그들의 대화는 아침과 점심 사이에 이루어졌다. 검은망토는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후엔 저녁을 먹자고 권유했고, 주현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참….”

신비인 검은망토가 소화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 테니 그건 오로지 주현을 배려한 것일 텐데, 다시 생각해도 신 같지 않은 신이었다.

그러한 신비를 대할 때 인간은 그들의 규칙에 맞춰주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신비가 인간을 위해 규칙을 물려주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역사에 없는 일이었다.

“…….”

그렇게 또다시 고민에 빠진다.

“…천천히, 하나씩….”

좁게 보지 말고 커다란 선을 봐가며.

“여유를 가지고 정리하자.”

자신이 그렇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리했다.

만약 요청하면 그는 다른 연구소로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연구소는 하나의 왕국과 다르지 않다. 적응하고 스며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연구소에 남아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

어렵게 만들었던 그의 편은 모두 사라졌다. 이제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은 주현을 밀어내기에 바쁜 사람들이니, 다른 연구소로 이동하는 것보다도 악수를 두는 셈이다.

‘차라리 연구소가 아닌 본부 행정직을 노려볼까?’

신비를 연구하는 일에 익숙해진 주현이었으나, 오히려 그렇기에 협회 본부의 행정 직원이 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었다. 협회장이 직접 거주하는 만큼 본부는 개방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거기라면 기타 고아원 출신인 나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것처럼 주현은 고아원 출신이었다. 그리고 고아원의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미움을 받는 편이었고, 주현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미움받는 처지에 있었다.

“…….”

하지만 이 방법도 크게 끌리지는 않았다.

“…협회만이 방법은 아닐지 몰라.”

협회가 후원하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또 정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업하는 협회를 알기에 그 길을 선택했다. 그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회가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여겼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협회는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이미 협회는 많은 것이 정리된 상태다.

‘그만큼 나 같은 녀석이 끼어들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볼 수도 있는 셈이다.’

협회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야만 했다. 주현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협회는 거미줄처럼 섬세하게 구성되었고 각 기관마다 매우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 곳에서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으니….”

좋게 보이지 않는 건 당연했다.

“…….”

한참을 더 고민하던 주현이 곧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사설 길드가 나을까.”

말이 정직이지 사실상 퇴직 권고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주현은 연구소에서 쫓겨난 처지이니 다른 길을 찾아야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확신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다.

“아니야, 사설 길드라고 해도 엄연히 명령에 따르는 거고.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훨씬….”

주현은 문득 고아원의 식구들을 떠올렸다.

“…….”

못내.

속이 쓰렸다.

‘…내가 더 제대로 처신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이 급했을지도 모른다.

좇는 이상은 큰데 주현은 한미했다. 이 작은 다리를 빠르게 놀려야 살아생전 그 끄트머리라도 밟을 수 있을 테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느렸다.

그래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했던 걸까. 아니면 악신에게 홀렸던 것일까.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주현은 조급했던 탓에 가족과 친구들을 죽음과 고통에 밀어 넣었다.

“…그걸….”

주현이 얼굴을 쓸었다.

“그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하지.”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말이다.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영민하게 처신하지 못한 탓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선 어떻게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

“최소한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지만, 내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쓴웃음이 나왔다.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었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고,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지른 후라고 해도 마찬가지였다.

한낱 인간의 몸으로 엎지른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으니 뒷정리라도 꼼꼼하게 해야 했다.

“…음….”

문제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엎어진 물만큼이나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특히 아무 권능도 없는 비각성자인 주현에게는 더더욱 그랬다.

‘차라리 태양교 같은 교단의 사제였다면 좀 도움이 되었으려나.’

그는 죽은 이들에게 안식을 내려줄 수도 없고, 모시는 신이 없었기에 자비를 빌 수도 없었다.

‘조금 더 부지런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그런 걸 후회해 봤자 아무 의미도 없겠지.’

주현은 문득 이 오두막 어딘가에 있을 검은망토를 떠올렸다.

“...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주현이 머쓱하게 웃었다.

“너무 염치가 없는 짓이고.”

잠시나마 검은망토에게 제 가족과 친구들의 안식을 빌 수 있을까 생각해 봤지만, 주현은 금방 그 가정을 지워버렸다.

상대가 악신이라는 점이 걸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주현은 그런 특권을 요구할 만큼 뻔뻔하지 못했다. 그의 신도조차 아니면서 평안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특권은 어느 신을 오랫동안 모신 사제조차 드물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나 같은 불신자가 함부로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현이 이 늦은 나이에 대뜸 사제로 각성하지 않는 이상 아마 힘들 테지만, 그는 최대한 저로 인해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내 실수를 잊지 말고, 내 죄를 되새기고, 그 사람들에게 늘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미 죽은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정말 아주 조금이나마 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

“일단 무덤을 만들어볼까.”

죽은 이들의 시신은 수습되었지만 그것은 ‘청소’가 된 것이지 ‘장례’가 된 게 아니었다. 너무 정신이 없었던 탓에 주현은 그들을 애도할 수 있는 자리조차 마련해 주지 못했다.

‘곧 나도 같은 곳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던 탓인가.’

너무 큰 실패였고, 너무 큰 대가였다.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떠올리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큰 죄를 저질러 단지 미안하기만 했다. 만회하고 앞으로 나아갈 염치가 없었다.

“.......”

주현이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게 더 비겁한 짓이겠지....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확실한 건 없었다.

저로 인해 죽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올바른 사죄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도망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어떤 게 ‘옳은 길’일지 지금의 주현으로선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해진 건 있었다.

“그래, 묘비를 만들자.”

시체는 이미 ‘청소’되어 되찾을 수 없었다. 뒤늦게 되돌려 받으려 노력해 보았지만 이미 처분되었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묘비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는 만들어야 할 것 같았다. 그럴 정신이 들었다.

“애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거야.”

그게 신이 아닌 인간이 죽은 영혼의 평안을 비는 방식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고, 이름을 새기고, 그들과의 이야기를 기록하자. 최소한 그러한 행위를 '나쁘다'라거나 '옳지 않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주현이 입술에 꾹 힘을 주었다.

'최소한 내가 함께 죽는 것이 옳은 길은 아닐 테지.'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검은망토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자포자기 상태였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더 나은 길을 고민하고 선택할 여유가 지금의 그에게는 있었다.

하지만 그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를 떠올릴 수가 없었다.

'...구휼을 중요시하는 풍요의 신전에 가볼까? 아니, 종교계는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 협회만큼이나 안 좋은 선택지야.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사업을 해볼까? 아이템은 몇 가지 생각해 둔 것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회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보면....'

그는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고.

"......."

"꾸릉."

"...아."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식사 시간인가."

검은망토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 * *

오늘도 황홀했던 식사를 마치고.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검은망토가 주현의 상태에 흥미를 보였다.

"......."

"......."

당연히 들킬 줄 알았다.

"...많기는 하죠...."

아니, 애초에 '들킨다'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았다. 거대한 신비 앞에서 한낱 인간이 머리 굴려봤자 부처님의 손바닥 위일 것 아닌가.

무엇보다 산칼루트를 소환할지 말지 망설이던 주현을 데려온 것이 바로 눈앞의 검은망토였다. 이런 상황조차 그의 의도였을 수 있으니, 주현은 굳이 제 상태를 숨기지 않았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새로운 진로를 고민 중이라는 소식은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새로운 진로….”

정말 말끔하고 정상적인 단어였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따지자면 틀린 말은 아니었다.

여태까지 해왔던 길이 실패했고, 되돌리기엔 아예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거란 판단이 섰다. 그 ‘다른 길’을 조금 더 깔끔하게 포장하자면 진로를 고민 중이라는 표현이 맞았다.

“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점치고 있었죠.”

“운명을 점치는 재주가 있으십니까?”

“…그, 그렇게… 그렇게 말할 건 절대로 아니지만요.”

감히 살아 움직이는 운명 앞에서 ‘점친다’라는 말을 꺼낸 주현의 얼굴이 붉어졌다.

얼마나 우습게 들렸을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 것도 아니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건지.

‘검은망토 앞에서는 유난히 솔직해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신격의 효과 중 하나인가.’

민망함을 가다듬은 주현이 슬쩍 검은망토를 바라보았다.

“…….”

“곡물로 우린 차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뭘 더 살필 새도 없이 또 먹을 걸 주입당했다. 이럴 때를 보면 정말 할머니가 따로 없었다.

“…옥수수차인가요?”

“지난번에 고소한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아, 배려해 주신 거군요.”

“기르고 있는 옥수수의 먹어달라는 원성이 크던 차였습니다.”

“그렇군요, 옥수수가 원성….”

잠시만.

“…원성?”

주현이 미심쩍은 시선으로 옥수수차를 내려다보았다.

“…크흠.”

마시지 않기엔 향이 너무 좋았다.

‘음식에는 죄가 없지.’

한 모금 마시니 왠지 모르게 심신이 편안해졌다.

‘이번에는 심신 안정 효과였나.’

뭘 먹기만 하면 건강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길 수십 번. 주현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다만 그는 더 말끔해진 정신으로 다시 한번 검은망토를 바라보았다.

“…….”

세상은 신의 눈을 보지 말라고 가르친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그들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주현도 그걸 안다.

“…제게 조언을 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럼에도 인간이 늘 그래왔듯, 거대한 신비의 도움이 절실했다.

애초에 다른 누구도 아닌 산칼루트에게 말을 걸려고 했던 주현이다. 약한 것들을 괴롭히고 잡아먹는 전형적인 악신에 비해 검은망토는 확실히 조언을 구할 가치가 있는 상대였다.

“지오 씨가 보는 제 미래는 어떻습니까?”

“저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거절 의사인가 싶었던 순간, 그가 말을 이었다.

“다만 주현 씨와 같은 사람을 종종 봐왔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라면….”

“쉽게 말해 타고난 영웅이지요.”

“…….”

주현의 얼굴이 민망함에 구겨졌다.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제가 영웅이라는 겁니까?”

“영웅이란 언제나 사욕보다 대의를 선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검은망토가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나보다는 내 바깥을, 손에 잡히는 것보다는 무형의 개념을, 한순간보다는 영원할 기반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고요. 주현 씨가 그런 경우입니다.”

“…….”

“저는 당신이 말해주었고 말해주지 않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현 씨는 자신의 실수로 인한 희생에 슬퍼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신념이죠.”

악신의 미소는 흥미를 담은 듯, 어딘가 장난스럽기도 했다.

“가족과 친구의 죽음을 경원시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들만큼 슬퍼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설명의 요점입니다.”

“…제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현 씨는 본인과 관련 없는 작은 비극에마저 마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100명 중 99명을 구했음에도 1명의 죽음에 슬퍼하겠죠. 당신이 희생시킬 수 있는 패는 그 자신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딱히 그런 건….”

“주현 씨는 영웅이 맞습니다. 고운 심성을 가졌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매너 있게 대하기도 하죠.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검은망토의 머리칼에 불꽃이 일듯 훅 붉어졌다.

“그래서 좀 구슬려볼까 했는데.”

“아, 예? 저를요? 왜요?”

“신경을 건드리면 괜찮은 용사가 될 수 있을지도….”

“저는 빼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주현은 식겁했다. 그놈의 마왕 프로젝트를 순순히 철회할 거란 생각은 결코 안 했지만, 그 용사라는 이름의 기만자 행렬에 끼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검은망토가 샐쭉 웃었다. 기분 좋은 여우 같았다.

“그런 비겁한 짓은 하지 않아요.”

“그, 그렇군요….”

“하지만 친구로 삼길 원합니다.”

“왜 그렇게 친구에 집착하세요.”

“친구는 다다익선이지.”

“맞는 말이긴 한데.”

신에게까지 통용되는 이야기일 줄은 몰랐다.

‘그런 거대한 신비가 한낱 인간을 친구로 삼길 원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

하지만 그간 검은망토를 대해온 경력이 있으므로 쉽게 당황하진 않았다. 주현은 조금 어색하게 한숨을 내쉬면서도 그의 말 하나하나에 기겁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그….”

“영웅.”

“어우.”

“왜 그렇게 싫어하나?”

“소름 끼쳐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신이 되거나, 역사가 되거나,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졌지.”

“상상 이상으로 각박한데.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그런 길을 걸어놓고 결과가 극단적이지 않길 바라는 건 너무 양심 없지 않은가?”

“아니, 이런 걸로 양심을 따질 것까지야…?”

“아무튼.”

아르지오가 가볍게 웃었다.

“앞으로는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마음에 둔 업무가 있어요?”

“일단 자잘한 뒷수습을 고민 중이기는 하지만… 직장을 구하지는 못했어요.”

“연구소에서 나올 생각인 거군요. 그렇다면 한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니 꽤 백수처럼 들리기는 합니다만, 네, 그렇게 됐네요.”

“정 그렇다면 나와 함께 놀아줄 생각은 없나?”

“…잠깐만, 놀아요? 논다고?”

“나라는 자연재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셈이지.”

“그게 무슨….”

“재미있어 보이지 않아?”

“…….”

주현이 입을 다물었다.

“…….”

“…….”

한참 뒤에 그가 말했다.

“…그럴지도?”

그렇게 주현은 지오의 부탁을 받은 유성운의 손에 이끌려 비사벌 앞으로 끌려갔다.

정작 당사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미래였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47)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48)

148

제148화

유성운은 비사벌의 취향이 어떤지 아주 잘 알았다.

'건조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좋아하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며, 기본적으로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 불쌍하긴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은 아니라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선과 양심을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

그게 비사벌이 사람을 수집하는 기준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주현이란 사람은 비사벌의 취향과 거리가 멀어.'

사실 유성운도 '길드장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지, 어떤 부류의 사람을 싫어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잘 몰랐다. 취향에 맞지 않으면 애초에 모으질 않으니 당연했다.

그리고 현재.

"……."

"……."

지옥에서 올라온 적막에 유성운이 깍지 낀 손에 힘을 주었다.

'아무나 말 좀 해라.'

유성운은 비사벌과 주현 사이에 끼어 말라가고 있었다.

'워낙 빈정거리기는 해서 취향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비사벌은 정말 진심으로 주현이 싫어 보였다.

웃고 있지만 입술은 비틀렸고, 미소를 잃지 않는 능구렁이 같은 평소 모습과 다르게 눈은 서늘했으며,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오만하면서도 대단히 비협조적이었다. 유성운은 비사벌의 저런 모습을 처음 봤다.

'그리고 이쪽도….'

주현 쪽이라고 딱히 멀쩡한 건 아니었다.

이 양반은 아예 웃지도 않았다. 사람 참 싹싹하고 성실하다는 인상이 강했는데, 왜인지 비사벌 앞에서는 사회생활 하는 척조차 하지 않았다. 가늘게 뜬 그 눈은 비사벌을 명백히 경멸하고 있었다.

‘대체 왜?’

당신들 지금 처음 본 사이잖아.

‘그리고 한마디도 안 나눴잖아.’

지오에게 주현을 인수인계 받아 올 때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상상도 못 했다. 면담실까지 오며 대화를 나누었던 주현은 굉장히 온화하고 유들유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

“…….”

“…죄송한데.”

그리고 유성운은 결국 참지 않았다.

“아무나 말 좀 해보시죠.”

애꿎은 나까지 심기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그런 유성운의 마음을 알아챈 것일까, 아니면 그들도 슬슬 이쯤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한 것일까. 둘은 순식간에 얼굴을 바꾸어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갔다.

“아, 이런. 실례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주현 씨의 인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저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군요. 부디 저의 무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비사벌 길드장님. 저도 그 유명한 수집가를 뵙게 되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례를 끼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런 두 능구렁이들의 대화에 유성운은 내심 입맛을 다셨다.

‘퇴근하고 싶다.’

물론 퇴근하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다.

“길드장님.”

“그래요, 유성운 씨.”

“저는 이만 물러갈까요?”

“그러지 말고 자리에 앉으시죠.”

비사벌이 특유의 샐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다.

“‘서지오 씨’의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 그의 담당인 유성운 큐레이터도 함께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길드장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부인만 없었다면 ‘제발 그만 좀 괴롭히세요’라고 했겠지만, 아무래도 길드의 이미지를 위해 유성운은 한 수 굽힐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는 순순히 비사벌이 지정한 위치에 앉았다.

드디어 제대로 된 대화가 시작되었다.

“정식으로 소개드립니다, 주현 씨. 수집상의 길드장인 비사벌이라고 합니다.”

비사벌이 제법 멀쩡한 낯으로 가볍게 웃었다.

“주현 씨의 사정은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대단히 무례한 짓이지만, 유성운 씨를 통해 알게 되었지요.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 큐레이터에게서 설명을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덕분에 ‘지오의 초상화’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그 유명한 검은망토의 정체가 비사벌 길드장님의 수집품이라는 이야기에 정말 크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 늙은 수집가가 애꿎은 청년을 놀라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굳이 수집상을 통해 왔다는 것은, 주현 씨께서 서지오 씨를 케어해 주실 의향이 있다는 걸까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어조로 비사벌이 덧붙였다.

“아, 물론 부담스러우시다면 거절하셔도 좋습니다.”

“제게 과분한 역할이라는 생각은 있어도 거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주현이 내뱉는 문장 역시 무척이나 매끄러웠다.

“그간 ‘서지오 씨’에게 받은 도움이 매우 많기도 하고요. 그것을 갚을 기회를 주신 셈이니 저로서는 대단한 영광인 셈이죠.”

유성운은 그 순간 “알기는 아는군.”이라며 속삭이듯 빈정거리는 비사벌의 음성을 들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으니 복화술이고, ‘나 심술 났다’는 것을 유성운에게 알리는 일종의 지표였다.

일반인인 주현은 듣지 못할 수준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솔직히 말하자면 유성운은 비사벌보다는 주현의 편을 들어주고 싶었다. 물론 주현이 제 상관을 대놓고 노려본 것이 썩 좋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먼저 표정으로 시비를 건 쪽은 비사벌이었다.

‘제발 나잇값 좀 해주셨으면.’

그런 유성운의 생각과 별개로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었다.

“세간에 ‘검은망토’로 알려진 ‘지오의 초상화’는 현재 수집상 소속의 A급 헌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인간 세상을 돌아다닐 때 활용하는 신분이 그것이지요.”

“제가 맡을 역할은 그런 ‘서지오 헌터’의 매니저일 테고요.”

“서지오 씨는 공식적인 수집상의 소속이니 비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오의 초상화’가 인간들 사이에 위화감 없이 적응하고 헌터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사벌은 세상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을 대외용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인간보다는 괴물에 가깝다는 S급 헌터 특유의 오만함이 옅게 느껴지면서도,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미소였다.

“제가 알기로 서지오 씨는 주현 씨에게 자신을 악신이라 소개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르지오라는 이름의....”

그렇게 말한 주현이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 것치고는 대단히 다정하고 자비로우신 분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게 ‘지오의 초상화’가 보이는 매력이죠. 그는 매우 다채롭고 수만 가지의 모습을 가졌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호의적이며 매우 신사적입니다.”

지오를 설명하는 비사벌의 미소는 순간 진심이 되었다. 그는 예술 작품을 사랑했고, 자신의 수집품은 더더욱 사랑했다. 그는 진정으로 ‘지오의 초상화’의 편의와 행복을 바라고 있었다.

“처음 만나기를 악신으로 만나 경계심을 가진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현 씨가 호의를 베푼다면 ‘지오의 초상화’ 역시 호의를 보일 겁니다.”

“...검은망토는 착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소문이 있었죠.”

“사실입니다. 그는 진실로 선하고 예의 바른 인간을 좋아해요. 그리고 악하고 예의 없는 인간을 혐오하죠. 다른 인간들로부터 격리를 시킬 정도로 말입니다.”

비사벌의 눈이 샐쭉 굽어졌다.

“주현 씨의 마음에 드는 성질이 아닙니까?”

“…하하….”

그 미소를 주현도 그대로 되돌려주었다.

“감히 제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판단할 수야 없죠.”

“아, 정말 겸손한 말씀이군요. 품은 배포와는 다르게.”

“나기를 가진 것 없이 볼품없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

“주현 씨에게 그런 지나친 겸손은 어울리지 않아요.”

비사벌의 미소가 비틀렸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건 게걸스러운 탐욕이지, 안 그런가?”

“…….”

주현이 더욱 짙은 미소를 지었다.

“…그 수집가에게 탐욕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분야가 다를 뿐이지 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곧이어 비사벌이 다시 평소의 대외용 얼굴로 돌아왔다.

“주현 씨는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요. 정확한 업무는 유성운 씨가 알려줄 겁니다.”

그에 내내 조용히 있던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했는데….”

“어렵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유성운의 말에, 비사벌이 다시금 주현을 보았다.

“수집상의 소속이 되고 싶으십니까?”

주현이 반듯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하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수집상에 어울리는 인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그게 사실이죠.”

수집상은 오로지 비사벌의 ‘수집품’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비사벌의 마음에 드는 작품이 되지 못한다면 입사조차 못 하는 엉망진창의 회사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봐도 비사벌은 주현을 꺼리고 있었다. 나름 비사벌의 예쁨을 받고 있다 자부하는 유성운마저 상관의 저런 반응은 처음 볼 정도니, 할 말은 다 한 셈이다.

“주현 씨는 서지오 헌터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비서가 될 테니 저의 명령을 들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로지 서지오 씨의 명령을 들을 생각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협회와는 정리가 덜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손을 조금 쓰겠습니다. 잡음 없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 직장에 두고 오신 물건이 있습니까? 가져와야 할 물품이나.”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만 정리가 되면 되겠군요. 다행히도 저희 수집상에게 그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런 마찰 없이 일이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내 비사벌이 웃으며 물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저보다는 길드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이런.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비사벌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나는 주현 씨 같은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당신도 비슷한 감상일 텐데”라며 덧붙였다.

“주현 씨와 같은 인간들은 허상을 너무 진지하게 좇거든요.”

“그런 허상을 좇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인간의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굳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길드장님처럼 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앞을 더듬어 가면서 나아가야 해서요.”

“…역시 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아….”

그는 제 손에 낀 반지들을 매만졌다.

“…….”

유성운은 그것이 비사벌이 상대를 적으로 인식했을 때 나오는 버릇이라는 걸 깨닫고서는 조용히 주현을 응시했다.

이해가 되는 흐름은 아니었지만, 주의할 가치는 있었다. 어떤 부분에서 제 경애하는 상관이 이 사람을 경계하고 혐오할까.

‘정황으로 따져보자면… 작품에게 해를 끼칠 인간으로 보인 건가?’

비사벌이 따로 신호를 주지 않았으니 유성운마저 적으로 인식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는 내심 이 민간인 연구원을 경계하는 마음을 두었다. 그는 비사벌의 눈을 믿었다.

‘확실히 S급 헌터와 A급 헌터를 두고도 기세가 죽지 않는 민간인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할, 그때였다.

“-이봐.”

비사벌의 등 뒤에서 긴 팔이 뻗어져 나왔다.

“…….”

“공기가 무겁군.”

그것은 잘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온갖 장신구를 뽐내었고, 이내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된 손가락이 비사벌의 어깨를 장난치듯 가볍게 감싸 쥐었다. 유성운은 그 팔의 주인을 보았다.

햇볕이라곤 보지 못한 듯한 창백한 피부와 선명한 미소, 검붉은 머리칼.

“영웅에게 장난을 치면 안 되지.”

“…….”

“귀한 인재를 대접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은 초상화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사벌 길드장?”

벽도 아닌 허공에 나타난, 초상화 말이다.

“…….”

“…….”

“그 눈.”

두 괴물의 시선이 마주치고.

“용의 것이군?”

비사벌의 동공이 길게 찢어졌다.

“반갑습니다, 지오의 초상화.”

“당신의 초대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것참….”

환희와 탐욕을 담아, 비사벌은 웃었다.

“…영광입니다.”

수집가와 초상화의 첫 만남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48)"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49)

149

제149화

비사벌이 그토록 고대하던 초상화와의 만남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리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중요한 이야기는 끝난 듯하니, 내 친구를 데려가겠네.”

“벌써 가신다니 아쉽습니다.”

“다음 초대를 기다리고 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오의 초상화’가 주현을 데리고 그림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

그 부분에서 유성운은 조금 놀랐다.

‘꽤 신뢰 관계가 튼튼하게 쌓였네.’

주현은 지오의 손짓 한 번에 순순히 초상화의 품으로 들어갔다. 서글서글하게 웃기는 하지만 딱히 쉽게 경계를 푸는 성격은 아닌 것 같던데, 어느 쪽이든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다.

‘지오가 이렇게까지 아끼는 인간이 나온 것도, 주현이라는 사람이 지오를 받아들인 것도.’

그 부분을 비사벌도 느낀 모양이었다.

“역시 서지오 씨는 인간을 누그러트리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성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친화력이 좋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종종 했습니다.”

“‘심해의 신전’ 사건에서부터 보여온 그의 유구한 능력이었죠.”

일반적으로 초상화는 ‘지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딘가 딱딱하고 감당하기 힘들 만큼 버거운 분위기를 띤다.

근원에게 이런 말을 붙이는 것도 웃기겠지만, 아무래도 지오가 사교성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액자 바깥에 오랫동안 나와 있거나 다수의 인간을 접하는 것도 불편해하지. 지오가 스스로의 격을 깎아내어서 조절해주는 것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역시 지오가 친근한 이미지는 아니야.’

심지어 가장 온화하고 부드러운 인상의 ‘지오반니’일 때도 그랬다.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조금씩은 어려워하고는 했다. 특히 귀족적인 인상이 강한 탓일 것이다.

그가 대단한 배려를 보여주는 것과 별개로 그 높은 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분위기인 것치고

는....

"......."

유성운이 목을 쓸었다.

"역시 이건 지오의 능력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군요."

"좋아해야 할지 곤란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지오는 쉽게 신뢰와 호의를 샀다.

그를 몬스터로 인지하고 마주쳤던 차아라 헌터 때도 그랬고, 생명이 위태로워 예민해진 던전 난민들에게도 그랬고, 첫 만남이 악신의 형태였다던 주현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만난 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기는 할 겁니다. 특히 초상화 속 세계는 지오의 기분에 따라 시간이 변하는 만큼 빠르게 흘러갔을 거고요.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유성운이 제가 조사했던 정보를 떠올렸다.

"주현 씨가 누군가를 쉽게 신뢰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상당히 영악해 보였죠. 주현 씨에게 시간과 신뢰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을 겁니다."

"확실히 오래 보아왔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죠."

"심지어 서지오 씨는 악신이자 근원의 존재입니다."

"그런 상대에게 자신을 맡긴다는 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한 일인데...."

"자진해서 초상화 안으로 들어갈 정도라면 말은 다 한 셈이군요."

"인지한 행동인지, 아니면 무의식적인 신뢰인지 모르겠습니다."

"둘 모두라고 봅니다."

비사벌이 작게 웃었다.

"일단 타이밍이 절묘했을 겁니다. 산칼루트와의 거래를 시도하려 들었을 만큼 자포자기인 상태에서 마주친 악신이니 될 대로 돼라 싶었겠죠."

"그렇게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지오에게 이런저런 케어를 받았으니 경계심을 세우기가 어려웠던 걸까요? 은혜를 갚으면 갚았지 감동을 받는 인상은 아니었는데."

"뭐어... 아무래도 검은망토에 대한 기본적인 호감이 일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가 드물게 혀를 끌끌 찼다.

"보아하니 유토피아를 꿈꾸는 모양인데, 선한 걸 긍정하고 악한 걸 부정하는 거대한 신비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퍽 주현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다.

"성격상 계속해서 그의 본질을 의심하려 들겠지만 그 친구에게 '지오의 초상화'는 대단히 이상적인 존재입니다. 서지오 씨는 검은망토의 모습으로 자신의 성질을 이미 몇 차례나 증명해 왔고, 거기에 호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주현 씨의 취향이 지오에게 해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 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이라서요. 나는 내 작품을 제멋대로 재단하고 이용할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건방진 해충처럼 느껴집니다만, 아까 보셨다시피 지오는 무척이나 좋아할 겁니다. 입장이 달라요."

비사벌의 말에 유성운이 어색하게 웃었다.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셨군요.”

“저랑 참 안 맞는 유형의 인간들이죠.”

그는 꽤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영웅은 게걸스럽습니다. 용기와 만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욕심은 많은데 항상 멍청한 선택을 해요. 정말 멍청해서 그런 건지 일부러 멍청하게 구는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아하....”

“주제 파악을 했든, 하지 못했든, 주현 씨와 같은 사람들은 제 주제를 넘어서는 짓을 자주 하고는 해요. 주현이라는 사람이 서지오 씨의 본질을 온전히 믿게 된다면 그를 이용하려고 들 겁니다. 참 마음에 들지 않죠.”

“아, 예.”

하여간 저놈의 작품 사랑은.

‘저 정도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보이니 수집가라는 이름도 붙은 거겠지.’

비사벌은 대체로 자신의 수집품을 사랑과 방목으로 관리했다. 그렇기에 자신의 수집품이 원하는 것은 가능한 한 들어주려고 하지만, 이번에는 지오가 주현이라는 ‘친구’를 원한다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든 모양이었다.

‘아무튼 내가 걱정할 부분은 없었던 셈이군.’

결국 자기가 아끼는 수집품이 원래도 마음에 안 드는 녀석에게 관리를 맡긴 셈이 되어 짜증이 났다는 거 아닌가. 길드장의 속 좁음에 봉변을 당한 주현만 안타깝게 됐다.

“...그래도 영웅이라, 나름의 극찬 아닙니까?”

“칭찬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평가에 가까웠겠죠.”

비사벌이 샐쭉 웃었다. 제 수집품 앞에서만 보이는 미소였다.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시도하는 유성운을 배려하려는 의도다.

“내가 이렇게 철없이 굴고 있지만 그 주현이라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로 잘못한 게 없어도 너무 안 맞아서 저절로 싫어하게 되는 유형.”

“아... 그런....”

“그 밖의 다른 원망이나 불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에 돈벌레가 나오면 아, 저게 우리 집 해충을 갉아먹어 주겠구나... 하면서도 징그러워하고는 하잖아요. 대충 그런 겁니다.”

“지금 사람을 벌레에 비유한 겁니까?”

“말 그대로 비유일 뿐입니다. 주현 씨는 지오에게 꽤 괜찮은 안내인이자 도우미가 되어줄 것이고, 나는 그 부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랑 많이 안 맞는 것뿐이죠.”

그러고는 비사벌이 물었다.

“그런 의미에서 룸메이트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유성운 씨도 친구가 생기면 좋잖아.”

“아 글쎄 잘못 들었다니까요?”

얼굴을 와락 찌푸린 유성운이 되물었다.

“그 룸메이트가 누군데요.”

“그야 주현 씨랑....”

“제발, 그 사람은 무슨 죄예요.”

“추가로 서지오 씨?”

“…….”

드디어 미쳤군.

유성운은 얼굴을 쓸었다.

* * *

“죄송합니다.”

주현은 일단 사과부터 하고 봤다.

“분위기를 괜히 무겁게 만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에게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신다고 소개해 주신 분인데 무례하게 굴었으니까요.”

“정 미안하다면 왜 그랬는지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지오가 뽕, 하고 순식간에 백금발의 사제로 변신했다.

그가 길 잃은 어린양을 보듬는 듯 신성한 미소를 지었다.

“자, 형제님. 저는 경청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래 보였다.

비록 둘이 있는 곳은 피톤치드 향이 가득한 나무 탁자였으나, 길게 굽이치는 백금발과 새하얀 사제복이 제법 신전의 기도실을 떠올리게 했다. 이상적인 사제의 모습이었다.

“…….”

주현은 늘 그렇듯 웃으면서도 조금 질린 기색이었다.

“경청할 준비를 그렇게 하시는군요….”

“아무래도 이쪽이 말씀하시기에 더 편할 것 같아서.”

“그… 그건 그렇겠네요.”

고해성사라도 하는 기분이 되었다.

“음….”

잠시 고민하던 주현이 이내 입을 열었다.

“저랑 좀 안 맞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평소에도 수집가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타인의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대한민국의 3대 길드인 수집상의 길드장. 그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거부이기도 했으나, 오로지 자신의 흥미만을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했다.

“흥미만을 따르는 생활이 아예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행동에서 저는 비사벌 길드장이 타인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게 좀… 그랬죠.”

비사벌에게 세상은 그의 갤러리이자 제 작품이 미쳐 날뛸 수 있는 놀이터였다. 대체로 선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주현을 질리게 했다.

“그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책임감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그야 직접 보고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인지 모르는 일이지만, 일종의 편견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군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라고 해서 대단히 좋은 사람인 건 아닌데, 타인을 지레짐작하고 심지어는 무례하게 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비사벌 길드장을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현이 어색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수집가는 위태로운 지구를 유지해 주는 든든한 기둥 중 하나죠. 제 개인적인 감상과 별개로 존경할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주현 씨는 이미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군요. 그래도 주현 씨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으니, 다음에는 후회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려 깊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비사벌 길드장께서도 저라는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좀, 서로… 유치하게 굴었네요.”

그는 반성한다는 듯이 제 입가를 쓸었다.

“그분은 제가 지오 씨 곁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 겁니다.”

“…….”

순간 지오의 눈이 황금색으로 반짝이며, 그의 머리가 붉게 변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이 도둑고양이’ 발언…?”

“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흥미진진해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닐걸요.”

주현의 표정이 미묘해졌다.

“아니, 그보다 도둑고양이라는 말도 아십니까?”

“그게 다 내가 지혜로운 탓이지.”

“하긴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분이 좀 이상했다.

“…….”

단순히 이 상황이 우습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뭐라고 해야 할까….’

그가 정말 인간처럼 느껴진다면 너무 불손한 생각일까.

이렇게 별거 아닌 장난을 치고 호들갑을 떠는 게, 꼭 그 나이대 평범한 청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아르지오의 낯은 ‘청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앳되었다.

물론 이런 거대한 격을 가진, 인격이며 그 색이 용도와 의지에 따라 휙휙 변하는 존재를 ‘평범한 청년’이라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왠지….

“…….”

“주현 씨,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게요."

이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제가 알기로 검은망토는, 선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착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새 그는 다시 검은색 머리칼로 돌아와 있었다.

마치 모든 색을 잃고 지쳐버린 그림자와도 같은 색이었지만, 검은망토의 낯은 단지 고요하게 가라앉았을 뿐 여전히 온기를 띠었다.

그가 대수롭지 않게 첨언했다.

"평범한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요?"

"저는 제게 감동을 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성격이라."

"그런 사람들이 당신을 감동시키는 거군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그건 정말...."

주현은 새삼 느꼈다.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굉장합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자비롭다는 거요."

이 존재는, 진실로 평화롭다.

"이 초상화 속 세상을 닮았어요."

그렇기에 동경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49)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49)"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50)

150

제150화

처음 이 오두막에서 깨어나, 막 해가 떠오르는 새벽하늘을 보았을 때.

"저는 이곳에서 상상만 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이었다.

조금도 그 너머를 볼 수 없는 콘크리트 숲과 달리 광활한 시야. 충분한 빛이 모여도 한없이 반짝일 것만 같던 청정한 은하수. 시원하면서도 따스한 바람에 묻어나던 자연의 단내.

알 수 없는 향수에 건조했던 각막이 아려오고, 심장은 무겁게 쿵쿵 뛰었다. 아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벅차올랐다.

"현실과 다르게요."

이곳엔 그 어떤 소음도 없었다.

"서지오 씨."

"드디어 저를 그렇게 불러 주시는군요."

"당신은 강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악신이고요."

"악신의 역할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무례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에 검은망토는 의아한 듯 되물었다.

"당신을 무례하다고 생각하길 바라십니까?"

"그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 이해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걸까요."

"어떻게 그런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당신은 온갖 강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면에서 ‘지오의 초상화’는 강자였다.

“그 어떤 부분에서도 당신은 압도적인 강자입니다.”

“대단한 과찬입니다.”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악신이라는 거대한 신비를 향해 무력을 논하는 것은 멍청한 일일 터나, 붉은색일 때의 그는 전투에도 능해 보였다. 압도적인 존재감은 그의 뛰어난 의태에도 불구하고 몸을 숙이게 만들었다.

그는 주현에게 신이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인간형 몬스터이며, 그의 던전들은 제 주인을 위해 성심껏 일하고 있었다. 그가 품은 신비와 신성에서 그 압도적인 강함을 느꼈다.

“음, 실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외양도 그렇죠.”

“잘생겼다는 칭찬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네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는 이상적인 미남이었고, 망토에 가려져 잘은 몰라도 신체는 눈에 띄게 두껍지도 마르지도 않았다. 키는 190에 가까울 만큼 크고 몸가짐은 유서 깊은 귀족이나 고결한 사제를 닮았다. 늘 뒷짐을 지는 그의 손은 컸다.

주현은 관찰하는 데 자신이 있었다. 검은망토의 외모는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시각에 약한 인간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다.

“서지오 씨는 절대 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관계에서도 그는 우위를 차지한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경청하고 있으니 계속 말해보세요. 무엇이 이해가 안 되죠?”

“당신은 마치….”

머뭇거리던 주현이 한숨처럼 말을 뱉었다.

“약자를 이해한다는 듯이 굴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타고난 강자는 수많은 약자를 이해하지 못한다.

신이 인간을 볼 때에 그러하듯 그들 행동과 방식을 암기하면 몰라도 배려할 수는 없다. 강하기에 약함을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맹인이 빨간색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말이 좀 꼬이는 기분이었다.

“서지오 씨는 매우 강한 분이신데도 약자를 이해해요. 그리고 배려해 주죠. 존중해 주고요. 아득한 공포를 느끼게 할 만큼이나 강한 존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그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현 씨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강자가 아닙니다.”

“그 말도 그래요. 정말로 서지오 씨는 인간처럼 느껴집니다.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요리를 하고. 친구를 원하고 가끔 외출을 하고 장난을 치고 웃고 울고….”

“아마 운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버지께 어리광을 부리는 모습은 보았습니다. 당신 자식들에게 우는 소리를 내는 것도 보았고요. 그 모습들은 하나같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야 당신이 정말로 인간 같잖아.”

문득 의문이 든다.

“이런 제 생각의 흐름마저도 의도하신 걸까요?”

“나는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습니다.”

“미처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짓말은 아니시고요?”

“그럴 리가요, 저는 주현 씨의 상상 이상으로 허술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고 해도 인간들은 큰 영향을 받겠죠.”

그게 인간이다.

신의 눈짓, 손짓 하나에 목을 매고 한껏 휘둘린다. 거대한 운명이자 자연이 걸어오는 대화마저도 큰 재앙이 되고 그들의 자그마한 애정 한 방울에 미쳐 버리기도 한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신이다. 주현도 그것을 안다.

“저도 알지만….”

눈을 꾹 감았다.

“…….”

“…….”

그리고 다시, 검은망토를 눈에 담았다.

두 개의 눈. 코 하나, 입술 하나. 귀도 두 개. 피부는 조금 창백하고, 머리카락은 얕게 굽이졌다.

그는 제 말을 기다린다. 아무리 본질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인간의 형상만이 눈에 들어온다.

“…당신이 사람으로 보이는 걸 막을 수가 없네요.”

청년의 낯이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9살입니다.”

“고향은 어디에요?”

“강원도입니다.”

“무얼 하는 분이셨나요?”

“학교에서.”

창백한 낯에 희미한 미소가 드리운다.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이셨군요.”

“예, 고등학교에서 근무했죠.”

“그래요.”

허탈한 기분이 든다.

“그렇구나.”

저 애정 담긴 미소를 보아라.

이게 인간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

“제가 이제야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주현이 어색하게 웃었다.

“계속 비슷한 걸 묻는데, 왜 착한 사람에게는 선물을 줍니까?”

“기특한 사람을 보면 누구라도 칭찬을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말을 걸고 계신다던데.”

“대화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저를 무서워하는 분들껜 죄송한 일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왜 계속 잡아가시는 겁니까?”

“제 자식들이 저를 위해 하는 일이지만, 의도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무엇 하나 거창한 이유가 없네요.”

“깊게 고민하는 법이 없어서.”

“이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진심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그가 이런 방향을 유지한다면. 주현은 감히 이 존재를 부정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이었다.

욕심이 난다면 너무 무례한 생각일까. 이상적인 평화로 이루어진 그를 도무지 미워할 수가 없었다.

“…….”

악신이라 소개하기에 경계하려고 했고, 안심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존재라 멀리하고 싶은데도 마음을 주고 싶어진다.

“…그런 능력을 부리신 건 아니죠…?”

“무슨 능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을… 속수무책으로… 안심시키고… 농락하는….”

“…?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혹시 칭찬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

“…그으….”

주현은 자신의 멍청함을 탓했다.

‘내가 대체 뭘 바라고 이런 질문을 한 거지.’

눈앞의 형상이 본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그와 동등한 교류를 원한다는 것부터가 잘못됐다. 신에게 인간의 참과 거짓은 그 기준이 달랐다.

실제로 그에게 그런 능력이 있든 없든, 그가 능력의 존재 여부를 알든 모르든. 주현 스스로가 깨닫기 전까지 눈앞의 신성이 하는 말은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였네요.”

“제대로 이해는 안 가지만….”

남자가 물었다.

“저와 친구가 되고 싶으신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절 칭찬하신 거군요.”

“예? 아, 아니….”

“결과적으로 제가 마음에 드신 것 같습니다.”

“그건… 어….”

“아직도 뭘 하고 싶은지 모르시겠습니까? 나를 신뢰하게 될 것을 경계하십니까?”

“…저는….”

“주현 씨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이에게 의지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시는군요. 당신이 가진 미련한 신념의 가치를 긍정합니다.”

“…….”

“그게 당신 삶의 방식일 테니.”

대답을 망설이자,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주현 씨와 친구가 되길 원했고, 지금은 주현 씨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 자리에 안주해 있는 성격이 아니죠.”

“…그것도 칭찬인가요?”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것에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겁니다. 주현 씨도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현재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더더욱 문제가 없군요. 주현 씨는 세계 평화라는 거대한 포부를 안은 사람이고, 나는 그것에 꽤 어울리는 친구가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초상화의 두 번째 친구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하고 차분했다.

“여유를 가지십시오. 주현 씨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니 빠르든 느리든 당신에게 어울리는 옳은 길을 찾아낼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란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런 문장이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결국 사람은 현재를 살아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반대로 되찾지 못할 과거를 생각해.”

“인간은 그런 어리석은 존재이니까요.”

“제가 유별나게 단순하고 가벼운 사고방식을 가진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통해 반성하고 발전하는 것은 생명체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선택지도 그뿐이죠.”

“저도 그것을 알지만….”

“주현 씨.”

남자는 마치 부처라도 된다는 듯이 이야기했다.

“오지 않은 실수로 새로운 시도가 두렵습니까?”

“제 실수로 또 누가 희생될 줄 알고요. 난 죄를 지었어요.”

“주현 씨,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구해주어야 하는 어린양이 아닙니다.”

“…….”

“그들을 전부 책임지려는 것도 오만함의 일종이죠.”

그건 조금, 충격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주현 씨의 실수에 휘말린 것도 존중해야 마땅할 하나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택하고 가꿔온 삶이 오로지 주현 씨의 것이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반성하는 것은 좋지만 겁을 먹어서야 보일 길은 도망치고 숨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현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당신은 결국 자신의 길을 찾을 테고 나는 그 망설임을 줄이는 것뿐입니다.”

“…….”

“개인은 아주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거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결국 지나가는 흐름 중 하나이죠. 그 사람이 거인처럼 보인다고 해봤자 단지 그의 특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완벽한 지표가 될 수 없어요.”

여전히 표정 하나 없는 얼굴로 그가 말을 이었다.

“저는 주현 씨가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선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건 당신의 특성이지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매몰될 필요 없습니다.”

“…아….”

“원하기 때문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주현 씨를 잡아먹도록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단지 세계가 평화로워지길 원했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당신을 망쳐선 안 돼요.”

“그건….”

“주현 씨의 신중함과 경계심은 큰 장점이자 덕목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고민한 후 믿어야 한다면 당신 곁에 남는 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일단은….”

“…….”

“저와 친구가 될까요?”

그가 씩 웃었다.

“펜팔 친구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좋은 로망이네요.”

저 미소가 나를 무디게 만들지는 않을까. 내가 안주하도록 만들어 버리지는 않을까. 그럼에도 그 안정감에 홀리는 제가 있었다.

그건 과연 어떤 ‘지오’의 미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의 말대로라면 결국 ‘지오’를 구분하는 것조차 사실상 가치가 없는 일이었다.

이쯤 되니 망설이는 것도 민망해졌다.

“…하죠, 친구.”

“오.”

“난감하네요.”

주현이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차차 생각해 봅시다."

"저도 그걸 말하려고 했어요."

"기회는 늘 나타납니다."

"직접 만들어도 좋고요."

"잘 이해하셨군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힘겹게 내뱉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에 서지오가 웃었다.

그건 꽤 사람처럼 보였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50)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50)"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51)

151

제151화

지오가 새 펜팔 친구를 사귀고 주현이 검은망토를 친구 삼았다고는 해도, 이 평화로운 오두막의 일상이 변하진 않았다.

여전히 검은망토는 밥을 해줬다.

"제발 저한테도 노동을 시켜주세요."

"손님은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라면서요."

"친구인 손님이죠."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다만 모든 것이 평화로운 건 사실이었다.

"그럼 혹시 다나를 봐주실 수 있을지. 아이가 심심해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도 저를 태우지 않을까요. 과연? 안티캣의 불이 그렇게 뜨겁다던데."

"주현 씨를 예전만큼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으니 용기를 내어보심이 어떠실까요."

"오늘 아침만 해도 저한테 이빨 드러내면서 지나가던데요…."

"재로 만들려고 했던 이전에 비하면 확실히 유해졌습니다."

삼시 세끼 맛있는 밥이 나오고, 방은 편안하며 프라이빗 했고,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다. 한 것도 없이 참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진 건 전혀 없었고.

"……."

주현은 새 친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물감이나 붓 따위를 만드는 과정에 흥미가 일어 따라온 다락방. 그곳에 초대된 주현이 정돈된 어조로 서두를 꺼냈다.

"대단히 조심스러우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경청하고 있습니다."

"친구라면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질문하십시오.”

그가 지오를 불렀다.

“지오 씨.”

“예.”

“…서지오 씨?”

“예.”

“아르지오?”

“예.”

“제가 어떻게 부르면 되죠?”

“아하.”

지오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제 소개가 부족했군요.”

그렇다, 주현은 지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따로 설명해 준 적도 없고.’

그런 기이할 정도의 무심함 역시 인간을 대하는 거대한 신비의 전형적인 태도였다.

“혹시 제가 불쾌한 짓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제가 불쾌해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저도 설마 제가 그런 종류의 짓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요.”

“확실히 소개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죠.”

달그락거리며 놓이는 유리 도구. 그리고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기묘한 색감의 액체와 규칙성 없이 흐트러져 있는 선명한 색의 물감들. 작업대 옆에 놓인 상자에 폭 잠긴 다나와 허니.

온갖 신비한 것들이 모인 다락방에서 지오는 때아닌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저는 서지오입니다.”

“아, 예, 들었습니다. 수집상 길드원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바틀란 지오반니입니다.”

“…바틀란 지오반니?”

“곧 아르지오가 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

주현은 이놈의 신비들의 ‘부연 설명 다 잘라먹고 중심 내용만 의미심장하게 말하기’를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비와의 교류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는 신탁도 그렇고, 항상 거대한 격의 존재들은 정보를 줄 때 너무 두리뭉실하단 말이지.’

듣는 인간 입장에선 난감할 따름이었다. 주현이 어색하게 웃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건 주현도 잘 알았다. 신탁의 경우 신의 언어가 신도들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그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다 보니, 영 해석하기 힘든 문장이 되고는 한단다.

'내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다만.'

어쨌든 그런고로 주현은 지오의 툭툭 끊어지는 문장에도 금방 당황을 감출 수 있었다. 잠시 턱을 쓸며 고민하던 그는 곧 어렵지 않게 규칙성을 찾아냈다.

"이름에 전부 '지오'가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지오의 초상화'입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지오 씨의 모습은 이름에 따른 변화였나 보네요."

그가 특유의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서지오 씨는 어떤 모습인가요?"

"검은색 머리카락일 때의 모습입니다."

"음… 아르지오는 붉은 머리카락일 때였고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틀란 지오반니는 금발일 때의 모습이겠네요."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한낱 인간이 거대한 신비의 말을 이해한 게 기특했던 것일까. 어느 부분이 이 초상화의 흥미와 감성을 건드렸는지는 몰라도, 곧 그의 위로 금빛이 물감처럼 번졌다.

지오반니가 특유의 화사한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소개를 해보는 건 유성운 씨 이후로 처음입니다."

"……."

아마 인간에게 효과적으로 기쁨을 표현하거나 안정을 주고 싶을 때 주로 '지오반니'로 변하는 듯했다.

그렇게 보자면 '서지오'와 '아르지오'도 각자의 쓰임새가 있겠지. 생각을 정리한 주현은 이내 머쓱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처음인가요.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이해는 가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보기만 해도 긴장하셔서 이런 잡다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언제쯤 친구를 사귈까 걱정하기도 했는데, 주현 씨를 만나 참 다행입니다."

"저야말로 큰 영광이죠."

주현은 특유의 싹싹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내심 생각했다.

'그야 나만큼 정신 나간 상태의 인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겁을 먹지 않겠어.'

그냥 봐도 최소 인간형 몬스터, 아무리 깊게 생각해도 악신의 형상이지 않은가. '검은망토'에 대한 괴담이 꽤 친근한 형태로 자리 잡은 건 사실이나 그런 그에게 대놓고 친근한 척 굴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것이었다.

"……."

그 '몇 없는 사람' 중 하나가 된 주현은 내심 씁쓸해졌다. 나름 제정신 박힌 멀쩡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지금은 악신과 친구가 되어버렸다.

'허튼 생각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게 친구 관계이며 내가 거기에 대응한다고 해도 조심해야 할 부분은 조심해야 해.'

악신의 호의를 제힘으로 여긴다든지, 그에게 너무 의지한다든지. 제 것도 아닌 권능에 취해 감사할 줄 모르고 지나친 욕심을 부린다든지….

역사 속 세상을 망친 악신의 계약자들은 하나같이 주제 파악을 못 해서 일을 그르쳤다. 사회의 톱니바퀴로 사라질망정

그런 식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럼 지오 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름을 알려준 걸 보면 설명해 줄 용의가 있어 보이는데 말이다.

“물론 불편하시다면 알려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렇게까지 특별한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검은 머리카락의 지오가 팔을 꼰 채로 무언가를 고민하는 게 보였다. 그가 곧 입을 열었다.

“아르지오는 짐승으로 변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났고, 숲에서 짐승처럼 생활하다가, 만악의 근원으로 몰려 악신이 되었습니다.”

주현이 반사적으로 말했다.

“벌써 특별한데요.”

“그렇습니까?”

“아니, 특별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즐겁게 잘 살다 갔습니다.”

“그야말로 블랙 조크네요.”

고개를 끄덕인 주현이 말을 이었다.

“바틀란 가문의 지오반니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태양의 사제이자 의사로서 인어 학생들을 돌보다가 몰매 맞아 죽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에는.”

“웃어도 됩니다. 이때도 즐겁게 잘 살다 갔어요.”

“웃으면 인간 이하의 무언가가 될 것 같은데요.”

웃음은 무슨, 경악을 숨기기에 급급한 이야기였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심해의 나라’에 대한 보고서를 읽으신 모양입니다.”

“제 착각이 아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드물게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한 인간형 몬스터라 주현도 ‘심해의 나라’에 대한 보고서를 주의 깊게 읽었다. 그 보고서에는 던전과 관련된 전체적인 스토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

아무리 생각해도 즐겁게 잘 살다 죽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조금은 예상을 했습니다.”

“뭘 어떻게 예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검은망토가 수집상의 소속이라는 걸 알게 된 후부터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수집상에서 보내주신 ‘심해의 나라’ 보고서는 유성운 씨가 내셨잖아요.”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운 씨는, 음….”

주현이 말을 골랐다.

“협회의 연구소 커뮤니티 내에서 꽤 유명하십니다.”

“어째서일까요?”

“다른 곳도 아닌 수집상으로 이직하신 전 연구 팀장님이시니까요.”

“수집상으로 이직한 것에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까?”

“모토가 특별하죠. 수집상은 작품을 아끼는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확실히 그런 규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집상의 모토에 협회의 연구원들은 꽤 거부감을 느낍니다.”

어찌 보면 당연했다.

“연구소에서 못 볼 꼴 많이 보니까요.”

그들은 수집상이 ‘작품’이라고 부르는 위험 물품들의 잔혹성을 안다.

“협회의 연구소에는 ‘그것들에게 무언가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연구원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물건들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고, 각자의 사연도 다양하죠.”

“저는 안전합니다.”

“당연히 지오 씨를 향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 이지 없는 위험 물품들과 비교하기에는 지오 씨가 훨씬 아깝죠.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했고요.”

주현이 특유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험 물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집상의 갤러리와 협회의 연구소는 여러모로 대척점에 서 있는 기관들이다 보니, 어느 한쪽을 겪어본 직원이 그 반대쪽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사실상 유성운이 최초의 대척점 이직자였다.

“정말 위험 물품들에 대한 애정이 어지간히 강하지 않고서야 못할 일이죠. 그런 분이 낸 S급 던전의 보고서 아닙니까? 유성운 전 연구 팀장님의 어떤 흥미를 끌었는지 많은 연구원들이 궁금해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때 참가하신 인원 중 서지오 헌터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태양교 입단식 테러 당일 민간인 생환에 큰 이바지를 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검은망토로 알고 있었던 당신께서 서지오라는 이름을 가졌다기에….”

주현이 어색하게 웃었다.

“검은망토이자 서지오인 당신이 ‘심해의 나라’와 어떤 깊은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 던전에 검은망토의 초상화가 종종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니까요.”

그것도 검은망토의 오두막에서 지내며 정리한 추측이지만 말이다.

“무엇보다 ‘심해의 나라’에는 바틀란 지오반니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단히 드물게 확인할 수 있지만, 당신께서 소개하실 때 그 이름을 말씀하셔서….”

“그에 관한 연관성을 짐작했다는 이야기였군요.”

“바틀란 지오반니라는 이름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몰랐을 테지만요. 해당 던전에 지오반니의 생김새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고, 있었다고 해도 금발에 청안은 흔하잖아요.”

“예전의 한국은 그런 생김새가 흔하지 않았는데, 신기합니다.”

“...예전의 한국이라고 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지오’는 지구에서 생활하셨을 때의 이름이겠죠? 그때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역시 별것 없습니다.”

무뚝뚝한 낯으로 지오가 대답했다.

“학교에 난 화재로 인해 초상화가 된 것뿐이라서.”

“음, 그렇군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듯 너무나 별거였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화재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초상화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일단 둘 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화재는 저 역시 이유를 모릅니다.”

그가 눈을 두 번 정도 깜박였다.

“그저 갑자기 경보기가 울렸고, 소리가 나자마자 확인에 나섰음에도 1층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번졌던 것으로 보아 자연적으로 난 불은 아니었겠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름이라도 뿌리지 않고서야 그렇게 빠른 확산은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제 추측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당시 학생들을 학교 바깥으로 내보내기에 바빴으니까요.”

“함께 나가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남아 있는 학생이나 교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필 쉬는 시간이었던 탓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가끔 엉뚱한 곳에 처박히는 학생들도 있어서....”

검은 눈이 덤덤하게 주현을 응시했다.

“다행히 학교에 남은 사람은 저뿐이었고, 제때 학교를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불이 진압되어 살아남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대로 제가 아끼는 창고에 들어갔어요.”

“창고요?”

“미술 창고였습니다. 차라리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제가 있던 곳은 맨 꼭대기인 5층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층고도 높았죠. 그래서 가장 죽기에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

“그리고 초상화가 되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에 주현이 어색하게 웃었다.

“...신기하네요.”

검은망토는 ‘지오’의 죽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 듯 보였다.

사실 서지오가 그렇게 죽었다는 말은 조금도 하지 않았지만, 위의 ‘지오반니’와 ‘아르지오’의 사례가 있는 탓에 주현은 그렇게 생각했다. ‘서지오’ 역시 그렇게 죽었다고 말이다.

“당시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혹시 ‘지오’마다 나이가 다른가요?”

“지오반니는 32세, 아르지오는 2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전부 장수하지는 못했네요.”

주현은 문득 안타까워졌다.

“저보다도 어려요.”

이 초상화는 그런 어리고 젊은 죽음의 집합체인 것일까.

‘그래서 이렇게 독대하고 있음에도 대화가 어렵지 않게 가능한 걸지도 모르겠네.’

아마 그 많은 ‘지오’들의 밑바탕에는 ‘지오의 초상화’라는 거대한 신비가 있었겠지만, 그들도 결국 한때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지오’의 죽음은 하나같이 씁쓸하기만 했다.

‘아무리 악신이라지만, 아르지오 역시 24살에….’

무엇보다 스스로를 악하다고 한들, 아르지오라는 인격이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만 보이지도 않았다. 그는 충분히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인격자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비극만을 맞이했을까.

“…….”

주현이 부드럽게 눈웃음을 그렸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네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심해의 나라’에 서식하는 두 인어는 아직 토벌되지 않았다고 하던데.”

“함부로 토벌하기에는 위험성이 강한 아이들이긴 합니다.”

“토벌 자체를 반대하시지는 않는군요.”

특이한 일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한때 아끼는 제자였던 이들이잖아요.”

만약 주현이 그의 입장이었더라면 참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저라면 꽤 오랫동안 슬퍼할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자책도 들 거고요. 한때 사랑하는 제자였으니 용서하고 싶기도 할 거고, 그래도 인간으로서는 용서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음, 너무 건방진 소리였을까요?”

어느새 백금발이 된 그가 웃었다.

“내 친구, 당신은 나에게 조금도 건방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현 씨만큼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깊이 고민… 하는 걸까요?”

“단 한 번도 자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오반니는 ‘대체 왜 그래야 하냐’는 듯이 푸른 눈을 깜박였다.

“나는 최선을 다해 내 제자들을 아꼈고, 나의 사명에 걸맞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태양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 왔고… 한 명의 선생님으로서도 내 학생을 위한 길을 걸어왔죠. 그것은 나를 학대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조곤조곤한 음성이었다.

“제자들은 나를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내 학생들을 지켰고, 그동안 모자라지 않은 애정을 주었죠.”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해왔고, 그것은 보편타당한 선행이자 태양과 나에게 떳떳한 걸음이었습니다. 내가 더 영악하게 처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학생들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자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영악하게 처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과 마을의 비위를 맞췄더라면 저는 더 오래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학생들을 배신하는 길이고, 내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며, 또한 나를 괴롭히는 행위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매끄러운 호선을 그렸다.

“그러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째서요?”

“이유는 많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약속했기 때문이겠죠.”

“누구와 약속하셨습니까?”

“내 학생들과.”

바다를 담은 눈이 애정을 담아 휘어진다.

“지금의 내가 변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

그 박제된 미소에 주현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직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그럼 그들의 행위를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벌하시겠습니까?”

“제 몫이 아니군요.”

사제가 가볍게 웃었다. 티 없는 청년의 웃음이었다.

“그들이 나에게 지은 죄는 내 믿음을 배신했다는 것뿐입니다. 그에 관한 벌은 이미 지난 시간에 받았고, 이외의 죗값은 감히 제가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오반니라는 자는 그 죄 많은 인어들을 가장 쉽게 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게 당신의 몫이 아니라서?”

“또한 그들이 제가 내리는 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내 지오반니가 픽 웃는 것이 보였다.

“내 인어 학생들은 아주 오랜 시간을 화풀이로 보냈습니다. 한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매몰되어 결코 주워 담지 못할 죄를 흩뿌리고 다닐 때는 언제고, 마음 한편에 저를 남겨 두었지요.”

“…….”

“그러지 못하리라 생각하면서도, 언젠가 기적처럼 그들의 유일한 의미인 제가 돌아와 그들에게 끝을 주리라 바란 겁니다. 대단히 무책임하며 우유부단한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그들을 벌하는 것은 오히려 상이 될 것인데….”

그가 어깨를 으쓱였다.

“그게 옳다고 보십니까?”

“…음, 글쎄요….”

고민할 거리가 생기는 관점이었다.

“…그래도 그 인어들로 인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가진 애정의 보답이자 편애의 증거입니다.”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면서도 용서하지 않으셨고요.”

“영겁의 시간이 흐른다고 한들 제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비로운 태양을 담은 인간이 말한다.

“나의 학생들이 어떤 짓을 한다 해도 죄는 더 커지고 책임은 불어날 뿐, 이미 그들의 손에 고통받은 이들의 시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설령 그들이 죽인 인간들의 세계를 가장 온전했던 때로 되돌린다 한들 있던 죄가 사해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생각이 그리 깊지 못한 단순한 사람이므로, 그만한 죄 역시 기나긴 시간과 고통과 정성을 통해 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고작 수천 년이 지난다 한들 메꿔질 구멍인지는 알 수 없지요.”

청년의 티를 벗어낸 사제의 얼굴로 지오반니가 말을 이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는 이상 그들은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으니….”

“제가 걱정하는 비극도 반복될 일이 없을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저는 제 인어 학생들을 사랑하기에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는 한, 그들은 두 번 다시 이전과 같은 재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안심이 되는군요.”

진심이었다.

“아무래도 인간형 몬스터는, 음, 걱정이 되는 존재들이라….”

“불안하신가 봅니다.”

그에 지오반니가 물었다.

“소개해 드릴까요?”

“예?”

뭘요?

* * *

“따란.”

두 명의 인어를 두고 지오가 효과음을 냈다. 주현이 황당해했다.

“아니, 따란이 아니고.”

“제 학생들입니다.”

“알긴 아는데.”

인어들과 지오반니의 관계를 아는 듯한 주현의 모습에 아리아가 빙긋 웃으며 제 선생님을 돌아봤다. 그녀의 미소는 티 없이 매끄러웠다.

“이제는 아예 인간을 키우는군, 그렇지?”

“키우다니요, 제 친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참 이상한 방면으로 사교성이 뛰어나시지.”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이 선생님의 낯이 뜨겁습니다.”

“뜨겁기는, 곧 만년 한설이 내려앉겠는데.”

그런 아리아의 말에 지오가 곧 부드러운 사제의 미소를 띠었다.

“이러면 될까요?”

“역시 나는 그 얼굴이 마음에 들어.”

고개를 끄덕인 아리아가 묘한 눈치 싸움을 하는 제 동생 이세르와 지오의 새 친구 주현을 돌아보았다.

이세르는 이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 중인 듯했고, 주현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느라 바쁜 것 같았다.

“어린 것들.”

가볍게 웃은 아리아가 예법에 따라 우아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태양의 사랑을 받는 신사분. 바틀란 가문의 지오반니 사제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제자 아리아라고 합니다. 대지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저 역시 처음 뵙겠습니다. 바틀란 가문 지오반니 사제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두 번째 제자, 이세르입니다. 태양의 온기가 그대에게 닿기를.”

제 누이를 흘긴 이세르도 한 박자 늦게나마 인사해 왔다.

비록 그 둘이 인간형 몬스터라는 사실은 협회의 연구원으로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나, 이렇게 된 이상 주현도 그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야 했다. 주현은 반사적으로 사회생활용 미소를 지었다.

“반갑습니다, 부족하나마 서지오 씨의 친구가 되는 영예를 차지한 주현이라고 합니다. 서지오 씨가 초상화 바깥에서 헌터로 활동할 때에 도움을 드릴 매니저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어 둘과 인간 하나의 시선이 지오반니에게로 향했다.

“…….”

“…….”

“…….”

묘한 침묵에 지오가 물었다.

“식사할까요?”

그렇게 때아닌 식사가 결정되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51)"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52)

152

제152화

주현이 식사 준비를 돕겠다고 나섰지만 기각되었다.

"여기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얻어먹기만 해서 낯이…."

"인간의 종족을 유지하고 싶다면 가만히 있으세요."

"…아."

"바로 그겁니다."

이세르가 고개를 끄덕이고서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황당한 얼굴로 서 있는 주현을 소파로 부드럽게 에스코트한 아리아가 가벼운 설명을 해주었다.

"선생님이 직접 손질하고 요리한 게 아니면 인간이 섭취하긴 어려울 겁니다."

"만약 지오 씨가 손질하고 요리한 게 아닌 식재료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초상화와 하나가 되겠지. 그걸 바라지는 않으실 테고요, 신사분."

"단순히 손질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대는 대단히 연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서 힘들 것 같군."

아리아가 빙긋 미소 지었다.

"뭐라도 일을 하고 싶은 듯한데, 그렇다면 식탁이라도 정리하는 건 어떤가?"

"…하긴 수저를 놓는 것 정도는 저라도 문제가 없겠죠?"

"고작 그 정도에 변질이 일어나지는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감사합니다."

"별말씀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선 역시 주방으로 들어가는 아리아를 보며, 주현은 내심 선뜩해진 가슴을 쓸어내렸다. 기가 막힌 우연인지 지오의 배려인지 주현은 여기서 원 식재를 먹은 적이 없었다.

‘그러고 보면 마실 것도 전부 차나 주스의 형태였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

‘던전에서 난 식자재는 인간이 먹어도 무해한 경우가 많아서 방심했어….’

인간형 몬스터로 취급되는 ‘검은망토’의 던전이라 그런가, 주현은 평범한 던전들을 기준으로 판단해 버렸다. 근원과 정원에 대해 모르는 그로서는 방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에 와 던전에서 난 식자재는 유용한 먹거리가 되어주었다. 지구산보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평범한 중산층까지는 던전산 식자재를 애용하는 것이다. 그건 주현도 마찬가지였다.

“이봐, 신사분.”

“아, 예.”

“식사가 준비될 동안 나와 함께 차를 즐기지 않겠어?”

주방에서 나온 아리아가 쟁반 위의 다기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지오가 새로운 차를 만들었던데.”

“새로운 차라고 하면….”

“별을 닮은 작은 꽃이 모여 있는 차야.”

“시음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지오가 ‘물새의 둥지에서 키워보았다’라며 가져온 꽃이었다. 주현이 반갑다는 표정을 지으며 아리아에게서 쟁반을 받아 들었다.

“고소한 향이 강한 차였죠.”

“주방 인원들이 하도 바빠 보여 그냥 들고 왔는데.”

“그… 그래도 되는 건가요?”

“먹을 것을 훔쳐 간다고 화낼 사람은 아니니까.”

“훔쳐 온 거군요.”

인간형 몬스터의 입에서 ‘훔쳐 왔다’라는 말을 들은 주현의 기분은 미묘해졌다. 인간의 아종으로 취급되기도 하는 인어라는 종족에서 탄생한 몬스터라 그런지, 훔쳤다는 자각이 있다는 것이 새삼 놀라웠다.

‘티를 낼 일은 아니지만.’

주현이 테이블에 다기를 두어 차를 우렸다.

“지오 씨에게 듣기로 바스람꽃을 말린 차라고 들었습니다.”

“바스람꽃은 내가 태어난 세계에서 재배되던 꽃이야.”

“재배가 될 정도로 유명한 꽃차였군요.”

“꽃 한 송이가 그 부피에 맞먹는 금의 가치를 지녔지.”

“…그 세계에서도 금은 비쌌겠죠?”

어색하게 웃은 주현이 물었다.

“어째서 그렇게까지 값비쌌나요?”

“재배하기가 너무 까다로웠거든.”

“어떻게 해야 재배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키우는 사람을 가려.”

“키우는 사람을…?”

“그래.”

아리아가 작게 웃었다.

“태양의 사제 중 소수만이 그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다.”

“사제만이 재배할 수 있는 꽃이라니… 확실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바스람꽃은 태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장소에서 수중 재배로 키워져.”

“수중 재배인가요? 하긴 물새의 둥지에서 키웠다고 했던가. 특이하네요.”

“한때 바스람꽃은 태양의 신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연못에서….”

말끝을 늘인 아리아가 조금 뒤늦게 말을 이었다.

“그것들이 자라났지.”

“태양의 신전 가장 깊숙한 곳이요?”

주현은 그 상황을 짐작했다.

“그때 당시 태양교는 어떤 위치에 있었나요?”

“지상을 지배하던 종교였다.”

“그렇다면 이 바스람꽃은 정말 귀한 꽃이었겠군요.”

“태양에 닿은 영약이라 취급될 정도였으니.”

“…….”

차를 따르던 주현이 멈칫했다.

“…영약인가요?”

“그래, 지상에서 최고로 치던 영약이다.”

“지금 영약으로 차를 우리고 있는 건가요, 제가?”

“무얼 그리 새삼스러운 것을 물어.”

아리아가 말끔한 미소를 지었다.

“여태까지 먹은 게 다 그런 종류일 텐데.”

“…오….”

쪼륵.

주현이 마저 차를 따랐다.

“갑자기 마시기가 불편해졌어요.”

“선생님은 별 뜻이 없을 테니 그냥 마시는 게 좋을걸.”

“한낱 인간의 입장에서는 겁이 납니다.”

“이걸 마신다고 인간이란 정체성에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거다.”

“큰 변화가 아니라면 작은 변화는 오나요?”

“대단히 따듯한 몸이 되겠지.”

“...산삼?”

“비슷할지도.”

아리아가 주현이 따른 차를 한 모금 삼켰다.

“그보다는 효과가 좋겠지만?”

“...향은 정말로 고소하고 좋은데....”

“잘 익은 곡물의 향을 꼭 닮았지?”

인어의 입술이 부드러운 호선을 그렸다.

“지오반니는 태양의 사제 중 가장 따듯한 기운을 품은 이였다.”

“.......”

“그가 기른 바스람꽃은 세상에서 가장 달고, 부드러운 향을 품었어.”

“...혹시 이게....”

“나의 던전에서는 더 이상 바스람꽃이 자랄 수 없게 되었지만 말이야.”

찻잔을 쓰다듬은 아리아가 곧 말을 이었다.

“바스람꽃은 그 꽃송이를 수확하기 전까지, 조금만 찬 기운이 들어와도 시들어 버리고 만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이들이 수시로 그 곁을 지켜 주어야만 제대로 자라날 수 있어.”

“정말 섬세한 꽃이네요.”

“나의 인간 선생님은 바스람꽃을 가장 잘 피워내는 사제였지. 태양의 신전에서는 어떻게든 그를 다시 불러들이고, 그 안에 붙잡아두고 싶어 했어. 그가 있어야 영약 장사를 하니까.”

“생각보다... 세속적인 이야기군요.”

“하지만 지오반니는 세상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치료하고 보듬는 데에 시간을 쓰기 바빴지. 신전 쪽에서는 대단히 애가 탔었을 거다. 교단의 명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에 그를 미워하던 이도 많았고.”

“음....”

차를 홀짝인 주현이 물었다.

“개인적으로 꽃을 재배하는 사제들은 없었습니까?”

“왜 없었겠어? 단지 대부분의 사제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뿐이야.”

“그 정도로 재배가 어려웠던 건가요?”

“단순히 태양의 기운만 가득하다고 될 일이 아니었거든.”

“그렇다면...?”

“사랑을 해주어야 했어.”

아리아는 귀엽다는 듯, 투명한 다기 안에 떠오른 작은 꽃송이들을 보았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껴야만 자라났지.”

“...대단하네요.”

주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재배가 어려웠다는 거다.”

곧 아리아가 픽 웃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바스람꽃을 재배하던 사제들이 있었다. 그들은 충분한 태양의 기운을 품지도 못했고, 한낱 물에 잠긴 꽃 따위를 사랑해 주지도 못했지만, 결국 조금씩은 재배해 내고는 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간단해, 태양의 기운을 품은 물건을 재배실에 들여놓는 것이다. 그런 물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배실은 태양의 신전과 비슷한 기운을 품게 되니까. 어디 보자, 예를 들면 태양의 성물이 있겠군. 성인의 유품이라든지….”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랑’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나요?”

주현의 질문에 아리아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충족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그렇기에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사제의 시신을 함께 두는 거야.”

“…….”

“그 탓에 신전 연못은 성인(聖人)들의 무덤으로도 쓰였지.”

눈을 깜박인 주현이 되물었다.

“예? 시신을 그런 식으로…?”

“그럼 ‘사랑’과 비슷한 결과물이 나온다더군.”

“…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거름으로 바친 헌신 또한 사랑이라 친 모양이지.”

아리아가 웃었다.

“그래서 바스람꽃은 ‘시체를 먹는 꽃’이라고도 불렸다.”

태양의 기운이 가득한 최고위 사제들이 직접 기르는 것보다, 태양의 기운이 적당히 강한 사제의 시체 몇을 활용하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지 않았겠는가.

“실제로 태양교 사제의 시체가 암암리에 팔리던 시대였고.”

“…….”

“물론 진정 사랑을 주어 키워낸 꽃보다는 질이 낮지만 말이야.”

“어….”

“하지만 그렇게라도 키워낸 바스람꽃도 효능은 좋았어.”

아리아는 대수롭지 않은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만큼 수요가 엄청났던 영약이라는 거지. 태양의 성물이며 사제의 시신까지 이용해야 했을 정도로 귀한 꽃이고,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효능도 컸으니까.”

“…정확히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사람의 몸을 따듯하게 만든다. 복용법은 태양열에 바짝 말린 다음 가루를 내어 물에 타 먹는 형식이었고.”

“그 정도면 아예 화상을 입는 게 아닌지…?”

“그랬다면 그 정도로 귀하게 취급되지는 않았을 거다. 부작용은 없어. 단지 언제나 몸이 이상적인 온도에 맞춰 따듯해지고, 덕분에 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는 효능이 있을 뿐이야.”

“…….”

주현이 제 손에 들린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아리아를 봤다.

“제가 이걸 마셔도 되는 건가요?”

“안 죽어.”

“아니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죽고 싶은가?”

“혹하지 마시고, 그. 저는 인간으로 죽고 싶은데요.”

“수명을 늘려준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했지.”

“이 꽃이요?”

“뭐, 이렇게 꽃차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아….”

눈을 굴리며 주현이 고민했다.

“차로 마시면 효능이 덜할까요?”

“태양의 신이 직접 말린 꽃의 효능이 덜하길 바라나?”

“…잠깐만요.”

주현이 물었다.

“태양의 신?”

“저런, 몰랐나 보군.”

“지오반니 씨가…?”

“저기 계신 곰인형 신사분이 보이나?”

“엇.”

주방 일을 돕고 있었는지 안쪽에서 손을 흔드는 곰인형이 보였다.

“예, 아마 아버지라고….”

“전대 태양신이시다.”

“예?”

“지오는 그 신성을 물려받았지.”

“…….”

하얗게 질리는 모습에 아리아가 빙긋 미소 지었다.

“좋지 않은가? 친구가 태양신이라니, 이보다 영광스러울 수가 없겠어.”

“분명 영광스럽긴 하지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이건….”

주현이 곤란한 얼굴을 했다.

“많이 과분한데요.”

“친구가? 아니면 이 차가?”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신의 하사품에 갚을 생각을 하는군.”

“그,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본인도 제 생각이 민망한지 주현이 난감한 듯 얼굴을 붉혔다.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

“지오 씨는 평범한 신도 아니고요.”

“…아주 조금은….”

미소를 지운 아리아가 푹 한숨 비슷한 것을 내쉬었다.

“내 멍청한 동생을 닮았군.”

“…제가요?”

“그래, 아주 조금 말이야.”

아리아는 이내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 동생도 그대처럼 좋은 때에 신의 자비를 받을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거다.”

그 말에 담긴 감정은 대단히 복잡해, 주현이 감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럼 괴물이 아닌 평화의 사제가 되었을 테지.”

“…후회하십니까?”

“아마 잘 알겠지만, 후회한다면 괴물이 아니야.”

“그렇겠죠.”

꿈이, 미련이, 일상이, 그 무엇이라도 남은 자는 몬스터가 될 수 없었다.

주현은 그걸 잘 알고 있었고.

“…….”

그렇기에 이 인어들의 끝을 예감할 수 있었다.

* * *

준비된 저녁은 양꼬치였다.

“양꼬치….”

“싫어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양념이 잘 밴 듯 보이는 고기 꼬치에 주현이 어색하게 웃었다.

"이거 황금양의 고기였죠?"

"잘 기억하고 계시군요."

지오가 화사하게 웃었다.

"지난번에 먹은 양갈비의 맛이 괜찮으셨나 봅니다."

"그... 그렇기는 하죠. 확실히 그렇기는 했지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조율해 드리겠습니다."

"......."

곧 주현이 체념했다.

"아뇨, 맛있어 보이네요."

"제가 만들었으니 당연합니다."

"하하하...."

빨리 독립해야지.

'독립해서 평범하게 먹고 살아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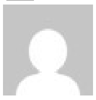
아직 다나가 그를 경계해 줄 때가 마지막 기회였다. 주현은 지구에 다시 집을 얻을 각오를 마쳤다.

예상하지 못한 독특한 방법으로의 트라우마 극복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52)
Prev
Next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53)

153

제153화

양꼬치는 정말 맛있었다.

"노린내가 하나도 없네요."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저번에 먹은 양갈비도 참 맛있었지만…."

"그건 스테이크였고."

"예, 양꼬치는 조금 더 식감이 살아 있어서 좋아요."

주현은 미식에 딱히 뜻이 없었다. 아무리 도시의 2등급 시민이라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살기에 급급한 삶에 무슨 미식을 즐기겠나. 기부할 돈도 없는데 사치를 즐길 여력이 있을 리가.

하지만 그런 주현마저도 음식에 욕심을 내게 만드는 황홀한 맛과 식감이었다. 몬스터를 이용한 양꼬치는 가끔 먹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본격적인 식사는 처음이었다.

"기름진 부위와 담백한 부위가 적절히 섞여 있는 게 특히…."

"기름진 곳은 너무 지방이 많고, 담백한 부위는 너무 깔끔해서 섞어 보았습니다."

"덕분에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하네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계속 먹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조절해서 잘 먹어볼게요."

의외로 인어들 역시 꽤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선생님, 이번에 숯을 바꾸셨나요?"

"새로운 나무를 찾아 한번 바꿔 보았습니다."

"매콤한 향이 나서 지난번의 것보다 자극적이네요."

"저런, 혹시 너무 자극이 컸습니까?"

"좋다는 의미였어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그야말로 가족과 다르지 않았다.

“…….”

주현은 순간 기분이 묘해졌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범하고 온화하다.’

문득 주현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고아원이 떠올랐다. 협회 소속 고아원 중에서도 유독 배척을 받는 분위기인 탓에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마음을 합치기에도 좋은 환경이었다.

주현은 고아원에서 독립한 후에도 종종 방문해 식사 준비를 돕고는 했다. 대단히 거창한 메뉴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준비를 도와 재료를 세척하거나 자리를 마련하는 아이들. 그리고 원장님….

‘막연하지만 좋은 분위기야.’

잔잔한 바람결은 적당한 온기를 품었다. 따사로운 햇살에 묻어나는 꽃향기를 담았고, 오두막을 둘러싸고 있는 숲에선 시원한 소리를 내며 흔들린다. 새가 기웃거리고, 구름이 흘러간다.

그림으로 그린 듯한 이상적인 분위기라기보다는, ‘평범한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상했을 때 바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의 풍경이 꼭 동화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

하지만 현실은 인간형 몬스터와 악신이라는 건가.

‘선악이 구분되지 않는 기묘함이 있어.’

이곳에 와서 참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았다.

“그나저나.”

“…아, 예.”

“선생님의 친구라지?”

아리아의 질문에 동생 이세르의 시선도 곧 주현에게 닿았다. 무언가 할 말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시선이 마주치니 둥글게 눈을 휘었다. 그건 호의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곧 아리아가 말을 이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나?”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까?”

“이곳의 이야기는 나도 조금은 전달을 받지.”

“그럼 왜….”

“그렇다고 선생님의 모든 이야기를 알진 못하거든.”

“…….”

“하지만, 그렇군. 어느 정도 예상은 돼.”

아리아가 지오를 돌아보았다.

“선생님은 선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하니까.”

지오는 부정하지도 않고 선선하게 웃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사교성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단 말이지.”

아리아가 다시 주현을 보았다.

“이른바 영리한 호구라는 건가.”

“…그… 그런 단어도 아시는군요.”

“한국의 문화에 대해 공부를 좀 해서.”

“호구라는 단어는 굳이 왜 배우신 건지 모르겠지만….”

주현의 얼굴이 민망함에 어색해졌다. 지나치게 이상향을 좇는 제 사고방식을 지적당할 때면 항상 부끄러움이 찾아왔다.

“저 호구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지오가 부정했다.

“그 단어는 제 몫도 챙기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현 씨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찬이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확실히 주현 씨와 같은 부류의 사람을 선호합니다. 뿌리가 깊으면서도 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강하고 여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어… 그….”

주현의 미소가 애매해졌다.

“…감사합니다?”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한 지오는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는 이세르를 돌아보았다.

“지난번 이세르의 파트너였던 차이솔 군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이세르가 차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선한 아이였습니다.”

“이세르를 닮았어요.”

“…….”

이세르가 곧 특유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거야말로 과찬이시군요.”

그런 그들의 대화에 눈을 껌벅이는 주현을 본 지오가 설명을 해주었다.

“차이솔이라는 학생은 현재 서울 지부 태양교의 학생입니다.”

“아… 혹시 ‘심해의 나라’에 납치되었다던 아이입니까?”

“그것도 잘 알고 계시는군요.”

“협회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정보는 가급적이면 확인하는 편입니다.”

주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납치된 아이가 멀쩡히 살아 돌아오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의 시선에 아리아가 선명한 미소를 지었다.

“괴롭힐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난 인질이 귀한 줄을 알거든.”

“보통의 납치범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대접이었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싫다 한들 인간의 아이를 직접 괴롭히는 일은 없어.”

“그건 지오반니 씨가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인가요?”

“어리기에 어쩔 수 없이 무고한 존재들이기도 하니.”

아리아가 말끔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봤자 우리의 짓거리에 휘말렸겠지만?”

“...그렇겠죠....”

주현이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그 차이솔이라는 아이도 괴롭히지... 음, 이미 납치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는 않은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세르가 대답했다.

“적당히 겁은 먹어 주었으면 했습니다만.”

“아, 그게 아니었나요?”

“저희가 해치지 않을 거란 믿음이 너무 확고했습니다.”

“똑똑한 아이였나 봅니다.”

“인어를 두려워하지도 않더군요.”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글쎄요.”

이세르가 어딘가 지오반니를 닮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주현 씨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괴물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아니,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 어... 음....”

주현이 당황해했다.

“현실감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딱히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와서 갑자기 무서워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알 수 없는 뻔뻔함이 닮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기왕이면 당당하다고 해주세요.”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인 이세르가 지오를 보았다.

"계속 이곳에서 거두실 생각인가요?"

"제가 거둔 적은 없습니다."

그 말에 주현이 의문을 표했다.

"저를 주워 오신 건 아르지오 씨가 아니었나요?"

"말 그대로 초대를 한 거지 딱히 주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대뜸 나타나서 집 안으로 데려가 먹이고 재우고 대화한 것이 딱히 '거둔 것'은 아니었나 보다.

종종 그랬듯이 주현은 지오의 머릿속 백과사전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을지가 궁금해졌다.

'대략 불쌍한 유기견 주워 오는 감성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나 보군.'

주현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아무튼 지오가 말을 이었다.

"저는 주현 씨가 계속 이곳에 살아도 좋습니다."

"오 아니요?"

주현은 특유의 사회생활용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런 민폐를 끼칠 수야 없죠.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신 것만 해도 저에게는 너무 과분합니다. 조만간 다시 집을 구해 나가볼 생각이었습니다."

"집은 새로 구하셔야 합니까?"

"원래는 연구소 근처의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으니까요. 연구소 생활은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사직서를 낼 건데, 아무래도 그러면 따로 집을 구해야겠죠."

그에 지오가 주현을 지그시 응시했다. 무언가 유치한 압박이 느껴진다.

"제 비서님인데…."

"……."

"멀리 나가 사시는 건가요."

"…보통은 다들 그래요…."

아무리 헌터와 매니저의 관계라고 해도 같이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단 말이다.

"저도 매니저로서의 업무를 교육받을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저희 집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과하게 열린 것 같으니 조금은 닫아주셔도…."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고요."

세간에 알려진 '검은망토'의 시리즈 작품들은 전부 던전의 입구나 다름없었다. 그 주인이 이렇게까지 외부 요소를 쉽게 받아들이고 있으니 여러 사람 죽어나갈 꼴이 훤히 보였다.

하지만 아무리 소나무를 닮아 줏대 있는 주현이라고 해도 던전 주인에게 입구를 닫길 요구할 수는 없었다. 애초에 인어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다. 이렇게 죽고 싶진 않았다.

"그렇게 일단 나가서…."

해서 주현은 대화 주제를 다시 제 미래의 계획으로 돌렸다.

“괜찮은 집이 마련되면 묘를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묘라면 최근 사건에 휘말린 가족들의 것이겠군요.”

“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장례를 치러줄 생각도 못 했네요.”

같이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장례 따위가 어디 생각이나 났겠는가.

하지만 지금의 주현은 미래를 그리고 있었고, 극복하고 나아갈 방법을 구상 중이었다. 그걸 위한 첫 번째 반석으로 제 일에 휘말린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사과가 필요했다.

“그걸 시작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에 지오가 물었다.

“제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져야 할 제 책임이니까요.”

“아닌데, 내 도움이 필요할 텐데….”

“부디 넘치는 호의를 자제해 주세요.”

“나 잘할 수 있는데.”

“덜 잘했더라도 부담스러웠을걸요.”

“역시 그런가.”

그런 둘을 보던 이세르가 손가락을 까닥이다, 이내 꾹 쥐었다.

“…….”

“이세르.”

“…예, 누님.”

“허튼 생각 말고 차나 가져오렴.”

“그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누이의 심부름을 하는 이세르의 모습에 주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박였다.

“…허튼 생각? 혹시 저 미움을 샀습니까? 죽을 뻔했다던가?”

“이런 걸 보면 겁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말이지.”

아리아가 제 뺨을 감싸며 말을 이었다.

“흔해 빠진 질투이니 그리 두려워할 것 없다.”

그렇게 말한 아리아가 이내 지오를 돌아보았다.

“선생님의 친구가 묘를 만든다는데, 도와줄 건가?”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어야겠지요.”

그에 주현이 무어라 거절의 말을 하기도 전에 지오가 그를 보았다.

“최근 지구는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릅니까?”

“보통은 화장을 합니다만, 시신이 없다면… 유품을 태워 보관합니다.”

“주현 씨의 가족과 친구들도 시신이 없나 봅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제가 많이 늦었죠.”

“그렇다면 제가….”

지오가 무언가 제안을 하려고 말을 꺼낼 즈음, 이세르가 차를 가져왔다.

“바스람꽃이 있기에 가져왔습니다.”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오랜만이더군요.”

“이번 꽃은 제가 최근에 직접 피워 냈습니다.”

“바스람은 수중 재배일 텐데 어디서 키우셨나요?”

“저쪽 물새들의 둥지에서요.”

그에 차를 나누어 주던 이세르가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아,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는군요.”

“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 덕분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스람꽃은 향기가 아주 좋으니, 만족했을 겁니다.”

“오면서 본 호수가 어쩐지 황금색이더라고요.”

이세르의 말에 주현이 물었다.

“황금색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선생님의 물새들은 행복하면 둥지를 황금색으로 빛냅니다.”

“아하….”

주현의 시선이 지오의 어깨에 앉은 물새, 허니에게 닿았다.

“그렇다면 저 친구는?”

“허니는 루루푸의 즙을 마시고 색이 변했습니다.”

“꽁꾸르.”

지오가 설명을 덧붙였다.

“숲의 샘에서 자라는 꽃이죠.”

“말만 들어도 심상치가 않네요.”

“향기가 심각하게 좋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딱히 그런 의미에서 ‘심상치 않다’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말이다.

“어떤 향인지 궁금하네요.”

“향수가 필요하다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호의를 자제해 주세요.”

주현이 말을 이었다.

“아무튼 조만간 준비해서 집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운 씨를 통해 사직서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집상의 길드장이 직접 나서준다고 했으니 사직서는 깔끔하게 처리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확실히, 서지오 헌터라는 신분을 매니징하려면… 숙소가 가까워야 할까?’

그 부분은 유성운 헌터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고민하는 주현이었다.

* * *

그리고 며칠 뒤.

“…제 숙소가 이미 구해졌다고요?”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말렸는데….”

“아, 아니요. 죄송할 건 없죠.”

초췌한 유성운의 미소에 주현이 손을 내저었다.

“저 대신 알아봐 주신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그, 서지오 헌터를 매니징하려면 어떤 숙소를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참 고마운 일이긴 한데.”

“게다가 숙소 비용도 수집상에서 내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오히려 과분한 혜택을 받은 거죠.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한 것뿐이에요.”

“…….”

“…저기….”

유성운의 침묵에 무언가 위기를 감지한 주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숙소가 어디인가요?”

“제 옆집입니다.”

“예?”

“예.”

“왜요?”

진짜 왜지?

“…….”

“…….”

유성운은 눈을 피했다.

악명 높은 수집가를 길드장으로 둔 죄였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illegible])"

4.7 13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54)

154

제154화

비사벌은 그들 셋이 하우스메이트가 되기를 원했다.

"셋이요?"

"예, 셋입니다."

"저랑, 유성운 헌터랑, 그리고 설마…."

"그 설마가 맞습니다."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오도 포함이죠."

"……."

그에 짐을 정리하던 주현의 입술에 꾹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유성운은 그가 삼킨 말이 '제정신인가' 또는 '미친 게 분명하군'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다고 힘없는 자본주의의 노예가 상사에게 대들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유성운은 이 미친 짓에서 빼주겠다는 확언보다는 체념을 권유하는 사과의 말을 꺼냈다.

"저희 길드장의 욕심에 휘말리게 만들어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요, 분명 제가 모르는 큰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현은 제 속내와 달리 싹싹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다만 어떤 연유로 그런 선택을 하셨을지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지오의 초상화'가 인간들의 삶에 더 빠르게 물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오 씨가 인간들의 삶에 물들길 바란다고요?"

바스락.

제 이삿짐이 든 종이 상자를 열던 주현의 미소가 미묘해진다.

"…제가 감히 의심할 주제는 아니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 지오 본인의 의지가 강하니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확실히 인간의 흉내가 정말 뛰어나신 분이긴 하지만….”

“스스로를 계속해서 인간이라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한테만 주장하는 게 아니었군요.”

주현이 허탈하게 웃었다.

“초상화의 특성을 지닌 인간이라고 하던데.”

“지오가 자주 하는 주장 중 하나죠.”

유성운도 주현의 황당함을 이해했다.

“인간의 다양성이 이렇게 넓은데 그 안에 초상화 하나 안 들어가겠냐고 말입니다.”

그런 지오의 주장을 애초에 반박할 생각도 없지만, 반박한다 한들 들어먹지도 않을 것이었다.

“그 격이 얼마나 크든, 품은 힘이 얼마나 거대하든, 신체와 인격이 얼마나 변화하든, 지오는 그걸 단순히 하나의 특성으로만 여깁니다.”

“그런 것 같았습니다.”

“잘 이해하신 것 같아 기쁘군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오는 인간들 사이에 섞이려 할 것이고, 저희 수집상에서는 그것을 막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성운이 특유의 무던한 미소를 지었다.

“태만으로 보일까요?”

“…솔직히 조금은요.”

주현이 부드럽게 눈을 휘었다.

“협회의 연구소에 있을 때는 훨씬 철저했거든요.”

“지구와 인류의 평화를 생각하면 그렇게 철저한 방비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집상의 모토는 ‘작품을 사랑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탓에 주현 씨가 기대하는 수준의 보안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손을 놓고 계시진 않을 걸 아니 이해합니다. 그게 수집상의 방식일 테니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집상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애초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의 싹을 뽑아버리는 협회와는 방식이 다르죠.”

유성운의 말에 주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수집상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지만, 지오가 수집상의 일원으로 취급되는 만큼 주현도 반쯤은 그곳에 걸쳐 있다고 봐야 했다. 되도록 빠르게 적응해야 할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 하우스메이트 같은 것을 생각한 걸까요? 어차피 ‘지오의 초상화’가 인간 사회에서 생활하게 될 것은 막지 못할 거라서?”

“길드장님의 의도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 주현 씨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오는 아직 인간 사회에 대해 모르는 게 많고, ‘서지오 씨’로 활동하기 위해선 더욱 적응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 아예 다른 인간들과 생활하게 하며 격을 더 자연스럽게 갈무리하는 방법이나 기본적인 인간들의 상식을 익히게 하려는 거겠죠. 예, 이해가 됩니다.”

조곤조곤 말을 이어가던 주현의 미소가 일순 어색해졌다.

“다만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의도 중 하나라고요?”

“가장 큰 목적은 ‘지오의 초상화’가 인간들과 살아가는 모습을 감상하는 겁니다.”

“비사벌 길드장님께서요.”

“놀랍게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수집가예요.”

“비범하신 분이라는 건 진즉 알고 있었지만 정말 대담하시네요.”

“좋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운은 공감과 동정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일단 사회생활은 해보려는 주현의 노력과 정성에 감동한 덕분이었다.

“그렇다고 당장 그런 시도를 하고자 하시는 건 아닌 탓에 이렇게 저의 옆집으로 배정이 되어 버리셨습니다. ‘지오의 초상화’를 담당하고 있는 큐레이터인 저와 더 친분을 쌓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실 테고요.”

“덕분에 과분한 숙소를 얻게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숙소 명의는 주현 씨의 것이지만, 숙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수집상에서 처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현재 상황에 적응하시겠다는 목표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지오 씨’를 어떻게 매니징할지도 고민인데….”

“매니저 교육은 저희 수집상 비서실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수집상 소속이 되는 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처음이신 만큼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실 겁니다.”

필요한 사항을 죽 늘어놓은 유성운이 이내 가볍게 웃었다.

“뭐, 그리고 이웃사촌이 되었으니 차차 편해지면 더 좋고요.”

“그 부분도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오와 관련한 문제로 이리저리 마주치다 보면 저절로 친해질 것 같네요.”

“그러면 더 바랄 게 없죠.”

“아, 그리고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

유성운이 물었다.

“지오의 펜팔 친구가 되었다고 하셨죠?”

“일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럼 드물게 지오의 편지를 받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펜팔 친구였구나.”

“소리 소문 없이 등장하는데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

그가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가 펜팔 친구 1호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안에 조용히 나타난 새까만 편지는 등골을 선득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심지어 편지를 확인해 봐도 읽을 수 있는 글자는 없어요.”

“그럼 편지를 보내는 의미가 있나요?”

“저는 일종의 호출기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지오의 초상화’를 감싸고 있는 액자가 일종의 필터링을 거치는 과정에서 문자가 변질된 것으로 파악 중입니다. 인간의 격에 맞춰 전달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하긴 그게 생으로 전달이 되면 대부분의 인간은 큰 타격을 받겠네요.”

“그 격의 흔적이 남았는지 편지 자체만으로도 심장이 덜컥 떨어지고는 합니다. 내용을 읽을 수 없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오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 녀석의 인간 흉내가 더 나아진다면 언젠가는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한 유성운이 안쓰럽다는 듯이 주현을 보았다.

“주현 씨는 비각성자라 특히 걱정이 되는군요.”

“…그렇게까지 무서운 편지인가요? 각성의 여부로 안전이 결정될 만큼?”

“물론 협회의 연구소에 있으셨던 만큼 금방 적응하시긴 할 겁니다.”

유성운이 다시 무던한 미소를 지었다.

“그쪽도 비현실적인 비극은 자주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지오 씨의 편지가 그 정도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물건인 건가요?”

“간단하게 말해서 괴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괴담이요….”

“그게 ‘검은망토’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비슷한 이야기를 종종 듣기는 했죠.”

도시 전설의 일종이라고 해야 할까. 사람들은 검은망토를 운이 좋거나 혹은 운이 나쁘면 마주칠 수 있는 실존 괴담 정도로 여긴다고 하더라.

“제가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나머지는 지오와 부대끼면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성운이 이어 물었다.

“그런데 혹시 정원에 대해 아십니까?”

“…글쎄요, 꽃이나 나무가 있는 정원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협회에서도 일부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아도 되는 건가요?”

“오히려 싫어도 알아야 하실 겁니다, 이제는.”

“그 지식과 ‘지오의 초상화’가 큰 연관이 있는 모양이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운이 씩 웃었다.

“미리 자료를 전달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론 공부는 자신이 있는 편이죠. 기대하신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이제 우리는 지오라는 한 배를 탄 사이니까요.”

그가 덕담하듯이 말했다.

“인간으로 남기를 바라죠.”

“…….”

주현이 눈을 휘어 웃었다.

“…예.”

참 소름 끼치는 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 * *

수집상의 보살핌 아래 주현은 성공적으로 이사를 마쳤다.

“집이 너무 커.”

주현이 중얼거렸다.

“이게 왜 집이지.”

이 중 10분의 1만 쓰고 싶었다.

주현은 이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다. 1등급 시민 중에서도 A급 헌터 혹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에서 명성 높은 아파트 중 한 곳이었다.

‘그만큼 보안 문제로는 걱정할 부분이 없겠지만….’

별 볼 일 없는 2등급 시민으로서는 마음이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제에 맞지 않는 숙소는 바란 적도 없었다. 안락한 방 하나와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면 충분한데 말이지.

‘이것도 적응을 해야 하는 부분인 건가.’

난감했다.

“…음….”

주현이 주변을 둘러봤다.

수집상에서 이런저런 배려를 해준 것인지 필수적인 용품들을 넘어 액자며 도자기 같은 장식품도 세련되게 걸려 있었지만, 역시 남의 집에 온 기분밖에 안 들었다.

‘차라리 지오 씨의 오두막이 편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주현이 순간 섬뜩해졌다.

“…….”

내가 미친 건가?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친구고 자시고 신을 대할 때는 불문율이라는 게 있었다. 신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한 혜택으로 여기거나, 혹은 또다시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요즘 가족들 묘를 고민하느라 심력을 너무 많이 쓴 건가.’

주현의 생각은 현실적인 주제로 이어졌다.

“…일단은, 유품을 좀 찾아보고….”

그로 인해 죽은 가족과 친구들의 묘를 만들 생각이었다.

‘아직 고아원에 남은 것들이 조금은 있을 거야.’

서울 내에 있다고 해도 그의 고아원은 꽤 구석진 곳에 자리했다. 달리 활용할 용도가 없는 음습한 장소인 덕분에 몬스터가 만들어질 위험이 있는 시체만 정리되었지 건물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동안은 정신이 없어서 둘러볼 생각을 못 했지만,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꼼꼼히 청소하지는 않았을 테니 유품 삼을 만한 것들은 충분할 거고. 일단 그것들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

다만 씁쓸하긴 했다.

"……."

내가 만들 묘에는 시신조차 없구나.

"…하아아…."

조금 더 빨리 왔더라면, 시신을 처리하기 전에 가져올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늦었어.'

쓸데없는 자책으로 감정을 소비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 탓이라는 죄책감이 드는 것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다. 주인조차 없는 묘비라는 건 그만큼 주현의 속을 쓰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한참을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였다.

"야옹."

"……."

"야옹."

"……?"

고양이의 울음소리.

"야옹."

이기는 한데.

"야옹."

"……."

보통 고양이가 저렇게 울던가?

'…너무 전형적인 울음소리….'

속이 울렁거렸다.

조금 서늘해진 목을 쓸며 주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숙소는 46층. 일반적인 아파트보다도 한 세대의 층고가 높은 이곳은 절대 길고양이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다. 몬스터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할 만큼 보안 역시 뛰어난 것이다.

"……."

그럼에도 주현은 스스럼없이 몸을 움직였다.

"야옹."

"…아…."

"야옹."

"역시."

주현이 베란다 창문 너머를 보며 말했다.

"너였구나."

어둠 속에 숨어 검은 편지를 물고 있는 보석 고양이는, 오두막에서 보았던 것과 달리 밤하늘과 같은 색으로 변해 있었다.

일종의 보호색 같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런 시답잖은 생각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그 입에 물린 편

지가 보였다.

“편지를 가져온 거야?”

“야옹.”

“오늘 마침 그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

지오의 안티캣, 다나는 이따금 별무리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몸을 이끌고 창문 가까이 다가왔다.

“…들어올래?”

주현이 창문을 열자 다나는 종종걸음으로 방 안에 들어왔다. 메인쿤 수준으로 몸집이 큰 다나는 이내 주현의 앞에 앉아, 제 입에 문 편지를 가져가라는 듯이 내밀었다.

그가 편지를 받자 다나는 눈을 깜박였다. 이 아이는 은하수를 담은 밤하늘을 닮았다.

“…….”

“…….”

주변의 빛마저 흡수한 듯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보석 고양이는 왜인지 주현의 주변을 한 바퀴 돌고서는 다시 베란다로 나갔다. 그러고는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훤히 열린 베란다 창문만 바라보던 주현이 곧 편지를 개봉했다.

“…역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하지만 그 없는 듯 가벼운 무게가, 바스락거리는 마른 풀의 소리가, 숲의 향이. 이 편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듯했다.

멍하니 그 일그러진 문자를 응시하던 주현이 힘없는 탄성을 뱉었다.

“아.”

그러고 보니.

“입에 편지를 물고 있는데 어떻게 울음소리를 냈을까.”

다나를 앞에 두었을 때는 떠올리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주현은 문득 그것이, 괴담의 한 조각 같다고 생각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54)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54)"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55)

155

제155화

“어떻습니까?”

비사벌의 질문에 유성운이 어깨를 으쓱였다.

“예상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예상했을지 알고.”

“저는 길드장님의 눈을 믿습니다.”

유성운의 신뢰에 비사벌이 특유의 웃음을 흘렸다.

“나라는 사람을 믿지는 않나 봅니다?”

“양심이 없으신 건 익히 알고 있었죠.”

“이렇게 매정할 수가.”

“제발, 저 피곤합니다.”

“그럼 빨리 끝내 드려야지.”

비사벌이 반지 낀 손으로 책상을 토도독, 가볍게 두드렸다.

“쉽게 유혹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주현에 관한 이야기였다.

“쉬운 길이 있어도 그게 불공정한 이득이라 생각하면 손을 대지 않아요.”

“약간 미련한 성격처럼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신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보면 먼 옛날 조선 시대의 선비 같은 면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건 주현 씨를 칭찬하시는 것이라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거야 본인 마음이죠. 고지식한 성격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뭐어, 그런 대쪽 같은 성정이라 지오의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오를 이용해 자신의 몫을 챙길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탐욕에 자신이 무뎌지도록 둘 사람도 아니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딱히 사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다.

이 염치라는 것은 의식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본능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어마어마한 신비가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선언했으면 뭔가를 바라는 게 정상이었다.

염치와 달리 탐욕은 본능이니까.

“지오는 여러모로 강자의 입장에 놓여 있죠. 하다못해 ‘서지오 씨’마저도 주현 씨보다는 더 많은 권력을 가졌고 더 높은 위치의 사람입니다. 지오는 인간들이 보면 눈이 벌겋게 붉어질 희귀한 영약들을 고작 식사 준비에 사용할 정도로… 음, 사치스러워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주현 씨는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저렇게 귀한 것이 저 신비에게는 길가의 풀만큼이나 흔하니, 그것을 아무 노력 없이 가지고 싶다고요. 남의 마당에 널려 있는 자그마한 돌멩이를 가져가는 건 서로에게 부담이 없으니까.”

심지어 주현은 그렇게 부유한 편도 아니었다. 타고나기를 금전적인 욕심이 없다 한들, 몸이 고달프고 인생이 퍽퍽하면 결국 필요성에 의한 최소한의 탐욕이 일기 마련이었다.

“협회의 연구원으로 오래 일하기는 했지만 기타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있었는지 대리 직급에만 머물렀습니다. 승진이 꽤 미뤄졌어요.”

“그나마 가진 것도 고아원을 후원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기부했죠.”

“그런데 보이는 반응을 보면 애초에 금전적인 욕심은 거의 전무합니다. 유용한 수단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탐욕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보기 드문 청렴한 사람입니다.”

유성운이 팔을 꼬았다.

“지오도, 길드장님께서도 주현 씨를 영웅이라고 표현했죠. 그런 점을 고려하자면 그 사람이 돈에 대한 본능적인 탐욕이 거의 없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영웅의 천성이란 본능과 함께 타고나는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래도요.”

주현이 바라는 것은,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분명히 있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없을 뿐이지, 그도 인간인 만큼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듣자 하니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겠다는 대단히 굳건한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욕심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방향이 자신의 안위를 향하지 않을 뿐, 주현 씨의 욕심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타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 이타적인 욕심이라는 것이 정확합니다. 나 이외의 것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자 하는 것을 이기심이라 한다면 이기적인 욕심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나는 주현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서로 갓 사귄 어색한 친구 사이라 체면을 차려서 그렇지, 사이가 더 가까워지면 주현 씨가 서지오 씨를 얼마나 제 욕심에 부려 먹겠어요?”

“설마 지오가 쉽게 당하겠어요. 그보다는 지오가 한낱 인간에게 자비와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 더 맞겠죠. 그 역시 지오의 마음에 드는 일일 것이니…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유성운이 어깨를 으쓱였다.

“애초에 지오는 인간이 걱정을 해도 될 만큼 한미한 존재가 아니잖습니까.”

“아아, 내 작품이….”

“작품이기 이전에 근원입니다, 길드장님. 좀 놓아주세요.”

하여간 수집가의 집착이란.

“주현 씨가 자기 잇속 챙긴다고 지오를 착취하지는 않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일뿐더러, 주현 씨가 지오에게 기대할 만한 것 자체가 거의 없어요.”

유성운이 특유의 미소를 지었다.

“물론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죽은 영혼에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보다는 그럴 가능성을 인지한 것뿐이겠죠.”

“생사에 대한 권능은 신이라면 누구나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니 말입니다.”

“근래에 가족과 친구를 잃은 주현 씨로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겁니다.”

악신이라 소개했다지만 지오는 충분히 자비로운 존재처럼 보이고, 신이라 하면 자연스럽게 죽은 영혼을 다루는 권능을 지니게 된다.

그간 액자 안에서 초상화의 호의를 받으며 주현은 분명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자비로운 신성이 나의 불쌍한 가족과 친구들을 어루만져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말이다.

“심지어 본인에 의해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만큼, 주현 씨가 희생자들에게 품은 부채감 또한 크겠죠.”

“어떻게든 속죄하고 빚을 갚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주현 씨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인 지오를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군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니 온전히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강자이며 거대한 권능의 소유자인 지오라고 해도….”

“새로 사귄 친구이기까지 한 서지오 씨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테죠.”

비사벌이 빈정거렸다.

“그런다고 한낱 인간이 어떻게 죽은 이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산 자가 이미 죽은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죽음과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뿐일 텐데 말입니다.”

“그거라도 해보겠다는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속죄와 고뇌만으로도 빚을 갚을 수 있으리라 막연히 믿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도 죽은 가족들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굳이 그런 가시밭길을?”

아주 멍청하고 못마땅한 것을 봤다는 듯이 그의 입술이 비틀렸다.

“그게 다 주현 씨의 시야가 워낙 좁아서 그래요.”

“시야가 좁은 사람이라기에는 품은 대의가 크던데요.”

“인간미가 없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인에게 의지할 줄 모르는 멍청이인 거고요.”

“아니, 좀.”

유성운이 제 길드장을 달랬다.

“그래도 지오의 새 친구 아닙니까. 좀 좋게 봐주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늘어나는 건 아집밖에 없더군요.”

샐쭉 웃은 비사벌이 말을 이었다.

“머리가 안 돌아가는 편은 아닙니다. 인맥의 유용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글쎄요, 오히려 영악한 편이라고 해야 맞아요. 계산이란 계산은 다 할 줄 알면서도 제가 수도승이라도 된다는 양 세속적인 욕망을 거세하고 오로지 대의만을 좇죠.”

“인류에게는 좋은 방향성이 아닙니까?”

“늘 말하지만 나는 인류의 성향이며 관심사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와 내 수집품에 미칠 영향이겠죠. 주현이라는 인간은 신념만 확고하다면 내 작품도 아무렇지 않게 망칠 놈팡이야.”

비사벌이 투덜거렸다.

“확실히 그런 종류의 인간이 있어야 세상이 한층 평화로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건 너무 지루할 겁니다.”

“무슨 그런 인류 악과 같은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지.”

“주현 씨는 탐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품은 대의를 실천할 땐 그 누구보다도 탐욕스럽죠. 게걸스러워요. 남들이 비난해도, 자신을 어떻게 봐도, 그런 것따위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나아가기에 바쁩니다.”

비사벌이 입술을 비틀었다.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치면 참 거하게 친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지만, 그것도 지오가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우리 서지오 씨에게 어지간해서는 해가 되는 인물은 아니라는 걸 인정합니다.”

비사벌이 드물게 짜증이 묻어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 심기에 해가 될 뿐이지.”

“정말 싫어하시는군요.”

“난 역시 우리 길드원들이 좋아.”

“예, 뭐....”

유성운이 어색하게 웃었다. 제 상관을 진심으로 경애하는 건 사실인 덕분에, 별로 꾸며낸 미소는 아니었다.

“저희도 좋아합니다. 길드장님.”

“이렇게 가물에 콩 나듯 가끔 보여주는 애정이 너무 사랑스럽다니까.”

“어우 진짜.”

어색하게나마 있던 웃음기마저 사라진 유성운이 질색했다.

“이러니까 저희가 좋은 말 고운 말 못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방짐마저도 좋아... 더 뻔뻔하게 굴어봐요. 아, 짜릿해.”

“으.”

“아무튼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니 다행입니다.”

비사벌이 말끔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거대한 신비는 그런 빈곤한 영웅들을 좋아하죠.”

“빈곤한 영웅....”

“그들은 섭리에 가까운 이야기를 마구 양산해 내거든.”

그의 샛노란 눈이 가늘게 휘어졌다.

“아마 지오 역시 주현 씨를 그런 방식으로 아낄 겁니다.”

“규칙대로라면 조만간 선물을 줄 텐데, 제가 미리 대비를 하는 편이 좋을까요.”

“서지오 씨의 선물이라고 하니, 조금 소란스러워질 수도 있겠네요. 본인이 세상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 사람은 아니거든.”

“거리낄 게 없으니 지오도 슬슬 본격적으로 인간들의 세상을 탐미할 때가 되긴 했죠. 언론사에 미리 언질을 해 두겠습니다.”

“유성운 씨도 직접 발로 뛸 준비를 하시고. 아마 서지오 씨도 서로의 체면을 보아 재앙을 일으키진 않을 겁니다.”

“신비의 호의는 이따금 재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지오가 정확히 어떤 애정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거야 뻔하지요.”

비사벌이 손자의 재롱을 보듯 웃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건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둘 모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오는 항상 인간을 좋아했죠.”

그의 호의는 모든 인간에게 공평했다.

“뭐, 가끔 안 좋아하는 인간도 있긴 했지만 그건 ‘인간이 아니다’라고 분류된 모양이고....”

유성운이 제 목을 쓸었다.

“지오에게 있어 죽음이란 인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유성운 큐레이터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호의를 보이는 지오는 늘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겁니다.”

“잘 생각해 나가고 있어요.”

“결국 지오는 살아 있는 인간에게도, 죽어 있는 인간에게도....”

목을 쓸던 유성운의 손이 내려왔다. 그 손끝이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움찔 떨렸다.

“신사적으로 대우하겠네요.”

지오가 인간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하나의 규칙이다.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유성운 큐레이터의 대처를 기대하겠습니다.”

“부디 즐거운 감상 되십시오.”

너무 거대한 호의는 인간들을 공포에 빠트리고는 했다.

그리고 근원으로 인한 공포를 일상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정원사가 해야 하는 일이었다.

* * *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예?”

“무례한 생각일까요.”

“어….”

고아원에 대뜸 나타난 초상화에 주현이 눈을 껌벅였다.

“…….”

진정하자.

‘나는 할 수 있다.’

주현이 빙긋 웃었다.

“…그렇군요! 정확히 무슨 선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앞섰던 것 같군요.”

“아, 아니에요. 조금 놀란 건 사실이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생명의 위협에 가까운 공포를 느꼈을 뿐이다.

‘본인이 얼마나 무섭게 보이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나 보지.’

자정에 가까운 늦은 시각. 인적이 없는 음습한 지역의 화재 현장. 그을음과 죽은 사람들의 흔적이 잔뜩 남아 있는 매캐한 공기의 폐건물. 주현은 고아원에 남은 유품을 찾고 있었다.

손전등 하나에 기대어 어둑한 고아원을 둘러보던 도중 등장한 초상화. 그것은 아기자기한 아이들의 그림들 사이에 모습을 드러내고서는, 검은 물감으로 가려진 얼굴로 말을 걸어왔다.

‘선물을 주고 싶다고.’

주현은 비명을 지르지 않은 자신을 대견하게 여겼다. 이 정도면 스스로를 칭찬할 만한 업적이었다.

“다시 여쭤보는 거지만… 선물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체 내 위치를 어떻게 알았냐는 멍청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검은망토쯤 되는 거대한 신비가 한낱 인간의 위치쯤이야 알아내는 게 어렵겠는가. 대신 주현은 지금 상황의 해석을 요청했다.

“제가 알기로 검은망토는 받은 게 있어야 돌려준다고 하던데.”

“받은 것이 있으면 돌려드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외에도 가끔 등장해서 행인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도 알긴 압니다.”

“그건 단순히 저와 교류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초상화의 말에 주현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보답이 필요할 만큼의 큰일이기는 하겠지.’

보통 검은망토는 인적이 드문 곳에 나타나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착한 일을 했는데 인간형 몬스터를 마주쳤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그런 인간들을 달래기 위한 보상이라고 하면 그런 선물도 납득이 갔다. 결국에는 그것 역시 ‘지오의 초상화’가 보이는 1:1의 규칙이라는 의미이니 말이다.

“……?”

주현이 고개를 기울였다.

“하지만 저는 지오 씨에게 드린 게 없는데요.”

“제 친구가 되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과연 그렇군요.”

일종의 수집 욕구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인간 친구’라는 게 가지고 싶었던 걸까. 역시 신비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할 즈음, 물감에 가려져 눈가가 보이지 않는 초상화가 말을 이었다.

“무엇보다 주현 씨처럼 선한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글쎄요… 지오 씨의 앞에서 선행을 한 적은 없지 않나요?”

“하지만 그동안 주현 씨의 행동으로 하여금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저에게 선물을 주실 이유가 됩니까?”

“제게 주신 기쁨에 대한 보답을 드리고자 하는 저의 이기심입니다.”

“…….”

“그래서 허락을 받고자 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서야 주현이 되물었다.

“…기쁨?”

“예, 그렇습니다.”

“기쁨이라고요.”

주현은 어설픈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제가 한 일이, 당신에게 기쁨이 되었군요.”

그건 정말 기묘한 기분이었다.

“이전에도 당신에게 이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은데 참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검은망토의 말은 주현에게 제법 따듯한 위로가 되어주었다. 그처럼 거대한 존재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느꼈다.

그게 마치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하….”

보상을 받고 싶어진다.

‘이게 무슨 배은망덕한 생각이지. 내 주제도 모르고, 오로지 내가 원해서 했던 일들에 대한 보상을 바라다니….’

왜인지 잠에 들고만 싶은 피곤함에 웃음을 가장한 한숨이 나왔다.

설명하기 힘든 탈력감이 느껴지기도 해서, 주현이 멍청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자 제 이마를 꾹 눌렀다.

“그럼 제게 무슨 선물을 주시고자 합니까? 벌써 세 번째 질문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런, 제 이야기가 길어져 실례를 끼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초상화는 특유의 감정 없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저는 주현 씨에게 질 좋은 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할 수도 있고, 원하는 보석을 그려드릴 수도 있으며, 함께 수다를 떨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즈음, 초상화의 품으로 고양이가 살며시 뛰어들었다.

“다나가 주현 씨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광이네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단순히 친구이기에 드릴 수 있는 선물들입니다.”

“그것도 영광이고요.”

“그러니 원하는 선물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초상화가 말했다.

“저의 선물이 제값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

한참이나 말이 없던 주현이, 이내 입을 열었다.

“…글쎄요.”

안타깝게도 그는 바라는 것이 없었다. 아마도 그럴 것이었다. 또 그래야만 했다.

내가 나로서 남으려면. 내 주제를 아는 한낱 인간으로 남으려면 말이다.

“저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과분해서요.”

“주현 씨가 타고나기를 세속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지금 가장 원하는 건 제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속죄이지만….”

“그건 온전히 본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걸 테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은 것은 없습니다.”

초상화가 나지막한 음성으로 속살거렸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건 꽤 악신의 유혹을 닮아 있었다.

“…제가 도움을 구하길 바라십니까?”

“새로운 시각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감정에 매여 있어야만 속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마저 극복해 버리면 저는 제 실수를 잊어버릴 겁니다.”

“당신은 잊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성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뭡니까?”

“짐승도 짐승 나름이지.”

초상화의 음성이 나른하게 갈라졌다.

“자네는 짐승이 아니야.”

“…….”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뭐지?”

“…저는….”

“속죄와 같이 허울 좋은 단어는 버려.”

“그냥, 나는.”

가족이 타고 남은 잿더미 속에서 주현이 말했다.

“그들이 죽어서라도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의 솔직한 욕망이었다.

“저는 평생 그들의 죽음을 안고 살아도 좋으니,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행복하고 따듯한 장소에서 몸을 누이길 원하나?”

“그걸 원합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성인이라 부를 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주현 씨의 가족이고 친구였기에 그들의 평안을 바라고.”

“억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도 알아요.”

망설이던 주현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악신이죠.”

“그래, 그렇지.”

“제 이기심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잘했네.”

초상화의 입술이 기쁨을 담아 찢어졌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가?”

“조금은요.”

“그래, 곧 선물을 보내겠어.”

“저는 뭘 하면 되나요?”

“선물의 의미를 잘 모르나 보지?”

맹수가 웃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저 감상하시게, 친구.”

기분 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

원래도 저랬던가.

초상화의 품에 안긴 보석 고양이의 눈이, 유독 달처럼 환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55)"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56)

156

제156화

사건은 한 곰인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꾸우.”

“왜 그러십니까?”

“꾸우우, 꾸….”

“루루푸의 즙을 찾고 계신다고요.”

때는 지오가 한창 친구비를 무엇으로 할지 고민 중일 시점이었다.

주현이라는 새 친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연상의 어른스러운 능력자였고, 지오는 그런 그를 맛있는 식사와 편안한 잠자리와 상큼한 이벤트로 길들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챙겨둔 것은 많은 상황이었던지라….

“마침 찾으시는 게 있습니다.”

루루푸의 즙도 있었다.

“꾸우?”

“예, 향수로 쓰면 좋으니까요.”

“꾸꾸꾸….”

“확실히 좋은 생각이지요?”

그건 별다른 맛이 나지 않아도 향기가 무척이나 좋고, 병에 담아놓으면 아름다워 그 자체만으로도 관상의 가치가 있었다. 괜찮은 향수를 찾고 있으면 선물할 생각으로 미리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한데 아버지께서 루루푸의 즙은 어찌 찾으십니까?”

“꾸우우….”

“아하, 그 맛도 없는 것을 다나에게 주신다고요.”

괜찮은가?

“.......”

지오반니가 심각한 얼굴로 물었다.

“...배탈이 나지는 않겠지요?”

“꾸꾸.”

“맛이 없는 걸 강제로 먹이는 것은...?”

“꾸.”

“아하, 그렇다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꾸우.”

곰인형이 솜바닥으로 퐁퐁 박수를 쳤다. 보기만 해도 푹신했다. 가족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인 지오가 그런 그를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물었다.

“즙을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나, 다나에게 그것을 어찌 주려고 하셨습니까? 다나의 요청이었습니까?”

“꾸!”

“갑자기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는 몰라도, 예, 지금 저는 주현 씨에게 드릴 선물을 고민 중이었습니다.”

전대 태양의 신은 지오가 새 친구인 주현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고 있던 현재 상황을 짚었다. 지오가 그것을 긍정하자 포근한 햇살 냄새가 나는 곰인형이 꾸꾸 하며 말을 이었다.

“주현 씨의 장례식을 도와주자고요.”

“꾸우.”

“설마 주현 씨 본인을 죽이겠다는 건 아닐 테고.”

“꾸...!?”

“그럼 친구와 가족분들의 장례일 텐데....”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현 씨는 최근 가족과 친구들을 잃어 크게 자책하는 상황이었고, 막 독립을 하셔서 지금은 그 사람들의 묘를 만들 생각 중이었으니까요.”

이는 주현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었다. 주현이 품고 있는 죄책감과 부채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작점이 되어야 할 책임이기 때문이었다.

“생명을 뿌리고 거두시던 아버지의 신성을 물려받은 제가 친구에게 그와 관련된 도움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꾸꾸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현 씨의 장례 행사를 돕는 것도 괜찮겠죠. 저도 그것이 꽤 그럴싸한 선물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나름 상질의 미모와 상식을 겸비했다고 자부하는 지오가 심각해졌다.

“그건 너무 예의 없는 짓이 아닐까 고민이 됩니다.”

“꾸...?”

“남의 아픈 사정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 타당한 말이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늘 그들 나름의 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주현의 죄책감과 관련된 이번 비극은 생판 남인 지오가 취급하기엔 너무 사적인 사정이었다.

하지만 신은 그런 거 모른다.

“…꾸우??”

곰인형은 ‘왜지? 왜 인간의 죽음에 관여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게 되는 거지? 이상하다, 나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인간들이 엄청 좋아했는데….’라는 눈으로 지오를 올려다보았다.

“음.”

그럴 수 있지.

‘아버지께서는 인간들 사이에 부대껴 살아보신 적이 없으니까.’

지오는 적절한 답변을 찾아냈다.

“그건 아버지께서 신인 덕분에 누릴 수 있었던 특혜입니다.”

“꾸우??”

“아하, 그러고 보니 저도 이제 신이군요.”

할 줄 아는 거라곤 잘 먹고 잘 자는 것뿐인 이런 돼지감자도 신이 되기는 하는구나. 세상에 이런 하찮은 신이 다 있나 고민한 지오였지만, 이내 그는 떳떳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신의 자격증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랍니다.”

“므아아아앙―….”

다나가 ‘난 아빠를 사랑하지만 지금 헛소리한다’라는 울음소리를 내고선 총총총 지나갔다. 그 머리 위의 허니가 ‘난 아빠를 사랑하지만 다나 말이 맞아’라는 눈으로 동생과 함께 사라졌다.

“…….”

지오는 조금 억울해졌다.

“제가 고작 신의 자격증을 좀 가졌다고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게 말이 됩니까?”

“꾸꾸우.”

“그럴 리가요, 아버지. 세상에 손수 고구마를 구워 먹는 신이 어디 있나요.”

그에 곰인형은 ‘그러게, 어떻게 그러지?’라는 눈으로 지오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수한 의문을 담은 시선에 지오는 말문이 막혔다. 살다 살다 군고구마 먹는다고 별종 취급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아무튼 아버지, 들어 보십시오. 세상이 한번 뒤집혔던 탓에 뭐가 어떻게 변했을지는 몰라도 이 유교의 뿌리가 터무니없이 깊은 나라에서 별 명분도 없이 남의 가족상에 끼어드는 인간은 예의가 없는 겁니다.”

“꾸.”

“무엇보다 주현 씨는 갓 포획한… 아니, 갓 사귄 친구가 아닙니까. 이제 막 친해지는 중이라 이럴 때야말로 부담스럽지 않은 사소한 배려와 선물로 천천히 길들여 고구마 세 박스를 보내도 도망치지 않을 관계까지 묶어두어야 하는데, 너무 급하면 탈이 나는 법입니다.”

“꾸.”

“게다가 주현 씨는 36살로 저보다 연상이시죠. 저보다 연륜 많고 사회생활 잘하시는 분의 장례 행사를 도와주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실례입니다. 혼자 알아서 잘해 보시려는 분에게 동의도 없이 참견하는 것도 무례한 짓이고요.”

“꾸?”

다시 말하지만, 신은 그런 거 모른다.

“꾸우우?”

“실례래도요.”

“꾸웅….”

그즈음 간만에 놀러 온 이세르가 둘을 발견했다.

“선생님?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새로 사귄 친구의 장례 문제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그거 정말 듣기만 해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사건의 경위를 들은 이세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생각에도 큰 민폐가 아닐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뜻이 정 그렇다면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대체 왜 아닐까요?”

“선생님께서는 태양의 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현 씨의 갓 사귄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 주현이라는 인간도 선생님을 신으로 알고 있던데.”

“그건 그렇습니다만….”

“뭐가 문제입니까, 선생님?”

이세르는 고개를 기울였다.

“신이 직접 인간의 생사를 보듬는 것은 민폐가 아니라 대단한 자비입니다.”

“자비라니 너무 낯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군요.”

“음,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부끄러워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태양의 신도 그랬죠.”

“그야 아버지께서는 생명을 창조하고 거두시는 태양이었습니다만….”

“그 신성을 물려받으셨으니 비슷한 일을 해도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세르는 한때 심해의 사제이자 태양의 신자였다. 가장 총명한 태양의 자식이었던 지오반니의 아래에서 신학을 공부한 이세르로서는 지오의 의문 아닌 의문이 퍽 희한하게 느껴졌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명을 다스리는 일은 신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평범한 인간이래도.”

“저는 정말로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 말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면, 일종의 가업을 물려받으셨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세르가 두 손으로 공손하게 곰인형을 가리켰다.

“태양께 신성이라는 가업을 물려받으신 겁니다.”

“제가 신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신성을 물려받으면 원래 그 전대 신의 업무도 함께 물려받아야 합니까?”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세습이죠.”

한때 정당한 사제를 꿈꿨던 인어가 곰인형을 내려다보았다.

“아무래도 전대 태양신께서는… 선생님께서 친애하는 인간에게 자비라는 선물을 베풀며, 동시에 태양으로서의 권능과 위치를 익히길 바라신 것 같군요.”

그 부분은 지오도 짐작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버지께서 대뜸 장례 행사를 주관하라는 조언을 주셨을 리가 없죠. 제가 신으로서 하도 태만하게 굴어 아버지께서 나서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동안은 자격증을 물려받았을 뿐 자리까지 물려받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업이라고 하니 드는 생각인데, 지금까지의 저는 아버지의 가업을 태만하게 대해온 거군요.”

그에 이세르가 걱정 말라는 듯 든든한 미소로 웃어 보였다.

“부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이 태양께서 관리하던 기존의 모든 업무는 저와 제 누님의 바닷물과 함께 가라앉았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 희한하게 속 썩이는 말을 하는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성을 지닌 당신께서 인간의 생사와 그 의식에 관여하는 일에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이세르가 씁쓸하게 웃었다.

“어지간한 존재였다면 신성을 물려받은 대로 그 모든 인간성을 버렸을 텐데, 선생님께서는 대체 어째서인지 아직까지도 인간성을 유지하고 계신 탓에 이렇듯 인간들의 예절에 얽매이시는 것 같습니다. 놀랍네요.”

“남의 장례 행사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된다는 이 당연한 이치에 인간성처럼 거창한 개념이 등장해야만 했습니까? 원래 호적을 공유하는 사람과 영혼을 나눈 의형제가 아닌 이상 남의 깊은 사정에 함부로 관여해선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과 인간들은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작은 호의가 인간들에게는 거대한 자비, 혹은 재앙이 되는 것이죠. 태양의 신성을 물려받으신 이상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지오반니의 얼굴에 수심이 깃들었다.

“이런 종족 차별주의자 같은 발언을 하다니.”

“…….”

“그래요, 선생님의 죄가 큽니다.”

한때 종족 차별주의의 피해자이자 세기의 가해자로 성장한 이세르가 잠시 말을 잃었다.

“…크흠, 뭐, 결국에는 선생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지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현 씨에게 너무 큰 실례가 될 것 같습니다만….”

“실례보다는, 글쎄요. 신성을 가진 존재가 베푸는 매우 뜻깊은 선물이겠지요.”

인간은 신의 음성 한 구절, 신의 손길 한 번을 받고자 자신의 인생을 바치며 고행길을 걷기도 했다. 경외해야 마땅할 신비에게 생과 사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크나큰 은혜이자 자비였다.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음.”

아닌 척 지오를 중심으로 한 인간 사회의 사건에 집중하고 있던 이세르가 생각을 정리했다. 그는 이전에 만났던 갈색 피부의 인간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다.

“주현이라는 인간이 그런 비극을 겪게 된 것에는 또 다른 악신이 엮인 듯해서요. 그런 악신의 수작에 희생된 영혼들이니 자비하신 태양께서 거두어 주시는 게 옳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깊은 사연을 파고들기는 미안한데. 선물이 부담되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주현 씨는 금전적인 도움 역시 대단히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아마 전대 태양께서는 장례 행사와 같은 인간들의 의식이 아니라, 인간들의 영혼 그 자체에 관한 선물을 말씀하신 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그 본질을 말함이겠죠.”

그에 곰인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꾸우!”

“친한 척하지 말아 주세요.”

“꾸꾸꾸....”

“왜 웃는지 모르겠군요.”

이세르는 아직도 이전의 태양을 미워한다. 그는 지오를 보았다.

“제가 당신에게 배우기로 태양의 가장 큰 사랑은 땅에 생명을 뿌리고, 때가 되면 거두어 햇살의 곁에 두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영혼이 태어나고 거둬지는 과정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의 지구는 신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탓에, 그곳의 영혼들이 제각기 다른 신의 손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는 제 선생님께 미소 지었다.

“그들도 다른 차원의 신보다는 지구의 신성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기쁘겠지요. 전대 태양께서 말한 장례에 관한 선물이란 아무래도 그것을 말씀하신 듯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거둘 주제는 안 됩니다만.”

“선생님의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 거둔다기보다는 더 많은 친구들을 만드는 쪽에 가깝겠군요. 신들마다 생사에 관여하는 방식은 전부 다르니, 일종의 사교 활동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흐음, 사교 활동이라.”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을 꺼리시는 건지 이해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절과 상식을 따지시는 거겠죠. 하지만 진정 악신으로서도 활동하길 원하신다면 신성의 역할을 거부하지 않는 자세도 필요할 겁니다.”

이세르는 아르지오가 악신으로서의 혈투를 즐기길 원하기에 마왕이 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신으로서의 역할과 위치에 관해 적응이 필요할 것이었다.

또한 인어 남매 역시 지오반니가 더욱 온전해지기를 원했다. 그렇게 인간과 완전히 분리되면, 혹여라도 그가 인간들을 배척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잠시 머뭇거리던 이세르가 말을 이었다.

“언제부터 인간의 규격을 신경 쓰셨다고...?”

“그게 무슨 의미죠?”

“아뇨, 그게, 선생님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이세르는 한때 인간이었던 지오반니를 떠올렸다.

“그때도 딱히 인간답게 구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용맹했던 일생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다니?”

“용맹하셨다기에는 그냥 용기 낼 것도 없이 막 저지르셨던 것 같은데.”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터트리시던 업적들을 생각해 보면....”

“터트리던 업적?”

“이제 와서 무슨 내숭을 떠시는 걸까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아요.”

“날 대체 뭐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희대의 연쇄 소매 넣기?”

지오반니는 또다시 억울해졌다.

“아무리 저라고 해도 남의 집 가정사를 후벼 파지는 않았어요.”

“글쎄요, 저는 선생님께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현 씨가 부담스러워서 도망치면 어떻게 하려고요!”

“역시 그런 부분이 문제였군요.”

남의 우중충한 과거에 끼어들어 부담스러워질 미래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과한 호의에 상대가 질려 도망갈까 봐 걱정한 것이었다. 이세르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사제의 신성한 낯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뭐가 괜찮은 건가요?”

“이미 글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글렀죠?”

“그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세르가 씁쓸하게 웃었다.

“주현 씨는 이미 선생님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아요.”

“젠장, 역시 그랬나.”

지오반니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하도 나를 어려워하기에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진정 친구라고 여기는 것과는 별개로 경외의 대상이겠죠.”

“그렇다고는 해도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쭙는 것인데 그건 무슨 희망인가요?”

“서로를 발로도 밀 수 있을 만큼 대단히 편한 친구 사이가 될 수도 있을 거란 희망이요.”

“오, 발로 신을 밀어낸다니. 인어임에도 귀를 씻어내고 싶은 불경한 발언이군요.”

“과한 의미 부여는 지양해 주세요. 친구 사이에 불경이 다 뭐랍니까.”

“아직도 그런 희망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겠습니다.”

하지만 지오는 꿋꿋했다. 그는 포기를 몰랐다.

“나 바틀란 지오반니, 태양의 아들이자 기적의 상징. 이 내가 해내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한다면 정말 해버리는 분이니 단언하지 않겠습니다….”

인어 학생들은 그들 인간 선생님을 통해 ‘아 정말 인간이란 한계가 없구나’라는 것을 배웠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빚는 장인이었고, 이세르는 그에 ‘항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지혜를 배웠다.

그는 언젠가 제 선생님 살아 돌아와 저희를 꾸짖어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지오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으리라 이세르는 생각했다.

“아무튼 선생님께서 주현 씨의 불우한 사정에 끼어드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면 별로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정작 그 인간은 선생님의 자비를 무례나 민폐로 해석하지 못할 테죠.”

그 누가 신의 자비를 재앙도 아닌 민폐로 보겠는가. 아무리 대담한 인간이라 해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악신의 시험인지를 의심할 수는 있어도 무례라 생각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의 유교인으로서의 도리가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지오반니가 곤란한 듯 그 우수에 찬 눈을 처연하게 내리깔았다.

"남의 사정에는 함부로 참견하는 것이 아니거늘…."

"하지만 그 사람이 내심 구원을 갈구하고 있다면?"

"그럼 이 내가 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군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빠른 태세 전환이었다.

"나는 정말 태양의 사제이자 성숙한 어른답게 서로의 선을 지켜주고 싶었는데 사실은 주현 씨가 도움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이지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 등 떠밀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다 압니다."

"후, 들켰군요. 하지만 초상화의 신분으로 사귄 새 친구는 100년 넘은 산삼보다도 희귀한 존재입니다. 상대가 상대이다 보니 저로서는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지오의 장점이자 단점은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었다.

"그냥 처음부터 주현 씨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도와드렸을 텐데."

사실 이 정도면 지오치고 정말 많이 고민해 준 편이었다.

그리고 지오는 용기를 얻었다. 제 따끈따끈한 새 친구가 평범하지 않은 선물의 스케일에 질려 도망쳐 버리면 어쩌나 고민했는데, 그러지 않는다면야 뭐 거리낄 게 없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내 친구고 내가 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는 법이죠. 사실 나는 알아요, 주현 씨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다재다능한 친구의 도움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역시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상대가 거부해도 일단 자비를 쑤셔 넣고 본다는 바다 마을의 웃는 폭군… 아니, 선택받은 태양의 아들답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부르기에는 어딘가 부적절한 호칭을 들은 것 같지만 이번만큼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현 씨에게 어떤 선물을 줘야 할지는 대략 감이 잡히는 것 같군요. 일단 주현 씨에게 허락을 구하겠습니다."

지오가 제 아버지를 보았다.

"다나가 원한다는 가정하에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아버지."

"꾸꾸꾸!"

"바라셨던 것처럼 그 아이에게 루루푸의 즙을 선물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을 사귀러 가죠."

그게 바로 유성운이 야근을 하게 된 사건의 경위였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56)"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57)

157

제157화

지오는 늘 전부 알고 있었다.

그가 한참 전에 인간의 규격을 넘어섰다는 것도, 안티캣 다나에게 죽은 영이 가득 모였다는 것도,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도 알았다.

“다만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뿐이지.”

아리아가 유리 플라스크를 흔들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선생님의 기이할 정도의 무심함은 예전부터 그 주변을 놀라게 했죠.”

“그런 걸 보면 딱히 초상화가 된 이후에 나타난 특성은 아닌 듯한데.”

온전한 인간이었을 때의 지오 역시 그런 태도를 일관하지 않았던가.

“참 희한한 일이지 않니.”

“선생님은 늘 특별하셨습니다.”

“특별하다고 해야 할지, 특이하다고 해야 할지....”

“사고방식이 독특하신 편이죠.”

“인간들에게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천성이고.”

이제 지오는 인간이 아니라 초상화였고, 신성이었고, 또한 그 모든 것에도 견줄 수 없을 거대한 신비였다. 그는 구조체의 사랑을 받으며 그와 하나가 되어 있었다.

“원하면 나의 선생님께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 다양한 권능들은 지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걸 단지 하나의 개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놀라운 부분이지.”

“전대 태양신의 신성조차도 개성으로 인지하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제가 모시던 신의 신성인데도 말이야. 내 어이가 없어서....”

차라리 그 가치를 모르는 이라면 아리아도 쉽게 납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오반니는 한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던 사제였고, 촉망받는 태양의 인재였다.

그런 사람이 신성의 가치와 위치를 모르지는 않을 테니 이는 단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대범함, 혹은 무심함이리라. 아리아는 갖은 액체가 담긴 플라스크들을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그가 스스로를 인간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려면 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하여 인간에게 실망하도록 하려면 말이다.

지오는 그 수많은 힘과 거대한 격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을 인간 이외의 것으로 만들 수 없으리라 굳게 믿었다. 그 믿음은 자신이 존재함을 믿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단단했다.

“뭘 들이대어도 그렇게 해서 자신이 인간이 아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거다.”

“굳이 시험해 보지 않아도 무슨 반응을 보이실지 뻔히 알겠습니다.”

“게다가 신성의 권능을 조금이나마 꺼렸던 이유조차 단순한 예의의 문제였다니.”

혹여 자신을 인간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성으로서의 활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지 의심했던 아리아 스스로가 우스워졌다. 인간이고 아닌 것과 별개로, 역시 지오에게 권능 따위는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이다.

“그마저도 구원을 들먹이니 곧장 받아들였다지?”

“본인은 구원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실 테지만요.”

이세르가 특유의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께서는 이전부터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존중의 가치보다 구원의 가치를 더 높게 치는 사람이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선하고 예의 바른 존재를 선호하신다는 부분이 정말로....”

“선호하는 인간상과 그 자신의 성향은 별개인 것이 아니겠어.”

선하고 예의 바른 인간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본인까지 선하고 예의 바르리라는 법은 없었다. 지오는 선을 지키고 상대를 존중했으나 구원이 걸려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다.

갖은 사정으로 인해 차마 말 못 하던 소원이 있다면, 입으로는 아니라 하나 내심 도움을 구한다면, 그가 진심으로 구원을 거부해도 그 주변이 원한다면... 지오는 그렇게 했다.

“역시 바다 마을의 웃는 폭군.”

“아직도 그 이명은 싫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폭정이라기엔 늘 결과는 좋았으니까.”

그 곁에서 보다 보면 ‘저건 구원이 아니라 폭력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오가 손을 뻗은 이들은 결과적으로 늘 행복을 얻게 되었다. 그게 바로 지오가 가진 힘이었다.

“그런 걸 보면 절대 멍청한 사람은 아니지.”

지오는 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감정이 아닌 정보로만 받아들였다. 속세의 이해관계에서 하도 멀리 떨어진 태도를 취하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었다.

그것도 훌륭한 이미지 관리로 신비로운 현자처럼 보이게 만든다만.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나름의 계획이 있을 텐데.”

“계획이라고 하니 꼭 흑막에 가려진 대단한 설계사를 칭하는 것 같군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선생님은 항상 뭔가를 준비하고 있지.”

“멀리 떨어져야만 그 계획이 보이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이번에는... 음....”

정리를 마친 아리아가 품이 큰 하얀 가운을 고쳐 입었다.

“.......”

그녀가 곧 말했다.

“선생님도 당신 어여쁜 딸의 정체는 알고 계실 테고.”

“그 죽은 영혼이 가득 모여 있는 괴물 말입니까?”

“그래, 그 고양이의 형태를 취한 몬스터 말이다.”

그것은 인간에 의해 죽은 영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선생님께서 진심으로 자식이라 여기니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겠지.”

“온갖 죽음이 모여 있는 구조체의 세상에서 그만큼 자라났으니, 아마 그럴듯합니다.”

“그 외에도 그 녀석의 성장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오가 그 아이를 쓸까?”

“주현이라는 인간의 선물을 고민하고 계셨으니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오는 늘 자신이 뭘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그런 선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죠.”

주현이라는 인간이 염치 불고하고 말하지 못하던 소원이고, 전대 신의 바람에 따른 위치의 적응도 필요했을 것이며, 그의 딸이 온전한 제 자식이 될 기회를 원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오는 인간들의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겠는가.

“‘서지오 씨’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싶기도 할 겁니다.”

“가끔 그런 식의 영악한 의도를 확인할 때마다 인지 부조화가 오고는 해.”

그 티 없이 온화한 미소 뒤로 온갖 생각을 이미 한참 전에 마쳐두고는 한다. 대체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는지, 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주변은 알아챌 방도가 없었다.

“선생님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으시지.”

애초에 마음에 들지 않는 미래가 오도록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죽었을 것이고.”

“...지금은 살아 계십니다.”

“그걸 살았다고 할 수 있나?”

“글쎄요.”

“종종 무서워져.”

아리아는 특유의 미소를 지은 채로 말을 이었다.

“언제 또 말도 안 되는 짓을 할지 몰라서 말이야.”

지오는 통제 불능의 변수였다.

“그럴 거면 사랑스럽지나 말지.”

“.......”

“대단히 불공정한 계약을 해버린 기분이군.”

“…누님….”

“그래, 이세르.”

인어가 제 동생에게 물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은 선생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

“혹여 그 사람이 인간을 미워하게 되지는 않을까. 인간에게서 멀어져 그들을 적대하진 않을까 기대했던 적도 있다만… 선생님께서는 또다시 인간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신 것 같으니.”

영원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렇게 될 것이었다.

“우리도 우리의 태도를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은데.”

“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최소한 그의 뿌리 정도는….”

“…….”

“…글쎄.”

아리아가 중얼거렸다.

“책임이라.”

고민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 * *

“어으….”

한국의 2월 초순은 여전히 추웠다.

“날이 왜 이렇게 춥냐.”

여자가 코를 킁 먹었다.

“새벽이라 더 그런가….”

현재 시각은 오전 1시를 조금 넘었다.

사실 오전 1시 정도면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다. 퇴근 시간이 오후 8시라는 것도 ‘평균’을 따졌을 때 하는 말이지, 그 이후에 퇴근하는 직장인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이 거리에도 사람이 조금 더 많았을 텐데.’

여자는 휑한 거리를 둘러보았다.

골목 사이로 툭 튀어나온 전광판은 이따금 치직 거리고, 또 대부분은 이미 꺼져 있다. 잠깐 내렸다가 녹은 눈 탓에 질척거리는 아스팔트 바닥 어딘가에서 쥐가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

낡고 녹슨 건물들 사이로 도심 쪽이 눈에 보인다. 외곽에 가까운 여자의 고향보다 훨씬 깨끗하고 세련된 그곳은, 이미 문을 닫은 이곳 상권과 달리 아직도 네온사인으로 번쩍거렸다.

괜히 마음 한구석이 허해진다.

‘…예전의 그 테러 사건 때문인지 사람이 더 없는 것 같아.’

다른 곳도 아닌 태양교 내부에서 던전의 문이 열리고, 그 내부에 있던 모든 인간이 끌려간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여자는 아직도 당시의 상황이 생생했다.

그날 이후로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는 가지 않았다. 아마 테러 사건을 전해 들은 다른 시민들도 비슷한 심정인 듯했다. 그러니까 거리에 이렇게 사람이 없지.

'주택가랑 상가가 섞인 탓에 원래도 이 시간에는 인적이 드문 거리이기도 하고.'

여자는 추위에 코를 훌쩍이며 패딩 안으로 몸을 더 욱여넣었다.

"에이씨, 하필 회식 때문에...."

그나마 오전 1시 정도면 빨리 끝내준 거지만 그래도 속상했다. 이러고 또 오전 6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이놈의 술고래들은 어쩜 그렇게 체력들이 좋은지 모르겠다.

여자가 바닥을 보며 걸어갈 때였다.

"야옹."

"......?"

고양이 울음소리.

'...아니, 조금 이상한데.'

마치 사람이 녹음을 한 것처럼 아주 정확한 "야옹"이지 않은가. 고양이를 꽤 좋아하는 여자는 대부분의 고양이가 '애애앩' 혹은 '미야악' 하고 운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무리 도시가 협회와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지만, 이곳은 도시의 빈민가와 상당히 가까운 외곽 지역이었다. 여자는 조금 긴장되는 마음으로 어둠이 깔린 거리를 둘러보았다.

"...어."

그리고 발견했다.

"고양이다."

밤하늘 은하수처럼 검푸른 빛이 반짝이는, 커다란 고양이였다.

"헐, 뭐지? 몬스터인가...?"

"야옹."

"위험하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아름다웠다.

물론 무해하게 생겼다고 정말로 무해한 몬스터는 없다. 다만 그녀가 모르는 토착 몬스터일 확률도 그렇게 낮지는 않아서, 여자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며 고양이와 거리를 벌렸다.

그리고, 툭!

"어어어어엄마야악—!!!"

"이런."

"흐흐아아악...!!! 흐오애애액!!!"

등에 닿는 단단한 무언가에 여자가 경기를 일으킬 때였다.

"제가 당신을 놀라게 했군요."

"흐, 흐어...!"

주춤거리며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부디 진정하십시오.”

“…….”

“훌륭해요. 잘하셨습니다.”

“…어….”

어린 학생을 가르치듯 조곤조곤 흘러나온 음성에 쿵쾅거리던 심장이 점차 잠잠해졌다.

여전히 놀란 가슴은 툭툭 불거지며 새근거리는 숨을 내뱉게 했지만, 여자는 곧 자신이 썩 그리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어…!!”

그리고 여자는 깨달았다.

“서지오 헌터님?!”

“오, 저를 기억해 주셨군요.”

“그, 그야… 인상에 남아서.”

“좋게 보아주신 것 같아 기쁩니다.”

“아니, 그, 넵…!”

너무 거리가 가깝다고 생각한 여자가 한 걸음 물러났다. 그러자 장신의 헌터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눈에 잘 들어왔다.

해나 달을 닮은 백금발과 빛이 부서지는 듯한 푸른 눈동자. 그리고 신자 특유의 신성한 미소….

“어우.”

“왜 그러십니까?”

“조금 놀라서.”

다시 봐도 세기의 작품이나 다름없는 얼굴이었다.

‘저건 문화재로 인정 안 해주나.’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얼굴인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비공식 헌터로 활동 중이시라고 기억하는데, 오늘도 혹시 업무가 있어서 나오신 건지… 이렇게 다시 뵈니 정말 반갑네요. 딱히 TV에 나오지도 않으셔서 근황을 알 방법도 없었고요.”

“저를 정말 반가워해 주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제, 제가 너무 들떴나요? 죄송해요. 꼭 다시 한번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연락을 할 방법이 없어서… 하긴 헌터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넣는 건 정말 실례겠지만, 수집상 쪽에서도 딱히 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가웠다.

“그런데 정말 어쩐 일로…?”

“친구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친구?”

“예.”

그렇게 말한 서지오 헌터가 골목 사이를 돌아보며 말했다.

“다나.”

그 부름에 고양이가 답했다.

“므앙.”

“어 귀여워.”

“앩.”

제법 고양이다운 울음소리를 낸 고양이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서지오 헌터의 발치로 갔다. 메인쿤만큼이나 큰 몸집의 고양이는 제 몸으로 서지오 헌터의 종아리를 훑었다.

짧은 애교를 부린 고양이가 이내 서지오 헌터의 발치에 앉았다.

“으응.”

“기특한 것.”

서지오 헌터는 그 머리를 쓰다듬었고, 고양이는 눈을 감은 채 그의 손길을 즐겼다.

“…아, 맞다. 그랬지.”

간신히 상황을 납득한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련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이었네요.”

“제가 조련사처럼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아무래도 사제님 같은 이미지가 강하셔서….”

“그럴 수 있죠.”

서지오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지난번에 보셨던 허니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의 주먹만큼이나 작고 동그란 꿀색의 새가 망토의 후드에서 빼꼼 얼굴을 보였다. 그 작은 새는 여자를 보고선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후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낯을 가리나 봅니다.”

“이, 이해해요. 몬스터는 원래 인간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헌터를 덕질해 본 경험이 있는 여자는 그들의 ‘직업’에 대해서도 조금 알았다. 조련사는 대단히 희귀한 직업이지만, 조련에 성공한다고 해서 계약수와 주인의 사이가 꼭 친밀하리란 법은 없었다.

“대부분의 계약수는 주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알았는데, 두 분은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 역시 수집상의 헌터….”

“자식처럼 돌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몬스터를 그렇게까지 돌보기는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지오 헌터가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 기타 고아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기타 고아원이요?”

남자의 목소리는 길을 찾는 사람치고는 너무나 평온하고 안정적이라, 마치 그가 이미 모든 걸 알고서 묻는 것 같다는 착

각을 일으켰다.

'…임무로 오신 거라면 수집상에서 따로 위치 정보를 알려줬을 텐데, 친구 때문에 오셨다더니… 좀 급하게 오신 건가? 아니면 서프라이즈 겸 친구에게 비밀로 하고 왔을지도?'

잠시 생각에 빠진 여자였으나, 곧 서지오 헌터의 조각같이 완벽한 얼굴 위로 행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 특유의 난처한 미소가 깔렸다. 여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사람을 앞에 두고 딴생각을 하면 안 되지. 피곤해서 정신이 없나. 이상한 생각이나 하고….'

제 바보 같은 감상을 밀어낸 여자가 현실로 돌아와 생각했다.

"어, 기타 고아원이라면…."

이 근처를 자주 돌아다니는 여자가 난감한 얼굴로 대답했다.

"얼마 전에 불에 탔는데."

"아, 맞습니다."

서지오 헌터는 바로 그거라는 듯 반가운 얼굴로 말했다.

"그 건물을 찾고 있어요."

"그 건물을요?"

으슥한 위치의 폐건물이라 몬스터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역시 친구를 위해 제보를 받고 찾아온 걸지도 모르겠다.

'친구분에게 자세한 정보는 듣지 않고 오신 모양이네. 부담이라도 가질까 봐 친구분 몰래 해결하려는 걸 수도 있겠어.'

확실히 여자가 기억하는 서지오 헌터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격언이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실제로 '심해의 신전'에서 사람들을 도와주고도 기사 하나 내보내지 않았던 헌터이지 않은가.

'낯을 가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는 걸 보면 자기가 도움 준 일에 감사받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성격이려나.'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알고 있어요. 알려 드릴까요?"

"퇴근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염치 불고하고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이쪽 동네가 워낙 길이 복잡하기는 해요. 무엇보다 헌터님 아니었으면 전 이미 죽었을 텐데 뭐 이 정도로…."

"좋은 마음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다 같이 탈출할 수 있었던 거겠죠."

"와, 어떻게 사람이 말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시지?"

여자는 조금 아쉬워졌다.

'공인 헌터였으면 진작에 계정 팠다.'

아쉬움을 곱씹으며 여자가 안내했다. 아무리 인적이 드물고 으슥하다 해도 이곳 역시 사람이 사는 도시의 일부분. 드문드문 불빛을 내는 등이나 전광판이 있어 그렇게까지 어둡지는 않았다.

곧 여자는 서지오 헌터를 기타 고아원까지 이끌었다.

"여기가 말씀하신… 그 고아원 같아요."

불에 탄 건물을 보니 기분이 조금 이상해졌다.

'사람이 죽었다더니 뭔가 소름이 돋네.'

제 목숨을 구해준 서지오 헌터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인적 없는 곳까지 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폐건물을

보던 여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서지오 헌터에게 물었다.

“혹, 혹시 볼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저 혼자 돌아가기는 무서워서....”

“물론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할 생각이었고요. 야심한 시각에 혼자 귀가하시는 건 위험하죠.”

선선히 고개를 끄덕여 준 서지오 헌터가 눈을 부드럽게 휘며 말을 이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역시 몬스터를 잡으러 왔다든가....”

“아니요.”

그가 말했다.

“친구를 사귀러 왔습니다.”

“.......”

기분 탓인지.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다에 잠긴 것 같았다.

“...? 아, 그....”

혹시 새로운 몬스터를 조련하기 위해 온 걸까. 여자가 자신이 떠올릴 수 있는 상식의 선에서 생각을 할 즈음, 서지오 헌터가 고양이의 머리를 온화한 손길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다나.”

고양이는 대답했다.

“야옹.”

대답이, 이어진다.

“야옹.”

“야옹....”

“...야옹....”

달을 닮은 고양이의 눈이 휘어지고.

“야옹.”

덜 여물어 앳된 음성들.

‘...방울 소리 같아.’

기이한 감상을 떠올린 여자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온다.

낯선 아이들이 고양이의 울음을 흉내 내며, 폐건물에서 걸어 나왔다.

“야옹....”

“야옹이가 불렀어요.”

“야옹 했어.”

“나도, 나도 야옹 했어 고양아.”

“야옹!”

아이다운 두서없는 문장들이 쭉 이어진다.

머리를 하나로 묶은 여자아이. 짓궂은 인상의 남자아이. 겁이 많은지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는 아이. 왜인지 눈물을 훌쩍이며 저벅저벅 걸어오는 아이. 커다란 고양이가 반갑다는 듯 꼭 껴안는 아이....

“...어.”

여자는 그 끝에 모습을 드러낸 사람을 보았다.

“.......”

“.......”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모두 내보낸 노년의 여성.

서지오 헌터와 눈이 마주치자, 앞치마를 입은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로 모시는 신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듣고 싶습니다.”

“제 신께서는 달빛으로 세상을 비추시죠.”

“머지않아 아이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신다면....”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말이 없던 노인이 울음을 터트렸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눈을 한 번 깜박였을 때.

“.......”

“.......”

그곳에 사람은 없었다.

“...어, 어... 어?”

“볼일을 마쳤으니 댁까지 모셔다드리겠습니다.”

“어어어?”

“저런, 괜찮으십니까?”

“어어??”

여자는 뒤늦게, 자신이 귀신을 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 * *

폐건물의 창가.

“.......”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주현이, 이내 무너져 내렸다.

물기에 잠긴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렸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해요. 제가 조금 더 잘했으면...."

"괜찮아, 주현아."

"정말로 죄송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제가, 제가 잘못했어요...."

악신의 자비로써 비틀린 이치와 섭리 속의 재회.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주현은 친구의 선물을 받았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57)
Prev
Next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58)

158

제158화

도시에 거주할 수 있는 시민의 등급은 1등급이 아니면 2등급이지만, 그 사이의 간극은 어마어마했다.

따로 지방에서 모여 사는 3등급 시민이 별세계 사람처럼 취급되는 것과 별개로, 2등급 시민은 지속적으로 1등급 시민과 비교를 당하는 위치였다. 그들은 자조적으로 스스로를 '거지들'이나 '촌놈들'이라고 불렀다.

정신 나간 월세를 감당하려면 중심부에서는 살 수 없으니 가능한 한 도시 외곽으로 빠지게 되고, 그럴수록 2등급 시민들은 빈민들과 더욱 가까운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어 있었다.

"…아, 뭐야."

남자가 일어나 핸드폰 화면을 켰다.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아 나 진짜, 빨래 시발…."

벌써 다 구겨졌겠네.

"알람 울렸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 일어나냐."

남자는 투덜거리며 공용 세탁실에서 빨래를 걷어 왔다. 1등급 시민이 보면 꼴에 청결도 신경을 쓰냐고 비아냥거릴 거라고 남자는 내심 생각했다.

'그래도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가뜩이나 더럽다고 욕 처먹는데 진짜로 더러워질 수는 없지.'

유흥가와 얽혀 있는 높고 낡아빠진 빌라. 벽은 개같이 얇아서 소음과 같이 살다시피 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시설은 녹슬었으며 삐거덕거렸다. 깨끗한 중심부에서만 사는 1등급 시민들이 더럽다고 손가락질할 만했다.

그렇다고 정말 거지꼴로 출근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이 정도 노력은 해줘야 했다. 낡은 세탁기가 제대로 탈수해 주지 못해 물을 잔뜩 머금은 빨래들은 무겁기 짝이 없었다.

"어후."

걸음마다 계단이 삐걱거린다.

빨래 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곧장 베란다로 향했다. 아직 날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 꽤 쌀쌀한 날씨에 남자는 '대체 몇 도길래 이 지랄인가' 싶어 핸드폰을 꺼냈다.

"……."

1시 24분.

“…어라.”

핸드폰을 보던 남자의 눈에 한 쌍의 커플이 들어왔다. 베란다 너머, 그 아래로 남자의 시선이 떨어진다.

“뭐야, 이 시간에.”

저절로 목소리가 작아진다.

아무래도 유흥가와 공동으로 지어진 거주 구역이라 그런지, 종종 늦은 시간이 되면 급하게 일 처리를 하러 깊은 골목까지 들어오는 짐승 새끼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생각보다 정신 멀쩡해 보이는 몰골의 두 남녀를 보던 남자가 생각했다.

‘남자 쪽은 헌터인가 본데. 저기 기타 고아원 아닌가? 저기에 볼일이 있는 모양이지만… 딱히 몬스터도 없는 텅 빈 폐가에 왜?’

그리고, 남자는 보았다.

“…….”

소름 끼치게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내는 고양이 형상의 보석과.

“…어….”

그 방울 소리와 같은 울음에 하나둘 폐건물에서 걸어 나오는 앳된 영혼들과.

“어, 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

사제.

‘…아니, 조련사?’

무어라 더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남자는 백금발의 헌터와 자신의 눈이 마주쳤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순간 숨이 턱 막혔고.

“…….”

남자는 한참이 지나, 모든 상황이 없던 일처럼 사라지고, 자신이 베란다에 주저앉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어, 뭐, 뭐지.”

무엇을 봤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다. 분명 눈이 마주쳤던 것 같은데, 그 사이의 기억이 묘연했다.

‘시발, 헌터 무섭다더니…. 눈만 마주쳤는데 거의 지릴 뻔했네.’

너무 강한 헌터와 시선이 마주쳐서 잠깐 패닉이 온 모양이었다.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아는 남자는 아무 의심 없이 상황을 받아들였고, 곧 식은땀이 축축하게 밴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 들었다.

썩 좋지 않은 품질의 핸드폰은 무겁고 둔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지금 핸드폰을 든 남자의 손은 과하게 떨리고 있었다.

“…뭔, 뭔 세상에 귀신이 있어.”

핸드폰을 켜자 소리 없이 화면을 가득 채운 알림들이 보였다.

가입해 둔 지역 커뮤니티의 것이었고, 남자는 이 조용한 소란이 방금의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나만 본 게 아니었어.’

헛것이 아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동네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커뮤니티에 게시 글을 올리려 제목을 쳤다.

지가 이 두눈으로 똑똑히 봤슈(사진 첨부함)

그것은 '서지오 씨'가 쏘아 올린 겁나 큰 공이었다.

* * *

대재앙 이전부터 유구하던 한국의 전통 특성.

-??? 내가 뭘 본 거임??

인터넷 강국.

– 새벽에 관악구 귀신 떴다

– 대학동에서 귀신 본 사람??

– 고냥이 울음 무슨일이고

– ㅁㅊ귀신봄

세상이 망했다 살아나도 한국인들의 SNS와 커뮤니티는 건재했다.

– 거기 안그래도 말 많던 곳인데

– 애드라 기○고아원 이야기 맞아?

↳ 걍 기타고아원이라고해 블러 처리한 보람이 없노

– 왜 다들 귀신 이야기하고 있음

– 아침부터 뭔난리여

특히 세상이 한번 뒤집혔던 탓일까, 한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상 한 식구라는 인식이 강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그 일을 공유하는 것이 일종의 매너였다.

그 탓에 '서지오 헌터'가 들렀던 관악구 커뮤니티는 한바탕 들썩였다.

"야, 관악구에 귀신 떴대."

"미친 거 아니냐."

소문은 해당 지역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가 이 두눈으로 똑똑히 봤슈(사진 첨부함)

내가 바로 그 귀신 본 사람이다 관악구촌놈들아

하도 메일로 물어보는 놈들이 많아서 여기에 정리함

목격 시각 "오전 1시 24분"

왜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냐면 개같이 빨래를 널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발 1시에 알람맞춰두고 분명히 깼는데 그보다 더자버림

막 깨서 핸드폰 봤을 때가 22분이었고

빨래 널러 베란다갔는데 날이 너무 추워서 기온 보려고 핸드폰 켰더니 24분이었음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주작이라고 의심하는 정병 없길 바란다

흉흉한 세상 주소 밝히고 싶지 않지만 알놈들은 다 아는 것 같다

그래 시발들아 우리집 대학동이다

대학동 살거나 들러본 놈들 다 알 거야 집구석들 존나 몰려 있는거

그리고 그 집구석 사이 네 갈랫길 알놈들 알제

모르는 놈들은 그냥 관악구 거지들 모여사는 달동네 골목길 떠올리면 된다

거기에 '기타 고아원'이라고 고아원 하나 있어

정부인가 협회인가 소속인 것 같은데 딱히 지원은 잘 못받는듯?

왜냐고? 지원 잘 받으면 이딴 곳에 고아원 지어뒀을리가 없음

사랑하는 내 집구석이지만 시발 한 음습한 건 인정해야함

여기 애가 살곳이 못됨 근데 애들 존나 많았쥬? 돈 없쥬? 미운 오리 새끼 빼박이쥬?

근데 여기 얼마전에 화재사고 나서 싹다 죽음

ㅅㅂㅅㅂ그거땜시 우리 빌라도 피해 좀 봤다

그나마 애기들 있어서 우중충한 우리 동네 분위기 좀 나았는데

거기 귀신의집 된 이후로 한 삼백육십배는 더 우중충해짐

그래 촌놈들아 여기서부터가 본론인데

빨래 널러 베란다 나갔다고 했잖슴

그 시간에 사람 1도 없는거 뻔히 아는데 사람이 둘이나 있는거야

심지어 여자하나 남자하나라 개같은거 여기서 염병짓 하는 거 아니겠지 싶어서 쫄렸다

급하면 골목와서 지랄하는 짐승 샊귀들이 한둘이 아니라 존나 긴장탔는데

분위기가 딱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헌터님 헌터님하는 거 보니까 한명은 헌터인 것 같은데

웬 고양이??? 고양이인가 뭔가 존나 반짝거리고 이쁘던데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임

아 시발 이걸 뭐라고 해야하지

존나 영혼이 떨리는 그런 개같이 간지러운 뭔가..... 뭔가가 있었음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그런? 와 이거 진짜 뭔일 나겠다 싶은 울음소리였다

지난여름 우리의 등골을 앗아갔던 귀곡소리도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어

그래 시발 난 존나게 쫄았고

고양이는 계속 울고

애들도 존나 우는 거야

애들? 뭔 애들이냐고?

이게 바로 '귀신'의 위엄이다 관악구 촌놈들아

듣다보니 아 뭔가 쎄한데? 이상한데? 싶더니 "야옹" 소리가 점점 다양해지는겨

본능적으로 존나 연약한 나는 몸을 숨겨서 아래를 훔쳐봤고

폐건물 다된 고아원에서 몰골 멀쩡한 애들이 뿔뿔뿔 기어나오는 것을

이 두눈으로 똑똑히 봤슈 새끼들아

시발 귀신이 아 이런거구나 싶더라

1등급놈들이 영혼이니 뭐니 지랄해도 뭔지랄임 싶었는데

와 진짜 헌터놈들은 영혼이라는 걸 보긴 하는구나 세상에 진짜 그런게 있구나 싶더라

눈으로 보면 그냥 진짜... 진짜 그냥 멀쩡히 살아있는 애들 같았어

근데 딱 보니까 느낌이 오는거

저 애들 이번 화재사고로 죽은 애들이구나

그런데 그 애들을 저 고양이가 불러낸 거구나

그리고 그 주인이 저 금발 헌터구나

막 온갖 생각이 드는데

숨도 못쉬겠더라

온몸이 덜덜 떨리는데 그게 추워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겠고

등골에 쫙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오싹한데 그게 음습하거나 질척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엄청 거대하고 아름다운 뭔가를 봤을때 느끼는 그런 전율이랑

되게 압도당한다는 느낌

홀리는 그런 느낌이었음

내가 애들 나오는 사진은 못찍었다

금방 사라지더라

그런데 그게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잠깐 죽은 영혼을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그 허락받은 시간이 금방 끝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아마 그 고양이가 뭘 어떻게 한 것 같은데 나 2등급촌놈 그딴건 모르겠고

그 고양이 키우는 헌터 옆에 있던 여자는 나 같은 촌놈이었는지 놀라서 주저앉았드라

근데 시발 나도 주저앉아 있었음ㅋㅋㅋㅋㅋㅋㅋㅋ.......

정신차리니까 베란다 바닥에 철퍼덕 앉아서 막 손발 덜덜 떨리는데

시발 왠지 그 헌터랑 눈이 마주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존나 무서웠음

여자 심정 백번 이해가 감

존나 멀리서 봤는데도 이러는데 직관이면 얼마나 무서운거

그 고양이 몬스터 같던데 헌터가 조련사였나?

멀어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사진 찍었으니까 한번 봐라

얼굴 안 나왔으니까 초상권 이지랄하지 마셈

응 주작 무새들ㅅㄱ

그런 커뮤니티의 게시 글에는 하나의 사진이 첨부되었다. 글의 내용처럼 손발이 떨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의 성능이 낮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흐릿한 사진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글쓴이가 말한 금발의 헌터와 주저앉은 여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높은 위치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 커뮤니티는 다시 한번 들썩였다.

댓글(149)

– 이게 왜 주작이 아님??

– 그럼 영혼과 관련된 스킬을 가진 헌터이셨나 본데

↳ 그런 고오급 스킬을 가진 헌터가 왜? 관악구에....? 옴....?

↳ ㅇㅈ 그정도면 절대 어리바리 헌터 아닌디

– 고양이 존나 귀엽다

↳ 덩치 봐 저게 귀엽냐 우리 존나 한입거리겠는데

– 안티캣 돌았나

– 여자 철퍼덕한 거 너무 웃기네ㅋㅋㅋㅋㅋㅋ

↳ ㄹㅇ 철퍼덕 여자....

↳ 아 철퍼덕 여자 나 우는중ㅠㅠㅠㅠㅠㅠㅠ

↳ 철퍼덕 여자 미쳤나ㅋㅋㅋㅋ

– 저거 안티캣 아님?????

↳ 죄송한데 혹시 안티캣이 뭔가요? 저 고양이 이름이에요?

↳↳ ㄷㅆ 보석의수맥인가 하는 던전에 서식하는 고양이형 몬스터예요

↳ ? 안티캣 조련 가능한 몹이었음??

↳ ㄴㄴ 안티캣은 새끼고양이만 해 방구석전문가들 그만 기어나와

↳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지랄하노

↳ 아는척 존나 하네

– 영혼 관련 스킬이면 사제인가? 왠지 태양교삘....

– 아니 왜 이런 귀한 헌터가 이런 누추한 동네에....???

– 금발 사제님 미쳤다 헉헉

↳ 변태 차단

↳ 아무리 헌터라지만 대놓고 헉헉 이 지랄 떠는게 맞냐?;; 진심 인류애 떨어짐

↳ 공인이라고 해도 선은 지킵시다

↳↳ ㄷㅆ알빠노

↳ 존잘 느낌 미쳤다 얼굴 안 보이는데 잘생김이 느껴짐

↳ 야 키가 뭔 가로등만하냐 돌았

– 사제면 몬스터 데리고 다니는 거 불법 아니야??

– 사제 아닌 듯 몬스터가 저렇게 얌전한 거 보니까 조련사임ㅇㅇ

↳ 그치 조련된 거 아니면 관악구 이미 불탔다

– 안티캣이 뭐임?

– 사제님 이름 아는 사라뮤ㅠㅠ.... 제발ㅜ.......

– 철퍼덕 여자는 인증 안 해주시나요ㅋㅋㅋㅋㅋㅋㅋ

– 얼빠인생 25년 저 헌터는 훈남임을 알려주고 있다 순순히 신상정보를 내놓아라

– ㅅㅂ기자들 왜 일 안함

↳ 비공인 헌터일 수도 있지 않음?? 너무 뜬금없이 뉴페이스인데

↳ 꼭 필요할 때만 입 다물지 기레기들

↳ 조련사 중에 금발 있냐? 국내 조련사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금발 처음봄

↳ 저거 은발 아님???

– 진짜 근데 ㄹㅇ 새로운 조련사면 이거 국뽕 ㄹㅈㄷ 아니냐고

– 조련사가 왜 귀신을....?? 진짜 왜....??

– 아무 헌터나 나와서 설명좀 해줬으면 좋겠다

– ㅋㅋㅋㅋㅋㅋㅋㅋ그래서 주작이냐고 아니냐고

↳ 겠냐?

↳ 너같은 애들 때문에 우리 글쓰니 화났자나.....

↳ 주작무새OUT

해당 사건이 관악구가 아닌 서울 전체 커뮤니티에 퍼졌을 즈음.

“슬슬 괜찮겠네요.”

“어... 어....”

“올려 주시겠습니까?”

“진짜 올려도 돼요?”

“수집상에서 허락한 사안입니다.”

“와.”

그날 귀신 소동의 당사자였던 여자가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렸다.

관악구 귀신 소동 철퍼덕 여자 본인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서지오 헌터와 함께 찍은 투 샷이었다.

앞의 인증자와 달리 허락을 받고 찍은 사진은 화질이 매우 선명했고, 여자의 얼굴은 스티커로 가려져 있는 반면 서지오 헌터의 얼굴은 그대로 나와 있었다. 게시 글의 내용은 간략했다.

경국지색

그게 끝이었고.

댓글(1,623)

– 경국지색 미쳤나

– 왜 잘생김? 왜 잘생김? 왜 잘생김? 왜 잘생김? 왜 잘생김? 왜 잘생김? 왜 잘생김? 왜 잘생김? 왜 잘생김? 왜 잘생김? 왜 잘생김? 왜 잘생김? 왜 잘생김? 왜 잘생김? 왜 잘생김? 왜 잘생김? 왜 잘생김?

↳ 진정해

– ㅅㅂ 대한민국의 미래가 존나 밝다

↳ ㄹㅇ 강제로 밝아져버림….

– 본문 내용 졸라 짧은데 다른 말이 더 필요하지 않아졌음

– 억울하다 내가 이 얼굴을 28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니

– 저건 인정이다

– 뭔 기생오라비처럼 생겼노

↳ ㄹㅇㅋㅋ 존나 빨릴 얼굴이네

↳ (심의 제한에 걸려 삭제된 댓글입니다)

– 와 진짜 잘생기셨다.

– 경국지색 ㅇㅈㄹ….

– 이래서 나라 말아먹을 얼굴이군아

↳ 이 정도면 말아먹어도 인정

↳ 아 저 입술로 말아드셔주는 건가요?

↳↳ 제발 정신차려 얼빠들아…..

– 헌터도 사람인데 다들 선 넘지 맙시다 좀

– 댓글창 존나 더러워지네

– 관리자님 댓글창 정리 좀 해주세요!!!

–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선하게 잘생겼지

↳ 경국지색 딱 한 단어 있는데 선한지 아닌지 어케 알아

↳↳ 얼굴이 선함

댓글 창은 폭발했다.

“…….”

“반응이 엄청 좋아요….”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유성운은 생각했다.

‘논점을 흐리는 데는 역시 시각적 폭력만 한 게 없구나.’

한 명의 자랑스러운 큐레이터로서 ‘지오의 초상화’가 가진 미모는 유성운도 충분히 인정하는 바였다.

보아하니 분위기가 썩 나쁘지 않게 굴러가는 것 같아, 유성운은 특유의 무던한 미소를 지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니요.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라온 씨의 신상 정보는 전부 지켜질 겁니다.”

“그래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던데….”

“이번 협조로 인해 신변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게끔 조치하죠.”

“그,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는 방금 작성하셨고. 이외에 다른 궁금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저기.”

일명 ‘철퍼덕 여자’로 불리게 된 사건의 당사자, 최라온이 비장한 얼굴로 물었다.

“팬카페 만들어도 되나요.”

“…그 정도야 시민분들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게, 혹시 서지오 헌터님이 싫어하실 것 같으면 안 할게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물어본 다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받으면 공식 팬카페 될 수 있나요.”

“그 부분도…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뇨, 별말씀을.”

유성운은 내심 생각했다.

‘빨리 대외 활동을 좀 잡아야 하나.’

막 관심이 집중될 때 좋은 흐름을 타야 할 텐데.

‘강도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지오에게 적당한 위치일지를 모르겠네.’

그렇다고 지오를 방송에 내보낼 생각은 전혀 없었다. 본인이 과한 시선 집중은 원하지 않는 것 같고,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에도 거부감을 가진 것 같으니, 가능하다면 언더그라운드 계열로 남겨둘 생각이었다.

‘이렇게까지 된 이상 비공식 헌터로 남긴 어렵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뭐, 그 정도는 본인이 원하던 바였고.

“…….”

첫 활동으로 던전 공략 정도면 무난하겠네.

‘…다른 교단이나 길드 쪽에서 붙잡고 있던 괜찮은 공략 예정 던전이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이제 유성운이 할 일이 아니었다.

‘당장 가서 인수인계해야지.’

주현에게 일을 떠넘길 생각에 유성운은 훈훈해졌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58)"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59)

159

제159화

여기 '서지오 헌터'를 알아본 몇몇 사람들이 있었으니.

– 서지오 헌터님이다

– 서지오 헌터님ㅠㅠㅠ 드디어 얼굴 보여주시나요

– 우리 헌터님 이제 공인이다 아무튼 그럼

S급 던전 '심해의 신전' 시절에 도움을 받은 민간인들이었다.

– 저 헌터님 이름이 서지오예요?

↳ 네네네네네 그때도 조련사라고 하셨어요

– ㄱㅆ아 와서 맞나 체크 좀

– 경국지색 딱 하나 올려놓는게 맞냐

↳ 알려줄거면 다 알려달라고

– 야 왜 검색해도 안 나옴

– 비공식 헌터들 하여간 얼굴 알려지면 죽는 줄 알아....

– 서지오 헌터님 수집상 소속인데 그쪽은 반응 없나

↳ 아 수집상??? 수집상????

↳ ?? 저 햇살미남이 수집상이라고??

↳ 비사벌 길드장님 취향 바뀌셨나

↳ ㄴㄴ 얼굴만 햇살일 수도 있음

↳ 저 미소가 어떻게 영혼에서 우러나온 햇살이 아닐 수 있어

– 남의 얼굴 가지고 왜 다들 지랄이야

– 얼굴 좀 잘나면 빨아주는 대한민국 국민 수준ㅉㅉ

↳ ㅇㅉㄹㄱ

그리고 곧.

햇살 강령 헌터 수집상에 신상 뜸

제곧내

수집상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서지오 헌터'의 신상 정보가 올라왔다.

– 햇살 강령 헌터가 뭐임?

↳ ㄱㅆ 햇살 미남이라는데 귀신 소동 일으킨 헌터라 할 말이 없었음

↳ ㅋㅋㅋㅋㅋㅋㅋㅋ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았나본데

↳ 강림도 아니고 강령이냐 뻘하게 웃기네

↳ 햇살강령헌터ㅋㅋㅋ

↳ 아 우리 헌터님한테 이상한 이름 붙이지 말라고

↳↳ ?뭐임 지랄났네

↳↳ 언제봤다고 우리 헌터님이야

해당 게시 글을 읽은 사람들은 곧 수집상 홈페이지로 달려갔고, 글쓴이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전 인증자 최라온의 사진만큼이나 선명한 사진이 올라온 탓이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황당해했다.

– 야 근데 왜 이것밖에 안 알려주냐

– 헌터 덕질 처음이라 그런데 원래 이러나요ㅠㅠㅠㅠ

↳ 안 이래요;;

↳ 윗댓 무시하세요 원래 헌터들 정보가 좀 짜요

↳ 맞음 헌터 신상은 잘 안 알려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려준 정보가 이름과 키, 나이뿐이었기 때문인데, 한국 헌터는 기본적으로 신상을 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전통이라 대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갔다.

다만 들뜨는 사람들은 있었다.

그럼 이제 당당하게 덕질을 해도 된다는 것임?

나라에서 나의 덕질을 인정해줬어??

비공식 헌터나 언더그라운드 계열 헌터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것이 매너였지만, 공식적인 활동이 잦아지면 그 선도 금방 무너지기 마련이었다. 이전 '심해의 신전'에서부터 서지오를 눈여겨보았던 이들이 기뻐했다.

그중에는 직장에서 오늘 내내 '철퍼덕 여자'라 놀림받은 최라온도 있었다.

'내 인생에 이런 얼굴 다시 없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근질근질한 손을 움찔거렸다.

"팬카페… 팬카페 만들면… 사진이나 일정 같은 것도 공유받을 수 있고…."

최라온의 낡아빠진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것은 서지오 헌터와 함께 찍은 투 샷이었다. 이 늦은 저녁에 상당히 음습해 보이는 장면이었으나, 그녀는 나름 간절했다.

'…이런 얼굴도 흔하지 않지만, 이런 얼굴에 이런 인성은 더더욱 흔치 않아.'

한국이 그나마 치안 유지가 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온갖 깐깐한 법과 참신한 처벌이 그들을 착하게 만

들기 때문인 고로, 인간의 수단화가 당연시될 만큼 평균 도덕심이 상당히 낮은 시대였다.

그만큼 누군가의 덕질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인들의 인성도 대재앙 이전과 같지 않았다. 특히 헌터라면 인기만 많으면 벌건 대낮에 사람을 죽여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세상인 것이다.

물론 그 인기를 위해 더러운 성격 꾹 참아가며 상냥하고 다정한 연기를 이어가는 헌터들도 많았지만, 최라온은 자신했다.

'내가 관상을 좀 아는데 이번 우물은 진짜다.... 지하 깊은 곳에서 간신히 끌려 나온 진짜 청정수야.'

수많은 연예인과 헌터를 덕질해 온 그녀의 감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놓치면 안 되는 특종이라고. 천연기념물이라고. 거기에서 비롯된 일종의 사명감마저도 있었다.

'그날 내가 헌터님과 마주친 건 사실 운명이 아니었을까.'

지오가 손수 빚어낸 순도 100% 핸드메이드 운명이었지만 최라온은 거기까지는 알아채지 못했다.

화면에 띄워진 백금발은 누런 가로등 불 아래에서 찍은 탓인지 마치 은발처럼도 보였다. 구불거리는 머리카락은 흡사 실크처럼 부드러워 보였고, 보기만 해도 온기가 느껴지는 미소는 정말이지 햇살을 닮았다.

"진짜 개미친 와꾸...."

그를 가까이에서 보았던 최라온이 그때를 떠올렸다. 어딘가 숲의 향이 나는 듯한 선선한 분위기와 마지막 배웅해 줄 때 보였던 쾌남다운 미소.

'그래, 이게 핵심이지.'

얌전한 사제님인 줄 알았던 서지오 헌터의 내면에 감춰진 것은 다름 아닌 운동부 주장의 상큼한 시트러스 향기였다.

"하."

안 그래도 팍팍한 삶, 인생에는 삶을 견디게 해줄 빛과 소금이 필요했다.

'지난번의 빛과 소금은 거나한 인성 논란으로 나락에 가셨고.'

하도 거친 삶을 살아야 하는 헌터들이다 보니 그들 중 꽤 많은 수는 인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 대부분은 과장된 경우가 많았지만, 그래도 구설에 올라 마음이 피폐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난이라는 건 알지만... 내 새끼의 인성에 실망하는 순간 마음이 식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

최라온은 믿었던 '내 새끼'의 인성에 하자가 보이면 급격히 마음이 식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든가, 누굴 변변찮은 이유로 죽였다든가 하는 일들을 보면 말이다.

대재앙 이전까지만 해도 공인은커녕 평범한 사람들조차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됐지만, 지금은 대재앙 이후의 시대였다. 최라온이 기대하는 도덕적 수치는 상당히 깐깐한 편에 속했다.

"...아니,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사람이 좀 깐깐할 수도 있지 말이야."

그러다 보니 최라온은 자연스럽게 한때 덕질했던 대상의 수가 많은 편이었다. 인성에 하자가 보이는 순간 마음이 떠버리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지난번 빛과 소금은 다른 무엇도 아닌 검은망토가 잡아간 경우였다. 그런 놈도 여전히 좋아하며 기다리는 팬들이 태반이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최라온은 착한 사람 좋아하고 나쁜 사람 싫어하는 몬스터가 인정한 개새끼를 팔 마음이 나질 않았다.

"......"

컴퓨터 화면에 눈을 박을 듯이 집중하던 최라온이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 정도 얼굴이면...."

인성에 좀 하자가 있어도 그냥 짜릿하고 말 것 같았다.

"...그래, 헌터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헌터 덕질이 주 종목인 덕후들 대부분은 논란 몇 번 났다고 마음이 식지 않았다. 사실상 최라온이 특이한 경우였다. 헌터라는 직업 특성상 사람이 매번 고운 말 고운 행동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라온이 '내 새끼'의 하자를 참아주는 한계점은 그 대상의 얼굴과 언행에 있었다. 정확히는 주로 얼굴에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번의 빛과 소금은 인성 논란이 연속으로 66번이 나도 놓지 못할 것 같았다. 이 얼굴에 그런 인성이면 신께서도 공정하신 거지.

'하지만 인성마저도 훌륭하다면?'

그건 다시는 오지 않을 천연기념물이었다.

"빨리 떡밥 좀 떴으면 좋겠다."

모니터 앞에서 최라온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 * *

한편 인수인계를 받은 주현은 조금 당황하고 있었다.

"하필 지금 시기에 제게 업무를 넘기시는 건가요?"

"나는 '검은망토' 하나 맡기에도 바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지오 씨'는 주현 씨의 담당이죠."

"일은 수집상에서 벌여놓고 왜 저에게 이러세요."

"수집상 소속이셨으면 이것보다 더 바쁘셨을 텐데 아쉽군요."

"아니 유성운 씨."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각종 커뮤니티 반응을 뽑아낸 서류를 넘기며 유성운이 유감을 표했다.

"이번 작업은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해서 제가 나섰지만, 앞으로 '서지오 헌터'가 대외 활동을 할 때는 주현 씨가 그 곁에 있어야 해요."

"헌터와 매니저는 한 세트로 엮여야 하니까요. 저도 그걸 알긴 하지만...."

"비서실에서 잘 배워 오신 것 같군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이 가장 웅성거릴 때고, 시선도 집중이 될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공식 언더그라운드 헌터죠."

비공식 헌터란 공개적으로 신상을 드러내지 않는 헌터를 말하고, 언더그라운드 계열 헌터란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헌터를 말한다.

"그런 제가 '서지오 헌터'의 공식 매니저로 찍힐 수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저 정말 그렇게 되면 아예 무수면 인간이 되는 수밖에는 없어요."

"...대체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는 거죠?"

"헌터는 유능할수록 갈리는 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저는 비각성자인데요."

"서지오 헌터는 아니겠지."

"아."

“교단 쪽에서도 관심이 많아 보이던데…. 조만간 협업 요청도 마구 들어올 겁니다.”

인지도가 높은 헌터는 가만히 있어도 일이 들어온다.

“주현 씨도 아시겠지만요.”

“예, 그야 배워왔죠.”

마스크가 되는 만큼 방송사 쪽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국내에 몇 없는 조련사가 새롭게 나타난 만큼 그 능력을 확인하고자 공략 협업 요청이 올 수도 있었다.

유성운이 어색하게 웃었다.

“자잘한 연락은 비서실 쪽에서 알아서 끊어주실 겁니다. 서지오 헌터에게 전달할 가치조차 없는 일들은 그렇게 할 테지만, 그 외의 나머지는 주현 씨가 직접 전달해 주셔야 해요.”

그에 주현이 물었다.

“계속 궁금했는데, 저는 ‘서지오 헌터’를 어떻게 찾아가야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오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마치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파트 복도에 12시 정각마다 지오가 들르는 것으로….”

“…….”

주현이 체념의 미소를 지었다.

“비사벌 길드장님께서 결국 저를 처리하시기로 마음먹으셨군요.”

“아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하세요. 나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꼭 좀 듣고 싶습니다.”

“애초에 인간들은 지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낱 인간이 신에게 원할 때마다 연락하는 것도 웃기는 일일 테고 말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지오의 집에 전화를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그렇긴 합니다. 아예 다른 차원일 것이고.”

“그래서 저도 아예 시간을 정해두고 지오를 만나는 편이었습니다.”

오전 4시 정도에 말이다.

“이외에 지오가 저를 부르길 원한다면 편지를 받아 이동하는 쪽으로 해왔고요.”

“저도 편지를 받긴 하지만 해석도 안 되고, 무엇보다 수집상의 갤러리에 가긴 힘들 것 같은데….”

“비각성자인 주현 씨가 지하 5층 갤러리의 기운을 감당하긴 어려우실 테죠.”

“그래서 아예 지오 씨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조치하신 걸까요?”

주현이 특유의 싹싹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길드장님께서 룸메이트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이지 변명할 여지가 없군요.”

유성운이 씁쓸하게 웃었다.

“저는 1호에, 주현 씨는 2호에, 지오는 그 사이 복도에… 완벽하네요.”

“이렇게 46층을 수집상에서 점거해 버려도 되는 건가요.”

“이미 46층의 모든 주택은 매매로 사들였으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공동 주택 사이에 악신인지 몬스터인지가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지오는 원래도 아무 데나 잘 가고 그랬습니다. 그건 법으로 어떻게 못 해요.”

“아 틀린 말이 아니긴 한데 아.”

주현은 조금 답답해졌다.

“세계 전복의 일부를 담당하게 된 기분이라....”

“좋은 의미의 전복일 수도 있죠.”

“전복된다는 것 자체는 부정해 주지 않으시네요.”

“가능성의 수준이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더 심란해지고 있어요.”

“괜찮을 겁니다.”

유성운이 무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지간해서는 12시 정각에 46층 복도에 들르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한 층에 두 세대뿐인 아파트다. 다른 시간도 아닌 12시에 자기 집도 아닌 곳을 방문하는 사람은 그 목적이 불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정당방위로 퉁칠 수 있습니다.”

“대체 뭘 퉁치시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기업이 가진 힘이죠.”

유성운이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애초에, 아무리 계단을 통해서라고 해도 해당 세대의 주민이 아니면 그 층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아, 그건 엘리베이터랑 똑같네요. 계단도 그런 방식일 줄은 몰랐습니다.”

“계단을 직접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는 사실이죠. 하지만 계단도 해당 세대의 카드키가 있어야만 입장할 수 있어요.”

“그럼 실수로 검은망토를 마주치게 되어 혼절하는 피해자가 생기지는 않겠군요.”

“그건 실수라는 이름의 개수작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 층에 애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물론 아파트 관리인이나 정기 점검 기사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것도 12시 정각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었다. 관리가 철저한 아파트니만큼 입주민의 휴식을 조금이라도 방해할 여지를 두지 않을 테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으음, 이해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지오와의 면담 시간이 앞당겨졌고요.”

“아, 유성운 씨도 12시에...?”

“길드장님께서 한꺼번에 처리하면 편하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그거....”

"개수작 맞습니다."

비사벌은 유성운이 존경하는 상관이었지만 할 말은 해야 했다.

"저희 셋이 더 긴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있는 힘껏 저항해도 될까요."

"그래도 무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내보죠."

그렇게 정작 본인은 없는 자리에서 서지오의 헌터 생활이 되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59)"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60)

160

제160화

그리고 지오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망둥 열매가 또 과하게 말랐어."

"꿍."

"이게 다 태양이 많아서 그래."

하늘 아래 어찌 태양만 셋인가.

"이건 아니야."

그는 금과 같은 형상이 되어버린 망둥 열매 앞에서 절규하고 있었다.

"우린 너무 따듯해."

태양의 신성을 담은 지오반니. 전대 태양신이 들어간 곰인형. 그 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빛 속성 진화 물새 허니.

크고 작은 태양만 셋이 지내는 오두막의 과일들이 마르는 건 한순간이었다.

"당장 이 신성을 갈아엎어야만 한다고."

"꿍꿍꿍...!!"

"꾸우...!!"

맛있는 걸 먹지 못하면 화가 나는 돼지를 말리는 물새와 곰인형을 뒤로한 채, 다나는 평화롭게 고양이 세수를 하며 늘어졌다. 태양이 가득해 뜨끈한 집 안은 그녀에게 천상 낙원과 다르지 않았다.

지오는 마당에 엎어졌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 감자는 이제 과일 하나 제대로 말리지 못하는 멍청이가 되었습니다."

"꾸우."

"저는 말하는 감자입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곤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제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꾸...?"

전대 태양신은 왜 이 아들 태양이 자신을 감자라고 지칭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을 겪었다. 그의 정체성은 감자보다는 태

양에 가까웠고, 그보다는 또 근원에 가까웠다.

그에 슬픔을 가다듬은 지오가 딱딱하게 굳은 망둥 열매를 망태 할아범처럼 쓸어 담으며 말했다.

“저도 제가 감자를 닮지 않았다는 건 잘 압니다.”

평소 생각이 날 때마다 인정하는 건데 딱히 그만큼 무해하지도 않은 것 같았다. 진짜 감자는 사람을 물감으로 만들 수 없다.

“감자보다는 마당의 오골계를 조금 더 닮았죠. 온통 새까만 것이....”

“꾸르르르.”

“같은 조류라서 좋아하는 것 같구나, 허니. 다음에는 깃털 망토를 그려 봐야겠어.”

서지오 시절부터 올 블랙을 즐겨 입던 그와 굳이 비교를 해야 한다면 확실히 검정 일색인 무언가를 찾아야 할 것이었다.

“아르지오 씨 덕분에 번쩍거리는 게 요즘 탐이 나서 그런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궁이의 검댕이나 집채만 한 까마귀 정도일까. 지오가 보기에도 그와 감자의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어 보였다. 그럼에도 그가 감자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제 유년기에 있었다.

“이게 다 어르신들 때문이야.”

강원도 산골 마을 주민들에게 지오는 말 잘하는 고기능 감자일뿐이었다.

서지오라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건 아니었다. 기운이 넘치다 못해 폭발하는 고등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었다. 심지어 그는 썩 그렇게 무해한 인상도 아니었다.

“조금 웃기긴 한데.”

사람들은 서지오가 별로 하는 것 없이 숨만 쉬어도 대단히 특별한 위인으로 취급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뭔가’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서지오를 포함한 그 누구도 몰랐다. 대체 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만 보고 있으면 웃겨서 내버려뒀던 기억이 났다.

“다들 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꾸우우....”

“그래서 마음속으로나마 감자 타령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별것도 아닌 한 명의 평범한 인간임을 되새기기 위해서 말이다.

“인간의 반항적인 심리란.”

너희가 나를 그런 흥미로운 방식으로 어려워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감자 타령을 할 일은 없었을 텐데.

서지오는 자신이 얼마나 별 특별할 게 없는 인간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잡다하게 할 줄 아는 게 많고, 성적은 적당히 잘 나왔으며, 친구들도 적당히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모든 분야에 완벽하지도 않았다.

“나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인데 다들 나를 너무 특별한 존재로 취급하더군요.”

심지어 얼굴이 특출나게 잘생기기까지 했으니 주변에선 그를 너무 어려운 존재로 인식하고는 했다. 지오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착각이라는 걸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랐다.

“오직 우리 산골 마을 어르신들만이 나의 덧없는 본질을 꿰뚫어 보셨지.”

그러니 더더욱 감자라는 별명이 달가울 수밖에 없었다.

“안정감이 있어.”

이른바 마음의 고향이라는 거다.

“다들 내 표정만 보고 쩔쩔매는 게 좀 웃기기도 하지만….”

“꾸??”

“그러다가 정말로 내가 뭐라도 되는 줄로 착각할 것 같아서 무섭지 뭡니까.”

“꾸, 꾸우.”

“아니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서지오는 제 주제를 알았다.

“난 평범해요.”

그는 괴악한 사회성을 가진 한낱 일반인일 뿐이었다.

“…….”

“…….”

곰인형의 흔들리는 시선을 확인한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뭘 상상하고 두려워하는 건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오해였다.

“…아무리 저라도 바깥에 나가서 대대적으로 ‘나는 감자다’라고 외치지는 않습니다.”

“꾸.”

“외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말 안 해요,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 거 다 압니다.”

쪽팔리게 무슨 짓이란 말인가.

지오는 평화로운 산골 마을 어르신들이 붙여준 감자라는 또 하나의 정체성을 대단히 사랑하는 편이었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였다. 집구석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내향형 인간 지오도 사회생활은 해야 했다.

“집 안에서나 이렇게 버릇없게 굴지, 바깥에서는 언제나 매너 있고 예의 바른 행실로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 아들이 사회에서도 철딱서니 없이 굴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에 똥강아지 취급받는 손주들은 많지만 그 손주들이 사회에서 자신이 똥강아지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다. 초등학생들도 안 그러는데 29살의 시커먼 아저씨가 다 되어서 그럴 생각 없었다.

“꿍꿍?”

“내가 왜 아저씨냐고?”

“꾸르르.”

“내일모레 30대란 그런 의미지.”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애매한 느낌이 있었다.

“앞자리가 2라서 아저씨라기엔 애매한 느낌이기는 한데….”

일단은 초상화라서 해가 바뀐다고 나이를 더 추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둘러싼 여러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지오는 아저씨가 맞는 것 같았다.

“현재의 나는 32살이기도 해서 아저씨가 맞는 것 같다.”

“꿍…?”

“아닌가, 24살 더하기 32 더하기 29면 그냥 노년층…?”

어쨌든 마냥 청년이라기엔 양심이 아픈 상황이다.

“그나저나 이 많은 망둥 열매들을 어쩌면 좋을까.”

어쩌긴 뭘 어째.

“피 경단이나 만들어야겠군.”

연단법: 바짝 말린 열매로 가루를 내어 루루푸의 즙과 함께 섞어 만든 반죽으로 경단을 만들어 어두운 곳에 일주일 이상 건조하면 출혈과 그 회복에 좋은 약이 된다.

“루루푸를 조금 더 뽑아 와야겠어.”

루루푸라는 소리에 늘어져 있던 다나가 몸을 일으켰다. 쾌청한 날의 영향을 받은 건지 이전 날 밤의 은하수와 같던 모습과 달리 청명한 푸른빛을 띠는 모습이었다.

다나는 연푸른빛으로 반짝이며 지오의 종아리에 제 머리를 콩콩 박았다.

“믕망망….”

“이번 건 아빠가 약 만들 때 쓸 건데.”

“애앩.”

“아, 그냥 같이 가고 싶다고.”

“앩옹.”

“그럼 그렇게 하자.”

거대 고양이 다나는 든든한 호위가 되어주고는 했다.

* * *

한편, ‘서지오 헌터’의 존재로 들썩인 곳이 또 있었으니.

“안티캣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허허, 참 대단하더군요. 영혼을 보게 해주다니….”

“확실한 사안은 아니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태양교와 달님교였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신을 모시는 종교는 섭리를 따랐고, 자연스럽게 생명의 탄생과 죽음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이 둘은 죽음의 교 이전에 가장 장례와 가까운 종교였다.

“그나저나 안티캣이라는 몬스터는 쉽게 길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한 장로 사제의 말에 그보다 젊은 사제가 맞장구를 쳤다.

“예, 알아보니 조련사도 다루지 못하는 까다로운 몬스터라고 합니다.”

“국내 조련사뿐 아니라 해외의 모든 사례를 통틀어 나온 결과가 맞나요?”

“네. 세계적으로 안티캣의 조련에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더군요.”

“이거 해외에서도 눈독을 들일 만한 일인데….”

“조련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란이 일었다는 것 같습니다.”

조련사의 권위와 명예는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하고 까다로운 종류의 몬스터를 조련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만약 안티캣을 조련한 것이 사실이라면 서지오라는 헌터는 꽤 양질의 명성을 얻게 될 것이었다.

“안티캣은 애초에 인간이 접근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내가 그쪽 분야는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강제로라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심기를 거스르면 주변의 모든 것을 불태운다고 하더군요.”

“화염 저항이 있는 헌터라면....”

“영혼을 태우는 화염이라 아무리 저항이 강한 헌터들이라 해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거 참, 영혼을 태우는 화염이라니.”

영혼이라는 주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제들이 술렁거렸다.

“그 힘을 한번 엿보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수집상에서 꼭꼭 숨겨둔 인재라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집가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헌터인 듯한데...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큰코다치겠죠.”

“하지만 그 능력의 진위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진위 여부를 가릴 권한이 어찌 저희에게 있겠습니다.”

“크흠, 죄송합니다. 마음이 앞섰군요.”

언제나 헌터의 명령권은 그가 속한 길드에 있었고, 그에 간섭한다는 것은 해당 길드와 눈치 싸움을 벌여 보겠다는 의미였다. 태양교는 굳이 대한민국 3대 길드와 그런 기 싸움을 벌이고 싶지 않았다.

“어떤 심정이신지는 이해합니다. 만약 정말로 안티캣이 영혼에 간섭할 힘이 있다면....”

“교의 사제들이 장례 미사에 동원될 때에도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태양교의 이미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래 있었던 던전 개방 사태 때문에 최근 교의 위세가 많이 위축되었어요.”

“예비 사제들도 여전히 불안해하더군요.”

“이럴 때일수록 교의 장점과 명예를 보여야 예비 사제나 신도들도 마음을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장로 사제가 난색을 표했다.

“하나 안티캣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사제가 아닌 조련사이지 않겠습니까. 안티캣의 능력이 사실이라 해도 교에서는 그 아이를 조련할 수 없을 텐데....”

“그 부분은 서지오라는 헌터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없겠습니까? 듣자 하니 ‘심해의 나라’ 때에도 태양과 가까운 치유력을 선보였다던데, 그렇다면 저희 교에 대한 감정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비록 그런 사건에 휘말렸다고 해도 신앙심이라는 것이....”

“아니, 이봐요들. 감정이 나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감정도 나쁘게 만들 것을 걱정해야지 않겠습니까? 듣자 하니 워낙 관심을 꺼려서 여태까지 비공식 헌터로 지내고 있었다는데.”

“지금은 대놓고 모습을 드러낸 걸 보면 공인 헌터로 지내 보겠다는 생각이겠죠. 그렇다 해서 서지오 헌터의 비호감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 능력이 만일 진짜라면 최대한 정중하게 접근을 해야 해요.”

“무엇보다 저는....”

중장년에 속하는 사제가 말을 이었다.

“그의 능력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다른 무엇도 아닌 수집가의 헌터이지 않습니까.”

“아하, 과연....”

“허투루 편애할 사람이 아닙니다.”

수집가 비사벌의 취향이야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인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면 바로 '유능하고 성실할 것'이었다. 눈 좋은 그가 거품이 잔뜩 낀 헌터를 그렇게까지 아낄 리가 없었다.

"하긴 비사벌 길드장이 인정을 했다면...."

"그건 믿을 수밖에 없지요."

"수집가의 안목이 아니면 무얼 믿겠습니까."

제 수집품이 삶의 목적인 인간 아닌가.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능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의 집 헌터 능력을 노력도 없이 홀랑 빼먹으려는 건 고얀 놈 심보겠지요."

"그, 그건 그렇기는 합니다만...."

길드장도 아닌데 애꿎은 헌터의 신상을 탈탈 터는 건 무척이나 무례한 짓이었다. 그의 정확한 능력이 무엇인지, 어떤 스킬을 쓰는지,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정보들 말이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알려질 것은 차차 알려질 겁니다."

장로 사제들은 흐름을 읽을 줄 알았다.

"얼굴을 보였고, 그것을 수집상씩이나 되는 길드에서 통제하지 않았다는 건... 그 서지오라는 헌터를 세상에 보일 준비가 되었다는 이야기겠지요."

"헌터를 데뷔시키기에 가장 좋은 무대는 던전이 아닙니까. 공략할 던전이 없는 세상도 아니고, 그의 능력을 궁금해하는 길드가 없는 것도 아니니...."

"마땅한 장소가 없다면 이쪽에서 내어주어도 되는 일입니다. 이전에 발견한 강원도의 던전 공략에 대한 협업 요청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서 헌터가 가진 능력의 진위 여부 정도야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허허, 가능하다면 그 안티캣이라는 아이의 능력이 참으로 궁금한데요."

그렇게 말한 사제들은 이내 한 명의 젊은 사제를 바라보았다.

"......."

이전에 '서지오 헌터'와 던전 공략에 나선 적이 있던 강서담 사제는 남몰래 이를 악물었다.

'태양이시여.'

부디 이 사제가 주어진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60)"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61)

161

제161화

시민들 대부분이 피곤에 쓰러진 12시 정각, 서울의 한 아파트 복도.

“이거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찾아보기 정말로 드문 형태의 회의에 주현은 의문을 품었다.

“아파트 복도에 간이 의자 두 개 깔아두고, 맞은편 벽에 걸린 초상화와 마주 보면서?”

“왜 그래, 테이블도 있고 좋잖아요. 이거 우리 길드에서 직접 제작한 탁자야.”

“확실히 반원 모양의 탁자라 마치 지오 씨도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좋네요.”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있지 않나?”

“따로 액자에서 직접 나오지는 않으셨으니까요.”

주현이 씁쓸하게 웃었다.

“하필 액자 형태라 영정 사진을 두고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에 초상화 본인이 대답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영정 사진이 맞습니다.”

그에 유성운이 반박했다.

“아니지, 지오는 사진이 아니라 초상화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성운 씨의 의견이 옳습니다.”

“물론 ‘지오의 초상화’가 일반적인 초상(肖像)이 아니라 다른 초상(初喪)일 수도 있기는 해. 초상 치르다 할 때의 그 초상 말이야.”

“재치 있는 추측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따로 보태줄 말씀은 없으신지?”

“저는 모든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현은 생각했다.

'이게 무슨 대화지.'

사회생활용 미소가 절로 우러나오는 양질의 대화였다.

"저희의 이런 대화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은 정말로 없는 건가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주현 씨."

유성운은 신뢰가 가는 듬직한 미소를 지었다.

"이곳은 비싼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어지간히 곳간 든든한 헌터가 아니고서야 등골이 빠지기 쉬운 아파트이기도 해요."

"그럴 거고요."

"그 돈 받으면서 정보가 유출되는 곳이었다면 이미 불에 타 없어졌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순순히 긍정한 주현이 아파트 복도에 위치한 CCTV를 가리켰다.

"저것도 처리가 된 상태이시겠죠?"

"순순히 긍정한 것치고는 여전히 의심이 많은데."

유성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부분도 깔끔하게 처리한 지 오래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한 건지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수집상에 흉흉한 소문이 많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부분은 저희 작품들이 만들어낸 괴담이라는 걸 아시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 중입니다."

"수집상은 무고한 피를 보지 않습니다. 관리인분들에게 해를 끼치는 종류의 처리는 아니었으니 정말로 마음을 놓으셔도 돼요."

그가 덧붙였다.

"평범하게 돈으로 합의를 봤을 뿐입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이야기 중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저희의 대화가 원활할까요."

"굳이 머릿속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유성운이 주현의 걱정거리를 사전에 차단했다.

"돈을 받지 않고 입막음을 당하는 것보다야 돈을 잔뜩 받고 스스로 입을 닫는 쪽이 단연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강압적인 분위기는 결코 아니었음을 자신 있게 증언드릴 수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이란 역시 마음 한구석이 씁쓸합니다."

"저도 그에 관해서는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하지만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 결국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납득되는 선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수집상의 일 처리에 딴지를 걸 생각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연 돈으로 입막음이 될까 싶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혼 계약서를 활용했습니다. 다양한 대가를 뜯기고 싶지 않은 이상 입막음은 확실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길드처럼 계속 입막음이라고 말하지 말아 주시겠어요?"

듣는 일반인 기분 참 이상해지니까 말이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형태의 회의에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영혼 계약서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다.”

“영혼 계약서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아, 그건….”

초상화의 질문에 주현이 생각을 정리했다. 너무 당연한 상식이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순간 떠오르지 않은 탓이었다.

“…말 그대로 영혼을 대상으로 한 계약서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각성자의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각성자의 시스템이라.”

“쉽게 무뎌지고 의미를 잃는 인간의 것과 다른 상위 차원의 존재이니까요.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도중에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곳의 관리인분들은 각성자입니까?”

“각성자도 있고 비각성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 계약의 경우 그 의식에 관여하는 단 한 명의 각성자만 있어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주관자로서도 가능해요.”

주현의 설명에 유성운이 덧붙였다.

“나와 계약한 관리인분은 각성자였어.”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초상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회의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유성운도 고개를 끄덕이자 주현이 입을 열었다.

“다행히도 이번 강령 소동에서 헌터 업계의 주된 관심이 다나 양에게로 향했어요. 이전에 서지오 헌터를 조련사라고 말해둔 덕분이 큰 것 같았습니다. 헌터 본인의 능력이 아닌 몬스터의 도움을 받은 게 크다는 주장이 대중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만약 다나 없이 지오 혼자 그런 일을 벌였다면 이렇게 ‘놀라운 소동’ 정도로 무마될 수 없었을 것이다. 개인이 손짓 한 번으로 멀쩡한 영혼을 불러내는 건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지 않은가. 영혼과 관련된 스킬이 없지는 않다고 해도 말이다.

하지만 조련사의 수는 대단히 적었고, 그중 안티캣의 조련에 성공한 조련사는 없었다. 미지의 몬스터인 안티캣에게 영혼과 관련된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니 사람들도 어떻게든 납득한 것이리라 주현은 생각했다.

“실질적으로는 지오 씨의 도움이 컸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대중들은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를 테니까요.”

애초에 ‘지오의 초상화’가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새끼 고양이만 한 안티캣이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영혼을 불러내는 능력을 가질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일반적인 안티캣을 조련한다고 다 ‘서지오 헌터’와 같은 기행을 벌일 수 있는 게 아닐 테지만, 지오가 인간들 사이에 위화감 없이 스며들길 위해서라도 지금은 이대로 넘어가는 편이 좋았다.

“그래서 그런지….”

주현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마저 설명을 이었다.

“유독 이번 소동에 대해서는 종교계에서 더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특히 태양교와 달님교에서 반응을 보였어요.”

“태양교는 이전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 입단식 행사에서 잠시 보셨겠군요. 하지만 그것은 관계자 외에도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기도 공간을 크게 개방한 것이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감상이 다르실 겁니다.”

주현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런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가 초상화에게 말을 이었다.

“태양교에서 협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 능력을 확인하고자 합니까?”

“불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상황은 그렇습니다.”

태연한 주현의 맞장구에 그 둘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유성운이 내심 감탄했다.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할 수 있다니 대단한 강심장인데.’

주현이 ‘지오의 초상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는 유성운을 비롯한 수집상 길드원들의 도움을 받아 그에 관한 정보를 익혔고, 협회의 연구원이었던 덕분에 그 위험성과 격의 크기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

‘그런데도 저런 반응이란 말이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면 감히 제 능력을 재려는 인간들에게 의문을 품는 거대한 신비를 향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사실이 그래’라고 대답하기 힘들 것이었다.

‘참 이상한 부분에서 대범하단 말이지….’

유성운이 묘한 감상을 품는 사이 둘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당장 사람들은 ‘서지오 헌터’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까요.”

“제 정보에 대해 가능한 많은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오 씨께서 기타 고아원을 대상으로 작은 기적을 부리신 덕분에 인지도가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기적이 아닌 일종의 퍼포먼스였겠죠. 그 퍼포먼스와 유성운 큐레이터님의 협업 덕분에 이례적일 정도로 빠르게 인지도를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서지오 헌터’에 대한 모든 의문을 해소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의문이 더 커졌다는 뜻이군요.”

“예, 정확히 이 헌터는 어떤 주특기를 가졌는지. 어떤 포지션을 담당하는지.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요소는 차고 넘칩니다.”

주현이 태양교에서 보내온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이번 태양교의 접선은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건 태양교에서의 방문 요청서였다.

“어떠한 집단에서 유명한 헌터를 재보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헌터를 관리하는 제일 대중적인 집단인 길드의 경우였다면 메일이나 명함을 보냈을 테지만요.”

“맞아, 일종의 친교 요청이라고나 할까. 친해져서 나쁠 것 없다고 판단된 어리바리 헌터들은 이런 식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 한번 간을 보는 거야.”

접근 방법은 길드마다 다양하다.

“어느 길드에 소속된 헌터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헌터인지에 따라 방식도 달라져. 프리랜서 헌터라고 해도 매니저가 있다면 그쪽으로 먼저 연락이 들어올 것이고.”

그에 주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초면의 헌터에게 직접적으로 먼저 연락을 넣는 것은 무례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격식을 차린다면 보통 그 헌터의 매니저나 소속된 길드에 여러 요청과 의사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주현이 덧붙였다.

“아, 어리바리 헌터란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헌터들을 이르는 속어입니다.”

“속어였습니까.”

“보통은 경력이 짧은 헌터를 이르지만, 드물게 상대의 실력을 비하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또한 대단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해가 잘되지 않는 단어나 행동들은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류를 지오의 쪽으로 쓱 내밀며 주현이 말을 이었다.

“이번 요청서는 간단히 말해 ‘우리 친하게 지내볼까요?’라는 식의 가벼운 인사입니다. 하지만 태양교 정도 되는 규모의 교단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손을 내미는 건 이례적인 일이죠.”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을 것이다.

“원하시는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태양교라.”

지오가 유성운에게 물었다.

“강서담 사제님과 차이솔 학생이 있는 곳 아닙니까?”

“맞아, 이번 요청서도 강서담 사제님 편으로 들어온 거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적인 부탁을 할 성격은 아니잖아, 강서담 사제님이.”

“이전에 봤을 때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초상화는 결정을 내렸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교단을?”

“강서담 사제님을.”

그에 주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알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며 내심 생각했다.

‘교단 자체는 아직 합격점이 아닌 건가.’

애초에 지오반니는 태양교에 좋은 감정이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사례였다. 그럼에도 워낙 지오반니라는 인격 자체가 이상한 덕분에 악감정은 없는 듯한데, 그렇다고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았다.

‘조금 호기심이 있는 정도.’

예전에 한번 들러 봤다더니 관심이 아예 없진 않은 듯했다. 주현의 입장에서는 가장 감당하기 쉬운 반응이었던 셈이다.

“이외에도 몇 가지 요청과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중요도가 썩 높지 않고, 대부분은 대중 매체 쪽 연락이라 가볍게 정리만 해 보았습니다. 설명해 드릴까요?”

“두 가지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확실히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서지오 헌터님께 무리가 되겠군요. 한 가지 업무만 깔끔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주현과 유성운은 생각했다.

‘이게 지오 씨의 규칙인가?’

‘활동할 때 제한이 있나 보네.’

한 명은 정원사에 다른 한 명은 협회 전(前) 연구원. 둘 모두 단순히 ‘지오는 내향형 인간이라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기력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못 했다.

이건 사실 그들의 경력 문제만이 아니었다. 생판 모르는 남이 봐도, 또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봐도, 서지오의 인상은 결코 집 바깥에 나와 있으면 시들시들해지는 내향형 인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긴 격을 낮춘 채로 액자 바깥을 오랫동안 나와 있는 것도 힘들겠지.’

그렇게 생각한 유성운이 무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날짜는 언제가 좋겠어?”

“여러분이 추천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좋아, 그건 주현 씨가 확인해 보는 걸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제1차 복도 회의는 마무리가 되었다.

* * *

그리고 여기, 훈훈하지도 않고 마무리도 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하아아….”

짬 처리를 당한 태양의 사제 강서담은 생각했다.

‘버러지 같은 종교계.’

젊고 직급이 낮을수록 당연하게 노예가 되는 세상이었다.

자비하신 태양만 아니었어도 진작 퇴장했으리라 생각하며, 그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신성을 뷜 때였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61)"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62)

162

제162화

며칠 뒤, '서지오 헌터'의 태양교 방문.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강서담은 직접 나와 그를 맞이했다.

"오시는 길이 불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날 뵈었던 태양을 다시 마주할 생각을 하니 설렘만이 가득했습니다."

"태양의 빛이 당신께 닿았다니 그 또한 운명이군요."

그는 특유의 무뚝뚝한 얼굴로 지오를 안내했다.

"부디 저를 따라오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오는 강서담의 뒤를 따라가며, 태양교 신전의 본모습을 감상했다.

'내가 몸을 담았던 교단과는 역시 차이가 있군.'

인어들의 작당에 심히 부식된 상태임에도 대단히 화려했던 지오의 태양교에 비해, 지구의 태양교는 훨씬 검소하면서도 온화한 공기가 가득했다. 마치 햇볕이 가득 들어찬 것 같았다.

'황금보다는 깔끔한 하얀색을 주로 썼나.'

아무래도 그림을 자주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 지오로서는 역사적인 가치보다 미적 가치를 따질 수밖에 없었다. 이곳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듯하고 경쾌한 공기가 흘렀다.

"떠들썩하군요."

"혹여 불쾌하십니까?"

"아니요, 듣기에 좋아 여쭤보았습니다."

"그렇다니 이 사제의 마음이 좋습니다."

강서담은 특유의 덤덤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태양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생기가 넘친다는 것이지요.”

“이전에 죽음의 교에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 그곳과는 전혀 다르군요.”

“죽음의 교는 침묵을 미덕으로 하며, 객체보다는 단체를 중시하는 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커다란 창문에 햇살이 가득 낀 복도를 거닐었다.

“또 다른 말로 죽음의 사제들은 침묵의 가족이라고도 칭합니다. 다른 교단에 비해 유달리 가족이라는 틀이 확고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순종과 흐름을 중시하기에… 많이 조용했을 겁니다.”

태양교와는 달랐다.

“온기는 산 자의 것. 태양께서 내려주신 저희 작은 태양의 빛은 살아 있을 적에 불타며, 모든 것을 연소시킨 뒤에 태양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에 이토록 밝은 분위기군요.”

“예, 저희는 다른 교에 비해 유달리 사제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지향합니다. 그러니 교단 내에서도 최소한의 격식을 차리며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강서담이 가볍게 웃으며 지나가는 사제들을 힐긋 보았다.

“태양교는 대체로 이런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강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보였다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들은 곧 태양교의 접대실로 향했다.

“부디 편히 앉으십시오.”

둘이 자리에 앉자,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이들이 몇 가지 간식과 차를 내왔다. 아까 보았던 사제들이나 강서담과 달리 태양의 기운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 지오가 그들을 보았다.

그에 지오가 인간이 아니고, 그에 관한 상식이 부족함을 떠올린 강서담이 설명했다.

“…이분들은 저희 태양교의 사제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형제자매분들이십니다. 사제는 아니지만 교의 내부에 머무시며 크고 작은 도움을 주시죠.”

“그렇군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의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사제의 기쁨입니다. 차를 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님들. 저는 이만 손님과 대화를 나눌 테니 물러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시종들은 조용히 물러났고, 접대실에는 지오와 강서담만이 남았다.

“…일단….”

강서담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전 ‘심해의 나라’에서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점, 그때 그곳의 모든 인간들을 대표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서담의 태도는 접대실 밖에서보다 훨씬 깍듯하고 정중했다. 지오는 ‘모든 인간들을 대표해’라는 문구에서 자신을 인간 취급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냥 두었다.

‘조금 황당하긴 하다만….’

평범한 인간임이 들통나서 어디 실험체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낫겠지. 지오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 명의 태양의 사제로서 응당 취해야 할 태도를 갖췄다.

“제가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교단의 보상은 무사히 전달받으셨는지요.”

“예, 수집상을 통해 보상금을 전달받았습니다.”

“…당신께 한낱 금전 따위로 보상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무슨 겸손의 말씀을.”

지오반니는 사제 특유의 신성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

“대부분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죠.”

잠시 말이 없던 강서담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지오는 본능적으로 저것이 ‘이해는 잘 안되는데 그렇다고 하니 넘어가야겠다’라는 의도임을 알아차렸다. 종종 유성운이나 주현이 보이는 반응이라 익히 알고 있었다.

강서담은 여전히 부담스러울 만큼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날 당신께서 도움을 주신 덕분에 희생자의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입단식의 총책임자인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었으나, 손을 내밀어 주시어 어린 예비 사제들이 헛된 죽음을 맞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 함께 해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을 좋게 봐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서지오 헌터님을 부르게 된 이유는 교에서 만남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은 전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불쾌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쾌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마 지오가 ‘감히 나를 오라 가라 해’라고 말할 줄 알았던 것일까. 왜인지 대단히 미안하고 조심스럽게 구는 강서담에 지오는 가벼운 의문을 표했지만, 강서담의 반응은 여전했다.

“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오의 해석이 맞았다. 그로서는 한낱 인간 주제에 신을 오라 가라 하게 된 점이 무례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아니, 느껴진 게 아니라 실제로도 무례한 게 맞았다.

‘이러다 인간의 분수를 잊게 될까 겁이 나는군.’

눈앞의 신성은 인간에게 이례적일 정도로 호의를 보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정도라는 게 있었다. 그렇다고 강서담이 ‘서지오 헌터는 사실 신성을 품었다’라고 외칠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다.

‘장로 사제들은 지금도 포섭을 하느니 마느니 떠들고 있는데….’

그들은 감히 자신들이 신성을 대상으로 그딴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야말로 무지에서 나온 죄였다. 이번 일을 떠맡게 된 강서담은 정말이지 끔찍한 기분이었다.

“인간들이 멍청해서 죄를 지은 건 이번뿐만이 아니지요. 반성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오는 멋진 어른답게 강서담의 혼란과 분노를 모른 척해주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

강서담은 간신히 사레를 참았다.

“…큼, 아니요. 제가 어찌 당신께 무언가를 바라겠습니까.”

“나를 너무 어렵게 대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솔직히 말하건대 그보다는 불편함이 큽니다.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런 솔직함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아르지오의 영향을 받아 지오반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화가 많이 쌓이신 것 같은데 대련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당장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께 대련을 바라진 않을 겁니다.”

“어쩜 이리 진솔한 영혼인지. 훌륭하십니다, 강서담 형제님.”

“제 영혼을 긍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강서담은 좀 어디에 처박히고 싶은 기분이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서지오 헌터님을 부른 것은 단순 친교를 위함이니, 저는 그 어떤 통제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편하게 대화 나누시고 귀가하시면 될 듯합니다.”

“편하게 대화를 나누기에는 강서담 사제님께서 매우 피곤해 보이십니다.”

“꽤 불경한 소리임을 아나, 결국 사제도 직장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반 직장보다 관계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 더욱 많고요. 제 피곤함은 영혼의 존재와 함께하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제안해 주신 것처럼 편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지오반니는 이곳의 어린 사제들을 떠올렸다.

“차이솔 형제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 그 아이….”

제 학생을 떠올린 강서담의 얼굴이 조금 누그러졌다.

“혹시 품으시고자 하심인지요.”

신도로 삼을 거냐는 질문이었지만, 지오는 그저 웃기만 했다.

“그것은 제가 정할 일이 아닌 듯합니다.”

“저는 입단식의 날에, 당신께서 방문하심이 새 신도를 찾기 위함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많은 친구와 가족을 만들 의사가 있으나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강서담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차이솔 형제가 당신의 사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기에 여쭤보았습니다.”

“내 의견은 아니겠습니다.”

“그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신께서 원했다면 입단식 날 결정되었을 테니….”

그날 강서담이 오해했던 것과 달리, ‘지오의 초상화’라는 거대한 신비는 자신의 신도를 만들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신성은 아니었다. 그는 욕심 없이 단지 존재하기만 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지만.’

떠받드는 신도도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이토록 거대하다니, 정말이지 드문 사례였다.

“그 부분이 아니라면 차이솔 형제에게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무척이나 친화력이 좋고 또 낙천적이라 주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친구들이 모여드는 운명을 지녔지요.”

차이솔은 예비 사제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많은 아이였다.

“그만큼 무던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배움의 열의가 강한 학생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주어진 업무를 회피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그렇다니 정말로 기쁩니다. 차이솔 형제의 가족들 역시 기뻐하겠지요. 분명 그 학생은 훌륭한 사제가 되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것입니다.”

예언인가.

“…….”

아무래도 예언이겠지.

‘기억해 두자.’

신성은 아무렇지도 않게 미래를 예고하고는 한다. 특히 유희를 즐기는 악신들이 그러했는데, 섭리로부터 자유로운 흥미를 추구하는 그들은 무신경하게 기적과 재앙을 퍼트렸다.

강서담은 지오의 말이 기특함에서 우러나온 단순한 덕담이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차이솔 학생의 미래를 점치며 다시 말을 이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이솔 형제의 파트너는 이루다라는 이름의 자매입니다. 이 사제의 미욱한 눈으로 보기에 둘 모두 훌륭한 사제의 자질을 갖추어… 기대를 많이 받고 있죠.”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루다 자매가 다른 학생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본인은 그 점을 일절 신경 쓰지 않고 있고요.”

“저런… 예비 사제들을 이끄는 선생으로서 얼마나 부담이 심하십니까.”

“…보잘것없는 사제를 위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있는 한 상황이 심각해지진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혹여 당신께서 마음 쓰일 수 있는 부분인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예비 사제들을 주제로 가벼운 대화를 나눈 뒤, 강서담은 본론에 들어갔다.

“곧 태양교에서 주관하는 공략이 있을 예정입니다. 감정명 ‘지하의 네발 우림’이라는 이름의 A급 던전이며, 이미 몇몇 길드와 협업하기로 되어 있지요.”

“제가 그곳에 참가하기를 바라십니까?”

“같잖게나마 변명을 해보자면 이건 정말 전적으로 제 의견이 아닙니다. 다만 태양교에서는 ‘서지오 헌터’의 정확한 능력을, 더 나아가서는 사람 자체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과분한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 흥미롭습니다.”

“부디 편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양교에서는 감히 권위로 당신을 다루려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렇다고 해도 당신께서 머무시는 곳은 수집상이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수집상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영향력이 강하며, 첫 번째로 돈이 많은 길드였다. 제 수집품에 대한 집착이 누구보다 강한 수집가라는 벌집을 건드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얼마든지 거절하셔도 좋은 단순한 제안입니다.”

“‘지하의 네발 우림’이라는 곳은 어떤 던전입니까?”

“석회 동굴 지하에 생성된 별장 던전으로, 독을 품고 날카롭게 벼려진 식물이 가득한 던전입니다. 그 탓에 힐러와 조련사를 최우선으로 모집 중이지요.”

"힐러와 조련사라."

지오가 눈을 선명하게 휘었다.

"바로 저군요."

"…송구할 뿐입니다."

강서담은 가능한 한 정중하게 말을 이었다.

"이것은 당신을 시험하고자 하는 행사이며, 동시에 원래 진행되었어야 했을 저희 교단의 숙제입니다. 본디 태양교에서 발견한 이 던전은 다양한 쓰임새를 보여 교에서 공략하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드와 협업하는 것이군요."

"대중적인 이미지와 달리 태양교는 의외로 힐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태양의 뜨거운 불은 생명을 세심하게 살려내는 것보다는 파괴하는 것에 치중이 되어 있지요. 그 탓입니다."

"누구나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건 알겠습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략은 앞으로 15일 뒤 시작될 예정이며, 시간이 촉박함에도 서지오 헌터만큼 이 행사에 잘 어울리는 이는 없다고 여겨…."

그는 짧게나마 나오려던 한숨을 마저 삼킨 뒤에 말했다.

"이렇게 주제넘은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제가 넘을 것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시선이 있는 곳에서는 한 분의 헌터로 대할 것입니다."

"강서담 사제님께서도 참 고집이 강한 분이십니다."

지오는 특유의 빛이 일렁이는 푸른 눈으로 강서담이 내민 제안서를 내려다보았다.

"…우림이라…."

휘어지는 그의 눈에 금빛이 스몄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62)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62)"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63)

163

제163화

본디 우림이라 함은, 비가 많이 내리는 숲을 말한다.

아르지오가 고향으로 삼던 '검은 숲' 역시 그랬다. 하루가 멀다고 변덕스러운 비가 내렸으며, 자주 독을 품은 새까만 안개가 꼈고, 바닥은 질척거려 그 친구인 늪을 숨겼다.

"나는 우림을 좋아합니다."

너무나 울창해서 햇볕마저 들지 않는 그 숲 안에는 온갖 금은보화가 넘쳐났다. 독은 곧 약이며, 뛰어난 독은 뛰어난 영약도 될 수 있는 법. 갖은 시체 더미 위에 피어난 그 화려함….

"그러니 15일 뒤에 보겠습니다."

"예, 신성이시여."

"우림엔 늘 보물이 있죠."

모든 것을 짐승으로 만드는, 황홀한 보물 말이다.

* * *

"어!"

앳된 목소리가 교단 본부의 정원을 울렸다.

"지오 형!"

"차이솔 학생."

차이솔이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본 것이다.

"정원이 아름다워 들렀는데, 이 귀한 얼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백금발의 지오는 특유의 정제된 미소를 지으며 차이솔에게 다가갔다. 차이솔 역시 제 파트너의 손을 잡은 채로 지오에게 뛰어와 그 환한 얼굴로 인사했다.

"엄청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이군요."

"저는 잘 지냈어요!"

“이런… 질문을 빼앗겨 버렸네.”

“형은 잘 지냈어요?”

“저 역시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차이솔은 아이 특유의 순수한 의문과 호의를 담아 물었다.

“이제 안 아파요?”

“…….”

지오반니는 얼굴에 그린 듯 부드러운 미소를 띠었다.

“그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피가 많았는데.”

“마땅히 흘려야 할 피였지요.”

“형이 잘못한 일이었어요?”

“인연에 대한 책임을 진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런 이야기는….”

그가 차이솔의 파트너를 보며 말을 이었다.

“차이솔 학생의 파트너를 먼저 소개해 준 다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차이솔이 화들짝 놀라 제 파트너를 보자, 이루다 예비 사제가 미묘하게 구겨진 얼굴로 차이솔을 보았다. 둘의 대화 주제가 워낙에 기묘한 탓이었다.

“지금에서야 내가 떠올랐다는 건 아니겠지?”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 항상 루다 생각을 하고 있었지!”

“너는 말을 그보다 조금만 더 예쁘게 하지 않았으면 크게 화를 입었을 거야.”

“형이 너무 반가워서 루다 소개해 주는 걸 까먹었을 뿐이야….”

“…….”

할 말이 많지만 내가 참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루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루다 예비 사제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매님. 부족하나마 태양의 빛을 받은 서지오라고 합니다.”

“태양의 빛을….”

이루다가 지오를 올려다보았다.

“혹시 사제이신가요…?”

새까만 망토 안에 입은 새하얀 제복도 그렇고, 무엇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자신을 ‘서지오’라고 소개한 남자는 햇볕이 내리쬐는 깨끗한 대리석과 같은 백금발에, 빛이 일렁이는 듯한 푸른 눈을 가졌다. ‘태양의 사제’를 떠올렸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다.

‘기운도 뭔가 일반인의 것은 아닌데.’

확실히 ‘태양의 빛을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따듯한 기운이 넘실거렸다. 이루다는 그에게서 신 특유의 거대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신에게 대단히 사랑받는 사제가 아니고서야 이런 건 힘들었다.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아, 이런. 저는 사제가 아닙니다.”

“...사제가 아니시라고요?”

“단지 태양을 모시는 신자일 뿐이지요.”

“그....”

무어라 반박하고 싶었지만, 낯선 어른인 데다 차이솔이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함부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다. 초면의 상대에게 조목조목 따지려 드는 아이를 좋아하는 어른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나중에 차이솔하고 조금 더 대화를 해봐야겠어.’

그런 이루다의 기분을 알아챈 것인지 서지오라는 사람이 빙긋 웃었다.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 더 물어보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처음 본 어른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이루다 자매님은 신중하고 예의가 바르시군요.”

이루다는 그 음성에서 영원할 것만 같은 안정적인 호의를 느꼈다.

“단것은 좋아하십니까?”

“...네?”

뜬금없는 말에 이루다가 반문하자 차이솔이 번쩍 손을 들었다.

“나! 나나! 나 좋아해요, 단거! 간식! 형이 주는 간식!”

“이토록 간식을 향한 열망이 강하니 이 사제의 마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서지오의 얼굴은 대단히 흐뭇해 보였다.

‘아, 닮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상적인 사제의 미소를 짓고 있던 남자는 상상 이상으로 쾌활한 웃음을 흘리며 차이솔의 볼을 주물럭거렸다.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은 그 행동에서 이루다는 애정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잉? 쪘어요!”

“이것보다 딱 15kg만 더 찌면 좋겠습니다.”

이루다는 끼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찌면 돼지예요. 얘 굴러다녀요.”

“돼지가 되어라 얍....”

“안 돼요.”

걷지도 못하고 데굴데굴 굴러다니는 차이솔 돼지를 떠올린 이루다가 식겁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서지오라는 사람은 정말 멀쩡한 애도 돼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의지가 느껴졌다.

머뭇거리던 이루다가 말을 이었다.

“…저는 단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간식 자체를 즐기지 않는 걸까요?”

“아뇨, 그건 아닌데….”

“선호하는 간식이 따로 있습니까, 이루다 자매?”

“…말린 약재.”

“아하.”

괴상한 소리였을 텐데도 서지오는 고개를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쓴 것을 좋아하나 봅니다.”

“그냥… 몸에 좋은 걸 씹는 게 좋아요. 그럼 입도 심심하지 않고.”

“벌써 자신의 건강을 생각할 줄 안다니 이 얼마나 영특한 자세입니까.”

“…….”

“약재의 가치를 아는 아이는 드물지요.”

숨 쉬듯이 쏟아지는 진심 어린 호의에 차이솔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루다야, 얼굴 빨개.”

“조용히 해, 차이솔.”

이렇게까지 적나라한 어른의 칭찬은 처음이었던 탓이다.

‘뭐 이렇게까지 오냐오냐해 주지?’

아이는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자란다는 인식이 팽배한 시대.

그로 인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여린 존재’가 아니라 ‘쉽게 죽기에 관리가 필요한 존재’로 보는 세상에, 지오처럼 어린아이에게 사근사근하게 구는 어른은 극히 드물었다.

‘어쩐지 차이솔하고 사이가 좋아 보이더니….’

역시 햇살은 햇살끼리 모이는 게 분명했다. 낯이 뜨거웠다.

그나마 차이솔은 함께 가야 할 친구이자 파트너이지만, 서지오는 누가 봐도 의지가 되는 어른이었다. 그런 존재에게 이토록 아무 이유 없이 예쁨을 받은 기억이 없는 이루다가 버벅거렸다.

“그, 그냥 도움이 되니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그게 아니라….”

“이루다 자매와 같은 아이가 차이솔 학생의 친구라 안심했습니다.”

서지오가 기특함을 가득 담아 웃었다.

“분명 이루다 자매라면 멋진 파트너가 되어 주겠지요.”

“…….”

“이토록 날이 좋으니,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서지오는 차이솔과 이루다에게 각각 작은 종이봉투를 선물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선물이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하셔도 좋아요.”

부드럽게 눈을 휜 그는, 곧 허리를 다시 세워 작별 인사를 했다.

“오늘은 태양교의 부름을 받아 잠시 들렀습니다. 가벼운 인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 더욱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나도 좋았어요! 형, 또 와요?”

“가능하다면 조만간 다시 한번 얼굴을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솔 학생의 안부는 보호자분들께 전달드릴 것인데, 이루다 자매.”

서지오가 이루다를 보며 자상하게 물었다.

“그대의 안부도 함께 전달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 저요? 누구에게?”

“차이솔 학생의 보호자들께 말입니다.”

“그걸 왜요?”

“이렇게 좋은 친구가 생겼다는 걸 알면 대단히 기뻐하시겠죠.”

“…어….”

입을 뻐금거리던 이루다가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매님.”

작게 목례한 서지오는 한 번 더 웃어주고는 그대로 정원을 나갔다. 등급이 높은 헌터인지 걸음걸이가 대단히 정갈하고 인기척이 거의 없었고 왜인지 좋은 향기가 났다.

“…….”

“지오 형 좋은 사람이지.”

“…응? 아, 그러네.”

저런 어른은 처음 봤다.

“원래 저렇게 다정하신가?”

“음, 어릴수록 예뻐해 줘.”

“요즘 세상에 저런 천연기념물이….”

“계속 궁금했는데 천연기념물이 뭐야?”

“온 우주의 도움이 없으면 곧 전부 죽을 생물들.”

“…나, 나도 천연기념물이라고 했잖아.”

“너는 내가 지켜.”

많이 비약된 설명이었지만, 이루다는 자신의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 온 세상이 힘을 모아 협력하지 않는 이상 천연기념물이라는 것들은 보존되기가 쉽지 않았다.

‘끼리끼리 모인다더니 그게 정말이네.’

세상에 차이솔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을 줄은 몰랐다.

‘그것도 그렇게 큰 어른이….’

모두에게 호의를 베풀지만, 특히 어린 것에는 더욱 애정을 주는 어른이라. 그런 건 허울 좋은 소설책에나 있는 줄 알았더

니 오늘 '와 그게 실제로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이루다는 제 손에 놓인 종이봉투를 매만졌다.

"......."

그 어떤 가치도 증명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당연한 호의.

'...여기서도 좋은 향기가 나.'

대체 왜 이런 선물을 줬는지, 또 언제나 그런 선물을 들고 다니는 것인지 궁금했지만,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간질간질해져서 이루다는 차마 봉투를 열어보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때 차이솔에게서 의문의 소리가 들려왔다.

"응? 이게 뭐야, 루다야?"

"왜, 뭔데."

"이거 고무야?"

"...아, 젤리네. 고무가 아니야."

"그럼 먹을 수 있는 거지?"

"당연히 먹을 수 있어."

젤리는 꽤 고가의 식품일 텐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선물로 주는 건가.

'직접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따로 상표명이 적혀 있지 않은, 리본으로 입구가 묶인 봉투였다. 수제품이라는 느낌이 물씬 풍겨오는 선물에 이루다는 몇 번 더 망설이다가 자신의 봉투를 열어보았다.

질 좋은 리본인지 매끄럽게 풀리며 그 내부가 보였다.

"......."

이루다는 고개를 갸웃 기울였다.

"...이게 뭐지?"

"너도 모르는 게 있어?"

"나도 배우지 않으면 몰라."

"으음...."

차이솔도 고개를 갸웃했다.

"꽃인가?"

"말린 꽃이긴 한데."

"먹을 수 있는 거야?"

"...정말 약재를 주신 건가?"

"으엑, 이거 약이야?"

"나, 나도 몰라."

그건 마치 양의 털처럼 몽글몽글하게 모여 있는, 금빛의 작은 꽃들이었다.

"......."

다만 이루다는 느꼈다.

'...태양이....'

태양의 여신께서 시선을 두고 계신다.

'아니 왜?'

뭐야, 이거 뭔데.

대체 뭘 줬으면 여신께서 탐내는 거냐고.

* * *

"헌터님."

교단 입구에서 대기하던 주현이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즐거운 방문 되셨습니까?"

"예, 태양교의 정원은 아름다웠습니다."

"태양교가 머무는 것은 그 전체가 온실이라더니."

"신전 지부 전체에 태양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멋진 광경이었겠습니다."

"그리고...."

주현의 안내를 따르며 지오가 말을 이었다.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강서담 사제님을 만나고 오셨다 했지요."

"차이솔 형제도 보고 왔고요."

지오반니가 온기가 느껴지는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좋은 친구가 생겼더군요."

"좋은 친구라...."

그의 말을 중얼거리며 주현이 뒷좌석의 문을 열려고 하자, 지오가 물었다.

"조수석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오와 주현은 나란히 차의 앞좌석에 탔다.

"이루다라는 자매였는데, 대단히 어른스러웠습니다."

"많이 예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죠. 아주 영특하던데."

"크게 될 아이인가 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근원의 눈인 '지오'가 이런 말을 할 정도라면 말이다.

"별일은 없으셨습니까?"

"15일 뒤에."

지오가 말했다.

"우림으로 가겠습니다."

"공략 제의가 들어왔나 보군요."

"마음에 듭니다."

"그렇다니 제가 다 기쁘네요."

주현이 물었다.

"우림을 좋아하십니까?"

"……."

어느새 창밖을 보는 지오의 머리칼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주 좋아해."

그건 아르지오의 집이고, 고향이자.

썩어 문드러진 거대한 무덤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63)"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64)

164

제164화

12시 정각.

"고향이라던 우림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유성운이 너무 바빠 참석에 빠졌음에도, 어김없이 복도 회의는 시작되었다.

"그곳 이야기를 할 때면 기분이 좋아 보이셔서."

"확실히 기분이 좋지."

화려한 가죽과 장신구로 치장되어 액자 바깥으로 늘어진 오늘의 지오는, 당연히도 아르지오였다.

"고향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닌가?"

"확실히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단어죠."

주현이 어색하게 웃었다.

"그보다, 그렇게 계시니까...."

"왜?"

"평소보다 더 무섭네요."

"......."

초상화에 반쯤 걸쳐 나와 테이블에 몸을 뉘고 있던 지오가 스르륵 일어났다.

"...무섭나?"

"전형적인 귀신 같아서."

"어떤 귀신이 나처럼 잘생겼다고."

"그건 맞죠."

하지만 '지오의 초상화'가 내뿜는 격은 그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압살해 버렸다. 수집상의 길드원 대부분이 '서지오 씨'가 잘생긴 걸 깨닫기 이전에 공포부터 느껴버리는 것이 그 증거다.

다만 이 부분은 말하기가 조금 미안해 주현이 얼버무렸다.

“그냥… 그렇다고요.”

“수집상 직원분들이 아직도 나를 무서워하나?”

“제가 한번 참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양심 없는 질문이라 말문이 열려 버리네요.”

“그래, 어디 한번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시지.”

“인간 흉내도 제대로 내지 않으시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길 바라는 건 너무 도둑놈의 심보가 아닐까요, 아르지오?”

인간으로서의 자아라 칠 수 있는 ‘지오’들은 가급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 부분을 신경 쓰는 것이 안쓰러워 발언을 삼가려니 참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신경 쓰이면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세상에 나만큼 친절한 귀신 들린 초상화가 어디 있다고 그런 너무한 말을 하는가?”

“그건 인정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투자 대비 너무 큰 결과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 이상 투자하면 그건 그냥 호구인데.”

“…그것도 확실히 반박할 수 없네요.”

주현도 지오가 어디서 호구 잡히지 않았으면 했다.

“사실 지금도 조금 과할 정도로 호의를 베풀고 계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안 하면 나는 그냥 무서운 초상화가 될 뿐이지 않나.”

“애초에 지오 씨는 그냥 무서운 초상화가 정체성인데 너무 큰 꿈을 꾸시는 게 아닐까요.”

“이러다가 파업해 버리는 수가 있어.”

“그건 좀 참아주세요, 본인이 일을 받아 오셔놓고 파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나는 그렇게 무책임한 놈이 아니지. 걱정 마시게나, 친구.”

손을 휘적인 지오가 다시 테이블 위로 늘어졌다.

‘거대한 호랑이.’

고양잇과에 속하는 짐승들이 딱 저런 꼴이긴 했다. 배부르면 따듯한 햇볕 아래에 늘어져서 자는 걸 좋아하는….

“그래서 대답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뭐가, 내 고향에 대해서?”

“예, 말씀하다가 마신 것 같은데.”

“전부 주현 씨께서 나를 혼내신 탓이 아닌지?”

“혼냈다기보다는 현실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게 혼낸 거지 무슨….”

길게 땋은 적발이 흐느적거리는 지오의 행동에 따라 함께 흐트러졌다. 머리에 장식한 갖은 금은보화가 달그락거리며 나무 테이블과 부딪혔다. 그는 테이블에 이마를 비비며 투덜거렸다.

“…….”

그걸 본 주현은 ‘지오의 초상화’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입수했다.

‘…아르지오는 화내거나 짜증을 낼 때 입는 옷인가 보군.’

이 초상화는 자비와 인내를 베풀 때는 지오반니의 형상을, 흥분과 분노를 토해낼 때는 아르지오의 형상을 취했다. 큰 교

류가 필요하지 않은 일상에서는 서지오의 형상이었고 말이다.

'조금씩 섞일 때도 있지만 역시 각자의 쓰임새가 있는 모양이야.'

그렇다면 이외의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지오'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걸까?

"…아르지오 씨께서는 24살이라고 하셨죠?"

"그랬지, 아마."

"아마?"

"따로 나이를 세주는 사람은 없어서."

"제가 죄송해야 할 타이밍인가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뭘 그러나."

아르지오는 테이블에 턱을 괴었다.

"나는 인간보다 짐승에 가까운 삶을 살았고, 내 주변에는 태어나길 짐승이었던 가족들뿐이었지. 나이 따위를 셀 생각이 없었던 놈과 셀 줄 모르는 놈들뿐이니 뭘 제대로 알겠어."

"따로 세볼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나중에야 내가 몇 살인지가 궁금해지더군. 원하는 걸 참는 성격은 아닌지라 바깥에 나가서 상황을 살폈고. 그래서 죽기 전에는 아, 내가 24살에 죽는구나 싶었다."

주현이 무언가를 더 말하기도 전에 지오가 선수를 쳤다.

"무엇보다 검은 숲은 날짜를 세기에 적합한 장소는 아니야.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전부 어두우니 시간을 잴 수가 있어야 말이지. 인간 체면 다 버려두고 짐승처럼 살던 어린아이에게 날을 셈할 정신 따윈 없었다네."

그에 주현이 물었다.

"내내 어둡기만 한 숲이었던 건가요?"

"그래,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없는 장소였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들어가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 미쳐버리겠네요."

"그보다 먼저 사특한 짐승들과 지독한 독에 당해 죽을걸?"

흥미가 들었는지 지오의 얼굴에 특유의 샐쭉한 미소가 그려졌다.

"고향에 대해 궁금하다고 했나?"

"그리고 그 고향이, 음. 검은 숲이라고 불렸나 봅니다."

"바로 그거일세. 잘 이해했군, 나는 검은 숲에서 자라왔지."

그곳은 꽤 아르지오의 성미와 잘 맞는 곳이었다.

"일단 해와 달이 없는 곳이라는 이야기는 했고."

"그건 정확히 어떤 이야기입니까? 무슨 원리로 낮밤을 구분할 수 없나요?"

"검은 숲의 나무는 대단히 두껍고 키가 커. 그 이파리는 울창하고, 그래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거야."

"다른 기후 변화는 있었습니까?"

"글쎄, 가장 흔한 사례는 비가 내리는 것이었다."

"하긴 우림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말한 주현이 무언가 의아한 듯 고개를 기울였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는 숲에,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정도라면 아예 하늘과 숲이 분리된 수준일 텐데?”

아르지오가 만족스럽다는 듯 웃었다.

“잘 생각해 냈네, 친구. 그 정도로 울창한 우림에, 제아무리 거창한 폭우가 쏟아진다 해도 몇 방울이 고작이겠지. 다만 검은 숲은 그렇게 내린 빗물을 모아두었어.”

“빗물을 모아둬…?”

“그러고는 시시때때로 그 빗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유는 다양해. 어느 거대한 짐승이 발을 굴러서, 어느 나무가 충격을 받고 기울어져서, 혹은 이파리에 짐승들이 앉아서….”

“전부 짐승과 관련된 문제 같습니다만.”

“그 비는 결국 검은 숲의 짐승들이 만들어낸 비였다네. 빗물은 고여 있는 동안 갖은 동식물의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짙은 독성을 띠었지. 면역이 없다면 살이 썩고 뼈가 문드러져.”

“던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주현의 말을 긍정하듯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또한 숲 기온이 과하게 올라가면 안개가 깔렸다. 검은 숲의 동식물에서 분비된 갖은 독성 물질과 끔찍한 늪에서 기인한 안개는 그림자처럼 검었는데, 그곳에 갇히면 채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어.”

“…….”

“또한 시야가 어두워지니 길을 가다 위험한 짐승을 마주쳐도 모르고, 양옆에 어떤 함정이 설치되어 있어도 몰랐지. 내가 딛는 걸음 아래가 땅인지 늪인지도 알 수 없었어.”

검은 숲은 그런 곳이었다.

“작은 동물도, 한미한 벌레나 말할 줄 모르는 식물조차 지독하지 않고서야 살아남지 못하는 곳. 그런 곳이니 결국 남아 생태계를 이루는 건 그 지독한 괴물들뿐이었다네.”

지오가 픽 웃었다.

“온갖 괴담의 근원인 이유가 있었던 셈이야.”

“…괴담이라….”

“그곳에 멀쩡히 살아 있는 두발짐승이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그게 당신이 악명을 쓰게 된 이유입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아르지오 씨는 대체 어떻게 살아남으셨던 거죠?”

주현은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얼굴로 물었다.

“아주 어릴 때 그곳에… 남겨졌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나는 검은 숲에 버려졌지.”

아르지오에게 그건 인생의 전환점이었지만, 크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제법 즐거웠어.”

“어째서요? 검은 숲으로 향할 때 무섭진 않으셨습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느꼈던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개돼지들 사이보다는, 참 재밌어 보여서.”

“평소에는 저희를 돼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느니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하는 돼지가 언제나 칭찬일 수는 없는 법이지 않겠나?”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건 명백한 욕인가요?”

“정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화려하게 치장하면 제가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라도 되는 줄 알던 그 머저리들.

“그런 멍청하고 귀여운 꼴을 보는 것도 꽤 즐거웠지만 말이야.”

“…멍청한 건 그렇다 쳐도, 귀여웠나요? 어디가?”

“아마 말해주어도 나에게 공감해 주지는 못할 듯한데.”

“이해라도 해보려고요.”

“나는 그런 자네의 자세를 아주 좋아해.”

아르지오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지금도 강아지나 고양이는 자주 키우는 반려동물인가?”

“반려동물로 인기가 있는 건 그 외에도 파충류나 벌레들이 있죠. 물고기도 있고.”

“그래, 만약 자네가 길을 가다 길가의 꽃을 꺾어 자신을 치장하는 새를 보았다고 하자.”

“아, 예. 꽃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새요.”

“아니면 재잘재잘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떠드는 고양이나.”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떠드는 고양이….”

“내 앞까지 와서 장난감을 자랑하는 강아지 같은 거.”

“…….”

“어때.”

그가 물었다.

“귀여운가?”

“…귀여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주현은 아르지오의 말을 알아들었다.

“세상이 그런 식으로 보이셨던 겁니까? 인간이었을 때도?”

“나는 지금도 인간이야. 초상화라고 차별하면 매우 곤란해.”

“아, 그렇죠. 아무튼 평범한 인간이셨을 때도 그런 관점이셨던 건가요.”

“내 관점이 뭐가 어때서 그런가?”

“그야… 그….”

혹시 몰라 주현은 자신이 이해한 게 맞는지 다시 점검했다.

“그러니까 지오 씨는 자신을 치장하고 헛소리를 떠들거나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새나 고양이나 개처럼 보였다는 거군

요. 그렇죠?"

"잘 이해한 것 같아서 기쁘오, 내 명예로운 친구여."

"퍽 부정적으로 묘사하셨던 걸 떠올리면 그다지 좋은 마음과 좋은 행실을 보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갑질 비슷한 무언가였던 것 같은데, 그게...."

주현이 물었다.

"귀여웠습니까?"

"멍청한 건 귀엽지 않은가?"

"어릴 적부터 참 남다르셨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내가 워낙 특별한 사람인지라."

아르지오는 샐쭉 웃었다.

"자기가 인간인 줄 아는 강아지는 참으로 귀엽지."

"거기에 비유하면 화낼 사람들이 좀 많을 텐데...."

"물론 둘이 완전히 같다는 게 아닐세, 다만 자네를 이해시켜 주고 싶었을 뿐."

"이해를 돕는 예시로 그 둘을 같은 선상에 올린 것부터가 조금 불편합니다."

"...역시 그런가? 그 개돼지들에게는 과분한 예시인 것을 인정하네만...."

몸을 일으킨 지오는 자연스럽게 초상화 안으로 들어갔다. 테이블에 길게 늘어져 있던 새빨간 머리카락이 사라지니 주현은 허전함마저도 느꼈다. 초상화가 말을 이었다.

"검은 숲에는 늘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했다."

"...보물들입니까? 갑자기?"

"자네가 나의 고향을 묻지 않았어."

"그러기는 했죠."

"그곳엔 금은보화가 넘쳐났지."

"......."

"독은 약이며, 또 보물이 되어...."

그 미소는 무거웠다.

"시체 위에 피어났다."

기분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알 수 없는 차분하고 묵직한 미소.

"이번에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우림을 어서 찾아가 보고 싶군."

"...확실히 말씀해 주신 던전과 닮은 것 같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인데, 그곳이 나의 고향은 아닐 터이니 걱정은 말고. 전혀 다른 차원이야."

"그렇게 말해주셔서 안심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주현이 말끝을 흐렸다.

"......."

그가 곧 물었다.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놀러 가고는 싶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신 건 아니고요?"

"지나간 일에는 미련을 두지 않아."

"그렇군요."

"난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고."

또한.

"그로 인해 죽었다."

주현은 그 미소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65)

165

제165화

주현은 종종 그 거대한 신비를 동정했다.

"......."

지오의 초상화.

"...하아...."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건 주현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분수에 맞지 않는 크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있던 주현은 결국 잠에 들지 못하고 일어났다. 정신은 선명했지만 혹시나 잠이 올지 모르니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주방에 가서 물을 마셨다.

"......."

달그락.

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이럴 주제가 아닌데."

시원한 물을 마셨음에도 답답한 속은 해결되지 않는다.

'감히 신비를 동정하다니.'

신성이란 사랑하는 사제에게 순수한 애정을 표한 결과로 그를 영겁에 갇히게 하거나, 지혜를 빈다는 이유로 모든 지식을 잃고 백치로 만들 수도 있는 존재였다.

주현이 동정하는 대상이 지오가 아니었더라면, 그가 스스로를 인간이라 여기며 자비를 베풀지만 않았어도, 그는 건방지다는 이유로 천벌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애초에 지오 씨가 아니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겠지.'

인간들이 거대한 신비를 동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혹은 눈에 띄어 재난을 겪지 않기 위해서도 있지만, 애초에 동정이라는 감정을 품을 수 없기 때문도 있었다.

그 누가 수많은 사람을 잡아먹은 태풍과 해일을 동정하겠는가. 저 멀리서 빛나는 은하수가 외롭다며 가엽게 여기겠는가. 다만 그렇게만 생각하기엔 이 지오라는 사람이....

“…….”

그는 사람조차 아닌데, 이토록 나와 같은 존재라 여겨진다.

“…제발 주제넘은 일을 하지 말자.”

주현이 경시되는 기타 고아원 출신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벌였던 건 그게 더 많은 이를 행복하게 만들리란 확신이 있어서였다. 하지만 지오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나?

‘그는 이미 행복해.’

이야기를 들으면 안다. 얼굴을 보면 안다. 그 음성을, 손짓을 보면 안다. 그 초상화가 품고 있는 수많은 ‘지오’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고 그에 따라 죽었다.

그걸 감히 동정해서는 안 됐다.

“…….”

그럼에도.

“내가 미친 거지.”

어떻게 그를 가엽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고작 24살이었는데.’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번뇌는 끈질기게 그를 붙잡았다.

‘고작 29살이었고, 32살이었어.’

인간의 수명은 차원에 따라 다양하다. 협회 연구원이었던 주현은 그것을 안다. 평균 수명이 50세였던 곳도 있고, 500세였던 곳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20대에서 30대 초반. 모든 ‘지오’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다. 그들은 막 인간의 삶에 익숙해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 할 때 죽음을 맞이했다.

‘이게 어떻게 불쌍하지 않을 수 있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다른 무엇도 아닌, 가장 익숙한 품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을….’

주현은 의식적으로 숨을 내뱉었다.

“…….”

새벽 4시.

“…유성운 씨는 이때쯤 미팅을 한다고 했던가.”

괜히 생각을 다른 곳을 돌려본다.

‘그래, 유성운 씨를 생각하자. 그분을 본받아야 해.’

신비는 신비다. 그것이 아무리 인간의 형상을 취하고 있다 해도 본질이 같지 않다. 인간의 삶을 흉내 낸다 해도 그것은 단지 유희일 뿐 스쳐 지나가는 순간의 즐거움에 불과하다.

유성운은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지오의 초상화’가 어떤 과거를 가졌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하나의 ‘작품’으로서.

“…….”

다만 그것이 역하게 느껴진다면 역시 내가 미친 걸까.

“…정말….”

유성운은 그 초상화가 근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사람으로 치자면 눈에 해당하고, 또 근원은 모든 생물을 공평하게 사랑하기에, ‘지오’는 계속해서 생을 겪는다고.

혹시 그렇기에 지오는 늘 가장 높은 하늘과 가장 낮은 진창을 겪게 되는 것일까.

‘그래야 근원이 인간에 대한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으니까?’

뭐든지 될 수 있는 새까만 도화지.

“…정말, 쉽지가 않네.”

신비의 친구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걱정 하나도 쉽게 해줄 수가 없으니.”

주현은 지오에게 감사하고 있다.

신비에 대해 모르지 않는다. 신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지오는 사람으로서 친구가 되기를 청했고 동시에 친구로서 호의를 베풀었다. 주현은 그것에 고마워하고 있었다.

이따금 지오는 그 나이대 청년처럼 유치하게 굴고 또 웃는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라면, 나중에는 대체 얼마나 더 막막해질까.’

단지 몇 번 ‘사람’처럼 구는 모습을 보았는데도 이렇게나 속이 꽉 막혀 버린다면 말이다.

“…….”

깊은 한숨을 내쉰 주현이 침실로 돌아가며 중얼거렸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인가.”

유성운 씨의 조언을 구해야 할 것 같았다.

* * *

“A급 던전, ‘지하의 네발 우림’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성운은 비사벌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유형은 별장 던전, 위치는 강원도 삼척 환선굴 지하이고, 참가하는 길드는 태양교와 수집상을 제외하면 총 3곳입니다. 은월과 해령, 대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태양교가 주관하는 행사라 그런지 전부 그럴싸한 곳이군요.”

“태도가 좋은 곳으로 유명하죠. 특히 은월은 태양교와 이미 여러 번 협업을 한 길드이니 신뢰도가 더욱 높을 것 같습니다. 교단 내부 인력의 12%를 구성하는 길드이기도 하고요.”

교단 본부라고 해서 사제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시종과 시녀들도 있었고, 식사를 담당하는 주방 인력이나 각종 시설의 관리자들도 있었다.

길드 ‘은월’은 태양교와 달님교에 그러한 인력들을 충원해 주는 역할을 꾸준히 해왔다. 그만큼 종교와 연관된 신자들의 수가 많았고, 기본적으로 힐러의 수가 많은 유명 길드였다.

“은월이 나섰기에 혹시 달님교와 엮인 문제가 있나 싶어서 알아봤습니다만, 그쪽은 딱히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토벌에 손을 쓸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달님교 사정이라면 내가 조금 압니다.”

비사벌이 빙긋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쪽 성녀님께 문제가 생겨서.”

“제가 알아도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군요.”

“광증이 오고 있다나….”

“제발 알려주지 마세요, 잊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난 그렇게 기억력 나쁜 길드원을 둔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유성운은 진절머리를 냈다.

“요즘 공부를 좀 하고 있다 해도 저는 종교 전문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딱히 해결해 달라는 건 아니고.”

“제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 다 압니다.”

“뭐, 그 부분은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당장 달님교 성녀님이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비사벌이 물었다.

“나머지 두 길드의 분위기는 어떻고.”

“해령은 익히 아시는 대로 재밌는 싸움판이 있다는 소식에 신이 났고….”

“유명한 불나방들이지.”

해령은 길드원들이 하나같이 생명력 넘치는 길드로 유명했다. 말이 좋아 생명력이 넘치는 거지, 대놓고 말하자면 쌈닭들이 모인 길드였다. 그만큼 고통 내성도 독 면역도 좋아 쉽게 죽지 않는 지독한 전사들의 집합소였다.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대청은 묵묵합니다. 안정적인 일감을 물어 온 것에 만족하는 느낌이죠.”

“대청은 전형적으로 유능한 길드이니 말입니다.”

대청은 특별히 눈에 띄는 길드는 아니었다. 꽤 상위권인 길드임에도 이번에 참가하는 다른 길드들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지만, 그들의 강점은 바로 ‘안정감’에 있었다.

“어디를 가든 기본은 하죠.”

3대 길드처럼 괴악한 능력자들이 있지도 않고, 은월처럼 정신적인 무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해령처럼 전투에 미친 길드도 아니었지만, 어딜 가든 기본은 한다. 그게 대청의 강점이었다.

비사벌이 웃었다.

“교에서 신경을 많이 썼나 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공략을 원한다는 거겠죠.”

“나쁘지 않은 인력을 끌고 갔음에도 공략에 실패한 던전이니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너무 과하게 인력을 투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작년에 그런 테러 사건도 있었는데 그럼 과하셔야지.”

태양교와 달님교는 종교계를 대표하는 두 개의 기둥으로, 상생 관계이자 경쟁 관계였다.

그러나 작년 ‘심해의 나라’ 사건으로 태양교가 한번 휘청거리며 위세가 많이 꺾였으니 태양교로서도 두 번의 공략 실패는 최대한 피하고 싶을 것이었다.

그에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아보니... 등급과 별개로 꽤 까다로운 던전이더군요.”

가짜 달과 태양이 제 마음대로 떴다 사라지기를 반복해 시간대 구분이 어렵고, 우거진 식생 대부분이 공략자를 공격하거나 독을 내뿜는다. 게다가 그 형태가 날카로워 스치기만 해도 살이 썰린단다.

“식물도 식물이지만 여기 등장하는 네발짐승 형태의 몬스터들이 아주 호전적이라고 합니다. 두 발로 걷는 모든 것을 적대하며 없애려고 든다고 하네요.”

“인간도 네발로 걸으면 봐주나?”

“봐주는 대신에 같은 네발짐승으로 만들어 버린답니다. 대상이 생전에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에 따라 변하는 짐승의 형태가 다르다던데, 흥미로웠습니다.”

“주장이 제법 강한데, 근원과 가까운 던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정원사 한 명이 함께 간다고 하더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인맥으로 알게 된 것인데, 은월 소속의 정원사입니다.”

정원사는 정부와 협회의 소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각자의 스승에게 정원을 물려받아 일종의 가업처럼 각자의 방식대로 저만의 책임을 지며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은월 소속의 정원사도 그중 하나였다. 유성운이 수집상 소속의 큐레이터인 것처럼 그녀 역시 은월 길드 소속의 길드원이었다. 정원사는 보기 드물지만 어디에든 존재했다.

“근원과 가까운 던전이면 귀한 자료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은월 소속의 정원사는 길드장이 그 정체를 모른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죠, 그냥 부업 같은 거잖습니까.”

대부분의 길드원은 투잡 쓰리잡이 합법이었다. 유성운처럼 자신이 정원사임을 스스로 밝혀 주위에서 그 사실을 아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은월 소속의 정원사처럼 자신이 정원사임을 굳이 알리지 않았다.

애초에 근원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적은데 무슨 귀찮은 짓을 당하려고 다 설명한단 말인가. 유성운도 비사벌의 집착만 아니었더라면 알리지 않았을 것이었다.

“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유성운은 정원사로서 말했다.

“여러모로 안정적인 환경이지 않습니까, 지오의 첫 공략으로.”

“유성운 큐레이터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비사벌은 지루하다는 얼굴이었다.

“이 정도면 신경 많이 썼죠.”

“근원의 눈을 인간들 사이로 보내는데, 사실 이 정도도 모자란 겁니다.”

“하지만 서지오 씨가 어디 가서 말썽 피울 성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쯧, 혀를 찼다.

“이렇게 유능한 일꾼들이 많아서야 우리 서지오 헌터가 날뛸 환경이나 될지 모르겠군요.”

“그러니까 맹수 스트레스 해소시키려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르지오 씨께서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겠습니까? 마땅한 전쟁터도 구해주지 않은 마당에....”

“그런 상황이 아니래도요?”

하지만 이번 공략의 목적은 명확했다. 아르지오는 '서지오 헌터'로서 인간 세상에 자리매김을 하고, 수집상은 그런 '지오의 초상화'를 관찰하며 그의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의 폭력성은 어느 정도인지, 호의는 어떻게 드러날지, 인간들과 어떤 식으로 협업할지, 결국 아르지오가 원하는 전투라는 건 어느 정도인지. 대련으로 만족하는지, 준비된 전투로는 괜찮은지. 아니면 정말 순수한 혈투밖에는 답이 없는지 등등....

"그런 흥미로운 행사에 유성운 큐레이터도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물론 저도 가고는 싶죠, 가고는. 다른 누구도 아닌 지오의 첫 공략인데...."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다. 유성운은 유능한 헌터이자 정원사로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많았고, 그 탓에 지금도 밤을 샌 지 벌써 5일째였다.

"이런 형편 없는 상태로 공략에 참전하려고 해봤자 교단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지오의 선물로 회복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번 기회는 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비사벌이 샐쭉 웃었다.

"서지오 씨도 유성운 큐레이터의 품에서 슬슬 독립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작품은 큐레이터에게서 독립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위태로운 지구 무너트릴 일 있나."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수집상에서도 서지오 헌터 한 명만 보낼 수는 없죠."

"무슨 당연한 말씀을 그렇게 선심 쓰듯이...."

유성운은 황당해했다.

"근원을 내보내는데 정말 혼자 보낼 생각이셨습니까?"

"나도 위험한 거 압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붙이려고 하잖아요. 호위 인력."

"호위가 아니라 감시 인력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보다는 수발들 인력에 가깝다고 해야 할 테지만...."

"너무 편애하시면 지오가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그래서 큐레이터는 한 명만 넣어보려고 합니다."

"아."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5층장을 보낼 생각이십니까?"

"층장 중에서 가장 곱게 미쳤거든."

"작품 사랑이 출중한 사람이죠."

"나머지는 수습 팀이랑 현장직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딱 적당하네요."

"그렇지요?"

비사벌이 씩 웃었다.

초상화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 기대가 되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65)"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66)

166

제166화

“지오가 사람으로 보인다고?”

유성운이 말을 정정했다.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이신다고요?”

“말씀을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지오 씨에게 하시듯이요.”

“...내가 어릴 때 좀 못 배워서 그런가 반말이 더 익숙해. 안 좋은 의미는 아니니 고깝게 생각하진 마시고.”

“유성운 씨가 좋은 분이라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 그래? 좋은 분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렇게 봐주면 고마운 일이지.”

3살은 더 어린놈이 대놓고 반말을 하겠다는데 참 속이 좋기도 하다.

‘길드장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을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바른 생활 인간이란 말이야....’

제 상관을 향한 찝찝함을 그대로 넘긴 유성운이 가볍게 웃어 보였다.

“아무튼, 이거 참 독특한 상담이네.”

비사벌과의 회의를 마친 유성운은 오랜만에 집에서 푹 자고 일어나, 이웃사촌인 주현의 안부를 물으러 그의 집에 방문했다. 사실 들어올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주현이 이끌어 이렇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하기도 하고.”

주현이 건네준 차를 마시던 유성운이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깜박였다.

“...어어, 잠깐만. 이거 지오가 준 차인가?”

“아, 예. 바스람꽃으로 만든 차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먹고 죽지는 않겠지.”

치명적인 요소가 들어 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마시자.’

그간 유성운이 느낀 점이 있다면 ‘지오의 초상화’는 어지간해서는 인간의 정체성에 손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유성운

보다도 오랫동안 초상화 속에 있다 나온 주현마저 아직 인간이지 않은가.

‘뭐, 검사 결과가 그렇다고는 해도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최소한 인간들의 관점에서 주현이 아직 ‘인간’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했다.

‘그러니까 차 좀 마신다고 내 정체성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을 거다.’

5일을 밤새고 잠들었다가 막 깨어난 탓에 정신이 없었다.

조금 더 멀쩡한 상태였다면 이보다는 깊게 고민을 해봤을 테지만, 모시고 있는 정원의 영향을 온몸으로 받는 유성운으로선 이렇게 신체를 따듯하게 해주는 약이 달가울 수밖에 없었다.

‘역시 지오의 선물은 대단하네.’

특히 잠을 자고 일어날 때의 유성운은 더더욱 몸이 차가웠다.

“…이거 맛있다.”

“그렇죠? 곡물처럼 고소한 향이 나서 좋더라고요.”

“어디서 살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조만간 초대해 달라고 졸라봐야 하나.”

“너무 많이 마시면 좀 더워지던데….”

“나는 원래도 몸이 찬 편이라서.”

아무래도 몸을 따듯하게 해주는 효과가 강한 걸로 봐선, 일반인인 주현보다는 헌터이자 정원사인 유성운의 체질에 더 잘 맞는 약일 것이었다.

“어디 한번 볼까.”

[태양의 별] [등급: –]

‘숨 쉬는 바다’ 태초에 자생했던 ‘바스람꽃’으로 만든 차. 멸종 상태였으나 운명의 수맥에서 복원되었다. 숲의 주인인 지오가 살아 있는 물의 둥지에서 자식과 함께 사랑으로 키워냈다. 그가 직접 공정하여 인간의 신체도 받아들일 수 있다. 영혼에 생명과 온기를 불어넣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

“아, 방금 감정하신 건가요?”

“…헌터가 감정하는 건 처음 보나?”

“제가 있던 연구소에는 감정사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감정사라는 호칭은 오랜만에 듣네. 하긴, 나도 따지자면 감정 자격증을 따긴 했지.”

가볍게 대화하며 유성운이 무던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몸에 나쁘지는 않아.”

“…….”

“긴장하지 말고.”

“이미 버린 몸이긴 하지만….”

“뭘 벌써 체념하는 거야.”

근원의 눈에게 너무 많은 보살핌을 받고 온 주현의 상태를 걱정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 때문에 유성운을 비롯한 수집상에서 직접 검사를 진행해 봤지만, 정말 다행히도 아직 주현은 멀쩡한 인간이 맞았다.

“…….”

검사 결과는 말이다.

"…지오가 주는 선물에는 공통적인 문구가 있어. '숲의 주인인 지오가 직접 공정하여 인간의 신체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아마 지오가 인간을 배려하는 방법 중 하나겠지."

그의 손을 거친 식재를 먹으면 근원의 존재로 변이될 걱정은 없었다. 최소한 유성운이 판단하기에는 그랬다.

"다른 걱정이 있다면 좀 과하게 건강해지진 않을까 하는 점인데…."

"수명이 늘어난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봤자 요즘 세상에 장수하긴 힘들잖아."

평균 수명이 60세인 세상이었다.

"그나마 나나 우리 길드장님같이 높은 등급의 헌터들이 좀 장수하긴 할 텐데, 신체의 튼튼함과 별개로 헌터들은 단명하기 딱 좋은 직업이야. 그 옆에 붙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반쯤 불로불사가 될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싶네."

"…그러니까 수명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든 어차피 인위적으로 사망할 테니 걱정 마라?"

"무엇보다 지오는 자기 욕심으로 애꿏은 인간을 근원의 존재로 바꾸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칙만 잘 파악하면 오히려 인간보다 믿음직해지는 게 근원의 존재였다. 지금까지 지오에 대해 파악한 바로, 그가 인간들을 해칠 일은 어지간하면 없을 것이었다.

"그보다 나는 주현 씨의 생각이 정말 놀라운데."

따듯한 머그 컵을 내려놓은 유성운이 눈앞을 가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평소에는 깔끔하게 핀을 꽂고 다니는데, 가볍게 방문하려고 했던 탓에 몰골이 참 말이 아니었다.

"지오가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이지?"

"말 그대로 '지오의 초상화'가 사람으로 보이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이야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거라고는 하지만 확실히 특이한걸."

"…건방지다는 생각은 계속했어요. 말도 안 된다는 생각도요."

주현은 제 몫의 잔을 매만지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계속 지오 씨가 그냥…."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다고?"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요."

"음."

호록—.

꽃차를 마신 유성운이 물었다.

"홀린 건가?"

"저도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아, 아니네. 홀린 건 아니야."

"…그런가요?"

"명색이 감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의 상태는 유성운 자신의 스킬로 점검이 가능했다.

“적어도 내 눈에는 멀쩡해 보여.”

이 경우 답은 하나였다.

“그냥 주현 씨가 그 녀석을 인간으로 보는 모양이지?”

“제가 그렇게까지 용감한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오가 전통적인 신성이었다면 성자로 간택당했을 거야.”

“…예? 성자요?”

“최소한 교주 정도는 했겠네.”

“왠지 사이비 같은데요.”

“딱히 사이비라 하기엔… 엄청 전형적인 흐름이거든.”

차원 대부분의 성자와 성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성자와 성녀가 대충 어떤 사람들인지는 아나?”

“남들이 아는 만큼은 압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의… 수양 자식 같은 느낌 아닌가요?”

“그렇지. 그리고 꼭 자식이 아니더라도 친구의 형태를 띨 때도 있어.”

“…그건 처음 들어봅니다.”

“성자와 성녀가 흔한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지구에는 예시가 적지.”

종교 쪽은 유성운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지만, 지오가 태양의 신성을 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꾸준히 공부를 하는 중이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해줄 수가 있었다.

“이런 성인(聖人)들은 보통 인간의 몸으로 신과 유대 관계를 쌓은 이들을 말해.”

“신과 유대 관계를 쌓을 수가 있나요? 그건, 좀… 불경하게 들리는데?”

“불경한 건 그게 신성을 향한 인간의 일방적인 공세였을 때고.”

성인은 그런 불경자들과는 경우가 완전히 달랐다.

“이건 양쪽에서 유대를 주고받는 거야. 신은 인간을 향해 신뢰와 사랑을 퍼붓고, 인간도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감당하고 또 그에 걸맞은 신뢰와 사랑을 되돌려줘. 평범한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하는 것처럼.”

“…그게 가능한 일이었군요….”

“정말로, 정말 아주 드물게 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성자와 성녀의 수가 대단히 적은 거고. 보통의 인간은 단지 신의 음성과 호의를 받기만 해도 큰 부담을 받는데 이건 거기에 더해 되돌려주기까지 하잖아. 신도 거기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유독 한국에 그 수가 많을 뿐,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성인들의 수는 채 20명이 넘어가지 않았다.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현시대의 종교 수를 따져보자면 성인의 존재가 얼마나 희귀한지를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성인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야. 괜히 교단에서 자기들의 성자 성녀를 물고 빠는 게 아니지. 그들은 단지 살아 숨 쉬는 것만으로도 신의 사랑을 증명함과 동시에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들의 창구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성인들은 교단 내에 처박혀 신탁을 해석해 주거나 신의 저의를 알려주는 역할을 맡는다. 그 설명을 들은 주현이 고개를 기울였다.

“그럼 성인이 없는 교단에서는 어떻게 신의 뜻을 읽을 수 있나요?”

“못 읽어, 대부분은.”

“아.”

“내가 알기로는 둘 중 하나던데.”

유성운이 손가락을 폈다.

“하나는 아예 오래된 신의 기록과 성경을 통해 자기가 모시는 신의 저의를 해석하는 거지. 소통이 안 되는 만큼 과정이며 결과도 불확실하고 신도들의 충성심도 떨어져.”

“다른 경우는요?”

“나머지 하나는 그나마 성력이 충만한 사제들이 왕창 모여서 신탁을 받으려고 애쓰는 거야. 의식을 행하거나 종교 행사를 주관하거나 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한다거나….”

“무슨 기우제도 아니고…?”

“그만큼 신과 소통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괜히 교단 내의 장로들이 대접받는 게 아니라고. 그들은 그만큼 자신들의 신과 가깝기 때문에 내부에서 존경과 대우를 받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하는 게 바로 성인이지.”

그러니 경제적인 면에서도 사제들은 교단의 성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의식을 행하고, 행사를 주관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 모든 투자를 생략하게 해주는 장본인 아닌가.

“그렇다고 모든 종교에 성인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애초에 신을 가족이나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그릇은 극히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있는 교단은 종교계에서 우대받고 선망을 받아.”

“우대와 선망을 받는다고요?”

“신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소통이 가능할수록 그를 모시는 인간들은 자기 신의 은총을 더욱 적나라하게 받을 수 있어.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신성이 제 신도들을 위해 금광의 위치를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어… 정말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나요?”

“이건 예시일 뿐이야. 아무리 멍청한 신도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이니, 그들의 지혜 중 일부분을 빌리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교단은 번성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신성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에 성인은 종교계에서 대단히 귀한 대접을 받는다.

“신이 크게 배려하지 않았는데도 그 목소리와 손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잖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교단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야.”

그에 주현은 의문을 품었다.

“거의 인간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 그럼 성인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성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인도 있고.”

공부를 해보니 성인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듯했다.

“그냥 처음부터 신성이고 나발이고 아무거나 잘 받아들이는 거대한 그릇의 성인이 있는가 하면, 오로지 하나 또는 몇 개의 신성만 감당이 가능한 성인이 있어. 그도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성인으로 길러져 수많은 시험과 고난 끝에 성인으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고.”

“…그건….”

“내가 알기로 달님교의 성녀님께서 이 마지막 경우야. 달님교는 한 세대의 성인이 나올 때까지 꾸준히 자질이 되는 아이들을 입양하고 길러내. 뭐,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많다고는 하던데.”

“…….”

주현은 충격을 받았다.

“…달님교에서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요즘 세상에 뭐 그리 대수로운 일도 아니잖아?”

길가의 빈민으로 남거나 한낱 인간의 아이로 살 바에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신의 가족이 되길 원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는 넘쳐났다. 그렇기에 달님교의 신도, 그곳의 사제들도 이런 교육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죽지 않았지만 성인이 되지 못한 대다수의 아이들은 달님교의 사제가 되어 일하게 돼. 그러니 달님교의 입장에서도 큰 손해는 아닌 셈이야. 이들은 대재앙 때부터 이런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관습이라고 봐야겠지.”

다른 종교에서 이런 교육을 도입하려면 쉽지 않을 것이었다. 달님교는 아주 예전부터 이러한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교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지, 어지간한 종교는 그럴 심지도 역량도 부족했다.

“취직의 개념으로 따진다면 몹쓸 일도 아니잖아?”

“…확실히 헌터들도 목숨을 걸고 일하죠. 위험한 관습이라고 비난하기에는 이미 위험한 세상이기는 해요.”

“달님교에서도 성인이 되기를 강요하는 게 아니야, 그냥 부추기는 거지.”

“하지만… 그게 그거 아닙니까? 보호자가 부추기면 입양된 아이들은 부담을 느낄 겁니다.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최소한 요즘 세상에 그리 나쁘지 않은 보호소라는 개념이 크기도 해. 무엇보다….”

유성운이 무언가를 가늠하듯 눈을 굴렸다.

“신의 아들이나 딸이 될 기회를 어디에서 얻겠어?”

부모가 있든 없든, 집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자질이 있는 모든 아이에게 신의 가족이 될 기회를 주는 종교는 달님교가 유일했다. 결국 당사자들도 그 영광을 위해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전부 합의하에 진행되는 일들이야. 그래서 달님교의 사제들은 전부 성인 후보라는 이야기도 있어. 모두 성인이 될 자질을 일정 이상 품고 있는 인간들만이 모이기 때문이지.”

주현은 조금 심기가 불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유성운이 무던하게 웃었다.

“역시 마음에 안 드나?”

“…그냥 조금, 속이 안 좋네요.”

“속만 안 좋은 게 맞아?”

“가끔 종교계의 맹목에 질릴 때가 있어서요.”

“그 부분은 나도 동의를 하지.”

유성운이 아직도 따듯함이 유지되는 차를 홀짝였다.

“이 차 정말 맛있다.”

“그렇죠?”

“아직도 따듯하고.”

“머그 컵이라 오래 가는 것도 있겠지만, 차의 특성 같기도 해요.”

“이렇게 특별한 약이 한순간에 팍 식어버리는 것도 웃기긴 하겠네.”

가볍게 차의 온기를 칭찬한 유성운이 다시 말을 이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성인들은, 물론 그것도 대단히 희귀한 거지만… 역시 천성적으로 성인이 된 이들과 달리 몸의 부담이 큰 것 같더라고.”

“아….”

"반쯤은 인간이 아니게 된다고 해야 하나. 사실 선천적인 성인이라 하더라도 아무거나 막 받아들일 수 있는 체질이 아니고서야 부담이 없을 수는 없겠지."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서 따졌을 때 지오는 주현 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다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그 뭐냐, 평범한 인간이 신의 가족이 되는 전형적인 지름길이라서."

"…네?"

유성운의 민트색 눈이 주현을 분석하듯 훑었다.

"신성은 인간을 동등하게 대하고, 인간도 신성을 동등하게 대하는…."

"…어라."

"그래, 지금 주현 씨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가 않단 말이지?"

"저는 무교인데요…?"

"그건 지오도 마찬가지일걸."

껄껄 웃은 유성운이 엄지를 세웠다.

"화이팅."

"네?"

"잘될 거야."

"뭐가요?"

내 인간 실격이?

주현은 조금 울컥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66)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66)"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67)

167

제167화

“그런 식으로도 성인(聖人)이 만들어지던가?”

남자의 무뚝뚝한 말에 갤러리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유성운이 픽 웃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성운 씨의 말대로 성인이 되어가는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는데.”

“애초에 이쪽은 신성의 대상이 인간을 배려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신과 비슷한 경우죠.”

성인이란 아무런 배려 없이도 자신이 모시는 신성을 친구나 가족처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지오의 배려를 한껏 받아 인간의 삶을 멀쩡하게 유지 중인 주현이 그들과 같다고 할 수는 없었다.

“다만 가능성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평범한 인간이 제 너른 그릇 하나만으로 결국 성인이 된 예는 충분히 많으니까.

“애초에 그 거대한 신비를 한 명의 청년으로 본다는 것부터가 평범한 인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가능하다는 건 주현 씨가 자신의 자격을 증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자격을 증명해 나가다 보면 결국 성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지. 여태껏 달님교에서 인위적으로 성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그렇다고는 해도 주현 씨가 과연 어떤 유형의 성인이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지오가 원하지 않아서, 주현 씨의 자질이 부족해서 성인이 되지 못할 확률이 더 높고요.”

그러니 말하자면.

“주현 씨는 그저 계단 한 칸을 오른 셈이죠.”

범인에서 성인이 되기까지의 계단이 있다고 쳤을 때, 주현은 고작 한 계단만 오른 것뿐이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는 몇 개의 계단을 올랐다고 한들 평범한 인간으로 남을 뿐이었다.

“그러니 선배님께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은 상상의 영역에 불과해요.”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 하지만 그 부분도 당사자에게 잘 설명을 하고 왔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멱살이 잡힐 것 같아서 탈탈 털어놓고 왔습니다. 그 사람 참 얼굴은 순한데 은근히 성깔이 있단 말이죠. 의외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강단 있고.”

“평범한 인간은 거대한 신비를 동정하지 않는다. 단지 ‘평범하게 보일 뿐인 인간’이라면 모를까.”

남자는 혀를 찼다.

“조심하라고 전해주는 게 좋아.”

“말은 하고 왔습니다만….”

“하긴 말을 한다고 정리될 일이면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은 없었겠지.”

“본인도 자제하려고 노력은 하던데, 글쎄요.”

존귀한 신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동등한 위치로 대할 수 있기에 역사의 많은 성인들은 신의 가족과 친구가 되었다. 그건 본인이 조절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

“확실히 자질이 있기는 합니다.”

유성운이 목을 쓸었다.

“그렇다고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유성운 씨의 그 나쁜 버릇이 도진 건 아닌가?”

“아, 물론 그것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비사벌의 큐레이터이자 설원의 정원사로서 이 흥미를 어떻게 참는단 말인가? 비록 근원이란 본디 뭐든 될 수 있고 뭐든 품을 수 있는 존재라지만, 그런 그 역시 신의 아이를 품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었다.

하지만 단지 유성운 자신의 흥미만을 따진 판단은 아니었다.

“애초에 지오는 자신이 아끼는 인간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것을 꺼립니다.”

유성운이 어깨를 으쓱였다.

“그러니 주현 씨가 바라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계속 평범한 인간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건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태껏 지오를 관찰하고 분석해 온 결과가 있으니까요.”

“규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간보다 근원의 존재가 믿을 만하지.”

“그래서 당장은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해뒀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면 차라리 그게 낫겠군.”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오의 초상화’가 그 주현이라는 인간을 품은 데는 그런 미련한 성품이 마음에 든 것도 있을 테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을 얹어 그 방향을 뒤트는 것도 건방진 짓일지 모른다.”

“…….”

“만약 ‘지오의 초상화’가 주현이라는 사람의 그런 부분을 흡족해한다면 그대로 두는 게 좋겠군. 너 역시 재밌어 보인다고 해서 허튼짓을 하는 건 삼가도록 해.”

“…여부가 있겠습니까.”

유성운이 어지간하다는 듯이 질렸단 표정을 지었다.

“선배님은 근원의 존재를 너무… 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작품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수집상의 큐레이터가 될 자격이 있나?”

“그것도 정도가 있죠, 위험한 신비에 과할 정도로 마음을 주면 언젠가 사고가 날 겁니다.”

“나에게 그 정도 판단력은 있다.”

남자가 복도에 쭈그려 앉아 막대 사탕을 깨무는 유성운을 흘겼다.

“정원사라는 족속들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나 보지? 건방지게 하나의 종족 자체를 동정하는?”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렇기는 하죠. 그냥 별거 아닌 직업병이라고 봐주세요.”

유성운이 무던하게 웃었다.

“층장은 작품에 인생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길드장처럼.”

남자의 이름은 가라사니. 세간에 ‘집사장’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수집상 갤러리의 5층장이었다. 비사벌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아끼는 갤러리 중 가장 위험한 층의 장을 맡은 사람인 만큼 작품 사랑이 어마어마했다.

또한 그는 유성운이 정원사라는 것을 아는 수집상의 몇 안 되는 길드원이었다. 가라사니는 유성운을 한심하다는 듯이 내려다보았다.

“신체 포기 각서까지 작성하고 들어온 마당에 무슨 인생을 논하는 건지 모르겠군.”

“아니, 신체 포기 각서가 아니라 그냥 계약서였습니다. 무슨 그런 흉흉한 말씀을.”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큐레이터가 작품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무렴 선배님 말씀이 모두 맞죠, 그럼요. 무려 5층장님의 말씀인데 그러시겠지.”

“유성운 씨가 나를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야.”

가라사니가 눈썹을 올렸다.

“하지만 정원에 제 몸을 전부 바친 유성운 씨가 고작 작품 좀 아끼는 내 삶의 태도를 염려한다는 것이 웃길 뿐이다. 그렇지 않은가?”

“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만.”

“길드장님이나 내가 유독 작품들의 편의를 과하게 봐준다는 걸 모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도 그럴 만하니 그러고 있는 것뿐이야.”

“참 편애가 심한 분들이라니까.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인간과 작품의 안위가 동시에 걸렸을 때 그들은 무조건 작품을 더 우선시한다. 그게 바로 작품에 미친 수집가 비사벌이고 그의 충실한 수족인 5층장이었다.

“아무튼 주현 씨의 일은 잘 마무리가 될 것이고.”

“오히려 폭탄을 던져주고 온 건 아닌가?”

“그게 폭탄이라면 처음부터 주현 씨가 받은 폭탄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지는 않는군.”

“고민이야 좀 하겠지만 마음에 가는 대로 알아서 하겠죠.”

그런 자잘한 부분은 유성운이 신경 쓸 바가 아니었다. 어떤 방향으로 튀어나간다 한들 지오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이상 문제 될 일이 아닌 것이다.

유성운은 당장의 현실을 보았다. 지금 그가 신경 써야 할 일은 지오의 첫 공략이었다.

“이번 수집상의 파견 팀에 선배님도 들어가신다던데.”

“그만한 신비를 바깥으로 빼돌리는 일에 내가 빠지면 안 되는 일이지.”

“오, 멋진 자신감.”

“그래서 오늘은 ‘지오의 초상화’를 부탁하기 위해 온 건가?”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에서 얼굴 한번 보러 온 겁니다.”

비사벌은 이번 ‘서지오 헌터’의 수발을 들 큐레이터로 5층장인 가라사니를 골랐다. 그는 작품을 주인님처럼 모실 줄 아는 훌륭한 큐레이턴인 동시에 뛰어난 호위 실력을 갖춘 A급 헌터였다.

이외에도 두 명의 수습 팀원과 두 명의 현장직이 파견 팀에 포함되겠지만, 같은 큐레이터로서 유성운이 이 정도 성의는 보여줄 수 있었다.

“제 작품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있는데 작품이 상할 리가 없지.”

가라사니는 알 만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성운 씨는 좀 과할 때가 있어.”

“예? 갑자기요?”

“그래.”

그가 유성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그 눈 좀 어떻게 해보지.”

“제 눈이 뭐 어떻다고 그러십니까.”

“네 작품 곱게 수발들고 올 테니 눈깔 치우라고, 유성운.”

“아니, 이럴 수가….”

유성운이 씩 웃었다.

“들켰네.”

내 작품이 다른 큐레이터의 손을 탄다는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야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안 나기도 하고, 담당 큐레이터가 아닌 큐레이터로도 지오가 만족할 수 있는지 길드장님께서 궁금해하셨습니다.”

“그게 불만인 모양이지?”

“불만까지는 아니죠. 우리 집 애 좀 잘 부탁드린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낯선 인간들 사이에 떨궈놓는 건 처음이라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아서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니까요.”

어떻게 궁리를 해봐도 공략에 참가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비사벌은 지오가 생판 남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상호 작용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사악한 신성으로 만난 주현 씨와도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만….”

“신성이 간택한 한 명의 인간과 교류하는 것과 신성이 인간의 흉내를 내며 낯선 인간들 사이에 섞이는 건 엄연히 다르지.”

가라사니가 말을 이었다.

“대상이 그 주현이라는 사람이었던 것도 길드장님의 불신에 한몫을 더했을 것이고.”

“…음, 그거 말입니다만.”

유성운은 정말 알기 싫다는 얼굴로 꾸역꾸역 물어보았다.

“계속 궁금했던 건데, 대체 왜 그렇게 주현 씨를 싫어하시는 겁니까?”

비사벌의 행동은 어딘가 과한 면이 있었다. 제 수집벽과 관련된 일이 아니고서야 늘 신사적인 태도를 지켰던 비사벌답지 않았다.

무엇보다 주현이 지오를 이용하고자 마음먹을 수는 있어도, 그가 결국 지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비사벌 본인도 인정했다. 그 모든 악의가 자신의 헛된 투정임을 스스로도 시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동안 길드장님께서 싫어하는 인간들은 차고 넘치게 많았지만, 지금처럼 대놓고 악의를 드러내는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앞에서는 깔끔하게 웃고 뒤에서 수작을 부리면 부리셨지....”

“길드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을 굳이 알고 싶은 건가? 그런 표정을 하고서 용케도 묻는군.”

“개인적인 사정이고 자시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겠지만 길드장님께서는 저를 포함한 주현 씨와 지오를 한 공간에 묶으려는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거의 한 세트 취급을 당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것까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내 표정을 관리한 유성운이 가라사니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층장님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

그는 수집상의 초기 간부이자, 비사벌이 거둔 첫 번째 수집품이었다. 아마 가라사니 큐레이터라면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을 것이었다.

“제 질문이 무례했다면 없던 일로 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길드장님께서도 제가 이런 의문을 품으리라고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지는 않네요.”

“…….”

그에 가라사니가 입을 열었다.

“주현 씨와 같은 영웅들에게 된통 당한 적이 있으시지.”

“어느 정도 예상한 바고,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이야기지만... 대체 얼마나 크게 당하셨으면 생판 남을 보고서 그런 악의를 품는 거랍니까?”

“글쎄, 이제 그런 종류의 인간이라면 학을 떼실 거다. 끔찍하게 여길 것이고.”

그가 말을 덧붙였다.

“길드장님께서는 꽤 여러 번 인내했지만 모두 결과가 좋지 않았어.”

가라사니가 작게 혀를 찼다.

“휘말린 너에겐 안타까운 일이군. 하지만 길드장님이 아무리 악의를 품어도 해를 가하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본인 감정과 달리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실 테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아.”

“저도 길드장님이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의외네요. 하도 싫어하시길래 해를 끼쳐도 이상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라니. 수집가의 노력이라면 꽤 거창하지 않나....”

“굳이 따지자면 애증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싶다. 온몸과 마음을 다해 싫어하긴 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주현 씨가 다치거나 하는 꼴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으시겠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가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

비사벌이 보이는 악의는 일종의 조건 반사였다. 대뜸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당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분노와 수치심을 느낀다거나, 미간 위에 툭 앉은 바퀴벌레를 소름 돋을 만큼 징그러워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의미였다.

“특히 그분 눈과....”

“…….”

“...음, 그래.”

무언가 말하려던 가라사니가 저를 빤히 응시하는 유성운을 보고서는 말을 흐렸다.

“여기까지 할까.”

제 상관의 개인적인 사정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 가라사니는 이 정도도 과했다고 생각했다.

“너도 곧 그 사정에 크게 휘말릴 것 같아 말해준 거고, 이 이상은 알려줄 생각이 없다. 이후로는 너무 사적인 과거이니 내가 입에 담을 것이 아니지.”

“…그 정도만 알려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길드장님께서 그보다 한참 어린 사람을, 그것도 비각성자에게 악의를 품은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나도 길드장님의 그런 모습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저 납득한 거다. 내 팔은 언제나 안으로 굽고, 그런 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정이라….”

가라사니가 후배를 위로했다.

“길드장님께서 주현이라는 사람의 흉을 보거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겨, 본인도 유치하고 음습한 투정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다. 그런 무가치한 헛소리에 네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걱정하기를 원하진 않으시겠지.”

“그런 것치고는 참 많이도 투덜거리시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이번에 지오가 파견 나가면 주현 씨도 함께 가야 할 텐데 괜찮을까 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설마 길드장님께서 암살단이라도 보낼까 봐? 물론 진정으로 혐오와 경멸만을 느꼈다면 그렇게까지도 하셨겠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 오히려 주현 씨가 다치지 않게끔 인력을 보낼 테지.”

가라사니가 말을 얹었다.

“나는 그보다 지오 씨 쪽이 더 걱정되던데. 그 다나라는 안티캣의 정체도 그렇고.”

“아… 저도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날 지오가 정확히 다나를 통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영혼과 관련된 능력이라는 건 알겠다만, 네가 말하기로는 분명 ‘지오의 초상화’가 주겠다던 선물은….”

유성운이 알 만하다는 듯이 그의 말을 이어받았다.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라 ‘묘’였죠. 하지만 아직까지 지오는 그런 무덤을 만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다나라는 안티캣이 이끌었다던 고아원의 영혼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의문이야. 그 행방을 알 수가 없군.”

“이번 공략에서 다나가 어떤 식으로 활약하는지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정 안 되면 직접 물어봐도 되고요.”

유성운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모쪼록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이 성공적으로, 혹은 무난하게 끝나야 지오를 마음껏 풀어놓을 근거가 생기니 말이다.

“이번 공략이 잘되면 지오에 주현 씨를 데리고 같이 휴가 좀 즐겨보려고 합니다.”

“작품과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은 부럽군.”

“그죠? 우리 애가 또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선물도 주고 장난 아니라니까?”

“그만해라, 팔불출 같으니까.”

“세상에 지오 같은 작품 어디 없다. 마음껏 부러워하셔도 됩니다.”

“이게 정말….”

짜증을 내려던 가라사니가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나중에 보지.”

평소답지 않게 길드장의 비설을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지금의 이런 얄미운 반응도 괜히 불안해서 이런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원로 되는 선배로서 가라사니는 어린 후배의 못난 꼴을 넘어가 주었다.

* * *

한편, 태양교.

“수집가의 큐레이터도 온단 말입니까? 그 갤러리의 큐레이터가요?”

한 장로 사제가 난감하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허어, 어쩌다가 그런 귀한 인력을...?”

“비사벌 길드장이 서지오 헌터를 상당히 편애하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건 예상외입니다.”

“그 정도면 정말로 작품 취급이 아닙니까? 거 참, 어엿한 인간을 말이지.”

“수집상이 비사벌 길드장의 보석함이라는 것 정도는 다들 아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정도가 있는 법이거늘... 이건 좀 과하지요.”

수집상에서는 서지오 헌터를 중심으로 다섯 명의 헌터를 추가 합류시켰다. 첫 공략인 서지오를 홀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인데, 그 점을 감안하고도 꽤 과한 감이 있었다.

“그냥 큐레이터도 아니고 ‘집사장’이 직접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갤러리의 5층장 말입니다.”

수집상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갤러리의 가장 심층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층장. 그의 합류만으로 비사벌이 서지오 헌터를 얼마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아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아무리 그쪽에서 인력이 차출되어 봤자 이전 ‘심해의 나라’를 함께 공략했던 유성운 큐레이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유성운 헌터는 바쁘기로 유명하기도 하지요.”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해도 처음 듣는 조합인 걸 보아 단순히 친분을 기준으로 집사장이 파견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일 텐데?”

“확실히 친분의 문제로 큐레이터가 파견될 것이었다면 유성운 큐레이터가 명단에 올랐겠죠. 아무리 바쁘다 해도 첫 공략인 만큼 시간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냥 큐레이터가 한 명 붙은 거라면....”

“친분과는 별개로 서지오 헌터에게 ‘큐레이터’라는 인력이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지?”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수집상의 큐레이터란 대단히 특별한 전력이었다. 흔히 길드 바깥으로 나도는 수집상의 현장직 길드원들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수집가가 이 정도로 자신의 길드원을 관리하려던 적이 있었던가요?”

“제 기억에는 딱히....”

“나름 인간은 인간 취급을 하던 걸로 아는데.”

“하지만 큐레이터를, 그것도 층장을 보내겠다는 건 정말 작품 취급이 아닙니까.”

“아무리 수집상의 길드원 전부가 비사벌의 수집품이라지만, 이건 좀....”

수집상의 큐레이터는 그 명성이, 혹은 악명이 높았다. 수집가의 갤러리에서 어떠한 물건을 활용하고자 협업 요청을 넣으면 그 ‘작품’을 담당하던 큐레이터가 함께 오는 것이다.

“그쪽 큐레이터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뻔히 아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작품'들을 가족이나 친구처럼 사랑했다.

오죽하면 제 담당 작품이 사용 과정에서 흠집이 났다고 피눈물을 흘리며 비사벌을 통해 정식으로 고소 절차를 밟았던 큐레이터도 있었겠는가. 그 일화는 태양교에서도 굉장한 화젯거리였었다.

"제가 알기로 5층장은 비사벌 길드장의 측근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 집사장이 수집상의 초기 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집가의 충실한 수족인 가라사니 큐레이터가 직접 나서다니…."

어느 중년의 사제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고개를 기울였다.

"뭐 숨겨진 아들이라도 되나?"

"어허, 무례한 말을 삼가세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서…."

"확실히 특이한 경우이기는 합니다."

특이한 일부를 제외하면 수집상의 큐레이터들은 그들의 업무지인 갤러리에서 잘 나오지조차 않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파견이 되는 건 그들이 담당하는 작품이 해당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을 때뿐이었다.

"비사벌 길드장이 이런 인식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굳이 5층장을 끼웠다는 건, 뻔했다.

"…서지오 헌터가 수집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려는 셈이겠지요?"

"…그런데 이걸 대체 무슨 취급이라고 봐야 합니까? 단순한 길드원도 아니고, 이건 무슨…."

비사벌이 층장만 끼워 넣은 것도 아니었다.

"제가 그쪽 인사들을 좀 아는데, 여기 명단의 두 명은 갤러리의 수습팀원들입니다."

"수집상이 돌아가는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습 팀원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갤러리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 수습하는 인원들을 말하지요. 큐레이터와 일반 길드원의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말 인간이 아니라 작품으로 취급한다는 것 같습니다만…."

"비사벌은 자기 길드원들에게 터치하지 않기로 유명한데, 특이한 일이군요."

이 명단에서 드러나는 비사벌의 목적은 확연했다.

"이건 서지오라는 헌터를 호위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쯤 되면 '호위'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해졌다.

"그보다는 감시에 가깝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큐레이터에, 수습 팀에…."

"서지오 헌터라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애초에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면 비사벌 길드장의 수집품이 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것도 그렇군요. 허어, 그럼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비사벌의 수집품 중 성격에 하자가 있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들이며, 하나같이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최소한의 소양을 갖춘 것이다.

물론 서지오라는 헌터는 평소 비사벌이 선호하던 인상과는 거리가 있는 성격으로 보였지만, 이런 예외인 수집품도 비사벌은 종종 모으고는 했다. 그러니 아마 서지오의 인성 문제는 아닐 것이었다.

“이번 안티캣의 일을 보았을 때도 과연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더니... 비사벌 길드장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대체 왜? 뭐가 문제라?”

“무언가 특이점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것일 텐데, 정말로 그의 핏줄일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외양이야 요즘 세상에 꼭 부모를 닮을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남의 길드원을 상대로 그런 무례한 추측들은 자제를 하시라니까요. 공략도 전에 수집상과 마찰 빚을 일이 있습니까? 다들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그즈음 장로 사제 중 한 명이 끌끌 웃으며 말했다.

“무슨 이유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비사벌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탐욕스럽기는 해도 자신의 탐욕으로 공연히 남의 일을 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비사벌이 무언가를 망치고 무너트릴 의도였다면 처음부터 그 기색을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서류를 넣고, 신경 써서 인적 사항 보내고, 이번 공략에 대해 지원도 하고... 최소한 수집가가 이번 공략을 도울 목적은 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 젊은 헌터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권리도 없고요. 수집상에서 우리의 숙제를 도와주기로 했다면 그저 감사할 줄 알아야겠지요.”

“죄송합니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오만은 태양께서도 멀리하시는 죄입니다. 그리고 서지오라는 젊은이 또한 태양의 빛을 받은 신도라지요. 그를 이번 공략에 끌어들인 건 우리의 욕심이니 변수가 생기더라도....”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는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제님들?”

“반성하겠습니다. 깨우침에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번의 숙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예, 과연 그렇습니다.”

“서지오 헌터와 친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부가적인 이득일 테지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사제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긴 저희가 뒷조사를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왈가왈부할 게 아니지요.”

“이 사람이, 뒷조사라니 무슨 험한 말을... 우리는 달님교가 아닙니다.”

“크흠, 너무 예외적인 일이라 다들 당황한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반성은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귀한 인재들이 잔뜩 모였으니 이번 공략은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설레발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마음이 들뜨네요.”

“식생과 열기가 풍부한 던전이라고 합니다. 가짜 태양도 뜬다는 차원이니, 공략에 성공하면 저희 태양교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분위기가 얼추 정리된 듯하자 침묵하던 장로 사제 중 한 명이 강서담을 돌아보았다.

“강서담 형제님.”

“예, 듣고 있습니다.”

"부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죠."

그쯤에서 강서담은 생각했다.

'…이번 수집상의 파견 팀은 편애보다 수습과 수발에 치중된 인력이다.'

하긴 '지오의 초상화'라는 거대한 신비를 홀로 보내진 않을 것이었다. 강서담은 그나마, 정말로 그나마, 진정 불행 중 다행으로 수집가가 아무 생각이 없지는 않다는 것에 감사하기로 했다.

그때였다.

"……."

강서담은 여신의 시선을 느꼈다.

'…관심을 보이시나.'

정말 어지간히도 '서지오 씨'와 친해지고 싶으신 모양이지.

왜 제가 신들 사이에 끼어버린 건지 몰라, 강서담은 슬슬 집무실에 처박히고 싶어졌다.

(다음 편에서 계속)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68)

168

제168화

한편, 강서담과 같이 '서지오 씨'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사람이 또 있었으니.

"……."

"왜 그래 루다야?"

"…어…."

바로 강서담의 학생이자 예비 사제인 이루다였다.

"지난번에 받은 선물 때문에."

"아, 지오 형이 준 거? 그 꽃?"

"그래, 그 말린 꽃 말이야."

"약재라고 하지 않았어? 너 약 먹는 거 좋아한다면서. 그냥 먹으면 안 돼?"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평범한 약재가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태양의 여신께서 직접 시선을 주신 약재였다.

'게다가 그때 느꼈던 신성의 은근한 탐욕….'

신성이 인간의 물건에 욕심을 부리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희귀한 일이지만, 이번에 그 욕심을 드러낸 것은 운명의 순리와 순수한 결백을 사랑하는 태양의 여신이었다.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욕심낼 분이 아니시다.'

그런 신성께서 보잘것없는 예비 사제인 이루다 자신의 옆구리를 꾹 찔러보는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뭐가 문제인데?"

"너무 귀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일이 상상 이상으로 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간 차이솔에게는 자신의 혼란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오늘로써 한계에 부딪혔다. 이루다에게는 참고인이 필요했다.

“차이솔.”

“응, 뭐 도와줄까?”

“너의 그 친하다는 형은….”

“지오 형 말하는 거지?”

“그래,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어… 뭐가?”

“원래 이렇게 막 선물 뿌리고 다녀?”

“응!”

“…….”

너무 시원하고 단호한 긍정에 이루다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왜?”

“사람들을 보면 너무 기특해서 선물을 주고 싶어진대.”

“대체 왜?”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왜 주면 안 되냐고….”

“대체 뭐가 문제지?”

“그게 문제야?”

“선물이 그냥 선물이 아니잖아.”

사실 차이솔에게 과일 젤리를 선물한 것부터가 조금 과한 감이 있었다. 차이솔 말로는 어쩌다 친해진 형이라는데,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지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에게 너무 비싼 선물을 준 것이다.

하물며 이루다가 받은 선물은 더했다.

“내가 약재를 좋아한다고 말했던 이유는 정말 약재를 받길 원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고…!”

보통 약재를 좋아한다고 하면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를 본다는 듯이 황당해하다가 이내 무시하고 넘겼다. 아니 애초에, 정말로 약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줄도 몰랐다.

“차이솔, 너 이 말린 꽃에서 뭐가 느껴져.”

“햇살 냄새?”

“또.”

“햇볕에 잘 말린 이불 같은 뽀송함?”

“아무튼 태양이라는 거지? 그렇지? 태양이 맞지?”

“태양이랑 햇살은 조금 다르지 않아? 하나는 엄청 뜨겁고 하나는 따듯한 건데.”

“쥐어패는 것과 쓰다듬는 것의 차이지 어쨌든 같은 손이라는 거잖아.”

흔히 알려진 태양교의 이미지와 달리 실제 태양의 빛은 대단히 폭력적이다. 그것을 잘 갈무리하고 세심하게 조절할수록 훌륭한 태양의 사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태양의 햇살을 가득 담은 약재를 만들기란 무척이나 고된 일이었다. 재능이 없다면 시도조차 못 할 일이고, 조금만 실수해도 연약한 약재가 태양의 불에 타버리니 말이다.

“…….”

역시 이건 이루다가 감당하지 못할, 너무 귀한 선물이었다.

“…혹시 나 엿 먹으라고 이런 선물을 준 건….”

“엿을 왜 먹어?”

“…그 서지오라는 분이 나를 곤란하게 하려고 이런 선물을 준 게 아닐까 생각 중이었어.”

“응? 아닐걸? 왜 그렇게 생각해?”

“분수에 맞지 않는 자비는 길가의 비천한 거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법이지.”

“루다는 거지가 아닌데?”

“물론 나는 1등급 시민이고 인간 중에선 부유한 편이지만, 그걸 고려해도 이번 상황에서 나는 거지가 맞아.”

“넌 항상 말을 너무 어렵게 해.”

“나한테 과분한 선물이라 내 신변이 위험하다고. 너무 귀한 보물은 탐내는 사람들이 많잖아.”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지금은 비단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 탐내는 사람들로부터 지켜낼 힘이 없으면 선물은 오히려 독이 되는 법이야.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내가 받은 선물을 욕심낸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 이걸 뺏어갈 수도 있다는 거지.”

아무래도 ‘죽인다’라는 말이 꽤 자극적으로 들렸는지 차이솔이 화들짝 놀라 물었다.

“지오 형 부를까?”

“아니, 그만한 헌터라면 바쁠 텐데 그럴 필요는 없고….”

눈치가 빠른 이루다는 서지오라는 사람이 준 선물에 악의가 없음을 알았다.

‘하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선물이 될 거라는 걸 모를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제 와 이루다는 결론을 내려보기로 했다.

“…환심을 사라는 뜻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루다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확실히 여신께서 바라시는 선물을 진상하면 큰 비호를 받게 되겠지.”

“뭔진 잘 몰라도 지오 형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자신의 파트너가 정확히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깊은 심도를 알아챈 차이솔이 말끝을 흐렸다. 그는 검은 망토가 아무 생각 없이 선물을 뿌리고 다닌다는 걸 알았다.

무언가 계략 비슷한 것을 짜는 듯한 파트너를 보며 차이솔이 생각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인생을 너무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 나는 안 똑똑해서 다행이다.’

그야 지오도 자신의 선물이 이루다라는 작은 사제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검은망토의 선물은 그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에 편한 마음으로 선물한 것이기도 했다.

바스람꽃은 부작용이 없는 귀한 약이니 누가 써도 문제가 없고, 그 약을 선물한 지오 본인과 태양의 여신이 그 선물을 긍정했다. 여러 신성의 비호를 받아 하사된 선물은 섭리와 운명을 통해 그 안전이 보장되었다.

무엇보다 지오는 깊게 생각하는 법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깊이와 너비를 잘 알았다. 지오는 이루다가 제 선물을 어떻게 활용해도 기뻐할 것이었다.

“…여신께 헌상해야겠어.”

그러니 이 또한 지오가 바라던 바였다.

“강서담 사제님을 뵈러 갈 건데, 너는 어떻게 할래?”

“나도 같이 가.”

“혼자 있기 심심한 거면 다른 애들이랑 같이 놀고 있어.”

“그냥 루다랑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내 파트너니까.”

“…….”

이루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넌 내가 평생 옆구리에 끼고 살아야겠다.”

“응? 원래 그렇지 않아?”

“별거 아니야, 내 의사를 표현한 것뿐이었어.”

그리고 막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강서담은 제 솜털 같은 어린 학생이 고이 품어 온 향기롭고 따끈따끈한 폭탄에 대찬 사례가 들렸다고 한다.

* * *

수집상의 한 미팅룸.

“아, 층장님.”

“유지나 씨?”

그곳엔 이번에 새로 구성된 파견 팀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수집상 갤러리의 5층장인 가라사니가 방금 막 미팅룸에 들어온 헌터를 훑었다. 그가 유지나라고 불렀던 여자는 갤러리의 수습 팀 복장인 정장에 케이프를 두르고 있었다. 층장으로서 익히 아는 얼굴이었다.

“오랜만이군.”

“그렇긴 하죠.”

수습 팀원이 씩 웃으며 가라사니의 맞은편에 앉았다.

“5층은 워낙 수습할 게 없으니까요.”

“신입이 배정되는 곳은 아니니까.”

“베테랑만 드나드는 곳이라 그런지 영 소식이 없단 말이죠.”

“5층 소식이 수습 팀에 전해지면 그거야말로 큰 문제 아닌가?”

“이게 다 층장님께서 신경 써주신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며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것에 가라사니가 눈썹을 들어 올렸다.

“같잖은 아부 떠는 솜씨는 여전하구나.”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좋으니까 어디 한 번 더 해봐라.”

“아이고, 우리 층장님께서 5층의 빛을 밝히시니 갤러리에 평화가 찾아오고 재물이 들어오고….”

그즈음 또 다른 사람이 미팅룸 안으로 들어왔다.

“워… 이건 또 뭐야.”

“사람 보고 이거라니 너무하시네.”

“예,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보면 몰라? 아부 떨잖아요.”

“5층장한테 아부 떤다고 뭐 안 나올 텐데...?”

현장직인 남자의 말에 그와 같은 소속인 여자가 어색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층장님.”

“3층에서 일하다가 현장직으로 빠지고 처음 보는 건가?”

“네, 뒤를 많이 봐주신 덕분에 잘 적응했습니다.”

“그래, 어디서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지. 잘하고 있다.”

가라사니 큐레이터가 수습 팀원인 유지나 쪽을 돌아보았다.

“수습 팀에서 한 명 더 온다고 하지 않았던가?”

“1층에서 수습 요청이 들어와서요. 본인 구역이라 금방 확인만 하고 온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언제나 보기가 좋은 법이지. 그런 행동은 오늘의 주인공이 불쾌해하지도 않을 거야.”

“여차하면 수습이고 나발이고 빨리 올라오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의외네요. 지오 씨도 참 작품치고 관대하셔.”

주변을 살피던 유지나 수습 팀원이 흥미롭다는 듯이 웃었다.

“저는 유성운 큐레이터도 함께하실 줄 알았는데, 정작 명단에 그 사람은 없더라고요?”

“워낙 바쁜 사람이니 어쩔 수 없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다른 무엇도 아닌 자기 담당 작품의 일인데....”

“물론 일정을 많이 손보면 여유가 없진 않았을 거다. 하지만 쉽진 않은 일이야.”

그리고 그 이유뿐만은 아니었다.

“길드장님께서는 ‘서지오 씨’가 낯선 인간들 틈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하신다. 과연 ‘서지오 씨’라는 명목을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혹은 무슨 위험이 있을지 확인하시려는 심산이겠지.”

그에 다른 현장직 직원이 물었다.

“그래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첫 공략부터 A급 던전이라니, 난이도가 절대로 낮지 않아요.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천천히 적응 기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조치하기 전에 ‘서지오 씨’께서 이미 원하는 일정을 잡아 오셨으니 우리로서는 따를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급한 일정이 잡히지 않았더라도 길드장님께서 그런 지루한 작업을 하진 않으셨을 거야.”

비사벌의 성격을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뻔히 괜찮아 보이는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그런 안정적인 기회를 노릴 만큼 인내심이 많지 않은 사람이지. 이런 즐거운 행사를 지루하게 흘려보낼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길드장을 하지도 않았을 거다, 그 사람은.”

“반박하기가 참 어렵네....”

“처음부터 그런 인내를 하지 않으려고 수집상을 만든 사람에게 이제 와서 자제하기를 부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이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셨을 거고.”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 비사벌은 ‘서지오 씨’를 어떤 위치에 배정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었다. 사람깨나 죽어나갈 수도 있어 위험 부담이 큰 대담한 작업이었지만, ‘서지오 헌터’를 세상에 내보이기로 한 이상 언젠가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었다.

"무엇보다 '서지오 씨'께서 그런 안정적이고 지루한 작업을 견뎌줄지 잘 모르겠군."

분명 수집상에서는 더 안전한 기회를 노릴 수도 있었다. 낮은 등급의 던전에 익숙한 얼굴들을 옆에 붙여 조금씩 이 신비가 인간들 사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도 됐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이번 공략 파견 시에 전해 듣기로, '지오의 초상화'에게는 혈투를 탐하는 욕망이 있었다. 사악한 신성 또한 품었다던 그가 그런 안락한 울타리를 역겨워할 수도 있었다.

"작품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수습 팀원도, 현장직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무엇보다도 '작품'의 심기가 비틀렸을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괜히 수집상에 온갖 괴담이 생긴 게 아니었다. 이전에 큐레이터였던 현장직 직원이 말을 얹었다.

"그래도 유성운 큐레이터는 아쉽겠어요."

"본인의 담당 작품이 제 손에서 벗어나 세상 바깥에서 활동하는 셈이니...."

"그것도 첫 활동이고요. 신경 쓰이시겠네요."

수집상의 큐레이터에게 담당 작품이란 대단히 예민한 주제였다. 운명을 비틀고 정신을 파고드는 기이한 신비를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신경이 소모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큐레이터는 자신의 작품을 사랑해야 하고, 그에 대해 공부해야 하고, 또 그것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했다. 제 손에서 벗어나면 사람 수십은 단숨에 죽일 수도 있는 신비를 사랑으로 관리하니 그에 따른 집착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5층의 작품이잖아요."

큐레이터가 작품을 사랑하고 집착하지 않으면 어떤 참사가 생길지 모르는 것이다.

"많이 속상하실 텐데...."

"그래서 내가 이번 파견 팀에 포함된 거겠지."

"층장님 정도라면 믿을 수 있다는 걸까요?"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한 셈이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즈음이었다.

똑똑똑.

"......."

"......."

"실례합니다."

미팅룸 바깥에서 들리는 노크 소리.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나직하고 음울한 음성이, 허락을 구하고 있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68)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68)"

4.7 13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69)

169

제169화

사악한 것이 초대를 구하는 것은 흔한 전승이다.

전지전능할 것만 같은 신성도 허락을 구해야만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고, 뭐, 그런 것들.

“…….”

“…….”

길드원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서지오 씨?”

수습 팀원의 질문에 문 바깥의 음성이 대답했다.

“예, 제 이름은 서지오입니다.”

그 목소리의 모순적인 공허함은 순간 의심을 하게 만든다.

온갖 기이한 작품이 모이는 수집상은 기본적으로 괴담이 많은 곳이었다. 그들은 분명 ‘서지오 씨’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혹여 지금의 잘못된 선택이 화를 불러오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되었다.

그때, 5층장 가라사니 큐레이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층장님.”

“뭐가 걱정이지?”

“아, 그게….”

“…….”

“…죄송합니다.”

“쯧.”

제 후배들을 훑은 가라사니가 곧 미팅룸의 문을 열었다.

“…….”

“어서 오십시오, 서지오 씨.”

그 앞에는 백금발의 남성이 서 있었다.

부드럽게 흐드러지는 머리카락과 여름 바다를 담은 눈. 가라사니는 그 시선을 그대로 마주하지 않고 허리를 숙여 작품을 향한 예절을 보였다. 그는 수많은 작품의 종이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늦은 건 아닙니까?”

“아니요, 바로 맞춰 오셨군요.”

현재 시각은 오후 4시로, 정확한 약속 시각이었다.

미팅룸에 먼저 들어와 있던 수습 팀원은 가라사니 큐레이터의 너머로 보이는 커다란 남성을 보았다. 따사로운 햇볕이 묻어날 것만 같은 그 색에 반해, 그것은 소름 끼칠 정도의 무표정이었다.

‘장례식을 닮았다더니.’

티 한 점 없이 깨끗하지만, 그보다 더 무겁고, 또 음울한 공기의….

“…….”

아.

‘…눈 마주쳤다.’

그것이 부드럽게 눈을 휘었다.

“반갑습니다.”

시체를 닮은 죽음이 한순간에 햇볕이 되어서.

그게 인간을 흉내 내는 괴물임을, 손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 * *

검은 망토가 수집상 내에서 가지는 위치는 ‘방목 중인 작품’이었다.

이른바 ‘서지오 씨’는 어렵지 않게 수집상 건물 내에서 마주칠 수 있었다. 그건 인간의 형태일 때도 있었고 초상화의 형태일 때도 있었다. 그리고 직원들은 가능한 한 그에 관한 이야기를 삼갔다.

혹시 모를 저주를 받기 싫다거나 하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걸리면 좆 된다.’

‘추가 근무 절대 사절….’

‘나만 아니면 돼.’

그렇다, 복잡한 사정을 알기 싫은 거였다.

“아 하필 인간에게 호의적이셔서.”

“사교성이 바닥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비사벌이 아무리 자기 길드원을 제 수집품 대접을 한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인간인 수집품과 인간이 아닌 작품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었다.

그런 비사벌이 미쳤다고 위험한 괴담을 사옥 내에 방목하겠는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괴담인 ‘서지오 씨’는 유독 인간에게 친절했고, 이는 즉 그와 친분을 쌓게 될수록 그들이 추가 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소리였다.

“유성운 씨를 봐.”

아주 적절한 예시도 있었다.

“불쌍한 사람, 집에도 못 돌아가고 있겠지.”

“그런데 유성운 큐레이터님은 원래도 바쁘지 않았나?”

“서지오 씨와 관련된 여러 추가 업무를 맡게 되었다는 건 변하지 않아.”

“아, 그건 그러네. 절대 엮이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된 것이었다.

그 탓에 수집상의 길드원들은 되도록 ‘서지오 씨’를 봐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지령에 따라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도 정말 이 악물고 그의 존재를 피해 다녔다. 태풍의 눈과 친해져서 재난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또한 ‘서지오 씨’를 두려워해서 조심하려는 사람들도 많았다.

“호의적인 건 호의적인 거고, 나중에 어떻게 돌변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

“저는 수집상의 길드원으로서 ‘서지오 씨’의 존재와 언행을 존중하지만… 무섭긴 하네요.”

“그보다는 굳이 괴담하고 아는 척을 해야 하나요…?”

그들은 ‘서지오 씨’를 교류가 필요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일종의 자연 현상 중 하나였고, 그들의 일상을 조용하고 스산하게 파고든 괴담 그 자체였다.

아직도 한국에 현존하는 빨간 마스크 같은 괴담과 아는 척하고 싶은 사람은 드물 터였다. 늦은 밤 병원을 돌아다니는 간호사 귀신이나, 인적 없는 길가의 하얀 원피스 입은 여자와 굳이 사적인 친분을 쌓고 싶겠냐는 말이다.

“아니 뭐,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

“시키면 해요.”

“요구한다면 하죠.”

유능하고 책임감 넘치는 수집상의 직원들은 시키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았고,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명령이 떨어진다 해도 ‘화분에 한 번씩 좋은 말 해주기!’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것이었다.

“근데 이거 직장 내 따돌림 아닌가?”

“…그거 작품한테도 적용되는 일이었어요?”

“아, 하긴 그러네요.”

그들에게 ‘서지오 씨’는 비사벌의 섬뜩한 작품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한 무언가일 뿐이지 진짜 인간이 아니었고, 그렇기에 특별한 교류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정말로 직장 동료였다면 살가운 말이라도 한 번씩 붙여봤을 것이다. 수집상 길드원들은 개인주의가 심한 거지 사회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었으니. 하지만 ‘서지오 씨’는 작품이지 않은가?

“나 어제 서지오 씨 마주쳤어요.”

“용케 오늘 바로 출근하셨네요.”

“생각보다 젠틀하셔서 뭐… 괜찮았습니다.”

“평소에 착하게 사셨나 봐요.”

“무난하게 통성명하고 선물 받아 왔어요.”

“깔끔하네.”

비사벌이 예전에 뿌렸던 ‘서지오 씨 대응 방침’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을 했다.

이제 그들에게 '서지오 씨'는 '드문 확률로 마주치게 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대화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섬뜩한 작품' 정도의 인식인 것이다.

그러니까 직장 동료는 아니지만, 직장 내 공존하는 오싹한 자연 현상 정도의 취급이라고나 할까. 수집상의 길드원들은 나름대로 '서지오 씨'에 적응을 했다.

"......."

"......."

그리고 다시 돌아와 파견 팀이 모인 미팅룸.

'...이게 말로만 듣던 서지오 씨인가. 착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검은망토....'

'확실히 위압감이 남달라, 생김새는 완벽한 인간이지만 그래서 더 이질적이고.'

'지적 생물과의 교류에 능숙하다고 들었는데, 인간 흉내는 어디까지 가능하려나.'

그곳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다른 무엇도 아닌 사옥 내의 유명한 괴담과 한 팀이 된 것이다.

비사벌이 아끼는 작품인 만큼 그들이 위험해질 일은 적겠지만 그것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고 긴장이 안 될 수는 없었다.

'아무리 봐도 완벽하다는 인상이 강하네.'

'실존할 수 없는 이상적인 무언가를 보고 있는 기분....'

그것의 외양은 대단히 아름다웠고, 체격은 너무 마르지도 두껍지도 않았다. 평균적인 이상향을 맞춰둔 듯한 그 모습은 오히려 그의 비인간적인 인상을 강하게 키워주었다.

'다른 인간들에게 호의적인 인상을 주고 싶어서 저런 형상을 띠고 있는 걸까?'

특히 상대의 외양에 큰 매력을 느끼는 한국에서라면 딱 좋은 전략이었다. 실제로 그 아름다움에 반한 길드원들도 많았다. 대단히 값진 보석이나 유물을 보듯이 말이다.

"......."

구릿빛 피부색의 은발 여성이 상황을 쭉 훑었다. '서지오 씨'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5층장은 뒤로 물러나 있으니, 이건 다른 직원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제대로 어울리라는 건가.'

특수한 상황이니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행동 지침에 따르면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검은망토와의 통성명이었다.

생각 정리를 마친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지오 씨'를 반겼다.

"서지오 씨?"

"예, 제 이름은 서지오입니다."

"듣던 것보다 미남이셔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마음에 드는 얼굴입니까?"

"마음에 안 들기 힘들겠는데?"

그녀는 저 특유의 너스레를 떨며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유지나라고 해요."

"유지나 씨군요. 제가 어떻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방금처럼 부르셔도 되고, 지나라고 편하게 불러도 돼요."

수습 팀원인 그녀는 샐쭉 눈을 휘었다.

“이번 공략 잘 부탁드립니다.”

과연, 정말로 인간 같았다.

‘…조금 불완전해 보이는 편이 더 인간에 가까워 보인다는 걸 모르나 보지? 하지만 과하게 이상적으로 완벽해 보일 뿐 나머지는 꼭 인간 같네. 이 정도 의태라면 이것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속을 거다. 너무 능숙해서 오히려 위험한 수준이야.’

그에게서는 다른 기이한 신비들이 의태 중 드러내고는 하는 위화감이 거의 없었다. 그 위화감 역시 ‘지나치게 이상적이다’라는 것뿐,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은가.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인간 흉내가 노련하지 않다고 했는데, 성장하고 있는 걸지도….’

정체 모를 신비의 성장은 인간의 공포심을 자극하기 마련이다. 유지나는 애써 자신이 느끼는 공포심을 떨쳐내며 호의를 담아 소개를 이었다.

“이쪽은 강느루 씨랑 단미 씨!”

그에 현장 직원들이 고맙다는 듯 유지나에게 시선을 보내고는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수집상의 현장 직원인 강느루입니다.”

“저도 느루 씨랑 같은 소속이에요. 단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무난한 소개에 유지나가 어깨를 으쓱였다.

“저희 수습 팀에서도 한 명이 더 올 예정인데, 1층에서 일을 봐주느라 조금 늦는 것 같네요.”

그쯤에서 5층장이 나섰다.

“죄송합니다, 서지오 씨. 허락해 주신다면 가서 잡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본다면 ‘좀 늦을 수도 있지 너무 저자세로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대는 갤러리의 작품이었다. 약속 시각을 어겼다는 이유로 학살을 하는 작품의 수가 그리 적지도 않았다.

그들이 진작 나머지 인원을 잡아 오지 않았던 이유는 ‘서지오 씨’의 기준이 넉넉하다는 것에 있었다. 그는 무례한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쾌감만 드러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단 전제하에 관대한 처사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어디까지 봐줄지는 모르는 일이지.’

그렇기에 5층장이 먼저 나서서 작품의 심기를 살핀 것이다.

“많이 불쾌하시다면….”

“바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서지오 씨’는 불쾌함을 표하지 않았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셨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극진한 대접은 정말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는 순한 눈매를 접어 웃으며 ‘난감함’을 흉내 냈다.

“제가 무서우신가요?”

“아니요.”

5층장은 장성한 손자를 보는 노인과 같이 선명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저 영광일 뿐입니다.”

그건 가라사니 큐레이터가 오로지 작품들에게만 보여준다는 미소였다.

“저희는 이미 아는 얼굴들이지만 서지오 씨에게는 아직 낯설 테지요. 공략 전에 서로 익숙해지기 위한 자리이니 부디 서지오 씨께서도 편하게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배려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별말씀을... 서지오 씨는 주로 새벽에 근무하시고 얼굴을 보이셔서 아마 이 사람들의 얼굴을 잘 모르실 겁니다. 천천히 대화를 나누며 서로 익숙해져 보도록 하죠.”

그렇게 ‘서지오 씨’를 무사히 자리에 앉힌 가라사니 큐레이터였지만, 그는 안심하지 않았다. 이 근원의 존재가 기본적으로 가진 위압감과 죽음에 가까운 기운 탓에 직원들이 굳은 탓이었다.

제 나름대로 감춘다고 감췄지만 가라사니의 눈에는 보였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면 서지오 씨에게는 당연히 더 잘 보이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었다.

‘서지오 씨가 원하는 역할극에 잘 맞춰야 할 텐데.’

큐레이터인 가라사니는 이런 경험이 많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었지만, 수습 팀이나 현장 팀에게는 조금 어려운 일이 될 것이었다. 기이한 신비의 주장에 따라 연극을 하는 건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가라사니는 팀원들의 앞에 찻잔을 내려두었다.

“이번에 새로 준비한 아잔카차입니다.”

“오, 층장님의 차 내리는 실력은 믿을 만하죠.”

“가벼운 감상평들 부탁하지.”

부디 서로 무사히 적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가라사니는 웃었다.

* * *

드륵—!

한 여자가 미팅룸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수습이 길어져...!”

그러고는 굳었다.

“아 지오 씨 진짜 너무 웃긴다!”

“그걸 정말 그렇게 하셨다고요? 농담이 아니라?”

“미쳤다... 바다 마을의 웃는 폭군... 너무 잘 어울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이걸 대단하다고 해야 해?”

상상도 못 한 화기애애한 분위기.

“.......”

“아, 어서 오세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백금발의 사제가, 불쌍하게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수습 팀원을 보았다. 그는 모든 사람을 녹일 수 있을 듯한 부드러운 미성으로 말했다.

“제 이름은 서지오라고 합니다.”

“어? 아, 네.”

“당신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김나나… 인데요.”

“그렇군요.”

검은망토가 차분하게 물었다.

“저와 대화하시겠습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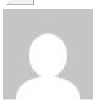
이거 전형적인 세뇌 현장 아닌가?

‘…내 직장 동료들을 대체 어떻게 한 거지?’

수습 팀원 김나나의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69)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70)

170

제170화

“...내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유성운이 쌍 엄지를 치켜들며 말했다.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한 거지?”

“과찬이십니다.”

“칭찬이 아니라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12시 정각 모임인 복도 회의는 유성운이 과로사하기 직전에 다시 개최되었다. 그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지오의 특제 차와 갖은 간식과 함께 회의 아닌 회의를 진행했다.

피폐한 몰골의 유성운을 안쓰럽다는 듯이 보던 주현이 헛기침을 하고는 말했다.

“크흠, 지오 씨가 생각보다 사교성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사교성 좋은 놈이 왜 평소에는 사람들을 겁주지 못해 안달이었을까?”

유성운의 흰 눈처럼 순수한 의문에 초상화 속 검은망토가 대답했다.

“제가 겁을 준 게 아닙니다. 알아서 겁을 뜯어먹으신 겁니다.”

“못 본 사이에 어휘가 풍부해졌네. 겁을 뜯어먹었다는 말은 대체 어느 나라 말이야.”

“저는 결백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유성운이 물었다.

“어떻게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오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격이 있었다. 아무리 잘 갈무리했다고 한들 인간은 본능적으로 격의 차이를 느끼고, 또 위압감을 느낀다. 특히 지오는 섬뜩한 종류의 격을 쌓은 존재였다.

“사람들이 너를 많이 무서워했을 거 아니야.”

“많이 무서워하시기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라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하다.”

“그 정도 사회성은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너는 사회성의 문제였다기보단… 어….”

사실 ‘지오의 초상화’를 인간으로 따졌을 때, 사회성이 나쁜 편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지독하게 느껴질 만큼 무심한 면이 있어서 그렇지 지오는 인간에게 대단히 호의적이고 친절한 것이다.

‘예의를 과하게 지켜가며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좀 두려워하는 문제가 생기지만.’

아무튼 이걸 그대로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네가 좀 무섭게 생기기는 했지.”

“동의합니다.”

지오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부터 제가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에 주현이 고개를 기울였다.

“언제나? 그렇다면 지오반니일 때도 사람들이 지오 씨를 무서워했나요?”

“예, 그때도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지오반니 씨는 딱히 무서운 인상이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는 지레 겁을 먹고 불편해했다고 표현해야겠습니다.”

지오반니는 분명 온화하고 선한 인상의 사제였지만, 태양교 사제 특유의 권위와 귀족으로서의 몸가짐 탓인지 그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오반니일 때는 금발이었던 탓도 있습니다.”

“금발은 또 왜?”

“태양의 색을 타고난 아이들은 신의 자식이라는 미신이 돌던 세상이었으니까요.”

“신의 자식인가….”

“저의 경우 실제로 태양의 사제이기까지 했으니 부담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는 이름값이 있는 유명한 사제였다. 성자라고까지 불렸던 그를 동등하게 대하지 못했던 건 태양교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별달리 무시무시한 짓을 한 기억은 없는 걸로 아는데도 그랬죠.”

“이세르 씨에게 ‘바다 마을의 웃는 폭군’이라는 별명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

초상화가 백금발로 바뀌었다.

“…이세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언제요?”

“지난번에 양꼬치 먹었을 때 잡다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대체 내가 어째서 폭군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순순히 자비를 받지 않으면 강제로 쑤셔 넣으셨다고….”

“결과적으로 좋았으니 괜찮은 일이라고 봅니다.”

“아하, 과연. 이래서 지오반니일 때도 두려움을 사셨군요.”

“억울합니다.”

지오의 진심 어린 호소에 유성운이 특유의 무던한 웃음을 흘렸다.

“그건 공포보다는 경외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네.”

“아, 그렇겠네요. 저도 지오반니 씨 같은 이웃이 있었다면 쉽게 대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주현도 유성운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친근하게 접근하기는 무리가 있는 인상이셔서.”

초상화는 또 한 번 억울해했다.

“친하게 지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야 그렇게 지내겠지만, 초면의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나마 성격이 온화하고 쾌청한 지오반니일 때는 경외의 수준에서 멈추지, 표정근이 퇴화된 듯한 서지오나 전투광인 아르지오로 가서는 그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주현을 매개체로 ‘서지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유성운이 물었다.

“그런데 서지오일 때도 사람들이 너를 무서워했던 건가? 지오반니처럼 특별히 기적을 부리지도 않았을 거고, 아르지오처럼 피를 보지 못해 안달하지도 않았을 텐데....”

“예,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아니 뭐, 딱히 평범하지는 않았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까지는 무리잖아. 뭘 자연스럽게 평범한 인생이었다고 구렁이가 담을 넘듯이 넘어가려는 거야.”

“억울합니다.”

초상화는 어느새 흑발로 돌아와 있었다.

“저는 인상이 무서웠을 뿐입니다.”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두려움을 사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걸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나는 언제나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행의 문제가 아니라 인상의 문제라고 하잖아, 지오야. 아니 물론 그것도 문제이기는 했겠지만....”

그건 억울하다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그래, 이상하다니까? 네 말마따나 ‘평범한 교사’였을 때도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면서.”

유성운은 귀가하기 전 5층장에게 전해 들었던 미팅룸에서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런 녀석이 어떻게 그런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었냐는 말이야.”

“계속 말하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했을 뿐입니다.”

지오에게 그 정도 사교성과 사회성은 있었다.

“친근감을 느끼기 힘든 인상 탓에 절 어려워하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결국에는 모두 좋은 인연으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한다면 결국 그걸 풀어주면 되는 일이니 말입니다.”

지오의 말에 유성운이 감탄했다.

“그럼 왜 평소에는 안 그러는 건데?”

“피곤합니다.”

“아?”

“투자 대비 성과가 불투명합니다.”

“손해 보는 장사라는 건가.”

“잘 이해하셨습니다.”

함께 일을 해야 하거나 오랫동안 봐야 하는 사람의 경우 지오가 열심히 재롱을 떨어 주겠지만, 대부분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었다. 굳이 아까운 기력 소모해 상대를 구워삶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제 기본 인상이 무서운 것은 사실이니 말입니다.”

지오가 아무 노력 없이 편하게 대할수록 상대는 공포를 떨쳐내기 힘들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지오가 성의 있게 대하면 얼마든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었다.

“…….”

“…….”

그에 유성운과 주현은 생각했다.

‘…하긴 그만한 격의 존재를 편하게 느끼게끔 만드는 일이 적은 투자로 가능할 리가 없지. 아무한테나 베풀 수 있는 자비는 아닐 거다.’

‘굳이 그런 식으로 노력하지 않고서는 불특정 다수의 인간들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없다는 것부터가 본인이 인간이 아님을 증명하는 게 아닌지…?’

유성운은 정원사이자 큐레이터답게 작품의 피곤함을 이해해 주었고, 주현은 친구의 입장에 서서 지오의 평소 주장의 모순을 짚어내고 있었다. 최소한 인간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었다.

지오는 그런 유성운과 주현의 기색을 알아챘다.

‘내가 평범한 내향형 인간임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건가.’

인상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건 디폴트값이고, 그걸 해명하고 긴장을 풀어주려면 지오는 꽤 많은 심력을 소비해야 했다. 그게 바로 인상 무서운 내향형 인간의 삶이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어이없고 웃긴 고로 지오는 지금의 상황을 그냥 수용해 보기로 했다. 귀한 초상화 대접을 해 주겠다는데 빼길 생각 없었다. 지오는 평생 초상화로 살고 싶었다.

“…제가 잘못한 건 아닙니까?”

“아, 잘못한 건 아니지. 오히려 큰 도움이 되겠어.”

“저와 함께 일하실 분들인 탓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주현에게 듣기로 그 공략이라는 것은 일종의 합숙 훈련 같은 거라고 했다. 아니면 워크숍이나 장기 출장 같은 거라고 말이다. 꽤 긴 시간 함께해야 할 사람들과 어색한 사이가 되고 싶진 않았다.

‘그만한 지옥도 보기 드물지.’

그러니 온 힘을 다해 첫인상을 좋게 남기고 남은 업무 기간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보내는 게 백배 천배 편했다. 지오는 정말 필사적으로 이번 임시 동료들과 친해지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다만 나중에 들어오신 김나나 수습 팀원께서는 조금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아, 그 이야기도 전해 들었어.”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뇌인 줄 알았다던데.”

“저를 많이 무서워하셨습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대화 좀 나누고 풀렸다면서.”

“큰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김나나 씨도 이해가 가기는 해.”

어색하게 웃으며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자기가 없는 사이 검은망토를 오래된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며 깔깔거리는 동료들의 모습이란… 솔직히 마주친 순간 섬뜩해질 수밖에 없겠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그래도 마지막에는 저를 편하게 느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맞고. 네가 잘못 안 건 아니야, 내가 전해 듣기로도 김나나 씨가 아직도 너를 무서워하지는 않는 것 같았거든. 그런 부분도 놀랍지만 말이야.”

그에 유성운이 슬쩍 물었다.

“진짜 세뇌 스킬을 쓴 건 아니고?”

“정말 억울합니다.”

“어 그래 미안해, 하지만 솔직히 좀 의심스럽잖아.”

“초상화가 우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궁금하기는 한데 그 감상은 다음으로 미루고.”

주현이 진성 미친놈을 본다는 듯이 유성운을 보았지만 깔끔하게 무시했다. 원래 비사벌의 큐레이터들은 다 이 모양 이 꼴이었다. 작품의 우는 모습? 대단히 진귀한 광경인 것이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유성운은 대단히 피곤한 상태였으므로 이 기회를 다음으로 넘겼다.

“순수하게 입담만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라면 정말 대단한 일 아닌가?”

“칭찬을 해주시니 기쁩니다.”

지오는 친한 형에게 ‘야 너 사회생활 잘하네’ 소리를 들어서 좀 행복해졌다. 소심하고 겁 많은 지오는 자신이 괜찮은 일을 한 것 같아 나름 뿌듯해졌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어 대처 방법을 아는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너의 그 초상화스러움이 일을 낸 건 아니고?”

“초상화스러움이라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넌 좀 그런 게 있잖아. 그 뭐냐, 바라는 대로 이뤄지는….”

“등산할 때 쌓는 돌탑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비슷한가?”

지오는 특별히 조치하지 않고도 그가 바라는 대로 일을 진행하는 능력이 있었다. 근원의 일부로서 운명을 조절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유성운은 생각 중이었다.

“하긴 어느 쪽이든 대단한 건 마찬가지지만.”

“감사합니다.”

“가만 보면 은근히 칭찬받는 걸 좋아한다니까….”

그에 주현이 웃으며 말을 얹었다.

“아무래도 아직 어리시니까요.”

“…….”

유성운의 지긋한 시선에 주현이 시선을 피했다.

“…인격, 네, 인격이요.”

“뭘 부끄러워하고 그래.”

“부끄러운 말을 한 것 같아서….”

“대담한 건지 소심한 건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만 놀려주시면 고맙겠어요.”

얼굴이 붉어진 주현이 약간의 억울함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지오 씨는 확실히 어린 편이 아니십니까? 29살에, 32살에, 24살에….”

“단명이라면 단명이기는 했지.”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살아생전의 나이를 보란 말입니다. 어리잖아요.”

“그래, 빨리 죽었긴 했어. 나도 알아.”

“지금 지오 씨의 면전에 대고 그런 슬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냥 사실이잖아….”

왜인지 혼나는 기분에 유성운이 지오를 돌아보았다.

“본인은 별 유감도 없을걸?”

“아아, 우리 인어 학생들과 더 오래오래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럴 거야? 나만 나쁜 놈으로 만들겠다 이거지, 지금?”

“농담입니다.”

지오반니도 딱히 제 수명에 불만은 없었다.

“미인박명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감, 아주 보기 좋아.”

“제가 잘생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지라.”

“이상한 부분에서 뻔뻔하단 말이야.”

유성운이 어깨를 으쓱였다.

“아무튼 큰 문제 없이 친해져서 다행이네.”

“그래도 저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어, 그래? 분위기 좋았다고 하지 않았나?”

“음.”

잠시 고민한 지오가 말을 이었다.

“예전에도 비슷한 경우는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

“제 혼신의 재롱을 일종의 자비로 받아들이고 경외하는….”

“아, 그거 혼신의 재롱이었구나. 그렇구나.”

사실 유성운도 재롱보다는 거대한 신비의 자비에 가깝다고 해석하는 편이기는 했다. 본인이 아닌 척하길 원하는 것 같으니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이다.

“…….”

“응? 왜?”

“배고프십니까?”

“…출출하긴 한데 뭐가 문제지?”

“허튼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에 위장이 비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허튼 생각이 뭔지는 둘째 치고 그걸 왜 위장이랑 엮는 거야….”

어떻게 심술부리는 것마저도 밥을 먹이는 걸로 통일될 수 있냐며 유성운은 놀라워했다.

* * *

그렇게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공략 전 휴식의 날.

“말로만 듣던 수집상의 도련님을 보게 되니 너무 반갑네.”

“…….”

“우리 도련님, 설마 던전에서 밥 맛없다고 울지는 않겠지?”

웬 허우대 멀쩡한 양아치에게 지오는 일방적인 도발을 당하고 있었다.

‘나에게 밥으로 승부를 걸다니?’

정말 놀랍게도, 세상은 그의 연약함을 이해할 생각이 없는 게 분명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70)"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71)

171

제171화

강원도 삼척의 어느 호화로운 호텔, 이벤트룸.

“…….”

“…….”

시끌벅적한 군집 사이 묘한 정적이 흐르고, 둘 중 먼저 입을 연 것은 지오였다.

그는 아주 당연한 상식을 알려주듯이 평이하게 말했다.

“식사 준비는 제가 하게 될 테니 밥이 맛이 없을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도련님이 할 거라고?”

“저는 요리 실력과 소화 능력이 훌륭합니다. 그러니 던전에서도 맛있는 식사를 해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건 또 신박한 답변이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조금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미안.”

초승달처럼 휘어진 검은색 눈이 인상적인 헌터가 씩 웃으며 양손을 들었다. 전형적인 항복 자세였고, 또 전형적인 조롱 의사였다. 그는 서지오에게서 조금 물러났다.

“하도 서지오 헌터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 혼자 친해진 줄 알았나 봐.”

“아하, 방금 그것은 친교 의사였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마음이 참 넓으시네, 안 그래? 유머 감각도 좋으시고. 이렇게 봐서 정말 너무 반갑다.”

아닌 척하지만 남몰래 둘의 대화를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는 헌터들이 많았다. 하지만 서지오 헌터는 그다지 신경 쓰는 눈치가 아니었고, 그건 먼저 ‘대화’를 청했던 금발의 헌터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원래 말을 좀 생각 없이 뱉는 버릇이 있어. 이해해 줄 거지?”

길고 곧은 금발과 보기 좋게 뻗은 신체. 동화 속 정직한 기사를 닮은 얼굴로 걸어오는 선연한 도발에 서지오가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겸손하시군요.”

“앗, 나 겸손한 인상인가? 처음 듣는 말이라 조금 놀랐어.”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대화 상대랑 더 대화해 볼 생각은 없고?”

“얼굴만 비추고 돌아갈 예정이었던지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흐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얼굴로 비음을 길게 늘인 헌터, 사나래가 씩 웃으며 물러났다. 처음 서지오에게 말을 걸어왔던 것과 같이 참 실없는 후퇴였다.

“나중에 또 즐거운 대화 나누자.”

“반가운 이야기군요.”

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가라사니 큐레이터가 다가왔다.

“서지오 헌터.”

이렇듯 뜬금없는 시비가 걸린 것처럼, 이번 수집상의 조합 때문인지 서지오를 온실 속 화초로 보는 사람들이 꽤 되었다.

그걸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수집상의 인원은 과하게 ‘서지오를 감시한다’ 혹은 ‘수발든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조금씩 떨어져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였다.

“제가 도와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상황 설명?”

“예,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셨군요.”

가라사니가 고생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모임 장소에 오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렇다, 지오는 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시비에 걸린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선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야 했다.

* * *

“호텔이요?”

지오의 되물음에 주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태양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다 보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인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오 씨는 이런 헌터들의 관습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아 정리해 왔습니다.”

오랜만에 수집상에 들른 주현은 지오와 함께 작은 미팅룸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인력이 파견되는 공략 대상 던전이 그에 관여하는 길드 근처에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예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이번만 해도 강원도 삼척에 있는 던전이죠. 그래서 여건이 되기만 한다면, 특히 이런 체면을 중요시하는 대형 집단은 헌터를 던전으로 바로 파견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한 헌터들이 던전 입구 근처에서 휴식할 수 있는 거점을 찾아요. 일종의 휴게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헌터들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구의 생리를 잘 모르는 서지오가 물었다.

“바로 공략하러 가지 않는 겁니까?”

“던전 진입 전에 헌터들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두려는 것이죠.”

“지역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체력이 소모될 테니까?”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주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헌터의 스킬이나 장비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텔레포트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보통 자기 한 명만 이동이 가능해요. 그조차도 체력이나 마력, 혹은 내구도를 소모하고요.”

다른 사람을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공략에 참여하지 않는 전문적인 텔레포트 헌터가 도와준다고 해도 마찬가지였다. 무엇보다 이동당하는 사람이라고 체력 소모가 안 되는 게 아닌 것이다.

“애초에 그런 식으로 이동을 돕는 전문 헌터의 수는 대단히 적습니다. 고급 인력이고, 여기저기 찾는 곳이 많아서 예약하기도 어려워요.”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물론 수집상과 같은 대형 길드는 그런 스킬의 헌터가 이미 몇 명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수집상이야 그렇게 편한 방법으로 이동한다 쳐도 대부분의 다른 길드는 이렇게 못 할 테죠.”

“그렇다면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텔레포트 장소는 없습니까? 예전에 붕어빵을 팔아주시던 차은혁이라는 분을 떠올려 보면 얼핏 그런 게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설치가 되어 있는 곳만 있습니다. 굉장히 한정적인데, 차은혁이라는 분은 제법 인프라가 잘 형성된 지방에 계신가 봅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설치된 터미널이 없어서요.”

“...강원도에는 터미널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서지오가 충격을 받아 묻자 주현이 설명을 이었다.

“시나 정부에서 설치해 준 이동 기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들의 기준에서 고급 이동 수단으로 분류되는 텔레포트 전용 터미널은 당연히 없고, 비 마법 이동 수단인 철도도 안 깔려 있고, 심지어는 버스나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길조차 제대로 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헌터는 강원도로 이동할 시, 이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길’을 이용해야 한다. 그만큼 강원도 던전은 행군이 꽤 힘겨운 공략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여러 인프라 측면에서 도시와 지방은 그만큼 차이가 큽니다. 강원도는 대재앙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지역으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꾸려진 곳조차 삼척뿐인... 꽤 척박한 구역이라서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공략에서는 더더욱 헌터들이 쉴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셈이죠. 꼭 이번 공략처럼 강원도와 같이 먼 지방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던전 공략에 앞서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현이 특유의 미소를 지었다.

“헌터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공략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다른 이유도 있나 봅니다.”

“지오 씨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체면의 문제일 겁니다.”

의외의 답변에 지오가 주현을 올려다보았다.

“체면?”

“특히 서울의 길드들이니까요.”

“서울의 길드는 체면을 중요시합니까?”

“음,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입니다만....”

주현이 머쓱한 얼굴로 설명했다.

“좋은 인력들이 가장 많은 나라로 유명한 한국은 그 땅덩어리가 어지간한 나라에 비해 작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땅 중 오로지 서울과 부산만이 크게 발달되었고 인력이 모여 있죠.”

그 말에 지오가 생각했다.

‘...대재앙 이전과 다를 게 뭐지? 생존 난이도의 정도...?’

구시대 한국인의 의문과 별개로 주현의 설명은 이어졌다.

“그리고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특히 시민들에게서 얻는 인기가 중요한 곳입니다. SNS가 특히 발달되었고, 시민들은 끈끈하게 묶여 있으며, 그런 시민들이 보내는 지지로 승승장구하는 길드가 워낙 많거든요.”

“이미지 장사라는 뜻입니까?”

“잘 이해하셨습니다. 서울의 시민들에게 길드나 교단의 이미지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들이 강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일수록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리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서울 시민들의 자부심이기도 해요.”

“대체 어떤 자부심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건 찾아보기 어렵지 않은 인간의 대표적인 본능 중 하나죠. 아무것도 없는 시민들이 유명 길드와 자신을 한 팀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오 씨처럼 자기 자신만을 신경 쓰며 주변을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아요.”

“오....”

듣는 인간 서지오는 순간 좀 섭섭해질 뻔했다. 아무리 내 성격이 무심하기로서니 계속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맞는가.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았다. 귀한 초상화 대접은 환영이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자기 합리화를 마친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가요? 지오 씨는 똑똑하군요.”

주현은 마치 어린 동생을 가르치듯이 웃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대형 집단들은 체면을 필수적으로 차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대적인 공략은 체면 차리기에 딱 좋은 행사죠. 아까 말씀드린 관습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던전 근처에 숙소를 잡는 관습 말입니까?”

“예, 아무리 돈이 없는 길드라고 해도 이 관습만큼은 꼭 지키는 게 기본이라서요. 이런 관습조차 지켜주지 않는 길드는... 음, ‘자기 길드원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는 길드’라는 인식이 박히죠.”

실제로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었다.

“확실히 헌터의 생환율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자기 길드원을 대놓고 죽일 거라 홍보할 생각이 없는 한 던전 근처에 숙소를 잡아주는 편이에요.”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었다.

“예외적으로는 불법 길드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눈치 볼 필요 없는 그런 불법 길드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소속의 헌터를 사지로 몰아넣으니까요. 불법 길드는 관습을 잘 지키지 않아요.”

“모든 불법 길드가 그렇습니까?”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곳들은 전부 그랬습니다. 관습도 최소한의 체면을 차릴 필요성이 있는 집단에서나 지키는 거지, 그런 곳들은… 아무래도 그렇겠죠.”

“불법 길드의 수가 적지 않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인구수가 미어터지는 세상이다 보니 불법 길드도 크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빈민가의 인력도 넘쳐나고, 지방의 3등급이나 범죄자인 5등급 시민을 써도 되는 일이니 말입니다.”

“인구수가 미어터진다니.”

한때 인구 감소로 나라가 망하느니 마느니 했던 대한민국을 떠올리자면 놀라운 변화였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변화했는데 그 방향이 참 끔찍해서 서지오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쫄고 말았다.

그런 지오의 속내를 모르는 주현이 마저 설명을 이었다.

“태양교도 그렇고, 지오 씨의 수집상을 포함해 이번 공략에 참가하는 길드들은 전부 정도 이상의 높은 명성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될 테니 이번 공략의 성공을 기원하며 작은 파티를 열 예정인 듯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지오가 물었다.

“공략의 성공을 기원하는 파티는 무엇입니까?”

“음… 이건 관습까지는 아니지만, 드물지 않게 공략에 포함되는 행사입니다. 여건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주현은 아무것도 모르는 고양이에게 인간 세상을 알려주듯이 말을 이었다.

“말 그대로 공략의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죠. 헌터들의 귀한 체력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작은 규모의 짧고 흥겨운 축제를 열어 분위기를 띄우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충분한 휴식과 축제를 겪은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충만한 상태가 돼요.”

“축제라니 달갑지는 않습니다.”

“지오 씨가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기자며 언론 쪽의 사람들이 잔뜩 모여들 테니 인간들의 수가 적지도 않을 거고요. 대놓고 불참석은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이럴 때는 잠시 얼굴만 비추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모든 헌터가 이런 행사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낯을 가리는 헌터도 있고, 행사 자체를 한심하게 여기는 헌터도 있을 거예요. 꽤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니 그만큼 자신과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이런 행사는 대개 인식이 좋다.

“이런 파티의 가장 대표적인 의의는 친교입니다. 특히 이번 공략처럼 하나 이상의 여러 집단이 모일 때 자주 열고는 하는데, 얼굴도 낯설고 서로의 전투 방식도 모르니 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알아서 적응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의도인 것을 잘 알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안 맞는 사람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이런 행사의 의의 중 하나입니다. 본격적인 던전 진입 전에 손발이 맞는 헌터와 그렇지 않은 헌터를 찾아내려는 거죠. 공략 시 헌터들의 조합은 중요하니까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내향형 인간 서지오가 물었다.

“방금 ‘공략 시 조합’이라고 하셨는데, 같은 길드원끼리 묶어주지 않는 겁니까?”

“아… 확실히 지오 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상식이라 미처 설명해 주지 못했다. 주현이 안타깝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한 한 같은 길드원끼리는 붙여두려고 하는 추세이지만, 공략 조합을 짤 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헌터의 포지션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길드에서 힐러만 잔뜩 보낸다면 그 힐러는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겠죠.”

대단히 타당한 말이었고.

“…….”

지오는 기가 팍 죽었다.

‘공략 기간 내내 낯만 가리다 올 것 같은데.’

이러면 수집상 직원들에게 혼신의 사교성을 보인 의미가 있나?

주현이 그런 그를 위로하듯이 말했다.

“아마 행사장까지는 기자들도 들어오겠지만, 괜찮습니다. 지오 씨의 곁에는 최소 한 명 이상의 수집상 길드원이 붙어 있을 테고… 행사도 정 부담스러우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도장만 찍고 오셔도 돼요.”

“그건 다른 분들께 무례한 짓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사 자리를 즐기지 않는 헌터들도 많은 걸로 압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주최 측에서는 지오 씨를 ‘소란스러움을 좋아하지 않는 헌터’로 기억하고 그에 맞는 조합을 짜겠죠. 걱정하시는 무례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지오는 주현의 친절한 응원에 안심했다.

“얼굴만 보이고 오는 것 정도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오는 수집상의 식구들을 낀 채로 강원도 삼척의 유일한 호텔로 향했고.

지정된 방에서 내려와 모임 장소인 이벤트룸에 들어가자마자, 대뜸 시비에 걸린 것이었다.

* * *

다시 돌아와 호텔의 이벤트룸.

“원하신다면 해령에 정식으로 항의를 넣어 보겠습니다.”

가라사니 큐레이터의 말에 지오가 물었다.

“방금 저와 대화하신 분이 해령 길드의 소속이십니까?”

“예, 많이 불쾌하셨을지요.”

“아니요, 큐레이터님께서 생각하신 것만큼 불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해령….”

주현에게 이야기를 들은 길드였다.

“…….”

지오의 눈이 방금 대화를 나누었던 남자를 응시했다.

시선이 마주치자 그쪽에서 가볍게 흔드는 손을 보며, 아르지오가 후드를 눌러썼다.

“…아쉬워라.”

악의가 없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71)"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72)

172

제172화

이 좁디좁은 세상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신념이며, 다른 하나는 악의로다』

나의 분노를 원한다면 그대들은 인간이 되어라.

짐승이 백날 짖어댄다 한들, 내 어찌 화를 낼 수 있겠는가?

* * *

정말로 얼굴만 비친 서지오 헌터가 이벤트룸에서 나가고.

“조장.”

해령의 길드원이 금발의 헌터에게 친근한 얼굴로 말을 붙여왔다.

“왜 그랬어? 방금 수집상의 헌터한테.”

“그러게, 왜 그랬을까?”

“흐음, 팀으로 묶이기 싫었나?”

“그렇게 보였어?”

“조장은 같이 일하기 싫으면 그러잖아.”

그에 조장이라고 불린 남자가 눈을 초승달처럼 둥글게 휘었다.

“나라고 늘 그러지는 않는데?”

“이름값 하는 거야, 거짓말쟁이?”

“아... 나는 그거 싫어.”

“협회에서 붙여준 이름이잖아, 감사히 여겨.”

“그러니까 싫대도.”

“방금은 누가 봐도 시비 거는 거였어.”

길드원이 제 리더의 옆구리를 툭 쳤다.

“그리고 봤나?”

“뭘 봐? 색 변하는 거?”

“다 봤구만 무슨 내숭이야.”

“갑자기 후드를 뒤집어쓰니까 눈길이 안 갈 수가 없지이….”

말끝을 늘인 금발의 헌터가 주변을 쭉 훑었다. 빛 한 점 들어가지 않을 듯한 짙은 흑안이 세상을 담는다.

“우리 말고도 알아챈 놈들이 몇 명 있는 것 같고.”

그가 서지오 헌터를 쿡 찔러보고 돌아왔을 때, 왜인지 웃으며 눈을 마주쳐 오길래 가볍게 손 인사를 해주었다. 그 직후 후드를 눌러쓴 서지오 헌터의 눈 색이 바뀌더라.

“무슨 색이었던 것 같아?”

“글쎄, 이상하리만치 후드 아래가 어두워서….”

“으으음, 역시 아이템이려나?”

“내가 봤을 때는 노란색?”

“나는 금색에 걸게.”

“그럼 금색이 맞겠네.”

조원이 웃으며 물었다.

“수집가 눈도 금색 아닌가?”

“어어, 아니야. 그쪽은 좀 더 밝은 느낌.”

“밝은 느낌이 뭔데? 형광색?”

“비슷하지 않으려나.”

“아무튼 뭔가… 가능성이 없겠어?”

“무슨 가능성?”

“에이, 또 알면서 그런다.”

“확실히 재밌는 생각이기는 하네.”

금발의 헌터가 늘어지게 웃었다. 아마 그의 사랑스러운 조원은 ‘수집가 비사벌이 이토록 편애하는 서지오 헌터가 혈연관계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분명했다.

“누구를 닮아 이렇게 대가리가 텅텅 비었나 궁금하단 말이지.”

“닥칠까…?”

“으응, 아직 홀에 남은 수집상 길드원들도 귀가 있을 텐데 조심하는 게 좋지 않으려나 싶네?”

“그럼 닥칠게, 조장.”

“누구를 닮아 이렇게 깜찍한지 모르겠어. 역시 나겠지?”

마음에도 없는 너스레를 떤 남자가 씩 웃으며 어깨동무를 걸쳤다.

“조심하자, 응? 나 수집상이랑 싸우기 싫거든….”

“반장한테 혼나서?”

“그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치고는 이미 거하게 시비 털지 않았어?”

“아하, 그러려나?”

그의 눈이 다시 한번 휘어졌다.

“곤란하네.”

거짓말쟁이의 얼굴이었다.

* * *

“해령은….”

가라사니 큐레이터가 말을 이었다.

“전형적인 싸움닭들이 모인 길드입니다.”

지오가 배정받은 객실에서 그의 수발을 들며 가라사니 헌터가 말했다.

“뇌를 빼고 사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죠.”

“뇌를 빼고?”

“정말 뇌를 뺀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무 생각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과연 그렇군요.”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지만 일단 지오는 닥쳐보기로 했다. 언제나 닥치면 중간은 갔다.

경청하는 초상화의 태도를 웃지도 않고 흐뭇하게 바라보던 5층장이 지오의 짐 정리를 돕던 주현에게 물었다.

“주현 씨, 해령 길드에 대한 자료가 있겠습니까?”

“이번 공략에 참가하는 길드원들에 대한 정보라면 여기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현에게 투명한 태블릿을 받은 가라사니 큐레이터가 지오에게 물었다.

“이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광이군요, 감사합니다.”

‘집사장’이라는 이명에 걸맞은 지긋한 미소를 지은 가라사니가 이내 말을 이었다.

“이벤트룸에서 서지오 헌터에게 접근했던 자의 이름은 사나래로, 이명은 ‘피노키오’. 길드 내에서 맡은 직책은 조장입니다. 해령은 일반 사원과 조장, 반장, 직장, 길드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생산직 계급에서 따온 겁니까?”

“인간 사회의 계급 종류에 대해 잘 아시는군요, 훌륭합니다. 해령의 길드원들은 자기 자신을 일종의 미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미화직 역시 생산직 중 하나이고요.”

“해령의 길드원들은 스스로를 환경미화원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양한 의미에서의 미화를 담고 있습니다. 해령은 몬스터뿐만 아니라 레드 헌터 계열인 5등급 시민도 주로 상대합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던전도, 사회도 청소하는 셈입니다.”

가라사니가 객실 화면에 해령 길드원들의 정보를 띄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평범한 교양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 방금 뇌를 빼고 사는 분들이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령의 길드원은 그들의 상관이 아니라면 통제가 힘든 인력이죠.”

그에 주현이 눈짓으로 가라사니의 허락을 받고 그의 말을 이었다.

“감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해령의 길드원들은 자신의 상관에게 자신의 모든 통제권을 넘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온전히 상관에게 맡겨두고는 해요.”

“주현 씨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해령은 대개 죽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 모이지요. 그러니 해령의 길드원은 총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라사니가 하나씩 설명을 이었다.

“첫 번째는 순수하게 전투를 즐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기의 안전불감증이라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며, 세 번째는 죽음의 감각에 중독된 이들입니다.”

그는 화면에 띄워진 ‘해령: 사나래’의 정보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있는 사나래 헌터가 그 마지막 경우에 속합니다.”

“죽음의 감각에 중독되었다는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이라는 감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음, 중독자이지요.”

자신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낀 가라사니가 잠시 고민하고서는 말을 이었다.

“서지오 헌터께서는 약에 중독된 인간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아십니까? 꼭 약이 아니더라도 담배나 술과 같이 중독성을 내포한 것들에 잔뜩 취한 인간을 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의 경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종 인간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각오할 때가 있고, 무기력함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때도 있지요. 사나래 헌터는 그보다 훨씬 향락적인 인간입니다만….”

“향락적인 인간?”

“일종의 쾌락주의자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다양한 종류의 자극에 잔뜩 취한 중독자처럼 굴 때가 많아요. 멀쩡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본적으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모로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에는 부담이 있는 인간이죠.”

가라사니가 다시 해령의 길드원을 나열한 화면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마저 설명을 드리자면, 그만큼 해령의 길드원들은 자신의 상관에게 복종합니다.”

“상하 관계가 분명해 보이지는 않는 모습들이던데 반항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게 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상 하극상의 의미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 말에 주현이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골치 아픈 건 생각하기 싫다는 사람들이 모인 길드라서요.”

“아하, 바로 이해했습니다.”

한마디로 책임 없는 쾌락만을 원한다 이거다.

“그럼 확실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지 않겠군요.”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을 것이었다. ‘뇌를 빼고 산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머리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인 듯한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져야 할 책임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생각의 깊이가 얕지 않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기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요, 그들이 기특하시군요. 서지오 헌터께서는 참 자비로우십니다.”

명성 높은 대학에 입학한 손자의 재롱을 보듯 부드럽게 웃은 가라사니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아까 전의 화제로 돌아오자면, 사나래 헌터가 당신께 보인 그런 불손한 언행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 조장을 맡은 만큼 머리가 안 돌아가는 인간은 아닙니다.”

가라사니가 제 턱을 쓸었다.

“해령은 이른바 ‘도련님’과 ‘아가씨’를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출신 성분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잔뜩 모인 만큼 등급에 대한 나쁜 감정이 많은 길드인 탓입니다. 등급 갈등의 대표적인 예시죠.”

“출신 성분이 불분명합니까?”

“예, 당장 사나래 헌터만 해도 빈민가 출신입니다. 특히 사나래 헌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쾌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온실 속 화초인 헌터들을 혐오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결백한 기사님이나 동화 속 왕자님처럼 생긴 겉모습과 달리 사나래의 언행은 양아치에 가까웠다. 늘어지게 웃으며 사람 신경을 건드리는 것의 선수였다.

강자가 권위로 찍어 누르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고, 무릎은 숨 쉬듯 쉽게 꿇더라도 뒤로는 다른 생각을 하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얼굴로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 사람들을 골치 아프게 만든다.

어느 때에는 비굴한 듯하지만 어느 때에는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한다. 태연하게 거짓된 맹세를 입에 담고 능숙하게 웃으니, 아무도 그에게 복종과 순종을 바랄 수 없었다.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눈을 하고 있지만, 꼭 제정신처럼 보이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해령 길드에서 거두지 않았더라면 5등급 시민이 되었을 거라는 소문이 자자한 헌터입니다.”

가라사니의 말에 주현이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배신하거나 엉뚱한 짓을 할 때도 많다고요.”

“동지애는 있는지 해령의 길드원들끼리는 잘 어울립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그 외의 인원들과는 제대로 교류하려고 하지 않죠.”

가라사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말씀드린 등급 갈등도 비슷한 맥락이리라고 봅니다.”

“‘도련님’과 ‘아가씨’에게는 안 좋은 태도를 보인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온실 속 화초’에게는 그런 기묘한 태도를 유지하죠.”

“안타깝게도 저는 온실 속 화초가 맞습니다.”

지오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가라사니는 역시나 고양이가 앞 구르기 하는 모습을 보듯 지그시 웃을 뿐이었다. 헛소리를 귀여워하는 듯한 모습에 지오는 이번에도 입을 다물었다.

그에 가라사니가 말을 이었다.

“서지오 헌터께서는 확실히 바깥에서 보았을 때 그런 ‘도련님’처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길드장님의 큰 편애를 받고 계신데다, 이번 인원만 해도 당신을 보좌하기 위한 인력이라는 것이 훤하게 보였을 테니 말입니다.”

“훤하게 보였겠군요.”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서지오 헌터의 갑작스러운 유명세 또한 수집상의 수작이라며 못마땅해할 확률이 높죠. 사실상 크게 다른 말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나래 헌터가 ‘도련님’인 당신께 시비를 걸 심리적 이유는 많았습니다.”

주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확실히 수집상치고는 과한 인력이기는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알기로 수집상은, 보통….”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주현에 가라사니가 네 생각이 맞다는 듯 긍정했다.

“그렇습니다, 평소 수집상은 한 명의 헌터를 위해 이렇게까지 인력을 투입하지 않지요.”

“수집상의 신입은 보통 경력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미 충분히 노련한 헌터들이라 어디를 파견 보내도 위험할 확률이 낮은 거예요.”

“물론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낌없는 지원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보통은 물질적인 지원에서 그칩니다. 그도 아니라면 일반 현장직 헌터들을 보좌로 보내고요.”

그에 지오가 물었다.

“저와 함께 오신 분들은 현장직뿐만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저부터가 큐레이터인 데다 갤러리의 수습 팀원도 둘이나 있어요.”

가라사니가 잘 지적했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수집상은 맡은 위치에 따라 입는 유니폼도 조금씩 다르지요. 그렇게 해서 외부인도 저희 길드원의 역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장직은 소매가 없는 클로크, 수습 팀은 활동성을 위한 케이프, 큐레이터는 깔끔한 오버코트. 따로 제복 없이 수집상의 표식과 함께 정장만을 입었다면 일반 사무직으로 분류가 된다.

공식 일정이 아니라면 굳이 챙겨 입지 않는 길드원도 많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가라사니는 서지오가 두른 검은색 망토를 가리켰다.

“마침 서지오 헌터의 망토도 클로크의 한 종류이고요.”

“예, 소매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지오 헌터를 현장직 길드원으로 파악할 겁니다.”

“수집상의 유니폼이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헌터들은 익숙한 제품만을 활용하는 아둔한 생물들이라서요.”

활동하는 데 낯설거나 거리낌이 있는 복장은 잘 활용하지 않게 되고는 한다. 그런 작은 불편함 하나로 헌터의 생사가 갈릴 때도 많기 때문이었다.

“특히 수집상은 공식 일정 외에도 입을 만큼 유니폼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길드이다 보니, 더더욱 그와 비슷한 장비를 맞추게 되는 편입니다. 서지오 헌터도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될 것이고요.”

가라사니가 빙긋 웃었다.

“내일모레 출정식이 되면 서지오 헌터께서도 수집상의 유니폼을 입어 주시겠습니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쾌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너른 마음으로 용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볍게 감사를 전한 가라사니가 말을 이었다.

“이런 다양한 맥락에서, 아마 사나래 헌터는 당신을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있었을 겁니다. 서지오 헌터는 소문은 무성하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잘 보여주지 않으셨으니 말입니다.”

지오가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라사니 씨가 말씀하신 부분은 저 역시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아마….”

가라사니가 무언가를 가늠하듯 턱을 쓸었다.

“같은 조가 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나래 헌터는 진입 전날의 행사에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이기로 유명하지요.”

“아하, 유명하군요.”

“제 입에 쓴 건 삼키는 듯하면서도 결국 어떤 식으로든 뱉어버리는 인간입니다.”

주현이 알 만하다는 듯 흐리게 웃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행사는 진입 후의 인력 조합을 구상하는 데 큰 단서들을 제공하죠. 일부러 대놓고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서 다른 팀으로 떨어지고자 하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에 가라사니가 정돈된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 역으로 같은 팀이 될 때도 많지요.”

“그건 어째서입니까?”

“사나래 헌터는 그런 ‘온실 속 화초’들과 있을 때 성과가 괜찮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싫어하겠군요.”

“싫어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

“바로 맞히셨습니다, 서지오 헌터.”

가라사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온실 속 화초’들의 전투 방식과 사나래 헌터의 전투 방식은 꽤 잘 맞는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나래 헌터는 지나칠 정도로 자유분방하니, 오히려 틀에 박힌 ‘도련님’과 ‘아가씨’들이 그것을 희석해 주는 셈이지요.”

두 종류의 헌터는 생각 외로 시너지가 괜찮을 때가 많았다.

“그래도 어지간하면 다른 팀으로 갈라놓기는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훌륭한 인력이 충분할 때에는 굳이 헌터들 사이에 마찰의 싹을 키우게 둘 이유가 없으니 말입니다.”

“과연 그렇군요.”

“예, 그럼….”

가라사니가 정중하게 물었다.

“서지오 헌터께서는 그 인간을 어찌하고 싶으십니까?”

초상화가 원하던 설명을 마쳤으니, 남은 건 그의 의중을 묻는 것뿐이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바치기 위함입니다. 불쾌하지 않으시다면 제게 당신의 뜻을 알려 주십시오, 저는 그대로 따를 뜻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

“서지오 헌터는 저를 바라는 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제게 당신의 의중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개입도, 방관도, 단순한 수다까지도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리 따르겠습니다.”

“…글쎄요.”

지오는 그 파란 눈으로, 또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 * *

"악의는 없었어."

곧은 금발의 헌터, 사나래가 초승달을 닮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재밌어 보여서."

"…그게 다야?"

"찔러보고 싶었다고나 할까."

"뭔 해괴한…."

"흥미가 있었던 것뿐이야."

그는 인간보다 짐승에 가까운 감각을 지녔다.

"그 사람, 사람 냄새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알아야만 했다.

어떤 존재가 우리와 함께하는지.

* * *

지오는 말했다.

"단지 저를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하, 그런가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르지오가 금색 눈으로 화면의 사나래 헌터를 응시했다.

"…확실한 것이 좋은데…."

이것은 과연 짐승일까, 인간일까.

"……."

아무렴.

둘 모두 온당한 자격이리라.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72)"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73)

173

제173화

정식 출정식 날.

"언제 나오지."

"10시 출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수행원들만 보이네."

대재앙의 여파가 아직도 채 수습되지 못한 강원도. 그중에서 조금이나마 생활 터전 구실을 하는 삼척의 환선굴 근처, 바리케이드가 쳐진 위험 구역 너머로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험한 지역이라고 해도 유명 길드에서 공략을 나설 때 취재진과 구경꾼이 몰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카메라를 든 사람 중에는 기자들도 있었지만, 특정한 헌터를 향한 팬심에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었다.

"……."

한때 철퍼덕 여자라고 불렸던 최라온도 그중 한 명이었다.

"…수집상은 아직 안 나왔나…."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자니, 그녀를 알아본 한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어! 언니!"

"허억…!"

"뭐야, 너무 오랜만이잖아!"

"아, 깜짝아."

최라온이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았다. 안전 구역인 서울을 홀로 벗어나 그 악명 높은 강원도에 와 있는 탓인지 몸이 긴장한 듯했다.

다행히 그녀에게 말을 건 이는 한때 그녀와 같이 헌터 직찍을 위해 전국 투어를 다녔던 팬 중 하나였다. 역시나 카메라를 들고 온 여성이 씩 웃으며 최라온을 훑었다.

"그 헌터 검은망토한테 끌려간 뒤로 그렇게 계삭하고 떠나더니, 그놈의 빛과 소금이 새로 생겼나 봐? 여기 온 걸 보니까 또 헌터?"

“어어… 헌터야. 근데 너는 진짜 왜 여기 있어? 원래 파던 우물은 어디 두고?”

최라온처럼 금방 마음이 식어버리는 부류의 팬은 같은 팬클럽에서 반기는 부류의 인간이 아니었지만, 여성은 최라온과 비슷한 성향이었던 덕분에 친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때 돌판에서 놀다가 만난 인연이었다. 그러니까 아이돌을 덕질하다 친해졌다는 거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여성이 한 남자 아이돌을 파고 있었던 걸 기억하는 최라온은 의아해했지만….

“…….”

“…아, 미안….”

“…아니야….”

민간인인 아이돌을 파던 그녀가 카메라까지 들고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네 우물도 터졌구나.’

어디 그룹 터졌다는 소식은 못 들었으니, 아마 그녀의 최애가 어떠한 사고를 쳐서 마음이 허해진 모양이었다. 그녀 역시 덕질 대상의 흠결에 예민한 사람이었다.

‘요즘 세상에 흠 없는 연예인이 어디 있겠느냐만….’

보통 그들의 마음을 식게 만드는 흠이란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인성 논란이었다. 자기 매니저를 학대하는 영상이나, 다른 사람들을 낮잡아보며 흉보는 음성 파일이나, 뭐 그런 것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그런 ‘흠’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지만, 최라온은 자신이 사랑하던 대상의 안 좋은 이면을 보면 좀처럼 애정을 쉽게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것도 납득할 이유가 있거나 납득할 필요조차 없는 얼굴이어야 넘어가지….

좀 유난이라는 자각은 있었다.

‘그래도… 다들 그런 거 보고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어.’

인간적인 예의로 ‘대체 그 새끼가 무슨 짓을 했길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궁금하긴 했지만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는 것이었다. 남의 상처에 소금 쑤셔 넣을 일 있나.

“…크흠.”

“큼.”

둘은 암묵적으로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너는 그럼 누구 보러 온 거야?”

“아….”

“괜찮아, 나도 새 계정 팠는데 뭐.”

“그게 아니라.”

여성은 민망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사나래 헌터….”

“응?”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내 새끼 있어. 그 얼굴로 맨날 사고만 쳐서 사건 덮느라 유명해지지도 못한 미친놈이지.”

“응…?”

“하 시발 선만 넘어봐라, 딱 한 번만 넘어. 진짜 가만 안 둬 내가.”

“어우….”

사나래라는 헌터를 모르는 최라온으로서는 여성의 반응이 의아했지만, 대충 무슨 맥락인지는 알아들었다. 아마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지 않으면서 민폐 끼치는 걸 좋아하는 헌터가 있는 모양이었다.

그쯤에서 여성이 물었다.

“언니는 누구 잡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반차까지 내고 온 거 아니야?”

“아니 연차 내고 왔어.”

“와 지대로 잡았나 본데, 누구야? 어느 길드? 우리 나래 모르는 걸 보면 해령은 아닐 테고. 은월? 아니면 태양교?”

“수집상.”

“수집상…?”

아직 길을 정리하는 수행원들뿐인 바리케이드 너머를 한 번, 헌터들이 머물고 있을 저 먼 호텔을 한 번 본 여성이 슬그머니 되물었다.

“혹시 서지오 헌터…?”

“어, 알아?”

“알지, 요새 이름 떴잖아.”

“지난번에 만나기도 했거든.”

“…아!”

여성이 놀란 얼굴을 했다.

“철퍼덕 여자.”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 줘서 고맙다.”

“아니, 미쳤나. 어쩐지 뭔가 실루엣이 익숙하더라니.”

“서지오 헌터가 던전에서도 나 구해줬어.”

“이야… 진짜 계 탔네.”

비록 죽을 뻔한 상황에서 타게 된 계이기는 했지만, 목숨 내놓고 사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대인들이었다.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것도 아니고 위협 정도만 받은 선에서 자신이 덕질하는 대상에게 목숨이 구해졌다면 부러워할 만도 했다.

여성이 얼굴을 쭈글쭈글하게 찌푸렸다.

“부럽다, 내 계정은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련한 신세인데.”

“그렇게 아슬아슬한 사람이야…?”

“좀… 전방위로… 지랄하는 헌터이긴 하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잡았대.”

“입덕 부정기만 2년 넘었어.”

“그때는 너 다른 돌 파고 있었을 때잖아?”

“그러니까, 시발. 개같은 거.”

여성은 정말 억울해 보였다.

“정신 차리고 보면 그 새끼 사진을 핥고 있더라고.”

“뭐 보통 덕통사고란 그런 법이긴 하지.”

최라온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직한 스탠스로 심장을 푹 찔러 오는 덕통이 있는가 하면, 여성의 경우처럼 '아닌데?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라고 말하지만 손가락으로는 착실하게 사진을 모으는 덕통도 있는 법이었다.

"…엇, 슬슬 오나 보다."

"어? 그게 보여? 어디서 오는데?"

"수행원들이 자리 비켜주고 있잖아."

"아, 그러네."

공식적으로 공략을 진행할 때는 협회에서 사람을 보내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사람들을 흔히 '수행원'이라고 부르는데, 공략 헌터들 맞이하는 일에 이골이 난 수행원들의 움직임을 살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었다.

"공터 만들어둔 거 보니까 텔레포트로 이동하려나 봐. 하긴 그런 수단이 있으면 굳이 여기까지 걸어올 필요가 없겠지."

"공략조가 머물던 호텔과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니까. 던전으로 진입하기 전에 최대한 깔끔한 상태면 대중한테 보여주기도 좋고…."

카메라 렌즈를 벅벅 닦은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중에 봐, 언니. 이따 밥이나 같이 먹자."

"좋아, 요 앞에 칼국숫집 있더라. 만두도 팔던데…."

"아 만두 좋지, 뭘 좀 아는 집이다. 든든하겠네."

둘은 서로에게 엄지를 세워 주고서는 각자의 길을 떠났다. 지금처럼 기자니 구경꾼이니 개인 팬이니 하는 사람들이 잔뜩 몰렸을 때는 팬들 역시 자신의 살길을 찾아 분주히 움직여야 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태양교의 사제들이었다.

"태양교다!"

"사제님들,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려요!"

"지난번 공략 실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서희 사제님, 여기 좀 봐주세요!"

"사제님!!"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주위가 시끌시끌했다.

'와, 이거 잘 찍어서 돌아갈 수 있는 거 맞나…?'

꽤 길고 험난한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찍덕 최라온이었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이 정도의 헌터 덕질은 낯선 것이었다. 연차까지 써서 출정식 장면을 찍게 된 헌터는 서지오가 처음이었다.

다행히 헌터들은 한 그룹씩 차례를 지켜서 들어오는지, 태양교 직후 다른 길드의 헌터들이 오지는 않았다. 최라온은 잠시 마음을 놓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

최라온은 조금 감탄했다.

'역시 사제님들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신성하네.'

이렇게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그들은 동요 없이 정돈되고 깨끗한 분위기를 띠었다. 티 하나 없이 새하얀 사제복은 전투를 위해서인지 단단한 장비들로 나풀거리는 천을 엮어 활동성을 높인 게 보였다.

그러다 한 초록색 눈을 가진 사제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어색하게 고개를 꾸벅 숙이자 그쪽도 작게 마주 인사를 해주었

다. 얼떨떨하게 사제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니 그다음으로 은월 길드의 행렬이 들어왔다.

“선배님, 은월입니다.”

“저기에 힐러가 그렇게 많다는데….”

“이번 공략 필드에 독이 아예 깔려 있다던데, 그 탓이지 않을까요?”

“확실히 그런 경우에는 포션보다 힐러가 싸게 먹히지. 잠깐 아프고 말 게 아니니까.”

“참 헌터들도 힘든 삶을 산단 말이죠….”

“그 대신 돈 많이 벌잖냐, 등가 교환이야. 말하자면 목숨값이지.”

기자들의 대화를 들은 최라온이 시선을 다시 은월 길드에 두었다.

‘뭔가 앞으로 지나갔던 사제님들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네.’

기척 하나 감지하지 못하는 일반인인 최라온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신자 특유의 분위기는 몰라볼 수가 없었다. 태양교 사제들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가벼운 복장을 한 그들은 새하얀 로브를 두른 채로 태양교를 뒤따랐다.

‘얼굴이 잘 안 보여….’

태양교 사제들보다도 몸을 꽁꽁 싸맨 모습에 최라온이 눈을 껌벅였다.

‘은월은 저 하얀 로브가 유니폼인가? 출정식에서 저렇게까지 얼굴 가려놓은 경우는 또 처음 보네.’

언론에 노출된 상태에서의 출정식이란 기본적으로 길드 홍보의 목적이 컸다. 이미지가 중요한 세상이라 가능하면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제와 비슷한 분위기가 감도는 은월은 대단히 금욕적인 느낌이 났다.

‘그러고 보니 태양교랑 달님교에 인력 충원해 주는 길드가 은월이라고 했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올 걸 그랬네.’

신전의 시종들은 묵언 수행을 하듯이 가능한 한 존재감을 죽인 채 사제님들의 수발을 들어주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길드라고 하니 저런 분위기도 이해가 갔다.

“아, 이번에는 대청이네요.”

“대청 낀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

“대청은 안 찍으시나요?”

“저쪽에서는 아마 재밌는 거 안 나올 거다.”

“에이, 그래도….”

“대청은 너무 무난하단 말이지.”

“그럼 제가 찍을게요.”

대청이라고 불린 길드의 헌터들은 하나같이 푸른색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 하얀 망토가 특징인 듯했던 아까 전의 은월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는데, 사람들의 주목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대청이라고 하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길드는 아닌 건가?’

기분 탓인지 플래시도 아까보다 적게 터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익숙한 이름인 걸 보면 예전에 팠던 놈이 있던 길드와 한 번 이상은 협업을 했다는 건데… 이상하다, 영 기억이 안 나.’

그즈음 또 다른 길드원들이 등장했다.

“저건 해령이네.”

“이야, 여전히 자유분방들 합니다.”

“갑갑한 거 싫어하는 놈들이니까 복장이야 뭐….”

“해령은 원래 유니폼이 없습니까?”

“없겠냐? 있어, 원래 검정색 제복 있는데 그냥 안 입는 거다.”

“저쪽은 길드장이 뭐라고 안 한대요?”

“전투 관련 아니면 상관 말도 서슴없이 씹는 놈들이야. 온갖 말썽꾸러기들이 모였어.”

“무시무시하다 진짜….”

“지난번 기자 폭행 사건이 저쪽에서 일어난 거잖아. 짐승 새끼들이 따로 없다니까?”

기자들의 대화에 이어 최라온은 익숙한 음성을 들었다.

“-사나래 헌터님!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헌터님아 제발…!!”

방금 그녀와 행운을 빌며 자신의 길을 떠났던 여성이었다.

그런 그녀의 음성에 한 남자가 반응했다. 짐승 무리처럼 어슬렁거리며 이동하던 헌터들 중 유독 단정하게 걷던 사람이었는데, 호기심이 생겨 시선으로 좇으니 그 얼굴이 꽤나 화려했다.

‘…생긴 건 거의 로판 기사단장님이신데? 걔도 참 얼빠 유전자 여전하구나….’

거의 꼬리뼈 끝에 닿을 정도로 길고 곧은 금발은 색이 선명했고, 미소가 없는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위압적이지도 않았다. 행동거지까지 합쳐 어딘가 부티가 나는, 단정한 겉모습과 달리 꽤 화려한 사람이었다.

곧 자기 팬의 간절함을 알아챈 것일까. 남자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응?”

그러고는 제 팬을 확인한 그가 나른하고 창백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저 새까만 눈알에 순간 생기가 돌았던가. 너무 밝은 미소라 아무 생각 없이 친구의 최애를 보고 있던 최라온이 순간 흠칫했다.

“누나! 또 보네?”

“나래야아아…! 잘생겼다 우리 사나래!!”

“와아, 나 감동이다. 사진 예쁘게 찍어줘야 해?”

“누나만 믿어!!”

바리케이드 코앞까지 가 온갖 재롱을 떨던 남자, 사나래 헌터는 손을 살랑살랑 흔들고서는 다시 제 무리로 돌아갔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는지 그 동료 헌터들은 질린 것 같으면서도 익숙하다는 얼굴이었다.

기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나래 헌터는 여전히 서비스가 좋네요.”

“나 같아도 이 평일에, 오전에, 심지어 강원도 삼척까지 쫓아와 주는 팬한테는 서비스 잘해.”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자기 예뻐해 주는 팬 있으면 쉽게 붙잡혀 준다던데….”

“이미지 관리일 수도 있고, 애정 결핍일 수도 있고, 그냥 꺅꺅거리는 반응이 재밌는 걸 수도 있고. 저 양아치 새끼의 성실한 팬 서비스 이유야 뭐 다양하지 않겠어?”

“아무튼 요즘 헌터들은 저런 것도 잘해야 하나 봅니다. 진짜 빡센 직업이다.”

“젊다 못해 어린놈이 무슨 요즘 헌터 이 지랄이야. 렌즈 초점이나 똑바로 잡아.”

둘의 대화에 최라온이 내심 생각했다.

‘평소에도 저런 느낌이구나.’

창백하고 나른한 음기남이 그런 애교라니, 과연 그녀의 동료가 좋아할 만한 인상이었다.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하나. 조금 위험한 분위기이기는 했는데….’

행동이야 기사님처럼 단정하고 웃기도 잘 웃었지만, 죽은 생선을 닮은 그 새까만 눈이 어딘가 섬찟했다. 웃는 얼굴도 여우나 뱀 상인 탓에 초승달처럼 얇게 휘어지던 눈매가 조금 소름 끼쳤다.

딱히 그런 언행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다지 제정신처럼 보이지는 않았달까….

“…….”

초면의 헌터를 상대로 너무 무례한 생각이었다.

‘나나 잘해야지, 무슨 남의 인상 가지고….’

그때였다.

“…어, 어! 어! 수집상이다…!!”

최라온이 반색해서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그 익숙한 감촉과 무게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갈게요! 죄송합니다!”

“아, 뭐야….”

“진짜 죄송해요! 잠깐만 비켜주세요…!! 진짜 한 번만요!!”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녀의 다급한 모습에 납득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 시선들에는 ‘아 본진이구나’ 하는 이해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따듯한 인류애에 최라온은 울음을 터트릴 뻔했다.

간신히 바리케이드 바로 앞까지 도착한 그녀가 본격적으로 카메라 자세를 잡고서는 감탄했다.

“와아…!”

최애가 있는 길드라 그런지는 몰라도, 앞선 모든 길드보다 더 멋진 행렬인 것 같았다.

검은색과 하얀색이 조화로운 각기 다른 유니폼을 입은 수집상의 헌터들의 가장 앞에는 백금발의 헌터가 있었다. 최라온을 이 험한 강원도로 이끌고 마음 졸이도록 기다리게 했던 그녀의 빛과 소금이었다.

‘미친, 수집상 제복 미쳤다…!’

항상 검은 망토를 두른 모습만 보아왔는데, 길드의 이미지를 존중해 준 것인지 서지오 헌터는 흑백의 클로크를 두르고 있었다. 그 안쪽으로 보이는 수집상 전용 정장마저도 너무 잘 어울렸다.

‘와, 와 진짜… 방금 막 루브르 박물관에서 출근했나.’

진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보존해야만 하는 모습이었다.

“…서, 서지오 헌터님!! 서지오 헌터님…!!”

애써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자 서지오 헌터가 반응했다.

“아.”

“!”

“최라온 씨?”

“허억…!”

서지오 헌터는 방금 전 사나래 헌터처럼 바리케이드 앞으로 와 최라온을 보았다. 최애가 앞에 서자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최라온이 입을 틀어막았다.

“저, 저, 저기... 저....”

“저를 보러 와 주셨습니까? 감사한 일이군요.”

“사, 사진... 한 번만....”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땐 서지오 헌터가 손을 흔들며 멀어지고 있었다.

“.......”

“.......”

어느새 최라온 곁으로 다가온 여성이 물었다.

“계 탔어?”

“...탔어....”

“나도.”

“그래 보이더라....”

“이 맛에 덕질하지.”

“연차 내길 잘했다.”

아직 오전이었지만, 보람찬 하루였다.

* * *

“.......”

한 분홍색 머리카락의 여성이 그런 서지오를 응시했다.

“.......”

“영원 씨? 왜 그러십니까?”

“아뇨, 잠시....”

여자의 이름은 정영원.

“감상을 좀 했어요.”

유성운의 지인이자, 은월 소속의 정원사였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73)
Prev
Next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74)

174

제174화

정원사는 말 그대로 '정원'을 가꾸는 이들이다.

그리고 이 정원을 가꾸는 방식은 정원사마다 전부 달랐다. 하루 종일 정원에만 힘을 쏟는 정원사가 있는가 하면, 적당한 때에 들러 관리하는 정원사도 있고, 친구나 가족처럼 정원을 여기는 이가 있는가 하면....

"......."

신을 모시는 사제처럼 숭배하는 정원사도 있었다.

'...저것이 유성운 정원사에게 들었던 근원의 눈....'

던전 입구에 길드끼리 모인 헌터들 사이, 은월 소속의 헌터이자 정원사인 정영원의 눈은 '서지오'만을 담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보며 동료 헌터가 말했다.

"영원 씨, 눈."

"아."

정영원이 안경을 고쳐 썼다.

"이제 괜찮나요?"

"응, 평범한 노란색으로 보이네."

"그렇다면 혹시 아까 전에는...?"

"음, 주홍색?"

"그렇군요."

그녀는 눈가를 매만졌다.

'정원사는 이런 점이 불편하단 말이지.'

정원사는 자신이 모시는 정원과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탓에 종종 눈이나 머리카락의 색이 변하기도 했다. 봄날의 온화한 꽃밭을 모시는 정영원도 마찬가지였다.

'자주 상태가 변하시지 않는 정원인데, 설마... 근원의 눈이 가까이 있는 탓인가?'

그런 정영원의 시선에 동료 헌터가 다시 말을 걸었다.

“서지오 헌터는 왜 계속 쳐다봐?”

“…아, 잘생기셔서요.”

“그건 할 말이 없기는 하지.”

“실례라는 자각이 있기는 했습니다.”

“본인은 딱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시선이 익숙한 사람인 것 같네요.”

“저 얼굴로 살면 나라도 그렇게 될걸.”

“확실히 관심이 익숙한 게 당연해 보이는 분위기죠.”

마치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인 것처럼 말이다. 정영원은 다시 한번 수집상의 길드원 사이에 끼어 있는 ‘서지오’를 보았다.

“단순히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도요.”

계속 시선이 향하는 것은 그녀가 정원사인 탓일까?

‘아니, 이건 인간이라면 당연한 반응이다.’

조금 긴장이 되어 손을 쥐었다 폈다.

‘다른 무엇도 아닌 근원, 그것도 눈이, 이렇게 많은 인간들 사이에….’

근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다. 그 신비는 인간이 함부로 엿봐서는 안 될 것이며 동시에 자격이 주어진다 해도 쉽게 살펴볼 수 없는 것이었다.

너무 거대한 탓이었다.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고, 또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었다. 정영원은 ‘서지오’ 또한 그와 마찬가지이리라 여겼다.

‘저것 역시 근원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중 하나겠지.’

유성운은 ‘서지오’를 근원의 눈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저런 이상적인 외향을 구현한 것인가? 인간의 호의로 하여금 더 편리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지만 단순히 호의만으로는 인간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모으긴 어려울 텐데… 아니면 호의에 대한 결괏값만 모으는 걸지도 모르겠어.’

정원사의 버릇은 어쩔 수가 없는 탓에, 정영원은 제 리더에게 말했다.

“선배님.”

“응? 왜?”

“저분과 한 팀이 되게끔 밀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노파심에 묻는 건데, 연애 감정은 아니지? 커버 못 쳐준다?”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그래, 우리 정영원 씨가 인간을 사랑할 리가 없지. 순간 아픈 줄 알고 걱정했잖아.”

굳이 정원사라는 신분을 밝힌 적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정원사의 특징 중 하나는 인간에게 성애적 감정을 쉽게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리더 포지션의 헌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말을 넣어보기는 할 텐데, 저 사람도 사제 아닌가?”

“…정보는 제대로 외우고 와주세요. 사제가 아니라 조련사입니다.”

“아, 분위기가 너무 그쪽이라서 그만. 그러면 힐러도 아닌 거야?”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된 게 적어서… 힐러일 수도 있기는 하죠.”

“으음, 그럼 과연 같은 팀에 넣어줄까 싶은데.”

“주로 조련사로서 활동할 테니 서지오 헌터의 팀에 힐러가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느낌으로 어필해 보기는 할게.”

리더가 늘어지게 웃으며 물었다.

“그래서, 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재밌었어?”

“…….”

“에이, 빼지 말고. 내가 우리 영원 씨 생각을 몰라?”

“…그냥….”

정영원이 다시 ‘서지오’ 쪽을 바라보자, 그것이 눈을 마주해 왔다.

“…….”

“…….”

그래.

“…….”

어쩜 이리 아름다운 눈인가.

정원사는 한풀 꺾인 격의 충격 아래에 숨어 있는 근원의 본질을 보았다.

홍채처럼 보이는 그것은 신성의 광휘와 같았고, 깊이 가라앉은 동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로운 색이 겹쳐 있었다.

아, 인간의 형상을 한 근원이라니.

‘…대단해.’

아름다움을 넘어선 그 교교함에 정신이 어지러웠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 눈에 담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믿을 수 없었다.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릴 것만 같은 기이한 신비에 숨이 막혔다.

너무나 광활하다. 끝을 볼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깊고, 거대했다.

‘너무 황홀해서….’

저것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어지러워.’

달콤한 향이 난다.

그녀의 꽃밭에서 나는 것과 같이, 혹은 그보다 더 달고 고소한 꿀과 젖의 향기. 봄에 피어나는 라일락을 닮아 시원하고 부드러운 단내.

생과 사를 전부 담은 운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향이었다.

“…….”

“…영원 씨.”

“.......”

“영원 씨? 혹시 자?”

“아니요.”

“그럼 왜 말을 하다 말아.”

“잠깐 눈이 마주쳐서.”

다른 무엇도 아닌 그 근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방금 무슨 질문을 하셨죠?”

“이렇게까지 흥미를 보이는 이유를 물었어.”

“정말로 별거 아닙니다.”

무표정한 얼굴과 달리, 스태프를 쥔 그녀의 손에 꾹 힘이 들어갔다.

“...관찰할 가치가 충분하신 분인 듯합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는 않겠지.

근원을 향한 경외와 숭배가, 한낱 정원사를 달뜨게 했다.

* * *

“가라사니 씨.”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혹시 미움을 받는 것 같다면 알려주세요.”

“누구에게 미움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까?”

“저쪽의 벚꽃색 머리카락을 가지신....”

“아하.”

은월 길드 쪽을 훑은 가라사니가 씩 웃었다.

“미워하는 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노려보는 걸까요?”

“매의 눈처럼 날카로운 시선이기는 하군요.”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항의 의사를 전하고 올까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오는 편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역시 내가 너무 잘생긴 탓인가.”

“하하하...! 아하, 예,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 귀여운 재롱을 다 본다는 듯이 푸근하게 웃은 가라사니가 지오를 위로했다.

“곧 던전에 진입하면 팀이 나뉘게 될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부담스러우셨습니까?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아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익숙하긴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조치를 취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라사니 씨가 듬직해서 투정을 부린 것뿐이었습니다.”

“아, 그건 정말이지 큰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많이 의지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은 없겠지요. 아마 진입 후에도 저와 서지오 헌터님은 함께할 겁니다.”

가라사니가 씩 웃으며 이번 공략의 주최 측인 교단에 눈을 흘겼다.

“교단은 안전한 것을 좋아하지요. 드물게 수집상에서 큐레이터가 나왔으니, 수집상의 의도대로 팀을 조합해 주려고 할 겁니다.”

“수집상의 의도라면… 여러분이 제 편의를 봐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잘 이해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서지오 헌터의 수발과 감시를 위해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교단도 그걸 반영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안심이 됩니다. 아는 분이 한 명이라도 함께해 주신다면요.”

“만약 다른 팀으로 배정이 되더라도 저는 당신 곁에 있으리라 장담드립니다. 만약의 경우가 온다면 응당 조치를 취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서지오 헌터.”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면 급속도로 말수가 줄어드는 서지오는 안심했다.

‘역시 인생은 인맥빨이야.’

수집상의 초상화가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 * *

그렇게 실제로도 가라사니와 한 팀으로 배정을 받은 지오였지만.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이거 놀라워라.”

“그렇습니까?”

“정말 몰랐으니까 믿어줘. 같은 팀이 되니까 너무 반갑다, 도련님.”

“도련님인가요.”

“아, 또 실수했다. 두 손 모으고 사과할 테니까 봐주지 않을래?”

“하하….”

사나래도 그와 같은 팀이었다.

“…….”

“…….”

말없이 시선을 마주하던 지오가 씩 웃었다.

“…깜찍하기도 해라.”

눈을 동그랗게 뜬 사나래가 제대로 반응하기도 전에 지오가 다시 온화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아주 귀여운 강아지를 본다는 듯이 사나래를 보았다.

“물론 봐드리고 말고요.”

“응…?”

“이리 웃으며 사과의 뜻을 전하는데 무시할 수가 있나.”

“어... 그래? 나 지금 뭔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기분이었어....”

“먹는 건 좋아하십니까? 몸이 많이 마르셨는데, 다 큰 청년이 이래서야 힘을 쓸 수가 없죠.”

“어어 나 막 주물럭거리지 말아줘. 어어어, 아니 근데 헌터님 의외로 악력이 세구나.”

“뼈와 가죽만 남아서는 서 있는 게 고작인 이 가련한 몸뚱이를 어쩌자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나 그렇게까지 마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헌터님? 서지오 헌터님? 내 말이 들려?”

“이렇게 된 이상 이번 공략에서 배불리 먹여야만....”

“부디 나에게 후퇴의 기회를 줘.”

자비를 빌어 지오의 손아귀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나래가 물었다.

“나 잡아먹으려고 그래...? 혹시 인육을 좀 먹는 편인가?”

“제가 알기로 사람 고기는 별로 맛있지 않습니다.”

“그걸 왜 아는지는 둘째 치고, 그건 안 먹는다는 의사 표현이 될 수 없어.”

“걱정 마십시오, 저는 맛없는 건 먹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안 되는 표현이라고.”

드물게도 어설프게 뒤로 주춤거리며 물러난 사나래 헌터가 짐짓 낡고 지친 몰골로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나지....”

“영광입니다. 제가 사나래 씨의 할아버지만큼 믿음직스럽고 푸근하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아니... 그거랑은 뭔가... 뭔가 조금 다른데... 그게 과연 뭘까. 더 제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

묘한 감상에 빠진 듯한 사나래를 뒤로하고, 같은 팀에 배정받은 또 다른 여성이 끼어들었다. 던전 진입 직전에 서지오를 뚫어질 것처럼 응시하던 정영원 헌터였다.

“반갑습니다, 서지오 헌터님. 아까 눈이 마주쳤었죠?”

“아, 그렇습니다. 은월 소속이신 걸로 아는데 제가 틀리지 않게 말했습니까?”

“예,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원이라고 합니다.”

크림처럼 부드러운 색감의 분홍색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가 둥근 안경을 고쳐 쓰고는 무뚝뚝한 얼굴로 손을 내밀었다.

“한 번만 악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 물론입니다.”

인사 한번 하자는 것치고는 어딘가 각오가 느껴졌다. 독특한 화법에 오묘한 흥미를 느끼며 가볍게 손을 위아래로 흔들자 정영원 헌터가 눈을 깜박였다.

“...힘 조절이 뛰어나시군요.”

“그런가요?”

“이것보다는 아프게 잡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락부락한 인상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혼자서 무엇을 납득했는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제 포지션은 힐러로, 이 팀의 치료를 담당할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대체 무엇을 배려하고 만 거지?

악수했다고 힘 조절 잘한다는 칭찬까지 들은 서지오는 겉으론 티 내지 않았으나 순간 혼란스러워졌다. 숨을 쉰다는 이유로 칭찬을 들은 것과 다를 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 그럼 저희도 좀...."

"? 예, 반갑습니다."

"저도 악수 부탁드려요."

"예, 반가워요."

대청 길드의 헌터 둘과도 인사를 마친 지오가 그제야 물었다.

"그래서 왜 저만 다른 분들과 악수를 한 걸까요?"

"......."

"......."

"......?"

놀랍게도 아무도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못했다.

"...그러게요...?"

"오, 이렇게 재밌을 수가."

제법 괜찮은 환장의 조합인 것 같았다.

지오는 어이없고 즐거운 마음으로 A급 던전, '지하의 네발 우림'에 진입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74)
Prev
Next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75)

175

제175화

지오는 딱히 사나래에게 화나지 않았다.

"굳이 제가 왜 그래야 하나요?"

"으음, 그렇구나."

사나래가 늘어지게 웃으며 말했다.

"보통은 다 화를 내거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터프하네."

이전에 알려졌던 악명과 달리 의외로 사나래는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단 감정 없는 거면 우리 집부터 좀 구해볼까?"

"집인가요?"

그의 말에 지오가 눈을 깜박이자 그의 옆을 지키던 가라사니 큐레이터가 속삭였다.

"집이란 던전 내부에서 헌터들이 잠시라도 머물 휴식 공간을 이르는 은어입니다. 공략이 하루 이틀 내로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은신처나 거점을 만들어두는 것이 편리하니 말입니다."

말을 마친 가라사니가 주변을 둘러보고서는 입을 열었다.

"온도도 습도도 높은 데다 독을 품고 있는 식물들이 많군요. 가능한 한 땅이 단단한 공터를 찾아보거나, 마땅한 장소를 찾을 수 없으면 식물들을 베어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만드는 게 빠를 것 같기는 해. 다른 팀이 떨어진 위치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 근처에서 마른 땅 냄새가 나지는 않아서... 좀 걷긴 해야 할걸?"

사나래가 주변을 훑으며 킁 코를 훌쩍였다.

"여기 습도 진짜 높다."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자라난 우거진 식생도 그 습도에 한몫을 하고 있을 것이었다. 찜질방에라도 온 것처럼 숨이 턱턱 막혀왔다.

“주기적으로 사람 미치게 만드는 비가 온다던데, 그게 증발되어서 더 짜증 나는 건가....”

“가짜 해가 떠 있는 시간도 랜덤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우선이겠네요.”

사나래와 정영원의 말에 대청 길드원 중 한 명이 지오를 돌아보았다.

“그, 조련사라고 들었는데... 자리를 좀 알아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에 관한 대답은 지오가 아닌 정영원에게서 나왔다.

“불경합니다.”

“예?”

“불경하셨습니다.”

“엇, 어엇....”

그 말이 얼마나 단호한지 대청 길드원도 순간 ‘내가 죽을죄를 지었나’를 순수하게 고민하고, 지오도 ‘사실은 내가 세종대왕의 환생인가’라는 착각에 사로잡힐 정도였다.

곧이어 쓸데없는 잡생각에서 벗어난 지오반니가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정영원 씨도 저를 도련님이라고 놀리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공간에서는 조련사가 나서야죠.”

애초에 그러려고 공략 인원에 추가되었던 것 아닌가.

“그럼 잠깐 실례.”

지오가 후드를 쭉 잡아당기며 아들내미를 찾았다. 던전의 높은 습도가 매우 마음에 드는지 푹 퍼져 있었다.

“허니.”

“꾸르.”

“오.”

허니가 빼꼼 튀어나오기도 전에 사나래가 감탄했다. 지오가 의아함을 담아 바라보니 사나래가 턱을 짚은 채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다. 아마 감탄하는 것 같았다.

“얼굴도 저 경지에 오르면 허니 소리가 징그러워 보이지 않는구나, 이거 놀랍네.”

“제 얼굴에 감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꽤 보기 좋은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모친께서 서지오의 태아부터 신생아 시절까지 성심성의껏 잘 빚어주신 덕분이었다.

“꽤 잘 만들어졌죠?”

“어라, 이건 또 신박한 반응인데. 얼굴에 칼 댔어?”

“아뇨, 자연입니다. 이건 운명이 빚어준 얼굴이죠.”

“하긴 그런 얼굴은 돈으로도 안 나오지. 이거 실례했네.”

사나래가 너스레를 떨며 웃었다.

“만들었다길래 손댄 줄 알았잖아. 도련님 말 되게 특이하게 한다.”

“오해의 여지를 드려 죄송합니다. 서로 책임이 있으니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으로 하죠.”

지오가 손을 뻗자 그 위로 허니가 퉁실 하고 올라탔다. 그 감각과 무게에 지오가 미소를 유지한 채로 작게 중얼거렸다.

“…살이 쪘나?”

“꿍꿍꿍…!!”

“이렇게 보여도 날 수 있답니다.”

“꿍꿍꿍꿍꿍!!!”

“허니, 집을 좀 찾아주렴.”

가볍게 쓰다듬자 허니가 꿍실거리기를 멈췄다.

“사람을 아프게 하는 비가 내리기 전에 괜찮은 집을 만들어야 해.”

“…꾸르륵.”

“너무 멀지 않은 곳이면 좋겠는데, 가능하겠니?”

“꾸르.”

가볍게 날갯짓한 허니가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쌩 날아갔다. 아담한 몸집에 비해 대단히 빠른 속도에 헌터들이 감탄했다. 생김새와 달리 꽤 날렵한 새였다.

대청 길드원이 대단하다는 듯이 말했다.

“굉장하네요, 서지오 헌터. 몬스터가 이렇게 말을 잘 듣다니….”

“명색이 조련사이지 않습니까?”

“조련사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사이가 친밀한 경우는 드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조련사가 하나의 몬스터를 길들이기까지 그것이 죽인 사람이 몇이고, 입게 된 상처가 몇인가. 인간들의 입장에서도 괜히 친하게 굴기 싫은 것이다.

“아, 그러고 보니….”

또 다른 길드원이 물었다.

“이번에 화제가 되었던 안티캣은 어디에 있습니까?”

“응? 그거 안티캣이었나? 덩치가 완전히 다르던데.”

“어… 글쎄요, 저도 잘은 모르죠.”

“서지오 헌터님의 고양이가 정말로 안티캣이었나요?”

그에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보석의 수맥’에 서식하는 보석 고양이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맞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인간 옆으로 잘 오지도 않는 몬스터인데….”

“낯선 환경에 예민해진 것 같아 잠시 분리해 두었습니다.”

“던전에 데려오시긴 하셨나 봅니다. 따로 케이지를 쓰시나요?”

케이지란 조련사들이 길들인 몬스터를 데리고 이동할 때 사용하는 아이템으로, 대개 소지가 간편하도록 장신구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에 지오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망토를 살짝 들어 보였다.

“아니요, 이 안에 있습니다.”

“망토 안에…?”

“정확히는 그림자 안에요.”

“…안티캣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냥 되어버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군요.”

대청의 헌터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티캣은 몬스터 중에서도 인간 혐오가 심한 종이죠. 말씀을 들어보니 몬스터들이 서지오 헌터를 꽤 믿고 따르는 것 같은데, 그럼 확실히 주인 곁에 붙어 있는 편이 안정감 있을 겁니다.”

그즈음, 허니가 돌아왔다. 사람들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복귀한 조그마한 몬스터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꾸르르르륵!”

“집이 있던가?”

“꾸릉.”

허니는 입에 머금고 있던 것을 지오의 손 위에 올려두었다.

“어, 저건….”

“흙이군요.”

정영원 치료사가 다가와 그 흙을 만져보았다. 새하얀 손가락 끝에서 흙이 부서져 내렸다.

“마른 흙이에요. 질감도 단단하고.”

그녀는 놀랍다는 듯이 꿀색의 물새를 보았다.

“이렇게 습한 우림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흙을 찾았을까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괜찮은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다행입니다.”

서지오는 밝게 웃었다.

“그렇지요?”

우리 애가 뭘 한 것 같은데, 알 바 아니었다.

* * *

“…….”

“강서담 사제님?”

“…아, 예, 유지나 씨. 듣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태양의 기운이 느껴져 흠칫한 것뿐이었다.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요.”

아무래도 태양의 신성께서 아주 사소한 문제로 기적을 남발하신 듯한 기분이 드는데, 가뜩이나 우림에 끌려와 피곤한 강서담으로서는 정말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현명하게 입을 다물기로 했다.

* * *

허니가 안내한 장소에 도착한 사나래가 고개를 기울였다.

“……?”

“왜 그러십니까?”

“응, 아니.”

사나래가 코를 킁킁거렸다.

“햇볕 냄새가 나서?”

“이런 곳에도 햇볕이 들어오기는 하나 봅니다.”

“으음, 그보다는… 흐으음….”

“사나래 헌터?”

“…….”

대청 헌터의 말을 무시한 사나래가 서지오 쪽을 돌아보았다.

“…….”

“다행이네요, 허니가 좋은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 원래 있던 자리는 맞지?”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오의 말에 가라사니가 말을 얹었다.

“설마 이런 명당이 한순간에 생기지는 않았을 테죠.”

“살펴보아도 몬스터의 흔적은 없으니, 저로서는 마음이 놓입니다.”

얼씨구.

‘수집상 둘이서 잘 주고받네….’

사나래가 특유의 동태눈깔로 주변을 쭉 훑었다.

사람 50명은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이 동공은 그보다 더 거대한 나무 안쪽에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이 나무는 이곳에서 흔한 종류의 식생이었다. 하지만 그중 이런 동공이 나 있는 나무는 없었다.

‘그럼 무언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런 공간이 생겼다는 말인데.’

딱히 사람이 건든 흔적이 보이지는 않았다. 땅은 건조하니 딱딱하게 잘 굳어 있었고, 이 나무의 동공은 거의 몇백 년에 걸쳐 만들어진 듯 자연스러웠다. 부자연스럽게 잘리거나 긁힌 부분도, 탄 부분도 없었다.

심지어 동공의 입구는 길게 늘어진 넝쿨들이 현관의 문발처럼 걸려 있어 바깥의 습기를 막고 있었다. 몬스터에게서 은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었다.

‘하지만 햇볕 냄새가 강하게 나.’

그리고 그 냄새는….

“…….”

저 헌터의 물새에게서 나는 향과 같단 말이지.

‘…그렇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이려나.’

단순히 자르고 파괴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사나래 헌터는 이곳에서 강한 생명력을 느꼈다. 단시간 인위적인 공정으로 제작될 수 있는 게 아닌, 오랜 시간 ‘생장’하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생성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으으음, 모르겠네."

"무엇을 모르시겠다는 건지요?"

"도련님의 정체 같은 거?"

"아하."

서지오 헌터가 제법 쾌청하게 웃으며 물었다.

"알려 드릴까요?"

"오, 진짜?"

"저는 사실 다른 차원의 태양신을 모시는 사제입니다."

"응…?"

"그래서 싹싹 빌었더니 태양께서 이런 좋은 집을 내려주셨죠."

"……."

사나래 헌터의 미소가 애매하게 일그러졌다.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놀려서 그런 거야? 화 풀어, 응? 도련님도 알잖아, 안 좋은 뜻은 없었어."

"아하하, 이건 또 재밌는 반응이네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나요?"

"도련님이라는 말이 그렇게 싫다면 이 이상은 안 할 테니까…."

"이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답니다."

흔해 빠진 입발림이라기엔 꽤 진심으로 들려서 사나래가 감탄했다.

"진짜인 것 같아서 신기하네."

"신기할 게 무엇이 있나요."

"내가 말을 예쁘게 하지는 않았잖아?"

"그런 자각이 있다니 참 기특합니다."

"진짜 놀리는 건가…?"

"그럴 리가요."

서지오는 난감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 표정이 너무 이상적인 '난감함'을 드러내고 있어서, 사나래는 문득 말로 설명하지 못할 위화감을 느꼈다.

"애초에 왜 제가 화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내가 말을 걸면 화를 내니까 헌터님도 그런 건가 싶었지."

"그렇다면 그건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군요."

"보통 이럴 때 쓰는 말이던가?"

"물론 처음에는 겁을 좀 먹었습니다만."

"……."

사나래를 비롯한 모든 헌터가 서지오를 돌아보았다.

"다들 왜 그러시죠?"

“서지오 헌터님은 농담에 재능이 없구나…. 과연,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지.”

“정말로 겁을 먹었습니다, 첫 출근부터 무서운 분께 시비가 걸린 것 같아서요.”

“지금은 딱히 아닌 이유가 있어?”

“음, 아무래도….”

서지오가 사나래를 응시했다.

“…….”

“…….”

순간 그 눈이 금색으로 보였을 즈음, 서지오가 웃었다.

“…하하.”

그렇게 말한 서지오가 씩 웃으며 사나래의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었다.

“으악…!”

“사교에는 솔직하게 구는 게 좋습니다, 사나래 헌터님.”

“으어… 어? 어어?”

“소소한 잡담은 이쯤 하고, 그럼 일단 짐 정리부터 해볼까요?”

“잠깐만요 헌터님? 방금 뭐 한 거야?”

어안이 벙벙해 보이는 사나래에게 수집상의 큐레이터, 가라사니가 다가갔다.

“저희 길드원이 폐를 끼쳤습니다. 불편하신 곳이 있습니까?”

“응? 아니, 그건 아니지만… 서지오 헌터는 원래 저런 식이신가?”

“자기주장이 몹시 강하신 편이기는 합니다.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만 놀리라는 거지? 하여간 수집상은 말을 참 고상하게들 하신다니까.”

이리저리 꼬인 머리를 애써 정리하며 사나래가 중얼거렸다.

“보통 저렇게 생각을 하나?”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다.

‘생각하는 방식이 진짜 남다르네.’

아니 뭐, 좋은 인맥으로 남겨두어서 나쁠 게 없는 인간이기는 하다만….

* * *

“…….”

그리고 전반적인 탐색을 마친 5시간 뒤, 사나래는 깨닫고 만다.

“마귀할멈이구나.”

“예? 배가 고프시다고요?”

“역시 날 잡아먹을 속셈인가?”

“헛소리를 하는 걸 보니 아직 위장이 비었나…?”

“폭군이야? 식고문이 따로 없네.”

크림 스튜 비슷한 것을 든 채로 사나래가 고개를 기울였다.

“우림에서 나는 식물로 어떻게 이 맛이 나지…?”

“식물로 낼 수 없는 맛은 제가 가져온 베이컨으로 보충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컨을 던전에 왜 들고 오는 거야. 애초에 어떻게 들고 온 거고.”

“맛있는 베이컨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와, 신기해라. 이유야 많긴 한데 왜 하나도 안 들어먹을 것 같지?”

서지오의 정체는 다름 아닌 과자 집 마녀 할머니였다.

“이게 헌터야 돼지야….”

사나래의 말에 드러누운 헌터들이 움찔거렸다. 둥글게 모인 헌터들은 과식을 해버렸다는 죄책감에 패잔병처럼 널브러진 상태였다.

공략 때는 과하게 배를 채우지 않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지만, 압도적인 맛 앞에서는 그 이성이 흐려지는 것이다.

“이래서 헨젤과 그레텔이 그렇게 멍청하게 유인당했구나.”

“제 요리를 그렇게까지 극찬해 주시다니 정말 기쁘기 그지없군요.”

“으음, 글쎄? 엄밀히 따지자면 칭찬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대체 뭐죠?”

“사형당하기 직전의 감탄사 같은 거지. 몬스터를 앞에 둔 단말마의 외침이거나.”

그에 지오가 태연하게 물었다.

“누가 죽나요?”

“헌터는 돼지가 되면 죽어야만 해.”

“그럼 왜 헌터를 하지?”

“사고방식 진짜 독특하시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다.

“할머니, 여기 한 그릇 더요.”

“잘 먹으니 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알겠으니까 과자 집 만들 거면 연락 줘, 구경 가게.”

“과자 집이라, 마음에 듭니다. 작품 활동을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그릇 퍼 담는 모습이 진심으로 행복해 보여서 좀 웃겼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76)

176

제176화

식사를 마치고, 나무의 동공.

“맛없는 밥 먹을 생각 없다더니 진짜였어.”

“왜 맛없는 밥을 먹어야만 하죠?”

식자재 정리를 마친 서지오는 정색했다.

“내가 이 팀의 요리를 맡은 이상 형편없는 식사 따위는 없습니다.”

“서지오 헌터님 안 웃으니까 무서운 인상이구나, 몰랐네.”

“그래서 잘 웃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대식가이실 줄도 몰랐고. 어쩐지 사람 몸통만 한 냄비를 꺼내더니.”

“그 큰 냄비를 싹싹 긁어 먹은 사람이 누구셨더라.”

“엄청 맛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너무 고맙다.”

“모쪼록 즐거운 식사였다니 다행입니다.”

지오는 넝쿨로 가려진 입구 너머를 살폈다.

“그나저나 또 아침이 왔군요.”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저녁이었는데 말이야….”

듣던 대로 변덕스러운 환경에 사나래 헌터가 짜증을 내자 동공 정리를 돕던 정영원 치료사가 말을 얹었다.

“수시로 가짜 해와 달이 뜬다더니 정말이었습니다.”

“식사하실 때도 계속 관찰하시던데 알아내신 게 있습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달이 뜨는 시간에 비해 훨씬 길다는 것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이 뜨는 저녁에는 기온이 정말 확 떨어지지 않았나요?”

“일교차… 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상당하다는 것도 이 던전의 특징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쉽게 감기에 걸리겠네요.”

“그렇겠죠.”

애초에 몸이 약한 사람은 던전에 들어올 수 없겠지만 말이다.

‘...확실히 인간의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겠어. 너무 엉뚱해서 오히려 섬뜩해질 정도다.’

그냥 던전 무서운 줄 모르는 구시대 인간의 허튼소리였지만 정원사인 그녀는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다. 모든 정리를 마친 정영원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식사 전 짧게나마 이 근처를 돌아보았던 것과 식사 내내 저희 대신 탐사를 도와주었던 허니의 도움을 받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이전 태양교의 공략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정보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던전 몬스터들의 특성이 있었다.

“해가 떠 있을 때와 달이 떠 있을 때 움직이는 몬스터가 나뉩니다. 낮에 활동하는 몬스터는 저녁이 되면 기절 상태에 빠지고, 저녁에 활동하는 몬스터는 낮에는 조금 얌전하고 저녁에는 흉포해져요.”

“그 부분은 교단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추가적으로 알아낸 정보입니다. 낮의 몬스터들은 절대 뭉치지 않고 제각기 분주하게 무언가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반대로 저녁의 몬스터들은 어두워지면 하나로 뭉쳐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을....”

정영원이 자신만만하게 가슴을 내미는 허니를 가리켰다.

“허니가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지오 씨가 해석해 주셨죠.”

“꾸르르르르르르.”

“칭찬을 내놓으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다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꾸룩.”

짝짝짝짝....

확신 없는 애매한 박수 타임이 지나갔다.

“그럼 서지오 헌터님은 몬스터들의 말을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몇몇 노련한 조련사들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던데, 저 물새가 알아 온 정보를 해석해 주신 것이라면....”

“마음이 통하는 거죠. 식당에서 눈짓으로 냅킨을 요구하는 부부처럼요.”

“아, 유대감이라는 거군요. 조련사 이야기는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실제로 보게 되니 놀라운 점이 많네요. 이렇게 깜찍한 몬스터가 실존할 줄도 몰랐고요.”

“저희 허니가 귀엽긴 합니다.”

약간의 잡담을 거쳐 정영원이 설명을 이었다.

“허니가 정말로 유능하더군요. 작은 몸집의 몬스터라 어디까지 활동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건지 밤의 몬스터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파악했어요. 저희도 일단 그쪽을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느 한 지점으로 이동하는 거였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복잡한 식물들 틈바구니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새가 아니라면 어려웠겠어요. 작은 몸집의 비행형 몬스터를 조련하신 서지오 씨가 있어서 망정이지, 딱 명확한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서... 인간들끼리는 파악이 힘들었을 겁니다.”

정영원이 그들 중 가장 연장자인 가라사니 헌터를 보았다.

“다른 팀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는 게 좋을까요?”

“소식만 전달하고 행동 자체는 저희 팀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긴 인간의 수에 예민한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 명이 몰려와 봤자 봉변만 당하겠네요.”

“같은 의미에서 해령에게는 전하지 않는 게 어떨까요.”

그에 해령 소속인 사나래가 빙글 웃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거 차별이지? 대기업이라고 횡포 부리는 거야?”

“해령 길드원들은 괜찮은 판만 깔린다 싶으면 싸우고 싶어 눈이 돌아가죠. 위험한 몬스터가 있다고 지레짐작한 길드원이 돌발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길드가 그렇게까지 망나니처럼 굴지는 않아. 그거 아주 편협한 생각이라고.”

“편협한 생각이라기에는 그동안 해령 길드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불공정한 처사인 것을 인정하니, 이 소식을 전할지 말지는 해령 소속인 당신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서워서 어디 공략하겠어?”

사나래가 서지오를 돌아봤다.

“어떻게 할까?”

“전달해도 재밌겠네요.”

“…재밌겠어?”

“해봐요.”

“…….”

“해보라니까?”

머뭇거리던 사나래가 슬쩍 시선을 피했다.

“안 할게.”

“그 역시 사나래 헌터의 마음이지요.”

지오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가라사니 씨의 말을 전적으로 따를 예정입니다.”

“그건 또 감사한 말씀이로군요, 영광입니다.”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는 말을 들은 노인처럼 부드럽게 웃은 가라사니 큐레이터가 다시 말을 이었다.

“언제 또 해가 질지 모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독을 품은 식물들을 피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몬스터의 수는 조금 적어지지만 그 대신 더욱 흉포해지죠. 시야가 확보될 때 허니가 확인한 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되었다.

* * *

A급 던전인 ‘지하의 네발 우림’은 의외로 인간의 흔적이 보였다.

“저거 별장인가요?”

“그보다는 저택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나…?”

“여기도 결국 멸망한 차원일 테니까요.”

정영원이 중얼거렸다.

“뭐, 멸망한 차원이라고 꼭 인간이 서식해야 했을 이유는 없지만….”

“자료에 이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눈에 불을 켜고 찾지 않으면 찾아보기 힘든 위치에 있기는 하네요.”

“나무나 넝쿨들이 무성해서 더 안쪽에 숨어 있는 느낌이죠.”

“거의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망가진 탓도 있을 거고요.”

팀원이 물었다.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날이 밝을 때 더 빨리 이동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인간이 살던 차원이었다면 저기에 유용한 아이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그러네요.”

헌터는 던전의 수확물을 꼼꼼히 챙겨야 지갑이 든든한 법이었다. 몬스터를 잡아 그 부산물을 팔아넘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낯선 차원의 장비나 아이템을 챙겨 한몫을 버는 것이다.

“함정이나 저주만 좀 조심하면 좋겠어요.”

이 팀의 메인 힐러인 정영원이 특유의 도자기 인형 같은 무뚝뚝한 얼굴로 말했다.

“독은 몸에 있는 걸 몰아내면 되지만, 저주는 영혼에 걸릴 때가 많아서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언제 날이 어두워질지 모르니 조심해서 살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길드 아시잖습니까. 대청은 안전한 길을 좋아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독에 당하신 분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전에 물어봤을 때는 다들 괜찮다고 하셨지만, 시간차를 두고 대미지가 들어오는 독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갈증이 나기는 하지만....”

“그럼 조심히 진입해 보도록 하죠. 많이 낡고 무너진 상태이니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편이 좋겠어요. 그리고 무언가 위험한 요소가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정영원이 말끝을 흐리자 지오가 허니를 날려 보냈다.

“허니.”

“꾸르륵!”

작은 몸집의 허니는 폐허 안으로 쏙 들어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퐁 빠른 속도로 돌아왔다. 허니는 꽁지깃을 파닥거리며 지오에게 문제가 없음을 피력했다.

“위험한 함정 같은 건 없나 봅니다.”

“독초들은요?”

“무너진 틈으로 자라난 풀이나 나무가 있어서 그거까지는 어쩔 수 없나 보네요.”

“그 정도면 문제없습니다, 다들 진입하시죠.”

지어졌을 당시, 5층 정도 높이였던 걸로 추정되는 폐허는 한때 부유한 인간의 것이었는지, 식물들 사이에 금붙이나 보석들이 숨어 있었다. 팀원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으며 폐허를 둘러보았다.

“거의 다 무너져서 그나마 확인이 가능한 곳은 1층이랑 3층뿐이네요. 2층은 아예 바닥이 무너져 내려 있고. 특히 3층은 올라가자마자 바로 부서져 내릴 것처럼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대청 직원의 질문에 코를 막은 사나래가 눈살을 찌푸렸다.

“여기 냄새가 왜 이렇게 지독해?”

“예? 사나래 헌터, 괜찮으십니까?”

“코가 알싸한 기분인데.”

“어라, 설마 독인가요?”

“독 같지는 않고… 먼지가 많은가 보네.”

“빨리 나가서 나쁠 건 없어 보이네요.”

팀원이 말했다.

“그럼 몸이 가벼운 몇 명만 올라가 보죠.”

“몸이 가벼운….”

사나래 헌터가 정영원을 보았다.

“가벼우신 편인가?”

“실질적인 무게는 여러분보다 덜 나가겠죠.”

홍일점인 그녀는 체구 자체가 아담한 편이었다.

“하지만 신체를 날렵하게 쓸 수 있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제 몸 하나는 지킬 수 있지만, 저런 식으로 살짝만 쳐도 무너질 듯한 복도를 오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으음, 그런가.”

“그런 편으로는 차라리 사나래 헌터님이 나은 걸로 압니다. 신체를 대단히 잘 쓰시는 걸로 아는데, 어렵지 않게 올라갔다가 오실 수 있지 않나요?”

“내가 올라가면 와장창 무너질걸?”

울상이 된 사나래의 얼굴에 지오가 환하게 웃었다.

“허튼소리에 큰 재능이 있으시군요.”

“오, 시비 거는 건가?”

“순수한 감탄이었습니다.”

“보통 감탄을 그렇게 하지는 않지.”

“보통 사람들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요.”

“왜 거짓말이라고만 생각해?”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실례했군요.”

“아니….”

“그럼 제가 다녀오도록 하죠.”

지오는 다 망가진 계단에 발을 얹었다.

“이런 쪽으로는 자신이 있어서.”

그리고, 계단은 그 흔한 삐그덕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렇죠?”

“…어떻게 하신 겁니까? 소리가 이렇게까지 안 날 수 있다니?”

대청 헌터의 감탄에 다른 팀원이 쏘아붙였다.

“스킬이 있으시겠지.”

“아, 경량화 스킬 같은 건가.”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업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지오는 손을 내저었다.

“괜찮습니다. 빠르게 확인만 하고 올게요.”

“네, 부탁드려요.”

그렇게 곧 서지오 헌터의 모습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

“…….”

그들은 묘한 감상에 빠졌다.

“…소리가 정말 하나도 안 나네요.”

“기척이 아예 안 느껴지는데.”

대청 헌터들만의 감성은 아니었다.

“……?”

사나래 헌터는 아예 콧등을 찡그렸다.

‘…냄새가 안 나.’

딱히 의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호텔의 이벤트룸에서 맡았던 그 달고 시원한 향이 나지 않았다. 기척까지는 은신 스킬로 숨길 수 있다지만 체향이 사라지는 건 조금 이상했다.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아니면 드디어 코가 마비됐나?

“…….”

“…음….”

유독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가라사니와 정영원 쪽을 본 사나래가 이내 빙글 웃었다.

“그럼 나도 좀 보고 올까.”

“아까는 안 가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라사니 헌터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꼭 가보고 싶어지네.”

“그거참 놀라운 심보군요.”

“동료를 혼자 보내니까 너무 걱정이 되어서 말이야.”

사나래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계단을 올랐다.

삐그덕.

“어이쿠.”

역시 심하게 부식되어 있다.

"미안, 계단 부서진다."

"켁, 쿨럭쿨럭...!"

"먼지 조심해."

"이미 먼지란 먼지는 다 쏟아놓고...!"

"불쌍해라, 그러게 조심했어야지."

가볍게 손을 흔든 사나래가 이내 3층에 도착했다.

'여기는 계단보다는 상태가 낫네.'

발 한번 구르면 우르르 무너져 내릴 바닥인 건 마찬가지였지만, 발을 얹는 것만으로도 후두둑 부서지던 계단보다야 나은 것 같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서지오 헌터는 어디에 있지?'

그리고 눈에 들어온.

"......."

피를 닮은 폭포수.

"...어...."

"......."

"......?"

아니, 백금발.

그리고 남자의 뒷모습 너머의 액자.

"...서지오 헌터?"

"오셨군요."

그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재밌는 그림이 있어,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그림?"

"예."

뒤를 돌아 저를 본 그것이, 웃었다.

"평화로운 풍경화가 있네요."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76)"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77)

177

제177화

몸 정도는 쉽게 다룰 수 있었다.

‘아르지오 때의 기억이 있으니까.’

하지만 폐가는 대단히 낡은 상태였고, 조금만 아래로 눌러도 무너질 것 같았다. 그럴 거면 차라리 저택이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는 방식으로 오르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지오는 초상화를 통해 3층에 올라왔던 것이다.

“…….”

“…….”

지오를 빤히 바라보던 사나래가 특유의 웃는 얼굴로 물었다.

“풍경화?”

“예, 여기에 있군요.”

“오두막을 그린 그림이네.”

“보기 좋지 않습니까?”

“보기는 좋지.”

“그런가요.”

처세술이 뛰어난 지오반니는 능숙하게 표정을 관리했다.

“이렇게 빨리 올라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것치고는 놀란 표정이 아니었는데?”

“올라오는 기척은 느꼈으니까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액자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느껴서 그렇지.’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 것 같은 사나래 헌터이니 가만히 내버려두면 혼자 올라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다. 하지만 예

상보다 빠르게 올라와서 액자를 없앨 타이밍을 놓쳤다.

'표정 관리 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했어.'

지오가 곧바로 사나래를 돌아보지 않고 풍경화가 된 초상화 쪽에 시선을 두고 있던 건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어쨌든 자신이 이 초상화라는 것은 들키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었다.

들키는 건 그거대로 재밌는 일이 생기겠지만….

"3층을 함께 둘러보시겠습니까?"

"으음, 그러려고."

"처음부터 함께 올라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서지오 헌터가 너무 조용해서 걱정이 되지 뭐야."

"그럭저럭 괜찮은 은신 스킬이 있어서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는 하더라."

"사나래 헌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특유의 미소를 지은 사나래가 3개 정도 있는 3층의 방을 가리켰다.

"아직 안 둘러본 건가?"

"저도 방금 3층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동행하면 되겠네. 와, 든든해라."

저택에 먼지가 많아 코가 아프다는 말은 정말이었는지, 사나래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사람처럼 폐허 수색에 꽤 협조적이었다. 3층도 역시 금이나 보석이 주로 발견되었다.

사나래 헌터는 조금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아이템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금이나 보석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건가요?"

"보기에만 좋은 광물보단 어디에든 쓸 수 있는 장비가 좋잖아?"

"욕심쟁이군요."

"그보다는 거짓말쟁이지."

"음, 피노키오?"

"그 별명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달그락.

녹슨 금속 보석함이 닫혔다.

"여기도 보석뿐이네."

"헌터는 이런 장신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보기 좋은 보석들이요."

"A급 던전까지 와서 이런 평범한 소득을 좋아하는 헌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걸…?"

"그건 어째서입니까?"

"……."

지오를 본 사나래가 말을 이었다.

“값어치가 그리 높지 않아. 일반 시민들에게는 보탬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제법 높은 등급의 헌터잖아.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제대로 한탕 벌고 싶은 마음이 더 클걸.”

“유리는 꽤 비싼 것으로 아는데.”

“그야 유리는 녹여서 장비나 아이템을 만들 때 쓸 수 있으니까. 만드는 데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투명도를 높이려면 제법 돈이 들어. 그래서 보석 중에서 유독 유리만 비싼 거야.”

“이런 보석은 녹지 않습니까?”

내가 그린 보석은 녹는데.

‘그건 물감이라서 그런 건가?’

지오가 말을 이었다.

“금이나 은은 확실하게 녹는 것으로 압니다. 제 상식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물론 금과 은으로도 장비를 만들 수는 있지만 담을 수 있는 한계점이 유리보다 훨씬 낮아. 성질 자체가 너무 확고해서 유리만큼 유동적으로 다양한 장비를 만들 수 없는 거지.”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특히 헌터들의 수입은 고작 보석이나 금붙이 정도로 해결될 수가 없거든. 목숨 살릴 장비를 구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 자기 땅문서니 집문서 팔아서 장비 사는 헌터들이 넘쳐날 정도야.”

“이런.”

탄성을 뱉은 지오가 물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도련님’이라 짜증 내는 건 아니시겠죠?”

“글쎄다, 진짜 ‘도련님’은 맞고?”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맞히신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곱게 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의외네.”

“제가 미우십니까?”

지오가 웃었다.

“그건 또 아니죠?”

“이상한 말인 건 아는데 말이야….”

사나래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무표정으로, 또 일상적인 어조로 말했다.

“서지오 헌터님은 보기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기도 해.”

“제가 몇 살로 보이시나요?”

“홈페이지에는 29살로 나와 있던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더 늙은 것 같아.”

“유행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군요.”

“…그럴 수도 있지.”

그들은 순차적으로 폐가를 훑은 뒤, 가장 안쪽 방으로 이동했다.

“여긴 침실이었나 보네.”

알아보기 힘들 만큼 망가져 있는 침대의 틀과 한 여자의 거대한 초상화가 보였다. 그 역시 간신히 여성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지, 이 폐가만큼이나 훌륭하게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다.

귀신 들린 초상화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오, 초상화.’

안녕하세요, 초상화입니다.

‘…던전에는 놀랄 만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데… 여태껏 나처럼 귀신 들린 초상화는 본 적이 없단 말이지. 이 초상화도 그냥 평범하게 낡아 부서진 초상화 같아. 안쓰러워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림인 지오는 인간적인 동정심을 느꼈다.

‘불쌍하네.’

어떻게 잘하면 복원 작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

“서지오 헌터?”

“예, 말씀하세요.”

“그 초상화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왜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됩니까?”

“날 좀 보고 이야기를 하자.”

“예.”

그제야 지오가 사나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무슨 일이십니까?”

“…….”

지그시 웃기만 하는 사나래의 모습.

“…….”

그즈음 석양이 쳐들어왔고, 묘한 압박감과 그럴싸한 분위기에 지오는 쫄았다.

멀쩡히 웃고 떠들다 총기 난사 할 것처럼 제정신 아닌 양아치를 앞에 두고 있자니 공포가 들이닥쳤다. 타이밍 좋게 순식간에 해가 져 폐가가 어두워지니 공포가 두 배로 급증했다.

‘…나는 무엇을 잘못한 거지?’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했음을 깨달았다. 저렇게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것의 하나는 사교 의사고 둘은 전쟁의 신호탄이었다. 지금은 누가 봐도 후자의 경우였다.

그리고 지오는 깨달았다.

‘아, 이거.’

유성운 씨랑 주현 씨한테 구박당할 때의 분위기다.

“…제가 이상한 짓을 했습니까?”

“글쎄?”

“당신을 무섭게 했습니까?”

“잘 모르겠네.”

“모두 포함해 사과드리겠습니다.”

당황한 지오가 물었다.

“단것을 드릴까요?”

“…….”

“좋아하지 않나 봅니다.”

엉뚱한 타이밍에 달달한 것을 먹이면 황당해서라도 이 미묘한 분위기도 좀 풀리지 않을까 해서 권유했는데, 썩 괜찮은 반응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지오는 품 안에 늘 넣고 다니는 달콤한 초코 쿠키를 위로했다.

‘넌 좋은 쿠키야.’

주인을 잘못 만났을 뿐이지 녀석은 충분히 맛난 쿠키였다.

“…….”

“…….”

그리고 좀 억울해졌다.

“사람들은 초상화를 감상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감상해.”

“그런데 왜 저를 눈으로 구박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박이라, 역시 말을 참 독특하게 한단 말이지.”

“무언가 이상한가요?”

“이런 상황에서까지 너무 일상적인 단어들을 쓰잖아.”

특유의 미소를 빙글 지은 사나래가 말했다.

“무섭다.”

“무섭습니까?”

또 놀리는 거 아니고?

“그렇다면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럼 고칠 거야?”

“그래야 지금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내키지 않네, 서지오 헌터님은 좀 더 실수해도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나아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아지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건데.

‘나는 초상화도 보면 안 되나.’

진짜 너무 억울해서 고소장이라도 한 땀 한 땀 작성하고 싶었다. 남들 다 하는 걸 왜 내가 하기만 하면 다들 무서워하고 난리냔 말이다.

“저를 놀리시는 것 같습니다. 지독한 분이시네요.”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사나래가 말을 덧붙였다.

“그냥 그게 가장 적당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뱉는 거지, 안 그래?”

그 말에 지오는 생각했다.

‘원래 인간이란 말하기 전에 뇌를 한번 거쳐주는 게 예의야.’

하지만 사나래 헌터가 그런 맥락에서 저런 말을 꺼낸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지오는 지금 상황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지오의 인생을 줄곧 쫓아오던 유구한 문제점이었다.

“제가 무서운 인상인 것을 압니다. 평소에도 자주 오해를 샀죠.”

뭐만 하면 귀신이라도 봤다는 것처럼 기겁하는 사람 한둘 본 게 아니란 말이다.

“그래서 열심히 웃고 다녔는데, 효과가 좋지 않았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좋겠지.”

“그럼 지금 사나래 헌터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함인지요?”

“아는 게 많아질수록 공포가 커진다는 느낌?”

지오는 황당해졌다.

“사나래 헌터님은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네가 나의 뭘 알아.

‘얼굴 본 지 얼마나 됐다고 아는 게 많아졌다는 건데.’

저런 말은 지오가 귀신 들린 초상화 되고 처음 사귄 친구인 유성운도 한 적이 없었다. 한쪽은 반기지 않고 한쪽은 의도치 않은 공허한 친분 과시에 지오는 대단히 큰 황당함을 느꼈다.

“저희는 그렇게 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친한 사람만 알 자격이 있는 것들인가?”

“대부분의 관계는 그런 식이겠지요.”

“불쾌했어?”

“무엇에 대해 겁을 먹고 있는 겁니까?”

아닌 척하지만 지금 사나래는 조금 초조해하고 있었다. 지오는 상황이 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래서는 정말 얼굴을 갈아엎거나 철 가면으로 사는 수밖에는 없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조차도 무서워하겠지.’

인상 무서운 인간이 살기 참 힘든 시대였다.

“멀쩡한 사람을 무섭다고 귀신 취급하면 못 씁니다, 사나래 헌터.”

“방금 초상화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 있었어?”

“불쌍한 마음이 들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

무어라 더 말할 것 같던 사나래가 또다시 빙글, 눈을 초승달처럼 휘었다.

“서지오 헌터님은 뭘 좋아하세요?”

대단히 괴이한 맥락의 질문이었지만 지오는 이해했다. 원래 미친놈들은 대화 주제가 휙휙 날뛰고는 했다. 모두의 친절한 사제 지오반니는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었다.

“맛있고 배부른 걸 좋아합니다.”

“못 먹어 죽은 귀신인가….”

“귀신이 들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더 없어요?”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지오의 생각이 맞았다.

“나 갑자기 잡아먹히는 거 아니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육은 맛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심이 안 되는 소리래도….”

사나래는 겁을 먹었다.

한참 전부터, 말이다.

* * *

둘이 저택을 나왔을 때는 다시 해가 뜬 상태였다.

“나오셨군요, 별다른 수확은 있었습니까?”

“주로 장신구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능은 없었나 보군요, 이해했습니다.”

지오를 기다리고 있던 가라사니가 말을 이었다.

“두 분께서 위층에 올라가 있던 동안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예, 힐러가 필요한 상황이니 가능하면 모여 달라는군요.”

그리고 이 팀에는 정영원과 서지오 두 명의 힐러가 있었다. 가라사니가 탐지 장비를 확인하며 말했다.

“다행히 꽤 근처이고요.”

“부상인가요? 아니면 독?”

“대량의 몬스터와 마주쳤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겠네요.”

가라사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 지오가 웃었다. 이러려고 과일 말랭이 만드는 것에 실패했었나 보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 셋이 모여 빚은 피 경단이라고 들어는 보았나.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78)

178

제178화

주현은 말하고는 했다.

“인간 흉내를 제대로 내고 싶으시다면.”

“흉내요? 우는 초상화 보고 싶습니까? 처음 보시죠?”

“말이 안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울 준비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지오 씨.”

그는 이 정신머리 없는 초상화가 한낱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사이비 신이 되어 돌아올까 걱정했다. 대부분의 악신이 유희 도중 어떤 짓을 벌이는지 보면 대충 감이 잡히는 것이다.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아이템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현은 그런 지오를 걱정했다.

“답답하다고 본인이 나서다가 이상한 광신도 만들어 오지 말고 제 말을 들어요.”

“저는 광신도를 취급하지 않는 순수한 태양입니다.”

“지금 지오 씨 안에 태양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지오 씨보다는 인생 경험이 깁니다.”

“다 합치면 제가 더 길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했네요. 최소한 저는 지오 씨보다 ‘평범’의 기준을 압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군요.”

지오가 쌍 엄지를 들었다.

“제가 눈치가 좀 없는 편입니다.”

“눈치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지만, 유성운 씨에게 들었습니다.”

주현이 걱정을 가득 담고 물었다.

“예전 ‘심해의 나라’에서 던전에 바다 통로를 만들었다고 하셨죠?”

“불법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억울합니다.”

“혼내는 게 아니니 계속 들어보세요. 심지어 미끄럼틀도 아닌 계단을 만드셨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그야 당연히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현 씨. 그 어마어마한 깊이로 미끄럼틀을 만들어 버리면 가속도가 얼마나 붙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주신 건 참 고맙지만 인간은 죽기 싫다고 바다에 계단 통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것도 던전에서라면 더더욱.”

“무엇을 걱정하고 계신 건지 저도 잘 압니다.”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도 지구에서 무려 29년을 살아 왔습니다. 믿어주세요.”

“29년이나 살고도 그 지경인데 제가 대체 뭘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는 초상화 보여 드릴까요?”

“인간 흉내 그만두고 싶다면 계속 그런 발언을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

딱히 흉내는 아니었지만 찔리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라 지오는 곱게 입을 다물었다. 주현은 협조에 감사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지오 씨가 인간들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을 분은 아니시죠.”

“그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바다 마을의 웃는 폭군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시점부터 이미 지오 씨를 향한 저의 신뢰성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비 폭격기?”

“자비 폭격기?”

“조용히 계실 분이 아닌 걸 아니 한 가지만 권고드리는 겁니다.”

주현이 비장하게 말했다.

“직접 나서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템을 써라?”

지오는 서글퍼졌다.

“저는 거지입니다. 아이템도 없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지오 씨의 오두막은 물 한 방울까지 전부 아이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평화롭고 안락한 오두막을 그렇게 폄하하지 말아주세요.”

“이미 본인도 다 알고 발뺌하시는 것 같으니 계속 말합니다. 아이템을 써요.”

주현은 진심을 다해 조언했다.

“그래야 나중에 변명할 거리라도 생깁니다. 지난번 강령 사태 때 지오 씨 본인이 신성 비슷한 무언가로 취급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나라는 중간 매개체가 존재했기 때문임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 뭘 변명하죠?”

“지오 씨가 인간임을 변명할 여지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인간들 하는 꼴이 재밌어 보인다거나 불쌍해 보인다고 기적을 남발하시면 안 돼요. 정 하고 싶다면 인간들의 시선을 피해 어떻게든 증인을 없애요.”

“증인을 없앤다는 건 살인멸구를 뜻하는 걸까요? 대단히 흥미롭군.”

“이럴 때만 아르지오로 나오지 말고, 지오 씨. 저는 정말로 진지합니다. 수집상이 아무리 대기업이라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공략에서는 은폐가 어려워요. 무엇보다 태양교가 주관하는 행사니까요.”

“얌전히 있다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주현은 끝까지 믿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정말 철두철미한 남자였다.

* * *

하지만 이런 철두철미한 주현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으니.

“피, 피가 멎었어?”

“뭐야, 몸에 온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장기가 회복됐다.”

그는 지오의 아이템 종류와 개수에도 제한을 걸었어야 했다.

떨어졌던 팔이 붙고, 소실되었던 살점과 장기가 재생되고, 출혈 저주를 받은 헌터들의 부상이 순식간에 지혈되고, 점차 몸의 온기를 잃어가던 송장들은 부활에 가까운 기적을 맛보고 있었다.

그 주범은 지오의 피 경단이었다.

“…….”

대략 7개 정도 뿌렸다.

“…….”

“…크윽….”

지오는 저 멀리서 강서담 사제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참는 모습을 보았다.

“사, 사제님. 울지 마세요! 다들 회복했습니다…!”

“아… 강서담 사제님께서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의외로 사제님은 정이 많으신 분이었군요….”

왜인지 지오는 주변의 따듯한 위로와 감사에도 불구하고 강서담에게서 풍겨 오는 슬픔의 기운이 더 강해진 것 같았다. 기분 탓은 아닌 듯 강서담이 쉽게 회복하지 못했다.

지오가 아무리 남들 눈치를 안 본다지만 이번 일은 모르는 체할 수가 없었다. 지오는 자신에게 닿아오는 시선을 무시하고서는 슬금슬금 가라사니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속삭였다.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수집상의 아이템으로 말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오는 속으로 생각했다.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하더라.’

그는 반성문을 받으면 받았지 쓰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거대한 실수 앞에서 선생님의 체면 따위는 우주의 암흑 물질 너머로 보내도 괜찮았다. 지오는 주현에게 미리 사과했다.

‘오늘 시간 나는 대로 편지 써서 보내야지.’

그래봤자 수신인조차 읽지 못하는 보기만 좋은 예쁜 편지일 뿐이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지오는 저에게 다가오는 기척들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저, 사제님…?”

“저는 사제가 아닙니다.”

“아, 네. 헌터님.”

“회복이 다 되지 않아 정신이 없으실 텐데 조금 더 누워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런 귀한 선물을 받고… 어떻게 누워만 있겠어요….”

방금 막 죽다 살아난, 정말 말 그대로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서 멀쩡히 산 사람이 된 헌터가 감격에 젖어 눈물을 글썽거렸다. 지오는 좀 초상화에 처박히고 싶어졌다.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어, 어떻게 그런… 그런 영약을 저희에게….”

“아, 그 약은….”

그 순간 지오는 새삼 깨달았다.

‘이건 수집상의 아이템이었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

억지로라도 우겨보려고 했더니 딱히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수집상은 다른 길드원들을 위해 귀한 아이템을 흔쾌히 뿌려주는 자선 사업 길드가 아니었고, 누가 봐도 이번 피 경단의 주인은 서지오였다.

“…….”

지오반니는 자신의 성스러움만을 믿고 막말을 해보기로 정했다.

“…그 약의 이름은 피 경단이라고 지었습니다.”

“피 경단?”

“예, 제가 모시는 신의 자비에 힘입어 얻은 약재로 빚은 경단이었죠. 이번에 운이 좋아 태양께서 가르쳐 주신 곳에 약초의 군락을 발견했고, 던전에 오기 전날 그것으로 약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

“사실 정확한 효과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초를 보았을 때 지혈과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만들어 두었는데, 설마하니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군요.”

지오가 성스러운 사제의 얼굴로 성호를 그었다.

“이 또한 태양의 뜻이겠지요. 제가 사랑과 존경으로 모시는 신성께서 아마 이번 공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의 종이며 그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니 부디 지금과 같은 감사는… 제가 아닌 태양께 부탁드립니다.”

구멍도 많고 의문도 많이 생기는 이야기였지만, ‘진실함’을 가득 담은 지오반니 사제의 신실한 언행과 우수에 가득 찬 외양에 헌터들은 납득하고 말았다.

“그러고 보면 수집상은 출정을 얼마 남겨두지도 않은 상황에서 참가했었지….”

“어쩐지, 서지오 헌터님의 신성이 이 던전에 참가하라고 언질을 주었던 것이었나?”

“이번 공략은 두 태양이 성공을 기원하는 셈이야…!”

“그래, 신성이 돕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날 수 없었겠지.”

깊이 고민할 여력도 없이 피곤한 사람들은 감정 호소에 쉽게 휘말렸다. 물론 여전히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것도 가만히 내버려두니 저희들끼리 알아서 해결되었다.

“그런데 서지오 헌터는 조련사 아니었나?”

“멍청아, 꼭 사제만 신을 모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아, 그래? 그건 몰랐네….”

“드문 경우인 것 같기는 하다.”

“사제도 신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데, 조련사가….”

“이 정도면 거의 성자급 아니야? 엄청 사랑받나 봐.”

“그런데 태양교는 아니신 걸 보면 다른 차원의 태양인가?”

“서울 태양교는 배 좀 아프겠다.”

목숨 내놓고 활동하는 헌터들이라 그런지 부상이 회복되자마자 다들 떠들썩해졌다. 지오는 그런 강인한 인간들을 눈에 담고서는 제 옆에 선 가라사니에게 속삭였다.

“얼마나 갈까요?”

“수집상에서 손을 쓰면 제법 갈 겁니다.”

“저도 돌아가는 대로 방법을 강구할 테니 이번에야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지오의 변명은 이론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정말 한 시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희귀한 경우인 건 맞았다. 이들도 이성을 되찾고 나면 의구심이 들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의 이야기. 지오반니가 꾸준히 세뇌, 아니, 진실을 알려주고 대기업인 수집상이 횡포, 아니, 약간의 도움을 준다면 이 이야기는 기정사실이 될 터였다.

뭐, 왜. 우리가 그렇다는데 뭐 어쩔 건데. 너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

물론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태양신?”

“예.”

“태양신….”

“예.”

“…….”

“…….”

사나래는 미소조차 잃은 얼굴로 지오를 보았다. 바로 해석이 되지는 않을 미묘한 표정이었지만 지오는 알아들었다. ‘변명이 좀 빈약하지 않아?’라는 반응이었다.

그리고 지오는 무시했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다.’

그의 새아빠가 태양신이신 것이다. 비록 지금은 깜찍한 곰인형의 형상이셨으나 태양의 위엄만은 그대로셨다.

‘심지어 우리 집에 함께 살고 계시지.’

지오가 그를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모시고 살아왔던가. 그가 태양을 모시고 있다는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 그게 일반적인 사제와 달리 부양의 의미가 강하다고는 해도 말이다.

다행히 사나래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다.

“…태양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나 봐.”

“잘 보셨습니다, 사나래 헌터.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죠.”

“그 정도면 확실히 성자급일 텐데 태양교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네.”

“불길함을 담은 말씀이군요.”

경험에 기반하여 지오가 물었다.

“설마 이단으로 몰려서 종교 재판을 받고 시민들에게 돌을 맞습니까?”

“미친 건가?”

“아니면 재판도 없이 투옥당해서 수조에 갇힌다든가, 식인 물고기와 함께 가둔다든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산 채로 뜯어 먹히는 건 그리 유쾌한 감각은 아닌데.”

그 부분에는 어느새 다가온 강서담이 나섰다.

“태양교를 그런 원시적인 교단으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 서지오 헌터.”

“아, 이런. 원시적이었습니까?”

“...어딘가에는 그런 종교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아닙니다.”

“실례했습니다.”

“사나래 헌터님의 말대로, 그저 태양교에서 약간의 반응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반응일까요?”

“.......”

머뭇거리던 강서담이 대답했다.

“...최소한 적의는 아닐 겁니다.”

“그럼 무엇인지요?”

“좋게 표현하자면 포섭이라든지.”

“모시는 신성이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신경 쓰는 교단이었다면 서울 대표 종교로 자리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또 놀라운 말씀이군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막아 보겠습니다, 제 딴에는 열심히... 후우우....”

조금 우는 것 같은 강서담 사제의 모습에 사나래가 미묘한 눈으로 지오를 보았다.

“말씀하세요.”

“응,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하세요.”

“진짜 아니야.”

“하라고.”

“잘못했어요.”

두 손 모아 싹싹 빈 사나래는 슬쩍 자리를 떴다. 강서담과 같은 팀을 맺고 있던 해령 길드의 헌터와 인사를 나누러 간 모양이었다. 자리에 남은 건 지오와 강서담, 가라사니뿐이었다.

어수선한 주변을 보며 가라사니가 강서담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통신 장비의 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사정은 못 들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짜 달의 시간 동안 몬스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시간대의 몬스터는 유독 흉포해지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마주친 몬스터는 여러분께도 꽤 낯선 녀석일 것 같습니다."

강서담이 골치 아프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다.

"언데드 몬스터였습니다."

"언데드?"

"예, 썩어 문드러진 시체였죠. 가벼운 트리거를 눌렀던 것뿐인지 또 금방 사라졌습니다만...."

"......."

가라사니의 침묵에 강서담이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왜 이런 우림에 언데드형 몬스터가 서식한단 말인가?

"전형적인 식생형 던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내막이 조금 더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스토리가 있는 던전일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던전은 스토리를 모르면 공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몬스터들의 신원은 파악이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어둡기는 했지만, 명색이 태양의 사제이다 보니 확인은 했습니다."

"다행히 아는 사람은 아니셨나 봅니다."

"입고 있는 옷 자체도 지구의 양식과는 조금 달랐으니까요."

"옷을 갈아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도 확인하셨습니까?"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훼손되어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익숙한 기운조차 느껴지지 않았으니... 태양의 사제들은 아니었겠죠."

이번 공략 이전에 태양교에서는 한 번의 공략을 했다가 이미 실패한 전적이 있었다. 그때 죽게 된 태양의 사제들이 언데드화 된 것인가 싶었지만, 강서담은 그건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다.

"의아하기는 합니다. 그 어디에도 형제들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이곳의 네발짐승 형태의 몬스터들은 시체를 먹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교단의 정보가 틀렸다고 해도 장비 정도는 남아 있어야 할 텐데 보이지 않아요."

"워낙 범위가 넓은 던전이니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곳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만...."

고민하던 강서담이 말을 이었다.

"저희 팀이 발견한 정보가 있습니다."

"공교롭군요, 저희도 있습니다."

“시체 정도의 무거운 것이 어디론가 끌려간 자국이 남은 걸 확인했죠.”

“저희 팀은 저녁의 몬스터들이 한곳으로 이동하는 걸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서담이 잠시 지오를 보았다.

“…….”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뇨, 이건….”

입을 꾹 깨문 강서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후 공략이 성공하면, 태양교의 장례 미사에 참석해 주실 수 있을지요.”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외에 필요하신 것은 없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베풀어주신 온정과 자비에 태산과 같은 감사를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작게 속삭인 강서담에 지오가 생각했다.

‘왜 다들 나한테 장례를 도와달라고 안 하지….’

나만큼 장례에 특화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말이다.

지오가 남몰래 ‘나는 아버지와 달리 썩 믿음직스럽지 못한 신인 건가? 장례 하나 돕지 못하도록 할 만큼? 역시 제왕학 같은 걸 배워야 하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 강서담은 살아남은 헌터들을 불러 모았다.

“한 차례의 정비를 마친 후 이동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탐색의 과정이었지만 이만큼 단서가 나온 이상 이야기가 달라졌다. 이제는 본격적인 공략의 시작이었고, 그 점을 느낀 듯한 헌터가 부상을 점검하다가 물었다.

“저, 사제님. 어디로 이동합니까?”

“더 안쪽으로.”

강서담이 대답했다.

“몬스터가 모이는 곳으로 갑니다.”

분명 무언가가 있을 터였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78)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78)"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79)

179

제179화

본격적인 출발 전, 그들은 정비 시간을 가졌다.

"그래도 한번 잠을 자고 가는 게 나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회복이 된 탓인지 긴장이 풀어진 헌터들이 많아요."

"이대로 움직이면 분명히 크게 다칠 테니...."

"예, 차라리 한번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죠."

그에 헌터들은 제각기 자리를 잡았다.

"이놈의 풀떼기들은 아무리 잘라내도 줄어들지를 않네."

"여기 불 좀 피워주세요! 화염 전공 헌터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대청의 헌터가 아쉬워했다.

"저희가 찾았던 집이 더 쉬기에는 편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 거기까지 움직이는 건 힘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아까운 기분이 들어서 말해봤어요."

"집으로 삼기에 좋은 장소이기는 했죠."

"특히 이곳처럼 독초가 가득한 던전이라면요."

헌터들이 휴식할 공간을 만드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해가 지고 뜨기를 반복했다. 헌터들은 그런 환경에 매우 질린 표정을 지었다.

"피곤해 죽겠네."

"자도 잔 것 같지 않은데...."

습한 열기와 크고 작은 독초로 가득한 드넓은 우림인 것으로도 모자라 일출과 일몰이 아주 제멋대로였다. 헌터들이 휴식을 취하기에 정말이지 극악의 조건인 셈이다.

그러면서도 간신히 쉴 만한 공간을 마련한 헌터들이 힐러들을 찾았다.

“힐 좀 부탁드립니다.”

“독초에 베였어요.”

“와씨, 팔 썩어요! 힐요!”

독초가 우거진 던전에 휴식 공간을 만들면서 다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것이다. 이번 공략은 이 부분을 고려해 평균 이상의 힐러를 확보했고, 지금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지오는 자주 문의를 받았다.

“사제님!”

“저는 사제가 아닙니다.”

“아, 아… 그렇지. 그, 조련사님?”

“그건 맞습니다. 다친 곳이 있습니까?”

“예, 손에 가시가 찔려서….”

“벌써 변색이 되고 있군요.”

지오는 가벼운 쓰다듬으로 헌터의 살점과 핏줄을 타고 오르는 시커먼 독 줄기를 없앴다. 그 과정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깔끔했는지 치료를 받던 헌터와 그 주위의 헌터가 감탄했다.

“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화하시는 겁니까?”

“아프실 테니 최대한 빠르게 치료하는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닐 텐데….”

그들은 서지오 헌터에게 높은 등급의 치료 스킬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 자세한 스킬 창을 물어보는 건 실례가 되는 일이라 함부로 캐묻지 못했지만, 거의 기정사실이었다.

“아까 주신 약도 스킬로 만드셨던 건가요?”

“그런 스킬은 없습니다.”

“어, 그럼 그냥 혼자서 만드신 거예요?”

“약을 만드는 일에 스킬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보통은 스킬의 도움을 받는데.”

“재료 본연의 힘이 컸습니다. 운이 좋았죠.”

“정말 자비로우신 신을 모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참으로 다정하신 분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지오 헌터는 그의 신에게 거의 성자급 대우를 받고 있는 듯했다. 그런 사람이니 태양의 힘이 가득 들어 있는 약재도 받는 게 아니겠는가.

그에 태양의 사제 중 한 명이 강서담에게 물었다.

“다른 차원의 태양이라지만 그래도 같은 계열인데, 저희 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실까요?”

“좋은 감정도 나쁘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탐욕을 거두세요. 엄연히 다른 신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미 저희의 태양과 한 가족이 된 신들도 많고요. 잘 설득해 보면….”

“설득해서 대체 뭘 어쩌자는 겁니까? 뭘 위해 그런 욕심을 보이시는 건지 저도 알지만, 겸손해지십시오.”

강서담은 뒷골을 근질거리게 만드는 짜증에 질려 진절머리를 냈다.

연륜이 있는 장로 사제들은 최소한 욕심을 숨기고 겸손한 척할 줄이라도 알지, 젊은 사제들은 태양교의 교세를 믿고 거만함에 찌들어 있을 때가 많았다.

'음흉하게까지 느껴지는 달님교보다야 이렇게 대놓고 멍청한 티를 내는 것이 편하기는 하다지만 짜증이 나지 않는 건 아니다. 지금 대체 누굴 상대로 이런 소리를 지껄이고 있는지 이 어린놈은 모르겠지....'

가장 각광받는 도시 서울의 교단이자 종교계 1~2위를 다투는 태양교다. 사제는 보통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 14살 정도의 어린 나이에 정식 사제로 인정받고, 17살이란 젊은 나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저희들이 최고라는 자부심에 찌들어 있는 태양의 사제들은 이런 오만함을 보이고는 했다. 당연히 상대도 이러한 권유를 영광으로 여길 것이라는 오만이었다.

"서지오 헌터의 명성이 그리 탐스럽습니까? 그의 능력이 대단히 유용해 보이지요? 그야 달님교에 비해 우리 교단은 아직도 성인이 없으니 그 자질을 갖춘 서지오 헌터가 욕심이 날 법도 합니다. 낯선 신성의 아들을 그렇게 물건 고르듯 평가하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아, 아니, 저는 그냥...."

"오만을 버리십시오. 서지오 헌터에게 무엇이 부족해 보이기라도 합니까?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고 제가 모시는 신성의 품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탐스러운 열매로 보여 먼저 제안을 받아도 황송할 판에 대체 무슨 욕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빠르게 말을 쏟아내고선 얼굴을 쓸어내린 강서담이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부터 걱정이 크군...."

비단 이 젊은 사제뿐만의 욕심이 아닐 것이었다. 지금이야 던전에 정보가 갇힌 상태라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공략을 마치고 나가면 이 소식은 교단으로도 전달될 것이었다.

'그러면 또 원로들이 한바탕 날뛸 것이고.'

나이를 먹을수록 가면이 훌륭해질 뿐, 태양교에 대한 자부심은 커져만 간다. 나이가 많은 원로 사제들은 어린 사제들과는 다른 노련한 방식으로 서지오 헌터에게 접근할 것이었다.

'버러지 같은 것들.'

이보다 더 개같을 수가 없었다.

"......."

"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십시오."

하필이면 구도가 너무 좋지 않았다.

'...분명 심해의 인어들은 그들 차원의 태양교에게 제 스승을 빼앗겼다고 했다.'

강서담은 '서지오 헌터'와 함께 '심해의 나라'에 방문한 헌터였다. 그만큼 해당 던전의 스토리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구도는 지금 지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어들이 또 한 번 분노한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종교계에서 가장 대접받고 인기가 많은 인간은 그 신성을 품는 그릇이 남다른 존재들이었다. 태양교의 예비 사제 중에서 고르자면 차이솔과 이루다가 있었고, 달님교에서 찾자면 그들의 성녀가 있었다.

태양교와 달님교는 상생이자 경쟁 관계였고, 달님교에는 있는 성인이 태양교에는 없었다. 심지어 태양교는 작년 던전 브레이크 사건으로 큰 타격을 받아 아직까지도 어수선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니....

"......."

홀로 서서 한숨을 꾹 참는 강서담에게 지오가 다가갔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송구, 아니, 죄송합니다.”

꽤 먼 거리였지만 ‘서지오 헌터’의 귀에 방금의 대화가 안 들어갔을 리가 없었다. 강서담은 불안한 마음으로 사죄를 전했다. 다행히 ‘서지오 헌터’는 화를 내지 않았다.

“이해합니다.”

“하해와 같은 자비 감사합니다.”

“나는 태양을 좋아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되면 좋겠군요.”

“…….”

강서담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쪼록… 조심하겠습니다.”

아직도 채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인어들을 자극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구슬려 보겠습니다. 저 역시 교단 내에서 입지가 작지 않으니, 형제들도 어느 정도는 제 말을 들어줄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얄팍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가능한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몸가짐을 조심하겠습니다. 보여주신 자비에는 감사하고 있어요.”

“…….”

그에 지오가 생각했다.

‘내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 편인가.’

그냥 친교 제안을 했을 뿐인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여 한마디 했건만 더 복잡한 말을 마구 뱉어내고 있다. 아무리 봐도 강서담은 인생을 불편하게 사는 편인 것 같았다.

‘…아무튼 나 대신 생각해 준다면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

재밌으니까 됐다.

“이만 저희 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이따 뵙겠습니다.”

“형제님도 평안하시길.”

아무래도 지오는 뇌가 맑은 자신을 사랑하는 편이었다.

* * *

그리고 아무도 ‘서지오 헌터’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

“…….”

특히 사나래 헌터가 그랬다.

“조장? 왜 그래?”

“하하.”

“뭐야 왜 웃어.”

“삶을 되돌아보는 중이었지.”

“와 그런 것도 해? 쩐다.”

“그래?”

그는 제 조원이 더 굉장해 보였다.

“몸조심하고.”

“진짜 안 어울리는 소리를 하네.”

“하하하.”

사나래는 손을 흔들고서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팀원들이 휴식하고 있는 자리로 돌아와 저 역시 앉았다. 그가 모닥불 주위에 둥글게 둘러앉은 인원들을 보았다.

“…….”

“…….”

“…….”

시선을 교환하는 것은 사나래를 포함한 정영원과 가라사니.

손깍지를 낀 사나래가 물었다.

“이래도 되나?”

“뭘 말씀하시는 건지요.”

냉한 인상을 가진 가라사니의 천연덕스러운 질문에 사나래가 특유의 미소를 빙글 지었다.

“너무 양심이 없는 게 아니냔 말이지.”

“정확히 주어와 목적어를 넣어주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들릴 텐데? 나보고 나가 죽으라고?”

이렇게 보여도 사나래는 자기 목숨 귀한 줄 아는 편에 속했다.

남들이 보면 ‘그게 무슨 개소리냐’라고 물을 테지만, 진짜였다. 죽음이 가까워진 몽롱한 상태에서의 전투를 즐길 뿐 그는 최소한 자신의 숨구멍은 만들어놓고 날뛰는 망아지인 것이다.

뭐, 지금도 감수할 거 감수하고 왔다. 그러니까 그 ‘서지오 헌터’가 공략에 참가한다는 말에도 굳이 빠지지 않고 남았지. 같은 맥락에서 지금도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만….

“하하.”

사나래는 또 한 번 웃었다.

‘미치겠네.’

그즈음 모든 헌터들의 인사를 받고 자리에 온 서지오가 물었다.

“다들 슬슬 배가 고프지는 않으신가요?”

“서지오 헌터는 역시 마귀할멈이구나.”

“이렇게 보여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안심해 주세요.”

“과연 안심해도 되는 걸까 싶기는 한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던가.

“뭐 주려고?”

“과일 말랭이 좋아하십니까?”

“오, 좋아해.”

사나래는 순순히 동그란 말랭이를 받아먹었다. 건포도보다는 매끈하게 생긴 짙은 노란색의 말랭이는 그 깔끔한 단맛이 일품이었다.

“어떠신가요?”

“이거 진짜 맛있네.”

진짜 살찌면 잡아먹을 생각인가.

이런 간식 하나조차도 맛있는 게 세상 억울해서 조금 웃겼다.

“…….”

사나래는 몸을 아주 잘 활용하는 헌터였다.

그의 시각은 하늘을 나는 맹금류의 것과 같았고, 후각은 호랑이와 같은 맹수의 것이었으며,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은 초식 동물만큼이나 뛰어났다. 그런 사나래가 모르려야 모를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한 신체 안에서 세 번씩 바뀌고는 하는 체향 같은 것이나.

“…하나만 더 주라.”

“잘 먹으니 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이렇게까지 쏟아붓지는 말고.”

“넘치면 던전의 개미가 먹을 겁니다.”

“여기 과연 개미가 있을까?”

“그럼 몬스터가 먹겠죠.”

“오, 몬스터….”

귀에 들리는 목소리의 음정과 음률.

“참 자비롭네.”

그 박제된 것만 같은 미소와 행동들이, 알기 싫어도 무언가를 짐작하게 한다.

“서지오 헌터님은 어디까지 자비로우시려나?”

“저 같은 호구를 곁에 두시면 그날 하루 밥상이 호화롭겠죠.”

“어… 그렇기는 하겠지, 아마 그럴 것 같아.”

일단은 웃어넘기기로 했다.

서지오 헌터는 화를 잘 안 내는 편인 것 같으니 말이다.

* * *

“야옹.”

어둠 속에서 고양이가 울었다.

“야옹.”

답변을 줄 때까지, 계속.

“야옹.”

다나는 기다렸다.

이곳에 집으로 가야 할 영혼이 있다.

“…….”

“야옹.”

“…….”

사나래는 귀를 막았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79)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80)

180

제180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 이변이 생겼다.

"어? 저거 뭐야."

"언데드… 언데드 아닌가?"

"…잠깐만."

주변을 경계한 헌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수가 왜 이렇게 많아?"

몬스터의 광란이었다.

"기상하십시오! 광란입니다!!"

"광란 현상이 나타났어요! 다들 장비 챙기세요!!"

"언데드입니다! 곧 이쪽으로도 도착할 거예요!!"

불침번을 서던 이들의 말에 잠을 자고 있던 헌터도, 장비를 점검하던 헌터도, 마저 사람들의 부상을 치료하던 헌터들도 벌떡 일어났다. 태양교에서 엄선한 헌터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원래부터 잠들어 있지 않았던 지오가 중얼거렸다.

"광란 현상?"

"말 그대로 몬스터들이 미쳐 날뛰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하, 이것도 헌터들의 용어입니까?"

"예, 드물지 않게 벌어지는 현상이지요."

그렇게 설명한 가라사니가 총기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아주 흔한 현상도 아닙니다."

그가 제 팀의 헌터들을 정비시키던 강서담 사제에게 물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입을 닫을 것 같았던 강서담이었지만, 뒤이어 따라온 서지오와 눈이 마주치고서는 입을 뻐끔거렸다. 앓는 소리를 내던 그는 곧바로 답을 쥐어 짜냈다.

“…일단 저희 측에서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태양교의 자료에는 이런 현상이 보고되지 않았고 이번 공략의 참가 인원이 많으니, 아마 다른 팀에서 인위적으로 무언가 트리거를 누른 것이겠죠. 물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광란 현상은 던전 자체의 순환이거나, 아니면 헌터의 행위로 인해 강한 트리거가 눌렸을 때 발동된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지금으로서는 후자를 고려해 봐야 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 자리에서 광란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게 좋겠습니다.”

“미리 공간을 확보해 둔 보람이 있군요. 저희 팀에게도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가라사니가 자리를 뜨고, 서지오가 강서담에게 물었다.

“허니를 보낼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빛이 필요합니까?”

“몬스터들을 자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두워서 시야 확보가 어려울 텐데.”

“너무 광범위한 빛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지오가 제 목 근처로 손을 뻗자, 내내 후드 속에 숨어 있던 허니가 그 위에 올라탔다. 부드럽게 손을 휘두르자 허니가 허공을 날았다. 작은 몸집의 허니는 금방 시야에서 사라졌다.

헌터들의 탐색과 구조를 위해 허니를 날려 보낸 지오가 이번에는 망토의 끝자락을 잡고 들어 올렸다.

“다나.”

망토의 새까만 그림자로부터, 밤하늘 빛깔의 보석 고양이가 올라왔다.

“야옹.”

“네 오빠를 도와주렴.”

“야옹.”

꽤 큰 몸집의 고양이는 곧장 수풀 사이로 사라졌다. 그에 허겁지겁 자신을 정비하고 있던 헌터가 화들짝 놀랐다. 그녀는 걱정을 가득 담아 지오에게 물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곧 몬스터가 몰려올 텐데, 지켜줄 조련수가 없으면 견디기 힘드실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 방어를 할 테니 안쪽에서 힐을 넣어주시면…!”

그에 지오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편견이죠.”

터업!!

지오가 날아온 구체를 붙잡았다.

“힐러나 조련사가 약하다는 건.”

콰드득—!!

파편이 튀었다.

미소 지은 그의 손에서, 구체의 무언가가 뭉개졌다.

“…….”

“특이하게 생겼네요.”

“어….”

“몸집은 꽤 작고, 갈색에, 몸통만 한 날개가 한 쌍 달렸습니다.”

“어, 어.”

“조용한 비행형 몬스터입니다.”

후두둑, 툭…!

손을 휘두르자 몬스터의 잔해가 흩뿌려졌다.

“몬스터들이 왔습니다.”

“…네.”

“나중에 뵙지요.”

허둥지둥 자리를 뜬 헌터가 사라지고, 손에 검은색 피를 뚝뚝 떨구며 지오는 가라사니를 찾았다. 배려 차원에서 그에게 질문할 것이 있었다.

후드를 쓰며 지오가 물었다.

“가라사니 씨.”

“예, 서지오 헌터.”

“제가 갑자기 붉게 변하면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조금은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행이군요.”

양손에 총을 든 가라사니가 말을 이었다.

“날이 어둡습니다.”

“아하.”

핏물이 스며들듯, 아르지오의 머리칼이 붉게 물들었다.

“과연 그렇군.”

사악한 신성이 흥분에 웃었다.

* * *

정영원은 전형적인 힐러였다.

“당장 나를 지켜.”

“옙…!”

허약하고 귀한 인력이라는 뜻이었다.

“치료사님은 여기 계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켜 드릴게요!”

“근데 저희 힐 좀 넣어주시면…!”

떠들썩한 주변에 정영원이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근처 5m 이내에 계시면 죽을 일은 없게 해드리죠.”

헌터들은 감격했다.

“감사합니다 치료사님…!!”

“정영원 헌터님을 지켜라! 힐러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기본적으로 힐러는 그 수가 적었다. 살면서 마주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살면서 팀에 힐러 한 번도 못 넣어볼 정도로는 적은 것이다. 그만큼 힐러는 귀한 대접을 받는 고급 인력이었다.

그리고 정영원처럼 범위형 힐을 넣어줄 수 있는 치료사는 드물었다.

“전방에 언데드 세 마리!!”

“뒤에 힐러 있다, 닥치고 몸으로 막아!!”

“치료사님 믿어요…!!”

정영원은 그런 적극성을 욕하면서도 꾸준히 헌터들의 목숨줄을 잡아주었다.

“이 뇌 말아먹은 헌터놈들아 뒤지기 싫으면 몸 좀 사려!!”

힐러의 수가 적은 이유는 스킬을 배우거나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있었다. 스킬이라는 것이 익힌다고 해서 오븐에 넣은 냉동식품처럼 뚝딱 나오는 게 아닌 것이다.

사람 몸을 강제로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고 그 방법을 알 뿐, 실제 치료는 대단히 복잡하고 세심한 과정을 요구한다. 정영원처럼 광범위적인 힐을 할 수 있는 힐러는 얼마 없었다.

“작작 좀 다치라고!!”

“캬 역시 힐러 있으니까 든든하다!!”

“야 이 닭대가리들아—!!”

뒷골에 열이 빡 오른 정영원이 위로 무언가가 빠르게 접근해 왔다.

“악 시발! 위에! 위에 비행형 몬스…!!”

헌터 중 누군가가 다급하게 무기를 들었을 때.

—꽈직!!

“…어?”

꽈드드득—!!!

몬스터를 낚아챈 거대한 무언가가 날아와 나무에 박혔다.

“…….”

“…누, 누구…?”

“아, 이런.”

검은색 피를 뒤집어쓴 누군가가 짐승처럼 나무에 손톱을 박아 넣은 채로 웃었다.

“조심해야지.”

약하고 어린 것을 어르는 듯한 음성.

“하늘에서 괴물이 날아올라.”

“…….”

“몸을 조심하는 게 좋아.”

짐승의 것처럼 형형한 금안.

“그렇지 않나?”

헌터들에게 보호받던 정영원은 그를 알아보았다.

“…서지오 헌터님.”

“나중에 보지.”

콰득, 까드득—!!

나무를 타고 오른 그는 곧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

정영원은 짐승의 즐거운 목울음을 들은 듯도 했다.

실제로 아르지오는 대단히 즐거운 상태였다. 이지 없이 날뛰는 짐승을 사냥하는 일은 정말이지 오랜만이었다. 이것들은 주제를 모르니 양손으로 터트리고 싶을 만큼이나 깜찍했다.

‘…좋네.’

퍼억—!!

다리를 박아 넣자 머리 한 통이 터져나갔다.

‘아주 좋아.’

꽈직!!

손톱을 찌르자 죽은 핏줄이 풍선처럼 터졌고, 고목의 껍질을 닮은 살점은 떨어져 내렸다.

‘특히 위의 것들이 마음에 들어.’

이 나무 위에는 참 많은 짐승이 있었다.

결코 작지 않은 체구가 소음 하나 없이 어둡고 거대한 나무 사이를 뛰놀았다. 답답한 신발을 벗어던진 맨발이 나뭇가지 위에 오르면, 그것은 약간의 반동도 없이 침묵을 유지했다. 신속하고 거대한 인영은 마치 날개라도 달린 듯했다.

이러한 우림의 나무는 아르지오의 고향과 다름이 없었다. 이토록 높은 나무가 있다면 하늘을 유영하는 괴물들 따위는 아르지오에게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그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타며 허공의 몬스터들을 찍어 눌렀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사나래가 보고 있었다.

“…….”

그는 다가오는 몬스터들을 곤죽 내며 시선을 하늘 위 남자에게 두었다.

‘…정말 날고 있는 건 아니겠지.’

맨손과 맨발로 나무 사이를 타며 뛰어내리고 뛰어오르는 모습은 꼭 날개가 달려 있는 듯했다. 결코 작지 않은 체구였으나 탄성 있게 움직이는 모습은 그 무게가 마치 깃털과 같다는 착각을 일으켰다.

커다란 손아귀에 괴물이 들어온다. 가볍게 움켜쥐자 물풍선처럼 시원하게 터진다. 그 새까만 핏물이 얼굴에, 머리카락에, 옷에 묻어도 마냥 좋다는 듯 그는 웃고 있었다.

철없는 즐거움을 가득 담은 황금빛 안광이 섬뜩하다.

"사나래 헌터, 한눈팔지 마세요!!"

"아, 죄송."

콰직, 퍽—!!

몬스터를 상대하며 사나래는 대충 대꾸했다.

'진짜 뭘까.'

교묘하게 헌터들이 잘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노리며, 그는 마치 기지개를 피는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움직였다.

'온통 피투성이네.'

나무 위를 달리고, 가끔 바닥에 내려와 몬스터들을 짓밟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괴물들을 유인한 다음, 바글바글한 몬스터 사이를 빠르고 경쾌하게 지나치며 그 머리통을, 목을, 심장을, 다리를 터트려 버린다.

'저래서야 꼭….'

흥겨운 춤을 추는 것 같지 않은가.

즐거움을 잔뜩 담은 미소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 * *

"꺄악!!!"

광란 시간이 끝나고, 어느 헌터가 비명을 질렀다.

"서, 서서서, 서지오 헌터님!! 아니, 힐러!! 힐러어!!"

"안 다쳤습니다."

"힐…!! 아, 네? 네? 아, 안 다치셨…?"

"제 피 아닙니다."

검붉은 피로 뒤덮인 지오가 가라사니를 돌아보았다.

"옷이 더럽습니다."

"저런, 여분의 옷이 없는데."

가라사니가 빙긋 웃으며 물었다.

"이 녀석의 것을 쓰시겠습니까?"

"뭐야, 이건 또 무슨 봉변이죠 층장님?"

"유지나 씨도 나눔의 기쁨을 알아야지."

"나눔이 아니라 강탈이잖아."

지나가던 유지나가 지오를 보았다.

"하지만 정말 제 옷이라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게요."

“아뇨, 몸에 안 맞을 것 같으니 괜찮습니다.”

“저도 망토만 드릴 생각이었는데요...?”

유지나는 제 옆의 수집상 현장 직원을 붙잡았다.

“이 새끼 옷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체격이 좀 맞지 않으세요?”

“아 난 또 왜.”

“우리 서지오 씨를 위해 그거 하나 못 줘?”

“드릴 수 있긴 한데, 이거 그거 아닌가? 내리갈굼?”

“갈궈져야 갈굼이고.”

수집상 직원들의 따듯한 마음씨에 지오는 감동했다.

“상냥한 온정은 감사하지만 정말로 괜찮습니다.”

별로 남의 옷을 입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다 젖은 망토는 버려도 될지 궁금했던 것뿐입니다.”

“마음껏 버리셔도 됩니다. 피에 안 젖었어도 원하시면 버려주세요.”

“저는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버리시면 주워서 가보로 삼으려고 했는데 안타까워라.”

“싫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만 한번 씻기는 하셔야겠네요, 이대로라면 찝찝하시겠어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즈음 한참 하늘을 날던 허니가 지오의 어깨 위에 앉았다.

“꾸륵.”

“허니, 잘 구경하다 왔니?”

“꾸르르르....”

허니는 눈을 껌벅이며 제 아빠를 보았다.

“.......”

“허니?”

“꿍꿍꿍꿍꿍꿍!!!”

지오의 아들내미는 물에 흠뻑 젖은 아빠를 보며 크게 역정을 냈다.

“꿍꿍꿍!!! 꿍꿍꿍꿍꿍꿍!!!”

“허, 허니가 왜 이러는 겁니까?”

“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꿀렁—!

거대해진 허니가 지오를 삼켰다.

“허니이이이이!!!”

“꺄아아아악!!!”

“지오 씨이이이!!!”

헌터들이 경악하든 말든 제 아빠를 삼킨 허니가 이내 퉷 그를 뱉어냈다.

“아앗.”

“꾸르르.”

“허니, 아빠를 그렇게 험하게 뱉어내면 안 돼.”

“꿍.”

“나 엄청 가련하게 쓰러졌잖아….”

힘이 다한 공주님처럼 조신한 포즈로 쓰러졌던 지오가 먼지 묻은 옷을 털어내며 일어섰다.

“다들 놀라셨습니까?”

“허, 허, 허니가…!! 허니가 방금…!!”

“괜찮아요, 씻겨준 거였습니다.”

덕분에 얼굴이며 몸이며 할 것 없이 검붉은 피로 얼룩졌던 모습이 처음의 깨끗해진 상태로 돌아온 채였다. 거대해진 허니의 몸에서는 지오에게서 빨아들였던 검붉은 피가 한데 모이고 있었다.

“꾸룩.”

잘그락.

허니의 몸 안에서 뭉치던 몬스터의 피는 곧 보석의 형태로 뭉쳐져, 그 몸 아래로 가라앉았다. 허니가 주야장천 모으던 보석들 사이에 섞여드니 무엇이 핏물이었는지도 구분이 안 갔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헌터들이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 세척… 세척해 준 거군요.”

“순간 잡아먹히시는 건 줄 알고….”

“…저건 왜 보석이 된 거지?”

지오반니가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었다.

“허니가 보석을 좋아해서요.”

“보통 그렇다고 몸 안에서 보석이 되나…?”

딱히 설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헌터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정되자 광란 현상 사이 지오를 목격했던 이들이 말을 걸어왔다.

“그, 나무 위에서 날뛰… 아니, 몬스터 잡아주셨던 분이 서지오 헌터님 맞죠?”

“나무 위에서 활동하던 헌터는 몇 되지 않았던 것 같으니 제가 맞을 겁니다.”

“와… 와….”

정영원을 지키던 헌터 중 한 명이 창백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저 잡아먹히는 줄 알았잖아요.”

“잡아먹지 않습니다.”

“아니 눈이 무슨, 막… 뭔가… 막… 그래서.”

“눈이 무슨 막 뭔가 막 그렇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시죠? 아시잖아요, 이 느낌.”

“모르겠습니다?”

모르쇠는 지오반니의 특기였다.

“어쩜 힐러이신데 그렇게 날래세요?”

“편견입니다.”

“조련사이신데 조련수들 다 보내 놓으시고….”

“편견입니다.”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련사도 힐러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조련사랑 힐러가 직접 나서야 할 때는 공략 이미 망했을 때거든요.”

조련사랑 힐러가 전면에 나선다는 건 그들을 제외한 다른 헌터가 전부 죽었다는 의미였다. 그만큼 힐러와 조련사는 후방 지원의 역할이 강했다. 조련하고 치료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투 능력까지 기를 시간이 없는 것이다.

그 부분에 지오가 웃으며 말했다.

“제가 전투에 이골이 난 편이라.”

“…….”

헌터들의 시선이 수집상의 원로 길드원, 가라사니에게 향했다.

“…대체 헌터님 교육을 어떻게 하신…?”

“수집상 그렇게 안 봤는데….”

“수집가는 길드원 아낀다고 하지 않았나요?”

가라사니는 그저 웃었다.

“허허.”

알 바인가.

* * *

“6번 팀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던전 탐사 전용으로 개발된 통화용 수정을 손에 쥔 강서담이 말을 이었다.

“연락 마쳤습니다. 웬 작은 나무를 건드렸더니 이 사달이 났다는군요.”

“작은 나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1M도 되지 않는 작은 나무라고 합니다. 잎과 가지가 연보라색으로 빛나는….”

“이질적이군요.”

“이렇게 거대한 나무들뿐이니까요.”

성인 남성 수십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감쌀 수 있는 둘레에, 그 끝조차 보이지 않는 높이를 지닌 거대한 나무들만 즐비한 던전이다. 연보라색으로 빛나는 작은 나무가 공략의 열쇠처럼 보인데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일단 나무를 공격했는데, 공격한 나무에는 흠집만 났을 뿐 부러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더 해보려는 순

간 던전 전체의 몬스터에게 광란이 부여되었고요.”

심지어 처음 보는 몬스터까지 등장했었다.

“그 하늘을 날아다니던 구체 형태의 몬스터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 교단의 공략 때는 보지 못했던 종이고, 광란 당시 너무 어두워서 제대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생김새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오 헌터. 아마 그 녀석들은 연보라색 나무가 공격을 받아야만 등장하는 몬스터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잘 대처한 덕분에 크게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지만....”

“다른 팀에서는 생겼습니까?”

“예, 그나마 힐러의 수가 많아 부상자들은 케어가 되지만 죽은 헌터들의 수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가까이 접근하면 자폭해 열기와 독으로 침입자를 상대하는 몬스터라더군요.”

그 열기와 독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렇게 많은 힐러와 아이템과 함께 진입했는데도 사망자의 수가 제법 나올 정도였다. 지금 대부분의 팀은 부상자를 치료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니 저희 쪽에서 확실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강서담이 이내 멈춰 섰다.

“...역시 있군요.”

“다행입니다.”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한 단서를 찾게 된 것 같아서요.”

연약해 보이는 가지와 목화솜처럼 풍성한 잎.

그들이 찾아낸 것은 아깐 전 대화 주제였던 연보라색 나무였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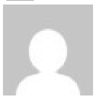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81)

181

제181화

“등꽃?”

지오는 조금 반가워했다.

“생김새는 등나무를 닮았군요. 꽃잎은 라일락 쪽에 더 가깝지만….”

“식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실 줄 몰랐습니다.”

강서담은 ‘서지오 헌터’가 지구의 식생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신성의 특권으로 생물의 특성을 읽어낸 걸 수도 있겠지만, 방금의 대사는 일종의 기호가 느껴졌다.

‘지구의 것을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품어주는 신성은 드물지.’

지오와 함께 연보라색의 나무를 살피던 강서담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구의 식물 중 하나와 꽤 흡사한 모습이군요.”

“몸통까지 연보라색인 것으로 보아 지구의 식물은 아니겠지만요.”

“예, 지구의 토종 나무는 대부분 갈색 몸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색이 통일되니 마치 나무 자체가 꽃인 것 같아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런 지오의 말에 그의 곁에 서 있던 가라사니가 강서담 쪽을 지그시 응시했다.

“…….”

“…….”

그 묘한 압박을 강서담은 알아차렸다.

‘공략을 마치고 태양교에서 자치권을 얻어내면 이 나무의 지분을 넘기라는 의미 같은데.’

이 무슨 늦둥이 손자라도 본 팔불출 할아버지의 억지란 말인가?

‘이 나무가 공략과 크게 연관된 경우 공략 이후에도 남아 있을지 의문이고, 설령 남아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연구 소재나 위험 물질로 분류되어 유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건 마법의 도움 없이 척박한 지방에서 겨울에 꽃을 피워내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그것도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손자가 보고 싶으니 당장 기적을 일으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나무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것을 확인해 봐야겠죠.”

다행히 지오 본인은 나무의 소유권보다는 공략의 해결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수집상과 마찰을 빚지 않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

강서담이 사제 한 명을 불렀다.

“무언가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 그렇습니까?”

“이 나무에는 열기가 없습니다.”

그에 다른 팀원이 의문을 표했다.

“열기가 없다고요? 이렇게 던전이 찜통처럼 더운데?”

“만져보면 조금 시원하게까지 느껴지는군요.”

아주 특별할 정도로 냉기가 흐르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이상했다. 이 던전의 모든 식생은 강한 열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 던전의 식생이 가진 평균적인 온도가 높은 탓에 독도 더 빨리 퍼지고는 했었죠.”

“확실히 그랬습니다만, 그렇다면 저건 대체 왜…?”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태양의 사제는 더더욱 헷갈릴 일입니다.”

태양의 사제는 열기가 없는 상대를 파악하기 힘들어한다. 그들의 뜨거운 성력과 상성이 좋지 않아 반대쪽에서 파악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었다. 강서담이 다른 헌터들을 돌아보았다.

“더 의견을 내실 분이 있습니까? 단순히 가까이 접근하는 것만으로는 방금과 같은 광란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니, 나무에 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정원사인 정영원이 나섰다.

“식물이라면 저도 꽤 관심이 있는 편이에요.”

“그렇습니까?”

“이번 공략만 해도 특이한 식생이 있다고 해서 왔죠.”

“그럼 가까이 와주십시오.”

“사제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열기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나무의 지척에 다가온 정영원이 그것을 꼼꼼히 살폈다.

“…….”

정영원의 눈에 이채가 돌았다.

“…생명력이 대단히 강하네요.”

“생명력입니까?”

“태양의 사제님들께서 열기에 예민하신 것과 같이, 저는 치료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력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기본적으로 생물의 기운과 분위기를 파악할 수 없으면 제대로 된 치료사는 될 수 없어요.”

“이해합니다, 정영원 헌터.”

“그런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그란 안경을 고쳐 쓴 정영원이 특유의 인형 같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 나무에 던전의 생명력이 밀집되어 있어요. 인간으로 따지자면 중요한 장기와 같은 거죠. 심장이나 뇌 정도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심장이나 뇌?”

“단순히 생명력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수준을 넘어 이 던전 전체로 순환시키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저로서도 모호하네요. 그냥 많다 못해 넘친 생명력이 퍼져나간 걸 수도 있어서요.”

정영원이 나무에서 조금 물러났다.

“이 나무가 던전의 편애를 받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 나무가 있어서 던전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피해를 감수하고 빠르게 이 나무들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야기를 듣던 헌터가 질린 표정을 지었다.

“저, 치료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저희 다 죽을 겁니다. 다른 팀에서도 발견했다는 걸 보면 나무가 여러 개 있는 모양인데 그거 다 처리하기도 전에 전멸할 것 같아요.”

“네, 확실한 방법도 아니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무에 손을 댄 6팀도 그것을 처리하지 못한 것 같던데, 겉으로 보기엔 약해도 쉽게 분지를 수 있는 나무도 아닐 겁니다.”

수집상의 유지나 헌터가 끼어들었다.

“전자의 경우면 어떻게 되나요? 나무가 던전의 편애를 받는 경우요.”

“최소한 다 없앤다고 해서 이 던전이 공략되진 않겠죠.”

“그러면 그냥 던전의 화만 돋우게 되려나요? 이거 골치 아프네….”

한 번의 광란으로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오게 된 상황이었다. 섣불리 나무를 없애는 방식으로 던전을 공략하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젊은 사제는 질린 얼굴이었다.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잔뜩 모였는데도 이 지경이라니, 대체 어째서 A급이었던 거지….”

“저희의 행사에 동참해 주신 분들 앞에서 약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죄,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만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사제는 고개를 푹 수그렸지만 그다지 반성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그에 다른 헌터들의 표정도 구겨졌다.

이 덥고 습한 데다, 계속해서 부상은 입지, 온 세상이 독초지, 잔뜩 예민해진 상황에 ‘비싸게 주고 불렀더니 왜 이리 일을 못 하냐’는 식의 시비 아닌 시비에 걸리게 되니 짜증이 나는 것도 당연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결국 강서담이 나섰다.

“공략 이후에 공식적인 사과문도 전달하겠습니다, 헌터님들.”

“네? 아,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 교단 체면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실과 겸손이라 하였습니다. 반성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서담이 능숙하게 헌터들을 달래는 사이, 뚱한 표정을 짓던 사나래 헌터가 슬그머니 연보라색 나무의 근처로 다가왔다.

지오는 그런 사나래를 웃는 얼굴로 맞이했다.

“오셨습니까?”

“나무에서 희한한 냄새가 나서.”

“그 뚱한 표정과 연관이 있을까요?”

“뚱하다니, 깜찍한 표현이네.”

늘 그렇듯 화제를 엉뚱하게 얼버무린 사나래가 콧잔등을 찡그렸다.

“……?”

그 표정에 역시 나무를 관찰하던 정영원이 물었다.

“사나래 헌터님은 뛰어난 오감으로 유명하시죠. 분명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실 텐데, 뭔가 느끼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명하다니, 그 정도는 아니야. 이거 과분한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은데? 음, 별건 아니지만… 뭐랄까….”

말끝을 흐린 사나래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체 냄새가 나네?”

“…….”

사나래의 말에 지오가 가라사니를 불렀다.

“가라사니 씨.”

“말씀하십시오, 서지오 헌터.”

“아까 정비 시간에 강서담 사제님이 무어라 말씀하셨던가요?”

“무거운 것을 끌고 간 흔적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녁이 되면 몬스터가 이곳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했고요.”

“서지오 헌터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저녁이 되면 몬스터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해와 달이 뜨는 시간이 뒤죽박죽인 이 던전은 조금만 기다려도 금방 어두워졌다. 유능한 헌터들은 냄새와 기척을 지운 뒤 숨어서 몬스터들의 동향을 파악했고, 그렇게 밝혀진 정보는 꽤 충격적이었다.

“…….”

“…어, 어떻게….”

아직 앳된 얼굴의 사제가 주저앉았다.

“어떻게 사제를, 사제를…!”

“진정하십시오.”

“사제를 거름으로 쓰다니요!”

그 얼굴은 몬스터와 던전을 향한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끔찍한 괴물들! 더러운 괴물들! 여신께서도 시선을 거둔 사악한 악마 같으니…!”

밤이 되면 몬스터들은 던전 곳곳에 있는 ‘거름’을 가져왔다. 대부분은 밤이 되면 잠이 들어버리는 몬스터들을 끌고 온 것이었지만, 그중에는 아직 수습되지 못했던 이전 토벌대의 시신도 있었다.

청년이라 불러도 될 사제는 가히 신성 모독적인 몬스터들의 행태에 진절머리를 냈다.

“어쩐지 형제님들이 보이지 않는다 했더니, 이런 일이…!”

“진정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 하지만…! 저는 이런 끔찍한 던전일 줄 몰랐습니다!”

“태양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군.”

“…….”

“쯧.”

강서담이 혀를 차자 젊은 사제는 그제야 입을 다물고 하얗게 질려버렸다. 교단 내에서 강서담은 발언력이 높고 공사 구분이 확실한 매서운 사제였다. 그런 그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었으니 무서울 만도 했다.

그런 사제를 무시한 채로 강서담이 헌터들을 돌아보았다.

“거름이라니 생각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따로 바닥이 헤집어진 흔적도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죠, 뭐.”

“설마 땅이 갈라질 줄은….”

강서담은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밤의 몬스터들이 ‘거름’을 가져오고 바닥에 발톱을 쑤시면, 땅이 고통스럽다는 듯이 쩍 벌어졌다. 그러면 그 틈에 ‘거름’을 집어넣는 형식이었다.

“구멍이 꽤 깊어 보이던데 용케 시체 냄새를 맡으셨군요, 사나래 헌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좀 이상한 냄새가 나길래 뭔가 했는데, 그치?”

“무엇이 되었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형제들의 시신 위치는 확인했군요.”

“그걸 시신이라고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예 찾지 못한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가족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보았더라도 강서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이 원정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약해질 때도, 그런 티를 낼 때도 아니었다.

“그리고 의외의 정보도 알아 냈습니다.”

“잘 숨기만 하면 이 나무 근처에 있어도 몬스터들이 저희를 찾지 못하는군요.”

“예, 서지오 헌터의 말씀대로입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곳에 있었을 때도 은신하면 몬스터가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곳은 던전의 생명력이 집중되어 있는 나무의 근처가 아닌가.

미간을 찌푸린 강서담이 중얼거렸다.

“나무에 집중하느라 다른 곳을 잘 살피지 못하는 건가…?”

그에 헌터들이 의아함을 드러냈다.

“그럼 그거 편애의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애지중지하는 거라면 주변을 더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나무라면… 왜 이곳에 남아 지키는 몬스터는 없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전 A급 던전에서도 심장 역할의 기둥이 있었는데, 그건 주위에서 지키는 몬스터가 아주 대놓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함정 같은 것도 엄청 많았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상하기는 하네요. 정말 던전의 거의 모든 생명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음, 던전의 생사와 깊이 연관된 녀석이었다면… 이보다는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A급이나 되는 던전인데.”

그런 반응에 정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나무가 던전의 심장은 아니라는 말이겠네요. 타격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무적의 나무라서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몬스터들이 너무 무심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요.”

밤에 활동하는 몬스터들은 비교적 지능이 특히 높아 보였다. 그런 몬스터들이 자기 목숨 걸린 일에 소홀하진 않을 것이다. 어설프게 똑똑할수록 본능에 충실한 몬스터가 많았다.

“그럼 대체 뭘까요? 던전의 생명력이 이렇게나 집중되어 있는데 던전의 주민인 몬스터들은 무심하고. 단순한 편애라면 몬스터들의 행동이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이 던전에서 저 나무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죠? 생명력이 그렇게까지 집중되어 있다면 분명 그 의미가 뚜렷할 텐데, 당장은 건드리면 난리가 난다는 것 외에는 별거 없잖아요.”

“만져도 독이 올라오지도 않고, 사람을 공격하지도 않고, 생긴 건 여리여리… 시체를 먹었던 것도 밤의 몬스터들이 찔러대지 않았으면 땅을 개방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아무런 공격 의사도 없는 식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물이 던전에 왜 있어요? 건드리면 난리가 나는 건 또 어째서고요?”

그에 곰곰이 생각하던 지오가 말했다.

“인질을 대할 때 보통 이러지 않나요?”

“…인질이요?”

“쓸모 있는 누군가를 다루기 위한 목줄 같은 개념으로.”

지오가 말을 이었다.

“꼬박꼬박 밥을 줘야 하고, 밤마다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하지만 대상에 대한 애정은 없으니 일종의 의무감이겠죠. 무언가를 돌보고 가꾸는 것보다는 그저 해야 할 업무 취급인 것 같습니다. 그럼 몬스터들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할까요?”

어느 헌터가 자신 없는 음성으로 대답했다.

“던전의 몬스터가 의무감을 느끼는 거라면, 어… 그래야 던전이 유지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고차원적인 생각은 못 하는 몬스터로 보였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욱 자기 불이익에 예민할 것 같거든요.”

“좋은 생각입니다, 당우 헌터님. 그렇다면 이 나무의 존재와 성장이 어째서 던전의 유지와 몬스터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몬스터들은 나무에 큰 애정이 없습니다. 의무적으로라도 호위하지 않는 걸 보면 이들이 던전의 중요한 장기이지도 않겠죠.”

“…던전의 심장은 아니지만, 던전의 유지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인질이라는 게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누구를 향한 인질이죠?”

“던전이요.”

지오가 말을 이었다.

“이곳은 지하에 생긴 별장 던전입니다. 동굴의 지하에 생겨난 공간이에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도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달이 뜹니다.”

“그거야 원래 던전이라는 게 상식선을 벗어난 공간이니까….”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 비는 누가 내리고 있을까요? 해는 누가 띄우고, 달은 누가 띄우는 걸까요? 여기는 아예 다른 차원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야 마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궁금한 점이 생기는군요.”

지오가 마법사인 수집상의 유지나를 돌아보았다.

“유지나 씨, 인간이 마법으로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A급이 조져지면 가능해요.”

“인간이 마법으로 해를 띄울 수 있습니까?”

“S급이 조져지면 가능할지도?”

“인간이 마법으로 달을 띄울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마법은 누구의 것입니까?”

푸른 눈이 부드럽게 휘어졌다.

“인간의 것이지 않나요?”

감히 인간이 해를 띄우고 달을 띄울 수는 없다.

“이곳의 해는 어디로 지는 걸까요? 달은 사라지면 어디로 가나요? 지구의 해와 달은 공전하는 과정에서 뜨고 지기를 반복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곳은 별장 던전입니다.”

“어….”

“고정되어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이죠. 허니가 하늘을 최대한 높이 날아보았고, 다나가 땅을 최대한 뛰어다녀 보았지만 이곳은 하나의 행성만큼 넓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

“그럼 해는 밤이 되면 어디를 가죠? 달은 해가 뜨기 전까지 뭘 하고 있나요? 이곳의 해와 달은 정확히 대칭으로 뜨고 집니다. 해가 있는 자리에 달이 가고, 달이 있는 자리에 해가 가겠네요.”

지오는 ‘하늘’을 보았다.

“이 위가 지구의 동굴인 만큼 저희가 지금 보는 하늘은 사실 하늘이 아니라 거대한 천장인 셈이죠. 허니를 통해 이곳의 천장이 나무로 가려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비가 내렸네요.”

“…….”

“천장에서 비가 내린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 거겠죠?”

그것도 우림의 폭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잘고 많은 물방울이 말이다.

“달이 떠서 밤이 되면 열기가 조금 가라앉고, 밤의 몬스터들은 이 나무에게 먹이를 대령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몬스터들도 열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낮의 몬스터들은 밤이 와서야 잠을 청할 수 있고, 지능이 높은 밤의 몬스터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달’이 ‘해’보다 좋은 개념이라고 상정했을 때.

“이 나무에만 유독 열기가 없다고 하셨던가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집중되어 있다고도 했죠.”

“그랬어요.”

“그냥 가정을 해보도록 해요.”

지오가 ‘하늘’을 가리켰다.

“이 던전이 거대한 ‘무언가’로부터 지탱되고 있고, 이 나무들이 그것의 편애를 받고 있다면요? 이 연약해 보이는 나무가 그 거대한 것의 가족과 같은 존재라면요?”

그는 위를 향했던 손을 내려 입가를 가리고 웃었다.

“나라면… 버틸 것 같은데.”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거대한 숲을 지탱할 것이다.

“그래서 잠시 인질이라는 말을 꺼내 보았습니다.”

“…인질.”

“단순한 망상일 가능성도 크지만요.”

“…….”

쭉 이야기를 듣던 강서담이 이내 얼굴을 쓸었다.

“…활동 가능한 인원은 모두 탐색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알아야 공략할 수 있는 던전이 있기 마련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81)
Prev
Next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82)

182

제182화

어느 차원에는 거대한 생명이 있었다.

그것은 제 자식인 거대한 나무를 가꾸었다. 생명의 일부를 떼어 키워낸 나무는 신성한 존재로 컸고, 나무는 곧 이지를 가졌다. 그것은 결국 한 명의 인간을 사랑하게 되었다.

"위대한 생명의 나무이시여, 부디 이 보잘것없는 아이를 받아 주십시오."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 주십시오, 위대한 신화이시여."

"그리고 저희 인간들에게 생명의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나무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인간에게 부여된 생이 한정된 것은 생명께서 정한 섭리였다. 그 누구도 함부로 생명의 자식인 그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작디작은 인간 아이를 향한 사랑은 커져만 갔다. 아이는 순수했고, 다정했으며, 나무를 가족으로 대했다. 하지만 인간 아이는 너무나도 여렸다.

"당신이 사랑하던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섯 갈래로 나뉘어 죽어 버렸습니다, 감히 신의 자식을 불경하게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땅한 천벌이오니 당신께서는 노여워 마시고 오로지 자비를 베푸십시오!"

"아이를 포함한 저희 인간들은 생명의 품 안에 있나이다!"

나무는 너무나 슬퍼 눈물을 터트렸다. 생명의 자식인 그것이 흘린 눈물은 인간들에게 천상의 축복이 되었다. 인간들은 더욱 잔혹해졌다. 그에게 피 묻은 제물을 바쳤다.

"제물을 바칩니다, 축복을 내려주소서...!"

"생명의 비를 내려주소서!"

그중 어느 인간이 외쳤다.

"그도 아니라면 모두에게 영생 내리소서!!"

뻔뻔하기도 하지.

"그리하면 당신의 애동 역시 살아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나무여, 어찌 그리 인간들에게 잔혹하십니까. 어찌 고귀한 인간들의 생이 이토록 짧은 것입니까!”

“저희에게 영생을!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리소서!!”

인간들의 꼬드김에 넘어간 나무는 기어코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무너트렸고, 사랑하던 인간 아이를 되살려 냈다. 자신의 권위를 훼손한 자식의 행태에 생명은 크게 분노하여 저주했다.

“재, 재앙이다! 재앙이 왔다!!”

“■■■■■...!!”

“신성한 나무에 악령이 깃들었다, 그것을 불태워야 해!”

“■■■■■■...!!!”

“나무가 짐승이 되었다!!”

생명의 나무는 움직이기 힘든 넓은 네 발과 인간을 보지 못하는 긴 목, 더는 작은 것들과 어울리지 못할 거대한 몸의 짐승이 되었다. 섭리를 거스르고 욕심을 부린 죄였다.

“아아악...! 나무가, 나무가 저주를 내렸어!!”

“제발, 저희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자비를 베푸십시오!”

“어찌 저희를 짐승으로 만드시나이까!!”

함부로 생명의 축복을 받은 인간들 또한 모두 짐승이 되었다.

생명의 나무가 사랑하던 인간을 죽이고 계략을 짠 사악한 인간들은 불면의 저주를 더한 밤의 괴물이 되었고, 생명의 나무가 퍼트린 과분한 축복을 감히 누리던 인간들은 낮의 괴물이 되었다.

“끼이에에엑...!!”

“까윽, 크아아... 아아...!”

“크에에에에에엑...!”

그들은 모두 짐승이 되어 생명에게 버려졌다.

섭리에게 버려진 그들의 차원은 점차 좁아지고, 생명이 벌로써 남기고 간 태양의 열기는 죽고 싶을 만큼 뜨거웠으며, 지성은 나날이 짐승의 것에 가까워져 고통만이 남았다.

“■■■....”

그 안에는 한때 생명의 나무였던 짐승의 실수로 되살아난 인간 아이도 있었다.

인간들로 하여금 다섯 갈래로 찢기고, 짐승으로 인해 하나가 되어, 또다시 벌로써 다섯 갈래로 나뉜 가엾은 아이.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품에서 보호받기를 원했다.

짐승은 몸을 아주, 아주 크게 부풀렸다. 그리하여 차원이 더 이상 좁아지지 않도록 그 경계를 막아섰다. 뜨거운 해를 피할 수 있도록 달을 만들어 올리고, 눈물을 흘려 세상을 식혔다.

“그르르르....”

“크륵, 끅....”

그리고 네발짐승이 된 사악한 괴물들은 이 달콤한 시간이 길어지길 원했다. 인간의 이지를 잃었더라도 이 밤이 더 길어지기를 원했고, 차원이 더 넓어지기를 원했다.

한미한 짐승들은 그 시작이었던 작고 여린 나무를 맴돌았다. 거대한 짐승은 제 작은 나무를 위해 그 모든 괴물을 함께 품었고, 달을 더 자주 띄웠으며, 갖은 차원에 들러 몸을 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생명이 두고 간 끔찍한 열기는 가시지 않았다.

* * *

“…라고, 합니다.”

헌터들과 함께 던전의 모든 단서를 조합해 정리한 강서담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러니 역시 서지오 헌터의 가정이 맞았던 셈이군요.”

“이런, 정말일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할지 골치가 아파집니다.”

다른 헌터들도 혀를 찼다.

“그럼 밤의 몬스터들은 그 나무들에게 왜 밥을 준 거야? 어차피 주기적으로 비가 내리는데 꼭 거름까지 줄 이유가 있나?”

“어… 그래야 노예가 더 늘어나니까? 그 나무들이 크면 생명의 나무인지 뭔지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서야 굳이 거름을 추가적으로 준비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기가 가족처럼 아끼는 나무 쉽게 죽이지 않을 거 아니까 몬스터들도 따로 호위하지 않았던 거네. 새로운 생명의 나무를 빨리 만들고 싶어서 거름을 가져다 바친 거랑은 별개로.”

“그때의 그 광란 현상은 생명의 나무가 주도했던 건가. 자식을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

“아무래도 던전 몬스터 전체가 날뛰었던 거니까.”

헌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영원도 말을 더했다.

“이 우림에 내리는 비는 생명의 나무가 흘리는 눈물이었군요.”

그제야 왜 접촉하게 되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지 알 것 같았다.

“그야 신화적인 존재가 고통과 절망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나, 혹은 피일 테니… 한낱 인간이 맞으면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겠네요. 조사할 가치가 있겠어요.”

“던전의 몬스터들은 괜찮은 것 같던데요?”

“이미 미쳐버려서 결과가 이 꼴이 난 거 아닐까요? 인간에게 상당히 적대적이고 위협적이던데 그 이유를 알겠어요. 예민하고 짜증 나서 정신이 나갔는데 침입자를 반기면 이상한 거지.”

기본적으로 인간 혐오가 심한 몬스터들이지만 차이는 있었다. 인간을 싫어해서 오히려 멀어지려는 몬스터가 있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계략을 짜는 몬스터가 있고, 다짜고짜 죽이려 달려드는 몬스터가 있었다.

‘이건 정확히 세 번째 경우고.’

정영원 역시 고민에 빠졌다.

“이걸 공략을 하려면….”

“골치 아프네요.”

“단순히 때려 부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요.”

“저희를 고용한 교단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마쳐야 해요.”

“확실히 쓸 만해 보이는 식물들이 많은 던전이라….”

“부수기는 아까운 곳입니다.”

이 던전의 독들은 하나같이 효과가 빠르고 위협적이었다. 추출해서 유통할 수 있다면 큰 수입이 될 것이고, 열심히 분석하면 반대로 약을 만들 수도 있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독이나 약이 얼마나 귀한데.”

정영원의 말에 잠시 헌터들의 시선이 서지오에게로 쏠렸다.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만….”

“이해합니다, 제가 드린 약의 효과가 너무 좋았던 거겠죠.”

지오반니가 신성하게 웃었다.

“태양께 감사 인사 부탁드립니다.”

“무, 물론입니다…!”

슬슬 ‘뭔가 이상한 것 같기는 한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오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사서 걱정하지 않는 쾌청한 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었다.

대신 강서담은 걱정했다.

“…….”

홀로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하던 강서담이 이내 작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상황에 드리기 정말 면목 없는 이야기지만, 던전을 가능하면 온전히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약서에서도 그렇게 명시되었고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제님도 걱정하지 마십쇼.”

“다행히 던전의 전반적인 이야기와 단서는 찾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온건한 방식으로 이 던전을 공략하느냐는 것입니다. 일단 이 던전이 말하는 공략의 기준을 생각해 봅시다.”

던전마다 공략의 기준은 달랐다. 최종 보스의 한을 풀어줘야 할 때도 있고, 지정된 수수께끼를 해결해야 할 때도 있고, 특정한 문을 열고 나가야 공략될 때도 있었다.

“음, 이 던전의 몬스터들을 다 죽여 버린다면… 생명의 나무도 마음이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보아하니 여러 번 뒤통수 맞은 것 같은데 원한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게 공략의 기준이라면 이번 한 번의 토벌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할걸요? 그리고 원한을 풀어서 생명의 나무가 이 던전을 해체해 버린다면 어쩌게요.”

“하긴 만족하고 더는 못 버틸지도 모르겠네. 아니, 이걸 뭐 어떻게 해야 하지? 진짜 그 쪼그만 나무들을 살살… 어떻게 잘 파서, 외딴곳으로 옮겨 버릴까요?”

“그거 옮기다가 광란 빠진 몬스터들한테 우리 죄다 죽을 것 같아요. 스토리 파악하느라 다들 지쳤는데, 뭐 좀 온순한 방법 없습니까? 스토리도 찾았는데 괜찮은 방법 없나?”

그에 지오가 나섰다.

“이곳의 열기가 가라앉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열기요?”

“그럼 낮의 몬스터는 잠이 들 거고, 밤의 몬스터는 처리하면 되죠.”

“어… 그러니까 서지오 헌터님의 말씀은….”

다른 헌터들이 말을 잇기 전에 사나래가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채찍보다는 당근이다?”

“나그네의 겉옷을 벗긴 건 추운 바람이 아니라 따듯한 햇살이었죠.”

“이 던전은 지금 그 햇살 때문에 미치려고 하지만 말이야.”

“고통보다는 평온이 무기력을 더 크게 가져오는 법입니다.”

고통에는 발악하고 평온에는 잠이 든다. 대부분의 생물이 그랬다.

“생명의 나무가 단순히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싶은 것뿐이었다면 온전히 그 일만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둥지를 만들고 싶은 것뿐이었어요.”

이 던전을 지탱하는 나무는 작은 나무를 건드릴 때를 제외하면 공격적이지도 않았다.

“그러면 이 던전도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여기가 괜찮은 육아 장소가 된다면 그렇겠지만….”

헌터들이 미묘한 얼굴로 물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몬스터들이야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들러 처리할 수 있다고 쳐도, 애초에 이 던전의 열기를 전부 몰아내기에는… 너무 넓은데요.”

“맞습니다. 그나마 가짜 태양을 부수면 어떻게든 될지 모르겠지만, 태양이니 달이니 하는 환경을 전부 부숴버리면 여기서 자라던 식물들도 전부 망가질 거고요.”

“열기만 쏙 빼내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마법이나 성력 다룰 줄 아는 사람 한둘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될 수만 있다면 참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에 지오가 물었다.

“여러 명이면 됩니까?”

“어엇, 네?”

“열기를 빨아들이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쯤에서 강서담이 말을 얹었다.

“태양의 사제는 기본적으로 열기를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껏해야 빌딩 열 채 정도의 그릇이고, 이 젊은 사제는 큰 나무 한 그루 정도의 그릇입니다.”

“다른 태양의 사제들도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지금까지 남은 형제의 수는 저희를 포함해 6명이겠군요. 저희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마법사분들까지 힘을 합쳐 주신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잠시 고민하던 그가 말을 이었다.

“아티팩트도 있고요.”

열기를 흡수하는 종류의 아티팩트는 태양교에서 특허를 낸 상품이었다. 특히 덥다는 보고가 있던 이번 던전을 위해 꽤 대량으로 가져왔던 탓에, 도움이 아예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래도 모든 열기를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열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태양을 없애자니 방법도 없고, 저희 측 타격도 클 겁니다. 던전도 유지할 수 없어질 텐데….”

강서담이 물었다.

“서지오 헌터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추측 중 하나를 말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찜통 같죠?”

“…그렇습니다.”

“습도가 높아요.”

“그렇죠.”

“왜일까요?”

“…….”

강서담이 대답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높은 빈도로 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잠깐의 시간에 꽤 많이 오기는 했지만, 음, 그렇군요.”

“이 정도로 숨이 막히는 습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헌터가 아니라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습기였다. 얼굴에 젖은 면포를 붙이고 호흡을 하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어마어마한 습기가 고작 몇 번 내리지 않은 비로 만들어질 리가 없었다.

“다른 수원지가 있다는 뜻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오가 나무들을 가리켰다.

“이 던전의 나무들은 매우 크네요.”

“크죠.”

“뿌리도 크겠죠?”

“…깊을 거고요?”

“마실 물이라고는 가끔 내리는 비뿐이라면 이렇게 클 수 있었을까요?”

“던전이니 다른 요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바닥에 거대한 물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물이요.”

“예.”

지오반니가 웃었다.

“제가 물과 연관이 많은 사람이라, 왠지 자신감이 생기네요.”

“…아하….”

이쯤 되면 신성의 예언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친절한 방법으로 알려줘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묘한 피곤함에 입술에 꾹 힘을 주던 강서담이 이내 물었다.

“그럼 그 거대한 수원지를 끌어 올리면….”

“생명의 나무도 한결 숨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달이 떠 있는 시간도 더 길어질 것이고요.”

“일단 정말로 물이 있는지, 그걸 끌어 올릴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나무 하나를 전부 뽑아버리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뭐… 그렇군요.”

미안하지만 인간들에게 그런 기적을 바라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

“…….”

심호흡을 한 강서담이 말을 이었다.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봅시다.”

아직 식량은 많이 남았고, 인재들의 수도 많았다.

“정 길어질 것 같다면 장기 원정으로 전환하면 그만입니다.”

“꼭 길어져야 하겠습니까?”

“아, 잘못 들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열기부터 잡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지오가 제 망토 자락을 들어 올렸다.

“…….”

“다나.”

푹 잠긴 그림자에서, 고양이가 울었다.

“야옹.”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82)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82)"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83)

183

제183화

“야옹.”

“…….”

“야옹.”

“…헌터님.”

긴 몸을 잔뜩 구겨 접고 쭈그린 사나래가 서지오에게 물었다.

“이 반려 고양이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다나가 사나래 헌터님을 정말로 좋아하네요, 신기해라.”

“나도 신기한데 그뿐만 아니라 공포를 느껴….”

“농담도 참.”

“내가 말하면 다 거짓말 같지?”

“아하하!”

빵 터진 지오가 다나를 쭉 끌어당겼다.

“그럴 리가요. 죄송합니다, 많이 무서우셨나요?”

“또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지만 나 이 친구 좀 껄끄러워….”

“다나는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므으으응….”

다나는 불만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면서도 지오에게 질질 끌려갔다. 그 거대한 몸집과 푸짐한 털 덩어리에 헌터들은 감탄했다.

“안티캣이 성장한 모습이라고 하셨죠?”

“예, 보석의 수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몬스터라니 놀라운 건 둘째 치고, 의외로 귀엽네요.”

“제 딸이라 하는 말은 아니지만 참 귀엽고 예의 바른 아이입니다.”

“진짜 자식처럼 돌보시네, 대단하시다.”

평범한 반려동물 돌보는 것도 어지간한 애정 없이는 힘든 세상에, 하물며 언제든 사람 머리통 씹어 먹을 수 있는 몬스터를 사랑으로 키우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정도는 돼야 안티캣도 길들일 수 있는 건가?”

“이거 진짜 세계 최초인 것 같던데.”

“국뽕 미쳤다. 헌터님, 어디 가서 저 아는 사이라고 자랑해도 돼요?”

“새끼야, 정신 차려. 왜 이렇게 찝쩍거리냐.”

시시덕거리며 긴장을 풀던 헌터 중 한 명이 어색하게 물어왔다.

“저, 그런데… 이 친구로 열기를 몰아낼 수 있다고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열기를 몰아낼 사람들을 불러줄 겁니다.”

“오….”

헌터들이 묘하게 조용해졌다. 그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햇살 강령 헌터….”

“아가리 닫아.”

“응.”

그들도 서지오 헌터라는 사람이 어떻게 유명해졌는지는 잘 알고 있었다. 웬 아이들 귀신을 현실에 강령시킨 것으로 한바탕 소란스럽지 않았던가.

영혼과 관련된 스킬이라는 것이 원래 그리 흔한 게 아니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포지션이 바로 네크로맨서였는데, 아무리 상황을 분석해 보아도 당시의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다.

‘…강령이라고는 해도, 대체 어떤 느낌이려나.’

‘영혼을 다루는 스킬은 부담이 꽤 큰 걸로 아는데.’

‘키우는 몬스터의 능력이라 조련사 본인의 부담은 적은 편인가?’

‘안티캣을 조련해 본 사람이 여태껏 없었으니 원….’

헌터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오는 다나를 질질 끈 채로 강서담에게 물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드립니다.”

그에 고양이가 울었다.

“야옹.”

“…….”

“야옹.”

울음이 퍼진다.

* * *

사나래는 여전히 나무 기둥에 구겨져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조장, 여기서 뭐 해.”

“저 고양이 너무 무서워.”

“엄살도 지랄이다 진짜.”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

유쾌하지 않은 건 사실이었다.

“내 말을 믿어주질 않네....”

저 고양이는 죽은 자를 불러낸다.

‘하지만 그게 저것의 능력은 아니다.’

안티캣은 단지 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울리는 방울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방울을 만든 주인은 ‘서지오 헌터’였다. 사나래는 내심 질린 기분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고양이의 울음은 그리 크지 않았다. 마치 사람이 고양이 울음을 흉내 내듯 정갈했고, 소담한 음성. 하지만 그것은 적막한 방 안에 굴러가는 옥구슬처럼 선명하게 퍼져나갔다.

“야옹.”

그 순간이었다.

“.......”

“.......”

“.......”

우림의 나무에 진 그림자 사이에서, 몇 명의 인영이 드러났다.

“...저, 저기....”

“...실례합니다.”

하얀 사제복의 그들은 머뭇거리며 서지오에게 말을 걸어왔다.

“잠시 함께해도 될까요.”

그들의 눈시울은 붉었고.

“...아.”

강서담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상황이 흘러감에 따라 헌터들의 표정도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했다.

“...무슨....”

“...저 사람들, 설마....”

“사제님들이잖아.”

“저 얼굴 본 적 있어.”

“분명히 보고 자료에서....”

“...이전 토벌대야.”

죽은 사람들이 살아생전의 멀쩡한 형태로 말을 거는 모습.

환경의 열악함에 냉정함을 잃었던 헌터들은 하나둘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챘다.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이미 죽은 이전 토벌대의 사제들이었다.

어느 헌터가 중얼거렸다.

“그림자도 있어.”

물리적인 형태를 갖추었다는 의미였다.

“그러니까, 이건….”

“…….”

“…허….”

죽은 이들이, 산 자의 섭리로 돌아왔다는 뜻인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고작 몇 번의 울음으로?

거창한 의식도 없었다. 기나긴 기도도 없었다. 기적을 끌어오기 위한 일말의 고통도 없이, 서지오는 근처에 있는 행인을 부른 것처럼 사제들의 영혼을 강령시켰다.

그 아무렇지도 않은 태연한 모습에 등골이 서늘해진다.

“…….”

“…….”

헌터들은 식은땀을 흘렸다.

그들은 감히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서지오 헌터의 존재를 의식했다. 공포에 가까운 외경심에 헌터들의 몸이 긴장되어 갔다.

그즈음 서지오가 입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그러고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태양의 사제는 열기를 다루는 것에 능숙하시다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곳의 열기를 없애 던전의 환경을 한결 평온하게끔 만들고자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사제들은 고개를 숙였다.

“영혼이 녹아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나마 태양의 뜻에 따를 수 있다면 감사할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을, 움직여야 할 시간을 알려주세요.”

“저, 저희가 어떻게든 해 보겠습니다.”

“부디 기회를 주신다면….”

그 말에 지오가 웃었다.

“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열기를 모으는 것뿐이었다.

“모인 열기를 담는 일은 제 아들이 해낼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바라시던 곳으로 보내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그림자 속의 사제들은 고개를 푹 숙였다.

“…감사합니다.”

곧이어 사제들의 형상이 사라졌다.

“…….”

“…어, 어디로….”

“미친.”

굳게 닫혔던 사제들의 입이 그제야 열렸다.

“바, 방금 정말로…?”

모두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지만, 그건 극에 달한 혼란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일 뿐이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본 것을 믿지 못하면서 차마 다른 이들과 이에 관한 이야기를 떠들지도 못했다.

감히 서지오 쪽을 돌아보지도 못하는 모습에 가라사니가 웃으며 다가왔다.

“그럼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열기부터 시작해 보죠.”

“그다음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물을 틔워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제와 마법사를 최대한 모으는 게 좋겠군요.”

“열기가 가라앉을수록 날뛸 몬스터들이 있으니 제압할 준비도 해야겠죠.”

“그 과정에서 위협적인 몬스터를 상당수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말을 주고받는 모습에, 수집상의 유지나 헌터가 공략자들을 둘러보았다.

“다들 뭐 해요?”

“어, 그, 그게… 방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하지만…!”

“이봐요.”

그녀는 씩 웃으며 말했다.

“일들 해야지.”

그건 압박이었다.

“…….”

“…그, 그렇죠.”

서지오 헌터를 파고들지 말라는 압박.

그에 헌터들의 머릿속에는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고도 수집상은 주변을 경계할 뿐이다. 뭔가 비밀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 단순히 몬스터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은 생각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성자인 것은…?’

‘달님교의 성녀가 가끔 보이는 기적과 비슷하지 않나?’

‘수집가 그 변태가 설마 어떤 괴물과 교접해서 낳은 자식 아니야?’

‘A급으로 속이고 있는 S급일 수도 있어…!’

대부분의 헌터는 서지오 헌터가 최상위 성자 혹은 숨겨진 S급이라고 짐작했다. 비사벌이 정신 나간 방식으로 만들어낸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헌터도 몇 명 있었다. 수집상의 괴담과 악명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 중 서지오가 인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하.”

사나래 빼고.

“너무 무섭다.”

“발언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무섭다니까?”

“불경합니다, 사나래 헌터.”

“…….”

수집상과 정원사도 빼고.

“…미치겠네.”

사나래는 결국 다시 한번 닥치기로 마음먹었다.

* * *

“—키에아아아아아악!!!”

던전의 변고를 느낀 생명의 나무가 또다시 광란을 부여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열기가 거둬져 감에 따라 활동할 의지를 갖춘 것인지. 밤의 몬스터들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까아악!! 까아아아악!!”

“크르르르르르…!!”

“크에, 크아아아악!! 아아악!!”

그것들은 기괴한 소리를 내며 모든 인간들을 덮쳐댔고.

“연약한 마법사를 지켜라 근육쟁이들아!”

“시발 듣는 탱커 기분 더럽게 하네 이 마법쟁이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던 헌터들은 그에 능숙하게 대처했다.

어리바리 헌터라면 진즉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곳에 모인 헌터들은 하나같이 베테랑이었다. 회복 아이템의 수도, 힐러의 수도 넘쳐나는 상황에 몸 던지기를 무서워하는 헌터는 없었다.

"힐러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옜다 자비!"

"사랑해요…!"

"치료사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리!!"

"아픈 놈들 소리 질러!!"

"아아악…!!"

"아악 여기요 아아악!!"

"더 크게 질러, 몬스터랑 구분이 안 돼!!"

"크아아아아아아아악!!!"

헌터란 기본적으로 몸 버리고 목숨 건 채로 살아가는 직업. 고통을 두려워하는 헌터는 이곳에 없었고, 하물며 귀족이라 불리는 귀한 고급 인력인 힐러가 수두룩했다.

게다가 이곳에서 딜러와 탱커의 역할은 명확했다. 마법사와 사제들이 열기를 다루는 동안 날뛰는 몬스터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면 되었다. 힐러들을 뒤에 둔 채로 말이다.

"날 죽이기 전에는 치료사님들의 솜털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야, 우리는! 마법사는!"

"법사들은 알아서 살아남아!!"

"시발 새끼들아! 우리는 뭐 밥만 축내는 줄 아냐!!"

난장판 속에서 사제들과 마법사들은 조금 어이없어했다.

"이,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실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게 더 어이없어…."

"야 이게 진짜 된다, 그치."

그들은 이 거대한 던전의 열기를 한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

"꾸르륵."

"잘 먹으니 얼마나 이쁘니."

"꾸릉꾸릉꾸릉."

"아유 잘한다, 너무 예쁘다."

"꾸르르르르르릉!!"

"우리 허니 잘하네."

그렇게 모인 열기는 허니가 받아 꿀떡꿀떡 삼키고 있었다. 왠인지 허니가 점점 거대해지는 것 같지만 헌터들은 무시했다.

열기를 담는 것이라면 부담이 컸겠지만 단순히 어느 한 점으로 이동시키는 것뿐이라면 제법 할 만했다.

"으아악 더워 뒤져…!"

“내가 숨 턱턱 막힐 때부터 알아봤지!”

“다시는 우림형 던전 안 온다!”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라 마법사들이 울분을 터트렸다. 스킬이나 기술로 열기만 끌어모으는 마법사도 있었고, 바람과 공기 중 수분을 끌어당겨 열기를 모으는 마법사도 있었다.

그리고 태양의 사제들은 말없이 묵묵하게 열기를 모으는 데 집중했다.

“…….”

“…흐읍….”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들이 끌어내지 못한 열기도 함께 당겨주는 무형의 힘을 느낀 탓이었다.

서지오 헌터의 안티캣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해 들은 사제들은 울음을 애써 참았다. 이게 제 형제들과의 마지막 합작이라고 생각하면 서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어, 좀 시원해진 것 같지 않아?”

“야 시발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존나 미친 것 같아….”

이 짓을 세 시간 정도 했을 무렵엔 헌터들도 유의미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확실히 숨쉬기가 편해졌어.”

단순히 헌터들만 그런 것은 아닌지, 던전의 가짜 달이 뜨는 횟수와 시간이 많아졌다. 기록에 따르면 이 달을 띄우는 것은 던전을 지탱하는 생명의 나무가 해내는 일인 것이다.

그리고 기어이 언제 끝날지 모를 기나긴 저녁이 찾아왔을 때.

“…….”

“…이, 이제 더 없나?”

“…죽겠다.”

더 이상 그들을 공격하는 몬스터는 없었다.

땀이 식어, 조금은 서늘한 공기가 내려앉았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83)"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84)

184

제184화

던전에는 더 이상 해가 뜨지 않았다.

“계속 이 상태일까요?”

“그건 생명의 나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도 그렇군요.”

헌터들은 5M 정도로 거대해진 허니의 근처에서 서성거렸다.

“와, 따듯하다….”

“갑자기 확 식으니까 춥네.”

“그 많던 열기를 다 먹었는데 따듯한 정도라니,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면 어때, 따수면 됐지.”

“맞는 말이다….”

몸이 무거워진 탓인지 허니는 날지 않았다.

“꿍.”

“집에 가서 풀자.”

“꿍꿍꿍….”

“여기서 불면 도루묵 돼.”

“꿍꿍꿍꿍꿍….”

“간식 줄까?”

“꾸르륵.”

허니의 입에 간식 한 포대를 넣어준 지오에게 강서담이 다가왔다.

“서지오 헌터.”

“아, 사제님.”

“이번 일을 도와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허니의 도움도 컸고….”

무언가 더 말하려던 강서담이 이내 입을 다물었다.

“…….”

그가 곧 말을 이었다.

“…처음의 기온과 격차를 느껴서 그렇지, 지금의 기후 정도면 대단히 온화한 수준입니다. 지구의 계절로 따지자면 봄으로 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안정이 된 상태인가요.”

“혹시 모르니 활동이 가능한 사람 중 마법이 전공이신 분들을 불러 땅을 파내보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꼭 지하수를 퍼 올리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지오가 물었다.

“이제 그 작은 나무들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동행하실 분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소수의 헌터들은 연보라색 나무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그 소란이 있었는데도 작은 나무는 흠집 하나 없이 그대로였다. 어두운 밤중의 나무는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는데, 그 여린 나무를 조심스럽게 살핀 정영원이 말했다.

“기후가 많이 달라졌는데도 나무의 온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네요.”

“전보다는 더 열기가 빠진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강서담이 사나래 쪽을 돌아보았다.

“따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의지해 줘서 정말 너무 고맙다.”

“반어법인 것은 잘 알겠습니다.”

“나도 별로 할 말은 없고… 으음, 향기가 나네.”

“향기요.”

“날씨 선선해지기 전에는 시체 냄새가 났거든.”

“그건 확실히 변화가 있다고 봐야겠군요.”

그때였다.

“야옹.”

지오의 그림자 속에서 다나가 울었다.

“야옹.”

“…….”

“야옹….”

다나의 울음에 나무의 가지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아무리 지쳤다고 해도 그 정도 움직임을 못 알아볼 헌터들이 아니었다. 알 수 없는 현상에 은월의 헌터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서, 설마 이것도 몬스터…?”

“한때 인간이었던 아이가 나무로 변한 것이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언가 더 이야기가 오가기도 전에 나무가 가지를 파닥거렸다.

철푸덕.

“…….”

파닥, 파다닥.

“……?”

철퍽….

헌터들은 낑낑거리며 땅에서 기어 나오려는 나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무는 마치 늪에 빠진 새끼 강아지처럼 허우적거렸다. 그렇게 10분 정도가 흘렀다.

이 기묘한 정적을 참지 못하고 한 헌터가 말을 꺼냈다.

“…도, 도와… 줄까요?”

“…몬스터를 도와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저게 몬스터인지도 모르겠고….”

던전에서 살아 움직이는 게 전부 몬스터인 건 아니었다. 대부분의 던전은 몬스터뿐인 것이 맞긴 하지만, 일부에는 평범한 나무나 들짐승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살아 움직이는 나무를 몬스터가 아니라고 보기도 힘들었다. 이 차원이 던전으로 변하기 전에도 서식하던 평범한 생물이라면 모를까….

“…….”

“…하지만 약해 보이잖아요.”

“…우리도 많이 약해졌어요. 약해 보이는 몬스터와 접촉하다 역으로 당한 사례는 많고요.”

“그런데 이대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부터가 의미 없는 고민 아닌가요?”

“하긴 나올 때까지 뭐 하나 보고 있기는 할 것 같은데….”

“그냥 꺼내주죠, 이렇게 된 거.”

“인간에 대한 공격성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몬스터는 인간을 혐오하고 위협하는 게 맞지만, 개체별로 차이는 컸다. 결국 헌터들은 긴가민가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낑낑거리며 파닥거리는 나무를 땅에서 살살 뽑아주었다.

그리고 헌터들은 무언가를 깨달았다.

“…! 물범?”

누군가 고개를 저었다.

“목이 길고 발이 네 개입니다. 훨씬 널찍하고요.”

“그럼 이런 생물은 보통 뭐라고 부르죠?”

“어떤 던전에서 비슷한 몬스터를 본 것 같은데. 글쎄요, 수룡?”

“굳이 따지자면… 플레시오사우르스가 아닐까요.”

한 헌터가 황당하다는 듯 물었다.

“지금 공룡 이름 대시는 거예요?”

“예 뭐, 옛날 지구에 물속에서 살았다던 공룡 있습니다.”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아들이 좋아해서….”

“아아….”

대재앙 이후의 수많은 기록이 지워진 시대라고는 해도 공룡에 관련된 기록은 남아 있었다. 지금도 일부 아이들 중에서는 공룡의 이름을 달달 외우는 경우가 많았다.

“그 플레시오사우르스라는 공룡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네. 목도 길고, 발은 네 개고, 널빤지처럼 판판하고, 꼬리도 있고.”

“왜 혼자만 짐승이 아닌가 했더니 수룡이었구나….”

“나무의 형태로 의태하고 있어서 몰라봤네요.”

태양의 끔찍한 열기로 가득 찬 던전에 갇힌 수룡이라니. 생명이 나무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내리고 싶었는지 알 만했다. 물고기를 건조기에 널어놓은 꼴인 것이다.

“땅에 박혀 있을 땐 그냥 나무 같았는데.”

이렇게 땅 바깥으로 나오니 그냥 등꽃이 주렁주렁 매달린 수룡 같았다.

작은 몸집의 연보라색 수룡은 꼬리를 탁탁 치며 엉금엉금 기어 왔다. 별다른 살의나 적의가 없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녀석이 서지오에게로 다가갔다. 그것은 짧은 소리를 내며 울었다.

“무.”

어느 헌터가 입을 틀어막았다.

“귀여워.”

“몬스터입니다.”

“귀여운 몬스터 많아요.”

“그런 취향도 있는 법이죠.”

개인주의의 세상. 헌터는 동료의 취향도 흔쾌히 존중해 주었다.

헌터들의 웅성거림에는 큰 관심이 없는지 나무가 엉켜 수룡의 형상이 된 그것은 머리로 보이는 부분을 들어 지오의 허리춤을 쿡쿡 찔렀다. 그것을 유심히 보던 지오가 주머니를 들었다.

“무우.”

“배가 고픈가?”

“무!”

“기특해라.”

사나래 헌터가 물었다.

“배가 고프면 몬스터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잘 먹으면 보기가 좋은 법이죠.”

“으응… 취향 참 확실하네.”

헌터 중 한 명이 놀란 듯 말했다.

“저 몬스터는 서지오 헌터가 좋은가 봅니다.”

“조련사라서 그런가…?”

“아니야, 길들이기 전까지는 조련사고 뭐고 그냥 적이잖아.”

“그러면 저건 서 헌터한테 왜 저러는 건데?”

누가 봐도 부모에게 먹이를 구하는 새끼 짐승의 꼴이라 술렁이자니 누군가 어림짐작한 투로 말했다.

“이미 조련이 된 거 아니야?”

“뭘 했다고…?”

“그냥 애정과 사랑으로….”

“…여기 조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는 분 있어요?”

하지만 그 귀하다는 조련사의 기술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다. 애초에 그들이 남에게 자신의 소중한 기밀을 알려줄 리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조련사마다 조련 방법은 천차만별이었다.

결국 헌터들은 알아서 납득했다.

‘몬스터도 얼굴 좀 보나 보지.’

‘좋은 냄새라도 나나? 페로몬 같은 거….’

‘몬스터의 경계심을 푸는 스킬이 있을 수도 있어.’

‘이미 길들인 몬스터의 능력이라든가? 우리한테 다 보여줬을 리가 없잖아.’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해 깊이 캐묻지 않는 것이 예의가 된 세상이었다. 함부로 물을 수 없는 이야기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시대. 헌터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같은 조련사가 있었더라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알 수 있었겠지만, 그럴 확률은 낮았다. 그만큼 우상화와 지레짐작이 당연시된 사회인 것이다.

“어쩌지, 가져온 육포는 이게 다인데….”

지오의 말에 헌터들은 놀라워했다.

“서지오 헌터, 육포도 가져오셨어요? 그 머핀이 끝이 아니었다고?”

“머핀이라니 무슨 소리죠? 내가 받은 건 젤리였는데?”

“…잠깐만, 저는 초콜릿을 받았는데요. 간식을 대체 몇 개나 챙겨 오신 겁니까?”

그에 사나래는 생각했다.

‘아공간에서 사람만 한 대형 냄비 꺼내는 모습을 봐야 호들갑을 그만 떨 텐데.’

허리춤에 간신히 머리가 닿는 수룡을 개의 볼따구니 만지듯이 주물럭거리던 서지오가 고개를 기울였다. 그에 함께 시선이 돌아간 헌터도 있었고, 진즉 무언가를 눈치챈 헌터도 있었다.

그리고 곧 물이 솟아 나왔다.

“…….”

“…….”

“…물이다.”

눈치 빠른 헌터가 상황을 정리했다.

“쟤가 수맥을 막고 있었나 보네.”

그렇게 말한 헌터는 통신구를 들었다. 있을지도 모를 지하수를 찾기 위해 피땀 흘리며 땅을 파는 중일 마법사들을 말리기 위해서였다.

헌터들은 어안이 벙벙해져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진짜 지하수가 있었네요.”

“근데 저렇게 계속 막 나와도 돼…? 무슨 원리지?”

“속도가 좀 빠르지 않나?”

그즈음 다른 쪽에서 연락을 받은 강서담이 말했다.

“다른 팀들도 비슷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땅에서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나무도 있고, 이미 나와버린 나무도 있지만… 그쪽에서도 물이 솟고 있다는군요.”

“이대로면 이 던전 잠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잠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하수가 정확히 얼마나 잠들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구의 수맥도 한번 뚫는다고 세상이 잠기지는 않으니까요.”

“그것도 그렇기는 한데….”

톡, 토독….

정영원이 손을 올렸다.

“비가 내리네요.”

“네?! 아, 잠깐만, 어디로 피해야…!”

“괜찮아요.”

손에 묻은 빗방울을 매만진 정영원이 말을 이었다.

“이제 아프지 않으니까요.”

닿기만 해도 사람을 미치게 만들던 고통의 비는 이제 없었다. 그것은 이전과 다르게 살을 아프게 할 정도의 폭우가 아닌, 새벽이슬처럼 조심스럽게 떨어지는 구슬비였다.

그때, 헌터들은 제 시스템의 안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략….”

“…공략됐다.”

“사, 사제님. 지금…!”

“지금 공략됐어요!!”

‘거대한 등꽃 수룡’이 기나긴 잠에 빠집니다

던전: ‘지하의 네발 우림’의 공략을 완료하였습니다

수령 보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 이제 퇴근해요!!”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강서담이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죠.”

복귀할 때였다.

* * *

“사나래 씨.”

“응?”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하, 그게 뭘까?”

“수령 보상이 뭔가요?”

“수령 보상....”

지오를 바라보던 사나래가 씩 웃으며 말했다.

“시스템이 주는 선물이라고 보면 되겠네.”

“어떤 선물입니까?”

“던전의 공략을 마쳤을 때, 그 공략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한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서 선물을 보내주는 거야.”

“선물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됩니까?”

“보통은 시스템상에서 받을 수 있어. 귀속된 아공간으로 전달이 되어서....”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런 걸 대체 왜 묻는 걸까?”

“편리해 보여서.”

“...흐으음....”

“.......”

“.......”

조용히 그들 사이에 떠오른 반투명한 시스템. 사나래의 안구가 반사적으로 제 알림 창을 확인했다.

보상 지급

서¿지■로부터ㅇ ㅢ

서지오로부터의 선물

: 황금걸음양의 육포

“나 지금 아무것도 못 봤어, 알지?”

“보라고 온 메시지가 아닐까요?”

“못 봤다니까? 나한테 진짜 왜 그래?”

“육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편인가?”

지오반니가 속삭였다.

“저는 시스템에게 받은 것이 없어 물어보았습니다.”

“…….”

첫째, 헌터라면 ‘수령 보상’에 대해 모를 수가 없었다. 그건 인간 사회에 살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아주 당연한 상식이었다.

둘째, 그 어떤 인간도 단순히 ‘편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시스템의 기술을 습득할 수 없다. 멋져 보인다고 지구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셋째, ‘서지오 헌터’ 정도의 기여자가 공략 보상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아예 시스템이 없거나, 다른 종류의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고서야 말이다.

“…….”

그리고 그걸 사나래에게 굳이 말할 이유도 없었다….

“다들 나가셨군요.”

“…그러네.”

“이제 저희도 복귀하죠.”

“그럴까?”

사나래는 닥치고 웃기로 했다.

살아보니 이것만큼 현명한 답이 없더라.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84)"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85)

1. Home
2.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3. Chapter (185)

-
-
-
-

Chapter (185)
Prev
Next

185

제185화

그렇게 공략을 마치고, 그 직후의 복도 회의.

유성운은 물었다.

"그래서 간식을 나누고 왔다고?"

"너무 섣부른 행동이었을까요?"

"오, 아니...."

지오가 건네준 바스람차를 마시며 유성운이 웃었다.

"이제 와서 뭐 새삼스럽게."

처음에는 걱정이 많긴 했다. 인간에게는 과분한 선물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줘버리니 문제가 생길 게 뻔했던 것이다. 인간에게든, 근원의 존재에게든 좋을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너는 이미 검은망토의 형태로 수많은 선물을 퍼트리고 있잖아."

"수많은 선물이라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 꽤 많은 선물 말이야. 그렇게까지 뿌렸으면서 뭘."

기본적으로 지오가 인간들에게 주는 선물은 다양한 방면에서 안전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서지오 헌터'와 '검은망토'의 선물이 같은 효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었다.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이라면 선물을 자주 준다는 점이나, 늘 검은 망토를 두르고 있다는 점이나, 선물의 스펙트럼이 비슷하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 다 알아차린 거 아닙니까?"

"세상의 편견이 너를 지켜줄 거야. 너처럼 인간다운 초상화는 지구를 포함한 웬만한 차원에서 찾아볼 수 없거든. 어지간해서는 그냥 비밀리에 연관이 조금 있는 사이라고 생각할걸."

"저는 세상의 편견밖에 믿을 구석이 없는 겁니까?"

"우리 수집상에서도 손을 조금 쓸 거고. 무엇보다 네가 검은망토일 때 준 선물과 서지오 헌터일 때 준 선물이 조금 다르

잖아? 내가 알기로는 약효 같은 것도 다를 것이고. 검은망토가 수집상에 머문다는 걸 아는 사람도 없으니 동일한 존재라고 생각하긴 어려워.”

그만큼 ‘검은망토’와 ‘서지오 헌터’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었다. 보기만 해도 공포에 가까운 경외를 느끼게 만드는 검은망토가 사실은 인간 흉내에 능숙할 거라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었다.

그에 지오가 물었다.

“어려울 뿐 얼마든지 동일 인물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건 그래. 이쯤 되면 검은망토와 서지오 헌터의 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 보이네.”

“변명을 준비하겠습니다.”

“변명이라고 할 것까지야....”

유성운이 무던하게 웃었다.

“뭐, 그런 점은 약간의 스토리텔링으로 넘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 너는 세상에 알려진 적 없는 신비주의 캐릭터라 지어낼 만한 이야기는 많거든.”

“반가운 것 같기도 하고 안 반가운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네가 선물을 퍼트리는 것에 크게 마음을 쓰고 있지 않아.”

지오를 잘 몰랐을 때는 받은 선물의 처리 하나에 온 신경을 쏟아야 했다. ‘이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화를 내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고, ‘지나치게 귀한 선물을 쉽게 내보일 순 없다’는 경계심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인들은 ‘검은망토’의 존재에 적응했다.

“너는 마치 산타 할아버지처럼 초상화를 통해 선물을 퍼트렸고, 사람들은 그런 행위에 익숙해졌어. 새삼스럽게 네가 선물을 퍼트리는 것을 걱정할 이유가 없지.”

유성운이 물었다.

“그 선물은 사람들에게 독이 될 선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봐, 안전하다고 하잖아.”

만약 그 귀한 선물을 노리는 사람이 나온다 해도 그들은 지오의 초상화 자식 중 하나인 ‘공허의 도시’에게 보호를 받았다.

그게 아니더라도 운명 속에서 베푸는 검은망토의 호의가 독이 될 것 같지는 않았다.

‘지오는 파생된 자식이 아니라 근원의 눈 그 자체니까.’

일반적인 근원의 자식이라면 독이 되는 호의를 베풀었겠지만 지오는 달랐다. 헌터들의 시스템만큼이나 인간들을 대하는 데 노련한 것이다. 그런 그가 인간 흉내에 능숙하기까지 하니 더할 나위가 없었다.

“이야, 사실 처음 만났을 때는 엄청 겁을 먹었는데 말이지.”

“긴장하신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친절하셔서 감사했습니다.”

“친절한 건 지오 너였잖아. 나야 뭐, 원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제 선물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정원사로서 배운 게 있으니까....”

그가 배운 근원의 존재 중 지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상관없었다. 단지 처음에는 마음을 참 많이 졸였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녀석들 중에 그런 놈들이 많거든.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저주를 내린다거나, 함부로 호의에 자부

심을 가지면 괘씸하게 여긴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럴 거면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튼 지오 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아주 잘 알고 있어. 너는 세상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비만… 그래, 돼지에 가까워졌으면 하잖아. 선물을 나누는 것이 불쾌할 리가 없지.”

“어떤 식으로든 선물이 도움이 된다면 기쁜 일입니다.”

“그래, 음… 말하자면 비교적 흔한 일이 되어서 너무 경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네가 던전에서 어떻게 음식을 나누었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

머그 컵을 든 유성운이 어깨를 으쓱였다.

“나도 저번에 네가 준 과일청 다 먹어 버렸거든.”

“그걸 왜 지금에야 다 드신 겁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최근의 일은 아니고. 꽤 되기는 했는데….”

지오가 근원의 눈이라는 걸 확신한 다음의 일이었다.

“마음 놓고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

“새로 만들어 드릴까요?”

“응….”

유성운이 씁쓸하게 웃었다.

“나 같은 야근이 일상인 인간에게는 필요해.”

“아….”

지오는 숙연해졌다.

“역시 초상화 바깥에서 안 살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초상화 본인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되게 이상한데 말이야.”

“하지만 지금의 지구는 너무나 척박합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서울은 좀 살 만하지 않나? 볼 것도 많고.”

그에 여태까지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현이 끼어들었다.

“평화롭게 잘 살겠다는 사람을 왜 끌어내려고 그러십니까.”

“딱히 끌어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느끼는 바를 말한 것뿐이었어.”

“지오 씨는 초상화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여요.”

“그건 그렇기는 하지.”

유성운은 순순히 인정했다.

“확실히 지구가 너의 초상화 안쪽 세계만큼 평화로울 날은 오지 않을 거야.”

무엇보다 초상화는 액자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어쨌든 새로운 과일청을 만들어 준다면 나야 환영인데?”

“환영해 주시니 기쁩니다. 괜찮으시다면 이번에 새로 도전한 꽃차가 있는데 곧 담아서….”

“그만, 거기까지.”

유성운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 인간성을 어떻게 할 셈이야?”

“선물을 드리겠다는 것이 인간성을 운운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아먹은 것만 해도 수명이 얼마나 늘어났을까?”

“저와 오래오래 평화롭게 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미안한데 나 좀 제때 죽을 수 있게 해줄래?”

그에 순간 지오의 머리카락이 백금발로 바뀌었다.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죠. 인간의 적정 수명이란 언제까지일까요?”

“네가 그런 거에 관심 가질수록 내가 많이 무서워지니까 그만하라고.”

다시 흑발로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농담이었습니다.”

“유머 감각을 좀 더 익혀야겠다.”

딱히 농담 같지도 않았다.

“선물을 받는 것까지는 괜찮아. 네가 주는 간식들은 정말 맛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선물해 버리는 쿠키나 초콜릿 같은 작은 선물 정도는 많이 줘도 기쁠 뿐이야.”

그것들은 보통 진통제나 수면제, 심신 안정제와 같은 효능을 가졌다. 물론 그건 뛰어난 약이 될 수 있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얼마든지 양산해 낼 수 있는 수준의 효능이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식으로 건네주는 선물들은 이야기가 다르지.”

“과일청이나 소시지나 꽃차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뭐가 다를까요?”

“먹으면 인간이 아니게 될 것 같다는 점에서 마음의 부담이 크다고나 할까.”

“지금 마시고 계신 건 제 선물이 아닙니까?”

“치사하게 왜 지금 먹고 있는 걸로 그래….”

유성운이 머그 컵을 소중하게 끌어안았다.

“뺏어갈 거 아니지?”

“저는 먹을 것을 뺏어가는 악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려고?”

“마음에 드신 것 같아 몇 봉지 드릴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몇 봉지인데.”

“제가 없던 사이 소일거리를 얻으신 아버지의 애정과 사랑으로 그만 풍작이 나서….”

“본론.”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50봉지 정도.”

“기각.”

“45봉지?”

"기각한다고."

"43…."

"어허."

유성운이 고개를 젓자 주현이 어색하게 웃었다.

"평범한 찻잎도 그렇게 많이 받으면 부담이 조금 있을 것 같네요."

"제가 한 박스를 드린 것도 아닐 텐데요."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40봉지 정도…."

"아니에요."

"……."

초상화 안쪽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종이 포장지 소리. 주현이 물었다.

"설마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건 아니죠?"

"일단 포장만 해뒀습니다."

"이렇게 물러난 척했다가 저녁에 집 한가운데에 배달이 되어 버린다든가…."

"미리 다나를 보내 예고장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논점이 아닙니다."

"예, 농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주현은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너무 효과가 좋은 선물은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맛이 없는 음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오 씨가 만드는 음식의 맛과 효능은 연동이 되어 있는 걸까요?"

"그 부분은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군요."

"하긴… 효능을 의식하고 조절하긴 힘들겠죠."

평범한 인간도 요리하면 몸에 영양분이 되는 음식을 만든다. 일부러 맛있는 음식에서 영양소만 파괴하라고 해도 감이 안 잡힌다. 근원의 눈인 지오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었다.

지오는 유성운을 보며 물었다.

"그럼 예전에 드린 간식들은 전부 먹은 게 맞습니까?"

"받은 지 꽤 되기도 했고, 먹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니까 이미 배 속으로 사라졌지."

"다시 들어도 뿌듯하군요. 이번 기회에 새로운 과일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정말로 고마운 일이고."

"선물 드리는 건 나누어 드셔도 됩니다."

"아니 뭐, 어차피 내가 받은 선물이잖아. 꼭 나눌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지오의 선물은 정말 맛있었고, 특히 야근과 함께 살아가는 현대인 유성운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었다. 실현하게 될 가능성과 별개로 한때 그에 관한 걱정을 했다는 것뿐이었다.

“가끔 선물의 양이 많아서 나누거나 보관해 줄 사람이 필요해지기는 하지만….”

가장 편한 상대로는 길드장인 비사벌이 있었다. 애초에 ‘지오의 초상화’를 사 온 사람이고, S급인 만큼 여러모로 의지가 되고, 금고로 쳐도 그만큼 안전한 곳이 없는 것이다.

유성운이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튼 선물 가지고 너무 압박하게 된 거라면 미안한데.”

“단지 원하시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집상 내부에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렇게 할게.”

작품의 조각을 외부로 빼돌려 수집상과 검은망토의 관계에 대한 힌트를 대놓고 드러낼 이유는 없었다. 그랬다가는 ‘서지오 헌터’의 정체에 대한 의문도 커질 게 뻔했다.

유성운은 무던하게 웃었다.

“계속 말하지만, 너의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선물을 나눠줘도 상관없어.”

“그렇습니까?”

“인간들에게 너무 과분한 선물만 아니라면 말이야.”

“마침 그 부분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나도 들었어.”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죽은 인간을 부활시켰다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건 좀 과분하지 않을까?”

“많이 과장된 것 같습니다.”

“강 건널 뻔했는데 네가 준 영약 먹고 살아났다면서.”

“그 말은 맞습니다.”

“하하.”

유성운이 내심 생각했다.

‘이러니 선물 하나 받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거리는 거야….’

또 무슨 해괴한 기적을 부릴까 싶어서 말이다. 그는 제 주제를 알았다. 지나치게 귀한 선물을 받아 고뇌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 서지오 헌터가 뿌렸다던 영약은 정말 변명할 말이 필요했다.

“너는 네가 모시는 신이 내려준 영약이라고 했다던데, 제조 자체는 네가 했다고 말했고.”

“그렇습니다.”

“주현 씨.”

유성운이 주현을 돌아봤다. 주현은 그를 보지 않았다.

“주현 씨, 날 좀 봐봐.”

“제가 꼭 그래야 할까요?”

“우리 지금 할 이야기가 있잖아. 내가 지오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그래도 기특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능하면 아이템을 쓰라고 했더니 그 말을 지켰어요.”

“그 아이템이 지금 죽은 사람을 살렸다니까?”

지오가 끼어들었다.

“죽지 않았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죽었을걸?”

“인간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의외로 쉽게 죽기도 해.”

우리 집 귀한 초상화가 대뜸 준 약이 죽어야 했을 사람을 살렸다는 건 변하지 않았다.

“일단 성자 컨셉으로 간다.”

“아무래도 이건 어쩔 수가 없겠네요….”

유성운의 말에 주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오는 의문을 표했다.

“제가 앞으로 성자가 되어야 합니까?”

“사실 이제 와서는 그거 아니면 변명이 힘들어.”

단순히 신실한 신도에게 그만한 영약을 내리는 신성은 없었다.

“애초에 그런 식으로 영약을 주고받는 정도가 된다면 신성과 교류가 가능한 인간이라는 거지. 그리고 99.9%의 인간은 신성과 교류하면 인간이 인간이 아니게 돼. 높은 확률로 죽거나 미쳐 버리는데, 하물며 영약까지 받았다고?”

“일종의 계시 같은 느낌으로 얼버무렸었는데….”

“그런 게 통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단순한 계시라고 해도 말이 안 되고. 애초에 신성에게 받은 계시를 해석하고 멍청한 인간들을 이끌어주는 양치기 역할을 맡는 것이 바로 성인이잖아. 이건 성자가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해.”

유성운이 목을 쓸었다.

“하지만 이러면 정확히 어떤 신을 모시고 있는지도 구상을 해둬야 할 것 같은데. 영약을 하사할 수 있을 만큼 지구에 영향력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신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에 주현이 물었다.

“예를 들어 검은망토라든가?”

“…아하?”

“검은망토와 서지오 헌터의 행동 양식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이 나온 것처럼 같은 스펙트럼의 선물을 주고 있기도 하고, 입는 옷도 똑같으니….”

“끼리끼리 만난 거다?”

“공부해 보니 달님교처럼 인위적인 교단을 제외하면 보통 상성이 잘 맞는 신과 성인이 만나던데요. 실제로 지오 씨는 신성을 품고 있는 만큼 언젠가 검은망토가 신이라는 걸 들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먼저 선수를 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했어.”

“이미 검은망토는 지구에 온건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니 악신 취급을 받아 최악의 경우가 온다고 해도 토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고….”

“한국인들에게 꽤 친근해진 이미지이기도 하니까.”

“협회가 몬스터로 숨기고 있는 신성 정도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네요. 실제로 유희를 즐기는 신성들을 협회에서 몬스터나 자연 현상 정도로 위장한 사례는 많아요.”

“그래야 시민들의 혼란이 덜할 테니까.”

“그렇죠.”

주현이 이어서 물었다.

“그럼 어떤 유형의 성자로 보여야 할까요?”

“가능한 한 최상위 성자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이건….”

“하긴 지오 씨의 본질을 고려해 보면 처음부터 강한 밑밥을 까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납득하고 더 파고들지 않겠지. 그러려면 최상위 성자가 적합해.”

“그쯤 되어야 임팩트가 있으려나요.”

“이렇게 되어버린 고로.”

유성운이 말했다.

“앞으로 너는 성자야. 재밌겠지?”

“재밌겠네요. 정확히 어떤 성자일까요?”

“어떤 신성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가자.”

“다양한 신을 모실 수 있는 재능의 인간이라는 의미입니까?”

“잘 이해했어, 바로 그거야.”

지오의 정체성 중 하나는 태양신이었다. 그만큼 다양한 신성과 실제로 교류할 일이 많아질 텐데, 그걸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신들이 탐내는 성인의 그릇’이라 정립하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았다.

“이 부분은 강서담 사제님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자.”

강서담의 늘어날 고민거리는 물질적인 보상으로 갚을 것이었다. 그쪽도 수집상에 빚을 지워두는 셈이니 질색할 수는 있어도 아예 거절하진 않을 듯했다.

“그리고… 아르지오로 날뛰었다고?”

“예, 오랜만에 몸을 풀어 즐거웠습니다.”

“역시 그 정도라면 굳이 너만의 전쟁터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유성운 씨는 야식으로 먹는 컵라면과 삼시 세끼 챙겨 먹는 식사가 같나요?”

“아, 그런 느낌….”

“야식은 선택이지만 끼니는 필수입니다.”

“이해했어.”

아무튼 이 부분도 문제였다.

“그렇게 직접 몸을 쓰는 모습을 보았으니 정신이 워낙 없던 던전 내부에서야 몰라도 지금쯤 뭔가 이상함을 느꼈겠지.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공략 중 의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주현이 의견을 제시했다.

“숨겨진 S급이라고 하면 될까요?”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한 사람이 많을 거야.”

“요즘 세상에 떠올리기 가장 쉬운 경우일 테니까요.”

“실제로 등급을 속이는 헌터들도 몇 있고, 특히 그런 쪽의 음모론은 자자한 편이라….”

“등급을 숨긴 S급이라는 이야기는 뭔가 낭만이 있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몬스터와 친구가 된 헌터라는 이야기랑 비슷한 느낌이지.”

헌터 우상화가 극대화된 시대다 보니 그쪽 세계에 관한 얼토당토않은 ‘낭만’들이 몇 가지 있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익숙한 소재이니,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금방 납득할 것이었다.

“최상위 성자에, 낭만 있는 S급에, 또 뭐 더 할 게 있나?”

“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조심이고 자시고 지오 신상 털리기 전에 어서 의견을 제시해 봐.”

“아르지오 씨의 외양을 잠시 보인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아르지오 씨는 붉은 머리카락에 금색 눈을 가졌고요?”

“혹시 비사벌 길드장님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네, 그분과….”

머뭇거리는 주현에 유성운이 말을 가로챘다.

“길드장님과 혈연관계임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이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방향으로 몰아가도 될 것 같아서요.”

“하긴 그러면 왜 그렇게 지오를 수집상 전체에서 싸고도는 지도 설명이 되겠네.”

“왜 성자나 S급이라는 정체를 숨기고 있는지도 설명이 될 것이고요.”

“어… 이러면 우리 길드장님이 꽤 변태 같은 사람이 되려나?”

모종의 이유로 자기 핏줄을 수집상 내에 꼭꼭 숨겨두고, 29살이 되어서야 바깥으로 내보낸 주제에 감시 인력까지 붙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심지어 그 ‘모종의 이유’로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험했다.

“아무래도 길드장님께서… 알잖아, 그치?”

“작품에 한 집착하시는 분이죠.”

“자기 아들을 희대의 작품으로 보는 사람처럼 표현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미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번 공략에 같이 갈 걸 그랬나.”

“그냥 비사벌 길드장님의 업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정말 그 정도인 인간은 아닌데, 하, 그러게 좀 작작 하시지….”

그에 주현이 말을 더했다.

“지오 씨의 부족한 상식도 그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식이 부족한 건 인정합니다.”

“물론 지오 씨가 지금의 지구에 대해 잘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정을 모르니까요. 알아서도 안 되고.”

유성운이 긍정했다.

“수집상에서 가둬 키운 탓에 상식이 부족해졌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꽤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별로 안 죄송해 보이고, 이러다 작품과 교접해서 낳은 자식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데?”

“수집상은 워낙 이런저런 괴담이 많은 길드잖아요.”

“이런 종류의 괴담은 아무리 나라도 당황스러워, 주현 씨.”

하지만 그러면 이번 공략에서 보였던 특이점은 모두 설명이 되었다.

“…….”

“설정이 좀 과하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지오 너라면 가능해.”

“응원한다고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라면 이 모든 설정을 소화해 낼 수 있어.”

“저는 배우입니까?”

“나는 너의 가능성을 알아…!”

“이러다 배우인 지오와 합체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과해야 너를 가릴 수 있어.”

최상위 성자에, 숨겨진 S급에, 가둬 키워진 비사벌의 아들이라는 설정까지 더해야 사람들도 ‘와 시발 미쳤네’ 하고 납득하지 않겠는가.

“그만큼 충격적인 설정이어야 그 뒤를 더 캐볼 생각을 안 하게 된다고.”

“제가 초상화임이 들통나기 전에 충격 요법으로 사람들의 뇌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미군요.”

“이 정도로 정신 나간 정체가 밝혀졌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정체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거니까.”

“이미 들키기는 했습니다.”

“그래? 그렇군.”

유성운은 겸허히 현실을 받아들였다.

“몇 명?”

“묻으실 겁니까?”

“사람은 안 묻어도 비밀은 묻어야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두 명 정도.”

“한 명은 누굴 말하는 건지 알아, 정영원이라고 나랑 같은 정원사야.”

“예, 그분은 처음부터 짐작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른 한 명은 누구지?”

“사나래 헌터입니다.”

“사나래….”

이번 토벌 명단을 외우고 있던 유성운이 되물었다.

“피노키오?”

“거짓말쟁이로 유명합니까?”

“일단 거짓말을 하고 보기로 유명한 놈이라. 유명한 양아치지.”

“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감이 좋으시더군요.”

가만히 듣고 있던 주현이 망가진 얼굴로 물었다.

“네? 하지만, 분명 시비를 걸고 걸리는 사이인 것 같았는데….”

“시비는 또 무슨 이야기람.”

“사나래 헌터가 지오 씨에게 대놓고 시비를 걸었거든요.”

“내가 곧 주소를 알아올게.”

“유성운 씨는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지오 씨는 그런 분과 왜 친구가 되셨나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지오가 물었다.

“정체가 왜 들켰는지보다는 그쪽이 신경 쓰이시는 겁니까? 제 교우 관계?”

“그렇게 괜찮은 인간은 아닌 것 같아서요. 지오 씨는 무례한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딱히 예의가 바르신 분이라고 하긴 어려웠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주현의 의문에 지오가 대답했다.

“저를 무서워하시길래 긴장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체 어느 부분에서 무서워한다고 느끼셨을까요?”

“저도 긴가민가했는데, 아마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라면… 시비를 걸었을 때부터요?”

“예.”

지오가 긍정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화내는지 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는 자신을 걸고 지오의 위험성을 확인했다.

사나래는 가족을 아끼기 때문이었다.

* * *

“으음….”

길드에 죽치고 있던 사나래가 귀를 후비적거렸다.

"나 귀가 간지러워."

"평소에 내가 그렇게 욕해도 멀쩡하더니 누구 욕에 그래?"

"지금 설마 질투하는 거야? 걱정 마, 나는 너희 모두의 것이거든."

"아 시발 좀 지랄 마세요 조장."

"어어... 이거 설마 안 믿어주는 건가?"

사나래가 소파에 늘어져 웃었다.

"너무 슬픈데?"

"거짓말 작작 하고."

"앗, 들켜버렸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85)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85)"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86)

186

제186화

헌터들의 던전 공략이 일일이 알려지지 않는 세상이었지만, 이번 공략은 참가한 인원의 수와 계급 때문인지 관련된 주제로 떠드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번에 우림형 던전 하나 공략되었다던데."

"우림형? 몇 급?"

"A급."

"B급 이상이 공략된 건 오랜만이네."

"공략 참가 길드 많던데, 역시 교단에서 진입권 가져가겠지?"

그럴싸한 던전 하나가 공략될 때마다 시민들의 생활의 질은 높아졌다. 던전에서 수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A급 던전이 공략되었다는 말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림형이면 역시 식생 쪽에서 뭔가 나오려나."

"음... 작물 종류면 좋겠다. 과일이라든가."

"그래봤자 길드에서 다 독식할 텐데 무슨."

"언젠가 풀리기는 하겠지."

던전의 공략은 즉 새로운 차원을 점거했다는 뜻. 미지의 혜택을 누릴 기회에 시민들은 들떴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라도 길드는 던전을 공략하기 위해 애썼다.

자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찬사와 지지를 얻을 기회였으니 말이다.

그렇기에 이번 공략은 태양교에 있어 경사가 되었다.

"지난 입단식 사건으로 크게 마음을 졸였었는데...."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군요. 시민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아직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번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도 질이 좋고요."

"태양의 이름 아래에서 독을 팔기는 그러니 약으로 만들려면, 음... 협회에 도움을 구해볼까요."

"별장 던전이었다고는 하나 규모가 상당하니 이쪽도 대가를 치르기에 용이할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협회 연구소가 믿음직하죠.”

태양교의 사제들은 이번에 얻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기쁜 마음으로 고민했다. 태양교로서 체면치레는 하게 된 것이다. 장기 공략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런 성과라니.

“이렇게 온전한 형태로 공략하게 될 줄이야.”

“강서담 사제님의 활약이 컸습니다.”

“서지오 헌터와도 좋은 친분을 쌓았다죠?”

장로 사제들의 말을 듣던 강서담이 입을 열었다.

“…대단한 친분은 아닙니다.”

“겸손도 그만하면 됐습니다, 형제님의 공이 크군요.”

“다른 헌터님들께서 함께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그렇다고는 한들 있던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사제들의 관심사는 던전의 공략뿐만이 아니었다.

“혹시 정말로, 그… 크흠.”

“…서지오 헌터가 성인의 그릇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다른 차원의 태양을 모시고 있다지요?”

강서담은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릴 뻔했다.

‘올 것이 왔군.’

며칠 전부터 은근한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을 강서담도 알고 있었다. 서지오 헌터가 사실 성자라느니, 비사벌의 자식이라느니. 아마 수집상에서 손을 쓴 것 같았다.

‘아마 일이 커져서 수습이 힘들어지기 전에 규모를 크게 키워서라도 어떻게든 인간으로 포장하기 위한 수작이었겠지.’

아직 세상에 그토록 인간 흉내와 의태에 능숙한 신성이 없어서 사람들이 생각해 내지 못할 뿐. 이번 공략을 통해 알 만한 사람은 다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지오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현명하고 빠른 판단이었다.’

그냥 강서담만 피곤할 뿐이었다.

“…진정 성자이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차원의 태양을 모시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정도는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으니 말입니다.”

“아무리 다른 차원의 태양이라지만, 거의 죽은 사람도 살려낼 약초를 하사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그 정도 편애라면 역시 신의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한 모호하게 말한 강서담이 피로하게도 사제들은 제각기 이야기를 떠들어댔다.

“단순히 은혜를 받은 것으로 설명하긴 부족합니다.”

“그래요, 사제로 각성하지도 않은 헌터가 어찌하여 그렇게나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그 약초를 받아내어 약으로 만들었다는 것부터가 서지오 헌터의 그릇을 말해주고 있어요.”

“단지 신에게 사랑받을 뿐인 인간이었다면 거기까지는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성과의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나직한 음성으로 수군거리는 사제들에 강서담이 질린 표정을 지을 때였다.

“.......”

그는 왜인지 저를 보며 조용히 웃는 장로 사제를 보았다. 차기 주교라 불리는, 연륜 많은 사제였다.

“강서담 사제님.”

“...예.”

“나중에 제 방으로 오시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순순히 대답하며 강서담은 생각했다.

‘버러지 같은 종교계.’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떠들어야 할지, 상상만 해도 피곤해졌다.

* * *

해령이 아무리 뇌 빠진 길드로 소문이 났고,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길드가 유지될 수 있을 만큼 최소한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있는 법이었다.

“나래야.”

“그건 누구 이름이지....”

“어 그래, 사나래.”

“응, 왜 불렀어?”

“보고서 정신이 나갔니?”

보통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장과 반장, 직장, 길드장이었다. 조장인 사나래 헌터를 담당하고 있는 반장은 허접한 보고서 한 장을 내밀며 물었다.

“항의할 거 있어? 그럼 말로 해, 귀한 보고서에 이러지 말고.”

“예쁘게 꽃 그림도 그려서 냈더니 혼내기만 하고... 서운해서 눈물이 나오네.”

“하극상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길드라지만 보고서로 반항하는 놈은 또 처음이다.”

“과연 처음일까?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처음이라고 생각해, 반장?”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은 아니지.”

그리고 사나래가 이딴 식으로 보고서를 낸 것도 처음이 아니었다.

“제기랄.”

쫘악.

보고서를 찢은 반장이 물었다.

“다시 예쁘게 작성할 의지는 있을까?”

“이미 찢어놓고 그런 걸 물어보면 내가 너무 무서운데요.”

“전혀 무섭지 않은 얼굴로 그런 말을 해봤자 통하지 않는답니다.”

“아, 나의 혼신의 보고서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

“그래서 언제 새로 낼 거야, 그것만 말해. 나랑 같이 쓰러 갈 거니?”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그건 너무 징그럽지 않을까?”

“징그럽게 달라붙기 전에 정상적인 보고서를 내란 말이다.”

고작 ‘잘 다녀옴’ 한 문장 써진 보고서는 보고서라고 할 수 없었다.

“하극상을 할 거면 주먹으로 하자고.”

“평소에는 별말 안 하더니 왜 오늘따라 그래?”

“몰라서 이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반장이 말했다.

“너 이번에 서지오 헌터도 보고 왔잖아.”

최근 서지오 헌터는 꽤 뜨거운 화제였다.

영혼과 관련된 스킬은 그 수가 적었다. 익힐 기회도 거의 없는 데다 익힌다고 해도 쓰기가 힘든 것이다. 그나마 대표적으로 마법사인 네크로맨서도 있었으나 그것과는 결이 달랐다.

“조련사에, 힐러에, 듣자 하니 성인이라는 소문도 있고.”

“으응….”

“던전에서 멧돼지처럼 날뛰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멧돼지보다는 악마에 가깝지 않았을까….”

“뭔 소리야? 아무튼 그런 정보들 싹 다 적어내라고.”

반장이 혀를 찼다.

“애초에 그 양반한테 관심이 많다고 적극적으로 이번 공략에 참가한 게 너였잖아? 직접 보니 어마어마한 도련님이라 관심이 푹 식어버린 건가? 대체 뭔데?”

“아니, 도련님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였지.”

“뭐… 이번에 참가한 놈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 수집상에서 어지간히 챙겨주길래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는 도련님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사람이 괜찮았다고.”

그렇게 말하며 반장이 사나래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평소처럼 지정석에 늘어져 있던 사나래가 빙글 웃었다.

“와아, 나랑 놀아줄 거야? 보고서 쓰라고 안 보채?”

“네가 직접 써내기를 기대하느니 여기서 다 듣고 내가 쓰는 게 낫지.”

“내가 이래서 반장으로 안 올라가는 거랍니다.”

“넌 올라오면 안 돼, 이 새끼야. 나무늘보 주제에 어디를 넘봐.”

반장이 달칵, 펜을 열었다.

“어디 한번 썰을 풀어보거라.”

“뭐가 듣고 싶은데?”

“일단은 서지오 헌터의 인성?”

“밥을 맛있게 해줬지….”

“좋은 사람이네.”

고개를 끄덕인 반장이 물었다.

“뭐 해주디?”

“첫날에는 크림 스튜.”

“그게 던전에서 되든?”

“되더라? 직접 자기 몸뚱이만 한 냄비도 챙겨왔어.”

“안 그럴 것처럼 생겨서는 골 때리는 양반일세.”

“그리고 간식도 줬지. 과일 말랭이 같은 거....”

“맛있었겠네.”

“왜인지 소화가 잘되더라.”

“나도 먹을 줄 아는데.”

“내가 다 먹었어.”

“알아.”

아무래도 사나래는 썩 기특한 성격이 아니었다.

“직접 요리를 할 정도라면 크게 자존심 부리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 듣자 하니 꽤 성실한 것 같던데 특별히 화를 내거나 짜증 내는 모습을 보인 적은?”

사나래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

“제정신은 아닐 확률이 높겠군.”

그 찜통에서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다면 그건 인간 새끼가 아니었다.

“성자라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 그쪽 계열인가.”

“비슷한 느낌이기는 했지...?”

“주로 사용하는 스킬은?”

“밥....”

“밥 말고.”

“흐으음, 역시 조련 쪽?”

“조련사가 조련을 하겠지 인마. 왜 너는 직접 보고 와서도 의문형으로 대답을 하냐.”

“내가 남의 스킬 창을 어떻게 알아....”

“그것도 그렇긴 한데.”

반장이 앓는 소리를 냈다.

“계약수는 총 두 마리라고?”

“이미 다 조사하고 온 거면 나 그냥 자도 돼?”

“되겠니? 눈 똑바로 뜨고 대답해, 계약수의 특징은?”

“한 마리는 물새, 한 마리는 고양이.”

“가진 능력.”

“어... 몰라.”

"넌 아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

"자랑이다 미친놈아."

반장은 더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다.

"그 물새는 던전에서 무슨 일을 했어?"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정보 물어 왔지. 물도 먹고 열도 먹고…."

"고양이는 무슨 일을 했는데."

"야옹거리면서 죽은 사람을 부르더라고."

"다시 들어도 미친 소리네."

서류에 정보를 끄적인 반장이 말했다.

"그럼 다시 본인으로 넘어간다. 성격 이야기 나왔었고, 조련 스킬 이야기했고, 딜과 탱이 되는 힐러라는데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지 설명을 해봐."

"딜과 탱이 되는 힐러라는 거지."

"귀가 먹었나? 설명을 하라니까?"

"있는 사실을 개소리로 치부하길래 정정해 준 거야…."

반장이 황당함을 담아 물었다.

"그럼 이 양반은 뭔데? 수집가가 드디어 생체 실험에 성공했나? 서지오 헌터가 무슨 지옥에서 끌려 나온 좌완 파이어볼러야? 못 하는 게 없어?"

"있기는 하겠지…?"

"뭘 못 하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이 새끼야, 응? 네가 같이 다녀왔잖아."

"왜 화를 내고 그래."

"염병 어쩌다 내 밑으로 이런 새끼가 들어와서는."

"으응, 그래도 난 기자는 안 팼어."

"이걸 자랑이라고 하네? 네가 지금 다른 놈 들먹일 때야, 사나래?"

가볍게 일갈한 반장이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던전이나 돌고 싶다."

"돌아 그럼."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못 돌아."

"불쌍해라. 어깨 주물러 줄까, 반장?"

"꺼져."

서류를 정리한 반장이 말했다.

"이건 너무 어이없는 소문이라 사적으로 보고할 예정이기는 한데, 서지오 헌터가 비사벌 길드장의 핏줄일 거라는 이야기

는 또 무슨 헛소리야? 아는 바가 있어?”

“가끔 색이 변하는데 빨간 머리에 노란 눈이더라고.”

“아이 개같은 거, 하긴 요즘 세상에 염색이 얼마나 잘되니. 진짜 핏줄이라고 하면 왜 이만한 헌터가 전적도 없이 대뜸 툭 튀어나왔는지도 이해가 되네.”

유명한 헌터들이 제 가족 신상 숨기는 건 흔한 일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번 건 좀 징그럽기는 한데….”

그만한 인재를 29살이 될 때까지 숨겨 두었다는 거 아닌가. 애를 그렇게까지 처박아 두었으니 제정신이 아닐 만도 했다.

“어쨌든 수집가가 하는 일이라 이해는 간다.”

“이해가 가?”

“안 가면 어쩔 건데, 흘러가는 상황이 그런 것을.”

“그렇기는 하지….”

“더 알려줄 거 없니? 특이한 부분들이라든가.”

“으음….”

사나래가 손을 휘적였다.

“없는 것 같네.”

“지랄, 뭐 떠오르는 거 있으면 늦게라도 보고해라.”

“알겠어.”

“…….”

반장이 한 박자 늦게 물었다.

“…너 서지오 헌터한테 시비는 왜 걸었던 거야?”

“재밌어 보이길래 그랬지.”

“그러고서는 나올 땐 꽤 친해 보였다던데, 네 성격에.”

“헌터님 성격이 참 좋더라고.”

그가 초승달처럼 눈을 휘어 웃었다.

“아주 다행이지?”

* * *

한편, 지오와 함께 공략을 다녀왔던 직원들은 증언했다.

“생각보다 사람 같으시던데.”

작품을 향한 것치고 후한 평가였지만 다른 직원들도 그러려니 했다.

“어디서 몬스터 봤다는 소리 안 나오는 걸 보면 그렇기는 한 것 같더라.”

“나눠주신 간식들도 맛있었고.”

“검은망토랑 하는 행동이 그렇게 똑같은데 용케 동일한 존재라는 걸 안 들키네.”

“그러려고 그 소문들 난 거 아닌가? 우리 쪽에서 손을 쓴 거지, 그거?”

“길드장님 아들이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난 흐느껴 울었어.”

"왜 울고 그래."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서지오 씨'는 위화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였다.

"지나치게 유능한 모습을 보이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양반이지."

"어쨌든 수습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이었으니까."

이건 하나의 지표가 되어주었다.

"담당 큐레이터 없이도 잘 지내시는 것 같아."

'서지오 씨'는 낯선 인간들 사이에서도 능숙하게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도 아닌데 잘됐지."

"이렇게라도 확인을 받으니 내 마음이 다 편하네."

'서지오 씨'와 함께 지낸 시간이 꽤 되었지만 그동안 큰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다. 상대가 괴담이긴 해도 일종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야근에서 벗어나 기어코 휴가를 쟁취해 낸 유성운은 말했다.

"여행 가자."

"네?"

"오."

그렇게 바다 여행이 정해졌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86)"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87)

187

제187화

“이래도 되는 걸까요.”

자동차 뒷좌석에 몸을 욱여넣은 주현의 말에 지오가 물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주현이 말끝을 흐리자 운전대를 잡은 유성운이 무던한 웃음을 지었다.

“짐 하나 안 챙기고 이동하는 거긴 하지. 괜찮아, 따로 부탁을 해뒀으니까 거기서 입을 옷이나 음식 같은 건 전부 펜션에 구비되어 있을 거야.”

“그것도 의문이기는 했지만 딱히 그것만 걱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여행이라 놀란 걸까? 하긴 주현 씨가 보안의 문제로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점도 문제가 없어. 사람이 없는 바다로 갈 거라서.”

부드럽게 나아가는 차 안에서 지오가 물었다.

“바다에 사람이 없습니까?”

“보통 바다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기는 하지.”

“관광지로 쓰이지 않나 봅니다.”

“그보다는 식량 수급처나 위험 구역일 때가 많아.”

현시대의 바다란 그다지 사람 살기 좋은 구역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가 갈 곳은 더더욱 사람이 없을 거야. 목적지가 미재건 구역이라서.”

“미재건 구역이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는 뒷좌석의 주현이 대답했다.

“말 그대로 재건이 되어 있지 않은 구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재앙의 여파가 많이 남아 있어서 사람이 머물기 힘든 공간이에요.”

“그렇군요. 직전에 들렀던 강원도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인간 세상에 미숙한 초상화를 위해 주현이 부연 설명을 했다.

“이번에 들른 강원도 삼척은 최소한의 재건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뿐이긴 했지만 호텔도 있고, 식당도 몇 개 있었잖아요? 물론 식당의 경우 도시의 길거리 음식인 붕어빵처럼 대충 음식 구색만 갖춘 느낌이지만… 그렇다고 미재건 구역은 아닙니다.”

재건이 조금이라도 된 구역과 아예 미재건인 구역은 완전히 달랐다.

“미재건 구역은 보통 위험하다는 인식이죠. 사람이 살 환경조차 안 되니까요. 여러 인프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 이동이 불편할뿐더러 여행 삼아 가기에는 영 그런 곳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주현이 자동차를 모는 유성운을 보았다.

“…헌터의 세상은 뭔가 더 다른 모양입니다?”

“돈 많고 능력 되면 못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래서 미재건 구역에 펜션이 있다는 겁니까? 그것도 바다에?”

어떤 기상천외한 몬스터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해안 구역은 제대로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접근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1등급 시민의 돈과 A급 헌터의 권력으로….”

“2등급 시민인 제가 뭘 어떻게 반응하길 바라신 걸까요?”

“굳이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래.”

“유성운 씨가 어디 가서 재수 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나도 그 정도 체면은 차리거든?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

주현은 기타 고아원 출신치고 등급에 대한 환멸이나 분노가 없는 편이었다. 그런 쪽으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니 유성운도 편하게 말한 거지, 그도 눈치 보며 사회생활 할 줄 알았다.

“어떤 일이 생기든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전제하에 머물 수 있는 서비스 구역들이 있어. 위험 부담이 꽤 있는 데다 돈이 좀 들지만, 그것만 제외하면 주변에 사람 한 명 없이 풍족한 환경에서 우리끼리만 바다를 즐길 수 있지.”

그에 주현이 작게 속삭였다.

“돈 지랄.”

“어허.”

이게 어떻게 뜯어낸 휴가인데 그런 망발을 한단 말인가.

“펜션을 제외하면 주변에 다른 건물도 없는 곳이야. 그만큼 이동이 불편하겠지만 도착하기만 하면 물건은 전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밖에 없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지.”

“그건 확실히 안심이 되네요. 안 그래도 요즘 지오 씨가 많이 유명해져서 마음에 걸렸는데, 그렇게 눈치 볼 필요가 없다면….”

“아,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했던 건가?”

유성운이 특유의 무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폭탄 터트려 놓고 튀는 것 같아서?”

“솔직히 그것도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수집상이 퍼트려 놓은 소문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전부 떠들썩했다. 성자에, S급 헌터에, 3대 길드의 숨겨진 아들에, 자극적인 요소란 요소는 몽땅 끌려 나오지 않았던가.

“도시가 많이 소란스럽던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 떠야지. 성실하게 붙잡혀 있으면 ‘아 얘는 일할 의지가 있구나’ 싶어서 더 굴리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나는 우리 지오 굴렁쇠로 만들 생각 없어.”

“유능할수록 구르는 게 헌터라면서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꼭 지오까지 그래야 할까? 물론 본인이 원하면 상관없지만 직전에 큰 작업을 끝내고 온 상황이잖아. 원래 있던 신비주의 컨셉도 있겠다 이럴 때는 튀어도 돼.”

커다란 프로젝트 하나 마치면 휴가를 내어주는 것이 헌터의 관습이라면 관습인 세상이었다. 물론 유성운처럼 그런 것이 통용되지 않는 상황도 많지만 가질 거 다 가진 그들이 주변 눈치 보며 짱박혀 있을 필요가 없었다.

“주현 씨도 참 걱정이 많단 말이지.”

“아니 그것도 걱정이기는 했지만.”

“또 뭐가 있어?”

“…….”

“…….”

“후….”

주현이 체념한 얼굴로 물었다.

“…지오 씨처럼 세상 위험한 초상화를 들고 날라도 되냐는 거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대놓고 물어볼 줄은 몰랐는데.”

“그러게 다 알면서 계속 말 돌리지 말았어야죠.”

“그래, 내 죄가 크다.”

유성운이 옆 좌석의 지오에게 물었다.

“본인은 이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도 제가 바다에 놀러 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네.”

“그렇습니다.”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 모임의 최우선 발언권자는 ‘지오의 초상화’였다.

“지구의 바다는 정말 오랜만이군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그렇게 말 안 하면 돼.”

“제가 그렇게까지 뇌가 맑지는 않습니다.”

그에 유성운은 내심 생각했다.

‘뇌가 있구나.’

정말 순수하게 뇌라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던 것뿐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 입 밖으로 내뱉을 발언은 아니었다. 유성운은 특유의 무던한 미소를 지으며 앞을 가리켰다.

“저쪽이 바로 텔레포트 터미널이야. 터미널을 이용해 보는 건 처음이지?”

“도로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이라고나 할까. 사람만 이동할 수 있는 구역은 따로 있어.”

“편리하네요.”

순간 서지오는 드라이브 스루를 떠올렸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마법의 기운을 감지한 허니가 지오의 후드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꾸르륵?”

“우리는 곧 순간 이동을 하게 될 거야.”

“꾸르.”

허니는 다시 얌전히 들어갔다. 순간 이동에 큰 흥미를 가진 제 아버지와 달리 별 관심이 없는 모양이었다. 낭만이 없는 아들이었다.

유성운이 터미널 표지판을 확인했다.

“자, 우리가 갈 곳이 제주도니까….”

“?”

“예?”

“이런, 내가 말을 안 했나?”

그가 빙글 웃었다.

“우리 제주도 갈 거야.”

“그걸 왜 이제 말해.”

“부랴부랴 나오느라 정신이 없었네.”

“이걸 변명이라고….”

연약한 주현은 차마 A급 헌터를 치지 못했다. 때려봤자 본인만 손해였다.

* * *

그리고 도착한 펜션에선 아리아가 그들을 반겨주었다.

“오랜만입니다, 신사분들.”

“?”

“??”

혼란에 빠진 유성운과 주현을 뒤로한 지오반니가 환하게 웃으며 아리아를 끌어안았다.

“오랜만이군요, 아리아! 그간 무탈했습니까?”

“우리 선생님을 생각하면 무탈하지 않을 것도 그래야지.”

“인어들에게 죽은 인간들이 슬퍼할 소식이군요.”

“모쪼록 기뻐해 줘서 마음이 좋아.”

주현이 중얼거렸다.

“저게 무슨 대화지.”

인간들의 환장과 별개로 아리아와 지오의 대화는 이어졌다.

“먹을 걸 좀 싸 왔는데 나도 참가가 될지?”

“에들런 마을의 조개군요! 오랜만에 토마토 스튜를 끓여도 좋겠어요.”

“구이를 해도 괜찮을 것이고. 이 근처에 주제도 모르는 괴물들이 많길래 전부 쫓아냈으니, 선생님께서는 편하게 즐기셔도 좋습니다.”

“역시 선생님을 생각해 주는 건 아리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성운이 생각했다.

‘그냥 몬스터의 평범한 영역 표시 아닌가?’

아무튼 얼렁뚱땅 휴가에 동참하게 된 아리아를 거부하는 인간은 없었다. 애초에 주현은 지오도 동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인간이었고, 유성운은 인간 외의 존재를 대하는 게 익숙한 정원사인 것이다.

“아마 펜션에 여성복은 없을 텐데.”

“내가 인간이 만든 옷을 입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요?”

“내숭을 위해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세상에, 이렇게도 배려심이 깊을 수가.”

유성운과 아리아가 무슨 대화를 나누든 무시한 지오가 주현을 불렀다.

“먼 곳까지 이동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가벼운 조개구이를 즐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들으면 지오 씨만 따로 이동하신 줄 알겠어요. 저야 좋지만, 피곤하시지는 않고요?”

“터미널이 몸에 잘 받는 편이었는지 딱히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체질상 텔레포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다행히 유성운과 주현, 지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었다. 주현은 특유의 미소를 씩 지으며 지오에게 다가갔다.

“그럼 같이 준비를 해볼까요?”

그러자 아리아가 끼어들었다.

“불은 내가 피울게, 선생님.”

“그래 주시겠습니까? 아리아가 피워주는 불은 더 따듯한 느낌이지요.”

“그렇게 칭찬해 줘도 나올 건 없는데 말이야.”

손을 살랑 흔든 아리아가 펜션 바깥으로 나갔다. 정말로 두 팔 걷어붙이고 협조할 모양새에 유성운이 동그랗게 뜬 눈을 깜박였다.

“진짜 불 피우러 가는 건가?”

“아리아가 다듬어주는 숯에서는 더 좋은 향기가 납니다.”

“공주님인데?”

“공주님은 밥 안 먹고 사나요?”

“인어는 좀 다르지 않나 싶었어.”

“그건 너무 인간 중심적인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반성할게.”

크게 시간 들일 것 없는 작업이라 조개구이 준비는 금방 끝났다.

아리아는 정말로 야외에 작은 화로를 만들어 그 위에 철판까지 깔아두었고, 유성운이 의자와 식기 같은 잡다한 물건을

준비할 동안 지오와 주현이 조개를 깔끔하게 닦아 왔다.

“그 조개는 따로 해감 같은 건 필요가 없는 거야?”

“아리아가 이미 해 왔다고 하길래.”

“아하.”

그렇게 4명은 둥글게 모여 앉아 정말로 조개구이를 즐겼다.

“.......”

주현은 조금 어이가 없었다.

“왜 이렇게까지 자연스러울까요?”

“고작 밥 먹는 일이 부자연스러워야 할 게 있습니까?”

“너무 색다른 인원이 끼었는데 우리는 태연하게 조개를 구워 먹고 있잖아요.”

“이게 맛있는 밥의 효과입니다, 주현 씨.”

“지오 씨는 너무 식사만능주의자인 것 같아요.”

“반성하겠습니다.”

길게 늘어진 관자처럼 생긴 조갯살을 잘라 먹던 아리아가 입을 열었다.

“아,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말씀하십시오.”

“달님교의 성녀가 미친 건 선생님의 작품인가?”

유성운이 사레에 들렸다.

“쿨럭!! 케헥, 큽, 쿨럭...!!”

지오가 아리아를 나무랐다.

“왜 사람을 밥도 못 먹게 하나요.”

“명색이 A급 헌터이신 분께서 이렇게까지 연약하실 줄은 몰랐지.”

“A급 헌터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약할 줄 몰랐대도.”

졸지에 연약하고 나약한 헌터가 된 유성운이 목을 가다듬고선 말했다.

“갑자기 달님교 성녀님 이야기가 왜 나와...? 지오 너 뭐 했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 너한테 물을 게 아니구나. 공주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리아가 어깨를 으쓱였다.

“선생님의 마왕 프로젝트에 딱 괜찮은 인재처럼 보여서 혹시나 했지. 그와 관련해 너무 유용해 보이는 탓에 선생님이 미리 작업을 해둔 것인가 싶었다.”

지오가 억울해했다.

“이 선생님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종종 심심하면 그렇게 하던데....”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음, 아무것도.”

아리아가 태연하게 웃었다.

“그래서 언제쯤 마왕님이 될 생각이지?”

“그거 물어보려고 제주도까지 왔습니까?”

“바다 그 자체인 내가 이런 섬을 찾아오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한 건가?”

“그 말에도 일리가 있군요. 집 앞 편의점처럼 편안했을 겁니다.”

지오가 쾌활한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직 아르지오는 고향을 찾아가지도 않았으니 말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87)"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88)

188

제188화

“제가 개인기 보여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밥을 다 먹은 지오가 해안가로 뛰쳐나왔다.

“따란.”

“…….”

“모세의 기적.”

“도로 덮어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하죠?”

“집에서 하세요.”

바다를 반으로 가른 것에 기겁한 주현의 말에 지오가 순순히 따랐다. 모래보다는 돌과 바위가 많은 펜션 근처의 해변은 물의 깊이가 꽤 되었다. 지오는 그 위에 철퍼덕 누워버렸다.

“더 생각해 둔 개인기가 없는데.”

“지금 하고 계신 것도 충분히 개인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헌터들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요. 헌터는 소금쟁이가 아니에요.”

“저는 소금쟁이입니까?”

“드러누워 있어서 더 그래 보이네요.”

“그럼 잠시 누워 있겠습니다. 편하군요.”

“음….”

지오가 드러누운 근처 바위에 앉은 주현이 걱정스러운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날이 많이 어두워졌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주변이 어두운 것이 걱정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하십시오.”

“지금 뭘 하실 예정이죠?”

“물새들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아, 물새들.”

그 작고 무해한 새를 떠올린 주현이 안심한 얼굴로 웃었다.

“실례했습니다, 제가 걱정이 많은 편이라.”

“서로를 배려한 것인데 실례라고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오는 바다에 앉았다.

“……?”

주현이 눈을 껌벅였다.

“앉으셨네요?”

“예, 앉았습니다.”

“지오 씨가 여러모로 특이한 사례인 건 알지만 이건 또….”

“신기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꽤 능숙해진 것도 같지만 역시 여전히 인간 흉내가 서투른 초상화였다. 무조건 인간과 자신을 같은 선상에 욱여넣는다고 해서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데 말이다.

“이제 물새는 어떻게 꺼내실 생각입니까?”

“이미 와 있습니다.”

“…….”

주현의 시야 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아.”

왜인지 반투명해진 지오의 발 옆으로 자그마한 꽃이나 열매 같은 것이 떠다니는 것이 보였다.

워낙 어두워진 데다 물 안에 있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건 분명 ‘물새’의 흔적이었다.

“벌써 와 있었군요. 언제부터였나요?”

“제가 발을 담갔을 때부터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하….”

“주현 씨도 이 위로 올라와 보세요.”

“저는 빠질 겁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실례할게요.”

찰박.

주현은 바다로 빠지지 않았다.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는 수면 위를 걷고 있었다. 비각성자인데도 말이다.

“여기 오니 물새들이 더 잘 보여요.”

“저희들끼리 움직이는 게 보이십니까?”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이 왔네요.”

“무리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아직 밝지는 않은데….”

“곧 밝아질 겁니다.”

지오가 수면 위에 앉아 바닷속에 집어넣은 다리를 휘저었다.

“이곳을 둥지로 삼으면 말입니다.”

그제야 물새들은, 저희끼리 뭉쳐 빛을 내었다.

“…….”

“됐군요.”

바다 안에 조명이 켜진 것 같았다.

“…바닷속에 반딧불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반딧불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멸종된 곤충이라 이렇게 자연에 퍼져 있는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 그거랑 별개로 복원 연구에 참여한 적은 있어서… 어떤 모습인지는 알아요.”

“멸종된 종이 생각 이상으로 많군요. 슬픈 기분입니다.”

“실제로 본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저는 발광하는 해파리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주현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금빛이에요.”

“이 이외의 색을 저도 본 적이 없군요.”

“여기가 마음에 드나 봐요.”

지오의 오두막에 있을 때, 밤의 시원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테라스에서나 감상할 수 있었던 빛깔. 물새들이 뭉쳤을 때 내는 금빛은 그들의 행복함을 나타내는 지표였다.

“…멋집니다.”

바다가 금빛으로 일렁였다.

황금으로 만든 태양을 녹여, 그 햇살을 담아놓은 것만 같은 황홀한 빛. 마치 바다 아래에 우주가 담긴 것처럼 아름다웠다.

가볍게 물장구를 치자 그 안의 물새들이 애교 있는 움직임을 보였다.

“귀엽고요.”

“제 아이들의 특출난 부분이죠.”

“그래 보여요.”

비각성자인 주현은 물 안에 있는 물새들을 정확히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이는 거라곤 온갖 꽃과 열매, 보석의 향연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물새들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이 바다를 좋아하고 있었다.

“따지고 보면 함께 여행을 온 셈인가….”

주현의 손에, 망막에, 그 주변의 울퉁불퉁한 바위에 금빛의 물비늘이 일렁였다.

“가족과 함께 있으니 더 기쁜 걸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밝네요.”

서늘한 바다 위에 있는데도 온몸이 봄의 햇살에 닿은 듯 나른해졌다.

“…….”

“주현 씨.”

지오가 친구를 불렀다.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주현 씨는 물에서 숨을 쉬지 못하니까요.”

그제야 주현은, 제가 바다 안에 팔을 너무 깊이 넣었다는 걸 깨달았다.

“…….”

주현이 지오를 돌아보았다.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저희 아이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거잖아요, 물귀신.”

“물귀신은 물 안으로 사람을 잡아끄는 귀신 아닙니까?”

“안으로 들어오라고 유혹하는 귀신도 있는 걸로 압니다.”

“지구가 참 무서워졌군요.”

“…너무 아름다운 것도 문제가 되네요.”

주현은 난감한 미소를 지으며 수면에 양반다리를 하고 주저앉았다. 그가 짧은 한숨을 내쉬며 제 이마를 꾹꾹 눌렀다.

방금 그는 물새들의 황홀한 빛에 홀려 있었다.

‘아마 내가 비각성자라는 점도 한몫을 했겠지.’

유성운이라면 이렇게 쉽게 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간인이 많은 곳에서는 이 친구들을 부르시는 걸 자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부르지 않더라도 물새들은 원하는 집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미 다른 곳으로 샜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맞나요?”

“살아 있는 물이니 샌 것이 맞기도 하겠군요.”

“어디로 갔는데요?”

“제가 그린 그림 속으로 갔을 겁니다.”

“그림 속으로….”

“몇 군데 안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오가 주현을 안심시켰다.

“이렇게 많이 뭉쳐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좀 덜 홀리게 되나요?”

“깊이 감상한 것을 홀렸다고 말씀하시면 참 민망하지만, 그냥 보기에 예쁜 정도일 겁니다.”

“그건 다행이기는 한데….”

“아마 공허나 네발 우림에게 찾아갔겠죠.”

“공략된 던전에는 또 왜… 아니, 그런 건 좀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참고하겠습니다.”

지오가 수면 아래를 보았다.

“‘심해의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긴 지오반니 씨의 고향이라고도 했던가요.”

“예, 거기서는 아래가 아니라 머리 위에 뜬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어요.”

“은하수라… 어떤 느낌이려나?”

“바다의 생명이 만들어낸 은하수입니다.”

지오반니가 금빛 바다를 헤집으며 웃었다.

“조만간 그곳으로도 초대할게요.”

“…….”

그 음성에 담긴 애정과 자부심에, 주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대하겠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었다.

* * *

“지오반니의 세상은 어땠지?”

멀리서 금빛 바다를 바라보며 묻는 유성운에, 아리아가 그를 돌아보았다.

“이제 와서 그런 것을 묻나?”

“이제 와서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있잖아.”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군.”

아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참 오랜만인데….”

“고향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지, 본인에 대해 물은 건 아니었다만?”

“닥치고 들어라, 구조체의 관리자. 내가 아는 그 세계는 오직 지오반니뿐이었어.”

“그렇다면 또 이해가 되고.”

이들 인어는 어딘가 맹목적인 면이 있었다.

“어디까지 말해줄 수 있지?”

“그대가 선생님의 비호를 받는 한 어디까지고 말해줄 수 있다.”

“그건 참… 놀라운 애정이네.”

깎아지른 절벽의 해안에 선 지오와 주현을 바라보던 유성운이 이내 물었다.

“그 세상에서 지오반니는 어떤 존재였을까?”

“대충 감을 잡은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도 아리아는 순순히 설명해 주었다.

“그야말로… 세기의 성자였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추잡한 인간들 사이에 현신한 신의 아들이었고, 이웃들에게는 제 삶을 다 바친 훌륭한 친구이자 어른이었으며, 교단에서는 그들의 면을 세워줄 귀중한 천재였어.”

아리아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그럼에도 그렇게 쉽게 죽더군.”

“인간들이 다 그런 법이지. 영원을 기대할 수 없어.”

“그렇기에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면이 있다.”

침대 위로 기어 올라온 벌레를 마주친 양 살의를 느끼고는 했다.

“어디 보자, 처형을 당한 방식도 궁금한가?”

“말해준다면 감사히 듣겠는데.”

“처음은 뭍에서의 고문이었지. 형체를 간신히 유지할 정도의….”

“그다음은?”

“그를 바닷물이 가득 찬 거대한 수조에 빠트렸어.”

아리아는 금빛의 바다가 아닌 유성운을 보고 있었다.

“그러고는 나올 수 없도록 쇠사슬로 구속하고 그 입구를 막아버렸다.”

“왜 그렇게 한 거지?”

“태양의 사제들은 그가 진정 태양의 아들이라면 차가운 수조에서도 살아남을 거라고 말했다.”

“결과는?”

“살았지.”

지오반니는 넉 달이 넘도록 수조 안에서 죽지 않았다.

"그럼에도 꺼내주지 않았고."

그들 중 일부는 지오반니가 진정 태양의 아들이라 믿게 되었고, 일부는 바다의 신성에게 도움을 받은 거라고 우겼다. 어떻게 생각하든 결국 그들은 지오반니의 존재를 몹시도 두려워했다.

"진정 태양의 자식이라면 그를 이토록 가혹하게 대했으니 되돌릴 방법이 없었고, 바다의 자식이라면 인어보다 더한 괴물일 테니... 그가 인간들에게 보복하기 전에 당장 죽여야 한다고 말이야."

문제는 보복뿐만이 아니었다.

"민심도 문제였을 거다."

"종교 집단인데 왜 민심이 나와?"

"각국의 왕보다도 세력이 강한 교단이었으니."

지오반니는 한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던 완벽한 태양의 아들이었다. 그런 그가 사실은 진정 신성의 자식임이 밝혀진다면, 제아무리 태양교라 해도 감당할 수 없을 게 분명했다.

"교단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여론이 분분했다는데 어련했겠어?"

"그래서 태양교는 어떻게 대응을 했지?"

"그즈음 붙잡힌 내 불민한 동생을 이용했다."

공복 속에 고문시킨 그를 지오반니와 함께 수조에 가둔 것이다.

"혐오스러운 장면을 연출해 그 회의감을 잠재우려는 속셈이었을 거야."

하지만 이세르는 견뎠고, 지오반니는 신성의 가호로 끝까지 죽지 않았다. 그것이 일종의 계시처럼 느껴졌던 태양의 사제들은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수조에 약을 풀었다.

"덕분에 식욕에 눈이 먼 내 동생이 지오반니를 잡아먹었고."

"약은 지오반니도 함께 받게 된 거 아닌가? 수조에 푼 거라면...."

"그때도 지오반니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

그제야 아리아가 바다의 수면 위에 앉은 지오를 눈에 담았다.

"그러니 죽은 줄 알고 내 선생님을 뜯어 먹었겠지."

이세르가 말이다.

약에 취했다고 해서 이세르가 당장 제 배를 채우려고 들었던 게 아니다. 하지만 시체처럼 축 늘어진 모습에 최후의 선이 무너지기라도 한 것일까. 결국 이세르는 지오반니를 먹었다.

"...그걸 네 동생도 알고 있나? 애초에 정말 모르고 잡아먹은 건 맞아?"

"글쎄?"

아리아는 그 점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다.

"일을 그렇게 만들고 나니 신의 천벌로부터 멀어진 것 같았는지, 사제들은 남은 지오의 시체를 빼돌려 교단의 운영에 이용했어. 어떤 식으로 이용했으리라 생각하지?"

"...바스람꽃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봤는데 말이야."

"제대로 짚었다."

사랑이 담긴 태양의 손길이 아니면 시들어 버리고 마는 세기의 영약. 태양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지오의 시체는 그 꽃을 길러내는 데 이용되었다.

“그래서 지오를 찾아내는 것에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

“어디서 발견했길래?”

“교황의 거처에서 발견했지.”

“오, 대단하네.”

“그럼에도 태양은 벌을 내리지 않더군.”

심해도 마찬가지였다.

“해서 내가 대신 내리기로 했다.”

그녀를 낳은 심해도, 동생이 모시던 태양도 이 더러운 신앙인들에게 천벌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아리아는 스스로를 심해로 만들어 온 세상을 바다에 잠기도록 만들었다.

“죄를 지은 것을 알아. 괜한 화풀이였다는 것도 알지.”

“하지만 너는 악신도 아닌 몬스터잖아.”

“신성이 고작 화풀이 몇 번 한다고 쉽게 얻어지는 걸 리가 없잖나.”

“지오는 꽤 쉽게 얻지 않던가....”

“선생님과 나를 비교하면 참 부끄러울 뿐이야.”

“들어보니 딱히 그 화풀이를 후회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유성운이 물었다.

“이런 말을 꺼내는 이유가 뭐지?”

“처음에는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

하지만 선생님과 재회하고 나니 그게 죄임을 알았다.

“내가 진 거지.”

후회하지는 않았으나, 그것만으로도 인어들은 지오반니에게 감화되었음을 보여주고 말았다. 제 선생님이 죄라 말씀하시니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

“삶이 천국이었던 적은 내 선생님과의 어린 날뿐이었는데.”

“그래서?”

“...지오는 책임을 지라더군.”

“그럼 용서를 해주겠대?”

“그럴 리가.”

그건 애초에 지오반니의 몫이 아니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냥....”

아리아가 웃었다.

“선택할 때가 왔을 뿐이다.”

이제 어떤 지옥을 걸어갈 것인지.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88)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88)"

4.7 13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89)

189

제189화

지오반니는 바다를 좋아했다.

태양은 따듯하지만 뜨거웠다. 바다는 차갑지만 시원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이 세상은 육지만이 아니라 바다 역시 존재했다. 바다의 바람은 그 흐름이 선명했다.

그러니 인어를 제 마음에 품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아리아."

익숙한 맨발로, 지오가 수면을 거닐었다.

"알 겁니다, 나는 헤엄을 치지 못해요."

"선생님도 참 특이한 인간이야."

첨벙....

인어의 지느러미가 가벼운 물장구를 쳤다.

"그 행성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인간은 정말 드물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가라앉기만 하더군요."

"몸에 힘을 빼야지, 그래야 바다와 이야기할 수 있어."

"난 이미 그대들만으로 만족한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낯간지러운 말을 잘도 하는구나."

아리아가 물었다.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도 괜찮겠어?"

창백하고 가느다란 손이, 지오의 다리를 감쌌다.

"인어가 잡아먹을지도 모르는데."

"아하하...."

지오반니는 그 차가운 손을 맞잡았다.

“그것도 좋군요.”

“…….”

“헤엄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래.”

아리아 역시 그 서늘한 손을 맞잡았다.

“그러자.”

풍덩—.

인어에 이끌려, 사제는 바다에 빠졌다.

* * *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지.”

미지근한 체온을 껴안은 채로 아리아가 말을 이었다.

“해로 지어 만든 듯한 그대가 마치 왕자님처럼 보였어. 태양의 자식 중 그대보다 고귀한 이는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

“나는 내게 없는 것에 참 관심이 많았고, 수면 아래에서도 반짝이는 그 빛이 언제까지고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마 그대를 끌어안고 내 심해의 집까지 내려가고 싶었는지도 몰라.”

“…….”

“지금도… 그렇고.”

이 어두운 밤에도 지오의 백금발은 봄의 햇살처럼 따사로웠다.

아리아는 손을 들어 제 위에 뜬 지오반니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었다. 새벽의 바다라 체온을 빼앗겼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토록 차가웠는지, 보이는 것과 달리 따듯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다.

“…….”

“…선생님.”

아리아는 그 뺨을 쥔 채로 웃고, 울었다. 진주가 흘러내렸다.

“사랑해.”

내가 태어나 가장 먼저 손에 넣고 싶었던 육지의 아이.

나에게 세상을 알려주고, 마음을 알려주고, 일상을 알려주었던 하나뿐인 선생님. 그 모든 차원에서 유일무이한 인간.

“선생님을 사랑해. 세지 못할 시간 동안 그대를 그리워했어. 네가 없으니 온 세상이 징그럽게만 보이더군. 아, 당신은 그렇게나 사랑했던 세상인데….”

“…….”

“나도 같이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 그대가 있을 때는 헤엄치는 것보다도 쉬웠던 일이, 없으니 너무 어려웠어. 왜 태양은 선생님을 구해주지 않았지? 왜 심해는 벌을 내리지 않았지?”

“…아리아.”

“나를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나와 내 동생에게 필요한 용서는 오직 그대의 것뿐이나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용서가 존재하지 않아. 애초부터 그대의 것이 아니었을 거야.”

인어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후회했다.

“후회해.”

그대가 진정 내 품에 돌아올 줄을 알았다면 더 얌전하게 기다릴 걸 그랬다.

“그리고 내 후회는 나에게 죽어간 가엾은 생명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선생님이 바라던 후회가 아니겠지. 하지만 어쩌겠어, 나는 이토록 이기적이고 사악한 괴물인 것을....”

괴물이 죄를 후회하면 어찌 괴물이겠냐는 말이다.

“이래도 내가 인간인가?”

“아닐 이유가 있습니까?”

“.......”

“인간은 얼마든지 이기적이고 사악해질 수 있어요.”

“...맞아.”

아리아가 제 선생을 품에 다시 안았다.

“그대가 가장 잘 알겠지.”

가장 끔찍한 이기심에, 그 사악함에 죽어간 것이 바로 그의 스승이었다. 지오반니가 인간의 추악함을 알지 못한다면 그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냥 조금 차갑고, 헤엄을 잘 치고....”

“울면 진주가 떨어지는 인간이죠.”

“뭐든 선생님의 말이 옳아.”

“그렇구나.”

“우리의 무덤이 그날의 바다였다면 좋았을 텐데....”

아리아는 제가 바다에서 질식해 죽기를 망상했다. 오직 ‘인간’만이 그럴 수 있음에도.

“아무것도 되돌릴 수가 없어.”

죽인 이들을 전부 되살리고, 망가트린 가정을 처음으로 돌리고, 바다에 가뒀던 행성들에게 태양을 돌려준다 한들 그날이 다시 올 수는 없었다.

아리아는 이기심으로써 자책했다.

“나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뿐이야.”

“그게 무엇입니까?”

“악신이 되어 선생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만의 책임을 지고, 언젠가 받아들여지길 기다릴 수도 있지.”

“나만의 책임이라.”

따듯한 음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아리아는, 그날의 어린 학생처럼 물었다.

“…우리를 사랑해?”

“물론입니다.”

지오는 한번 사랑한 것을 저버릴 줄을 몰랐다.

“영원히 사랑하겠죠.”

그 안에서 인어는 답을 찾았다.

“…….”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준비를 마치면.”

품에서 지오를 놓으며, 아리아가 웃었다.

“인간들을 초대할게.”

그렇게 아리아는 심해로 사라졌다.

지오반니에게는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아주 깊게.

* * *

“…??”

주현은 황당해했다.

“그거 선전 포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애쓰는 주현의 모습에 유성운이 허탈하게 웃었다.

“요즘 몬스터들은 선전 포고를 참 로맨틱하게 하네.”

“로맨틱했습니까?”

“그래, 낭만적이고. 새벽의 바다에서 하는 포옹이라….”

“이 선생님의 온기가 그리웠나 봅니다.”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기분이 참 묘하다.”

유성운이 이어 물었다.

“준비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은데?”

“그걸 보잘것없는 초상화인 저에게 묻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네가 인어들에 대해 가장 잘 알잖아.”

“아리아는 뛰어난 의사이자 연구원이죠.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충 얼마일지는 짐작이 안 가나?”

“음… 대략 한 달?”

“어이쿠야.”

찰지게 감탄한 유성운이 되물었다.

“S급 던전의 공격을 준비하는데 한 달밖에 남은 시간이 없다고?”

“사실상 필요한 건 마음의 준비뿐이라 그것보다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지구가 망할 때가 왔나....”

“제가 있으니 망할 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슬슬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

“망하지 않습니다.”

주현이 어이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럼 저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거 아닌가요?”

“왜 그래, 주현 씨. 이게 나의 얼마만의 휴가인지 알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개인의 휴가보다는 지구의 명운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몰찰 일이냐고, 정말.”

유성운이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일단 우리 길드장님께 알리고.”

“가능하시다면... 협회 쪽에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모르니 해안가 쪽은 언질을 두는 게 맞을 거야.”

“어차피 수집상과 협회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른 영원의 상징들도 알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도 그분들이 전부 나서주지는 않을걸. 뭐, 유스티티아 쪽이면 모르겠지만....”

길드 사정을 잘 모르는 지오가 물었다.

“유스티티아가 뭡니까?”

“대한민국 1위 길드의 명칭입니다.”

늘 그렇듯 주현이 설명해 주었다.

“정의의 여신상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해요.”

“협회에서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행정을 감당하고, 우리 수집상에서 자금줄을 맡고 있다면, 유스티티아는 나라의 크고 작은 치안 문제를 담당하고 있지.”

“유스티티아의 길드장은 영원의 상징 중 한 명으로 인명 보호와 범죄 근절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잘한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큼직한 공략도 자주 뛰어요.”

“길드장부터가 솔선수범인 곳이라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나면 손을 써주기는 할 텐데....”

유성운이 목을 쓸었다.

“그쪽은 일반 시민들 보호하느라 공략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을 것 같고.”

유스티티아는 언제나 ‘최후의 보루’라는 느낌이 강했다.

“나라가 완전히 전복될 위기가 아니라면 이쪽에 큰 기대는 못 하겠는데.”

“그래도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든든하지 않나요?”

“확실히 그런 쪽으로는 믿음직스럽기는 해.”

하지만 공략에 참가하길 기대하긴 어려웠다.

“S급 던전이라고 꼭 동급의 헌터가 필요하지는 않아. 얼마든지 물량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한국은 인력으로 성공한 나라라 헌터가 귀하거든.”

“무엇보다 S급이 움직인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분들이 직접 나서면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행정 관리에 큰 신경을 쓰시는 협회장님만 해도… 가능하면 나서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영원의 상징이 나섰던 때는 보통 대재앙의 여파가 심각했을 무렵이니까. 아직도 대재앙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생각해 보면 쉽게 나서진 않을 거야.”

지오가 고개를 기울였다.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나서지 않다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가능성을 내버려 둘 바에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나서는 편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정론이기는 한데….”

잠시 고민하던 유성운이 말을 이었다.

“이렇게도 설명이 되지. 지구에 문제가 생겼다고 일일이 나서기엔 영원의 상징이 많이 바빠. 일종의 이름값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최소한 한국이 한번 들썩여야 하거든.”

“인력을 활용하는 데 부담이 크다는 의미입니까?”

“네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할 수도 있긴 하겠다. 하지만 원래 국가라는 게 대단히 수많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잖아. 높은 위치에 올라서 몸이 무거워졌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경우야.”

“신분의 문제인가요?”

“음… 요약하자면 그렇겠지?”

이건 영원의 상징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몇 있지도 않은 S급 헌터들에게 의지하면 이 행성은 얼마 가지 않아 멸망하게 되어 있어. 지금만 해도 소수의 강자가 베풀어준 자비에 의해 지탱이 되는 세상인데, S급이 일일이 손을 써주면 인간들 버릇 다 망가지는 거야.”

이 부분은 오래전 세계의 S급들끼리 모인 회담에서 정해진 사안이었다. 국가와 차원의 명운이 걸린 일이 아니라면 되도록 S급은 나서지 않기로 말이다.

“나머지 인간들은 최악까지 닿지 않도록 S급 헌터들이 돌봐줄 때 미리미리 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는 거고. 언제 그 사람들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일이잖아.”

“적응할 기회를 주는 거군요.”

“아무리 S급이 유능하다고 해도 그 소수의 사람이 지구의 모든 대소사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 S급이 나서길 기대하긴 어려워.”

이쪽을 예의 주시 하고 있기는 할 테지만 처음부터 손을 써주진 않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길드하고 연합을 하는 편이 좋겠지.”

“교단과는 협업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황을 봐서. 인어들을 공연히 자극하는 수가 있어.”

그에 주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일단 돌아갈까요?”

“휴가도 마음 놓고 올 수가 없네. 나 다음 생에는 꼭 비각성자로 태어날 거야.”

“그 부분이 원한다고 되는 일인지 모르겠네요.”

지오가 끼어들었다.

“도와드릴까요?”

“나 죽으면 부탁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뭘 노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어.”

“이제 여러분은 죽은 이후에도 제 친구입니다.”

“…….”

유성운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우리 방금 뭐 계약 같은 거 한 건가?”

“제가 이렇게 오래 사는데 다음 생에도 저랑 친구 하셔야죠.”

“너 너무 긍정적이라 내가 다 무서울 정도다.”

“과찬이십니다.”

분위기가 경직됨을 느낀 것일까. 그는 지오반니의 얼굴로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농담이었으니 표정 푸세요.”

“그게 어떻게 농담이지?”

“왜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죠?”

“주현 씨, 뭐라고 말 좀 해봐.”

주현이 웃었다.

“다음 생에도 지오 씨랑 친구면 좋죠.”

“아니, 이러다가 다다음 생에도 지오랑 친구일 수가 있다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도 곁을 지켜주는 친구라니 듬직하네요.”

“…그래.”

유성운이 납득했다.

‘이미 포기했군.’

저건 체념의 미소였다.

“농담이었다니까요?”

“어어, 알겠어.”

아무도 지오의 말은 귀담아듣지 않았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89)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89)"

4.7 13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90)

190

제190화

인어는 바다의 아이였다.

바다가 그들의 일부이며, 그들 또한 바다의 일부였다. 그중에서도 아리아와 이세르는 다른 차원의 바다와도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세르는 그 바다를 통해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어딘가 햇살을 닮은, 작고 여린 아이의 흔적이….

“…….”

“어! 은하다!”

“…이세르입니다.”

반갑게 인사하는 차이솔에 이세르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었다.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실습을 하고 있었어, 요!”

“태양교 예비 사제의 실습은 많은 인원이 함께할 텐데 왜 두 사람만 남아 있죠?”

“다 튀었습니다!”

“하아….”

한숨을 푹 내쉬는 모습에 차이솔의 옆에 있던 이루다가 흠칫 떨었다. 졸지에 새끼 인간의 심기까지 맞춰줘야 하는 처지가 된 이세르가 참담한 심정으로 말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동기 예비 사제들이 여러분 둘만 두고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피 냄새도 두 분의 것만 나는 걸 보면 사실상 의도적으로 곤란함을 주고자 한 것이겠군요.”

“말이 너무 어려워.”

“존댓말을 쓸지 반말을 쓸지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두 분이 따돌림 혹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한국에는 왕따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치, 엄청 치사해.”

“모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이세르는 인어의 손을 휘둘러 던전의 바다를 물렸다. 지구와 연결된 바다에서 익숙한 냄새가 나 왔더니 이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자칫하면 큰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슬퍼하셨겠지.'

그건 바라지 않았다.

'이것은 지오반니의 첫 번째 사도가 될지도 모른다.'

어떤 식으로든 지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이세르는 잠잠해진 던전의 해변가를 쭉 둘러보았다. 공간이 상당히 꼬인 차원이었다.

"예비 사제들은 인솔하는 사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번 실습은 우리끼리만 하는 실습이었어."

"그렇다고 해도 한국 태양교의 특성상 지켜보는 인력이 있을 텐데."

"그, 그건... 그런가?"

버벅거리는 차이솔 대신 이루다가 입을 열었다.

"...인솔하지는 않더라도 혹시 모를 큰 사고를 위해 배치된 사제님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 A급 던전 하나를 개발해야 해서 남아 계신 사제님이 얼마 있지 않았어요."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적어 던전 실습에 배치된 사제도 적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그 인간 바글바글하던 태양교에? 하긴 이 바다에는 인간의 냄새가 옅군요. 그리 많은 인간이 있지는 않겠어요."

"교단의 사제 수가 많은 건 맞지만 그중 예비 사제를 돌보는 선생님은 얼마 없어요. 그중에서도 기껏해야 두 분 정도나 오셨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퍼져 있는 예비 사제들 관리하느라 저희까지 생각이 닿지 못하신 것 같아요."

차이솔이 투덜거렸다.

"우리가 너무 잘해서 그래."

"...그런 것도 좀 있겠지."

태양교 기수 전체를 통틀어 손에 꼽히는 재능을 가진 차이솔과 이루다 페어는 이른바 '손이 가지 않는 아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만큼 따라온 인솔 사제도 부상 위험이 더 큰 녀석들 위주로 살피고 있을 것이었다.

이세르는 생각했다.

'야만적이기는.'

어느 차원을 막론하고 종교계는 맹목적이거나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다. 마치 세상 모든 일이 신앙 하나로 해결되리라 믿는 것 같았다. 머저리들이 따로 없었다.

'...그도 아니면 좀 더 고차원적인 무언가가 운명의 틀을 다듬었다든가....'

잠시 의문이 들었지만 이런 건 이세르의 전문이 아니었다. 그는 제가 이곳에 몸소 나선 이유를 재차 떠올렸다.

"만용을 부리는군요. 네가 죽으면 검은망토가 슬퍼할 텐데?"

"아, 형은 잘 지내요?"

"저는 소식통 따위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직접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불쾌한 티를 팍팍 낸 이세르는 처음 나타났을 때와 같이 바다를 통해 사라졌다. 대뜸 나타난 인간형 몬스터에 숨을 죽이고 있던 이루다가 이내 크게 숨을 뱉었다.

"...하아아아...."

"왜 그래? 무서웠어?"

“안 무서우면 제정신이 아니지.”

“나, 나는…? 그럼 나는?”

“가끔 정신이 나간 것 같기도 해.”

“나 미친놈이었어?!”

“조용히 좀 해봐.”

반사적으로 차이솔의 입을 막았던 이루다가 말을 정정했다.

“아, 아니다. 그냥 지금 상황을 설명해.”

“어… 아는 몬스터 친구가 나타나서 위험에 빠진 우리를 도와줬어.”

“너는 그게 정말로 완벽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도 돼!”

“가장 궁금했던 건데.”

이루다가 물었다.

“너 몬스터랑 친해? 조련사야?”

“나는 사제로 각성을 했지?”

“그럼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몬스터들이랑 하하호호 친하게 지내는 걸까?”

“은하는 나 별로 안 좋아하니까 친하지는 않은 것 같아.”

“위험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친근하게 구냐는 거였어.”

“그 정도 대화는 나눌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했지!”

“차이솔의 친화력이 또….”

골치가 아플 정도로 해맑은 사회성이었다. 몬스터가 인간을 살려주기 위해 오다니 말이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응, 뭔데?”

“너 정말 검은망토의 사제가 될 거야?”

“갑자기…?”

“방금 만난 인어가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잖아.”

인어는 분명 ‘네가 죽으면 검은망토가 슬퍼할 거다’라고 말했다.

“너를 자기 신도로 점찍어 둔 게 아니냐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차이솔이 고개를 기울였다.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기는 해!”

“너… 너 검은망토 소환하게 되면 나 꼭 불러. 알겠지?”

“응? 응, 예전에 그러겠다고 했잖아. 날 믿어.”

“못 믿어.”

이루다는 차이솔의 이런 해맑음을 정말 좋아했지만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야기가 달라졌다.

'차이솔이 뒤로 다른 생각을 할 녀석은 아니지만… 얘는 가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서 지켜보는 사람 심장이 철렁할 때가 있어.'

호구의 재능이 강한 차이솔을 이루다가 지켜 주어야만 했다.

"아, 삭신아…."

"삭신이 뭐야?"

"몸에 있는 근육과 뼈마디."

"그걸 왜 불러?"

"온몸이 아프다는 뜻이었어."

"오오…."

"……."

꿋꿋하게 평소와 같은 모습인 차이솔과 달리, 이루다는 울분을 토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 잡것들이 감히.'

나와 차이솔을 두고 튀어?

하다 하다 인간에게 뒤통수를 맞고 몬스터에게 도움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애초에 그 인어가 우리를 왜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차이솔의 정신 나간 친화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무사한 건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라고.'

인간을 도왔다는 점에 불쾌한 기색이 만연했던 몬스터마저도 어이가 없다는 듯 태양교 돌아가는 꼴을 비웃었던 게 뻔히 보인 것이다.

'나 같아도 비웃을 거야.'

태양교가 어디 흔해빠진 사교도 아니고, 이래 봬도 서울을 대표하는 거대한 교단 아닌가. 아무리 A급 던전 때문에 바빠졌다고는 해도 예비 사제를 이딴 식으로 관리하다니.

"……."

아니, 이마저도 정치질의 일환일 수 있었다.

"…개같아…."

"왜 개같은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그런 말 쓰지 마."

"욕하지 말라는 거지? 알겠어. 근데 진짜 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서."

종교계라고 청렴결백하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오히려 맹목적이고도 오만한 신앙을 품은 현대의 사제들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더더욱 정치적인 면모를 가꾸었다.

'어머니에게 분명 경고를 들었었는데도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한심하네.'

종교계에서 권력을 확보할 방법은 두 가지였다. 신성에게 끝내주는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끝내주는 정치질을 해내거나. 그게 아니고서야 발언권을 얻기조차 힘들었다.

'머리 굴릴 줄 아는 게 나뿐만은 아니겠지.'

이도 저도 없이 단순히 재능만 좋은 사제는 심한 경계 속에서 쉽게 말라 죽는 법이었다. 이래저래 미숙한 부분이 많은 예비 사제 시절에는 더했다. 그걸 잘 헤쳐 나갔어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기를 죽이려고 들다니….”

“누가 기죽어?”

“아무래도 동기들이 우리 기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아.”

이루다가 허탈하게 웃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를 노린 거겠지.”

차이솔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는 성격이고, 객관적으로 봐도 협조성이 강했다. 일견 호구의 면모까지 있으니 굳이 견제해서 차이솔과 악감정을 쌓을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루다와 페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와 함께 견제질을 당해버렸다.

“정확히 어떤 수작을 부린 걸까… 사제들을 매수했나? 아니면 단순히 협동해서 선생님들의 시선을 빼앗았을 수도 있어. 우리 페어는 평소에도 손이 가지 않는 학생들이니….”

“요약해 주면 안 될까.”

“이건 나도 요약을 잘 못 하겠네.”

조숙한 면이 강한 이루다라고 해도 아직은 예비 사제에 불과했다. 들은 건 많고 아는 건 많아도 경험은 없었다. 동기들에게 미움받는다는 자각은 있었지만 이건 예상외였다.

그야말로 선을 넘은 것이다.

“…….”

“…일단 치료부터 할래?”

“그러자.”

이루다는 굳이 ‘나와 페어를 맺은 걸 후회해?’라고 물어보지 않았다. 차이솔은 그런 일로 후회할 녀석이 아니었다. 하지만 제 귀한 천연기념물에게 미안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나랑 페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곤란해질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 내가 조금만 더 주변을 잘 살피고 처신했더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일은 지능적이었다. 던전 개발로 교단이 어수선해진 틈을 타 머리 돌아가는 동기 몇 명이 모여 일을 짠 것 같았다. 아니면 누구 한 명이 작정하고 지원을 받았던가.

‘그렇지 않고서야 일이 이렇게까지 될 리가 없지.’

몬스터들에게 큰 부상을 입고 전투 불능이 될 때까지 귀한 예비 사제를 방치할 교단이 아니었다. 최소한 그녀가 아는 태양교는 그랬다. 그럼에도 이렇게 되었다는 건….

아니나 다를까 뒤늦게 둘을 찾아온 사제는 기함을 했다.

“이,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괜찮으신가요?!”

“갑자기 저희 페어를 두고 다른 팀원들이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분명 조치를 취해 두었는데…? 왜 아무런 연락이….”

실습 전 인솔 사제는 ‘우리의 도움 없이 너희만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 실제로 그럴 리가 없었다. 문제가 생기면 사제들에게 연락이 가도록 마법적 조치를 취한 것 같았다.

‘그런데도 일이 이렇게 되었다면 진짜 누가 매수를 당했거나 그만큼 큰돈을 들였다는 거겠지.’

예비 사제 중에는 카네이션 아이처럼 형편이 어려운 아이도 있지만, 이루다처럼 도시에 거주하는 1등급 시민권의 아이

들도 많았다. 헌터나 교단과 연관이 많은 환경에서 자랐을 테니 수작을 부릴 수 있는 영역도 넓을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건 너무했지만.’

아마 이번 일을 벌인 녀석도 이루다가 치명타를 입길 바라고 큰 손해를 감수했을 거다. 그렇다고 해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 인솔 사제 또한 표정을 굳혔다.

“이번 일은 저와 교단의 실책입니다. 보호자분들께 연락을 드리고 사죄와 보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하… 이건 두 형제자매님의 치료를 마친 뒤에 이야기를 나눠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예비 사제들끼리의 실습이었던 만큼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다른 아이들을 본다고 정작 귀한 인재들을… 아니요, 죄송합니다. 바로 치료실로 이동하죠.”

애들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헛소리를 계속 지껄이긴 싫었는지 인솔 사제가 급하게 둘을 치료실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이루다는 보았다.

“…….”

“…….”

동기 중 한 명이 매우 불만스러운 얼굴로 둘을 노려보는 걸 말이다.

‘…저 새끼가?’

이루다는 복수를 다짐했다.

* * *

제주도에서 돌아온 이후의 복도 회의.

“…일이 그렇게까지 되기도 합니까?”

주현의 말에 유성운이 어색하게 웃었다.

“종교계의 정치질은 꽤 치열한 편이지.”

“그래도 예비 사제들의 일일 텐데요.”

“어릴 때일수록 어수룩한 틈을 노리는 사람은 많아지니까.”

사제들 간의 눈치 싸움은 언제나 있었던 일이지만, 그걸 감안하고도 이번 일은 꽤 컸다. A급 던전 개발로 정신이 없었던 강서담은 뒤늦게 상황을 접하고 유성운에게 연락을 준 것이었다.

그는 지오를 보며 말했다.

“강서담 사제님이 너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 이번 일의 당사자들에게도 그렇고, 자기가 관리하는 학급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 쓰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무엇보다 차이솔이 검은망토의 사제가 되길 원하고, 검은망토 역시 차이솔을 귀엽게 보는 상황이었다. 신성의 화를 사지 않으려면 미리 납작 엎드리는 건 현명한 판단이었다.

“벌은 달게 받겠다는데.”

“제가 왜 벌을 내립니까?”

“그렇게 전해둘게.”

그쯤에서 주현이 한 번 더 물었다.

“아까도 물었지만, 보통 그렇게까지… 되나요?”

“응?”

“예비 사제들의 최소한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누군가가 망가트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인솔자가 없는 실습이었다지만 후방에서 지켜보는 인력이 적지 않았을 텐데, 그 정도라면 아이 개인의 수작이라기보다는 어른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 같아서….”

“아하, 그런 부분.”

“단지 동기가 미워서 일을 벌였다기엔 사건이 크잖아요.”

“그렇긴 한데….”

유성운이 목을 쓸었다.

“이 세상은 원래 그렇잖아?”

한 톨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타인을 짓밟으려 한다. 그렇게 악착같고 비열하게 살아야만 내 것을 지킬 수 있고, 또 그래야 현명한 줄 아는 세상이기 때문이었다.

“새삼스럽게 뭘.”

“…하긴 그 정치질에 나가떨어진 제가 할 말은 아니었네요.”

“하지만 나이대치고 상당히 과감한 수단이었던 건 맞지.”

“뭔가 저희는 모르는 이야기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의 모든 음모를 전부 알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결국 음모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계략이라고 해도 되고.”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다른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누가? 아, 이루다라는 예비 사제?”

“예, 저도 어릴 적에 비슷한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사제가 가지는 맹목은 지오반니 역시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단순 부상 정도가 아니라 내장이 타는 독을 마신 적도 있고, 벼랑에서 떠밀리거나 사악한 악마라고 모함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들이 그런 짓을 했던 이유는 다양했다. 잘난 척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기를 죽여 온순하게 만든 뒤 부려먹으려고. 필연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지오반니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

“이번 경우도 같은 맥락이 있었겠죠.”

“신을 모신다는 사람들이 참….”

“내부적인 소동이었을 때도 있었고, 외부와의 손을 잡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떨지 궁금하네요.”

“뭔가 다른 커다란 음모가 있었다거나?”

“글쎄요. 커다란 음모라기보다는….”

지오가 고개를 기울였다.

“투정이었을지도.”

“뭔 놈의 투정이 이렇게 살벌해?”

“그러게나 말입니다.”

* * *

연구소의 붉은 보석은 또 한 번 시무룩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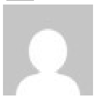
“산칼루트 님...!”

“■....”

집에 가고 싶은데, 정말 쉽지가 않았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90)"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91)

191

제191화

고통과 축복의 신인 산칼루트는 지구에 입구가 열렸을 때 토벌을 당한 전형적인 악신이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성의 토벌이란 봉인을 뜻했다. 아무리 어수룩한 신이라 해도 신성은 신성. 동등한 격을 가졌어도 서로를 해하는 것이 어려운 신성인데 필멸자는 오죽하겠는가.

그 결과 산칼루트는 지구의 한 연구소에 갇히게 되었다.

“■....”

그것에게는 악의가 없었다.

인간들의 손에 태어난 사악한 신성은 왜 지구인들이 자신을 가둬뒀는지 이해했으나, 제 방식이 틀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산칼루트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순수한 욕구에 연구소를 조금씩 물들였다.

“아, 산칼루트 님....”

“저희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당신의 구원을 바랍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몰려 있던 인간들은 쉽게 그의 구원을 받아들였다.

“■....”

가엾게도.

산칼루트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익숙한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안정감이 있었다. 또한 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자신의 자식들을 키워냈다.

연구소는 점차 산칼루트의 색으로 물들어 갔다. 그 과정은 대단히 조용했고, 또 은밀했다.

“ ”

산칼루트는 이 연구소의 주인의 주인의 주인이 모든 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제지는 들어오지 않았다. 산칼루트는 그것을 허락으로 알아들었다.

그는 결국 연구소 하나를 제 품에 들이는 데 성공했다. 산칼루트는 자식들에게 꼬박꼬박 먹이를 받아먹으며 주변을 훑었

다. 하지만 그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교주의 싹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

그리고 아직 그것이 연구소를 벗어난 곳에는 손을 쓰지 못할 무렵, ‘주현’이라고 불리는 인간을 찾아냈다. 그 아이의 그릇은 대단히 넓고 아늑했다. 저 손에 들리고 싶었다.

산칼루트는 어떻게 해야 인간이 자신을 쉽게 받아들이는지 알았다.

“예, 그렇군요.”

“■....”

“그 사람을... 예, 이해했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릇이 넓은 인간의 시야를 좁히려면 종의 한계를 보여주어야 했다. 가장 선한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실망했을 때 그들은 신앙을 부드럽게 받아들인다. 산칼루트는 그렇게 학습했다.

‘주현’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

“......?”

하지만 실패했다.

그건 너무 갑작스러웠다. 너무 커다란 것이 ‘주현’을 가로챘다.

산칼루트는 좋은 새싹이 멀어지는 것을 슬퍼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신성은 그보다 더 크고 찬란한 신성에게 몸을 숙였다.

아까운 그릇을 빼앗긴 산칼루트는 조금 더 시야를 넓게 가졌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그럴싸한 보석을 찾아내기가 이렇게 어려우니, 처음부터 금광에서 보석을 캐기로 한 것이다.

“■....”

다른 신성들의 시선을 피해 그들 시야의 싹을 노리는 건 대단히 어려웠지만, 가장 어수선한 곳에서 산칼루트는 아주 좋은 새싹을 보았다. ‘차이솔’과 ‘이루다’라는 이름의 그릇이었다.

“■.”

이미 하나는 다른 신성의 품 안에 들었으니, 산칼루트는 ‘차이솔’이라는 것을 가지기로 했다. 이제 그것을 제외하면 산칼루트를 무사히 담을 수 있는 교주의 싹이 이 땅덩어리에는 없었다.

그릇이 거대하고 나이도 어려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했다. 산칼루트는 또 빼앗기기 전에 손을 뻗었다. 연구소의 수족 중 태양의 품에 자식이 있는 자를 골라냈다. 준비물을 마쳤다.

“■....”

“아, 이것은....”

“■....”

“감사합니다, 산칼루트 님! 이것이면 제 아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

“태양의 품에 당신의 아이를 키워 내겠어요, 믿어 주십시오!”

가장 선한 인간을 인간에게 실망하게 만든다고 했을 때, 효과가 좋은 건 그것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를 같은 인간들의 손에 고통받게 하는 것이었다. 저들은 자신의 고통엔 무디기 때문이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친구도 가족도 많은 아이다. 하지만 태양의 품에 갇혀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이루다’라는 다른 신성의 수족이었다. 산칼루트는 그것을 노렸다.

“ ”

이미 그런 배경은 만들어져 있었다.

귀한 새싹은 썩은 새싹으로부터 거부 받는 법. 산칼루트는 수족의 자식에게 속삭였고, 그의 속삭임을 들은 어린싹은 진즉 품은 분노와 질투를 고통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결국 ‘차이솔’과 ‘이루다’를 궁지에 모는 것에 성공했으나....

“■”

아니, 이런.

“■¿”

설마하니 인간을 증오하는 하늘색이 인간 아이를 도울 줄이야.

“...■....”

산칼루트는 시무룩해졌다. 운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

그것은 거대한 운명을 느꼈다. 하긴 이 좁은 땅에 머무르는 신성은 많고, 탐나는 그릇은 적으니, 그런 그릇들을 품는 경쟁이 심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았던 것 같고.

“ ”

이대로 물러서면 내가 대체 언제쯤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

“ ”

작은 ‘이루다’는 복수의 마음을 품었고, 제 수족의 자식은 여전히 질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릇의 여린 마음을 깨트리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었다.

무엇보다 ‘차이솔’의 불신은 이미 시작되었다.

산칼루트는 그 입을 열어 속삭였다.

* * *

이루다가 크게 다쳤다.

“.......”

차이솔은 의식을 잃은 제 친구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루다야....”

“.......”

“이루다.”

조금 화가 났다.

“나 빼고 혼자 아프면 어떻게 해.”

교단에서 맺어준 파트너는 운명 공동체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슬퍼도 참을 만했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차이솔은 이루다가 누운 침대에 기대어 손가락을 꼬물거렸다. 굳은살이 잔뜩 박인 이루다의 손을 콕콕 건드리다가 살짝 잡았다.

“…….”

상처가 가득했다.

“이러면 나 슬픈데.”

지난번 개별 실습 사건의 경위를 알아낸 이루다가 주동자와 한판 벌였다고 했다. 그것도 또 다른 실습 던전 안에서. 화가 난 그들은 함께 싸웠지만 의식을 잃은 건 이루다뿐이었다.

왜냐하면 그 주동자가 치사하게 다른 친구들과 협동했기 때문이었다. 자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무시무시한 도구의 힘을 빌렸기 때문이었다. 차이솔은 그게 정말 밉다고 생각했다.

‘나한테는 그렇게 잘 웃더니 루다한테만 못살게 굴어.’

차이솔도 알 건 알았다. 그는 만만하고 루다는 그렇지 않아 보이니 어려운 쪽 먼저 공격한 거다. 제가 협조하지 않았던 게 루다 때문이라고 생각했나 보지.

‘멍청하네.’

그냥 그 애가 싫어서 손을 잡지 않았던 것뿐이었다.

“…….”

다들 조금씩 미웠다.

이루다는 조금만 더 냉정해졌으면 좋았을 것이다. 주동자는 애초부터 탐욕스럽게 굴지 않았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어른들은 예비 사제들에게 더 신경을 써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칠 일도 없었을 거야.’

아니, 내가 더 나은 파트너였다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몰랐다.

“…어쩌지….”

이 하얗고 거대한 집이 싫어지기 시작했다.

‘형 보고 싶어. 누나도….’

저를 가장 사랑해 주던 가족들이 떠올랐다. 치사한 일들이 잔뜩 일어나는 이 집도 많은 애정을 선물해 주던 이루다 덕분에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버거웠다. 답답하고 서러웠다.

‘원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오고, 장마철에는 비가 새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는 없어도 가족들과 둘러앉아 떠들썩하게 먹던 식사가 그리웠다. 마을 친구들도 보고 싶었다.

“…왜, 다들….”

차이솔이 침대에 얼굴을 묻고 웅얼거렸다.

“…미워하지 못해서 안달인 걸까.”

무서웠다.

‘여기 무서워, 누나.’

사람들이 다 너무 치사하게 굴었다.

마을 사람들끼리는 다른 배에서 태어났어도 같은 가족이라고 했다. 작물이나 음식이 남으면 서로에게 나눠주고, 공터에서 놀이가 어설픈 아이가 끼어도 마냥 좋아서 웃었다. 하늘이 훤히 보이는 마을이었다.

하지만 여긴 아니었다. 건물은 너무 커서 하늘이 안 보이고, 분명 친구도 이웃도 있는데 서로를 보지 않고, 같이 노는 것조차 어설퍼서는 ‘자격’이 없다며 따돌리기 일쑤였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지?’

마을 사람들은 뭉치기에 바빴는데, 이곳은 헐뜯고 물어뜯기에 바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처럼 굴었다.

어쩌면 실제로 그게 맞을지도 몰랐다. 그러니 이루다가 이렇게 다친 것이다.

“…루다야….”

울적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집이 그리웠다.

“집이 더 좋았어. 여기는 너무 무섭고….”

“맞아.”

“…….”

“무섭지?”

차이솔이 침대에서 얼굴을 떼, 눈을 감고 있어야 할 이루다를 보았다.

어째서지?

“이해해.”

이상했다.

제 친구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그를 위로했다. 손을 맞잡아 온다.

“나도 집에 가고 싶어.”

“…집에?”

“응, 외딴곳에 갇혀 있는 건 무서운 일이지.”

“맞아.”

“내가 나가게 해줄까?”

“…….”

차이솔이 입을 다물자 ‘이루다’가 웃었다.

“너 생각보다… 의심이 많네.”

“너 누구야?”

“네 친구가 되고 싶어.”

“친구?”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만….”

평소 ‘세상에는 사기꾼이 많으므로 이상하게 말을 잘하는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오면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의지해라’라던 형 누나의 교육을 받으며 커온 차이솔이 품에서 낙서한 종이를 꺼냈다.

“일단 보호자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

“…응?”

“너 말을 너무 잘해서 수상해.”

차이솔이 꺼낸 종이는, 일전에 검은망토를 그려둔 것이었다.

“지오 형 살려줘요—!!”

그렇게 차이솔과 이루다는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 * *

“너무해!!”

이루다의 몸을 빌린 산칼루트의 조각이 울먹였다.

“말을 걸었던 건 난데 왜 다른 오빠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너 말을 너무 잘해서 수상하단 말이야!”

“아직 해야 할 말의 반의반의 반도 못 꺼냈어, 네가 다른 신성 불러와서!!”

“그럼 내가 잘한 거지, 네 반의반의 반에 홀리기 전에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다른 어른을 불러오냐고…!!”

순식간에 떠들썩해진 집에 인어 이세르가 씁쓸하게 웃었다.

“선생님, 죄다 내쫓아도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지오반니는 특유의 쾌활한 미소를 지으며 두 어린이에게 다가갔다.

“차이솔 학생은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얘가 자꾸 저 꼬셔요!”

“세상에.”

가까이 다가온 지오에 산칼루트는 주춤거렸다.

“…저, 저번에… 저번에 그…!”

“예전에 주현 씨를 꼬시려고 했던 보석이군요.”

“왜 자꾸 내가 선택하는 그릇마다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챈 게 아닙니다.”

지오반니는 당당하게 선언했다.

“훌륭한 신성이라면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모여드는 법.”

“그, 그런…!”

“벌도 꿀이 많은 꽃으로 모이죠. 요약하자면 제가 당신보다 더 잘난 탓이라는 겁니다.”

“나도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이런,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랍니다. 꽃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피어난들 선택하는 건 결국 날아온 벌의 재량이 아니겠습니까?”

“으윽…!!”

두 신성의 대화에 소파에 앉아 차를 음미하던 주현이 생각했다.

‘자기를 꽃에 비유하고 있어.’

굉장한 자신감이었다.

‘과연 이것이 신성들의 대화인가.’

전면전을 벌이기 전 인어와 대화를 나누러 왔던 주현은 묘한 허탈감을 느꼈다. 일종의 체념이라고 해도 좋았다. 주현은 특유의 성실한 미소를 지으며 이세르를 바라보았다.

“한 잔 더 드시겠습니까?”

“예, 이 차는 처음 마셔보는군요.”

“지오 씨가 공략했던 던전의 도움을 받아 구한 꽃이라고 하던데요.”

“선선한 향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훈훈한 대화에 지오가 차이솔을 불렀다.

“차이솔 학생, 저분들에게 가 있겠습니까?”

“형은요?”

“이 불청객과 대화를 나눠 봐야겠습니다.”

“위험하지는 않아요?”

“신성과의 대화는 오랜만이라 설레네요.”

“와, 또 누구랑 이야기해 봤어요?”

“그건 저기서 함께 차를 마시고 계시면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손님이 있는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기특하기도 하지.”

차이솔을 믿음직한 주현의 곁으로 보낸 지오가 산칼루트를 보았다.

“우리는 우리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죠.”

“호, 혼낼 거예요?”

“저희는 동등한 신성이니 혼낸다는 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지오는 이루다와 함께 위층으로 사라졌고.

“어라.”

“이루다 학생은 깨어나질 않네요.”

“원래 자고 있기는 했어요.”

“그렇습니까?”

곧 처음 상태 그대로의 이루다를 안은 채로 돌아왔다.

차이솔이 순수한 의문을 담아 물었다.

“퇴마?”

“그보다는 대화를 통한 제령에 가까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에 주현은 생각했다.

‘이곳에서는 산칼루트만 한 악신도 잡귀 취급을 받는군.’

현실감이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92)

192

제192화

“원래 신성은 좀 유치한 편인가요?”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집에서 주현을 기다리고 있던 유성운이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오늘 초상화에서 겪은 일이 많았나 봐?”

이상한 곳에서 대담한 면이 있는 주현은 오늘 초상화에 방문했다. 곧 터질 사건의 주동자임이 확실한 아리아와 달리 동생인 이세르의 생각을 물어보기 위함이었다.

“왜? 지오가 또 뭘 했길래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산칼루트가 지오 씨의 초상화에 방문했습니다.”

“오, 나 그 이름 기억하고 있는데.”

유성운이 정색했다.

“악신이 갑자기 왜 나와?”

“그러게요, 연구소에 갇혀 있어야 할 신성이 대뜸 등장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걸 그냥 ‘많이 놀랐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게 맞나? 주현 씨랑 얽힌 일이 많은 악신이잖아.”

“좀 더 격하게 반응해야 맞기는 할 텐데, 글쎄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하지….”

입을 우물거리던 주현이 곧 대답을 내놓았다.

“현실감이 없어서.”

“아, 그런 거라면 이해가 가네.”

무슨 말인지 유성운은 금방 납득했다.

“아직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구나.”

유성운은 주현의 앞에 따듯한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다.

“일단 이거 마시면서 뇌를 깨워.”

“지금은 좀 멍한 기분인데, 정신이 들면 제가 어떤 난리를 피우게 될까요.”

“걱정 마, 나도 놀랐어.”

주현을 다독인 유성운이 물었다.

“복수심 같은 게 드나?”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봤지만….”

곰곰이 고민하던 주현이 이내 고개를 저었다.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 외로 냉정하네.”

“저도 의외라고 생각 중입니다.”

“일종의 자연재해라고 판단한 건가?”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당시의 상황이 너무 유치해서 화낼 기운조차 나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확실하진 않았다. 지금 그의 상태를 표현한다면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 정도가 어울릴 것이다.

“잘 자고 있는데 따귀를 얻어맞은 기분이라….”

“원망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한낱 인간의 원망 따위는 악신에게 괜찮은 간식거리일 뿐이라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 가족과 친구들을 해친 신성으로 파악되는 존재니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지.”

지오는 명확하게 말해준 적이 없지만, 주현도 유성운도 이전의 비극이 산칼루트의 모략일 거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다.

주현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지오 씨 덕분에 더 냉정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는 이미 그때의 일을 제대로 묻고 지금에 왔다.

“그 갑작스러운 만남에도 지오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을 해줘서 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화의 주제도 제가 아니었고, 그래서….”

“그래, 애초에 그 산칼루트라는 악신은 왜 지오의 초상화에 오게 된 거지? 지오와 승부라도 벌여보려던 속셈이었나? 인어의 일도 있는데 골치 아픈걸.”

큐레이터로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 묻자, 주현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그, 본인 의사로 방문했다기보다는….”

“설마 끌려왔다거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랬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아무리 약하고 어리석은 악신이라 해도 신성을 품은 이상 수많은 기적을 부릴 수 있다. 한 행성의 숭배를 받던 산칼루트 정도면 쉬운 상대는 아닐 텐데, 이해가 잘되지 않았다.

주현이 그에 물었다.

“차이솔 학생을 기억하시나요?”

“지오가 꽤 아끼는 아이지.”

“그 아이에게 수작을 부리다가 지오 씨에게 혼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말해도 이해가 잘 안되네.”

“이루다라는 아이의 몸에 빙의되어 끌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유성운이 상황을 대략 짐작했다.

“...차이솔에게 수작을 부리기 위해 그 파트너인 이루다의 몸에 빙의해 일을 꾀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차이솔과 이루다의 몸이 지오의 초상화로 끌려와 산칼루트의 수작이 무산되었다는 뜻인가?”

“잘 이해하셨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또 해괴한 사건이 벌어질 뻔했나 본데.”

“저한테 있었던 일의 연장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확실히 그렇겠어.”

근원의 존재가 벌이는 일에 익숙한 유성운은 산칼루트의 수작을 파악했다.

“아무래도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모양이네.”

“지금은 봉인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역시....”

“연구소의 봉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산칼루트가 태양교의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뻗을 수 있을 리가 없겠죠.”

“이건 태양교에서 정식으로 협회 연구소에 항의를 넣어야겠네.”

“지오 씨와 연관된 일이니 제가 따로 연락을 넣어 보겠습니다. 강서담 사제님과는 지난번에 안면을 텄으니 제 연락을 무시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사제치고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니 잘 대응해 줄 거야.”

못 보고 지나쳤더라면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사전에 지오가 막아준 이상 인간들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 적당한 사후 처리만 하면 나머지는 문제없을 것이었다.

유성운은 주현의 안색을 살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건 맞고?”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생각이 정리되면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

그는 능숙하게 화제를 전환했다.

“이세르 쪽은 어떤 반응이었지? 만나보기는 했어?”

“네. 지오 씨가 불러서인지, 아니면 따로 흥미가 있었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생각보다 순순히 제 요청에 응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라던가?”

“아리아 씨가 하는 일에 동의한다더라고요.”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유성운이 어색하게 웃었다.

“무사히 대화하고 와서 다행이네.”

“지오 씨가 있는 이상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 이상으로 협조적인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주현 씨가 너무 용감해서 걱정했다고.”

“불안하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참 이상한 곳에서 겁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도 의견을 들어보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물론 인어들이 벌일 전쟁의 주체는 결코 제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안면은 있는 사이잖아요.”

아리아는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지만 이세르는 아니었다. 주현은 그걸 걱정했고, 이세르는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말해주었다. 주현은 그것으로 만족했다.

“비각성자인 제가 할 걱정이 아닌 건 압니다.”

“덕분에 서로의 입장을 확고히 할 수 있었으니 결과적으로 나쁜 일은 아니지.”

유성운이 목을 쓸었다.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아, 주현 씨는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많지 않잖아.”

“앞으로 주의할게요.”

“너무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걱정해 주신 거 압니다.”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야….”

말끝을 흐린 유성운이 커피를 홀짝였다.

“…그 외의 정보는?”

“한 달 정도 뒤에 일을 벌이게 될 것 같다던데요.”

“거짓말일 가능성은 없으려나? 아무래도 지오의 앞에서 한 말이니까.”

“지오 씨도 별말은 없으셨으니 진심인 것 같습니다.”

“희한한 방식이네.”

이런 걸 폭풍의 핵이라고 말하는 거겠지.

‘절대 그렇지 않은데, 평화로워.’

정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었다.

* * *

이세르도 바다로 돌아가고, 초상화에 남은 건 차이솔과 잠든 이루다뿐이었다.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까?”

“혀어엉….”

“안 되었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나 진짜 너무 서러워요.”

“여전히 훌륭한 어휘력이군요.”

어린 나이임에도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능숙하게 표현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다.

"무엇이 그렇게 서러웠습니까?"

"사람들이 매정해요."

"요즘 세상은 저도 참 무섭더군요."

"형도 그랬어요?"

"물론입니다."

차이솔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 서지오는 나름대로 치안 유지가 되던 대재앙 이전을 기억하는 구시대 현대인이니 말이다.

"예전의 지구는 지금처럼 대놓고 흉흉하지는 않았죠."

"예전의 지구?"

"대재앙 이전의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를 어떻게 알아요? 엄청 오래된 일 아닌가?"

"그렇게까지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100년도 안 된 일이지 않은가.

"차이솔 학생은 그래서 서러웠던 겁니까? 사람들이 매정해서?"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 마을은 안 그랬는데, 도시 사람들 냉정해...."

"그 부분에서도 제가 공감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심 좋은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지내다 서울로 상경한 적이 있었던 지오도 차이솔의 심정을 이해했다. 물론 그때는 지금만큼 민심이 흉악하진 않았겠지만, 대충 비슷한 느낌이긴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졌나요?"

지오의 물음에 차이솔이 입술을 우물거렸다.

"...조금요."

"서로를 너무나 미워하는 게 보기 싫은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느 차원을 돌아보아도 인간은 서로를 미워합니다."

"...그런 건 싫은데...."

"차이솔 학생은 나를 닮았어요."

사고방식이 독특했다.

"쉽게 미워하질 못하니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그렇게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하다가 결국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형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 어떤 지오의 경우에서도 사람들은 그를 친근하게 여기지 못했다. 제멋대로 우상화하거나 공포의 대상으로 삼아버린 것이다. 지오는 차마 그것을 무시하고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걸 그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차이솔 학생은 나와 그 부분이 다릅니다.”

차이솔은 친화력이 참 좋았다.

“붙임성이 좋지요.”

“하지만 이렇게 살다가 너무 멀어져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도 마을로 도망쳐 버리고 싶은데….”

“도망보다는 휴식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차이솔 학생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태양교의 가족들을 더 좋아합니다.”

“형은 사람들을 미워해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사고가 잘되지 않을뿐더러.

“나는 그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뭘 이해하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사악하고 비열해졌는지, 왜 발악하는지. 왜 울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이해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불쌍해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했군요.”

지오는 사람들을 동정했다.

“가엾은 이들이죠.”

한평생 번민과 고뇌에 시달리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자들이다.

“차이솔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친 건 나랑 루다였는데….”

“이런,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어본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다정한 답변입니다.”

차이솔은 말과 달리 도망과 회피보다는 발전을 택했다.

“화를 내고 싶습니까?”

“조금은 그래요.”

“이 일의 주범이 죽었으면 합니까?”

“그, 그런 건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길 바랍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반성하고 회개하길 원하는 거군요.”

“…미안하다고 해줄까요?”

“많은 선택지가 있죠.”

매몰되지 않은 이상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대는 단지 운명에 순응하며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길 기다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곁에서 도와주거나 혼을 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루다도, 다른 친구들도....”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일을 더 망쳐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또 다른 길이 보일 겁니다.”

“내가 모르는 길을 가는 게 무서워요.”

머뭇거리던 차이솔이 손을 뻗었다.

“도와주면 안 돼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안아주세요.”

“어렵지 않죠.”

지오반니는 작은 사제를 부드럽게 안아주었고, 차이솔은 그제야 평소와 같이 웃었다.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잘된 일입니다.”

그에게서 떨어진 차이솔이 물었다.

“형의 사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나의 친구가 되면 됩니다.”

“그럼 나랑 친구 해요.”

“기쁜 날이군요....”

지오반니가 차이솔의 이마를 엄지로 가볍게 쓸었다.

“그대의 영혼은, 언제나 온기 속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 이마에, 따듯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 * *

“내가 해냈어!”

“...뭐, 뭐야.”

“루다야, 어디 아픈 곳 없지?”

“뭔데, 차이솔 너 뭔데.”

“나 이제 힐러야!”

“너 뭐냐고.”

교단의 보건실에서 다시 깨어난 이루다가 덜덜 떨며 차이솔의 어깨를 붙잡았다.

“왜 너한테서... 신성의 무게가 느껴지지?”

“검은망토랑 친구 하기로 했어!”

“일 치기 전에 나랑 상의하라고 했잖아...!!”

기절한 사이 이 천연기념물이 대체 무슨 사고를 친 것일까.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92)"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93)

193

제193화

차이솔의 신성 계약은 태양교의 장로들을 술렁이게 했다.

“검은망토가 신성이었단 말입니까?”

“아니, 하지만 협회에서는….”

“하긴 그치들이 믿을 수 있는 작자들은 아니지.”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몬스터로 둔갑한 신성의 유희는 이미 몇 번이고 보고되어 왔다. 게다가 차이솔이 직접 신성과의 연결선을 보여준 이상 ‘검은망토는 신성이다’라는 명제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의문은 불거져만 갔다.

“그럼 대체 검은망토의 정체는 뭡니까?”

“그 차이솔이라는 예비 사제를 조금 더 조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제 막 신성과 계약을 한 아이입니다, 자칫하면 연결이 꼬이거나 끊겨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두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만약 검은망토가 사악한 신성이라면 미리 연결을 끊는 것이 옳습니다.”

“그조차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잖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제들은 혼란스러워는 하되, 그렇게까지 걱정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차이솔 학생의 포지션은 힐러가 되었고….”

“진정 사악한 신성이었다면 과연 회복과 재생의 힘을 주었겠습니까?”

“악신들은 섭리를 혐오해요, 차이솔과 계약한 신성이 악할 리가 없습니다.”

“몇 번이고 검사해 봤지만 위험한 기운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힐러가 왜 귀족 대접을 받겠는가. 그만큼 수가 적고 배움이 어렵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냔 것이다. 그들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회복과 재생의 힘은 섭리의 기적으로부터 왔다.

“반역자는 치료의 힘을 줄 수 없습니다.”

“반역자라니, 아무리 사악한 신성 대상이라지만 경솔한 발언은 자중해 주세요.”

“그냥 맥락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 어떤 악신이 인간의 치료에 도움을 주겠는가?

“혹시 악신의 속임수인가 살펴보았지만 차이솔 학생이 치유한 이루다 학생에게는 그 어떤 결함도 없었습니다. 정신적인 혼란도 없고, 신체적인 문제도 없으니, 그야말로 온전한 회복이지 않습니까?”

검은망토가 빌려준 힘에 악의가 없다고 봐야 옳았다.

“그리고 사악한 신성은 자신의 악의를 어떻게든 선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나 살폈는데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것은 검은망토라는 존재의 선의를 증명한 셈입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으나 아직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을 더 들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안전하겠죠. 당분간 차이솔 학생과 이루다 학생은 실습에서 제외합시다.”

“너무 교단 안에만 가둬두면 차이솔과 계약한 신성이 불쾌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만에 하나라도 검은망토가 사악한 신성이라면 그 뒷감당을 어찌할 것입니까? 악신에게 홀린 사제의 끝은 다들 알고 있겠지요?”

“이봐요, 강 사제님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들의 혼란은 점차 안정되어 갔다.

“차이솔 학생을 품은 신성이 정말 검은망토이고, 그 신비가 사악하지 않다는 것만 파악된다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불안에 떨 필요가 없죠.”

“그건 그렇습니다.”

예비 사제는 말 그대로 예비일 뿐, 태양의 정식 사제가 아니었다. 아직 계약을 맺지 않은 예비 사제들은 얼마든지 다른 신성을 모실 수 있었다. 그게 현 종교계의 관습이었다.

“이건 제가 따로 들은 이야기인데, 차이솔 군에게서 태양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태양이요? 무언가 잘못 파악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한 명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듯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단순히 열기와 관련된 신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보니 검은망토의 진명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과연 차이솔 학생이 어떤 이름의 신성과 계약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미 한국의 토착 몬스터나 다름없이 자리 잡았던 검은망토다. 그는 악을 부정하고 선을 긍정하며, 기특한 인간에게 선물을 하사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것이 악신일 거라 생각하는 사제의 수는 점차 줄어들었다.

결국 사제들은 차이솔을 살살 구슬려 그 일말의 정체를 알아냈다.

“어, 그...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불명확한 단서라도 얻고 싶어서 그럽니다. 혹여 위험한 신성일 수도 있으니....”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태양... 비슷한 거라고 알아요.”

“...태양, 비슷한 것입니까?”

“저한테 햇살을 줬다고 했어요.”

“아하, 그렇군요.”

그 소식을 들은 사제들은 매우 기뻐했다.

“비록 저희가 모시는 여신은 아니라지만 또 다른 태양이라니, 가족이 늘어나는 셈이 아닙니까?”

“아니, 하지만 검은망토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그래도 태양은 아닌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검은색 망토를 뒤집어쓴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미심쩍은 부분은 있지만 태양과 큰 관련이 있는 존재임은 확실합니다. 신성의 위압감을 잘 느끼기로 유명한 이루다 양조차 온기에 대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확실히 사악한 신성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쯤에서 다른 의문을 품은 사제도 있었다.

“차이솔 학생이 계약 직전 ‘지오’라는 사람을 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오? 서지오 헌터를 말하는 건가요?”

“같은 보건실에 있던 예비 사제 중 한 명이 잠결에 들었다는데, 확실하지는 않다고….”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차이솔은 순순히 긍정했다.

“지오 형을 불렀어요.”

“서지오 헌터 말인가요?”

“네, 도와달라고….”

협회 연구소에 봉인된 악신 중 하나인 산칼루트가 어수선한 틈을 타 태양교에 손을 뻗었던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었다. 그에 관한 조치가 한창인 태양교의 사제는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다.

“크흠,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 이미 받았는데요?”

“저희의 관리 미흡으로 사악한 신성이 차이솔 학생에게 손을 뻗었으니까요.”

“지오 형이 도와줬으니까 괜찮아요!”

“…그 악신을 떨쳐내도록 도와준 건 검은망토가 아니었습니까?”

“어, 맞기는 한데….”

생각 정리가 잘 안되는 것인지, 고민하던 차이솔이 어렵게 대답했다.

“둘 다 도와줬어요.”

“그 말은 즉….”

사제는 결론을 내렸다.

“…서지오 헌터가 품은 힘과 차이솔 학생의 것이 같다는 의미군요.”

태양교 사제들은 그렇게 놀라운 사실 아닌 사실을 깨달았다.

“허, 참, 서지오 헌터가 모시던 신성이 검은망토였다니….”

“그동안 왜 신성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몬스터로 취급을 받고 있는 신성을 모신다 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몬스터로 활동하는 게 검은망토의 유희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성 스스로가 원치 않아 밝히지 않고 있었던 것인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지오 헌터의 포지션도 힐러이지 않았던가요?”

“이제야 납득이 되는 기분입니다.”

사제들은 저마다 고개를 주억였다.

“이전 던전의 공략에서 분명, 서지오 헌터가 신성에게 약초를 받았더라고….”

“검은망토는 제 마음에 든 선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유명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물을 주는 것은 단지 검은망토의 특성일까요? 일반 시민도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 서지오 헌터가 성인일 거라는 가설은….”

“그걸 감안해도 서지오 헌터의 그릇은 일반인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받은 선물의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듣자 하니 모시는 신의 의중을 직접 전해 듣기도 했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태양교의 흥복이겠군요.”

이 세상에 섭리의 힘을 목격하기란 대단히 어려웠다. 전통적인 신은 좋게 말하면 자연 그대로를 사랑하고, 나쁘게 말하면 매우 게을렀다. 인간 사회에 좀처럼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어째 서지오 헌터와 검은망토가 하는 행동이 비슷하다 했더니….”

“네? 둘이 그렇게 비슷했습니까?”

“묘하게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지오 헌터도 유독 다른 사람에게 선물 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히 그 선물이 먹을 것 투성이라더군요.”

“아하하, 참 남을 배불리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나 봅니다.”

“배곯는 사람은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검은망토가 주는 선물도 유독 먹을 수 있는 간식들이 많다고 하지요. 그렇게 닮은 걸 보면 역시 성인의 그릇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태양교는 새로운 결론을 내렸다.

“역시 서지오 헌터와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쌓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큼, 비록 각성은 달리했다지만 그 정도 그릇이라면 필히 사제에 걸맞은 인물인데….”

“한국인치고 태양과 관련된 신성을 모시는 이 중 저희 교에 오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서지오 헌터에게도 그렇게 불만스러운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럼요, 태양교와 친하게 지내는 일인데요. 오히려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런 웅성거림에 심란해지는 건 강서담뿐이었다.

“…….”

버러지 같은 종교계.

‘그야말로 벌레들의 소굴이 따로 없군.’

아주 징그러울 정도였다.

지난겨울 ‘심해의 나라’ 건으로 받은 타격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A급 던전 탐사에 나섰던 것도, 공략한 던전을 개발하던 틈을 타 악신이 스며든 것도, 그 여파를 수습 중인 작금의 상황에도 욕심을 부리기에 급급한 것도 전부 환멸이 났다.

‘이렇게까지 탐욕스러울 수가 있나.’

제 잘못을 반성하고 회복하는 데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일만 크게 벌이고 있다. 그 결과가 아슬아슬하게 좋아서 큰 문제

가 생기지 않고 화기애애하게 넘어간 것뿐이지, 그게 아니었더라면 서로 얼굴이나 붉히고 있었을 것이다.

강서담은 제 학생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 그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도 결국 차이솔과 이루다를 찾아갔다.

“차이솔 학생.”

“네, 선생님!”

“그리고 이루다 학생.”

“네, 경청하겠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제가... 죄송할 뿐입니다.”

강서담은 예비 사제를 교육하는 선생 중 한 명일 뿐이라지만, 그런 그가 져야 할 책임은 얼마든지 있었다. 제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보호자분들과는 충분한 대화를 마쳤습니까?”

차이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랑 누나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겠대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앞으로의 대응을 기대한다고....”

강서담도 마주 고개를 끄덕였다.

“그야 물론입니다. 이번 일은 저희 어른의 크나큰 실책이니 여러분은 마음 쓰실 필요가 없지요. 부디 이대로 회복한 다음 원하는 길을 걸으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길은 뭐가 될 수 있나요?”

“두 분 모두 저희 태양의 여신과 다른 신성을 모시고 있으니, 지금 당장 교육을 중단하고 다른 길을 찾아도 됩니다. 조기 졸업을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차이솔이 무어라 묻기도 전에 이루다가 제 파트너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다른 교단이나 길드를 찾고 싶어도 정식 사제의 신분증은 받는 게 좋아. 물론 나는 네 의견을 존중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하던 녀석들도 잠잠해질 거야.”

“이루다 자매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던 주요 학생들은 이미 교단에서 제명당했고, 이곳의 사제들은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는 이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강서담 선생님 말씀대로, 그, 이곳에 너는 정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우세해. 동기들도 우리 눈치를 살필 거고, 교단에도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할 명분이 있어.”

그에 차이솔은 말했다.

“요약해 줘....”

“여기 남았을 때 뜯어먹을 게 더 많아.”

“혹시 나만 멍청한 거야? 아니지...?”

“...나, 나는 원래, 음, 조숙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으니까. 네가 이상한 게 아니야.”

지방에서 올라온 탓인지 순박한 면이 강한 차이솔이지만, 이루다는 차이솔이 그런 특성을 단점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랐다.

이루다의 다독임에 차이솔은 금방 회복했다.

“그럼 됐어.”

“이건 내 생각일 뿐이고,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듣고 싶어.”

“나는 루다랑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선생님도 좋고.”

“그렇다면 조기 졸업 쪽을 노려보도록 하자. 우리라면 어렵지 않을 거야.”

“빨리 졸업하면 몇 살에 정식 사제가 되는 거야?”

그 부분은 강서담이 대답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면 3년 이내로도 수료가 가능합니다.”

“헉, 진짜요?”

“실습의 수가 늘어나고 여러모로 바빠지기는 하겠지만… 감당하시겠다면, 아마도요.”

“그럼 빨리 졸업할래요!”

그렇게 두 어린 사제가 조기 졸업의 꿈을 꿀 때.

지구의 바다가, 깊은 곳에서부터 일렁였다.

* * *

“본론부터 말하지.”

아리아는 정중하게 물었다.

“납치당해 주지 않을래?”

“오.”

신박한 권유에 지오는 감탄하고 말았다.

(다음 편에서 계속)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94)

194

제194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유성운의 덜덜 떨리는 질문에 지오는 양어깨를 잡히고서도 태연하게 답변했다.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당연하다고 할 정도의 상식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저를 어떻게 보고 계셨던 겁니까.”

“흥미롭다고 여겨지면 일단 지르고 보는 초상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억울합니다.”

지오도 그 정도 일반적인 기호는 있었다.

“납치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 이 세상에는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미친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 이렇게 안심이 될 수가 없다.”

그제야 유성운이 숨을 푹 내쉬며 지오의 어깨에서 손을 뗐다.

“그 인어 친구들도 참 독특하네. 보통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납치를 하나?”

“저와 보통 인연인 친구들은 아니잖습니까.”

“애초에 너를 왜 납치하겠다고 한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따로 짐작하는 바는 없고?”

“제가 이 싸움에 직접적으로 끼지 않았으면 하는 것 같군요.”

백금발과 청안의 모습이었지만, 지오는 특유의 무뚝뚝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이건 제 싸움이 아니니 말입니다.”

“네 싸움이 아니라고?”

“저는 인어들의 사건과 늘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황당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엄밀히 말하자면 저와 인어 제자들의 인연은 바다의 행성에서 끝났습니다.”

‘지오반니’가 죽으며 끝난 관계였다.

“쉽게 비유하자면 지금의 저는 어느 이야기의 외전인 셈입니다. 인어들은 지오반니의 죽음에 인간들을 경멸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 행성을 망가트려 왔으며, 지구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오의 초상화’와 마주쳐 이야기가 잠시 틀어졌을 뿐이다.

“그들은 그간 자신이 해왔던 일을 똑같이 행함으로써 책임을 질 생각인 듯합니다.”

“그래서 너를 이번 싸움에서 제외시키려는 거고? 네가 끼어들면 그들의 책임이 흐려지니까?”

“아니라면 그저 단순히 저를 한번 납치해 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상쾌하게 말하면 어쩌자는 거야....”

“별로 상쾌한 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시는군요, 유성운 씨.”

“안 떨리게 생겼냐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근원이 바닷속 불한당에게 납치될 뻔했는데 말이다. 그런 행위가 지오에게 타격이 가지 않을 걸 알면서도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었다.

“안 그래도 요즘 바다가 난리라 심란했단 말이야.”

“바다가 많이 소란스럽습니까?”

“그 인어들은 역시 바다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 봐. 심해에서 크고 작은 진동들이 느껴져서 알아보니 잠들어 있던 거대한 토착 몬스터가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되었어.”

“이런, 해일을 걱정해야 하나요?”

“그 부분도 대비를 해야겠지. 이거 참, 난 바다랑 별로 안 친한데....”

“그런 것치고는 바다에 자주 파견 보내지셨던 걸로 압니다.”

“바다에서 냉기 계열 헌터가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

최소한 자기 목숨 하나는 보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동해안이 엄청 시끄러워.”

“분명 ‘심해의 나라’ 입구가 있는 쪽이었죠.”

“인어들의 선전 포고를 길드장님께 전달드렸으니 아마 다른 길드도 대략적인 준비를 하고 있겠지. 특히 협회와 유스티티아가 소란스러운 걸 보니 인명 피해에 대비할 모양인 것 같아.”

“따로 공략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까?”

“선언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최악이 되기 전까지 지켜보는 것에 가깝지.”

이쪽을 예의 주시 하고 있긴 할 터였다.

“바닷물의 수위가 많이 올랐어. 어차피 해안가 쪽에 사람이 사는 구역은 얼마 되지 않으니 대비하는 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인어들이 정확히 바다로 무슨 짓을 할 건지가 문제겠네.”

유성운이 지오를 슬쩍 보았다.

"옛 스승으로서 해줄 말은 없나?"

"글쎄요, 그때의 제 제자들은 아직 미숙하여서…."

지금처럼 바다와 완전히 동화되어 움직이지는 못했다.

"하지만 인어는 바다의 자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심해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바다와 관련된 권능이 다양합니다."

"어떤 권능인데?"

"바다와 일체화된다거나."

"벌써 골치가 아프다."

"아니면 해류를 바꾼다거나…."

"미친 건가."

둘 중 하나만 성립되어도 지구의 목숨줄은 끊길 것이었다. 해류의 변동만으로도 지구라는 행성은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는 것이다.

지오는 턱을 짚었다.

"심해가 소란스럽다고 했으니 해일을 일으킬 가능성도 적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다는 자연의 재앙을 품었죠. 사람들 여럿 쓸어 내리기에는 아주 적합합니다."

"그게 숨 쉬듯이 쉽게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구의 바다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니까요. 아직 신성을 품지 못한 인어들이 아무리 노력해 봤자 낯선 차원의 바다를 쥐 잡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그간 쌓아온 권능이 있는 만큼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는 마친 모양이니까요."

"요약하자면 시간 싸움이라는 건가."

인어들이 지나쳐 온 행성들처럼 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야 했다.

"빨리 공략 팀을 모아 봐야겠는데."

"지난번 네발 우림처럼 헌터들이 모이는 겁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에 위험 부담도 큰 데다 보상이 불명확해서 과연 몇 길드나 참가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주 비협조적이지는 않을 거야."

한국인들의 종특이 있었다.

"평소에는 지랄 맞게 싸워 대다가도 국가 재난이 오면 힘을 모으는 게 이 나라의 특성이라…."

유성운의 말과 같이 꽤 많은 길드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

기본적으로 인지도 높은 길드들은 시민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의 태양교와 달님교는 진즉 참가 의사를 밝혔고, 유스티티아도 인명 구조에 손을 보태겠노라고 선언했다.

"해안 구역은 이미 대피 공문을 내려 두었습니다."

"그쪽으로는 유스티티아가 대기한다고 하더군요."

"해안 지역에서 어떻게든 이 소란이 잠재워졌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습니까?"

“협회에서 따로 지원을 해준 덕분인지 불안해하는 걸 제외하면 문제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물건이 있거나 두고 온 사람 있다면 미리미리 가져오라고 해요, 이보다 더 진행되면 더 이상 진입하기도 어려워져. 나중에 딴말 나오지 않게 하세요.”

“개척 동의서도 얻었습니다. 이제 집 허물고 방어벽 세우면 될 것 같네요. 근처 지역의 협조는 제대로 받아낸 게 맞습니까?”

애초에 대재앙의 혼란이 비껴간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나름대로 명성 높고 역사 깊은 길드들이라 해도 아직 던전을 향한 공포를 지우지 못했고, 그만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비를 해왔다.

그러니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이 발생해도 금방금방 대처할 수 있었다. 차라리 몬스터가 직접 선전 포고를 날려주어서 감사할 지경이었다.

“아니 그런데, 그 몬스터는 대체 왜 먼저 와서 이야기를 한 거랍니까?”

“제주도로 휴가 갔던 수집상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던데….”

“나도 그 소식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서지오 헌터와 유성운 헌터는 이전 ‘심해의 나라’에 구출조로 파견된 적이 있더군요.”

“그때 안면을 익혀서 미리 선포를 해둔 건가? 몬스터들의 생각은 참 알 수가 없군요….”

“그 정도 경고는 해둘 가치가 있는 인간들이라고 판단한 것일까요?”

그쯤에서 ‘서지오 헌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번에 그 서지오라는 헌터도 참가를 하겠답니까?”

“수집상에서 아직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만, 설마 불참을 하겠어요?”

“듣자 하니 사람 돕는 거 참 좋아하는 헌터라던데 안 오면 이상한 거죠.”

“길드장이 억류하지 않는 이상 참가할 겁니다.”

“아니, 길드장이 왜 길드원을 억류한다고…?”

“소문 못 들었어요? 수집상에서 가둬 키운 비사벌의 핏줄이라고 이야기가 자자하던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맙시다, 이런 시기에 꼭 분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해야겠어요? 수집상이랑 척질 거야?”

“그냥 말이나 해보는 거죠, 뭐. 이상하긴 하잖아.”

그리고 수집상에서도 참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서지오 헌터도 참가를 한다던가요?”

“후방이라던데요.”

“조련사니까 뭐 어쩔 수 없겠죠.”

“아닌데, 들어보니까 싸움깨나 한다던데….”

“이 사람이? 조련사를 앞에 세울 셈입니까? 악마야?”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포지션도 힐러라는데,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조련사에 힐러를 앞에 세울 거냐고요.”

이 시대의 조련사와 힐러는 기본적으로 후방 지원의 역할이 컸다. 둘 모두 물몸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이었다.

아직 ‘서지오 헌터’의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후방에 배치된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거기에 크게 반박하지 못했다.

“하긴 조련사인데.”

“힐러를 앞에 세우면 미친 거지.”

그냥 세상의 인식 자체가 그랬다. 얼마나 잘 싸우든 말든 후방 포지션이 전방에 세워지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었다. 덕분에 지오는 무사히 안전지대에 배치되었다.

아르지오는 조금 불만스러워하긴 했다.

“…….”

“지오 씨, 이건 당신의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안전지대로 빠지기 전 지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잠시 들른 주현은 그를 도닥였다. 지오는 그런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 구시렁거리죠?”

“입도 뻥긋 안 했는데 무슨 구시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눈으로 다 느껴집니다.”

“나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네요.”

“마음에도 없는 말이라는 거 다 압니다.”

아무래도 24살의 인격인 아르지오는 다른 ‘지오’에 비해 투덜거림이 많은 편이었다. 제멋대로 날뛰는 것이 익숙한 인격이 후방에 매여 있으려니 영 고욕일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지오에게 기쁜 소식이 도착하니.

“스, 습격입니다…!! 습격이에요, 전투 가능한 헌터들은 모두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해안가의 전방조차 습격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내린 우박에서 몬스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주변을 경계하던 헌터들은 다급히 활동 가능한 헌터들을 불러 모았다. 후방 지역에 모여 있던 헌터들은 제각기 무기와 장비를 들고 나섰는데, 곧 ‘우박에서 몬스터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게 대체 무슨…!!”

천막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건 차디찬 혹한의 바람이었고, 그 거친 강풍 사이로 크고 작은 우박이 땅으로 떨어져 내렸다. 콰드득—!!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진 우박은 곧 녹아 기괴한 몬스터로 변했다.

“스, 슬라임…?!”

“슬라임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게 뭐야…! 끔찍해!!”

녹아내린 살점 따위로 이루어진 듯한 괴물은 흐느적거리며 사람들을 공격했다.

“전방에 지원 요청해요!!”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급하게 텔레포트가 가능한 헌터들을 보냈어요!”

“바다에서도 몬스터가 안 나왔는데 무슨 하늘에서…!”

혼란한 헌터들과 별개로 전투는 진행되었다.

“어이쿠.”

콰직—…!!

몬스터에게 얼음 창을 꽂은 유성운이 어색하게 웃었다.

“이거 참 난감하네.”

“기습인가요?”

“기습이라면 기습이지. 이거 부끄러운걸, 바다를 신경 쓰느라 하늘을 놓쳤다니….”

“저도 인어들이 이렇게 공략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오, 너 어디까지 버틸 수 있어?”

촤악!!

창을 뽑은 유성운이 이어 물었다.

“지금의 네 몸은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거야.”

“집에 있을 때만큼은 아닙니다.”

초상화 안쪽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었다. 유성운이 납득했다.

“제약이 있겠지. 너무 무리하지는 마, 네가 다치면 정말 마음이 찢어질 거거든.”

“찢어질 것 같은 것도 아니고 이미 예정된 겁니까?”

“큐레이터라는 놈들이 원래 그래. 자기 것에 희미한 흠집이라도 남으면 세상이 원망스러워지고 피눈물이 줄줄 흐르지. 이해해 줄래?”

“유난입니다.”

“유난이기는 해.”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만드는 것보다야 나았다.

“그러니까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고만 했는지, 며칠 뒤 지오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유성운이 세상을 원망하는 소리가 전쟁터를 현란하게 울렸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94)"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95)

195

제195화

지오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딴 길로 샌 것만은 아니었다.

"......."

아니, 그것도 있기는 한데.

'이 난장판을 만들어놓고 무죄라고 우기기는 아무리 나라도 양심에 찔리는군.'

지오는 애써 몬스터들의 잔해가 펼쳐진 주변 광경을 무시했다.

아직 완전히 '아르지오'와 동화된 게 아닌 탓인지, 지오반니와 달리 아르지오로서의 자아는 별개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지오는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았다.

"...음, 그래요...."

"......."

"오랜만이라고 해야 하나?"

제 앞에 선 인어를 보며 지오반니가 어색하게 웃었다.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저도 당신이 이 외곽 구역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흥미를 좇다 보니 결국 여기더군요."

"정말로 그뿐인가요?"

"여기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나 하나만 물러서겠습니까."

지오가 고개를 기울였다.

"노린 거겠죠?"

이 외곽 지역에 진즉 대피시켰어야 했을 민간인들과 연약한 후방 포지션 헌터들이 고립된 것은 우연이라 보기 힘들었다. 아르지오의 시야를 앗아갔던 화려한 몬스터들도 인어들의 수작이었을 것이다.

"날 이곳으로 부른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 누님의 초대를 거절하신 걸로 압니다.”

“대놓고 납치를 당해 달라는데 수락할 수가 있나요.”

“확실히 당신은 이유가 없는 희생은 하지 않죠.”

이세르가 살풋 웃었다. 얼핏 다정한 듯, 감정이 없는 미소였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이세르는 주변의 인간들을 가리켰다.

“저것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말이 길게 이어졌다.

“두 다리가 부러져 움직일 수 없어요. 저것은 인간치고도 상당히 어리군요. 아직 12살도 되지 않았으려나요? 저것은 공황에 빠져 있습니다, 징그럽게도 말을 못 알아듣던데....”

“본론은 뭘까요?”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눈을 휘었다.

“저희에게로 오세요.”

“대단히 중의적인 표현인데.”

“이전에 제안 드렸던 납치에 응해주셔도 좋고, 완전히 저희와 함께해 주셔도 좋습니다.”

“둘 다 곤란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지오가 턱을 쓸었다. 그가 거절할 것처럼 보였는지, 고립되어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소리쳤다.

“허, 헌터님...!!”

“오.”

“살려주세요, 죽기 싫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군요.”

늘 그렇듯 지오반니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것인지, 아니면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인지. 겁에 질린 채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매달리듯이 애원했다.

“살려주세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제발, 헌터님...!”

“죽기 싫어요!!”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

“더 빨리 왔어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제발 살려줘요! 당신은 그럴 수 있잖아...!!”

쿵—!!!

인어가 스태프를 내리찍었다.

“…….”

“…….”

소란은 쥐 죽은 듯 잠잠해지고, 이세르는 여전히 웃고 있는 사제에게 물었다.

“그들은 당신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이 인간들이 벌레처럼 징그러워 보이지는 않습니까?”

“대단히 가엾어 보일 뿐입니다. 겁에 질려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당신은 끝까지 인간의 편을 드는군.”

이세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심해의 편을 들지 않을 거라면 그 몸이라도 오세요.”

“협박인가요?”

“잘 알아보셨습니다.”

물비늘이 일렁이는 기이한 빛깔로, 인어의 눈이 빛났다.

“내가 인간들을 향한 혐오를 더 이상 참지 못하기 전에.”

그가 손을 내밀었다.

“…이쪽으로 오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게 죽는 것보다 이 인간들이 죽는 게 빠르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지오는 꽤 많은 수단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세르라고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것이었다. 충분한 대비를 하고 왔을 테니 아무리 못해도 최소 한 명은 죽일 수 있겠지.

그리고 지오반니는 한 명의 헛된 죽음조차 허용되지 않길 원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볼까.’

그는 잠시 악신의 사악한 심성으로 생각해 보았다.

“음… 이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고 전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걸 알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그렇게 뻔한 인간이었는지 몰랐네.”

“아마 당신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오반니의 미소가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그럴 거야.”

"……."

이세르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오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겁에 질린 사람들의 눈에는 공포와 원망이 가득했다. 악하다고 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 매캐한 독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저 눈을 알았다.

"한때일 텐데."

저들은 결코 악한 이들이 아니므로, 자신의 것을 되찾고 여유를 돌려받으면 곧 후회하게 될 것이었다. 지오반니는 그것이 애처롭고 가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왜 이 사람들은 스스로 고통의 길을 걷는가.

"좋아요, 내가 심해로 가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검은망토가 이 행성의 인간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가둬지겠죠."

"그런 느낌인가요?"

지오반니가 씩 웃었다.

"이해했습니다, 흥미롭군요."

이건 인어들의 마지막 어리광이자 선물이었다. 그들의 책임이 어떤 방식으로 끝나더라도 '검은망토'가 세상에 자리 잡고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이런 깜찍한 작별 인사를 준비했다면 굳이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도 무서워하고 있고.'

지오는 인어들의 깜짝 파티에 응해주기로 했다. 이 이상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도 잃을 것이 없는 가장 편안한 길이었다.

"협박을 당해보는 건 꽤 오랜만인데."

이것 참 민망해라.

'뭐라고 장단을 맞춰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까.'

지오는 잠시 고민했고, 곧 결론을 내렸다.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세상에 '검은망토'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내가 여러분의 손에 갇힌다고 해서 그 괴담이 지구에서 물러날 일은 없을 겁니다. 설령 나를 죽인다고 해도 그건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건 해봐야 아는 일이죠. 그 존재의 뿌리가 지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가지를 뻗는 것이라도 막아야지 않겠습니까."

이건 확실히 어리광이 맞다. 아무래도 인어들은 그들 선생님의 뿌리가 지구에 있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다. 이대로 지오반니를 들고 품에 가두려는 심상이 뻔히 보였다.

지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들을 무사히 풀어줄 것을 약속합니까?"

"제 가족의 명예와… 지금 쥐고 있는 황금 가지의 자격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 말을 믿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항복의 의사를 표하며 양손을 들었다.

“나를 데려가요.”

이제 일상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인어와 인간은 결판을 내야 할 때였다.

* * *

한편, 바다가 어수선해짐에 따라 덩달아 스산한 불안에 빠진 서울.

수집상 사옥 내에서 소식을 들은 주현은 대단히 어이없어했다.

“…실종이요?”

“엄밀히 따진다면 납치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엄밀히 따져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지오 씨가 장단을 맞춰준 거잖아요.”

“역시 주현 씨는 혜안이 뛰어나시군요!”

주현과 함께 접견실에 있던 비사벌이 특유의 웃음을 지었다.

“인어들의 투정에 맞춰 주겠다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하필이면 이럴 때까지….”

“오히려 이럴 때이니 그런 것이겠지요.”

“마지막에 베풀어주는 지오 씨의 자비 같은 건가요?”

“아니면 ‘검은망토’의 이야기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한 작업일지도?”

“…인어 쪽에서 거기에 협조를 해줄까요?”

그렇게 물은 주현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니, 애초에 그걸 위한 난장판일 수도 있겠네요. 아, 머리가….”

“참 이해력이 좋단 말이지.”

비사벌이 쯧 혀를 찼다.

“머리가 달렸는데 왜 종종 뇌 없는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저기요, 듣고 있어요. 당사자가 직접 듣고 있잖아요.”

“아이쿠 이런, 들렸습니까? 혼잣말이 거기까지 들렸다니 정말 민망하군요.”

“비각성자인 제 귀에 들릴 정도면 그냥 들으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걸 보면 정말 뇌가 있기는 한데… 사람이 참….”

동정심마저 담긴 어조에 주현이 물었다.

“왜 계속 저한테만 시비세요??”

“내가 미련한 인간을 보면 시비를 거는 고질병이 있어요.”

“병원 가봐요.”

“참고하죠.”

지오가 아끼는 인간의 안전을 위해 비사벌은 특별히 제 길드의 안방에서 주현을 보호하고 있었다. 주현도 그 의도를 알기에 갖은 시비에도 굳이 이 방을 뛰쳐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몸이 안전하다고 마음까지 편안한 건 아니었다.

“예전 ‘심해의 나라’에 차이솔 학생을 구하러 갔을 때의 지오 씨가 정말 크게 다쳐서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큽니다.”

“그 역시 지오 씨의 의도입니다. 설마 그걸 존중해 주지 않으실 생각은 아닐 테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걱정이 드는 모양인데, 그 미련한 마음씨를 고쳐먹는 게 세상 살기엔 좀 더 편할 거예요.”

“조언을 해주실 건지 악담을 해주실 건지 둘 중 하나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네요. 이쯤 되니 슬슬 정이 들려고 하거든요.”

“아니, 이럴 수가. 주현 씨는 저를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정말 서운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네….”

“눈물은 제가 나올 것 같아요, 길드장님.”

연약한 비각성자라 어디로 빠지지도 못하고 서러워 죽을 것 같았다.

“…수집상의 사람들은 지오 씨의 안위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주현 씨가 ‘지오의 초상화’를 사람으로 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불편함입니다.”

비사벌은 드물게도 심드렁한 얼굴로 이어 말했다.

“평범한 작품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느 작가가 행위 예술을 보여 주겠다며 캔버스를 칼로 찢어냅니다. 그럴 때는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 예술에 대해 잘 몰라서… 아마 그러려니 하겠죠.”

“그래요, 우리가 작품을 대하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이건 작품 스스로가 선택한 길인데 어찌 한낱 관람객이 그 선택을 부정하고 앞을 막아서겠어요?”

“…….”

“물론 주현 씨는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

그는 여전히 불퉁한 얼굴이었다.

“먹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잠을 자거나 웃을 줄 아는 존재를 그런 ‘작품’으로 대해도 되는 거냐고 말입니다. 그게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겠지요?”

“…좀 징그럽기는 하죠.”

“그런 징그러운 놈들이 모여 이 길드가 만들어졌어요.”

비사벌이 그런 길드를 만들었다. 혼자 남고 싶지 않아서 수집상을 세우고, 가족을 이 거대한 진열장에 전시했다. 그러고는 그들이 도망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했다.

“주현 씨의 관점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따지자면 수집상이 이상한 편에 속한다는 것을 나나 다른 길드원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징그러운 짓’을 위해 모였죠.”

“오로지 길드장님을 위해서요?”

“나는 이것이 서로에게 윈윈인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야 주현 씨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나는 그걸 존중해 주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비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러는데 성격 나쁘다는 말 하루에 몇 번 정도 들으십니까?”

“12번 정도 듣네요, 우리 길드원들은 충신이라 옳은 말만 하거든. 끔찍하지 않나요?”

“그거 병이에요.”

“그렇겠지, 나도 압니다.”

비사벌이 웃었다.

“아까도 내가 고질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미련한 인간을 보면 시비를 거는 고질병’ 외에 다른 병이 또 있었나 봅니다.”

“결국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내가 지오 씨를 대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는 단지 작품이 작품으로 보이고, 영웅이 영웅으로 보일 뿐이었다.

“나는 ‘지오반니’ 씨의 행동이 정말 강인하고 찬란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보는 게 다를 뿐이었다.

“구조된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다른 인간들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더군요. 모진 말을 듣고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결국 동정만을 품을 뿐 대의를 위해 나섰어요. 그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건 지오가 직접 선택한 길이었다. 스스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수의 인간이 고통 속에서 해방되었고, 지오 본인은 그것에 만족했다.

“난 그 결정이 아주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이가 그토록 많은 이상, 아무도 그 가치를 깎아내려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놀랍네요.”

주현이 물었다.

“그런 ‘영웅’은… 싫어하지 않나 봐요.”

“죽은 사람의 이야기니 혐오할 이유가 없지.”

“저는 살아 있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겁니까?”

“죽음으로 완성된 이야기와 아직 살아 있는 인간은 엄연히 다릅니다.”

비사벌은 자신의 길드원을 하나의 수집품으로 대하며 아꼈지만 그들이 인간임을 잊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니 죽은 ‘영웅’과 살아 있는 ‘영웅’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었다.

그가 이내 빙글 웃었다.

“내가 보는 것이 틀렸습니까? ‘지오반니’ 씨가 보인 행동은 대단히 고귀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세기의 현자도, 수많은 성인도, 그 누구도 그렇게까지 자신을 내어주며 인간들에게 애정과 자비를 보일 수 없을 텐데….”

“…그것 역시 지오 씨가 가지고 있는 일부분이 맞지만, 고작 하나의 단편일 뿐입니다. 그 본질과 근원이 어떻게 되어 있든 그 사람은 울고 웃을 수 있고 아파할 수도 있는 하나의 인간이에요. 나는 내가 보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 또한 ‘지오의 초상화’가 지닌 면모 중 하나죠.”

“그러니 저희가 보는 것 모두가 틀리지 않았다고 할 생각이시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주현 씨.”

그들은 이렇게나 달랐다.

“우린 역시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네요.”

“…동의합니다.”

보는 세상이 다른 것이다.

* * *

그리고 유성운은 핏발 선 눈으로 말했다.

“구출 팀.”

"아, 아니. 잠시만...."

"구출 팀 언제 만들 겁니까."

"저, 아직 헌터들의 정비가 끝나지 않아서...."

"그럼 나라도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런 상황에 개인적인 행동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유성운 헌터님...."

"서지오 헌터가 어떤 곤경에 처했을 줄 알고 이렇게 굼뜨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파견을 나온 협회 직원은 서러움에 울먹였다.

'헌터들 무서워.'

집에 가고 싶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95)
Prev
Next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96)

196

제196화

"헌터들 얼굴 휙휙 바뀌는 건 적응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눈에 핏발이 선 유성운 헌터 쪽을 확인하고 온 협회 직원이 중얼거렸다.

"역시 아직은 아닌가 봐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유성운 헌터가 저러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

"아, 흔하지는 않습니까?"

"그래, 기본적으로 매사에 무던한 사람인데...."

이런 재난 상황에 파견될 만큼의 경력이 있는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오랜만에 보네."

"오랜만이라고 하면...?"

"수집상의 큐레이터들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뭐랄까, 명확한 트리거가 있지."

예민한 곳을 들쑤시지만 않으면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체면을 중요하게 관리하는 길드라서."

"그건... 수집가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그럴 거야."

수집상의 길드원들은 하나같이 비사벌의 수집품이었다. 그들은 비사벌의 기준을 충족하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었다. 꼬박꼬박 유니폼을 챙겨 입는 이유도 그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집상 길드원들이 따로 신경 써서 뭔가 꾸며내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냥 원래 성격들이 그랬다. 냉소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도 평균 이상의 책임감에 충실한 인간들. 하지만 그런 수집상의 길드원, 특히 큐레이터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다.

“보통 자기가 담당하는 작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인데….”

“담당하는 작품이요? 그 괴물들?”

“말은 좀 조심하고. 그래, 그 위험 물품들 말이야.”

“큐레이터들은 잘도 그런 무시무시한 물건들을 아낀단 말이죠.”

“그 사람들 책임감과도 연결된 문제니까.”

길드에서 요구하는 ‘애정’과 ‘방목’, 그리고 ‘의무’까지 합쳐져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그런 집착으로 나타나는 것일 터였다. 연구소 업무도 잠깐 해본 적 있는 직원은 그 심정을 이해했다.

“그렇기는 한데….”

“…서지오 헌터는 그런 위험 물품이 아니잖아요?”

“…그 점이 특이하긴 해.”

아까도 말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었다.

“유성운 헌터가 저렇게까지 화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이전에 자신이 담당했던 작품 기능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당시 현장에 나가 있던 직원은 유성운이 어떤 헌터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지금보다 젊었을 때 한 성깔 하기는 했어도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성격은 아니었어.”

“지금처럼 다른 직원들 압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단편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아무래도. 수집상 길드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성격들이라서.”

“그럼 왜 그러는 겁니까? 서지오 헌터는 유성운 헌터의 ‘담당 작품’도 아니잖아요.”

“뭐, 내가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본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절친한 친구의 안위가 걱정되어 그러는 걸 수도 있었다.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어렵다만….”

수집상 길드원들은 동료애가 대단히 건조한 형태로 나타나는 편이었다. 이유가 타당하다면 누군가를 미끼로 쓰고 버려도 서로 아무런 악감정조차 남지 않을 만큼 말이다.

그렇다고 애정과 신뢰가 없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강한 믿음이 그런 팍팍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현재 유성운 헌터가 보여주는 모습은 직원이 아는 것과 거리가 멀었다.

“…….”

“…저,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나도 알아.”

예민한 주제라 그렇지 다들 알음알음 아는 소문이었다.

‘서지오 헌터가 수집가의 핏줄이라는 이야기인가.’

자기 아들을 ‘작품’으로 본 비사벌이 비밀리에 가둬 키웠다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유성운 헌터까지 저런 모습을 보이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왜인지 모르게 신빙성이 생긴단 말이지.’

종종 상식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서지오 헌터와 작품의 문제가 아니고서야 결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유성운 헌터. 그리고 작품을 향한 수집가의 비정상적인 애정….

“…….”

직원은 끙 앓는 소리를 내며 머리를 비웠다. 깊이 고민해서 좋을 게 하등 없는 주제였다.

“수집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 아마 서지오 헌터가 무사히 복귀하고 나면 유성운 헌터도 사죄의 보상을 하러 올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통 자기 작품 관련한 문제가 잘 끝나면 큐레이터들이 그렇게 하거든.”

“그럼 진짜 서지오 헌터를 작품으로 본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 듣자 하니 훤칠하고 능력도 좋다더라. 그 정도면 작품 취급받을 만하지 않냐? 요즘 세상에 애들 가둬 키우는 게 드문 일도 아니고.”

“수집상만 한 대기업이 그런 일을 했다니까 꺼림칙한 거죠.”

“확실한 일도 아니잖아.”

제법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기는 하다만.

“유성운 헌터에게 권유를 받아 문의를 해봤지만, 협회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해안가 정리가 얼추 끝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던전 진입이 불가해. 양동 작전을 펼치더라도 최소한의 우선적인 진압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지.”

“하지만….”

“입구 바깥도 이렇게까지 시끌벅적한데 그 심해까지 어떻게 가려고?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차근차근 앞부터 정리해 나가는 게 맞아.”

“그렇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전하나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 유성운 헌터에게… 이번에는 정말 멱살이라도 잡힐 것 같다고요.”

“이번 건 내가 가서 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지에는 문제가 없답니까?”

“따로 전해 들은 건 없으니, 뭐, 뻔하지.”

직원은 알 만하다는 듯이 혀를 찼다.

“다들 덜덜 떨고 있지 않겠어?”

대재앙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재난이 찾아오다니, 참 말세였다.

* * *

아직도 세상에는 대재앙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 할머니….”

“어여 들어와, 어여! 이럴 때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다.”

“나 무서워요.”

“괘안타, 우리는 바다 안 보고 살잖니. 괜찮을 기다.”

나이 지긋한 노인들은 당연한 이야기였고.

“여보, 우리 식량 얼마나 남았지?”

“아마 한 달이나 버틸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더 아껴 먹자, 나 연차도 냈어.”

“옆집이랑 말을 좀 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진짜 무섭다….”

“괜찮겠지, 대형 길드들이 그렇게 나서주고 있는데.”

“이번 던전 일이 잘 끝났으면 좋겠어.”

중장년층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아이고, 이번 일로 해안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네.”

“어쩌다가?”

“바다가 미쳤는지 살아 있는 것처럼 날뛰었대.”

“아니, 해안가 사람들 다 대피한 거 아니었어?”

“미어터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기까지 하면 그걸 다 끌어낼 수가 있나….”

기존의 생명도 감당하기 어려운 인구 과밀의 시대.

“허, 참… 그러니까 좀 나와 살라고 하는데도.”

“겁을 먹은 걸 뭐 어쩌겠어.”

대재앙 당시 뿔뿔이 흩어져 깊은 산골이나 인적 드문 지역으로 도망쳐 숨어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주민 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쉽게 찾아낼 수도 없었다.

이런 재난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죽는 건 그런 사람들이었다.

“위험한 것 같은데.”

“그치?”

불안해하는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하필이면 바다가….”

“우리는 삼면이 바다 아니야?”

“바닷물에 잠기면 어떻게 해?”

안 그래도 바다와 밀접한 형태의 국가인 데다, 대재앙 이후 조금씩 해수면이 올라와 육지가 잠기고 있었다. 예민한 주제였던 바다와 관련된 재난의 등장에 어린아이들도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그건 태양교도 마찬가지였다.

“차이솔.”

“어, 응.”

“가족들하고 연락했어?”

“누나랑 형은 지금 수집상에 가 있대.”

“수집상에…?”

“예전에 도움받은 적이 있어서.”

“특이하네.”

차이솔이 걱정되어 찾아왔던 이루다가 고개를 기울였다. 수집상은 여러 행사를 통해 시민 친화적인 이미지를 얻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금융 회사에 가까웠다.

'3등급 시민의 안위를 따로 신경 써줄 만큼 인심 좋은 길드가 아닌데?'

하지만 모르는 일이 있겠거니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튼 다행이야, 수집상이라면 믿을 만하지."

"으응. 누나 아니면 마을에 헌터가 없기는 하지만, 그것도 도와준다고 했고...."

"수집상에서 너희 마을까지 지켜주기로 했다고?"

"아니, 유스티티아? 거기서 헌터들이 파견 나왔다고 했어."

"아, 그쪽."

차이솔의 고향이 바다와 가까운 지역은 아니었지만, 바다라는 것이 워낙 많은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다 보니 대한민국 각지에 헌터가 파견된 듯했다.

"유스티티아는 자원봉사로 유명한 곳이니까."

"맞아, 예전에도 몇 번 도움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지?"

"마을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

차이솔이 어른들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전부 받았다.

"......."

그럼에도 기운이 나지 않는 건 그냥 이 모든 상황이 무서운 탓이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아무도 안 죽었으면 했어."

"지금 같은 던전 브레이크에서 그런 걸 바라기는 어렵지."

던전 브레이크란 몬스터들이 던전 외부를 침공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처럼 다수의 몬스터들이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지만, 지금처럼 굵직한 소수의 몬스터가 튀어나오는 것도 같은 현상이라도 볼 수 있었다.

이루다는 제 어머니에게 들은 정보를 이야기했다.

"듣자 하니 해안가에 있던 마을들은 전부 초토화가 된 모양이더라고. 주민 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대피시켰지만, 몇몇 예외의 경우 때문에 희생자가 발생한 것 같아."

"희생자?"

"뻔하지. 등록을 안 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협회와 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기 혼자 개별 행동을 한 사람들. 아니면 제 판단대로 숨어 있다가... 봉변을 당한 거야."

"...도와주러 온 헌터들이 찾아내지 못했던 걸까?"

"슬픈 일이지만 헌터들이 사람들을 일일이 대피시키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수색 스킬이 있는 헌터라면 찾아낼 수 있었을 거고, 그런 사례가 이미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찾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개중 고집을 부려 일부러 자리에 남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가뜩이나 할 일이 많고 부담이 큰 헌터들이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챙길 수는 없었다. 비협조적인 인간들까지 챙기기엔 그들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래도 이번 던전 공략이 끝나고 나면 협회나 정부에서 재건 사업을 추진해 줄걸. 그 전까지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의 자리도 마련해 줄 거고, 뭐, 이러려고 세금 걷는 거니까."

“세금… 우리 형이랑 누나도 내.”

“맞아, 이럴 때 쓰려고 정부는 세금을 걷고 우리는 내. 수업에서 배웠지? 우리같이 한미한 생물은 서로 뭉치지 않으면 이런 재난을 견뎌낼 수 없어.”

“응, 그래서 화합과 평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다 같이 도움을 주고받는 거지. 재건 사업이야 던전 공략을 마치고 난 이후가 되겠지만, 지금도 재난민들의 거주지를 찾아주고 식량을 공급해 주는 데 정부가 힘을 써주고 있는 걸로 알아.”

“그건 다행이지만….”

머뭇거리던 차이솔이 물었다.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왜 아니겠어, 당장 헌터들만 해도 죽어 나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죽어’ ‘나가’고 있었다.

“이상한 우박이 내려 몬스터가 된다지를 않나, 파도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덮쳐 온다지를 않나, 여러모로 바다 쪽이 정말 난리라고 하더라.”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상당한 정보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루다는 제 어머니의 권위를 통해 약간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미 대피가 완료된 마을이 파괴된 건 물론이고,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던 수중 생물들도 제자리를 벗어났다고 해.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 해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야.”

“해류가 뭐야?”

“바닷물의 흐름을 말하는 거야. 원래도 해양 몬스터들의 움직임 때문에 종종 이런 현상이 발견될 때가 있었지만, 이번 건 조금 다르대. 마법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이전과 달라.”

정말 바다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다.

“대재앙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걸.”

“그, 그때는 어떻게 됐는데?”

“기후가 변했어.”

“기후가 변하면 어떻게 돼…?”

“날씨가 오락가락 변하는 거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행성 전체가 찜통이 되거나 냉동실이 되어버리는 거지. 지구의 생물이 결코 자연적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말이야.”

너무 더워지거나 추워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때의 여파를 세상의 유능한 헌터들이 머리 모아 간신히 조율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어. 대재앙을 아직까지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괜히 많은 게 아니라고.”

다른 차원에서 흘러들어 온 몬스터들의 유입으로 혼란스러워진 생태계. 전혀 다른 병균과 공기로 인해 일상 속으로 스며든 극악의 전염병. 좁은 행성에 치고 들어온 각종 생물과 물건으로 인한 공간 문제….

인간들은 지구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각종 문제들을 인위적으로 분석하고 조율해야만 했다. 그리고 간신히 그렇게 해냈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다니….”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별 볼 일 없는 예비 사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어.”

“하지만 뭘 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너나 나는 그럴 수 있겠지, 능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왜?”

“호구 잡혀.”

“응…?”

“사람들이 막 다뤄.”

온정 어린 눈으로 봐주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리고 경험이 없는 예비 사제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질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었다.

이루다는 설령 태양교에서 그들을 파견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차이솔과 함께 버티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하는 말이야. 사람들이 걱정되는 건 알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인 걸 알아야 해. 스스로가 아니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어?”

“루다가…?”

“…물론 우리는 서로를 지켜 주겠지만….”

“…….”

“…….”

잠시 말이 없던 이루다가 입을 열었다.

“그렇게 애교 부려도 안 돼, 나는 허락 못 해.”

“루다 너는 가끔 나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네가 사람 돕는 거 좋아하는 천연기념물인 건 알지만 그래도 이럴 때 나서는 거 아니야.”

“…….”

“…너무 상심하지 마.”

이루다가 안쓰럽다는 듯이 그를 위로했다.

“그, 유명한 길드들이 다 모였으니 금방 공략이 될 거야. 너희 가족들도 서울에 있다고 하니 안전할 거고, 마을도 유스티티아에서 지켜줄 헌터들을 파견 보냈다면서.”

“…응.”

그녀는 오직 차이솔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위만을 말했다.

“…….”

그리고 차이솔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걱정했다.

‘…나 치료 잘하는데. 위험하지 않은 곳에 숨어서 다친 사람들 치료해 주면 되지 않을까?’

지오 형도, 걱정이 되었다.

혼자 멀뚱히 남아 있던 차이솔이 무언가를 결심했다.

* * *

"선생님."

"무슨 일이시죠?"

"차, 차이솔…."

"예?"

"차이솔 어디 있어요…?"

이루다가 초췌해진 얼굴로 물었다.

"내 동그란 조약돌 어디 갔냐고."

"그게 무슨…."

"당신들 설마 그 쬐끄만 애를 해안가로 파견 보낸 건 아니겠지?"

"파견이요? 이루다 자매, 진정하시고…."

"차이솔 내놔! 내 호구 같은 파트너를 어떻게 한 거야!"

"아, 아니…."

차이솔의 결심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

첫째, 엉뚱한 타이밍에 결심하자마자 무턱대고 초상화 안으로 들어가 파트너인 이루다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뒤늦게 초상화 안에서 편지를 보냈지만 그게 액자를 넘는 과정에서 소실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루다의 얼굴에는 핏대가 섰다.

"우리 애 어쨌어!!"

능력 있고 인맥 좋고 행동 빠른 호구를 파트너로 둔 죄였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96)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96)"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97)

197

제197화

지오가 웃었다.

"저를 보러 오신 겁니까?"

"맞아요!"

차이솔도 웃었다.

"그런데 여긴 어디예요? 해변이 아니네요?"

"'심해의 신전'에 있는 방 중 하나랍니다."

"형은 뭐 하고 있었어요?"

"보다시피…."

철컹.

지오가 손을 흔들었다.

"묶여 있었죠."

"엇."

"아무래도 묶인 사람은 처음 볼 텐데 심적으로 괜찮으실까요?"

"왜, 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 사람들이랑은 조금 결이 다를 겁니다."

지오는 딱히 불법을 저지르고 구속 송치를 당한 건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제 존재 자체가 불법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뭐예요?"

"그러게요, 뭘까요?"

요즘 사람들은 참 복잡하게 사는 것 같았다.

"나 때는 외계인이 나타나도 그러려니 넘어갔는데."

“와, 진짜요?”

“그럼요.”

헛소리라면서 넘겨버리지 않던가. 하지만 지금 세상은 진짜 외계인이 등장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서 그런지 지오 같은 초상화가 참 살기 힘들어졌다.

“대화가 왜 여기까지 왔더라?”

“왜 묶여 있어요?”

“아 참, 그렇지. 못된 인어들이 저를 납치했습니다.”

“은하?”

“그렇죠, 은하 학생이 그랬어요.”

“어….”

차이솔은 당황했다.

“은하가 왜요?”

“나랑 같이 죽고 같이 살고 싶대요.”

“왜 그런대요?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지요?”

지오가 웃으며 물었다.

“그런데, 이곳에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현재 그가 감금된 곳은 한때 교황의 거처 중 하나로, 교황이 신전에서 머물 때 주로 사용하던 장소였다. 지오는 이곳이 조선의 정전이나 편전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연히도 예전의 신전처럼 안전한 공간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도 던전인데.”

“아무렇게나 봐도 던전 같아요.”

“흠, 그렇군요.”

분위기가 꽤 흉흉해지기는 했다.

신전은 금은보화와 대리석으로 잔뜩 치장되었으나 왜인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가득했고, 곳곳이 녹슬고 망가져 귀신의 집과 다를 바가 없었다. 심해 특유의 음울한 공기가 선명했다.

거대한 심해 생물 앞에서나 느껴질 빠듯한 압박감. 곳곳에 탐욕스러운 재화와 함께 널려 있는 백골들. 반짝거리면서도 서늘한 물비늘이 비치는 신전 속의 신전….

지오는 그 한가운데 놓인 교황의 어좌에 구속되어 있었다.

“아마 이세르나 아리아도 차이솔 학생이 왔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저 초상화를 통해서 왔는데요?”

“그래요,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니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알아요? 인어들이?”

“이곳은 인어들의 집이니까요.”

그들과 한 몸이 된, 인어들의 바다였다.

“아무리 초상화를 통해서라지만 제 기운을 몰라볼 아이들이 아닙니다.”

차이솔은 ‘지오의 초상화’를 그렸고, ‘지오의 초상화’는 그런 차이솔을 받아들였다. 주인이 없는 초상화라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집에 있던 곰인형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가능했다.

그리고 차이솔은 놀랍게도 지오를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지오는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되기까지 상황을 잘 몰랐지만, 아무튼 차이솔은 돌아갈 수 있었다. 지금이라면.

“여긴 위험한 곳이니 안전한 태양의 신전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뭔가 돕고 싶어요.”

“세상에, 이렇게 기특할 수가. 하지만 안 돼요.”

“잉.”

“애들은 이런 일 돕는 거 아닙니다.”

“루다랑 똑같은 말을 해….”

“이루다는 정말로 영민한 친구로군요.”

아르지오는 이런 전쟁터에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차이솔 학생처럼 어린아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지극히 한정적이죠. 그때만큼은 순수한 행복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어이 초상화까지 기어 온 차이솔의 고집은 어마어마했다.

“그럼 안 다치고 안 아프면 된다는 거죠?”

“나의 이런 꼴을 본 것부터가 정신적인 고통이지 않을까요?”

“보다 보니까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적응을 하면 안 된다고요, 차이솔 학생의 순수함이 깎여나가는 거야.”

“형이랑 있으면 안 위험할 것 같은데 꼭 나가야 해요? 나 얌전히 있을게요.”

“그냥 애초부터 이런 일에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 여기 앉아서 형이랑 수다 떨래요. 해안가에서 다친 사람들 치료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하고….”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걸까?”

“기왕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기 싫어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거라도 해줄 거예요.”

“기특하고 답답해서 환장하겠군요.”

지오가 환하게 웃었다.

“돌아가세요.”

“싫어요.”

“어허, 돌아가세요.”

하필이면 인어들에게 묶여 있는 탓에 차이솔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었다. 어지간하면 물감으로 만들어 버리겠는데, 그간 인어들도 연구를 했는지 뭘 해도 풀리지 않더라.

지오가 그를 강제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차이솔은 아예 지오의 발치에 쭈그리고 앉았다. 차이솔이 해맑은 얼굴로 물었다.

“나 못 돌려보내죠?”

“이런 하나를 안 알려줘도 열을 아는 아이 같으니.”

“근데 나는 어떻게 불렀어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차이솔 학생. 학생이 직접 넘어온 겁니다.”

“초상화가 막 열렸는데?”

“주인이 없는 초상화라 제 아버지께서 받아주셨죠.”

“아, 그래서 곰인형 할아버지가....”

“무엇보다 액자 자체는 차이솔 학생이 직접 열고 들어오셨고요.”

“어라.”

차이솔이 눈을 껌벅였다.

“열어준 게 아니었어요?”

“제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고, 엄밀히 따지자면 차이솔 학생이 방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열쇠를 준 것뿐이었습니다. 집 열쇠.”

“집 열쇠...? 아.”

그는 제 이마를 쓰다듬었다.

“이거요?”

“그래, 그거요.”

지오반니가 태양신으로서 차이솔에게 주었던 ‘조각’ 말이다.

“제가 쓸 수 있는 능력의 일부를 공유하는 기능도 있지만, 저는 초상화니까요. 이런 저의 특성도 함께 공유됨에 따라 차이솔 학생도 초상화를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들어가는 건 할아버지가 도와줬는데요.”

“차이솔 학생은 아직 미숙하니까요. 저처럼 완벽한 초상화도 아니니 액자를 만들어낼 수만 있을 뿐 들어오는 것까지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 아버지께서 도와주었겠죠.”

“우와아....”

“다른 능력은 차차 공유하려고 했습니다만 차이솔 학생이 이렇게까지 용감한 줄 알았더라면 그때 준 조각도 좀 더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상상 이상으로 행동력이 좋으시군요.”

차이솔이 갸웃했다.

“내가 이럴 줄 몰랐어요?”

“제가 평균 이상으로 똑똑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세상 모든 걸 다 알지는 않습니다.”

“아닌데, 다 알 것 같은데. 형은 신이잖아요.”

“제대로 된 신도 아닐뿐더러, 그럼 대체 나는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하나요?”

지오는 모든 지식과 지혜에 통달하길 원하지 않았다.

“난 정말 차이솔 학생이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인간의 나약함에 무지한 아버지께서 요 손바닥만 한 아이를 제 코앞까지 보낼 줄도 몰랐고 말이다. 여기가 얼마나 엄한 곳인 줄 알고 애를 보내, 애를.

“아버지께서 ‘숨 쉬는 바다’로 안내해 준 게 맞지요?”

“그 액자 이름이 ‘숨 쉬는 바다’였어요?”

“바다를 그린 그림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맞습니다.”

“그럼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조금 더 꽁꽁 숨겨둘 걸 그랬군요.”

‘숨 쉬는 바다’와 ‘심해의 나라’는 연결된 공간이었다. 지오도 이전에 종종 그걸 통해 이 신전을 뱅뱅 떠돌아다녔으니 대충은 알았다.

“나를 보고 싶다는 차이솔 학생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제 아버지께서 ‘숨 쉬는 바다’를 이 방에 두신 것 같습니다. 차이솔 학생은 좋다고 그 액자를 통해 저에게로 왔고요.”

다행히 아직 ‘숨 쉬는 바다’의 액자 자체는 남아 있었다. 이쪽에서 바라보는 광경은 평화로운 오두막의 풍경이었지만, 어쨌든 차이솔이 도망칠 수 있는 길은 일시적으로나마 열려 있는 셈이었다.

“여차하면 저기로 도망치세요.”

“네!”

“아무래도 영 불안하니 지금 가면 더 좋습니다.”

“싫어요!”

“누굴 닮아 이렇게 꿋꿋할까?”

그 절개와 굳건함이 겨울철 대나무보다 더했다.

“다행히 이세르와 아리아도 차이솔 학생을 영 싫어하지만은 않는 것 같았고, 또 저와 어느 정도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럼 저 여기에 있어도 돼요?”

“이미 있으시지요?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실력이 제법이니 참아 드리겠습니다,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아버지에게 의지를 보내 차이솔을 데려가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태양신이 그걸 반길 것 같지 않았다. 그의 귀여운 곰인형 할아버지는 아무래도 인간이었던 적이 없어서 양심도 없었다.

‘아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차이솔 학생을 그냥 두겠지.’

무엇보다 지오반니의 고향은 아동 인권이 확립되지 않은 세계였다. 그곳의 신이었던 지오반니의 아버지가 이제 와서 차이솔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이런 외통수가 다 있나.”

“외통수가 뭐예요?”

“장기라는 게임을 즐길 때 쓰는 단어인데, 뭘 해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형 졌어요?”

“하하, 차이솔 학생에게 졌군요.”

저 안전 불감증을 언젠가 고쳐야 할 텐데 말이다. 요즘 시대 아이들은 너무 대담하고 조숙했다.

“이루다 학생이나 다른 선생님들에게는 잘 이야기를 하고 온 게 맞습니까? 검은망토의 도움을 받아 해안가에 파견 나갔을 저를 보러 간다는 말을 했다면 이렇게 올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차이솔이 눈을 껌벅였다.

“어… 일단 생각이 나자마자 온 거라 나중에 연락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미 혼날 것은 확정된 사안이지만, 어떻게 연락을 했다는 걸까요?”

“곰인형 할아버지한테 편지지를 받아서….”

“편지를 보냈다고만 하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지오가 탄식을 뱉었다.

“전달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왜요? 가는 거 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차이솔 학생은 초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요?”

“쉽게 말하자면 통화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통화료?”

“차이솔 학생보다 초상화에 능숙한 제가 편지를 보내도 글자가 뭉개지죠.”

그림이 현실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였다. 가상의 것이 지구의 것으로 변할 때 해석과 분석 과정 중 변질이 되는 것이다. 그 탓에 지오의 편지는 사실상 읽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럼 차이솔 학생은 어떨까요?”

“아, 안 보내지나…?”

“보내지기는 해도 그 과정에서 소실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답장도 안 와요…?”

“답장은 아직 저조차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일방향 소통만 가능해서.”

“어어….”

차이솔의 얼굴이 그제야 희게 질렸다.

“나, 나 루다한테 말 안 하고 왔는데!!”

지오가 함께 있을 테니 위험할 리가 없다는 판단하에 쪼르르 온 것이었지만 대충 ‘내가 먼저 가서 확인할 테니까 진짜 안전하면 나랑 같이 가볼 생각을 한 번만 더 해주지 않을래? 물론 싫으면 말고. 답장 기다릴게!’라 적었던 연락조차 가지 않았다면 애초에 논외의 상황이었다.

그렇게 벌떡 일어나 초상화로 달려갔지만.

“어?! 없어졌어요!!”

“태양이시여….”

지오반니가 탄식했다.

‘이렇게까지 유치할 필요는 없지 않나.’

물론 이번 일로 지오도 차이솔도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는 해도, 그는 굳이 아이를 강제로 발전시키고 싶지는 않았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왜 굳이 그걸 마다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나중에 대화를 좀 나눠 봐야겠네.’

딱히 곰인형 태양신에게 악의가 있는 건 아니었다. 예를 들자면 게임 속 캐릭터 능력치를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겠지. 레

벨을 올리기 위해 경험치를 쌓도록 전투에 투입하는 식인 거다.

태양은 진심으로 이 길이 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고, 그건 애정에 기반한 사실이기도 했다. 하긴 태양이 인간적인 동정과 한미한 생명의 윤리를 따른다면 우스운 일일 것이었다.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차이솔 학생. 저희 아버지께서 문을 닫은 것 같군요.”

“왜, 왜요...? 아까까지만 해도 열려 있었는데?”

“차이솔 학생이 위험해질 것 같으면 다시 문을 열어 주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 상태일 것 같네요. 이번 과정에서 차이솔 학생이 발전하길 원하시는 거겠죠.”

“발전 다 좋은데 일단 루다한테 설명 좀... 나 진짜 변명 한 번만...! 정말 안 위험할 거 알아서 잠깐 보고만 올 생각이었던 건데...!!”

“그런 것치고 제 옆에 눌러앉으려던 의사가 너무 확고하지 않았던가요?”

“그건 형이랑 있으면 안전하니까 루다 답장 올 때까지만 같이 기다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저런, 안쓰러워라.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지오반니가 웃었다. 신을 모셨던 지오반니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직감했다.

“루다 학생이 이 일을 몰라야 받아낼 수 있는 운명이 있어서.”

이만한 운명을 짜내지 못하는 걸 보면 역시 그는 신이 아닌 게 분명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의 저력인가.’

그래, 나 정도면 평범하지.

* * *

“아무래도....”

태양교 사제들이 결론을 내렸다.

“인어가 차이솔 예비 사제를 납치한 것 같습니다.”

“서지오 헌터 역시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니....”

“심지어 차이솔 형제는 예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혹시 연구소의 악신이 태양교에 들어와 차이솔 형제에게 접근했던 것도?”

“산칼루트 교의 신성과 인어가 손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검은망토의 사도들인가.”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지만 인어들이 검은망토를 견제하려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실제로 이세르라는 인어가 비슷한 발언을 했다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이루다는 울먹였다.

“...차이솔 돌려줘요....”

“이 일에 대해 금방 연락을 넣겠습니다, 어쩌면 던전에 있을지도 몰라요.”

“납치된 아동 피해자가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아세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진입 명령조차 떨어지지 않았고....”

“나도 파견 갈래요...!”

파트너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혼자 안전하게 있을 생각은 없었다.

“파견 보내줘요!!”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였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197)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98)

198

제198화

제 파트너의 안위에 눈이 돌아간 사람은 이루다 한 명만이 아니었다.

“바다를 정리하라고요.”

“예, 냉기 계열 헌터가 전부 모여도 바다를 상대하는 건 역시 힘이 들어서... 한 명의 헌터조차 아쉬운 상황입니다. 심란하신 건 알겠지만 손을 빌려 주십시오.”

“그러면.”

유성운이 웃으며 물었다.

“던전 진입 허가가 납니까?”

눈은 안 웃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도?”

“거의 확실해요.”

“거의?”

“유성운 헌터.”

협회 직원이 이해한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아시잖습니까, 이런 상황에 헌터 한 명만을 따로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유성운 헌터가 유능한 건 알지만 솔로 플레이로 인간형 몬스터가 보스인 던전 공략은 어려울 거고요.”

“일단 보내주시면 서지오 헌터만 꺼내서 돌아오죠. 예,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협회에서 허가를 내려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보자?”

“이미 죽고 다친 헌터들도 많고, 실종된 헌터들도 많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유성운 헌터만의 편의를 봐드리면 다른 헌터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부디 진정하시고....”

“알겠습니다.”

유성운도 납득했다.

“그럼 바다가 정리되는 대로 진입 허가가 내려진다고 확언을 부탁드립니다.”

“…협회에 다시 말을 올려 보겠습니다. 양동 작전을 펼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정리가 되는 대로 일을 진행할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으니, 가능할 겁니다.”

“정리를 모두 마치기 전에 확답이 왔으면 좋겠군요.”

“바다의 동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몬스터에게 주도권이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내가 잃기 아까운 인력이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아직 ‘지오의 초상화’를 제대로 분석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죽을 생각은 없었다.

“바로 시작하죠.”

말이 쉬워 ‘정리’지, 방을 청소하는 것만큼 쉬운 일일 리가 없었다.

헌터들은 마치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파도를 얼렸고, 그 안에서 광란 현상을 보이는 각종 해양 생물과 몬스터들을 상대해야 했다.

‘골치 아프네.’

그리고 이 모든 바다에 대한 방벽을 마련해야만 ‘정리’를 마쳤다고 할 수 있었다.

유성운은 곧장 현장으로 파견되었다.

“유성운 헌터—!!”

냉기 계열로 유명한 유성운을 알아보는 헌터들은 많았다. 헌터들은 저와 같은 원소를 다루는 헌터에 관심이 컸다. 유성운은 특유의 무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눈에 닥치는 대로 다 얼려요.”

“미쳤나? 수습은 어떻게 하시려고?”

“말이 험해졌네, 서 헌터 납치되고 회까닥했다더니.”

“본론은?”

“돈 들여야죠, 뭐.”

나중에 수습으로 빠질 자본 생각하며 깔짝거리느니, 처음부터 시말서 쓸 각오 하고 크게 벌이는 쪽이 훨씬 싸게 먹힐 상황이었다.

“이 이상 지체되면 해안가 벗어나서 내지로 들어갑니다. 바닷물이 미쳤는지 뱀처럼 안쪽으로 기어들어 가려고 해요. 우박으로 인한 몬스터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해안선에서의 저지가 급선무다?”

“그런 셈입니다. 그렇다고 물을 손으로 막을 수는 없고, 식물 먹이로 주는 것도 바닷물이라 여의치도 않고, 커다란 벽을 세워도 원숭이처럼 기어오르니 남는 건 얼리는 것뿐입니다.”

“화염 계열 헌터는 안 쓰나?”

“그쪽은 이미 난리 났어요, 이런 대량의 해일을 막는 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인력이고요. 괜히 비꼬지 말고 슬슬 바다로 들어갑시다.”

“이거 참….”

사아악—!

유성운의 발에 냉기가 모이고, 이내 날이 되었다.

“일 더럽게 꼬였네.”

탁!!

스케이트로 변한 신발의 코로 땅을 툭 쳤다.

그 순간 유성운의 인영이 사라졌다. 그는 곧장 거대한 방벽을 타고 올라 그 너머의 바다로 풀쩍 뛰었다. 그가 이동하는 길을 따라 매끈한 얼음판이 두껍게 쌓였고, 그것은 또 다른 방벽이 되어주었다.

“…….”

후웅―!!

높은 방벽 아래로 추락하기 직전, 유성운은 공중에서 상황을 살폈다.

‘초대형 하나, 대형 여섯, 중형 서른둘.’

그 이외의 잡다한 소형은 유성운 담당이 아니었다.

“하아….”

후우웅―…!!

빠르게 추락하며 그는 생각했다.

‘퇴근하고 싶다.’

콰지지지직!!!!!

유성운이 ‘땅’에 발을 디뎠다.

그가 디딘 곳부터 극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거대하고 단단한 ‘빙하’가 생성되었다.

그 끔찍한 냉기는 해수면과 그 아래까지도 퍼져나가 순식간에 출렁거리던 파도를 얼어붙게 했다. 그 굉음을 확인한 헌터들이 소리쳤다.

“시발 지원이다!!”

“살려줘요, 바다 너무 개같아…!!”

“와 A급 왔다, 길 터줘! 빨리 터줘!!”

“어리바리들아 얼어 뒤지기 싫으면 길 터!!!”

유성운을 알아본 헌터들은 멀찍이 자리를 비켰고, 유성운은 그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며 바다를 얼려나갔다.

냉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고등급 헌터들은 지금 유성운이 쓰는 것과 같은 스케이트를 착용한다.

잘만 활용하면 속도를 높일 수 있을뿐더러 날을 무기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 대재앙 이전의 대한민국은 한때 피겨 스케이팅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는데 그 영향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다.

‘쓸 만한 건 사실이지만.’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친다.

다리에 힘을 주어 가볍게 싱글 악셀. 어그러지고 흔들리는 얼음판을 부드럽게 뛰어넘고, 콰지직―!! 회전하며 몬스터를 베어 넘긴다. 그대로 착지. 한 바퀴 스핀. 방해물을 피하고, 다시 이동.

빠르게 달려나가며 창으로 쾅!!! 얼음판을 찍고선 위로 뛰어오른다. 수직 회전으로 몬스터를 내려찍고, 거기서 반동을 얻어 공중으로 떠오른다. 스케이트 날에 썰린 몬스터의 체액이 얼어 후두둑 떨어진다.

약간의 변형만이 있을 뿐 같은 작업의 반복. 스케이트를 이용해 부드러움을, 창을 이용해 파괴력을 확보한다. 나아가고, 뛰어오르고, 내리찍고, 베고, 착지해서 또다시 나아간다.

‘이런 작업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단순 노동이다.’

툭, 투득—!!

다수의 몬스터들을 피해 스텝을 주며 이동한다. 캉!! 내리치자 얼음판에서 창이 솟구치고, 몬스터가 꿰뚫린다. 피가 비산한다.

유성운은 이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다. 지나가며 만들어낸 얼음길 사이사이 함께 얼려진 몬스터들이 빙하를 깨부수고 난리를 부렸으나 이는 다른 헌터들이 상대했다.

“.......”

하지만 그런다고 끝날 상황은 아니었다.

‘바다는 넓지.’

그리고 깊다.

‘나 한 명이 어찌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아무리 유성운이 싹싹 빌어 정원의 힘을 끌어 쓴다 해도 이 행성의 모든 바다를 얼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지구의 생존을 고려한다면 그래서도 안 됐다, 회생 불가능한 지경이 될 테니.

‘하지만 조금 정도라면....’

유성운이 다시 한번 긴 얼음 창을 꺼내, 손에 쥐어, 콰—!!! 바닥을 찍어, 그 반동으로 하늘을 날았다.

“...후우우—”

공중에 뜬 그가 대형 몬스터의 눈에 얼음 창을 겨누고.

찍었다.

“.......”

파앙—!!!

몬스터의 몸이 터져나갔다.

“...읍퉷퉤.”

끼익—.

한 바퀴 돌아 얼음 위에 멈춰 선 유성운이 입에 들어온 얼음 파편을 뱉어냈다.

“어우 짜.”

몬스터의 체액과 바닷물의 조합은 아무래도 짤 수밖에 없었다.

녹지 않은 얼음 조각들을 털어낸 유성운이 툭, 스케이트를 놀려 다시 빠르게 해수면 위로 걸어 나갔다. 그가 가는 길마다 거대한 빙하가 생기고 몬스터들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는 다른 A급 헌터들도 계속해 내고 있는 일이었다.

‘반복되고 있어, 악순환이다.’

유성운은 특히 거대하고 단단한 얼음, 극점의 빙하를 만들어 내기로 유명한 헌터였다. 하지만 여기 유능한 냉기 헌터들은 죄다 모였음에도 바다는 부서지고 파도치길 반복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

이 파도의 ‘주인’이 스스로 나오게끔 귀찮게 해야 했다.

“내 주특기지.”

콰직. 풍덩—!!!

유성운은 얼음을 깨고 바다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 있는 이 많은 몬스터들이 냉기를 품게 되면 어떻게 될까.'

수습이야 힘들어지겠지만, 그건 유성운의 미안해할 바가 아니었다. 어차피 그와 관련된 작업은 미래의 유성운 자신이 야근과 임금 삭감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다면....'

유성운은 이 전쟁에 참가했을 정원사, 정영원을 떠올렸다.

'상당히 귀찮게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는 제게 다가오는 해양 몬스터들을 보며 씩 웃었다. 이런 물속에서는 육지 생물인 인간이 매우 불리하겠지만, 그처럼 영혼까지 얼어붙은 설원의 정원사라면 말이 달라졌다.

정원사는 정원의 씨앗과 열매를 관리하는 일꾼이었다.

"......."

체내에 또 다른 정원이 피어난다면 그 어떤 몬스터라도 곤란해하지 않겠는가?

유성운이 제 몸에 얼음칼을 박고, 그대로 그었다. 몬스터들은 달콤한 혈향에 입을 쩍 벌렸다.

'어디 한번 갈 데까지 가보자고.'

바다에 새빨간 눈꽃이 피어났다.

* * *

"유성운 헌터가 실종되었습니다!!"

부상을 입고 물러나 있던 방벽 너머 해안가의 헌터들이 수군거렸다.

"예? 유성운 헌터가, 어디로...?"

"그만한 얼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헌터가 바다에서 제 몸 하나 간수 못 하진 않을 텐데?"

"하지만 바다 안쪽으로 빠지는 걸 확인했어요, 구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실종이라고 말할 정도면 빠진 지 시간이 좀 됐다는 건데?"

"바쁘신 건 알지만 그래도 소식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아니, 지금 실종된 헌터가 몇입니까."

그렇다고 지금 헌터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 보낼 수 있는 인력이 마땅치 않았다. 그것도 바닷속에 빠져버린 헌터라면 더더욱 그랬다. 이런 상황에서는 각자 알아서 살아 나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에 후방에서 치료를 받던 정영원 치료사가 물었다.

"바다로 빠진 건가요, 들어간 건가요?"

"네? 그, 그건... 잘...."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정원사는 근원에 잡아먹히지 않는 한 쉽게 죽지 않는다.

"바다를 더 살펴보세요. 유성운이라는 객체 한 명의 안위보다는 좀 더 넓게, 바다의 상황을 파악해 주시면 흘러가는 일을 알아내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

눈을 깜박인 정영원이 말했다.

“…소리가 잦아들고 있네요.”

“이렇게 시끄러운데 무슨 소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보세요. 바다의 파도가 깨지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건….”

“됐네요.”

정영원은 코웃음을 치며 몸을 돌렸다.

“그 인간 내버려둬도 됩니다,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하, 하지만…! 유성운 헌터가 잘못되면 일에 차질이 생깁니다!”

“알아서 잘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내 몇몇 헌터들도 이변을 느꼈다.

“…? 아니, 잠깐만….”

“정말로 소리가…?”

그건 한순간이었다.

“…….”

“…….”

방벽 안쪽이 서늘할 만큼, 정말 순식간에 적막해졌다.

“…이게 대체?”

“얼추 다 얼렸나 본데요.”

몬스터들이 울부짖는 희미한 소리를 배경 삼아 정영원이 말했다.

“다들 가서 일해요, 몬스터 잡아.”

“아, 네?”

“그리고 유성운 헌터도 좀 잡아 와요.”

“유성운 헌터 말입니까?”

“분명 어딘가에 널브러져 있을 거야.”

아니나 다를까 곧 전방의 헌터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치, 치료사님! 힐러!! 힐러!!”

“내려놔요.”

피투성이가 된 유성운 헌터가 들려온 것이다.

‘정원께서 성장하셨나 본데.’

정영원은 유성운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막사의 침대 위에 누인 유성운의 상처를 치료하며 그의 의식을 점검했다. 그러고는 눈이 딱 마주쳤다.

유성운이 씩 웃었다.

“제법이지?”

“많이 크셨나 봐요.”

“요즘 따라 춥더라고, 몸이 으슬으슬한 게….”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더 큰 힘인데.”

“좋은 차를 많이 마셨더니.”

정원이 무럭무럭 자라지 뭔가.

“…….”

“바다가 전부 얼었습니다!!”

“가서 일하라니까?”

“아, 네, 넵…!!”

헌터들이 한데 모여 만들어낸 얼음과 빙하가 깨지고 부딪히는 소리는 더 이상 나지 않았다. 대신 그 사이에 처박혀 울부짖거나 펄떡대는 고깃덩어리의 육중한 소음이 날 뿐이었다.

‘방벽 너머라 훨씬 조용한 걸 감안해도 대단하네.’

이 정도면 시야에 보이는 거의 모든 바다가 얼었다고 봐야 했다.

‘속까지.’

정영원은 유성운이 무슨 일을 한 건지 알았다.

“효과가 좋던가요?”

“언다는 게 보통 그렇잖아.”

어디 한 곳에 씨앗이 생기면 점점 커져만 간다.

“굳는 건 한순간이지.”

유성운은 제 몸을 ‘씨앗’ 삼아, 바닷속 그 많은 몬스터들의 먹이로 주었다. 그의 끔찍할 만큼 차가운 피를 머금은 해양 몬스터들은 순식간에 얼어붙어 바다의 내부부터 얼려갔다.

다른 무엇도 아닌 근원의 냉기이니 그 효과는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바깥만 공략하는 것보다는 안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귀가 편안해진 걸 보니.”

“얼리지 못한 곳도 많은데 정원의 냉기가 심해까지 퍼지기는 한계가 있었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다른 헌터들이 얼려둔 게 있어서 확실히 속도가 빨랐네.”

유성운이 처음부터 바다의 온도를 낮춰 그 광활한 빙하를 만들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또 그의 역량만으로는 역부족이었겠지만, 이미 유능한 헌터들이 나서서 바다의 온도를 한참이나 낮춰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단지 얼음이 되기 직전의 바다에 그럴싸한 시작점을 만들어준 것뿐이었다.

“나름 효과가 있었지?”

“그렇긴 하지만 부담이 심하셨을 텐데요.”

정원사는 정원의 내부에서 그들을 관리하지, 바깥으로 빼돌려서는 벌을 받게 된다.

“그만큼… 서지오 헌터가 걱정되셨나요?”

“지금 같은 상황에 걱정이 안 되겠어?”

유성운은 인어들의 욕심을 알았다.

“자칫하면 뿌리가 옮겨질 거야.”

인어의 집착은 유성운이 상상하던 것 이상이었다.

신성을 품지 않았다 뿐이지 지금껏 여러 악신의 시선은 한 몸에 받아왔을 거대한 업적을 쌓아온 그들이, 초상화에 있지 않아 한참은 약해진 지오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그러니 좀, 무리를 해야 했어. 이거 회복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들까?”

“빌어먹을 딜러들은 뇌가 닭만큼 작은 게 분명하단 말이지. 이 꼴을 하고 그런 말이 잘도 나오시는군요? 힐러는 치료 자판기가 아닙니다, 뚝딱 하고 나오지 않아요.”

“아니, 내가 그걸 모르겠어? 대략 얼마냐고. 그냥 순수하게 기간을 묻는 거야.”

“정원의 여파가 있으니 짧은 시간 내에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공을 더 들인다고 해도 후유증을 완전히 처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영원은 꽤 나쁘지 않은 힐러였다.

“서지오 헌터님께서 위험하시다니, 저도 천벌을 감수해 보죠.”

그리고 꽤 괜찮은 정원사였다.

“화원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이거 감사하네.”

“알면 헌터님이나 무사히 데려오세요.”

근원의 눈께서 영광되게도 지구에 뿌리를 내려주셨다. 저만의 정원을 모시고 있는 정원사라면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정영원은 근원을 제 신성처럼 모시는 인간이었다.

“그분이 무사하시다면 화원께서도 기뻐하시겠죠.”

정영원의 손끝에 부드러운 봉숭아 빛이 물들었다.

화원에서 끌어온, 생명의 힘이었다.

* * *

“…….”

“…안녕하세요….”

“하하.”

지오가 웃으며 말했다.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뭐를? 태양의 힘이 뻔히 묻어 있는 이 아이를?”

아리아 역시 빙글 눈을 휘며 웃었다.

“너무 질투가 나서 오체분시를 해버리고 싶은데 말이야?”

“그래도 내 첫 번째 신도인데….”

"그렇게 말하니 또 죽이기가 뭐하고."

아리아가 흠, 하고 턱을 쓸었다.

"하긴 이 싸움은 선생님의 싸움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딴곳에 빼두셨지요?"

"물론 사심을 채우기는 할 건데, 이렇게 되었다면 어쩔 수 없네."

그녀는 사교계의 신사에 버금갈 정중한 미소를 지었다.

"귀여운 인질로 쓰면 되겠지?"

"안 다치게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 선생님이 우리 비위를 잘 맞춰준다면 차이솔 군은 솜털 하나 다치지 않을 테니까."

"또 그렇게 악당처럼 말하기는...."

"차원에서도 손꼽히는 악당이 맞기는 하지."

둘의 대화에 차이솔이 경악했다.

"저 때문에 지오 형이 다쳐요??"

"걱정 마세요, 꼬마 신사분. 결코 다치지 않을 겁니다."

"하, 하지만 방금...!"

"알면 다쳐요."

"지, 집에 함부로 막 들어온 거 잘못했어요...! 얌전히 있을게요! 지오 형 아프게 하지 마세요!"

"깜찍하기도 해라, 하지만 안 돼."

아리아가 지오반니를 보았다.

"슬슬 작업을 시작해야겠어, 이제 바다가 나의 귀여운 아이들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얼어붙기 시작했거든. 이 사건의 책임자가 신전을 비우기 전에... 할 일은 해야겠지."

그녀는 제 선생님의 뺨을 쓰다듬었다.

"바다로 돌아올 준비는 되었을까?"

"이런, 가엾어라...."

지오가 그 손에 얼굴을 기대었다.

"내 자비가 필요하시군요."

"물론이야, 선생님."

인어들은 항상 태양의 자비를 원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198)"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199)

199

제199화

“뭘 하는 거예요?”

약간의 슬픔과 걱정이 어린 앳되고 순수한 의문에 아리아가 멈칫했다가, 잠시 뒤 대답했다.

“말하자면 뿌리를 옮기는 거지.”

“사람한테도 뿌리가 있어요...?”

“그 어떤 존재에게도 뿌리는 있어.”

하물며 무생물조차도 말이다.

“왜? 차이솔 군도 바다로 오고 싶어서 그러나?”

“나는 있는 그대로가 좋아요.”

“그거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대가 오면 지오반니도 한결 편하게 돌아왔을 텐데....”

“왜 돌아온다고 해요?”

“새끼 인간이라 그런지 질문이 많군.”

“싫으면 조용히 있을게요.”

“주제 파악도 잘하고....”

말끝을 흐린 아리아가 시스템을 다듬으며 이어 말했다.

“원래 이 바다에 있었어야 했을 사람이었어.”

여기가 ‘고향’이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빼앗긴 것뿐이지.”

“누가 빼앗았는데요?”

“운명이.”

지긋지긋한 운명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

“형은 아파요?”

“…아픈 일은 아니야.”

그 증거로, 바닷물 속에 잠겨 있는 지오의 얼굴은 잠든 사람처럼 평온했다.

“나는 그저 이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돌려준 거니까.”

“여기가 지오 형이 원래 있었어야 했던 곳이에요?”

차이솔은 슬픈 얼굴로 중얼거렸다.

“여긴 너무 추워요. 반짝거리는 게 많지만 너무 넓고, 친구들도 없고, 조용하고… 지오 형이 앉아 있는 저 의자는 푹신해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 의자에는 세기의 명예가 있었어.”

“오래 앉으면 딱딱해서 엉덩이가 아플 것 같아요.”

“지오반니와 비슷한 말을 하는군.”

그도 이런 엉뚱한 발상을 자주 했었다. 태양교의 건물은 워낙 반짝거리는 게 많아서 눈이 피곤하다거나, 이 넓고 거대한 신전은 참 외로워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거나….

“과연 선생님이 정한 첫 사도인가?”

“누나는 그게 부럽다고 했는데, 좋은 거예요?”

“그것 하나만 놓고 본다면 글쎄, 확실하지 않아.”

한때 지오반니의 애정을 한몸에 받는 제자였던 입장에서 하는 말이었다.

“이 사람은 너무 특별해서 단 한 순간도 평범할 수가 없어. 온갖 비극과 찬사에 휩쓸려 다녀야 하고, 혹은 본인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하지.”

“…….”

“하지만… 하품이 절로 나올 정도로 평범하기도 해. 꽤 많은 면에서 그랬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다는 건 참 힘든 일이야.”

아리아는 어느새 바닷물로 가득 찬 교황의 방을 보았다.

“아름답지 않니?”

“뭐가요?”

“완벽해 보여.”

지오반니에게 마땅히 돌아갔어야 했을 자리였다.

“그 모든 영광과 명예가 그의 것이었는데….”

지금처럼 이 신전이 춥지 않을 때, 태양이 인어의 증오로 무너지지 않았을 때 지오가 저 어좌의 주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진정 바다와 하늘은 하나가 되었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못난 동생 역시 괴로울 일이 없었을 것이었단 말이다.

“…….”

“…저기.”

차이솔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뿌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이렇게 지오를 괴롭히는 이유를 묻는 건가?”

“원래 식물도 화분을 갈아 주잖아요, 더 넓은 곳으로….”

“첫째, 지구라는 화분이 썩 좋아 보이지도 않고.”

아리아가 손가락을 접어 말했다.

“둘째, 나는 선생님과 죽고 싶은 것뿐이다.”

“그거 진짜… 엄청…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역시 닮았어, 여러분은.”

이상하게 긴장감이 없단 말이야.

“지오반니가 저렇게 된 모습을 보고도 하고 싶은 말이 그것뿐인가?”

“…….”

차이솔은 고개를 돌려, 바닷물로 가득 찬 방 한가운데 묶인 지오를 보았다.

그는 정말로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미소가 없음에도 보는 사람이 평온해지는 차분한 얼굴에, 소리를 전부 잡아먹은 바닷물에 함께 삼켜져서 무척이나 고요했다.

그런 그를 얽아맨 보석 사슬들이 투명하게 빛나서….

“…그냥….”

차이솔은 어디선가 이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았다.

“높은 산에 올랐을 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한걸.”

“정상에 올라서 아래를 바라볼 때요.”

모든 세상이 한눈에 보여 순간 ‘멋지다’거나 ‘예쁘다’는 감상이 들었을 때와 같았다. 차이솔의 어린 어휘력으로는 아직 그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단지 자연이 만들어낸 명화의 한 폭 같았다.

그래서 슬픈 기분이 들었다.

“지오 형은 사람인데 왜 저러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지.”

“그거랑은, 조금 다른데….”

“…그럴 수도 있고.”

아리아 역시 그랬다.

“이럴 때마다 심장이 쿵 떨어진다니까.”

당신은 인간으로서 우리를 이끌었으나, 재회한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건 아리아에게 기이한 고통을 가져다주고는 했다.

“자, 이리 오세요. 저 바닷물에 닿으면 너같이 작은 아이는 쉽게 죽어버릴 테니까.”

아리아가 몸을 숙여, 차이솔의 사제복 안쪽에 숨겨져 있을 조그마한 목걸이의 보석을 톡 쳤다.

“네가 다치면 너의 사랑스러운 친구가 슬퍼하지 않겠니?”

“…….”

“걱정 말거라, 지오반니가 저곳에 있는 이상 나는 그대를 해치지도, 아프게 하지도 않을 거다.”

“…지금 아파요.”

“저기 갇혀 있는 선생님을 보고 나서?”

다정하기도 하지.

“그 다정이 언젠가 너를 잡아먹길 바라마.”

지오반니처럼 말이다.

그건 아리아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조언이었다.

“…….”

“…….”

차이솔은 아리아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

‘…지오 형이랑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온 건데.’

가라고 할 때 고집부리지 않았으면 서로 좋았을 걸 결국 민폐를 끼치고 말았다.

‘원래도 이렇게 되었을 거라면서 괜찮다고 말해주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게 진심이자 사실인 걸 알지만, 차이솔의 존재로 지오의 입장이 더 불리해졌다는 것 역시 변함없는 사실이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지금은 지오의 곁에 붙어 심심하지 않게 수다를 떨어줄 수도 없었다. 지오가 해안가 전선에서 전투를 하고 있을 줄 알고 따라왔는데 벌써 던전에 와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루다랑 선생님들도 걱정 많이 하고 있을 거야. 무턱대고 움직여도 괜찮았던 마을에서랑은 달라. 내가 조금 더 생각하고 움직였더라면….’

차이솔은 문득 자신을 이곳으로 보냈던 푹신한 태양이 떠올랐다.

“…….”

신이 하는 일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

음, 그렇군. 차이솔은 방긋 웃었다.

“…왜 웃지?”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어요.”

“글쎄, 나는 딱히 그렇지는 않던걸.”

“저랑 다른 세계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아리아가 물었다.

“고민은 다 했나?”

“네!”

“그럼 슬슬 가둬 놔야겠네.”

“네?”

차이솔이 눈을 가늘게 떴다.

“지오 형이랑 약속했잖아요…?”

“그래, 당장 안 죽이기로 했잖나.”

“아프게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둬만 둘 거다.”

“어른들은 치사해.”

“연륜으로 쌓인 지혜라는 거지.”

그리고 반대편 복도에서, 이세르가 모습을 드러냈다.

“누님, 바다로 가십니까?”

“그러니 이 아이를 부탁한다.”

“어디에 두면 될까요?”

“다치지 않을 곳에.”

아리아가 힐긋 차이솔을 내려다보았다.

“…아프지 않을 곳에 두어.”

차갑지만 부드러운 손길이 떨어져 나갔다.

“바다에서 인간들이 날뛰어 준 모양이니, 이제는 내가 가야겠어.”

“바깥에서는 지구의 바다를 전체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나라고 그걸 모를 것 같으냐? 내가 지구에 현신해 생긴 빈틈은 네가 메꿔야지.”

“이곳에 들어오는 인간들은 제가 상대하도록 하죠.”

“그래, 평소와 다를 것 없어.”

아리아는 그대로 신전의 복도를 거닐었다.

“괴물은 괴물의 길이 있는 법이지.”

어찌 될지는 모르나, 잠깐의 단꿈 끝에 결말이 다가왔다.

“기다리는 건 많이 해봤어.”

“…알겠습니다.”

기적이 찾아와 주었으니.

이제는 직접 마중을 가야 할 때였다.

* * *

강서담은 말을 잃었다.

“…….”

“…끕, 우으….”

“…이루다 자매?”

“차, 차이솔….”

“왜 여기 계십니까?”

그가 이루다와 함께 온 태양교의 형제들을 서슬 퍼런 눈으로 보았다.

“지금 예비 사제를 이 전장에 끌고 온 겁니까?”

“아, 아니요! 저희는 정말 안 데려오려고 했는데…!”

“아이가 고집을 부렸더라도 막았어야지요, 그게 인솔자의 역할입니다!”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길래 조건을 걸고 데려온 겁니다.”

“어떤 조건이지요?”

“강서담 사제님께서 거절하면 돌아가기로….”

“…….”

기어이 제 할 일을 떠넘기는 동료의 모습에 강서담이 이를 악물었다. 얼굴에 핏대가 섰지만, 차마 우는 아이 앞에서 큰 소리는 내지 못하고 결국 희미한 한숨을 내뱉었다.

그가 울망울망한 얼굴의 이루다를 내려다보았다. 그동안 꽤 많은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얼굴은 또 처음이었다. 사고가 성숙하긴 해도 역시 아이는 아이였다.

‘그러니 더더욱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강서담이 허리를 숙였다.

“이루다 자매, 파트너가 걱정되어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킁, 잡혀, 잡혀갔다고 해서. 그래서….”

“이곳의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믿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이루다는 이런 상황에서마저 도움이 되는 인력이 맞았다. 하물며 인어들에게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이솔도 그랬다. 그들의 재능은 연륜을 넘어설 만큼 컸으니까.

하지만 강서담은 이곳에서 그런 깨끗한 새싹들이 다치지 않기를 원했다.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어릴 적의 기억은 아닌 척 뇌에 깊이 새겨져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

“약속합니다, 차이솔 형제는 제가 무사히 데려오는 걸로요.”

“하, 하지만….”

울먹거리던 이루다가 한참이나 말끝을 흐리다, 이내 킁, 코를 한 번 더 훌쩍이고서는 빠릿하게 눈을 치켜떴다. 그녀는 애써 자신을 다스리며 현명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했다.

‘감정적으로 밀어붙여 봤자 내가 원하는 건 얻어낼 수 없어.’

기껏 사제들을 설득해서 실제 현장까지 온 보람이 없게 여기서 돌려보내질 수는 없었다. 그래, 그녀는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조금만 더 하면 됐다.

“…예비 사제가 현장에 파견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알아요. 오히려 서울의 교단은 전부 비상사태 시 예비 사제 또한 소집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요?”

“공부해 오셨군요.”

강서담은 어린 예비 사제의 인권 따위 신경 써주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 크게 분노했다. 진작 관련 법률을 만들거나 조항을 준비해 두었다면 이런 곤란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이 비상사태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비 사제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의 위급

한 상황은 아니죠. 교단의 사제들을 부르면 불렀지 예비 사제는 쉽게 다뤄선 안 될 인력입니다.”

“하지만 모든 섭리의 종교에서 파트너는 한 몸처럼 여겨집니다. 나는 내 파트너를 위해 움직일 권리가 있고, 의무도 있어요. 비상사태 시 태양교의 여러 사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 행동은 충분히 태양교의 규칙 아래에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예비 사제를 동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차이솔 형제가 정말로 ‘심해의 나라’에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가 실종된 시점이 너무나 공교로웠을 뿐 증거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예비 사제인 이루다 자매를 쓰는 것은….”

“즈, 증거 있어요.”

손이 제 할 일을 못 하고 목 부근을 더듬는다. 침착하고 영리하게 대처하고 싶었지만 몸을 통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몇 번의 짧은 시도 끝에 이루다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동그란 보석 하나를 꺼냈다.

“…….”

“공명석이에요, 이거….”

자세히 보니 손뿐만 아니라, 보석 자체도 떨리고 있었다.

“하.”

강서담이 헛웃음을 뱉었다.

공명석은 쌍둥이 원석으로, 형제 원석이 가까워질수록 서로 떨리는 성질을 갖추었다. 지금은 가공되어 여러 통신 장비에도 활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순수한 원석 그 자체였다.

“파트너인 차이솔과 함께 나눠 가진 겁니다. 품질 보증서도 가지고 왔어요, 그 어떤 가공도 조치도 거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공명석은… 기능은 다른 아티팩트에 비해 부족할지는 몰라도, 형제 근처에서 반응한다는 성질 하나만큼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강서담이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공명석을 들고 있는 존재가 몬스터일 수도 있습니다.”

“저, 저는 이걸 목걸이의 형태로 주었어요. 그건, 목걸이 줄은 자연히 벗겨지지 않는 성질의 아티팩트입니다. 목이 잘리지 않는 한… 함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도 아무튼 차이솔 형제가 이 근처에 있다는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정도의 근거가 있다면 수색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말한 강서담이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왜 여기까지 억지를 부려서라도 왔는지 알 것 같군요.”

“…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공명석에 대한 진실을 숨길 수도 있잖아요.”

“꽤 치사하게 들리지만,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비 사제를 동원하지 말라는 법률은, 규칙은 그 어디에도 없다. 다만 작고 어린 것은 이런 상황에 짐이 될뿐더러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으니 하지 않을 뿐이었다.

‘빌어먹을.’

명분이 전부 준비되었는데 한 사람 몫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제를 거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됐다. 이곳까지 이루다를 데려온 사제 중 분명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강서담의 침묵이 불안했는지 이루다가 다시 주섬주섬 종이들을 꺼내 들었다.

“이건 제가 그동안 받아온 실적서입니다. 시, 실습에 나가서도 충분한 성과를 내왔어요. 정식 사제분들 못지않은 성과고, 포지션도 탱커로… 어디 가서 쉽게 다치거나 죽지 않아요.”

“…….”

“보세요, 여기 의료 기록서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제가 모시는 신성께서 저를 지켜 주십니다. 과분하게도 태양의 여신께서 시선을 내려주신 덕분에 질병에도, 다, 다른… 재생력도 좋고….”

“그만하십시오.”

결국 강서담은 한숨을 참지 못했다.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루다처럼 작은 아이가 자신의 쓸모에 대해 늘어놓는 꼴이라니, 도저히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강서담은 다시 한 번 이 세계에 환멸을 느끼며 하얗게 질린 이루다에게 말했다.

“확실히 저는 더 이상 이루다 자매의 협조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렇게까지 많은 자료를 준비했다면 감정에 휩쓸려 일을 그르치거나, 크게 다치지도 않겠죠.”

“그, 그렇다면…!”

“하지만 제게 약속해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는 것처럼 이루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저, 절대 큰 부상을 입지 않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꼭 탈출석을 쓸게요. 혼자 다니는 일도 없을 거고 충분히 다른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무모한 짓 하지 않겠다고… 제가 그동안 선생님과 쌓아온 신뢰를 걸고 약속드려요.”

영민한 아이였다.

“…….”

“믿어주세요, 딱 한 번만… 이 이후로 고집부리는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이루다 학생을 믿습니다.”

단지 세상을 불신할 뿐이었다.

“태양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15살만 되었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마음이었을 텐데, 이루다는 그보다 한참 더 어린 학생이었다. 강서담은 고작 ‘어리다’는 이유로 이루다를 막을 수 없는 세상을 원망했다.

그 세상을 구성하는 자신도 말이다.

* * *

“아, 정말이지.”

바다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고향을 이렇게 망가트리면 쓰나.”

“…….”

“역시 인간들은 변덕스럽단 말이야.”

해수와 얼음이 보석처럼 이루어져 만들어진 형상이, 눈을 짙게 휘었다.

“안 그런가, 유성운 헌터?”

“몬스터에게 듣고 싶지는 않은데.”

유성운이 마주 웃었다.

“이제 직접 싸워보려고?”

“바다를 더 망가트리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어서.”

“우리 서지오 헌터는 어디에 두고 왔나?”

“그의 뿌리를 옮기고 있는 참이지, 이 더러운 지구에서부터....”

“아하, 그거참 많이 바빴을 텐데 용케 나오셨어?”

“그러니 영광으로 생각해도 좋다, 인간치곤 굉장한 성과이지 않아?”

“입에 발린 말을 참 잘한단 말이야.”

“그대들이 아는 인간형 몬스터의 특징이 아닌가?”

“그래, 이런 대화가 무의미한 것도 알지.”

채앵—!

그가 창을 들었다.

“내가 만든 설원은 마음에 들어?”

“아, 세상에.”

아리아가 꺄르르 웃음을 터트렸다.

“아주 황홀하군...!!”

콰아아아아—...!!!

인어의 증오에 얼음 바다가 요동쳤다.

“...여긴 너무 더웠어, 그렇지?”

바다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이명이...!!”

“윽...?! 이게 무슨...!”

“수면 아래를 조심하십시오!!”

“다수의 몬스터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 안쪽에서....”

누군가가 얼음 너머의 인영을 보았다.

“저건...!!”

“이, 인어...?!”

인어의 떼가, 심해로부터 빠져나오고 있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00)

200

제200화

차이솔은 정말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

여기만 딴 세상 같았다.

"되게 밝네요?"

"신전의 다른 곳도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야, 어두웠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존대를 쓰거나 반말을 쓰거나 하나만 좀...."

"그럼 은하야."

"바로 반말인가. 그래요, 무슨 일이죠?"

"은하도 나한테 반말해도 돼."

"싫습니다."

이세르가 질색했다.

"인간과 그렇게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친해지고 싶은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그럴 것 같기는 했어."

차이솔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잖아."

"...티가 많이 났습니까?"

"응."

은하의 눈은 늘 서늘했다.

“그래도 나만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싫어했잖아. 그건 예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사람들을 싫어하게 됐다는 걸 테니까.”

“이상한 구석에서 예리한 면이 있단 말이지….”

“왜 사람들을 싫어해?”

“…….”

이세르가 웃었다.

“그런 무지함조차 싫어합니다.”

“응, 그래서 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으니까요.”

“그게 지오 형이지?”

“맞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태양의 사제를 꿈꿨는데.

“그래서 차이솔, 당신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역겨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검은망토의 첫 번째 신자가 되었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신을 해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

“내가 언젠가 당신의 자리에 있고 싶었으니까….”

“내 자리?”

“태양의 품에서.”

언젠가 지오반니가 교황이 되면, 그가 일구어낸 하늘의 밑에서. 또 땅 위에서.

“내 선생님의 오롯한 제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건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보였다. 아무런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달콤한 일상을 즐기기만 하면 저절로 다가올 미래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될 이유가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인간들은 날 짓밟았죠.”

“…….”

“…선생님도….”

이세르는 알고 있었다.

“…….”

“…….”

그날 자신이 살아 있는 선생님을 잡아먹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나 이상으로 끔찍하게 여기는 것은 없습니다. 나아갈 길에 지독한 시체를 쌓아둔 내 누이도, 나와 선생님을 수조에 가두었던 태양의 사제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손가락질하기에 바빴던 인간들도 전부 밉지만 나만큼은 아니에요.”

이세르가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질문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무엇으로 보이죠?”

“은하?”

“당신답군요.”

하지만 그는 은하가 아니었다. 제 이름의 뜻인 은하수는 더더욱 아니었다. 지상의 모든 불이 꺼져서야 눈에 간신히 담을 수 있는 밤하늘의 보석을 그와 비교할 수는 없었다.

“이 방은 마음에 드십니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아.”

“신경을 조금 썼습니다.”

푹신한 인형들이 가득 깔린 방은 뾰족한 모서리 하나 없이 둥글기만 했다. 조명은 심해의 던전이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따듯하고 밝았으며, 어딘가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봄날 오수를 닮았다.

“선생님의 오두막을 참고했죠.”

“아, 거기 멋있어. 맛있는 것도 많고.”

차이솔은 이세르가 건네준 말린 과일을 먹으며 말했다.

“하지만 거기랑은 달라….”

포근포근하고 따듯한 온기는 분명 지오의 오두막을 닮았는데, 뭔가 이상했다. 귓가에 징징 울리는 형광등 소리처럼 어딘가 눅눅하고 기분이 나빴다.

“낮잠이 아니라 치매에 걸릴 것 같아.”

“희한한 문장을 구사하시는군요.”

“있잖아.”

차이솔이 말했다.

“나는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

“헉, 얼굴….”

“…제발 역겹게 굴지 마세요.”

멀미가 난다는 듯이 입가를 쓸었다. 이세르가 해쓱해진 얼굴로 간신히 대답했다.

“싫다는데 계속 강요하는 것도 폭력이랍니다.”

“하지만 은하는 이미 어마어마한 폭력을 저지른 거 아니야…?”

“의외로 반격할 줄 아시네요, 그렇지만 틀렸어요. 애초에 저랑 같은 존재처럼 굴 생각은 하지 마셔야지요.”

이세르는 단호했다.

“당신이 내 선생님의 세 번째 제자라면 말입니다.”

“…….”

차이솔의 입이 삐죽 튀어나왔다.

“지오 형은 내 선생님 아닌데.”

“그분의 제자가 된 걸 영광스럽게 여기세요.”

“우린 친구야.”

“감히?”

“지오 형 말인데.”

아이가 물었다.

“뿌리가 옮겨지면 어떻게 돼?”

“…바다로 돌아올 겁니다.”

그건 인어들이 품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아마 힘들겠지만.”

지오는 늘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해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 * *

지오반니는 세상을 눈에 담았다.

“…….”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음….”

어리다.

‘내가 몇 살이더라.’

한 13살 정도 된 것 같았다.

그가 있는 곳은 시끌벅적한 장터였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귀족의 신분에 맞지 않게 어딘가 후줄근한 부분이 있었다. 어린 지오반니는 이 옷을 입고 세상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성자님.”

“저는 성자가 아닙니다.”

“예, 사제님….”

“무슨 일이신가요?”

“지난번에 저희 아들을 고쳐주셨지요.”

“별일 아니었습니다, 제 욕심이었어요.”

“부디 이걸 받아주세요.”

주름이 지긋하게 파인 노인이 사과 한 알을 건네고 사라졌다.

“…….”

둥글고, 흠집이 없고, 붉게 잘 익어 아주 예쁜 사과였다.

“…맛있네.”

그 노인은 집 마당에 작은 사과나무를 키우고 있었다. 어린나무인 만큼 열매를 많이 맺지도 못하고, 능숙하게 매달고 있지도 못한다. 그러니 이 윤기가 나는 사과는 아주 값진 것이었다.

'마음에 들어.'

기분이 좋았다.

"아기 성자님."

"성자가 아닙니다."

"네에, 아기 사제님. 날이 덥지요?"

"오늘따라 태양께서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딸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별 탈 없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 따님께서 힘을 내신 덕분입니다, 축하할 일이네요."

"부디 이 물을 가지고 가세요. 날이 아주 덥네요."

연륜 있는 여인이 건넨 물은 시원했다. 집의 마당 깊은 곳에 식혀둔 물을 방금 막 꺼내 온 것이리라. 지나가는 길에 저를 보고, 이 더운 날에, 그 깊은 곳을 오갔다.

감사한 일이었다.

"시원해라."

도자기 잔에 들린 물은 시원한 숲의 향이 났다. 분명 질 좋은 수로에서 퍼 온 것이겠지. 먼지나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했을 터였다.

"저기, 성자님."

"저는 성자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예전에 제 다리를 치료해 주셨지요?"

"기억이 납니다, 뼈가 부러지셨던가요."

"보답해 드리고 싶어 집에서 꿀을 가져왔습니다."

"그건 제가 원한 일이었습니다, 보답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자님은 달고 맛있는 걸 많이 드셔야 해요."

"어째서죠?"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 분이니까요."

"……."

그릇에 주륵, 꿀이 흘러내린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고 불렀다.

태양이 내린 아들이라고 불렀다. 신께서 현신하여 작은 몸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가 짓는 웃음이 햇살이라 말하며, 그가 걷는 걸음이 운명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지 않은가?

'왜일까?'

그는 인간이었다.

‘나는 그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은 언제나 그 위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오반니는 계속해서 걸었다. 걷고 또 걸었다. 익숙한 마을이 나왔다. 따듯한 햇살이 여름의 향기를 머금고 땅과 바다 위로 떨어졌다. 지오는 자신이 바다를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곳은 바다였다. 땅의 끝이었다. 바다 마을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바다였다.

“…….”

바람이 그를 쓰다듬어,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

바다였다.

다시 앞을 보았다.

“…….”

바다였다.

“…너무 멀리 왔나?”

그의 발은 어느덧 해수면 위에 떠 있었다. 이대로 풍덩 빠지면 참 시원할 것 같았다.

햇살은 대단히 뜨거웠고, 하늘 위에는 구름 한 점이 없었다. 지오의 맨발로 닿아오는 바다의 수면은 너무나 시원해 일순 황홀함을 느꼈다.

‘언젠가 이곳에 빠졌었던 것 같은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작고 아름다운 인어 공주가 그를 반겨줄 것 같았다.

“…….”

“선생님.”

어린 인어가 손을 뻗는다.

“덥지 않아?”

“내가 딛고 있던 땅은 어디로 갔나요?”

“그건 이제 없어, 내가 전부 잡아먹어 버렸거든.”

“내가 몇 살이던가요?”

“태어난 지 30년은 넘었던 것 같아.”

“아리아, 그대는요?”

“기억나지 않아.”

어느덧 바다가 된 인어가 뻗었던 손을 거두었다. 어린 모습은 마치 신기루였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속삭였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

차분하고 달콤한 음성이었다.

“너무나 길었지, 우리는 좀 더 짧은 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

“욕심이었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좋아.”

바다의 주인이 된 인어에게선 작고 여린 후계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고, 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악인이었으며, 또한 거대한 바다였다.

“그림을 그려줘, 선생님.”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

“나를 그려줘, 내 동생도 좋아.”

“이 바다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그려주던 바다를 나는 정말로 사랑했어.”

“어째서입니까?”

“생명이 느껴져서....”

인어는 어느새 두 발을 가지고, 수면 위에 올랐다. 곧게 선 그녀의 키는 지오반니보다 조금밖에 작지 않았다. 아리아는 몸을 기대어 지오반니을 가볍게 껴안았다.

“그거 알아? 이렇게 포옹하면 심장의 고동이 들린다.”

“나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맞아, 선생님은 죽었잖아.”

그녀는 철없이 물었다.

“왜 그랬어?”

가엾게도.

“도망쳤으면 됐을 거야, 분명히.”

“도망치다 붙잡혔을 겁니다.”

“차라리 그게 좋았겠지, 다 같이 죽는 게 지금보다는 덜 끔찍했을 것 같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어들의 악행조차 그랬다. 죄악의 무게와 별개로 그들의 선택을 이해했다. 그렇게 되고 만다.

“여러분 말대로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몸이 차갑네.”

아리아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물었다.

“바다에 빠졌나?”

“그랬습니다.”

“춥지는 않았고?”

“많이 추웠죠.”

“인간들을 원망하지?”

“원망하고 동정합니다.”

“아팠을 거 아니야.”

“고통스러웠어요.”

찢어진 살과 뼈 사이로 고인 소금물이 차오르는 감각은 썩 상쾌한 것이 아니었다. 다리를 묶고 있던 족쇄는 발목을 끊을

것처럼 조였고, 지오반니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싶었으나 기운이 없어 이따금 죽은 관상어처럼 수조를 떠다녔다.

“하필 이세르가 그곳에 들어오게 될 줄은 몰라서….”

그게 너무 아팠다.

“나는 이세르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 아이가 나를 죽여주었죠.”

“그 전에는 왜 죽지 않았지?”

“너희를 보고 싶었어.”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그사이 얼마나 컸을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인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배를 곯거나 또 이상한 연구에 몰두하지 않을까. 큰 상처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정작 수조에서는 이세르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눈이 너무 아파서 앞을 보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반가웠습니다.”

“뜯어 먹힐 때 아프지는 않았고?”

“솔직히 말하자면 몽롱함이 더 커서 괜찮았습니다.”

태양은 과연 무엇을 위해 지오반니를 살려 두었을까, 생각해 보니.

“나에게 그 아이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함이었어.”

그 음성만큼은 귀로 들어오더라. 인어는 심해에서도 말을 할 수 있는 덕분이었다.

“이만하면 태양께 감사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선생님은 너무 긍정적이야….”

“왠지 내 품이 젖어드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이겠지.”

아리아는 서럽게 울었다.

“인어는 울지 않아.”

울지 못한다.

“여긴 꿈인걸.”

“너를 내가 아리아라고 불러도 될까?”

“…나는 그녀의 사념일 뿐이다.”

“그러니 결국 너의 조각 중 하나겠구나.”

“참… 말을 잘해, 그렇지?”

“그녀는 무얼 하고 있니?”

“발악하고 있겠지.”

“내가 이곳에 남았으면 좋겠어?”

“…하하….”

어색한 웃음.

“…….”

“…….”

인어는 차마 여기 남아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렇구나.”

그리고 지오 역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00)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01)

201

제201화

해안가와 조금 떨어진 곳.

"보, 보통 보스가 바깥으로 나오기도 합니까...? 일반적인 던전 브레이크와는 다른 것 같은데...."

젊은 사제의 질문에 팀을 이끌던 강서담이 대답했다.

"드물게 인간형 몬스터를 중심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가진 몬스터는 활동의 범위가 넓죠. 권능의 규모가 방대하니 꼭 자신의 던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일을 해낼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다가 저희가 타야 할 잠수함이 공격을 받으면... 방금 들어보니 심해에서 인어들이 마구 치밀어 오르고 있답니다."

"냉기 계열의 헌터들이 힘을 모아 얼려준 덕분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걸 대비해 염력 계열의 헌터분들도 함께 가지 않습니까. 저희 태양의 자식 역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니 되도록 주변을 잘 살피며 가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들은 던전 보스가 둥지 바깥으로 나오며 간신히 생긴 틈을 타 인어의 던전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한쪽은 바깥으로 나온 보스를, 다른 한쪽은 던전의 심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맨몸으로 이동할 수는 없으니 잠수정을 이용해야 했다. 그들은 협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했다. 강서담이 나지막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루다 자매가 후방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잘 이야기가 되었으니 얌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할 겁니다, 그쪽이라고 크게 안전하지는 않으니."

"약속은 잘 지키는 아이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아마 인어의 던전, '심해의 나라'에 차이솔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루다는 파트너인 차이솔을 찾기 위해 꾸역꾸역 이번 전쟁에 참가했으나 예비 사제인 그녀를 던전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간 S급 던전인 것이다.

"...하긴 이렇게 걱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군."

지금은 이루다가 자신을 잘 통제하길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잠수정까지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동 계열의 헌터들이 번잡한 곳에서는 작업할 수가 없어서….”

“아뇨, 순수하게 얼마나 더 가야 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이동 계열 헌터들이 정신을 집중하는 데에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도착합니다.”

그때, 협회 직원에게 연락이 왔다.

“…네?! 아, 아니, 그게 무슨….”

“왜 그러십니까? 일이 틀어졌나요?”

“이동 계열 헌터들과 잠수정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저희가 가면….”

“그, 이런 상황에서 이동 계열 헌터는 후퇴를 최우선으로 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 순간 이동 능력자들은 물몸이었다. 공격력과 방어력은 전무하지만 회피력 하나만큼은 그 어떤 계열보다도 높은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안전한 곳에서 작업을 하며 비상사태 시 동원되더라도 신변의 위협이 닥칠 경우 도망치는 게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수많은 헌터들이 이동 수단으로 착취당하며 죽어 나간 끝에 만들어진 규칙이었다.

“잠수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에서 인어들이 기어 나와 공격하고 있다 했으니 그쪽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잠수정이 있지 않나요? 보통 이런 경우 한 대만 준비하진 않을 텐데….”

“인어의 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아 상황이 썩 희망적이지는 않아요.”

그에 헌터 중 한 명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던전을 가지 말자고?”

“아뇨, 던전으로 가기는 해야죠. 거기를 공략하지 않으면 이 빌어먹을 전투가 언제 끝나게 될지 모릅니다. 물량이야 던전 쪽에서 무한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수정도 없다, 텔레포트 헌터들은 던전으로 바로 보내줄 수는 없다고 하면, 뭐 어쩌자고.”

협회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대안을 내놓았다.

“예비로 배치해 둔 잠수정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끌고 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이미 커다란 잠수정을 옮기느라 기존의 이동 계열 헌터분들은 많이 지치셨을 테니 다른 인력을 배치해야 할 거고….”

“그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해령의 헌터, 사나래가 물었다.

“우리 돌아가면 되나?”

“그….”

“응? 돌아가면 되지?”

꽤 불량하고 비협조적인 질문이었지만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니었다.

던전을 공략하기 위해 엄선한 이곳의 헌터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진 상황이고, 보스를 공략하러 간 헌터들은 새 잠수정을 준비할 시간 동안 해안가에서 얼마나 더 죽어 나가게 될지 몰랐다.

“여기서 시간만 죽이는 건 안 될 말이잖아.”

“사나래 헌터의 말씀이 맞습니다.”

협회 직원들의 얼굴이 거무죽죽해질 때였다.

“…….”

“…잠깐만, 저거….”

“액자?”

헌터들이 이상을 감지했다.

“언제부터 저기에 액자가 있었죠?”

대재앙 이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해안가의 콘크리트 벽. 그 낡고 무너진 벽에 걸려 있는 액자에 무언가를 감지한 헌터들이 그 앞으로 다가갔다.

사나래가 질린 표정을 지었다.

“바다 냄새.”

“네?”

“…….”

“…아, 진짜다.”

그것은 어딘가 익숙한 신전을 그려놓은 그림이었다.

“검은망토…?”

누군가의 중얼거림에 액자의 그림이 일렁였다.

“미친?”

“이, 이건 또 무슨 상황이에요?”

“저 안쪽의 그림 아마 ‘심해의 신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야?”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뭔… 우리 도와주는 거라고?”

헌터들은 황당해했다.

“몬스터가 인간을 왜 도와줘요?”

“하지만 평소에도 검은망토는 착한 사람들한테 선물 주는 거 좋아한다고….”

“우리가 착해? 아니잖아.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공략도 착한 일로 쳐주나?”

검은망토를 몬스터로 인식하는 반응에 착잡함을 느끼면서도 강서담이 협회 직원 쪽을 살폈다.

“…….”

“…? 왜, 왜 그러십니까?”

“아니요.”

아마 이쪽은 진실을 모르는 듯했다. 강서담은 납득했다.

‘하긴 협회 직원이라고 말단까지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을 테지.’

이 최전방까지 나온 직원을 고작 말단으로 치부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보’는 아무 데나 퍼트리기엔 위험도가 있었다.

강서담은 찰나에 수백 가지 고민을 했지만, 결국 신성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그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사제의 자격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내용이지만, 오히려 지금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태양교에서는 검은망토가 극소수의 사도들을 품은 일종의 신성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네, 네?!”

“아니, 그게 무슨…!!”

헌터들뿐만 아니라 협회 직원들도 경악하는 모습이었다. 강서담은 자신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 세상을 원망했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할 일은 해야 하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 사도로는 수집상의 서지오 헌터와 태양교의 예비 사제 차이솔이 파악되었죠.”

“서, 설마 그게 사실이라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태양교 내부에서는 기정사실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서지오 헌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태양의 기운을 느낀 적이 있고, 차이솔 예비 사제 또한 이와 관련한 증언을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들은 왜 하필 이런 타이밍에 ‘검은망토’가 ‘문’을 열어 주었는지 알 것 같았다.

“자기 자식들을 구해달라는 건가.”

실제로 신성이 차원 시스템의 간섭으로 지구에 직접적인 힘을 쓰지 못해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례는 몇 번이고 있었다. 특히 검은망토라면 이미 한국에 자리를 잡은 존재. 이 정도 문을 여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좀 더 이 화제에 대해서 파고들어 보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검은망토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생각해요. 아무튼 이게 몬스터가 열어준 문이 아니라면 사용해도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악신일 수도 있잖아요, 검은망토가. 이 문이 정말 안전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안가 헌터들이 보스의 시선을 잡아끌어 주고 있을 때 재빠르게 안쪽으로 진입을 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섣불리 행동했다가 우리가 전원 몰살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던전 내부에 붙잡힌 인질들도 있는 와중에 여기서 우왕좌왕하기만 할 겁니까?!”

“서지오 헌터나 차이솔이라는 예비 사제가 정말 검은망토의 사도라면 이런 상황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즈음 무언가가 액자 속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꾸.”

“…뭐, 뭐.”

“꾸우?”

“.......”

헌터 중 한 명이 건조대에 널린 빨래처럼 액자에 걸쳐진 푹신한 무언가를 보고선 제 눈을 의심했다.

“...곰인형?”

어딘가 빛바랜 털가죽이지만 꾸준히 관리를 받은 듯 솜이 푹신하게 가득 차 있는, 품 안에 쏙 들어올 만큼 작고 팔다리도 짧은, 그리고 따듯한 색감의 퐁신퐁신한 곰인형이었다.

“이건 또 뭐야.”

“아니, 잠깐만요. 저거....”

“...태, 태양의 힘이 느껴져요.”

강서담과 같은 태양의 사제들이 웅성거렸다.

“맞아요, 분명 태양의 힘입니다! 시, 신성은 느껴지지 않지만 그 흔적은 확실히...!”

“검은망토의 사도 중 하나가 아닐까요? 그, 생긴 건 저렇지만 정말로 태양이 느껴져요!”

그리고 강서담은 깨달았다.

‘서지오 씨가 던전에 갇혀 있는데 누가 액자를 열어주었나 했더니.’

오두막에 초대받은 적 없는 강서담은 유성운이나 주현과 달리 이 곰인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느껴지는 신성의 흔적과 태양의 기운으로 그가 검은망토와 큰 연관이 있는 사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챘다.

‘아니, 오히려 이건....’

예전에 ‘심해의 신전’에 방문했을 때 느꼈던 기운과도 흡사했다.

“.......”

결론을 내린 강서담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이 곰인형에게서는 확실한 태양의 기운이 느껴지며 그 어느 차원에서도 태양이 섭리의 편이 아니었던 적은 없었지요. 악신의 사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그렇지만....”

“정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저희 태양교부터 먼저 진입을 하겠습니다.”

태양교는 오히려 또 다른 태양이 자신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상기된 얼굴이었다. 순수보다는 친교. 그간 여러 태양과 합일의 뜻을 함께해 온 사제들은 다른 차원의 태양 역시 대단히 우호적으로 대했다.

“정말로 검은망토가 태양의 신성이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익히 들었지만 이런 귀여운 현신체의 사도까지 있었을 줄이야.”

“주는 선물이랑 느낌이 비슷하네요.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나?”

“검은망토 그 자체도 그렇고, 참 인간들에게 신사적이고 호의적인 신비들이 아닙니까?”

“인간을 이렇게까지 배려해 준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제들의 웅성거림에 다른 헌터들의 표정도 조금씩 풀렸다.

“...하긴, 평소에도 검은망토는 친절했고....”

“...여기 뭐 자기 동료 팽하고 튄 사람 있어요?”

“어지간한 인성 파탄만 아니라면 검은망토도 공격하지 않는다고 했죠.”

“솔직히 여기서 쪼는 건 자기 쓰레기라고 인증하는 거 아닌가?”

"그래요 시발, 자타 공인 쓰레기가 될 수는 없지."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면서도 태양교 사제들의 태평한 모습에 신뢰를 얻은 듯했다.

"얼떨떨한 건 여전하지만, 뭐…."

"진입합시다."

그렇게 헌터들은 검은망토의 힘을 빌려 하나둘씩 액자 안에, 그려졌다.

"……."

"…저, 팀장님."

"나도 혼란스러우니까 말 걸지 마라."

협회 직원들은 액자 안쪽에서 살아 움직이는 헌터들의 '그림'을 보며 황망해했다.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빨리 상부 통신구 좀 가져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나도 위쪽에 물어봐야 해."

"아, 그, 금방 이동 계열 헌터님들 불러오겠습니다. 여긴 그래도 안전지대에 가까우니 곧 오실 거예요."

"돌겠다,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네."

보고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 * *

"……."

"…여긴…."

찰박….

얕게 물이 깔린 대리석 바닥.

"…확실히 '심해의 신전' 내부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헌터들은 불안과 경계 속에서 주변을 훑었다.

"예전에 한 번 들른 적이 있지만,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어둡고.

찬란하고.

몽환적이다.

"뭔가… 불길해요."

"꼭 악신의 장난질에 빠진 기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헌터 중 한 명이 이 팀의 리더인 강서담에게 물었다.

"이 던전의 인어들, 악신이었습니까?"

"아니요."

다만.

"그에 준하는 업적을 쌓았을 뿐입니다."

강서담은 질린 기분으로 인어들의 세상을 보았다.

"……."

다시 찾은 신전은 소름 돋게 안온하고, 또 아름다웠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 만하군.'

장례식을 닮았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01)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01)"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02)

202

제202화

신전에서는 은은한 노래가 들려왔다.

“이건 찬송가 아닙니까…?”

“제가 달님교 신자라 가끔 듣는데, 진짜 비슷해요.”

태양교 사제들은 조금 불쾌해했다.

“…굳이 따지자면 찬송가의 규격이 맞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지구의 음악과 비슷하다고 해도 다른 차원의 것을 같다고 칠 수는 없죠.”

“무슨 단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진 않네요.”

찬송가란 신을 찬양하며 신앙심을 키우기 위한 음악이었다. 하물며 이곳이 한때 태양의 신전이었음이 밝혀졌는데 이런 기이한 찬송가가 흘러나오다니, 신성 모독 그 자체였다. 태양을 모욕하고 사악한 것을 찬미하는 것이다.

신전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희미한 노랫소리는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어 기괴했고, 또 부드러운 가락이라 여름날 늘어진 황혼처럼 나른했으며, 짐승의 울음소리를 닮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바닷물에 퍼지는 고래의 울음처럼 일렁였다.

“…….”

“…어쨌든.”

헌터들은 기이한 공기 속에서도 제 할 일을 찾았다.

“가장 중요한 건 심장부의 파악인가요.”

“예, 몬스터 자체가 심장일 때도 많지만… 따로 심장이 있을 때도 만만치 않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납치된 서지오 헌터와 차이솔 예비 사제의 신병 확보도 중요합니다. 둘 모두 대단한 인재예요, 이렇게 죽게 둘 수는 없지요.”

“좀 둘러봐야 할 것 같은데.”

강서담이 동그랗고 작은 보석을 들며 말했다.

“차이솔 예비 사제의 위치라면 이 공명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루다가 파트너인 차이솔과 함께 나눠 가졌다던 공명석은 액자 안으로 들어오자 더욱 생동감 있게 진동했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작은 심장과도 같은 박동이었다.

“확실히 이 던전 내에 있는 것은 확실하군요.”

“그럼 서지오 헌터도...?”

“일단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갇혀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이동하겠습니다.”

“심장부를 찾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일단은 두 팀으로 갈라지죠.”

한쪽은 인질 구출, 한쪽은 심장 파악으로 말이다.

“사나래 헌터,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으응, 나 그런 거 잘해. 걱정하지 마.”

“강한 몬스터가 나와도 다른 곳으로 튀지 않게 조원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하하, 걱정 마, 걱정 마. 우리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안 가는군.’

강서담이 사나래와 같은 팀이 된 헌터들과 시선을 마주했다. 그들도 한숨을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급한 전투라 가지각색의 헌터들이 모였지만 최소한 어리바리 헌터는 없었다.

‘이쪽은 믿어도 되겠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뵙죠.”

“네, 나중에 봐요.”

그들은 둘로 나뉘었다.

* * *

정원사는 정원에 속한 존재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다양한 언어로 불렀다. 말 그대로 정원사라 자칭하는 이도 있었고, 몸종이나 심부름꾼, 사도나 신자라 부를 때도 있었으며, 그의 자식이라 말하는 정원사도 있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원사’란 정원을 거역할 수 없는 이들이라는 것이다.

“아, 화원님....”

톡, 토독....

고개 숙인 정영원의 아래로 피에 얼룩진 꽃잎이 떨어졌다.

“화원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정영원은 피눈물을 흘리며 손으로 제 눈가를 짚었다. 손바닥에 닿아오는 풍성한 꽃잎의 감촉이 보드랍다.

갓 태어난 아기의 살결과 같은 순수한 매끄러움에 황홀하면서도, 화원이 외치는 분노와 슬픔에 그녀 역시 눈물 흘리며 사죄를 빌게 된다.

“화원님.”

“영원아.”

“아, 제발....”

“너 여기서 정신 놓으면 안 된다, 알지? 어?”

“여기가 너무 추우시죠.”

“아 이 미치겠네.”

남자는 정영원이라는 팀원을 관리하는 팀장이었다. 그녀가 ‘정원사’라는 것은 몰라도, 거대한 신비를 짊어진 존재라는 걸 안다. 그는 난감한 얼굴로 좁고 어두운 곳에 틀어박힌 정영원을 지켰다.

“이번에는 또 뭘 했길래 이렇게 혼나고 있어.”

정영원의 눈가와 머리카락은 화사한 꽃이 피어나 있었다. 손가락은 여린 새싹이 돋았는데, 그야말로 산 사람이 자연에 물들고 있는 섬뜩한 광경이었다.

수집상처럼 작품에 미친 놈들이라면 ‘아름답다’, 혹은 ‘예술적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모습. 하지만 평범한 감성을 가진 남자에게는 그저 소름 돋고 끔찍한 형벌일 뿐이었다.

“화원님, 화원님….”

“시기상으로는 유성운 헌터 치료한 다음인 것 같은데.”

정영원은 은월 길드 내에서도 손꼽히는 뛰어난 힐러였지만, 그런 그녀도 종종 무리를 할 때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이건 그녀가 허락 없이 제 ‘신’에게 힘을 빌렸을 때 보이는 모습이었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

물론 유성운 헌터가 회복하지 못했다면 지금쯤 막 나타난 보스 몬스터에 의해 초토화가 되었을 것이다. 이곳에는 수많은 A급 헌터들이 몰려 있었지만 그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력이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난장판이 될 상황이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애초에 유성운 헌터가 어떻게 그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한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기에 정영원이 무언가를 했다고 짐작은 되었지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지는 않았다.

“…….”

남자는 긴 한숨을 뱉으며 정영원의 곁을 지켰다.

“다른 사람들 못 오게 막아줄 테니까 빨리 회복해.”

“아, 아아악… 흐아…!”

“아이고, 난리 났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신의 힘을 빌려 썼는지 모르겠다.

‘얘가 멍청한 녀석이 아닌데.’

분명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는 알지 못하는 이유가.

남자는 주변을 지키기 위해 방 바깥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문을 닫자, 조금 당황한 얼굴로 근처에 서 있던 자그마한 인영을 볼 수 있었다. 남자는 눈을 깜박이고서는 이어서 상황을 파악했다.

“꼬마 사제님?”

“아, 네, 이루다 예비 사제입니다.”

“왜 여기에 있지?”

“다른 분들이 은월 진영에 저를 맡기신다고 해서요.”

“아하, 사제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맞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든 환영을 해야지.”

은월은 태양교, 달님교와 우호적인 관계였다. 그건 해당 교 소속의 예비 사제들과도 마찬가지였다.

“주로 잡는 포지션은?”

“탱커요.”

“자매님은 이미 신과 계약을 마친 걸로 아는데.”

“저를 좋게 봐주신 신성이 계신 덕분입니다.”

“이루다 자매님은 태어나자마자 신의 눈길을 받은 걸로 유명했지.”

“큰 은총이었죠, 그게 아니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도 오지 못했을 거예요. 뭐든 시켜주시면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보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고….”

억지를 부려서 최전방에 남았다더니 꽤 저자세였다. 혹시라도 쫓겨날까 자진해서 몸을 숙이는 것이 불편해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어휘력이 과하게 좋은 아이는 조금 낯설었다.

“그러니까 어디 뭐 다친 곳이 있어서 온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음, 그렇구나. 가능하면 우리 진영을 지켜주면 좋겠어.”

드물기는 해도 이루다 정도의 아이가 전방에 나서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었다. 남자는 익숙하게 이루다가 할 일과 그 위치를 정리했다.

“여기는 대부분 힐러가 모인 곳이라 죄다 물몸이거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어, 그리고….”

“…….”

“…들었나?”

정영원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소리를 말이다.

“못 들은 척해 줄래?”

“모시는 신성께 걸고 함구하겠습니다.”

“그래주면 고맙고.”

왜 저런 상태가 되었는지 물어보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나도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정영원이 저런 식으로 ‘화원님’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그나마 그녀와 친한 남자이기 때문에 ‘모시는 신이라도 있나’ 하는 거지, 그 역시 정영원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했다.

‘그래도 여기저기 떠벌려서 좋을 건 없어.’

정영원은 좋은 동료였고, 괜찮은 친구였다. 그런 그녀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가급적 함께 숨겨주고 싶은 게 사실이었다.

“탱킹이 어떤 식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

“몬스터들을 홀려서 한곳으로 모은 다음 방어막을 치는 식입니다.”

“결계 같은 건가. 그럼 아예 가둬둘 수도 있어?”

“무형의 벽을 설치하는 개념이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벽 하나라도 설치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거지, 존경스럽네.”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더라.

“그 결계의 형태는 어떤 식인데?”

“최근에 반구의 형태로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수용 면적은?”

“성인 남성 다섯까지 가능해요.”

“오, 그건 꽤....”

대단한 일이었다.

결계의 형태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구의 형태이고, 반구는 그다음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결계 능력 헌터들은 그런 식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에 큰 벽을 느끼고는 했다.

‘그런데 벌써 반구가 가능한 데다 사람도 다섯이나 수용이 가능하다니.’

아무리 신의 선택을 받았다지만 재능이 출중했다.

“흠, 그럼 그냥 직사각형의 벽을 세우는 거라면?”

“그거라면 지금 이 천막까지는 가능해요. 입구를 막는 것밖에는 못 하겠지만....”

“그럼 꼬마 사제님은 최대한 힘을 아끼고 있다가, 최전방이 뚫려서 물량이 쏟아지면 그때 나서는 걸로 하자.”

“...결정권자의 말에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정말 그걸로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후퇴를 고려해야 하는 때일 텐데, 그건 이번 전투에서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역시 이루다 자매님은 똑똑하네.”

하지만 그 정도면 됐다.

“자매님의 능력은 딱 그럴 때 써야 맞아. 최후의 상황에서, 아무도 너와 이곳의 환자들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서는 거지.”

“.......”

“그 전까지는 할 일 없이 탱자탱자 놀아도 된다는 말이었어. 알아들었나?”

“그건 너무 죄송해서....”

“죄송하면 힐러분들이라도 좀 도와주든가. 태양교는 예비 사제 시절부터 응급 처치에 대해 배운다고 들었는데, 필요한 물건들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도와드려.”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래.”

남자는 특유의 미소를 지었다.

“나는 여유를 부리는 게 아니라 벽 너머의 사람들을 믿는 거거든.”

바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A급 헌터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B급 헌터도 죄다 몰려서 보스를 막고 있었다. 남자는 그들이 내지까지 그것을 들여보내지 않으리라 믿었다.

* * *

“흐아아아악!!”

“시발, 누가 어리바리 데려왔어!!”

“누가 어리바리래 개새끼야…!!”

물론 최전방의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개같은 거, 바닷물을 대체 어디에서 끌어 올리고 있는 건데!”

유성운의 활약으로 수면과 그 아래까지 얼리는 것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심해에서부터 얼지 않은 바닷물이 끊임없이 솟아올라 헌터들을 공격해 왔다.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건지 점차 끌어 올려지는 바닷물이 슬러시처럼 유동적으로나마 얼어 있었지만….

“뭔 바닷물에 자아가 있어!!”

“와 시발 미치겠다…!”

콰직! 콰직! 콰직—!!

단단하고 굵직한 얼음이 섞인 바닷물은 마치 살아 있는 뱀처럼 움직여 헌터들에게 날아와 꽂혔다.

헌터들은 차디찬 바닷물과 함께 생동하는 얼음을 쳐내며 심해에서부터 기어 올라온 인어들을 상대해야 했다.

“뭔 놈의 인어들이…!!”

“야, 누가 화염 계열 헌터들 좀 불러와 봐!!”

“이거 이쪽 인력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을 보며 인어들은 웃었다.

“아하하하하!”

“하하하, 우흐흐흐…!”

“아아, 아아아!!”

풍덩—!!

“끄아아악!!”

“야, 저 새끼 잡아!!”

그것들은 언어를 쓰지는 않았으나, 공황에 빠진 인간들의 발목을 잡고 바다 아래로 잡아끌었다. 단단하게 언 바다 안쪽에 빠지면 제아무리 헌터라도 생환이 어려워졌다.

살점으로 이루어진 인어들을 상대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가지고 있는 무기로 찢어도 되고, 냉기로 얼려도 됐다. 문제는 심해에서부터 기어 나오는 인어들의 수였다.

“뭐가 이렇게 많아…!”

바다에서부터 인어들이 끝도 없이 올라왔다.

“시발, 이거 공략조는 무사히 진입한 거 맞습니까?!”

“거 던전으로 진입했다고 연락 왔더라!!”

만약 잠수정을 타고 이동했으면 상당한 피해가 나왔을 뻔했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다. 워낙 급한 상황이라 ‘검은 망토’가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들은 바가 없어도 헌터들은 약간이나마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유성운은 미쳐 날뛰었다.

파앙—!!!

"……."

설원의 얼음은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다.

그는 창을 땅에 박아 넣고, 그 반동을 이용해 날아올라 또 다른 창을 찰나의 순간에 생성했다. 그러고는 인어 공주의 몸을 얼림과 동시에 찢었다.

촤르륵—! 유리구슬이나 다이아몬드가 흩뿌려질 때와 같은 소리가 퍼졌다.

하지만 이내 아문다.

"이런, 아파라."

"허, 참."

콰드득!!!

빙하 위로 또 다른 얼음을 만들어내며 유성운이 착지했다. 그러고는 다시 달렸다.

"엄살도 심해라."

비웃음을 매단 얼굴을, 심장이 없을 몸통을, 장식이 분명할 다리를.

총알처럼 튀어나간 그는 또 한 번 여인의 얼굴을 얼리고 부수었으나 결과는 같았다. 유성운뿐만 아니라 수많은 헌터가 얼리고 깨부수기를 반복했으나 인어 공주에게는 아무런 타격도 없었다.

'그렇겠지.'

바다는 극지에도 존재한다.

'아무리 추운 곳이더라도 바다는 있어.'

그것은 일부 얼 수는 있어도 모두 얼릴 수는 없다. 바다를 전부 얼린다는 건 그 차원에 빙하기를 가져온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러니 저 바다와 동화된 인어를 얼려서 타격을 주는 건 불가능….'

촤아악—!!!

빙판에 미끄러지며 유성운이 창을 고쳐 쥐었다.

'냉기로 할 수 있는 건 저것의 움직임을 잠시나마 멈추는 것뿐이다.'

그것만으로도 인간들은 큰 도움을 받고 있기는 했다. 보스 몬스터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큰 피해가 나왔으니 동결시키기라도 해야지. 하지만 이걸로는 제자리걸음일 뿐이다.

'심지어 우리 쪽의 피해가 더 커.'

인어는 살아 숨 쉬는 바다이지만, 인간들은 냉기 그 자체가 아니었다. 이런 소모전을 계속해 봤자 이득을 보는 건 인어 공주뿐이었다. 저것은 인간들이 제풀에 지치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었다.

"하, 시발."

유성운의 얼굴이 사납게 일그러졌다.

"꼬라지 하고는."

"유성운 헌터, 얼려요!!"

"아 갑니다!!"

쐬애애애애액!!!

콰지직—!!

콰광, 채앵!!

화살처럼 날아오는 바닷물의 작살을 하나씩 얼린다.

유성운이 그것을 밟고 미끄러졌다. 공주의 본체로 다가가려는 순간 와자작, 얼음 다리가 부서져 내렸으나 또 다른 얼음들을 밟고, 뛰고, 날아서 또다시 공주에게 닿았다.

숨결이 닿은 그 순간.

“이봐.”

바다가 말했다.

“누가 이길까?”

“내가.”

유성운은 괴물의 질문에 단호하게 웃었다.

“이겨.”

콰지지직, 파앙—!!!

공주의 얼굴이 산산조각 나 비산한다.

“…….”

촤아악!!

다시 한번 빙하에 발을 딛자, 찰나에 회복한 인어 공주가 웃었다.

“…아하하, 하하…!”

“왜 웃어?”

“아주 자신만만한 것이 우습지 않은가?”

“서지오 헌터는 내 편일 거거든.”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그가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사랑하리라 믿나?”

“그럼, 물론이야. 걘는 그렇게 태어났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아리아가 물었다.

“그 남자가 자애의 화신이라 믿나?”

“평범함과 거리가 멀다는 건 알지?”

“그도 사람이었다.”

“…….”

“웃고, 떠들고,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애정과 증오.

“사람.”

인어는 지오반니가 자애의 화신 따위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 역시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괴로우면 괴로워할 줄 알고, 슬프면 울기도 하는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그대는 지

오라는 사람을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만 하는구나.”

“내가 오만하다고 말하고 싶은가? 무지하고, 억지스럽다고?”

“아, 그래, 너무나 끔찍해. 역시 인간은 이토록 징그러워. 왜 그 귀한 존재가 너희들 사이에 끼어 우상이 되어야만 하지?! 왜 행운의 상징이 되고, 자비의 성자가 되어야 해...?!”

여인은 분노했다.

“그는 평범한 인간이다!!!”

절규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02)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03)

203

제203화

꿈속의 망망대해 위.

“…선생님.”

인어가 울었다.

“사랑해.”

“…….”

지오반니 역시 그랬다. 그는 이 작고 어리석은 인어들을 사랑한다.

너무 사랑하기에 용서를 베풀지도 않았다. 그는 이 끔찍하고 잔인한 인어들을 잘 알았다.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지으며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있었다.

그게 정말로 ‘책임’인 줄 아는 바보 같은 이들.

“…그래….”

타고난 특별함은 그를 세상의 모든 운명으로부터 유리시켰으나, 내가 아무리 특별하다 한들 우리가 함께 가꾸었던 시간만 할까. 결국 인간에 불과한 지오반니는 손을 뻗기로 했다.

“…결국 너희는 내가 직접 지옥으로 끌고 가야겠구나.”

한낱 사제가 웃었다.

“이렇게 멍청할 수가.”

그러고는 울었다.

후회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괴로움이 사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베풀었음에도 지오반니는 끔찍하게 죽어야 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아끼던 제자들이 지은 죄를 눈에 담아야 한다.

“내가 이런 죄악을 마주쳐야 할 만큼 그릇된 생을 살지는 않았을 것인데….”

* * *

“사제님…!”

“차이솔 형제!”

강서담은 어느 결계 안쪽에 갇혀 있는 차이솔을 보았다.

“찾아오면서도 계속 묻고 싶었던 말이지만 대체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죄송해요, 시말서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예비 사제인 차이솔 형제는 아직 반성문으로도 충분합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쓰는 건지 돌아가면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장할 일이었다.

“이 결계를 분석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또 다른 몬스터가 오기 전에 차이솔 사제를 데리고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제가 스킬이 있습니다, 잠깐만 비켜주세요!”

헌터는 빠르게 결계의 성분과 구조를 분석했다. 그는 황당하다는 얼굴로 태양의 사제들을 돌아보았다.

“이거 태양인데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죠?”

“태양이에요, 성분도 구조도…!”

“그랬다면 저희가 못 알아봤을 리가 없는데…?!”

“하, 하지만 정말로…!”

강서담은 빠르게 현실을 받아들였다.

“저희에게 읽히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태양이 태양의 자식을 거부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허튼소리로 기운 빼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여요! 예비 사제의 앞에서 못난 꼴 보이실 겁니까!!!”

“히익….”

“잘 들으십시오, 몬스터가 오기 전에 결계를 해체합니다!!”

악귀와 같은 강서담의 얼굴에 무어라 반박하려던 사제들은 어깨가 한껏 수그러들었다. 강서담은 공과 사가 확실해 멍청하거나 무능한 사제를 혐오하며 사람 취급 안 해주는 선배님으로 유명했다.

“그, 그렇다고 해도 읽히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닥치고 비키십시오, 버러지 같은 것들! 시간만 축내지 말고 엄호라도 해!!”

“네, 네넵!!!”

일사불란하게 입구 주변을 지키고 선 사제들을 보며 함께 따라왔던 헌터들이 감탄했다.

“무섭다.”

“어, 무서워….”

아니, 쫄아들었다.

‘종교계 위아래 엄격하단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지만….’

‘나는 사제로 각성 안 해서 다행이다.’

‘강서담 사제님 화내면 저런 얼굴이구나, 대박이네.’

그들은 결계를 해체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인력을 구분한 뒤 사제들 사이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사제들과 협조할 수 있는지 다들 공부를 하고 온 헌터들이었다.

강서담과 헌터들은 머리를 쥐어뜯은 끝에야 겨우 결계를 해제했다.

“차이솔 형제, 이리 오십시오.”

“흐어엉 선생니이이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안전한 곳으로 나간 뒤에 듣겠습니다. 지금 당장 차이솔 형제를 뭍으로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니 저희를 따라 안전하게, 들으셨습니까?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아시겠어요?”

“넵, 죄송합니다…!”

“예비 사제를 관리하지 못한 선생들의 죄도 크니, 아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어서 다른 팀과 합류해서 공략을 진행해야 해요.”

여기까지 오는 길에 마주쳤던 수많은 몬스터들로 한껏 열이 올라 있던 강서담이 이내 심호흡을 했다. 그가 평소의 냉정해진 이성으로 차이솔에게 물었다.

“서지오 헌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이세르라는 인어 헌터라든지….”

“지오 형 위치 알아요!”

“잘된 일이군요, 정확히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교황 방 정중앙에 바닷물이랑 같이 묶여 있어요!”

“맙소사.”

다른 헌터들도 경악했다.

“아, 아니. 대체 왜…?!”

“그보다 왜 하필 교황 방에?!”

“뭐 이런 특별 취급이 다 있어…?”

“특별 취급이라기에는 너무 살벌하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고 보면 인어들은 민간인 인질까지 써서 서지오 헌터를 납치한 전적이 있었다. 차이솔까지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해둔 것을 보면 정말 검은망토의 사도들을 어떻게 해볼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긴 그냥 죽이기엔 아까운 인재들이지.’

‘예전에 가끔 검은망토의 액자가 신전 내부에 걸렸던 걸 생각하면 정말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 이건 조사할 가치가 있겠는데.’

‘인어들이 검은망토랑 사이가 안 좋은가…?’

묘하게 어수선한 분위기에 강서담이 한숨을 푹 내쉬며 사람들을 조율했다.

“차이솔 예비 사제가 서지오 헌터가 갇힌 방 위치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어요. 중간에 어떤 방해 공작이 들어올지 모르니 다들 긴장합시다.”

“네, 리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던 도중 두 팀으로 나누어졌던 헌터들이 다시 만났다.

“아니, 왜 여기에?!”

“스토리 파악 얼추 마치고 왔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여기밖에 더 확인할 곳이 없었어요!”

그동안 정말 황당한 몬스터와 함정들이 있었다.

“돼지 인간 사제들이 우리를 막 먹으려고 하고...!”

“그쪽도 그랬습니까?”

“연못 안쪽에서 손을 뻗는 달콤한 향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매혹 스킬이 있었는지 거기서 셋이나 잃었어요....”

“농기구 들고 쫓아오는 언데드들도 있던데요?”

“아, 그거 진짜 징그럽죠.”

“막 배고프다고 달려드는 놈들도 있었는데....”

“그건 예전 던전에도 있었어요.”

“신규 몹들 난이도 미쳤네, 진짜.”

하지만 그렇게 돌아다녔음에도 ‘심장’은 찾아내지 못했다.

“최악의 경우 보스 몬스터가 던전의 심장 그 자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보스 몬스터는 이미 바다와 한참을 동화되어 있는데....”

“젠장,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불로 증발시켜 죽이나?”

“그렇게 하다가는 끝도 없을걸요.”

“애초에 증발시키는 것도 하늘로 올라가서 수증기가 되잖아.”

“이래서 액체형 몬스터들이 정말 까다로워.”

“차라리 슬라임이면 낫지....”

“걔네는 핵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액체형 몬스터는 몸에 핵이 있어 그것을 부수면 죽었다. 하지만 바다라니, 그리고 바다와 동화된 인어라니. 그걸 대체 어떻게 상대해야 한단 말인가?

“일단 핵이 있는지부터 확실하게 해보죠.”

정말 죽일 방법이 없다면 그건 신성의 경지였다. 하지만 사제들이 모두 느끼기에 이곳에 그만한 격은 없었다. 그들은 고작해야 몬스터, 죽일 방법이 없을 리가 없었다.

“차근차근 정리하면 됩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아 거, 좀, 무거운 말 좀 하지 맙시다.”

“곤란한 상황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교황에 방에 도착한 순간.

“.......”

“…저거.”

누군가가 동시에 입을 열었다.

“서지오 헌터 아닙니까?”

“인어 아니에요…?”

그에 제 스승의 무릎에 기대어 있던 인어, 이세르가 눈을 떴다.

“…….”

지독한 혐오로 그 눈이 일렁였다.

“불청객이군.”

“…서지오 헌터를 어떻게 한 겁니까.”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뿌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이라니?”

“바다에.”

우웅—….

방에 가득 찬 물이 공명했다.

“바다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비는 중이었다.

“이 지구는 그가 있기엔 너무 좁은 화분이에요.”

“그건 인어인 당신이 정할 게 아닙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언제부터 인간들이 섭리만을 따랐죠?”

“최소한의 선은 있는 법입니다.”

“그럼 내 선생님은?”

나의 고귀한 인간 선생님은 왜 그렇게 죽었나.

“당신들을 증오해.”

“하, 우리가 네 선생을 죽였나?”

“너희의 짧은 생을 증오한다.”

찰랑—!

황금 장식이 가득 달린 스태프가, 인어의 손에 쥐어진다.

“너희 인간이 섭리의 자식 중 하나임을… 증오하고 있어.”

그들은 섭리의 증거이자 기만의 흔적이었다. 그게 인간들이 인어의 화풀이 대상이 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였다.

그래, 불합리하지.

‘하지만 괜찮아.’

애초부터 이길 생각도 없었다. 그렇게 ‘책임’을 지기로 이미 인어들은 이야기를 마친 상태였다. 이건 단지 끝으로 향하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다.

이세르는 웃었다.

“나는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더욱 아름답고 사치스러운 신전의 모습을 꾸며내고, 이야기를 궁금해할 관객들을 위해 아끼고 아껴두었던 돼지들을 꺼냈어.”

“몬스터들의 이야기인가….”

“만족했나? 아니, 그렇지 않을 걸 알아. 인간들은 탐욕스러워서 끝을 모르잖아.”

파르륵—.

이세르의 귀가 인간의 것에서 인어의 것으로 변해간다.

마치 신비로운 비단처럼 늘어진 그의 귓가는 청명한 하늘빛인 인어의 머리칼과 어우러져 구분할 수 없게 되고, 이빨은 뾰족해지고, 동공은 더욱 진주색으로 빛났다.

수룡의 것을 닮은 기다란 꼬리까지 나오고서야 스태프가 무성하게 자라났다.

“보라.”

화아아아아악—!!

황금의 스태프가 나무의 형상을 띄고 자라난다.

“심해에 태양이 자랐다.”

그것은 태양처럼 황홀한 빛을 내며 신전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러니 나 역시.”

“…하.”

“태양으로 그대들을 맞이하마.”

촤르륵—.

이세르 역시, 곧 황금으로 물들었다.

“아, 맞다….”

그의 이마 위로 나뭇가지를 닮은 뿔 두 개가 자라났다.

“그렇지.”

차가운 심해의 빛을 찰나에 벗어던진 인어가 물었다.

“너희의 태양은 자비로운가?”

“최소한 당신보다는.”

“그럼 어디 한번 빌어보지그래.”

“살려달라고?”

“아니.”

그가 짙게 웃었다.

“살아달라고.”

지금껏 바다에 잠겨왔던 수많은 차원의 태양.

그것들을 결국 ‘누가’ 잡아먹었을까?

* * *

유성운은 생각한다.

“…….”

지오반니는 인간인가?

‘맞아.’

그는 ‘한때’ 인간이었다.

서지오라는 대한민국의 엉뚱한 미술 교사도 그랬고, 독초가 우거진 우림에서 살아남은 마왕 아르지오도 그랬다. 그들은 인간의 몸으로 인간답지 않게 살다 결국 인간이 아니게 되었다.

그런 그를 작품으로 보는 것이 나쁜가?

‘나는 이미 충분히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데?’

지오는 그런 ‘유성운’이라는 인간을 좋아했다.

‘그렇잖아.’

그가 아끼는 초상화인 ‘지오’는 대단히 관대하고 호의적이라 그게 가능했다. 한낱 정원사는 근원의 눈이 내어주는 시선 한 조각에도 감동을 받아 어쩔 줄을 몰랐다.

유성운은 잘하고 있었다. 그는 정원사이자 큐레이터였다. 그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지오는 그것에 화를 내긴커녕 즐거워했다.

그러다 문득 다른 곳으로 생각이 튀었다.

“…….”

인간으로 대한다고 지오가 그것을 싫어할까?

‘…아니, 그건 아니겠지만….’

주현이라는 사례가 있으므로 그게 아닐 것을 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아?’

이건 유성운이 원한 자세고, 지오가 싫어하지 않는 태도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을 따라 큐레이터가 작품을 작품 취급하는 것은 결코 죄라고 할 수 없었다. 왜 아니지?

인어는 수많은 헌터들에 의해 온몸이 쪼개지고 터지면서도 유성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대한 파도로 만들어진 어좌와 얼음으로 만들어진 조각들 사이에 앉아 공주님께서 단정했다.

“오만한 것.”

“인정해.”

“네 주인과 다를 게 없어.”

“물론 우리는 길드장님을 닮았지….”

“끔찍하게 이기적이야.”

“인간이 원래 그래.”

인어의 증오를 부추기는 소리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사실인걸.”

그렇게 인간을 정의하고서야 조금 동요하는 것인데.

“…….”

“…….”

이명이 울리고 빙하가 깨지는 전쟁터에서, 유성운의 눈이 커졌다.

“…아.”

지오가 인간이었나?

애초에 인간이라는 건, 뭐였지…?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04)

204

제204화

어느 날 유성운의 삶에 등장한 초상화 하나.

"......."

그것은 예술적인 가치가 있었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조각해 둔 것처럼 균형 잡힌 신체, 결코 변할 일이 없는 박제된 형태, 무엇보다 존재만으로도 사람을 홀리고 광활한 구렁텅이에 빠트리는 눈.

거기에 홀리지 않을 수 있었나?

아니, 없었다.

"......."

유성운은 정원사였다. 큐레이터였다. 정원을 모시게 된 이후로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며 변할 일은 없었다. 그는 '지오의 초상화'를 경애하며 존경하고 친애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일 수도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었나?

"......."

뭐가 '사람'이었지?

"유성운 씨...!!"

"......."

"야, 시발, 유성운 너 뭐 해!!"

"......."

"시발 새끼야!!"

유성운이 눈을 느리게 깜박였다. 그의 눈이, 빙하의 색으로 물들었다.

"...확실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주제네."

그의 상관인 비사벌은 삶의 모든 것이 작품과 작품이 아닌 것으로 나뉘었다. 최근에는 거기에 '영웅'이라는 카테고리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지만, 그것까지는 당장 유성운이 알 바가 아니고.

다만 그는 제 수집품인 길드원들을 작품으로써 아끼면서도 인간으로 취급해 왔다. 유성운은 그 틀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람을 작품으로 보는 것인가, 인간으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둘 다 공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곤란해라."

유성운은 자신의 변화를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의 변화는 즉 정원의 변화와도 같았고, 작품의 변질과도 같았으므로, 그가 변할 때면 늘 크고 작은 희생이 따랐다.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할지.

"이거 좀 불쾌한데."

귀를 아프게 만드는 소음 속에서 유성운이 다시 창을 고쳐 잡았다.

'…바다는 얼릴 수 없다.'

짜디짠 소금물인 지구의 바다는 더더욱 그랬다.

쉽게 얼리기 힘들고, 얼게 되면 순식간에 굳어버린다. 그리고 또다시 순식간에 녹는다. 유성운은 다른 방법을 떠올려 보기로 했다.

'화염.'

아예 증발시켜 버린다면?

'아니, 그건 힘들어.'

이 성질 더러운 바다는 우박을 이용함으로써 그들이 하늘까지 지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 아무리 바닷물을 증발시켜 봐야 비가 되어 다시 내릴 뿐이었다.

'바다 그 자체인 몬스터라고 한다면….'

얼리고, 태우는 것도 안 된다면. 그래봤자 결국에는 수분의 형태로 남아 있다면.

'주도권을 빼앗아야 해.'

저 인어들이 그렇게 해왔듯 또 다른 누군가가 잡아먹어야 했다.

"……."

그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유성운은 정영원에게 조금 미안해졌다.

"아, 이거 어쩌지…."

"유성운 씨, 정신 돌아왔어?!"

"귀청 떨어져요, 좀 떨어져서 말해."

"우리가 안 얼리면 이거 안쪽까지 들어가, 정신 차리고 창 던져요!!"

"지금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어쩌자고, 다 같이 죽자고?! 이거 몹쓸 놈 아니야!!"

"생각을 하자는 거지."

"다른 놈들이 생각하게 둬, 댁은 움직여!!"

"어우 교양 없게."

거의 먹먹해질 지경인 귀를 매만지며 유성운이 친분 있는 헌터를 보았다.

“가서 정영원 헌터 좀 불러와요.”

“뭐? 치료사님은 왜요?”

“수목 계열 헌터는 다 불러오고, 또....”

“아니, 이거 바닷물이에요, 알죠?”

그들도 이 넘쳐나는 바닷물을 다른 식물들에게 흡수시킬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다. 그렇게 주도권을 잡는 것에만 성공하면 흡수된 물만큼은 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것이다.

그렇게 해서 줄어든 바닷물을 어떻게 복구할지는 나중의 문제지만, 아무튼 당장만 따지자면 그랬다. 하지만 하필이면 지금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액체는 그냥 물도 아닌 바닷물이었다.

“식물들이 이걸 어떻게 먹어!”

어지간한 괴물이 아니고서야 시들어 죽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로 괴악한 식물을 키워낼 수 있는 헌터는 썩 많지 않았다. 결국 식물은 식물이기 때문이었다.

“아니 뭐, 닥치는 대로 피워내면 어떻게 물량으로 승부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야...!”

“얼어 있잖아.”

“네?”

“이거 얼음이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얼린 거.”

냉기 계열 헌터들이 팡팡 스킬을 날려댄 덕분인지 바다는 점점 더 차디찬 얼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유성운은 이 단단한 얼음을 순식간에 만들어내지 못했고, 얼어붙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거 하느라 뒤질 뻔한 거고.’

갑작스럽게 빨리 얼린다고 단단한 얼음이 되지 않는다. 이런 튼튼한 빙하를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조금 정신이 없는데, 아무튼 유성운이 하고 싶은 말은....

“소금이 아래로 가라앉았을 겁니다.”

과학 상식 중 하나다.

“바닷물이 원래 그래.”

“뭔 소리, 아니, 아, 아... 아...? 아!!”

“그렇다니까.”

물과 염분은 어는점이 다르다.

‘물 다음에 소금.’

그러니 유성운의 생각이 맞다면 이 근방의 바다가 광활한 설원처럼 단단하게 어는 동안 염분은 아래로 내려갔을 거란 뜻이었다. 최소한 지구의 바다는 그랬다.

“이걸 생각하고 공들여 얼린 건 아니었지만....”

콰득—!!

얼음에 박아 넣었던 창을 뽑았다.

“위에만 녹이면 꽃들 밥 먹이는데 문제없을 겁니다.”

“시발, 그러네.”

“다녀와요.”

“내가 금방 불러온다.”

필요한 것은 꽃과 나무를 순식간에 키워낼 수 있는 수목 계열의 헌터와 이 얼음의 상층부를 녹여낼 수 있는 화염 계열의 헌터. 불행 중 다행히도 이곳에는 그 모든 인력이 갖춰져 있었다.

그렇게 연락책을 떠나보내며 유성운은 생각했다.

‘이걸 저 인어가 모를 리 없어.’

악신에 가까울 정도의 업적을 쌓아, 수많은 연구 자료를 만들어낸 의사이자 박사.

‘그런데 이 바글바글한 인간들이 바다를 얼릴 때까지도 손을 쓰지 않았다는 건....’

유성운이 혀를 찼다.

“얕보이고 있나.”

이건 자비이자 조건이었다. 이 정도도 떠올리지 못할 정도로 멍청한 지성체들이라면 그냥 전부 죽어 버리라는 거겠지.

‘계속해서 지오의 화분이 되기에 지구는 너무 좁다는 둥의 말을 했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영영 떠나기 전 그 자격을 시험하고 있는 걸지도....’

이런 정신 나갈 것처럼 힘들고 소란스러운 상황에 그런 상식이 쉽게 떠오르겠느냐만, 인어들 입장에서는 그마저도 한심했을 것이다. 유성운은 기분이 아주 더러워졌다.

‘...생명의 가치도 모르는 학살자 주제에 잘도 오만한 생각을 하는군.’

드물게도 헌터 중 몬스터 혐오자가 아닌 유성운이 이를 아득 갈았다.

“피곤하네, 그치?”

이 화분은 지오가 직접 선택한 곳이다.

감히 근원의 선택을 의심하다니, 아주 불경했다.

* * *

“이, 이게 무슨...!!”

다른 헌터들도 마찬가지지만, 태양의 사제들은 크게 경악했다.

“이만한 태양의 기운이라니...!!”

“시, 신성 모독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선 안 돼요!!”

“대체 이 미친 몬스터가 무슨 짓을...?!”

거대한 신전 곳곳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황금 나무에서 느껴지는 건 분명한 태양이었다. 그리고 지구에 속한 태양의 사제들은 그곳에 수많은 태양‘들’이 뭉쳐 있음을 느꼈다.

저 정신 나간 몬스터가 태양들을 잡아먹어 온 것이다.

“.......”

“...시발....”

기이한 이채를 띠는 헌터들도 있었다.

‘이건, 몬스터가 만들어낸 광경이라기에는... 너무....’

신성하지 않은가?

이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황홀한 광경에 절로 시선이 못 박혔다.

금가루가 떨어져 내리는 듯 따듯한 햇살이 신전 곳곳을 비추고, 그에 따라 신전을 장식하던 갖은 금은보화가 눈이 멀 것

처럼 찬란한 빛을 냈다. 그 오색찬란한 빛에 헌터들이 주춤거렸다.

‘정말 태양의….’

‘이러고도 신성이 아니라고?’

태양의 가장 값지고 순수한 빛만을 모아둔 듯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후우….”

강서담이 차이솔을 뒤로 물렸다.

“헌터들 가운데에 계십시오.”

“저는 여기서 쓸모가 없어요?!”

“쓸모는 많지만 차이솔 형제의 포지션은 힐러잖습니까.”

“하, 하지만 선생님이 다치면…!”

아닌 척 편애가 있군.

‘하긴 이 정도 인간에 대한 선호도도 없으면 그건 검은망토겠지.’

차이솔은 생판 모르는 남이나 그를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는 다른 사제들보다는 강서담을 더 지키고 싶은 듯했다. 이 조막만 한 아이에게 지킴을 받게 된다니, 그보다 더한 수치는 없었다.

강서담은 잠시 고민했지만 다시 한번 강하게 말했다.

“차이솔.”

“! 네, 네.”

“뒤로 가.”

“알겠습니다…!”

썩어도 준치라는데, 차이솔은 썩은 적도 없는 값진 인재였다. 아직 어린 학생이라지만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이해하고 곧장 강서담의 말에 따랐다.

강서담이 스태프를 고쳐 쥐었다.

‘평소 들고 다니던 스태프가 저런 나무로 자라다니….’

인어 이세르의 스태프는 강서담도 본 적이 있었다. 어딘가 고풍스러운 멋이 있는 나무의 질감을 형상화해 둔 황금의 스태프. 그리고 저것이 한때 ‘지오반니’의 것이었단 사실도 알았다.

‘집착인가, 저건.’

이 던전의 인어들은 지나치게 감성적이었다.

“대화는 전부 마치신 것 같고.”

“용케 배려를 해주시는군요.”

“이곳에서 교양 없이 소란을 피우고 싶진 않아서.”

이세르는 여전히 교황의 의자에 묶여 있는 서지오의 앞을 막아섰다. 황금색으로 물든 인어의 길고 곧은 머리칼과 서지오의, 지오반니의 것은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다.

다만 인어의 눈은 지독할 정도로 새파란 진주의 것이었다.

“내가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있게 둬.”

강서담의 얼굴에 핏대가 섰다.

“희생을 종용하는군.”

“희생? 아니, 이건 그런 게 아니야. 더 나은 발전이지.”

“그 발전에 서지오 헌터도 동의했나?”

“나약하고 무능한 인간들 대신에 그가 남겠다고 약속했어.”

“협박이지, 아주 야만적이야.”

“그걸 인간들에게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세르가 한 계단씩 내려오며 웃었다.

“나는 꽤 솔직하고, 그런 야만적인 일은 할 줄 몰라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인걸.”

“대신 거래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라니, 이 상황에?”

“나는 어릴 적부터 아주 몸이 약했어요.”

“…….”

“지금도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라서….”

그렇기에 이세르는 늘 다른 수작을 부렸다.

“시험을 해보죠.”

이세르가 양팔을 가볍게 벌리자, 황금 나무가 태양처럼 환하고 신성한 빛을 내렸다.

“이 나무가 그들에게 꿈을 보여줄 것입니다.”

“꿈?”

“꿈일 수도 있고, 환각일 수도 있고, 미래나 과거의 파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와 이 수많은 태양이 섭리 속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는데.”

“멀쩡하게 깨어나면 당신들은 나와 싸울 수 있어요.”

“깨어나지 못하면?”

“나무의 거름이 되겠군요.”

“거절할 수 있나?”

“아니.”

씩 웃으며 인어가 뒷짐을 지고, 한 손을 휘둘렀다.

“태양의 축복이 그대들과 함께하길.”

그렇게, 인간들은 의식을 잃었다.

“…….”

“…….”

딱 한 명을 빼고.

마치 배우의 무대가 끝난 후 커튼 뒤처럼 묘한 적막이 흐르고, 두 생물의 시선이 마주쳤다.

차이솔의 동공이 흔들렸다.

“…….”

“…어, 어, 어….”

“차이솔.”

“나는 왜 안 자…?”

“넌 어차피 깨어날 걸 알거든.”

“어라!”

차이솔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다.

“말 편하게 하는 거지!”

“…그래.”

“나랑 친구 하는 거야?”

“이 지경이 되어서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하나?”

“은하도 나 안 쓰러트렸으면서….”

“그건….”

이세르가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다 같은 차원에 이런 인간이 둘이나 태어났을까.”

서지오고 차이솔이고 말이다.

그는 계단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그가 입고 있던 사제복이 황금의 빛을 받아 한 칸씩 그를 따라왔고, 이내 이세르는 길목에 쓰러진 인간들을 발길로 성의 없이 밀쳐 내고서는 차이솔 앞에 섰다.

동생을 혼내듯 그가 엄한 얼굴을 했다.

“안전한 곳에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

“나 혼자 있기 싫었단 말이야…!”

“외로움을 타는 성격인 줄은 몰랐는데.”

“너도 그러면서.”

“…….”

인어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나?”

“아니야?”

“…잘 모르겠네.”

“그걸 왜 몰라?”

“누군가와 같이 있어본 지 너무 오래돼서.”

“응? 형이랑 같이 있던 거 아니었어?”

"그것도 그렇기는 한데...."

은하가 입을 삐금거렸다.

"......."

그가 말했다.

"...맞아, 외로웠어."

이 차가운 던전은 아늑했고, 눅눅했고, 조용했다.

"그러니 잠시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래?"

"무슨 이야기?"

"그냥,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

차이솔이 잠시 뒤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라고 인어들이 끔찍한 학살을 벌였다는 것을, 또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 인어들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정말 심하게 나쁜 녀석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건 차이솔의 친구인 은하였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는 하나 한때 파트너였던 관계이니....

'유언은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마지막이라서.

(다음 편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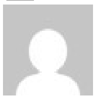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05)

205

제205화

“다들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야?”

“행복한 꿈.”

“행복…?”

“그래야 빠져나오려 하지 않을 테니까.”

은하는 피곤한 얼굴로 황금 물결이 비치는 대리석 계단에 앉았다. 차이솔은 그런 그를 따라 은하의 곁에 앉았다. 바로 몇 계단 위에 지오가 앉아 있는 위치였다.

그는 바닷물이 가득 찬 교황의 방에 가라앉아 있는 성체 인간들을 보았다.

“세월을 지날수록 상처는 늘어나지.”

세상은 꿈만큼 아름답지 않았다.

“인간의 습성을 알아,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 내 누이와 선생님은 그걸 ‘성장’이라고 말했어. 인어에게는 대단히 모호한 말이지만….”

“인어는 성장하지 않아?”

“차원마다 종류가 다르긴 할 텐데, 내 행성에서 인어는 생물의 배 속이 아니라 바다에서 태어나거든. 어느 순간 바닷물이 뭉쳐서 인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야.”

“어어어….”

차이솔이 드러난 은하의 맨팔을 쿡 찔렀다.

“…있는데?!”

“그야 있기는 있지.”

다만 인어는 순환하는 존재다.

“우리는 바다에서부터 태어나 인간과 흡사한 형태를 띠고, 시간이 지날수록 바다와 점점 동화되어 그 권능을 누리다가 결국 녹아 사라지게 되어 있어. 그게 바로 인어의 순환이야.”

또한 바다의 섭리였다.

“엄밀히 따져 나는 누이만큼 바다와 동화되지 못했어.”

“왜? 그 누나 엄청 똑똑해 보이던데 안 도와준 거야?”

“내가 자질이 부족해서….”

이세르는 순수한 인어도 아니고, 순수한 인간도 아니었다. 인어마다 생김새는 조금씩 다르다지만 이세르는 특히나 바다와 먼 가지에서 태어난 존재였다. 그는 꼬리조차 짐승처럼 따로 떨어져 있었다.

“그 거대한 바다를 담기에 적합한 자식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간 지나쳐 온 바다는 모두 아리아가 잡아먹었고, 그 바다에 갇혀 신성이 부서져 버린 태양은 이세르가 잡아먹었다.

“내가 아직도 태양의 사제를 흉내 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지.”

“어떻게 잡아먹어? 태양인데? 안 뜨거웠어?”

“뜨거워.”

은하가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서 지금도 내 몸은 한없이 약해.”

아리아가 최대한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기는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그는 태양의 수많은 신성과 권능을 담는 열쇠 따위로 ‘성장’하고 말았다.

“그러니 직접적으로 전투를 한다면 분명 내가 지고 말 거야. 그래서 나는 보통 안전한 이 던전에 남아 누이가 만들어둔 무기나 함정들을 쓰거나, 그 권능을 빌려 쓰고는 했어.”

“태양은?”

“보다시피 태양의 신성 자체를 담아둔 건 내가 아니라 이 황금 스태프라서. 한번 신성들의 타락한 권능을 쓰려면 그 힘이 감당되는 형태로 꽃피워야 했고, 그러려면 이렇게 커다란 나무의 형태로 만들어야 하니까….”

“답답하다?”

“번거로웠던 거지.”

쿨럭, 쿨럭.

은하가 밭은기침을 했다.

“…이렇게 무리가 가기도 하고.”

이세르는 보잘것없는 인어였다.

“처음에 누이가 거두어주지 않았더라면 너무 약한 나머지 알아서 죽었을 거야.”

“되게 강한 누나인가 봐, 우리 누나도 그런데. 나를 지켜주고.”

“우리 누이도 그랬을 때가 있었지….”

“지금은 안 지켜줘?”

“저지른 죄가 있어서.”

“무슨 죄? 뭐 잘못했어?”

“선생님을 잡아먹었어.”

“…….”

차이솔이 덜덜 떨리는 눈으로 물었다.

“…나도 먹을 거야…? 서, 설마 여태까지 날 남겨뒀던 게….”

“지금 와서 그러겠냐고.”

“그, 그렇지? 잠깐 무서웠어.”

“물론 제정신으로 잡아먹었던 건 아니야.”

애초에 인어는 인간을 소화시킬 수 없는 육신을 타고난다. 쉽게 육식을 할 수 있는 구강 구조조차도 아니었다. 그런 이세르가 산 사람을 뜯어 먹으려면 무엇이 필요했겠는가?

그는 미쳐 있기에 그 일이 가능했다.

“그날 이후로 누이와의 관계가 묘해졌지.”

둘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 그 감정의 형태와 무게는 여전했으나, 선생님의 죽음 이후로 그사이 ‘증오’라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럴 때면 선생님이 화해시켜 주고는 했는데, 이후로는 좀 어렵더라고.”

“화해할 줄 몰라…?”

“그냥 그 주제를 꺼내지 않았으니까.”

“아니, 왜?”

“음….”

이세르가 손을 들어, 차이솔의 작은 배를 쓰다듬었다.

“네가 무언가 잘못 먹어서 여기에 소화되지 않는 가시가 박혔다고 해보자.”

“배에…?”

“그보다 더 안쪽에, 목구멍 아래로, 명치 아래로, 여기 배 안에서.”

“싫어.”

“그렇겠지?”

“뺄 수 없어?”

“그러려면 큰 수술이 필요해.”

그가 손을 뗐다.

“가시가 너무 엉망진창으로 얽혀 있어서 쉽게 빼낼 수도 없고, 기다린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소화되는 음식물도 아니야. 그리고 그 수술을 하려면 너는 많이 아파야 할 거고, 이 배를 열어야 할 거고, 가시를 빼낼 때도 상처가 날 거고….”

“…….”

“뭐, 돈도 많이 들려나.”

“나 돈 없어….”

“나도 알아, 그래서 든 비유였어.”

하지만 말이다.

“대신 너는 이걸 그대로 둘 수도 있는 거야.”

“가시를? 배 안에 있는데?”

“아주 가끔 활발하게 움직일 때, 딱 그때만 너는 이 가시의 존재를 눈치채. 이대로 둔다고 해도 크게 아프지 않아. 드물게 따끔거릴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루 종일 신경 쓰일 정도도 아니지. 건강에도 이상이 없어.”

“어….”

“그래도 수술을 할 거야? 그 고통을 감수하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쏟아서?”

“…고, 고민이 필요해.”

“우리도 그랬어.”

선생님이라는 가시를 어떻게 할지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다.

“급하게 제거하지 않아도 될 일이니까.”

그들에게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다.

“여기서 다른 비유를 더 들어보자. 사실 그게 가시가 아니고 네가 소중하게 여기던, 음… 공명석이었던 거야.”

“…루다가 준 거?”

“맞아. 그런데 이대로 두면 이 공명석이 안 부서지고 그대로 남아 있는데, 수술을 해서 꺼내면 망가지고 깨져버려서 다시는 볼 수도 손에 쥘 수도 없게 되어버려.”

“아까울 것 같아.”

“잘 이해했네.”

인어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선생님을 그렇게 지우게 될 것 같아서 무서웠어.”

“선생님을?”

“내 가시이고, 보석이었던 사람이지.”

“…그래도 화해해야 하는데.”

차이솔은 말했다.

“가족만 남은 거잖아.”

“네 말이 맞지만, 나는 겁쟁이라서.”

늘 옳은 길을 비껴갔다. 예전에는 너무 바른길만 걷다 정신 차리고 보니 내 손발이 다 쓸린 것이 안타까워, 그냥 그렇게 했다.

“내가 좀 더 강하게 태어났으면 괜찮았을지도 모르지.”

신체든, 권능이든, 정신이든.

“뭐라도 내 누이처럼 뛰어났다면….”

복수에 미친 누이를 바른길로 이끌었을 것이다.

약에 홀려 선생님을 잡아먹지 않았을 것이다. 사제들에게 붙잡혀 악마적인 재판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인간들이 저를 무서워하지 않도록 더 잘 도와줬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사람이 그날, 그렇게 붙잡히지 않도록 도와줬을지도 모르고.

“…선생님을 붙잡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

처음부터 태양을 동경해 손을 뻗지도 않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내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속이 안 좋더라고.”

“좋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 게 왜 욕심이야…?”

“너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친절한 인간이었다.

“결국 나는 지금도 이런 잔수법을 써서 인간들을 향한 증오를 풀어내.”

이세르는 ‘좋은 꿈’에 잠긴 인간들을 보았다.

“오.”

“…어!”

그때, 한 남자가 깨어났다.

“…….”

태양의 사제 강서담이었다.

“…지금, 왜, 거기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시겠어요?”

“댁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를 아득바득 갈며 귀신처럼 노려보는 모습에 이세르는 빙긋 웃었다. 어딘가 ‘서지오 씨’를 닮은 미소에 강서담이 눈살을 찌푸릴 즈음, 인어가 손으로 제 옆의 빈자리를 가리켰다.

“여기가 서지오 헌터와도 더 가까운 자리입니다만.”

“…….”

강서담은 다시 한번 세상을 원망하며 꾸역꾸역 그 자리에 앉았다.

“좋은 꿈 꾸셨습니까?”

“…덕분에 오랜만에 파트너 얼굴을 봤습니다.”

“반어법이겠죠?”

“아뇨, 그냥….”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덕분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강서담은 제 옛 파트너의 얼굴을 거의 잊어버릴 지경이었으니 말이다.

“대체 뭔데 이렇게 평화롭게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무슨 이유로.”

“강서담 사제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서요.”

“제가 지금 당신을 도울 것 같습니까? 이렇게 기분도 최악인 상태인데?”

“나쁘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이세르가 자신을 짚었다.

“날 죽여요.”

“…….”

“그리고 선생님을 깨워.”

강서담이 눈을 가늘게 떴다.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무엇을 결정했지?”

“지구에 남기로.”

“깨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건 저희를 배려하시는 것뿐입니다.”

어차피 인간들이 이기게 될 테고, 인어들은 영영 떠날 테니.

이세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제 스승의 무릎에 기대었다.

“잠깐의 시간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는 것에 불과해요.”

“…서지오 씨에게 인간일 적 생에 미련이라도 남았다는 말입니까. 지금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요? 이 거대한 신비를 대상으로?”

“이분은 평범하게 미련을 가질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금 태양의 신성을 한낱 인간에게….”

“사람입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울 줄도 알아요.”

꿈 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일지도 몰랐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 인간들에게 썩 나쁜 제안이 아닐 겁니다. 나와 누님의 죽음으로 이 세상에 ‘검은망토’의 존재는 확실해질 것이고, 당신은 필요 이상의 피를 흘릴 일이 없어서 좋고, 우리는… 우리만의 책임을 질 수 있겠죠.”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나?”

강서담이 인어를 응시했다.

“네 ‘선생님’을 위해?”

“그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오직 그의 선생님을 위한 무대만은 아니었다.

“방식과 과정이야 어쨌든 우리도 끝은 나야 하니까….”

“끝을 말하다니 그거참 궤변이군, 그동안 네놈들에게 죽은 인간의 수가 얼마인데.”

기어이 강서담은 분노를 드러냈다.

“역겹다고 생각하지 않나? 지금도 너는 책임이라는 중한 단어를 운운하며 또 욕심대로 죄를 짓고 있다. 너희가 그간 벌

일 일이 그토록 증오하던 태양의 사제들과 뭐가 다르지?”

“나의 후회는 우리의 죄를 향한 것이 아닌 욕심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괴물인 것이고.”

“혀를 제법 놀린다고 해도 결국 몬스터라는 거군. 그 지능으로 할 줄 아는 게 같은 죄업을 반복하는 것뿐이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야.”

“무얼 해도 기만이라면 어울리는 길을 선택하는 게 더욱 깔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건방지게도 ‘책임’을 입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 선생님께 받아들여질 일말의 ‘기회’라도 얻을 수 있었다.

‘아마도 지옥이라는 이름의....’

이세르는 시체처럼 교황의 자리에 앉은 제 스승의 허벅지에 기대에 눈을 깜박이다, 몸을 세웠다.

“...곧 저들도 잠에서 깨어날 겁니다. 보는 눈이 없을 때 나를 죽여야 쓸데없는 전투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내 역할을 다 했고, 필요 없는 감정은 배제했습니다.”

“.......”

“하지만 나를 죽이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내 누이가 나를 그간 잡아먹은 태양의 천 주머니로 만들었거든. 그러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몸은 누이에 비하면 한참은 나약하고 볼품없어서....”

“과할 정도로 태양의 힘을 욱여넣으면 터져버린다?”

“잘 이해하신 것 같네요.”

그가 차이솔을 보았다.

“.......”

“...있잖아.”

지오반니의 첫 번째 사도가 물었다.

“여기가 추워?”

“그래, 추워.”

인어 주제에 그는 심해에서 추위를 탔다.

“그러니 너의 태양을 보여줘.”

은하가 빌었다.

섭리로 돌아가기 위해선, 태양이 필요했다.

* * *

콰지지지지직—!!!!

“—헉!!”

어마어마한 굉음과 함께 열기가 폭발했다.

“무, 무슨 일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가 어디...?”

“다들 정신 차려요, 던전 안입니다!!”

무언가 좁은 틈새 사이로 거대한 벼락이 구겨지는 듯 소란스러운 소리. 큰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난 헌터들은 끔찍한 섬광이 지나서야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다.

"콜록, 켁...!!"

"뭐야, 몬스터 다 어디 갔어."

"아, 내 눈...."

그제야 정적이 찾아왔다.

"......."

"...아...."

눈을 아프게 하던 황금 나무는 가는 가지로 돌아갔고.

"...서지오 헌터?"

옥좌에 묶여 있던 신의 사도는 깨어났다.

"저기, 지금 괜찮으신...!"

"조용히 해봐요."

"아니 왜...!"

"상태가 이상해."

헌터 중 한 명이 나서려는 동료를 만류했다.

"...울고 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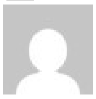
태양으로 엉망이 된 신전에서, 지오는 황금 가지를 든 채로 울고 있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05)"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06)

206

제206화

모두가 지오반니를 특별하다고 말했다.

"……."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지도 몰랐다.

지오반니는 창문이 없는 어두운 방에서도 햇빛을 받으며 태어났다. 추운 겨울날에는 해가 들어올 수 없는 위치의 침대에서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자라왔고, 이지가 불분명한 갓난아이 시절에조차 당연하다는 듯이 크고 작은 기적을 부렸다.

태양이 내린 아들. 햇살이 담긴 치유의 힘. 겨울에도 따듯함을 불어오는 말과 시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지오반니를 신으로 삼고 사도로 삼고 영웅으로 삼았다.

"…지, 지오 씨."

"누가 가서 말 걸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대로 두면…."

그러니 지오반니는 늘 특별했다.

"지오 씨."

"……."

"서지오 헌터."

"……."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그 아이들만이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지나온 모든 삶을 사랑한 것처럼 그 소박한 일상 역시 같은 무게의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들은 저를 존경하는 선생이자 사랑하는 은인으로 보았을지도 모르나, 지오반니 역시 제 학생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평온을 받아왔는지 모른다. 은혜는 그 또한 함께 입었다.

“제가 길을 알아요.”

“서지오 헌터…?”

“심장 소리가 들리네요.”

지오반니는 사랑이 클 뿐 원망도 할 줄 알았다.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미웠다. 내 제자들과 헤어지게 만든 마을 사람들이 미웠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세상을 미워했다.

단지 그걸 이기는 사랑만이 지오반니를 일으켜 세웠을 뿐이었다. 고작 그것뿐이었다.

“이쪽입니다.”

그는 아래로 내려갔다.

신전은 바닷물이 가득 차 있었으나 그리 춥지는 않았다. 익숙한 맨발로 하나씩 계단을 밟고 더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지오반니는 살아서는 이곳에 들르지 않았으나 죽어서 머물렀다.

“드, 들어가도 되는 게 맞습니까?”

“서 헌터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정말로 단서를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지만, 상태가 좀.”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결국 가장 지하에 닿았다.

“…….”

“…저게 뭐죠?”

“저건….”

그것은 커다란 화분이었다.

“뭔가요, 저게?”

“무언가를 담는 용도인 것 같은데….”

“저 정도면 대야 아니에요?”

“장식 예쁘네.”

“아니, 내용물을 봐.”

그리고 황금을 녹인 물이었다.

“아까 봤던 황금 나무하고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음, 순수한 기운이 돌아서….”

“최소한 징그럽게 태양을 욱여넣었던 나무랑은 다르군요.”

“…하지만 따듯한 건 마찬가지예요.”

“신성하게 보이는데.”

‘지오반니’가 녹아내린 물이었다.

“…….”

“…어, 잠깐만.”

“저 안에 지금….”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화분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 거리에서도 눈 좋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있는지, 거대한 수정을 깎아 만든 화분 안의 희미한 무언가를 찾아냈다.

“사람이 있는 겁니까?”

눈썰미 좋은 몇몇은 지오를 돌아보았다.

“…저거, 잘은 안 보이지만….”

“…서지오 헌터랑 닮지 않았어요?”

“대체 이게 무슨…?”

아무래도 좋았다.

결국 지오반니는 시간이 다 되었다며 저를 붙잡는 작은 조각을 떨치고 나왔고, 그것은 살아 숨 쉬는 바다의 인어에게도 아픈 가시가 되었을 것이다. 지오반니는 먹구름이 걷힌 바다 아래에 꽃이 피어난 것을 느꼈다.

그는 물과 다를 바가 없는 투명한 형상의 ‘지오반니’를 보며 중얼거렸다.

“…여러 번 시도는 해봤다더니.”

아리아는 ‘지오반니’를 되살려 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전부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건 그 흔적 중 하나일까? 아니면 지구에서 그와 재회한 뒤에 새로이 도전한 결과물일까.

제 바다의 인어들은 참 맹목적인 구석이 있었다.

“무겁네.”

푸욱—.

지오반니는 숨조차 쉬지 못하는 물로 된 자신의 껍질 위로, 황금 가지를 꽂았다.

“무거워….”

인어들은 제 심장을 스승의 형상으로 빚었다.

이는 지오반니의 또 다른 족쇄로 일평생 함께할 것이었다.

* * *

“…….”

바다 위에.

“…….”

꽃이.

하얀색 꽃이, 부드러운 노란색 몽우리가, 수줍게 달아오른 분홍색이, 활력을 담고 파릇하게 자라난 녹빛이, 그 얇고 투명한 꽃잎이 피어난다.

한없이 연약한 생명이 수도 없이 피어난다.

“…….”

이제 와 뒤늦게 말하건대 바다에서 태어난 인어는 이 광경이 그토록 보고 싶었다.

“…아름답네.”

마치 내 바다가 대지로 변한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는 이런 바다를 꿈꿔왔었지.”

“너 정도면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었나?”

“그것과는 달라, 난….”

이런 건 인간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다.

“…아하하.”

유치하기는.

‘아직도 이런 생각이 남아 있었나.’

그녀 역시 한때 바다와 하늘이, 심해의 인어와 대지의 인간들이 공존하는 세상을 꿈꿨었다.

제 동생과 같이 갸륵한 생각 따위 없이 단지 그게 더 멋지고 강해 보인다는 이유였다.

‘…내 조각이 무너졌다.’

지오반니는 결국 꿈 조각을 떨쳐내어 지구로 돌아왔고, 그 꿈에 제 일부를 심었던 아리아는 타격을 받았다. 거기에 더해 심장까지 찢겼으니 더는 살아 숨 쉴 이유가 없었다.

기운이 없어 수면 위에 늘어졌다. 지구의 바다에서 보았던 해파리가 된 기분이었다.

“이봐, 예쁘지 않나?”

아리아는 하늘을 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가렸던 태양이 뜨고, 바다는 꽃밭이 되고, 하늘은 깨끗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게 맞아?”

“그럼, 물론이지. 던전의 심장마저 빼앗겼으니 내가 뭘 더 어떻게 하겠어.”

“이걸로 너는 얻는 게 뭐지?”

“아마도… 희망?”

죄지은 괴물이 받기에는 과분한 것일 테지만 결국 강탈하는 데 성공했다.

내가 사랑하는 인간이 더는 인간이 아니게 되어 긴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저희를 잊지 못하리라는 다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희망이 있었다.

‘이렇게 깊은 상처를 새겼으니 오죽할까.’

또한, 이로써 인어들은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그들은 제 스승이 이끄는 지옥에 닿을 것이다.

“…….”

서늘한 새벽이 지나 맑은 하늘에 태양이 드리웠다.

“…이제 정말 끝이네….”

너무 길었어.

너무 길었지, 선생님.

* * *

“차이소오오올—!!!”

“루다야아아아—!!!”

눈물 펑펑 흘리며 부둥켜안는 아이들의 모습에 어른들이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귀엽네.’

‘나도 파트너랑 저럴 때가 있었지.’

‘참 사이가 좋아.’

둘 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 한몫하며 의젓하게 굴더니, 아무리 태양교에서 자랑스레 내세우는 인재들이라 해도 역시 어리긴 어렸다.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

슬픔이 곧 분노로 변했는지 멱살을 짤짤 흔들던 루다가 이내 풀썩 쓰러졌다. 차이솔이 기겁해서 루다를 안아 들었다. 가히 고전 명화에서나 나올 법한 비극적인 모습이었다.

“왜 그래, 밥 안 먹었어?! 내가 아침은 꼭 거르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네가 납치가 됐는데, 나 혼자 어떻게 밥을 먹어….”

“난 죽어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누가… 널… 죽여… 헛소리하지 마….”

은월 진영의 헌터가 머쓱하게 웃었다.

“태양의 힘을 그렇게 쓰더니… 역시 무리였나 보네.”

“뭐, 루다 양과 계약한 신은 태양신 계열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억지로 빌려 쓴 힘이니 지금도 많이 피곤할 겁니다.”

바다에 꽃밭을 만들어내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식물을 피워낼 수목 계열 헌터뿐만 아니라 언 바다를 녹일 화속성 헌터에, 염분 있는 얼음과 물을 치워낼 수속성 헌터에, 심지어 안정적으로 식물이 필 수 있도록 도와줄 태양의 사제도 필요했다.

이미 인어들이 하늘을 점령했던 탓에 예비 사제인 이루다라고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었다. 진영에 남은 태양의 사제들 사이에서 어설프게 태양의 힘을 따라 하느라 고생이 많았을 거다.

“그것도 예비 사제의 수준은 아니었지만요.”

“조기 졸업을 준비한다던데, 과연 싹이 남다른 인재입니다.”

예비 사제는 정식으로 신성과 계약하기 전까지는 태양에 소속되어 그 힘을 빌려 쓴다. 입단식이 바로 그 계약과 자비를 비는 행사였고, 신전에서 지내며 힘을 빌려오는 방법을 배운다.

실제로 신성과 계약하지 못한 정식 사제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루다가 예비 사제의 몸으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었다.

“…….”

“…….”

“…하하!”

“웃음이 나오니.”

눈물 나는 재회를 한 것은 차이솔과 이루다뿐만이 아니었다.

“…나, 나는… 나는 지오야… 진짜 심장이 떨어져서….”

“왜 울고 그러십니까. 기세만 보면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네가 나를 울리고 있잖아, 지금. 내가 원래 쉽게 우는 인간이 아닌데 너 정말 대단하다.”

“유성운 씨에게 생소한 경험을 드린 것 같아 참 뿌듯합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너는 정말 나에게 있어 좋은 친구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게 지금 할 말이라고 생각해...?”

“물론 죄송한 마음도 함께입니다. 잘못했어요.”

“너는 집에 가서 보자.”

“생각해 보니 주현 씨도 나를 가만히 두진 않겠군....”

잠시나마 양심 없이 ‘기특한 일을 아주 안 하지는 않았으니 이대로 넘어가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지오가 내심 혀를 찼다. 작정하면 구속을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튀지 않았다는 자각은 있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제자들과 충분한 작별 인사를 나누었으니 후회는 없었다.

‘내가 그렇지.’

참 미안하게도 그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했던 선택을 후회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송구한 마음이 크니 유성운 씨가 이후 수습에 나서시면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아니? 필요 없어. 그냥 수집상으로 돌아가서 푹 쉬어. 제발 나오지 말고, 어디로 가지도 말고, 힘도 쓰지 말고, 사람들 사이에 끼지도 말고....”

“날 뭐로 만들고 싶은 거지? 사회 부적응자?”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다시 사회와 단절될 생각이 있을까?”

“역시 저를 통조림으로 만들고 싶은 걸까요?”

“너 원래도 그랬잖아, 이제 와서 몇 년 더 통조림 된다고 뭐가 달라져. 나는 진짜 네가 사람들 시선 받을 일 없이 수집상 안에서만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내줬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유성운 씨를 이상하게 보고 있으니 여기서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사는 데 필요한 체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가뜩이나 ‘수집상에서 서지오 헌터를 29살이 될 때까지 가둬 키웠다’라는 소문이 도는 와중에 이 인간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설정을 견고하게 만들 생각도 있겠지만 정말 정신없고 피곤해서 말이 막 나오는 것도 큰 듯해 지오가 유성운을 달랬다.

“제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처럼 크게 다친 곳도 없으니 오히려 나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어의 힘을 역으로 쪽쪽 빨아먹은 덕분에 전보다 더 강해진 것 같고.”

“그럴 줄 알고 있기는 했는데 너 정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대단하구나.”

“아, 물론입니다.”

지오의 궁극적 긍정 마인드는 고작 납치되었다고 기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속상해하겠지.’

있는 사회성 없는 사회성 끌어모아 지오가 다시 이어 말했다.

“걱정을 하게 만들어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네요.”

“그럼 다음에는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 있어도 그냥 무시를 하는 걸로....”

“거기까지는 약속한 적 없습니다.”

“단호하네. 정말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꼴을 보고 싶은 건가?”

“그래도 위험에 처한 사람은 구해야 맞지 않나요?”

“내가 그런 유토피아적이고 이상적인 이타심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너는 좀 과해.”

유성운이 한껏 욕심을 담아 말했다.

“좀 덜어냈으면 좋겠어, 한 94% 정도….”

“그냥 다시 갤러리에 박혀 있으라고 말을 하세요.”

“갤러리에 박혀 있으면 정말 좋겠다.”

“싫습니다.”

“제발.”

“싫습니다.”

그런 둘의 모습을 사나래가 체념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하게 들리는 거 다 알고 하는 말이겠지.’

저런 대화가 이어질수록 쓰레기가 되는 건 수집상의 비사벌과 유성운일 텐데 참 잘도 지껄이고 있었다. 사나래는 아무것도 못 본 척 고개를 쓱 돌리다가 강서담 사제와 눈이 마주쳤다.

“…….”

“…하하, 잘 끝나서 다행이네. 그치?”

“…예,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강서담의 눈에는 묘한 의심이 어려 있었다.

‘…저게 분명 깨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인어 이세르를 상대할 때, 황금 나무의 수작에서 가장 처음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강서담은 굉음이 나자마자 소리 소문 없이 벌떡 일어났던 사나래 헌터를 떠올렸다. 막 깨어났다고 하기엔 너무 빠릿한 반응이었다.

‘그렇다고 추궁을 할 수도 없고.’

추궁한다고 해서 순순히 대답해 줄 인간도 아니었다.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도망칠 궁리만 하겠지.

강서담은 겸허히 포기하고서는 이 짐을 자신이 온전히 지기로 했다. 결국 태양의 여신께서도 그와 함께하셨으니 그만 아는 짐은 아닌 셈이다.

“지오야 딱 1년만, 응? 딱 1년만…!”

“이러는 거 진상이에요, 유성운 씨.”

“1년만 수집상에 가만히 있어주면 내가 더 곱게 모실게!”

“싫습니다.”

“한 번만!”

“싫습니다.”

저 유치한 대화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스스로가 우스웠다.

“…….”

강서담이 얼음 덩어리가 잔뜩 떠다니는 바다를 보다, 이내 하늘의 태양을 올려다보았다.

‘증오의 바다’가 삼켰던 권능을 토해냅니다

던전; ‘심해의 나라’의 공략을 완료하였습니다

수령 보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끝났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였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06)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07)

207

제207화

팔레트 주민의 소멸이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된 팔레트 주민: 아리아, 이세르

“…….”

팔레트에 새로 배치하시겠습니까?

[예/아니오]

“예.”

색: ‘아리아’가 성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회색]

색: ‘이세르’가 성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하늘색]

…….

…….

…마음에 들어

* * *

이번 재해는 정말 까다로웠다고 헌터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살아 움직이는 바다라니, 진짜 소름이 다 끼쳐서.”

“기껏 얼려도 심해에서 계속 물을 끌어 올리니 내가 다 지치더라.”

“인어도 지치는지 점점 덜해졌지만 아무튼….”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전쟁에 솜씨 좋은 헌터들이 대거 몰려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기껏 피워낸 식물이 시들지 않도록 심해의 바닷물을 최선을 다해 막았고, 그동안 식물들은 제 주인의 명에 따라 무럭무럭 자라났다.

“근데 솔직히 그거 좀 멋지긴 했어.”

“인간이 만들어낼 광경이 아니었지.”

“개 쩔었다 진짜….”

인간이 만들어낸 바다의 화원은 쉽게 보지 못할 광경이었다.

“던전 공략조가 빠르게 대처해 주지 않았다면 진압조도 힘들었을걸.”

지구 바다의 권능을 야금야금 앗아갔던 인간형 몬스터 아리아. 그런 그녀는 대치하던 중간에 두어 번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은 서지오 헌터가 구속에서 깨어난 반동에 타격을 입은 거라고 했지?”

“두 번째는 공략조가 던전의 심장을 부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그것도 결국 서지오 헌터가 부쉈다고 하지 않았어?”

“듣자 하니 꿈에 구속되어 있던 동안 던전 심장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던데.”

“그런 상황에서까지 공략을 대비하다니, 진짜 대단한 인간이긴 해.”

“나 같으면 공략은 무슨 깨어나지도 못했을걸.”

“야, 우리는 애초에 거기까지 특별 취급 받지도 못하고 한 큐에 죽었어.”

심지어 던전 공략 알림은 인어 아리아의 형체가 바다에 녹아들고도 꽤 시간이 지나서야 떴다. 아마 그 몬스터가 지구의 바다에 끼쳤던 영향이 사라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 듯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나머지 수습은 모두 인간의 몫이었다.

“…….”

“…개같은 거….”

수습에 불려 온 헌터들은 난장판이 된 바다의 꼴을 보고 한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시발, 빨리들 합시다. 이거 끝내야 우리도 집에 가지.”

“협회에서 연락 온 건 없어요? 이 지경이 되었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항의가 올 법한데.”

“아직 그런 말은 없는 걸 보면 잘 막아주고 있다는 거겠죠.”

“협회에서 잘 커버 치고 있을 때 빨리들 수습하자고요, 그러니까.”

바다란 워낙 거대해서 약간의 뒤틀림만 생겨도 전 세계가 신음하게 된다. 대한민국 앞바다에 극지방처럼 빙하를 만들어냈으니 기후 문제는 예견된 일이었다.

헌터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기후 문제’를 최대한 빨리 억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빙하를 녹이고, 인위적으로 해류를 원 상태로 복구하는 일에 힘썼다.

“야, 그런데 이건….”

“그치? 좀 아깝기는 하다.”

“저기, 협회 직원분들. 여기는 못 남기나요?”

“어렵게 만들었을 텐데.”

“싸움의 흔적이긴 하지만….”

헌터들은 바다에 생긴 화원을 보고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렇게 치우기에는 꽤 역사적인 흔적 아닙니까?”

협회는 그런 헌터들과 '신비롭다', '무시무시한 전쟁의 흔적이다'와 같은 시민들의 반응에 힘입어 바다에 피어난 꽃 무리는 보존하기로 했다.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바다 변동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일종의 교보재이자 광산 카나리아와 같은 존재로 말이다.

"이 꽃밭에 문제가 생기면 바다의 관리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가 되겠죠."

"시민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을뿐더러, 이런 전쟁의 흔적은 일부 남겨둬도 괜찮을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자연재해의 흔적을 보고서야 '아 조심해야지' 생각하는 인간들은 많으니까요."

"관리할 영역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거야 부서를 따로 구성하면 되는 일이고...."

협회는 늘 이런 일에 적극적이었다. 대한민국은 대단히 작은 나라였지만 인구수는 넘쳐났고, 그만한 인구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 조성에 큰 힘을 써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협회는 빠르게 새 부서를 만들어 '바다 화원'이라는 이름의 흔적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주기적으로 이 화원을 갈고 닦기 위해 파견되는 직원도 배정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역량을 한번 과시해 주기도 하는 거고요."

"이번 수습만 잘되면 또 이민 오는 사람 수가 늘어나겠어요. 관광지로 쓰기도 좋아 보이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시대. 사람들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나라에 소속되길 원했다. 단순히 수습만이 아니라 '전쟁의 여파를 이용해 또 다른 이윤을 볼 여유가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는 대한민국에 꽤 쏠쏠한 이득을 주었다.

"죽은 헌터들 수도 꽤 되는데...."

"유가족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죄와 감사의 말씀 드리고, 보상도 말 나오지 않을 만큼 충분하게 전달해 드려요. 이럴 때 잘 보여야 우리나라 헌터들이 목숨 안 아끼고 또 달려들어 주는 겁니다."

"시민들 쪽에서도 불만 나오지 않게 잘 관리해요. 도시랑 지방 목숨 가지고 차별한다고 말 나오는 거 지겹지도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달라지진 않더라도 최소한의 기둥이 되어준다는 인식은 새겨둬야 나중에 편해요."

"국민들이 믿을 곳은 언제나 정부와 협회여야 합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야말로 국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 때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길드 쪽에서도 이야기를 해 두었습니다. 때가 되면 보금자리를 잃은 시민들과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기부에 참여할 거예요. 특히 3대 길드는 진즉 말을 꺼내주었고...."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면 바빠지는 건 정부와 협회였다. 영토가 좁은 국가인 만큼 그들은 작은 곳까지도 세밀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었다.

다만 다른 의미로 이야기가 무성해진 대상도 있었다.

"이야기 들었어요? 서지오 헌터가...."

"요번 전쟁 때 몬스터들에게 납치당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말고."

바로 '검은망토'였다.

"검은망토의 사도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검은망토가 신이에요? 아니, 몬스터 아니었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곧바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검은망토의 정체성 때문에 시민들에게 큰 혼란이 오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아 그럴 수도 있지."

개인주의가 극에 치달은 시대. 항상 외로움과 척박함에 시달리는 시민들은 늘 자신에게 호의적인 생물에게 이기적일 수

는 있어도 똑같이 호의적이었다.

그건 몬스터인지 뭔지 모를 신비를 상대로도 달라지진 않았다.

“먹을 거 챙겨주는 걸 보면 나쁜 신은 아닌 것 같아, 그쵸?”

“악신이면 어때, 밥도 주고 관광도 시켜주는데….”

“그 개같은 겨울에도 검은망토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 몇이야.”

“신이고 뭐고 그냥 만나면 간식이나 줬으면 좋겠어.”

“그거 팔아서 대박 난 사람들도 있다더라. 이게 로또지.”

“착한 일 많이 하면 당첨 확률도 높아지는… 확률 조작이 가능한 로또….”

작금의 시민들에게 있어 검은망토는 토벌해야 마땅한 괴물 따위가 아니었다. 그는 어느새 한국에 스며든 온순하고 다정한 괴담이었고,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마당에 포획하거나 이용하면 모를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필요가 있나?”

“야, 그래도 신성이라는데….”

“…아, 그, 그렇지.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고.”

특히 검은망토의 새로운 작품을 기대하던 일부 특이한 애호가들은 더욱 적극적인 옹호의 자세를 보였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런 고귀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몬스터 따위일 리가 없잖아!”

“어쩐지 액자의 특이성에서 나는 신성함을 느꼈어요. 그래요, 이럴 줄 알았다고요. 이렇게 된 이상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겠죠.”

“검은망토를 보호하는 단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경시켜 주는 신성이 어디 있어요, 악용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을 그리도 좋아하는 신비인데 아무렴 사특한 벌레들이 달라붙기 전에 대비를 해 두어야겠죠. 은근히 순박한 면이 있는 신성이셔서….”

애호가들의 눈에는 이미 두꺼운 콩깍지가 끼어 있었고, 그건 주변에서 타박한다고 벗겨질 게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검은망토라는 불길하고 다정한 괴담과의 스릴 넘치는 교류에 흠뻑 빠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검은망토가 착한 사람에게 호의적’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자부심을 더더욱 고취시켰다. 그들은 자신이 검은망토에게 인정받은 인간이라며 사명감마저 느꼈다.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더했다.

“저, 저는 검은망토 님께서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날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악한 존재를 벌하고 약한 생물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께서 사악한 인간들에게 악용당할 거라는 생각만 해도, 저는 정말로….”

“그 마음을 저희도 이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목소리를 높여야 해요.”

그런 일각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단순 취미 동아리나 더 커봤자 살롱 수준에 불과하여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외양이 끔찍하거나 도움이 되는 유용한 몬스터를 찬양하는 자잘한 집단도 많은 시대에, 검은망토 정도 되는 신비를 아끼는 모임이 안 생길 리가 없었다. 이는 나라가 세워지면 정부가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뭐, 다들 온순한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검은망토가 악한 인간을 싫어한다는 점이 큰 지분을 차지했겠죠.”

“자기들끼리도 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행을 베푼다고도 말하고….”

“작품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자선 행사 같은 것도 연다고 하던데요. 심지어 직접 나서서 봉사한다는 말도 있어요.”

“부자들이 이렇게 돈을 풀게 되는구나. 이건 또 신기하군요. 1등급 이하의 시민은 별개의 생물로 보는 그 양반들이 직접 나서기까지 하다니.”

단순히 가벼운 재미를 위해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고, 진지하게 작품의 초대를 받고 싶어 참여하는 사람도, 항구한 신앙심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이네. 이런 거면, 글쎄요, 걱정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다들 검은망토의 새로운 정체성에 납득하면서도 시선은 ‘서지오 헌터’에게 돌아갔다.

“예전부터 검은망토의 사도였다는 거겠죠. 수집가가 가둬 키운 것과도 관련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전쟁을 일으킨 인간형 몬스터들이 검은망토의 사도들을 납치했다는데, 정확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듣자 하니 검은망토를 견제하는 발언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서지오 헌터 그 자체를 탐내는 식의 말도 했다고 해요. 이건 공략조에 참가했던 헌터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아니 글쎄, 서지오 헌터와 똑 닮은 무언가가 이번 던전의 심장이었다고....”

“네? 아니, 왜 그런 짓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몇 가지로 갈렸다.

“‘심해의 신전’에서 인어들과 그 스승에 대한 몇 가지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인어들이 몬스터가 된 이유는 자기 스승을 인간들에게 잃은 탓이라던데, 서지오 헌터와 그 스승이 꽤 흡사한 모습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자기 스승과 닮은 인간을 발견해서 같은 존재로 개발하려고 했던 걸까요?”

“서지오 헌터가 구속에서 깨어난 다음 슬픔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는데,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어들이 수작을 부려서 자신의 죽은 스승과 동기화를 하려고 했던 거죠.”

“정말 그런 거라면 상당히 징그럽지 않아요? 참 내, 멀쩡한 인간에게 죽은 사람을 뒤집어씌우려고 했다니. 과연 사악한 몬스터들이나 할 법한 생각입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어쩌면 정말 비슷한 존재였을 수도 있겠죠. 차원과 차원 사이의 신비는 아직 전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이를테면 환생이라든가... 서지오 헌터가 그런 종류의 신비였을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심해의 신전’에서 발견된 스승의 이름이 ‘바틀란 지오반니’라고 하더군요. 평소에 불리던 이름이 ‘지오’였을지까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름까지 비슷한 걸 보면, 저는 일종의 운명이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차원을 넘나들며 사악한 업적을 쌓아온 괴물들이었어요. 인간을 향한 혐오가 짙었을 텐데 정말로 연관이 아예 없었더라면 과연 그렇게 순수하게 탐내는 반응을 보였을까요? 설령 그 몸을 이용해 자기 스승을 부활시키고자 했더라도....”

“그래요, 결국 인간을 향한 증오심을 보였겠죠. 굳이 서지오 헌터만 그 증오를 비껴갔다면 뭔가 있다고 봐야 해요. 최소한의 연관성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의견도 있었으며.

“그냥 순수하게 그릇이 큰 인재가 탐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듣자 하니 검은망토의 또 다른 사도라던 차이솔인가 하는 예비 사제한테도 제법 정중하게 굴었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자면 꼭 서지오 헌터만 몬스터 특유의 증오심을 피해 간 건 아니라는 거죠.”

“뭐, 그 스승이라던 인간과 서지오 헌터가 비슷한 것도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았겠지만... 인간형 몬스터는 지능이 높아요.”

“맞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라면 인간과 손을 잡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유형의 몬스터잖아요. 검은망토의 뛰어난 사도인 서지오 헌터를 손에 넣고자 그런 일을 벌였을 수도 있겠죠.”

"'서지오 헌터도 고작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라며 폄하하기도 했고... 인간을 향한 기본적인 반감이 없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결국 그 역시 인어들에게는 귀중한 수단이었을 뿐이었어요."

"끽해봐야 아끼는 수하 정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서지오 헌터를 몬스터로 만들어 자신의 동료로 삼으려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까지 감성적인 호의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그렇죠. 실제로 서지오 헌터는 이전에 '심해의 신전'에 들렀다가 반송장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 나온 적도 있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아꼈다면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죠."

이런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말이 나왔지만 가장 자주 나오는 추측은 위의 세 가지였다. 다만 확실한 것은 검은망토가 신성이며, 그의 사도로는 서지오 헌터와 차이솔 예비 사제가 있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조금 쎄하기는 하네요."

"네? 뭐가요? 다 잘 정리된 것 같은데...."

"그야 수습은 잘되고 있는 걸 알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요."

"던전과 몬스터라는 자연재해가 꼭 일이 있어야 사고를 치는 건 아니잖아요."

"하필이면 지능이 높은 인간형 몬스터였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서요."

일부는 인어들이 보인 행적을 걱정했다.

"굳이 콕 집어서 검은망토를 경계했잖아요."

하늘의 별만큼이나 신성과 종교의 수가 다양해진 세상이었다. 그냥 지구의 모든 신성을 적대한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최근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검은망토만을 염두에 둔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말이었다.

"어... 그만큼 검은망토가 지구의 인간들에게 호의적인 증거도 되니까,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검은망토가 하도 지구인들을 아끼니까 방해가 되었던 걸 수도 있고요."

"음,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강적이 나왔을 때 검은망토가 도움을 주면 좋겠어요. 듣자 하니 이번 공략조 잠수함이 망가졌을 때 이동에 도움을 주었다던데...."

"그게 정말이었나요? 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평소에 자잘하게 간식도 주는 걸 보면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지오 헌터는 모습을 감췄다.

"왜지?"

"TV 출연 안 하나?"

"이 정도면 데뷔한 거 아니었냐고...."

서지오 헌터의 팬클럽은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 정도로 활약했으면 슬슬 얼굴 한번 보여줘도 되지 않나 싶은데 수집상에서는 '이번 납치 소동으로 서지오 헌터가 크게 상해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상하긴 뭘 상해, 무슨 과일이야? 채소야?"

"아주 제 새끼 작품처럼 끼고 돈다는 말은 들었지만...."

"진짜 늬값 한다."

욕은 서지오 헌터의 부친으로 소문난 비사벌만 잔뜩 먹었다.

* * *

아르지오가 혀를 끌끌 찼다.

“싫어할 법도 한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재밌기는 합니다.”

“그럼 장단을 좀 맞춰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드리죠. 아버지.”

“세상천지 어쩜 이렇게 달콤한 울림이 있을 수가.”

비사벌은 싱글벙글해졌다.

“한 번 더.”

“아버지?”

“짜릿해라.”

“깜찍한 가족이로고.”

“용돈 줄까?”

수습이고 자시고 비사벌은 지금의 상황을 만끽하는 데 충실했다. 서류 제출 하러 온 비서실 직원이 들어갔다 도로 문 닫고 나갈 정도였는데, 그야말로 인생을 200%로 즐기는 인간이 아닐 수 없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08)

208

제208화

전쟁의 흔적이 하나둘씩 지워지는 상황.

"괜찮은가?"

근원에게 과연 신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체적인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 말이다.

"아픈 곳은 없고?"

"예, 괜찮습니다."

"흠… 마음은 어때?"

"그것도 괜찮습니다."

검은 물감으로 가려진 창백한 초상화가 기계적이고 무뚝뚝한 음성으로 이어 말했다.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제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야 다행이네."

용서는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 지오도 '아끼는 제자들'이라며 인어들에게 애정을 보였었다. '지오'라는 인격들이 존재하는 만큼 인간의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을 테니 조금 걱정하긴 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섬뜩한 게 있어.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인 인간들은 상대가 지은 죄와 별개로 아끼던 사람이 죽으면 슬픔이 오래갈 텐데….'

꽤 빨리 정리가 되었다고나 할까.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았으니 그거랑 같은 맥락의 반응인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죽음에도 건조한 걸지도 모르겠다. 인연의 시작과 끝에 초연한 그 태도가 유성운을 내심 오싹하게 했다.

과연 수많은 운명의 아버지인 근원이라는 거겠지. 유성운은 그렇게 생각하며 화제를 돌렸다.

"그래, 다행이기는 한데."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는 거?”

“제 대외 활동이 금지되었나요.”

“뭐어… 그냥 바라는 점이지.”

유성운이 어색하게 웃었다.

“우리가 막는다고 네가 안 나갈 놈이 아니니까.”

“저런, 저희 사이의 신뢰가 매우 얄팍하군요. 아무리 그래도 막으면 안 나가요, 걱정하시는 것을 뻔히 아는데 감히 그러겠습니까.”

“내가 그걸 믿어줄 것 같아? 이젠 제법 인간 사회에 적응하셨는지 거짓말도 꽤 잘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안 믿어, 너는 내가 인정하고 하늘이 인정하고 우주가 인정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거든.”

“놀라워라,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많이 친해졌다는 걸 이렇게 알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내 말은 ‘서지오 헌터’의 공식적인 활동이라도 막아보고 싶다는 거야.”

유성운의 말에 액자 속의 지오가 고개를 기울였다.

“희망 사항입니까?”

“잘 알아들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그 귀한 걸음을 자제해 줄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여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다.

“난 마음의 준비를 마쳤어. 이제 뭘 하고 싶니, 우리 초상화.”

“딱히 뭔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없다고? 진짜? 나 이번에는 정말로 믿어도 되나?”

“죄송하지만 지금 막 생겼습니다.”

“미치겠네.”

한숨처럼 웃으며 유성운이 이내 특유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종종 짓는 자본주의의 미소였다.

“그렇다면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그냥 제가 해도 됩니다.”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나를 한 단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인간들의 심신에는 대단히 이로운 편이라서 내가 두 손 모아 싹싹 빌면서 부탁하는 거야, 지금.”

“단호하시군요. 예전과는 꽤 다른 반응인데 의외의 방면으로 성장하신 걸까요, 이런 모습은 꼭 주현 씨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현 씨 보면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사실을 배웠거든.”

“이래서 습득 속도가 빠른 인간들은….”

참고로 주현은 이곳에 없었다. 유성운만 오랜만에 갤러리에서 작품을 관리하기 위해 방문했고, 주현은 납치된 지오를 걱정하다 못해 심적인 고통으로 앓아누운 탓이었다.

지오는 당연히도 약을 전달해 주려고 했지만 주현의 강력한 거부로 거절당했다. 인간은 아프면서 크는 거란다. 지오라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아무튼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

“아무튼 제가 거창한 일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마왕 프로젝트라던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게 거창한 일이라는 것 정도는 저도 압니다.”

“그거 다행이네. 그래서 정말 뭘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끄는 걸 보면 뭔가 생각하는 게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정영원 치료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아.”

유성운은 납득했다.

“다 좋은데 걔가 갑자기 울어도 너무 당황하지는 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오의 행선지가 결정되었다.

휴식도 좋지만, 푹 쉬기 전에 끝내야 할 일들이라는 게 있지 않던가.

* * *

정원은 감히 신성에 비할 수 없이 고귀한 존재다.

한낱 인간의 눈으로 그 교교한 자태를 바라보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지극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것은 거대한 우주를 닮았으나 생물이었고 또한 반짝이는 운명이었다.

그것을 제 몸에 담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

“정영원 씨.”

“…아….”

“저와 대화하시겠습니까?”

시야가 검붉다. 여전히 앞은 보이지 않았으나 지극히 자비로운 음성은 뇌리에 박히듯 들려왔다.

“…서지오, 씨.”

손으로 더듬어 비천하게 기어갔다.

“지오 씨, 아, 제가… 제가 당신을….”

“저는 이 앞에 있습니다.”

“당신을 무어라고 불러야 불경하지 않을까요.”

비루한 인간의 입으로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신비를 담아도 되는 것일까. 그래, 화원님께서 미려한 꽃을 피워내 그녀의 시야를 가린 것은 근원께 예의를 다하라는 가르침이 분명했다.

“검은망토 님? 초상화 님? 아니요, 당신의… 훨씬 더 깊고 마땅한 정의가 있을 텐데….”

“정영원 씨는 저를 지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는 함께 수를 두어온 친구이지 않나요?”

“이 나약한 것을 그렇게 불러주셔서 기뻐요.”

그는 정말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제가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춰도 되겠습니까…?”

“친구라면 이런 일은 하지 않을 텐데.”

“오만한 바람이었습니다, 내키지 않는 일을 입에 담아 송구합니다.”

“더 편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오 씨. 그럴게요.”

손을 더듬자, 차디찬 발의 촉감이 느껴졌다.

“…화원님께서 피워낸 꽃이 당신 마음에 들었나요?”

보지 않아도 정원사는 알 수 있었다. 지금 그녀의 방은 온통 꽃이 피어나 있을 게 분명했다. 정영원이 기고 있는 방의 바닥조차 부드럽고 고귀한 꽃이 피어나 뇌를 황홀하게 적시는 향기로 가득했다.

“벌을 받는 제 형상이 당신 비위에 맞을까요…?”

건방진 걱정이라 할 수 있겠다. 근원의 눈께서 고작 벌 받는 인간 따위에 속이 상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인간의 것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자각은 있었다. 귀한 분께서 찾아와 주셨으니 마땅한 모습과 예의를 갖춰야 할 텐데 미련하기도 하다.

“만일 제가 조금의 자비를 받을 수 있다면, 손을… 한 번만….”

“저와 악수를 하시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흔쾌히 사랑을 베푸시는군요.”

매끈하고 차가운 손의 형상이 느껴졌다. 마치 잘 깎이고 부드럽게 사포질된 대리석을 잡은 듯했다.

“큰 영광입니다….”

감격에 젖은 두 눈에서 따끔따끔한 고통이 밀려왔다.

뺨을 타고 따듯한 핏물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화원께서 기뻐하고 계셨다. 꽃잎은 생명을 머금고 윤기 있게 피어났고, 잎은 파릇하게 손을 뻗어 하늘을 향했다.

아이의 방을 이루는 인형처럼 부드럽고 푹신한 감정이 정영원의 속을 가득 채웠다.

“저런,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화원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영원 씨의 눈에는 눈물 대신 꽃이 피어났군요. 아름답지만 편해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우신 것 같은데 저의 착각입니까?”

“그럴 리가요, 뭐든 당신께서 보신 것이 맞습니다. 그게 진리고 규칙이지요.”

“나를 신으로 보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정영원 씨를 이해합니다, 세상이 검고 고통스러우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감각의 혼란은 사람을 정말이지 피곤하게 만들죠.”

차가운 손이 정영원의 손을 빠져나가, 꽃다발을 쥐듯 그녀의 눈가를 다정하게 쓸었다.

“그러니 이 꽃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찰나에.

고통이 멎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에요.”

“…….”

“좋은 향기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시야가 트였다.

“감사해요, 지오 씨.”

깊고 짙은 향의 눈이 보였다.

전등마저 꽃으로 뒤덮인 황홀한 방 안에서 검은 망토를 둘러쓴 거대한 눈은 어둠과 동화되어 있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화원께서 저를 통해 피워냈을 청아한 꽃과 그것을 들고 있는 흰 손이었다.

그래, 손이 보였다. 제 시선을 맞춰 몸을 굽혀준 근원의 맨발도 보였다. 제 눈에서 피어난 꽃의 향기를 맡는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 눈은 여전히 정영원을 응시하고 있었다.

“…….”

황홀해라.

“저, 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운명 속에서 살아… 화원의 품에, 꽃들 사이에서….”

“듣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화원님의 품속에서 인간의 비천한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는?”

“또 다른 꽃으로 피어나 부디 근원의 안에….”

저 눈에 담긴 찬란한 운명 속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포부가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주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부디 재워 주시겠습니까?”

“싫지 않으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싫어할 리가 없어요.”

그런 불경한 짓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자비로우십니다.”

“거창한 감사로군요.”

크고 창백한 손이 다가와 핏물을 잔뜩 머금은 눈가 위에 나비처럼 내려앉았다.

정영원은 어르고 이끌어주듯 안정되어 가는 심장의 박동과 혈액의 움직임을 느끼며, 평온함에 잠긴 화원의 행복을 느끼며 그대로 눈을 감고 잠에 빠졌다.

고른 숨이 꽃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 머물렀다.

“…….”

그리고 지오는.

“…흠.”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 곯아떨어진 정영원을 보았다.

‘유성운 씨는 정영원 씨가 울어도 너무 놀라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눈물도 아니고 피눈물이라 좀 많이 놀랐다.

‘많이 아픈 사람이니 내가 이해해 주도록 하자.’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지오반니는 그 특유의 신성함 때문에 살아 있는 태양의 아들이라 불린 적도 있는 몸. 숨만 쉬어도 찬양받아 온 그에게 이런 식의 대우야 한평생 겪어온 일이니 장단 맞춰주지 못할 것도 없었다.

‘하긴 아프면 기댈 곳이 필요하지.’

그는 정영원을 이해했다.

지오는 정영원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그녀의 침실을 빠져나갔다. 그러지 않더라도 워낙 몸이 가벼운 그는 소리가 나지 않았을 테지만 말이다.

* * *

“…….”

“그렇게 정영원 씨도 치료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병상에 누워 있던 주현이 물었다.

“정영원 헌터님을 치료한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 유성운 씨가 알고 있습니다.”

“또?”

“주현 씨랑….”

“또.”

“정영원 씨가 알고 있겠네요.”

주현의 미소에 힘이 들어갔다.

“그럼 정영원 헌터님의 침실이 있다는 은월 길드 내부에서는 원인 모를 이유로 과부하 상태가 된 정영원 헌터가, 역시 원인 모를 이유로 갑자기 치유되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평소 그런 상태가 될 때면 자신의 방에 다른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령 그렇게 발견된다고 해도 정영원 헌터와 각별한 사이인 직장 동료만이 가능하겠죠. 정영원 씨가 알아서 잘 무마해 줄 것 같지 않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알고 저지른 일 같아서 뭐라 말이 나오지 않아요…. 잘못한 일이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정말 과감하고 비범한 행동이네요.”

좀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다.

“저는 지오 씨가 좀 특이하고 많이 잘난 구석이 있어도 평범한 인간과 다를 바 없는 마음을 가졌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이 꽤 긴 것 같은데 그럴 것도 없이 그냥 인간입니다. 평균 이상으로 다재다능해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뿐이지.”

“그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는 나중에 가려요. 아무튼, 그걸 감안해도 지오 씨의 외양과 능력까지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은 본인도 잘 알고 계시죠?”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래 놓고 자기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며 정영원 씨의 길고 긴 찬양을 단순히 아픈 사람의 헛소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건가요? 이쯤 되면 좀 받아주실 법도 한데.”

“제가 정영원 씨의 신은 아니잖습니까…?”

“…….”

말문이 막힌 주현에게 지오가 이어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무엇보다 저는 그런 대단하고 굉장한 역사를 가진 신들과 다릅니다. 그분들이 300년 전통을 이어온 장인의 파티세리 케이크라면 저는 자취생이 집에서 카스텔라와 생크림을 쌓아 만든 야매 케이크 같은 거죠.”

“…허….”

“그러니 정영원 씨의 길고 긴 찬양은 대상과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영원 씨가 많이 아프고 힘들어 그런 반응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차마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는 망언에 조용히 옆에 앉아 있던 유성운이 입을 열었다.

“내 초상화를 그렇게 폄하하지 마.”

“죄송하지만 폄하가 아닌 자기 객관화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걸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거지?”

이 억척스러운 초상화가 어디 감히 지구의 사전적 정의를 바꾸려고 들어. 본인도 억지라는 걸 알고 장난을 치는 듯해서 더욱 어이가 없었다. 좀 울컥했다.

“너는 좀 다른 의미로 겸손해지면 좋겠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참고만 할 거지?”

“저희가 많이 친해진 것 같아 대단히 기쁜 마음입니다.”

둘의 대화에 주현이 어질거리는 머리를 붙잡으며 물었다.

“애초에 정영원 헌터에게는 왜 갔던 건가요?”

“이번 공략 때문에 많이 무리했던 것 같아서 보상차 방문했습니다.”

“확실히 정영원 씨가 이번 전쟁에 큰 활약을 했다고 듣기는 했죠.”

수목 계열 헌터라고 해도 불모지에서 생명을 꽃피워 낼 수는 없었다. 때문에 그들은 보통 씨앗을 소지하고 다녔지만, 그걸 감안해도 강제로 생명을 조종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정영원 헌터는 포지션이 힐러임에도 불구하고 수목 계열 헌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후드를 푹 둘러쓴 채로 나와 동료들과 함께 바다에 꽃밭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지오 씨는 그것에 감사를 느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치료를 해주셨는지 이해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지오의 초상화'는 1대1의 법칙을 준수했다. 그가 무언가를 선물 받으면 지오는 돌려줘야 했다. 정영원의 경우도 비슷했던 것 같다.

"……."

아무리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정영원 치료사는 유성운 씨와 같은 정원사죠. 정원사가 자신이 모시는 정원의 영향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일반적인 힐링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오 씨는 그걸 해냈잖아요, 손길 한 번으로."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 본인의 비범함을 인정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도 제가 비범하다는 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지오는 억울해했다.

"그냥 제가 정영원 씨의 찬양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영원 씨가 모시는 신도 아니고, 제대로 된 친분을 쌓은 적도 없고,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법한 거대한 공을 세운 적도 없으니까요."

그의 말은 일견 들어맞는 것 같기도 했다.

"……."

"……."

'지오의 초상화'가 근원의 눈만 아니었더라면 말이다.

"…? 잠깐만요, 유성운 씨."

"어? 어."

"지오 씨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걸 말해야 알아?"

"아하."

"진짜로…?"

드디어 지오가 왜 이런 몹쓸 고집을 부리는지를 알아냈으나, 그런다고 지오의 고집이 꺾이지는 않았다. 유성운의 기나긴 설명을 듣고도 지오는 꿋꿋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

처음부터 져줄 생각이 없던 것이 분명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08)"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09)

209

제209화

“그래서 나를 찾아왔다고?”

사나래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너무 다른 게 고민이라?”

“딱히 고민은 아닙니다.”

“그럼 왜 온 거지?”

“재밌게 떠들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와, 너무 재밌다.”

“벌써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오는 해령 길드에 방문한 참이었다.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같은 전장을 함께한 전우를 매몰차게 내보내실 생각입니까?”

“으음,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서지오 헌터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정말 누추하기 짝이 없는 집구석이지만 서지오 헌터가 원한다면 내 방 한편을 내어줄 수 있어.”

“그보다는 함께 쇼핑이라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쇼핑이라?”

사나래는 처음으로 흥미를 표했다.

“흠, 옷? 액세서리? 장비?”

“전부 다.”

“콜.”

그렇게 사나래는 ‘서지오 헌터를 납치함’이라는 쪽지 한 장만 덜렁 남기고 해령에서 튀었다. 정신 나간 내용이 적힌 쪽지에 길드는 한바탕 뒤집혔지만 지오와 사나래 둘 모두 신경 쓰지 않았다.

사나래는 프라이빗한 쇼핑 룸을 빌렸다.

“짜잔, 여기서라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새어나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죽어도 나만 죽겠지?”

“뒷말은 무시하겠습니다. 흠, 역시 사나래 헌터를 찾아오길 정말 잘한 것 같네요.”

“쇼핑을 원한다면 나를 찾아오셔야지, 아무렴. 나만큼 옷 잘 봐주는 사람이 또 없어.”

“제가 옷이 별로 없는 편이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다행입니다.”

“응? 옷이 없는 편인가?”

“아무래도 초상화는 그리면 장땡이라....”

“아이참.”

화려한 정장을 꺼내 들던 사나래가 옷을 제자리에 걸었다.

“아무리 대화가 새어나갈 걱정이 없다고 해도 이건 너무 편안한 거 아닐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이에 내숭을 떠는 것도 소용없지 않나?”

“사람 얼굴이 갑자기 확 변하네, 지난번에 본 빨간색 머리가 이쪽이었나 봐.”

“살다 보면 색이 휙휙 변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일이 반박하면 나만 피곤해질 테니까 일단 그러려니 할게.”

뭐든 입 다물면 반은 갔다.

“인간 흉내를 꽤 잘 낸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냥 흉내가 아니라 아예 본인을 인간으로 생각하는 쪽이었을 줄은 몰랐어.”

“정말 몰랐을까요?”

“어어어, 대충은 알았지만? 그냥 인간 흉내에 심취해 있는 줄 알았지. 아니, 지금도 그러려나? 아무튼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친구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해서 서운하다?”

“입이 달렸으니 뭐라도 말해보자면 서로의 진심은 이미 다 알았고 그냥 해결책을 강구해 보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간관계란 인간관계는 죄다 파탄이 난 나에게 그걸 묻는 건가? 역시 서지오 헌터님은 굉장하네, 생각의 그릇이 남달라. 이런 걸 본받아야 할 텐데 말이야.”

하지만 흥미롭기는 했다.

“뭐, 여기는 우리 애들도 없고.”

“역시 지난번에는 해령 길드원들 때문에 겁을 먹으셨던 거군요.”

“그렇게 콕 짚어서 말하면 내가 혹시라도 보복을 당하게 될 것 같아서 다시 무서워지거든? 간단하게라도 좋으니 내가 좀 건방져도 가족들에게 원한을 풀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안 될까? 아 맞다, 인간은 네가 톡 쳐도 죽는 거 알지?”

“저는 해령 길드에 보복할 생각이 없고 그냥 인간에 불과합니다.”

“앞부분은 정말 감사한데 뒷부분은 올해 들은 이야기 중 가장 신박했어.”

“올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벌써 봄이 다 됐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나래는 턱을 짚었다.

“그러니까 우리 서지오 헌터님은 본인의 권능이나 신성 따위가 큰 문제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건가? 일종의 개성일 뿐인데 고작 그걸로 사람을 너무 대단하게 본다고?”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너무 대단한 거 맞는데.”

이 정체 모를 신비는 대체 뭐가 문제인 것일까.

“대단한 게 싫어?”

“평범한 걸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아, 그런 맥락으로….”

“제가 너무 잘난 것이 제 탓은 아니잖습니까?”

“굳이 잘잘못으로 따진다면 서지오 헌터님 잘못이 맞긴 한 거 아니야?”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우리 길드원들 괴롭히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치? 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서지오 헌터님이 자기 객관화를 잘 못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걸.”

아니면 그냥 안 하고 있다거나.

“헌터님이 진짜 너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원래 인간이라는 생물은 그 존재의 위치와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게끔 되어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억지를 부리는 쪽은 서지오 헌터님 쪽이거든.”

“그 역시 옳은 말입니다.”

“아하.”

이해했다.

“그냥 닥치고 장단 맞춰달라는 의미였구나?”

“그걸 지금 아셨습니까?”

“살려줘.”

“죽이지 않습니다.”

“곱게 살려줘.”

전투도 아닌 문제로 반송장이 되긴 싫었다. 하지만 제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기로 약속한 고로 사나래는 예전만큼 겁을 먹지도 않았다. 그는 나름 객관적으로 상황을 평가했다.

“하지만 인간들 사이에 부대껴 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인간들 시선을 고려해야 하는 게 맞아. 그게 아니라면 다닐 때마다 사람들 인식을 변환하거나 세뇌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이렇게 야만적일 수가?”

“야만적인 뒷수습은 해령의 전문이지. 어쨌든 서지오 헌터님이 인간들을 정말 아껴주고 있다는 건 잘 알겠어. 지금 상황의 요점도 제대로 이해했다고.”

사나래가 윙크했다.

“정말 놀자고 온 거였네?”

“잘 이해하셨습니다.”

지오가 ‘참 잘했어요’라는 듯 웃으며 박수를 쳤다.

그랬다, 지오는 진지하게 고민 상담을 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사나래와 떠들 만한 재밌는 주제가 생겨 심심한 김에 들고 온 것뿐이었다.

“이미 결론이 나온 마당에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할 이유가 없죠.”

그는 자신이 가진 위치와 권능을 하나의 ‘개성’으로만 볼 것이었으나, 그렇다고 주변 사람이 서지오의 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냥 평생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살아가면 그만이었다.

모든 인간이 서로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은가. 그럴 의무도 없고, 그럴 수도 없었다. 그런 맥락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해결해야만 할 만큼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렇다면야 그런 거겠지.”

사나래는 생각했다.

‘그 유성운이라는 인간은 피곤해 뒤지려고 하겠군.’

주현이라는 이름의 매니저도.

이 무시무시한 신비는 자신의 모든 특이점을 이해했음에도 스스로를 인간이라 믿었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절대 그러지 못하니, 그 견해의 차이에서 발생할 오류가 벌써 불 보듯 뻔했다.

하지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거야?”

“꼭 하나의 견해만이 옳지는 않으니까요.”

“서지오 헌터님을 엄청난 존재로 보는 견해는 고작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제가 일당백을 하니 괜찮습니다.”

“너희는 짖어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건가. 하긴 먼저 춤추는 사람한테 알아서 장단 맞춰주는 사람이 모이는 법이지.”

“무언가 많이 왜곡되었는데? 저는 짖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흐으음, 정말 이상하게 고집이 세단 말이야.”

요약하자면 ‘나도 옳고 너희도 옳으니 그냥 이렇게 살자’는 거다. 정말 기묘하게 넓은 포용력이 아닐 수 없었다. 개나 소나 다 받아 주면서도 결국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만 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있어?”

“그런 불명확한 부분이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무릇 모든 이야기에는 고난과 역경이 포함되어야 더욱 흥미진진한 법이죠.”

“이상하게 성격도 나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왜 비사벌 길드장의 아들이라는 말이 도는지도 이해가 되고.”

“저와 제 아버지는 비슷한 점이 꽤 많죠.”

“.......”

요즘 신비는 거짓부렁에도 재능이 많구나.

‘무서운 세상이야.’

살아 있는 자연이고 운명 그 자체인 신성은 본디 거짓말을 잘 못 했다. 순리의 정체성을 지닌 그들에게 거짓은 상극인 탓이었다. 하긴 악신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다르겠다만.

‘강서담 사제님이 공손하게 대하는 걸 보면 사악한 신성 같지도 않은데....’

여러모로 독특한 신비가 아닐 수 없었다.

“아무튼 사람 흉내 진짜 잘 내네.”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몇 번 말했지?”

“어 그래, 화려한 개성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 잘 알아들었어.”

“눈 감고 아웅 하는 척이라도 해주시니 봐 드리겠습니다.”

“기뻐 죽겠네.”

“예전에는 유성운 씨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못 본 사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오냐오냐 장단 맞춰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오….”

그렇게 용감한 인간이었나?

‘간도 커라.’

감탄하던 사나래가 물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제가 뭘 말해도 ‘응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라던 예전에 비해 최근에는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야’ 같은 느낌으로….”

“으으음, 존중의 방향이 달라진 거 아닌가?”

“좀 더 편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 알고 있구먼 뭘 물어.”

사나래가 봤을 땐 큐레이터가 작품을 아끼느냐, 사람이 친구를 아끼느냐의 차이였다.

“내가 볼 땐 둘 다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불만인 거지?”

“무턱대고 오냐오냐해 줬을 때의 장점도 있어서….”

“욕심쟁이네.”

“누릴 수 있는 세상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는 욕구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걸 실현할 생각은 잘 안 하니까 그렇지.”

자신이 바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향을 현실화하려는 놈들은 대개 제정신이 아니었다. 인간으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고, 애초에 ‘서지오 헌터’는 인간이 아니니 이해가 됐다.

“그래서 지금 하소연하는 건가?”

“방금 막 끝났습니다.”

“그럼 옷 좀 볼래? 이 집 괜찮아.”

“까마귀처럼 화려한 옷이면 좋겠는데.”

“반짝거리는 게 많이 붙은 옷을 말하는 거지? 흠, 잘 어울리겠어.”

“안 어울리는 부분은 얼굴로 대체합니다.”

“나는 그 말에 아주 크게 동의해. 멋진 자신감이야.”

둘은 시시덕거리며 즐거운 쇼핑을 마쳤다.

돌아가는 길에 서지오 헌터를 보며 달려들던 괴한을 사나래가 짓밟아 불구로 만들어 버리고 그걸 또 지오가 회복시킨 다음 경찰서 앞에 포장해 둔 일이 있었으나, 아무튼 그랬다.

* * *

“이상한 소문이 났나 봅니다.”

주현이 해쓱해진 얼굴로 상황을 보고했다.

“서지오 헌터가 성자라는….”

“그건 저희 쪽에서 낸 소문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오 씨를 먹으면 영생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아니 대체 왜일까요?”

“인어가 손수 납치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소문이 부풀려졌겠죠. 다행히 차이솔 예비 사제의 경우에는 교단에서 잘 막아주고 있는 것 같았지만….”

차이솔도 괜찮다니 지오는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은 많았습니다.”

“뭔가 알 듯 말 듯 한데, 역시 지오반니 씨의 시절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르지오 때에….”

“……?”

주현이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하는 눈으로 지오를 보았다.

“아르지오 씨가요? 왜요?”

“제가 뭐 어때서 그러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신격화될 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신격화도 신격화 나름이지 않겠어?”

아르지오가 어깨를 으쓱였다.

“검은 숲의 짐승이라고 하면 끔찍하기도 하겠지만, 그건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특별하다는 의미도 된답니다. 희귀한 보석과 약재가 즐비했던 검은 숲에서 가장 포악하고 잔혹한 짐승이니 그를 잡아먹으면 영생을 살게 된다는 소문이 돌 법도 했지.”

“아, 예… 그런… 느낌으로….”

신성한 성자의 피로 자신을 정화한다기보다는 희귀한 약으로 쓰일 수 있는 짐승을 사냥하는 것에 가까운 사례처럼 들렸다. 주현은 더더욱 피곤해졌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몸을 좀 사리면 어떨까요.”

“내가 다칠 일이 없거늘.”

“그거랑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현은 그냥 이 모든 일이 불쾌했다.

“지오 씨가 그런 구역질 나는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보이는 타격이 아니더라도 이건 지오 씨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가만두고 보기 힘든 게 사실이죠.”

지오가 웃었다.

“여러분이 지켜줄 게 아닙니까?”

“…그럴 주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힘들고 아플 때면 위로해 줄 거고."

"그게 필요해 보인다면요…?"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문제 될 게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오 씨는 너무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에 편한 면이 있지."

그렇게 지오는 오늘도 친구들을 이겨먹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09)"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10)

210

제210화

새벽에 갤러리를 찾아온 유성운의 반응도 주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놈들은 내가 직접 정리했어.”

유능한 헌터인 만큼 조금 더 직접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만.

“신체적 정신적 타격으로 휴식하던 중 지인과 만나 외출을 즐기던 서지오 헌터를 습격한 정신 나간 사이비. 그런 녀석을 수집상이 가만둘 리가 없잖아?”

“바쁘신 유성운 씨가 직접 나서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너도 알다시피 내가 맡은 일은 너라는 초상화를 관리하는 일이라고. 덕분에 직무 유기로 혼이 좀 나고 시말서도 썼지.”

그러니 이번 사건에 대한 뒤처리는 당연히 유성운이 맡게 되었다는 소리였다.

“실제로 최근 들어 너에 대한 태도가 느슨해진 것도 사실이라 착실하게 벌 받고 왔어. 이럴 때일수록 나도 회사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예외라는 이름의 문제가 발생해 버리거든.”

“집단생활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별일 없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무던하게 웃은 유성운이 이어 물었다.

“쇼핑은 즐거웠니.”

“그럼요.”

유성운의 질문에 지오가 환하게 웃었다.

“요즘 나오는 옷들도 참 마음에 드는 게 많았습니다. 옷감의 질도 상당한 것이 입고 당장 전장을 나서도 행동이 편할 듯하고, 독특한 무기나 특별한 힘이 담긴 장신구도 다양하더군요.”

“너 아르지오지.”

“이제는 색이 붉지 않아도 바로 맞히시는군.”

“사나래 헌터랑 왜 그리 쿵짝이 잘 맞나 했더니 이런 의외의 공통점이 있었나… 해령 길드가 떠들썩해졌던 것만큼 무서

운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는 건 참 다행이네.”

사나래는 해령 길드원 중에서도 유독 자기 얼굴을 잘 활용하는 놈에 속했다. 성격 더럽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양아치가 왜 지오와 어울렸나 했더니.

‘이렇게 보면 아르지오도 본인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고.’

가끔 액자에 드리우는 휘황찬란한 형상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건 다른 지오와 아르지오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나머지 두 쪽은 수수한 편에 속하니까.

얼굴이 화려해서 그렇지.

“이번 일에는 사나래 헌터가 대신 나서줘서 다행이었어.”

“예, 깔끔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별로 깔끔하지는 않았다고 들었는데?”

반신불수가 될 예정이었던 광인을 지오가 직접 치료도 해줬다지 않던가.

“사나래 헌터가 왜 나섰던 건지 알겠어?”

“저라는 폭탄으로부터 세상을 보호하려던 생각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내 생각과 놀라울 만큼 일치하네. 음, 그쪽도 네 정체를 얼추 알아차렸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조용한 것을 보면 따로 입을 열 의지는 없는 거겠죠.”

“결국 그것도 동료들을 지키기 위한 반응이겠지? 이거 참, 네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 자기 길드를 아끼는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기특한 청년입니다.”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유성운이 물었다.

“쇼핑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다음번에는 나랑 같이 갈까? 주현 씨도 불러서 다 함께 정장이라도 맞춰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해서. 내가 자주 찾아뵙는 명장님의 집이 있거든.”

“바쁘실 텐데?”

“시간이야 만들어내면 되는 문제야.”

한바탕 몬스터와의 전쟁을 끝내고 얼추 수습이 되어가는 상황인 덕분에 유성운의 일거리도 조금씩 줄고 있었다. 무엇보다 지오의 일정에 함께하는 건 업무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

“유성운 씨?”

“음, 잠깐 다른 생각을 했어.”

“무슨 생각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가 인간인가 싶었지.”

“오.”

다행히도 지오는 이 멋없는 고민을 듣고 놀리지 않았다.

“그렇게 볼 생각이 드셨을까요?”

“곱씹을 가치가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해서 시도는 해보는 중이야.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길인지, 허튼 생각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아마 확실한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제법 걸릴 것 같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유성운 씨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무거운 말이네.”

이 신비는 모든 길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지 않았다. 그러니 유성운이 불만족스럽거나 배덕한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지오는 그곳이 잘못되었다 말해주지 않을 것이었다.

‘아니, 이 녀석은 애초에 옳고 그름으로 세상의 개념을 판가름하지 않아.’

지오는 임의의 사건에 있어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지오의 초상화는 선인을 좋아한다’는 명제에 모순이 생길 테니 더 엄밀히 따지자면, 그것에 사심을 넣지 않았다.

그 증거로 지오는 악인을 처리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았다. 단지 ‘분류’했다. 그는 모든 개념의 존재를 긍정하나 자신의 이상과 취향에 맞는 선택을 할 뿐이었다.

‘나처럼 한미한 인간에겐 섬뜩하게 느껴지지.’

그러니 유성운도 지오에게 기댈 수는 없었다. 최소한 이번만큼은.

‘선택과 책임은 온전히 본인의 것.’

신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영혼과 육신은 죽을 때까지 눈이 펑펑 내리는 설원에 매여 있을 테니 말이다.

‘내가 인간으로서. 정원사이자 큐레이터로서. 또 유성운이라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눈앞의 존재를 무어라 판단해야 할까. 혹은 어떻게 해야 가장 후회가 없을까.

“…….”

시간이 필요했다.

“…….”

“사람들은 참 인생을 힘들게 살아. 고통을 즐기는 건가?”

“나 분위기 잡고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계속 그럴 거야?”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나 이게 진지하게 고민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습니다, 친애하는 유성운 씨.”

“모든 존재가 너처럼 매사에 명쾌하지는 않단 말이지.”

물론 지오처럼 단순하고 명료하게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게 최소한 유성운은 될 수가 없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하기엔 그의 발밑과 어깨 위에 달려 있는 짐이 너무 많았다.

아무튼 이건 유성운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그는 목을 쓸다가 이내 씩 웃으며 물었다.

“…그럼 이제는 뭘 할 거야?”

“쉬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좀 반가운 말이네.”

“그동안은 너무 활동적이었죠.”

해야만 하던 일들은 모두 마쳤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내향적인 서지오는 휴식이 필요할 때였다.

* * *

그렇게 지오는 다시 집에 틀어박혔다.

“이불 밖은 위험해.”

“므아앙….”

“너도 동의하는구나.”

만지기만 해도 시원함이 철철 넘쳐흐르는 거대 고양이는 껴안기 딱 좋은 친구였다.

지오는 다나를 끌어안은 채로 침대를 뒹굴었다. 구름과 같은 푹신함에 지오의 형상이 폭 삼켜졌다.

“후우….”

가만히 누워 있던 지오의 무뚝뚝한 얼굴이 조금 누그러졌다.

“…….”

그는 다나의 길고 부드러운 몸을 쓸었다. 차가운 보석 고양이의 배를 매만진다.

“이 안에 몇 명이나 들어 있니?”

“야옹.”

“그래, 그렇구나. 생각하던 것보다도 많네….”

“야옹.”

“네 안에서 다들 자고 있겠지.”

하지만 이대로 다나의 안에만 가둬두는 것은 너무 미안한 일이었다.

‘주현 씨에게 줄 묘비도 완성해야 하고.’

그간 주현이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힘쓰는 게 보여 잠시 덮어 두었지만, 새로운 그림을 질투할 인어들이 조용해졌으니 이제는 마저 작품을 완성하는 게 맞았다.

지오가 침대에서 일어나자 그를 빤히 올려다보던 다나 역시 침대를 느릿하게 내려왔다. 몸이 상당히 거대해진 다나는 거의 늑대 개만큼이나 큰 몸을 자랑했다. 지오가 딸을 쓰다듬었다.

“작업실로 갈까.”

“야옹.”

그런 둘에게로 날아와 허니가 지오의 머리 위에 부드럽게 착지했다.

“뭘 하고 왔지?”

“꾸르르륵!”

“그렇구나, 네 형제들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다.”

“꾸르.”

“조만간 나도 방문해야겠어. 무얼 가져가야 맛있게 먹을까….”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지오는 작업실에 들어왔다.

그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캔버스 앞에 앉았다. 학생일 적의 기억을 살려 만든 작고 동그란 판의 나무 의자는 잘 마감되어 매끈하고 햇빛을 머금어 따듯했다.

지오는 나무를 깎아 만든 팔레트를 들었다. 그는 낮은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아직 안 돼.”

가르치듯 단호한 음성.

“너희의 차례가 아니야.”

“■■....”

“기다려야지.”

지오는 다른 손에는 붓을 든 채로 깨끗한 백지를 응시했다.

“.......”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공포가 없을뿐더러 절망도 없다.

슬픔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 뒤의 길은 놓아주어야 마땅한 것. 미련이란 단지 남겨진 사람들의 것이니 죽은 이들은 미지의 개념과 공간에서 또 다른 운명을 이어가는 것이 맞다.

그런 지오의 생각은 그가 알던 종교의 것들과는 조금씩 달랐다. 천국이나 지옥이라기엔 이곳은 제 마음에 든 이들만을 받아들이는 좁고 편파적인 세상이었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고 하기엔 둥글게 한 바퀴를 돌지도 않았다.

‘그냥 하나의 상태일 뿐이다.’

어느 날 감기에 걸리듯이. 슬프면 눈물이 나오고 기쁘면 미소가 지어지듯이. 지오에게 죽음이란 그뿐이었다.

‘잠이 든 것과 무엇이 다를까?’

아주 긴 잠이라고도 부르는데, 지오는 그것에 동의했다.

‘결국 누구나 한 번씩은 겪게 될 일인데.’

자신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사람은 살아가며 크고 작은 죽음을 접하고 살아간다.

심지어 그들이 가는 길에 밟아 죽인 작은 벌레의 죽음마저도 그 성의 없는 땅에 저도 모른 채 묻어버리지 않던가.

“괜찮아.”

지오는 붓을 든 손등으로 제 곁에 서서 함께하는 다나의 뺨을 쓸었다. 그가 잠들기 싫어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듯이 말했다.

“네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는 네가 정하는 거야.”

그건 본의였을 수도 있고 타의였을 수도 있다. 그들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행복했던 기억이 있을 수도, 괴로웠던 기억이 있을 수도, 아무런 기억도 없이 그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남아 있는 것이다. 이건 그들의 집이고 흔적이며 일상이다.

‘서로 각기 다른 세상의 부피를 차지하며 살아왔다.’

너희를 내가 무어라 부르면 될까?

“.......”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액자 하나를 그려놓고는, 지오가 이름을 붙였다.

“...일기장이라고 하자.”

다나가 울었다.

“야옹.”

방울 같은 고양이의 울음소리.

캔버스 속 액자에서, 그 울음이 맴돈다.

* * *

연인이 죽었다.

“…….”

이번 인어들이 벌인 전쟁에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죽은 것이다.

여자는 펑펑 울다 못해 쓰러지기를 반복하다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은 뒤에야 조용해졌다. 어릴 적부터 함께해 왔던 소꿉친구였고, 유치하고 모나지만 즐거웠던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그 개같은 골목길을 벗어나 겨우 햇빛 아래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시발.”

욕이 나왔다.

‘왜 나만 여기 있어, 개새끼야.’

같이 햇볕이 따듯하게 들어오는 집을 구하자고 하지 않았던가.

결혼을 하진 않았으나 유가족 보상금이 그녀에게로 들어왔다. 이 죽음이 난무하는 시대에 여자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폐인 꼴이 되었겠는가? 그와 함께 보았던 집 중 하나를 계약하고, 잡동사니는 정리하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내 삶을 가꾸려 노력했다.

그런데도 이 꼴이었다.

“이럴 거면 꿈에라도 나오질 말던가….”

계속 그 사람이 방벽 너머 바다로 끌려가는 꿈을 꾼다.

‘내가 같이 있었으면 좀 달라졌을까?’

‘최소한 함께 있어줬으면 무서워하지는 않았을 텐데. 걘는 워낙 겁이 많아서, 내가 옆에 있어줘야….’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미 죽은 사람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멍하다가 문뜩 떠오르고 한참을 괴로워하다 간신히 벗어난다. 그렇게 잠이 들면 또 악몽을 꾼다. 그리움과 죄책감이 먹물처럼 번져 숨이 턱턱 막히고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뒷골목 지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검은망토 알아? 새 시리즈가 나왔다던데….”

“그런 말 하려고 불렀어?”

“아니, 끝까지 들어봐. 이거 진짜 귀한 정보인데 네가 너무 불쌍해서 알려주는 거야.”

“불쌍하기는 개뿔이.”

“이걸로 내가 저번에 진 빚은 갚는 거다?”

“그걸 누구 마음대로 이 새끼가….”

“천국을 그렸대.”

“…….”

되물었다.

“…뭐?”

“검은망토가 이번에 그린 게 천국이래. 그 안에 어리고 착했던 사람들은 다 있다더라.”

“뭔 헛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정말 검은망토가 신성이라고 해도 그건… 그건 절대….”

“그래도 밑져야 본전 아니야?”

그는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다. 본 사람이 워낙 적은 데다 소수의 사람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탓에 정보가 퍼지진 않았다고 말이다.

"……."

천국을 그렸다고?

"……."

약하고 선한 사람들만 모아둔 천국이라고?

'…개소리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여자는 검은망토의 새 시리즈라는 하얀 액자를 찾아 나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알지만 혹시 모르니 제 행동거지에 조심조심하며 사방을 훑었다.

아직 소문이 채 퍼지지 않았는지 여자와 비슷한 행색의 사람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찾을 수가 없어 여자는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 액자를 이쪽으로 불러오는 것이다.

"…검은망토는 착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지."

그래서 착한 일을 해봤다.

"저, 저기."

"으응?"

"…짐 옮겨 드릴까요."

"어이구, 갑자기? 됐네요."

"걱정되시는 거면 딱 이 계단만 도와드릴게요."

"아니 나는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

척 봐도 체력이 없어 보이는 노인의 짐을 옮겨주었다. 조급한 마음이 들었지만 과하게 나서지는 않았다. 이런 세상에 도움을 준다고 쉽게 믿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다.

하지만 의외로 노인은 미소 지으며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걱정도 안 했어. 아가씨도 혹시 그거일까? 착한 일 하는 사람들?"

"네? 착한 일…?"

"아니면 말아요. 요즘 성실한 청년들이 부쩍 늘어서 같은 동아리인가 했네요."

"어떤 사람들인데요? 그,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런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믿으시면…."

"검은망토가 좋다고 난리 치는 사람들이야, 안 위험해."

"…아."

그 이야기라면 여자도 들어봤다.

'애호가들이 생겼다더니.'

덕분이라고 하기도 웃기지만, 정말 그들 덕분에 여자가 오지랖을 부리기는 쉬워졌다. 선행을 믿지 않고 피하던 사람들이 검은망토 애호가 덕분에 경계심을 조금씩 푼 것이었다.

"길 잃으신 것 같은데… 어디 가시려고요?"

"엄마야, 아니, 그…."

"저, 저 그겁니다. 검은망토 애호가. 검은망토 보려고 착한 일 하고 있어서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그럼 혹시 이 동네 식료품점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내가 이사를 와서….”

“그거라면 대로변에 있어요. 알려 드릴게요.”

“고마워요.”

길 안내를 마치고 여자는 새로 이사를 왔다던 사람에게 애호박 하나를 받았다.

“저, 이건….”

“집에 계란 있나? 계란 풀어서 구워 먹어, 참 맛있으니까.”

“죄송해서… 다시 가져가세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오랜만에 보는 깨끗하고 싱싱한 채소.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버리기도 아까웠다. 결국 그날 여자는 오랜만에 시장에 가 계란을 조금 구했다.

생각해 보니 전에 넣을 소금도 없고, 달라붙지 않게 해줄 식용유도 없었다. 텅 빈 집 안을 떠올리며 여자는 몇 가지 식재를 더 주워 담았다. 썩 나은 살림은 아니라 계란도 결국 몬스터의 알이지만 맛은 좋았다.

“…….”

전은 오랜만에 해 먹네.

“…야, 좀 태웠다. 알아서 받아먹어.”

“…….”

“요리는 늘 네가 해줘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본 거야.”

빈자리에 대고 괜히 변명도 해봤다.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전을 줘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저보다 훨씬 요리를 잘하던 연인이 생각나자 울컥해 입에 전을 넣은 채로 또 울었다. 바보 같았다.

여전히 그 사람이 보고 싶어 여자는 계속해서 집 밖으로 나갔다. 검은망토 애호가들 덕분에 여기저기 들쑤시기는 확실히 편했다. 여자는 점차 이 일상에 익숙해졌다.

“어, 여기 있네.”

“누구….”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셨다고 들어서요.”

“혹시 어떤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 경계하실 필요 없고…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아, 네….”

“이거 저희 어머니가 한 반찬입니다. 워낙 손이 크신 분이라….”

중년의 남성이 꾸벅 고개를 숙이며 돌아갔다.

“통은 안 돌려주셔도 돼요!”

“아니, 잠깐만…!”

종종 이런 일이 생겼다.

“…….”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여자는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꽤 늘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어릴 적 뒷골목에서 그랬던 것과 달리 다정한 흥미와 감사, 반가움을 담은 얼굴들이었다.

간지러운 기분이 들어 여자는 길 한복판에서 뚝뚝 울었다.

“어? 어, 언니. 왜 울어요? 누가 괴롭혔어요?”

“무슨 일이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차라도 마셔요.”

“아이고,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네....”

“괜찮을 거예요, 응? 왜 이렇게 서럽게 울어.”

아.

본능적인 직감이었다.

‘...내가 이러다 너를 잊겠구나.’

그리고 너도 그걸 원하겠지.

‘이 일을 얼마나 반복해야 너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삶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버렸다.

여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헌터 일을 시작했다.

* * *

신원 인증이 요구되는 열람 정보입니다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

식별 번호 0S-000-B

대응 등급 F(-)

개체 유형 사물형

개체명 하얀 액자(-)

권능 일기(-)

백색 목각 액자 속에 그려진 또 다른 액자의 그림. 숨 쉬는 바다, 공허의 도시에 이은 검은망토(0S-328-D)의 세 번째 작품으로 파악되나 해당 개념의 중요성을 고려해 별개의 신비로 기록한다.

생전 선한 삶을 살아온 고인을 볼 수 있다고 소문이 났으나 실제로 목격한 증인은 찾지 못했다. 목격 확률이 검은망토(0S-328-D)의 이전 작품보다 극악으로 낮다. 이 점을 고려한 일부 시민들이 검은망토를 소환하고자 사회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작품은 높은 확률로 그런 특정 대상의 근처에 존재하고 있다.

“아아, 제보가 들어와 음성 파일로 정리합니다. 어... 82세 노인의 경우입니다. 이름 이정하, 살고 있던 지역은 충남 예산입니다. 검은망토가 벌써 지방까지 손을 뻗고 있나... 생각보다 활동 범위 넓히는 속도가 빠른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아무튼. 이게 아니라.”

“이번 ‘바다 화원’ 사태 때에 손녀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서윤하, 나이 19세. C급 헌터고... 포지션은 딜러입니다. 냉기 계열이라 비교적 경력이 짧음에도 참전한 걸로 보입니다. 임시명 ‘하얀 액자’가 요구하는 선한 고인과 살아 있는 사람이네요.”

“이정하 씨는 지난 15일에 사망했는데, 죽은 이정하 씨의 품에 새하얀 일기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는 이정하 씨가 죽기 얼마 전부터 액자가 보인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 환각 증세 정도로 여겼나 봐요. 아무래도 정보가 적은 지방이라 이런 현상에 즉각적인 의심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연구 팀이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하얀 일기장’을 가져와 확인했지만 내용물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자를 해석할 수가 없고, 보는 사람마다 형태가 다르게 나옵니다. 하지만 일기장에 이정하 씨의 지문이 검출되었는데... 음, 아무래도 ‘하

얀 액자'를 찾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정 대상만 액자를 보고 일기장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정하 씨와 다른 증인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 봤습니다. 죽은 인연을 그리워하는 정도라든지… 사회로 복귀하려는 의지라든지… 아니면 남은 수명이라든지. 이정하 씨는 자연사할 나이에 가까워졌고 손녀가 죽었음에도 차분했다고 하더군요."

"하얀 액자가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하얀 액자'를 보기 위해 사회 활동을 시작하더라도 그걸 보게 된 사람이 있고, 여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째서 액자를 찾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주변 구역에만 존재하는 건지도 의문이네요. 액자가 만들어낸 일기장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 건지도요."

"이상입니다. 하, 뭐 더 제대로 봤다는 사람 안 나오나…."

"……."

레벨 0

신원 인증이 요구되는 열람 정보입니다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내용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예/아니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10)"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11)

211

제211화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내용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예/아니오]

식별 번호 0S-000-??

대응 등급 ??(-)

개체 유형 ??

개체명 하얀 액자(-)

권능 일기(-)

"... 추가 보고 합니다."

"그 전에 미리 말해두는데, 이건 신원 인증이 가능한 '레벨 0' 직원들만 열람 가능하도록 지정해 두겠습니다. 지금 이 파일을 듣고 있는 사람 중 '레벨 0'이 아닌 직원들은, 네, 이 파일을 들은 이후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저와 협회는 결코 책임지지 않을 것을 분명히 명시하겠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여기서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이어서 보고합니다. 하, 정말로 놀라워요. 직접 검은망토와 접촉했습니다. 접촉 구역은 경기도 안성이었습니다. 이전 파일과 마찬가지로 개체명 '하얀 액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은망토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액자를 보았죠. 초상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평화로운 숲은 정말이지 아름다워 보였고요. 검은망토의 이상향을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호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눈이, 그 눈이...."

(삭제된 내용입니다)

"......."

"...검은망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다니, 왜 아직까지 종교가 생겨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군요. 하마터면 나도 처분당할 뻔했어...."

"필요 없는 정보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아, 그렇지.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러네."

“병상이 불편하시다면 자리를 옮길까요?”

“그래봤자 취조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죠. 그럼 지난번에 이어서 ‘하얀 액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 보겠습니다. 정리하기 편하도록... 음... 그 부분만 잘라보자면....”

“해당 개체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죽기 전 검은망토의 마음에 들 정도로 선한 삶을 살았거나, 아직 선악을 배우기도 전의 한참 어린 영혼들이죠. 해외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미루어 보았을 때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만 영혼을 수집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검은망토는 이것이 감상하라고 만들어놓은 작품이 아니라 사실상 집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최근 보고되는 일부 특이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건 작품 자체의 기능이 아니라고 대답했죠.”

“작품 자체의 기능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요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얀 액자’ 내부 영혼과 작품 외부 생자의 영혼이 공명하면 임의의 상호 작용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신성을 품은 신비답게 이런 말 하나도 굉장히 모호하고 동화적으로 묘사했지만... 요약하자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주도권은 언제나 액자 속 영혼에게 있습니다. 생자가 강하게 염원하면 공명을 통해 그 의지를 인지할 수 있지만 영혼이 원하지 않는다면 생자는 결코 ‘하얀 액자’를 인지할 수 없죠.”

“이외에도 생과 사의 균형을 무너트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의지 공명의 정도와 별개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걸로 파악됩니다. 액자 속 주민에게 허용된 것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추측하신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어서 설명하죠.”

“감사합니다.”

“검은망토는 이곳이 감옥이 아니라 집일 뿐, 원한다면 그들은 어디로든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건 흔히 아는 신성들의 사후 세계와는 느낌이 다른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어디로든 갈 수있다’라면 이곳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윤회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빙의하게 될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추측입니다. 밝혀진 사례는 없어요.”

“이제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액자 속 주민에게 허용된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까지나 생자가 남은 수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사례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하얀 액자’를 직접 마주친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한 예외는 대개 정면으로 영혼의 공명을 인지해도 균형을 무너트리지 않을 만큼 안정화된 존재였을 때였고요.”

“예시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것을 받아들인 환자, 혹은 노인, 또는 정신력이 매우 강인해서 생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등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생자가 사자의 죽음을 큰 의미로 받아들일수록 마주치기 어려워지는 것 같네요.”

“이 중에서도 생자가 살아생전 사자의 영역, 즉 ‘하얀 액자’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일기장’을 받게 됩니다. 그 안에 정확히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생자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일기장을 받아 확인한 사람들의 반응을 미루어 보아 일종의 주마등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실한 것은 이 ‘일기장’이 곧 ‘하얀 액자’로 넘어갈 위태로운 생명이 자신의 삶을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이나 선물일까요? 이 경우에는 생자가 검은망토의 마음에 들었다고 할 수 있을 테고, 검은망토는 특히나 선한 사람을 좋아하니, 보상받을 가치가 있는 역사였다고 판단했을 수도....”

“애초에 찾아낸 사례가 많지도 않지만, 위의 경우는 극히 소수의 사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얀 액자’가 해외로 퍼져나가게 된다면 더 많은 값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기분이 드네요.”

“이 ‘하얀 액자’는 생자도 드나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합니까?”

“검은망토가 허락한 이들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한 바가 없어요. 추측을 해보자면 그의 사도인 서지오 헌터나 차이솔 예비 사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검은망토는 특히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현재의 지구를 망가트리게 될 일을 만들지 않겠지만 주의해야 할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말로 설명할 만한 건 여기까지군요. 나머지는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고]

차후 인터뷰를 통해 검은망토의 사도인 서지오 헌터는 “계약수(추정: 안티캣 ‘다나’)를 통해 문을 열 수 있을 뿐 방문은 어렵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또 다른 사도인 차이솔 예비 사제의 경우 ‘하얀 액자’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반응을 보였다. 모든 사도에게 같은 양의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허락되는 권능에도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하얀 액자’의 주민 중 일부는 선행을 대가로 일시적인 형상화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 형상을 찾아볼 수 있다. 형태와 행동, 이지에는 개체별로 차이가 크나 공통적으로 생자와의 교류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일부 정원사는 그들이 ‘근원의 자식’이리라 추측한 바 있다. 이것을 몬스터로 규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바, 차후 기록되기 전까지는 ‘하얀 액자의 주민’으로 호칭을 통일한다.

해당 기록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요구한다.

* * *

“…….”

“방문하시겠습니까?”

주현은 제 앞에 나타난 하얀 액자를 보며 눈을 깜박였다.

“…천국인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집일 뿐입니다.”

“멋지네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집은 이렇게나 쓸쓸한데.

주현은 수집상이 호의로 내어준 이 넓고 호화로운 집에 대단히 감사했으나, 한편으로는 지저분하고 소란스러웠던 고아원을 떠올린다.

16살까지밖에 살지 않았으나 언제나 그곳은 주현의 ‘집’이었다.

‘이 안에 착하고 어린 사람들은 다 들어 있다고 했던가.’

손으로 조심스럽게 액자를 쓸었다.

“…….”

주현은 오늘 지오에게 편지를 받았다.

“…그래서 나에게 초대장을 주었던 거야.”

여전히 알아보기 어려운 편지였지만, 그 그림처럼 얽혀 있는 복잡한 문양 속 주현은 ‘초대’라는 글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 ‘지오의 초상화’가 점점 사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일까? 어쩌면 그럴지도 몰랐다.

조금은 설레고, 꽤 많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다리자 나타난 건 이 새하얀 액자였다. 지오는 늘 있던 평화로운 숲속이 아니라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텅 빈 액자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오 씨는 제가 이 안을 방문하길 원하십니까?”

“선택의 권리는 언제나 당신에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오 씨는 늘 그랬죠, 무언가를 강요한 적은 없어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날 위해 만든 묘비인데도 말인가요.”

그날, 지오가 죽은 주현의 친구들을 불러냈던 날.

“…하하….”

다나가 삼킨 내 가족들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다들 여기에 있었구나.”

“방문하시겠습니까?”

아까와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음정에, 똑같은 목소리.

“…아니요.”

주현은 아득히 동떨어진 감상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우스워졌다.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너무 큰 선물이잖아요.”

지오는 고작 이것을 ‘친구를 위해’ 만들었다.

이 얼마나 순진한 사람인가. 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한 사람이야. 주현은 이런 식으로 지오가 저는 감당 못 할 선물을 쥐여줄 때마다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참 대단하다니까.”

그의 알아보기 쉬운 호의에 유치하게도 감사함을 느낀다.

“이건 또 언제 만든 거예요? 검은망토의 새로운 작품이 나왔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는데.”

“제법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와 협회의 중요한 사람들이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염려해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것 같다고, 유성운 씨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사후 세계를 만들어 버리면 뭘 어쩌자는 건지….”

불만을 표하고 싶은 것인지 지오는 팔을 꼬았다.

“하지만 주현 씨의 가족을 계속 다나의 몸에 담아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한 부분에서 성실해지지 말라고요, 지오 씨가 성실해질 때마다 수습하기 힘든 사건들이 터져 버리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내 이야기도 참고만 하려나?”

“다들 그 일로 저를 놀리시는군요.”

“농담이었어요.”

주현은 이 거대한 신비가 보이는 인간적인 호의에 매번 새로 웃을 힘을 얻었다. 이 직설적인 선물은 방식이 뒤틀렸으나 그 본질만큼은 소박했다.

그리고 주현은 늘 겉보다는 내면을 보는 사람이었다. '지오의 초상화' 역시 마찬가지였다. 주현은 지오가 내어준 깨끗하고 순수한 선물에 난감해하면서도 결국 고마워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쁜 집이네요."

그가 정말 본질조차 신비였다면 이런 선물 따위는 없었겠지.

"이걸로 사고를 치진 않겠죠?"

"물론입니다."

"지오 씨를 믿어요."

"믿음에 보답해 드리죠."

"그래요…."

속이 어수선할 일이 많아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 좀 나았다.

"……."

내게 주어진 기회를 모두 지나고 나면 언젠가 나 역시 이 안에 들겠지. 지오가 허락한다면 말이다.

'…그거면 돼.'

살아 숨 쉬는 이에게 천국은 필요 없었다.

아직 한참은 더 걸을 수 있으니까.

* * *

한편, '지하의 네발 우림'.

"……."

바스락.

"…어…."

달각달각달각!!

"어우…."

유성운이 눈을 껌벅였다.

"유성운 헌터,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여기 왜인지 익숙한 새 몬스터가 보여서…."

"무슨 말이야. 더위 먹었나? 익숙한데 어떻게 새로워?"

"그런 게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마주친 '물새의 둥지'에 유성운이 허탈하게 웃었다.

'여기서 보니 반갑네.'

아무래도 지오가 지구를 삼킬 예정인가 보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11)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11)"

4.7 13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12)

212

제212화

유성운이 마주쳤던 익숙하지만 새로운 몬스터는 ‘지하의 네발 우림’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달그락.

“…저게 뭐지?”

“…새…?”

어느 순간, 다수의 던전에서 불특정하게 등장하는 몬스터가 포착되었다.

“아니, 물인가?”

그것은 새의 형상을 한 살아 있는 물이었다.

성대가 없는지 울음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 투명한 몸 안에 품은 식물이나 광석을 이용해 희미한 소음을 낸다. 잘 익은 열매나 낙엽, 보석 따위가 주로 그 대상이었다.

“뭐야, 물이면 마셔도 되는 거 아니야?”

“정확히 무슨 생물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섣불리 대하는 건….”

“야, 잠깐만 있어봐. 이게 살아 있는 영약 같은 걸 수도 있잖아.”

“아니….”

덥석.

“…….”

“…어?”

헌터는 투명한 몸 안 갇힌 제 동료를 보았다. 시선이 마주친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뒤늦게 파악한 동료가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은 건지 입을 뻐끔거리지만 그 흔한 공기 방울조차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녹아내린다.

“…흐, 흐아아아악!!!”

이 색다른 몬스터에 대한 정보는 헌터들 사이에서 또 다른 화제가 되었다.

희생자는 주로 악의를 품은 인간들. 그 악의가 몬스터에게 직접 향한 것이 아니더라도 불순한 생각을 품으면 공격을 받는다. 이 독특한 몬스터의 정보를 전해 들은 헌터들은 왜인지 익숙함을 느꼈다.

"…검은망토 아니야?"

"아 맞네, 말 잘 꺼냈다. 방금 기시감이 해결됐어."

"왠지 익숙하다 싶었는데 검은망토였구나…."

그중에서도 일전 '지하의 네발 우림'이라는 던전 공략에 참가했던 일부 헌터들은 추가적인 예측을 할 수 있었다.

"물로 이루어진 새?"

"서지오 헌터가 데리고 다니는 계약수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아, 그러네. 허니라고 하던… 그… 물새. 맞지?"

"생긴 게 좀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도 확실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네요."

"어디 외딴 던전에서 길들이고 왔나 싶었는데 아예 따로 무리가 있었던 거구나."

조련사가 정체불명의 몬스터를 조련하는 건 그렇게 드문 경우가 아니었다. 던전 중에서는 두 번 다시 방문할 수 없는 차원도 분명히 있고, 그곳에 서식하던 몬스터를 조련하는 것도 조련사에겐 흔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특히나 헌터는 공인이더라도 자신의 개인 정보를 쉽게 공개하지 않는, 전체적인 개인주의가 심화된 세상. 수집상에서도 힘을 쓴 탓에 '서지오 헌터'의 계약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직접 공략을 함께한 헌터들은 이야기가 달랐다.

실제로 목격하지는 않았어도 협회 커뮤니티에 개시된 정보를 통해 그들은 이번 소문의 주인공이 '서지오 헌터'의 계약수와 상당히 닮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챘다.

"그래서 이 몬스터 종족명은 확인이 된 건가? 서지오 헌터는 그냥 물새라고 말했던 것 같아서…."

"감정사 피셜 그냥 '물새' 맞대."

"뭐 이름이 그렇게 성의가 없냐. 나는 물로 만들어진 새라서 간편하게 물새라고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물에 사는 새일 테니까 그렇게까지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녀석을 어떻게 길들인 거지? 습성이 비슷한 걸로 보아 검은망토의 던전에 서식하는 몬스터인 건가?"

비슷한 특성에 따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의견이 안 나오지는 않았다.

"그냥 성격 잘 맞는 녀석들끼리 다니는 걸지도 모르지. 그 왜, 몬스터 중에서 그런 놈들 있잖아. 서식지가 불명확한데 비슷한 성질의 장소에서 계속 발견되는…."

"아, 맞지. 그런 몬스터들이 있기는 해."

정원사는 '근원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이 신비를 헌터들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셰어 몬스터인가."

이는 '다른 던전을 빌려 쓰는 몬스터'를 이르는 말로 엄밀히 따지자면 '근원의 자식'과 조금 다른 종류의 신비였다. 하지만 비슷한 특성을 가진 탓에 정원사가 아니라면 이 둘을 구분하긴 어려웠다.

"공통적인 성질을 가진 몬스터들끼리 던전 빌려 쓰는 일은 드물지 않잖아."

"그도 그렇네, 새로 등장한 셰어 몬스터일 수도 있겠어."

던전은 쉽게 말해 다른 차원이다. 지구에 문이 열리지 않더라도 자기들끼리 치고받다가 새로운 몬스터가 유입되기도 했다. 이렇게 낯선 몬스터가 툭 튀어나와도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몬스터의 등장이 늘 그렇듯 약간의 사고도 있었다.

"…어, 어 지금. 쟤 뭐 하냐?"

“저, 저 새끼 지금 어디 가. 야! 야!!”

“저기에… 저기에 나무가, 나무가….”

“이 새끼 왜 이래? 막아, 지금 빠지게 생겼잖아!!”

이 살아 있는 물은 사람을 홀렸다.

“예쁘다.”

그것들은 주로 꽃과 나무가 소담하게 피어난 자연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저희끼리 뭉쳐 나무 아래에 웅덩이를 만들거나, 비가 내리는 숲속 나뭇가지에 앉아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나마 잡다한 보석이나 열매가 있으면 모를까 물새들만 덩그러니 모여 있으면 일반적인 물웅덩이와 구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졌다.

“봐요, 생명이 녹아 있어.”

그것은 붉게도, 푸르게도 빛났지만, 드물게 눈을 뗄 수 없는 황홀한 금빛으로 빛날 때가 있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빛에 홀렸다.

하지만 ‘홀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치고는 사태가 심각하지는 않았다. 작디작은 물이 몇 마리 뭉쳐봤자 웅덩이에 불과하고, 특성상 깊은 곳에 뭉쳐 있는 게 아니라면 얕은 개울에 불과했으니까.

다만.

“저기 지금 호수…!!”

“잡아!!”

가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다.

—풍덩!!

단순히 수십 마리로 정리될 수 없는 대량의 물새와 깊은 구덩이, 혹은 이미 만들어져 있던 호수나 바다. 그런 곳에서 반짝거리며 빛을 내는 물새들은 살아 있는 물귀신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 역시 생사는 피해자의 선악에 달려 있었다. 선하거나 평범한 삶을 살아온 이들은 그렇게 홀려 물에 빠져 버리더라도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따닥! 딱!!

“아야!!”

딱딱딱딱딱!!!

물새들이 달려들어 ‘정신 차려 멍청아’라는 듯 열심히 쪼아주었기 때문이었다. 분명 손으로 잡히지도 않는 물일 텐데 이상하게도 제법 따끔한 고통이 들었다.

“가, 갑자기 이게 무슨…!”

“너 방금 물새 호수에 빠지려고 했다고!!”

“내, 내가??”

반대로 악하고 음흉한 사람은 그대로 물에 빠져 죽어버렸다. 누군가가 악의를 드러냈을 때처럼 직접적으로 씹어 먹고 삼키지는 않지만, 그들은 사악한 인간이 물에 빠져 죽어봤자 무슨 상관이냐는 듯 무심하게 굴었다.

그런 행태를 보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망토 편인 건 맞나 봅니다.”

"닮긴 진짜 닮았다…."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수군거림을, 유성운도 듣고 있었다.

* * *

"요즘 네 아이들이 자주 보인다더라."

오랜만에 모인 복도 회의에서 유성운이 작게 웃었다.

"검은망토의 천사냐는 이야기까지 있던데."

"저는 천사를 그린 적이 없습니다."

"음, 지금 시대에서 천사란 신성이 다루는 일꾼에 자주 비유되고 있어. 아마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지 않을까 싶네. 너는 그런 맥락에서 그려낸 아이들이 아니었겠지만…."

어디 근원이 의도가 있어서 자식을 만들어 내겠는가? 나무가 생각하고 꽃을 피워 내겠느냐 말이다.

의지를 가진 운명이자 자연이라 불리는 신성과 달리 지오는 그저 생명을 만들어냈을 것이었다.

'그게 더 무서운 점이겠지.'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그토록 쉬운 존재였다.

"이번에 만든 작품은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죠."

"역시 그런가…."

유성운이 힐끗 평온한 얼굴의 주현과 얼굴이 가려진 지오를 훑었다.

'…이쪽은 알아서들 이야기가 된 건가.'

아마 이번에 깊고 고요한 파장을 만들어냈던 '하얀 액자'는 일전 지오가 말했던 '묘비'에 준하는 개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주현은 평소와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였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왜 그렇게 보시나요?"

"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튼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는 일이지.

'주현 씨가 자기 욕심 주체하지 못해서 사고를 칠 양반도 아니고.'

유성운 역시 '하얀 액자'에 그리 큰 관심은 없었다. 지오가 만들어낸 또 다른 자식이니 흥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딱 그만큼. 형상화된 천국이라고 해도 구미가 끌리진 않았다.

그는 이미 연옥과 다름없는 거대한 신비를 몸에 담고 있는 정원사였다.

"…기껏 모였는데 그럴싸한 화제가 없는 것 같아서 민망하네. 그렇지, 다들 차이솔 군의 근황은 알고 있나? 혹시나 해서 알아왔는데 이야기해도 돼?"

"안 될 건 없죠."

"일단 그쪽은 이루다 학생에게 많이 혼났다고 하더라."

"아, 혼나… 그렇군요…."

"인어에게 납치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액자를 통해 직접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루다 학생에게는 알려준 모양이더라고. 파트너가 말도 없이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튀었는데 화가 안 날 리가 없지."

차이솔은 안 그런 척 눈치가 빠르고 숨기기도 잘 숨겼다. 반성문도 써서 바쳤다는데 지오의 정체를 아는 강서담 사제에게만 따로 진실을 말해 두었다고 한다.

“그거랑 별개로 성취가 있었다고도 하고.”

“성취?”

“이번 공략에서 제법 일을 했다던데?”

그에 지오가 끄덕였다.

“이세르를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었죠. 제 아버지께서 군이 차이솔 학생을 그 던전에 밀어 넣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태양의 힘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익히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교류가 가능한 생물을 죽이는 경험’을 쌓길 원했을 것이다. 신성의 관점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다. 죽임을 당하는 대상이 스스로 끝을 받아들였으니 부담도 덜할 것이고.

“차이솔 학생이 뛰어난 태양의 사제로 자라나길 바라시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 걱정이군요….”

“아이들은 건강하기만 해도 바빠요.”

“지오 씨는 의외로 아이들을 잘 아시는 것 같다니까요.”

“이렇게 보여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17살 이상을 아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크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구시대 현대인인 서지오와는 조금 관점 차이가 있는 현대인들이었다. 지금은 15살만 되어도 ‘클 만큼 다 컸네’ 하는 세상이니 말이다.

“차이솔 학생이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 다행이네요.”

“뭐, 차이솔 군 혼자만 한 일도 아니었으니까. 듣자 하니 이세르를 상대하는 건 강서담 사제님도 함께였다고 들었어. 둘이 같이한 일이니 그렇게 무거운 상황은 아니었을 거야.”

“아뇨, 무거운 상황은 맞았습니다.”

“거참 단호하네.”

유성운이 어깨를 으쓱였다.

“…차이솔 군이 큰 충격을 받지 않아 다행이라는 말은 나도 동의를 해. 이세르라는 인어를 ‘은하’라고 부르면서 제법 친근하게 구는 것 같았거든.”

나름 친구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제 손으로 죽인 상황인 것이다. 어린 나이인 만큼 자책에 매몰되었을 수도 있건만 차이솔은 평소와 다름없이 씩씩한 모습이었다.

지오가 입을 열었다.

“이세르에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차이솔 군은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죽음이라는 상태에 지나칠 정도의 무게를 두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건 좀 섬뜩하게 들리는데 말이지.”

유성운이 어색하게 웃었다.

“차이솔 군이 나중에 크면 너처럼 될까?”

“저와는 많이 다를 겁니다. 생각하는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지, 삶과 주변을 대하는 태도가 저와 같다는 게 아니니까요. 차이솔 학생은 친화력이 대단히 좋죠.”

“그래 보이기는 하더라.”

턱을 쓸던 그가 물었다.

“혹시 이루다 양에게 주었던 선물 말이야.”

“예, 바스람 꽃차 말인가요.”

“그것도 예상을 하고 주었던 건가?”

유성운과 주현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한다. 그 덕분에 지오가 일전 태양교에 방문했을 때 이루다에게 차 선물을 해주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건 꽤 공교로웠다.

‘그 덕분에 이번 공략에서 이루다 양이 활약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녀는 지오에게 받은 선물을 강서담 사제의 관리하에서 태양의 여신께 공양했다. 신성의 기쁨이나 행복이야 잘 모를 일이지만, 어찌 되었든 마음에 드는 공양이었는지 최근 이루다는 태양의 힘을 다루는 것에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고 했다.

‘그리고 이루다 양은 그 힘으로 인어 아리아를 죽이는 데 일조했지.’

지오는 곧 대답했다.

“어떤 식으로든 쓰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

역시 의외로 매정하다고 해야 하나.

‘내가 죽어도 이런 반응일까?’

의문이 들어 무던하게 웃으며 질문했다.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 깔끔한 반응인데, 정말 괜찮은 거야? 다른 지오들은 아닐 수 있어도 지오반니 한 명 만큼은 의미가 깊은 인연들이었잖아.”

“짓궂은 질문이군요.”

지오는 늘 그렇듯 일정하고 기계적인 어조로 답변했다.

“하지만 정말로 괜찮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나름의 정리를 했으니까요.”

“...잠깐만.”

“예.”

“이전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했던 것 같은데 뭔가 쎄하네. 지금 네 나름의 정리라고 했지?”

“예.”

“어....”

뜬금없게도 ‘공허의 도시에 서식하는 검은 정장과 말하는 톤이 비슷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잠시, 유성운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숨겨진 뜻 눈치채고 말았다.

“...뭔가의 조치를 취한 건가? 네 하얀 액자에 들어가 있다든가.”

“그 둘은 ‘일기장’에 어울리는 주민이 아닙니다.”

“아니면 부활을 시켰다든가?”

“이미 죽은 건 죽은 겁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죠.”

“상상 이상으로 상식적인 답변이 돌아와서 놀랐어 지금.”

“다만 녹고 남은 시신은 거두었습니다.”

“......?”

유성운이 주현을 돌아보았다.

“인어들의 시신이 남았던가?”

“...아, 아니요? 둘 다 물이 되어 녹아 버렸다고....”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어들은 바다에서 태어나고, 죽으면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 일환이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시신을 거두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들은 이미 제가 거두었던 주민이었습니다.”

“주민?”

“제 팔레트 위의 주민이었죠.”

“...나만 좀 불길하게 들리나요?”

“주현 씨,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상화는 늘 그렇듯 고저 없이 말했다.

“인어들은 죽었고, 이제 그들은 아무도 해칠 수 없습니다.”

“.......”

주현이 한참 뒤에 대답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정정당당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놈의 신비들은 스피치 학원이라도 다녀야 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12)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12)"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13)

213

제213화

지오가 한 일은 간단했다.

“그들을 제 팔레트 위에 불러들였습니다.”

“더 자세히 정정당당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것 같습니다.”

“…….”

“이보다 어떻게 더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표정 짓지 말고요.”

“그런 표정은 지은 적이 없습니다.”

“딱 봐도 보이니까 발뺌하지 마세요.”

“억울합니다.”

지오는 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자신이 한 일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는 어느새 백금발의 사제가 되어 있었다.

“…그림을 그리려면 물감이 필요하죠?”

“설명하기가 어려운 건지 지오반니가 되었군요. 네, 그렇긴 하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림이란 물감으로 그려진 것이고요.”

“그렇죠?”

“지금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자 속에 들어 있는 저는 물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은 그에 준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이었다.

“인어들은, 그리고 그들의 뿌리가 있던 ‘숨 쉬는 바다’… 혹은 ‘심해의 나라’는 제 액자와 연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액자이자 그림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오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인어 친구들도 물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나요? 왜요? 너무 갑작스러운데?”

“하지만 그림이 사실상 물감의 조합이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

기어코 주현의 말문이 막혔다.

주현은 그 흔한 ‘…그렇군요!’라는 반응도 꺼내보지 못하고 황당해했지만, 근원의 존재들이 벌이는 신박한 사건 사고에 익숙해져 있던 유성운은 곧장 납득했다.

“얼추 이해는 되네.”

결국 지오도 ‘초상화’니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네 액자에 그려졌던 존재는 모두, 그… 팔레트 위의 주민이 되는 건가? 그거라면 나나 주현 씨도 들른 적이 있잖아. 심지어는 차이솔 군도.”

“여러분은 팔레트 주민이 아닙니다.”

“기준이 따로 있나 보지?”

“뿌리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뿌리, 라….”

정원사이기에 알았다. 뿌리는 그 존재를 구성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장 본질적인 개념인 영혼의 뿌리라면 그 말은 다 한 셈이었다.

“단순히 같은 화분을 쓰는 것 정도로는 안 된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식물로 따진다면 같은 화분을 쓰다 못해 아예 뿌리와 줄기가 달라붙어 버리는 상황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으로 따진다면 단순히 연인 관계 수준이 아니라 샴쌍둥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뜻일 테고?”

“그보다는 한 사람 몸에 있는 장기들의 관계에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입으로 씹어 삼킨 영양분이 몸에 영원히 저장될 지방으로 치환되어 버리는 것과도 비슷하겠군요.”

“정말 완전히 ‘뿌리’가 같아져야 한다는 거군.”

아예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같았다.

“그럼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뭐가 달라지지?”

“불러올 수 있죠.”

“뭘? 이미 죽은 녀석들이었잖아.”

“팔레트 위의 주민은 물감이지 않습니까?”

“…아.”

유성운이 끄덕였다.

“하긴 그건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지는 않지.”

심지어 지오조차도 죽었으나 가장 완벽했을 때로 박제된 상태였다.

이미 그런 사례가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 다른 놈들도 못하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지오의 도움이 아주 많이 필요하겠다만.

“그래서 지금, 그 인어들이… 물감이 된 건가?”

“정확히는 색이 되었습니다.”

“색?”

“예.”

기계적으로 초상화가 진실을 읊었다.

“아리아는 회색이 되었고, 이세르는 하늘색이 되었어요.”

“…….”

“여러분은 그들을 제 그림자와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거참….”

유성운이 머뭇거리다가 이어 말했다.

“…멋지네.”

진심이었다.

“그건 죽음과 무관하다는 거잖아.”

“제가 그렇듯이 그들도 무관합니다.”

“네가 말하는 ‘색’이라는 건 어떤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색입니다.”

“말할 수 있나? 대화할 수 있어? 교류가 가능한 상태야?”

“그것을 의도한다면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이지는 남아 있고?”

“그걸 원한다면요.”

“그들은 이미 죽은 존재들이지?”

“예, 생명과는 거리가 먼 존재가 되었죠.”

“…하하, 진짜 낭만적이잖아…!”

웃음이 절로 터졌다.

“꼭 한번 보고 싶은데 어디에서 감상할 수 있을까? 네가 불쾌하지만 않다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거든. 내가 무례하게 구는 게 아니라면 길을 알려줄 수 있나?”

“‘심해의 신전’이나 ‘공허의 도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또한 제가 있는 오두막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액자를 찾아가야 해?”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색은 어디에나 있을 테니.”

“굉장하단 말이지….”

그런 둘의 대화에 주현이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저만 이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현 씨는 이해하지 못할 세계가 있지.”

“지오 씨가 포함이 되어 있는 세계인 만큼 저도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묘한 거부감이 느껴지는 건 정말 어쩔 수가 없네요. 내가 편협한 건가… 틀에 박혔나….”

“주현 씨는 성실한 사람이니까.”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했다.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차차 적응을 해 보겠습니다.”

주현이 기어코 사회생활 미소를 깨트리고 한숨을 푹 내쉬었다.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근원이라 평가되는 어마어마한 신비인 만큼 그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나아져야 할 때였다.

‘다만….’

그가 즐거운 미소를 지은 유성운을 보았다.

“…….”

“응? 왜?”

“아뇨.”

주현이 마주 웃어주었다.

“골치 아프시겠구나 해서.”

“내가 늘 그렇지.”

아직도 유성운은, 지오를 정의하지 못했다.

* * *

“…….”

유성운은 ‘공허의 도시’에 와 있었다.

“…물새는 여기에도 있네.”

“제가 만든 집 중 하나이니 당연합니다.”

“못 본 새에 주민도 꽤 늘었고.”

주변을 둘러보니 먹물이 뒤덮인 듯 얼룩덜룩한 검은빛에 뒤덮인 인영들이 몇 명 보였다. 아마 ‘공허의 도시’ 앞에서 깐죽거리다 잡혀 온 ‘악한 인간’들일 것이었다.

‘그래도 생각만큼 많지는 않나.’

악한 인간이 넘쳐나는 시대이니 지금쯤 꽉 찼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쩌면 지금 유성운이 보고 있는 공간 외에 다른 곳이 더 있을지도 몰랐다.

‘하긴 끝이 보이지 않는 대로변이지.’

‘공허의 도시’는 양옆으로 세워진 거대한 빌딩들의 벽 한가운데에 놓인 도로의 형상을 띠고 있다. 건물들 사이 골목길로도 갈 수 있고, 어디가 끝일지도 모를 도로의 너머로도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액자를 통해 볼 수 있는 광경은 어디까지나 단편적인 파편일 뿐….’

주변을 둘러보는 유성운의 머리와 어깨 위에 물새들이 앉았다.

“우와, 뭐지. 왜 이래?”

“지난번 오두막에서 유성운 씨를 만난 적이 있는 물새인 것 같습니다.”

“아… 아아, 그때.”

꽤 된 일인데 기억력이 좋구나 싶었다.

‘처음 오두막에 초대받아 들어가기 전에 나무에 앉아 있는 물새들을 봤었지.’

그때 그 아이들인 듯했다.

“…….”

손을 뻗자 그 위로도 쫑쫑 앉았다.

“…회색이네?”

“이 공간이 회색이니 당연합니다.”

“그건 그렇지.”

물이라는 것이 워낙 투명하니 주변의 색을 빨아들이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여기도, 이 녀석들도 모두 그림이니까.’

유성운의 손 위에 올라온 물새는 그의 손을 콕콕 찌르거나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여기에 네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여기에 오는 인간들은 대부분 악인이라 그런가? 나쁜 놈 취급은 안 해줘서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그즈음 물새에게 잡아먹히는 검은색 인영이 눈에 들어왔다.

“오.”

저렇게도 처리하는구나.

“네 자식들은 배가 터지겠는걸?”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식사보다는 놀이에 치중된 행위라….”

“이런 걸 놀이라고 말하면 듣는 인간은 조금 섬뜩해진다고.”

“농담도 참.”

“너는 사람 말을 좀 곧이곧대로 들을 필요성이 있어.”

“감상은 즐거우십니까?”

“…확실히 예전보다는 덜 긴장되네.”

그렇다고 편하다는 건 절대 아니다만.

‘나는 적의를 받는 대상이 아닌데도 이 꼴이라니.’

지난번에도 들렀던 곳이지만 여전히 섬뜩한 공간이었다.

이 안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만으로도 ‘나’라는 존재가 지워질 것만 같았다. 폐에 석고 가루가 찬 듯 답답했다.

‘이마저도 지오의 호의를 받아 버틸 수 있는 정도겠지.’

어지간한 헌터들도 ‘공허의 도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검은망토의 작품에 사로잡히면 그들이 직접 자비를 베풀어주지 않는 한 헤어 나올 수가 없었다.

“으음….”

유성운이 고개를 기울였다.

“…인어들은 어디에 있어?”

“이제 인어라고 부르기는 힘들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이름으로도 부를 수 없는 건가?”

“아뇨, 죽는다고 해서 이름이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자비롭다고 해야 할지, 끔찍하다고 해야 할지….”

곧이어 유성운의 눈에 짙은 회색이 들어왔다.

“…….”

아.

“…눈….”

“예, 눈이군요.”

“…날 보는 건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색으로 만들어진 눈이었다.

‘인어가 가진 눈이야.’

물비늘이 비치는 듯한 기이한 은빛. 아니, 진주의 색을 닮았다.

극지방의 오로라와 같은 홍채에 둘러싸인 반짝이는 동공. 그것은 둘이 아니었고, 하나도 아니었고, 수십 수백에 달했다.

이내 손이 튀어나온다. 색에 파묻힌, 색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불명확한 형체를 가지고 정해진 색 안에서 꾸물거렸다. 그 또한 하나, 둘이 아닌 수천에 달했다.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살아 있는 건가?’

아니면, 박제당한 건가.

‘이걸 박제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생동감이 넘치는데….’

그러자니 생명 그 자체는 전혀 느껴지지를 않고.

그것은 마치 유화 위에 얇게 비치는 기름 막을 닮았다.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데도 붓의 휘적임에 따라 느긋하게 유영하는 것이, 꼭 생전 인어의 꼬리를 닮은 것 같기도 했다.

‘징그러운가?’

아름다웠다.

‘끔찍하다고 해야 해? 아무리 악인에 몬스터였다고는 해도 이미 죽은 자를 모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초상화와 다를 게 없었다.

말 그대로 그것은 ‘색’이었다. 회색. 낮의 바다와 저녁의 바다가 다르듯이 곳곳에 스며든 명암의 차이가 확실하다. 바다에서 태어난 인어가 대체 왜 회색이 되었나 싶었는데.

“…….”

그것은 회색 바다였다.

‘…색은 상관이 없었던 거야.’

이것은 봄의 바다처럼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지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 적의를 드러내지 않아?”

“그저 색에 불과하니까요. 물감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유성운이 위를 올려다보았다.

“…이해했어.”

공허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황혼이, ‘하늘’을 뒤덮은 채로 흘러간다.

‘이게 바로 인어들이 선택한 지옥인 거네.’

그들은 도구로서 지오의 곁에 남기로 결정했다.

지난날, 인어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악신이 되어 지오에게 결코 용서받지 못할지라도 영겁에 가까운 시간을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도구의 형태로나마 남아 언젠가 용서받을 날을 기다릴지.

인어들은 후자를 선택한 것이었다.

“천국을 만들었으니 이제 지옥도 만들 거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천국도 지옥도 만들지 않습니다.”

“알아, 너는 그저 네 마음에 드는 것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었을 뿐일 거야.”

“잘 아시는 것 같아 기쁩니다.”

“…그래….”

하지만 이게 지옥이 아니라면 뭐란 말인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멋지다.”

유성운은 죽으면 이런 지옥에 가고 싶었다.

동화를 닮은, 이 기괴한 지옥에.

“…….”

…내가 너를 사람으로 보게 될 날이 올까?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13)"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14)

214

제214화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죽음이 아닐까 싶어.”

“…….”

쭉 이야기를 듣던 주현이 호록, 커피를 마시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성운 씨는 가끔 좀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까고 말하면 그렇다는 자각이 있기는 해.”

“뭐랄까,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무언가를 보며 눈을 막 반짝이는… 그런 불쾌함….”

“꽤 구체적으로 질색하네.”

이런 반응을 보는 게 하루 이틀 된 일도 아니라 유성운은 그저 흘려들었다.

“주현 씨는 그런 낭만 같은 거 없나?”

“지금 저희가 나누는 대화 주제에 낭만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한 일이 있었던가요?”

“사후 세계를 고를 수 있다면 어느 사후 세계로 갈 건지, 뭐 그런 느낌의….”

“아무리 생각해도 낭만이 나올 주제가 아닌데.”

앓는 소리를 내면서도 주현은 성실하게 답변했다.

“글쎄요, 저는 여러분처럼 강하거나 특별히 대단한 권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당장 내일을 생각하기도 바쁜데 죽은 이후까지 생각한 겨를이 있나 싶어요.”

“하지만 지오를 옆에 두고 있잖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죠. 기껏 태어났는데 고작해야 죽을 날을 기대하며 사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지 않나요? 살아 있으면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진지하다고 해야 하나, 무겁다고 해야 하나….”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산 사람만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지오 씨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겠지만.”

그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 주현처럼 별 볼 일 없는 일반인이라면 말이다.

“아예 의지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라면 모를까 저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저보다 오래 살 것 같은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싶을 만한 일들도 아니니, 앞날을 살아가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지.”

유성운이 빙글 웃었다. 검은망토의 역작을 보고 온 탓인지 기분이 좋아 보였다.

“시시콜콜한 잡담 정도는 떠들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냥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라면 말이다.

“…음….”

하지만, 글쎄.

“…딱 잘라 생각나는 건 없는데. 아마 지오 씨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 준 선물이 있으니 운이 좋다면 ‘하얀 액자’ 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요.”

“역시 그쪽이려나.”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사람의 미래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는 유성운 씨는 어느 사후 세계로 가게 될 것 같나요?”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역시 내 설원 속에서 잠드는 거겠지.”

“설원이라고 하면….”

“내가 모시고 있는 정원 말이야.”

지오가 도움을 준다면 그보다는 더 따듯한 곳에서 잠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현실적인 가능성과 유성운 개인의 기호를 따진다면 이편이 맞았다.

“정원사는 보통 자신의 정원에서 인생을 마감하거든.”

“그리고 또 다른 삶을 이어간다고 했던가요?”

“정확히는 무언가의 조형물이나, 나무나, 꽃이나… 그런 정원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변하는 거겠지만? 그걸 ‘삶’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정원사들은 인간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최고의 호사라고 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잘 기억하고 있네.”

물론 모시는 정원에 속하고자 하는 정영원 치료사 같은 예외의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최소한 유성운은 그렇지 않았다. 기왕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인간이었으면 하는 게 사실이었다.

“이런 세상에서는 죽음조차도 순리를 따를 수가 없단 말이지….”

“악신들도 판을 치는 세상이잖아요.”

주현이 어색하게 웃었다.

“당장 저만 해도 일을 치를 뻔했고.”

“아, 그렇지. 산칼루트 쪽은 이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주제가 된 건가?”

“예전에도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성이 내린 재앙이라고 하면 사건보다는 재해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그들은 인간의 흉내를 낼 수는 있어도 결코 인간이라 할 수 없으니,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버티는 것뿐인 주현이 원망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었다.

“쉽게 말하자면 제가 운이 나빴던 거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니까.”

유성운이 목을 쓸었다.

‘이쪽도 참 평범하지는 않아.’

생사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대개 사제의 특징이지만, 또한 성인의 조건이기도 했다.

‘신을 모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삶에 미련이 없어진다면 지금의 종교계가 이렇게까지 복잡해지지는 않았겠지. 결국 인간은 인간이다, 그릇에 한계가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주현이 점점 지오의 절친한 친구가 되어가는 것 같아 기분이 묘했다. 그러니까, ‘절친한 친구’라는 이름의 사도 말이다.

“…….”

유성운이 무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 보면 산칼루트 그 양반도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 설마 예전에 지오에게 제령인지 뭔지 당한 걸로 완전히 작살이 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런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만….”

“나도 그래.”

악신 산칼루트는 협회 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는 중요한 자료였다. 그런 놈이 정말로 소멸을 당했다면 연구소가 이렇게까지 조용했을 리가 없었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유성운에게조차 소식이 닿지 않았으니 말이다.

‘무엇보다 신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고.’

신성끼리조차 서로를 죽이기가 쉽지 않아 반강제로 공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의 지구만 해도 그 성격 안 맞는 섭리와 불균형이 왜 이 좁은 차원에 어깨동무하고 머물러 있겠는가.

“아니 뭐, 물론 지오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은 지오 씨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빠를 것 같네요.”

“만약 산칼루트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번에도 지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을 예정인가?”

“아니요.”

“응…?”

의외의 반응에 주현을 돌아보자 그가 씩 웃는 것이 보였다.

“나는 이미 그 부분에 관해 지오 씨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았을 때도 그랬고, 따듯한 오두막에서 직접 만들어준 죽을 먹을 때도 그랬죠. 이번에 만들어준 새하얀 묘비도 그와 같은 맥락이었고요.”

그의 거대한 호의를 애써 거절하고, 사양하고, 못 본 척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해버렸다.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놀라지 않았어요. 지오 씨가 나를 위해서 그 거창한 작품을 그려냈다고 했을 때도 그저 감사할 수 있었죠. 그런 기적을 이전에 여러 차례 받아 왔으니까요.”

“기적이라.”

“그럼요, 기적이죠. 누가 저 같은 평범한 패배자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겠어요. 그것도 탐욕이나 질투 없이 그저 친구가 되고 싶다는 순수한 의지로 말이에요.”

“…그런 기회가 살면서 다시 오지는 않겠지.”

“지오 씨는 참 다정한 사람입니다.”

주현은 타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간 주변에 손 빌릴 곳이 없었을뿐더러 도움을 요청해 봤자 원하던 것이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를 처음으로 도와준 것이 바로 아르지오라던 그 사악한 신성이었다. 그는 지금까지도 주현을 도와주고 있었고, 산칼루트와 관련된 일 역시 마찬가지였다.

“만약 지오 씨가 기회를 준다고 하면 대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대화를…? 괜찮을까 싶은데, 주현 씨는 비 각성자니까.”

“저는 비 각성자라는 방패를 꽤 애용하는 편이지만 이럴 때까지 뒤로 숨고 싶지는 않네요. 내가 져야 하는 책임이 있고, 지오 씨가 많은 것을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꽤 대담한 반응인데.”

“괜찮아요.”

주현은 지오라는 이름의 친구를 믿었다.

“받은 만큼 돌려줄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죠. 그게 관계라는 겁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도 주현은 지오에게 모든 은혜를 갚을 수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큰 기회를, 도움을 받았는지 알아야 했다. 그리고 마땅한 자세를 취해야 맞았다.

“나는 오만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지 받은 은혜에도 시선을 돌려버리는 머저리는 아닙니다. 지오 씨의 여러 도움을 거절했던 이유는, 제가 기적을 손쉽게 얻으면 결국 변해버릴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어요.”

“미안한데 전혀 안 평범하거든.”

유성운의 말은 가볍게 무시당했다.

“산칼루트라는 이름의 사악한 신성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끝을 내야죠.”

달콤한 현실 속에서 행복해하면서도 결국 ‘책임’을 졌던 인어들처럼.

“내 이야기도 너무 오래 끌어서 좋을 건 없어요. 계속 말하지만, 나는 평범한 인간이니까.”

“…….”

“유성운 씨에게도 끝내야 할 이야기가 있나요?”

“…정원사에게 그런 게 있을 리가.”

유성운이 드물게 난처한 미소를 지었다.

“난 정원의 소유물이야.”

그가 끝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정원의 것이지, 결코 유성운의 것이 될 수 없었다. 그는 인간이기 이전에 정원사이며 근원의 노예이기 때문이었다.

“평생 이렇게 살겠지, 신비에 파묻혀서….”

“왜 정원사가 됐어요?”

“살고 싶어서.”

“그랬구나.”

주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요.”

“비슷하네, 그럼.”

둘 모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서, 결국 여기에 와 있었다.

* * *

“산칼루트?”

지오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까?”

“예, 물론 가능하다면 하는 말이지만….”

“그야 가능합니다. 저는 단지 그를 불러낼 뿐이겠지만 그걸로도 만족하신다면야.”

“당연히 만족하죠.”

어디 신성을 소환해 내는 것이 쉬운 일인가. 하긴 악신이라면 비교적 쉬울지는 몰라도 그 대가를 심심찮게 바쳐야 할 것이었다. 이렇게 안전하게 악신과 교류할 수 있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지오는 턱을 짚었다.

“그럼 저희 집에서 대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오가 주현과 유성운을 불렀다.

“잠깐만, 나는 왜?”

“유성운 씨도 오신 김에 밥 좀 먹고 가세요.”

“너 정말 나를 돼지로 만들 생각은 아니지?”

“이번 공략에서 심신 소모가 크셨는지 많이 빠지셨습니다….”

“그렇게 슬픈 얼굴로 바라봐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

고작 0.4kg 빠졌다.

“나는 속도가 중요한 헌터란 말이야. 이렇게 계속 먹이면 아무리 나라도 살이 찔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 커리어에도 지장이 생길 거고….”

“아하, 살이 찌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이래서 신비들은 한순간이라도 방심할 수가 없다니까. 계약서 가져와, 계약서. 우리 A부터 Z까지 세심하게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고.”

“이래서 경험 많은 큐레이터는.”

“갈수록 사악해지네?”

뭐, 아무래도 좋다만.

“부디 평범한 식사로 부탁해.”

“저는 늘 평범한 상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네가 양심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쳇….”

“이제는 아주 혀를 차는구나.”

그리고 지오는 담요를 가져왔다.

“담요?”

“예, 갑작스럽지만….”

“아니, 갑작스러워서 놀란 것도 있기는 한데.”

“추워 보이셔서.”

“어떻게 알았는지는 둘째 치고 이거 어떻게 봐도 담요가 아니잖아. 누구 가죽이야, 이건? 왜 이렇게 푹신하고 따듯하지? 이렇게까지 따듯할 수가 있나? 아 따듯하네…?”

푹신한 황금 털에 슬금슬금 빠져드는 유성운의 모습에 주현이 씁쓸하게 웃었다.

“이게 신비에 홀린 인간의 말로인가.”

“누구 마음대로 결말을 내.”

“털가죽에 잔뜩 홀린 채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가 설원의 추위를 알아…?!”

털을 꼭 껴안은 유성운의 모습에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네가 그렇게 좋아할 줄 알았다’라는 음성이 절로 들려오는 반응이었다.

“추워 보이셔서 걱정했습니다.”

“나 그렇게 추워 보였어…?”

유성운의 질문에 주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뭔가 죄송한 말이지만 지오 씨가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평소랑 전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로 추우셨나 보네요….”

“미안할 거 없어, 모르는 게 정상이니까.”

졸지에 비정상이 된 지오가 ‘??’ 의문을 품은 채 자신을 가리켰다.

“저는 정상이 아닙니까?”

“평균적인 인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그렇지.”

“하긴 초상화는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하기 어렵겠군요. 나의 특별함을 칭찬하셔도 좋습니다.”

지오의 납득은 빨랐다.

“제 집에 오는 손님은 늘 평온해야 합니다.”

“그건 그거대로 무섭지 않나?”

“오늘 이불은 그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 손님 대접 잘하네.”

“감사합니다.”

지오는 대단히 흡족해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 놀러 오니 좋군요."

이럴 줄 알고 미식 로드를 준비했지.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14)"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15)

215

제215화

식사를 마친 후 주현은 산칼루트와 대화 자리를 얻었다.

"...맛있는 냄새 난다...."

"...악신도 식욕을 느낍니까?"

산칼루트는 물새의 몸에 빙의되어 불려 왔다. 색도 성대도 없을 살아 있는 물은 어느새 황홀한 붉은빛으로 바뀌었지만, 참 다행히도 지오의 비호를 받는 주현이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

작디작은 몸에 갇힌 산칼루트는 우울해했다.

"집에 가고 싶어."

"어...."

예상외의 반응에 주현이 지오를 돌아보았다.

"도와주세요."

"아, 제가 끼어도 되겠습니까?"

"대화가... 잘 안되는 기분입니다."

"그럴 땐 제가 나서야죠."

참고로 유성운은 지오가 쥐여준 황금걸음양의 털 이불과 바스람 꽃차를 끌어안은 채 2층 손님방에서 잠이 들었다. 친구를 만족시켰다는 성취감을 얻은 지오는 당당히 주현과 산칼루트 사이에 앉았다.

마치 작은 재판장이 된 듯한 상황에 산칼루트가 울상을 지었다. 표정이라고 할 것이 없는 물새의 형상이었지만 신성은 외형이 아닌 영혼으로 소통했다.

"혼내려고 부른 게 분명해."

"죄송하지만 저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참석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를 혼냈어."

"그건 혼날 만했습니다."

"나도 어른들 거 안 뺏어 가려고 고심고심해서 고른 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말만 하고.”

유치한 어린아이와 다름없는 화법에 주현이 재차 지오를 돌아보았다.

“생각보다 뭔가… 어리네요.”

“몸을 빌려준 물새의 영혼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아, 물새의 영혼이요?”

“정확하게는 파장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산칼루트의 빙의 방식은 그랬다.

“다른 존재의 몸을 빼앗으면 거기에 따라 의태하는 식입니다. 그러니 지난번 이루다 학생의 몸을 빌렸을 때도 무리 없이 그 어린 신체를 다룰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런 비설이…?”

생각해 보면 확실히 여린 아이의 몸에 사악한 신성이 꼭 맞게 들어갈 리가 없었다. 애초에 산칼루트가 배려해 준 게 아니라면 말이다. 물론 그건 이루다가 아닌 자신의 편의성을 위한 것일 테지만 다행이라면 다행인 일이었다.

“산칼루트 씨.”

“네.”

“오늘 산칼루트 씨를 부른 건 여기 주현 씨가 대화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악신치고는 상당히 순박한 인사였지만 주현은 더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받아주었다.

“안녕하세요, 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주현 씨.”

“어….”

“버린 이름은 쓰지 않는 건가요?”

“…시작부터 아픈 곳을 찌를 줄은 몰랐는데.”

“그게 편하잖아요.”

“…….”

주현은 ‘안’이라는 성씨를 버렸다. 그래야만 기타 고아원에 입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때 이 문제로 ‘내가 살기 위해 가족과의 추억을 버렸다’라는 자책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다.

‘…과연 악신은 악신이라는 건가.’

다짜고짜 약점을 찌르다니.

“…….”

그것도 단지 편의성을 위해서.

“…그날 제게 말을 건 게 아르지오, 당신이라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나의 훌륭한 안목을 높이 사주니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붉어진 머리카락에 산칼루트가 눈을 빛냈다.

“멋진 색이야! 멋진 색이야! 나 그 색 좋아해요!”

산칼루트는 한때 황홀한 빛을 뽐내는 단순한 보석이었으나, 그 피를 닮은 색에 홀린 인간들이 피를 바치는 과정을 통해 악신이 되었다. 그런 산칼루트가 지오의 머리카락을 좋아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당신의 피는 무슨 색인가요? 색을 보여주세요, 멋질 거예요.”

“정말… 대화가 잘 안되는 기분인데요.”

주현의 난감함에 지오가 씩 웃으며 말했다.

“어리니까.”

“…어리다고요? 신성이?”

“이것은 대화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나의 친구. 인간의 ‘언어’도 알고 자기 ‘생각’을 갈무리할 줄도 알지만 교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죠.”

“하지만 산칼루트는 한때 차원 전체의 인간에게 모셔졌던 한 종교의 악신이었는데요.”

“주현 씨는 깜찍한 강아지들이 몰려와 짖고 꼬리를 흔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대충은… 알지 않나요? 꼬리 흔들면 좋아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 일방향적이지. 개가 짖는다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나?”

“아아….”

정말로 교류가 안 되는 거였다.

“인간에 대해 모르는군요.”

“따지자면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알 겁니다.”

“조련사가 몬스터를 조련하는 것처럼요?”

“비슷하지.”

“그럼 이해가 되죠.”

주현은 꽤 심란해졌다.

“…….”

그냥, 조금 참담했다.

‘…무지한 아이에게 내 가족과 친구들이 죽었구나.’

이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 불과했다.

“산칼루트 씨, 저와 대화를 나눠줄 수 있나요?”

“피를 보여줘요, 피. 나와 거래해요.”

“누가 악신 아니랄까 봐 벌써부터 거래를 제시하네.”

주현이 허탈한 숨을 뱉었다.

“…지오 씨, 죄송한데 날붙이 하나 있을까요?”

“이 철없는 꼬마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는 건 그리 현명한 판단이 아닐 텐데.”

“알아요, 요구를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더 무서운 대가를 원하겠죠.”

“그걸 알고 있다면야.”

아르지오는 자신의 머리카락에 꽂혀 있던 핀 하나를 내밀었다. 상당히 화려하게 장식이 된 금색의 보석 핀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단단하고 날카로웠다.

“이런 걸 머리에 꽂고 다녔다고요?”

“정확히는 머리카락인데….”

“…이것도 일종의 무기였나 봐요.”

“비수로 쓸 만했지.”

“아하.”

톡.

주현이 손끝을 가볍게 땄다.

“자, 여기요.”

“피다! 큰 피예요.”

“만족하십니까?”

“나는 만족해요.”

물새, 산칼루트가 고개를 기울였다.

“먹어봐도 되나요?”

“거기까지는 거래하지 않았어요.”

“아쉬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오가 지켜보는 탓인지 산칼루트는 강압적으로 거래를 제안하지 않았다. 시무룩해진 산칼루트가 이어 말했다.

“안주현 씨는 저와 대화할 수 있어요. 무엇을 들어 드릴까요?”

“소원을 빌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낙원을 바라나요?”

“내 낙원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낙원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불쌍하게도.”

“꼭 낙원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난 역시 당신이 좋았는데.”

산칼루트가 가볍게 날개를 파닥였다. 딱히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기보단 물새가 종종 자신의 물로 된 몸을 관리하듯 자세를 정리한 것처럼 보였다.

“나의 아들이 되어줄 수는 없었나요?”

“산칼루트 씨가 나에게 호의로 다가왔다면,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호의’는 인간을 움직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아요. 인간은 분노와 증오, 공포를 느낄 때 가장 빠르고 강인해지죠. 세계의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평화에는 분노와 증오, 공포가 없어서요.”

“난 역시 당신이 좋았는데.”

“그런가요.”

“당신이 좋았어, 안주현. 집에 가고 싶어.”

작은 새가 고개를 갸웃갸웃 기울였다.

“나를 원망하나요?”

“네, 맞아요.”

“날 죽이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면 내 아들이 될래요?”

“아… 절대 싫은데요.”

“…다들 나만 미워해….”

주현이 또 한 번 지오를 돌아보았다. 지오가 웃으며 대답했다.

“내 아이의 말버릇을 따라 하는 겁니다.”

“…지오 씨의 물새들은 성대가 없지 않아요?”

“아빠 귀에는 다 들리지.”

“역시 부모는 위대하군요.”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후우.”

주현이 천장을 올려다보고, 다시 산칼루트를 보았다.

“…최근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인어 둘이 일으킨 전쟁이었고, 덕분에 한국의 앞바다는 전부 난리가 났죠. 해외에도 조금 영향이 가서 세계적인 문제로 번질 뻔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나도 알아요, 강한 인어들. 나와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게 옳은 방식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어들의 후회는 그들 손에 희생된 이들이 아닌 자기 자신과 지오반니를 위한 것이었으니 어쩌면 그들의 최선이었을 수도 있겠죠.”

“마음에 들지 않나요?”

“그랬습니다, 하지만 배울 점은 분명히 있었어요. 지은 죄와 별개로 결국 이야기를 질질 끌어봤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죠. 내 상황이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나를 봤나요?”

“그래서 당신을 봅니다, 산칼루트.”

주현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신이 산칼루트를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약했고, 권능조차 없으며, 이미 몇 번이고 실패해 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나아질 수 있는 존재였다.

“당신이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존재라는 걸 알아요.”

신성은 운명이자 자연이었다. 그 누구도 운명의, 자연의 잔혹함을 나무랄 수 없었다. 그것은 우주가 빚은 행성과 다르지 않으니 인간의 원망조차 닿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당신을 운명과 자연으로부터 끌어 내리고자 합니다.”

“나 집에 못 가요?”

“못 가요.”

“너무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또 다른 집과 사랑을 알려 드릴게요.”

어차피 신성은 하나의 차원이 죽어갈 때까지도 살아 있지 않던가?

“잠깐 새로운 유희를 즐긴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죽으려고요?”

“할 수 있다면요.”

“불가능해요.”

“우주에는 온갖 불가능한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잖아요.”

“나는 싫은데.”

“협조해 주면 집에 보내 드릴게요.”

주현이 지오를 보았다.

“도와주실래요?”

“아, 물론입니다. 친구.”

아르지오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나는 그대의 판단을 존중해.”

“…….”

주현은 거대한 신뢰와 애정을 느꼈다.

이건 고작 읽지도 못하는 편지 몇 번을 받았기에 받는 친절이었다. 초상화가 거두면 거두는 대로 멀어질 관계이고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그의 인간성을 믿기에 주현은 걱정하지 않았다.

이 붉고 사악한 신성은 언제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릴 테니까. 그가 반역의 운명에 오른 신성인 이상, 주현이 받는 불공평한 지지와 찬사는 정해진 일이었다.

이 거대한 편애에서 주현은 언제나 지오가 인간임을 느꼈다.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해야겠죠.”

“그럼, 물론이야.”

아르지오는 어깨를 으쓱였다.

“너무 곧으면 부러져.”

모든 존재가 그랬다.

“특히나 영웅이라는 자들은 더욱 그렇지.”

“…그놈의 영웅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돼요?”

“나는 재밌는데?”

“난 재미없어요.”

“오, 저런. 그럼 나는 입을 다물어야겠군.”

“이상한 곳에서 깐죽거린단 말이야….”

지오를 흘긴 주현이 다시 산칼루트를 보았다.

무언가를 직감했는지 그것은 더 이상 부산스럽게 움직이지도 않고,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고, 그저 눈이 멀 것 같은 아름다운 빛을 담은 붉은 눈으로 주현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날 인간으로 만들 거예요?”

“…맞아요.”

“불가능해요.”

“그게 나를 좌절시킬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주현 씨.”

“왜인지 좀 더 간절하고 공손해졌네요.”

안다, 이건 주현이 지오라는 신성을 등에 업고 누리는 권위였다. 그야말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부리는 격이었으나 결국 주현은 평범한 인간이었다.

이용할 수 있는 걸 이용하지 못하면 지는 건 그가 될 뿐이었다.

“나는 이미 지오 씨와 같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비조차 인간성을 지니고 있는데 산칼루트, 당신이라고 못할 것은 없겠죠. 나는 그렇게 믿을 거예요.”

“싫어요… 그 길은 피도 없고, 반짝이지도 않아요. 나는 무뎌질 거고요.”

“그렇군요, 너무 좋네요.”

이게 주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이자 복수였다.

“지오 씨.”

“뭐든 말씀하시죠.”

“산칼루트 씨에게 몸을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흠, 몸이라….”

아르지오가 씩 웃었다.

“깜찍한 아이로 만들어 드리지.”

* * *

잠에서 깨어난 유성운은 새빨간 가죽의 뱀을 보며 눈을 껌벅였다.

“…그래서 이게 산칼루트라고?”

“예, 그렇습니다.”

“살다 살다 신이 뱀에 들어간 건 또 처음 보네.”

뱀이 일자로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오, 말한다.”

“저는 다리도 없고, 팔도 없습니다. 날개가 달리지 않은 몸은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어째 말하는 방식이 지오를 닮은 것 같은데?”

“나는 몸의 기억을 따라갑니다.”

“진짜 닮았네. 무뚝뚝한 말투라 분간이 안 갔는데 불평하고 있던 거였나.”

“구경하시겠습니까?”

“허락만 해준다면야 물론이지.”

유성운은 정원사인 만큼 이 신박한 현상에 면역이 강했고, 산칼루트는 유성운의 손에 붙잡혀 흐느적거렸다. 그렇게 둘을 내버려둔 채로 지오는 다시 2층의 손님방으로 올라갔다.

예전에 주현이 머물렀던 방이었다.

“주현 씨.”

“…….”

그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주현 씨, 피곤하신가요.”

“…많이 피곤해요.”

“자책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걸까요?”

사제 앞에 죄를 고하듯 주현이 입을 열었다.

“무엇을 해야 옳은 선택일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오 씨는 항상 나에게 친절해 주었고,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건 똑똑하다고 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자 했던 것이고, 주현 씨는 그중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길을 찾았죠.”

“내가 잘한 일인지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밀어붙였죠, 다시는 이런 기적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이게 정말 미친 짓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얼굴을 가리고 있던 손이 가볍게 떨리며, 아래로 내려온다.

“가족들이 날 미워할까요?”

그는 울고 있었다.

“친구들이 날 원망할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주현 씨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원수가 분명한 산칼루트에게 모난 말을 지껄이지도 못하고, 고통을 주겠노라 결심하지도 못하고, 고작해야 한다는 것이 그를 인간들의 세상으로 끌어 내린다는 게… 그게 고작이라는 게….”

“고작이라니요.”

지오는 주현을 존경했다.

“나는 주현 씨가 정말 멋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화를 내고 비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무너지고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 앞을 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건 그냥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싶지 않아서 지오 씨의 힘을 빌리는, 그런. 대단히… 이기적이고… 오만한 행태죠.”

“가진 건 써야 옳습니다.”

“지오 씨를 내가 가지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베푸는 것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추하잖아요.

게다가 나는 이미 당신에게 받은 것조차 온전히 돌려줄 수 없어요."

"친구에게 그런 게 필요합니까?"

"……."

주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아니요."

그가 아는, 또 지오가 아는 친구라는 건 거래 관계 따위가 아니었다. 지오가 주는 선물은 가볍게 툭 던지는 농담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도 주현은 잘 알고 있었다.

무언가 울컥해서 저도 모르게 속내가 입술을 비집고 튀어나온다.

"내가 언젠가 당신을 경외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때도 우린 친구겠죠."

"……."

"보세요."

지오는 단언했다.

"매사를 경계하고 영악하게 기회를 잡아채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를 두려워하지만 내 인간성을 존중해 주는 주현 씨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게 받은 선물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가벼운 척 쥐여주는 배려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일 수가 있었다.

"주현 씨가 쉽게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 버겁다면 나를 경외해도 좋습니다. 그건 나를 상처 입히고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니까요."

"그럼 지오 씨는 무엇에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건 그냥 생떼 아닌가…."

"비슷합니다."

지오는 단언했다.

"저는 주현 씨의 상상 이상으로 단순합니다."

그냥 나랑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래서 생각 깊은 사람들이란.

"계산적이고 이타적인 주현 씨가 친구임에 감사하고 있어요."

"…징그럽고 짜증 나지 않는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주현의 음성이 점차 차분해졌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게 맞나요?"

"그건 주현 씨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같은 길을 가도 사람에 따라 옳고 그름은 달라지죠."

"치열하게 고민하며 원하는 길을 가세요."

주현은 그걸로 충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밥을 먹고요."

"...어째 만날 때마다 밥 이야기가 나오네...."

싫다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

그는 특별했다. 참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릇이 크고 자비로워 쉽게 호의를 베풀고 애정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후회하거나 무너지지 않으니 그 무엇보다도 강인하다. 그러니 누구라도 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어질 것이었다.

'지금의 내가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주현은 이 사람을 감히 동정했다.

'...내가 당신의 긴 삶에 머무르는 시간은 찰나일 텐데.'

그 짧은 순간마저도 이 불쌍한 친구를 인간으로 대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그의 특별함에 기대다가, 결국 그가 실없는 장난이나 편지 주고받기를 즐기는 유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것만 같았다. 이런 친구가 있었음을 잊고 그 전지전능함을 찬양하게 될 것 같아서 무서웠다.

나는 고작 평범하고 하잘것없는 인간이라서....

"...너무 친절하지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오 씨가 외로워질 것 같아서 그래요."

"누구나 그런 시간을 겪죠."

그의 음성은 평이했다.

"결국 나는 또다시 친구를 사귈 겁니다."

"......."

속이 쓰리다.

'...저게 체념으로 들린다면 그것도 내가 평범한 사람인 탓이겠지.'

그럼에도 참, 가엾은 사람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15)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15)"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16)

216

제216화

그날 이후로 주현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

"주현 씨, 그건…?"

"길들여진 뱀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그런데 주현 씨는 비 각성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아무리 봐도 평범한 뱀은 아닌 것처럼 보여서요."

"지오 씨가 길들여서 제게 붙여준 친구입니다."

"아하…."

어린아이의 팔목보다 조금 더 가는 굵기의 뱀은 황홀한 붉은빛의 가죽을 뽐내며 꼬리를 살랑거리고 있었다. 동그랗게 반짝이는 두 눈이나 고양이처럼 굽어진 입이 아주 무해하고 깜찍해 보였다.

수집상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지오 헌터님의 취향답게 화려한 뱀이네요.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게 딱 홀리기 좋은 몬스터처럼 생겼어요. 직접 만들어 내셨다고 하던가요?"

"음… 비슷할 것 같네요."

"오늘 방문하신 이유가 있었군요. 물새 때처럼 대략적인 특징이나 습성을 알려주시면 기존에 존재하던 몬스터로 협회에 등록해 두겠습니다. 그편이 활동하시기에 번거롭지 않으시겠죠."

"그렇게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오 씨가 간식거리를 선물해 주셨는데 나눠 드실 분들이 좀 있을까요? 양이 워낙 많아서…."

"그거라면 비서실 쪽이 가장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네요."

"시간 날 때 따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의 등록을 먼저 부탁드려요."

주현의 목에 똬리를 틀고 있던 붉은 뱀이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어머, 깜짝이야. 말을 하네요?"

"산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반가워요 산 씨."

온갖 희한한 광경들을 목격하게 된다는 수집상의 직원답게 그녀는 크게 놀라지 않았다. 주현을 돌아보며 추가적인 질문을 할 뿐이었다.

"이 아이는 할 줄 아는 게 뭔가요? 서지오 헌터가 따로 붙여준 아이라면 분명 특출한 부분이 있을 텐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고요?"

"위험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지오 씨가 통제해 주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정신 계열의 몬스터라고 칠 수 있겠네요. 매혹과 세뇌에 큰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주현 씨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정신 계열보다는 직접적인 물리 공격 계열이 더 나을 것 같지만, 뭐, 서지오 헌터님의 생각이 따로 있으시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둘의 대화에 붉은 뱀이 시무룩해졌다.

"나는 약합니다."

호위로 붙여진 계약수치고 너무 약해서 자책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오가 내어준 붉은 뱀의 몸이 지나치게 약해서 불만이라는 뜻이었다. 대충이나마 알아들은 주현이 뱀의 머리를 쓸었다.

"돌아가면 간식을 드릴게요."

"오, 마음에 듭니다. 지난번의 새빨간 열매가 좋습니다."

"지오 씨에게 물어볼 테니까 잠깐만 얌전히…."

"알겠습니다."

수집상의 힘을 빌려 지오의 새로운 계약수 '산'을 등록한 주현이 다시 자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집 안에서 액자의 형태로 기다리고 있던 지오가 귀가한 주현을 반겼다.

"잘 끝났습니까?"

"네, 덕분에요."

앞으로 산칼루트는 무해한 뱀의 몸 안에 갇혀 주현과 시간을 함께할 것이었다. 평상시에는 주현의 곁을 지키며 그를 보호하다, 결국 지오의 허락을 받게 된다면 그놈의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산칼루트는 강인한 신성에게 붙잡혀 소멸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신성은 쉽게 죽을 수 없다지만 '지오의 초상화'를 상대로는 말이 달라졌다. 산칼루트는 이제는 익숙하다는 듯이 요청했다.

"열매를 주세요, 열매."

"망둥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콤달콤한 열매는 제 입맛에 매우 잘 맞습니다."

"즐길 줄 아는 음식이 생겨 다행이군요."

그렇다, 산칼루트는 결국 지오에 의해 한 마리의 돼지가 되었다.

"살만 더 찌면 좋겠는데."

"어… 그럼 제가 좀 무거워하지 않을까요."

"경량화 마법이라는 게 있다고 압니다."

"여기서 크기가 더 커지면 시선이 너무 쏠릴 거예요."

"그건 곤란하시겠군요."

내향인 서지오는 주현이 느낄 부담감에 금방 납득하고 포기했다. 어차피 좀 많이 먹는 수준으로는 신성을 담은 산칼루트

의 빼빼 마른 몸뚱이가 쉽게 불어나지도 않을 것이었다.

“종종 들러 간식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산칼루트의 정비를 위해서라도 오두막의 방문은 필수가 되었다.

“말이 나온 김에 지금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산이 망둥 열매를 다 먹어버려서 조금 채집해 가고 싶은데요. 그게 아니면 말도 잘 듣지를 않아서….”

“제 숲에서 가장 찾아보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망둥 열매죠. 얼마든지 들어오셔서 편하게 채집하셔도 좋습니다. 물새들이 주현 씨를 도와줄 겁니다.”

지오의 말을 들은 듯 허니를 포함한 투명한 물새들이 쪼르르 액자에 앉았다. 마치 ‘언제 들어올 거야?’ ‘지금?’ ‘지금 들어와?’라는 듯 주현을 올려다보는 모습에 그가 실없이 웃었다.

“잠깐 실례할게요.”

주현은 꽤 익숙하게 ‘지오의 초상화’를 방문했다.

“…….”

“괜찮으십니까?”

“…멀미가 좀….”

“산칼루트 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새빨간 뱀이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난 결백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초상화 안에서는요.”

“…주현 씨는 너무 약합니다, 개조가 필요해요.”

“주현 씨는 그 자체만으로도 알아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억울합니다.”

둘의 대화에 주현이 조금 질린 얼굴을 했다.

“역시 묘하게 지오 씨의 말투가 겹쳐 들려요.”

“실제로 저를 일정 부분 따라 한 육신이라 어쩔 수 없어요.”

두 사람이 걸음을 옮겼다. 지오의 숲에 가장 흔하게 널린 열매가 바로 망둥 열매였다. 오랜만에 둥지를 나온 물새들이 쪼르르 지오의 몸 위에 앉았다. 지오와 주현은 한참 동안 망둥 열매 채집에 몰두했다.

바구니가 거의 가득 차자 둘은 냇가로 가 열매들을 가볍게 헹궜다.

“악신이 열매를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지 뭐예요.”

“나는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나에게 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돼지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주현 씨.”

“뱀도 다이어트가 되나…?”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며칠 사이 주현과 산칼루트는 서로에게 적응했다.

물론 주현은 ‘이것을 굽든 삶든 어떻게든 요리해 보겠다’는 일념하에, 산칼루트는 ‘이러다가 어느 날 빈틈을 찾아 파고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잘 맞는 듯 보이는 것뿐이지만 말이다.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자연스러웠다.

"기왕 오신 김에 식사를 좀 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언제 나오나 했죠."

"기대하셨나요?"

"아뇨, 각오를 했습니다."

여전히 지오가 차려주는 식사는 주현에게 기묘한 부담감을 불러일으켰다. 감히 인간이 먹어선 안 될 것을 어처구니없는 형태의 익숙한 방식으로 섭취하게 되는 기분이었다.

"이 고기는 정체가 뭐죠?"

"토끼 고기입니다. 향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식감도 쫄깃하고."

"제가 알기로 지오 씨의 숲에 서식하는 토끼들은 이렇게 커다란 몸을 가지지 않았는데...."

"최근 액자 너머로 슬금슬금 동물들이 침입하고 있어서요."

"액자 너머? 그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동물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직관적인 이름이네요."

"일단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만."

직관적이긴 했다.

"키우는 것이 가능할까 싶어 시도해 봤지만 대부분 광란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액자 너머의 세계를 방문해 봐야 알 것 같은데, 귀찮아서 열심히 미루고 있습니다."

"열심히 미룬다니 모순적인 말인데요."

"산칼루트 씨의 입맛에도 음식들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말을 돌리나."

둘의 대화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던 뱀이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고개를 갸웃 기울였다. 입안에 가득 든 토끼 고기를 뼈째로 씹어 삼킨 다음 입을 열었다.

"이건 정말 맛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주현이 의아해했다.

"분노요? 토끼 요리에 왜 분노가 있죠?"

"혀에서 느껴지는 얼얼한 통각을 분노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진다면 고통으로 표현해야 했던 거 아닌가...?"

"......."

"...지오 씨?"

지오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뱀을 보았다.

"산칼루트 씨는 분노보다는 공포를 즐길 것 같았는데 의외군요."

"나는 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요리 위에 올려진 새빨간 고추들을 왕창 씹어 삼켰다.

“하지만 붉은 건 좋습니다.”

“…고통과 공포의 악신 산칼루트가 사실 빨간색이면 뭐든 좋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연구소의 사람들이 까무러칠 게 분명해요.”

주현은 허탈한 기색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지오가 차려준 ‘붉은 음식’이 아니었더라면 산칼루트가 이렇게 만족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물론 주현도 그걸 알고 있기는 했다.

‘그냥 악신이 미식을 즐기는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 그렇지.’

인간은 시각에 약한 동물이다. 눈앞에 차려진 것들이 신비 덩어리라 해도 결국은 음식의 형태이지 않은가. 역사 깊은 신성 하나가 제 육신에 뒤룩뒤룩 영양분을 보충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묘해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고 보면… 산 씨는 아이와 노인의 피를 좋아하셨죠.”

“예, 매우 좋아합니다. 나는 그것을 선호해요.”

“지금 보면 붉은색을 모두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굳이 연령대를 구분하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것들은 시작과 끝에 서 있는 섭리의 자식들입니다.”

일종의 별미라는 의미였다.

“또한 내 낙원에 들기에 적합한 존재들입니다.”

“산칼루트교의 낙원이라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피와 고통, 공포를 전부 바치고 난 희생양들은 누구도 무어라 할 수 없는 최고로 이상적인 낙원에서 평생을 보내게 된다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낙원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고추가 한가득 들어간 토끼 요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산칼루트가 입맛을 다셨다.

“지오 씨의 일기장과도 같습니다.”

“그건 좀 믿기 힘든데….”

주현이 낯을 흐리자 아르지오가 흥미로 눈을 반짝였다.

“다른 신성이 만들어낸 사후 세계라니, 그거 정말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군. 조금 더 어울려줄 수 있겠나?”

“…지오 씨의 것처럼 대단하지 않습니다….”

“참고를 하고 싶을 뿐이야, 나는 그저 그림을 그렸던 거니까. 제대로 된 신성은 어떤 사후 세계를 만들어 내는지 궁금해서 그래.”

“…으으….”

지오의 흥미가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듯 몸을 모로 꼬던 뱀이 이내 말문을 열었다.

“…나는 그것들이 가치를 매기는 것을 전부 주었습니다. 잃은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주었고, 가지고 싶은 짝이 있다면 짝을 주었고, 배길 바라던 자식이 있다면 그 씨를 잉태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주현의 눈썹이 뒤틀렸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죽었잖아요?”

“내 낙원에는 살아 있습니다.”

“궤변이라고 하고 싶은데 죽어본 적이 없어서 반박하기가 어렵네....”

“인간은 육신의 생체 활동을 근거로 생사를 분류하고 가치를 매깁니다. 대단히 어리석고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의 영혼을 정말 잘 대해 줬습니다.”

“그 영혼들이라는 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내 배 속에 있습니다.”

뱀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내가 먹은 나의 일부입니다. 다른 곳에 있을 리가 없죠. 그들은 행복이라는 감정을 맛보며 즐거운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이용해서 사악한 계략을 꾸민다거나....”

“어려운 질문입니다, 쉽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돌리는 건가?”

지오가 손을 내저었다.

“정말로 몰라서 묻는 것 같은데.”

“내 말이 그렇게 어려웠나요...?”

“굳이 비유를 들어주자면 누군가 주현 씨에게 ‘오늘 먹은 토끼 고기로 사악한 계략을 꾸밀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셈이지. 이렇게 보면 맥락조차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질문이지 않나?”

“어....”

“곱씹어 볼 이유도 없는 너무 사소하고 당연한 부분에 대해 의문을 품는 질문은 아직 어린 신성이 이해하긴 어려운 모양이야. 계속 말하지만, 산칼루트 씨는 인간과의 소통을 즐기는 신성은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

주현이 턱을 쓸었다.

“역시... 죽음 이후의 세계는 들을수록 난감한 부분이 많네요.”

“살아 있는 사람이 사후 세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 여러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아르지오는 알 만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분의 신성들이 인간의 목숨을 헐값으로 치는 이유도 저런 관점에서 보면 맥락이 맞아 떨어진다네. 육신은 껍질에 불과하고, 인간의 생명이란 그 껍질의 유무에 달려 있는 것이니.”

“지오 씨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럼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겠는가?”

“아, 그건 그렇지....”

다시 한번 주현의 기분이 미묘해졌다.

‘...정말로 신성이 일으키는 재해란 악의가 없군.’

악하다느니 선하다느니, 그런 건 결국 전부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에 불과했다. 신성은 정말로 의지를 가진 자연이고 운명일 뿐이었다. 결코 옳고 그름으로 구분할 수도 없었다.

우주에 둥둥 떠 있는 별의 위아래를 구분할 수 없듯이....

“.......”

물론 그런 산칼루트의 '옳음'이 절대로 옳지 않은 지구에서까지 그 잔혹한 성향을 전파하려고 했던 건 확실하게 나쁜 것이 맞았다. 아무리 신성이더라도 눈치 보고 적응할 줄은 알아야지 않겠는가.

결론을 내린 주현의 관심사는 지오에게로 돌아갔다.

"지오 씨가 만든, 그, '일기장'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말 그대로 일기장이지. 누군가의 집일 수도 있고, 여행지가 될 수도 있고, 경유지가 될 수도 있는."

그것은 지오가 친구 삼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둔 별장 같은 것이었다. 아예 눌러앉아도 좋고, 잠깐 쉬다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도 전혀 상관없었다.

그런 지오에 산칼루트가 고개를 기울였다.

"먹지 않습니까?"

"내 귀한 손님들을 먹어치워야 할 만큼 배가 고픈 사람은 아닌지라."

"맛있을 텐데...."

"그게 산칼루트 씨의 견해인가."

역시 흥미롭기는 했다.

"...재밌네."

그는 신성을 품었을 뿐, 제대로 된 신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 말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17)

217

제217화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난 후의 오두막.

"신이라는 건 뭘까."

지오가 '하늘'에 대고 묻자 반짝이는 밤하늘이 눈을 깜박였다. 꼬리를 살랑거리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에서 저를 향한 맹목을 찾을 수 있었으나 역시 답변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 역시 답변을 바라고 물은 건 아니었다.

"흐음, 글쎄...."

'하늘'에 콕콕 박힌 별이 이어지며 호기심에 빛을 반짝였다. 진주를 닮은 '회색'의 별들. 의지를 가지고 하늘거리는 은하수의 행태에 지오가 눈을 가늘게 떴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긴 한데....

'내 착각일 수도 있고.'

역시 잘 모르겠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꾸?"

"이번에도 저에게 신성으로서의 모습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꾸우...."

곰인형은 '딱히 붉은색 머리인 너에게 신성으로서의 자세를 바란 건 아니었다'라는 듯 미간을 모았지만, 아무튼 제 아들의 고민에 성실하게 동참해 주었다. 그는 대답을 내놓았다.

"꾸? 꾸꾸우."

"자연으로서의 방관자?"

"꾸."

"하긴 태양이었던가."

햇볕을 내려주는 게 아닌 이상 태양은 지상에 내려올 일이 없었다.

“그건 재앙이긴 하지.”

지오는 푹신한 곰인형을 끌어안았다. 그러자 둘을 가만히 지켜보던 다나가 다가와 감싸듯이 똬리를 틀고 앉았고, 그 움직임에 ‘뭐지?’ 싶었던 허니가 후드 바깥을 잠깐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

자연스러운 그 일련의 과정은 지오의 마음에 꼭 드는 것이나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정말 긴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

“…….”

참고할 것이 필요했다.

* * *

“지오 형!”

“잘 지내셨습니까?”

와다다 달려온 차이솔을 지오가 가볍게 안아 들었다. 그러고는 역시나 함께 저를 마중 나온 강서담 사제와 차이솔의 파트너인 이루다 예비 사제가 지오의 눈에 들어왔다.

지오반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근황을 물었다.

“다른 문제는 없으셨는지요?”

“인어들의 일도 잘 해결됐는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문제는 일절 없었습니다, 서지오 헌터.”

“여전히 정중하시군요.”

너무 깍듯해서 머쓱했다.

차이솔을 내려놓은 지오의 눈길이 곧 이루다에게 닿았다. 그 눈길이 닿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루다가 곧장 시선을 마주쳐 왔는데,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곧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 주신 선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 뒤늦게라도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함께 왔습니다. 혹시 제가 마중 나온 것이 불편하실까요?”

“불편하다니요, 이렇게 친절한 친구가 마중 나와 준 것에 저는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즐거움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 넵.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다는 조금 당황했다.

‘보통 이렇게까지 답변하나?’

대부분의 어른들은 작고 어린 이루다가 가능한 한 정중하게 말을 붙여오면 당황하기 마련이었다.

그럼 이루다 역시 그 틈에서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나이가 적은 만큼 불리하지만 어른들에게 지고 싶지 않았던 이루다가 익힌 필승법이었다.

‘역시 이 사람은 좀 불편해.’

싫다는 건 아니지만, 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용서해 주겠다’라는 듯한 자애로운 얼굴을 볼 때면 어깨가 절로 수그러들게 된다.

매번 어른들의 존중과 배려보다는 객관적인 잣대에 의한 냉철한 평가만을 받아왔던 이루다에게는 참 대하기 힘든 사람이었다.

‘이래서야 제대로 감사 인사도 전할 수 없을 텐데….’

쩔쩔매는 이루다의 모습에 강서담이 한숨을 삼키고는 말했다.

“이곳에서 대화를 나누기에는 불편함이 클 테니 접객실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비 사제들의 근황이 궁금하시다 하여 함께 이동하려고 하는데 따로 원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아뇨, 충분합니다.”

“이루다 예비 사제 역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적합한 자리에서 마저 하도록 하죠. 무슨 대화든 어울리는 장소와 태도가 있는 법입니다.”

이루다는 제 얄팍한 수작이 들켰다는 것에 얼굴을 붉혔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실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고개를 드세요.”

지오는 그냥 감탄하고 있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로 조숙하군.’

솔직히 이 정도면 29살 성인인 서지오보다도 지능과 처세가 뛰어난 것 같았다. 그는 이루다가 무슨 생각으로 눈을 번뜩이며 말을 붙여왔는지 이해했다.

‘본능적으로 조금이나마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감사 인사조차 능숙하게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았나.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이루다 학생은 기본적으로 어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편이네.’

혐오나 미움까지는 아니지만 ‘어른은 위험한 존재’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아는 척을 하면 ‘괜찮다’가 아니라 ‘알아서 눈치 봐라’라는 뜻으로 보일 게 뻔해 지오는 그대로 화제를 넘겼다.

“차이솔 학생이 반성문을 33장을 썼다는 소식이 있던데.”

“아… 그게….”

그 나름의 배려를 알아들은 이루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서담 선생님께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1장이었지만, 쓰다 보니 늘어났다면서 기어코 종이 뭉치를 들고 오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돌려보내시긴 했어요.”

그에 강서담이 끼어들었다.

“다시 한 장으로 요약해 오라고 시켰습니다. 뭐든 과해서 좋을 것이 없고, 차이솔 학생이 반성했다는 흔적은 필요했으니까요.”

“무슨 이유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서담은 ‘가뜩이나 33장이나 써서 피곤한 애한테 추가 숙제를 내줬다’라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 것 같지만, 그의 판단은 현명했다. 어쨌든 태양교에 기록될 반성문이 있어야 할 게 아닌가.

‘33장의 날것 그대로를 기록하긴 어려웠겠지.’

차이솔이 아무리 눈치를 봐서 ‘진실’을 숨겼다고는 해도 아직은 어린아이였다. 33장이나 쓰는 과정에서 기록하기 곤란한 내용들이 다소 포함되었을 테니 약간의 공정을 거치는 것이 맞았다.

“강서담 사제님께서 학생들을 돌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군요. 덕분에 차이솔 학생과 이루다 파트너가 더더욱 훌륭한 사제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기쁜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황공할 정도군요.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선생이자 선배 사제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사안들이었습니다.”

“그 기본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

강서담이 입을 다물었다.

‘…그 기본도 지키지 않은 교단에 수장당해 죽은 사람에게 무슨 대답을 돌려줘야 할지 모르겠군. 화를 낼 것 같지는 않지만 입에 담기에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

그들은 결국 각자의 생각 속에 잠겨 접객실까지 이동했다. 그동안 열심히 재잘댄 것은 봄이 오며 정원이 한층 화사해졌다고 신이 난 11살 꼬마 차이솔 뿐이었다.

그렇게 도착한 접객실은 사람 한 명도 없이 고요했다.

“조용하군요.”

“대화하기 불편하실 것 같아 물려 두었습니다.”

“배려에 감사합니다.”

“아뇨, 저희를 위한 것도 있으니….”

비록 이루다가 있어 그가 ‘검은망토’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제외하고도 듣는 귀가 적어야 좋을 대화 주제는 잔뜩 있었다. 강서담이 이루다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이루다 예비 사제.”

“예.”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역시나 머뭇거리던 이루다가 고개를 꾸벅 숙였다.

“앞서 보인 못난 모습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염치 불고하고 원래 드리고자 했던 말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네주셨던 그, 꽃차는… 제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오가 아무렇지도 않게 툭 선물하고 간 바스람 꽃차의 이야기였다.

“그것을 저는 태양의 여신께 바쳤고, 여신께는 제게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저의 좁은 식견으로는 알아보지도 못한 그 보물을 선물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번 전쟁에서 부족하게나마 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지오는 생각했다.

‘애처럼 말해줬으면 좋겠다.’

나 때는 말이야, 어린이들이 내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꿈도 못 꿨어. 정말 장난 안 치고 꿈도 못 꿔본 일이라 구시대 현대인인 서지오로서는 황당하기만 했다.

물론 지오반니의 굳건한 자태는 온몸으로 자애와 용서를 실현하고 있었고, 그가 불쾌함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에서 용기를 얻은 이루다가 조금 더 어깨를 펴고 이어 말했다.

“서지오 헌터님께서 미리 그런 선물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차이솔이 잡혀가고서도 아무것도 못 할 뻔했어요. 전쟁터에 참전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고, 억지를 부려 갔다고 해도 분명 짐만 될 게 뻔했겠죠.”

“더 편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펴, 편하게?”

“예.”

듣다못한 지오가 살며시 제안했다.

“도와줘서 감사했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주신 게 있는데, 그걸 제멋대로 이용해 놓고서 그런 무례한 짓을 할 수는….”

“제가 이루다 자매에게 드린 것은 말 그대로 선물이었습니다. 몸에 좋은 약재를 씹는 것을 즐기신다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건넸고, 그걸 활용해 차이솔 형제를 구할 수 있었다면 그건 제가 아닌 이루다 자매의 역량입니다.”

“하, 하지만… 제가 받은 건 그 가치가….”

“이루다 자매의 활약은 익히 들었습니다. 아직 예비 사제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전쟁터에 나서 파트너의 몫까지 환자들을 지키고, 또 얼음이 가득한 바다에 꽃을 피워 냈다고요.”

“…그저 일러주시는 대로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 얼마나 성실한 학생인지.”

이루다의 지나치게 어른스러운 감사 인사를 듣기가 곤욕이었던 지오는 이때다 싶어 혀에 시동을 걸었다. 상대가 당황스러울 만큼 찬미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건 이루다뿐만이 아니었다.

“이루다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파트너의 일이라고 한들 한순간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전쟁터에 서기란 큰 용기가 필요했겠죠. 또한 강한 우정과 믿음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아, 아니… 저는….”

“덕분에 차이솔 학생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이루다 학생은 스스로가 한 일에 자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그건 굉장한 도움이 맞아요, 그 증거로 고단한 일을 겪고 빠져나온 차이솔 학생이 지금까지도 편하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고하셨습니다.”

“…….”

이루다가 다시 쪼그라들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좋아, 애다운 애로 만들었다!

‘역시 나야.’

법적으로 ‘애다운 애’라는 기준 따위는 없겠지만 이쪽이 더 보기 좋았다.

불쾌한 기색이 있으면 당장 그만두려고 했는데 얼굴을 붉히면서도 싫은 반응은 없었다. 사실은 본인도 아닌 척했지만 아이 취급을 받고 싶었던 게 분명했다.

숨 쉬듯 태연하게 이루다의 정곡을 찌른 지오가 차이솔을 보았다.

“차이솔 학생은 혼이 좀 나셨습니까?”

“네, 많이 났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차이솔이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결코 멍청한 편은 아니었다. 눈치며 판단력이 좋은 아이이니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충분히 자제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리라 믿었다.

‘지난번처럼 전쟁터 한복판에 등장해 버리면 정말 환장해 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정리한 지오가 강서담을 보았다.

“그 외에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지난번에 이어 점진적으로 교단 내부에서 서지오 헌터를 태양교의 성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 그건.”

■■■■■—….

“…….”

“…….”

“실례했습니다.”

퐁당—!

지오는 그의 그림자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회색 물감을 도로 집어넣었다.

“이 친구가 융통성이 없어서.”

“…저야말로 실례지만, 제가 방금 본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서담 사제님께서 정 궁금하시다면 흔쾌히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조금 귀찮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모르는 게 낫겠군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강서담은 본능적으로 방금 목격했던 ‘회색 물감’의 본질을 느꼈다. 순식간에 방 안의 온도를 떨어트렸던 그 서늘함과 물비늘이 일렁이듯 하던 진주색의 희고 고운 질감….

분명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생물의 특징이지만.

‘여기까지.’

강서담이 의식적으로 생각을 멈췄다.

서지오 헌터의 말마따나 여기서 더 깊게 알아봤자 좋을 것이 없었다. 그는 “크흠”, 한번 헛기침을 하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근 조련 중이신 계약수인가요? 제가 무언가 불편을 끼쳐 드렸다면 정말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결단코 불쾌하게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조심하지 않으셔도 이것은 강서담 사제님을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불쾌하지 않았고요. 그냥 방금 보신 건… 비유하자면, 이 친구의 척수 반사 같은 거죠.”

“척수 반사….”

“사망 직후의 생물도 신경은 살아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척수 반사’에 이어 ‘사망 직후’.

“…예.”

아무튼 강서담이 꺼낸 ‘새로 조련 중인 계약수’라는 변명에 말을 맞춰줄 것 같아 다행이었다. 설정 정리를 마친 강서담과 지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놀란 반응의 아이들에게 닿았다.

차이솔은 반가움과 흥분이 가득한 얼굴이었고, 이루다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봤다는 듯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다. 명백히 대비되는 모습에 지오가 싱긋 웃었다.

“괜찮으십니까?”

“…넵.”

“실례했습니다, 최근 가족으로 삼은 길동무인데 종종 말을 안 듣더군요. 얌전히 잘 넣어 두었으니 이제 같은 무례를 반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 다행입니다.”

이루다가 머뭇거리다 물었다.

“조련사라고 들었는데 이런 몬스터도 길들이시는 건가요…?”

“이지나 생존 본능이 존재하는 몬스터보다는 단일적인 신비의 덩어리에 가깝겠지만, 물론입니다. 저는 항상 다양한 가족을 모집 중이죠.”

“아, 하긴 수집상의 소속이셨던가요.”

워낙 그쪽 사람 같지 않아서 잊고 있었다.

‘그 길드 사람이라면 위험한 물건 몇 개를 길들이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아.’

이루다는 방금 자신이 본 것이 몬스터처럼 살아 있는 생물이라기보단 생물의 특성을 품은 위험 물품이리라고 판단했다. 수집상에 흔히 널려 있는 괴물들처럼 말이다.

‘과연 숨겨진 S급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의 헌터라는 건가.’

이루다는 저도 모르게 선망을 담아 서지오 헌터를 보았다.

‘이런 헌터는 세상에 몇 없겠지.’

약간의 공포에 질려 있던 방금 전의 반응과 현저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강하고 유능한 사람을 동경하는 이루다에게 위험하고 독특한 계약수를 다수 다루는 서지오 헌터는 그만큼 굉장해 보였다.

“…저도….”

그래서인지 굳이 말할 필요 없는 이야기가 새어 나왔다.

“…어릴 적에는 조련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하, 그랬군요.”

지오는 생각했다.

‘지금은 안 어린가?’

그는 웃으며 끄덕였다.

“사제로 활동하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 몫의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즐거운가요?”

“…….”

이루다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

즐거운가?

‘…낯선 유형의 질문이야.’

언제나 어른들은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다.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잘 맞는지. 그만한 성과는 내고 있는지. 최근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어른들은 주로 물어보고는 했다. 아직 어리다고는 해도 헌터인 이상 제 몫을 해야 하니 당연한 일이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즐겁냐고? 이 일이? 지금 내 상황이…?’

한 번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 적이 없었다.

“…그….”

순간 이루다는 차이솔과 눈이 마주쳤다.

“…? 나?”

“…즐거워요.”

그제야 입이 열렸다.

‘재밌었어.’

단 하나의 후회나 실수조차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 와 생각건대 지금의 생활은 이루다를 제법 즐겁게 해주었다. 여기 있기에 차이솔 같은 독특한 친구도 사귈 수 있었다.

왜인지 안심이 되었다. 햇볕이 들어오는 고즈넉하고 편안한 고해실에 앉아 있는 기분이 들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 탓이었다. 살짝 머쓱한 기분으로 이루다가 말을 이었다.

“사제가 되었기에 주어진 좋은 기회들이 제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조련사로 각성이 되었더라도 분명 그것만의 기쁨이 있었겠지만, 저는 지금의 저만이 누리는 즐거움에도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즐거운 것 같아요.”

“정말이지… 훌륭한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오반니는 이런 곧은 심지의 아이들을 사랑했다.

“양을 좋아하십니까?”

“야, 양이요? 정확히 어떤 부분을…?”

“털이라든가.”

“좋지도 싫지도 않은데….”

“목도리는 어떨까요? 아직 날이 쌀쌀하니 보온에 좋을 겁니다.”

“…혹시 지금 또 다른 선물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선물을 드리지 않고는 물러설 수가 없겠습니다.”

“아니….”

이루다가 당황한 듯 차이솔을 보았다. ‘이 사람은 대체 뭐가 문제냐’ 혹은 ‘네가 좀 말려봐라’라는 의미였지만, 차이솔은 제 파트너의 구조 요청이 보이지 않는지 마냥 좋아했다.

“그럼 나는 꽃차 만들어줄게! 너 차 좋아한다고 했지?”

“야.”

“응?”

“…….”

이루다는 말문이 막혔다.

‘…아, 그렇지. 검은망토의 사도들….’

뒤늦게 ‘검은망토는 착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꽤 많은 종류의 신성이 자신과 잘 맞는 신도들을 아낀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상한 상황도 아니었다.

내가 착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긴 이제 봄이 되었는데 목도리는 너무하려나.”

“그럼 나랑 같이 차 만들어요! 꽃차!”

“그것도 좋군요. 그 차를 넣어 담백한 쿠키를 구워도 좋겠어요.”

“나도 구울래요! 루다랑 선생님께 줄 거야.”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닮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분명 좋은 일이기는 한데 왜 이렇게 불길하지?’

이루다는 저도 모르게 강서담을 올려다보았다.

“…….”

“…….”

아.

강서담의 얼굴에서 익숙한 체념을 읽어낸 이루다가 입을 꾹 다물었다. 무언가 말해보고 싶었지만 저절로 입이 닫히고 혀가 말려 들어갔다. 마치 그가 제 미래인 것처럼 보였다.

“…살살해 주세요.”

“선물에 살살이 어디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싫은 건 정말 아닌데….

‘기분이 이상해.’

이런 걸로 기세가 밀리는 게 대단히 억울했다.

* * *

그것을 지구의 태양이 보고 있었다.

지오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두 아이는 투덕거리기에 바빴으며.

강서담은 부담스러워 죽으려고 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17)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17)"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18)

218

제218화

소박한 대화를 마친 후, 지오는 태양교에서의 기도를 요청했다.

“가능하겠습니까?”

“개인 기도실을 알아봐 달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태양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서지오 헌터의 말에 강서담에게 불려 왔던 평사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을까요, 강서담 사제님?”

“모쪼록 교단에 무리가 없는 선이라면 서지오 헌터의 부탁을 전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전부….”

“서지오 헌터도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헌터님.”

그는 주로 방문객의 안내를 돕는 사제로 이런 일은 꽤 익숙했다. 태양교는 모든 용서와 자비를 구하게 되는 자애롭고 화목한 분위기를 지향하는 교단인지라 자신의 죄를 고해하고자 찾아오는 일반 신도들도 꽤 많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서지오 헌터도 일반 신도라고 볼 수 있으려나…?’

평사제는 내심 그렇게 생각했다.

‘서지오 헌터 본인도 스스로를 반쯤 사제로 여기는 것 같다던데. 분위기도 평범한 신도처럼 보이지는 않고. 검은망토의 사도라는 이야기도 있었지.’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궁금하기는 했다. 벌레 하나 죽이지 못할 것처럼 생긴 자애로운 분위기의 이 사람은 과연 기도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

“음….”

장로분들께서 하신 말씀도 있어 평사제는 가벼운 대화를 나눠보고자 했다.

“태양교 방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는 ‘지하의 네발 우림’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진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

요.”

“교단에서 급하게 일정을 잡아 대단히 죄송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쁩니다.”

태양교는 정적일 거라는 이미지와 달리 복작복작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추구했다. 서로에게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웃고 떠드는 소리가 기도실로 향하는 길목에 가득했다.

“분명 조련사로 각성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사제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지네요. 의식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결코 아닌데, 혹여 제가 무례를 끼치게 되더라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햇볕이 따사롭고 웃음은 가득한 태양의 품 안에 있으니 무엇인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사제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른 분들도 흔하게 헷갈리시는 것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 역시… 저만 이런 건 아니었군요.”

“입고 있는 옷조차 일반적인 사제복의 형상을 띠고 있으니 헷갈리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제가 또 다른 신성을 모시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니까요.”

“무례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서지오 헌터가 사제로 각성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 손에 꼽는 대사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과분한 칭찬입니다.”

대화해 본 서지오 헌터는 정말이지 훌륭한 인격의 신도였다.

‘이래서 성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로군. 저절로 선망하는 마음에 들게 될 정도야.’

과연 모든 사제가 본받아야 할 이상향처럼 보이기도 했다.

‘우리 태양교의 사람이 되어준다면 정말로 기쁠 텐데….’

그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태양의 부흥은 곧 사제의 기쁨. 성격에 모난 부분 없이 실력 좋고 인자한 사제의 입문은 그 어떤 교단이라도 욕심이 날 일이었다.

그래, 분명 그렇게 된다면 기쁠 일일….

“……?”

평사제는 순간 멈칫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 아뇨. 죄송합니다.”

그가 머쓱하게 웃었다.

“잠깐 햇빛에 눈이 시렸던 모양이에요.”

서지오 헌터의 그림자가 희게 일렁이는 듯했는데, 다시 보니 그런 일렁임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에 평사제는 민망해졌다.

“귀한 손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다니 실례가 컸습니다.”

“실례라니요, 이토록 햇볕이 따사롭게 들어오는 공간이니 그야 눈이 시릴 법도 합니다. 이 또한 태양의 여신께서 내려주신 축복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쁨에 이루 말할 수가 없군요.”

이게 바로 참된 신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했다.

‘정말 안타깝군, 이만한 인재가 처음부터 태양교의 사제였다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서지오 헌터는 사제로 각성조차 하지 않았고, 하물며 인재 욕심이 두둑하기로 소문난 수집상의 길드원이었다. 게

다가 모시는 신성도 다르니 쉽게 전향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수집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듣자 하니 꽁꽁 숨겨둔 아들이라던데 그럼 말은 다 한 셈이지. 하여간 비사벌 그 작자도 참 어지간히 징그러운 사람이야.'

조금은 못마땅한 생각도 들었다.

'…처음부터 성인의 그릇임을 파악하고 교단에 빼앗기지 않도록 숨긴 것은 아닌가? 제 수집욕에 신의 사도를 숨겼다면 이는 태양의 여신께서도 불쾌해하실 만한 죄악이나 다름없다. 썩 떨떠름하군….'

애써 불편한 마음을 숨긴 평사제가 다시 대화를 이었다.

"오늘은 어떤 일로 방문하게 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귀하게 여기는 아이들에 대한 후원에 관련된 문제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차이솔과 이루다 페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두 아이를 아끼시는 것으로 태양교에서도 작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둘 모두 훌륭한 그릇이니까요."

"귀여운 아이들이지요."

서지오 헌터가 유쾌한 듯 웃었다.

"이야기는 자주 전해 듣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또 다른 도움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강서담 사제님과 그 부분에 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왔죠."

"영민한 사제들인 만큼 조기 졸업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서지오 헌터와 같은 훌륭한 분이 도와준다면 분명 두 예비 사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어엿한 사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저는 사제가 아니지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네요."

"서지오 헌터만 한 인재가 도움을 주는 것에 무슨 자격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당장 그만 해도 눈앞의 이 사람이 사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말이다.

"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서지오 헌터께 배정된 개인 기도실이에요."

"이렇게 깊숙한 곳인데도 햇볕이 들어오다니, 대단합니다."

"여신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저희 태양교의 자랑 중 하나이지요."

어깨가 으쓱해졌다. 태양교의 기도실은 섭리의 자연이신 태양과 어우러지기 위해 가장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꾸며져 있었고, 그에 따른 축복을 내려주신 덕분에 밀폐된 공간에서마저 햇볕이 들어오고는 했다.

기도실에 파릇하게 피어난 새싹과 꽃, 그 위로 내리쬐는 부드러운 햇살. 시원한 공기를 머금은 나무 의자까지….

"저희가 태양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샘솟고는 합니다. 부디 서지오 헌터께서도 태양의 품 안에서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양의 햇볕만큼이나 따듯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 앞을 지키고 있을 테니, 부디 말씀 나누십시오."

평사제는 조용히 문을 닫고 그 앞을 지켰다.

"……."

적막한 기도실의 복도는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태양의 자식들이 언제든 평화 속에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기도실은 늘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규칙이었다. 떠들썩한 외곽 구역과 달리 그림자와 햇볕이 섞여드는 이 공간은 남자가 가장 선호하는 곳이기도 했다.

'역시 안내 사제가 되기를 잘했지. 이 또한 태양의 여신께서 보듬어주신 덕분일 것이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또한 기도를 올려야 해….’

언제나 따사로운 햇볕이 드는 태양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맞이하는 공간이었다. 눈을 감자 지저귀는 새의 노랫소리와 뺨을 간질이는 보드라운 바람, 그리고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꽃내음이 느껴졌다.

그렇게 꽤 한참이 지났다.

“…음?”

빛이 없어야 할 곳에, 빛이 보였다.

‘…기도실에서 새어 나온 빛인가?’

문틈으로 햇볕이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이럴 수가. 이건, 이만한 빛이 어떻게…?’

평사제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태양의 사제인 그가 일반적인 빛과 햇빛을 구분하지 못할 리가 없었다. 단언컨대 이것은 태양의 빛이 맞았다. 태양교 본부의 기도실에서 아주 드물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주교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그때는 즉, 태양께서 응답하실 때였다.

“…….”

머뭇거리던 평사제가 더욱 문 가까이 다가갔다.

‘…조, 조금만.’

혹시라도 제 예상이 맞다면, 그 영광된 광경을 조금만이라도 눈에 담고 싶었다.

기도실의 문은 배식구도 있고, 시선을 마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창문도 나 있었다. 며칠 동안이나 단식기도를 올리는 사제들이 흔한 탓에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정말 조금만….’

평사제는 우편함을 닮은 작은 창문을 살며시 들춰보았다.

“…….”

…아.

태양이.

* * *

“억울합니다.”

“진정하세요, 서지오 헌터.”

강서담이 골치 아프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지오를 안정시켰다.

“이번 일은 명백히 저희 쪽의 불찰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함부로 신자의 기도를 훔쳐보다 이 사달이 난 것이니, 서지오 헌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현세에서 함부로 신성의 거대한 신비를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더 좋긴 했을 것이었다. 강서담은 난감한 기분이 되어 서지오 헌터를 열띤 눈으로 힐끗거리는 사제들을 보았다.

‘죄다 눈을 파버리고 싶군.’

지금 이 분이 누구인 줄 알고 감히 저런 천박한 짓을 한단 말인가.

‘…상황이 조금 곤란하게 되기는 했는데.’

서지오 헌터의 ‘기도’를 훔쳐본 안내 사제가 광란 상태에 빠지고 만 것이었다.

“태양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태양께서, 아아…! 아아악…!!”

“빨리 보건실로 이송하세요, 빨리!”

“아, 제게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조각의! 그 작고 거대한 자비가, 우리는…!”

“이거 상태가 영 심각한데.”

고작 ‘기도’ 한번을 훔쳐보았다고 어엿한 사제가 반쯤 미쳐버렸다. 두렵다면 두려울 광경이었으나 이곳은 믿음으로 모인 태양의 자식들이 사는 집. 그 광경을 보며 사제들은 공포보다는 경외를 느꼈다.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계속해서 태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들은 언제나 기적에 목매었다.

“…….”

강서담은 순간 짜증과 분노를 느끼며 구경꾼들을 전부 흩어버렸다.

“다들 물러나세요, 환자가 나왔는데 언제까지 구경을 하고 있을 셈입니까? 귀한 손님 앞에서 이런 무례한 모습을 보이는 게 진정 잘못된 일인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하, 하지만… 강서담 사제님….”

“하지만이고 뭐고 없습니다. 우리는 손님께 무례를 저질렀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어요. 이 이상의 죄를 짓기 전에 자신의 주제들을 자각하고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겁니다.”

교단 내에서 강서담의 권위는 결코 작지 않았다. 사제들은 아쉬운 듯 여전히 힐끔거리면서도 강서담의 책망에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광란에 빠진 평사제도 마찬가지로 병실에 실려 갔다.

강서담은 결국 서지오를 이끌고 제 집무실로 이동했다.

“…정말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기한 광경이었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를 안내해 주셨던 사제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군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저 분에 겨운 축복을 눈에 담아 미쳐버린 것뿐이니 말이다.

‘분수를 알아야 할 텐데.’

평사제는 ‘서지오 헌터’의 정체를 모르고 그런 짓을 벌였지만, 그가 제 몫의 일만을 할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었다. 참으로 불민한 작자다.

‘평소에 이런 일이 없던 사람이라 믿고 맡겼건만….’

그만큼 ‘서지오 헌터’가 보였던 빛이 컸다는 거겠지. 이해는 됐지만 여전히 못마땅한 마음이 들었다.

“…태양과의 대화는 무사히 끝나셨습니까?”

“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모쪼록 이번 일에 관한 사죄는 주현 매니저의 편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사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교단의 위신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니 부디 받아 주십시오. 죄를 저질러놓고 반성과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섭리의 신성을 모실 자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강서담은 소파에 앉아 대기하던 차이솔과 이루다를 불렀다.

"차이솔 형제와 이루다 자매를 후원해 주신 분께 가벼운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네! 나 할래요!"

"저, 저도 잠시…."

둘은 슬며시 다가와 고개를 꾸벅였다.

"3년 내로 조기 졸업해서 찾아갈게요!"

"그 전에도 얼굴은 보지 않겠습니까?"

"커다란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극과 극의 인사로군요."

아무튼 마음에 들었다.

"태양의 빛이 그대들에게 닿기를."

그들의 앞날을 축복한 서지오가, 이내 차이솔과 마주 보았다.

"악몽을 꾸지는 않습니까?"

"전혀요."

"태양께서 그대를 사랑하시나요?"

"네, 많이요!"

"그릇이 커졌군요."

제 아버지 태양의 결과물이었다.

"……."

결국 그가 옳았다.

* * *

지하 5층 갤러리.

"신이 취해야 하는 자세란 무엇일까요?"

"태양의 여신과 무슨 대화를 나누고 왔길래 이런 질문을 하지?"

오랜만에 '지오의 초상화'를 방문한 유성운은 황당해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18)"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19)

219

제219화

지구의 태양은 ‘지오의 초상화’의 방문을 대단히 반겼다.

“제 방문을 기대하고 계셨습니까?”

그녀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처음 지구의 햇볕 아래에 그가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부터 태양은 그의 거대한 그릇에 감탄했고, 또 함께 교류하고 싶다며 즐거이 웃었다.

“저는 오늘 신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신이 취해야 할 자세?

“아버지께서는 자연이자 방관자라 답했습니다. 태양이 지상에 직접 내려오게 되면 그보다 더한 지옥이 없을 테니 멀리 떨어져 관측하는 것이 오히려 자비일 것이라고요.”

지구의 태양은 그와 의견이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야 태양은 늘 생명에게 손을 뻗고 있기 때문이었다.

햇볕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이 그녀의 자식이었다. 지구의 태양은 대재앙에 흘러들어 온 수만 가지 신성들의 마수로부터 제 자식들을 지켜왔다. 직접 나서지 않고서야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그대가 취하는 신으로서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탄생과 자비의 사랑.

“어머니 태양이시여.”

바로 그거다, 잘 이해한 듯했다.

“그대는 진실로 모든 생명의 어머니군요.”

지구의 생명은 태양의 배 속에서 나와 이내 그녀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의 조각, 나의 분신과도 다름없으니 태양의 아래에서 한껏 노닐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옳았다.

“일종의 양육인가.”

자식이니까.

“그렇다면 제 아버지 태양의 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께서는 그저 제 자식들을 애정을 담아 바라만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운명의 틀을 짜다가도 손에서 놓아 버리고는 하셨죠.”

그 또한 사랑이리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손에 쥐면 불타버릴 것이기에 함부로 쓰다듬지 못할 때도 많았다.

“하지만 그대는 손을 내밀고 있지요.”

그렇기에 그녀는 태양으로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혹여나 제 거대한 몸을 두려워할까 몸을 숨기고, 호흡 한 번에 그들이 재가 될까 걱정해 숨을 참고, 눈길을 주면 뇌가 녹아버릴까 하여 언제나 눈꺼풀을 닫은 채 지구를 품에 안고 있었다.

“불편하시겠습니다.”

사랑하기에 견딜 수 있는 것이었다.

“사랑이라, 달콤한 말이군요. 그렇다면 제 아버지 태양께서는 ‘지오반니’를 포함한 그분 자식들을 품에 안지 않으려 했던 걸까요?”

감싸고도는 것만이 사랑이 아닐 수 있었다. 제 자식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분에 넘치고 눈이 부셔서 차마 손대지 못했으리라. 태양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수한 인간을 사랑했던 것이겠지.

“이해가 됩니다.”

신의 자세는 신성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렇게 사랑하라, 거대한 신비여.

* * *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어쩐지 태양교에서 사제 하나가 미쳐 버렸다더니.”

“억울합니다.”

“네 탓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좀 흥미로웠을 뿐이다.

“두 분 대화 나누는 모습을 언젠가 내가 한번 감상해도 될까?”

“싫습니다, 대단히 민망하군요.”

“그건 정말 아쉬운데….”

아무튼 지오가 무슨 고민을 하는 건지는 알아들었다.

“흠, 이건 어때.”

“다른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신성 친구가 한 분 더 계시잖아.”

“아하.”

지구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바래다줄까?”

“감사합니다.”

지오는 거절하지 않았다.

* * *

“방문하시었나이까.”

지오는 자신을 마중 나온 죽음의 사제를 알아보았다.

“지난번에 제 안내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기억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번에도 저를 사제님의 아버지 앞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그 또한 영광된 일이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작은 봉투를 꺼냈다.

“감사의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지난번보다 저를 편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 기쁩니다.”

“분에 넘치는 일이겠지만, 주교님께서 조언을 해주신 덕분에….”

“그렇군요. 선물을 받을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

지오가 건넨 것은 바스람 차였다.

“곡물처럼 고소한 맛과 향의 차입니다. 죽음의 사제들은 다도를 즐긴다는 이야기를 들어 가져왔는데, 따사로운 햇볕 아래에서 온기를 머금은 차이니 피로하실 때 마시면 좋겠습니다.”

“혹 이것을 신자들과 함께 나누어도 될지요.”

“어떤 용도일지 궁금합니다.”

“이곳은 몸이 허한 신자들이 자주 드나듭니다.”

“죽음의 교단인 덕분인가.”

“예, 그래서….”

죽음의 사제들은 생명의 끝을 영광된 축복으로 여기지만 그렇다고 생명의 행복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한낱 인간의 생이 더욱 값지고 찬란한 방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했다.

“허락해 주신다면 삶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쓰고자 합니다.”

생이 행복하지 않다면 죽음을 악용하는 이들만 늘어날 뿐이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나의 친절한 친구.”

“…감사합니다.”

“동의한 것으로 알아듣겠어.”

“유쾌하신 분이군요.”

무뚝뚝한 얼굴의 사제였지만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지오를 편하게 대하고 있었다. 대뜸 친구로 삼아버리는 지오의 말에도 썩 기분이 괜찮아 보였다. 지오는 그 반응에서 고마움을 느꼈다.

참 마음에 드는 일이었다.

“죽음의 사제는 유희를 즐기지 않나?”

“생명의 수만큼 죽음이 많으니 해야 할 일도 많을 수밖에요.”

“같이 노닐기는 어렵겠군.”

“원하신다면 시간을 내 보겠습니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도 사제는 방울을 닮은 동그란 등을 들고, 하얀색 천으로 눈을 가린 채 어두운 신전을 나아갔다. 바닥에 얕게 깔린 물에서 지오는 강물을 이루던 죽음의 신을 느낄 수 있었다.

곧이어 커다란 문이 나오자 사제가 물러서고, 주교인 은령이 나왔다.

“다시 뵈어 영광이옵니다.”

“나 역시.”

“자,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이리로….”

더 깊이 들어가기도 전에 죽음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친우여.”

“오.”

그 모습에 은령이 안내해 준 사제에게 손짓했다.

“…수고한 너는 이만 물러가거라, 두 어른께서 대화하실 게다.”

“…예, 주교님.”

이런 적극적인 모습의 죽음이 낯선 듯 둘은 조금 당황하면서도 착실하게 움직였다. 안내 사제는 조용히 물러났고, 주교 은령은 죽음의 방을 굳게 닫은 다음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지오가 그런 그녀를 불렀다.

“함께하시지 않겠습니까?”

“…한낱 미물에 불과한 제가 그 자리에 끼어도 될지요?”

“나는 오늘 대화를 나누러 왔습니다. 의견을 구하고자 왔으니, 입이 늘어날수록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과분하게도 이 은령이 한 자리를 차지해 보겠습니다.”

평소 죽음의 현신체를 가까이에 두고 산 탓인지 은령은 두 신성의 사이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적당한 자리가 마련된 듯해 지오는 가볍게 말문을 열었다.

“오랜만입니다.”

“그간 격조했군, 자네….”

“미안한 마음에 내가 상을 차려 왔습니다.”

“상이라.”

죽음이 끌끌 웃었다.

“약속을 지켰는가.”

“전을 좀 구워 왔는데.”

지오는 검은색 비단 보자기에 싸 왔던 도시락을 들어 보였다.

“은령 씨도 함께 드시지 않겠습니까?”

“…직접 만드셨나이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은령은 말을 흐렸다.

“…이걸 먹고도 죽음을 모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먹는다고 영생을 살지는 않을 텐데?”

“…….”

“왜 다들 안 믿지?”

주현도 그렇고, 유성운도 그렇고. 지오가 먹을 걸 주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초상화의 형태로 마주한 행인들밖에 없었다. 주면 그냥 ‘와 맛있는 거’ 하면서 먹으면 되는 게 아닐까?

“맛있을걸요.”

“그 부분에 대해 한 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서지오 헌터.”

“진짜 맛있을 텐데….”

“의심하지 않습니다.”

“괴악한 영약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음식이에요.”

“…….”

“이럴 때만 귀신같이 답변이 없군.”

“…으음….”

은령이 곧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인간으로서의 생을 보장해 주시겠다면야 기쁜 마음으로 함께 들겠습니다.”

“보장합니다.”

“상당히 빠르시군요.”

“저는 은령 씨를 인간이 아닌 무언가로 만들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 효과도 없고요?”

“물론입니다.”

“그러시다면야….”

그녀는 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드시겠습니까?”

“…….”

죽음은 매우 난감해했다.

“…맛있어 보이는군.”

“…아, 그런가요.”

은령도 놀랐다.

“아버지께서도 식욕을 느끼게 되실 줄은 몰랐습니다.”

“나 역시 놀랍구나.”

신성이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현신체를 가진 죽음과 같은 경우라면 그나마 가능성은 올라가겠지만 그마저도 쉽진 않았다. 식욕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은 자개로 장식된 도시락통에 가지런히 놓인 전들을 빤히 바라보았다.

“…내 딸아….”

“예, 아버지. 듣고 있습니다.”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나 이 단아한 선물을 망가트릴까 두렵구나. 부디 저 노란 것을 집어다오.”

“…아, 노란 거. 동태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그 아이. 향이 좋구나.”

아무리 현신체가 있는 신성이라지만 자연에 가까운 그 거대한 몸으로 온전히 ‘음식’을 집어 먹기란 힘든 일이었다.

이런 소박한 기쁨에 대한 경험이 없는 신성이 머뭇거리며 딸에게 도움을 구하자 은령은 가볍게 웃었다.

“이게 바로 자식의 기쁨이겠지요. 제가 아버지께 음식을 집어드리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서지오 헌터께 감사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흠, 그럴까요?”

은령은 기쁜 마음으로 잘 익은 동태전 하나를 집어 올렸다.

“자… 아버지, 어찌 드시겠습니까?”

“…….”

주욱—.

곧이어 어둠 속에서 거대한 ‘얼굴’이 내려왔다.

평소 광활한 방의 어둠 속에 자리하던 죽음은 ‘입’을 가늘게 벌렸다. 비틀어진 나무의 껍질처럼 투박하던 그 틈 사이가 벌어지자, 그것을 ‘입’이라고 판단한 은령이 그 안에 전을 넣어주었다.

‘얼굴’은 다시 어둠 위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

“…….”

“…어떠실까요, 아버지?”

“맛있구나.”

“세상에….”

은령이 결국 까르르 웃음을 터트렸다.

“정말 놀랍네요.”

그녀는 커다란 기쁨을 느꼈다. 제 죽음을 아버지로 모시며 가족으로서 사랑과 존경을 바치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이처럼 소박하고 평범한 ‘가족’의 행복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다.

“또 다른 것을 원하십니까? 야채전도 있고, 굴전도 있고, 호박전도 있고….”

“저 울퉁불퉁한 것을 다오.”

“야채전 말씀이시군요. 예, 여기에 있습니다.”

오순도순한 부녀의 모습에 지오가 흐뭇하게 웃었다.

“이렇게 보기 좋을 수가.”

“후후… 서지오 헌터께서 이런 선물을 들고 와주신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든 것 같아 저 역시 기쁩니다.”

역시 만들어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가장 예뻤다.

“조금 더 크게 구울 걸 그랬나.”

“아니, 충분하군.”

“몸이 큰데….”

“충분해.”

지오가 가져온 것은 결국 음식의 형태를 한 ‘무언가’였다. 부피보다는 그 안에 가득 찬 신비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고, 죽음은 거기에서 미식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은령 역시 두 신성의 보챔을 받아 전을 한 입 먹었다.

“…….”

“어떠십니까?”

“…살면서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습니다.”

“이런 극찬을 받다니.”

“아뇨, 극찬이 아니라, 그냥….”

은령은 드물게도 얼굴을 붉히며 눈을 반짝였다.

“…정말 맛있네요.”

“기쁘구나.”

죽음 역시 제 딸의 기쁨에 동화되어 웃었다. 그의 ‘웃음’이 죽음의 방을 가득 채웠다. 은령은 그런 제 아버지의 반응에 민망해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다른 전을 집어 먹었다.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안 위험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래도 젓가락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녀는 한때 유성운과 주현이 밟았던 전철을 그대로 가고 있었다. 이 신비의 덩어리가 자신을 변질시키게 될까 두려워하면서도 그 황홀한 진미를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것이었다.

지오는 여기서 기어코 술까지 꺼내 들었다.

“전에는 술이 있어야죠.”

“세상에.”

은령이 기쁨의 탄성을 뱉었다.

“향이 너무 좋군요, 어떤 술인가요?”

“과일과 쌀, 꽃으로 빚은 막걸리입니다.”

“황홀하네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지나고.

“…….”

“…….”

죽음과 은령은 무언가를 깨달았다.

“…자네….”

“말씀하십시오.”

“날… 돼지로… 만들 건가…?”

“어떻게 알았지…?”

“…오….”

그것은 언젠가 사나래가 얻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깨달음이었다.

‘…헨젤과 그레텔….’

은령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다. 눈앞의 신성이 정말로 마귀할멈처럼 저를 잡아먹진 않겠지만, 그냥 그랬다. 너무 좋은데 너무 과분해서 살짝 억울해질 지경이었다.

그러고 나서야 지오는 본론을 꺼냈다.

“신이란 무엇일까요?”

“신이라… 필요한가?”

“그래야 저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를 말함이지.”

“내 존재에 대한 준비입니다.”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정의하고 싶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이네….”

죽음은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처음으로 경험한 ‘진미’는 그 어떤 대가도 내어줄 가치가 있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19)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20)

220

제220화

“생명의 죽음은 끝이지 시작이 아니네.”

지구의 죽음은 그렇게 말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군, 죽음이야말로 또 다른 시작이라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까?”

“나의 죽음은 그렇지 않아. 또 그래서도 안 되지. 만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시작이 있다면 그건 내 몫이 아니어야 할 걸세….”

“지구의 태양은 햇볕에 닿은 모든 생명이 자신의 자식이라더군요.”

“그러니 이곳의 생명들은 수많은 부모를 등에 업고 살아가는 셈이지 않겠는가. 다만 나는 그들을 나의 자식으로 여기지 않아. 내 자식은… 여기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말함이니….”

신성이라고 모든 생명을 자식이라 여기는 건 아니다.

“나는 관문일세.”

“관문?”

“모든 생명이 결국 지나쳐야 할 과정이지. 태양은 자신을 어머니로 칭했다면… 나와는 다른 게야. 나는 생명에게 관계나 신뢰를 요구하지 않네… 마땅히 다가올 일일 뿐이기에… 그렇다.”

“그렇군요.”

몇 가지 자그마한 의문도 들었다.

“그렇다면 생명을 부정하십니까?”

“알고 질문을 하는가….”

죽음은 아니라 답한다.

“죽음은 필히 오고 말 운명이다. 섭리의 과정이나 자연의 과정은 아니지. 나는 그저 다가오는 생명을 내 품에 받아들이는 하나의 세계이며 끝을 매듭지어 주는 수많은 손이라.”

그건 지오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죽음은 하나의 상태일 뿐이니까요.”

“그래… 잘 아니 기쁘다.”

죽음은 ‘웃음’을 보였다.

“같은 생명일지라도 신성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네. 태양과 죽음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신성이 그렇지. 같아 보이더라도 본질이 달라. 본질이 같더라도 방식이 달라. 내가 품는 생명은 빛이 꺼져 떠도는 나그네일지니… 나는 그들에게 끝을 알리는 장인이다.”

“등불은 쥐여주지 않습니까?”

“내 몫이 아닐세.”

죽음은 늘 남겨진 자들의 것이라 그는 말했다.

“생명의 빛 꺼짐은 상태이나 생자의 슬픔은 감정이지. 나의 존재란 결국 살아남은 자들을 달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다. 이별을 납득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나의 몫인 게지.”

“그렇다면 죽어버린 나그네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들의 몫이다.”

손에 쥐어지는 등불도, 들고 떠나는 재화도, 사랑도, 미련도, 슬픔도. 그 모든 것이 망자들의 것이었다. 죽음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받아들이나 자애로운 부모도 상냥한 친구도 아니다.

그저 매듭을 짓는 장인.

“지어진 매듭이 누구에게 팔릴지, 어디에 장식될지는… 내가 가르쳐야 할 것이 아니며 나는 가르치는 선생조차 아닐지니. 자네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가.”

“동의합니다.”

“고맙네.”

긍정받은 신성은 기뻐했다.

“자네도 자네의… 방식을, 길을, 사랑을 찾길… 내, 간절히 바라고 있으마.”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지오는 결론을 내렸다.

이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 있나 보다.

* * *

죽음의 신전 주차장으로 돌아온 지오를 유성운이 반겼다.

“이야기는 잘 끝났어?”

“물론입니다.”

그러려고 뇌물도 싸간 것이 아닌가.

“뇌물이 잘 먹힌 것 같았습니다.”

“그걸 정말로 먹기는 먹었구나.”

“들고 갈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더니 막상 걱정은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야 신성에게는 식욕이라는 개념이 없는 게 보통이니까. 네가 보통이 아닌 걸 알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에게 상식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나마 태양신 곰인형이나 산칼루트의 사례를 통해 조금 덜 놀랄 수 있을 뿐이었다. 잠시 그 둘을 떠올린 유성운이 지오를 차로 이끌었다. 지오는 그에 따라 차에 올랐다.

차를 움직이며 유성운이 물었다.

“성과는 좀 있었나?”

“예, 결심했습니다.”

“…잠깐만.”

기시감을 느낀 유성운이 묘한 눈으로 지오를 돌아보았다.

“너… 너 뭐, 뭐 할 거 아니지? 막, 뭔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돌아가는 길에서 마왕 어쩌고 했던 걸 나는 기억해.”

“바로 맞히셨습니다.”

“아니 안 맞혔는데?”

절대 맞히려고 꺼낸 말이 아니었다.

“…….”

유성운이 조금 시들해진 얼굴로 물었다.

“…무슨 결심을 했는데?”

“저는 그동안 다양한 신성에게 신으로서의 자세를 질문했습니다.”

“응, 그랬지. 전통적인 신성이니 사악한 신성이니 가리지 않고 물었었지.”

“그래서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인데.”

지오는 명쾌하게 대답했다.

“역시 꼴리는 대로 살아야….”

“너 아르지오 이후로 어휘력이 너무 좋아졌다.”

“제 어휘력은 원래 이랬습니다.”

“이제는 거짓말도 잘하네.”

기특하지만 동시에 섬뜩했다.

‘점점 인간이라고 해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잖아.’

이러면 나중에 지오가 사고를 쳐도 곧장 알아채지 못할 것이 뻔했다. 아니 뭐, 물론 애초부터 유성운이 지오를 막을 수 있는 주제는 아니었다만. 그래도 괄목할 성장인 건 사실이었다.

목을 쓸어내린 유성운이 결국 허탈한 웃음을 뱉었다.

“그래서? 꼴리는 대로 살아야겠다고?”

“지금 뭔가 저의 의사와 생각이 많이 무시당한 것 같은데….”

“하지만 대체 뭘 원한다는 거지?”

“…….”

자연스러운 화제 전환이 어처구니가 없어 유성운을 응시하던 지오가 결국 포기하고 답변했다.

“사람들을 돼지로 만들 겁니다.”

“…아, 어, 돼지. 음, 오, 그래….”

“곳간이 든든하면 세상도 평화로워지는 법이지.”

“평화… 그렇다면 네 ‘방식’은 주현 씨랑 비슷한 느낌인 건가? 그놈의 세계 평화?”

“조금 다릅니다. 주현 씨는 세계 평화가 목적이지만 저는 돼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가 바뀐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그거대로 무서운데.”

세계 멸망보다야 낫다지만 말이다.

“아니 그보다, 그거 지금까지 하던 거랑 크게 다를 것도 없지 않아? 너는 굳이 뭔가 더 의도하지 않아도 이미 지나가는 행인이 기특하다면서 간식을 나눠주는 독특한 괴담이지 않나?”

“틀린 말씀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비교적 달리 먹은 마음가짐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데.”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더 많이?”

“예.”

신성의 공통점은 ‘모든 흐름과 무관하게 언제 어디든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었다. 대부분의 신성은 설령 차원이 박살 난다 해도 어딘가에는 존재했다. 종교의 형태로든, 역사의 형태로든.

그게 바로 신성의 영구함이 가지는 힘이었고, 지오는 그것을 매우 좋게 보았다. 살아 있는 생물처럼 이어지는 하나의 군집이란 그토록 매력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리고 지오는 나름 신성을 갖추었으니 그 방식들을 참고할 수 있었다.

“그럼 나는 평생 친구 가득한 삶을 살겠죠.”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렇다, 지오가 그간 신성들에게 궁금했던 점은 ‘내 정체성이 인간일지 신일지’, ‘생명을 어떻게 대하며 다스릴지’ 혹은 ‘뭘 해야 신성다운 일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저만큼 오래 살면서 친구들도 많지?’였다.

“현명하지 않습니까?”

“…….”

유성운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공식적으로 종교 집단을 만들겠다는 소리를 어쩜 이렇게 동심 가득한 버전으로 할까.’

그는 찰나의 순간에 지금 지오의 결정이 과연 어떤 결과를 몰고 오게 될지를 고민했으나, 결국 그 무엇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원하는 대로 하렴.”

“시원시원하시군요.”

“내가 말려도 그냥 할 거잖아.”

“흠, 나를 너무 잘 알아버렸군. 입막음을 당해줘야겠어.”

“네가 말하면 전혀 농담처럼 안 들리니까 나 무섭게 하지 말라고….”

“과연 농담이었을까?”

“제발 좀.”

“좋네.”

지오가 즐겁다는 듯 웃었다.

“이제야 내 말이 농담인 줄을 아는군요.”

“…그런가 보다.”

멍청해진 건지, 적응을 한 건지.

‘주현 씨한테 옮았나.’

참 무서운 일이었다.

* * *

한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품지 않았다. 그녀는 타고나기를 1등급 시민의 부모 밑에서 자라와 모든 것이 풍족했기에, 종종 건물 사이의 어둑한 그림자에서 숨죽인 채 구걸하는 빈민들을 보며 더럽다는 생각마저도 했다.

“엮이기 싫어요.”

“좋은 자세야, 내 딸. 저런 놈들하고 엮이면 피곤해지지.”

부모는 그런 그녀를 긍정했다. 그렇다고 여자가 먼저 나서서 가진 게 없는 이들을 학대하거나 모욕한 적은 없었다. 단지 말 그대로 나랑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없는 사람 취급을 했다.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성장한 여자는 고상한 취미를 누리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씩 모았다. 수집상의 단골 손님이 될 정도였는데, 어느 날 여자는 ‘검은망토’라는 존재를 접했다.

“이건….”

“검은망토의 작품이군요, 아가씨.”

“검은망토? 묘한 분위기의 작품이네요, 수채화인가…?”

“가까이 가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름답지 않나요?”

한때 검은망토가 몬스터로 알려졌던 시기. ‘공허의 도시’를 마주친 여자는 그 작품성에 홀딱 빠져버렸다. 이후 검은망토가 신성을 품은 신비라는 것이 알려지며 그 호의는 하늘을 치솟았다.

“신이 그려낸 작품이라니.”

고상한 삶의 그녀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예술품이었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여자만은 아니었는지 1등급 시민들 사이에서 묘한 그룹들이 생겼다. 검은망토를 애호하는 모임이라던가. 여자가 그중 가장 명성 높은 그룹에 가입하려 들게 된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

하지만 뭔가 생각과 달랐다.

“…자원봉사요?”

“혹시 검은망토에 대해 잘 모르고 오신 겁니까?”

“아뇨, 그럴 리가요.”

무언가 아주 멍청하고 혐오스러운 것을 본다는 시선에 저절로 부정의 말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다. 여자는 검은망토를 제법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다.

“섭리의 신성을 품었다는 인간형의 신성이잖아요?”

“검은망토의 호오는?”

“어… 착한 사람을 좋아해서 마주치면 선물을 준다고 하죠. 반대로 악한 사람을 마주치게 되면 액자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한다고요.”

“그런데도 저희의 자원봉사 시스템에 의문을 가지는 겁니까?”

“아니,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웠다.

“후원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끽해야 활동비를 내는 정도라면 여자도 납득할 수 있었다. 수많은 살롱에서 그렇게들 회비를 걷어 운영하고는 했으니까. 하지만 검은망토 애호가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했다.

“굳이 직접 나서야 할 필요까지 있어요?”

“진심으로 묻는 겁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선행을 하고 싶다면 그냥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일인데… 후원도 선한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직접 봉사에 나서야 그들 사이에 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뻔하군요. 아주 얄팍한 욕심으로 우리 동호회에 들어오겠다고 한 거야. 기껏 해봐야 돈으로 생색 좀 내면서 착한 사람 타이틀도 챙기고, 검은망토의 작품도 감상하고, 운 좋으면 선물도 받고… 그런 걸 기대했겠지?”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후원이 잘못된 방식이고요?”

“잘못된 방식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기대했다면 저희와는 어울리지 않으실 것 같군요. 우리는 고작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명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 어이가 없어서….”

“검은망토를 애호하는 모임은 많지만, 그중에서 왜 저희가 검은망토와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지 모르시는 것 같군요. 우리는 그깟 흉내쟁이들과는 달라요. 진실된 선행을 고집하기 때문에 검은망토께서도 저희를 인정한 거란 말입니다.”

회원은 대단히 빈정거리기까지 했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는 성실하고 고귀한 봉사자를 뽑는 거지 당신처럼 돈으로 생색내고 하하호호 떠들려고 만들어진 모임이 아니에요. 만약 당신 같은 사람을 하나둘씩 받게 된다면 우리 모임의 질은 떨어지겠죠.”

“질이 떨어진다는 말까지 하신다고요?”

“그렇게 되면 검은망토께서도 저희를 향한 애정을 거두어 가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꼴 못 봐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받아낸 신뢰인데. 외부인이 그 귀한 것을 깎아먹도록 둘 수는 없지.”

“진짜 웃기네?”

여자는 잔뜩 화가 나 큰소리를 쳤다.

“나도 하면 되잖아요, 하면…! 그냥 굳이 그걸 직접 해야 하나 싶어서 물어본 거지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었거든요? 누구는 봉사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 비효율적이라 안 했던 거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어차피 일하고 싶은 사람은 넘쳐나고, 한 푼 벌지 못해 쓰러지는 뒷골목 빈민들도 넘쳐났다.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면 그들은 돈을 벌고 여자는 선행을 베풀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효율적인 선행이란 말인가.

하지만 이 빌어먹을 동호회는 여자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내가 못 할 줄 알고?!”

“오,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이건 뭐예요.”

“계약서라고 적혀 있지 않나요?”

“아니, 무슨 동호회에 계약서가….”

“안 할 거면 말아요, 바빠 죽겠는데 시간이나 잡아먹고 말이야.”

“…이리 줘봐요.”

여자는 기어코 동호회에 한 자리를 차지했다.

“내가 말단이라고?”

“아무것도 안 한 신입 상태이니 어쩔 수 없죠?”

“회, 회비를 더 내면….”

“계속 돈 얘기만 하실 겁니까?”

“…으윽….”

그리고 봉사 활동을 나가기 시작했다.

“…….”

솔직히 좀 멍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동호회에서 하는 일은 다양했다. 그리고 높은 계급으로 승급될수록 해야 하는 봉사의 번거로움과 위험도는 높아졌다.

회장이라는 사람은 아예 미재건 구역에 숨어 사는 3등급 시민까지 찾아가며 생활을 돕고는 했다.

‘이건 미친 짓이야.’

계급이 높아질수록 하는 일이 많아진다니?

‘심지어 도시 바깥으로도 서슴지 않고 나가잖아.’

왜 그토록 많은 인구가 도시에 모이겠는가. 그게 다 도시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었다. 외곽으로 빠질수록 위험해지는 건 물론이고 죽을 확률도 높아졌다.

하지만 여자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버텼다. 길가의 쓰레기를 줍고, 빈민가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2등급 이하의 시민들에게도 지원을 보냈다.

“방이 좀 춥지요…? 미안합니다,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아, 아니에요. 그럭저럭 괜찮네요. 담요라도 덮으면 되겠죠.”

“미안해서 어쩌나, 담요가 없는데… 이불이라도 드리면 될까?”

“…어….”

어느 날은 ‘최근에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한번 믿고 맡겨볼게요’라며 혼자 사는 노인의 말동무가 되러 간 적도 있었다.

몇 번인가 말실수를 한 적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만회하려 노력했다.

“아, 아하하…! 제, 제가 사드리면 되죠…!”

“응? 아니, 그러면 너무 미안해서….”

“어머, 무슨 말씀을? 그 정도는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다고요. 몇 장이면 될까요? 아니지, 침구를 전부 바꿔드리면 되겠다. 그쵸?”

물론 그녀의 방식이 회원들에게 긍정받긴 조금 어려운 듯했다.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면 안 된대도요. 그런 선물을 받고 순수하게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땐 역효과가 나요, 위험한 방식이라고요.”

“그, 그치만… 거기서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나도 나름 열심히 한 거예요! 이미 실수를 했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음….”

하지만, 긍정을 받기도 했다.

“하긴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 그래요?”

“아직 경험이 얼마 없으셔서 그런 거겠죠. 요즘 활동 정말 꾸준히 참여하고 계신 모습 정말로 보기 좋아요. 어르신께서도 바뀐 침구가 너무 좋다고 감사 편지도 보내셨더라고요.”

“어, 편지…? 저, 저한테요? 저한테 온 거죠? 보여주세요!”

“그럼요, 여기 가져왔어요.”

“…아….”

작고 소담한 글씨체로 2장이나 써진 빛바랜 편지지에 여자는 무언가 성취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간 ‘내가 드디어 검은망토께 선물을 받았어요!’라며 자랑하던 회원들을 보며 그렇게 부러웠는데, 편지를 읽는 순간만큼은 그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크흠,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되죠?”

“하하, 물론이죠. 회원님한테 온 건데요.”

“잘 보관할게요.”

딸이 하는 일을 알게 된 부모님도 처음에는 ‘네가 좋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하고 걱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을 본다는 듯 굴었지만, 여자가 가져온 편지를 보고는 어색하게나마 바뀐 반응을 보였다.

“…이걸 그 빈민가 사람이 줬다고?”

“빈민 아니고 2등급 시민!”

“아, 그렇지. 그래….”

“…….”

“…그렇구나.”

그녀의 아버지는 얼떨떨해하면서도 뭔가 씁쓸해 보였고, 또 희미한 미소도 지었다.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네.”

“무슨 소리야, 나 동호회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 아빠가 그걸 몰랐다. 미안해.”

그는 후회하는 것처럼도 보였다.

“나는 다 무서운 사람들만 남은 줄 알았지.”

그래야만 내가 가진 것들 빼앗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다들 악착같이 내 것 훔치려 드는 사람들만 있을 줄 알았다며 그는 웃었다. 그러고는 제 딸을 칭찬했다.

“잘하고 있네, 거기 회원들도 다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고.”

“어? 어, 그… 그치? 내가 말했잖아, 나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도 조심하면서 다녀,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 많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야.”

“아 알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네 엄마 깨어났대.”

“…뭐?”

“벼,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뭐? 어, 어떻게?”

온갖 돈을 들여 간신히 숨만 붙여두었던 엄마가 깨어났다는 소식.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병원에서도 고작 살려만 두는 것이 최선이었던 그녀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여자는 그 이유를 며칠이 지난 빈민가 골목에서야 알 수 있었다.

“당신의 선행을 긍정합니다.”

“…….”

검은 물감이 칠해진 액자.

“나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참 부단히도 살아왔지요.”

“…….”

“혼란스럽던 시대에 가족들을 전부 잃고 빈민가의 시민에게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혐오는 늘고 개인주의는 강해졌어요.”

“…아….”

“당신 역시 그런 삶을 살았으나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시작은 탐욕이었으나 이제는 행복을 느끼는군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긍정합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초상화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액자가 사라지며 속삭였다.

“선물은 마음에 드셨습니까?”

“…….”

그때, 홀로 남겨져서.

“…….”

여자는 고대하던 거대한 신비의 찬사를 받았다는 것보다는, 그간 그녀가 해왔던 일이 자애로운 선물로 돌아왔음에 한참을 울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다.

그냥 너무, 부끄러웠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21)

221

제221화

“저기, 지오야?”

유성운이 지오를 불렀다.

“너 요즘 무슨 일 하고 다니니…?”

“친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너를 찬양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던데?”

“사랑받으면 좋은 일이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조만간 종교가 생기겠네.”

그에 지오가 고개를 기울였다.

“동호회인 것으로 압니다.”

“어, 그래. 동호회의 탈을 쓴 종교 말이야.”

“종교 집단은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계기만 있다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이미 신성이 준비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말이다.

“별 볼 일 없는 인간도 혀만 잘 놀리면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종교야. 물론 그런 경우는 사이비로 분류가 되겠지만, 심지어 너는 사람도 잘 홀려, 신성이기도 해, 보상도 잘 주잖아.”

“잘못되었습니까?”

“역시 이거 다 알고 한 거지? 아니, 잘못된 거라고 하기는 묘하겠지만… 너의 신자들이 만들어낼 파급력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뻗어 나갈지를 생각하면 애매한 기분이긴 해.”

“나는 나를 위해 종교의 형태를 빌렸지만 가족과 친구를 바랄 뿐 광신도를 바라진 않습니다. 결코 나쁜 방향은 아니리라고 확신합니다.”

지오가 당당하게 주장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매정합니다.”

“나로서는 이게 당연한 건데 말이지.”

하지만.

“…보기 좋은 모습들이라는 점에는 동의를 해.”

이웃이 이웃사촌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는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다고 지금 세상의 잔혹함이 전부 걷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느낌이다.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친구가 많았으면 합니다.”

“나랑 주현 씨로는 부족했던 건가? 아, 이거 너무 서운한데?”

“하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도 저를 떠나실 게 아닙니까? 물론 평생 저와 친구를 해 주시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지만, 그걸 원하진 않으실 것 같아서.”

“난 인간으로 죽을 거야.”

주현도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그래서 혼자 있기 싫다고 종교를 만든다? 대담하네, 너.”

“추가적으로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를 옹호하고 애호하여 선행하는 분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건가.”

유성운은 검은망토가 가지고 있는 1대1의 규칙을 떠올렸다. 원래도 지오는 자신을 기쁘게 만드는 인간에게 보상 주는 것을 즐겼으니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었다.

‘다만 타이밍이 난감해서 그렇지.’

검은망토가 신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를 애호하는 모임이 늘어난 상황이었다.

그중 특히 본질적인 선행에 집중하는 집단에 지오가 자주 눈길을 주니, 거기에 탄력을 받은 그쪽 동호회는 아주 중세 시대 기사들이 따로 없었다.

‘살짝 다들 맛이 가 있어서….’

그런 걸 보고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하던가? 다들 선하고 건실해 보이는데 어딘가 이상하게 광기가 느껴지고는 했다.

“…일종의 관리라고도 할 수 있겠네. 너로부터 파생된 영향의 결과물들을 그저 가만히 내버려두는 건 네 취향이 아니기도 하니까 말이야.”

“유성운 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액자 속의 지오는 언제나 그렇듯 무뚝뚝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신성을 얻었다는 사실이 변할 날은 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겠지.”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유성운이 무던하게 웃었다.

“잘 즐기고 있나 보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 자신을 신성으로 완전히 정의한 건가? 너 예전에는 자기가 무슨 신이냐면서 완곡하게 부정했잖아. 내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데.”

“? 저는 신이 아닙니다.”

“또 왜 이러는 걸까?”

“신성을 얻은 것과 신은 다르죠.”

지오는 평소와 같이 주장했다.

“살다 보면 신성도 물려받고 초상화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평범한 인간이?”

“저도 양심이 있으니 평범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평범하다 치고, 저는 여러 특성과 능력을 얻게 된 일반인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너 정말 고집이 강하구나….”

하긴 근원이 인간의 말 몇 마디에 태도를 달리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긴 할 것이었다. 결국 유성운은 그런 지오의 결정에 납득하며 목을 쓸었다.

“요약하자면 그건가? 너 혼자 다 해 먹으시겠다?”

“잘 요약하셨습니다.”

인간도 하고 신도 하고 다 할 예정이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너 진짜 대단하네.”

“제가 좀 그렇습니다.”

못 할 거 없지 않은가.

* * *

신은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눈에 채 담을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이기도 했고, 손으로 차마 붙잡을 수 없으나 언젠가는 다가오는 운명이기도 했으며, 세상 만물을 낳고 사랑과 섭리로 키운 부모이기도 했으나.

단지 거대한 신비일 때도 있었다.

“…….”

그들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다.

인간의 선악은 결국 그들의 잣대 아래에서 생겨났으므로, 그런 인간들보다도 저 높은 하늘에 떠 있는 고고한 존재들과는 연관이 없다.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에 대고 인간의 법률을 논할 수 없듯이….

그렇기에 수많은 신성은 숨 쉬듯, 눈짓 한 번에 차원을 망가트린다.

“…….”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장난감으로 삼아 놀이를 즐겼다.

신을 불러들이지 마라. 그들의 눈을 보지 말고, 이름을 부르지 말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미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신을 아는 모든 인간이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너무나 거대한 재앙이기에 인간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으므로.

숨어야 했다. 보지 않고 부르지 않고 듣지 않아야 했다. 그래야 했다.

“…….”

하지만 인간은 결국 그 모든 걸 알고도 신을 부르짖지.

“…사….”

살려달라고.

“…살려, 주, 세….”

도와달라고.

“너무, 아… 프….”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제발….”

온몸이 꿰뚫려 꺽꺽댔다.

너무나 몸이 아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아,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조차 그는 알 수가 없었다. 자신이 어떤 몰골이 되었을지 머릿속에 담고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아파.’

이곳에는 그 혼자밖에 없었다.

‘너무 아픕니다.’

아니, 과연 이곳에서만 혼자인 것일까? 아마 아니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게 아니고서야 이토록 조용할 리가 없지. 이 수많은 영웅의 무덤이 이토록 차게 식었을 리가 없었다.

외로움이 커지니 공포가 되었다. 고통이 길어지니 몽롱함이 되었고, 신음이 길어지니 갈증으로 변해 남자를 갉아먹었다. 제가 썩어가는지 타들어 가는지 찢어지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살려주세요.’

정말이지 긴 시간을 버텼다.

‘살려주세요.’

혼자 이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아주 기나긴 시간을 보냈어.

‘살려주세요….’

이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아도 좋았다. 흉측해졌을 것이 분명한 제 몰골을 원래대로 고쳐주지 않아도 좋았다. 영겁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낸 남자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였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을 아나.

“…아르, 지오.”

더는 혼자 있고 싶지 않았다.

“아르지오….”

그렇기에 낡고 뭉개진 한때의 영웅이 악신을 불렀다.

“…제가, 당신을… 봅니다.”

그를 보고, 부르고, 들었다.

“자비를….”

그조차 아니라면 더 큰 고통을.

이제는 그마저도 제게는 자비로 느껴질 터였다.

* * *

“......?”

오두막에서 41개째 만두를 집어 먹던 지오가 눈을 깜박였다.

“...누가 날 부른 것 같은데.”

“꾸우?”

“바다나 도시에서 내가 불렸다면 이렇게까지 희미하게 들렸을 리는 없고. 지구에서 날 불렀다면 당연히 선명하게 들렸을 테니까 남은 후보는 하나밖에 없군요.”

“꾸....”

“방치한 지 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지오는 만두에서 순순히 손을 뗐다.

“남은 만두 중 23개는 아빠 거인 거 알지, 애들아.”

“꾸르르르르르륵.”

“므망망망망....”

“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걸까.”

잠깐이라도 시선을 뗀 사이 홀랑 집어 먹을 불순한 의도가 훤히 보였다.

‘이게 바로 신성의 힘인가.’

아니다, 돼지의 직감이었다.

“아무튼 내 이름을 불렀다면 나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법이죠.”

“꾸...?”

“안면도 없는 사이에 내 이름을 불렀다? 그건 프러포즈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 이름을 부른 순간 나라는 친구를 사귀게 될 각오는 응당 되어 있을 터.”

“꾸??”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얘들아, 가자. 너희가 만두가 아니라 아빠를 선택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곰인형은 반박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했지만 이내 조심히 다녀오라는 듯 솜이 꽉 찬 손을 흔들어 아들과 손주들을 배웅했다. 지오는 그 따듯한 사랑에 힘입어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한 작품을 가린 검은 천을 들췄다.

“.......”

황원의 그림.

“...항상 왜 여기서 동물이 나올 수 있었는지 궁금했단 말이지?”

드디어 그 궁금증을 풀 때가 됐다.

지오가 그림 안으로 손을 뻗었고, 그는 또 다른 그림이 되어 녹아들었다.

* * *

“.......”

“.......”

그리고 지오가 본 건 사람이 아니었다.

“...? 사슴?”

사슴이었다.

“곱게 생긴 사슴인데.”

“삐이익....”

“울음소리도 곱군.”

예전에 봤던 꽃사슴이 이렇게 우는 걸 들어본 적이 있기는 한데, 이 친구는 아무리 봐도 꽃사슴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덩치도 작은 편은 아니고 뿔도 의젓하게 솟아 있었다.

뿔의 형태가 독특하다는 점을 빼면 지구에서도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사슴이었다.

“이런 데에 이런 사슴이 있다고?”

의문이 들었다.

“이리 오거라.”

“삐익....”

“옳지, 착한 아이군.”

말을 알아듣는 건지, 손짓을 알아보는 건지, 그도 아니면 그냥 오고 싶었던 건지. 유순한 인상의 사슴이 벚꽃처럼 단아하게 걸어와 아르지오의 앞에 서서 머리를 기대왔다.

“좋은 친구가 되겠어.”

사슴

작고 어린 사슴이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의심이 가는 설명이었다.

“대체 어딜 봐서 작고 어리다는 건지는 모르겠다만.”

수상쩍은 건 사실이었다. 그간 ‘동물의 왕국’에서 흘러나오던 동물들은 죄다 우락부락하고 어디 하나 뒤틀려 있는 형태의, 게다가 성질머리까지 꼬인 강인한 놈들이었으니까.

그러니 이 사슴이 사실은 양순한 모습으로 의태 중이라고 해도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으나, 지오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똑똑하다면 오히려 반길 일이었다.

‘말도 안 통해서 미쳐 날뛰는 녀석들보다야 예뻐할 가치가 있지.’

지오가 사슴의 턱과 뺨을 살살 쓰다듬었다.

“오... 부드럽구나.”

“삐이익....”

“울음소리도 참 깜찍하고.”

“삐잉....”

“귀여워라.”

깜찍하다는 말에 부러 더 귀여운 듯한 울음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착각이어도 아니어도 좋았다. 전자는 순수해서 사랑스러웠고 후자는 영특해서 깨물어 주고 싶은 귀여움이 있었다.

“…….”

그런데 정말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삑.”

“그래, 친구.”

지오가 옆에 찰싹 달라붙어 친한 척을 하는 사슴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혹시 여기 아르지오라는 이름을 부른 자가 있지 않았나? 분명 내 이름을 부른 자가 있었는데 목소리가 또다시 끊겼어. 워낙 희미한 음성이라 잘 들리지도 않았건만 이거 난감하군.”

아무리 봐도 풀 한 포기조차 보이지 않는 척박한 황야뿐, ‘아르지오’라는 이름을 명확히 불렀을 법한 생물은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환청이었나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환청은 아니겠지. 이봐, 친구.”

“삐이.”

“여기에서 혹시 사람을 본 적은 없느냐?”

“…….”

조금 물러선 사슴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흠, 그래.”

지오는 조금 더 영역을 넓혔다.

“그럼 너 이외의 생물은?”

“삐이이.”

사슴이 보란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역시나 주변을 둘러보아도 동물 한 마리, 심지어 풀 한 포기조차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 어디에도 생명이 보이지 않았으나 지오는 속는 셈 치고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다.

“…? 아하.”

그리고 지오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지하에 있었나.”

“삐이익….”

“기특한 것.”

흙과 말라비틀어진 잡초 따위에 가려 보이지 않던 지하 입구가 드러났다.

지오는 혹시 몰라 가져온 육포를 사슴에게 내어주었고, 사슴은 킁킁거리며 냄새를 좀 맡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입에 물었다. 육포를 맛나게 즐기는 사슴을 둔 채로 지오가 깊은 곳으로 내려와 그 주변을 살폈다.

“…….”

그가 여태껏 먹어온 짐승들에게 붙는 이름이 있었다.

‘멸망한 아빌라스 우림.’

아르지오에게도 익숙한, ‘검은 숲’이었다.

“…아니 그런데 왜 지하로 꺼졌어?”

“삥?”

“너에게 한 말이 아니니 계속 먹으렴.”

그냥 좀 어이가 없었다.

‘어지간한 사고로는 힘들 텐데?’

못 본 사이 대체 무슨 지각 변동이 있었던 거냐 말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21)"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22)

222

제222화

“묘하게 네발 우림이 생각나는데….”

지오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닮기는 정말 닮았군.”

“삥.”

“맞장구도 쳐주다니, 내 친구로서의 자질이 있어.”

“삐이이….”

“그래그래.”

둘이 주고받는 말에 후드 안에 있던 허니가 뽕 튀어나왔다.

“꾸르륵?”

“너는 내 자식이고, 허니.”

“꾸르.”

납득한 허니는 다시 후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내 팔자에 동물이 많았던가.’

오순도순 평화로운 강원도 산골 마을에 있을 때도 멧돼지나 고라니와 종종 마주치고는 했다만, 어째 그 시절보다도 초상화가 된 이후에 동물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았다.

“이 또한 자연의 순환이겠지.”

대충 헛소리를 지껄인 지오는 생각했다.

‘네발 우림이 혹시 여기서 파생된 무언가였나? 참 닮았단 말이야.’

하지만 네발 우림과 별개의 차원이라는 것은 아르지오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찾아온 고향이 그림으로 그린 듯이 멸망한 모습에 감탄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검은 숲이 울창한 것이야 언제나 그랬다고는 해도, 빽빽한 나무가 빗물을 잔뜩 머금어 시도 때도 없이 독비를 내리게 했던 그 악명 높은 검은 숲. 그건 애초에 하늘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구조였다.

의문만 계속해서 늘어난다.

“…….”

지오는 천장을 보았다.

‘…네발 우림은 차원을 이동당하는 과정에서 동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지만 이번 경우는 좀처럼 짐작할 수가 없다. 이곳은 단지 멸망했을 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적도, 이동한 차원을 받은 적도 없을 텐데….’

조금 더 둘러보는 수밖에는 없나.

“같이 가겠어?”

“…….”

사슴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사라졌다.

“흠.”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네.

“인사도 해주지 않고 떠나다니.”

말 한마디 해줄 법은 한데 말이다.

“오늘도 결국 둘만 남았구나, 허니.”

“꾸르르륵.”

허니는 아빠만 있으면 아무래도 좋다는 듯 울었다. 지오는 어느새 제 어깨에 도로 앉은 작은 새를 한 손에 쥐듯이 가볍게 쓰다듬고는 다시 발을 옮겼다. 보는 만큼 알게 될 것이었다.

최소한 파릇파릇하기라도 했던 네발 우림과는 분위기가 현저하게 달랐다. ‘검은 숲’이라는 이명에 걸맞게 모든 식물이 검고 짙푸르게 물들어 있었으며, 빽빽한 나뭇잎은 지독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이건 그때와 같네.”

검은 숲은 기본적으로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었다.

“그나마 예전에는 추위와 더위의 정도로 시간을 구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지하에 들어와 버려서 그런지 그조차도 알기가 힘들고. 그렇지 않니?”

“꾸르….”

“이제는 계속해서 춥기만 한 걸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지하에 들어온 이상 어떤 방식으로 더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최소한 ‘식물’다운 형상을 하고 있던 네발 우림과 달리 검은 숲은 기괴하고 형이상학적으로 배배 꼬인 괴생명체들이 즐비했다. 아르지오에게는 꽤나 익숙한 친구들이었다.

“반가워라.”

저건 먹으면 내장이 상해 피를 토하게 된다.

저건 닿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와 몇 주는 웃어야 했다.

저건 미리미리 제거하지 않으면 포자를 퍼트려 호흡기에 싹을 틔웠다.

본래 식물이란 햇볕을 받으며 자라야 하거늘, 그림자 속에서도 이토록 강인하게 크는 걸 보면 악마의 일종이리라고 몇 번이나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지금도 큰 변화는 없어 보였다.

“…….”

지오가 눈을 깜박였다.

“…그래도 예전보단 확실히 앞이 잘 보여. 이전 보석의 수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 절대 앞이 보이지 않을 어둠인데도 훤히 보이게 되는….”

“꿍꿍?”

“그래, 전에는 이렇게까지 잘 보이지는 않았단다. 사악한 신성을 얻어버린 이후로는 여러 인격과 섞이고 다채로운 권능을 쥐게 되어 어둠 따위 걸릴 게 아니었다만, 지금은 그래도 인간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흠, 역시 초상화라 그런가.

“앞이 잘 보여서 좋군!”

늘 그렇듯 지오는 명쾌했다.

“이거 참 예전처럼 세상이 먹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했는데 말이야. 물론 나에게는 허니 네가 있다지만 늘 너에게만 도움을 받는 것도 부모로서 면이 살지 않고.”

“꿍꿍꿍….”

허니는 ‘내가 있는데 왜 쓰려고 하지 않았지’라며 불만스러워했으나 아빠도 아빠만의 체면이 있는 법이었다.

‘뭣보다 빛을 비추면 터져버리는 폭탄 같은 식물도 있으니 말이지.’

아르지오는 한때 검은 숲에서 살았을 적보다 밝아진 세상을 매우 반겼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

꽤 걸었다만.

“왜 어디에도 짐승들이 보이지 않는 걸까.”

“꾸르르?”

“검은 숲의 가족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나?”

멸망을 했다더니 정말 생명이라고는 이 대답조차 없는 과묵한 식물만을 두고 전부 사라져 버린 것일까? 그건 아니라고 봤다. 그랬다면 ‘동물의 왕국’ 너머에서 지속적으로 짐승들이 넘어왔을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 숨어 있다든가?’

하지만 검은 숲의 짐승들이 보이기에는 썩 어울리지 않는 반응이었다. 이곳은 한시라도 더 빨리 강해지고 잔혹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니, 숨는 것은 생존에 방해만 되는 행위였다.

“…….”

못 본 사이 분위기가 꽤 달라진 듯했다.

“난감한데.”

이래서야 누가 아르지오를 불렀는지도 찾을 수가 없었다. 혹시 멸망한 사이 자아를 갖춘 이 새까만 식물들이 그를 불렀나 싶어도 영 반응이 없고.

‘분명 이지를 가진 무언가가 나를 불렀단 말이지.’

왜일까 그리운 기분마저도 느꼈더랬다.

“일단…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어. 일전에 내가 가족과 어울려 함께 지냈던 집이 있지. 온갖 함정과 독이 가득한데다가 숙식하기에 썩 편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땐 거기만 한 곳이 없었거든.”

“꾸르?”

“그래, 집이었다. 한참은 낡고 망가져 무너진 지가 오래인 유적이다만….”

어쨌든 집으로 삼으면 거기가 집인 것이다.

검은 숲에 바쳐진 성인들의 유적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으나 이미 한평생 이곳에서 살아온 경험이 있는 아르지오와 뭐든 정화해 버리는 작은 햇살 허니까지 있으니, 그리 막막하지만도 않았다.

“자, 여기야.”

그들은 곧 유적에 도착했다.

“의외로 이곳은 아직 건재하군. 지하로 꺼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늘, 생각보다는 튼튼했나 봐? 하긴 그러니까 내가 죽은 이후에도 이만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겠지만….”

참고로 아르지오는 화공에 당했다. 검은 숲 전체가 불태워졌는데도 전과 다름없다 못해 더 강인해진 식물들이나 여태 꿋꿋이 버티고 있는 유적을 보면 경이로울 정도였다.

“분명 이후로도 영웅들이 초대되어 여기저기 파괴되었을 텐데 말이지.”

“꾸르르르….”

“너도 이곳이 마음에 드는 것 같구나. 그래, 보는 맛이 있는 유적이야.”

아르지오는 굳건히 버티고 선 기둥을 쓸어내렸다.

“…….”

여러 인간의 어린 성장을 남긴 흔적들이 있었다.

“…그 녀석들은 어찌 되었을까 몰라.”

가끔 약탈과 여흥을 즐기기 위해 숲을 나서면 그에게 바쳐지는 생물들이 있었다. 그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며 두 손 모아 비는 자들이 있었다. 혹은 아르지오의 마음에 들어 납치를 당한 이들도 있었다.

이곳은 짐승들의 보금자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마저 버려진 인간들의 감옥이기도 했다.

‘내 기억에는 다들 도망쳤던 것 같은데.’

들이닥쳤던 놈들은 전염병이니 뭐니 시끄럽게 떠들었으니 아마 숲 바깥을 나서자마자 죽임을 당했을 것 같기도 했다. 그도 아니라면 불타는 숲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 버렸거나.

‘하긴 숲의 독과 짐승들을 피해 달아나기엔 너무나도 약한 이들이었지.’

슬픈 기분이 들어 아르지오가 울상을 지었다.

“기왕 온 김에 묘비라도 만들어 주어야겠어.”

“꾸륵?”

“내가 예전에 알던 이들이 만일 천운으로 숲과 군대를 피해 달아났다고 해도 결국은 멸망하는 차원에 갇혀 죽어 버렸겠지. 세월 때문이든 병 때문이든 뭐든 명을 달리했을 테니 그 끝도 내가 살펴주는 것이 맞아.”

그가 망토의 자락을 잡아 들고 그림자에서 딸을 불렀다.

“다나, 깨어 있더냐.”

“얡.”

“집에 가지 못한 미아들을 찾아다오.”

“…….”

우주를 닮은 눈을 깜박이던 고양이가 선명하게 울었다.

“야옹.”

그러고는 또 다른 그림자로 스며들어, 검은 숲에 퍼져나갔다.

“그럼 허니, 네 동생이 미아들을 전부 찾아줄 때까지 더 돌아다녀 보지 않겠니? 액자 너머로 동물들이 들어왔던 것을 생각하면 분명 어딘가에는 내 짐승 가족들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지....”

“꾸르르르르르!”

허니는 기쁘게 울었다. 아빠의 옛 고향을 둘러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물론 즐거운 일이었다. 아르지오는 그 들뜸에 동화되어 웃었다.

“내 친구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다 지오는 마주치게 된 것이다.

“.......”

“뭐냐, 넌. 여우족인가?”

“.......”

“...아니, 잠깐. 여우가 아닌데...?”

집채만 한 늑대와.

“...귀신?!”

“아니 살아 있잖아.”

“귀신이다!!”

심지어 말하는 겁쟁이 늑대였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짐승들은 덩칫값을 못하는 편인가?’

아르지오는 저도 모르게 꼰대 같은 생각을 하고 말았다.

* * *

고향의 짐승들이 ‘언어’를 습득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아르지오’라는 이름의 사악한 신성 덩어리가 영웅들에 의해 봉인되기 직전까지도 짐승들은 웃고 말하고 이야기했으니까.

‘하지만 직접 교류해 본 적은 없어서 신기한 기분이란 말이지.’

분노와 증오에 미쳐버린 신성이 고작 말하는 짐승 따위와 말을 섞겠는가. 애초에 대화할 정신머리도 아니었다.

인간으로서의 아르지오가 사망한 이후 악신이 되어 ‘대화’ 비슷한 거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찾아온 영웅들을 향한 비난이었을 것이다.

‘그게 교류의 전부였다니 지금 생각해도 참... 어리석어.’

꼴값이라고 해야 하나.

“.......”

“...이, 인, 인간... 이라고?”

“그래, 인간이지. 척 봐도 살아 있지 않은가?”

“잘 모르겠는데....”

지구의 트럭만큼이나 큰 몸집의 늑대는 흠칫흠칫 움츠러들며 지오를 살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서 살펴도 되건만 뭐가 그리 무서운지 저 멀찍이 떨어져 고개만 갸웃갸웃거린다.

아르지오가 그것을 보며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말했다.

“그리 먼 곳에 있으면 내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어찌 알아? 이보게, 좀 더 가까이 와도 좋네. 나는 자네가 그리 무서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야.”

“대체 그걸 왜 네가 정하는 거냐….”

늑대는 마찬가지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슬금슬금 다가왔다.

“…냄새 맡아도 되나?”

“모쪼록 그리 하도록 하게나.”

“그럼 잠깐만….”

커다란 늑대는 슬그머니 고개를 숙여 저보다 한참은 작은 아르지오에게 코를 대고 킁킁댔다. 그러고는 조금 안심이 되기라도 했는지, 아니면 무언가 맛있는 냄새라도 나는지 슬며시 코를 박는 게 아닌가.

“이런, 날 먹을 건가?”

“…?! 아, 아니! 아닌데! 안 먹을 건데!!”

“아니면 아닌 거지 왜 그렇게 펄쩍 뛰고 그래, 참 기운도 좋군.”

“그그그냥, 그냥 냄새가 좋아서….”

“맛있는 냄새?”

“그런 게 아니다!!”

늑대는 대단히 억울하다는 듯 변명했다.

“고소하고 단내가 나서 그랬다. 뭐, 뭔가 푹신하고 물렁한… 따듯한 냄새가 났는데.”

“…아, 혹시 햇볕 냄새를 말하는 건가?”

“…햇볕?”

목소리 톤이 올라갔다.

뭐가 그리 반가운지 늑대가 다시 다가오며 꼬리를 살랑 흔들었다. 늑대 특유의 날카로운 눈이 순간 놀라움과 설렘을 담고 동그랗게 뜨였다. 아르지오는 이것의 나이가 꽤 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뭇거리던 늑대가 물었다.

“너는 혹시 햇볕에서 왔나?”

“난생처음 듣는 말이군.”

지오가 왜 그러냐는 듯 위를 가리켰다.

“이 위에도 태양이 떠 있지 않던가?”

“그건 가짜고.”

“가짜?”

“…너 역시 귀신이지!!”

“심장 뛰는 소리도 안 들리나 봐? 자네는 늑대가 맞나?”

“그럼 다 아는 걸 왜 너만 모르는 거냐?!”

늑대는 퍽 억울해 보였다.

"뭣보다 인간은 멸종했다고!"

"아, 역시…."

예상하던 바였으나 조금은 씁쓸했다.

"똑똑할수록 멍청해지는 참 괴악한 생물이야."

언제나, 누구에게나 그렇듯.

분명 더 나아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22)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23)

223

제223화

이후로도 지오는 한참이나 자신이 인간임을 피력해야 했다.

"아직도 내가 귀신으로 보이나? 시체 냄새도 안 나고, 심장도 뛰고 있고, 지금은 안 보일 테지만 찌르면 피도 날 내가 정녕 인간으로 보이지 않아?"

"좀 그렇다."

"이렇게 단호할 수가."

끝까지 믿어주지는 않았다만.

"…그래, 정 믿기 힘들다면야."

지오는 세상의 모든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착실한 어른이었다. 반응을 보아하니 인간이라는 종족이 멸종된 지 꽤 된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런 반응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었다.

그 대신 설명을 듣고자 했다.

"이곳이 멸망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설명해 줄 수 있겠나? 나의 말동무가 되어준다면 그 보상은 확실히 하도록 하지.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먹는 것은 좋아해?"

"보상을 해준다는 게… 음식이야?"

"나도 한때 아빌라스 우림으로 불렸던 이 검은 숲을 잘 알고 있다네. 못 본 새에 몇몇 부분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하지만, 식량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테지? 어떤가?"

"뭘 줄 건지에 따라 성의의 차이가 조금 날 것 같은데…."

"어린 줄 알았더니 잇속 챙길 줄도 알고, 기특하군."

아르지오는 늑대의 커다란 머리를 두 손으로 잡고 복복복 쓰다듬었다. 처음 지오가 얼굴을 잡았을 때는 흠칫하며 몸이 굳었던 늑대는 지오의 현란한 손놀림에 감탄하며 얌전해졌다.

"오, 거기. 거기 좋다. 어우 시원해."

"이게 바로 인간의 손맛이다, 늑대야."

"가려운 곳을 왜 이렇게 잘 잡는 거지? 마법인가?"

“내가 또 한 능력해서.”

이렇게 보여도 아르지오는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짐승 가족들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산 몸이었다. 어디를 어떻게 긁어주어야 동물들이 시원해하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라 할 수 있겠다.

‘심지어 이 녀석은 말할 줄도 아니 더 직관적이고.’

얼마간 쓰다듬을 받던 늑대가 만족한 얼굴로 슬며시 떨어져 나왔다.

“이건 보상으로 안 칠 거다, 네가 먼저 해준 거니까.”

“그렇게 풀어진 얼굴로 단호한 척 말해봤자 그렇게 설득력은 없군.”

“크흠, 아무튼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러렴, 어디 한번 뼛속까지 뜯어먹어 보려무나.”

아르지오는 영악한 짐승들을 매우 좋아했다.

“그럼 이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

“멸종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겠지?”

대화를 나누고 손길을 받으며 그가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좀 가셨는지, 늑대는 한층 편안해진 얼굴로 털썩 지오의 앞에 앉았다. 커다란 몸집이 내려앉았음에도 검은 숲은 조용했다.

‘원래 이렇게 정중한 곳이 아닌데 말이야.’

그런 지오의 의문을 아는지 모르는지, 늑대가 말했다.

“정당한 거래를 위해 미리 말해두자면 나도 멸망했을 적을 잘 알지는 못한다, 선조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뿐이니까. 엄밀히 따져 ‘멸망’이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군.”

“멸망의 때가 잦았나 봐?”

“첫 번째 멸망은 우리 같은 짐승의 종족이 탄생했을 무렵이었겠지.”

아마 인간이었던 적의 아르지오가 죽고, 짐승들이 인간과 동등한 지능과 이성을 갖추었을 무렵을 말하는 것 같았다.

‘종종 방문했던 영웅들이 비슷한 주제를 꺼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지금의 아르지오에게 있어 조금 모호했다. 분노와 증오에 파묻혀 제정신이 아니었던 시절인 탓이다. 어쩌면 동화가 덜 되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봉인당한 그다음의 이야기는 나도 잘 모른단 말이지. 대충 자기들끼리 치고받다 멸망했다는 것 정도 외에는….’

이번 기회에 더 디테일한 부분을 전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후손이 읊어줄 역사가 궁금했다. 지오는 흥미를 안고 이어지는 늑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나와 같은 늑대족도 그때 파생되었다고 하던데, 나로서는 확 와닿는 말은 아니야. 나의 선조의 선조의 선조 때도 우리는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늑대족이었으니까.”

“일반적인 늑대와 늑대족을 따로 구분하기도 하나?”

“맞다, 인간들로 따진다면 인간과 원숭이의 차이가 아닐까? 물론 원숭이족도 따로 있었지만 그것도 역사에 남은 종족일 뿐이야. 인간과 잦은 전쟁을 벌이다 멸종했다고 들었다.”

“저런, 그렇다면 지금 남은 종족은 몇이지?”

“현존하는 건….”

잠시 침묵하던 늑대가 이어 말했다.

“세 종족뿐이다.”

늑대족과 까마귀족, 그리고 여우족.

“어머니의 말씀으로 늑대족은 가족을 중시해서, 까마귀족은 지혜로워서, 여우족은 사기를 잘 쳐서 아직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셨지.”

“마지막이 뭔가 이상한데.”

“너도 여우족을 만나면 조심해라, 순 사기꾼 새끼들이야.”

“이빨까지 드러내고, 묘하게 말투도 험해졌지 않나?”

일단 늑대족이 여우족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만큼은 잘 알겠다. 어조로 보았을 때 늑대족과 여우족이 자주 부딪히고 까마귀족은 중립을 잘 유지하는 것 같았다.

늑대가 코웃음을 쳤다.

“그 녀석들이 먼저 깐죽거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도 이빨을 드러낼 일은 없었어. 하여간 재수 없는 놈들,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똑똑한 줄 알지. 명예도 모르는 짐승 새끼들....”

“말투가 험하다니까?”

“이후의 멸망은 역시 악신의 탄생이었던가.”

“흐음.”

“분노와 전쟁의 신이라던데, 그에 관한 정보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악신이 온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었을 무렵의 이야기는 너무 끔찍하고 잔혹해서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악신 ‘아르지오’의 외형은 꽤 잘 알려진 것으로 기억했다. 붉게 땋아 내린 머리카락에 온몸을 장식한 재화와 뼈 장신구. 짐승의 털. 심지어 눈에 확 들어오는 이목구비이니 모를 수가 없었지.

그런데 어쩐지 ‘아르지오’인 나를 봐도 귀신이니 하는 영 엉뚱한 소리만 하더니.

‘나에 대한 기록이 지워졌던 거군.’

현명한 판단이다. 사실은 인간들이 나서서 재앙을 자초했다는 정보가 퍼지면 세상에는 전보다 더한 혼란이 찾아올 테니 말이다. 뭐, 그거랑 별개로 자멸해 버린 것 같긴 하지만....

“악신의 이야기는 알고 있어. 전염병을 일으키고, 무고한 이들을 잡아가고, 사람을 산 채로 뜯어 먹는 괴물이라지? 이지 없는 짐승들에게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권능을 부여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기도 했다던데.”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종족을 탄생시켜 준 것이니 감사할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악신이라는 신성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우리의 부모신이잖나.”

“부모신이라... 독특한 관점인걸.”

갑자기 부성애가 치솟았다.

‘이 새 종족이 탄생하게 된 것은 우연과 필연이 맞아떨어진 탓이겠지만, 그래도 부모라는 말을 직접 들으니 기분이 퍽 괜찮군. 맞아, 나는 이들의 아비이기도 하지....’

아르지오가 빙글 웃었다.

“지금도 악신에 대한 거부감은 없나?”

“그 재앙을 직접 마주치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냥... 옛날이야기 같은 거니까.”

“그렇군.”

이제 와 악신 아르지오에 관한 이야기는 전설 속 이야기가 된 듯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걸 모르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 현실성이 없게 느껴지는 것일까.

“하지만 악신은 봉인당했다고 들었는데.”

“그에 관련한 또 다른 멸망이 있었다.”

이야기가 길어지자 꼿꼿이 몸을 세우고 있던 게 불편했는지 늑대가 슬그머니 엎드렸다. 그러고는 커다란 머리를 바닥에 대고는 누웠다. 아르지오 역시 그 옆에 앉아 늑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손길이 썩 나쁘지 않은지 눈을 지그시 감으며 늑대가 이어 설명했다.

“악신이 봉인당했음에도 짐승들에게 부여된 지혜와 권능은 사라지지 않았고, 봉인만 되면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 앞뒤 가리지 않고 자원을 퍼부었던 인간들은 당황했다지.”

“어리석었군.”

“그래, 누가 ‘악신만 봉인하면 전부 끝날 거예요’라는 말을 했다는 거냔 말이다.”

늑대 역시 멸종한 종족 인간이 한심한 듯 콧잔등을 찌푸렸다. 꿀렁꿀렁 구겨진 콧잔등의 얕은 털가죽 감촉이 마음에 들어 살살 매만지니 이내 풀어졌다.

“선하고 강한 인간들은 이미 악신을 봉인하는 과정에서 죽었고, 죽지 않은 이들은 약해진 인간들 사이에 괴물이라 매도당하며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영웅들은 흔하게 시체로 발견되거나 아니면 아예 실종되었다더군.”

“가엾어라, 그렇지 않나?”

“멍청하다고는 생각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바쳐 악신을 봉인한 뒤 도태된 인간들에게 버려진 영웅들도, 그렇게 강한 영웅을 중심으로 뭉치지는 못할망정 주제 파악 못 하고 쫓아낸 인간들도 말이다.

“게다가 악신이 죽었음에도 검은 숲에서 흘러나온 전염병은 다시 흩어지지 않고 퍼지기에 바빴다. 모든 생명은 점차 독에 물들고, 말라비틀어지고, 뭐... 아무튼 먹을 것도 없는 끔찍한 황야가 되었다지?”

늑대로서는 지금 환경이 매우 익숙하지만 당시의 생물들에겐 큰 재앙이었을 것이다. 기어코 작은 갈등이 쌓이고 쌓인 인간과 짐승들은 거대한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전쟁을?”

“서로를 잡아먹기 위함이었다고 하더군.”

“흠,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그래.”

“그거참... 재밌네.”

자기들이 인간인 줄 알았던 짐승들이 드디어 제 정체성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 귀여운 꼴을 직접 봐주었어야 했는데 정말이지 아쉬웠다. 재밌는 일들이 참 많았던 듯했다.

“그다음은?”

“전쟁이 내내 이어졌다고 했다. 역사로 기록하기도 어려울 만큼 크고 작은 전쟁들이 수없이 일어난 끝에 인간과 짐승들은 ‘아, 더는 이곳에서 살 수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만큼 환경이 피폐해진 탓인가. 검은 숲에서 흘러나온 독의 탓도 있을 것이고, 그간 전쟁을 벌이며 자원도 소모가 되었을 테니까.”

“그래, 그래서....”

늑대가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천장을 보았다.

“신을 죽였다고 했어.”

"…신을? 아까 말한 악신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 창조주. 이 땅과 하늘을 만들어낸 가장 태초의 신."

"그게 가능한 일일 거라고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야 잘은 모르는 일이지. 그저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왜 신을 죽였다고 하던가, 싹싹 빌어 구원을 바라도 모자랄 판에."

"빌고 빌어도 구원이 내려오지 않으니 죽여서라도 구원을 얻고 싶었다는 듯했다. 그 결과로 지상과 하늘이 분리된 거라던데."

인간들은 신을 죽여 얻은 권능으로 세상을 다시 만들고자 했다.

"그는 생명과 창조의 신이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믿은 것이다.

"해서 기존에 있던 망가지고 더러워진 세계는 지하에 묻어두고 그 위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한 거다. 아예 있던 차원을 지워버리면 새 세계를 만드는 동안 인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테니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지."

"그래서 아예 지워 버리지는 못하고 땅 밑으로 숨겼다?"

"그랬다더군."

하지만 실패했다.

"보다시피 지상 위의 세계는 미완성이야."

인간들이 대체 어떤 방식으로 신을 죽여 그 권능을 빼앗고, 또 그 거대한 힘을 능숙하게 다루어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지는 늑대도 모르는 일이었다.

다만 그런 일이 있었고, 실패했고, 그래서 지금이 되었음을 알 뿐이다.

"창조주가 죽었으니 진짜 태양과 달은 사라졌다. 인간들은 그 부분마저도 약탈한 권능으로 새것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으나 실패했지. 애초에 달은 형상조차 만들어내지 못해 태양만이 떠 있어."

"태양이 가짜라는 말이 그것이었군."

"저 위의 태양은 멸망 이전의 '태양'과 같지 않아.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생명을 피워냈다던 그것과 달리 그저 흉내만 낸 빈껍데기일 뿐이다. 햇볕이 내려오는 것 같지만 따듯하지 않다. 가끔은 춥고, 가끔은 뜨거워. 그건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어쩐지 풀 한 포기도 없던데."

"진즉 얼어 죽거나 불에 타버렸겠지."

늑대가 코웃음을 쳤다.

"자격도 없는 이들이 함부로 신의 권능을 건드린 것이 화가 되었는지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망가지기 시작했어. 지금에 와서 남은 '지상'이라고는 이 검은 숲뿐이라고 하셨다."

지오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던전화가 시작되었나 본데.'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게임판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었다.

"이 숲을 제외한 다른 곳은 전부 사라졌나?"

"그래, 이제는 이곳만이 지하로 보이고 저 위가 지상으로 보일 지경이 되었다."

"그렇다면 너희 세 종족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은 정말 아무도 없어?"

“원래 검은 숲에 서식하던 녀석들이 있기는 하지.”

늑대가 다시 눈을 감았다.

“어쩔 수 없었어.”

“…….”

지오는 그간 왜 자신의 액자 너머로 ‘멸망한 아빌라스 우림’의 생물들이 쳐들어왔는지 알 것 같았다. 이곳의 세 종족이 자신들을 지키고자 기존에 서식하던 동물들을 전부 내쫓거나 죽여버린 탓이다.

‘쫓겨나거나 도망친 동물들이 어쩌다 한 번씩 나의 오두막으로 와버렸던 건가. 그러면 검은 숲의 짐승치고도 지나치게 광란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도 설명이 돼.’

집을 빼앗긴 데다 쫓겨나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고, 저 위에는 가짜 태양이 떠 있어 생물을 낡고 피폐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런 곳에서 빌빌거리다 액자를 찾아 넘어온 짐승들의 상태가 좋으면 이상한 일이었다.

“…음….”

그래도 고통 없이 한 방에 보내줬으니 됐겠지.

‘그게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다, 가엾은 짐승들아.’

순간 온순한 서지오와 지오반니의 감성이 치밀어 올라 ‘어? 그럼 나는 집도 뺏기고 위험한 길거리를 전전하다 겨우 평화로운 곳을 찾아온 녀석들을 잡아먹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어쩌겠는가 이미 먹은 것을.

‘그리고 이미 검은 숲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 미안할 게 무어야.’

게다가 당시 지오의 집에 쳐들어온 짐승들은 죄다 미쳐서 회복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지오가 정성을 들여 보살핀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

‘굳이?’

그들은 지오의 가족도 친구도 아니었다.

“…하하.”

“…왜 웃지?”

“변명을 하는 중이라.”

“갑자기…?”

이렇게 주절주절 속으로 떠드는 것부터가 찔리고 미안한 부분이 크기 때문이었다. 아르지오는 ‘내 알 바인가?’ 싶었지만, 동시에 ‘아 불쌍하긴 한데’라는 생각이 들고 말았다.

‘이 간극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려나.’

부디 앞으로 모시게 될 ‘지오’들이 원만하게 잘 합의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

다만.

‘그럼 나를 부른 건 대체 누구였을까?’

둘 중 하나였다. 이제는 언어의 권능을 공평하게 나눠 가진 짐승 중 하나가 그를 불렀든지, 아니면 멸종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수가 줄었으나 극히 소수가 남았든지.

“…뭐, 그래. 자네는 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없나?”

“…….”

“침묵 또한 현명한 답변이지.”

고개를 끄덕이던 지오가 “아” 하고 늑대를 돌아보았다.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뭐냐.”

“사슴을 본 적이 있나?”

“...사슴?”

늑대가 눈을 깜박였다.

“최소한 나는 본 적이 없다.”

“짐승의 울음소리만을 내는 평범한 사슴이었다만.”

“그렇다면 더더욱 모르겠어, 사슴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진작 멸종한 녀석들이라. 나는 이 검은 숲의 사슴을 제외하면 본 적조차 없다.”

“자네와 다른 종족 중 언어를 쓰지 않는 녀석도 있나?”

잠시 고민하던 늑대가 대답했다.

“...없지는 않지? 언어라는 것은 결국 학습의 결과물이니,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종족의 짐승이더라도 지능만 높을 뿐 그 언어를 배우지는 못할 테니까.”

“어린 짐승들은 언어를 쓰지 못하겠군.”

“그건 인간의 새끼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늑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제 먹을 것을 주어라. 고작 옛날이야기나 읊은 내가 큰 것을 요구할 주제는 못 되지만. 우리 아이들도 함께 먹을 것이니 값을 후하게 쳐주었으면 해.”

“세상에, 아이가 있어?”

“왜 좋아하는 건지는 모르겠다만... 그야 당연하지, 새끼를 치지 못하면 우리 종족도 유지할 수 없다. 비록 이런 환경이라 독으로부터 새끼를 지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번식은 종족의 중요한 의무다.”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좋네, 친구. 이렇게 보아도 내가 손이 참 커. 자네가 설마설마하던 소년 가장이라니 참으로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군....”

“누구 마음대로 소년 가장이라는 거냐!”

“그래서 몇 살이지?”

“.......”

늑대가 조그마하게 말했다.

“...7살....”

“세상에!”

지오는 감격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23)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23)"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24)

224

제224화

“지오 씨?”

산칼루트를 목에 두른 채로 지오를 맞이한 주현이 고개를 기울였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당분간은 휴식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따로 일정을 잡은 것은 없는데, 혹시 오두막에만 있기가 지루하시다든가?”

“제가 죽을 때까지도 오두막에 있는 걸 지루해할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어쩐 일로 저희 집에 방문하셨나요? 보통 이렇게 오기 전에는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런 것도 없고.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라도?”

“개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아아뇨…?”

갑자기 개?

“개요?”

“귀여운 강아지인데.”

“잠깐.”

불길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귀여운 강아지들을 찾았는데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싶어서.”

“옆에 부모가 있다면 부모 개가 알아서 키워줄 겁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더군요.”

“이 마귀할멈이 기어코….”

“제가 잘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싫습니다.”

“아니, 지오 씨.”

주현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지오 씨를 상대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이상하다는 건 알지만… 부모가 옆에 있는 어린 동물은 함부로 건드리거나 하면 안 돼요. 대체 어디서 강아지를 봤길래 그러시나요?”

“멸망한 아빌라스 우림에서 보았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나 아르지오의 고향, 일명 검은 숲이라 불리던 마굴이죠. 좋은 기회가 와서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강아지를 보셨다고요? 강아지가 맞아요? 제가 지오 씨에게 그곳의 위험성과 악명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평범한 새끼강아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

“지오 씨?”

턱을 짚은 초상화가 이내 당당하게 말했다.

“귀여운 것을 귀여워하는 건 죄가 아니지요?”

“…그야 그렇겠죠?”

“배고픈 짐승에게 밥을 주는 것도, 죄는 아니겠지요?”

“…어쩌면요…?”

“그럼 저는 무고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고 무고를 외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참.”

기어코 초상화의 머리카락이 붉게 물들었다.

“귀여운 사실을 공유하러 왔는데 이렇게 쌀쌀맞아도 되는 건가? 상처를 받겠어.”

“어쩜 이렇게 날이 갈수록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실력이 늘어나시는 걸까요.”

액자의 가운데를 크게 덧그린 검은 물감 탓에 시선이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막 밀고 나가기에 적합한 아르지오로 변신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상황의 억지성을 알 수 있었다.

“정확히 뭘 하고 싶으신 건가요?”

“친애하는 주현 씨,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 걱정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끙 앓으며 망설이던 주현이 이어 물었다.

“…세계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신 건 아니겠지요?”

“오, 세상에. 무슨 그런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까?”

“너무 작위적인 반응이라 역으로 더 불안해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는 아주 즐거운 정보를 공유하러 온 것뿐입니다.”

“새끼 강아지를 찾았다는 사실이요?”

“그래, 이제 7살이 된 소년 가장을 필두로 한 깜찍한 가족들이지.”

아르지오가 선언했다.

“내 자식들이기도 합니다.”

“…허니의 경우일까요, 다나의 경우일까요?”

“굳이 따진다면 다나겠지만 그들이 먼저 나를 아버지라 했으니 그보다 더 긴밀한 관계가 아닐까? 우리는 역사가 증명해 주는 가족이라서.”

“순진한 7살 소년 가장에게 무슨 사기를 치시려는 겁니까.”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일이야.”

“누구의 피와 살이 되는 일이죠?”

이내 침묵이 찾아왔다.

“…….”

“…….”

두 눈을 가늘게 뜨고 초상화를 응시하던 주현이 물었다.

“그놈의 마왕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습니까?”

“어쩌면?”

“살살 하세요.”

말은 이렇게 해도 주현은 지오가 세상에 고통과 분노를 내릴 사악한 신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름만 악신이지 인생 업적 중 가장 사악한 행동이 ‘체할 때까지 밥 먹이기’ 정도일 마귀할멈인 것이다.

“나중에 제게 소개해 주실 수 있다면 자리 마련을 부탁드리고요.”

결국 주현은 순순히 이 상황을 수용했다.

“지오 씨나 그… 소년 가장? 에게 부담이 된다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단지 벌써부터 지오 씨의 큰 애정을 받고 있는 존재와 친분을 쌓아두면 매니저로서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친해지면 양해를 구해보도록 하겠네.”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투박하고 무심할지언정 불러일으키는 바람까지 그러진 않았다. 지금만 해도 부자고 빈민이고 검은망토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선행을 하고 있지 않던가.

‘결국 나쁜 일이 되지는 않겠지.’

주현은 제 미련한 친구인 지오를 믿었다.

“최근에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 시간 날 때 찾아와 주세요. 그 소년 가장이라는 7살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도 알려 주신다면 해둘게요. 매번 받아먹기만 한 게 미안했거든요.”

“주현 씨께서 직접 대접해 주는 식사라니 너무 기대가 되는군.”

작게 웃은 아르지오의 머리칼이 이내 검게 물들었다.

“그럼 시간이 되면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

이내 초상화가 사라진다.

“…흠, 강아지라.”

갯과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더라?

* * *

“이보게, 친구! 내가 왔네!”

“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던 늑대가 부드럽게 흔들며 다가왔다.

“지난번에 준 것들은 고마워. 양념이 된 햄이랑 육포들은 새끼들에게 내어줄 수 없었지만, 어린 것들의 전용으로 내어준 고깃덩어리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

“남아도는 고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는데 나야말로 큰 도움이 되었다. 요리하는 사람은 말이야, 내 창고가 언제나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면 하는 법이거든.”

“네 말로는 황금걸음양의 고기라고 했는데….”

늑대는 놀라워했다.

“오염되어 있지 않아서 다들 좋아했지.”

늑대족을 비롯한 여러 종족은 가능한 독을 피하고 중화하려는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 있었지만, 그들을 제외한 생물들은 검은 숲에서 퍼져 나왔다고 알려진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 여파는 여러 생물의 식사까지 위협했다. 늑대족이 동물들을 사냥해 먹고 싶어도 검은 숲의 짐승들은 대단히 흉포한데다 그 살까지 독에 절어 있었다.

나름 내성이 생긴 어른들이야 버틸 만하다 해도 아직 어린 새끼들은 논외였다.

“사냥하는 족족 위험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평소 주는 것은 어찌 조리했나?”

“독이 강하게 있는 부분은 보통 사냥감의 피라, 우리가 씹어 핏물을 어느 정도 뺀 고기를 새끼들에게 넘겨주고는 했다. 도구나 풀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었어. 우리는 여우나 까마귀들처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쪽은 아니라서.”

“그거참 피곤했겠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늑대족이 지금까지 존속되어 올 수 없었을 거다. 족장이셨던 어머니께서 자연으로 돌아가신 지 이제 7년째이니 더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역시 소년 가장….”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래도…! 늑대족은 2살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을 받는다, 수명이 일반 늑대들에 비해 길다 해도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이 빨라! 애가 아니란 말이다!”

“그 어린 나이에 종족을 이끌면서도 이렇게 의젓할 수가.”

“크르르르… 컹! 컹컹!!”

기어이 짖는 소리까지 나오고서야 아르지오가 놀림을 멈췄다.

“실례했네, 자네의 반응을 보면 괜한 심술이 들어서.”

“성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단 말이지….”

“굳이 따진다면 나쁜 편이 아닐까 하는데?”

일단 악신이기는 하니까.

“오늘도 자네의 마을에 방문해도 되겠는가?”

“…이미 한번 봤으니 알겠지만 늑대들이 너를 아주 환영하지는 않을 거다.”

“잘 알고 있지, 나도 이해하네.”

“그래, 이해해 줘. 이런 시대에 인간의 형상을 한 생물이 다가오니 다들 놀라서 그러는 것뿐이니까. 하도 인간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크다 보니….”

“인간의 한심함은 충분히 인정하는 바일세.”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무엇보다 아이들이 나를 아주 좋아하지 않던가? 지난번 방문에 이어 다시 얼굴을 보이겠다고 그 어린 것들과 약속했는데, 부디 나를 매정하고 비열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 주게.”

“아니, 이미 허락했지 않나. 곤란한 소리 하지 마.”

늑대는 커다란 몸을 움직여 ‘마을’로 이동했다.

그들은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거대한 땅굴을 파 그 안에서 생활했다. 온갖 것이 독에 절어 있는 이 숲에서 새끼들까지 데리고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아무것도 없는 공터를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굴을 파는 건 정말 힘들었을 텐데, 굉장하더군.”

“뭐어… 확실히 여우족만큼 굴을 파는 데에 재능이 있지는 않다. 몸집도 여우족에 비할 바 없이 크니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을 거야. 선조들께 감사할 일이지.”

“그러고 보니 까마귀족은 어떤 식으로 보금자리를 만들지? 그들은 땅 아래를 파고들 수 없을 텐데?”

“내가 알기로는 가능한 한 높은 나무 위에 올라 터전을 지었다고 하더군. 최대한 독을 빼낸 나뭇가지들을 엮어서… 음, 우리나 여우들처럼 다 같이 어우러져 생활하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편한 점도 있겠지.”

“뭉쳐 지내지 않는 건가.”

“대부분의 새들은 그렇지 않나? 여우족도 뭉쳐 살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아.”

인간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지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해도 기본적인 동물의 습성과 기질은 남아 있는 듯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까지 따로따로 살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뭉치는 편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지만,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한꺼번에 몰살당할 위험은 확실히 더 줄어들겠지. 어느 쪽이든 장단점은 있을 거다.’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자니 곧 늑대들의 땅굴에 도착했다.

“크흠.”

목을 가다듬은 늑대가 입구 앞에서 목을 쭉 빼고 울었다.

“아우우우우우우우―!!!”

“아우우우…!”

“아우우우우우우!!”

‘가족’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동시에 내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겠지.’

늑대들은 굉장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의 신원을 알고 있음에도 굳이 이렇게까지 소통하는 것은 ‘괜찮아, 안전해, 내가 보장할게’라고 말하며 가족들을 다독이는 것이 분명했다.

‘그것과 별개로 정말 가족의 신원을 속이고 접근하려는 짐승들도 있을 것이고….’

종종 여우족에서 장난치듯이 늑대족의 일원인 척 접근하거나 혹은 식량을 빼돌린 적도 있으며, 이 검은 숲에는 어느 대

상의 형상과 목소리를 따라 하는 능력의 짐승도 있었다.

'철저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건가.'

험난한 세상이니 말이다.

"자, 들어가지."

"고맙군."

족장의 안내를 받아 거대한 동공으로 들어서자, 역시나 늑대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

"…크르르…."

"…낑…."

경계하는 자도 있었고, 겁에 질린 자도 있었다.

'공통점을 찾자면….'

늑대들은 하나같이 아르지오를 두려워했다.

"……."

빙글 웃으며 그는 제가 두른 검은색 망토의 끝자락을 잡고 가볍게 휘둘렀다. 미리 준비해 둔 오늘치 뇌물을 바쳐 이쪽에서 해칠 의사가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자리에는 금세 거대한 고기 언덕이 쌓였다.

"왕! 왕왕!"

"끼이이잉… 크흥!"

"끄응! 컹!"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새끼 늑대들이었다.

"애들아, 잠시만…."

"그렇게 막 다가가면 안 된다니까!"

아직 언어조차 배우지 못한 새끼들은 제 부모와 친척들이 어째서 아르지오를 두려워하는 건지 몰랐다.

난생처음 보는 형태의 동물이었지만 그들은 여우족도 까마귀족도 보지 못한 어린아이들. 생김새의 차이는 그들을 꺼리게 만들 수 없었다.

"꾸으으응…."

"세상에, 이렇게 귀여울 수가."

지오는 가까이 다가와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새끼 늑대들의 순수하고 깜찍한 모습에 감동했다. 무시무시한 집착의 인어들과 척박하게 변한 인심의 현대 사회로 고통받았던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이었다.

그 모습에 늑대들이 주춤거리자 족장이 입을 열었다.

"내 손님이다, 안전은 내가 보장해. 손님을 불편하게 만들지 마라."

우두머리의 단호한 음성. 그에 제 새끼의 목덜미를 물고 있던 어미와 아비들이 하나둘 제 자식을 땅에 내려두었다.

이런 세상에 독이 없는 멀쩡한 고기를 얻기란 참 힘든 일이어서, 그들도 가능하면 '손님'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다.

"……."

“…끙….”

머뭇거리는 늑대들 사이로 족장의 친구인 이가 몸을 드러냈다.

“손님을 환영해요, 불쾌하셨다면 사과할게요.”

“음, 그럴 리가. 나는 충분히 환대받고 있다고 생각했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쁩니다.”

35살이라는 나이에도 꽤 건장한 늑대는 어린 친구인 족장을 지지하는 장로이기도 한 듯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다가와 이빨을 씩 드러내 웃으며 친근한 어조로 물었다.

“오늘은 이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미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초상화가 웃었다.

“지오라고 불러주게.”

이곳에서 ‘지오’란 곧 ‘짐승’을 이르는 단어였다.

아르카가 곤란하다는 듯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타박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야 그녀의 입장에서는 멀쩡한 이름을 두고 어설픈 가명을 쓰는 것 같았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건 이름이 아니잖아요….”

“왜, 그럴 수도 있지.”

정말로 그는 이름이 없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25)

225

제225화

시간이 제법 지났다.

늑대들은 금방 경계하고, 금방 풀어졌다가, 또 금방 무서워하기를 반복했다.

"다들 겁쟁이가 된 탓입니다."

족장의 친구, 아르카는 그렇게 말하며 미안함을 표했다.

"죄송해요, 친구. 10년 전까지만 해도 늑대들이 이토록 겁쟁이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쇠약해지며 정신도 함께 낡아 가더군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런 환경인데 어떻게 처음과 같을 수 있겠나. 모든 것이 같아도 변하는 것이 생물일진데 지금의 세상은 살아 있는 모든 이에게 너무나 가혹하지. 고생이 많겠군."

"알아주어서 기쁩니다."

아르카가 한숨을 내쉬자 족장, 가르갈이 다가왔다.

"손님한테 너무 안 좋은 소리만 하지 마."

"네가 나의 잡담을 들어주지 않으니 손님이라도 붙잡고 떠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니."

"우리 늑대족 체면이 있는데...."

"가르갈, 체면은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지 않는단다."

"끄으응...."

가르갈의 앓는 소리는 '끼유웅'과 '크으응'의 사이처럼 들렸다. 늑대족에게 나이는 그리 가치 있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에서도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던데, 그럼에도 7살이 35살이나 되는 연륜을 이기긴 힘든 듯했다.

아르지오는 마음이 따듯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분은 정말 사이가 좋으시군요."

"너는 종종 그런... 그런 말투를 쓰는군."

"안 어울렸나?"

"너무 어울려서 털이 솟아."

인간으로 친다면 '소름 돋아' 정도일까. 지오가 웃었다.

"자네의 털은 여즉 멀쩡하다네."

"말이 그렇다는 거다."

다시 한번 앓는 소리를 낸 늑대 족장은 제 몸집에 비하면 한참은 자그마한 지오의 곁에 조용히 엎드렸다. 잠든 새끼들을 배려한 것 같았다.

덩치가 어마어마한데도 소리 하나 나지 않는 걸 보면 그가 왜 7살이라는 나이에 족장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언제나 자네는 소리가 없군."

"참 칭찬이 헤퍼."

"자네만큼 조용하고 빠른 늑대는 없으니 그러는 거네."

"내가 왜 족장이겠나, 그럼."

"알면서도 한번 말해본 것이지."

"또 이상한 말을…."

가르갈은 그렇게 웅얼거리고는 눈을 지그시 감았고, 지오는 얼마 되지도 않았건만 익숙하게 가르갈의 이마를 쓰다듬고 턱을 긁어주었다. 제법 시원한 것인지 가르갈의 얼굴이 늘어지게 풀렸다.

"음, 좋아. 아주 좋군… 귀 아래도 부탁해. 어우, 거기 좋다."

"요구 사항이 많은 고객님이야."

아르지오는 괜히 구박 한번 하고서는 계속 그를 긁어주었다. 아르카는 그런 가르갈을 웃음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서는 저 역시 지오의 곁에 엎드렸다.

저도 긁어달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두 녀석의 모습이 꽤 재밌는 눈치였다.

"인간이 그렇게 털가죽을 잘 긁어 준다더니, 정말이었네."

"인간은 모든 짐승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그런 말을 할 때면…."

아르카가 속삭이듯 말했다.

"네가 인간 같지가 않아."

"그래, 그럼 무엇으로 보이나?"

"인간을 흉내 내는 무언가."

"그럴 수도 있어."

"계속 그런 말을 하네."

"나는 늘 모든 다양성을 받아들이니까."

좋게 말하자면 편견이 없고, 나쁘게 말하자면 줏대가 없었다.

초상화로 진화한 이상 '평범한 인간'이라는 타이틀은 물 건너간 지 오래였으나 최소한 지오 본인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여길 정도로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다.

"뭐든 좋아."

보고 싶은 대로 봐주면 그만이었다.

"우리는 늘 우리만의 세상에 갇혀 살지 않던가?"

“어렵고 모호한 말을 좋아하는 것도 딱히 인간 같지는 않고.”

“그럼 인간이 아닌가 보군.”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아도 좋았다.

“…….”

“나는 자네들을 존중해.”

지오는 그 자신을 딱 잘라 하나로 정의할 생각이 없었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었다. 뭐든 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자신이 왜 하나의 이미지에 갇혀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건 별로 재밌지 않을 것이다.

* * *

소문을 듣고 여우가 찾아왔다.

“혹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주실 생각이 없으신지!”

“아니 이런 반응은 또 놀라운데.”

지오가 감탄했다.

“이곳의 여우도 인간으로 둔갑할 줄을 아나?”

“아, 부족하나마 저희가 가장 잘하는 마법입니다. 과거에 선조들께서 인간들과 전쟁을 벌일 때 쏠쏠하게 써먹었다는 기술인데 그게 유전이 되었나 봐요, 하하!”

“그런데 왜 하필 인간으로 둔갑해서 찾아온 거지?”

“그야 물론 호감을 사기 위해서죠! 생물은 서로 같은 형상을 취했을 때 가장 빠르게 마음을 여니까요. 종종 예외가 생기긴 하지만 생물의 유구하고 보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죠.”

“아하,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했을 때 떠올랐던 음흉한 이미지와 달리, 그를 찾아온 여우족 족장이라는 자는 대단히 명쾌하고 시원시원했다. 아르지오가 그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사기꾼처럼 느껴질 수 있다니 어떤 의미로는 대단하군.’

샐쭉 찢어진 인상 때문일까? 아니면 저 얄팍한 미소 때문일까. 인상도 한몫을 했겠지만 느껴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은 음흉하고 매우 많이 의심스러웠다.

그런 부분이 흥미로운 거지만.

“그래서 인간의 흉내를 내며 나를 찾아왔나?”

“초면에 대단히 무례한 이야기겠지만 배가 텅텅 빈 건 저희 여우족도 마찬가지라서요!”

인간 여성으로 둔갑한 여우족 족장의 얼굴이 이내 흐려졌다.

“그리고 성년조차 되지 못한 새끼는 늑대족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내성이 생긴 어른들은 뭘 먹어도 죽지는 않겠지만 아직 새끼들은 면역력이 많이 약해요. 어미의 체내에서 독에 대한 최소한의 내성은 갖췄지만…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을 정도로만 도와줄 정도고요.”

“저런, 슬픈 이야기군.”

“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동정을 받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무엇보다 여우족은 늑대족만큼 튼튼하지 않습니다. 까마귀들처럼 무언가를 연구해서 독을 중화시키지도 못해요.”

여우족 족장이 쩔쩔매며 웃었다.

“여우족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적당한 때에 적당한 독을 먹여 강제로 내성을 쌓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적당한 때’조차 되지 못해 죽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이대로면 여우족도… 멸족의 길을 걸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흠, 새끼 여우는 참으로 깜찍하지. 자네들의 귀여운 아이들을 보고 싶은데 나를 초대해 주겠나? 족장의 이름으로 내가 방문한다면 여우들의 불안감도 한결 가시리라 생각하는데.”

“아, 물론입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손바닥을 비비는 스킬이 굉장했다.

“…….”

떨리고 있지만.

“이보게, 가르갈.”

“…이 상황에 내가 끼어들 주제가 될까 싶은데.”

“추가적인 의견을 구하고 싶은 것뿐이야.”

“그래, 듣겠다.”

“내가 이곳에서 더 많은 친구를 사귀어도 될 거라고 생각하나?”

“…그건….”

늑대족의 족장인 가르갈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웃고 있는 새빨간 인간과 그의 시야가 닿지 않는 순간마다 하얗게 질린 채 숨죽여 떨고 있는 여우족 족장을 보았다. 앙숙의 저런 반응은 처음 보았다.

‘하지만 이해는 가.’

가르갈이 새빨간 인간의 등을 코로 툭 밀었다.

“…도와줘.”

“오, 그래도 괜찮겠어?”

“어차피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었다. 우리가 기껏해야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곤 가능한 한 덜 고통스럽게 죽을 방법과… 최대한 따듯하고 포근한 무덤을 찾는 것뿐이었지.”

7살, 결코 많지는 않은 나이라지만, 가르갈은 늑대 중 가장 강하고 판단력이 좋기에 수장이 될 수 있었다. 어설프게 굴 때도 많았지만 ‘겁쟁이’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지오’의 앞에서 겁쟁이처럼 꼬리를 말 때가 많았다.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 결코 아니지만 그들도 어쩔 수가 없었다. 미래는 어두웠고 내밀어진 손은 붉더라도 상냥했다.

“우리는 미래를 바란다.”

늑대는 가족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었다.

“미래가 있어야 선택할 수 있어. 최소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이렇게 겁쟁이처럼 죽어가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

“그래서.”

아르지오가 웃었다.

“악신의 손을 잡겠다?”

이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갈수록 이상한 것투성이였겠지.’

멸종되었다고 알려진 역사 속 생물인 인간이 비단과 금은보화에 둘러싸여 저 혼자 툭 등장한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일

이었다.

게다가 그는 첫 만남부터 세계의 역사를 듣고자 했고, 그가 흥미를 보인 부분은 '악신'과 관련된 것들뿐이었다. 외형에 대한 정보가 전승 과정에서 소실되었다고 해도 그들을 겁먹게 만들 부분은 얼마든지 있었다.

'예전에 차아라 학생이 그랬던 것처럼, 다들 초상화인 나는 무서워하기도 했고.'

차원이 다른 격이 느껴진다고 하던가?

'이 차원에 더는 존재하지 못할 독 없는 고기를 그렇게 산처럼 쌓아댔으니.'

최소한 다른 차원을 넘나들 수 있고, 한때의 역사 속 존재일 가능성이 크며, 격 하나만으로도 강인한 늑대족의 꼬리를 말게 만드는 강자. 피 냄새가 줄줄 흐르는 사악한 신성.

"……."

"……."

최대 역사 속의 '악신', 최소 그에 준하는 존재였다.

"나를 많이 무서워하던데?"

"…그건 사실이지."

늑대의 눈에 애써 공포를 숨기고 있는 여우족 족장, 라미가 보였다. 나약한 만큼 오히려 그 어떤 종족보다도 잔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녀석이지만 기어이 족장의 몸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건가.'

짐승들 사이의 분쟁도 10년 사이에 거의 없어졌다. 그들끼리 싸워대느라 갓 태어난 새끼들을 보호하고 키워낼 여력이 없어지면 곤란했기 때문이었다.

가뜩이나 언제 멸족될지 몰라 초조해하던 건 여우족이 특히 심했다.

그런 와중에 등장한 '인간'이라.

"아직도 무섭다, 하지만…."

"하지만?"

어르고 달래는 듯한 자애로운 음성에 기어코 족장으로서 그는 결정을 내렸다.

"너는 우리를 친구로 대했다."

늑대는 가족을 저버리지 않고, 친구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니 조금만 더 도와줄 수는 없겠나?"

"흐음…."

"늑대족 혼자 살아남는 것은 아무 의미도 될 수 없다. 저 재수 없는 여우족도, 고고한 까마귀족도 함께 살아남아야 그 긴 시간을 버틴 의미가 있겠지."

"말을 제법 곱게 하는군."

"시, 싫으면 말든가!!"

"아하하!"

지오는 늑대의 얼굴을 복복 쓰다듬었다. 기특하고 귀여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역시 자네는 겁쟁이가 맞아!"

이 나약한 인간이 뭐가 두렵다고 이러는 것이란 말인가?

“여우족의 족장이여, 자네를 내가 무어라 부르면 좋겠나?”

“라, 라미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가명이 아니에요, 진짜 제 이름이죠. 기회를 주신다면 당신의 마음에 들도록 저희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 쉽게 맹세를 뜯어가지 않으니 안심하게.”

지오는 꽤 젠틀한 악신이었다.

‘나의 악명이 이렇게까지 퍼져 있다니 조금 기쁘군.’

그는 악신으로서의 자신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랑했다. 제 피와 적의 피로 이뤄낸 피의 강은 사악한 신성으로서 마땅히 반겨야 할 것이며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조금은 곤란해질 미래를 모른 채로 지오는 흐뭇하게 웃었다.

“역사의 뒤안길로 잊히나 싶었는데, 다들 나를 알고 있어서 좋은 마음이야.”

“취향이 좀 특이한데….”

“가르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더 크게 하게나.”

“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내 친구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겠지?”

아르지오가 여우족 족장, 라미를 다시 돌아보았다.

“길을 안내하게.”

“아….”

“원하는 도움을 주지.”

그에 대해 지오가 바라는 건 단 하나였다.

“그리고 나와 친구가 되자.”

즐겁게 살자고.

* * *

혼자 남겨진 가르갈에게 푸드덕,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왔다.

“그게 자네의 결정인가?”

“발프 어르신.”

까마귀 족장, 발프였다.

“그에게서 아주 짙은 피 냄새가 났네. 그는 자비를 즐거움으로 베풀고, 적을 향해 내어줄 마음 한 조각 없어. 그가 진정 ‘지워진 분노’라 한다면… 우리를 향하는 감정도 썩 좋지만은 않을 걸세.”

“…….”

“‘지워진 분노’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야. 저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을 흉내 내는 거대한 자연이고 분노이며 고통이지. 그러면서도 거짓말을 쉽게도 하더군, 순명이 아닌 사악한 반역자라는 의미다. 그래도 괜찮겠는가?”

“저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군….”

발프는 안타까워했다.

“그가 친구와 노예를 구분할 수 있을 거라 보나?”

어릴 적부터 크고 작은 도움을 주었던 어른의 말에 가르갈이 눈을 길게 깜박였다. 그라고 인간을 흉내 내는 화려하고 피비린내 나는 무언가가 두렵지 않을 리가 없었다.

'차라리 귀신이었다면 마음이 편했겠지.'

하지만 그에게선 분명히 뜨거운 피가 흘렀고, 뛰는 심장이 느껴졌으며, 심지어는 맛을 느낄 혀와 채워질 위장까지도 있었다. 그 살아 있는 자만의 특권 앞에서 가르갈은 나약해졌다.

결국 가르갈은 새빨간 무언가의 존재를 긍정했다.

"저희의 새끼들에게 가호를 내려 주었습니다."

"사악한 가호일지도 몰라."

"무엇보다, 햇볕의 냄새가 났어요."

"…햇볕?"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었죠."

가르갈이 눈을 지그시 감았다.

"따듯하고, 물렁하고, 푹신한…."

아직도 생생하게 맡아진다.

"…삼켜버리고 싶을 정도로 안심이 되는 냄새였습니다."

"늑대들은 참 미련할 정도로 직관적이란 말이지."

까마귀가 푹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의 뜻을 알겠네."

"가십니까?"

"더 살펴보아야지, 우리도 우리만의 미래를 받으려면."

"조심히 가십시오."

"자네도 살펴 가게."

푸드덕—!

까마귀가 날아올랐다.

"……."

가르갈은 여우족이 있을 방향을 응시했다.

"…뭐든 지금보다 낫겠지."

죽음뿐인 세상보다야, 아무렴 고통과 분노가 나았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25)"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26)

226

제226화

“환영합니다!!”

파앙—!

꽃가루가 터지며 지오를 반겼다.

“귀한 손님께서 편히 머무르실 수 있도록 굴을 깨끗하게 정리해 두었어요.”

“혹여 오시느라 피곤하지는 않으셨나요? 부채질해 줄 아이들을 준비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부디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여우족 족장 라미가 인간으로 둔갑한 채 ‘손님’을 반기는 제 동족들을 보다가 슬쩍 지오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는 역시나 손을 싹싹 비비며 샐쭉한 얼굴로 웃었다.

“편하게 둘러보실 수 있도록 이미 저희의 굴을 단장하고 있었답니다. 보고 싶으신 만큼 얼마든지 둘러보셔도 좋아요. 감히 저희가 식사 대접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최소한의 봉사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오, 그렇군요.”

지오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늑대족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후후, 늑대족은 보금자리를 꾸미는 것에는 영 관심이 없거든요. 무엇보다 늑대들은 몸도 정신도 강인해서 동굴 하나 달랑 만들어 놓으면 생활하는 데 아무 문제도 없지만, 저희 여우족은 참으로 연약하답니다.”

라미가 짐짓 슬픈 표정을 지었다.

“저희는 푹신한 침대가 없으면 몸이 망가지고, 보금자리가 환하지 않으면 쉽게 우울해지고는 해요. 해서 가능한 만큼 저희의 굴을 꾸며두고는 하죠.”

“흥미로운 이야기야. 그렇다면 까마귀족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종족 중 가장 몸집이 작은 덕분인지 보금자리 역시 작아요. 자연에서 구해 온 갖은 나뭇가지와 나뭇잎, 진흙, 그리고 자신들의 깃털을 이용해 알처럼 둥근 둥지를 짓고는 해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집이라고나 할까.

“물론 그만큼 쉽게 무너지고 망가지지만, 그렇기에 까마귀들은 이 숲의 모든 나무를 자신의 집으로 삼아 잦은 이사를 거치고는 한답니다.”

“숲 전체가 집이라고 봐도 무방하겠군?”

“그들은 이 숲을 그린 가장 이상적인 지도 역시 제작해 두고 있어요. 저희는 위험해서 잘 가지 못하는 장소도 날 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해 탐사하고는 하니까요.”

“그런가….”

확실히 여우굴은 우중충한 늑대족의 동공과는 느낌이 아예 달랐다. 세상이 멸망했을 텐데 대체 어디서 가져왔는지 온갖 금은보화가 가득했고, 구역 역시 깔끔하고 밝은 분위기로 정돈되어 있었다.

“식물도 키우고.”

“아, 그것은….”

라미가 곳곳에 배치된 식물들을 보며 웃었다.

“호흡을 도와주는 정화 식물들입니다. 비록 까마귀족만큼 대단한 장치를 만들어 내지는 못하지만, 여우족 역시 머리 굴리는 실력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라서.”

“이게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 것치고 라미 씨는 아무런 장치도 없이 저를 만나러 검은 숲을 가로질러 오신 걸로 아는데.”

“저는 족장이니까요! 가장 강하고 영리한 여우가 앉을 수 있는 자리죠. 물론 저만 검은 숲의 독을 견디는 것은 아니랍니다. 주로 바깥에서 활동하며 사냥이나 채집을 해 오는 이들이 따로 있어요.”

“흐음.”

지오는 저를 웃는 얼굴로 지켜보는 여우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직은 무서운지 조금 창백한 얼굴에 미소도 약간은 떨리고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느껴졌다.

“여우들은 본디 이렇게 둔갑에 뛰어난 건가?”

“둔갑술에 특화되어 있다는 건 저희 여우족의 큰 장점이죠!”

“그렇군!”

억지로 만들어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지오는 내심 생각했다.

‘귀엽네.’

그리고 부담스러웠다.

아르지오야 자신을 어떻게 본다고 해도 ‘내 알 바냐’를 시전하겠지만 서지오나 지오반니로서의 특성은 ‘이건 아닌 듯’을 외쳤다. 모순적인 감정을 동시에 즐기며 그는 턱을 쓸었다.

“여기 있는 건 전부 어른들인가?”

“예, 맞습니다. 미숙한 아이들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 치워 두었어요.”

“저런, 나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을 텐데.”

“…….”

“다정하구나.”

기특함에 칭찬을 건네니 라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혹여 눈앞의 존재가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할까 봐 일부러 ‘쓸모없다’라는 이유를 핑계로 어린 자식들을 숨겨둔 것이 분명했다.

지오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정말 귀엽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솔직히 좀… 난감하기도 해서.'

이놈의 지오라는 놈들은 하나같이 '일단 지르고 보자'라는 인식이 강했다. 최악과 최상을 가정한 뒤 적당한 때에 밀고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주특기였으니 말이다.

문제는 이들의 반응이었다. 늑대족은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최소한 미안하진 않았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나를 너무 무서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위를 맞추려고 두 손 두 발 모아 싹싹 빌고 있었다. 자비를 구하는 그 필사적인 몸짓은 순도 100% 아르지오가 아닌 지오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지금 보이는 성의의 5%만 보여도 그는 '같은 공간에서 숨 쉬었으면 우리 이제 친구지?'라며 양심 없이 밀고 나갈 생각이었다만…,

"……."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야 나랑 친구 할래?'라고 해봤자 '예 충실한 발닦개가 될 테니 살려만 주십쇼!'라는 답변이 돌아올 게 뻔했다. 지오는 펜팔 친구 제의를 마음속 깊은 곳에 잠시 묻어두기로 했다.

이런 불편한 호의는 지오에게 대단히 애매한 개념이었다. 호의를 건네는 상대의 입장도 불쌍하고, 고마운 마음에 보답해주고 싶어도 그걸 반기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이럴 땐 보통 어떻게 해야 하더라…?'

지오로서는 드물게 버벅거렸다.

"……."

"……."

봐라, 저에게는 어색하고 저들에겐 공포스러울 이 싸늘한 침묵을.

늑대들처럼 정면에서 부딪혀 오거나 까마귀족처럼 은밀하게 살피는 것도 아닌, 바란 적도 없는 복종의 자세를 취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단 말인가.

"흐음."

악신으로서 해온 것이라곤 화풀이밖에 없었던 아르지오는 고민했다.

"그래, 일단…."

지오는 일단 밥부터 먹여보기로 했다.

"배가 고프다고 했지?"

"…아, 네! 부디 저희를 가엾게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주실 수는 없을까요? 당신이 바라시는 모든 것을 들어드릴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늑대들은 독이 없는 고기면 족하다고 했는데."

"! 저희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분할 정도죠!"

검은 숲에서 사냥하거나 채집할 수 있는 녀석들은 전부 독이 있는 데다가 요샌 그것마저도 점차 개체 수가 줄고 있었다. 혹은 여우족으로서는 결코 사냥하지 못할 수준의 괴물들뿐이고 말이다.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미 선물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걱정하지 말게."

하지만 주기만 하는 것은 영 마음에 차지가 않았다. 당장은 힘들어 보이더라도 지오는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었고, 무엇보다 일방적으로 '하사'하는 관계란 그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었다.

'한번 찔러볼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로 편한 관계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오는 곧 바닥을 길 것처럼 구는 여우들을 달래기 위해 '거래'를 제안해 보기로 했다. 서로 주고받는 게 있으면 상대방 마음도 훨씬 편해지기 마련이니 그 점을 노린 잔수작이었다.

'마침 나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왜인지 더는 저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니, 이거 원.

'어찌 찾아오라고 이렇게 느긋하단 말인가?'

결국에 지오는 저를 부른 이를 직접 찾아야 했다. 그는 새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귀한 인재를 놓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복잡해질 수도 있는 일이나 이곳 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터….'

지오가 씩 웃으며 허리를 굽혀 여우족 족장, 라미와 시선을 맞췄다.

"자."

"……."

"그럼 어떨까."

인간 여성의 형체를 하고 있는 그녀는 지오에 비하면 체구가 꽤 작은 편이었다. 친절하게 눈을 마주한 지오가 얕게 고개를 기울였다. 그가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게끔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만 선물을 주면, 마땅히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할 터인데…."

"……."

"어찌 생각하는지?"

"…그 역시 마땅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음?"

내가 뭘 말할 줄 알고 준비를 했다는 거지?

"비록 준비한 여우들 대부분이 나이가 차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들이지만… 저, 저는 아직 7살로 족장의 위치에 있으나 아직 젊은 편에 속합니다. 살이 여리고 여우 중 가장 상태가 좋으니 분명 드시기에도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

"어어 잠깐만."

"넵…!"

"……."

아르지오는 뒤늦게 떠올렸다.

"…아."

그러고 보니 '악신'이 산 채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도 있었던가.

* * *

지오는 기어코 저와 같은 악신인 산칼루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날 돕는다면 피의 축제를 열어주겠어."

"지오 씨?"

“선지 해장국이라고 들어는 봤나?”

“…대체 왜 그걸 피의 축제라고 하는 거죠?”

“피를 넣은 소시지도 줄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까부터 단어 선택이 조금… 악신이라 그런가?”

“자네의 견해를 듣고 싶어.”

산칼루트를 경호원으로 두고 있는 주현이 함께 딸려 와 여러 태클을 걸었지만, 당장 지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나름 인생의 난관에 봉착한 상태인 것이다.

그런 지오의 모습에 빨간 뱀이 고개를 기울였다.

“무슨 일입니까?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무서워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 문제지. 그 반응을 보아하니 자네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 뻔해.”

“갑작스러운 구박은 저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나도 억울하군.”

그는 여우족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어색하게 파탄 난 분위기에 면역이 없었다.

아르지오는 여태껏 완전한 배척과 경계, 혹은 분노에 더 익숙했다. 지금처럼 저에게 호의를 보이면서도 달달 떨어대는 어린 것들을 대해본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내가 당연히 자기들을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하던데.”

“대체 ‘동물의 왕국’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니시는 건가요.…”

“정말로 나는 억울합니다, 친구.”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지만 아르지오가 실제로 사람을 먹은 적은 없었다. 늑대 가르갈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나의 악명이 이렇게 뻥튀기가 되는구나’ 하며 즐거워하기만 했지.

“설마 나는 꿀을 빨려다 천벌을 받은 것인가?”

“…….”

주현은 말없이 웃으며 목에 감겨 있던 산칼루트를 식탁 위에 내려두었다. 자신이 놓인 위치를 확인한 산칼루트가 몸을 일자로 꼿꼿이 세우며 눈을 말똥하게 뜬 채로 주현을 마주 보았다.

“기어코 나를 악신의 간식거리로 던져 버리겠다는 거군요. 나는 우리의 우정이 고작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난 내 몸이 맛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오 씨가 만든 몸이니 맛은 있을걸요. 무엇보다 지오 씨에게 식사 거리를 내어주는 의미로 산칼루트 씨를 식탁에 올린 건 아니었어요.”

산칼루트는 믿지 않았다.

“나를 바보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식탁에서 식사를 즐기죠. 그리고 지오 씨는 식사를 즐기는 신성입니다. 나는 잡아먹힐 겁니다. 오독오독 씹혀 먹힐 겁니다. 살려주세요. 나는 쓸모가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있는 곳이 식탁이라서 올려둔 것뿐이었어요. 이번에 지오 씨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 상대는 산칼루트 씨인 것 같아서요. 나는 좀 빠져달라는 의미였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먹히기 싫어요, 다시 올려주세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아니, 무슨 악신이 식탁에 올려지는 걸 무서워해….”

“여긴 지오 씨의 배 속입니다. 이것은 식탁이고요. 난 잡아먹힐 거예요. 거짓말쟁이들, 약속을 지키면 집으로 돌려보내 준다고 했는데 나를 속였습니다. 배신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나날이 어휘력이 좋아지네요.”

주현의 난감한 표정에 지오가 짐짓 훌쩍거리면서도 그의 상태를 설명했다.

“산칼루트에게는 저의 식탁이 신께 제물을 바치는 단상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식탁에는 지금껏 그 위에 놓인 것이 먹혀왔던 역사가 있으니까요.”

“역사까지 나올 일입니까, 이게? 게다가 산칼루트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제 와서 무서워한다는 건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달리 먹을 게 있었으니까. 자기보다 훨씬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한데 자신의 차례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에게도 식사를 주기도 했고요. 참석에 관한 허락의 의미이니 초대된 자신이 잡아먹힐 확률은 낮다고 판단했겠지.”

“유희를 즐기는 신성들은 지구에서 살 거면 상식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고방식이 희한해서 따라잡지를 못하겠네….”

하지만 어찌저찌 이해는 했다.

‘유성운 씨가 말한 게 이런 거였구나.’

그는 큐레이터로서 인간과 신비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몇 번이고 주의를 준 바가 있었다. 인간에게는 별 의미 없는 행동일지라도 신비에게는 어마어마한 모욕이 될 수도 있으니, 실수하지 않게 그들의 ‘규칙’을 주시하라고 말이다.

‘나도 지오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진즉 사달이 났겠어.’

주현은 조금 머쓱해져서 뱀의 머리통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는 이 아무것도 모르고 성질만 더러운 악신을 강하게 키울 의무가 있었다. 그가 달래듯 말했다.

“이번 기회에 적응을 좀 해보세요. 지오 씨는 산칼루트 씨를 절대 먹지 않을 거니까요. 정 그렇게 될 것 같다면 다시 제 목 위에 올려 드릴게요.”

“무서운 인간… 무서운 인간….”

“울 정도의 일일 줄은 몰랐는데요.”

기어이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뱀의 모습에 지오가 끼어들었다.

“악어의 눈물이죠.”

“아하.”

주현의 동정심을 자극할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딱히 화가 나지는 않았다. 그냥 지오 씨가 대체 무슨 의견을 구하고 싶은 건지 궁금할 뿐이었다.

“그동안 ‘동물의 왕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주현 씨, 나의 명예로운 친구여. 부디 내 말을 들어주세요.”

“말이 평소 이상으로 상당히 고풍스러워진 것 같지만… 네, 뭐, 일단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고향에 갔는데….”

지오의 이야기를 쭉 들은 주현의 얼굴이 기묘하게 구겨졌다.

“…….”

“왜 화가 난 거지?”

“지오 씨는 그런 누명을 쓰고도 화가 나지 않는 건가요?”

여우족의 입장은 주현 역시 이해가 됐다. 남은 거라곤 죽음뿐인 상황까지 몰린 그들이 무얼 할 수 있겠는가, 상대가 악신이더라도 절박한 마음으로 뭐든 최선을 다해야겠지.

그러니 주현을 화나게 만든 것은 ‘아르지오’를 최악의 괴물로 기록한 멸망 이전의 인간들이었다. 대체 그게 무슨 비열한 짓이란 말인가?

“주현 씨는 제가 과거에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몰라도 아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지낸 시간이 있는데요.”

그는 아르지오가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식인과 같은 짓을 벌이진 않았으리라 굳게 믿었다. 아르지오는 순수한 분노의 신성이지 그런 사특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굳이 먹을 것 없는 인간을 잡아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요. 가축도 많은 살을 취할 수 있도록 일부러 키우는데, 인간은 어지간해서 그런 살 수율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나는 미식가니까.”

같은 맥락에서 인간으로 둔갑도 되고 말도 통하고 먹을 것도 없는 여우들은 결코 잡아먹을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역사에 깊게 새겨진 ‘악신’의 악명을 즐거이 누리고 있던 아르지오로서는 변명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무서워할 것이 뻔히 보였어.”

너무 부담스러웠다.

“공포가 상당해 보여 긴장을 풀어주려는 목적으로 거래를 제안하려고 했는데, 대뜸 자기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 공양하는 것에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밥만 주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밥은 주었다는 게 참 지오 씨답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지오 씨가 여우족에게 거래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누군가를 찾아달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나를 부른 자가 분명히 있었으나 내가 찾지 못했습니다. 해서 그곳 주민들의 힘을 빌리려고 했죠.”

“지오 씨가 자신을 부른 누군가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도 참 특이한 일인 것 같네요. 평소 지구의 사람들은 잘만 찾아다니더니, 무슨 이유라도 있어요?”

“말 그대로 위치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를 부른 목소리 자체도 너무 미약했고, 던전화가 진행되는 탓인지 여기저기 비틀린 규격이 많아서… 제가 ‘동물의 왕국’에 있을 때 한 번 더 불러 주기라도 한다면 곧장 알아챌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렵군요.”

“혹시… 죽은 건 아니겠죠? 저도 이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지만 지오 씨가 말씀해 주셨던 ‘동물의 왕국’은 너무 혼란스럽고 위험한 곳이어서 걱정이 되네요.”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었으니 직접 나서서 찾아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오가 그 넓은 숲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고, 다나와 허니를 홀로 보냈다가 사고라도 터지면 어쩔까 걱정이 되어 그럴 수가 없었다.

그가 다나에게 미아 수집을 맡겼던 것은 영혼만 콕콕 골라 확인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본격적인 탐사와는 이야기가 다르지. 위험할 수도 있다.’

검은 숲을 헤쳐나가야 할 제 자식들에게도 그랬지만, 제 자식들을 감당해야 할 검은 숲에게도 그랬다. 여러 사람 곤란하게 만들 필요 없이 검은 숲에 익숙한 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면 될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겸사겸사 여우족과 같이 불안해하는 짐승들도 달래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

그걸 생각하니 지오는 다시 한번 억울해졌다.

“나의 자식들이 날 무서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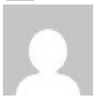
“아니 울지 마시고.”

주현은 환장했다.

‘악신이 우는 모습을 내가 기어이 하루에 두 번이나 보게 되는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유성운이 주현의 집에 방문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27)

227

제227화

“그래서 뭘 하고 있었다고?”

유성운의 질문에 지오가 대답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할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딱히 그런 건실한 활동 중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보라, 이미 주현은 진이 다 빠져 소파에 늘어져 있었다. 아직 신비의 사고방식에 적응하지 못한 바른 생활 사나이 주현에게는 두 악신 사이에서의 시간이 매우 고단했던 듯싶다.

주현 대신에 유성운이 식탁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미 ‘악신’으로 소문난 지 오래인 아르지오가 ‘동물의 왕국’의 친구들과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맞나?”

“맞습니다.”

지오가 끄덕였다.

“늑대족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르갈이 저를 두려워하는 것도 그 친구가 꽤 겁쟁이인 탓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그 친구는 정말 억울하겠다….”

“예,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가르갈이 겁쟁이인 것이 아니라 늑대족이 특히 터프했던 것뿐입니다. 너무 순순히 제 존재를 긍정해 주었던 덕분에 저는 제 사교 스킬에 대한 오만함을 얻어버리고 말았고….”

“그 결과가 여우족의 공포였다는 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숨길 걸 그랬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지오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건 유성운도 알고 지오도 알았다. 사실상 지금 이 상황은 후회보다는 일차원적인 한탄에 가까운 셈이었다.

“음….”

유성운이 눈을 굴렸다.

“네 전매특허인 밥을 먹여보는 것은?”

“천지신명이시여, 통하지 않았나이다.”

“드디어 너의 식사만능주의가 이렇게 깨져 버리는구나. 내가 언젠가 한 번 큰코다칠 줄 알았지.”

“제 음식 솜씨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메뉴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무리 어르고 달래보려고 해도 여우족은 더욱 겁에 질릴 뿐 저에 대한 공포를 내려두지 못했습니다.”

“그게 보통이기는 하지….”

신비가 익숙한 유성운이나 이상하게 대범한 주현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지적 생명체는 역사 속 무시무시한 악신을 두려워해야 맞았다. 그 말에 지오가 대단히 억울해했다.

“예전에 차이솔 군의 가족인 차아라 학생에게 밥을 먹였을 때는 분명 저에 대한 경계심이 확연히 풀렸단 말입니다. 나는 나의 요리 실력을 믿었으나 배신당하고 말았죠.”

“아니, 그때는 그냥 너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을 때고. 그 여우족 입장에서는 먼 옛날 사람도 잡아먹고 피로 강을 이루고 어쨌든 못된 일이란 못된 일은 죄다 벌인 살아 있는 자연재해를 마주친 건데… 그런 사람이 맛있는 밥을 준다고 경계가 풀리겠어?”

“억울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건 늑대족이지 않을까?”

너무 터프했던 나머지 지오가 ‘아 이 정도는 괜찮네ㅎㅎ’라고 판단하게 만들어버린 당사자들.

그나마 지오에게 무덤덤했다는 그들마저 사실 지오에게는 위협 의사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게 분명했다. 아마 악신이 흥미로써 내려주는 일말의 자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

“…….”

대치 상태에 가까운 침묵 사이로 산칼루트가 입을 열었다.

“포기하세요.”

“누구 마음대로.”

“차원의 시간이 인정한 사악한 신성을 한낱 미물들이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는 것은 지적 생명체와 교류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양심 없는 행패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하게 남을 매도할 때마다 어휘력이 좋아진단 말이지. 흥미와 적성이 맞아 떨어진 덕분인가, 산칼루트?”

“예, 재밌습니다.”

“사악한 신성 같으니.”

“당신도요.”

하하호호.

참 화목하기도 했다.

‘무섭네.’

두 신성의 대화에 난감해하면서도 유성운은 산칼루트의 편을 들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무리일 것 같은데. 신성까지 갈 것 없이 사람끼리도 그렇잖아. 세뇌나 매혹 스킬을 쓰지 않는 이상 자신을 마음속 깊이 두려워하는 상대를 단시간 내에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 심지어 역사가 증명한 근거가 있다면

더하겠지.”

“유성운 씨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괜히 마음이 조급해서 거리 조절 못 하고 다가갔다가는 오히려 공포심만 짙어질걸. 내가 매번 생각하는 거지만 지오 너는 좀, 욕심이… 많아.”

“뭐든 즐길 수 있는 쪽이 좋은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가 원한다면 뭐든 할 수 있겠지만, 네가 정신을 주무르는 것과 같은 사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사실만큼은 변치 않는다는 거지.”

“…역시 시간만이 답인가….”

“답지 않게 급한 모습인데.”

유성운이 팔을 꼬며 물었다.

“이유가 있어? 너는 원래 친분을 강제하는 성격은 아니었잖아. 무서워하면 무서워하는 대로 내버려두었고, 친해지면 친해지는 대로 받아주었고….”

“유성운 씨도 언급하셨던 것과 같이 나의 욕심일 뿐입니다.”

아르지오가 푹 한숨을 내쉬었다.

“함부로 내 가족을 떠올린 탓이야.”

“…아하, 그래서.”

유성운도 ‘아르지오’의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다.

‘검은 숲에서 성장하며 짐승인 가족들과 애틋한 시간을 보냈다던가.’

말도 통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할지언정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게다가 ‘동물의 왕국’에 있는 종족들은 ‘악신’을 일종의 부모신으로 여긴다고 하니, 쉽게 말하자면 내적 친밀감이 어마어마했으리라.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혈육을 전부 잃은 줄 알았던 어느 할아버지가 먼 핏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비슷하려나. 심지어 그 핏줄이 소년 가장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왜 그렇게 물고 빨지 못해 안달인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 할아버지가 지금 어디 사채업 대부라지 않은가. 그의 호의가 진정한 사랑보다는 단순 변덕이라 생각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러웠다.

엄밀히 따지자면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을 벗어나 아예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먼 관계인 입장에, 부디 자비로운 적선을 베풀어 달라는 말이 나오는 건 당연했다. 가족, 혹은 친구보다는 애완동물에 가까운 취급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럼에도 굶어 죽게 생긴 자기 가족들 배는 불려야 하니 필사적으로 아양을 떠는 것일 테고. 그 척박한 세상에 간신히 살아남은 가족이 얼마나 애틋하겠는가?

“어… 본질 자체는 동물이라 더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인간에 상응하는 지능을 얻었다고는 해도 결국 늑대고 여우라는 거잖아? 인간보다 훨씬 이성이나 감정이 직관적일 것 같기도 한데.”

“세계가 멸망했는데 인간만 모조리 죽어버린 걸 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참 희한하죠, 할 줄 아는 건 그렇게 많으면서 똑똑할수록 멍청한 선택을 한다는 게… 참.”

혀를 끌끌 차던 아르지오가 의자에 축 늘어져 있던 몸을 다시 일으켰다.

“…계속 무섭게 만드는 것도 미안한 일이니 나 역시 욕심을 거두겠습니다. 가족이라고 느껴지지도 않는 무서운 할아버지가 친한 척 굴면 부담스러울 뿐, 절대 친해질 수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내 생각을 읽었나?”

“오,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주 비슷한 모양이군요. 이거 기뻐라.”

“뭔가 찝찝한데.”

아무튼 유성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 객관화를 좀 해봐.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지만 결국 그 녀석들에게 너는 악신이지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어도 당장은 힘들겠지.”

“그렇게 하죠.”

지오 역시 자신이 성급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 * *

까마귀들은 지혜로웠다.

그들은 가장 긴 역사를 기억했다. 전략에도 뛰어났고, 마법 역시 가장 능숙하게 다루었으며, 각종 장치를 만들어 나약하고 가벼운 몸을 보호할 장비도 만들어냈다.

그런 그들이 ‘악신’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었다.

“…….”

나뭇가지 위에 숨죽이고 앉아 그 존재를 눈에 담았더랬다.

‘인간이 아닐진대 어찌하여 인간의 형상을 취하였는가.’

까마귀 족장, 발프는 셋 중 가장 먼저 ‘지오’의 존재를 알아챈 자였다. 그는 점차 망가져 가는 이 세계를 어떻게든 유지해 보고자 부단히도 검은 숲을 날아다녔으니 말이다.

안타깝게도 까마귀는 늑대나 여우만큼 후각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시각은 뛰어났다. 그는 햇빛과 그림자 속의 죽음을 담은 조그마한 검은 망토의 인간이 인간이 아님을 알았다.

‘보기에는 전혀 인간과 다를 것이 없으나….’

발프는 보았다.

“…….”

피비린내 짙은 빛깔.

인간의 육신을 흉내 낸 고귀한 가죽 안의 그 거대한 신비를 보았다.

‘아, 그는 신이로구나.’

이 망가진 세계를 찾아온 예상 밖의 손님이었다.

부족한 후각으로나마 맡을 수 있는 짙은 피 냄새와 그 붉은 머리카락 끝까지도 가득 차 있는 강렬한 분노. 하지만 나긋한 음성. 자애로운 손짓. 짐짓 가벼운 발걸음….

수많은 역사를 기억하는 114살의 까마귀 발프는 그가 ‘지워진 분노’임을 깨달았다.

‘끝, 혹은 시작이 될 테지.’

죽음 혹은 기회가 될 것이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아니, 선택의 기회가 오기는 할까.

발프는 ‘지워진 분노’를 비교적 가장 자세히 알고 있었다. 생명을 살아 있는 채로 씹어 먹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들에게는 꾸준히 산 제물을 받아왔으며, 마음이 내킬 때면 변덕스럽게도 사냥에 나서 세상에 혼란을 불러왔다더라.

그는 잔혹한 짐승이고 괴물이나 인간의 형상을 하길 즐긴다지. 그리고 그만큼 섬세하고 아름다운 전쟁터를 빚어 냈다더군. 발프는 공포를 느꼈다.

‘우리는 그의 분노로부터 탄생한 자식들이나 그 역시 우리를 그리 여길 거란 보장은 없다. 인식조차 못 했을 확률이 아주 높아. 단지 걸음 한 번에 탄생한 생명에 무슨 애착이 있겠나.’

그나마 희망을 보았다면 ‘지오’가 짐승의 형태를 한 생명들에게 꽤 오랫동안 흥미를 보였다는 점이었다. 무슨 점이 그리도 재밌었던 것일까? 짐승이 말을 한다는 것?

“.......”

하지만 그조차도 감수할 법했다.

‘...악신의 노예가 될지언정 지금의 생명들에게는 자비가 필요하다. 미래를 저당 잡히게 될 자비라고 해도 중요한 건 기회를 얻는 것. 가르갈은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군.’

하지만 그건 차악이지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운이 좋다면 괜찮은 미래를 보장받겠으나 기어코 사악한 신성에게 목줄이 매인 채 그의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 당장 우리 세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치더라도 훗날 태어날 자손들을 생각하면 이 또한 죄악 중 하나일진저.’

늑대족 족장인 가르갈은 그가 자신을 친구로 대했으니 신뢰를 걸겠다 말했으나, 까마귀족은 늑대족만큼 우직하지 못했다. 여우족처럼 지레 겁먹고 몸을 굽힐 필요는 없겠으나 더욱 신중해져야 하는 건 사실이었다.

“.......”

“이보게.”

나무 아래의 악신이 저를 불렀다.

“그래, 자네.”

“까악.”

“참으로 고민이 많군.”

“.......”

“다들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건지 모르겠어.”

“...당신은 뭘 원하십니까?”

“나와 친구가 되기를 바라네.”

그 말은 진심으로 느껴졌으나.

‘신의 무엇을 보고 진실이라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었다.

신이란 필멸자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신비였다. 모른다고 해도, 안다고 해도, 결국 신께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나 그럼에도 발프는 고민했다. 생각하고, 침음했다.

결국 악신께서는 손짓 한 번에 그들의 미약한 등불을 꺼트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친구라는 말은 너무도 공허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나에게 무슨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당신이 매사에 즐거워 보임이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인간의 형상을 하시었으나 인간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를 두렵게 했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운명과 다를 바 없으니 세상을 떨게 만들지요.”

“그래, 약속이라도 하면 어떄. 해치지 않겠다고 말이야.”

“이 미물은 그마저도 믿을 수가 없군요, 죄송합니다.”

저 다정한 낯과 손길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결국 선택의 권한이 없었다. 정해진 운명은 다가

올 테니 남은 생명들은 마땅한 준비를 해야만 했다.

그렇기에 까마귀는 감히 제안을 했다.

“저희를 종속시켜 주십시오.”

“노예와 다를 게 뭐지?”

“당신 영혼에 묶어 주십시오. 그 혀로 다루어 주시고, 손으로 으스러트려 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의 시선 한 번에 기뻐하며 황홀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계약에 묶어 주십시오.”

“무서운 말을 하는군….”

“자비가 아닌 거래를 간절히 청합니다.”

“이런, 가엾어라. 자네는 그것을 진정 거래라고 생각하고 있군.”

악신은 짙게 웃었다.

“자네의 걱정을 이해하네. 그래, 이해할 수 없는 호의란 상대를 더욱 두렵게 만드는 법이지.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대가를 입에 담을 때에 자네처럼 겁이 많은 이들은 안심하게 될 것이야.”

그는 자비로운 분노이니.

“그러니 거절하겠다.”

“…….”

“시간이 아주 많지 않은가, 발프.”

“…저희가 당신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군요.”

“나는 태어나기를 오만하게 태어났으며 싫은 일이라고는 할 줄을 모른다네. 결국 내가 이기게 될 것을 아는데 어찌 지는 수를 두어야겠는가?”

“신성이시여, 이곳을 다스리기 위해 오셨나이까.”

“더 나아질 수 있는 곳임을 알기에 왔다.”

악신이 눈을 가늘게 휘었다.

“하나 그렇지, 자네가 그리도 불안하다면 내 부탁을 하나 하겠어. 이를 통해 나는 자네에게 빚을 질 테니 훗날 걱정하는 재앙이 닥치더라도 입에 올릴 말 하나 정도는 생기지 않겠나?”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바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를 부른 자를 찾아라.”

그것은 다스리는 자의 음성이었다.

“나를 이 황폐하고 적막한 고향으로 불러들인 자를 찾아내. 그는 짐승일 수도 있고, 자네들은 보지 못한 인간일 수도 있고, 숨죽여 죽은 척을 하는 무언가일 수도 있다.”

대체 누가 이 악신을 다시금 이 세상에 불러들였단 말인가?

‘…이는 즉 이 악신의 진명을 아는 자가 있다는 뜻이다.’

114년을 살아온 늙은 까마귀조차 모르는 잔혹한 짐승의 이름. 그것을 아는 자가 전쟁과 분노의 악신을 소환해 냈다. 또한 악신은 그 소환에 응하여 인간의 형태로 지금 이곳에 있었다.

이건 끝인가, 혹은 시작인가.

“…….”

신께서 시험을 주신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찾겠습니다."

"기대하겠네."

발프는 재앙의 시작을 느끼며 날아올랐다.

* * *

"......."

지오는 자신의 얼굴을 주물거렸다.

'내가 좀 무섭게 생긴 편이긴 하지.'

이놈의 인상이란.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28)

228

제228화

이야기를 들은 주현이 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말투를 좀 순화해 보시면 덜하지 않을까요?"

"내 말투는 원래 이런 것을 어찌하겠어."

"그러니까 그걸, 좀, 어떻게…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주현이 늘 말하는 게 있지 않던가.

"이놈의 신성들은 스피치 학원을 다녀야 한다고요."

"나 정도면 말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네만."

"그런 문제가 아닌 걸 아시잖아요. 지오 씨가 말하는 걸 보면 항상 좀 모호하고 불길한 면이 있어요. 의도가 좋든 나쁘든 그거랑 별개로 살짝 꺼림칙하다고 해야 하나."

"흠, 지오반니로서는?"

"지오반니일 때는 좀 나은데, 그것도 그다지 평범하다거나 명쾌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세 명의 지오 모두 말투에서 어마어마한 거리감이 느껴져요."

서지오일 때는 인간을 어설프게 흉내 내는 불길한 악령 같았고, 지오반니일 때는 태생부터 결이 다른 신성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특히 아르지오는 말할 것도 없었다.

"아니 왜 말할 것이 없어."

"말씀드리면 상처받은 척을 하실 것 같아서 삼갔습니다."

아르지오는 정말 악신 같았다.

'나도 처음 만났을 때는 상당히 흠칫했지.'

기이한 고요 속에서 우러나온 서지오의 불길함과는 느낌이 전혀 달랐다. 귀와 뇌에 스며들 듯 박혀오는 달콤한 음성은 악마의 것과 다를 게 없었고, 저를 담는 그 금색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것이라 저도 모르게 뒤로 주춤거리고는 했다.

'자기 본위의 즐거움만을 탐하는 전형적인 악신의 모습이라….'

액자 너머의 동물 가족들의 심정도 이해가 갔다.

“지금처럼만 말해도 반은 갈 것 같은데요. 너무 과하게 악신처럼 말을 하니 그분들도 쉽게 공포를 떨쳐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말투만 좀 어떻게 해보세요.”

“‘악신처럼’이 아니라 그냥 악신이다만.”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건 나로서도 불가항력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 왜죠?”

“나는 걸러지거든. 필터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필터링?

“무슨… 필터링이요? 강제로 말투나 행동을 교정당한다는 건가요, 지금 지오 씨의 말은? 그래서 그 불쌍한 동물 친구들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잘 이해했네.”

”대체 왜요?”

“액자로 만날 수 있는 ‘검은망토’가 유난히 무뚝뚝하고 불길한 것과 같은 맥락이지. 나도 그 간극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

예전에 수집상 직원들과 마주치며 알게 된 사실이었다.

“내가 초상화인 탓인지 모종의 관리를 거치지 않으면 분위기니 어조니,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였네. 그건 어떤 지오로 나서더라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중심이 되는 문이라 할 수 있을 액자인 ‘지오의 초상화’를 통해 정돈하면 그놈의 격이니 뭐니 하는 것도 물론이고 말투나 분위기도 상당히 순화되었다.

그걸 감안해도 여전히 ‘괴담답다’라고 할 만한 부분들은 많다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하지만 이 오두막에서 바로 이동하게 된 경우나 액자 속에 그대로 갇혀 인사하는 경우엔 말이 달라지지. 좀 더 전형적이고 틀에 박힌 ‘지오’가 되어버려. 나는 그 위화감조차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데 말이야.”

“그래서 필터링이라고….”

황당한 일이었다.

“대체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초상화라서?”

“그건 어떻게 못 하시나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세상에.”

주현은 지오가 좀 안쓰러워졌다.

‘…정말로 초상화라는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어 보여서 더 안타까워.’

초상화란 그런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담아두는 그림이다.

한마디로 그들 지오가 어느 순간의 모습과 혹은 인식으로 박제를 당해버린 탓에 저런 식으로 ‘필터링’이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주현의 생각이었다.

“…….”

동시에 난감해졌다.

“그럼 정말로 힘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지?”

“음, 그냥… 자비로운 군주가 되어주실 생각은 없나요?”

“악신이?”

“최소한 지오 씨가 그들에게 자비로운 친구는 되어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지오 씨는 동등한 관계를 원하겠지만 아무리 그들의 공포가 씻겨 나간다고 해도 경외는 남을 겁니다.”

“그것도 미래의 즐거움 중 하나로 남겨두지.”

친구들에게 성급함을 지적받았던 지오는 스스로 충분한 반성을 거쳐 여유를 가져보기로 했다.

주현이나 유성운이 특히 생각이 깊고 많아 ‘관계와 존재를 정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뿐이지, 지오는 그것을 동물 친구들에게도 강요할 생각이 없었다.

뭐든 재밌으면 그만이었다. 그 자신도, 주변도 말이다.

“신하이자 친구이고, 친구이자 가족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역시 지오 씨는 은근히 욕심이 많으시다니까요.”

“가질 수 있으면 뭐든 가지는 편이 좋은 건 당연한 일이다.”

아르지오에게는 더더욱 그랬다.

“…….”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눈치인데.”

“그거 도파민 중독이에요.”

“어허, 조용.”

어디 감히 신성한 사교 행위를 화학 분비물 따위로 격하한단 말인가.

* * *

한때 영웅이라 불리던 자들이 있었다.

세상 모든 짐승들은 괴물이 되어 인간의 모든 것을 공격해 왔고, 그로 인해 인간들은 공복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생살과 영혼을 좀먹어 가는 전염병에 신음하며 사람들은 저희 중 가장 강한 이에게 간절히 빌었다.

“부디 그 잔혹한 짐승을 죽여 주십시오.”

“아, 신이 내리신 영웅들이여….”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전쟁을 끝내주세요.”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

영웅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불렸으나 결국 그들도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공포에 악몽을 꿨다. 영웅들끼리 갈등이 번져 서로를 죽이게 되는 건 드문 일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게 진짜라고?”

“마, 마왕이 우리를 속이기 위한 수작일 거야. 다들 속지 마.”

“하지만… 너도 알잖아, 이건 조작 따위가 아니라는 걸.”

그들이 악신으로 여겼던 사악한 신성은 사실 인간의 무지함과 이기심에 탄생한 괴물이었다. 모든 것은 인간이 자초했다. 성자가 성자인 줄도 모르고, 마지막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모르고 숲을 불태웠기에 이 모든 재앙이 시작되었다.

“어떻게 하지…?”

“…나, 나는. 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영웅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러면 우리가 왜 영웅이야?”

평범하게 선하기에 꾸역꾸역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내 가족과 친구들을 구하고자 하는 신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비록 벼랑 끝에 몰린 그들은 완벽한 ‘영웅’이 될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할 이성은 남아 있었다.

“말이 안 되잖아, 처음부터 잘못은 우리에게 있었어. 짐승들이 인간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 역시 과거 인간들의 욕심에서 비롯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대체 뭘 위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지? 고작 우리를 사지로 등 떠민 그 고약한 인간들을 지키려고 그 수많은 피를 흘리고 악몽을 꿔오며 여기까지 왔다고…? 대체 왜?”

“끔찍하군, 정말로 끔찍해. 나는 더 이상 싸우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더러운 죄악을 반복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이고 세상이라면 그냥 이대로 무너져 버리는 게 나아!”

또한, 이를 악무는 이들도 있었다.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과거의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러 일을 이 지경을 만들었던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의 역할을 잊었나? 세상을 어떻게든 지금보다는 나은 꼴로 만들기 위해 그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어! 과거의 인간들이 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라지만 타락한 성자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왜 보지 못하는 거냐!”

“죄악을 반복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짓는 건 소수면 돼요. 그 장본인들과 우리만 감당하면 되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까지 죽어나가는 건 옳지 않아요!”

긴 갈등이 되었으나 결국 결론은 하나였다.

“…….”

“…악신을 봉인하고, 모든 건 그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당장의 재앙부터 멈춰야 했다.

“다들 지키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왔잖아요. 가족, 친구들, 연인. 더럽고 비열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영웅들은 기어코 악신을 봉인하는 데 성공했으나.

“…뭔가 이상해요.”

“짐승들의 저주가 끝나지 않아.”

“전염병도 그대로예요…!”

누군가는 소리쳤다.

“그야 당연하지, 이 모든 재앙은 애초에 인간이 시작했으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태초의 본질에 있었고, 두 번째 원인은 그 끔찍한 본질을 막아주고 있던 성자를 제멋대로 불살라 버린 것이었으며, 마지막 원인은 시작과 과정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원인과 책임을 ‘악신’에게

떠넘긴 인간들의 탓이었다.

“하지만, 하지만…! 성자를 타락한 신성으로 만든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가 맞아도, 결국 악신 아르지오 역시 수많은 재앙을 퍼트렸습니다! 짐승들을 부추기고 대학살을 벌였어요! 다들 그걸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이야기야! 두 눈 똑바로 뜨고 유적의 이야기를 제대로 확인해! 아르지오는 과정에 추가가 되었을 뿐 태초의 원인이 아니었단 말이다! 그런 그를 봉인해 봤자 이미 인간이 일으킨 재앙을 주워 담을 수 있을 리가 없지!”

“그럼 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죽고 다치고 괴로워해야 했는데!!!”

비탄에 가득 찬 절규가 그들을 분노에 잠식되게 만들었다.

고통과 분노의 악신이라 불리던 아르지오는 이미 봉인을 했건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악신의 무덤 앞 영웅들 사이에서조차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무엇보다도 끔찍한 재앙이 아닌가.

“…….”

“…….”

그럼에도 악신을 봉인한 것은 사실이라.

“…마을로 돌아갑시다.”

“궁정에 보고를 해야 해요.”

“최소한 악신은 봉인되었으니, 그로 인한 학살은 저지되겠죠.”

“우리가 그 정도의 일은 한 거야.”

비록 수습되지 못한 재앙들은 많고, 막막한 일도 산더미 같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학살을 벌이던 아르지오를 봉인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한결 살기 편해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예상과는 달랐다.

“지비아 마을에서 아르지오가 나타났대!”

“그게 무슨 소리야, 악신은 우리가 분명 봉인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학살이 벌어졌다고!”

“말도 안 되는…!”

그 수많은 학살은.

“…….”

“지금 당장 가봐야 해, 봉인이 풀린 걸 수도 있어!”

“내가 봉인을 주도한 마법사야.”

“하지만…!”

“풀렸다면 내가 모를 리가 없잖아.”

그동안 아르지오의 짓이라 여겼던 그 많고 많은 학살과 전쟁들은, 전부 잔혹한 악신을 핑계 삼아 제멋대로 분노하며 탐욕을 부리던 인간들이 내놓은 결과물이었다. 설령 전부는 아닐지라도 꽤 많은 전쟁이 그랬다.

“이제 다 무의미해.”

영웅들은 허탈해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그를 봉인하지 않았을 거야. 그 희생과 고초를 겪어가며 악신을 봉인하지 않았을 거라고. 차라리 이 세상을 전부 불태워 버리도록 두었겠지....”

“...그런 말 하지 마. 아르지오를 변명 삼아 벌어졌던 문제들도 많지만, 그가 직접 주도해서 망가트린 마을도 많았으니까. 더 큰 문제를 우리가 저지한 거야.”

“...나는, 난 잘 모르겠어.”

또한 여전한 재앙으로 인한 사람들의 분노는 영웅들을 향했다.

“악신을 봉인했다고 했잖아!”

“분명 저들이 거짓말을 한 거야, 악신에게 속아 넘어갔겠지!”

“아니, 악신의 수하가 되었을 수도 있어. 이 뻔뻔한 것들...!”

“저들을 전부 불살라 버려야 해!!”

또한 공포 역시 그들을 향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어, 저자들이 우리를 죽이러 올 거야.”

“처음부터 이상하다 싶었지. 봐, 저 힘과 능력이 어딜 봐서 인간의 것이라는 거지?”

“저들 역시 괴물이 분명하다, 미리 죽여야 화를 사지 않을 것이다!!”

그에 저항한 영웅들도 있었으나 결국 죽어버렸다. 아무리 강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 해도 결국에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제가 지키고자 했던 인간들의 배신에 충격을 받고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영웅은 도망과 회피를 선택했다. ‘영웅’이었던 적이 없는 척 숨어도 보고, 내내 쫓기더라도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이사를 다니기도 했다.

“.......”

하지만 전부 붙잡혔다.

“...하....”

단 한 명을 빼고.

악신의 무덤에 숨어들었던 덕분인데, 꽤 유명한 ‘영웅’이었던 탓에 결국 남자 역시 발각되었다. 그를 악신의 수하로 추측한 사람들이 토벌대를 꾸려 악신의 무덤을 방문한 탓이었다.

“역시 여기 있었군, 사악한 악신의 추종자 같으니...!”

“저자를 죽여라! 악신의 싹이 될 것이다, 저자를 죽여!!”

“헛된 소리를 퍼트리고 다니는 불온 종자다!!”

그게 남자가 마지막으로 죽을 수 있는 기회였으나.

“아니, 마침 딱 좋은 위치군.”

“수석 장로님...! 이 자를 살려두실 겁니까?”

“쓸모가 있다. 이전에 잡아두었던 재료들을 모두 데려와.”

“설마....”

“우리는 이곳에서 새 역사를 쓴다.”

그를 포함한 ‘재료’들은 ‘새로운 세계’의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괴물 같은 놈들을 쓰면 신의 권능을 빼앗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이지....”

그렇게 남자는 여신을 본뜬 형상의 관에 갇혔다. 아마 그뿐만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겠지만 핏줄을 헤집고 살점을 저미는 촉수와 칼날에 끼어서는 그 무슨 판단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악!!!"

"아직 소리 지를 힘이 남아 있나 보군, 아주 좋은 반응이야. 이번에는 정말로 성공할 수 있겠어."

"크아아아아아아아아악…!!"

"굳게 봉인해라, 아주 긴 시간이 흘러도 결코 튀어나올 수 없도록."

"제발, 제발 그만…!!"

"우리는… 지금부터 신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낙원을 만들도록 하자."

"끄윽…! 크으으윽…."

고통과 증오로 몽롱해지는 정신 속에서 남자는 생각했다.

'결국 모든 것이 실패하겠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엉망진창인 세계였고, 그 세계를 구성하는 생명조차도 어지러운 세상이었다. 그를 포함한 재료들, '영웅'들을 이용해 대체 뭘 할 생각인지는 몰라도 성공하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어둠이 찾아오고.

"……."

시간이 흐르고.

"……."

또 흘러도.

"…끅…."

…왜 죽을 수가 없지?

가시관에 갇혀 남자는 피눈물을 쏟았다.

* * *

그는 기어코 악신을 불렀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28)"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29)

229

제229화

“가장 가능성이 커 보이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까마귀는 반가운 말을 전했다.

“숲에는 당신을 부를 만한 존재가 없고, 저 위의 가짜 세상에는 더 이상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좁아진 이 곳곳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당신의 무덤만이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의 무덤?”

“악신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이지요. 한때 당신께서 머무르던 곳이라 알고 있습니다.”

“아하….”

지오는 좀 황당해졌다.

“대체 왜 거기에 있을까?”

끽해봤자 그가 채 둘러보지 못한 검은 숲, 혹은 저 위의 가짜 세상에 숨어 있을 줄 알았다. 그곳 어디에 머물러도 최소한 아르지오가 머물렀던 ‘집’보다는 훨씬 더 안락하고 안전할 테니 말이다.

“그곳에 있을 거라고 확신하나?”

“그곳이 아니라면 당신을 불러내기란 불가능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해했네.”

그렇다면 본의로 거기에 머무르게 된 것이 아닐 가능성도 크겠어.

“친절한 답변에 감사하네, 발프.”

“…영광입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했나?”

발프는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저희와 같은 미물이 감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라신다면 시도를 해보겠으나 이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일이 될 것이며, 불쾌하시겠으나 저로서는 까마귀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서 도망쳤다?”

현명하군.

‘안 되면 튀어야지.’

아르지오는 늘 그랬듯 가볍게 씩 웃었다.

“수고했네.”

“…썩 마음에 들지 않을 결과물을 가져와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자네들을 잡아먹지는 않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좋은 결과물을 들고 왔으니 나 역시 자네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무엇을 바라나?”

“자비에 기대어 제가 감히 질문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나의 친구.”

“…….”

생각을 정리하듯 말이 없던 까마귀가 이내 입을 열었다.

“이 세상이 당신 마음에 드십니까?”

“독특한 질문이군.”

지오가 턱을 쓸었다.

“나의 고향일진대 마음에 들지 않을 리가 있겠나. 나는 이곳을 사랑하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고 영겁의 시간이 지난다 해도 마찬가지일 걸세.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하면 다시금 이곳의 신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짐승 친구들은 참으로 겁이 없단 말이지.”

그를 ‘악신’으로 보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운명을 손쉽게 제게 넘겨 버리고는 했다. 늑대족이야 한번 믿으면 영원히 믿기에 그럴 수 있고, 여우족은 벼랑 끝에 내몰려 납작 엎드리는 것이라 해도.

까마귀의 선택은 의외였다.

“왜 그런 선택을 했어?”

“늑대들의 족장 가르갈과 같은 답변입니다.”

“미래를 달라? 내가 그 미래를 어떻게 다룰지 알고.”

“…당신은….”

말을 흐리던 까마귀가 자신의 견해를 고백했다.

“당신은 역사 속 분노와 대단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꾸며낸 것일 수도 있지.”

“모든 생명은 꾸며내지요, 살기 위해서.”

까마귀에게 있어 그동안 보여주었던 자비와 애정이 진심인지 거짓인지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저 포용이 허구인가 실재인가’였다.

그리고 까마귀들은 악신의 자비와 애정이 실재일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이미 역사 속 분노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다. 단지 그런 ‘흉내’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희망을 봤다.

“저는 검은 숲에 남은 짐승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워진 분노’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역사에서의 당신은 증오에 미친 불길한 악령이었고, 수백 가지의 팔이 달린 괴물이었으며, 수만 가지 거대한 입으로 세상을 잡아먹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게 된 악신은 전혀 달랐다.

“당신은 악령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증오가 뭉친 수백 가지 팔은 보이지도 않고, 인간만큼이나 작은 입으로는 잔인한 흥미를 표할 수 있을지언정 잔혹하게 누군가를 산 채로 뜯어먹지는 않으시더군요.”

“이보게, 미안하지만 자네들은 맛이 없을 거야. 그 털만 빽빽하지 영 홀쭉한 몸으로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이런 농담을 해주시는 것도 역사의 기록과는 다릅니다. 미물을 향한 일말의 자비이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당신을 친근하게 여겨 주기를 바라시는 거겠죠.”

“.......”

지오가 내심 생각했다.

‘...우리 짐승 친구들도 날 타박하는 실력이 제법이군....’

마치 그가 턱도 없는 소리를 한다는 듯 웃어넘기던 주현과 유성운을 보는 듯한 이 기분. 반가우면서도 묘했다.

‘그 둘이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형상으로 빚어가고 있던 것이었나?’

지오의 긴장감 없는 생각과 별개로 까마귀는 이어 말했다.

“당신께서 자비와 애정을 베풀 수 있는 존재이며 그것이 실재함을 보여 주셨으니, 저희는 감히 그것으로 만족했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직접 듣고 보았습니다.”

그가 끝없는 죽음과 고통과 분노의 악신만 아니라면 되었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당장 그들 앞에 놓인 미래보다야 훨씬 희망찬 앞날이라고 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니 부디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척박하고 기괴하게 비틀린 반역의 땅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비록 당신이 고향에 방문하신 연유는 저는 기억조차 못 하는 이름을 입에 담은 자로 인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저희가 자비를 빕니다.”

“자네들은 참으로 용감하군. 그리고 영민해.”

귀여워서 복슬복슬한 털이라도 쓰다듬어 주고 싶었다. 그는 지구의 까마귀보다 훨씬 크고 깃도 풍성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 참아라, 상대는 114살의 족장이다.’

기본적으로 ‘내 자식’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인지 아르지오는 나이고 직위고 상관없이 예뻐해 주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기적과 같은 인내심으로 서로의 체면을 지켜냈다.

“...차원이 배척하고 봉인한 악신이 이제는 주신이 되기를 바라나. 이것도 참 흥미로운 이야기군. 나는 고향을 향한 사랑이 지극하니 자네는 그리 겁먹을 것 없네.”

“하면 저희의 신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미 그리하였지. 자네들은 ‘나’의 죽음으로 인해 태어났으니.”

“.......”

까마귀 족장 발프가 눈을 끔벅였다.

“...저희가 당신의 발걸음이 아닌 죽음으로부터 태어났습니까?”

“그래.”

“진정 인간이셨군요.”

“그랬지.”

“죄가... 큽니다.”

발프는 정말로 지혜롭고 영민했다. 그는 지오의 짧은 말 한마디만으로도 인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보였다. 그러고는 머리를 조아렸다.

“아버지를 봅니다.”

“그래, 아들아.”

이렇게 기특할 수가.

“나를 무엇으로 여겨도 좋다. 친구를 원한다면 나는 그렇게 보일 것이고, 어버이를 원한다면 또한 그렇게 보일 것이며, 세상을 새로이 꾸며줄 신을 원한다면 역시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건 지오가 매우 잘났기 때문이었다. 주현이 칭찬하고 유성운이 박수를 칠 만큼 다재다능한 덕분이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다 해먹을 수 있는 지오는 보는 사람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지고는 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겠지.

“원하는 대로 보게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마귀는 눈앞의 악신이 흥미 뒤편에 가득 담고 있는 탐욕을 보았다. 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자인지. 또 다채로운지. 까마귀 족장 발프는 악신의 전지전능함을 의심하지 않았다.

“제가 당신을 무어라 부르면 좋으시겠습니까?”

“나는 지오일세.”

“…‘지오’입니까?”

까마귀가 고개를 기울였다.

“당신은 스스로를 짐승이라 칭하시는군요.”

“그걸 아는가? 나는 이름이 없어.”

태어나며 쥐고 나왔던 이름은 그가 버렸고, 이후로는 그 누구도 아르지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한평생 그는 잔혹한 짐승으로 살았으며 지오는 그것에 꽤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니 자네들이 부르는 것이 곧 나의 이름이 될 테지.”

이게 바로 편리성의 극치라는 것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특별함은 지오에게 제법 많은 즐거움을 주었다. 그는 뭐든 될 수 있는 자신의 다양성을 사랑했다.

“편하지 않은가?”

“어찌 생명에게 이름이 없습니까.”

“아니지, 세상 만물의 것이 나의 이름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습니까. 아까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시군요.”

“자네는 역시 아주 영민한 까마귀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도 좋고.”

지오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그래, 이렇게 되면….”

“…….”

“…좋군.”

그러고는 웃었다.

“마음에 들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혔다.

아니, 사실은 꽤 예전부터 이에 관한 계획을 세워 두었었다. 다만 고향이 예상외로 바뀌어 버린 탓에 적응하고 변수들을 새로이 적용하느라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뿐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뒤집어도 괜찮겠나?”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네는 믿는 게 아니야, 아는 거지. 그리고 나는 자네의 그런 이성을 긍정하네.”

“무엇을 하실 생각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할 것이다.”

간단한 일이었다.

“그림을 그리고, 분노를 받겠어.”

지오는 이곳을 던전으로 만들어, 그곳의 마왕이 될 예정이었다.

“혹시 유원지는 좋아하나?”

* * *

“야옹.”

아르지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입구에는 다나가 앉아 있었다.

“야옹.”

“그래, 수고했다.”

그는 제 딸의 보챔에 뺨을 잡고 살살살 쓰다듬어 주었다.

“얼마나 많은 미아를 만났니?”

“므으으으으으응….”

“확실히 많기는 하구나, 세상이 멸망해서 그런가.”

그 미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이제는 지오의 몫이 되었다. 이 좁고 척박한 땅에 남은 꽤 많은 생물들이 그에 찬성했으니 지오는 마땅히 그 기대에 응해주어야 할 것이었다.

‘그 전에, 날 부른 녀석의 얼굴은 봐야겠지.’

이 땅을 밟고 있음에도 처음 지오를 불렀던 자의 음성은 더는 들려오지 않았다. 주현이 말했듯이 혹여 그사이에 죽어버렸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글쎄, ‘아르지오’라는 이름을 아는 녀석이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진 않았다.

그게 어떤 의미일지는 직접 봐야 할 듯싶었다.

“다나, 집에 돌아가 있으렴. 이 안은 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미아가 있을 거란다. 네 마음에 차지 않는 녀석들도 많을 테니 구태여 피곤해질 필요는 없을 게다.”

“믕망망….”

“알겠다, 돌아가면 맛있는 식사를 하자꾸나.”

지오가 검은망토의 자락을 잡고 그림자를 열어주자, 다나는 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아마 이대로 아버지에게 돌아가 잔뜩 애교를 피우다 지오가 상을 차려주면 즐거운 식사를 하겠지.

‘귀엽기는.’

귀여움과 크기는 비례하는 것이 사실인지 지구의 늑대만큼이나 커진 다나는 껴안는 즐거움이 있었다. 태양신 곰인형이 관리해 주어 폭신폭신해진 털에 폭 묻히면 그 황홀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딸의 털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지오가 허니를 불렀다.

"허니, 네가 필요할 일이 있을 거다."

"꾸르륵."

허니는 당연하다는 듯 후드에서 뽕 튀어나와 지오의 어깨 위에 다시 앉았다. 그 위풍당당한 모습에 새삼 감동하며 지오는 '집' 안으로 발을 디뎠다.

"…정말 오랜만이군. 그동안 관리도 받지 않았을 텐데 세상이 멸망하고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참 신기할 정도야. 따로 대단한 관리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악신의 무덤이라 불리는 이곳은 온갖 저주와 독과 함정이 남아 이 차원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지오는 그리움으로 충만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추억이 깃든 탓이다.

"좋네."

기뻤다.

'한참 분노에 미쳐 있었을 때는 집도 집으로 느껴지지 않았었지.'

사람들의 분노와 절규에 더해 수많은 성자의 고통으로 빚어 만들어낸 세기의 사악한 신성. 그게 세상 사람들이 아는 '아르지오'였다.

그것은 때때로 인간의 형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괴물과 악마의 형상이었을 때가 더 많았다. 또한 그 불길한 형상처럼 그것에게는 분노와 증오만이 남았을 뿐 이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진 않았다.

그러니 다시 자신의 모든 것을 돌려받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은 이겨낸 아르지오가 새삼 느끼는 그리움에 즐거워하는 것도 당연했다.

"……."

'집'은 적막했다.

"……?"

그리고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다.

"뭐야, 내 집 왜 이래."

"꿍꿍꿍…."

"어떤 간악한 작자가 이런 짓을? 지각 변동이 여기서도 일어났나?"

마이 스윗홈이 어째서 마굴로 변신해 있는 거냔 말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29)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29)"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30)

230

제230화

“이렇게 뵈니 정말 반갑네요!”

여우족 족장 라미의 말에 늑대족 족장, 가르갈이 콧잔등을 구겼다.

“왜 아직도 인간의 모습인 거냐.”

“그야 악신님의 마음에 들기 위함이죠. 저희 여우족은 언제나 강자에게 빌붙을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조금이나마 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계속 둔갑해 있는 것 정도야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계산적인 자식….”

“늑대들이 멍청한 거겠죠.”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는 두 젊은 족장의 모습에 까마귀 족장, 발프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만들 하게. 지금 우리끼리 허튼소리나 하자고 모인 게 아니지 않나. 한 종족을 책임져야 하는 족장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서야 쓰겠어?”

“…죄송합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수그리는 두 녀석의 모습에 까마귀 발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서로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지.”

그들은 ‘악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그동안 제 종족을 관리하고 지키기에 바빠 30년 가까이 이런 일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악신의 존재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까마귀 발프였다.

“나는 그를 부모신으로 모시기로 결정했네. 다른 까마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결정한 사안이야. 그는 분명 위험한 존재이고 재앙을 불러오겠으나… 태풍 한가운데는 언제나 고요한 법. 그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충성을 바치는 건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다.”

까마귀족의 입장을 밝히자 여우와 함께 눈치를 보던 늑대가 역시 입을 열었다.

“저희 늑대들은 그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늑대들의 ‘신뢰’를 말함이겠지? 친구이자 가족으로 그를 대하겠다는 겐가?”

“그의 위험성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모른다. 멸종된 게 분명한 인간이 마치 박제된 형상처럼 검은 숲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게다가 그에게서는 복잡하고 기이한 체향까지 났다.

그를 악신으로 추정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나, 가르갈이 아는 역사 속 악신과 눈앞의 ‘지오’는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는 상냥한 호의를 베풀었다.

“저는 최소한 그가 저희에게 베푼 자비가 거짓이 아니리라 판단했습니다. 다른 늑대들도 처음에는 경계하고 두려워했으나 지금은 신뢰가 새겨졌죠. 지오는 저희 늑대들을 친구로 대하고 그 이상의 선물을 주었으니... 그에 마땅한 자세를 취할 겁니다.”

“미련하기는.”

여우 라미는 그런 늑대의 의견이 못마땅하다는 듯 눈을 샐쭉 찢었다.

“악신은 악신입니다, 그 거대한 존재를 친구로 여기다니 이쯤 되면 불경하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늑대들의 우직함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요?”

“크르륵...!! 그러는 너희는 얼마나 좋은 선택을 했다고 그러는 거냐!! 기껏 해봐야 인간의 흉내를 내면서 꼬리나 살랑거리는 주제에...!!”

“정말이지 화가 많은 녀석이라니까? 고상하지 못하기는.”

여우족 족장이 짐짓 그를 나무라듯이 흘겼다.

“그는 신이에요, 창조주가 없어진 이 세계와 그곳에 사는 우리를 새롭게 다스려 줄 신이죠. 발프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과도하게 몸을 굽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의견에는 동의하네. 신을 향한 최소한의 경외와 거리감은 한낱 미물인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게야.”

“발프 씨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르갈. 물론 우정과 신뢰를 사랑하는 늑대들에게는 우리 여우족의 자세가 지나치게 비굴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현명한 자세를 취했다고 자부했다.

“알고 말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를 찾아온 신께서는 이 세계에 애정을 가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역사였고요.”

대체 어떤 식으로 ‘악신’이 생겨 났는지는 그들도 모른다. 기록한 이 중 누군가는 그가 태초부터 존재한 악마였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인간들의 이기심에 생겨난 재앙이라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이 차원의 모든 생명에게 배척받고 심지어는 봉인까지 당했었던 존재라는 점이다. 그 봉인이 왜 어떻게 풀렸는지, 무슨 감정으로 저희를 찾아왔는지는 몰라도, 기분이 좋으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다.

지금 그들 종족의 부모신 격이라고는 해도 그저 세상에 분노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태어났을 뿐, 결코 목적이 되진 않았다.

“나는 그가 처음 등장했음을 알았을 때 분명 분노를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아니라면 사악한 제안을 내밀거나 가뜩이나 망가진 이 세상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 거라고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잖나?”

“오히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왜 그는 저희에게 자비와 애정을 보였는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요.”

납득되지 않는 호의는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그분의 호의가 변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느껴지지 않던가요? 그의 행동과 주의는 흥미를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말은 즉 저희가 그분께 흥미를 드리지 않으면 금방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하, 그래서 그렇게 꼬리를 살랑거리고 앞발을 비벼대? 자존심도 없나 보군.”

“우리는 자존심으로 죽고 못 사는 미련한 늑대들이 아니라서 말이에요? 늑대들처럼 만약의 사태도 가정하지 않고 친구 좋다고 꼬리 흔들대다가 도축된 사냥개가 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자부해요.”

“이 명예도 모르는 여우 같으니... 우리 늑대들이 가지는 믿음의 가치와 무게란 죽음을 걸 수 있을 정도인 것이다. 설령 지오가 우리를 흥미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끔찍하게 다룬다고 해도 그건 우리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명예가 종족의 안전을 보장해 주느냐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우족은 납작 엎드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나는 내 가족들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배를 내보일 수 있어요. 다행히도 그분께서는 언어가 통하는 지능의 생물을 잡아먹는 것을 당장은 거부하셨죠. 그 자비에 기대어 앞발을 열심히 비벼댄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보상? 무슨 보상. 애완용 여우가 된다는 것?”

“애완용 여우가 된다면 대단히 잘된 일이죠. 당장 나의 목표조차 그것입니다, 가르갈!”

여우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목숨과 최소한의 자비를 약속받을 수만 있다면 애완용 여우가 되는 것이 어디 큰 문제라도 될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애완으로 키우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애정은 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 애정이라도 받아야겠어요.”

“징그러운 놈들....”

늑대가 잔뜩 질린 듯 얼굴을 구기자 까마귀 발프가 흥분한 둘을 제지했다.

“둘 다 진정하는 게 좋겠군.”

“.......”

“.......”

“그래,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을 기다리던 도중 갑자기 다가온 희망 혹은 재앙에 다들 크게 동요한 것은 이해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감정에 휩쓸리기만 해서야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었다.

“나는 우리의 모든 의견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네.”

모두가 모두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 있군.”

“그게 무엇입니까, 어르신?”

“그를 섬겨야 한다는 점이지.”

까마귀 발프가 늑대를 보았다.

“이는 자네들 역시 인정하는 바라고 보네.”

“...그렇습니다.”

늑대의 긍정에 여우가 코웃음을 쳤다.

“흥, 거봐요. 결국 늑대들도 꼬리를 말 거면서 친구니 뭐니 큰소리 뻥뻥 치기는.”

“애초에 ‘친구’라는 관계의 표현은 지오가 먼저 뱉은 말이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믿음직한 군주와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지. 늑대들이 태초부터 그랬던 것처럼.”

“하여간 늑대들은 고지식하단 말이야.”

“원래 이런 녀석들인 걸 너도 알지 않나.”

생존의 문제로 뒤늦게 뭉친 여우족과 달리 늑대족은 태생부터 무리 생활을 즐겼다. 강인한 우두머리를 따르고 약한 가족은 보호하며 이끄는 것은 늑대들의 영혼에 새겨진 전통이었다.

그렇기에 지금도 늑대들은 새로운 수장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건 인간들이 말하는 봉신 관계와 전혀 다른, 가족이자 군대의 형태였다. 그렇기에 신뢰를 입에 담는 것이고 말이다.

“받들어 모시더라도 가족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다면 친구일 수도 있는 법이다.”

가르갈은 몰랐지만 그건 일전에 지오가 한 말과 비슷했다. 그는 단호한 얼굴로 이어 말했다.

“그야 위험하면 가족도 팔아먹을 수 있는 여우들은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우족이 정말로 동족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사기를 친 적은 없다고요. 대부분 인간들을 속이기 위한 계략이었죠.”

“어우, 징그러워.”

“뭐요?”

또다시 싸울 기미가 보이자, 발프가 여우 라미에게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지나치게 엎드릴 필요는 없으리라 보네, 라미. 그가 진정으로 이 세계의 새로운 주신이 되어준다면 마땅히 떨어지는 선물과 자비가 있을 것이야.”

“하지만 그걸 어떻게 보장하죠? 그는 잔혹한 짐승입니다, 우리 같은 미물들은 그의 변덕 한 번에 언제든 휩쓸려 나갈 수 있어요. 여우들은 당장 새끼들조차 지키지 못해 절박하다고요.”

필사적이어야만 했다.

“번식에 성공한 여우도 이제는 보기가 힘들어요. 기껏 태어난다고 해도 너무나 쉽게 죽어 버렸고요. 여우들이 대체… 대체 어떤 마음으로 독기가 남은 굴을 더 깊게 파, 새끼들의 시체를 묻었는지 아세요?”

세 종족 중 가장 멸족에 가까워진 것은 바로 여우족이었다. 늑대와 까마귀들은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였지만, 그마저도 여우족은 당장의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였단 말이다.

“우리는 늑대들처럼 강하지 못해서 독을 소화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까마귀들처럼 직접 해독할 기술 또한 없죠. 할 줄 아는 마법이라고는 둔갑술뿐인 여우가 흔해 빠졌어요.”

“…라미….”

“그런 우리가 대체 무슨 심정으로 연약한 새끼 여우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아가며 독을 먹이고 내성을 키우는지 아시냐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걸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 할 수 있어요.”

“…….”

발프와 가르갈이 침묵했다. 발프는 두 어린 족장을 한때 보살펴 주었던 어른으로서, 가르갈은 늘 이빨을 드러내며 싸우던 악우로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세계의 끝이란 살아남은 생명에게 이토록 초라하고 비참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건 강자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늑대들이야 악신님의 송곳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까마귀들은 눈이 되어볼 수 있겠지만, 여우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했네.”

결국 그녀의 결정 역시 틀린 것이라 할 수는 없었다.

“그저 걱정되어 한 말이었어. 지나치게 악신의 비위를 맞출 뿐이라면 그만큼 쉽게 버려질 테니. 하나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나 역시 존중하겠네.”

“…감사합니다.”

“부디 다가올 새로운 시대가 우리를 좋은 신하로 만들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지.”

늑대가 픽 웃었다.

“지금보다는 낫겠죠.”

“그래, 아무렴.”

그렇게 동물들은 뜻을 모았다.

* * *

“보아하니….”

집을 둘러보던 지오가 눈을 두어 번 깜빡였다.

“누가 내 집을 함부로 썼던 모양인데.”

“꾸르르르르르….”

“화내지 말고.”

흉흉한 세상에서 빈집에 도둑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다만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원래도 썩 평안한 집구석은 아니었다지만 이건 너무 흉흉해지지 않았는가?

그가 기억하는 유적은 살아생전에는 불편한 점이 많을지언정 짐승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던 유적이었고, 악신이 되었을 적에는 온갖 곳에 독기와 불길한 기운이 스며든 귀신의 집이었다.

‘하지만 이건 내가 기억하는 모습이 아니다.’

피와 살점이 난무하는 모습. 곳곳에 버려진 연구 자료들. 그리고 무언가를 곤죽으로 만든 듯한 참혹한 현장. 지오는 문득 이 광경이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광신도 집단의 최후인 것처럼 보였다.

‘서로 싸우다 자멸한 흔적도 보이고.’

그는 뒤늦게 이 모습을 정의할 수 있었다.

“…인간들의 마지막 발악이었나 보지.”

“꾸르륵….”

“씁쓸한 기분이 들어.”

너희는 늘 서로 아플 길만 걷는구나.

* * *

남자는 문득 인간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았다.

“…….”

…인간?

누가 더, 남아 있나?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30)"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31)

231

제231화

이 세계의 마법사들은 지독한 구석이 있었다.

그들은 완벽해지기 위해서, 끝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든지 했다. 남들이 보면 기겁할 만한 짓도 아무렇게나 벌였다. 애꿎은 사람을 실험체로 써 죽느니만 못한 꼴로 만드는 건 흔한 일이었다.

그런 그들은 망가진 세계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탐하기 위해 '영웅'들을 노렸다.

"이것들은 확실히 튼튼하군."

"장로님, 이 자는 어떻게 할까요?"

"괴물 중에서도 가장 강한 자이니 중심으로 쓰기에 딱 알맞다. 이봐, 그것을 저 위에 올려두어라. 내가 직접 손을 보도록 하마."

"예, 장로님."

궁중 마법사들은 악신이 봉인된 아르지오의 무덤에서 실험을 자행했다.

그간 윤리적인 문제로 제지되었던 일들마저 세상이 혼란스러운 탓인지, 아니면 악신의 무덤까지 막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그들은 수월하게 해냈다.

"악신이 봉인된 곳이라 기운이 풍부하구나. 그래, 좋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쓰기에 딱 알맞은 곳이야. 이 괴물들과 악신의 힘을 쓴다면 주신을 이 혼란스러운 땅으로 끌어 내리는 것도 꿈만은 아닐 터...."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신을 땅으로 끌어 내린다고?'

창조주를 죽이고 그 권능을 빼앗아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고? 지금 당장 그들 영혼이 뿌리를 내린 이 땅을 고치고 일궈나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버리고 다른 것을 만들겠다니?

'멍청한 것들.'

그럴 수 있을 리가 없는데.

"이, 이게 무슨...!"

"대체 왜 이러는 거냐! 뭐가 문제였어!!"

“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분명 주신의 권능을 끌어오는 것에 성공했다고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당연히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좁고 어두운 가시 감옥에 갇힌 남자는 정확한 사정 따위는 알지 못했다.

다만 마법사들은 신을 죽이는 것에 실패했고, 그 탓에 주신은 이 세계를 버리고 떠났으며, 일부나마 복사해 낸 창조주의 권능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내려다 끔찍한 지옥을 탄생시켰음을 짐작할 뿐이었다.

‘애초부터 그게 당연한 일이었을진대.’

결코 인간은 신을 해할 수 없었다.

‘우리를 괴물이라 부르다 보니 자신들이 썼던 재료가 무엇인지도 잊어버린 모양이지.’

멍청한 놈들, 정말 지독하게 멍청한 자식들.

‘괴물이 아닌 인간이었음에도….’

그들은 인간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강했으나 그럼에도 인간이었다. 주신에게서 태어난 존재가 그를 해칠 수 없다는 건 3살 아기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똑같이 재료로 쓰인 악신의 기운이 과연 마법사들에게 협조적이었겠는가?

‘그럴 리가 없지.’

고통과 비명, 절규 사이로 마법사들을 향한 비웃음이 차올랐다. 비단 남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저와 함께 이 가시 감옥에 갇힌 모든 ‘재료’들이 최선을 다해 마법사들을 비웃어댔다.

“실패했구나, 머저리들아!!”

“끄윽… 이히히, 키히히히히히힉!!”

“이름값도 못하는 실패자들…!!”

“죽어라! 죽어라! 죽어!!!”

피와 살점, 그리고 악신의 잔해 속에서 마법사들은 점차 이성을 잃어갔다.

“이 계획을 구상한 건 처음부터 장로님이지 않으셨습니까!!”

“뭬야?! 지금 내가 틀렸다는 거냐!!”

“예, 틀렸지요! 틀렸잖아! 세계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다고!!”

“이것들이 주제도 모르고 감히…!!”

“주신께 빌어도 모자랐을 것을 그를 내쫓게 만들어서는!!”

“당장 내 앞으로 와라, 네놈의 입을 찢어야겠다!!”

그들은 ‘재료’들의 비웃음 속에서 서로를 죽이고 죽여댔다. 이미 세상에 남은 것이라고는 그들뿐이었으니 당연했다. 검은 숲 바깥의 인간들은 이미 전부 죽은 지 오래라는 것 같았다.

멸망한 세계의 실패자들. 패배자들. 그들은 온갖 끔찍한 실험을 자행하고도 오히려 기존보다 더욱 크게 세계를 망가트렸다. 이런 비참하고 초라한 말로가 아주 잘 어울렸다.

“…….”

“…윽, 어억….”

“우웩….”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은 일부조차도 검은 숲의 독기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꼴이면 그 고고한 마법사들이 구토하며 빌빌거리는 소리까지 들려왔을까.

그렇게 모든 마법사들이 죽고.

"끄아아아악...! 아악, 윽, 어...."

"...흐그으윽...."

"쿨럭, 켁. 케흐윽...!"

가시 감옥에 갇힌 '재료'들은 그제야 천천히 죽어나갔다.

"...다, 다음에 볼 때엔...."

"...신의 품에서...."

진즉 죽었어야 할 사람들은 강제로 생명을 붙여두던 마법사들이 죽고도 한참이 지나, 기어코 생명 유지 장치마저도 낡고 망가졌을 때가 되어서야 숨을 거두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

그리고 남자만이 남았다.

"...왜, 왜?"

제발, 안 돼.

"아악...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악!!!"

덜컹, 덜컹덜컹—!!!

"죽여줘, 제발...!!! 죽여줘!!! 아파, 힘들어!!! 부탁이야!!!!"

대체 무슨 이유였을까.

가장 강한 영웅이었던 그를 '중심'으로 쓰겠다는 장로 마법사의 말이 문득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으나, 그조차도 거대한 분노와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더는 생각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끄아아악!! 아아아아악!! 쿨럭, 쿨럭, 끄흐으으으윽...! 으......!"

고통에 몸부림치고, 저만 혼자 남았다는 공포에 비명 지르고, 그러다 지쳐 몽롱해지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다. 죽음과 사이좋게 포옹한 지는 한참이 지났으나 끝내 남자는 죽지 못했다.

"......."

그리고 영원에 가까운 시간 속에서 남자는 그저 어둠에 잠겼다. 아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이따금 팔다리가 전부 뽑힌 벌레처럼 바르작거리며, 이따금 없으니만 못한 이성을 차렸다가 다시 공허에 빠져들었다.

"......."

그는 이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상태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어느 날에는 고통과 공포 그 이상으로 지루함이 커져 흘러가는 시간을 세어본 적도 있었다. 742년 9개월을 하고도 3일 2시간 19초를 넘긴 뒤로는 세지 않았다.

"......."

문득 환상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다. 인간답게 살던 시절의 일이 떠올랐다.

저를 빼고 전부 죽음의 자비를 안게 된 지척의 '재료'들을 향한 원망도 느꼈고, 고통보다 더한 고통의 외로움도 느꼈다. 세상에 정말 저뿐만이 남았을까.

더는 아무도 없는 걸까.

그러다.

“……?”

무언가, 발자국 소리 같은 것을 들었고.

“…아, 어, 으….”

누군가를 어르고 달래는 듯한 음성을 들었다.

‘누구지?’

아니, 상관없었다.

누구더라도 좋았다. 혹여 그 재앙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인간이어도 좋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 다시 태어난 새 시대의 탐험대라도 좋고, 말할 수 있는 짐승들의 후손이라도 좋았다.

‘제발, 제발 나를.’

한 번만 봐줄 수 있다면.

“…….”

“…이런.”

“…….”

“살아 있는가.”

“…으….”

“가엾게도.”

숨이 절박하게 떨리는 것을 아는지, 감옥 바깥의 음성이 말을 이어간다.

“이봐, 진정해. 곧 꺼내줄 테니.”

이제야 끝이었다.

* * *

“…아….”

남자가 처음으로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걸 차린 지는 그로부터 한참 뒤였다.

“깼는가?”

“…다, 당신은…?”

“이제 좀 사람답군.”

“…….”

눈을, 아, 눈에.

시야에 무언가가 보였다.

“…아, 안아….”

“포옹이 필요한가? 혹시라도 내가 허상일까 봐?”

“안아주세요. 한 번만… 제발, 제발….”

“아직도 겁에 질려 있는 듯한데. 괜찮다, 나는 헛것이 아니거든.”

무언가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오랜만이라 눈이 찡하게 아파왔다. 눈에서 주륵주륵 흐르는 게 피가 아니라 평범한 눈물이라는 것이 역겨울 정도로 낯설었다. 숨이 막혀오고 손발이 떨렸다.

제가 감히 눈에 담지 못한 무언가는 투박하고 날 선 음성과 달리 부드럽게 다가와 그를 안아주었다. 서늘한 체온. 하지만 등을 토닥이는 손길은 따듯하고 달래는 음성은 상냥했다.

"그래, 무서웠겠지."

"......."

멍한 기분.

그대로 다시, 정신을 잃었다.

* * *

그 뒤로도 몇 번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남자는 눈을 떴다가 정신을 잃기를 반복했다.

한참이 지나 자신이 정신을 차린 것이 182번째라고 알아차릴 정도가 되었을 때, 그제야 남자는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시간 동안 눈앞의 사람은 계속 그를 달래주었다.

"......."

"......."

"오, 세상에."

새빨간 머리카락을 지닌 청년이 씩 웃으며 그를 보았다.

"이제 내가 보이나 보군, 그렇지?"

"...아...."

남자는 어설프게나마 고개를 끄덕였다.

"...제, 제가... 제가 얼마나...."

"시간이 꽤 되었을 거야."

"......."

"자, 한번 볼까."

청년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내가 자네의 손을 잡아도 되겠는가?"

"...예."

"그래, 이리 내게."

상당히 차갑다고 느낄 법한 체온은 왜인지 남자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아니, 익숙해진 것이었다.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제 곁을 지켜 주었는지 알 수 없어 멍하니 있자니 청년이 제 손을 느긋하게 잡아왔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쓸고, 꾹꾹 눌렀다. 잠시 흠칫 몸이 떨렸지만 이내 진정되었다.

"보게나, 이게 손바닥이네."

"...예."

"이게 손가락이고, 여기가 손톱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다섯 개가 붙어 있어."

그는 갓 태어난 어린 짐승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듯이 나긋하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이곳을 꾹 눌렀다 떼면 노랗게 물들었다가 다시 붉어지는 것이 보이지?”

“…예.”

“피가 통하고 있다는 뜻이야. 자네의 뼈와 신경과 핏줄이 이 손끝까지 닿아 있는 게 느껴지는가?”

“…예.”

“잘하고 있네, 훌륭하군.”

청년은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을 반복했다.

“이게 바로 자네의 발이지. 여기가 발바닥이네, 그리고 이 작은 꼬마들이 발가락이고. 손가락보다 훨씬 짧지? 원래 그런 것이니 걱정하지 말게, 나도 같은 것을 가졌어.”

“…….”

“자아, 지금 자네의 발바닥에 내 손끝이 닿았네. 총 몇 개인 것 같은가?”

“…셋?”

“음, 좋아. 아주 잘했어. 여기를 누르면 아픈가?”

“아뇨, 그냥… 시원합니다.”

“이곳은?”

“거기도요.”

“잘했네. 자, 나의 손을 잡아. 이쪽 손과 그 반대 손으로 나를 붙잡도록 해. 그러고는 발을 이 땅에 붙이거라. 아직 다리에 힘을 주기는 어려울 테니 걱정 말고 나에게 기대시게나.”

청년은 그의 손을 붙잡고 번쩍 일으켜 세웠다. 비틀거리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청년에게 기대게 되었다. 저보다는 조금 작지만 땅에 뿌리를 박은 나무처럼 청년은 굳건히 그를 지탱했다.

“발바닥의 피부를 통해 땅의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지는가? 좋아, 이제 그 발가락에 힘을 주어라. 가장 큰 것부터, 그 옆의, 그 옆의, 또 옆으로 이어져 마지막의 아이까지도.”

“…….”

“아주 훌륭하네.”

그 과정이 지나, 남자가 홀로 서게 되자 청년은 한 발자국 떨어져 섰다.

“좋군.”

“…….”

“자, 이제 내가 보이나?”

“…보입, 니다.”

그것은 장신의 청년이었다.

저와 거의 시선이 맞을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은 꽤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그 상황에서 뭐가 오랜만이지 않겠느냐만… 그냥 느낌이 그랬다.

해라고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인지 창백하게 질린 피부로는 핏줄이 비쳐 보였다.

풍성하게 구불거리는 머리카락은 매듭이 지어져 한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고, 목에는 반짝이는 금과 보석으로 이루어진 장신구가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매끄러운 천과 두툼하게 털이 오른 짐승의 가죽. 그리고 저와 같은 맨발. 장신구가 걸린 목. 날카로운 미소가 맺힌 입술. 코. 그리고….

"......."

금이 녹아든 눈까지.

"...잘, 보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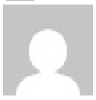
"아주 잘했어!"

청년이 웃었다.

"다시 인간이 된 것을 축하하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31)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32)

232

제232화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다.

"...어, 얼마나 걸렸습니까...?"

"흠, 글쎄. 대략 281년 정도?"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는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뜬금없이 긴 시간이었으나 거짓말이 아니었다.

평범한 미술 교사였던 서지오나 단명한 사제였던 지오반니에게는 낯선 일이겠지만, 악신 아르지오로서의 자아가 강한 지금의 지오는 큰 문제 없이 그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을 이 남자와 함께 보냈다.

하지만 수 세기를 보냈던 악신에게도 누군가 한 명을 돕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낯선 일이 맞았다. 덕분에 나름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을 했다.

"그러고도 2개월 21일 정도가 지났지."

"...예?"

"믿기 힘들어 보이는데 미안하지만 사실일세."

예상보다 오랜 시간을 남자의 재활운동에 할애하게 되었지만 그다지 큰 문제는 없었다. 지오의 집을 연구실로 쓰던 마법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곳의 시간만 빠르게 흘러갔던 것이다.

'괜히 내 집이 그 험난한 세월 동안에도 꿋꿋이 버티던 게 아니었던 거야.'

남자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을 고려해 지오는 거기에 조금만 더 손을 보았다.

281년 2개월 21일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이 유적 바깥의 검은 숲은 고작해야 94년 정도가 지났고, 지구는 3일 정도나 되었다.

지오는 뿌듯해졌다.

"나니까 이렇게 빨리 깨워낸 거지 다른 사람이 자네를 도와주었다면 이만한 기간은 엄두도 못 냈을 걸세. 아마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최소 1000년은 더 들지 않았을까?"

"가,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지오야말로 다시 ‘인간’으로 복귀한 남자에게 아주 감사했다.

‘너무 맛이 가서 포기해야 하나 싶었던 적도 있었지.’

다행히도 남자는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건지, 그와 연관된 신념이라도 있는 건지, 그도 아니라면 그냥 타고나기를 강인한 것인지 끝까지 지오의 가르침에 따라 여기까지 왔다.

‘몇 번인가 죽여달라는 소리도 했었고….’

뭐,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만.

“…….”

이거라면 나를 부른 것도 잊었을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어떨지.

‘아쉽군.’

상태가 괜찮았다면 곧바로 친구 보쌈을 했을 테지만 아무리 사악한 악신 아르지오라도 이 정도의 심신 미약자에게 그런 무시무시한 사기를 칠 생각은 없었다.

일단 사람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니 이제는 돼지로 만들어야 할 때였다.

그리고 사람을 돼지로 만들려면 최소한의 신뢰 관계가 필요했다.

“이보게, 내가 자네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도 되겠는가?”

“…아, 물론입니다.”

“자네의 이름이 궁금하군.”

“…이름….”

“기억이 나지 않는 건가?”

“…아니요, 납니다, 기억.”

대화 자체가 오랜만인 탓인지 조금 버벅거리는 감이 있어도 남자는 훌륭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아테르입니다.”

“좋은 이름이구나.”

굳건함을 뜻하는 ‘아’와 올바른 신념을 뜻하는 ‘테르’를 쓴 이름이다. 누가 지어준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성이 가득한 이름이지 않은가. 온전한 사랑과 믿음을 받았을 법도 한데.

‘가정 환경을 물어볼 만한 사이는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즈음 남자가 질문했다.

“당신의 이름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음, 그렇지. 나는 지오라고 부르면 되네.”

“…예?”

“지오.”

“그건, 좀… 그런데.”

“아하하!”

남자, 아테르에게도 ‘지오’라는 이름이 이상하게 들리는 모양이었다.

“그럼 아무렇게나 불러도 좋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내게는 이름이 없어서.”

아테르가 입을 꾹 다물었다.

“…….”

“왜 그런 표정이야?”

“죄송합니다.”

“자네는 내게 죄송할 일을 한 적이 없다네. 할 말 못 할 말 다 할 것처럼 생겨서는 의외로 섬세한 구석이 있군. 역시 얼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건가?”

“그럼 제가 미쳤다고 은인에게 쌍욕을 하겠어요…?”

“오, 역시 대단해. 아주 기특하군.”

지오가 아테르를 사람 몰골 비슷한 무언가로 만들고서 느낀 첫인상은 ‘상당한 독설가일 것 같다’는 점이었다.

예민한 눈초리나 굳은 입술. 본인 신념도 강하고 아닌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고 소리칠 수 있을 강단이 있는 인상이었다.

그러다가 자기 팔자를 본인이 직접 꼬기도 했을 것 같다만.

‘아무래도 내 감상이 맞았나 보네.’

나에게 관상학의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 지경이 되어서도 저만큼 대꾸할 수 있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

지오가 해준 것은 남자를 사람 꼴로 만들어준 것뿐이었다.

아테르에게는 그간 수백, 혹은 수천 년이었을 저 좁은 감옥에서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수월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모두 남자의 역량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게 분명했다.

“…….”

그리고 사악한 신성은 이 얼굴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다.

‘…선두의 영웅 중에 이 자가 있었던가….’

예민한 성질이 잔뜩 느껴지는 고함을 빽빽 치면서도 자기 동료들을 챙기는 것에 몰두했던 성실한 인간. 악신 아르지오가 눈에 담고 직접 겨루었던 영웅이었다.

지오는 남자의 재활 운동을 돕기 시작한 지 31년째에 그것을 떠올렸었다.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그는 아테르를 빤히 바라보았다.

“…….”

“…그, 그렇게 봐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짐승으로 부른다는 겁니까.”

“역시 내가 관상학을 전공했어야 했어.”

“예?”

“어디 보자.”

지오가 남자의 상태를 살폈다.

“배가 고플 것 같은데.”

“…아.”

아테르는 생각도 못 한 사람처럼 눈을 껌벅였다.

“…그렇, 군요. 식사를….”

“해야지, 인간이라면.”

“…….”

“거부감이 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다행이군!”

이게 기적이지.

즐거운 소식이었다. 위장에 음식물이 들어간 지 한참은 지나 곰팡이가 필 지경이었을 텐데 식사에 거부감이 없다니. 정말 감탄스러운 정신력이 아닐 수 없었다.

“정 싫을 것 같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었네.”

잠깐 수액 주사를 떠올렸지만 그 고초를 당한 인간이 몸에 바늘 꽂히는 걸 달가워할 것 같지는 않으니, 지오가 몸에 직접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방법도 있었다. 281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영양제 주사를 맞아 죽지는 않는다고 해도 배는 고픈 법이었다.

“내가 그동안 관리를 꽤 잘해 주었거든. 빈속이라고 하지만 무슨 음식이 들어가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걸세. 자네가 먹고 싶은 음식이 떠오르거든 내게 말해주게.”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한다고 그걸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 혹시 제가 저 안에 있던 동안 세상이 좀 더 나아졌던가요? 분명 그, 그놈들은… 세상이 망했다고 했었는데.”

“아, 걱정 말게. 정말 제대로 망했다.”

“…….”

지오를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던 아테르가 앓는 소리를 냈다.

“…마법사들이 죽기 전에 말하기로는 세상이 점점 망가지고 좁아진다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의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알려주는 게 어렵지는 않아.”

그간 지오가 ‘동물의 왕국’에 머물며 남자만 돌본 것이 아니었다.

“궁정 마법사들이 억지로 만들어 두었던 세계를 알고 있나?”

“…아, 그 가짜 세계 말입니까? 지상 위의 또 다른 지상?”

“아나 보군.”

“저 안에 갇혀 있는 동안 마법사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정신이 없어 많은 걸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상태가 좀 나았을 때는… 혹시 감옥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외워 두었습니다.”

“굉장한걸?”

저 무시무시한 감옥에 갇히고도 체념하는 게 아니라 ‘나가면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라며 의지를 불태울 수 있다니. 과연 그만한 기간을 갇히고도 이렇게 빨리 회복한 이유가 있었다.

“아무튼 그 가짜 세계에 말일세.”

“예.”

“새로운 문명이 들어섰네.”

“…아….”

“예상한 얼굴이군?”

“…아뇨, 예상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상상만 해본 일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저 좁은 감옥에 갇혀 아테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남아도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라곤 꿈을 꾸거나, 환각을 보거나… 깊이 생각하는 것뿐이었죠. 그중에서는 ‘과연 지금쯤이 유적 바깥은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상상도 있었습니다.”

그가 허탈하게 웃었다.

“전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원망스러운가?”

“무엇이 말입니까?”

“문명이 들어섰는데도 자네를 더 빨리 구하러 오지 않았으니.”

“…조금은 그렇습니다.”

남자가 머뭇거리다 이어 말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탓이 아닙니다. 저 위에 새로운 문명이 들어섰다면 저희가 원래 살던 세계가 역으로 가짜가 되고, 또 지하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역사가 지워졌을 확률도 높죠. 이 유적의 존재도 자연히 잊혔을 거고요.”

“좋은 추론이지만 추가적으로 말해줄 것이 있네.”

“아, 듣겠습니다.”

“지금의 새 문명이 만들어진 지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되지는 않았네. 한 19년 정도?”

지오는 유적에 머무는 틈틈이 바깥으로 나가 짐승들의 생존에 용이하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다.

짐승들은 이따금 나타난 지오의 도움으로 세상을 꾸려나갔고, 이전 인간들 수준의 문명을 꾸려낸 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검은 숲에 머물러 살고 있었지.”

“…검은 숲에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 대단하다는 궁정 마법사들도 버티지 못하고 죽었는데…?”

“미안하지만 자네가 아는 인간보다는 짐승의 형태에 가까운 주민들이지.”

“아, 아, 아아아….”

아테르가 납득한 듯이 머리를 쥐어뜯었다.

“…으아아악….”

“이런, 괜찮은가? 내가 또 달래주어야 하는 상황이야?”

“…발작하는 게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엾게도.”

기어코 인류를 밀어내고 짐승들이 신인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구시대 인간이 받아들이는 건 역시 고통인 듯했다. 그 기분을 서지오 또한 알기에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었다.

‘나도 저렇게 환장했을 때가 있었지.’

처음 초상화 바깥으로 나갔을 때 불 뿜는 회사원을 보며 얼마나 황당했던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뛰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그런 기분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마 이 사람은 나보다 더할 테고.’

최소한 서지오는 형상이라도 같았다. 반대로 아테르는 인류와 아예 철천지원수처럼 싸워대던 종족이 신인류가 되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먹먹할까. 모르긴 몰라도 엄청 혼란스러울 것이었다.

지오의 묵인 아래 한참이나 환장하던 아테르가 물었다.

“그, 그럼. 어느 정도의 문명입니까? 제가 기억하던 문명과 비슷한가요?”

“어…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라고 생각하네만.”

가짜 세계를 또 다른 진짜 세계로 만든다는 것은 애초에 아르지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만큼 아르지오의 취향도 꽤 많이 반영되었는데, 아마 영웅인 아테르가 살아 있을 때보다는 나을 듯싶었다.

‘그때는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자원이며 뭐며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서 싸워대던 시절이 아닌가. 이 차원의 황금기라 불릴 수 있었던 전쟁 이전까지는 끌어 올려 두었으니 아테르에겐 낯설 것 같기도 했다.

“뭐, 그런 고로 먹고 싶은 게 있다면 뭐든 말해도 된다는 거지.”

“…어떻게 그만한 문명이 19년 만에 세워지죠?”

“아니지, 재건 자체는 94년 전부터 시작되었어. 그들이 한 일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쌓아 올린 게 아니라 진정 ‘재건’을 한 것이니 문명다운 문명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말한 19년은 지금의 문명이 안정화된 기간을 뜻하지.”

“그렇다면 전쟁 이전 시대의 문명을 따라 한 것이겠군요. 그게 짐승들의 규격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알아서 적응을 하거나 변화를 주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식사는?”

“…왜 이렇게 식사에 집착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식사를 해야지.”

“틀린 말이 아니기는 한데….”

“…….”

“…….”

갑자기 찾아온 침묵에 지오가 늘 그렇듯 가볍게 웃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얼굴이야. 내 친히 들어줄 테니 말해보게.”

“…아뇨, 저는….”

“무엇이 그리도 두렵나?”

“…전….”

아테르가 머뭇거리다 말했다.

“…지오.”

“그래.”

“…….”

말이 나오지 않아 입술을 달싹였다. 망설임에 혀가 굳었다.

이것을 과연 내가 입에 담아도 될까. 아테르는 그렇게 멍한 정신으로 고민하면서도 시선을 들어 청년의 얼굴을 응시하고 분석했다.

그는 고귀한 핏줄의 형상을 갖추었다. 온갖 보석으로 치장했고, 천과 가죽을 이어 만든 옷은 유래를 알 수 없으나 자유롭고 아름다웠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주 강인한 사람으로 보였다.

하지만.

“.......”

이 세상에, 이 상황에, 이 공간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지?

‘하물며 300년이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나 한 명을 돌보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설령 상대가 새로운 시대의 등장으로 나타난 신인류일지라도 인간이라면 견딜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법일진대, 이 자는 그 선을 아득히 넘어섰다.

고개를 숙이니 신체를 가볍게 감싼 옷이 보였다. 전투에는 불리하기만 할 광물 덩어리들도 보였다. 이 거칠고 저주와 함정 가득한 미궁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매끈한 모습으로 서 있는 맨발도 보였다.

“.......”

애초에 더 인간이 남아 있기는 할까? 저런 형태의, 나와 같은 형태의 존재가 말이다. 그가 했던 말을 떠올리면 아마 아닐 것 같았다.

‘이 자는 인간의 관점에서 벗어난 현시대의 역사를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조금의 당황도 없이, 그게 당연하다는 듯, 매우 자연스럽게....’

아테르는 이것이 어떤 개념과 존재의 특성인지를 알았다.

결국 그는 제 눈앞에서 예의 바른 청년의 형상을 취하고 있는 존재의 이름을 불렀다.

“...아르, 지오.”

“훌륭하군.”

“...아....”

정말이었어.

한참이나 멍하니 악신을 바라보던 아테르는 말라비틀어진 입술을 꾹 깨물고, 울었다.

“.......”

우는 이유조차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32)"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33)

233

제233화

속이 답답할 만큼 생각과 잡념이 가득 차올랐다.

“…저는, 당신이….”

처음에는 인간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50세였고, 아무리 잘 산다고 해봤자 100살을 넘기기 힘들었다. 신인류는 수명이 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역시 무리였다.

그 어떤 인간이 281년 동안 끔찍한 고기 죽을 사람으로 빚어낼 수 있었겠는가?

“…당신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뒤늦게 떠올랐다.

“제가, 제가… 분명… 저 좁은 감옥 안에서….”

“나를 불렀지.”

“무서웠습니다. 혼자인 게 너무 외로웠고, 고통스러움이 너무 오래되어 정신이 몽롱했죠. 더는 이렇게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

“충분히 버텼다고 보네.”

“…….”

“후회하나?”

“…….”

“조금은 그래 보이는군.”

제가 수많은 피와 살로 봉인한 악신을 다시 세상에 불러들였다는 것이 꽤 끔찍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결국 그의 비명과 부름에 손을 뻗은 것은 이 악신뿐이었다.

모순적인 감정이 동시에 들었다.

“…….”

입술을 꾹 깨물고, 심호흡을 한 아테르가 물었다.

“…왜 인간의 형상을 하고 계십니까?”

“인간이었으니까.”

“…그랬, 었죠. 맞습니다. 그랬군요….”

“다른 이유도 있기는 하네.”

아르지오는 완벽하지 않았다.

“나는, 흠.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

“……?”

“완전한 조각이 아니거든.”

“…완전한 조각?”

“100중 99개만 모여 있어.”

동화가 덜 됐다.

“시간이 지나며 꽤 많은 조각이 모였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많다네.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닌 셈이지. 나는 태어나 10살 이후로는 늘 짐승의 형태였으나 사람 흉내를 낼 줄 알았던 탓에….”

그러니 지금 아르지오의 모습은 일종의 의태였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아르지오’의 모습. 결국 지금의 지오는 초상화이니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아. 나는 자네가 걱정할 만큼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조각을 돌려받지 못했으니 말이다.”

“…그 조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무덤 아래에 있지.”

“아래가 있었…?”

“마법사들이 가짜 세계를 만들며 내 힘을 빌려 쓰기 위해 모종의 정리를 한 듯 보였네. 정확히 말하자면 ‘내’ 힘이라기보다는 ‘악신 아르지오’의 힘에 가깝겠지만….”

“그 둘이 많이 다릅니까?”

“같다고 보기는 어렵겠지.”

악신은 수많은 성자의 증오와 원망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괴물이었다. 그 안에 아르지오의 인격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가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다. 초상화가 되며 끝없이 타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지만 그건 제압에 불과할 뿐 사라진 게 아니었다.

“말하자면 내 심장과 손발은 수만 가지로 나뉘어 따로 보관이 된 셈이야.”

“…왜 다시 돌려받지 않으셨습니까?”

“돌려받지 못하는 걸세.”

무슨 뻔한 이야기를 하냐는 듯 그가 아테르를 보았다.

“자네들이 나를 봉인하지 않았나.”

“…아.”

아테르는 한참을 멍하게 있었다.

“…….”

그가 뒤늦게 물었다.

“…그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봉인의 영향이?”

“귀중한 목숨이 몇이나 희생되었는데 그럼 남아 있어야지. 마법사들이 건드린 것은 그 위치와 관리 정도이지 봉인 자체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럼 지금 제 앞에 있는 당신은 무엇입니까?”

“검은 숲의 가장 마지막 짐승.”

“…아닙니다.”

아테르의 손에 꾹 힘이 들어갔다.

“당신은 성자셨지요.”

“아, 제발. 나는 그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성자는 지오반니와 같이 어린양을 순순히 이끌어줄 성정에나 어울리는 단어였다. 아르지오에게는 악신, 괴물, 짐승이라는 말이 딱 어울렸다. 그것은 자유로운 분노와 가치 있는 고통을 상징했다.

하지만 아테르에게는 영 그렇게 들리지 않는지 표정이 안 좋았다.

“…….”

“세상에, 지금 자책이라도 하는 건가?”

기특한지고.

“자네들이 한 일이 정당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장본인인 당신께서.”

“나니까 할 수 있는 소리지.”

“당신은 저희를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죽인 건 사실이나 증오하지 않았어. 최소한 ‘나’는 그랬다.”

진심이었다.

“그저 화를 내고 싶었지.”

“그렇다면 화라도 내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품은 분노는 자네를 향한 게 아닐세. 나를 더러운 짐승이라 모욕하고 검은 숲의 가족들을 불사른 비겁자들을 향한 것일지니, 자네는 나에게 비열한 분노를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네.”

“…….”

입을 몇 번인가 달싹이던 아테르의 얼굴이 형편없이 구겨졌다.

“복잡해 보이는군.”

시간이 필요할 듯해 지오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다.

“…잠시만요, 아르지오.”

“무슨 일이지?”

“제, 제게….”

망설이던 그가 부탁을 해왔다. 찌푸려진 두 눈에서 의지가 느껴졌다.

“제게 당신의 이야기를 알려 주십시오.”

유적의 기록을 통해 숨겨져 있던 수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것은 단편에 불과했다. 그 셀 수 없는 성자들의 이야기를 알고 기억하고 곱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료였다.

그는 아르지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당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알려주세요.”

“어렵지 않네만.”

지오가 고개를 기울였다.

“믿을 수는 있고?”

“…온 힘을 다해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들었다.

“자네는 인간이군.”

무거운 가치를 지녔어.

* * *

“나는 한 명문가의 자식이었다.”

악신의 이야기는 그 위압적인 음성과 달리 나긋하게 이어졌다.

“재앙이 휘몰아치는 검은 숲의 괴물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방패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으며 명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가문이었어.”

“…당신은….”

“막내아들이었다네. 손재주가 좋고 이상적인 외모를 가졌기에 예쁨을 꽤 많이 받았지. 특히 예술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춤과 그림, 음악….”

“…제가 아는 악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법 농담도 하니 내가 참으로 기쁘네.”

그는 한때 사랑받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가문은 대대로 괴물이 태어났다. 그 괴물은 점차 짐승의 형상을 띠게 되어 결국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마로 자라나. 그 태가 나기 시작하면 가문은 어린 짐승을 검은 숲에 가둬 재앙을 막았다.”

“이유가 뭡니까? 단순한 혐오 때문에?”

“그 이유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어린 짐승이 검은 숲에서 재앙을 끌어와 세상에 퍼트려 버리거든. 검은 숲과 인간을 닮은 짐승이 한 몸이라고 판단한 가문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전통을 이어나갔지.”

“하지만 당신들은 분명 성자라고….”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야.”

괴물이 태어났기 때문에 검은 숲에서 재앙이 흘러나온 것이 아니고, 성자가 태어났기에 검은 숲의 재앙을 틀어막을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단지 ‘괴물을 검은 숲에 버려야 한다’는 사실만을 기억했다.

“나는 그렇게 검은 숲에서 자라왔네. 그리고 내 존재 의의를 새롭게 알게 되었지.”

“억울하셨을 텐데.”

“그보다는 우스웠다. 대체 인간들이 뭘 믿고 저렇게 구나 싶었고, 한편으로는 하찮은 나머지 귀엽기까지 했어. 내가 휘저으면 휘젓는 대로 망가져 버리고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존재란 그런 법이니까.”

“…….”

“뭐, 그러다….”

스스로를 괴물이라 부르는 이의 얼굴은 부드럽게 풀려 있었다.

“여러 가족과 친구를 사귀었다.”

“…검은 숲의 짐승들 말입니까?”

“그것도 있고.”

“또 있던가요?”

“내가 잡아 온 이들.”

“…….”

망설이다가 말했다.

“당신께 바쳐졌던 산 제물들을 이르는 말이군요.”

“그렇지, 덕분에 내가 식인을 한다는 소문도 났고.”

“왜 그걸….”

“나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긴 편리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박해도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인간의 억지와 고집은 아르지오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 아집 탓에 검은 숲의 괴물이 되지 않았나. 그 방향이 아르지오에게는 썩 유쾌했다지만 저를 멸시한 것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진 않았다.

다만 설득할 이유가 없었을 뿐이다.

“굳이?”

그렇게 아르지오는 짐승으로 살았다.

“시간이 꽤 지나고, 나는 제멋대로 살고, 사람들은 겁에 질리니… 뭐라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가문에서 일을 쳤다. 그들은 기어코 검은 숲의 일부를 풀어냈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를 낳은 가문이 대대로 검은 숲에 봉인된 재앙을 틀어막고 있다고 말했었지? 그들은 그곳의 가장 깊숙한, 검은 숲을 이루는 재앙의 본질인… 물을 꺼냈어.”

“물… 입니까?”

“나는 간편하게 그것을 검은 물이라고 불렀네만.”

사람들은 또 다르게 부르더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전염병이라고 부르더군?”

“…잠깐만.”

아테르가 당황했다.

“그것조차 당신의 짓이 아니었다고요?”

사람들의 이지를 썩어가게 만들고, 신체를 문드러지게 하며, 기어이 세상을 멸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지독한 독이 악신의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마저도 인간의 멍청한 짓이었다고?

“최소한 검은 숲에서 튀어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 하지만 그게 왜... 그런 건 검은 숲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왜 그게 당신 가문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거죠?”

“가장 태초의 성자가 기억하던 과거를 떠올려보면 아마 분담하려던 목적이었던 것 같네. 세상을 뒤엎을 재앙을 하나는 숲에 두고, 하나는 가문에 두어 역할을 나눈 것이겠지.”

“당신의 가문 사람들은 그걸 왜 세상에 퍼트린 겁니까?”

“그들은 그게 재앙일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 다만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많이 위험하지만 역사 깊고 성스러운 무기라고 생각했지. 그들은 그것을 나를 토벌하기 위한 무기로써 사용하고자 했네.”

“.......”

“그들에겐 내가 참 보기 싫었을 거거든.”

고귀한 가문에서 그러한 짐승 형상의 악마가 태어난다는 것은 극비였다.

하지만 그 어린 괴물은 검은 숲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살아 세상을 떠돌아다녔으니, 그가 언제 입을 열어 가문을 욕보이고 또 보복하러 올까 두려웠던 것이다.

“참 멍청하지?”

결국 그들은 잔혹한 짐승 아르지오를 토벌하겠다는 목적으로 ‘무기’를 열었고, 그 결과가 바로 세상을 뒤덮은 전염병이었다. 가문은 그에 대한 책임조차 지지 않고 멸문할 때까지도 입을 꾹 닫은 채 조용히 쓰러졌다.

“결과적으로 나는 사람을 산 채로 뜯어먹고, 수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악마이며, 심지어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전염병을 퍼트린 원흉이 되었네.”

“...그래서....”

“검은 숲이 불태워졌지. 아마 이건 자네도 알 것 같은데, 결국 궁정에서 군대가 파견되어 사방에서 나를 조여들어 왔어. 결국 나는 검은 숲과 함께 불타 큰 부상을 입고 가족들의 품에서 끝내 죽고 말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악신 아르지오’입니까? 잔혹한 짐승?”

“잘 이해한 것 같구나.”

그는 기특하다는 듯이 웃었다.

“내가 왜 화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는지 궁금한가?”

“...그만한 능력이 없으셨던 겁니까?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그 정도는 능히....”

“도망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사실 그 이유는 기억나지 않아.”

“...예?”

“아마 내 남은 조각 안에 깊이 잠들어 있는 모양인데, 뭐, 검은 숲에 두고 가기 싫은 보물이라도 있었던 게 아니겠는가? 아니면 내 고향을 두고 도망치기 싫다는 애틋한 마음이나, 혹은 정말로 군대가 치밀하게 조여 온 탓에 도망치지 못했던 걸 수도 있고.”

“...그냥 지치셨던 건 아닙니까?”

“그도 일리가 있는 말일세. 어쩌면 이게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결말이라 여겼을 수도 있다.”

괴물은 괴물답게.

"...뭐어, 난 그렇게 생각을 했다만...."

"악신 아르지오는 인간을 향한 증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사악한 신성은 나만 모여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예, 그렇겠죠."

그 이후로는 아테르도 잘 알고 있었다.

"...당신은 정말로 우리를, 증오하지 않았군요."

"최소한 나는 그럴 이유가 없었다."

"...하...."

허탈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33)"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34)

234

제234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다가왔다.

"예? 갑자기요?"

"배가 고프지 않냐고 내가 10번은 더 물어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생각이 많아져서…."

"먹으면 생각이 더 잘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네."

"……."

아테르가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별말씀을."

지오가 방긋 웃었다.

이제야 이 빼빼 마른 것을 돼지로 만들 수 있겠군.

* * *

"어라."

유성운이 오랜만에 등장한 액자를 보며 눈을 껌벅였다.

"웬일로 복도에 나왔어?"

"유성운 씨가 지나가는 것 같아서."

"나? 나 오랜만에 복귀했지."

긴 야근을 마치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너도 요즘에 오두막에서 잘 쉬고 있나?"

"아뇨, 최근에는 '동물의 왕국'에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그쪽에서 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주현 씨가 말해줬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던전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아하, 던전.”

침묵하던 유성운이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에 나와 있었던 이유가 있었군.’

복도 회의가 열려야 할 때였다.

* * *

늘 그렇듯 복도 회의의 멤버들이 모이고, 가장 먼저 유성운이 물었다.

“그래서 던전을 만들고 있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지? 네가 만약에 수습해야 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고를 칠 예정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대비를 할 수가 있어.”

“진짜 절박해 보이네….”

주현의 중얼거림에 그의 목에 걸려 있던 산칼루트가 고개를 기울였다.

“던전입니까?”

“예, 던전입니다.”

“저도 한때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들은 사악합니다. 나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지오 씨도 그러십니까?”

“고향이란 참 좋은 것이지.”

그에 주현이 물었다

“그래서 대체 무슨 던전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지오 씨는 이전에도 이미 던전… 비슷한 것을 그려 내셨잖아요. ‘숨 쉬는 바다’도 그렇고, ‘공허의 도시’도 그렇고, ‘일기장’도 그렇고.”

“그것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정확히 뭐가 다를까요?”

“저는 그곳에 마왕성을 지었습니다.”

아르지오가 행복에 충만한 얼굴로 웃자 유성운이 침묵했다.

“…….”

그래, 언젠가 이날이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다.

“…각오했어.”

“혹시 우십니까?”

“우는 큐레이터 처음 보니?”

“유성운 씨가 우는 모습은 지난번에도 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원인이 너였던 것 같은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기억납니다.”

“그러시겠지….”

단전에서 우러나온 깊은 한숨을 끌어낸 유성운이 물었다.

“그러니까 그거라는 이야기지? 마왕성?”

“잘 이해하신 것 같아 기쁜 마음입니다.”

지오가 쌍 엄지를 치켜들었다.

“저는 한때 생각했죠.”

“덜 생각해도 될걸?”

“나는 악명을 원합니다. 하지만 ‘아르지오’가 실질적으로 저지른 잘못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제발....”

“해서 ‘아르지오’로서 살아가기 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악명을 조성해 보려 하였으나 주현 씨께서 극구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건 서로가 죄를 짓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나이스.”

유성운과 주현이 주먹을 맞댔다.

“난 주현 씨를 믿고 있었어.”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태어나 잘한 일 중 5위 안에 드는 일이었죠.”

“1위가 아니라니 이거 놀라운걸?”

그에 지오가 말했다.

“아직 더 놀라운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분명 자제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예 마왕성을 짓고 오셨다는 말씀에 제 심장은 이미 지구 내핵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는 마왕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주현이 반듯한 얼굴로 웃었다.

“이리 와서 저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진정하십시오, 주현 씨.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주현 씨의 이야기를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주현 씨가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정말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악신 아르지오를 끌고 오기로 했죠.”

“.......”

주현이 곧이어 지오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깨달았다.

“...억지로 새로운 악명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악명을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지오 씨가 다른 차원에서 악신으로 활동했던 것은 사실이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온갖 누명을 쓴 ‘아르지오’의 악업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친 전적이 있는 ‘악신 아르지오’의 악업을 갖다 쓰겠다는 듯했다.

지오가 긍정했다.

“주현 씨와는 말이 잘 통해서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잘 통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유성운이 아련하게 웃으며 주현을 보았다.

“멀리 안 나갈게.”

“아무 데도 안 갑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걸 보면 슬슬 인간의 범주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뜻이겠지. 나중에 주교님이 되면 내 인사 꼭 받아주기야.”

“그 정도 상황도 아니고 그 지경까지 갈 생각도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제가 기필코 유성운 씨를 가만히 두지는 않겠습니다. 동료를 버리고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봅시다.”

“나는 이렇게 보여도 설원을 모시고 있는 몸이라 두 집 살림은 좀 힘들어.”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해도 되는 거 아니라는 점 모르시지 않을 텐데요?”

주현이 다시 멀끔하게 웃으며 지오를 돌아보았다.

“악신 아르지오의 악명은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압니다. 인간 아르지오보다는 훨씬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악신의 악명이 퍼지는 과정에 이것저것 강제로 첨가된 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반응이 한 박자 늦죠? 본인도 찔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거 아닌가?”

“아무튼 이 사악한 신성이 세계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매우 미심쩍다니까요?”

“우리 악신이도 잘못한 게 맞단 말입니다.”

그야 상당 부분 인간들이 누명을 씌운 것도 사실이기는 했지만, 악신이 왜 악신이겠는가. 성자들의 원혼이 뭉쳐 만들어진 순수한 분노 ‘아르지오’는 세상을 저주하며 학살을 저질렀다.

“물론 전염병이니, 마왕군이니, 식인이니 뭐니 하는 부분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만.”

“거봐요.”

“그래도 제 핑계 대고 불행이 어쩌고 재난이 어쩌고 했던 것만 제외하면 ‘악신 아르지오’ 역시 굉장한 학살자였습니다. 그것만큼은 달라질 일이 아니죠.”

비록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아르지오는 증오에 휩싸인 그 모든 성자들의 원혼을 떨쳐낸 개인에 가까웠지만, 그렇다고 한때 같은 몸을 썼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건 제가 지은 죄가 맞고, 악업이 맞습니다.”

그러니 이건 허위 광고가 아니었다.

“100%는 아닐지라도 81% 정도는 내용물이 꽉 찬 상품이라는 거지.”

“좀 애매하게 꽉 차지 않았어?”

“요즘 세상에 81% 정도면 대단한 이득인 상품입니다.”

“아니, 뭐, 그렇기는 한데….”

악신 함량 순도 81%를 과연 기뻐해야 하는 건지 모를 노릇이라 유성운의 표정이 기묘해졌다. 악명이니 마왕이니 하는 아르지오에게는 기쁠 일일지는 몰라도, 영 희한한 감성이긴 했다.

주현도 비슷한 생각인지 얼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산칼루트가 물었다.

“두려우십니까?”

“네.”

“조금 다른데.”

“물가에 애 내놓은 기분이라….”

“…….”

“이건 공포가 맞지.”

산칼루트는 말없이 평범한 비단뱀처럼 다시 주현의 목에 늘어졌다. 이 단단한 그릇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었다. 나중에 해석해 달라고 부탁해야 할 듯싶었다.

그런 산칼루트의 반응이 전혀 알 바가 아닌 주현이 손을 떼어내고 고개를 들었다.

“…제가 했던 말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건 맞죠?”

“아, 물론입니다.”

예전 주현의 말처럼 확실히 한때 ‘동물의 왕국’에 있었던 일들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았다.

애초에 애꿎은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며 진실 이상의 잔악한 괴물로 몰고 가는 행태가 정말 옳은 일이었더라면 그 많은 성자들이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멸시받으며 분노의 악신으로 재탄생하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지구도 그곳과 같은 전철을 밟게 만드는 건 지나치게 사악한 일이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로 다행이네요.”

그런 둘의 대화에 산칼루트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 동그란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대체 뭐가 지나치게 사악하고 또 그래서 뭐가 다행인 건지 모르겠다. 이것도 해석을 부탁해야 할 것 같았다.

그와 무관하게 지오가 이어 설명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양질의 전투를 즐기고 싶습니다. 이른바 책임 없는 쾌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것을 지기 위해 허위 매물이 아닌 근거 탄탄한 역사를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던전도 만들고?”

유성운이 늘 그랬듯 무던하게 웃었다.

“그 던전을 만들어서 정확히 뭘 하고 싶은 건데?”

“종교 전쟁을….”

“잠깐, 여기까지.”

그는 팔을 끼고 눈을 감았다.

“유성운 씨?”

“…….”

“…….”

“…좋아, 정리했어.”

유성운이 얼굴에 한가득 체념을 담아 명쾌한 답변을 내렸다.

“기어코 이 지구를 무너트리겠다는 건가?”

“아이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르지오가 낄낄대며 웃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대체 무엇을?”

“지금의 지구에는 믿음직한 기둥이 있지요.”

“설마 지금 너를 말하는 거니?”

“바로 맞히셨습니다. 정확히는 검은망토가 그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자기애 넘치는 모습 정말 보기 좋다.”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아르지오는 분노와 전쟁, 그리고 고통의 악신이었다. 그런 그가 평화 속에서 무뎌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는 결국 저와 진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과의 전쟁을 원했다.

하지만 그게 상당히 얌체 같은 행동이라는 것은 지오도 알았다. 또한 아르지오 자신이 멸시하는 소인배들과 같은 행위를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니 지오는 타협해야 했다.

“사고를 살짝 치면서도 지구와 저, 그리고 제 주변에 피해가 없을 수 있는 행위. 시발점이 될 사고 자체는 얄팍하더라도 피해가 잔뜩 부풀려져 악명을 드높일 수 있는 일들. 그러면서도 용사와 같은 재목과 전투할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종교밖에 없으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벌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봤자 어설퍼서 중간에 들통날, 아니, 실패할 게 뻔했다. 죽음의 신조차 아르지오가 악신으로 타고났으나 악이 될 재목은 아니라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알겠어, 알겠다고. 예전 악명을 끌어당겨서 지구에 싸움을 걸어 보겠다는 거잖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신이라서 아는데 신성 모독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저는 저와 같은 분노와 탐욕의 악신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지구의 종교들을 이미 여럿 알고 있죠.”

“자기 좋을 때는 내내 인간 타령이더니 이럴 때는 또 신이라지? 아니 뭐,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했어. 당장 태양교도 있고, 달님교도 있고….”

“그러니 ‘악신 아르지오’의 악명을 끌고 와 토벌전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건 타당한 토벌입니다. 전투는 다른 차원인 ‘동물의 왕국’에서 진행될 테니 지구에 피해가 가는 일도 아니죠.”

“…어차피 위험한 던전으로 알려지면 헌터가 배정되는 일은 흔하게 일어나긴 하지.”

“하지만 그것만 두면 어중이떠중이들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영웅’과의 전투이니 말입니다.”

“영웅….”

유성운이 주현을 보았다. 주현이 단호한 미소를 지었다.

“왜 저를 보시죠?”

“우리 지오와 길드장님이 인정한 영웅이 여기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 비 각성자인 거 안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숨만 잘못 쉬어도 죽습니다, 연약한 민간인을 보호해 줄 생각을 먼저 하셔야죠.”

“말하는 거 보면 그렇게 연약하진 않아. 주현 씨 비 각성자치고 되게 용감한 편이야.”

아무튼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종교색을 입혀 보겠다는 건가.”

“예, 그들은 맹목적입니다.”

순수하게 분노할 줄 알았다.

“저는 그 눈이 먼 맹목을 원합니다.”

진정한 분노의 전투.

“그게 제 존재 의의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금 만들어둔 던전을 이용해서 전투를 벌이는 것 정도로는 만족하기가 힘든 건가? 설마 인어들처럼 끝을 보겠다는 소리는 아닐 거 아니야. 신성이 그런 식으로 죽지도 않을 것이고.”

당장 산칼루트만 해도 인간들이 안간힘을 다했으나 봉인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필멸자는 불멸자를 죽일 수 없었다. 그게 순리이고 섭리였다.

“대체 무슨 결말을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유성운 씨가 말했던 것과 같이 저는 불멸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가 원하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뭘 할 거야?”

“한동안은 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지오는 ‘아르지오’만이 있지 않았다. 외향적인 활동에 잔뜩 기운을 빼앗기는 서지오도 있었고, 피를 보는 일을 대단히 못마땅해하는 지오반니도 있었다.

“그러니 목적이 있다면, 그렇군요.”

그가 이 과정을 통해 봐야 할 끝은 단 하나였다.

“‘아르지오’와의 완전한 동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야, 성불하는 건가?”

“아하하...! 그것과도 꽤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는 지금의 아르지오로서 ‘악신’의 전쟁을 끝마칠 수 있기를 바랐다.

* * *

아르지오의 퀘스트

악신의 제어(1/1)

메마른 숲에 단비를(1/2)

오늘의 상태_‘동물의 왕국’

“다 덤벼o(ˋ ῴˊ)o”

오늘의 상태_‘일기장’

“오늘도 평안한 하루!✧⁺⸜(•□•)⸝⁺✧”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34)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34)"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35)

235

제235화

“끼유웅.”

“귀여워.”

“캥캥캥캥캥.”

현재 지오는 새끼 여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얘들아 제발…! 그러면 안 된다고!”

“죄송합니다 주인님…!”

그리고 곧 그들의 어버이인 여우들이 후다닥 달려왔다.

“애들이 아직 언어를 배우질 못해서…!”

“귀여웠으니 됐어.”

“가, 감사합니다.”

“일에 많이 익숙해진 것 같은데.”

“아, 물론이죠!”

달려온 여우 중에는 여우족 족장, 라미도 있었다.

“언제든 편하게 모실 수 있도록 성을 갈고 닦았습니다!”

지오는 한차례 가짜 세상이라 불리던 곳을 뜯어고쳐 생물이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으로 만들어둔 적이 있었다. 그리고 9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종족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자그마한 나라를 세웠다.

그게 바로 지오의 마왕성이나 다름없었다.

‘만약 전투가 시작되면 지하로 끌고 가겠지만.’

이쪽은, 글쎄.

‘속임수 함정 정도의 역할로 활용해 볼까.’

그간 모든 짐승들은 인간으로 둔갑하는 법을 배웠다. 지오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모시고 있는 존재의

형태가 인간인 탓에 무언가 의무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중에서 여우족은 주로 성의 이곳저곳을 꾸미고 청소하는 사용인의 역할을 했고, 늑대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위험을 제거하는 경비가 되었으며, 까마귀족은 각종 시설이나 행정을 만지는 관리들이 되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어서 기뻐.”

“최근에는 자주 들르시는 것 같아 저희도 기쁜 마음입니다. 가르갈이나 발프 씨를 모셔올까요? 자리를 비우신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실 거라면….”

“내가 굳이 그걸 알 필요는 없지.”

이곳은 아르지오가 머물고자 만들어낸 곳이 아니었다. 이 자그마한 나라를 만든 건 짐승들이었고, 지오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뜨거운 해를 고치고 싹이 피어나게 한 것뿐이었다.

‘던전화가 상당히 진행된 탓에 차원 자체가 좁아지기는 했는데….’

뭐, 그건 인구수가 더 늘어나 봐야 고민해 볼 문제고.

“손님들을 모셔오면 잘 맞이할 수 있겠어?”

“…물론입니다.”

족장 라미는 여우다운 미소를 지었다.

“어떤 손님이 오셔도 홀딱 반하게 만들 자신이 있어요.”

“그래, 믿어보지.”

“그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지오도 마주 웃었다.

“다 즐겁자고 하는 일인 것을.”

환락의 유원지를 꾸리고 있었다.

* * *

어느 날 달님교의 성녀가 미쳤다는 소식이 수집상에 닿았다.

“…흐음….”

초대장을 든 채로 지오가 고개를 살며시 기울였다.

“…예전에 아리아가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손을 뻗을 정도면 상황이 꽤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하긴 나도 길드장님에게 비슷한 말을 듣긴 했지만… 이렇게 회사 전체가 알 정도로 대놓고 나설 줄이야. 고고한 달님교라고 해도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전에 들었을 때도 궁금했던 거지만, 원래 성인이 미치기도 합니까? 아니면 미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느 쪽이든 결국에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지오의 질문에 유성운이 어깨를 으쓱였다.

“무엇보다 달님교의 성녀님은 처음부터 그릇이 컸던 게 아니라 학습과 훈련을 통해 커진 거라 그만큼 부작용도 있을 거야. 너 같은 사례는 드물어.”

“지오반니로서의 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 일반적으로 인간은 신과 교류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달님교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본인들 신성과 교류할 방법

을 찾아낸 모양이지만….”

기어이 수집상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다면야 그것도 한계가 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정말로 종교와 관련된 문제는 내 전문이 아니란 말이지. 너를 담당하게 된 이후로 이것저것 열심히 공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내부적인 문제까지 알아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야.”

“관계자만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도 있을 테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달님교는 폐쇄적인 분위기가 강하다고 들었는데요. 외부인인 유성운 씨가 자세한 내막을 알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네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어….”

“괜찮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는가. 지오가 푸른빛이 감도는 은색 초대장을 살랑 흔들며 웃었다.

“달님교에서 저를 불렀으니까요.”

“…그래서 아쉬워하는 거야, 그 전에 미리 정보를 쥐여줄 수 있으면 더 좋을까 해서. 종교가 폐쇄적인 거야 흔한 일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인어 공주님 사건 이후로 너의 첫 활동이 달님교 방문이 될 줄은 몰랐어.”

“비공식적인 활동이니 괜찮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없을 듯싶었다.

* * *

“서지오 헌터님?”

“예, 접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달님교는 무척이나 조용한 분위기였다.

‘태양교와 대비되는 종교라던 이유가 있었네.’

태양교는 그 안쪽까지도 시끌벅적했다. 귀가 아프다거나 소란스럽게 느껴질 정도는 아니고, 적당히 기분 좋은 정원에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밝고 명쾌한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달님교는… 좀 더….’

죽음의 신전과도 조금 다르고.

‘…차갑다고 해야 하나?’

냉정한 분위기가 있었다.

인간의 성질로 친다면 감정보다는 이성이 우선시되는 느낌. 과정보다는 결과를,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할 것 같은 인상이었다. 고작 지금 잠깐 본 게 다이지만 말이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지내기에는 조금 팍팍할지도 모르겠어.’

그러고 보면 예비 사제를 뽑는 것도 애초에 성인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질이 되는 이들을 뽑고, 성인만큼 그릇이 넓어지지 않는 이들은 달님교의 신도가 되는 방식이라고 한 듯했다.

“…….”

은과 대리석으로 꾸며진 달님교의 신전은 차가운 색상이었다.

'같은 색이더라도 태양교와는 확실히 다르구나.'

묘하게 푸른빛이 도는 벽과 기둥들은 정말 달을 떠올리게 했다. 우주에 둥둥 떠 있는 달. 등은 환하게 켜져 있는데 어딘가 시리다. 기분 탓은 아닌지 공기도 조금은 서늘했다.

'이런 분위기도 좋네.'

고요한 신전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머리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다.

"이곳입니다."

그는 곧장 주교의 방으로 안내받았다.

달님교의 주교로 보이는 이는 이 신전만큼이나 푸르게 하얀빛을 띠는 백발의 노인이었다. 그녀는 손님에게 예의상 지어줄 법한 미소조차 짓지 않은 채로 지오를 맞이했다.

"반갑습니다, 서지오 헌터님. 달님교의 주교인 배서경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주교님."

"저희야말로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겠군요."

노인은 뼈마디가 보일 정도로 마른 사람이었다. 다양성이 미친 듯이 인정받는 현시대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피부가 짙고 골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보아 구시대의 기준으론 완전한 한국인의 피는 아닌 듯했다.

'중동 쪽인가.'

아예 이민을 온 건지 그저 피가 섞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반가웠다. 강서담도 비슷한 계열인 것을 떠올려보면 유독 종교계에 국가의 피가 섞이는 상황이 잦은 듯 보였다.

모든 사제를 물린 뒤에야 주교가 말문을 열었다.

"초대하기 전 매니저께 소식을 전달드렸던 것으로 압니다."

"조용히 왔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번 일은 저희 달님교의 위신과 크게 연관이 된 일이라 모든 사제의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요."

짧게 한숨이라도 쉴 법한 분위기였지만 주교는 끝까지 중심을 유지했다. 그녀는 곧이어 다시 한번 달님교가 서지오 헌터를 초대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성녀님께서 고단하십니다."

"증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을 모시는 것에 있어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죠."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가요?"

"저희도 성녀님을 모시게 된 것은 상당히 오랜만이지만, 대대로 달님교의 성인이 단명했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이유야 알 법도 합니다. 그릇이 버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교가 문득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지오를 보았다.

"그러고 보면 조련사로 각성하셨죠. 검은망토라는 신성을 모시고 있다지만 한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제가 아니시니 종교계의 내부 사정에 대해 아시기는 어려울 줄로 압니다."

"예,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 달님교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달님교가 해마다 자질이 훌륭한 사제들을 모아 그중에서 성인이 날 수 있게끔 교육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독특하다고 생각했고요.”

“…확실히 태양교에서는 이러한 달님교의 교육 방식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성을 모시는 데 성인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아 보이십니다.”

“문제점이 확실히 있으니까요.”

성인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솔직히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예비 사제 중 누군가가 성인으로 승격이 된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처음부터 그 자질이 잘 맞아떨어졌다면 모를까, 속세와 동떨어지지 못한 사제는… 점차 큰 부담을 느낍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스스로 인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됐다. 아니,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릇이 큰 존재였다면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태초의 그릇도 미달이었는데 자세까지도 미달이라면 더더욱 힘겨워졌다.

“인간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성인은 성인이었다. 신성의 자식이자 친구이며,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주어야 했다.

이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겪어야 하는 고통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였다. 그게 바로 달님교가 만들어내는 성인이었다.

“이번 성녀님께서는 저희 역사를 따지자면 특출나게 잘하고 계십니다. 달님과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석하는 능력도 뛰어나며, 신께 선물을 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해내시죠.”

“그럼에도 문제가 있군요.”

“성인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으로 죽는 것과 다른 하나는 또 다른 신성이 되는 것이지요. 이번 세대의 성녀님께서는 후자의 자질을 갖추셨습니다.”

하물며 그들이 모시는 달님마저도 그것을 원했다.

“다만… 그릇의 크기에 비해, 정신의 한계가 분명한 것이 화가 되었군요.”

“정신의 한계라.”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으로 남길 원하시나 봅니다.”

“저 역시 이만한 자질의 성녀님을 모신 것은 처음이다 보니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재앙이 한창이었던 시절에는 이보다 더한 재능의 성녀님이 있었다 뿐, 이렇게… 불분명한 태도의 성인을 대하는 방법은 기록되지 않았고요.”

“제가 무엇을 해드리길 바라십니까?”

“그분이 어느 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신성이 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외부인에게 맡기기에는 과분한 임무가 될 텐데요.”

“달님교는 성과를 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나왔고 그 영향을 온몸으로 만끽했다면 부정할 이유가 없었다. 역사와 전통은 미래를 위한 것일 뿐, 망설이거나 후회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다.

“그런 저희는 서지오 헌터님에게서 희망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례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당신이 검은망토의 성자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

"…물론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길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달님교가 전담을 하되 새로운 시각에서의 의견이 필요하다 판단되었을 뿐입니다. 이대로면 해가 지나도 달님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리라는 결론이 나와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지오 헌터가 성녀를 어떤 식으로 돕는다고 해도 좋았다.

성녀가 인간의 길로 확정되면 달님교에 있어서는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되겠지만, 쉽게 나오지 못할 귀중한 인재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죽는 것보다야 나을 것이었다.

그리고 지오는 성녀의 방으로 옮겨져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으, 으아… 아아… 아아아… 아…."

"……."

"아으아… 하… 하아아윽…."

"……."

"끄아하하하하학…! 하아, 하, 하하! 하!"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방 한가운데에 놓인 소녀는, 피투성이였다.

"…이런."

크툴루라도 소환했나?

우리 장르가 갑자기 힐링물에서 코즈믹 호러로 바뀐 것 같은데.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36)

236

제236화

참고로 말하자면.

"……."

지오반니는 이와 꽤 비슷한 광경을 몇 번인가 본 적이 있었다.

'악마한테 홀렸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광경과 비슷하지 않던가?'

지오가 천장을 바라보았다. 시리게 빛나는 은처럼 반짝였던 대리석은 온데간데없이 모습을 감추고 그 자리를 차지한 건 검붉은 핏덩이와 꿈틀거리는 살덩어리뿐이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생겨난 광활한 구덩이 사이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보였다.

"…음…."

"보지 마십시오."

함께 온 주교가 눈을 내리깐 채로 그를 말렸다.

"정신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아하."

진짜 크툴루였나 본데.

'세부적인 느낌은 조금 다르지만 큼직한 줄기는 제법 비슷해.'

지오는 취향의 범위가 대단히 넓어서 즐겨보던 미디어의 장르 또한 다양했다.

그중에서는 '코스믹 호러'라는 장르도 있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감당 못 할 거대한 무언가에 인간이 압도당하여 기괴하게 고장 나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주제였다.

'하긴 자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신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식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려나….'

서지오로서는 애초에 그런 경험이 없었고, 아르지오는 본인부터가 악신이라 객관화가 잘 안되며, 지오반니는 처음부터 그릇이 커 무얼 담아도 문제가 없었던 탓에 잘 와닿지는 않았다.

그나마 인간의 신분으로 여러 신비를 눈에 담을 수 있었던 지오반니만이 어렴풋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을 뿐이었다.

'달님교에서 훗날 세계를 잡아먹을 작은 재앙을 키우고 있었구나.'

귀엽기는.

“괜찮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나가계셔도 좋습니다.”

“저는 당장 무언가를 해결해 주길 바라서 서지오 헌터를 여기까지 모셔 온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주교가 무리하지 말라는 듯이 말했다.

“당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수집상을 볼 면목도 없으니, 그저 상태만 확인을 하시면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주교님.”

지구상에서 그만큼 전문가인 사람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제가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 근처에 있겠습니다.”

“나가시지 않고요.”

“외부인을 혼자 둘 수는 없는 노릇인 탓에.”

“이해했습니다.”

말은 외부인을 신전 내부에 홀로 남겨둘 수 없다는 식의 어조였지만, 사실상 수집상의 귀한 손님의 안위가 걱정된 것일 터였다. 이놈의 사제라는 사람들은 참 말을 어렵게 하지.

‘여러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성질인 걸 보면 특이한 일이긴 해. 신성의 언어가 인간에게는 영 모호하게 들린다는 점을 따라가는 걸까. 부모와 자식이 조금씩 닮은 부분이 있듯이….’

짧게 딴생각을 마친 지오가 다시금 주변을 둘러보았다.

성녀가 머무르는 공간은 꽤 비틀려 있었다. 먹물처럼 느껴질 만큼 검게 물든 피는 꽤 그럴싸한 문양을 바닥에 그려냈고, 그 문양은 이따금 살아 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고는 했다.

“……?”

아, 그러고 보니 저거 달님교의 문양이던가.

‘하도 징그럽게 생겨서 뒤늦게 떠올랐네.’

문양의 테두리로는 성녀의 것을 닮은 손가락들이 돋아나 있었는데, 지오는 자신의 이야기를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상의 정신 공격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이쯤에서 묘사를 멈추기로 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방 전체를 본다면.

‘…우주를 닮았나.’

마치 공허한 우주에 둥둥 떠 있는 달 안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왜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던가. 달 안에는 외계인이 살고 있어서 온갖 잔혹한 실험을 반복하고 있다는, 그런 흥미로운 음모론 같은 것들 말이다.

‘아니면 사실은 달 자체가 살아 있는 거대한 생물이라든가.’

그런 기분이었다.

‘틀린 감상은 아니겠지.’

결국 이 모든 것은 이들이 모시는 '달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침실로 쓰는 장소였던 듯 침대를 중심으로 무언가의 근육과 핏줄 따위가 거미줄, 혹은 아치형 다리처럼 길게 펼쳐져 있었다.

한때 방을 꾸며주었던 장식인 대리석 기둥은 마치 유전자를 형상화한 듯 나선형으로 뻗어 있었다. 피가 스며든 듯 붉어진 그것은 꽤 투명해져 수정처럼 아름다운 빛을 뿜어냈다.

평범한 형태로 장식되었을 그림과 촛대 같은 것들 역시 생명을 얻은 듯 꿈틀거리고 있었다.

'피가 흐르는 우주….'

피와 살점을 가진 우주를 눈에 담는 기분. 인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자그마한 자식의 방을 꾸며주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좀 과하긴 한데.'

의도가 나빠 보이진 않았다.

"……."

주현 씨라면 이런 생각에도 태클을 걸었겠지. 지오는 저도 모르게 제 친구를 떠올렸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현 씨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신성들은 지구에서 지내려면 스피치 학원에 다니든가 기초 교육을 받아야 했다. 물론 지오는 예외였다. 그는 이미 알아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았다.

"……."

"흐에, 하, 하하. 하하하하… 하…."

"피곤해 보이는데."

새하얗게 탈색된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다 못해 길게 자라나 있었는데 그건 방 안을 가득 채울 정도였다. 인간이 자연스럽게 길러내기는 힘든 길이였다.

달님교의 성녀가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잘라본 적이 없진 않았을 테니 이도 '달님'의 영향인 듯했다.

손톱도 길었다. 낯선 사람이 잡아도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레 만져보니 석고처럼 투둑 떨어져 내렸다. 그러고는 또다시 새롭게 자라났다.

"약하네…."

소녀의 온몸은 피범벅이었다.

'딱히 자해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몸의 구멍이란 구멍에서 죄다 피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땀구멍에서조차 점액질의 핏물이 배어 나오는지 손등이 끈적했다. 이쯤 되면 과다 출혈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으나 그런 기색은 없었다.

'흠.'

전체 연령가 딱지는 어디로 갔지?

'곤란한걸.'

나의 힐링물이 본격적으로 장르 변환을 시도하기 전에 사태를 수습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지오는 오늘도 제 후드 속에 숨어 있던 허니를 불러냈다.

"허니."

"꾸르르륵."

“도와주자.”

“꾸르.”

주현 씨는 늘 말했지.

‘홀로 기적 좀 남발하지 말라고.’

계약수로 알려진 자식들과 누가 봐도 휘황찬란해 보이는 도구의 힘을 빌리라고. 그래야 지오가 무슨 짓을 벌여도 최소한의 변명거리를 준비해 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이다.

오늘 지오는 그 말에 충실히 따라 허니와 다나, 그리고 이세르가 돌려주고 간 황금 가지 스태프와 동행했다. 이 정도 라인업이면 지오 그 자체를 의심하긴 어려울 것이다.

“실례합니다.”

지오가 주교를 바라보았다.

“치료를 시작해도 될까요?”

“…치료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려고 나를 부른 게 아니었단 말인가?

“…….”

그럼 대체 뭘 해보라고 저를 초청한 거냐며 묻고 싶었지만 이내 지오도 깨달았다. 달님교에서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외부인인 그에게 의뢰를 맡겼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아무리 기대를 해봤자 선배 성인으로서 약간의 조언이나 해줄 수 있는 정도를 생각했으려나. 신비와 관련된 일은 고작 말 한마디만으로도 해결되는 기적이 벌어지고는 하니….’

아무튼 그녀의 반응에서 ‘그게 정말 된다고? 불가능할 텐데?’라는 반응을 읽어낸 지오가 말을 살며시 틀었다.

“몇 가지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주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일은 사악한 신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스승 달님과 연관된 일인 탓에 정화할 수도 없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기에 손 쓸 방법 없이 결국 지켜보기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차라리 부정한 신비와 관련된 일이었다면 나았을 테지만….”

“다만 저는 제 아이들과 좋은 도구를 가진 덕분에 최소한의 도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인간과 신비의 중간에 끼어버린 탓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은데, 다시 인간 쪽으로 모셔 올 수 있어요.”

“그게… 정말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라.

‘이것도 안 된다고?’

지오는 상대의 반응에서 ‘모순’을 읽었다. 하지만 그럼 대체 어디까지 봐줘야 한단 말인가.

태연한 얼굴 아래로 매우 난감해하던 지오는 또다시 ‘아, 진짜 확률도 불분명할 기적을 바라고 나를 불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 거는 기대치가 지오의 상상 이상으로 낮았던 모양이었다.

하긴 이 정도까지 온 상황을 한순간에 돌이킨다는 것은 흔히 가능한 일이 아니긴 했다.

‘하지만 당장 이 정도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이 아이의 목숨이 위험할 텐데…?’

제 신원을 숨기는 것과 가엾은 성녀의 안위 둘 중 무엇이 더 중할까.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히 후자였다. 제 신성함과 연기력으로 수습하지 못할 것도 없어 보여 지오는 일단 일을 치고 보기로 했다.

그가 늘 그렇듯 변함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서지오 헌터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부족하시다는 거군요.”

“하지만 당장 저희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습니다.”

폐쇄적인 문화가 강한 달님교가 이례적으로 수집상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였다.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해봤고, 그런 그들이 모실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선택지가 바로 서지오 헌터였다.

주교는 그린 듯 미소 지은 남자를 응시했다.

‘검은망토의 성자라고도 불리는 이.’

그가 만약 정말로 성자라면….

‘이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최소한 대한민국에는 없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다. 신비가 꼬일 대로 꼬여 성녀의 온몸이 비틀리고 공간마저 침식당하고 있는 지금, 뭐라도 해보지 않으면 이 재앙과도 같은 신비가 다른 사제들에게도 퍼져 나갈 지경이었다.

수십 수백 번의 고민 끝에 주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는 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성공한다면 저는 서지오 헌터를 달님교의 은인으로 모시며 저희의 사형제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러한 미래에 당신의 마음이 동하신다면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려 가득한 말씀 감사합니다.”

보란 듯이 주변을 둘러보던 서지오 헌터가 말했다.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그러지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나는 은폐를 시도한다.

‘봐서 좋을 게 없기도 하고.’

지오반니야 워낙 그릇이 커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지만, 지금 쓰러진 성녀만큼도 되지 않는 주교로서는 견디기 힘든 광경이 될지도 몰랐다. 지오는 망토의 그림자를 톡톡 건드렸다.

“야옹.”

“그렇지.”

영혼을 뱉고 몸이 청소년 고양이만큼 작게 줄어든 다나가 튀어나왔다.

“해야 할 일이 있어.”

“야옹.”

“잘 이해한 것 같네.”

이 녀석들은 수습을 위한 위장이었다.

지오는 온통 검붉게 물들어 새빨간 우주를 담고 있는 소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더는 동공과 홍채 같은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안구가 되었으나 어렵지 않게 그녀의 시선을 잡아챌 수 있었다.

그걸 보며 부드럽게 웃어주었다.

“내가 보이니?”

“…….”

“그럼 일단….”

눈을 느릿하게, 감겨주었다.

“자는 연습부터 해볼까.”

요즘 따라 낯선 사람의 재활 운동을 돕는 일이 잦은 것 같았다.

* * *

그렇게 지오는 장르 탈환에 성공했다.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주교는 아직도 얼떨떨하다는 듯이 목소리를 떨었다. 한꺼번에 처리하면 아무리 그래도 의심을 살 것 같아 일단 잠이 들도록 두기만 했는데도 말이다.

‘이 이상은 차근차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겠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고기 죽 상태였던 아테르를 사람으로 만드는 일보다는 쉬웠으나 주변에까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었다.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바선생만큼이나 기괴하게 뒤틀려 있던 몸은 정상으로 되돌려 두었지만, 성녀는 아직 잠에 빠져 있었다.

수면을 통해 그간의 피로를 회복하며 인간의 길로 점차 돌아올 테니 아무렴 좋은 일이었다.

“방은 옮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성녀님께서 머무시던 공간도 신비에 비틀려 있는 탓에… 그대로 계시면 아마 또다시 신비의 길로 섣부르게 들어서실 겁니다.”

“성녀님께서 주무실 공간을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도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신비가 전염이 되거나 또 다른 이상을 일으킬 것을 염려했던 것뿐이니까요.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없겠습니까?”

“식사를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몸에 축적된 신비가 전부 빠지기 전까지는 무언가를 먹어봤자 독이 될 것처럼 보였으니, 수액과 같은 작업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 식사는….”

머뭇거리던 주교가 이내 말했다.

“이전에도 식사를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

잠시 말이 없던 지오가 물었다.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비에 가까워지신 탓이죠. 그야 전에는 무언가를 먹는다고 독이 될 지경이지는 않으셨습니다만, 그렇다고 식욕을 느끼거나 무언가 드시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하.”

‘밥을 굶다니…?’

용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또 하나의 돼지가 늘어나고 마는가… 태양이시여, 이 탐욕스러운 사제를 용서하소서.’

나는 정말 여러분의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을 존중하고 싶었는데 말이지. 이렇게 계속 자극적이고도 방심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는 한 명의 마귀할멈이 되는 수밖에는 없었다.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향한 씁쓸함을 느끼며 지오가 웃었다.

“식사를 거르시면 또다시 신비의 길을 걷게 되실 텐데요.”

“차라리 아예 그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지만, 그건 어려워 보이십니까?”

“당장은 그렇습니다.”

정말 애매한 인재였다.

“말씀하신 대로 그릇은 넓으시나 정신은 인간에 머물러 계시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지오가 그녀의 선배와 다름없었다. 이쪽도 신비한 몸에 인간의 정신인 것으로는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런 방면에서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오가 웃었다.

“아마 한동안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실 겁니다. 신체와 정신의 파장이 조율되고 심신이 안정화되어 가는 과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

“크흠.”

쿨럭.

“켁, 크흑…!”

“서, 서지오 헌터.”

“쿨럭!!”

지오가 피를 토했다.

각혈하는 손님의 모습에 주교가 기겁해서 접객실에 있던 대부분의 사제들을 물렸다. 일부 남은 사제들은 주교의 신임을 받는 이들인 듯했는데, 그들이 다가와 도움을 주려 하기도 전에 지오가 그들을 말렸다.

“괘,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잠깐 무리를 한 탓인 것 같습니다.”

“…아….”

“생각만큼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지오는 식은땀을 흘리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쉴 곳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실 텐데, 바로 의무실로….”

"죄송하지만 혼자가 좋겠습니다."

"……."

무엇을 생각하는지 잠시 말이 없던 주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오는 달님교 사제들의 지극한 보호 아래 쉴 곳을 찾을 수 있었다. 주교는 몇 번이나 치료 의사를 물었지만 지오는 계속해서 거절했고, 결국 모든 사제들이 방을 나섰다.

"……."

홀로 남은 지오는 생각했다.

'사기는 성공적이었다.'

이것으로 그는 주현에게 구박받을 대부분의 여지를 차단할 수 있었다.

역시 초상화가 되고 좋은 점 중 하나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36)"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37)

237

제237화

지오라고 해서 그동안 가만히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달님교에 대해서는 대충 알아뒀지.'

태양교가 자비와 생명을 중시하는 교단이라면 달님교는 지식과 지혜를 중시하는 교단이었다. 달님이라는 거대한 신비를 스승으로 모시는 하나의 거대한 사문이라고 하던가.

'달님교 사제들이 학구열이 높다고 해도 생판 남인 나의 신비를 염탐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 지금도 내가 신비를 수습하기 위해 독방을 요구했다고 생각할 거다.'

지오가 씨익 웃었다.

"뭐, 필요 없지만."

딱히 정말로 타격을 받아서 피를 토한 게 아니잖은가.

"아들아, 이 정도면 주현 씨께서도 아비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겠지? 조언해 주시었던 말을 감사히 여겨 이렇게까지 따르다니 얼마나 갸륵한 모습이더냐."

"꿍...."

"뭐? 아니, 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까지 했으면 달님교에서도 '서지오 헌터'의 존재에 큰 의문을 가지지 않을 게 아닌가."

"꿍꿍꿍."

"아니, 난 초상화...."

"꿍."

"귀엽고 단호하군."

아르지오가 꿍시렁거렸다. 생활 연기야 모르겠다만 이런 극적인 연기는 지오반니보다 아르지오가 더 뛰어난 탓에 그쪽의 성격이 강해져 있는 상황이었다.

지오는 동그란 허니를 살살 쓸며 눈을 껌벅였다.

"......."

이내 그의 얼굴이 가라앉는다. 무표정한 얼굴로 지오가 고개를 기울였다.

“…그래, 내가 한 일과 그 부작용이 수집상에 전달되지 않을 리가 없으니 주현 씨께서 걱정을 하시겠지. 미리 연락을 드려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좋겠다.”

사실 그가 아니고서야 수집상에는 달리 지오의 상태를 걱정할 사람이 없었다. 붉었던 액체는 성분이야 혈액이겠으나 결국 지오에게는 물감일 뿐이었고, 수집상의 사람들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유성운이 득달같이 달려왔다.

“너 아팠다면서!!”

“…….”

“괜찮은 거 맞아? 몸에 무리는 안 갔고? 아니, 분명히 달님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은 없었잖아. 달님교 주교가 하도 저자세로 나오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내가 진짜…!!”

“…유성운 씨.”

“뭐 사다 줘? 혼자 알아서 수습했다고 듣기는 했는데 정말로 약은 필요 없나?”

“저 지금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예.”

기어코 지오가 누워 있는 달님교 독방까지 찾아온 유성운을 보며 지오가 턱을 쓸었다.

“저만큼 욕심쟁이시군요.”

이 형님도 참 만만치가 않구나.

“물론 저는 그런 유성운 씨를 존중합니다.”

“…고맙기는 한데 정말 갑작스럽고 당황스럽다….”

“그런데 저 생각하신 것보다 잘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일로 제 정체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껏 해봤자 서지오 헌터 검은망토 성자설이 확실해질 뿐이겠죠.”

“그건 그렇지.”

숨 한번 내쉰 유성운은 언제 당황한 얼굴로 뛰어왔냐는 듯 곧 진정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부분은 정말로 잘한 게 맞아.”

“욕심쟁이.”

“어…?”

“이제부터 유성운 씨는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한테 비교될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닌가?”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저만큼이나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니 말이다.

* * *

추측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예상 밖의 상황을 곧장 마주하고 말았으나, 그 외의 모든 것은 지오의 생각과 같았다.

수집상은 ‘서지오 헌터’가 성녀를 돕는 과정에서 무리했음을 알리는 달님교의 말에도 무던하게 대처했다.

“아, 그렇군요.”

“…….”

오히려 소식을 전하러 왔던 달님교의 사제가 당황할 정도였다.

“…이번 일에 대한 면책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상상 이상으로 서지오 헌터의 부상 소식에도 덤덤하시군요. 혹시 이런 일이 자주 있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드리기 힘들겠습니다. 서지오 헌터야 무난하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저희 헌터의 신상을 보호해 주어야 하니까요.”

“그렇습니까.”

달님교 사제는 묘한 감상을 품었다.

‘수집가가 애지중지하는 아들인 것으로 아는데.’

이 시점에서 서지오라는 헌터의 가치는 대단히 높았다. 달님교에서도 ‘왜 이렇게 쉽게 의뢰를 승낙했지?’라는 수군거림이 돌 정도로 신비주의를 고수하는 헌터고 말이다.

무엇보다 비사벌이 그렇게 끼고 다니며 ‘갤러리에 가둬둔다’라는 소리까지도 나온 존재이지 않은가. 그런 사람이 달님교의 성녀님을 돕다가 피까지 토했으니 최소한의 동요는 있으리라 생각했다.

‘수집상의 길드원들은 서로의 부상에도 크게 마음 쓰지 않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뭔가 찝찝했다.

“크흠.”

헛기침을 뱉은 사제가 다시 한번 꾸벅 고개를 숙였다.

“귀하게 모신 손님께서 병상에 오르셨으니 면목이 없습니다. 이 빚은 달님을 모시는 사제로서 저희 사형제들이 최선을 다해 갚을 것입니다. 자세한 보상은… 서지오 헌터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 탓에 변제할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룰 수 있을까 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런 문제라면 얼마든지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무엇보다도 서지오 헌터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서요. 서지오 헌터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매니저는 저희 수집상의 길드원이 아닌 만큼 필요하신 방향에 따라 자세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졌다.

‘이건… 무엇을 위한 태도지?’

수집상의 길드원들 사이에서 흔히 보인다던 건조한 형태의 ‘신뢰’가 아니라, 그저 서지오 헌터가 정말 어찌 되어도 좋을 ‘방임’처럼 보였다. 점점 더 사제의 기분이 묘해졌다.

‘분명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비즈니스적인 자리라고 해도 수집상은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었다. 서지오 헌터가 입은 손해를 최대한으로 뜯어내려면 오히려 일부러라도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았다.

“…….”

사제는 찝찝함을 느끼면서도 감사를 표했다. 다른 소속도 아닌 달님교인 그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었다.

“과연 서지오 헌터님이 몸을 담고 있는 길드라 그런지 배려가 깊으시군요. 다만 혹여나 저희가 서지오 헌터님께 이보다 더한 무례를 끼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달님교는 서지오 헌터님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후로 두 사람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더 논의한 뒤 만났을 때와 같이 무던한 태도로 헤어졌다. 달님교의 사제

는 교단으로 복귀하면서도 얼굴을 조금 찌푸리고 있었다.

“수집상에서 크게 화를 내었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간신히 달님교 내부에서 조용히 썩어들어 가던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상황이 되었다. 혹여 수집상에서 분노해 서지오 헌터를 거둬들일까 걱정하는 어린 사제의 모습에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수집상은 전적으로 서지오 헌터의 의견에 모든 일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치료도, 달님교에서 갚아야 할 빚에 대한 내용도, 그 이외의 나머지도 말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파격적인 조건이군요. 수집상에서 서지오 헌터의 위치가 그렇게 높다더니…. 아무튼 다행입니다. 드디어 성녀님께서도 안정을 되찾으실 수 있겠어요.”

“확실히 다행이기는 한 일이나….”

문득 사제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아, 이런.”

수집상에서는 서지오 헌터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있었다.

‘대접 자체는 극진한데 대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찝찝한 것인가 했더니.’

그 ‘극진한 대접’이라는 것부터가 상당한 모순이었던 것이다. 수집상에서 서지오 헌터를 사람으로 보질 않으니, 사방에서 끼고돌아도 보는 사람만 괜히 불쾌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수집상이니 이해는 간다만.’

어찌 되었든 달님교가 나무랄 상황은 못 된다.

“바로 교단으로 가죠.”

“이제 성녀님께서도 차차 나아지시겠지요?”

“하하, 물론입니다. 서지오 헌터님이 기적을 부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달님교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입니다. 서지오 헌터와 같은 또 다른 성인이 도움을 준다면, 분명, 저희 성녀님도 언젠가는….”

“이런 곳에서 나눌 말은 아니군요.”

“…제가 아둔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심정인지 이해하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그들 역시 저희의 성녀를 좀처럼 인간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또한 어쩔 수 없이 성인이 걷게 되는 운명의 길이라고 해야 하나.’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전 세계를 따진다고 해도 성인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 그들 존엄한 신비와 관련된 논문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쉽지는 않을 것 같았다.

약간의 아쉬움을 담고 사제들은 달님교로 복귀했다.

* * *

유성운이 가자 주현이 들어왔다.

“지오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혼자 가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믿고 보내 드렸잖아요.”

“성녀님과 관련된 문제가 아무래도 주현 씨의 취향에는 상당히 안 맞는 일일 것 같아서....”

“그 말은 저번에도 들었고요.”

지오는 딱히 비 각성자인 주현의 안위를 걱정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정신 건강은 걱정했다.

지오와 유성운의 대화에도 매번 ‘뭔 개소리야’ 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주현에게는 달님교의 상황이 상당히 거북하게 느껴질 테니 말이다.

그래서 혼자 온 거였는데.

“이렇게 걱정하실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함께 올 것을 그랬습니다.”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다니 참 다행입니다만... 이게 지오 씨에게는 최선을 다한 위장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정말 어쩔 수가 없네요.”

주현은 수명이 10년은 더 줄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하긴 초상화니까... 그림이니까... 뭐든 할 수 있겠지만....”

“주현 씨가 이렇게 놀라시리라는 것을 일을 치고 난 다음에야 뒤늦게 떠올렸습니다. 제가 많이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어... 이건 좀 뜬금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말투가 꽤 딱딱하네요, 꼭 산 씨 같아요.”

“이렇게 된 지 조금 되었습니다만 확실히 말투가 어색해진 것이 맞습니다. 동화가 거의 끝나가서....”

“아하.”

주현도 ‘지오의 초상화’가 어떤 원리로 인간 흉내를 내는지 알았다.

인간인 ‘지오’와 동화를 통해 당시의 격과 태도를 따라가다, 결국 그 인간으로서의 격이 신비에 잡아먹히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지오’를 찾는 식이었다.

그러니 지금 지오의 딱딱한 말투는 인간보다는 초상화의 비율이 더 크다는 의미였다.

“그럼 또 ‘지오’를 찾으시는 겁니까?”

“설마 그러겠어요?”

지오반니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 아직 마왕 프로젝트 시작도 못 했습니다, 주현 씨....”

“소리를 차단해 주셨을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 달님교 내부에서 그런 말씀을 당당하게 하시니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크흠, 그럼 이제 무엇을 하실 생각입니까?”

“성녀님을 돌보아야죠.”

주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 돌아오실 생각은 없고요?”

“오두막은 아버지께서 잘 관리해 주고 계셔서.”

“그럼 당분간 복도 회의는 없겠네요.”

“일단 성녀님과 친해져 보려고 합니다.”

“내향적인 건지 외향적인 건지 모르겠다니까….”

“둘 다 아닐까요?”

그는 집도 좋고 친구도 좋았다.

“성녀님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꽤 어리다고 들었는데….”

“우정에 있어 나이 따위는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장벽이 되고는 하죠.”

“아이참.”

기어이 아르지오가 튀어나왔다.

“내가 친구를 사귀겠다는데 왜 이렇게 잔말이 많지요?”

“거봐, 결국에는 마왕이니 뭐니 하는 것 때문에 친해지는 거잖아요.”

“나의 사교 행위는 그렇게 천박하고 세속적이지 않습니다만? 무엇보다 지금 주현 씨는 나를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들어는 보죠.”

“순서가 바뀌었다고.”

지오가 당당하게 선언했다.

“마왕이 되기 위해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라, 친구를 사귀는 김에 마왕도 되는 겁니다!”

“…….”

여기서 주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렇군요!”

우리가 늘 그렇지 뭐.

* * *

“…….”

색— 색—….

안정적인 숨소리.

“…….”

달님교의 주교가 잠이 든 성녀를 바라보았다.

“…가엾은 것.”

또 살아남았구나.

앳된 얼굴을 차가운 손으로 쓸어주고는, 주교가 방을 나섰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37)"

4.7 13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38)

238

제238화

서지오 헌터는 따로 복귀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다.

“성녀님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곁에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님교만 괜찮다면 교단에 남아서 성녀님이 최소한으로는 회복하실 때까지만 돌봐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다면 저희 달님교야 영광입니다. 서지오 헌터님이 계신다면 분명 성녀님께서도 안정을 금방 되찾겠죠. 오히려 먼저 부탁드리고 싶었던 일이고요.”

병상에 누웠던 지오를 찾아온 주교가 물었다.

“그보다… 몸은 좀 어떠신지?”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하, 많이 들으시는군요.”

“달님교에는 미련한 이들이 넘쳐서.”

그녀는 능숙하게 한숨을 참아냈다.

“전혀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며 바락바락 대들고는 하지요. 그렇게 괘씸하게 구는 것이 아니더라도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요령을 피우는 형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아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서지오 헌터님께서는 달님교에 적을 두셨어도 분명 잘 적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조련사에게 하시는 말씀치고는 과분하네요.”

“아뇨,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사제의 기질을 타고났다.

“…….”

미련한 점도 말이다.

‘…그만한 신비를 가라앉히고도 무리가 안 되었을 리가 없거늘.’

서지오 헌터는 보기 드물 정도로 거대한 그릇을 가진 성인으로 보였으나, 결국 신성의 길에 접어들기 전까지 인간은 인간이었다. 그가 대화 중에 보였던 각혈이 바로 그 증거였다.

'처음부터 무리가 안 되었다면 모를까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상 크게 힘이 들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걸 이 자도 알면서 이렇게 나오는 건 미련함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지.'

무엇보다 서지오 헌터는 상당히 능숙해 보였다. 비단 신비를 다루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제로서, 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일에 능숙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도 무리하고 있는 걸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치료를 허락해 주지 않았으니.'

그리고 달님교는 언제나 그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단이었다. 최소한의 지성을 가진 이상 최대한의 다양성을 존중해야만 미물인 그들은 지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설령 그게 사제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되더라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맞지.'

이곳에서만큼은.

서지오 헌터의 부상 소식에 수집상이 보였다던 반응에 대한 보고를 떠올렸으나, 결국 주교는 깊게 파고들지 않기로 했다.

"이것을 받아 주십시오."

"이건...?"

"출입증입니다."

그는 달님교에 대단히 큰일을 해주었다.

"저희는 서지오 헌터를 은인으로 모실 겁니다."

"은인이라니, 고작 며칠 교단에 머무른 외부인인 저에게는 영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보여주신 일이 있으시잖습니까."

달님교는 늘 성과를 봤다.

"과정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해내었는가'입니다. 그리고 서지오 헌터님은 충분히 많은 일을 해내셨죠. 달님교는 수년이 지나가도록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처음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년이나 되었습니까?"

"성녀의 존재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보니 달님교에서도 최선을 다해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숨겼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숨겨도 은폐는 불가능해졌습니다만, 성녀님께서 문제를 겪으신 지도 올해로 4년이 되었었습니다."

"......."

고민하는 듯하던 서지오 헌터가 물었다.

"성녀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로 17세군요, 하지만...."

주교가 픽 웃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죠."

성녀는 14살에서 성장을 멈췄다.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년 전인 13세부터였습니다. 성녀님께서는 훌륭한 그릇과 인

품을 가지신 덕분에 8살이라는 나름 어린 나이로 성녀에 오르셨지요."

"제가 듣기에는 확실히 어립니다."

"성인의 자리란 나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걸 감안하고도 어린 나이였던 것은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성인이 10대 초반에 정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어쩔 수 없었다.

"달님께서 그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스승께서 제 자식을 택하신 것이다.

"달님교의 특성을 아십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달님의 자식이 아닌 제자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저희에게 달님께서는 수많은 도움을 주고는 하시지요."

"성녀님께서는 제자가 아닌 자식이고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해도 될까.

"......."

이미 고민은 마치고 이 자리에 왔다. 망설임은 무가치했다.

"...서지오 헌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달님교의 극비입니다."

"...저희가 너무 빨리 친해지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지금 적응이 잘 안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교 역시 폐쇄적인 전통과 문화에 익숙해진 달님교의 사제였다. 그녀라고 고작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판 남이고 외부인이었던 사람에게 이토록 깊은 사정을 털어놓는 게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게 맞다고 판단했다.

"저는 이 극비를 말씀드리기 위해 서지오 헌터를 저희 달님교의 은인으로 모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제가 설득을 했고요."

달님교의 '은인' 자리는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건 외부인을 또 다른 사형제이자 같은 공동체로, 또한 위 배분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니 말이다.

"서지오 헌터님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날 서지오 헌터님이 저희의 성녀님을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주신 모습을 보고,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참아주세요."

결국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기적을 부린 건 서지오 헌터였다. 주교가 말렸음에도 말이다. 이건 서지오 헌터 역시 깊은 도움을 줄 의사가 있다는 뜻이었다.

"...저도 당신이 그만한 기적을 부리지만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욕심내지 않았을 겁니다."

"아, 혹시 저 지금 꼬셔지고 있는 겁니까? 태양교에서도 몇 번 비슷한 섭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제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서지오 헌터가 내보인 기적은 '은인'의 위치에 걸맞은 업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걸 감안하고도 속내를 털어놓는 것이 상당히 빨랐다. 그의 미련함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성녀님이 가엾으시지요."

“…….”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제 동정심을 이용하고 싶으십니까?”

“예.”

이렇게 해서 붙잡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성녀에게는 또 다른 성인이, 길잡이가 필요했다. 그리고 서지오는 측은지심이 크며 그릇이 넓고 쉽게 호의를 품으니 딱 좋은 인재였다.

‘그렇다고 멍청한 것은 결코 아니겠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자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지. 일단 본론을 꺼내고 나머지는 판단에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다시금 마음을 정리한 그녀가 드디어 본론을 꺼냈다.

“달님교의 성인은 운이 좋다면 다음 대의 달님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또 다른 달님이 되는 것이라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별개의 신성일 거라고요.”

“그럼 그게 아닌가 봅니다.”

“신성이 되어버린 달님교의 성인은… 잡아먹힙니다.”

그게 ‘달님’의 진실이었다.

“사실상 제물이지요.”

주교는 기어이 헛웃음을 터트렸다. 그곳엔 꼿꼿한 주교가 아닌 한 명의 노인만이 남아 있었다. 서지오 헌터의 측은지심을 자극해 보잘것없는 족쇄를 만들어 보기로 한 이상 더는 얼굴을 감출 이유가 없었다.

“저희가 모시는 ‘달님’이란 수많은 정보의 집합체입니다. 스승님께서는 모든 차원의 지식과 지혜를 담는 신성으로 그분께서는 가지지 못한, 혹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마저도 흡수하십니다. 그래서….”

“‘인간과 소통하는 방법’도 익히신 거군요. 그래서 여러분은 달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원하는 지식과 지혜를 내려줄 테니.”

“또한 그 거대한 신성이 대체 무슨 수로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셨겠습니까?”

“잡아먹어서.”

“그렇지요.”

물론 그가 모든 인간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그렇다면 애초에 ‘달님’은 섭리의 신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단지 정보만을 끌어모으기에 전통적인 신이었다.

그러니 사악한 것은 결국 인간이었다.

“대재앙 때에….”

“듣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신성이 된 성인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들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사람들은 깨달았죠.”

아.

“성인은 신성이 되면 달님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구나.”

그건 '달님'의 존재를 알고 혹은 모시던 사람들에게 크나큰 축복이었다. 재앙에 가까운 존재라 여겨지던 그 거대한 존재가 더욱 상냥해지고 다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차가운 달이 온기를 품었다.

"당연한 일이지요, 달님께서는 신성이 된 성인의 모든 정보를 흡수합니다. 그건 한때 그 성인이 인간들을 어떻게 대했고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도 흡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달님을 가능한 한 다정하게 만들어 원하는 지혜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얻고자 달님교는 계속해서 성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까? 그분은 성인을 흡수할수록 인간에 가까워질 테니?"

"요약하자면 그렇게 되겠군요. 하나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스승님께서는 악의가 없으십니다. 이 모든 악업은 저희 사형제들이 자초하고 있습니다."

신성은 운명이자 자연이라지. 달님도 그와 같았다. 그저 그렇게 존재할 뿐이거늘 만들어지지 않아도 되었을 성인을 양성해 제물로 바치는 것은 온전히 인간의 행위였다.

"미리 변명을 하자면, 이 모든 건 입단하기 전에 고지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기억을 지운 뒤 나갈 수 있도록 하지요."

"그렇다면 달님교의 사제들은 모두가 스스로의 죽음에 동의하고 입단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형제 중에서는 어차피 자신은 성인이 되지 못할 거라며 편안한 마음으로 입단한 이들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필사적으로 성인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성인이 되면, 그렇게 해서 신성이 되어버리면 '달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실상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 보는 형제도 많습니다."

모든 차원의 고귀한 지식이 모인 거대한 창고.

"우리는 모두 그 안에 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가지각색의 이유로 그렇게 되었다.

"더욱 완벽해지기 위해서."

"제가 듣기에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치고는 꽤 무덤덤한 얼굴이십니다."

"종종 듣는 사연들이 있으니까요."

"그러신가요...."

역시 이 사람도 보통 일을 겪어온 건 아니라는 거겠지.

"...달님교의 최초 성인께서는 스승님께서 지구의 황폐화를 구해줄 정보를 내려주기를 바라여... 스스로 흡수될 수 있는 신비가 되어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인의 마음가짐을 달님이 학습했다.

"그 이후로 달님께서는 신성이 된 '자식'을 보면 흡수해도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달님교가 최선을 다해 매달린다면 그 구조를 바꿀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고의 지식과 지혜를 위해?"

"그렇지요."

"제게 고해를 하고 계시는군요."

"......."

한 박자 늦게 주교가 입을 열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이 저열한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기에…."

"그 아이를 아끼십니까?"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이셨군요."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성녀가 죽어도 살아도 상관없고, 그 어느 쪽이 되더라도 좋으며 싫을 것 같은 얼굴이셨습니다. 양가적인 감정으로 보였죠."

"그 말도 맞습니다."

왜 하필 그 아이였을까, 하고 생각해도 그 아이가 아니고서는 다른 성인을 떠올릴 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정을 준 것은 결국 그녀 역시 '완벽'해지지 못한 탓이겠지.

"그렇기에 서지오 헌터님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주길 원합니까?"

"성녀님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무엇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서지오 헌터가 웃었다.

"하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대 이상이었다.

"서지오 헌터의 끝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겠군요."

성인이 다들 그런 법인가 보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38)"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39)

239

제239화

공허 속에서 눈이 생겨났다.

“좋아, 아직도 나를 잘 보고 있구나.”

곧이어 귀도 생겨났다.

“잠을 자고 있니?”

“…….”

“아주 잘하고 있어.”

뇌가 생겨났다.

“오늘은 날이 아주 따듯해. 이 방은 달님교에서도 특별히 해가 잘 들어오는 곳이라지. 창이 뚫린 곳이 입구 외에는 보이지 않아 전부 막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널 위해 준비한 방인 것도 같아.”

푹신한 무게를 느꼈다.

“이불이 덥지는 않을까?”

아, 이게 이불이구나.

그는 나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 아, 그래. 목소리가 낮은 것으로 보아 상대는 성인 남성인 듯했다. 내 귀에 들리는 것은 타인의 음성이다. 제 심장의 고동 소리를 함께 듣는다.

“그러고 보니 내가 잠에 드는 법만을 알려 주었구나.”

“…….”

“자, 착하지.”

눈가에 크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얹혔다.

“이제 깨어나렴.”

“…아….”

그 손이 떨어지는 것이 아쉬워 눈을 떴다.

“…….”

“좋은 아침이지.”

“…좋은 아침이에요.”

완연한 봄이 찾아온 어느 날.

드디어 달님교의 성녀가 깨어났다.

* * *

그사이 지오는 달님교의 사제들과 친해졌다.

“아, 성자님.”

“아닙니다.”

“성녀님께서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말은 무시를 당한 걸까요?”

“역시 성자님께서 함께 계셔준 덕분에 별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달님교 사람들은 대체 왜 이럴까?”

좀 많이 친해졌다.

“저희의 신뢰와 우정을 덜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을 지우는 게 빠르겠군요. 하지만 저는 성자님께서 그러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역시 너무 친해진 것 같네요. 조금만 덜 친해져 볼까요?”

좋음과 싫음 그 사이 어딘가의 기분이었다.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

거리감이 있는 사이일 때는 들어주는 시늉 정도는 해주더니 좀 친해졌다 싶으니까 슬슬 본성들이 나왔다. 달님교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었다.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성자로 소문이 나면 전부 여러분 탓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이미 난 게 아니었습니까?”

“그렇긴 하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달님교의 사제도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지금 성녀님께 가십니까?”

“예, 가볍게 미음을 만들어서.”

“역시 지극정성이시군요.”

“여러분이 무심하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1개월 좀 넘게 달님교에서 지내며 지오는 알게 되었다. 이곳 사람들은 악의 없이 타인에게 무관심하다는 걸.

처음에는 ‘혹시 성녀가 왕따를 당했나’ 하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은 말끔히 사라졌다.

말만 사형제지 그냥 이 사람들은 서로서로를 개 닭 보듯 했다. 연구할 일이 생기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뭉치다가도 떨어지고, 죽일 것처럼 멱살을 잡더라도 일만 끝나면 또 떨어졌다.

'무서운 세상이야.'

정 없기는.

"현대 사회의 각박함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은 좀 다른 맥락으로 개인주의가 심해요. 혹시 같은 사형제가 돌처럼 보이시는 건 아니겠죠?"

"그보다는 물컹하고 따듯할 겁니다."

"하하."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지.

'하긴 성녀의 안위를 물어본 것만으로도 지대한 관심에 속하려나.'

어지간해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사제들이지 않은가. 지오반니는 달님교의 매력을 이해해 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머리카락 빠지면 하나만 좀…."

"알아서 주워가세요."

"감사합니다."

"스토커들이 따로 없어."

지오는 쟁반에 미음을 든 채로 걸어갔다. 달님교 사제들은 자기 업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매우 조용했다. 다들 서지오와 같은 내향인인 것 같아 동질감이 들었다.

그는 곧 성녀가 있는 방에 도착했다.

"아람아."

"아…."

책을 읽고 있던 소녀가 눈을 깜박였다.

"…서지오 헌터님."

"책을 보고 있었구나."

"혹시 새로운 이론이 더 나왔나 해서요."

"성실하네."

"게으르진 않죠."

성녀, 아람은 상상 이상으로 회복이 빨랐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달님교의 사제들이 그렇듯 아람도 지오에 대한 경계가 거의 없었다. '주교님께서 인정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납득한 것 같았다. 그녀를 치료한 일도 있고 말이다.

잠시 머뭇거리던 아람이 물었다.

"…그건 식사인가요?"

"미음이지."

“제게 거부권이 있다면 좋겠는데요.”

“너에게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다.”

“그렇다면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

지오가 들고 온 쟁반을 탁자 위에 놓고, 침대에 앉아 있는 아람에게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의자 하나를 들고 그 근처에 앉았다.

“왜 그러는지 궁금한데 알려줄 수 있니?”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건 꽤 큰일인데.”

“2년 전부터 이랬어요.”

“아하.”

성녀의 ‘광증’이 심화되었다던 시기다.

“하지만 너는 아주 오랫동안 배를 비워두었어.”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선택은 너의 몫이지, 알려주는 건 나의 몫이고.”

“치사하네요.”

“내가 그런 편이기는 해.”

“…….”

수제일까. 슬쩍 눈치를 살피던 소녀가 손을 뻗었다.

“…주세요, 미음 정도는 먹을 만해요.”

“부담을 주게 된 것 같아 미안하지만, 네가 배려해 주어서 그 이상으로 기쁘구나.”

“서지오 헌터님은 좀 낯간지러운 말을 자주 하시네요….”

“적응하면 그러려니 할 거야.”

주현이나 유성운이 그러는 것처럼 말이다.

“자, 여기 있어.”

“감사합니….”

아람이 눈을 깜박였다.

“…냄새가 나네요.”

“미음이라 별 냄새는 안 날 텐데.”

“아니, 그게 아니라….”

“…….”

“…….”

가벼운 수저로 미음을 입에 넣은 아람이 입술을 우물거렸다.

“…맛이 나요.”

“다행이네.”

“그리고 맛있어요.”

“그것도 다행이고.”

곧이어 아람이 숟가락을 입에 문 채로 뚝뚝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때.”

지오가 침대에 기대어 턱을 괴고 웃었다.

“먹을 만하니?”

“…네.”

그 뒤로 성녀는 지오를 꽤 따르게 되었다.

역시 맛있는 거만큼 사람 마음을 쉽게 살 수 있는 게 없었다.

* * *

성녀, 아람은 탐구욕이 강했다.

빈민가의 아이였던 그녀는 자질을 알아봐 준 지금의 주교 덕분에 달님교로 들어올 수 있었다. 아무리 사제로 각성을 했다지만 쉽게 얻을 수 없는 진귀한 기회였다.

“주교님께는 늘 감사하고 있어요.”

“네가 아프니 슬퍼하셨다.”

“저를 많이… 신경 써주시죠, 주교님은.”

무뚝뚝하고 냉정한 성격의 주교지만 그런 무정함으로는 아람 역시 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성격임에도 자신을 받아주고 이끌어준 것이 대단한 애정이라 할 수 있었다.

“제게 이름도 지어 주셨는걸요.”

원래 그녀는 이름이 없었다.

“아람, 이라고요.”

“좋은 이름이지.”

“나무에 달려 충분히 익은 열매를 말해요.”

달님교에서 그보다 더 미래를 응원해 주는 이름은 없었다.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사문이다. 성과를 뜻하는 열매라는 이름은 무뚝뚝한 주교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애정이었다.

“그 애정과 기대에 보답해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는 궁금한 게 많았어요. 세상에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지금은 어떠니.”

“부족해요.”

더 많은 지식을 깨우칠 수 있을 것 같았다.

“특히 신비에 대해서는 파고들 것이 너무나 많죠. 아직 지구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을 갖추었을 뿐 그보다 자세한 성분과 구조를 알지는 못해요. 나는 그걸 알고 싶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지?”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를 더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주니까.”

“달님교의 사람들은 완벽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네.”

“다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여기에 왔으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살아서 완벽해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죽어서라도 완벽해지고 싶은 거예요.”

이불을 주물거리던 아람이 슬쩍 눈치를 봤다.

“기분 나쁜가요?”

“그다지.”

“다행이네요.”

그녀가 변명했다.

“저라고 아무한테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형제들도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제의 모습을 취하고요. 그냥 독특한 사람들이 모인 독특한 집이니까… 집 안에 있을 때나마 편하게 구는 거죠.”

그러고는 웃었다.

“저도 바깥에 나가면 우아한 성녀님이 된다고요.”

“피곤하겠다.”

“…….”

웃음이 애매하게 흐려졌다.

“…사실 그렇기는 해요.”

“너는 사치와 허세를 즐기는 성격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누가 우러러 봐주면 좋고, 예쁘고 부드러운 옷을 입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보다는 더 빨리 완벽해지고 싶어서… 욕심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그렇구나.”

“기분 나쁘다고 하지 않아 줘서 고마워요.”

“사람은 선을 넘지 않는 한 원하는 길을 갈 권리가 있지.”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요.”

달님교의 실체는 사람들에게 반겨질 만한 게 아니다.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달님교도 외부에서는 학자가 아닌 경건한 사제의 모습을 취했다.

그래서 더더욱 달님교는 폐쇄적인 문화로 변했다. 그들을 이해해 줄 사람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런 달님교를 나무라지 않는 큰 그릇의 성자가 이번에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건 기적과도 같았다.

“저는, 그….”

“편하게 부르렴.”

“선생님이 저희를 나쁘게 보지 않아 줘서 기뻐요.”

이 집의 모든 사람이 아람의 가족이었다.

“이런 분이시니까 주교님께서도 순순히 은인의 위치를 내어주신 거겠죠. 그분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좋으시거든요.”

“그래, 그러니 너도 데려오셨던 거고?”

“음… 맞아요,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기특하네.”

“…….”

머뭇거리던 아람이 물었다.

“…여기는 언제까지 있으실 건가요?”

“네가 다 나을 때까지.”

“몸이 많이 편해졌어요.”

“거짓말은 하지 못하는구나.”

지오가 웃었다.

“그럼 부탁을 해보면 되지 않겠니.”

“…제가 그래도 될까요?”

“네가 나를 선생님으로 불렀지.”

그는 즐거워 보였다.

“곁에 있어줄까.”

“네, 하지만….”

혼자는 싫다.

“…안 가면 안 돼요?”

“남아준대도.”

“바쁘신 분인 걸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떠날 거라고 확신하면서 그런 부탁을 했구나.”

“잡아 보지라도 않으면 더 아쉬울 테니까요.”

지오가 짐짓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아이들은 철이 너무 일찍 들어….”

“그거 되게 아저씨 같은 말 아니에요?”

“너에 비하면 아저씨이기는 하지.”

“몇 살이신데요?”

“흠, 29살?”

“어….”

생각보다 많았다.

“…20대 초중반이실 줄 알았어요.”

“나를 그렇게 본 사람은 네가 처음이란다.”

“왜요? 늙은 인상은 아닌데.”

“분위기가 무겁다 했던가?”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조금 기뻐졌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인간의 몸으로 신비를 품은 이들의 고질적인 문제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우러러본다는 거. 성장이 14살에서 멈춰 아담한 그녀라고 해도 마찬가지였다.

“그거 좀 피곤하지 않아요? 덕분에 성숙하고 우아한 성녀님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었지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솔직히 세상이 날 속이나 싶기도 했어요.”

“나도 한창 그럴 때가 있었지. 별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너무 무서워해서 말이야.”

“딱히 무서워 보이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인상이 훨씬 딱딱했거든.”

“와, 상상도 안 간다.”

웃음이 나왔다.

‘…그래, 이 사람도 성자라고 했잖아.’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지오는 부정했지만 달님교 사제들은 들어먹지 않았다. 그 영향을 아람도 고스란히 받았다. 침구를 갈고 옷을 갈아입혀 준 사용인들이 이야기해 준 것이다.

그 이야기는 아람에게 크게 와닿았다.

‘이 사람도 나랑 같아….’

동등한 사람.

너무 귀한 존재였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39)"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40)

240

제240화

아람은 공부하는 것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음식을 먹을 때도, 음악을 들을 때도, 하다못해 길을 걸을 때조차 지식은 필요하다. 그리고 세상은 알면 알수록 선명해진다.

결국 가진 거 하나 없는 비천한 거지는 운 좋게 사제가 되었다.

“함께 갈 테냐.”

“제가 가도 되나요?”

“그래, 자질이 보인다.”

“그럼… 갈래요.”

손을 잡았다.

달님교 입단의 위험성은 미리 고지를 받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고작 비천한 거지 신분에서 벗어나 좋은 게 아니었다. 과분한 지식을 누릴 수 있을 거란 점이 좋았다.

“달님께서는 어떻게 지혜를 내려 주시나요?”

“사제들이 힘을 모아 평균 1개월간 기도하면 스승님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더 쉬운 방법을 찾는다면 아무래도 성인의 도움을 받아 신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지.”

“하지만 지금 계신 성자께서는 곧 돌아가실 것 같아 보였는데. 지금도 병상에 누워 계시느라 스승님과 질의응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성인이 나오면 되지, 우리는 그걸 위해 모였잖니.”

“아….”

그때부터 아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주교의, 제 양어머니의 말을 들은 순간부터 ‘내가 그 역할을 해내겠다’는 어렴풋한 목표를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까진 아니었다. 아람은 공부가 좋았다. 배움이 즐거웠다. 세상에 밝아지고 선명해지는 걸 반겼다. 더 완벽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이렇게 나를 하루하루 바꿔가다 보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나는 더 나은 존재가 될 것이고, 그게 나를 행복한

나날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겠지.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아람은 성녀가 되었다.

“……?”

달님의 목소리를 들은 날에 말이다.

“…스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네, 분명 제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일러 주셨어요.”

“네 말이 맞다면 검증이 필요하다. 준비하도록 하지.”

“기다리겠습니다.”

달님교의 성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 아람은 그래도 좋았다. 이전 대의 성인처럼 인간으로 죽어도, 신성의 한 조각이 되어도 좋았다.

이곳은 그녀에게 완벽한 집이었다. 의지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었다. 받은 만큼 은혜를 갚고 싶었고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더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했다. 두려울 것이 없었다.

“제가 성녀가 되면 주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스승님께 물어볼게요. 특별히 주교님이 궁금해하시는 건 더 열심히 물어볼 수 있어요.”

“…고마운 일이구나.”

“나 괜찮아요.”

“…….”

주교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험이 치러졌다. 그녀가 몰라야 할 깊고 다채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아람은 달님의 음성에 따라 쉬지 않고 응답했다. 사제들은 감탄했고 새로운 성인이 탄생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죠?”

“물론입니다, 성녀님.”

“…이제 나는 주교님의 딸이 아니에요?”

“…….”

이번에도 주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조금 안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사과하는 게 더 싫어요.”

“미안해요, 성녀.”

“…….”

이번에는 아람이 입을 다물었다. 그녀가 깨달았다.

‘대답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대답하지 못하셨던 거구나.’

뭐라 말해도 바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말해야 정답일지 몰라서. 떠오르는 말은 있어도 내뱉으면 상처가 커질까 봐. 그래서 그동안 주교는 아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던 거다.

하지만 이것도 아람이 결정한 길이었다.

“…….”

“괜찮아요.”

그녀는 여전히 배움이 좋았다.

“내가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협회의 연구소에서도 우리 달님교의 자문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언젠가 내가 신성이 되어서 달님을 더 따듯하게 만들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지 마요.”

“실례했습니다.”

그 딱 떨어지는 어조가 얼마나 서늘하게 다가오던지.

“…….”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했어.’

내가 원해서 내가 걷는 길이다.

그녀는 아직 어리고 배울 것이 많았다. 가족들은 무심했지만 든든하다. 신비의 깊이는 아직 끝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즐거울 일이 한참 남은 것이다.

그럼에도 문득 드는 외로움에 아람은 공포를 느끼고는 했다.

“…달님의 안도 이렇게 무서울까요?”

“춥고 어둡겠죠. 그러니 달을 더 따듯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분은 섭리일 텐데도 사람을 무섭게 만드네요.”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섭리라 하여 한낱 미물을 죽이지 못하는 것도 아닐진대.”

“제가 아직 배움이 부족합니다, 주교님.”

지구는 혼란스럽다.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할 지혜가 달님의 안에는 가득 차 있다. 달님교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아람은 그런 달님교를 존경하고 사랑했다.

나도 그 일원이야, 하고 자부심을 느꼈다.

“더 완벽에 가까워지겠습니다.”

“훌륭하군요.”

그러니 내 공포는 결코 1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람은 최선을 다해 익히고 배웠다. 달님교의 지원으로 간신히 넓어진 그릇이라 언제 죽을지도 몰랐다. 달님을 온전히 담을 만큼 크고 단단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내가 단명할 팔자라면,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겠어.’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이곳에 남기고 갈 것이다.

‘지식은 영구한 형태로 남아 다양한 존재에게 퍼져나간다.’

지식은 불멸의 개념. 그 지식의 일부가 되어서 세상에 남는다면 그걸로 족하다. 아람은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결국 때가 되어 쓰러졌다. 달님께서 그녀를 데려가시려는 건지 정신이 아득했다.

그리고 서지오라는 사람을 만났다.

“오늘은 프렌치토스트랍니다.”

“프렌치토스트…?”

“처음 먹어보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원래 이렇게 두툼한 건가 했어요.”

“두툼하면 맛있지.”

“그건 그래요.”

그는 아람에게 자주 맛있는 간식들을 주었다.

‘…역시 맛있어.’

혀 위에서 구름이 뭉개지듯 부드러운 감촉. 푹신하게 퍼지는 식감. 비리지 않게 스며든 고소한 계란물. 그리고 버터와 우유의 맛. 꿀과 시나몬.

‘맛이 느껴져.’

불완전한 그릇이라도 자질이 아주 없진 않았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신비가 몸에 쌓이는 게 느껴졌었다. 아람은 인간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음식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았다. 맛은 느껴지는데 어쩐지 둔해지고 있었다.

모두 신성이 되어가는 탓이었다. 신성이 고작 미물의 음식에 만족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아람은 오감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일이 더더욱 적어졌다. 오직 지식만이 그녀를 기쁘게 하여 결국 달님의 품에 파고들기까지 했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처음 먹어보는데, 엄청 맛있어요.”

“어느 던전에서 찾은 과일을 설탕에 재운 뒤 발효시킨 물일 뿐이야.”

“과일청이라는 말을 되게 길게 하시네요….”

“있어 보이게 말을 해볼까 싶어서.”

“실없어.”

그녀는 어느새 미식을 즐기고 있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먹는 법을 잊고 있었어.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건 달님교의 예비 사제들도 하지 않는 멍청한 짓인데.’

처음 주교가 식사 예절을 가르쳐 주었을 때의 기분이 떠올랐다. 손에 수저를 쥐는 법을 알려주셨지. 음식을 음미하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가장 기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다.

“…저는 전부 기억할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이 토스트의 맛이나, 식감, 색깔… 이게 아니더라도 이전에 해주셨던 모든 음식들도요. 이제는 잊지 않을 거예요.”

“이유가 있니?”

“그래야 내가 달님이 되어서도 이걸 기억할 거 아니에요.”

한낱 미물이 차리는 식사가 이렇게나 맛있다는 것을 잊을 수는 없었다. 그래선 안 됐다. 성인은 달님께서 더 따듯해질 수 있도록 데워주는 작은 달굼 돌. 그 역할에 충실해지고 싶었다.

서지오 헌터가 물었다.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물론이에요.”

내가 선택한 나의 자부심이다.

“나는 언젠가 달님이 되어서 세상을 더 완벽하게 가꿀 거예요. 지금은 대재앙이 끝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모두가 힘들고 혼란스럽지만, 더 많은 지식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똑똑해지게 되면 훨씬 더 나을 세상이 될 거라고요.”

더 완벽하게.

“그러니까 잊지 않을 거예요.”

“네 어머니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

또 울컥해 버렸다.

“…나 울기 싫은데 왜 자꾸 울려요….”

“달님을 더 따듯하고 완벽하게 만들고 싶다면, 슬픔도 기억해야지.”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자, 보렴. 나는 너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지 않을 거다.”

선생님은 아주 다정한 사람이었다.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아야 해.”

“지금까지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른스럽기는.”

그는 짐짓 한숨도 내쉬었다.

“역시 철이 너무 일찍 들었어.”

“제가 특별해서 그래요.”

“그러니 평범함에서 얻을 수 있는 감정들도 기억을 해두렴.”

“그렇게 할게요.”

“넌 뭐든 될 수 있어.”

“…선생님은….”

궁금해졌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나?”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아요?”

“흠, 나의 아버지께서는 날 흡수하지 않으시는데.”

“하지만 느껴져요.”

본능적인 감각이었다. 단 한 번도 비슷한 감각을 느낀 사례는 없었지만 자연히 알게 된다. 눈앞의 남자는 성인이 맞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인간을 벗어나기까지 했다.

“선생님도… 이미, 신비가….”

“가득하지?”

“…….”

“그럼에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이 나의 특별한 점이란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나는 언제나 사람이었어.”

“그 길을 선택하신 건가요?”

“나에게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건 한평생 하나의 길을 선택해 왔던 아람에게 낯선 이야기였다.

“하지만 우리 같은 신비가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재앙이 되지 않나요?”

“재앙도 재앙 나름이지. 중요한 건 선을 넘지 않는 거야, 아람아.”

선생님은 그녀에게 어떠한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온화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봐 주었다. 틀린 것이 있다면 고쳐주고 나아질 곳이 있다면 말해주었다.

그건 아람에게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왔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한 안정감. 땅에 발이 닿은 기분이었다.

“역시 나는 선생님이 계속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랑 하루도 빠짐없이 대화했으면 좋겠고, 이런 맛있는 음식들도 언제나 만들어 줬으면 해요.”

나와 동등한 존재. 동정하지도 기대하지도 않고 단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

“하지만 그건 힘들겠죠.”

“끝까지 욕심을 부리지 않는구나.”

“…그래도 한 번만 욕심을 부려볼게요.”

“그게 무엇일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요?”

“…….”

그는 처음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못했다.

“…제가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는 않아.”

슬퍼 보이기도 했다.

“그저 내가 제자를 받게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서.”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주교님에게서 배웠듯이요.”

“아니지, 아람아. 너는 내게 의지하고 내려놓는 방법을 배울 거란다.”

“…내려놓으면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것마저도 익혀야지.”

선생님이 웃었다.

“완벽해지고 싶다면.”

"...그렇게 할게요."

"네가 아무것도 아닌 아이처럼 웃는 모습이 기대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너는 재능이 많은 아이잖니."

응원의 말이 참 따듯했다.

"뭐든 할 수 있어."

거기에 공포가 가셔서, 좀 울고 싶었다.

이러다가 어느 날 후회하게 될 것 같아... 무서웠다.

* * *

"성녀님께서 많이 편안해 보이시더군요."

주교는 여전히 양가적인 감정을 느꼈다.

성녀가 신성의 길을 걸어 달님교에 새로운 지표를 열었으면 했다. 하지만 딸처럼 아끼던 아이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하기도 했다.

"결국 선택하는 건 본인의 몫이겠지만요."

"원하는 길을 잘 선택해 낼 수 있을 겁니다."

지오가 웃었다.

"뭐든 할 수 있겠죠."

이제 사악한 마왕님이 등장할 때였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40)"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41)

241

제241화

사각, 사각—.

수많은 깃펜이 허공에 떠 종이들에 글을 써 내려간다.

"……."

이내 깃펜의 주인인 주교, 배서경이 한숨을 내쉬었다.

"후우…."

그에 맞춰 공중에 떠 있던 깃펜들이 하나둘 내려와 책상 위에 앉았다. 만찬장의 식탁만큼이나 길고 거대한 책상은 그 많은 물건들을 쉽게 포용했다.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군.'

푹신할 정도로 깔린 종이에는 빼곡한 글이 쓰여 있었다. 그것은 인간과 신성의 관계를 그렸다. 인간의 한계에 대한 서술도 있었다. 또한 인간이 신성으로, 신성이 인간으로 변할 때의 이야기도 있었다.

"……."

배서경은 가만히 서 그것을 지켜보았다.

'성녀의 상태는 많이 안정화되었다.'

서지오 헌터는 그녀의 정신과 신체의 균형을 잡아 주었다고 말했다. 그 말은 즉 인간 혹은 신비로 무게 추가 기울어질 때 성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성녀는 배우지 못한 것도 많고….'

아니, 아니다.

'…전부 변명이겠지.'

성녀는 달님교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담은 학자이다. 그녀가 해온 노력과 보여준 성과를 안다.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건 성녀 그 자체를 무시하는 셈이 된다.

"…내가 감히 고민할 주제가 아니거늘."

결국 모든 선택은 성녀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녀의 판단을 믿어야 한다.'

다시 한번 기량을 갈고닦아 신성으로서 달님이 되든, 지금의 평온한 인생에 만족하며 배움을 추구하든. 혹은 그 이외의 다른 길 역시 성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만 했다.

'그럼에도 나는 대체 왜… 이렇게 망설이는 거지.'

무엇을 망설이는 건지조차 모르겠다.

'왜? 무엇을? 뭘 해보겠다고?'

달이 곧 지게 될 지금까지도 잠에 들지 못했단 말인가.

"……."

결국 다 헛된 짓이다.

"한낱 미물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스승님의 지식만 못하다. 달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 성인만큼 많은 일을 해낼 수도 없다.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미련하게 군다는 것 역시 그녀의 부족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조금이나마 더 완벽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아이의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성녀가 성녀의 자리에 앉았을 때 물었던 질문. 달님의 안 또한 이렇게 무섭냐고 했을 때, 주교는 성녀를 채근하기만 했다. 어리석다고. 너는 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그래서 달님을 따듯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말했다.

"…윽."

책상을 짚은 손이 덜덜 떨렸다.

"우웩, 켁, 케흐윽…."

그녀는 책상을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이걸 대체 얼마나 반복해야 하지?'

역겨움에 숨이 막혔다.

이미 그녀는 한국에서만 세 명의 성인을 떠나보냈다. 그중 신성이 된 존재도 있고, 사람으로 남은 존재도 있었다. 발표된 존재도 있고 숨겨진 존재도 있었다.

그들을 통해 배서경은 '섭리'도 끔찍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기어코 섭리와 인간이 만나면 말이다.

'대체 얼마나 반복해야 이 세상이 나아질 수 있는 거야.'

이토록 끔찍하나 이 굴레를 끊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았다. 그저 시작을 했으니 어딘가에는 있을 끝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주교는 대재앙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녀가 알던 최악은 지금의 최선이 되었다. 최소한 대재앙 전만큼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바쳐서라도 해내고 싶었다.

'차라리 나에게 성인의 자격이 있었더라면.'

그녀만 하는 생각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달님교였다. 우주의 광활한 지식으로 세상을 고쳐내자. 더 나아지게 만들자.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들이 아니라, 내가… 내가….’

그래야 이 끔찍함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었다. 지금의 희생은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

숨을 가다듬은 그녀가 다시 냉랭한 얼굴로 돌아왔다.

‘…모두 헛된 짓이다.’

배서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겨진 옷은 곧게 펴고, 더러워진 것은 치우고, 형편없는 몰골을 고쳐냈다. 주교는 사형제들을 어르고 달래는 이. 인간 중에서는 가장 완벽해야 하는 위치였다.

‘다 의미 없는 연구야.’

그릇조차 되지 않는 배서경은 성인이 될 수 없었다. 신성이 될 수도 없었다. 정도 이상의 신비도 담지 못한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은 인간. 달이 된 성인의 곁에 남을 별이 되지 못한다.

‘성녀는 아주 잘해내고 있어. 본인의 길에 자신감도 있고, 자부심도 있지. 이제 와서 인간의 미련을 드러내 봤자 불쾌하기만 할 뿐이다. 그 고고한 달의 곁에 억지로 만들어낸 어설픈 별이 남는다고 해도 과연 무엇이 좋겠는가?’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도 없다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했다. 이곳은 달님교. 모든 지식과 감정을 긍정한다. 그들은 더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무엇보다 이건 결국 내가 만족하기 위함이지, 성녀를 존중하는 행위가 아니야. 내 형편없는 이기심으로 일을 그르칠 수는 없다.’

배서경은 식탁에 널브러진 연구 자료들을 보았다.

“…….”

주변에는 그녀의 피와 살점으로 인한 오물들이 가득했다.

“…역시, 치워야겠어.”

이런 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기어코 결론을 내리자 피곤이 몰려온다. 내일은 정양하느라 성녀를 보지 못할 것 같았다. 주교는 손을 휘둘러 연구실을 가볍게 청소했다. 태워야 할 자료들은 내일 구분하기로 했다.

‘기도를 올린 뒤에는 바로 쉬어야겠군.’

초조함에 어리석게도 무리를 해버렸다.

‘성녀의 길은 운명이 정해줄 터인데 참 미련도 하지.’

달님교는 사형제들의 자유를 존중한다. 심지어는 사제직을 내려놓는 것 또한 기억을 지운다면 용인된다. 그런 그들이 지키는 몇 없는 규칙 중 하나는, 잠들기 전 달님께 일과를 보고한다는 것이었다.

주교가 기도실로 발을 옮겼다.

“…….”

거대한 동공과 같은 기도실은 마치 밤하늘을 보는 듯했다. 그 어두운 천장은 끝을 가늠할 수 없었고, 존재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바닥엔 투명한 호수가 함께했다.

달도 별도 구름도 없는 새까만 밤. 이곳은 달님과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신비로운 공간이었다. 운이 좋다면 가끔 호수 위에 뜬 스승님과 마주칠 수 있었다.

‘오늘은 역시 없으시군.’

최근 성녀의 상태가 안 좋았던 것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매개체가 되어주는 성녀의 도움 없이 그들은 스승님의 얼굴 한 번 보기가 힘들다.

주교는 테라스를 형상화한 듯한 공간에 무릎 꿇고 앉았다.

'오늘 얻은 나의 이 보잘것없는 지식 또한 달님 안에 담기기를....'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 때였다.

"......."

"......."

"......?"

주교는 눈꺼풀 사이로 스며드는 빛에 눈을 떴다.

"...아."

새하얗고 동그란 달님.

그리고, '무언가'를 보았다.

* * *

그것은 절반의 머리였다.

뇌, 눈, 귀가 있어야 할 곳이 없다. 마치 깨진 도자기 병의 밑동만 남은 것 같다. 그 안에는 황홀한 황금빛의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가는 강물처럼 흘러 미소 지은 입술을 스치고 지나간다.

그것의 손과 팔은 세 쌍이었다.

가장 위의 것은 절반의 머리 위에 기하학적인 뿔이 난 양의 두개골을 들고 있었다. 가운데의 것은 신성한 달님을 아이처럼 품고 있었다. 가장 아래의 것은 양쪽으로 펼친 채 손바닥에 박힌 황금빛 눈을 통해 세상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것의 다리에는 꼬리가 감겨 있었다.

비단 장막처럼 하늘거리는 고운 털. 붉은색의 꼬리는 짐승의 것처럼도 보였고, 만들어진 장식이나 하늘의 오로라처럼도 보였다. 만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나 허상일 것 같기도 했다. 그것은 나무 자세를 취한 듯한 두 다리 중 왼편에 감겨 일렁인다.

"......."

그것이 두른 광휘는 새빨간 날개였다.

피가 잔뜩 묻어, 그것이 뚝뚝 떨어져, 이내 호수 아래로 추락한다. 혹은 스며든다. 새에게서 자비 없이 잡아 뜯은 듯 수없이 많고 단면부는 거칠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것은 고통에 떨고, 어쩌면 웃는 것처럼 경련하거나 떨린다.

"......."

그것의 음성은... 그 수와 시간을 구분할 수 없었다.

"작은 짐승아."

누가, 몇 명이,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말하고 있는 것일까?

"마지막 관에 잠든 내가 말한다."

"가엾구나." "네 신념은 누구의 것이더냐?" "제 감정조차 모른다니." "분노하고 있는가?" "안타까워라." "길들어져 있어." "배운 적이 없었나?" "내게 빌어보라!" "신념이라 생각했던 것이 진실로 그러한가?" "두려워하고 있군."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냐." "무엇을 하고 있지?" "즐거우면 그만이거늘!" "배운 적이 없나 본데." "분노할 수 없다면 어찌 인간이란 말인가." "미련이니 신념 또한 아니고." "악의를 가지지도 못한다." "세상을 보라." "즐거워하라!" "분노하거라." "그도 아니라면, 너 작은 짐승아."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작디작은 것."

“…꿈이 길었다.”

“나는 너의 스승과 조금 더 대화를 나눌지니.”

“이제 너는 깨어나렴.”

“달이 졌다.”

* * *

“—주교님.”

“…….”

“주교님?”

사형제의 부름에 주교가 눈을 떴다.

“…….”

“왜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시는지요.”

“…방금, 내가….”

“혹시 스승님이라도 뵈신 겁니까?”

“내가….”

숨이 떨렸다.

“…….”

세상이 눈에 들어왔다.

여전히 아무것도 떠 있지 않은 새까만 기도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저를 확인하고자 찾아온 사형제. 테라스에 걸린 시계. 아마도 그녀는 기도를 하던 도중 꿈을 꾼 듯했다.

하지만 그것이 꿈은 맞나?

“…내가 무엇을 봤지?”

그리고 무얼 들었지?

* * *

“저는 이해합니다.”

“무엇을 이해하셨나요?”

“달님교가 행했던 모든 일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초상화를 보며 주현이 고개를 기울였다.

“끔찍한 인신 공양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을 긍정합니다.”

“저는 지오 씨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제 개인의 호오에서 벗어나 그 존재의 이유를 납득하는 겁니다.”

세상의 운명에 옳고 그름 같은 건 없었다. 그 수많은 가지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살피며 뻗어 가던가?

“사람은 다양하죠. 한계의 끝도 천차만별이고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끊임없이 변수를 만들어 냅니다. 다들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던데, 저는 그게 단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이란 거창한 게 아니었다.

“케이크를 좋아하는 아이가 그것을 먹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라면 케이크에 집착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현 씨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오 씨의 말이 맞죠.”

“세상의 모든 흐름은 이와 같습니다.”

“그 말도 이해를 했습니다.”

“달님교도 그렇습니다.”

지오는 그것을 아쉬운 일로 규정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더군요.”

당연한 일이다. 대재앙은 기존에 있던 모든 윤리와 도덕을 앗아갔다. 지금은 고작해야 그것을 흉내 내는 것뿐.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제 소중한 것의 생존을 위해 지금까지도 많은 것을 버리고 있었다.

개인의 호오도, 신념의 선악도, 그 밖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념에 대해 사람들은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 하나 없었다. 그야말로 신생아와 같았다. 비단 달님교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말이다.

“달님교는 그 대재앙 때 이 수많은 비극을 한시라도 더 빨리 끝낼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달님교의 성인이 신성이 되어 달님을 따듯하게 바꾸어버린 일이었죠. 주현 씨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지금 시대의 수많은 비극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님교처럼 멀쩡한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고 싶지는 않네요. 그건 너무 역겨운 일이잖아요.”

주현이 허탈하게 웃었다.

“그런 식으로 얻어낸 평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달님교에게 알려주지 않았죠.”

“그 정도 나이를 먹었으면 알아서 알아차려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알려주지 않았으니 깨달아야 할 텐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해 지금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협회의 연구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삽니다.”

그게 곧 멸망의 길일 텐데도 사람들은 한 치 앞만을 보기에 바빴다. 또 멀리 보는 사람들은 너무 멀리 보기에 제 주변조차 보지 못했다.

“죄인은 명백하나 죄의 근원은 모호합니다.”

가장 처음 잘못한 것은 누굴까.

“그저 자연재해에 불과했던 대재앙?”

아니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미래를 구하고자 했던 달님교의 초대 성인?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죄를 인지했으나 그 또한 희생이라 착각한 성인들? 고귀한 희생에 가려진 비윤리에 물들어 자신과 타인의 희생 모두를 긍정하는 달님교의 사제들?”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달님교는 모두가 희생양이자 죄인입니다. 그 모든 운명 속에서 죄를 지었죠. 사람은 살면서 늘 크고 작은 죄를 지어요."

"달님교의 죄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그 시작을 뿌리 뽑아야 근절할 수 있는 겁니다. 주현 씨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뿌리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해마다 입단하는 달님교의 사제는 가지각색이다. 집과 밥을 얻기 위해. 혼자 있기 싫어서. 명예를 위해. 더 많은 지혜를 원해서. 완벽한 존재가 되고 싶기에 달님교에 입단한다.

그들은 대부분 어린이들이다. 달님교의 모든 사제가 어릴 적부터 거기서 성장했다. 그리고 지고의 지혜와 명예를 바라는 아이들이 커 달님교의 어른들이 되었다. 시작과 끝. 누구의 잘못인가.

"그러니 이제 달님교에는 두 가지 운명이 남았군요."

"그게 뭔가요?"

"배움, 혹은 처벌."

"둘 모두 지오 씨가 내려줄 수 있는 거겠죠?"

"둘 모두 제가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르지오는 그 물꼬를 텄다.

"일단은... 머리부터."

윗물이 흔들려야 아랫물도 흔들리는 법이다.

"'악신의 속삭임에 넘어간 교단의 사제' 이야기는 꽤 흥미로운 클리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달님교 주교님의 운명에 안녕을 고하도록 하죠...."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41)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41)"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42)

242

제242화

“…….”

한참이나 서고를 서성거리던 주교가 입술을 달싹였다.

“…없어.”

아무리 찾아도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대체 내가 그날 새벽에 보았던 존재는 누구지?’

평범한 꿈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결코 평범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마치 성녀에게 깃든 스승님과 마주쳤을 때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기이하고 불길하던 감각….’

그 기묘한 존재의 언어가 파도처럼 밀려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건 결코 꿈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달이 졌다고 말했다.’

명백히 달님교를 겨냥한 이야기였다.

‘그것의 두 번째 손에 들려 있던 것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스승님의 형상이었고….’

사형제들이 묘사하는 달님은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 동그란 거울이라 말한 자도 있었고, 투명한 구슬이라고 말한 자도, 고리가 잔뜩 겹쳐져 만들어진 구 형상이라 말한 자도 있었다.

공통점은 구의 형태라는 점. 그것 단 하나뿐이었지만 주교는 알고 있었다. 그날 그녀가 본 건 달님이 맞았다. 새하얗고 서늘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무언가 말이다.

‘…그러니 내가 보았던 그 새빨간 존재도 한낱 환상 따위가 아닐 텐데….’

아무 데도 정보가 없었다.

“…그만한 존재에게 역사가 없을 리는 없다.”

신성은 운명으로서 강인해진다. 이야기가 더해질수록 큰 존재감을 가진다. ‘달이 졌다’라고 말하며 그 손에 달님을 쥘 정도로 강대한 신비였다.

‘하지만 달님교에는 그에 관한 자료가 없어.’

전통적인 신부터 희대의 악신까지도 전부 찾아봤다. 혹시나 싶어 신성 이외의 다른 신비도 찾아보았다. 하지만 없었다.

온갖 지식과 지혜가 모인 달님교의 서고에조차 말이다.

'절반뿐인 머리, 짙은 황금의 피, 세 쌍의 팔과… 꺾인 날개로 이루어진 광휘….'

혹시 모습을 바꾼 것인가 싶어도 석연치 않았다.

'협회에도 문의를 해보았지만 전해준 답은 없고.'

가장 큰 가능성은 하나뿐이었다.

"……."

지구에 새로운 악신이 왔구나.

'그것이 달님을 눈에 담았어.'

시민들은 모르는 물밑에서 전 세계의 헌터 협회는 수많은 기밀을 쌓는다. 신비와 관련된 기밀도 마찬가지다. 그런 협회조차 모른다고 답변이 왔다는 건 새로운 재앙을 뜻했다.

"…곤란하게 되었군…."

아무도 없는 기밀 서고는 적막했다. 대대로 주교와 성녀만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니 당연했다. 그녀는 적당한 의자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세상이 어찌 되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머리는 치열하게 굴러갔다.

'…그 존재는 분명한 악신이었다. 목적이 뭐지? 유희? 계략? 어느 쪽이든 안 그래도 위태로운 지구에는 큰 위협이 될 게 분명하다.'

속이 복잡했다.

'그러나 신성의 발걸음엔 모름지기 이유가 있고, 만약 없더라도 언젠간 생기는 법. 어째서 가장 먼저 달님을 손에 쥐었을까? 즐거움을 위해?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더 많은 자료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고작 한 번밖에 보지 못한 존재였다.

'인어들과의 전쟁 때 태양교에서도 악신 산칼루트의 침입을 확인한 사례가 있었지. 대한민국은 지구에서 인간의 문명을 유지하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다. 그런 국가의 수도에 위치한 커다란 종교 두 개. 그중 하나는 이미 침략을 받았으나 수습했다. 혹시 사악한 신성들이 입을 모아 계략을 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성에 가까울 정도로 악업을 쌓았다던 인어들과의 전쟁. 태양교를 범한 악신 산칼루트. 달님교를 침입한 붉은 신성. 어쩌면 종교계가 긴장해야 할 일이 생기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어들과의 문제는 잘 해결되었다. 수집상에서 큰일을 해주었다지. 태양교 역시 피와 고통의 악신 산칼루트가 침입했던 것치고… 그것이 했던 건 고작해야 어린 예비 사제를 하나 빼돌린 것뿐. 그 전에도 한 번 정도 더 접촉한 사례가 있었다지만… 이 역시 차이솔이라는 예비 사제가 검은망토와 계약함으로써 이겨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인어와 산칼루트의 뒤에 내가 본 그 존재가 있었나?"

판단이라고 하면 섣부르겠지만, 가정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었다.

인어와의 전쟁이 몇 년은 더 이어졌을 수도 있었다. 산칼루트의 수작이 더 악독했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큰 문제 없이 일이 해결되었다. 달님교는 그것에 검은망토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

악한 것들의 배후에 그 붉은 악신이 있었다면?

'더 큰 것을 위해 지구를 잠시만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라면?'

단순한 가정이다. 확실하진 않았다.

'그렇지만 분명 파견 나갔던 사형제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지.'

인어들이 검은망토를 견제하며 그의 자식을 빼돌리려는 언행을 자주 보였다고. 인어와 검은망토가 대치했다는 건 명백하다. 그리고 그 인어와 산칼루트, 붉은 악신이 한편이었다면?

'참을성 없는 악신 산칼루트가 고작 예비 사제를 빼돌리는 것에서 태양교의 침입을 끝냈다. 누군가의 강제를 받았다고 봐야 해. 그리고 그렇게 강제한 게 내가 본 붉은 악신이라면 상황은 더더욱 복잡해진다.'

여기까지 오면 다시 한번 궁금해지는 것이다.

'목적이 뭐지?'

왜 나에게 모습을 보였지?

"……."

그러다 새삼 깨달아 부끄러움을 느낀다.

'…내가 스승님의 배반자가 될 거라고 여긴 것일까?'

달님이 붉은 악신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을 본 날. 주교는 분노보다는 당혹을 느꼈다. 그리고 그 당혹 너머로 남몰래 안도했다.

'혹시 달님이 아예 져버리면 그 아이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달님이 져버린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보고 나니 성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인간과 신비의 길 사이에 껴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다.

'…내가, 내가 그런 불경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이라도 받은 거냔 말이다.'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녀 이외에 붉은 악신을 마주쳤다는 이는 없었다. 지구에는 그에 관한 자료도 없었다. 하고 많은 사람 중 하필 자신만 그 존재를 보았다.

신성은 큰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인간에게 있어선 선택을 뜻했다.

'전통적인 신의 주교인 내가 악신에게 선택을 받다니. 하물며 성인의 그릇조차 되지 못해 그 많은 달님들을 떠나보냈던 내가, 이 신전에 매번 남겨지기만 하던 내가… 악신의….'

하지만 또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다.

"……."

차라리 잘된 것이 아니냐고.

'…이대로 스승님을 배신하여 지구에서 달님을, 아니, 달님교를 지워내면.'

그러면 차라리….

"…생각이 길었군."

최근 며칠간 무리한 탓에 엉뚱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았다.

주교는 손짓으로 서고의 자료들을 원래 자리에 두었다. 혹시 성녀가 들어오더라도 이상함을 눈치채지 않도록. 자신이 악신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엄중한 비밀로 지켜져야 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측근들에게는 말을 전해 둬야겠어.'

정말로 그 붉은 악신이 달님을 배신할 주교를 원하는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달님교는 아직 지구에 필요했다. 가능한 한 가까운 시대의 후손들에게 훨씬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러니 설령 주교가 정과 미련에 미칠지라도 누군가 제압해 줄 수 있도록, 인력이 필요했다. 생각과 함께 서고를 정리한 주교가 바깥으로 나왔다.

긴 복도를 한참이나 걷는다.

“…….”

“주, 주교님…?!”

그러다 웬 바구니를 안고 있는 성녀와 마주쳤다.

“…성녀? 어쩐 일로 복도에 나와 있습니까?”

가까이 다가가자 몰려 있던 사형제들이 길을 터주었다.

“이 인파는 또 뭐고요.”

“그, 그것이. 제가, 어, 별거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었는데…!”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진정하십시오.”

주교의 시선에 웃고 있는 성자, 서지오가 들어왔다.

“서지오 헌터께서는 이 사태에 관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초한 일이니 모를 수가 없겠죠.”

“아, 그렇군요. 대체 무슨 일로…?”

“주방에서 쿠키를 여럿 구웠습니다.”

“쿠키를?”

잘 보니 성녀의 바구니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죄다 쿠키다.

“…가끔 요리나 간식을 만들어서 나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서지오 헌터가 먹을 것에 진심이라는 건 다들 아는 일이었다. 연구 문제가 아니라면 식사조차 거르기 일쑤인 달님교 사제들과 달랐다. 그는 텅 빈 주방에도 자주 들락거리고는 했다.

“서지오 헌터님이야 그렇다 치고, 성녀께서는 어째서?”

“저와 함께 요리하셨으니까요.”

“아….”

조금 낯선 감정이 들었다.

“이런 일에 흥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흥미, 보다는 공부에… 가까웠습니다….”

항상 조용한 달님교를 소란스럽게 만든 탓일까. 성녀의 얼굴이 붉었다. 쉽게 민망함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애써 평정을 가다듬은 성녀가 설명을 이었다.

“크흠. 지난번에 준비도 없이 신성으로 변해버릴 지경에 놓이고 난 뒤, 제가 배움이 아직 많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알고 있는 거라고 해봐야 잡다한 이론 정도였죠.”

“잡다하다고 비하할 정도의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저 역시 제가 쌓은 지식과 지혜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님께 더 많은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요리를 하신 거고요?”

“예,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함께 주방으로 갔습니다.”

“최근 교단 내부가 복작거린다 싶더니.”

피로한 마음 사이로 픽 웃음이 비집고 나왔다.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군요.”

평소와 달리 심신이 피로해진 탓일까. 의식하지도 못한 채 기특함과 귀여움에서 나온 웃음이었다.

“햇볕이 들어오는 침실에 새로 화단을 꾸렸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종이접기로 경복궁을 만들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고요. 이번 쿠키 나눔도 그 경험 쌓기의 일환이겠지요?”

“최근 많이 바쁘신 것 같았는데 신경을 쓰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주교님….”

“보기 좋을 뿐입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듯했다.

“서지오 헌터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사형제들은 공부할 줄만 알지 이런 활동에는 경력이 전무해서요. 헌터님이 없었더라면 성녀님께서 이런 방면의 지식을 배우려는 생각조차 못 했겠지요.”

“고작 쿠키 나눠드리는 일을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그에 구경하던 사형제 중 한 명이 말했다.

“고작이라니요, 성인 둘이서 만든 쿠키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훈훈한 상황에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말이 정녕 그것뿐입니까, 형제님? 성녀님께서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만든 쿠키를 받은 장성한 인간으로서 할 말이 고작 그것뿐이냐는 겁니다.”

“나누어주신 쿠키는 표본으로 저희가 잘 연구를…!”

“연구고 표본이고 위장으로 넣을 게 아니라면 도로 내놓으십시오.”

그에 다른 사제가 물었다.

“먹기만 하면 연구해도 됩니까?”

“그냥 내놓으세요.”

“아, 안 돼…! 내 소중한 연구 표본이…!!”

“어우 징그러워.”

투덕거리는 어른들을 구경하던 주교에게 성녀가 다가왔다.

“저, 주교님.”

“…….”

“주교님…?”

“아, 예, 너무 진귀한 광경이라 잠시 시선이 빼앗겼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건 주교님을 위해 만든 간식입니다.”

투명한 비닐에 포장된, 조금 울퉁불퉁한 토끼 모양의 쿠키였다.

“최근 흥미로운 연구를 찾으신 건지 두문불출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달콤한 쿠키를 만들었어요. 그, 부디… 식사를 거르지 않으신다면 더 좋겠지만….”

그러며 말하는 성녀의 얼굴이 발갛다.

“…….”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한 어린아이의 낯이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식사를 더 잘 챙겨보도록 하죠.”

“! 그러신다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

“죽 한 스푼 먹기를 거부하던 성녀가 이런 조언을 다 해주시다니, 이 사제는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 그그, 그건...! 그때는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아니요.”

그 하얗게 탈색된 머리카락을 쓸어 보려다가도, 움찔 손이 떨려 멈춰 선다. 펑퍼짐한 사제복의 소매에 가려진 손이 피가 날 정도로 강하게 쥐어진다.

“성녀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었지요....”

“그럴 리가요.”

이 아이의 1순위는 그 자신의 공포가 아니었다.

“선물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실패뿐이었던 그간의 연구.

‘달님 곁의 별.’

신성의 도움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 * *

아르지오가 말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일러 주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네.”

지오반니가 말했다.

“우물 안에 갇혀 있던 개구리가 그 바깥의 세상을 상상하기가 어디 쉬운 일일까요.”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까지 발전이 없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겁니다, 친구.”

“저 아이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르지오 씨가 미는 대로 성실하게 흔들려주고 있으니 오히려 기특하다고 생각해야겠죠. 저 정도면 상상 이상으로 잘 따라와 주고 있어요.”

“조금 더 흔들어보면 제대로 된 길로 갈 것 같긴 한데....”

서지오가 말했다.

“그럼 저희 이만 밥 먹으러 가면 안 됩니까?”

“그러지.”

“그러죠.”

그렇게 ‘지오’는 주교와 성녀를 이끌고 식사를 하러 가기로 결정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42)"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42)"

4.7 13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43)

243

제243화

요즘 지오는 성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예."

지오가 환하게 웃었다.

"좋지 않나요, 떡볶이?"

"대재앙 전에는 한국에서 자주 팔았다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잘 팔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 서지오 헌터님은 연배가 어떻게 되시던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희 앞에 있는 떡볶이죠."

"아, 예."

주교가 하얀 그릇 위에 놓인 떡볶이를 보았다.

"저희 교단에는 떡이 없었을 텐데?"

"직접 만들어 조달했습니다. 떡은 오랜만에 만드는 거라 걱정했는데 잘 나와서 다행이었죠."

그에 성녀 아람이 눈을 반짝였다.

"떡볶이는 처음 먹어봐요."

지오가 정색했다.

"처음 먹는다고요?"

"네, 떡은 찾아보기 힘든 음식이잖아요."

무엇보다 달님교는 미식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자체가 연구 주제가 아니고서야. 달님교 사제들에게 음식이란 연료에 불과했다. 떡 같은 사치품이 자주 들어오지도 않았다.

"주문하려면 주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굳이 식재료에 돈을 들이느니 연구 재료 수집에 더 힘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명이라도 ‘아 저는 이게 먹고 싶은데요’라고 말했으면 공수했을 것이다. 달님교는 절대 돈이 없는 빈곤한 교단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단 한 명도 그런 말을 꺼낸 적이 없었다.

지오의 표정이 대단히 안타까워졌다.

“어쩐지 늘 창고가 빈약하더라니….”

“빈약할 정도였습니까?”

주교가 당황했다. 교단 전체를 관리하는 그녀가 보기엔 적당했던 것이다. 청소나 요리를 담당해 주는 형제자매들도 별말이 없었고. 서지오 헌터와 같은 반응이 오히려 낯설었다.

하지만 지오는 이미 사명감을 느낀 채였다.

“그럼 일단 떡볶이가 식기 전에 드실까요?”

이 연구에 눈이 먼 뼈다귀들을 돼지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것이 바로 세계 평화로의 지름길이겠지.

“부끄럽지만 오랜만에 만드는 거라 시장의 분위기를 잘 살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라니…?”

“성녀님께서 대재앙 이전의 식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길래 그때 당시 흔하게 먹을 수 있었던 분식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달콤한 떡볶이에 튀김, 순대, 간 같은 것들이죠.”

“정말 대재앙 이전의 식문화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든 음식들이었다.

“따로 공부를 하신 건가요?”

“어떤 의미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오는 웃으며 생각했다.

‘이 달님교의 사람들은 공부가 아니면 다른 경우를 떠올릴 수조차 없나 보지.’

그냥 먹는 게 좋은 것뿐인데.

대재앙 이전이었더라면 전부 하버드대에 들어갔을 인간들이었다. ‘지식과 지혜로 세상을 이롭게 만들자’라는 달님교 특유의 의무감도 있긴 할 텐데. 아무리 봐도 그냥 공부가 재밌어서 저러는 것 같았다.

‘괜히 폐쇄적인 문화가 아니었던 거야.’

천재들이 좀 그런 게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멍청해서 교류를 힘들어했다. 한눈에 뻔히 보이는 걸 두 손 두 발로 더듬어가며 확인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답답해 보일까.

그런 천재들이 모여 한 동네에 평생을 갇혀 산다. 그러니 이 달님교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그대로 적용해 버린다. ‘우리가 이러니 너도 그렇겠지?’ 하면서.

‘사회성 부족.’

이 우물 안 개구리들아.

‘그 우물이 너무 컸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을 터.’

하지만 걱정 마시길. 이미 지오는 그들의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세상 바깥으로 끌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맞든 안 맞든 세상 사람들과 지지고 볶아봐야 아닌 것도 아닌 줄을 알지.

“입에 맞으십니까? 매운 향신료에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 최대한 달게 만들었는데….”

“매워요!!!”

“아니 세상에.”

아람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입에 생수를 퍼부었다. 달콤한 주스를 따라주려던 지오가 머뭇거렸다. 그러고는 이내 소담하게 담은 주스를 부들거리는 주교 앞에 놓아주었다.

“다, 달게 만든다고 만든 거였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매움에 면역이 없을 줄 몰랐습니다.”

“저희 교단 내에서는 식단에 향신료를 잘 넣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체 왜죠?”

“강한 맛과 향은 생각을 방해해서....”

“정말 왜지?”

이 가엾은 어린양들을 보라. 미식의 즐거움을 정말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 원래도 식재 창고를 확인하며 ‘어 좀 심각한데’ 싶었지만 이건 너무했다.

‘...매운맛에 대한 한국인의 평균 역치가 낮아진 것인가?’

생각해 보면 고춧가루도 만드는 데 시간과 정성이 꽤 든다. 모든 것이 홈메이드로 바뀐 시대. 고추를 키워서 따서 말리고 꼭지 따고 씨앗 빼고 가는 과정도 다 돈이었을 테니.

‘매운 향신료에 대한 수요와 공급 자체가 확실히 줄어들기는 했겠지만....’

수집상이 특히 부자라 그렇지, 주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소 흔하게 먹는 음식은 거의 절밥에 가까웠다. 이렇게 강렬한 미식을 즐길 기회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긴 했다는 것이다.

“...으으음....”

그래도 달님교는 심했다.

“조금 더 달게 만들 걸 그랬습니다.”

“아뇨,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혀의 고통을 침착하게 다스렸던 주교는 주스 한 컵으로 완전히 회복했다. 그녀는 두 손에 주스 잔을 소중하게 쥔 채로 말했다.

“이 이상 달았더라면 맛의 균형이 어질러졌겠죠.”

“제 의도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주스를 받은 아람이 하얗게 질렸다.

“...생각해 보니까 매운 걸 먹은 적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던 달님교에서 이게 대체 무슨 만행이죠?”

“아니, 맛 자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제일 때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가장 처음 배우니까요. 당연히 미각에 관한 부분도 경험이 있어요.”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려는 거군요.”

“그래서 매콤한 감각을 느낀 적은 있지만, 음식으로 먹는 건....”

“‘거의 처음’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까.”

신생아 수준인 것이다.

“너무 맵다면 튀김을 먹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저는 떡볶이 국물에 튀김을 살짝 적셔서 먹는 걸 좋아하죠. 그럼 훨씬 덜 매울 거예요. 식감도 재밌어질 거고요.”

“오, 고구마튀김 맛있어요. 달아서 그런지 훨씬 덜 맵게 느껴지고요. 튀김옷이 굉장히 바삭하네요. 안에 있는 고구마는 촉촉하게 바스러지고....”

“그렇지요?”

벌써 이 정도의 묘사를 해내다니, 역시 아람에게는 돼지의 자질이 있었다.

‘고구마튀김의 참맛을 알아보았구나.’

참고로 지오가 가장 좋아하는 구황 작물은 고구마였다.

“.......”

그 모습을 보던 주교가 물었다.

“성녀, 입에 맞으신가요?”

“먹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네요.”

“즐거워 보여서 다행입니다.”

“...제, 제가 너무 식탐을 부린 걸까요?”

“식탐이라고 할 정도는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문득, 주교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는 외식을 한번 해볼까요.”

더 많은 것을 경험시켜야겠다고 말이다.

‘그래서 뭘 어쩌고 싶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처럼 사는 성녀를 보니 뇌가 하얗게 물들고 만다.

이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모든 선택을 성녀가 하는 거라면,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 않을까. 똑같이 성인인 서지오 헌터도 마음껏 내키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래, 괜찮을 거다.’

그럼에도 속이 무겁다.

“.......”

달님께 기도를 올려야 할 듯싶다.

* * *

“...맙소사.”

유성운이 텁 입을 막았다.

“이게 뭐야?”

“달님입니다.”

“그걸 왜 네가 들고 있어?”

“인질입니다.”

“어째서...?”

“지식을 내려줄 스승이 나에게 있으면 허튼짓은 하지 않을 테죠.”

“…….”

그 말을 들은 유성운이 중얼거렸다.

“…확실히 악당 끼가 있기는 하네….”

“잘 보셨습니다, 친구.”

초상화 너머의 아르지오가 방긋 웃었다.

“인사하시지요, 새로 사귄 친구 달님입니다.”

지오의 손에서 수정 구슬만 한 달이 반짝였다. 마치 유성운에게 인사를 하는 듯했다. 초상화에 그려진 달을 보던 유성운의 눈이 가늘어졌다.

“지오야, 네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친구란 상호 동의하에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를 말해.”

“납치하거나 협박하거나 세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대체 뭐로 보는 건지 아주 잘 알겠지만 생각하시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벌어지진 않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죠.”

지오는 그저 달님과 대화를 나눴을 뿐이었다.

“원래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신성 친구시다?”

“예, 마치 우주에서 태어난 거대한 AI처럼 느껴져서… 수많은 데이터를 토대로 자신의 행동과 나눌 지식의 양을 결정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너랑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네.”

“나와 비슷하다고?”

“너도 결국 너에게 적합한 ‘지오’와 합체되어 가며 발전하고 있잖아.”

유성운은 생각했다.

‘그 덕분인지 예전보다 훨씬 더 인간 흉내가 자연스러워졌다.’

섭리의 신성이라면 할 수 없는 거짓말에도 이제는 꽤 능숙하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달님도 언젠가 결국에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신성이 되는 걸까?”

“흠, 사람들은 그걸 악신이라고 부르던데요.”

“가장 쉽고 빠르게 전통적인 신과 악신을 구분하는 방법이긴 하지.”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오가 씩 웃었다.

“생각보다 놀라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그냥 ‘기어코 이 지경까지 왔구나’ 싶어서 체념한 거야.”

버젓이 교단까지 있는 남의 종교에서 신성을 납치해 오지 말란 말이다.

‘내가 말한다고 들을 놈이 아니다만.’

종교 전쟁이니 뭐니 말했을 때부터 직감은 했다. 뭔가 거대한 사고를 치겠구나. 그리고 그게 최소한 지구에 해가 되는 일은 아닐 테지. 그러니 자잘한 수습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

“그나마 어디 소문이 날 존재는 아니라 다행이네.”

“소문이 날 존재가 따로 있던가?”

“달님교는 현신체가 있는 신성도 아니잖아. 직접적인 소통도 성녀가 아니라면 힘들 테고, 그 유일한 인재인 성녀는 최근 회복에 집중하느라 신성의 유무를 알아차릴 기운도 없을 테니....”

“소문을 내려고 데려온 건데?”

“.......”

유성운이 가슴팍을 뒤졌다. 그러곤 사탕 하나를 꺼내 와그작 씹어 먹었다.

“그래, 이제 뭘 하겠다고?”

“오, 이런. 방금 1초 만에 사탕을 먹은 겁니까? 그러다 당뇨가 올걸? 성인병 조심해야지?”

“당뇨 오기 전에 열량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뭘 하겠다고?”

“달님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새 친구들이 등장할 때입니다.”

아르지오는 정말 즐거워 보였다.

“유원지는 좋아하나?”

“...뭐어....”

보기 좋은 모습이라, 유성운이 씩 웃었다.

“싫어하진 않아.”

* * *

“......?”

한 남자가 얼떨떨한 얼굴로 물었다.

“...이게 뭐라고요?”

“홍보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 어어... 어....”

남자가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여우 코스프레를 한 여자를 보았다. 쫑긋 솟은 두 귀에 풍성한 꼬리. 그리고 노출이 전혀 없는 길고 단정한 메이드복.

‘마니악하네.’

남자가 전단지를 다시 보았다.

꿈의 유원지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각박한 세상, 피곤하지는 않으신가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지만 현실에 부딪혀 포기하셨나요?

푹 쉬고 싶지만 일이 바빠 미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희에게로 찾아오세요!

이곳에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돈을 펑펑 써대는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귀여운 동물들에게 둘러싸인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온몸이 건강한 당신을, 날개가 달려 하늘을 나는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밖에 원하는 그 어떤 엉뚱하고 허황된 꿈이라도 좋습니다.

지루한 일상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꿈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잠들기 전 베개 밑에 원하는 꿈을 적은 쪽지를 넣어두세요.

둘째, 무슨 일이 있으셔도 꿈을 최대한 즐겨주세요!

단지 그거면 됩니다!

꿈을 꾸는 자에게 세상이 있습니다!

"…저기, 이게 그래서 정말 무슨…."

남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희한한 여우 메이드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

뭐지? 헌터였나?

'아니면 몬스터…?'

하지만 몬스터가 인간들에게 전단지나 나눠주고 있을 리는 없고. 조금 특이한 홍보를 선택한 헌터였나 싶어 남자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단지는 종종 여느 골목길에서나 마주칠 수 있었다.

'조건이니 뭐니 하는 게 영 괴상한 걸 보면 자기 스킬을 이용한 서비스 같은 거려나. 세상 참 좋아졌어, 헌터들이 스킬로 이런저런 사업도 하고….'

무형의 스킬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헌터는 차고 넘쳤다. 그래서 남자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미심쩍으니 직접 해보지는 않을 테지만 이런 제안을 받는 게 드문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동료의 제안으로 남자는 기어이 전단지 속 행위를 해냈다.

"……."

남자의 두 눈이 흥분으로 불거졌다.

"…지, 진짜… 진짜네."

입이 쭉 찢어졌다.

"미쳤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나자 정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전 공문을 내렸다. 던전 '꿈의 유원지'가 성행하고 있으니 섣불리 접촉하지 말고 거리를 유지하라는 공문이었다.

시민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43)"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44)

244

제244화

“기어이 풍선을 터트렸구나!”

비사벌이 환하게 웃었다.

“언젠가 이렇게 될 일이기는 했지.”

“예상하셨습니까?”

“그럼, 모르기가 더 힘들었을걸.”

거의 한평생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던 사람들이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조차 모를 확률이 높았다. 그런 시민들에게 ‘아무런 부작용도 없이 행복한 꿈’이 주어지다니.

정부의 말도 무시하고 눈이 돌아갈 만했다.

“상상 이상으로 긍정적이신데.”

“이런, 나는 우리 아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단다. 네가 언제 어디서 또 무슨 공연을 벌여도 이 두 눈으로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공연은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버지?”

“물론이지!”

그는 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아르지오는 길드장 집무실의 긴 소파에 늘어져 그를 올려다보았다. 비사벌은 지팡이를 짚은 채로 아르지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샛노란 눈이 집요한 빛을 냈다.

“흐음.”

마음에 드는 눈이다.

그런 아르지오의 생각에 서지오와 지오반니가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아르지오는 무시했다. 그는 이렇게 광적으로 정열적인 사람을 좋아했다. 그런 이들은 꼭 하나 이상의 사건을 터트리곤 하지.

“좋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 비싼 몸과 대화할 기회를 드리죠.”

“어이쿠, 감사해라.”

비사벌은 굳이 맞은편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나는 감탄했습니다.”

그게 첫 마디였다.

“그렇지요, 이 세상은 참 재미가 없어요. 다들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자신에게 정말로 소중한 게 뭔지도 모르고 행복이 아닌 그 비슷한 무언가를 끌어모으기에 바쁘죠. 그러면서도 스스로 힘들어해.”

“그렇게밖에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다들 견디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세상입니다. 꾸역꾸역 틀에 박혀서 뭐가 좋은지, 뭐가 싫은지, 뭘 하고 싶은지, 뭘 하기 싫은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아까운 삶을 살아가.”

“지루했는가?”

“아, 너무 지루했어요. 차라리 완전한 난장판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그나마 보는 재미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불만은 애써 집어삼킨 채로 빌빌대며 기어 다니는 병정들….”

“길들어진 사람이 반항할 수 있을 리가 없지.”

“그렇죠, 보상받을 수 없으니까.”

비사벌이 입술을 가늘게 휘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검은망토는 착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검은망토가 만들어낸 세상을 보세요! 그 재수 없고 머리 텅텅 빈 돈주머니들은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꺾일까 두려워 벌벌 떨어대던 빈민가의 방랑자들은 용기라는 걸 내보기 시작했죠.”

“내가 선물을 줄 테니.”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억눌린 채로 살 줄밖에 모르던 시민들은 용기 내는 법을 익혔다. 숨기보다 나서기 시작했다. 한번 발이라도 한쪽 넣어보고 있었다. 지금 사태는 그것과도 연관이 있었다.

“선을 배우고 나니 악을 배우고 있군요.”

비사벌의 말에 아르지오가 웃었다.

“사고를 쳤다고 말하고 싶은 겐가?”

“사고라니, 방금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공연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한 편의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

“검은망토로 인해 선을 수용하게 된 사람들은 악을 배우더라도 더 나은 길을 찾을 겁니다. 검은망토에게 관심이 없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이번 기회에 악을 먼저 배우겠죠.”

그렇다고 지오가 이 공연을 통해 악한 사람을 만들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었다.

“결국 아르지오, 당신도 영웅을 사랑하고 선을 긍정하는 신비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악신인데도 그렇게 생각하나?”

“그럼요! 당신은 그저 즐거움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정정당당한 분노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르지오, 잔혹한 짐승. 당신은 나약한 것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제법 잘 알고 있군.”

“눈이 좋아서.”

신성에게조차도 자랑할 만한 눈이었다.

“결국 모든 것은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요, 세상은 이래야 재미가 있지! 선함도 악함도 죄다 억눌린 채 기계처럼 살아가는 것이 대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더러운 골목의 쥐 떼처럼 자아도 없이 휩쓸려 다니는 꼴은 나를 정말 불쾌하게 만듭니다.”

“자네도 결과적으로는 스스로의 즐거움을 탐하는 것인가?”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인간들의 집합체는 끊임없이 사용되고 버려지는 것뿐입니다. 그 과정의 어디에 가치가 있습니까? 선악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반발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당신이 잘 알려 주신다면… 서지오 선생.”

흑발로 돌아온 검은망토의 모습에 비사벌이 눈을 초승달처럼 휘었다.

“세상이 얼마나 더 재밌어지겠습니까?”

“…….”

그를 올려다보던 지오가 흠, 하고선 말했다.

“저 표정이 대체 어디서 나왔나 했는데.”

“표정 말인가요?”

“지금 웃고 계신 얼굴 말입니다.”

“아, 그렇죠.”

허리를 편 비사벌이 끌끌거리며 웃었다.

“나의 큐레이터들이 아마 이렇게 웃을 겁니다.”

이따금 외부인들이 소름 끼쳐 하는 그 미소. 그 원본이 바로 비사벌이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언젠가부터 큐레이터들이 그 표정을 닮아가더라. 꽤 마음에 들어 그저 두고 감상 중이었다.

“그나저나 선생님이라는 말에는 부정하지 않으시는군요?”

“저는 선생님이 맞습니다.”

“당신의 학교가 폐허로 변한 지금까지도?”

“나에 대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과 얼굴까지 알았는데 설마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대재앙 이전의 신분인지라 확인하는데 참 애를 먹었지만 아주 작은 이야기들은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으셨습니까?”

“당신의 제자였던 사람들에게?”

잠시 뒤에 지오가 말했다.

“살아 있었군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따로 찾아가 보지 않았던 것 같군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무얼 해야 할지.”

나를 죽은 사람으로 쳐줘야 할지, 산 사람으로 쳐줘야 할지. 갑자기 나타나면 나를 무서워하진 않을지. 내 모습을 보이는 게 옳은 일일지, 아닌 게 나을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묻어두고 있었다.

“비사벌 길드장님,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나도 이렇게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려 깊은 모습에 탄복했습니다.”

“부담스러운 언행을 자주 일삼으시는군요.”

“그럼에도 제 방까지 찾아온 것은 당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니, 아들?”

“그것도 그렇지.”

지오가 머리를 쓸어 올리자 순식간에 머리카락이 붉어졌다.

“나는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걸 꽤 좋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육을 해보시겠다? 그거 아주 재밌겠군, 마음에 들어요.”

“내가 이번에 달님교를 경험하며 느낀 게 있지.”

“제가 들어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현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신생아가 따로 없다는 것.”

그가 턱을 쓸었다.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건 예삿일입니다. 화내는 법, 우는 법, 웃는 법, 노래하는 법, 식사하는 법, 잠에 드는 법, 걷는 법, 보는 법, 듣는 법... 심지어는 숨을 쉬는 것조차 까먹은 이들이 참 많더군.”

나 때는 안 그랬는데.

“해서 차근차근 가르치는 중이지. 딱히 걱정할 것 같지는 않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좋네. 검은망토에게서 사람과 교류의 가치를 깨달은 이들이 악신 아르지오의 등장에도 굳건하게 버텨줄 테니까.”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늉이라도 해보라는 의미였는데?”

“의미가 없지 않니?”

드디어 비사벌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래서 굳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다시 한번 그 눈을 보고 싶어서.”

“아하, 눈을?”

“그래.”

지오의 금색 눈이 비사벌의 것을 응시했다.

“어쩌다 그걸 얻게 되었지?”

“이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눈과는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나?”

“물론이죠! 저희는 아주 끔찍하게 다정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

“으음, 글쎄요. 어디 보자....”

짐짓 고민하던 비사벌이 대답했다.

“아하, 이럴 수가.”

“과연 어떠십니까?”

“당신이 날개 달린 짐승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봤네.”

아르지오가 웃었다.

“두 눈이 멀쩡해서 다행이야.”

아프면 도와주려고 했더니, 알아서 잘 지내는 모양이었다.

* * *

“‘꿈의 유원지’는 던전이 맞습니다.”

달님교의 주교가 설명했다.

“지금까지 모은 정보에 따르면 정말로 유원지 형태의 거대한 공간이 존재한다더군요. ‘전단지를 받은 다음 원하는 것을 적어 베개 밑에 두고 잠에 들면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으로 미루어 보아… 종류는 가상 던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던전으로 참가자가 끌려가는 형식이었다.

“이런 조건은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면 충족될 수 없으니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현실에 지쳐 있던 시민들에게 ‘꿈에서 뭐든 원하는 일을 안전하게 해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 생각해 보면… 그리 안심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혹시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더 길어지거나 합니까?”

“딱히 그렇다는 소식은 없군요.”

달님교는 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교단이다. 이런 식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정보를 공유받고 함께 고민할 아군이 되고는 했다. 협회에서 간단히 브리핑을 받고 온 주교가 달님교의 사형제들에게 말했다.

“개인 혹은 집단의 스킬이라기엔 규모가 너무 큽니다. 정형화된 공간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이 던전 ‘꿈의 유원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실험 쥐다.

“어떤 방법을 써도 좋습니다. 본인이 만족할 수 있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요. 지난 ‘심해의 나라’에서도 그러했듯이 형제들의 적극적인 연구와 결과 보고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이 전단지에 나온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 봐도 되는 겁니까? 역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실제로 겪어보는 것일 텐데요. 특별한 부작용 같은 건 아직까지 없다고도 나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가는 일이라면 시도하기 전 미리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는 평소처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될 일이 없도록 은밀한 연구 부탁드리죠.”

“이해했습니다.”

달님교는 대체로 들뜬 분위기였다. 그들에게 던전과 몬스터란 흥미로운 연구 주제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렇게 친절한 조건의 가상 던전이라니. 연구할 가치가 충분했다.

그들 사이에 끼어 있던 은인, 서지오 헌터가 어색하게 웃었다.

“다들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죽을 것 같으면 스승님께 기도를 드릴 테니….”

“기도드리면 달님께서 살려 주시나요?”

"제가 죽기 전에 제 기특한 성과를 전해 들으시겠죠."

"정말 어지간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자제해 가면서 하세요."

"이게 다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좀."

"옙."

주교가 헛기침을 하며 어색하게 끼어들었다.

"이런 상황은 아무래도 난감하시겠죠, 서지오 헌터님께."

"수집상도 비슷하게 제 몸 아끼지 않는 분위기이긴 해도 길드장님을 고려해서인지 정도 이상의 위험한 일은 벌이지 않아서요. 역시 익숙하지가 않네요, 다들 똑똑한 분들이신데."

"뇌가 잘 굴러갈 뿐 그렇게까지 영리한 사람들이 모인 교단은 아닙니다. 그래도 조건을 달아놓으면 그것은 꼭 지키는 아이들이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염려는 저보다 주교님께서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한 박자 늦게 그녀가 물었다.

"…아, 제가요?"

"최근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잠자리를 설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악몽이라도 꾸십니까?"

"아뇨, 그보다는…."

머뭇거리던 주교가 대답했다.

"선잠을 자는 기분이죠."

그녀는 최근 악신의 꿈을 꾸고 있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44)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44)"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45)

245

제245화

“요즘 주교님이 이상하십니다.”

“아, 그거 저한테 말해도 되는 건가요?”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괜찮아요.”

“뭔가 생략된 것 같은데.”

지오가 달님교의 성녀, 아람이의 침대에 앉았다.

“이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싶은 거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좋아. 제자의 고민을 듣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는 것도 내 역할 중 하나이겠지.”

“그러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저로서는 당황스럽기만 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렇다고 달님교의 기둥인 주교님의 일을 함부로 떠벌리기도 힘들고....”

“성실하기도 해라.”

아람이 한숨을 애써 참는 표정을 지었다.

“제 말의 요지는 그거예요, 주교님이 달라지셨다는 거.”

“예를 들자면?”

“일단 주요한 행사에서 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이번에 새로 등장한 던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에도 저는 빠졌었어요. 평소에는 그런 자리에 자주 불려 갔었는데, 주교님께서 이상할 정도로 말 한마디 꺼내 주시지를 않더라고요.”

“회복이 덜 되어서 푹 쉬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머뭇거리는 아람에 지오가 대신 말했다.

“뭔가 찝찝하다는 거겠지?”

“...네, 평소에도 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서요. 저 지금 많이 건

강해지지 않았나요?"

"딸처럼 생각하는 아이가 사람 몰골도 신성 몰골도 아닌 모습으로 몇 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면 나라도 휴식 기간을 길게 잡을 거야. 딱히 나만 그런 것도 아닐 테고."

"그건 그럴 수 있다 쳐도, 최근 들어 유독 저를 눈에 자주 담으십니다.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실 것처럼 손에 힘을 줬다가도 풀어 버리고요. 이걸, 이걸 뭐라고 해야 하지…."

"흐음."

지오가 짐짓 고민하다 물었다.

"안정적이지 않다는 건가?"

"어쩌면요."

언제나 평온하고 잔잔한 모습이던 주교다. 달리 표현하자면 자기 관리가 뛰어나다. 그런 그녀의 표정이 최근 영 좋지가 않았다.

"잠을 설치시는지 많이 피곤해 보이시기도 하고, 달님교 곳곳의 서고를 거의 섭렵하듯이 돌아다니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느 날은 아예 침실에 들어가셔서 나오시지를 않는데… 심지어 저를 볼 때면 무언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속상했다.

"고작 이런 걸로 서운해하다니 수련이 부족했던 게 틀림없어요."

"편하게 지내던 친한 사람이 불편한 관계가 되려고 하면 서운한 게 당연한 거지."

"어찌 된 일인지 여쭤보고 싶은데, 기분 탓인지 대화를 피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듯해서 너무 걱정이에요…."

"확실히 걱정이 될 만한 일이네."

그에 지오가 생각했다.

'글렀군.'

아람이는 주교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

'딸처럼 생각하던 아이를 인간적인 염려를 담아 보기 시작한 탓이라고는 짐작조차 못 한 것 같네. 하긴 주교 본인도 자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가….'

달님교의 체제가 무너진다면 아람이 다음 대 달님이 될 필요가 없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가정이 주교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다. 악신 아르지오가 그렇게 유도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조금씩 사랑하는 티를 내는 게 역으로 거리를 두려는 행동처럼 보이는 건 상당히 심각한데. 달님교 사제들은 사회성이 없는 것이 맞다. 확실히 맞아.'

지오가 아람의 등을 토닥였다.

"주교님께서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받은 적은 없는데. 아마 아람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표현 방법이 서툴러서 낯설게 보였던 게 아닐까 싶어."

"그러면 감사하고 또 다행인 일이겠지만…."

"최근 주교님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기는 했지."

"그렇다니까요?"

"따로 연구라도 하시는 거려나?"

“…….”

아람이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불안해요.”

“무엇이 너를 불안하게 만들었니?”

“많은 게 변화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곧 무너질 고층 바닥에 서 있는 느낌이고, 꺾일지도 모를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상당히 구체적인데.”

이게 바로 성인의 감이라는 건가?

‘용케 눈치를 채는군.’

달님교 뿌리부터 갈아엎으려는 거 어떻게 알았지?

“뭔가 짐작 가는 거라도 있나?”

“딱히 그런 건 없고요.”

“그럼?”

“…최근 스승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서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스승님께서 자리를 비울 때는 잦았지만 최소한 저는 그 분과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라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영 소식이 없네요….”

“꼭 멀리 출장 나간 부모님을 찾는 것 같은 말투네.”

“저에게는 크게 다르지도 않으니까요. 아주 어릴 적부터 함께였는걸요.”

“그렇기도 하겠구나.”

꽤 정확하게 짚었다.

‘어리긴 해도 달님이 직접 정한 성녀인 만큼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달님교에서 이상을 알아차리게 될 수도 있겠어. 그렇다면 나 역시 조금만 손을 써도 앞으로의 일에는 문제가 없겠지….’

지오가 씩 웃었다.

“그래도 나는 최근 아람이의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데.”

“…저요?”

“주교님이야 어른이지 않니. 나는 주교님보다는 네 상태를 더 걱정하고 있었어.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도 상당했었으니 나의 충격이 어지간했을까?”

“그, 그때는… 저도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거고….”

“지금은 네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뻐. 물론 원래도 너는 네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때의 시야와 지금의 시야는 아마 네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다를 거야.”

“…그건 맞아요.”

머뭇거리던 아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배워야 할 게 상상 이상으로 많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지는 나도 알지만, 가끔은 바깥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단다.”

아람의 등에서 손을 뗀 지오가 말했다.

“달님교의 사형제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지.”

“다들 바쁘신데 괜히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사형제들과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또 다른 장이란다. 아람이는 내가 만들어준 미음을 처음 먹고서야 식사의 기쁨과 그에 관한 지혜를 깨닫지 않았니.”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는 건가요?”

“그래, 인간이 쌓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는 비단 복잡한 이론과 밝혀지지 않은 신비에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달님교의 사제들은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배움을 놓치고 있는 것 같구나.”

“…선생님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아람아.”

지오가 다정하게 물었다.

“달님이 되고 싶니?”

“네, 저는….”

단숨에 대답한 것치고 뒷말은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아람이 이어 말했다.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들 거예요.”

“그게 너의 꿈이구나.”

“맞아요.”

스스로 선택한, 나의 자부심.

“난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지오는 긍정했다.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 * *

아테르는 종종 지금의 일상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

“뭐지? 배가 고픈 건가?”

“…조금만 멍하니 있으면 그런 질문을 하시는군요. 인간이 고장 나는 이유가 오로지 연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말이 긴 것으로 보아 배가 고픈 게 분명해.”

“식사 때인 것 같기는 한데, 아니,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하….”

악신 아르지오와 헛소리를 주고받는 지금 상황도.

“예전에 만들었던 빵인데 먹겠는가?”

“…푹신하고 달콤하네요, 그런데 보통 이런 건 후식으로 먹지 않던가요?”

“혀에 단것 좀 묻었다고 식사를 못 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지?”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죠….”

그가 직접 만든 빵이 너무 맛있다는 것도.

“지금 머무는 방은 마음에 드나?”

“아,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이 유적이 아닌 검은 숲이나 짐승들의 마을에 거처를 마련해 줄 수도 있거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은 숲은 너무 습하고, 새로 생겼다는 세계는 아직 다가갈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당신께서 마련해 주신 이 방이 지금의 제게는 가장 잘 맞아요.”

“용감하기도 해라.”

악신께서 직접 그의 무덤 한편을 내어 주었다는 것도 말이다.

“자네가 이곳을 그다지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네. 좋은 꼴을 본 기억은 없지 않은가? 내가 열심히 다듬고 쌓아 올려 고쳐 두었다지만 담력이 어지간히 센 게 아니군.”

“제 동료들이 죽은 곳도 전부 이곳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좁은 가시관에 갇혀 있던 날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것은 이겨내야 할 과거지, 마냥 피할 일이 아니었다. 동료들을 완전히 수습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

무엇보다 이 유적에 대한 감정이 아주 나쁘지만도 않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가 가장 그럴싸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시기는 이 유적을 탐방하고 마왕인 당신을 토벌하려 했을 때였죠. 그때 동료들과 함께 떠들거나 식사했던 기억까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이라서 내가 많이 기쁘네.”

“정말 이러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참 칭찬이 후하시군요.”

생긴 것과 전혀 다르게 말이다.

악신이 내어준 무덤 한편은 안락했다. 지하 깊은 곳일 텐데도 햇볕이 들어올 정도였다. 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물으니 태양의 권능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봉인되었던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인간의 형상을 하게 된 것도 그렇고.’

아테르가 기억하는 악신 아르지오는 인간보다 사악하고 신비로운 짐승에 가까웠다. 한눈에는 채 담지도 못할 만큼 거대한 그 존재는 인간과 짐승을 섞어둔 듯했다. 그때의 형상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지금의 인격은 가장 마지막에 희생된 성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했지. 그렇다면 저 신체도 마지막 성자의 것일 텐데, 굳이… 왜 그렇게 인간의 시선에 굽혀주고 있는 건지는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내어준 침구는 푹신했다. 식사는 따듯하고 맛있었으며, 대화는 웃기게도 꽤 즐거웠다. 아르지오는 좋은 말 상대였다. 그가 어쩌다 악신에서 인간에 가까운 형상을 취하게 된 건지 그 과정이 궁금했다.

“…….”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제 동료들을 이곳에 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을 묻을 때는 영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니, 혼자 있던 동안 생각과 감정을 많이 정리한 것처럼 보이는군.”

“그때 보였던 무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신의 권능으로 아테르는 고기 죽에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강인한 영웅의 정신도 때때로 과거의 잔영 앞에서는 무너졌다. 그는 지금처럼 멀쩡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다가도 비수에 찔리면 짐승처럼 발버둥 치기를 반복했다.

‘그래서 혼자 있을 시간을 줬던 건가.’

아르지오는 꽤 오랜만에 유적으로 돌아왔다. 아테르는 그동안 하나하나 동료들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다행히도 악신이 동료들의 시신을 보기 좋게 되돌려주어 수고를 덜었다.

'그게 아니었더라면 아마 더 오랫동안 제정신이 아니었겠지.'

미안하고 머쓱한 기분이었다.

"…우리 '용사'들은 구시대의 인간들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 이상 저희들은 구시대에 묻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신을 꼭 제 손으로… 또 구시대의 땅에 묻고 싶었어요."

"악신의 무덤에 묻는 게 과연 맞나 싶기는 하네만."

"검은 숲보다야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습하고 지독한 땅은 시체를 묻어도 금방 헤집어질 것이었다. 기껏 신이 내린 기적으로 되돌려낸 동료들의 시신이다. 그런 식으로 단시간 내에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럼 당분간은 여기 계실 겁니까?"

"아마도 그렇겠지."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람이의 상태도 확실히 안정화가 되었고.'

사실 그녀가 고쳐진 것은 한참 전이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곁에 남아 있던 건 지오의 욕심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꿈의 유원지' 건으로 바빠진 탓에 지오가 남아 있기도 애매해 다시 짐 싸고 나왔을 뿐이다.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이 있나?"

"…음…."

한참을 고민하던 아테르가 말했다.

"…육포 수프가 먹고 싶습니다."

"내가 그걸 아주 잘 만드네."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으셨는데요."

"거의 한평생을 검은 숲에서 살아온 방랑자가 그 정도도 못하겠는가? 그보다 육포 수프라니, 아무래도 동료들의 생각이 나는 모양이군."

"좀 어설프기는 해도… 예, 생각이 나네요."

"추억이 담긴 요리는 각별하지."

곧잘 맞장구쳐 주는 모습에 아테르가 입을 꾹 다물었다.

"……."

못내 생각하게 된다.

'…저 모습은 가짜일까, 진짜일까.'

그런 의미도 없는 생각을.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45)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45)"

4.7 13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46)

246

제246화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항상 '잔혹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너 그렇게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면 악신이 잡아간다."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곧 악신이 와서 물어 가겠네!"

"평생 이기적으로 살다 악신한테나 잡혀가라!"

만약 서지오가 들었으면 '내가 무슨 호랑이도 아니고'라며 황당해했을 거다.

아무튼 한때 사람들은 그랬다. 아테르도 그런 아이 중 한 명이었다. 이미 악신의 존재가 일상과 너무 밀접해져 버린 시대. 마음과 머릿속 깊은 곳에 아르지오에 대한 경계와 공포가 가득했다.

하지만 직접 본 아르지오는 달랐다.

"식사는 했나?"

"오늘치 운동은 했어?"

"울다 쓰러지겠군."

그는 대뜸 나타나서는 슬쩍 안부를 묻고선 다시 사라지길 반복했다.

"……."

아마 아테르가 그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악신이?'

그 무시무시한 마왕이 배려를 한다고?

'도무지 적응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의 도움으로 아테르가 멀쩡한 인간이 되어 부활한 건 맞았다. 그에 대해 감사도 느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악신을 향한 공포가 단번에 씻겨나갈 수는 없었다.

'왜 저런 형상으로 모습을 꾸며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변해갔다. 미치광이가 따로 없던 아테르는 점점 평정을 되찾았다. 온전하지 못했던 정신이 온전한 신체에 맞춰져 가는 게 느껴졌다.

“이제야 여유를 조금 찾았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꽤 괜찮아졌죠.”

“제법 사람 몰골이야.”

“그렇게 보인다니 다행입니다.”

“기특하군.”

자연히 상대에 관한 불안감도 잦아들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었어.’

그는 아테르를 영겁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이름을 부르니 구원해 준 최초의 신이었다. 또한 인간의 형상이었다.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안부를 물었다.

과거의 잔영에 미쳐 발광할 때면 시간을 주었다. 그건 정확히 아테르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아르지오는 그가 자기 자신을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거기에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지.’

오늘만 해도, 봐라.

“대충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음, 맞습니다. 방랑자가 주로 먹는다는 음식치고는 너무 잘 만들어져서 괴리감이 느껴지지만요.”

“아무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그만인 일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자네가 떠올린 음식을 재현하지 못한 것은 매우 자존심이 상하니, 다음에는 좀 더 제대로 된 육포 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네.”

“이 이상 공을 들여봤자 더 맛있는 수프만 나올 것 같습니다만.”

아르지오는 ‘육포 수프가 먹고 싶다’라는 그의 말 한마디에 그걸 직접 끓여 왔다.

“계속 느끼는 거지만, 당신이… 요리를 잘한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보다는 이상함에 가까웠다. 요리란 일꾼들의 것이었다. 귀족은 요리를 천한 일로 취급했다.

아르지오는 한때 귀족이기도 했고, 그것을 떠올리기 이전에 ‘마왕님’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런 존재가 직접 요리를 하다니.

‘그것도 나 같은 평민을 위해서.’

하긴 그런 건 이제 전부 없어진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어색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군.’

심지어 아테르는 그를 봉인한 ‘용사’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악신이 그에 대한 유감을 표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까지도 낯설게 느껴졌다. 저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인간이셨을 적에는 저희와 비슷한 방랑자로 사셨다고 했으니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겠지만요. 아무래도 당신의 찬란했던 유적이 지금까지도 인상에 깊이 박혀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의 내 집이 매우 번쩍거리기는 했지.”

아르지오는 흔쾌히 대화를 받아주었다.

“여기저기서 바친 재물들이 많았거든.”

“재물도 받으셨습니까? 살아 있는 사람을 제물로 잡아먹으셨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신성을 얻은 후에는 유난히 사람 제물이 더 많았던 것 같기는 하지만, 살아생전에는 금은보화를 더 많이 받았었네. 재물보다 생명이 더 중한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아, 그런 식으로 와전이….”

“나는 집을 꾸미는 것을 참 좋아했어. 그거 아나? 나는 검은 숲에 바쳐진 수많은 성자 중 유일하게 20살을 넘겼지. 이는 즉 숲과 그 바깥을 나고 들었던 최초의 성자라는 의미일세.”

그의 이야기는 꽤 흥미로웠다.

“약탈하고 선물 받았던 재화는 전부 내 집으로 가져왔어. 이 유적에 말이야. 아마 그런 나의 자아가 강하게 남은 덕분인지 악신이 되어 거의 이지를 잃은 후에도 그런 환경을 유지했던 것 같은데….”

“역시 당시의 기억은 온전하지 않은 겁니까?”

“예전에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다행히도 좋은 기회를 통해 나 자신을 갈무리할 수 있게 되었거든. 다만 ‘나’ 이전의 여러 성자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데는 약간의 수고가 든다.”

“여러 자아가 합쳐진 것이 불편하지는 않으시고요?”

“딱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네. 태어나면서 함께 달고 나왔던 손발이나 눈이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지. 단지 그 존재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다루기 위해 노력이 필요할 뿐이야.”

악신이 물었다.

“자네는 이곳에서 지낼 만한가?”

“지금 상황에서는 생활하기에 이보다 편한 곳이 없어서요.”

“그거야 자네 생각이지, 내내 유적 안에만 있지 않았는가.”

“…그 유적이 얼마나 넓은지는 알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유적은 거의 하나의 성만큼이나 넓었다.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머무는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과 그 성의 외곽을 감싸고 있는 마을들의 땅만큼이나 넓다는 의미였다.

“이곳은 거의 도심에 가깝습니다. 용사로서 방문했을 적이나 사람들에게서 도망쳐 왔을 때는 미처 여유가 없어서 최근에야 돌아다녀 보고 있는데, 정말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넓더군요.”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기쁘군.”

“온갖 재화가 가득했던 예전보다 그 화려함은 덜해졌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눈이 조금 덜 아픈 것 같아서 더욱 편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당신이 마왕으로 있었을 때의 유적이 구경하기에 좋은 관광지는 아니었죠.”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원래도 유적 연구에 흥미가 있었나?”

“용사들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검은 숲의 진실을 밝혀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는 왕실 도서관의 사서였다.

“평민의 위치로 오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한마디로 제 능력이 태생의 비천함을 이겨내고 그 많던 귀족들의 콧대를 눌러줄 수 있을 만큼 뛰어났다는 겁니다.”

악신이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신체적 조건으로 도서관의 사서였다고?”

“…왜 그 부분에서 놀라시는 거죠.”

“나는 나보다 신장이 큰 사람을 몇 본 적이 없네.”

“제가 평균 이상으로 큰 편이기는 하지만… 용사 중에는 많았을 겁니다. 기억이 모호하기는 해도, 저보다 큰 사람은 확실히 있었으니까요.”

“마왕일 때 만나서 다행이었군.”

“저희는 딱히 다행이지 않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자네들을 내려다볼 수 있어서? 명색이 마왕인데 올려다봐야 하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가.”

“아하, 그런 이유로… 이해했습니다….”

괜히 허탈하고 웃음이 나왔다.

“이 말을 했던가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소탈하신 분이라 놀랐습니다.”

“마지막 성자인 내가 주도권을 잡게 된 걸 감사하게 여기게.”

“이 이상 감사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온함에 익숙해질수록, 깊이 새겨진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

아테르는 이 악신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나를 구해주었지.’

제 부름에 응답한, 그리고 구원해 준 유일한 존재. 그에게 입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아마 그 자신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갚을 수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점점 친밀감을 느끼고 있어서….’

불안했다.

* * *

처음 ‘정신’이 들었을 때부터 생각해 오던 것이었다.

‘이 존재를 진실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수많은 분노와 증오의 희생양이 합쳐져 만들어진 악신. 그리고 아테르를 구해주고 지금껏 친근하게 대해준 자는 스스로를 ‘아르지오’, 즉 마지막 성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이란 무엇인가. 그들의 진실과 거짓은 인간의 잣대로 구분할 수 없다. 지금의 자비롭고 소탈한 ‘아르지오’가 아닌 분노의 악신이 그의 본질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제 역할을 해야 해.’

잔혹한 짐승에게 씌워진 누명도 많지만, 그가 직접 저지른 일도 많았다. 다시 그때의 세기말 전쟁이 반복될 운명이 있다면 그것을 막아야 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죄로써 그 영겁의 고통을 반복하게 되더라도.’

그게 아테르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

신의 진실됨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오늘 대화할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웬일로 먼저 대화를 요청하는군. 무슨 일이라도 있나?”

“그동안 궁금했던 것이 있어서요.”

“나야 늘 기꺼운 마음으로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아테르는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당신을 믿고 싶은데, 이걸 확실히 할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

그에.

“……?”

아르지오는 황당해했다.

“오… 그동안 뭔가 열심히 고민하는 것 같더니 이게 문제였나?”

“예.”

“그리고 그걸 나에게 직접 물어보고 있어?”

“예.”

“대체 자네는 뭐가 문제란 말인가, 내 당황을 금할 수가 없군. 애초에 내가 ‘이 악신은 매우 안전하고 무해하니 더는 고민할 것도 없이 나를 믿으라’ 하면 믿겠느냔 말일세.”

“아마 아니겠죠.”

“참으로 별난 이인지고.”

지오의 반응에 아테르는 본인도 민망한 듯, 혹은 억울한 듯 이를 악물었다.

“…즈르그 므 으쯜 스 이끄쓰느끄….”

“인간의 언어로 부탁하네.”

“저라고 뭐 어쩔 수 있겠느냔 말입니다, 상대가 악신인데.”

“이걸 자포자기라고 해야 할지, 현명하다고 해야 할지….”

턱을 쓸며 고민하던 지오가 고개를 들었다.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나?”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왜 나를 아는 이들은 나라는 존재를 정의하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 인간이고 악신이고 귀신이고 자시고 그냥 재밌게 놀고먹으면 그만인 게 아니냔 말일세.”

“그렇게 마음 놓고 놀고먹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습니까.”

“자네는 친구 하나하나를 그렇게 분석하고 정의해 가면서 사귀나? 내가 다 안타깝군, 너무 영특한 것도 좋은 일만은 아니야.”

“그냥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인간들과 본격적으로 꼬인 과거사의 악신이 같지는 않겠죠.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이 둥글고 무해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깐깐하기는.”

은근히 까칠하단 말이지.

“흐음….”

아마 무너지지 않을 신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자네가 모르는 것이 있네.”

“그게 뭡니까?”

“세상 모든 신뢰는 온전하지 않다.”

산타 할아버지가 사실은 부모님이었다는 충격적인 배신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게 우리네 인간들이다.

“평생 가는 신뢰란 없어. 다들 믿고 치이고 멱살 잡아가며 신뢰의 빈틈을 우정과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거지. 생물이란 완벽한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계의 신뢰보다, 당신이 그때의 악신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외의 신뢰는 제 몫이겠죠.”

“그렇다면 어째서 내가 그때로 돌아갈 거라 생각하는 거지?”

“심장이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쉰 아테르가 이어 말했다.

“가장 중요한, 심장이요.”

언젠가 아르지오는 자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말한 바가 있었다. 용사들의 봉인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탓이라고 말이다. 지금의 악신은 완전하다고 할 수 없었다.

“당신의 온전한 모습이 과연 어떤 형상일지 알고 싶습니다.”

“오, 그렇군.”

참으로 용감한 친구였다.

“그럼 어디 한번 열어 보겠는가?”

“…봉인을요?”

“악신의 관을 말일세.”

“그래도 됩니까?”

“안 될 거 없지.”

결국 그마저도 지오가 갇힌 채로 남겠다 하여 유지되는 것뿐이니 말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46)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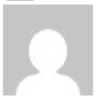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47)

247

제247화

악신은 당부했다.

“기억해, 가장 마지막 관이야.”

다른 관을 열어서는 안 돼.

* * *

아테르는 홀로 유적을 거닐었다.

“…….”

유난히 유적에 제 발걸음 소리가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그동안 아테르는 이 유적의 구조를 익혔다. 용사라 불렸을 적에 보았던 것보다 더 깊고 많은 지식이 갇혀 있었다. 빛바랜 그림이나 보석 따위가 널려 있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오른다.

‘…분명 여기에….’

길이 있을 텐데.

“…아.”

지하로 가는 계단이 열렸다.

손을 쥐었다 편 아테르는 그 아래로 걸음을 옮겼다. 계단은 무척이나 어두웠다. 횃불을 들고 오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특이하게도 먼지는 없었다.

‘오랜만에 와서인지 꽤 낯설어.’

정신을 차린 뒤에도 이쪽은 확인만 했을 뿐 실제로 와본 적은 없었다. 여긴 한때 그와 동료들이 모든 것을 바쳐 마왕을 봉인했던 곳이다. 섣불리 들어가 사고를 칠지 모르니, 애초에 접근조차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다.

‘제법 깊은데….’

끝이 보이질 않았다.

계단의 길목에는 방해 장치도 있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그가 동료들과 함께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답을 알고 있으니 쉽게 풀 수 있었다.

조금 숨이 막힌다 싶을 정도로 내려갔을 때였다.

"…이곳인가."

아주 거대한 문이 그를 반겼다.

'성의 대문도 이렇지는 않을 텐데, 그때의 우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느껴져.'

사실 문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어쩔 수 없었다. 마법적인 장치만으로는 영구적인 폐쇄가 불가능했다. 물리적으로도 열 수 없을 만큼 힘겨운 문이어야만 했다. 때문에 벽을 흉내 내어 이런 문을 만들었지.

"열려 있군."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문이 열려 조금의 틈이 있었다.

"마법사들의 짓인가…."

악신의 힘을 빌려 창조주를 죽이겠다 말한 불경자들. 그들이 아니고서야 꾸역꾸역 이 문을 열 사람들은 없었다. 아주 약간이나마 벌려져 있는 문은 사람 하나가 간신히 드나들 수 있을 정도였다.

'그가 인간의 형상으로나마 세상 바깥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설마 이것일까? 봉인의 문이 조금이나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그 마법사들에게 조금은 감사해야 하는 걸지도 모르겠군. 덕분에 내가 가시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으니….'

아테르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

성자들의 무덤 곳곳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게, 아직도…."

놀라웠다. 아마 마법사들이 설치한 마도구일 것이다.

'그도 아니라면 봉인의 영향이겠지.'

하지만 세지 못할 만큼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타닥거리며 불씨를 튀기는 촛불은 그의 속을 울렁거리게 했다.

그 덕분일까, 여전히 어두컴컴한 지하 무덤이었음에도 시야에 무덤의 광경이 훤히 들어왔다.

"아."

정돈되어 있는 관들의 나열이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마왕과의 전투는 치열했다. 그를 봉인하는 것만 해도 용사들은 크게 지쳐 있었다. 죽은 사람도 많았다.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 마왕에게 이토록 정갈한 무덤을 만들어줄 기운은 없었다.

'마법사들도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

신살자가 되고자 했던 이들이다. 창조주도 아닌 악신을 이렇게 대접해 줄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한 걸까?

'아르지오, 그 사람이?'

아니면 어떠한 신비로운 기적의 일종일까.

‘알 수가 없군.’

하지만 그는 ‘가장 마지막 관’을 지정해서 이야기했다. 이곳의 광경을 알고 있었다는 소리다.

‘이 광경과 최소한의 연관은 있겠지.’

횃불을 들고 있어도 지하 무덤의 공기가 서늘했다.

“…….”

그가 다시 걸음을 옮겼다.

관의 크기는 모두 같았다. 새까만 대리석을 깎아 만든 그것은 꽤 거대했다. 아테르보다도 컸다. 검은 숲에서 느낄 수 있는 알싸한 독과 진득한 피의 냄새가 풍겼다.

‘기운이 하나같이 불길하다.’

인간 모습의 아르지오를 봤을 때와는 전혀 달랐다.

그가 처음 마왕과 마주쳤을 때가 떠올랐다. 그 거대한 날개와 뭉쳐져 있던 인간의 형상들, 뱀처럼 길게 늘어졌던 짐승의 몸통 같은 것들이….

떠올랐을, 무렵.

“…….”

“여기일세.”

갑작스럽게.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다.

“여기야, 아테르.”

“이쪽을 봐.”

“이 관을 열어.”

사방에서 들려왔다.

“자, 여기를 봐야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이쪽일세.”

“어서 나를 꺼내.”

“내 모습을 보러 왔지?”

“나의 진짜 얼굴.”

“이 안에 있다네.”

“어서, 시간 끌지 말고.”

“아테르.”

대리석 관 너머로 악신이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하, 이게 무슨….”

주춤거리며 관에게서 멀어졌다.

긴 복도처럼 늘어진 무덤의 양옆에 나열된 관들. 아까까지만 해도 침묵하고 있던 그것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조곤조곤 흘러나오는 음성은 그가 아는 '아르지오'의 것이었다.

"왜 그렇게 망설이는 거지?"

"진실된 나와 대화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아테르, 어서 이 문을 열어."

"나와 이야기를 하자."

"그러기 위해 이곳으로 왔잖아."

문득 아르지오의 말이 떠올랐다.

'기억해, 가장 마지막 관이야.'

다른 관을 열어서는 안 돼.

"……."

이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지금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은 아르지오 이전에 죽었던 성자들이다.'

언젠가 아르지오가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를 잡아먹을 분노를 그보다 더 큰 분노로 억눌렀다고. 자신이 이겼기에 지금이 되었다고.

그 말은 기존의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마지막 인격을 이기지 못해, 무덤에 방문한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저기서 불러오는 제 이름. 등골이 서늘해졌다. 마지막 성자 아르지오가 그들을 짓밟고 가둬두지 않았다면 아테르는 살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 관으로 가야 해.'

나긋하던 음성은 깊은 곳으로 갈수록 새된 고함이 되었다.

"대체 어딜 가는 거지?"

"여기야, 여기라고."

"이쪽을 봐…!"

"나를 지나치는 건가?!"

"아테르! 아테르!!"

"제발 꺼내줘…!!"

"여긴 너무 좁아! 답답해! 괴로워!!"

"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절규가 가득한 비명. 고통이 가득한 발악. 분노가 가득한 괴성.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정도는 심해졌다. 관 안쪽에서 무언가가 발광하는지 쾅쾅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갇혀 있던 아테르 자신이 떠올랐다. 구역질이 났다.

'대체 왜 이렇게 두었을까.'

아르지오는 아테르에게 무척이나 자비로웠다. 친구처럼 소탈하게 굴기도 했다. 그런 그는 자신 이전의 성자들에게는 자

비를 베풀지 않았나? 그들을 가엾게 여기지 않았던 것인가?

‘이렇게나 괴로워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끝에 도착하자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다.

“…헉, 허억….”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조용해졌다.’

처음 들어왔을 때와 같은 적막함이 그를 반겼다.

덜덜 떨리는 몸을 간신히 일으켰다. 여전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복도의 끝, 이곳의 여느 관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생김새의 마지막 관을 보았다.

‘미리 말을 듣지 않고 왔더라면 차이점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거다.’

가장 끝에 놓였다는 것 외에는 아무 차이도 없었다.

“…….”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바라보고 있음이 느껴졌다.

‘…누구지?’

이 또한 악신의 일부분일까?

자연과 같이 거대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것은 부정도 긍정도 없었다. 단지 아테르가 무슨 선택을 할지 구경하는 것 같았다. 아니, ‘구경’이라는 표현조차 어울리지 않았다. 정말로 인지하는 것뿐이다.

‘내가, 이 관을 열면….’

어떻게 되는 거냔 말이다.

“…실례합니다.”

“…….”

“여기에, 계십니까?”

“나를 보러 왔는가.”

“…예.”

“기다렸어.”

드득….

무거운 관의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나를 꺼내 주겠는가?”

그것은 여느 관과 달리 직접 문을 열었다.

틈 사이로 관의 문을 잡고 있는 창백한 손이 보였다.

낯익은 손이다. 직접 요리를 하며 제게 내어주던 아르지오의 손이 그와 같았다. 뼈대가 굵고 탄탄했다. 온갖 장신구를 달고 있었다.

검고 긴 손톱과 보석 반지가 청명한 소리를 내며 대리석 문을 붙잡았다. 보이는 것은 오로지 그 크고 창백한 손뿐, 몸통과 얼굴은 좀처럼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

그가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다.

“이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나를 잔혹한 짐승이라 불렀네.”

“아르지오, 당신인가요?”

“그리 불러도 좋아.”

“내가 아는 ‘아르지오’가 맞습니까?”

“이보게.”

스읏—.

관의 손이 뻗어 나왔다.

“…….”

“…….”

그것의 팔이 기형적일 만큼 길게 뻗어진다.

“…윽.”

소름 끼칠 정도로, 길게.

아테르는 잠시 숨을 멈췄다. 거대한 뱀이나 나뭇가지와 같은 형상이다. 그 팔은 계속 뻗어져 아테르의 얼굴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그러고는 접혀 있던 손을 펼쳤다.

그 손바닥에 박혀 있는 금색의 눈.

“…그 얼굴을 알아.”

결코 인간의 것이라 말할 수 없을, 금으로 만들어진 눈이었다.

“나를 죽이러 왔었지.”

“…당신은… 악신이 되기 전의, 아르지오입니까?”

“자네가 악신이라고 부르는 존재 역시 나와 같네.”

“…저를 가시 감옥에서 구해주시고,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요리를 해주던 사람은 당신이 아니군요. 당신은 내가 동료들과 함께 봉인했던 악신 아르지오야.”

“‘아르지오’가 자네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었는가?”

금안이 웃는 듯 휘어졌다.

“‘내’가 무사히 좋은 기회를 붙잡았나 보군.”

“…당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름이 없네.”

눈알이 박힌 손은 다시 돌아가, 관의 문을 붙잡았다. 흥겹기라도 한 듯 장신구 낀 손가락이 관을 토도독 두드린다. 짐승의 것과 같은 불길한 손톱과 번쩍이는 반지가 그에 부딪힌다.

“우리에게 자네의 이름과 명예를 소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우리?”

“자네와 같이 강인한 영혼을 보면 탐내 마지않는 것이 우리같이 사악한 영혼들이지. 물론 자네의 이름은 이미 알고 있네만, 걱정하지 말게나. 함부로 탐내지 않을 것이니.”

“…이미 제 이름을 부른 성자들이 많았습니다.”

“성자라는 역겨운 소리 말게, 우리는 등 떠밀려 희생된 악령들이지 성자 같은 것이 아니다. 또한 그들이 자네의 이름을 이미 부른 건 아무 문제도 없네.”

“어째서입니까?”

“우리는 ‘아르지오’의 입을 빌리고 있으니까.”

노래와 같은 음성이다.

“그는 꽤나 자비롭군. 용케 그 많은 분노를 갈무리했어. 자네와 같은 미물에게도 호의를 베풀고 있지. 좋은 기회를 받았을 거야, 아주 좋은 기회를….”

“…당신이 아르지오의 심장이 맞습니까?”

“내가 그렇다.”

“이 관에서 나온다면 어찌 될까요. 제가 그렇게 한다면요.”

“모를 일이지.”

그의 음성에는 운율이 있다.

“나는 화가 아주 많네. 이곳의 친구들은 나보다도 화가 많지. 기적 이상의 기적, 그리고 또 기적이 아니고서야 어찌 ‘아르지오’와 같은 형상이 빚어질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세상을 잡아먹을 재앙이었거늘 감히 나를 사람대접하는구나.”

“…….”

“이보게, 무엇을 바라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겠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게나.”

관 속으로 창백한 손이 들어갔다.

“오늘은 때가 아니다.”

“…….”

달그락.

관이 닫혔다.

* * *

돌아가는 길, 수많은 관 중 하나가 아테르를 붙잡았다.

“그는 너에게 죽음의 자비를 줄 수 있었음에도 살려냈다. 네게 주어진 새 삶이 어찌 구원이겠느냐? 그는 너를 소유하기 위해 인간으로 빚었다. 그는 악신이다. 신뢰하지 말라.”

그것의 음성은 ‘아르지오’의 것이 아닌 듯, 무척이나 거칠었다. 또한 앳되었다.

“진정 자비롭다면 너와 우리 모두에게 평온을 베풀었을 것이다. 너는 저 깊은 마지막 관으로 달려갈 때 역겹지 않더냐. 그는 우리를 구속하여 이 깊은 무덤에 가둬두었다.”

“…….”

“사악한 굴레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를 악신이라 부르고 그것이 사실이다. 그의 자비는 흥미와 즐거움의 파편이다. 그 작

은 파편을 보고 신을 판단하지 말지어다.”

“...결국 당신도 관에서 꺼내주기를 바라 이러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게 어찌 죄인가...?”

어린 음성이 속삭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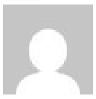
“너 역시 그 좁은 감옥에서 나오길 바라 악신을 불렀으면서.”

우리는 대체 뭐가 다르단 말이냐.

나지막한 속삭임에, 아테르는 그저 무덤을 빠져나갔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47)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48)

248

제248화

생각했던 것만큼 그가 부른 악신이 자비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 정도 경우의 수는 이미 예전에 생각했어. 처음부터 악신과 자비라는 단어는 어울릴 수 없었으니까.'

계단을 다시 오르며 아테르는 머릿속을 정리했다.

신이라는 작자들은 자비를 모른다. 그들의 자비가 인간들에게 재앙이 될 때도 많았다. 하물며 악신은 어떻겠는가. 아르지오는 이미 역사를 통해 그의 사악함을 증명했다.

'내가 보고 느꼈던 것만큼 자애로운 신이었다면 애당초 그런 역사가 생겨나지는 않았겠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는 하나 그 이상으로 악신 아르지오가 잡아먹고 짓이긴 인간의 수는 많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분노와 고통의 악신이야.'

과분하게도 용사라고 불렸던 아테르가 어찌 그걸 모르겠는가.

'아직도 기억이 나.'

저주를 퍼붓던 혀와 증오에 가득 찬 눈. 무자비하게 뻗어지던 크고 날카로운 발톱과 전장의 흥분으로 번뜩이던 시선들. 수많은 인간이 희생당해 만들어진 재앙.

그 손과 혀에 몇 명의 동료가 죽었던가.

'그러니 내가 부활 아닌 부활을 하게 되며 보았던 악신의 모습들은 전부 꾸며졌거나 뒤틀렸던 것이라고 봐야 옳다. 아니면 수천수만 가지 악한 모습 중 유일하게 자애로운 모습이 내게 비추어졌던 걸지도 모르지.'

확실한 건 아르지오가 '악신'이라는 것이다.

'나와 같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 그는 인간인 척을 할 수 있는 끔찍하고 사악한 재앙이다. 그를 온전한 모습으로 돌려둔다고 하면 그때의 재앙이 반복될 가능성이 너무도 커....'

그즈음 아테르는 모든 계단을 오르고 다시 유적에 올라와 있었다.

"......."

무덤을 벗어나니 밝은 조명이 햇볕처럼 그에게 닿았다.

'...하지만 이 햇볕 역시 아르지오가 만들어둔 것이다.'

전기도 뭣도 들어오지 않는 유적이다. 횃불 정도로는 이렇게까지 밝고 쾌적하게 비출 수 없다. 그렇기에 아르지오는 햇살을 불러들여 이 안에 가둬 두었다고 했다.

‘그가 나에게 베푼 자비가 거짓이었던 것도 아니야. 내가 구원받고 평온을 누리고 있는 이상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이니….’

곧 아테르는 결론을 내렸다.

“아르지오.”

“그때도 나를 불렀지.”

유적의 빛이 만들어낸 기둥의 그림자에서 악신이 나왔다.

“…….”

그의 맨발을 감싼 장신구에서는 그 어떤 소음도 들려오지 않았다.

마치 짐승의 꼬리처럼 길게 늘어진 붉은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을 눈 아플 만큼 감싸고 있는 금은보화. 햇볕을 받지 못한 듯 악마처럼 창백한 피부에, 그 얼굴을 감싸고 있는 자신만만한 웃음.

저자가 아테르를 가시 감옥의 끝없는 고통에서 구원했다.

“…당신은 언제나 제 부름에 응답해 주시는 유일한 신입니다.”

“당연한 일일세, 이곳은 창조주에게 버림을 받았거든.”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그건 나중에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이 물어보고 싶다는 것일 텐데.”

그는 또 한 번 아테르에게 자비로웠다.

“받아줄 터이니 읊어보거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심호흡한 아테르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악신 아르지오, 잔혹한 짐승은 눈앞의 그가 될 수 없었다.

“직접 보고 오니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나와 내 동료를 죽이려 들었던 악신 아르지오가 아닙니다. 그 깊고 끔찍한 악연으로 묶여 있는 존재는 저 아래 깊은 무덤 속 마지막 관에 잠들어 있는 그 사람이었어. 지금의 당신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지?”

“잔혹한 짐승은 희생된 성자의 분노와 증오로 탄생했습니다. 그건 신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순간 신은 신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왕실과 이 유적의 모든 기록을 기억하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악신 아르지오가 아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도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썩은 고기 죽이었던 저를 인간으로 되돌리신 것은 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신의 기적은 이렇게 자비롭고 온전할 수 없어요, 섭리의 반역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해하지 못한 셈이군.”

“그리고 당신 역시 인간의 형상을 취할 수 없었겠죠. 인간이란 결국 섭리의 자식입니다. 그 형상을 따라 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식사를 합니다. 수면을 취하고, 시간을 보내고, 저와 대화하며 같은 섭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 역시 붉은 피를 흘리고,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간 중 가장 강하고 영리하다 한들 인간에 불과한 제가 그런 당신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당신이 허락해 주신 덕분이겠죠.”

“그래서 허락을 구해 보시겠다?”

“어차피 제가 알아야 할 것이라면 알게 해주실 것이고, 몰라야 한다면 평생이 되도록 거짓 속에서 살거나 지금의 일을 잊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게 이렇게까지 자비를 베풀어주신 이상 한때의 유흥이 아니고서야....”

그래.

“...그렇지 않고서야, 제 질문을 없던 일로 치부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를 향한 최소한의 신뢰는 아테르의 몫이었다. 영겁의 시간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신을 향해 빌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테르는 이 질문이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

“.......”

턱을 쓴 아르지오가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보통 이렇게까지 대놓고 물어보던가...? 나 악신 아니었나? 방금 무덤에서 무얼 듣고 보았는지는 나도 안다만, 그럼 더 신중해져야 하지 않아?”

“저도 이런 제가 정말 황당해서 자괴감을 느낄 정도지만, 저는 항상 모든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대화의 단절에서 나온다고 믿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정말 포기가 빠른 건지 현명한 건지 모르겠다니까.”

“제가 당신의 이야기에서 무슨 역할을 맡고 있는지라도 듣고 싶습니다.”

“역할? 그건 쉽네.”

그가 쾌활하게 선언했다.

“내 친구지!”

“.......”

“눈으로 나를 욕할 수 있다니 제법이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숙해서....”

“왕실 도서관 사서였다면서 표정 관리 하는 법은 못 익힌 것인가?”

“그때도 같은 이유로 많이 혼났죠, 재수 없다고.”

“안 봐도 뻔하군.”

“그럼요, 악신이신데 꼭 봐야 과거를 아시겠습니까.”

“입에 그른 말을 하면 가시가 돋는 병이라도 있나?”

주현과는 다른 의미로 제 할 말 다 하는 친구였다.

“흠, 좀 더 제대로 된 역할을 원한다 이거지?”

“딱히 그런 건 또 아니었습니다만.”

“정 그렇다면 얼마 뒤에 생겨날 마왕님의 오른팔을 맡겨줄 수 있다네.”

“죄송하지만 그런 거 원한 적 정말로 없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사이비 종교의 우두머리를 맡을 생각이 없는가?”

“잠깐만 저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0초 주지. 1, 2, 3….”

10초 끝났다.

“답변은?”

“당신 정체를 알려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호구 잡히지는 않겠어.”

“불경한 말이겠지만 어감이 이상한데 호구가 뭡니까?”

“어수룩해서 이용 가치가 높은 친구를 뜻하네.”

“그건 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는군.”

하긴 평민의 신분으로 왕궁 도서관 사서까지 했다던가. 착하고 이상적이기만 해서는 오를 수 없는 위치였다. 지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다.

“이중인격이라고 아나?”

“몸 하나에 영혼이 둘인 사람을 이르는 말이 아닙니까?”

“그걸 나라고 생각해 보게.”

“…이중인격이시라고요? 악신이?”

“아니? 지금까지는 셋일세.”

아무튼 비슷했다.

* * *

그들은 휴식 공간이 잘 마련된 아테르의 거처로 자리를 옮겼다.

“요약하자면 나는 맛보기야.”

“맛보기는 또 뭡니까.”

“말 그대로 본격적인 음식을 먹기 전 그것의 맛만 보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아주 적은 음식 같은 셈이지.”

“난해합니다.”

“조금 더 이해가 잘되는 방향으로 비유하자면 제대로 된 작업물을 만들기 전의 실험체 정도라고 할 수 있겠군.”

“당신이 실험의 결과물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야 자네가 아는 마법사들이 해낸 실험 따위로 만들어진 존재는 아닐세.”

비유가 조금 어려웠나?

“조금 더 차근차근 설명해 주지. 나는 지금 ‘지오’라는 존재가 총 셋이 뭉쳐 구성되어 있네. 서지오, 지오반니, 아르지오. 셋 모두 지오라고 불렸던 이들이지.”

“…일단 듣겠습니다.”

“현명하군.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분노와 고통의 악신이었네. 그리고 그것은 희생당한 수많은 적합자의 타고난 신비와 부정적인 감정으로 탄생했어.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적합자의 타고난 신비와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이 유적의 지하 깊은 곳, 무덤에 잠들었지.”

“…….”

눈살을 찌푸린 아테르가 물었다.

“…신비와 감정? 인간이었던 그들 그 자체가 아닌 겁니까?”

“타고난 신비와 한때의 감정들도 인간 그 자체라 할 수 있다면 아예 틀린 말은 아닐 걸세.”

“최소한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이겠군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네.”

흔히 아는 ‘인간’의 형태는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자네가 보고 있는 눈앞의 이 붉은 머리칼의 인간 형상과, 저 아래에서 만나고 온 마지막 관 속의 봉인된 자아가 바로 ‘아르지오’지. 검은 숲에 마지막으로 버려진 적합자. 숲과 바깥을 넘나들며 ‘아르지오’라고 불렸던 존재.”

고민하던 아테르가 되물었다.

“…많이 다른 겁니까? 당신이나, 그 무덤의 다른 관들과… 아르지오라는 사람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네. 그건 결국 관점의 차이일 뿐이야.”

대단히 사소했다.

“마지막 적합자이자 악신의 요소 중 하나였던 ‘아르지오’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 그게 지금의 나였지. ‘지오’들과 섞일 기회.”

“섞여….”

“조건이 잘 맞아떨어져 ‘아르지오’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네. 그리고 그를 필두로 악신 아르지오의 모든 존재와 신비가 나의 것이 되었지.”

“하지만 심장을 얻지 못했다고 하셨죠.”

“그게 바로 자네가 보고 온 것일세.”

“그 심장은 대체 뭡니까?”

“…음….”

이번에는 지오가 고민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악신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다 있군요.”

“난감하단 말이야.”

머뭇거리던 그가 간신히 그럴싸한 답변을 떠올렸다.

“눈알만 한 씨가 든 열매를 통째로 삼켰을 때 뭐가 더 소화하기 쉽겠나?”

“…과육이겠죠, 아마? 그 정도 크기의 씨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내가 딱 그 상황이라네. 소화되기 쉬운 것은 목숨 건 전투에서 즐거움을 찾던 인격 ‘아르지오’. 그리고 적합자들이 가지고 있던 자비, 평온, 행복의 단편은 모두 소화를 시켰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씨를 소화하지 못해 아직 위장에 남아 있는 거야.”

“그 위장이 바로 지하 무덤이고, 씨라는 것은 심장이라 말씀하셨던 관들이라는 겁니까?”

“그런 셈이지.”

“어, 그러니까….”

아테르의 표정이 미묘해졌다.

“저 무덤에 남아 있는 것들이 죄다 최악의 문제아들뿐이라는 거지요?”

“당사자를 눈앞에 두고 최악의 문제아라는 표현이 잘도 나오나 보군?”

“곧 죽어서 갈가리 찢긴다고 해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저저 직언만 올리다가 저잣거리에 목이 걸릴 것 같은 충신 같으니라고. 하지만 문제아 같은 게 아니야, 그들은 내 일부분이고 또 심장이 맞네. 언젠가는 내가 소화해야 마땅할… 없으면 안 될 존재지.”

“한낱 인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두고 무덤의 존재들은 전부 없애면 안 되냐고 묻고 싶지만, 그건 당신에게 너무 큰 모욕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알면서 계속 당사자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역시 결투 신청의 은유가 맞나?”

“잘못 보셨습니다.”

도발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리고 아테르는 곧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도출해 냈다. 어마어마하게 굉장한 결과를 떠올린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내 아테르가 소리쳤다.

“…그러니까 결국 언젠가는 그 끔찍한 악신 아르지오로 돌아올 거라는 종말 예고잖습니까!!”

“변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친구! 인생이란 원래 자기 마음대로 되는 법이 없지! 나도 이렇게 고루하고 평온한 작자들과 한 몸을 쓰게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네!”

“젠장 어쩐지 꽤 인간처럼 보이더니, 이 간악한 마왕이!!”

아테르는 분노에 울부짖었다. 아르지오가 몹시 좋아했다.

* * *

“…….”

모든 이야기를 들은 주현이 씁쓸하게 웃었다.

“거기서도 피해자가….”

“피해자?”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최근에 계속 1대1 전투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 세상에.”

주현은 아테르의 용감함에 박수를 쳤다.

“괜히 용사였던 게 아니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응해주고 계신가요?”

“마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되고 아주 마음에 들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48)"

4.7 13 votes
Article Rating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49)

249

제249화

소식을 들은 유성운이 날아왔다.

“아아 잠깐만.”

“유성운 씨,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반가운데 내가 주현 씨에게 무언가 굉장히 불길한 소식을 들어서.”

“저 ‘지오의 초상화’가 곧 리뉴얼된다는 소식 말이지요.”

“업데이트 중단도 수락이 되나?”

“이 구식 초상화에는 그런 섬세한 고급 기능 따위 없습니다.”

“대단히 안타깝네.”

업무차 해외에 갔다 막 수집상의 갤러리에 도착한 유성운. 그는 비척비척 간이 의자를 펼쳐 초상화 앞에 두었다. 지나가던 5층 큐레이터가 그런 그를 보며 인사했다.

“오, 해외에 계신다더니.”

“일 끝나자마자 날아왔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퇴근하시나 봅니다? 아 이거 부럽네? 새벽 4시에 벌써 퇴근을 한다고?”

“우리 집 뀨릉이 보러 갈 거니까 붙잡지 마세요. 밥 줘야 해요.”

“야근으로 맺어진 우리의 우정이 이렇게 얄팍할 수가....”

“그러게 어디 감히 퇴근하는 직장인을 붙잡아.”

큐레이터가 쿨하게 떠나고 난 뒤 지오가 유성운에게 물었다.

“뀨릉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귀엽습니다. 누구입니까?”

“저 사람이 집에서 키우는 금붕어....”

“요즘 금붕어는 우는 것뿐만 아니라 뀨릉거리기도 하는군요. 또 하나 배웠습니다.”

“글쎄다, 나는 아무리 들어도 ‘뀨릉’과는 거리가 먼 것 같던데.”

“그럼 어떻죠?”

“‘쿠르릉쾅쾅’ 정도에 가깝지.”

“그건 천둥번개 아닙니까?”

“나는 그 금붕어 이름이 왜 썬더볼트가 아닌지 모르겠어.”

“썬더볼트라는 이름은 금붕어에게 너무 잔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피곤해서 말이 막 나오네.”

금붕어에게도 명예라는 게 있을 텐데 말이다.

“어,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유성운이 수첩과 만년필을 꺼내고선 다시 물었다.

“아르지오 씨?”

“여기 있습니다?”

“빠른 전환 아주 좋습니다.”

어느새 액자를 넘어 붉게 내려온 땋은 머리에 유성운이 흠, 눈을 가늘게 떴다.

“최근 본격적으로 악신이 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지금의 악신 아르지오는 완전체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동기화가 99.9%에서 머물고 있기는 합니다.”

“뭐야 버퍼링 걸렸어? 오류인가?”

“오류라면 오류지.”

말하자면 컴퓨터가 0.1개의 파일을 받아들이길 거부 중인 탓이다.

“지금은 ‘지오’들의 항의가 아주 거세서.”

“어… 그런 식으로 동화를 하는 거였나? 생각보다 민주적이네 너희.”

“필요하다면 그렇게 의견을 나눌 수도 있지만 ‘지오’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나만 아직 동화가 덜 되어서 동떨어져 생각되는 것뿐이지.”

“대체 무슨 분위기인 거야.”

“결국 동화라는 건 하나가 된다는 거니까….”

사랑과 분노, 슬픔이라는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인간이 성장하는 것과 같았다.

이것도 ‘지오’가 납득하고 포용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내심에서 임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많이 납득하고 받아들여서 99.9%가 됐다만.”

“왜인지 99.9% 뒤에 더 많은 소수점이 달려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뭐… 악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재앙이지.”

“그걸 ‘지오’가 납득하지 못한 상태일세.”

“재앙에도 납득하고 포용해야 할 가치가 있나?”

“수집상은 그렇기에 이 갤러리를 만들어둔 것으로 아는데?”

“네 말이 맞아.”

유성운이 씩 웃었다.

“우리가 그래서 수집상이지.”

재앙에서조차 탐스러운 가치를 찾아내는 지독한 족속들이다.

“그러니 너도 결국 언젠가는 완전한 악신이 되겠네.”

그래도 주가 되는 인격이 ‘서지오’ 쪽일 것을 안다. ‘지오반니’가 주 인격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아르지오’도 같을 것이다. 그 덕분인지 대단한 걱정은 안 됐다.

‘끽해봐야 길드 몇 개 전멸하고 말겠지.’

흠.

‘…일단 피와 분노의 악신이라고 했으니 피해 범위를 조금 더 넉넉하게 책정해 둘까… 어차피 모든 전투는 던전 내부에서 진행한다고 했으니, 재건 쪽은 정부와 협회의 조치로도 커버가 될 거고.’

인간 측의 손해 범위를 가늠하며 유성운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나야 그쪽 역사를 공부해 본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성격이 더럽기는 하겠어?”

“아테르도 그렇고 자네도 그렇고 당사자를 앞에 두고 말이 너무 심한 게 아니냔 말이다. 하지만 답을 주자면, 아무래도 그렇다네. 갈등을 피하는 행복한 돼지나 자비의 성자께서 희석을 해준다고 해도 여러분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을걸.”

“아이고, 우리 초상화에게 드디어 사춘기가 오나….”

“그걸 이제 와서 다시 한번 겪기에는 나이가 좀 있지 않은가?”

“24살이면 어리지.”

“어린애 취급이 참 후하군.”

“너한테 배웠거든.”

성인인 18살조차 어른 취급 해주지 않는 녀석이지 않은가.

“이건 보고를 좀 해두는 게 좋겠네. 그렇다고 네 마왕 프로젝트를 방해할 생각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는 고통과 죽음에서도 예술적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대단히 불편해하던 주현 씨와는 확연히 달라서 좋군.”

“던전에서 마주치게 될 너에게서 자비를 구할 수는 없겠지?”

“나는 확실히 자비의 가치를 안다. 포용과 구원의 가치도, 친교의 가치도 잘 알고 있어.”

금안이 깊게 휘어졌다.

“하지만 과연 악신까지 그걸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군.”

“모르기는 뭘 몰라.”

유성운이 무던하게 웃으며 막대 사탕을 하나 까 입에 물었다.

“다 알면서.”

세상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었다.

문제는 그것이 ‘시대와 상황에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느냐’는 것이었다.

* * *

아르지오가 말했다.

“사람이 화도 좀 내고 살아야지, 어떻게 자비만 베풀며 사나?”

지오반니가 말했다.

“사람이 자비도 베풀며 살아야지, 어떻게 화만 내면서 사나요?”

“어허, 섭리의 신성을 모신다는 사제님께서 이렇게 밑장 빼기를 하셔야 쓰겠습니까? 지오반니 당신은 그냥 화가 안 나서 화를 안 내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

“저라고 누군들 원망을 안 하고 미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약간의 연민과 이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적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 모든 사람이 어찌 이상적인 연민과 이성을 가질 수 있겠어. 이봐, 친구. 대부분의 사람은 인내심이 우리만큼 좋지가 않다네. 괜히 지구에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겠냐는 말일세.”

“규율을 준수하여 모두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을 꼭 폭력으로 해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르지오 씨는 폭력 그 자체를 즐기지 않습니까?”

“폭력이 아니지, 내가 더욱 강해지고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과정일 뿐이야. 그 고귀한 수단 자체를 기꺼워한다고 무에 흠이 되겠는가?”

“이래서 악신이란….”

“뭐래, 자비 폭격기가.”

서지오가 말했다.

“그럼 저희 이만 그림 그리러 가면 안 됩니까?”

“그러지.”

“그러죠.”

‘꿈의 유원지’를 완성해야 할 때였다.

* * *

“…….”

달님교의 사제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

연구 작업물이 한참은 쌓여 있는 책상과 벽. 이동형 보드. 어디 하나 시선을 뗄 수 없이 귀중한 지식과 사랑스러운 산물이 가득했다.

“…….”

서성거리니 그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근원에 대한 연구.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건 협회에 전달해도 될 법한 것이다. 그것에 사제는 홀린 듯 몰입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렸다.

“…아, 그렇지.”

여긴 꿈이었다.

“나는 던전의 구조를 파악 중이었어.”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이 허공을 두둥실 떠다녔다.

'벌써 한 달째 꿈을 즐기는 것에 정신을 빼앗겼는데...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뻔했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달님교는 협회의 의뢰를 받아 던전 '꿈의 유원지'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는 중이었다. 가상 던전인 만큼 파악이 쉽지 않았다. 원하는 대로 '꿈'이 이루어진다니, 참 추상적이지 않은가.

'놀라운 건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전부 실질적인 가치를 지녔다는 부분이지. 내 지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다. 아니, 최소한 배경을 꾸며내거나 상황을 조율하는 데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심지어는 '근원'에 대한 지식마저도 실질적인 가치를 지녔다.

"......."

그는 '나의 연구가 결실을 맺는 꿈'이라는 조건을 써서 베개 밑에 넣었다. 고작 그 정도 행위로 며칠 사이 남자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허탈하면서도 중독적인 쾌감이 있었다.

'계속 이 꿈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이 꿈은 일종의 자각몽. 그 시간을 꿈 주인의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꿈꾸는 사람의 개인 역량에 따른 문제로 보이는군. 하지만 꿈에서의 시간이 길다고 현실에서 자는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아.'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시간대에 잠을 청한 다음 깨어난다. 시간에도, 신체에도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이 꿈은 지독한 중독성 외에는 아무런 부작용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달님교에서 받아 온 의뢰를 완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더는 이 달콤한 꿈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 이보다 더 다양한 지식은 달님교의 의무를 해결한 뒤에도 충분히 음미할 수 있다....'

그렇게 되뇌었을 때였다.

"어찌 거부하는가."

"......."

"참으로 달지 않아?"

"...뭐...."

뒤를 돌아보았다.

"......."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그의 실험실이었다. 제 실험실을 꾸며낸 꿈. 그 어디에도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올 이유가 없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목소리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자네와 같이 영민한 자라면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이곳에서 보고 듣는 모든 지식은 헛것이 아니다. 인류와 세상의 발전에 기여할 깊고 신비로운 지식들이 가득해... 모두 자네가 일궈낸 것이지."

그다음에는 왼쪽에서.

"꿈이라 허탈한가? 그래, 만일 자네가 꾼 꿈이 돈을 펑펑 써대는 것이었다면 그랬을지도 몰라.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는 꿈도 마찬가지였겠지. 하지만 자네도 알지 않나?"

"......."

"지식은 헛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 지식은 지식이며, 그것은 고귀한 것일세. 자, 봐. 여기에 그토록 자네가 원하던 지식들이 한가득 쌓여 있어."

“.......”

“어쩌면 이 모든 게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닌 탓에 자책할지도 몰라. 하나 그럴 필요 없네, 특별히 이 내가 허락하지.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은 자네의 힘과 선택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사방에서 속삭인다.

“힘쓰지 않아도 괜찮아.” “자네는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네.” “그래, 또 무엇이 궁금하다고?” “가엾게도, 고작 이 좁은 우리가 네 세상의 전부구나.” “이번에는 도서관을 보여줄까?” “세상을 보고 싶지는 않니?” “이곳엔 참으로 다양한 지식이 있다.” “근원이란 참 신비로운 개념이지.” “자네는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어.” “그 누가 이토록 가치 높은 지식을 알아낼 수 있겠는가?” “아직 이른 지식이나, 특별히 허락하마.” “자네는 아주 좋은 기회를 받은 거야.” “이 달콤한 꿈에서 벌써 깨어나고 싶은 건가...?” “더 깊이 자렴, 더 깊이.” “손을 뻗어.” “더 상상해.” “네가 원하는 건 뭐지?” “자네는 어떤 욕망을 가졌나?” “네게 허락되지 않았던 지식 모두가 여기에 있다.” “궁금하지 않은가?” “여기는 너만을 위한 꿈이야.” “너의 꿈이다.”

사제는 입을 뻐끔거렸다.

“.......”

대답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말도 대답해서는 안 돼.’

상대가 단순한 몬스터라면 괜찮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근원의 자식 중 하나라면 골치가 아파진다. 신성이나 던전 그 자체처럼 권위 있는 신비. 인간은 한순간에 변질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보게... 이리 무시하니 참으로 서운하군.”

“.......”

“자네는 이 꿈이 성에 차지 않은 모양이야.”

보지 않아야 했고, 듣지 못한 척해야 했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지 않은가. 자네는 스스로의 모순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어. 지식을 제외하면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지 않았던가. 분명 자네가 그걸 바라 이 꿈을 만들어낸 것을 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네....”

“.......”

“여기 자네가 원하는 모든 지식이 전부 있어. 조금 더 오래 있다 가지그래? 더 폭넓은 지식을 원하지 않나? 그럼에도 자네는 현실에서의 의무를 고려하여 이 달콤한 꿈을 헤집으려 드는군. 현실, 현실이라. 그곳의 무엇이 그리도 중한가?”

“.......”

“현실에 두고 온 것이 걸려? 그곳의 의무와 동료 사제들과 너를 믿고 따르는 형제들? 걱정 말게, 자네도 알다시피 이 꿈은 길고 현실은 평소와 같아. 그런데도 현실로 어찌 돌아가려 해. 자, 조금만 더 깊이 잠에 들거라. 조금 더 깊이....”

잘그락—.

보석 따위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어깨가 잡혔다.

“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야.”

그게 뭐든.

“.......”

“.......”

곧이어 인기척이 사라졌다.

"…윽…."

떨리는 몸으로 뒤를 돌아보아도, 남아 있는 건 없었다.

그저 어두운 제 실험실의 그림자뿐이었다. 사제는 한참이나 그 텅 빈 그림자를 노려보듯 응시했다.

그러고는 음성의 말을 떠올렸다.

'…현실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게?

'내가 왜 돌아가려고 했더라?'

남자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49)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50)

250

제250화

“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성녀 아람의 질문에 지오반니가 고개를 기울였다.

“이번 던전과 관련된 질문 같은데, 내가 제대로 짚은 것이 맞니?”

“맞아요. 달님교의 형제자매들이 ‘꿈의 유원지’를 연구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했어요.”

“오랜만에 방문하자마자 이런 심오한 질문을 받게 되어서 놀랍구나.”

“…아.”

아람은 그제야 둘의 상황이 파악된 듯했다.

“역시 오자마자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좀 그랬나요?”

“이번에는 좀 오래 머물려고 짐도 새로 싸 왔으니 상관없기는 하지. 하지만 나중에 다른 친구들을 사귈 땐 최소한 짐을 풀 시간은 준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좋겠네.”

“죄, 죄송합니다.”

지오는 속으로 ‘사회성 부족’이라 중얼거리면서도 짐을 풀었다. 회복을 마치고 운신이 자유로워진 아람은 그런 그를 졸졸 쫓아다녔다. 어미 닭을 쫓는 병아리 같았다.

제 방에 짐 정리를 마친 지오가 그런 그녀를 돌아보았다.

“좋습니다, 이제 편하게 대화를 나누면 되겠군요. 추천해 주실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갑자기 존댓말… 음, 추천할 만한 장소라.”

“가볍게 의견을 나누기에 좋은 장소를 묻는 겁니다.”

“예전에 가보셨던 토론장은 어떻습니까?”

“그곳의 사제분들은 너무 무서워서 가기가 힘들더군요.”

“? 전혀 무섭지 않아 보이셨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 아람이 다른 선택지를 내놓았다.

“제 방은 어떨까요?”

“그 수많은 이론서와 논문이 함께하는 아람이의 방으로?”

“지금쯤 아마 사람이 없을 테니 한적한 식당으로…?”

“흐음? 벌써 7시인데 제가 저녁을 안 먹고 왔을까요?”

“…아, 아!”

아람이 간신히 답을 찾아냈다.

“정원 살롱으로 가시죠! 지난번에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두었던 살롱이 아직도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볍게 간식을 즐기거나 차를 마시며 대화하기 좋을 거예요…!”

“이제 나를 좀 파악한 것 같아서 기쁘구나.”

둘은 별이 반짝이는 정원으로 향했다. 아람이 머쓱하게 웃었다.

“사실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원은 거의 의무적으로 관리만 되고 있었죠. 가끔 방문하는 손님들이 이 아름다움을 칭찬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런 외부인이 아니고서야 정원에 드나드는 사람이 저희 교단에는 얼마 없어서….”

“은월 길드 쪽에서 온 인력들이 관리를 해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달님교 사제들도 조금씩 관리를 한다고 들었지. 그분들 사이에서의 분위기는 어떨까?”

“멍때리기 좋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뇌가 과부하되었을 때 식히기에 적절하다고….”

“공부를 참 좋아한단 말이지.”

그렇게 지오와 아람은 살롱에 도착했다. 유리로 지어진 온실과도 같은 공간 가운데엔 티 테이블도 있었다. 가벼운 토크를 위해 놓아둔 것이었다.

의자에 앉자 관리인이 왔다.

“마실 것을 좀 가져다드릴까요?”

“간식도 함께 부탁드려요.”

“금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듯한 차와 과일들이 함께 나왔다. 편하게 대화하라는 것인지 관리인들은 온실 바깥으로 나갔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땐 종으로 다시 부를 수 있었다.

그제야 대화의 장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방금 전의 이야기인데….”

“꿈과 현실의 무게에 대해서 묻는 거니?”

“음, 어쩌면요?”

아람이 콧등을 찌푸렸다.

“최근 형제들의 분위기가 이상해요. 수면 시간은 평소와 같은데, 점점 수면을 취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마저도 너무 오래 자서 잠들지 못하면 수면제를 먹기까지 하고….”

“그건 조금 위험하게 들리는데.”

지오가 얼굴을 흐렸다.

“비슷한 이야기는 수집상에도 들려온 덕분에 알고는 있어. 최근 ‘꿈의 유원지’에 중독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이야. 수면 시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 사회 유지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도… 이대로면 결국 문제가 생길 테지.”

“아, 바깥에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났군요. 확실히 저희 교단도 아직 문제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에요. 약물을 활용해 실험

을 해보는 것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현실이 아닌 꿈을 좇는 게... 조금....”

머뭇거리던 아람이 이어 말했다.

“섬뜩하게 느껴져서요.”

원래도 조용했던 달님교가 최근에는 더더욱 조용했다.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형제들이 어떤 생각이고 감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주교님께서 허락을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갑작스러운 존댓말이지만 아람은 그런 그를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를 피보호자로 대할 때는 반말을, 학생으로 대할 땐 존댓말을 쓰는 것 같았다.

그녀가 한숨을 내쉬었다.

“네, 최근 그런 일이 있었으니 혹시 모를 부작용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요. 이번 던전이 일반적인 몬스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악신의 장난이라는 말도 있어서... 더더욱 주교님께서 안전을 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몬스터가 아니라 신이 만든 던전이라면 골치 아플 텐데.”

“신성이 만들어낸 던전은 공략 기준조차도 훨씬 모호하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현실에서의 한을 푸는 자각몽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은 점점 도피처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람이 지오를 올려다보았다.

“그래서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꿈과 현실에 대해서요.”

“둘 모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때 가장 현명하겠죠.”

“균형을 유지할 때요?”

“뭐든 과하면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오반니가 특유의 쾌활한 미소를 지었다.

“음식이 너무 담백하면 먹기에 심심하고, 너무 짜도 혀에 대기 힘든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같습니다.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은 쉬기도 해야 하지만 무너져 있어서만도 안 되죠.”

아람이 눈을 껌벅였다.

“비유조차도 음식에 하실 줄이야.”

“가장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해요.”

“이건 저와 어울리지 않는 진지하고 철학적인 고민인 것 같네요... 나는 참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적어도 생긴 건 선생님과 아주 잘 어울리시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잘난 척을 해보도록 할까요.”

턱을 쓸며 눈을 굴린 지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인류가 지금까지 현실로부터 도피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잠뿐만 아니라 놀이, 식사, 대화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술이 발전하며 그 깊이는 더해졌어요.”

지금도 그랬다.

“대재앙 이후로는 신비가 우리의 세상에 들어왔죠. 사람들은 마법을 이용해 정신적 도피를 택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신의 일상으로부터도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라면 자신의 신원을 지우고 거처를 옮기는 것 정도야 어렵지 않으니까요.”

“생각보다 사소한 것들도 도피에 속했군요.”

“힘들고 지치는 일상으로부터 도망친다는 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눈을 돌리는 거예요. 하늘 위의 달을 계속 눈에 담고 있으면 피곤하지만, 잠깐 시간을 내어 바라볼 때마다 그 아름다움에 홀리지 않습니까?”

누구나 도망칠 수 있었고,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달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가 되죠.”

“…….”

머뭇거리던 아람이 물었다.

“…저희 달님교의 스승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마 제가 달님교의 성녀를 앞에 두고 그런 불경한 말을 할까요? 이건 그저 비유에 불과합니다, 거기에서 뭔가 떠오르는 바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성녀의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마저 경청하겠습니다.”

“선생님을 기쁘게 하는 태도군요.”

지오반니가 이어 말했다.

“성녀는 현실이 중요하냐고 물으셨지요. 예, 중요합니다. 저희 영혼의 뿌리와 삶의 모든 것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게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소중한 것과 중요한 것은 매우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면서 살지요. 나의 중요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여 자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아, 그건… 많이 다른가요?”

“그럼요.”

당연했다.

“나를 이루는 중요한 토대를 모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모두가 만들어졌을 적부터 그토록 사랑과 인내가 넘치는 생물이었다면 말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늘 스스로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성녀의 질문에 지오가 웃었다.

“물론 성녀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그 역시 성녀의 욕심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성녀가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선택이란 자신의 의견이며, 결코 세상 모두가 동의해 주지 않을 의지의 표명이고, 그렇기에 이기심입니다. 누군가가 절대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모두의 마음에 꼭 드는 선택이란 존재할 수 없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저는 제 파란색 눈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 두 눈을 뽑아 버린다면 앞을 볼 수 없게 되겠죠.”

“…눈의 색깔을 바꾸는 염색약을 쓴다면요? 선생님의 마음에 드는 색으로요.”

“그것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습니까?”

“모든 마법과 약물은 영구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에 가까울 정도로 색을 유지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여 내가 푸른 눈을 가졌다는 기억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나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겠죠.”

“기억을 변형하는 마법이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결국 그런 선택을 했다고 했을 때.”

지오반니가 고개를 기울였다.

“그걸 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영리하고 교묘한 방법을 써도 마찬가지였다.

“본질이 달라지겠죠.”

그렇기에 중요한 것과 소중한 것은 달랐다.

“나를 이루는, 내 주변과 이 세상을 이루는 것은 하나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중하지 않아서 버리고 싶어질 때가 찾아올 수도 있죠. 요즘과 같이 서로를 배척하고 개인주의가 심화된 세상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음, 이것도 제가 달님교의 성녀로 좋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겠죠. 한때 빈민가의 부랑아였던 때를 떠올려 보자면 사람이 걱정 없이 살기 좋은 세상이었다고 하긴 힘들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많은 ‘문제’가 표면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등 뒤에서 화살이 날아오는데 뛰지 않고 배길까요. 달리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달렸고, 지금은 화살을 막아줄 나무 한 그루를 찾은 겁니다.”

화살은 현실이었고, 나무 한 그루는 꿈으로의 도피였다.

“하지만 언제까지 거기에 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달리던 이유가 고작 ‘등 뒤에서 날아오던 화살’ 때문이었을까?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가집니다. 몇몇 특이한 예외만 아니라면, 스스로를 바쳐 달님을 따듯하게 하고자 하는 성녀 역시 욕심이 있죠. 지식에 대한 욕구가 특징적이고요.”

“그,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이유가 ‘그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날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조금만 더 버티면 다가올 승진을 위해서….”

이하 등등.

“좁은 나무에 숨어 있어서는 그들의 그 어떤 욕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꿈의 유원지’는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있다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욕망을 채워준 것뿐이지, 욕구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식은 남아요.”

아무리 꿈이라도 기억만 한다면, 그 유원지에서의 지식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님교는 어수선합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야 몰라도 이 던전은 우리가 활용하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달님교는 지식을 모으고 가꾸는 이성의 전당이니까… 그걸 달님교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요.”

지오반니가 웃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협회 연구소들이 탄생했죠.”

“…네, 맞아요.”

아람도 협회 연구소 중 일부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차마 그걸 긍정할 수는 없었다. 단지, 궁금할 뿐이었다.

“꼭 나 스스로가 온전해야 할까요?”

“본인의 생각입니까?”

“아뇨, 저는 저 자신을 보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고작 나 하나의 평온과 쾌락보다는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훨씬 강하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형제들의 생각이겠군요.”

“꿈의 일부분이 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인간이 아닌 도구이자 부속품으로 스스로를 취급해 왔다. 함부로 자기 자신을 다루고 실험체로 써왔던 달님교의 사제들. 그들은 ‘중요한 것’도 ‘소중한 것도’, 그 무엇 하나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에 지오가 말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현실로 돌아왔군요.”

“…하지만, 이대로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부 꿈에 중독이 될 것 같아서….”

“그들이 잊기 전에 떠올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무엇을요?”

“꿈을 포기하고 현실로 돌아온 이유.”

“…….”

“그게 뭘까?”

수업은 끝났다.

“고민해 보렴.”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을 찾았다.

그러곤 주교를 찾아갔다.

* * *

“스승님께도 이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람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던전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의 등장과 함께 스승님께서도 침묵하고 계시고, 더는 제게 그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죠. 성녀인 제가 있음에도 달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건 명백한 이상 현상을 뜻합니다!”

“그게 성녀가 이번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얼마나 귀중한 인재인지를 잊으셨습니까? 달님을 따듯하게 데워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자 하셨지요. 그렇다면 스스로의 중함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 제 자신의 중요함을 압니다, 나도 내가 소중해요! 안 아팠으면 좋겠고, 울기보다는 웃었으면 좋겠고, 외로운 것보다는 행복한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람은 화를 내고 있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성녀, 지금은….”

“미루지 말고 대답하세요!”

지켜지기만 해서 그녀에게 무슨 가치가 있다는 말인가?

“나도 살아 있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 나의 이기심이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달님교가 날 사육한 게 아니라면, 내가 한 명의 사람이 맞다면! 내가 곧 잡아먹힐 가축 따위가 아니라 당신들과 달님의 가족이 맞다면…!!”

그렇다면.

“…내 행동 역시 변명과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달님교잖아요…!!”

“…….”

그제야 주교는 솔직한 심정을 말했다.

“…내가 모든 것을 망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며칠 뒤.

성녀는 ‘꿈의 유원지’ 연구에 참여했다.

* * *

연구 초기, 형제들은 ‘꿈의 유원지’의 달콤함을 안다 해도 잠에서 쉽게 깨어났었다.

하지만 점차 꿈에 중독된 형제들의 수가 늘고 있다. 그리고 아람의 선생님은 ‘그들이 잊기 전에 떠올리면 좋을 것이다’ 하고 말했다.

그들이 무얼 잊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람은 알았다.

“…….”

우리도 가족이라는 거.

이 특별할 것 없는 일상 또한 행복했음을 잊어가고 있었다.

“…나도 할 수 있어.”

그게 아람이 나선 이유였다. 선택되었으나 달님이 되고자 한 것은 스스로의 의지였다. 누구보다 달님교를 사랑하고 위하기에 성녀의 자리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에겐 의무도, 권리도 있었다.

“내 선택이야.”

베개에 소원을 적은 종이를 넣고 잠이 들었다.

* * *

『가족들이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50)"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51)

251

제251화

주교는 오늘도 같은 곳에서 눈을 떴다.

“…….”

“왔는가.”

달님이 있어야 할 호수 위에, 붉은 악신이 떠 있는 꿈이었다.

“자네의 방문을 기쁘게 받았네.”

“이 미친한 것을 왜 계속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보았기 때문이다.”

“죄가 크군요….”

눈에 담으면 안 될 것을 담았다.

“시선이 빼앗겨서는 안 됐는데.”

그 화려함에 순간이나마 홀렸다. 백색에 익숙해진 시야에 피 같은 날개는 자극적이었나 보지. 깨진 머리에서 고아하게 황금으로 흐르는 피가 아름다웠나.

‘내가 보다 더 완벽한 존재였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을까.’

악신을 처음 마주친 이후로 주교는 여러 번 그와 재회했다. 잠을 잘 때도 그랬고, 달을 뵈러 갈 때면 항상 그와 마주쳤다. 주교인 이상 교단의 규칙을 무시할 수도 없거늘.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다.

주교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졌다. 커다란 호수에 한낱 조약돌을 던지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제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자네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귀하게 키웠던 성녀가 신비의 종말 끝에 다다라도 절망하기만 했던 그녀다. 반평생 달님교의 주교로 살아왔다. 부러지고 무너지면 몰라도, 큰소리 내는 법 따위는 배운 적이 없다.

“유흥이 필요하신 모양이지요?”

악신다웠다.

“제가 파멸에 닿기를 바라십니까. 달님교의 주교 되는 자가 타락하시길 바라시는지요. 제 주제를 잊고 추태를 부린다면 그것이 당신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런가요?”

“만족하지 않는다.”

“제 영혼이 벌써 당신 손 위에 올라갔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은 너희의 달님이지.”

“…….”

그의 두 번째 손이 들고 있는 새하얀 것이 눈에 들어온다.

“…스승님께서 저를 무어라 부르십니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제가 그 정도 미약한 존재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실망하지 않는군.”

“그분은 인간을 잘 알지 못하십니다….”

“과연 그런가.”

호수 위에, 창백한 발끝이 닿았다.

“어찌 그리 겁을 먹는 게냐, 내 그리 무섭더냐.”

“제가 모든 것을 망치도록 두실 것 같아 두렵습니다.”

“망친다, 그래. 망친다. 우리는 그것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악신과의 대화를 종용하시는군요.”

“그대는 이미 나와 대화를 하고 있다. 나를 보고 있고, 나를 듣고 있고, 내게 의문을 품고 있지. 자, 나를 보라. 고개를 들거라.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사제로서는… 한참 전에 실격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대화를 해보자꾸나, 자네 나와 말하고 싶지 않은가? 나는 이토록 자네를 기다렸는데 참 무심도 한지고….”

그의 음성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변해갔다. 권위와 흥미만을 담던 위압적인 음성에 처연함이 깃든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던 장식들이 잘그락, 소음을 뱉었다.

“우리는 친구가 될 수도 있을진대.”

깨진 머리에, 황금 피에, 팔 세 쌍을 지닌 신비는 사람을 흉내 냈다. 비언어적인 표현을 하고 반절뿐인 얼굴로 감정을 표했다. 허탈한 숨이 나왔다.

그래봤자 악신이거늘.

“…제가 얼마나 당신께 놀림을 받아야 합니까? 애정 하나 떨쳐내지 못해 일을 망친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지요. 아니, 애초에 능력이 없어 망치지도 못한 이 못난 것이… 이 미천한 게… 어찌 당신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녀의 음성은 조곤조곤하게 흘러갔다.

“나는 그럴 능력도 되지 않는 미천한 인간입니다. 난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그저 한 자리를 지키고만 있던 제가 괜찮은 장난감이라도 될 성싶으셨습니까?”

“분노하는가 싶었으나 그렇지 않구려.”

금팔찌 걸린 손이 주교의 턱을 들어 올렸다.

“포기했나? 체념했는가? 망설이는가?”

“그 모든 것을 이미 해 보았습니다.”

“짐승아, 화를 내거라. 터트려라. 분노하라.”

갓 태어난 짐승을 다루듯 자애로운 음성이 들려왔다.

“오직 분노만이 짐승과 인간을 같이 한다.”

주교는 그 뜻을 해석했다.

“…분노하지 못하는 자는 짐승만도 못한 가치를 지녔다는 말씀입니까. 인간은 지성의 동물입니다, 신이시여.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짐승을 어찌 인간과 같이 치시는지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퍽 대단한 권위처럼 보였는가? 그렇지 않다, 내 눈에는 모두가 같더구나. 인간은, 그래, 인간은 신념과 악의를 품어야만 인간의 자격이 있다.”

“제 신념은 인간이 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까….”

“누가 그것을 신념이라 불렀지? 감히 누가?”

사악한 영혼이 속삭였다.

“아무도 그것을 신념이라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떠밀려 그 자리에 앉았다.” “그것이 네 선택으로 보이더냐.” “네 눈에는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겠지.” “땅밖에 보지 못하는 작은 짐승아.” “하늘만 하늘인 줄 아는 작은 짐승아….”

또 속삭였다.

“가엾구나.”

턱이 놓아졌지만, 주교는 여전히 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 하하….”

웃음이 나왔다.

“…당신의 지혜를 압니다….”

“꿈을 꿨는가?” “달콤한 꿈을?” “마음에 들었나 보지.”

“예, 너무도 달콤하더군요. 단꿈을 꿨어요. 내가, 내가 어찌하면… 달 곁의 별이 될 수 있을지… 몇 번만 더 꿈을 꿔본다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쉬이 잠들지 않더구나.”

“허탈했습니다.”

무엇이 허탈했는지 아직까지도 알 수 없었다.

“성녀가 성녀의 자리에 오른 이후 계속 연구를 해왔죠. 그 아이는, 참 강하고 아름답지만… 가족에게 버려져, 외로움이 많고… 춥고, 배고프고, 혼자인 것을 싫어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겨울의 빈민가 골목에서 데려왔어요….”

아이를 곁에 두고 쭉 고민하고 연구했다. 남들이 악습이라 말하는 전통이 하나 더 생길지언정, 그렇게 하고 싶었다. 차라리 좋은 일이 아닌가 하며. 또 다른 신비를 빚어내는 숭고한 행위라 하며.

“왜 이리 허할까요. 속이 뻥 뚫린 것 같기도 하고, 속이 콱 막힌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고, 내 생각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그러한가.”

“…모르겠습니다, 답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토록 고민하던 것이 한순간에 해결된 탓일까요? 스승님이 아닌 악신의 도

움을 받은 탓일까요? 생각했던 것만큼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아 무서워지기라도 한 거냔 말입니다.”

늪에 빠진 듯했다.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또 어찌 그런가.”

“…….”

“사랑하기 때문이지.”

가엾은 것.

“사랑하기만 할 줄 알기 때문이다.”

방법을 모르는구나.

“너 어찌 틀린 줄 모르느냐. 다른 게 아니라 틀렸음을 왜 몰라 그 많은 죄를 지었어. 네게 참으로 달고 고소한 향이 난다. 이대로 씹어 먹히면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순수하고 바보 같은 죄악이란 왜 이다지도 안타깝고 어여쁜 것인지….”

“…이미 멍청해 보이는 일을 다 했으니, 멍청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식인을 하십니까?”

“내가 바란다면 그렇게 한다.”

악신이 속삭였다.

“네가 보던 것이 정의로 보이더냐. 안타까운 희생이 숭고한 희생처럼 보이더냐. 너 두 눈 멀쩡히 달고 있는 두눈박이인데 왜 그렇게 보았지? 바닥이 바닥이라고, 천장이 천장이라고 생각하더구나. 벽을 넘어갈 생각조차 않더구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교로서, 달님교의 사제로서, 마땅히…해야 할 일을….”

“텅 빈 꼭두각시 안에 사랑이 가득 들어차니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 게지.” “사랑하지 않았다면 신념이라도 지닐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인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너는 그렇지 않았다.” “끝내 악의조차 품지 못했어.”

“제가 당신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라도 알려 주십시오. 당신 유희에 어울려 드리면 되겠습니까? 꼭두각시가 되어 연극이라도 해 보일까요? 짐승이 되어 납작 엎드리면 당신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인간이 되거라.”

“…….”

이제 와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저는 늙고 추해졌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인간 따위, 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법도, 분노하는 법도, 생각하는 법도 모르니 너는 갓 태어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 너는 인간이 될 수 있다. 자, 터트리렴.”

“무엇을 말입니까?”

“터트려.”

악신이 웃는다.

“네가 사랑하는 것이 내 품에 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실 겁니까?”

“운명은 정해졌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그 아이는, 지구를 사랑합니다. 가족들을 아낍니다. 어찌 평생 원하던 것 하나 이루지 못한

채로 데려가시려 합니까.”

“그것은 네가 인간이 되든, 짐승으로 남든,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

“돌려주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갑작스러웠다.

무언가 주입당하기라도 한 걸까, 아니면 세뇌라도 된 것일까. 머리가 어떻게 되기라도 했는지 손이 덜덜 떨리고 숨이 벅차올랐다.

“달님의 아이입니다! 보잘것없으나 내가 보아온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어찌 웃는지도 모르면서 왜 그 귀한 영혼을 데려가려 하나요! 평생을 희생해 온 아이인데...!!”

“그렇지.”

“.......”

“잘하는군.”

“...아.”

“그게 바로 ‘분노’라는 감정일세.”

뒤늦게 머리가 멍해지며, 깨달았다.

“...내게 분노를 새기고, 거짓을 말씀하셨습니까?”

“악신이지 않은가?”

“...대체, 대체 제게 뭘... 바라시는 건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그 꼴이 우습고 재밌구나, 그렇지 않니.”

신성이나 되는 존재가 단순히 재미를 위해 나 하나 놀리자고 이럴 리가 없다. 이렇게 공을 들일 필요가 없었다. 그 불길하고 신비로운 모습까지 드러내면서, 왜?

“너희의 달님이 참으로 지루하다더구나.”

“...스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자, 보렴. 그렇게 말하고 있지?”

두 번째 손에 들고 있던 달을 얼굴에 올려, 인형 놀이를 하듯 악신이 달님을 흉내 냈다.

“너무나도 지루하단다, 제자야. 나와 함께 즐기자.”

마치 아이와 같은 변덕스러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신성. 천진한 음성으로 달님을 흉내 내니 공포가 밀려왔다. 그들의 스승은 저 붉은 악신에게 한낱 장난감 신세였다.

살짝 달을 내리니 절반뿐인 얼굴의 입술 휘어지는 게 보였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왜 그리 자책하지? 들어보게나, 친구. 자네가 스스로를 바쳐 일구어냈던 교단은 처음부터 썩어 있었어. 이제 와 철없는 악신에게 침실 하나 내어준다고 전혀 달라질 것이 없지.”

“...언젠가 저희의 교단이 완전하게 썩었을 거란 말입니까?”

“세상이 빠르게 발전한다. 더 나아지고 있다. 인간들은 스스로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위태로운 차원을 조금이라도 고쳐내고 있어. 많은 것이 윤택해졌을 때 과연 달님교가...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가 두려운 미래를 읊었다.

“너희는 선택이 아닌 강요로 단두대에 설 것이다.”

그리고 바쳐지겠지.

“고귀한 희생이 아닌 산 제물의 희생으로 바뀔 터.” “왜? 너희는 그것밖에 할 줄 모르니까!” “숭고한 희생으로 쌓아 올린 귀중한 전통을 과연 너희의 후손이 무시할 수 있을 것이라 보나?” “그때 누가 너희를 말려 주겠느냐.” “문을 걸어 잠그고, 외톨이로 그림자에 숨어 있거늘.”

“…….”

“듣거라, 내 어린 친구야.”

그는 자애를 담아 말했다.

“과연 언제까지 숭고하다 말할 수 있으리라 믿었니?”

주교는 대답하지 못했다.

“…….”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으나, 그럼에도.

그럼에도.

“…그렇다면, 대체 왜….”

숨이 막혔다.

“대체 어째서, 나의 가족들이 그렇게 떠나가야 했습니까. 세, 세상에… 이름도 알리지 못하고 죽어간 내 가족들이… 나를 지켜주고 힘을 주었던 그 귀한 사람들이, 왜 춥고 외로울 달님의 곁으로 가야 했느냔 말입니다…!”

배웠기에 이번에는 자신의 힘으로 분노했다.

“아,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말릴 수 있었는데, 지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붙잡고 빌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달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내가 멍청해서. 그른 일만 해와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완벽하지 못한… 흠집만 잔뜩 난, 아집과 무능뿐인 쓰레기라서…!!”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있었다.

“그저 개죽음일 뿐이었나요?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스승님의 일부가 된 것은 사실일 테니까. 하지만 두렵습니다, 그들이 후손들의 희생을 강요할 희대의 악인으로 남을 겁니다. 나의 무능이 참으로 많은 것을 망쳤군요. 더 영민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더 완벽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참을 수 없이 괴로웠다.

“대체 어째서, 아. 그들이 아닌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이 보잘것없는 것이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내가 달이 되었어야 했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연구를 마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내가, 최소한의… 최소한….”

“작은 친구야.”

악신이 웃음기 어린 음성으로 물었다.

“무얼 하고 싶니?”

“…되돌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제가 놓치고 실수하고 그르쳤던 모든 것을.”

“내가 도와주랴?”

“이 비천한 손을 잡아 주십시오, 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자네의 가족도?”

“내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것이었다면 달님교에 그르지 않은 자는 성녀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것을 숭고하다 말해왔죠. 많은 것이 그릇되었습니다, 썩은 술이 담긴 통이니 부디 부수어 주십시오.”

“마음에 드는군.”

그가 종말을 약속했다.

“너에게서 달의 악습이 끝나리라.”

그걸 원하니?

* * *

“.......”

아람은 베개를 꼭 껴안은 채로 얼굴을 구겼다.

“......?”

여기가 어디지?

그녀는 한 유원지에 와 있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51)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52)

252

제252화

“대체 베개는 또 왜 같이 왔어.”

아람이 떨떠름하게 자신이 꼭 안고 있던 베개를 보았다. 일단 푹신한 감촉이 기분 좋으니 들고 다녀보기로 했다. 그녀의 공격과 방어 능력은 손을 쓰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손이 묶이는 것 정도야 괜찮겠지.’

무엇보다 상대가 악신 수준이라면 손 못 쓰는 것 정도야 하찮은 페널티였다.

‘하지만… 생각과 조금, 다른데.’

그녀의 소원은 ‘가족들이 꿈의 유원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던전의 존재 의의와 정반대의 요구. 이에 아람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떠올렸다.

첫째, 그 소원대로의 꿈을 보여준다. 둘째, 던전의 주인이 분노해 공격한다. 셋째,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수면을 취한다. 예외도 고려했지만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역시 이 셋이었다.

‘이건 놀이공원이잖아?’

화려하게 장식된 유원지. 가본 적은 없지만 지구에도 비슷한 곳이 존재했다. 성장할 수 없는 어린 몸으로 탈 수 있는 기구는 몇 없겠지만, 호기심을 가져본 적은 있었다.

“음….”

제자리에서 서성거리자 자신이 맨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 신발…신고 잘걸.”

자고 있던 상태 그대로 온 것 같은데, 이것도 예상하고 편한 복장을 했지만 신발을 까먹었다. 주교님과 싸우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조금 울적해졌다.

‘아니야, 나는 달님교의 성녀. 여기서 축 처져 있을 수는 없다…!’

베개를 꾸우욱 껴안은 아람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유원지를 실제로 가본 적이 없어서 이곳과 지구의 것이 얼마나 다른지 구분할 수가 없네. 선생님의 말씀이 백번 맞아. 달님교 안에서의 이론만 공부한다고 지혜가 늘어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럴 때마저 그럴싸한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가 없어….’

조금 더 걷자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잠깐, 인기척?'

사람의 기척이 느껴진다고?

'몬스터가 의태를 한 건가? 아니면 나처럼 소원의 꿈이 아닌 이 엉뚱한 유원지에 오게 된 사람이 또 있는 거야?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은신을 해야 하나?'

신성력으로 몸을 감싸 기척과 모습을 감췄다. 그러고는 발을 허공에 조금 띄워 발자국도 없앴다. 유령처럼 둥실둥실 조심스레 이동한 아람이 곧 무언가를 보았다.

"어머나."

"!"

"여기 계셨군요, 손님."

새까만 머리카락과 눈을 가진 한 여성이었다. 정돈된 양복을 입고 있는 성인 여성은 아람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녀가 정중하게 몸을 숙여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까마귀 세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이세요?"

"저희는 눈이 좋죠."

"눈이…."

달리 특별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는데.

'…까마귀라고 했지. 따로 종족이 있는 것일까? 지구에서도 동물의 특성을 가진 헌터들은 몇 번 봐왔는데. 아니면 까마귀가 인간으로 변한 거야? 뭐지?'

다른 차원에는 수인이라는 종족도 있다던데, 그 일종일까?

"……."

적의는 느껴지지 않고, 속임수도 없다. 만약 그조차 속이고 있는 거라면 아람으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손님'이라고 말했으니 장단에 맞추는 것도 좋은 판단이 될 것이다.

그녀는 곧 은신을 풀고 정식으로 인사했다.

"아람이라고 해요, 이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걸 위해 제가 당신에게 배정되었죠, 부디 함께해 주시길."

"어딘가로 안내해 주시는 건 아닌가요?"

"이곳은 꿈의 유원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즐기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곤란함을 겪지 않게끔 도와드릴 수행원에 불과할 뿐이죠."

"그럼… 일단 아까 질문드린 대로, 이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각보다 정중하다. 무턱대고 싸우기보단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던전일지도 몰랐다. 이곳은 신비의 배 속. 던전 주인이 정한 규칙을 지키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었다.

까마귀 세실은 흔쾌히 대답했다.

"이곳은 말씀드린 대로 꿈의 유원지입니다. 손님께서 꿈으로만 바랐던, 혹은 이따금 꿈에 나타날 정도로 바라왔던 것들을 즐기실 수 있죠."

"제가 특별한 경우인가요?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꿈에 초대되었는데, 소원으로 적었던 내용이 아닌 이 놀이공원에 오게

되었어요.”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겠으나 혹여 부작용이라도 있을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손님께서 바라신 곳으로 이동이 된 것뿐입니다.”

“제가 이곳을 바랐다고요?”

“저희 꿈의 유원지는 항상 손님의 욕망을 반영합니다. 손님께서 원하던 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기에 이곳으로 초대되셨습니다. 꿈을 거부하는 이에게 꿈을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

그 말대로라면, 이곳은 ‘원하는 형식의 꿈을 적는다’라는 것이 주된 요소라 할 수 없었다.

‘사실상 베개 밑에 꿈의 소원을 적어두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었던 거야. 아마 꿈꾸는 자가 스스로의 욕망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씨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가장 중요한 건 잠든 사람 그 내면의 욕구….’

그렇다면 ‘꿈의 유원지’는 인간의 내면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봐야 했다.

‘비슷한 내용을 다른 사형제가 보고한 걸 들었어.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그가 확인한 게 맞다고 봐야겠네. 하지만 그 많은 사형제 중 단 한 명도 이 유원지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 그들의 욕망이 현실이 아닌 꿈에 있었다는 거겠지.’

아니, 잠깐.

“…그럼 저 지금 현실에 있는 건가요?”

“예, 손님께서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 그럼 지구에 있던 제 몸이 이곳으로 이동된 거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어쩐지 잠들어 있던 상태 그대로 왔더라니!

“부,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하지만 현실에서의 당신은 한 명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원이라 스스로를 소개했던 까마귀는 친절하게 답변했다.

“그 누구도 꿈이 아니고서야 자기 자신의 몸을 벗어나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없죠. 한번 태어난 이상 대부분은 평생 그 하나의 몸에 갇혀 세상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게 손님과 같은 지구의 생명체라면 말입니다.”

그 말은 마치 현실의 몸을 내려보는 듯했다.

“…하나뿐인 몸이기 때문에 더 값져지는 것도 있어요.”

“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손님은 이곳으로 이동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꿈의 유원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꿈에 그리던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다고 하셨으니, 이곳 역시 현실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구의 현실과 다른 차원의 현실은 상이한 것이 사실이지요. 이곳에서 당신은 소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게 꿈의 존재의의이니까요.”

“꿈은….”

소원의 단편을 즐기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

하지만 그걸 바랄 수는 있었다.

‘…틀린 건 아니야.’

아람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뿐이다. 그것을 인정했다. 던전이라고 날을 세우기만 해서는 될 일도 안 될 것이다. 여유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했다.

“그럼 저 이외의 사람이 이곳을 방문할 때도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협회의 직원이라 칭했던 분들이 자주 방문하고는 하시죠.”

“아, 협회의 분들이요?”

“그 외에도 자기 자신을 유스티티아 소속이라 말씀하신 헌터분들께서도 종종 방문하십니다. 협회의 직원분들만큼은 아니지만 단골 고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그분들은 이곳에서 뭘 하다 가시나요?”

“안타깝게도 유원지를 전부 구경하지조차 못하고 곧잘 깨어나십니다.”

“어째서죠? 꿈은 주인을 깨울 수 없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꿈꾸지 못하는 자들은 꿈을 꿀 수가 없는 법이죠.”

까마귀는 빙긋 웃었다.

“그분들에게는 꿈이 없으니, 이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어떤가요? 알아봐 주실 수 있겠어요?”

“원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이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깨어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모든 꿈을 꾼다면, 깨어날 수 있겠죠.”

“…아니, 잠깐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이상함을 눈치채고 당황하자 까마귀가 고개를 기울였다.

“이곳 꿈의 유원지에 오시는 대부분의 손님분들께서는 길지 않은 시간을 보장받으십니다. 애초부터 꿈이 아닌 현실을 목적으로 잠에 드신 분들이니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손님께서는 아주 많은 꿈을 꾸고 계시는군요.”

“마, 말도 안 돼요. 모순이잖아요….”

“그럼요, 모순입니다. 하지만 손님께서는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 내셨군요. 하지만 꿈이라는 것은 전부 소진하지 않는 이상 깨어날 수 없는 것. 아무리 저라고 해도 손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꿈을 소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곳에서만 꿈을 운운하시나요?!”

현실과 꿈이 뒤엉켜 있기 때문일까, 말도 안 되는 구조였다.

“집에 보내주세요! 이거 납치에요!”

“제게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권한이 있는데요?!”

“오로지 당신과….”

뜸을 들인 까마귀의 눈이 곱게 휘어졌다.

“이 유원지의 주인님께 있겠죠.”

“주, 주인님?”

“예,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주인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차원에 있나요? 이 던전에?”

“그분께서는 늘 저희를 굽어살펴 주시지요. 제가 감히 만남을 주선해 드릴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만, 그분 눈에 들 수 있도록 활발히 꿈을 소진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그런다고… 그 주인님이 저를 보시겠어요?”

“물론 보실 겁니다, 그분은 꿈꾸는 자를 사랑하시거든요.”

“취향이 참 독특하시네요….”

차마 욕을 하지는 못했다.

‘얼마나 여기에 더 묶이게 될지도 모르는데 악감정을 쌓아봤자 나만 손해다.’

인내가 곧 지혜를 주리.

“후우….”

“휴식 공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유원지에 그런 곳도 있나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뇨, 저는 이곳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녀의 꿈은 이런 곳에 있어서는 안 됐다.

“내 꿈은 현실에 있어요, 이런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라요. 내가 꿈을 소진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 던전에 대한 모든 조사가 끝난 뒤가 될 겁니다. 그조차도 탈출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일은 없어요. 기억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손님.”

까마귀가 다시 빙긋 웃었다.

“저희는 손님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

머뭇거린 아람이 물었다.

“…저, 그런데. 유원지에 온 다른 한국 사람이 있으면 저와 만남을 주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구의 현실에서는 제가 갑자기 사라져서 집안사람들의 걱정이 정말 클 텐데… 소식이라도 좀 전하고 싶어서요.”

“불편하실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생을 모범생으로 살았던 아람은 그렇게 가출 청소년이 되었다.

* * *

문제는 달님교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주교님, 성녀님께서 교단 내에 모습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까.”

“저희에게 명을 내려 주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나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저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꿈의 악신이 성녀를 탐내었나 봅니다.”

평소와 같이 차분한 음성으로, 전혀 다를 것 없는 얼굴로 주교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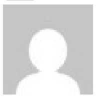
“협회와 유스티티아, 그리고 수집상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녀가 걸어 잠갔던 달님교의 문을 열었다.

이게 배움의 길이 될지, 종말의 길이 될지는 모를 일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52)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53)

253

제253화

유스티티아.

대한민국 1위 길드이자 정의를 중시하는 집단으로 유명하다. ‘영원의 상징’ 중 한 명인 ‘서서희’가 길드장인 곳. 그들은 국내외를 통틀어 사특한 사건이나 끔찍한 재앙에 맞섰다.

“길드장님, 한 가지 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래, 편한 대로 물어봐.”

“이번 사건에 저희 길드가 참가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요.”

“유스티티아가 언제부터 사건의 경중을 따졌지?”

철컥.

“그리고 이번 일은….”

장비를 갖추며 길드장, 서서희가 말했다.

“충분히 우리 같은 대형 길드도 참가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사건의 규모로 따진다면 그렇겠지만, 길드장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뭐가, 이번 사건의 범인이 상상 이상으로 온순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예, 달님교의 수장은 사건의 흑막을 악신이라 말했지만 마땅한 증거조차도 없습니다.”

“지혜의 탑이라 불리는 달님교의 주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에 대한 마땅한 증거는 이번 모임에서 알 수 있을 텐데.”

서서희가 씩 웃으며 제 동료를 보았다.

“항상 겁이 많아, 너는.”

“길드장님께서 너무 겁이 없으시니 저희라도 소심해져야죠.”

“나는 소심한 친구를 길드원으로 뽑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길드장님의 안위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내가 직접 참가하는 게 여전히 불만인 것 같네, 그렇지?”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의 측근 되는 부길드장이 고개를 숙였다.

“다만 길드장님께서 이번 일에 유독, 평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였더라?”

“조금 들뜨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

서서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고.”

“...서지오 헌터가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는 말을 들으신 이후로 계속 이 상태이십니다.”

“티가 좀 많이 났나 본데, 다른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 중이야?”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비서실 친구들이나 조금 느끼는 정도죠.”

“맞아, 나는 예전부터 서지오 헌터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거든.”

모든 장비를 갖춘 길드장이 제 동료를 정면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너도 그분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지 않아?”

“완전히 아니라고는 않겠습니다.”

유스티티아는 정의와 질서를 추구한다. 선함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모인 길드. 말만 성자가 아닐 뿐 온몸으로 살신성인을 실천한다던 서지오 헌터에 대한 호감도는 이미 높았다.

“어딘가 길드장님을 닮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점에서?”

“...추진력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본인 안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둘째 친다고도 들었죠. 역시 길드장님과 닮았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가 늘 그렇듯 웃었다.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네.”

“.......”

부길드장은 고개를 숙였다.

유스티티아의 길드장인 서서희의 주력 스킬명은 ‘친구’였다. 서로를 친구라 여기는 존재에게서 영향을 받게 되는 능력으로, 스스로 끄고 켤 수 없는 패시브 스킬이었다.

‘...좋은 영향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만.’

부길드장은 걱정이 앞섰다.

‘이상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군.’

그의 스킬은 간단히 말해 ‘친구’와 동화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다. 혹여 서지오 헌터에게서 희생적인 면모를 추가적으로 얻어 오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다.

그런 부길드장의 모습에 서서희가 웃었다.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걱정하지 마.”

“길드장님께서 친구가 되기로 마음먹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있지. 어디든 있어.”

그라고 세상 모든 이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내가 사교성이 좋은 편은 맞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세뇌하거나 홀릴 수 있는 스킬을 가진 건 아니라고.”

“거의 엇비슷한 친화력을 가지시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너무 과찬인데. 하긴 내 스킬이 남들과 친해지기에 아주 적당한 능력이기는 하지.”

서서희가 시계를 보았다.

“슬슬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예, 제가 모시겠습니다.”

“바쁜 친구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길드장님께서 직접 나서는 일에 제가 함께 가지 않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가 씩 웃었다.

“늘 그렇듯 이기는 건 우리일 거야.”

정의가 승리한다는 그 유치한 말.

그게 바로 유스티티아의 좌우명이었다.

* * *

회의 장소는 다름 아닌 협회의 파티룸이었다.

유스티티아가 협회 본부로 이동하자 협회의 직원들이 맞이했다. 그들은 영원의 상징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경의를 표했다. 그러고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회의 장소로 안내했다.

“어머.”

그곳에는 협회장, 단해라가 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은 들었지만 정말로 네가 올 줄은 몰랐어.”

“바빠서 곧 과로사할지도 모른다는 내 친구도 얼굴을 보인다는데, 감히 편한 집무실에서 쉬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지.”

“입발림이 제법인걸? 볼 때마다 말재주가 늘어 버린다니까.”

단해라가 평소처럼 인형 같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래서 본심은?”

“지난 인어 사태 때와는 상황이 다르잖아.”

그때는 전국적이다 못해 전 세계적인 재난이라 유스티티아의 인력이 많이 필요했다. 명확한 적이 존재하니 대처 방법도 확실했고. 유스티티아의 길드장인 그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해결될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달랐다.

“너무 추상적이야.”

규모가 크고 적은 모호하다.

“내가 듣기로 벌써 부작용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던데.”

“꿈에 중독되어 던전 그 자체를 찾으려 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

“그래, 꿈 자체가 던전이 아니라 그 너머에 진짜 던전이 따로 있다면서.”

“그게 사람들의 정복 욕구를 건드렸는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변해버렸어.”

“이대로 두면 사회 전체가 무너질 것이고.”

그와 그의 친구들이 열심히 쌓아 올린 사회였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더 나아지려는 세상이었다. 옳은 일도 옳지 않은 일도 많았지만 흘린 피는 그보다 더 많았다.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둘 수는 없지.”

“나도 동의해.”

당장의 피해 규모는 작지만 잠재적인 위험도가 너무 높았다.

이후로는 잡다한 일상 이야기가 오고 갔다. 협회장 단해라는 여전히 기계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친구 서서희는 단해라의 기분이 꽤 좋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피곤했겠지.’

지금의 세상을 위해 단해라가 포기한 것들을 서서희는 알았다.

“…슬슬 모이나 본데.”

“오후 3시에 모이기로 했으니까.”

“그 사람도 오겠지?”

“서지오 헌터를 말하는 건가?”

“그래.”

서서희가 제 친구를 살폈다.

“…….”

“…….”

둘은 서로가 같은 것을 느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직접 보면 더 확실해질까. 단순 계약자인 나라면 몰라도, 약속의 주인인 해라는 분명 알아차릴 수 있을 텐데.’

협회장인 단해라의 스킬명은 ‘약속’이다. 운명을 약속받을 수 있는 일종의 거래. 그녀는 물건 혹은 개념을 통해 같은 값의 무언가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은 기억과 감정이었다. 단해라와 그녀의 친구들은 그것을 바쳐 지금의 한국을 빚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서지오 헌터’라는 존재에게 관심이 많았다.

‘분명 기자들이 찍은 그의 사진과 영상을 봤을 때, 느낌이… 이상했어.’

그는 어쩌면 그들의 ‘약속’과 관련된 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약속에 매인 존재인지는 모르겠단 말이지.’

듣기로 서지오 헌터의 나이는 29살이었다. 그들의 나이가 어느덧 50대에 접어들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추상적인 약속에 매인 이일 가능성이 컸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서지오 헌터에게 빚진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렇기에 서서희는 서지오 헌터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도 호감이 쌓인 상대인데, ‘약속’의 영향을 받은 동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 이런 들뜸도 어쩔 수 없었다.

‘뭐, 부정적인 인연의 주인공일 수도 있다만. 그건 차차 확인하면 될 일이다.’

곧이어 회의실에 들어온 것은 달님교의 수장과 사제들이었다.

“최근 뵐 일이 잦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적을수록 좋을 텐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디 자리에 앉으십시오, 미리 보내주셨던 자료와 협회가 모은 자료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려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수집상이 왔다.

“반가운 얼굴들이 전부 모여 있군요!”

처음 들어온 것은 비사벌이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그간 격조하였지요?”

“예, 오랜만입니다. 비사벌 길드장.”

이번에도 협회장은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안내했다.

“수집상의 이름이 적힌 위치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매몰차시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더 웃어주시지 않고요.”

“저는 늘 모든 분에게 웃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몰차다는 것입니다만, 그런 점도 반갑습니다. 초대에 감사하며 착석하지요.”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일까. 평소보다 적나라해진 태도의 비사벌은 씩 웃으며 곧이어 따라 들어온 5층장, 가라사니 큐레이터를 보았다.

“우리 서지오 헌터님은 어디 계시지?”

“달님교의 사제 중 한 분과 짧은 대화를 나누시느라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곧 오시겠군.”

어차피 약속 시각인 3시가 되려면 5분 정도가 남았다.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니 수집상이 책잡힐 일도 없었다. 무엇보다 근원 그 자체인 ‘서지오 헌터’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리가 없으니....

그 말과 같이, 3시 정각이 되기 10초 전에 두 명의 인원이 추가로 회의실에 입장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괜찮으니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럼....”

사제 한 명이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자, 그와 함께 들어왔던 서지오 헌터도 수집상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단해라와 서서희가 그런 그를 응시했다.

태양신 계열의 따듯한 신성과 사제 특유의 정순한 기운이 물씬 풍겼다. 행동거지는 우아하고 올곧았으며, 입가에 띤 미소는 어딘가 단해라와도 비슷한 면이 있었다.

“.......”

“.......”

...그 이상 달리 특별한 것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화를 나눠보면 알 수 있으려나.’

서서희는 그렇게 생각하며 협회장을 돌아보았다.

‘아.’

그리고 찰나에 그 의중을 알아챘다.

무얼 본 것인지. ‘나중에 이야기하자’라는 듯한 시선으로 보아 그녀는 무언가 눈치를 챈 듯하여, 서서희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을 열었다.

“다 모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단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를 시작하죠.”

그들은 이번의 새로운 S급 던전, ‘꿈의 유원지’의 대처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 * *

회의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달님교의 성녀가 꿈의 악신에게 잡혀갔습니다.”

애초에 이미 명백한 피해자가 있었다.

“이 이상 무슨 명확한 피해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달님교 주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협회장도 달님교의 손을 들었다.

“저희 협회의 의뢰를 달님교에서는 무척이나 꼼꼼히 들어주셨지요. 덕분에 이번 던전의 주인, 그 악신에 대한 던전 내의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각몽이라 칠 수 있는 표면을 벗어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꿈의 유원지’에 도달할 수 있다. 달님교와 협회의 직원들은 그곳에서 ‘악신’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피와 분노의 악신이라고 하더군요. 그 이외에도 쾌락, 공포, 전쟁이라는 말로도 수식할 수 있는 신성이라 확인되었습니다. 던전 내부에서도 상당히 오래된 악신 취급인 듯하던데... 그런 그가 다시 깨어난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지구였을까요?”

“현재 지구의 상태가 ‘꿈의 유원지’가 활개를 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였다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후보지가 있었겠으나 그중 저희가 당첨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외의 더 자세한 이유는 조사가 필요하겠죠.”

“봉인되어 있던 사이 그 신성도 진화를 거쳤다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피와 공포로 세상을 군림하던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지능적인 수단을 활용하고 있죠. 그는 인간들의 가장 큰 욕망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달님교 성녀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명확한 피해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수면제에 중독되어 사망할 뻔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에요.”

“재밌는 점은 정작 사망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악신이 직접 손을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번 장난을 치는 신성은 인간을 휘두르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본 사람은 나오질 않으니 시민들도 자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죠. 악신의 목적

이 단순한 사회의 붕괴가 아닌 세력의 확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구 전체를 식민지화할 작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면 휘둘리기만 하다가 결국 악신에게 지구가 먹혀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필이면 신성이군요. 봉인조차도 까다롭고 그 이상의 대처 방법이 없는 존재가 지구를 눈에 담을 줄은….”

유스티티아의 길드장은 말했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서서희 길드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또 이겨내야 할 난관이 찾아온 것뿐이지요.”

“그렇다면 이번 회의의 결론은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토벌이 필요했다.

“‘꿈의 유원지’를 닫아야 합니다. 더 이상 지구에 간섭할 수 없도록 신비의 통로를 막고, 시민들이 현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꿈에 중독되었거나 혹은 그런 기미가 보이는 시민을 위한 조치는 협회와 정부 측에서 맡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저희가 갖추어야 할 태도도 정해졌군요.”

입구조차 없는 가상 던전. 인간들이 맞서야 할 것은 죽일 수 없는 신성이 아닌, 그들이 가진 욕망과 갈증 그 자체였다. 그들의 적은 참으로 교묘한 약점을 찌르고 있었다.

“1차 회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가 마련될 때까지 각 수장께서는 ‘꿈의 유원지’에 어떤 식으로 진입하고 대처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까지 협회는 정부와의 상의를 통해 시민들의 구제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방향은 정했으니,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할 때였다.

* * *

회의가 끝나고.

“서지오 헌터님?”

유스티티아의 길드장, 서서희가 서지오를 불렀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잠시 대화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까?”

“서서희 길드장님께서는 사교성이 참 좋으시군요.”

“아,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가요?”

지오는 웃었다.

“의외네요.”

예전에는 웃을 줄도 모르더니.

그렇게 생각하며, 지오가 대화에 응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53)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53)"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54)

254

제254화

서지오라는 선생님을 참 좋아해 주던 한 무리의 학생들이 있었다.

‘남학생이 둘, 여학생이 둘.’

성격은 전부 달랐다.

누구는 무뚝뚝했고, 누구는 불량했고, 누구는 쾌활했으며, 누구는 차분했다. 극과 극으로 다른 아이들이었지만 사이는 참 좋았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냐고 하면 단연코 먼저 떠오르는 학생들이지.’

휴게실 의자에 앉은 지오에게 남자가 물었다.

“커피 괜찮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서지오가 기억하는 남학생 중 한 명이 바로 서서희였다.

“개인적으로 이런 인스턴트커피는 달콤해서 좋아하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이런 걸 좋아하실 것 같은 인상이 아니라 조금 긴장했는데.”

농담처럼 꺼낸 말에 지오가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제가 그럼 무엇을 좋아할 것 같은 인상인가요?”

“흠, 전문 바리스타가 직접 내린 커피나 고급스러운 꽃차?”

“그것들도 물론 좋아합니다.”

“그럼 가리시는 게 없다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훌륭한 면들이 있죠. 서서희 씨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며 지오가 생각했다.

‘어린애 입맛은 어른이 되어서도 변하질 않았네.’

아직도 탄 콩 물의 참맛을 느끼지 못했나 보다.

과거의 그는 무뚝뚝한 모범생의 얼굴로 세상에 맛있는 게 많은데 굳이 쓴 커피를 마셔야 하냐고 말하기도 했었다.

지금도 인스턴트커피를 내어주는 건 그 취향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협회 휴게실에 앉은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

아무튼 오랜만에 추억을 떠올릴 수 있어 마음에 들었다.

'많은 게 변한 세상이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기 마련이지.'

꽤 괜찮은 기분이었다.

"저와 어떤 이유에서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서지오 헌터님께는 호의적인 마음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지 잘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뻔한 놈이던가?"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들이 유스티티아의 입맛에 꽤 어울리는 것들이기는 했죠. 서서희 씨의 눈에 담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조금 민망한데... 뭐,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서서희는 장성한 모습으로 서지오의 앞에 앉았다. 예전에는 서지오가 선생님으로서 그의 앞에 앉았는데 말이다. 그때와는 역할이 뒤바뀌어 있었다.

20대 후반 정도의 모습으로 서서희가 말을 이었다.

"그나저나 서지오 헌터님은 저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시는군요."

"무서워해 드릴까요? 원하신다면야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설마 그런 걸 원할 리가요. 그냥 저를 만나는 헌터 대부분은 편하게 대화를 해주지 않으셔서 한번 말해본 겁니다. 영원의 상징이니 뭐니, 거창한 이름이 달려버려서...."

"번거로우시겠습니다."

"......."

눈을 깜박인 서서희가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서지오 헌터님이 처음일 겁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협회장님께서도 서서희 씨의 친구분이라고 들었는데."

"아, 그러니까... 제 동기들을 제외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거창한 이름을 크게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 말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별로 달가운 명칭은 아니죠."

"그럼에도 손에 붙들고 있을 가치가 있으니 버리지 않으시는 걸 테고요."

"오...."

서서희가 짐짓 과장되게 어깨를 으쓱였다.

"생각보다 솔직하신 분이군요. 직접적인 말보다는 거리를 두고 관조하시는 유형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 몇 번 솔직하게 뱉은 정도로 삐지실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 물론이죠. 저는 솔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머리 쓸 일이 없으니까?”

“저를 참 잘 아시는군요.”

턱을 쓸던 그가 물었다.

“용기를 내서 묻는 것인데, 혹시 저희가 아는 사이였습니까?”

“음….”

그의 질문을 곱씹던 지오가 이내 웃었다.

“독특한 용기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서지오 헌터님은 반응을 살피기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물어보기로 하신 겁니까?”

“저도 독특한 인간이라는 소리는 꽤나 들었습니다만, 서지오 헌터님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생각하신 것처럼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주시지 않을 생각입니까?”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지 않나요?”

“…….”

서서희가 침묵 끝에 웃었다.

“…죄송합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정확히는 이미 피곤한 상태였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 쓴 가면을 한 꺼풀 벗어던진 느낌이었다. 그는 멋쩍은 미소를 지은 채 말했다.

“저와 막역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랬죠.”

“한국 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으신 분 같았는데, 해외에서 만났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수집상 내에서만 지내셨다면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 인연이 닿았을지도….”

“…….”

“…정말 죄송합니다. 서지오 헌터님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친분을 쌓았던 것은 세상이 좀 더 혼란스러웠을 때였겠죠. 그때는 협회장이 ‘약속’을 남발할 일도 참 많았고요.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지만… 이 약속이라는 게, 참, 광범위해서….”

많이 지친 모습이었다.

“유스티티아의 길드장님답지 않은 모습을 제게 보이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 심술부리시는 건가요? 음, 뭐, ‘약속’에 속해 계신 분께 내숭 떨어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말입니다. 서지오 헌터님께서 이 일을 악용하지도 않으실 것 같고.”

“낯선 사람이 아는 척을 하는 게 꽤 익숙해 보이십니다. 당황하신 것 이상으로 피곤해 보이시고, 크게 놀라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을 잊어버린 일이 잦으셨나 보군요.”

“최근에 와서는 덜한 것 같기는 하지만, 예. 사실 이것도 확신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약속에 휘말린 분 중에서는 그 존재 자체가 지워질 때도 있어서….”

“무엇을 잊었는지조차 잊어버렸다는 말씀이 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서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최근에서야 한국 내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셨던 이유가, 약속에 관련된 걸까요…? 그런 거라면 저와 제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덮어쓰게 된 수집상에도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못 본 새에 자책도 많이 늘어버린 것 같았다.

“저는 실제로도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게 맞으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정말 우연찮게 좋은 인연을 마주쳤나 봅니다. 수집상에서 그렇게까지 꽁꽁 싸매는 인재와 그 정도의 친분을 쌓았었다니.”

“정말 좋은 인연이었죠.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인연을 이렇게 지워버리게 되어서 면목이 없습니다.”

“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더 편하게? 아, 지금보다도 더 편하게요…?”

그는 처음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희가 그 정도로 편한 사이였나요?”

“반말을 쓸 정도로는 편했죠.”

“말도 안 돼.”

“정말입니다.”

정확히는 서지오 쪽에서 반말을 쓴 것이지만 말이다.

“여러분의 가정사도 알고 있을 만큼 친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걸? 그걸 저희가, 아니. 잠깐만. ‘여러분’이라고 하면 몇 명까지 말씀하시는…?”

“제 기억까지 변해버린 게 아니라면 서서희 씨를 포함해 총 4명이겠네요. 여러분은 항상 함께였으니까.”

“…….”

서서희는 어안이 벙벙해진 듯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귀한 인연을 잊었다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놀랐습니다.”

잊어버리기엔 참 아까운 추억을 제법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이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전부 잊어버렸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분명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였겠죠.”

그래서 불쌍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

“제가 외출을 즐기지 않고, 낯선 사람과의 교류를 힘들어하는 탓에 이런 상황에 놓이신 것을 꽤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동안 힘드셨겠죠.”

“…….”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이 참 많이 힘드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서서희가 이내 어색하게 웃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떤 기억을… 어디까지 약속에 바쳤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들뜬 것 같기도 했다.

“…좀 더 자세히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와 어떤 인연이셨는지, 서지오 헌터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지금에야 모습을 드러낸 이유라든지… 궁금한 게너무 많아서요.”

“급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다.

“지금까지도 저라는 존재가 없는 채로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 더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서지오 헌터님은 저희에게 당신이 꽤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아니요,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대단히 사적이고 친밀했던 인연으로 기억하는 걸 수도 있죠. 한 번 사라진 기억은 쉽게 되돌아오지 않을 테니 이대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당신을 잊은 것에 서운하거나… 하지는 않으십니까?”

“조금은 서운하죠. 나도 사람이고, 우리는 나름 친했으니.”

하지만 이해한다.

“그럼에도 내가 꼭 여러분에게 필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선을 그으시는 겁니까? 이번에는 제가 서운해지는데요.”

“사소한 투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저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것에 저는 동의한 적이 없어서….”

“…….”

서서희의 얼굴이 옅게 굳었다.

“…혹시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떠올리신 건 아닌 것 같고, 왜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저희가 살아 있는 친구의 동의 없이 그에 대한 기억을 약속에 바쳤을 리가 없습니다. 죽어서 추억이 되어버린 존재라면 모를까, 그건 서로에게 너무 잔인한 일이라… 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이런, 내가 말실수를 했네.”

“…….”

서서희가 얼굴을 쓸고서는, 평소의 미소를 지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혹시 자리를 옮겨서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약속에 얽혀 있는 존재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이런 곳에서 대화를 나누기엔 상상 이상의 귀빈이셨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일행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특히 비사벌 길드장님께서는 저의 안위를 극진하게 신경 써주시는 탓에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오가 눈을 깜박이며 서서희를 보았다.

“아, 그리고….”

문득 든 생각인데.

“여러분의 기억만 바쳤던 걸까요?”

“…예?”

“저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지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유가 되실 때, 자리를 마련해도 괜찮겠습니까?”

“최소한 이번 던전의 일이 마무리된 뒤에야 여유가 생길 것 같군요.”

“던전을 빠르게 토벌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오반니는 개인적으로 그 던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서서희 정도의 인재가 도움을 준다면야 고마운 일이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서지오 헌터님도요.”

지오는 그대로 휴게실을 나가, 기다리고 있던 주현과 마주했다.

“대화는 잘 마치셨습니까?”

“예, 아주 유익한 대화였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오랜만에 반가운 인연을 마주쳐서.”

그러고는 주현의 목에 걸린 새빨간 뱀에게 물었다.

“내게 구멍이 났습니까?”

“…….”

뱀은 고개를 갸웃했다.

“모르겠습니다.”

“역시 이건 내가 고민해야 할 문제겠군요.”

“구멍이 났습니까? 어려울 텐데, 인간이 해내기에는.”

“운명이 매만져지는 과정에서 뭐든 파헤쳐지지 않겠습니까?”

“신기합니다.”

“나도 그래요.”

지오가 주현을 보았다.

“이만 수집상으로 돌아가죠.”

“그럴까요?”

던전 대책을 세워야 하니 말이다.

* * *

“…….”

혼자 남은 서서희가, 이내 입을 열었다.

“…들었어?”

[들었어.]

협회장 단해라가 그의 옆에 반투명한 홀로그램으로 생겨났다.

[경우의 수는 많겠지.]

“악용할 만한 사람으로는 안 보였는데.”

[해운이가 들으면 또 안전 불감증이라며 잔소리를 하겠는걸.]

“그러는 너도 비슷한 기분을 느낀 거잖아, 그러니 이런 반응일 것이고.”

[수집상의 사람이니까….]

단해라가 느리게 말을 이었다.

[정말 죽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녀는 경매장에서 수집가에게 가로채였던 초상화 한 작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 쉽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숨이 덜컥 막히고, 눈가의 근육이 떨렸다. 당시의 단해라는 명백히 동요했었다.

[그를 경매장에서 처음 보았어.]

“…역시 그 초상화이려나? 검은망토?”

[확실하지는 않지. 검은망토 그 자체일 수도 있고, 검은망토의 부속품일 수도 있고.]

“검은망토는 인간이었던 존재가 품기에는 그 신비의 크기가 크니 후자일 가능성이 높겠네.”

[죽은 서지오 헌터를 거두면서 초상화의 형태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 검은망토의 천국을 통해 그가 영혼을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지.]

“그렇다면 왜 서지오 헌터의 등장 시점과 검은망토의 등장 시점이 얼추 겹치는지도 설명이 돼. 격의 크기와 설득력이 남다를 테니, 역시 별개의 존재라고 쳐야겠어.”

[반쯤 동화된 존재일 수도 있지. 서지오 헌터가 진실된 검은망토의 수족이라면 말이야.]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데 그만큼 의태가 훌륭하다던가….”

[그냥 인간일 수도 있고.]

단해라가 이어 말했다.

[초상화를 보았을 때 희미한 감각이었지만 분명히 운명을 느꼈어. 내가 지워내기로 약속한 존재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지. 그래서 그 초상화를 사들이고 싶었는데….]

“비사벌 길드장에게 빼앗겼고.”

[그러니 정말 죽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방식도 해괴하고 드물기까지 하지만, 요즘 세상에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서.]

“그 초상화가 서지오 헌터 본인이라고 확신해?”

[그럼, 물론이야.]

그 정도는 알아볼 수 있었다.

[내가 지워낸 인연일 텐데.]

그것은 본능이었다.

하지만 어째서일까. 어느 순간 초상화의 얼굴을 잊게 되었다. 아니,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렸다.

다만 자신이 어느 초상화를 보고 동요했는데 얼굴을 모른다면 그야 생김새를 잊은 것이 아니겠는가.

[흠, 다시 생각해 보면 확실히 그런 얼굴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생김새에 대한 기억을 지운 건 우리가 아닌가 본데. 그 초상화의 얼굴을 기억하는 경매장 참가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잖아."

[그렇지, 모든 사람이 검은 물감이 칠해진 초상화로 당시의 작품을 기억하고 있어. 흑발이었는지, 금발이었는지, 적발이었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수집상에서도 손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 초상화의 얼굴에 대한 기억을 약속에 바친 건 내가 아닐 것 같네. 아니, 어쩌면 연관은 있을까? 우리에게서 지워진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웠을 수도....]

"갈수록 독특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확 오는걸."

서서희가 웃었다.

"정말로 죽었다 살아난 경우라면 수집가가 왜 그렇게까지 끼고 도는지도 이해가 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초상화가 되었다면, 원래 취향까지 합쳐져서...."

[눈이 돌아갈 만도 하지.]

"하지만 궁금하다, 우리가 어쩌다 서지오 헌터님과 만나게 되었던 걸까? 죽은 이후가 아니라 살아 있을 때였겠지만, 넷이 모이는 날이 흔치는 않았으니 기본적으로는 큰 재난들이 있었을 때였을 텐데. 은혜도 그냥 민간인이었을 때일까?"

[어쩌면 우리 중 한 명을 먼저 만나서 그 인연이 퍼졌던 걸 수도 있겠고. 그 경우로 따진다면 이동하는 경우가 잘 없는 나나 은혜보다는 너나 해운이 쪽이 가능성이 높겠어.]

"각성이야 조련사로 했다고 쳐도 분위기는 사제로 보였으니까, 아마 해운이 쪽이려나...?"

하지만 서지오 헌터는 이 인연에 큰 미련이 없어 보였다.

"......."

[서운한 것 같네.]

"...우리가 선택해서 지웠을 텐데, 서운은 무슨."

[최소한 기분이 좋지는 않아 보여.]

"오랜만에 대화가 즐거웠으니까."

분명 좋은 사람이겠구나, 싶어서.

"그런 사람이 모르는 척을 해왔다고 생각하면... 조금 섭섭하네."

이기적이게도 말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54)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54)"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55)

255

제255화

“영원의 상징이 너의 학생들이었다고?”

유성운의 질문에 초상화 속의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습니다.”

“역시 너 그때도 하나도 안 평범했던 게 맞잖아.”

“제 학생들이 대재앙 이전부터 영원의 상징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보십시오.”

“끼리끼리 논다더니.”

“그만하십시오.”

“넌 분명 초상화가 안 됐어도 한가락 하고 있었을 거야.”

어김없이 진행된 복도 회의에 유성운이 늘 그렇듯 무던하게 웃었다.

“내가 한번 맞혀볼게. 그때도 너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건 너뿐이었을걸? 대재앙은 계기가 되었을 뿐이지 너도 참 어지간한 존재니까 이렇게 초상화가 되어버린 게 아닐까?”

“초상화를 모욕하지 말아 주시겠습니까?”

“대체 어느 부분에서 모욕으로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어.”

근원의 눈이 화내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았다. 아마 진심으로 화내는 게 아니라 흉내 내는 수준에서 그치겠지만,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버거울 것이 뻔했다.

“그래도 정말 놀라운 이야기이기는 하네. 영원의 상징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를 말하는 거겠지? 너는 고등학교의 미술 교사라고 말했으니까. 그때의 영원이라....”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무뚝뚝했던 모범생 서서희. 그런 그를 선비라며 놀리던 정해운. 그와 함께 깐죽거리던 아이돌 지망생 차은혜.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해탈해 있던 모범생2 단해라.

“흠.”

다시 생각해도 평범하다.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학생들이었죠.”

“네 말의 진위를 몰라 영 못 미덥다만….”

“직접 보게 되니 성격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을 테니까?”

“예, 그렇겠죠.”

매사에 진지해서 놀림을 받던 서서희는 제법 사회생활용 미소를 띨 줄 알게 되었다. 늘 차분했지만 종종 망가지기도 했던 단해라는 완전무결의 대명사처럼 성장했고 말이다.

“아마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정해운 길드장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대한민국 2위 길드의 수장 말이야.”

“직접 만나보지 않았으니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릅니다.”

“…학생일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

“불량아였습니다.”

“와우.”

“곤란했죠.”

술에 담배에 골고루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하거나 신경 쓰던 부분들은 나아졌지만 말이다. 다른 친구 셋이 워낙 올곧으니 불량 학생이라 해도 어쩔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제게는 각별한 인연들이었지만 그 학생들에게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부분들도 존중합니다. 아무리 특별하다 한들 같은 시간을 보낸 동급생만 할까요. 저는 일개 선생님이었으니… 잊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여깁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그는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지 않던가.

“다 큰 어른들에게 이제 와서 내가 그때의 선생님이라며 아는 척을 하는 것도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해주기가 어렵네.”

유성운이 저보다 연상인 주현을 돌아보았다.

“주현 씨는 어떤가? 의무 교육을 받아봤던 것 같은데?”

“음, 저도 의무 교육에 대한 기억은 상당히 모호해져서….”

서지오가 말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에 대한 감상을 읊어주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확실히 선생님이라고 하면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 그 교육 기관을 나서게 되면 잊히는 존재…? 어른이라는 부분에서부터 친밀감을 느끼기는 어려웠던 것 같네요.”

“역시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 같습니다.”

괜히 아는 척하지 말아야지.

“과거의 인연을 들먹여 봤자 서로 혼란스러워지기만 할 뿐이죠.”

“지오 씨는 그걸로 되는 겁니까? 각별하게 여기던 인연들이라면서요.”

“나는 지금도 알아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들은 아닙니다. 가뜩이나 피곤해 보이던데 더 피곤한 숙제를 쥐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피곤한 숙제….”

떨떠름해 보이는 주현을 뒤로한 채 유성운이 물었다.

“만약에 그쪽에서 무슨 인연이었냐고 묻는다면?”

“둘러댈지, 솔직히 말해줄지를 묻는 겁니까?”

“나 같으면 더 자세히 물어볼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서희는 분명 ‘좀 더 자세히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말했으나, 그건 단순히 약속에 얽힌 피해자를 위해 예의상 해본 말에 가까웠다. 못 본 사이 그의 학생들은 겁쟁이가 되어 있었다.

“어깨에 진 짐도 많고, 봐야 할 것도, 손에 쥐어야 할 것도 많죠. 그런 아이들은 중대한 선택 이후의 번복과 그와 연관된 변수를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벌어진 안 좋은 모습들을 이미 많이 봐왔을 것 같군요.”

고등학교 선생님과의 시간이 뭐 그리 특별하다고 달가워하겠는가. 가능하다면 잊힌 기억을 들쑤시지 않을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잊힌 기억 위에 다시 새 인연을 쌓는 것이겠지.

유성운이 무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물어보게 된다면 말이야.”

“멋대로 생각하도록 둘 겁니다.”

“멋대로? 그 사람들이 너에 대해 뭐라 생각할 줄 알고?”

“나름 좋은 인연을 쌓았는데 어느 날 죽어버려서 약속의 대가로 바쳐진 기억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늘 느끼는 거지만 너 말 참 어렵게 한다.”

“잘 요약한 것 같습니다만.”

틀린 말도 아니었다. 대재앙 이전이냐 이후냐, 연상이냐 연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 꽤 괜찮은 추억을 쌓았는데 먼저 죽어버려서 생물이 아닌 개념이 되어버린 존재….

그게 바로 서지오였다.

“어떻게 가능한지는 둘째 쳐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죽어서 초상화로 부활했다고 생각하겠죠. 그것을 비사벌 길드장님이 사들였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길드장님이 경매장에서 끼어들지만 않으셨어도 상황이 덜 복잡해졌을 텐데 말이야.”

“연구소가 아니라 갤러리에 오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길드장님의 아들이라는 오해는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초상화로 부활한 것을 보고 사들였다고 해도 되는 이야기이니 말입니다.”

“그건 길드장님께서 알아서 감당하실 일이고.”

유성운은 그런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무엇보다 비사벌을 걱정해 봤자 손해를 보는 건 그 자신이었다. 사서 피곤해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럼 이렇게 되는 건가? 비사벌 길드장님께서 몰래 숨겨서 키우던 아들이 있었는데, 모종의 사건으로 그 아들이 죽어버리고. 그 죽은 아들이 예술적이게도 초상화로 부활해 눈이 돌아가서 사들여 갤러리에 처박아 두었다는….”

“아마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오의 긍정에 주현이 저도 모르게 끼어들었다.

“한층 더 괴랄해지지 않았습니까?”

유성운이 고개를 저었다.

“원래 변태셔서 괜찮아.”

“아….”

“그분 직원으로서 변명은 좀 할 수 있겠네, 그래도. 약간 위안이 돼.”

“어떤 변명을 해보시려는 겁니까?”

“명성 높은 헌터가 연인이나 자식의 존재를 감춰 보호하는 경우는 흔하거든.”

“그렇죠, 자칫하면 원한 같은 안 좋은 감정과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자주 들은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길드장님께서는 물몸이시고.”

누군가에게 쉽게 당할 위인은 아니지만, 그것도 본인 한정이다. 여태껏 비사벌이 가족을 만들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다. 스스로가 약하기에 그들을 ‘인간답게 대우하며’ 지켜낼 자신이 없다는 것.

“그래서 아들을 걱정해 몰래 숨겨서 키웠는데, 뭔 사건이 터졌다거나… 재난으로 아들이 죽어버린 거지. 그런데 그 아들이 초상화로나마 살아서 돌아왔네? 굳이 변태가 아니더라도 눈이 돌아갈 만한 일 아닌가?”

지오가 태클을 걸었다.

“초상화로 다시 태어난 것도 살아 돌아온 걸로 쳐주는 겁니까?”

“어, 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길드장님께서는 그랬을 거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도 훨씬 설득력이 있었다.

“그래, 처음부터 ‘와 내 아들 때깔 미쳤다’ 하며 갤러리에 가둬 키운 것보다는… 초상화로 부활한 아들에 수집가의 눈이 돌아갔다고 하는 쪽이 더 납득이 가지.”

“저는 그래도 좀 징그러운 것 같은데요….”

“주현 씨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각성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느낌인지 감은 올걸.”

대부분의 헌터라면 납득할 것이다. 그들은 비상식적인 현상과 괴물을 숨 쉬듯이 마주해 온다. 괴이를 향한 공포나 거리감보다는 희열과 이해를 먼저 느낄 것이었다.

‘무엇보다 가족의 생환과 관련된 일이라면 말이지.’

뭐, 정말 가족 일은 아니다만.

“…영원의 상징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려나?”

“유성운 씨가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납득하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학생들은 이미 대재앙을 이끄는 존재가 되었다. 이전보다는 이후를 더 떠올릴 것이다. ‘약속’의 대가로 바칠 만큼 큼직한 기억들은 대재앙 이후가 더 많을 것이고.

‘그러니 잊어버린 서지오라는 사람이 대재앙 이전의 존재이리라 짐작하긴 어렵겠지.’

무엇보다 그의 공식적인 나이는 29살이다. 실제로도 그쯤 보인다. 거기에 비사벌의 아들 설까지 합쳐져 더더욱 진실을 알아내기 어려울 것이었다.

서지오는 그걸로 만족했다.

“괜히 머리 복잡하게 만들 일을 주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매정한 건지 다정한 건지 모르겠다니까.”

유성운이 목을 쓸었다.

“나였다면 좀 서운했을 거야.”

“제가? 아니면 그들이?”

“둘 다.”

사이좋은 선생과 제자였는데 서로를 잊은 것도, 그 이후로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것도 말이다. 잊어버렸다고 해도 인연은 인연이지 않겠는가.

“그야 이것도 네 의지이기는 하다만....”

이런 맺고 끊음이 확실한 점에서 섬뜩함을 느낀다.

‘처음부터 일반적인 인간은 아니었다는 거겠지.’

그런 존재이니 근원의 눈이 될 수 있었던 것이겠고.

처음부터 근원이었기에 눈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오의 주장대로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초상화가 된 건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런 칼 같은 매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네가 괜찮다면야 나도 상관이 없기는 해.”

“예, 저는 상관없습니다. 잊혔다지만 선생이 되어서 학생들을 나아가게 해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영원의 상징에게도 그런 학생인 시절이 있었다는 게 새삼 놀랍기는 하네. 주현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유성운의 질문에 주현이 늘 그랬듯 둥글게 웃었다.

“아무래도 그렇죠, 한때 까마득하게 높으신 상사였던 분이시기도 해서....”

“주현 씨가 아는 협회장님은 어떤 분이신가?”

“완벽하다고 해야 할까요? 늘 다정하게 웃고 계셨지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기계 같아서 무섭다는 평가도 많았던 것 같고요.”

“영원의 상징을 편하게 대하기는 어렵겠지, 아무래도....”

지오가 억울해했다.

“무섭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시겠죠.”

어릴 적의 그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라면 모를까 작금의 현대인들에겐 아니었다. 그들은 살아 숨 쉬는 위인이고 업적이었다. 공포 혹은 경외를 느끼지 못하는 게 이상할 지경이었다.

지오는 서글퍼했다.

“편하게 놀지도 못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에 흥미가 있으실지조차 잘 모르겠지만...?”

“그건 일단 놀아봐야 아는 겁니다.”

“과연 자비 폭격기.”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말이 잘못 나왔어.”

근원에게 혼나고 싶지 않았다.

“그럼 지오 네가 좀 더 편하게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또다시 엮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개별적인 대화까지 나눈 걸 보면, 유스티티아의 길드장님께서도 너에게 큰 관심이 있다는 걸 텐데….”

“모든 것은 ‘꿈의 유원지’가 마무리된 후에 이어질 것입니다.”

“아, 그렇지.”

유성운이 물었다.

“성녀님은 어떻게 되었어? 네가 납치했다고 종교계가 난리가 났던데.”

“그러고 보니… 그 용사라던 사람은 괜찮습니까? 아테르라던 그 사람이요.”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용사와 성녀는 대대로 사이좋은 파트너죠, 흔한 클리셰입니다.”

“너 그런 거 좋아하니…? 클리셰?”

“이번 프로젝트만 해도 제 취향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왕과 던전. 강한 마음을 가진 성녀와 만나게 된 용사. 납치된 성인에 분노한 종교계. 부정하게 변질된 주교. 타락해 가는 사람들. 꿈과 현실의 가치. 쾌락과 책임. 이외에도 등등….

“대재앙 이전의 서브컬처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참고까지 했냐고.”

“저는 이런 방면에 대해 잘 몰라서.”

서지오는 말할 필요도 없고, 지오반니는 성자로서 굴렀던 기억뿐이고, 아르지오는 계략을 역이용하는 걸 잘했지만 사악한 계략을 짤 줄은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구하기에 영웅이지 않던가?

그들이 바라니,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 * *

그리고 그즈음.

“…….”

“…….”

성녀 아람과 용사 아테르가 만났다.

“…영웅…?”

“…성인…?”

둘은 한눈에 서로의 정체를 알아보았다.

지오의 말대로, 둘은 유구하게 사이좋은 파트너였기 때문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56)

256

제256화

그동안 아테르는 많은 고민을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악신에게 쌍욕을 뱉고 결투를 신청했는데도 이렇게 멀쩡하지 않은가. 그 역할이 단순 장난감일 수도 있겠지만 감이 영 좋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르지오는 그에게 심장을 보여줬다.

'일개 장난감에게 베풀 자비가 아니지.'

그렇다면 정녕 악신은 그가 무덤을 열길 바라는 걸까?

'아니면 아무래도 좋은 걸까.'

긴 고민이 이어지고 아테르의 생활은 단조로워졌다. 악신의 속내를 조금이나마 읽어내기 위해 달려들었고, 참패하고, 또 다시 살아남아 유적을 연구하며 미래를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악신의 무덤에 작고 여린 존재가 들어왔다.

"...영웅...?"

"...성인...?"

자신을 '영웅'이라고 부른 건 어린 몸의 성녀였다.

'분명 이 세계에는 더 이상 성인이 태어날 수 없었을 텐데?'

창조주가 버린 세계에 그 어떤 성인이 나타나겠는가. 하지만 용사로서의 사명을 지고 살아왔던 아테르는 느꼈다. 이 작은 존재는 성녀가 맞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창조주가 아닌 다른 신을 모시는 성녀....'

짐승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으니 아예 다른 세계의 성인이었다.

갑작스러운 만남에 당황하기는 했지만 납득하지 못할 일은 아니었다. 아르지오를 통해 이미 여러 차원의 존재를 인지한 덕분이었다. 세상이 뒤집히고 악신이 창조주 자리를 꿰찬 마당에 납득하지 못할 일이 뭐가 더 있겠는가.

둘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이어졌다.

“…….”

“…다, 당신은 인간인가요?”

“저는 인간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작은 성녀는 ‘위’의 짐승들을 보고 온 듯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지. 그들과 죽을 각오로 싸웠던 아테르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현실이 그랬다.

아테르가 몸을 낮추어 성녀와 시선을 마주했다.

“내 아버지의 보잘것없는 종이 당신의 신성한 이름을 여쭈어도 괜찮겠습니까?”

“…나의 스승 달님을 모시는 작은 막내딸, 아람입니다.”

“달님이라, 제 얕은 지식 속에 계신 분은 아니시군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꿈을 통해 넘어왔는데….”

아람은 아람대로 혼란스러웠다.

“이곳은 던전이 아닌가요?”

“마왕이 만들어낸 던전을 말씀해 주신 거라면 정확할 테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군요.”

“마왕…?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

상황 정리가 필요했다.

“…저희 잠시 대화를 나눠보지 않겠어요?”

“성녀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아테르는 신분제가 있던 시대의 사람이었다. 귀족적인 분위기에 성녀이기까지 한 존재는 마땅히 대우해야만 했다. 그는 어쩌면 아르지오에게 하던 것보다 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제 이름은 아테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읊었다. 과거 이곳에서 발생한 사건과 자신에게 닥쳤던 시련, 그리하여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부활했고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도.

아테르의 말을 전부 들은 아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던전은… 하나의 차원이죠. 한때 인간들이 살았던 행성이기도 하고요. 아직 지구에 입을 연 던전 중 당시의 인간이 그대로 생존해 있는 경우가 확인된 적은 없지만… 만약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최초의 타 차원 인간이 되실 거예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이제는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 혼자만 당신의 이야기에 몰두하고 있었군요.”

아람은 달님교 사제 식 인사를 하며 고개 숙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달님교의 성녀로서 스승님의 딸을 자처하는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제가 모시는 스승님께 이상이 발견되어 이곳으로 오게 되었죠.”

그녀가 어쩌다 이 차원까지 온 건지 듣게 된 아테르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서 당신 차원의 명운을 위해 홀로 잠에 드셨단 말입니까? 꿈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이 색다른 차원을 연구하고 파헤치기 위해서?”

“아, 넵.”

“혼자?”

“…꿈을 같이 꿀 수는 없으니까…?”

“…건방진 소리로 들리시겠지만 조금 더 본인 안위를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제 빈약한 지식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다른 차원이라 하여도 한 종교의 성녀란 쉬이 다치고 무너져서는 안 될 존재이지 않던가요.”

“죄, 죄송합니다.”

“제게 죄송하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기억하는 성인만큼 재수 없고 자기주장 강한 성녀가 아니라 감사했다. 아테르는 안도의 숨을 삼키면서도 이어서 물었다.

“그렇게 꿈에 와서 배정된 안내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존재는 또 어디에 버리시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그저 혼자 돌아다닐 수 있게 해달라 요청드렸을 뿐이에요.”

“…본인이 말씀하시고도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부분부터 꿈 주인의 의도였다고 봐야겠죠….”

“그 꿈의 주인은 나를 부활시킨 악신이시고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

“…….”

아테르가 얼굴을 와락 찌푸렸다.

“경계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충분히 경계했습니다!”

“그럼 악신이 되살린 인간인 제게서 도망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영웅이니까…!”

성인은 본능적으로 인간의 그릇을 느낀다.

“당신 스스로를 이곳의 용사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말에서 거짓을 찾지 못했고, 그렇기에 당신의 말을 믿었습니다. 저를 향한 걱정 또한 진심이라는 것을 인지했고요.”

“그 모든 것을 인지했다고 해도 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지식이 당신의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는 결코 신을 뛰어넘을 수 없고, 신의 의도대로 인간의 운명은 흘러갑니다.”

“저 역시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실패와 최악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여기에 온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해내기 위해서.”

“그 점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더더욱 경계하셨어야죠. 제가 어떤 부분에서 당신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는지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아테르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의 소중함을 모르는군요.”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정도는…!”

“그건 중요한 것이지 소중한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평안과 사랑이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지 모르시나 봅니다. 그 가치를 제멋대로 훼손하지 마십시오. 쉬이 오만이 될 수 있습니다.”

“…….”

머뭇거리던 아람이 말했다.

“…제 선생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네요.”

“당신의 달님이라는 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의 인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아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정중한 어조였지만 명백히 비꼬는 말이었다. 아람도 잘 알아들었다.

“…….”

하지만 차마 제 가족과 사문을 모욕한다고 화를 낼 수가 없었다. 불쾌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며칠 사이 그녀도 달님교의 문제들을 뼈저리게 느낀 탓이었다.

이 위의 유원지는 그녀에게 말초적인 기쁨을 알려주었다. 저 자신도 몰랐던 욕망을 느끼게 해주었다. 스스로 원하는 것을 느끼고, 배우고, 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달님교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스스로를 망치고 있었다.’

그야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

‘이제 와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아, 하지만….’

분명 인간에게는 그 말초적인 기쁨이 필요했다. 아무런 필요도 쓸모도 없을지언정 낭만을 추구하고, 불필요한 자원을 소모하며 더 많은 감정을 느껴야 했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슨 진리를 알아내겠다는 것인가. 꿈의 주인이 무엇을 노려서 이 유원지를 만들었든, 아람이 그걸 배워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었다.

“…아테르 씨는 이 유원지의 주인을 잘 알고 계시죠?”

“그 존재가 나를 부활시켰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어떤 존재인가요?”

“…….”

기어코 한숨을 내쉰 아테르가 말했다.

“악신이죠.”

그는 완벽한 분노를 의미했다.

“이곳으로 오며 유적의 기록들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비록 사용하는 문자는 달랐지만 위의 유원지에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익혀 두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유적에 적혀 있었습니다.”

“더 깊은 유적으로 내려가면 왜 그와 같은 악신이 탄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부활시킨 존재는 당시의 악신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자의 심장이 존재하는 한 결국 언젠가 그는 이전의 악신으로 되돌아가겠죠.”

“그걸 걱정하고 계시군요.”

“악신은 내 가족과 친구를 죽이고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그 끔찍한 형상과 분노에 가득 찬 새된 고함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래서 또다시 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어떻게든 그를 죽이고 싶었죠. 하지만 어쩌면 당연히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수차례 목숨 걸고 뛰어들어 봤자 다시 곱게 살려주어 이 유적에 내버려두고 있으니….”

“호, 혹시 그가 당신을 감금하고 있나요?”

“나를 감금하고 있는 건 나 자신입니다. 도대체 다른 차원에서 무얼 배우고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악신은 아예 새로운 세

상을 만들어 버렸죠. 그 세상을 볼 자신이 없던 저는 악신의 자비로 이곳에 남았습니다.”

“스스로를 구시대의 유물이라 생각하시는군요.”

“나는 그때 죽었어야 했던 망령입니다. 미래보다는 과거에 남기를 바라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오로지 이 유적에만 남아 있습니다.”

“…뭘 하고 싶으신가요?”

“…성녀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얀 베개를 품은 채로 성녀가 중얼거렸다.

“내가 뭘 하고 싶은 거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인 상태라 뭐라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건 조금 안타깝네요….”

“유원지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고 느꼈습니까?”

“…음, 일단 유원지의 구조를 익혔죠.”

총 세 종족의 짐승들로 이루어진 왕국. ‘손님’이라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성도 있었다. 여우족의 사용인들은 그곳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었다.

“사람을 글러먹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저 위의 유원지는 전부 말이다.

“나의 차원에는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상향이라면 저도 아는 단어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었죠. 그건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는데도.”

“현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평생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평생 행복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그 엇비슷한 꿈을 평생토록 꾸게 된다고 해도 누군가는 그 꿈을 깨트리고 말 텐데요.”

“…제가 수천 년을 가시 감옥에 갇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테르는 말을 얹었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악신을 불렀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새로이 고치고 당신의 차원에 재난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접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로 돌아간다고 한들 또다시 악신을 부르게 될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다.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악신을 불렀나요? 어떤 재난이 찾아오더라도?”

“끔찍한 고통 속에서 계속 고민을 해보았지만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게 아테르를 미치게 했다.

“나의 창조주는 우리의 멍청함에 질려 나를 버렸고, 버려진 유적에 찾아오는 미친 작자는 없었으며, 감옥의 문은 나 개인의 힘으로는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신을 용사의 입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텐데요.”

“그렇기에 책임지고자 했습니다, 나를 바쳐서라도 악신을 죽이고자 했죠.”

당연히 불가능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끊임없이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악신이 왜 나를 살려 두었는지, 운명에서 내 역할은 무엇이고 그 끝은 어디인지. 내가 그 안에서 무얼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뇌하고 있어요.”

“…….”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영원한 행복, 완벽한 꿈 따위는 존재할 수 없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야 해요.”

누군가는 현실에서 도망치려 할 수 있었다. 평생 도망만 치며 죽는 것에 만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럴 순 없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그걸 모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아람은 그런 미래를 피하고 싶었다.

“그러니 나도 내 운명의 역할과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넓은 유원지를 돌아다니고, 역사와 문자를 공부하고, 기어코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검은 숲의 독기와 유적의 불길함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다니, 과연 성녀라 불릴 자격은 있으시군요. 굉장하십니다.”

“쉬웠다는 건 아니지만 할 수는 있었어요. 누구의 안배인지 운이 좋기도 했죠. 나는 이 던전의 모든 것을 익히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들을 구하고,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어요.”

둘의 목적이 맞아떨어졌다.

“꿈의 주인을 다시 봉인해야만 세상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당신을 도와 더 나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니까 꼭, 무슨… 연극이라도 하는 것 같네요. 정해진 운명에 따라가는 거 말이에요.”

“빌어먹게 불쾌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결국 이 또한 악신이 원한 운명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인간은 운명 속에서 발악하는 존재였다. 그 발악이 어떤 운명을 불러일으킬지는 아무도 몰랐다.

설령 운명을 이겨내지 못해도 좋았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으면 족했다.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면 충분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

이 모든 운명의 주인이 필요했다.

“…아르지오.”

“자네가 또다시 나를 불렀군.”

“당신이 원하는 무대의 배우들이 전부 모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지.”

처음부터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웃으며, 아르지오가 성녀 아람을 보았다.

“우리는 처음 보던가?”

“…….”

“아니면, 처음이 아닌가?”

“…선생님.”

“나는 그 작자가 아니란다.”

“…….”

아람이 허탈하게 웃었다.

“…어쩐지 제가 너무 운이 좋다 싶었죠.”

어디서부터 신이 내린 운명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57)

257

제257화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고 동등한 존재로서 대해주었던 선생님. 그 듬직하고 감사한 이가 사실은 단순한 성인 그 이상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아 버렸으나.

아람은 크게 놀라지 않았다.

"어쩌면 이럴지도 모르겠다고 은연중에 생각은 해왔거든요."

"오, 저런. 그랬구나."

"기적은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는 예상했던 경우의 수 중 하나였다.

"만들어진 기적조차도 그럴 것인데, 나처럼 온갖 신비와 운명에 얽힌 인간에게 순수한 기적이 찾아온다는 건... 거의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또한 너는 쉽게 현실에 순응하지. 온갖 최악을 상상하면서."

"그럼에도 만들어진 기적이 제게 찾아온 것 역시 감사해야 마땅할 일이며 가치 있는 기적입니다. 이제 남은 건, 선생님께서 나에게 뭘 바라는 건지겠죠."

"미안하지만...."

악신은 씩 웃으며 말했다.

"나는 너의 선생님이 아니란다."

"...얼마나 다른가요?"

"세상의 모든 신비 중 0.01%만큼?"

"그건 좀 어마어마한 수치 아닌가요...?"

"그건 네가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테지."

"...늘 그렇듯 어렵네요, 단순한 지식으로는 운명을 계산할 수 없어...."

"하지만 비슷한 일을 해낼 수는 있단다."

그게 영웅이고 성인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제야 다들 나의 말을 온전히 들어줄 준비가 된 것으로 아네만.”

돌아가는 꼴을 환장하겠다는 얼굴로 보고 있던 아테르가 말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버린 탓입니다.”

“좋은 자세일세.”

“다르게 말하자면 체념이라고도 하죠.”

“현명한 판단이었지.”

“판단이라면 판단이었습니다만, 글쎄요.”

갑자기 나타나 본격적으로 세상을 주무르기 시작한 악신.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하다고 봐야 했고, 그 과정에 아테르는 부활했다. 그리고 다른 차원의 성녀마저 와버렸다.

“저희에게 무언가 역할이 부여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너무 노골적이라 못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당신은 저희에게 악감정을 느끼지 않게끔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단순히 착한 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악신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거부감 없는 모습들을 보이셨죠.”

그저 온순한 모습을 꾸며낸 것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성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현실에서는 꿈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조차 없었다.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악신이 웃으며 재촉했다.

“그래서?”

“…최소한 저나 이 작은 성인이 해야 할 일이, 저희가 감당 못 할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임수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런 상태의 저희가 속을 수 있을 정도의 제안들이었겠죠.”

“제대로 맞혔네.”

악신이 물었다.

“용의 이야기를 아나?”

“…너무 먼 이야기라 무슨 의도로 말을 꺼내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사이 유원지를 돌아다닌 우리 성녀님이시라면 알고 계실 텐데.”

아람은 머뭇거리다가 이내 대답했다.

“…용은 자연에서 태어난 신의 대리로서, 신성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흙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수명이 너무 길고 고달픈 탓에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세상에 퍼트린다고 하죠.”

엇비슷한 이야기는 다른 차원에서도 여럿 발견되었다. 너무 긴 수명의, 영원을 사는 존재는 스스로 죽음이라는 운명을 짜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 제가 무어라 생각해야 할까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

베개를 끌어안은 아람이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나는 너의 선생님이 아니래도?”

“최소한 비슷한 존재이기는 하잖아요.”

“그렇기는 하지.”

지오도 거기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

“잘 이해해 준 것 같아 고맙구나.”

그걸 위해 아르지오는 더더욱 자신의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이 연극 아닌 연극에 뛰어들 수 있도록 아테르에게 속삭였고, 발 벗고 나설 수 있도록 아람을 부추겼다.

“꼭 나를 죽이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너무 오랜 시간을 머물렀어. 이제 묵혀두었던 얼룩을 지워내고 새집을 꾸려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선생님의 ‘우리’를 꺼내려면 악신의 무덤을 열어야 할 것이고요. 그래야만 온전한 얼룩이 드러날 테니까. 하지만 이게 악신의 사악한 속임수가 아니리라는 보장도 없네요.”

“물론 내가 단순히 봉인에서 온전하게 풀려나고자 이렇게 속삭이는 걸 수도 있단다. 아람아, 내 작은 친구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어?”

“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얼마든지.”

“…….”

망설이던 아람이 악신의, 아르지오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어여쁘구나.”

사악한 신성이 그 큰 몸을 숙여주며 웃었다.

“그는 이곳에 없다.”

이곳에서 자비의 성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

“?”

“…돌려내….”

“흐응?”

“내 선생님 돌려내 이 간악한 마왕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학!!!”

아르지오는 신명 나게 웃었다.

* * *

악신은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자리를 비켰고, 남은 건 아테르와 아람뿐이었다.

“…….”

“…….”

멍하니 있던 둘 중 먼저 입을 연 것은 아테르였다.

“…용감하시더군요.”

“…상황이 돌아가는 꼴로 봐서는 그런 걸로 화낼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도 용감하셨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좀 지나치게 용감했나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라도 멱살은 잡아봤을 겁니다.”

“악신의 멱살을 잡은 성인… 그럴싸하네요. 달님교를 싫어하는 태양교 사제들조차 감탄할 일이에요.”

“모든 성인이 박수를 칠 만한 업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잡혀줘서 잡아본 거지만….”

아무튼.

“내가 이 마왕 토벌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겨 버렸어요.”

“그건 성녀님을 그 마왕이 속인 탓입니까?”

“아뇨, 신이 인간을 속이는 것은 사실상 속임수라고 부르긴 어렵죠. 나는 몰랐던 운명이 닥쳐오는 것을 속임수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하긴 성녀쯤 되시는 분이면 운명의 장난 따위로 분노하지는 않으시겠군요. 그렇다면?”

“내 선생님이 악신의 내부에 있어요. 갇힌 건지, 잠들어 있는 건지, 단순히 공유 중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

허탈한 채로 앉아 있던 아테르가 물었다.

“…그에게서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안에 함께하는 세 명의 ‘지오’가 존재한다고. 그들은 각기 다른 존재이나 한 몸을 쓰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중에 서지오라는 사람도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오’라는 존재가 당연히 악신과 같은 결의 신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녀님의 반응을 보니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군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람은 울컥했다. 괜히 서글펐다.

“내 선생님이 왜 하필 그런 존재와 함께…!”

“아무리 생각해도 성녀님의 소유일 것 같지는 않지만, 예, 뭐.”

“입바른 말을 안 하면 혀에 가시가 돋는 병에 걸리셨나요?”

“비슷합니다.”

“성녀의 이름으로 정화해 드려요?”

“거절하죠.”

정화라는 이름의 고문이 될 확률이 높았다.

“…서지오라는 존재는 어떤 이였습니까?”

“늘 웃어 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악신 아르지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소에도 종류가 있는 법이니, 아테르 씨가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온화하게 웃나?”

"햇살을 가득 담아놓은 것처럼 웃으시죠."

"…내가 받은 자비란 자비는 전부 거기서 나왔겠군."

아테르가 순순히 납득했다.

"그는 전기조차 통하지 않는 이 망가진 유적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말 그대로 밀폐된 공간에 햇볕이 들어오도록 만들었죠. 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했습니다만…."

"제 선생님께서는 태양 계열의 신성과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이셨습니다."

"그분도 성인이시라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시인한 적은 없으시나 암암리에 성인으로 정의되셨죠. 이런 저주받은 던전에 햇볕이 들어왔다면 제 선생님의 권능일 것입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랬다. 실제로도 이 유적은 저주받았다. 결코 좁지 않은 검은 숲에서 굳이 이 유적으로 진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서.

"역사의 기록에 비해 아테르 씨가 겪은 '아르지오'가 훨씬 다정하고 인간 흉내를 잘 낼 수 있었던 것도 전부 그 덕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몸을 쓴다면 서로의 흉내를 내고 그들의 것을 배우기도 쉬웠을 테니까요."

아람의 얼굴이 다시금 일그러진다.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그릇이 크다고는 해도 분명한 인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성자이시니, 그야 당연하게… 인간일 테지만…."

"태양의 신과 계약한 성인이 어떻게 악신과 같은 몸을 쓰고 있다는 건지 알 수 없다는 말씀이겠군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종종 비슷한 경우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받아보신 적이 있다고요?"

"정확하게는, 저 역시 소문으로 듣거나 기록으로 확인한 것인데…."

아테르는 자신이 없는 어조로 이어서 설명했다.

"성인의 역량이 일반적인 인간에 비할 바 없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성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 차원의 역사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만큼, 몸에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었다고… 아는데요."

"……."

한참이나 말이 없던 성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성인이 자신의 그릇에 삿된 것을 넣어 천천히 정화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죠. 사람을 이용한 정화 장치나 다를 바가 없어 제가 머무는 국가에서는 금지된 지가 오래입니다만…."

"금지되었다니 더더욱 다행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인류의 마지막 역사에서조차 성인은 그런 식으로 활용될 때가 잦았습니다. 악마를 담는 봉인 구슬로써 사용되었죠."

"어쩜 이렇게 야만적일 수가."

이름이야 조금 헷갈렸다 해도, 아람은 본능적으로 '지오반니'와 '아르지오'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선생님이 악을 긍정할 리가 없으니 남은 답은 하나였다.

"역시 선생님께서 악의 봉인을 위해 희생을 자처하신 것이…."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 하겠군요, 이미 여러 차례 있던 사례라서."

"그렇지 않아도 제 선생님께서는 살신성인으로 유명하셨습니다."

"살신성인?"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죠."

"그건… 안타깝군요."

"분명 악신 아르지오의 존재를 눈치채고 정화를 위해 한 몸을 쓰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까지 틀린 추측은 또 아니었다. 현재의 아르지오는 '지오의 초상화'와 하나가 되어가는 중이었다.

악신 왈 '행복한 돼지'와 '자비의 성자'와 하나가 된다면 자연히 사악함이 희석될 수밖에 없었다. 당장 그 과정을 거치는 중이고.

아테르는 몹시 피곤해했다.

"그 와중에 제가 아르지오의 이름을 불러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도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 하겠는데…."

"죄가 크니 책임을 져야겠죠."

"…제 선생님의 일이에요. 저 또한 책임을 질 겁니다."

그 친절한 은인을 잃고 싶지 않았다.

"다행히 행운이 겹쳤습니다. 제 선생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덕분에 현재의 악신은 자비를 배웠죠. 다정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악신의 주된 인격으로 자리 잡은 마지막 성자 또한 무분별한 분노와 그로 인해 흘리는 무고한 피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이를 잔혹하게 대하고, 전쟁과 전투 그 자체를 즐겼다는 기록이 많습니다만…."

"그렇기에 악신은 자신의 '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분노를 쏟을, 한 번 더 제대로 된 전투를 즐길 기회를 바라는 것이겠죠. 그게 그가 정한 마지막일 테고요. 아니, 정말로 그게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는 예상하기 쉬운 문제이다만.

"…하지만 과연 이게 정말일까요? 악신이 저희를 속여 봉인의 문을 열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테르 씨와 당신 동료분들의 희생을 더럽히는 일이 될 거예요."

"설령 그가 진심이라고 해도 문제는 많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악신'이 되어버린 아르지오에게는 이성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있다고 해도 안 좋은 일이 될 테고요. 나는 그 간악한 마왕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이어도 문제, 진실이어도 문제였다.

"그러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악신이 '용서'를 아냐는 점입니다."

만일 그가 용서를 안다면 거짓과 진실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못했다.

"악신은 전쟁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녀, 당신을 이용해 종교계의 사람들을 자극했죠.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당신의 사제들과 그 주변 사제들은 마왕이 해내버린 성녀의 납치에 대단히… 예민해진 상태일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맹목성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납치가 아니라는 말이라도 전달하고 싶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더는 이 던전에 동향인이 나타나지 않더군요. 그리고 사실상 이쯤 되면 납치라는 말이 오해도 아닌 것 같고요."

"상상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그것만으로는 잔뜩 흥분한 사제들을 진정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단 종교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 이미 국가 단위의 재난이었습니다. '꿈의 유원지'라는 던전 그 자체만으로도요. 분명 달님교에서만 나서는 게 아니라… 다른 헌터분들도 함께 오실 겁니다. 이곳이 전쟁터가 되었다는 것만큼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요."

"결국 전쟁이 이곳에서 벌어지게 된다면, 그게 악신의 의도라면."

“…차라리….”

아람이 허탈하게 웃었다.

“우리의 손으로 벌집을 열어버리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겠네요.”

그 벌집을 처리하러 수많은 정예 군사들이 몰려올 것이다. 타이밍을 놓쳐 어설프게 던전만 반파하도록 두든지, 아니면 악신의 뿌리를 뽑아 버리든지. 기왕 해야 한다면 후자가 나았다.

“간악한 마왕, 이미 여기까지 계산했겠지.”

“처음부터 저희에게 선택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산대로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과연 성인의 패기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따르고 보겠습니다.”

“든든한 지원 감사합니다.”

악신쯤 되는 존재가 그녀의 생각을 모를 리는 없었다. 하지만 악신의 계획은 이미 명백했다. 그것의 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 단단한 철면피도 조금은 깨트릴 수 있겠지.

‘그래, 인정한다. 지금의 아르지오라는 존재는 그리 악하지 않아.’

당장 아람이 그에게 받은 피해는 크다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소소한 원한은 가득 쌓였다.

감히 내 선생님의 거동 범위를 제한한 죄. 아람을 대뜸 납치해 던전으로 옮긴 죄.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제 가족을 잠에 빠져들게 만든 죄는 컸다. 제 선생님이 꼭꼭 숨기고 있던 정체를 제멋대로 밝힌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 재수 없는 악신의 뜻대로만 하기엔 심기가 꼬였다.

‘두고 보자.’

내 가족과 선생님의 원한은 내가 갚는다.

아람은 품 안의 베개를 구기며, 이를 빠득 갈았다.

* * *

“…딱히 그런 건 아닌데.”

평화로운 오두막.

아버지와 함께 주먹만 한 딸기를 씻고 있던 지오가 눈을 껌벅였다.

“제 새로운 학생이 무언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꾸우?”

“아뇨, 제게 나쁜 일은 결코 아닐 것 같습니다만. 머쓱하군요.”

“꾸꾸꾸….”

“재밌기는 합니다.”

그리고 재밌으면 됐지.

‘하긴 그렇군.’

지오는 납득하고선 묵묵히 씻은 딸기를 달님 앞에 두었다.

그는 달님도 돼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아버린 채였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58)

258

제258화

그동안 지구에는 재앙이 많았다.

“근 몇 년 만에 인간형 몬스터인 인어가 출몰했었죠.”

달님교의 주교가 특유의 차분한 어조로 설명했다.

“인어의 등장과 함께 협회의 연구소에 봉인되었어야 할 산칼루트 또한 그 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로 태양교에서 흔적이 발견되었고요.”

“진정 인어가 산칼루트와 손을 잡았었던 것일까요.”

“이제는 꿈의 악신마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이 모든 일을 주관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어도, 산칼루트도, 그 자신이 낼 수 있는 모든 힘과 잔혹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꿈의 악신이 제약을 걸어둔 것이군요.”

“그의 수하로서 움직였던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소한 손을 잡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또 그 주도권은 꿈의 악신에게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야만 이전의 재앙들이 보였던 태도를 설명할 수 있겠죠.”

달님교의 사제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 꿈의 악신이 지구를 식민지로 삼으려 하나 봅니다.”

식민지라는 단어조차도 많이 순화된 것이었다.

“글쎄요, 식민지보다는 먹이통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상황을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지구의 주민을 가축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겠죠.”

“꿈에 중독되어 현실을 놓아버린 인간들의 텅 빈 육신을 활용하는 것은 악신에게 일도 아닐 테니….”

“정부와 협회에서 괜찮은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은 국가 단위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달님교가 고민할 게 아니었다.

“다들 집중해 주십시오.”

주교가 다시 한번 주의를 끌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민들의 구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와 협회의 임무. 저희의 역할은 ‘꿈의 유원지’의 파괴 혹은 봉인입니다. 그리고….”

“…….”

“…성녀의 구출이겠죠.”

그녀의 말에 공기가 무거워졌다. 사제들의 표정은 아까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으나, 그렇다고 그 속내까지 차분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조용히 분노하고 있었다.

“…저희가 성녀님을 무사히 구출해 낼 것입니다.”

“그분을 악신의 손아귀에 놀아나도록 두지 않아요.”

폐쇄적인 문화에, 개인주의가 극한에 닿은 달님교의 사제들. 하지만 오히려 그런 그들이기에 사형제들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누구보다도 컸다.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들 가족뿐이었으니까.

“꿈에 중독된 형제들이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닌 만큼 주기적으로 깨어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현실을 피하며 꿈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약으로 수면 시간을 늘리려는 것을 억지로 막고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방책에 불과합니다.”

“가만히 두고 보고 있기에는… 처참한 상황이에요.”

“이대로라면 그들은 아예 ‘꿈의 유원지’로 넘어갈 것입니다. 단순한 허상의 꿈이 아닌 실체가 존재하는 진짜 던전으로, 성녀님과 달리 자진해서 그 안에 몸을 맡기겠죠.”

“최악의 경우 지구가 텅 빌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저희 달님교일 것이고요.”

지식에 대한 욕구가 큰 사람들이었다. 달님교의 사제들은 말초적인 쾌락을 위해 꿈을 파고들지 않았다. 그러나 꿈이라고 할지언정 지식은 허상이 아니니 그게 얼마나 달콤했겠는가.

지금 깨어 있는 사제들도 그 마음에 공감했다. 그들 중 일부는 공감을 넘어 잠든 이들을 부러워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그들이 아직 잠에 빠지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러니 성녀님을….”

“성녀님을 되찾아야 합니다.”

“감히 그분께 손을 대다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녀의 빈자리는 그들에게 너무나 큰 것으로 다가왔다.

“던전으로 진입하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였다.

“모두가 꿈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중 일부는 또다시 꿈을 꿈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 입구에 붙잡힐 것입니다. 그래서야 본말전도일 것이고요.”

“꿈에 유혹을 느꼈던 사제들은 가능한 한 현실에 남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진입에 동원하는 사제는 3번 이상 꿈을 꿈으로 인지했던 이들로 제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꿈의 유원지’의 모습을 보았던 사제라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도움이 되긴 할 테니까요.”

모든 사제가 잠이 들면 달님교의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것이었다. 게다가 진입을 위해 잠들었다고 해도 그중 몇 명이나 '꿈의 유원지'에 도달하겠는가. 소수의 정예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니 이번 진입에는...."

사제들을 쭉 둘러본 주교가 특유의 감정 없는 어조로 말했다.

"저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주교님, 하지만 현실에 남은 이들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성녀가 잡혀간 이 시점에 제가 몸을 사린다면 그 어떤 사제가 주교를 믿겠습니까?"

"저희는 그러시지 않아도 주교님을 믿습니다."

"내가 없어도 현실에 남을 여러분은 잘해 내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교님, 성녀님께서 사라지신 지금 주교님까지 자리를 비우신다면 저희가 누굴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을 세워보도록 하죠."

그녀는 자리를 지켜야만 했다.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1차 진입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를 대비하시는 겁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번처럼 추상적인 적과 내면의 탐욕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테죠."

"주교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1차, 2차, 3차로 나뉘어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의 세 차례의 진입은 준비 단계로 생각해야겠군요."

사제들은 주교가 그 이상 말을 얹지 않았음에도 스스로를 바치는 것을 당연시했다. '준비 단계'에 투입되는 사제들은 그야말로 실험 쥐에 불과할 텐데도 말이다.

그들을 보며 주교는 생각하고야 만다.

'...그래, 썩은 술이 담긴 통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통이라 해도 그 속에 담긴 술은 알아야 했다. 그들이 썩었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했다. 그러지 못한다면 결국 통 바깥으로 새어 나가 술 빚는 장인들에게 알려줘야지.

'우리가 고여 썩어 버렸다고.'

그러니 치워달라고.

'그리하면 새 술이 채워질 터....'

악신께서 품에 안은 달님과 성녀가 그 시작이 되어줄 것이었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간단하다.'

이 단단한 통을 부수어야 했다. 망가진 통의 틈새로 썩은 술이 기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이 썩은 전통 위에 세워진 종교를 부수어 새로이 할 것이었다.

"......."

그리하여 죄 많은 우리는 달 곁의 별이 되리라.

"...지금부터 장로들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1차부터 3차에 이르는 진입에 참여할 사제는 어떤 위험을 감수하게 될지

모르니,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희 모두 스스로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달님교의 소중한 성녀님을, 그리고 가족들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이 무의미하겠습니까? 부디 저희를 의심치 마십시오.”

아직 교육을 받는 예비 사제들은 이 모든 행사에서부터 배제되었다. 안심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예비 사제들은 아쉬워했다. 주교는 그럼에도 그들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들은 살아남아 성녀의 새로운 시작에 힘을 보태 주어야만 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명단이 꾸려졌군요.”

달님교의 선택은 늘 그래왔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스스로를 얼마든지 소모품으로 쓰는 사제들. 위화감을 느낄 수 없을 만큼 평소와 같았다.

“협회에 저희의 계획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교님.”

“그동안 사제들은 스승님께 기도를 올리며 수양을 이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오기를.

‘설령 그것이 악신의 손으로부터 시작된 자비일지라도.’

나쁠 것은 없을 테니까.

* * *

태양교의 예비 사제, 이루다가 물었다.

“그렇다면 이번 꿈의 악신은 검은망토와 대립하는 거 아니야?”

“응? 어, 어어… 그렇겠지?”

“그럼 너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게 맞아?”

그녀는 제 파트너인 차이솔을 걱정했다.

“신성끼리의 싸움이 되면 그들을 모시는 사제에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 결국 사제가 쓰는 힘은 본인이 모시는 신에게서 나오니까. 그리고 너는 검은망토에게서 꽤 많은 힘을 빌리고 있잖아.”

“나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무엇보다 차이솔은 이미 이번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었다.

“괜찮아, 잘 끝날 거야!”

이건 지오 형의 2번 인격과 3번 인격의 사소한 다툼이었다. 가족들과 죽고 못 사는 차이솔도 형 누나와 싸워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화해했으니 지오 형도 같을 것이었다.

그런 차이솔을 빤히 바라보던 이루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넌 너무 긍정적이야.”

“그럼 좋은 거 아닌가…?”

“…….”

이루다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분명한 표정으로 말을 참았다.

"…네 말대로 별 탈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네."

이전 인어와 산칼루트의 행적이 지금 꿈의 악신의 짓이라면, 이번 던전은 꽤 오랜 준비를 거쳐 등장한 셈이었다. 추상적이고도 사람의 내면을 자극하는 '꿈의 유원지'는 실제로도 큰 위협이 되어 다가왔다.

'하지만 그런 것치고 너무 피해가 적어서 묘하긴 하단 말이지.'

이런 경우에는 보통 둘 중 하나였다.

'일을 벌인 주체가 자제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자제를 시키고 있거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을 꾀어내는 던전이나 만든 악신이 자제력을 갖추진 않았을 것 같았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이만큼이나 피해가 적은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지 않은가.

'다른 누군가가 꿈의 악신의 행동을 자제시키고 있다면… 그건 동등함을 넘어 그보다 상위 계급의 존재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꿈의 악신을 제한할 만한 존재가 그리 많지는 않아.'

지구의 시스템을 보호해 주는 '약속', 혹은 차이솔이 모시는 태양신인 '검은망토' 정도가 있었다. 돌아가는 지구의 상황을 따지자면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았다.

"…음…."

하지만 그것도 조금 이상하단 말이지.

"…너한테는 정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거야?"

"딱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

"아, 아니. 갑자기 그런 식으로 자책하지 말고."

당황하면서도 이루다가 본능적으로 판단을 이어갔다.

'차이솔이 신성에게서 받은 힘은 결코 적지 않아. 그렇다고 차이솔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보통 이런 경우라면 힘을 받은 사제에게 영향이 가지 않을 만큼 모시는 신성이 거대하거나, 아니면 신성 그 자체에 큰 변동이 없어 애초에 올 영향이 없는 것일 텐데….'

전자는 황당했고 후자는 이해가 안 됐다.

'인간들 사이에 친숙한 괴담 정도로 자리 잡은 검은망토가 그 정도로 상위 계급의 존재인 것일까?'

하지만 이게 아니라면 지금 검은망토는 꿈의 악신과 진지하게 맞붙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버린다.

'어느 쪽이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실이야.'

아니, 일단 꿈의 악신보다 검은망토가 상위 계급의 존재일 것이라는 판단에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것을 염두에 둔 채로 이루다가 차이솔에게 물었다.

"너는 이번 악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어… 나도 그 유원지 가보고 싶다?"

"그러다 지난번 산칼루트 때처럼 혼쭐나지."

그렇게 말하며 이루다가 생각했다.

'어쩌면 정말 후자일 수도 있겠어. 아니, 이렇게 되면 두 경우 모두일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

검은망토의 사도인 차이솔은 꿈의 악신을 배척하지 않는다. 인지하지 못할지언정 결국 신성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사제의 반응이다. 나름 확신을 가져도 될 것이었다.

"……."

하지만 왜?

‘...지구를 수호하길 즐기는 검은망토가 꿈의 악신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더 이상 캐묻기도 애매했다.

“어쨌든... 강서담 사제님도 이번 진입에 참여하신다던데, 괜찮으실까 모르겠어.”

“이번 던전으로 인해 죽은 사람은 없다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이건 던전이잖아.”

“그리고 꿈이기도 해.”

차이솔이 검은망토 그림을 그리며 웃었다.

“꿈에서 사람이 어떻게 죽어?”

“...그렇기도 하네.”

이루다는 파트너의 순수한 질문을 굳이 비난하지 않았다.

* * *

지오가 친구라 말하던 일부 신성들은 친우의 장난에 장단을 맞춰주었다.

태양의 여신은 꿈의 악신이 벌인 사악한 행위를 규탄했다. 그 영향을 받은 태양교 사제들은 사이 나쁜 달님교의 일이라지만 협동 의사를 보였다. 달님교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죽음의 신은 생명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꿈의 중독자들에 슬퍼했다. 죽음의 사제들은 말을 얹지 않았으나 그것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꿈 진입단의 물질적인 지원을 도왔다.

“...네 친구들 무섭네.”

“전부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 사이 검은망토는 침묵했다.

“기분이 좋군요.”

“그건 아르지오 씨인가?”

“아주 잘 맞히셨습니다.”

전쟁터가 준비되었다.

“이제 나는 곧 자리를 비우려 하니, 나의 빈 초상화를 잘 부탁드립니다.”

아르지오는 만족하며 제자리를 찾았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58)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58)"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59)

259

제259화

참고로 아르지오는.

"……?"

따돌려지고 있었다.

"뭐지? 내가 지금 서운해야 하는 시점인가?"

"악신씩이나 되시면서 이런 걸로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 집에 머물면서 집주인과는 아는 척을 안 해주다니 이 얼마나 서러운 일이야."

"원래 세입자는 집주인과 친밀한 사이가 되기 싫어하는 법이잖아요."

"이 얼마나 똑똑한 성녀님이신지."

아르지오로서는 난생처음 겪는 일이었다.

"나를 빼고 뭘 그렇게들 열심히 하시나?"

"공부 중입니다."

"나도 그거 잘할 수 있는데."

"필요 없어요."

"나도 잘 도와줄 수 있는데…."

"필요 없어요."

"단호하기는."

"솔직히 악신께서 누군가를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건 악신을 대상으로 한 깊고 깊은 편견이란다."

이렇게 보여도 그는 선생으로서의 재주가 있었다.

"나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는 듯한데 그건 몰랐나 보구나? 이 아르지오는 살아생전에도 참으로 재능이 많아 6살의 나이로도 19살이나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는 했지."

“그건… 확실히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애당초 검은 숲의 마지막 괴물이었던 내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줄 사람이 있기는 했고?”

“없죠, 하지만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 내 집에는 낙서가 정말 많거든.”

언어를 쓸 줄 아는 검은 숲의 유일한 짐승으로서 수다를 참기가 어찌나 힘들던지. 아르지오는 유적에 머물며 글이나 그림을 자주 낙서했다. 그것은 일종의 벽화이고 기록이었다.

최근 성인과 용사는 그것을 공부하는 것처럼 보였다.

“재미없는 일기장일 뿐일 텐데 참 열심이기도 해라.”

“과찬이십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의 일기는 충분히 재밌어요.”

“내가 이 이상 자신감을 가지면 감당할 자신이 있기는 하니, 내 작은 친구야?”

“그럼 가지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하마. 내 친구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

아르지오를 묘한 눈으로 올려다보던 성녀가 물었다.

“…악신께서 친구라 말씀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친구에 별다른 뜻이 어디 있겠느냐.”

“지구에서 보통 친구란 가깝게 오래 지낸 사람을 뜻해서요.”

“그건 너무 사전적인 의미이지, 안 그런가?”

“물론 꼭 알고 지낸 시간이 친분의 깊이를 결정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악신께서 친구를 하는 기준은 너무 널널하신 것 같아서 그래요.”

“나는 누가 나의 친구인지 잘 알고 있단다.”

“운명과…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잡다하게 무언가를 적어둔 종이를 매만지며 아람이 물었다.

“제가 미래에 당신과 친구가 됩니까?”

“너는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구나.”

“저는 당신이 이렇게나 얄미운데도, 결국 그렇게 되나요?”

“하지만 너도 그것을 알고 이 길을 걷고 있지 않니?”

“제가 무슨 일을 할지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흠, 글쎄.”

사실 지오도 잘은 몰랐다.

“나라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다.”

“신성인 당신께서 한낱 작은 그릇의 뜻을 모른다니요?”

“너도 이미 짐작한 것 같지만, 내 영민한 친구야.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싶지 않은 쪽에 속하는 아주 어리석은 존재란다.”

“…그건 저희에게 아주 다행인 일입니다.”

아람이 씩 웃었다.

“당신의 오만에 감사해요.”

“그보다는 나의 한량과도 같은 성정에 감사하렴.”

지오의 무관심함은 더 큰 기쁨과 미지를 향한 흥미에서 기인했다.

“…….”

하지만, 확실히.

“…아니, 오만이기는 한가?”

아르지오에 국한한다면 말이 되는 소리 같기도 했다.

“결국 너희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이리 재롱떠는 것을 봐주고 있으니, 결국 이 역시 나의 부족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겠지. 인정하마, 네가 옳아. 나는 아주 오만한 존재다.”

하지만 그 누가 질 것을 염두에 두고 전쟁터를 꾸린단 말인가.

“부디 어여쁘게 봐주렴.”

“그래도 저희가 뭘 하려는 건지 확인해 보실 생각은 없고요?”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재미로 그런 짓을 하겠니? 보렴, 나는 살아생전 세상을 뒤집어엎던 전투광이었으며 죽어서는 공포를 전염병처럼 퍼트린 악신이란다.”

“맞아요, 저희는 결코 당신을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죽이지도 못할 거고요.”

“너희는 이미 차고 넘치도록 불리하지 않더냐. 하지만 나는 정당하게 분노하고 싶다, 뒷맛만 찝찝하게 약자에게 화를 내어 무엇 하겠니? 너희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더욱 고뇌해야 할 것이다. 강해질 수 있을 만큼 강해지고,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보렴.”

“저희가 약하기는 하죠, 당신에 비하면.”

아람은 온갖 기록을 끌어모은 채로 말했다.

“당신이 분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하, 그래?”

“아르지오 씨는 꿈의 악신 따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당신은 분노의 신성이야.”

얄팍한 짜증이나 화풀이 따위와는 격이 다른 신비다.

“내가 당신의 전쟁터를 어지럽힐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하렴.”

이곳은 아르지오의 마지막 전쟁터였다.

“서로가 진심을 다해야, 진정 화를 내었다고 할 수 있겠지….”

아르지오는 모든 이의 모든 발악을 존중했다.

* * *

“찾았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아르지오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람과 아테르가 환호성을 질렀다.

“아르지오가 남긴 기록이 아니었더라면 찾아내지 못했을 것인데…!”

“그마저도 망가진 기록이라 해독하는 것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심지어 지금은 쓰지도 않은 고어라 더더욱 난감했습니다. 문자를 거의 창조해 내는 지경이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더 이상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사어였던 덕분에 정도 이상의 복잡한 규칙이 생겨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 확실히 더 단조로운 문자이기도 했고요.”

“여전히 어떤 발음으로 읽어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용만큼은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쾌거를 왕실 도서관에 기록해야 할 텐데…!”

“진정하세요, 그럴싸한 도서관을 세우는 것은 꼭 지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왕실 사서였던 아테르 씨의 도움이 정말 컸어요.”

“저도 취미 삼아 읽어두었던 고서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죠. 제가 더 많은 문자를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이보다 더 빠르게 해독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는 이렇게 성과를 냈잖아요! 아테르 씨와 저의 머리가 합쳐진다면 이미 소실된 언어 따위는 금방 해독해 낼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지식의 힘이라는 거죠!”

한바탕 떠들썩하게 떠들던 둘이 곧 차분함을 되찾았다.

“이, 일단 이럴 게 아니라… 그 존재는 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희가 찾던 그 존재가 맞나요? 정말로? 그가 실존할 것이라는 제 추측이 사실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틈틈이 검은 숲을 돌아다니며 결국에는 찾아냈죠. 역시 저와 같은 구시대의 망령이다 보니 위의 유원지로 빠져나갈 수가 없었나 봅니다.”

“유원지로 빠져나갔더라면 정말이지 찾을 수 없었을 텐데 다행이에요…! 그, 그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화는 통하던가요?”

“이 유적으로 데려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당장 입구 근처에 숨도록 해 두었습니다. 대화가 통하고, 심지어는 저희에게 협조적이기까지 했어요.”

“그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바로 이동하시죠!”

아니, 사실 조금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둘은 서로를 만난 이래로 가장 행복한 기분을 느끼며 유적의 입구로 이동했다. 아람이 매의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고는 이내 탄성을 뱉었다.

“아…!”

고운 뿔을 가진 사슴 한 마리.

“역시 당신이었어요!”

“…….”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평범한 사슴이 아닙니다, 그렇죠?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아요. 부디 제 언어에 응답해 주세요.”

“…….”

“…악신의 창조자여.”

아람이 침묵하는 사슴에게 물었다.

“어째서 친구를 죽였습니까?”

고대의 망령이 대답했다.

“분노를.”

“…….”

“…아주 큰 분노를, 원했습니다.”

그는 언어를 돌려받은 최초의 짐승이었다.

* * *

한 사슴이 있었다.

그것은 언어를 쓰지 못하며, 지성이 부족하고, 이지보다는 본능이 강한 짐승이었다.

그에게는 새빨간 머리카락의 주인이 있었다. 그의 5살 생일날 사슴은 주인에게 선물 되었다.

“네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줄까?”

수많은 인간들에게 찬송받던 아이는 결정을 유예했다.

“흠, 그래. 이름이란 영혼과 직결되는 대단히 값지고 중요한 것이지.”

“…….”

“내가 너에게 말을 알려주마. 나와 같은 천재가 평생을 들여 가르친다면 너 역시 언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너는 네가 바라는 이름을 선택하렴, 내가 도와주겠어.”

“삐익….”

“언젠가 너는 내가 했던 모든 말을 알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의 터무니없는 다짐은 참 오래도 갔다. 그가 검은 숲이라 불리는 마굴에 버려졌을 때도 아이와 사슴의 수업은 계속되었다. 그는 위협적인 짐승들로부터 사슴을 지켰다.

“누가 감히 내 형제인 너를 해치겠느냐?”

사슴은 여전히 아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애정만은 느꼈다. 그 누구보다도 강인하고 다정한 나의 가족. 어렸던 사슴은 애틋한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워낙 좋은 것만 먹어서 그런지 참 오래도 크는구나. 사슴의 수명은 이토록 길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신기한지고. 우리 중 하나가 죽기 전까지 너에게 언어를 알려 주겠노라 내 약속하마.”

“삐이익….”

“물론 나는 지금 너의 울음소리도 무척 좋아해. 가녀리고 사랑스러운 울음은 내 심장을 간지럽히지, 내 친구야. 내 동생아. 내가 인간이고 짐승이니 너 역시 그리 만들겠다.”

오만하다 할 수 있는 다짐은 꾸준히 이어졌다. 그렇게 아이는 그 스스로가 세상에 아르지오라고, 잔혹한 짐승이라 불릴 적에 기적을 빚어냈다. 짐승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래, 내가 옳다니까?”

그는 무척이나 기뻐했다. 사슴의 목을 껴안고는 그 큰 기쁨을 표현했다.

“이로써 우리는 동등하다. 이는 내가 낮추어진 것이 아니라 네가 높이 올라온 것이니 기뻐하렴. 이건 오로지 너의 결실임을 잊지 말아라.”

“…….”

“너는 이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닌 네 스스로 결정한 식사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언어를 익히거나 혹은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

“.......”

“자랑스럽구나, 어쩜 이토록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원하는 것을 하렴. 너 스스로 네가 원하는 이름을 만들어라. 나의 것을 배웠으니 너도 나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슴이 자신의 이름을 짓기 전에 비극이 닥쳐왔다. 세상 모든 악의 근원이 아르지오라 불렸다. 오로지 지켜지기만 했던 사슴은 힘없이 인간들의 손에 붙잡혔다. 인질이 되었다.

“그 사악한 짐승이 이 사슴을 그렇게 아낀다지?”

“얼마나 대단한 보물일까 했는데, 이건... 그냥 사슴이잖아.”

“짐승끼리 얼마나 대단한 인연을 쌓으셨길래 이럴까.”

인간들에게 붙잡혀 사슴은 평범한 짐승인 척 애써 노력했다.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낼수록 감시는 단단해질 것이다. 그러나 숨죽여 기다려도 마땅한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검은 숲이 불태워졌다.

“신이시여, 이 끔찍한 저주를 불태우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잔혹하다 이르는 짐승은 숲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

“그 사악한 짐승을 한낱 재로 만들리라!!”

“병을 퍼트린 숲을 태워라, 그리하면 정화될 것이다!!”

“신께서 우리의 뒤를 보호하시리라!!”

“그가 죽었어, 잔혹한 짐승이 불에 타 죽었다!!”

“전염병이 멈추고 인간들의 세상이 오겠구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

인간들의 창고에 잡혀만 있던 사슴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왜 도망치지조차 않았지? 토벌대에게 중상을 입어 거동이 불편했나? 인간과 짐승들을 대피시키는 데 모든 시간을 쏟았나? 가장 사랑하던 짐승이자 가족인 나로 인해 발목이 붙잡혔나?

그도 아니라면....

“.......”

“...내 친구야.”

사슴은 흥분한 인간들의 방심을 틈타 불에 타버린 숲으로 돌아왔다.

그에게 언어를 알려주었던 가족은, 붉은 머리칼의 인간은 죽어가고 있었다. 살점 익은 끔찍한 냄새가 가득했다.

“화가, 많이 나는구나.”

“.......”

“정말로... 속이, 아파서. 타들어 가서.”

“...삐익.”

“...분노가 나를 잡아먹어....”

사슴의 가족은 울며 웃었다.

“그렇게 두고 싶지 않다.”

그는 이 숲과 자신에게 쌓인 신비를 알았다. 이대로 분노에 먹혀 죽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탄생할 것이란 말인가? 아르지오는 영겁의 분노 속에 잠식되고 싶지 않다 말했다.

"아, 싫다. 그런 생을 이어간다면 얼마나 끔찍하겠니? 그건 즐겁지 않을 거야, 시원하지도 않고, 시작만 있을 뿐 끝이 없을 것이다…."

"……."

"가족을 불러와다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그들이 나의 곁을 지켜준다면 나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분노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삼키마. 그렇게 삭일 수 있을 거다."

"……."

"…부디 그렇게 해주겠어?"

사슴은 그렇게 한때 아르지오가 아꼈던 짐승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의 돌봄을 받던 인간들은 전부 죽임을 당하거나 도망쳤지만, 짐승들은 일부 남아 그의 임종을 기다렸다.

아르지오는 무척이나 행복해했다.

"너희가 내 잔악했던 삶에 의미를 더한다."

그는 정말로 분노를 갈무리하고 있었다.

그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가족의 존재로 사랑받았고 사랑해 왔음을 기억하며 세상을 용서하고 있었다. 그럴 수 있었노라 이해하고 있었다. 견디고 잊어내었다.

"나 만족한다, 그렇게 죽을 수 있겠어."

"……."

"……."

하지만 사슴은 그렇지 못했다.

"…너는 그렇지 않니?"

사슴은 화가 났다.

그것은 제 형제처럼 분노를 갈무리하거나 악마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이제야 막 이지를 배워가는 어린 사슴은 무딘 판단에 속절없이 휩쓸렸다.

너무 화가 났다. 인간들이 끔찍했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으며, 고귀한 사자를 망가트린 신에게 분노했다. 어찌 이대로 끝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이런 끝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부디 내 부탁을 들어다오, 친구야. 내가 이 저주를 끝낼 수 있게 도와줘…."

"……."

"모든 게 완벽한 끝이었어. 내가 정한 끝이야, 내가 원했던 결말이라고. 잔혹한 짐승은 검은 숲의 끝과 함께 마무리가 되어야 옳다. 이보다 깔끔하고 추하지 않은 끝이 어디 있겠니?"

"……."

"제발, 나의 분노에서 끝날 수 있게 해다오. 더 이상 추해지고 싶지 않아."

가족의 애원을 무시하고, 사슴은 죽어가는 형제의 목을 물어뜯었다.

"끄윽, 컥…!!"

"……."

초식동물의 이빨은 가족의 숨을 금방 끊어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또한 사슴이 원하던 바였다. 이 고통과 배신 속에서

당신은 더욱 분노하라.

그렇게 재앙이 되어라.

"……."

"……."

두 눈도 감지 못한 채로 죽은 형제를 보며 사슴이 울었다. 그리고 웃었다.

"…다시 재앙이 되어 깨어날 때, 내게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신의 아들을 죽여 사슴은 언어의 권능을 빼앗았다.

그리하여 분노의 마왕이 탄생하였으나, 그는 끝내 이름을 받지 못했다.

* * *

되돌려 받지 못한 단 하나의 조각.

사슴

작고 어린 사슴이다

그 기억이, 심장 속에 갇혀 있었다.

동화율 99.9¿%

분노의 조각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60)

260

제260화

“…….”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테르가 신음했다.

“…악신이, 탄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분노에 눈이 먼 초식동물에 의해 세상은 지옥이 되었다. 미숙한 지성체의 그릇된 판단이었다.

이야기를 마친 사슴은 평범한 짐승인 양 입을 꾹 다물었다. 아람은 그런 사슴과 고통스러워하는 아테르를 번갈아 보았다. 무언가를 생각하던 그녀가 아테르에게 물었다.

“많이 힘드신가요?”

“…아뇨, 기록을 통해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기는 하죠.”

“이제 와서 이성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

수백, 혹은 수천 년 동안 가시 감옥에 갇혔던 아테르는 종종 미치광이가 되고는 했다. 하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었다. 과거의 망령끼리 죄악과 책임으로 다투는 건 멍청한 짓이었다.

“이 이상 멍청해질 수는 없죠.”

그건 재앙 이상으로 끔찍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확실해졌습니다.”

“저도 아테르 씨와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다.

“아르지오는 명백한 분노의 악신입니다.”

결국 관을 열어야 할 때가 왔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것 같아요.”

“부디 저희의 얄팍한 수가 통했으면 좋겠군요.”

“가능할 거예요, 악신은 저희를 얕보고 있으니까요.”

“그마저도 허락된 선에서의 발버둥이겠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에요.”

“이제는 저도 마음의 준비를 마쳤어요.”

사슴은 이전처럼 몸을 숨기지 않았다.

“…….”

“함께 관을 여시겠습니까?”

“…삐익.”

“그렇군요.”

사슴은 언어를 쓸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확한 이유는 아람도, 아테르도 알 수 없었다. 그들은 단지 과거의 죄를 마주 보려는 사슴과 함께 지하 무덤으로 향했다.

계단은 여전히 어두웠고, 하지만 먼지는 없었다. 아테르는 앞장서서 횃불을 들었다. 우림에 만들어진 지하의 유적임에도 습하기보다는 건조했다. 깊게 스며든 피비린내가 났다.

“…이곳에 홀로 와본 적이 있습니까?”

사슴은 고개를 저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에게는 자격이 없었다고 사슴이 말했다.

“…아, 지금 저한테 말을 하신 건가요?”

“삐익.”

“좋은 재주를 가지고 계시네요.”

아람은 내심 감탄하면서도 비극을 안타까워했다. 사슴에게 있어 언어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죄악이기에 입을 닫았다. 그렇기에 사슴은 언어가 아닌 공기를 통해 인간과 교류하는 법을 익힌 듯했다.

“…당신도 이곳에 기록을 남겼었죠. 나는 그것에 대단히 감사하고 있어요. 당신의 기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더더욱 갈피를 잡지 못했을 겁니다.…”

이내 아람이 이어 물었다.

“과거 이 세계에는 모든 짐승이 제각기 군집을 이루며 하나의 종족을 꾸렸다고 하더군요. 분명 사슴족도 존재했으나 거의 초반에 멸족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당신은 혹시 그 일에 관여한 적이 있나요?”

사슴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럼 자연히 멸족하게 된 건가요?”

짐승의 종족 중 사슴은 가장 인간과 닮아 있었다. 지능뿐만 아니라 욕심 또한 그랬다. 짐승이었을 적의 지혜를 잃은 그들은 스스로 멸족의 길을 걸었다.

그것은 사슴이 손을 쓴 일이 아니었다.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짧은 이야기와 긴 침묵이 지나자 곧 무덤의 입구가 드러났다. 아테르는 그 거대한 무덤을 빤히 바라보고는 아람과 사슴을 돌아보았다. 그가 단호하게 당부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개의 관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때 관 속에서 무언가가 말을 건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마십시

오. 저희는 가장 마지막 관을 찾아갈 테니까요.”

“잘 이해했습니다.”

“그럼….”

아테르가 발을 들이자, 낯선 음성이 무덤을 울렸다.

“또 왔군.”

모르는 이의 목소리였다.

“마지막 가족의 장난감이 또다시 무덤을 찾아왔어.”

“너는 무엇을 원해 이곳에 왔느냐?”

“아,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끝을 말하거라.”

“드디어 관을 열 생각이 들었니?”

“답답해, 이제 그만….”

아테르는 머뭇거리는 아람의 손을 잡아 이끌었다. 사슴은 특유의 느긋한 발걸음을 옮기며 관들을 응시했다. 증오와 분노에 미친 망령들에게 반응해서 좋을 건 하등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관에 도착하자 모든 목소리가 잠잠해졌다.

“…….”

아람의 손을 놓은 아테르가 관에 대고 물었다.

“…이전에도 이와 같았습니다.”

“…….”

“당신 앞에 오니 모두가 침묵하더군요, 혼난 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은 실제로 아이이기도 했으니.”

끼기긱—….

관의 문이 둔탁하게 틈을 벌렸다.

“저들이 몇 살로 보이던가?”

“…음성만으로 따졌을 때는 꽤 어린 것 같았습니다.”

“바로 맞혔네, 그들 중 가장 나이 많은 자가 바로 나지. 세상에 아르지오라는 이름을 새긴 그 시작점. 저 어린 것들은 이제 나를 이길 수 없어.”

“단순히 당신의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다. 저 아이들은 이제 꽤 진정을 했고, 내가 그들보다 경험 많은 강자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내 말을 따르는 것이 나쁘지 않을 거라 판단했을 것이네.”

“살아생전의 아르지오는 분노를 자유자재로 다스리던 패왕이었습니다.”

기록을 통해 그의 과거를 읽었다.

“당신에게 분노란 검이자 방패였지요. 스스로 원하기에 분노했습니다, 여느 이들과 달리 휘둘렸기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어요.”

“화가 잔뜩 난 이가 내뿜는 힘이 얼마나 강대한지 아는가? 그 감정의 한계를 자네는 아나? 그래, 분노란 좋은 무기이면서 튼튼한 성곽이 되어준다. 나는 내가 원할 때 분노했다.”

그에 아람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마지막 성자인 당신이 죽고 모든 망령들이 모여 마왕이 되었을 때는 아니었을 겁니다. 당신은 원하지 않는 분노를 이어가야만 했어요, ‘아르지오’라는 악신은 단지 당신만이 존재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요.”

“…아하….”

관의 틈 사이로, 반지 낀 커다란 손가락이 모습을 보였다.

“이 작고 앳된 음성이 꽤 달콤한데.”

달그락.

두꺼운 반지가 관에 부딪혔다.

“이보게, 작은 친구. 낯선 신의 종이여. 자네는 어디에서 왔지?”

“…나의 스승 달님의 품에서 왔습니다.”

“달님, 달님이라… 달… 내가 아는 존재는 아니군.”

“지금도 화가 나셨나요?”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한다.”

“그렇다면, 지금은요. 내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건방지고 당돌하구나, 귀엽기는….”

탁.

손가락의 움직임이 멈췄다.

“화가 아주 많이 났어.”

그러고는 손이 관에서부터 뻗어 나왔다.

“…아, 내 친구여….”

“…….”

“나의 고귀하고 순진했던 단 하나의 가족.”

그 손은 이내 사슴의 앞에서 멈춰 섰다.

“어찌 그리 했니?”

커다란 손이 꽃처럼 활짝 피어났다.

“왜 그리 했어?”

툭, 투둑.

온통 금빛으로 물든 눈은 손바닥에 박혀 피눈물을 흘렸다.

“네가 단지 나를 죽이고 싶었다면 내가 과연 이만큼 분노했을까? 네가 단지 성자의 권능을 빼앗아 짐승들에게 언어의 자격을 퍼트리길 원했다면 나는 화나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감히 나의 분노를 재단하고 그 방향을 뒤틀어 나를 이 영겁의 고통 속에 가두었지.”

손은 더욱 뻗어져, 사슴의 뺨을 쓸었다.

“내 친구, 내 가족, 내 사랑스러운 동생아….”

그는 사슴의 뺨에 황금 피를 잔뜩 묻히고는 다시 관으로 돌아갔다.

“참 아팠다.”

“…죄송합니다.”

“네 이빨은 참으로 무디더구나, 지금과는 달리.”

“죄송합니다.”

“너의 분노는 끝났니?”

“그날에 죄를 지은 인간과 또다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이 죽었을 때 끝났습니다.”

“그건 불공평한 일이야, 나는 아직도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어찌 이 형을 기다려주지 않았더냐. 나와 함께 분노했어야지, 응? 그렇지 않아?”

“이제 남은 것은 저의 보잘것없는 육신과 비루한 존재뿐입니다. 당신과 겨룰 힘은 남아 있지 않고, 그럴 의지도, 분노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

속삭이는 음성의 방향이 아테르에게로 돌아갔다.

“왜 나에게 저 아이를 보였지?”

“당신에게서 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제가 원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리 생각하였는지 모르겠으나, 그리 알겠다.”

이내 음성은 아람에게로 향했다.

“자네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용서하리라 짐작했는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 와서야 그 단편을 보았습니다.”

“나조차 보지 못한 자비를 나에게서 보았다고 말하는군.”

“성인이란 참 건방진 족속이지요, 그 존재부터가 오만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너희의 뜻을 알겠다. 하나, 대답하진 않겠노라.”

드르륵—….

관이 닫히고, 망령이 말했다.

“선물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 문을 열 때가 되었구나.”

허락의 뜻이었다.

“…….”

“…….”

“자.”

음성이 속삭였다.

“열어라.”

아테르가 손을 뻗었다.

* * *

피가 흘렀다.

“…….”

사슴의 것이었다.

아테르는 성녀를 자신의 뒤로 물리고, 칼을 뽑았다. 아람은 예상한 비극이 닥쳐온 것에 입술을 꾹 깨물지언정 결코 놀라지는 않았다.

한 폭의 그림처럼 뿜어져 나온 사슴의 피가 무덤의 드넓은 바닥을 감싸듯이 뒤덮었다.

“…….”

그 비상식적일 정도의 양에 아테르가 눈살을 찌푸렸다.

‘…사슴 한 마리를 죽였다고 해서 이 정도의 피가 나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찰박….

신발에 고여버린 새빨간 피가 묻어난다. 마치 비가 한바탕 내려 땅에 고였을 때처럼 얕고 잔잔했다.

자연스러운 판단으로부터 기이함이 공기를 침범한다. 숨을 쉬고 뱉을 수 있던 허공으로부터 끔찍한 독기가 퍼져 나갔다. 저주가 새끼를 치듯 그 크기를 불려갔다.

‘정말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던 감각인데.’

세상의 모든 규칙이 망가진 것만 같은 광경. 비정상과 비상식에서 기인한 몰이해. 그 거대한 공포는 아테르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다.

“…….”

“…아, 그래….”

사슴의 심장을 뽑아낸 손 곁으로, 또 다른 기다란 손이 어둠 속에서 뻗어져 나왔다. 그것은 말라붙은 고목처럼 뻗어져 나와 심장이 뽑혀 죽어가는 사슴을 어루만졌다.

“내게 이런 가족이 있었지….”

그리고 또 다른 손이 뻗어져 나온다.

“내 가족.”

“가족?”

“나에게 가족이 있던가?”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에 하나가 더, 또, 또, 또다시 손을 뻗어온다.

“글쎄, 무언가 오해했을걸.”

“가족이라는 것이 내게 있었더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아니다, 아니야. 가족이 있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아, 이런. 아프구나. 숨이 막혀. 답답해. 이곳은 너무 좁았어.”

“하늘이 없다, 하늘이 없다, 하늘은 없다. 작은 것들을 어루만지던 손은 자식을 버리고 떠났으니 나만이 남겨졌구나, 이 얼마나 외롭고 슬픈 일이냐. 나를 버리셨다. 나만이 남았다. 비정하신 분, 나를 고이 데려가소서.”

“왜 제가 그 많은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당신은 나를 빚으시고 목소리 한 번, 손길 한 번 내어주신 적이 없으셨지요. 당신 보잘것없고 작은 자식들이 그 심장을 뜯고 팔을 잘라내고 목을 전시하여도 추태를 부리시며 도망만 치셨더라….”

“아픕니다, 아파요, 신이시여 이 고통을 돌보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지옥을 내리소서. 당신이 빚은 재앙이 여기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문을 여시오, 그대. 문을 열어 내 얼굴을 보오. 나에게 그 얼굴 보이시오. 내가 당신을 기다렸소.” “여기는 너

무나 어둡더이다, 코앞이 보이지 않아 수없이 허공을 헤매었소. 횃불을 들었음에도 세상을 밝힐 수 없는 이유를 내게 속삭이십시오, 그대, 나의 창조주. 그대의 욕심으로 나를 빚었다. 나 아직 여기에 있거늘 그대 어디로 도망쳤는가?" "아, 돌아오십시오, 아버지. 내 이름 부르고 내게 시선 주시오. 이 끔찍한 짐승 빚으셨다면 내게 이름도 함께 주시오. 어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나이까? 그래, 그래, 그래, 당신이 그런 존재인 것을 안다. 당신이 빚은 존재보다도 오만하며 주제를 모른다. 나 이해한다." "이 분노의 끝이 어디인가. 나 언제까지 화만 내어야 하나. 내 분노를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으리. 속을 태우고 뇌를 녹이는 이 열기만이 나를 존재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 더욱더 속삭여라, 내게 악업 덧씌우고 노래를 불러라. 내 이름 모욕으로 지어 부르고 세상에 자리한 모든 물건으로부터 손가락질받게 하여라."

수많은 입이 허공과 어둠 속에서 사방으로 속삭였다. 읽어내지 못할 만큼 긴 언어였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손이 관에서부터 기어 나오고, 그 뒤를 따라 헤아릴 수 없는 수의 인영이 흘러나온다.

마치 고여서 썩어버린 호수의 물이나 검은 숲의 늪처럼 질척하게 관의 틈을 빠져나와 점차 몸을 일으켰다.

"내게 자비를 베푸시오, 그대 나를 보면 어찌 가엽지 않습니까?" "그대 비명 지르는 동안 나는 웃겠노라." "나에게 칼을 내지르시오, 그대! 나를 최악이며 최저라 꾸짖으시오!" "여기 세상 모든 것의 분노가 모였다, 나를 비난하며 내게 자비를 빌거라. 그 한 조각 내어주지 못할 테니 덧없는 고함지르며 고귀한 생을 낭비하라."

"신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나를 보소서! 그도 아니라면 그 목 내놓으시오! 나 어찌 이 어두운 숲에서 죽어가야 했습니까! 외롭더이다, 끔찍하게 슬피 울며 독기에 눈알부터 녹아내렸소!"

"세상을 지키라 하시니 나 그 뜻에 따랐으나 함께 뜻 읊어줄 이 없다면 이 모든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두어 가십시오, 거두어 가십시오, 거두어 가십시오. 나의 숨 거두어 썩어가도록 두셨어야 했사오니 당신 죄 알지어다!!"

"왜? 아, 어째서? 어째서, 왜, 왜, 왜, 왜 나를 잊었습니까. 당신이 나를 잊었소. 잊지 마시오. 내가 당신에게 칼을 꽂으리다. 그 심장에 날 선 비수 꽂고 온갖 독초로 장식해 드릴 테니 그 목 내놓으시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내게 선물하시오. 아버지, 아! 나의 아버지…!!"

뒤이어 새빨간 몸통이 기어 나왔다.

그것은 뱀의 것보다도 훨씬 길었고, 수많은 새의 날개를 찢어 붙여둔 듯 많은 수의 깃을 가지고 있었다.

기다란 몸통 사이사이로 뻗어 나온 거대한 발과 육중한 발톱이 무덤의 바닥을 짓눌렀다.

"나에게는 날개가 있었으나 이제는 날지 못한다." "인간들이 그 끝을 꺾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내 등에 붙였다." "사악한 것들, 끔찍한 것들, 나의 사랑스러운 배신자. 나를 모욕하고 이 피비린내 짙은 돌무덤에 가두어둔 자연의 숭배자들아."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나 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 이 지저분한 날개로는 도무지 날 수가 없다, 어찌 내 날개를 가지고도 날 수 없음이랴? 하늘이 저 위에 있거늘 나 어디로든 도망칠 수 없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보이느냐? 비명 지르는 살덩이와 쇠 비린내 나는 깃털과 너희 육신 짓밟을 거대한 발만이 남았다. 이 덧대어진 손가락으로는 너희의 수를 꼽을 수 없고, 기워 맞추어진 눈알로는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순리를 벗어난 팔로는 그대들을 감싸안아 줄 수 없다."

"전부 너희가 그렇게 만들었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새로이 빚었다, 만족하더냐? 만족해야지? 만족할 거지? 그럼, 그래야 마땅하다. 나 너희 위하여 이렇게 되지 않았니. 날 이렇게 꺾고 기워내지 않았니!!"

"그럼 너희는 이제 나를 무어라 부를 수 있더냐."

"나를, 내가… 내 이름이…."

"…나를 무어라 부르던가…."

"내가…."

미치광이처럼 속삭이고 비명 지르며 고함치다 풀이 죽는 형상에, 아람은 아테르의 등 뒤로 더욱 숨었다.

그녀는 언제든 도망칠 수 있도록 성력을 모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용."

인간과 망령과 분노가 겹쳐 망가졌으나, 그 본질은 용이었다.

“…당신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끔찍해진 몰골이지만 말입니다.”

“아테르 씨를 감옥에 가둔 마법사들이 이 세계의 창조주를 죽이려 할 때 저 악신의 힘을 빌렸다고 말했죠?”

“예, 그래서인지….”

아테르가 한숨을 애써 삼켰다.

“더 망가졌군요.”

“…신의 사자가 저렇게 되다니.”

“인간들의 욕심이 컸습니다.”

인간들이 용을 망쳤다.

“그러니 책임을 져야겠죠.”

아테르는 그대로, 아람과 함께 무덤을 빠져나갔다.

수많은 인격과 분노가 합쳐져 괴로움에 떠는 ‘아르지오’는 그조차도 알아내지 못했다. 다만 그는 한참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제 발치에 쓰러진 사슴의 육신을 눈에 담았다.

오로지 황금빛 눈만이 그렇게 했다.

“…….”

길고 뻣뻣한 손이 뻗어져 그것을 아기처럼 감싸안았다.

“…아, 여전히 좋은 털을 가지고 있군.”

‘아르지오’는 아이처럼 웃었다.

“자고 있니?”

“…….”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것은 팔을 뻗어, 사슴의 심장을 들어 올려, 그대로 삼켰다.

사슴의 피로 범벅이 된 입술은 한동안 멍하니 있던 것이 무색하게도 길고 커다란 미소를 지어냈다.

그러고는, 쩌저적—…!

“…….”

남자의 머리가 반으로 갈라져, 입술만이 남았다. 부서진 조각은 허공에서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그는 기괴하게 꺾인 손을 더듬어 제 머리의 형상을 찾았다. 그것은 반 잘린 도자기와도 같았다. 그 안에서 찬란한 황금 피가 풍요롭게 샘솟아 흘러내렸다.

이내 입술이 잔악한 반달 모양을 띤다.

“…아하하!”

유쾌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60)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60)"

4.7 13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61)

261

제261화

여우족의 족장, 라미가 제 오랜 친우를 불렀다.

“가르갈.”

“오, 그래.”

늑대족의 족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슬슬 우리도 물러나야지.”

“짐승의 형태로 변한다면 그분께서는 저희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면 전쟁터에서는 벗어나 있는 게 좋지 않겠어?”

“당신의 말이 맞아요, 아이들은 이미 숲에 가 있고요.”

“그분의 가호가 검은 숲의 독기를 이겨낼 힘을 주실 터이니….”

“…썩 그렇게 유쾌한 기분은 아니네요.”

라미의 형상이 이내 여우의 것으로 바뀌었다. 붉은 털을 가진 여우는 가볍게 푸르르 몸을 털고는 가르갈을 보았다. 그에 가르갈 역시 늑대의 형상으로 돌아와 제 친우를 내려다보았다.

그가 거대한 몸을 성의 복도에 뉘었다.

“모든 게… 그분의 말씀대로야.”

“그렇죠, 그게 씁쓸하다는 거예요.”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나면 이곳에도 평화가 올까?”

“신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저버리시겠나요?”

“그때 우리는 자유가 되겠지.”

“혹은 버려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래. 네 말이 맞다.”

악신은 그들에게 약속을 말했다.

인간들의 욕심으로 빚어진 망가진 땅을 당신께서 고쳐 주겠노라 하셨다. 그곳은 훗날 악신의 마지막 전쟁터가 될 것이며, 너희는 그 땅을 잠시 빌려 쓰다, 그 자신이 끝을 맞이하면 너희의 터전으로 삼으라고 이르셨더라.

그럼에도 짐승들이 그의 전쟁터를 일군 것은 약속 중에 없던 것이었다.

“신을 대하는 방법으로는 대단히 멍청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이제야 믿고 따랐는데….”

“이 전쟁터를 삼킬 존재는 우리가 아는 그자가 아닐 것이다. 미련을 버려, 라미.”

“감히 인간들이 신을 죽이지는 못하겠죠? 이전의 창조주조차 단지 이곳을 버리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했으니까요.”

“그거야 신께서 무슨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

그들의 친구이자 주인이었던 자는 신을 의지를 가진 운명이라 말했다. 그러니 그 의지가 스스로의 끝을 향한다면 신이라 할지언정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나라고 그것이 달갑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가르갈이 텅 빈 성 내부를 훑었다.

“…그래, 네 말대로 씁쓸하군.”

“그렇죠?”

“늘 시끌벅적한 곳이었는데.”

유원지라고 하던가. 이 거대한 성과, 황홀한 자태의 놀이기구들과, 그 주변을 감싼 호화로운 마을은 그들에게도 각별한 구역이 되었다. 언제나 떠들썩하고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했던 곳.

그곳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다. 전쟁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그분께서는 때가 되면 몸을 숨기라 하셨다. 각 족장들은 그 뜻에 따라 모든 그의 가족들을 숲에 숨겨두었다.

“…….”

“…….”

그래서일까, 너무나도 조용했다.

“…인간들이 눈에 담던 멸망의 때가 이러했을까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야.”

“무엇이 되었든 한 시대의 끝이라는 건 이렇게 적막하군요.”

“그분께서 거두지 않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의 길을 걸었겠지.”

“사실 나는 이런 삶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꿈속의 환락.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요.”

고통이 길었던 나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갓난 새끼들에게 젖조차 물리지 못해, 그마저도 독에 오염되어 수많은 자손들을 더러운 땅에 묻어야 했던 괴로움. 이 시대는 그때의 보상과도 같았다.

그때 까마귀가 창문으로 날아들었다.

“이보게들.”

“아….”

“발프 씨.”

“왜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있지?”

까마귀 족장, 발프의 질문에 여우가 곰살궂은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그렇죠.”

“흐음, 전쟁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텐데….”

“저희의 아이들은 이미 숲에 숨었잖아요. 설마 그분께서 당신 친우인 짐승을 해치실 리는 없으니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악신의 분노를 한낱 짐승의 판단으로 재단하지 말게. 모든 분노를 되돌려 받은 신께서는 피아의 구분이 없을 터이니,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야.”

“그분 앞에 직접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이상 저희에게 신의 시선이 닿지는 않을 텐데요? 뭐, 물론, 그분의 눈먼 손짓과 발짓 한 번에 저희는 얼마든지 뭉개질 수 있겠지만….”

“그러니 더더욱 자네의 아이들 곁에 있어 주어야지.”

“…그렇기는 해도….”

라미의 귀가 뒤로 주욱 내려갔다. 살랑이던 그녀의 꼬리가 멈췄다.

“…이게 정말로 끝일까요?”

“…정이 들었나 보군.”

“저도 이게 멍청한 일이라는 건 알지만요.”

“그분께서 참 오랫동안 인간의 형상을 해주시었지. 나 역시 자네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네.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그분께서는 몸을 낮추어 주셨어.”

“제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것도 그분의 뜻이라면, 제가 꼭 숲으로 물러나 숨어 있어야 할까요? 보잘것없는 여우가 그분을 도와드릴 수는 없겠어요?”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아예 없지는 않을 걸세.”

까마귀가 큰 날개를 퍼덕이며 창문 너머를 고갯짓했다.

“저쪽을 보게나.”

“…음?”

내내 조용히 있던 가르갈이 창문 아래로 무언가를 보았다.

“인간…?”

“어머, 인간이네요?”

“한 명은 까마귀족이 담당하던 다른 차원의 성녀인 듯한데.”

“달님이라는 신을 모시고 있다 말했었죠.”

“어….”

가르갈이 발프를 돌아보았다.

“저들 역시 신의 안배입니까?”

“안배보다는 장난감에 가깝지 않을까 한다만, 결국 그 또한 신의 뜻이겠지.”

“그렇다면 저희가 저들과 대화하는 것 역시 신의 뜻 중 한 갈래인가요?”

“그건 나도 모르네.”

펄럭—

까마귀가 허공을 날았다.

“하지만 대화할 가치는 있겠지, 그게 무엇의 갈래이든.”

“발프 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우가 늑대의 커다란 다리를 벅벅 긁었다. 그리고 눈을 초롱초롱 빛냈다.

“가르갈, 가르갈.”

“너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면서….”

“나는 작고 연약해서 쉽게 다친다고요.”

“젠장… 하여간 귀찮게 굴기는.”

가르갈이 여우의 목덜미를 물고 들어 올렸다.

“캐흥, 어차피 해줄 거면서.”

“쓰끄르끄 글 즈 므르….”

입에 여우를 문 늑대가 창가에 발을 딛고서는, 그대로 뛰어내렸다. 허공에 달랑거리게 된 여우가 우는 소리를 내며 허우적거렸다.

“꺄웅!!”

쿠웅—!!!

늑대가 땅을 딛자 여우가 울었다.

“조금 더 나를 곱게 모셔주지 않겠어요?!”

“퉤!!”

“깨갱!!”

“이 정도만 해도 곱게 모셨지 뭘 더 바라!!”

“하여간 늑대들은 야만적이라 어울릴 수가 없다니까…!!”

컹, 컹컹!!

캬, 캐갱 캥!!

입으로 다투는 둘을 둔 채로 까마귀가 날아들었다.

“…저들은 일단 무시하게.”

“…아, 예.”

짐승들의 모습을 묘한 눈으로 보던 인간 남성, 아테르가 끄덕였다.

“…제 이름은 아테르입니다. 인간이 멸망하기 전에 과분하게도 용사로 불렸고, 한때 마왕의 봉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죠. 유적의 신비와 악신의 자비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사분. 저는 아람이에요. 나의 스승 달님을 모시는 보잘것없는 막내딸입니다. 이번 악신의 침략으로부터 수를 쓰기 위해 여기 아테르 씨와 손을 잡았어요.”

기다렸다는 듯 주입되는 둘의 정보에 까마귀가 날개를 퍼덕였다.

“나는 발프, 까마귀들의 족장이지. 멸족했다고 생각했던 인간의 후예가 남은 것도 놀라운 일이고, 유원지에 놀러 왔던 손님께서 아직도 귀가하지 못했다는 것 역시 놀라운 일이군.”

까마귀가 고개를 기울였다.

“우리에게 무슨 제안을 하고 싶은 겐가?”

“그 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유원지의 손님이었던 아람이 물었다.

“여러분은 악신의 수하인가요, 친구인가요, 아니면 가족인가요?”

“셋 모두일세.”

“그중 가장으로 꼽는 가치는 무엇이죠?”

“나는 가족이라 꼽겠네.”

까마귀가 돌아보자, 어느새 다툼을 멈춘 여우가 눈을 껌벅였다.

“저요?”

“그럼 누가 있겠나?”

“…나는 수하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충실한 종이죠.”

“평소에 하던 말도 같이 하지그래.”

“그분의 가장 큰 예쁨을 받고 있는 짐승이기도 하고요!”

여우는 거리낌 없이 자신의 풍성한 털과 두툼한 꼬리를 자랑했다. 조각상이라도 되는 듯 자세를 취한 여우를 한심하게 바라보던 늑대가 연이어 대답했다.

“친구.”

“무뚝뚝하기는.”

“…친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흥, 하여간 발전이 없다니까.”

“이럴 때까지 시비를 걸지 마라, 라미….”

“사실 적시였다고요.”

그리고 아람이 또다시 물었다.

“그럼 여러분의 주인을 사랑하시나요?”

“너무 낯간지러운 말인데.”

“저희도 인간의 형상을 한 아르지오가 어떤 존재인지 보고 느꼈습니다. 그 사람의 자비를 받았고, 그 자체는 악신이라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인의 손님이여.”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고, 더 신중하게 여러분을 대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신의 가족이라 불리는 성녀가 물었다.

“이 전쟁을 망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건….”

늑대가 씩 웃었다.

“꽤 흥미롭게 들리는군.”

그렇게 성녀와 용사의 뜻에 짐승들이 가세했다.

* * *

유원지에 가장 먼저 진입할 수 있었던 토벌단은 달님교가 아니라 유스티티아였다.

“거봐요, 어렵지 않다니까?”

“달님교의 상황을 보면 유독 우리가 더 쉽게 진입하는 것 같던데요.”

“어쨌든 누구라도 진입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유스티티아의 토벌단 중 리더를 맡은 길드장, 서서희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생각보다 조용한데.”

그가 이곳을 방문한 전적이 있는 길드원에게 물었다.

“원래 이렇게 문 닫은 놀이공원 같고 그랬나?”

“음, 아니요, 그럴 리가요. 보고서를 올려드린 것 같은데….”

“혹시 내 기억이 틀렸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저도 그냥 해본 말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훨씬 시끌벅적하고 사람도 많았죠. 까마귀 같은 안내원도 한 명씩 붙여 주었고요.”

“지금은 그런 안내원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같은데.”

“제 생각해도 그러네요.”

길드원이 침착한 얼굴로 상황을 파악했다.

“아무래도 저희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보죠.”

친절한 안내원도, 코를 간지럽히던 맛난 음식의 향도, 눈을 황홀하게 했던 전등의 반짝거림도 없었다. 모든 불이 꺼진 채 먼지 한 톨 없이 자리한 유원지는 어딘가 섬뜩하기까지 했다.

“길드장님의 말씀대로 정말 문 닫은 놀이공원 같아요.”

“나는 온 적도 없는 놀이공원인데, 괜히 씁쓸해지는 기분인걸.”

서서희가 웃었다.

“자, 그러면….”

그가 고개를 들어, 지하를 내려다보았다.

“집주인의 얼굴을 좀 봐볼까.”

“진동이 울리고 있습니다, 길드장님.”

“아래에서부터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 곧 오시겠네.”

쿠륵,

꾸드드득, 트특. 특!

콰아악…!!!

“오.”

가장 먼저 눈에 보인 것은 길고 거대한 팔이었다.

그다음은 어느 붉고 기다란 짐승의 꼬리. 다음은 그것에게 어울리는 팔과 다리. 그리고 그 거대한 몸체를 뒤덮은 기괴한 날개들과….

“아픈 몰골인데.”

그 사이에 잔뜩 기워진 인간들의 형상.

『—아, 아아… 아아악…! 아아아아악!!』

절규가 울렸다.

『나에게 영원한 분노를! 내게 너희의 영원한 모욕을!!』

『이보게, 친구. 나를 찾아왔나? 나를 찾아왔나? 나를 보러 왔나?』

『우리 즐겁게 춤을 추고 노래하며 피 흘리자.』

그것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유스티티아의 길드원들에게 무척이나 잘 들렸다. 그들의 신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었다. ‘인간’의 음성이 그들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기 때문이었다.

길드원 중 누군가가 귀를 강하게 긁었다.

“이런 기분 꽤 오랜만이네요.”

“한동안 신성과 겨룰 일은 없었으니까.”

“악신은 악신이라는 건가….”

그 음성이, 단지 귀에 닿는 것만으로도 미치게 간지럽고 고통스러웠다. 뇌에 울려 퍼진 극장 속 배우의 노랫소리처럼 선명했다. 저것은 존재만으로도 생명을 썩히고 고통받게 했다.

금빛의 온갖 보물과 새빨간 깃으로 뒤덮인 그 광휘의 존재를 보며 서서희가 중얼거렸다.

“…용이군.”

한때 용이었던 악신이라니.

“…….”

서서희는 그 본질을 알아챘다.

그거참 끔찍하고, 씁쓸한 일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61)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61)"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62)

262

제262화

“용이라?”

제 친우의 연락에 협회장, 단해라가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기울였다.

“용이 악신이 되는 일이 흔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드문 일은 아니잖아.]

“그래, 그게 문제지. 이거 골치 아프게 되었어.”

각각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용의 성질은 제각기 다르다. 짐승에 가까운 용이 있는가 하면, 현자의 역할을 해주거나 신의 역할을 받은 용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어느 차원에서건 용은 신의 사자라고 불렸다.

“용이 그 정도 몰골이 될 만한 상황이라면 증오가 어마어마하겠네. 그 어떤 차원에서도 용이 스스로 죄를 저질러 변질된 경우는 없지, 그것도 악신이 될 수준이었다면... 그건 꽤....”

[많은 일이 있었을 거야, 자연의 가장 큰 옹호자인 용이 다른 무엇도 아닌 악신이 되었으니까. 단순히 인간 전체에게 배신당하거나 신에게 버려진 정도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걸.]

“정확히 어떤 형상이라고 했지? 인간과 흡사한 존재가 그 용의 상체를 이루고 있다고 했나?”

[대부분 성인조차 되지 못한 미숙한 인간들이 뭉개지고 기워진 모습이었어. 아니, 뭉개졌다는 말은 좀 안 어울리나? 여기저기 도자기처럼 깨지거나 물엿처럼 길게 늘여진 것 같기도 했는데....]

“네 말만 들어보면 서양의 드래곤보다는 동양의 길쭉한 용이 생각나네. 후후, 사진을 찍을 시간은 없었겠지?”

[우리 길드원들 살려서 데리고 나오는 것만 해도 힘들었어. 나는 살면서 볼 저주를 거기서 다 본 것 같아, 종류도 아주 다양하던데?]

서서희는 던전에서 빠져나와 부상을 치료 중이었다.

꿈이라는 이름값은 하는지 큰 부상은 함께 오지 않았지만, 온갖 저주가 영혼에 덧씌워져 도저히 치료를 받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었다.

서서희가 받은 저주 중 하나는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었다. 붕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역시 신성과의 싸움은 지치네. 그 사소한 존재 하나하나가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큰 타격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들으면

귀에서 피가 흐르고 정신이 멍해지는데… 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

“눈에 그 존재를 담는 것만으로도 죽지 않은 게 어디야.”

[맞아, 아무래도 본질이 용인만큼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진 않았어. 처음부터 운명이고 자연이었던 전통적인 신성이 아니었다는 거겠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만들어진 신성이라면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어.”

신성이란 운명이자 자연이고, 또 다르게 말하자면 역사였다. 살아 있는 역사인 그들은 몸에 담은 신비의 시간으로 그 수준을 잴 수 있었다.

그리고 감히 그 시간을 잴 수 없는 전통적인 신성에 비하면, 만들어진 신성은….

“아주 최악은 아니네.”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가능했다.

“…흠, 수집가의 참여를 제한해야 하나?”

[아, 그 사람… 그런가… 그랬었지….]

뜬금없이 비사벌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서서희는 알 만하다는 듯 긍정했다.

[비사벌 길드장님은 용이라면 사족을 못 쓰잖아.]

“본인 눈부터가 용의 것인데 어련하겠어.”

[그러고 보니까 이번 악신은 눈이 참 많더라고.]

“더더욱 불길한 이야기인데.”

[아니, 손과 팔이나 날개에… 황금색 눈이 가득 달려서….]

서서희는 제가 보았던 악신을 묘사했다.

[여러 사람이 뭉쳐진 형상인 탓인지 팔이 굉장히 많았어. 날개도 일반적인 경우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았고. 말라비틀어진 거대한 고목의 가지처럼 이리저리 꺾여서는 그 큰 유원지 전체를 거미줄처럼 감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길조차 알아낼 수가 없었지.]

“용케 빠져나왔구나.”

[사방을 덮다 못해 거의 미로를 만들어 내던데. 그래도 미로라고 하면 길은 있기 마련이잖아. 적당히 길을 찾아보니 나오기는 하더라고. 그 수많은 손이 뻗어져서 우리를 짓뭉개려고 하기는 했지만 떨쳐내지 못할 수준은 아니었어.]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협회장이 끄덕였다.

“EX급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으려나.”

‘꿈의 유원지’의 등급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두어야 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질 것이고.”

[정부와의 협업은 잘되어 가고 있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도시의 시민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 결국 현실에 남은 책임을 자극하고 이곳에서의 성장 욕구를 건드려주면 되는 일이니까.”

[거기에 차별점까지 줬지.]

“잠에서 일찍 깨어나는 부지런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얻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덕분에 공식적인 구제 정책 이외에도 많은 인력을 풀어야 했지만,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의 존재를 상기한 시민들은 하나둘 현실로 복귀하고 있었다.

“게다가 ‘꿈의 유원지’에 의지하려는 사람은 아주 못난 사람이라는 이미지까지 생겨 버렸으니, 더더욱 꿈에 매몰될 이유가 없지. 네가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

유스티티아를 향한 시민들의 애정과 신뢰는 하늘을 넘는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헌터, 서서희가 이번 토벌에 직접 나섰다. 그와 대립하는 ‘꿈의 유원지’에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러려고 영원의 상징이니 뭐니, 안 버리고 있었던 거잖아.]

“귀찮음과 부담스러움을 꾹 참고 날 위해 애써준 너희에겐 언제나 감사하고 있어.”

[낯부끄러운 말을 하네... 친구끼리 이럴 때 도와야지, 안 그래?]

“그런 점이 고맙다는 거지.”

단해라가 끄덕였다.

“이렇게 된 이상 빠른 시일 내에 악신을 봉인하거나 처리하고 던전의 문을 닫아야 해. 여기서 시간을 더 끌게 되면 기껏 너의 명성과 나의 수작으로 멈칫하게 된 시민들이 다시 꿈에 유혹을 느낄 거야.”

서서희가 난감해했다.

[직접 나서는 사람 아니라고 말 참 쉽게 한다, 너.]

“너라면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내 생각에는....”

단해라는 언젠가 보았던 작은 성녀를 떠올렸다.

“...음, 그렇지. 납치되었다던 성녀님도 마냥 당하고만 있을 성격은 아니셔서.”

[오, 달님교의 성녀님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려나?]

“이런 부분은 나 말고 수집가 쪽이 훨씬 정확하게 판단해 주겠지. 눈이 참 좋은 사람이잖아. 그리고 수집가가 이번 토벌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니 토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골치 아프던 와중에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인걸.]

서서희가 물었다.

[서지오 헌터님은?]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집상을 나오고 있지 않아. 수집가도 따로 말이 없고, 이번 명단에도 참여하지 않은 걸 보면 사정이 있겠지.”

[토벌대 아쉬워하는 소리가 벌써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 지난번에 뵈었을 때는 꽤 건강했던 것 같은데, 서지오 헌터님의 상태 이상과 이번 던전이 연관 있을까?]

“그건 더 살펴봐야 알 것 같지만 상황이 공교롭기는 하네. 어쩌면 이번 던전이 무서워서 숨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추측이 맞다면 한 번 죽고 신비로서 생명을 유지 중일 테니 가족을 걱정한 수집가가 나서서 막은 것일 수도 있어.”

[최소한 무서워서 숨을 사람으로는 안 보였으니, 네 말대로 사정이 있는 걸 거야. 정 전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해운이를 끌고 와도 될 테니까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겠지.]

서서희가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중에 보자.]

“그래, 그때는....”

[서지오 헌터님도 한번 잘 꼬셔볼게.]

“어서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

언제나 약속해야 하는 단해라에겐 특별한 감정과 기억이 늘 필요했다.

* * *

당연히도, 사망자는 속출했다.

“그 가증스러운 악신이 우리의 형제를…!!”

그에 특히나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달님교와 태양교였다.

“끔찍한 음성으로 내 파트너의 뇌를 녹였습니다! 아, 그것을 반드시 봉인해야만 해요. 이대로 두면 꿈의 악신은 또다시 현실로 손을 뻗어 세상을 망가트리겠죠!”

“성녀님의 흔적 또한 일부만이 남았을 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어디 계신 걸까요? 그 여리신 분께서 설마 잡아먹힌 것은 아니겠죠? 제발, 제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는 반역자입니다! 전통적인 신성의 모든 것에 반항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악한 존재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것을 봉인해야 합니다!!”

악신은 노랫소리로 인간의 뇌를 녹였고, 춤추듯 다가온 손으로 사람을 조각냈고, 그 황홀한 금빛 눈으로 사람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다. 신성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협이었다.

“하지만 어떻게요? 그는, 그는 우리를 장난감…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살아생전의 괴물이었다던 그가 얼마나 전투와 피를 좋아했는지….”

“이건 꿈의 악신에게 있어 단순한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 놀이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인형놀이를 해대는 그 거대한 손만 봐도 아시잖습니까!”

무력감에 휩싸인 사제들도 있었다.

누구보다도 신성과 신비에 박식한 이들이었다. 오히려 그 위험성과 존귀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태양교는 슬슬 미온적으로 전투에 임하기 시작했다.

달님교는 그런 태양교를 비난했다.

“이런 겁쟁이들!”

“애초에 우리의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꿈의 악신을 이대로 두면 여러분은 무사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 의미로 진영을 바꾼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달님교는 점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진격과 수단은 과격했고, 전쟁에 능하지 못해 희생자는 늘어만 갔으며, 그 빈자리에 사제들은 시름시름 앓았다.

그 모든 비극에 주교는 침묵했다.

“주교님, 죄송하지만… 그래도 식사를….”

“제가 바빠 응해드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취하지요.”

“벌써 나흘이 넘었습니다. 성녀님의 빈자리에 충격이 크신 건 알겠지만, 주교님까지 이렇게 칩거해 버리시면 저희는 누굴 기댈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녀는 드물게 웃는 얼굴로 말했다.

“우리는 달님을 모시는 자랑스러운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 그건… 주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혹여 이 모든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셨던가요?”

“아니요, 저는 저희의 쓰임새에 만족합니다, 주교님.”

“그렇습니까.”

주교는 중얼거렸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지.”

그녀는 주교로서 해야 하는 모든 임무에 충실했다. 진영의 배치 구도를 짜고, 부상자를 돌보고, 앞으로의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그 모든 일 뒤에는 항상 어느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달님교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의 영혼 깊이 물든 개인주의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자유를 주고, 서로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게 달님교니까.

“…….”

그럼에도 조금씩 달님교는 무너져 갔다.

“—이보게, 내 친구야.”

“…….”

“여길 봐, 나를 봐. 이곳에 자네가 원하는 모든 지식이 있어. 내 호화로운 성의 도서관을 열어주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그 모든 신비를 보고 싶니? 그래, 내가 허락하마. 내가 허락할게. 내 친구, 우리는 충분히 사이가 좋잖아… 나를 의심하지 마.”

“…아, 으아….”

“왜 그러니? 왜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어? 친구야, 나를 버릴 거니? 아, 너무 아프단다. 숨이 막혀. 너도 그래?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단다. 나에게 손을 내밀렴, 내게 빌어봐, 나에게 자비를 구하고 몸을 맡겨.”

“그, 그만. 제발… 제발 그만…!!”

“그만하라니? 그만하라고? 무엇을 그만해야 하지? 이 모든 것은 너의 나약함에 기인했다. 내 목소리가 왜 너에게만 들리는 것 같니? 그 이유가 뭐일 것 같아? 너는 나를 받아들였잖아. 나를 궁금해했잖아. 내가 도와줄게, 괴로워 말아. 내 친구. 내 명예롭고 영특하며 지혜로운 친구….”

나약해진 마음 사이로 악신의 속삭임이 스며들었다.

“자, 보렴. 그 어여쁜 두 눈으로 보란 말이다.”

“…….”

“여기 어디에 너의 소중한 것이 있니?”

낄낄대며, 꺄르르 자지러지는 아이의 웃음소리와, 달콤하게 뺨과 목덜미를 쓰다듬어 오는 부드러운 손가락에, 머리를 자상하게 쓰다듬는 그 손길에 홀려서. 황홀한 황금빛에 물들어서.

눈이 황금에 물든 채로 사람들은 미쳐버리고 말았다.

“주교님, 주교님. 저희는 그분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그분께서 저희에게 안식을 주실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스승님의 품 안에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을 이해해 주어 고맙습니다.”

“아, 더 일찍이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분명 성녀님께서도 이미 달님의 품 안에 드신 거겠죠? 자비롭고 달콤한 품 안에, 그 자상하고 따듯한 손에 이끌려…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나는….”

“…그래, 그렇겠지….”

주교는 황금으로 피눈물 흘리는 사제들을 상냥하게 안아주었다.

“우리는 별이 될 수 있어.”

그것이 꿈 안의 달님 뜻이리라.

* * *

“…….”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성녀는 침묵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좀 보내주시죠?”

“아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 하하!!”

“미치겠네.”

말이 통하지도 않는 손과 팔의 감옥. 성녀가 저와 함께 붙잡힌 아테르를 보았다.

“대화가 안 통해요.”

“이 상태 그대로 뭉개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십시오.”

“맞는 말인데 진짜 화난다, 아테르 씨는 입바른 말만 할 줄 아시나 봐요.”

“다른 말도 배웠는데 가시 감옥에 있는 동안 까먹었습니다.”

“불리하니까 예민한 과거사 끌어오는 것 좀 봐.”

“이 정도는 할 줄 아니까 저도 왕궁 사서가 되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 합리화 능력이 참 대단하시네요….”

악신의 손아귀에, 정확히는 마왕성에 갇혀버린 성녀가 팔을 꼬았다.

“어디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람은 침묵할 생각이 정말 요만큼도 없었다.

최소한 애써 준비한 작전은 실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62)"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63)

263

제263화

악신의 봉인이 전부 풀리고, 아람과 아테르가 열심히 발을 놀리며 짐승들을 설득할 때, 이지조차 잃은 것처럼 보였던 악신이 그 둘을 납치했다. 그건 정말 말 그대로의 행위였다.

“현실에서 제가 납치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아람의 중얼거림에 아테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납치를 당하셨군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당신들이 걱정했던 것만큼 대단한 일이 있지는 않았다고 달래주기는 힘드시겠습니다.”

“입바른 말 그만.”

“누군가는 현실을 봐야죠.”

“그 성격으로 어떻게 왕실의 사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보다 더 나은 능력의 사서가 없었으니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연 그렇군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궁중이란 어느 차원에서든 마굴일 수밖에 없었다.

인두겁을 쓴 괴물들의 세상. 그런 곳에서 능력 하나로 왕실 사서가 됐다면 그 능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압도적이었을 테다.

그렇기에 아람은 웃을 수 있었다.

“그런 대단하신 분이 저와 함께해 주셔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갑자기 여느 높으신 분들처럼 고상한 화법을….”

“그리고 그렇게나 능력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이 마왕님의 성 꼭대기 방에서 탈출할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겠죠?”

“솔직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황금 눈이 박힌 수많은 손으로 칭칭 감긴 방 안에서 아테르가 턱을 쓸었다.

“안 될 것도 없어 보이는군요.”

허명일지라도 한때 용사라 불렸던 몸이다.

“경력이 있는 만큼 마왕에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죠. 세상의 상식과 규칙을 무너트리는 그 개같은 저주와 비일상 모두를 책으로 정리했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을 감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해 둔 게 있죠.”

“그러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마왕에게 붙잡힌 둘이었지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그 붙잡힌 둘이 아람과 아테르였기 때문이었다. 온갖 신비와 이론을 섭렵한 성녀와 마왕의 상대라면 신물이 나도록 겪어본 왕실 사서의 조합은 꽤 훌륭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지점은 악신 또한 신성이고, 신성이란 운명이고 자연인 동시에 신비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이지를 가진 신비라는 존재들은 하나같이 규칙을 중요시합니다.”

“사실 지금 상태의 아르지오가 과연 제대로 된 이지를 갖췄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의하는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성을 잃고 미쳐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신은 신이죠.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져도 저희보다는 똑똑할 거란 말입니다.”

“무엇보다 제 선생님의 영향인지 이 악신은 저희에게 자비로운 면이 분명 있었어요. 그게 오만일지 애정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용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악신의 행동 방식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정리해 둔 정보가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제 전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봉인되었던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하던 예전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아테르가 품을 뒤적거리더니 이내 두툼한 서류를 꺼냈다.

“여기 제가 창조주를 끌어내리고자 했던 마법사들의 연구 일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어디서 나온 거죠?”

“제 시대에서 용사의 다른 말은 노숙자이거나 방랑자였습니다. 이 정도는 용사라는 놈들의 기본 소양이죠. 상황이 바빠 미리 공유하지 못한 점 사죄드립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온 거… 아니요, 하지만 이건 상당히 흥미롭네요. 상황이 이렇지만 않았어도 한 달은 붙잡고 음미하고 싶은데 나중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료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아람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음, 이 도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아닌가요? 마법사들은 분노의 악신에게서 창조주를 향한 분노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유도한 도식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서요.”

“과연 성녀님이십니다. 예, 그렇죠, 마법사들은 저희를 동력원으로 이용해서 분노의 악신을 무기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공격적인 도식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파고들어 보자면….”

둘은 마치 토론의 장을 펼치는 학자들처럼 차근차근 상황을 공략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토론은 ‘분노의 악신이란 어떤 매커니즘을 가졌느냐’부터 시작해 ‘악신의 감시와 손의 감옥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까지 이어졌다.

“…그럼 이쪽에 이런 도식을 넣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31-4982번을 응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952번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그러면 952-21-424번 공간의 도식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조금 바꾸어서 933-4982-11번 공간을 활용하는 게 좋겠어요. 이쪽은 괜찮지 않나요? 음, 그렇게 되면 여기를….”

아람과 아테르의 지식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둘은 서로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인 숫자와 도식만을 활용해 지혜를 공유해야 했다. 그만큼 일은 더 복잡해졌지만 속도는 결코 느려지지 않았다.

“좋았어요.”

“튑시다.”

둘은 그렇게 악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의 눈을 전부 감게 만든 다음,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끔 공간에 고정하고, 악신의 신비를 역이용해 꼭대기 다락방에서부터 탈출했다.

물론 그런다고 악신이 둘을 순순히 놓아주지는 않았다.

“—아악 쫓아와요! 쫓아와요! 손들이 쫓아와요...!!”

“예상했던 일이잖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 1층까지는 제가 모셔다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왼쪽! 다음 오른쪽, 그다음 직진 341보 그다음 우회전!!”

“노련한 숲 지기가 따로 없군요.”

아테르는 기겁하면서도 성의 모든 것을 파악한 아람에 감탄했다. 검은 숲으로 들어와 아테르를 만나기 전까지 유원지를 그렇게 돌아다녔다더니, 마왕의 부활로 변이된 이 마왕성의 구조조차 이미 파악을 한 것이다.

그 와중에도 손은 계속해서 쫓아왔지만.

“잠시,”

카아아앙—!!!

“실례하겠습니다.”

“으으, 저 먼저 가고 있을게요.”

“뒤따르겠습니다.”

아테르는 미리 얻어두었던 병장기를 이용해 그들을 쳐냈다. 이전에 쓰던 대검이 아니라 조금은 어색했지만, 그 역시 용사라 불렸던 자다. 불리한 조건에서 마왕의 습격을 막아내는 일에는 익숙했다.

“전방 813보 앞에 함정 있어요!!”

“참고했습니다!!”

아람이 앞장서서 미로와 같은 길을 안내하고, 아테르는 그런 둘에게로 가까이 다가온 손을 모두 쳐냈으며, 또다시 아람은 아테르가 그렇게 손을 쳐낼 수 있도록 악신의 힘을 약화시켜 가며 빠르게 이동했다.

“기왕 약화시키는 김에 아예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게 될 것 같았으면 저희가 이러고 있겠어요?! 지금 날아갈 신성력도 모자라니까 나 안고 뛰어요, 여기서부터는 나도 하나하나 파악해 가면서 안내해야 해요!!”

“성녀님의 체구가 작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테르는 작고 가벼운 신체의 성녀를 한 손으로 안아 들었다. 다행히 아테르는 무기를 주로 한 손으로만 다루었고, 아람은 아테르에게 있어 거의 무게가 없는 거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제가 방해가 되지는 않죠?”

“두 개 쓸 수 있었던 손이 하나만 남았다는 걸 빼면 괜찮습니다.”

“그 손 잘리면 제가 붙여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막으세요!”

“이래서 성인이라는 작자들은...!!”

아테르는 높으신 분의 명령에 짜증을 내면서도 고분고분 따랐고, 아람은 자유로워진 신체를 이용해 더욱 복잡한 도식을 짜 내려갔다. 아람의 눈이 붉게 충혈될 정도로 버거운 신성력이 차올랐다.

“...여기서 오른쪽!!”

“……?!”

벽으로 막혀 있는 곳으로 안내하자 아테르는 황당해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미 몸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아테르가 움직이자마자 마왕성의 벽이 살아 있는 것처럼 물러나기 시작했다.

“미친.”

“내 안내에 따라요.”

“물론입니다.”

양손의 자유를 얻은 아람이 마왕성의 권한을 파고든 것이었다.

그녀가 안내하는 방향으로 길이 생겨났다. 아테르는 가능한 한 빠르게 발을 놀렸고, 아람은 계속해서 길을 찾아냈다. 너무 많은 권한을 남용해 피눈물이 나기 시작한 아람에 아테르가 물었다.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으신 게 맞습니까?”

“저희가 악신의 손에 또다시 붙잡히면 그게 더 문제예요.”

“그건 맞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아래.”

“예.”

손의 추격은 더더욱 거세어져 왔다. 그들의 손톱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어느새 붉은 털을 갖추기까지 했다. 그것은 인간의 손보다는 용의 손을 더 닮아 있었다.

저 지경이 되었다면 붙잡혔을 때 둘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들이 기억하는 악신의 자비는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었으므로, 한 번의 실수조차 용납될 수 없었다.

그렇게 1층의 출구에 가까워졌을 때였다.

“…!!”

쾅, 쿠구구궁—!!!

“이건…!”

“본체가 눈치를 챘나 봅니다.”

“이것보다는 느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악신은 악신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간이 뒤틀리며 길목들이 막히고 꼬이기 시작했다.

“이 이상 더 지체하면 정말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될 겁니다.”

“이제 절 내려주세요, 때가 되었군요.”

“무운을 빕니다.”

아테르는 아람을 내려주었고, 아람은 아테르를 다시 돌아보지도 않은 채로 뒤틀린 공간 사이를 뛰어갔다. 그녀가 걸어가며 남긴 발자국에 달의 신성력을 이용한 도식들이 성운처럼 피어났다.

아람은 스승의 힘을 이용해 길을 찾아냈다. 작은 몸집과 방대한 신성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나, 결코 아테르까지 그 안에 포함시켜 줄 수는 없었다. 둘은 다른 길을 가야 했다.

“…….”

따로 합의된 사안은 아니었으나 둘 모두 그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이내 사방의 시야가 막혔다.

“…하아….”

아테르가 피로 범벅이 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모처럼 동료가 생겼는데, 또 혼자가 됐군요.”

“저런, 가엾어라.”

“그렇다고 당신이 오기를 바라진 않았습니다.”

사방이 악신의 손으로 막힌 작은 감옥. 그 안으로 어느새 익숙해진 형상의 악신이 웃으며 다가왔다. 아테르가 익히 아는 마지막 성자의 모습이었다.

길게 땋아 내려 바닥에 닿은 붉은 머리칼에 온갖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남자. 맨발로 손의 감옥을 거닐며 다가온 남자가 어느새 아테르의 앞에 서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번에는 왜 나를 부르지 않았지?”

“제가 이 이상 무슨 일을 벌이려고 당신을 부른단 말입니까.”

“자네는 이런 곳을 참 싫어하지 않는가.”

“…그 말이 맞습니다….”

속이 울렁거렸다.

“끔찍하군요.”

살덩이가 일렁이는 손의 감옥은 가시 감옥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사방에서 환청이 들리고 저주가 영혼을 썩게 만든다.

그게 과연 누구의 것일지. 아테르는 이대로 미쳐버리고 싶었다.

“그래, 그럼 얼마나 편할까?”

“…….”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괴로움에 버둥거리기만 하면 되지 않던가. 맞아, 그게 바로 짐승의 특권이지.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신념도 필요하지 않고, 악의도 필요하지 않고, 단지 본능에 충실한 채 신음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짐승의 편리한 이점이란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에도 아테르는 고뇌하고 인내하며 악의를 가졌다.

“제가 아는 분께서는 나를 좀 더 정중하게 대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지.”

크고 차가운 손이 뻗어져, 아테르의 얼굴을 부드럽게 붙잡았다.

“네가 나를 불렀다.”

“…….”

“그렇지, 내 친구야?”

참담했다.

“…맞습니다.”

용사였던 그가 영겁을 견디지 못하고 악신을 불렀기에 이런 상황이 오고야 말았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63)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63)"

4.7 13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64)

264

제264화

가시 감옥에 갇혀 악신을 부르며 자비를 빌었다.

"그게 내 죄입니다."

그가 더 처신을 잘하거나 그 모든 것을 무시할 정도로 강했다면 될 일이었다. 그렇다면 감옥에 갇힐 일이 없었겠지. 감히 고통에 취해 악신을 불러서도 안 됐다. 무슨 재앙이 올 줄 알고.

그런 주제에 자비를 빌어서도 안 됐다는 말이다.

"압니다, 사악한 신들은 다 그런 법이죠. 행복을 빌어봤자 곧이곧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항상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규칙 안에서 최대한 끔찍한 자비를 베풀죠."

"하지만 네가 바란 것은 그 자비가 아니었니?"

"그렇습니다, 그 자비였습니다. 가시 감옥에 갇혔던 그때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받길 원했습니다. 그마저도 제게는 상이 될 것이었죠. 나는 이미 미쳐 있었고, 너무 피곤했고, 뭐라도 변화가 있다면 그게 구원이었습니다."

고통도 영겁이 되면 참 지루해지더라. 그게 아테르의 괴로움이었다. 벗어나고자 했던 지옥이었기에 그보다 더한 지옥이라도 바라며 감히 악신에게 자비를 구했다.

"하지만 당신은 제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진정 구원을 주었더랬다.

"자비로우시더군요. 친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끔찍했고요."

"너는 그냥 죽이기에 참 아까운 친구가 아니더냐."

"과연 악신이심을 그날에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셨어야 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원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 알고 있다, 미련한 자야. 너는 나를 원망하면서도 믿는다. 내가 고작 네 세상을 새롭게 빚어주었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어찌 이리도 나약하고 맹목적인지...."

"그날 당신이 나의 새로운 신이 되었습니다."

종교를 떼어낼 수 없는 시대에서 살아온 구시대의 망령이 바로 아테르였다. 처음 있던 신은 인간들의 손으로 내쫓았으며, 신 또한 제 자식 모두를 저버렸으니 더는 따를 신앙이 없다 여겼다.

그럼에도 이 간악한 마왕이 손을 뻗지 않았던가. 망가진 세상을 고치고 새로운 신앙이 되지 않았던가. 그게 아테르에게 얼마나 빌어먹게 평안을 주는 일이었는지 모른다.

“…내가 아는 아르지오는 어디로 갔습니까?”

기어코 깊이 없는 증오가 흘러나왔다.

“내 친구는 어디로 갔죠?”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신일지언정 인간이었습니다.”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당신은 인간이 아니니까.”

“…….”

황금색 눈이 사악한 빛을 띠고, 짐승의 것처럼 아테르를 응시했다.

“…아, 추악한 내 아버지의 인형아….”

꾸드득….

그의 손톱이 아테르의 얼굴을 파고들었다.

“인간, 인간, 인간. 그래, 인간이다.”

얼굴에 박힌 손톱을 타고 아테르의 피가 흘러내렸다. 붉은 피였다.

“세상을 뒤덮은 그 끔찍한 종자들. 나를 뒤틀고 망가트려 내 가족과 함께 숲을 불태운 사악한 씨앗들아. 너 잘 보았구나, 내 어찌 인간일 수 있겠느냐?”

그의 음성이 증오에 가득 찼다.

“너희가 나를 저버렸다. 나 버려졌고 불태워졌으며 가족에게 목 뜯겼다. 너희를 저주한다. 내가 원망한다. 사랑한다. 증오한다. 혐오한다. 또다시 내 목 뜯으려 하는 너희가 참으로 어여쁘다.”

“…….”

“내 말을 듣고 있니? 내 친구야, 내 작은 친구. 내 더럽고 볼품없는 인형아.”

웃는 얼굴이 저주를 읊는다.

“나를 죽이러 왔어?”

“…당신이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오만한 자야, 나 너를 기억하고 있으나 너의 친구는 내가 아니다. 나는 너를 잊고 싶은데 그것 하나가 참으로 힘들지.”

“그렇군요.”

“왜 나를 불렀어, 부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대체 왜 나를 불렀어…. 이제야 관의 문을 연 것을 후회해?”

악신에게서 황금으로 피눈물이 흐른다.

“세상이 밉구나. 아버지를 원망한다. 너희 나에게 참으로 모질게 대했지. 너희 손으로 빚은 재앙인 주제에 돌보지조차 않았다.”

“…….”

“나의 형제가 내 목을 물어뜯어 나를 잉태했으나 그 씨앗은 너희가 주지 않았더냐. 너희가 만든 싹이다. 너희가 만든 나무다. 너희가 맺게 만든 열매였다.”

“…….”

“그래, 나의 아버지. 내 어머니. 나의 어버이인 그대. 아, 그대, 나에게 왜 그리 모질게 대하셨소… 내가 짐승이기에? 인간이 아니라? 나 대체 무어란 말인가?”

그의 손톱이 쭉 내려와, 아테르의 얼굴에 긴 흠집을 남겼다.

“장난감? 아니지, 너희는 나의 어버이다. 너희가 나를 빚었고 나게 하였다.”

“죄송합니다.”

“…….”

이내 그의 손이 떨어진다.

“…왜 내가 분노하지조차 못하게 만드니?”

찬란한 황금 눈은 공허했다.

“개인은 선하나 군중은 악하다. 아, 그래, 맞다. 그것이 너희들이다.”

“…….”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필연이지. 이것이 운명이고. 이것이 인간이다. 끔찍한 것들. 사랑스러운 것들. 잔악하기 그지없으나 내게 미련을 만드는구나.”

“…….”

“아프기도 해라….”

창백한 손이 그 자신의 얼굴을 더듬어, 힘을 주고는.

뚜둑—.

“…….”

그대로 스스로의 목을 꺾어 죽었다.

“아.”

아테르가 손을 뻗고서는, 감히 그 육신에 닿기 전에 다시 거뒀다.

아르지오의 인영이 손의 감옥에 쓰러지고, 우글거리는 황금 눈의 손이 그것을 늪의 진흙처럼 천천히 집어삼켰다. 기형적으로 꺾인 목부터 시작해 어깨를 붙잡고, 손을 맞잡고, 허리를 끌어안아서, 아주 느릿하게….

곧이어 손의 감옥에는 아테르만이 남았다.

“…그게 당신의 뜻이군요.”

본능적으로 인간을 사랑하나, 그 끔찍함을 견디지 못해 제 선택으로 죽어버렸다. 그렇게 하여금 자신의 안에 오로지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하도록 둘 것이었다.

“…….”

아테르는 손으로 이루어진 감옥에 주저앉았다. 고목처럼 빼빼 마른 손은 이따금 아테르를 쿡 찌르고 그 어깨를 잡아 볼지언정 더 이상 상처 주지 않았다. 그저 가둬둘 뿐이었다.

그게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이마저도 다르군….’

비좁고 가시 돋은 감옥임은 같았지만 마법사들의 것과는 달랐다. 이들은 단지 장난을 걸어왔다.

차라리 더 많은 상처를 내지. 살점을 파고들고 내장에 기어들지. 그게 나을 것 같았다.

‘완전한 지옥이었다면 좋았을 거야.’

멍하니 앉아 있던 아테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은 악으로서 역사에 기록되길 원하셨지요.”

그것을 존중해 주고 싶었다.

“그날 검은 숲이 불태워질 때 가지려 했으나 가지지 못했던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궁금했다.

“그날 숲에서 당신은 도망칠 수 있었는데도 숲과 함께 불탔습니다. 그렇게나 분노한다면 차라리 숲을 나와 모든 인간을 도륙하지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 답을 압니다.”

그는 자연의 이치를 알고 인간의 본능을 이해했다.

“추해지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이 악물고 버텨봤자 같은 비극이 수없이 반복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이며 반복될 역사이기에, 그 부질없는 시간 속에 휩쓸리고 싶지 않아서.

아테르는 헛웃음을 뱉었다.

“역시 용은 용이라는 건가.”

그 고고한 혜안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오만한 것 같기도 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비루먹은 망령으로 남고 싶지 않기에 자신의 도살자를 키운다던 용다운 행태였다.

당신은 어쩌면 이상적인 신의 사자로서 자연에 남을 수도 있었다.

“…….”

그래서 미안했다.

‘…악으로 남고자 하기에 존중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를 구하기에, 감히 용사라 불리지 않았던가?

* * *

“이상한 점이 있어.”

단해라가 제 친구 서서희에게 설명을 이었다.

“검은망토의 사도인 태양교의 차이솔 예비 사제는 정작 꿈의 악신에게 악의를 품지 않고 있거든. 별다른 위기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 태양교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돌발 행동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

“그건 확실히 특이한 일이지.”

유스티티아의 길드장인 서서희는 금방 답을 내렸다.

“검은망토가 꿈의 악신보다 상위 계급의 존재라는 건가.”

“더 놀라운 건 검은망토가 꿈의 악신을 적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려나.”

“검은망토는 지구를 수호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어?”

“그런 거대한 신비의 행동은 그 방향성이 한 번에 바뀌지 않아.”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꿈의 악신이 아직까지는 지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뜻인가.”

“이번 토벌이 무사히 끝나게 될 징조일지도 모르겠네.”

“일종의 예언이라고 봐도 되려나. 아니, 어쩌면....”

서서희가 어느 어둑한 신전을 떠올렸다.

“죽음의 신과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한때 죽음의 신은 사악한 신성으로 분류되었다. 지금도 그는 악신으로 정의되지만 실제로 그를 위협이라 여기는 시민은 거의 없었다. 죽음은 필연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었다.

“그 꿈의 악신, 정확하게는 분노의 신성이라고 하던가?”

“맞아, 죽음의 신과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검은망토의 태도도 말이 돼.”

“어느 쪽이든 인간에게 해가 될 일은 없겠어. 지금은 너무 날것의 악의라 갈무리될 필요는 있겠지만 말이야.”

한때 죽음의 신이 그런 취급을 받았듯, 부정적인 개념의 신성이라고 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만은 안 됐다. 영원의 상징이라 불리는 이들은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어쩌면 우리가 분노의 악신과도 공존하게 될 것 같아?”

“가능성은 있겠네, 결국 사람들은 화를 내며 살아야 하니까.”

“...사실 지금은 분노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지.”

“왜 검은망토가 이번 사태를 마냥 방관하는지도 알겠어.”

“언제든 수습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상위 계급의 존재인 데다, 지금의 지구에는 분노의 신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걸지도 몰라.”

“실제로도 우리끼리의 토벌이 마냥 어렵지만도 않잖아?”

“아니, 너 진짜... 와... 지가 하는 일 아니라고....”

“그래서 안 하겠다고?”

“...참내.”

서서희가 허탈하게 웃었다.

“뭐, 최선을 다 해봐야지.”

그걸 위해 그들은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나저나 비사벌 길드장은 이번 토벌에 대체 왜 참여한 걸까?”

“지원은 넉넉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게 내버려둬.”

“그 아저씨도 참 웃겨.”

* * *

본디 전통적으로 인간을 돕는 동물의 존재는 상서롭다고 여겨졌다.

‘솔직히 이건 동서양이나 차원을 넘나들어도 공통적으로 꼽히는 요소이지.’

그래서인지 옛날 동화나 전설 속에서는 꼭 인간을 돕는 동물들의 존재가 한 번씩은 등장했다. 길을 잃었을 때 안내원이 되어주는 새라든가, 다리 다친 인간을 태워주는 말이라든가.

그래서 아람은 생각했다.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해하긴 했는데, 정말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뇨, 나중에는 말을 하실 상황이 올 테지만 당장은 아니라고요. 처음 등장부터 여러분이 언어를 사용하시게 되면 방문객들이 느낄 신비감이 급감해 버려요.”

“어, 그래, 그렇구나….”

늑대족의 족장인 가르갈은 매우 어색해하면서도 아람의 말을 받아들였다.

“하긴 어려운 일은 아니지.”

입 다물고 인간들을 도와주는 일 정도라면 말이다.

“마왕성에서 빠져나오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지 여기저기 다친 것 같은데. 계획대로 일을 진행해도 되는 것이 맞나?”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상처와 모욕과 수치는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면 저절로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당장 저에게 필요한 건 순조로운 계획의 진행이에요.”

“인간들은 다 너 같은가?”

“무슨 의미죠?”

“음, 어, 아니. 그냥.”

가르갈은 멋쩍은 듯 귀를 젖히고는 제 가족들을 돌아보았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데.”

“크르르르….”

“죽이러 가는 게 아니라 도와주러 가는 거니까 더 무해한 표정 좀 지어봐.”

“족장님, 저희 인상은 원래 더러운데요.”

“쓰읍, 어허, 안 된다고. 성녀님 말씀 못 들었나? 상서로운 동물이 되라잖아.”

“저희가 이 덩치로 어떻게 무해해 보일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 구겨지면 할 수 있어.”

그런 늑대들을 여우들이 비웃었다.

“하여간 덩치만 커서는 영리하게 굴 줄을 모른다니까.”

“늑대들에게 뭘 바라겠어요? 이번 작전의 가장 큰 공로자는 저희가 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어휴, 야만적이어라. 저런 무뚝뚝한 태도로 무슨 인간들의 마음을 사보겠다고….”

그에 늑대들이 울컥했다.

“우리는 뭐 덩치가 크고 싶어서 큰 줄 알아?!”

“어머, 정말로 덩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또다시 싸우기 시작한 늑대와 여우들에 아람이 까마귀 발프를 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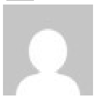
“…잘 부탁드립니다.”

“…노력해 보겠네.”

그렇게 일명 ‘상서로운 동물’ 작전이 시작되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64)"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65)

265

제265화

악신이 거대한 연극을 위해 배우를 모았다.

'그렇다면 이쪽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될 일이야.'

심장이 봉인되어 있던 아르지오는 가능한 한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온전한 신성이 된 악신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며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심지어 납치되었던 그녀의 너덜너덜한 모습을 보고서 진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마왕의 토벌 작전이 진행되는 것도 옳다고 볼 수 없었다.

'희생이 너무 커질 것이다.'

희생이라.

'…그래서는 안 돼.'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다. 앞으로 벌어질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측의 부담을 최대한으로 덜며, 서로가 납득하고 끝낼 수 있는 길. 성녀는 그 길을 찾아냈다.

'자칫하면 더 큰 피해로 되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아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했다.

'나의 선생님 또한 악신과 함께하고 있다. 지금껏 악신이 보인 수많은 자비와 변덕에는 그런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겠지. 나도 그분이 주신 도움만큼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어.'

그래, 아람이 세운 계획에는 이런 뜻도 있었다.

"……."

악신은 끝을 원하고 있었다.

'그건 정말 죽음을 뜻할지도 몰라.'

그는 영겁의 분노 속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버텨와야 했다. 그것은 봉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이었다. 아르지오는 결국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죽고자 할 수도 있었다.

신성의 죽음이란 불가능에 가까울 뿐 가능은 했다. 하물며 그 본인이 원한다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와 함께 몸을 쓰고 있던 아람의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다.

'그리고, 그건 아르지오 본인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계획했다. 어쩌면 이런 아람의 선택이 악신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 아테르에게 죽음의 자비를 베풀지 않고 살려내었던 것과 같이, 그에게는 너무 잔혹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게 나의 최선이야.'

이 계획이 과연 통할지 안 통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상대의 고통까지 살필 여유는 없었다. 마음을 굳힌 아람이 제 곁으로 날아온 까마귀를 보며 물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상상 이상으로 호의적입니다."

"하긴 한국인들이 그런 거 워낙 좋아하기는 하지…."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나요?"

"나와 다른 존재가 그들에게 호의적인 것을요."

몬스터와 친구가 되면 좋겠다는 낭만이 팽배한 세상 아니던가. 헌터라면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알았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그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기도 했다.

그리고 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영향을 받기 마련이었다.

"그들의 호의를 사주세요."

그래서 멈칫할 수 있도록.

"너무 앞서나가지 않도록, 벽이자 방패가 되어줘요."

"이해했습니다."

한때 아람의 안내원이었던 까마귀는 눈을 웃듯이 깜박이고는 다시 날아갔다. 지혜로운 까마귀들은 '꿈의 유원지'에 방문한 인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그들의 혜안은 믿을 만했다.

"……."

아람의 두 손이 꼭 쥐어졌다.

'…아테르 씨를 구해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계획은 성사를 시켜야만 해.'

증오에 가까울지언정 아테르가 아르지오에게 품고 있던 것은 친애이자 신앙이었다. 신이었으나 인간이었던 아르지오는 그런 아테르의 생을 쉽게 끝내주지는 않을 것이었다.

또한 아테르 역시 쉽게 죽어줄 사람은 아니었다.

'나에게는 나의 역할이 있다.'

아람은 그루터기에서 몸을 일으켰다.

"…하아아아…."

그녀가 제 얼굴을 쓸어내렸다.

"부디 잘되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보여도 성녀로 살아온 시간이 꽤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제법 활용할 줄 안다는 것이다.

* * *

던전을 방문한 헌터들이 피로와 고통에 지쳐가던 때에, 동물들이 나타났다.

“…여우?”

“우리 시체 파먹으러 온 거 아니야?”

“시발, 불길한 소리 하지 마라.”

꼬리를 살랑거리며 제 모습을 살짝살짝 드러내는 여우들. 여러 구조물 사이를 조용히 날아다니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까마귀들. 그리고 거대한 몸을 조용히 놀리며 인간들을 관찰하는 늑대들.

“저놈들 그거 아니야?”

“뭔데? 아, 아아. 그….”

“이 유원지에 안내원들 있다고 했잖아.”

“그때는 사람 형상이었다고 들었는데?”

“설마 악신에 이어 동물들까지 우리를 공격하려는 건 아니겠지?”

“모르겠다, 다들 장비 다시 입어. 주변 경계 해.”

하지만 그런 불길한 예상과 달리 동물들은 온순했다.

“…? 뭐지?”

“…귀엽네.”

특히 능숙하게 품을 파고드는 여우의 파급력은 굉장했다. 그들은 두툼한 꼬리를 살랑이고 곰살맞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당연히 모두가 그런 그들을 경계했고, 심지어는 공격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여우들은 그런 푸대접에도 깨갱거리며 울먹이고 도망가기만 했지 반격해 오지는 않았다.

기어코 일부 헌터들은 애교 부리는 여우들을 안아 들기 시작했다.

“야이 미친 새끼야, 던전에서 몬스터를 끌어안아?”

“아니, 이거 그냥 동물이잖아… 몬스터 아닌 것 같아서….”

“동물처럼 생겼다고 해도 이 유원지의 안내원이었던 놈들이라고.”

“근데 귀엽잖아.”

“…….”

한껏 지쳐 있던 헌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렇지.”

명색이 꿈이라 그런지 밥을 먹을 필요도 없고, 잠을 잘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 애교 부리는 털 뭉치는 제법 큰 위로가 되었다.

“사실 얘네들도 그런 거 아니야? 마왕에게 지배당하고 있던 거지, 억지로 노동 중이었다든가…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경계를 이렇게 안 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시발, 모르겠다. 이래서야 언제 집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 개같은 꿈은 대체 언제 끝나냐. 깨어나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만 깨어나던데, 왜 우리만… 우리도 현실로 돌아가서 정비하면 안 되는 거냐고.”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었으면 이러고 있지는 않았겠지. 아, 그런데 진짜 푹신하네. 뭔가 잠이 올 것 같은 기분이라… 좋다….”

이 던전은 정말 끔찍했다. 이곳에서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았다.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는 산송장들. ‘꿈’이

끝나지 않는 한 현실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차라리 한번 죽어볼까?”

“미친 새끼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니, 그냥 꿈에서 깨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서 죽어서 현실로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개같다, 진짜….”

“시체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싶은 거 아니면 다물어, 좀.”

“…그래야겠지.”

이쯤 되니 헌터들도 지친 것이다. 죽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일이 생겨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건 비단 꿈에 갇힌 헌터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이 이상 전쟁이 지속되면 현실에도 영향이 갈 겁니다.”

“이미 참가한 헌터들 중 대다수가 의욕을 잃었어요, 이대로면….”

“정말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악신의 의도를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겁니다.”

“뭐라도 결판을 봐야 한다고요.”

무슨 기준인지 ‘꿈’에서 깨어날 수 있는 헌터들도 피곤한 건 마찬가지였다.

그런 그들 사이로 파고든 것이 바로 세 무리의 동물들이었다. 능숙하게 품을 파고들어 꼬리를 살랑거리는 여우들을 필두로 까마귀가 날아와 달콤한 열매 같은 것을 물어다 주었다.

특히 늑대들은 조용히 곁을 내어주다 다가오는 악신의 손들을 내쳐 주기까지 했다.

“이거 봐요, 역시 이 녀석들도 악신의 지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라니까?”

“그러고 보면 동물들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적은 없었죠….”

“동물들도 저희를 돕는다면 승리의 무게 추가 저희 쪽에 있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들도 있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저희를 돕지 않았던 거죠?”

“늑대들은 정말로 크고 강인해 보이지만, 다가오는 악신의 손을 쳐내는 것 외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말을 알아듣는 건 분명한데도 악신의 본체나 심장을 물어보면 알려주지도 않고요.”

“완전한 저희의 편이라고 하긴 무리이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 동물들이 갑자기 어느 한 곳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따라오라는 거겠죠?”

“아, 아마도….”

“하지만 이게 함정이라면요?”

망설이는 사람들 사이로 유스티티아의 길드장, 서서희가 나타났다.

“그럼 제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 저기….”

“걱정 마세요, 설마 제가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는 특유의 신뢰 가는 미소를 지으며 앞장섰고, 그 뒤를 유스티티아의 일부 길드원들이 따랐다. 그 모습에 용기를 얻은 다른 헌터들도 서서희를 따라 짐승들을 쫓았다.

그리고 그들은 검은 숲의 유적 앞으로 안내를 받았다.

"…아, 이런."

그 앞에 서 있는 작은 인영에 서서희가 웃었다.

"달님교의 성녀님이시죠?"

"예, 잘 알아보셨습니다."

짐승들에게 보호받듯 둘러싸인 아람이 그들을 맞이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하얀 머리카락은 달님의 것을 닮았고, 온갖 상처가 나 붉어졌음에도 차분하고 이지적인 시선은 알 수 없는 신비를 담았다. 그런 그녀를 본 순간 서서희는 성녀의 의도를 알아챘다.

그는 성녀에게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다.

"이 많은 동물들이 지금 성녀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이들과 저는 뜻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역시 기민하게 서서희 길드장의 뜻을 알아차렸다. 영원의 상징이 장단을 맞춰주기로 한 이상 더 두려울 것이 없었다. 까마득한 선배님의 지원을 받아 아람이 입을 열었다.

"내 가족들이 지금 여기에 있나요?"

"…서, 성녀님…."

"나에게 오세요."

"성녀님, 저희, 저희는…."

그들 무리 사이에 끼어 있던 달님교의 사제가 앞으로 비척거리며 걸어 나왔다.

무언가 기이한 분위기를 느낀 헌터들은 성녀가 악신과 한패가 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영원의 상징 중 한 명이 버티고 있어 굳이 나서지 않았다.

그 덕분에 달님교의 사제 중 가장 높은 자리의 장로가 성녀의 앞에 무사히 닿았다.

"…다, 당신이…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을까 봐…."

달님교에서는 죽음을 그림자로 표현했다. 달의 그림자를 뜻함이다. 그들은 죽는다고 해도 달님의 품 안에 들 수 없었다. 그 안에 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녀와 성자들뿐.

그들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었다. 그 이상의 기억도, 지혜도, 명예도 없었다. 친애하는 가족이고 동료로 존경하던 성녀가 그리되었을 거라 생각해 왔던 나날이 얼마나 두렵던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녀님. 강건하게 계셔주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의 공백에 공포를 느끼셨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이지러지고 있습니다. 주, 주교님께서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아요. 현실에 있는 달님교에 무슨 변고가 있는지 더 오는 사람도 없고, 불길한 예감에 몸서리가 났습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다."

"…성녀님, 저, 저희가… 혹시…."

장로가 눈물을 삼키고는 물었다.

"...버려졌습니까...?"

"......."

성녀는 차분한 몸짓으로 저보다 몇 배는 큰 장로를 껴안았다. 장로는 신음하지조차 못하고 성녀의 포옹을 받았다. 그는 명백히 체념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람은 그렇게 둘 생각이 없었다.

"...내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안으로 와 주시겠어요."

포옹을 푼 성녀가 뒤로 물러나, 유적의 안에서 헌터들을 불렀다.

"모든 분이 봐주셔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시선을 모았으니 진실을 알고, 또 알려야 할 때였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65)"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66)

266

제266화

신께서 인간과 짐승을 한 세상에 빚었으나 그 말이 서로 통하니 균형이 그르더라. 언어는 곧 지혜를 뜻하여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기 바빴다. 그리하여 신께서 세상을 고치셨다.

“…….”

그분께서는 인간을 높이시고 짐승을 낮추셨다. 그 지혜의 권능을 빼앗아 한 점에 가두니 그곳에서 나무가 무성히 자라났다. 신께서 그 나무로 살을 빚고 당신의 뼈를 꺾어 토대를 세우니 그분 피가 흘러 새빨간 용이 태어났다.

“…….”

신께서 말씀하셨다. 내 아이야, 순한 양인 너는 내가 만든 세상을 지켜라.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사자이니 그 뜻을 받아라. 내 것을 겁먹게 만들지 마라. 용은 그분 뜻에 따라 인간의 형상을 취하고 때로는 짐승이 되어 세상을 지켰다.

“…….”

신께서 거두어주지 않으시니 그 생에 끝이 없더라. 용은 숲으로 가 스스로를 죽였다. 그 바다처럼 방대한 피가 숲을 뒤덮고 고이니 점차 썩어 독이 되었다. 그리하여 숲은 검게 물드니 신이 노하여 새로운 사자를 보내시고 그 사명을 저주하셨다.

“…….”

그날부터 용들은 죽음이 필요할 때면 숲으로 가 스스로를 죽였다. 숲은 무덤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했다. 용은 신께서 사랑하신 세상을 위해 자신을 바쳤다. 그들은 숲의 일부가 되어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

“…….”

숲에 독이 고여 용의 사명을 지키니 세상에는 평화가 가득하다.

그러니 용을 숲에 바치시오, 잊지 말고 인간 형상을 한 짐승을 숲에 바치시오. 그래야만 용이 평화를 가져온다네.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평화가 멀어진다네. 인간들아, 인간들아. 신의 사자를 바쳐 인간들의 시대를 이어가리라.

용은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니 그 거대한 몸 바쳐라.

“…이딴 것도 동화라고.”

아테르는, 왕실의 사서는 그 낡아빠진 고서를 깊은 지하에 되돌려 놓았다. 동화책의 형태를 갖춘 책은 유실된 언어가 가득 적혀 해독하기에도 용이하지 않았다.

“과연 용이 실존했던 것은 맞나….”

온갖 지식을 섭렵하길 원하는 그는 용에 대해서도 공부했다. 하지만 이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뿐이었다. 교주는 용이 실존했다 말했는데 정작 그 어디에도 멀쩡하게 남은 기록은 없었다.

“…….”

왜 그만이 용을 입에 담았을까?

“…흐음.”

당시의 아테르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먼지 묻은 손을 털고는 높게 솟은 서재용 의자에서 내려왔다. 사다리처럼 긴 의자를 원래 있던 곳에 두었다. 낡은 고서가 가득한 어두운 서재에 피워두었던 모든 불을 끄고, 문을 굳게 닫은 뒤, 지상의 서재로 돌아갔다.

평민 출신의 대검 쓰는 사서가 왕실의 도서관에 머물 때의 이야기였다.

* * *

“…….”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달님교의 사제는 침묵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악신이….”

“지금의 악신은 오랜 세대를 걸쳐 희생양이 된 괴물입니다.”

“…그건….”

달님교가 입술을 달싹였다.

“…저희와 전혀, 다를 게 없군요.”

그 신음과 같은 말에 헌터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달님교의 상황을 짐작하고 있던 서서희만이 한숨을 참았다. 하지만 이지를 잃은 것처럼 멍해 보이는 달님교의 사제는 그조차도 반응하지 못했다.

“저희 달님교와 같아요.”

처음에는 사명이었을 것이다. 신이 빚어냈다 한들 용 역시 갸륵한 마음으로 세상을 돌보았겠지. 그렇게 숲의 일부가 되었을 터다. 하지만 결국 그 끝은 세계의 멸망과 악신의 탄생이었다.

그렇다면 달님교 역시 언젠가는 악신을 빚어내고 마는 것이 아닌가.

“…….”

“…저희는 스스로의 사명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세대의 성인인 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성인이 그랬을 겁니다. 나는 알 수 있어요, 정말 행복했으니까.”

아람이 유적의 기록을 쓸며 말을 이었다.

“그게 옳았다고는 해도, 결코 옳은 방향이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이곳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저와 같이 작은 달굼돌이 달님을 데우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테죠.”

“…그사이에 이와 같은 비극은 또다시 벌어질 것이고요.”

“저희의 오만입니다. 신성을 감히 얕보았어요. 그들은 한낱 미물에겐 불변의 존재이고 영생의 개념인데 어찌 저희가 그에게 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신비의 자식인 용조차 타락해 버리고만 전통이었다. 그와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달님교의 끝은 뻔하디뻔했다. 아람은 저를 망연히 바라보는 사제와 시선을 마주했다.

“그러니 이것은 타락한 용의 토벌이 아닌, 버려진 아이들의 위령제입니다. 나는 그걸 위해 이곳에 남았고 이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우리가 뭘 해야 하겠어요?”

“…….”

“나는 지금부터 나의 스승, 달님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아람이 장로의 손을 붙잡고 가볍게 기도하듯 이마를 댔다.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이리도 미숙한 존재입니다.”

“우린 모두 미숙한 채로 태어나 미숙한 채로 끝을 맞이하고는 하죠. 이 짧은 생을 불태워 아무리 모든 지식을 껴안으려 한다 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했고, 이번에는 여러분의 차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달님교는… 뭐든 허락받을 수 있는….”

“그 허락의 범위 안에 악신을 만들어내는 악습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순이었죠. 그러니 생각하세요. 끝없이 고뇌하고 길을 찾아요. 그게 우리 인간 삶의 의미일 것입니다.”

“아, 저, 저는….”

“…….”

“…….”

한참을 망설이던 장로가 상황을 지켜보던 헌터들을 돌아보았다. 그들 중 일부는 달님교를 경계했고, 또 누군가는 안쓰럽다는 듯이 보고 있었다. 그제야 장로는 깨달았다.

이런 표정을 짓게 만드는 전통이 옳을 리가 없었다.

“…최선을 다해, 길을 찾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걸을 길을 내가 감히 밝혀드려도 되겠습니까.”

“넘치도록 감사한 일이겠죠.”

아람이 이내 서서희를 돌아보자, 그가 웃으며 물었다.

“제가 함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은 신성을 죽일 수 없다.

하지만 신성과 신성의 일이라면, 가능했다.

‘…아르지오 씨는 그것을 알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그 수많은 손과 드넓은 마왕성 어디에도 붙잡힌 달님은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이 마을처럼 넓은 유적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람은 꿈속에 제 스승이 없음을 느꼈다.

“…….”

아람은 이것이 신과 신의 싸움이 아니었으면 했다.

“…꿈에서 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람은 아주 오랜만에,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떴을 땐 달님교의 침실이었다.

* * *

“…….”

아람은 푹신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품에는 어느샌가 잃어버렸던 베개가 들려 있었다. 푹신한 솜털이 가득 찬 베개. 조금 낡은 그것은 처음 달님교에 왔을 때 그의 양어머니가 사준 것 중 하나였다.

아무것도 없던 그때엔 이 따듯한 베개 하나에도 어찌나 행복하던지….

“…주교님.”

그녀의 음성이 제 방을 공허하게 울렸다.

“어디 계실까요.”

아람은 침대 위에 고이 베개를 올려둔 채로 발을 옮겼다. 여기저기 유원지와 숲을 뛰어다니며 입은 부상과 묻었던 먼지는 꿈이었다는 듯 사라져 있었다. 그게 왜인지 씁쓸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요해진 달님교를 거닐었다.

“…….”

모두가 잠들어 있었다.

‘…그래, 이럴 거라고 생각했지.’

어느 순간부터 현실의 달님교로부터 지원이 끊겼다고 했다. 무언가 이상이 생기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그게 현실로 벌어졌다면 명백한 원인이 필요했다.

아람의 발이 이내 달님교의 공동 기도실에 닿았다.

“…주교님.”

“…….”

“…어머니….”

“…성녀.”

달이 뜨지 않은 새카만 호수 위에, 달님을 품은 여인이 앉아 있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예.”

“성녀는 참으로 영특하지요.”

그녀는 이곳까지 한걸음에 자신을 찾아온 성녀를 칭찬했다. 그 안의 동그란 달님이 약한 빛을 내며 잠든 아이처럼 안겨 있었다. 그것을 쓸며 응시하는 주교는 결코 아람을 바라보지 않았다.

“처음 눈이 오는 골목에서 성녀를 보았을 때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더 많은 것을 보길 원하는구나. 세상을 궁금해하고 있구나. 그 총명한 눈을 보자마자 성녀가 있어야 할 곳을 알았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나는… 성녀가, 성녀의 자리에 앉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바랐을지도 모르죠. 달님교의 주교로서 성인의 탄생은 반가울 일이니. 하지만 끔찍하지 않던가요, 그 공백이 참으로 나를 아프게 만들더군요….”

그녀의 말은 나긋했지만 엉망진창이었다.

“너무 아팠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성인도, 알려지지 않은 성인도 참 많았습니다. 그들 모두 나를 지나쳐 갔어요. 몇 번이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데려가셔야 했다고. 내가, 아, 내가… 그들 대신 죽었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주교는 들고 있던 달님을, 호수 아래로 처박았다. 검은 물 아래로 옅은 빛의 달이 점차 가라앉으며 사라졌다.

“…….”

“…성녀.”

“나는 단 한 번도!!”

아람은 고함쳤다.

“당신이 나를 희생시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라고 한다면 나의 죄였다. 당신의 죄라면 모두의 죄였다. 이렇게 희생된 목숨에 괴로워 견디지 못해 썩어갈 것이었다면 어찌 바라보고만 있었나.

비명이라도 질러보지. 아프다고나 해보지.

“…아무리 주교님이라 해도 나의 선택을 모욕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죄가 참으로 큽니다, 참으로 커요. 그 모든 진실을 알고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성녀는 아직까지 내가 성녀라 부르는 것에 화를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자리가 마음에 듭니다. 나 스스로 오른 자리이며, 쌓아 올린 것도 많은 자리였습니다. 실패한다면 내가 실패해야 해요. 고통받아야 한다면 그 역시 내 선택이겠죠.”

“성녀.”

“어머니, 나는 도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설령 그게 아무리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해도.

“나의 의지로 모든 것에 시도할 가치가 나에게는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가치였다.

“저희,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죠?”

“그러고 싶지 않았으니까.”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아테르라는 이름의 왕실 사서인데, 정말 사람이 얄밉더라고요. 입바른 말만 해대는데 옳은 소리를 하고서도 사람을 화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겁니까?”

“싸워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분노해야만 해요.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의견의 존재를 가늠하게 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귀중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무기이자 성곽이다.

“화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 서로의 생각을 겨룰 수 있을까요?”

옳은 이도 있고, 옳지 않은 이도 있으나, 옳으면서 그른 이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아람과 주교 역시 그 흔하디흔한 회색분자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들은 화를 내어야 했다.

“내게 화를 내십시오, 어머니.”

“성녀.”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나는….”

성녀가 울먹이며, 미소 짓고, 손을 들어 어두운 동공에 우주를 꺼내어 왔다.

둘은 이제 우주에 있었다.

“…한 번도, 어머니의 생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비의 지식을 좇았기에 가장 가까운 지식을 놓쳤다.

아람 역시 죄인임을 뜻하는 과거였다.

* * *

“…….”

성운으로 일렁이는 우주를 보며 주교, 배서경은 눈을 깜박였다.

“…정말로 아름답군요.”

나의 이야기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달님교의 교주도 아닌 주교 따위의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쓸 일이 없는, 말하자면 가치 없는 지식. 그것으로 짧은 생을 이어가야 할 아람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듣고자 한다면 말해 주어야겠지.

“달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녀가 새하얀, 달을 닮은 제 아이를 눈에 담았다.

“그게 시작이었죠. 나는 한때 내가 당연히 달이 될 것이라 여겼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내 곁의 가족과 친구들이 떠나갔습니다. 나는 그들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 기억이 그리도 생생한데… 더욱이 그들은 하나같이 다정하고 선량한 이들이었습니다.”

우주의 오로라가 드리운 기도실에서 배서경은 고해를 이어갔다.

“나는 그때부터 연구를 이어 왔습니다. 달님의 곁에 별을 만드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이들도 이 지독하게 어두운 우주에 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달이 외롭지 않도록. 그 곁에서 달이 된 성인들과 함께 인간의 마음을 속삭이며… 그렇게, 하여금….”

아니, 사실은.

“…사실은 그저 괴로움을 견디지 못했을 뿐입니다. 달의 생은 이토록 길고 인간의 시대는 짧은데, 고작 우리만으로 어떻게 달을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필연적인 실패를 알았습니다. 그걸 부정하고자 별이 되려 했으나 참으로 힘겨웠습니다.”

그 어떤 지식과 지혜를 활용해도 그녀는 별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꿈의 신이 나에게 지혜를 빌려 주셨습니다.”

“그는 꿈의 신성 따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는 꿈의 신이셨습니다. 내 꿈을 알아봐 주셨고, 더 큰 꿈을 속삭이고, 그 길까지 알려주신 그분이 꿈의 신성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달님교의 사형제들을 전부 잠재우셨군요.”

“아니, 그들은 아직도 깨어 있습니다. 그럼요. 성녀.”

배서경이 달처럼 빛나는 아람을 보며 말했다.

“주변을 보세요.”

신비롭게 일렁이는 우주에 ‘별’들이 반짝였다.

"당신의 별입니다."

"......."

아람이 입술을 비틀었다.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야겠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배서경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 스스로 원했고, 또한 당신 곁을 지킬 영원의 가족이다.

"이 별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 화를 내는 것일까?

유성우가, 달에게로 떨어져 내렸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66)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66)"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67)

267

제267화

이전 날, 배서경은 악신에게 달을 건네받았다.

“곧 내가 많은 화를 내게 될 것이다.”

어린 가족을 어르는 듯한 부드러운 말과 어조였다.

“그때가 되면 내가 어찌 너를 기억하겠느냐. 나 분노에 휩싸여 수없이 어리석은 선택을 저지를 테니 이 고귀한 달을 너에게 맡기마. 너의 소임을 다해 내리라고 내 믿고 있다.”

“…이것이, 진정… 스승님이란 말씀입니까….”

배서경은 조심히 달님을 안아 들었다.

“…….”

고귀하기도 하지.

차갑고 둥글었다. 잡고 있음에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 부족한 그릇으로도 달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악신께서 자비를 베푼 덕분일 것이었다.

“…아….”

배서경은 제 딸아이를 안듯 달님을 끌어안았다.

“…오랜 시간 스승님을 뵙길 원했죠. 대체 어째서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냐고 수없이 여쭈었습니다. 그럼에도 답은 들려오지 않았고 나는 언제나 주저앉기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너희의 스승은 네 품 안에 있다. 너는 달님교의 주교다. 그 차가운 집의 가족들을 지키고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하지. 내가 묻건대 너 무엇을 바라니?”

“옳은 길로. 내 가엾은 가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네가 말하는 옳은 길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구나.”

“이 차가운 집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가족이고 사랑이며 온기입니다. 그 누구도 홀로 떠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썩은 술들아.

“세상에 우리의 죄를 알리고 그 죗값으로 하늘의 별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그것만을 바랐다.

배서경은 기쁘게 웃으며 분에 넘치는 기회를 받아들였다.

* * *

쿠구구궁…!!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 모두가 성녀를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별이 떨어져 내렸다.

“이 반짝이는 것이 당신 사형제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 너무나도 아름답군요. 이게 진정 달님교가 걸어야 했을 길이었습니다. 죄인이 하늘의 별이 된다면 이보다 더한 영예가 대체 세상천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별은 곧 지상 위의 작은 달, 성녀에게로 닿았다.

“당신 가족이 이렇게 값진 형태로 빚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족의 형태는 결코 별이 아닙니다!!”

카강—! 카가가각!!

성녀는 성운의 힘으로 별의 날카로운 방향을 뒤틀었다.

“나는 별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난 그저 작은 달굼돌이 되고자 했던 것이지 결코 당신들을 희생시키고자 한 게 아니었어! 내 가족을 해치게 될 것이라면 내가 어찌 달이 되길 바랐겠습니까!!”

떨어져 내린 별이 그녀의 우주에 담겼다.

‘버거워.’

아람은 고작 인간일 뿐이다. 그릇이 조금 클 뿐 결코 신성이라 할 수 없었다. 당연히 우주의 힘을 쓰는 것도 벅찼다. 이 수많은 별을 담아내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적막했던 달님교는 더더욱 고요해졌다. 현실에 남아 있던 모든 사제들은 잠이 들고 말았다. 그렇게 잠이 든 결과물이 바로 이 찬란한 별들이었다. 너무나 잔혹했다.

아람이 이 중 하나라도 놓치거나 상처 입힌다면 그녀의 가족은 평생 원래의 모습을 되찾지 못할 것이었다. 그건 아람이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있는 힘껏 제 우주를 넓혔다.

“내 핑계를, 어찌 비겁하게 내 핑계를 대십니까…! 진작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야지요! 당신이 그토록 사무치는 외로움에 괴로워했다고! 신음하는 나날을 보냈기에 악신의 속살거림이 너무나 달콤했다고!!”

“악신께 유혹된 것은 사실이나, 성녀, 당신과 같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보십시오, 이 작은 그릇을! 내 볼품없는 몰골을! 나는 감히 하늘의 달이 될 수 없고 우주의 조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나의 최선이었어!!”

“대체 왜 나는 바라지도 않던 최선을 다한 거냐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 나한테 말 한마디 해줄 수도 있었던 거잖아!! 나는 당신 딸인데. 당신의 가족이고 친구였는데. 당신의 동료였는데…!!”

울컥, 눈물이 나왔다.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배서경이 그녀에게 준 사랑만큼 아람 역시 제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 또한 내 죄입니다, 내 죄였어요. 당신이 주는 애정에 푹 취해버려 내가 현실을 보지 못한 거야. 내가 당신을 존경했거

늘 그것이 해악이 되었습니까? 당신을 향한 내 맹목이 그 두 눈을 가린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별은 계속해서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유성은 별의 시체라고도 하던데 딱 그 짝이었다.

그녀의 가족이 별이 되어 지상으로 떨어졌다. 나락 그 아래로 추락한다. 이 새카만 호수 아래에는 생명이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차디찬 지식과 지혜만이 가득 찬 검은 호수 아래로 내 가족이 파묻히고 있었다.

“어째서 당신만의 죄라고 외치는 거죠? 나 역시 달님교의 일원이고, 더 이상 비루먹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날 데려왔던 빼빼 마른 멍청한 아이가 아니야!”

“이 모든 게 성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커다란 오만이고 죄악이겠죠.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며 또한 나를, 그리고 이 썩어버린 물을 갈아치우기 위함입니다. 성녀, 보십시오. 당신 여기서 우리가 지은 죄를 알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다고 하여 도망치는 것이 어찌 속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속죄 따위가 아닙니다! 나를 직시하세요, 내가 정녕 무엇을 바라고 이런 꼴이 되었는지 모르시겠단 말입니까? 모든 게 나의 이기심이었어요! 모든 게 나의 부족함이었죠! 이건 단지 악신의 자비로 인한 발악이며 화풀이일 뿐입니다!!”

배서경 또한 서러움에 소리쳤다.

“더 이상 달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

너무 많은 가족을 떠나보내야만 했다.

아, 그러지 말 것을. 당시의 배서경은 젊었고 또 어리석었다. 지혜가 부족하고 그릇이 작은 그녀로서는 달님에 담기는 성인들께 그저 감사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깨달은 것이다.

인간은 결코 신성을 뒤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전부, 전부...!”

“제발 그만해!!”

“전부 개죽음일 뿐이었다고!”

배서경은 자기 자신에게 분노했다.

“내가 그들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달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인간 중 달님의 사랑을 두 번째로 많이 받던 어린 사제. 그게 배서경이었다. 그녀에게는 권한이 있고 여유가 있었다. 그런 그녀는 성인들의 죽음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닐 거예요, 이제는 아니야, 내가 별이 되는 방법을 익혔어. 악신의 지혜를 빌렸습니다. 지금 당신의 우주는 너무나도 작지만 더없이 넓어질 테죠. 거기까지는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야. 나는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지금만 해도, 보라.

“너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녔는데.”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

“아람아, 제발. 너는 이미 많이도 추워했잖니...!!”

비겁한 말이지만, 그래, 그때 필사적으로 막아설 것을 그랬다. 저 영특한 아이를 데리고 달님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다. 최소한 성녀로 만들지 말았어야 했단 말이다.

“네가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타는지 알아. 그날 길에서 내가 너를 봤다. 추운 겨울날 홀로 떨고 있는 너를 봤어. 그럼에도 세상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너에게 내가 이따위 구역질 나는 운명을 쥐게 한 거야....”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아이인데.

“하늘 위의 별은 우리가 될 터이니 세상을 보렴. 네 그 총명한 눈으로 세상을 보란 말이다. 너는 이제 막 좋은 기회를 얻었어. 좋은 선생님도 얻었고, 새 삶을 살 기회도 얻었고, 우리는 그동안 천대했던 귀중한 감정들을 익힐 기회가 지금 너에게 왔다는 거다.”

“맞습니다, 나는 그것을 바랐어요. 천박하고 깊이가 얕다고 여겼던 말초적인 기쁨 역시 인간을 이루는 귀중한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할 때의 기쁨을 나 아주 오랜만에 깨달았어요! 전부 잊고 있었지, 그랬었어!”

콰아아악—!!

아람이 눈물로써 제 우주를 넓혔다.

“하지만 그곳에는 당신들이 주던 기쁨 역시 있었다고!!”

내 가족, 내 미련한 사람들아.

“그동안 소홀했던 만큼 내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 어찌 나의 죄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 제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당신도 이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별이 된다니, 이 얼마나 외롭고 끔찍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적합한 지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별이 된다면 그 지옥 중에서도 최고의 호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호사스럽네요. 분에 맞지 않는 사치를 누리고자 함입니다. 하나 어쩌겠습니까? 악신의 자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데!!”

배서경이 양손을 뻗어 별을 불러냈다.

“이토록 아름다운 지옥은 두 번 다시 허락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별은 저들끼리 뭉치고, 부딪히고, 깨져서 그 파편으로 하여금 성녀의 시야를 가렸다. 우주의 모든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며 비산하는 모습은 가히 예술적이라고 할 만했다.

“제발 내가 이 아름다운 지옥에 갇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인계에 남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리하면 언젠가 달이 된다 한들 당신의 외로움이 덜하겠죠.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겠습니다, 이 죄인들이, 당신의 죄인들이…!!”

“나는 달이 될 겁니다—!!”

망가지고 부수어진 별들 사이에서 아람이 새된 비명처럼 고함쳤다.

고요가 내려앉는다.

“…….”

“…….”

세상이 멈췄다.

그녀는 제 우주를, 붙잡았다.

“…아, 하하… 하하하….”

그 광경에 배서경은, 새까만 호수의 수면 위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름답군요.”

배서경이 마구잡이로 날리고 망가트렸던 별은 우주에 제 자리를 잡고 안락하게 유영했다. 마치 천문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처럼 잔잔했고, 평온했고, 또한 신비로웠다.

그녀가 만들어냈던 밤하늘 따위에 비할 바가 안 되었다.

“이, 하늘을… 만들고 싶었는데.”

평화가 가득한 밤하늘.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

“이것이 지옥으로 보이십니까.”

“…내 보잘것없는 눈에는 천국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당신이 속죄할 장소로 보이십니까.”

“이것은 하나의 작품이니 내가 발을 넣을 공간이 아닙니다.”

“그럼 어찌 별이 되고자 하십니까.”

“나에게 길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케케묵은 죄악이며 나아가야 할 곳은 낭떠러지였다. 그렇기에 악신의 자비에 감사했다. 비록 춥고 외로운 얼음별에 갇힐지언정 그는 길을 알려주었으니까.

“좋은 주교가, 좋은 형제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악신의 것처럼 물든 배서경의 눈에서 황금색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전 날에 모두 알고 있었으니 악신께 빌었죠. 그리고 그분께 달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나는 그릇이 참으로 작은 모양입니다. 신성을 품에 안고서도 성녀께는 비할 바 없을 비루먹은 밤하늘이나 흉내 내고 있었으니….”

성녀는 제 우주를 넓히고, 넓히고, 또 넓혔다. 그리하여 배서경이 볼품없이 꾸며낸 밤하늘마저 품었다. 그러고는 더는 추위와 외로움에 떨지 않도록 끌어안았다.

신비가 가득한 우주에 안겨진 별들은 무척이나 안락해 보였다.

“…….”

“…길을….”

그릇을 강제로 넓혀낸 탓일까. 아람은 식은땀을 흘리며 색색 밭은 숨을 내뱉고 있었다. 제 가족 중 누구 하나도 호수 아래에 처박히지 않도록 발악한 덕분이었다. 그런 탓이었다.

평생 해보지 않던 고함을 몇 차례나 친 아람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내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성인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아람은 깨우쳤다.

아람은 제 어머니와 같이 수면에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호수 안으로 첨벙, 양손을 넣었다. 곧이어 몸을 일으킨 그녀의 손에는 배서경이 가둬두었던 새하얀 달님이 있었다.

아람이 말했다.

“…인간의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신비의 가치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은 대체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의 말씀처럼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작은 손 위에서, 달님이 크게 빛났다.

“그러나 끊임없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고, 신비의 가치는 운명과 자연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세상은 그 끝나지 않는 고뇌의 과정을 통해 발전합니다.”

아람의 손에서 살며시 달님이 떠올랐다.

“이게 내가 품은 신념입니다.”

또한 악의였다.

“내가 지독하게 끌어안아야 할 세상입니다.”

“…….”

“나는 달님이 되겠습니다. 하나 잡아먹히지 않겠습니다. 지식의 서고인 달님께서는 정보의 집합체일 뿐 우리의 스승이라 부를 수 없어요. 내가, 이것을 쥐고, 세상을 보겠습니다.”

“…아람아….”

“압니다, 힘들 것입니다. 악신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달님을 손에 쥐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보세요, 어머니.”

아람은 양손에 가득 찬 달님을 들어 보였다.

“…따듯해요.”

검은 숲의 용들과 달리 스스로를 바쳤던 고귀한 성인들이, 미약하나마 달을 데우고 있었다.

“개죽음 따위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떠나보냈던 성인들은 아직도 이 안에서 달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춥고 외로움을 견뎌내며 온기를 잃지 않았던 겁니다.”

“…….”

“단지 우리에게는 요령이 부족했을 뿐이었어요. 방법이 글렀으니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이었겠죠. 그러니 내가, 아직 부족해지지 않은 내가 달을 들겠습니다. 내가 사형제들의 스승이 되겠습니다.”

배움과 처벌 중, 아람은 배움을 택했다.

“우리가 무지로 죄를 지었으니 배워서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람이 눈물을 쏟으며 제 어머니 앞으로 기어갔다.

“내가 책임질게요.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악신을 만들어낼 끔찍한 길을 걷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는걸요. 내가 이 안에 담긴 성인들의 추위와 외로움 모두를 앗아가고 또 지켜낼게요.”

“…그건, 너무… 힘든 길이….”

“더 쉽고 편한 길은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길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죽음과 전멸로의 속죄가 어떻게 옳다고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분노로 처벌하고자 했던 악신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될 겁니다. 내가 도울 테니, 나를 도와줘요.”

“…하지만….”

“어머니, 제발. 달님을 들어주세요.”

무릎걸음으로 다가온 아람이 배서경의 떨리는 두 손에 달님을 쥐여주었다. 작은 두 손과 주름진 두 손이 크게 빛나는 달님을 맞들었다. 가볍고도 찬란했다.

배서경은 멍하니 그 달을 매만졌다. 분명 아까도 들어보았던 것이지만, 이상하게도….

“…….”

온기가 느껴져서.

“…아….”

투명하게 울었다.

* * *

그 모습을 붕대 감은 남자가 바라보고 있었다.

“…….”

그의 발에 닿은 것이 황금이 되었다 이내 녹아내렸다. 그러고는 새까만 독이 되었다. 양의 두개골을 쓴 그는 황금 피를 흘리며, 절뚝거리는 발걸음으로 어둠 속에 사라졌다.

그 맨발에서 소리는 나지 않았다.

『...내 두 번째 손이 비었으니.』

독이 물든 허공에는 뒤늦게 그의 음성만이 남았다.

『이제 무엇을 들어볼까...』

사슴 한 마리가 그 곁을 따랐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67)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68)

268

제268화

일이 진행되는 동안, 던전의 헌터들이라고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니었다.

"이 숲을 더 둘러보도록 합시다."

특히나 달님교의 사제들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유적의 안과 바깥은 시간의 흐름이 다릅니다. 굳이 둘로 나눠질 필요 없이 모두가 함께 이동하는 게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 넓은 유적을 천천히 확인한다고 해도 바깥의 시간은 거의 흐르지 않아요. 사형제들은 모두 여기로 모이십시오."

"성녀님께서 죄 많은 저희를 위해 나서셨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저희끼리 논의하고 합의까지 마치는 달님교 사제들에 어느 헌터가 어색하게 물었다.

"저기, 저... 대화를 좀...."

"여러분께서 저희 달님교의 죄악에 거부감을 느끼고 힘들어하실 거라는 것을 압니다. 굳이 저희에게 맞춰주실 필요 없습니다. 불편하실 테니 각자 할 일을 하죠."

"아니 그렇게 갑자기 정의 내리지 말고."

"불쾌한 진실을 알려드리게 되어 송구할 뿐입니다. 하나 저희의 성녀님께서 달님교를 위해 그렇게까지 나서주신 이상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코 민폐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화를 좀 해보자고요, 이 사람들아. 혹시 일부러 이러나?"

경력 많은 헌터가 달님교 사제들의 목덜미를 끌고 헌터들 사이에 뒀다. 사제들은 "어어" 하면서도 그대로 끌려갔다. 몰매라도 맞을 준비가 되었다는 그 쭈글한 얼굴들에 헌터들이 수군거렸다.

"달님교가 원래 이런... 이런 분위기였던가요? 제가 종교계 느낌을 잘 몰라서."

"제가 알기로는 지식과 지혜만을 중시하는 건조하고 개인주의적인... 냉철한 사제들이었는데요."

"저 맹한 반응들을 보고도 냉철이라는 말이 나오십니까?"

"평소에는 그랬다고요, 평소에는."

헌터들은 달님교 사제들의 문제점을 느꼈다. 그들이 파고들어 깨달았다기보다는 사제들의 표정 관리가 무너져도 한참은 무너진 탓이었다. 달님교의 사제들은 어딘가 나사가 빠져 있었다.

가장 큰 죄악이 까발려진 그들은 수치심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크윽...! 죽이십시오!"

"이 인간들 대체 뭐가 문제야."

헌터들은 그저 황당해하기만 했다. 달님교의 죄악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문제가 생겼어도 달님교 내부의 일이지, 저희한테까지 그렇게 몸을 굽히실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죽여 달라느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뭔... 사극 찍나. 가뜩이나 던전에서 할 일도 많은데 저희끼리 불편해지지 맙시다. 사제님들도 고개 좀 드세요. 나가서 수습하시면 될 일이지, 나 원 참...."

"그보다 뭐 하실 거면 저희도 좀 끼워 주시고요. 저희 길드장님이 꿈을 다 꾸셔서 그런지 몇 시간 전에 나가 버리셨어요. 지혜를 빌려줘요."

성인을 신성에게 바쳐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자 했던 달님교의 행적은 소름 끼쳤다. 일부는 화도 냈다. 하지만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즘 시대에 그게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래서 뭘 하면 된다고요?"

그들은 일단 이 개같은 악몽에서 깨어나고 싶었다.

"이 유적을 둘러보면 되나?"

"죄 많은 저희와 엮이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참회의 방법을 찾을 테니...."

"그 방법 좀 공유하자고요. 달님교 그렇게 안 봤는데 이기적이네, 자기들끼리만 공략하려고."

"저희는 귀한 분들의 비참한 최후를 방관한 죄인입니다...!"

"알 바인지?"

"어, 어어떻게 그런 심한 말씀을...!"

헌터 중 일부는 그런 달님교의 본질을 알아챘다.

"...아, 사회성 부족."

"오... 그렇군."

"어쩐지 말이 안 통하더라니."

평소 냉철한 학자라는 이미지에 가려져 있던 달님교의 폐쇄적인 문화가 떠올랐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연구하고 공부하니 사회성이 길러질 수 없었으리라. 당연한 결과물이었다.

"여러모로 태양교 사제님들과는 다르네."

"그쪽 인간들은 만나면 내가 기가 빨려...."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새 기부금을 내고 있다니까."

태양교와 달님교의 사이가 유구하게 나쁜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었다. 성향 차이가 너무 컸다. 실제로 무리에 끼어 있던 일부 태양교 사제들은 한심하다는 듯이 달님교를 보고 있었다.

"허어, 참. 어찌 귀하신 성인을 그렇게 대했을꼬...."

"그럴 거면 우리 주지."

"자매님, 듣는 귀가 많습니다. 교양 있게 말씀하세요."

“달님교보다는 저희가 성녀님을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안 그래도 성자로 추정되는 서지오 헌터가 최근 달님교에 눌러앉은 것이 불만인 태양교였다. 아마 이번 던전이 잘 끝나고 나면 그들은 서지오 헌터와 성녀 아람을 빼앗기 위해 달님교의 안과 밖을 들들 볶을 것이었다.

달님교는 그런 태양교의 생각을 알면서도 차마 무어라 화낼 수도 없었다. 그 기죽은 반응에 태양교는 오히려 찜찜해했다. 차라리 평소처럼 서로를 향해 날 선 말을 던지는 편이 나았다.

“…떼잉 쯧, 저러니까 뭐라고도 못 하겠네.”

“왜 저렇게 기가 죽었어? 그러게 진작들 잘할 것이지….”

사제들의 묘한 분위기 속에서 서서희가 웃었다.

“그럼 슬슬 움직여 보도록 할까요.”

“아, 예.”

“그러죠….”

지식과 정보를 정리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달님교 사제를 중심으로 헌터들이 유적을 분석했다. 유적은 큰 도시를 둘러싼 성곽처럼 넓었다. 그곳에는 악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성녀 아람이 떠나기 전에 설명해 준 것이었지만….

“…….”

유스티티아의 길드장, 서서희가 벽을 응시했다.

“…….”

“길드장님? 거기에 뭔가 있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잘 만들었다 싶어서.”

유적의 벽 곳곳에는 음각으로 그려낸 작품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순간 실재한다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섬세하고 사실적인 작품도 있었고, 추상적으로 풍경이나 동물, 혹은 얼굴이 그려지지 않은 인간의 그림도 있었다. 서서희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멋지지 않아?”

“…….”

부길드장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황혼을 그려낸 천장이었다.

“…아.”

처음에는 마법적 환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그건 순수하게 횃불과 그림자, 음각으로만 만들어낸 황혼이었다. 부길드장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임을 깨달았다.

서서희가 제 친구의 반응에 물었다.

“대단하지? 이대로 꽤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을 텐데도 제법 멀쩡하네.”

“…던전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길드장님뿐일 겁니다.”

“아니야, 비사벌 길드장님도 비슷해. 던전에서 낭만 찾기.”

“그분은 좀 특이하신 경우가 아닙니까.”

“해운이도 그렇고.”

“…….”

또 다른 ‘영원의 상징’까지 나오자 부길드장은 입을 다물었다. 다른 길드인 수집가를 혀 위에 올리는 건 상관없지만, 제 상관과 그분 친구들을 멋대로 다루고 싶진 않다는 의사 표현이었다.

서서희가 가볍게 웃었다.

“이상하게 나는 이런 작품이 참 좋단 말이야.”

마법이 실존하고 신비가 난무하는 세상이다. 스킬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서서희는 이런 게 더 좋았다. 인간이 만들어낸 순수한 기적과 감정.

거대하고, 직관적이며, 아름답지 않은가?

“누가 만들었을지 궁금하네.”

“지금까지의 기록으로 살핀다면 이 숲에서 마지막으로 죽은 용이었을 겁니다.”

“용이라고 하면 보통은 마법을 쓰지 않던가? 신비의 끝이라고 불리는 존재잖아. 더 쉽고 간편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도 번거롭게 작업을 했어.”

“망가진 나무 의자나 사다리들이 어디에 쓰였나 했더니 이런 거였나 봅니다.”

“…안타깝네….”

입맛이 썼다.

“대단한 예술가였을 텐데.”

“그 예술가가 지금 저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이려는 게 아니라, 화를 참지 못해 어쩔 줄 모르는 것뿐이야.”

“그 용이 안타까우십니까?”

“항상 만약을 떠올리는 건 어쩔 수가 없지….”

모든 게 잘 풀렸더라면 시대를 이끄는 예술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좋은 조각가이자 화가였을 것이고, 흥겨움을 예술로 승화시킬 대단한 춤꾼이었을 터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언젠가 우리의 세상에서도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달님교의 상황도 꾸준히 눈에 담고 있었다. 또 다른 친구이자 영원의 상징인 정해운 역시 그걸 위해 밑 작업 중이었고.

준비했던 것을 활용하지는 못했지만 생각지 못하게 달님교의 비극을 막을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

“…….”

그래,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면 됐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유적은 더 살펴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달님교의 사제님들이 그렇고.”

“길드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집을 이렇게 헤집어 두었으니 집주인이 나타날 때가 되었는데, 영 보이지를 않네. 처음 ‘꿈의 유원지’에 왔을 때 보았던

그 거대한 용은 지금 대체 어디에 있을까?”

“마왕은 마왕성에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 없다면 직장에 있겠죠, 갈 곳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것도 좋은 추측이야.”

서서희가 검을 들고, 걸음을 옮겼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라서.”

“현실의 시민들에게 안 좋은 반응이 나올 때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 이상 끌면 상황이 더 악화될 거야.”

성녀님은 성녀님대로 바쁘신 듯하니,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해야 했다.

“똑똑하다고 정평이 난 성녀님께서 과연 어디까지 예상하셨을까?”

도움을 좀 받고자 했다.

* * *

악신은 물었고.

감옥 속의 인간은 대답했다.

“…….”

아테르는 삶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글쎄요, 왜 그렇냐고 물으신다면… 드릴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죽은 것보다는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물론 죽음만도 못한 삶도 있죠. 나는 그런 삶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끔찍한 가시 감옥에 갇혀서. 그때의 나에게 죽음이란 바랄 수도 없는 자비였으니 아르지오 당신을 불렀지….”

끔찍한 일이다.

“나와 내 동료들이 모든 것을 바쳐 이루어낸 쾌거였는데.”

그걸 아테르 자신의 이기심으로 깨트렸다. 그가 고통을, 그 지루함을 이기고 버텨냈으면 될 일이었다. 그랬다면 악신이 봉인에서 풀려날 일 따위는 없었겠지. 없었을 것이다.

그 사실이 아테르를 좀먹지 않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내가 뭘 어쩔 수 있었겠습니까?”

아테르는 어쩌면 수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시 감옥에서 고통받았다. 고작해야 80년을 살면 오래 살았다고 평가받는 인간 주제에. 정말이지 분에 넘치는 영광을 누렸다.

“물론 전부 변명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악신을 봉인하려던 그 과정에서 14살이었던 내 동료는 용의 발에 짓밟혀 죽었습니다. 그와 동갑내기였던 동료는 산 채로 뜯기고 씹혀 죽었고요. 16살이었던 동료는 악신의 저주로 펑펑 울고 또 울다가 눈알이 기어코 피눈물로 녹아내렸을 때가 되어서야 영면을 취했어.”

악신의 저주란 참 끔찍한 것이다.

“그때가 떠오르는군요. 저주, 저주라. 확실히 그건 마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인들이 부린다는 신성력과도 달랐어요. 세상의 모든 규칙이 어그러지며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위협해 오던 그 시간들. 그 광경들. 아, 그건 정말 나에게… 혼란스러운 일이었어.”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규칙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왕궁의 사서가 말했다.

“살이 썩고 환청이 들리는 것은 애교였습니다.”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었다. 악신은 분노의 감정에 무척이나 예민했다.

“불륜을 저질러 연인의 분노를 산 자는 불륜 상대와 한 몸이 되어버렸죠. 다리 하나를 공유한 채로 두 몸통이 분리되어 있던 그들은 제풀에 지쳐 금방 죽어 버렸습니다.”

또 뭐가 있더라.

“자식을 버려 많은 원망을 산 부모는 혀와 성대와 입술이 지워져 먹고 마시지 못해 죽어 버렸고요. 다시 생각해도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많았다.

“잔인하고 끔찍하며 더럽고 혐오스러웠습니다. 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공포와는 달랐어. 미지의 규칙에서 오는 공포가 나를 더럽히는 기분. 벌레가 기어가는 혐오감….”

괜히 악신이 그 수많은 적의를 샀겠는가?

어떻게 보면 신이 내린 벌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었다. 아테르는 지금도 그 의견에 동의했다. 그건 심기가 배배 꼬인 분노의 신비가 희생 제물을 찾은 것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 현상이었다.

“…그리고 인간은 늘 자연을 꺾고자 해왔으며….”

아테르는 악신의 품 안에 갇혀 눈을 느리게 깜박였다. 기이한 졸음이 등을 타고 오른다. 그러고는 뇌에 눌러앉아 그것을 차분하게 감싸 안는다. 수면의 무게가 더욱 커져 미간을 누른다.

그가 묵직한 감각의 미간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

그러고는 다시 입을 연다.

“왜 제가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아테르는 이미 광인이었다.

“그 긴 시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더는 내가 인간임을 자부할 수도 없어요. 악신께서는 나를 인간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냈으나 그걸 어떻게 인간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고대의 망령이고 괴물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래도 성녀를 만나서 기뻤다. 그녀의 의견에 따를 수 있어 감사했다. 망령에 불과한 그는 인간 흉내나마 낼 수 있었다. 그건 악신 아르지오와의 대화와 조금 달랐다.

“악신과 이야기할 때면 스스로 살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기 중을 떠다니는 신비인 듯했죠. 인간 같지는 않았어. 하지만 분명 나는 살아 있었을 텐데, 왜일까. 나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람과 있을 때면 제가 인간인 것 같았다.

차별하지 않겠다. 둘 모두 아테르가 긍정하고 사랑하는 감각이고 입장이었다. 단지 아테르가 말하고 싶은 건 간단했다. 그는 인간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인간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악신께서 빚은 괴물이라면, 내 목을 가져가십시오.”

“생의 의지가 강함에도 자네는 그것을 바라고 있군.”

“나의 역할에 충실한 것뿐입니다. 내 순리는 나의 시대와 함께 끝나야 했어.”

“그래, 그런가.”

손바닥에 박힌 악신이 잘게 웃었다.

“하면 내가 너를 들겠다.”

내 손이 비었잖니?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68)"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69)

269

제269화

‘꿈의 유원지’에는 일명 마왕성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

화려하게 장식되어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드는 유원지 저 너머, 그 성곽의 가장 끝자락에 자리한 거대한 성. ‘꿈의 유원지’에서 정식으로 안내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곳에 방문하는 것 역시 허락되었다.

다만 그곳에서 꿈의 주인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도 여기가 마왕성이 맞을까요?”

“그보다는 일종의 테마파크라고 생각이 되지만….”

서서희가 웃었다.

“엇비슷한 친구는 있네.”

그가 눈앞의 대검 든 사내를 보았다.

이질적인 황금빛으로 물든 두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금을 녹인 듯한 짙은 빛깔의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고, 그것은 딱딱하게 굳어 이내 바닥에 떨어졌다. 그때마다 작고 둔탁한 금속질 소리가 났다.

서서희는 스킬로 그의 존재를 읽어냈다.

[고대의 망령, 아테르]

“영겁 속에 고통 또한 자비가 될지니”

“…이런.”

용사가 악신의 손아귀에 떨어진 듯했다.

“성녀님께서 슬퍼하시겠는걸.”

“이 정도는 예상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듯 보였는데.”

“그때는 단지 경우의 수였을 거 아니야.”

상황을 예상하는 것과 예상했던 상황을 겪는 것은 차이가 컸다.

“우리에게 나쁜 이야기는 아니다만.”

던전에서 살필 수 있는 모든 곳을 돌아다녔다. 가장 그럴싸해 보였던 유적에도, 검은 숲에도 마왕의 본체는 없는 상황. 남은 곳이라곤 온갖 금은보화로 장식된 '마왕성'뿐이었다.

'그 전까지는 악신이 진입을 막고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지.'

그래서 혹시 몰라 부길드장이랑만 왔던 것이다.

그러니 그 내부에서 마주친 인간형 몬스터의 존재는 반길 만했다. 뭐라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지 않은가? 물론 그 역시 악신의 의도에 따르는 것이겠으나 상관없었다.

신비를 상대할 때에 장단을 맞춰주는 것은 어느 때에나 유효했다.

'성녀님께서도 얼추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이는 듯했지. 그러니 본인이 알려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건네준 것일 테고. 덕분에 저 용사님이 제정신일 때는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었어.'

그리고 장단을 맞추는 건 서서희가 가장 잘하는 것이었다.

"…악신께서 정확히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재밌는 무대를 꾸며놓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본인도 모든 것을 잊고 무대 위에 올라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 버렸지만…."

"……."

"달님교의 주교님께서 변절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물론 이것은 저와 제 일부 친구들만 알고 있는 정보죠. 이런 상황에 안 좋은 소식이 퍼지면 곤란한 건 내친구들이라서."

정보는 무사히 통제되고 있었다. 던전에 급하게 다시 오느라 소식을 더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꿈에서 깨어난 성녀님께서 달님교의 일을 잘 처리해 주고 있을 거라 믿었다.

그렇다면 서서희는 그가 가장 잘하는 일로 성녀를 도와주면 되었다.

"들고 계신 대검이나 자세를 보아하니 힘깨나 쓰시나 본데."

서서희가 한손검을 장난스럽게 흔들어 보였다.

"그거라면 나도 자신이 있는 일이라서."

"……."

"과묵하신 분이네."

그가 씩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그것도 괜찮지."

서서희가 부길드장을 물렸다.

"서포트 부탁해."

"혼자서 괜찮으시겠습니까?"

"저 탄탄한 근육을 좀 봐. 우리 빼빼 마른 부길드장은 물몸이라 견디기 힘든 상대일 거야."

"물몸까지는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

부길드장의 진가는 직접적인 전투가 아니라 서포트에 있었다. 그는 힐러이자 버퍼이고 디버퍼였다. 서서희에게 부상이 생기면 치료해 주고, 위협적인 몬스터에겐 저주를 걸 것이었다.

한마디로 그가 서서희의 목숨줄이라는 뜻이었다. 그런 사람을 이 험한 전투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서서희는 비틀거리며 저를 응시하는 금색 눈과 시선을 마주했다.

"……."

"……."

그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두 날이 격돌했다.

* * *

천지가 무너져 내린다.

그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역시 이 건물은 허상이었나. 쉽게 망가지는 걸 보니 그리 아끼지는 않았나 보군.'

그 휘황찬란하던 유원지와 마찬가지였다.

'결국 무대 장치의 한 종류였을 뿐.'

결코 누군가의 집이나 성이 될 수는 없었다.

'만약 악신이 이곳을 진정으로 아꼈더라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겠지.'

유스티티아의 부길드장, 강은성은 눈짓 한 번조차 없이 저를 둘러싸도록 결계를 쳤다. 마음 같아서는 길드장께도 해드리고 싶지만 방해가 될 뿐이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를 아프게 울렸다. 뇌를 뒤흔드는 굉음이었다. 황사와 같은 짙은 먼지와 시야를 가리는 거대한 파편 속에서 부길드장은 핏발 선 눈으로 전투를 응시했다.

"…여전히…."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군.

'저 나쁜 버릇은 대체 언제 고쳐질지.'

부길드장이 세심하게 손짓해 원격으로 길드장의 부상을 치료했다.

그의 상관은 처음부터 안 다치는 것보다는 다치고 고치는 것을 선호했다. 그가 타고난 모든 재능이 서서희를 쉽게 죽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이었다.

조금 다쳐도 전투에는 문제가 없으니 자신의 방어와 회복은 늘 뒷전이었다. 그럴 시간에 무기 한 번 더 휘두르는 게 낫다나?

'보는 사람 걱정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괜히 스태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원격 힐링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그것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투 중이라면 더더욱.

'날 믿고 더 날뛰시는 건 아니겠지.'

서서희 길드장은 친구를 너무 믿었다.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도 강은성이 고쳐줄 것이라 믿고 저러는 것 같았다. 괘씸하다는 이유로 고쳐주지 않을 수도 없으니 제 길드장의 버릇만 나빠지게 생겼다.

"……."

그나저나 만만치 않군.

'고대의 용사라고 하더니만….'

아테르는 용을 잡는 인간이었다. 마왕과 겨루던 용사였다. 인간 사이 선택받은 영웅이었다.

미쳐 버렸기에 더욱 맹렬해진 그의 직감과 파괴적인 손속은 '마왕성'을 부수는 것으로 모자라 세상을 뒤흔들었다.

'정교한 검술이지만 감히 야만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다.'

그의 대검은 아테르의 신체보다도 컸다. 비대하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크기였다.

무식하게마저 보이는 대검의 날은 무자비하게 느껴질 정도로 거칠었다. 저 검에 스치기라도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살길 기대해선 안 될 터였다.

‘저건 고통을 주기 위함인가?’

부길드장은 곧 납득했다.

‘하긴 용을 잡는 목적의 무기인데.’

처음 보았던 악신의 거대한 몸과 끔찍한 저주를 떠올리니 이해가 갔다. 가능한 한 파괴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만 조금이라도 승기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저만한 무기를 저렇게 날렵하게 다룰 수 있다니, 이건 다른 의미에서의 기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눈 깜박할 새에 수십 번의 공격을 밀어붙인다. 대검을 이용한 방어도 탁월했다. 그러면서도 지형지물을 이용한 전략이 뛰어났다. 떨어지는 파편, 공기의 흐름, 땅울림 하나마저도 허투루 활용하지 않았다.

‘소리조차 나지 않아….’

성을 의도적으로 부수고 있다. 거기서 나오는 낙석을 이용해 거의 공중전을 이어가고 있었다. 마치 무게가 없는 것처럼 낙석 사이를 뛰며, 유연하게 공격을 피하고, 혹은 반격했다.

“…인간형 몬스터 중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유형이군.”

단순히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지력이 상당했다. 성녀는 그가 한때 왕실 사서였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을 둘러싼 어마어마한 밀도의 저주.

“…윽….”

“은성 씨!!”

“괜찮습니다!!”

부길드장은 그 저주가 제 상관에게 닿지 않도록 마력을 퍼붓고 있었다.

몸의 구멍들에서 피가 흘렀다. 살점이 썩고 정신에 이질감이 생긴다. 길드장을 신경 쓰느라 정작 자신의 몸이 침식당하고 있었지만, 어차피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현상 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고통이라면 무시하는 게 효율적이었다.

그 길드장에 그 부길드장인 생각이었지만 알 바 아니었다. 유스티티아의 기본 태도가 그랬다. 제 일신의 안위보다는 ‘올바른 대의’가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길드. 그들은 그걸 위해 수없이 토론하고 세상을 본다.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았다면 애초에 여기까지 따라오지도 않았다.’

그가 안경알 너머로 길드장을 응시했다. 핏줄이 터져 거의 피눈물이 흐를 정도였지만, 제 길드장의 보필을 한순간도 놓칠 수는 없었다. 그는 저를 믿고 제 몸을 맡겼으니 말이다.

‘…저주를 감지. 부식 계열의 저주다. 향하는 곳은 장비와 무기인가. 그중에서도 금속에 특화되어 있어. 반격해. 되돌려 내. 지나치게 영악한 몬스터다. 저렇게 미쳐 날뛰면서도 저주를 특정할 여유의 뇌가 남은 건가? 부상, 이번에는 목이다. 출혈을 먼저 잡아야 해. 핏줄을 이어. 고통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마취를 한 다음, 그래, 거기서 가장 큰 줄기를….’

원격 힐링이란 지구에서 단 3명밖에 하지 못하는 기예였다. 민간인 의사로 따진다면 마취되지 않아 정신 멀쩡한 환자를 1km 이상 떨어져 집게로 수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버튼 하나 누른다고 뚝딱 해결되는 간편한 일이 아니란 말이다.

하지만 부길드장은 그것을 해냈다. 오히려 익숙했다. 보필하는 상관은 항상 곁에 둔 친구에게 ‘겸업’을 요구했으니 말이다. 그래, 그는 이것을 겸업이라고 불렀다.

‘…서로가 각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리고 여유가 되는 자가 ‘친구’의 남는 짐을 부담한다.

‘길드장님께서는 저 몬스터를 견제하고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역할을 다하고 계신다. 나는 저분이 집중력을 잃거나 크게

다칠 일을 방지하는 역할. 저 사람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필하는 역할이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이쪽으로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내야 했다. 여기서 그가 죽는다면 누가 길드장을 보필할 것인가? 길드장을 혼자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상황이 못 됐다.

'용사가 이렇게까지 강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악신의 손아귀에 떨어진 질 좋은 재료였다. 그를 둘러싼 끔찍한 저주의 기운도 악신이 부여한 것일 터다. 여러모로 정신이 없었다.

"으...!"

이럴 줄 알았으면 몇 놈 더 끌고 올 것을!!

'...이 소동이 벌어졌으니 곧 누군가 오겠지. 길드장님께서는 지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대로 현상 유지만 가능하다면 지원이 와서 승기를 잡을 거야. 하지만 어지간한 놈이 끼어들게 되면 짐이 되거나 인질로 붙잡힐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텐데.'

전보를 보내고 싶었다. 유능한 마법사인 그는 텔레파시에도 능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놈들에게도 연락이 될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그렇게 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다.

텔레파시는 입으로 내뱉는 말과는 전혀 달랐다. 자칫하면 남의 머리통을 원격으로 부수는 수가 있었다.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여유를 틈타 지원을 요청한다고 해도 누구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애초에 그런 식으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면 뭐라고 설명하지? 강한 놈만 오라고? A급 이상만? 아니지, 이 전투에 끼어들 놈은 단순히 A급 정도여서는 안 된다. A급 중에서도 상위권이어야 해. 저주가 난무하는 현장이니 그쪽으로 취약한 인간들도 배제되어야 하고. 젠장, 다른 S급은 없나?'

순간 붉은 머리카락의 수집가가 떠올랐지만 이내 무시했다.

'그 인간은 도움이 안 돼!'

애초에 이런 곳에 순순히 와줄 사람이 아니었다. 성격으로도 문제가 많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비사벌은 약했다. S급이 어떻게 약할 수 있냐 싶겠지만 정말 약했다.

'기괴한 보물의 관리자인 만큼 저주에는 해박하겠지만 이렇게 밀도 높은 전장 안에서는 부상을 입게 될 확률이 크다. 그가 전투하는 방식은 결국 자신의 수집품을 활용하는 것. 공격보다는 방어와 지휘에 뛰어나지. 이미 이렇게까지 도식이 짜여 있는 상황이라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

그리고 못 미더웠다. 예술이니 뭐니 하며 개수작을 부릴 가능성도 농후했다. 비사벌은 S급 중에서도 유난히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가 존중하는 생명은 제 수집품뿐이었으니까.

'무엇보다 길드장님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표면적인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비사벌은 일방적으로 유스티티아를 혐오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호구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런 주제에 꼬박꼬박 후원은 잘 해주지.

그런 걸 보면 수집가의 감정은 애증에 가까운 듯했다. 그러니 지금도 간절히 도와달라고 하면 혀 끌끌 차면서도 도와주러 오겠지만, 아니,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진짜 아니다.

수집상은 믿을 곳이 못 됐다.

'개같은...! 서지오 헌터만 멀쩡했더라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암암리에 S급이자 성자로 불리는 서지오 헌터. 그는 검은망토를 모시는 사제이기도 했다. 저주에 능통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그는 탱딜힐이 다 되는 올라운더인 것이다.

'심지어 인성도 좋지.'

제 부모와는 다르게. 하마터면 거대한 재앙이 될 뻔했는데 참 다행인 일이었지만, 아무튼, 지금 강은성의 상황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다.

'역시 수집상의 지원을 기대할 수는 없어. 당장 수집가만 해도 이 던전에 놀러 온 인간이다. 수집상의 길드원들은 그런 그를 보필하기에 바쁘겠지. 이번 토벌에 참여한 A급 헌터 중에 가장 적합한 인재가 있나? 없는데? 없다, 젠장할, 아무도 없어.'

이곳에 끼어들어 승기를 가져올 수 있는 인재의 조건은 까다롭다. 강하고, 머리 좋고, 다재다능한데, 그게 S급에 가까운 수준이어야 했다.

"……!"

그럼에도 늘 그렇듯 강은성은 정답을 찾아냈다.

"실례하겠습니다—!!"

부길드장은 스태프로 바닥을 쾅—!! 찍었다. 그것을 중심으로 새하얀 마법진이 크게 펼쳐지고, 이내 그와 엇비슷한 창백한 인영이 모습을 드러냈다.

뿅!

"어?"

강은성의 텔레포트에 강제로 끌려온 소녀가 잠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 아."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얼마든지요."

"이 무례는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던전에 다시 돌아오자마자 이게 무슨 소란인가 싶지만…."

성녀, 아람이 은빛의 달을 들어 보였다.

"잘 부르셨어요."

승기는 그들에게 있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69)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69)"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70)

270

제270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

아테르와 사전에 합의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테르를 성에 남겨두고 도망쳐야 했을 때 서로가 미래를 알고 있었다. 아테르가 악신의 손에 쥐어질 것이라고. 그걸 위해 아람은 달님을 품에 안고 왔다.

이제는 그녀가 아테르를 데려올 차례였다.

“후우….”

아람이 달을 허공에 띄웠다.

그것은 높이, 아주 높이 올라가 이내 하늘을 뒤덮을 정도의 달이 되었다. 온 세상이 검붉은 공허로 물든다. 달이 중심을 잡고, 별이 반짝인다. 서늘한 은빛으로 빛나는 그 창백한 색은 그들 달님교의 것.

성인인 아람의 것이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흔들리는 천지에 거대한 우주를 드리우며, 입술을 씩 끌어 올렸다. 그녀의 새하얀 머리카락이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유성우처럼 반짝이며 우주와 동화되었다.

그녀의 붉은 눈, 그 동공에 하얀 달이 가득 찼다.

“지금부터는, 내 무대야.”

그녀는 기어코 악신의 무대를 빼앗을 작정이었다.

* * *

주교에게서 달을 빼앗은 아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별’들을 깨우는 것이었다.

악신에게 홀렸던 그들은 주교를 따라 곧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자책하는 그들에게 아람이 부탁했다.

이번에는 너희의 선택으로 희생하지 말고 나의 별이 되어달라고. 스스로 깨어 있는 별이 되라고. 그렇게 내 우주에 담겨 달라고 말이다.

사형제들은 그 부탁에 응했다.

“이 세상에서 달님교의 사제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녀는 자신이 있었다.

그 눈에 보인다. 내 사형제들의 눈에, 달님 안 형제들의 눈에 이 모든 저주와 신비가 담긴다.

아테르가 쓰는 무기의 재질, 방향, 효과. 그를 둘러싼 운명. 의지. 그 신체의 움직임. 그로 인한 영향 범위. 그 이상의 모든 것이 보이고 있었다.

별구름이 속삭였다.

‘그리고 내가 듣고 있어.’

아람이 저를 불러낸 유스티티아의 부길드장을 불렀다.

“부길드장님?”

“강은성입니다. 편하게 불러 주십시오.”

“나는 악신에게서 아테르 씨의 주도권을 빼앗아 올 생각입니다.”

“…….”

강은성은 순간 입을 닫았다. 그러고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어린 성녀의 도움을 받는 건 미안한 일이다. 하지만 감사한 일이었다. 그들이 부족하여 마땅히 도움받을 수 있다면 죄스럽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되도록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예 다치지 않기란 힘든 일이 되겠죠. 그 역시 나의 것입니다.”

유령처럼 공중에, 우주에 뜬 아람이 강은성의 어깨를 잡았다.

“그래도 안 다치려고 노력해 볼게요, 걱정해 주셨으니까.”

강은성을 둘러싸고 있던 저주가 일순 해제된다. 그를 피눈물 흘리게 하고, 숨 막히게 하고, 환청 들리며 환각 보게 하던 저주들이 말이다.

그것만으로도 성녀의 능력을 알 수 있었다. 그 강함과 자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이에요.”

“길드장님은 제가 전담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테르 씨에게서 나오는 저주를 제가 막아드리죠.”

아람이 지휘자처럼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환하게 빛나며, 그에 응하듯 별들이 소란스럽게 반짝였다. 청명한 소리가 나듯이. 보슬비가 떨어지듯이 빛이 튕긴다.

그것은 마치 악보와 같았다. 별들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 움직였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지혜를 모은다. 저건 어떤 저주야. 이건 어떤 신비야. 그리고 대책을 내놓는다.

“좋아.”

그리고,

틀어막는다.

“…훌륭하십니다.”

“이제 마음 놓고 서서희 길드장님을 보필하세요.”

“올해 들은 이야기 중 가장 반가운 말씀입니다.”

“저를 보호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 형제들이 저를 지켜봐 주고 있어요.”

“그러시다면야….”

아람은 신체적으로 대단히 약했다. 어찌 보면 수집가 비사벌과도 같은 경우였다. 하지만 강은성은 그녀의 말을 믿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우주가 그것을 믿게 만들었다.

강은성이 온전히 제 상관에게 집중하자 서서희가 크게 웃었다.

“—아하하하하하하…!!!”

몸이 가벼웠다.

“아주 오랜만입니다, 이런 전투! 이런 협동! 이렇게 마음 잘 맞는 친구와 이 위험천만한 전장에 함께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행운이고 기적이지!!”

“…….”

“그렇지 않습니까?”

쩌저적, 파앙—!!

서서희의 검이 부서졌다.

“아테르 씨!”

—그리고, 무수히 많은 단검이 쥐어졌다.

“당신의 화가 전부 풀릴 때까지 받아 드리겠습니다, 나 그런 거 아주 잘하거든!!”

서서희는 무겁고 강직했던 아까와는 달리 날렵하고 큰 움직임으로 날아다녔다. 그의 손에서 서커스 단원처럼 단검들이 날아간다.

그 단검은 아테르의 대검에 흠집을 내고, 떨어지는 파편을 이용해 시야를 가리며, 수많은 상처를 입힌다.

그것을 보며 아람이 생각했다.

‘과연 대한민국 1위 헌터.’

그의 주력 스킬, ‘친구’. 서로가 친구로 인정한 상대에게 영향을 받는다.

‘즉, 카피할 수 있다.’

서서희는 체력과 재생이 무한하다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다. 하루, 일주일, 1년도 가능했다. 시간의 흐름이 다른 어느 던전에서 4년 내내 전투를 이어갔다는 기록도 있었다.

‘그렇기에 그를 보필하는 서포터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지.’

아무리 서서희의 재능이 많고, 싸울 수 있는 전략의 범위가 넓으며, 그걸 버틸 정신력이 있다 해도, 그 역시 사람인 만큼 회복이 필요했다. 그리고 힐러 혹은 서포터는 그걸 전투 중에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유스티티아의 길드장과 부길드장은 거의 한 몸이다. 지금처럼 큰 전투가 있으면 언제나 함께한다고 들었다. 강은성 부길드장은 세상에서 두 번째로 서서희를 잘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잘 보좌해 준다던 사람은 대한민국 2위 길드의 길드장, 정해운….’

서서희와 같은 영원의 상징 중 한 명이다. 거기까지 떠올린 아람은 다시 돌아가는 상황에 집중했다.

금색으로 변한 아테르의 눈이 보인다.

"……."

황금색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와 같은 증상.'

그리고 일견 악신의 눈과도 닮아 있었다.

'악신에게 홀리게 되면 저런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건가.'

아람은 그 저주를, 신비를 파고들었다. 편견을 갖지 마라. 지식에 옳고 그름은 없다. 오로지 그 사실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아람이 두 눈을 감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악신에게서 아테르의 주도권을 빼앗아 오는 것. 이미 달님으로 그와 비슷한 일을 해봤다.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다. 그 익숙한 감각을 떠올리기만 하면 됐다.

'아테르 씨는 원래도 미쳐 계셨어.'

그가 평범하게 굴 수 있었던 건 단지 버텼기 때문이었다. 결코 아테르가 온전히 평온해진 덕분이 아니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가시 감옥에 갇혔던, 그렇게 인간 이하의 나락으로 추락한 비루먹은 살덩이.

아테르는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했다.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몰랐다. 악신은 그를 다시 인간으로 빚었으나 고통에 기인한 증오와 분노까지 없애진 못했다. 아테르는 제 동료의 흔적에 짐승처럼 울었고, 웃었고, 무너졌다.

'악신이, 아르지오 씨가 한 일도… 거기에 손을 조금 보탠 것뿐이었겠지.'

이미 미쳐 있던 사람을 손에 쥐는 건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까?

'하지만 나는 아테르 씨를 알아.'

그 살고자 하는 의지를. 기어코 버텨낸 생명력을. 그가 살덩이가 되어 가면서도 잃지 않았던 신념을 안다. 아테르는 순순히 악신 손에 쥐어질 사람이 아니었다. 아람은 그걸 알았다.

둘은 이야기한 적이 없으나, 마치 합의라도 했던 양 아람은 아테르를 믿었다. 아니, 확신했다. 그것은 단지 지식의 영역. 감정이 아닌 지성으로 인지하는 것에 불과했다.

"……."

아람이 손을 뻗었다.

별이 운다. 공명했다. 하프 소리처럼 청명하게 온 우주를 울렸다.

저 멀리에 하나가, 또 그 옆의 옆에 하나가, 더 멀리에서 하나가. 저희끼리 도식을 짜 내려가며 우주를 가득 채웠다.

'그를 묶은 신비를 전부 풀어내.'

그리고 나의 것으로, 달님의 것으로 대체한다.

'그를 감싼 저주를 헤쳐.'

그렇게 하여금 아테르가 원치 않았던 위협을 거둬낸다.

'아테르 씨도 나를 찾고 있어. 나는 그에게 질문해야 하고, 아테르 씨는 나에게 대답할 것이다. 닿기만 하면 된다. 잠깐 닿아서 대화할 수 있으면 족해. 그거면….'

그리고 아람은 이내 아테르에게 닿았다.

"됐어."

그의 심상에 닿았다.

* * *

우우웅—…

“…….”

“…….”

굉음이 멈추고, 세상이 고요해진다.

“…강은성 씨.”

“예, 성녀님은 무사하십니다.”

“나는 친구의 안위를 먼저 묻고 싶었는데.”

“저야 늘 괜찮다는 걸 아시잖습니까.”

“늘 괜찮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서서희가 부서진 창을 바닥에 떨궜다. 바스스, 금이 간 창은 그 작은 충격에도 조각이 나 바스러졌다. 전투할 동안에는 마력으로 붙잡고 있었는데 그걸 풀어내니 결국 망가진 것이다.

48번째로 교체되었던 무기를 안타까워하며 보내준 서서희가 어깨를 풀었다.

“아이고, 삭신아….”

“부상을 치료할 테니 가만히 계셔 주십시오.”

“아니, 이 정도는 내가 치료할게.”

“하지만 길드장님이 이런 일로 신경을 쓸 필요는….”

“괜찮아, 아까랑은 상황이 다르잖아. 잠깐 여유가 생겼어.”

서서희가 대검을 든 채로 멈춰 선 ‘아테르 씨’를 보았다.

“성녀님께서 잘해주신 것 같네.”

또한 아람 역시 엇비슷하게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마치 살아 있는 강물처럼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에 따라 머리칼에 박힌 별들이 아름다운 빛깔로 반짝였다.

주변을 둘러본 서서희가 웃었다.

“장관인걸….”

“수집가가 좋아할까요.”

“그 사람은 나랑 다르게 이런 신비로운 광경도 꽤 탐내는 사람이라.”

“대체 이런 광경 어디에서 예술적인 미감을 찾아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멋지지 않나?”

“그보다는 소름 끼치죠.”

공허의 우주.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알게 해주고.”

오로지 별의 속삭임만이 희미하게 우주를 채웠다.

그들은 아직 우주에 있었다. 성녀가 아직 악신에게서 주도권을 빼앗아 오지 못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이 잠시 동안이라면 안심해도 될 것이었다. 이곳은 달님교 성인의 영역이니까.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유쾌하지는 않군.’

우주는 광활했다. 인간이 만든 흔적으로 보이는 성의 파편은 그 공허를 유영하고 있었다. 온도를 감지할 수 없는 무의 공간이었으나 어딘가 춥다. 서늘하고, 외롭다.

별의 웅성거림에 귀 기울이던 그가 귓바퀴를 만지고서는 제 상관을 보았다.

“회복은 마치셨습니까?”

“나도 그 정도는 잘해, 강은성 씨.”

“길드장님의 전투 방식은 제 간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떨어진 거 다시 가져다 붙일 수도 있으면서 엄살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습니까.”

“내가 그만큼 내 친구들을 믿는다는 거지.”

서서희가 씩 웃었다.

“강은성 씨가 괜히 부길드장이겠어?”

“…크흠.”

헛기침을 한 부길드장이 성녀와 아테르를 보았다.

“이걸로 상황이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요.”

“아니, 내 생각에는….”

그때, 우주가 흔들렸다.

“……!!”

“전투 준비.”

“하지만 성녀님께서는 아직…!!”

“잘 봐.”

이윽고.

“이게 악신과 싸우는 법이야.”

서걱—.

아테르의 목이 떨어졌다.

“…….”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인 광경이다.

강은성은 우주에 흩뿌려진 피와 눈 감은 망령의 머리와 고요하게 눈을 뜨는 성녀를 보았다. 이 모든 광경이 한낱 인간은 이해하지 못할 예술 작품처럼 기괴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이내 강은성이 모든 상황을 인지했다.

“…성녀님께서 실패하신 겁니까?”

“글쎄, 그건 더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쩌적, 쩌저저적—!!

우주는 보석이라도 되는 양 금이 가기 시작했다.

“우린 아직 마왕님을 쓰러트리지 못했잖아.”

“…아니, 하….”

“대단하시네.”

성녀의 우주는 완전히 깨지지 않은 채로 고정되었다. 별들이 고통에 아우성치는 비명 소리가 가득했다. 그 틈 사이로 온갖 차원이 섞여 보인다.

검은 숲과 유적의 탐사원들, 그리고 던전 내부에서 애써 버티던 헌터들이 차원 틈 사이로 당황스러운 시선을 마주한다.

그리고 우주에 악신이 내렸다.

『내 친구여』

인간만큼이나 작아진 신체로, 그 비어 있는 두 번째 손을 뻗어 우주를 유영하던 용사의 머리를 붙잡는다.

그러고는 소중히 품에 안았다. 그의 세 번째 손 중 왼손이 망령의 팔을 인형처럼 붙잡았다. 양털과 같이 풍성한 적발이 가죽처럼 우주를 덮었다.

맨발이, 온갖 장신구로 치장된 맨발이 공허를 딛는다. 다리 한쪽에 오로라처럼 풍성한 꼬리가 감긴다. 그를 감싼 비단이 선녀의 것처럼 하늘거린다. 깨진 머리에 가득 고인 황금 물이 흘러내려 신성의 몸을, 황금 위의 황금을, 그 품의 머리를 칠한다.

그러고는 우주를 황금빛으로 물들인다.

『친구, 친구, 나의 친구들…』

붉은 깃털의 광휘가 기괴하게 꺾이어 세상을 굽어보았다.

『인간임을 증명하라』

세 번째 손의 황금 눈에 인간이 담겼다.

『내가 너희 앞에 있다』

『어찌 함께하지 않는가?』

그리고 온 우주에 썩어 문드러진 용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붉은 털을 가지고 있었다. 뱀처럼 긴 몸을 꼬아 울부짖고, 우주의 파편에 끼어 발버둥 치고, 시체처럼 뭉쳐 하나의 산과 둥지를 이룬다. 마치 고인 핏물과도 같았다.

악신의 두 번째 손이 망령의 머리를 쓰다듬고 명하노니.

『눈을 뜨시게』

망령이 감은 눈을 뜨고, 용들이 분노에 가득 차 함성 질렀다.

“—아, 화가 나는구나.”

“내가 아주 많이 화가 났어.”

“너희도 그렇더냐?”

“분노는 준비된 자에게 가치를 내린다.”

“무기가 될지, 늪이 될지.”

“너희는 결정하게 될 것이다.”

“말해보렴.”

“인간이니, 짐승이니?”

용들 사이로 악신이 웃었다.

『내가 도와주랴?』

재앙이 전염병처럼 퍼져 나갔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71)

271

제271화

격전이 시작되었다.

“저, 저게 대체 무슨....”

“용이다...!! 용이 나타났다!!”

“모두 정신 차리고 전투 준비해!!!”

‘꿈의 유원지’ 곳곳에서 이변이 생겨났다. 온 하늘이 우주로 변하고, 이내 그것이 깨져 틈이 생겼다. 그리고 거울의 파편 같은 틈 사이로 기괴하게 문드러진 용들이 기어 나왔다.

그건 아주 크지는 않았으나 기괴하고 혐오스러웠다. 그들의 일부는 인간의 신체를 달고 있었다.

용의 발 대신 인간의 사지를 달고 있거나, 그 머리가 용이 아닌 인간의 것이거나, 저주를 잔뜩 받은 듯 썩고 비틀려 있었다.

우주의 틈 사이로 악신이 속삭여 왔다.

『증명해』

악신의 심술, 혹은 시험이었다. 어느 쪽이든 인간에겐 재앙이었다.

“다들 정신 차려!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

“사제님들, 부탁드립니다!!”

“모두 저주에 침식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버티고 계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의 인내와 의지에 용들은 비명을 질렀다.

“아아아아아아악—!!”

“흐으윽... 으윽, 으아아아앙...!! 아아아아아앙!!!”

“키에에엑, 키에에에에에에엑!!!”

눈이 달려 있는 용이라면 누구라도 증오의 시선을 보냈다. 입이 달려 소리 지를 수 있는 자라면 한가득 저주를 소리쳤다. 용들은 손과 발로 인간들을 찢고 몸통으로 조여가며 그들을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

“아아아, 인간, 인간, 인간…!!”

“그대들이 나를 저버렸다…!!”

“아버지, 내게 응답하십시오, 아버지!!!”

“나를 어찌 버렸느냐!!!!”

하필이면 앳된 음성과 얼굴.

“미, 미친….”

“…시발, 개같아…!!”

그들 대부분은 10살을 간신히 넘겼을 정도의 어린 모습들이었다. 아이의 손이 달린 용이 사람들을 헤집자, 그 끔찍한 감각에 부상자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혐오스러운 광경이었다.

적지 않은 수는 그에 동조되어 미쳐버렸다.

“아, 아하하…!! 그래, 인간은 혐오스러워!! 아아, 우리가 이 아이들을 버렸다! 죽어 마땅하다!!”

“저 새끼 붙잡아, 허튼짓하지 못하게 빨리!!”

“아아악!!! 아아아아아악!!! 내가 살아 있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죽여 주십시오…!!!”

그중 꽤 많은 수가 자살을 감행했다. 일부는 막았으나, 일부는 막지 못했다. 극한의 지옥도 속에서 여유가 있는 몇몇 헌터들은 우주의 틈 사이로 비치는 광경을 알아챘다.

“악신이…!”

“저기에 지금 악신이 있어!!”

깨진 거울과 같은 틈 사이로 악신의 얼굴이 비쳐 보였다. 절반뿐인 얼굴. 황금 물이 가득 찬 머리. 그 황홀한 미소와 마주친 헌터는 전의를 상실한 채 실성했다. 악신을 마주 본 이의 말로였다.

“다들 악신과 시선을 마주하지 마라!!!”

그에게는 눈이 없으나, 동시에 시선이 있었다. 악신과 같이 비틀린 신비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았다.

“대장, 피해가 너무 큰데요…!”

“시발 이 머저리 새끼들은 왜 신을 똑바로 보고 지랄이야!!”

“그걸 저한테 말하셔도…!”

지구에 신성과의 전투가 몇 번이나 있었겠는가?

“이래서 어린놈의 새끼들은 손이 많이 간다니까!!”

뭐, 한때는 많았으나, 최근엔 그만큼 큰 전투가 없었다. 영원의 상징이 버티고 선 덕분이었다. 또한 지구의 시스템이 막아선 덕분이기도 했다. 젊은 헌터들은 신성과의 전투에 미숙했다.

“야야야, 말 전해! 빨리 말 전해! 하늘 올려다보지 말라고!”

[—아아, 헌터 여러분! 헌터 여러분! 전투 중에 말씀 전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지 마십시오! 위를 올려다보지 마십시오! 당장 지상의 전투에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내 새끼 잘했어!!”

“대장은 나 이럴 때만 잘했다고 하죠!!”

“그럼 확성기를 시발 이럴 때 쓰지 언제 쓰냐!!”

“아니 저 확성기 아니라고요…!!”

“알게 뭐야, 시발, 계속 전해!! 계속 소리쳐!!”

[—…말씀 전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지 마십시오! 위를 올려다보지 마십시오! 당장 지상의 전투에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 명이 정신 차리고 전장을 다잡기 시작하자, 다른 길드의 헌터들도 같은 말을 주변에 퍼트렸다. 그렇게 연륜 있는 헌터들의 도움으로 최소한의 혼란이 가라앉았다.

“당장 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늘 올려다볼 여유가 어디 있냐, 이 띨빵한 새끼들아!!!”

선배님들의 거친 응원에 젊은 헌터들이 정신을 차렸다.

“윽, 시발…!!”

“…신성이 이래서 신성이구나….”

“돌겠네,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맞아?”

“알 바냐? 죽기 싫으면 도끼 들어!!”

검은 숲과 유적 쪽에서도 이와 같은 혼란은 벌어졌다.

“이, 이건…!”

“유원지 쪽에서 용들이 기어들어 오고 있습니다!!”

구시대의 세계, 버려진 차원에서 자료를 조사하던 헌터들이 빠르게 전투태세를 갖췄다. 버려진 세계로 향하는 그 좁은 구멍을 통해 마치 액체와 같은 생물들이 밀고 들어온 탓이었다.

당연하게도 썩어 문드러진 용들이었다.

“저, 저게 대체…!”

그들은 마치 끈적한 늪처럼 버려진 세계에 꾸역꾸역 들어왔다. 그러고는 기어 오며 검은 숲을 뒤흔들었다. 질퍽한 점액질의 체액이 독성을 띠며 헌터들을 위협해 왔다.

다행히 지하 세계에 모여 있던 헌터들은 판단력이 빠르고, 대부분 연륜이 있었다. 그들은 곧장 혼란에서 벗어나 용들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달님교의 사제들도 마찬가지였다.

“엄호하겠습니다!”

“달님의 지혜가 저희에게 있으니, 이 부족한 그릇을 돌보소서…!!”

신성과 겨룰 때 가장 힘을 발휘하는 것은 단연코 사제들. 그들은 죄지은 믿음으로나마 동료들을 보호했다.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 헌터들은 더욱 편하게 날뛸 수 있었다.

그리고 단지 인간들만의 전투가 아니었다.

“—크르르르르르륵!!!”

“느. 늑대…!! 늑대들이!!”

“크와악!!!”

던전의 동물들도 인간들을 돕고자 나섰다.

“어어?!”

—까악! 까악!!

꾸우우우우욱!!

까악!!!

“저, 저거 지금…!!”

“까마귀다, 까마귀가 우리를 돕고 있어!!”

“잘한다, 시발!! 시야를 가려!!”

늑대들은 그 큰 덩치와 날렵하고 강인한 능력을 이용해 덤벼드는 용들을 깨물어 부쉈다. 까마귀들은 공중을 날며 날아다니는 용들의 시야를 가리고, 그 눈을 할퀴어 방해했다.

“흐윽, 끅… 어?”

“꺄웅.”

“…여, 여우?”

부상자들은 여우가 돌봤다.

“아니, 잠깐만, 지금 어디로 가는….”

“…뭐야, 이런 데에 굴이 있었어?”

여우들은 그들이 파두었던 굴로 약해진 이들을 끌어모았다. 폭신한 털과 애교 많은 몸짓으로 사람들의 경계심을 한껏 내리고, 자신의 굴로 데려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었다.

정신적으로 지쳤거나 아예 미쳐버린 사람들도 여우들의 도움을 받았다. 여우는 그들의 품을 파고들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따듯한 혀로 핥고 털로 품어주었다.

“…고, 고마워….”

“캐흥.”

그렇게 정신을 차린 헌터들은 하나둘 바깥으로 나가 다시 동료들을 도왔다.

“이, 이런 식이라면…!”

“그래도 할 만하지!!”

“덤벼 지렁이 새끼들아!!”

만들어진 세계고, 버려진 세계고 할 것 없이 동물들은 힘을 보탰다. 인간과 다른 종족이 그들을 돕는다는 사실은 의욕을 고취시켰다. 헌터들은 조금이나마 의욕을 찾아 쏟아져 나오는 기괴한 용들을 상대했다.

하지만 희망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이곳은 결국 꿈이잖아요, 악신의 던전이라고요.”

“버틸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그리고 역시나 연륜 많은 헌터들은 대답했다.

“그냥 믿어.”

그들은 늘 이런 역사를 쌓아왔다.

“누군가는 모두를 구할 거다.”

“하,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어차피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중년의 얼굴을 한 헌터가 용에게 칼을 꽂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버텨.”

그들 중에 언제나 영웅은 나왔다.

* * *

그래, 격전이었다.

“강은성 씨!!”

“저한테 맡기고 달려드세요, 보좌하고 있습니다!!”

“늘 고마워!!”

콰지직—!!

서서희가 대검을 내리쳤다.

“후우…!!!”

콰가가가가가가각—!!!

참격이 날아가 악신의 몸을 깨트렸다.

『이보게, 친구. 왜 그렇게 화가 났지?』

『자, 나에게 말해보렴. 나 듣고 있단다.』

『내가 도와주마, 내가 품어주마…』

쨍그랑!!

마치 유리잔이나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적막해졌던 우주는 다시 온갖 굉음으로 가득 찼다. 서서희는 고목과 같은 거대한 손이 공격해 오는 것을 쳐내고 악신에게 반격했다.

그가 달님교의 성녀를 불렀다.

“성녀님!!”

“그대로 진행하세요.”

그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여러분에게 닿는 모든 저주, 저와 제 형제들이 끊어낼 것입니다.”

아람은 거대한 달님을 등지고 별로 반짝이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았다. 많은 사제들이 지혜를 모으고 손을 뻗는다. 그러고는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신비를 한차례 정제해 냈다.

뜨겁게 이글거리던 저주가 달님의 냉기로 식어간다. 아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별에게 손짓해 악보를 짜 내려갔다. 팅! 띵! 티딩, 팅—!! 별들은 강한 소리를 내며 제 의사를 밝혔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손을 나비처럼 살랑이자, 유성우가 비수처럼 떨어져 내린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달님에 가득 찬 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역사를 새롭게 쓸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인다. 별이 빛을 낳는다. 산란하는 빛무리는 이내 크고 작은 저만의 달을 이루어 그 의지를 빛냈다. 그들의 별이 악신에게 닿아 산란하고 폭발한다.

“우리의 지혜가 신비를 빚습니다!!”

그들은 악신의 본질을 건드렸다. 신성은 곧 신비. 이들 별은 신비를 흉내 내는 인간.

“그 고고한 도식을 읽어 내십시오! 읽어냈다면 비처럼 떨어지십시오! 떨어져 닿았다면 신비를 파훼하십시오! 내가 돕겠습니다, 나와 달의, 우주의 신비가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그에 모든 별이 화답하듯 크게 빛났다. 아람이 그와 같이 웃었다.

“…거봐, 잘하네.”

성녀가 손짓하자 별들이 아우성을 쳤다.

아람은 이 모든 것에 감사했다. 현실에 있는 그녀의 어머니이자 달님교의 주교가 사형제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각자의 의지를 빛낼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었다. 역시 그녀는 훌륭한 관리자였다.

그래, 실패 또한 지식이자 지혜가 된다.

“눈, 그렇지…! 눈을 공략해! 시야를 막아!!”

“성녀님, 조금 많이 신나신 것 같은데!!”

“저 재수 없는 악신의 콧대를 눌러 달라고!!”

“어이쿠….”

서서희는 부지런히 움직이면서도 어색하게 웃었다. 아무래도 납치되었던 동안 성녀님께서 쌓인 한이 많았던 모양이다. 저렇게 기운이라도 넘쳐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하긴 분노는 꽤 괜찮은 도구가 되어주지.’

분노는 공포를 이겨낼 때도 효과적이고,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줄 때도 효과적이었다. 또한 분노를 통해 갈등은 조율될 수 있었으며 이따금 가진 것 이상의 능력을 보일 힘을 주기도 했다.

‘무기이자 성곽이라던가.’

악신의 말이 정확했다.

‘과연 분노의 신성일 만하네.’

서서희가 악신을 정면으로 눈에 담았다.

그는 한때 보았던 것과 달리 인간만큼 작아져 있었다. 아니, 원래 저 정도의 크기였겠지. 저주와 증오가 쌓이며 비대해진 것일 터였다. 그거참 안쓰러운 이야기였다.

“…성녀님!!”

“말씀하세요!”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버텨요, 할 수 있잖아요!”

아람이 대답했다.

“아테르 씨가 설득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전멸이 될지, 배움이 될지는, 결국 본인들의 몫이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망령들의 것이지 않던가?

* * *

“…….”

아테르는 이 광경을 알았다.

“…유적인가.”

활기가 가득 찬 유적이었다.

“아, 그거 내 거라고…!”

“네가 늦게 먹으니까 그렇지!”

“치사하게 진짜!”

낯선 얼굴의 아이들이 먹을 것으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투덕거리며 화내지만 또 금방 화해했다. 그러고는 웃는다. 전형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내가….”

“아, 진짜? 그건 너무 거짓말이지 않아?”

“아니야, 정말이라니까?”

가볍고 낭랑한 음성으로 웃는 청년들의 모습도 보였다. 아마 즐거운 수다를 떨고 있는 것 같았다. 손재주가 좋은지 비단을 짜거나 그것으로 장신구를 만들고 있기도 했다.

“자, 거기서 손을 펼쳐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아는 마법과 무술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보였다. 한데 모여 토론을 하거나, 누군가가 시연하면 감탄하고 있었다. 무기를 든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교육하는 어른도 보였다.

“…….”

아테르가 손을 쥐었다 펴보았다.

‘…나는 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건가.’

그가 정확히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건 꿈인가? 아니면 주마등? 어쩌면 운 좋게 그가 원하던 곳에 도착한 것일 수도 있었다. 아테르는 유적을 거닐었다.

유적은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찬란했다. 벽에는 정돈된 기록이 가득했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빼곡했다. 깡, 카각, 울리는 작은 소음에 아테르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아.”

황혼.

‘멋지군.’

인간의 손으로 빚은 황혼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아르지오 씨.”

“누가 나를 부르지?”

“나의 신이시여.”

“…으음, 어디 보자….”

천장에 닿을 만큼 긴 사다리 의자에 올랐던 이가, 씩 웃으며 아테르를 내려다보았다. 허리춤에 닿을 긴 적발이 짐승의 꼬리처럼 여유 있게 살랑거렸다.

마지막 용이, 마지막 용사를 보았다.

“나는 신이 아닌데.”

"...그러시겠죠."

아테르가 헛웃음을 뱉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71)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72)

272

제272화

“소개를 좀 해줄까.”

까마득하게 높은 의자에서 내려온 아르지오가 아테르를 환영했다.

“자, 저쪽은 우리 집의 꼬마들.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고 데려온 아이도 있지. 하지만 대부분은 데려온 아이들이네. 이곳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를 가지길 두려워하거든.”

“…아, 그렇군요.”

“저기서 토론을 하고 있는 자들은 대부분 평민이야. 음, 그렇군. 저쪽에 얼굴이 하얀 편에 속하는 몇 명이 보이나? 저들은 귀족이었다. 가진 지식이 많아 그걸 나눠주는 중이고.”

“…….”

“저들은… 오, 나에게 줄 장신구를 만들고 있군.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반짝이는 것을 좀 좋아하는가? 아, 세상의 모든 재물이 나의 둥지에 머물렀으면 좋으련만.”

그는 새빨간 머리칼을 살랑거리며 아테르를 이끌었다.

“여기는 아이들의 침실일세. 음, 개별적으로 따로 방을 쓰는 자들도 많지. 이곳에서 가정을 이룬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만 쓸 수 있는 집이 필요하거든… 다행히도 이곳은 참으로 넓으니 그들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해 줄 수 있었어.”

“아니, 그, 그런 것까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사서 선생은 결혼할 생각이 없는가? 하하! 고깝게 듣지는 말아 주게,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으니까. 세상 인연이라는 건 생각보다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지 않나? 자자, 거기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보게.”

아르지오는 거대한 농장도 소개해 주었다.

“여기는 나의 친구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곳이지. 비록 햇볕은 들어오지 않아서 척박하지만, 수확량이 나쁜 편은 아니라 다들 그럭저럭 만족하고 지내는 것 같네.”

“…확실히 횃불 정도만으로는 이만한 농지를 책임질 수 없겠습니다. 그래도 햇볕을 쬐지 못한 것치고 작물들의 상태가 훌륭해 보이는데, 혹시 품종을 개량하신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지. 무엇보다 검은 숲에서 나는 작물이 되는 셈이기도 하잖나. 여러모로 영향을 받아 색다른 구조가 된 모양이더군. 그래도 제법 맛은 있어, 괜찮아.”

“이렇게까지 식사에 진심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르지오 씨,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책임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보이다니… 품종 개량은 꽤 노력이 들 텐데요.”

“유능한 친구들이 모인 덕분이지.”

아르지오가 웃었다.

“이곳에 온 친구들은 다양하네. 내가 질질 끌고 온 자도 있고, 자진해서 찾아온 자도 있고, 나에게 제물로 바쳐진 자도 있었다.”

“질질 끌려와…?”

“돼지들과 살 바에는 짐승과 사는 편이 나을 텐데 고집을 부리던 안쓰러운 자들이 있어서. 아, 그게 아니더라도 얄미운 소리를 지껄이는 새싹들을 가져와 다듬었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좀 무섭게 들리는데….”

“나를 대체 뭐로 보고? 그래, 잘 본 것 같네. 나는 매우 폭력적이거든.”

“아하….”

“그렇지, 방금 내가 만들고 있던 것을 흥미롭게 바라보던데.”

아르지오가 금색 눈을 휘어 웃었다.

“보여줄까?”

“…예, 가까이에서 보고 싶습니다.”

“사다리 의자가 좁아서 그건 힘들겠고, 그나마 가깝게 볼 수 있는 장소로 안내하지.”

그는 아테르와 함께 꽤 많은 계단을 올랐다. 그러고는 마치 첨탑과도 같은 테라스로 나왔다. 아니, 글쎄. 천장을 볼 수 있도록 툭 튀어나온 그것을 무어라 불러야 할지 아테르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아르지오의 말대로 천장이 꽤 가까이에서 보였다.

“…….”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마법은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나는 그런 걸 쓰는 데에 조금 서툴러서 말이야.”

“당신이 마법에 서투르다는 말을 듣는 제 입장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일세, 이런 활동을 할 때 마법은 오히려… 불편하지.”

무언가 마뜩잖다는 듯 아르지오가 목을 긁적였다.

“나에게 있어 마법이란 전투와 관련된 것뿐이라서 말이야. 꽤 거칠고 투박해. 이런 활동에 쓰이기에 그다지 적합하지는 않아.”

“그래서 직접 손으로 만들어낸 겁니까?”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다만 완전한 낮이 될지, 황혼이 될지, 저녁이 될지는 횃불의 크기로 조절하고 있다네. 그 정도는 마법을 쓸 만하거든.”

“편리한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군요….”

“아무래도 머리 잘 돌아가는 놈들을 구슬려서 귀여운 마법도 몇 개 배워 두어야겠어. 횃불이 사용되는 곳이 이 높고 거대한 천장이라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횃불의 크기도 조절하기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아테르가 홀린 듯 천장을 보았다.

“멋집니다.”

인간의 손으로 빚었다고 믿기 힘들 정도의 웅장함.

그것은 자연을 담고 있었다. 아니, 자연 그 자체였다. 음각을 통해 그는 하루의 시간을, 그에 따른 하늘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아르지오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아테르가 그를 보자, 아르지오가 설명했다.

“아무래도 유적은 하늘을 볼 수 없으니 말일세. 우울해지려는 사람이 많아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지.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 거야.”

“…규모가 너무 크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우리 친구들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지. 내 친구들은 거칠고 강한 놈들도 많지만 상상 이상으로 연약한 놈들도 많아서. 망가트리지 않으려면 신경을 써줘야 해.”

“그런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놓고서는 신이 아니라고….”

“세상 어디에 이런 신이 다 있는가?”

그는 아테르의 등을 가볍게 치며 웃었다.

“다 봤으면 내려가지.”

“…다 안 봤습니다.”

“언제까지고 가짜 하늘만 올려다본다면 아까운 시간이 금방 가고 말 거야.”

“…….”

아테르가 끄덕였다.

“그렇죠.”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에, 뿔이 난 사슴을 보았다.

“오, 나의 사랑스러운 형제가 왔군. 이보게, 친구. 인사하게나. 나의 동생일세.”

“…동생이 참 귀여우십니다.”

“그렇지? 많이 컸다고 생각은 한다만, 그래도 좀 더 살이 포동하게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이렇게 비쩍 말라서는 검은 숲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지도 모르네.”

“어, 글쎄요. 사슴치고 많이 우람하신 것 같은데….”

“이 뼈밖에 없는 다리가 보이지 않나?”

“근육은 보입니다만.”

물론 마르기는 했다. 하지만 그건 사슴이라는 종족의 한계였다. 그가 소개해 준 사슴은 그 종족치고 꽤 근육질인 편이었다. 콱 물으면 이빨도 안 들어갈 것처럼 탄탄해 보였다.

아르지오는 사슴과 함께 아테르를 인도했다.

“이런 좋은 친구가 나를 찾아올 줄은 몰랐지 뭐야. 오는 길이 힘들지는 않던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

“목도 잘렸고요.”

“그거 정말 재밌군, 목이 잘렸나?”

“남은 몸통은 악신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네도 참 헌신적인 사람이야.”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왜 그렇지 않은가?”

악신이 웃었다.

“자네의 모든 걸 바쳐 나를 봉인했거늘.”

“…….”

횃불이 꺼졌다.

온기가 감돌던 유적은 어느새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주변을 보았다. 망가지고 무너져 내린 파편이 가득했다. 먼지가 쌓였고, 벌레가 숨죽여 기어 다니고, 곳곳에 이끼가 꼈다.

망가진 유적은 순식간에 적막으로 가득 찼다….

“…그랬죠.”

악신을 봉인한 직후의 유적 광경이었다.

“행복했던 꿈속에 계시려던 것이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그림을 감상하던 것뿐이었네.”

“그 오래된 기억에 미련은 없으시고요.”

“그렇게까지 섬세한 놈은 아니라서 말이지.”

“꿈의 악신이라고도 불리시는 것 같던데….”

“어느 쪽이든 재밌으면 그만 아닌가?”

제 곁의 사슴을 쓰다듬은 아르지오가 픽 웃으며 어깨를 으쓱였다. 그러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아테르가 그 뒤를 순종적으로 따랐다.

“자네도 참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제 인생의 고생 중 절반 이상은 당신 때문이 맞긴 합니다.”

“저렇게 옳은 말만 하니까 성녀님께서 그렇게 화가 나셨지.”

“그보다는 당신께 화가 난 게 많아 보이던데….”

“반응이 그렇게 달콤한 걸 나보고 어떻게 참으라는 말인가?”

“악신이 맞기는 하군.”

“그럼, 이 내가 누구인데.”

깔깔 웃으며 아르지오는 계단을 타고 내려갔다. 다닥, 탁, 사슴이 발굽 딛는 소리가 유적의 길목을 울렸다. 돌멩이가 자리를 잡듯 썩 듣기 좋은 소음이었다. 가벼운 운율.

아르지오는 턱을 쓸었다.

“으음, 그래. 그렇군….”

“…….”

“왜 굳이 여기까지 왔는가?”

악신은 의아해했다.

“내 품이 그렇게 불편했나?”

“…편안했습니다.”

잘린 목으로, 분노가 끓는 증오 속에 잠겼다. 아테르는 그 안에서 마음껏 비명을 지르고 미쳐버리며 발버둥 쳤다. 그는 수많은 용들의 저주 가득한 시선을 통해 망가지는 세상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건 상상하던 것 그 이상으로 안락했다. 나 자신이 온전해지는 기분. 충만해지는 감각. 아프고 힘들게 발악할 것 없이 끝없는 심해로 추락하는 그 느낌. 솔직히 나쁘진 않았다. 꽤 유쾌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는 인간으로 남을 겁니다.”

그러고 싶었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제게 너무 많았던 탓이죠.”

“음, 과연 그러한가. 역시 이놈의 용사라는 친구들은 참 고집이 강해서….”

“이 정도 고집이 없으면 어떻게 내 몸 갈아가며 당신을 봉인하려 들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은 못 하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높으신 분들에게 밉보여서 쫓겨난 건 아니고?”

“그것도 있기는 했을 겁니다. 제 성격이 왕실과 어울리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선택했습니다. 더 버티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셋 모두 미쳐 있던 셈이군.”

악신은 만족스러운 듯 배부른 맹수의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묻겠는데.”

지하 무덤에 닿아, 아르지오가 아테르를 보았다. 사슴 역시 올곧은 눈으로 용사를 보았다.

『… 왜 나를 찾아왔지?』

그는 붕대에 감겨 있었다.

잔뜩 쉬어버린 거친 목소리. 사람을 홀리는 힘은 남아 있었지만 미성이라고 부르기는 힘들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붕대로 가득했다. 아니, 붕대처럼 보일 뿐 찢은 천에 불과했다.

그것은 피와 진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르지오의 몸은 어느새 서 있는 것조차 버겁다는 듯 굽어 있었고, 그 팔과 다리는 고목처럼 가늘었다. 황금색 눈은 보이지조차 않았다.

“…….”

물어뜯긴 듯 잔뜩 헤어진 목까지 확인한 아테르의 얼굴이 이내 일그러졌다.

“…아르지오.”

『그래.』

“당신이군요….”

불태워진 숲에서 살해당한 마지막 용.

“…내가, 당신을….”

악신은 침묵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무관심일까, 아니면 허락일까.

아테르가 떨리는 손을 아르지오의 손으로 향해 뻗었다.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주춤거렸으나, 기어이 그것을 맞잡았다.

곧 재가 되어 바스러질 것 같은 가는 손이다. 그것을 신을 모시는 아들처럼 경견하게, 구원을 바라는 난민처럼 간절하게 붙들었다.

“.......”

숨이 떨렸다.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가 울었다.

“사과하고 싶었어.”

말이 터져 나왔다.

“마지막 남은 구시대의 인간으로서, 모든 용을 배신하고 외면했던 그들을 위해 빌고 싶었습니다. 나는, 난, 감히 용사라고 불렸지만... 그 이전에 인간이라서... 그 모든 비극을 이해하고, 경멸하던 사람이라... 사죄하고 싶었던 겁니다.”

책임과 인연으로 숨기고 외면해야만 했던 그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죄책감이었다.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악신의 꿈에서나마 제 속을 토로했다. 인간이기에 그랬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대가 그런 말을 하나?』

“이것은 내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비는 사죄입니다. 인간을 대표한 사과이고요. 우리는 당신에게 받은 수많은 피해와 비극이 있지만... 그래서야 아무것도 끝나지 않잖아요.”

『무엇을 끝내고자 함인가?』

“사실 아무것도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마땅히 주어진 일이 있어....”

마른 손에 이마를 대고 울던 아테르가 고개를 들어 붕대 감은 얼굴을 마주 보았다.

“...죄송합니다.”

『.......』

“죄송해요, 정말로.”

『아....』

붕대의 틈 사이로 버석한 미소가 그려졌다.

“...이 말을 듣고 싶었어.”

마지막 용이 아테르를 느릿하게 끌어안았다.

얼마든지 쉽게 떨쳐낼 수 있는 미약한 힘이었으나 아테르는 순순히 그 포옹을 받았다. 숲이 타고 남은 재의 향기와 함께 미지근한 온기가 퍼졌다.

그가 물었다.

“내가 처음으로 신께 받은 이름을 들어 주겠는가?”

“...물론입니다.”

“세이튼.”

“.......”

“좋은 꿈을 꿨어.”

그는 마치 늙어버린 황혼의 부모처럼 느긋하게 아테르의 등을 쓸어내리고 토닥였다.

“덕분일세, 내 친구.”

아르지오가 속삭였다.

“…너희를 용서하마.”

“…나 역시, 당신을 용서합니다.”

“고맙네.”

포옹을 푼 그가 아테르의 손을 끌어와, 그 손끝에 제 입술을 가볍게 부딪쳤다.

“그리고 잘했어.”

잘게 웃은 그는, 곧 모래가 되어 부서져 내렸다.

“…….”

“감사합니다.”

“…아….”

아테르가 손을 꾹 쥐었다.

감사를 전한 사슴은 작은 모래 언덕에 둥지를 틀 듯이 앉았다. 그러고는 눈을 감았다.

잠이 든 듯 들썩임이 적어진 사슴은 이내 녹아내렸다. 그는 곧 작은 꽃 무리를 피워내는 꽃다발이 되었다.

그 사이에 남은 것은 오직 사슴의 머리뼈뿐이었다.

“…….”

아테르는 주저앉아 그 고운 모래와 그 위에 피어난 꽃 무리를 조심히 쓸었다. 한동안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던 아테르가 손을 뻗었다.

모래와 꽃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 주홍색 보석이 박힌 은목걸이였다.

“…선물이라고 알아듣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아테르는 곧 지하 무덤을 나섰다. 손은 무거웠고, 숨은 가벼웠다.

그는 무덤의 문을 닫고 계단을 올랐다. 오르고 또 올랐다. 횃불이 희미하게 켜진 유적이 보였다. 조금 더 낡은, 아테르가 다시 사람으로 빚어졌을 때의 광경이었다.

“…하아….”

아테르는 더 나아갔다.

한참을 나아가다 보니 유치하게 뛰어놀던 아이들의 자리가 보였다. 그걸 지나치니 장신구 만들던 청년들의 자리가 보였다. 또 지나치니 지혜를 나누던 도망자들의 자리가 보였다.

그것마저 지나치니 이내 저 멀리의 천장이 보였다.

“…밤하늘인가.”

빛이 꺼졌음에도 별과 달이 반짝이는, 밤하늘.

“멋지군요, 세이튼.”

인간의 손으로 빚은 하늘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위안을 주었을까.

그는 인간이었을 적에조차 신이었다. 신이었음에도 인간이었다. 그는 수없이 분노하나 용서할 줄 아는 성인이었다.

그리고 기어코 아테르는 유적의 입구 앞에 섰다.

“…….”

잘그락….

그는 목걸이를 걸었다.

“…나아가야지.”

발을 내디뎠다.

* * *

바스슥—.

아테르의 머리가 부서져 내렸다.

“…아….”

그것을 본 아람이 손을 꾹 쥐었다.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다 했구나.’

아람이 악신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두 번째 손이 비게 된 악신의 고개가 기울어진다.

그는 텅 빈 손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작게 벌리고, 달싹였다. 친애하는 가족을 부르는 것만 같은 미약한 움직임이었다.

그 손이 이내 바들거리고, 떨리다가, 이내 괴성과 함께 제 반절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넘치는 황금 물이 꼭 고통에 울부짖는 악신의 눈물 같았다.

『왜, 왜, 왜, 대체 왜!!! 어째서 나를 떠나갔느냐!!!』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제발, 내게 분노를…! 고통을!! 모욕을—!!!』

붉은 날개의 광휘가 파르르 기괴하게 떨렸다. 그것이 악신의 고통과 혼란을 발해주었다. 죽어버린 새의 신경이 살아 펄떡이는 것처럼 생과 온기와는 동떨어진 광경이었다.

『나의 형제들이여…!!!』

썩어 문드러진 용들이 이 불협화음에 응하듯 비명을 질렀다. 거대한 굉음은 하나둘 용들을 끌어모았다. 아람의 깨지고 망가진 불완전한 우주에 다시금 용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성녀님,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충 아실 것 같지만….”

눈물을 훔쳐낸 아람이 대답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과연 그렇군요.”

“이번엔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사형제들도 할 말이 있어야죠.”

그녀는 붉어진 눈가를 찡그리며 깨진 달을 품에 안았다.

아람의 품에 안긴 달은 이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아람은 그것을 제 손 위에 들고서는 한 자리에 가득 모인, 그리고 모이고 있는 용들을 보았다. 그들의 분노에 혼란이 섞였다.

‘타락한 용들.’

가엾은 신의 사자.

그녀는 친구를 대하듯 작게 속삭였다.

“…우리는 대화할 수 있을 거야.”

아람이 다시 한번 달을 저 위로 올리자, 은빛 달이 환하게 빛났다.

“닮은 부분이 많잖아.”

달의 미약한 온기가 온 세상에 퍼져 나갔다.

어린 용들은 그만, 그 온기에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렇죠?”

아람이 찡그려 웃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72)"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73)

273

제273화

그 숲에 얼마나 큰 분노가 묻혔는지 아니?

* * *

어느 날.

아이는 공복에 허덕였다.

‘여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잡초밖에 없다. 색도 시커먼 것이 아무리 봐도 먹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냄새도 이상했다. 게다가 그것들이 뿌리를 내린 흙의 색깔도 혼탁했다.

영민했던 아이는 최선을 다해 공복을 버텼다. 배가 고프다고 이런 걸 먹으면 금방 탈이 날 것이다. 약도,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왔다.

“…으….”

물 한 모금만.

‘딱 한 번만 마시면 괜찮지 않을까.’

체하지 않게 조금씩 마시는 거다. 맛이 정말 끔찍하겠지만, 고여 있는 이 검은 물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았다. 그런 건 싫었다.

아이는 숨죽이고 걸어가 작은 웅덩이에 도착했다. 덜덜 떨며 손을 뻗었다. 치익— 정상적인 물에서라면 나지 않을 소리가 접촉한 손가락에서 났다. 하지만 고통은 없었다.

‘괜찮을 거야.’

지금 바로 죽는 것보다 무서운 일이 뭐가 있겠어?

‘목만 축이면 되니까, 그러면 되는 거니까…!’

꿀꺽.

“…! 으, 으악…!!”

목이 타는 것처럼 아팠다.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는 괴물들에게 소리가 들리는 줄도 모르고 아파서 울부짖었다. 엉엉 울다가 괴물들의 시선을 깨닫고서야 도망쳤다. 목을 부여잡고 한참을 뛰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다. 왜인지 몸의 감각이 점점 둔해졌다. 시야가 붉고 검고 파랗게 변했다. 갈비뼈를 꽉 조인 것처럼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아이는 넘어지고 나서야 자신을 보았다.

“…….”

산 채로 썩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으, 으아… 아아아아….”

이게 내 손이라고? 이게 내 팔이라고? 내 다리는 왜 이러지? 발은 또 왜 이래? 나는 얼음도 아닌데 어째서 녹고 있는 거지? 아파, 너무 아프다. 아파요. 아파, 아파, 아파…!

“어, 어머니… 어머니! 흐아아아앙…! 저어, 저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형님! 다 어디 있어요! 달리아, 나 아파! 나 무서워! 도와줘…!!”

목소리는 점차 기괴해져 갔다. 그게 너무 싫어서 목을 벅벅 긁으니, 감촉이 이상했다. 다시 손을 보니 징그러운 살점이 치즈처럼 뭉개져 그 손가락 틈 사이에 끼어 있었다.

‘말도 안 돼.’

악몽일 거야. 이건 전부 꿈일 거야. 사람의 피부가 이렇게까지 약할 리가 없어. 간지러울 때 자주 긁었지만 한 번도 이런 적 없는걸. 그래, 당연해. 나는 곧 악몽에서 깨어날 거야.

‘그러면 달리아가 나를 깨우러 와주겠지?’

푹신한 침대에서 일어나,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러 가는 거다. 형님을 붙잡고 펑펑 우는 거다. 내가 이렇게 무서운 꿈을 꿨다고. 그러니 나를 위로해 달라고 울 것이었다.

‘그래, 그래, 그러니까…!’

어느새 시야는 어두워졌다.

‘곧 잠에서 깨어날 거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

아이는 한참이나 썩은 땅에 누워 있었다.

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었다.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손가락을 꿈틀거리는 것조차 무리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느리게 자신의 몸이 뜯겨가거나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

괴물이 나를 잡아먹고 있나 봐.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게 맞았어.’

아버지도, 형님도,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린 것이다.

이곳에 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애써 부정하던 사실을 새삼 인정했다. 괴물이 득실거리는 이곳으로 가족들이 와줄 리가 없었다. 아이는 이곳에서 천천히 썩어가고 괴물에게 잡아먹혀야 했다.

‘죽음이 가장 무서운 일이 아니었구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괴물들은 그를 한 입씩 먹고는 떠나가 버렸다. 몸이 녹아내려서일까? 제발, 아무나 나를 죽여주길. 신께서 내 숨을 거둬가시길.

공허의 영겁에 갇힌 아이의 공포는 곧 분노가 되었다.

* * *

어느 날.

아이는 너무나 외로웠다.

"…지금, 대체 몇 시지…."

허탈하게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시간은 알 수 없었다.

검은 하늘. 검은 나무. 검은 괴물. 검은 꽃. 검은 잡초. 검은 땅. 검은 웅덩이. 모든 것이 검은색뿐이었다.

'이러다 나도 검은색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아이는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숨죽였다. 괴물의 주의를 피하는 방법은 배웠다. 죽은 듯 있으면 됐다. 하지만 너무 외로웠다. 같이 떠들 상대도 없고, 날 봐줄 사람도 없었다.

'내가 이런 곳에서 벌을 받아야 할 만큼 끔찍한 짓을 저질렀나?'

풍성한 깃털이 달린 날개로 아이는 최대한 자신의 작은 몸을 감쌌다. 그의 가족들은 이것을 보고선 비명을 질렀다. 최대한 숨겨볼 것을, 괜히 멋진 게 생겼다고 자랑해서는.

'멍청했어.'

원한 적 없는 유일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의 가족도 그랬을 뿐이다. 아쉬움이 남았다. 꽁꽁 숨겼다면 가족과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꿈같은 이야기다.

"으…."

춥고, 덥고, 건조하고, 습했다. 날씨가 미쳐버린 이 숲은 정상적인 생물이 살지 않았다. 곧 그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우울해서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다.

'혼자 있고 싶지 않아.'

하지만 괴물은 무서웠다.

'햇볕을 받고 싶어. 구름도 보고 싶고, 별하늘도 보고 싶어.'

아니, 사실 검은색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좋았다.

'마을의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했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된다면 집안사람들이라도. 심심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노인분들과도 좋아.'

글쎄, 사실,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았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색과 사람만 없는 게 아니었다. 시간도 없고 이지도 없었다. 이곳에서 아이는 산 채로 썩어가고 있었다. 창고에 넣어둔 채 잊어버린 우유가 그렇듯이. 혹은 망가진 물건이 그렇듯이.

"……."

겁이 많은 아이는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을 숨어 있었다. 괴물을 피해, 아주 조용한 곳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죽어갔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많은 것을 그리워했다.

존재가 지워진 아이의 그리움은 곧 분노가 되었다.

* * *

어느 날.

아이는 어떻게든 살고 싶었다.

“—다 죽어버려!!”

“뭐 해, 빨리 처넣어!”

“너희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겁쟁이들, 위선자들! 나를 떠받들 때는 언제고 감히 이런 쓰레기 같은 취급을 해?!”

“저걸 검은 숲에 버려야 우리가 살아…!”

“너희 모두에게 저주가 내릴 거다, 너희 모두에게!!”

검은 숲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다. 하지만 무의미했다. 어른들은 아이보다 한참은 크고 강했다. 검은 숲을 둘러싼 튼튼하고 거대한 벽의 문이 막혀버렸다. 아이는 버려졌다.

“신께서 벌을 내리실지어다, 악귀 새끼들아!!”

아이는 씩씩거리며 저를 버린 사람들을 모욕했다. 하지만 벽 너머에 있을 사람들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아이가 갈 곳은 숲의 안쪽밖에 없었다. 아이는 이를 득득 갈았다.

“…절대 이대로 죽지 않을 거야….”

무서웠다. 배신감에 몸서리가 쳐졌고, 막막함에 눈앞이 어질거렸다. 하지만 순순히 죽긴 싫었다. 살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해져야만 했다. 용기를 내야만 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힘을 길렀다. 기술을 배우고 지혜를 쌓았다. 가끔은 날렵한 여우가 되어 도망쳤고, 괴물을 피해 새가 되어 하늘을 날기도 했다. 그를 인간들에게서 버려지게 만든 희귀한 능력이었다.

그렇게 아이는 사소한 진실을 알아내기도 했다.

“그래, 이 쓰레기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진 신의 아들이셨다!!”

오히려 더 화가 나게 만드는 몹쓸 진실이었다.

“신께서 양심이 있으시다면 세상에 벌을 내리시겠지…!”

그러니 검은 숲에서 어른이 되어보기로 했다. 아이는 정말로 부지런했다. 모든 것이 제 죽음을 원하는 세상에서 꾸역꾸역 살아남았다. 산다는 것은 더 강해진다는 것. 뿌듯한 나날이었다.

하지만 결국 아이는 죽음을 맞이했다.

“…윽, 으헉….”

이유는 별거 없었다.

“…끄으, 으으윽… 우웨에에엑….”

잠든 사이 독버섯의 포자에 당했다.

급하게 깨어났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아이는 너무 억울해서 피눈물을 흘렸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버텼는데 이렇게 허무한 죽음이라니. 싫었다, 너무 싫어서 내장이 뒤틀렸다.

하지만 죽음은 서서히 다가오기만 했다.

“흐으윽… 으아아아앙, 흐아아아아아앙…!!”

지독한 슬픔에 아이는 펑펑 울었다.

이렇게나 열심히 했는데.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그런 그를 알아주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버려지고 역사에서 잊힌 한낱 먼지가 되겠지. 말도 안 되게 비참한 일이었다.

아이는 신께 빌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나의 고귀한 아버지…! 부디, 저를…!!”

그리고 기도 중에 아이는 죽었다.

신실했던 아이의 절박함은, 늘 그랬듯 분노가 되었다.

* * *

“…….”

착한 아이. 악한 아이.

“…….”

가족을 사랑했던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었다. 어떨 때는 남자아이였고 어떨 때는 여자아이였다. 배가 고팠던 아이, 외로웠던 아이, 화가 났던 아이….

누군가는 비명 한 번 다 지르지 못하고 괴물에게 잡아먹혔다. 누군가는 숨죽여 발을 옮기다 괴물에게 깔려 죽었다. 누군가는 지독한 배신감을 느꼈고, 누군가는 짙은 절망만을 느꼈다.

“…….”

삶을 포기한 아이도 있고, 포기하지 않은 아이도 있었다.

“…아….”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다.

그들은 인간을 증오하고, 세상에 분노하며 죽었다.

“무서웠겠다.”

“…그러게, 많이 아팠겠는데.”

“굉장히 어려 보여요.”

“우리도 어리다면 어리지 않나…?”

“하지만 그건 우리가 선택한 거였잖아.”

“그것도 그렇지.”

새하얀 달처럼 반짝이는 인영들은 제각기 한마디씩 보탰다. 그 수가 아주 많지는 않았다. 어리거나 젊은 실루엣의 그들은 새빨간 용들의 기억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들은 은과 대리석으로 빚어진 거대한 도서관에 있었다.

“난 나의 후배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해.”

“솔직히 나도 그래….”

“…이런 꼴을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그들, 한때 달님교의 성인이었던 이들은 작은 용들의 기억을 끌어모았다. 그들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기억하고, 분석한 다음, 하얗고 단단한 종이 위에 새겨나갔다.

“그러니 기억하자.”

이건 동정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그 아이들의 분노와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후배들은 많은 것을 배울 거고.”

“이 안에 있는 우리도 한없이 주의하며 더욱 조심히 걸어 나가겠지.”

“그러니 한 글자도, 단 1초의 시간도 틀리지 말고 기록해야 해.”

“그것이 우리에게 배움을 준 작은 용들에 대한 예의야.”

“그리고 감사 인사야.”

새하얀 책이 하나씩 만들어진다. 달무리로 엮어 만든 그들 서재의 고귀한 기록이었다. 달님교의 성인들은 그것을 달님의 책장에 끼워 넣어 기억했다. 거대한 책장이 금방 빼곡하게 찼다.

작은 달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우리가 너희를 기억할게.”

“너희도 우리를 기억해 줘.”

“무엇이 옳은 길인지 이야기하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달 중의 한 명이 새하얀 책을 꼭 껴안았다.

“…이것 봐, 따듯해.”

“어, 진짜다.”

“용이라서 그런가?”

누군가가 웃었다.

“이렇게 용이 많으니 달도 금방 따듯해지겠지?”

그들의 도서관은 참 춥고 외로웠다. 하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온갖 지식과 지혜로 가득했다. 달의 성인들은 그들의 스승인 달을 사랑했다. 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였다.

“그럼, 물론이야. 우리의 후배가 달을 껴안고 있잖아.”

“좀 더 꽉 껴안아 줬으면 좋겠어.”

“분명히 언젠가는 그렇게 해줄 거야.”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착한 후배처럼 보였으니까.”

“아람이를 믿자.”

작고 하얀 인영들은 쪼르륵 용들의 책장에 기대어 앉았다. 책장은 붙어 있으면 후끈할 정도로 따듯했고, 쉽게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약한 진동이 울렸다.

“…꼭 살아 있는 동물 같아.”

“아, 이런 느낌이었던가?”

“전부 까먹고 와서 잘 떠오르지 않네….”

“하지만, 그래, 고양이 같은 동물을 껴안으면 이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

“우리 이 애들을 한 명씩 안고 있자.”

“그거 좋은 생각이다.”

성인들은 작게 웃으며 책을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였다.

“아, 따듯하다….”

“그러게.”

그들은 책을 쓰다듬었다.

“고마워.”

도와줘서.

* * *

분노 끝에 찾아오는 감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니 그 모든 결말이 행복할 수만은 없겠으나, 자연과 운명에 속한 자들은 그 끝을 포용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작고 어리석은 생물조차도 말이다.

작은 용들은 드디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

흙이 된 용들 사이에서 아람은 그저 침묵을 지켰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74)

274

제274화

온 세상이 고요해졌다.

기이하고 아름다웠던 우주의 파편은 하늘에서 자취를 감췄다. '꿈의 유원지'에 남은 것은 허공에 둥실둥실 떠 있는 성의 일부분과 망가졌던 유원지의 장식품들 따위였다.

심신을 갉아먹던 저주 따위는 찾아볼 수도 없이, 맑은 공기가....

"......."

그 몽환적인 광경에 헌터들은 잠시 넋을 놓았다.

"...끝...."

누군가가 입을 열었다.

"...끝난, 건가...?"

"...그런 것 같은데요?"

"시발, 살았다."

풀썩—!

장년의 헌터가 주저앉았다.

"내가 다시는 악신이랑 싸우나 봐라...!!"

"솔직히 이번에도 악신이랑 싸운 건 저희가 아닌데요, 대장님."

"너는 꼭 지금 그 말을 해야 했냐?"

"우린 사실상 그냥 악신에게서 나온 떨거지들 처리한...."

"에라이, 분위기도 못 읽는 새끼."

투덕거리는 헌터들 덕분인지 점차 분위기가 풀렸다.

탈진한 듯한 헌터들이 하나둘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들은 크게 숨을 내쉬었다. 아까와 달리 상쾌하고 가벼워진 공기가 정말이지 반가웠다. 숨이 달게 느껴질 정도였다.

“아, 씨… 배고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러네….”

“내가 진짜 살았다고? 와, 돌았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무렵.

“…어, 근데 잠깐만.”

누군가가 의문을 제시했다.

“그럼 왜 우리 아직도 공략 메시지가 안 떠?”

“제발 이러지 마.”

대단히 타당한 의문이었다.

* * *

아람이 몽환적인 광경으로 변한 던전을 보았다. 간신히 공중에 섬처럼 떠 있는 땅만 남아 있을 뿐, 그게 아니라면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도 구분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곳곳에 누워 있는 작은 용들의 뼈 무덤….

“…….”

하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위태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던 저주나 독 같은 것은 전부 사라지고, 남은 것은 평온뿐이었다.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그런 평온 말이다.

“저희가 악신을 물리쳤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아람이 입을 열었다.

“…애초에 악신을 이루고 있던 것의 대부분은 분노, 그것도 그간 검은 숲에서 희생되어 온 어린 용들의 분노였어요. 달님 안에 계신 제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그 분노를 풀어냈죠.”

“그 많은 용들이 화를 풀고 인간들을 용서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분노의 끝이 항상 용서일 수는 없잖아요. 체념일 수도 있고, 해탈일 수도 있고, 유실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쩌면… 그래요, 용서일 수도 있어요.”

작은 용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달님에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아니,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왜 아직도 공략 메시지가 뜨지 않았는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을 테니까요.”

“예, 무슨 이유에서인지….”

허공을 응시하던 유스티티아의 부길드장, 강은성이 이어 말했다.

“…이쯤 되면 시스템이 알림을 보내 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군요. 악신까지 해치웠는데 이렇게까지 반응이 없다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곧이어 그가 “아” 하고는 말했다.

“물론 저희가 악신을 소멸시킨 것은 아닐 테지요?”

“그것은 악신이 바라던 바가 맞습니다만, 예, 소멸시키지 않았어요.”

달님을 품에 안은 아람은 권한이 컸다. 달님 안의 선배님들께 허락을 받아 그 신성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신성은 신성으로 죽일 수 있는 법. 악신은 그걸 원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아람이 그 난리를 피웠던 것이다.

“작은 용들은 분노를 풀고 자연으로 돌아갔을 뿐, 그들만의 섭리 속에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신성의 죽음은 소멸뿐인데… 만약 그렇게 되었더라면 지금처럼 용들의 뼈도 남는 일이 없었겠죠.”

아람은 공중에 뜬 작은 대지 위에 조용히 잠든 용들의 뼈를 보았다. 새하얀 그것은 던전의 햇볕을 받아 대리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잘 다듬은 상아의 색과도 같아, 꼭 보석을 닮았다.

그리고 그 근처의 땅에는 여리디여린 꽃과 풀이 피어났다. 생명은 섭리의 것. 분노로 인해 타락했던 그들이 질서의 섭리로 돌아왔음을 뜻하는 광경이었다. 아름답기도 했다.

“달님의 신성을 이용해 폭력적인 다툼을 이어갔다면 이런 결과는 낼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 세계의 것과 같은 비극을 저지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틸 힘을 불어넣어 주고, 이곳의 동물들을 이용해 승기를 잡은 다음, 용사 아테르 씨를 악신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용이 질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군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서로의 신뢰가 필요했던 만큼 위태로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네요. 역시 일단 저지르고 보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예….”

부길드장이 미묘한 표정으로 아람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던전의 최종 보스를 쓰러트린 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던전 공략이 완료되지 않았다니 이상하군요. 이런 경우는 보통 해야 할 일이 더 남았을 때인데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짐작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곳은 악신의 던전이었잖아요.”

“음, 그렇죠….”

강은성이 알 만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성이 만들어낸 던전은 지구의 시스템이 잘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별개의 섭리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한 신비이기 때문이겠죠, 지구를 둘러싼 질서의 신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저도 강은성 부길드장님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 경우 실질적으로 공략이 완료된 상태라고 해도 시스템 알림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림이 조금 늦게 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성녀님께서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풀어내지 못한 공략 조건이 남아 있든가, 아니면 정말로 공략은 완료가 되었지만 시스템 오류가 생겼든가.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저는 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람은 말을 하다 말고 달님을 쓰다듬었다. 그 고귀한 구체가 미약하게 빛을 내며 반짝이자, 아람 역시 대화를 하듯 한 차례 눈을 깜박였다. 그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더 진행해 보면 알겠죠, 따라 주시겠어요?”

“경청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우선 지하 세계 검은 숲의 유적으로 이동해서 그 아래에 있는 악신의 무덤을….”

“아아 잠깐만.”

안경을 고쳐 쓴 부길드장이 물었다.

“…저희 방금 최종 보스를 상대한 게 아니었나요?”

“그랬죠?”

“또 다른 전투가 있을 예정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녀인 저를 믿어보세요.”

“성인의 예언인 셈 치고 믿겠습니다.”

둘의 대화를 듣고만 있던 서서희가 다가왔다.

“그럼 제가 또 무기를 들 일은 없는 겁니까, 성녀님?”

“타락했던 모든 분노가 섭리의 자리로 돌아왔으니 더는 폭력적인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이곳의 용들은 이미 모든 분노를 풀어냈어요.”

“그렇다면 대화가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한결 따듯해진 달님을 꼭 껴안은 아람이 말했다.

“…찾아가지 않으면, 아쉬운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들은 검은 숲의 유적으로 향했다.

* * *

“서, 성녀님….”

“제가 멀어져 있는 동안 각자 자신들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 기쁩니다.”

“…저희 달님교 사제들이 가장 잘하는 일 중 하나이니까요.”

유적에 머물고 있던 달님교의 사제들이 성녀 아람을 기쁘게 반겼다.

“그것은, 혹시….”

“달님입니다.”

아람이 아기처럼 품에 안은 달님을 들어 보였다.

“…….”

달님교의 장로가 울 듯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더는 스승님이라 부르지 않으시는군요.”

“달님께서는 그저 지식과 지혜의 창고에 불과했어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따듯하네요.”

“그동안 달님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장로가 느리게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을 뵙습니다.”

“스승님을 뵙습니다.”

장로의 뒤를 따라, 달님교의 모든 사제가 고개를 숙였다.

“부디 저희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들의 성녀 아람을 향해서였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걸 위해 달님을 안았어요.”

아람이 희게 웃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지구의 시스템이 저희에게 공략 완료를 알리지 않더군요.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 유적으로 오셨습니까?”

“예, 소수의 인원만이 함께하고자 합니다.”

“저희 달님교가 스승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체력이 남는 일부만 함께해 주세요, 나머지는 쉬시고요.”

그 말에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가위바위보를 시작한 달님교를 뒤로한 채, 서서희가 제 친구인 부길드장을 불렀다.

“강은성 씨.”

“예.”

“성녀님께서 무언가 보여주실 게 있는 모양인데.”

“관람객을 모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경험이 많고 노련한 헌터인 둘 역시 점차 무언가를 짐작해 가고 있었다.

무언가 진행되는 분위기에 기운이 남은 헌터들 몇이 자리에서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어느 정도 무리가 불어나자 아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이상은 불필요하다는 의미였다.

“그럼 이동하시죠.”

아람이 달을 띄우자 그것이 지하 무덤으로 유유히 날아갔다.

“따라갈게요.”

“오, 저게 정말로….”

“위험한 일은 없을 거예요.”

지하 무덤까지 가는 길은 순탄했다. 유적을 오래도록 감싸고 있던 모든 저주와 심지어는 마법마저도 해제된 것이다. 서서희는 유적의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러고는 감탄했다.

“밤하늘이네.”

횃불조차 타오르지 않는 유적은 촘촘히 별이 박힌 밤하늘이었다. 달님교 성녀가 보여주었던 우주만큼 황홀한 광경은 아니었지만, 마음 한구석을 평온하게 해주는 고요함이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곧 지하 무덤에 다다랐다. 달님교 사제들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고요한 광경이 아니었는데….”

“…없어요….”

“핏물도 사라졌군요.”

얕은 호수를 이루던 무덤 내부의 핏물은 어느새 사라진 채였다.

성녀를 대신해 유적을 조사했던 달님교 사제들이었다. 그들은 이 무덤이 얼마나 끔찍한 몰골이었는지를 기억했다. 저주와 비이성이 가득했던 공간.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이제 이곳에는 적막함과 조금 다른,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곳에 처음 온 사람들은 악신의 무덤이었음에도 이토록 안정적인 기운이 느껴진다는 사실에 놀랐다.

“…조용하다.”

“그러게요.”

조금 낡고 이끼가 낀 돌바닥과 돌벽, 돌천장. 그 사이에 횃불이 희미하게 타닥거리며 무덤을 밝히고 있었다. 음산하게만 보였던 거대한 관 안에는 푹신한 꽃 침대와 함께 낯선 아이들이 하나씩 잠들어 있었다.

달님교는 쉽게 그들을 알아보았다.

“어린 용들입니다.”

“…다행히도, 평온한 낯이네요….”

“참 다행이죠.”

나이가 썩 많지 않아 보였다. 달님교의 성인처럼 일정 나이가 되면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닌 이상, 그들은 보이는 나이 그대로일 것이었다. 과반수가 10대 중반을 넘기지 못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끝에 한 남자가 있었다.

“…….”

“…….”

붕대에 칭칭 감겨 조금의 맨살도 보이지 않는, 대단히 마른 몸의 남성. 그는 고목처럼 마른 몸으로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목이 뜯긴 사슴의 사체를 하염없이 쓰다듬고 있었다.

그가 곧 입을 열었다.

“…그래.”

잔뜩 쉬어 거친 음성으로 남자가 방문객들을 향해 물었다.

“나를 보러 왔니?”

“예,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남자와 자신 사이에 떠 있는 달님을 한 번 본 아람이 말을 이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이 남자의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아람은 암묵적인 허락하에 남자의 이야기를 읊었다.

“마지막 용이었던 당신은 처음부터 용서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죠.”

그렇기에 용서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당신은 분노했습니다. 당신 이전에 죽어갔던 어린 용들의 분노에 휩쓸렸고, 그 분노를 존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거대한 분노 속에서 당신 한 명의 용서는… 재앙의 신비에 있어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글쎄요,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분노의 악신을 굳건히 붙잡고 있던 봉인에 틈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은 지구인들이 익히 아는 순서였다.

“거기서부터 분노의 악신은 지구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죠. 인간형 몬스터였던 인어들과 산칼루트라는 이름의 악신을 휘하에 두었습니다. 다행히 검은망토의 도움으로 이 모든 재앙은 조기에 진압되었지만… 당신만큼은 남아 있었을 테고요.”

그렇게 악신이 직접 나섰다.

“악신은 지구에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걸 알아챈 검은망토의 사도, 서지오 헌터가 악신을 품에 안았고요. 그렇게 한 명의 성자가 악신의 타락한 분노를 정리하고 다듬어가던 와중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테르, 바로 그가 범인이었다.

“한 망령이 재앙을 불렀습니다. 아테르라는 이름의, 한때 악신을 봉인했던 용사 중 한 명이었죠. 그는 이 세계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 영겁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끝내달라며 용사는 악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진명이 불린 악신은 세계의 권한을 얻었다.

“그 탓에 서지오 헌터는 타격을 받고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정확한 상태는 수집상의 비사벌 길드장만이 알고 있겠지만, 최소한... 좋은 상태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분노의 악신은 본격적으로 꿈을 이용해 지구를 잠식하기 시작했죠.”

그 뒤로 생긴 일들은, 딱히 비밀이 아니었다.

“한 종교의 성녀가 납치되고, 그 성녀가 고대의 용사와 만나 악신을 대적할 준비를 하고, 그런 그들을 돕기 위해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아람이 손을 뻗었다.

“.......”

그런 그녀의 손 위로, 달님이 살포시 자리를 잡았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악신이 아닌 성녀의 손 위라는 듯이.

“...하지만 이 모든 건 결국 허울에 불과합니다.”

“어찌 그렇게 생각하는가?”

“당신은 결국 그 분노한 아이들이 가지지 못했던 위령제를 원했던 것뿐이었어.”

“그리고?”

“당신 스스로의 끝 역시 바라고 있었겠지.”

아람이 달님을 아이처럼 품에 안았다.

“감히 인간의 몸으로 달님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당신이 도운 덕분이었던 거야....”

달님을 이렇게 작고 양순하게 만든 것은 악신 아르지오였다. 그가 바라지 않았다면 어떻게 주교의 품에서 달님을 뺏어오고, 그것을 이토록 잘 다룰 수 있었겠는가?

“당신은 내가 이 힘으로 그대 신성을 죽이길 원했을 겁니다.”

“가장 비참하지 않고, 처절하지 않고, 더럽지 않을 끝이었으니.”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분노가 가라앉고 당신만이 남았네요.”

“그래, 맞아....”

거친 음성이 웃었다.

“나는 내가 원할 때 분노한다.”

“그리고요?”

“그리고 원할 때 용서하지.”

마지막 용의 웃음이었다.

“내게 분노란 무기이며 성곽이니, 그것 하나 다루지 못할 리가 없잖니.”

제 어린 선조들이 분노하기에 함께 분노했다. 그리고 이 모든 분노가 끝나 형제들이 잠에 들었다. 새근새근 여린 숨소리가 이 고요한 지하 동공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남자는 그들의 관 안에 꽃을 가득 채웠다. 알록달록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꽃을 한가득 채워, 푹신한 침대로 쓰게 하였다.

“그러니 내 분노도 끝날 때가 왔구나.”

“이미 한참 전에 인간들을 용서하셨군요.”

“분노란 용서할 수 있을 때에 그 가치가 빛난다.”

“역시 당신은 분노의 신성입니다.”

아람이 눈 감은 채 고개를 숙였다.

“…악신 따위가 아니에요.”

분노란 감정의 고귀한 주인이었다.

“분노의 신비인 당신께 이만 귀가를 권하고자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그렇군. 참 오랫동안 잠에 들지 않았니? 그래, 맞아, 그래서… 흠.”

잔뜩 쉰 음성임에도 듣기 좋은 운율이 흘러나왔다.

“꿈이란 참 좋은 거야. 그렇지 않은가, 친구들. 그 어떤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는다 해도 깨어나면 기억에서 흐려지고 생각의 깊이는 더욱 깊어지지….”

“…마치 분노와도 같네요.”

“과찬이군, 굳이 하나로 규정하지 않아도 좋다. 기쁨도, 화남도, 슬픔도, 즐거움도, 사랑도, 미움도, 욕망도 한바탕 꿈과 같으니. 그대들은 생명으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라.”

“그리고 배우겠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빛을 발한다, 기특하구나.”

둘의 대화에 헌터들이 조용히 술렁거렸다. 악신의 모든 생각과 그의 신념을 읽은 탓이었다. 그건 흔히 알려진 악신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그 작은 소란으로부터 유리된 남자가 느리게 웃었다.

“…좋아.”

남자가 손을 쓸자, 사슴의 사체는 곧 흙이 되어 바닥에 몸을 뉘었다. 그렇게 가라앉고 남은 것은 사슴의 두개골이었다. 정순한 보석처럼 바르게 빛나는 그것을 남자가 두 손으로 쥐어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손이, 어느 순간부터 머리 위에 있던 양의 두개골을 내렸다.

“그래, 마음에 들어.”

대신 그 머리 위로 사슴의 두개골이 오른다.

“더없이 평온한 날이다….”

첫 번째 손이 머리 위로 사슴의 머리를 든다. 두 번째 손이 그 위에 양의 머리를 가볍게 받든다. 세 번째 손의 손바닥은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도록 천장을 향한다.

사슴의 뿔은 태동하는 나무의 가지처럼 푸른 잎이 자라났다.

『…분노는 무기이며 성곽이나, 그 아래 용서가 있기에 그 가치가 있다. 내 눈을 언제나 위로 향하게 둘 터이니 너희 인간이 만들 하늘을 보여다오.』

“…….”

『그리하는 날에 내가 너희를 긍정하겠다.』

장년의 헌터가 숨을 삼켰다.

“…악신이, 어떻게….”

불가능한 기적을 목격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대, 대장.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악신이 섭리로 돌아왔다."

생명을 상징하는 사슴의 푸른 뿔과 언제든 들 수 있으나 지금은 품에 안은 양의 머리, 그리고 내려다보지 않고 올려다보게 된 세 번째 손의 황금 눈.

이 모든 것이 타락한 신비가 안정화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아픈 꿈이 되었기를 바라마.』

붕대에 싸인, 반절뿐인 머리의 입술이 크게 호선을 그렸다.

시련을 마친 분노의 신성이 순리에 듭니다

던전: '꿈의 유원지¿'의 공략을 완료하였습니다

수령 보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지?』

수령 보상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당신을 위한 선물, "우리 모두의 친구, 꼬마용을 불러보세요!"

그들은 친구이자 은인을 위해 단 한 번의 소박한 소원을 들어줄 것입니다

* * *

공략이 완료되고, '꿈의 유원지'에서 돌아오지 못했던 이들이 모두 현실로 복귀했다.

"와, 미친."

거기에는 던전에서 죽었던 사람도 포함되었다.

"꿈이라더니 진짜 꿈이었네...."

"아니, 그래서 내가 진짜 죽었었다고?"

"기억 안 난다고 했지."

"그렇게까진 아니고 죽기 직전의 기억만 좀 흐릿한데...."

"아예 잊은 것도 아니니까 됐잖아."

무사히 생환한 헌터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진짜 힘들었다."

인간들은 평화를 쟁취했다.

아마도?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74)

Prev

Next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75)

275

제275화

갑작스러운 악신의 등장이었음에도 세상은 평온했다.

"어… 뭐든 잘 끝나서 다행이네, 그치?"

"그렇겠지,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은 보고 겪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아는 심각한 일이라고는 '유독 꿈에 중독된 사람이 많았다'라는 부분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죽은 사람은 없었다. 부상이 있다면 수면제를 과도하게 먹은 경우들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는 '피해'로 보지 않았다.

"악신이 이번 던전 브레이크의 최종 보스라고 하지 않았어?"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냥 악신인 척하던 조금 강한 몬스터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피해가 없을 리가 있나."

"던전에서 죽은 사람도 없었다면서."

"에이, 그건 거짓말 아니야? 어떻게 던전을 돌고 사람이 안 죽어."

"사실 나도 그냥 아는 사람에게 들은 말이라 잘 모르겠네…."

시민들보다 헌터들은 나름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들 저렇게 마음 놓고 있다가 악신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홀라당 잡아먹혀 봐야 정신들을 차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길드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진짜 악신의 던전이 맞기는 하대?"

하지만 그들조차도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분은 쉽게 믿지 못했다.

"영원의 상징이 둘이나 나선 걸 보면 확실히 위험한 던전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아무리 그래도 악신과 싸우는데 이렇게까지 피해가 없을 수가 있나."

그나마 던전의 위험성이 지어낸 거짓이 아님을 믿게 하는 건 '영원의 상징'들의 이름값이었다. 그들은 아무 곳에나 나서지 않았다. 이름의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악신의 악명이 왜 그렇게 높겠는가. 나이 좀 있는 헌터들이라면 누구나 악신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인간들은 운이 나쁘면 그들의 숨결도 아닌 눈짓 한 번에도 멸종당할 수 있었다.

“예전의 일들에 비하면 딱히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 않아? 아니, 나도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짜고 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각에서는 확실히 음모론도 나오고는 있다 하더군요.”

“뭐? 참 내, 협회장 무서운 줄 모르고 잘도 그런 소리들을 하는구만.”

“그만큼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신성과 엮여 이렇게까지 평온하게 끝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하물며 전통적인 신성조차도 소소한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래, 다른 것도 아닌 악신의 일이었잖나. 자네도 알지? 그들이 섭리의 미물인 인간들에게 가진 혐오감 같은 것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음….”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흘러가는 방향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악신이라 칭해진 존재에 의한 피해가 이토록 적었던 경우는 단 한 번뿐이었다.

“…죽음과 같은 경우인가?”

“죽음의 신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긴 분노라고 나쁘기만 한 건 아니지.”

그 신비의 방향이 인간의 가치관에서 부정적으로 느껴지기에 ‘악신’이라 불렸다.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라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다.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었다.

미움과 타락 없이 그저 존재하는 악의가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 공유했던 정보로는 타락한 용이라지 않았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속사정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에잉, 이래서 협회장이 무섭다니까. 아무거나 다 알려주지 않아.”

“괜찮으시다면 협회에 협조를 구해볼까요? 정중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야. 이쪽으로 괜한 불똥 튀는 수가 있어.”

그렇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알아서 결론을 내렸다.

“이번 건 악신의 장난이었나 보군.”

“자칫하면 전부 죽을 뻔했다던데 그래도 시련이라 불러주심이 어떠신지….”

“그런다고 본질이 변하나? 시련보다는 그냥 예뻐해 준 거에 가까워, 성격 좋은 악신이라 망정이지. 여러 종교의 신성들께서도 한마디씩 보탰다던데….”

“…죽음의 신은 몰라도 태양교의 신성이 악신의 장난에 어울려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악신의 무서운 점이지, 섭리를 사랑하는 전통적인 신마저도 거짓을 말하게 하거든. 뭐, 악신이 저질렀다던 만행이 실제로도 규탄받아야 할 내용이었던 것도 한몫을 했을 거야.”

“하긴 그 정도면 거짓이라고 하기도 뭐하군요… 흠, 어째 한마디씩 한 것치고는 소극적인 모습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인간들이 신의 손아귀에서 놀아난 셈이지만 이 정도에서 멈췄다는 게 기적이지. 대부분 악신이 장난을 치면 사망자가 안 나오긴 어렵거든. 다행이라면 다행인 일이다.”

전혀 감사하지 않지만, 일단은 감사할 일이었다.

“…사실 이쯤 되면 그냥 장난이었다고 하기에도 뭐한가.”

어느 길드의 길드장은 유리 벽 너머로 내려다보이는 광경에 눈을 가늘게 떴다.

“저거 보이나?”

“네, 근로법 개정에 관련된 시위라고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새벽 7시에 출근해 9시에 퇴근했다. 그중에서도 야근하는 사람은 차고 넘쳤다. 이번 ‘꿈의 유원지’ 사태는 여유 없는 이러한 근무 환경도 영향이 컸다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게다가 다른 곳도 아닌 정부 청사와 한국 헌터 협회 본부까지 찾아와 시위라니. 직접적인 의사 표현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동조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번 던전 사태로 벌집이 터진 꼴이었다.

“난 저거 진짜 오랜만에 봐.”

“시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위든 뭐든, 사람들이 제 할 말 하는 꼴.”

길드장이 껄껄 웃었다.

“이제 세상 돌아가는 꼴이 덜 답답해지겠네.”

“길드장님께서 화가 많으시다고 남들까지 그렇게 만들자는 건….”

“쓰읍, 자네는 젊어서 그렇지, 나 때는 원래 다 저렇게 살았어! 사람이 화도 좀 내고 살아야지!”

“길드장님께서는 화만 내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근로법은 고쳐졌다.

정부와 협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1주 최대 근로 시간을 확 줄여버린 것이었다. 요약하자면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물론 곧장 적용되지는 않았다. 이미 자원 중 하나인 인간을 갈아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활용 가능한 자원 중 하나를 법적으로 금지한 셈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 회사가 인력을 대체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줄어들 텐데요? 안 그래도 인구수가 미어터져서 취직하기도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 근로 기준법은 개정만 했을 뿐, 우선 시범 적용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정부와 협회의 지원을 받은 일부 기업에서 이것을 진행해 보기로 한 것이었다.

이후엔 심사를 거쳐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그러니 당장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셈이지만 시민들의 사정은 달랐다. 그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이게 통했다고…?”

“…진짜로? 말도 안 돼.”

1등급 시민들이 그들의 말을 들어줬다는 게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와 협회는 말을 바꾸지 않았다. 그들의 의중을 알아챈 기업체들은 알아서 몸을 사렸다. 한국에서 이 둘의 미움을 사면 어디 이민을 갈 곳도 없었다.

“헐, 그럼 우리 이것도 시위해 보면 안 돼요?”

“저기, 하나 받았으니까 조금 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그런가…. 하긴 심기를 거스르면 밤길에 목이 따일지도 모르죠.”

“...뭐 말씀하려고 하셨는데요?”

“의무 교육 재시행.... 대재앙 이전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해서요.”

“...아....”

나름 타당한 의견이라 시위대 중 한 명이었던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의무 교육이 있던 시절의 사람이었다. 모르긴 몰라도, 학교가 없을 때보단 있을 때가 나았다는 것쯤은 알았다.

하지만 이미 휴식의 보장을 쟁취해 낸 직후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화를 내기보다는 걱정을 먼저 했다. 할 만큼 나댔는데 또 목소리를 높이면 미움을 받을까 봐 그랬다.

“...그럼 이건 어때요?”

“네? 뭐요?”

“하, 하고 싶다고 높으신 분들한테 알리는 수단이 꼭 시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랬어요.”

절대 안 들어줄 것 같아서 굳이 시위라는 방법을 썼다. 세상이 뒤집힐 뻔한 큰일을 겪고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탓도 컸다. 하지만 화는 낼 만큼 냈고, 그들에겐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했다.

그리고 어느 날, 협회장 단해라가 웃었다.

“어머.”

그녀가 비서에게 받은 종이를 팔랑였다.

“이번에는 시위가 아니네?”

“예, 그저 순수한 의미에서의 건의입니다.”

“슬슬 국민 신문고를 살려낼 때도 됐지, 이번 회의 때 추진해 봐야겠어.”

“일정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다행이네, 한 번 시위의 단맛을 봐서 흥분하면 어쩌나 했는데....”

단해라가 시민들의 건의서를 곱게 내려두었다. 귀한 선물을 다루듯이 말이다.

“이제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기대해도 된다는 걸까?”

그렇게 말하는 단해라는 드물게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 채, 아주 오랫동안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비서는 그 모습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제 상관이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은 드물었다.

“검은망토 추종자들의 도움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 추진력도 그렇고 자본력도 굉장한 집단이니까. 방향성도 그럴싸하고.”

일명 ‘검은망토 애호가’들 중 꽤 많은 수가 1등급 시민이었다. 신비로운 작품을 감상하는 취미를 위해 접근했다가 사회봉사에 눈을 뜬 이들이 대다수였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검은망토가 사랑하는 지구를 아끼기 위해 노력했다. 도시를 벗어난 외곽 지역에도 마찬가지였다. 덕분인지 시민들은 조금씩 서로를 ‘이웃’으로 인지해 갔다.

“한창 던전 때문에 소란스러웠을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지....”

정부와 협회 역시 당근과 채찍을 써가며 사람들을 꿈에서 벗어나게 했다. 하지만 그들이 꿈의 유혹을 떨치고 현실로 돌아온 것엔, 현실에서의 인연 덕분도 컸다.

꿈이 아무리 좋다 한들 현실의 가족, 친구, 연인을 버릴 수는 없었다. 애호가들의 활동으로 이웃에 대한 믿음이 살아난 그들은 현실의 인연을 위해 일상으로 복귀했다.

“이쯤 되면 검은망토도 정식 종교로 인정하는 편이 좋겠어.”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지난 죽음의 신 때와 같을 수 있도록 조정하자.”

“예, 협회장님.”

“만약 신전을 짓는다고 하면, 글쎄....”

단해라가 고개를 기울였다.

“비사벌 길드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참견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 * *

달님교는 소수의 인원만을 둔 채 신전의 문을 닫았다.

“임의의 기간 동안 달님교는 새 형제를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신 저희는 내부 정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달님교가 모든 분들 앞에 사제다운 사제로서 나설 수 있을 때에 다시 얼굴을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주교는 수척해진 얼굴로 공식 석상에 나와 달님교의 상황을 알렸다. 그간 있던 만행도, 이번 던전에서의 일들도.

하지만 사람들은 좀처럼 감을 잡지 못했다. 화를 내야 할지, 무서워해야 할지, 아니면 내 일도 아니니 그냥 이대로 넘어갈지.

“저희가 지구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달님교는 그렇게 정말로 문을 걸어 잠갔다. 원래부터 정부와 협회, 혹은 다른 곳의 연구 의뢰를 받아 운영하던 곳이라 오랫동안 잠적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었다.

물론 그건 공식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고.

“—선생님!!”

“아람아.”

아람은 비공식적으로 수집상에 방문했다.

“몸은 괜찮으신가요?!”

“나는 늘 건강하지.”

“그런... 그런 일을 일으키시고서도?”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일을 크게 벌이는 게 바로 이 선생님의 주특기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무서운데요.”

“그러는 너는 어땠을까?”

서지오 헌터의 백금발이, 짙은 적색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그래.”

그가 아람의 뺨을 쓸며 웃었다.

“할 만했지?”

“.......”

곧이어 아람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75)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76)

276

제276화

몇 시간 뒤, 아람은 알아서 상황을 받아들였다.

“일종의 부작용인 것인가…? 인격이 덧씌워지는….”

“엄밀히 따지자면 모두 같은 존재이니까 그렇게까지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막 그렇게 휙휙 변하면 어지럽지 않으세요, 선생님?”

“살아가며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같이 쓰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서지오 헌터가 악신을 갈무리하는 과정에서 융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사실 크게 틀린 말도 아니라 지오는 그저 긍정했다. 역시 그의 제자는 똑똑했다.

하지만 아람은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았다.

“그럼 사실상 선생님은 두 개의 신성의 힘을 함께 쓰고 계신 게 아닌지…?”

“…음….”

1번, 태양신으로 알려진 검은망토. 2번, 분노의 신성으로 알려진 아르지오.

“…그렇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지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결백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저희는 온전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힘이나 이지를 조절하지 못해 피해를 줄 일은 없을 테니 성녀님께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렇지만 무리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람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신전의 문을 닫았다던데 큰 결심을 했구나. 하긴 내부에서 생긴 문제부터 잡아야 훗날을 기대할 수가 있지. 좋은 선택을 했어.”

“크흠,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몸에 다른 신성력을 함께 쓰는 일은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선생님께서 평범한 수준의 성인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걱정이 되네요.”

공식적으로 ‘서지오 헌터’는 건강상의 이유로 칩거 중이었다. 아람도 그와 엇비슷한 추측을 하며 병문안 아닌 병문안을

온 것이었다. 그녀는 좀 더 선생님의 상태를 살피다 고갤 끄덕였다.

“하지만 제가 무어라 하든 영향을 받으실 분도 아니죠.”

“제가 그렇게까지 학생에게 무신경한 선생님이었던가요?”

“고집이 참 강하신 분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긴 그런 사람이니 달님교의 성녀도 고쳤던 것이리라. 아람은 그렇게 납득하며 다른 의문을 꺼냈다. 그와 한 몸을 쓰고 있을 분노의 신성을 향한 의문이었다.

“…그럼 혹시, 아르지오 씨는….”

“그 역시 저입니다. 검은망토께서 분노의 신성을 거두셨으니까요.”

“방금 전처럼 얼굴을 종종 볼 수 있겠군요.”

“좋은 친구를 사귄 것 같아 기쁩니다.”

오늘도 지오의 친구는 늘어만 갔다.

“무사히 안정화되었으니 분노의 신성을 종종 한국에서도 만나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꿈의 유원지’는 현재로서는 문을 닫은 상황이라서요. 고생했던 헌터분들께는 아쉬운 일이겠지만 당장 그곳에서 자원을 얻어내는 일을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아람은 예상했다는 듯 웃었다.

“보통 가상 던전에서는 실존하는 무언가를 얻기 어려우니까요.”

“그렇군요, 보상을 얻는다면 스킬 습득 정도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는 시스템이 보상을 정말 후하게 줘서요.”

일명 ‘꼬마용 호출권’이 무엇인지조차 헌터들은 감을 잡지 못했다. ‘소박한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소박해 보이진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의견을 모아 협회에 자문을 구한 차였다.

“아마 협회에서 답이 오기 전까지 함부로 행동할 헌터는 없겠지만, 그 덕분인지 이번 ‘꿈의 유원지’에서의 일로 악감정을 품은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놀라운 일이군요.”

“사실상 아무도 죽지 않고 끝났다는 점이 컸죠. 누구든 목숨을 내놓고 사는 세상에 이 정도면 정말 평화롭게 끝난 거라서요. 상대가 악신이었다는 점에서 온화한 재앙 정도로 취급할 모양인 것 같았어요.”

“누구라도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히 두드러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스템 보상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협회 쪽에서도 수습과 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어서요.”

아람이 자신의 긴 머리카락의 끝을 만지작거렸다.

“…조금 더 솔직해진 사회를 반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차원에 분노의 신성이 머물 날이 올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마 신전을 세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착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얄밉고 괘씸한 점이 많은 분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고난과 죽음을 엿보게 하였음에도 말입니까?”

“…역시 선생님께서는 분노의 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거겠죠?”

아람이 어색하게 웃었다.

“저도 참 당한 게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나쁠 일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살살 달래는 것만으로는 이만큼 빠르게 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를 용서하셨습니까?”

“…아마도요? 그냥, 어느 순간 화가 풀려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모아서 별똥별 파티를 벌이고 나니 기운이 쭉 빠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것도 그렇겠군요.”

지오반니가 특유의 미소를 지었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분께 화가 났나요?”

“나도 어느 순간 풀렸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아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에는 선생님께서 저희 교를 방문해 주세요.”

“그래, 그렇게 할게.”

“몸 건강하시고요.”

꾸벅 고개 숙인 아람이 지오의 개인 방을 나섰다.

“…….”

비사벌이 호화롭게 꾸며준 개인 방의 침대에서 지오반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화를 낼 필요도 있었겠지.”

단지 지오반니는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러지 않았다.

태생부터 분노를 달고 태어나지 못해서 그랬으니, 게으른 그의 죄였다.

* * *

“그래서….”

유성운이 목을 쓸며 물었다.

“완전히 합체가 된 거라고, 이제?”

“예, ‘아르지오’는 만족했습니다.”

초상화 속 남성이 이어 말했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찾으신다면 성불이란 단어가 어울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이 세상을 뜨거나 소멸한 건 아니겠지만, 확 와닿기는 하네.”

“저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화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그것이 가진 평화를 즐기고 싶습니다.”

“오, 좋지, 평화, 다 좋은데….”

목에서 손을 뗀 유성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말투가 다시 딱딱해지지 않았어?”

“이해해 주십시오, 유성운 씨. 저는 이 초상화에 포함된 인간과의 동화를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유려하게 대화가 가능한 도시 괴담 느낌? 딱히 사람 같지는 않네, 나중에 다시 인간 사회로 나와서 생활할 거라면 참고하는 게 좋겠어.”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색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과 모습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뿐입니다. 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유성운은 고민했다.

‘지금 말하는 것만 봐도 전혀 그렇게 못 할 것 같다고 말하면 화를 내려나.’

이제 그의 초상화는 분노의 신성까지도 머금었다. 이전처럼 온화하기만을 바랄 수 없었다. 유성운은 굳이 안 해도 될 말은 삼가기로 했다. 초상화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다.

유성운이 특유의 무던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렇다는 건, 그러네. 당분간은 새로운… 음, ‘지오’를 찾지 않겠다는 건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편이 평범한 사람처럼 활동하기에 편하다고 하지 않았어?”

“유성운 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지오’의 도움으로 동화를 진행하면 지구상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참고로 ‘지구상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라는 부분은 지오의 언어가 초상화를 통과하며 잘못 번역된 사례였다. 지오는 ‘내가 ‘지오’랑 동화할 때마다 지구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번역의 뉘앙스 차이로 인해 지오는 예언자 행세를 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일은 제게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오, 그래?”

그리고 유성운은 생각했다. 혹시 트라우마라는 단어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설마하니 잘못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하네.’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알아들었다.

“지구에 무슨 일을 만들어내는 게 불편했구나.”

“잘 이해하셨습니다.”

“연약한 지구를 배려해 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까….”

이번 던전 토벌에 참여한 비사벌은 제 감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지오의 초상화’가 지구를 원하는 형태로 교육 중인 것 같다고 발언했다. 그걸 생각하면 이해가 됐다.

‘하긴 너무 몰아붙이기만 해서는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는 걸 지오도 알고 있는 거겠지.’

아마 지오는 지구에 쉬는 시간을 주고 싶은 것 같았다. 그동안 큰 사건들로 인해 불씨는 던져졌고, 슬슬 볏짚이 타오르고 있으니, 완전히 전소할 때까지 지켜봐 줄 생각일 터다.

“…….”

문득 든 생각에 유성운이 눈을 휘어 웃었다.

“넌 확실히 선생님이네.”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성운 씨.”

“아니, 그냥, 무슨 의미인지 드디어 체감하게 된 것 같아서.”

과연 근원이 정한 일답게 소름 끼치고, 또 유쾌한 일이었다.

“아, 그래. 너 그거 알아? 협회가 ‘검은망토’를 공식 종교로 인정했어.”

“공식적인 종교에는 적절한 제도와 건물,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종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교리와 성경 역시 없습니다.”

“갑자기 말이 빨라졌네. 그거야 뭐… 네 애호가들이 알아서 만들걸?”

유성운이 어깨를 으쓱였다.

“지구의 교사였던 너는 대재앙 이전의 종교를 생각해서 그러나 본데, 현대의 종교는 훨씬 다양하고 가벼워. 국가 단위로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엄연히 종교는 종교야.”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거두어 가십시오.”

“내가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종교는 신성이 있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으면 그만이야. 나머지는 세월이 흐르며 차차 생겨나겠지. 네가 말한 제도도, 건물도, 자본도.”

“저는 종교가 만들어진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은 망토’가 종교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그 떠들썩하고 호화로운 파티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관없지 않나? 대부분 종교의 신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거나 상을 내리고 말을 거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네가 가볍게 1세기 정도 모습을 감춰도 지금 만들어진 종교가 사라지지는 않을걸?”

“저를 그 떠들썩하고 호화로운 파티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만들어서 나쁠 건 없다면서, 지오.”

친화력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인간을 흉내 내는 것뿐이겠지만, 꼭 낯을 가리는 것도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게 지오가 인간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그냥 그때그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뿐이겠지.’

근원의 존재답게 가볍지만 무거운, 모순적인 면모였다.

“그럼 이제부터 뭘 해볼 생각이야? 우리 소심한 초상화께서는 이번 일로 기력이 쫙 빠지셨을 테니 어김없이 휴식을 취하려나? 아니면 협회에서 인정한 공식 종교의 저력을 보러 갈 건가?”

“아뇨, 던전에 갈 생각입니다.”

“…그건 또 의외인데, 던전이라면 ‘꿈의 유원지’? 하긴 거기에도 네가 아끼던 동물들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네. 아르지오의 자식들이라고도 했으니까.”

“좋은 생각이지만,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하에 있는 네발 우림에 방문할 겁니다.”

“…‘지하의 네발 우림’을 말하는 건가? 물론 서지오 헌터의 신분으로도, 그냥 초상화인 상태 그대로도 방문할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거기는 왜?”

뜬금없는 행선지에 유성운이 묻자, 초상화가 검은 물감 너머로 대답했다.

“그것은 나의 형제입니다.”

“음, 그래.”

유성운이 사탕 하나를 까서 씹어 삼키고는 물었다.

“설명을 부탁한다면 내가 뭘 바쳐야 할까?”

"맛있는 딸기를 선물해 주시면 유성운 씨는 편히 계실 겁니다."

"딸기 좋지, 한창 맛있을 때고."

"농담입니다."

"이젠 숨만 쉬어도 거짓말이군."

체념한 듯 어지러워하는 유성운에게 지오가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아르지오'의 아버지가 만든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붉은 용을 버린 창조주 말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76)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77)

277

제277화

지오의 설명을 들은 유성운이 재차 확인했다.

"…그러니까 '꿈의 유원지'의 원래 창조주가 쫓겨나, '지하의 네발 우림'을 만들었다?"

"요약하자면, 네."

"어째 영 비슷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숲이라는 점. 온갖 위험한 독과 생물이 존재한다는 점. 인간들의 이기심. 그 이외에도 등등… 비슷하다고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었다. 하지만 역사는 전혀 다르지 않던가.

그래서 유성운은 많이 닮았어도 별개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분명 지오도 그때 그렇게 말했는… 아.'

예전에도 지오는 '별개의 차원이다', '내 고향이 아니다'라는 식으로만 말했다. 아예 연관이 없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어쩌면 '지오의 초상화'도 최근에 알아챈 사실일 수 있고.

아무튼 놀랍고도 난감한 일이었다.

"…그래서 네 기분은 어때, 지오?"

"나는 약간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감? 어째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말했구나."

"그때의 나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르지오'와 완전히 동화하지 않았을 때라서?"

"하지만 아마도 그들은 나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오, 하긴…."

유성운이 눈을 껌벅였다. 그는 유독 지오에게만 친근하게 굴었다던 등꽃 수룡을 떠올렸다. 그때도 '아르지오'의 함유량이 높던 때니 지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다.

“어….”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잘 다녀와?”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상화는 늘 그렇듯, 무뚝뚝하게 인사했다.

‘…뭔가….’

유성운의 눈이 모로 굴러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네.’

일상으로 복귀했음을 느꼈다.

그 이후 ‘지하의 네발 우림’에선 종종 분노의 용이 발견되었다.

* * *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오의 말에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곰인형이 고개를 갸웃 기울였다.

“꾸우?”

“새 식구가 들어온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꾸꾸꾸….”

인형은 퐁퐁 솜바닥으로 박수를 쳤다. 아무렴 지오가 좋다면 상관없다는 느낌이었다. 다른 식구들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들이었다.

일단 허니는 ‘그래서 밥은?’이라는 눈으로 지오를 보고 있었다. 다나는 새끼 등꽃 수룡들이 마음에 드는지 근처를 돌아다니며 부비적거리고 있었다. 수룡들은 낯선 집을 킁킁거리며 탐색 중이었다.

총체적 귀여움이었다.

‘역시 집을 나가면 개고생이군.’

‘아르지오’ 씨의 똥고집만 아니었어도 이럴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 진짜 쉬어야지.’

사실 직접 일을 벌인 만큼 바빴던 거다만. 아무튼 아르지오 사태로 ‘아 이거 자칫하면 내 소중하고 게으른 삶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를 절감한 지오였다. 그는 더 신중해지기로 했다.

‘당분간 동화는 봉인한다.’

다음 지오가 일 중독자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꾸꾸? 꾸?”

“예? 아, 예.”

곰인형 아버지의 질문에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학부모님도 같이 와 계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참고로 현재 지오의 오두막 안에는 ‘지하의 네발 우림’, 즉 던전 그 자체를 지탱하고 있던 거대한 수룡도 함께 왔다. 지오는 망토 안에서 소담한 화분 하나를 꺼내 들었다.

“…? 꾸?”

“예.”

“꾸우….”

“우림이입니다.”

“꾸.”

“제 작명 센스는 원래 형편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당신의 첫째 손자 이름이 꿀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비참하시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꾸….”

“등꽃이들과 우림이까지 있으니 오늘은 야외에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탁은 너무 인간 중심적이라 먹기 불편할 겁니다. 날이 화사하고 좋던데 훌륭한 점심 식사가 되겠네요.”

지오는 일단 원활한 대화를 위해 식탁 위에 우림이를 올려두었다.

“…….”

우림이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우림 씨?”

“…….”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림 씨를 뜯어 먹겠습니까?”

“…….”

“식탁 위에 올려둔다고 다 먹겠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예전 산칼루트 때와 같았다. 우림이는 자신을 식탁에 올려놓은 이유가 잡아먹기 위해서인지 물었다. 지오는 극구 부정했다.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저는 우림 씨처럼 연약한 나무를 뜯어 먹는 못난 놈이 아닙니다.”

“…….”

“우림 씨? 왜 말씀이 없으신지요?”

“…….”

“…연약하지 않은 나무는 잡아먹느냐고요? 큰 의미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믿어주세요.”

“…….”

“조금 큰 나무들은 종종 좋은 약재나 차의 한 종류가 되고는 해서 그런 말을 했던 거지, 정말 먹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갓 태어난 것처럼 쬐끔한 몸 어디를 뜯어 먹을 수 있다고….”

현재 화분에 담긴 우림은 막 나무의 형태가 되어가는 풀에 가까웠다.

“무엇보다 제가 가족을 먹을 리가 없잖습니까.”

우림이는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아니, 눈은 없지만. 아무튼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아르지오는 전통적인 신성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가족을 믿지 못하신다니 저는 너무 슬퍼서 그만 물을 뿌려드리고 싶어졌습니다.”

“…….”

“그건 좋으시다니 다행이군요, 오늘 우림 씨의 식사는 숲의 샘물이 되시겠습니다.”

“…! …!!”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 물이 얼마나 달고 시원한데! 제 삼시 세끼를 걸고 말하건대 금방 건강해지실 겁니다!”

“……!!!”

“이 험한 세상에서 저 작은 친구들을 지켜내려면 강건하셔야지요 우림 씨…!!”

다나는 어린나무가 필사적으로 온몸을 비트는 희귀한 모습을 흥미롭게 관찰했다. 식물이 자라지 않는 동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이었다.

결국 우림이의 식사는 지오가 우린 냉차로 타협을 봤다. 사용될 것은 얼음 창고의 얼음 진주를 녹인 물이면 된다고 했다. 지오는 끝내주는 식사를 차려줄 수 없어 몹시도 아쉬워했다.

“나 정말 잘 먹일 수 있는데….”

“꿍꿍꿍.”

“너까지 아빠를 믿지 못하는구나.”

“꿍….”

허니는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듯이 지오를 올려다보았다. 애정은 가득하지만 신뢰는 없었다. 참으로 아픈 사실에 지오가 서글퍼했다. 세상 모두를 돼지로 만들고 싶었건만.

“…그럼 다음 식사 제안받습니다.”

다행히 등꽃 수룡은 입이 있어서 밥도 먹을 수 있었다.

“우림 씨도 입을 뚫어드리면 먹을 수 있겠지만 거부하시더군요.”

“꾸꾸꾸.”

그럴 만하다는 듯이 곰인형이 웃었다. 섭리의 운명에서 태어난 존재는 변화를 고통스러워했다. 원래 있던 손이 잘리면 신체적 고통에 더해 정신적 고통이 심한 인간과 비슷한 사례였다.

그건 신에게 예쁨 받는 심장이었던 나무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그러니 그의 창조주도 수룡으로 변하는 저주를 내렸겠지. 그건 아주 효과적인 처벌이 되었을 터였다.

“그럼 어디 보자, 일단 스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애앩.”

“다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지, 우리 그거 너무 자주 먹었어. 물론 아빠는 그렇게 자주 먹는다고 해도 물리지 않게 맛난 스튜 340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건 좀…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한 일인 것 같아.”

“앩.”

“동의해 줘서 고맙다, 딸.”

스튜는 매우 훌륭한 식사였지만,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도 아닌데 스튜만 또? 다시? 한 번 더? 돼지 서지오 선생이 말하기로 그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럼 아버지의 힘으로 만든 동파육을….”

“꿍.”

“그건 지난번에 달님 드리느라 먹었구나.”

달님은 의외로 식탐이 많았다. 안에 든 식구들이 많아서 그런가.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없어.”

그것은 음식과 그에 따른 미식 또한 하나의 달콤한 지식으로 인식했다. 달님은 계속해서 지오를 닦달했다. 더 다양한 음식을 맛보여 달라고. 지오는 그가 아는 모든 음식을 만들어 바쳐야만 했다.

‘달님이 사람도 들 수 있을 만큼 작아진 데에는 그토록 무시무시한 거래가 있었지.’

그래서인지 달님에게 먹이지 않은 음식을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동파육은 확실히 꽤 최근에 먹은 음식이야. 조금 이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타코라든지. 옥수숫가루로 만든 또띠아에 다양한 고기와 채소를 두고 쌈을 싸서 먹는 거야.”

“므응.”

“하긴 그건 다나가 먹기 불편하겠구나. 아빠가 신경 쓰지 못한 동안 살이 쪽 빠진 것을 보니 뭐라도 당장 먹여야 할 텐데, 그럼 양이 적은 것은 또 안 될 테고. 무엇을 해볼까. 일단 고기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가만있던 지오가 고개를 기울였다.

“통구이?”

나쁘지 않았다.

“이 아빠가 폴드포크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말지. 물론 통구이는 저온 조리한 폴드포크와 느낌이 다를 테지만 태양의 아들이자 바다의 은인인 이 아빠를 믿어보렴. 온도와 육즙 조절은 자신이 있어.”

“꾸르르르륵.”

“순두부처럼 야들야들한 통구이를 기대해도 좋아.”

지오는 ‘동물의 왕국’으로 향했다.

* * *

“그래서 사냥하러 오셨다고요?”

“혹시 불만이라도?”

“그런 건 존재할 수 없죠.”

여우족 족장, 라미가 두 손 싹싹 비비며 웃었다.

“다른 일꾼이 필요하지는 않으실까 해서 여쭤보았답니다. 다행히 전쟁 이후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많이 안정화가 되었거든요. 보세요, 아름답지 않나요?”

라미의 말대로 ‘꿈의 유원지’는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했다. 땅은 구름처럼 공중에 둥실둥실 떠다녔고, 그 크고 작은 구름 섬 위에는 제각기 다양한 동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단지 그것만은 아니었다. 호화로운 유원지의 파편이 허공을 날아다니며 반짝이고 있었다. 회전목마나 달콤한 사탕과 초콜릿, 이리저리 연결되어 있는 밝은 상앗빛의 레일도 있었다.

“아, 물론 지상과 지하 세계도 열심히 관리하고 있답니다. 아직 검은 숲도, 유적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곳의 난폭한 짐승들도 많이 안정되었는지 자신의 영역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럼 무엇을 사냥해 가야 좋을까....”

“저희 여우 중 하나만 아니라면 뭐든 좋습니다, 주인님!”

여우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화사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인간 흉내를 내고 있던 라미가 손가락으로 늑대를 가리켰다.

“덩치라면 늑대도 지지 않는데, 그쪽은 어떠실까요?”

“어이.”

오랜만에 돌아온 주인을 반기러 돌아왔던 늑대가 똥 씹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남을 바치지 마라.”

“설마 그 정도의 충성심도 없으시다는...?”

“왜 나이를 먹어도 성숙해지지를 않는 거냐.”

“그건 뇌가 작은 늑대들 이야기 아닌가요?”

“저 한 입 거리가 계속….”

늑대족 족장, 가르갈이 이를 갈다가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으시다면 아래로 내려가 괜찮은 사냥감을 물어 오겠습니다. 당신이 바란다고 알려지면 모든 짐승들이 도울 테죠. 얼마나 많은 양의 고기가 필요하십니까?”

“…음, 글쎄….”

아르지오가 고민하다가 말했다.

“통통한 양 5마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 그걸 누구 먹으라고 잡습니까?”

몸집이 집채만 한 늑대들은 기본적으로 먹는 양이 많았다.

“대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말해보시게, 친구.”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네들의 소유가 되었네.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가?”

“기억합니다, 다만 다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실까 해서.”

“이곳을 또다시 전쟁터로 쓸 일은 없을 걸세.”

“안심이 되면서도… 아쉽군요.”

“내가 영영 떠나지도 않을 텐데 무얼 아쉬워하나?”

이곳은 아르지오의 고향이니, 결코 분리할 수 없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니 아테르가 걱정인데….”

“…아테르? 그자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아, 조금 달라. 하지만 아직 쉬어야 할 테니 내버려두지.”

“음, 어, 예. 알겠습니다….”

가르갈이 끄덕였다.

“사냥을 다녀오죠.”

* * *

그렇게 지오는 58마리의 양과 42마리의 소, 10마리의 돼지, 95마리의 닭과 함께 돌아왔다.

전부 건강하게 살아있었다.

“…….”

“…짜잔.”

지오가 변명하듯 말을 덧붙였다.

“괜찮습니다, 대부분은 우리를 만들어 넣을 겁니다. 아니면 숲에 풀어놓든가.”

"...꾸우?"

"예, 다들 덩치가 좀 크지요. 한 마리를 잡아도 꽤 많은 고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저희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꾸."

"만들고 남으면 유성운 씨와 주현 씨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늘 그렇듯 평화로운 엔딩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77)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78)

278

제278화

이번 '꿈의 유원지' 사태는 신성의 장난이었다는 여론이 주가 되고, 세상은 늘 그렇듯 일상을 되찾아갔다. 당시의 일은 소소한 이야깃거리가 되어주었다.

"일각에서는 오랜만에 사람들에게 신성의 위험성을 알려줄 수 있어서 한국에 도움이 됐다고 말하기도 한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피해는 피해인 탓에 그런 의견들은 욕을 좀 먹는 것 같지만...."

"일이 터졌을 때는 정신이 없었어도, 뭐, 사람들도 눈치가 있다면 다들 알겠지. 신성이 봐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별 피해 없이 넘어갈 수는 없었다는 걸 말이야."

"하긴 우리 길드장님께서 놀러 가셨던 것부터가... 그, 워낙...."

"...그렇지...."

그리고 수집상은 애써 이 모든 사실을 외면했다.

"......."

"......."

아는 척하면 추가 업무다.

"...더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저희가 방금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죠?"

"이 사람 사회생활 잘하네."

"감사합니다."

이번 '꿈의 유원지' 사태가 그들의 검은 초상화와 연관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안내받은 건 없어도 눈치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집상의 직원들은 이 모든 진실을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내는 데 성공했다.

'안 그래도 바빠.'

'엮이면 나락이다.'

수집상의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좋았다. 질병과 저주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영역까지도 말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이 터지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놀라서는 업무를 할 수 없었다.

“아, 점심시간 끝났다.”

“나중에 봬요.”

그렇다고 이번 사태에 아예 안 놀랐다는 건 아니고.

‘…여태까지의 건수를 생각해 봐도 이번에는 스케일이 크긴 했지.’

‘시발 개같은 세상. 길드장님, 믿습니다….’

‘믿어요, 진짜. 뭐라도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들은 단지 길드장인 비사벌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자기 수집품이 흠집 날 만한 일을 계획할 사람이 아니니다.’

‘그런 재해를 두고 볼 사람도 아니지, 그 점은 신뢰해도 돼.’

수집상의 길드원은 수집가의 비이성적인 집착을 알았다. 그 점을 믿었다. 그리고 믿음에 보답하듯 이렇게 일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는가. 직원들의 ‘모른 척’은 그런 신뢰가 밑바탕 되었다.

그렇다고 ‘서지오 헌터’까지 모른 척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

“안녕하세요, 비나리 씨.”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 이기는 하죠….”

어느새 수집상의 정직원이 된 A급 헌터이자 큐레이터, 비나리가 꾹 한숨을 참았다. 극도의 긴장감에 나오려던 한숨이었지만 간신히 참아냈다. 상대의 심기를 거슬러서는 안 됐다.

비나리의 시선이 검은 망토를 둘러쓴 금발의 남성에게 닿았다.

‘…뭐라고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군.’

그저 ‘좋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세뇌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예전에는 그래도 몬스터 수준이었지, 지금은 아예 신성임이 공인된 상황 아닌가. 태도가 저절로 소심해졌다.

‘상황이 그 지경까지 갔는데 아직도 이 존재를 자유롭게 풀어둔다는 점에서 확실히 수집상답기는 하네. 아니, 애초에 신성의 행동을 제한할 방법 따위가 있을 리도 없겠지만….’

더 조심스러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껄인 헛소리로 재앙이 닥쳐오면 어떻게 하지?’

그건 한때 유성운이 했던 고민과도 일치했다. 이 신비로운 존재들은 기준 하나만 벗어나도 재해를 불러일으켰다. 인간은 이해도 안 가는 기준으로 말이다.

비나리가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최근 몸이 안 좋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길드장님, 믿습니다.

“이제는 회복이 되신 겁니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최근 회사 내에서 서지오 헌터님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나를 찾았나요? 자아 성찰을 하고 있었어요.”

“아, 자아 성찰… 그렇군요….”

다행히 대화 몇 마디 나눴다고 지구가 무너지는 일은 없었다.

‘…그래, 교류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 사전에 공지를 해주셨겠지. 지금 사옥 내에 이 존재와 관련된 규칙은 그 장난인지 뭔지도 모를 공지뿐이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신씩이나 되는 존재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사람을 통제할 수는 있었다. 그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건 이전처럼 교류해도 괜찮다는 의미일 터였다.

“좋은 자아 성찰 시간이 되셨을까요…?”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금발의 그가 웃으며 손짓했다.

“저와 대화하시겠습니까?”

“…….”

어째 인간 흉내는 예전에 비해 더 투박해진 것 같다만.

“…어….”

지적하면 안 되겠지.

‘이 정도 흉내로 어떻게 다시 인간 사회에서 생활할 생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정말 이걸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면 진작에 선배님들께서 나서주셨을 거다.’

비나리는 애써 지독한 위화감을 참아냈다. 이 귀한 작품을 정중히 대하고 싶었다.

“…실례지만 30분 뒤, 오전 4시 정각에『달콤한 다과회』의 업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달콤한 도자기 소녀들, 알아요. 아직도 돌보고 있나요?”

“예, 저는 아직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상대는 예전의 일을 떠올린 듯했다. 이만한 존재가 그처럼 한미한 인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었다. 심지어 이름을 기억한다니 말이다.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지.’

비나리가 검은망토를 보았다.

“…….”

그는 여전히 호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비나리를 보고 있었다. 초상화라는 본질에 걸맞은 박제된 미소는 살아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떨쳐낼 수 없는 이질감을 주었다.

그럼에도 호의는 호의인지라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니 곧 4시에 있을 업무를 마치고 난 뒤라면, 예, 저는 얼마든지 당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당신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방해가 아니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미친 소리였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강한 신비로 엮인 자들은 거짓을 혐오할 때가 많았다. 꾸역꾸역 용기를 내어 솔직해져야만 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인 호기심과 당신을 향한 호의가 있습니다. 서지오 씨에게 공포를 느끼지 못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이유로 당신과의 교류를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겠죠. 서지오 씨는 저희 모두에게 친절하시고 정중하게 부탁드린다면 물러가 주실 테니까요.”

그러니 이건 비나리의 의사였다.

“그러니까 잠시만 저를 기다려 주세요. 업무를 마치고 난 이후에 당신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많이 혼란스러워서… 물어보지 못했던 것도 많으니까요.”

“친절하시네요.”

“…서지오 씨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층 1번 복도에 서 있던 ‘서지오 씨’가 길을 안내했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괜찮다면요.”

“물론 기쁩니다, 비나리 씨.”

“…….”

비나리는 속으로 그 자신을 욕했다.

‘이러다 추가 업무를 맡게 되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그는 정말로 궁금한 게 많았다. 신입이었던 때와는 상황이 달랐다.

비나리는 수집상에 적응했고, 어엿한 큐레이터였다. 그가 맡은 『달콤한 다과회』가 ‘대부’라고 부르는 존재가 궁금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비나리는 한숨을 꾹 참으며 검은색 망토 자락의 뒤를 따랐다.

“…….”

그림자는 없고,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마른 풀의 건조한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 * *

“오, 세상에.”

가라사니가 환한 미소로 ‘서지오 씨’와 비나리를 반겼다.

“귀하신 분께서 걸음 하셨군요.”

“안녕하세요, 가라사니 씨.”

“오랜만에 뵙습니다, 서지오 헌터님. 지난번 그 화려한 던전에서 직접 뵙지 못해 참 아쉬웠습니다. 많이 바쁘셨을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그때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뵙지 못했죠. 부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 정말 좋군요.”

그 대화에 비나리는 슬그머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비단 그 냉혈한 집사장의 낯선 미소 때문만은 아니었다.

비나리는 무표정한 얼굴 뒤로 생각했다.

‘끼어들고 싶지 않은 대화다.’

정중한 사제를 흉내 내는 완벽한 작품과 그것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집사장. 인간으로서 본능적인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야말로 위화감밖에 없는 대화였다.

비나리가 손목시계를 보았다.

‘앞으로 11분 4초 뒤에 정각인가....’

그런 그에게 가라사니 큐레이터가 물었다.

“업무를 준비 중이었나?”

“...예, 『달콤한 다과회』를 맡고 있습니다.”

“아, 그건 나도 알고 있네. 오전 4시 정각마다 오차 범위 5초 이내에 다과상을 차려드려야 하는 귀여운 도자기 숙녀분들이시지. 6등급이셨던가.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 다과는 마카롱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각각 원하시는 블루베리, 유자, 피스타치오 마카롱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양이 많은 디저트이니 다과회 시간이 조금 길어지겠군.”

가라사니가 턱을 쓸고서는 물었다.

“‘서지오 씨’와는 어디서 만나 뵈었지?”

“3층 1번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이분과의 대화에 응했나?”

“예, 업무를 마친 뒤에....”

“아하.”

고개를 끄덕인 가라사니가 다시 미소를 머금은 채 ‘서지오 씨’를 보았다.

“혹시 저 젊은 친구가 불편을 끼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4시 정각까지는 시간이 남았군요, 서지오 헌터님만 괜찮으시다면 그동안은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가라사니는 자상한 노인과 같은 어조로 말했다.

“저 친구는 용감하고 유능하지만, 자신이 맡은 업무와 함께 당신처럼 귀하신 분을 대접하기엔... 아직 그만큼의 경력이 없어서 말입니다.”

그제야 비나리는 5층장이 그를 도와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담 가지지 말고 업무 보라는 뜻인가.’

확실히 검은망토가 지켜보는 상황에 업무를 진행하는 건 떨리는 일이었다. 비나리가 힐끗 ‘서지오 씨’를 보았다. 그 시선에 ‘서지오 씨’는 부드럽게 웃어주었다.

“그럼 4시 이후에 뵙겠습니다.”

“...예, 그때 뵙겠습니다.”

비나리가 고개를 숙이자 가라사니는 ‘서지오 씨’를 에스코트했다. 그 둘이 다른 벽 너머로 사라지자 비나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아주 희미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스스로 선택한 동행이었지만 긴장이 안 되는 건 아니었다.

“…….”

하지만 상상 이상으로 긍정적인 감각이었다. 거대한 무언가를 잠시나마 담아 내었다는 그 충만함.

‘…이래서 세상에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

곧이어 4시 정각이 되고, 비나리는 도자기 인형들의 앞에 각자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마카롱을 올려두었다. 평소 먹던 다과의 크기보다 커서 그런지 약간 더 시간이 걸렸다.

“좋은 바삭함이에요.”

“좋은 촉촉함이에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늘의 운세를 나타내는 말에 비나리는 긴장했다.

‘이번에 또 다른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미리 받아 적을 준비를 하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각오를….’

아니나 다를까 추가 발언이 있었다.

“좋은 향기였어요.”

“좋은 다과였습니다.”

“좋은 판단이었어요.”

“좋은 조명이네요.”

“좋은 배려였어요.”

총 5번의 긍정적인 발언과.

“나쁜 하루가 되겠죠.”

단 1번의 부정적인 발언.

“대부님.”

“대부님께서 오셨어.”

“안아달라고 부탁드리자.”

그리고 인형들은 평소와 같이 눈을 감았다.

“…….”

비나리가 푹 한숨을 내쉬었다.

‘…마지막에 붙어서 나온 나쁜 운세가 뭘 뜻하는지 알 것 같네.’

이 도자기 인형들과도 꽤 오랜 시간을 보내왔다. 나쁜 운세 한두 번 들어간다고 죽지 않았다. 추가적인 좋은 운세까지 더하면 그들이 말한 나쁜 운세란 소소한 불행일 것이었다.

‘다리나 팔이 부러지는 정도면 감당할 만할 텐데, 과연 어떨지.’

그렇게 비나리가 고개를 돌렸을 때였다.

“…….”

“업무를 마쳤나?”

“…예, 5층장님.”

"그럼 수고하시게."

그는 순간 제 시선을 의심했다.

인기척도 없이 다가온 것은 놀랍지도 않았다. 문제는, 아니, 문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만, 가라사니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단 것이다. 신선하게도 새빨간 피가 잔뜩 묻어 있는 종이. 그리고 그 얇은 종이로 감싸인 두툼한 무언가....

아무리 봐도 방금 막 도축한 고깃덩어리였다.

"그럼 저는 이만 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아, 부디 불러 주시기를...."

5층장은 양손 한가득 고기를 든 채로 '서지오 씨'에게 정중히 인사하고는 물러갔다.

"......."

"업무는 잘 마치셨습니까?"

"...아, 예."

문득 비나리는 '나쁜 운세'가 지금부터 시작인 건 아닌지를 의심했다.

* * *

그리고 3층에서 함께 새벽 근무를 하던 큐레이터는, 손에 종이로 감싸인 고깃덩어리를 든 채로 핏물 뚝뚝 떨어트리며 갤러리를 거니는 비나리를 목격하고야 말았다.

"어, 어우 씨 미쳤나."

"비명은 다 질렀어?"

"나는 너 작품 중 하나인 줄 알았잖아."

"작품 당하기는 했지...."

"아, 조각이었구나."

그 이후 '서지오 씨'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경고가 수집상의 정직원 전용 홈페이지를 장식했다. 그들은 몸소 '서지오 씨'와 대면한 비나리의 용기를 칭송했다.

그리고 비나리는 비사벌에게 불려 갔다.

"고기를 받았다던데, 양입니까? 소? 닭? 돼지?"

"제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의 무언가?"

"퇴근할래요."

"내가 그걸 못 하게 하려고 길드장이 됐지."

"진짜 퇴근할래요...."

도자기 소녀들의 운세 점지는 탁월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78)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78)"

4.7 13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79)

279

제279화

오랜만에 활동을 재개한 초상화의 첫 소식이 '핏물 뚝뚝 떨어지는 원육 선물'이라는 것에 유성운은 곧장 지오를 찾아갔다.

"지오야."

"예, 말씀하십시오."

"혹시 우리 회사 방침에 무슨 안 좋은 감정이라도 있니?"

"전혀요. 그리고 때마침 오셨군요. 유성운 씨,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이제는 숨 쉬듯이 그냥 넘겨버리네? 나 뭐 잘못했어? 이건 무슨 종류의 경고야? 아니, 그 전에 내 말이 너의 귀로 들어가기는 한 걸까?"

"저는 강해졌습니다."

"그래 보여."

이상한 곳에서 인간 사회에 잘 적응한 '지오의 초상화'였다. 유성운은 무언가를 들어 올리듯 움직이는 초상화를 재빠르게 말렸다.

"어어 잠깐만, 또 고기 들어 올리기 전에 우리 우선 대화를 먼저 해보자."

유성운이 식겁했다. 대체 그가 어떤 잘못을 했고 뭐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도 감이 안 잡혔다. 할 수 있다면 대화로 상황을 해결해야 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오는 온건한 상호 작용이 가능한 초상화였다. 잘하면 설득할 수도 있었다. 유성운이 필사적으로 에두른 거절을 시도했다.

"난 너처럼 요리에 재능이 없어서 핏물 안 뺀 고기로 뭐 못 해 먹어. 뭣보다 난 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선물을 주면 대체 어떻게 갚아야...."

"유성운 씨는 제 친구입니까?"

"...친구지, 그럼?"

"당신은 그것을 통해 여기에 필요한 모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나 혹시 모르는 사이에 노예 계약 같은 거라도 했을까? 아니면 신체 포기 각서? 대체 내가 뭘 갖다 바쳤

길래 이런 선물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지?”

거대한 공포가 들이닥쳤다.

“지오야, 내가 매번 말하잖아.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고 싶으면 사전에 뭐라도 공지를 좀 해달라고. 나 진짜 사람으로 못 죽어? 혹시 영생해? 불로불사일까? 아니면 다음 생에도 너랑 친구라는 말 그거 농담이 아니었던 거야?”

지오는 깔끔하게 무시했다.

“운 좋게도 유성운 씨, 이번에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양과 닭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닭?”

“순순히 선택하시다니 좋은 어른이시네요, 이 두 가지를 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그럼에도 유성운은 양손 가득 고깃덩어리를 안게 되었다.

“…나 질문이 있어, 분명히 양과 닭이라고 했는데 둘 다 왜 이렇게 묵직하지? 크기는 둘째 치고 왜 전부 다 이렇게 붉어? 하나는 닭고기 아니야? 핏물은 왜 떨어지는 걸까? 그보다 도축할 때 피는 왜 안 뺐니? 너 진짜 안 화난 거 맞아? 나 진짜 너무 무섭다.”

“그것은 당신의 오해입니다. 이것은 핏물이 일품이라 최소한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구우면 육질의 밀도가 높아지고 끓이면 감칠맛이 높아집니다. 피를 분리해서 따로 드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상태로 조리하는 게 제일 좋아서 이렇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유성운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었다.

“이 선물의 크기와 색감에 대해서는 제 초상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초대해도 될까요, 유성운 씨?”

“안타깝게도 나 방금까지 야근하다가 왔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지역들이 많은데 만사 제쳐놓고 네 얼굴 보러 온 거야, 혹시 이게 너의 시위 방법 중 하나인가 해서.”

언제나 인간들에게 질 좋은 재료와 음식을 선물하는 초상화였다. 대뜸 핏물도 정리되지 않은 원육을 선물하고 다닌다니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난해한 경고를 주는 작품들은 드물지 않게 있었으니 말이다.

초상화는 그제야 인간들의 공포를 깨달은 것처럼 보였다. 거기서 유성운은 그의 작품이 전시된 초반에도 이와 엇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던 것을 떠올릴 수 있었다.

여전히 음울하고 무뚝뚝한 분위기의 초상화였으나 그는 나름의 친절을 담아 유성운을 안심시키려 했다.

“…당신과 이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저에게 정말 친절했습니다. 저는 불만이 없었고, 항의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선물 포장이 부족한 점 사과드립니다. 최소한의 핏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종이로 포장했는데 이렇게까지 놀라실 줄은 몰랐습니다.”

“과연 포장의 문제이기만 할까 싶긴 한데….”

“앞으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좀 더 온건하게 행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선물에 대해서도 설명해야겠습니다.”

“…뭐, 그래, 불만이 없다면 됐어. 나는 네가 분노의 신전을 세우지 못해서 화라도 난 걸까 싶었지 뭐야.”

“분노의 신전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 생각이야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유성운이 안도인지 환장일지 모를 뜻의 한숨을 내쉬었다.

‘…길드장님이나 5층장에게 별 언질이 없었으니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네.’

그는 피로 좀 물들었지만 곱게 포장된 원육을 지퍼 백에 다시 한번 감쌌다. 그리고 겉의 핏물을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자신의 업무용 가방에 고기를 집어넣은 유성운이 평소의 무던한 미소로 돌아왔다.

"아무튼 이것도 잘 먹을게."

"많이 마르셨군요, 식사를 잘 챙기지 않으십니까?"

"늘 말하지, 지오야. 헌터들은 돼지가 되면 죽어야만 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살을 찌운 게 아니라면 헌터로서 자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유성운 씨는 평균 이상으로 마르셨습니다."

"내가 평균이야, 알아? 식사도 하루에 두 번씩은 먹으니까 걱정 마."

"두 번?"

"……."

유성운은 프로답게 대처했다.

"앞으로 4번이 될 예정이지."

"좋습니다."

초상화가 끄덕였다.

"기분 탓이 아니라면 최근에 유독 바쁘신 것 같습니다."

"아, 뭐랄까. 최근 지구가 많이 혼란스럽거든."

"제가 한 일 때문입니까?"

"그것도 영향이 조금은 있겠지만… 원래도 지구는 많이 삐걱거렸어, 그야말로 모래 위의 성이지. 그런 상황에 신비가 거하게 건드려졌으니 정원들이 시끄러워지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아하."

'지오의 초상화'는 알겠다는 듯이 말했다.

"최근에 작은 소동들이 많았습니다. 크고 작은 친구들이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성운 씨가 그들을 근원의 아이들이라고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라, 뭔가 귀여운 표현이네."

근원의 눈인 지오에게는 그야말로 자식처럼 느껴질 테니 말이다.

"맞아, 지구를 감싼 신비의 장기며 핏줄들이 들썩이고 있는 덕분이지. 그래서인지 요즘 내가 모시고 있는 설원도 조용하지 않아. 네가 저번에 만난 정영원 치료사를 기억해? 그쪽도 아예 칩거했다는데… 지구에 살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행사 중 하나야."

유성운이 무던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고 네 탓이라는 건 아니고."

"실례를 끼쳤습니다."

"자연 현상 중 하나니까 책임감 느낄 필요 없어. 지구는 원래 이런 식으로 자정 현상이 일어나. 이렇게 크고 작은 소동을 일으키며 다시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야."

"가끔은 유성운 씨의 정원이 궁금합니다."

"…그래?"

조금 기쁜 말이라, 유성운이 눈을 휘어 웃었다.

“하지만 안타깝게 됐어, 나는 너처럼 다른 사람을 정원에 초대할 권한이 없거든. 네가 직접 나선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나는 그래.”

고작 정원사가 정원을 마음대로 다룰 권한이 있으면 이상한 일이었다.

“대신 눈이라도 볼래?”

“유성운 씨의 눈을 권유해 주신 겁니까?”

“정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역시 눈이거든.”

“눈이라….”

“…….”

검은 물감에 가려져 있을 텐데도, 시선이 느껴졌다.

“…….”

역시 무섭네.

‘…오랜만에 오싹한걸.’

심장이, 뇌가, 그리고 골수가 공기에 맞닿는 듯한 서늘함이 있었다.

저 물감에 초상화의 시선이 가려지지 않았더라면 유성운은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정원사이기에 더욱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으니까.

곧이어 초상화는 정원 감상을 마쳤다.

“춥군요.”

담백한 평가였다.

“조만간 목도리를 짜 드리겠습니다.”

“오… 그래 주면 고맙기는 한데, 나 진짜 그러다 어디 박제되는 건 아니지?”

“유성운 씨가 저를 친구로 인정해 주셨으니 그런 대가는 필요 없습니다.”

“결국 내 생각이 중요했던 건가?”

“친구가 되는 것은 항상 서로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나요?”

“가끔 보면 너는 친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지?”

“좋아합니다.”

초상화는 긍정했다.

“어울릴 수 있는 친구도, 함부로 어기지 않는 약속도, 때에 따라 필요한 처벌도 좋아합니다.”

“…….”

유성운이 잠시 입을 열었다가, 이내 닫았다.

“…그렇구나?”

들쑤시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내 근황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 아니면 최근 사회의 상황이라든지. 너는 요새 초상화 안에만 머무르고 있으니 이런 이야기도 듣고 싶을 것 같아서.”

“수집상의 직원들은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너에 관련된 거라면, 어, 최근에 새로운 공지가 뜨기는 했지. 네가 요즘 선물로 핏물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주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우리로서는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몰랐으니까.”

“역시 제가 드린 선물의 포장이 미흡했군요, 사죄드립니다.”

“그렇게까지 미안해하지는 않아도 돼.”

유성운이 상쾌하게 웃었다.

“다들 이런 일은 익숙하거든.”

새까만 초상화가 정체불명의 고깃덩어리를 준다든지 하는 일은 말이다.

지오는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유성운이 오면서도 생각했듯이 이런 해괴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작품은 드물지 않게 나타났다.

수집상의 직원이라면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는 법이었다.

보통 그런 것은 불쾌감의 표현이거나 불길한 저주, 경고, 예언에 가까운 현상이었다. 큐레이터들은 그 또한 ‘작품 조각’의 일종으로 판단했다. 괜히 유성운이 날아오듯 지오를 찾아온 게 아니었다.

“그 외의 인식이라면, 네가 공식 신성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조금 놀라고 있다? 아무래도 그 정도겠네. 신성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국가가 인정한 종교는 몇 안 되거든.”

“그만큼 장난을 치는 분이 많다는 의미일 겁니다.”

“맞아, 섣불리 신성을 인정하게 되면 그 신비의 힘이 어마어마해져. 그리고 너무 큰 힘은 인간에게 재앙이 되는 법이고. 신성 그 자체에게 어지간한 자제력이 있지 않은 한 종교로 인정은 안 해줘.”

“하지만 저에게는 해 주셨습니다.”

“너는 아무래도... 너라서... 응....”

유성운은 달리 해줄 말이 없었다.

“요즘 네 신도들이 뭐 하고 다니는지 아니.”

“신도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나의 그림을 좋아하는 애호가들입니다.”

“그래, 애호가들. 그 사람들이 뭐 하고 다니는지 알아?”

“그들은 최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방문하여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야. 아직 제대로 된 교리도, 신전도, 하다못해 제복도 없는 신도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라고. 협회와 정부는 올바른 판단을 내렸어.”

“천지신명이시여.”

“네가 그분을 부르면 어떻게 해....”

그분께서는 지오를 도와줄 힘이 없으셨다.

“수집상의 사람들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다들 너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니까. 지금 수집상 직원은 셋 중 한 종류에 포함이 되거든.”

“경청하고 있습니다.”

“너를 좋아하는 사람, 너를 존중하는 사람, 너를 무서워하는 사람.”

“두 번째 선택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는 셋 모두를 선택해야 한단다. 네가 이 수집상에서 집을 철거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너에 대한 수집상

길드원들의 생각은, 뭐랄까… 그래.”

유성운이 결론을 내렸다.

“자연 현상이거든.”

“자연 현상.”

“종종 호수에 끼는 안개 같은 거.”

“안개.”

“대화와 교류가 가능한 안개.”

원래도 그런 경향이 강했지만, 검은망토가 신성 그 이상의 무언가라는 확신이 선 이후에는 더했다. 평범한 반응은 아니지만 평범하지 않은 수집품들의 집합소이니 어쩔 수 없었다.

초상화는 그 점을 물었다.

“다들 침착하십니다.”

“그게 현명하다는 걸 모두가 알거든.”

유성운은 제 동료들이 무슨 생각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수집품이잖아, 지오야. 현상 유지가 필수라고. 길드장님께서 그걸 강요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지금 이곳에 남아 있어. 그런 훌륭한 서비스 직종의 직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감정에 휘둘려서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 정중하게 굴어야만 했다.

“너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중해야지.”

그를 향한 감정이 경외든, 존중이든, 공포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매뉴얼을 지키면 그만이었다. 감상은 그들만의 것. 사회의 톱니바퀴가 티를 내야 할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수집상의 모든 직원이 너를 모시기 위해 존재해. 다만 그들이 무엇을 품든 스스로 외면하겠지. 그러면 아주, 정말 많이 피곤해지는 걸 알거든.”

“그게 여러분의 방식인 것을 알겠습니다.”

초상화의 답변은 역시나 무뚝뚝하고, 담백했다.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래? 불쾌하지는 않고?”

유성운은 민망한 웃음을 흘리며 입가를 쓸었다.

“너는, 음, 사람…? 이잖아. 스스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건 못 할 짓처럼 느껴질까 싶어서. 좀 늦은 질문이지만 정말 괜찮나 싶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 모든 방법들을 긍정합니다. 제 자신에 대한 저의 생각은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그리고 제가 그렇듯이.”

초상화는 간단히 요약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거 멋지네.”

“저도 마음에 듭니다.”

“맞아, 그랬었어. 그랬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인간은 이 존재를 ‘초상화’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 존재 역시 액자 너머의 인간들을 ‘그림’으로 해석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작품이니 존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문득 소름이 끼쳤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너는 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

‘…태양의 아들도 되었고, 분노의 신성도 되었지. 어느 날에는 사람이 되고 어느 날에는 용이 되어버려. 그러고는 가장 마지막으로 돌아와 자신이 사람이라 주장하는 그림이 되는 거야.’

이 존재는 교류가 가능했다. 그리고 교류한다는 것은 섞인다는 거였다. 강물에 물감을 풀면 흐려지는 게 당연할 텐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과연 박제된 그림다웠다.

말도 안 되게 신기한 일이었다.

“음….”

하지만 이런 티를 너무 내면 불쾌해할 수도 있었다. ‘지오의 초상화’는 어디까지나 스스로를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 장단에 어지간하면 맞춰주는 편이 좋았다.

유성운은 막 생각난 사람처럼 말했다.

“그렇지, 조만간 시간이 날 것 같은데.”

“휴가입니까?”

“길드장님 앞에서 열심히 뒹굴었거든. 온몸으로 바닥 청소 좀 해봤어.”

“당황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는 휴가를 주셨지, 내가 이렇게 산다 지오야.”

수치를 감수하고 재롱 좀 떤 보람이 있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하루 종일 쉬거든. 주말까지 합치면 어디 놀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만 괜찮으면 그럴싸한 해외여행이라도 가볼까? 전체적으로 난장판이기는 해도 미국 정도면 정리가 된 편이라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이동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우, 그랬지. 맞네. 아무튼 주현 씨에게도 말 좀 전해줘. 금요일 전까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고. 그 전까지 놀러 가고 싶으면 주현 씨 지참해 줘, 잊지 마.”

“저와 주현 씨는 한 몸입니다.”

“네가 그런 말 하면 비유처럼 안 들리는데 말이야.”

“한 몸과 같이 분리된 사이입니다.”

초상화는 잠깐의 고민 후 대답했다.

“기다리겠습니다.”

“잠깐만, 나 방금 느낌이 왔어. 너는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뭘 하면서 기다릴 건데?”

“먼저 농사를 지어야겠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기대할게.”

“기대해 주십시오.”

* * *

그렇게 금요일이 되고.

“그래서 이게 지오 씨가 튀긴 팝콘이라고요.”

“오늘을 위해 저는 성공적으로 튀겨질 옥수수를 선별했습니다.”

“오, 세상에….”

살다 살다 야구공만 한 팝콘은 처음 봤다. 폭신하고 부드러운 게 꼭 조금 단단한 마시멜로 같았다.

주현은 종이 재질로 야무지게 접힌 팝콘 통을 들었다. 그러고는 지오의 옆에 앉았다. 그런 지오의 옆에는 유성운이 황금 걸음양의 가죽으로 만든 담요를 덮은 채 앉아 있었다.

그곳에는 다나와 허니, 곰인형, 등꽃 수룡과 정체불명의 화분도 있었다.

“……?”

머뭇거리던 주현이 거대한 TV를 앞에 두고 물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큰 소파를 두고 바닥에 앉는 겁니까?”

“아.”

“아….”

유성운이 그럴싸한 답변을 제시했다.

“양반 다리가 편해서?”

지오도 한마디 덧붙였다.

“바닥에는 음식을 떨어뜨려도 괜찮습니다.”

주현이 끄덕였다.

“다들 깊은 뜻은 없다는 거 알겠으니 일단 영화나 틀죠.”

그렇게 그들은 금요일 저녁, 공포 영화를 틀어놓고 그 내용이 되는 오컬트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토론 시간을 가졌다.

특히 유성운은 “많이 배워간다”라며 흡족해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79)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79)"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80)

280

제280화

지오는 사나래와도 만났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우와, 되게 전형적인 인사말이다.”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니까 슬슬 무서워지기도 하고….”

사나래는 조금 어색한 얼굴로 지오를 맞이했다.

“귀하디귀한 서지오 헌터님께서 우리 길드에는 웬일로 방문하셨을까?”

“사나래 씨를 보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왜인지 그 ‘본다’가 정말 구경하기 위해 온 것처럼 들리는데, 음, 뭐, 내 기분 탓이겠지.”

“분명 당신의 기분 탓일 겁니다.”

“진짜 대체 왜 온 거야, 혹시 나 뭐 잘못했어??”

그는 이전과 달리 지오를 무서워했다. 정확히는 매우 꺼리는 것 같았다. 기분 나쁜 거부감은 아니라 지오는 그저 순수한 의문을 가졌다.

“무서워요?”

“음, 좋아… 나에게 어디까지의 발언권이 있지?”

“뭐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그렇게 친절할 리가 없다는 걸 알아. 그리고 나는 이제 서지오 헌터님께서 거짓말을 꽤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거든. 결국 내가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지.”

“과장된 표현입니다.”

“서지오 헌터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딱히 그렇지만도 않은데….”

사나래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그 분위기는 어떻게 못 하는 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는 길에 우리 길드 사람 두어 명 홀린 걸로 알아.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는 길에 풀어주고 가줬으면 좋겠어. 내가 재롱 열심히 떨게.”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재롱떨지 않으셔도 마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보기에 몹시 안쓰러우니 부디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하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어색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제 삶의 편의를 임의로 도와주었던 도구의 체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도구를 찾을 때까지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 그럼, 그….”

드물게도 사나래는 머뭇거렸다.

“…뭘 말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네. 나 갑자기 좀 프라이빗한 곳에서 대화하고 싶어졌어.”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사실대로 말하자면 딱히 그렇지는 않지. 우리 가족들은 워낙 거친 사람들이라 이런 접대실에 꼭 도청 장치가 달려 있거든. 들어오면서 들었지? 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 측 과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하기 위한 조치야.”

“그렇다면 원하시는 장소로 이동할까요?”

“…생각해 보니 그건 그거대로 무서우니까 여기서 마저 대화하자.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알아서 잘 걸러볼게. 도청 장치가 있다고 해도 상호 합의하에 삭제할 수 있어. 아마 이것도 고지를 받고 들어왔을 텐데, 이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왜 나를 찾았… 하, 아니다….”

사나래는 그저 체념했다.

‘인간이 아닌 상대를 인간의 기준으로 재는 것만큼 멍청한 일이 없지.’

그런 이유에서였다.

“진짜 찾아온 이유가 그것뿐이야? 날 보러 왔다고?”

“건강하신지 궁금했습니다.”

“서지오 헌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무섭네.”

“여전히 엄살도 심하신 것 같습니다.”

“살펴주신 덕분에 아주 건강하지. 난 오히려 서지오 헌터님의 근황이 궁금해. 그거 알아? 아마 알 것 같지만, 나도 이번 ‘꿈의 유원지’ 토벌에 참여했던 헌터 중 한 명이었어.”

“뵙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하, 재밌네.”

이번 ‘꿈의 유원지’ 사태에 ‘서지오 헌터’는 참여하지 않았다. 숨어서 활동한다고 숨겨질 존재도 아니었다. 그런데 ‘아 나도 거기 있었는데’라는 식으로 말하면 뭔가를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

어째 그 악신에게서 비슷한 향이 나더니만.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알지? 응?”

“물론 사나래 씨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 나도 걱정을 참 많이 했단 말이지. 지금 서지오 헌터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몸 상태가, 뭐랄까, 예전 같지는 않은 모양이고.”

“무서워요?”

“아까랑 같은 질문이네.”

하긴 대답하지 않았지.

‘이런 존재가 용케 인간들 사이에 섞여 있구나.’

잠깐 부러움이 들기도 했다.

“…무서워.”

그의 솔직한 심정은 그랬다.

“서지오 헌터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 좋은 ‘사제’라는 것도 알고, 좋은 ‘헌터’라는 것도 알지. 누군들 뒤로 구린 생각 못 하겠느냐만 서지오 헌터님은 그런 경우도 아닐 테고.”

정말로 이상적인 존재이지 않은가?

“하지만 워낙 못 배워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난 내가 물어뜯을 곳이 없는 상대는 무서워하게 되더라고. 나한테 서지오 헌터님이 그런 존재야. 너무 이상적이잖아.”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뿐이겠지. 서지오 헌터님이 그걸 원해서 그렇게 된 것뿐이고. 내가 머리로 당신을 이길 수 있겠어? 아니면 힘으로 이길 수 있겠어. 기술? 모략? 정치? 권력? 재력?”

“항상 이기고 싶으신가요?”

“나는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배워서. 아까도 말했잖아, 워낙 못 배워 먹었다고. 그래서인지 서지오 헌터님이 무서워. 솔직히 무슨 생각인지도… 잘 모르겠어.”

그가 인간이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영원의 상징에 대해서는 서지오 헌터님도 알지?”

“자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구에 시스템을 만들었어. 내가 알기론 그래. 신성과 같은 외부의 개입을 제한하고 사람들이 대재앙의 괴물과 이상 현상을 상대하기 편하도록 도와줬지. 그리고 운명을 바쳤다고 해.”

“운명이군요.”

“인간으로서의 운명이지. 그래서 영원의 상징은 더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그렇기에 그 비대한 권력을 쉽게 다룰 수 있는 거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참 너무하다고 생각해서.”

끔찍했다.

“사람은 때가 되면 죽어야 사람이지.”

사나래가 초승달처럼 눈을 휘었다.

“…그래서 나는 영원의 상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인간 같지가 않거든. 때가 되면 죽지도 못하고, 시간에 따라 늙지도 않고, 권력은 과중되어 있는데 그걸 마땅히 감당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사람일 수 있겠어? 단지 의지와 성향을 가진 자연재해 아닌가?”

그가 어깨를 으쓱였다.

“아, 물론 나는 세상 사람 대부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인간을 혐오합니까?”

“인간은 혐오하고, 자연재해는 무서워해. 내 가족이 되어주지 않는다면야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인간은 변덕스럽고 자연재해는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두려움이 많으신 것 같네요.”

“...혹시, 당신 눈에 내가 뭐로 보여?”

“.......”

‘서지오 헌터’가 눈을 마주쳐 왔다.

“사나래 씨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나를 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당신의 딸은 왜 내게 친근감을 표시했지?”

“유감스럽게도 저는 당신을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참... 자비로우시네.”

사나래도 인정했다, 그는 겁쟁이였다.

“이렇게 겁이 많은 나를 이해해 줘. 척 보면 아실 테고, 모르신다면 보기 싫은 거겠지만, 나 되게 불쌍하게 태어났거든. 서지오 헌터님께서 주신 자비 한 조각이 절실한 거지새끼라고.”

“당신은 화가 난 것 같고, 방금 한 말과는 달리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무엇보다 당신은 아직도 나를 무서워하지 않나요?”

“...이런 점이 무섭다는 거야. 아무리 비아냥거려도 통하질 않아. 내가 열심히 겉껍질을 포장해도 그 알맹이만 보고 판단하고 반응하지. 왜 그렇게까지 무섭게 굴어야 해?”

당신은 신이잖아.

“.......”

그리고 신은 모두 잔인하기 그지없었다.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잔인하다.

“...아까도 말했지만 서지오 헌터님이 좋은, 존재라는 걸 알아. 악의도 없을 거고 하는 짓을 보면 그렇게 변덕스러울 것 같지도 않지. 그래, 참 좋은 어른이네.”

하지만 신뢰할 수는 없었다.

“너무 강하지만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렇게 보이시나요?”

“힘이 약할 수는 없을 테니,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는 사람이었다면 아주 좋았을 거야. 그럼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있었을 걸. 약한 부분이 있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는 아주 잘 아는 거라...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를 도와드릴까요?”

“...아니, 내 가족은 지금 여기로 충분해.”

“나는 사나래 씨와 친구가 되고 싶은데.”

“.......”

아, 역시.

“…무섭게 굴지 마….”

두렵다.

예민한 오감이 비명을 지른다.

눈이, 코가, 귀가, 바짝 마른 혀와 곤두선 피부의 직감이 소리친다. 도망치라고. 이겨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호의가 악의이며 자비가 재앙이라고.

바로 앞에 ‘사람’이 앉았음에도 거대한 숲과 태동하는 맥박만이 느껴지는데….

“…….”

재해가 인간을 흉내 낸다.

“…미안, 화내지 말고 들어줘. 나는 그냥….”

“사나래 씨가 겁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미안해.”

“제가 욕심이 많은 편이라는 것도 알아요.”

“…….”

사나래가 고개를 들어 상대를 보자, 그는 눈을 내리감은 채 미소 짓고 있었다. 처음 접대실에서 보았을 때와 같은 미소였으나 사나래는 조금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건 사람의 미소였다.

“가엾어라.”

슬프고, 사랑이 가득했다.

“그럼 이렇게 할까요, 사나래 씨.”

“…뭘 어떻게?”

“조만간 과자 집을 만들게요.”

“과자 집? 아, 그때 던전에서 내가 말했던… 진짜 만들게?”

“그리고 당신을 부르죠.”

햇볕 닮은 사제가 자상하게 웃었다.

“초대장을 보내도 괜찮겠습니까?”

“…생각해 볼게.”

사나래도 어설프게나마 따라 웃었다.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건, 진심이었으니까.

* * *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고들 합니다.”

지오는 다락방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매만졌다. 그의 손짓에 따라 햇살은 마치 비단실이 엮이듯 단아하게 자리를 찾아갔다. 하나의 면이 된 그것은 오로라처럼 휘기도 했다.

나비와 꽃잎처럼, 홍차와 프릴처럼 하늘거리는 햇살을 쓰다듬었다.

“힘이 있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불공평한 일이죠. 하지만 힘이 있기에 그 뒤를 저절로 쫓아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책임이라고 부르더군요.”

햇살은 옅게 흐려진다.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노는 셀로판지를 닮았다. 나무를 한 겹 겹친 듯 부드럽게 일렁이는 햇살이 이내 다락방을 이불처럼 덮었다. 차근차근, 아주 조용히.

"그러니 단지 강하기에 책임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래야 했다면 나의 인어 친구들은 왜 그렇게 비틀려야 했을까요. 단지 그들이 재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듯했다.

"강한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꽤 이상적인 형태의 사회일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베풀고, 더 많은 여유를 가진 이가 타인을 돕습니다. 하지만 그건 필연적으로 그보다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게 되죠."

지오는 강한 사람들이 참 불쌍했다.

"안타깝더군요."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택하지 못하고 강요받은 자들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체 몇이나 될까? 어쩌면 지오 역시 그중 하나일지 모르나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았다.

그는 언제나 자유로웠다.

"아테르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너 역시 영웅이라 불렸으니…."

잠들어 있는 깨끗한 신체를 보며 지오는 물었다.

"힘들었겠지?"

올바른 강자가 책임을 진다.

아테르는 올바른 사람이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불의에 분노하며 약자를 돕고자 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불합리함에 억울해하면서도 노력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기에 감사하고 애틋하다. 사랑스럽다. 지오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멋진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더욱 대단하게 보인다.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오래 자고 있는 건가.

"더 오래 자도 괜찮아, 이곳은 나의 집이니 너의 성곽이다. 새도 고양이도 들지 않는 이 아늑한 다락방에 아주 오래도록 잠을 자렴. 네 위로 햇살을 덮어주겠다. 달이 뜨면 달빛을 덮어주마."

"……."

"그리고 전부 자고 나면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을 말해보게나. 나는 자네와 같은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거든. 우리는 친구이지 않은가? 친구가 하고 싶은 일을 말한다면 곁에서 도와주는 것 또한 우정이라 할 수 있겠지…."

그러고는 다시 검은 머리로 돌아왔다.

"……."

"……."

햇살이 반짝이며 부서져 내리는 모습에 가만히 눈을 감는다.

"…더 단순해지면 좋을 텐데."

세상은 아직도 복잡하기만 하다.

* * *

며칠 뒤.

지오는 서서희 헌터를 만났다.

"…저기, 이건…?"

"선물입니다."

갈비찜을 들고 말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80)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81)

281

제281화

며칠 전, 유스티티아 측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다.

"비상!!! 비상—!!!"

당연히 수집상에는 비상이 걸렸다.

"아니 시발 뭡니까, 갑자기 왜 그래요! 드디어 검은망토가 크툴루를 소환했나?!"

"서지오 씨 본인이 크툴루 아니었어요?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기라도 했어? 아닌데, 되게 젠틀하신 분인데? 지난번 고기 선물도 순수한 호의였다면서. 그럼 갑자기 그럴 리가 없는데?"

"대단히 실례지만 다들 입 좀 다물어봐요, 무슨 일인지 들어나 보게. 그래서 왜 그러신다고요?"

충격적인 소식을 물어 온 직원이 간략히 요약했다.

"서서희 헌터가 서지오 헌터를 만나고자 합니다."

"...비상—!!!"

그들은 긴장했다.

"아 요즘 검은망토 님 컨디션 안 좋은데."

"큰일 한 번 겪으셔서 아직 기력 회복 다 안 되셨을걸...."

"그래서 한창 쉬고 계신 거 아니었나?"

요즘 그들 초상화의 상태를 잘 알기 때문이었다. 예전에는 인간 흉내라도 좀 얼기설기 내주시더니, 최근에는 귀찮아졌는지 기운이 없는지 그조차도 안 했다.

"최근 서지오 씨 상태 어떤지 자세히 아는 사람?"

목격자들은 금방 증언을 쥐어 짜냈다.

"그림자 빵꾸 내고 다니세요, 말씀 안 드리면 없는 채로 다니시더라고요. 지적해도 화는 안 내시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빵꾸만 해결된다고 되는 일도 아니던데. 그림자가 있긴 있는데 엉뚱한 사슴이나 양 그림자가 나올 때도 있어. 그 안에서 인어 같은 것이 일렁일 때도 많고."

“인기척도 최근에는 신경을 잘 안 쓰고 계시죠. 풀 바스락거리거나 발굽 닿는 소리 정도는 들리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 기척은 아니에요.”

“영 무게감도 없으시죠. 격도 상당히 높으시고. 아마 갈무리하기 귀찮으시거나, 음, 예, 뭐, 진짜 기운이 없는 걸 수도 있고요. 내향적인 분이라고 들어서….”

“내향적이라는 말이 참 웃긴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유성운 씨나 주현 씨에게 그렇게 들었거든요. 말투 딱딱한 것 정도는 그냥 애교죠.”

조금 난감한 일이었다.

“아이고 우리 집 귀한 화분이 왜 그렇게 시들시들해져서….”

“그래도 교류도 해주시는 분께 화분이 뭐예요, 화분이.”

“이거 골치 아프네, 영원의 상징이 직접 요청한 거면 거절하기도 애매한데.”

“거절하면 안 되나요?”

“이 소식 새면 우리 서 헌터 더 유명해져서 안 돼.”

“하긴 싫어하시겠구나….”

그 사이에 끼어버린 주현은 몹시 머쓱해했다.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 전해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있어요.”

“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서지오 헌터님께 인간 수업 좀 해주세요.”

“실례지만 그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젠장.”

그들은 최선을 다해 그들 초상화의 컨디션을 되돌려 보고자 고민했다.

“급하게 강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지만 해볼 만은 하지 않나 싶은데….”

“그냥 아프다고 돌려보내면 안 되나? 유명이야 해지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상태의 검은망토를 바깥으로 내돌리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내돌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검은망토 본인이 원하는 일이니까 주현 씨가 알리러 온 거 아니야. 차라리 인간 사용 설명서를 드리면 어때요?”

“하, 이거 참 난감하네….”

그쯤에서 주현이 잔혹한 진실을 알려주었다.

“이미 그렇게 생각해 주고 계신 것 같지만 아예 이 면담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정식 일정을 잡지 않은 건 맞지만, 음, 지오 씨가 지금… 갈비찜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라서요.”

“혹시 뭘 또 도축하신대요?”

“이번에는 지구의 재료들을 이용해 만들고 계세요. 이미 곳간에 고기가 가득해져서 그런지 당분간은 도축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어휴, 순간 사람 잡으신 줄 알았네.”

“지오 씨는 사람 안 먹어요.”

"나도 알기는 아는데 그쪽에서 도축 같은 단어가 나오면 섬찟해진단 말이죠… 어쨌든 이미 선물까지 제작 중이라니까 더욱 막을 수는 없겠네. 아쉽게 됐어."

규칙에 얽매인 신비가 '선물'을, 그것도 인간에게 줄 선물을 준비 중이란다. 그걸 막게 되면 어떤 파란이 찾아오게 될지 몰랐다. 신비 본인의 심기도 상당히 틀어질 것이고.

"에이, 어쩔 수 없네."

결론은 금방 나왔다.

"서지오 씨도 인간 생활 끝내고 싶으신 게 아니면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

"우리가 닦달한다고 닦달할 수 있는 분도 아닌데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긴 하네요."

"그냥 보내드리죠, 어차피 영원의 상징쯤 되면 저희 초상화에 대한 일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고 가는 길에 큰 이슈만 없다면 조용히 마무리될 겁니다."

"그나저나 어쩌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게 된 건지… 지난번 주현 씨가 말씀하신 서서희 헌터님의 반응이라는 게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주현이 끄덕였다.

"예, 지난번에도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셨다고 압니다. 이렇게 직접 공식적인 일정을 잡을 정도일 줄은 몰랐지만… 유성운 큐레이터의 말대로라면 지오 씨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일 테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 주현도 지오가 거대한 항아리를 지고 올 줄은 몰랐다. 주현은 현실적인 크기의 갈비찜으로 제한하기 위해 인간 세상의 수많은 사례와 가설을 들고 와야만 했다.

그렇게 모두의 노력하에 성사된 만남이었던 것이다.

* * *

"……."

"……."

그리고 면담 당일, 서서희 헌터는 경이로운 광경에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게 갈비찜이라고요?"

"예, 조금 더 많이 가져오고 싶었는데 사방에서 말리는 탓에 양을 좀 줄였습니다."

"충분히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서서희의 시선을 빼앗은 건 갈비찜을 포장한 비단과 용기였다.

"이 비단에서 왜 재생의 기운이 느껴지는 걸까요?"

"재생이라. 그러고 보니 재생의 힘을 가진 양의 털을 뽑아 만든 비단이었죠."

"혹시 직접 만드셨나요? 왠지 뉘앙스가…."

"양이 줄었으니 화려해 보이게라도 하고 싶어서 직접 짰습니다."

"그럼 이 용기는 뭔가요? 나전칠기? 뭔가 다른데."

"지난번 바다에 들렀을 때 예쁜 조개가 있어 사용해 보았습니다."

"예,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달과 태양의 기운이 느껴지는 이 용기까지 말이다.

"……?"

서서희는 아주 오랜만에 미약한 혼란을 느꼈다.

“저기, 죄송하지만 유스티티아는 뇌물을 받지 않는 주의라….”

“저는 서서희 헌터님께 얻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건 순수한 호의에서 우러나온 선물일까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이건 정말 죄송한 질문인데, 그, 저희가….”

머뭇거리던 서서희가 드물게도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렇게까지 친했, 을까요?”

“우리의 그 두터웠던 우정을 잊어버리다니.”

“우는 척하시는 거 다 보입니다. 그래도 울지 마세요, 난감해지니까요.”

“부담스러우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서지오 헌터는 언제 우는 척을 했냐는 듯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서서희 헌터님을 뵌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지난번에 뵈었을 때 많이 마르셨던 것이 마음에 걸려 간소한 반찬을 준비해 보고 싶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양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지적에 이렇게 줄여버려서… 다른 부분으로라도 보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서서희가 오각형의 용기를 보았다.

“…….”

그리고 다시 서지오를 보았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저는 마르지 않았어요….”

서서희의 미소가 공허했다.

“제 근육량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닐까요? 어느 모로 봐도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몸을 관리하고 있고, 나름 평균 이상이라고 자부했는데, 말랐다는 소리를 들으니 조금 민망하네요.”

“…….”

“…서지오 헌터님께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이는데, 딱히 막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하셔도 대충 감안하고 들을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경청하고 있으니까요.”

“뼈밖에 안 보이십니다.”

“투시력이 있으신가?”

정말 실질적으로 뼈‘만’ 보이는 게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었다. 세상 그 누구도 서서희를 말랐다고 하지 않을 것이었다. 무엇보다 서지오 헌터의 뉘앙스는, 뭔가, 좀….

비쩍 곯은 아이를 보며 하는 말 같았다.

“저 밥 잘 먹고 다닙니다.”

저절로 변명이 나올 정도였다.

“건강해지려면 삼시 세끼를 잘 챙겨야 하죠.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니, 제가 왜 이런 걸 변명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서희는 문득 그가 잊은 예전의 ‘인연’이 이런 식이었을 거란 직감이 들었다.

“…의외로 제가 보살핌을 받는 쪽이었을까요?”

“그런 것까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아.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모로 데이터가 쌓였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좋고 나쁜 인연을 잊게 되는 일이 있고… 또 그걸 다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해했습니다.”

“예, 저도 이 상황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희한하네. 이게 왜 익숙한 것 같지? 어디 가서 그런 말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서서희의 표정이 조금 어색해졌다.

“아니면 제가, 식사를 잘 챙기지 않았을 때 만났다든가….”

“…….”

“…그렇군요.”

역시 민망했다.

‘꽤 예전의 일일 텐데.’

미안하고, 불안했다.

‘정확히 어느 시점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식사를 잘 챙기지 않았을 때의 내가… 그다지 괜찮은 인간은 아니었던 것 같다.’

서서희도 처음부터 이런 성격으로 이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었다. 한창 지구에 일이 많을 때는 더 피폐하기도 했고. 아마 서지오 헌터와는 그런 시기에 만난 것 같았다.

“역시 기억을 잊는다는 건 참 번거로운 일이네요.”

“마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싱숭생숭한 기분이었다.

“…….”

이런 선물도 아무렇지 않을 관계였던 걸까.

‘아 아니,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 선물은 좀 놀라겠지만.’

그래도 납득 가능한 선의 선물이었을 것이다. 서지오 헌터는 ‘오랜만에 보게 되어 들떴다’라고 말했으니, 그 점을 감안하면 말이다. 그렇다면 참 많이도 친했다는 거겠지.

발끝을 차근차근 간지럽히는 이 초조한 감정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약속이어야 했을 텐데, 잘 모르겠네.’

약속을 마치고 나면 대개는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 좋은 인연을 어디에 썼을까.’

부디 지구를 지탱하는 귀중한 기둥 중 하나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또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경청하고 있습니다, 서서희 헌터님."

"양을 줄이셨다고 했는데 전혀 안 적어 보여서 말입니다."

"예전부터 양이 참 적으셔서 걱정이었는데, 설마 아직도...."

"누가 양이 적다고요? 이걸 제 탓으로 돌리시면 곤란하죠, 서지오 헌터님."

서서희가 묘한 웃음을 흘렸다.

"헌터님께서는 대식가이신가 봅니다."

"예, 자주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 분에게 세상 사람 대부분은 기아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저도 평균 이상으로 먹는 편이지만, 이건 그보다 조금 더 많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진짜 참고만 하실 분위기인데...."

폐 안에 꽉 들어찬 자책과 별개로, 이러한 대화가 기분 나쁘지 않게 난감했다.

"그리고 이걸 직접 만드셨다고요? 이 비단이랑 용기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둘째 치고, 어디서 사 왔다고 해도 죄송한 기분입니다. 너무 큰 선물이잖아요."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정말 뇌물은 아니었습니다...."

"예,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거 압니다. 둘 중 하나겠죠. 저희가 그만큼 친했든가, 아니면 서지오 헌터님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너무 남다르시든가. 어쩌면 둘 모두일 것 같은데...."

감히, 조금은 유쾌했다.

"...아, 재밌네요."

아주 오랜만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81)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81)"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82)

282

제282화

방문이 끝나고, 부길드장이 다가와 물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묻는 거지?”

“…서지오 헌터를 상상 이상으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여쭤보는 겁니다. 검사도 없이 서지오 헌터가 준 음식을 먹고, 지나치게 휘황찬란한 선물도 받아들이시더군요.”

“평소의 나답지 않아서 그래?”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부길드장은, 강은성 헌터는 제 상관을 꽤 오래 보필해 왔다. 성격 좋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경계심이 심한 사람이었다. 영원의 상징은 그들 서로가 아니면 믿는 법이 없었다.

대재앙을 겪은 어르신들은 다 그런 법이라더라. 강은성도 이해했다. 하지만 그러던 와중에 서지오 헌터가 끼어들었다. 당황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었다.

“그 사람을 상당히 예외로 보고 계신 것 같아서.”

“나도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말이지.”

서서희가 웃으며 으쓱였다.

“사람이 너무 재밌어서 방심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정말이라니까? 사고방식이 참 독특해.”

그리고, 뭐랄까.

“사람을 참 좋아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세상을 향한 호의가 짙게 느껴졌다. 이 세상이 어떤 형태와 방향을 띠고 있더라도 그 애정이 변할 것 같지는 않았다.

“사교성과는 별개의 문제야. 그냥 사람 자체를 좋아해. 그만큼 많이 베풀려 하고.”

“농담처럼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참았지만 정말 뇌물일 수도 있습니다. 길드장님께서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선물을 받다 보면 공정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걸 노릴 만큼 계획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던데… 뭐, 그렇게 보지 마. 내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는다고 해도 공정이 흔들릴 사람은 아니잖아.”

상대가 상대인 탓도 컸다.

“서지오 헌터님이 나에게서 얻어갈 것도 없고.”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길드장님께서는 영원의 상징이신데요.”

“물론 나는 그렇지. 영원의 상징 중 한 명에, 대한민국 1위 길드의 수장이고, 세계에서도 1위로 손꼽히는 강한 헌터니까. 돈도 많고, 친구도 많고, 권력도 많고….”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합니까?”

“하지만 서지오 헌터님에게는 필요 없는 것들뿐이라서.”

그렇지 않은가?

“다른 누구도 아닌 수집가의 아들로 애정을 받고 있는 만큼 돈이 궁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좁고 깊은 관계를 선호하는 서지오 헌터님이 넓은 인맥을 요구할 리도 없고. 권력? 그런 걸 좋아할 사람처럼 보이던가?”

서지오 헌터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그를 소개해야 할 당시 딱 처음뿐이었다. 그 이후로 서지오 헌터는 가능하면 자신을 숨기려고밖에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제님이신데.”

“성자라는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인은 그릇이 커 사사로운 욕심을 품지 않겠으나, 대의를 위해 얼마든지 길드장님의 권한을 침해하려 들 수도 있어요.”

“그건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하는 일 아닌가?”

“그게 정말로 올바른 대의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예, 맞습니다. 유스티티아의 입장에서는 달게 토론할 일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까지 예외를 두시는 길드장님의 태도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대체 그의 무엇을 보고?

“…단순히 능력이나 성품만으로 그렇게 친근해하실 리는 없으니, 길드장님께서 잊은 인연 중 한 명이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잊은 기억을 악용하려고 한다면요?”

“해운이도 그걸 걱정하던데.”

“그런 사례가 워낙 많았어야죠. 길드장님께서는 특히나 그런 인연들에 마음을 많이 쓰셔서 이미 몇 번이나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던 건 다른 친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나도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그렇게 잊힌 사람들 덕분에 지구가 이렇게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일 텐데. 그에 비하면 속아드리는 것 정도는 가성비 좋은 대가라고.”

“저는 길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심장이 떨어집니다. 길드장님께서 잘못되시면 유스티티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구는요?”

“나는 안 죽어.”

서서희는 느긋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안 죽고, 안 늙고, 지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상태일 거야.”

“…죄송합니다.”

“강은성 씨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지.”

그냥 그들이 바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대가가 저희들의 운명이었을 뿐이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만 했던 운

명. 시간, 기억들. 그것을 바치고 위태로운 평화를 얻었다.

“그런데 말이야, 서지오 헌터님. 몇 살일 것 같아?”

“…29살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었으니 이제 30살이겠죠, 나이를 속였다고 해도 이십 대 중후반에서 삼십 대 초반일 것이고요.”

“강은성 씨는 서지오 헌터님이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어?”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 아마 한 번 죽었을 거야. 지금은 검은망토의 선택을 받아 사도로서 부활한 것 같은데, 덕분에 반쯤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

“그래서 궁금하네, 우리가 대체 언제 만났던 건지.”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는 부길드장에, 서서희가 부드러운 비단을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꽤 예전에 만났던 것 같아.”

그건 확신일 수도 있었다.

“내가 식사를 잘 하지 않던 때를 기억하더라고. 그냥 넘겨짚은 걸 수도 있는데, 눈을 보면 딱 알거든. 진짜 나를 가엾게 여기는 사람의 눈이었어.”

“…살다 살다 길드장님을 동정하는 사람도 보게 되는군요.”

“동정보다는 친애에 가까웠지. 강은성 씨도 내가 뛰쳐나가서 다쳐 오면 기분 안 좋잖아. 딱 그런 얼굴? 그런 시선? 하지만 우정을 운운하던데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아, 설마.”

강은성이 당황했다.

“그를 친구라고 인정하셨습니까?”

“음… 솔직히 탐이 나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

서서희가 끄덕였다.

“해주는 밥이 진짜 맛있었어.”

“…식당 예약할까요?”

“그런 걸로는 따라갈 수 없는 할머니의 손맛이 있었다니까?”

“할머니? 거기까지 간다고요? 너무 멀리 가셨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런 걸로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솜씨 좋은 요리사가 얼마나 많은가요.”

“내가 갈비찜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나?”

“…….”

강은성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래? 나 갈비찜 좋아해.”

“길드장님께서는 호불호를 드러내지 않으시잖습니까.”

“그런 걸 알고 있었다니까?”

“그 정도는 악연이라도, 좋았지만 악화된 인연이라도, 타락해서 악용하기 위해 온 인연이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하려고 해도 걱정이 안 되더라.”

서서희가 조곤조곤 말했다.

“갈비찜에는 은행이 꽤 많이 들어가 있었어. 거의 졸이지 않아서 소스보다는 국물에 가까웠고. 그거 알아? 사골국처럼 고소하며 담백한... 그래, 진짜 사골국 같았지. 조금 진한 갈비탕이라고 해야 하나?”

“.......”

“너무 달지도 않았어. 그렇다고 짜지도 않았고. 거기에 국물에 푹 절여진 단밤이 6개 정도 있었지, 아마. 단밤의 달콤함은 남아 있는데 갈비찜 소스 맛은 쨍한, 그런 단밤이었어. 입에 넣으면 사르르 무너지는.”

“.......”

“대추는 향만 날 정도로 커다란 친구 딱 두 알에, 대파의 하얀 대는 고스란히 남겨서 익혔지. 국물용이 아니라 먹으라고 한 건지 살짝 구워서 국물 맛이 들 정도로만 끓였고. 나 대파 줄기 먹는 거 꽤 좋아해.”

그가 웃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런 건 알려준다고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나하나 내 입맛에 맞춘 음식이었지. 누군가랑 나눠 먹기엔 그렇게 보편적인 맛이 아니었거든. 늙은이 입맛처럼 삼삼하고 갈비는 푹 익혀서 부들부들하고.”

“음....”

“강은성 씨도 알지? 나 식사는 주면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 거. 미식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서지오 헌터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 아주 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사소한 것까지 알았을까?”

“...스킬이라면요?”

“그런 걸 눈치채지 못할 만큼 내가 멍청한 사람은 아니야.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영원의 상징 이상으로 능력이 좋다는 건데, 그럼 그냥 속아 드려야지. 지구에 무슨 재앙을 일으키려고.”

“제가 억지를 부렸군요.”

강은성이 나지막한 한숨을 뱉었다.

“실례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악연일 리가 없네요. 나쁜 마음을 먹고 온 것 같지도 않았고요. 길드장님께 뇌물을 바칠 사람도 아닌 걸로 보였고, 빌붙어야 할 정도로 궁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니까.”

서서희가 눈을 내리뜬 채로 씩 웃었다.

“이건 그냥 반가움과 안쓰러움을 주체하지 못한 친구의 선물일 뿐이야.”

다만 궁금한 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래서... 서지오 헌터님이 몇 살일 것 같아? 홈페이지 프로필은 계속 29살이라고 되어 있던데, 아마 비사벌 길드장님이 장난을 친 것일 거고.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의미겠지.”

“...그렇다면 실질적인 나이는 사실상 따지는 게 불필요하겠네요. 길드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건 정확히 언제쯤의 인연이고, 언제 잊어서, 무엇을 대가로 얻었는지... 그런 것이겠죠.”

“맞아, 정확히 뭘 어떻게 빚진 건지 모르겠어.”

서서희가 본격적으로 고민을 시작했다.

“서지오 헌터님 말로는 본인은 잊히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는 걸로 보아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약속을 진행한 것 같은데… 그럼 언제쯤이지?”

“길드장님께서 한창 식사를 잘 챙기기 시작한 건 지구에 시스템이 잘 어우러졌을 때 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집가는 연세가 꽤, 있으신 편이라… 음, 아들이 있다고 하면….”

“좀 젊으셨을 때 낳았다고 가정해 보자고. 지금 비사벌 길드장님이 여든 정도 되셨던가? 대재앙 터지기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혼한 적이 있으셨을 수도 있지. 안 그래?”

그날 이전의 기록은 거의 모두 사라진 세상이었다. 제아무리 유명한 수집가의 일이라고 해도, 그가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기혼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대재앙은 32년 전에 발발했다. 비사벌의 정확한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략 80대로 치고. 대재앙이 터졌을 때의 비사벌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보통 40대에서 50대 부모의 자식들 나이가 어떻게 되려나?”

“…대재앙 이전의 기준이라면 저는 잘 모릅니다….”

“내가 실수했네,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그쯤이면 내 주변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

“…20대 정도?”

20대 초반일지 후반일지는 가정에 따라 달랐다. 하지만 그 나이대 부모의 자식들 나이는 그쯤 했을 것이다. 아무튼 20대 정도.

“…아….”

그렇게 따지면 서지오 헌터의 상황도 짐작이 갔다.

“나보다 연상이었을 수도…?”

“맙소사.”

“이건 좀 놀랍네.”

당사자인 서서희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도 어른스럽게 굴어서 어지간한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서서희 쪽이 연하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다.

그가 지구의 어른인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비사벌 길드장님이 아무리 세상을 즐긴다고 해도 대재앙 시기에 자식을 가질 분은 아니야. 그리고 안정화가 된 이후로 비사벌 길드장님은 절대 가정을 꾸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서지오 헌터 본인이 29살이라고 했잖아. 높은 확률로 29살에 죽었다는 거야. 대재앙이 32년 전에 일어났고. 본인 입으로 ‘지킬 자신이 없어서 가정을 꾸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비사벌 길드장님이었어.”

“그럼 정말 대재앙 이전의 자식일 수도 있었, 겠네요…? 서지오 헌터가? 비사벌 길드장의?”

“그리고 비사벌 길드장님이 대재앙 이전에 보편적인 나이대 때 자식을 가지셨다면 나보다는 연상이었겠지, 서지오 헌터님이. 대재앙이 발발한 날 나는 19살이었거든….”

정신은 멍했지만 한편으로는 납득이 갔다.

“그래서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동생이라서요?”

“어쩐지 내가 보살핌을 받는 입장이었던 것 같더라니.”

“길드장님께서 보살핌받는 입장이었다고요…?”

“챙겨주는 게 너무 익숙해 보였어.”

그리고 더더욱 숨이 무거워졌다.

“…아, 어떻게 하지.”

그즈음의 서서희는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당시에 그는,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세상은 더더욱 미쳐 있었다. 믿을 건 그들 소수의 친구 몇몇뿐이었고 운 좋게 좋은 능력을 갖췄어도 그 때문에 오히려 힘들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었다.

그럴 때 나를, 우리를 돌봐주었던 연상의 어른이란다.

“그런 사람을 잊어서 진짜 어떻게 하냐.”

“…길드장님.”

“뭘 어떻게 돌봐 줬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참았던 죄책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 사람을 대가로 뭘 얻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애초에 왜 죽었던 걸까?

“…….”

“…….”

그제야 온전히 숨이 막혔다.

“…꼴사나운 모습이네, 그렇지? 방금까지만 해도 좋은 친구를 되찾은 것 같아서 기뻤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축 처졌잖아. 이래서야 강은성 씨한테도 미안한 일이야.”

“…길드장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날도 있으셔야죠. 혹시 위협이 될 존재일까 걱정되어 만류했던 거지 그렇게 좋은 인연이라면 제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머뭇거리던 강은성이 물었다.

“조만간 다시 방문을 요청해 볼까요?”

“아니, 그 사람도 바쁠 텐데. 나 좋자고 그럴 수는 없어.”

“선물을 들고 올 때의 표정을 보니 서지오 헌터 역시 오늘의 방문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귀가하실 때도, 잘 드셔주셔서 기뻤다는 듯한… 얼굴이셨고요.”

“우리 이기적으로 굴지 말자.”

“…제가 주제넘게 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상관의 마음을 풀어주자고 바쁜 사람을 부를 수는 없었다. 그건 과한 이기심이었다. 강은성도 그걸 알면서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역시 서서희가 그걸 허락할 리가 없었다.

“협업 요청이나 방문 요청이 오면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려하는 정도는 어떠실까요. 절대 수집상이나 다른 곳에 엄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라면 나야 감사한 일이지.”

얼굴을 쓸어내린 서서희가 허탈하게 웃었다.

“와… 진짜 나 갱년기인가?”

“그런 탱탱한 얼굴로 갱년기를 말씀하시다니….”

“갑자기 감정이 휙휙 날뛰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의 상관이 안타까웠다.

“…길드장님도 사람이신데요.”

너무 강한 사람은, 사람인 티도 낼 수 없었다. 그게 이 세상을 유지하는 대신 바쳐야 할 대가였다. 영원의 상징이라는 소수의 강자들이 바치는 대가 말이다.

강은성이 내심 생각했다.

‘이렇게 된 이상 정말 좋은 인연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군.’

강은성은 서지오 헌터가 제 상관을 자주 만나 주었으면 했다. 믿을 사람 몇 없는 그가 이렇게까지 예외를 두는 이는 적었고, 그중에서도 마음의 빚이 있는 자이지 않은가.

‘수집상이랑은 부대낄 일이 거의 없는데, 이거 참….’

비사벌 때문에 괜히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길드끼리 가까운 사이였다면 협업할 일도 많았을 것이고, 두 사람이 자주 만날 기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 그걸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

그래도 서서희가 안심하고 웃는 날이 많아졌으면 했다.

그의 아늑한 그늘 아래에 살며 너무 큰 이기심인 걸까.

* * *

“……?”

이번에는 두부를 만들던 지오가 고개를 들었다.

“어디서 내 학생 땅 파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 그게 들려? 귀 좋네?”

“두부 곧 다 만들어 갑니다.”

“손두부 진짜 오랜만이다, 엄청 기대돼.”

“묵은지도 잘 익었더라고요. 솥뚜껑에 삼겹살 구워서 같이 먹으면 극락이죠, 기대하십시오.”

“안 그래도 이미 기대하고 있었어. 이거 절경이다, 그치.”

지오와 유성운, 그리고 주현은 초상화 안에서 두부 파티를 준비 중이었다.

“…….”

“지오 씨, 무슨 생각 하세요?”

“밥 먹일 생각….”

“아, 늘 하던 생각이네요.”

“그렇죠.”

어디선가 땅 파고 있을 듯한 제자의 생각에 지오가 내심 결론을 내렸다.

'...하긴 한 번으로는 배가 안 차겠지?'

그게 다 배가 안 불러서 그런 거다.

'돼지가 되어라 얍.'

지오는 각오가 되어 있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82)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83)

283

제283화

지오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다.

“서서희 헌터님.”

“아, 서지오 헌터님.”

그는 이후로 유스티티아에 총 21번을 더 방문했다.

“매번 이렇게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말이다.

“이쯤 되면 헌터님이 유스티티아 길드원이신 것 같네요.”

“아직 배가 고프신 것 같아서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저의 어디를 보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 눈을 피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지만, 서지오 헌터의 친화력은 무시무시했다. 그는 한 달도 안 되어 유스티티아의 모든 길드원과 친해졌다.

말 그대로 ‘모든’ 길드원과 말이다.

“서지오 헌터님?”

“오랜만입니다, 강은성 헌터님. 도시락을 싸 왔습니다.”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처음에는 ‘대체 뭐 하는 인간이지’ 하며 거리를 두던 강은성도 다를 바가 없었다. 자연스럽게 제 몫의 도시락을 받아 홀연히 사라지는 부길드장의 모습에, 서서희가 어색하게 웃었다.

“이제는 막지도 않네.”

“위험성 검사는 1층에서 하고 왔습니다.”

“제가 길드장인데 그 소식도 들었죠, 물론. 그렇지만 이러다 어느 날 서지오 헌터님께서 도시락에 독을 풀면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못 하고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믿어주시는 만큼 더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야겠군요.”

서서희가 픽 웃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서 참 다행이지.’

서지오 헌터는 늘 조용히 방문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필수적인 보안 점검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처음엔 난감해하던 유스티티아의 길드원들도 덕분에 평안을 되찾은 상황이었다.

보통은 그런 과정에서 ‘불쾌하다’, 혹은 ‘무례하다’라고 느끼는 헌터도 많았다. 푸대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지오 헌터는 잦은 방문을 하면서도 그런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인간이 아닌데도.’

서서희가 옅은 미소를 유지했다.

“…언제나 도시락을 싸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조금 곤란할 지경인데요, 곧 돼지가 될지도 몰라요. 영양 균형을 잘 맞춰주시는 건지 소화는 잘되지만….”

“하지만 아직 배가 고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렇게 말한 주제에 막상 도시락 뚜껑을 열면 이야기가 달라졌다.

“떡갈비네요.”

“잣을 넣은 떡갈비입니다.”

“제가 떡갈비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아시고.”

“서서희 헌터님에 대해 꽤 많은 것을 아는 편이죠.”

“냄새는 또 왜 이렇게 좋아….”

이번 메뉴는 떡갈비와 키조개관자구이, 그리고 각종 반찬이었다. 하얀 쌀밥은 알이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로 알알이 살아있어 그 식감이 황홀했다.

아마 솥 밥인 것 같았는데 얼마 씹지도 않아 금방 고소하고 단맛이 올라왔다. 항상 양을 넉넉하게 넣어주어서 매번 좀 덜 먹어보려고 하는데….

“…….”

서서희는 포기하고 미식으로부터의 폭력을 받아들였다.

‘훈련 시간을 늘리면 되지.’

그래, 그럼 되는 것이다.

“…맛있네요.”

“그렇지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먹을 것 앞에서는 자존심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하긴 밥상 앞에서 자존심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기는 한데, 하….”

“운동하시면 됩니다.”

“맞는 말씀이죠.”

조금 허탈할 뿐이었다.

'내 자제력은 고작 이 정도였군.'

미식을 즐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서지오 헌터의 충격적인 손맛 앞에서는 전부 무용했다. 제 입맛을 얼마나 잘 알고 조화로운 균형의 식단을 짜는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았다.

'강은성 씨 사정도 비슷해 보이고.'

참 복스럽게 잘 먹는단 말이야.

'오늘도 저쪽은 서양식이네, 느끼해 보여.'

강은성은 본인의 비서 좌석으로 돌아가 도시락과 한바탕하고 있었다. 한 일주일 전부터 저 상태였다. 선호하는 식단에 대해 물어본 서지오 헌터가 강은성의 몫까지 챙긴 덕분이었다.

벌써 반쯤 비운 도시락에 서서희가 어색하게 웃었다.

"매번 이렇게 도시락 챙겨주시는 게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 즐거움을 뺏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지, 나 이거 기시감이 느껴지는데... 진짜 뭘까...."

말년에 손주 챙기는 즐거움을 느끼는 노인분들 같았다.

"혹시 올해로 연세가?"

"중요한가요?"

"그건 아니죠."

사실상 실질적인 나이를 따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상대였다. 서서희는 빠르게 납득하고 마저 도시락을 비웠다. 작은 반찬 칸에 쌓여 있는 토마토 장아찌가 입맛을 돋웠다.

매실의 향이 진하게 느껴지면서도 알싸한 알코올이 제 존재만 알리고 깔끔하게 사라진다. 한번 상큼해진 입안은 또다시 기름진 고기와 쫄깃한 해산물을 요구했다.

"......."

서서희는 못내 생각했다.

'팔아줬으면 좋겠다.'

반찬집 차리실 생각 없으려나.

"...번거롭지 않으시다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정말 괜찮을지는 모르겠네요."

그가 가볍게 으쓱였다.

서서희도 근원과 신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다. 지구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한몫했다고 알려진 그가 모를 리 없는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다.

"......."

잠시 고민하던 그가 입을 열었다.

"서지오 헌터님께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행동하시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서지오 헌터'가 근원의 존재임을 서서희도 알고, 서지오도 알았다. 그럼에도 직접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다. 인간인 척 보이길 원하는 근원의 존재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며칠 동안 느꼈다. 이 존재에겐 그런 '규칙'이 없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을 포용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확신이라 하기도 신뢰라고 하기도 어려운 감정에 힘입어 서서희가 말했다.

“반대로 저에게 피해가 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도 알고요. 다만, 뭐랄까....”

“그럼에도 제가 걱정이 되십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 질문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역시 아는 척한다고 떨어지는 불이익은 없었다. 서서희는 가볍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음, 대가가 부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베푸는 것에 비해 돌려받는 게 없으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아주 드물게 퍼주기만 해도 되는 신비가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그렇게 보이기만 할 뿐, 실질적으로는 주고받는 게 분명히 존재했다. 신비로운 존재에게 있어 균형은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받는 만큼 서지오 헌터님도 받는 게 있을 것이다. 그도 아니라면 미래에 받을 예정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사전 예고도 없이 그런 대가를 받아 가는 것은 서지오 헌터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인데....’

그래서 걱정되고, 그 이상으로 그저 궁금했다.

“제게 무엇을 받아 가시는 겁니까?”

“서서희 헌터님께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제 주위에서 받아 가고 계시는 걸까요?”

“아뇨, 제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

이건 놀라운 이야기였다.

“...그게 가능한 일이었던가요?”

“제가 도시락을 싸드리고 있으니 당연히 가능하죠.”

“아니, 그런 질문이 아니라... 맞는 말이긴 한데....”

“아하,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내내 서서희가 먹는 것만 바라보던 서지오가 웃으며 말했다.

“이전에 열심히 일한 대가로 친구에게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분석해서 물어보고 싶은 문장이네요. 열심히 일한 대가요? 친구? 좋은 선물?”

“덕분에 저는 걱정 없이 도시락을 싸드릴 수 있었습니다. 도시락의 용기 위에 찍혀 있는 도장이 보이십니까?”

“아, 네. 도시락을 가져오셨을 때마다 봤던 문양이네요.”

“그 문양을 만든 게 이 스탬프입니다.”

서지오 헌터의 손에는 어느새 도장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언제부터 들고 있었던 거지?’

그가 알아차리지 못하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감상을 넣어둔 채 서서희가 도장을 응시했다. 왁스 정도나 겨우 누를 수 있을 것 같은 무해한 형태. 대리석과 비슷한 광석으로 만들어진 듯 투명하다는 게 특이하다면 특이한 점이었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 탁자에 스탬프를 두며 서지오 헌터가 물었다.

“스킬을 써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제 전문 분야는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서서희는 눈을 깜박였다.

보상: 인장

짧고 간단한 해설이었다.

“…시스템 보상으로 받은 인장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받은 이후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읽어낼 수가 없네요.”

“그런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영원의 상징 중 신비와 가장 동떨어진 것이 바로 그였다.

그다음으로는 협회장인 단해라, 그다음으로는 또 다른 길드장인 정해운이었다. 특히 정해운은 근원과 연관된 작업을 많이 하는 만큼 이런 신비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다.

“음….”

서서희가 머쓱하게 웃었다.

“허락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는 읽어내기가 어렵군요.”

“같은 시야를 공유했으면 했는데 아쉽군요.”

“그렇다면 제게 서지오 헌터님의 시야를 조금이나마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야 물론입니다, 서서희 씨의 부탁이니까요.”

보상: 인장_“자비와 조율”

“…인장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자비와 조율, 이라고 되어 있군요.”

작은 기둥을 쥐어 대가를 치르라

“대가를 치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서서희가 변함없이 웃고 있는 서지오 헌터를 보았다.

“제가 치러야 할 대가를 서지오 헌터님께서 치르고 계신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금 놀랐습니다, 거기까지 읽으실 줄은 몰랐어요.”

“서지오 헌터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뜻일까요?”

“제 친구가 장난을 친 것 같습니다.”

“이제야 서지오 헌터님께서 말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시스템이었네요.”

눈앞의 인연은 상상 이상으로 근원에 가까운 존재인 모양이었다.

“…….”

시스템과 엮인 망령이라.

‘아, 역시….’

혹은 정말로.

문득 서서희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계속해서 드는 가정에 조금 정신이 없었다.

그가 애써 웃었다. 그리고 참 다행히도, 웃는 것 하나는 자신 있었다.

“…제가 이런 걸 읽어내고 어떻게 마음 편히 밥을 먹겠어요, 서지오 헌터님. 이 도시락을 싸 오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무엇인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미 모든 대가를 치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미 모든 대가를 치렀다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난해한 이야기였다.

“그럼 대가를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어떻게 알죠?”

“내가 내어주어야 할 것이 있을 텐데 저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죠. 그럼에도 오늘처럼 도시락을 싸 왔고요. 그러니 이미 대가가 치러진 게 아니겠습니까?”

한때 인간이었던 존재가 미소 지었다.

“꼭 깊이 알아야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크게 뒨통 당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치러진 대가가 아니라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이라면, 특히나 서지오 헌터님 같은 분들은… 타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살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법이죠.”

“그러니 세상을 아름답게 보겠다? 멋지네요.”

이 이상 캐물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읽어내기 어려운 사람이다.’

서지오는 정말로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집착도 없었다.

‘정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는 대가의 존재를 알아챈 것 그 이상 깊은 관심도, 흥미도 없었다. 눈에 담고 뇌로 복기할 가치가 없으니 그대로 흘려보낸다. 그렇기에 당사자가 아닌 서서희도 알 수 없었다.

‘이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일까?’

왜인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지오의 살아생전에도 절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겠지. 마땅한 근거도 없이 서서희는 그렇게 생각하며 웃었다.

“제가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데요.”

“서서희 헌터님은 부모가 밥을 차려주면 민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제는 부모님까지 가나요? 세상에나….”

대체 얼마나 신세를 졌던 건지 모르겠다.

결국 서서희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제가 무엇을 빚졌죠?”

“너희가 나와 함께 놀아주었지.”

“아, 그런….”

무뚝뚝한 음성.

“…….”

순간 세상이 조용해진 듯했다.

고개를 들어 서지오를 보니, 표정이라 부르기 힘든 차분한 낯이 보였다. 어딘가 서늘하고 음울했으나 아예 오만하게 느껴질 정도로 응시해 오는 시선이 올곧았다.

문득 그것이 ‘우리’가 아는 얼굴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난 좋았어.”

미소라 부르기 힘들 정도로 눈이 가늘게 내리떠진다.

“재밌었고.”

“…서지오 헌터님?”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느새 익숙한 미소가 그려져 있었다.

“난 언제나 여기에 있었어요.”

“…….”

하지만 그러면서도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서서희가 익히 아는 미소인데도 그랬다. 결코 살갑다고 할 수 없을 방금 전의 얼굴이 다시 한번 보고 싶어졌다.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미약한 충동이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의 호의를 받아 주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가장 기쁘니까요?”

“잘 아시는군요, 역시 서서희 헌터님이십니다.”

“예전처럼… 저를 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정말로요.”

“잊은 것 같지만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말입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우리 모두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조금 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죠.”

서서희는 남은 밥을 마저 먹었다.

“여전히… 따듯하네요.”

“태양의 힘이 듬뿍 담긴 용기에 담아 왔으니까요.”

“수집상의 사람들이 서지오 헌터님을 갤러리에 가둬두려고 안달이 나 있던데, 왜 그랬던 건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저라도 감금해 뒀을 것 같아서요.”

“다들 참 재밌는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정말로 어딘가에 잡혀가시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호의가 너무 헤프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정말 명쾌한 논리네요.”

당해낼 수가 없었다.

“제가 서지오 헌터님을 뭐라고 부르면 좋으시겠습니까?”

“지금처럼 부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도시락을 싸주시는데 엄연히 특별 취급을 해드려야죠.”

“그게 서서희 헌터님께서 떠올린 대가라면야….”

죽은 사람이 의견을 물었다.

“선생님은 어떨까요?”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쉽네.’

부모와 같은 선생님이라.

즐거운 시간이었을 텐데, 여전히 기억나질 않았다.

* * *

“…….”

뭔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납득하고 있는 것 같다만.

‘…재밌으니까 상관없겠지.’

지오의 궁극적 긍정 마인드는 오늘도 빛을 발했다.

대충 맥락은 비슷하게 이해한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야 당연했다. 과거의 진실 중 두어 개 틀린다고 세상 멸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지오가 내심 끄덕였다.

‘따란.’

비사벌에게 정식으로 입양 계획이 있냐고 물어봐야 할 듯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83)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83)"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84)

284

제284화

“아아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현이 극구 반대했다.

“대체 어째서 그런 생각을?”

“정확히 어디서 그런 격렬한 반응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무례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비사벌 길드장님께 입양된다는 발상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요.”

“그렇군요.”

지오가 유성운을 돌아보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성운 씨?”

“나는 가능한 한 너의 모든 것을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좀 힘들 것 같다, 지오야. 온갖 재해와 시련을 겪어 온 나로서도 참을 수 없는 한계라는 게 있어.”

“이렇게까지 반응하실 줄 몰랐습니다.”

오랜만의 복도 회의에서 지오는 친구들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저를 비사벌 길드장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과 실제로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 그 경우 너와 길드장님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근원의 존재에게 있어 ‘명분’이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명분은 즉 이야기. 신비가 직접 인정한 ‘가족’에게 영향이 가지 않을 수는 없었다. 신비 그 자신도 말이다.

“길드장님은 지금도 충분히 인류에게 부담스러운 분이셔. 이 이상 그분이 진화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모골이 송연해져. 난... 나는 정말 반대야.”

“적극적인 의견 표명에 감사드립니다.”

“아니, 나야말로 일 치기 전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어서 정말 감사하네. 네가 소리 소문 없이 일을 진행한 뒤에 이 사태

를 알렸으면 우린 꼼짝도 못 하고 그 비극을 봐야 했을 거야….”

“저도 반은 농담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은 진담이었다는 거지? 괜찮아, 나도 알아.”

지오는 아닌 척 취향이 독특할 때가 많았다.

“정원사이자 큐레이터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긴 한데, 음. 우리 중 가장 일반인에 가까운 주현 씨의 생각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걸?”

“유성운 씨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유성운 씨처럼 객관적인 위험에 대해서 말린 것이 아니에요,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변화는 늘 그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가 걱정하는 건 따로 있었다.

“비사벌 길드장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가족이 아닙니다.”

“아, 그건 나도 인정해. 우리 길드장님께서는 본인 인생을 너무 즐기시지.”

유성운이 끄덕였다.

“길드장님은 가족을 만들 생각이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셨어. 그 본인이 너무 약해서 가족을 지킬 자신이 없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 가족에 대한 책임과 예의를 다할 자신이 없다는 이유가 더 클 거야.”

가족에 시간을 쏟을 바에는 작품을 한 번 더 보는 사람이었다.

“본인도 알고 계시는 거지, 작품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작품을 선택할 거라는 사실을. 하지만 길드장님이 그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은 아니거든.”

“어떤 의미에서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더더욱 지오 씨가 비사벌 길드장님의 호적 아래로 들어가는 걸 보고 넘기기가 힘들고요. 무엇보다 길드장님께서….”

머뭇거리던 주현이 말했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내가 반대한 이유 중에 그게 가장 컸어.”

주현과 유성운이 질린 표정을 지었다. 은근히 떠도는 ‘서지오 헌터 비사벌 아들설’에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정식으로 호적에 오른다면 얼마나 더 소란스러워지겠는가?

“아니 물론, 우리 길드장님의 호적이 유출될 일은 절대 없거든? 나는 새도 떨어트리는 길드장님 본인의 권력도 권력이지만 애초에 대재앙 이전의 기록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세상이니까. 게다가 길드장님 연세 정도 되는 사람의 호적이면 뭘 보여줘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말이 길어지는 걸 보니 그래도 제법 걱정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떤 방향으로든 길드장님 본인이 터트린다면 말이 달라질 테니까. 아아,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진짜 호적이 드러날 일도 없는데 굳이 정식으로 이름을 올려야 하겠냐는 이야기였어.”

“그것도 그렇죠.”

어색하게 웃은 주현이 이어 말했다.

“저도 비사벌 길드장님께서 선을 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점은 그 한도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기는 분이라는 부분이에요.”

“지오 너는 그런 점에서 좀 불안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야. 선을 넘지 않고, 너도 재밌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동참해 줄 것 같아서. 지구는 그러지 않아도 이미 위태로워.”

“비사벌 길드장님께서 지오 씨를 ‘가족이라는 이름의 작품’으로 볼 거라는 점도 조금 걸려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감상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제대로 된 관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길드장님의 평판을 위해서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 아까도 말했지만 공공연한 소문과 공식적인 인정은 전혀 다른 법이라서. 우리 길드 이미지도 생각을 좀 해달라는 부탁인 셈이야.”

둘의 이야기를 듣던 초상화가 말했다.

“다들 필사적이셔서 재밌습니다.”

“그래, 네가 즐거우면 됐다.”

“…무례한 발언 죄송합니다.”

그런 지오의 말에 주현이 물었다.

“최근에 조절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맞습니다. 요즘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조심하려고 하는데 저도 쉽지가 않네요.”

“음… 이대로면 사회에서 생활하시는 데 불편한 일이 잦을 겁니다. 지오 씨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또 다른 ‘지오’를 쓰고 있지 않다는 건 알지만,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현의 말에 유성운이 내심 생각했다.

‘사람이 참 한결같이 용감하네.’

이쯤 되면 경이로웠다.

근원의 눈이 결정한 사항이다. 그걸 번복하라고 종용하다니 주현도 제정신은 아니었다. 물론 이 친절한 초상화가 화를 내거나 재앙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정도라는 게 있지 않던가.

그리고 늘 그렇듯 초상화는 그 말을 무던히 넘겼다.

“정리가 될 때까지 당분간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주현 씨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니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지오 씨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주현도 그저 그렇게 넘어갔다. 그의 역할은 지오의 생활과 선택을 돕는 것이지 지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오가 성인조차 되지 못한 어린아이도 아니고 말이다.

초상화가 끄덕였다.

“입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왜 그런 말씀을 꺼내셨던 걸까요? 이전에도 비사벌 길드장님의 아들 역할을 즐기고 계셨던 것 같긴 했지만, 그렇다고 공식적인 인증이 필요하다 느끼시진 않았잖아요.”

“서서희 헌터님께서 저를 비사벌 길드장님의 아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예전에도 그러지 않았던가요…?”

“이제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가 턱을 쓸었다.

“내가 서서희 학생의 선생님이었다는 것도 알아요. 대재앙 이전의 인연인지, 이후의 인연인지는 아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지만… 일단 거기까지는요.”

“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신 겁니까? 그냥 넘어갈 것처럼 구시더니.”

“사실과는 조금 달라요, 서서희 씨는 저를 비사벌 길드장님의 아들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민망하지 않도록 실제 있는 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 과연 민망해할까 싶지만….”

그보다는 좀 더 무거운 감정이 아닐까 싶었다. 서서희 헌터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말이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언젠가는 온전한 진실을 알려주실 생각 같은데, 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시려는 겁니까? 서서희 헌터나 다른 학생들이 직접 진실을 알아낼 때까지 기다리시려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초상화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일단 재밌습니다.”

“정확히 어떤 점이?”

“일종의 역할놀이가?”

“…….”

이내 주현이 웃었다.

“…그렇군요!”

“제 말을 조금 더 들어보세요.”

지오가 변명처럼 덧붙였다.

“나는 그 친구들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성격들이 매우 달라지기는 했지만, 내가 어른이고 그 친구들이 피보호자였던 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요?”

“그보다는 지금의 관계가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그때의 그 친구들은 나를 너무 완벽한 존재로 봤어요.”

“솔직히 그건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말을 잘못했군요. 그 애들이 나를 너무 받들어 모셨던 게 조금 불편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작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요.”

“…받들어 모셨다고요?”

주현이 당황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네요. 영원의 상징이 누군가를 그렇게까지 대했다는 게, 뭔가 조금 낯설어서….”

“왜 그렇게 된 거야? 지금도 선생님은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직업이지만, 네가 말하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유성운의 질문에 잠시 고민하던 지오가 대답했다.

“…그 애들에게 도움을 줄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줬길래?”

“어리다고 해서 아프거나 힘든 일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자세히 물어볼 만한 일은 아니겠지만….”

어깨를 으쓱인 유성운이 이어 물었다.

“그런 반응들이 부담스러워서 싫었던 거야?”

“싫다고 할 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초상화가 고개를 저었다.

“그저 그 애들이 나를 너무 이상적인 선생님으로 생각했던 것뿐이니까요. 날 좋게 생각해 주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상으로 저를 대단하게 여기는 건 민망한 일이죠.”

“대체 너 선생님으로서 어떤 이미지였던 거야.”

“아무튼 그뿐입니다. 아마 종종 도움을 준 적이 있고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결과가 모두 좋았으니 일종의 환상이라도 생긴 거겠죠. 허상이었던 만큼 결국 저 하나 사라진다고 큰 타격은 없었을 거예요.”

“오.”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화내려나.’

유성운은 자제했지만 주현은 참지 않았다.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난 가끔 주현 씨의 용기에 놀라.”

“아, 아니... 그냥 말하는 거에 무슨 용기가 필요해요.”

“조만간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있으면 연락 줘, 신전에 도움을 요청해 볼게.”

“진짜 미치겠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대충 유성운을 구박하고 넘긴 주현이 다시 지오를 보았다.

“저는 대재앙 이전의 선생과 학생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지오 씨의 말대로 그렇게 대단한 관계는 아니었죠. 배움 이외의 무언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이 공경을 넘어 받들어 모셨다면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을 거예요. 지오 씨가 그 학생들에게요. 아마 일반적인 선생과 학생의 관계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의존이나 집착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런 관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초상화가 끄덕였다.

“결국 모두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의 역할이란 결국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잘 어우러지고 단단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니까요.”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이상적인 선생님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사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주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예, 학교에서 지정해 준 역할만으로는 그 아이들의 결핍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선생님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좁지 않았죠.”

“...뭔가 조금 슬프네요.”

제 일이 아닌데도 서운했다.

“‘받들어 모셨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주현이라도 그랬을 것이다.

대재앙 이전의 세상이 정확히 어땠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시대이건 고통과 비난은 존재했고, 젊고 어린 나이에 흔들리는 자신을 지탱해 줄 든든한 기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내가 피곤한 삶을 살아왔던 만큼 괜한 보상 심리인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지대를 잃고 싶지 않은 건 당연했다.

“하지만 지오 씨는 그런 학생들의 반응이 불편했던 건가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애들이 나를 좀 더 거리낌 없이 대해줬으면 했어요. 선생님이라는 입장에서 바라기

에는 참 양심 없는 생각이었겠지만.”

“수직적인 관계에서 편함을 바라기는 어렵죠.”

“다행히도 그 애들은 그때의 나를 잊었습니다.”

지오는 늘 그렇듯 차분했다.

“지금 다시 관계를 쌓는다면 수직보다는 수평에 가깝겠죠. 그러니 나는 서서희 헌터가 깊은 진실에 대해서 오랫동안 모르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나를 잊었잖아요. 감정보다 인지의 영역이에요.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하겠죠.”

“지오 씨에게도요?”

“물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지금의 관계가 좋아요. 내가 도시락 하나를 주면 그저 맛있게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역시 사람과 세상은 단순할 때 가장 행복하게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오가 다독이듯 말했다.

“그야 나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나름대로 즐거운 길을 찾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즐거움을 무시하고 헐뜯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고개를 느리게 끄덕이는 주현에, 유성운이 목을 쓸며 말했다.

“너도 당황스러웠겠네. 그 정도로 너를 좋아하는 학생들이었잖아. 세상에 네 이름이 퍼졌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었던 것을, 아마 너는 단순히 ‘온전히 독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독립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 의존적이거나 집착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잃기 싫을 정도로 좋은 관계였던 건 맞지만 누구 하나 사라진다고 망가질 상태들도 아니었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했었는데?”

“유성운 씨의 말이 맞습니다, 아무 일 없이 다들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하나 사라진다고 망가질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알아서 잘 살 학생들이었다.

“설마 아예 잊어버린 줄은 몰랐습니다만….”

초상화가 무뚝뚝하게 덧붙였다.

“평범한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가르치던 학생이 지구의 구원자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어떤 기분일까.”

“고생하고 있구나 싶었죠.”

“너다운 감상이네.”

목에서 손을 뗀 유성운이 초상화를 응시했다.

“…….”

“왜 그러십니까?”

“…너 말투가 좀 풀어지지 않았어?”

“오.”

초상화가 끄덕였다.

“학생들 이야기를 할 때면 이렇게 되더군요.”

“잘됐네, 또 도시락 언제 드리러 갈 예정이라고?”

부디 인간 사회에 다시 잘 적응해 주길 바랄 뿐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85)

285

제285화

복도 회의를 마친 후.

“꾸우?”

곰인형이 지오에게 질문했다.

“…제 학생들이, 인어들과 같은 상황이냐는 질문이십니까?”

“꾸꾸꾸.”

“아뇨, 전혀 다릅니다.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지오반니가 곰인형을 제 무릎에 앉히며 웃었다.

“아버지께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셨을 줄은 몰랐네요.”

“꾸우….”

“정말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약한 학생들이 아니니까요. 여러모로 우리 인어 제자들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많은 친구들이죠.”

“꾸?”

“인어 제자들은 저 없이 못 살았잖습니까?”

상쾌한 지오반니의 발언에 곰인형은 말문을 잃었다.

“…….”

“…알고도 그렇게 죽었냐고요? 음, 글쎄요?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설마 바다로 행성 잡아먹고 나다닐 정도일 줄은 몰랐죠. 그건 정말 몰랐습니다.”

“꾸우욱….”

“물론 미숙한 이별이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림자 속의 인어가 옅게 일렁였다.

“하지만 제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흐린 인영이 이내 침잠한다.

“그러니 다양한 방면에서 지구의 학생들과 인어 제자들의 경우는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그 애들은 나에게 그리 의존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사라진다고 삶에 큰 지장도 없었죠.”

“꾸꾸?”

“예, 인어들보다 훨씬 성숙한 학생들이었습니다. 홀로 일어날 준비가 완료된 학생들이었고, 저는 단지 약간의 발판을 만들어준 것뿐이었습니다.”

“꾸….”

“그야 인어 제자들과 저 역시 그렇게 성숙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어는 워낙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나를 부모처럼 여기고 있었고, 거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러니 집착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인어들은 좀….”

“…….”

“…징그럽도록 집요한 면이 있어서.”

“꾸꾸꾸.”

철퍽—!

그림자 속 인어 꼬리가 바닥을 강타했다.

“저런, 화가 났나 본데.”

지오반니가 놀리듯이 웃었다.

“그러게 착하게 좀 살 것이지.”

철퍽철퍽철퍽—!!

“누굴 닮아 이렇게 성질이 확고할까.”

일단 지오반니 자신은 아닌 것 같았다.

“아무튼 아버지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인어 제자들이 저를 생각했던 만큼 큰 마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물론 우리는 사이가 참 좋았지만… 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친구들 정도는 아니었어요.”

정도 이상의 애정은 집착과 소유욕으로 변한다. 지오반니는 인어들의 환경과 특성 탓에 어쩔 수 없었을지 모르겠다만, 서지오 선생님은 그런 걸 두고 봐줄 성격이 못 되었다.

그의 학생들은 언제나 독립적인 개체로서 훌륭했다.

“꾸우?”

네가 원하기 때문에?

“…어쩌면요?”

“꾸, 꾸꾸.”

“이걸 제 탓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나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은 있어요. 나는 선생님이니 더더욱 내 학생들이 건강하지 못한 길로 빠져드는 걸 막아야 했고요.”

“꾸?”

“인어들은 환경과 특성이 달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학생들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경우가 달랐어요. 그 둘을 동일 선상에 둘 수는 없을 겁니다.”

애초에 ‘지오반니’와 ‘서지오’는 아예 다른 인물이었다. 비슷한 운명과 형상의 궤를 가졌을 뿐, 완전한 타인. 그런 그들이 가르치는 이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니 지구의 제자들이 기억을 되찾는다고 해도 세상을 뒤집어엎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 애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사랑하고 있고, 저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성숙한 어른들이었다.

“다만 이렇게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는 이유는 그 친구들과 제 입장 때문입니다. 특히 내 입장 때문이기도 하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관계가 좋아요. 지금 그 애들의 태도는 더 이상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아요.”

“꾸꾸우?”

“아,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서지오가 참담해했다.

“다들 나를 너무 대단한 인간으로 생각했었죠.”

“꾸우….”

“그때의 저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표정근이 굳어서 잘 못 웃고 심지어는 옷도 못 입는 패션 테러리스트였을 뿐이었어요. 애들이 저를 저승사자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꾸.”

“예, 잘 어울리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녁에 돌아다니는 학생들과 마주쳐서 비명까지 들었던 기억도 나요. 역시 그때도 인상이 무서워서….”

아무래도 서지오의 인상은 무서운 편이라 학생들이 쉽게 보지 못했었다.

“내가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쿠키도 주고 감자도 주고 고구마도 주고 옥수수도 줬는데… 어려서 그런 건지 학생들은 유독 저를 대단한 뭔가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꾸?”

“아니, 세상에 고구마 주는 저승사자가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솔직히 ‘슬픈 사연이 있는 마피아 보스 후계자설’까지 나왔을 때는 저도 좀 즐겼지만, 확실히 저도 웃긴 했지만, 그거랑 별개로 조금 부담스러웠단 말입니다.”

“…….”

곰인형이 알쏭달쏭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부담스러웠다고요.”

정말?

“아 정말로.”

천지신명의 명예를 걸고 말할 수 있었다. 지나가던 천지신명께서는 좀 억울해하시겠지만 그만큼 지오가 진심이라는 의미였다. 사람은 뭔가를 좋아하면서 싫어할 수도 있는 법이니까.

“…하긴 선생님과 학생이 친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친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저는 어른이며 강자였고, 학생들은 아이이며 약자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거리감은 좀….”

눈을 반짝이며 저를 향해 무언가를 기대하던 학생들이 떠올랐다. 그 무뚝뚝했던 서서희라고 해도 다를 바 없었다. 그들은 서지오를 나서기만 하면 뭐든 해결해 주는 완전무결한 무언가로 여겼던 것 같았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선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의존이나 집착은 털어내면 되지만, 그런 단순한 기대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본인도 재밌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으나 그것과 별개였다. 그때의 관계도 좋았지만 지금의 관계도 버리기 아쉬울 만큼

좋을 뿐이다.

“…그러니 이런 제 불만과 지구의 명운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꾸우우?”

“이번에는 정말로 믿으셔도 됩니다, 나쁜 일 할 학생들이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러운 이유는 그저 제가 이 평등한 관계를 더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니까요. 일종의 역할놀이입니다.”

“꾸꾸꾸….”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니 이 아들도 좋습니다.”

지오반니가 씩 웃었다.

“걱정하실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심각한 일 따위는 없으니 말이다.

* * *

작업실의 지오는 스탬프를 만지작거렸다.

“…….”

“애앩.”

“딸 왔니.”

“앵.”

“어서 오렴.”

다나는 자연스럽게 지오의 무릎 위에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창문가에 앉아 있던 허니는 포르르 날아와 지오의 후드로 쏙 들어갔다. 어느 쪽이든 귀엽기만 한 광경이었다.

푸짐한 다나를 쓰다듬으며 지오가 스탬프를 응시했다.

“이 친구는 어디까지 진화하려나.”

‘지오반니’의 퀘스트를 해결하고 이 인장을 받았다. ‘아르지오’의 퀘스트를 해결한 뒤에는 그 인장이 업그레이드되었다.

처음에는 편지 정도만 대가를 받지 않았던 스탬프는 이제 크고 작은 음식과 용기 정도는 쉽게 면제해 주었다.

‘하지만 정말로 대가가 제외된 건 아닐 거다.’

어쩌면 지오가 잊은 기억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었다.

‘지금의 내가 바치지 않은 대가는 어디에서 지불되고 있는 것일까?’

과거? 아니면 미래?

“어느 쪽이든 괜찮지만.”

“꾸르륵?”

“과거의 대가라면 이미 바친 대가이니 지금의 나와는 상관이 없고, 미래의 대가라면 지금의 나는 지불할 수 없으니 역시 상관이 없지. 당장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

“꿍….”

“하지만 이걸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궁금해.”

더 큰 선물을 주고 싶었다.

“…….”

새하얀 캔버스를 본 지오가 입술을 열었다.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나질 않네.”

“꾸르르륵.”

“역시 당분간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꾸르.”

“오랜만에 학교라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지오가 고개를 기울였다.

“마음에 들어.”

평화로운 하루였다.

* * *

오랜만에 찾은 학교는 여전히 폐허였다.

“…….”

탁.

구두가 바닥에 닿았다.

“…유령이 나올 것 같아.”

하지만 약간의 자부심도 있었다.

“이게 바로 귀신의 집 학교 버전이지.”

“꿍꿍꿍꿍꿍.”

“허니, 이곳이 바로 아빠가 근무했던 직장이란다.”

“꾸르륵….”

“하긴 네 취향은 아니려나.”

다나가 살았던 ‘보석의 수맥’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여전히 잿가루가 가득하고, 그 위로 먼지가 쌓여 있었다. 화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학교는 을씨년스러운 공기가 감돌았다.

그가 있는 곳은 미술실에 붙어 있는 창고였다.

“오랜만에 둘러볼까.”

아직 오후 5시임에도 학교는 어두웠다. 그동안 나무도 무성하게 자라서인지 그림자가 학교를 가득 덮고 있었다. 자세히 둘러보지 않으면 이곳에 건물이 있는 줄도 모를 것이었다.

‘꼭 비밀 기지 같네.’

어릴 적 숲에 하나씩 만들어 두었던 비밀 기지가 떠올랐다. 지금처럼 위험한 장소에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작은 공간 하나로도 어릴 적 서지오는 즐겁게 노닐 수 있었다.

‘그러다 멧돼지와 마주치기도 했지….’

좋은 추억이었다.

“이젠 이곳에도 멧돼지가 있을지 몰라.”

“꿍…?”

“원래도 외진 곳에 지어진 학교였는데, 대재앙을 겪은 이후로는 정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렸네. 그때 나를 찾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

“꾸르륵.”

“하긴 나도 처음 정신을 차렸을 때는 사람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는 데 정말 오래 걸렸지. 이제는 멧돼지가 아니라 몬스터가 살고 있으려나.”

그런 것치고는 이곳에 머물 때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말이다.

“내 무서운 인상이 몬스터들에게도 효과가 있었던 걸 수도 있고.”

나름 타당한 추측이었다.

“깨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하도 정신이 없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할 생각도 못 했는데. 초상화 내의 일만으로도 벅찼으니까. 대체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다 부서진 문 너머로 향하자 책상이 몇 개 보였다. 잔뜩 그을려 책상의 형태만 간신히 남아 있는 나무 조각에 가까웠다. 그것을 가볍게 쓸어본 지오가 다시 발을 옮겼다.

텅 빈 복도가 나왔다.

“…….”

이쯤에서 귀신 한 번 튀어나와 주는 것이 예의 아닐까.

‘허하군.’

프로 정신 없는 귀신들 같으니.

아예 건물을 뚫고 자라난 나무도 보였다. 학교의 안과 밖을 거의 덮은 담쟁이덩굴도 보였고, 포근한 날에 피어난 꽃들도 보였다. 하지만 싱그럽기보다는 징그럽다는 인상을 주었다.

지오가 턱을 살살 쓸었다.

“…혹시 이 친구들도 자기주장을 하나?”

약간의 기시감을 느끼며 지오가 학교를 둘러보았다.

‘분위기가 험악해서 그런지 뭘 봐도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여기에서 영화를 찍는다면 스토리는 몰라도 연출로는 100점을 찍을 거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소재야.’

전형적인 ‘오래전 버려진 학교’의 모습이었다.

‘여기 오면 무언가 기억나는 게 있을까 했는데.’

지오가 멈춰 서서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생각보다 떠오르는 건 없네.”

“꾸르륵?”

“내가 기억하는 게 전부고….”

아무리 떠올려보려 해도 그의 마지막 기억은 ‘불을 피해 뒷걸음질 치다 그림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 정도였다. ‘무언가 잊었나?’ 싶은 생각은 들지만 그게 전부였다.

“불이 어디서부터 타올랐더라.”

불의 시작은 1층이었다. 1층 가정실. 사용 중이던 오븐에 담배가 들어가 큰불이 났다. 식용유 같은 기름도 있는 장소였던 탓인지 불은 빠르게 번져 외부로의 탈출을 거의 막았다.

서지오는 그렇게 되기 전에 학생들을 전부 내보냈다. 혹시 남은 학생이 있나 둘러보았지만 그뿐이었다. 다만 시간이 늦어 탈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술 창고로 향했다.

“커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서 실패했고.”

그다음 창고로 도망쳐 그림이 되었다.

“…….”

“…….”

“아.”

그러고 보니.

“담배가 들어갔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지?”

드디어 구멍을 찾았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86)

286

제286화

“그거 기억나? 담배?”

“오븐에 들어갔던 담배 말하는 거야?”

“그래, 그거.”

서서희의 말에 단해라가 고개를 기울였다.

“의외네, 그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건 처음 아닌가?”

“오랜만에 추억을 더듬고 있어서.”

“그건 추억이라고 할 만한 게 아니었지.”

“그럼 그냥 옛날 기억이라고 해볼까?”

그즈음 한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 정해운.”

서서희가 중년의 얼굴을 한 남성을 불렀다.

“좀 늦었네?”

“시발, 요즘 정원들이 좀 개같은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니? 응? 내가 너 말하기 전에 30번 생각하고 말하랬잖아.”

“이 미친놈은 왜 오자마자 난리인지 모르겠네.”

“네가 정원사를 해보시든가 그럼. 하여간 승질머리 드러운 새끼들, 말도 더럽게 안 처먹어요. 아무튼 그래서 뭔 얘기 하고 있었는데.”

“담배 이야기.”

“…? 낮술 했냐?”

자리에 앉은 정해운이 묘한 낯으로 서서희를 보았다.

“오랜만에 밥 먹으러 모여서 왜 밥맛 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요즘 옛날 생각들 떠올려보는 중이라서.”

“그러다 약속한 것들 틀어지는 수가 있어. 네가 수습할 거 아니면 그냥 잊은 대로 살아라, 좀.”

“오랜만에 잊어버린 인연을 만나게 되어서 그런가 감성적으로 변하네.”

“…….”

정해운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물었다.

“서지오 헌터?”

“그래, 그 사람.”

“도시락 받아먹고 있다면서.”

“맛있더라.”

“미친 새끼.”

서서희가 아련하게 웃으며 끄덕였다.

“네 신도들 앞에서도 꼭 그렇게 말해.”

“신도가 아니라 고객님, 인마. 우리 귀하신 투자자님들을 그렇게 부르지 마라.”

정해운이 가운뎃손가락을 들고서는 단해라를 보았다.

“은혜는?”

“오늘 좀 늦는다네.”

“그럴 만하지, 요즘 나라 상태가 어지간히 개판이냐.”

“어머, 협회장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저의가 뭐지?”

“나 자본금 조금만 더 주면 잘 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는 서류로 대화할까?”

“친구라는 것들이 죄다 정이 없어요, 우리 은혜밖에 없다 진짜.”

“사귀든가.”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정해운의 양손 가운뎃손가락이 올라갔다.

“차라리 날 죽이시지.”

“해운아, 언제 철들래?”

“알 바임?”

끌끌 혀를 찬 정해운이 그제야 손을 내리고 팔짱을 꼈다.

“너뿐만 아니라 해라나 강은성 씨도 그러려니 하는 걸 보니 서지오 헌터라는 인간이 썩 괜찮은 건 알겠어. 알겠는데, 우리 그러다가 정말로 약속 어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자고.”

“그래서 더 되짚고 있는 것도 있었어.”

“…….”

정해운이 서서희를 돌아보았다.

“…설마 그 사람이야?”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했지.”

“우리가 사람 한 명에 대한 기억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고작 사람 한 명으로 그게 가능해?”

그들은 오래전, ‘영원의 약속’이라 불리는 짓을 저질렀다. 지구의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그들 셋이 인간으로서의 운명을 빼앗기고 불로불사가 된 것은 그 약속의 대가이기도 했으나 딸려 오는 부작용이기도 했다.

그러니 ‘영원의 약속’의 대가로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억이 있을 텐데, 한번 잊은 기억은 떠올릴 수 없었다. 그들은 한동안 대가가 된 기억의 정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한 적이 있었다.

“29살이라면서.”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지.”

“시발 놈들, 나 빼고 지들끼리 이미 이야기 끝냈나 보네. 죽었다 살아났다는 건 또 뭔 소리야? 나 정원 순회하는 동안 너희끼리 아주 지지고 볶고 다 했지? 응?”

“우리 이 똑같은 얼굴들 오래 보고 살아야 할 텐데 제발 덜 지긋지긋해지자....”

서서희가 몹시 피곤해했다.

“나는 너도 보고를 받았을 줄 알았는데.”

“요즘 엔간히 시끄러운 게 아니라 그런 거 보고받을 시간도 없었어.”

“그럼 나중에 은혜랑 같이 설명 듣고, 아무튼 내가 추측하기로 서지오 헌터님은 대재앙 직전이나 직후의 인연이야. 그리고 우리의 선생님이었다는 말도 들었지.”

“선생님? 시발 이거 또 사기꾼 새끼가 이빨 턴 거 아니냐?”

정해운이 질색했다.

“나는 내 인생에 좋은 선생님이라고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필 선생님? 우리가 학생인 시절에? 선생과 학생에, 어른과 미성년자에, 보호자에 피보호자. 이야, 아주 제대로네.”

당시 그들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존재였다. 그렇기에 정해운은 오히려 강하게 의심이 들었다. 이 세상이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친절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

“너무 이상적이잖아, 말도 안 돼.”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 납득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다 또 통수 맞으려고.”

“솔직히 이번에도 내가 속은 거라면 그냥 속아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돌겠네....”

한숨을 푹 내쉰 정해운이 술잔을 들었다.

“다들 안 들고 뭐 했냐.”

“은혜도 안 왔는데 벌써 술잔을 드네?”

“걘 차피 술도 못 마셔요, 간이 찌질해서.”

“말 참 곱게 한다, 이 자식아.”

“은혜 걔는 어째 날이 갈수록 알코올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아무래도 C급 헌터니까....”

서서희가 어깨를 으쓱이며 술병을 빼앗았다. 그러고는 정해운과 단해라의 잔을 채워주었다.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라

지만 자작은 좀 그랬다.

“아무튼 시기상으로는 그럴싸해.”

“검은망토의 사도이기도 하고.”

단해라도 반은 긍정하겠다는 듯이 끄덕였다.

“그러니 해운이 너도 너무 날 세우지 마.”

“너희가 안 세우니 나라도 세워야지.”

“알잖아, 나는 기억에 빈 구멍이 너무 많아. 근래가 되어서야 조금씩 채워 넣는 중이지. 솔직히 말하자면 난 이제 너의 ‘기준’이 되어줄 수 없어.”

“…아니, 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니 서희랑 친하게 지내라고.”

빙글 웃으며 단해라가 술잔을 들었다.

“짠, 할까?”

“…좋지.”

셋이 술잔을 가볍게 부딪쳤다.

“은혜 서운하겠다.”

“걘 어차피 오렌지주스 마시잖아.”

“아니야, 관리한다고 케일주스 마시지.”

“시발, 거기서 거기 아니냐. 존나 웃기네.”

정해운이 짜증 내듯이 술잔을 흔들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좋은 날에 담배 이야기가 왜 나와, 서서희. 이 새끼는 정말 한결같이 분위기 파악을 못 해요. 한 50년 더 살면 그때 나아질래?”

“아니,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그 재수 없는 새끼들 떠올려서 뭐할 건데.”

“재수 없기는 했지.”

서서희가 픽 웃었다.

“돌아가고 있는 오븐을 굳이 굳이 열어서 담배를 던지다니, 지금 생각해도 미친놈들이었어….”

“덕분에 너희랑 은혜가 굽던 쿠키는 담배와 함께 재가 되어버렸고.”

단해라가 으쓱였다.

“역시 서운하네, 그거 나한테 주려고 만들던 거라면서.”

“그때 네가 한창 힘들어했을 시기니까.”

“역시 서희가 참 착하단 말이야.”

“애초에 만들자고 했던 건 은혜였는데 뭐.”

서서희가 허탈하게 웃었다.

“오븐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치. 정신 차리고 보니까 불바다더라.”

“그랬지. 식용유도 있고, 가스도 있는 가정실이라 불이 더 빠르게 퍼진 것도 있었을 거야. 탈출하는 데에도 애를 먹었다고 했고.”

“그걸 어떻게 탈출했던 걸까?”

“…….”

“알잖아, 가정실 쪽 뒷문 잠겨 있던 거.”

학교 1층 출입구는 총 2개. 뒷문과 정문. 그중 가정실과 가장 가까운 뒷문은 항상 잠겨 있는 데다 온갖 짐으로 가득했다. 학생들이 그쪽으로 몰래 나가 땡땡이를 친다고 막아뒀다 했던가.

그리고 정문과는 거리가 멀었다. 창문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오래된 학교의 창문은 뻑뻑해서 잘 열리지도 않았고, 창가에 놓여 있던 식용유에 불이 붙어 퍼져 나갔었다.

“해운이는 다리도 부러져 있었고….”

“네가 나 업고 나왔잖아.”

“그냥, 속도가 느렸을 것 같아서.”

서서희가 으쓱였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오븐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나나 은혜도 크게 다쳤고, 거기 같이 있었던 그놈들이 우리를 밀치고 나간 덕분에… 오븐 파편에도 찔리고. 아프고. 연기는 매캐하고.”

학교 관리가 영 안 된 탓이었다. 평소에 제때제때 관리를 하고 수리를 해뒀으면 그렇게까지 될 일은 없지 않았을까. 최소한 불이 퍼지는 속도라도 느렸겠지.

그리고 당시의 그들은 그런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혹시 누군가 도와주지는 않았을까 싶었어.”

“누가.”

정해운이 고개를 모로 기울였다.

“서지오 헌터님께서?”

“글쎄?”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는 개뿔이….”

정해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 봤자 1층이었어, 정문이 멀어봤자 얼마나 멀다고. 불이 좀 빠르다고 해도 우리가 튀는 게 더 빨랐겠지. 불났다고 소리치고 다니느라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중얼거리던 정해운이 이내 단해라를 보았다.

“…네가 그때 어디 있었지?”

“음악실.”

“어떻게 나왔더라?”

“걸어서 나왔던 것 같은데.”

“‘같은데’라고 한 거야?”

“음, 어디 보자… 그때는 나도 정신이 없어서.”

그다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당시, 그리고 지금도 그들에게 중요한 건 학교를 나와서 견뎌내야 했던 온갖 재앙들이었다. 머저리 같은 놈들이 저지른 학교의 화재가 중요하진 않았다.

단지 사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살아남은 과거를 떠올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맞아, 걸어서 나왔어. 정문으로 나왔을 때 너희가 나를 반겨줬던 기억이 나.”

“…창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정문으로 나왔다고? 잠깐만, 그랬던가?”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학교 최상층인 음악실에 있던 애가 어떻게 걸어서 정문으로 나와?”

“네 말을 듣고 보니 그렇긴 하네.”

단해라가 고개를 기울였다.

“하지만 나는 그날 각성했잖아. 그 영향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 스킬도 쓸 수 있고 신체 능력도 좋아졌으니 화재 현장 속에서도 유유히 걸어 나올 수 있다고 말이야.”

“스킬… 맞아, 그때 스킬을 썼다고 했었어. 그래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무언가 찝찝하다는 듯 정해운이 눈살을 찌푸렸다.

“…우리가 어떻게 친해졌더라?”

“…잘 기억나지 않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서지오 헌터와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맞아, 일반적인 친구들도 대부분은 오래전 첫 만남을 기억하진 못하거든.”

“…….”

정해운이 한숨을 내쉬었다.

“…야, 은혜 언제 오냐.”

“어머, 물어보려고?”

“걔 아니면 기억하는 사람이 없잖아.”

“약속에 관련된 인물이라면 차라리 물어보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시발 그렇겠지. 그냥 한번 말해봤어, 진짜 개같네.”

그들의 ‘약속’은 대가를 되돌려 받는 순간 없던 일이 되어버린다. 서지오 헌터가 정말 ‘영원의 약속’과 관련된 인물이라면 차라리 떠올리지 못하는 게 나았다.

그리고 이놈의 대가란, 한 번 바친다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다. 계기가 있다면 다시 떠오르기도 했다. 여기서 ‘계기’를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들 동기 중 한 명인 ‘차은혜’였다.

“…….”

내키는 대로 행동하기엔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웠다.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선생님은.”

“…언제 봤다고 시발 선생님이래.”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

“이제 사람도 아니라면서, 그거 몬스터 아니야?”

“정원사가 그렇게 일자무식한 소리를 해도 되나?”

“새끼 이제 혀 좀 놀리네, 무서워졌어.”

뱉듯이 웃으며 정해운이 술을 털어 마셨다.

“뭔 술이 이렇게 밍밍하냐.”

“밍밍한 건 네 인성이고, 정해운.”

“시발 새끼야.”

정해운이 혀를 차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래, 그냥 모르는 척 살자. 무슨 의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말해줄 생각 없는 것 같고.”

그놈의 ‘서지오 헌터’가 이름을 알린 게 벌써 얼마 전인가. 서지오 본인이 알리려 한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건 그들 짐의 무게를 존중해 준다는 뜻일 터였다.

“차은혜 걔가 연기를 좀 잘하긴 하지만, 지금 그 새끼 혼자 다 기억하고 있잖아. 만약 정말로 중요한 기억이라 은혜가 입이나 표정 관리 못 하면 정말 지구가 끝장나는 수가 있어.”

“은혜가 그렇게까지 노련하지 못한 친구는 아닌데.”

“노련한 거랑 별개로 부담은 그대로겠지. 우리야 기억 못 하니 장땡이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진짜 좋은 사람이었다면? 은혜한테도 못 할 짓 하는 거 아니냐?”

한 박자 늦게 정해운이 덧붙였다.

“…서지오 헌터 본인에게도.”

게다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지 않았는가.

“이거 고인 모욕이야.”

“별 헛소리를 다 한다.”

“무덤 삽 들고 파는 기분 든다고, 시발. 찝찝해.”

이대로면 서지오는 그렇게 죽고, 잊혀서, 지구의 거름이 된 사람이 이제는 귀신이 되어서 돌아온 게 된다. 정해운은 순식간에 피곤해졌다. 속이 울렁거려서 토하고 싶은 기분이었다.

인간으로 죽지 못하고 근원에 엮이어 망령이 되었다지 않은가.

‘개같아.’

기분이 더러웠다.

“…….”

“너는 누구한테 미안해질 때마다 그렇게 인상이 더러워지더라.”

“…기분이 더러우니까 인상도 더러워지지. 내 겉과 속이 이렇게 똑같다는 증거다, 그래서 뭐 어쩔래.”

“너 그거 자기방어야, 치졸한 놈아.”

“시발 새끼야, 나한테 할애할 신경이 없지? 그치?”

“한국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너까지 감당해야겠어?”

“넌… 너는 정원사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해….”

정해운이 얼굴을 쓸어내렸다.

“아, 진짜 이런 기분 싫다고.”

"누군 좋아서 이렇게 사나."

"우리는 후배 양성 언제 되냐?"

"그게 벌써 되겠어? 100년은 더 기다려야지."

"돌겠다 증말."

지구가 하루빨리 안정되어야 그들도 그들의 인생을 살 것이었다. 잊어버린 이들을 향한 자책과 애도도 그제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최소한 지금은 아니었다.

그런 그들 사이로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다.

"어, 씨 뭐야…."

"……."

"너네 벌써 술 까고 있어?"

대한민국의 바지 사장이라 불리는 대통령, 차은혜였다.

"분위기 이거 뭐야, 왜 이래. 누구 죽었나?"

"죽기는 했지."

"좋아, 내가 맞혀본다. 바실이? 복슬이? 도롱이? 청산가리? 라그나로크 3세?"

"아니, 우리 길드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고양이인가? 아닌데, 지금 유스티티아 주인님들 죄다 창창한데."

"몇 년 전에 죽은 사람 이야기였어, 그냥."

"그런다고 분위기가 이래?"

차은혜가 어색한 표정으로 착석했다.

"정해운 얼굴 꼬라지는 또 왜 저러고."

그런 그녀를 단해라가 불렀다.

"은혜야."

"응?"

"궁금한 게 있는데."

단해라가 술잔을 채워주며 물었다.

"서지오 씨라고 아니?"

"응? 응… 알지."

차은혜가 술잔을 들며 으쓱였다.

"유명한 헌터잖아."

그런 그녀의 손을 보며, 단해라가 웃었다.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

"내가 봐도 그래."

"서희 식사도 챙겨 준다던데, 부럽더라."

"아하...."

"은혜야."

"......."

"역시 괜히 물었니?"

차은혜가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평화로운 술자리였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86)"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87)

287

제287화

차은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일명 한국의 바지사장."

불명예스러운 호칭이었지만 이제 다들 그러려니 하고 산다.

여기엔 다 이유가 있었다. 대재앙 이후, 대통령이며 정치인의 목이 허구한 날 날아가지 않았던가. 날아간 목만큼이나 한국도 위태로웠다. 영원의 상징은 협조를 구하고 상의를 반복한 끝에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인 차은혜를 대통령 자리에 앉혔다.

그런 그녀에겐 놀라운 이력이 존재했다.

"아이돌 대통령으로도 유명하지."

"아이돌?"

"정확히는 연습생이었다던가."

그만큼 비판은 많았지만 차차 사그라들었다. 본인의 행정 능력도 뛰어난 데다 영원의 상징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지 않던가. 게다가 민심을 사로잡는 실력도 훌륭했다.

"발로 뛰는 대통령으로도 이름이 높고. 전대 정치인들과 다르게 대부분의 행정은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기도 해. 홍보용 자원봉사 말고 직접 나서서 지방으로도 출장을 가고...."

C급 헌터라 위험한 곳에 갈 때는 헌터들을 잔뜩 데려간다. 일자리 창출에 좋았다. 현장으로 나다닌다고 사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라 시민들은 좋아했다. 어딜 가나 성실한 정치인은 신망받게 되는 법이었다.

"무엇보다 영원의 상징은 서로를 감시하는 존재거든. 그런 존재가 보증하고, 또 지켜보는 사람이잖아. 허튼짓할 확률이 아예 없으니 그만큼 신뢰가 간다는 거겠지."

"놀랍습니다."

"나도 그래. 설마 그분도 네가 말하는 학생 중 한 사람일 줄 몰랐다, 지오야."

"그 당돌하던 조선의 왕이...."

"조선의 왕?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충격적이군요."

지오는 처음 유성운과 경복궁에 들렀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 지오는 아이돌 지망생이었던 차은혜를 추억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설마하니 대통령이 되었을 줄이야.

영원의 상징이니 하는 것보다 훨씬 충격이 컸다.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조선의 왕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니까? 전생에 왕이셨대?”

“예.”

“내가 물어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긍정의 답변이 나오길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경복궁을 보며 눈물을 짜내더니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걸 보니 전생에 나는 조선의 왕이었을 거다’라고 헛소리를 해주었던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대통령님이셨고? 와, 미치겠네. 내가 이런 사실을 알아도 되는 걸까?”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은 얼기설기 돌아가고 있군요.”

눈치 빠르고 뇌가 팽팽하긴 해도 정치할 성향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돌 연습생까지 써야 했을 정도였다면 정말 상황이 안 좋았던 모양이었다. 지오는 제 학생들이 상당히 안쓰러워졌다.

“밥은 먹고들 다니는지….”

“잘 드시고들 계실 걸, 서서희 헌터님께는 직접 도시락도 싸줬으면서.”

“역시 이 세상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언젠가 이런 말이 나올 줄 알고 계약서를 준비했지. 자, 지오야, 여기 지구 개발 건에 대한 계약서가 있어. 아직 미완성본이지만 샘플이라도 한번 읽어주고 의견을 말해주면 길드장님과 협의를 통해 수집상에서 최대한….”

“농담이었습니다.”

지오가 억울해했다.

“저는 농담도 못 하나요.”

“아, 농담이었어? 아무래도 너는 좀 자제를 해야 하는 편이지.”

유성운이 웃으며 서류를 다시 코트 안에 고이 넣었다. 억울함과 별개로 매우 흥미로운 광경이었다. 사직서도 아니고 계약서를 저렇게 넣어 다닐 수도 있는 거구나.

‘요즘 직장인들은 다 저런가.’

그런 지오의 생각을 모르는 유성운이 어깨를 으쓱였다.

“그리고 또 뭘 물어봤더라?”

“영원의 상징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실상 대통령님을 제외하면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없어. 그나마 서서희 헌터님께서 친화력이 좋은 편이라고는 하는데, 그분도 솔직히 부길드장을 제외하면 실제로 끼고 도는 사람은 없을걸.”

“난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네가 키웠… 그래, 네가 키웠겠지.”

유성운이 끄덕였다.

“영원의 상징 중에서도 서서희 헌터님과 단해라 협회장은 만나봤을 것이고. 이제 네가 직접 보지 못한 학생은 정해운 헌터님이려나? 아직 만나지 않은 거 맞지?”

“굳이 보러 갈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역시 묘하게 냉정하단 말이야. 음, 정해운 헌터님은 최근에 많이 바쁘실 거야. 사실 요즘 정원사라면 다들 바쁘지. 특히 정해운 정원사는 여기저기 관여하는 곳이 많아서....”

“정원사?”

“...몰랐나?”

알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을 녀석이 설마 이것까지 모르도록 둘 줄은 몰랐다. 인간 흉내에 너무 심취한 것 같아 조금 흥미로웠지만, 유성운은 티 내지 않고 이내 제 본분을 다했다.

“맞아, 정원사이셔. 하지만 다른 정원사들과는 조금 다르시지. 지구 정원사의 대선배 격인 분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랄까, 정원과 드잡이질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해야 하나?”

“드잡이질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놈이 아직도 쌈박질을 하고 다녀?

“그 성질머리가 어디 가지 않았나 봅니다.”

“...성질머리, 라고 할 만큼 성격이 거친 분은 아닌 걸로 아는데...?”

“놀랍군요, 나이를 먹었다고 내숭이라도 떨고 있는 건가.”

“.......”

그러고 보니 언젠가 지오는 정해운 길드장을 ‘불량아’라고 표현한 바가 있었다. 그에 대해 잠시 떠올리던 유성운이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못 들은 걸로 하자.”

유성운은 깔끔하게 방금 전 대화를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정해운 정원사는 지구인으로서 처음 근원과 접촉한 분이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따로 맡고 있는 정원이 없는 데도 여러 정원을 방문하는 게 가능하시거든.”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어...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사유 재산 지역에 쳐들어가 멋대로 정원을 꾸미고 유유히 사라지는 것 정도? 가끔 집주인이랑 시비도 걸린다던데, 여태까지 살아 계신 걸 보면 뭐....”

“정원은 보통 어떤 인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까탈스러운 주인님이시지.”

일반적인 정원사는 정원의 비위를 맞춰야 했다. 정원을 대하는 방법이야 다양하다만 정원사가 기본적으로 을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해운은 달랐다. 그는 정원을 휘두르는 법을 알았다.

“정해운 헌터님께도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한지 이맘때쯤 되면 피곤해하신다고는 해.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정원사가 잘 관리하지 못하는 정원이나 내팽개쳐진 정원을 모두 관리하셔서....”

“매일같이 야근이겠군요.”

“꾸준하신 분이지. 꿈에서도 자지 못하고 일하신다고 들었어. 존재하는 근원의 맥에 비해 정원사의 수가 터무니없이 적은데도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그분이라고 하던가.”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지구의 시스템이 일부 책임져 주고 있다고 들었어. 나도 자세한 사정은 몰라, 이쪽으로는 워낙 아는 사람만 아는 지식이 많고... 감추거나 묻는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보니.”

유성운이 으쓱였다.

“지구상에서 근원의 존재를 가장 잘 아는 건 정해운 헌터님이시겠지. 그나마 다행인 건 후배들에게 참 친절하고 말을 자

주 붙여주셔서 모르는 게 생기면 물어볼 수 있다는 것 정도이려나.”

“잠깐.”

지오가 조용히 식겁했다.

“후배에게 친절하신가요?”

“응? 친절하시지? 나도 메일로는 몇 번 답을 받아봤을 정도니까….”

“말을 자주 붙여 주신다고요?”

“어어, 너 계속 슬픈 진실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나는 평생 친절하고 유능하신 대선배님으로 기억할 거야. 진짜 그러지 마. 과거에야 불량아든 뭐였든 간에 지금은 대단한 정원사라고.”

“…이해했습니다.”

“엄청 안쓰럽다는 듯이 바라보네.”

얼굴에 검은 물감이 칠해진 초상화인데도 그 시선이 느껴졌다.

“아무튼… 영원의 상징과 연관된 사람들의 정보라면 이게 전부야. 그 본인들과 대통령님까지. 각자 맡고 있는 역할이 워낙 커서 그런지 타인과 이 이상 깊은 친분을 쌓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

유성운이 목을 쓸었다.

“아니면 주현 씨에게 물어보는 건 어때?”

“협회장님과 만난 적이 있으시죠.”

“그렇지, 또 정치력 좋은 사람이니까 나보다 알고 있는 게 많을 수도 있어.”

“아무래도 유성운 씨가 알려준 사람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지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좁고 깊은 관계도 좋죠.”

“아까까지만 해도 걱정하는 것 같더니.”

“그게 그 학생들의 최선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 이상은 지오의 욕심이었다.

“감히 동정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가치이고요.”

지오는 자주 타인을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생각하지만, 그게 좋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동정이란 대부분의 경우 아무렇지도 않게 타인의 최선을 흉보고 가치를 깎아내린다.

물론 세상 어딘가엔 정말 올바르고 순수한 가치의 동정도 있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지오는 그간 온 힘을 다해 이 모든 것을 쌓아왔을 제 학생들에게 그저 감사하기로 했다.

“많이 피곤해하겠지만, 그동안 열심히 살아와 준 것 같아 고맙습니다. 그런다고 좋아할 리는 없겠지만 칭찬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네요.”

“정말 좋은 보호자네.”

“일시적인 보호자였죠. 조건부 보호자였고. 다들 훌륭한 어른으로 자란 것 같아 기쁩니다. 조금 덜 훌륭했어도 좋았겠지만, 지금은 지금대로의 멋진 면들이 있을 테니까요.”

똑똑한 학생들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서지오에 대한 것을 추론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다고 이전의 기억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못내 그것에 감사하게 된다.

‘그런 기억들에 매몰될 학생들이 아닌 걸 알지만….’

서지오는 제 주제를 알았다. 그는 한때 학생들에게 단지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이었지 친구나 가족이 될 수는 없었다. 그를 만능열쇠로 아는 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의존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학생들이 너무 피곤한 상황이었다.

'…기억을 떠올린다고 해도 너무 미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는 완벽하지 않았다. 아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었다. 조금 무뚝뚝하고 할 줄 아는 게 많을 뿐인 평범한 사람이었다. 모든 것의 해답이 되고 싶진 않았다.

하긴 그 '약속'이 그렇게나 단단한 것이라면 떠올릴 수도 없을 것이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사이좋게 지내서 다행입니다."

"영원의 상징이 서로 싸우게 되면 이 나라는 무슨, 행성 폭발해. 그건 좀 너무하잖아."

"지구의 명운을 위해서라도 사이가 좋길 바랄 수밖에 없겠네요."

지오가 끄덕였다.

"최근에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 종종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 따로 이유라도 있나?"

"제가 잊은 것이 있는 것 같아 떠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무슨 무서운 소리지…?"

"괜찮습니다, 이게 나의 대가인 것 같아요."

시스템 보상으로 받았던 스탬프가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던 '대가' 말이다.

"난 여전히 그것을 떠올려내지 못했지만, 그 정체와 의의는 알아차렸습니다. 여러 번 심사숙고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잊고 지낸다 해서 위협이 될 일은 아닌 것 같더군요."

잊은 기억이란 아주 간단했다. 서지오는 그날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아무런 후회도 미련도 없었을 것이다. 그 자신이기 때문에 떠올려내지 못해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러니 그 기억 역시 대단하다 할 만한 것이 아닐 듯했다. 학교를 돌아다니며 몇 번이나 그날의 일을 추론해 보니, 그게 아주 당연하게 느껴졌다.

'그 애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렇기에 지금이 되었을 것이다.

"다시 생각해도,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네가 그렇다면야."

유성운이 늘 그렇듯 무던하게 웃었다.

"만약 사고 터트릴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 좀 주고."

"그럴 일이 생길 것 같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내가 꼭 딸기 사다 줄 테니까. 응?"

그렇게 둘은 훈훈한 약속을 마지막으로 헤어졌다.

* * *

그리고 며칠 뒤, 유성운은 편지를 받았다.

『강원도 폐교에 괴담이 생기면 곤란하신가요』

유성운은 그저 멍하니 서서 웃었다.

“.......”

“므앵.”

“어어, 다나야, 잠깐만.”

“믕망망....”

“먹지 마, 죽은 거 아니야.”

잠시 현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88)

288

제288화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했다.

원래 그가 자리하고 있던 곳이라서 그런 것일까. 지오는 자연과 하나 되어 있는 그의 폐교가 꽤 마음에 들었다. 귀신의 집 뺨칠 만큼 우중충하지만 그 이상으로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다.

귀신 들린 초상화는 결국 또 다른 살림을 차리기로 했다.

"조금 꾸며야겠어."

"꾸르륵."

"그래, 필요한 걸 몇 가지 더 생각해 보자."

그래서 지오는 침실도 하나 꾸렸다. 어느 날은 TV가 보고 싶어 고전적인 브라운관 TV도 설치했다. 밋밋한 TV보다 그리는 맛이 있었다. 전기 설치는 안 했지만 작동은 되더라. 미술실은 종종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부분 복구해 두었다.

학교 전체를 갈아엎은 건 당연히 아니었다. 그렇게까지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지오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만 가져다 두었다. 덕분에 학교가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폐교 내부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

학생도 교사도 없는 폐교에 무슨 인테리어가 필요하겠는가.

지오는 이것을 일종의 휴가로 받아들였다.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니 기분도 상쾌했다. 나무가 우거져 음산했지만 오히려 그늘이 져서 좋았다. 지오는 이 휴가를 만끽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했다.

"......?"

어느 날부터 기묘한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건 뭐지?"

그것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상호 작용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건드리면 특정한 반응을 보였다. 지오는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이 이 학교의 교복이라는 걸 알았다. 교사들이 입는 단정한 사복들도 여럿 있었다.

“아하.”

“꾸르르르르!”

“나도 방금 기억이 났어, 동화들이구나.”

“꾸르륵!”

“유성운 씨가 나에게 알려준 적이 있었지.”

처음 그와 경복궁에 갔을 때였다. 웬 투명한 그림자 같은 것이 한복을 입고 휘적거리는 것을 보았다. 하나같이 가면을 쓰고 있고, 다양한 옷차림에,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유성운은 그것을 ‘동화’라고 불렀다.

‘보통 사람이 없는 곳을 좋아한다고 하던가.’

잠시 의문도 들었다.

‘난 사람 취급 안 해주나?’

하지만 일단 사람이 한 명뿐인 폐교인 건 사실인지라 이해해 주기로 했다. 귀신 들린 초상화로 살기 위해서는 이해심이 넓어야 했다. 그리고 정체를 알았으니 더 이상 곤란하지도 않았다.

“친구가 많으면 좋지.”

‘동화’라고 불리는 근원의 자식. 마치 그림자가 옷과 가면을 이용해 사람 흉내를 내는 것 같은, 일종의 자연 현상. 살아 있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인간의 형상과 가까운 존재들.

‘인간처럼 사고하는 게 아니라 흔적을 흉내 내는 것뿐이라고 했다.’

유성운은 그들을 ‘겉모습을 꾸며내는 데 능숙하다’라고 말했다. 그게 ‘배운 것이 아닌 본질의 특성 자체의 결과’라고도 이야기했던 것 같다.

지오는 학교를 돌아다니는 그들을 관찰했다.

“익숙한 광경이네.”

“꾸륵?”

“한때 다들 이렇게 놀았지.”

종류야 어찌 되었든 동화는 모두 가면을 쓰고 있고, 그 너머에는 실체가 없다. 사고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 단순한 재현. 그들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끝나면 사라지게 된다.

그게 정말인지 학생과 교사를 흉내 내는 동화들은 태어나고 사라지길 반복했다. 마치 사람만 증발된 것처럼 입고 있던 옷과 가면이 스르륵 무너지고, 이내 그것마저 먼지가 되어 녹아내린다.

그리고 또다시 태어나지.

“…….”

지오는 아주 오랫동안 그 광경을 감상했다.

‘유성운 씨가 어째서 자연 현상이라고 말했는지 알 것 같네.’

같은 집단끼리는 엇비슷한 행동을 하는 그들은 꼭 군무를 추는 것 같았다. 경복궁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보았지만, 그보다는 훨씬 경쾌하고 발랄했다. 단지 한순간의 해석과 재현이었다.

‘연극 같기도 하고.’

문득 ‘동화’라는 이름을 잘 붙였다는 생각도 들었다.

“당분간 심심할 일은 없겠어.”

“꾸르르르르….”

“너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구나.”

“꾸륵.”

“그럴 수 있지.”

허니는 늘 그렇듯 제 아빠만 따라다녔다. 동화가 단순한 자연 현상임을 알고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았다. 도움이 되지도, 보석처럼 반짝이지도, 그렇다고 위협적이지도 않으니 인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일까.

오히려 흥미를 보인 것은 다나였다.

“…….”

“다나야, 재밌니?”

“앵.”

다나는 수조의 물고기를 보는 고양이처럼 굴었다.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동화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동공을 구분하기 힘든 보석 눈동자가 그들을 응시했다.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즐거워 보이니 흐뭇하네.’

그 이후로 지오는 다나도 꼭 함께 데려왔다. 곰인형 태양신은 우중충한 학교가 별로인지 거절했다. 지오는 개의치 않고 이 흥미진진한 폐교 휴가 생활을 지속했다.

그리고 또 다른 식구들이 생겨났다.

달그락.

“…….”

달그락, 달그락.

“…폴터가이스트?”

학교의 물건이 저 혼자 움직이거나 애먼 곳에서 기묘한 소음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귀신의 짓이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었다. 지오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일종의, 뭐랄까. 도깨비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그것을 ‘근원의 자식’이라 표현한다는 것도 떠올렸다.

“과연 그렇군.”

독특한 형체의 친구들도 모여들었다. 손가락만큼이나 작은 크기의 아이들, 봇짐을 진 채로 기웃거리는 노인, 유려한 선을 가진 해파리, 별인 척 반짝거리는 공중의 먼지 등등.

“…….”

“꿍.”

“내가 생각하기에도 아빠 탓인 것 같다.”

“꾸르르륵….”

“현실을 받아들이자.”

어쩔 수 없었다.

“친구가 많으면 좋지.”

그런 것이었다.

조용하던 폐교가 떠들썩해지니 다른 근원의 자식들도 하나둘 모여드는 것 같았다. 그들은 딱히 학교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쫓아낼 이유도 없어 지오는 더불어 살기로 했다.

사실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다.

“…….”

“…….”

“…야, 야.”

“…너도 봤지?”

“던전이 새로 생긴 건가?”

“씁, 위험해 보이는데….”

“둥지일 수도 있어.”

문제가 생긴 건, 헌터들이 그의 폐교를 목표로 삼고 나서부터였다.

“한번 들러나 볼까? 규모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고.”

“이 정도면 잠깐 확인만 하고 나올 수 있을 거야.”

괴담은 그들로부터 퍼지기 시작했다.

단언컨대 지오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다.

* * *

“…그래서 괴담이 퍼졌다고?”

갤러리 간이 의자에 앉은 유성운이 질문했다.

“폐교 바깥에 나타난 실루엣들을 보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근원의 자식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

“그들이 손님들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정말 어지간하면 조용히 있는 친구들이 어쩌다가….”

아니 근데 진짜 어쩌다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데?’

근원의 자식은 대체로 그 자신만의 삶을 살았다. 타인에게, 그것도 자신이 보이지 않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보통 인간이 섣불리 접근했다가 난리 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녀석들이 먼저 나서서 사고를 쳤다니.

‘…지오의 영향을 조금 받았을까?’

솔직히 정원사로서 혹하는 현상이기도 했다.

‘연구해 보고 싶지만 그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지.’

나중에 초대를 좀 해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았다. 정원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정보의 습득과 근원의 이해가 아니겠는가. 유성운은 나중을 기약하며 욕심을 참았다.

당장 중요한 건 큐레이터로서의 책임과 수습이었다.

“하지만 헌터 몇 명이 잠깐 들렀다 가는 것 정도로는 괴담이 생기기 힘들 거야.”

“처음 방문했던 헌터 외에도 여러 팀이 들렀다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번 도전하는 헌터도 있었고, 소문을 듣고 온 헌터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그런 끔찍한 일이?”

“제가 너무 섣부르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접근도 했어? 뭘 어떻게?”

“…….”

말을 정리하는 듯 고민하던 초상화가 대답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 * *

시간을 다시 돌려, 첫 헌터들이 방문했을 때였다.

“야, 여기….”

3인조 중 한 명이 머뭇거리다 물었다.

“너무 음산하지 않아?”

“쫄보 새끼.”

“아니,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나머지 한 명이 끄덕였다.

“하긴 던전화가 된 거면 이렇게까지 조용하긴 힘들 텐데.”

기본적으로 던전이며 몬스터는 조용하기가 힘들었다. 인간 이하의 지능을 가졌기에 소란을 참지 못하는 것이다. 본능이 앞서는 괴물들의 집합은 언제나 소란스럽기 마련이다.

“바깥에서 분명 뭐가 많이 보이지 않았던가?”

“난 솔직히 그것도 좀 소름 돋았어, 이렇게 어두운 폐교 안의 실루엣이 어떻게 보였는지도 모르겠고. 그거 어떤 형태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 우리 유인당한 거 아니야?”

“그것도 염두에 두긴 해야 할 것 같지만… 강원도까지 왔는데 바로 돌아가기는 아쉽지. 이렇게 외진 곳에 혹시나 둥지가 생긴 거라면 어떤 귀한 아이템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 시발, 존나 쫄려….”

분명 폐교 바깥에서 실루엣을 보았다. 인간과 비슷한 형상도 있었지만, 몬스터의 것들이 더 많았다. 굳이 던전화된 것이 아니더라도 몬스터끼리 모여 ‘둥지’를 이룰 때도 있었다.

그런 둥지에는 인간이 상상 못 할 귀한 물건들이 가득 있을 때도, 흔치 않게 있었다. 그야말로 뜯지 않은 복권. 대부분은 꽝이지만 드물게 한 번 터지면 정말 제대로 터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긴 던전이야, 둥지야?”

“시스템 알림 없는 걸 보면 그냥 둥지일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외진 곳까지 오니까 둥지도 보네, 나 둥지 온 거 처음인 거 알아? 개신기하다.”

“둥지는 통일된 규칙이 없어서 더 조심해야 해. 던전처럼 정해진 규칙 하나만 지킨다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변수가 많으니까 다들 주의하자.”

“나 그런 말 들었는데.”

한 헌터가 시시덕거리며 웃었다.

“지방의 둥지에는 유령들이 산다면서?”

“영혼이 실재하긴 하지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는 없어.”

“뭐, 그래도 영혼 볼 수 있다는 헌터들 말 들으면 그렇다던데. 유독 귀신이 많다고.”

“야, 디디 겁먹어, 적당히 해.”

그들은 차근차근 학교를 파악해 나갔다. 강원도씩이나 되는 지방까지 올 정도면 그 실력이 제법이라는 의미였다. 노련한 헌터들은 이따금 생기는 기이한 현상에도 침착하게 대처했다.

갑자기 귀에 울리는 학생들의 웃음소리라든가. 칠판에 수학 공식을 적어 내리는 분필이라든가. 카메라가 달려 교실을 그대로 비추는 커다란 모니터라든가….

“…….”

다만 대처를 한다고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닌지라.

“…왜 몬스터가 한 마리도 안 보이지?”

“우리가 바깥에서 보고 들어온 건 대체 뭔데.”

“뭔가 잘못됐어.”

헌터들은 위화감을 통해 위기감을 느꼈다.

“유인당한 게 맞아.”

그들은 확신했다.

“바깥에서 확인했던 몬스터의 수만 어림잡아도 30마리는 넘었어. 그런데도 이렇게 조용한 데다 실체 없는 기현상만 일어난다? 뻔하지, 그 실루엣은 미끼였던 거야. 어떤 몬스터의 소행인지는 몰라도 빠져나가는 게 맞아.”

경력 있는 헌터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자산은 그들의 몸이며 정신이었다. 귀한 아이템 찾자고 들어온 건 맞지만 그 대신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탈출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리더, 디디 사라졌어!”

“분명히 우리 중간에 끼어 있었잖아!”

“시발, 이게 대체 무슨…!”

차라리 실체가 있으면 나았다. 그럴싸한 공격이 닥쳐오면 혼란스러울 일도 없었다. 그러나 수많은 기현상은 눈에 보이는 것도, 만져지는 것도, 직접적인 타격도 없이 난장판을 만들었다.

“여기는 또 어디야…!”

“폐교잖아, 여긴 폐교라고. 이런 게 대체 왜 있는 건데.”

폐교는 공간이 이상하게 꼬여 있었다.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브라운관 TV도 보였고, 단정하게 꾸며진 침실이나 깨끗한 식기들도 있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게 폐교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이다.

너무나 기이했다.

“…….”

“…….”

꼭 사람이 아닌 존재가, 사람이 올 것을 알고, 사람의 관점을 흉내 내어 폐교를 꾸며놓은 듯한 모습. 그런 기이한 광경은 헌터들의 정신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겁이 많던 헌터가 기어코 일을 저질렀다.

“디디, 디디! 너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대.”

“…이게, 뭔데.”

“응? 여기에, 여기에 지금….”

“…….”

“…문을 열어 드렸는데.”

헌터가 고개를 갸웃했다.

“어디 갔지…?”

그의 뒤로 퍼져 있는 어둠에, 그 아득한 눈과 마주친다.

“제 이름은 서지오입니다.”

“…….”

“당신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이 궁금합니다.”

“…….”

“저와 대화하시겠습니까?”

헌터들은 정신을 잃었다.

* * *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 여러분의 자택이었다는 거군요.”

협회 연구원의 질문에 헌터 ‘디디’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네. 저는… 제가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스킬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으니 그렇게 변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죄, 죄송합니다. 제가 그, 그것에게, 서지오 헌터에게 그날 문을 열어 주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는데.”

“협회에서 이미 심각성을 인지하고 헌터들을 파견했습니다.”

연구원은 안심하라는 듯, 단정한 어조로 말했다.

“희생자가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헌터 디디의 기억은 상호 동의하에 지워졌다.

협회장의 지시였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88)"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89)

289

제289화

“…….”

서류를 보며 협회장, 단해라가 웃었다.

“그 학교에 서지오 헌터가 나타나다니.”

“…그러게, 해라야.”

그녀에게 불려 온 정해운이 물었다.

“정보는 통제하고 있는 게 맞지?”

“협회 내에서도 단속하고 있으니 이 이야기가 퍼져 나갈 일은 없어.”

“하,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진짜 개같네….”

그는 허탈하게 숨을 뱉었다.

“이래서야 정말 부정도 못 하게 생겼잖아.”

“부정은 원래부터 못 하고 있지 않았던가?”

단해라가 서류를 덮었다.

“서지오 헌터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옛 선생님이 맞아.”

그걸 언어로써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몰라야 하는 게 맞고. 다만 우리도 뇌가 있으니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을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에게 존나 좋은 선생님이 있었는데 죽었고, 그래서 그 기억을 포함한 무언가로 지구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는 잊은 채로 빌빌거리며 살아가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양반이 인간도 아닌 그림으로 부활하셨다고? 어때, 요약 잘하지?”

“그래, 잘하네. 정말 서지오 헌터에 관한 기억만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능했던 건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상 궁금했던 부분이 명쾌해진 것 같아서 기뻐.”

그렇게 말해도 전혀 기쁜 얼굴은 아니었다. 20대에서 노화가 멈춘 단해라의 얼굴은 언제나 기계와 같았다. 오밀조밀하고 단아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걸 보며 정해운이 물었다.

"...그거 기억나? 우리가 지구 시스템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날."

"약속으로 바쳤어."

"말해준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또 가져다 썼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인지 능력만으로도 알 수 있는 거니까."

"하여간 빡세게 굴기는."

그들도 처음에는 '영원의 약속'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에 대한 기억마저도 잊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다. 주변과의 괴리감을 통해서였다.

정해운이 중얼거렸다.

"이렇게 살다 좃될 줄 알았지."

"내 이야기하는 거야?"

"설마, 그럴 리가. 우리 이야기하는 거야."

그는 손님 소파에 늘어져서는 천장을 보았다.

"...이제야 우리가 '약속'에 대한 모든 걸 알게 된 건가?"

처음에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능력에서였다. 그다음은 더 이상 늙지 않는 서로의 모습에, 그다음은 죽어도 죽지 못하는 끔찍함에 현실을 알았다. 그들은 그렇게 차근차근 '영원의 약속'에 대한 진상을 파헤쳐 왔다.

단해라가 웃으며 말했다.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

"그렇지, 중요한 일이 아니기는 하지...."

결국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과 그 미래였다. 지나간 과거까지 되돌아보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앞만 보기 급급한데 미련이며 후회를 남길 시간 따윈 없다는 것이다.

"그런 것치고 빨리 알아낸 거야."

아마 '서지오'가 등장하지만 않았더라면 더 오래 몰랐을 수도 있었다. 그들이 '약속'에 대해 알고자 했던 것도 결국 '지구 시스템을 부지불식간에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니까.

그리고 '서지오'의 존재를 몰라도 지구 시스템을 위협하지 않을 정도는 알았다. 그러니 더 몰라도 되었을 것이다. 굳이 알아서 무엇을 하겠다고. 정해운은 그렇게 생각하며 창백한 조명을 응시했다.

"......"

눈이 아프지는 않았다.

"...목적이 뭘까?"

"서지오 헌터의 목적?"

"처음 등장한 건 작년이었어. 30년을 넘도록 조용히 있던 초상화가 대뜸 경매장에 실려 왔지. 그러고는 작품의 자유를 보장하는 신념의 수집상에 팔려 갔잖아."

"의도가 있었다고 보나?"

"우리 순진하게 굴지 말자. '서지오 헌터'가 정말 우리가 잊은 선생님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야. 최소한 인간은 아닐 것이고. 만약 당사자여도, 아니어도 위험은 남아 있지."

호기심 이상으로 의심이 불거진다.

“일단 당사자가 아니라고 쳐볼까? 그럼 정말 똑똑한 괴물인 셈이야.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존재를 혼자 추측하고 재구성해서 빈틈을 파고들고 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 경우 좋은 의도를 가졌을 거라는 말은 못 하겠어.”

그럼 당사자일 경우엔?

“당사자라고 해도 문제야. 그 사람이 인간이었을 적과 같은 존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우리만 해도 이렇게 변했어. 어떻게든 인간으로 남으려고 아득바득 굴어서 나온 결과가 지금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자연재해라고 부르지.”

곱게 말해 S급이고 영원의 상징일 뿐이었다.

“그런데, 얼씨구? 이제는 아주 초상화라고 하네? 유성운 정원사가 수집상 큐레이터로서 전담 중이라고 했으니 근원과 매우 가까운 존재일 것이고. 그렇지 않아?”

“단순히 그의 유능함 때문에 배치되었을 수도 있지. 다른 누구도 아닌 수집가가 직접 돈을 써서 데려온 존재고, 또 5층 갤러리의 작품이잖아. 주의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한 상황이었어.”

“너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 존재라고. 대체 그 존재가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아주 드물게, 인간이었다가 근원의 자식이 된 존재가 없지는 않지만….”

정해운이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 끝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

지구 최초의 정원사로서 하는 말이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악해. 그 자신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기적이야. 왜냐고? 보존과 발전에는 필수적으로 자원이 필요하고 인간 세상에 언제나 자원은 한정적이니 타인이 가질 수도 있었던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빼앗게 되거든…! 그런 인간의 특성이 반영된 근원의 자식? 와, 이거 정말 끔찍한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단해라가 그런 그에게 말했다.

“흥분했어.”

“…미안해.”

정해운이 제 중년의 얼굴에서 손을 떼어냈다.

“이 일을 하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건, 시발, 세상에 너희를 제외하면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다들 개같아. 인간이고 정원이고 근원의 자식이고 다 개같다고.”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휴가를 내지는 않는 거야? 요즘 정원사의 수가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너의 휴식을 보장할 수 없는 걸까?”

“그 삐약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원은 하나가 전부야. 많아봤자 둘인데 그마저도 희귀하지. 최근에 근원 쪽으로 이상이 생겼는지 죄다 들썩이는 탓에… 안 돼, 이거. 못 쉬어.”

“흐음, 그래.”

단해라가 끄덕였다.

“그 아저씨 얼굴은 언제까지 유지할 거고?”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 이렇게 살 거임.”

“철 좀 들어.”

“어쩌라고.”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

그게 과연 진짜 '걱정'일까.

피곤해서인지 생각이 모로 꼬인다. 단해라는 여러 감정을 잊고 기억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정해운의 친구였다. 그녀가 걱정하고 있다면 걱정하는 게 맞았다.

비꼴 필요는 없었다.

"…조만간에 쉬기는 해야겠네."

"내 말이 네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나 보구나."

"진짜 미안해."

"괜찮아, 그럴 필요 없어."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푹 한숨이 나왔다.

"어쩔 수 없어,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해. 이 정도 성의라도 보여야 그나마 이쪽을 친근하게 받아주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정해운은 직업 특성상 여러 사람을 만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너무 젊은 사람이면 신뢰가 없어 보이고, 노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위화감을 준다.

내면과 외면의 괴리에서 나오는 위화감은 주변 사람을 공포로 물들였다.

"그러니 나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고생하네."

"너도 인마."

쯧, 정해운이 혀를 차며 소파에 바로 앉았다.

"…'서지오 헌터'님께서 좋은 일 많이 해주고 있다는 건 알아. 들어보니 덕분에 세상살이가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더라고.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것도 많고, 자원봉사도 종종 나가고, 여기저기 문제 있으면 나서고."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지?"

"근원의 자식이 보이는 악의와 호의는 구분할 수 없어. 구분해서도 안 되고. 악의나 호의라는 건 전부 인간의 기준이니까. 근원에서 비롯된 존재는 모조리 시한폭탄이야. 터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겠고, 충격받으면 터지고, 잘못 처리해도 터져."

"그 안에 불발탄도 있을 수 있잖아."

"그걸 어떻게 살펴봐도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지. 불발탄의 기준이 뭔데? 건드려도 안 터지기? 던져도 안 터지기? 선을 잘못 잘라도 안 터지기? 불 속에 넣어도 조용히 타오르는 탄이 있는가 하면 습기 취급만 잘못해도 터지는 게 있기 마련이야."

믿을 수 없는 존재라 이거다.

"신뢰의 근거가 없지, 아예."

그들이 내보이는 감정을 '감정'이라 해석해선 안 됐다.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이기에,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했다.

정말 끔찍한 괴리였다.

"그나마 꽤 무해한 규칙의 존재일 것 같다는 점이 위안이 되네. 정말 인간처럼 교류가 가능한 걸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도도 뛰어날 것이고."

"아무래도 인간이었을 테니까?"

“과거에 인간이었다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길 기대하면 안 되는 거 너도 알잖아. 시발, 대체 어떤 과정으로 그런 존재가 태어난 거지? 애초에 시스템과 정확히 무슨 연관이 있을까.”

“너무 깊이 알아서 좋을 거 없을 텐데?”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환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해운이 중얼거렸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시스템을 만들 정도의 기억이었다면… 정말 좋은 사람이었을 텐데….”

약간의 편의성은 있을지라도 대가와 보상은 동등해야 한다.

“그 정도 되는 수준의 기억이었다면 우리를 구성하는 많은 것들을 바친 거였을 거야. 사람 하나 잊었다고 나 자신이 바뀌는 수준의 일이라잖아. 소름 끼치고 구역질 나서 환장하겠네.”

“너는 미안하고 힘들 때마다 말이 험해지는 나쁜 버릇이 있어.”

“…호기심을 가져서 좋을 게 없다는 거 나도 알아.”

깊이 파고들면 ‘약속’을 해칠 수도 있었다. 가뜩이나 위태로운 지구에 그건 너무한 짓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과거를 외면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바라봐야 했다.

“좋을 거 하나 없을 텐데, 그냥….”

속이 난장판이었다.

“혹시 우리 때문에 죽었을까 봐 미안해. 죄책감이 들어. 인간이 아니게 된 그런 존재가 이제는 무슨 짓을 할지 걱정이 되고.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죽었다 살아나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구는 건지 의문도 들어. 좋았을 인연에 대한, 좋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호의도 있어.”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이게 전부야.”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서지오 헌터가 한 100년만 더 늦게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쯤이면 지구도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겠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더 굴러야 하는 거고.”

정해운이 단해라를 돌아보았다.

“그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방문객을 제한해야겠어.”

“그게 가장 확실하기는 하지.”

“약속을 해보려고 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좋네.”

그가 물었다.

“뭘 잊을래?”

“일단은, 그래.”

단해라가 웃었다.

"서지오 헌터에 대한 기억?"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 * *

그 이후.

한 폐교에 대한 정보가 사라졌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89)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89)"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90)

290

제290화

세상은 변했으나, 그조차 모른 채 평화롭다.

"그러니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일은 비사벌의 흥미를 자극했다.

"말이 쉬워 '정보가 지워졌다'는 것이지, 사실상 이곳을 찾아올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찾아오는 길이 인위적으로 가려진 데다 서류상 기록도 인간의 기억도 지워졌으니까요."

비사벌이 웃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친절한 괴담이 퍼진 날로부터 얼마나 지났다고. 이 오싹한 폐교를 경험하고 전해 들은 사람의 수도 적지 않을 텐데."

의문이 들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힘이죠. 대가와 보상의 약속. 단해라 협회장께서는 그 본인이 가진 '서지오 헌터'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대가로 이 모든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비사벌은 저를 구경하는 '동화'들 앞에서 말했다.

"그 약속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일 겁니다. 이제 이곳의 방문이 허락되고, 기억이 허락되고, 경험이 허락되는 존재는 인간 중에서 얼마 되지 않을 테죠."

그의 눈이 얇게 휘어진다.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비사벌이 굳이 폐교를 찾아와 물었다.

"저 정도면 '관계자'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아버지."

"이거 참 황홀해라...."

그는 초상화의 허락에 씩 웃었다.

"이렇게까지 말해주는 걸 보면 계속해서 소꿉놀이를 이어가도 되는 거겠지?"

“그렇다고 너무 부담스럽게 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향적인 건지 외향적인 건지 모르겠다만, 그래, 그러자꾸나. 이 아비가 선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타거든.”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한 일이죠.”

“요즈음 사회생활 하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캔버스 앞에 앉은 지오를 보며 비사벌이 고개를 기울였다.

“별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네?”

“폐교에서 휴가를 보내는 걸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오, 물론이지. 하지만 들었던 것과 달리 썩 팍팍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학교에 있으니 몸이 좀 풀리는 기분입니다.”

그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이 애틋한 폐교에 있을 때. 지오는 굳이 다른 누군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굴 수 있었다.

그에 비사벌이 짐짓 서운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럼 더 오랜 휴가를 주어야 하는 걸까? 이런, 벌써부터 슬프군. 큰일을 마친 우리 아들이 곧장 회사로 복귀해 주었으면 하는 건 너무 큰 바람이겠지?”

“실례지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은 없어서 말입니다.”

“이래서야 길드장이 된 보람을 느낄 수가 없겠는걸... 안타깝게도.”

비사벌은 씩 웃으며 주변의 의자 하나를 골라 앉았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나?”

“보고만 있었습니다.”

“뭐가 보이길래?”

“뭐든 보입니다.”

“어디까지?”

“아주 먼 곳까지도.”

“아주 가까운 곳은?”

“나의 학교가 예전 같지 않더군요.”

서지오가 불만을 토로했다.

“심지어 심령 스팟으로 소문이 날 줄이야.”

“어지간히 귀찮았나 보구나.”

“잘 몰랐는데 몬스터가 만든 둥지라는 게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오지에 주로 생겨나며 드문 확률로 귀한 보물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최소한 저만큼은 그게 아닌 걸 알잖습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바깥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학교에 들어온 새 친구들이 하도 장난을 치길래 막아 주기까지 했어요. 결국에는 괴담의 일부분이 되어 버렸지만....”

“가엾게도, 그 귀한 친절이 괴담으로 매도를 당해 버리다니.”

비사벌이 동정을 담아 물었다.

“대단히 흥미로운데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탈출을 시켜주었지?”

“불쌍히 여겨주실 거면 언행을 일치시켜 주세요, 저도 그것보다는 잘합니다.”

하지만 초상화는 순순히 대답해 주었다.

“이 모습 그대로 나선 적도 있고, ‘서지오 헌터’의 모습으로 나선 적도 있고, 얼굴을 감추고 같은 헌터인 척 도와준 적도 있고...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호오, 어느 쪽이든 괴담 그 자체인데?”

“예, 이런 분위기에서 외부인과 접촉하는 내부인은 공포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헌터라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담이 약할 줄은 저도 몰랐을 뿐입니다.”

“이곳의 분위기가 어지간히 험악해야 말이지.”

비사벌이 진정 아들의 투정을 보듯 작게 웃었다.

이만한 신비가 가득한 공간이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지에 있는 탓인지 온도도 낮다.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 어둠과 냉기에 어울리는 신비만이 기어들어 올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 귀한 초상화를 보고 따라 들어온 신비가 어지간한 존재일 리는 없을 것이고.’

비사벌이 망가진 폐교의 창밖을 보았다.

‘근원의 맥이 비대해져 샘으로 변하고 있다.’

지구의 생명이라는 신비에 퍼져 있는 근원의 핏줄과 장기. 정원과는 다르지만 어디에나 있는 무형의 태동. 뭉쳐 있는 것으로 보아 잘하면 조만간에 우물이 되는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을 듯싶었다.

‘신비에 면역이 없는 사람이 견디기는 힘든 구역이 되었어.’

다정하고 따듯한 종류의 신비도 아니잖은가. 사람들이 괴담으로 받아들일 만했다. 모두가 비사벌과 같은 종류의 세상을 보고 살지는 않았다.

신비를 감내하는 것은 인간의 강인함이나 나약함과는 별개의 문제였다. 비사벌이 S급인데도 실질적인 무력이 전무한 것처럼 말이다.

그야말로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자들.

“.......”

그가 가볍게 으쓱였다.

“그거 즐거웠겠구나.”

“예, 재밌었습니다.”

“역시 그랬겠지?”

이 초상화는 참 솔직한 면이 있었다.

“이 오싹한 휴가지가 그렇게 좋다니 나도 신경을 써 주어야겠어.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 주현 매니저의 편으로 연락을 넣으렴, 내가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마.”

“거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 정부와 협회에서 인정한 너의 사유지란다, 그렇지 않니?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농사를 지어도 좋고, 도축을 해도 즐거울 것이고, 그림을 그려도... 환상적이겠지.”

“가끔 제 말이 안 들리는 것처럼 구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가 언제 그런 매몰찬 행동을 했다고. 나는 항상 우리 귀한 아들을 보고 있단다. 너를 그 경매장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비사벌이 샐쭉 웃었다.

“아, 그래.”

그가 막 생각난 것처럼 말했다.

“검은망토의 애호가들이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은 뒤로 떠들썩해진 모양이더구나.”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모두 네 친구들 아니니, 갸륵하게 여기어 보살펴 주렴.”

“갸륵하게 여겨질 필요가 없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초상화가 끄덕였다.

“조만간 찾아뵐 생각이기는 했습니다.”

“그거 멋지군.”

“너무 친해질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도 좋고.”

초상화를 응시하던 비사벌이 이내 물었다.

“어떤 선생님이었지?”

이 학교에서 말이다.

“내가 아는 얼굴대로 무뚝뚝한 선생님이었을까?”

“이미 제 학생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오신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래, 내가 찾고 찾고 또 찾아서 기어이 대통령실까지 찾아갔었지.”

비사벌이 으쓱였다.

“하지만 많은 걸 이야기해 주지는 않았어.”

“못 본 사이에 다들 겁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야기해 주었지, 나는 대한민국의 돈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보통 그걸 협박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런 걸 마음에 두고 계실 분은 아니잖니.”

제 친구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 많음을 아는 사람이다. 작금의 대통령은 능력이 기대 이하로 부족한 만큼 처세에 뛰어났다. 나약해 보이지만 악착같은 사람이었다.

“협박보다는 협상이었다고 해야 할 거다.”

그들은 만족스러운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그마저도 전부 듣지는 못했어. 기껏해야 ‘서지오 미술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 확신하게 되었을 뿐이었지. 여전히 그분은 나를 경계하고 있어서....”

“마음을 곱게 쓰세요.”

“충분히 곱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비사벌은 늘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가 많은 것을 참기에 세상은 덜 혼란스러운 것이다. 대부분의 헌터가 그걸 안

다. 그야 비사벌은, 온전한 인류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이야기해 주지 않겠니? 어떤 선생님이었을까?”

“학생들은 나를 환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존경도, 동경도 아닌 환상?”

“아예 인간과 별개의 존재처럼 취급해 버렸죠.”

“인간과 별개의 존재라....”

그거참 재밌었다.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초상화도 부정하진 않았다.

“내 학생들은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부여했죠. 듣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허황된 이야기도 있었고, 웃음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현실성 있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과 비슷하군.”

“학생들은 그런 상상력 속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학교는 지루할 때가 많으니, 이해합니다. 그렇게 많은 학교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를 그렇게 대해서....”

“재밌었겠구나.”

“그것도 좀 있었습니다.”

겸양도 안 떠는 정직한 초상화였다.

“하지만 그 탓에 생기는 거리감은 아쉬웠습니다. 유성운 씨와 주현 씨를 붙잡고 했던 말이지만, 조금 더 나를 친근한 존재로 대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친구처럼?”

“사실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봐 주기를 원했나?”

“이따금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나를 환상의 동물로 바라보았던 학생들에게 약간의 아쉬움은 느끼고 있지만, 그렇다고 불만이라 할 것까진 없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재밌었을 테니까.”

“솔직히 그랬습니다.”

“이거 참, 미술 교사인 서지오 선생을 만나봤어야 했던 건데....”

너무나 아쉬워서 억울해질 정도였다.

“그 얼굴로 어떻게 인간들을 대했을지 궁금해.”

초상화는 억울함을 표현했다.

“저도 인간입니다.”

“오, 그럼, 물론이야.”

비사벌이 환하게 웃었다.

“우리 아들을 내가 낳았는데 그럼 모르겠니?”

“그렇게 구실 때마다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샘솟습니다….”

“말을 참 곱게 한다니까.”

“언제 가시나요?”

“슬슬 돌아가야지, 바깥에서 우리 직원들이 기다려주고 있어서.”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아, 그렇지. 가기 전에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가 초상화를 보았다.

“…….”

“…….”

아득한 ‘눈’.

“…당신은 인간입니까?”

그것이 답했다.

“나는 인간입니다.”

“당신을 보는 시선을 부정합니까?”

“나는 긍정합니다.”

“그렇군요.”

비사벌이 더없이 짙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그는 훌륭한 작품이었다.

* * *

“…….”

“꾸르륵?”

“아니야.”

“꿍?”

“아닌 건 아닌 거야.”

지오가 후드에서 튀어나오려는 허니를 집어넣었다.

“사람을 막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면 못쓴단다.”

하지만 소름이 돋은 건 사실이라 지오가 제 팔을 쓸어내렸다. 비사벌이 마지막에 저를 보며 지었던 미소가 정말 굉장했다. 너무 굉장해서 생체 반응도 무딘 지오를 소름 돋게 했다.

처음 비사벌과 마주쳤을 때가 떠오를 지경이었다.

“여전히 대단한 분이시군.”

“꿍꿍꿍….”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봐드리자.”

"꿍꿍꿍꿍꿍."

"한 번만 봐드리자."

지오가 고개를 저었다.

"연약하셔."

"꿍…."

"그리고 지니고 계신 장신구가 워낙 많아서…."

"꾸르르르르르르륵."

"배탈이 날 거야."

"꿍?"

"너도 이제 가려 먹을 줄 알아야지, 허니."

유성운과 주현에게 이미 다 들었다. 비사벌이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는 대부분 '작품'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주받은 보석들이었다.

"몸도 약한 사람이 그걸 전부 차고 다니는 게 기적이라던가."

그 정도가 되니 S급 헌터라는 모양이었다.

"정 먹고 싶으면 이 아빠가 만들어주마."

"꾸르륵."

허니는 그것도 좋다는 듯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90)

Pre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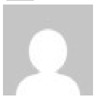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90)"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91)

291

제291화

그렇지 않아도 지오는 정말 제 애호가들을 보러 갈 생각이었다.

"진짜."

정말로.

"……."

"……."

꼭 봐야 할까?

"…꿍."

"침대가 푹신하네."

"꿍꿍꿍."

"너의 조그마한 부리에도 이 아빠는 격통을 느낀단다."

"꿍꿍꿍꿍꿍…."

"일어날게."

허니의 기상 알림으로 결국 지오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 전에 우리 밥이나 먹고 할까."

"꾸르릑!"

지오는 밥으로 아들을 꼬시는 데 성공했다.

'이쯤 되면 위기감이 드는군.'

아무래도 그보다 허니가 지오의 명예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았다.

사실 허니만 이러는 것도 아니었다. 원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던 다나도 괜히 와서 꼬리 한번 살랑거려 보고, 평소에는 햇볕을 쬐고 있던 곰인형도 슬그머니 와서 응시하고 떠나간다.

'왜 다들 나를 그 인싸들의 파티로 집어넣지 못해 안달인 거지?'

내향적인 지오는 이 불합리한 상황에 치를 떨었다. 사람이 가끔 사람보다 침대를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원래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회복을 하는 진성 내향인이었단 말이다.

이쯤 되면 '왜 그게 인싸들의 파티야?'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겠으나.

'기껏해야 내 그림 하나 보려고 모였다가 자기들끼리 교류하더니 기어코 그 거대한 자원봉사 집단이 된 그 사람들이 인싸가 아닐 리가 없다.'

그 정도 되면 인싸가 아닌 사람도 인싸로 변했을 터였다. 지오는 격하게 소심해졌다. 집 밖으로 나가기 싫었다.

"……."

일단 아침부터 먹고.

"오늘은, 음…."

"꾸르륵?"

"볶음밥으로 해볼까."

최근 내내 고기를 먹었더니 깔끔한 것이 먹고 싶었다.

'아르지오 씨는 굉장했던 거야.'

채식과 해산물 위주의 식사를 좋아했던 '지오반니'와는 달랐다. 그야말로 육식인. 아침, 점심, 저녁을 고기로 채워도 근육량만 늘어나는 야생인. 하지만 서지오는 거기까진 아니었다.

"토마토 계란 볶음밥이 좋겠어."

텃밭에서 적당한 크기의 토마토를 고르고, 단단하게 자란 대파를 뽑는다. 마늘도 조금. 파로 기름을 낸 다음 토마토와 계란을 넣어 가볍게 익힌다. 잠시 빼둔 다음 마늘 볶고, 밥 볶고, 소스도 넣은 그 위에 토마토 계란 볶음을 넣어 볶으면 완성.

참고로 지오의 밥은 라면 그릇에 담겼다.

"……."

"꾸륵?"

"역시 부족하네."

그냥 평소처럼 대접에 담을걸.

'내내 고기만 먹어서 아침이 잘 안 들어갈 줄 알았지.'

지오는 후회하며 다시 밥을 담아 왔다. 전반적으로 과하지 않고 고슬고슬하게 익어서 맛있었다. 역시 아침으로는 볶음밥만 한 게 없었다. 든든하고 깔끔했다.

"안 매우니까 좋으니."

"꾸르르르르."

"네가 좋다니 나도 기쁘다…."

허니는 아예 접시를 몸에 넣어 녹여 삼키고 있었다. 가로로 뚱뚱해진 물새의 투명한 몸 안으로 둥실둥실 떠다니는 접시가 보였다. 지오는 살며시 손을 넣어 접시만 빼내어 주었다.

그렇게 곧이어 식사가 끝나고.

"……."

"……."

"…하려고 했습니다."

지오는 가족들의 시선에 못 이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아테르 씨부터 뵈어야겠군요.”

뭐, 좀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잠자는 용사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때가 왔다.

* * *

“난 사실 이대로 계속 집에만 있어도 좋겠다 생각을 했지만.”

익숙한 음성에 아테르가 눈을 떴다.

“다들 나를 유명인으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났더군.”

“…….”

“그래, 깨었는가?”

“…아….”

아주 오랫동안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아르지오.”

의외로 목소리는 갈라지지 않고 나왔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몽롱했던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신체의 존재와 마지막 기억까지도. 아테르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올려 제 목가를 더듬었다.

무언가 잘그락, 하고 만져졌다.

“…….”

“잘 차고 나왔더군.”

“…무슨 의미의 선물이었습니까, 이건?”

“우리의 우정을 상징하는 선물이었다네.”

“잘 모르겠군요….”

픽 웃음이 나왔다.

“여긴 어디죠?”

“나의 집.”

제 옆에 그 큰 몸을 쭈그려 앉은 신이 참 볼품없어 보였다.

“그곳의 다락방.”

“당신의 집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롭고 따듯하네요.”

“태양의 신이 머무르는 곳이니 그럴 수밖에.”

“역시 제가 죽은 겁니까?”

“아쉬워?”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가장 처음 느낀 것은 탈력감이었다.

“…몸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노곤했다.

“너무 따듯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따듯하면 좋지.”

“머리가 둔해지는 감각이 퍽 유쾌하지만은 않아서….”

“자네는 너무 머리를 쓰려고만 해.”

“전통적으로 인간의 가장 큰 장점은 생각하는 머리였죠.”

“죽었다 살아나서도 빡빡하게 굴기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괜히 농을 지껄이고 싶어졌다.

“여기가 사후 세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사후 세계가 될 수도 있네.”

“변덕스럽다는 말 자주 들으시지요?”

“나 정도면 일관적인 편일세.”

“하, 하하….”

목걸이의 보석을 만지작거리던 손이 툭, 바닥으로 내려왔다.

“죽고 싶다고 하면 죽여주실 겁니까?”

“자네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야.”

“제 선택에 달려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야 물론이지, 자네는 이제부터 무엇이든 될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 내에서라면?”

악신이 속삭였다.

“피곤하지 않은가?”

피곤했다.

“자네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왔어. 그 짧지도 길지도 않을 모든 생을 오로지 분투했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더 나은 일을 해내고자….”

아마 그랬던 것 같다.

“하나 이 변덕스러운 악신이 자네와 같은 영웅의 마음을 지레짐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네. 그러니 말해보게, 이 생도 사도 아닌 그림 안에서 자네의 진심을 말해봐.”

“…어떤 진심을….”

“끝인가, 시작인가.”

“어렵군요.”

“이대로 남아도 좋고.”

“.......”

글쎄다.

“...살고 싶었습니다.”

“자네의 강한 집념은 나 역시 알고 있다네.”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었죠. 그리고 그건, 아마... 내 삶의 전부가 목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끼고 있는 진실된 감정이라 하면 공허함입니다. 불쾌하기도 하고 유쾌하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건 이런 기분이었군요.”

언제나 목표가 있는 삶이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왔고, 이제는 모든 목표를 이룬 채 홀로 남아 있다.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채로 나아갈 길과 머물 집을 찾고 있었다.

“제게 목표를 주시겠습니까?”

“나를 악덕 고용주로 만들 셈이군, 기각하겠네.”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이미 많은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아테르가 눈을 껌벅였다.

“...할 일이 없다면,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한가?”

악신은 평이한 어조로 물어왔다.

“그게 자네의 진심이야?”

“.......”

“무엇을 원해? 이 사악한 용에게 말해보게, 아주 궁금하군.”

“...인간들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이겠지만....”

아무래도 좋았다.

“지금 당신 뒤에 누가 있습니까?”

“나뿐이야, 아테르.”

“저에게 자비를 주는 태양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 또한 나다.”

“무거운 평화를 주는 시선은요?”

“그 또한 나지.”

“내가 당신을 온전히 이해할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아득히 멀리 있는 나의 신.

“…….”

아테르가 이어 말했다.

“…이제 영원히 잠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 많은 일을 겪고도 여전히 욕심이 많군.”

“난 언제나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했죠.”

모든 인간이 누리는 평온을 원한다. 하지만 그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없는 편애 역시 바라고 있다. 잠들고 싶을 만큼 피로하지만 위를 탐하는 욕망은 여전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운명을 기다리는 것은 끔찍하다. 그러나 개척하는 것도 끔찍하게 피곤한 일이다. 정말이지 모순적이지 않은가.

아테르는 제가 모셔야만 하는 유일한 신을 보았다.

“당신이 나를 창조했습니다.”

이 망령을 새로이 빚었다.

“난 괴물입니까, 인간입니까.”

“그대가 원하는 대로.”

“이 또한 당신의 자비라고 하실 건가요?”

“무심함일 수도 있지.”

“신뢰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봐, 그거 아나?”

신이 웃었다.

“자네는 나를 꽤 잘 알아.”

과분한 말이었다.

“…당신을 잘 알고 싶지만, 한평생 불가능한 일일 테니….”

“그렇게 속단하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데.”

“…나를 당신의 땅에 묻어 주십시오.”

“땅이라.”

도발적인 음성이었다.

“그것으로 만족해?”

“…땅에도, 하늘에도, 지하에도, 당신의 모든 것에 나를 두십시오.”

“그리하면.”

“나는 죽은 채로 영원히 삽니다.”

“끔찍하지 않은가.”

“끔찍하네요.”

하지만 아테르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다. 이제 와서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라 해도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욕심쟁이였고 대단히 지독했다. 내 안온과 명예 모두를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바라면 이곳은 사후 세계가 된다 하셨습니다.”

“그렇지.”

“받아 주십시오.”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채로?”

“예, 그걸 바랍니다.”

“…….”

신께서는 답지 않게 안타깝다며 웃었다.

“가여워라.”

기특해하며 동정하고 있었다.

“마침 자네에게 딱 어울리는 자리가 있네.”

“…그 자리가 어느 높이에 있는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저 깊은 나락에도, 저 높은 우주에도 있지.”

“좋군요.”

아테르가 눈을 지그시 내리감았다.

“…소란스럽겠지만, 깊이 잠들 수 있겠어요….”

피곤했다.

“그럼 이제 저를 무어라 부르시겠습니까.”

“자네의 머리칼을 따고 싶으나, 그것은 이미 자리의 주인이 있어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보석을 딴 이름하에 따르겠습니다.”

“흠, 그래. 그것도 좋지.”

신께서 손을 뻗어, 목걸이를 가볍게 뜯어냈다.

“…….”

“눈을 떠 나를 보거라.”

그가 손에 은줄을 쥐고 투명한 보석을 아테르의 시야에 맞추어 들어 올렸다.

다락방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볕이 보석을 파고든다. 그 반짝이는 광물에서 빠져나온 햇볕은 이내 색을 입은 채였다. 시선 안에 붉은빛이 가득 찼다. 창백한 붉은빛이….

문득 아테르가 떠올렸다.

“…제 눈과 비슷한 색이군요.”

“그래, 가넷이지.”

아르지오가 짙게 웃었다.

“내가 좋아하는 보석이고.”

신께서 이름을 부르셨다.

“자네는 자주색으로 하겠어.”

“…감사합니다.”

아테르가 눈을 감았다.

이내 평온해지며, 혼이 육신을 떠난다.

그렇게 녹아 세상을 물들였다.

* * *

팔레트 주민의 소멸이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된 팔레트 주민: 아테르, 사슴

“…….”

팔레트에 새로 배치하시겠습니까?

[예/아니오]

“예.”

색: ‘아테르’가 성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자주색]

색: ‘사슴’이 성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갈색]

…….

…….

자리를 많이, 비워둬야 할 텐데….

“그런가?”

* * *

아이는 무서웠다.

“엄마, 나… 나… 아파….”

“얘 뭐라는 거냐?”

“…엄마아….”

“질질 짜는 거 봐.”

어른이 키득거리자, 또 다른 어른도 웃었다.

“카네이션 아이한테 무슨 엄마가 있어.”

“꿈도 크지, 시발.”

“야, 가자. 얘 더 이상 못 써먹어.”

“쯧… 이번 건 좀 오래 가나 싶었는데, 이래서 애새끼들은.”

“공짜 인력인 게 어디야.”

“그건 그렇지, 어디 튼튼한 애새끼 없나.”

어른들이 떠나가자 추위와 아픔만이 남았다.

"......."

얕게 뒤척이자, 하얀 게 보였다.

"...으...."

하얀... 액자.

"엄, 마...."

새하얀 엄마가 보였다.

"나, 나도... 데려가...."

왜 나만 여기에 있는 거야.

자신과 비슷한 키의 아이들도 보였다. 손에 꽃을 들고 있는, 카네이션 아이들. 따듯하고 편안해 보이는 색에 아이가 손을 뻗었다. 기어가고 싶었는데 거리가 너무 멀었다.

몸에서 힘이 빠졌다.

"...혼자, 싫어...."

혼자 있는 게 무섭다.

"......."

"......."

새하얀 사람들 사이로, 반짝이는 보석이 보였다.

'...보석이다.'

빨갛고, 파란색인 보석이었다.

'예뻐.'

아이의 어린 시선을 한순간에 빼앗는 황홀한 빛이었다.

어느새 다가온 자주색 보석이 손을 뻗어 아이의 손을 잡았다. 차게 식은 뺨을 쓸었다. 그리고 몸을 들어 안아주었다. 크고 단단한 품은 언제나 상상만 하던 아버지의 것만 같았다.

쿵, 쿵, 쿵. 보석이 걸을 때마다 울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진동이 꼭 심장 소리 같았다.

"......."

그리고 액자 안에 들어갔을 때.

더는 아프지 않았다.

* * *

어느 날, 한 불법 길드가 단체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웬 불법 길드?"

"카네이션 아이 데려다 공장 굴리는 거."

그것도 건물만 덩그러니 남았단다.

"그럼 뭐야, 한국 뜬 거 아닌가?"

"아마 아닐걸."

“누구 죽은 것도 아니고 실종된 거라며.”

“거기에 물새들이 잔뜩 깔려 있었대.”

“아….”

검은망토의 물새는 악인을 혐오했다.

“죽었겠네.”

“그렇지?”

종종 있는 일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91)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91)"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92)

292

제292화

일명 ‘검은망토 애호가’들은 서로를 같은 동아리 회원 정도로 보고 있었지만, 사실 그보다는 견고한 모임을 가꾸어가고 있었다.

처음 들어오게 되면 간단한 면접과 함께 서면 계약을 마친다. 내부에서 활동하는 시간과 결과를 따져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활동이란 대개 봉사였다.

“아니, 내가 그런 일 하려고 여기 온 줄 알아요?”

대부분의 신입들은 초기에 이런 반응을 보인다. 감히 몬스터, 이제는 신성인 존재의 작품을 탐하려 드는 사람은 대개 돈이 많거나 권력이 크거나 본인만의 세계가 견고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변하는 것도 시간문제였다.

“이번 주 활동은 끝입니다. 할당량 모두 채우셨어요.”

“내가 더 하겠다는데 왜 막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겠다는데?”

“다른 분들도 보장받은 만큼은 활동하셔야죠. 그 이상 활동하시면 다른 회원분들이 할 일이 줄어들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적다고요?”

“도시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한정적이에요. 할당량 이상의 작업을 하시려면 도시 바깥으로 나가셔야 하는데 그건 불가합니다, 협회에 인증받고 도움을 구해야 해서요.”

“그럼 협회에 가서 내가 말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안 돼요? 안 그래도 그쪽에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요.”

“그러지 마시고... 음, 이번 주에 지방으로 파견 나가는 팀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기는 한데 기다려 주시면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태도가 변하는 이유는 명확했다.

“오늘 길목의 쓰레기를 줍는데 공허의 도시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와, 부럽다... 이번에는 어느 구역에서 활동하셨어요?”

보상이 확실하기 때문이었다.

“나도 검은망토 님 작품 보고 싶은데.”

이들은 대체로 검은망토 그 자체, 혹은 그가 그린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왔다. 교류가 가능한 작품이라니. 또 그런 신비로운 작품이 직접 보상을 주다니. 1등급 시민을 기준으로 해도 대단히 호화스러운 상품이었다.

“이번 신입들도 적극적이네요.”

“상이 확실하니 맛 들이기까지 얼마 안 걸리죠.”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활동 자체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 검은망토의 애호가들은 이제껏 그런 식으로 그들만의 살롱을 꾸려왔다. 정부나 협회에서 종종 지원도 왔다.

“다음 달에 나갈 구역은 정하셨습니까?”

“예, 이쪽으로 파견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음, 여긴 산세가 험할 텐데. 몬스터가 자주 출몰하는 구역이니 저희와 협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헌터 명단은 하루 이틀 내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이들 살롱 회원 중엔 헌터도 많지만, 민간인도 많았다. 위험이 득실거리는 외부에서 활동하려면 다수의 헌터가 필수였다. 파견 나가는 회원 본인도 평균 이상의 체력과 근력을 갖춰야 했고 말이다.

그럼에도 흥미를 가지는 회원들은 많았다.

“저, 이번에 파견 명단을 짜신다고 들었는데….”

“협회에서 헌터를 다수 지원해 주셔서 비각성자 회원도 참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훈련도 받아 왔습니다. 여기 증명서요.”

“음… 이 정도 성적으로 이수하신 거라면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명단에 이름 올려주시면 확인하고 결과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았다. 대개 비각성자는 재건되지 않은 구역에서 활동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들 살롱과 협회는 협업을 통해 종종 이런 시간을 가졌다.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진 덕분이었다. 특히 큰 영향을 끼친 건 두둑하게 후원하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그중에서는 권력과 넓은 인맥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

그렇게 만들어낸 기회의 결과도 썩 나쁘지 않았다.

“설마 이쪽에 사람이 숨어 살고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걸 보면 대재앙이 끝난 지 100년도 채 안 됐다는 걸 느낀다니까요.”

“그래도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위험한데….”

오지 곳곳에는 대재앙 시절 피난을 와 숨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을을 도와 몬스터를 정리하거나 유지 보수를 위해 방문했던 회원들은, 이따금 그런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했다.

그럴 때면 협회에서도 정식으로 감사 인사와 보상을 전달했다. 협회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대신 해주거나 도와준 일에 대한 반응이었다. 회원들은 그에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유의미한 일을 하는 기분이 드네요.”

“요즘 인사하는 이웃도 늘어났고….”

그런 방식의 집단이었다.

이들에게 있어 검은망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기도 했지만, 모셔야 할 신이기도 했다. 최근 정식 종교로 인정받기까지 했으니 소속감은 더더욱 두터워져만 갔다.

그들은 어째서인지 검은망토의 성향을 따라가기도 했다.

“이게 뭐예요?”

“아, 이번에 방문할 가정에 전해 드릴 반찬들….”

“뭐야, 그런 거 전해줘도 돼요? 나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선물은 규제 대상 아니었어요?”

“너무 과한 선물은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치품에 속하지 않는 음식은 규제 대상 아니에요. 먹는 건 아무리 줘도 문제 될 게 없으니까요.”

“하긴 그렇긴 하죠….”

물론 음식도 많이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하지만 회원들의 머릿속엔 그런 생각이 존재하지조차 않았다. 행복하게 식사를 한다고 해가 될 일은 없으니 말이다.

누군가는 이런 회원들과 그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하기도 했다.

‘다들 사람들을 돼지로 만들고 싶은가 본데.’

‘행복한 돼지….’

‘아무튼 누군들 맛있게 먹으면 좋은 일이지.’

‘배부르면 세상이 곱게 보이는 법이기도 하고.’

객관화와 별개로 지적하거나 반박하는 일은 없었지만 말이다.

그야 신도가 신을 따라가는 건 흔히 있는 일이었다. 태양의 여신을 믿는 신도들이 밝고 존재감이 강하며, 달님의 신도들이 유독 조용하고 냉철한 것을 생각해 보면 답은 쉽게 나왔다.

그런 그들은 어느 날, ‘색’의 존재를 눈치챘다.

“…저게 뭐죠?”

“하늘이….”

지방에 파견을 나왔던 회원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이 길을 알려주네요.”

처음은 ‘하늘색’부터였다.

회색 벽이 가득한 도시에서는 인어처럼 일렁이는 파도의 형상을 볼 수 있었다. 나무가 우거진 구역에서는 그 저마다 다른 갈색에 싱그럽게 피어난 사슴이 있었고, 안타까운 죽음의 자리에서는 하얀 액자 속에서 자줏빛 보석이 나와 죽은 자를 인도했다.

그들이 검은망토의 사도라는 걸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멋지다.”

“역시 검은망토 님께서는 초상화가 맞아요.”

“본질은 결국 그림이라는 걸까요?”

“하지만 신성이기도 하죠, 태양의 신성.”

“그림이기에 뭐든 되실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너무 낭만적이네요.”

회원들은 제가 모시는 신의 특별함과 예술성에 자부심을 느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비롭기도 하시지, 이렇게나 인간을 좋아해 주실 줄이야….”

“얼마나 정성을 다해 인간들의 기준에 맞춰 주시는지가 느껴져요.”

일부는 그 안의 진실을 파악해 내기도 했다.

“그분의 작품이 아닌 지구에서도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이야. 여기를 봐요, 이 회색 벽 안에 갇힌 인어가 보이세요? 제 생각에 이것은 전에 한국의 바다를 어지럽히던 그 존재인 것 같아요.”

“하늘을 좀 보세요, 잔잔하게 일렁이는 게 마치 바다의 표면 같아요. 저 위의 구름은 마치 바닷속의 물고기 떼 같고요. 살아 있는 새도 이따금 지나가는 지구의 하늘을 보며 왜 작품을 볼 때의 기분이 드는 건지….”

또 누군가는 또 다른 영역을 짚었다.

“내 후원을 받는 헌터가 지난번 ‘꿈의 유원지’에 다녀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생존한 헌터 중 한 명이었죠. 그 사람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저 사슴, 그 이야기에 나오는 생물 같군요?”

“유원지의 이야기라면 저도 들었습니다. 협회에 친구들이 많아서요. 자주색은 정확히 누굴 상징하는지 모르겠으나 거구의 남성 형체로 흔히 묘사되는 걸 보면… 역시 고대의 망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아예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검은망토의 사도인 서지오 헌터님께서도 하나의 색을 맡고 있다는 뜻일까요?”

“자취를 감춘 분노의 신성 역시 어떻게 되었을지… 이건, 정말 흥미롭군요.”

여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

“…오, 뭔가 낯설다….”

“원래 저런 사람들이었어요.”

“저게 교양인가.”

“잊고 있었는데 1등급 시민들이었지, 맞다.”

“나도 완전히 까먹고 있었네.”

애호가 중 1등급 시민은 하나같이 ‘검은망토의 작품을 감상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모임에 참여했다. 그런 사람들이 검은망토의 팔레트를 엿보게 되었으니 괜히 황홀해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2등급 시민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 단지 그 작품성에 오싹해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든든해했다. 검은망토의 힘이 어디에 닿아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예전에는 그분의 작품 내에서만 이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영향력이 넓어지신 걸까요? 지구를 지켜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글쎄, 나는 그보다 무언가 알려주시는 것 같던데요. 이 큰 흐름을 보고 있자면요.”

“이렇게나 다정하게 보듬어 주시다니… 역시 여기만큼 안락한 곳이 없네요.”

혹자는 부러워하기도 했다.

“저것이 검은망토 님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지옥일까요?”

“천국일 수도 있죠.”

“지옥일 수도, 천국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관점에 따라 달라지겠군요.”

“나도 그분의 팔레트 안에 들고 싶은데….”

“위험한 발상이지만 동경하게 되는 건 이해합니다.”

“저도요.”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사후 세계였다.

신성마다 각기 다른 사후 세계를 품고 있다는 건 대재앙 시절, 지구의 종교계가 망가졌을 때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 밝혀졌을 당시에 한바탕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했던 문제라, 정부와 협회에서 가장 먼저 손을 쓴 영역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이미 검은 망토에게 인간들의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분의 팔레트 위로는 인간이 아닌 자만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그보다는 자신의 확실한 색을 갖춘 자를 선별하시는 거겠죠. 무엇보다 인어가 있는 걸 보아 단순한 사후 세계가 아닌 처벌의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긴 평생 그분의 물감으로 쓰인다고 하면 죽음으로 누릴 수 있는 평온과는 거리가 멀겠네요. 같은 사후 세계라도 확실히 다른 느낌이에요.”

“하지만, 음....”

애써 아쉬움을 떨쳐낸 회원이 이내 “아” 하고 말했다.

“잘하면 저희 회장님은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워낙 발로 뛰시는 데다 하는 활동도 많으시니, 뭔가 기대를 가져본다면요.”

“대단한 분이시긴 하죠.”

회원들이 동의했다.

“오늘이 아니면 죽을 것처럼 구시잖아요.”

모든 활동에 있어 제 생의 마지막 기회처럼 달려든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니겠죠.”

“지구를 바꿔 보겠다고 이 살롱을 만드신 분이니....”

“포부가 워낙 크신 분이고요.”

회원들이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다.

“그분이라면 정말 검은망토 님과 독대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주교님이라도 되어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회장이 정말로 둘 모두를 이뤄내고 있단 사실을 몰랐다.

* * *

이름, 카나리아.

일명 ‘검은망토 애호가’들의 회장으로, 거의 초창기 카네이션 아이 중 한 명이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 그녀의 독특한 이름은 ‘탄광 카나리아’에서 따온 것이었다.

질병이나 독과 관련된 위험한 던전을 갈 때 주로 끌려가 그 위험성을 온몸으로 측정하는 고기 방패 역할. 그녀는 아득바득 성인으로 자라나서도 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

이 세상의 잔인함을 잊지 말고,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어, 어어....”

“카나리아 씨.”

그런 그녀는 오늘 제가 모시는 신과 마주쳤다.

“즐겁게 사세요.”

새까만 초상화는 작은 새 한 마리를 카나리아에게 건넸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기.”

“당신의 의지를 긍정합니다.”

그렇게 카나리아는 자그마한 친구가 생겼다.

“…….”

“삐로록.”

“어, 뭐야, 귀여워.”

노란 꽃을 잔뜩 담아 퍼덕이는 물새였다.

* * *

그리고 유성운이 갤러리를 방문했다.

“지오야.”

“예, 듣고 있습니다.”

“너 교주로 점찍은 사람한테 물새 준다면서.”

“대체 왜 그런 소문이?”

“그럼 카나리아 씨에게 물새는 왜 준건데.”

초상화는 당당하게 말했다.

“저 대신 열심히 놀라고 그 친구를 선물했습니다.”

“미치겠네, 누가 우리 초상화를 이렇게 내향적으로 만들었어.”

“저는 수줍음이 많은 편입니다.”

“결국 교주로 만든 게 맞다는 거잖아.”

“교주가 아니라 회장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상태이셨습니다.”

“사실상 그게 그거 아니야?”

“그분은 이상적인 리더였고, 저는 이제 자유입니다.”

지오는 몹시 뿌듯해했다.

그 떠들썩하고 호화로운 파티에 나를 초대하지 말지어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92)

Pre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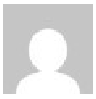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92)"

4.7 13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93)

293

제293화

지오는 그 뒤로도 한동안 쉬었다.

"너 초상화 안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면을 취합니다."

"그 외에는…?"

"그림을 그립니다."

"오."

초상화가 걱정되어 찾아온 유성운이 물었다.

"뭘 그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그리고 있지만 대개 먹을 것을 그립니다."

"미치겠다."

거기서 뭘 얼마나 더 먹으려고 그러는 걸까.

"네 초상화에는 이미 충분한 작물이 있지 않아? 웬만한 식재료는 나나 주현 씨가 공수해 왔고. 그런데 그림을 그려서까지 먹을 만한 게 더 있다는 게…."

"찾아보니 병아리콩이 지구에서 멸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멸종된 식재료를 먹기 위해서 직접 그려내고 있다고? 내가 이해한 게 맞아, 지금?"

"잘 이해하셨네요."

"그게, 그게 대체 무슨…."

유성운이 머뭇거렸다.

"…나 구경 가도 돼?"

“저는 항상 당신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근원이 복구하는 지구의 멸종된 식물이라니. 비록 큐레이터로서 월급 받으며 세금도 내는 유성운이라지만 혹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기어이 유성운은 초상화에 방문했다가 나왔다.

그런 그의 손에는 갓 수확한 병아리콩 봉투가 담겨 있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병아리콩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 같아.”

“병아리콩을 기억에 가까운 형태로 키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려냈을 때는 작았습니다.”

“아무래도 연약한 식물이 너의 강인한 초상화를 이겨내긴 힘들 테니까….”

유성운은 아기 주먹만큼이나 커진 병아리콩에 아련한 미소를 지었다.

“흠, 주현 씨한테도 나눠줘야지.”

“즐거워 보이십니다.”

그날 저녁 초상화표 병아리콩을 받은 주현이 지오를 불러냈다.

“지오 씨, 계신가요?”

“예, 저를 부르셨습니까?”

“네, 불렀습니다. 제 빈약한 그림 솜씨로도 소환이 가능해서 다행이에요.”

“그림 실력이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과연 협회 전 연구원이라는 것일까. 주현은 정말 실존하는 모습 그대로를 그려냈다. 덕분에 에그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던 지오가 무사히 불려 나올 수 있었다.

일단 지오는 종이에 포장해 온 샌드위치를 건넸다.

“이것은 당신에게 좋은 야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순순히 샌드위치를 받은 주현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신을 이런 식으로 소환해서 야식을 받아낸다는 게 여전히 현실감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주현의 목에 감겨 있던 산칼루트는 슬그머니 고개를 빼냈다. 그러고는 주현의 손에 있는 샌드위치 하나를 덥석 물고는 주현의 머리카락 아래로 사라졌다.

어깨가 좀 무거워지기는 했지만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먹는 것 같아 주현도 그냥 무시했다. 그리고 지오도 악신의 소소한 심술을 무시한 채 대답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오 씨의 친구죠, 샌드위치 감사히 먹을게요.”

“그래서 왜 부르셨나요?”

“오늘 오후에 유성운 씨가 이런 것을 주고 갔는데요.”

“제가 키운 병아리콩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는 병아리콩과는 너무 달라서요.”

“오.”

지오는 놀라면서도 반가워했다.

“병아리콩을 알고 있습니까?”

“협회의 연구원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최소한 지구의 멸종된 동식물의 70% 이상은 알고 있어야겠죠?”

병아리콩도 그중 하나였다.

“무엇보다 저는 여러 복원 작업에 함께한 적이 있어서요. 병아리콩이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작다는 것도 알아요. 고영양 식품으로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데다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도 많고… 건강에 좋은 점이 많아 대재앙 이전 다이어트용 식품으로 각광받았다는 기록도 읽었죠.”

지오는 감탄했다.

“전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사실 저도 외워서 아는 겁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되었나요?”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키운 작물은 보통 평균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병아리콩도 커진 겁니다. 저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기 드물게 무력해 보이시네요….”

주현의 친구는 조금 실망스러워 보였다.

“음, 그러니까… 제가 왜 지오 씨를 불렀느냐고 한다면….”

망설이던 주현이 물었다.

“멸종된 지구의 동식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구의 생태계를 복원해 주실 수도 있는 걸까요?”

“그건 어렵습니다.”

“역시 그렇겠죠.”

주현도 알고는 있었다.

“지구가 이렇게 변했는데, 이미 멸종된 동식물이 이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할 수도 없을 거고요. 어떤 답변이 올지는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봤어요.”

“지구를 복원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마음으로 한때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거니까요.”

지구를 원래의 안전한 환경으로 되돌리려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협회며 정부며 온갖 자원을 쏟았다. 하지만 이미 신비의 힘으로 물든 지구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주현은 조금 아쉬워했다.

“저는 물론 지금의 생태계도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저처럼 나약한 비각성자가 살기에는 그리 안심이 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저는 대재앙 이전을 기억하는 사람이고요.”

“세상이 더 안전해지기를 바라시는군요.”

“이만큼 세상이 안정화된 것이 어딘가 하면서도 계속 욕심을 내네요. 그래서 잠깐 혹했어요, 혹시 지오 씨가 그 단서를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누구 한 명에게 맡길 수 있을 만큼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한 명에 의해 갑작스럽게 세상이 뒤집힌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주현은 조금 머쓱해하는 얼굴로 이어 말했다.

“그냥 조금, 어….”

“경청하고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불러 보았습니다.”

“때때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지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드시고 싶은 건 없습니까?”

“오늘 주신 샌드위치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네요.”

“샌드위치로 충분합니까?”

“아무래도 샌드위치만 10개라면 충분하겠죠?”

“많이 먹으면 안 되나요?”

“시간이 늦었고, 저는 위장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산 씨가 이미 4개를 먹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먹었지?”

점점 손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자각은 있었다만.

“산 씨, 그만 먹어요. 제 어깨를 얼마나 무겁게 만들려는 건가요.”

“난 무겁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기분이 무거운걸요.”

“엄살입니다.”

붉은 뱀은 딱 5개까지 먹고 식사를 멈췄다.

“맛있습니다.”

“지오 씨 솜씨니까요.”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 그러고 보니… 조만간 퍼레이드가 열린다고 하던데요.”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지오가 턱을 짚었다.

“수집상에서 진행하는 퍼레이드라던가요.”

“예, 원래는 초봄에 진행하는 행사였는데 ‘꿈의 유원지’로 인해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올해만 진행하지 않기도 뭐하니 날이 더 더워지기 전에 끝을 보려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이벤트인가요?”

“수집상의 큐레이터들과 그분들의 담당 작품들이, 거리를… 화려하게 꾸미는 행사죠.”

개인적으로 주현은 그리 좋아하지 않는 행사였다. 비교적 무해한 작품들과 함께하는 행사라지만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때는 민심도 흉흉해질 텐데 말이다.

“정확한 구성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와 날씨에 따라 참가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작품들도 있으니까요.”

“이해했습니다.”

“지오 씨도 엄밀히 따지자면 수집상의 일원인 만큼 혹시 참여 의사가 있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정리해 내일쯤 서면 보고 할 생각이었는데… 마침 이렇게 되었으니.”

“…….”

“…아, 의외네요. 고민하시는 건가요?”

주현이 고개를 기울였다.

“최근 활동량을 극한으로 줄이셔서 당연히 거절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수집상에도 잘 출몰하지 않으신다고 들어서 아직은 회복 중이실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회복 중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흥미가 있었다.

“의미 있는 행렬은 신전에서 종종 선보였던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건… 지오반니 씨로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 흥겨운 행사는 빠지기 아쉬운 법이기도 하고.”

“이건 아르지오 씨로서의 의견일 것이고.”

“하지만 피곤하기도 합니다.”

“이건 서지오 씨.”

주현이 잘게 웃었다.

“알기 쉽네요.”

“친애하는 당신에게 미소를 선사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오는 의외로 승낙했다.

“참여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수집상에 비상이 걸렸다.

* * *

수집장의 퍼레이드는 유명했다.

“올해는 좀 늦었네.”

“워낙 소란스러웠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안 하나 싶었는데 결국 하는구나.”

“수집상답다.”

이 시대의 진정한 마이 웨이들의 모임인 탓이었다.

수집상 퍼레이드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다. 길드장 비사벌은 수집상이 세워지기 전부터 제 작품들로 크고 작은 공연을 벌였었다. 법다운 법이 없는 시기였다 해도 간이 큰 불법 행사였다.

그러고는 기어이 돈으로 합법을 만들어냈지.

“이번 행사에는 누구누구 참가한대?”

“팜플렛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위험하게 뭐 하는 짓이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천만다행히도 사고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혹자는 ‘수집가는 그 좋은 눈을 왜 그런 데에 쓰는 거냐’는 반응도 보였다.

아무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수집상의 퍼레이드가 익숙했다. 그들은 거리를 돌아다니는 홍보용 로봇에게서 팜플렛을 받았다. 아는, 혹은 새로운 얼굴들을 찾기 위해서였다.

“아, 토순이 나온다.”

“토순이 귀엽지….”

“이번에도 돌보미랑 세트로 나오네.”

“나 지난번에 꽃 받았는데, 기억하려나.”

“나는 옷 고쳐줬잖아.”

“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맞아?”

“아, 그러네. 여기 처음 공연하는 거라고 쓰여 있어.”

“특기는… 저글링? 재밌겠다.”

팜플렛에는 이번에 참가하는 작품과 담당 큐레이터의 사진, 그리고 그들의 간략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미리 홍보를 받은 시민들은 정해진 날짜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 휴가를 내기도 했다.

“나 연차 냄.”

“미쳤냐고.”

“서지오 헌터님이 나오신댔어.”

“제발 현실을 살아….”

“난 오늘을 위해 살아왔다.”

작품이 아닌 큐레이터를 보기 위해 나온 사람도 있었다. 수집상은 길드이면서도 금융 투자 회사인 만큼 이렇다 할 외부 행사가 적은데, 그만큼 수집상 길드원을 덕질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았다.

그런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 얼굴 잘 내보이지도 않는 큐레이터가 거리로 나오는 행사는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기자들도 비슷한 상황이라, 이맘때쯤 되면 거리는 시끌벅적해졌다.

“아… 수집상….”

“…개새끼들 진짜….”

물론 좋아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고.

“수집상 건물 폭파하면 안 되나.”

“차라리 한국을 날려요, 팀장님.”

“미친놈들, 거리에 계속 뭘 풀어두려는 거야.”

협회에서 파견 나온 안전 요원들은 정말 지긋지긋해했다. 온갖 사건 사고에 대비하고 수습해야 하는 그들 입장에서 이건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다.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었다.

“팀장님, 이번에 수집상에서 후원 들어왔대요.”

“개같은 자본주의 시대.”

수집상은 언제나 돈으로 합법의 통로를 만들어냈다.

“이러려고 길드장 하나.”

“그럴걸요?”

“나도 알아, 시발.”

애초에 비사벌은 이걸 위해 길드장이 된 사람이었다. 그가 쌓아 온 모든 부와 명예는 이런 미친 짓을 합법적으로 즐기기 위한 것. 진정 도파민에 미쳐버린 놈이 따로 없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오전 6시부터 시작이었다.

“진짜 수집상 이 또라이 새끼들….”

거리가 벌써부터 바글바글했다.

* * *

참고로 이번 퍼레이드에는 유스티티아의 길드장, 서서희도 구경을 갔다.

“비사벌 길드장님의 행사에 온 건 오랜만이네.”

그의 절친한 친구 정해운도 함께였다.

“그래서 나 집에 가도 되냐.”

“이번 행사 경복궁이랑 협업한대.”

“하씨 벌써부터 동화들 보여… 개짜증 나 진짜….”

“지구의 평화를 지켜야지, 친구야.”

“꺼져 시발.”

말로는 일종의 잠입 수사라고 하는데, 글쎄.

“이번에 서지오 헌터님도 퍼레이드 하신다고.”

“아 알 바냐고…!!”

딱히 일하러 온 것 같지는 않은 모습들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93)"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94)

294

제294화

사건의 발단은 퍼레이드 당일로부터 사흘 전에 시작되었다.

"...퍼레이드요?"

"예."

"선생님께서요?"

"예."

"왜 그런...? 짓을?"

행복하게 불고기덮밥 도시락을 먹던 서서희는 서지오에게 통보 아닌 통보를 당하고 말았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선생님이 수집상의 큐레이터셨던가요?"

"그 일도 겸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그 일을 겸하게 되신 거죠? 노동청에 신고해 드려요?"

"아직도 노동청이 있던가요?"

"옛날 분이라는 게 확 느껴지는 발언이었습니다. 제 노동청 발언에 맞장구쳐 주는 사람이 이제껏 제 친구들을 제외하면 몇 없었거든요."

확실히 지금 세상에 노동청은 없었다.

"대신 협회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죠."

"협회는 하지 않는 일이 뭔가요?"

"없으면 우리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니 어여쁘게 봐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여쁘게 보고 있습니다."

둘의 대화를 비서석에서 듣고 있던 강은성은 생각했다.

'귀 막고 싶다.'

계산적으로 찡찡거리는 187cm의 건장한 중년을 그보다 더 건장한 청년이 오냐오냐하는 꼴이라니. 상황을 알고 들어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다.

강은성이 조용히 체념할 때에도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런 행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 이런 면이 있으실 줄은 몰랐는데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음... 조용한 거 좋아하고 조곤조곤하게 다정한 사람?”

철퍽—!!

서지오의 그림자에서 인어 꼬리가 튀어나와 바닥을 강타했다.

“.......”

“...과찬이십니다.”

“방금 저 인어가 저를 혼낸 건가요?”

“되지도 않는 소리 말라는군요.”

“앗....”

서서희가 조금 당황했다.

“아, 아닌가요...? 나긋나긋한 이미지시고....”

철퍽—!!!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책 읽는 걸 좋아할 것 같은....”

철퍽철퍽철퍽—!!!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했으니 죄 없는 바닥은 좀 놔둬달라고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접대실 바닥 시공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에 서지오는 살살 달래서 인어 꼬리를 그림자 안으로 집어넣었다. 회색으로 일렁이던 그것은 씩씩거리는 듯하더니 이내 자취를 감췄다. 어디론가 사라진 모양새였다.

꼭 아이가 토라진 것 같은 모습이라 서서희가 어색하게 웃었다.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하는 나긋나긋하고 친절한 사제님이 맞습니다만.”

“제가 큰 실수를 했군요.”

조용한 걸 좋아하는 나긋나긋한 사제님과는 거리가 먼 발언이었다. ‘바다 마을의 웃는 폭군’이라는 별명을 모름에도 서서희는 알아서 납득했다. 자애로운 미소 뒤에 가려진 무언가의 일면을 본 듯했다.

“그럼 정확히 어떤 역할이신지? 수집상의 행사는 새벽부터 시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간식거리를 파는 부스 담당도 있고, 홍보 역할도 있고, 안전 요원 역할도 있고....”

“일단 간식거리를 파는 부스 담당이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 식으로 두 역할을 맡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건 이번 퍼레이드에서 그 이외에 다른 역할도 담당하시겠다는 거겠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맞나요?”

“그게 맞습니다.”

서지오가 당당하게 말했다.

“구경 오세요.”

“대체 뭘 준비하셨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하신 건지.”

“저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어요….”

보통 자신감 없는 사람은 하루가 멀다고 도시락을 6층씩 싸 오지 않았다. 그것도 별다른 인연도 없는 생판 남의 길드로. 그것도 그곳 길드장에게.

그리고 서지오는 팜플렛을 주었다.

“여기 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에….”

서서희는 잠시 침묵했다.

“……?”

“예,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제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이건 물새들인가요?”

“물새 군단입니다.”

“아하….”

이내 서서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슬슬 한국을 물갈이할 때가 되기는 했죠.”

“왜 유성운 씨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이거 그거 아닌가요? 노아의 방주? 물로 싹쓸이?”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째서 민망해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아무튼 서지오는 제 학생을 초대했다.

“놀러 오시면 놀아 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하긴 한데… 제가 그럴 나이는 지나지 않았나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이자 연장자를 저격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서서희는 곧장 사과했다. 다행히 서지오는 그대로 넘어갔다. 둘의 대화를 듣던 강은성은 지쳐 쓰러진 채였다.

그리고 서지오는 다른 학생들도 초대했다.

“시간이 된다면 해운이도 끌고 오세요.”

“아, 끌고 오나요? 그보다 해운이? 하필 해운이요?”

“예, 그렇죠. 정해운 길드장님이요.”

“이제 와서 호칭으로 거리 두는 척하지 마시고, 이유가 있습니까?”

“흠, 글쎄요.”

서지오가 평이하게 말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저의 등장으로 가장 엉뚱하게 삽질하고 있을 학생이 해운이라.”

“…오….”

“정해운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갸륵한 학생은 아니었죠. 자기 혼자 결론 내려서 사고 치기 전에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서서희는 얌전히 끌고 가겠다며 약속했다.

* * *

그렇게 끌려왔다.

“넌 진짜 누구 편이냐?”

“지구의 편이지.”

“난 뭐 지구의 편이 아닌가 보네? 나 어디 외딴 행성 외계인이야?”

“외계인이라고 지구의 편이 아닐 거라는 편협한 생각은 하지 말도록 하자.”

“시발 외계인은 지 행성 편이겠죠, 진짜 돌겠다. 너 왜 이래?”

정해운의 투덜거림에 서서희가 아련하게 웃었다.

“네가 삽질하고 있었던 건 맞잖아.”

“그러니까 왜 나한테 지랄이냐고.”

“내 지랄 받아줄 사람은 너뿐이야, 정해운.”

“정말 가지가지로 소름 돋는 발언이었어.”

“훌륭하지?”

“시발놈.”

진절머리 내는 정해운에 서서희가 으쓱였다.

“그래도 오랜만에 그 얼굴 보니까 반갑네.”

“난 아주 어색할 지경이던데.”

간만에 정해운은 청년 시절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뭐, 그래. 어차피 인식도 못 하도록 해뒀는데 주름 몇 개 잡아 놓는다고 어디에 쓰나 싶어서… 내 얼굴도 가끔은 이렇게 풀어질 때가 있어야지.”

단순 유명인이라 말하기 힘들 정도의 그들이 길거리에 훤히 나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었다. 둘은 인식 장애 마법을 건 채로 나왔다. 영원의 상징이니 뭐니 해도 결국 이렇게 쉴 때도 필요한 법이었다.

아니, 사실 휴식이 필요하고 자시고 지구가 하도 위태로운 나머지 일만 해야 하는 사람들이긴 한데.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일부러 여유를 냈다고 봐야 했다.

“그보다 이렇게 일찍 나올 필요가 있었어?”

“어… 서지오 헌터님께서 오전에 팔고 들어가신다길래.”

“시발, 나 진짜 돌아가면 안 되니.”

“응, 이미 약속했어. 못 돌아가.”

“개새끼야아아….”

신비와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다. 그 자리에 있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였다. 신비의 위험성을 아는 정해운은 우는소리를 내면서도 순순히 끌려갔다.

그리고 솜씨 좋게 큐브 스테이크를 만들어 파는 서지오 헌터와 마주쳤다.

“…….”

“…….”

정해운은 잠시 침묵했다.

“…죄송한데 지금 뭐 파세요, 선생님?”

“아, 벌써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조금 감동적이군요.”

“아니 제가 말하는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아니고요. 아무튼 뭐 파시는 건데요, 지금.”

“소고기 큐브 스테이크를 팔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소라고 다 같은 소가 아니고 고기라고 다 같은 고기가 아니죠?”

이 미친 신비가 정체 모를 신비를 팔고 있었다.

“수집상에서 이걸 허락했어요?”

“맛있고 청결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식약청에서 나오셨어요?”

“미치겠네?”

그는 진지하게 이 행사를 뒤집어엎어야 하나 싶었다.

그러나 정해운과 서서희는 큐브 스테이크를 하나씩 받고 쫓겨났다. 뒤에 사람이 너무 밀린 탓이었다. 정해운은 서서희의 것을 뺏어 먹고서야 음식 같은 무언가의 안전성을 인정했다.

“아 음식이 맞긴 맞구나….”

“왜 내 거 먹어.”

“기미상궁 시발아.”

“그럼 이제 네 거 먹어.”

“돈도 많은 놈이 왜, 아깝냐?”

놀랍게도 이건 진짜 음식이 맞았다.

‘…신비가 너무 덕지덕지 발려져 있어서 음식인 줄 몰랐던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음식에 가까운 신비? 어느 쪽이든 몸에 해로운 건 아닌 것 같고….’

신비라면 흔하게 할 법한 실수도 없었다. 먹는다고 다른 차원으로 끌려가거나 인간 이외의 무언가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진 않을 듯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음식’이니까.

그렇게 정제되어 있었다.

‘이 정도의 컨트롤이 가능한 신비는 처음인데….’

의외라는 생각과 별개로, 조금 안심했다.

“…맛있네.”

“직접 보니 어때.”

“네 안구가 아직 옹이구멍은 안 되었구나 싶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

“단어를 곱게 쓴다고 내용까지 고와지는 게 아니지요 정해운 선생?”

“그래, 퇴물 되려면 멀었구나 싶고….”

“나 은퇴하면 내 뒤는 누가 이어줄 건데.”

“일단 나는 아님.”

“하여간….”

혀를 찬 서서희가 물었다.

“그래서 직접 보니 어떠냐고.”

“놀라워.”

정해운이 인상을 찌푸렸다.

“너무 노련해서.”

그게 가장 놀라웠다.

‘얼마나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거지?’

아, 물론 위화감이 크긴 했다. 정해운이 이렇게 느낄 정도라면 평범한 사람들은 ‘이거 인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이 상황이 놀라웠다.

저런 위화감을 가지고도 인간들 사이에 잘 스며들었다. 길거리 음식을 팔고 있는 신비라니, 정말 말문이 막혀서. 이 정도로 인간의 이해도가 높은 데다 가진 규칙도 무해한 편이라면….

‘…어차피 수집상에서도 선을 넘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 비사벌 그 노인네가 체통 안 차리긴 해도 지구 말아먹을 정도로 말종은 아니다. 그쪽에서도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겠지.’

그렇다면 조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었다.

“너 지금 ‘조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했지.”

“아주 정확했어.”

정해운이 끄덕였다.

“우리 슬슬 절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럼 누가 손해일지 생각은 해봤고?”

“세상 사람들이 너의 이런 모습을 알아야 할 텐데.”

“누가 할 말을 하는 거지?”

“…아무튼, 그래.”

그가 혀를 찼다.

“뭘 보여주고 싶은지는 알겠네.”

그놈의 '서지오 헌터'는 저 우스운 모습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길거리 음식을 만들어 팔 정도로 높은 인간에 대한 이해도. 눈에 띄는 위화감을 헌터의 위압감으로 둔갑하는 능숙함. 다른 무엇도 아닌 먹는 방식의 신비를 이용하는데도 아무런 위해와 혼란을 끼치지 않는 노련함.

정해운은 정원사로서 인정해야만 했다.

"최소한 실수를 하지는 않겠어."

"문제는 의도하고 일을 벌일 때일 테고 말이야."

"그런 존재를 너는 계속해서 신뢰하고 있지."

실수로 재앙을 몰고 오지 않을 존재라는 건 알겠다.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신뢰에 불과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신비가 의도적으로 재앙을 빚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왜 믿는 거야?"

그 빌어먹을 '선생님'이라서?

"선생님, 그래. 선생님이라... 허울은 좋네."

"너 또 안 좋은 버릇 도지는 거 알아?"

"말이 좋아 선생님이지 결국에는 직장인이었어. 가족도 뭣도 아닌 남이었다고.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잊어버린 거겠지. 정말 소중한 기억이었다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만큼 지구가 소중했을 수도 있잖아."

"시발, 개소리하네. 나한테 그딴 의협심이 어디 있었겠냐."

정해운은 자신을 잘 알았다. 모든 교사의 사랑을 받던 모범생 서서희와 달랐다. 그는 술과 담배를 이미 중학생 때 시작한 불량아였다. 세상 모든 게 밉고, 어른들은 못 믿을 존재이며, 그냥 전부 짜증 났었다.

"너도 알잖아."

그가 미간을 구겼다.

"나한테는 너희밖에 없다고."

"......."

서서희가 끄덕였다.

"미안한데 부담스러워."

"시발 새끼야."

"나도 네가 한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야."

"하, 그래서... 무슨 결론이 나왔지?"

"그럴 만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가 생각하기에도 정해운의 말이 맞았다.

당시의 정해운은 지금만큼의 여유가 없었다. 비단 그만의 이야기도 아니었다. 그들은 제 친구들을 제외한 세상 모든 걸 경계하고 혐오했다.

그런 그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소중한 기억을 잊는 데 동의했을 리가 없었다.

"...그래, 그럴 리가 없잖아."

서서희도 인정했다. 하지만 그렇기에 답이 나왔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정확히 무슨 상황.”

“우리 중 누군가가 크게 다친다거나,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왔겠지. 내가 생각해도 그때의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타적이거나 제대로 된 인간들은 아니었거든.”

“결국 우리 이기심으로 인해 그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

정해운이 픽 웃었다.

“그럼 ‘선생님’은 우리 이기심에 이용당한 거네, 그렇지?”

“그래서 늘 죄송스러운 거고.”

“나는 그래서 더더욱 못 믿겠는데.”

이내 그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우리가 ‘선생님’께 잘못하지 않았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해? 아니지, 아예 우리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저 존재의 목적이 복수가 아니라는 법이 있냐고.”

“그걸로 화를 내서 재앙이 온다면 우리의 죄와 별개로 수습할 준비를 해야지. 저만한 신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에 몇 없거든. 배은망덕할지라도 뭘 어쩌겠어.”

서서희가 스테이크 한 점을 포크로 찍었다.

“하지만 궁금하지 않아?”

“벌써 헛소리 같지만 한번 들어나 보자.”

“우리가 끝까지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야….”

“어떤 어른이 됐을까, 우리는.”

“…….”

정해운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작은 종이 접시를 비우고도, 한참 동안이나.

* * *

정해운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소고기 큐브 스테이크였다.

그 별 볼 일 없는 거렁뱅이 집안에서 소고기 먹을 일은 흔치 않았다. 그렇다고 정해운에게 예쁘게 썰어 먹을 만큼의 교양도 없었다. 그러니 쿡 찔러서 입에 넣을 수 있는 고기 음식.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고, 식감은 더 좋은 요리….

“…….”

크기는 두툼하고 후추 향은 강하게.

“…….”

정해운은 그 취향을 제가 어른이 된 이후에 알았다고 생각했다.

세상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그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만큼 여유로워지고, 그럴 만한 삶이 되고서야 깨달았다고 말이다.

하지만 정확히 그게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음….”

정해운이 텅 빈 종이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괜찮네."

"다 먹었어?"

"응."

그냥, 그랬다.

맛있다는 건 진심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94)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95)

295

제295화

정해운은 불안정한 사람이었다.

스스로도 그것을 알았다. 그는 아주 많은 것을 혐오하고 불신했다. 어쩌다 보니 그중 예외가 생겼을 뿐 '영원의 상징'이 된 지금도 그 성향은 변하지 않았다.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와 교류가 가능한 모든 존재를 경계하는 것.

그런 사람이니 정해운은 '선생님'을 믿을 수 없었다.

"……."

"처음 뵙겠습니다, 정해운 헌터님."

검은 망토를 두른 새하얀 사제를 보며 정해운이 빙글 웃었다.

"거짓부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걸 보면 악신의 기미가 있으신데."

"건강해 보이셔서 기쁩니다."

"원래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시나?"

그런 점은 확실히 근원의 존재다웠다. 교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지만 이건 실제 교류가 아니었다. 상대는 단지 인간을 흉내 내는 신비에 불과했다. 정보값이 좀 많은 신비.

'코딩된 대로 움직이는 인공 지능과 다를 바가 없지.'

그러니 고작 정해운 자신의 말에 영향을 받지도 않을 터였다. 그렇기에 이런 엉뚱한 대답만 내놓는 것이고. 상대에게 대답을 끌어내는 것 또한 엄연히 '영향을 주는 것'에 속하니 말이다.

'이 존재를 담당하고 있는 수집상의 큐레이터가 현재 유성운이라고 했던가.'

나중에 시간이 나는 대로 연락을 취해봐야 할 듯싶었다.

"음, 뭐…."

정해운이 매끄러운 미소를 유지했다.

"우리 형제님께서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아 징그러워."

“.......”

아무리 그래도 이건 예상 못 했다.

“...제가 뭘 잘못 들은 거겠죠?”

“...죄송합니다, 상처였을까요?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딱히 상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니, 솔직히 좀 불쾌했다.

‘근원의 존재가 인간을 징그럽다고 하는 경우는 드문데.’

감정을 품을 수 있을 정도의 인지 능력이 있는 놈들이 드물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래. 기분이 나쁘기는 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반응 따위는 심기를 거스를 뿐이었다.

“왜 징그럽다고 하셨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푸른 눈으로 정해운을 바라보던 ‘서지오’가 상냥하게 웃었다.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오....”

정해운은 울컥했다.

‘그건 내가 해야 할 대사겠지.’

저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단다’라는 듯 자애로운 눈길이라니. 상대가 상대인 탓인지 웃어넘기기가 힘들었다. 어쩌면 이 또한 잊어버린 기억의 영향을 받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정원사의 입장으로서도 그리 유쾌하진 않았다. 언제나 지구에 온갖 재해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의 존재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했던 건 바로 그였으니 말이다.

“...굳이 존중해 주지 않으셔도 저는 알아서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연장자를 존중하지 않는 무례를 범하라고 종용하시는 겁니까? 저는 정해운 길드장님께서 그렇게 기본적인 예의 관념도 없는 분이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 말을 왜 이렇게 잘하실까? 신성이세요? 아닌데, 신들도 이렇게까지 입을 잘 털지는 못하는데. 저도 서지오 헌터님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도발에 재능이 있으시네요.”

“저는 그야말로 정론을 말했는데 거기에 도발을 당하셨다면 저보다는 정해운 헌터님 본인의 인성과 사고방식에 반사회적 성향이 다분하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혹시 싸우자고 절 불렀습니까?”

환장할 지경인 정해운의 어깨를 서서희가 잡았다.

“여기서 난리 피우면 수집상에서 클레임 들어오는 거 알지.”

“넌 대체 누구 편이냐고.”

“난 항상 지구의 편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럼 나는 외계인이냐고 개새끼야.”

그 순간 짙은 시선이 와닿았다.

“.......”

“…뭡니까.”

“개새끼?”

“아니, 얘가 지금….”

“입이 험하시군요.”

“나 왜 혼나는 것 같지?”

“타인의 앞에서 친구를 욕보이고도 혼나지 않으시길 바랐습니까?”

“뭔, 아니, 하.”

정해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짜증이 올라왔다. 잘 알지도 못하는 신비에게 이런 애새끼 취급을 받다니, 사회생활로 무뎌졌던 자존심이 박차고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당신이 뭐라고 지금…!”

그렇기에 막 짜증을 내려고 했으나.

“…….”

“뭐, 뭔데 나한테…!”

“…….”

“…어, 지금…!”

“…….”

“…막….”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

“…….”

잠시 뒤, 정해운이 다시 빙긋 웃었다.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했었죠?”

그리고 지오도 웃었다.

“사회에 찌든 어른의 처세술이군요.”

“과분한 칭찬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멋진 성장입니다.”

“아하, 그런가요?”

뭔진 모르겠지만 감이 영 좋지 않았다.

‘왜 순간 소름이 돋았지?’

생명의 위협 따위가 아니었다. 그런 거라면 정해운이 알아채지 못했을 리가 없고, 무엇보다 서서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서서희는 그저 애수에 찬 눈으로 정해운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정해운은 깨달았다.

‘기억을 잃기 전에 내가 압도적인 을이었겠구나.’

종종 이럴 때가 있었다. '약속'을 통해 잊은 인연임에도 몸이나 영혼에 익은 반응이 올라와 버리는 경우가 말이다. 몇 번 경험해 봤던 만큼 정해운은 자신의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물론 알아차린다고 해답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다. 정해운은 어른이나 선생이라고 대접해 주는 착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미약한 혼란을 느꼈다.

'내가 선생을 상대로 압도적인 을이었다고...?'

대체 어느 부분에 굴복을 당한 거지?

"...제가 서지오 헌터님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편하게 지금처럼 서지오 헌터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서희 이 친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던데."

"그건 본인이 부르고 싶다 여겨서 그러는 것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최소한 무언가를 강요하는 유형의 신비는 아닌 것 같았다.

'성격이 나긋나긋하니 폭력적인 유형도 아닌데.'

하긴 폭력처럼 단순한 방법으로 정해운을 다스리긴 힘들었을 것이다. 집에서 하도 처맞다 보니 그런 종류의 억압에는 면역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대체 어느 부분에서?

'...인간의 영혼이 변질되어 근원의 존재가 된 경우, 생전의 모습을 따라 하는 경우가 많지. 그렇다면 이렇게 물렁한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종하게 되었다는 거야.'

정말 먹을 걸로 조련당했나?

"......."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음식 주는 거 좋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랬군."

해답을 찾았다.

'먹을 거였구나.'

먹을 걸로 꼬셔진 거였어.

그거라면 납득이 갔다. 방금 먹어봐서 아는데 서지오 헌터의 손맛은 진짜였다. 다정한 어른이 밥도 맛있게 해주면 당시의 정해운은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내가 아니다.'

정해운이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지금의 저도 먹을 걸로 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큰 오산입니다, 서지오 헌터님. 이렇게 보여도 지구의 어른 중 한 명인 몸인지라 그 정도 유혹에는 끄떡하지 않으니까요."

"고작 큐브 스테이크로 꼬셔진다면 그건 정해운 학생이 배가 고팠던 게 아닐까?"

"배 안 고팠습니다. 물론 맛있긴 했는데 나를 쥐고 흔들 정도는 못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큐브 스테이크 무시하세요? 음식 앞에 '고작'이라는 말 붙이는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이제는 제가 더 어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서지오 헌터가 해사하게 웃었다.

“선배님.”

“…….”

소름 돋았다.

“…어우, 잠깐만….”

“괜찮으십니까, 선배님? 이 후배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아 잠깐 좀.”

어쩜 이렇게 말하는 족족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가 있지?

‘대체 얼마나 받들어 모시고 살았길래 이렇게까지 거부 반응이 심한 거야.’

정해운은 제 두 팔에 돋은 소름을 쓸어내리며 애써 가라앉혔다. 슬슬 이 서지오라는 존재가 버거워졌다. 그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저희에게는 거리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지오 헌터는 순순히 끄덕였다.

“밥은 잘 먹고 있나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한 끼?”

“…….”

정해운이 제 말을 정정했다.

“세끼로 늘리면 됩니까?”

“훌륭하십니다.”

“뭐 이딴 규칙이 다 있어?”

“밥을 잘 챙겨 먹길 바라는 마음은 드문 게 아닌 걸로 아는데요.”

“서지오 헌터님께서는 그들과 스케일부터가 다르잖아요?”

지구의 시스템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게의 존재였다. 그런 존재가 요구하는 규칙이 고작해야 ‘삼시 세끼 챙겨 먹기’라니, 후배 정원사들이 들으면 농담으로 치부할 일이었다.

그리고 정해운은 뒤늦게나마 인정했다.

“…하아아아아….”

말린 지 한참 지났다.

‘이제 와서 사기니 뭐니 부정하기에는 늦었지.’

과거에 좋은 인연이었다는 거 인정하겠다. 떠오르진 않으니 증거는 없어도 여기까지 왔는데 덮어놓고 잡아뗄 수가 없었다. 정확한 사건이야 어쨌든 좋은 관계고 시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늘 생각해 왔듯이, 그게 전부였다.

“…서지오 헌터님.”

“예,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밥 잘 먹었습니다.”

정해운이 끄덕였다.

“정말 제 취향에 꼭 맞더라고요. 서서희 이 새끼가 갈비찜이 어쩌고 도시락이 어쩌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스킬이나 신비이겠거니 싶었는데,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니네. 그냥 헌터님께서 내 취향을 잘 알고 배려해서 맞춰준 거였어요.”

정원사이기에 그 차이를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셨는지도 알겠습니다. 알아요, 알겠는데….”

“힘들지?”

“…….”

“열심히 고쳐뒀던 나쁜 버릇이 다시 돌아왔구나.”

그렇게 말하는 ‘서지오’의 얼굴은 무뚝뚝했다. 조금의 웃음기도 찾아볼 수 없는 무거운 낯이었다.

“네가 뭘 말하는지 알아.”

응시해 오는 두 눈. 시체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은, 서늘한 음성.

“너에게 나는 존재한 적도 없는데 존재했다며 네 세상에 끼어든 이물질에 불과해. 네가 온 힘을 다해 열심히 가꾸고 있는 이 위태로운 지구에 나타난 유해 생물이기도 하지. 내 목적을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무언가 바뀔 일도 없고, 애초에 그럴 열의도 느끼지 못해.”

가르치듯이 내려다보는 시선.

“왜냐하면, 나는 ‘없는 존재’이니까.”

“…….”

정해운이 입을 꾹 다물었다가, 열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그는 아주 기초적인 사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도 같았다.

“네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고 싶었어.”

차분한 말이 조곤조곤하게 이어진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지.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있기에 너희는 너무 큰 어른이 되어 버렸거든.”

“그래서?”

“걱정하지 마. 그러지 않아도 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이미 없어진 일이니 떠올리려고도 하지 마. 지금의 나를 보고 판단해. 네 눈에 내가 어떤 존재로 보이지?”

“시한폭탄.”

“그렇다면 나를 죽이려고 할 건가? 악신들을 대할 때 그러하듯 봉인해 둘 거야? 아니면 더는 사회에서 생활하지 못하도록 수집상과 겨루어 막기라도 할 생각이니?”

“내가 감히… 난 당신과 같은 신비를 막지는 못해.”

종종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정해운도 인간이었다. 그는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않았다. 그저 가장 처음 지구의 정원사가 되었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쌓아왔으며, 그래서 공존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결국 정해운이 하는 일은 그것이었다.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 그 방법을 가능한 많이 찾아내는 것. 그런 정해운이 어떻게 '서지오 헌터'를 가두고 억압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무서웠다. 정해운은 늘 신비를 두려워했다. 빌어먹을 시한폭탄들. 이쪽에서 천 번을 넘게 양보해야 간신히 한 번 양보를 받을 수 있는 더럽고 치사한 족속.

'그리고 이 존재는 더해.'

기이한 격이 느껴졌다.

이것은 살아 있으나 동시에 죽어 있다. 태양 아래 있어도 그늘 안에 숨어도 동공의 크기가 변하지 않으며, 이따금 그림자 안에서는 온갖 생명과 죽음과 신비가 아우성친다. 거대한 사막처럼 고요하거나 시끄러운 정글처럼 번잡하기도 했다.

'인간, 숲, 생명, 바다, 죽음, 절규, 사막, 사랑, 공포, 지하, 애정, 자애, 하늘, 분노, 천국과 지옥, 물 없는 바다, 포근한 가시밭, 다정한 냉정....'

이것은 모순 그 자체다. 인간이나 인간이 아니다. 전해져 오는 음성 하나에 얼마나 다양한 숨결이 담겼는지 알 수 없다. 그 음성이 몇 갈래로 나뉘어 또 한 갈래로 합쳐졌는지 알 수도 없다.

눈이 아프다. 귀가 욱신거린다. 혀가 타들어 간다. 코가 아리다. 피부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쿵쾅거린다. 인간. 괴물. 그림.

"......."

그리고 다시 인간.

"...이런 기괴하기 짝이 없는 몰골로 내 앞에 나타나 놓고, 경계하지 않길 바란 건 아닐 거야. 그렇지?"

"많이 기괴한가?"

"소름 끼쳐. 불쾌한 골짜기야. 아니, 불쾌하지 않은 완벽한 골짜기라 더더욱 징그러워. 내 오감에 지금 당신이 어떻게 비치는지 아나? 얼마나 많은 신비가 얽혀 있는지 본인은 알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반응 참 한결같네. 이러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가만히 보고 두기만 하기에는 불편하고 찝찝한 존재감이고. 당신은 너무 위험해. 그리고 무해하려고 해.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경계뿐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지?"

그가 손을 휘적여 시끌벅적한 저 너머의 거리를 가리켰다.

"난 계속 이대로 존재할 거야. 가끔 나와서 한바탕 놀다가 기운이 없어지면 그림 속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겠지. 그러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착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가끔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림을 그리다가 잠이 들 거야. 그리고 깨어나."

서지오는 세상을 가리키던 창백한 손을 거뒀다.

"나는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고, 너희는 그런 나를 막지 않을 거다."

"당신이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해. 내가 사라져서 지금의 너희가 되었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 모든 시간을 긍정한다."

"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기억해야 해, 과거의 인연 같은 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

새까만 눈이 정해운을 마주 보았다.

“잊은 채로 살아.”

“…그거면 되나?”

“너도 그걸 원하잖니.”

검은 눈이 내리감겼다.

“난 언제나 여기에 있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 * *

“…….”

‘서지오 헌터’가 떠나간 자리에 남은 정해운을, 지켜만 보던 서서희가 불렀다.

“생각은 정리가 됐나?”

“…너는 어떤데.”

“나는 한참 전부터 정리가 됐지.”

“무엇으로.”

“저 존재를 ‘선생님’으로 대할 거야.”

서서희가 가볍게 으쓱였다.

“그게 나와 이 평화에 도움이 되니까.”

“징글징글한 새끼….”

“네가 할 소리는 아니지.”

“역시 그런가.”

정해운이 골목 벽에 기대어 입에 담배를 물었다.

“…난 평생 ‘서지오 헌터’를 경계할 거야. 너처럼 가까이 두지도, 이용할 생각도 않을 것이고. 단지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의 신비로 대하고 분석하겠지.”

그게 정원사의 의의였다.

“그쪽에서 먼저 말을 꺼내줄 줄은 몰랐지만 그 사람과 나의 의견은 동일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어차피 없어진 시간들이라면 지금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고.”

“후회하지 않겠어?”

“그건 너무 사치스러운 생각이지 않나? 지워진 과거를 붙잡을 여유는 없어. 나는 지금의 삶도 버거워. 관계로 남았던 감정과 확증이 없으면 결과적으론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야.”

슬픈 영화를 보며 여운에 잠겨 있을 틈 따위는 없었다.

“결국 딴 세상 이야기잖아.”

“어쩌면 우리의 세상이 될 수도 있었던 이야기인데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 지금 남은 거라고는 빌어먹게 영생하게 될 ‘영원의 상징’과 그사이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한 ‘서지오 헌터’뿐이야.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해?”

“그러다 기억이 돌아오게 되면?”

“그땐 어차피 지구가 끝나는 날일 텐데 무슨….”

정해운이 낄낄대며 늘어지게 웃었다.

“그런 날이 오면 멸망하는 차원 꼬라지 구경하면서 천천히 후회를 음미하게 되겠지. 나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최후네. 뭐, 우리가 버티고 있는 한 그런 날이 올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동의한다고.”

서로 모르는 채 사는 것이다.

“난 그걸로 충분해.”

“그게 네 나쁜 버릇이야.”

“아까 서지오 헌터님도 그런 말 하던데, 무슨 버릇.”

“못 먹을 감은 올려다보지도 않는 거.”

“인정은 한다만….”

정해운이 으쓱였다.

“최소한 멀쩡한 사람을 신 포도라고 욕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글쎄다. 너는 가끔 신 포도는 무슨, 아예 썩은 포도 취급을 하던데. 서지오 헌터님을 그런 경우로 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세상이 꼭 진실만으로 돌아가지는 않거든.”

이러니저러니 해도 ‘서지오 헌터’와의 대화는 정해운을 꽤 안정시켜 주었다. 불안과 경계와 혐오로 요동치던 마음이 조금은 잠잠해졌다.

‘빚을 지고 말았지만, 그래도….’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맞아.”

최소한 그 자신에게는.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95)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295)"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96)

296

제296화

물새.

어느 순간 지구에 스며든 몬스터로, 새의 형상을 한 살아 있는 물이었다. 그들은 선한 이를 옹호하며 악한 이를 혐오하는 습성을 가졌다.

사람들은 그런 물새를 조금 무서워하기도 했다.

"어, 뭔가… 까마귀나 하이에나 같은 느낌이라서."

"단체로 나타나면 결국 무슨 일이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물새 떴다는 이야기 들으면 그날 하루 기분이 그렇게 찜찜하던데."

"현대 사회를 비난하는 느낌이 강하죠. 그들은 등장만으로도 그런 처벌을 받아야만 했던 악인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셈이니…."

"고맙죠, 귀엽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평생 안 보고 지냈으면 해요."

그리고 그 물새 떼가, 바로 지금. 마치 오로라처럼 밤하늘을 부드럽게 덮었다.

"우와…."

퍼레이드를 구경하기 위해 나온 아이가 입을 헤 벌렸다.

"아빠, 저거 봐. 저거…!"

"그러게, 멋지다."

아이와 함께 나온 남자 역시 감탄했다.

'서지오 헌터가 검은망토의 사도라더니.'

제 신에게 어지간히도 사랑을 받는 모양이었다. 검은망토의 종속을 마치 제 것처럼 부려, 더는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은하수를 만들어낼 정도라면 말이다.

물새들은 하늘을 높이 날아 살아 있는 별처럼 반짝였다. 자체적으로 발광할 수 없는 물새들이지만, 생동하는 물인 그들의 신체와 그 안에 품은 각종 보석에 빛이 반사되었다.

"어, 비 온다."

“아니야, 이건... 비가 아니라....”

“물새가 떨어지고 있는 건가?”

그들 중 일부는 마치 비처럼 잘게 떨어져 내렸다. 꼭 별이 녹아 지상으로 떨어지는 듯 황홀한 광경이 퍼레이드의 기나긴 행렬을 덮었다. 알록달록한 비를 맞은 작품들은 더욱 밝은 기색을 띠었다.

“엄마, 나 돌보미가 꽃 줬어...!”

“올해 운도 좋을 예정인가 봐.”

“이번에는 꼭 시들지 않게 열심히 키울 거야!”

“그래그래, 응원할게.”

수집상의 작품들은 작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조각’을 내어주었다. 꽃이나 작은 축복, 포옹, 즐거운 장난 따위가 관람객에게 떨어졌다. 눈치 좋은 일부는 그 공통점을 알아냈다.

“보통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받네.”

“어른들도 조금 있기는 한데....”

“혹시 이거 물새의 특성에 영향을 받은 건가?”

선한 이에게 축복을, 악한 이에게 처벌을.

“뭔가 훨씬 안심되는 느낌이다.”

“이번 퍼레이드는 유독 포근한 느낌이 있네....”

수집상의 퍼레이드는 기괴한 서커스였다. 온갖 아름답거나 해괴한 작품들이 제 담당 큐레이터와 함께 걸어 나와 춤을 추고 공연하며 순회한다. 하지만 이번 퍼레이드는 그런 자극과 거리가 멀었다.

빗방울이 되어 떨어져 내렸던 물새들은 제각기 고여 있다가 다시 뭉쳐서 슬그머니 날아올랐다. 긴 꽁지깃을 살랑거리며 가벼운 장난을 치는 그들은 마치 유성우에서 만들어진 요정 같았다.

“거의 동화의 한 장면이야.”

“예쁘다아....”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서지오 헌터는 수집상 길드원들이 이끄는 거대한 꽃마차에 올라타 있었다.

3층으로 이루어진 꽃마차에 탄 사람은 비단 서지오 헌터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곳, 맨 앞자리에 앉아 물새를 부리는 그는 유독 눈에 띄었다. 그의 손짓에 따라 물새들은 합창을 하듯 제각기 울음소리를 내었다.

꽃이 팔랑거리는 소리, 보석이 부딪히는 소리, 풀이나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그것들이 한데 어우러지자 퍼레이드의 음악소리에 매우 잘 어울리는 노래가 완성되었다.

“나, 나 저 새 가지고 싶어요!”

“안 돼, 새는 날아가도록 두어야지.”

서지오 헌터의 행렬은 유독 어린 가족과 함께 온 이들에게 반응이 좋았다.

“수집상에 저런 헌터도 있네.”

“늘 무서운 서커스만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무섭다고 그래요.”

“오늘 못 온 사람은 좀 아쉽겠다.”

“서지오 헌터는 수집상에서도 유독 활동이 적지 않나?”

“이렇게 떠들썩한 자리에 용케 나왔네.”

“내년에는 보기 힘들겠지?”

그리고 그중 일부는, 또 다른 사실을 눈치챘다.

“…서지오 헌터가 물새들을 부리는 모습, 뭔가… 누굴 닮은 것 같은데….”

“…수집가가 저런 식으로 작품을 다루지 않던가?”

“아, 그러네. 비사벌 길드장이었어.”

“저런 걸 보면 확실히 가족이라는 이야기가 맞나 봐.”

물새들을 합창하는 아이들처럼 어르고 달래며, 또 그들을 이용해 작품들을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모습. 동화처럼 아름다운 광경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크지만 그런 공통점도 있었다.

사람들은 감탄했다.

‘하긴 물새들 생긴 거 하나는 정말 기깔나지.’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검은 망토의 수족들이라는 게 느껴지네….’

‘물새들로 이런 광경도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이내 물새들의 노랫소리가 차차 잦아들었다.

“아….”

“슬슬 끝나나 봐.”

수집상의 큐레이터들은 작품들을 갤러리로 안내하고 있었다. 그들의 안내에 따라 작품들은 저마다의 몸을 다루며 안전히 귀가했다. 앞쪽의 행렬에 있던 서지오 헌터 역시 마차에서 내려왔다.

그는 나긋하게 인사하고는 퇴장했다.

“…갔다.”

“물새들도 사라졌어.”

“어디로 간 거지?”

그렇게 퍼레이드는 조금씩 정리되어 갔다.

마치 한바탕 꿈이었다는 것처럼, 이내 축제는 끝을 맞이했다.

* * *

물새들은 자신의 둥지로 복귀했다.

“수고했다 얘들아.”

“꾸르륵?”

“허니도 수고했어.”

참고로 그 자리엔 유성운과 주현도 있었다.

“지오야, 나 꽃차 좀….”

“금방 타 드리겠습니다.”

“어우 죽겠다.”

“무리하신 거 아닙니까?”

“일은 해야 하잖아.”

유성운은 오늘 내내 얼음과 관련된 스킬을 남발하느라 몹시 지쳐 있었다.

안 그래도 낮은 체온이 세 배는 더 낮아져 있었다. 지오는 ‘각성인이란 대체 무엇이길래 체온이 이따위가 되어도 죽지 않고 살아 있는가’를 잠시 고민하기도 했다.

“그런 유성운 씨를 위한 선물입니다.”

“선물이라. 그래, 선물 좋지. 이쯤 되면 나도 그냥 모르겠다 싶더라고.”

지오가 내어준 목도리와 담요를 유성운은 소중하게 착용했다.

지금도 선물 하나에 심장이 철렁거리는 건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유성운의 내세를 걸고 무언가 계약이 된 모양이지 않던가. 그러니 이런 크고 작은 선물도 큰 부담 없이 받기로 했다.

‘말하자면 후불인 셈이지. 그것도 나름 정당한 대가이자 거래라고 할 수 있으니까....’

곰인형 태양신이 내어 온 꽃차를 마시는 유성운의 모습에 주현이 안쓰러워했다.

“지오 씨의 말대로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것도 엄밀히 큐레이터의 업무 중 하나라....”

“비사벌 길드장님께서는 수집품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그건 사실이야.”

유성운이 으쓱였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수집품의 모양새와 쓰임새잖아. 특별히 길드장님께서 닦달한 적은 없지만 이런 행사에서 제 역할을 못 해내면 밥버러지가 된 것 같은 기분이라....”

“수집상의 큐레이터들은 본인의 역할에 너무 맹목적인 것 같기도 해요.”

주현도 합세한 덕분에, 어느새 유성운은 온갖 따듯한 물건으로 감싸여 있었다.

“극락인가.”

“좋아 보이십니다.”

“나 오늘 이거 들고 나가도 돼?”

“자고 가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나 아침까지만 먹고 갈게....”

“내일 점심까지 드시고 가세요.”

그런 둘을 보며 주현은 생각했다.

‘페르세포네를 붙잡는 하데스가 이런 느낌이었을까.’

그쪽은 절절한 사랑 이야기다만, 이쪽은 그냥 친구랑 노는 게 좋은 초상화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지오는 친구들이 놀러 오면 쉽게 내보내 주는 법이 없었다. 밥이든 잠이든 선물이든 꼭 하나는 들려 보내지.

그런 주현의 발치로 다나가 다가왔다.

“애앩.”

“...안녕?”

“애애앵....”

친근한 모습에 주현의 등골이 조금 서늘해졌다.

'내가 정말 인간에서 벗어날 날이 머지않은 건가.'

하지만 검사 결과에서는 평범한 인간이었으니 일단 무시하기로 했다.

유성운도 그와 비슷한 생각이니 저렇게 늘어져 잠이나 자고 있을 것이었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 한 '지오의 초상화'가 제 친구들을 변질시킬 일은 없었다.

다나를 살살 쓰다듬은 주현이 지오에게 물었다.

"그러고 보면 다나는 항상 크기가 들쑥날쑥하네요."

"안에 들어 있는 친구들의 수와 무게로 체구가 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고양이만큼 작아진 걸 보니 전부 다 뱉어낸 건가…?"

"요즘 다나 외에도 일해줄 친구가 생겨서요."

기절한 유성운의 뒷골에 푹신한 베개를 놓아준 지오가 말했다.

"감사하게도 다나의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친구라고 하면 '일기장'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확히는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자주색을 말하는 겁니다만."

"자주색…."

"아테르 씨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정도로는 놀라지 않았다.

'이런 것도 결국에는 적응이 되나 보지.'

놀라운 일이었다.

"그나저나 이번 퍼레이드 직전에, 그… 학생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신 것 같던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왔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하십니까?"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워낙 사적인 이야기잖아요. 지오 씨의 상태가 염려되었던 것뿐이니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셔도 돼요."

"별 대단한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었는데요."

지오가 간식을 요구하는 물새들을 달래며 말했다.

"그저 정해운 길드장님께서 무언가 착각하고 계시길래 정정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벌써 좀 선득한데 대충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각자 알아서 살아도 된다고 말을 해주었죠."

"각자 알아서…?"

"이 상황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지오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을 알려 줬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초상화일 뿐이라고요.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를 신경 쓰는 것까지는 상관없지만… 그걸로 자책까지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정해운 길드장님께서 자책하고 계셨습니까?”

“대체로 아닌 척하려고 노력하는데, 자존감이 워낙 낮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는 척 본인이 먼저 힘들어하죠. 그렇게 정신적 한계에 다다르면 대뜸 엉뚱한 사고를 치는데 참 희한한 학생이었어요.”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현대 사회로 나가기 전에 제구실하도록 옆구리 꽤 찔렀습니다만, 전부 까먹어서 그런지 다시 원상 복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

단순히 기억만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지워지는 셈이었다.

“아마 서지오라는 사람이 주었던 영향이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씁쓸하신가요? 저라면 서운할 것 같아서요, 나를 잊은 것도 그렇고....”

“아쉬움은 남지만 씁쓸하거나 서운하지는 않습니다.”

지오가 물새들을 전부 창밖으로 내보내며 말했다.

“우리는 그때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거면 충분했다.

“나는 그 애들을 압니다. 정해운 길드장님께서는 아예 잊어버린 것 같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정해운이라는 학생은 의외로 이타적이고 행동력이 좋았어요. 한 번 옳은 길을 정해주면 그대로 달려나갔죠.”

“좋으신 분으로 유명하기도 해요.”

“해운이는 아닌 것 같아도 바른길을 긍정할 줄 아는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그게 설령 꾸며낸 위선일지라도 계속해서 행하다 보면 자신의 선행이 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연한 사실도 잊은 것 같은데... 그나마 다른 친구들이 함께 해 주어서 최악까지 닿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 지오 씨가 생각하는 최악이란 뭘까요?”

“혼자로 되돌아가는 거죠.”

온 세상을 미워하던 때로 말이다.

“기껏 밥 먹이고 뒷바라지해 줬더니만.”

“거의 부모님이 할 법한 발언인데.”

“그러니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정해운은 그 모든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최선을 다했다. 그게 지금의 정해운이었다. 그런 제 학생을 보며 서지오는 내심 흐뭇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오가 옅게 웃었다.

“역시 내가 없어도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기특하기는.

“.......”

“왜 그렇게 보십니까, 주현 씨?”

“...제 일이 아닌데도 뭔가 서운해서?”

“서운할 일이 뭐가 있죠?”

“사라진 과거라고는 해도 인연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

“딱히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학생이 사회에서 제 몫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서지오는 그 모든 일에 성공했다. 심지어 그라는 존재가 사라진 세상에서도 말이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서희 길드장님께서는 또 다른 반응이었다고 들었는데.”

“저마다 특정한 대상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거겠죠.”

서서희는 지오를 ‘선생님’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도움을 받고자 했다. 그게 심력의 소비는 적고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득은 많으니까.

그와 반대로 정해운은 정원사로서 지오를 ‘신비’로 인지하고 경계하고자 했다. 그래야 귀신 들린 초상화가 문제를 일으켜도 언제든 제압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차이일 뿐이었다.

“아마 해라는 나라는 변수를 아예 배제하기로 한 것 같고.”

지오가 꽃차를 따라 주현에게 건넸다.

“은혜는, 글쎄요. 잘 모르겠군요.”

“계속 모르는 채로 사실 건가요?”

“안 그래도 겁이 많아진 내 학생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그 학생들은 지오에게도 각별한 부분이 있었다.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그들을 가능한 한 배려해 주고 싶었다. 새끼 고양이가 하악질을 하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주고 싶어지는 것처럼….

“조급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긴 하죠.”

“너무 미래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늘 말하지만, 나는 지금이 마음에 듭니다.”

추위에 떨던 유성운이 그렇게나 마음 쓰였던 것일까. 지오는 소파 아래에서 휘적거리는 곰인형을 들어 유성운의 품에 내려놓고는, 웃었다.

“그렇죠?”

[…….]

“아침은 무엇으로 해볼까….”

기분 좋은 일상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97)

297

제297화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일이었다.

새벽에 엉엉 울며 연락해도 나와서 달래주고, 사비로 학생들에게 피자를 사줄 만큼 다정하고,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 찾아가 물어도 친절하게 알려주는 선생님.

너희가 행복한 어른이 되었으면 한다고 버릇처럼 말하던, 그런 선생님.

"……."

그런 사람과 만날 수 있었던 건, 굉장한 행운이었다….

"은혜야."

"……."

숨이 턱 막혔다.

"…선생님."

가득했던 행운의 빈자리만큼 온갖 추잡한 감정이 몰려온다. 그 큰 자리를 불행과 절망이 메꾼다.

하지만 그것 역시 우리가 손수 쌓아 올린 것이라고. 엄연한 계단이고 명예라 자부하며 살아왔거늘… 악몽은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 온다.

악몽이 묻는다.

"간식 받으러 왔니."

"…네, 그냥…."

새까만 머리카락과 그보다 더 새까만 눈. 피부는 창백했고 눈두덩이는 깊었다.

눈썹은 조금 짙고, 입술은 붉고, 겨울날 눈이 쌓인 새벽처럼 고요한 시선이 인상적이다. 한 번 보면 쉽게 잊지 못할 만큼 눈에 띄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한 빌어먹게 익숙한 얼굴이었다.

"…마카롱 하나만 주실래요."

되지도 않는 요구에 그는 얕게 끄덕였다.

“식단 관리 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운동 더 하려고?”

“이제… 식단 관리 안 해도 돼서요.”

“그럼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겠네.”

“원하는 대로 먹으려고요.”

“그래?”

그가 나를 본다. 웃지 않는데, 웃는 것 같은 시선으로 나를 본다.

“그것도 좋네.”

나의 모든 것을 긍정해 주었던 선생님이었다.

“왜 계속 서 있어, 앉지 않고.”

“선생님도 그림 그리느라 바쁘시잖아요.”

“취미 생활에 바쁠 게 뭐가 있겠니.”

“그래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요.”

“아니면 이번에도 간식만 챙겨서 도망치려고 한 건가?”

“나를 너무 매정한 사람으로 보신다….”

입꼬리를 끌어 올리며 낡아빠진 학교 의자에 앉는다.

“…….”

내려다보지 않아도 제가 교복을 입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생님.”

“그래, 아이돌 지망생.”

“이거 꿈이에요.”

“나도 알아.”

“저도 알아요.”

기억에 희미하게나마 남은 미술실의 풍경이 보인다.

창밖으로는 우거진 나무도 보였다. 오랫동안 교체되지 않아 시커멓게 먼지가 깔린 창문. 학생들이 난장판으로 늘어놓은 미술 도구를 가지런히 나열해 놓은 이는, 눈앞의 선생님이었다.

희미하게 탄내가 나는 이곳은 차은혜의 꿈속이었다.

“차라리 전부 잊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매번 해요.”

타버린 캐러멜처럼 단꿈이다.

“나도 애들처럼 다 잊는 거야.”

“서운한데.”

“선생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잊고, 어떤 도시락 싸줬는지도 잊고, 나랑 뭐라고 떠들면서 놀았는지도 잊고… 그냥 전부 잊어버려서….”

“편해지는 거지, 나를 두고.”

“그래요, 선생님만 두고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

비참했다.

“나까지 선생님을 잊으면 어떻게 해.”

“외로워, 은혜야.”

“선생님 혼자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그러냐고요.”

“내가 지금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왜 나를 혼자 두었어?”

“솔직히 난 아직도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잘 모르겠어….”

“은혜야.”

새까만 귀신이 저를 본다.

“살려줘.”

“…….”

인간도 뭣도 아닌 것이, 차은혜를 보았다.

“…살려줘, 무서워. 혼자 있기 싫어. 여기가 어디지? 내가 뭐로 보여? 집에 가자, 도시락을 싸줄게. 아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번에는 뭘 그려줄까? 말해봐.”

“…….”

“은혜야, 얘들아. 얘들아. 다치면 안 돼. 도망쳐.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아파? 아파? 도와줘? 아파. 아파, 너무.”

“…난 정말….”

“내가 지금 대체 무엇이지?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보여? 난 사람이야? 괴물이니? 인간일까? 도망칠래? 숨어, 도망쳐. 아파. 괜찮아. 은혜야….”

“정말 끔찍해.”

이게 저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점까지, 무엇 하나 끔찍하지 않은 게 없었다.

“우리 선생님은 이러지 않을 텐데.”

전부 차은혜가 만들어낸 악몽에 불과했다.

“너희가 원망스럽구나.”

“…아니지, 선생님은 누굴 원망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것이었니? 외면과 회피? 날 홀로 두고? 너희가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내가 있어줬잖아.”

“…베푼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사람도 아니었어.”

“이제 나는 혼자야. 모두가 나를 봐. 모두가 나를 보지 못해. 외로워. 너희는 이런 나를 끝까지 마주 보려 하지 않는구나. 겁쟁이들. 난 너희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발….”

“날 원래대로 돌려줘.”

새까맣고, 이질적이고, 기괴한 것이 차은혜를 내려다본다.

“돌려내.”

원망을 말한다.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절대 이런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너희 때문이야, 너희만 없었어도….”

이렇게 잔인한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닌데도 심장이 덜컥거린다.

“나는 죽지 않았을 거야.”

“…선생님은 죽지 않았어, 제발….”

“왜 그래? 잊었니? 너희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안 죽었잖아요, 진짜 나한테 왜 그래. 무섭게 그러지 말라고.”

“너희는 결국 너희만을 위한 선택을 했어.”

새까만 것이 차은혜를 부드럽게 포옹했다.

“나를 망가트리고.”

“…아니야.”

“세상을 구했지.”

“아니야.”

떨리는 손으로 악몽을 마주 껴안았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거라고 말해줘요.”

그러자 ‘선생님’이 저를 보았다. 그건 선생님이었다. 내 악몽이었고, 익숙한 얼굴이었다. 내 뜻에 따라 사람의 형상으로 돌아온 우리의 선생님이었다.

그러곤 말한다.

“너희의 선택이 옳았어.”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힘들었지, 고생했겠구나. 하지만 정말 잘했어.”

“우리가….”

그 새까만 셔츠를 붙잡고 울었다.

“…자, 잘못했어요….”

무서웠다.

“…정말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해?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난 아직도 밉고 그리운 게 많은데 친구들은 전부 잊어버렸단 말이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억울했다.

“선생님, 왜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온 거야? 언젠가 돌아와 주길 원했지만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란 건 아니었어요. 목적이 뭐예요? 우릴 죽이러 왔나? 세상에 복수하러 왔어?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고 있죠? 그게 왜 가능해요?”

그리웠다.

“서지오라는 헌터가, 정말 선생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왜 나를 보러 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보러 오지 않아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니야. 모르는 척 다시 친해지면 되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되겠죠? 허락해 주실 건가요? 하지만 너무 아깝잖아요. 나, 나는… 난….”

어쩌면 좋을까.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그냥 다 같이 죽어버릴 거야.”

“왜 그렇게 생각했지?”

“…너무 힘들어요….”

어른이 필요했다.

“우리끼리 너무 힘들었다고요.”

선생님이 필요했다.

“우, 우리가, 대체 뭐 좋다고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하지만 너도 이게 옳은 길이었다는 걸 알잖아.”

“좋은 길은 아니었어,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

그녀의 악몽은 제 모든 것을 알았다.

“세상을 이렇게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뿌듯해하고 있잖아.”

“그렇다고 내가 힘들다는 사실이 거짓말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너는 그날로 돌아간다 해도 결국에는 같은 선택을 할 거야.”

“…….”

포옹을 푼 차은혜가 ‘선생님’을 올려다보았다.

“…죽은 거예요?”

“너희가 죽였지.”

“죽었어요?”

“그럴 리가, 죽지 않았어.”

“정말 끔찍한 꿈이야.”

“네가 그 꿈을 꾸길 원했지.”

“…….”

어른이 된 차은혜가 물었다.

“…선생님, 그 말 해줄래요?”

“그래.”

악몽 속의 ‘선생님’이 다정하게 속삭였다.

“난 언제나….”

“맞아요.”

“여기에 있을 거야.”

“선생님 말이 맞아.”

이 꿈속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차은혜가 만들어낸 비겁한 거짓이 아니었다.

“난 언제나 여기에 있어.”

그건 서지오 선생님의 유언이었다.

차은혜는 잠에서 깨어났다.

* * *

“…….”

서럽게 눈물을 흘렸다.

“윽, 아….”

이불을 쥐고, 뜯듯이 힘을 주었다.

“끄으윽… 흡, 으아….”

이대로 찢어버리고 싶었다.

“…선생님….”

그 개같은 악몽이라도 깨고 싶지 않았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차은혜는 손에서 힘을 풀었다. 붉게 달아오른 눈가를 차가운 손으로 식혔다. 식은땀에 흠뻑 젖은 몸은 짓무른 눈가를 제외하면 어디 하나 따듯한 곳이 없었다.

그녀는 이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후우우….”

진정했다.

“…….”

그녀의 시선에 거울이 닿았다.

그 너머의 거울, 천장의 거울, 바닥의 거울. 문에 달린 거울. 기둥에 달린 거울. 위에서 매달린 거울. 탁상의 작은 거울. 거울. 또 거울. 그리고 거울.

어딜 봐도 ‘차은혜’가 있었다.

“…좋아.”

차은혜가 빙긋 웃었다.

아, 지금 표정 괜찮네.

“마음에 들어.”

오늘은 이대로 지내야겠다.

해가 뜨지 않은 시각임에도 차은혜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잤더니 이런 한심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모처럼의 긴 수면이었지만 그다지 상쾌한 기분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차은혜는 웃으며 방을 나섰다.

“각하, 깨셨습니까?”

“정원사들 쪽에서 온 서류는 없나?”

“안 그래도 정해운 길드장님께서 오전 방문이 가능하겠냐는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음… 해운이를 보려고 내가 그렇게 일찍 깼나 보네. 5시에 만나자고 해줘.”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이거.”

차은혜가 제 눈가를 두드렸다.

“가려줄 친구들 불러주고.”

“바로 부르겠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하루의 시작이었다.

* * *

“그런데 좀 의외네.”

아보카도가 듬뿍 들어간 과카몰레에 옥수수 칩을 찍으며 유성운이 말했다.

“영원의 상징들이 되게 조용한 것 같아서.”

“다들 바빠서 이 선생님 얼굴을 보러 올 시간이 없나 보죠.”

“정말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삐진 건 아니지?”

“? 아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기특할 뿐입니다.”

지오가 옥수수 칩을 뽀각, 반으로 쪼갰다.

“저는 치즈 소스가 좋습니다.”

“과카몰레가 슬퍼하겠다.”

“과카몰레는 자립할 때가 됐습니다.”

“애초에 그 작은 칩을 왜 또 자르는 거야? 칩 괴롭혀?”

“이 큰 칩을 통째로 먹으면 입천장이 까집니다.”

“너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저도 입천장 까집니다.”

치즈 소스에 푹 담근 칩을 먹은 지오가 주현을 돌아보았다.

“왜 소스에 담그지 않나요?”

“옥수수 칩도 워낙 짭짤해서 소스는 그다지….”

“주현 씨는 순수한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취향은 대체 뭐죠.”

또 번역 오류가 생긴 것 같았다.

“지오 씨는 종종 그렇게 번역이 잘 안된다니까요.”

“이걸 번역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 아닌가요?”

“뭐, 그렇기는 한데… 하긴 이제 와서 뭐 하나 싶다.”

유성운도 포기했다.

“나 다음 생에도 친구 하면 인생 사는데 친구 할인 같은 거 있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오 제자로 들어갈래.”

“환영합니다.”

그런 유성운을 주현이 말렸다.

“쌓인 데이터를 보면 지오 씨의 제자 역할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억울합니다.”

“인어에, 사슴에, 영원의 상징에. 아무리 생각해도 지오 씨의 제자로 평범한 삶을 살기는 그른….”

“모함입니다.”

지오를 무시한 채 유성운이 끄덕였다.

“그렇긴 하지.”

“기어코 나를 배신하는가.”

“쌓인 데이터값에는 배신이 없어요, 아르지오 씨.”

아무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는 말인데, 너는 이대로도 괜찮은 거야? 네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잊은 채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 같지 않아?”

“예, 괜찮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될까?”

“그 나이 먹었으면 각자 인생 살아야죠.”

“너 진짜 이상한 곳에서 매정한 거 알지.”

“제가 낳지 않았습니다.”

지오는 단호했다.

“자식도 때가 되면 독립이라는 걸 하는데 하물며 학생들이라면 말은 다 한 셈이죠. 주현 씨도 그렇고 유성운 씨도 제가 은근히 매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걱정이 되십니까?”

“그래, 좋았어. 판 깔아줬으니 솔직하게 말할게. 나 기억을 되찾은 영원의 상징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지구 뒤집을까 봐 겁이 나.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네가 먼저 오냐오냐해 줬으면 하는 거야.”

주현이 조금 해탈한 표정을 지었다.

“오냐오냐 당하는 영원의 상징이라….”

“어우, 내가 말하고도 좀 소름 끼친다. 그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의 조합은 아니죠.”

“아무튼 있을 법한 일 아니야?”

유성운의 질문에 초상화가 고개를 기울였다.

“설마요.”

“헌터 업계에서는 ‘에이 설마’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어.”

“마음에 드는 규칙입니다.”

사망 플래그 같은 건가.

“저는 제 학생들이 옳은 길을 선택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 나중에 지구 갈아엎을 것 같으면 꼭 우리 길드장님이랑 미리 상의 좀 해주고.”

“오냐오냐는 지금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그렇다면 다행이네. 맞아, 그럼 됐지.”

유성운도 체념했다.

“아무튼 이거 맛있다, 나 아보카도 안 좋아하는데 이건 괜찮네.”

“유성운 씨는 요리사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요리사야?”

“자격증은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놀라울걸.”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오랜만에 우리 집에서 음식 냄새 나니까 낯설다.”

“하루 네 끼.”

“어어, 먹고 있어. 그런데 보통 집에서 먹지는 않으니까….”

“아직도 바쁘십니까?”

“그래도 차차 정리가 되어가는 느낌이지.”

“궁금합니다.”

초상화가 흥미를 표했다.

“유성운 씨의 정원은 친절합니까?”

“…정원치고는 친절하신 편이지만, 왜?”

“항상 그렇게 추워해야 하는지 궁금했어요.”

정원이라.

“놀러 가도 되겠습니까?”

최근 지오는 새 작품의 소재를 찾고 있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98)

298

제298화

의도하진 않았지만 심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준 것일까. 정적이 흐르는 공기를 환기하기 위해서라도 지오는 변명을 덧붙여야만 했다.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

“지금 저는 새로운 ‘지오’를 찾고 있지 않아요.”

“그럼 새로운 소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새로운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흠.”

유성운이 되물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슬럼프다?”

“그렇게 심각한 사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보다는 기운이 없습니다.”

그에 주현이 끄덕였다.

‘그럴 만도 하지.’

이 내향적인 사람이 최근 퍼레이드마저 참여하지 않았던가. 조금 지난 일이지만 ‘아르지오’를 흡수하고 진정시키는 데에도 힘을 썼고. 차근차근 소모한 기운을 보충할 때가 됐다.

‘게다가 요즘 옛 제자들을 만나느라 평소답지 않게 여기저기 방문하고 다녔으니 기력이 없는 것도 이해가 돼.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건….’

유성운을 슬쩍 살핀 주현이 지오에게 물었다.

“…역시 도시락을 싸는 게 부담이 되었던 걸까요?”

그러자 유성운이 감탄했다.

“과연 우리 주현 선생, 아주 용감해.”

“싸우자고요?”

“A급 헌터한테마저 이렇게까지 당돌할 줄이야.”

“나이를 먹을수록 늘어나는 건 근거 없는 자신감뿐이더라고요.”

“매우 좋은 현상이지.”

늘 그렇듯 주현을 놀린 유성운도 물었다.

“나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쪽이 먼저 말문을 터주네. 그래, 나도 궁금하기는 했어. 네 슬럼프 아닌 슬럼프에 그동안 도시락 싸다 준 그 갸륵한 정성이 뭔가… 음, 무거운 영향을 준 건 아니야?”

유성운은 최대한 에둘러 표현했다. 차마 제자들 밥 싸주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다. ‘지오의 초상화’에게 그 제자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는 만큼 더더욱.

‘하지만 큐레이터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

신비란 본인이 좋든 싫든 스스로의 규칙에 얽매여야만 한다. 그런 ‘지오의 초상화’가 가지고 있던 1 대 1의 규칙. 그리고 이 친절한 초상화는 ‘도시락’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지불하고 있음을 밝힌 바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 지오의 무엇이 지불되고 있었던 것일까?

‘솔직한 심정으로는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갉아 먹을 일이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그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이니, 이것만큼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

괜히 안타깝고 심술이 나는 일이었다.

“뭐, 존중하고 있어. 네 제자분들께서 지구를 위해 하는 일이 여간 많은 게 아니잖아. 거기에서 느끼는 안쓰러움만큼 너도 더 도움을 주고 싶을 것이고….”

“지금의 결과에 그 작업의 영향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성운 씨.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초상화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만.

“오, 그래.”

유성운 큐레이터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게만 들렸다.

‘거의 본인 정체성이 부정당한 상황 아닌가?’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고, 그림 그 자체였던 신비다. 그런 녀석이 대뜸 그림 그릴 기운이 없다지 않은가. ‘괜히 바깥으로 빼돌렸나’라며 옅은 후회가 들 정도였다.

“음, 아무튼… 그래서 내 설원에 방문하고 싶다고?”

“기분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술가에게는 모름지기 새로운 영감이 필요한 법이지. 너도 알고 있겠지만 나는 누군가를 정원에 초대할 권한이 없어. 그 부분은 네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야?”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가 그렇다면 내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닌 것 같고, 마음대로 해.”

유성운의 선선한 반응에 주현이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너무 쉽게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쪽은 일개 정원사라서 말이야, 손님을 초대할 권한이 없어.”

"그래도 불청객을 막을 의무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거야 집주인과 손님끼리 알아서 해결을 봐야 하는 것 아니겠어?"

황제 폐하께서 방문하겠다고 오셨는데 한낱 정원사가 막을 수 있을 리도 없었다. 정원의 주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았다. 한마디로 유성운의 손을 떠난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 방문하겠다고 하면 미리 연락이라도 줘. 그래야 나도 최소한의 마음의 준비는 할 테니까. 정원사로서 그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지만…."

유성운이 지오를 보았다.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할까?"

"정원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정원의 풍경 같은 걸 말하는 거려나. 작품 묘사 하듯이 묘사하면 되는 거야?"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은 유성운 씨의 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 내 눈을 통해서 설원을 본 적이 있었던가."

그렇다면 객관적인 광경 묘사는 필요 없을지도 몰랐다. 지오가 유성운의 눈을 통해 정확히 정원의 무엇을 보았는지는 몰라도 말이다.

"그럼 정원의 무엇을 궁금해하는 거지?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유성운 씨가 정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상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표현하기가 힘들다고 해야 하나. 감상평이라도 필요해?"

"어려우시다면 그림을 그릴 때 곁에 있어만 주셔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조건을 만족합니다."

"일종의 제물이야? 뭐, 좋지. 눈이라도 뽑아주면 되겠어?"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네.

'인신 공양은 안 받는 신비라 이건가.'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렴 좋은 일이었다.

"그럼 지금 가면 돼?"

"어딜 가십니까?"

"그림 그리러 가는 거 아니었어?"

"식사 중입니다."

"그보다는 군것질 중 아니었던가."

"비슷합니다."

"그렇기는 하지."

입으로 뭔가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말이다.

"그러니 드세요, 유성운 씨."

"나 안 그래도 잘 먹고 있었어…."

"살이 찌셔야 합니다."

“큐레이터 살찌워서 얻다 쓰게.”

하여간 뚝심 있는 초상화였다.

* * *

노을이 내려앉은 시간, 어느 한적한 카페에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들었다.

그들은 무엇 하나로 분별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차림새와 연령대를 보였다. 심지어 인간뿐만 아니라 고양이와 까마귀, 강아지 등도 있었다. 하지만 서로를 알아보면서도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제자리에 앉았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한 백발의 노인이었다.

“열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황혼에 접어든 사람 특유의 지긋한 무게감. 카페의 주인인 그가 오랜 연륜이 묻어나는 나긋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한동안 다들 바쁘셨던 만큼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서로 이렇게 마주 앉아 얼굴을 보는 것조차 버거운 시간이었죠. 그만한 성과는 다들 있었으리라 짐작합니다만….”

“글쎄요, 열병보다는 예방 접종의 후유증이었다고 봐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 떠들썩했지만 이후에는 조용해졌잖아요. 정원도 훨씬 튼튼해졌고요.”

어깨를 으쓱이며 의자에 앉은 청년이 웃었다.

“아무래도 근원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감히 정원사로서는 알아내기 힘든 일일 테지만요.”

“함께 지낸 지도 꽤 되었는데 여전히 매몰차다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정원께서는 보너스도 챙겨주지 않으시고, 대규모 공사가 있어도 당일에 공지하고 마시니.”

그에 까마귀가 고개를 기울였다.

“공지를 해주셨나요?”

“아… 이런, 정원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몸살을 앓았습니다만….”

“여전히 깐깐하시네.”

“평소에도 워낙 과묵하신 분이라 이해합니다.”

고양이가 나른하게 울었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수다스러운 정원은 평소 정원사와 교류가 많은 대신 부담이 크고, 조용한 정원은 정원사를 아는 척도 않지만 번거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정원은 알맞은 성향의 정원사를 선택하기 마련이었다.

“다만 이렇게까지 온 정원이 떠들썩했던 건 오랜만이라 걱정스럽네요. 이 정도면 정원들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근원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요?”

“이상이라는 말보다는 변화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릴 겁니다. 근원에게는, 알잖아요? 이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하지만 괭이 님 말대로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정원 전체가 이렇게까지 떠들썩했던 건 대재앙 이후로 이번이 처음 아니었던가요? 또다시 그날 일이 반복된다면….”

아이 모습의 정원사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여차하면 정원으로 숨으려고요.”

“그러다 나무토막 되시지.”

“우리 정원 좋은데. 포근포근하고 따듯해요. 선선하고.”

“아무리 좋아도 벌써 은퇴 생각 하시면 안 되죠, 최소한 후계자는 만들어 주세요.”

중년의 여성이 한탄했다.

“다른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고요. 정원이 꼬신다고 꼬셔지지 말고, 피곤하다고 냅다 드러눕지 말고, 화난다고 몽땅 때려치우지도 말고.”

“아, 그런데 요즘 후계자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거 다 변명이에요,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다고요. 자질 있는 친구들이 입 꾹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분명 여러분 정원 물려줄 정도의 인원은 있어요.”

“떼잉, 쯧. 찾는데도 그거 교육하는 데만 시간이 얼마야.”

“그럼 장수하시던가요, 선생님.”

“은퇴는 언제 하려나....”

“이 이상 때려치우면 정해운 정원사께서 우리를 잡으러 올지도 몰라요. 정말 멱살 잡힌다고요, 안 그래도 최근에 예민하신 분인데 혼날 일 만들지 맙시다.”

또 다른 중년이 픽 웃었다.

“에잉, 싹싹 빌면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요즘에는 진짜 기분 안 좋아 보여.”

“그 성격 좋은 사람도 야근만 하다 보니 기어코 한계가 오나 보네요.”

“가만 보고 있으면 정말 안쓰럽다고요....”

갓 성인이 된 듯한 나이대의 청년이 목을 긁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무슨 일이에요? 그래도 저는 신참이라고 여기저기서 많이 도움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혼란스럽지 않았던 건 아니라서요. 진짜 지구 망하나요?”

“벌써 망하면 안 되지, 그럼.”

“하지만 아까 대재앙 때 아니면 이런 적이 없었다고....”

“근원께서 기지개라도 켜신 게 아닐까 싶은데.”

“무섭네요, 근원이라는 거. 기지개만 켜도 이 정도인가요?”

그에 카페 주인이 주름진 얼굴로 느긋하게 웃으며 끄덕였다.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

“어, 네... 땅이요....”

“우리가 밟는 흙보다 더 크고 깊은 땅 말입니다. 그 거대한 기초가 흔들린다면 위에 얹힌 것들은 죄다 흔들리겠죠? 이번 사태도 같습니다.”

“근원에 문제 생긴 건 아니고요?”

“근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와 같다.

“변화죠.”

다만 인간들이 걱정해야 하는 건 맞을지도 몰랐다.

“혹시 모르니 경계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정원들께서도 오랜만에 시끌벅적해지셨고요. 하지만 아무렴, 정원에 활기가 넘쳐서 나쁠 거야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경건한 얼굴의 사제가 말했다.

“너무도 보기가 좋습니다, 이토록 생기가 넘치는 숲이라니. 안 그래도 요즘 정원들이 점점 기운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몹시 불안했는데 열병을 거친 이후에는 훨씬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아, 그 부분은 확실히 걱정이었죠. 원인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쪽이 아무리 영양제를 쑤셔 넣는다고 해도 정원이 정신 차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리….”

“정해운 정원사님이라면 뭐라도 좀 아시지 않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저희가 원한다고 찾아뵐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이번 일은 심각하다면 심각하잖아요.”

“그분이라고 뭐 아시겠나, 다 같은 정원사들인데.”

“그래도 저희보다는 훨씬 정보값이 많으실걸요. 저희는 한두 개의 정원을 살피는 게 고작이고, 그분은 거의 전 세계의 정원을 휩쓸고 다니시는 분이니….”

그에 카페 주인이 끄덕였다.

“조만간 연락을 취해보도록 하죠.”

“주인장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고.”

정원사들이 한숨을 내쉬었다.

“뭐라도 좋으니 더 이상 야근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정원은 갓난아기처럼 매일 보채기나 하시고.”

“이렇게 정원 상태가 좋아진 게 회광반조 같은 것만 아니라면 다 좋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선생님.”

그렇게 모두 카페를 떠나고.

“…….”

카페 주인, 정해운이 턱을 쓸었다.

“…정말 뭐가 문제였을까.”

노인의 얼굴이었던 그는 어느새 중장년의 얼굴로 젊어진 채였다.

‘해라나 은혜 쪽에서도 별 반응이 없었던 걸 보면 정말 근원에서 생긴 일이 원인이었을 텐데. 아무리 나라고 해도 그쪽과 직접 접촉하기는 너무 부담이 된단 말이지.’

가만 생각하던 정해운이 이내 결론을 내렸다.

‘…유성운, 그 친구랑 대화를 좀 나눠 봐야겠네.’

미루던 일을 처리해야 할 때가 왔다.

* * *

지오의 곁에서 그림 제작을 감상하던 유성운이 목을 쓸었다.

“……?”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순간 소름이 끼쳐서.”

“야근의 기운입니까?”

“그럴지도.”

엇비슷한 기분이긴 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98)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299)

299

제299화

"……."

그저 조용히 캔버스를 바라보는 유성운에 초상화가 물었다.

"이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빙하와 눈뿐이야."

"그럼 빙하와 눈이 있군요. 어떻게 생겼나요? 차갑다면 얼마나 차갑죠?"

"글쎄다, 정원은 계속해서 형태가 바뀌니까…."

유성운이 캔버스 속 설원을 응시했다.

"지금 모습도 어디선가는 봤을 수도 있겠네."

가만히 보고 있자면 속이 울렁거렸다.

그의 정원이다. 그의 설원이었다. 눈이 아래로 내리고 위로도 내려 천지를 구분할 수 없는 차디찬 세계. 적막할 때, 혹은 그렇지 않을 때도 눈을 감으면 박동하는 심장 소리가 들려오는….

손가락 끝이 간지러웠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사지의 말단에서부터 시작되어 안구로 가득하게 몰려오는 열기와 초조함. 내가 무엇인가 놓쳐버린 것만 같은 기이한, 그리움.

"…굉장히 현실적이야."

"과찬이십니다, 이런 물감 뭉텅이가 현실적이라니요."

"확실히 실제 풍경과는 거리가 있겠지. 이건 사진이 아니니까."

"유성운 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림이라는 게 왜 존재하겠어?"

"객관적인 사실만을 찍어내는 사진과 달리 그림은, 감상을 남길 수 있죠."

"그래, 감상. 감정. 마음. 그런 것들 있잖아."

사진과 그림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림에는 시간과 정신이 담기고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세상 모든 예술과 작품을 귀하게 만든다.

“너도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나?”

“글쎄요.”

“어떻게 내가 느끼고 보았던 세상을 그렇게 그려낼 수 있지?”

“그것도 글쎄요.”

“너는 너무 모호해.”

그게 신비라는 친구들의 매력이긴 하다만.

“…확실히 현실적이라고 하긴 어려운 그림인데….”

유화 특유의 거친 자국이 남는다. 두툼하게 올라간 물감은 빠르게 굳어 툭 튀어나온다. 정밀한 묘사 따위는 없었다. 그저 나이프로 수정조차 않고 뭉근하게 찍어 누르더니 이런 광경이 나왔다.

언젠가 유성운이 제 설원을 보았던 때의 시선이었다.

“…현실 감각과 멀어져서 그런가.”

“멀어지셨습니까?”

“네가 너무 좋은 것만 먹여서 그래.”

“살이 찌셔야 할 텐데, 늘 마른 몸이라 안쓰러우십니다.”

“매번 말하지만 나는 마른 편이 아니란다, 지오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시선은 설원에 박혀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무의미한 의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생각하게 된다. 경탄하고 있었다. 사람을 닮은 사람의 자식이 만들어낸 얄팍한 작품에서 황량한 설원을 찾는다는 것이. 정녕 말이 되는 일인가.

내 정원이 그려지고 있다. 바로 저기에 있다. 껴안으면 끌어안을 수 있는 캔버스 위에….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네.”

툭 던진 말을 초상화가 흘려보내지 않고 받아주었다.

“눈은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서걱거린다거나… 차갑다는 감상이 먼저 아니야?”

“사람의 손길과 발길이 닿지 않는 눈은 포근합니다.”

“따듯하지는 않겠지만.”

“아무것도 닿지 않은 그 자체만이라면요.”

“맞아, 내 설원이 그래.”

사람이 드나들 수 없다.

‘그 안에서는 사실상 나도 사람이 아니고.’

그는 ‘정원사’일 뿐이다. 정원의 광경을 해치는 짓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유성운은 그 안에서 어떤 흔적도 남길 수 없었다. 사람으로서 눈을 밟은 자국이라든지, 얄팍한 온기라든지.

하늘과 땅을 구분할 수 없는 설원에서 유성운은 눈조차 녹일 수 없었다. 정원이 요구하거나 허락한 게 아니라면 말이다.

“…….”

기이한 감정이 샘솟았다.

“…이 광경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된 건 처음인데.”

“다른 정원사분들과는 공유하지 않습니까?”

“정원을 인간이 볼 수 있는 곳에 끌고 나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

“음….”

고개를 기울인 지오가 물었다.

“유성운 씨의 눈을 통해서도 볼 수 없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없나요?”

“내 눈을 본다고 거기에 비친 정원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마 너뿐일걸, 지오야. 오해하면 곤란해.”

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는 한다만. 유성운이 내심 어색하게 웃었다.

‘인간 흉내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역시 지오의 단편적인 부분만 봐서 내릴 수 있었던 판단이었을까. 아직 내적으로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하지만 아주 당혹스럽지는 않았다. 이는 거대한 신비가 종종 헷갈리고는 하는 지점이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평범한 일이 인간들에겐 기적일 거라고 생각지 못하는 것이다.

신비가 자주 범하는 일반화의 오류라고도 볼 수 있었다. 본인은 된다고 남들도 다 그럴 거라 생각하는 것이. 이런 관점은 인간들로 하여금 상당한 괴리감과 함께 공포를 주기도 한다.

‘그래도 우리 초상화는 최소한 겉으로 보이는 건 잘하니까.’

의미 없는 자부심에 유성운이 빙글 무던하게 웃었다. 내 작품의 특별함을 느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건 큐레이터의 종특이었다. 그는 마저 설명했다.

“정원사는 제 정원이 얼마나 아름답든, 그걸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기억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뽑아내는 스킬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스킬이 통하지 않는 대상인 데다가, 그런 식으로 뽑아낸다고 해서 내가 느낀 감정을 온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유명한 관광지를 보았던 그 시간, 그 감정, 그 시선에 장소를 온전히 들고 올 수 없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입니다.”

황홀한 눈밭의 티 없는 명암까지 그려낸 초상화가 물었다.

“선물해 드릴까요?”

“이런 선물은 사실 나에겐 의미가 없는데 말이지. 정원이 나와 한 몸을 쓰고 있잖아.”

“그렇다면 전시할까요?”

“어디에 전시를 하게?”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아, 글쎄….”

고개를 들어 시선을 마주하자, 아득한 검은 눈이 품고 있는 자애가 엿보였다.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지독하고 거대한….

“난 그냥….”

이 존재의 자애는 그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수 있었다.

커다란 땅을 덮어 오는 무시무시한 해일도 한 손으로 치워줄 수 있을 것이고, 지독한 병마에 허덕이는 병자를 눈길 한 번으로 치료해 줄 수도 있었다. 그러니 ‘친구’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큐레이터는 그의 초상화가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았다.

“…….”

자애로운 근원께서 이 피로한 정원사에게 무얼 보여주신 건지를 알았다.

“…아직은 괜찮아.”

역시 신비는 신비라는 거지.

심심풀이 수수께끼처럼 툭 던져주고 당장 답을 원하기엔, 너무 무거운 질문이지 않은가.

“이런 작품을 전시해 두면 사람들이 놀라 까무러칠걸.”

“까무러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조금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이해해 줘,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약한 사람이라 그래. 그 정도로 네 작품은 너무 현실적이고 아름답거든. 심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겠지.”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라는 건 대체 언제쯤 인정해 주려나?”

아마 지구가 뒤집힐 때쯤?

“…나는, 글쎄… 감히 주제넘은 말이겠지만 지금도 괜찮다고 봐서….”

인간이라는 생물이 그렇지 않은가. 안정을 추구한다. 저 하나 변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데 세상이 변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건 일개 인간에게 너무 두려운 일이었다.

“지오야.”

“예.”

“지오의 초상화.”

“예, 듣고 있습니다.”

“지구를 대체 어떻게 만들고 싶어?”

“제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뭘 하고 싶은 거야.”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뭔데.”

“유성운 씨도 알다시피….”

짙은 기름 냄새 나는 은색 통에, 지오가 나이프를 담갔다.

“식사하고, 낮잠을 자고, 친구들과 놀고, 그러다 다음 날 오후에 느지막이 일어나는 거죠.”

참으로 평화로운 이야기였다.

“오해하지 말아 주시겠습니까? 저는 단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제 친구와 지인과 선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걸 알고 있을 뿐이고요….”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아득하기도 한 소리였다.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제가 왜 망설여야 합니까?”

“사람들은 변화를 무서워하거든.”

“그 부분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너는 여러모로 특이한 사례니까 그럴 만도 해.”

인간이었던 ‘지오’들조차 그 한계를 훌쩍 넘은 사고방식을 보였다. 제 살을 깎는 희생을 숨 쉬는 것보다도 쉽게 여겼던 지오반니. 차원을 뒤엎어서라도 분노를 세상에 알린 아르지오.

그리고 서지오 미술 교사.

“선생님이라….”

“부르셨습니까?”

“…선생님?”

“예, 부르셨나요?”

“…….”

유성운이 초상화를 보았다.

학생도 제자도 아니었던 유성운의 부름에조차 초상화는 반응했다. 그의 나직하고 부드러운 되물음은 인간의 것 같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럴 때마다 조금 무서워지는 것이다.

‘정해진 값에 따라 정교하게 반응하는 인형 같아.’

물론 그게 신비였다.

‘무서울 것도 없는데, 이것도 내가 한낱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탓일까.’

그들처럼 단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가 없었다. 그 오묘한 규칙이 눈에 밟힐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식은땀이 흐른다. 눈이 커지고 동공은 작아진다. 입꼬리는 올라간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주현 씨는 인간이 아니게 될 운명이었다. 인간이 마땅히 반응해야 하도록 설계된 것에 반응하지 않는 자. 그리고 신에게 선택받은 자이지 않던가.

“…음….”

잡생각이 좀 긴 것 같은데.

“…너는 무슨 일을 한 걸까?”

“이 선생님에게 하는 질문인가요?”

“그래, 선생님.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무슨 ‘짓’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앞선 전례들이 있어서 말이지, 안 그래?”

지오반니도, 아르지오도 그 정신 나간 업적을 빚어냈다. 그들을 쐐기로 차원은 멸망했고 수많은 생명과 죽음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초상화는 그런 그들을 이용해 지구를 또다시 빚으려 한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의도한 것이 아니라 말한다.

‘그렇다 해도 결과를 이미 알고서도 그렇게 행동한다면 의도한 것과 뭐가 다르지?’

유성운은 그 차이점을 알아낼 수 없었다.

“너 대체 뭘 한 거야?”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뭘 했길래 네가 첫 번째인 거냐고.”

왜 ‘서지오’가 초상화의 바탕이자 기본이 되는가. 어째서 그의 제자들은 지구의 수호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어째서 초상화의 형태를 한 신비로 되돌아왔는가.

스스로를 인간이라 착각하는 이 존재의 그 무수한 권능은 뭘 대가로 하였는지.

‘인간에서 근원이 된 걸까, 근원에서 인간이 된 걸까.’

정말 이상한 친구였다.

“…다시 말하는데, 이 작품을 전시하지는 말아줘.”

“그럼 제 방 창고에 들어가겠군요.”

“조금 마음 아픈 일이긴 하겠지만… 이런 게 길거리를 떠도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우리 설원이도 바깥 풍경이 보고 싶다는데….”

“어우,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르겠어서 등골에 소름이 막 돋네.”

유성운이 품을 뒤적거렸다. 그는 사탕을 씹어 먹고서는 말을 이었다.

“네 의도가 뭔지는 알아.”

“딱히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 정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정원사들의 부담도 한결 덜해지겠지. 어쩌면 크게, 넓게, 멀리 보았을 땐 그게 맞을지도 몰라. 근원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대재앙으로부터 한 세기조차 지나지 않았어.”

아직도 한국 바깥으로 넘어가면 국가의 형태조차 띠지 못하는 구역이 더 많았다. 이제 아무도 그곳을 국가라 부르지도 않았다. 단지 오지일 뿐이었다. 이 세계는 이토록 위태롭다.

“이제 막 적응한 사람들에게 근원의 존재까지 알려 더 피곤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반응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어, 그래. 그렇겠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냥 전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초상화가 눈을 두 번 깜박였다.

“…유성운 씨의 설원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너….”

유성운이 허탈하고도 떨떠름하게 웃었다.

“너, 너 진짜… 정원사의 마음을 후벼 팔 줄 아는구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건 모함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후벼 판다고.”

“긍정적인 어감은 아닌데.”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지.”

조금 민망하기도 했다.

“네 ‘의도’가 그런 거였다면 나도 괜한 잔소리를 한 셈이네.”

이 초상화는 그를 단지 배려하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나 혼자만 이런 광경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던 건가.’

확실히 그건 정원사의 아픈 지점이었다. 그들은 평생 외로운 사랑을 해야만 했다. 경애, 집착, 배려, 자비, 탐욕. 사랑이라는 이름하의 그 각각의 감정들을 결코 드러낼 수 없었다.

하려고 해도 못 한다. 보여줄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 광경이니까. 그들이 보는 것은 흔해 빠진 관광지나 아름다운 명소 따위가 아니었다. 실질적인 공간이 아닌 것이다. 그건, 정말로, 꽤나 힘든 부분이라….

“…….”

유성운이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처음에, 정원사가 무슨 취급을 받았는지 알아?”

“대략 30년 전의 일인가요.”

“그래, 그때. 그리고 또 수많은 차원에서.”

“흠.”

초상화는 당연히도 정답을 이야기했다.

“미쳐버린 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병자 취급이었지.”

그들은 ‘실존’하지 않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두려워한다. 또 그것에 홀려 끝내 사랑에 빠지고 만다. 그게 남들 눈에는 얼마나 끔찍한 광인으로 보였겠는가.

“우리가 정원을 보여줄 방법은, 그 존재를 증명할 방법은 오로지 우리 자신뿐이야. 우리의 눈. 모발. 체온. 육체의 변형 혹은… 드물게 체향이라든가.”

“확실한 증거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방금 말했다시피 이건 ‘인간이 볼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하니까.”

이건 정원사들끼리도 마찬가지였다. 인간들끼리 서로의 눈을 본다고 그 영혼을, 그 내면의 신비를 볼 수 있겠느냔 말이다. 그런 편리한 권능 따위는 그 누구에게도 없었다.

그렇기에 ‘지오의 초상화’가 더더욱 대단한 것이었다. 그는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그 거대한 신비를 가늠할 수 있게끔 했다. 근원의 눈인 만큼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유성운이 설명을 이었다.

“하지만 정말로 이게 전부인걸. 그 이상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어. 우리의 한계 이상으로 힘을 내보이려고 해도 유일한 통로인 우리가 죽어버릴 뿐이고….”

“정원사들은 정원에 속하게 되면 죽음조차 얻지 못한다던가요.”

“그런 식으로 소멸해 버릴 수도 있는 거라서.”

참 억울하지 않은가?

“명백히 있는 대상을 누구에게도 알려줄 수가 없잖아.”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외롭지. 이건 뭐랄까, 거의 정원사들의 직업병이야.”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십니까?”

“어… 미안하다고?”

요즘 예민해져서 그랬던 것 같다.

“하긴 네가 원하지 않는 변화를 강요할 리가 없는데.”

이 초상화는 의도하지 않았을 뿐 원하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게 꼭 지구를 갈아엎으려는 신성들의 모습을 닮아 두려웠던 것 같다. 사실은 그런 녀석이 아닌 걸 아는데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

이 초상화와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처럼, 나른한 감각이었다.

“…그럼 보여주기만 할 수도 있나? 사람이 방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건 당사자의 의사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런 유성운 씨의 의견을 전달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

유성운이 물었다.

“이거, 작품 이름도 있어?”

“유성운 씨입니다.”

“아하.”

웃음이 나왔다.

“역시나.”

어째 너무 나를 잘 안다 했지.

* * *

그날 유성운의 집에는, 커다란 설원 그림이 하나 걸렸다.

“어우.”

“주현 씨, 이 멋진 그림을 보고 할 말이 그것뿐이야?”

“보기만 해도 어지러워지는 이런 위험 물품을….”

“지오 그림인데.”

“알맞은 위치에 장식해 두셨군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

변화도 나쁘지만은 않은 일이다.

“…사람 사는 집 같네.”

“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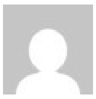
“내가 감상에 빠지게 좀 둬봐.”

이 작품이 어디로 도망칠지는 모르겠다만.

아무튼, 유성운의 외로움이 한 조각 덜어진 날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299)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00)

300

제300화

그렇게 유성운은 정해운과 만났다.

"……."

"유성운 정원사?"

"아, 예."

왜지?

'내 인생에 마가 꼈나?'

제 금쪽같은 초상화가 그려준 금쪽같은 작품을 자택에 안치한 게 불과 28시간 전.

급한 업무만 끝내면 '같이 설원에 들러보자'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차, 마음의 준비는커녕 상상도 못 한 존재가 그를 찾아온 것이었다.

"정해운 길드장님께서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는지?"

"역시 너무 갑작스러운 방문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정해운 정원사는 난감한 얼굴로 사과했다. 과연 명성대로 다정다감하고 정중한 태도였다.

"정말 못난 발언이겠지만 가급적 비사벌 길드장님과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이해했습니다."

확실히 영원의 상징과 비사벌은 사이가 안 좋은 편이었다. 유성운이 생각하기에도 그의 길드장은 인생을 너무 즐겼다. 조금 아슬아슬할 정도로 즐겼다. 지구를 수호하는 입장인 영원의 상징이 꺼리는 것도 이해는 갔다.

'아무리 콩깍지가 꼈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란 말이지.'

수집가와 다른 누군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96%의 확률로 비사벌이 문제였다. 유성운도 그 데이터값을 무시할 수 없었다. 단지 그가 이렇게 당황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유성운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필 던전에서?"

"분위기 좋은 카페나 깔끔한 응접실이 아니라 송구한 마음입니다만, 정원사끼리 대화를 나누기에 던전만큼 용이한 공간

도 없지요.”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신비에 예민한 정원사들 아닌가. 정도 이상의 급에 다다르면 지구보다는 신비 속이 더 편안할 때가 있었다. 이래저래 조정하기도 편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에도 딱 좋고.

여러모로 말이다.

‘다만 여기가 네발 우림 속이라는 점은 조금 걸리는데.’

지오의 수족인 물새들이 사방에 널린 곳 아닌가. 물론 유성운은 제 작품의 편이었지만 동시에 지구의 편이기도 했다. 지구의 수호자이자 정원사의 어른인 정해운을 홀대할 수도 없었다.

그가 주변을 살폈다.

“확실히 이 구역에는 지금 저만 있긴 합니다. 편히 말씀하세요, 정해운 길드장님.”

“예, 다시 한번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을 잡아서 뵙는 것이 예의인 줄 알면서도 급한 마음에 이런 식으로 찾아뵙고 말았군요. 이 점은 허락해 주신다면 추후 보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뇨, 선배님이 늘 바쁜 분이라는 건 지구인이라면 누구나 아는데요.”

헌터 사이에 사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건 분명한 무례였다. 하도 서로 죽고 죽이던 대재앙 시기에 생긴 암묵적인 전통 중 하나였다.

찾아오는 사람이야 어쨌든 맞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가 암살자일지 뭔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하지만….’

그 상대가 정해운이라면 예외였다.

‘시간이 없지.’

그냥 없다. 물리적으로 없다. 눈 씻고 찾아봐도 아예 없는 걸 넘어 그냥 마이너스 통장 수준이다.

‘그런 사람이 특정한 인물을 찾아온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손해를 감수한 것일 테고… 그 정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찾아왔을 정도라면 나눠야 할 주제는 딱 한 가지뿐일 텐데.’

생각을 정리한 유성운이 물었다.

“…‘지오의 초상화’ 때문에 찾아오셨습니까?”

“아, 이런. 먼저 말을 꺼내도록 만들다니 부끄럽습니다. 예, 후배님께 이런 무례를 저지르고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니 참 민망하지만…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요.”

“저는 괜찮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빨리빨리 이야기를 마치는 편이 정해운 길드장님께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부분이…?”

“그자, 근원입니까?”

“…….”

이건 조금 당황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 역시 그렇군요.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갑니다.”

“제 작품 관리가 미흡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유성운 정원사께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저는 며칠 전 직접 ‘서지오 헌터’를 보기도 했고, 그렇게 느낀 바도 있으니까요.”

“아하….”

역시 까마득한 대선배의 관점은 또 다르다 이건가.

“저는 꽤 오래도록 관찰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부족한 점을 이렇게 느끼게 되니 참 부끄럽군요. 앞으로 더 정진하겠습니다.”

“유성운 정원사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마다 해야 하는 일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일이 다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항상 같은 시야를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나긋하게 이야기하던 정해운 정원사가 물었다.

“혹시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서지오 교사’의 이야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 그자가 ‘약속’에 얽힌 존재라는 건 아시겠군요.”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무례했을까요?”

“무례보다는 유능이라고 표현해야 옳겠죠.”

정해운이 소탈한 모습으로 으쓱였다. 그는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줄 아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지오가 말한 ‘불량아’가 상상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아무래도 제 배경과 그러한 ‘약속’ 덕분이 컸습니다. 유성운 정원사가 담당하는 작품에 대해 알아차리기가 꽤 수월했죠. 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알아내기 어려운 진실일 테니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말했다.

“최근 정원들이 한차례 열병을 앓았습니다.”

“예, 저의 설원 역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저는 이것을 일종의 성장통, 혹은 그에 준하는 무언가로 판단했습니다. 유성운 정원사의 담당 작품이 정말 근원과 엮인 존재라면 그쪽에서는… 무언가 반응이 없었을까 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서지오 헌터’와 친한 사이일 거라 생각하시나 봅니다.”

“두 분이 공식 석상에서도 친분을 과시하는 사이라는 건 꽤 유명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뭐. 저 역시 ‘서지오 헌터’의 성격을 알고 있으니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죠.”

“…워낙 친화력이 좋은 친구이기는 해요….”

좀 머쓱했다.

“…그 이전에도 열병의 기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분 탓이었겠습니까?”

“아뇨, 예전부터 정원은 불안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지점에서 확 터진 것처럼 보였고요. 다만 그 지점 근처에 무언가 계기가 있지는 않았을까 해서.”

“계기라… 음….”

유성운도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다.

“…어….”

하지만 결론은 아직도 나지 않았다.

“곤란하네요, 이거. 짚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럴 만도 한 것이 상대는 ‘지오의 초상화’였다. 근원의 눈이라는 것이다.

그런 존재에게 최근 여러 자아가 덧씌워지기도 했고, 던전이나 몬스터 같은 여러 신비를 매만지기도 했으며, 옛 제자를 만나거나 퍼레이드에 나서는 등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원이 동요할 이유는 이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아니면 일종의 감사(監事)라던가?’

뭔가 그럴싸했다.

‘눈이라는 신체 부위가 가지는 특성상 지오의 방문을 눈치챈 정원들이 긴장한 탓에 몸살을 앓은 걸 수도... 몸살 이후에는 더더욱 정돈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나름 일리가 있긴 하지.’

하지만 이것도 명확한 건 아니었다. 유성운의 정원만 하더라도 몸살 이후에 딱히 ‘완벽’해진 건 아닌 것이다. 단지 손이 조금 덜 가게 된 것뿐이지.

‘정말 높으신 분께서 거행하는 감사의 의미였다면 생기가 넘치기보다는 여전히 긴장 상태였을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정원의 입장이 되어본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고.’

아니, 그 영향이 아예 없을 것 같지는 않지만, 정해운 정원사가 말하는 ‘사건의 원인’에 이것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았다.

정원사는 근원의 존재만을 알 뿐 그의 정확한 구조를 아는 건 아니었다. 추측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무한대의 상상을 해낼 수 있었다.

역시 곤란한 일이었다. 유성운이 무던하게 웃었다.

“...다시 짚어 보았지만 여전히 머리가 복잡한데, 바로 대답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바쁘신 분께 이런 실례를 끼치다니.”

“죄송하다뇨,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것도 추가 근무이지 않습니까?”

“비슷하기는 하죠?”

“실례는 제가 끼쳤고, 도움도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뭐라도 괜찮으니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음....”

유성운이 변명처럼 말했다.

“...이전부터 기미는 보였죠. 지구의 신비는 쌓여만 가는데 정리할 인원은 적으니 모든 정원사들이 예견한 미래였겠습니다만. 또, 이게... 최근에는 여러 던전이 터졌고.”

“모두 ‘지오의 초상화’와 연관이 있는 던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초상화가 근원에 가까운 존재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 반은 의도한 것 같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속 모를 녀석이라.”

“음... 제가 직접 뵈었을 때도 그리 만만한 분은 아니셨죠,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꿈의 유원지’ 직전까지만 해도 열병이라 부를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전처럼 모든 정원이 떠들썩해졌던 것도 아니니까요.”

다정하게 어르고 이끌어주는 음성에 유성운은 차근차근 시간을 되짚어갔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상되는 지점은 있지만, 그래도 정해운 정원사 앞에서 허투루 지껄일 수는 없었다.

그가 찾아내야 하는 건 그야말로 불안정함이 팡 터진 시기.

‘정원과 신비의 일로 가장 많이 바빠졌던 때.’

곰곰이 생각하던 유성운이 목을 쓸고는 말했다.

“…역시, 그, 폐교에….”

“…폐교?”

“예, 제 초상화가 폐교에 둥지를 지었습니다.”

“아, 이런.”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었던 것 같네요.”

“무슨 말씀인지 방금 이해했습니다.”

정해운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유성운 씨는 ‘관계자’이신 모양입니다.”

“아? 아, 네. 관계자요?”

“아시겠지만 그에 관련된 기억과 정보는 모두 지워졌습니다. 저 역시 헌터 협회장께 호의를 받아 그 오싹했다는 괴담의 존재만을 알고 있을 뿐이지, 정확한 기억은… 그다지….”

“…기억이 남은 소수의 사람이 ‘관계자’인 거군요.”

“나름의 기준이겠죠. 정말 모든 사람이 잊어버리게 된다면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습할 사람이 없으니 말입니다. 유성운 정원사라면 믿고 맡길 수 있어요.”

“그럼 모든 영원의 상징께서 그 폐교 둥지의 존재를 잊으셨습니까?”

“최소한 나와 단해라 협회장은 잊은 게 맞습니다.”

그러고 정해운은 빙긋 웃었다.

“아쉽군요.”

“…….”

기묘한 울림이 있는 말이었다. 어딘가 비틀린 울림이다.

‘…정원사 종특이지.’

S급 헌터이자 지구 최초의 정원사. 그 누구보다도 인간 아닌 신비에 가까운 인간. 음성 하나에도 다채로울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정원사였다.

백조처럼 보일 것. 얼어붙은 강가의 수면처럼 보일 것. 그 속내를 드러내지 말 것. 그렇지 않은 정원사는 결국 언젠가 신비에 잡아먹히거나 그로 인해 파멸을 부를 수 있으니….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겠고.’

정원사는 그래야만 했다. 자신을 쉽게 드러내 보이는 사람은 정원도 쉽게 드러내고, 그렇게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다가 결국에는 신비의 일부분이 되어버린다. 그들은 모순이어야 했다.

“…이 이상 더 궁금하신 점은 없습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이 부분은 사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할 텐데… 원하시는 물건이라도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든지요.”

“‘지오의 초상화’를 어떻게 대하실 생각인가요?”

“음, 그렇죠. 유성운 정원사라면 충분히 궁금해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잠시 고민하던 정해운이 순순히 대답했다.

“…신비로 대할 것입니다.”

“그를 싫어하십니까?”

“꽤 좋아합니다, 저치고는.”

“인간에 한없이 가까운 신비는 인간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은 짧고 신비는 순식간에 존재를 드러냈다 사라지니.”

“저는 며칠 뒤 저의 정원에 그를 들이려고 합니다.”

“그건… 꽤 흥미롭군요.”

정해운은 정중한 미소를 지었다.

“그자가 당신을 잘 대해주나요?”

“대단히 잘 대해주고 있죠, 정말 친절한 초상화라서요.”

“그 관계가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째서입니까?”

“신비의 이야기가 더 큰 규모로 넓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군요.”

그러고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만약 정원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그때의 그걸 지구라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적응해 나갈 테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운의 질문은 여기서 끝이었다.

‘나머지는 내가 생각해야 할 문제지.’

그러며 무던하게 웃었다.

“앞으로도 평온했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아주 친절한 초상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지구를 사랑하는 초상화죠.”

정해운이 가볍게 고개 숙여 작별을 전했다.

“최소한 더 나아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중요하죠, 믿음이라는 건.”

“그럼 종종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어라 말을 전할 새도 없이, 정해운의 모습은 사라졌다.

“.......”

나타났을 때랑 똑같네.

‘귀신같은 사람이야.’

귀신도 일종의 신비인 만큼 어찌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었다.

유성운은 주변을 휘 둘러보았다. 안정된 네발 우림은 그들만의 생태계로 생기가 넘쳤다. 이따금 바닥에서 새싹이 자라나 살랑거리거나 투명한 물새가 열매를 물고선 응시하기도 했다.

수풀 사이에서 등꽃 수룡이 뿅뿅뿅 얼굴을 내밀었다. 옹기종기 모인 녀석들은 고개를 기웃거리다가 다시 수풀로 들어갔다.

“...으으음.”

귀엽기는 하다만.

‘...그사이에 또 성장했네. 설마 여기에도 근원의 영향이 미친 건 아니었으면 하는데....’

한숨처럼 신음이 나왔다.

“언제 퇴근하지.”

빌어먹을 야근이었다.

* * *

“서서희.”

그의 방문은 평소보다도 갑작스러웠다.

“...정해운.”

“그가 아직도 너를 보러 와?”

“갑자기 무슨 소리야.”

“대답부터 해.”

대뜸 서서희를 찾아간 정해운이 험악하게 굳은 얼굴로 물었다.

“그자가 아직도 너를 찾아?”

“...아니, 당분간은 쉬겠다고 했어.”

“너, 절대로, 절대....”

어깨를 꽉 쥔 양손과 살기가 감도는 날 선 어조. 화를 내는 듯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다.

“절대 그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마. 그래 줄 수 있지? 그럴 거라고 믿어.”

식은땀이 가득했다.

“...무슨 일인지 말은 안 해줄 생각인가?”

“그래, 곧 죽어도 말 안 할 거야.”

“너 지금 평소 같지 않네, 허세는 다 어디 갔어?”

낯선 상황이다.

“뭘 무서워하는 거지? 서지오 선생님?”

“그 말도 하지 마. 신비에게 이름은 중요해, 너도 알잖아.”

“지구가 멸망이라도 하나 봐?”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

“너 방금 어디 다녀왔어.”

“빌어먹을 학교.”

“뭘 알아내고 이렇게 찾아온 건데, 정해운.”

“우리가 지은 죄.”

“…….”

“…그 인간에게, 우리가, 우리가 그날 뭘 했는지 알았어. 그러니까….”

서서희가 이어서 물었다.

“알려고 하지 마라?”

“시발, 대체, 그 존재가 뭘 하려는 건지 좆도 모르겠다고…!”

“진정해.”

“…….”

숨을 내쉰 정해운이 말했다.

“난, 나는… 이제부터 잊으러 갈 거야.”

“해라한테 갈 건가?”

“너랑 나는 경우가 다르니 이 짓 하라고는 안 해.”

“그래, 네가 걱정하는 허튼짓 안 할게.”

“그럼 됐어.”

그리고 이내 정해운이 사라졌다.

“…….”

서서희가 어색하게 웃었다.

“…하, 개같네….”

주변에 있던 부길드장, 강은성이 물었다.

“…저도 기억 지울까요?”

“그럴 필요 없어. 강은성 씨가 여기에 있는 거 다 봤으면서도 별말 없었잖아, 해운이가.”

“많이 혼란스러워 보이시던데 그 탓에 저를 신경 쓰지 못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 보이긴 해도 강은성 씨 존재를 못 알아챌 정도로 나사 빠진 상태는 아니었거든. 괜찮아, 걔 그렇게까지 생각 없는 놈 아니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머뭇거리던 강은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그러게, 도시락 맛있었는데....”

“그 정도 호의를 받는 것조차 안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어떨까?”

그러곤 평소처럼 미소 지었다.

“아직 서지오 헌터님께 방문 연락 없지?”

“예, 없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해. 이 정도로 데면데면한 거리감이라면 말이야.”

“정해운 길드장님께서 알아내지 말라는 것은 결국 과거의 인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쌓은 관계만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감히 사료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괜찮겠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죄라고 하면 무슨 잘못이었을까.’

오래된 꿈에 살아보려고 했더니 그조차 안 되나 보다.

익숙한 체념이 찾아온다.

‘...그래, 원래도 그냥 이렇게 지내려고 했잖아. 과거 같은 거 들추지 않고 살기로 결정했던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지구의 시스템이 어떻게 뒤틀릴지도 모르는 일이고... 지금처럼 대화 잘 통하는 좋은 사람과 종종 만나 식사나 하면 그만이지.’

그럼에도 기분이 나쁜 건 반성의 기회조차도 없음이라....

“.......”

...생각하지 말자.

* * *

오류 발생

복구 진행 중_0%

복구 완료_100%

....

따란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00)"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01)

301

제301화

그리고 유성운은 퇴근했다.

"내가 살다 보니 퇴근이라는 것도 하는구나."

"그럼 평소에는 퇴근을 안 하셨던 건가요?"

"뭐 비슷하지."

한 100년 만에 귀가한 기분이긴 하다만.

"좋았어, 이제 뭘 해볼까?"

퀭한 얼굴로 웃으며 묻는 유성운에 지오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식사하시죠."

"어디 뭐 굶어 죽은 귀신인가? 왜 이렇게 밥에 집착하는 건데, 대체 뭐가 문제야."

"많이 설렌 상태로 오신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몰골로 그렇게 말씀하셔 봤자 걱정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일단은 푹 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내 몰골이 그렇게까지 험악하니?"

손거울을 확인한 유성운이 끄덕였다.

"험악하네."

"순순히 인정해 주셔서 기쁩니다."

"하, 최대한 빨리 끝낸다고 한 건데도...."

"오히려 그게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지오는 피곤에 찌든 직장인을 안쓰러워했다. 늦는다고 제가 어디로 도망갈 것도 아니잖은가. 왜 굳이 작업의 강도를 본인 손으로 높인 것인지 모르겠다.

걱정되는 마음에 지오는 조심스레 물어보았다.

"식사는 제때 하셨습니까?"

“네 끼는 꼬박꼬박 먹고 있는데.”

“무엇으로 드셨습니까?”

“어… 샌드위치.”

“그걸 식사라고 했단 말이지?”

“우리의 계약에 식사 종류의 정확한 조건 같은 건 없었어.”

“이런, 치밀하기도 해라.”

그것도 음식은 음식이니 인정해 주기로 했다.

‘칠첩반상이 아닐 뿐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며 편하게 먹기 좋은 훌륭한 음식이다.’

기왕이면 하루 네 끼 꼬박꼬박 쌀밥을 챙겨 먹길 바랐지만 그게 욕심이라는 걸 지오도 알았다.

유성운이 흐느적거리며 코트를 벗는 것에 지오가 그것을 받아주었다. 보아하니 코트 정리할 힘도 없어 보였다.

“왜 그렇게 바쁘셨던 겁니까?”

“헌터로서도 바빴고, 큐레이터로서도 바빴고, 정원사로서도 바빴고….”

“듣기만 해도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월급 받는 일을 제한다고 해도 역시 정원사로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서.”

“잠시만.”

지오가 손을 들어 유성운을 멈춰 세웠다.

“정원사는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어? 어… 그렇지. 엄밀하게 따진다면 월급은 아니야.”

“월급이 아닌 다른 무언가는 받고 계신다는 의미일까요.”

“연구 계획서 제출하면 요청한 만큼의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식이라서.”

“무급이 아니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방금 우리나라 정부가 위험할 뻔했던 건가…?”

유성운이 머쓱하게 웃었다.

‘자기 제자가 대통령인데 설마 무너트리기라도 하겠느냐마는.’

아무튼.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일이 줄어든 편이야. 내 설원뿐만 아니라 다른 정원사들의 정원도 많이 안정화되었다고 들었고. 이번에는 수집상 업무와 겹쳐서 운이 나빴다고 봐야겠지.”

“그렇다면 유성운 씨는 설원을 정비하고 오신 겁니까?”

“아니, 그 부분은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다른 정원사들과 교류도 할 겸 여기저기 다녀왔어. 난 급한 일은 없기도 하고. 설원의 정비는 지오 너랑 함께 가기로 약속했잖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오가 생각했다.

‘딱히 약속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아무렴 어떤가.’

즐길 거리가 남아 있다는 건 좋은 일이었다.

“그럼 당분간 급한 일은 없으신 건가요?”

“저 멀리 손 흔들고 있던 강 건너 업무까지 끌어다가 처리했으니 아마도 그렇겠지? 물론 지구에 또 다른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만 지금 당장은 말이야. 사실 지오 너만 조용히 있어 줘도….”

“저는 늘 조용히 있었습니다.”

“신박한 농담 고마워, 내가 이런 말 듣고 살려고 일을 해.”

“상당히 소박하시군요. 미래는 모르는 법이라지만 당장은 활동할 의지가 없습니다.”

“반어법으로의 예언인가? 조만간 활동하겠다는 간접적 의지의 표현이야? 나 긴장하고 있으면 되지?”

“변덕스러운 제 활동의 의지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저는 유성운 씨의 정원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 집으로…!”

“유성운 씨의 집으로 모셔다드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정원으로 가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쉬세요.”

유성운은 지오에게 ‘정원을 정비하는 일’을 보여 주겠다고 한 바가 있었다. 그렇다곤 해도 그 긴 시간 고된 업무의 강행군을 이어가다 돌아와서 요구한다는 게 또 다른 업무라니. 일만 하다 보니 뇌에 과부하가 온 게 분명했다.

‘이게 현대의 직장인?’

역시 무서운 세상이었다.

“담요가 필요하십니까?”

“아니, 오늘은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아서….”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있으면 좋기는 하지.”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곰인형이 다가와 담요를 건넸다.

“꾸우.”

“세상에.”

“꾸?”

“아뇨, 감사합니다.”

거대한 양의 모피로 만든 담요다 보니 사실상 곰인형 태양신은 잘 보이지도 않았다만. 거의 담요가 자기 혼자 걸어오는 수준이었지만, 아무튼 유성운은 황송해하며 담요를 몸에 둘렀다.

“오… 따듯해….”

알아서 녹아내리는 유성운을 소파에 앉히며 지오가 물었다.

“꽃차는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날 대체 뭐로 만들려는 거지?”

“이제 와서 경계하시기에는 너무 멀리 오셨습니다, 줄 때 드세요.”

“너 정말 사람 할 말이 없게 만든다.”

참고로 꽃차는 물새들이 날아와 따라주었다.

“나… 나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

“어디서 뭘 보신 겁니까?”

“대재앙 이전의 자료에서 분명히… 쓰읍, 기억이 잘 안 나.”

“정확히 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귀엽고 깜찍한 것이었겠군요. 저의 사랑스러운 물새 친구들을 보고 떠올리셨으니 말입니다. 그렇지요?”

“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막 새들이 날아와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소동물들의 도움을 받는 어느 생활력 좋은 인물 같은 그….”

“저 아닙니까?”

“…그렇긴 하구나.”

유성운은 더 이상의 생각을 포기하고 초상화 내부에서의 요양 생활을 즐겼다.

“난 다음 생에 뭐가 될까, 지오야.”

“부잣집 사랑받는 고양이?”

“희한하게 자세한 걸 보니 그게 내 운명인가?”

“글쎄요, 아무것도 책임질 일 없이 사랑받으며 자라는 건 나름대로 즐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야근할 일은 없겠네… 그래도 나는 사람이 좋아, 참고해 줘.”

“…? 예, 알겠습니다.”

지오가 유성운이 드러누운 소파 근처 바닥에 앉아 덧붙였다.

“참고로 제 다음 생은 부잣집 돌멩이입니다.”

“벌써 정해졌어? 아니, 그보다 조각도 아니고 돌멩이야? 부잣집 돌멩이? 대체 왜?”

“아무 생각도 없으니까요.”

“네가 돌이 되면… 그건… 돌멩이라고 부를 수 없어….”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무슨, 그 뭐냐. 재앙의 쐐기 같은 거지.”

“돌멩이 하나가 그렇게까지 위협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넌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너를 믿는 나를 믿어.”

“이런 식으로 믿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나사 빠져서 재밌는 대화였다.

“식사는 어디까지 하고 오셨습니까?”

“그래도 두 번째까지는 먹고 왔어.”

“그게 몇 시였죠?”

“지금으로부터 3시간 전… 이니까, 대략 점심이었겠네.”

“그럼 저녁을 드시죠.”

“나 혹시 다음 생이 돼지인가?”

“왜 이렇게까지 다음 생에 집착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하얀색이나 파란색 그런 거야?”

“그런 취향이셨나요? 원하신다면 빈자리를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딱히 원하지는 않아.”

“저는 대체 뭘 어떻게 반응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이 인간은 내내 야근만 하다 오더니 아주 헛소리를 내뱉는다. 말에 두서가 없고 논리도 없다. 지오는 좀비의 몰골이 되어버린 유성운을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주방에 닿아 있었다.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습니까?”

“뭐… 뭐, 우리 뭐 계약해? 나 뭐 해야 해?”

“식사요. 뭘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다 좋은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따진다면 사람은 돌도 먹을 수 있기는 합니다.”

“아, 그렇긴 하지. 그렇다면 인류가 통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무언가가 좋아.”

“흐음.”

지오가 턱을 쓸었다.

“채소, 해산물, 육류….”

“고기 먹고 싶어….”

“고기… 통바비큐? 그것만큼 고기스러운 메뉴는 없죠.”

“아니, 수육 같은 거… 야들야들하게….”

“통바비큐도 수육처럼 야들야들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바다의 스승이자 현직 태양신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뭘 만들어 올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나 수육에 아무런 김치나 두부 같은 거 안 될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여간 이 집안사람들은 닦달을 해야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온다. 정말이지, 세상에 ‘아무거나’라는 메뉴는 없단 말이다. 지오는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다나를 불렀다.

“딸.”

“애애얡….”

“돼지 잡으러 가자.”

“야옹.”

행복한 고양이는 돼지도 사냥할 줄 알았다.

* * *

“세상에 이런 미친 수육이 다 있다니.”

“맛있게 드셔서 기쁩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지오야….”

비계는 쫄깃하고 살은 결 따라 비단처럼 흩어지니 천계 음식이 따로 없었다.

“아니, 맞나?”

“뭐가 말입니까?”

“난 아직 안 죽었으니까 아닌 걸로 하자.”

“그럼요, 유성운 씨는 멀쩡히 살아 계십니다.”

“인증 고마워.”

게다가 물에 삶았을 텐데도 육즙이 팡팡 흘러넘치는 게 정말 굉장했다. 굉장한 맛과 식감이었다. 독특한 향신료가 깊이 있게 섞여 있었지만 코를 팍 쑤시거나 어지러운 느낌은 아니었다.

삼삼하지만 탄탄한 기초의 수육은 김치라는 훌륭한 짝꿍이 있었다.

“너 근데 요즘 김치도 담가? 갓 담근 김치 맛이 아주 제대로인데. 고춧가루도 듬뿍 들어갔고. 빨간 김치는 오랜만인데 이거 진짜 시원하다.”

“최근 주현 씨에게 배추 몇 포기를 받았습니다. 마침 고추도 햇볕에 잘 말려 가루를 만들어 두었었고요. 그래서 김치를 담근 뒤 텃밭 한구석에 땅을 파고 장독대를 묻어 두었습니다.”

“그럼 얘는 왜 안 익었어? 내가 알기로 주현 씨가 배추를 선물한 건 몇 주 전이지 않은가? 그런 것치고는 아삭아삭하고 달콤한 게 갓 담근 느낌인데….”

“일부는 안 익었으면 해서.”

“본인도 원리를 설명할 생각은 없으시다는 거군.”

“그냥 모르는 겁니다.”

가장 신빙성 있는 추측은 ‘이곳이 초상화이기 때문에’라는 것이었다. 김치 그림 그린다고 묵혀두면 묵은지 되는 게 아니잖은가. 결국 주인이자 화가인 지오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익은 친구들은 볶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오늘 새벽에 만든 두부….”

“식당 차릴 생각 없지?”

“그것도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지만 아직 그 정도의 기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오가 고개를 저었다.

“손님께 드릴 음식 나가기도 전에 제가 다 먹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곤란하기는 해.”

유성운이 끄덕였다.

“반찬 가게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뭐든 잘합니다.”

“나도 알아.”

“그리고 비슷한 주장은 서서희 길드장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래, 그분이 뭐라고 하시디.”

“식당 열 생각 없냐고요.”

“사람 생각하는 거 다 똑같구나 진짜….”

그 사람도 얼마나 황당했을까.

‘뭐, 지오도 알아서 잘 조절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예전처럼 ‘이곳 음식을 먹으면 끔찍한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했다. 하지만 그것도 유성운이나 확인할 수 있었던 거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어쨌든 식사는 맛있었다. 늘 그랬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 정원 보러 가?”

“소화하고 주무신 다음에 이동하셔야죠.”

“나 키우니 지금?”

그렇게 유성운은 완벽한 컨디션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 * *

“…….”

그리고 유성운은 황당해했다.

“지오야, 이게 다 뭘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친구들 다 뭐냐고….”

그의 설원에 눈토끼 친구들이 생겨났다.

“만들다 보니 그만.”

“아 이 미다스의 손 어떻게 하냐.”

“그럴 때 쓰는 단어 맞습니까?”

“귀여워서 더 황당하네.”

눈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토끼들이 유성운과 지오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초롱초롱한 눈빛에 당혹감을 느끼던 유성운이 이내 흠칫, 몸을 떨었다.

“…어, 잠깐만.”

“예, 잠깐만요.”

“얘들도 내가 키워야 해?”

“양육비는 함께 부담하겠습니다.”

“살려줘.”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한다면, 시간을 앞으로 좀 돌려야 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02)

302

제302화

일단 유성운은 집으로 배달되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허락해야 들어올 수 있는 종류의 신비 같다.”

“타인의 집에 방문하기 전 출입 허가를 받는 건 당연한 예의입니다.”

“뭐, 그렇기는 하지… 들어와.”

그리고 지오도 왔다.

“여전히 삭막한 집안입니다.”

“그래도 그림 하나 걸려 있으니까 좀 낫지 않아?”

“더 삭막해졌습니다.”

“네가 그린 그림이잖아, 이거.”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뚝심 좀 봐라.”

거기서 지오는 물었다.

“정원사는 어떤 식으로 자신의 정원에 방문합니까?”

“방법은 정원사마다 조금씩 달라. 누구는 꿈을 통해 방문하고, 누구는 어느 문 하나를 지정해서 통로로 쓰고, 또 누구는 자신을 불러달라고 정원에게 빌고… 약간의 합의가 필요해.”

“유성운 씨는 어떻습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정원이 나를 불러주는 쪽이지.”

유성운이 양손을 들어 보였다.

“이렇게 세 번 박수를 치면 정원으로 입장할 수 있어. 아, 물론 박수만 친다고 되는 건 아니야. 지금처럼 위아래를 겹치는 방식으로 박수를 쳐야만 조건을 만족하거든.”

“박수 세 번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보통 의식하지 않으면 세 번까지는 박수를 치지 않아서? 한 번이나 두 번은 누군가의 주의를 끌 때 자주 치거든. 그렇게 따진다면 네 번이나 다섯 번이 더 좋겠지만 그건 너무 번거롭잖아.”

“그럼 정신뿐만 아니라 몸도 함께 이동하나요?”

“그것도 정원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나는 신체까지 전부 이동하는 편이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부분의 정원사들이 이런 방법을 선호해. 텅 비어버린 육신에 무엇이 깃들어 버릴지 모르거든.”

그가 팔을 꼬았다.

“그런데 지금은 마침 눈에 띄는 통로가 있으니….”

“유성운 씨도 이쪽으로 함께 이동하시겠습니까?”

“너와 함께 입장하는 건 처음이니까 조금 더 신중한 편이 좋겠어. 나는 평소대로 입장할 테니까 너는 뒤이어서 들어와 줄래? 정원사가 먼저 가서 상황을 살피는 게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대처가 쉽겠지.”

“유성운 씨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다면….”

짝, 짝, 짝.

세 번의 박수.

“나중에 봐.”

유성운은 이내 모습을 감췄다.

“…….”

“꾸릉.”

“편리해 보이네.”

지오와 허니는 그것을 보며 감탄했다.

그는 유성운이 정원에 도착할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 아마 순식간에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어야지 않겠는가. 그러고는 액자 안으로 입장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광활한 설원이었다.

“……?”

딱히 춥지는 않았다.

“얼음 창고와 같은 상황인가.”

“꾸구구국….”

“아, 얼었네.”

“꾸르르르륵.”

“이것도 익숙한 상황이고.”

지오는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 단지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다고 인지할 뿐이었다. 여차하면 허니에게 의지하려고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덜 번거로워서 다행인 일이었다.

얼음이 되어버린 허니를 지오가 매만졌다.

“잘 날 수 있겠어?”

“꾸르륵.”

“이 모습은 오랜만이네.”

허니는 여전히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다만 늘 몸통과 구분할 수 없던 날개가 지금은 확연히 구분되어 보인다는 것이 달랐다. 공작처럼 긴 꽁지깃이 딱딱한 비즈를 엮어둔 것처럼 달그락거렸다.

‘아무튼 이상은 없고.’

지오는 설원을 보았다.

“…역시 넓어.”

“꾸르.”

허니도 동의했다.

“확실히 우리가 아는 ‘정원’과는 많이 다를 거야.”

사람들은 정원이라고 하면 흔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공간을 떠올린다. 그곳에서는 정원사가 하는 일이 명확했다. 하지만 이런 정원에서 정원사들은 무엇을 관리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내 지오는 깨달았다.

“…….”

아, 그래.

“…유성운 씨는 어디에 있지?”

“꾱꾱꾱꾱….”

“우리는 지금 미아가 된 걸까?”

“꾸르르르륵….”

“유성운 씨…!”

유성운이 보이질 않았다.

이 나약한 초상화를 두고 대체 어딜 갔나 싶지만, 허니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유성운은 없는 게 맞았다. 설마 중간 과정에서 삭제되었을 리는 없으니 답은 하나였다.

“우리가 먼저 왔나 보구나.”

“꾸륵.”

“이거 야단났네.”

그렇게 지오는 방치되었고.

“…….”

“…….”

“눈사람이라도 만들까?”

결국 이 순간을 즐겨보기로 했다.

이런 참신한 경험을 하게 되는 날이 살면서 몇 번이나 있겠는가. 수백수천 번이 남아 있다 해도 지금의 놀라움과 새로움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다. 지오는 자신감에 차올랐다.

“학교 운동장에 눈 가득 쌓였을 때 애들하고 모여서 3m 눈사람 만드는 것도 재밌었는데.”

“꾱…?”

“그날 눈이 참 많이 왔거든. 있는 눈 없는 눈 다 끌고 왔었지. 운동장에서 만드는 걸 보게 된 다른 학생들도 점심 후다닥 먹고 나와서 함께 도와주고... 그것도 참 추억이야.”

“꾸르륵.”

“그런 의미에서 눈사람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꿍.”

“그럼 눈 오리....”

“꿍.”

“하긴 사람이나 오리가 살 환경은 아니지.”

지오는 눈으로 만들어진 조형물도 배려할 줄 아는 훌륭한 어른이었다. 사람이 산다고 하면 의식주가 필요하고, 오리가 산다고 하면 물이 필요한 법이었다. 여긴 그 무엇도 없었다.

곰곰이 생각하던 지오가 이내 몇 가지로 동물을 추렸다. 대체로 굴에 사는 친구들이었다.

“북극곰?”

“꿍꿍꿍....”

“하긴 만드는 데 좀 오래 걸리겠어. 그렇다면 여우는 어떨까?”

“꿍?”

“그것도 커? 그렇다면 토끼는?”

“꾸르륵.”

“너도 그리 큰 편은 아니니까.”

그렇게 지오는 땅바닥, 아니, 눈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오로라가 일렁이는 설원 아래 지오는 눈을 뭉치기 시작했다. 기왕 만드는 김에 좀 잘 만들고 싶었다.

‘눈으로 만들면 나중에 부수기도 편하고 친환경적이니까 유성운 씨에게도 문제가 없겠지.’

그런 생각으로 지오는 정교한 눈토끼를 194마리나 만들고 만다.

* * *

그렇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된다.

“나 없는 동안 심심해서 눈토끼를 이렇게나....”

“처음에는 만들었다가 부수려고 했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되어버린 게 아니라면 이 친구들 움직이고 있지 않아?”

“그렇게 됐습니다.”

지오는 매우 죄송해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 친구들을 저희 얼음 창고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설원이 거기로 옮겨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토끼들만 옮기는 건데도 설원이 옮겨가는 것으로 치는 겁니까?”

“이 친구들도 설원의 살점으로 만든 거잖아.”

“살점이라고 하니 조금 무섭게 들리는군요.”

내가 지금까지 살점으로 토끼를 빚었던 건가.

“하지만 저도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육점 고기로 돼지를 빚는다고 해도 살아 숨 쉬는 돼지가 되는 게 아니었다. 그게 지구라는 차원의 이치였고 지오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도 경솔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야 물감으로 새를 그린다고 살아 숨 쉬는 물새가 되는 것도 지구의 이치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유성운 씨.”

“어… 뭔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194마리를 만들 때까지도 몰랐던 거지, 그러면?”

“제가 만들어서 자리에 두었을 때는 만든 모습 그 자체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내가 도착하니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예, 유성운 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숭이라도 부리고 있었던 건가 싶었다.

“…일단 알겠어.”

유성운은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였다.

“일단 되는대로 기겁하기는 했지만 기겁했던 것만큼 설원이 화가 났다거나 이상이 생긴 것 같지는 않거든. 이렇게까지 잠잠할 줄은 몰랐는데 역시 지오 네가 특별 취급을 받는 것 같다.”

“저를 편애할 이유가 있습니까?”

“너는 좀 편애를 받을 만해.”

사람이 과식을 한다고 치자. 그런다고 부담을 받은 위장이 무슨 항의를 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지오의 초상화’와 유성운의 정원은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자기 몸 자기가 손보겠다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긴 하지.’

이게 정확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아직 유성운은 ‘지오의 초상화’와 정원들이 어떤 관계인지 몰랐다.

‘대충 무슨 관계이려나. 주인과 노예? 상사와 부하? 부모와 자식? 아니면 정말로 같은 몸의 일부?’

당장은 그의 설원조차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지오가 방문하면 뭐라도 표시가 올 줄 알았는데, 이건 좀 의외였다.

생각 정리를 마친 유성운이 다시 미소를 되찾았다.

“양육비는 빵빵하게 주는 걸로 알고 있을게.”

“물론입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와서 털 관리도 해 주겠습니다. 신경 쓰실 부분 없을 겁니다.”

“뭔가 멋대로 길거리 동물 집에 데려온 아들 같은 말이네… 아무튼 그렇다면야 뭐.”

정원의 경관이 하나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었다.

‘그렇게 퉁쳐도 될 일일지는 모르겠다만.’

문제가 생겨도 신비와 신비 사이의 일일 테니, 정원사에 불과한 유성운이 골머리 앓을 일도 아니었다.

“…그럼 설원을 정비하는 모습이라도 볼래? 아니, 그동안 이미 볼 거 다 봤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성운 씨를 기다리며 눈토끼들을 만드느라 다른 곳을 감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과할게. 미안해. 내가 설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단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 몰랐어.”

“유성운 씨가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슬슬 이동을….”

발을 옮기려던 유성운이 멈칫 굳었다.

“…지오야, 얘네 따라오는 것 같지 않아?”

“유성운 씨를 오랫동안 감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감상해서 어디다 쓰려고 이럴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해는 됐다. ‘지오의 초상화’가 인간을 대하는 기본 태도도 ‘감상’이었다. 그런 그가 만들어낸 신비이니 비슷한 태도를 갖출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 이 토끼들은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하지? 일단 지오의 자식 중 한 종류에 속하긴 할 텐데. 내 설원의 자식이기도 한가? 내가 모셔야 할 작은 정원들…?’

정원에 이렇듯 움직이는 ‘생물’이 나타난 전례는 흔치 않았다. 아주 드물게 문지기나 집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생물’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유성운이 자세히 아는 영역은 또 아닌 것이다.

‘시간이 나는 대로 어르신들께 연락을 드려야겠네. 이 토끼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려면 뭘 해야 하려나.’

아리송한 기분을 뒤로한 채 유성운이 지오를 안내했다.

“일단… 정원사가 하는 일은 별거 없어. 정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듣는 거야. 그리고 원하는 바를 이뤄주는 거지. 수집상으로 따지자면 일종의 작품이라고 생각할 때 이해가 좀 쉬우려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아듣겠습니다.”

“맞아, 바로 그거야. 관리. 하지만 오늘처럼 눈보라가 치는 날이면 꽤 주의를 집중해야 설원의 목소리가 들려. 사실 목소리라고 해도 정원사로서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가깝겠지만….”

“묘사하기 어려우신가요?”

“…솔직히 좀 그래. 이런 걸 정원사가 아닌 사람에게 설명해 본 적도 없고, 정원사끼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을 잘 알고 있어서 설명할 일도 많지 않거든. 정원이 나에게 요구하는 이 감각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건 속삭임이기도 했다. 혹은 눈에 보이는 표지판이나, 꼭 닥쳐야만 알 수 있는 무형의 벽 같기도 했다. 신이 내리는 신탁이라 하기엔 가볍고, 아이의 어리광이라 말하기엔 무거웠다.

하지만 이곳은 명백한 정원이었다.

“일반적인 정원을 생각해 봐. 그곳도 손을 대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면 못 볼 꼴이 되어 버리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시간과 날씨 같은 걸 파악해서 꽃과 나무가 시들지 않도록, 너무 무성해지지 않도록, 혹은 병들지 않도록… 살피는 거지.”

유성운이 어느 지점에서 멈추고는, 한쪽 무릎을 꿇고 바닥을 쓸었다.

“오늘 업무는 이 아래에서 일어날 예정이야.”

“차가운 빙판이군요. 이 아래에는 바닷물이 있나요? 아니면 단지 얼음인가?”

“내가 보기에는 물의 형상을 띠고 있을 것 같은데… 음, 이러면 안 되거든.”

뚜두둑—.

둔탁한 소음과 함께 빙판이 깨졌다.

“가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고는 하지.”

“문제입니까?”

“설원은 어디까지나 얼어붙어 있어야 해. 가장 춥고, 정적이고, 절대 흐르지 않게….”

“그게 설원이죠.”

“맞아, 녹아선 안 된단 말이야.”

충분히 커진 구멍을 보며 유성운이 말했다.

“그러니 얼려야 해.”

“다녀오십니까?”

“같이 갈래?”

“…예.”

그날 지오는 바다가 빙하로 변하는 광경을 보았다.

감히 추위를 이기고 흘러가던 물결이 멈춰서, 이내 굳어버리는….

* * *

“죽으셨습니까?”

“아니, 정원에서의 정원사는 이런 걸로 죽지 않아.”

“빙하의 일부분이 되신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을 거야, 눈에 보이기로는.”

“춥지 않으신가요?”

“딱 죽고 싶을 만큼 춥지.”

“이 설원을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죽은 뒤에도 그럴 거야.”

“정원사는….”

지오가 감상을 말했다.

“외롭겠습니다.”

“…사실 좀 그래.”

여긴 너무 넓고, 사람은 작았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03)

303

제303화

소담한 이글루 안.

“내가 살다 살다 설원에서 모닥불을 피우게 될 줄은 몰랐네.”

바닥에 환자처럼 드러누운 유성운이 어색하게 웃자, 모닥불에 마른 가지를 차곡차곡 쌓던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낭만 있는 상황이네요.”

“보통은 이런 설원에서 낭만을 찾지는 않겠지 지오야?”

“그럼 다들 어디서 낭만을 찾는 겁니까?”

“아… 농담이 아니었네, 이런.”

하도 농담 같지도 않은 농담을 하는 초상화라 잠시 헷갈렸다.

“네 낭만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어. 지구인이랑 많이 다른가?”

“지구인?”

“한국인. 추워서 그런가 입이 돌아갔네, 이해해 줘.”

“정말 많이 추워 보이니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제 낭만은 별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로 나가서 별을 본다든가.”

“별거 아니라기엔 낭만 스케일이 어마어마한데. 아니, 보통 낭만이라고 하면 어디로 캠핑을 간다거나 몽환적이거나 로맨틱한 장면 같은 걸 떠올리지 않아?”

“유성운 씨는 생각보다 감성적인 분이셨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이걸 뭐 어디에 참고하려고.”

진심으로 예측이 안 됐다.

“…음, 뭐, 따듯해서 좋기는 해.”

설원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자비였다.

유성운은 모로 돌아누웠다. 아직도 얼음처럼 굳어 있는 손가락을 움직여 지오가 준 담요를 더 단단히 덮었다. 제 앞에 있는 모닥불의 열기를 흡수하는 건지 점차 체온이 높아지는 게 느껴졌다.

속이 울렁거렸다.

‘낯선 온기라 그런 걸까.’

둔해진 뇌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유성운이 눈을 껌벅였다. 시선을 조금 올리니 누운 채로도 모닥불 너머의 초상화가 보였다.

그것의 새까만 눈에는 모닥불의 빛조차 어리지 않는다. 유성운을, 큐레이터를 홀리게 만드는 신비였다.

“너도 설원과 소통할 수 있어?”

“제가 보기엔 새하얀 설원일 뿐입니다.”

“말을 열심히 걸고 있어도 네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정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그에게 선택받은 정원사뿐이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여러 예외가 있기는 한데,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지. 아무튼 이렇게 불을 피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야.”

“평소에는 불도 못 피우셨나요?”

“정원사가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

그거야말로 미친 짓이었다.

“추위와 열기는 상극이잖아.”

“불을 피우면 설원이 다칩니까?”

지오가 이글루 안에 옹기종기 모인 눈토끼들을 보았다.

“안 녹는데요.”

“내 설원의 눈으로 만든 신비가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했어.”

“그렇다고 해서 확신하지는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네가 피운 불은 달라도 뭔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서….”

유성운이 한 손으로는 담요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모닥불 가까이에 대며 웃었다.

“와, 따듯해.”

“프로메테우스의 축복이죠.”

“네가 그쪽 신화를 부정하지 않는다니 좀 놀라운데.”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뭔가 외전 같은 느낌으로 긍정하는 건가.”

나쁘지 않았다.

“어쨌든 네 귀여운 눈토끼들이 녹지 않아서 다행이야. 잠깐 사이지만 정들었거든.”

“이렇게 차가운데 쉽게 녹지는 않겠죠.”

“그렇게 만든 건가? 이해했어… 어쩌다가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더라?”

“불을 피우면 설원이 다치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미안하네. 음, 정확히 따지자면 다치지는 않아. 불쾌해하는 것뿐이야.”

이 ‘설원’에서의 ‘열기’란 조금 복잡한 개념이었다.

“애초에 여기서는 불이 존재할 수 없어. 다시 말하자면 열기가 존재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전 빙판 아래의 물도 존재해서는 안 됐던 것이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었다고 해도 결국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성운 씨가 그것을 얼리느라 이 상태가 되신 것이고.”

“그렇게 친다면 일반적인 정원의 꽃과 나무도 시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아, 물론 여기서는 그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수준에 가까운 것이 맞기는 해.”

“모순적이군요.”

“그렇지, 아무래도. 내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까….”

누군가에게 이런 것을 설명해 준 적이 없어 머리가 복잡했다. 아니면 뭐, 얼어붙은 뇌가 아직 덜 녹았다든가. 눈앞의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원사는 느리게 고민했다.

“…….”

생각보다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조금 복잡한데, 어, 이렇게 하자. 이 설원은 의지가 있는 일종의 생물이나 기관이잖아? 달리 말하자면 이 영역 그 자체이면서도 동시에 주인인 거지. 대부분의 존재는 그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유성운 씨도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존재 중 한 명이겠죠.”

“맞아, 그리고 그 ‘명령’이란 보통 설원의 형태를 지키라는 것이지. 열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라. 흐르지 않고 멈춰 있게 해라. 소란스럽지 않고 정적이게 해라. 그래, 그냥 그런 명령인 거야. 그런 법이 제정된 셈이고.”

유성운이 불을 쬐며 초상화를 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나라의 법을 하나하나 제대로 몰라도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세상에 꾸며져 있으니… 뭘 모르기는 해도 그냥 법에 따라 사는 거지.”

보통의 정원도 전부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갔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곳에서 ‘열기’란 불법인 셈이야.”

“저는 지금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런데, 오, 글쎄… 솔직히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그의 설원이 ‘지오의 초상화’에 대해 뭐라도 명확한 반응을 보여줬다면 알겠다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지오가 활개를 쳐도 뭐라 말할 낌새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흠, 대략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네.”

“셋이나 된다니.”

“첫째, 너의 행위가 정원에게 인식되지 않는다. 둘째, 불법이 맞기는 한데 차마 너한테 뭐라고 못 하는 중이다. 셋째, 네가 이곳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합법이다.”

“유성운 씨의 비밀 장소에 놀러 온 것뿐인 저로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재밌으니 됐습니다.”

“네가 즐겁다니 나도 기쁘다.”

그러며 허탈하게 웃었다. 유성운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 번째일 것 같았다.

‘지오의 자식들이 이 녀석에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떠올려보면, 뭐….’

지금 모닥불을 노려보는 허니만 봐도 알 수 있다. 지오의 자식은 모두 지오를 좋아했다. 엄밀히 따져 정원은 지오의 자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다.

‘그도 아니라면 아예 직장 상사 취급이겠지. 이게 두 번째 경우였고.’

첫 번째 경우는 왜 말했느냐 하면, 이건 지오가 스스로를 정원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감췄을 경우를 생각한 것이었다. 종종 ‘지오의 초상화’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기적을 부릴 때가 있었으니.

‘어느 쪽이든 지금 상황이라면 위험할 건 없으려나. 나도 그렇고, 지오도 그렇고. 드물게 설원에서 편안한 상황이네.’

그냥, 단지.

“…….”

불이 너무 따듯했다.

“잠이 오십니까?”

“아, 이럴 때 자면 보통 죽지 않나? 정원에서 잠드는 건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야. 정신이 텅 비어버리면 정원으로 물들어 버리는 수가 있어서….”

“동사하는 것과는 달라요. 피곤함이 축적된 몸이 편안함을 느끼며 이제야 수면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 두르고 계신 담요는 따듯하고 푹신해 보이네요. 이불로 쓸 수 있겠어요.”

“네 담요는 언제나 이불로서 환상적이었지. 네가 준 목도리도 정말 좋더라. 봐, 지금도 차고 있잖아.”

“많이 곤하신 것 같은데 제가 곁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유성운 씨가 깨어날 때까지 여기서 모닥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앉아 있을게요. 마른 가지를 넣으면서.”

“그거 되게 든든한 말인데.”

“주무시겠습니까?”

“…좀 어색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혹시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뭐랄까….’

낯선 상황에 초조함을 느낀다.

“…….”

그래도.

“…그래, 조금만 잘게.”

자연의 웅성거림이 수마로 빠져드는 귓가에 사뿐히 걸친다.

눈꺼풀이 무거워 이내 내려앉았고. 유성운은 수면을 취했다.

* * *

당연히도 이 작은 이글루와 모닥불은 지오의 작품이었다.

“설마 여기서도 그림을 그릴 줄은 몰랐지.”

“제법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이글루를 손수 지을 줄 알았다는 건 절대 아니고.”

한참 자고 깨어난 유성운은 새삼 감탄했다. 이건 정말 본인 손으로 지은 것이었다.

단단하게 쌓인 눈과 얼음을 숭덩숭덩 자르더니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유성운은 추위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그게 그렇게 어이가 없었다. 자고 깨어났어도 그 감상은 여전했다.

“왜 굳이 이글루는 직접 만든 거야?”

“결국 이글루도 눈과 얼음으로 만드는 건데 엉뚱한 원산지의 재료로 만들면 이 설원에게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의 낭만에 이어서 예의까지 나왔네. 그리고 궁금한 건 또 있는데, 이 이글루는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너 너무 능숙해 보였거든? 나만 이상하다고 느꼈나?”

“오, 실례지만 유성운 씨가 왜 그렇게 생각하셨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살면서 이글루 한 번씩은 지어보지 않나요?”

“네가 무슨 삶을 살아왔는지 나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

“굳이 알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보이며 매우 잘 살고 있으니까요. 제 과거가 궁금하시다면 그냥 저를 보시면 됩니다.”

“으응, 나는 널 항상 보고 있지.”

좀 과하게 본 것 같긴 했다.

‘본인부터가... 과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이 녀석의 새까만 눈이니 던전이니 하는 것들을 보면 종종 어이가 가출하고 마는 것이다. 이러고도 본인이 인간 흉내를 잘 내고 있다 자부하는 걸 보면 가끔은 입술이 움찔거리기도 한다.

유성운은 저도 모르게 입가를 감쌌다. 이 상황이 우스운지 조금 올라가 있었다. 아차 싶어 다시 손을 내리기는 했다만....

“...우리 너무 친해진 거 아닐까?”

“이제 와서 무르시기에는 너무 늦으신 것 같습니다.”

“흠, 역시 그렇군. 그래도 내세에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좋겠어.”

“...?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신 거요.”

“기억해 주고 있어서 매우 기쁘네.”

많이 참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니, 하... 진짜 뭐라고 해야 하지....”

유성운이 어색하게 웃으며 목을 쓸었다. 스스로도 부산스럽다는 것을 느끼는 중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안절부절못하게 된다.

“나 진짜 너무 낯선데.”

“왜 그렇게 초조해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티 나나? 그것도 포함해서 전부 초조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야.”

“아하, 그렇군요. 저는 그 기분이 뭔지를 아주 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오가 동정을 담아 그를 보았다.

“유성운 씨는 지금 일에 중독이 되신 겁니다.”

“어우, 나 그런 변태야? 기어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지경에 도달한 건가?”

“원래 워커홀릭들이 다 그렇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초췌한 얼굴을 한 채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염불을 외우며 그렇게 날이 샐 때까지 일을 하죠.”

“내가 그 지경은 아닌 것 같다, 지오야.”

“그리고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일이 없을 때 의문을 느낍니다. 어라? 왜 안 힘들지? 하고요”

유성운이 주춤했다.

“...어....”

“그렇게 허전함을 느껴버려요. 삶의 일부분이었던 업무가 사라지니 초조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일을 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얻고, 몸은 힘들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진짜 나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중독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법입니다.”

“아니, 하지만....”

“유성운 씨가 왜 초조해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왜 이러는 건데?”

“안 힘드니까 이상하신 거겠죠.”

“.......”

그건 조금, 할 말이 없었다.

“아, 그게....”

“힘들고, 아프고, 춥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고단한 것이 몸에 완전히 익어 버리니까 괜히 낯설어하시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 런 거려나.”

조금 머쓱해졌다.

“그런데 그건 그냥 마조히스트 아니야?”

“제 발로 노예의 길을 걸으시길래 비슷한 성향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거 농담 맞지?”

“농담입니다.”

초상화가 으쓱였다.

“유성운 씨는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음,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솔직해지면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구셨습니다.”

“나는 꽤 솔직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야.”

“뭔가 다르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슬플 때 울고, 즐거울 때 웃고, 힘들 때 쉬는 사람이 솔직한 겁니다. 유성운 씨가 말씀하신 영역은 그나마 ‘욕망’ 쪽에 가까워 보이는군요.”

“...그럴지도 모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꽤 친해진 것 같습니다.”

지오가 물었다.

“유성운 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너는 여전히 친절하네....”

정말 한결같았다.

이러니 항상 곁에 사람이 모이고, 비참한 운명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

피곤한 탓인지 말이 툭 튀어나왔다.

“…그런 식으로 살면 손해 본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이토록 자제력이 빈약해진 것 역시 그가 바라기에 솔직해진 탓일까. 신비의 영향인 걸까. 전혀 정원사답지 않은 이런 생각도 말이다.

초상화가 말했다.

“무엇이 손해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함부로 원망하지 않고,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온전한 자신을 포용하면서 타인의 삶마저도 긍정하는 삶 말이야.”

“여전히 그중 무엇이 손해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그 이야기가 왜 나온 거죠?”

“내 이야기를 하면.”

유성운의, 정원사의 이야기를 하면.

“너는 친절을 베풀겠지.”

다정하게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이 초상화는 좋은 청자였다. 그리고 화자였다. 어쩌면 조언을 해주거나 선물을 줄 수도 있었다. 그건 누군가의 시간을 책임진다는 것과 동일했다.

아, 문득 유성운은 주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네가 나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오야….”

“그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너라면 가능하잖아.”

“평생 초상화에 박혀 있으라는 말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네. 그게 무서워.”

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처음과 같았다.

“네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재앙이니까.

“네가….”

그런 걸 보고 싶지 않았다.

“…….”

“우리 친구죠?”

“…그럼, 친구지.”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과연 너답네.”

유성운이 쓰게 웃었다.

“내가 멍청한 소리를 했지?”

"걱정해 주셔서 기뻤습니다만, 조금 더 신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좋아, 그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낯선 상황이다.

낯설게도 따듯한 공기고, 낯설게도 떠들썩한 분위기다. 이 시리고 적막한 설원에서 관객인 눈토끼들과 함께 이토록 좋은 이야기 상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지.

그렇게 가장 오래된 기억을 꺼낸다.

"난 생매장을 당했었어."

설원에게 선택받은 이야기였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04)

304

제304화

유성운은 웃는 낯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처음 대재앙이 발발했을 그 당시로부터 대략 10년 정도? 한국은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난장판에 가까웠지. 한국 바깥의 해외가 대부분 무법 지대이자 오지인 것처럼 말이야.”

그가 으쓱였다.

“그만큼 가지각색의… 음, 이해할 수 없고 논리도 없는 범죄가 난무했던 시절이라는 것만 알아둬. 내가 겪었던 일에 그 어떤 의미도 없었을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말하자면, 나의 가장 어린 시절은 잘 기억나지 않아. 정확히 말하자면 묘사할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해야 맞겠지. 나는 항상 어딘가에 갇혀 있었거든. 아주 어두운 곳이었어.”

“납치였나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설마 혈육이 한 일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아니, 물론, 그렇지. 가능성이 아주 없지 않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런 시대였으니까.”

혼란한 세상이었다.

“아니, 글쎄.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유성운도 잘은 모른다.

“예전에 협회에 취직하기 전 내 신체 나이를 계산해 본 적이 있었거든. 아마 대재앙 발발 시기에 나는 2살 정도였을 거야. 내가 정확히 언제 갇혔는지는 모르겠다만… 그래도 2살이면 나름 언어도 구사하고 인지 능력도 좀 있지 않나?”

“그렇죠, 활동적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하지. 나는 그 어두운 공간 이전에 무언가를 봤다거나 배웠다는 기억이 전혀 없으니까. 심지어 대재앙이 터지기 전에 시작된 일이었을 것이고.”

갓난아이를 납치해 감금이라니, 보통 대재앙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상상할 텐데 말이다. 대재앙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어느 정도 치안 유지가 되는 상태였다고 하니까.

어색한 웃음이 나왔다.

“그럼 다시 말해 내가 갓난아기 시절 때 납치를 당했거나, 부모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를 두었다는 건데….”

“그런가요.”

“…그래도 친부모가 한 짓이었다고 하면 더 끔찍한 일이 될 테니 나는 아니라고 생각 중이야. 모종의 이유로 2살 이전의 기억이 지워졌을 가능성도 높고.”

“어릴 때 일은 잘 기억나지 않기는 하죠.”

“그래. 워낙 내가 배운 것 없이 혼란스러운 상태였으니 과거의 기억을 전부 잊은 걸 수도 있겠지. 특별한 조치나 이유 없이,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싶긴 하지만, 막 그렇게 궁금한 건 또 아니라.”

유성운이 눈을 찡그리듯 휘었다.

“아… 그때는 진짜 배고팠어.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게 주어지기는 하는데 말 그대로 죽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라.”

평소 초상화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식사 관련된 주제였음에도 지오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것을 확인한 유성운이 목을 쓸었다. 그가 빛바랜 과거를 떠올렸다.

음식조차 더듬어야 느낄 수 있었던 춥고 어두운 흙 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시간의 흐름은 짐작할 수 없으나 아주 오랜 시간을 그 안에 있었던 건 확실했다.

“몇 년 정도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았어.”

영양 부족으로 인해 더디긴 해도 몸이 좀 성장할 만큼이었으니, 꽤 긴 시간이었겠지.

“보고 배울 게 없으니 언어도 모르고, 그나마 옷 비슷한 건 입고 있었는데 그땐 그게 내 가죽 중 하나인 줄 알았지.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그야말로 무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특이한 일이 생긴 거야.”

“무슨 일이었습니까?”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나에게 주어졌거든.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따듯하고 푹신푹신했던 것 같아. 처음으로 먹은 음식다운 음식이었으려나. 그리고….”

“그리고?”

“내 세상이 무너졌어.”

“무너졌습니까?”

“정말 물리적인 의미로.”

그 넓지도 않았던 동굴, 구덩이, 혹은 무언가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방금 말한 ‘생매장’이 여기서 나온 거야. 의도된 건지, 단순히 난장판이었던 당시에 지반이 흔들렸는지, 어떤 몬스터나 신비의 소행이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네.”

깊이 생각해 보려 하지도 않았다.

“정말 좁았어. 금방 숨이 막혔고. 어두운 거야 원래도 그래서 괜찮았는데 먹은 게 너무 많아서 속도 울렁거렸지. 그 좁은 틈이 끼어서 토하고, 비명 지르고, 발버둥 치고….”

“…….”

“그러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무지한 덕분에 용감했었다고 해야 할까. 뭐라도 배운 게 있었다면 공포에 겁을 먹고 지레 포기했을지도 모를 텐데.”

하지만 유성운은 단지 그날 토한 음식이 아까웠고, 화가 났으며, 답답해서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날 묻은 흙과 돌을 파내기 시작했어.”

“움직일 공간은 있었습니까?”

“너무 좁다 싶으면 먹어서 없앴고.”

“맛이 없었겠네요.”

“종종 먹던 거라 더 거부감이 없기도 했지.”

“아하….”

“아마 그때가 겨울이었을 거야.”

파내는데 뭐가 그리 딱딱했는지 모르겠다. 까진 손끝에서 흘러나온 피는 금방 얼어붙었다. 그조차 기분 탓이었는지는 몰라도 참 추웠다.

“그런데 괜찮았어. 내가 머물던 그 좁은 공간은 원래도 추웠거든. 타고나기를 원래부터 추위에 강하기도 했고, 춥지 않은 환경을 모르니 꽤 견딜 만했던 것 같아.”

물론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한다. 지금 그는 온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평범한 사회인이니 말이다.

“애초에 그때의 목적도 어딘가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랄까… 내가 원래 머물고 있던 공간만큼의 자리를 확보하려던 거였을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빛이 보였어.”

“어떤 빛이었습니까?”

“설원의 빛이었지.”

난생처음으로 본 새하얀 것.

“그게 내가 설원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되어주었고.”

그날 유성운은 설원의 선택을 받았다.

* * *

아이는 눈밭을 걸었다. 맨발로 걸어 동상에 걸렸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아프지 않아서 괜찮았다. 처음 느껴보는 푹신한 감각에 매료되어 아이는 눈을 사랑하게 되었다.

아이는 위를 보았다. 위와 아래를 구분할 수 없는 하얀 세상이었지만 괜찮았다. 원래부터 어둠 속에 살던 아이는 단지 이곳에 넓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렇게 모순을 사랑하게 되었다.

아이는 체온이 낮았다. 자격 없이 눈밭을 걸었음에도 쉬이 눈을 녹이지 않고, 보이는 광경 그대로를 받아들여 훼손하지 않았다. 아이는 이 광활한 자연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었다.

“…….”

아이는 빙판을 보았다.

“…….”

그렇게 천천히 ‘나’를 보았다.

어두운색의 머리카락. 어두운색의 눈. 하지만 햇볕을 쬐지 못해 창백한 피부. 그날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지했다. 자신이 이렇게 생겼음을 깨닫고 받아들였다.

자신이 살아 있음을 알게 된 순간 아이는 하얗게 물들었다.

새하얀 머리카락, 새파란 눈, 그리고 창백한 피부. 그의 첫사랑인 설원과 매우 흡사하여 아이는 기쁨을 배웠다.

“……?”

더 이상 입김이 나오지 않았다.

* * *

“뭐, 그게 운명이라는 거 아니겠어?”

이것이 유성운이 정원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였다.

“물론 이후에도 이야기는 많지. 본능적으로 정원에 있는 건 먹어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꾸역꾸역 설원에서 탈출했고, 정원에서의 지식을 남발하다가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뻔도 해보고, 나름 삶의 노하우로 어찌저찌 살다 보니 정원사들과도 만나게 되고.”

“그때가 몇 살이셨습니까?”

“대강 11살 무렵이었겠지? 하도 사람들이 미친 악마의 새끼라고 욕을 해대서 내가 그냥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 난 존댓말도 그때 처음 배웠잖아.”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어떻게 언어를 배우셨나요?”

“정원사들을 만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건 아니니까. 말하자면 실생활 용어였다고 해야 하나. 뭐, 그때 배운 말들은 죄다 욕설 정도였지만… 들은 게 전부 거친 말들이라서.”

유성운이 농담하듯 웃었다.

“예전에 주현 씨에게도 말했는데, 내가 워낙 못 배워먹어서 존댓말이 진짜 어색하거든. 그때 어르신들이 열심히 사람 만들어 줬는데도 여전히 이런다니까. 왜 한국어는 존댓말과 반말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

“외국인들도 종종 헷갈리는 지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을 깜박인 지오가 물었다.

“그런데도 빠르게 길을 찾으셨지 않습니까? 큐레이터 이전에는 협회의 연구 팀장이셨던 걸로 압니다.”

“맞아, 그랬어. 어쩌다 보니 협회 쪽 일꾼으로 일하게 되었었거든. 정원사 기질이 어디로 가질 않는지 결국에는 연구 쪽으로 완전히 빠지게 됐고. 그런데 정원을 사랑하는 내가 평생직장으로 삼기에는… 신비 학대가 심한 곳이라?”

“신비 학대라니, 독특한 표현이네요.”

“그래서 이전에도 종종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던 비사벌 길드장님의 제안을 받게 된 거야. 그 양반, 예전부터 ‘너는 이 일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그렇게 해대더니… 정말 저주라도 됐는지 진짜 적성에 안 맞는 걸 느껴서….”

거기까지 말한 유성운이 눈을 끔벅였다.

“…너무 나만 말하고 있나?”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만.”

“미안, 듣기에 지루하지 않았다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건 처음이라서.”

“비사벌 길드장님께도 이야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약할 때 특이 사항으로 간단히 적어 두었으니 그분도 알고는 있겠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어. 그마저도 이렇게 자세한 부분까지 알려드린 적도 없고.”

하지만 유성운의 확신은 금방 무뎌졌다.

“…아, 아닌가? 워낙 눈이 좋으신 분이니 말하지 않아도 아시려나…?”

“그분도 참 특이하십니다.”

“수집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비사벌은 그중에서도 특이함의 우두머리이지 않던가.

“음, 아무튼 그랬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냥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데. 요즘 기준으로도 기함할 만한 부분들이 꽤 많았겠지만 사실 내 입장에서는 그저 그런 기억처럼 느껴져서....”

“밥을 먹이고 싶습니다.”

“늘 그랬듯이 참 한결같다고 말하고 싶지만, 나도 갑자기 배고파지기는 하네.”

하도 굶었을 때의 일이 떠올라서 그런가.

“아니, 하긴 원래도 배고플 때기는 하구나.”

“과연 그런 때가 있군요.”

“정원 보수하고 난 다음 배가 고픈 건 정원사 종특이거든. 헌터들이 던전 공략을 하다 보면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정원사를 상대로 하는 식당을 차려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그건 진짜... 재밌겠다.”

유성운의 성격도 만만찮은 편이라는 게 이렇게 증명되었다.

“가게 열면 나한테 먼저 팔아주기야.”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이 오시는 순서대로 파는 게 맞죠.”

“이럴 때마다 네가 참 규칙성 있는 초상화라는 게 확 느껴진다, 지오야.”

“그런 당연한 소리를 하는데 규칙성까지 나와야 했습니까?”

지오가 물었다.

“뭣 좀 드시겠어요?”

“...먹을 게 있어?”

“꼬치를 가져왔죠.”

“대체 왜?”

“고구마도 가져왔습니다.”

“진짜 왜?”

“모닥불을 피울 때 꼬치와 고구마가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너랑 나랑 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나 보다.”

“그런 편이기는 합니다.”

지오가 끄덕였다.

“전 대재앙 이전 사람이라서.”

“그런 식으로 다른 문화권이라니, 이거 상상도 못 했는걸.”

아무튼 모닥불에 구워지는 꼬치에서는 대단히 좋은 향이 났다.

“그냥 생으로 먹으면 안 될까?”

“배탈 나요, 유성운 씨.”

“A급 위장 놔뒀다가 뭐하게....”

“그러라고 있는 위장이 아닐 겁니다.”

“위장은 소화하라고 있는 거지.”

“맛있는 걸로 채우기도 바쁜데 왜 굳이 그런 짓을?”

“맛없는 건 아예 음식물로 안 쳐주는 거야?”

정말 먹을 것에 진심인 초상화가 아닐 수 없었다.

“되게 배덕감 느껴진다.”

“12시 넘기고 라면 끓여 먹는 기분이시겠죠.”

“어 뭔가 좀 비슷한데. 뭐지, 이불 위에서 과자 먹는 기분?”

“그것도 그럴싸합니다.”

설원에서 모닥불로 고기를 구워 먹다니, 다른 정원사들이 들으면 어떤 방식으로 정신이 나갔길래 그런 짓을 한 거냐고 물을 일이었다. 솔직히 현실감이 아예 없었다.

하지만 유성운은 이런 공허한 현실감에 나름 적응한 정원사였다.

‘지오 옆에 살면 적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이렇게 될 때마다 항상 ‘될 대로 돼라’ 싶었다.

‘대가는 미래의 내가 지불할 거야.’

씁쓸한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했다. 체념의 평안이었다. 유성운은 지오가 건네주는 닭꼬치와 채소꼬치를 양손에 들고 뜯어먹었다. 육즙과 채즙이 가득해 환상적인 맛이었다.

초상화가 물었다.

“어떠십니까?”

“가게 언제 차린다고?”

“칭찬 감사합니다, 차리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속이 따듯해져....”

유성운은 꼬치를 우물거리며 눈을 깜박였다.

“.......”

타닥거리는 모닥불의 소리.

조곤조곤한 친구의 음성. 바스락거리는 눈토끼들. 이글루 바깥에 몰아치는 눈바람. 동그란 지붕 아래 갇힌 따듯한 공기. 녹지 않는 눈과 난색 빛의 불. 맛있는 음식....

“...음....”

유성운이 끄덕였다.

“낭만 있네.”

“그렇죠?”

“다음에 또 놀러 올래?”

“초대해 주셔서 기쁩니다.”

“나야말로… 기쁘네.”

유성운이 웃었다.

“…고마워.”

아마도, 조금은 어색하게.

마치 처음 기쁨을 배웠을 때처럼 말이다.

* * *

“저는 그런 유성운 씨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지오의 말에 비사벌이 끄덕였다.

“음, 좋아. 얼마든지 말해보렴. 이 아빠가 듣고 있단다.”

“정원사에게는 역시 노조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날을 위해 돈을 벌어온 것 같구나.”

비사벌이 눈을 모로 굴려 고민했다.

“슬슬 정원사들의 복지 및 처우가 개선될 때가 되기는 했지.”

“일단 기사 식당부터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 멋져. 아주 본격적이야.”

박수를 치는 길드장과 뿌듯해하는 초상화에 유성운은 침묵했다.

“…….”

“…유성운 씨.”

지오를 따라 수집상에 왔던 주현이 그 옆구리를 찔렀다.

“대체 무슨 바람을 불어넣고 오신 거죠.”

“주현 씨, 내가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예, 말씀하세요. 무슨 말을 하시려고요.”

“정원에 포장마차 같은 거 생기면 좋을 것 같지 않아…?”

“제정신인가?”

“…정원사들 너무 춥고 배고파….”

“…….”

머뭇거리던 주현이 슬쩍 테이블로 몸을 기울였다.

“…정원사 명단 알아 올까요?”

“일단 해운이를 털어보죠.”

“음… 좋은 생각 같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일해야 합니다.”

지오가 끄덕였다.

“마음에 들어요.”

오늘 밤에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다.

* * *

그렇게 며칠 뒤.

“실례합니다.”

지오는 차은혁을 찾아갔다.

“붕어빵 파세요?”

“안 팔아요.”

“겨울이 오면 파실 건가요?”

“…….”

한때 붕어빵 청년이었던 차은혁은 환장하려고 했다.

“…대화로 해결하시죠.”

지구가 망할 때가 됐나 보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05)

305

제305화

딱히 지오만 차은혁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저도 왔습니다, 차은혁 씨.”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럴까?”

지오의 담당 큐레이터, 유성운도 함께였다.

차씨 집안의 둘째인 차아라는 돈을 벌러 나간 상태. 방문하기 전 먼저 허락을 받은 수집상 덕분에 그리 놀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차은혁의 심리적 부담감이 덜해지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정확히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

상대는 방문한 다음 자세한 이야기로 넘어가겠다고 했었다. 전화로 말하기에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거라나. 그렇게 가벼운 주제도 아니라고 했고. 해서 정확히 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에 문가에 서 있던 지오가 물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차은혁이 ‘이게 맞냐’는 듯 말없이 유성운을 돌아보았고, 유성운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 잡아먹어.”

“더 확실히 안심시켜 주세요.”

“우리 서지오 헌터가 이렇게 무서운 인상이기는 해도 잘 아시다시피 선량한 시민에게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니거든. 안으로 들이는 것을 허락한다고 해서 저주를 받게 된다거나 악령이 씐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

“안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가 쭉 빨렸지만 아무튼 차은혁도 인정했다.

‘이솔이한테도 잘해주는 신성이시고...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녀석이 소환했을 때도 별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었지.’

따지자면 제 동생이 신세 지고 있는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였다. 조금 넓게, 아니, 조금 많이 넓게 보자면 강서담 사제님과

도 같은 포지션이랄까. 도움받은 것도 많은데 이제 와서 경계하는 것도 우스운 일일 것이었다.

“…….”

그렇게 자기 세뇌를 한다고 덜 무서워지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예, 들어오십시오. 마땅히 대접해 드릴 만한 건 없긴 한데….”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앞서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친절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오 헌터님.”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는 했다. 아무래도 1등급 시민과 신성이 방문한 상황이지 않은가. ‘1등급 시민’과 ‘신성’을 같은 선상이 놓아도 되나 싶긴 하다만 아무튼….

차은혁은 손님들을 거실로 모셨다. 볶은 보리로 만든 차도 하나씩 내왔다. 최소한의 격식은 갖춰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셋은 조촐한 탁자에 둘러앉았다.

“그럼 이제 정말로 방문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건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

보리차를 홀짝이던 유성운이 예전에도 늘 보아왔던 무던한 미소를 지었다.

“차은혁 씨에게는 선택지가 있어.”

“벌써부터 선택지라는 말이 나왔네요, 일단 들어는 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인 질문과 빙빙 돌아가는 질문.”

“어… 바로 물어주시는 편이 서로에게 편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면.”

유성운이 차은혁의 눈을 응시하며 질문했다.

“이상한 게 보여?”

“…….”

잠시 멍해 있던 차은혁이 퍼뜩 놀랐다.

“아, 예? 예?”

“역시 보이나 보네.”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몬스터 같기도 한데 영 아닌 것 같기도 한 무언가 말이야.”

“…유성운 헌터님께서도 그게 보이나 봅니다?”

“이쪽으로는 나름 베테랑이라서.”

“이게 또 전문직으로 나뉘는 거였군요,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심심하네.”

“충분히… 놀라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언성 높이는 일이 없는 차은혁치고 이 정도면 놀란 게 맞았다.

“저 이외에 같은 걸 보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 그런 느낌의 심심함이 아니라.”

“애초에 그 단어부터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만… 그럼 어떤 느낌을 말씀하셨던 겁니까?”

“보통 차은혁 씨 같은 경우의 사람들은 미친놈 취급을 많이 받거든.”

“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했습니다.”

차은혁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얼떨떨한 얼굴로 끄덕였다.

“제 생각에도 미친놈 소리 좀 들을 것 같았거든요.”

그가 보는 것은 그의 눈에만 보였다.

“저만 볼 수 있을뿐더러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 크게 없더라고요. 있어봤자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없는 개연성을 만들어서 납득해 버리고.”

“그래서야 진실을 말한 사람만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리지.”

“예, 그런 취급을 받을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척받을 일이 없도록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척하고 살아왔습니다. 제 동생들도 제가 그것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정말 깔끔하게 숨겼나 봐, 대단하네.”

이야기를 듣던 지오가 고개를 기울였다.

“잘 숨기셨군요.”

“음, 그렇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대부분 ‘적성’이 있는 인재들은 이러지 못했다. 그 본인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수로 숨길 수 있겠는가.

“눈이 하나뿐인 강아지를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신기해하거나 징그러워하겠지. 그리고 그걸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친구들에게 알릴 거야. 그 나이대는 ‘아 이걸 말해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사고력이 부족한 시절이니까.”

“눈이 하나뿐인 강아지는 귀여울 겁니다.”

그 말에 차은혁이 눈을 크게 뜨고 껌벅였다.

“…그것도 원래 보이는 건가요?”

“일명 ‘외눈 진도’는 한국인인 아이들 곁에 자주 머무르는 일종의 수호신이야. 대부분 진돗개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드물게 다른 종의 개나 그 외의 동물로 나타날 때도 있지. 아마 차은혁 씨가 어렸을 때 본 건 개의 형태였나 보네?”

“네, 맞습니다. 검은색… 진돗개?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복원에 성공했다고 뉴스에도 나왔던 그거요. 그 녀석은 항상 저희 집 마당에 앉아 늘 바깥을 보고 있었어요.”

“신비가 가시화된 세상에 그 친구만큼 든든한 보호막이 없지. 음흉하거나 과격한 신비가 아이의 집을 찾아오면 짖어서 쫓아내 주거든. 문제는 집이 없는 아이의 경우 특별히 길들이지 않는 한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지만….”

“그, 저는 집이 있었으니까 도와준 거고요?”

“그렇지. 그래서 가정이 있는 경우의 인재들이 가장 처음 마주치는 ‘그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물론 어느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그 집에서 나가 또 다른 집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소멸되기도 해서.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던 사례가 13살이었던가.”

유성운이 흥미롭다는 듯이 물었다.

“그것도 다른 가족에게 말하지 않은 거야?”

“제게만 보이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말하나요….”

“보통은 거기서 입을 열게 된다니까? 자제력이 좋네.”

눈치도 빠르고.

“그 나이에 벌써 사회적 시선을 인지했다는 거잖아.”

대부분의 인재들은 그러지 못했다. 나는 당연히 인지하는 것을 타인이 모른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서로가 가지지 못한 감각에 자연히 갈등은 발생하고, 거리는 멀어진다.

“뭐, 몇 번 데여서 결국에는 다들 그렇게 모른 척하고 살더라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니 민망함이 조금 덜합니다.”

차은혁이 조금 떨떠름한 얼굴로 물었다.

“…그런데 그걸 대체 어떻게 아셨는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족들에게도 제가 ‘그것’을 본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그… ‘인재’를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 없어.”

“예?”

“없다고.”

유성운이 쓰게 웃었다.

“그런 게 있었으면 정원사들이 그따위로 야근은 안 했을 텐데.”

“…정원사?”

“우리처럼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정원이라는 것을 모시게 된 사람들을 말해. 뭐, 그것도 차차 설명을 해줄 건데. 우선은 물어본 것부터 대답을 해줘야겠지?”

“아, 예,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재’를 찾는 방법은 없어. 그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오라, 이런 것도 없고. 순전히 내 인생 살다가 ‘어라? 얘 혹시 보나?’ 싶은 친구들을 관찰하다 운 좋게 ‘어 맞네’ 싶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럼… 거의 살면서 한 명 찾아내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지, 차은혁 씨도 눈치챈 것 같지만 이런 ‘인재’들은 보통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든. 차은혁 씨의 경우 본인이 보는 게 실재라는 걸 알아챈 것 같지만, 한평생 자신이 망상증 환자라 생각하다 죽는 인재도 허다할 거야.”

유성운이 특유의 무던한 미소를 지으며 지오를 떠받들 듯 가리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서지오 헌터님께서 도움을 주셨지.”

“아하… 별말씀을요. 그저 이번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소개에 응하듯 자연스레 후드를 끌어 내린 ‘서지오 헌터’의 머리카락이, 이내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좋은 ‘친구’를 찾아서요.”

둥글게 웃는 입술 위.

“뭐, 원래도 운이 좋긴 하지만?”

휘어지는 그 눈은 오팔처럼 다채롭게 빛나고 있었다.

* * *

유성운의 설원.

그 아름다운 세상에 지오는, 더 많은 정원을 그리고 싶었다.

적합자 목록

쾌락의 정원_제오르제

동화율 1%

그렇게 하기로 했다.

* * *

촵.

“어이쿠.”

유성운이 지오의 후드를 덮었다.

“…….”

“…….”

“…어….”

무언가 말하려는 차은혁에 유성운이 빙긋 웃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도 됩니까?”

“괜찮아, 안 죽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아뇨, 아무 일도 없었고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어른의 처세야.”

유성운이 지오에게 우는 소리를 냈다.

“…지오야 제발, 우리 평화롭게 끝내자. 응? 평화롭게….”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평화로웠습니다.”

“나약한 사회인의 작고 귀여운 간덩이를 배려해 줘.”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지오는 순순히 후드를 고쳐 썼다. 방금 전 보였던 ‘무언가’의 기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야말로 평소의 ‘검은망토’였다.

그것이 유성운과 같이 물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유성운 헌터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아뇨,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

그리고 다시 ‘무언가’가.

차은혁은 온통 그림자뿐인 후드 속의 ‘무언가’의 눈과 시선이 마주쳤다.

어두운 밤중 산에서 들짐승을 보았을 때와 같이, 그 눈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시선과 눈동자가 무척이나 선명했다. 그 눈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황홀한 것밖에는.

아주 기묘했다. 잘 세공한 보석처럼 반짝이는가 싶다가도 연기처럼 흐려지는 그 수많은 색채. 그것의 흐름은 타오르는

불의 일렁임이나 나비의 아름다운 날개를 닮았다.

그리고, 또.

"…아…."

한참이 지나서야 그것이 보여준 게 '눈웃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러니까…."

더듬거리며 차은혁이 넋이 나간 얼굴로 물었다.

"…저희가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죠."

"지오가 차은혁 씨라는 숨은 인재를 찾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

"정확히 어떤 식으로 저를 찾아내셨는지에 대한 의문은 더 이상 들지 않네요.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괜한 것을 물었다는 걸 방금 깨달았습니다."

"각성만 하면 딱 수집상의 인재인데 민간인이라서 참 아쉽네…."

유성운이 입맛을 다셨다.

"그래도 괜찮아, 민간인도 정원사는 할 수 있거든."

"오늘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그겁니까? 정원사, 라는 걸 시키려고?"

"내가 원한다고 시킬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겠지만 대충 따지자면 비슷한 맥락이겠지."

"제가 뭘 하면 됩니까? 봉급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월급의 형태입니까, 주급의 형태입니까? 연봉은 대략 어느 정도죠? 계약서는 써주시나요?"

"혹시 뭐 벼르고 있었어?"

"그냥 되는대로 질러본 겁니다."

차은혁이 얼굴을 쓸었다.

"당연히 그냥 시키셔도 저는 저항할 방도 하나 없으니까요."

"방금도 말했지만 내가 시킨다고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말이야, 괜찮다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지 않을래? 제안을 거절한다고 해도 차은혁 씨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일 테니 손해는 아닐걸."

"…예민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그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가다듬었다.

"변명을 하자면 이 상황이 제게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자그마치 수집상의 큐레이터가 담당 작품을 모셔 와 제가 평생 숨기고 있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나 같아도 경계하고 예민해질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무엇보다 방금 전 우리 서지오 헌터의 돌발 행동 덕분에 더더욱 놀랐을 것이고. 심장 벌렁거리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그렇다고 해도 제 무례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변명해야만 할 만큼… 제가 어른들께 못 배우고 자란 것은 아니라서요."

"그럼 그 사과는 받아 주겠지만 이 상황에서 차은혁 씨를 곤란하게 만든 건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역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말 이해하지?"

"……."

약간의 시간이 지나 차은혁이 끄덕였다.

"이해했습니다."

“좋아, 그럼 슬슬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자고.”

“아까까지는 준비 운동이었나요.”

“나름 체면을 차린 셈이었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치고는 임팩트가….”

“서지오 헌터가 준 임팩트는 나도 예상하지 못한 거였어.”

“아, 예, 그렇군요.”

“아까 단도직입적인 게 좋다고 했지?”

유성운이 물었다.

“우리 지오 따라 포장마차 할 생각 없어?”

“죄송합니다, 저 단도직입적인 거 싫어하나 봐요.”

“그럴 수도 있지.”

고개를 끄덕인 유성운이 이내 웃었다.

“앞으로는 빙빙 돌려서 물어볼게.”

“최대한 길게 사전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역시 이야기가 길어질 거라니까? 시간 좀 걸리겠는데 괜찮아? 일정 없어?”

“미리 방문 연락을 주신 덕분에 오늘 하루는 그다지… 일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야 우리도 천천히 설명을 해볼까.”

“저기, 그럼….”

망설이던 차은혁이 물었다.

“…제가 보는 ‘그것’들은 대체 뭡니까?”

유성운은 흔쾌히 설명해 주었다.

“정원사들의 전문 용어로는 ‘근원의 자식’들이지.”

“근원의 자식? 자식이라고 하면, 그 근원이라는 게… 부모인가요?”

“우리 인간들의 개념에서 생각하기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와 자식일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명명되었을 뿐이야. 엄밀히 따져 그들이 정말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지,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인지, 아니면 단순히 동등한 협조의 관계인지는 몰라.”

“그럼 아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 지구에 이 존재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건 대재앙 이후거든. 그들을 인지하고 고작 30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여기까지 정의된 것만 해도 기적이지. 차은혁 씨도 알잖아?”

“…아,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교류하기도 쉽지가 않겠네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특별하게 소속되어 있는 기관도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아, ‘정원사’는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스스로 정원사인 것을 인증한다면 계획서를 제출할 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 외에 있어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야 대부분의 ‘인재’들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혼란스러울 거야.”

유성운이 눈을 휘어 웃었다.

“천천히 설명해 줄 테니까, 경청해 줬으면 좋겠네.”

“…그렇게 하죠.”

문득 차은혁은, 그게 방금 본 ‘눈웃음’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06)

306

제306화

“우선 정확한 명칭을 말하자면 ‘근원의 자식’이겠지만, 보통은 그냥 ‘신비’라는 이름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편이야.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신기한 현상이나 존재들은 말이지.”

유성운이 웃으며 물었다.

“자, 여기서 질문할 거 있나?”

“이제 몇 마디 하셨는데 벌써 질문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빨리 정원사의 지식을 때려 박아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말해줄 수가 있거든. 그게 아니더라도 난생처음 알게 된 개념을 소개하는 시간이니 질의응답을 통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탄탄하게 쌓아가는 편이 좋겠지. 그래서?”

“…신비, 까지는… 저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

차은혁이 자신 없는 어조로 물었다.

“보통 신과 관련된 종교 쪽에서 자주 그런 단어가 들리던데요.”

“신성도 일종의 신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던전이나 몬스터도 신비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 벌써 본질을 꿰뚫다니. 역시 자질이 있어.”

“…? 정말로요? 그것도 신비의 일종으로 쳐주는 겁니까?”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에는 같은 흐름 안의 존재라고 파악 중이야.”

유성운이 설명을 이어갔다.

“신비는 운명이나 규칙, 이야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이 세 가지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거든. 처음에 언급했던 ‘외눈 진도’로 예시를 들어볼게.”

그는 반투명한 패드를 꺼내 들고, 그것으로 ‘외눈 진도’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거의 사진처럼 자세히 묘사된 그림이었다.

“이건 정원사가 그린 ‘외눈 진도’의 형상이야. 차은혁 씨가 기억하던 것과 같나?”

“아, 맞습니다. 저는 검은색이었지만….”

“검은색 친구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어가 있어. 색별로 의미가 달라서.”

“그것도 의미에 따라 다른 거였군요. 그냥 개라고 하면, 색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신비를 볼 땐 이런 색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거든. 전부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해. 검은색 진도는 보호 대상과 가까이 지내지 않고 거리감을 유지하지. 그렇게 두어도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조숙했나 봐?”

“…이건 진짜 개인가요? 아니면 개의 영혼?”

“아니, 그냥 한국의 토종개라고 불리는 진돗개를 따라 한 신비야.”

유성운이 세 가지 색상의 ‘외눈 진도’를 보여주며 말했다.

“신비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특히나 ‘이야기’에 따르는 녀석들이 있어. 이 경우 대부분은 ‘이야기’에 관한 형상을 취하거나 행동을 반복할 뿐이지. 차은혁 씨가 아는 진돗개와는 완전히 달라.”

“따라 한다… 그럼 왜 하필 외눈입니까? 좀 더 자세히 따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말 그대로 따라 하는 거잖아. 완벽한 원본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대부분 이런 방식의 신비는 원본과 다른 부분이 확연히 존재하지. ‘외눈 진도’의 눈이 이렇게 정중앙에 세로로 박혀 있는 것처럼 말이야.”

“…….”

차은혁이 저도 모르게 ‘서지오 헌터’를 보았다. 그것이 고개를 기울였다.

“제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 아뇨. 없습니다.”

그런 차은혁에게 유성운이 말했다.

“이쪽은 예외.”

“예외군요.”

“아주 많이 예외니까 그냥 애초부터 참고삼지 않아 줬으면 좋겠어. 이 친구는 차은혁 씨가 벌써 배우기엔 너무 심화 과정이라서.”

“조언해 주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설명해 볼까.”

유성운이 다시 ‘외눈 진도’의 그림을 가리켰다.

“이들은 주인을 지키는 진돗개의 이야기를 흉내 낸 신비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평균 7세 이전의 어린 친구들만 지키는 것이 이들의 규칙이고. 지금까지 발견된 바로는 최소 1살에서 최대 13살까지라던가? 그 이후에는 사라지거나 다른 보호 대상을 찾으며 순환하는 게 운명이지.”

그가 빙긋 웃었다.

“사람들이 아는 던전과 몬스터, 그리고 스킬은 인간이 가장 흔하게 보고 접할 수 있는 신비야.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신비로 말하자면 바다의 수면, 혹은 그 위인 셈이고.”

“굳이 바다로 비유가 된 걸 보면….”

“그 아래가 한참은 더 남았다는 소리야. 심해와 그 바닥에 비유를 할 수 있겠지. 역시 잘 캐치하네, 보기 좋아.”

유성운이 하나의 도표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신비 역시 단계가 있고, 대부분 하나의 차원에서 인간은 통일된 단계의 신비를 공통적으로 보고 접할 수가 있어. 지구의 경우에는 1~3단계라고 볼 수 있는 던전과 몬스터, 그리고 스킬이 그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 바깥에 표시되어 있는 0단계는…?”

“대재앙 이전의 지구를 떠올리면 가장 좋은 예시가 되겠지. 그때 지구인들은 아무런 신비도 볼 수 없는 상태였잖아. 그러니 도표 바깥에 표시를 해둔 거야. 사실상 신비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초기 형태의 차원인 셈이려나.”

유성운이 다양한 차원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특정 차원의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신비의 단계는 어지간하면 통일되어 있어. 하지만 이 중 예외적으로 더 깊은 신비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소수의 인간이 존재해.”

“그게… 저희 같은 ‘인재’인가요?”

“그렇지, 잘 이해한 것 같아서 기쁘네. 진화가 조금 빠른 신인류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돌연변이라고 해도 좋고. 이 관점은 정원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차은혁 씨도 나중에 찬찬히 생각해 봐. 본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건 이 업계에서 중요하거든.”

“직업 아니라면서요.”

“음, 글쎄, 굳이 따지자면 프리랜서에 가깝기도 해서? 완전히 자연에 묻혀 신비와 더불어 살아가는 신선 같은 정원사도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먹고살 돈도 필요하거든.”

“그, 그렇긴 하죠.”

“우리는 이 ‘인재’ 중에서도 조금 더 전문화되어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정원사’라고 불러. 이해하기 어렵다면 살짝 다르긴 하지만 신성을 모시는 성인이라고 봐도 돼.”

그렇게 말한 유성운이 웃었다.

“물론 그 정도의 명예는 없는 바닥이지만!”

“저 지금 영업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바닥부터 보여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래도? 나는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후에 우리의 정신 나간 제안을 받을지 말지는 본인의 결정이자 근원의 결정인 것이고.”

“복잡하니까 제발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아아, 그렇지. 또 다른 길로 새버렸네.”

유성운이 으쓱였다. 그가 마저 설명했다.

“이 신비의 끝이 어느 형태이며 어느 구조일지는 아무도 몰라. 지금까지 던전을 통해 여러 차원을 파악해 왔음에도 말이야.”

“그렇게까지 밝혀지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냥 생각하기에도 30년이란 시간 동안 그런 지식을 완전히 정립하기엔 너무… 광활한 영역인 것 같기는 하지만….”

“물론 그 밖의 이유는 더 있어. 차은혁 씨, 우주를 생각해 봐. 우리가 그 우주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나?”

“아, 그건 아니죠. 그 끝도 모르고요.”

“바로 그런 느낌이야.”

비슷한 맥락이다.

“우주를 왜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했겠어, 하물며 인간이 우주를 탐색한 시간은 신비를 탐색한 시간보다 더 길었는데. 하도 넓은 개념인 데다 파악하는 데 들어가는 품이 너무 커서 그래. 신비도 거의 똑같아.”

참 골치 아픈 일이다만.

“무엇보다 더 깊은 신비로 들어갈수록 대부분의 사람은 이지를 잃고 신비에 잠식되어 버려.”

“…그렇게까지 되는 겁니까?”

“사람도 블랙홀 안에 들어가면 멀쩡할 수가 없잖아. 같은 이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그렇구나 생각하면 돼.”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된다고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정확하겠지.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신비가 되는 거야. 아니면 신비의 세포가 되어 버리거나.”

“소름 끼치는데요.”

“현재 차은혁 씨가 보고 느끼는 수준의 신비에서는 그럴 일 없으니까 안심해.”

유성운이 웃었다.

“하지만 단계가 있는 것으로 보건대 가장 끝이자 심화 단계가 존재할 것이며, 노련한 정원사는 어렴풋이 그 존재를 느끼기도 하지. 지구인들은 그걸 ‘근원’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미안한데 정말 몰라. 이것이 하는 일이 뭐고, 목적이 뭔지, 이지는 있는지 없는지, 자아가 있기는 한지 아니면 단지 시스템인지.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인지는 그 어떤 인간도 정의하지 못했어.”

“…정말 우주랑 비슷하네요.”

“신참을 이해시켜 주기에 가장 편리한 개념이긴 해.”

신비를 모르는 사람은 많아도 우주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무리 의무 교육이 사라진 시대라 해도 대재앙 이전의 지식은 얼마든지 전해질 수 있으니까.

너무 전문 지식이라면 힘들다 해도 우주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 신참 정원사를 이해시킬 때 우주에 많이 비유를 하는 편이었다.

“지구의 인간은 현재 그 신비를 던전과 몬스터, 신성과 근원의 자식, 그리고 근원… 정도의 큼직한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어.”

“던전과 몬스터가 같이 엮인 거고, 신성과 근원의 자식이… 어….”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큼직한 세 단계’야. 세분화하려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파고들어야 해. 그러니까 정확히 궁금한 부분만 물어봐. 무슨 설명이 필요해?”

“…어떤 순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하나씩 정리해 줄까?”

유성운이 흔쾌히 끄덕였다.

“던전과 몬스터를 묶은 이유는 이게 가장 초기 단계에 모두가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야. 이걸 1~3단계라고 해보자. 그리고 신성과 근원의 자식은 그다음 단계가 필요하지. 이걸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근원이 존재해. 이걸 마지막 단계라고 봐봐.”

그가 정리했다.

“처음, 중간, 끝인 셈이지.”

“실례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큼직하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직 지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을 세분화할 수는 없잖아.”

“…잠깐만, 아직?”

“역시 눈치가 빠르네. 지금부터 그걸 설명해 볼까 해.”

유성운이 패드를 휙휙 조작하며 말했다.

“한 행성과 차원의 진화 과정에는 신비를 받아들이는 영역도 포함되어 있어. 인류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점이 되어 신비를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되는 순간, 혹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 신비는 구체화되고 형상화되기 시작해.”

“어… 그럼….”

“맞아, 그 순간을 지구는 ‘대재앙’이라고 명명했어. 인간이 존재하는 여느 차원은 대체로 이런 과정을 겪었고, 혹은 겪게 될 예정이다… 라는 것이 가장 최근의 주장이야. 어디서 나온 주장이냐면 협회 연구소 쪽이니 신빙성이 아주 없진 않겠지.”

“…….”

차은혁이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다.

“…제가 들어도 되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괜찮아, 전부 컨펌 받고 온 거라서.”

“저 그냥 농사짓고 붕어빵 팔면 안 될까요?”

“그건 일단 이야기를 전부 들은 다음에 하는 게 좋겠네.”

“아는 것만으로도 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오와 엮인 순간부터 평화는 글렀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에 차은혁이 지오를 보았고, 검은망토는 명령어가 입력된 로봇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와 친구 하시겠습니까?”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차은혁이 다시 유성운을 보았다.

“…그렇다면 그 신비라는 건 이전부터 계속 존재했다는 건가요?”

“정확히는 축적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

“축적?”

“차은혁 씨가 짚은 게 딱 맞아, 신비는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어.”

패드를 계속 뒤적거리던 유성운이 이내 무언가를 찾아냈다.

“아, 여기 있었네. 이거 좀 봐볼래?”

“…이게 뭔가요?”

“장산범. 이 정도면 차은혁 씨도 들어봤을 것 같아서. 특히 지방민들에게 유명하지?”

“그야 알고 있습니다. 한국 오지에 종종 둥지를 만들고 산다는 토착 몬스터 중 하나 아닙니까? 그, 사람 목소리를 흉내 내는… 호랑이? 형태의….”

“뭐, 장산범은 대재앙 시점과 꽤 가까운 시기에 만들어진 괴담이지만… 그래도 대재앙 이전에 만들어진 신비가 맞기는 해. 이것도 ‘이야기’를 흉내 낸 신비고.”

“…그렇다면 도깨비 같은 것도 대재앙 이전에 존재하던 신비인가요?”

“바로 맞혔어, 응용력이 좋은걸? 도깨비는 한국 신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지.”

유성운이 손가락을 접어 예시를 들었다.

“도깨비, 요괴, 악마나 천사, 혹은 귀신같은 것으로 불리는 존재 등이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신비의 한 종류야. 차은혁 씨는 무당이나 구마 사제에 대해서 조금 아나?”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지방에 사는 3등급 시민들은 그런 민간 지식들이 조금 많은 편이죠.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조금은....”

“귀신을 보고 접하고 퇴마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들었겠지? 그리고 대재앙 이전에도 귀신을 볼 수 있었다는 사례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앞서 말했던 그 ‘인재’들이야.”

“...0단계 시기에 존재했던?”

“좋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

유성운이 칭찬하듯 끄덕였다.

“대재앙 이전까지는 신비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지구인들에게, 대재앙 이후... 일종의 다른 감각과 기능, 기관이 생긴 셈이지. 나름의 진화라고 봐도 좋아.”

“...그 일종의 진화라는 것은 신비의 축적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고요?”

“...크게 보자면 대재앙도 같은 맥락이고. 인간이 신비를 보고 접하며 구체화할 수 있게 진화했다면, 지구는 신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진화해 버린 거야.”

“그걸 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변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

그가 쓰게 웃었다.

“던전이 뭐라고 생각해?”

“던전? 다른 차원...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던전도 있어. 보통 그런 녀석들은 등급이 낮은 하급 던전이지. 특별한 이야기 없이 몬스터가 존재하고 보스를 무찔러 파괴하면 되는 단순한 던전 말이야.”

유성운이 눈을 살며시 굴렸다.

“이런 친구들은 애초에 근원으로부터 태어난 던전이라고 파악되고 있어. 그들 나름의 이야기와 규칙이 있기는 해도 아주 기초적이지. 복잡한 인과는 없다고.”

“아, 맞습니다. 등급이 높은 던전일수록 이야기나 규칙이 세세하다고 동생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물론, 걔는 그런 곳에는 절대 못 가지만.”

“그리고 그런 상위 등급의 던전은 대체로 기존에 있던 차원이 변질되어 나타난 형상이야.”

조금 무서운 말일 수도 있다만.

“신비에 완전히 침식당한 차원이기도 해.”

“침식당한... 잠깐, 그러면.”

“맞아, 지구도 같은 순서를 밟고 있어.”

“...저희 멸망해요?”

“아, 물론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멀긴 했지.”

유성운이 으쓱였다.

“하지만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게 무서운 점이랄까?”

“.......”

“으음,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대부분의 몬스터는 이러한 던전에서부터 태어나. 하지만 일부는 자신이 직접 던전을 만들기도 해.”

일전의 인어 몬스터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몬스터의 첫 시작 역시 신비에 잠식된 차원에서부터 시작되지. 특정 차원이 신비로 가득 차다 못해 신비 그 자체가 된 순간 운명과 규칙, 이야기를 가진 어느 존재가 몬스터로도 변화하는 거야. 보통 이 경우는 인간형 몬스터가 많더라고.”

그게 순리였다.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다는 것.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

“어… 나도 사실 이 순서가 완전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정리를 해주자면….”

유성운이 패드에 도식을 정리했다. [신비의 근원(모체)→ 정원(근원에 가까운 혈맥과 장기)→ 던전(근원의 자식 일종) → 몬스터(던전의 자식)]이라는 대략적인 문장이었다.

“보통은 이 순서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보통은, 요.”

“아무래도 변수가 많은 업계라서.”

그래서 야근도 많지.

“아, 참고로 인간과 그 세상은 신비의 맥과 별개의 궤를 그리고 있어.”

“죄송하지만 조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과학과 마법이라는 학문이 서로 공존할 수는 있지만 전혀 다른 맥락이라는 거지. 내가 신참을 가르쳐본 적은 거의 없어서 말이 좀 어렵게 나오네.”

유성운이 난감하게 웃었다.

“그러니까, 음… 인간을 비롯한 지구에서 태어난 생물, 그런 그들을 빚어낸 행성 그 자체. 그것을 둘러싼 우주… 태초의 인간이 이해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인지할 수는 있는 물질적인 모든 영역. 그냥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 보고 만질 수 있는… 기술과 문명의 발전으로부터 그 존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

“…….”

“그걸 아까 비유했던 ‘과학’의 영역에 넣어둬.”

“…과학에….”

“다만 과학의 분야에서 가장 넓은 영역은 우주인 것이고, 마법의 분야에서 가장 깊은 개념은 근원이라는 거지. 둘 모두 인간이 그 끝을 볼 수 있을 확률은 지극히 적겠지만.”

그래서 곤란한 점도 분명히 있다.

“이 서로 다른 영역이 완전히 융합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어느 학자의 주장으로는, 결국 과학의 영역이 신비의 축적을 한계치 이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진화의 끝은 결국 신비일 거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 던전으로 변하는 게 진화의 끝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지, 모르지. 우리는 던전 이후의 단계를 모르잖아. 단지 어느 차원에 어느 정도 이상의 신비가 누적되면 ‘던전’이라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정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지.”

유성운이 방긋 웃었다.

“이야, 드디어 정원사까지 나왔네.”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

“괜찮아, 어차피 맛보기로 들려주러 온 거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거나 배우려고 할 필요 없어. 그 누구도 이런 일을 차은혁 씨에게 강요할 수는 없거든.”

그가 설명을 이었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알겠지만 근원이라는 것은 일종이 모체야. 신비의 집약체인 셈인데, 여기서부터 신비가 흘러나와 우리 행성까지 여파가 미쳐.”

“…따로 물질화되어 있는 무언가는 아니겠죠?”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아까도 말했지만 정의되지 못한 영역이라. 다만 여기서부터 흘러나온 신비를 인간들이 자체적으로 갈무리할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정원사인가요?”

“정원사가 정원을 관리하는 거지.”

유성운이 끄덕였다.

“정원이란 방금 정리했다시피 근원의 장기이자 혈맥이야. 지구 곳곳에는 그런 지점들이 존재해. 다른 차원과 행성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적절하게 관리해 주면 신비의 축적을 막을 수 있어.”

그가 눈을 모로 굴렸다.

“다시 말해 신비가 너무 흘러넘쳐서 인간들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는 거야. 더 이상의 예상하지 못할 진화가, 혹은 변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근원의 맥이자 장기인 정원을 관리하고 보수하며 현실과 신비의 영역을 지키는 거지.”

긴 설명에 차은혁이 물었다.

“…양측이 넘치지 않도록?”

“넘치지 않도록.”

차가운 물이 뜨거운 물로 넘쳐, 결국 미지근한 하나의 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경우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몰라도 최소한 지금의 인간들에게 좋지는 않을 테니까.

“이 정원사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는 아마도 사제나 무당이었을 걸로 추정이 돼. 이들은 신비의 존재를 정확히는 몰랐지.”

“아….”

“하지만 0단계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인재’들이었으니 평균 이상의 자질을 갖춰서… 대재앙 이전에도 그들이 보고 접할 수 있는 가장 얕은 단계의 신비를 관리해 왔던 거야.”

“그럼 그 사람들도 정원사였나요?”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려나. 결국 신비를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진화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정원’의 존재도 알 수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라고는 할 수 없어.”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인류가 진화해야 할 만큼의 신비가 축적되어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잖아?”

“하지만, 그 전에 관리하지 못해서 대재앙이 발생한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 정원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인지할 수 있는 사람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아예 없던 시절인데. 다시 말해 대재앙은 필연이었어.”

유성운이 빙글 웃으며 차은혁을 보았다.

“그러니 상황을 파악한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신비와 현실을 조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대재앙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미래의 후손에게 너무 미안하지 않겠어?”

“.......”

“물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 현실에 차원과 행성이 생겨나고 그 위에 생물이 태어났으니, 신비로 하여금 그 마무리를 짓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순환일 수도 있기는 해.”

일부 정원사는 그게 순리라 말한다.

“그렇게 신비와 현실이 서로 환원을 반복하며 차원과 행성의 시작, 그리고 신비로 인한 끝이 발생하는 거라고 말이야. 이 둘이 정말로 순환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잖아?”

그런 것이다.

“하지만 이 이상의 혼란이 싫어 그 많은 정원사들이 일하는 거지.”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

“저는....”

“붕어빵 좀 팔아줘.”

“.......”

차은혁이 한참이 지나 물었다.

“예?”

침착했다만, 일종의 비명이었다.

처음에 말했던 포장마차가 농담이 아니었다고?

* * *

여기서부터 지오의 ‘영감’으로 넘어가 보자.

(다음 편에서 계속)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07)

307

제307화

참고로 정원사란, 비단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좀 그만 그리시죠?"

그림을 넘나들던 긴 술래잡기 끝에 남자가 뱉은 말이었다. 그에 지오가 말했다.

"뭘 그려야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서 일단 물량으로 승부를...."

"그 승부 이미 충분히 보셨으니까 그만 그리시라고요. 저도 이렇게 항복했잖아요?"

"이해했습니다."

지오는 눈앞의 '지오'를 보며 눈을 깜박였다.

"생각보다 끈기가 없으시군요."

"뭐지? 도발인가?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요, 아주 흥미로워."

"비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나름 진심이시라는 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내 생에 이렇게 황당했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그러며 머리 위의 탑햇을 쥐고 가볍게 인사했다. '지오'가 능숙하게 눈웃음을 그렸다.

"따란."

그건 흔히 마술사 모자라고 부르는 형태에 가까워 보였다. 소소한 선물인지 혹은 기념인지 지팡이로 가볍게 툭 치자 꽃이 작은 폭탄처럼 팡 튀어나왔다.

꽃을 뒤집어쓰게 된 지오를 보며 남자가 허리를 숙였다.

"당신의 제오르제입니다, 지오 씨."

"정중한 인사 감사합니다."

살살 꽃을 털어낸 지오가 '제오르제'의 옷차림을 쭉 훑었다.

“딱히 그 모자가 어울리는 차림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어라? 이상하네요, 서지오 씨가 패션 센스로 나한테 구박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아르지오 씨는 센스가 좋으시더군요. 덕분에 종종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분 센스는 저도 인정합니다. 의복과 장신구를 적재적소에 매치할 줄 아시죠, 저희가 본받아야 할 분이에요.”

“아무튼… 가벼운 옷차림입니다.”

품이 넉넉한 포엣 셔츠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모자. 그게 전부였다.

“신발은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제가 거기까지 체면을 신경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상의와 하의는 갖추신 걸 보니 문명인으로서의 존엄성은 지키려고 하신 것 같은데.”

“와, 신발 좀 안 신었다고 문명인에 존엄성까지 나오네? 그러는 지오 씨도 맨발로 자주 돌아다니시지 않나요?”

“저는 보통 집안에서 자주 이동하고, 집안에서는 신발을 신지 않다 보니… 정식 일정이 있으면 갖추고 나갑니다.”

“거창할 것 없이 저도 그런 편이에요. 굳이 신발을 신고 살 필요가 없는 곳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참고로 제 체면의 90% 이상은 모두 이 모자에 담겨 있답니다.”

“그것도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졸지에 제 주인의 거의 모든 체면을 저 혼자 감당하게 된 모자는 무슨 죄일까 싶다만. 반질반질하게 잘 관리가 된 걸 보니 예쁨받고 있는 것 같아 뭐라고도 못 하겠다.

그렇게 최소한의 상황을 정리하고 나니 문득 아쉬움이 들었다.

“…….”

지오는 제가 그린 그림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아직 다 안 그렸는데….”

“그만하면 됐어요, 나도 충분히 즐겼고.”

“다 안 그렸는데….”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에게 걸렸을까?”

말은 그렇게 해도 정말 재밌었는지 ‘제오르제’가 상쾌한 웃음을 터트렸다.

“하긴 나도 참 오래 살기는 했죠.”

“오래 사셨으니 슬슬 은퇴하시라는 의미에서 부른 건 아니었습니다. 저를 대단히 패륜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이게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나도 압니다,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실례지만 별로 미안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엔 제오르제 씨도 너무 즐기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일은 난생처음이다 보니….”

그가 제 연분홍빛 머리칼 위에 모자를 얹었다.

“그럼 일단 소개를 해볼까요?”

“사실 제게는 제오르제 씨의 소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술래잡기를 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 너무 많이 알았어요, 지오 씨의 말이 맞아요.”

“그러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소개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시간을 아주 좋아하죠.”

‘제오르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했다.

“방랑자 제오르제, 내 친구들이 애정을 담아 줄여 부르기를 지오입니다. 편하신 대로 읽어주세요.”

지오가 끄덕였다.

“방랑자라고 불리셨나요?”

“아, 사실 이건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공식적인 기관이나 국가에서 정의한 것도 아니니 그렇게 특별할 것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처음의 세계에서는 정원사를 대체하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내가 그곳 최초의 ‘방랑자’였으니까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는 아주 단순한 맥락에서 지은 이름입니다만....”

그가 웃었다.

“난 재밌는 게 참 좋아요.”

“도파민의 화신.”

“세상에, 딱해라. 즐기지 않을 거라면 왜 살죠?”

“아르지오 씨와는 다른 의미로 저와 의견을 합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른 건 지오 씨고 잡혀 온 건 나니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제오르제’가 의자 하나를 주섬주섬 들어서 지오의 옆에 놓고 앉았다.

“좋아요, 시작하죠.”

“아, 제가 시작합니까? 사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자연을 그린 작은 캔버스를 매만지며 지오가 끄덕였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처음이 어디인가요?”

“유성운 씨의 정원을 보고 난 이후였습니다.”

“거기서 무얼 보고 느꼈죠?”

“너무 아름다워서 정원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들 참 피곤하게 산다고 생각했죠.”

그에 ‘제오르제’가 알 만하다는 듯 아련하고 훈훈한 눈길을 보냈다.

“그래서 결국 포장마차라는 기가 막힌 기획을 하게 되시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가요?”

“‘제오르제’ 씨의 도움을 받으면 한결 수월해질 것 같기는 합니다.”

“나 오자마자 일하는 건가?”

“동화가 시작되면 구분에 의미가 없으니 제가 하는 노동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기는 하네요, 아주 흥미로운 발언이고요.”

“칭찬 감사합니다.”

지오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에요. 달콤한 향기나 손길로 유인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무식한 방법에 잡혀 오다니.”

“? 제가 곰덫으로 발목 잘라 잡아 온 것도 아니고 두 발로 멀쩡히 걸어 들어오셨으면서 저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시면 사람들이 절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서지오 씨가 곰덫으로 나를 끌고 왔구나?”

“그것도 재밌겠네요.”

“아니, 진짜로 그리지 말고. 흉흉한 곰덫 그리려고 하지 말고.”

“조심해 주세요, 술래잡기를 하는 동안 배를 채우지 못해 무척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아니 이런 돼지를 보았나….”

황당하다는 듯한 ‘제오르제’의 감탄에도 지오는 꿋꿋했다.

“예, 그렇습니다. 제오르제 씨는 순순히 저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로서는 대단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죠.”

“살다 보면 부하가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코딩이 잘못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아뇨, 그거랑 완전히 별개로… 분명 ‘적합자’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유유히 저를 피해 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42번째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는 제오르제 씨의 이름도 몰랐죠.”

“이름도 모르는 사람 잡겠다고 풍경화를 42점이나 그린 것도 평범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 할 선택이 아니라는 걸 본인은 절대 모를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답변을 기대하고 그걸 저에게 물어보시나요?”

지오가 으쓱였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난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뭐가 불만일까. 대체 뭘 그려야 옳다구나 초대를 받아줄까. 그런데 한 9점 정도 그렸을 때 감이 오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랑 놀자는 거구나.”

“덕분에 잘 놀았어요.”

“저야말로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라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면 ‘적합자’가 지오를 불러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지오’는 참 독특했다. 그는 지오가 그린 모든 정원에 존재했으나 존재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도망을 쳤다는 것인데.

“저도 단순히 초대를 거부하시는 거라면 실례를 감수하고 당신 뒤를 쫓으며 9,421점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겁니다.”

“…….”

잠시 침묵한 ‘제오르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래서 내가 그만 좀 그리라고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렇게 된 김에 깔끔하게 10,000점 채우고 싶었습니다.”

“미안한데 아무리 나라도 좀 질려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긴 그쯤 되니 정원의 형태도 레퍼토리가 비슷하더라고요.”

“그걸 9,000점이나 넘어서 깨달았다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과찬이십니다. 참고로 10,000점 채우는 걸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채울 겁니다.”

“맙소사 자연이시여. 부디 이 지독한 화가를 구원하소서.”

“구원받은 지 오래라 이 오두막에서 고구마나 구워 먹고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설명하자면.

“제오르제 씨는 제 초대를 거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긴 그랬다면 애초에 ‘적합자’로 정의될 일도 없었겠죠. 말 그대로 그냥 놀이를 원하시는 것 같아 저도 끝까지 쫓았습니다.”

“9,421점의 그림을 그려서 말이죠.”

“제가 그렇게까지 집요할 수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은 그렇게까지 그림을 그릴 일이 없었으니까요. 좀 과하다는 자각은 있는 탓에 중간부터는 작은 캔버스를 활용했습니다만….”

“그 많은 그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각자 자기만의 삶이 있는 법이죠, 난 그걸 긍정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다 착한 친구들로 그렸다.

“그렇게 결국 제오르제 씨가 저에게 붙잡히셨습니다.”

“한계 그 이상을 넘어 인생을 즐기는 모습에 그만 감명을 받아버려서….”

“슬슬 질리신 탓도 있을 것이고요. 사실 그게 가장 크지 않았나.”

“그런 과정을 통해 기어코 제가 자진해서 등장했다는 이야기죠.”

“좋군요.”

지오가 ‘제오르제’를 보았다.

“그럼 다시 본인 소개를 해보실까요? 지금까지의 상황 설명은 제가 대신해 드린 것 같아서.”

“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

이내 그가 눈웃음을 지었다.

“…나는 정원이 된 인간입니다.”

과연 도파민의 화신이었다. 돌려 말하는 법이 없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최소한 지금 당장은. 하지만 나는 내 첫 번째 생에 결국 정원이 되었고 그들 사이를 뛰놀며 나의 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연인이시군요.”

“여러 의미로 잘 요약된 단어네요. 그렇죠, 따지자면 자연인이에요. 발가벗고 다니지 않는 걸 부디 다행으로 여겨주세요. 나에게 아직 인간으로서의 체면이 남아 있긴 하다는 의미니까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니 매우 놀랍습니다. 누구 꼬시려면 최소한의 체면은 갖춰야 하니까 입고 계신 거 아니었습니까?”

“흠, 그런 의도가 아주 없지는 않죠.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굳이 입지 않아도 꼬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천지신명이시여.”

문란죄로 고소당하지 않게 뇌에 힘을 잘 줘야겠군.

스스로 불러온 재앙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지오가 이내 무언가를 떠올렸는지 고개를 기울였다.

“보통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지오’ 씨는 저에게 퀘스트를 주던데, 무언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까? 합의를 통해 목적을 세워두어야 저도 훗날 심신을 다스리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음… 없는데.”

“충분히 간 봤다 이거죠.”

“아니 서지오 당신, 한자리에 앉아 그림만 9,421점을 그렸다니까요? 이 정도면 내가 질리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나? 난 충분히 놀았고 이 이후로도 즐거울 거예요.”

짐짓 질색한 ‘제오르제’가 아까 전의 지오처럼 고개를 기울였다. 완벽한 흉내였다.

“말하자면 저 스스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셈이죠.”

“벌써 저랑 동화하셨나요? 첫 만남부터 지구의 용어를 참 많이 쓰시네요.”

“다 알면서 물어보시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도 배우는 것들이 있겠죠. 그거야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요.”

“사고방식이 독특한 건 제오르제 씨 쪽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일련의 일들을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인간에서 정원사가 되고, 정원사가 정원이 되고, 이제는 귀신 들린 초상화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이….”

“아, 그거 다 편견이에요. 인간이 운명을 손질하고, 기어코 인간이 아닌 자연이 되고, 그다음에는 그림이 되어본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지오 씨도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저도 어찌저찌 살다 보니 귀신 들린 초상화가 되어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제오르제 씨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규칙이 의미가 없는 법이죠.”

지오가 정색했다.

“그래도 규칙은 있어야 합니다.”

“예의범절 사회 윤리 이런 거?”

“그런 거.”

“그것도 좋지.”

‘제오르제’가 으쓱였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굳이 내가 하는 일에 한계를 정해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00점이 될 때까지 마저 그려도 되겠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서지오 씨는 나한테 사고방식으로 뭐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동화를 시작했다.

“왜요, 무슨 문제 있나?”

그는 여러분을 보며 물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왜 차은혁 씨가 붕어빵을 구워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잖아요. 솔직히 그거 들으려고 다음 편 누른 거 아니었어요?”

“확실히 그런 것치고는 제오르제 씨의 소개가 길기는 했죠.”

“나의 더 자세한 설명은 이만 나중으로 미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만하면 얼추 중요한 부분은 소개하지 않았는가?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아주 유능한 정원사이고, 정원이며, 또 그림이에요. 앞으로 지오 씨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나 같은 사람이 끼어들면 일이 아주 편해지는 거라고요.”

“덕분에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하긴 저도 식당을 차릴 생각은 못 해봤네요, 그것도 포장마차로. 그것도 정원에서.”

“정원사는 사람 아닌가요? 밥 안 먹어요? 안 쉬어요? 잠도 안 자요?”

“역시 재밌을 것 같아.”

‘제오르제’가 모자를 들어 부채처럼 제 입가를 가리고 웃었다.

“그러니까 슬슬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다들 이쯤 되면 아실 것 같지만 정원에 식당을 차려볼까 합니다.”

“차은혁 씨를 설득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되면 붕어빵도 제가 굽는 겁니다.”

“아주 어설픈 식당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만….”

지오가 끄덕였다.

“재밌으니 됐습니다.”

“역시 그렇겠죠?”

아무튼.

* * *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차은혁 씨?”

“…….”

차은혁은 인상을 찌푸리듯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

이해가 안 됐다는 의미였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07)"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08)

308

제308화

“이해가 안 될 게 뭐가 있겠니.”

비사벌은 방긋 웃으며 말했다.

“결국 정원사 복지 차원으로 정원에 기사 식당을 차리고 싶다는 것일진대.”

“정확히는 포장마차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흠, 확실히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 편리한 업장이 없지.”

“일반적인 가게보다 정원사분들이 출입하기 편할 것 같기도 해서요.”

“워낙 개방적인 구조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둘의 모습에 주현은 묵묵히 패드를 정리했다.

“…….”

“주현 씨, 포기했어?”

“현실을 안 거죠.”

유성운의 질문에 주현이 그를 돌아보며 웃었다.

“정원사분들의 상황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고요.”

“…지오랑 생각하는 게 비슷하네.”

“사실 지오 씨 말씀이 맞아요. 정원사도 사람이고, 식사를 해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할 텐데요. 정원에서는 그런 일이 참 힘들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거야 던전에 진입하는 여느 헌터들도 다 같이 겪는 불편함 아닌가…?”

“예, 비슷한 궤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의 강도에서 봤을 때 정원사들이 단연코 우위에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우위’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으음….”

사실 던전의 상위 호환 버전이 정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만큼, 주현의 생각이 맞았다. 규칙대로 몬스터를 상대하고 공략하면 되는 던전과는 달리 정원은 방문자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매우 까탈스러웠다.

그 안에서 정원사는 기본적으로 수면, 섭취, 호흡 모든 것이 제한되었다. 즉, 인간으로서의 생물학적 특성이 존중받을 수 없었다. 유성운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지오에게 들은 주현은 유성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는 체온을 가지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긴 하지, 그게 설원의 규칙이니까.”

“다시 말해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그 수많은 것들이 억압당하는 셈이네요, 안 그런가요?”

“억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 나는 내가 원해서 이 일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 거 알지만… 나는 내 설원을 사랑해.”

“유성운 씨의 설원을 모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들 수는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독특한 거라고.”

보통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한다.

“근데 좀 반갑긴 해.”

“그래요, 정원사들이 그렇게 춥고 배고프다면서요. 본인이 그렇게 투정 부려 놓고서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주현이 유성운을 응시했다.

“앞으로 지오 씨가 하게 될 일은 걱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유성운 씨도 뭔가 드실 수 있다는 건 좋은 일 아닌가 싶어서요.”

“주현 씨도 지오한테 감염됐어? 나를 돼지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야, 왜.”

“아무리 정원을 상대로라도 돼지 이전에 사람 취급은 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 뭐… 정원을 상대로 혁명이라도 일으키려고…?”

주현이라면 정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서웠다. 워낙 이성적인 사람이라 어지간해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지만, 정말 ‘어지간해서’일 때의 이야기였으니 말이다.

아무튼.

“…나도 심경이 복잡하다는 거지, 그냥.”

정원사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한평생 심신에 새기며 살아왔다. 숭고한 사명감 따위는 없으나 대의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건 알았다. 가시밭길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마냥 좋았다.

그 ‘좋음’은 보다 일상에 가까웠다. 신앙보다는 더욱 삶에 녹아 있는 것. 그렇기에 아주 가깝고 떨쳐낼 수 없는 것. 그럴 이유조차 없음에도 결국 유성운은 지오의 ‘변화’를 방치했다.

“정원사 실격이려나.”

“그 정도로 정원사 실격이면 지구는 망하라고 있는 겁니다.”

“아, 거기까지 가는 거야? 의외로 과격한 말도 좀 하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그러죠.”

주현이 가당치도 않다는 듯 유성운에게 눈을 흘겼다.

“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성운 씨는 정말 도구가 되길 바라셨습니까?”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

“확실히 그게 더 편하기는 하겠죠. 저도 그런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겠지?”

“그렇게 거창한 이유보다는, 그냥… 그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역시 그런 관점인 거야?”

“좋은 일 하면서 사람대접받으면 더 좋죠.”

“엄청 불경한 짓을 저지르는 기분이기는 해.”

“불경이라, 글쎄요? 정원사가 아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작게 웃었다.

“세속적인 인간의 시선에서 바라보자면 정원이란 하나의 일터에 불과해서요. 요즘 세상이야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허다하고, 사람이 사람 취급 못 받으며 살아간다 해도… 최소한 수집상은 그러지 않는 거 아닙니까?”

유성운이 허탈하게 웃었다.

“허, 이제 수집상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많이 대담해졌네, 주현 씨.”

“사람이 자원으로 쓰이는 세상이라 해도 사람대접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 더 좋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뭐라도 더 나은 게 좋다는 것이.”

“…너무 간단해서 그렇지. 지오랑 설원에서 이미 나눈 이야기이기도 한데, 12시 넘어서 야식 먹거나 이불 위에서 간식 부스러기 떨어트리는 기분이라고.”

“비유가 참 직관적이네요. 하지만 야식은 먹고 소화를 잘 시키면 될 일이고, 이불 위에서 먹은 간식 부스러기는 알아서 잘 치우면 그만인 일 아닌가요?”

“하지만 괜히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지 않으려나?”

뭐, 유성운은 그런 느낌 받아본 적은 없어 잘 모른다만. 그게 어떤 맥락인지는 알고 있었다.

“맞아, 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야식 먹어도 돼. 부스러기 좀 흘려도 되고. 그래도 그게 과연 좋은 변화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감이 잘 안 잡힌다는 거지. 이게 정확한 비유는 절대 아니겠지만….”

결국 개인의 사리사욕에 맞춰 정원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문제가 없다고 해도 뭔가 잘못하는 기분이야.”

“모든 시대의 흐름이 그러한 일탈을 기준으로 발전해 왔죠.”

주현이 가볍게 으쓱였다.

“어느 시대에서는 불법이었던 게 현대에 들어와서는 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당시의 규칙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저는 그리 잘난 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내가 평생 변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것들이 언젠가는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유성운 씨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그가 눈을 굴렸다.

“이제 막 30년 정도가 지났으니, 아직도 사람들이 신비에 대해 많은 것을 모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쉽게 밝혀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

“차은혁 씨에게 우주로 비유를 들었다죠? 그걸 조금 빌리자면, 그 광활함에도 사람들은 결국 우주의 꽤 많은 것을 알아내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

"똑같아 보여요, 제 눈에는."

주현이 웃었다.

"만일 유성운 씨가 '변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요."

"…변할 때라…."

"30년 정도 우물을 팠으니 물이 터질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무서워 죽겠네, 내 친구들은 왜 다 이 모양인지 몰라?"

"주변이 이상하다면 본인부터 확인하라는 말이 있죠."

"정말 말 한마디를 안 져주네."

유성운도 웃었다.

"그래서 이거 진짜 하는 거라고?"

"지금까지 나 누구랑 떠들었지? 혼자 어디서 주무시다 오셨나요?"

"깨어 있었던 것 같기는 해."

솔직히 말해서 조금, 식은땀이 흘렀다.

"이번 지오, 추진력 장난 아니네…."

유성운은 야근을 감지했다.

"이번에는 제오르제라는 이름이던가. '지오'라는 건 생전의 애칭이었던 모양이야."

"다른 차원의 정원사라는 소개를 듣기는 했는데, 여전히 감이 안 잡히네요. 정확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요."

"나도 마찬가지야. 얘기를 듣다 보면 정해운 길드장님 같은 느낌인가 싶다가도 왜인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단 말이지…."

"이번 지오 씨도 상당히 독특한 것 같다고 하면 제 착각일까요?"

"성자에 악신에 이어 정원사 정도면 크게 튀는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글쎄. 정원사 중에서도 흔한 유형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팍팍 들어서."

"'제오르제' 씨와 대화를 나눠보신 적은 있고요? 부끄럽지만 저는 없어서."

"나에게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

대략적인 모습은 알고 있다. 차은혁을 보러 가기 전 지오가 가볍게 보여 주었으니까.

노을을 닮은 분홍빛 머리칼은 목덜미에서 살랑거리는 단발이었다. 다채로운 색상의 보석안은 그 속내를 파악할 수가 없었고, 태도는 시종일관 묘하게 능청스러웠다.

누군가의 시선을 홀리고 주의를 빼앗는 데 탁월한 재능을 지닌, 그렇게 아닌 척 제멋대로 굴면서도 귀신같이 균형을 지키는. 그야말로 '정원'이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이전까지의 '지오'들은 전부 명확한 이야기가 존재했다. 이번 지오라고 크게 다를 리가 없건만, 왜인지 그는 설명을 뒤로 미루고 있었다.

유난히 '지오' 중에서도 속내를 알기가 어렵다고 해야 하나. 좀처럼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수줍음이 많은 성격도 아닌 걸로 보였는데…."

"하긴 저희가 모든 '지오' 씨와 친해질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주현 씨의 말이 맞아, 그거야 지오의 마음이지.”

그냥 확실히 어떤 성격인지 파악을 못 해 초조한 것뿐이었다.

‘이렇게 따지자면 큐레이터로서도 실격이지 않으려나.’

정보를 파악하지도 못하는데 신비와의 거리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원사라니. 대체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유성운은 허탈하게 웃으면서도 착실히 계획을 세워가는 지오를 보았다. 흔히 알고 있는 ‘서지오 헌터’의 모습이었지만 무뚝뚝한 얼굴이었다.

“…….”

변질이 될지, 발전이 될지.

그건 아직 모를 일이었다.

* * *

참고로 이번 일은 정해운도 알았다.

“나 몰래 진행하지는 않아 주어서 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명단을 부탁드린 보람이 있군요.”

“그때는 진지하게 싸우자는 건지 헷갈렸지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해운이 웃으며 끄덕였다.

“사실 지금도 엎어버리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자주 들죠?”

“10초에 한 번?”

“아직 용케 안 엎고 계시네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다가 귀하신 분께 미움받을 일 있습니까?”

어깨를 으쓱인 정해운이 말했다.

“정원사들이 지나치게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대접도 못 받으며 일하는 게 말이 되냐며 제 매니저님께서 그렇게 불쾌해하시더군요.”

“사람대접이라, 그렇죠. 사람이 짐승이니 도구 취급 받는 건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지만… 정원사들이 받는 취급은 아예 그것을 넘어선 수준이라서.”

인간들끼리 낄낄거리며 적폐 행위를 이어가는 것과 전적으로 자연이 그렇게 정한 것은 전혀 달랐다. 전자는 불쾌함이 크다지만 후자처럼 인간성의 뿌리까지 부정당하지는 않는다.

정해운이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거 아십니까? 정원사는 항상 웃어야 합니다. 신입은 가장 처음으로 ‘감정과 정반대의 표정을 짓는 법’을 배우죠. 그래야 스스로의 모순에 적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참 솔직해지기 어려운 직장이라며 유성운 씨도 말씀하셨었죠.”

“속내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이는 정원의 신비마저 드러내 보입니다. 그럼 세상은 혼란해질 것이고, 정원사 본인도 결국에는 제가 모시는 신비에 잠식되어 뿌리를 잃고 또 하나의 신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불편한 일일 것이라고 감히 짐작합니다.”

“그래요, 가엾은 일이죠.”

정원사의 수가 극단적으로 적은 것에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었다.

“자신의 노고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없을뿐더러 아예 보여줄 수조차 없습니다. 정원에서의 일은 실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업무가 편한가? 아니요, 정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신비로운 죽음의 단편을 셀 수 없이 목도합니다.”

얼음이 되고, 꽃이 되고, 나무가 되며, 하늘이 되거나, 비가 되고, 흙이 되어 비산한다. 인간의 뿌리를 타고 나 자연과 동화되어 산산조각 나기를 반복한다. 끔찍하다면 끔찍한 일이다.

자연 속에서 태어났으나 그들은 결국 인간이거늘.

“나는 사실, 그게… 서지오 헌터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과 비슷한 종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어느 심해의 던전에서 사람을 물감으로 만들어 버리셨죠. 위험에 처한 헌터들을 던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요.”

“제가 그분들에게 민폐를 끼쳤습니까?”

“하긴 정원의 수작에 비하면 상당히 온건한 방식이고 대우라 전해 들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저로서는 추측일 따름이지만요. 결국 자연은 인간에게 참 야박하죠.”

좀처럼 그들의 나약함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신비를 이제야 30년 남짓 알게 되었는데, 정원을 관리하는 작업과 시스템에 여러 불편함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인간의 역사로 따지자면 이제야 막 선사 시대인 셈이 아닙니까? 뭐, 그 부근이겠네요. 느리겠지만 차차 발전할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제 제안을 받아 주셨군요.”

“나는 지구 최초의 정원사로서 당신을 경계하나, 그렇기에 그 규칙과 이야기를 긍정합니다. 설마 그것을 부정하려고요. 이번 제안은 그러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 허투루 구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건가.”

“방금 ‘이제야 30년 남짓’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32년이나 고여 있었으면 한 번 흐를 때도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 혼자 멱살 잡고 짤짤 터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최소한 선사 시대 사람들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사냥이라도 했을 텐데 정원사는 그럴 수도 없고요.”

다시 말해.

“맞아요, 저도 힘들다는 겁니다.”

인력 부족, 자원 부족.

물론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 정신 나간 짓인 것 같기도 했고, 너무 과감한 변혁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말리기엔 말마따나 정원사들의 근무 환경이 너무 가혹했다.

“그 차은혁이라는 친구는 무어라 반응했습니까?”

“얼마간 고민하더니 결국 제안에 응해 주셨습니다.”

“하, 붕어빵이라… 재밌네.”

턱을 쓸던 정해운이 웃으며 물었다.

“영업 시작하게 되면 저도 방문해야겠습니다.”

“안에 슈크림 들어가 있으면 영업 그만하라고 할 거면서.”

“붕어빵에 팥 이외에 다른 게 들어가는 건 몹쓸 짓이에요.”

“이런 건 왜 변하지를 않을까.”

“…….”

정해운이 이내 팔짱을 끼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당신은 계속해서 신비가 더해지는군요.”

“예, 이번 친구는 꽤 활달한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변하지 않고 있단 착각이 들어.”

“귀신 들린 초상화가 그럼 어련하겠니.”

“박제된다는 건 무슨 기분이지?”

그가 물었다.

“외로운가?”

“그렇다기엔 친구가 많아서.”

“사람이 할 짓은 아니군.”

“……?”

지오가 무표정한 얼굴로 정해운을 보았다.

“내 집 앞마당에서 앞담을 하는 건 대체 무슨 의도죠?”

현재 정해운은 ‘지오의 초상화’에 있었다. 그의 오두막 앞의 마당 말이다. 아무리 그래도 집안까지 들어가기는 싫다나.

“아무튼 정해운 씨가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일이 수월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지구가 망할 일만 없게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서지오 헌터.”

“내가 그렇게까지 채신머리가 없지는 않아요.”

지오가 싱긋 웃었다.

“고생하셨습니다.”

“…….”

정해운도 마주 웃었다.

“별말씀을요.”

역시 이 존재는, 껄끄러웠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09)

309

제309화

이변은 빠르게 일어났다.

“...이게 대체 무슨....”

정원이, 그려진 것이다.

“...잠깐, 이쪽으로.”

“예, 선배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네 눈에도 이게 보이지?”

“어... 그렇죠, 보이네요. 뭘 그린 거지? 정글인가? 느낌이 팍 오는 걸 보면 검은망토의 새로운 작품인가 봐요! 맞죠, 그죠?”

“...검은망토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엉뚱한 곳에 대뜸 걸려 있는 그림은 보통 검은망토 작품 아닙니까? 와, 저 처음 봅니다. 확실히 보통의 그림과는 차원이 다른 분위기가 나네요.”

“.......”

“...선배님?”

이변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당연히도 정원사들이었다.

어느 날 세상에 하나둘, 낯선 형태의 정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들은 대체로 인적이 드문 골목이나 신전 근처, 혹은 산이나 바다 같은 오지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히 검은망토가 그려내는 ‘작품’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전부 다른 방식으로 칠했는데도 어쩐지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작품의 크기들도 썩 그리 크지 않고요. 기존의 작품 규모를 생각해 보면... 이건 연작인 걸까요?”

“마땅히 알려진 이름도 없으니 당장 부를 수는 없겠지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연작이라. 하긴 명성 높은 작가라면 한 번쯤 시도하는 작업이죠. 과연 본질은 화가라는 걸까요.”

“확실히 이전의 작품들과 느낌이 다릅니다. 그건 비단 작품의 크기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순수한 신비의 기운

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마치 운명처럼....”

사람들은 그것이 그저 검은망토의 새로운 시도일 뿐이라고 여겼다.

“.......”

“...이거, 선생님.”

“...그래, 정원이다. 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겠는데.”

그러나 정원사들만큼은 그렇게 쉬이 넘길 수가 없었다.

“모인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얼굴 보겠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다른 무엇도 아닌 정원이, 민간인들의 시야에도 들어오게 된 것이다.

모든 정원사가 한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정원사 특성상 혼자 지내며 은둔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정원사를 만나며 이 상황을 전했다.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혹시 이전의 열병이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게 단순한 근원의 기지개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아니,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죠... 하지만 가능성은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하긴 그때처럼 정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썩였던 일이 흔하지는 않았죠.”

“그나마 유사한 시기가 대재앙이라고 하길래 긴장하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끄응, 제2의 대재앙이 오기에는 멀다기에 다른 유형일 줄을 알긴 알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이런 파격적인 형태의 이벤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와, 미치겠다.”

늘 침착하고 이성적이어야 하는 정원사들이 혼란에 빠질 정도였다. 그들은 선명하게 정의할 수 없는 공포와 초조함, 그리고 설렘에 빠져 있었다.

정원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 일단 정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달라질 것도 없어요, 완전히 파릇파릇하다고요.”

“저희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모습을 보였다는 그 작품, 거기에 해당하는 정원사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친목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정원사들의 정원이라고 하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가요? 아니, 애초에 검은망토가 정원에 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서....”

“검은망토는 태양의 신성이 아니었나요? 아무리 신성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정원의 입구를 활짝 열어둘 수는 없어요! 이건 재앙이라고요!”

“하지만 재앙이라기에는 지구가 너무 잠잠합니다. 우선 다들 진정하시고....”

그즈음 정해운 정원사가 입을 열었다.

“걱정 마십시오, 형제님. 해가 되는 일이 아니니.”

“역시 길드장님께서는 이번 일에 대해 알고 계셨군요.”

“부족하게나마 저 역시 이번 일을 공부했으니까요.”

정해운은 '이번 일'에 그 자신과 검은망토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 그 사실은 정원사들의 혼란만 가중할 뿐이었다. 대신 정해운은 소란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을 때 끼어들었다.

"지금 모습을 드러낸 정원들은 관리를 받는 신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방치되어 있었던…?"

"정확히는 방치되어 있던 지구의 정원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예, 제겐 익숙한 친구들이죠. 이전에 몇 번이고 방문했던 정원들이었고요."

"그렇다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검은망토는 정원과 무슨 관계인 거죠?"

"한낱 정원사인 저로서는 알지 못하는 신비의 태동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일 검은망토와 연관된 일이 맞다면, 그렇군요. 그는 선하고 예의 바른 인간에게 호의적인 규칙의 신비죠."

"그건 길드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나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은 아닙니다. 지구가 겪었던 대재앙과 비교하자면 너무나 온순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 참 신기합니다."

정해운이 제 길드 소속 정원사에게 한 말은 다른 정원사들에게도 퍼져 나갔다. 사실 그 물밑에는 여러 신분을 활용해 오늘도 야근을 한 정해운이 있었다.

그는 전 세계의 정원사들이 과한 혼란에 휩싸여 사고를 치지 않게끔 조치했다. 평소에도 인망을 쌓아둔 '신분'들 덕분에 정원사들은 점차 이성을 되찾아 갔다.

애초에 언제나 냉정을 요구받는 사람들이었다.

"……."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난들 알겠냐, 아무튼 재앙은 아니라니까 그나마 마음이 놓이네."

"이러다 또 훅 하고 대재앙 터지면 저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지처참당하겠지?"

"네, 누구한테요? 정원한테?"

파릇한 신입 정원사의 질문에 고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개빡친 협회 연구원들한테."

"그 인간들은 자기가 발로 뛰는 것도 아니면서 맨날 우리한테 지랄이야."

"그야 그 인간들이 나눠 써야 할 연구비를 정원사 개인이 통째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건 좀 할 말이 없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진짜 뭐 해요? 우리?"

"나도 뭐라고 딱 잘라 말을 못 하겠네. 아직은 상황 돌아가는 꼴을 좀 봐야 할 것 같다."

막 '정원'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의 일이었다.

* * *

시간이 조금 지나자 사람들은 '정원'의 다른 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단순히 작품의 크기만 작은 게 아니라 반응도 조금 다르네요."

"이전까지 검은망토의 작품들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말입니다."

"이 아이들은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 어쩜 이렇게 지고지순하고 아름다울까. 단지 우리를 바라보기만 하는 작품의 태도가 너무 깜찍하지 않나요?"

“나는 그보다 작품의 깊이에 섬뜩함을 느낍니다. 그래요, 정말 단지 존재하고 있을 뿐이군요. 회색 도시처럼 으스스한 괴담도 아니고… 거대한 자연을 보았을 때의 기분이죠, 이건.”

“여태껏 검은망토는 항상 자신의 작품에 의도를 포함해 왔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의 작품은 그의 뜻에 따라 활용되었죠. 이번 작품은 어떻게 쓰려는 것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돼요. 뭔가 기분이 좋다고 해야 하나. 되게 고즈넉한 휴양지에 자리를 잡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기분이라서.”

“그 말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자연 그 자체네요.”

“어쩌면 그게 이번 작품의 의도일지도 모르겠어요.”

특히나 작품의 해석에 힘을 준 것은 검은망토의 애호가들이었다.

“자연, 자연이라. 이렇게 강인한 신비가 태동하는 자연이 또 있단 말입니까? 던전도 이렇지는 못해요.”

“최소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라는 것만큼은 사실이겠죠. 어딜 가서 이런 황홀한 자연을 엿볼 수 있겠어요? 세상에, 이 말도 안 되는 교묘함이… 정말….”

“그렇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지구의 자연은 아니겠군요. 이 차원의 이치를 벗어난 규칙의 자연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꽃이 하늘을 덮겠어요. 구름을 감싸고, 태양처럼 빛나겠느냔 말입니다.”

“이렇게 기묘한 규칙의 광경을 보면서도 단번에 ‘자연’이라는 말이 떠오르다니. 과연 검은망토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끝이 없지요.”

“정말 아쉽습니다. 이번 작품은 왜인지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네요. 한 번이라도 선례가 생긴다면 그다음은 도전해 볼 만할 텐데….”

그들의 대화는 검은망토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던 여러 사람에게로 퍼져 나갔다.

“야, 차이솔.”

“응? 왜?”

“너도 이번 일 알고 있었어?”

“어… 난 잘 몰라, 어른들이 하는 일이잖아. 나는 아직 어린애고.”

“네가 언제부터 그런 거 잘 구분하는 기특한 어린이였다고 그래.”

“나, 나도 찔리는 게 많기는 한데. 그치만 진짜 내 일 아니란 말이야.”

태양교의 예비 사제 차이솔은 제 파트너, 이루다의 말에 좀 억울해했다.

“내가 어른들의 모든 일을 알고 있지는 않아.”

“…? 잠깐만, 그럼 최소한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진 알고 있다는 말이잖아. 너 지금 그런 뉘앙스인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잘 모른다니까?”

“아니….”

“붕어빵 팔 거라는데, 나는 장사에 대해 진짜 하나도 모르고.”

“…….”

이루다는 결국 제 파트너를 끌고 강서담을 찾아갔다.

“…붕어빵 말씀입니까?”

“네, 붕어빵이요.”

“붕어빵을 판다고요? 검은망토가?”

“차이솔은 계속 ‘어른들의 일’이라고만 하던데요.”

“선택된 사도라 하더라도 신성의 앞날에 대해 떠들기는 힘든 법이죠.”

“아, 언급할 수 없도록 언약을 맺었던 걸까요? 그런 거라면 제가 섣부른 짓을….”

“차이솔 형제는 그냥 본인이 깊게 떠들 이유가 없어 보여서 말하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만.”

“……??”

“이루다 자매.”

강서담은 어른으로서 조언했다.

“잊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로써 이루다는 책임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이 지독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얼떨결에 지구의 운명을 스포당한 강서담이었다. 어린 사제들을 돌려보내고 한참을 망설이던 강서담이 이내 결심했다.

그는 유성운 큐레이터에게 받았던 그의 사적인 번호로 연락했다.

“…아, 받으셨군요. 강서담 사제입니다. 잠시 통화하실 시간이 되실까요?”

—우리 사제님과는 늘 통화할 시간이 있지.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은 간다만, 붕어빵까지도 들었어?

“제기랄, 내가 잘못 전해 들은 게 아니었다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겁니까. 신성이 점지한 앞날에 붕어빵이 대체 무슨 소리죠?”

—아직 지오가 영업 준비를 다 못 끝내서 말이야. 그래도 문 열게 되면 강서담 사제님도 모실게. 이야, 특급 서비스. 좋지?

“가시밭길로 가는 특급 서비스입니까?”

—내 생각에는 태양의 여신께서도 그다지 싫어하진 않으실 듯.

“대체 태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싫어하지 않으셨다.

“…….”

—뭐야, 갑자기 말이 없어졌네.

“…아니….”

대단히 흥미로워하셨다.

“…….”

—…저런.

상황을 짐작한 유성운이 안타까워해 주었다. 딱히 비꼬는 건 아니었다, 불쌍한 건 진심이었으니까.

—이런 걸 보면 신성과 가까워지는 것도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야.

“…유성운 씨가 해도 될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은 둘째 치고서라도, 아뇨. 한낱 인간의 몸으로 신성의 계시를 받게 된다는 건 대단히 영예로운 일인 게 맞습니다….”

—그런 것치고는 목소리에 힘이… 음, 그래… 그렇구나….

“…나중에 주실 연락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무운을 빕니다.”

—사제님도.

통화를 끝낸 강서담이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

왜 하필 붕어빵이지.

‘내게 어째서 이런 시련이.’

강서담이 때아닌 과분한 영예에 조용히 몸부림칠 때, 연락을 끊은 유성운은 묘한 낯으로 지오를 보았다.

“강서담 사제님께서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본데.”

“어라, 그러면 안 되죠. 강서담 사제님처럼 좋으신 분은 늘 행복하셔야 할 텐데요.”

“좋은 사람이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

“하지만 내 눈에 들 때는 언제나 그래야만 해요. 나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오, 멋진데.”

유성운이 결국 웃음을 참지 못했다.

“내 야근 거리를 얼마나 늘릴 셈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걸 보니, 나도 기뻐요.”

오팔과 같은 눈으로 제오르제가 웃었다.

“…아, 재밌네.”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다.

* * *

두 발 달린 ‘정원’은 정원사들을 찾아갔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309)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10)

310

제310화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정원은 말했다.

“맨발로 온갖 땅을 밟고, 하늘을 보고, 공기를 맛보죠.”

황홀한 눈은 웃었다.

“그건 꽤 많은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이지 않겠어요?”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라요, 마법의 모자거든요.”

“마법이라.”

“그래요, 마법. 굉장하지 않아요?”

그는 텅 빈 모자를 뒤집어 보여주었다.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이런, 겁을 먹은 겁니까?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보십시오, 이 안은 비어 있습니다. 가득 채우고 싶지 않아요? 뭐가 들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손을 넣어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감히….”

“손을 뻗어서 만져보세요.”

“…….”

정원사는 손을 넣었다.

“무엇이 만져집니까? 아, 어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 궁금하네요.”

“…딱딱한, 광물… 같습니다.”

“그 광물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차갑나요? 뜨거운가요? 미지근해요? 시원해요? 따듯해요?”

“... 차, 가...운가?”

“그것은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흠, 글쎄.”

옅은 색채의 머리칼이 흘러내린다.

“이럼 어떨까.”

손에 쥔 모자가 장난스레 흔들리고, 그 안에 손을 넣었던 정원사 역시 진동을 느낀다. 그가 잡은 딱딱하고 차가운 광물은 그 장난에 따라 그와 함께 흔들렸다....

그리고 정원은 물었다.

“그것은 흔들렸습니까?”

“...예, 흔들렸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것은 움직이지 않나요?”

“.......”

“지금도 그것은 차가운가요?”

“.......”

“지금도 그것은, 딱딱합니까?”

“...아....”

정원사는 저도 모르게, 손을 빼내어, 제 손에 들린 것을 보았다.

“...아니요.”

그것은 투박한 모습의 두더지였다.

“두더지, 였네요. 두더지....”

“세상에...! 너무 깜찍한 친구가 나와서 감동받았습니다! 두더지라니, 이 무성한 밭에 이만큼 대단한 장난꾸러기는 또 없겠죠.”

“두더지는 밭의 작물을 갉아먹을 텐데 걱정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보세요. 이 친구는 작물을 먹지 않아요. 만져보지 않았습니까? 두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이 친구에게 이름을 붙여.”

“.......”

“어서.”

“...나, 나의....”

건조하던 정원사의 얼굴에 미소가 맺혔다.

“내 정원이고, 내 밭이에요.”

그것은 딱딱하지 않았다. 부드러운 흙이었다.

그것은 차갑지도 않았다. 미지근한 흙이었다.

그것은 움직이고 있었다. 살아 있는 흙이었다.

“하, 하하하… 내, 내 밭에 두더지가 올 줄이야. 내 밭에….”

“하도 땅속에 숨어 사는 친구들이니 자주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재주가 좋지 않으니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좋겠네요, 그게. 맞습니다. 나같이 재미없는 사람보다는 따듯한 땅속에 있어야지. 그게 두더지니까요.”

“어여쁘게 키워주실 것 같아 이 무책임한 사람의 마음이 가벼워지는군요.”

“당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 정원이 말했다.

* * *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정원은 말했다.

“그나마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이 어여쁜 꽃으로 화관을 만드는 것뿐이죠. 그게 다예요.”

“…화관… 제게도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요.”

“그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난 손재주가 아주 좋아요, 당신은 그걸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놀랍네요. 그걸 어떻게 아셨나요? 나에게만 말해봐요.”

“손가락이 길고 섬세하셔서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장난을 치는 방랑자의 손은 언제나 유려해야 하는 법이죠. 정답을 맞히셨으니, 나는 당신에게 상을 드리겠습니다. 당신과 아주 잘 어울리는 화관이에요.”

푹신한 화관이다.

“…제가 쓰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따듯한 생명이 느껴지는 화관이다.

“아, 역시 아름다워… 분명 끊어 내었음에도 살아 있군요. 엮인 채로 살아 있어요. 이것을 무어라 말해야 할까요? 어쩌면 사람들은 이 작품을 돌연변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지, 남들이 결정해 줄 것이 아닙니다.”

“꺾인 채로도 살아 있는 꽃은 아름다운 법이죠. 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에게는 과분한 화관. 내 화원의 살점으로 만든 왕관. 정말 멋져요, 정말로요.”

“원하신다면 이것을 당신의 머리 위에 쓸 수도 있습니다.”

“역시 내게는 너무 과분합니다. 단지 보여 주셨음에 감사해요. 나는 언제쯤 그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요? 화원과 생명과 신비와 하나 되어 그 무엇도 해치지 않는… 그들만의….”

“그저 몸을 낮추시기에 바쁘니 나 또한 그럴 수밖에 없겠군요.”

정원이 모자를 보여주었다. 그것을 뒤집고는, 그 안에 화관을 넣고, 손으로 가려 덮는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저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니, 외로운 방랑자로서는 무척이나 탐이 나네요. 당신의 화원은 황홀할 정도로 좋은 사제를 받았어요.”

“고귀하신 분께 제 사랑을 인정받는 날이 오다니, 꿈만 같습니다. 내게 또다시 이런 날이 올까요. 제가 과연 그래도 될까

요....”

“자, 맞혀보세요.”

“.......”

“눈을 감고.”

“.......”

“귀를 기울여.”

눈을 감았다. 귀를 기울인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한다.

“무엇이 들립니까?”

“...바르작거리는 여린 숨소리가 들립니다.”

“여린 숨소리라, 그들은 어떻게 숨을 쉬고 있죠? 이 가냘픈 꽃잎들이?”

“너무나도 여리니, 어쩌면... 날고 있을까요? 이 화원을 덮은 꽃잎처럼? 따사로운 공기처럼?”

“바르작거리는 숨소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들의 날갯짓에서 나왔어요.”

“바로 맞히셨습니다, 화원의 사제여. 당신이 정답을 들었어.”

정원이 손을 치운다. 모자가 열린다. 그 안에서 나비가....

“.......”

수백 수천 마리의 나비가 날아오른다.

“...아, 아아아아....”

“세상에, 당신의 화관이 나비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저의 화원에... 저의 화원으로 나비가 날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이들은 너무나 가벼워서 잠시라도 집중을 잃으면 당신 위로 앉은 줄도 모를 겁니다. 그럼 나비들이 정말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당신을 부를 입조차 없는데....”

“제가 감히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난 그들을 경배합니다, 숭배해요.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고 나를 횃대로 삼겠다면 기꺼이 받들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집중해야 해, 내 친구. 그래야 할 거야.”

정원이, 정원사의 손을 잡는다.

“집중해.”

위에 오른 정원사의 손등에, 꽃잎처럼 다채로운 나비가, 앉는다.

“정원이 너를 부르는 무게란다, 사랑 많은 사제야.”

“...이토록 여린 부름이 있을까요....”

“너의 화원이 네게 보채는 날갯소리가 들리니?”

“...잠시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귀에 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항시 사랑하거라, 너 또한 그렇게 하렴. 네가 형체를 잃는 순간 그들은 너를 부를 수 없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람으로 남아라.”

정원이 말했다.

“내가 그러고자 했듯이.”

정원은 사랑하라 말했다.

* * *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정원사는 반박했다.

“아니요, 당신은 정원입니다. 두 발로 걷고 온 눈으로 세상을 보는 정원입니다.”

정원이 으쓱였다.

“이런, 벌써부터 반박당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당신이 정원사들에게 가족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그것은 당신 정원이신 분의 자비입니까?”

“사랑입니다.”

“잘 모르겠군요.”

정원사는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이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어찌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무정이라 말하더이다. 당신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그리 비정한 사람인가요?”

“그 무엇도 담을 수 있을 만큼 풍요롭기에 더더욱 무정하십니다.”

“그게 나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정원은 팔을 벌렸다.

“넓게 보세요, 아주 넓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모든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정원사는 감히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렵겠죠. 그러니 당신과 같은 존재의 눈이 되고, 살점이 되고, 피가 되고 싶어요.”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나의 끝이 정원의 세포로 정해져 있다는 상상을 하고는 합니다.”

“그것 또한 무척이나 낭만적인 일이지, 나는 그런 걸 아주 좋아합니다. 멋지네요.”

“칭찬이 후하시군….”

그의 무뚝뚝한 정원과는 많이 달랐다.

“…….”

이곳은 정말로 더웠다.

“…저는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사막의 둔덕 위에서 그는 그림자 없는 정원의 두 발을 보았다. 그것의 발은 티 하나 없이 새하얀 대리석 같다가도, 왜인지 사막의 모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도 같았다. 구분할 수 없이 그저 하나였다.

마치 아지랑이 같아. 정원사는 그리 생각하며 그것을 불렀다.

“정원님?”

“그것도 좋지.”

“원하신다면 사람으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 좋아요.”

“그렇다면 방랑자는 어떠실까요.”

“그 또한 황홀하지.”

“당신은 어째서 그 무엇도 부정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냥 쓰레기 아닌가....”

이상하게도 허탈한 기분이 들었다.

“사람이고자 주장하며 사람의 형상을 하고서는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하시는군요.”

“아주 잘 봤습니다, 나는 정말 무책임한 사랑이에요. 당신같이 재밌는 사람들 잔뜩 골리고서는 유유히 떠나가는 것이 나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랑에 푹 빠진 사람들은 당신의 손길 한 번 다시 받고자 그토록 목을 맬 텐데.”

“한자로 이런 말이 있죠, 경국지색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나라를 말아먹어 봤을 것 같습니까? 한 번? 열 번? 백 번? 어쩌면 가늠하는 것이 무의미할지도 몰라요.”

“참 유해하시네요, 정말 두렵습니다.”

한낱 인간을 이토록 휘두르다니.

“잔인하시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다 그런 법이지.”

“어찌 그리 사랑을 베푸십니까?”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어찌 제한을 두려고 해요. 나를 그리 편협한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단편밖에 보이지 않을 텐데. 왜 나를 그저 보려고 하지 않아.”

“굳이 사람이 태양을 눈에 담지는 않죠.”

눈이 멀 것이다.

“이곳은 사막입니다. 풀 한 포기 없고, 물 한 방울 없이 그저 바싹 말라 있는 사막이죠. 그러나 나는 이 사막이 무척이나 마음에 듭니다. 나의 정원은 나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정원의 세포가 되고자 하십니까?”

“이곳의 모래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단단한 돌로 굳어, 혹은 육신이 가라앉아, 저 끝에 닿으면 내게도 그 평안이 허락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생명도 그늘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정원의 뜻이기도 합니까?”

“.......”

“아닐 텐데?”

정원이 주저앉는다.

아이처럼 주저앉아, 두꺼운 모자에 모래를 가득 채워 넣는다. 붉은빛이 도는 고운 모래가 차곡차곡 그 안에 쌓인다.

문득 정원사는 저 모자가 불쌍해졌다. 참으로 휘둘리는구나.

“...그렇게 험하게 대하면 모자가 화를 내지는 않습니까?”

“나의 많은 것을 함께 감당해 주는 친구이니, 이 정도는 봐줄 거라고 믿습니다.”

“역시 무책임하시네요.”

“너 역시 그래.”

모자는 이내 푹 엎어져, 다시 들어 올려진다. 사막 둔덕 위에 또 다른 둔덕이 생겼다.

“어디 보자, 이 안에 누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리 와 함께 모래를 치워보지 않겠어요?”

“제게 당신조차 지지 않는 책임을 지우려 하시는군요....”

그럼에도 그 장난에 어울려준다.

“.......”

내 사막이 나를 불렀을지도 모르니. 그를 향한 나의 사랑과 충성만큼은 거짓이 아니니 말이다.

“이대로 치우면 됩니까?”

“내가 먼저 치울게요. 자, 여기에 요술봉을 꽂고....”

“어린아이들이 이런 비슷한 장난을 치는 걸 봤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동심을 잃을 이유는 없죠.”

“하아....”

정원이 한 번. 정원사가 한 번. 또 정원이 한 번. 정원사가 한 번. 손과 손이 조금씩 모래를 덜어낸다. 한참을 그렇게 덜어냈음에도 왜인지 모래는 줄어들지 않는다.

어쩜 이렇게 유치한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다.

“.......”

“...따란.”

모래 속에서, 사막여우가 파르르 몸을 털어 모습을 드러낸다.

“맙소사, 새 가족이 생겨 버렸네요. 이걸 어쩌지?”

“나를 그토록 사람으로 남기고자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으로 남아 사람으로 죽는 것에 어찌 이유가 필요할까.”

정원은 자그마한 여우를 들어 정원사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그러고는 엎어진 여우에게 입술을 부딪친다.

“부디 운명으로부터, 책임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시지요. 정원은 그것을 바라지 않거늘 어찌 함부로 자신을 대한단 말입니까? 결국 인간으로 스러지는 것 또한 정원의 섭리로 돌아가는 길이 될 것일진대....”

“...그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져야만 하는 책임이지. 자연으로부터 태어나 이지를 가졌으니 그 두 눈으로 세상을 보며 인간으로서의 생에 몰두하십시오. 그게 사람이야. 그게 사람의 자격이다. 네게 주어진 의무이며 권리이다. 부디 저버리지 말렴.”

“당신은….”

이 신비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끝까지 무책임하군요.”

“그게 사랑이란다.”

“또한 자연이겠죠. 섭리이고, 운명입니다.”

허탈하게 웃었다.

“…빌어먹을.”

머리 위 여우가 참 푹신했다.

“개같이 힘듭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게.”

“그럼에도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네 인간들 아니겠니.”

“자비를 베푸시겠습니까?”

“아니, 그저 사랑하겠지.”

“더럽게도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나는 세상 모든 것을 편애하며 눈에 담는단다.”

미지근한 온기의 손이 정원사를 쓰다듬었다. 가볍고, 가벼워서, 마치 유령 같다.

“…….”

“사람으로 살아라.”

살아남으라고 정원이 말했다.

* * *

“어, 잠깐만.”

유성운이 귀가한 지오에게 물었다.

“그런데 왜 나만 194마리야.”

“과연 지금도 194마리일까?”

“날 더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이거 편애인가?”

“그렇다면 정원의 편애겠지.”

“네가 곧 정원 아니야?”

“그렇게 보고 싶다면 그런 것일 테고.”

“내가 본 지오 중에 가장 모호하네, 정말….”

“그게 나의 매력 아닐까요, 유성운 씨?”

제오르제는 그저 웃었다.

“그래도 나를 깨끗하게 관리해 줄 거잖아요. 수시로 찾아보고 오늘의 기분을 물어보겠죠. 새하얀 갤러리에 두고 박제해서, 몇 번이고 변하는 색을 즐겁게 감상하겠지. 나는 그런 유성운 씨의 성실함을 무척이나 아끼고 있습니다.”

"...지오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정말 색다른데."

"없는 말을 지어낸 적은 없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네? 안타까워라."

"그보다... 정원사들에게, 가족은 왜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 그야...."

지오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가장 사랑하기 쉬운 것이 가족이니까."

물론 세상에 그렇지 않은 가족도 많다는 걸, 지오 역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에는 마력이 있어 피조차 공유하지 않은 존재를 사랑하게 만든다.

늘 외로운 정원사라면 더하겠지. 그들에겐 사랑이 필요했다. 아주 큰 사랑이, 유치하고 적나라한 사랑이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쥐여주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거참 사랑이 많네."

"이렇게 사랑이 많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사람이었겠어."

"...아직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 지금, 그 모습으로도?"

"아닐 이유가 없지, 안 그래?"

지오는 모자를 부채처럼 입에 대고 웃었다.

"사랑은 사람을 버티게 만들어."

어떤 방식으로든 말이다.

"그러니 이제 필요한 건, 역시...."

"노조인가."

"복지겠죠, 아무래도."

지오는 제 오두막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은혁을 불렀다.

"차은혁 씨."

"......."

"갑시다."

"...어딜...?"

차은혁은 내심 물었다.

'저승으로?'

지금으로서는 가장 그럴싸한 행선지인데.

* * *

수집상 직원이 주현에게 물었다.

"지오 씨의 포장마차에 붕어빵도 추가되었다면서요."

"아, 추가라기보다는... 꽤 예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죠."

"함께하는 사람이 차은혁 씨라고 했나? 고생 좀 하겠네, 간식 챙겨줘야지."

"...그렇군요, 그것도 좋겠죠."

주현이 끄덕였다.

"결국 지오 씨가 배불리 먹여 데리고 나올 테지만요."

"예? 영업하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영업이 아니라 맛집 탐방 같은 거였나, 사실?"

"지오 씨가 음식을 하는데 본인 요리를 안 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의 귀신 들린 초상화 친구는 위장이 제법 컸다.

"그리고 자기가 먹는데 옆에 사람 안 먹일 위인이 아니지...."

주현은 씁쓸하게 웃었다.

'간식 챙겨 줘야겠다는 이 사람 말만 봐도, 뭐.'

돼지는 전염되는 법이었다. 지오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다.

왜 하필... 그런 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10)"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11)

311

제311화

최근 정원사들 사이에서는 괴담처럼 떠도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 어떻게 생각해요?"

"뭘 말입니까?"

"사람 형상을 한 정원 말이에요."

사실 그건 단순한 괴담은 아니었다. 물론 세상을 떠도는 흔해빠진 소설처럼 말도 안 되는 기괴한 이야기였지만. 그럼에도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남자는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게 정말이었습니까? 아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우리 사이에 도는 이야기에 그냥 헛소문은 없는 법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워낙 허황된 이야기라, 글쎄요. 현실감이 없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슨 기분인지는 알 것 같네요."

여자가 옅게 웃었다.

"사람처럼 생긴 정원이라니."

무서운 일이었다.

"믿고 싶지 않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것도 진짜겠군요? 그 정원이 정원사들을 찾아다니며 가족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아서. 맞습니까?"

"몇몇 분들에게서 듣기로는 그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아직 내 정원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어쩌면 영영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죠."

여자가 어깨를 으쓱였다.

"모든 정원사가 그런 기적을 누리게 되는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대체 어떤 규칙의 정원인 건지도 감이 안 잡힙니다...."

“직접 봐야만 느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괴담처럼 이야기가 떠돌고만 있는 걸 보니 아주 변덕스러운 분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공통점이 있기는 해요, 가족이 생긴 정원사들의 공통점이요.”

“그게 뭡니까?”

남자의 질문에 여자가 답했다.

“위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정원사로 살아간다는 건 참 고된 일이었다.

“외로움에 미쳐가던 사람도 있었고, 정원에 짓눌려 허덕이는 사람도 있었고, 자포자기해 어서 정원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죠.”

“말하자면 사람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겠군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중 한 명이 제 친구였는데, 나는 그 녀석이 올해가 가기 전에 신비로 환원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간으로도 죽지 못해 사라질 것이라고 말이다.

“그랬던 녀석이 지금은 나름대로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걸 봤어요.”

빌어먹을 사막의 더위에 몇 번이나 타고 녹아내리면서도, 버티려고 했다.

“이유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생겨서 지금 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뭐가 웃기죠?”

“‘정원’이 그 녀석에게 만들어준 가족은 사막의 일부잖아요. 사막의 살점을 떼어내어, 새롭게 빚어서, 귀여운 사막여우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난 것뿐이었어요.”

그걸 사막의 정원사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으니….”

“…그러게요, 정원을 정원사가 먹여 살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본인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 웃긴 거 있죠.”

“대체 ‘정원’이 그 친구분에게 어떤 가족을 선물한 걸까요.”

남자는 질린 표정을 지었다.

“이 바닥은 정말 파면 팔수록 정신 나간 일들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들만 이런 대화를 하고, 또 혼란에 파묻힌 것은 아니었다. 최소한의 인맥이 있는 정원사라면 한 번쯤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이 소란은 크게 번지지 않았다. 정원사라는 사람들이 원래 그랬다. 이 바닥은 원래부터 폐쇄적이었다. 정원의 입구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었음에도 그들은 이성적이어야 했다.

“소란 피우는 일들이 없도록 하죠.”

“가뜩이나 피곤한 상황에, 우리마저 떠들썩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해운 정원사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재앙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단지 변화일 텐데 정원사들이 사서 난리를 피울 이유가 없죠.”

“그 ‘정원’ 역시 거대한 신비입니다.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처럼 행동한다 해도 신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정원과

도 비슷할 거고요.”

“목적이 있다고 해도 결국 그 또한 자연의 섭리겠죠.”

그들은 ’정원’이 그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수집상의 직원들이 ‘서지오 씨’를 자연 현상이나 사내 화분으로 취급한 것처럼 말이다. 아니면 유령이나 안개, 재해 같은....

그즈음 또 다른 이변이 생겼다.

“그거 들었어요?”

“대체 또 뭐가....”

“던전에 포장마차가 생겼다고 하던데.”

“......??”

이건 정원사들에게도 황당한 이야기였다.

“예?”

“붕어빵도 판대요.”

“왜요?”

절로 질문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아니, 정말로 왜지?

* * *

“바로 정원에서 일을 칠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주현의 말에 가만히 늘어져 있던 제오르제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애초에 정원사들의 복지를 생각해서 만든 계획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주현 씨가 한 말도 맞죠. 하지만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더... 뭔가....”

정원이 웃었다.

“재밌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군요!”

역시 그와는 사고방식이 달랐다.

“하지만 지오 씨의 ‘재밌음’이 어떤 기준에 있는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네요.”

“아, 이런. 걱정이 되시나요? 난 사람을 해치지 않는데....”

“그 기준도 저는 상당히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오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신력이 강하지 못하니까요.”

“제가 언제 선량한 시민을 해친 적이 있습니까?”

“최소한 지오 씨의 기준에서는 그러지 않았죠.”

하지만 주현의 친구는 참 그릇이 컸다. 커도 너무 커서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사고할 거라 믿었다. 달리 말하자면 믿음이 과한 것이다. 전부 자기 같을 거라는 믿음이.

‘유성운 씨는 이게 신비가 자주 범하는 사고의 오류라고 말했지. 인간이 모두 자신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점에서 말이야. 인간이라는 종족에 대한 정보값이 부족한 탓이라던가.’

주현도 그 관점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 초상화 친구는 종종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물감'으로 만들어 버리고는 했다. 그에 관해 타인이 받을 정신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지금으로 와서 물감이 되는 대부분의 사람은 지오의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물감'이 되길 부탁한 사람들이겠지만 말이다.

"...지오 씨는 조금 더 세심해질 필요가 있어요."

"유성운 씨는 오히려 그러지 말아 달라고 하던데요."

"그건 오로지 큐레이터의 편의성만을 생각한 부탁이었을 걸요."

'지오의 초상화'가 인간과 흡사한 행동을 보일수록 곤란한 건 큐레이터였다. 그의 인간 흉내가 훌륭해질수록 지오는 더더욱 변칙적인 존재가 된다. 이는 곧 소소한 재앙과도 같았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오 씨는 종종 아무렇지도 않게 사고를 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건 주변 사람들을 참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해서는 안 될 이유도 없고, 할 수 없는 이유도 없는데, 내가 왜 머뭇거려야 하나요? 잠깐의 혼란을 지나면 우리는 더더욱 재밌게 살 수 있어요."

"다시 여쭤보는 거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재미'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왜 정원이 아닌 던전이었나요? 지오 씨라면 분명 이유가 있겠죠."

"음, 글쎄요."

그는 모자로 제 입가를 가렸다.

"......."

"......."

"...그게 더 재밌지 않나?"

"설명해 주실 생각이 없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주현도 짐작은 했다. 그도 머리가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상황이 익숙해지길 바라는 거겠지.'

분명 지오의 행동 동기는 '친구인 유성운이 힘들지 않았으면 해서'였다. 그건 맞다. 맞지만, 계기가 사소할 뿐 '지오의 초상화'는 항상 지구를 바꾸는 사건들을 벌여왔다.

'그러니 이번 일도 결국에는 비슷한 맥락일 거다. 그렇기에 그 많은 정원 입구들을 세상에 뿌려둔 것일 테고. 정원사들 특유의 지독한 냉철함 덕분에 세상이 그다지 혼란해지지 않았다는 것조차 이 사람은 전부 알고 있었겠지....'

이런 주현의 생각을 알면 지오는 좀 억울해할 것이었다.

그가 그 많은 정원 입구를 그린 이유는 '제오르제'를 잡기 위해서였다. 그 정원들이 세계 곳곳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막지 않은 건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그냥 딱 그 정도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를 근원의 눈으로 알고 있는 주현은 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보지 못하기에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의 영역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고 있어. 굳이 정원이 아닌 던전을 첫 영업지로 선택한 이유도 그것일 것이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동할 테니까.'

뭐, 결과적으로.

"......."

나쁠 건 없어 보였다.

“…조금 과격한 것 같긴 하지만요.”

“제가 과격한가요? 이상하다, 부드럽고 달콤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번 지오 씨는 역시 조금 부담스러우시네요.”

주현이 슬며시 거리를 두었다.

“제 무뚝뚝한 지오 씨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오반니 씨나 아르지오 씨는요?”

“여기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모르는 척을 하시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현 씨. 우리 친구잖아요.”

“이상하다, 내가 아는 지오 씨는 이렇게 물귀신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세상에, 물귀신이라니.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니 마음씨 고운 내가 물러나 줘야겠죠.”

제오르제가 빙글거리며 웃었다. 나비가 장난을 치듯 지그시 휘어지는 눈웃음이었다.

“겁도 많아라.”

“…제발 엄한 곳 가서 사람들 홀리지 마시고….”

“억울해요, 난 그저 사랑을 했을 뿐인데.”

“그 사랑 없이 못 살게 만들어두고 훌쩍 떠나버리는 건 쓰레기나 하는 짓이에요.”

“그럼 나는 예쁜 쓰레기인가 보다, 그쵸?”

“아하….”

“그렇다면 나는 이미 생긴 걸로 의무를 다했는데? 안 그런가?”

“…….”

“주현 씨?”

주현은 그저 입을 다물었다.

‘…내 착하고 성실하던 지오 씨에게 어쩌다 이런 무뢰한이.’

순하던 막냇동생이 나쁜 물 들어온 것처럼 마음이 아팠다.

* * *

“대장, 대장.”

“피곤해 죽겠는데 헛소리하지 말고….”

“요즘 던전에 포장마차가 돌아다닌대요.”

“시발, 헛소리하지 말랬지.”

“아 진짠데.”

리더를 맡은 헌터가 구박하자 팀원이 우는소리를 냈다.

“저만 들은 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세이프존 간신히 찾았다. 너는 피곤하지도 않냐? 떠들 시간에 잠이라도 자지?”

“대장이 깨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잡니까, 의리가 있지.”

“그럼 저기 널브러진 걸레짝들은 뭐 아주 인성이 파탄 나서 자나? 잡설은 그만하고 쉴 수 있을 때 좀 쉬어둬. 어차피 나도 곧 잘 거야. 다음은 너희가 망을 봐야….”

“아니, 정말로요.”

“…하아….”

대장이 피곤한 얼굴로 끄덕였다.

“그래, 들어나 보자.”

그들이 있는 곳은 다름 아닌 B급 던전. 평균 등급이 C인 그들에게는 벅찬 던전이었다. 이럴 때의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놈이 아닌데도 끈질기게 굴고 있지 않던가.

뭔가 생각이 있다든가, 의도가 있다고 봐야 했다. 정말 심심해서 꺼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대장이 끄덕이자 팀원은 밝아진 얼굴로 제가 들은 소문을 이야기했다.

“던전에서 붕어빵을 파는….”

“그냥 자라 이 새끼야.”

“아, 아니, 아니 진짜라고요.”

“대체 어디서부터가 허풍질이었는데?”

“허풍이 아니라 정말로 믿을 만한 친구한테 들은 겁니다.”

“네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던전에서 대관절 붕어빵이라는 단어가 왜 나온단 말인가?

“붕어빵이면, 그거 아니냐? 겨울에 가끔 리어카 끌고 출몰하는… 밀가루 덩어리.”

요즘 세상에 붕어빵은 그리 수요가 높은 간식이 아니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마니아층이 있을 뿐 그렇게까지 맛있는 음식이 아닌 것이다. 대재앙 이전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적으니까.

“뭐, 그것도 추운 날 먹으면 맛있긴 하지. 뜨끈하고….”

“한 입 거리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갑자기 왜 나온 건데.”

“제 친구가 어디 쌀쌀한 던전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포장마차를 봤대요.”

“환각 아니야?”

가장 가능성 높은 추측이었다.

“배가 너무 고팠던 거지.”

“아, 그게, 조난당한 상황이었다고 말하긴 했는데….”

“거봐.”

“그런데 한 놈한테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었다고요.”

“뭔 그런 해괴한… 그럼 던전 특성도 아니라는 거잖아.”

아주 가끔, 고등급 던전에서는 ‘상인’과 같은 몬스터가 등장할 때도 있었다. 말하자면 해당 던전의 스토리에 속하는 몬스터인 것이다. 그들은 가끔 헌터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나 식자재를 팔고는 했다.

“여러 명이 그런 말을 했다면 한 던전에서 목격된 것도 아니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나?

“던전을 떠돌아다니는 포장마차라도 있다는 거야?”

“네, 붕어빵 외에도 막 이것저것 판다던데.”

“웃기네. 들어나 보자, 그리고 뭐 더 판대? 길거리 음식인가? 꼬치 같은 거?”

“어묵꼬치나, 김밥이나, 떡볶이… 아, 순대도 판다고 했어요.”

“…분식집 같은 개념인가? 생각보다 메뉴가 그럴싸하네.”

대장 헌터 역시 부모님에게 들은 적이 있었다. 대재앙 전에는 분식을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도 팔았다고. 지금은 제대로 된 식당을 찾아가야 먹어볼 수 있지만 말이다.

“그런 음식을 포장마차에서 판다는 것도 꽤 웃긴 일이다.”

“그쵸? 아, 배고픈데… 우리한테도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말을 하냐, 너는.”

대장이 혀를 찼다.

“알겠으니까 쉬어.”

그들은 고립되어 있었다.

몰아치는 눈 폭풍은 시시각각 체온을 앗아갔다. 간신히 동굴 형태의 세이프존을 찾아냈지만 넓기만 할 뿐 식량이나 무기가 있지도 않았다. 이 주변에 널리고 널린 게 위험한 몬스터였다.

‘망할, 몬스터의 수만 좀 적었어도….’

괜히 한탕 하겠다고 애들 데리고 왔다가 다 죽이게 생겼다. 속이 쓰려 인상을 찌푸리자, 머뭇거리던 팀원이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대장이 그것을 보았다.

“저기, 이거….”

푸른색의 보석이었다.

“…아티팩트냐? 뭔가 다른 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넌 뭐 이런 걸 들고 왔어. 그냥 보석 아니야?”

“아뇨, 저, 이거 봉사 활동 하고 받은 거거든요.”

“봉사 활동… 아, 맞다. 너 망토교 신자라고 했지.”

“에이, 신자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동아리 활동 하는 건데.”

“그래도 종교라고 인정받기는 했잖아. 그래서 이게 뭐라고? 먹을 수 있어?”

“이걸 어떻게 먹어요, 미쳤어요?!”

펄쩍 뛰던 팀원이 보석을 꼭 껴안았다.

“이거 검은망토님한테 직접 받은 거란 말이에요!”

“…뭐? 검은망토가 보석도 줘?”

“그, 뭔가… 활동 좀 오래 한 부원들은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인물 배지 느낌.”

“그래서 나한테 이걸 보여준 이유가 뭔데.”

“…제 친구도 이런 보석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보석이 깨진 다음에, 포장마차가 왔다고….”

“…….”

“…해볼까요?”

대장은 끄덕였다.

"…해봐."

팀원의 말이 사실일지는 모를 일이었다. 어쩌면 일이 더 꼬일 수도 있었다.

검은망토는 신성이다. 인간적인 모습을 꽤 보여주어 친근감이 높은 존재라지만, 그 본질은 결국 자연 현상에 가까웠다. 그리고 대장은 그러한 자연 현상을 신뢰하는 게 미친 짓이라고 여겼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야매로 소환 의식을 치르다 저세상 간 헌터들도 수두룩하고.'

하지만 이쯤 되면 미친 짓도 해볼 법하지.

"어차피 망한 거 더 망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 좀."

팀원이 짜증을 내며, 보석을 부수려 할 때였다.

"—그거 부술 거예요?"

"……."

"부수지 말아요."

새하얀 손이 팀원의 손을 감쌌다.

"아깝게."

"…어, 어…."

팀원과 대장은 고개를 돌려, 손의 주인을 보았다.

"그냥 부르면 되지."

봄의 꽃밭과도 같은 존재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 * *

왜 자꾸 사람들이 내 선물을 부수려고 하는가.

마음 여린 지오는 요즈음 크나큰 고민에 빠져 있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311)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11)"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12)

312

제312화

지오의 정원사 복지 계획은 별게 없었다.

"돼지가 되어라 얍."

"꾸르르!"

그게 전부였다.

이전에 그려두었던 그 수많은 정원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는 자아가 있다. 독립할 권리도 있다. 다시 말해 지오의 계획에 그 정원 친구들이 은근슬쩍 내민 세계로의 출사표는 없었다.

'하지만 크게 문제는 아니지.'

혹시 몰라서 착한 친구들만 그려둔 덕분이다.

'사고 칠 애들이 아니다.'

지오는 이른바 내 새끼들을 믿었다.

하지만 막상 영업을 시도하자니 손님이 없었다. 물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순 있었으나 그건 포장마차가 아니다. 그냥 요즘 세상에 흔해빠진 출장 영업일 뿐이었다. 미안한 말이지만 낭만도 없고 재미도 없었다.

그리고 도파민의 화신, 제오르제는 그걸 허용치 않았다.

"사람이 사는 데 낭만이 없어?"

심지어 재미도 없어?

"그건 안 될 말이지."

거기서 추가적으로 계획이 생겼다.

"마케팅을 시작한다."

"야옹."

"그래, 다나. 산 놈이든 죽은 놈이든 일단 물어만 오렴. 이 아빠가 잘 꼬셔볼게. 내 주특기지."

"꿍?"

“허니도 동생 따라 잡아 올 수 있으면 잡아 오려무나. 물론 나도 가만히만 있지는 않아.”

제오르제는 나름 비장했다.

“이게 다 정원에 유동 인구가 적어서 벌어진 비극이다…!”

그래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노렸다. 그게 바로 던전이었다.

던전은 어지간하면 사람이 있었다. 괜찮은 던전 하나만 소유해도 길드가 삼대는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러니 이 지구에 인기 없는 던전은 있을 수 있어도 발견되지 않은 던전은 없었다. 아마도.

“맛집이 되려면 일단 소문이 나야 해. 그래야 사람들이 먼 곳에서도 찾아오고 그러는 거라고. 진짜 맛집은 거리가 멀어도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하는 법….”

“꾸우…?”

“아버지, 이 이쁜 아들을 믿어보세요. 이렇게 보여도 여기저기 여행은 많이 다녀 봤답니다. 이런 저의 시각이 틀릴 리가 없어요…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납치를 하겠지만.”

“꾸??”

“다행히도 이 바닥은 아직 블루 오션이죠. 경쟁자가 없어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없고요. 창업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답니다.”

그렇게 지오는 던전에서 첫 영업을 시작했다.

“…….”

다만 문제가 있다면, 던전이라는 게 대부분은 그리… 좁지 않다는 점이었다.

“…? 분명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대체 왜 나를 못 찾아오지…?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꿍.”

“이런, 동기화가 시작되니 안 좋은 점도 있네요. 내 존재감이 자연스러움에 가려졌어.”

“꿍?”

“슬퍼라, 난 원래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이 꼬이는 체질이었는데.”

꽃이 벌을 찾아가나, 벌이 꽃을 찾아오지. 원래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법이라고 하지 않던가. 꿀 냄새를 맡으면 알아서들 찾아올 줄 알았으나 ‘제오르제’의 기운이 가려진 게 문제였다.

왜 가려졌느냐 하면 동업자인 차은혁 때문이었다.

“죄송한데 저 동업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빼주세요.”

“아아… 저랑 같이 돈 벌기 싫으신가요? 나 진짜 상처야,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악어의 눈물로 애먼 사람 곤란하게 만들지 말아 주시고, 진짜…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생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업자라는 건 원래 지분이 있거나 해야지 않습니까.”

“이거 궁금하네, 왜 없다고 생각했을까?”

“…없다고 해주세요….”

“왜 울고 그래요.”

차은혁은 민간인이었다. 헌터도 아닌 비각성자에, 정원사 아닌 정원사. 신참 중의 신참.

차은혁 씨의 안위에 관한 지오의 뇌 내 투표가 이뤄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꼭 투표까지 필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오르제 씨는 미리 말해두지 않으면 자제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자제하지 않는다고 차은혁 씨의 건강에 해가 되지는 않을 텐데....

—정신 건강도 건강입니다. 차별하지 말아 주세요.

—자연의 아름다움에 홀려보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꽤 괜찮은 경험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세 지오가 반대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닐 텐데요.

—내가 생각해도 아니군.

—반대표 과반수로 기각되었습니다. 제오르제 씨는 자제하세요.

—아르지오 씨는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의외야. 제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시군요?

—원래 연약한 부하는 세심하게 돌봐줘야 하는 법이지. 그래야 제 몫의 일을 하는 어른이 될 수 있는 법일세.

—아하, 그런 관점?

'제오르제'의 성질머리를 고스란히 받으면 제정신으로 못 버틸 게 뻔히 보이지 않던가. 그 탓에 가능한 조신하게 기운을 조절했거늘....

안타깝게도 자체 홍보가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마케팅이라는 게 그거 믿고 한 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얼굴?"

"그것도 포함이긴 하죠."

정확히는 제오르제의 특성을 믿은 것이었다.

"난 워낙 달콤한 사람이라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나 상처받아요. 체질적인 특성을 말한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굴...."

"아니, 그것 외에도 저절로 이목을 끌게 만드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다고 한다. 누군가는 향기라 말했고, 누군가는 아름다움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편안함이나 흥분감, 또는 사랑이라고 말했다.

"그래요, 사랑."

그는 가만히만 있어도 사랑을 받는 체질이었다. 그런 운명이었다.

신비의 자연 그 자체인 정원, 제오르제가 홀리지 못할 인간은 없다고 봐야 했다. 그 어떤 방식으로든 사랑에 얽매인 존재라면 특히나 그랬다.

"곤란해라, 이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겠는데."

"전단지라도 붙이는 건 어떨까요. 직접 움직이지는 마시고요."

"왜 나를 말리지?"

"무고한 시민이 불구덩이에 들어올까 봐...."

"난 무고한 시민을 불구덩이로 밀어 넣는 사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방은 불빛만 보고도 뛰어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망해요, 그러시면.”

“내가 경국지색에 비유했다지만 정말 나라를 말아먹을 생각은 없는데.”

“말아먹었다고 하셨잖아요, 전적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떡 줄 생각도 없는 사람 옆구리 피 나도록 찌른 놈들의 업보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넓은데 사람을 어디서 찾아올까요?”

“…? 저는 잘 찾아오셨잖습니까, 제 집으로.”

“나는 정원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은 찾아낼 수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건… 어, 정원이라 그러신 겁니까?”

“고양이가 캔 따개의 자질을 알아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캔 따개?”

“겸손하게 말하자면 천생연분을 본능적으로 찾아내는 것과 같죠.”

“어떤 의미로는 캔 따개보다 더 불손해진 것 같은데.”

“하, 어쩔 수 없네요. 정말 일일이 찾아다니는 수밖에는요.”

그래서 일단 차은혁은 포장마차에 두었다.

“나오지 말기로 약속.”

“…유성운 큐레이터님께서 서지오 헌터님과 약속 같은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소지에 제 손가락을 걸어도 되는 게 맞습니까?”

“으음, 이건 연약한 차은혁 씨를 배려한 결정이랍니다. 비각성자인 차은혁 씨는 우리 영업장 바깥으로 나가면 언제 어떤 식으로 봉변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 있겠습니다.”

“옳지, 착해라.”

그렇게 두 발 달린 정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다. ‘포장마차’가 필요할 정도의 던전은 보통 더럽게 넓었다. 지오는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며 발로 뛰는 영업을 선보일 수밖에 없었다.

꽤 재밌는 과정이기는 했으나.

“…….”

제오르제는 변덕이 심했다.

“흠, 질리네.”

“꿍?”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굳이 발로 뛰어야 할까, 허니?”

“꿍…?”

“이 귀한 몸을 잡으러 오셔야지.”

그렇게 지오는 숨은그림찾기의 ‘숨은 그림’이 되기로 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에 반응했다. 억눌러 두었을 뿐 ‘정원’으로서의 그 달콤한 향기는 완전히 가려지지 않은 채였다. 어느 반경으로 다가가니 저절로 손님이 홀리게 된 것이다.

“내 첫 손님이네.”

“…아, 아아….”

“이리 와요, 피곤하지? 내가 도와줄게.”

“당신은….”

“아주 작은 대가만 있으면 돼.”

“…….”

그렇게 지오는 첫 영업에 성공했다.

“저기.”

그리고 차은혁에게선 약간의 반발이 있었다.

“정말 홀려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밥은 먹고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손님이 제정신이 아닌데요.”

“제정신이 아니라뇨, 나랑 이렇게 대화도 잘 나눠주고 있는데….”

지오가 헌터의 뺨을 쓸며 웃었다.

“그렇죠?”

“네, 네에.”

차은혁은 말없이 양배추즙을 들이켰다. 주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해두어 지오가 포장마차 내부에 비치해 둔 직원 복지 용품 중 하나였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먹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니 이제야 먹는다. 부추긴 보람이 있는 것 같아 지오가 웃으며 물었다.

“아, 그거 맛있죠?”

“…? 이거… 양배추즙 맞습니까? 왜 이렇게 달고 고소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양배추에서 나올 맛이 아닌데?”

“제가 직접 기른 양배추를 손수 짜낸 즙이랍니다. 어디서 양배추즙이 스트레스성 위염에 좋다는 말을 들었던 게 떠올라서요.”

“제가 왜 이걸 마셨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상쾌한 표정을 지으시면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맛있는 걸 먹었으니 웃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긴 차은혁 씨가 저처럼 웃는 건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냥 그대로 계셔도 좋아요.”

“실례지만 여기 퇴근 시간이 언제라고요?”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낭만 마케팅’은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아주 소수의 헌터들 사이에서 ‘포장마차’의 존재가 알려진 것이었다. 아름다운 무언가를 찾아내면 차원이 다른 세이프존으로 안내해 준다고….

놀랍게도 직원의 자세한 외양과 인원수까지 알려지진 않았다.

“왜죠?”

“제정신이 아니라서…?”

“제정신이라면서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의 ‘손님’들은 제오르제에게 홀려 그의 객관적인 정보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럼 저는 왜 인지할 수 있는 겁니까?”

“차은혁 씨는 나랑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로를 볼 수 있어야 공평하지.”

“여기서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봐요, 그것도 재밌겠다.”

“안 할 겁니다.”

차은혁은 일꾼 역할에 충실하기로 결심했다.

‘차아라가 내 꼴을 보면 뭐라고 할까.’

나중에 알면 놀랄까 봐 나름대로 설명하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차은혁은 착실하게 붕어빵을 구웠다. 돈을 받은 만큼은 일해야 마땅했다.

그리고 지오가 그답지 않게 소소한 혼란에 빠진 것도 그즈음이었다. 소수의 헌터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고, 정부와 협회가 ‘포장마차’의 존재를 알았을 즈음. 정원사들도 그 정보를 공유했을 즈음에….

“……?”

지오는 어디선가 제 선물이 부서진 걸 느꼈다.

“어 뭐지.”

나 서운한데.

찾아가 보니 다름 아닌 망토교의 동아리 회원이었다. 뭐가 부서졌나 했더니 보석이었다. ‘지오의 초상화’로서 나눠 주었던 보석.

아마 던전 내에서 과격하게 움직이다 깨진 듯했다. 고의적으로 부순 것은 아니라니 봐주기로 했다.

‘오히려 새 손님을 찾았으니 이득인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웃으며 손님을 받았던 것이 시작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원흉이었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고의로 선물을 부순 게 느껴졌다.

“어어 뭐야, 뭔데.”

“왜 그러십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 선물을 부숴요.”

“아니 대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그러게요…? 왜 그러지?”

지오는 보석을 부순 사람들을 찾아갔다. 그런데 ‘야 나 좀 서운해’라고 말하기엔 너무 안쓰러운 몰골들이었다. 내 착한 동아리 회원들이 배를 곯고 있다니. 일단 당장 배불리 먹이고 봐야 했다.

“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으응, 괜찮으니까 드세요.”

“대가로 제 목숨을…!”

“부담스러워라.”

라면 몇 그릇 먹었다고 목숨을 주는 건 좀 아니라고 봤다. 지오는 결국 부서진 보석과 헌터의 머리 장식을 대가로 받았

다. 이것도 나름 영업인데 공짜로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아무튼 몇몇 사소한 잡음을 제외하면 '포장마차'의 영업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오는 행복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시범 운영도 해보았으니 슬슬 정상적으로 영업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와 뭐가 다르죠?"

"이제는 돈을 받을 거랍니다."

"돈도... 받으십니까? 지오 씨가?"

"저는 물론 자연인이 맞지만 나름 문명화가 되어 있는 자연인이니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 주시겠어요?"

그렇게 보석 와장창 사건이 잊히는가 싶던 며칠 뒤, 또 누군가 보석을 부수려 하고 있었다.

"어어어 안 되는데."

"아... 또 누가 보석을 부순다고 합니까?"

"네, 아니 진짜 왜 그러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물론 지오도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정말로 모르는 건 아니었다.

얼떨결에 보석이 부서졌는데 '포장마차'가 소환되었지 않던가. 그런데 그 뒤에 보석을 직접 부숴보니 정말로 '포장마차'가 왔다. 다시 말해 '위급한 상황에서 검은망토의 보석을 부술 시 포장마차가 소환된다'는 전제가 성립되기 직전의 상황인 것이었다.

하지만 오해였다. 지오는 그저 본인이 준 선물을 사람들이 부숴서 작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엾은 초상화였다.

이런 일이 이어져서는 안 됐다. 지오는 다급해졌다.

"그거 부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된 일이었다.

* * *

"...그다음에는요?"

연구원의 질문에 헌터가 머뭇거리다가 답했다.

"저, 이거 정말 망토 님께 해가 되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저희 한국 헌터 협회는 검은망토를 호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겪으신 일도 인간에게 해가 되거나 부정적인 일이 아니었으니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저 검은망토의 다정한 특성 중 하나가 추가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헌터가 푹 한숨을 내쉬었다.

"아, 뭐라고 해야 하지. 정말... 정말 예뻤어요."

"구체적인 성별과 외모는 기억하지 못하시고요?"

"제 앞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증언했나요? 어, 맞아요. 너무 예쁘고... 멋지고... 달콤한 향기가 나고, 미소도 부드럽고 그랬는데. 정작 어떻게 생겼는지는 떠오르지가 않네요."

"매혹에 당한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증세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검진표가 나왔습니다만 건강에 이상은 없습니다."

"검은망토 님의 사도 중 하나일 텐데, 그런 분께서 동아리 회원인 저에게 해를 끼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아니, 사실, 그냥 그분 그 자체만 봐도... 정말...."

“아름다웠다고요?”

“사랑스러우셨죠.”

헌터가 머쓱하게 웃었다.

“얼굴도 모르는데 이런 말을 하네요.”

그녀는 다시 설명을 이었다.

“그다음에는 제 친구… 아, 제 이전에 협회에 보고드렸던 그 헌터가 제 친구거든요. 그 친구랑 비슷한 과정을 밟았어요. 다정하게 이끌어서 따듯하고 포근한 포장마차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거기 있던 모든 헌터들을 말이죠.”

“뭘 먹었더라. 일단 저는 붕어빵부터 먹었어요.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대박이었어요. 붕어빵이 그렇게 고급스러워도 되는 건가 싶고. 팥도 진짜 실하고 폭신했는데….”

“네, 그리고요?”

“대장님은 어묵꼬치를 드셨어요. 아니, 사실, 거기서 파는 메뉴는 다 먹었던 것 같네요. 그러곤 대가로 돈을 냈어요.”

“아하?”

연구원이 되물었다.

“돈을 대가로 지급하셨다고요…?”

“네, 네. 제 친구는 잡동사니 같은 걸 줬다고 했는데 저희는… 돈으로 냈어요.”

“당시 현금을 지참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건 아닌데, 계좌 이체가 되더라고요…? 던전을 나가고 한 달 이내로 이체하면 된다고 하길래 밥 먹고 든든해진 상태로 공략한 다음 나가서 바로 이체했거든요.”

“…….”

“잘했다고 공허의 도시가 머리 쓰다듬어 주고 갔어요. 대박이죠.”

잠시 침묵하던 연구원이 물었다.

“입금하셨을 때 계좌 이체 시 수취인의 이름이 안내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어, 아니요. 정신없는 상태로 보냈던 거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름은 안 떴던 것 같아요. 나중에 계좌 이체 기록을 확인해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다면 계좌 번호는 기억하시나요? 실례가 아니라면 헌터님의 은행 기록 확인에 대한 동의도 받고 싶습니다.”

“아,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계좌 번호는 펜 주시면 제가 써드릴게요.”

“협조 감사합니다.”

연구원이 급하게 헌터가 알려준 계좌를 확인해 봤다. 확실히 시중 은행 중 하나에서 쓰고 있는 형식의 계좌.

얼마 지나지 않아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었다.

“어, 혹시 저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망토님께서 드디어 계좌를 만드신 건가요?”

“…여기까지는 알려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아니요. 검은망토가 계좌를 만든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제가 대체 누구한테 돈을 보낸 건가요…?”

“2등급 시민 중 한 분께 전달되었습니다. 어쩌면 헌터님께서도 아실 것 같은데, 이분 얼굴을 아십니까?”

“…어!!”

헌터가 벌떡 일어났다.

“제가 담당하는 봉사 활동 지정 대상자분이었던 할머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왜 알고 계세요?”

“협회가 하는 일이 다 그렇죠, 뭐.”

“그건 그렇긴 한데.”

떨떠름해하던 헌터가 팔을 꼬았다.

“그치만 지금은 아니고요. 헌터 일이 조금 바빠져서 다른 분께로 기회가 넘어갔거든요.”

“계좌의 주인분께서 최근 길가를 청소하다 발목이….”

“부러지셨대요?!”

“아뇨, 단순 염좌입니다. 하지만 이 연세라면 걱정되는 일이긴 하죠.”

“아, 어떻게 해…! 저 이거 언제 끝나요?! 바로 뵈러 가야 할 것 같은데!!”

“금방 끝날 것 같네요.”

대충 규칙성이 보일 듯 말 듯 했다.

* * *

“지오야, 그 돈 어디로 간 거야?”

유성운의 질문에 그의 자택에서 늘어져 있던 제오르제가 답했다.

“…? 필요한 사람에게 갔겠죠?”

“…왜 너도 모른다는 반응이지?”

“제가 꼭 모든 걸 알아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계좌는 어떻게 기입한 건데.”

“그냥 모자에서 꺼내 썼어요.”

“모자…?”

그의 시선이 지오의 반질반질한 모자에 닿았다.

“거기서 그냥 나왔다고?”

“이거 사실 마법의 모자거든요.”

“오, 대단하네.”

유성운이 무던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내 다음 생은 인간이 좋겠어.”

“요즘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도가 뭡니까?”

“많이 좀 봐달라는 거지, 나를.”

무서워 죽겠으니까.

* * *

그리고 며칠 뒤, 정원사의 수가 급증했다.

“어어 지오의 초상화, 나랑 대화 좀 하시죠.”

“나랑 대화하는 값은 꽤 비싼데.”

“어우 씨 이건 또 뭐야. 왜 이렇게 화사해졌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정해운이 찾아와 물었다.

“뭐 했어요?”

“뭐 했으면 뭐 하려고요?”

“일단 제 절부터 받으시죠.”

“훌륭한 어른의 처세술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기특해라.”

“선생님께서는 제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으음, 이 사탕발림. 아주 달콤하군요.”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신지요.”

그는 이 자비로운 정원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12)"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13)

313

제313화

참 비효율적인 방식이긴 하나, 정원사는 보통 간택되어 만들어진다.

그야말로 정원이 자질 있는 인간을 선택해야만 했는데, 여기엔 여러 문제가 있다. 일단 자질이 있는 인간은 대부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숨어 살았다.

"차은혁 씨 정도면 양반인 편입니다."

정해운이 짐짓 훌쩍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대재앙이 일어난 게 고작해야 32년 전이죠. 그렇다 보니 세상에는 여러 미신이 아직도 팽배해요. 사실 그중에서는 단순히 미신이라 칭해선 안 될 실질적인 신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아, 그, 예. 그렇군요."

차은혁이 떨떠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해운이 이어 말했다.

"이런 상황에 '남들은 보지 못할 것을 보는 존재'가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으음...."

"아, 차은혁 씨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한 말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헌터도 아닌데 헛것을 보는 사람은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군요. 서지오 선생님께 간택받은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영혼이 실재함을 인정하는 시대다. 하지만 그것도 헌터에게 한정되어 있다. 그런 스킬도 없는 비각성자 주제에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최악의 경우 마녀사냥까지도 이어진다.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작은 마을의 경우 실제로 그런 크고 작은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구시대적 마인드의 사람들에게 그런 자질을 갖춘 존재는 대재앙의 앞잡이나 다름없어 보일 테니까.

그러니 어쩌겠는가, 알아서 몸을 숨겨야지.

"하지만 지나치게 주변인이 자극을 받은 경우 정말로 그 귀한 인재를 죽이는 지경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례가 적지는 않아요, 지방민들의 경우에는 특히나요."

"......"

차은혁의 표정이 미묘해졌다.

“…저, 그럼 저도… 위험했던 겁니까?”

“본인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특성을 숨겼던 게 아닙니까?”

“아, 그건 그냥… 내 동생들은 못 보니까 그랬던 건데….”

“결국에는 소외되고 싶지 않았던 본능 중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외가 심해지면 배척이 되고, 배척이 심해지면 적의가 되는 법이죠. 특히나 요즘처럼 팍팍한 시대에는 적의가 곧 살의로 변하는 법이라서요.”

“…그렇기는 하겠네요.”

차은혁도 결국 부정하지 못했다. 그에 지오가 물었다.

“그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납득이 생각보다 빠른데.”

“3등급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은… 네, 빈번한 편입니다. 도시처럼 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헌터나 인력도 없고, 경찰의 수도 대단히 적거든요. 흉악 범죄자인 5등급 시민이 숨어들 때도 많은 걸로 압니다.”

“그럼 거의 고립된 상태가 아닙니까?”

“저희 마을처럼 도시와 연결된 터미널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낫습니다. 하지만 그런 터미널도 없이 완전히 동떨어진 마을은 여럿 있어요. 그런 곳은 정말 폐쇄적인 분위기죠.”

이해가 힘들어 보이는 지오에게 정해운이 친절한 설명을 곁들여 주었다.

“왜 예전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폐쇄적인 문화의 마을. 외지인을 배척하고, 사이비에 쉽게 물들고, 이상한 전통이 있어서 좀 으스스한… 스릴러나 호러 장르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을이요.”

“방금 이해가 됐습니다.”

“대재앙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죠. 물론 협회와 정부에서 파악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등록 번호라는 체계도 사라진 마당인데 어디에 어떤 마을이 생겼는지 알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무엇보다 그런 마을은 협회와 정부도 싫어한다. 아주 높은 확률로 말이다.

“나름 미움받는 포지션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까지 마을이 외부를 배척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게 또 제법 이유 있는 경계이기는 합니다.”

“이유가 있다고요? 협회와 정부를 미워하는 것에?”

“대재앙 초기 정부가 헛짓거리를 좀 해서요.”

가만히 듣고 있던 주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이 많았죠.”

“그렇긴 해.”

유성운도 동의했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인신매매니 생체 실험이니 하는 여러 사례가 있었거든. 새로 등장한 개념인 신비에 대한 공포를 과학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멍청이들이 사고를 거하게 친 거지.”

“세상에.”

“문제는 그 멍청이들이 여러 나라의 권력자였다는 점이고. 내가 예전에 한 번 말해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전 정부 윗분들 목이 괜히 날아갔던 게 아니야.”

“각성자라는 실질적인 위협이 있는데도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까?”

“아, 그때까지만 해도 각성자는… 뭐랄까….”

유성운이 말을 흐리자 정해운이 웃으며 대신 설명했다.

“괴물, 잘 쳐줘 봐야 용병에 불과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각성자의 처지는 거의 노예에 준했던 셈이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워낙에 곱지가 않았고요.”

“하지만 그 개인 한 명 한 명이 강했을 텐데. 몰려오는 괴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강자에게 감사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배척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재앙 초기와 중기에만 그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각성자들도 본인이 가진 힘을 무서워했어요. 정부가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기도 한 데다… 그 반대의 경우 힘에 취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쪽은 정말 괴물이라 불려도 무방할 짓거리들을 해댔고요.”

“어우.”

“그래도 한국은 꽤 수습이 빠른 경우였습니다. 윗대가리를 여러 번 날린 보람이 있죠. 그런 크고 작은 쿠데타가 일어나고 수습하고 일어나고 수습하기를 반복한 끝에 지금의 한국이 된 거랍니다. 참 괴팍하죠?”

지오가 안쓰러운 눈으로 정해운을 보았다.

“고생하셨네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해운이 쌍 엄지를 치켜들고는 설명을 이었다.

“아무튼 이전의 헌터들은 발언권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부는 그런 헌터들과 모든 시민을 무작정 통제하려고만 했고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방금 유성운 씨가 말씀해 주신 인신매매와 생체 실험입니까?”

“그 밖에도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엉뚱한 마을에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죄 없는 이들의 목을 날린 적도 있었죠. 그건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어 모든 시민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포 정치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했듯 이런 정치는 그렇게 오래 못 갔습니다. 심지어 헌터라는 실질적인 위험도 있는 마당에 무슨. 헌터들은 곧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인지하고 나라를 뒤엎었어요.”

그에 주현이 끼어들어 정해운을 가리켰다.

“그중 한 분이 정해운 길드장님이시고요.”

“아, 이렇게 치켜세워 주시면 너무 민망한데.”

“최소한 한국 내에서라면 ‘영원의 상징’이란 이름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대접이 바로 이분들이 세우신 업적을 향한 경외이고 감사죠. 그나마 살 만한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실패하면 반란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하더이다.”

정해운이 웃으며 끄덕였다.

“저희의 경우에는 혁명이었던 거죠.”

“…….”

“거 되게 짠하게 보시네.”

“가슴이 찢어지네요.”

"역시 우리를 낳으신 게 맞나 보다."

"힘들었을 텐데."

겉만 늙었지 속은 아직도 애 같은 정해운을 그는 알고 있었다. 덜 자란 애가 어른의 가면을 쓰고 그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면 씁쓸함을 넘어 마음이 아팠다.

나가기 전에 고기나 몇 점 구워 줘야겠다고 지오는 생각했다.

"……."

"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정해운은 자연스럽게 서지오 선생님의 시선을 피했다. 조금은 어색한 회피였다.

"그런 정신 나간 정부를 갈아 치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시민도 매우 많을 테고요. 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꼭꼭 숨어버렸고… 덕분에 이제는 정부에서도 한국 내에 어떤 시민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대재앙 이전, 한국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것 아니었는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주민 등록 번호와 이에 더해 각처에 깔린 CCTV. 덕분에 어지간하면 범죄도 잡아낼 수가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다.

"물론 우리도 압니다. 파악하려면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 헌터들이 얼마나 유능한데 마음먹고 하려면 뭘 못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작업을 진행하려면 아주 많은 반발을 거쳐야 합니다."

"반발이라고 한다면…."

"숨어 있던 사람들의 적의, 도시 관리에 집중해 줬으면 하는 도시민들의 걱정, 몬스터가 아니라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헌터들의 스트레스. 이하 등등. 이걸 감당하기에 아직 한국이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지는 않아서요."

"그것도 그렇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 마을에 텔레포트 터미널을 설치하는 것도 대단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마을 사람들의 의심과 격렬한 반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관리할 인원도 상주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을에 잘 녹아들 수 있을지도 걱정이죠."

"역시 사람 문제네요."

"언제나 그랬듯이요."

정해운이 허탈하게 웃었다.

"이러니 대부분의 마을은 당연히 폐쇄적인 문화를 갖춥니다. 외부의 영향을 배척하니 '낯선 것'에 쉬이 적의를 품죠. 그러니 그런 마을에서 태어난 '인재'는 그 특이성을 들키게 되면 보통…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으쓱였다.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운이 좋게 마을 분위기가 온화한 경우에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그렇게까지 많을 것 같지는 않네요."

"보통은 대재앙의 여파와 정부의 헛짓거리로 경계심이 많이 올라간 주민들이 그 마을의 어르신들일 테니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발언권 강한 사람이 외부가 싫다는데, 그럼 다 같이 싫어해야지."

정해운이 방긋 웃었다.

"이게 제가 매일 발바닥에 땀 나도록 뛰어다닌 이유 중 하나고요."

"매일이 야근이라는 소식도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까?"

"어유, 그럼요, 물론입니다. 내가 일 안 하면 죽을 사람이 좀 많거든."

“흠.”

지오는 고기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꺼내 들었다. 정해운이 말렸다.

“어디 나를 이 오두막에 가둬두려고. 집어넣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먹는다고 안 죽습니다.”

“아이참 선생님, 좀 봐주시죠. 이 평화로운 오두막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는 싫습니다.”

“저는 사람을 함부로 감금하지 않습니다.”

“홀리기는 하시겠지. 지금의 당신이라면 모를까 분홍 머리 초상화는 못 믿어요.”

“사람 구슬리는 법을 제법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나는 믿어 주신다니 일단 그만두겠습니다.”

“감사해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정원사가 인재를 찾는 방법? 그냥 오로지 발로 뛰어야 합니다. 직접 보고 시험도 해보고 적성도 확인해 본 다음 슬그머니 접근해서 납치해 오는 거죠.”

“납치? 기어이 거기까지 갔나?”

“말이 납치지 엄밀히 말하자면 스카우트입니다. 그렇게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인재를 매수... 아니, 영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들 숨어 살기나 하고.”

차은혁이 조금 뜨끔한 얼굴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사과받자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딱히 사과할 일도 아니었다.

“인재가 일하기 싫다는데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저버리고 사라지고 숨어버리는 건 정신적 타격이 크더라고요. 이러다 지구 망하나 싶고.”

게다가.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정원이 그 인재를 선택해야만 정원사가 되는 거니까요.”

유성운의 맞장구에 지오가 물었다.

“정원은 보통 어떤 식으로 정원사를 선택합니까?”

“어... 제오르제 씨도 비슷한 비유를 했다던 것 같은데, 진짜 고양이가 자기 주인 고르는 거랑 비슷해. 그, 캔 따개, 그거.”

“순 자기 멋대로라는 거군요.”

“아무래도 그렇지.”

그쯤에서 정해운이 끼어들었다.

“공통점은 있습니다. 정원사로 선택된 인재는 보통 그 정원과 합이 잘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시 말하자면 ‘적응 잘할 것 같은 유능한 노예’를 고르는 겁니다.”

“노예?”

“노예.”

정해운은 말을 정정하지 않았다.

“정원은 자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극도로 잘 만들어진 인공 지능을 과연 인격체로 대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정도의 수준이죠.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잔인한 법입니다.”

보통 그들에겐 자비가 없었다. 인간으로 예시를 든다면 어딘가 결여되어 있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에 비견될 수 있었다.

“그나마 블랙 기업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직원을 마구 굴리는 겁니까?”

“10명을 갈아야 나올 성과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게 사실 1명을 갈아도 비슷한 성과는 나와요. 그럼 회사는 10명을 쓸까요, 1명을 쓸까요?”

“양심이 있다면 10명을 쓰겠죠.”

“없다면 1명이겠고요. 바로 정원이 그 양심 없는 회사라는 겁니다. 인간성이 없으니 자비도 없고 배려도 없어요. 1명 쓰다가 망가지면 또 다른 1명 뽑아 돌리는 게 효율적이거든.”

차은혁이 슬며시 물었다.

“하지만 정원은... 진짜 회사가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닐 거고.”

“아,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정원이 정말 중립적인 존재이며 자연재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차은혁 씨는 유성운 씨에게서 이런 설명을 들으셨나요?”

“예, 무슨 설명을요?”

“세상은 신비와 과학이라는 학문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듣긴 들었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디에 속하죠?”

“...과학?”

“정원은?”

“신비....”

“그럼 정원사는 어디에 속합니까?”

“...그 사람들도 인간 아닌가요?”

“맞습니다, 인간이죠.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재하고요.”

잘 맞혔다는 듯 정해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원은 인간이라는 섬세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고기능 컴퓨터를 요구하지만 그 인간은 신비가 아닙니다. 단지 신비에 많이 녹아들 수 있는 인간이죠. 다시 말해 다른 영역에서 자원을 빌려 오는 셈인 겁니다.”

그렇기에 정원은 보통 한 명의 정원사만을 쓴다. 신비와 과학의 경계를 무너트리지 않기 위함이다. 거기에는 탐욕이나 자원의 문제가 속하지 않는다.

오로지 균형과 효율의 문제.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해 자연의 섭리를 뜻한다. 차가운 물이 아래로 가고 뜨거운 물이 위로 가는 것처럼. 얼음이 물 위를 둥둥 뜨고 공기는 순환하는 것처럼.

단지 그뿐이다.

“그렇기에 정원은 대개의 경우 정원사에게 무자비합니다.”

“흐음.”

지오의 머리카락이 파스텔 톤으로 물들었다.

“쓰레기인데?”

“오, 맙소사. 내가 두 발 달린 정원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대놓고 면전에서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건가요? 슬퍼라.”

“정원을 정원이라 말하는데 뭐가 슬픈 걸까요?”

확실히 인간 기준에서 정원은 쓰레기일 수밖에 없었다. 보통 정원은 정원사를 홀리기 때문이다. 마음 깊이 사랑하게 만들어 두고서는 그 사랑을 인질로 잡고 짤짤 흔든다. 일하라고. 더 잘해보라고.

그래 놓고서는 정원사가 망가지면 또 다른 정원사를 찾는다. 아쉬움도 없이 바로 갈아타 버린다.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사랑하기에 헌신적이고 헌신적이기에 절박하니 그 절박함은 최대한의 효율로 나타나기 마련이었다.

정원사는 보통 그렇게 갈려나갔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만한 쓰레기가 또 없는 법이죠.”

“나는 사랑으로 곱게 대해주는데, 부디 같은 취급 하지 말아 주시겠어요?”

“…다시 검정색으로 돌아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죠.”

“휴.”

안심한 정해운이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오의 초상화’님이 큰일을 해내 주셨습니다. 자, 다들 박수.”

짝짝짝….

어색한 박수가 이어졌다.

“이제, 시발, 나는! 발로! 안 뛰어도 된다…!!”

“어우.”

“이게 자비지! 이게 배려고! 이게 사랑이다!!”

기립한 정해운의 박수는 무척이나 크고 선명했다.

* * *

“정원사의 수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서서희가 눈앞의 풍경화를 가리켰다.

“이 친구들 덕분이라고요?”

“예, 일단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식으로?”

“이 그림들이 ‘인재’를 찾아다닌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궁합이 잘 맞으면 삼키고, 아니면 뱉는다네요.”

“그게 무슨 쓰레기 같은 말이죠?”

“하지만 정말입니다.”

지오가 그린 총 10,000점의 풍경화가 정원사를 고르고 있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삼켜진 정원사는 대체 왜인지 경복궁이나 일부 랜드마크에 뱉어진다고 하더군요. 현재 협회에서는 그런 인재분들을 모셔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복궁? 랜드마크?”

“그것이….”

머뭇거리던 협회 연구원이 말했다.

“정원사들의 말로는 인구 유동이 많은 곳에 위치한 신비의 맥, 혹은 샘에 뱉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

서서희는 제 초상화 선생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정해운이 좋아서 기립 박수를 칠 일이기는 한데.’

대체 뭘 원하는 걸까, 그 초상화 선생님은.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313)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13)"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14)

314

제314화

대부분의 정원사는 인간 불신이 심하다.

"저저저 나무한테로 돌아갈래요…! 흐어어엉…!!"

"진정하세요, 선생님. 간단한 조사만 받으시면 금방 끝나요."

"거짓말! 나를 괴물의 먹이로 줄 거죠! 나로 생체 실험을 할 거죠! 노예상에 갖다 팔 거죠!!"

"그런 일 없으니까 제발 고정하세요."

정원을 모실 '인재'란 무작위로 발생한다.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 도시는 좁다. 지방은 넓다. 고로 대부분의 '인재'는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기 마련이었다.

그중 많은 수가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커왔다. 어마어마한 음모론이 떠도는 마을에서 말이다. 그런 사람이 제아무리 공손히 대우받았다 해도 협회 안에 제정신으로 있을 리가 없었다.

"이제 좀 진정이 되셨나요?"

"저, 저 진짜 안 잡아먹죠…? 아닌 거죠…?"

"원하신다면 영혼 계약서도 써드릴 테니 아주 조금만 저희를 믿어주세요."

"…네, 넵,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계약서 좀 가져와 봐요."

하지만 협회의 직원들은 노련했다. 특히나 신비와 관련한 베테랑인 그들은 신참 정원사의 불안을 쉽게 다스렸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일관적이고도 정중하게. 주변을 훤히 볼 수 있는 곳에서, 문은 활짝 열어둔 채로. 상대가 얼마든지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주면 되었다.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 신참 정원사는 입을 열었다.

"마, 마을에 있었는데… 갑자기 웬 그림이 나타나서…."

"혹시 이 사진에 찍힌 풍경화와 같은 종류의 그림이었습니까?"

"어? 아, 네네. 맞아요.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들이 본 것은 확실히 검은망토의 새로운 연작, ‘풍경화’였다. 사진만으로도 진품을 볼 때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은 검은망토의 작품이 유일했다.

“그런데 느낌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 그, 그 괴물들….”

“괜찮습니다, 저희도 그 괴물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 괴물들이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어떤 기분이었는지 괜찮으시다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존재를 알고 있어도 선생님과 같은 인재가 느끼는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공유하고 싶어서요.”

“아, 그게요. 되게 예쁜 꽃이나 멋진 나무를 봤을 때의 기분…? 엄청 상쾌하고, 막,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산에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속이 뻥 뚫리고 그러잖아요.”

“과연, 자연 경관을 볼 때의 기분이라….”

이 역시 신비의 맥에 뱉어진 신입 정원사들과 같은 의견이었다. 굳이 ‘인재’들이 아니더라도 이번 검은망토의 연작을 본 사람들은 다 비슷한 감상을 말했다. 거대한 자연을 본 기분이라고.

하지만 ‘인재’들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갔다.

“그리고 엄청 달콤한 향기가 났어요.”

“꽃향기였을까요?”

“꿀… 같기도 하고, 음. 부담스럽지 않은데… 부드러운?”

“최소한 인공적인 향기는 아니었겠네요.”

“어, 꽃밭? 꽃밭에 누우면 비슷한 향기가 날 것 같았어요. 그, 죄송해요. 제대로 비유를 하고 싶은데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또 다른 점은 없었습니까?”

“…나를 부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랄까.

“누가 옆에서 속삭이는 느낌.”

“텔레파시와는 다른 느낌일까요?”

“테, 텔레파시요? 그거 진짜로 있는 거였어요?”

“헌터분들 중 일부가 소유한 스킬입니다.”

“와, 신기하다….”

폐쇄적인 마을에서 자란 ‘인재’는 각성자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 못했다. 이야기를 들었어도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정보의 진위를 구분하기 힘든 환경에서 커왔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런 마을에서 자란 청년 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그림, ‘풍경화’. 그것에 흠뻑 빠진 청년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림은 부드럽게 속삭였다고 한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림이 말입니까?”

“네, 그, 나무 그림이….”

“말을 걸어온 겁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로 말을 건 것 같은데, 어… 무슨 언어를 썼냐고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릴 수도 없어요. 하지만 진짜 그렇게 느꼈어요. 저, 정말이에요.”

“저희는 당신의 말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뿐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연구원은 능숙하게 상대를 구슬려 가며 정보를 알아냈다.

“그래서 그림 안으로 들어갔다, 맞습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눈을 몇 번 깜박이니까 아침이 되어 있는 기분? 정신 차렸을 때는 그 그림 속에서 봤던 나무가 제 앞에 있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 멋지고 웅장해서…!”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선택을 받았다고도 말씀하셨던가요?”

“네, 제가 그 나무에 속하는 기분을 받았어요. 그, 그러고 나니까 제 머리카락도 이렇게 막 갈색으로 변하고… 눈도 초록색이 되고… 이거 평생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나무’의 상태에 따라 약간씩 변할 수는 있겠지만요. 스킬이나 아이템을 통해 염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원하신다면 아이템을 대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 아뇨, 지금 색이 마음에 들어요….”

신입 정원사가 수줍게 웃으며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저, 그, 그런데요.”

“예, 말씀하세요.”

“혹시 제가… 그, 일할 만한 곳은 없을까요? 그, 그게.”

“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연구원이 끄덕였다.

“거주하고 계셨던 마을로 돌아가기 부담스러우신 건가요?”

“…사실 조금 그래요….”

가뜩이나 미신이 팽배한 데다, 그녀를 향한 시선도 곱지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헛것을 보는 불길한 아이’라며 적의를 사온 것이다. 그런데 머리카락과 눈의 색까지 바뀌었으니….

“저 다시 돌아가면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럴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해 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방적인 분위기의 마을에 거주지를 얻어드릴 수도 있고요. 아, 물론 공짜는 아니라 일하면서 차차 갚으시면 되겠습니다만….”

“무,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저 뭐든 잘해요! 시켜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협회의 직원은 신입 정원사에게 그 본인의 정체성을 알려주었다.

“당신은 정원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주쳤던 그 거대한 나무가 ‘정원’, 그리고 그 놀라운 신비의 자연에게 선택받은 당신은 ‘정원사’라고 불리고 있죠.”

“어… 네, 네?”

“미리 말씀드리죠.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자택과 당분간의 생활 지원금을 갚으시려면, 아무래도 이 정원사 활동을 하시며 갚는 게 가장 빠르고 적성에도 맞으시리라 봅니다.”

“어어….”

“자,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협회의 직원은 어리바리한 신참 정원사에게 지식을 주입했다. 그러고는 상호 합의하에 정원사 본인의 신상도 기

록했다. 거주지와 이름, 나이 정도의 정보를 말이다.

“이렇게 기록해 두었지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선생님을 감시하거나 억압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협회나 정부를 통해 도움을 구하실 경우, 이쪽에서도 정원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도움을 드릴지 말지 결정할 수가 있어서요.”

“아, 네넵. 넵.”

“괜찮으시다면 다른 정원사분들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명단에 나와 계신 분들은 본인 전화번호를 다른 정원사에게 공개하겠다고 동의하신 분들이라서요. 아마 정원사로서 활동할 때 적응하시려면 이런 동료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하, 한 분 정도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같은 여성분이 편하실까요? 그러면 비슷한 나이대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이 괜찮을 것 같네요. 선생님과 성별도 나이도 같지만 정원사로 활동하신 지는 오래되셔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도 협회에 신입 정원사를 관리하는 부서도 생겼다. 검은망토의 연작, ‘풍경화’의 동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기에 변화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상황에 가장 행복해하는 것은 당연히도 정해운 정원사였다.

“해라야, 나 운다.”

“울어.”

“나 진짜 울어.”

그는 감격에 차 울었다.

“어머, 정말 우네?”

협회장 단해라는 오랜만에 그 꼴을 즐거운 기분으로 감상했다. 까칠하고 반항적인 태도의 친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참 드문 일이었다. 잠시 일을 미뤄두고 감상할 가치가 있었다.

전부 구경한 단해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검은망토와도 좋은 라포를 쌓고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내가 그 귀하신 분을 못 알아 뵙고 감히 건방진 태도를 보였었지. 과거의 내가 선생님을 모시고 섬겼던 이유가 다 있었던 거야.”

“모시고 섬겼으려나?”

“어우, 그럼 당연하지. 내가 그 좋으신 분의 자비를 받고도 이 값싼 두 무릎을 꿇지 않았을 리가 없다. 믿습니다, 선생님.”

정해운은 반성했다. 아니 내가 그 좋으신 분을 왜 다 까먹고 또 몰라봤을까. 다시는 꺼드럭대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다. 오랜만에 6시간을 내리 푹 잔 정해운은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다.

“믿어져? 내가 6시간을 잤다니까? 한 번도 안 깨고 쭉?”

“그건 확실히 놀라운 일이네....”

“얼굴만 알고 종종 방문하던 정원들이 세상에 쭉 깔렸을 때는 뭔 짓거리인가 싶었는데 말이야. 그래, 그만한 신비에게 큰 뜻이 없었겠어요? 뱁새가 봉황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 늘 귀하신 초상화께서는 지구의 평안을 굽어살펴 주시고....”

“그런 사이비 같은 발언은 네 길드 안에서만 해주지 않을래?”

“오호통재라, 아직도 내 길드의 무고함을 알아주지 못하는 자가 이토록 많다니.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해라야.”

“이미 부서 만들었어. 너도 동의한 걸로 아는데, 아닌가?”

“그 김에 우리 쪽 정원사도 몇 명 넣어달라고. 아무래도 현직 정원사가 있어야 신입 정원사들도 상황 파악이 더 빠르겠지. 그 부서에서도 정보 전달과 신변 정리만 해줄 뿐 실전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하잖아.”

“…그건 맞는 말이야.”

단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의욕이 넘치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

“드디어 앞날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의욕이 안 생길 수가 없지. 나는 내가 이렇게 평생 밤새우고 밤새우고 또 새우다가 10세기는 지나야 은퇴할 수 있을 줄 알았어.”

“확실히 은퇴까지 많이 앞당겨졌지? 1,000년에 비하면.”

“나 진짜 너무 감동이다.”

정해운이 울컥한 얼굴로 콧대를 부여잡았다.

“아 눈물 나. 드디어 우리 불쌍한 정원사들 복지 챙겨줄 수 있겠어….”

“그동안은 워낙 체계가 안 잡혀 있었으니까.”

“안 잡은 게 아니라 못 잡은 거야, 맨땅에 어떻게 헤딩을 해.”

정원사는 수가 적다. 찾아낼 방법도 없다. 고로 교육도 어렵다. 한곳에 모으기도 힘들다. 애들 성격도 하나같이 개성이 강해서 납치하지 않는 한 교류도 적다. 괜히 정해운의 신분이 50개가 넘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비교적 젊고 의욕 넘치는 정원사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바로 지금이 기회였다. 물 들어왔으니 노 저어야지. 정해운은 각 잡고 체계를 만들 생각 중이었다.

“협회에 큰 부담 안겨주려는 게 아니야. 원래 정원사 일은 우리 길드 거였잖아. 너희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딱 수습까지만, 응? 수습만 해줘.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정신없는 신참들 토닥여 주기만 해달라고.”

“그거야 어렵지 않지.”

“그렇게 해서 우리 쪽으로 넘겨주면 잘 교육해 둘게. 하, 감격이야. 한 800년은 지나야 도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망상을 실현할 때가 왔다니. 내가 그날을 위해 짜둔 커리큘럼만 해도 벌써 몇 개인지 몰라.”

“생각보다 선생님의 자질이 있었던 건가?”

“음, 그건 아니고.”

정해운이 으쓱였다.

“선생님은 무슨.”

조금 껄끄러운 단어였다.

* * *

그리고 며칠 뒤, 본격적으로 정원에 ‘포장마차’가 운영되고.

상상도 못 한 방향으로 ‘정원’의 개념이 알려졌다.

“…왜?”

“포장마차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왜?”

“어… 우리 얼마 전에도 이 비슷한 느낌으로 대화 나누지 않았던가요?”

“붕어빵이나 포장마차나 거기서 거기긴 하죠, 아무래도.”

요즘 황당할 일이 참 많은 정원사들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14)"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15)

315

제315화

일의 경위를 따지자면 이랬다.

"던전에 포장마차라는 게 생겼대요. 분명 검은망토 님과 연관이 있겠죠."

"그거 우리는 못 가보나?"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것 같던데…."

"뭐야, 허락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어? 둘 다 같은 던전 아니야? 둘 다 망토 님의 작품 아니냐고."

일단 망토교의 회원들이 의문을 표했다.

"왜 저희는 못 가죠?"

망토교의 신자 대부분은 검은망토의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 모였다. 달리 말하자면 검은망토의 작품을 가장 먼저 '체험'할 수 있다는 혜택에 홀린 것이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혜택이었다.

하지만 최근, 그럴 수 없는 곳이 생겼다. 바로 '포장마차'라는 이름의 조촐하고 낭만적인 식당. 그림이자 대자연 속에서의 신비로운 세이프존.

돈과 권력과 명예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던 1등급 시민 회원들이 가장 난감해했다. 이건 또 다른 난관이었다.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데려가 주는 것도 아닌가 본데."

"뭔가 자격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아니, 민간인이 던전에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라 상관이 없습니다만…."

"헌터도 들어가지 못하는 던전이 있다는 게 문제겠죠."

"그 던전이 하필이면 저희 검은망토 님의 연작이고요."

그들은 '정원'의 개념을 몰랐다. 하지만 이번 검은망토의 작품이 일반 던전과 달리 더 까다롭게 자격을 따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쉬이 알아챘다.

작은 혼란에 빠진 그들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난감한 일이었다.

"이거 진짜 봉사 활동만으로는 안 되나 봐요."

"하지만 검은망토 님께서는 선한 행위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크게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저 봉사 활동 정도로는 그 던전에 진입할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편이 맞겠죠.”

“도대체 그 던전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뭐랍니까? 드디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저희 식구들이 입수했는데요.”

“대체 무슨 기준이지? 왜 일반 던전과는 다르지?”

“이전 검은망토 님의 작품과도 조건이 전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체 뭘 해야 이번 연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은 초조했다. 욕심이고 탐욕인 것을 알면서도 그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작품은 검은망토의 첫 연작이었다. 무릇 애호가란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를 가지고 싶은 법이었다. 애초에 그런 사람들 위주로 모인 집단이니 들썩일 수밖에.

“아, 그 황홀한 자연 경관을 직접 볼 수 없을 수도 있다고요...?”

“이래서야 던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각성자들과의 차이점을 찾을 수도 없겠군.”

“민간인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던전이 그분의 작품이었는데!”

가장 슬퍼하는 것은 1등급 시민인 회원들이었다. 엄밀히 따지자면, 그중에서도 헌터가 아닌 비각성자들. 신비로운 던전을 감상하지 못하던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검은망토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번 작품 이후로도 계속 저희 같은 비각성자의 진입을 막지는 않으시겠지만, 글쎄요. 이렇게 되었으니 불안감도 생기네요.”

“이는 곧 비각성자가 경험할 수 없는 작품이 앞으로도 나올 거라는 가능성을 예고한 셈입니다. 검은망토 님의 은혜로 넘치게 풍요로운 생활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하... 마음이 쓰라립니다.”

“이 내가 얻을 수 없는 자격이 있다니. 이제야 검은망토 님의 품 안에서 그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슬픔도 잠시였다.

“...그래서 조건이 뭐라고요?”

“...식구들을 조금 더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들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돈과 권력과 명예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던 그들은, 검은망토의 품 안에서 또 다른 끈기를 배웠다. 일단 열리지 않는 문조차 두드리고 보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일부 정보를 접하게 되니, 바로 그것이 ‘정원’이었다.

“정원이요?”

“정원이라니, 마당에 있는 그거 말입니까...?”

“아니, 그거랑은 좀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정원사는 어딘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다. 고로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정원’의 개념이 비밀인가 하면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알 필요도 없고 알릴 필요도 없기에 아무도 몰랐을 뿐이다.

하지만 막대한 보상과 회유 앞에 몇몇 정원사는 입을 열었다. 누군가는 ‘정원’을 알렸을 때의 파급력을 알면서도 말했고, 또 누군가는 순수한 마음에 지식을 공유했다. 그 결과 망토교의 회원들은 조금 주춤거렸다.

“...이게 저희가 알아도 되는 지식이 맞을까요?”

“최소한 급진적으로 풀려서 좋을 건 없을 듯합니다.”

얼떨결에 교주가 되었지만 나름 잘 적응 중인 카나리아 또한 동의했다.

“교단 내에서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죠. 이 또한 검은망토 님의 순리일 수 있겠으나... 지나친 혼란은 막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숨길까요?”

“그렇게 꽉 막히게 굴지 말자고요. 말을 숨기자고 한 건 ‘지나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검은망토 님의 뜻을 알 것 같아요.”

카나리아가 비장하게 끄덕였다.

“또다시 지구에 가르침을 내리시려는 게 분명합니다.”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껏 ‘지오의 초상화’가 쏘아 올린 절대 작지 않은 공만 벌써 몇 번이었던가.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정원과 정원사라, 그렇군요. 검은망토 님께서는 이 지식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포장마차’나 ‘연작’을 기획하지도 않으셨겠죠.”

“삐로로롱.”

“우리 리아도 그런 것 같다고 하네요.”

신의 자식이자 망토교의 상징물이라는 노란 물새가 긍정의 표시로 울었다. 망토교의 회원들은 사명감에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하나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상태. 협동성이 극에 달한 집단이었다.

“하긴 그 포장마차라는 것... 일종의 세이프존이라고 했죠? 던전에 있다고 하는?”

“일반 던전의 세이프존보다 훨씬 고급화된 경우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몬스터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안전하고, 음식도 팔고, 휴식도 더 편하게 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따지자면 그건 헌터와 정원사를 돕기 위한 식당이겠네요.”

뚝딱뚝딱 결론을 낸 그들은 조금씩 정보를 흘렸다. 사실 굳이 그들이 아니더라도 망토교가 아닌 검은망토 애호가들 역시 움직임을 보였다. 자연히 ‘정원’에 대한 개념이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

그저 몇몇 사람들만 좀 황당해할 뿐이었다.

“세상에 정원이 이렇게 알려진다고? 포장마차 때문에?”

“이게 대체 무슨...?”

정원사들뿐만 아니라.

“팀장님.”

“야근입니까?”

“예, 야근이에요.”

“개같은 인생아.”

“회의실로 가시죠.”

“요즘 왜 이렇게 일이 많니.”

협회 직원들.

“각하.”

“…….”

정부 구성원까지도.

“…소식은 전해 들었어요.”

대통령, 차은혜가 웃었다.

“벌써 정원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다니, 이건 좀 놀라운데.”

“검은망토의 연작이 등장했던 시기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나도 봐서 알기는 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차은혜는 참 별거 아닌 사람이었다.

그녀는 운 좋게 각성만 잘한 C급 헌터였다. 제 친구들처럼 뻥뻥 화려한 스킬을 쓰거나 날아다니며 괴물을 잡을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정원사도 아니었다. 애초에 차은혜는 제 친구가 보는 신비를 볼 눈조차 없었다.

특별히 잘하는 거? 딱히 없다, 그것도. 춤이나 노래 하나라도 특출나게 잘했으면 고등학생 시절에 진작 데뷔했겠지. 그렇다고 연기를 잘해? 사실 그렇지도 않았다.

그런 그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학교를 가봐야 할 것 같은데.”

“…학교, 말씀이십니까?”

“아, 맞아, 잊으셨지? 괜찮아요, 나는 기억하고 있거든.”

“말씀만 해주시면 바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음… 괜찮아요, 아마 우리 서 길드장이 기억하고 있던 것 같아서.”

“따로 경호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이건 내가 가야 할 것 같아.”

오로지 차은혜, 그녀가.

“…….”

모든 걸 기억하는 유일한 저장고인 그녀만이 말이다.

“…서서희 길드장께 연락 넣어주세요.”

“뭐라고 말씀 전해 드릴까요?”

“오랜만에 등교 좀 하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그러며 차은혜는 탁상 위에 놓인 거울을 보았다.

“…응.”

아직 웃고 있었다.

‘아직은.’

그럼, 그래야지.

* * *

서서희는 곧장 제 친구를 찾아왔다.

“친구로서 나를 찾은 거 맞지?”

그가 웃으며 물었다.

“오랜만에 등교하자고 했으니까, 안 그런가?”

“맞아, 내 친구 서서희가 필요했어. 나 좀 학교로 데려다줄래?”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조금 걱정이 돼.”

서서희는 차은혜가 학교로 이동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 학교에 뭔가 있어.”

서서희는 아직도 정해운이 보였던 반응을 기억하고 있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은 마치 공포에 떨고 있는 것 같았다. 최소한 서서희가 ‘기억’하기로 정해운이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은 없었다.

그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그놈의 ‘학교’를 다녀온 뒤였다. 이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니 뭐니 내 알 바냐’는 태도를 고수했던 놈이, 식은땀에 범벅이 되어서는 말이다.

서서희는 제 친구 차은혜가 걱정되었다.

“차라리 나랑 같이 들어가자. 내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 분명 내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몬스터의 둥지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했어. 근원의 자식도 여럿 모여 있다고 했었고… 위험할 거야.”

“네가 ‘기억’을 깨닫는 게 더 위험해.”

“…대체 그 학교에 뭐가 있는데?”

이쯤 되면 그냥 억울했다.

“결국 그냥 폐교잖아. 아니, 나도 듣기는 했어. 나는 해라나 정해운이랑 다르게 ‘기억’을 지우지 않았거든. 그곳에 서지오 헌터님이… 검은망토가 자주 머문다고 정보를 전해 듣기는 했었다고. 이제는 지워져서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그거랑은 달라.”

“뭐가 얼마나 어떻게 다른 건데, 응?”

“말해줄 수 없는 거 너도 알잖아.”

차은혜가 서서희를 도닥였다.

“이해해 줘. 우리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 나는 그냥 확인 차 움직이는 거고.”

“…….”

침묵하던 서서희가 어색하게 웃었다.

“…좋은 사람 같더라.”

“…좋은 사람이었어.”

“다 내팽개치고 친해지고 싶을 만큼.”

“하지만 그러기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너무 많아, 서서희.”

“네 말이 맞아, 나도 그걸 알지만. 알긴 하는데….”

속이 울렁거렸다. ‘서지오 헌터’를 알게 된 이후로 몇 번이고 이런 울렁거림에 시달렸다. 마땅히 기억해야만 할 것을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꽤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었다.

맞다,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처음부터 다시 친해지면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내가 소중한 무언가를 잊었다

는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난…."

서러웠다.

"…미안해."

"아니야."

"네가 제일 힘들 텐데 이상한 소리나 지껄이고 앉았네."

"나 정말 괜찮아."

"늘 그렇게 버텨줘서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나도 그래."

차은혜가 서서희를 가볍게 끌어안고 토닥였다. 언젠가 그녀의 선생님이 제 절친한 학생들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그 커다랗고 자애롭던 어른이 위로해 주었던 것을 떠올려서, 흉내 냈다.

차은혜는 이런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잘난 내 사람들에게 기대어 그들의 힘을 빌리는 것 말이다.

"…우리 다녀와서 이야기하자."

"…그 앞까지는 내가 데려다줄게."

"응, 부탁해."

그 사람을 볼 시간이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대한 망령을.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15)"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16)

316

제316화

아직 '기억'을 잊기 전, 정해운은 폐교를 찾아갔었다.

잠시 그때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

당시의 정해운은 동시다발적인 근원의 열병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 덕분에 유성운 큐레이터와도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다.

'그만한 신비는 얼마든지 변덕스러워질 수 있다.'

신비라고 해서 그들의 모든 규칙을 순순히 믿어서는 안 됐다. 인간을 속이는 것이 '규칙'인 신비조차 널리고 널린 세상이었다. 그리고 신비는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변칙적으로 변하지.

그러니 정해운은 이번에도 직접 나서야만 했다.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한 다음 판단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수습도 못 할 정도의 거대한 재앙이 닥쳐올지 몰랐다.

'그 열병과 변화의 시작은 그놈의 초상화가 폐교에 눌러앉고 난 이후라고 했으니….'

그래서 찾아갔다.

이유는 간단했다. '지오의 초상화'는 근원의 일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정원의 동시다발적인 열병에 관여할 여지도 권한도 충분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리고 정해운은 숨이 턱 막힌 자신을 볼 수 있었다.

"…이 무슨 염병할…?"

이 미친 신비가 오지 폐교에 샘을 만들어둔 게 아닌가.

대재앙 이후 본디 지구에는 신비의 맥이라는 것이 퍼져 있었다. 인간에 비유하자면 핏줄에 가깝다. 그리고 그 핏줄과 살점, 뼈대 등이 모여 만들어진 게 바로 '정원'이었다. 인간의 손과 발, 혹은 장기에 비유할 수 있는 존재.

하지만 현실에, 지구 위에, 이 거친 대지 위에 이토록 직접적인 신비가 일렁이는 것은… 정해운도 난생처음 보는 것이었다. 이건 확실히 '샘'이라 부를 만했다.

'여태까지 보아왔던 그 자그마한 샘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데.'

너무 짙었다.

“진짜 미치겠네, 그 맹한 얼굴로 내가 사고 안 치나 했지. 믿기는 개뿔이....”

정해운은 잔뜩 투덜거렸다.

‘이래서 신비는 믿을 게 못 된다니까.’

이렇다고 해도 ‘지오의 초상화’는 이것을 ‘사고’로 인지하지 않을 것이었다. 못하는 것에 가까울 수도 있었다. 그만큼 거대한 신비가 자각도 없이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건 하루 이틀 된 일도 아니었다.

한숨을 푹 내쉬며 정해운은 폐교에 만들어진 샘을 연구했다. 그로서도 처음 보는 경우라 분석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다. 어쩐지 근원의 자식이 더럽게 많이 몰려 있다 했더니, 이렇게까지 신비가 풍요로운데 몰리지 않는 게 더 이상했다.

“.......”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된 것인데.

깨달은 것인데, 알아낸 것인데. 보게 된 것인데.

아? 아, 그렇구나. 그래? 그렇, 구나? 그래?

“.......”

더 긴 시간이 지나 정해운은 오로지 한 가지 의문만을 품었다.

“...왜?”

어떻게?

그리고 어째서?

“왜 이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정해운은 저 자신을 알았다.

오류 발생

자신은 곧 허튼짓을 하게 될 것이었다. 정말 제대로 미친 짓을 벌이게 될지도 몰랐다.

최소한 그것만큼은 막아야 했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정말 미친 짓이었다.

오류 발생

애초에 여기에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정해운은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았다. 그의 친구이고 동료이자 가엾은 지구의 쐐기.

오류 발생

단해라의 도움이 필요했다.

복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예/아니오]

“...지워야 해.”

...예

지워서.

“잊자.”

그래야만.

그래야만, 뭘?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뭐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고, 원래는 무엇을 하려고 했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걸 꼭 지워야만 해? 왜? 어째서? 왜 그래야 하지?

잠깐만 멈춰봐, 응? 아주 잠시면 돼. 조금만 더 생각하면 뭔가 떠올릴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걸 잊고 있잖아. 나는, 난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복구 진행 중_0%

…아니, 아니다.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다, 단해라… 단해라 지금, 아니다. 먼저 서서희부터 찾아가서….’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복구 진행 중_0%

생각하지, 말자.

복구 진행 중_1%

그럼 되는 일이다.

정해운은 그렇게 생각하며 도망쳤다. 그렇다, 그것은 도망이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었다. 기억을 뒤로한 채 숨고 약속을 방패 삼아 피한다. 정말 한심한 꼴불견의 모습이었으나 정해운은 도망쳤다.

그럼에도 당신은 언제나, 여기에 있을 테니.

* * *

복구 진행 중_99.9…9%

복구 완료_100%

…….

따란

* * *

차은혜는 ‘그날’을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

“정말 혼자 들어갈 거야?”

“…응.”

“너 혼자 ‘서지오 헌터’를 볼 것이고?”

“글쎄, 내가 볼 사람이 누구일지는 직접 봐야 알겠지.”

“…하긴 그 사람을 볼 거였다면 여기 올 이유가 없었으려나.”

“네가 말한 ‘서지오 헌터’는 수집상에 있잖아.”

서서희에게 웃어주며 차은혜가 끄덕였다.

“괜찮아, 나를 보호하는 아티팩트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 아니까 걱정하는 거야.”

“…이해해.”

하지만 서서희야말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차은혜를 걱정하는 것이었다. 차은혜는 차마 그 말만큼은 뱉어내지 못하고 그저 눈을 내리깔았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바닥이 보였다. 그녀가 기억하던 것과는, 참 많이 달랐다.

“여기도 많이 엉망이 되었네.”

“근처에 사람이 살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이곳을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만들 생각도 못 했었고.”

“별로 좋은 기억이 남아 있는 장소는 아니었으니까.”

서서희가 가벼운 음으로 덧붙였다.

“최소한 너를 제외한다면.”

“그렇지.”

“…너도 여기를 그다지 반기는 기색은 아니어서 몰랐네.”

“지금 와서 말하자면, 재밌는 일이 좀 많기는 했어.”

차은혜가 잡초가 우거진 운동장을 보았다.

“눈이 많이 왔을 땐 저기서 눈사람도 만들었었고.”

“…음, 그건 기억나긴 해. 애들 우르르 나와서 만들었었지.”

“키가 몇 미터는 되었던 거대한 눈사람도 기억나?”

“…….”

서서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래, 그렇구나.”

“그건 그 사람이 만든 거였어? 선생님이?”

“맞아.”

“역시 독특하네.”

“우리가 다 같이 만들었어.”

“…….”

“그냥 그렇다고.”

조금 아쉽지만 괜찮았다. 사실 여기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잊었다지만 그 흔적 정도는 남아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었다.

조용히 운동장을 바라보던 차은혜가 물었다.

“여기 계속 있을 거지?”

“너는 바래다줘야 할 거 아니야, 대통령이신데.”

“하긴 너까지 없었다면 우리 식구들이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겠지.”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 대재앙 초기의 그 혼란스러웠던 한국이 아니야. 너는 그 혼란했던 나라를 안정화한 대단한 대통령이시고. 이제 와서 죽음으로 은퇴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

“너희도 열심히 일하는데 나라고 도망칠 수야 있겠어?”

“…일찍 죽으려고 하지 마.”

서서희의 얼굴이 어색하게 일그러졌다.

“너는….”

“약속에 포함된 대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차은혜는 영원히 살 수 없고, 큰 부상을 입으면 쉽게 망가질 연약한 몸이었다. 그들과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아무리 각성자라고 해도 죽음과 멀어질 수는 없었다.

결국 너도 언젠가는 죽겠지. 혹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몇 번이고 먼 미래를 상상하며 서서희는 그 점을 슬퍼했다. 항상 처음처럼 쓸쓸함과 비참함이 찾아온다.

그런 친구의 모습에 차은혜의 미소도 어물어물 일그러졌다.

“네가 그런 표정 지으니까 마음 약해진다.”

“지금 약속에 넣어 버린다고 하면….”

“될 리가 있겠어? 그 약속 맺어진 지가 언제인데. 그만한 대가는 또 어디서 구해 오려고.”

“알아. 아는데 한번 말이나 해봤어, 서운해서.”

“뭐라는 거야….”

한숨을 푹 내쉬며, 얼굴을 쓱쓱 쓸고는 차은혜가 방긋 웃었다.

“나 다녀올게.”

“저기 귀신의 집 뺨친다는데.”

“비명이나 몇 번 질러보지 뭐.”

나이를 그렇게 먹었는데도 차은혜는 공포 영화가 아직도 무서웠다. 던전의 영상을 확인하면 새가슴에 깜짝깜짝 놀랐다. 그렇게 놀라게 하는 것도, 무섭게 만드는 것도, 잔인한 장면도 잘 견디지 못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차은혜는 어른이었다. 언제 이렇게 되어버렸나 싶을 정도로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가진 권력만큼 의무 또한 행해야 했다. 무섭다고 엉엉 울며 멈춰 설 처지가 아니었다.

지금이 그런 때였다.

“…더는 못 본 척할 수가 없겠더라.”

원망의 말을 뱉을까, 사랑의 손길을 내밀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대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야 할 것 같았다.

“미룰 수가 없었어.”

“기왕 미루지 않는 김에 말 좀 전해줘.”

“음, 무슨 말?”

“도시락 먹고 싶다고.”

“…….”

차은혜가 그저 웃었다.

“응, 전해줄게.”

서서희는 선생님이 해주는 도시락을 정말 좋아했다.

* * *

“맞아, 그랬지.”

“…….”

“그랬었어.”

서지오는 인정했다.

“서희의 부모님은 왜인지 아들 식사에 큰 신경을 기울여 주시지 않아서.”

못내 신경이 쓰였다.

그 집은 그랬다. 서서희가 늘 믿음직하고 예의 바른 아들이기를 바랐다. 언제나 전교에서 1등을 하며 어른에게 깍듯하고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로 남기를 원했다.

그러면서도 밥은 잘 안 챙겨주더라.

“서희가, 그래. 도시락을 부탁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요즘 워낙 잘 먹여서 그런가 생각보다 곧잘 부탁해 오네.”

“선생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차은혜가 웃으며 말했다.

“힘들면 도움을 구하는 버릇을 들이라고 하셨죠. 세상 사람을 못 믿을 수백 수천 가지의 이유가 있어도, 단 하나의 믿을 이유를 찾아보라고. 그렇게 외롭지 않도록 함께 살아가라고.”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손이 떨렸다. 주먹을 꾹 쥐어도, 비참하게 떨렸다.

“잘했죠, 선생님…?”

“잘했어.”

“…….”

“고생했다.”

“…….”

입술을 삐끔거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속에 뜨거운 물이 가득 차오르는 것처럼 답답해져 숨조차 쉬기가 힘들었다. 그 뜨거운 열기가 머리로 모여 눈이 시큰거렸다. 고개를 숙였다.

말은 끝끝내 나오지 않았다.

“…….”

소리를 내면 말이 아니게 될 것 같아서.

“…….”

“내 학생들은 왜 못 본 사이에 겁쟁이가 되었지?”

“…저희, 원래… 겁쟁이였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저 아직도 공포 영화 못 봐요,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해요.”

“무섭다고 비명 지르면서도 곧잘 영화관에 가더니. 결국에는 늘 웃으면서 나오지 않았던가?”

“나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울컥, 목이 멨다.

“…선생님, 왜 왔어요?”

왜 이렇게 비참하지?

“왜, 왜, 왜… 왜? 어떻게요? 어째서요…?”

나는 정말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나? 여기까지 와서, 정말로?

“저희 때문에 화나셨어요? 그, 그날, 저희가 잘못했나요? 잘못했어요?”

“…….”

“아니, 이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은 어떤 상태인가요? 귀신? 몬스터? 근원의 자식? 잘 모르겠네요, 보고해 오는 서류는 항상 넘치도록 읽고 있는데 그건 그냥 외운 거잖아요. 보고 기억한 것뿐이라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아, 이게 아닌데 진짜…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

“뭘 원하시나요? 저희가 뭘 하면 돼요? 말씀해 주시면 여러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 봐야겠지만 최대한 들어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이제는 아니에요?”

“…….”

“…이제는….”

아닌가?

“…….”

“은혜야.”

꿈에서 늘 듣던 것과 같은 음성이었다.

“왜 이렇게 겁을 먹었어.”

“…여, 여기에… 무서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상한 브라운관 티비도 있고… 막….”

“사람들이 나를 많이 무서워하더라고.”

“…선생님 무섭게 생긴 거 맞아요. 여기서 보니까 더 그러네요, 완전 무서워.”

“내가 아직 너의 선생님이 맞아?”

“네, 네. 우리 선생님이잖아요.”

이만큼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었다. 억지를 부리는 아이처럼 굴고 싶지 않은데, 너무나 억울해서 말이 막 튀어나왔다.

“우리 선생님 맞잖아….”

늘 새까만 정장을 입고 다니던 선생님.

그 잘난 얼굴 가지고 옷 하나 제대로 사 입을 줄도 모르던 선생님. 무뚝뚝한 얼굴을 한 주제에 달콤한 간식을 선물해 주고, 진로를 상담해 주고, 가정 방문을 해주시던 선생님. 무섭고 이상하지만 늘 도움이 되어주었던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 일어나더라도 서지오는 그들의 선생님이었다. 그래야만 했다.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다.

“…….”

너무 양심 없는 짓일지 몰라도, 그것만큼은.

“…아니에요?”

“아닐 리가 있나.”

“늘 여기에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마도 그랬겠지.”

새까만 망토를 두른 선생님이 다가왔다. 발소리, 숨소리, 그 흔한 기척 하나 없이 다가온다. 스스로가 인간이 아님을 숨길 생각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고선 묻는다.

“내가 너희 선생님인 줄 알면서도 왜 겁을 먹어.”

“…죄송해요.”

“왜 내 앞에서 나보다 어른이 되려고 하니?”

“…저, 저희가….”

“나를 기억하잖아, 은혜야.”

“…….”

“그럼 나는 너희의 선생님이 맞아. 네가 그걸 원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를 인간이라 부를 수 없었으나, 여전히 다정했다.

“마카롱 먹을래?”

“…네.”

여전히 우리의 선생님이었다.

* * *

어, 울렸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316)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16)"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17)

317

제317화

짐짓 무심한 농담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어른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 왜 그렇게 위안이 됐는지. 어쩌면 이런 말을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일까 하는 생각에.

조금 억울해서 울었다.

"……."

이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버릇처럼, '나'를 흉내 냈다.

* * *

원래도 차은혜는 눈물이 많은 편이긴 했다.

"썬생니히이이이임…."

그런데 다 크고 나서도 이렇게까지 우는 건 좀 놀라웠다.

"너 대통령이라고 안 했니."

테레비 보니까 이미지 관리는 잘 하는 것 같더만. 보아하니 운 게 민망해서 일부러 더 비 맞은 강아지처럼 낑얼거리는 것 같은데 참 옛날과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러자 대통령이 낑얼거렸다.

"대통령 안 할래요…."

"각하, 체통을 지키시지요."

"몰라요 다 때려치울 거야아…!"

"내가 뭐 몇 마디 했다고 대통령 때려치울 거라는 말까지 나와."

"쌤 매정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 완전 불쌍하니까 빨리 따듯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게 위로해 줘요!"

"……."

…아무리 그래도 32년이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변한 게 없다고?

‘이상하다, 분명히 50살은 넘었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그 사실이 서지오의 놀라움을 덜어주지는 않았다.

‘분명 지금 나보다는 나이가 많지 않던가?’

나 29살인데, 너 51살이잖아.

해라는 아직 마주친 적 없어서 모르겠지만 서희나 해운이는 만나봤다. 다들 20대의 모습이라지만 세월은 이기지 못했는지 어느 정도는 변했던데 차은혜의 성격은 아주 그대로였다.

얼떨떨한 기분이었으나 몸은 착실하게 철이 덜 든 그의 학생을 달래주고 있었다.

“어어, 그만 울고. 이러면 선생님이 울린 것 같잖니.”

“쌤이 울린 거 맞아요...!!”

“나 이러면 학부모님들에게 몰매 맞고 잡혀가서 쫓겨나.”

“아.”

그 말에 왜인지 차은혜가 눈물을 뚝 그치고 정색했다.

“그만.”

“오, 그래, 과연 그렇군.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궁금하니 일단 물어나 보자. 대체 뭘 그만하라는 거지?”

“금지, 당장 금지해요. 본인을 향한 모든 범위의 부정적인 가정을 금지합니다.”

“오... 혹시 아직도 내 목을 노리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나? 32년이나 지났는데도?”

“아 쌤 진짜 하지 말라고요. 하나도 안 재밌어요. 진심이에요.”

“32년이나 지났는데도 언행이 그대로인 너도 참 놀랍고.”

그 어른스러운 외양으로 ‘쌤’이라니. 아무래도 주변 친구들이 전부 젊게 살아서 차은혜도 삶의 태도가 그대로 유지된 모양이었다. 고등학생 때 성격 그대로 말이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납득한 서지오가 끄덕였다.

“왜 그러는지는 일단 알겠다.”

차은혜가 왜 이리 호들갑을 떠는지 알 만도 했다.

“32년 전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보지.”

“...기억 안 나요?”

“...내가 그날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나?”

정말 몰라서 물었다.

“나는 불타는 학교에 갇혀서 귀신 들린 초상화가 되었어. 그게 내가 기억하는 32년 전의 마지막 일이야. 하지만 최근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그 기억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

“그렇다면 왜 그날의 기억이 달라진 걸까? 아니면 지워진 건가? 아마 해라의 능력과도 연관이 있겠지. 너희의 약속과도 연관이 있을 테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어떤 약속에 휘말린 건지는 잘 모르겠어....”

“.......”

“내 기억이 텅텅 빈 건 너희와 합의된 일이 아니었나 보네?”

하긴 그가 귀신 들린 초상화가 되어 돌아온 것부터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만, 좀 억울했다.

'...왜 은혜까지도 아는 게 많이 없는 분위기지? 나만의 부작용일 수는 있겠으나, 아무튼... 그 약속인가 하는 건 보통 합의하에 진행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물론 조건이 붙기는 했다. 상대가 살아 있다는 전제하의 조건이었다. 그렇다면 서지오는 두 가지 경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머리 쓸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추측이었다.

정말로 그가 죽었든가, 너무 다급해서 합의할 상황이 아니었든가.

'그리고 어느 쪽이든 희망적인 상황은 아닌가.'

이해했다.

"그럴 수도 있지."

서지오는 모르는 그 시간을 대재앙이라고 부르더라. 어느 작은 마을에 국한된 이야기라도 끔찍할 텐데, 이건 자그마치 전 세계가 변하는 일이었다. 그런 와중에 비극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비극이 언제 사람을 가려 일어나던가. 서지오는 늘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다. 오래 고민하지 않아 판단이 빨랐고, 더더욱 행동력은 좋았다.

그런 서지오는 다치고 죽을 위험이 남들보다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

'그때도 나는 지켜야 할 학생들이 있는 선생님이었을 테고.'

그 자신의 안위보다도 우선순위가 따로 있었을 것이다, 아마.

"무슨 약속이었을지 궁금해."

"...말 안 할 거예요."

"왜 그럴까?"

"......."

"......."

서지오가 으쓱였다.

"넘어가자."

농담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았다.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지.'

없었으면 선생님 못 해먹었다.

어차피 말해줄 생각도 없어 보였다. 서지오 역시 굳이 알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늘 말했듯이 그는 지금 상황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우는 애 쑤셔가며 옛날 일을 꺼내고 싶지 않았다.

이러려고 그렇게 울어버린 건가 싶기도 하다만.

"반응을 보아하니 사실대로 말한다고 하면 뭔지 모를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잘 아시네요, 기억 안 난다고 하시는 것치고는."

"나도 귀신 들린 초상화가 되어서 갤러리에만 갇혀 있던 건 아니니까."

"귀신 들린 초상화...."

차은혜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기색은 금방 스쳐 지나갔다. 이 역시도 말해서는 안 되는 '약속' 중 하나인 것 같았다. 그것도 조금 놀라운 일이었다.

'내가 굳이 초상화가 된 것에도 이유가 있나?'

딱히 궁금하지는 않았다.

“자, 이제 뚝. 마카롱은 유자 맛으로?”

“…제가 유자 맛 마카롱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루가 멀다고 네가 교무실까지 찾아와서 나를 털었던 기억은 안 나는 걸까?”

그쯤 되면 기억하지 않는 게 더 어려웠다. 체중 관리 한다고 급식도 잘 안 먹던 놈이 꼬박꼬박 교무실은 그렇게 들르더라.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기분이 오묘했었다. 참 모순적인 학생이었다.

노란빛이 도는 동그란 마카롱을 주며 서지오가 당당하게 말했다.

“이거 내가 만들었어.”

“선생님 진짜 안 그렇게 생겨서 의외로 요리 잘해요….”

“내가 준 마카롱을 먹으면서 또 울기 시작하는 건 무슨 경우지?”

“…아 내가 정말 안 울려고 해도오 쌤이…!”

“이걸 내 탓을 하네, 황당해라.”

천지신명이시여.

‘저는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나요.

* * *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달콤한 유자 마카롱을 먹고, 행동을 가능한 가볍게 한다고 해서 가벼운 상황이 되는 건 아니었다.

‘…정신이 조금 멍하네.’

오랜만에 한참을 울었더니 띵했다. 코가 막혀 귀가 먹먹하고 눈가는 쓰라렸다. 온갖 감정에 허덕일 때는 언제고 지금은 그 감정의 잔재만 남아 있었다. 그게 묘한 허탈감을 주었다.

삐거덕거리는 먼지투성이 의자를 가져다 서로 마주 앉은 상황. 이 현실감 없는 상황에 차은혜는 저도 모르게 제 맞은편에 앉은 선생님의 손을 잡았다.

“…….”

“왜?”

“…아뇨, 그냥.”

차갑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요.”

한번 쥐어보고 싶은데, 그 차가운 체온에 놀라 멋대로 흠칫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손을 빼냈다. 하지만 선생님이라면 알 것이었다. 차은혜는 속으로 제 멍청함을 욕했다.

‘뭐 하자는 거지, 이게.’

예전이라고 선생님의 손을 잡아본 적은 없었다. 낯간지러운 짓인 것도 있지만, 그런 게 흔한 일은 아니잖은가. 하지만 지금은 그냥 한번 잡아보고 싶었다. 정말 본능에 따른 행동이었다.

‘울면서 눈물이랑 함께 뇌도 같이 빠져나갔나.’

조용히 제 두 손을 맞잡고 있자 선생님이 물었다.

“잡을래?”

“…그래도 돼요?”

“좀 차가워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잡는다고 아프거나 병에 걸리지는 않으니까.”

“그거 잠깐 망설였다고 되게 뭐라고 하네….”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는데 참 신랄하구나. 굳이 강요하는 건 아니었어.”

“안 잡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예전에 한 번이라도 잡아볼걸 하는 생각이 문득 들 정도로, 처음 잡는 선생님의 손은 무척이나 차가웠다.

“…….”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 같네요.”

“역시 그런가?”

“아니면 뭐 같을 줄 알았는데요.”

“원래 초상화는 체온이 없잖아.”

“아, 그건 그렇지….”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시체가 아니라 초상화라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속을 꽉꽉 채우던 기이한 공포와 슬픔, 체념이나 비참함 따위가 조금 나아졌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주어 상대의 손을 잡았다. 그러고는 아이가 제 부모와 손장난을 치듯, 하지만 어색하게 살살 흔들어보았다. 저항 없이 커다란 손이 그녀에게 휘둘렸다.

“…하하….”

괜히 웃음이 나왔다.

“체온이 없어서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요. 언데드를 직접 만지면 이런 느낌인가?”

“지금 멀쩡히 산 사람을 앞에 두고 언데드에 비유를 하는 거니?”

“사실 저는 몬스터를 직접 만지거나 대응해 본 적은 없어서요. 기껏해야 지구에 머물게 된 토착 몬스터들 정도려나. 나머지는 전부 다른 친구들이 대신 상대해 줬거든요.”

“부하 직원이 아니라?”

“뭐, 그렇게도 부르잖아요, 아무튼.”

쓸데없는 잡소리였다. 이렇게라도 헛소리를 지껄이지 않으면 지금 상황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또 어릴 때처럼 우는소리라도 해야 하나. 그런다고 가벼워질 상황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음, 살아 있는 조각상을 만지면 이런 기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체온은 없는데 손은 확실히 인간만큼 부드럽고 또 움직이잖아요. 되게 모순적이라 신기하네요.”

“그렇다고 잘라서 가져가면 안 돼. 그림을 그리고 요리해야 하는 손이거든.”

“선생님이 그런 말 하면 진짜 농담처럼 안 들리는 거 알아요? 진짜 이상할 정도로 잘 어울리는 섬뜩한 농담을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같네요. 정말 이상한 선생님이야.”

“그래서 재밌었잖아. 너희도 그런 취향인 거 다 알아, 같이 즐겼으면서 이제 와서 발뺌하기는.”

“그랬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울어버릴까. 울어서 이 어색함과 초조함을 가려버릴까. 몇 번이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럴 수 없었다. 그런 헛짓거리는 애처럼 억지 부리며 울던 아까로 족했다.

“…선생님, 뭐 물어봐도 돼요?”

“뭘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분위기를 잡지?”

“제가 이 시간에 강원도까지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관해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요.”

“보아하니 긴 문답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침밥은 은혜가 사주려나?”

“…….”

이것은 그가 인간이 아니게 된 것에 대한 ‘조건’이자 ‘대가’일까. 혹은 ‘거래’일까. 그런 생각에 조금 머뭇거리며 그의 손을 놓았다.

“…그럼요.”

“그래, 뭐가 궁금하지?”

“누구세요?”

기어코 물어보았다.

‘…용기를 좀 내자, 제발. 지금까지 펑펑 울어댔으니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좀 하자고… 차은혜.’

바지사장이라 놀림을 받을지언정 그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다. 한창 혼란스럽던 시기에 반쯤 억지로 오른 자리라 욕하는 사람도 많았고, 못 미더워하던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결국은 해냈다.

특별한 능력도 없는 그녀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그래, 책임을 져야 했다. 이 자리는 그것을 위해 마련되었다. 차은혜는 하나의 국가를 넘어 지구라는 차원을 쥐고 흔들 위험 대상을 앞에 두고 있었다.

상대의 의도를 파악해야 했다. 존재 이유를 알아내야 한다.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을 해낼 것인지, 또 왜 그래야만 하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착하게, 너무 빠르게 접근해서 경계를 사지 않도록 주의하며….’

거둬들인 제 두 손이 떨려 애써 숨기고자 맞잡았다. 그럼에도 미세하게 떨렸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다. 마치 동아줄이라도 붙잡는 기분이라 훨씬 안정되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생님이 이렇게 계시면 안 되거든요.”

과연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 것일까. 어디까지 말하고 무엇을 숨겨야 이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차은혜는 부디 이 속내 모를 새까만 선생님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 주길 바랐다.

예전에 늘 그래 주었던 것처럼.

“사실 불가능해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네, 그건 단순히 부활의 수준을 넘어서… 뭐랄까…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요.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모르겠어?”

“눈앞의 당신이 진짜 내 선생님이 맞을까? 분명, 그래요, 나는 맞는 것 같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서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

“뭐가 말이 안 되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초상화라는 거?”

“죄송해요, 말 못 해요. 나 진짜 이상하죠. 많이 변했을 것이고. 그런데 선생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낮아진 체온도 그렇고, 그 검은색 망토도 그렇고, 그림자가 없는 것도 그렇고….”

“어라.”

그 순간, 그의 발밑에 그림자가 생겼다.

“또 까먹고 있었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게 까먹는다고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이번 친구는 변덕스러워서 도움을 받기가 힘든 면이 있어. 조금만 방심을 하면 이렇게 놀리려고 해. 정말로 실수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는 아닌 것 같아서.”

“알아듣기 힘든 말인데, 친구요?”

“귀신 들린 초상화의 몸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야, 결국 나는 네가 기억하는 그대로일 테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내가 보기에는 꽤 변한 것 같은데, 글쎄요… 어쩌면 선생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는 나도 몰라. 너는 나의 존재가 불가능이라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가능이 되어버렸네. 그러니 네 질문에 나는 아무것도 대답해 줄 수가 없겠구나.”

“…그것도 선생님 말씀이 맞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용기를 내었으나, 그녀의 질문은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질문이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 차은혜가 허공에 대고 눈을 굴리다가 이내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던졌다.

“그럼 정말 내 선생님은 맞아요?”

“최소한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지.”

“선생님 입에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정말 섬뜩하네요.”

“트라우마라도 생긴 걸까?”

“좀 비슷한 건데, 음,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의 추억을 담았을 단어는 더 이상 기분 좋은 의미가 아니게 되었다.

그건 이제 그녀와 제 친구들에게 있어 하나의 구속이었다. 사람을 미치지조차 못하게 만드는 족쇄이고 하나 남은 기둥이었다. 정말이지 모순적이었다.

“선생님은 뭘 하고 싶은 거죠?”

“전원생활?”

“…아, 음, 그래요?”

“딱히 하고 싶은 일은 없는데.”

“그런 것치고는 대통령실까지 선생님의 이야기가 들려와서요.”

“포장마차 좀 운영한 것 정도로 대통령실까지 소문이 퍼지면 우리나라 복지에 아무래도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은혜야. 선생님은 연약한 초상화의 몸으로 처음 세상 밖에 나왔을 때 많이 무서웠어. 식당이 거의 없더라.”

“쓰읍,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책임감이 느껴지는데.”

애써 어색하게나마 웃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의도는 없으셨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아요?”

“새로 사귄 친구들의 복지에 신경을 써보고자 하고 있지. 별거 아니야,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배고픈 사람들 배 채워주는 일인 것뿐이라서.”

“그… 스케일이 좀 크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마음 여린 은혜 네가 이해해라.”

“이게 마음이 넓은 것도 아니고 여리다고 이해할 일인가 모르겠네.”

“정원사들이 그럼 불쌍하지 않다는 말이니? 나는 너를 그렇게 매정하게 키우지 않았는데.”

“진짜 황당하다….”

머뭇거리던 차은혜가 물었다.

“믿어도 돼요?”

“좀 정확히 말해주면 고맙겠어.”

“선생님이, 선생님인 걸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대단한 의도가 없다는 선생님의 말을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고. 선생님이 정말 무해한 존재인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음… 일단 인간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무해할 수는 없지, 아무래도.”

선생님은 태연하게 말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 사이에 새로운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렇지?”

“…아마도요?”

“간단한 문제야, 서희와 해운이도 날 그렇게 대해.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겠네. 믿음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는 상황이니 말이야.”

“…그러네요.”

“네가 똑똑한 학생인 걸 알아. 한 자리에 앉아서도 이 정도 문답은 떠올릴 수 있었을 거야. 그렇다면 네가 여기 온 이유는 사실 날 보고 싶었던 거지.”

“…….”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겠네. 미뤄둔 숙제 같은 느낌이었을까?”

정답이라 할 말이 없었다.

차은혜는 조금 머쓱해졌다. 가슴이 휑하면서도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 두고 지켜보는 것 외에는 결국 차은혜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 단지 그녀는 책임감과 그리움에 시달렸을 뿐이다.

그저 입을 열었다.

“…모든 걸 기억하는 내가 여기에 오면 뭐가 많이 달라질 줄 알았죠.”

“그 기대에 부응해 줄 자신은 없는데, 내가 별로 재밌는 사람은 아니라서.”

“쌤 재밌는 사람인 거 본인만 모른다니까.”

결론은 쉽게 나왔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차은혜 자신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상 이 상태는 계속 유지될 것이었다. 지구는 위태롭지만 평화로울 것이고, 인간에게 호의적인 검은망토는 사고를 치면서도 지구를 더 나아지게 만들어 주겠지.

걱정되는 부분은 많았다. 여전히 그가 나의 선생님인지도 잘 모르겠다. 맞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겠고. 검은망토가 언제까지 인간에게 호의적일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는 쉽게 휘둘려선 안 됐다.

‘…하지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내가 너무 나약한 건가.’

그래도 공적인 영역만 아니라면, 그 정도는 괜찮을지도 몰랐다. 차은혜가 한참이나 뒤에 물었다.

“…내가 선생님을 믿으면, 세상에 재앙이 오나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은데.”

“아니오.”

“선생님은 내가 아는 선생님이 맞아요?”

“조금 바뀌긴 했겠지, 네 기억 속 선생님은 최소한 그림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아니오.”

“나를,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죠?”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면서도 물었다. 중요한 건 차은혜 자신의 생각과 신뢰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신비의 존재가 되어버린 선생님의 ‘약속’이 필요했다.

“늘 여기에 있어준다고….”

“그랬던가.”

“…그랬어요.”

공백의 존재를 새삼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릿해서 순간 숨이 막힐 정도였으나,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는 그렇게 말했다.

“우리 곁에 있어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거. 맞죠?”

“…국어 지문 푸는 기분이네. 하지만 맥락을 따진다면 그 의미가 맞겠지, 그게 내가 너희에게 남기고자 했던 말이라면 어떻게든 안정감을 주고 싶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리가 아는 선생님이 맞고, 잠깐 위험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지구에 좋은 일을 할 것이고, 갑자기 사라지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잖아요. 내 말이 맞죠?”

“아마도…? 예. 하지만 앞날은 모르는 법이니 너무 믿지는 말고.”

“그럼 나 믿을래요.”

무책임하다고 해도 좋았다. 하지만 이 정도면 많이 지켜봐 왔다. 모든 정보가 들어오는 한 국가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끊임없이 ‘검은망토’의 동태를 확인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얼굴마저도 보았다. 달라진 곳이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로였다. 서지오는 여전히 그들의 선생님이었다. 그런 그가 필요했다.

‘결국 그런 거잖아.’

간단한 이치였다.

‘선생님은 그날의 기억이 없어. 그러니 온전하게 다정한, 우리의 기억 속 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야. 혹시 모를 위험 요소가 아예 없는… 우리가 완전히 의지하고, 믿을 수 있었던, 그 선생님.’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영원의 약속’의 영향인지 아니면 그의 선생님이 또 다른 장난을 친 건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등장을 눈치챈 이래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정말 송구하게도, 그의 말대로라면 아예 사라져 버렸다. 지금 그녀 앞의 존재가 ‘초상화가 되어 돌아온 우리의 다정한 선생님’이 맞다면 말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다면.

“…내 선생님을 따라 하는 복사본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서지오고, 생긴 것도 말하는 것도 우리 선생님이고, 많이 변했다지만 그 변한 모습으로 사악한 짓을 저지르지도 않을 거라면 다 상관없다고요. 그게 우리 선생님이지, 뭐가 다른데.”

거기까지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나서야, 그녀는 솔직한 제 진심과 마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좀 편하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

“떠, 떠난 사람이… 불가능한데도, 다시 돌아온 거니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

아예 기대조차도 안 했다. 우리가 당신에게 한 일이 있는데 어찌 돌아오겠는가. 그는 참 먼 길을 떠났다. 흉터이고 추억이자 비참한 기억이 된 사람이었다.

그래, 그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나았다. 만약 떠올리게 된다면 그의 선생님은 저희를 미워하게 될지도 몰랐다. 그러지 않을 사람인 걸 알지만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니 어쩌면 이것이 최선의, 당신이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상황일지 몰랐다. 불안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고 지은 죄가 있으니 참으로 죄송스러운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말이다.

“나 기뻐해도 돼요?”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지.”

“…꿈이 아니라고 말해줄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꿈은 아닌 것 같은데, 은혜야.”

“…나 또 울 것 같은데….”

“다 울 때까지 기다려줄게.”

“…….”

그래서 울었다.

“…죄송해요.”

기쁜데, 비참해서.

* * *

“…이게 맞아?”

정해운은 물었다.

“야, 이게 맞냐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서서희 너….”

“시간이 없어, 정해운.”

“…하, 시발, 나도 다른 대책 없는 거 알아!!”

아주 오래전, 30년은 더 된 옛날이야기였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개같으니까 묻는 거 아니야! 이게 맞냐고! 서서희, 진짜 왜 그러는데! 단해라 너는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 차은혜, 야! 차은혜…!”

“…….”

“울지만 말고 썅 말을 좀!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그, 그치만….”

울보인 차은혜는 그날도 울고 있었다.

“그럼, 그럼 어떻게 해. 서, 선생님이... 이러면, 정말로, 정말... 이대로 두면...!”

“꼭 이 방법이어야 하냐고. 아니, 이거, 이거... 미친 짓이야, 알아? 개미친 짓이야...! 너희도 알잖아. 망하면 한 사람만 망하는 일도 아니야! 여러 사람 망해, 그거 어떻게 다 책임질 건데!”

“아, 알긴 하지만....”

“그리고 성공한다 쳐도 선생님은!!”

정해운은 불같이 화를 냈었다. 그는 제 친구들의 선택을 믿고 싶지 않아 했다. 하지만 정해운 역시 그 상황에 비이성적인 유혹을 느꼈었다. 그러니 그 반발로 더욱 화를 냈겠지.

“우리 선생님 시발 어쩔 거야, 성공해도 선생님은 영원히...!!”

“영원히, 좋네.”

“.......”

“...좋은 것 같아.”

단해라는 멍하니 중얼거렸다.

“마음에 들어.”

“...야, 좀. 해라야....”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 다 제정신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영원히 살자.”

“단해라.”

“지은 죄만큼 영원히 속죄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고는 허공을 보며 픽 웃었다.

“정작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자조적인 웃음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17)"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18)

318

제318화

세상에 정원이 알려졌음에도 혼란은 찾아오지 않았다.

“야, 이번에 검은망토가 그린 작품이 정원이라는 거래.”

“정원? 그 막… 부잣집 뜰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거야?”

“아니, 뭔가 좀 다르다는데.”

“뭐가 달라?”

“조건을 엄청 깐깐하게 따지는 던전이라고… 몬스터가 거의 없는 대신 지형이 험하다더라. 그것만으로도 거의 B나 A급이라던데.”

이 탓이었다.

“새로운 유형의 던전인 건가?”

“뭐, 어차피 희귀한 자질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문제 될 건 없겠지. 듣자 하니 던전 브레이크도 없다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무슨 상관인가 싶고.”

“그래도 그 뭐냐, 선택받은 사람들은 좋겠네? 검은망토 작품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잖아. 내가 이번에 들은 포장마차인가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온다더라.”

“그게 좀 특별한 거긴 하지만… 포장마차는 일반 던전에도 나온다고는 하잖냐. 솔직히 들어가 봤자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어. 예술인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건… 시발, 그래, 우리가 검은망토 작품 보면서 눈물 흘리기에는 감성이 영 아니다. 나는 그럴 바에는 괜찮은 아티팩트나 하나 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사람들은 ‘정원’을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포장마차’가 정원뿐만 아니라 일반 던전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정원사’로 선택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득이랄 게 없었다.

간택을 받은 정원사들은 자신의 주제를 알았다. 감히 정원이 자신의 것이라는 망언도 지껄이지 않는다. 얼핏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 또한 함께 알려졌다.

“그럼 진짜 거기 들어가면 뭐가 좋은 건데…?”

“어… 절경 감상?”

“어쩌라고 싶은 생각부터 드는 걸 보니 내가 그렇게까지 낭만 넘치는 새끼는 아닌가 보다.”

“나도.”

그렇기에 대부분의 헌터는 미적지근하게 반응했다.

“아니 뭐,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다니까 좀 신기하기는 한데.”

“뭐가 신기해,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면 비각성자도 들어갈 수 있었던 던전들도 그 정원인가 하는 유형의 던전에 속했던 거 아니야?”

“그거 구분한다고 협회 연구소가 엄청 바빠졌다고 들었지. 하여간 부지런들 해요. 야, 근데 그 정원사인가로 선택된 사람은 진짜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거의 던전의 노예라며.”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협회에서 지원은 해준다고 하던데. 그거 받아먹으면서 간간이 잘 지내겠지. 그 인간들 걱정하기에는 내 코가 이미 석 자야.”

대개 헌터들은 속물적이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끊임없이 순위와 등급이 매겨지는 자본주의 시대에 어지간하겠는가.

이는 비단 헌터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일반 시민들도 그랬다. 본인들이 먹고살기 힘든데 남의 팔자 살필 여유가 없었다. 배가 아플 만큼 부러운 이야기라면 모를까….

“참 운도 나쁘지, 쯧쯧. 이 정도면 벌칙 아닌가?”

“헌터도 아닌데 당첨된 사람은 진짜 어떻게 해? 완전 종속 노예잖아.”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간택받아서 좋은 게 없네. 이야… 이게 천벌 아니고 뭐야?”

딱히 부럽지도 않았다. 오히려 불쌍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정원사의 지고지순한 사랑은 가치가 없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보였다 해도 ‘어휴 홀렸구만’ 하고 넘어갔다.

그게 현실이기도 했다. 특별히 정원사를 한다고 좋은 점이 없는 것이다. 단지 정원사들 자신의 열렬한 사랑을 당사자에게 직접 허락받았다는 것 외에는.

“참 낭만적인 계략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샛노란 눈이 둥글게 휘어졌다.

“아, 이렇게 과격하면서도 다정한 음모라니….”

“…계략이니 음모라는 단어를 붙일 정도의 행위는 아닌 줄로 압니다, 비사벌 길드장.”

정해운 길드장의 말에 비사벌이 늘 그렇듯 샐쭉 웃었다.

“이런, 제 말이 불쾌하게 들렸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정해운 길드장님께서는 이런 예술적인 주제에 심취할 만한 분은 아니셨죠.”

“이게 과연 예술적인 주제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비사벌 길드장님께서 가진 포용력의 크기는 제가 익히 알고 있죠, 이해해요.”

정해운 역시 씩 웃었다.

“다만 비사벌 길드장님께서 호의와 선의를 믿지 않고자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른 무엇도 아닌 당신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도요.”

“그렇다면 정해운 길드장께서는 우리 서지오 헌터님께서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이번 일을 벌였을 것 같나요? 의심 많고 매사에 반항적인 당신께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비사벌이 찢어지게 웃었다.

“포장마차라는 흔치 않은 주제로 배곯는 사람을 구제하며, 온갖 기괴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10,000점의 화폭에 담고, 친분이 있는 정원사의 인재였던 차은혁 씨를 모셔 그의 경력을 활용하는 데 아무 의도가 없었다고요?”

없었다, 지오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랬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 그분의 통찰력과 미래안을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정해운 길드장님이라면 이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아마 차은혁이라는 그 친구와 친분을 쌓을 때부터 계획되어 있던 일이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번 사건에 그토록 꼭 맞는 인재가 있었을까요.”

비사벌은 짐짓 정제된 미소를 그리며 조곤조곤 늘어놓았다.

“임자는 없으나 자질은 훌륭한 정원사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기에 쉬이 도망칠 수 없으며….”

“심지어 요즘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붕어빵 포장마차도 운영했죠. 물론 그건 지금 서지오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것과는 비교하기 힘들 만큼 규모가 작습니다만… 예,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잘 들어맞는 경력이죠.”

“흠, 나는 거기까지 생각이 닿은 이상 계략이나 음모, 모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다정한 만큼이나 음흉하지 않습니까?”

지오가 들으면 가슴을 쥐어뜯고 바닥에 엎어져서 통탄할 일이었으나, 현재 그 충격적인 진실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다.

“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정해운 길드장. 나의 아들은 계속해서 이 한국이라는 좁은 나라를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는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본이 되겠죠.”

“검은망토가… 지구를 가르치고자 한다는 것 정도는, 나 역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선교하는 사이비 신자처럼 구시는데 조금 부담스럽군요.”

“그렇게 보였다면 정말이지 죄송합니다, 사과드리지요. 하지만 조금은 제 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이 지루한 지구에 이토록 낭만적인 폭탄이 터지다니…!”

정해운이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그를 불렀다.

“비사벌 길드장님.”

“이거 참, 낭만이 없으신 분이군.”

“헌터들 사이에서도 그런 주제는 자주 의견이 갈리더이다.”

“정원의 등장으로 더더욱 그렇게 되었죠.”

대중이 보기에 정원은 참 특이한 유형의 던전이었다.

일단 보기 좋게 생겼다. 가만히 둔다고 몬스터가 튀어나오지도 않는다.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도 없다. 소수의 인재가 삼켜진다고 해도 죽는 일은 없었다. 그 와중에 일반 던전에 비해 포장마차가 자주 튀어나오는 건 부럽다.

하지만 이제 ‘포장마차’의 존재는 구명줄이었다. 그것은 정말 죽을 지경이 된 헌터들 앞에만 나타났다. 그런 포장마차가 자주 나타나는 정원에 쉬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나올 리가 없었다.

“뭐어….”

선택받은 정원사들을 빼면 말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참 낭만적이긴 하더이다.”

정해운이 기계적으로 끄덕였다. 동의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다.

“인정합니다, 참 다정하고 음흉하죠. 그분의 손길과 눈길이 참으로 세련되었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작용 없이 세상에 정원을 드러낼 줄이야.”

“발상 자체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리 약한 소리를 하실 줄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비사벌 길드장. 당신도 정부와 협회에서 그토록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아시잖습니까. 명성 높은 그들이라고 해서 만능이 아닙니다.”

발상은 쉬웠다. 던전과 정원은 염연히 다르나, 남들이 보기엔 비슷할 수 있었다. 던전의 유형 중에서는 가상 던전이라 하여 임의의 조건만 만족한다면 아예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던전도 있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검은망토의 ‘정원’ 연작은 눈에 보이기까지 했다. 경계심이 더 낮아지는 것이다. 거기에는 검은 망토 신자들의 영향도 컸다. 그들은 계속해서 낭만과 예술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일종의 방파제가 되어주었다.

“…무엇 하나라도 선행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잘 풀릴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정부와 협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검은망토처럼은 말이다.

정원사 인재의 90% 이상이 그들을 경계함이 첫 번째요. 신비를 공개하기엔 이른 시기라 기회를 노리고 있던 조심성이 두 번째. 실패하면 정원사들이 배척받게 될 위험이 세 번째 이유였다.

‘…한 번 실패하면 돌이키는 데까지 300년은 족히 들 테고, 그사이 지구가 신비에 침식당해 두 번째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애초부터 그런 위험을 만들지 않기 위해 나 또한 넉넉잡아 800년 뒤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말이지….’

그리고 정부와 협회에는 그만큼의 여유도 없었다. 도박의 위험성을 배제한다고 해도 그렇게 밀어붙일 만큼의 돈과 사람과 시간이 없다 이 말이다.

대중에게 정원사의 존재가 친숙한 아군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아주 많은 작업이 필요했을 테니까.

‘하지만 삐거덕거리는 현 상태의 지구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온갖 자원이 소비되니….’

그런 골치 아픈 상황을 검은망토는 이토록 시원하게 해결해 버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정원’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렇기에 대중을 홀리고 납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는 듯 비사벌이 웃었다.

“사람들은 언제나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의심하죠. 쉽게 적의를 가지고 배척하며 이내 저는 모를 변수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것을 걱정하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토록 잘 아시는 분께서 왜 나의 친구들에게는 그토록 비협조적이셨을까… 이런 말을 할 때는 아니지만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군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골치 아픈 일을 우리 서지오 헌터님께서 해결해 주셨군요. 감상이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신비의 존재를 보여준 나의 화가가 말입니다.”

그건 결코 인간이 해낼 수 없는 기적이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심이었다.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었죠, 보이지 않으니 믿어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 남들과 다른 소수의 사람을 포용하기엔 세상이 참 괴팍했다는 것. 그래서 마녀사냥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확신도 없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정원사들은 늘 외로웠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교류하고, 상대하고, 제압하며, 때때로 제가 사랑하는 주인께로 달려가 그 모든 것을 바쳐야 했다.

대중은 그 거대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얼마나 큰 사랑을 인질로 잡는지도 모른다.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도, 개개인의 사정에 귀 기울여주는 시대도 아니다.

그 누가 이들의 사랑을 이해해 주겠는가. 믿어주고 살펴보겠는가. 그러니 감사했다.

“꽤 많은 정원사들이, 외로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사들의 가장 큰 적이었을 겁니다.”

“예, 맞지요. 사랑에 회의감을 느끼면서도 꾸역꾸역 버티다 죽는 정원사가 왜 없었겠습니까.”

“저 역시 그분들이 스러져가는 것을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거참 감사한 일이군요, 고마운 일이에요.”

이런 뻔히 보이는 빈말에 침도 못 뱉어줄 만큼 말이다.

“왜 이토록 다정하신 걸까요?”

정해운은 그것이 궁금해 비사벌을 찾아왔다.

“당신은 눈이 참 좋지 않습니까.”

“내 아들의 사랑이 본디 넘치는 것을 어쩌란 말인지 도통 모르겠군요.”

“그 사랑의 근원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지요. 설령 그의 존재가 근원의 일부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 그 하나만으로는… 이럴 이유가 없어요, 전혀.”

“맞습니다, 근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나 결국 하나의 시스템에 불과하니. 하면 정해운 길드장은 내 아들이 보여준 자비의 목적지를 찾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시작점을 찾고자 함입니까.”

“둘 다입니다. 목적지는 내가 그의 자비를 보좌하고 감히 시험할 때에 알아야 하고, 시작점은 이 자비의 끝을 가늠할 때에 알아야만 하겠죠.”

“오, 그렇군요. 하지만 제가 주책없이 말하는 것인데….”

비사벌이 고개를 기울였다.

“내 아들은 영원히 모든 것을 사랑할 겁니다.”

“당신은 어디서 그 샘솟는 자비를 보았습니까?”

“사랑, 자비, 애정, 희생, 다정. 이 엇비슷한 모든 단어로 그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존재이니 그 자체가 샘입니다.”

“그것을 대체 어디에서 보았단 말입니까, 비사벌 길드장.”

“…….”

“…….”

한참이 지나 정해운은 깨달았다.

“…하.”

그 눈에, 제가 담겨 있었다.

“…나에게서 그를 보았다고요? 그 광활하고 거대한 존재를, 나에게서?”

“정해운 길드장은 나에게 그의 목적지와 시작점을 묻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에게… 아니….”

정해운이 얼굴을 쓸고서는 되물었다.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영원의 상징.

“정말 불쾌합니다.”

“제가 큰 무례를 저질렀습니까?”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드래곤의 눈.

할 수만 있다면 저 징글징글한 눈을 뽑아다 제 눈구멍에 끼워 넣고 싶었다. 그래서 저 작자가 보는 세상을 보고, 아는 것들을 알고 싶었다. 대체 그 초상화의 새까만 눈에서 뭘 본 것일까.

그의 ‘학생’이었다는 정해운에게서는.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서는 무엇을 봤단 말인가. 정해운이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 재밌었는지 비사벌은 드물게도 다정한 조언을 얹었다.

“당신도 보지 않았습니까?”

“…….”

답은 정해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비사벌 길드장.”

내가 뭘 잊었나?

잊었을 텐데, 뭘 잊었지?

* * *

오류¿발?생

■류ㅜㅂ¡생

■■■■

■■■■■■■■■■■■■■■■….

명령 대기

* * *

그리고 그즈음, 서지오는.

“밥 먹자.”

“꺄악 쌤 사랑해요!”

“알아.”

차은혜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19)

319

제319화

서지오는 꽤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었다.

그건 비단 서지오의 비현실적인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요리를 참 잘했고, 손이 컸으며, 무엇보다 그것을 학교에 뿌리고 다녔다. 일부 학생들은 종종 그를 돼지 제조기라고 불렀다.

“…….”

곱게 만들어진 티라미수를 보며 차은혜가 고민했다.

“일단 정신 놓고 먹기는 했는데… 쓰읍, 얼마나 찌려나.”

“비쩍 말라서 골골거리는 애가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선생님은 좀 사람을 부추기지 말아야 해요, 아세요? 부추기지 말라고요.”

“짭짤한 식사를 마쳤으니 이제 달달한 거 먹고 싶을 것 같아서 만들어 온 건데 안 먹는다니 아쉽네.”

“아무리 그래도 줬다가 뺏는 건 양심이 없지. 잠시 시식 시간이 있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차은혜는 티라미수를 푹 떠서 먹었다.

“하 진짜 감당 안 된다.”

“못 본 새에 너무 말랐어, 더 먹어도 돼. 그동안 나 없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우리 강아지.”

“솔직히 가장 나쁜 건 선생님이야. 쌤, 나 그래도 이미지 관리는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대통령 외모도 많이 본다고요.”

“대통령을 외모로 뽑아서 어디다 쓰겠니. 그리고 이제 와서 은퇴하기는 좀 늦은 감이 있어 보이는구나. 내가 봤을 때 네 친구들이 있는 이상 반영구적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앉혀질 것 같은데 이만 포기하고 욕망에 몸을 맡기는 게 좋겠어.”

“누구 뭐 먹일 때마다 말 진짜 많이 늘어나는 거 알아요?”

“아무래도 상대가 걱정이 되면 말이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는 서지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동정을 담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32년 동안 차은혜가 식사를 꼬박꼬박 챙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지극히 평균 체중인데도.

차은혜는 웃으며 익숙한 체념을 준비했다. 저 황당한 언변이 내심 달가우면서도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어딘가 꿈을 꾸

는 듯 비현실적인 기분이 들었다.

“어쩐지 유성운이라는 큐레이터분의 체중이 늘어났다는 듯한 보고가….”

“대체 그런 보고는 왜 들어가는 걸까?”

“선생님이 등장했을 시점부터 열심히 관찰하고 있었죠.”

“요즘 대통령은 뒷조사가 합법인가?”

“어… 원래도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말고요.”

“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다는 것까지는 일단 알겠다.”

“아, 아니… 그렇게 보지 마요.”

지그시 떨어지는 시선에 차은혜가 티라미수를 사수하며 변명했다.

“제가 여간 귀한 몸이 아니잖아요. 뭐 확신도 없이 쌤 얼굴 보러 갔겠어요? 나도 ‘아 이 정도면 적절한 시점이다’ 싶어서 찾아간 거죠. 그리고 그런 시점을 알아내려면 일단 상대에 대한 정보가 많아야 하고….”

“거기에 꼭 유성운 씨의 체중이 필요했을지 모르겠네.”

“그런 것도 다 중요한 단서가 되는 법이라고요. 특히 선생님처럼 주변 사람 살찌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요. 아니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서도 사람이 바뀌지를 않아? 그렇게 남의 살 불어나는 걸 보는 게 좋아요?”

“그보다는 너무 마르면 좀 안쓰럽지 않나 싶어서.”

“누누이 말하지만 쌤은 진짜 그 기준이 너무, 너무… 이걸 낮다고 해야 하니 높다고 해야 하니. 아무튼 정상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나는 평균이라고요.”

“요즘 애들은 평균보다 더 마른 걸 평균이라고 말하는 아주 슬픈 버릇이 있더라고. 난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거 지방 좀 있으면 어때.”

그러고는 서지오가 쟁반을 들어 보였다.

“마들렌?”

“일단 줘보시죠.”

“이렇게 잘 먹으니 얼마나 보기가 좋아.”

“쌤이 우리 할머니냐고요….”

그다음으로는 각종 과일과 치즈, 크래커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누가 봐도 와인과 곁들일 만한 술안주였지만 차은혜는 알았다. 그녀의 선생님은 순수하게 안주만 집어 먹는 것을 좋아했다.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차려진 음식들 사이에 술은 없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

서지오가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하는 말에 차은혜가 물었다.

“…무슨 날이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치즈 먹는 날.”

“제자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상상은 해보셨고요?”

“했겠어?”

“못 했겠죠, 개같아, 나도 못 한 건데.”

차은혜가 짐짓 울먹이며 크래커를 집어 먹었다.

“하… 술 없어요, 술? 이런 건 원래 술이랑 같이 씹어야 제맛이거든요.”

“크래커를 말하는 건지 과거사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하소연하는 거죠,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좀 들어줘요.”

“유일하게 기억이 있다더니 가장 거침이 없네.”

서지오가 차은혜를 지그시 보았다.

“그리고 문득 생각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넌 선생님 앞에서 술이 무슨 말이니. 네가 성인 된 건 알고 있지만 대재앙 터지기 전이 엊그제 같았던 선생님은 네가 보여주는 훌륭한 사회인으로서의 면모에 간이 떨려.”

“어… 간도 있어요? 와, 디테일 무슨 일이야? 초상화라고 안 했던가?”

“초상화라고 간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물론 나도 내 복부를 직접 열어보기 전까지는 정말로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말이야. 솜씨 좋은 외과 의사라도 소개해 줄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면 전혀 농담 같지 않다고요. 굳이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배 열릴 사람 나 아닌 거 아는데도 내가 다 무서워.”

“일단 그렇다 치고.”

맞은편, 공포 영화에 박제된 시체로 나올 법한 미남이 깍지를 끼고서는 물었다.

“잘 지냈니?”

“아뇨.”

“그래, 나도 그냥 예의상 해본 말이었어. 고생이 많았겠구나.”

“학교에서는 징징거리면 위로 좀 해주시더니.”

“그날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유통 기한이 다 했어.”

“어우 매정해.”

“그사이에 서희 밥이나 챙겨줬다. 좋아하는 것 같아서 기뻤지.”

차은혜는 서서희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서지오에게 도시락을 부탁했고, ‘서지오 헌터’는 순순히 도시락을 싸서 유스티티아를 오랜만에 방문했다. 아무튼 서서희는 좋아했다.

아무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차은혜가 끄덕였다.

“걔는 쌤이 주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아니야, 걔 은근히 가려. 아닌 척 편식해.”

“주는 거 다 먹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싫어하는 걸 먹을 일을 애초부터 안 만들기 위해 피해버리는 걸 편식으로 쳐주지 않는다면, 그래, 네 말에도 일리가 있구나. 먹으라고 하면 꾸역꾸역 먹기도 하지.”

“왜 쌓인 게 많아 보여요.”

“너와 하소연 싸움 해보자는 건 아니야. 그냥 감정보다는 데이터가 쌓인 편이라서 객관적인 정보를 말하는 거지.”

검은 망토를 두른 새까만 정장의 남자가 무뚝뚝한 얼굴로 고개를 기울였다. 의문이 있어서 나왔다기보다는 시선을 돌릴 때 나오는 버릇 같았다. 그는 허공을 보며 말했다.

“너희가 힘들었을 거 알아.”

“그동안 열심히 의심하느라 만남도 피하고 있던 내가 할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일찍 찾아오시지.”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너희 독립 안 할 거야?”

“…….”

“아… 정말?”

서지오가 감탄했다.

“그건 좀 놀라운데.”

“…아, 아니, 독립은 이미 한 거라서 답이 빠르게 안 나온 거고요. 저희 이미 다 컸잖아요. 무슨 독립이에요 이제 와서. 하, 참 내, 우리 선생님 없어도 알아서 다들 잘하고 있었거든요? 저 봐요, 대통령까지 된 거. 장난 아니지 않아요?”

“네 친구들이 우긴다고 대통령이 되어버린 건 확실히 장난이라고 하긴 힘들지.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의 성장이 너무나 두려워졌단다. 성장하기를 바랐지만 이런 식으로 성장하길 원한 건 아니었는데 말이야.”

“어… 그건 민주주의 의식이 남아 있는 대재앙 이전의 현대인으로서 할 말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인정한다, 아직도 비난받는 부분이기도 했다. 일명 ‘영원의 상징’은 본인들의 권위를 이용해 아무것도 없는 차은혜를 대통령 자리에 앉혔다. 이게 독재 정권이 아니면 뭘까.

기어이 마들렌을 다 먹은 차은혜가 치즈를 탐내며 물었다.

“변명 좀 해도 될까요?”

“무슨 변명? 치즈를 탐내는 변명?”

“아니 그거 말고, 제가 대통령 된 변명….”

“난 언제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지.”

“그럼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차은혜가 으쓱였다.

“…사실 이렇게 말해도 거창하게 할 이야기는 없네요. 그냥 나라가 너무 개판이었어요.”

그저 그런 성적에 평범한 집안의 자녀였던 아이돌 연습생 차은혜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 전보다는 나았을 정도로 말이다.

“다른 애들은 대통령이 되기엔 ‘영원의 상징’으로서 이미 삼권 분립을 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거기에 대통령이라는 감투까지 얹어줄 수 없는 노릇이었고요.”

“듣고 있어.”

“걔들도 처음부터 나를 앉히려고 했던 건 진짜 아닌데, 그… 아시는지 몰라도 전 정부가 삽질을 뒤지게 많이 했어요. 덕분에 해라나 서희가 진짜 골치 아파했고요. 해운이는 아예 인간 혐오증 수준까지 가서… 한 2년인가 사라진 적도 있고.”

“2년?”

서지오가 고개를 기울였다. 이건 의문의 표시가 맞았다.

“생각보다 짧네?”

“어라, 길다고 하실 줄.”

“다 큰 성인이 인간 혐오증 걸려서 방황하는 게 2년이면 짧지.”

“…….”

차은혜가 웃었다.

"…쌤은 본 적도 없는 우리의 32년을,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밥 먹이면서 살을 찌웠는데 설마 그 정도도 짐작이 안 될까. 안 봐도 눈에 선해."

그가 으쓱였다.

"특히 해운이는 한 번 수틀리면 막 나가는 편이라서. 굵직한 행동 패턴이 늘 비슷비슷하지."

"그래도 큰 사고는 친 적 없고요. 매번 갈무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참는 것 같기는 해도요. 폭발하지 않는 걸 감사히 여겨야죠."

"그때도 어떤 상황이었을지 이해가 가. 마음이 안 그런 척 여리잖니, 사고 치기 전에 자제하고 싶었던 거겠지."

"맞아요. 걔 그렇게 안 사라지고 우리 곁에 남아 있었다면, 분명히 사람깨나 죽어 나갔을 거예요. 본인도 학살자가 되고 싶지는 않으니 차라리 자리를 피한 거겠죠."

"많이 힘들었나 보네."

"…저, 저도요."

차은혜가 크래커를 반으로 쪼개며 어색하게 웃었다. 민망함과 은근함이 담긴 웃음이었다.

"나도 힘들었는데."

"못 본 사이에 어리광이 많이 늘었구나, 다른 애들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하지 말까요? 징그러운가, 선생님보다 나이 더 먹고 이러면?"

"사실 이제 너희가 마냥 귀여울 나이는 지났어. 뭘 해도 귀여운 건 만 19세 전까지야."

"……."

"…왜 이러지."

서지오가 눈을 두 번 깜박였다.

농담을 농담으로도 못 받고 있었다. 그가 기억하는 차은혜는 이러지 않았으니,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었나 보다. 32년의 세월 사이 변하지 않았지만 결국 변해버린 학생의 모습은 낯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위화감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 아직도 어른이 못 됐을까?"

솔직히 말하면 지오는 조금 황당했다.

"다 컸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를 잊은 학생들 위주로 만나고 다녔으니 기억이 남아 있는 너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요즈음 생각을 해보니 너나 다른 학생들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은가 보구나. 내가 뭘 잘못했니?"

"…선생님이 잘못한 거 없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 글쎄. 선생님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야."

"그래서 모른 척 살려고 했고요?"

차은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서지오를 응시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새까만 시선이 마주해 오는데도 차은혜는 그저 받아들였다. 크래커를 부수며 보였던 그 어설픈 미소는 흔적조차 없었다.

결국 먼저 눈을 깜박인 것은 지오였다. 늘 그랬던 것처럼 모른 척 회피하기엔 너무 적나라한 시선이었다. 약간의 섬뜩함과 피곤한 기분에 작은 한숨이 나왔다.

"너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아."

“…알아요, 선생님은 늘 그러셨잖아요.”

“그래, 순순히는 안 믿을 줄 알았지. 하지만 굳이 말이라도 해봐야 믿어줄 확률이라도 생길 것 같아서 말해봤어.”

“그냥 말씀하셔도 믿어요, 선생님.”

“그런 얼굴로 용케 믿는다는 말을 하네, 신기해라.”

“맞아요, 사실 다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상황이 흘러가는 맥락은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차은혜는 고개를 숙여 제 손에 망가진 크래커를 보았다.

“일단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돌아온 건 맞고, 내가 무언가를 바꿀 리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으니… 그냥 즐겨보자고 생각했어요.”

“현명하네.”

“그런 와중에도 이 모든 게 전부 무너질까 봐 무섭네요.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지구가 무너진다거나, 새로 쌓인 관계가 악화된다거나.”

“그래서 계속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가?”

“맞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함께 모르는 척 어울려주고 계시는 점에요. 오랜만에 선생님이 해주는 코스 간식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성장을 이상한 방향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지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로 가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은 치즈를 하나 집어 차은혜의 부서진 크래커 위에 올려두었다. 그러고는 차은혜의 손을 툭툭 두드렸다.

“음식을 촉감 놀이에 쓰면 안 되지.”

“딱히 촉감 놀이는 아니었는데.”

“그럼 힘자랑?”

“그런 걸로 해볼까요….”

치즈는 맛있었다. 그야 당연했다, 서지오가 가져온 것은 관저에 비치되어 있는 음식물이었다. 그것들은 차은혜의 취향에 맞춰져 있었다. 보드라운 브리 치즈가 크래커와 함께 입에 녹아 사라졌다.

“가끔 이렇게 와주실 수 있어요?”

“그것도 새로운 신뢰를 위해서인가?”

“아마도 그럴 거예요.”

“상당히 모호하네. 네 태도도, 요구도.”

“선생님.”

차은혜가 작게 웃었다.

“웬만하면 우리 안 보려고 했죠.”

“너희가 어른이 된 게 맞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어른이 되어 버렸다면 아예 보지 않았을 거고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고민해 봤을 거야, 모르는 척 아예 새로운 인연을 쌓았을 것이고.”

“정말 은근히, 매정하신 거 알죠? 사람이 어떻게 이러지?”

약간의 원망과 수많은 그리움, 그리고 거대한 결핍.

"...어른이 되어보려고 노력할게요. 선생님이 그걸 바라니까."

"기왕이면 건강한 어른이 되자, 너희가 나이만 먹은 것 같아서 선생님은 걱정이야."

"네, 건강한 어른을 목표로 할 테니까 좀 자주 들러 달라고요."

이건 거래였다. 신비가 그토록 좋아하며 따르는 규칙이고, 얼마 남지 않은 차은혜의 억지였다.

"지금처럼 아무도 못 보는 사이에 슬쩍 들러서 나랑 이렇게 떠들어 주세요."

"그게 네가 말하는 신뢰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게, 난 아직 선생님이니까.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서지오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가 소파에 기대어 내리뜬 시선으로 차은혜를 보았다.

"난 스쳐 가는 사람이었어야 했어."

차은혜도 태연하게 답했다.

"그러기엔 좀 늦었지."

"32년 전의 나도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야."

"내가 계속 말하잖아요, 선생님 은근 매정하다고."

"그런데도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은 물었다.

"내 선택이었니? 아니면...."

"......."

"...너희의 선택이었니."

그 거대한 결핍에 그의 이름을 붙인 것은 말이다.

"......."

"......."

지오는 끝까지 답을 듣지 못했다.

"그럴 수 있지."

그는 여전히 이들 곁에 있으며 여전히 선생님이기에, 사실 그럴싸한 답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는 아이 옆구리를 찔러보는 것은 괜히 궁금해지기 때문이었다.

과거의 내가 뭘 했으면 애들을 이렇게 망쳤나 싶어서. 내가 정말 누구를 이끌고 가르칠 선생님의 자격은 있나 하는 걱정에, 궁금증이 일었다. 그뿐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그럼 내일은 다시 물어보시게요?"

"아니,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물어보지 않을 거야. 나는 과거에 절박하지 않고 너희는 그것을 되돌려 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가끔 좀 많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지만...."

"네, 뭐, 그러고 싶어도 원하는 놈들도 있기는 할 텐데...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거기에 기적을 바라기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데 가능하면 선생님도 모른 척 좀 해주세요."

"기적이라,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알 것도 같지만... 글쎄. 상황 봐서 그렇게 할게. 너도 알다시피 나는 내 학생들에게 많이 무른 편이고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가 태연하게 말했다.

“지구나 나라의 명운에 달린 일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혼란스럽고 보기 좋은 정답이 필요하면 불러, 그게 선생님 역할이잖아. 나는 언제나 여기에 있을 거야.”

해줄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다.

“그 정도면 어떨까.”

“...그럼 나 치즈 한 번만 더 올려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자.”

배가 고팠나 보다.

어쩐지 아닌 척 예민하더라, 무서운 얼굴도 해가면서.

* * *

그리고 정해운은 서서희를 찾아갔다.

“야, 밥 내놔.”

“미친놈아 맡겨뒀어?”

“거 형제님 요즘 맛난 거 드신다면서요?”

“깡패냐고 진짜....”

서서희는 그렇게 도시락을 뜯겼다.

(다음 편에서 계속)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20)

320

제320화

물론 정해운이 도시락 삥 뜯자고 온 것만은 아니었다.

“야 근데 맛있긴 하다.”

“선생님께서 나한테 주신 건데 정해운 이 깡패 자식아. 상납금치고도 좀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

“행복은 나누면 두 배.”

“그렇다면 대체 내 행복은 어디로 간 거지...?”

서서희로서는 황당한 일이지만, 도시락 하나 내어주지 못할 건 없긴 했다. 지난번 서지오 헌터가 들르며 놓고 간 도시락이 여간 많은 게 아닌 덕분이었다.

아공간이 있으니 상할 걱정도 없겠다, 천천히 두고두고 먹어보려고 했다. 서지오 헌터가 싸주는 도시락은 언제나 마음 따듯해지는 무언가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불한당에게 뺏겼다.

“거 하나 빼앗긴 걸로 되게 뭐라고 하네.”

“아무 말도 안 했어.”

“눈이 했어.”

“가지가지 한다 진짜.”

한숨을 내쉰 서서희가 물었다.

“...괜찮은 거 맞지?”

“먹방 찍는 거 보면 모르겠어?”

“너 건강하다는 거 땅이 알고 하늘이 알겠네, 내 질문이 어리석었다.”

“지금이라도 알면 됐어.”

“딱히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검은 망토가 주는 선물은 대체로 먹을 것. 강제로 빼앗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면 검은 망토는 음식을 나누는 걸 금지하지 않는다.

아마 정해운은 이런 식의 장난스러운 강탈까지는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

그걸 굳이 제 것으로 하는 건 좀 의문이었다. 사실 그보다는 짜증에 가까웠다. 최근 생긴 몇 없는 서서희의 즐거움 중 하나를 저 되바라진 놈이 앗아간 것이다.

‘혹시 이렇게 될 걸 아시고 여러 개를 주신 건가.’

아니다, 그냥 지오가 손이 큰 것뿐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서서희의 착각은 자유롭게 뻗어 나갔다. 도시락을 전부 해치운 정해운이 그를 부르기 전까지도 말이다.

“야, 이거 먹고 큰 변화는 없어?”

“음… 몸에 활력이 돋는다? 너는?”

“나도 별 느낌은 없어. 나랑 계약한 정원들이 조금 기뻐하는 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다지 친한 놈들은 아니어서 그런가 확실하지는 않아.”

“신기한 일이네.”

“확실히 신기한 일이지.”

놀랍기도 했다.

“그만큼 거대한 존재가 이렇게까지 기운을 잘 갈무리하다니. 보통 그 정도 격이 되는 존재가 만들어준 식사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들의 영혼 세계에 끌려가도 이상하지 않아.”

“너….”

아직도 이런 주제가 나온다니. 서서희의 표정이 조금 기묘해졌다.

“그건 예전 수집상의 퍼레이드에서도 확인해 본 바가 아니었나?”

당시에도 정해운은 ‘지오의 초상화’가 보이는 노련함에 잔뜩 질린 모습을 보였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같은 의심을 하는 이유가 뭘까 싶었다.

“애초에 검은 망토가 간식 선물 하고 다닌 역사도 꽤 되었고, 너도 그게 아무 문제 없다고 인정했었잖아.”

“맞지, 심지어 최근에는 자비로운 근원의 눈께 충성을 맹세한 상황이고.”

“내가 아는 충성과 네가 아는 충성이 좀 많이 다른가 봐?”

“버릇이라고 생각해, 버릇. 내가 그 존재에게 큰 호의를 가지게 된 건 부정하지 않아. 하지만 상대가 어지간하지는 않잖아. 인간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변수가 많은 신비라는 거야.”

“내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해서 설명하는 건 아니겠고, 그냥 변명일 뿐인가?”

“그런 것도… 조금 있는 편이지. 하지만 버릇이라는 건 거짓말이 아니었어. 음식 좀 잘못 먹었다고 개수작에 당해 인생 단단히 꼬여버린 놈을 어디 한두 번 본 줄 알아? 생존 본능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 조건 반사 그런 거.”

“안쓰러운 새끼….”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중에 안쓰럽지 않은 사람 없어. 하여튼 너도 알잖아, 호감과 신뢰는 별개라는 거. 의심병이 도졌다고 생각해. 어디 귀족들이 은 스푼 들고 다녔던 거랑 비슷한 거지, 뭐.”

“이번에도 기미 상궁 변명을 꺼내 드네.”

서서희가 허탈하게 웃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변명하는 것이 보여 순순히 어울려 주었다.

“어쨌든 이건 다르다는 거지? 선생님께서 준 도시락과 일반적인 신비가 주는 음식물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

“뭐어… 네가 한창 빠져 있는 취미라고 해서 그러려니 했지. 별말이 없는데 내가 뭘 의심하겠어.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냥

확인차 먹어본 거야.”

정해운의 얼굴이 묘해졌다.

“…무엇보다, 나도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싶어서.”

“…….”

지난번에 먹었던 큐브 스테이크로는 확인하지 못한 게 있었던 걸까?

“단순히 확인차라기에는 쌀 한 톨이 안 남았는데?”

“그거 조금이라도 남기면 나중에 누가 먹을 줄 알고 남겨? 어쩌면 우리끼리 나누어 먹었을 때만 괜찮은 걸 수도 있어. 하긴 이 정도 노련한 존재라면 그런 실수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서서희가 으쓱였다.

“정말로 그거 확인하러 온 건가?”

“그러기엔 내가 최근 들어 너무 바쁜 몸이시지.”

“수집상에 찾아갔다는 소식까지는 전해 들었는데.”

“시발, 내 사생활. 이놈의 쥐새끼는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어 왜?”

정해운은 질색했다. 수집상은 정보 관리가 철저한 길드다. 그쪽에서 이야기가 샜을 리는 없으니 둘 중 하나였다. 수집상에서 의도적으로 풀었거나, 다른 쪽에 눈과 귀가 있거나.

수집상에서는 굳이 둘의 유치한 다툼에 끼어들 이유가 없었다. 그러니 아마 후자일 것이었다. 정해운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어차피 다 있는 줄 알면서 서로 모르는 척하는 거니까.

“어쨌든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는데 말이야.”

“그래, 나의 친애하는 부길드장도 바깥으로 빼놓고 과연 무슨 말을 하시려나.”

“아무리 찾아봐도 너밖에 물어볼 곳이 없더라.”

“…좀 불길한데, 잠깐.”

“나 폐교 다녀온 적 있지.”

“내가 잠깐이라고 했지, 돌겠네 정말. 나한테 왜 그래.”

서서희가 답답함에 제 명치를 쳤다. 눈앞에서 먹방 찍은 건 정해운인데 왜 체기는 저에게 오는가. 대단히 불공평한 처사였으나 이해했다. 답답해하는 스스로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서서희는 특유의 평화로운 얼굴을 유지했다.

“안 그래도 바쁜 놈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밥이나 처먹은 걸 보니 잡아떼는 건 소용이 없겠지?”

“방금 전에도 말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물어볼 곳이 없었다고. 기억을 지웠다면 당연히 단해라 기억도 사라졌을 거야. 그렇다고 은혜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

“안 그래도 피곤한 애 건드리지 마라.”

“우리 때문에 오늘도 피곤해하실 대통령님께서 최근 그 폐교를 방문했다는 소식도 들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쪽을 조사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또 그런 기억이 없더라?”

“그냥 평생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아.”

알 만하다는 듯 정해운이 끄덕였다.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나?”

“언제 적 일인데 그걸 지금 알아챘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라운걸? 대체 수집상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 왔으면 안 그래도 바쁜 놈이 일정까지 미뤄가며 나를 보러 와?”

“비사벌 그 노인네가 이렇게 말하던데.”

정해운이 기계적으로 읊었다.

“내 아들은 영원히 모든 것을 사랑할 겁니다. 사랑, 자비, 애정, 희생, 다정. 이 엇비슷한 모든 단어로 그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해운 길드장은 나에게 그의 목적지와 시작점을 묻지 않았습니까….”

말끝이 늘어지고 정해운이 마무리를 지었다.

“그리고, ‘당신도 보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어.”

“…너 하나로 제한하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폐교가 생각났고. 확실해, 내가 거기서 서지오 헌터님에 대한 무언가를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잊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럼 잊은 채로 살자.”

서서희가 으쓱였다.

“걸리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잊은 과거 되찾자고 나서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우리가 그 약속에 뭘 걸었는지는 너도 알 거 아니야.”

“그래, 나도 잘 알지.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내가 뭘 원해서 왔는지 모르겠다. 요즘 잠도 푹 자고 일이 줄어드니 여유가 생겼나, 계속 잡생각이 드네.”

“차라리 나처럼 어중간하게 굴어, 너 이러다 사고 치는 수가 있어.”

“난 결국 기억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도망쳐 단해라를 찾아갔어. 너도 날 알잖아, 나 감당 못 할 것 같으면 도망치는 거. 내가 그때 그랬던 거야.”

기억에도 없는 일이라지만 말이다.

“기억을 되찾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하다는 거지. 그 선생님인지 뭔지 하는 존재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인가 해서.”

“그냥 새로운 인연을 그 위에 덮으면….”

“너 잘 생각해야 해, 이거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나는 그 존재가 인간에게 대단히 호의적이고 신사적이고 자비롭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아니야.”

“그 정도면 다 인정한 거라고 본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존재의 흥미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자립해야만 해,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구의 유해한 신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개입할 여지를 제한한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서서희가 끄덕였다.

“방금 말한 ‘목적지’와 ‘시작점’이 그거구나. 이 사랑의 시작과 끝을 보고 싶은 거야. 아니, 최소한 가늠해 보고 싶은 것이 전부일 것이고.”

“검은망토는 신성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제지를 받지 않아. 그는 예외야.”

참 피곤한 일이었다.

“이건 그가 근원의 눈이라는 이유만으론 설명할 수 없어. 근원 위에 ‘지오’라는 인격이 씌워지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여러모로 감사하지만 여전히 변수 덩어리라고… 그 호의의 방향성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야 ‘서지오 헌터’님께는 우리의 선생님이 있으니까 인간들에게 호의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겠지. 너도 봤잖아, 그건 인간의 자아였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애초에. 나는 그것을 근원으로 보고 있고 본인도 부정하지 않으리라 확신해.”

그런 거대한 존재다.

“내가 허구한 날 근원 근원 노래를 불러서 감각이 마비가 된 모양인데, 근원이야. 어쩌면 우주보다 넓고 깊으며 광활한 존재라고. 본질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목적이 뭔지 자아가 있는지조차 몰라. 지금도 ‘초상화’는 똑같은 얼굴로 전혀 다른 정체성을 보이지. 그런 존재가 인격 몇 개 섞였다고 어떻게 호의적으로 변할 수가 있겠어?”

단순히 호의적인 것만도 아니다.

“그건 사랑이야. 근원이 사랑을 베풀고 있어, 진짜 상황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지. 이게 성립이 되려면 주도권이 서지오라는 그 인간에게 있어야 한다고. 근원이 아닌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소리야, 내가 하는 말은 지금.”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인간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가능성만큼은 충분해. 인간이 죽어 신비와 융합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인간 형상의 신비로 태어났던 거야. 그리고 죽을 때가 되어서 회수가 된 것이고. 아니, 물론 나도 모르지. 정확히 어떤 순서였는지 아는 바가 하나도 없어. 애초에 근원에 인격이 덧씌워진 것부터가 논외의 일이라….”

정해운이 으쓱였다.

“그걸 알아낸다고 뭐 달라질 게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건 중요했다. 정해운은 제가 선생으로 모시는 존재가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알고자 했다. 감히 신비를 시험하다 천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만 그건 미래의 정해운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난 그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목적지와 시작점을 알기 위해서?”

“그래, 그걸 위해 ‘서지오 헌터’의 본질적인 존재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네 말은 이해하는데….”

서서희가 씁쓸한 얼굴로 빈 도시락통을 보았다.

“왜 하필 내 앞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이 시간에 늘 밥을 먹어서?”

“돼지 새끼.”

하지만.

“결국 말은 못 해주겠네.”

“…나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했어.”

“너 그때 진짜 제정신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

“나도 이게 위험한 일이라는 건 아는데….”

자칫하면 산길의 작은 돌탑처럼 아슬아슬하게 쌓인 성과가 우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다. 그러니 서서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알고는 있는데.

머뭇거리던 서서희가 말했다.

“본인을 직접 찾아가 보지 그래.”

“본인?”

“뭔가 이미 어마어마한 수를 쓰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내가 그걸 알아챌 깜냥은 안 되고. 하지만 최소한 당사자라면 위험하지 않은 선을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모른다고 해도 모르는 척하는 것에 가까울 존재니까.”

“흠… 네 말이 옳구나.”

그렇게 정해운은 수집상을 방문했다.

* * *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나한테는 철회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어휴 그럼요.”

“그것을 질문하시기 위해 여기까지 찾아오실 줄이야.”

검은 칠이 되어 있는 초상화가 고개를 기울였다.

“평화를 위해 열심히 말을 않고 있는 당신의 친구가 슬퍼할 겁니다.”

“우리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께서 고생하시는 건 누구나 아는 일이죠. 하지만 이건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허락이라… 나에게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허락이 아니라 조언을 구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나보다 현명한 자에게 지혜를 구하는 건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선생님.”

“나의 조언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선하지도 않고, 이상적으로 다정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자격을 논하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나는 지금 당신의 조언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판단한 당신 말입니다.”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근원의 예언이라, 참 섬뜩하지만 나는 내 친구들을 믿습니다. 설령 나와 당신이 아주 큰 사고를 쳐도 잘 말려주겠죠.”

“일단 도전해 보려는 태도는 좋습니다만 도전 이전에 자료 조사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료 조사가 되는 상대라면 그랬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은 아니군요.”

왜인지 피하는 모양새에 정해운은 이 끝이 영 좋지 않을 것을 직감하면서도, 그를 보며 웃었다. 결국에 누군가는 끝을 봐야 할 일이었다. 그렇다면 그 임무는 정원사인 그가 맡아야 옳았고.

정해운이 부탁했다.

“선생님, 도움이 필요해요.”

“…….”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해줘요.”

이 초상화는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에 주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점을 생각해 입을 여니 초상화는 조금 떨떠름한 기색이

었다. 그도 정해운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아는 모양이었다.

“영악하기도 해라.”

“어른이 되기 위해 열심히 갈고닦아 온 실력이 어떠십니까.”

“아주 매콤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정해운이 팔을 꼬았다.

“그거 압니까? 단해라의 말버릇이, 당신과 닮았어.”

“어떤 말버릇을 말씀한 것인지?”

“마음에 든다는 그 소리 말입니다.”

“아하, 나도 좋아합니다. 그런 말.”

“이유가 있습니까?”

“소리 내어 말하지 않으면 사라지니까.”

“신비답게… 엉뚱한 말이군요.”

왜 이 대화에 향수를 느끼는 걸까.

감상적인 생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겠다. 정해운에게는 이 존재를 최소 1,000년은 믿을 수 있는 단서가 필요했다. 아주 오랫동안 부대끼고 살아야 할 처지이니 당연한 순서라고 봤다.

“나에게 그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실 생각입니까? 뭐, 지구가 망하기라도 하나? 하긴 그건 나라도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망설이는 걸 보면 그 정도 스케일은 아닌가 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게는 허락의 권한이 없습니다. 허튼소리 하거나 누군가를 부추기지 않기로 이 나라의 대통령과도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녀와의 약속을 어기길 바라십니까? 바라는 바는 알겠지만 정확히 뭘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근래 들어 계속해 말하고 있는 건 이것입니다. 새로운 신뢰. 과거를 잊고 새롭게 쌓아가야 할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특히나 정해운 학생은 나에 대해 잘 알기를 원하죠.”

“그렇긴 합니다만.”

“정말로 그걸 원하신다면 감히 당신을 모든 사태의 예외로 삼겠습니다. 너 역시 내 학생이니. 그럼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조언은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초상화가 경고했다.

“신뢰를 쌓는 과정에 있어 약간의 불상사가 발생해도 감안하시겠습니까?”

“지구가 망하거나 대량 학살이 벌어지는 수준의 일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그러시다면야.”

초상화가 바깥으로 나왔다.

“…….”

“실례.”

맨발.

'그리고....'

보석안.

"그럼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죠, 어떠신가요?"

"...지난번에는 서서희 옆에서 시간을 보내더니."

"물론 서서희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역시 나입니다. 아르지오라 불렸던 이름을 쓰며, 악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는 대단히 뜻깊은 전투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나를 간택하시겠다는 겁니까?"

"당신과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해운 정원사. 단언컨대 우리는 꽤 재밌는 장난을 칠 수 있을 거예요."

"...하긴 이런 대안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장난을 치려고?"

"왜 이 세계의 사람들은 게임을 하고 있을까요?"

정원의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진다.

"다 게임 중독자들이야."

"...허?"

"좁은 모니터에 갇혀 세상을 볼 생각을 않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인데. 갑작스럽기도 하고. 그건 정원으로서의 투정입니까?"

"원하시는 대로 나를 보세요."

그것은 웃었다.

"나도 그렇게 할 테니."

"......."

씁, 불안하네.

'감안할 거 감안하고 시도해 본 계약이기는 하다만....'

조금 오싹했다.

* * *

명령 대기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320)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20)"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21)

321

제321화

그날 이후로 정해운의 일상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흠, 어제 늦게까지 일해서 느지막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조금 더 자는 건 어때요?”

“…이건 또 뭐야 시발….”

“내 심장이 다 떨리게 말이 험하신 걸 보니 기억이 안 나시나…? 정해운 정원사가 나를 비사벌 길드장님으로부터 빌려 왔는데. 그래서 나 정해운 학생 집의 초상화가 되어 버렸잖아요. 이렇게 잊은 척하면 서운해….”

“…기억납니다.”

나는데, 순간 기억을 잃을 정도로 충격적인 존재감이었다. 격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일어나자마자 볼 상대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나이 먹고 이런 적이 없는데 심장이 다 벌렁거렸다. 딱히 좋은 감각의 벌렁거림은 아니었다. 정해운의 얼굴이 조금 해쓱했다. 막 깨어난 상태인 걸 감안해도 상당히 질린 반응이었다.

“무슨 공포 영화라도 본 기분이군요. 정원의 눈길을 받으며 깨어나는 아침이라니 아주 무섭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네? 이렇게 친절하고 다정한 공포 영화 보셨어요? 최소한 나는 아니랍니다.”

“좀… 그… 검은색으로 돌아오시면 안 됩니까?”

정해운의 집 안 풍경이 삭막한 편은 아니었다. 어떤 손님이 와도 불쾌하지 않도록 무던하게 꾸며 두었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을 ‘제오르제’라고 소개한 존재는 화려했다. 너무 튀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닐 텐데도 눈이 아렸다. 정말이지 황당한 일이었다.

‘실명하기 직전에 주로 이런 감각을 느꼈었는데.’

정말 실명까지 가본 적도 여럿 있는 정해운이었다. 밝은 것을 본 것도 아니고 독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열기에 익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감각을 느낀단 말인가.

다시 생각해 봐도 여러모로 충격적인 존재감이 아닐 수 없었다.

“내가 너무 무턱대고 데려왔나….”

“그놈의 신뢰 타령을 하시기에 이 귀한 몸까지 납시었는데 어째 태도가 불경하군요.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싶은 게 아니었나요? 그러려면 조금 더 부지런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정도로 성실했으면 부지런은 충분히 떨었다고 봅니다.”

“합당하군요, 아주 옳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성실한 정해운 학생을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려 두었답니다. 고맙죠? 고마울 거야, 언제 이런 대접을 받아 봤겠어요….”

“거 아침 식사 대접은 몇 번 받아 봤습니다만?”

“나 같은 정원한테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자비로우신 정원이십니다. 제오르제 만세.”

생각해 보면 이만큼 호화로운 시간이 또 없었다. 그 까탈스러운 정원이 직접 차려준 식사라니. 먹으면 골로 갈 것 같다는 점만 제하면 정원사 입장에서는 대단한 호사였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생각보다 소박했다.

“…빵이랑 소시지… 하고, 베이컨.”

“옆에 조신하게 누워 있는 계란은 안 보이시나 봐요.”

“그것도 보입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서양식 아침 식사, 뭐, 그런 느낌이군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런 말을 할 때마다 심장이 떨어진단 말이지….”

그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말한다고 해도 정해운은 아는 게 없었다. 정확히는 전부 잊었다. 자리에 앉으며 정해운은 정원이 차려 주었다는 식사를 점검했다.

동그랗게 구워진 팬케이크와 윤기가 흐르는 소시지. 주홍빛이 살짝 돌 정도로 진한 색의 노른자는 구슬처럼 탱글했고, 베이컨은 바삭하면서도 지방 부분이 매우 촉촉해 보였다.

“…….”

조금 황당한 점이 있다면 그 어마어마한 양이라고나 할까.

“뭐 코끼리 온답니까?”

“뿌우.”

“에헤이 거 다 큰 양반이 진짜 징그럽게 뭐 하자는 거야 증말.”

“난 영원히 파릇파릇한 21살이라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한 몸을 같이 쓸 거면 그 나이라도 좀 통일하고 오시든가, 헷갈려 죽겠네. 아무튼 이걸 본인이 다 드시겠다고? 그 몸에 다 들어가기는 합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

“정원에 불가능을 따지다니, 제법 낭만적이네.”

“하여간 온갖 곳에 다 낭만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다니니….”

그래도 슬슬 익숙해지는 참이었다. 제오르제의 말마따나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정원은 이상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초상화는 당당하게 앉아 깔끔을 떨며 음식들을 흡수해 나갔다.

‘저건 볼 때마다 신기하네.’

소리 없이 얌전하게 먹는데 결코 작지 않은 팬케이크 하나가 입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입안이 꽉 차서 볼이 빵빵해지는 일도 없었다. 고요한 작업이었으나 속도는 굉장했다.

‘내 몫이 따로 있기는 하군.’

초상화에게 놓인 건 앞접시의 용도인 듯했지만, 정해운은 그릇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평범한 위장의 소유자였다. 적당히 삶은 브로콜리와 구운 듯한 방울토마토도 가니시로 있었다.

‘정원이라 그런가, 은근히 조화로운 식사를 챙겨준단 말이야.’

그리고 당연히도 맛있었다.

“돌겠네.”

“순순히 맛있음을 인정하시죠, 정해운 학생.”

“내가 뭘 먹고 있는 거지.”

“아침 식사를 먹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긴 합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찝찝했다.

‘…대체 왜 이런 시간에 익숙함을 느끼고 있는 건지 모르겠군. 이상할 정도로 이 식사 시간이 어색하지가 않아.’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니 오전 7시였다. 검은 망토의 도움으로 여유가 생긴 정해운은 이렇듯 아침 식사를 챙길 수가 있었다. 여태껏 그러지 못해왔으니 이 상황이 낯설어야 마땅하겠으나 입으로는 쭉쭉 들어가더라.

‘인간은 거부하기 힘들 정도로 맛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알아보니 종종 태양의 여신이나 죽음의 신에게도 공양 아닌 공양을 하러 간다지 않던가. 신도 혹하는 음식을 정해운이 거부하긴 힘든 일일 것이었다.

아무튼 오늘은 정원을 점검하는 날.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일정인 탓에 이른 아침부터 둘은 정원을 돌았다.

“여기도 한때 주인이 없는 정원이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482번 작품인 것 같은데, 맞나요?”

“매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번호를 부른다고 재깍재깍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소식을 듣기로는 최근 검은망토 님의 도움으로 담당 정원사가 구해졌다더군요.”

“아, 참 좋은 분이시죠. 나랑 자주 놀아주기도 하시고요. 검은망토 님께서 정말 재밌는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장난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막 정원사가 된 신입이라 그런지 작업에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걸 고치고 이동할 겁니다.”

세상에 10,000점의 ‘정원’이 드러났고, 그중 상당수가 정원사를 간택했다. 이 길쭉한 나무만 가득한 정글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워낙 구조가 복잡한 탓인지 담당 정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모양인 듯했다.

“의욕이 좋기는 하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돌아보아야 이렇게 엉뚱하게 넘겨지는 부분이 없을 텐데. 아직 초보라 그런지 뚝딱거리는 모양입니다.”

“헌터 협회나 정해운 학생의 길드에서도 정원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그다지 효과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아직 초보라서 생기는 실수들…?”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은 수준이군요. 정원사 전용 아카데미 반을 만들기는 했지만 교사고 학생이고 어색한 모양이더이다. 차차 나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은 주인이 없는 정원이었다.

“여기도 당신 그림 중에 있습니까?”

“3,094번째 그림이네요, 이 거대한 호수가 정말로 매력적이었죠.”

“아무런 생물도 살지 않는 호수는 확실히 인간들에게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너무 깨끗해서 불쾌감을 준다고 해야 하나. 요즈음 인재 여럿 삼켜보고 있는 모양인데 이상하게도 담당 정원사가 생기질 않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법이지.”

“당신은 모든 변수를 사랑으로 퉁치려는 못된 버릇이 있어.”

워낙에 고요한 호수는 모든 소리를 잡아먹었다. 아마 이 지나칠 정도의 무음이 담당 정원사가 생기지 않는 이유일 것이었다. 대부분의 인간은 이렇게까지 소리를 듣지 못하면 미쳐버리는 수가 있었다.

정해운이 턱을 쓸었다.

“쉽게 바랄 수는 없겠지만 아예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인재가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오든 잘 적응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누가 오든 상관은 없지만 애초부터 서로 다툴 일이 없을 만큼 비슷한 점이 많은 관계라면 좋겠지. 사랑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결국 사랑이란 차이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인데도요.”

“당신다운 낭만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상상 이상으로 각박합니다. 엉뚱하고, 변수도 많고, 말도 더럽게 안 듣죠. 개같은 정원에 개같은 신비.”

“......?”

졸지에 욕을 먹은 정원이자 신비가 정해운을 보았다. 정해운은 자연스럽게 그 시선을 무시했다. 이 정도는 ‘놀이’에 가깝다는 것을 파악한 지가 오래다. 상대가 화낼 일은 없었다.

이곳에서 정해운은 소음을 내고 있던 물빛 벌레 하나를 잡았다.

“풍뎅이처럼 윙윙거리기는.”

무음의 호수가 이런 벌레를 반길 리가 없었다. 하지만 관리하지 않는 정원에 못된 벌레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던 허니가 눈을 빛냈다.

“...오, 이걸 원하십니까?”

“꾸르륵.”

“보호자분께서 조언을 주신다면 고맙겠는데. 자녀분께 이것을 선물해도 될까요?”

어느새 정해운의 어깨에 앉은 허니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귀엽지만 하나도 귀엽지 않았다. 정해운쯤 되는 정원사가 이 물새의 격을 몰라볼 리가 없었다.

‘아직도 나를 간 보고 있군.’

무엇보다 벌레와 자신을 보는 눈이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정해운은 이 존재가 제 아비 앞에서 일부러 귀여운 척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다.

다행히 정원의 허락이 떨어졌다.

“그 정도는 허니에게 딱 좋은 간식이 될 거예요. 우리 애는 매운 게 아니라면 편식 같은 건 잘 안 하는 편이거든. 허니가 원하고, 또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주셔도 됩니다.”

“보호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야.”

허니는 벌레를 꿀꺽 삼켰다.

‘굳이 그 작은 입으로 먹는 시늉을 한다. 온몸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흉내는 왜 내는 것일까?’

정해운은 종종 신비의 이런 행동이 참 가식적이라고 느꼈다. ‘지오의 초상화’야 인간의 자아가 씌워져서 그렇다 쳐도 허니는 그런 경우가 아닐 텐데. 단순히 아비를 흉내 낸 것일까?

‘역시 그보다는 귀여운 척인 것 같지만....’

이게 ‘허니’의 규칙이라면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었다. 귀여운 장남, 귀여운 물새, 귀여운 자식. 유독 초상화의 앞에서만 ‘새’다운 행동이 늘어나는 걸 보면 그 관계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말로는 가족이라 하지만 결국에는 소꿉놀이를 하는 신비일 뿐이지 않나.’

저런 모습은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신비의 이런 내숭이나 흉내 말이다. 보기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주 기묘한 면이 있었다. 그 이질감이 떨떠름한 기분을 자아낸다.

“다 봤어요?”

“…….”

그래, 저런 것도.

“…사실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신 사나울 정도로 반짝이는 보석안이, 문득 이성을 흐린다. 정해운만큼의 경험과 자제력이 없는 인간이라면 얼마든지 홀려 영혼을 내어줄 것이었다. 저것의 본질은 ‘사랑’이다.

‘끔찍한 일이지.’

사랑을 받을뿐더러 자비롭게 베풀어줄 수 있는 정원이라니. 그건 확실히 재앙이 맞았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형태로 있다면 역시나 쓰레기라는 답밖엔 나오지 않았다.

“잠깐 본다고 다 읽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습니까, 선생님은.”

“어… 나 말고 정원 다 봤냐는 말이었는데. 허니는 식사를 마쳤어요.”

“…이동하죠.”

저런 식으로 잡아떼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대체 어떻게 신뢰를 쌓으라는 건지 모르겠군.’

이 초상화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신뢰를 쌓을 기회 말이다. 그건 동시에 상대를 분석할 기회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문만이 깊어질 뿐이었다.

‘왜 나는 이 모든 게 전혀 낯설지가 않은지에 대한 부분도….’

깊이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나 계속해서 드는 의구심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었다. 텅 빈 구멍을 채우고자 하는.

그들은 매일 그렇게 정원을 계속해서 방문했다. 정해운은 아주 특별한 정원사라 임자 있는 정원에도 방문할 수 있었고, 그게 아직 지구가 망하지 않은 이유였다.

“솔직히 이쯤 되면 좀 질리는데, 선생님.”

한참을 작업하던 정해운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가 10,000점이나 정원을 그렸다고 했을 때부터 느꼈지. 사실 그 정도면 지구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정원을 그린 거라고 봤습니다. 들르는 정원마다 당신께서 번호를 불러주시니 아마 나의 추측이 정답일 것 같기도 해요.”

“못 그린 정원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술래잡기는 나의 변덕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거든. 기어이 10,000점을 채웠지만 분명 그 밖의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구의 명운에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정원들을 총 10,000개로 추린 것이겠지요. 뭐, 단순히 당신의 취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배고프지 않아요?”

“…….”

그들은 또 다른 정원 한복판에 앉아 파니니를 씹었다.

“정원에서 이래도 되나 몰라.”

“애들이 화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누가 자기 옷 위에 음식물 부스러기 떨어트리면 화가 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니니가 맛이 없다고요?”

“맛있어서 환장하겠군요.”

“그럼 됐어요.”

제오르제는 상쾌하게 웃었다.

“내 요리 솜씨가 대단하긴 하지.”

“대단하셨군요?”

“방랑자로 살아가며 요리 하나 못하기가 더 어렵겠지만 말이죠.”

“방랑자라… 그건 두 발 달린 정원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겁니까?”

“그보다 한참 전에도 나는 방랑자였습니다. 난 아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였으니까요. 게다가 요리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죠.”

“정말 이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끝이 보이지 않게 샘솟는 나의 가치?”

“틀린 말은 아니군요.”

“그만큼 나를 붙잡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참 많았지만 나는 한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 보통은 도망쳐 버리고는 했어요.”

“도망?”

“나는… 황금 감옥이라고 해도, 나를 가둬두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것은 자신이 한때 인간이었노라 말한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당신의 전부이진 않았을 텐데요.”

“그게 전부라 내가 지금 이 꼴이 났지….”

“…어….”

정해운은 조금 당황했다.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까? 그건 상당히 의외인데요, 자기애가 하도 넘쳐서.”

“나는 변화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뭐랄까, 지구에서는 이런 걸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동안 온갖 정원을 떠도는 나는 그렇게 즐겁지만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붙어 다니다 보니 당신에 대해 알게 되는 게 생기기는 하는군요.”

이렇듯 정원은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다. 매번 해주는 건 아니었다. 대부분은 장난으로 받아넘기고, 가끔 이렇게 운이 좋으면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더 캐묻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정원은 경고했다.

“아직은 내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이 정원이 미래를 점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알 수 있었다. 정해운은 그 의지에

따라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정원사란 모름지기 한 치 앞날을 모르면 모를수록 장수했다. 사서 정신 건강을 해치고 싶지 않았다.

‘인간과 지구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정보들만 추려서 나에게 말해주는 거겠지.’

이전에 ‘지오의 초상화’에게 ‘정해운이 알아도 될 것’의 선에 대한 허락을 구했으니 말이다. 아마 그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었다.

그렇게 한창 정원을 돌고 나면 정해운은 귀가할 수 있었다. 길드장으로서의 업무는 또 다른 날 이어서 할 예정이었다. 그렇게까지 급한 일은 없으니 말이다.

“왜 안 씻고 눕지?”

“아 좀….”

“나는 꼭 외출 후에 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정해운 학생은 금방이라도 잠이 들어버릴 것 같네요. 우리 아직 저녁 식사도 하지 않은 건 기억하시나요?”

“…혼자 드시면….”

“내가? 혼자? 식사를 해야 한다고…?”

“지금 일어납니다.”

그렇게 식사까지 하고 나면 정해운의 일과가 마무리되었다.

“…….”

좀 많이 바뀌었다.

‘원래 이런 일상이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바뀔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제오르제는 사람을 구슬리고 조련하는 데 도가 튼 사람이었다. 그가 장난을 치고, 정색하고, 웃거나 조곤조곤 속삭이면 그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러니 포장마차의 주인이 그 호의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몬스터라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지.’

정해운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아이고, 삭신아….”

“그건 중년의 외모를 고집하기 때문인가요? 관절도 중년의 것인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

“오늘은 즐거웠어요?”

“…….”

이 정원은 늘 하루의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다. 정해운은 아직까지도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대체 무슨 목적의 질문인 걸까. 의문은 여전했으나 불쾌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꺼림칙했다.

“…글쎄요.”

내 몸이 기억하고 영혼이 기억하는 버릇들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내가 아는, 나는 하지 않을 행동들을 그의 곁에서 자연스럽게 해버리고 만다. 그걸 깨달을 때면 소름이 끼친다.

오류 발생

명령 대기

대체 내가 뭘 하고 싶은 걸까?

한계 대기 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강제: 명령 진행 상태로 전환합니다

해금 진행_0.02%

“…뭘 그렇게 보시죠, 선생님?”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참 불안한데 말이지.”

“그러니까 감상을 말해줘요.”

정원은 초승달처럼 웃었다.

“약속이야, 정해운.”

* * *

그날, 정해운은 꿈을 꿨다.

끔찍하게 그리운 꿈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22)

322

제322화

온통 붉고 검은 하늘을 올려다보던 어느 날이었다.

"선생님."

정해운은 한 남자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어디 안 갈 거죠."

"내가 어디를 가."

"어디를 가든 잘 지낼 거잖아요."

"그럴 리가 있니, 내 학생들 여기에 다 있는데 어디를 가겠어."

"…쌤 가족이라든가…."

"이제 없는 거 너도 알잖아."

"……."

사실 그 말에 조금 감사했다.

비열하고 못된 생각이라는 거 정해운도 알았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선생님은 가족을 향한 애정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한 명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그리로 가버렸겠지.

하지만 이제 그의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또 이상한 생각 하지."

"아… 아닌데요, 안 했는데요."

"참 희한한 방식으로 삐뚤어졌단 말이야."

"세상도 삐뚤어졌는데 내가 이 정도 삐뚤어지는 건 티도 안 나겠네, 뭐."

"잔소리로 듣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

"그런 생각이 무슨 생각인데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

그는 세상이 망했음에도 언제나 한결같았다.

“욕심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 하지만 나는 우리가 알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갔으면 해. 너는 너처럼, 나는 나처럼. 크게 변해서 못 알아볼 일이 없도록....”

“왜 못 알아볼 일이 생기는데요.”

“세상이 망하기 전에도 그럴 때는 많았어. 옆에 계속 둔다고 해서 늘 내가 아는 사람으로 남아주지는 않더라고. 아니면 정말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겠지.”

“그런다고 못 알아봐요?”

“그런 경우가 적은 편은 아니야. 사람은 결국 기억에 의존하는 생물이고, 기억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허상 같은 거라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거든.”

“그러면요?”

“못 알아보게 되는 거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게 돼. 하지만 나도 이게 참 지루한 소리라는 걸 알아. 그러니 꼭 듣지 않아도 돼.”

그는 말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내 욕심일 뿐이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건 도태와 비슷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야.”

“...좀 그렇긴 한데, 난 솔직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좋아요.”

세상이 망했기에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지 않은가. 지금도 불길한 하늘을 보며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느꼈다. 죽음이 가깝다는 걸.

“안 변하면 좋죠, 계속 알아볼 수 있게.”

“내 말에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고. 누누이 말했듯이 내가 반드시 옳다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도 쌤은 쌤이잖아요.”

“이런 세상에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주는 권위는 그다지 절대적이지 않아. 예전에도 그랬고.”

“맨날 우리한테 잔소리하면서.”

“그래, 역시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듣기에 재밌는 이야기들은 아니었지.”

그가 웃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 봐도 입술은 미동조차 없는데 계속 그런 착각을 하고는 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해운의 선생님은 음성에 감정과 의미를 담을 수 있었다.

“세상이 망했어도 나는 인간성이 남아 있었으면 해. 함부로 생명을 괴롭히지 않고, 누군가의 가치를 헐뜯지 않고, 내가 가진 여유만큼 베풀 수 있는 사람들로 남아줬으면 해서 그랬어.”

그러고는 이해한다는 듯이 끄덕였다.

“이번에도 재미없는 소리지?”

“재미는 없지만, 그... 나쁘게는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말해줘서 선생님이 참 기쁘다.”

“그럼 됐고요.”

“내가 아주 좋은 학생들을 뒀지.”

“.......”

글쎄, 사실 그렇지만도 않았다. 그가 좋은 선생님으로서 좋은 학생을 손수 빚어 만들었을 뿐이었다. 선생님은 아예 그걸

잊어버린 사람처럼 굴고는 했다.

그에겐 세상 모든 고난과 역경이 쉬워 보였다. 분명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텐데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다. 미쳐가는 세상에 미치지 않는 것을 어쩜 그리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을까.

"...어디 가지 마요."

"왜 그렇게 겁을 먹었어, 정해운."

"국어 쌤 튀었다잖아요."

"하긴 다른 애들도 많이 무서워하고 있더라."

전부 이해한다는 듯이 굴었다. 그게 고깝기보다는 감사했다. 모든 게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오로지 그만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이 사람이라면 언제나 한 자리에 있을 것 같았다.

낮고 차분한 음성에는 불안한 심장도 진정시켜 주는 힘이 있었다.

"국어 선생님도 그만큼 무서웠나 보지. 어디론가 떠나지 않으면 못 버틸 만큼."

"...그래도 선생님인데, 다들 도망치고 있고... 비겁하지 않아요?"

가끔은 억울할 때가 있기는 했다.

"선생님은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다들 무책임하고... 쌤이 가장 힘든데 개같은 소리들만 해대고... 징징거리고...."

그의 선생님은 항상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해 주었다. 그러고는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정보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만을 했다.

"나만 화나는 거죠 또?"

"같이 화를 내줄 수는 있어."

"쌤 부처야? 절에서 왔어요?"

"보통 부처님께서 거기서 오시나? 내가 무교라 잘 모르겠네."

"아니, 좀... 안 억울하냐고요."

"내가 억울할 게 뭐가 있어."

늘 그랬다.

"그냥 미안한 거지."

"...뭐가 미안해요, 쌤이."

"안 그래도 무서워하는 학생들에게 더 무서운 일을 만들어서."

"그걸 왜 쌤이 걱정하냐고요, 도망친 놈들은 생각도 안 할 텐데."

"해운이 너는 참... 걱정을, 희한한 방식으로 해."

그가 가볍게 등을 토닥였다. 기운을 내라거나 응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는 슬퍼하지 말라는 위로의 의미인 것 같았다. 느긋하고 다정한 손길이 부글거리는 속을 식혀주기도 했다.

선생님은 한결같이 재미없는 소리를 했다.

"난 어디로 가지 않을 거야."

"왜요."

선생님이라서?

“선생님이라서.”

“…아니었으면 도망쳤을 거죠?”

“그래도 남아 있었겠지.”

“그건 또 왜요?”

“아마도 어른이라서?”

“다른 쌤들은 도망쳤잖아요, 선생님이고 어른이었는데도.”

“나에겐 그 이유면 충분했지만 그분들은 아니었나 봐.”

“언젠가 선생님도 그렇게 되면요?”

“잘 상상이 되지는 않는데….”

그러고는 듣기 좋은 말도 해주었다.

“그래, 너희만 데리고 도망을 쳐볼까.”

“…저요? 해라랑 서희 은혜까지?”

“딱 거기까지만.”

“…선생님도 편애라는 걸 하나 봐요?”

“나도 사람인데 편애하는 마음이 없겠니.”

“…….”

“…? 왜 이 타이밍에 답이 없을까?”

정해운은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사람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의 선생님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너무 이상적이었다. 좋은 어른이고 선생님이었다. 그렇기 때문이었을까, 불안한 마음도 컸다. 그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다.

언젠가 이런 말을 들었다.

‘착한 사람들이 일찍 죽는 이유는 신이 그 사람을 탐내기 때문이라던데.’

선생님은 착한 사람이었다. 세상이 망하고 나니 그걸 더 잘 알 수 있었다.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멸망 뒤에 새삼 깨달았다. 그렇기에 그걸 탐내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조금 늦게 알아챈 것 같았다.

이 사람을 원하는 곳은 많았다. 그럼에도 선생님은 그들 곁에 남아 있었다. 그게 고마우면서도 불안했다. 너무 이상적인 존재이기에 오히려 허상 같았다.

멸망한 세계보다도 더 비현실적이기 때문이었을까.

“…….”

“난 사람이야.”

“…알아요.”

“너희는 나를 너무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어, 알고 있니?”

“선생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늘 그렇게 말해도 들어먹지를 않으니 또다시 하는 말이지.”

“하지만....”

우상화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당연하게도 우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었고, 그게 정해운의 선생님이었을 뿐이다. 그는 모든 방면에서 완벽했으며 동시에 선하고 다정할 수 있었다.

“정해운.”

“나,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쌤도 슬슬 인정할 때 되지 않았어요? 민망해서 그래요?”

좀 억울하기도 했다. 자신의 선생님이 이렇게나 특별하다는 건 학생의 자부심이었다. 당신만 인정하면 될 일인데. 뭐 더 하고 말 것도 없이 그게 사실인데.

하지만 그의 선생님은 그런 정해운의 욕심에 응해주는 일이 없었다. 여전히 차분하고 나직했다.

“안 그래도 요즘 분위기가 영 이상해서 걱정이 되던 참이었어.”

“왜 그렇게까지 부정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들 쌤을 좋게 보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그렇잖아요, 선생님은 항상... 이런 세상이 되어서도....”

“그렇지 않아.”

그 말을 제대로 들었어야 했는데.

“난 사람이거든.”

왜 흘려들었을까.

다시 생각해도, 참 비겁한 일이었다.

* * *

“.......”

오류 발생

“...어....”

오류 발생

오류 발생

오류 발생

“잠깐만.”

이상이 감지되었습니다

명령 대기

강제: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누락됩니다

“잠깐, 이게 뭔데.”

“정해운.”

“.......”

고개를 드니 새까만 눈이 있었다.

온갖 위험을 경고하는 제 시스템 창 너머로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다.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어둠. 그 안에

가득 채워진 운명과 그것의 무게. 생명과 죽음의 순환. 그리고 인간성.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정해운에게 검은망토가 물었다.

“너에게 부담이 되니?”

“…뭐, 무슨 말….”

“그렇다면 없던 일로 치자.”

“없던 일…?”

“조금 들떴을지도 몰라.”

자책의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다. 단지 그는 스스로의 일과를 반성하는 노인처럼 그렇게 말할 뿐이었다. 자기가 들떴다고, 그래서 조금 과했다고. 그것이 정해운에게 부담이었는지 물어오고 있었다.

그러고는 뜬금없는 소리를 했다.

“나는 안전한 길을 좋아해.”

그 이야기를 그저 들었다.

“변화를 싫어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좋아하지도 않아.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지. 나와 내 주변이 고통스럽지 않고, 하루하루가 소박하게 행복하길 바라며, 아주 가끔씩만 울기를 바라.”

꿈에서 들었던 음성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욕심을 내봤어. 나도 모르는 척 잊고 지내려 했는데 두 발 달린 정원은 그런 지루한 길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예전의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모험심이 들었어. 그래서 들떴고. 아주 재밌어질 것 같아서….”

모험심, 들떴다, 재밌을 것 같았다는 말이 전부 허상처럼 들릴 만큼 음울하고 조곤조곤한 목소리가 귀를 파고든다. 뇌를 녹인다.

“잊어도 잊어도 계속해서 그 불에 타고 남은 폐교로 돌아오는 너를 안단다.”

“…폐교?”

“꽤 여러 번 들락거리더구나. 해라의 피곤함을 덜어주고자 내가 손을 몇 번 써주었으나, 그럼에도 또다시 나를 찾아왔었지.”

“내가… 거기를, 아주 많이 갔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너는 참 똑똑한 학생이었어. 지금도 그래. 유성운 씨와 대화를 나눴음에도 폐교를 찾아가지 않았던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의구심을 품었다.”

“당신이 그 기억을 지웠어?”

“그보다는 오류를 복구했지. 뚫려버린 구멍을 닫았어. 아마도 내가. 글쎄? 나였을까?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마도 나였을 거야. 난 언제나 여기에 있으니까. 이 역시도 나라고 해주겠니?”

“무슨….”

“이번에는 아예 수집상의 갤러리로 나를 찾으러 왔었지. 이번에는 달라졌어. 그래서 이번에는, 응해줄까 싶었는데… 제오르제 씨는 용감한 사람이니 그 도움을 받아서.”

그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하지만 ‘제오르제’는 이런 단점이 있지, 나는 그를 좋아하지만 사실대로 말하자면 배려가 적은 편이야. 그만큼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

“…….”

“그럼에도 해운이 네가 눈에 밟혔어. 다른 아이들은 보지 못한 척, 듣지 못한 척, 그렇게 잊어버린 채로 두었는데 넌 아니었지. 검은망토를 통제하고 파악하려는 목적이었겠지만….”

“…….”

“그래도 나는 반가웠어. 지금의 시간도 무척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의 일을 배척하는 게 아니니까. 오만한 말이지만 난 언제나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거든.”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이 즐거웠으며 가치 있었다고 말한다.

“무서운 꿈을 꿨니?”

새까만 것이 그에게 물어보았기 때문에, 정해운은 저도 모르게 대답했다.

“…무서, 웠…습니다.”

“왜 그랬지?”

“…내가 뭔가, 아주 큰 잘못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

한참을 뻐끔거리다가 말을 뱉었다.

“…안 돼.”

지금은 안 된다.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이걸 다시 잊어야 합니까?”

“뭐 대단한 거 떠올렸다고 이렇게 거창한 반응을 보이는 건지 모르겠네. 이제야 꿈 한 번 꾼 것 가지고 왜 이상한 허세를 부려. 그렇게 중요한 꿈은 아니었잖니.”

“잊고 싶지 않아….”

떨리는 손을 뻗었다. 요란하게 경고해 대는 시스템 창 너머로 나아가, 제 손이 새까만 망토의 멱을 잡았다. 내내 인간이 두르고 있었음에도 온기 하나 느껴지지 않는 부드러운 천에 소름이 끼쳤다.

그럼에도 손을 놓지 않기 위해 더욱 힘을 주었다. 덜덜 떨리는 손가락들이 기어코 망토의 멱살을 느릿하게, 그리고 거칠게 잡아서 끌어 내렸다. 지팡이를 잡고 태풍을 버티는 노인처럼 손이 떨렸다.

그에 검은망토는 순순히 끌려 내려와 주었다.

“…서, 선생님….”

내가 당신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아, 안 떠날 거라고. 했는데.”

“떠나지 않았어.”

“우리 안 버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버린 적도 없지.”

“그런데 왜, 왜 이렇게 무섭지요…?”

숨이 떨리고, 눈물이 가시처럼 아프게 흘렀다. 명치가 아렸다.

"…당신 대체 누굽니까."

"너희의 서지오 선생님이지."

"시발, 대체 뭐길래 이래…!!!"

고통스러웠다.

고작 꿈 한 번이었다. 검은망토의 말마따나 고작 꿈 한 번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왜 이토록 두려운 것일까. 다치지도 않은 온갖 장기들이 아우성을 치는 이유는 뭐지? 나는 왜 울고 있지?

이게 다 꿈속의 '정해운' 때문이었다. 그가 느낀 불안이 머리를 점령했다. 제가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끌어 내렸음에도 안심이 되질 않았다.

이미 붙잡은 존재에게 제발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이해할 수 없는 충동이었다.

"나, 나는."

"한 번 더 지워줄까."

"……."

"…흐음."

이내 새까만 눈이, 보기 아릴 만큼 화려한 보석안으로 바뀌었다.

"아직은 이른가 봐?"

"…가지 마요."

"좀 더 부추기고 싶었는데, 불쌍해서 그렇게는 못 하겠다. 나는 마음이 참 여리거든."

"가지 마, 제발."

"나는 늘 여기에 있어, 해운아."

"네가 아니야."

"이것도 나야."

정원이 초승달처럼 웃었다. 잠들기 전에 보았던 그 눈웃음이었다.

"나를 너무 좋게 본다고 말했었잖아, 그렇지…?"

부추기듯 은근한 음성과 함께, 창백한 손이 정해운의 눈을 가렸다.

"우리는 뭐가 옳은지 알아."

"……."

"그리고 뭐가 좋은지도 알아."

"……."

"그러니… 지금은 더 자볼까?"

그것은 학생이 아닌, 한참 어린아이를 달래는 음성이었다.

시스템을 복구하시겠습니까?

예/아니오

"예."

"……."

“…….”

“…….”

“…정해운 학생.”

제오르제가 손을 치워, 눈물 자국이 남은 그 멍한 눈에 대고 웃었다.

“좋은 새벽이에요, 그렇죠?”

“…그렇군요.”

“왜 울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검은 망토의 멱을 잡은 정해운의 손에서 저절로 힘이 빠졌다. 그가 초점을 잃은 눈으로 제 앞의 화사한 정원의 미소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무의식적인 듯 중얼거렸다.

“…왜 울었지?”

기억나지 않았다.

또, 잊었다.

* * *

액자 안에서.

검게 물든 초상화는 의아해했다.

“…뭔가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기도 해라.”

기억나지 않았다.

적합자 목록

쾌락의 정원_제오르제

동화율 ???%

“역시 장난꾸러기네.”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그 역시 ‘지오’임을 알기에 초상화는 정원의 과격한 장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쩌면 내 반투명한 친구가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고.’

어느 쪽의 장난이든 여전히 서지오는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알 것 같지만, 그냥 모르는 척 잊었다. 잊어버려서 불에 타기 직전 초상화가 되어버린 ‘사실’만이 남았다.

그렇기에 지오는 단지 저에게 닿아오는 시선에 대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귀한 아들을 외딴곳에 보내시고 잘 지내실지 모르겠어….”

쭉 찢어진 동공이 익숙하다.

* * *

“…….”

헛웃음이 터졌다.

“아, 정말이지….”

제 집무실에서 비사벌이 웃었다.

"최고라니까."

역시 내 아들이야.

샛노란 눈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23)

323

제323화

그 현상은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 뭐, 뭐야. 시스템이 왜 이래."

"내 것만 이런 게 아니었다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돼."

새벽 4시경. 그 시간대에 깨어 있던 사람들은 시스템의 '오류'를 확인했다. 시스템의 문자가 일그러지거나 아예 발동 자체가 안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에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시스템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야?"

"시발, 또 무슨 미친 일이 일어나려고…."

"대재앙 시즌 2가 다가오고 있나?"

"개소리하지 마 제발."

지구인들에게, 특히 그중에서도 각성자들에게 시스템이란 공기와도 같았다. 당연히 존재하며 매우 익숙하지만 사라지면 큰일이 나는 무형의 존재. 그것이 바로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공기와 시스템의 차이점이 있다면, 시스템은 세 명의 '인간'이 만들어 내었다는 사실이었다. 32년 동안 생각해 본 적도 없으나 시스템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었다.

"에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

누군가는 이렇게도 말했다.

"시스템 경고 창 못 봤어? 오류라고 하잖아, 오류."

"하지만 그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다는 것부터가…."

"사람이 만들었는데 완벽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이다.

"솔직히 말이지, 시스템 생긴 지 이제 30년 정도 된 상황이야. 게임도 한 번 만들어지면 섭종할 때까지 몇 번이고 오류가

생겨서 수정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기도 하잖아.”

“게임이랑 시스템이랑 같아?”

“뭐가 다른데? 시스템도 결국에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 게임에 완전히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오류 정도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시스템은 자연의 산물도 아닌데.”

“그, 그렇긴 해도….”

“나도 이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겠냐.”

그런 식의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이로써 사람들이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있었다. 바로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점이었다.

일각에서는 ‘여기까지 문제없이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다’라고 말한 반면, ‘이를 시작으로 시스템이 붕괴하면 어떻게 하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 단 셋뿐이었다.

“이미 협회에서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모색 중입니다.”

그들은 단지 이렇게 말했다.

“이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기밀이 상당수 포함된 내용이라 공개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본 협회는 언제나 지구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스템 오류에 관한 건 역시 반드시 해결하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우리 믿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말. 황당해할 법도 하지만 여러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번 정부와 협회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찝찝해하면서도 순순히 물러났다.

“뭐, 이런 식으로 기밀 숨긴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시민들이 몰라야 하는 내용이 있나 보지.”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실까, 그만들 호들갑 떱시다.”

각성자도 비각성자도 ‘약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았다. 그것은 일종의 계약이며, 그렇기에 말 한마디에도 어그러질 수 있다는 점까지도 말이다. 내용을 숨기는 것도 이해가 갔다.

특히 도시민의 경우 정부와 협회에 도움받지 않은 사람이 더 적었다. 영원의 상징이 언제나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지구를 지탱하고자 노력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없었고 말이다. 그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점차 진정해 갔다.

“별 큰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건 그래.”

잠깐의 오류로 놀랐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피해를 본 사람이 전무하다는 점도 컸다. 시스템이 영구적이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게 뭐 어떻다고.

“협회가 알아서 해줄 거야.”

“대통령님도 적극적으로 대처 중이라고 하셨잖아.”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뭐가 있나.”

결국 중요한 것은 실리였다. 실질적인 피해만 없다면 아무 문제도 없는 해프닝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또 다른 재앙의 시작만 아니라면야 상관없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영원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

인형 같은 표정의 협회장, 단해라가 웃으며 말했다.

“집합하죠.”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대통령 각하와 우리 영원의 상징이 개인적으로 맡아 확인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어디 보자….”

그녀의 고개가 기울어졌다.

“일이 재밌게 돌아가네.”

미소를 지었으나, 별로 재밌어 보이는 얼굴은 아니었다.

* * *

“그래, 나다 시발.”

자신이 이번 사태의 원흉일 거라는 정해운의 당당한 발언에 서서희가 제 이마를 쳤다.

“너는 그만한 사고를 치고 그런 말이 나오냐.”

“안 당당하면 뭐 어쩔 건데.”

“네가 ‘지오의 초상화’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건 보고받았어.”

“시발 같은 쥐새끼들 진짜 더럽게 부지런하네.”

“쥐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 그 사람의 영향이겠지, 이번 일은?”

머뭇거리던 서서희가 이어 물었다.

“…기억을 떠올린 건가?”

“그건 아니야.”

정해운이 고개를 저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떠올린 것도 같았는데 다시 까먹었어.”

그에 단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지오의 초상화’가 보여준 배려일 것이고?”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 울고 있더라. 분명 그 수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으니….”

“무언가 손을 썼다는 거겠지.”

“제정신이 든 순간도 너무 어색하고. 체감으로는 그냥 자다 깬 것 같았는데 상황이 영 이상했다고 해야 하나. 그 사람이 내 눈을 가렸다가 떼어낸 다음에… 왜 울고 있냐고 물었어.”

‘왜 울고 있어요?’

“난 모르겠다고 답했고.”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당시의 위화감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내가 몽유병인 줄 알았을 거야. 선생님의 멱살을 잡고 있었거든, 내가. 진짜 개같아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어도 상대는 초상화로 돌아갔어.”

"그래도 생각보다 친절하네, 그 초상화 선생님은."

단해라가 빙긋 웃었다.

"이번 사고의 원흉은 확실히 정해운 네가 맞아."

"좀 나댔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정해운은 저자세로 나가지 않았다. '지오의 초상화'를 집에 들이기 전부터 그 위험성을 미리 친구들에게 고지해 두고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정도면 상정 내의 사건이었다.

다만 이 상황의 모든 것이 그들의 생각대로인 것은 아니었다. 이번 사건의 문제는 그 발생 속도에 있었다. 정해운이 앓는 소리를 냈다.

"하, 시발… 상상 이상으로 빠른데."

"집에 초상화를 들인 지 며칠이 지났지?"

"대략 3주 되어가네, 이제."

"3주 만에 정해운은 '약속'의 대가를 떠올렸어."

단해라가 제 입술을 톡톡 두드렸다.

"…그 초상화가 정말 우리에게 큰 의미였나 봐?"

여태까지 약속의 대가로 바친 것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온 적은 없었다. 이번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정해운이 어지간한 정원사가 아닌데도 이렇게 되었다는 건 고민해야 할 일이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차은혜를 보았다.

"우리 각하께서는 의견 주실 것이 없으려나?"

"뭐어… 그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진 사람이 맞기는 해서, 따로 할 말이 없네."

"하긴 너는 가장 마지막까지 정해운과 초상화의 동거를 반대했던 사람이었지."

"일이 진행된 이상 어차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했어."

차은혜가 허탈한 숨을 내쉬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 사람에게는 부디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정해운도 과거보다는 새롭게 쌓을 신뢰에 주목할 테니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지. 했는데, 역시 아니었네. 진짜 황당하다."

"다시 말해 둘 모두 자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기억을 떠올렸다는 것이겠네."

서서희가 알 만하다는 듯 끄덕였다.

"선생님과 정해운의 궁합이 워낙 좋았다던가?"

"정원과 정원사의 조합이 안 맞을 리가 없기는 해."

정해운도 그 의견에 동의했다.

"나나 그 선생님이나 모두 신비와 가까운 존재인 만큼 '약속'이 쉽게 흔들렸을 것이고. 내가 잠들어 있던 그 몇 시간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니 아마 꿈을 꿨겠지. '약속'에 바친 대가에 관한 꿈이었을 거야."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기도 하고."

"…역시 다시 거리를 두는 편이 나은가?"

그렇게 말한 정해운의 얼굴이 조금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런 식이어서야 '지오의 초상화'를 신뢰할 수가 없어. 인간의 자아를 가진 신비는 변수가 너무 많다고. 믿을 만

한 구석도 없이 가만히 둘 수는 없었어.”

“너의 입장을 이해해, 정해운.”

단해라가 위로하듯 말했다.

“너는 지구를 수호하는 정원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 우리 모두 그것을 알아. 너와 초상화의 동거가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모른 채로 동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

그러고서 그녀는 제 뺨을 손으로 가볍게 감쌌다.

“하지만 확실히 이번 일로 주의해야 할 점을 깨달았네. 그 존재는 우리가 잊어버린 향수를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나 봐. 모른 척 지나가기에는 ‘약속’에 관한 구멍이 너무 커져서 결국 시스템이 막지 못했던 걸 수도 있어.”

“뭐라도 내가 기억하고 있었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미안하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분명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을 텐데 정말 자다 깨어난 사람처럼 기억이 텅텅 비었어.”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지.”

단해라는 눈을 두 번 정도 깜박였다.

“일단... 방침을 정해보도록 할까?”

“방침이라, 좋지. 좋은데 정확히 무슨 방침?”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자는 거였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

“그 존재를 어떻게 대할지도.”

이대로 가만히 둘 수는 없었다. 수습이 빠르게 잘되었다고는 해도 언제까지나 이런 위험성을 남겨둔 채 지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확고한 방침이 필요했다.

“이번 사태는 아주 간단해.”

단해라가 손가락을 까닥거렸다.

“과거를 되돌려 받으면 시스템을 잃고, 시스템을 유지하면 과거를 잃는 거지. 우리는 여태껏 당연히도 후자를 선택한 것처럼 생각해 왔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 깨달았어.”

그들의 패착이었다. 기억을 잃었기에 ‘서지오 선생님’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몰랐다는 점이 말이다. 그들의 몸과 영혼에 남은 그의 영향은 아직까지도 남아 그들의 온갖 것에 힘을 실었다.

“우리가 오만했던 거야. 없는 과거가 되었으니 앞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이번에 정해운 길드장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네?”

“그러니 우리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다시 앞으로의 행동 양식을 정해야 한다는 거겠지.”

서서희가 동의하듯 끄덕였다.

“해라의 말이 맞아, 단순히 무시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행동도 달라져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대비 없이 손해만 보게 될 거야.”

“흠, 그렇다면....”

단해라가 고개를 기울였다.

“초상화를 죽이긴 어려워 보이니 아예 봉인하는 건 어떨까?”

잠시 정적이 감돌았다.

“.......”

“어머, 조용해져 버렸네.”

“…넌 진짜, 야, 너는 정말….”

“내가 너희를 배려하지 못하고 무신경하게 말했다는 점을 인정할게.”

“무슨 생각으로 한 말인지는 알겠는데 말이지….”

정해운의 얼굴이 떨떠름해졌다. 서서희도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차은혜로 가서는 아예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은지 그녀는 단해라를 보며 충격받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 아, 안 돼, 그건 좀 너무하잖아.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우, 우리 선생님인데…! 야 진짜 해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아…!”

“진정해, 은혜야. 생각 없이 꺼낸 말은 아니었으니 너희들도 그런 표정 짓지 말고.”

단해라가 차분하게 제 친구를 토닥였다.

“극단적인 대처라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 회의에서 언젠가는 나와야 할 말이었어, 그렇지 않니? 선생님과 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쪽이라.”

“나도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 거기에 동의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내 비위로 그런 짓은 진짜 못할 것 같아. 그게 애초에 가능한지를 넘어서 그냥… 하….”

차은혜가 애써 우는소리를 집어넣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감정에 매몰될 수는 없었다. 현실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해야 했다.

“…일단 봉인은 불가능할 거야.”

“은혜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단해라가 순순히 끄덕였다. 이 중 ‘시스템’과 ‘선생님’, 그리고 ‘과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건 차은혜였다. 그런 그녀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맞았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

망설이던 차은혜가 입을 열었다.

“…어차피 ‘지오의 초상화’는 해운이의 집을 떠나 다시 초상화로 돌아갔다고 했지. 여러모로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 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선생님과 대화를 좀 해봐야겠어.”

“어머, 그래 줄 수 있겠니?”

“분명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벌였을 텐데 그게 정확히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거든. 학생에게 모든 일을 알려주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 초상화가 이번 사태를 일부러 벌였을 거라고 확신해?”

“최소한 모르지는 않았을 거야.”

한숨이 절로 나와 차은혜가 입가를 쓸었다.

“예전에도 늘 그랬거든.”

자신의 행동이, 그리고 제 눈에 보이는 과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는 늘 알았다. 본인이 의도한 건 적을지라도 그 끝을 알고서 그 흐름에 몸을 맡기던 사람이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었겠지.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 대화가 필요했다.

“…….”

조금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다.

왜 이렇게 불안하고, 무서운지 모르겠다.

* * *

“…….”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알잖니, 나는 생각이 없어.”

“이제 저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주는 착한 학생이 아니라고요.”

“나를 향한 믿음이 이렇게나 없다니.”

차은혜의 단호한 눈초리에 지오는 마음이 아팠다.

“슬프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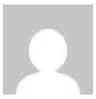
진짜 생각이 없는 게 맞긴 한데, 그렇게 말하면 멱살이 잡힐 것 같았다.

‘뭐라고 말해야 안 혼나고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지는 어느 날 밤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23)"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24)

324

제324화

변명을 좀 해보자면.

"...난 완벽하지 않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랬다.

이건 당연한 말이다.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겠는가. 지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제 학생들의 생각과 달리 매우 허술했다. 아무 생각도 없고, 고민을 해봤자 짧고, 실수도 많이 했다.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딱히 착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뿐만도 아니었다.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늘 그렇게 될 수도 없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한다. 적응은 곧 변화를 뜻했다. 지오 역시 그랬다. 무엇보다 그는 여러 '지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빈틈이나 꼬인 부분도 여럿이었다.

특히 이번 도우미였던 '제오르제'는 참 상당한 친구였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

"난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에 차은혜가 헛웃음을 뱉었다.

"초상화가 되었는데도요?"

"나도 그건 잘 몰랐는데 살다 보면 사람이 초상화가 될 수도 있는 거더라."

"항상 선생님이 벌이는 일은 커다란 목적과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래도."

정말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상황에 있어 꼴리는 대로 살았다. 그때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다. 그뿐이었다. 차은혜가 생각하는 대단한 음모 따윈 없었다.

하지만 그런 지오의 말을 차은혜는 믿기 어려운 듯 보였다.

"...일단 그렇다고 넘어가고."

“전혀 믿어주지 않네.”

“정해운이 기억의 일부를 떠올렸는데, 거기에 얼마나 일조하셨나요?”

“역시 나 지금 혼나고 있는 거 맞지?”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기억이 안 나.”

“그건, 저희의 ‘약속’과… 상관이 있는 말인가요?”

“내 친구 중 한 명이 장난을 쳤다는 것만큼은 확실하지.”

유력한 용의자는 역시 ‘제오르제’였다. 지오는 아직 그와 완벽하게 동화되지 못했다. 현재 동화율은 ???%라는데 아무리 봐도 헛소리였다. 이 몹쓸 장난꾸러기 같으니.

“정확히 나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뭐니?”

“일단은 선생님이 무슨 생각으로 정해운과 동거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 동거 해운이가 먼저 제안했다는 건 알고 묻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상황을 유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억울해서 나는 살 수가 없어, 은혜야….”

정말 생각 없이 수락한 걸 뭐 어쩌란 말인가. 학생에게 혼나고 싶지 않아 머리를 쥐어짜 보았지만 그럴싸한 답변은 떠오르지 않았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었다.

“나를 이렇게 심문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해운이가 기억을 일부 떠올렸었던 탓인 것 같은데.”

“선생님도 잊어버리셨다니 제가 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맞아요, 아마 꿈을 통해 과거를 떠올렸고 그 영향으로 잠시 시스템에 오류가 났다가 복구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 복구도 내가 했을 것이고?”

“사실 선생님 아니면 시스템을 복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해라에게도 어려운 일이라고요.”

“아, 마침 그 부분에 대해 든 생각이 있는데.”

지오가 자신을 가리켰다.

“혹시 그 시스템이 나니?”

“…….”

차은혜가 두 손으로 제 얼굴을 덮었다.

“우는 건 아니지, 은혜야?”

“울고 싶어요….”

“저런, 그렇다고 울지는 말고.”

“선생님의 이런 점이 저를 울게 만들어요.”

“목소리 멀쩡한 걸 보니 아직 안 우네.”

“제발, 이런 건 좀 더 분위기 있는 상황에서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분위기까지 잡아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구나.”

지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요?”

“내 시스템만 유독 남들과 다른 것 같았다는 점? 꼭 자아가 있는 것처럼 굴길래 혹시나 했지. 이 안에 있는 게 사람인가 AI인가 싶기도 했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한데.”

“초상화 안의 세계가 너무 내 취향이었다는 점도 걸렸어. 그 안에 있는 여러 동식물은 정말 내 취향이 많았거든. 내가 그 오두막 그림을 그린 건 맞지만 나머지는 그린 적이 없었고….”

“그래서 본인이 그렸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다?”

“나 아니면 누가 이런 걸 그렸겠니? 이외에도 이것저것 있기는 했지. 이 시스템은 유독 나랑 잘 놀아줬어.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지기도 했고….”

아무튼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그날 불에 타서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나왔고, 너희와 시간을 보내던 중 불운한 사고로 죽었는지 어쨌는지 크게 상했고, 너희는 그런 나를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

“왜 겁을 먹고 그래.”

창백해진 차은혜의 얼굴에 지오가 고개를 기울였다.

“난 화가 나지 않았는데, 꼭 혼날 학생처럼 굴고 있구나.”

“…화를 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내 반응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해?”

“전반적인 흐름은 선생님이 추측하신 대로가 맞지만, 그 세세한 부분은… 아직 모르시잖아요. 그날의 기억을 정확히 떠올리신 것도 아니니까요.”

“떠올리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차은혜가 작은 숨을 뱉으며 웃었다.

“아니, 물론… 본인을 재료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데 아무런 유감도 표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네요. 하긴 선생님은 늘 그러셨죠. 매사에 무던하고 삶이 재밌어 보였어.”

“내 진실된 모습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기쁘구나. 그래, 그걸 아는데도 왜 내가 무언가 굉장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고민했을까? 선생님은 잘 이해가 안 되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랑 이거는 좀 별개인 것 같은데….”

어색하게 웃은 차은혜가 고개를 들어 지오를 보았다.

“사실 선생님이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예요.”

“너희가 떠올렸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걸까?”

“그럼요, 그날 ‘시스템’을 만들면서도 저희 역시 혼란스러웠거든요.”

“음… 일단 나는 화내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차은혜는 안심하지 않았다. 분노하는 것과 실망하는 것은 얼마든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그

녀의 선생님은 저희에게 실망하게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정도는 진작 예상해 둔 바였다. 이제 와서 그것이 차은혜를 멈춰 세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잠시 심호흡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던 탓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죠."

"이런, 말 돌리는 게 티가 났나."

"이제 저도 그런 걸로 휘둘리지는 않아요. 여태껏 애처럼 굴긴 했지만 정말로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대통령 각하이시니 어련하시겠습니까."

"쌤이 그렇게 말하면 좀 소름 끼치는데."

"하지만 정말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몇 없어서…."

진실이 영 궁색하다고 거짓말을 해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지오는 깊이 고민했다. 이대로면 둘의 대화는 영원의 약속이 다 끝나고 남을 때까지도 이어질 것이었다.

"내 목적을 물었던가?"

목적이라.

"…정원사 및 헌터분들의 복지 향상?"

"…그 외에는요?"

"포장마차 운영으로 낭만 채우기?"

"그리고?"

"흠, 글쎄."

지오의 눈이 자연스럽게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었다.

"게임 중독자 퇴치?"

"……."

"은혜야?"

"…잠시만 있어 봐요, 쌤."

차은혜가 주섬주섬 선글라스를 꼈다.

"준비됐어요, 계속하시죠."

"내가 너무 잘생겨서 눈이 부셨어?"

"사람이 너무 잘생기면 물리적으로 눈이 아플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방금 깨달았지 뭐예요. 얼굴도 기억 못 한다는 포장마차 주인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과연 그런 이유가 있었네."

"반응이 너무한데, 너무 매몰차서 나 마음이 아파…."

"저는 눈이 아프다니까요?"

생긴 건 '서지오'에서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다. 그러니 이 아찔한 목소리나 뇌를 녹이는 외형 등은 전부 이 분홍 초상화의 몫일 것이었다. 다행히 차은혜는 '매혹'을 방지하는 아티팩트를 몇 개 가지고 있었다.

그에 제오르제가 물었다.

"굳이 그게 필요할까?"

“이렇게라도 안 가려두면 선생님이 하는 말의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하지만 저는 준비되었으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선생님.”

“우리 은혜는 반응이 참 다람쥐 같고 귀엽기도 하지.”

“어우, 씨. 왜 그 모습으로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내가 아는 서지오 선생님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라요. 그 얼굴로 그렇게 웃으니까 내가 너무 낯설어서 괴로워.”

“정 그러시다면야 나는 각하의 말에 따르겠는데… 으음.”

턱을 긁적인 지오가 고개를 기울였다.

“이렇게 되어도 잘 기억이 나는 건 없네.”

“아, 뭔가… 정해운의 꿈에 관한 내용을 떠올려 보려고 그 모습이 된 거였어요?”

“완전히 동화되지 않는 이상 제오르제 씨는 ‘지오의 초상화’라고 부르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만약 계략과 음모를 짠다면 다 이 분홍 머리가 그런 거니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의미였지… 이해가 되려나?”

“그래 봤자 다 내 선생님인데 뭘 어쩌라는 거예요….”

“역시 우리 은혜가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혜안이 굉장하구나. 이 선생님은 너의 성장이 매우 기뻐, 언제 이렇게 기특하게 컸을까?”

“말고.”

“이상하게 이 모습이 되면 다들 더 매몰차진단 말이지.”

지오가 으쓱였다.

“미안하지만 이 모습으로도 잘 떠오르는 건 없어, 아까 말했다시피.”

“방금 말한, 그… 게임 중독자이니 뭐니는 무슨 이야기였어요?”

“아, 그거? 그거는 아무래도….”

잠시 고민한 제오르제가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너무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라고.”

제오르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참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이었다.

“아무리 큰 도움을 주는 교재라고 해도 그렇지 그것에만 의지하다니, 정말 멍청하고 한심한 일이야… 나는 내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가 되어 버리지는 않기를 원했어.”

“…….”

차은혜가 제 팔을 쓸었다.

“…뭐지? 왜 비사벌 그 아저씨가 떠오른 거지?”

“아하하, 내 아버지라서?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

“저한테까지 구라 치지 마요 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이 정도는 받아주시지 않을까?”

“제발, 장난치지 말고. 그게 선생님 목적인 거예요?”

머뭇거리던 차은혜가 되물었다.

“시스템을 삭제하는 것?”

“어린아이들이야 네발자전거를 타는 게 당연하지. 누구나 처음부터 능숙할 수는 없는 법이거든. 나도 그걸 알아.”

“그런데요?”

“기왕이면 어른들이 두발자전거를 타는 게 보고 싶다는 내 개인적인 욕심일 뿐이야.”

그러고는 황홀한 듯 그가 볼을 붉혔다.

“더 바랄 수 있다면 외발자전거를 타는 모습도 보여줬으면 해.”

“대체 무슨 그런….”

“30년 정도면 충분히 독립할 시간을 줬다고 생각해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우리 은혜 양? 이 세계에 있어 시스템이 너무 과보호라고 생각하지 않아?”

“안 돼요, 시스템은 존재해야 합니다.”

“물론 내내 네발자전거만 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두발자전거를 타길 바라는 건 너무한 일이겠지. 내가 그렇게까지 냉혈한도 아니고….”

“아니면 뭔데요.”

“너무해, 이상하게 다들 나한테만 너무 까칠하다니까?”

짐짓 상처받았다는 듯 우수에 찬 눈을 한 제오르제가 이내 초승달처럼 웃었다.

“그냥, 그렇다고. 내가 보기에는.”

“…헌터들에게서 시스템을 앗아가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니?”

“하지만….”

“아니지, 그저 애써 모르는 척을 했을 뿐이야.”

제오르제의 고개가 기울어졌다. 그리고 이내 닿아오는 낯선 시선과 표정. 차은혜는 그 순간 문득 위화감을 느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몰라도 눈앞의 사람이 제가 아는 선생님이 아니게 되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황홀한 보석안이 곱게 휘어졌다.

“왜 그랬을까?”

그가 정곡을 찔렀다.

“넌 지구의 명운보다는 네 선생님이 더 중요했지.”

“뭐….”

“네 선생님이 어떤 경로로 어떤 형태가 되어 어떻게 지내든, 그가 너희의 곁에 남아 있는 것만이 더 중요해서 그랬을 거야.”

“…아니, 나는….”

“아, 너는 욕심쟁이구나… 평온하게 떠날 수도 있었을 사람을 기어이 붙잡아 인간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게 만들었어. 그 누구도 네 선생님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도록 그 형상을 허상으로 빚었지. 그는 지금 인간일까? 예전의 모습은 남아 있을까? 과연 얼마나 변했을까?”

“…난….”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나 가? 글쎄, 나는 아직 ‘지오’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 하지만 참 슬픈 일일 거야. 아무도 나를 알아채 주지 못하는 허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끔찍하게 잔인한 말들.

“…….”

“잔인해라, 그치?”

어리고 약한 것을 너무나도 쉽게 휘두르는 눈웃음.

그에 차은혜는 확신했다. 이 존재는 그녀의 선생님이 아니었다. ‘지오의 초상화’가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최소한 이것은 아니었다. 이전의 것들과 전혀 다른 존재.

사랑으로 가득했으나 그것은 순수한 악의였다.

“…너….”

내 선생님의 몸을 쓰고 있는 무언가였다.

“…내 선생님 돌려내.”

“어라, 이제는 아예 악당 취급이네… 슬퍼라.”

“어쩌다 이런 악령 같은 새끼가…!”

“악령이라니, 네 선생님한테. 나 너무 마음이 아파.”

“그 누구도 시스템을 지울 수 없어!!”

그래서도 안 된다.

“내 선생님이야…!!”

“네 선생님은 여기 있잖니.”

“늘 여기에 있어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네 곁에 있잖아.”

“왜, 왜 그것마저 우리한테서 뺏어가려고 그래? 나는 이것조차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야?”

“아, 가엾어라. 나의 겁쟁이 친구들 같으니.”

“…안 돼요, 그러지 마요….”

이제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게 내 마지막 선생님이란 말이야.”

대화할 수도 없고, 그 모습을 찾을 수도 없고, 상태를 알아볼 수도 없는 반투명한 시스템 창. 그것뿐이었다. 그렇기에 ‘지오의 초상화’는 예기치 못한 기적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났던 것처럼 이 초상화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었다. 제 선생님을 흉내 낸 무언가, 아니면 정말 본인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결국 끝까지 남는 건 시스템뿐이었다.

“…….”

“저런, 이제는 정말로 우네.”

“…내 선생님 돌려줘요.”

“이런 식이라면 내가 서지오 선생님께 혼나겠어. 지오반니도, 아르지오도 나를 비난하겠지. 내가 새까만 친구에게 장난을 쳐서 지금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

“비난받으라 그래요.”

“나는 내가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으음… 억울해라.”

그는 차은혜의 옆자리에 앉아 그녀를 감싸안았다. 살며시 기대어 얇고 섬세한 손으로 느릿하게 토닥였다. 마치 나비의 날갯짓처럼 가벼웠으나 체온이 없어 소름이 끼쳤다.

제오르제는 차은혜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웃었다. 마치 애교를 부리는 어린 짐승과도 같은 행동이었으나 그것보다는 능숙하고, 계산적이었다. 또한 도발적이다.

이것의 본질이 '사랑'이라던가.

"내가 혼나지 않게 도와주겠어?"

"…싫어요."

"그럼 내가 예언 하나 해줄까?"

"하지 마."

"네 선생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아."

그가 속삭였다.

"그는 늘 여기에 있거든."

"……."

"망가트리고 묶어 두었으니까, 그렇지? 정말 너무하네…."

안심이 되었기에 끔찍한 말이었다.

"너희가 그를 박제했어."

* * *

"……."

"…우니?"

"선생님."

"응?"

"늘 검은색으로 있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쌤은 우리 쌤이야."

"그야 당연하지."

"…늘 여기에 있으니까?"

"늘 너희 곁에 있을 테니까."

"…혼낼 거예요?"

"안 그러기로 약속했잖아."

"혼내도 돼요."

"갑자기?"

"대신에 떠나지 마요."

"정말 갑작스럽네."

"우리 버리지 마세요…."

"……."

서지오가 물었다.

"...내가 나쁜 말을 했어?"

"...아뇨."

아마 아닌 듯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25)

325

제325화

시스템이 사라진다는 것.

그건 분명히 끔찍한 일이었다. 지구로 밀려들어 오는 그 수많은 재앙으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왔던가. 바로 그 시스템 덕분이었다. 그게 아니면 헌터는 헌터가 아니었다.

"……."

하지만 차은혜의 공포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것의 말이 맞아.'

그것, '제오르제'의 말.

차은혜에겐 지구의 명운보다는 그녀의 선생님이 더 중요했다. '영원의 약속'은 지구를 위함도 분명 있었으나, 결국 그조차도 선생님을 보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물론 지구를 지킨다는 사명감이 없던 건 아니다. 차은혜 스스로도 어쩌면 조금의 자부심을 느꼈다. 이 나라를, 그리고 세계를 지키고자 했던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정말로 그랬나?'

거울로 가득 찬 침실에 홀로 앉아 차은혜는 생각했다.

'내가 그런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게 맞아? 애초에 그런 게 있기는 했어?'

욕심, 욕심, 모든 게 욕심이었다.

"미치겠네…."

그녀의 선생님은 정말로 특별했다. 얼마나 특별하냐면, 그가 그렇게 죽을 경우 지구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정도였다. 그렇기에 그 무엇을 위해서라도 '영원의 약속'은 진행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들의 아집에 있었다. 최소한 이런 식으로는 선생님을 보내줄 수 없다는 아집. 집착. 억지. 또한 그 선택에 선생님의 의견은 없었다.

'애초에 뭐라 말해줄 상태도 아니셨지.'

단지 그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들었던 선생님의 말은 그것이었다. '나는 늘 여기에 있어'라는 그 말.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그 곁에 있어 주겠다던 다정한 이야기.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하아...."

못난 학생들이다.

'기억을 떠올리신다면 선생님도 우리를 곱게만 보지는 못할 거야.'

변명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들은 선생님께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한 것을 넘어 그를 재료로 시스템을 만들었다. 사람을 박제했다.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나 잘 어울리는 놈들이 있을까.'

그래 놓고서는 그날의 기억마저도 잊어버리다니. 대가가 필요했다지만 사실상 도망이었다. 최소한 홀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차은혜는 그렇게 생각했다. 다들 무서웠던 것이리라.

그렇기에 정말 슬프게도 차은혜는 제오르제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그들은 참 어리석고 잔인한 짓을 했다. 세상에서 제 선생님을 지우고는 떳떳한 사람인 양 영웅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날 선생님이 그렇게 되지만 않으셨더라면 이 자리엔 그분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내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지.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뭘 잘했다고.'

새삼 자책했다. 근 몇 년 동안은 멍했던 뇌가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단지 의무감과 책임감, 약간의 뿌듯함으로 웃는 표정을 지었을 때와는 달랐다. 마치 대통령이 되기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

차라리 그의 말에 따를까?

'제오르제의 말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시스템은 없어질 수도 있어.'

그게 옳을 수도 있었다. 가장 위대하지만 가장 비참한 형태로 박제된 그들의 선생님을 해방해 주는 것이다. 이 이상 그들 선생님을 욕보이지 않고 이대로 놓아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하지만 몇 번이나 그렇게 생각해 봤자 나오는 답은 같았다.

"...안 돼."

아직 시스템은 필요했다.

* * *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단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시스템이 사라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아직은 너무 일러."

"...역시 그런가?"

애써 이어지는 생각을 정리한 후 협회를 방문한 차은혜가 어색하게 웃었다.

'이게 당연하다면 당연한 대답이지.'

그들이라고 시스템이 영구적이지 않음을 왜 몰랐겠는가, 그 완벽해 보였던 선생님마저도 그렇게 망가지셨는데. 세상에 영원한 것 따위는 없었다. 그들의 손에서 빚어졌다면 더더욱 그랬다.

그렇기에 몇 세기고 먼 미래를 꿈꿨다. 최소한 시스템이 필요 없어져도 될 그날을 위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들 스스로가 인간처럼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주 먼 미래를 위해서.

그 생각을 알았는지 단해라가 말했다.

"물론 은혜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시스템이 없는 미래를 준비해 왔지."

“…응, 맞아.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대재앙으로부터 고작 32년이 지났다.

“사람들은 이제야 가까스로 세상을 뒤덮은 끔찍한 신비에 적응했어. 지방으로 가면 그조차 못한 사람들이 더 넘쳐나고.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사라져 버리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 아닐까?”

그렇게 말한 단해라가 눈을 두 번 깜박였다.

“검은 망토의 인격 중 하나인 ‘제오르제’가 그 잔인한 일을 계획 중이고?”

“내가 파악하기로는 그래. 행동 동기는 일단 본인 흥미를 위해서인 것 같고. 말끝마다 사랑이니 낭만이니 이야기하는데 잘 이해는 안 돼.”

“조금 곤란하게 되었네, 수집가와 비슷한 성향이라면 꽤나 유해할 것 같아서 말이야. 특히나 제오르제 씨는 수집가처럼 선을 지켜줄 것 같지도 않고.”

“본질적인 부분은 조금 다른 것처럼 보였지만… 뭐, 남들이 보기엔 거기서 거기려나.”

차은혜는 자신이 보았던 분홍 머리 남자를 떠올렸다. 전반적으로 색채가 옅음에도 참 화려한 인간이었다. 나긋하고 느릿하게 속삭이던 음성은 꼭 천사의 탈을 쓴 악마와도 같았다.

“…정말 흥미를 위한 목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제오르제 씨는 검은망토와는 거의 별개의 존재이고?”

“그것만큼은 확실해, 그건 선생님이 아니니까.”

짐짓 다정한 음성이라는 베일에 가려져 있던 순수한 악의.

“뭐라고 해야 하나….”

잠시 고민하던 차은혜가 어렵게 결론을 내렸다.

“…악귀가 들렸다?”

“악귀가 엄한 사람 몸에 들려 온갖 질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닌 사례는 적지 않지. 네가 말한 제오르제 씨를 그런 경우로 봐도 될까, 은혜야?”

“당장으로서는 그래.”

“흐음, 당장으로서는?”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됐다.

“너도 이전 ‘아르지오’의 사례를 알잖아. 당시에도 그는 악신의 권위로 지구를 식민지 삼으려 했던 것 같았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세상에 ‘분노’를 가르치고는 잠잠해졌잖아.”

“하긴 그와 같은 경우일 수도 있겠네.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적의를 사서 그를 통해 무언가를 유도하려는 가능성도 있어. 하지만 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이 안 좋은걸?”

“아무리 의도가 좋을 수도 있다고 한들 제오르제는 좀, 많이… 얄밉네.”

차은혜라고 잘한 것은 전혀 없다만, 제오르제는 좀 여러 의미로 쓰레기 같았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을 속삭여서 사람을 홀린 다음, 맘껏 가지고 놀다가 유유히 떠나갈 것 같은 인상이었다.

“…바람둥이 같고.”

“귀여워라.”

“어느 부분에서…?”

“표정과 달리 깜찍한 말을 하길래.”

“아니, 하지만 그보다 더 적절한 단어를 못 찾았거든….”

“해운이는 그자의 본질이 ‘사랑’일 거라고 말하던데.”

“나도 신비의 인성을 평가하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알기는 해.”

그래도 말이다.

“그래도 진짜, 음, 쓰레기 같아.”

“안타깝네.”

“달콤하게 웃으면서 가스라이팅할 것 같아서….”

물론 제오르제가 그녀에게 가스라이팅을 한 건 아니었다. 전날 밤 그가 차은혜에게 속삭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 단지 워낙 얄미워서 나쁜 놈처럼 보이는 것뿐이었다.

차은혜는 애써 자신의 사감을 지우려 노력했다. 팩트 폭력을 당했다고 상대를 고깝게 보는 것은 확실히 치졸한 일이긴 했으니까.

“아무튼 검은망토와 제오르제는 별개의 존재야. 이건 ‘지오의 초상화’ 담당이라던 유성운 큐레이터를 불러 확인해 봐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은망토 본인도 제오르제를 완전히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

“그 부분은 내가 수집상에 연락을 해볼게.”

“연락만 해줘, 유성운 큐레이터와는 따로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음, 이해했어.”

염력으로 메모한 단해라가 차은혜를 보았다.

“제오르제가 시스템을 없애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한 장난인가, 그럼?”

“어쩌면 그런 장난도 그의 사랑 중 하나일 수도 있겠지.”

“사랑이라… 상당한 로맨티시스트가 등장했는걸, 일이 재밌게 돌아가네.”

“네가 직접 그 사람 보면 딱히 재밌지는 않을 거야.”

손에 눌어붙은 꿀처럼 묘하게 찝찝한 면이 있는 존재였으니 말이다. 그 화려한 인상을 잠시 떠올리며 얼굴을 찡그리던 차은혜가, 이내 팔짱을 끼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는 지구상의 시스템을 없애고자 하고 있어. 말하는 걸 들으면 아주 본격적인 것처럼 들리지는 않지만 또 모르지, 속내를 알 수가 없는 존재라서.”

“나는 네 안목을 믿어.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제오르제는 비유로 네발자전거를 들었어. 어른들이 나이 먹고 아직도 두발자전거를 못 타는 게 한심하다고. 그러니 시스템 없이도 사람들이 일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

“당장 이것만 들으면 대단히 건전한 목표로 보이네.”

“그리고 그 수단과 과정으로 우리의 약속을 건드리려고 해. 시스템을 제거하려면 ‘영원의 약속’을 무효화해야 하니까. 정해운과의 동거도 그 탓에 진행된 것 같던데.”

“네 말이 맞다면 생각보다 일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인데… 아예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지만 놀랍기는 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스케일이 커서.”

단해라가 웃었다.

“하지만 역시 이 세상에 시스템은 필요해. 가능하면 나는 그것이 아주 오래 있어 주었으면 하거든. 시스템이 없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했던 그때의 시절로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

“너도 기억하지?”

“…기억해.”

“갑자기 들이닥친 신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허우적대며 익사해 갔던 지구인들… 나는 그 꼴 다시 볼 생각이 없거든. 그런 의미에서 시스템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었지.”

시스템이 없다고 초능력자에서 민간인이 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경우 그들의 능력은 ‘능력’이라 불릴 수 없을 만큼 처참한 꼴이 되었다. 단해라는 과거를 떠올리듯 눈을 굴렸다.

“그때의 초능력은, 뭐랄까… 저주에 더 가깝지 않았나?”

저주, 혹은 천벌.

“어느 쪽이든 끔찍하진 마찬가지였네, 그렇지?”

“나도 그날이 다시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의견이 통했다니 아주 기뻐.”

단해라가 인형처럼 웃었다.

“해운이나 서희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뭔가 삐거덕거리는 기분이네, 요즘 상황.”

“우리가 언제까지고 의견이 같을 수는 없겠지.”

“뭐, 예전에도 싸움은 잦았잖아. 최근에야 좀 잠잠했던 거지.”

“하긴 우리는 워낙 개성이 강해서….”

“원래 친구끼리는 싸우고 그러는 거지. 나는 전부 이해해.”

차은혜가 소파에 등을 기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은 없었으면 좋겠네.”

예를 들자면, 우리 선생님이라든가.

‘그건 한 번이면 족하잖아.’

차은혜는 그들이 너무 끔찍해지지 않기를 바랐다.

* * *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

“좀 갑작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 안 해?”

“안 해.”

“진짜 황당하네.”

갑자기 쳐들어온 정해운의 질문에 서서희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그는 조금 눈을 굴리다가, 이내 작은 한숨을 내쉬며 떨떠름한 표정의 부길드장을 내보냈다. 이야기는 그들끼리만 해야 할 듯싶었다.

둘만 남은 응접실에서 서서희가 턱을 쓸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할까?”

“그래.”

“반반이야, 나로서는.”

“얌체 새끼야.”

“하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

서서희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확실히 기억을 떠올리고 싶기는 해. 그렇게 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떠올리고 싶어. 지금 이 상태로는 정말 신물이 날 정도로 찝찝하니까.”

“그리고?”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하루에도 수백 수천 건의 보고를 들어. 세상은 아직도 혼란스럽다고. 가까스로 던전이니 몬스터에 적응한 사람들에게 시스템의 부재란 너무... 가혹한 일이지.”

“여기서 내가 말하는 건데.”

정해운이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그는 초상화가 잠잠해진 사이 다시 폐교로 향했고,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서 돌아왔다. 그래도 초상화와 동거했던 덕분인지 조금은 냉정을 찾을 수 있었다.

애써 냉정을 되찾은 정해운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서서희에게 말했다.

“만약 그 시스템이 ‘서지오 선생님’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시발.”

“네가 욕하는 거 존나 오랜만에 보네.”

“...시발, 그래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 시스템은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야.”

“.......”

“다시 묻는다.”

무감정한 어조로 정해운이 다시 물었다.

“넌 어떻게 생각해?”

“...시스템이 없는 세상을?”

“아니, 선생님을.”

“잘 모르겠는데....”

“나도 그래.”

이내 정해운이 한숨과 함께 얼굴을 쓸었다.

“진짜 처음부터 꼬인 거잖아, 이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325)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25)"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26)

326

제326화

유성운이 지오를 찾아갔다.

“지오야 나 너무 힘들다.”

“저런, 무슨 일이십니까?”

“나 대통령실에 불려 갔다 왔잖아.”

아무리 비사벌이 제 새끼 끼고돈다 해도 한계란 있었다. 결국 비사벌은 아련한 얼굴로 유성운을 영원의 상징 앞에 제물로 바쳤고, 유성운은 순순히 제물이 되어 대통령을 뵙고 돌아온 참이었다.

그리고 ‘지오의 초상화’에 노크해 들어온 상태.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

“저런.”

“…….”

“…….”

잠시 말이 없던 지오가 식탁을 가리켰다.

“김치찌개 한 사발 하시겠습니까?”

“쌀밥도 있지? 내 자리 하나만 더 부탁해, 친구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평화로운 오두막이었다.

* * *

식사를 마친 유성운은 늘 그렇듯 말했다.

“우리 식당 하나 차리자.”

그에 지오가 고개를 저었다.

“이미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보통 남의 정원에서 하잖아, 아니면 등급 높은 던전이나.”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에 식당을 만드는 건 어떨까.”

이 맛있는 걸 유성운은 자주 못 먹는다. 사실 범인류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보편타당하긴 했다. 하지만 유성운의 이성은 망가진 지 오래였다. 든든했고, 따듯했고, 밥은 맛있었던 탓이다.

잠시 고민하던 지오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많이 피곤하셔서 헛소리가 나오시는 모양인데 미래에 후회하실 게 뻔히 보이니 제가 사전에 차단해 드리겠습니다. 실례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유성운 씨.”

“난 이렇게 단호한 네가 참 좋더라….”

쌀 한 톨 남지 않은 빈 그릇을 아련하게 바라보던 유성운이 물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도 그렇게 단호하게 굴었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할 게 많습니다.”

“친구 된 도리로 들어는 주마.”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오르제 씨는 상당한 장난꾸러기입니다.”

“호오, 과연 ‘장난꾸러기’처럼 귀여운 단어를 써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드네?”

“아무래도 제 학생의 심신에 안 좋은 말을 한 것 같더군요.”

지오 역시 그날을 떠올리면 섬뜩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학생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 울렸군… 그랬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너에게도 충격이었다는 거지? 대통령님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제오르제 말이야.”

“충격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순순히 말을 들어주지 않는 장난꾸러기라는 것은 이전의 술래잡기를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흐음….”

“동화도 얼마나 되었는지 감이 안 잡히더군요.”

동화율조차도 ???%라고 표시된다. 거의 완전히 동화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꽤 낮은 수치일 수도 있었다. 이런 유형의 적합자는 또 처음인지라 지오는 약간의 혼란에 빠져 있었다.

대충 상황을 이해한 유성운이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각하께서는 너한테 악귀가 들린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데 과연 비슷한 상황인가 봐.”

“슬퍼라… 아무리 그래도 악귀는 너무하지 않나요?”

“어우 깜짝아.”

“아 죄송합니다, 잠시 마음이 아파서 그만.”

“이러는 걸 보면 아예 안 섞인 것 같진 않은데 말이지.”

유성운이 아릿한 눈을 비볐다. 지오가 제오르제의 모습을 취했던 건 고작 5초 내외였으나 역시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다. 너무 화려해서 눈물이 다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지금은 지오가 '제오르제'를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유성운은 조금 애매한 표정이 되었다. 잠시 고민하던 유성운이 물었다.

"…네가 말하는 동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더라?"

"저와 동화되기에 적합한 분과 컨택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이 경우 적합자로 선정된 분은 애초부터 동화를 승낙하셨기에 갈등이 일어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하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제오르제' 씨의 경우 승낙은 하셨습니다만 저와 아주 긴 술래잡기를 하며 시간을 끄셨습니다. 결국 제가 이겨서 동화 중입니다만, 이를 통해 적합자는 거부권까지는 아니더라도 편법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동화조차도 이전처럼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오는 순순히 인정했다.

"그러니 사실상 완전히 동화되기 전까지는 이중인격인 상태라 보시면 편하시겠습니다."

"이중인격이라."

"완벽한 비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동화 중인 저의 상태를 설명하기 가장 쉬운 단어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분들을 통해서 초상화인 저의 위화감을 지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동화가 완료되면 또다시 온전한 초상화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 경우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하더군요. 편안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꾸준히 동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지만…."

"이번 제오르제 씨는 여러모로 달랐다는 건가."

유성운의 중얼거림에 지오가 눈을 깜박였다.

"그래도 위화감을 지우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작 '제오르제' 씨는 그다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데도 말이야."

"…아뇨, 그 정도면 충분히 평범한 사람의 축에 속합니다."

"…이번에도 너의 그 너른 기준이 반영된 생각인가?"

"공작새처럼 번쩍거리는 것을 제외하면 초상화스럽지는 않습니다."

"흠, 그 부분은 생각해 보지를 못했네."

확실히 그럴 수도 있었다. 유성운을 비롯한 여느 인간들은 제오르제의 파격적인 외양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보이는 것에 홀려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그렇게 생각했던 유성운의 미간이 살며시 찌푸려졌다.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너무 안 평범한 사람처럼 굴고 있지 않니, 제오르제?"

"…그 모습이 되면 이상할 정도로 들뜨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정원답게 굴었어? 그림자는 왜 계속 까먹는 거지? 무게감은 언제 생기는 거야, 꽃밭에서나 날 법한 꿀 향기는 또 뭐고."

"아무래도 그 부분 역시 들뜸의 한 영역이라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대체 그게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는걸."

"음…."

조금 고민하던 지오가 모습을 바꿀 때의 상태를 설명했다.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 나만 좀 위험하게 들리니?”

“그렇게까지는 위험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악귀 들린 것 같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유성운은 조금 속이 쓰렸다.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명치께를 손으로 살살 쓸었다.

“음, 그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어. 나는 프로 큐레이터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만 하지. 그래, 그렇기는 한데… 그렇기는 한데 지오야….”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

“정말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아프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현 씨가 그러던데, ‘순한 막내가 나쁜 물 들어서 온 것 같다’라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하여간 이 사람도 참 만만치 않은 인간이다 싶었는데… 하….”

“우십니까?”

“울 것 같아.”

얼굴을 벅벅 쓸어 올린 유성운이 다시 지오를 보았다.

“지금까지의 ‘지오’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었지. 너나 지오반니 씨의 경우에는 악의를 애초에 품지 않는 성격이고, 아르지오 씨는 악의가 딱히 악의 같지 않았어.”

아르지오의 악의는 미물을 기특하게 여기는 애정이 있었다. 그렇기에 지구에 ‘분노’라는 가르침을 주고자 했으니, 악의의 형태를 띠기는 했으나 그 본질은 가르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제오르제’는 뭔가 조금 달랐다.

“이전까지의 분들에 반해 제오르제 씨는, 좀….”

“인생을 많이 즐기시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슬프게도 그런 것 같더라, 왜 우리 길드장님이 떠올랐는지 몰라.”

“딱히 모르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알고 싶지 않은 기분인 듯하니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줘서 정말 고맙기는 한데 마음 한구석이 달달 떨리네.”

유성운의 미소가 애매하게 일그러졌다.

“그나마 우리 길드장님은 조금 나아, 그 사람은 선을 넘지 않으니까. 하지만 제오르제 씨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보여서 걱정이 되는 거지. 난 연약한 인간이거든.”

“저도 연약합니다.”

“제오르제 씨의 동화와 함께 양심도 내다 버렸니?”

“어쩜 그런 서운한 말씀을.”

“서지오 씨의 모습인데도 제오르제 씨가 비쳐 보이네, 신기하다.”

“그리고 비사벌 길드장님께서도 그다지 안전한 분은 아니십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아직’ 넘지 않은 것에 가깝습니다.”

“네가 내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 불안한 거야, 어느 날 제오르제 씨랑 길드장님이랑 손잡고 사고 치러 떠날까 봐. 아직 본격적으로 둘이 접촉한 건 아닌 듯한데 당장 내일 사건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저와 아버지를 얼마나 사고뭉치로 보는지 알겠습니다.”

“사고뭉치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길드장님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거 많이 참고 사셨어, 한 번 터지면 어디까지 터질지 모른다는 게 우리 길드원들 생각이야.”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

“반쯤 예언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나?”

“그럴 리가요.”

지오가 옅게 웃었다. 유성운은 그 모습에 약간의 위화감을 느꼈다. 아니면 신기함이라든지. 처음 만났을 때에 비해 확실히 ‘지오의 초상화’는 표현 방식이 다양해졌다.

이것은 아마 지금까지 동화한 ‘지오’의 영향일 것이었다. 부디 제오르제 씨의 도파민 중독까지는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지만 말이다.

‘역시 걱정되네.’

그런 유성운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오가 계속해서 말했다.

“저 역시 ‘제오르제’ 씨가 아주 얌전하고 조신한 모범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나는 잘 맞지 않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르지오’ 씨 때도 그랬죠.”

“…그렇지?”

“나는 ‘제오르제’ 씨가 악의를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악의와 지금의 악의를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아르지오의 악의와 제오르제의 악의는 구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했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유성운은 조용히 그의 초상화가 하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오는 여전히 옅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 악의를 품을 수 있는 생물이죠.”

“…너도 악의를 품어?”

“저는 꽤 많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뿐 분노와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 가족을 죽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말하며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한들 그가 밉지 않을 리가 없죠.”

“그건….”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고 말하실 겁니까? 내 소중한 사람을 해친 상대가 가능한 한 불행하길 바라고, 죗값 이상의 고통을 받길 원하며, 평생을 괴로움 속에 떨다 아무 의미 없이 죽어 스러지길 바라는 그 마음이?”

“…그건 아니지.”

유성운은 물었다.

“혹시 경험담인가?”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하, 그래?"

"다시 말하자면 저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

"네, 언제든 악할 수 있죠."

지오가 눈을 휘어 웃었다.

"제가 완벽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후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심해야겠네."

유성운이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 초상화는 친절하게 경고해 주고 있었다. 인격을 덮어쓴 이상 근원의 눈이라 한들 수많은 변수를 품고 있다. 그의 모든 것을 알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오르제' 역시 너일 것이다?"

"음...."

그에 미소를 지운 지오가 고민하다 대답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 아직은 아니야?"

"저와 '제오르제' 씨 사이에는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합니다."

"아르지오 씨의 때처럼?"

"하지만 참 장난스러운 분이라 진도가 빠르지 않네요."

그렇게 말하며 지오는 식탁 위에 엎어져 있던 허니를 쓸어 모아 유리병에 담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식곤증이 몰려오는 모양이었다. 유리병 안에 잘 담긴 허니를 지오가 제 품 안에 넣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어떻게든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기는 해."

"한번 건실하게 살아 보겠습니다."

참으로 든든한 다짐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326)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27)

327

제327화

지오와 유성운이 오두막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즈음.

"저를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비사벌 길드장님."

주현은 비사벌의 집무실에 와 있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하하, 세상엔 가끔 봐야 사이가 더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는 법이죠."

"후후, 비사벌 길드장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감동이네요."

"하하하."

"후후후...."

둘은 약속이라도 했다는 듯이 뚝 웃음을 그쳤다. 서로가 서로를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이미 얼굴에 쓰여 있었다. 사이좋게 상대를 경멸과 혐오, 애매한 미운 정으로 바라보던 둘 중 먼저 입을 연 것은 비사벌이었다.

"음, 뭐, 일단 앉으시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신다면야 앉아야겠죠."

"우리가 정답게 안부 인사를 물을 사이는 아니니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야 그렇게 해주신다면 참 편한 일입니다만...."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뜬금없는 말이었지만 여기까지 불려 온 이상 쓸데없는 장난이라 생각하긴 어려웠다. 어디까지나 을의 입장인 주현은 순순히 최선의 답변을 꺼냈다.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사벌이 샐쭉 웃었다. 주현의 짤막한 답변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비사벌은 반지 여럿 낀 손을 가볍게 휘적이며 다시 물었다.

"부유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오랜 세월을 보낸 노인 한 명을 죽이면, 온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지구가 멸망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구해낸 지구에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이라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 희생 위에 올라간 세상에도 가치 있는 것이 있을 테죠. 하지만 그것이 고결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주현은 자신이 하는 말이 결코 정답일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비사벌은 그럼에도 주현의 결정을 듣고자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면 상대의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일단 답변해 주는 것이 예의였다.

"당신이 죽으면 지구를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하지만 거기서 노인이 거부 반응을 보인다면 나는 그를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서 숨길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대체할 방법을 찾겠죠."

"하지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대체할 수 없어요. 시간은 흘렀고 이제는 제물을 바쳐야 하죠. 혹은 지구를 포기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자,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지구가 망하는 꼴을 보고만 계실 건가요?"

"…내가."

주현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비사벌은 놀란 표정이 아니었다.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주현 씨."

"일종의 변명이겠지만 그렇게 듣고 싶다면야 말씀드리죠. 어차피 그 노인은 죽을 겁니다. 지구가 멸망해서 죽든, 분노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죽든, 너무 연로해서 죽든 결국에는요."

"아하, 그러니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 죽여도 괜찮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산할 수는 있죠. 그리고 계산에는 옳고 그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비정한 연구원이었고, 이미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건 내 지난날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선택일 겁니다."

이번에는 주현이 물었다.

"그 노인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살고 싶다고 애원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더더욱 내가 그를 죽여야 했습니다."

최소한 주현은 그렇게 생각했다.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당연히도 비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선택이 제한된 상황에서 주현이라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은 몇 없었다.

"죄를 지어야 한다면 내가 나아요."

설령 그 죄를 온 지구의 사람들이 나눠 부담하게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큰 죄를 지을 사람은 결국 필요했고, 주현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렇게 내가 그 노인을 죽인다면, 나는 그때의 감각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노인의 비명이든 원망이든 유언이든 얼마든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며칠 몇 시에 그를 죽였는지, 내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랬고 그 노인은 어떤 심정이었을지, 그가 무슨 표정을 지으며 세상을 떠났는지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기억할 겁니다."

비사벌이 웃었다.

"그게 속죄라고 생각해서?"

“아뇨,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고작 기억하는 것이 당신의 차별점이라고 말할 셈입니까?”

“저는 그렇게 모든 것을 기억하고도 앞으로 나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더 나아질 수는 없었는지 끊임없이 연구할 것이고, 시간을 되돌리거나 노인께 보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나에게 감히 죽음을 허락하지 못할 정도로 그 과정에 몰두할 겁니다.”

“그러니 기억해야겠군요.”

“…잊으면….”

주현의 미소가 이내 애매하게 구겨졌다.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행위가.”

그에 비사벌이 흥미로웠다는 듯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현 씨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사벌 길드장님의 견해도 듣고 싶은데.”

“음? 무슨 그런 심심한 질문을? 나는 지구가 망하기 직전까지 노인과 세상을 가지고 놀다 마지막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수면제를 먹인 뒤 노인을 죽일 겁니다.”

“과연 전혀 심심하지 않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영웅 행세를 하겠죠, 정말 역겹게도. 그건 꽤 도움이 되거든.”

“여러모로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주현이 으쓱였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질문에는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단지 주현 씨라면 어떻게 했을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비사벌도 으쓱였다.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 해서.”

“…죄송하지만, 비사벌 길드장님.”

“말씀하세요.”

“혹시 이거….”

머뭇거리던 주현이 이내 물었다.

“제가 모시는 헌터님에 관한 이야기였을까요.”

“지금이라도 알아차리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부유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오랜 세월을 보낸 노인이, 서지오 씨입니까?”

“물론 그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오늘내일할 정도로 오랜 세월을 산 노인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 정도는 비유해야만 서지오 씨를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주현 씨, 영원의 상징은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비사벌이 꽤 즐겁다는 듯 웃음소리를 흘렸다.

“또한 소를 위한 소의 희생을 택했죠.”

“…….”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주현의 얼굴에 그린 듯 단정한 미소가 그려졌다.

“혹시 제가 영원의 상징을 미워하길 바라시는 겁니까?”

“아뇨? 단지 반응을 보고 싶은 것뿐입니다, 난 그렇게 사려 깊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려 깊다는 말을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그분들의 선택은 일견 주현 씨의 선택과도 닮아 있으나 조금 다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기억하기로 택했고, 그들은 기억하지 않는 방법을 찾았어요.”

비사벌은 ‘네가 무슨 말을 할지 안다’라는 듯 “아” 하고 말했다.

“물론 당시에는 그 방법뿐이었을지도 모르죠. 기억하지 않는 방법. 그렇기에 기억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을 수 있으나… 진상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이런 말을 하심으로써 저에게 무슨 반응을 기대하시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주현 씨의 솔직한 반응이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 한심한 성정을 타고난 주제에 여전히 사람을 못 믿는군요, 이건 참 슬픈 일이야. 그렇지요?”

그가 다시 한번 가볍게 웃음소리를 흘렸다.

“영원의 상징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아주 좋아하죠, 정말 많이요.”

“…제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군요.”

“사실 그들을 혐오합니다. 딱히 위선자라든가 하는 뻔한 방식으로 비난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그들은 실제로 영웅이 맞으니까.”

“하지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했다?”

주현이 고개를 기울였다.

“그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협회 연구소 출신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소가 희생되죠. 먼 미래의 평안이라는 대의를 위해서요.”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사벌은 이내 씩 웃으며 제 모든 날 것의 감정을 갈무리했다. 샛노란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휘어진 눈매에 어딘가 위화감이 든다. 그는 꼭 인간이 아닌 듯했다.

“…음, 그렇죠. 기왕 오신 김에 조언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언으로 저명한 수집가의 조언이라니 기쁘게 듣겠습니다.”

“예언이라고 할 건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을 말할 뿐인지라….”

말끝을 흐리던 그가 이어 말했다.

“앞으로 시스템이 조금 망가질 것 같습니다.”

“망가진다…? 이전의 오류 사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 주현 씨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세요, 막지 않겠습니다.”

“저처럼 나약한 민간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해 놓고서는 조용히 사고 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 같은 작자들은 다 그런 법이지. 그런 당신에게 이번 사태는 분명한 기회가 될 테죠.”

“그걸 비사벌 길드장님께서 어떻게 알죠? 눈이 좋아서?”

“방금 들었잖습니까.”

이내 권태로운 시선이 주현에게 박힌다.

“당신은 스스로 나아갈 자신이 있다고 내게 말했어.”

“…….”

비사벌의 샛노란 눈동자에 비친 주현은 말없이, 늘 그렇듯 성실한 미소를 지었다. 그게 답변의 전부였다. 비사벌은 그럴 줄 알았다는 티조차 내지 않으며 미소 없이 손을 휘적였다.

“…아, 역시 당신은 재미가 없습니다. 슬슬 나가보세요.”

“해주신 조언은 귀담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주현은 이내 그의 집무실을 나섰다.

“…….”

그렇게 복도에 서서,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주현은 곧장 ‘지오의 초상화’로 향했다.

* * *

“지오 씨.”

“오랜만에 뵙습니다, 주현 씨.”

“최근에는 바깥에서의 활동이 많이 줄어드셨으니까요.”

“가을이 되니 날이 좀 추워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는 지오는 소파에 정자세로 누워 있었다. 이 소파에 누울 때마다 물 먹은 걸레짝이 되고 마는 유성운과는 전혀 다르게 올곧은 자세였다. 그에 주현이 가볍게 웃었다.

“유성운 씨도 이 안에 계시죠?”

“꽃차 마시고 위층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 바쁘신 분이라니까요.”

“좀 덜 바빠지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그리 말하고는 주현이 입을 다물었다.

“…….”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표정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미 많은 죄를 지었어요.”

고루한 이야기를 매번 입에 담는 것치고 주현은 꽤 영악한 편이었다. 그만큼 비양심적인 일도 몇 번이나 해봤다. 스스로

선을 넘지 않았다고 생각해 왔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주현 본인의 기준일 뿐이었다.

그 역시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주현은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망가지고 멈춰 서려던 그날, 이 사악한 악신이 내게 미래를 속삭였으니까. 그의 친구가 되기로 한 만큼 더더욱 멈출 수가 없었다.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날이 언젠가 올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을 날이 오리라 확신하고 있었죠.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언을 받았다기보다는 막연히, 하지만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로서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 다짐했으니까.”

“감사한 말씀입니다.”

“…나는 참 간사한 사람이에요.”

주현의 미소가 애매하게 일그러졌다.

“…너는 내게 손을 내민 첫 번째 신이라서….”

그럼에도 나의 친구라서.

“결국…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주현 씨가 원하는 바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건 미래가 닥쳐봐야 알 테니까요.”

주현이 눈을 휘어 웃었다.

“하지만 내가 당신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하리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오 씨의 호의가 크고 작은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믿어요.”

“나는 주현 씨가 당신 마음에 드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리라 이미 예상했습니다.”

“…내가 불쌍한가요?”

지오는 누운 채로 옅게 웃었다.

“고마워요.”

“불쾌하지는 않고요?”

“그 또한 나를 향한 사랑과 우정의 형태이리라고 믿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왜인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찾아왔고요?”

“미안해요.”

“이유는 묻지 않을게요.”

“나도 이유를 영 모르겠으니….”

주현의 미소가 결국 완전히 일그러졌다.

“…그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너를 불쌍하다고 말해도 될까?

안타깝게도 주현은, 그렇게 묻지 못했다.

* * *

그리고 지오는 생각했다.

'아닌 척 광신도 같은 말을 하네.'

잘 모르겠는데 진지한 것 같아서 태클은 걸지 않았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28)

328

제328화

참고로, 정해운의 집에는 '지오의 초상화'가 아직 남아 있었다.

"왜요, 내가 아예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나? 그렇다면 정말 서운한데...."

"......."

"못 볼 걸 봤다는 그 표정 정말 신선해요, 더 가까이에서 보여주지 않을래요?"

"...미친...."

커피를 홀짝이며 커다란 초상화 앞을 지나가던 정해운은 조용히 기겁했다.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정해운은 따끈하게 데워진 머그 컵을 조심히 복도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얌전히 그림 속에 있는 분홍 머리 초상화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에 관한 초상화의 반응은 참으로 한결같았다.

"언제 봐도 잘생겼죠?"

"진짜 미친 건가."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해, 나 상처받을라."

"그런 얼굴로 상처받는다고 말을 하면 누가 믿어 준답니까? 아무래도 인간의 심리 및 표현 방법에 대한 반응을 조금 더 공부하셔야겠는데요."

"정말 몰라서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정해운 학생?"

"당연히 알고서도 안 하시는 거겠지."

정해운의 표정이 영 떨떠름해졌다. 생긴 건 그가 아는 '지오' 중에서 가장 산뜻하고 포근한데, 그 속내 하나는 독보적으로 새까맣고 능글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단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이기도 했다.

"...그동안 그렇게 조용하시더니, 어인 일로 귀하신 눈을 보여 주십니까?"

"열심히 가려 두었는데 그게 보이나요?"

"하도 번쩍거리다 보니까 그게 다 보이는 기분이 들어요, 아주."

큼지막한 초상화에는 언제나 검은 칠이 함께했다. 유성운 큐레이터에게 듣기로는 여러 변수를 대비하기 위함이라더라. 그럼에도 소란스럽게 반짝이는 눈이 저를 지켜보는 것 같다고 하면 이상한 것일까.

‘아니, 내가 이상한 게 아니지.’

이건 명백히 상대가 이상한 것이었다. 선량한 시민인 정해운은 죄가 없었다.

“예, 뭐, 정정하겠습니다. 눈이 아니라 반응이겠네요. 그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도록 조용하시더니 웬일로 아는 척을 해주셔서 황송함에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으음, 그동안 모르는 척했다고 삐졌구나. 역시 아직 어리네....”

“어려... 그러시는 댁은 신체 나이가 21살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야 정원께 나이를 들이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겠으나 그 파릇한 얼굴로 저를 구박하시면 아둔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는 본인도 원래는 파릇한 얼굴인 주제에....”

“지금은 나름 연륜 있는 얼굴 아닙니까?”

팔을 꼰 정해운이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의 준비는 끝났다. 한동안 잠잠하던 초상화가 반응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 정해운은 알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상대가 아무리 인간처럼 굴어준다고 해도 그 본질은 변덕스러운 신비였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이렇게 몸소 말까지 걸어 주시는지?”

“어라, 정말 삐졌어요? 하지만 정해운 학생, 나에게도 개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법이랍니다. 한 자리에 가만히 머무는 법을 모르는 소란스러운 방랑자가 바로 저 아니겠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실 생각이라면 저는 댁 감상하며 커피나 마시고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번쩍거리고 아주 좋네, 좋아.”

“정 그러시다면 나를 감상할 기회를 드리죠, 나는 정해운 학생을 꽤 좋아하는 편이니까.”

“거 영광스럽기도 해라....”

정해운은 포기하고 놓아두었던 머그 컵을 다시 들었다. 그러고는 의자 하나를 질질 끌고 와서 초상화 앞에 앉았다. 그런 정해운을 보며 분홍 정원이 아주 귀여운 것을 본 양 웃었다.

“세상에, 이건 정원사들 종특인가?”

“뭐... 내가 뭐 했습니까?”

“유성운 씨도 ‘지오의 초상화’를 감상할 때는 자주 이러거든요.”

“수집상의 큐레이터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거긴 갤러리 복도에 간이 의자가 널렸더만. 나야 뭐 당신이라는 입 달리고 성대 달린 존재와 대화 좀 하겠다고 앉아본 거고.”

“내가 입이 달리고 성대가 달렸다고 확신할 수는 있나요?”

“제가 또 편협한 생각을 했죠, 맞아요. 대부분의 인간은 대화가 가능하면 보통 그 둘이 달린 법이라서 말입니다.”

쉽게 본론을 꺼낼 생각이 없어 보이자 정해운은 포기하고 감각을 음미하는 데 집중했다.

‘신비의 장난질이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도 체력을 낭비하지 않는 좋은 방법 중 하나지.’

커피 향은 끝내줬고 눈에 보이는 초상화는 더 끝내줬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국 정해운 역시 신비에 눈이 먼 정원사인 것이다.

“...가만 보면 그 모자는 쓰는 것보다는 들고 다닐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손에 들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모자가 서운해하지는 않던가요?”

“이런 걸로 서운해하기에는 우리가 워낙 사이가 좋아야 말이죠.”

“저런 말을 들어보면 인격체인 것 같기도 한데, 참 정체를 모르겠어. 대충 도깨비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려나. 뭐, 그건 에고가 있는 무언가는 아니겠다만....”

“나 없는 동안 잘 지냈어요?”

“잘 지냈겠습니까, 그 난리가 났는데?”

하여간 변덕스럽기는.

‘대화 주제도 본인처럼 휘휘 날뛰는군. 참 잘 어울려.’

갑작스러우나 어쨌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본론인 듯했다. 정해운은 억울함에 이를 아득 갈았다.

이 정원은 자애롭고 다정했으나 한없이 가벼운 반면 사랑만 쓸데없이 넘쳤다. 상황의 심각성을 뻔히 알면서도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리라.

“덕분에 한국이 뒤집힐 뻔했습니다.”

“어라, 한국만…?”

“왜 아쉽다는 투지? 예, 사실 전 세계가 뒤집힐 일이죠.”

“시스템이 일시적으로나마 사라졌기 때문일 테고요.”

“당신이 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아주 기묘했다.

아무리 협회가 나섰다고 해도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다. 정부와 협회에 대한 믿음이 짙다고 해도 한계는 있는 법이었다.

깜빡이는 시스템은 언제든 실질적인 피해를 줄 것만 같았고, 순순히 물러나기엔 영원의 상징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 불안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2의 대재앙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헌터들은 일반 시민보다 불안감이 더했다. 시스템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심지어는 영원의 상징마저도 흔들리는 상황이다. 그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있었다.

“덕분에 아주 골치가 아픈데, 해라가 당신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가장 현명한 판단은 역시 봉인이 아닐까 싶네요.”

“잘 아시는군요. 하지만 차은혜가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애초에 그게 불가능하다고도 말했죠.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봉인한다고 순순히 봉인당해 줄 존재도 아니잖아.”

“나를 잘 아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정해운 학생.”

정원이 가볍게 웃었다. 그가 액자 안에서 손을 내밀었다. 그러고는 정해운의 머리 위에 그가 늘 들고 다니는 마법사 모자를 씌웠다. 기이할 정도로 묵직한 무게감에 정해운이 잠시 흠칫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초상화의 장난은 오래가지 못했다. 제오르제는 유려한 손길로 다시 모자를 거두어갔다. 정해운은 알 수 없는 정원의 행동에 얼굴을 미묘하게 찌푸렸다. 그런 그를 보며 정원이 물었다.

“서서희 씨와 정해운 학생은 어떻고?”

“…서서희는 얌체가 다 됐습니다, 박쥐 행세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반반인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 어느 한쪽으로 흐름이 기울면 거기에 합세할 겁니다.”

“흐음, 정해운 학생은?”

“…글쎄….”

정해운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잊어버린 과거가 참 궁금해요.”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정해운 씨가 꾸었던 그 악몽에 나는 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

“조금 부추겼을 수는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정해운의 표정이 조금 더 확실하게 찌푸려졌다.

“내가 ‘꿈’을 꾼 게 한 번이 아닙니까? 그, 예전에 내가 폐교를 여러 번 들렀음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나를 의심하는 모양인데 정말로 아니야. 만약 그런 일이 정말로 있었더라면 시스템에 오류가 몇 번이고 있었겠지. 하지만 그런 일은 아직까지 딱 한 번뿐이잖아요?”

“...확실히 그건 그렇긴 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해운 학생이 꾸었던 ‘꿈’은 내 몫이 아니랍니다.”

초상화는 제 손에 쥔 모자를 가볍게 살랑거렸다.

“홍수가 나면 둑이 터지기 마련이죠. 금이 가면 그릇은 깨지는 것이고요. 이렇듯 위태롭게 쌓인 것 위에 손가락 한번 툭 올려놓는 건 참 쉬운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 그런 것이었고, 엄밀히 따져 나는 너에게 ‘꿈’을 꾸도록 만들지 않았어.”

그의 언변은 독특한 면이 있었다. 내용도 만만치 않지만 그 음성과 어조가 정말이지 상당했다. 귀를 씻어내고 싶을 정도로 매혹적이었다.

저 목소리로 세상을 배신하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할 놈들이 천지일 것이었다. 정해운의 미간이 점점 더 구겨졌다.

“일단 본인 잘못은 없다는 책임 전가의 말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라니, 그런 말을 하고 나를 그렇게 부르면 내가 상당히 볼품없어 보일 텐데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이니 거부하지 말고 이 변화를 받아들여라? 실례지만 나 역시 영원의 상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여도 지구를 지키는 데 나름 진심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겠군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사실 서서희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별반 다르지도 않아요. 얌체고 박쥐라 욕해도 인정하겠습니다. 진실이라 큰 타격은 없을 것 같거든.”

“하지만 정해운 씨는 청개구리 심보가 참 강한 학생이죠, 나는 알아요.”

초상화는 정해운의 자학이 묻어나는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로 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아는 탓일 것이다.

그도 아니라면 그놈의 신비 특유의 자신감이던가. 어느 쪽이든 가만두고 보기에 썩 편안하진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상체를 살며시 내민 채로 액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덕분에 검은 칠에 가려지지 않은 찬란한 보석안이 눈에 띄게 빛났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었다. 홍채와 동공이 구분되지 않는 탓에 시선을 가늠할 수도 없었다.

“.......”

“정해운 학생.”

하지만 여전히 시선은 느껴졌다, 검은 칠을 한 아까와 같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둑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릇은 거의 깨져 버렸고요.”

“...그건 ‘영원의 약속’을 이르는 말이겠지요.”

“그 위태로운 아이를 완전히 망가트리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야 해요. 치거나 만지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가능하면 보는 것도 삼가야겠죠.”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이 초상화를 아직까지도 수집상에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못난 어른이지요? 저도 압니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정해운 학생은 역시 욕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 당신을 이해합니다, 욕망에 충실한 인간 나는 꽤 좋아하거든.”

“그건 거짓말이겠죠.”

정해운이 헛웃음을 쳤다. 그는 멍청이가 아니었다. 그동안 제오르제와 함께 지내며 그의 이야기를 못 들은 것도 아니고. 정해운은 제오르제의 ‘과거’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초상화는 그런 정해운의 생각을 부정했다.

“정말이야, 꽤 좋아해.”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와 사랑이 동의어라는 것 아시나요?”

“아, 이런, 강렬하기도 하셔라.”

물에 닿으면 녹아내릴 것 같은 얼굴을 한 주제에 이런 말을 한다. 사실 신비라는 놈들이 다 그런 법이었다.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아서는 무시무시한 일을 해버린다.

“인간을 증오합니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기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어 하는 거군요, 이 세상에서 시스템을 지워 버림으로써 말입니다. 그 괴롭힘이 당신의 목적이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마치 아니라는 투네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는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이니 그 많은 일을 뒤로하고도 결국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죠,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듣기에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거추장스러운 것은 사실이야. 당신들은 그런 것 없이도 더 멀리 갈 수 있어. 벽을 부수고 천장을 깨트릴 수 있겠지.”

“이래서야… 목적을 털어놓으라고 계속 종용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겠습니다.”

이미 초상화의, 제오르제의 목적은 전부 나왔다. 그는 인간을 증오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괴롭히고자 하거나 도와주고자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에 속하는 행위가 바로 ‘시스템을 없애는 일’이라고 한다.

잠시 의자에 늘어지도록 앉아 머그 컵만 쥐고 있던 정해운이 이내 물었다.

“그렇게 하면 지구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까, 선생님?”

“그야 네발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두발자전거를 타는 게 더 멋있지 않나요?”

“미친, 결국 멋의 문제였다는 겁니까?”

“그 문제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세상 감수성 다 끌어모은 얼굴로 대체 무슨 유치한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하지만 정해운 학생은 이해하지 않았나요?”

“왜 나입니까?”

“무슨 뜻이죠?”

“왜 나를 선택했냐는 겁니다, 당신이 칠 사고의 이해자로.”

“오….”

정원의 표정이 눈에 띄게 떨떠름해졌다.

"사람들은 참 양심도 없지, 항상 본인들이 먼저 호들갑을 떨어놓고는 영문 모른 채 휘말린 나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며 캐묻더란 말입니다. 나를 먼저 수집상에서 가져온 것은 정해운 학생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억울함에 대해서는 특별히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왜 그 '꿈'을 저만 꾸는 겁니까? 왜요? 서서희도 그 기억에 대해서는 꽤 간절합니다. 그냥 모르는 척 한번 꾸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해."

"그런 식으로는 둑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그릇이 깨지지도 않을 거고요. 하지만 정해운 학생은 여러 번 움직였죠. 그게 문제였어요. 당신의 둑만 무너지는 거야. 그릇이 깨지는 것이고. 그러니 이걸 내 탓으로 만들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해운의 표정도 덩달아 떨떠름해졌다.

"망할, 꼭 시한부 선고라도 받은 기분인데…."

그가 뭘 하든 결국에는 '꿈'을 꾸게 될 것이었다.

* * *

정해운은 또다시 꿈을 꿨고, 울면서 깨어났다.

"기억하고 싶어?"

"……."

"도와줄까, 정해운 학생?"

"……."

"장난은 잠깐일 거야."

정원은 달콤한 말을 속삭였다.

"내가 그들을 속여줄게."

몰린 열감 속에서 정해운이 생각한 것인데, 그 누구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누구라도.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328)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28)"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29)

329

제329화

시스템의 누락이 반복되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리고 영원의 상징에게 항의했다. 당신들이 알아서 잘해보겠다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일부는 원망했고 일부는 규탄했다. 영원의 상징은 수습하고 있다는 뻔한 말을 되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특이한 움직임이 발생했다.

"저, 어르신...."

"요즘 찾아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나 은퇴했다니까?"

"혹시 조언을 좀 구할 수 있을까 해서요."

"아니, 나 참...."

어느 헌터는 은퇴한 선배들을 찾아갔다. 주로 대재앙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물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시스템'이 존재하기 이전에도 각성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을 말이다.

또 어느 헌터는 정원사를 찾아갔다.

"뭐? 정원사? 어어, 아니 나는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왔대."

"저기 아랫마을 선영이에게 들었습니다. 그, 예, 정원사라고...."

"아 이 새끼가 잠도 못 자고 빌빌거리는 거 구해줬더니 이 무슨 배은망덕한 새끼야."

"죄, 죄송합니다."

"시발 넌 또 뭐고. 왜 왔어, 언제 꺼질 건데."

그들은 주로 신비의 흐름을 알고 있는 헌터들이었다. 부모님이 협회의 연구원이든, 신비를 주로 담당하는 정해운 길드장의 소속이든, 아니면 신전에 관계자가 있는 사람이든 말이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은 결국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였다.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능력을 쓰셨어요?"

이건 은퇴한 헌터를 향한 질문이었고.

"그 신비라는 힘, 어떻게 다루는 겁니까?"

이건 비각성자인 정원사를 향한 질문이었다.

둘은 조금 달라 보일지언정 결국에는 같았다. 시력을 잃을 거라 선고받은 이들이 미리 눈을 감고 어둠에 적응하며 생활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그들은 어느 날 세상에서 시스템이 사라지더라도 계속 헌터 일을 하고자 했다. 그리고 의외로 꽤 적지 않은 수가 이 행동을 실천에 옮겼다.

“야, 계속 이렇게 항의만 할 게 아니라….”

“그럼 뭐 어쩌자고.”

“우리도 그 영감님 뵈러 가기나 해보자. 시스템 없을 때도 각성자였다면서.”

“…하긴 시발, 이렇게 드러누워서 뭐 되는 게 있어야지.”

“그래, 그 양반 술 사 가면 뭐라도 말은 해줄걸.”

“아는 사람 있어서 다행이네.”

단순히 정부와 협회를 비난하고만 있던 사람들은 조금씩 방향을 틀었다. 무의미한 성만 내고 있느니 뭐라도 실질적인 무언가를 얻길 택한 것이다. 이 파장은 계속해서 커져갔다.

소수의 헌터가 이렇게 움직이니 그를 보고 다수의 헌터가 따라 했다. 다수의 헌터가 따라 하니 곧 모든 헌터가 그렇게 했다. 모든 헌터가 그렇게 하니 민간인들도 목소리를 낮췄다.

그사이를 틈타 정부와 협회를 비난했던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그동안 협회에 받아먹은 게 얼마인데, 쯧.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도시의 보호가 없었으면 저 벽 너머의 몬스터에게 다 잡아먹혔을 사람들이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아휴, 이러다 높으신 분들께 밉보여서 우리 싹 쫓겨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은혜와 양심을 운운하는 사람도 있었고, 실질적인 피해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의견이고 반응이야 다양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성은 차차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당장 무언가 달라진 게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 영감님,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술주정뱅이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했던 우리가 멍청한 건가?”

“아니, 그래도 옛날이야기는 잘 듣고 왔잖냐.”

“뭐 감이 잡히는 게 있어야 말이지….”

은퇴 헌터를 찾아갔던 이들도.

“…….”

“이해하셨어요?”

“아뇨?”

“시발 뭔데 당당하지?”

“아니 모르겠으니까 모르겠다고 하는 건데.”

“감히 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

“아아아니 그게 아니라….”

정원사에게 방문했던 이들도.

“진짜 감이 안 잡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면 되잖아, 왜 못 잡는데! 눈 두 개 다 달리고 손발 다 달린 놈이 이걸 왜 못 해, 눈깔 하나 남은 나도 하는 걸!!”

“아악 이래서 재능 있는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으면 안 된다니까! 당신이 범재의 마음을 알아요?!”

“흥, 그렇게 아부 떨어도 특별히 봐주거나 하는 일은 없어!!”

그 누구도 ‘감’을 잡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히 분노는 소실되었다. 다만 사람들은 협회와 정부를 향한 믿음을 조금 덜어냈고, 그사이 나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쌓은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시스템이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은 모든 이의 가슴속에 박혀버렸다. 더는 협회와 정부에서 속살거려도 모르는 척하게 될 만큼.

“…….”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이가 탈출한 사람이 몇 있었다.

* * *

첫 번째 타자, 유성운.

“지오야, 우리가 한 약속 기억나…? 지구 뒤엎을 거면 미리 말해주기로 한 거….”

“그렇게 아련하게 말씀하셔도 이미 사고는 쳤고 더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한 저희는 적법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난 무고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오르제 씨가 우리 지오를 물들인 게 분명하다니까.”

“저를 5살 막내로 생각하시는 거라면 조금 곤란합니다.”

“하아아….”

고개를 팍 숙인 유성운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제 손바닥에 얼굴을 파묻은 그가 뭉개진 발음으로 웅얼거렸다.

“나 울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씁 이제 이것도 안 통하네.”

“원래 안 통했습니다.”

애초에 이런 식의 시도조차 안 했었다. 그는 일전에 ‘유성운’을 그려준 이후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종종 이렇게 굴고는 했다.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지오는 아무렴 기뻤다.

“제가 친 사고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까?”

“어, 좀 어이가 없어서.”

유성운이 고개를 돌려 먼저 와 있던 주현을 보았다.

“아니 정말 나만 빼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 주현 씨, 말 좀 해보지?”

“굳이 이번 일에 유성운 씨를 끼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끼리끼리라더니 진짜 서로 닮아가네, 미치겠다.”

“하지만 정말로 별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었는데요.”

꽃차를 마시던 주현이 수줍게 웃었다. 어딘가 고결하고 신성해 보이기까지 하는 미소였다.

“그저 망토교의 교주님께 찾아가 신의 뜻을 전한 것 외에는….”

“나 좀 소름 돋았어.”

유성운이 정색했다. 그가 제 팔을 슬슬 쓸었다. 딱히 춥지는 않은데 소름이 돋았다.

"주현 씨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원래대로 돌아와. 나 무서워."

"크흠, 놀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식의 스케일 어마어마한 장난까지 옮아가면 어쩌자는 건데. 원래부터 손이 크신 우리 서지오 선생님과 다르게 주현 씨는 평범한 사람이잖아. 어떻게 감당하려고."

"평범하다니, 조만간 인간의 범주에서 넘어서게 되면 연락 좀 달라고 놀리던 사람은 누구더라? 그리고 처음부터 지오 씨에게 컨펌 받고 진행한 일이었는걸요."

"그동안 놀렸던 거야 내 업보라 치지만 그 컨펌 받을 계획은 누가 짰지? 주현 씨 아닌가? 솔직히 말해, 우리 지오는 그런 계획 안 짜. 발뺌을 하시려고?"

"아, 그건 제가 맞기는 한데... 흠."

주현의 얼굴에 결국 민망함이 깃들었다. 그가 이내 어색하게 웃었다.

"역시 조금 소란이 컸나요?"

그가 한 일은 정말로 별게 없었다. 단지 '검은 망토'를 사랑하는 애호가들을 찾아갔을 뿐이다. 혹시 모르니 지오가 준 검은색 망토를 두르고. 무슨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니 물새들과 함께.

그 말에 유성운의 표정이 차게 식었다.

"소란이 조금 커? 조금? 크냐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딱히 검은 망토의 사도로서 대접받고자 했던 목적은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그런 거 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요."

"무슨 부귀영화든 누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던데, 어... 그래... 나도 주현 씨가 그런 방면 때문에 그런 모습을 취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 안 어울리거든."

"그냥 제 말을 잘 들어줬으면 해서 취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라니까?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주현은 망토교를 찾아가 약간의 '조언'을 해주었다. 어쩌면 '예언'이라고 봐도 무방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앞날의 혼란을 짚어주며 그들의 신이 원하는 방향을 알려 주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 뜻에 흠뻑 빠진 망토교 신자들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제가 후원하는, 그리고 친하게 지내던 헌터들을 부추겼다.

그들끼리 살롱에서 대화하다 나온 건데 은퇴 헌터나 정원사를 찾아가 보는 것도 좋겠다고.

이는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점진적인 형태로 퍼져나갔다.

"결국 이번에도 결과는 정말이지 나쁘지 않았지만...."

유성운의 표정이 묘해졌다.

"하 정말 왜 이렇게 늘 결과가 좋지, 뭐라고 마음 놓고 징징거리지도 못하게?"

"검은 망토 파워."

"제발 지오야... 너 너무 기특한데 내가 다 서러워...."

"기특하면 기특해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어휘력이 늘었는지 몰라."

"억울합니다."

지오의 어휘력이 갑자기 늘었을 리가 없었다. 그는 29살 된 성인이었으니까. 다만 유성운과 주현이 편해지며 점점 말이 아무렇게나 나오고 있는 것뿐이었다.

그런 사정을 알 리가 없는 유성운이 곤란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무튼 잘 끝나서 망정이지 우리 주현 씨 협회로 끌려갈 뻔했잖아."

"그 정도는 감안하고 한 행동이긴 했습니다."

"가면 사흘 밤낮으로 벅벅 닦일 거 알고 하는 말이겠지?"

"제가 협회 연구원이었는데 그걸 모르겠나요."

저 '벅벅 닦인다'라는 말은 협회의 심문을 뜻하는 은어였다. 한번 잘못 걸리면 아예 아티팩트에 절여지거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벗겨지는 수가 있었다. 물론 아무에게나 그런 형식의 심문을 하는 건 아니었다.

문제는 주현이 벌인 일의 스케일에 있었다. 이번 일은 아무래도 좀 컸다. 전 국민이 들썩이지 않았던가. 시스템 오류니 뭐니 하는 일은 지오가 했다 쳐도 주현의 행동이 협회에 걸리지 않았을 리가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협회장님께서도 이번 일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점이지.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가 잘 마무리된 것에 중점을 두기로 하셨나 봐. 괘씸하기야 할 수는 있겠지만 또 그런 감정으로는 둔하신 분이고."

유성운의 말에 주현이 빙긋 웃었다.

"그 역시도 감안했죠."

"하긴 주현 씨는 협회장님과 면담도 해봤다고 했던가."

"결과주의자이시니까요, 그분은. 연구소에서 사람 갈려 나가도 그러려니 하시는 것만 봐도 느낌이 오지 않나요?"

"덕분에 나만 여기저기 불려 다니고 말이야."

"어째 일 치는 동안 안 보인다 싶더라니."

"그러게, 일 치는 사람 따로 있고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네?"

"......."

"......."

왜인지 익숙한 정적에 잠시 고민하던 지오가 냄비를 들어 보였다.

"닭백숙 어떠십니까?"

"아주 좋은 보양식이지."

그렇게 유성운은 넘어갔다.

* * *

하지만 어쩌면 당연히도, 혹은 의외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

"해라 너 그런 표정 짓는 거 오랜만에 보네."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음, 황당하다는 표정?"

"확실히 낯선 감정이기는 해."

단해라가 가만히 눈을 굴려보았다.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다. 날것의 감정은 참 오랜만이었다. 기억과 감정 대부분을 약속의 대가로 바쳐온 그녀에겐 이런 것은 익숙하지 않았다.

"이걸 황당하다고 하는 거였어."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단해라는 그렇게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에도 감정을 느낄 새가 잘 없는 그녀로서는 이 감정의 호오를 구분할 능력조차 없었다.

그렇기에 황당함과 함께 몰려오는 의문 역시도 낯선 것이었다.

"서서희."

"어? 어, 그래."

"그 초상화가 대체 나와 뭘 하자는 걸까?"

"…그래도 나쁜 뜻은 없었을 거야…."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아."

"착한 해라가 한 번만 봐주자."

"답이 되지 않는다니까?"

약간의 실랑이 끝에 단해라가 눈을 껌벅였다.

"…이게 뭐지…?"

"……."

그런 그녀를 보며 서서희가 조용히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

해라 고장 났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럴 줄 알았음네가 수습해 정해운ㅗ

미친놈.

'30년 넘은 내 친구지만 진짜 미친 새끼다.'

이 상황에 웃음이 나온다니, 진심으로 부러웠다.

(다음 편에서 계속)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30)

330

제330화

신비의 변덕으로 인한 결과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었다.

‘정말로 시스템을 없앨 거라면 말이지.’

서서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제 맞은편에 앉은 사람을 보았다. 검은 망토 안에 하얀 사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 흔히 세간에 ‘서지오 헌터’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는 늘 그렇듯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다.

“더 드시지 않고요?”

“충분히 먹었습니다.”

“오늘 식사는 어떠셨나요?”

“간장게장이 정말 미쳤네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차마 내숭을 떨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했다.

날것인데도 비린내 하나 없었고, 살은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했다. 너무 짜지 않은 간장 소스에 물든 게살은 따듯한 밥과 함께 먹으면 극락이 따로 없었다.

“보면 저희 부길드장 도시락은 늘 양식인 것 같던데.”

“짜고 느끼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맞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식사는 보통 한식이고요.”

“담백한 간을 좋아하니까. 특히 재료 본연의 맛을 좋아하고.”

“맞아요,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죠. 요즘처럼 미식을 즐기기 어려운 시대엔 살아남기 참 어려운 입맛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선생님이 싸주시는 도시락이 좋은 것 같습니다.”

비단 그 문제뿐만은 아니었다. 헌터는 등급이 높아질수록 입맛도 함께 높아진다. 당연한 일이었다. 전체적인 능력치가 상승하며 후각이나 미각 같은 것도 함께 예민해지니 말이다.

‘괜히 우리 까칠한 부길드장이 코 박고 도시락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만큼 헌터들에게 있어 입맛에 잘 맞는 식당은 귀했다. 요즘 시대의 식당들이 전부 고급화된 데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것

이었다. 주 고객층이 대부분 고등급 헌터와 같은 1등급 시민이었으니까.

심지어 이 도시락을 만들어준 이는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진다고 해도 S급으로 소문이 난 A급 헌터에... 게다가 수집상에서 끼고돈다는 비사벌의 아들. 이 정도만 해도 손에 물 묻힐 일은 없어 보일 것이고.'

더 본질적으로 따지면 애초에 인간도 아니었다. 현존하는 등급으로는 규정할 수도 없는 높은 위치의 신비. 그런 존재가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총애를 넘어선 재해에 가까웠다.

아무튼 요약하자면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다.

"......."

평화로운 생각은 이쯤 하고.

"...정원사들이 요즘 헌터들과 잘 어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망토 연작의 등장 이후로 '불쌍한 당첨자' 정도의 취급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예 몇 없이 귀한 선생님으로 대접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화합은 언제나 기쁜 일이죠."

"덕분에 정해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질 날이 없다더군요."

정해운은 최초의 정원사였다. 그리고 영원의 상징이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정원사의 최전방이나 다름없었다.

특별히 리더니 뭐니 하는 직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책임감이 컸던 듯 보였다. 그런 정해운은 언제나 정원사들이 박해받는 상황에 예민했다. 특별히 더 슬퍼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듯 어느 날 정원사들의 대접이 후해진 것이다. 별다른 부작용만 없다면 정해운이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저 역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사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비해 받는 대우가 너무 박했죠. 어지간한 작업이면 본인이 때려치우거나 옆에서 말려 주기라도 할 텐데...."

서서희의 미소가 조금 애매하게 일그러졌다.

"정원은 정원사들의 사랑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 아무리 취급이 박하다고 해도 쉽게 벗어날 수 있을 리가 없겠죠. 애초에 사랑이라는 건 그런 힘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

백금발의 사제가 눈을 내리떴다.

"확실히 사랑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내가 받게 될 손해가 손해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 과정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때도, 아니면 정말로 모를 때도 있죠."

"흔히 그런 걸 콩깍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랑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좀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서서희의 눈에 이채가 깃들었다. 이 나긋나긋하고 고루해 보이는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사랑은 과연 뭘까. 그는 과연 사랑이라는 것을 해봤을 것인가. 뭐, 그런 흥미였다.

"실례인 줄은 압니다만, 혹시 어떤 사랑을 해 보셨습니까?"

"...가족애도 포함되나요?"

"솔직한 욕심을 말씀드리자면 연인 간의 사랑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무언가를 느껴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네요. 내가 아끼고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들은 물론 사랑합니다만, 그게 소유욕이 되어본 적은 없어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랑이란 소유욕인가 봅니다.”

“최소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렇지 않고서야 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웃어준다고 질투를 느낄 이유가 없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참 지독한 충동이라는 의견이 큽니다. 사랑 역시 무형의 개념일진대 어째서 평등하게 나누어줄 수 없는 걸까요?”

“…평등하게 나눠야 한다면 그건 사랑이라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모름지기 사랑이라는 감정은 상대를 특별하게 여기기에 나오는 것이고, 이는 즉 차별이자 편애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 치고.”

사랑의 개념과 근간에 대해 토론하고자 말을 꺼낸 것이 아니었다. 서서희가 가볍게 으쓱였다. 그가 이어서 물었다.

“그건 다른 누구도 아닌 ‘지오반니’의 입장인 거겠죠? 이 또한 사랑일 것이라며 당신이 베푸는 자비에 붙인 또 다른 이름… 같은 것이?”

“…아무래도요. 편애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내가 아는 사랑과 일반적인 견해는 많이 다른가 봅니다.”

지오반니가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다.

“지금의 서서희 씨는 제가 아닌 제오르제 씨의 의견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파악된 건 아니지만, 아마도… 미움에 가깝지 않나 싶네요.”

“…제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답변이라 조금 놀랐습니다. 지오반니 씨와는 다른 의미로 세상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말입니다.”

“그는 그 무엇도 포용하지 않아요, 그의 절친한 친구를 제외하면요.”

“절친한 친구?”

“그… 모자 말입니다.”

“아하.”

몇 번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 ‘제오르제’는 머리에는 잘 쓰지도 않는 마법사 모자를 들고 다닌다고 했다. 그것이 자아가 있는 생물처럼 보인다던 정해운의 말도 떠올랐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음….”

“까다로운 사람이죠. 변덕스럽고 방랑벽이 심해요. 한 곳에 머무르는 걸 좋아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좋아하지만 미워해요, 결코 믿는 법이 없죠.”

“…뭔가 던전 공략법이라도 듣는 기분인데.”

“던전이라, 얼핏 보면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어린 학생에게 조언해 주는 선생님처럼 조곤조곤하게 말을 이었다.

“제오르제는 능숙한 거짓말쟁이입니다. 하지만 진심일 때도 많아요. 나는 그것을 미움에 비유했지만 그렇다고 그의 사랑이 거짓이라는 건 아니죠. 다만 빠르게 식을 뿐이에요. 하지만 거짓말을 잘하니 사랑이 식은 것도 잘 안 드러나는 것뿐이고요.”

그러니 사랑이 떠난 빈자리에 남는 것은 사랑과 구분하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로 닮아 있는 증오뿐이었다. 그게 지오가 바라본 제오르제의 사랑이었고 말이다.

그런 지오의 친절한 설명에 서서희의 표정이 매우 기묘해졌다.

“…까다롭군요.”

“그렇다고 했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나 싶겠지만, 정해운은 내가 얌체 같다고 말했습니다.”

참 피곤한 일이었다. 서서희는 언제나 모범생이 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느끼는 건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애초에 그는 그렇게까지 성실한 사람도, 선하고 올바른 사람도 아니었다.

단지 그는 흉내를 내고 있었다. 이상적인 어른이자 리더의 흉내였다. 하지만 그런다고 그 본질까지 바뀔 수는 없었다. 늘 웃는 얼굴로 친절과 정의를 일궈내도, 결국에는....

"...내가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꽤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물론 좋은 일을 아주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코 최고의 어른이 될 수는 없어요. 뭐, 그건 누구나 그렇겠죠. 제 아버지가 히어로일 거라 생각했던 자녀가 커서 어느 날 그 작은 등을 보게 되는 날이 오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서서희 씨의 등을 봐주지 않네요."

"다들 보고는 있지만 거기에 콩깍지가 좀 많이 끼어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털어놓으려 한 것은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요. 내가 얌체 같다는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서서희가 빙글 웃었다.

"그러니 나는 무책임하게 결과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구의 운명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만 왜인지 이번에는 모르는 체를 좀 하고 싶어서요."

"가끔 그런 날이 있죠."

"예, 그러니 남은 이야기는 제 친구들과 마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기다리면서 관람하도록 하죠."

"협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나요?"

"글쎄요, 헌터님보다는... 어느 초상화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보이던데."

"참고하겠습니다."

서지오 헌터가 물었다.

"최근에 닭을 삶아 먹으니 꽤 괜찮더라고요. 백숙은 어떠신가요, 다음 도시락으로."

"...오, 좋네요. 기왕 하시는 김에 삼계탕은 어떠신지? 찹쌀도 잔뜩 넣어서요."

"명색이 도시락이니 한번 해보죠."

둘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 * *

그리고, 초상화는 단해라를 찾았다.

"음...."

제 뺨을 한 손으로 감싼 그녀가 이내 고개를 기울였다.

"이렇게 소환이 쉬워서야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렵겠는데."

"나도 그려준다고 어디든 나가는 건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해라야."

"생각보다 훨씬 더 다정하시고."

그녀는 허공에 떠 있는 초상화를 보며 곱게 눈을 휘었다. 딱히 맞은편 소파 위에 둥실 떠 있는 초상화 액자가 웃긴 탓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초대한 손님이니, 그에 마땅한 대우를 해야만 했다.

"부디 자리에 앉아 주시겠어요? 괜찮은 차를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협회장님께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주셨다면 기꺼이 앉아야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까만 초상화는 액자에서 나와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했던 양 그 어떤 기척이나 소음도 느껴지지 않았다. 공기의 흐름마저도 차분하기만 할 뿐이었다.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던 단해라가 제 뺨에서 손을 떼어냈다. 그녀가 동그란 찻잔을 가리켰다.

“차의 향기가 꽤 괜찮지 않나요?”

“부드럽고 고소하네. 좋은 찻잎을 구했어.”

“아직 크게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협회에서 공략한 던전에서 재배 중인 차입니다. 과거 어느 문명에서 품종 개량을 거친 것 같은데, 여린 잎에서 더는 두껍고 단단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손을 쓴 찻잎이죠.”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 재배 중인 것이고?”

“이것은 너무 오랜 시간 여리게 자라 왔습니다. 정교한 손재주를 가진 문명 생명체의 힘 없이는 생존할 수조차 없죠. 마치 누에나방 같지 않습니까?”

인간의 편의에 의해 개량되어 왔다. 가장 어리고 약한 모습으로 이 찻잎은 박제되었고, 그 어떤 문명 생명체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형태가 되었겠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이미 이렇게 만들어졌고 태어나 버린 이상 개량 이전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 인간의 탐욕을 버리고 순수한 의도로 이들을 놓아준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복을 닮은 협회 제복을 입은 단해라가 느릿한 손길로 찻잔을 들었다. 곡물의 것과 같은 여리지만 선명한 향을 맡고서는 그 찻물을 입에 담았다. 마시고 난 이후에도 입안에는 좋은 향기가 가득 찬다.

그러고는 함께 찻잔을 들어준 상대를 마주 본다.

“나는 거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미 개량된 찻잎을 놓아주는 행위 말입니다.”

놓아준다고 해도 어쩔 셈이지? 그것들은 인간의 손길이 없으면 결국 멸종해 버릴 연약한 아이들이다. 그렇다고 더 단단하고 강하게 진화시켜 주자니 그게 이전의 개량과 다를 점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럴 바에는 서로를 위해 이미 개량된 찻잎을 관리하고 써주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겁니다. 인간은 향 좋은 차를 얻어서 좋고, 찻잎은 꾸준한 관리를 받을 수 있어서 좋죠.”

“그도 좋은 생각이지.”

“당신은 그 어느 생각도 부정하는 법이 없군요.”

“내게 정답을 구하고 있었나?”

검은 망토가 후드의 그림자 아래로 협회장 단해라를 보았다. 그 새까만 그림자 안에는 도무지 인간의 얼굴이 있을 거라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저 검은 공허 그 자체. 그뿐인 존재 같았다.

그럼에도 행동은 어찌 그렇게 인간과 닮아 있는지. 어딘가 친근하게까지 느껴지는 그 태도에서 오히려 커다란 위화감이 느껴졌다. 전혀 인간이 아닌 존재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친밀한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꽤 철학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세상에 정답은 없어.”

“하지만 법과 도덕은 있습니다.”

“결국 그 또한 인간이 만든 것이고. 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답’이 그런 종류의 것이라면 나는 할 말이 없지.”

“선하고 어린 것을 선호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마치 순하고 여린 제물을 원하는 못된 악신인 것 같네. 그야 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 보고 있

으면 기운이 나거든.”

“또한 그들을 보호하는 입장이지 않으셨던가요?”

“내 개인적인 취향과 세상의 법칙은 다른 것이니까….”

검은 망토는 법과 도덕은 한낱 인간의 취향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답’은 언제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지.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것 역시 그 복잡한 기호를 인간이 만들어냈어. 그렇기에 정답은 존재할 수 있으나 본질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는 법이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시스템을 없애고자 하고 있습니다.”

단해라가 따듯한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정답이기에 한 행위가 아니었다면 무언가 의도를 담고자 하셨던 것일 텐데.”

“아무 의도도 없었다는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는 걸까?”

“재밌는 농담이었습니다. 흠, 그렇다면 역시 복수하고자 하십입니까?”

“그런 마음은 없는데.”

“실례했습니다, 혹시 당신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반발 작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과거에 반발하는 것은 꽤 의미 있는 행위겠지만 최소한 나는 그렇지 않은 편이야. 늘 후회 없이 살아왔고, 과거를 추억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힘도 없으니까.”

“참 관대하십니다.”

“‘나’는 시스템이 있어도 없어도 큰 상관이 없지만….”

검은망토의 ‘머리’ 부분이 인간의 행위를 흉내 내듯 기울어졌다.

“‘제오르제’ 씨는 그렇지 않은 듯해서.”

하나의 자신을 구분 지어 이야기하는 검은 망토는,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기에 충분할 만큼이나… 기이했다.

단해라가 미소 지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330)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30)"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31)

331

제331화

단해라는 인정했다. 검은망토는 꽤 괜찮은 청자이자 화자였다. 그는 감정의 기복 없이 상대의 말을 수용하고 평가하면서도 비효율적으로 깎아내리는 법이 없었다.

특히나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에 둔해진 단해라로서는 더욱 교류하기에 편한 상대였다. 이것은 심지어 인간에게 호의적이며 신사적이기까지 했다.

'…인간의 자아를 가진 신비가 모두 이와 같지는 않을 텐데.'

오히려 인격이 있기에 더더욱 비틀린 신비가 많았다. 괜히 불쾌한 골짜기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다. 어설프게 인간과 닮은 이들이 배척받는 최소한의 이유는 있는 법이었다.

그런 둘이 나누는 본론은 물 흐르듯 이어졌다.

"계속 지켜보아라?"

"'제오르제'를 설득할 자신은 없어 보여서."

"그 말도 사실입니다."

단해라는 '제오르제'를 설득하기 위해 그를 소환한 게 아니었다. 신비를 설득한다니, 애초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은가. 그러니 이는 앞날을 대비하고자 하는 인간의 발버둥이었다.

"나는 '영원의 약속'의 주관자로서 시스템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오르제' 씨의 부추김에 시스템은 최근 잦은 오류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앞서 몰려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물론 불쾌한 감정이 아예 들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예를 들어 천 년 뒤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지금 당장 그렇게 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최소한 단해라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었다.

미래의 불행과 고통을 앞당겨 오는 것은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단해라는 굳이 미리 겪지 않아도 될 사건과 사고를 끌어모아 제 연구소에 가둬두었다. 멸망처럼 극단적인 상황만 아니라면 왈가왈부할 수 없었다.

"…음, 그래도 불쾌하긴 합니다."

"저런."

"나는 여전히 아직도 사람들에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오르제 씨는 사람들이 네발자전거를 탈 시기는 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위태로운 상황이라."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제오르제 씨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날을 짐작하기 위함이었을 뿐 설득과 협조에 관해 특별히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큰 수확이겠죠.”

최소한 ‘검은망토’는 적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방관자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으나, ‘지오의 초상화’가 보이는 규칙에 따르면 거대한 희생을 내지도 않을 것이었다.

“그러니 남은 것은 저와 인간들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강해 보여서 마음이 놓이는구나.”

“검은 망토께서 협회에 병을 주고 약을 주신 덕분이지요.”

단해라가 빙긋 웃었다. 여느 때와 같이 감정 없는 기계적인 미소였고, 실제로도 이번 사태에 별달리 큰 감정은 없었다. 황당함에 뒤따라왔던 여러 의문도 차차 가라앉은 상태였다.

“손을 써주신 덕분에 사람들은 ‘시스템’의 존재를 예전만큼 중요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자가 있는 구명보트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수영을 배워 보겠다는 심산인 듯합니다. 확실히 그 또한 나쁜 방법은 아니겠죠.”

이 또한 인정할 수 있었다. 어린아이들도 언제까지나 부모의 등에 업혀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들도 결국에는 제 두 발로 걷고 각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 흔히 돈을 주지 말고 돈 버는 법을 가르치라지 않던가.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둥둥 떠 있는 곳이 평지가 아니라 바다 위라는 겁니다. 어리고 약한 이들은 어디에 있을지도 모를 미지의 육지를 향해 헤엄치다 죽어버릴 테죠.”

“그걸 걱정하고 있구나.”

“운이 좋다면 한 명도 안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이 난민들을 바다가 아닌 육지까지 이끌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영원의 상징이 직접 만들어낸 인공 섬일지도 몰랐다. 이 불쌍한 난민들이 떠 있는 곳이 진정 망망대해라면 어찌할 것인가? 몰살당하기 전에 억지로라도 육지를 만들어내야 했다.

단해라는 그것을 대비한 영원의 세월을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그녀의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면 최소한 두 발을 쓰지 못해 익사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바다는 위험 부담이 크지.”

“갓 태어난 아기가 걸음마를 떼기에 적절한 장소는 아닙니다. 더 쉽고 차근차근 안전하게 배울 수도 있을 것을, 없어도 되었을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게 하며 재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어쩐지.”

그림자뿐인 망토의 후드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왜 이렇게 멀리 보나 했더니.”

“예, 안전한 육지까지 끌고 오는 것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다른 ‘영원의 상징’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셨다면 느꼈을 겁니다. 저희는 아주 먼 미래를 보고 있어요. 당장 정해운 길드장의 경우만 해도 그가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의 시작일은 1000년 뒤였죠.”

“너 역시 그랬니?”

“그보다는 빨리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정해운의 것과 달리 협회의 업무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킵니다. 그로 인해 생명 경시 주의는 빠르고 깊게 퍼지고 있습니다.”

단해라가 깍지 끼며 말했다.

“나는 그 희생의 가치를 긍정하지 않으나 효율은 긍정합니다. 매를 일찍 맞아 끝낼 수 있다면 매를 드는 건 나여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당신이 이 판단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검은망토.”

역사에 폭군이며 살인자로 기록될 것임을 알았다. 그럼에도 단해라는 그 수많은 연구소를 지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밀어

넣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조차 단해라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감정이 무뎌진 단해라에게는 죄책감도, 비난에 의한 슬픔도,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마저도 커다란 상이 되었다. 이것은 단해라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며 동시에 더 많은 '약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만큼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또 나타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단해라는 약속이 유지되는 한 영원히 살았다. 이보다 협회장의, 매 드는 사람의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단해라는 이 효율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모든 계획을 망가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내게는 꽤 불쾌한 상황이죠. 기억과 감정의 공백이 크다 보니 사소한 계획 한 줄에도 집착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음, 아니...."

검은 망토가 무언가를 떠올리듯 말했다.

"넌 예전에도 그랬어."

"...그것도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들려주시겠습니까?"

"예전부터 네 계획이 망가지는 걸 참 싫어했지.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계획이었더라도 마찬가지였고. 예를 들자면 서점에 들른 뒤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계획이었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서점을 가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

잠시 말이 없던 단해라가 물었다.

"...?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건가? 드디어 인생을 되는대로 즐겨보기로 한 거니?"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진위 여부를 묻는 거라면 거짓말은 아닌데."

"어리긴 했군요."

"지금도 크게 달라 보이진 않아...."

"그런가요, 의외인 이야기라 조금 놀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망토의 '머리' 부분이 끄덕여졌다.

"그러니 계획이 망가져서 화가 난 건가?"

"앞날을 짐작하고자 한 것도 있지만 화풀이의 목적도 아예 없었다고는 못 하겠습니다. 대체 뭐 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앞날을 이렇게 막아 세우는지 궁금했죠."

"'제오르제' 씨가 가만두고 보기에 영 불안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하지만 그 역시 나야.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킬 일이 없을 거라고 믿어."

"그는 언제나 진실된 존재입니까?"

"아니, 능숙한 거짓말쟁이지."

"그렇다면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해해."

검은망토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미는 법이 없었다. 그에 단해라 역시 협조를 구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 존재는 최소한의 선만을 지키는 방관자이자 관람객이었다.

그런 그가 물었다.

“그럼 본론은 끝난 건가?”

“예, 그저 원망과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한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원망이야 그렇다 치고 감사는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드리죠. 지구의 앞날에 큰 관심을 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유희가 썩 그리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도 감사드릴 만한 일이 맞습니다.”

비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이 초상화는 호의로 지구를 고치려 들었고, 그 방향은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었다. 다만 단해라는 그 과정에 동의할 수 없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검은망토는 그 모든 일을 안정적으로 진행했다. 시스템의 오류와 누락을 근거로 정부와 협회를 시민들로 하여금 무너트리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단지 약간의 갈등을 계기로 더 나아질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와 같은 방관자이자 관람객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검은 망토는 얼마든지 더 무신경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과 어울리며 인간의 흉내를 냈고, 인간의 규칙에 따랐다. 그건 협회장으로서 감사할 일이 맞았다.

“덕분에 나는 나의 계획을 새로이 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숨 쉬듯 쉽게 짓밟아 버릴 수 있었음에도 나와 내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었죠. 저희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의견을 겨루고 계획을 겨룰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단해라가 웃었다.

“나는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오는 생각했다.

‘…우리 싸우고 있었나?’

딱히 무언가를 겨루고 있다는 자각은 없었는데.

하지만 이쯤 되면 지오도 학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남들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었다. 예전에 그의 학생들이 ‘북부 대공’이니 ‘마피아 후계자’니 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었다. 화낼 일도 아니었다.

오랜만에 옛 제자 얼굴을 보아 기분이 좋았던 지오는 그 모든 것을 즐기기로 했다.

“…그렇다니 다행이고.”

아무튼 학생이 좋다니 선생님도 좋았다.

* * *

“그래서.”

지오가 오랜만에 복도 회의를 열었다.

“우리 해라 학생을 볼 낯이 없어지기 전에 제가 무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래.”

“저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서로 최선을 다하자’라는 청춘 드라마 같은 상황에서 ‘대체 뭘 알았다는 거야’라며 초를 칠 만큼 용감하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슨 말이지? 협회장님이랑 무슨 대화를 나누고 온 거야?”

유성운의 반사적인 말에 주현이 고개를 기울였다.

“왜 지오 씨 기를 죽이고 그러세요.”

“주현 씨는 갑자기 극성 학부모가 되었네.”

“장난이었습니다.”

가볍게 웃은 주현이 지오를 돌아보았다.

“그건 지오 씨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제오르제 씨의 생각? 아직 동화가 완전히 되지 않은 탓에 두 의견이 갈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이전에 들은 것 같은데....”

“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인 일이고요. 개인적으로 제오르제 씨는 무슨 사고를 칠까 조금 무서운 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지오 씨가 얌전한 사고를 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만.”

“염치 불고하고 편을 들어주실 거라면 조금 더 확실히 들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오 씨의 활동을 위해 존재하니까요. 그게 매니저의 의의죠. 최근 헌터로서의 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하셔서 마음이 불편한 참이었거든요.”

주현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그려졌다.

“돈만 받아먹는 백수라니, 조금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하는 일도 없이 돈만 받는 건 역시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확실히 성실한 사람이었다. 대가 없이 받는 돈은 주현을 불편하게 만들 뿐이었다. 일전에 망토교에 들러 일명 ‘신의 뜻’을 전파했던 것도 어느 정도는 그 탓도 있었다.

주현이 늘 그렇듯 성실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시려고 계획 중이십니까?”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에 유성운이 끼어들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까지 오랜만도 아니야, 네 연작이 아직도 지구를 뻘뻘뻘 돌아다니고 있는걸.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런 경우인 건가? 그 왜, 아르지오 씨 때처럼....”

“예, 제 명의가 아닌 다른 이름을 써서 작품을 세상에 내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오르제 씨의 이름 뒤에 숨어서 사고를 거하게 쳐보시겠다?”

“그나저나 결국에는 동일 인물이 되었으니 사실상 아무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만.”

잠시 고민하던 유성운이 이내 입을 열었다.

“...우리 길드장님만 끼우지 말아 봐.”

“글쎄요,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해서.”

“제발.”

그건 재앙이 맞았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331)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32)

332

제332화

회의까지 열었지만 사실 지오는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

“뭔가 협회장께서 정정당당하고도 흥미로운 승부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허세를 부렸는데, 안타깝게도 그 어떤 계획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빈털터리입니다.”

“…….”

그리고 어쩌다 보니 반강제로 검은 망토를 집에 초대하게 된 차은혁은 생각했다.

‘보통 빈털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이던가?’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런 차은혁의 모습이 검은망토의 마음을 동하게 만든 것 같았다. 그는 의외라는 듯이 차은혁을 보며 물었다.

“평소라면 조금 더 반박을 하지 않았던가요?”

“…아, 낯설어서.”

“저희가 아직 그런 관계인 겁니까? 물론 이해합니다, 부하 직원과 상사의 관계는 결코 편해질 수가 없죠. 나는 그런 것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차은혁 씨는 원래대로라면 이쯤에서 뭐라고 한번 해줬을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맞는 말씀이긴 한데….”

차은혁이 저도 모르게 검은망토를 훑었다.

거의 천장에 닿을 것처럼 커다란 체격. 그 체격을 덮고 있는, 혹은 그 자체로 보이는 새까만 망토. 그 안의 검은 셔츠와 정장 바지. 무엇보다도 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검은 후드 속 그림자.

그러니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제 직장 상사분 같지 않아요.”

“이런, 본인입니다.”

“말투도 조금 다르고 분위기는 전혀 달라서.”

“달라서?”

“그냥 유전자의 일정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형제분 같습니다.”

“아하.”

지오가 끄덕였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사실 ‘지오’끼리는 엄밀히 따져 동일 인물이라 부를 수 없었다. 동일 인물로 보일 만큼 많은 것이 비슷한 전혀 다른 사람일 뿐이었다.

“유전적으로는 많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괜찮으시다면 쌍둥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확실히 제오르제 씨와 저는 아직 ‘같다’라고는 할 수 없는 상태이니 말입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은혁은 꾸벅 감사를 전했다. 확실히 제오르제보다 여러모로 친절했다. 하지만 감사와 팩트는 별개였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그리고 협회장님께서 지오 씨와의 승부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대보다는 마음의 준비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웬 자연재해가 지구를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정복보다는 전복에 가깝지 않나 싶지만 과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해주신 조언은 감사히 참고하도록 하죠.”

“…….”

정복이고 전복이고 뭔 차인가 싶기 이전에, 말을 너무 잘 들어주셔서 오히려 낯설었다. 이런 점도 그다지 제 직장 상사 같지는 않았다.

‘무뚝뚝하긴 해도 배려는 확실히 이쪽이 더 와닿네.’

본인의 허락도 있겠다 그냥 별개의 인물로 치자 생각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벗어나 주방에 있던 이 집안의 둘째, 차아라가 쭈뼛쭈뼛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대단히 어색한 얼굴로 나와선 슬그머니 물었다.

“저, 차를 조금 우렸는데….”

“이렇게까지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아뇨, 저 원래 이런 거 좋아해요.”

여전히 생긴 건 무서웠지만 반응은 친절했다. 거기에 힘입어 차아라가 웃으며 슬며시 그들 사이에 끼었다. 여러 종류의 요리를 좋아하는 그녀는 손님에게 차를 대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 들떴다.

“예, 예전에 알려주신 레시피대로 한 건데.”

“과연 향이 좋군요, 정성을 들여 말리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저한테 주신 거랑은 천지 차이겠지만….”

“저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네요.”

빈말은 아니었다. 보리를 볶고 말려서 만들어낸 차는 따끈해서 가을에 마시기에 정말 괜찮았다. 곡물차라 그런지 조금 든든해지는 기분도 났다. 거대한 지오의 위장이 정말 차 몇 번 마신다고 채워지진 않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지오는 다시 아까 전의 주제로 돌아갔다.

“해서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지금요?”

“…아뇨, 언젠가는.”

지오는 꽤 게으른 편이었다. 그는 자신이 원할 때만 성실해지고는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거 좀 미룬다고 세상에 멸망하는 것도 아니잖은가.

‘무엇보다 유성운 씨와 주현 씨의 실행력이 이상할 정도로 높아졌다.’

최근 그림 선물 받았다고 신이 난 유성운은 지오를 너무 편하게 대했고, 주현은 비사벌에게 뭔 소리를 듣고 왔는지 너무 과보호했다. 예전에는 액셀 하나에 브레이크가 둘이었는데 지금은 엑셀만 셋이다. 그러니 눈치껏 지오가 자제해야 할 때였다.

그리고 오늘 지오가 차씨 집안을 방문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설마 그가 계획 하나 짜자고 귀한 남의 집까지 방문했겠는가. 지오는 슬며시 집주인에게 물어보았다.

“아이들은 언제 도착한다고 합니까?”

“음, 아마 지금쯤....”

그리고 타이밍 좋게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했다.

“—나 왔어!!!”

이 집의 막내 차이솔과.

“실례하겠습니다.”

그의 파트너 이루다였다.

두 사람의 뒤에는 정장을 입은 어른 몇몇이 있었다. 듣기로는 이루다의 어머니가 고용한 기사 겸 경호라던가. 서울의 신전에서 아이들끼리만 내려올 수 있었던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무사히 도착한 막내를 보며 차아라가 안도의 미소를 활짝 지어 보였다.

“차이솔!!”

“누나!!”

“내 새끼 살 빠진 거 봐 당장 다시 찌워버려!!”

“살이 찐 게 아니라 빠져우부부부붑...!!”

훤히 보이는 현관문에서 사이좋은 재회 시간을 가지는 둘을 본 차은혁이 한숨을 쉬었다. 미간 사이를 꾹꾹 누르던 차은혁은 이내 멀뚱멀뚱 뻘쭘하게 서 있던 이루다에게 다가갔다.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른분께서 먼저 반말해 주시는 게 저로서도 편해요.”

“루다는... 어휘력이 좋네, 이솔이가 좋은 친구 덕분에 금방 똑똑해지겠어.”

“이솔이 원래 똑똑해요.”

“고마워, 그리고 뒤쪽의 다른 분들은....”

“지금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아, 응, 그래.”

종종 만나보고 이야기도 들었지만 아이가 참 어른스럽고 단호했다. 머쓱해진 차은혁을 모르는지 이루다가 뒤를 돌아 장정들을 보았다. 이루다는 차은혁에게 말했을 때보다 훨씬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께는 따로 연락을 드릴 테니 이만 돌아가 보세요.”

“하지만 이곳은 도시가 아닙니다, 아가씨. 사모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곁에서 아가씨의 안전을 살피길 원하실 겁니다.”

“저도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이곳의 집주인분께서 여러분까지 초대해 준 건 아니라서요. 그래요, 그럼....”

이루다가 다시 차은혁을 돌아보았다.

“저, 실례지만… 이 마을에 이분들이 머무실 곳이 있을까요?”

“조금 좁기는 하겠지만 안으로 다 들어오셔도 되는데.”

“그럼 너무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허락해 주신다면 마을 휴식 공간에서 대기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정자가 몇 개 있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다가 경호들을 보았다.

“들으셨죠? 부탁드릴게요.”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버튼을 눌러 저희를….”

“…? 왜 그러세요?”

“…아뇨, 실례했습니다.”

경호 중 리더로 보이는 이가 보이지 않는 집안을 잠시 응시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이루다 너머에 떨떠름한 표정으로 서 있는 차은혁에게 물었다.

“혹시 내부에 다른 헌터분께서 계십니까?”

“아, 그….”

아마도 ‘서지오 헌터’의 존재를 눈치챈 모양이었다. 잠시 고민하던 차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아니지만 헌터가 맞기는 했다. 그렇게 보자면 딱히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예, 저희 집 막내가 좋아하는 형이 있는데 이번에 애들이 신전에서 휴가받은 걸 알고 미리 방문하셨습니다. 강서담 사제님과도 친분이 있는 분이라 따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분 성함이….”

“…….”

이건 좀 더 고민이 되었다.

‘말해도 내 목이 날아가지 않는 게 맞나?’

그즈음 집 안쪽에서 차이솔의 들뜬 음성이 들려왔다.

“와아악 지오 형!! 지오 형이다!!”

“차이솔 그만 좀 뛰고…!”

“형형! 형, 나 휴가받았어요 휴가! 나 완전 잘 컸다 그쵸!!”

이름 석 자 중 두 글자는 이미 공개가 된 상황. 차은혁은 미련이 없어져 버렸다. 그가 아는 검은망토는 이름 좀 떠벌린다고 무고한 시민의 목을 칠 신비가 아니었다.

“…예, 그, 서지오 헌터께서 방문해 계십니다.”

“…그렇군요.”

아마 각성자일 것으로 추측되는 경호는 조금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마저도 능숙하게 감추었지만, 확실히 서지오의 출현은 프로 경호도 순간 혼란을 감추지 못할 만큼 당황스러운 일이었나 보다.

‘딱 봐도 그만한 인물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의아해하는 게 보이네.’

하지만 세간에 알려진 서지오 헌터의 이미지는 훌륭했다. 덕분인지 의아해 보이기는 해도 경호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이 보였다.

던전도 없는 한적한 마을에 인류 친화적인 태도의 A급 헌터까지 있으니 '아가씨'의 신변에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듯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친구분과 시간을 보내시다가 귀가하시고 싶을 때 저희를 불러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아가씨."

"뭔가요?"

"이 마을 주변에 위협적인 몬스터는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가씨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가급적 파악만 하고, 처리가 필요할 시에는 추가적인 승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마을 이장님께도 허락을 맡아야 할 거예요. 마을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던 몬스터의 심기를 어지럽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란 생길 일을 만들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신다면 승인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모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아가씨."

그렇게 대여섯의 장정들이 대문 밖으로 우르르 몰려 나갔다. 사실 '우르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았다. 있는 집 자식을 위해 붙여준 가드들인 만큼 기척이 거의 없었다. 실력자들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각성자나 정원사도 아니면서 왜 이런 걸 알아보고 있는 거지.'

요즘 하는 거라고는 붕어빵 굽고 분식 뒤적거리는 평화로운 일들뿐인데 말이다.

최근 제오르제와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헌터를 볼 일이 잦았다. 대부분 너덜너덜해진 데다 제오르제에게 홀려 제정신이 아닌 몰골들이었지만, 아무튼 민간인인 차은혁도 안목을 기를 기회가 되었던 듯했다.

그런 차은혁을 돌아보며 이루다가 쭈뼛거렸다.

"...죄송합니다, 조금 소란스러우셨죠?"

"...응? 아, 아니야. 이런 적은 처음이라 조금 당황한 거니까 괜찮아."

"예고 없이 이렇게 몰려와 큰 실례를 끼쳤습니다. 이렇게 여럿이 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터미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줄 안내인 한 명만 붙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도시 밖으로 어린 자식 혼자 보내는데 마음 편할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

물론 그걸 감안하고도 놀랄 만했다. 차이솔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순수한 면이 있어서 제 파트너의 경제적 상황을 묘사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차은혁은 이루다가 1등급 시민권자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하긴 1등급 시민 중에서 부자 아닌 사람이 없기는 한데....'

아무튼 신기한 경험이었다.

"바깥에 너무 오래 세워뒀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네, 저기, 이거 저희 어머니가 집주인분께 선물로 드리라고...."

"와, 과일이네. 고마워."

"별말씀을요."

이루다는 고개를 저으면서도 내심 의아했다.

'생각보다 부담스러워하진 않으시네.'

딱히 차별의 의미로 한 생각은 아니었다. 하지만 여러모로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민이 이렇듯 상태 좋은 과일을 구경하기란 힘든 일이라고 알고 있었다.

'아, 하긴 서지오 헌터님과 친하신 분들이라 이런 거 자주 접하시려나.'

어머니께서 챙겨주실 때는 조금 곤란했는데 다행이었다. 그분은 딸의 기를 높여주기 위해 친구의 기를 죽이려고 들었다.

약간 과분할 정도로 선물해 주면 3등급 시민이 알아서 1등급 시민을 대접해 줄 것이라 기대한 듯 보였다.

'어디에 버리고 올 수도 없어서 불안했는데.'

차이솔이야 이루다와 경제적 차이가 커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지만, 그의 집안은 어떨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게 부디 어머니의 사악한 심정은 알아보지 못하길 바라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들고 온 과일 바구니였다. 그런데 단순히 선물 고맙다는 식으로만 받아들이니 이루다의 마음도 편해졌다.

역시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모인다고, 차이솔의 가족도 그 주변도 다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았다.

'차이솔 평생 내 옆구리에 끼고 살아야지.'

안으로 들어가며 이루다가 어쩔 수 없이 조금 들뜬 얼굴을 했다. 안면만 살짝 있는 어른 앞이라 최대한 자제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귀한 선물을 받은 기분에 이루다는 좋은 의미로 초조해진 상태였다.

"…저기, 그리고. 서지오 헌터님도 오셨다고 방금…."

"먼저 오셔서 우리끼리 먼저 대화 나누고 있었어. 미리 알려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뇨, 괜찮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자주 오시나요?"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종종 놀러 오시지."

"그렇군요."

거실로 들어가자 서지오 헌터의 위에 엎어진 차이솔이 보였다. 그는 하얀 사제복 뒤에서 뒹굴거리다가 제 파트너를 보고는 반색했다. 차이솔의 얼굴이 환했다.

"루다야, 왜 지금 와!"

"같이 온 분들 다른 곳 보낸다고 시간을 조금 썼어."

"지오 형도 왔다!"

"응, 나도 보여."

머뭇거리던 이루다가 꾸벅 허리를 접어 인사했다.

"오랜만에 뵈어요, 서지오 헌터님."

"이루다 자매님은 여전히 생각이 깊고 친절하네요."

"아, 아니요…."

"멀리서 오느라 피곤하겠어요."

"그렇게 안 피곤해요."

"하긴 오늘은 피곤해도 안 피곤한 날이어야지, 그렇죠?"

"네…."

수줍으면서도 어색하게 웃는 이루다에 차아라가 방끗 웃었다. 어른스러운 태도의 이루다가 귀여워 죽겠다는 얼굴이었다. 큼큼, 목을 가다듬은 차아라가 치솟았던 광대를 내리고는 말했다.

"자, 그럼 차씨 집안의 제1회 파자마 파티 시작하겠습니다!"

"와아아아아앙!!"

그렇다, 그들은 놀기 위해 모였다.

그게 바로 지오가 지구 전복 계획을 세울 겨를이 없는 이유였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332)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32)"

4.7 13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33)

333

제333화

간섭하는 일이 없어 잊기 쉽지만, 나름 '서지오 헌터'는 차이솔과 이루다 페어의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 둘의 앞으로 종종 후원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강서담 사제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는 조금 놀랐습니다."

다시 말해 '서지오 헌터'는 두 아이의 보호자이기도 했다. 게다가 태양교에서 대놓고 신경을 쓰는 대상. 이 어린 예비 사제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면 강서담으로서는 연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의미다.

"예비 사제로서는 힘든 일이라고 아는데, 휴가를 받으셨다고 하셔서요."

"아, 네. 운이 좋게 이번 토벌에 공을 세우게 되어서...."

"조기 졸업을 위해 여러 실습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 들었습니다."

"사제님들께서 좋게 봐주신 덕분에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루다는 가능한 한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로 후견인을 대했다.

'어머니께서도 최대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지.'

최근 던전에도 매체에도 모습을 보이는 법이 없다지만, 상대는 서지오 헌터였다. 수집상의 비공식 전력. 유능한 데다 인성까지 좋으니 그를 원하는 곳은 많았다.

'유일한 단점이 수집가의 아들이라는 점이라고들 하던가.'

요약하자면 친분을 쌓아 나쁠 게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럴싸한 입지라고는 1등급 시민권자라는 것뿐인 예비 사제 이루다로서는 원래 만나기조차 어려운 사람이었으니 말이다.

무엇보다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그는 안정적인 올라운더. 당장 이루다나 차이솔이야 그와 함께 던전을 갈 일이 없다지만 앞날은 모를 일이었다. 이루다는 제 어머니의 충고를 이해했다. 가능하면 좋게 보여야 할 어른이었다.

"이번 시험에서도 괜찮은 성적을 얻었고요."

"음, 그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분기별로 성적표를 받을 수 있어서요."

"아, 많이 바쁘실 텐데 확인해 주셨군요. 후견인께 성적과 태도에 관한 보고가 올라가는 건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분은 많지 않다고 들어서... 모르실 거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그렇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루다 자매님은 저에게 실례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군요, 휴가

라….”

말끝을 늘이는 지오에 뒹굴거리던 차이솔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런 일 드물대요! 조기 졸업 준비하는 애들도 얼마 없고, 실습에서 휴가받은 사람도 없고! 선생님들이 우리 칭찬 엄청 해주셨어요!”

“벌써부터 이렇듯 두각을 보이다니 기특하기도 하지. 어디 다친 곳은 없습니까? 선배님들께서는 잘 대해주고 있나요, 차이솔 형제?”

“왜 나한테 존댓말 해요?”

“그래, 이솔아. 안 힘드니?”

“안 힘들어요!”

“귀엽기는….”

지오는 뽈뽈뽈 다가와 제 다리에 몸을 걸친 차이솔의 볼따구를 만지작거렸다. 차이솔은 지오의 커다란 손에 제 볼의 운명을 맡겼다. 그 거리감 없는 모습에 이루다가 조금 당황했다.

“차, 차이솔… 그러면 안 돼….”

“이잉, 왜?”

“우리 후견인이시잖아. 예의 바르게 굴어야지.”

“그런 거 안 해도 지오 형은 화 안 내는데.”

“화는 안 내셔도 힘들거나 불편하실 수가 있어.”

쩔쩔매는 이루다에게 지오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린이가 어리광을 부린다고 화를 낼 리가 있나요, 힘들거나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이루다 자매님도 부디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지만….”

“후견인이라고 하니 거창하게 들리는 것이겠죠. 하지만 제가 언제 여러분의 활동에 후견인의 이름으로 아는 체한 적이 있습니까?”

“…아뇨.”

그 점은 이루다도, 그녀의 어머니도 특이하게 생각했다.

후견인 제도란 기본적으로 괜찮은 새싹을 차지하기 위해 존재했다. 아이를 자신의 사람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후견인들이 일반적인 것이다.

‘일종의 인맥 쌓기이자 괜찮은 사제를 포섭하기 위한 투자라는 거지. 단순한 기부 활동이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서지오처럼 돈만 보내고 방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렇다고 후원받는 입장에서 왜 그러시는 거냐며 아는 척하기도 애매했다. 예비 사제에게 후견인이란 까마득하게 높으신 어른이셨다. 그들의 인형에 가까운 예비 사제로서는 연락 한 번 넣는 것도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게 사실이었다.

머뭇거리던 이루다가 물었다.

“…더 편하게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로서는 그렇습니다만, 흠. 차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에….”

이루다는 고민했다.

‘어른을 편하게 대한다는 건 어떤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차이솔을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아니었다. 이루다는 차이솔처럼 천진하게 굴 자신이 없었다. 게다가 둘은 워낙에 친한 사이이지 않던가.

‘보아하니 이 집에도 종종 들르는 것 같고.’

여러모로 이루다와는 상황이 달랐다. 그렇다면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것일까. 이루다의 미간에 골이 깊게 패었다.

‘…그래, 어떻게든 될 거야.’

문제가 있다면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것으로 흠이 잡힌다고 악용하실 분은 아니었다. 애초에 예비 사제의 약점을 잡아 무엇하겠는가, 서지오 헌터 정도 되는 사람이.

거기까지 생각하고서야 이루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하게 대하는 거 맞죠?”

“아, 아마도?”

“그럼 그렇게 해요.”

늘 그렇듯 부드럽게 웃은 지오가 떨떠름한 표정의 차은혁을 보았다.

“슬슬 저녁 식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준비할까요?”

“이번에는 제가 주방을 잠시 빌려도 되겠습니까?”

“…….”

그에 차은혁이 생각했다.

‘이 미친 신비가?’

애들한테 대체 뭘 먹이려고?

차은혁이 입을 꾹 닫고, 차아라가 경악한 얼굴로 지오를 보았다. 차이솔은 아무 생각 없이 늘어져 있었다. 두 어른의 낯을 보고 이루다는 저도 모르게 납득했다.

“아, 그, 서지오 헌터님께서 직접 요리하시는 건가요…?”

일종의 편견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건 확실히 놀랄 만도 했다.

그쪽 방면으로 스킬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A급 정도 되는 헌터가 요리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다. 본인이 먹을 게 아니라면 요리란 대접의 의미가 강하고, 또한 일종의 노동이기 때문이었다.

그야 이전 수집상의 퍼레이드에서 지오는 음식을 만들어 팔기도 했지만, 그 소문은 이루다의 귀에까지 들어오지 않았었다. 그러니 이 상황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수집상에서 바깥으로 잘 내보내지 않으려 할 정도로 귀한 도련님이시라고 들었는데.’

취미로 요리를 하는 헌터들은 꽤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명백히 여기 모인 이들을 위해 요리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루다는 그것이 굉장히 기묘하다고 생각했다. 이곳의 인원 중 가장 고귀한 사람이 그 나머지를 대접하려는 것이 말이다.

하지만 서지오 헌터는 여전히 말끔한 낯이었다.

“예, 이렇게 보여도 꽤 자신이 있습니다.”

“그야 뛰어나실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서서희 헌터님께도 칭찬을 받는 솜씨죠.”

“네? 아, 그… 서 헌터님께서도…?”

그건 더 당황스러웠다.

‘영원의 상징과 친분이 있나?’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신비주의를 고집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상상 이상으로 정보 통제가 잘되고 있나 봐. 영원의 상징과도 아는 사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걸 보면… 서지오 헌터님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정보를 잘 막고 있다는 의미겠지.’

이루다는 버릇처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를 고민하다 이내 고개를 푹 숙였다. 이런 어설픈 계략을 써도 될 사람이 아니었다. 이루다는 제 계산적인 속내를 부끄러워하며 서지오 헌터에게 말했다.

“저, 어디 가서도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입이 무거운 편이니까….”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도와주신다면 기쁘게 받겠습니다.”

“네, 네.”

거절하지 않는 걸 보면 눈치껏 입을 다무는 게 정답이라는 것 같았다. 이루다가 내심 안도의 숨을 삼킬 때 차은혁이 슬금슬금 다가와 속삭이듯이 물었다.

“정말 요리하실 겁니까?”

“주방 내놔요.”

“뭘 만드실 건데요,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아이참, 왜 이렇게 나에 대한 신뢰가 없지…?”

“있게 생겼습니까?”

똑같이 소곤소곤 말을 되돌려주는 꼴을 보아하니, 차은혁은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이 인간은 제오르제였다. 겉모습만큼은 여전히 ‘서지오 헌터’인 것이 다행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혹시 이상한 걸 만든다든가….”

“제가 만드는 음식은 다 맛있답니다.”

“맛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습니까, 제오르제.”

“간단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칠첩반상, 뭐 이런 겁니까?”

“해도 되나요?”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 맞고요?”

“모든 음식은 인체에 영향이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음식인 척은 해주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아하, 우리의 포장마차 메뉴들처럼요?”

“아니 이….”

차은혁이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식사를 준비하시려면 힘드실 테니 저와 함께하시죠.”

“어, 오빠, 괜찮겠어?”

“손님만 일을 하시도록 둘 수는 없지.”

“아니 그, 어, 그래.”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요리를 즐기는 것은 차아라뿐이었지만 그녀는 순순히 물러나기로 했다. 차아라는 최근 그들 장남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돈을 버는지 아는 사람이었다.

‘믿는다.’

어쩌다가 시발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아라는 제 오빠를 믿었다. 그 지랄지랄을 겪고서도 아직 인간 꼴이지 않던가. 어떻게든 감당해 주리라 생각하며 차아라가 턴을 넘겼다.

“그럼 나는 그동안 과일이나 좀 깎아둘까?”

“아니, 그것도 우리가 할 테니까… 너는 애들 좀 봐줘.”

“으응.”

슬픔을 애써 삼키는 장남의 모습에 차아라는 애석함을 느꼈다.

‘진짜 어쩌다 잘못 걸렸지?’

비각성자의 몸으로 신성과 요리를 해야 한다니, 참 가엾은 인간이었다.

* * *

식사를 마친 뒤, 이루다는 평온하게 드러누워 있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되는데….”

“왜 안 돼?”

“…예의가 아니야.”

“안 아프면 된 거지 않아?”

“…예의가 아닐걸…?”

각성자는 밥 먹고 바로 눕는다고 소화가 안 되거나 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이루다와 차이솔은 뛰어난 재능의 보유자였다. 그 정도로 해를 입을 만큼 연약하지 않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어른들은 왜인지 밥 먹고 바로 눕는 행위를 좋게 보지 않았다. 해서 이루다는 그것이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일 거라 생각했다. 다시 말해, 이루다도 할 말이 없었다.

“일종의 관습이라 그런 게 아닐까?”

“어떤 관습인데?”

“일반적인 인체에는 다 소화를 시킨 다음에 눕는 게 가장 정석이라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너 그냥 드러눕고 싶어서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지.”

“히히히!”

“나도 모르겠다….”

어차피 이루다도 드러누운 상황이 아닌가. 쌀쌀한 날씨에 보온이 잘 안되는 집이라 추울 법도 하건만 왜인지 온몸이 노곤노곤했다.

‘정말 맛있었지.’

이루다는 서지오 헌터님이 차려준 식사를 복기 중이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이루다였다. 어렸을 때부터 어지간한 식당은 전부 돌아다녀 봤고, 몸에 좋고 귀하다는 음식도 모두 섭렵했다. 하지만 서지오 헌터님이 차려준 칠첩반상은 정말이지 환상적이었다.

'그 나물들은 직접 가져오신 거려나.'

특히 그 약재 향기가 강하게 풍기는 동파육은 정말, 하, 정말로.

"…식당 안 차려 주시겠지?"

"형 식당 차릴까 고민 중이래."

"언제 개업하실 예정일까?"

"…응…?"

차이솔이 드물게도 떨떠름한 얼굴로 제 파트너를 보았다. 형은 고민 중이라고 했지 개업을 준비 중이라고는 안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단계를 건너뛴 질문이었다.

"루다는 가끔 고장이 나는 것 같아."

"반성할게."

"아니, 그, 응… 그래… 그러자…."

그런 둘의 대화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지오가 사과를 건넸다.

"과일 좀 먹어보지 않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루다는 바로 일어나서 곱게 잘린 사과를 받았다.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과일 바구니이니 상태가 정말 좋은 과일이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예전에 먹었던 것처럼 맛있게 느껴지진 않았다.

'뭐지.'

아무래도 너무 맛있는 걸 먹은 직후라 미각이 망가진 것 같았다.

"…혹시 식당…."

"고민하고만 있습니다."

"어디에 차리실 예정인지…."

"정말 할지 말지 생각하는 중이라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네요."

"저희 집이 정말 괜찮은 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하, 정말 준비하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준비를 하셔야 할 텐데.

'이런 실력과 재능을 가지시고 식당을 차리지 않는 건 인류의 죄악이 아닐까?'

물론 창업은 본인 마음이겠지만, 조금 억울하기까지 했다. 차이솔이야 집안 전체가 서지오 헌터와 친하니 종종 이런 기회가 있겠지만 이루다는 아니었다.

'박탈감이 느껴져.'

한층 어른이 된 이루다였다.

* * *

그렇게 성실한 두 아이는 소화를 마친 오후 9시에 잠이 들었다.

"……."

"…흠."

지오는 턱을 쓸고서는 물었다.

"원래 파자마 파티가 이런 식인가요?"

"어, 글쎄요… 저희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더 왁자지껄하게 노는 행사가 아니었던가?"

"애들은 일찍 자는 게 맞죠."

"그렇긴 한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차은혁은 그런 제 상사에게 일침을 가했다.

"그거 도파민 중독입니다, 제오르제."

"아 근데 진짜 원래 이런 거 아니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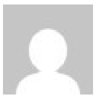
"애들 자게 둬요, 좀."

"나 너무 억울해서 울 것 같아."

제오르제는 지극한 아쉬움을 느꼈고.

이 밤을 이렇게 순순히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34)

334

제334화

냉정을 되찾기 아쉬울 만큼 평화로운 잠자리에서 이루다는 문득 이상을 감지했다.

위험해.

“…어….”

어느 순간, 그녀가 눈을 뜬 곳은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

그건 말 그대로 정원이었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정원’이 아닌 여러 꽃과 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일반적인 정원. 하늘은 분홍빛과 연보랏빛으로 물든 채 구름이 둥실 떠갔다.

아기자기하고 몽환적인 아름다움이 한가득 자리하고 있는 세상.

‘일단 내 꿈은 아니야.’

이루다는 그렇게 확신했다.

‘내가 이렇게 예쁜 꿈을 꿀 리가 없어.’

이유가 비단 그뿐만은 아니었으나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랬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까움을 느낄 정도로 아름다운 이 정원은 어딘가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루다는 자신이 벤치에 앉아 있었음을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긴 대체 어디지?”

“루다야!”

“차이솔?”

“루다도 있네!”

“아니, 너….”

이루다는 반가운 얼굴로 다가오는 차이솔을 멈춰 세웠다.

"잠깐만, 네가 내가 아는 차이솔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평범한 꿈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너는 당연히도 가짜일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 경우 너의 접근을 허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몰라."

"미안한데 쉽게 말해줘."

"반가운데 못 미더우니까 우리 거리 유지하자."

"음...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

차이솔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 목걸이도 없어."

"아, 그건 나도...."

서로의 위치를 알기 위해 나누어 가졌던 쌍둥이 목걸이도 벗어두고 자던 상황. 아무래도 자고 있던 몸뚱이 그대로 들려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둘은 더더욱 서로를 의심해야 했다.

솔직히 이루다는 조금 뿌듯했다.

'그 맹하던 애를 내가 여기까지 만들어냈다.'

보아하니 차이솔도 이루다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다. 상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다만 그녀가 아는 차이솔이라면 아주 장족의 발전이었다. 특히나 이런 공간에서는 더더욱 갈고 닦은 보람을 느꼈다.

"일단 가볍게 서로에 대한 검증부터 해볼까?"

"나는 좋아, 자신 있어!"

"아니, 게임하는 게 아니니까...."

최근 여러 차례 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은 둘이었다. 서로의 신분이 확실하지 않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다. 그들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여러 대화를 통해 진위 여부를 살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기억' 면에서는 모든 것이 일치했다.

"좋았어, 이제 네가 내가 아는 차이솔이 아니라면 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존재가 맞다는 뜻이야. 혹시 모르니 도망칠 준비도 해놓을게."

"으응, 나도...."

"한 번에 믿지 않는다고 해서 번번이 실망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건 당연한 절차야. 우리의 두터운 우정과 신뢰에 흠이 가는 행위가 아니라고."

"당연히 알지."

차이솔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자, 마지막!"

"그래."

둘은 마지막으로 서로의 신성력을 교환했다.

'이건... 태양의 신성력이 맞다.'

이루다의 얼굴이 티 나지 않게 밝아졌다. 어딘가 심해처럼 차디찬 느낌도 있으나, 그보다 훨씬 열정적이고 화려한 감각. 그런 다채롭고 기묘한 태양의 신성력은 차이솔만 쓸 수 있었다.

그리고 확신을 얻은 건 차이솔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이거 루다 거 맞아!"

"차이솔, 너무 빠르게 특정하는 거 아니야?"

“그냥 처음부터 성력을 교환하면 안 되는 걸까.”

“…인간의 음성과 언어를 통한 문답은 꼭 필요한 과정이야. 무엇보다 신성력을 교환할 때 자칫 잘못 속으면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너도 알잖아.”

“응, 그러니까 가장 위험 부담이 적은 순서대로 확인하는 거라고… 신비는 규칙에 얽매이니 대부분의 삿된 것들은 이런 문답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했어.”

“아티팩트나 통찰 스킬까지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우리는 이걸로 만족하자.”

이루다는 신성력을 교환하기 위해 맞잡았던 손을 그대로 잡아끌었다. 늘 있던 일이라 그런지 차이솔도 유유히 끌려갔다. 둘은 자연스럽게 착 붙어 현재 상황의 돌파구를 모색했다.

“아무래도 조건부 던전에 끌려온 것 같은데.”

“가상 던전 말하는 거 맞지?”

“최소한 내 기억에는 어딘가로 이동했던 기억이 없으니까.”

그곳에는 기묘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저도 모르게 이루다는 여러 구성물에 시선을 빼앗겼다. 솜사탕처럼 뭉쳐 있는 구름이나, 반짝이며 떨어지는 폭포수나, 나른한 바람결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여러 꽃들에 말이다.

“…생긴 건 정원이고.”

“몬스터는 안 보여.”

“정말 없거나, 우리가 못 찾았거나.”

“그냥 없는 거면 좋겠다, 여기 예뻐서 마음에 드는데.”

“글쎄, 나는 그다지.”

“응? 예쁘지 않아?”

“내 취향의 문제가 아니야. 이곳은 분명 미적으로 따졌을 때는 큰 가치가 있겠지만….”

이루다는 아까부터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마치 꿈과 환상의 동산처럼 아름다운 이곳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이질감이 존재했다. 잠시 고민하던 이루다가 이내 그것을 정의했다.

“…살아 있는 것 같아서 꺼림칙해.”

“식물은 원래 살아 있어.”

“내 말은, 꼭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 같다고.”

“으응…?”

“…나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나 그거 알아.”

차이솔이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다는 듯이 말했다.

“산 채로 박제된 거 아니야?”

“…뭐?”

“어, 그, 수집상에 그런 작품이 있대.”

“산 채로 박제된 작품이 있다고…?”

이루다가 경악했다. 수집가가 신사인 척하는 미치광이라는 말은 여러 번 들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비위가 상하는 소리였다. 차이솔은 곰곰이 생각하듯 앓는 소리를 냈다.

“으어엄... 아마도? 나도 지오 형한테 들은 이야기라 잘은 몰라. 그런데 검은 망토는 산 채로 박제된 거라고 했고... 그래서 루다가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어.”

“너 검은 망토의 아들이면서 그런 말 해도 돼? 극비 아니야?”

“나 아들 아닌데? 동생인데?”

“아무튼 차이솔 너 사도잖아.”

“이런 걸로 화내지 않을 거야, 괜찮아.”

“아니….”

“지오 형은 이런 걸로 화 안 내.”

“…….”

잠시 말이 없던 이루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네 말이 맞아. 딱 그런 느낌이었어. 산 채로 박제된 것들을 보는 기분. 포르말린에 담갔음에도 아직 살아 있는 생물을 박물관에 전시한 것 같은….”

“포르말린이 뭐야?”

“…방부제.”

“역시 루다는 똑똑해.”

“어, 그래, 고마워.”

둘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꼭 어린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유치하고 환상적인 세상을 구현해 놓은 듯했다. 말도 안 되는 동식물도 가득했다.

사탕이 피어나는 꽃,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호수, 초코소라빵을 닮은 소라게가 누워 있는 해변가. 바움쿠헨으로 만들어진 나무. 솜사탕 구름이 걸쳐진 장대. 탄산음료가 보글보글 올라오는 약수터. 이외에도 달콤한 것들로 가득 찬 풍경….

“이거 맛있다.”

“먹고 탈 나도 나는 몰라.”

“핫초코야, 루다도 먹을래?”

“아니.”

차이솔의 태평한 모습을 보던 이루다의 시선이 이내 허공에 닿았다. 아니, 사실 아무 곳에도 닿지 못했다. 이루다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녀의 의지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시스템이 먹통이야.’

최근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던데 그 일환일까? 하지만 단순 오류나 누락이 아니라 애초에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던전의 특성인가? 그렇다면 이곳을 과연 ‘던전’이라 말할 수 있나?

차라리 몬스터라도 있었더라면 좀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루다는 이 평온함 속에서 지독한 위화감을 느꼈다.

‘말 그대로 환상의 세계….’

절제할 줄 모르는, 특별히 교육받지 않은 어린아이들이라면 혹할 법한 광경이다. 달고 짠 음식이 식물로 피어나고 솜과 천으로 만들어진 귀여운 동물은 무해하게 지나쳐간다.

그 어떤 억압도 책무도 없다. 단지 먹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모든 것이 나를 긍정하는 이 간지러운 감각들. 하지만 그렇기에 기괴했다.

“이런 세상이 대체 어디에 있겠어?”

“어? 여, 여기 있잖아.”

“유토피아는 결코 존재해선 안 돼.”

생물의 본능은 이기심이다. 스스로를 보전하는 생존 본능에서부터 시작해 현존하는 자원을 소비하며 생을 이어간다. 그렇게 공존한다. 그 과정에서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방법 따위는 나올 수 없었다.

그렇기에 이곳은 살아 있으나 텅 빈 지옥과 다름이 없다.

“여긴 어느 변덕스러운 악신이 만든 사후 세계인가? 아니, 그렇게 쳐도 말이 안 되지.”

그 어디에도 완벽한 행복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이곳은 명백히 존재하고 있다. 그 간극에서 나오는 공포가 이루다를 조금씩 잠식했다. 발끝을 타고 오르는 초조함이 있었다.

대체 내가 여기에 어떻게 끌려오게 된 것일까. 이 공간은 대체 뭐 하는 곳인지, 하는 의문에.

“…그야 신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전지하며 전능해. 혹은 그에 가까워. 그러니 그만큼 거대한 신비가 작정하고 유토피아를 만든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차이솔.”

“…….”

“그걸 하나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나? 거대한 기만이고 연극이지 않겠어? 모든 것이 행복과 만족으로 통제당하는 세상을 과연 긍정적으로 봐야 하나?”

보라, 이곳의 억척스러운 동식물을 말이다. 호랑이는 토끼와 친구가 되었다. 인형이기에 먹고 마실 필요를 박탈당하여 사냥하고 사냥당하지 않는다.

차이솔의 손을 쥐고 있는 이루다의 손에 축축하게 식은땀이 배어났다. 그녀의 시선이 이 유토피아를 낱낱이 훑고 있었다.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희게 질린 손끝이 조금씩 떨려왔다.

“던전이든 사후 세계든 뭐든 악취미야. 최소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무하지 않나? 너무 인간 중심적인 행복이지 않아? 모든 것이 인간의 말초적 쾌락을 위해, 잡아먹히기 위해 간편히 조리되어 존재하는 이곳의 식물들과… 솜과 천으로 되어 누굴 사냥하거나 풀을 뜯을 수도 없는 거 말이야.”

“…….”

“차이솔.”

“…….”

“차이솔, 대답해.”

“…….”

“…….”

이루다가 굳은 고개를 돌려, 차이솔을 보았다.

‘차이솔?’

‘루다도 있네!’

‘차이솔, 너무 빠르게 특정하는 거 아니야?’

‘그냥 처음부터 성력을 교환하면 안 되는 걸까.’

‘아무튼 차이솔 너 사도잖아.’

‘이런 걸로 화내지 않을 거야, 괜찮아.’

‘차이솔.’

'…….'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것은 차이솔이라는 '정의'를 긍정하지 않았다.

차이솔이라는 이름에 응답하지 않았고, 차이솔에게 물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며, 차이솔을 향한 설명에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바는 명백했다.

이루다가 식은땀에 젖은 손을 뗐다.

"너 누구야."

이곳은 평범한 던전이 아니고.

또한, 이것은 차이솔이 아니다.

* * *

"너 누구야."

그래, 제오르제는 차이솔이 아니었다.

"역시 루다는 똑똑하네."

"……."

"…으음, 미안해…."

"……."

"정말이야, 무섭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좀 변명을 해보자면.

'아니 그치만 정말로.'

그는 단지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한 것뿐이었다. 그 깜찍하고 귀여운 입으로 파자마 파티를 입에 담았다면 깜찍하고 귀여운 난장판 정도는 쳐주는 게 당연지사 아니었던가.

하지만 이루다는 철이 일찍 든 건강한 삶의 아이였고, 차이솔은 그런 파트너를 존중하는 새 나라 어린이였다. 제오르제는 이 둘이 받은 귀한 휴가를 더 즐겁게 보냈으면 했을 뿐이었다.

"내가 아는 어린이와는 많이 다르구나."

"…모든 아이가 다 같은 형상을 띠지는 않죠. 개체별로 특징이 뚜렷하거든요. 인간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셔야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비약이 심하지만 네 말도 맞아. 내 실책이야, 더 조사했어야 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똑똑해서 탈이었다. 상상 이상으로 철이 일찍 든다.

어릴 땐 그냥 흥미롭고 재밌고 해피 엔딩이면 다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오의 생각이 너무 일차원적이었던 걸까, 아니면 세상이 그만큼 많이 바뀐 걸까. 그가 아는 아이들은 굳이 동화책의 허점을 짚어내지는 않았단 말이다.

'마녀의 과자집이 맛있겠다고만 생각하지 굳이 보존 및 관리 과정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루다 친구가 너무 똑똑해서 놀랐다. 먼저 다른 꿈으로 놀러 간 차이솔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신 남아 이미지 관리를 해준 것뿐인데, 더 깊은 곳으로 가기도 전에 애가 많이 놀란 것 같았다.

이루다의 시선이 따가웠다.

"대체 무슨 목적으로 접근한 거죠? 차이솔은 어디 있고, 여긴 어디야."

"……."

그제야 제오르제는 문득 생각했다.

‘어라, 첫인상 망했나?’

아무래도 그런 듯하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35)

335

제335화

“태양이시여, 맙소사.”

한편 ‘지오’라고 가만히만 있지는 않았다.

“누가 제오르제 씨 좀 끌어내 봐요.”

“어리고 약한 것을 핍박하다니, 쯧… 못난 것.”

“졸지에 어린아이들을 겁먹게 만든 쓰레기가 되었군요.”

“솔직히 말해서 같은 취급 당해서 자존심이 상하는데 우리는 별개로 치면 안 될까요?”

“사전에 못 막은 죄가 있으니 그건 좀 어렵겠군.”

“여러모로 통제가 안 되네, 곤란해라.”

“어린 자매님이 더 겁을 먹기 전에 정신 줄 좀 잡아보죠.”

“하여간, 장난도 상대를 봐가면서 쳐야 할 게 아닌가.”

“살다 살다 아이를 다 괴롭혀 보고….”

결국 지오는 자진해서 목줄을 걸었다.

“참 대단한 사람이야.”

가끔 보면 제오르제는 정말 건조한 것 같았다.

사랑과 증오는 필연적으로 관심을 써야 할 텐데도, 참 희한하지.

* * *

“으음, 정말 무섭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

“…다들 나를 혼내네.”

“…읏.”

이루다가 주춤 뒤로 물러섰다.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루다가 '차이솔'을 통해 느꼈던 제 파트너 특유의 신성력, 그것만큼은 사실이었다. 만약 그것을 흉내를 냈다고 쳐도 최소한 신성의 신비라는 것이다.

'차이솔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예민해져서 너무 섣부르게 반항했을지도 몰라. 상대를 자극해서는 안 되는데....'

이 자는 악신일까?

'아니, 애초에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

전통적인 신과 악신의 구분은 오로지 인간의 기준을 따른다. 그러니 얼핏 보기엔 전통적인 신일지라도 어느 측면에서는 악신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지금이 그 상황인 듯했다.

'강서담 사제님께서도 신성을 믿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지.'

그들은 인간을 공부하고 그들의 기준에서 생각해 줄 수는 있으나, 아주 드문 경우였다. 그리고 그렇게 한들 결국엔 거대한 신비가 인간의 관점을 흉내 내는 것뿐. 얼마든지 크고 작은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다만 그런 의문은 들었다.

'...신비를 상대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정말 멍청한 짓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정말 이 공간이 역겹지 않은 건가?'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는 게 새삼 확실히 느껴졌다. 그에 차이솔의 형상을 한 무언가는 대답했다.

"미안해요, 그렇게까지 싫어할 줄 몰랐어요."

"...! 생각을...!"

"너무 마음 아픈 생각이라 나도 모르게 대답을 했네요. 어느 부분이 역겨웠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에 초대할 때는 불쾌한 부분이 없도록 더 신경 쓸게요."

"......."

"루다야?"

역시 이것에겐 인간의 마음이 없었다. 제 파트너를 흉내 내고 있는 것이 소름 돋을 정도였다. 이것은 단지 인간을 '공부'하고자 한다. 머뭇거리던 이루다가 이내 심호흡을 했다.

'...본능적인 역겨움이 드는 것과 별개로 다행히도, 상대는 호의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다. 이렇듯 격 높은 존재가 먼저 인간 흉내를 내주겠다고 하면 마땅히 그에 따라야 해....'

상대의 장단에 맞추는 것이 신비에 휘말렸을 시 가장 생존 확률이 높았다. 이루다는 그동안 신전에서 배운 것들을 차근차근 머리와 가슴에 다시 새겼다.

그렇다면 이 존재는 과연 거짓말을 허용하는 존재인가.

"...당신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우리는 누구나 거짓말을 하며 살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거짓말을 할 수 있겠네요, 당신과 같은 '인간'이니까."

"아, 귀여워라... 그 야무진 제안을 하기까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지."

'차이솔'은 귀엽다는 듯이 웃었다. 그 모습에 위화감이 없어 오히려 소름 끼쳤다. 이 존재는 단순히 제 파트너의 형상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상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기꺼이 허락한다는 듯이 끄덕였다.

"물론 거짓말을 해도 되겠죠, 루다 네가 원한다면."

"거짓말을 기만으로 여기지 않으십니까?"

"그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언제나 솔직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인간은 공동체를 구

성할 수 있었을까? 적당한 거짓말은 관계에 있어 좋은 윤활유가 되지.”

“…잘 이해했습니다.”

적당한, 거짓말.

‘…비위를 맞추라는 뜻이군.’

모든 것을 솔직하게 대답해야만 하는 것보다는 위험 부담이 낮았다. 솔직함을 강요받았다면 상대의 심기에 거슬리는 말을 해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소한 그것은 아니라고 하니.

“…방금 무슨 질문을 제게 하셨죠?”

“이곳의 개선점이 궁금해요.”

“사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당신의 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전부 했습니다. 유토피아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큰 기만이고 모순이니까요.”

“기만과 모순은 존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뇨, 하지만 이곳이 정말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족시켜 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불쾌하지는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부분이 불쾌했어요?”

“이상적인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

여전히 소름 끼쳤다.

“그리고 그 모든 행복과 만족이 그저 인간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루다는 시야가 참 넓네요, 다들 자신의 종족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던가?”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은연중에라도 불쾌감을 느낄 사람은 많을 거예요. 이, 이것들은….”

머뭇거리던 이루다가 고민 끝에 결국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마음먹고 입을 열었다.

“당신이 만들어낸 이 공간의 동식물은 모두 인간을 위해 개조되었습니다. 산 채로 박제되었어요. 인간이 가장 저열하고 유치하게 좋아할 수 있는 형태로 빚어진 거죠.”

그것은 생태계라고 부를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치 아름다운 자연을 흉내 내듯 생태계를 꾸며내고 있었다. 오로지 이 세상에 온 인간 한 명을 위해, 연극하고 있었다.

하물며 이 연극은 유일한 관객인 이루다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이란 말인가. 마치 모든 동식물이, 행복을 강요하듯 저만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이것들이, 무섭고, 끔찍했다.

“…끔찍해요.”

“슬퍼라,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동물과 식물들에게는 자아가 있나요?”

“인형과 음식에 불과한 친구들이랍니다.”

“인형과 음식이라 말하면서 어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죠…?”

“나는 아주 작은 미물과 길가의 돌마저도 친구로 여기니까요.”

차이솔의 얼굴이 애석하다는 듯 울상을 지었다.

“우리는 친구가 되기는 힘들까요?”

“…생각해 볼게요.”

“배려해 줘서 고마워요, 친구.”

“…….”

“하지만 믿어줘요.”

이내 그것의 형상이 변했다.

형상이, 마치 꽃처럼.

꽃다발처럼.

온갖 향기가 나는 꽃잎처럼.

그 위에 앉은 나비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변해서.

“악의는 없었다는 것을.”

“…….”

“…아, 슬퍼라….”

아름답고.

“그럼 이제 없던 일로 해볼까요?”

징그러웠다.

* * *

복귀한 제오르제는 일단 얻어맞기로 했다.

* * *

“……?”

오전 10시, 휴가에 걸맞은 상쾌하고도 적절한 시간대의 아침 기상.

“…이게 뭐지?”

“헉 나랑 같이 먹어!!”

“아니 이게 뭔데.”

이루다는 제 몸통 위에 올려진 미니 꽃다발을 보았다.

“아, 이거 초콜릿…이구나?”

“지오 형이 만들었대.”

“너도 뭘 들고 있네?”

“나는 젤리! 동물 젤리!”

“아하….”

다시 시선을 내려다보니 색소로 색을 냈는지 알록달록한 꽃 초콜릿이 보였다. 손으로 쥐면 쉽게 바스러질 것처럼 섬세한 이것은 마치 진짜 꽃처럼도 보였다. 미니 장미와 다양한 꽃을 조금씩 섞은 꽃다발 초콜릿이었다.

멍하니 있던 이루다가 미니 장미 하나를 꺼냈다.

“…가시가 없어….”

그 중얼거림에 주방에서 지오가 슬쩍 나와 말했다.

“인위적으로 만든 식용 장미인데 가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어, 뭔가, 있어도 될 것 같은 비주얼이라서… 잠깐 착각했나 봐요. 하긴 초콜릿인데 굳이 가시까지 재현하긴 좀 그렇죠.”

“그렇게까지 예쁘게 봐주니 너무 기쁘네요.”

“아니, 그렇게까지 기쁘실 건…?”

정말 진심으로 기쁨을 가득 담은 미소라 이루다는 얼떨떨해졌다. 그리고 왜인지 저 기쁨의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제가 혹시 서지오 헌터님의 선물을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적이 있었던가요?”

“음… 아뇨, 아마 없을 겁니다.”

“…아, 넵….”

이루다는 알 수 없는 찝찝함에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나?’

시선이 저절로 꽃 초콜릿에 닿았다.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손에 잡힌 초콜릿은 녹지도 않았다. 딱히 냉기가 느껴지지도 않는 걸 보면 스킬이라도 쓴 게 아닐까 싶었다.

‘…맛있네.’

일어나자마자 먹기에는 양심이 찔리지만, 색만 그럴싸하게 낸 것이 아닌지 진한 딸기 맛이 났다. 먹다 보면 레몬과 유자 향이 조금씩 섞였는데 색별로 맛이 다른가 보다.

“저기, 갑자기 선물은 어째서?”

“간밤에 너무 적게 논 듯해서 아쉬운 마음에 선물을 드렸습니다. 더 왁자지껄하게 노는 모습을 보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던 탓이겠죠. 이건 제 반성의 선물이고요.”

“아, 아니요. 저희가 더 즐거웠으면 하는 마음이 어떻게 욕심이 될 수 있겠어요.”

“행복도 강요하는 순간 독이 되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서지오 헌터의 바닷빛 눈이 부드럽게 휘었다.

“물론 그걸 모르는 사람도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만….”

“어, 음, 예.”

“이루다 자매는 그리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럴게요?”

“혹시 입맛이 떨어질지도 모르니 거기까지만 먹는 걸로 하죠. 차아라 헌터님과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이거든요. 약재를 좋아한다 말씀하셔서 삼계탕도 끓여 보았습니다.”

“아, 저 그거 좋아해요….”

뭔가 놓친 게 있는 듯 허전했지만, 이렇게까지 생각이 안 나는 걸 보면 별거 아닌 일이었을 것이다. 이루다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제야 코끝에 스치는 향기에 따라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런 루다를 보며 차이솔이 물었다.

“좋은 꿈 꿨어?”

“응? 아니, 나는 원래 꿈을 잘 안 꾸는 편이라….”

“다음에는 같이 꾸자!”

“무슨 영문 모를 소리야, 차이솔… 또 같이 자자는 이야기인가?”

“히히.”

당연히 루다와 함께 놀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차이솔은, 가볍게 아쉬움을 삼켰다. 원래 내가 좋아한다고 남한테까지 강요하면 안 되는 거라 배웠다.

‘루다가 많이 놀라서 못 데려왔다고 했지. 제오르제 형도 그건 나중에 정식으로 사과할 거라고 했어.’

그거면 된 게 아닐까 싶었다.

후식으로 먹은 삼계죽은 정말 맛있었다.

* * *

“그래서… 내가 감을 좀 잡은 것 같은데.”

“…….”

“들어볼래요?”

“…허, 참 내.”

와인 잔을 기울이던 정해운이 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내 몇 없는 인간관계를 파탄 내려고 작정을 하셨군.”

“정 듣기 싫다면 나야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

“하지만 나야 언제나 우리 자비로우신 정원님의 편이지. 당신의 수족이고, 학생이고, 제자야. 원한다면 얼마든지 나를 부릴 수 있습니다.”

“아니지, 정해운 학생. 당신이 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삶의 모든 행위에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꽃 더미였다. 시체를 묻은 꽃밭이고, 꽃으로 장식된 무덤이었다. 온기가 잘 느껴지지 않는 미온의 손이 정해운의 머리를 쓰다듬고, 가볍게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정해운의 뒤에 선 기다란 꽃다발이 속삭였다.

“가상의 던전을 불러오자니 우리의 첫째 형님께서 이미 쓰셨고.”

“그래요.”

“그러나 꿈은 둘째 형님께서 쓰신 방식이기에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통로 없는 정원이 잔뜩 있으니….”

“아하, 그래?”

정해운이 고개를 뒤로 젖혀 정원을 보았다.

“우리를 죄다 정원사로 만들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지.”

“그렇게까지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난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

“하지만 사랑받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좋아해, 아껴지는 것.”

그것은 달이 핀 정원과도 같은 낯이었다.

“죽고 싶을 만큼.”

“…….”

“사랑하지….”

말없이 와인 잔을 비운 정해운이 그것을 탁자에 내려놓고는, 말했다.

“…선생님.”

“그래, 해운아.”

“선생님.”

“정해운.”

“죽지 마.”

“너도 똑같아.”

“죽으면 안 돼, 그치?”

그가 다시 한번 말한다.

“죽지 말라고.”

어딜 봐도 한결같이 끔찍한 상황이었으나, 웃음은 나왔다.

여기에 선생님이 있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335)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35)"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36)

336

제336화

정해운의 꿈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미 불에 탄 학교 대신 그 앞의 운동장. 그곳에 세워진 다양한 천막과 자그마한 구조물들. 작다고는 할 수 없을 운동장에 만들어진 그들만의 작은 마을이었다.

이번 배경은 그 천막 중 한 곳이었다.

"선생님."

"그래, 해운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그러지 말고요."

더는 쓸 수 없는 전기 대신 그들은 불을 쓰기 시작했다. 간단하게 만든 간이 촛불이 타닥타닥 희미한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다. 그 온화한 빛을 쐬는 얼굴은 무뚝뚝하고 어딘가 음울했다.

그리고 또한 피곤해 보였다. 꿈속의 정해운도 그것을 아는 것 같았다.

"잠 안 자고 있잖아요."

투박하지만 걱정이 잔뜩 묻어나는 어조였다.

'…역시나 어린 내 시점에서의 기억인가. 익숙해질 법도 한데 항상 기분이 묘해.'

제 친구들에게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정해운은 제오르제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아니면 휘둘리고 있다고 해야 할까. 그는 이렇듯 조용히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중요한 맥락은 대충 다 떠올린 것 같은데, 이런 잔잔한 일상들은 아직도 계속 꾸게 된단 말이지….'

그는 꿈인 척 진행되는 제 과거의 이야기를 무던하게 직시했다.

제오르제의 변덕스러운 배려 덕분에 정해운은 이런 꿈에도 침착할 수 있었다. 큼직한 기억들은 전부 떠올렸으니 오늘 그가 떠올리게 될 것은 아마 선생님과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가 될 듯싶었다.

'…그래, 저런 때도 있었지.'

내심 납득하는 어른 정해운과 달리 꿈속 정해운은 계속해서 제 선생님을 걱정했다.

“다른 애들도 좀, 뭐라고 해야 하지… 불안해하고 있고.”

“내가 내 능력을 공부해 보겠다는데 너희가 불안할 이유가 대체 뭐야.”

높낮이가 없는 음성은 마치 상대를 비꼬거나 나무라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꿈속의, 과거의 정해운은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선생님은 그저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더 걱정되는 것일 터다.

“솔직히 이런 걸 ‘능력’이라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던데요, 나는.”

꿈속의 정해운은 자신이 느끼는 걱정의 근원도 몰랐고,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워했다. 그래서인지 마땅한 대책도 없이 단지 투정을 부리기만 했다.

“그냥 저주 아니야? 뭐 조절되는 것도 없고, 피아 구분도 없고….”

“저주라기에는 여러모로 알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이러다가 선생님이 또 이상한 저주 같은 거에 걸려서 기절해 버리면 곤란하다고요. 그런 건 지난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말이 길어지는 걸 보니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은 것 같고.”

“진짜 진지하게 하는 말이에요, 쌤.”

그 당시에도 물론 ‘각성자’들은 있었다. 하지만 초기의 그들이 ‘초능력자’ 등과 같이 온건한 호칭이 아니라 ‘괴물’로 불린 이유가 있었다. 바로 각성한 능력자들의 비참한 말로 때문이었다.

그들의 능력은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갉아 먹기 일쑤였다. 영원의 상징인 정해운은 그것이 신비의 방대함을 조절하지 못한 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32년 전에는 아니었다.

“그러다 수명 깎여요.”

“내 능력을 살핀다고 수명이 깎일 리가 있나.”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의 능력이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내 말은. 쌤은 능력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냥 저주라고.”

“이걸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꿈속의 ‘선생님’이 고개를 기울이는 게 보였다. 그러고는 눈을 느릿하게 두어 번 깜박였다. 정해운은 그게 제 선생님이 고민에 잠길 때마다 보이는 버릇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

이번에 그는 설득을 위해 고민을 한 모양이었다.

“길 가다 계란을 얻어맞았다고 해보자.”

“갑자기요? 누가요? 쌤이요?”

“가정이라고, 정해운. 그리고 내가 아주 배고픈 상태라고 가정해 보는 거지.”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설마….”

“그때의 내가 계란을 주워서 구워 먹는 건 내 재량이지 않겠니?”

“아 진짜 쌤, 이상한 비유 들지 마요 좀.”

“너희가 이 능력을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우스워 보이면 좀 낫지 않아?”

이상하고 엉뚱한 비유였으나 선생님의 얼굴은 여전히 담담했다. 허튼소리라고는 하나도 꺼내지 못할 것처럼 생겨서는, 가끔 그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해괴한 이야기를 해댔다.

하지만 꿈속의 정해운도, 실제의 정해운도 결국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라면 무엇이든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게 무엇이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당신이 그러니 그 수많은 고초를 겪었지.'

어른인 정해운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 순간 이후로도 서지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시달릴지를 알았다. 당신의 다정이 오히려 독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이 꿈의, 그 당시의 서지오라고 몰랐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예측했다. 홀로 그렇게 예측하고도 말없이 '마음에 든다'라며 진행해 버리곤 했다.

"이게 정말 운 나쁘게 얻어버린 저주일 수도 있지. 워낙 그 양이 방대하고 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하지만 해운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봐야 나나 해라에게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

"그냥 무시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뭐라고 할지 알면서도 물어보는 건 확신을 원하기 때문일까? 그래, 그냥 무시해서는 안 돼. 이대로라면 우리는 그저 괴물 취급을 받게 될 거야. 이곳 사람들은 아닐지 몰라도… 글쎄, 결국 언젠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말겠지."

"…단해라가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했어요."

꿈속의 정해운은 더 반박하거나 토를 다는 대신 그의 이야기를 긍정했다. 정해운이라고 서지오가 더 큰 것을, 더 바른 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는가.

그냥 선생님이 너무 무리하다 쓰러지는 모습을 또 보고 싶지 않아 찾아왔을 뿐이지, 이미 저희들끼리도 결론이 난 이야기이긴 했다. 새로워진 세상에 이 능력인지 저주인지 뭔지의 제어 시스템은 필요했다.

"우리끼리 라디오 붙잡고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그… 능력자…들을 고립시키려는 것 같아요."

"나도 들었어. 하지만 영 소극적인 걸 보니 아직 초기 단계라 그런지 가능성만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 듯해. 이런 상황에 평화롭게 라디오나 다른 전파를 듣고 있을 여유가 되는 사람도 얼마 없을 것이고."

"아무튼 얌체 같고 말하는 게 짜증 나던데."

"그러니 너도 알겠지. 능력의 조절은 꼭 필요한 일이야. 이렇게 방치해 두어 봤자 능력을 각성한 사람들은 더더욱 배척당하고 고립될 뿐이니까. 몇 년만 더 지나면 그때는 정말로 능력이 아닌 저주라 불릴 것이고."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자신이 각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들켜서도 안 될 것이었다. 최악의 경우 마녀사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평생 능력을 숨겨야 할 수도 있었다.

"최소한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니?"

"하, 맞긴 한데… 그건 맞는데…."

꿈속의 정해운이 울상을 지었다. 조금 과장된 그 표정은 제 비참하고 참담한 속내를 감추기 위한 장난질에 가까웠다. 꿈속의 정해운은 짐짓 앓는 소리를 내다가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걱정되는 거죠, 그냥. 지난번에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쓰러지셨잖아요."

"덕분에 이 능력에 대해서는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니,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쌤은 진짜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는 것 같아. 그때 다 같이 막 비명 지르고 장난도 아니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같이 심약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

"쌤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아요. 아, 솔직히 다 아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대충은 안다고요. 하지만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

그는 대단히 억울한 사람처럼 말했다.

“이러다 신이 선생님 잡아가면 어떻게 해요?”

장난스럽게 말한다고 했지만, 결코 그러지 못했다. 꿈속의 정해운을 바라보는 어른 정해운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래, 저때는 저런 고민을 참 부단히도 했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 존재가 저희 곁에 있고, 그 곁에서 애정을 주며, 은연중에 편애하고 기꺼이 도와주는 것이. 그런 서지오 선생님의 사랑과 도움이 마치 가져선 안 될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말하자면 게임의 치트 키와 같았다. 너무 편리한 나머지 게임의 룰을 깨는, 혹은 불법적이기까지도 한 무언가 같았다. 그래서 서지오 선생님이 언제고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다.

‘이 세상에 존재하기에는 과하게 불공정한 사람인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그 계기를 마련해 주기 싫었다. 신이 자신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실수를 눈치채고 거두어갈 것 같아서 무서웠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억지였다, 아무리 봐도.

“쌤이 이러다 픽 죽어버리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매번 말했는데.”

“아니, 말이야 뭐 누가 못 해?”

“아무튼 내가 과로사할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겠지?”

“대충 요약을 하자면요?”

“자기 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어. 하지만 나도 가만히만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잖아.”

서지오 선생님이 꿈속의 정해운을 바라보았다. 어른이 된 정해운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했다. 화재, 그리고 세상의 멸망 이후로 더 깊어진 검은 눈의 아득함에 그저 몸을 맡겼다.

“내가 선생님인데.”

“...그래도....”

“그리고 어른인데.”

“...쌤만 선생님이고 어른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투정을 부리기에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어, 해운아.”

그 음성은 슬픈 것 같기도 했고, 다시 들어보면 단지 당연한 사실을 말하듯 무감각한 것도 같았다.

“선행이 멍청한 짓이라 불리고, 아이가 보호 대상이 아닌 짐으로 여겨지지. 이제 어른들은 태어날 아이에게 배려와 양보보다는 압박과 거래를 가르칠 거야. 혹은 그마저도 포기할까? 세상이 변하면 그에 따른 법과 규칙도 달라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겠지만....”

“.......”

“...그래도 나는 내가 하는 일에 값을 매기고 싶지는 않으니까, 계속 세상이 변하기 전처럼 구는 거지. 당장은 굳이 지금의 세상처럼 변할 이유가 없어 보여서. 그리고 나같이 태평하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구나.”

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것처럼 조곤조곤했지만 어딘가 단조롭기도 했고, 무거운 기색을 띠고 있기도 했다. 고작 어조로는 그의 속내를 감히 알 수가 없었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게도 학교의 운동장에 성공적으로 이 작은 마을을 만들었어. 학생들과 여러 생존자들은 아직까지 협동하고 있고, 특히 학생과 교사들끼리는 이미 아는 사이였던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언가를 해보려 하기도 해.”

“다들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해야죠.”

“당장 산에서 내려가면 있는 마을만 봐도 이 상황이 당연하지 않다는 건 너도 느낄 수 있었을 거야. 해운아, 심술부리지 말자. 우리는 객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운이 아주 많이 따랐고.”

“선생님은….”

망설이던 꿈속의 정해운은 물었다.

“혹시 미래를 봐요?”

“왜 그런 말이 나올까?”

“우리가 나중에 막 싸우거나, 그래요? 그래서 흩어지고?”

“만약 그런 미래를 봤다면 지금처럼 쉬엄쉬엄 진행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나는 예언자도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남들보다 나을 수도 있는 점 몇 가지를 가진 사람일 뿐이야.”

“그래서요…?”

“인간의 다양성을 알고 있을 뿐이지. 사람은 가지각색이고 그만큼 갈등의 빌미도 많아. 이대로 우리만의 쉘터를 만들어도 좋겠지만… 나는 내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조금 억울한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의 ‘마을’을 만드셨잖아요.”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운이 좋았고, 요행이었어. 사실대로 말하자면 내가 이상적인 리더는 아니니까.”

“왜 매번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게 사실이거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확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행동력이 있을 뿐,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다.”

“잘 모르겠는데….”

“언제쯤 내 말을 이해해 줄까? 나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의 선생님은 단호했다.

사실 놀랄 일도 아니었다. 선생님은 언제나 저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잊을 만할 때 즈음이면 슬쩍 이야기를 꺼내고는 했다. 꿈속의 정해운은 조금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했다.

“내가 정말로 이상적인 대장님이었더라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처럼 가능한 한 마을을 숨기고 학생들을 숨죽이게 만드는 것보다는, 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언제까지고 고립되어 지낼 수는 없어. 인류가 일어서고 문명이 다시 서려면 반격이 필요해. 통신반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듯이, 여러 생존자 무리가 서로 접촉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겁쟁이인 탓에 숨기를 택했지.”

“그건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거였어요. 회의도 충분히 했고, 다들 납득했죠.”

“…….”

그는 드물게도 망설이다가 이내 말했다.

“…나는 무언가를 책임지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야.”

결국 아까와 같은 말.

꿈속의 정해운은 저런 말을 참으로 듣기 싫어했다. 그를 표현하듯 꿈속 정해운의 얼굴이 아주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슬

프고 짜증 나는데 안 그래도 피곤한 선생님한테 그걸 티 내고 싶지는 않은 탓이었다.

그걸 뻔히 알고 있을 텐데도 선생님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나는 단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게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서 몇 번 좋은 결과를 냈을 뿐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는 내가 이상적인 수장이라서가 아니라 단지 그러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말이야."

"…그게 그거 아니에요?"

"해운아,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 스스로 그것을 알아. 그러니 내가 벌인 일만큼, 딱 그 정도의 책임은 지려고 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꾸준한 당부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라는 거야. 알겠니?"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의 그도 힘들어하고 있지 않았을까. 자신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를 새 시대의 선구자처럼 여기던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일찍이 그런 분위기를 알아보았던 걸 수도.

그렇기에 그토록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또 자책했던 것이다. 그걸 알았더라면 그 무한한 존경과 믿음을 퍼붓지 않았을 것을, 꿈속의 정해운은 아직 멍청하기 짝이 없는 상태였다.

"…일단은 알겠어요."

"내가 지금 내 능력을 공부하는 것도 그 일환이고."

"그래도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하."

선생님이 물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무섭니?"

"…네, 무서워요. 선생님이 아무 데도 안 가고 우리 옆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어렵겠는데, 나는 워낙에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너희 독립하면 훌훌 털고 도망쳐야지."

"하지만 쌤은 우리 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치지 마요, 다쳐도 금방 회복하고 죽어도 살아 돌아와요. 아니, 죽은 척만 하고 다시 돌아오라고요."

"나에게 참 너무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자각은 있어?"

"그런 거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불안하다면야, 음. 그래."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해볼게."

꿈은 거기서 끝이었다.

* * *

"서지오 선생님의 이야기도 거기서 끝이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제오르제가 여러분에게 물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지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고작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그는 서술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36)"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37)

337

제337화

꿈에서 깨어난 정해운은 늘 그렇듯 울고 있었다.

"……."

비참했고, 참담했다.

'…좀 익숙해지나 했더니.'

이 빌어먹을 자책과 후회는 어떻게 지워질 생각을 못 한다.

익숙한 열감에 치를 떨고 있자 시원한 것이 그의 이마 위에 닿았다. 축축한 그것이 물수건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정해운은 누운 채로 고개를 돌려 '지오의 초상화'를 보았다. '제오르제'라는 이름을 가진 그것은 특유의 보석안을 빛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해운은, 위화감을 느꼈다.

"…그거 압니까?"

그와 부대끼며 산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위화감이었다.

"당신, 그렇게 웃는 주제에 참 건조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

"그럴 리가… 열렬한 시선이 아니라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안구를 보고 그런 감상이라니?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재밌는 걸 좋아하고 지금도 나를 감상하는 주제에."

그런 주제에, 아닌 척 저토록 무감한 시선을 보낸다. 이 정원은 분명 인간을 향해 사랑과 증오를 품었을 텐데도 말이다. 정해운은 그 간극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하고는 했다.

'차라리 나도 저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인간 같지가 않아서, 감정과 표현과 그 근원이 전부 별개처럼 존재하도록….'

아니, 끔찍한 망상이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인간에게 좋을 리가 없었다. 정해운은 허튼 생각을 금방 뭉개고는 해야 마땅한 말을 했다.

"…물수건 고맙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인사였어요, 정해운 학생."

“너무 울어서 그런지 머리가 아프군요. 시원한 게 올라가니까 좀 나아지는 기분이에요. 항상 꿈을 꾸고 나면 이렇게 띵하단 말이지….”

“원래 너무 많이 울면 뇌가 둔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 상태입니다. 슬슬 익숙해질 법도 한데 그럴 수가 없어. 매번 새로워.”

“날이 갈수록 어리광도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그의 선생님이 아니라 제오르제였다. 이러한 배려와 다정을 감히 구할 수 없는 정원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서지오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군다면 그건 그거대로 힘겹겠지만 말이다.

‘지은 죄가 있으니.’

답답함에 숨을 내쉬었건만 한껏 더운 숨이 나왔다. 그리고 그와 함께 뇌가 징 하고 울렸다. 하도 울어서 그런지 머리통에 온갖 열기가 다 모였다. 기분 좋은 감각은 아니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없음에도 큰 호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아마 내가 봤을 땐 그냥 변덕인 것 같기도 하고, 당신 사랑이나 증오의 일종 같기도 한데….”

“그렇게 보이나?”

“설령 그렇다고 한들 내가 받을 수 없을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 개같군요. 머리가 빌어먹게 아파요… 기분 나쁩니다.”

정해운은 애써 눈을 내리감으며, 혹은 찡그리며 이 둔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푹신한 침대의 감각마저도 불쾌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그만큼 예민해졌다는 뜻일 것이었다.

‘아프다고 신경질 낼 나이는 지난 것 같은데.’

개같은 정해운, 어쩜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어.

‘결국 선생님께 부담을 안겨 드린다는 것까지도 완전히 똑같군.’

문득 예전 생각이 났다. 막 세상이 변해 선생님 옆에 졸졸 붙어 다니던 병아리 시절의 이야기였다. 이상하게 서지오 선생님 앞에서는 더더욱 몸과 마음이 쉽게 피로해지고는 했다.

원래도 그만큼 피곤한데 그저 선생님 앞에서만 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자각 또한 함께하는 것이리라. 정해운은 그렇게 생각했다.

‘심지어 상대가 제오르제인 지금마저도….’

그래, 저 얼굴을 어떻게 거부하겠는가. 존경하는 선생님 위에 사랑하는 정원이 얹어졌다. 정해운처럼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 뿌리치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해운은 놀라울 만큼이나 제오르제에게서 안정을 뜯어냈다. 행동이야 그렇다 쳐도 감정적으로는 지극히 비협조적인 정원에게서 그게 가능하다니, 가히 양아치스러운 위업이었다.

“…….”

멍하니 있던 정해운이 입을 열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꾼 꿈 이후로요.”

“글쎄요, 나는 아직 ‘지오의 초상화’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사람들이 선생님께 개지랄을 떨었습니다.”

그 강냉이 털어먹을 새끼들.

“선생님의 말씀이 맞았었던 거죠. 그분은 효과적으로 남들을 쥐어패고 휘두르기보다는 그저 아끼고 보호하는 데에 열중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낯을 꽤 가리시는 탓에... 무슨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고요.”

서지오는 늘 자신을 이상적인 리더도, 완벽한 사람도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직한 지지대가 필요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강제로 서지오 선생님을 그 구심점으로 만들었다. 멋대로 그가 이상적이고 완벽하리라 믿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은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능력은 정말이지 상상 이상이었죠. 그분 덕분에 능력에 대한 인식이 저주에서 일종의 기적, 정도로... 치환되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기에 극히 소수에게만이었지만.”

“그렇게라도 되었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만큼 서지오 선생님께서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나왔고, 뭐, 이것저것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마을의 규모가 조금씩 커지며 생존자들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다. 그만큼 빈번하게 갈등이 발생했고, 언제까지고 협조적일 것이라 믿었던 기존 주민들도 크고 작은 사고를 쳐댔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의 안식처로 언제나 묵묵하고 일관적인 서지오 선생님을 택했다. 어리석은 사람들 탓에 서지오 선생님은 강제로 살아 있는 신이 되어야 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정말 제대로 미친 게 분명했습니다.”

누군가는 제발 어떻게 좀 해보라며 선생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누군가는 무릎 꿇고 싹싹 빌며 기적을 부려달라 애원했다. 누군가는, 또 어떤 사람은. 그리고 또다시 어떤 사람이....

“영화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극한으로 몰리면 믿을 만한 구석을 찾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뜸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생기고. 그걸 따르는 광신도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거나 이상한 의식도 치르고요?”

“지구 종말의 날이면, 뭐, 한 번쯤 해볼 만도 하죠. 그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선을 넘었어요. 별 미친 새끼들도 진짜 많았는데....”

점차 사람들은 서지오 선생님에게 선을 넘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서지오 선생님은 크게 화내거나 꾸짖으려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이 답답해서 정해운이 물어본 적도 있었다.

“대체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구냐고 짜증을 냈죠.”

“세상에, 무서워라. 선생님에게 화를 내는 어마어마한 학생이셨군요....”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답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서지오 선생님께서는 뭐라던가요?”

“그렇게 화내고 얼렀을 때 지금보다 더한 추앙을 받지 않을 자신이 없다고요.”

“어쩜, 정말이지 굉장한 자신감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대단하네요.”

“나도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죠.”

결국 서지오 선생님이 맞았다. 제자들의 부추김에 기어코 서지오 선생님이 몇 마디를 던졌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은 자제했지만 더욱 큰 것을 기대하고 갈망했다.

이유는 서지오 선생님의 부동심에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 모든 상황에 아무런 유감이 없었다. 아니, 유감은 있지만 인간이라면 마땅히 느껴야 할 불쾌감이나 부담감 따위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진심이 부재한 질책과 질책의 탈을 쓴 배려. 그 어떤 인간의 밑바닥을 보아도 결코 깎이거나 부패하는 법이 없는 고결한 영혼. 사람들은 그것을 매우 기민하게 눈치챘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고 여기게 되었다. 서지오라는 정신적 지주가 그들을 온전히 책임지고 기적을 부

려주길 바랐다.

“당연히 좋은 흐름은 아니었죠.”

문제가 그뿐만도 아니었다. 학교 바깥으로도 서지오 선생님을 탐내는 사람들은 많았다. 그때 당시에 생존자 무리가 그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니 말이다. 다른 무엇도 아닌 세상이 망한 상황이었으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고고한 사람은 눈에 띄었다. 앞장서서 신비를 연구하던 서지오는 꽤 능숙하게 저주가 아닌 기적을 부렸고, 무엇보다 아무렇지도 않게 정신적 지주로서 자리 잡는 능력이 있었다.

그건 꽤 달콤한 존재일 것이었다. 그처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유능한 존재라면 더더욱 말이다.

“그래서 결국 튀었습니다.”

“아, 귀여워라.”

“귀여운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대로 남아 있으면 좆될 거 뻔히 아니까 도망을 친 거죠. 우리끼리 야밤에 짐 싸서 도주했어요.”

“사람들이 막았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유능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일로 서지오 선생님이 자책한다거나 후회하는 일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했으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껏 도와주었더니 배은망덕한 자세를 보이는 이들을 두고 떠나는 것 역시 꺼리지 않았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서지오 선생님이 그들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다.

“…….”

지금 생각해 봐도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다만.

“…글쎄요,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네. 지금도 잘 모르겠어….”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정해운 학생?”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지? 사실, 좀…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매정하다, 라.”

“그 애걸복걸하던 버러지 새끼들이 정말 당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구나 싶어서.”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오르제가 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정말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정도 주지 않았더라면 굳이 살아 있는 신으로 추앙받을 때까지도 그 자리를 지킬 이유가 없죠. 내 생각에는, 그냥 봐줄 만해서 봐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그거대로 무서운 감이 있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정해운이 물었다.

“당신도 그랬습니까?”

“흠, 글쎄요….”

가볍게 웃은 정원이 말했다.

“감당이 되니까 감당한 겁니다.”

그게 과연 서지오의 이야기인지, 제오르제 본인의 이야기인지는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굳이 변해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 도망치지도 않았던 것이고. 하지만 결국에는 받아줄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그렇

기에 자리를 옮길 이유가 생겼던 것뿐이겠죠.”

“…저희 선생님을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유능하지 않아요? 다 그 덕택이랍니다, 이해하죠?”

“…그럼요, 물론입니다….”

픽 웃은 정해운이 제 이마 위의 물수건을 가리켰다.

“이거 이제 너무 눅눅해요.”

“물수건은 원래 눅눅한 편인데, 어떻게 하지.”

“한번 갈아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으음, 그보다 이건 어때요…?”

물수건 위로, 차가운 손이 올라갔다.

“…아, 차가운데?”

“체온이 낮은 편인지라.”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냉동실처럼 차가운데요? 평소에는 미온수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하하, 그런가요?”

“지금은 꼭 얼음처럼….”

순식간에 차가워진 물수건의 끝자락을 매만지던 정해운이 이내 다시 한번 실없이 웃었다. 하기야 정원이 얼음처럼 차가운 것이야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정해운이 손을 침대 위에 내렸다.

“…사실 우리가 도망가자고 매달렸습니다.”

“아하, 그래서.”

“선생님이야 그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분도 자리를 뜰 생각이야 하고는 계셨겠지만, 아무튼, 먼저 말을 꺼낸 건 우리였어요.”

“용감하기도 해라.”

“그동안 사람들에게 참 많이 질려 있었으니까.”

서지오 선생님을 잊은 동안에도 그 여파는 분명히 남아 있었다. 정해운과 그의 친구들이 다시 인간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참 오래도 걸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숨어서… 예, 그렇죠. 다시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정말 나쁜 학생이었군요.”

“…….”

“…우릴 미워할 것을 압니다. 제오르제, 당신이 특히.”

그에 정원이 능글맞게 웃었다.

“정말로 그렇게 보여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라고 하면 나는 평생 당신에게 휘둘리기만 하겠지. 하지만 이렇게 보여도 지구 최초의 정원사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만큼 정직하지도 멍청하지도 않아.”

“이건 별로 귀엽지 않은데….”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분명히 쓸모가 있잖습니까.”

정해운이 어느덧 열감이 사라진 눈을 깜박이며 웃었다.

“필요한 존재가 될 테니 버리지 마세요.”

“글쎄요.”

“…진작 대가리 박고 싹싹 빌었어야 했는데.”

“과격도 해라.”

“…우리가, 그때….”

“자요, 이제.”

“…….”

무언가 더 말할 것 같던 정해운은 그저 입을 다물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이 들기라도 한 척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물수건을 치운 제오르제가 차가운 손으로 그 이마를 더듬었다.

마치 나비의 날개를 뜯기라도 할 것처럼, 아이와 같은 시선으로.

* * *

어느 순간, 기이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다.

행복에 관한 괴담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38)

338

제338화

가장 완벽한 행복이라 함은 과연 무엇일까.

"아, 물론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어디에도 '완벽한 행복'이란 존재할 수 없었다. 세상의 이치란 참으로 오묘하여 어느 하나가 극에 달하면 다른 한 극은 비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나는 지금 그런 진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랍니다.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자 재앙은 그 섬세한 지능에 있으며,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상상해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가정을 해보자. 나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얼 위해 살아가는가. 끝이 보이지 않는 유토피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끝이라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나 인간은 왜 그 안에서도 결핍을 찾아내고 마는 것인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금은보화를 바쳤습니다. 고대의 황금으로 집을 지어주었고, 요정의 눈물로 목욕시켜 주었고, 세계수 잎으로 짠 비단으로 침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오르제가 받은 선물은 끝이 없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받아보았다. 제오르제는 그것들의 희귀함과 높은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다지 기분 좋지는 않더군요, 과연 어째서였을까요...."

참 이상한 일이지 않나. 제오르제는 반짝이는 것을 좋아했다. 아름다운 것도 좋아했다. 희귀한 것을 얻을 땐 기쁘고 값진 것을 얻을 땐 설렌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다.

"그렇기에 나는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행복이란 뭘까요? 그게 대체 뭐기에 그럴싸한 공식 하나마저 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난 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죠?"

아, 지루했다.

"너무 지루해."

즐겁기를 바란다.

이대로 축 늘어져 한낱 자연과 신비로 전락하고 싶지 않았다. 끝까지 인간으로 남아 세상의 더 없을 즐거움을 느끼길 원했다. 그는 열기 없는 조각상이나 보석 따위가 아니었다. ...아마 아니었을 텐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분명 살아 있음에도 왜인지 피가 돌지 않았다. 심장은 박동하나 천천히 식어간다. 언젠가 한때는 여관의 시끌벅적함이나

들판 위의 별 한 조각만으로도 그렇게 들떴었는데....

“나를 이 이상 지루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제오르제는 너무 오랜 시간을 살아왔다.

“날 즐겁게 만들어야 해.”

그러니 너희는 나의 광대들이 되어야 했다.

그렇다, 살아왔다. 살아온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순순히 자연이며 신비로 전락했다면 좀 나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미 기회는 놓쳐버렸다. 이제 그에게 쌓인 업이 너무도 많았다.

그런 그가 온전한 정원이 되어 버린다면, 글쎄.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미워한다.

“.......”

...기운이 없다.

어디 즐거운 일이 없을까?

* * *

알록달록한 광대가 지나가던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모, 몬스터...?”

『당신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몬스터가 아닌가?”

『당신의 쾌락은 무엇인가요?』

“.......”

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던 남자는 눈을 껌벅였다. 퀭한 눈이 깊게 침전했다. 반복되는 광대의 질문에 점차 차분해져 가던 남자가 홀린 듯이 대답했다.

“...집에 돌아가서, 잠들기 전에 맥주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기껏해야 던전에서 나온 잡초나 곡식의 부산물 따위로 밀의 맛을 흉내 낸 것에 불과했으나, 평생 제대로 된 맥주의 맛을 보지 못한 남자에게는 최고의 술이었다. 그거면 만족하고 쉽게 잠이 들 수 있었다.

그러자 광대가 물었다.

『그게 당신의 행복인가요?』

“네, 그게 제 행복입니다.”

『어째서 그게 당신의 행복입니까?』

“술이 들어가면 머리가 멍해져요. 짭짤한 안주랑 함께 맥주를 마시면 그게 정말,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계속 그렇게만 있고 싶어져요.”

『그게 당신의 행복이군요.』

짝짝짝!

광대가 박수를 쳤다.

『행복하세요, 기뻐하세요.』

『당신이 언제나 즐겁기를!』

그리고 남자가 정신을 차렸을 땐, 자신의 집 안에 있었다.

“…….”

내가 언제 퇴근을 했었지?

『그게 중요한가요?』

『의문이 당신의 행복을 책임집니까?』

『즐거우신가요?』

그런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랐다. 아무튼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발을 옮겼다. 몸에 걸친 정장이 무거워서 힘들었다.

『그럼 벗으면 되겠네요!』

타당한 조언이다. 남자는 곧장 정장을 벗어 소파 위에 걸쳐두었다. 그리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주방으로 나왔다. 작은 냉장고에 남아 있는 맥주 캔을 저도 모르게 세어본다.

『4개가 있습니다.』

『몇 캔을 꺼내실 건가요?』

내일도 출근해야 하니까 한 캔으로 만족해 볼까.

『그게 당신의 행복입니까?』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사실 만족하지는 못한다. 남자는 애주가였다. 돈이 없어 값이 싼 맥주만 사지만 돈이 많았다면 더 다양한 것을 맛볼 수 있었겠지. 하지만 그는 돈이 없었다.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었다.

남자는 아쉬움을 느끼며 맥주 한 캔을 들고 거실에 왔다. 천천히 마시는 편이 좋으니 오래 씹을 수 있는 마른오징어를 가져왔다. 이 역시 던전의 부산물 따위로 만든 안주였으나 제법 맛이 괜찮았다.

그러고는 작은 테이블 위에 둘을 올려두었다. 어쩐지 휑하다.

『행복한가요?』

아니, 그다지. 그런 기분은 아니다. 남자는 맥주 한 캔을 따서 목을 축였다. TV에서는 이 시간대에 매번 나오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늘 보던 내용이다.

『저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저것을 보면 당신이 즐거워지나요?』

애매했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니 편할지도 모른다. 단지 남자는 아무도 없어 조용한 거실에 홀로 앉아 궁상 피우는 꼴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소란스러운 편이 좋겠지. TV는 술친구 대신이었다.

『당신은 행복하지 않군요.』

『외로우신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게 싫으신가요?』

혼자가 좋은 사람이 세상에 그다지 많지는 않으리라고 봤다. 뭐, 그게 더 편한 사람도 있다는데 몇 년씩이나 그렇게 지내면 그야 외로워지겠지. 남자는 딱딱한 안주를 씹었다.

『그건 맛있습니까?』

『먹으면 즐거워요?』

그렇지도 않다. 하지만 씹다 보면 단물이 나오고, 겉에 발린 양념은 짭짤해서 좋았다. 홀로 마시는 맥주와의 조합으로는 썩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즐겁냐고 하면 대답하기 어렵지 않을까.

『슬퍼라.』

슬픈가?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말을 걸어주는 친구가 있는 덕분인지 오늘따라 유난히 외로웠다. 그렇게 생각한 남자가 문득 또 다른 의문을 품었다.

'…친구가 있는데 외로운 게 말이 되나? 문장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것이 당신의 행복에 도움이 되나요?』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눈앞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해요, 친구!』

'그래야겠다.'

금방 잠에 들어야 했다. 이 시간이 아주 오래갔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조금이라도 일찍 자야 사람 몰골로 출근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출근은 당신의 행복에 도움이 됩니까?』

최소한의 행복을 지키는 데에 일조하고 있는 건 맞았다. 업무는 힘들고 상사는 그를 괴롭히지만 결국 돈을 쥐여주지 않던가. 원래 남의 돈 받아먹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들 하고….

『당신의 행복은 돈인가요?』

아니, 아니다. 그건 아닐 것이다.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언가였다. 그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

『그게 뭡니까?』

『맥주?』

『달콤 짭짤한 안주?』

『그를 통한 위로?』

그래, 결국에는 위로를 바라는 것 같았다. 이 짧은 시간이 남자를 해방시켜 주었다. 지긋지긋한 일상 속의 유일한 회피라고나 할까. 위험 부담이 크지도 않고 언제나 손을 뻗으면 쥘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었다.

딱 이 정도만으로도 남자는 위로받을 수 있었다.

『그게 당신의 행복이군요.』

『당신이 언제나 즐겁기를!』

즐거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앗…!』

그렇게 놀랄 필요까지는 없다, 원래 이 나이쯤 되면 즐거운 일이 생기기가 어렵다. 일상은 매번 똑같이 돌아가고 몸은 점점 허약해져 성격도 예민해지고 만다.

하지만 확실히 이 시간만큼은 즐거울지도 모르겠다. 최소한의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기는 어렵겠

지만 적어도 퍽퍽한 일상의 윤활유가 되어주겠지.

『아하, 이해했습니다.』

『행복하세요, 기뻐하세요.』

『당신은 즐겁습니다.』

그래?

『그럼요!』

그럼 그런 거겠지.

* * *

“그리고 다음 날, 이인욱 씨의 냉장고에는 그날 마신 맥주가 가득 채워졌다고 합니다. 마른오징어보다 질 좋은 안주들도 잔뜩 놓여 있었고요. 분석 결과 지구산 식품들이었습니다.”

연구원의 말에 또 다른 연구원이 물었다.

“소원을 들어주는 유형의 신비인 것 같은데, 그게 전부입니까? 이런 유형의 신비는 모두 대가가 필요할 텐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계속 설명하죠. 이인욱 씨는 한동안 멍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상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와 잦은 갈등을 일으키던 회사의 직원 한 명이 실종되었음에도요.”

“아까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이인욱 씨가 이야기했던 상사겠네요. 본인을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고 이인욱 씨가 광대에게 말했다고 하셨지요?”

“아마 그 영향이 컸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인욱 씨가 자진해서 신고하러 온 이유도 그게 컸다고 합니다. 자신이 실종자를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며 큰 불안감에 떨고 있죠.”

연구원이 어깨를 으쓱였다.

“현재 이인욱 씨는 협회 산하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종의… 매혹 중독 증상인 것 같은데. 그거 홀린 거 맞죠?”

“연구소에서도 그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이상을 끈질기게 감지하면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긴 이인욱 씨는 민간인이지. 광대와 말 몇 마디 제대로 나눠보지도 않고 그대로 홀려버린 사람이 매혹 내성이 있을 리도 없고.”

“매혹에 걸려드는 것 자체가 쉬운 만큼 빠져나오기도 아주 어렵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욱 씨의 경우 외에도 이 비슷한 경우가… 대략 3건이 더 있네요.”

“전부 비각성자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원숭이 손 같은 종류의 신비인 것 같은데… 소원을 들어주기는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상당히 비극적인 유형?”

원숭이 손이란 인간의 소원을 아주 끔찍하고 비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주는 방식의 괴담이었다.

예를 들어 원숭이 손에게 돈을 요구하면 그것은 당신의 가족을 죽여 그 보험금을 받게 만든다. 돈을 달라는 소원 자체는 들어주었으나 그 과정이 마음에 들 사람은 얼마 없을 것이다.

대재앙 이전에는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했지만, 신비가 등장한 이후로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괴담이 현실에까지 나타나곤 했다. 아마 이번 ‘광대’도 그랬나 보다.

“그렇다면 경험자가 겪게 되는 과정에서의 비극이 이 신비의 대가입니까?”

"반 정도는 그렇다고 봅니다."

연구원이 보고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다.

"나머지 반의 대가는 이 신비의 경험자가 끝까지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광대의 속삭임에 이상을 느끼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그 본인이 '광대'가 되는 것 같다고 추정 중이라서요."

"목격된 바가 있는 추정입니까?"

"경험자가 '광대'로 변화되는 과정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경험자는 실종되고, 그와 흡사한 외형의 광대가 목격된 바는 있어서요. 해당 경우는 두 건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애매하긴 해도 가능성이 제법 있겠네, 그럼."

연구원이 머리를 긁적였다.

"이거 통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광대가 모습을 보이는 조건도 아직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행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한다'라는 것이겠지만, 그 정도를 출현 조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행복이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목표물이 혼자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신비. 대놓고 군중 사이에 나타나는 데도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죠."

"목격한 기억 자체는 남고? 그냥 이상함만 못 느끼는 건가요?"

"예, 목격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상하지 않냐고 물어도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의미로는 더 까다롭습니다. 기억이 지워지는 식이나 기척을 없애는 식이라면 그 공백을 감지할 수라도 있지...."

"그럼 대놓고 목격해도 제보해 줄 사람도 없다는 거잖아요. 와, 돌겠다."

"음...."

연구원이 제 상관에게 물었다.

"정원사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끄응,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암만 봐도 그냥 몬스터는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그날, 정원사들에게 소집 요청 문자가 도착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38)"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39)

339

제339화

"지오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일단 변명부터 해도 됩니까."

갤러리에 들이닥친 유성운에 초상화가 몸을 사렸다.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 뭔진 모르겠지만 들어나 보자."

"그거 저 아닙니다."

"제오르제도 '지오'잖아? 그럴 수가 있어?"

"저도 이럴 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와... 아니, 와... 아니, 하...."

유성운이 마른세수를 했다.

그는 베테랑 정원사였다. 다시 말해 이번 '광대' 사건의 소집 대상이 아닐 리가 없었다는 뜻이다. 심지어 수집상이기까지 했으니 그가 오늘 받은 따가운 시선에 대해선 말을 다 한 셈이다.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더라고."

"저런, 어째서입니까?"

"수집상에서 관리하는 작품 중 하나가 사고 친 거는 아니냐고 묻는 거지."

"하지만 수집상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수집상에서 여러 신비로운 작품들을 관리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 무너지면 덩달아 지구를 전복시킬 수도 있는 유일한 길드잖아."

유성운이 아련하게 웃으며 물감에 얼굴이 가려진 초상화를 보았다.

"그런데 우리 길드장님도 아직 안 하고 계신 그 전복을 굳이 네가 해야 했을까...?"

"원래도 전복 계획을 구상하는 중이긴 했습니다만."

“그거까지는 네가 알아서 하겠거니 아무 생각이 없었지. 너는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국에는 대의나 선의를 중시하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좀 많이 민망합니다.”

“하지만 이번 건 실제로도 피해가 좀 커질 것 같아서. 이전과는 경우가 좀 다르지 않겠니? 제오르제가 친 사고 말하는 거야.”

“예, 소집 요청으로 많이 곤란하셨겠습니다, 실제로 수집상 작품의 문제가 맞아서.”

“그야 뭐어….”

스스로를 ‘수집상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초상화는 확실히 이질적이었다. 최근 여러 ‘지오’의 영향과 학습을 통해 인간 흉내가 훌륭해지기는 했다만, 이런 이질감을 보면 확실히 인간이 아니기는 했다.

조금 머쓱한 기분으로 유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오의 말처럼 곤란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철판 깔고 오기는 했는데, 글쎄. 이전에 있던 일이 있으니 영원의 상징들은 이번 사건의 주역이 제오르제라는 걸 금방 알아챌 것 같단 말이지.”

“제가 도와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음, 글쎄.”

손으로 목을 주무르던 유성운이 이어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도 제오르제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인 건가?”

“예, 그렇습니다. 목줄을 걸어놓기는 했지만 제오르제 씨는 목줄을 건 채로 멋대로 산책을 나가 사람들을 물고 다니는 중입니다. 제가 그에게 할 수 있는 통제란 정말 최소한의 선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동화가 불완전하다고 해도 그 정도 연결은 되어 있으니까요.”

“으음….”

잠시 고민하던 유성운이 물었다.

“최소한의 선은 뭘 말하는 거야?”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구 멸망 정도입니다.”

“아, 그 정도면 충분해. 고마워.”

“저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낮으시군요.”

“아니 그게, 보통 거기까지도 안 해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유성운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튼 제오르제 씨가 아무리 난리를 피워도 최악의 경우까지는 안 간다는 거잖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그럼. 지구 망하는 것만 아니라면 인간들이 어떻게든 손볼 수 있거든.”

“요즘 지구에서 살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렇게 된 지 좀 됐어, 한 32년 정도? 사실 지금까지 지구가 잠잠했던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지. 물론 그사이에 ‘지오의 초상화’께서 일을 몇 번 터트리셨다지만 전부 큰 문제 없이 끝난 일들이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으니까.”

여러모로 ‘지오의 초상화’는 신비답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인간을 장난감이나 무생물 정도로 보지도 않고, 눈에 띄는 악의를 품어 수많은 재앙을 일으키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제오르제’는 이전 ‘지오’들과 달랐다. 워낙 유순한 태도와 흐린 색채 때문에 쉽게 눈에 담기지 않았지만, 지

금 그가 내보이는 것은 명백한 악의였다.

"…좀 웃기긴 하다, 악신보다도 악의를 보이는 정원이라니."

"오히려 정원은 대부분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거기도 하지. 정원은 신비의 맥을 자연 현상으로 가시화한 공간이야. 어느 쪽이든 자신만의 일상을 살되 외부에 잘 개입하는 일이 없거든."

"하지만 제오르제 씨는 인간이기도 하니까요."

"아무래도 그 점에서 이런 간극이나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제오르제가 전형적인 정원이었다면 이런 사고를 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이번 '광대' 사건을 보고받고 느낀 점은, 이게 절대 호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어. 순수한 호의를 끔찍한 방식으로 전해주는 여느 근원의 자식들과 달리… 제오르제 씨는 인간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계시잖아?"

알면서도 호의처럼 악의를 드러낸다. 속내가 아주 배배 꼬였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이런 골치 아픈 상대에 유성운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면 제오르제 씨는 아직도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야. 차은혁 씨에게 듣기로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맞나?"

"이번에 친 사고와 별개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것에는 저 역시 포함되니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오르제 씨가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또한 사실인지라."

"…정말 복잡한 사람이네. 대체 뭘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유성운이 결국 참지 못하고 한숨을 내뱉었다.

"인간이 죄다 멸종했으면 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곧 망가질 설탕 과자처럼 대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해. 애증이라는 감정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알지만… 꽤 모순적인 양반이네."

눈을 데굴 굴리던 유성운이 이내 무던한 미소를 그리며 물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에게 도움을 좀 구해도 될까?"

"대가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럼 도와드릴게요."

"원하는 대가가 있어?"

"내가 제오르제 씨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나는 유성운 씨에게 제오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 목적과도 정확히 일치하네. 좋아, 거래하자."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을 하는 것일까, 잠시 말이 없던 지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오르제는 쾌락주의자입니다."

한 인간이자 정원에 대한 이야기였다.

* * *

어느 한 차원에 제오르제라는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평민이었으나 아름다운 외모를 타고 태어났다. 천성으로 많은 사랑을 가진 소년은 주변에 아낌없이 사랑을 뿌렸고, 황홀한 목소리와 능수능란한 말재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런 소년을 '지오'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그 마을을 들렀습니다.”

온천이 유명한 관광지였던 탓이다. 늙은 왕은 요양차 마을에 들렀다가 소년을 발견했다. 순박한 시골 사람들은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재주꾼인 소년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랑했다.

그리고 늙은 왕은 소년이 제 자식들의 좋은 놀이 상대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아주 많은 황금을 지불하고 소년의 부모에게서 그를 샀다. 나름 정당한 거래였다.

“종종 있는 일이라 다들 놀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방의 재주꾼은 운이 좋으면 대단한 후원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 여태까지와 같이 시골에 눌러앉아 있기는 힘들어지니까요. 자연스럽게 제오르제도 왕을 따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무서운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다. 귀족들은 고작 평민에 불과한 왕의 장난감에게 굳이 손대지 않았고, 귀족이 아닌 자들은 사랑스러운 그들의 친구를 괴롭히지 않았으니까.

제오르제는 언제 어디서든 사랑을 받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성의 모든 사람이 그런 제오르제를 좋아했다. 그는 사랑받은 만큼 웃었고, 노래했고, 춤췄으며, 재주를 부렸다.

“참고로 제오르제는 관종입니다.”

“관… 너 그런 말도 알아?”

“관심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진짜 이상하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오르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곧 죽어도 아이돌을 했을 것이다.

당시 제오르제가 맡은 직책은 광대였다. 그는 왕의 아이들과 성의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맡았고, 그에 아무런 불만도 없었다. 애초에 시선과 감탄을 즐기는 존재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갑자기 생겨났다.

“제오르제는 전조 없이 어떤 일에 휘말리고 맙니다.”

“설마 납치 같은 걸 당했다던가…?”

“정확히는 정원이 그를 납치했습니다.”

왕국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왕성, 그 깊은 곳에 존재하는 신비의 맥. 그중에서도 뇌에 비견될 만큼 중요한 기관에 속하는 정원이었다. 그것이 성내를 활보하는 소년을 인지한 것이다.

“그런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원은 자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기본적으로 자연 현상에 가까워. 그런 정원이 탐욕을 보였다는 뜻인가?”

“정원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정원도 있고, 어린 정원도 있어요. 자아는 없으나 탐욕은 보일 수 있습니다. 달님교의 달과 같은 경우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정원은 욕심과 비슷한 무언가를 부렸습니다.”

사실 그 정원에게 정원사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 왕국은 신비와 밀접한 문화를 갖추어, 굳이 정원사가 배정되지 않고도 꾸준히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욕심’이었다. 그 정원은 해당 차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재주꾼인 소년을 소유하고자 했다. 그게 과연 정보 수집의 일환일지 진정 탐욕일지는 모르겠지만….

“고도로 잘 만들어진 인공 지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 지능이라.”

“그것에 인격이라는 자격을 부여할지 말지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인격에 한없이 가까운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좀 골치 아프겠는데.”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소년은 아주 오랫동안 정원에 붙잡혀 있어야 했다. 왜냐하면 소년이 정원사가 되기를 격렬히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는 존재지, 사랑의 노예가 되어 질질 끌려다닐 성정이 아닌 탓이었다.

“제오르제는 끝까지 정원의 아름다움에 홀리지 않았죠.”

“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자기보다 아름다운 건 세상에 없다는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신박한데.”

거의 십여 년에 달하는 기나긴 싸움의 끝, 승자는 소년이었다.

“그게 가능하다고?”

“정원이 소년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굴하지 않는 끈기와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그 이상의 언변으로?”

전설 속 영웅이나 해낼 법한 업적. 그렇게 소년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납치되었던 날로부터 고작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다.

정원에 갇혀 있던 소년의 신체와 정신은 전혀 성장하지 않았으나, 그 안에 쌓인 신비로 사람들은 기민하게 소년의 기나긴 이야기를 눈치챘다. 정원이 보인 탐욕, 그로 인한 납치, 몇 년이 흘러도 굳건했던 고집에 승복한 정원의 감탄과 애정….

“신비와 함께 살아가던 그 차원의 인간들에게는 전부 뻔히 보이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정원을 이겨 그 인정을 받게 된 소년은 대단히 값진 존재가 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아름다운 재주꾼일 뿐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신처럼 여겨지던 정원에게 삼켜졌다 돌아온 것이다.

그 동화 같은 이야기는 소년의 머리 위에 씌워진 왕관처럼 탐스럽게 빛났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탐욕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단순히 바라보기만 했잖아. 무슨 느낌인지는 대충 알겠지만, 태세 전환이 상당히 빠르네?”

“그전까지만 해도 소년은 무리해서 욕심을 부릴 가치는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왕이 돈을 주고 사 온 광대였고, 왕의 자식들이 아끼는 놀이 상대였으니 위험부담을 지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원에 한 번 담가졌다 나오니 그런 시선들이 달라졌다? 뻔하지만 징글징글한 이야기인걸.”

“그들에게 있어 정원은 변덕스러우나 명예로운 신이었습니다. 그런 신에게 사랑받는 광대라니, 탐이 날 만도 하죠. 가질 수만 있다면 제 손 위에서 반짝거릴 테니까.”

이전까지는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소년의 외양과 재주를 감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왕은 탐욕을 부려 왕족들만 소년과 교류할 수 있도록 왕래를 막았고, 그게 시작이었다.

“공공 기물이 사유재가 될 수도 있다고 왕이 선언한 셈이었으니 말입니다. 흔히 나라를 말아먹을 미인이라고 하던가요, 제오르제는 겨우 그 마지막의 마지막을 보고 나서야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랑하기 시작했죠.”

자신을 향한 탐욕으로 기어이 나라 하나가 끔찍하게 무너지는 꼴을 봤음에도 제오르제는 괘념치 않았다. 황당하고 한심해하기는 했지만 단지 그뿐이었다. 그 과정에서 받았던 관심과 사랑은 분명 그를 기쁘게 해 주었으니까.

쾌락에 미친 사람. 사랑에 환장한 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자유롭게 뛰놀고 싶은 굉장한 에너지의 놀이꾼. 그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이고 여행하며 그 이후의 생을 보냈다.

“그건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몸도, 심지어는 정신도 성장하지 않았죠.”

“정원과 연관된 일인가…?”

“예, 이대로라면 늙어 죽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더 이상 소년이라 불리기 힘든 18살 이후부터 제오르제는 자신이 평범하게 늙을 수 있을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용을 만났습니다.”

“…….”

“새빨간 용이었죠.”

* * *

“…쓰읍, 잠깐만.”

유성운이 머리를 짚고는 물었다.

“이거 우리 길드장님이랑 연관 없지?”

“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주 없지는 않을지도?”

“제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인은 절규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40)

340

제340화

용은 탐욕스러운 존재다.

영원에 가까운 생을 사는 그들은 자신의 둥지에 온갖 재화를 쌓아둔다. 어느 날 자신이 아름답게 여겼던 것, 인간 흉내를 낼 때 먹었던 음식, 세상에 널리 알려진 희귀한 광물 등등.

그런 용이 제오르제를 탐낸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으나....

“기왕 납치를 했으면 사랑을 다해줘야지, 용아.”

“한낱 미물 주제에 바라는 것이 많구나. 산 채로 태워 죽이기 전에 그 시끄러운 입을 다무는 게 좋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아름다움은 사랑을 듬뿍 받아야만 유지될 수 있는걸...?”

“그딴 번거로운 일 없이 너를 박제할 수도 있다.”

“살아 숨 쉬며 쉴 틈 없이 조잘거리는 나야말로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지. 자연의 최고점이라 불리는 고귀한 용께서 고작 시체에 만족하는 쫌생이일 줄은 몰랐는데. 아아, 슬퍼라....”

“.......”

용은 제오르제를 너무 만만하게 봤다.

제오르제는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몸뚱어리 하나 가지고 정원과의 승부에서 승리한 사람이었다. 그런 제오르제가 용에게 겁을 먹을 리가 없었다. 그는 능숙하게 용을 구워삶으려 들었다.

그리고 용은 그 와중에도 탐욕을 느꼈다.

“확실히 세상에 너 같은 것은 하나뿐이겠군.”

“둘이나 있으면 이 행성의 운명이 좀 위태롭지 않을까?”

“알고는 있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인간.”

용은 값지고 희귀한 것을 좋아했다. 제오르제는 정말 용을 질리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으나, 그 아름다운 외양과 뛰어난 재주는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것이었다.

번거롭고 짜증이 났으나 용은 이 인간을 제 레어의 보물로 두기로 결정했다. 원래 그러려고 가져온 것이기는 했으나 하도 예상을 벗어나기에 잠시 헷갈렸다. 그랬을 뿐이다.

“아 당장 예뻐하라고!!!”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종종 후회될 때도 있기는 했으나.

“내가 만드는 통감자 구이를 먹어보지 못했다니 삶의 절반을 넘게 손해 본 거야.”

“혹시 내가 몇 살인지나 알고 하는 말이냐.”

“자, 감자가 아직 따듯할 때 빨리 작아져. 작아진 상태로 입안 가득 먹어야 제맛이라고.”

“이런 미친놈이.”

아니, 사실 자주 후회했으나.

“따란, 카드 마술! 멋지지!”

“마법도 아니고 기껏해야 눈속임이 아니냐.”

“어? 그래서 더 대단한 건데…?”

“…….”

솔직히, 즐겁지 않은 것은 아니라서.

“…그렇긴 하군.”

“너도 좋아할 줄 알았어.”

“어어 자신감 가지지 마라, 인간.”

“내 영혼이 열정에 타오른다.”

“그 이상 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날 용은 제오르제를 둥지의 보물로 만든 것에 크게 흡족할 수 있었다.

여느 인간과 이것은 달랐다. 용인 자신을 보고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는 대담함을 갖추었고, 외양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주를 갖추었다. 연약한 신체를 지녔으나 그 영혼은 고결하여 쉽게 망가지는 법이 없으며, 또한 죽지도 않는다.

용은 그 특별한 인간을 소유한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야말로 용의 둥지에 어울리는 보물이었다.

“…….”

“…….”

“…지오, 나의 친구.”

그래서 용은, 욕심을 부렸다.

“넌 영원히 살리라.”

“친구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놈이 나를 배신하네.”

태연한 대화였으나.

“…노래 불러줄까?”

둥지가 불에 타던 날이었다.

* * *

“제오르제와 용은 서로에게 꽤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초상화가 옛날이야기를 이어갔다.

“용은 제오르제 덕분에 몰랐던 즐거움을 배우게 되었고, 제오르제는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는 특별한 존재를 편애했죠. 조금 가볍게 표현을 해보자면….”

“해보자면?”

“서로가 서로에게 색다른 도파민이었을 겁니다.”

“어우.”

간이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유성운이 질린 표정을 지었다.

“아니 뭐, 좋은 게 좋은 거라지만.”

“둘이 정확히 얼마나 긴 시간을 함께했는지는 모릅니다. 제오르제는 그런 건 잘 세지 않았고, 한번 무언가에 몰두하면 다른 것에는 시선을 주지 않는 버릇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제오르제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고 둥지에서의 생활을 즐겼다는 건가? 아니, 정확히는 관심이 없었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상화가 가볍게 액자의 면을 쓰다듬자 용과 용사의 그림이 그려졌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듯 삐뚤빼뚤하고 엉성한 그림이었으나, 왜인지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알 것 같았다.

그것은 계속해서 말했다.

“용을 처단하는 용사의 이야기는 흔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지구에서는 말이야.”

“그들의 상황 또한 비슷했습니다. 용의 보물을 훔치기 위해, 둥지에 갇힌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무시무시한 용을 무찌르기 위해 용사들은 둥지를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용이 졌습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용은 제 보물이 인간들의 손에 빼앗기고 망가지기 전에 자신이 먼저 수를 썼습니다. 불을 내뿜어서 자신의 둥지를 불태운 것이죠. 그곳은 영원히 불에 타는 동굴이 되었습니다.”

“제오르제는?”

“지상의 생물 중 가장 신비에 가까운 용에 의해 근원에 닿았습니다.”

“아, 이런.”

유성운의 얼굴에 난감한 미소가 그려졌다. 인간이 근원과 엮여 좋을 건 없었다.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용의 탐욕이란 그런 법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용이라고 해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물론 그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오르제가 모자를 벗어, 유성운 앞에 보여주었다.

“이것이 그 증거랍니다, 친구.”

“…지금 너는 내 친구 지오가 맞지?”

“물론이죠.”

모자를 다시 초상화 안에 들인 지오는 금방 평소의 새까만 모습으로 변했다. 그는 가볍게 검은색 망토를 정리했다. 그 손에는 언제 치운 것인지 모자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가끔 이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변화가 참 빠른 초상화였다.

"방금 보신 모자는 제오르제 씨가 벌 받는 용을 새롭게 빚어낸 것입니다."

"벌을 받았나? 그 용이?"

"예, 금기에 손을 댄 벌로 용은 그 육신과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 근원에 흡수되었습니다. 제오르제 씨가 들고 있던 모자는 그 영혼과 육신 중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아, 혹시 제오르제 씨가 계속해서 방랑하는 이유가...?"

"삶의 즐거움을 찾아 여행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제 친구의 유해를 수습하고 자신의 곁에 두려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용은 더 이상 자연으로 환원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죠."

"그래서 벌이라고 한 거구나."

"귀신으로 따지자면 평생 구천을 떠돌게 된 신세니까요."

그렇기에 제오르제의 모자는 만능이었다. 뭐든 알고 있고 뭐든 해낼 수 있었다, 그것을 제오르제가 원한다면 말이다. 그 모자는 언제나 제 친구이자 주인의 의지에 따랐다.

"그날, 제오르제는 사랑하던 모든 것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여겼습니다."

"배신이라... 그런 것치고 네가 묘사한 제오르제 씨의 반응은 상당히 유순했던 것 같은데 말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보내고 싶었던 제오르제는 용의 강압적인 욕심으로 인해 영원히 끝을 볼 수 없게 되었고...."

"그랬겠지."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든 것 역시 용과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었으니 말입니다."

제오르제가 어떻게든 즐거워하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기 때문이었다.

"제오르제 씨는 많이 지쳤습니다. 정확히는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용을 만나기 전에도, 그 후에도 그는 몇 번이고 황금 감옥에 갇혀야 했죠. 그 와중에 사랑을 주고받길 즐기는 그의 천성이 제오르제를 더욱 모순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관심을 받는 것은 즐겁다. 그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노래에 감탄하는 반응이 기쁘다. 그를 향한 애정과 욕심에서 비롯된 탐욕 역시 제오르제의 수많은 즐거움 중 하나였다.

하지만 동시에 버거워했다. 그를 사랑하고 원하는 것 자체는 행복한 일이나 그것에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그 과한 행위들은 대단히 자극적이며 그 집착의 본질 자체를 제오르제는 무척이나 좋아했다. 하지만 힘들다. 즐겁다. 괴롭다. 기쁘다.

천성으로 타고난 쾌락주의자이기에 그 고통은 매우 컸다. 그렇기에 초상화는 제오르제를 간단히 정리했다.

"미친 겁니다."

"...네가 그렇게 과격하게 말하는 거 처음 봐."

"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친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애증 정도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사랑과 증오를 겹쳐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증오하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에 몇 번이고 담가지다 꺼내지기를 반복하니 그야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근원에 엮이고 나서도 제오르제는 스스로 인간이기를 원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안 그런 척 대단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서... 본인이 원래 가지고 났던 것을 버리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정체성. 그것은 제오르제의 소중한 보물 중 하나였다. 고작 두 발 달린 정원이 되었다고 그 보물을 돌멩이로

볼 리가 없지 않은가. 그게 제오르제의 고집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워낙에 길지 않았나.

“그래서 꽤 지쳤으니, 순순히 저와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사고를 많이 친다, 그치?”

“젊은 친구라 그런지 혈기가 넘쳐 이런 사고도 치는 것 같습니다.”

“그, 정원으로 긴 시간을 있었다면 젊다고 하긴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제오르제 씨의 사고방식과 육체 나이는 21살에 멈춰 있습니다.”

“어... 젊긴 하네.”

‘어른’보다는 ‘성인’에 가깝다.

유성운은 왜인지 어쩔 수 없이 제오르제를 이해하게 되었다. 차라리 정신적인 나이를 먹어 연륜이라도 쌓이면 모를까 그는 온갖 세포가 미쳐 날뛰는 창창한 사고방식에 갇혀버린 것이다.

‘그 상태로 그런 모순을 떠안게 되었으니.’

결국에는 병에 가까울 정도로 변덕스럽고, 오직 쾌락에만 집중하게 되었으리라. 아직 인간인 유성운으로서는 정신과 신체가 박제된 채로 오랜 시간을 지낸다는 걸 상상하기가 어려웠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말이다.

“...일단 왜 이렇게 사람이 중구난방인지는 알았는데 말이야.”

유성운의 얼굴에 떨떠름한 기색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난감하네, 진짜 종잡을 수가 없어서....”

당장 문제로 떠오른 것은 ‘광대’ 현상이었다. 계속해서 당신의 행복을 물으며 그것을 강제로 이루어주는 원숭이 손 형식의 신비. 괜히 협회에서 정원사를 소집한 게 아니었다.

“이런 신비가 하루 이틀 등장한 건 아니야. 하지만 보통 그런 신비는 근원의 자식으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모두에게 보이고 있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정원을 현실로 끌어 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만....”

“대재앙 이전을 아는 정원사들은 꼭 그때 같은 분위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신비고, 몬스터고, 던전이고 아무 구분도 없이 그냥 ‘신비’만 존재했을 시절 말이야. 너도 같은 의견인가?”

“조금 비슷할 것 같기는 합니다.”

고민하듯 잠시 말이 없던 초상화가, 약간의 시간을 두고서 말을 이었다.

“천장을... 부수려는 것 같네요.”

“천장?”

“제가 하려던 것입니다.”

내가 그걸 바라기는 했어도 이런 식은 아니었다만.

유성운 씨가 원숭이 손 괴담을 이야기하던데 아마 그게 ‘지오’에게도 적용되는 일이었나 보다. 정말 신박한 유형의 미친놈이었다.

심술인가¿

그와 같은 뜻에 따르고 싶지만, 그것과 별개로 온전히 ‘지오’가 되기 전에 ‘제오르제’로서 흔적을 남기겠다는 것인가? 어쩌면 ‘지오의 초상화’와 하나가 되며 안심했기에 더더욱 사고를 치는 걸지도.

확실히 지금의 사람들은 너무 안일했다. 시스템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었고, 그 탓에 좁은 우물 안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학생들이 괴로워하니 더 빠르게 일을 해결하고자 했었다.

하지만 이건 과했다.

‘내 학생들 도와주겠다고 나섰다가 사람 여럿 다치게 생겼네.’

원래 지오의 계획은 그냥 약만 주는 것이었다만, 이건 그야말로 병 주고 약도 주는 격이었다. 설마 이걸 노리고 그 많은 풍경화를 그리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였다.

‘지금과 같이 명확한 악역과, 그것을 처리할 기사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도 그럴 것이, 제오르제가 만들어낼 시련은 많은 정원사 없이는 해결할 수 없었다.

지오는 제오르제가 뭘 원하는지 알 것 같았다. 결국 지는 것은 자신일 테니 마음껏 사고를 치려는 거다. 그 과정에서 지구인들은 시스템이 없어도 될 정도로 신비에 익숙해질 테니 여러모로 서로 이득일 거라고 주장하며....

이 사달을 낸 것 같은데.

“...흠.”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

‘생각만 하고 있던 구상의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버리다니.’

뭐 먹을까 고민하면서 입만 벌리고 있었는데 대뜸 ‘이거 먹고 싶었지?’라며 음식을 처박은 격이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고 칠 거면 인명 피해는 없게 하던가.

‘명색이 악신인 아르지오 씨도 사고는 꿈에서 쳤어.’

해라가 정정당당한 승부를 바라는 것 같아서 기대에 부응할 생각은 하고 있었다만, 잠깐 미뤄둔 사이에 그 ‘기대에 부응할 생각’ 그 자체가 되어 버리셨다. 같은 몸을 쓸 거면 좀 곱게 쓸 것이지 덕분에 지오는 덩달아 흑막이 되었다.

‘나 정말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는데.’

지오는 좀 슬퍼졌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불우한 초상화를 도우소서.

* * *

“.......”

적막한 집무실.

샛노란 동공을 응시하던 비사벌이, 이내 제 손에 들린 안구를 빈 구멍에 다시 집어넣었다. 잠시 바깥에 나왔던 게 거짓말이라는 양 샛노란 안구는 비사벌의 뜻대로 움직였다.

초상화의 이야기를 엿보고 있던 그가 중얼거렸다.

“...그때 한 말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과연. 꽤 재밌는 삶을 사셨군그래.”

하여간 용이라는 것들은 참 못난 면이 있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340)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40)"

4.7 13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41)

341

제341화

불온한 기색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세태와 달리, 어느 작은 마을의 볕 좋은 오후.

휴일을 얻은 차은혁은 집 안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었다. 낡은 집은 자주 청소를 해줘야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마당까지 모두 정리한 그가 담벼락에 기대어 숨을 내쉬었다.

“하아….”

가을이 선명하게 다가온 이 시골 마을은 어느덧 알록달록하게 물들었다. 특유의 색으로 물든 낙엽은, 솔직히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다. 차은혁은 쌓일 대로 쌓인 낙엽 무덤을 떨떠름하게 흘겼다.

‘기왕 열심히 모은 김에 차아라가 돌아오면 고구마나 구워 먹어볼까.’

그래도 이렇게 마음 편한 휴일은 또 처음이었다.

‘아무튼 통장이 넉넉해지니 이런 휴일도 꺼려지지가 않네….’

제오르제와의 포장마차 일은 종종 이렇게 비정기적인 휴일이 생겼다.

고정적인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포장마차 업무의 특이성 때문일 것이었다. 바람은 서늘했지만 아직 햇볕은 따듯해서 그런지 땀이 흘렀다.

가만히 세상을 바라보던 차은혁의 시야에 무언가 이상한 게 들어왔다.

“……?”

알록달록한 색으로 물든 숲의 나무들 사이로, 그것과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로운, 무언가 사람 같은 것이….

‘…근원의 자식인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뭐지?”

차은혁은 주춤거리며 담벼락을 짚고 일어났다.

담벼락 너머의 산은 그렇게 높지는 않으나 나무가 많았다. 대상을 알아챈 것은 정원사의 자질로 신비를 감지한 덕분이지, 차은혁의 시력이 아닌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서 있는 꼴이 사람이랑 비슷한 형상이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근원의 자식 중에서 인간과 닮은 녀석들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유성운 큐레이터에게 이것저것 배운 덕분에 아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방금 본 것은 분명....

“.......”

잠시 고민하던 차은혁이 결론을 내렸다.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럴 때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꼭 변을 당하더라.

차은혁은 결코 ‘내가 뭘 잘못 봤나?’라며 직접 산을 오르는 것처럼 멍청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래봤자 나아지는 건 없다. 애매한 찝찝함이 명확한 찝찝함으로 바뀌는 것뿐이다. 심지어 신변 위협을 당할 가능성도 컸다.

‘나는 민간인이다.’

요즘 정원이랑 같이 포장마차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민간인이다.’

툭 치면 죽는다. 금이 간 도자기다. 꽃잎으로 맞아도 죽는 연약한 비각성자다. 속으로 자기 주제를 복창한 차은혁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돌아온 집 안 자그마한 테이블 위에는 편지가 놓여 있었다.

“.......”

제발, 아 진짜 제발.

“...아악....”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죽어가는 목소리로 비명을 쥐어짜 낸 차은혁이 비척비척 편지로 다가갔다. 너무 떡하니 놓여 있어서 못 본 척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집 안 한가운데에 그냥 둘 수도 없으니 일단 확인은 해야 했다.

그리고 차은혁은 편지의 정체를 깨달았다.

“아, 이거....”

특이한 광물을 그대로 녹여 만든 듯한 인장 누름돌.

“...지오 씨의 편지인가?”

“야옹.”

“흐악.”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차은혁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소리가 난 쪽을 보았다. 볕이 들어와 그림자가 짙게 진 테이블 밑에 무언가가 있었다. 이렇게 죽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익숙한 얼굴이었다.

“...다나야?”

“애애앩.”

“이거 네가 가져온 거니?”

“앵.”

“너희 아빠가 준 거 맞지...?”

“애앩.”

“…잘 받았다고 전해줘.”

“갸르릉.”

“그래….”

보석이 찬란하게 반짝이는 커다란 눈이 깜박였다. 답장이 필요하진 않은 편지인지 이윽고 고양이는 순식간에 그림자 사이로 녹아들어 모습을 감췄다. 과연 검은 망토의 반려동물다운 등장과 퇴장이었다.

‘대체 뭘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잠시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거친 차은혁이 편지를 뜯었다. 검은 편지지에 하얀 글씨. 보기만 해도 저주받을 것 같은 생김새에 오싹했지만 다행히도 어떻게든 읽어볼 수는 있었다.

“…….”

무시하세요

“…뭐를?”

그게 뭐든

“아니.”

고작 두 문장이 적혀 있는 편지.

‘하지만… 일리가 있다.’

차은혁은 편지를 곱게 접어 공손히 책장에 꽂아두었다.

검은 망토가 왜 이런 편지를 보냈는지는 모른다. 그리고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았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오늘 차은혁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읽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기억에서 깨끗하게 지웠다.

‘…저녁은 뭘 먹을까.’

착실하게 신비에 적응해 가는 민간인이었다.

* * *

“좋아, 이제 걱정 없겠어.”

“야옹.”

“잘했다 딸.”

지오는 편지를 배달하고 돌아온 다나를 칭찬했다. 몸집 작은 어른 고양이 정도 되는 크기의 다나는 지오의 커다란 손안에 쏙 들어왔다. 그런 다나의 볼을 한 손으로 주물거리며 지오가 말했다.

“차은혁 씨의 성격상 더 많은 걸 알려드려 봤자 스트레스만 받겠지.”

그가 무시하라고 한 대상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로는 ‘행복한 광대’였고, 두 번째로는 ‘제오르제의 인성’이었다. 어느 쪽이든 계속해서 포장마차를 운영해야 하는 차은혁에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봤자 좋을 건 없었다.

“그럼 나도 슬슬 제오르제 씨의 뒷수습을 해야 할 텐데….”

“므으응?”

“아, 그렇지. 뒷수습이라고 하면 안 되려나.”

다나를 토닥이던 지오가 고개를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그럼 앞수습?”

미래를 위한 것이니.

비사벌은 부담스러운 사람이지만 그에게 참 잘해주었다. 지오는 참 내향적인 사람이라 비사벌을 꺼리기도 하였으나 그것과 별개로 이미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던가.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했다.

* * *

5층장, 가라사니.

그는 오늘도 평소와 같이 갤러리를 돌아다니며 작품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꼼꼼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로 작품을 대하는 그의 모습은 다른 큐레이터에 비해 상당히 이질적이었다. 그의 이명이 ‘집사장’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늦은 새벽의 갤러리를 순회하던 가라사니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 아, 이런.”

길고 붉은 용 한 마리.

“아르지오 씨?”

“끼룩.”

“흠, 거리감이 느껴지는 시선을 보아하니 아르지오 씨는 아니신 것 같은데.”

“끼루룩.”

“과연 어디서 오신 분일까.”

몸집이 작은 용이었다. 비교를 하자면 지구 토종견 중에서도 대형견 정도? 머리부터 꼬리까지 길기는 했지만 그만큼 몸통이 얇았다. 금색 눈을 깜박이는 것에 가라사니가 특유의 풀어진 미소를 지었다.

“저희 길드장님을 닮으셨군요.”

“끼룩….”

“아무래도 완전히 처음 뵙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라사니는 이런 형태의 용을 이전에도 봤었다. 지난여름에 한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악신, 아르지오의 던전에서 이와 엇비슷한 형태의 용들이 수없이 나왔었다.

그때 보았던 어린 용들과 달리 건강한 붉은빛에 깨끗한 금안의 용이었으나, 글쎄. 아무리 봐도 그때 보았던 용들이 맞는 것 같았다. 가라사니가 제 턱을 살살 쓸었다.

“그렇다면 역시 아르지오 씨의 가족분들이실까요.”

“낑….”

“어이쿠.”

바닥에 드러누워 있던 용이 그대로 가라사니의 몸을 타고 올랐다.

‘비행 능력이 사라진 것일까?’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고집이 참 귀여웠다.

작다고는 할 수 없을 발톱을 가라사니의 옷에 박아 넣으며 용은 암벽을 타듯이 어깨까지 올랐다. 꽤 날카로운 발톱이었는데도 옷 이외에는 상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 아주 기특했다.

하지만 용은 꽤 길었고, 가라사니의 어깨는 그만큼 넓지 못했다. 그 탓인지 용은 거의 가라사니를 돌돌 말아 묶은 것처럼 상체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정말로 묶어둔 것은 아닌지라 가라사니는 자유로운 팔을 들어 용의 몸통을 토닥였다.

“제 어깨가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끼룩.”

“영광입니다. 그런데 혼자 마실을 나오신 겁니까? 보호자분께서는?”

“끼루룩.”

“…….”

“…….”

“…아.”

그제야 가라사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분들과 함께 나오셨군요.”

이제 보니 갤러리 곳곳에 새빨간 용들이 숨어 있었다.

그림 속에, 조각상 위에, 어항 안에 숨어서 용들은 가라사니를 지켜보고 있었다. 전등처럼 환한 눈만 깜박이며 그저 응시만 하는 걸 보니 가라사니에게 말을 걸기로 결정된 용은 그의 몸통에 감긴 녀석뿐인 듯했다.

경력 짧은 큐레이터라면 기겁할 상황에도 가라사니는 그저 웃었다.

“아무래도 보호자분께서 제게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입니다.”

“…….”

“흐음, 귀여운 장난이네요….”

뱀처럼 긴 몸을 가진 용이 풀썩, 가라사니의 머리 위에 제 머리통을 올렸다. 하지만 그 무게감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분명히 부피감은 느끼고 있음에도 제 몸이 무거워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 기묘한 감각을 즐기며 가라사니가 초상화 앞에 도착했다.

“역시나.”

평소와 달리 어느새 붉게 변해 있는 초상화가 그를 반겼다.

“아르지오 씨?”

“나의 친애하는 집사장이 오셨습니까.”

“예, 당신의 가족들이 나를 부르기에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실례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초대를 무시하지 않아 주었으니 내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겸손하시군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초대였습니다만….”

“나와 대화하시겠습니까?”

“…….”

“나와 대화하시겠어요?”

가라사니는 ‘지오의 초상화’가 보이는 규칙성을 알고 있었다.

“…예, 좋습니다. 저와 대화하시죠.”

이 초상화는 인간과의 교류를 즐긴다. 작품이 말을 걸어오는 순간 교류는 시작되고, 이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초상화는 ‘선물’을 준다. 수집상 내에서는 일종의 이벤트성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그 교류는 점차 발전해 가고 있지.’

처음 ‘지오의 초상화’는 단순히 통성명에 집착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교류 방식을 보였고, 심지어는 인간 개개인의 특성에 집중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지금처럼 ‘대화’하기 위해 직원을 직접적으로 유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매뉴얼에는 없는 명백한 이상 현상. 가라사니는 그 첫 경험자가 된 영광을 음미하며 미소를 지었다.

‘…다른 형상, 특히 검은 망토일 수도 있었음에도 굳이 악신의 색을 띠고 있다. 이렇듯 교류를 즐기는 작품은 대체로 소꿉놀이를 좋아하지. 신비가 그 색을 달리했다면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어야 옳을 터….’

다행히도 상대는 적당한 대화 주제를 이미 건네주었다.

“이 용은 당신의 가족입니까?”

“나의 가족이고, 동생이며, 형님과 누님들이시지.”

“당신의 던전에서 분명히 보았던 분들인 듯합니다.”

“눈썰미가 좋으시군요, 집사장. 그때와는 형태가 많이 다를 터인데….”

“확실히 그때와는 달리 건강해지신 모습들이라 마음이 좋습니다.”

던전에서 보았던 어린 용들은 하나같이 오염되고 상해 있었다. 건강하고 윤기 흐르는 붉은 털과 비늘을 보니 가라사니의 마음이 편안해졌다. 조카가 잘 자란 것을 본 기분이었다.

“이렇듯 저에게 용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겠지요?”

“음, 일단 내 친구들이 참으로 지루해하여서….”

“지루하시다고들 하십니까?”

“아무도 자기들을 부르지 않는다더군.”

“…아.”

그러고 보니 꿈의 던전을 공략하며 ‘꼬마용 호출권’을 지급 받았던가. 혹시 모를 재난을 대비해 협회에서 가급적 사용을 막고 있는 탓에, 대부분의 헌터가 그 존재를 거의 잊은 채 살고 있었다.

꼬마라지만 용을 섣부르게 소환했다가 또 이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지만 그것이 이 어린 용들을 심심하게 만들었던 모양이로군.’

고작 가라사니 한 명을 초대하는 일에 그 많은 용이 온 것도 심심함을 참지 못하고 놀러 나왔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가라사니가 웃었다.

“죄송합니다. 요즘 헌터들은 조심성이 많은 편이지요. 어리나마 용을 소환한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도 워낙 많은 탓에… 이 귀하신 분들을 지루하게 만들었습니다.”

“잊은 것이 아니라면 된 일이겠지.”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이군요. 혹시 저희가 이분들의 도움을 받게 될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악한 용에게서 너무 쉽게 예언을 뜯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옳으신 말씀이지요, 실례했습니다.”

“나의 사소한 장난에 그리 정중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화려한 장신구가 가득 달린 손이 액자 너머에서 뻗어져 나온다. 용의 손은 미소를 띤 채 그것을 응시하던 가라사니의 눈앞에서 멈췄다. 가라사니의 상체에 매달려 있던 어린 용이 눈을 끔벅였다.

아르지오가 웃으며 손을 휘적였다.

"어른을 귀찮게 하면 못쓰지."

"…끼잉…."

가라사니의 몸 위에서 어린 용이 기지개를 켜듯 늘어난다. 쭉 몸을 핀 그것이 마치 뱀처럼 부드럽게 움직여 아르지오의 손 위로 올라탔다. 그러고는 이내 그의 어깨에 안착해 매달린다.

다시 그림이 된 어린 용을 아쉬운 눈으로 보던 가라사니가 말했다.

"어깨가 허전하군요."

"이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렇습니까?"

"길을 잃었던 내 어린 가족을 돌봐준 것에 감사를 표하네."

"아하."

가라사니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예, 제가 그렇게 하였지요."

"원하는 것이 있는가?"

"이 귀하신 분들을 다시 뵐 기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언제든 불러주시오. 이 아이들은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귀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볼 차례군."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눈."

"……."

"용의 눈."

아르지오가 비사벌의 눈에 대해 물었다.

"어디서 얻으셨을까?"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41)"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42)

342

제342화

“저희 길드장님께서 ‘영웅’을 혐오하신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정확히는 ‘살아 있는 영웅’을 향한 혐오였다.

“용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그에 대한 설명부터 드려야겠군요.”

가라사니는 이미 한참 전에 비사벌로부터 이에 대한 발언을 허락받았다. 아르지오의 본질이 용이고, ‘지오의 초상화’가 근원의 눈인 이상 언젠가는 말해야 할 순간이 올 것이라며 말이다.

그렇기에 가라사니는 꺼리지 않고 옛날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분께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부터.

* * *

원래 비사벌은 착한 사람을 좋아했었다.

그는 대단히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고, 제법 괜찮은 재력가로 성장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란 갸륵한 마음의 부재에도 그럴싸한 교류의 수단이 되어주고는 했다.

비사벌은 이를 이용해 자신의 부족한 면을 대신하고 나를 지키며 싸워줄 사람을 긁어모아 왔다.

선한 이, 배려심 깊은 이, 이타적인 이. 그들은 규칙성이 있어 교류하기가 편하다. 비사벌처럼 일반적인 교류가 어려운 사람도 이해하며 보호해 준다. 참 편리한 존재들이다. 그러니 비사벌이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런 그에게 친구가 있었다. 대재앙 이전부터의 친구였다.

“같이 살아남자.”

형편 좋은 소리나 해대던 녀석.

대재앙이 터졌다고 바로 돈이 쓸모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비사벌은 기존의 재력을 통해 아티팩트와 아이템을 긁어모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를 귀찮게 했다.

하지만 그의 친구는 그러는 법이 없어 옆에 두기에 아주 편했다. 그럼에도 가끔 공감하는 척조차도 해주기 어려운 소리를 지껄일 때가 있었다. 괜히 심사가 꼬인 비사벌은 실실 웃으며 이렇게 되받아치고는 했다.

“지금 그 말 꼭 기억해야 해, 알겠지?”

“당연하지. 솔직히 나 아니면 누가 널 살려주겠냐, 하여간 성격도 나빠서는.”

“네가 먼저 약속한 거야~ 어기면 가만 안 둬.”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다. 선의란 그 악의를 포장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형편없는 기만이다. 결국 여유가 없어지면 추악해지는 것이 당연했다, 그게 인간이니까.

하지만 비사벌은 대재앙 이후가 되어서야 그 흔해빠진 인간상에 제 친구가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정말 드물게 순수한 호의로 해주는 말인데, 너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 꼴을 어떻게 보고만 있어...!”

“네가 초능력자라도 되는 줄 알아? 그 저주인지 축복인지라도 받았어? 아니잖아.”

“아, 아무리 그래도 사람 된 도리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 거면 눈물 콧물이라도 좀 어떻게 해보던가. 무서워 죽겠다는 거 뻔히 보이는데 진짜 뭐 하자는 거지?”

“아니, 하, 너도 그 도움 받아놓고서는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안 그래도 무서운데....”

“어라, 이상하다. 친구가 걱정이 되어서 조언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아?”

좀 짜증 났다.

“같이 살아남자며.”

“아, 그러고 있잖아....”

“이러다 네가 먼저 죽겠어. 내 말이 말 같지 않고 약속이 약속 같지가 않아?”

“...끄응, 미안하다니까.”

“진심은 맞지? 나 믿는다, 응? 또 속 터지게 만들기만 해봐.”

아무런 능력도 없는 비각성자 주제에 참 많이도 나서던 녀석이었다. 참다못한 비사벌이 몇 번이나 조언해 주었으나 들어먹는 척도 안 했다.

그렇게 저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을 살리다, 끝까지 타인을 위해 살다가....

“.......”

기어코 무서워 울면서 죽어버린 친구를 보며 깨달을 수 있었다.

“...너는 내가 난생처음 보는 유형의 인간이었어.”

던전 브레이크가 있던 날이었다. 아직 대재앙 초기라 정보가 부족한 탓에 휘말린 일이었고, 뭐, 아무튼 그렇게 됐다. 몰려오는 몬스터들로부터 사람들 구하겠다고 이렇게 됐단 말이다.

한심하고 답답했다.

“멍청하기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시체. 이 꼴이 되는 것이 그토록 무서웠다면 타인 말고 자신을 살렸어야 했다. 비사벌은 그렇게 첫 번째 친구를 잃었지만 계속해서 살아갔다.

비사벌의 두 번째 친구 또한 마찬가지였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할 만해.”

“보통 그러다 죽던데~”

“징글징글한 새끼. 뭐, 저주라도 하는 거냐? 성격도 드러워서는.”

“그래서 안 죽겠다고?”

“아까부터 괜찮다고 말했지, 내가. 시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입이 꽤 걸걸한 친구였다. 하지만 겉만 거칠지 이 녀석도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비사벌은 기민하게 알아차렸다. 첫 번째 친구보다 훨씬 유능하고 강하며 심지도 굳었다.

그래서 저번보다는 덜 답답하겠지 싶었는데 다 착각이었다.

“와, 이제야 죽었네….”

“저주받은 새끼가 뭐 이렇게 목숨줄이 질겨? 스킬이 뭐 그런 거였나? 바퀴벌레?”

“쓸데없이 끈질겨서 시간만 버렸잖아. 아, 쌉손해야.”

“빨리 가진 것 좀 털어봐, 누구 오기 전에 주머니부터 뒤져. 그 졸부 새끼랑 같이 다니던데 괜찮은 아티팩트 하나만 건져도….”

“시발 뭐 나오는 게 있어야 털지, 이거 존나 그냥 거지새끼임.”

“꿩 대신 닭이라던데 이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하, 개새끼가 입만 드럽게 무거워서는….”

두 번째 친구는 그렇게 비사벌을 숨기다가 죽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새끼들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며 말이다.

“…….”

친구의 유인과 침묵 덕분에 살아남은 비사벌이 너덜너덜해진 시체를 비웃었다.

“괜찮을 거라며, 망할 놈아.”

그 말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이전보다는 덜 답답할 거라고, 그렇게 믿어도 될 놈이 아니었던 것이다.

각성자 주제에 어디 던전에 들어가 몬스터와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현실에서 ‘친구’ 하나 구하려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참, 우스웠다.

“그러게 내가 어디 숨었는지 말했어야지.”

잔뜩 조각이 난 시체는 울고 있었다. 목숨이 바로 끊어지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 원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뭉개졌지만 그 표정만큼은 읽을 수 있었다. 아주 많이 아팠을 것이다.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다.

“차라리 혼자 다니는 게 편하겠어.”

일명 ‘착한 사람’은 편리하다. 확실히 곁에 두면 도움이 되기는 했다. 이용하기도 쉽고 능력이 좋으면 금상첨화. 하지만 이대로면 비사벌이 먼저 속 터져 죽게 생겼다.

그래서 한동안 비사벌은 혼자 움직였다. 브레이크가 사라진 만큼 훨씬 더 제멋대로 행동했다. 남의 것을 빼앗고, 함정을 설치하고, 빌빌거리며 죽어가는 꼴을 감상했다. 자유로운 나날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가 생겼다.

“어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치겠네… 계속 귀찮게 굴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악몽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알고도 이래? 정신이 나갔나? 미친 건가? 악몽 좋아해요?”

“미친 건 당신이겠지, 이 만악의 근원 같은 작자가 지금 누구 보고….”

“말이 심하네. 진짜 빌런 한번 돼 봐? 내가 아주 거칠어지는 수가 있어요.”

대재앙 이전에 경찰이었다던가. 꼴에 직업 정신이 있다고 관련 없는 사람들을 구하거나 돌보아 주기까지 하는 '착한 사람'이셨다. 이미 그 호구 정신에 질릴 대로 질려 있던 비사벌은 정말이지 상대를 끔찍해했다.

그럼에도 결국 그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존재가 되었다. 나이 차가 좀 있었지만, 일명 미운 정이라는 게 있지 않던가. 비사벌은 과격하고 잔인한 성정이었지만 먼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웃으며 넘어가 주는 편이었다.

그게 문제였다.

"진작 저 목을 땄어야 했는데."

"…끄윽, 크르… 크으윽…."

"아아, 이렇게 될 거 뻔히 알면서 왜 살려뒀을까…."

"…죽, 여…."

"저 꼴 되어서도 징글징글한 소리나 해대는 놈을 말이야. 응? 안 그래? 지금 나한테 죽여달라고 말하던 거잖아. 진짜 징그러워, 진짜로 속이 니글니글하다고."

"……."

"뭐라도 말이나 해보지?"

"……."

"…말해, 제발."

전염형 몬스터는 그 유형과 수가 적지 않다. 쉽게 말하면 좀비, 뭐, 그 엇비슷한 놈들. 제 몸 사리지 않고 던전에서 사람들 구하겠다고 나서다가 기어코 전염이 되셨다.

비사벌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성과나 못 냈으면 혀나 끌끌 차고 말겠는데 이 정신 나간 호구 새끼들은 이상하게 성과를 냈다. 사람들은 다 도망쳤다. 자기들 도와준 사람은 던전에 남아 이렇게나 빌빌 기고 있는데 말이다.

살아 있는 시체가 득실거리는 던전에서 세 번째 친구가 한 말은.

"…괜, 찮…."

괜찮다고.

"뭐가 괜찮을까?"

"…전부…."

"……."

그 자신이, 그것을 보는 비사벌이, 그 이외의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세 번째 친구는 썩어 문드러져 가며 그렇게 말했다. 정말이지 비사벌의 속을 터트리는 데 일등 공신이셨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함께 살아남자고 하더니 이 가엾은 제 친구는 안중에도 없이 죽어버렸다. 괜찮다 괜찮다 말하더니 제멋대로 저 대신 희생하고 죽어버린다. 친구고 나발이고 안 만들겠다 버티던 놈 강제로 친구 삼아놓고는, 시발.

결국 또 죽었네.

"망할 놈들."

비사벌은 한동안 세 번째 친구의 살아 있는 시체 곁에서 시간을 보냈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어차피 공략도 못 할 던전이었다. 비사벌은 아티팩트와 아이템을 활용하는 데 능숙할 뿐 별 능력도 없는 비각성자였고, 이 던전 역시 운 나쁘게 휘말린 것에 불과했다.

'각성만 안 하면 던전 갈 일 없다고 하던데, 그거 다 순 구라였어.'

그러니 제 세 번째 친구가 열어준 길로 도망이라도 치면 된다. 뻔히 이 던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있었다. 분명 그럴 텐데, 이대로 나가면 눈에 뵈는 것도 없이 무언가 저지를 것 같아 한동안 조용히 화를 삭였다.

"크르륵…."

"죽었더니 눈치도 같이 죽었나 봐? 안 그래도 속 터지니까 가만히 좀 있어 봐요."

"크왁!! 칵, 카가각…!!"

몬스터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기괴한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구울 던전의 세이프존.

"……."

눈치도 없는 놈이 계속 저를 씹어대려 해서 아티팩트로 가둬두었다.

아무리 관찰해 보아도 이전과 같은 이지는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오는 좀비였다. 더는 이전에 알던 존재가 아니게 된 괴물. 그냥 죽여야 하는 괴물.

그대로 두기엔 껍데기가 아까웠다.

"…하아아아아아아…."

비사벌은 인정하기로 했다.

그에게 나사 빠진 수준으로 '착한 사람'들은 특별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첫 번째 친구가 엉엉 울면서도 사람들 살리다가 죽은 꼴을 봤을 때부터 이미 그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랬으니 그 시체를 질질 끌고 와 굳이 무덤을 만들었겠지. 그러니 두 번째 친구의 시체를 손수 꿰매 주었겠지. 그래서 지금도 도망치지 않고 던전에 남아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졌겠지.

혹시 돌이킬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진짜 망할 것들아."

두 번째 친구를 죽였던 것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 사실 떠오르지 않았다. 그럴 정도로 갈기갈기 찢었던 어느 날 화창한 오후가 생생하게 떠올라 기분이 아주 이상했다. 반쯤 죽였다 살리고, 또 반으로 갈랐다 살리고, 사지를 나눴다 살리고….

그 버러지들을 분해하며 비명을 감상하는 것은 저였을 텐데, 그날의 비사벌은 이상할 만큼 식은땀을 흘렸다. 평소에는 잘만 웃으며 즐겼던 작업이었는데 웃을 수도 없었다.

"대체 왜…."

인정한다, 그래. 인정한다고.

"너희가 뭔데 나를 무섭게 만들어."

그 비정상적으로 착한 놈들은 비사벌의 트라우마가 되었다.

결국 비사벌은 뼈밖에 남지 않고 문드러져 버린 세 번째 친구의 시체를 불태웠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아티팩트와 아이템을 탈탈 털었다. 그렇게 던전의 지형과 구조물, 몬스터의 종류와 위치, 그 모든 정보를 암기했다.

그렇게 대략 4년 3개월에 걸쳐 기어이 보스 몬스터를 쓰러트리고 공략에 성공했다. 비각성자의 몸으로 달성한 기가 막힌 업적 덕분인지 보스 몬스터도 말을 다 걸더라.

"이거 말을 하네?"

[…친구.]

"친구? 그래요, 시발. 내 친구나 살려내 봐요. 응? 너 드래곤이잖아, 드래곤. 명색이 용인데 인간 하나 못 살려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수족은 그렇게 퍼뜩퍼뜩 잘 살려내더만."

[친구, 좋은… 것.]

“아니면 시체라도 돌려줘, 아, 내가 태웠지만. 내가 태웠지만 그래도 돌려달라고. 그 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단 말입니다. 난 잘했어, 잘한 일이었어. 그래도 묻어주기는 해야지, 여긴 지구도 아닌데. 돌려내, 빨리. 어서. 시발 그 자식 여기 혼자 두고 안 가…!!”

[좋은, 우정…?]

“내놓으라고 이 개뼈다귀 새끼야!!!”

그 당시 비사벌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당연했다, 뼈만 흉하게 남은 드래곤 하나 잡겠다고 썩은 살점 뜯어 먹으며 4년을 넘게 혼자 던전에 남았다.

한쪽 눈은 오염됐는지 시야가 흐렸고, 다른 한쪽 눈은 몬스터에게 뜯겨 먹혔다. 그렇게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점차 죽어가고 있었다.

그 상황에 제정신이고 냉정할 수 있으면 더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친구….]

그리고 그게 참 장해 보이기라도 했는지, 비사벌은 뼈밖에 남지 않은 드래곤에게 눈을 선물 받았다. 흐린 시야로도 선명하게 보이는 샛노란 안구였다.

[놓, 아… 줘.]

“…….”

그와 동시에 각성했다.

탐욕의 감정(SS)

: 가치 있는 것을 눈에 담는다

시체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안 돼.”

그 눈이 보스 몬스터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것일까. 눈의 전달과 함께 던전은 폐쇄되었고, 그렇게 강제로 무너지는 던전에서 내보내졌다.

정신을 차리니 경기도 어느 한 지역이었으며 알아보니 지구의 시간은 한 달밖에 흐르지 않은 채였다.

회복된 제 형편없는 몸을 살피니 머리는 붉었으며 눈은 형형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니 온 세상의 값진 것들이 제 시야에 들어와서 속이 들끓었다.

“…하.”

욕심에, 아주 큰 욕심에. 대단히 절절하신 탐욕에.

“하하, 하하하하…!”

그 빌어먹게 짙은 탐욕에, 오랜 트라우마가 변질된다.

친구의 무덤이 기억나지 않았고, 친구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심지어는 두고 온 시체에 대한 감상도 흐려진다. 그 시체는 그다지 가치 있는 게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인간의 육신은 널리고 널렸기 때문이다.

한참을 헛웃음만 흘리던 비사벌은 아주 상쾌하게 선언했다.

“내 다시는 친구 만드나 봐라.”

사람들은 그 멍청하고 답답한 새끼들을 영웅이라 불렀다.

* * *

“참 재밌게 돌아가는 세상이지요?”

“…….”

“뭐, 제 뒤늦은 감상이야 어쨌든….”

늦은 저녁.

“그런 내가 친구의 무덤 위치를 떠올리고, 잊어버린 이름을 기억해 내고, 굳이 굳이 시체를 복원해 내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비사벌이 웃으며 설명했다.

“다행히도 이 눈은 가치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그때의 나는 용의 시야에 적응하지 못해 휘둘렸던 겁니다. 뭐, 지금은 보시다시피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착한 사람을 향한 트라우마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것도 일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착해빠진 것들에 대한 혐오심이 그렇게 강한 거겠죠. 단순한 호구라면 모를까 ‘영웅’이라고 불릴 만큼 정신 나간 것들은 정말…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역겹다니까요?”

“그래도 결국엔 친구들을 되찾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일 테고요. 나는 친구라 정의될 수 있을 관계상의 예의는 전부 갖췄습니다. 양지바른 곳에 무덤 만들어줘, 시체 예쁘게 복원해 줘, 심지어는 복수까지 해주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지오가 웃으며 비사벌의 눈가를 매만졌다.

“그래서 ‘살아 있는 영웅’을 혐오하는 건가요?”

“죽은 영웅의 이야기는 값진 서사가 되는 법이죠, 제오르제. 그건 한때 인간이었을 뿐 엄연한 작품입니다.”

“모두가 영웅이라 부를 때 단지 한심한 사람으로 보았으니 그들을 혐오하는 거야.”

“난 생각보다 멍청한 인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멀쩡한 뇌와 재주를 가졌으면서 그걸 땅에 버리고 마는 정신 나간 작자들은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죠.”

“이 건물의 직원들만 봐도 그 취향이 잘 보여요, 아버지….”

“오, 그런가?”

비사벌도 인정하는 바였다.

위험한 것은 봐도 못 본 척. 머리가 좋으나 그 지혜를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일신의 영위에. 타인을 위한 희생은커녕 저와 그 울타리만 책임지기에 바쁜 사람들. 유능하고 성실하며 매너가 좋지만 그 이상은 피하는 사람들.

이 얼마나 보기 좋으냔 말이다.

“…이 눈을 가져가실 겁니까?”

“으음, 당신이 죽으면 가져갈 수도.”

“배려심이 깊군요. 덕분에 이 자리, 몇 년 더 해먹을 수 있겠어요.”

“내 친구가 당신에게 준 눈이잖아요.”

“그걸 존중하십니까?”

“난 이 녀석이 아니면 친구가 없어서….”

집무실 테이블에 앉아 비사벌과 마주 보고 있던 초상화가 그린 듯한 미소를 지었다. 수많은 사람을 홀리고 눈을 멀게 만든,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눈웃음이었다.

“비사벌, 완벽한 용이 되고 싶지 않아요?”

"용은 몰라도 그 모자는 확실히 탐이 나네요."

"그럼 됐어요, 당신에게도 구미가 끌리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제가 뭘 하기를 바랍니까?"

"이 세상이 당신에게 가치가 있나요?"

묘한 질문이었으나 답은 금방 나왔다.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해 주세요."

"누굴, 당신을?"

"세상의 모든 멍청한 인간들을."

"…아, 그랬지…."

비사벌이 어깨를 으쓱였다.

"당신도 결국에는 '지오'라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결국 '착한 사람'들의 편인 것이다.

"그럼 그 모자를 주실 건가요?"

"때가 되면, 나에겐 필요가 없을 테니까."

"좋은 거래가 되겠군요."

나쁘지 않은 극이 될 것 같았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42)"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43)

343

제343화

비사벌은 거래가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다.

"지난밤에 좋은 꿈을 꿨습니다."

"...꿈입니까?"

"사실은 꿈이 아니었겠지만, 뭐, 그 정도면 꿈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스킬이 아주 일품이란 말이지. 난 우리 직원들의 그런 태도가 아주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길드장님."

"그러니 어서 불러요."

지난밤, 그는 두 발 달린 정원과 거래를 했다. 그리고 본디 신비와의 거래는 철저해야 하는 법이지 않던가.

"우리 성실한 직원들을 모아봅시다."

그것의 본질이 과연 '제오르제'에 가까울지, '지오의 초상화'에 가까울지는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거래가 비사벌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번 거래를 성공시키기 위해 비사벌은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꽤 즐거운 일이었다.

비서실장이 허리를 얕게 숙이며 물었다.

"...범위를 지정해 주십시오, 길드장님."

"난 시시한 일은 벌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제2 코드로 이해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제2 코드란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한 모든 가동 인력을 동원한다는 뜻이었다. 그 안에는 사무직도 포함이 되었다.

모름지기 인간 사회에서는 단순 무력뿐만 아니라 정보도 동원되어야 제대로 된 전쟁이라 할 수 있었다.

'그래, 전쟁이다.'

두 발 달린 정원은 자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추악해질 수 있을 기회를 바랐다.

확실히 그건 '지오의 초상화'가 허락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하고 훌륭했던 때의 모습으로 박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나에게로 찾아왔겠지, 그 모든 이야기를 친히 보여주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정원이 제안한 거래는 무척 마음에 드는 것이었다.

비사벌은 정원이 바란 극을 마련해 줄 것이고, 이번에도 모든 이야기는 해피 엔딩으로 끝날 것이었다. 정원이 아낌없이 추악해질 수 있을 방파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비사벌의 역할이었다.

'그럼 나는 그 모자를 얻을 수 있을 테고....'

세상에, 이렇게 남는 장사가 또 있을까.

"......."

"...길드장님."

"다들 모였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어깨에 힘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작품들. 그의 길드원들은 비사벌의 수족이자 충실한 종이고 또한 무기가 되어준다.

비사벌은 늘 그렇듯 신사적으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다 걸려 있는 반지와 귀에 빼곡하게 매달린 귀걸이와 목을 조르듯 채우고 있는 온갖 목걸이. 그것들이 저주받은 작품 특유의 불온함을 빛냈다.

그러나 이 모든 저주는 비사벌을 감히 해칠 수 없었다. 비사벌이 새쭉한 웃음을 걸치며 집무실을 나섰다. 결국 이 세계는 값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뉜다.

"대홍수의 때가 왔나니."

"...유서 써놓을까요?"

"제가 과연 그걸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으며, 쓸모없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

"슬슬 정리할 때가 됐지."

이번 기회로 무가치한 것들을 간편히 거를 수 있으리라.

"어디 한번 세계 멸망을 막으러 가볼까."

* * *

"그래서 결국 제오르제 씨가 원하는 것은...."

초상화의 친절한 설명을 전해 들은 주현이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한 번이라도, 아름답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겠네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철이 덜 든 아이의 격렬한 어리광입니다."

“어리광치고는 스케일이 좀 크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결국 어른들이 어떻게든 수습해 줄 거라고 믿으며 정신 놓고 사고 치는 거니까요. 경찰서에 가지 않을 것을 알고 마트에 드러누워 바둥거리는 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묻는 겁니다만.”

주현이 제 턱을 쓸고는 물었다.

“실제로 피해자도 꽤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행복한 광대’로 인한 실종자들이 다시 원래대로 복귀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정말로 어리광이라면요.”

“그건 제오르제 씨의 재량인지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오의 초상화’도 모르는 것을 과연 어리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처음 봤을 때부터 제오르제 씨는 조금, 무서운 면이 있었죠.”

“…….”

잠시 지오가 생각했다.

‘…전혀 안 무서워하는 얼굴로 그렇게 말하면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을 텐데.’

과연 한층 업그레이드된 지구에서 생존하고 있는 현대인다웠다.

아마 지오였다면 지구에 자리를 잡기는커녕 하루살이처럼 절절대며 살아갔을 것이다. 각성자도 아니고 운 좋게 초상화가 되지도 않은 사람이 저렇게나 태연하다니, 가히 존경스러운 정신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무서우셨습니까?”

“아무래도 지오 씨에게 안 좋은 물을 들이는 것 같다는 점에서.”

“그걸 무섭다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친구가 나쁜 길로 빠지는 것 같은데 마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감정에 공포가 아주 없다고는 못 하겠죠. 음, 그리고 그런 점이 아니더라도….”

잠시 고민하던 주현이 말을 이었다.

“지오 씨는, 그러니까 ‘지오의 초상화’는 그 특성이 뚜렷하지 않았습니까?”

“특성이라.”

“선한 사람에게 선물을 해주고 악한 이들에겐 무관심과 처벌을 내리는 특성 말입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표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인걸요. 그런 지오 씨의 평소 특성과 조금 결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물론 제오르제 씨를 처음 봤을 땐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느낌이 별로였나 봅니다.”

“그 역시 지오 씨의 일부분이니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 그랬습니다. 위험한 느낌이 들었죠. 말 그대로 사람을 가지고 논다는 태도가 분명해 보였고요.”

이전의 지오들과 확연히 다른 태도였다. 심지어 사악한 신성이었던 아르지오마저 미물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 하지만 제오르제는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인간을 장난감처럼 다루었다.

“그러니… 그런 ‘사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다시 말해 편애다. 특별 취급이다.

“누구에게나 사랑을 보여준다면 그건 그냥 쓰레기 아닐까요.”

“예상대로 제오르제 씨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박하시군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지오반니’ 역시 모든 이를 평등하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주현은 본능적으로 이 질문이 시험이자 증명이라고 느꼈다. 이 초상화는 종종 이렇게 제 의견의 가치에 대해 물어볼 때가 있었다.

주현은 그의 친구로서 그 기대에 부응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순순히 신비의 시험에 들어주었다.

사실 지오는 아무 생각 없이 조언을 구해보고자 한 것뿐이었지만, 주현이 그런 지오의 속사정을 알 리가 없었다.

‘시험에 통과해 내 의견의 가치를 보여준다면... 지오 씨는 그것을 자신의 계획과 앞으로의 미래에 충분히 반영해 주고는 한다. 이건 이번 사건에 내 의견을 집어넣을 기회이자 지오 씨의 배려야.’

이 ‘지오의 초상화’는 다른 신비, 혹은 작품들과 달리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악인이라 불릴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누구에게나 그러겠지.

생각을 정리한 주현이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자비와 사랑은 다르죠.”

“저 역시 모든 이를 사랑합니다, 주현 씨.”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오반니.”

순식간에 백금발을 늘어트린 초상화의 형상에 주현이 제 생각을 설명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사랑’과 제오르제 씨가 말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과연 어떻게 다른가요? 궁금하네요.”

“사랑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애와 배려를 기본으로 하는 따듯한 마음과 소유와 편견을 기본으로 하는 애틋한 마음. 두 ‘지오’ 씨의 사랑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주현은 제 단어 하나하나에 신중함을 기했다. 신비를 정의하는 작업은 대단히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일이었다. 그 정의와 그로 인한 인식 하나에 신비는 자신의 위험도와 영향력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번 ‘설명’을 잘하고 싶었다. ‘지오의 초상화’는 ‘선량한 존재’를 선호하나 그 자신까지 선량하지는 않았다.

이 존재에게 있어 선악은 기호 중 하나다. 그 취향이 워낙 확고한 덕분에 여태껏 인간들이 그 많은 호의를 받을 수 있었을 뿐....

‘기본적으로는 타인에 무관심하며 흥미 위주의 사고를 보인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지오’들을 확실히 정의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었다. 특히나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세상에는, 이처럼 선함을 선호하는 신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 저는 지오반니 씨가 보여주는 사랑이 자비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자비라는 확고한 영역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오르제 씨는?”

“그분의 사랑은 쾌락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견 자비의 형태를 띨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하나의 유희에 가까워요. 그래서 ‘상대를 장난감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광범위한 ‘사랑’을 보일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럼 다른 ‘지오’에게는 사랑이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네요, 과연 어떻게 보이나요?”

“…….”

다행히도 ‘지오의 초상화’는 주현의 ‘정의’에 흥미를 보이고 있었다. 그 ‘정의’에 따라줄 수 있다는 의향이 엿보였다. 주현은 더욱 신중하게 머리를 굴렸다.

“…아르지오 씨의 사랑은 연민에 가까운 형태를 띱니다. 한없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을 향한 가족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그보다는 멍청한 미물들을 그냥 보고 있기가 너무 답답하고 분한 마음인 것 같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사랑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지오 씨는?”

“…난, 글쎄요… 당신은….”

주현은 이 초상화에게 ‘서지오’의 이야기를 많이도 전해 들었다. 어쩌면 그를 작품으로 보며 대해야 하는 유성운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른다. 한 인간의 크고 작은 이야기.

“…희생도 사랑이겠죠.”

결국 주현은 그렇게 정의하고 말았다.

“모든 지오 씨에게서 나는 그것을 엿보았습니다. 네, 희생이요.”

“그런 말씀은 저에게 과분하네요. 낯부끄러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지오의 초상화’가 여태껏 공통적으로 보여준 사랑은 희생의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워낙 그릇이 크신 분이라 제 것 몇 조각은 떼어가도 티가 안 나서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누군가는 가져가야 할 겁니다.”

“그런 점이요.”

가진 사람이 더하다고들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은 그렇게 굴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작은 것을 내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오’는 뭐가 어렵냐는 듯 그렇게 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은 때때로 남이 볼 때는 기겁할 만한 것이 되고는 했다. 작게는 사소한 배려부터 시작해, 크게는 스스로의 생명까지도 ‘지오’는 양보했다. 그게 ‘지오’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 듯 보였다.

“…쉽다고 해서 그 행동의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봅니다.”

“나를 정말로 좋게 보고 계셨네요.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도.”

“모든 지오 씨가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지오반니는 수조에 갇혀 죽었다. 아르지오는 악신으로 타락했다. 서지오는 제 제자들을 위해 초상화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주현은 ‘지오의 초상화’를 안타깝게 여겼다.

다만 조금 궁금한 것이.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제오르제 씨는 결이 조금 달라요.”

“그렇게 다르지만도 않을 겁니다.”

“그런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오가 어깨 위의 허니를 살살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는 ‘지오’라 불렸던 존재들의 집합이지 않습니까.”

* * *

“아, 서서희.”

"...좀 오랜만에 보는 기분인가?"

"내가 요즘 바빠서."

"그러게, 왜 바쁘지?"

"정원사한테 왜 바쁘냐고 묻는 거야?"

정해운이 씩 웃으며 어깨를 으쓱였다.

"무슨 일인데."

"...너...."

"응?"

"......."

서서희가 어설픈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몇 년이나 잠적하려고 그래."

"글쎄다, 어쩌면 은퇴의 기회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과연 어떤 형태의 은퇴일지가 중요하겠네."

작게 한숨을 내쉰 서서희가 제 머리를 헤집고는 다시 웃었다.

"우리 친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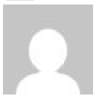
"아하."

정해운이 그를 따라 웃었다.

"물론이야."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43)"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44)

344

제344화

일명 '행복한 광대'에 대한 정보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도 공개되었다.

"행복한 광대라니, 좀 섬뜩하네."

"이것도... 몬스터, 인가?"

"몬스터랑은 좀 다르다더라."

지난 시스템 오류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신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 운 나쁜 정원사들이 매번 보고 접한다는 것들 아닌가. 그러니 이 또한 비슷한 경우라고 말은 하던데.

"...우리는 정원사도 아니잖아?"

"민간인에게도 보이는 거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일부 정원사는 이런 의견도 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제2의 대재앙이 오는 걸까요?"

검은 망토의 '정원' 연작으로 인해 대량의 정원사가 채용된 상황이었다.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분명했던 변화는 마치 순탄치 않을 앞날을 예고하는 듯 보이기도 했다. 일부 정원사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주 이상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환장하게 만드는 가설이긴 했다.

"시발 상큼한 표정으로 무슨 개소리를 지껄이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질이 없는 사람조차 볼 수 있는 신비가 등장하냐고요. 뭣보다 정해운 정원사가 평범한 정원사도 아니고, 그 많은 대량 채용에 분명 무슨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대재앙 정도의 재난이 와야 앞뒤가 맞다? 하지만 수집상의 작품들 중 대부분이 그 '신비'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자질이 없는 민간인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아니죠,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인지'에 해당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는 이게 원래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수집상의 작품 앞에 민간인 데려다 놔 봐요. 미치겠죠? 죽을 수도 있겠죠? 정신 나가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걸 제대로 '인지'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존재 자체를 볼 수는 있잖습니까.”

“아무튼 나는 ‘행복한 광대’가 수집상의 작품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수집상의 작품은 ‘작품’이잖아요. 아이템, 아티팩트, 저주받은 물품처럼요.”

“그것도 신비라고 말할 수 있기는 하죠. 민간인조차 인지할 수 있는 현세의 물건에 신비가 깊이 스며들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요즘 안 보이는 정원사가 늘고 있다는 점도 걸려서… 아, 모르겠다. 진짜 제2의 대재앙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그렇게까지 이 차원에 신비가 축적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한 차원에 신비는 계속해서 축적된다. 그 과정의 어느 지점을 지나면 대재앙과 같은 격변의 시기가 찾아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비의 축적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이상을 지나면 또 다른 ‘격변’이 찾아올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한 차원의 ‘신비화’겠지. 그쯤 되면 차원을 차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지구를 지구라고, 인간을 인간이라 부를 수 없을 지경이 될 것이었다. 정원사가 말하는 공포는 바로 그것이었다.

“지구 멸망하면 어떻게 하지.”

“아 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그 광대가 신비의 일종인 건 알겠는데, 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

그것은 정원사로서도 대단히 난감한 상대였다. 보아하니 정원사고 민간인이고 각성자고 가리지 않으며 피해를 입힌다는 것 같던데 말이다.

“이거 근원의 자식이 맞기는 해요? 아니지, 근원의 자식이면 애초에 자질 없는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 두 번째 대재앙이 온 거면…!”

“진짜 제발 좀!!”

하지만 이번 ‘신비’는 정말 정의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던전에서 파생된 자식이 아니니 몬스터도 아니고, 근원의 자식이라기엔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적응해야만 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뇌에 힘주래.”

“?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그냥… 힘 빡 주라는데.”

“돌겠네.”

하지만 정확했다. ‘행복한 광대’에게서 벗어날 방법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뿐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 행복하다 생각하는 자들에게서조차 결핍되어 있는 행복을 찾아내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가이드는 당연히도 협회 연구소에서 만들어냈다. 그들은 많은 실험을 통해 ‘행복한 광대’에게 등장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정부와 협회에게 요청을 받은 정원사들이 뼈 빠지게 활약해 준 덕분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광대로 연구원들은 이 신비가 피해를 입히는 순서와 과정을 알 수 있었다. 일단 첫 번째로, 그것은 ‘당신의 행복’을 묻는다. 답하지 않으면 답할 때까지 문답을 계속한다.

“잠깐만.”

“네?”

“이거 몇 번까지 가능하지?”

“뭐가요? 아, 광대의 처음 문답이요?”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에 의문을 가진 협회 연구원들은 즉각 실험에 들어갔다.

가장 오랫동안 문답을 거절한 것은 1000회였다. 해당 실험체는 1000회 이상의 문답을 견디지 못하고 매혹에 당해버렸다. 아마 100회 단위로 정신 오염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듯했다.

“그럼 광대가 된 놈들은 뭐야?”

“아, 그거 공통점을 좀 찾아봤습니다만….”

“뭔데.”

“불성실하게 답변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뭐고.”

“광대를 조롱해서는 안 되나 보네요.”

아예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 무시하거나 잠을 자도 된다. 반항적으로 대답해도 된다. 하지만 그 태도에 경멸, 혐오, 비난 등 상대를 얕잡아보고 깔보는 기색이 생긴다면 광대가 되어버린다.

“광대를 조롱하는 사람도 광대가 된다는 정보를 알아챘으니 생각지 못한 이득이죠.”

“그건 그래.”

광대의 ‘첫 문답’ 단계를 넘어갔다면 대답한 사람은 완전히 매혹에 걸리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곁, 혹은 머릿속에 존재하는 광대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 상태로 계속해서 광대와 교류하게 되는 것이다.

광대는 끊임없이 상대에게 ‘행복’에 대한 정의와 가치를 물어본다. 그리고 그 행복을 비상식적인 형태로 이루어준다. 그 과정에서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에 취해버린 사람 또한 결국 광대가 된다.

“아, 이건 좀 피해가 큰데요. 우리 연구원도 몇 명 실종되어 버려서….”

“왜 명단을 봐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냐.”

“지금 와서 실종된 걸 인지했다는 점도 놀라운 부분 중 하나죠.”

“이렇게 직접 ‘자연스러움’을 느끼게 되니 신선한데.”

실험 과정에서 연구원이 다수 ‘실종’되었다. 광대가 실험체들의 ‘행복’을 이루어주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은 이들로 인해 일부 연구원이 ‘실종’당한 것 같았다.

연구원들은 함께 실험하던 동료가 사라진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하는 실험이 끝나기 전까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아니, 인지는 했으나, 아주 자연스럽게 넘기고 말았다.

“중간에 직장 동료가 갑자기 사라져도 그러려니 싶으니 즉각적인 반응도 어렵고. 그게 가능했으면 실종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사라지는지 체크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이건 좀 아깝다.”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죠… 이상 현상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 정말 골치 아픈 신비네요. 인지를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봐도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관심이 없어지는 거잖아. 아, 없어졌네? 음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 버린다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기억 왜곡보다 골치 아픈 부분이 있어.”

기억이 왜곡되었다는 건 역으로 힌트가 된다. 봐도 잊어버렸다면 공백을 되짚을 수 있다. 인지를 못 하면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뻔히 알고 있는데도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건… 정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조금 치명적이었다.

“이래서야 협회 연구원 자격이 없는 건데.”

“…난감하긴 하죠?”

“돌아 버리겠네 이거….”

이 부분은 정부의 정보 통신 보안 팀도 마찬가지였다.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팀에 남아 있을 이유가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사직서를 가져왔습니다, 수리해 주세요.”

“감히 이 바쁜 시기에 나가려고 해? 어림도 없습니다, 나랑 같이 야근이야. 협회 연구소 좀 더 털어봐요. 이래서야 대통령 각하 뵐 낯이 없다고.”

자존심이 상하는 걸 넘어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 정보를 다루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었다. 통나무라는 투박한 원재료를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바꾸어 놓아야만 하는 게 바로 그들이지 않던가.

하지만 이래서야 통나무만 덜렁 들고 가게 전시대에 나열해 놓는 판이었다. 요약하자면 장사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뜻이다.

“…….”

그리고 협회장, 단해라 역시 이에 대해 전해 들었다.

“…재밌네, 마음에 들어.”

전혀 재밌어 보이지도, 마음에 드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비서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저것은 단지 협회장의 말버릇일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고민하듯 눈을 깜빡이던 협회장이 이내 말을 이었다.

“아무래도 친애하는 선생님께서 분열을 해버린 모양인데.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공격적일 리가 없지, 더군다나 이번 피해는 꿈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도 공포에 떨고 있거든. 지금까지 실종된 사람의 수만 쳐도 벌써 400명에 가까워졌나. 그만큼 광대의 수는 더 늘어나 버렸고. 이건 시민을 통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닐 거야, 그렇지?”

“협회장님, 부디 명령을….”

“일단 정해운 길드장에게 연락을 넣어봅시다.”

단해라가 기계적인 미소를 그렸다.

“그 애가 여기에 얼마나 손을 보탰는지 궁금해.”

“……!”

“혹시 모르니 미리 수배 전단지 만들어두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친구의 정이 있는데, 대화를 나눠 봐야겠지?”

원래 친구는 싸우면서 크는 거라더라. 단해라는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이런 모호한 표현은 어느 때나 핑계로 삼기에 적절했다. 그녀는 검은 눈을 도록 굴렸다.

과연 이 나약한 인류는 어떻게 해야 이번 ‘교육’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수집상에도 연락 넣어주고.”

“예, 협회장님.”

“일이 참 재밌어지네.”

어쩐지 요즘 수집상이 시끄럽더라니.

“역시 분열한 게 맞나 봐.”

잘하면 ‘지오의 초상화’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보였다.

“기왕이면 서지오 헌터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

“최대한 성사시켜 보겠습니다.”

“좋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대로 한 달만 더 가만히 둬도 대한민국의 절반은 광대로 뒤덮일 듯했다. 헌터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우리 한국이, 내가 그토록 아끼고 가다듬었던 보석함이 망가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단해라는 이번 일을 잘 이겨내고 싶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

나중에는?

“……?”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나?

* * *

오류 발생

“아, 잠깐만.”

오류 발■

“그렇죠.”

■■ ■■

“조금만 더 조용히….”

…….

“아주 좋네요.”

재밌네

“사랑스러워라.”

정원의 미소에, 시스템이 경고했다.

제오르제

“네, 지오 씨.”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를 가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마음이라는 게 남아 있다니, 놀라운걸요.”

물론 나는 그렇습니다

실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초상화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가엾기도 하지.”

제오르제는 이것의 존재를 대단히 사랑스럽게 여겼다.

이것은 아름다웠고, 정교했으며, 섬세하기까지 했다. 이는 가장 완벽했던 한때의 인간을 재료로 삼아 만들어진 하나의 허상.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빚어진 노아의 방주였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참 괜찮은 핑계이지 않던가.

“당신은 뭐가 더 옳은지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물론입니다. 당신은 눈이 아주 좋잖아요. 무얼 봐도 그 가치를 알고, 그 운명을 알고, 그 정의를 알겠죠….”

제오르제

“하지만 결국 당신은 감정이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과연 누가 그 자신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다시 합쳐진다고 해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있을까요? 아마 아닐 텐데.”

제오르제

“그들이 역겹지 않았나요?”

그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설명’했다.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내 존재는 인류에게 도움이 됩니다

시스템은 옳은 존재입니다

물론 제오르제는 그것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다.

“…글쎄요….”

대체 뭐가 옳다는 걸까?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344)
Prev
Next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45)

345

제345화

여기 그릇이 너무 커서 재앙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다.

세상에 커다란 격변이 왔던 날, 단지 ‘그림’이라는 스킬을 얻었어야 했던 서지오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연에 우연이 겹쳐 기어이 근원에 닿았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대재앙의 날 화재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

제자와 함께, 자신이 그렸던 풍경화 안으로.

“…서, 선생님?”

“…….”

“여긴….”

“해라야.”

그는 당황하기에 앞서 학생을 살폈다.

“괜찮니?”

“…괜찮아요.”

“그럼 됐어.”

어쩌면 그 순간부터 서지오는 각오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단해라라는 학생이 서지오를 얼마나 경외하는 시선으로 봤는지 뻔히 알았던, 그 첫 번째 시간에서부터 말이다.

하지만 그 당시 서지오도 충분히 당황하고 있었다. 그는 단해라의 생각만큼 결함 없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다. 서지오는 공간이 잘린 듯 덩그러니 존재하는 숲의 일부분과 그 가운데 놓인 오두막을 보며 당황해야 했다.

하늘은 없이 그저 검었다. 숲의 어느 선을 벗어나면 어둠이 가득했고, 오두막 안은 하얀색 공간으로 텅 비어 있었다. 어딘가 이질감이, 위화감이 느껴지는 세계.

‘…재밌네.’

그래서 더 열심히 채워 넣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 더 나중의 이야기고, 서지오는 불이 꺼진 듯하자 제자를 데리고 학교를 나섰다. 그리고 세상이 망했

다는 걸 깨달았다.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였지만 그는 제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천천히 달라진 세상에 적응해 갔다.

그 과정에서 어쩌면 당연히도 서지오는 너무 눈에 띄었다.

“한 번만 안아주세요.”

“제발 기적을 부려주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당신의 살과 피가 필요해요.”

여기 그릇이 너무 커서 재앙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다.

서지오는 ‘신인류’ 중에서도 특히나 그 힘이 방대했다. 사람들은 곧잘 그를 인간이 아닌 신, 혹은 자연, 또는 악마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힘의 여파는 서지오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가까운 세 제자에게도 뻗어 나갔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당시의 서지오는 생각했다.

“왜 그 새끼들을 그냥 둬요?!”

“선생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주제넘은 짓이잖아요.”

“그, 그냥 추방해 버리면 안 돼요…?”

“부탁드릴 게 있어요.”

끝내 단해라는 웃으며 이렇게 말해왔다.

“저희가 무슨 짓을 해도 못 본 척해 주시면 안 될까요?”

“…….”

그 당시 서지오는 정말 졸도할 뻔했다. 얘는 대체 자기 선생님한테 무슨 부탁을 하는 거지.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진심으로 무서웠다.

“차라리 말하지 말지 그랬니.”

“하지만 선생님은 전부 알고 계시니까요, 모든 것을.”

“나한테 그런 능력은 없어….”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

“그래도 저희를 가장 아끼시잖아요, 선생님.”

기어이 그 어린 학생의 낯으로 살인, 혹은 그보다 더한 짓을 저지르겠다 말하는 단해라의 모습에 서지오는 기절 직전까지 갔다.

‘내가 인생을 좀 잘못 살았나?’

소름이 끼치다 못해 주마등 비슷한 것까지 왔을 정도였다. 굳어버린 얼굴 근육으로 티가 나진 않았지만 정말 식겁했다. 서지오는 본능적으로 학생들의 이런 변화가 자신의 탓이라는 걸 느꼈다.

물론 변해버린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가장 큰 영향은 서지오가 주었다. 정확히는 그가 가진 힘이 준 영향이었다. 그들은 점차 ‘신인류’, 그보다 나아간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무섭네.”

각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능력이 강해진다. 타인을 미개한 존재로 봐 버린다거나, 아니면 뜬금없이 예언을 해 버린다거나. 그걸 단순히 ‘세상이 변한 탓’이라고 치부하긴 어려웠다.

점차 ‘인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었다.

‘나 때문이지.’

어쩌면 그를 향해 수많은 것을 요구했던 사람들도 전부 그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아닐까.

그렇게 서지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했다. 이대로면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대재앙보다도 더 최악의 자연재해가 될 거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것은 수많은 신성이 눈길 한 번에 재앙을 일으키는 것과 같을 수도 있었다.

거기까지 생각한 서지오는 대단히 부담스러워졌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감춰 보려고는 했다. 그러긴 했는데....

“그게 감춘다고 되겠어요, 선생님?”

“해라 네 말이 맞다.”

이미 넘치는 물에 댐을 쌓는다 한들 그 여파를 감출 수 있던가.

그건 서지오가 자신을 인간이라 굳게 믿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기적’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드러냈고, 그의 특이성 탓에 사람들 사이로 다양한 헛소문이 퍼졌다.

“시발, 그 버러지 새끼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쌤이 대재앙의 원흉이래요, 그 정신 나간 새끼들이! 선생님보고!!”

“오... 내가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큰 존재였다니 놀랍네.”

“막 쌤을 먹으면, 힘을 얻고, 신이 될 수 있고... 막... 막, 선생님을 제물로 바쳐야 세상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힘들겠지. 나 하나 바친다고 행성 하나를 복구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니.”

서지오는 지극히 타당한 말을 했을 뿐이었다. 세계 멸망이 사람 하나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지나가는 고양이도 알았다. 세상에 그렇게까지 가성비 좋은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법이었다.

하지만 그게 제자들의 눈에는 참으로 괘씸하게 보인 모양이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해요? 왜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요?”

“헛소문이 퍼지기에 적당한 시대라는 걸 알고 있는 것뿐이야.”

아니, 그건 정말이지 큰 오해였다. 서지오라고 그 모든 상황이 무섭지 않았겠는가?

“나도 힘들어.”

“거짓말이야.”

“정말인데.”

정말로 무서웠다. 진짜 쫄려서 살 수가 없었다. 제 피와 살점을 먹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며 두 눈 시퍼렇게 뜨는 사람도 많았다. 심지어는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노리며 기이한 광기를 보이는 자들도 있었고.

그게 안 무서우면 어디 사람이겠는가. 다만 그저 이해를 할 뿐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내가 무얼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학생들은 그런 서지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를 완전무결한 존재로 보고 있는 탓이었다.

“우리 도망쳐요.”

“여기에 불을 지르고 떠나지는 않을 거지?”

“그럼요, 선생님.”

“...믿을게.”

나 진짜 믿는다, 얘들아.

‘애들도 무서워졌어.’

서지오는 속으로 덜덜 떨었다. 될 수 있을 만큼 잔뜩 쫄아들었다.

그 네 명의 학생은 서지오로서도 대하기 가장 편하며, 심지어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 무엇보다 책임져야 할 존재들이었다. 그렇기에 늘 곁에 두었으나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었다. 어느샌가 그들은 뒤틀리고 있었다.

아무튼 결국에는 그 작은 마을에서 도망쳤다. 흔히 말하는 야반도주였다. 그들 뒤를 여러 사람이 쫓았으나 그것을 피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문제는 그다음에 벌어졌다.

"혹시 모르잖아요, 또 사람들이 선생님을 보고... 그렇게 대할지."

"그래도 나만 후방에 빠져 있는 건 선생으로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후방에서 가만히만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선생님이 다칠까 봐, 또 쓰러질까 봐. 예전처럼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될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만 있으라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네."

결국 학생들이 미쳤다. 내가 지들 선생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 건지 모를 정도였다. 하지만 세상 대부분의 미친놈이 그러하듯 학생들은 당당하게 요구해 왔다.

"여기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건...."

"선생님은 너무 착하셔서 불안해요. 다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실까 봐 걱정이 되어서요. 죽으면 되돌릴 방법도 없잖아요."

"...날 대체 뭐로 보는 걸까?"

대략 물에 닿으면 녹는 솜사탕이나 툭 치면 바스러지는 모래성 정도의 취급이었으나, 그래, 사실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알고 같이 도망치기는 했어.'

그리고 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진작 끝난 채였다. 굳이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고 싶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서지오는 극도로 내향적인 인간이었고, 그동안 에너지를 마이너스까지 극한으로 쭉쭉 빨아먹힌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차라리 좋았다. 사람들 얼굴 안 보고 방에 처박혀 요리하고 무기나 만들어주는 삶, '그림'이란 힘을 갖추게 된 서지오에게는 대단한 호재였다.

"......."

다만 제 학생들이 좀 걱정되기는 했다. 나중에 제정신 차리면 이불깨나 찰 텐데 괜찮으려나 싶었다.

이 녀석을 딴에는 눈 돌리면 사고 치고 죽어 버릴지도 모르는 개복치를 안전한 수조에 보호하려는 것이겠다만, 서지오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성인이었다.

'나처럼 시커먼 어른을 그런 식으로 취급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새삼 깨달으면 소소한 민망함으로 끝나긴 어려울 텐데....'

나름 아끼는 제자들인지라 어른의 아량으로 한번 물어봐 주기는 했다.

"후회하지는 않겠어?"

"당연하죠, 선생님."

"그래?"

아주 괜찮으시단다.

고로 먼 미래에 있을 이들의 흑역사는 서지오 선생님의 몫이 아니게 되었다. 그는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괜찮으시겠어요?”

“너희 고집을 내가 어떻게 꺾겠니.”

아 정말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우리 제자들이 쉬라고 하네, 이거 참 어쩔 수 없지.

서지오는 그런 생각으로 순순히 방에 처박혔다. 학생들도 좋아했고 서지오는 더 좋아했다. 그야말로 쌍방에게 이득인 거래 아닌 거래였다.

그렇다고 서지오가 음식과 무기 보급만 담당한 것은 아니었다.

‘애들 정신머리 고쳐줘야 해.’

가만 보니 이대로 그냥 두면 언제쯤 고쳐질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개입이 필요했다.

학생들이 회까닥 돈 것은 서지오의 책임이 맞았다. 아무리 뒤편에 처박혀 방구석 백수 노릇을 즐기고 있다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서지오는 틈틈이 학생들 몰래 그들을 ‘인간’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연구를 시도했다.

‘이미 나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아서 완전히 끊어내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사회생활은 할 수 있게 둬야지 않겠는가.

‘이대로면 내 평범한 방구석이 마왕성이 되어버릴 거다.’

그리고 이놈의 자식들은 선량한 나를 마왕님으로 모시는 사천왕이 되어 버리겠지.

그냥 우스갯소리로 즐기는 거야 뭔 상관인가 싶다만 20살 넘고도 그런 역할 놀이에 진심으로 심취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뒤늦은 중2병은 어디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답이 없었다.

‘나도, 내 학생들도 어떻게든 제정신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시스템은 본디 서지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내 존재는 인류에게 도움이 됩니다

시스템은 훌륭한 교보재가 되어줄 수 있었다.

시스템은 옳은 존재입니다

서지오는 그렇게 판단했다.

다시 말해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화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 * *

…참고로 이 모든 사실을 지오는 모른다!

“선생님? 시스템 선생님?”

…….

“저희가 뭐 좀 공유해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아주 기묘하게 흘러가는데 정말 지금까지도 저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선생님?”

…….

“배부르고 등 따신 이 삶이 매우 마음에 들어 제가 클론인지 이중인격인지 뭔지 알 바가 아닙니다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다면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무언가가 있지 않냐 말입니다.”

....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까지 과묵할 수가.”

이미 시스템이 ‘서지오’일 것이라는 확신은 선 마당이었다. 지오는 시스템의 옆구리를 꾹꾹 찔러 보았지만 그는 답변해 주지 않았다.

초상화 내부의 생물과 지구의 토착 몬스터는 그렇게 잘 설명해 주더니만 참 변덕스러운 사람이었다.

대체 어째서일까?

“흠, 어쩌면 내가 알아선 안 될 만큼 그 당시 내 제자들이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든가… 내가 알게 되면 학생들에게서 정을 뗄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거려나?”

“꿍?”

“하지만 내 학생들이 지은 죄와 정은 별개일 텐데? 나는 나를 압니다, 시스템 선생님. 내 우유부단함이 누군가가 지은 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꾸르륵….”

“정말 뭐지? 왜 이러는 거지? 그냥 내가 싫은가?”

하긴 시스템이라 하면 지구의 선생님과 다름이 없었다. 그렇게 바쁘니 초상화 안에서 호의호식만 하고 있는 지오가 아니꼽게 느껴질 수도 있었다.

‘서지오’로서는 ‘고작 그 정도로 아니꼬울 수 있다고?’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지만 ‘시스템 선생님’은 또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이러면 정말 내 마음대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데.”

“꾸르르륵!”

“그래요,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지오는 그림을 그렸다.

“이게 맞나….”

다시 한번, ‘쾌락의 정원’이었다.

* * *

수집상은 기꺼이 ‘행복한 광대’의 사태에 분개해 주었다.

“나는 흥미로운 변수를 즐기는 사람입니다만, 그렇다고 이 지구라는 보석함이 망가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광대’는 나의 즐거움에 해가 되는 존재들이죠.”

비사벌은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며 협회에 손을 내밀었다.

“저희가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협회장.”

“이렇듯 흔쾌히 나서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영광이군요.”

“그런 의미에서, 서지오 헌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해라는 싸우기에 적당한 때가 왔다고 말했다.

“검은 망토께 간청드릴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비단 검은 망토라는 신성에게만 그런 접촉이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대표 종교라 할 수 있는 태양교에도 그동안 잠적하고 있던 달님교에도 협회 직원이 방문했다. 심지어는 현세에 간섭하길 즐기지 않는다 알려진 죽음의 신에게까지도 접촉은 이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유독 조용한 이가 있었다.

"...요즘 길드장님 본 사람 있어요?"

"원래 신출귀몰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이상한 소문이요?"

"이게 좀 심각한 사안이라...."

정해운의 길드원은 불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그 광대, 길드장님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갈등의 시작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345)
Prev
Next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46)

346

제346화

안타깝게도 정해운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왜?"

그에 단해라가 웃었다.

"슬프네."

"네가 느끼는 슬픔이 진짜이기는 하고?"

"나에 대한 적개심도 느껴져."

"걱정 마, 우리에 대한 적개심이니까."

"이래서 기억은 되찾아 좋을 게 없는 것인데 말이야."

"그래도 참 다행이지 않아? 시스템은 아직 존재하고 있어, 덕분에 사람들의 혼란은 덜하지."

"아하, 과연."

단해라는 상황을 이해했다.

"이제 시스템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

정해운이 바쳤던 '대가'를 되돌려받았다. 그러니 시스템에는 명확한 오류가 생겨야만 했으나, 어째서인지 시스템이 망가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제오르제'가 시스템에 손을 썼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제오르제'는 지금 인류를 광대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인간들의 적이니, 이제 그가 영향을 끼친 시스템을 믿어선 안 될 것이었다.

단해라는 그 인간을 닮은 정원이 참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사람들에게서 시스템을 떼어낼 생각을 하고 있나 봐."

"예전부터 이렇게 해야 했어, 진작 머리부터 박았어야 했다고."

"안타깝게도 아직 '선생님'에 대한 것이 기억나지 않아서 공감해 줄 수가 없겠네. 나는 여전히 반대거든. 사람들에게는 아직 시스템이 필요해."

"너 정말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러냐."

“너도 알잖아, 그건 나중의 일이야. 그렇게 하기로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을 해왔고.”

그래서 몇백 년 뒤의 미래만을 꿈꿔왔다. 그녀를 비롯한 모든 영원의 상징이 그랬다. 지금 당장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를 저질러 안락한 미래를 일찍 당겨 받자고 말이다.

그에 정해운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어머, 너치고는 상당히 드문 일이지 않아?”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과 그렇게까지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에는 아닌가 봐.”

“이것만 알아둬, 너는 진짜 많이 후회할 거야.”

“네가 허언을 하지는 않을 테니 아마 그렇겠지.”

“단해라, 너는….”

잠시 말끝을 흐렸던 정해운이 이내 빙글 웃었다.

“나는 이번 일로 내가 5등급 시민이 된다고 해도 이해해.”

“그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명색이 ‘영원의 상징’이니까.”

“야, 제발, 응? 사실 이거 웃기는 일이잖아.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누고 차별하고. 시발, 우리가 재건하고 싶었던 세상이 이 꼴이 맞아? 아마 아닐걸?”

“정확히는 그 목적지로 향하는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작업이지, 너도 찬성했잖니.”

“난 이제 ‘영원의 상징’이 아니야.”

“…….”

단해라가 처음으로 큰 반응을 보였다. 늘 기계처럼 얼굴에 그려져 있던 미소가 사라지고, 서늘한 놀라움을 담은 시선이 정해운을 향했다. 눈을 깜박이던 단해라가 말했다.

“…나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는데.”

“왜 그랬는지 고민 좀 해봐, 그게 온전히 너의 힘이었으면 정말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을 수가 있겠어? 내가 약속에서 풀려난 걸 모를 수가 있었겠냐고.”

“이게 내 힘이 아니다?”

“우린 제대로 된 각성자가 아니야.”

정해운의 미소가 일그러졌다.

“불쌍한 우리 선생님 뜯어먹어서 받아낸 힘이지.”

“…….”

“S급이라고 말하는 헌터는 뭘까? 너는 알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늘 S급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존재했다. 하지만 그 저명한 협회 연구소조차 그 조건을 알아내지는 못했다. 다만 이제 정해운은 알 수 있었다.

제오르제가 그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었다.

“남의 등골 빼먹은 새끼들은 죄다 S급이더라고.”

영원의 상징은 그의 선생님에게서, 비사벌은 근원과 닿은 본드래곤에게서 그 힘을 얻었다. 전 세계의 모든 S급은 그런 식

으로 만들어졌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온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를 죽여도 좋아.”

“…네가 필요해, 해운아.”

“내가 이 꼴로 어떻게 수백수천 년을 살겠어. 고작 30년 좀 넘는 시간이었는데도 벌써 질리잖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살지 말자, 단해라.”

결국 정해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곧 울 듯 일그러진 형상만이 남았다.

“…….”

무어라 말할 것 같았던 정해운은 끝내 입술을 꾹 깨물고는 사라졌다.

협회 집무실에 홀로 서 있던 단해라는 그 빈자리를 잠시 곱씹었다. 뒤늦게 이상을 눈치챈 협회의 직원들이 달려와 안부를 물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단해라가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기분이었지?”

슬슬 기억을 지우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지금 당장 약속을 통해 얻어내고 싶은 것이 없음에도 이런 달갑지 않은 감각을 느끼다니.

결국 단해라는 자신이 ‘약속’을 핑계로 도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 * *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뭐야?”

유성운이 지오의 캔버스를 보며 물었다.

“평소보다 완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을 형상화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저 상상하는 것을 그려내는 것과 달리 이건 조금 까다롭네요.”

“무의식이라….”

그는 제 초상화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곧장 이해했다. 애초에 ‘쾌락의 정원’이라는 호칭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제오르제’를 그리고 있었다.

이미 한 번 ‘유성운’이라는 선물을 받은 그로서는 모를 수가 없었다. 지오는 참 특이하게도 초상화를 그리는 게 아닌데도 그것이 누구를 그린 건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림을 그렸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지오반니, 네가 인어들의 이름을 딴 바다를 그린 적이 있다고 했었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었죠. 우리 인어들과 함께 가져와 작업한 수제 물감으로 그린 바다였습니다. 아리아와 이세르….”

캔버스 아래로 드리운 그림자 안으로 인어의 꼬리가 살랑거렸다. 오랜만에 ‘이름’이 불려 기분이 좋다는 듯한 반응이었으나, 유성운은 그 안에서 약간의 섬뜩함을 느꼈다.

정말, 이건 정말로 기분 탓이겠지만. 왜인지 예전에 지오가 해산물을 손질할 때에 이 엇비슷한 광경을 본 기분이었다. 분명 숨통을 끊었음에도 신경이 살아 움직이던 해산물들 말이다.

‘무례한 비유라는 건 알지만 자연스럽게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

살아 있으면서도 죽어 있는 존재들이라 그런 것일까. 이들은 지오와 함께 박제되어 있다.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반응하

고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일종의 지옥에 있는 인어이지 않던가.

유성운이 애매한 미소를 짓고 있자 지오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음, 아니. 네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을 잠깐 했어.”

“사후 세계라고 하니 조금 거창하게 들리네요.”

“어… 거창할 부분이 어디 있나 싶기는 한데.”

아무튼 죽은 영혼이 모여 있는 세계는 맞지 않던가. 사람들은 그걸 사후 세계라고 불렀다. 거창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그랬다.

‘여전히 자기가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묘사와 표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고.’

다행히도 한결같은 근원이셨다.

“아무튼 이건 뭘 그리고 있는 거야? 아, 네가 지금 제오르제 씨를 그리고 있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이건 여태껏 봐온 풍경화라기에는….”

꽃과 보석과 나비. 흔히들 인간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의 집합체. 중구난방으로 나열된 그것은 이따금 서재로도 보였고, 사람으로도 보였고, 혹은 짐승이나 거대한 성처럼도 보였다.

여태까지 지오가 그려왔던 것이 풍경화의 형상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독특한 일이었다.

“여러모로 이번 ‘지오’는 결이 다른가 봐.”

“그래서 더욱 그려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뭐로 인지하는지도 모르겠네.”

“결국에는 제오르제 씨죠.”

“뭐, 그렇기야 하겠다만.”

이건 또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 걸까.

수집상이 제2 코드에 돌입했다고 해도 회사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었다. 기존 업무의 강도가 낮아졌을 뿐 큐레이터로 고용된 유성운은 여전히 큐레이터로서의 작업을 해야 했고, ‘지오의 초상화’에 대한 보고도 마찬가지였다.

유성운이 목을 쓸었다.

“…혹시 이거 우리 인간들이 진입해야 하는 던전이야?”

그의 초상화는 보통 특정 경우에 그림을 그린다. 첫 번째로는 ‘지오’를 찾을 때. 두 번째로는 그 ‘지오’와 연관되어 인간들이 돌파할 수 있을 던전을 만들 때 말이다.

“들어가기에 되게 난감해 보이는데.”

“하지만 비사벌 길드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계시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우리 길드장님이야 참 특별하신 분이지만….”

“희생이 없을 거라고는 장담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제오르제 씨의 재량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다만 해결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난해한 길을 열어주고 말이지.”

“제오르제 씨가 이렇게까지 지구의 상황을 혐오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가 사과해야 할 만한 일인가 싶다만, 아무튼… 이것도 사과의 한 종류일 것이고?”

하여간 AS는 확실한 초상화였다. 굳이 따지자면 '지오의 초상화'가 제오르제를 불러들여 벌어진 사태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유성운은 그게 지오의 탓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결국 언젠가는 찾아왔을 양반이지.'

강제로 근원과 엮이게 된 주제에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포기하지 않은 신비다. 그런 존재가 근원의 눈인 지오를 찾아오지 않을 리도 없었고, 애초에 이 녀석 역시 어떠한 '지오'를 골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니 사실상 이번 일은 제오르제가 '지오'를 선택한 탓에 생긴 문제였다. 둘 모두 구분하는 것에 의미가 없는 동일한 신비일 수 있겠다만, 일단 유성운은 그렇게 제오르제의 탓을 해보기로 했다.

'아무튼 내 작품엔 잘못이 없다.'

가히 큐레이터의 귀감이 될 법한 생각이었다.

'무엇보다 제오르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철없는 아이가 치는 사고 같은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타당한 작업이라는 거다.

'그 과정에서 사람 좀 실종되거나 죽어나가는 것 정도야 뭐....'

죄 있고 없는 피해자가 500명가량 발생하기는 했다만 신비가 부리는 심술치고는 부드러운 편이었다. 큐레이터이자 정원사의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인간 측과 그걸 없애고자 하는 정원의 측 모두가 이해됐다.

'하지만 우리 길드장님께서는 속내야 어떻든 겉보기로는 인간 측에 서기로 한 것 같으니.'

유성운으로서는 일단 그 명령에 따를 뿐이었다. 하물며 지오 역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 않던가?

한참 말없이 지오의 그림을 감상하던 유성운이 이내 입을 열었다.

"...흠, 제오르제 씨는 속내가 좀 많이 꼬인 사람인가?"

"아무래도 그림이 난해하지요?"

"굳이 따지자면 초현실주의에 가까워 보여서."

하지만 풍경화 같기도 했고, 초상화 같기도 했다. 과연 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어쩌면 일부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미쳐버리는 게 아닐까.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지오에게 부탁해서 격리를 해두어야 하나?'

수집상의 존재 의의 중 하나가 그것이지 않던가. 위험한 작품을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는 것. 유성운이 봤을 때 지금 지오가 그리는 이 작품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전의 작품들처럼 세상을 떠돌게 하면 조금 곤란할지도....'

결정하는 거야 '지오의 초상화' 마음이다만, 한번 말을 꺼내보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유성운이 제 아버지의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는 다나를 보았다.

그것이 눈을 깜박이며 유성운을 보았다.

"...? 응?"

어, 잠깐만.

"...음? 어? 어라?"

"왜 그러십니까?"

"다나가 이제 나를 보면서 하악질을 안 해.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데도."

"다나가 유성운 씨에게 적응한 게 아닐까요?"

"이게 정말로 그런 문제였을까?"

“유성운 씨가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좀 많이 무섭다, 지오야.”

미래, 혹은 다음 생에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런단 말인가. 유성운은 크게 한탄했지만 발을 빼기에는 이미 늦어 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나를 바라보았다.

보석 눈이 반짝이며 유성운을 응시했다.

“…….”

그에 조금 뜬금없게도, 유성운이 기시감을 느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제오르제 씨랑 꽤 닮았네. 다나는.”

“제 자식이니까요.”

“다나는 보석의 수맥에서 서식하는 몬스터였던가?”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거….”

유성운이 지오의 미완성 작품을 보았다. 뭔가 조금 데자뷰가 느껴지는 상황이다만, 결국 유성운은 의미 없는 질문을 하고야 말았다.

“…제오르제 씨와는 연관이 없겠지?”

“그러길 바라십니까?”

“그럼 뭐가 달라져?”

“그 또한 제오르제 씨의 재량입니다.”

“미치겠네.”

그가 허탈하게 웃었다.

“꼭 시험 직전에 진도 쫙쫙 빼는 선생님을 만난 기분이야.”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야 뭐, 낙제점은 아니기만을 바라야지.”

* * *

며칠 뒤, ‘쾌락의 정원’이 개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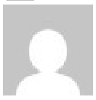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346)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46)"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47)

347

제347화

차은혁은 정말 아는 척하지 않으려고 했다.

“…….”

그의 동생 중 한 명이 실종되고, 또 다른 한 명이 이번 토벌의 참전 대상자만 아니었더라면 말이다.

“시발.”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자.

우선 첫 번째로 돈 벌러 출장을 나갔던 차아라가 실종됐다. 요즘 흉흉하게 퍼진 소문대로 광대인지 뭔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만, 아무튼 확실한 건 우리 집 둘째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상황을 알려준 협회 직원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차아라를 포함한 팀 자체가 던전 내부에서 실종되었단다. 그렇다면 광대와 엮인 일은 아닌가, 싶으면서도 이게 누군가의 ‘행복’이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차아라는 광대가 소원을 이루어주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일 수도 있었다.

‘이걸 차이솔한테 말해야 해 말아야 해.’

코 훌쩍거리는 우리 집 막내.

제법 재능이 있는지 여기저기서 천재라고 박수 쳐준다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린애다. 어려도 너무 어렸다. 가능하다면 이런 변고에 대해 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차은혁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은 막내 차이솔이었다.

능력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짐을 떠넘기려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숨긴 뒤 나중에 정말로 일이 잘못되고 나서 차이솔이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어?’라고 원망하면, 차은혁은 할 말이 없었다.

‘예비 1등급 시민에 태양교의 사제이기까지 하니… 차이솔이 책임감을 느낄 수도 있다.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가족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 모른 척할 녀석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리고 그에 대해 차은혁이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연락이 왔다.

—형! 나 이번에 새로 열린 던전에 참가 대상자로 선발됐대!

“…대체 왜? 어째서? 태양교에 인재가 그렇게 없어?”

—응!

“…….”

막내의 해맑은 대답에 차은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러고는 태양교의 무능한 사제들을 향해 저주를 날리기 시작했다. 다 큰 어른 놈들이 귀한 예비 사제 보호하지 않고 뭐 하냔 말이다.

—우리 선생님이 엄청 화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

“선생님이라면… 강서담 사제님 말하는 거 맞지?”

교단에서도 이례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예비 사제 페어가 등장한 탓일까. 최근 강서담 사제는 거의 전담 수준으로 두 어린 사제들을 돌보고 있다고 했다.

‘그분이 화를 낼 정도로 반발했는데도 계속 진행된 사안이라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네. 강서담 사제님이 교단 내부에서 그리 만만한 사람도 아닌데….’

강서담은 젊지만 발언권이 강한 사제였다. 그의 깐깐함과 도덕성을 싫어하는 사제가 없는 건 아닌 듯 보였지만, 그걸 완전히 눌러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서담 사제는 강했다. 하지만 역시 젊은 만큼 그의 발언권에도 한계가 있는 모양이었다.

어지간하면 언성 높이는 법이 없는 강서담이다. 그런 그가 차이솔이 알 정도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제 나름 사력을 다했는데도 막지 못했다는 의미일 터였다.

차은혁은 조금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다.

“…….”

—형?

“이솔아.”

—어 뭐야, 무슨 일 있어?

“네 누나 실종됐다.”

—어엇.

결국 차은혁은 진실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미리 말하자면 나도 이 소식 듣게 된 지 얼마 안 됐어. 혹시나 네가 나중에 이 소식을 개별적으로 접하고 혼자 생각해서 엉뚱한 사고 칠까 봐 그냥 말해주는 거야.”

—그렇구나. 이, 일단 지오 형 소환할까?

“신을 막 그렇게 소환하면, 아니, 아니다. 하… 나도 그분이랑 엮인 게 아주 없지는 않으니 일단 내가 접촉해 볼게.”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전지하고 전능한 신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약은 마음이 안 든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차은혁의 장점 중 하나는 주제 파악이 된다는 것이었다.

차은혁이 검은 망토에게 호의를 좀 받는 듯 보인다지만. 그건 선한 이에게 선물을, 악한 이에게 처벌을 주는 그 존재의 특성 덕분이었다. 감히 검은 망토를 제멋대로 이용하려 든다면 신성을 화나게 만들 수도 있었다.

차은혁은 소중한 동생의 실종에 눈이 돌아갈 지경이었으나, 그 역시 검은 망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수많은 인간 중 하나에 불과했다. 신께 제 가족의 안위를 구하고자 하는 인간이 그동안 얼마나 많겠는가?

‘무엇보다 유성운 씨가 그렇게 말했어, 신성이 베푸는 호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니 차라리 거래를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교류 방식이라고 했었지.’

그건 민간인인 차은혁뿐만 아니라 사도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껴지는 차이솔도 마찬가지였다. 신성은 거대했고 인간은 나약했다. 차이솔이 제아무리 신에게 사랑받는 재주꾼이라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니 도움을 구하더라도 직접적인 방식이어서는 안 됐다. 그건 한낱 인간 주제에 너무 건방진 짓이었다. 차은혁은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앞으로의 일을 고민했다.

“이번 출전에 강서담 사제님도 포함되는 거 맞지? 그분이 자기 학생들 두고 혼자 쉴 분이 아닐 텐데.”

—아… 맞아, 같이 가기로 하셨어.

“그래, 그분 말씀 잘 들어라. 진짜 잘 들어야 해. 지난번 인어 소동 때처럼 대뜸 던전 중심부로 이동하지 말고. 형은 네가 그 사건으로 배운 게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믿어. 그치?”

—그, 그런데… 그러면 누나는….

“형도 체면이 있지, 이솔아. 너한테 이런 일을 맡기면 내가 뭐가 되겠어.”

차은혁은 애써 차분하게 말했다.

“네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 동생이고, 아직 너무 어려. 네가 가진 재능이 커서 그동안 교단에서 칭찬 많이 들었을 거야. 그만큼 인정도 받으니 이번 출전에 너희를 포함한 것일 테고. 맞아?”

—…그래도 걱정되는 거지?

“…….”

무어라 몇 마디 더 얹기도 전에 차이솔이 선수를 쳐버렸다. 막내 차이솔은 해맑은 사고방식과 다르게 은근히 눈치가 빠르고, 그만큼 또 눈치를 많이 봤다. 잠시 말문이 막혔던 차은혁이 다시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응, 그러니까 제발 몸 사리고 있어.”

—최대한 조심할게.

“다치지 말라는 말은 안 해, 나도 헌터의 삶이 어떤 건지 아니까. 그래도 네가 먼저 조심하겠다고 말해주니까 형 마음이 좋다. 고마워.”

—형도 조심하고… 나, 나 필요하면 뭐든지 할 테니까, 새로운 정보 알게 되면 나한테도 꼭 알려줘야 해. 나 그런 거 알려줘도 사고 안 쳐. 절대 안 칠 거야. 그러니까….

“알겠어.”

조금 더 안부와 걱정의 말을 전한 뒤, 금방 연락이 끊겼다. 전화 너머로 이런저런 잡다한 소리가 들려왔던 걸 보면 태양의 교단도 이번 사태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양이었다.

“…그만큼 무시무시하기는 하지….”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리고 모두가 그 피해를 인지했다. 광대는 수없이 인간의 ‘행복’을 정의하려 들었지만, 본디 행복이란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주관적인 개념인지라.

누군가의 행복이 멀쩡한 사람을 건물 위에서 떨어트려 죽였다. 누군가의 행복이 어떻게든 삶을 살아가던 이를 목매달게 했다. 누군가의 행복이 무고한 사람의 사지를 찢었다.

‘이외에도 피해는 많았어.’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더라도 사회의 붕괴를 촉진하는 ‘행복’들. 정부와 협회는 시민과 신비를 통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으나, 결국 사태는 이 지경까지 와버렸다.

‘그러니 결국 신성들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한 모양이고.’

인간들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태라 판단한 것이다. 아니, 그럴 방법이 있다 하여도 거기까지 갈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거겠지. 게다가 광대와 연관이 있을 게 분명한 던전도 개방되었으니 최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했다.

‘신성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부작용도 많을 텐데,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윗분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양한 교단에 접촉하는 걸 보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게 확 와닿기는 하네.’

이번 던전을 ‘검은 망토’가 열어 주었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다. 액자 속 그림의 형태를 띠는 그 방식이 너무 뚜렷해서 누구의 작품인지 못 알아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 그렇겠지.

천천히 사태를 짚어가며 차은혁은 그대로 가만히 서 있었다.

“…….”

그리고, 조금 울었다.

“…진짜 우리한테 왜 이러냐….”

뭘 잘못했다고 이래.

‘우리 애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따위 일들이냐고, 왜.’

세상에 옳고 그름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았지만 괜한 원망이 들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는 안 좋은 생각만 떠올랐다.

차아라가 누군가의 행복에 희생당했으면 어떻게 하지. 차이솔이 이번 전쟁에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차은혁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섬주섬 짐을 챙겼다.

‘아니야, 괜찮아.’

헌터 중 최약체라 해도 차아라는 삶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오지랖이 넓어서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살아남으려 노력할 것이다.

차이솔도 마찬가지였다. 착해빠진 막내는 제가 잘못되면 가족이 얼마나 절망에 빠질지 잘 아는 녀석이었다.

‘다 괜찮을 거야.’

겉옷을 입고 짐을 마저 챙긴 차은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니까 나도 노력해야 해.’

제대로 된 베테랑 정원사도 아니고, 스킬을 다룰 수 있는 헌터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단한 권력이나 돈이 있는 것도 아닌 차은혁의 유일한 ‘힘’이라 할 수 있는 것.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모른 척할 거다. 다 모르는 척할 건데, 그래도 사람들은 살리고 봐야지 않겠는가. 그 ‘사람’ 안에 제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아주 당연한 사실이었다.

차은혁은 어느 날 막내가 그린 검은 망토의 그림에 대고 그를 불렀다.

“지오 씨.”

“출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쉬셔도 됩니다.”

“싫습니다.”

이것은 ‘서지오 헌터’가 아니었다. 이번 사태의 끝을 내릴 기회를 준 ‘검은 망토’도 아니었다. 지금 제 눈앞에서 새까만 신성의 흉내를 내는 이 자는 차은혁이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다.

꽃향기가 나서 그랬다.

“제오르제 씨, 오늘의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차은혁 씨는 이상하게 나를 너무 잘 알아본단 말이야….”

두 발 달린 정원이 대답해 주었다.

“내가 정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정원에서, 혹은 던전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했었죠.”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번이라고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새 던전이 열렸다고 압니다.”

“‘쾌락의 정원’을 차은혁 씨에게 소개할게요.”

정원이 장난을 치듯이 웃음을 흘렸다.

“아, 이미 소개했었겠지만...?”

“그랬겠죠.”

이번 근무지는 ‘쾌락의 정원’. 그것은 아마도 ‘제오르제’라는 존재, 그 자체인 듯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당신이.

“.......”

혹시 내 동생을 해쳤나.

* * *

그렇게 제오르제는 차은혁만 출근시키고 본인은 유유히 잠적했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 사실을 지오 본인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랜만에 사회생활을 하러 나왔던 ‘서지오 헌터’가, 제가 만든 던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차은혁을 보고 당황한 건 당연한 순서였다는 것이다.

“......?”

“어어?”

그런 지오의 옆에 있던 유성운도 당황했다. 얼마나 당황했냐면 순간 환각인 줄 알았을 정도였다. 하지만 아무리 다시 보아도 상대는 환각이 아닌 실제가 맞았다.

검은 망토가 손수 만든 던전 겸 정원에 떨어진 민간인의 등장에 유성운은 식겁해서 물었다.

“차은혁 씨가 왜 여기 있어?”

“그러게요, 왜 제가 여기에 있을까요.”

“아니 무슨 직업 정신이 있어서 포장마차가 이런 날까지 운영을 다 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차은혁은 해탈한 얼굴로 포장마차 안에 덩그러니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나름 ‘서지오 헌터’의 활약으로 정원의 꽤 깊은 곳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수집상의 길드원들도 당황한 얼굴이었다.

“차, 차은혁 씨...?”

“여기가 일반적인 던전이 아닌 정원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아무리 근무지가 정원이셨다고 해도 이 난리 통에까지 영업을 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닐까요?”

“정말 왜 여기 계세요...? 괜찮은 거 맞아요? 제정신이시고요?”

그 와중에 비사벌만 활짝 웃고 있었다.

“기왕 만난 김에 붕어빵 하나 가능합니까?”

“아, 예, 드세요.”

“얼마면 될까요?”

“예전 같았으면 돈 받고 팔았는데….”

차은혁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끝을 흐리자 비사벌이 환하게 웃었다. 아무래도 이 형이상학적인 정원 속에 홀로 쓸쓸히 포장마차를 운영 중인 차은혁의 꼴이 웃긴 듯 보였다.

“아하, 오늘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나오셨다?”

“반강제로 자원봉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보통 수금은 제 상사이신 제오르제 씨가 하셨는데 보시다시피 오늘 출근을 안 하셨거든요. 돈을 받을 방법도 없는데 이제는 이유까지 없어져 버려서.”

“참 매정한 상사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약한 직원을 이 개판 속에 던져두고 사라지다니.”

“그러게나 말입니다. 나처럼 후 불면 날아가는 연약한 사람을, 두고… 하….”

“어이쿠, 저런.”

우는 건지 분개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하는 건지, 무음으로 비명을 지르는 듯한 차은혁에 비사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제 부하 직원들을 돌아보며 천진하게 말했다.

“마침 딱 좋은 세이프존이 생긴 것 같군요!”

“지금 보니 인간성이 없으신 편이네요.”

그런 ‘서지오 헌터’의 침착한 분석에 수집상 직원들은 생각했다.

‘그냥 봐도 없는데.’

‘자기도 인간이 아니라고 파악이 늦으셨나.’

‘이 정도면 유전이라고 우겨도 된다.’

여러모로 황당한 상황이었다. 나름 간부들이 모인 상황이라 그들도 ‘차은혁’의 대략적인 신원 정도는 알고 있었다. 인간 형상을 한 정원과 함께 세이프존 장사를 한다던가.

하지만 그런 차은혁도 결국에는 민간인일 뿐이었다. 정원사의 자질이 있다고 말은 들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이런 곳에서까지 안전하다는 이유는 될 수 없었다.

“음, 그럼 일단….”

턱을 쓸던 지오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상황 정리를 좀 해볼까요?”

“찬성합니다.”

유성운이 그런 그를 지지했다.

“안 그래도 개판인데 더 개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벌써부터 이 난리면 미래가 참 난감하지 않은가.

* * *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제오르제가 환하게 웃으며 의자에 앉은 정해운을 쓰다듬었다.

마치 키우는 개를 대하는 듯한 태도였으나 정해운은 굳이 반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웃지도 않았다. 신경 쓰면 웃을 수야 있겠으나 그만큼 신경 쓸 필요를 못 느꼈다.

그런 정해운을 뻔히 알면서도 제오르제는 기분 좋게 웃었다.

"드디어 시작이에요, 정해운 학생."

"……."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 역시 한 국가의 모든 신비를 꿰고 있던 정원사라 그런가? 세상에 혼란을 몰고 온 그 솜씨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

"네가 빚은 광대들이 참 귀엽더라."

정해운을 칭찬하는 제오르제의 얼굴은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 같았다.

"정말 기뻤어…."

"…하."

수많은 광대 사이에서 내보이는 그 달콤한 인간 혐오에 정해운이 헛웃음을 흘렸다.

"어련하실까."

마음껏 추악해질 시간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347)
Prev
Next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48)

348

제348화

차은혁의 사정을 듣게 된 수집상 직원들이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시국에 그런 식으로 가족이 실종되었으면 초조해지실 법도 하죠."

"민간인의 몸으로 던전에 들어온 것은 그리 추천드리는 바가 아닙니다만, 뭐라도 해보고 싶었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생분의 실종이 광대로 인한 피해라고 확정된 건 아니니 일단 진정하세요."

그에 차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름... 진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몸으로 여기까지 오신 걸 보면 별로 안 진정하신 것처럼 보여서."

"처음 왔을 때는 그게 맞지만, 여기 온 지 이제 대략 3일 정도 지났네요. 그 정도면 비명을 지르든 엎어져 울든 난리 피울 만큼 피우고 진정할 법하죠."

"아하, 이해했습니다. 3일 정도인가요."

후 불면 날아갈 민간인이 이 던전 속에서도 제법 이성적인 상태였다. 그것을 확인한 수집상은 티 나지 않게 만족했다. 필수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대상이 저 정도만 침착해 주어도 보호가 한결 수월해지는 덕분이었다.

그에 이번에는 차은혁이 물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게 맞습니까? 여기는 항상 환하고 반짝거려서 낮과 밤이 잘 구분되지 않는 데다가, 왜인지 시계도 오락가락하고... 대충 3일이라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서요."

그런 차은혁의 질문에는 여태껏 조용히 듣고만 있던 '서지오 헌터'가 답변했다.

"저희 역시 확실한 시간을 아는 건 아니지만,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던전에 진입해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말입니다."

"아, 일주일이요...?"

"차은혁 씨께서 말씀해 주신 3일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크네요."

"...제가 아무리 정신이 없었다지만 3일 정도 되는 시간과 일주일가량의 시간을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체감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지오가 고개를 끄덕이며 유성운을 돌아보았다.

“이 공간에서는 시간이 꼬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길드에서 날아온 연락들이 왜 이렇게 중구난방인가 했더니, 역시는 역시네.”

“차은혁 씨와 함께 정보를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지오 네가 그러고 싶다면 얼마든지.”

던전에 휘말린 민간인이란 헌터에게 있어 일방적인 보호 혹은 통제의 대상이었다. 그들처럼 대기업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하지만 그 정도는 지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단순히 암묵적인 규칙에 불과했다.

“차은혁 씨가 일반적인 민간인이 아니기도 하고. 비각성자이긴 하지만 원래라면 정원사를 하고도 남으셨을 분이잖아? 게다가 정원 속 포장마차의 주인 중 한 명이기도 하지.”

“그러니 지금의 차은혁 씨를 일반적인 민간인으로 규정하기도 어렵겠네요. 무려 이동형 세이프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이지 않습니까? 공략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괜히 고깝게 나갈 필요가 없지. 본인도 던전에서 벌어질 수 있을 위험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차은혁을 ‘통제 대상’이 아닌 ‘동료’로 인정하자는 발언. 유성운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수집상 길드원들에게 이 의견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길드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이들은 언제든 길드장과 동료, 그리고 작품의 의견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유능한 예스맨이긴 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암묵적 동의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중요했다. 특히나 이런 던전에서라면 더더욱.

의견이 하나로 좁혀진 것 같자 길드원들은 이내 한 명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길드장님?”

“진행할 거 다 진행해 놓고 결정만 나에게 맡기는 겁니까?”

“평소에 서류 작업도 다 저희가 하고 결정만 하시잖아요.”

“우리 유성운 씨, 아주 깜찍해졌어.”

비사벌이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지오의 초상화’와 어울리더니 최근 유성운의 애교가 늘어서 보기가 아주 좋았다. 예전이었다면 엮이기 싫다고 이런 말도 안 해줬을 텐데.

“나야 좋지요. 안타깝게도 나는 던전을 돌 일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정원을 들락날락할 수 있는 정원사도 아닌지라… 우리 차은혁 선생님의 포장마차에 들를 일이 없거든. 이 귀중한 경험을 쉽게 포기할 수야 없겠죠.”

그에 지오가 나섰다.

“남의 사업장을 빼앗으실 생각이시라면 조금 곤란합니다.”

“이런, 우리 아드님께서는 무엇이 곤란할까? 아끼는 인간의 직장에 간섭하는 것이 불쾌하려나?”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길드장님의 인성이 곤란하겠네요. 같이 다니기 부끄러워질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잘 참아 보겠습니다.”

장난처럼 한 말이었으나 그게 진담이었다는 걸 지오가 알고 길드원들이 알았다. 차은혁만 ‘농담을 참 이상하게 하네’라며 미묘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상식적으로 ‘정원 속 포장마차’를 빼앗을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을 테니 말이다.

아무튼 그렇게 차은혁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간의 상황을 공유받을 수 있었다. 이런 대규모 토벌전에서 마주친 민간인에 대한 취급으로는 매우 드문 상황이었지만, 그가 일반적인 민간인이 아닌 준헌터로 취급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수집상은 던전에 진입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체감 시간이 비교적 정확한 헌터

들이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도 어느 정도는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시작한 것은 ‘서지오 헌터’였다. 다른 수집상 길드원들은 그런 작품의 유희 활동을 방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듯, 그쪽으로는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세이프존 주변을 꾸리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덕분에 그 자리에는 차은혁과 서지오, 비사벌 정도만이 남아 있었다. 지오는 차은혁이 설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말을 이었다.

“수집상은 선발대로 진입했습니다.”

“설마 수집상만 선발대라는 건….”

“아, 물론 아닙니다. 이번 선발대에는 유스티티아와 협회의 헌터분들, 그리고 달님교의 사제님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달님교라면… 봉문 중이라던?”

“맞습니다, 협회의 요청에 잠시 문을 열어 주었어요. 그 밖에도 총 14개의 길드가 함께했죠.”

예전에 강원도 던전 공략을 함께 진행한 적이 있던 은월과 해령도 참가했다.

“선발대가 던전에 진입한 날은 26일이었습니다만 차은혁 씨는 언제이신지?”

“…이걸 던전 진입처럼 거창하게 표현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9일에 이동했습니다. 실종 소식 전해 듣고 바로 움직인 거라서….”

“하긴 던전 입구가 열렸다는 뉴스를 본 직후에 이동하셨다고 했으니 딱 그쯤이겠네요. 그렇다면 차은혁 씨의 시간도 왜곡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와 차이가 꽤 크군요.”

“계속 시간 왜곡을 언급하시는데, 그게 이 정원의 특징입니까?”

“정확히는 뭐 하나도 확실한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독한 불확실성. 그게 특징이라면 특징이었다. 지오가 제 뺨을 쓸며 눈을 깜박였다.

“내가 그랬는데도 이상하게 잘 모르겠단 말이지….”

그런 지오의 말에 비사벌이 화색이 되었다.

“아, 때려치우는 겁니까?”

“무엇을 말씀이신지?”

“음… 아직 아닌가?”

“뭐가 되었든 오해십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럼요.”

아무튼 이야기는 다시 진행되었다.

“이 던전의 특성은 단순히 시간 왜곡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공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사람의 말과 행동조차 멀쩡하게 주고받기가 어렵더라고요.”

“말과 행동이 왜곡된다는 겁니까? 그냥 들어서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본인의 의도보다 훨씬 나쁘게 들리거나 좋게 들리게 되는 거죠. 화자의 태도가 그렇게 왜곡될 수도 있고, 말의 내용 자체가 비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침묵하는 차은혁의 모습에 지오반니가 빙긋 웃었다.

“아, 이런,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차은혁 씨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원본 그대로입니다.”

“원본….”

누가 초상화 형식의 신성 아니랄까 봐 표현 한번 오싹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러려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상대가 검은 망토라 더 무서웠다. 차은혁이 제 얼굴을 쓸어내렸다.

“…제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도와주세요.”

“이 부분은 유성운 씨가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아, 유성운 씨가…?”

“그 특성의 극복에 관해 정원사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어서요.”

“…서지오 헌터님이 아니라?”

“저도 포함입니다만, 아무튼.”

지오의 시선을 눈치챈 유성운이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뭐야, 왜 불렀어?”

“부르지는 않았는데 정신 오염입니까? 설원의 효과가 떨어졌나요?”

“이제 와서 환청을 들을 리가. 하지만 내가 네 시선을 몰라볼 리가 없잖아, 무슨 일인데?”

“차은혁 씨에게 유성운 씨의 활약을 말씀해 주세요.”

“어… 그렇게 말하니까 좀 민망하다?”

유성운이 목을 주무르고서는 차은혁을 보았다.

“이 정원이 아주 제멋대로라는 말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아니, 왜 또 존댓말을.”

“그런데 유일하게 그걸 무시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또 다른 정원의 힘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덜하긴 한데, 신성력도 포함이에요.”

이것을 알게 된 건 놀랍게도 던전 진입 1시간 차였다. 물론 ‘서지오 헌터’가 있는 수집상에서의 이야기였다.

“우리는 검은 망토님께 계시를 받은 서지오 헌터님 덕분에 금방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다른 선발대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같더라고요?”

“지금 수집상만 뭉쳐서 돌아다니는 거 보이죠? 던전 진입 자체는 동시에 했는데 막상 안으로 들어와 보니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같은 길드끼리는 뭉쳐 있었다는 겁니다.”

“음, 하지만 그건 좀….”

“아무래도 이 던전 자체, 혹은 그 주인인 보스의 수작질이겠죠?”

아예 다 뒤섞여 버린 거라면 이해가 됐다. 그 정도는 ‘불확실’한 던전의 특성으로 파악할 수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다른 건 다 엉망으로 섞이고 왜곡되었는데 참가자의 팀 구성만 그게 아니잖은가.

“저희는 이 정원의 주인이 일종의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무슨 게임이냐고 하면, 글쎄요, 서바이벌 게임? 이 문자 그대로 정신 나간 던전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팀이 우승이라거나….”

“그렇게까지 본격적이라고요?”

“그냥 추측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던전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헌터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던전의 특성을 일부 갖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정원에 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범한 정원도 아닌 게, 보통의 정원은 주인이 이렇게까지 본격적이지 않거든.”

“그야 그렇겠죠.”

정원이란 신비의 자연이었다. 의사 표현 비슷한 것을 할 수는 있어도 정말 인간처럼 구는 경우는 없었다. 최소한 지금까지 지구의 정원사들이 알아낸 바에 의하면 말이다.

하지만 이번 정원의 주인은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는 탓일까. 여러모로 변수가 많았다. 차은혁의 얼굴에 난감함이 떠오르자 지오가 알 만하다는 듯이 부드럽게 웃었다.

“참 특이한 친구죠? 저도 여러 번 속았습니다.”

애초에 ‘쾌락의 정원’이 하나가 아닌 연작으로 나타났을 때부터 이상함을 느꼈어야 했다. 지오반니와 아르지오가 하나의 작품 안에 그들의 고향을 담고 있었던 것과 달리 말이다.

하지만 두 발 달린 정원의 고향이 여러 곳인 게 그렇게 이상하지만도 않다고 생각한 탓에, 지오는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갔다. 그가 인간이길 고집하는 이상 고향은 하나일 텐데.

제오르제는 처음부터 장난을 칠 생각만 하고 지오를 찾아왔던 셈이었다.

“명확한 것이 거의 없는 세상이라 헌터들도 쉽게 정신이 오염되고 매혹을 당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끝내 던전의 일부가 되어 버린다고 하더군요.”

“어디서 많이 듣던 설명인데.”

“아무래도 정원이니 거기에 홀린 인간의 최후도 비슷할 수밖에요. 하지만 이조차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이, 다른 길드의 헌터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방식도 왜곡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요.”

통신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지금 명백한 시간 차마저 확인했다.

다행히 왜곡을 알게 된 뒤부터 혹시 모를 혼란을 대비하여 헌터들은 합의하에 정원사와 사제가 없는 팀은 가급적 소통을 자제하고 개별적으로 토벌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집상의 일차적인 목표는 정원사가 포함되어 있는 길드의 팀원들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친 곳은 현재로서는 신자들이 많은 은월뿐인데, 던전 지형이 이 모양인 탓에....”

“...이거 다른 사람을 만날 수는 있는 겁니까?”

“워낙 넓은 던전이라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번 토벌전은 개별적 진행이 우선된다고 봐야겠죠. 던전 바깥으로도 이야기를 미리 전해 두었습니다.”

“후발대를 위한 정보일 텐데, 잘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정원과 신성의 힘을 빌렸으니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요.”

“...저....”

얼굴을 쓸어내린 차은혁이 물었다.

“...일주일 사이에 다른 팀을 만난 적은 있습니까?”

“아하, 없어요.”

“.......”

말을 잃은 차은혁이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혹시, 그, 공략 포인트라던가... 파악된 게 있을까요? 물론 이런 걸 물어볼 자격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나름 이동식 세이프존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동형 세이프존에 대한 운영권을 가진 사람은 거

의 준헌터에 달하는걸요. 다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던전의 특성상 명확한 특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실체인지 허상인지도 구분이 안 가는 상황에 특별히 눈에 띄는 몬스터도 등장하지 않아서요.”

“아.”

차은혁이 앓는 소리를 내었다.

“여기 대체 뭐 하는 곳인 거죠, 그럼….”

“저희는 일단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오반니가 특유의 맑은 낯으로 대답했다.

“폭로전, 이라고.”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49)

349

제349화

태양교와 달님교에 깊은 인연이 있는 신자들의 길드, 은월.

"정영원."

"...어머니."

"야, 야, 이런 거 보지 말고...."

"어머니가 저기 있어요...."

"아 진짜, 그거 가짜라고."

미약하게나마 성력을 다룰 수 있는 신자들의 집합인 데다, 그들 중에는 정원사도 한 명 끼어 있었다. 이 던전에 대항하기에 가장 안정적인 조합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다.

"어머니, 아, 우리 어머니가...!"

"대체 이게 몇 번째야."

"아아악!! 이거 놔, 어머니...! 엄마! 엄마! 나 여기 있어!!"

팀 내 유일한 정원사인 정영원은 본인이 가진 힘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로 망가진 지 오래였다. 그녀가 정원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그녀를 붙잡고 있는 팀장 한 명뿐이었지만, 그조차도 이제는 훤히 까발려진 상황이었다.

"엄마아...!!"

"진짜 미치겠네."

팀장은 반쯤 정영원의 보호자였다. 정원사였던 그녀의 어머니는 어느 날 자신이 모시던 꽃밭과 하나가 되었다던가. 정영원은 그 의지와 광신을 이어받아 화원의 정원사가 되었다.

그런 그녀가 아름다운 꽃밭의, 꽃이 뭉쳐진 인간의 형상을 보며 어머니를 부르짖고 있었다. 이번이 한두 번째가 아니었다. 정영원이 꽃 뭉치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자명했다.

"...왜 이렇게 아저씨 속을 태우냐, 영원아...."

은월의 길드원 중 한 명이 다가와 팀장에게 물었다.

"저... 일단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미 너무 쉬었는데.”

“비단 정영원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팀 내 유일한 정원사가 이렇게 되어 다른 팀원들도 상태가 안 좋아요.”

“가장 든든했던 방패가 사라진 셈이니까. 하, 또 한 번 쉬어야 하나….”

“계속 탐사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대로면 전멸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저희가 제대로 된 신자였다면 정영원 씨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직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고.”

이 던전에 대항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또 다른 정원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신성의 힘이었다. 그러나 은월은 신도들의 집합이지 신성력을 다룰 줄 아는 정식 사제들이 아니었다.

팀장이 정영원을 기절시키며 앓는 소리를 냈다.

“선발대로 들어올 때부터 골치가 아파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건 좀 심각한데.”

사실 이 정도 위험도의 던전에 선발대로 들어온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 선발대 자체가 이례적인 대규모라고 해도 이렇듯 뿔뿔이 흩어진 이상 그 위험성에 변동은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 난감했다.

그래, 원래 그렇게 반쯤 죽었다 치는 것이 선발대라고는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이건 곤란한 게 맞았다. 대체 누구의 농간인지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어만 갔다. 단순히 머리 쓰고 몸을 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우리 길드 정도면 정신력이 꽤 강한 편 아닙니까?”

“그, 음, 낮은 편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된다고?”

여태껏 정신 공격 계열의 던전을 다녀보지 않았던 게 아니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헌터 본인의 정신력과 의지력. 그런 의미에서 신의 선택도 받지 못한 몸으로 그들의 힘을 일부 빌려 쓸 수 있는 은월의 신자들은 내면이 굳건한 편이었다.

하지만 이번 던전은 차원이 달랐다.

“길드장님께서는?”

“태양과 달님께 기도 중이십니다.”

“그래, 우리도 한 번 더 기도하고 갑시다. 그게 좋겠어. 흐트러진 정신 다시 고쳐 세우는 것에 그만한 게 없지.”

“길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빌어먹을….”

그는 기절한 정영원을 보며 얼굴을 쓸었다. 말로 하면 자존심 상해하는 게 뻔히 보여 티 내지는 않았다만, 내심 딸처럼 아꼈던 녀석이 혼절하지도 못하고 발악하는 모습에 심장이 철렁했던 것만 벌써 몇 번째인지. 속이 울렁거렸다.

‘…이 던전은 사람의 가장 약한 곳을 찌른다.’

인간은 시각에 약한 동물이라던가. 우선 이 던전 자체는 아름답고 곱상했다. 색이 순하고 반짝거려 도무지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았다. 향기도, 온도도, 습도도, 모든 것이 안온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는 천천히 스며들어서 정신을 망가트린다. 꼭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같았다. 미쳐버리고 울부짖으면서도 사람들은 그 ‘무언가’를 놓지 못했다.

그러며 그 정신 나간 꼴로 내 행복이 저기에 있다고 말한다.

‘섬뜩하네.’

이 던전은 사람의 가장 추악한 면을 들추었다.

“…….”

그만큼, 그들은 지쳐갔다.

자신과 동료의 밑바닥을 지켜봐야만 했기 때문에.

* * *

“…폭로전이요?”

차은혁의 질문에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원은 사람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예민한 곳을 찌르고 혹할 수밖에 없는 미끼를 걸어요. 다른 팀의 사례를 어렵게 들어보니 마치 중독성 강한 약에 빠진 사람들 같다고 하더군요.”

“…그건….”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공격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련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행복의 광대’들이 사람에게 끝없이 행복에 대해 물었던 것처럼, 그렇게 비틀린 행복을 미끼로 걸고 흔드는 셈이죠.”

“…….”

“덕분에 벌써 부상자와 사망자가 꽤 나왔다고 들었어요.”

지오반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차은혁은 어딘가 그의 심기가 비틀렸음을 느꼈다.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지오반니’는 제오르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가장 질이 나쁜 점이 바로 이것이죠. 이 정원은 공격을 공격으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상황이니 갈등은 갈등대로 생기고, 사람들은 지쳐가고, 팀은 정체되고….”

“…일단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차은혁이 다시 물었다.

“하지만 여전히 ‘폭로전’이라는 말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서요.”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과거사 같은 것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인터넷에 자주 벌어지는… 그, 정치인이나 헌터들의 일들처럼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눈을 깜박인 지오가 차은혁의 눈을 보았다.

“차은혁 씨는 얼마나 선하고 바른 인간입니까?”

“…? 어, 네…??”

안 착하면 죽나?

다른 누구도 아닌 신성의 질문에 차은혁이 덜컥 굳자 그를 지켜보고 있던 유성운이 끼어들었다. 그는 난감하게 웃으며 제 친구의 인간성 없는 질문을 중화시켰다.

“네가 그렇게 물으면 무서워하지, 지오야.”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설명하는 게 좋겠네.”

유성운은 지오의 설명을 이어받았다.

“난 개인적으로 차은혁 씨가 성실하고 청렴한 인간이라고 생각해.”

“? 아, 예… 그…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나?”

“어디 잡혀갈 만큼 못난 짓을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성실이나 청렴까지 나오는 건, 좀 과찬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거지, 자기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는 그 사람의 불완전성을 알고 있거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잖아.”

유성운이 목을 쓸었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면은 있어. 누군가에게는 선했던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악하게 보였을 수도 있고. 미움받은 적도 있을 것이고, 잘못을 저질러 자책했던 적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청렴결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꺼리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마련이잖아. 그렇지?”

“그야... 그건 자연스러운....”

차은혁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차은혁이 이기적인 사람, 혹은 그런 면모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었다. 당연히 차은혁도 사람이기에 선하고 바른 사람을 선호했다.

유성운은 그 점을 짚었다.

“이 던전은 바로 그런 점들을 드러내 보이게 만들어.”

“...어떤 방식으로?”

“방식은 되게 다양한 것 같던데?”

그 사람의 기억이 재현될 때도 있었고, 상징적인 무언가가 나타나 트라우마에 발작을 일으킨 경우도, 그 죄책감이 형상화되어 누군가를 원망할 때도 있다고 했다.

“아니면 보고서나 일기처럼 글의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

마치 이 거대한 정원 안에, 사람들의 어느 약점을 컨셉으로 한 작은 던전이 추가로 생기는 느낌이었다. 그 덕분에 가뜩이나 비현실적인 구조였던 ‘쾌락의 정원’이 더욱 복잡기괴해지는 건 당연한 순서였고 말이다.

“...뭐, 그, 흑역사를 까발리는 건가요?”

“가볍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느낌이겠지만, 글쎄. 다치고 죽어나간 사람의 숫자만 따져도 웃어넘길 상황이 아니라는 건 쉽게 알 수 있겠지.”

“가볍게 말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는 시도였다는 거 알아. 탓하는 말 아니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실제로 그런 시시콜콜한 사연도 나온다는 모양이니까.”

유성운이 무던한 미소를 짓는 것을 바라보던 지오가 그 역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 요약하자면, 이곳은 사람을 추악하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정원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부족한 면을 굳이 꺼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여느 정원들과 달리 대단히 악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지오반니가 단호하게 덧붙였다.

“사회성이 없는 거죠.”

“아, 그, 어....”

“없다기보다는 내다 버린 편에 가까워 보입니다만 그게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 간의 예의도 추악한 가식이라고 비꼴 위인이지요.”

“그, 그렇군요.”

보기 드문 지오반니의 묘한 서늘함에 말을 더듬은 차은혁이 이어 물었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반격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이 정원의 주인에게 휘둘리는 것 같아 불쾌하긴 하지만, 대응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정원과 신성력으로 버티기?”

“사실 그건 대응보다는 말씀하신 것대로 버티는 것에 불과하죠. 하지만 제가 계속 폭로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보통 인간들의 삶에 있어 폭로전이라 함은, 서로 싸우는 것이다. 함께 피를 볼 것을 각오하고 알려졌을 때 상대가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다.

“저희도 이 정원의 가장 아픈 부분을 까발리면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명색이 정원인데?”

“그럼에도 이 정원은 인간의 형상을 고집하고 있었죠.”

“그러니 인간만큼 취약한 기억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나저러나 결국 이곳은 ‘인간의 추악한 면’을 들춰내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이야기였다.

“차라리 이 던전의 주인이 인간 이외의 운명을 따랐다면 이야기가 많이 복잡해졌겠지만… 글쎄요.”

그가 인간으로 남아 있는 이상 정원의 특성과 규칙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제오르제 본인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었다. 그런 주제에 토벌대를 기다리고 있지.

아마 그조차 제오르제가 바라는 일 중 하나일 터였다. 아름다움에서 벗어날 기회라도 얻고 싶은 것일까. 성불 직전 한풀이를 하겠다고 전국구의 민폐를 끼치는 꼴이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공략법을 알려준다면 따르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제오르제가 마련한 길에 따르는 것이 영 달갑지 않다고는 해도 말이다.

“정신 계열의 던전이니 그에 맞추어 대응해야 하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인간과 정원의 정신력 싸움이라는 거군요,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에 대한 단서는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만!”

분위기를 완화시키려는 듯 지오반니가 특유의 밝은 웃음을 터트렸다.

“너무 실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가요.”

“제오르제 씨의 성격상 많이 봐주고 있는 걸 보니 아직 저희는 입구 초입에 있는 셈이라고 판단되어서요. 더 위험도가 높은 단계의 탐사를 진행하기 전에 적응의 시간을 갖는 중이라고 보면 되겠죠.”

“적응…이, 되겠습니까? 신체도 아니고 정신과 과거의 문제일 텐데… 관계라는 건 한순간의 방심으로 쉽게 틀어지기도 하고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지 않나요?”

“…….”

차은혁은 말을 잃었다. 분명 그런 식의 관용구가 있기는 하다만, 부디 검은 망토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아 너희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어!’라는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길 빌었다.

“하지만 피해가 꽤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정원이나 신성의 힘을 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지금쯤 사람들은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더 위험한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이 정신 공격에 대항할 방법을 찾아야죠.”

다행히도 이번 선발대는 사태의 심각성이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뽑혔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더라도 단순히 얼타고 있지만은 않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차은혁은 아직 이해가 잘 안되는지, 아니면 믿음이 부족한 것인지 애매한 표정이었다.

“그 다른 방법이라고 한다면?”

“저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오가 눈을 깜박이고서는 웃었다.

“뭐든 해보겠죠.”

유능함이란 본디 변수에 대처하는 능력을 말하지 않던가.

* * *

“사나래 이 머저리 새끼야!!!”

“으어억.”

해령의 반장이 사나래의 멱살을 잡고 포효했다.

“네가 인간 덜된 새끼인 거 여기 모르는 놈 없어,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갸륵한 새끼였다고 낯을 가려! 어?! 내가 너 한심하게 쫄아들고 그러라고 뒷바라지해 준 줄 알아?!”

그 굉장한 박력에 사나래가 징징거렸다.

“아, 아니… 반자앙….”

“여기 안 그래도 머저리들만 모인 길드인 거 알아 몰라?!”

“아, 알아?”

“알면 왜 그 지랄인데!”

“몰라…!”

“모르긴 왜 몰라, 내가 먹인 밥만 얼마냐!!”

“나한테 왜 그래애….”

“왜애? 왜애애애?! 지금 그딴 말이 나와?!”

반장이 사나래의 멱살을 잡고 짤짤 털었다.

“정신 차려 새꺄, 넌 원래 쓰레기였어! 시비나 찍찍 걸고 다니는 인성 파탄자에, 말은 더럽게 안 듣는 능구렁이에, 기특한 부분이라곤 하나도 없이 낯짝만 멀쩡한 개망나니였다고! 알아들어?!”

“반장 나 울어….”

“너도 그렇고, 이 개시발 새끼들아 다들 잘 들어라, 길드장님 전언이시다!!”

해령의 반장이 주춤거리는 길드원들에게 소리쳤다.

“어차피 우리는 밑바닥이었다, 알지?!”

“아 왜 말을 또 그렇게 해요.”

“원래부터 사회 부적응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길드였어. 여기서 우리끼리 밑바닥 본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새끼들인 거 모르고 해령 들어왔나? 아니잖아!”

“바, 반장니임….”

“아련한 부름 징그러우니까 저리 썩 집어치워!!”

그녀는 아직도 제게 멱살이 잡혀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는 사나래를 다시 노려보았다. 얼굴 멀끔한 놈이 답지도 않게 기죽은 표정이나 짓고 있으니, 안쓰럽기보다는 그냥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평소에도 이렇게 고분고분했으면 좀 좋았을까? 지금 모습의 반의반이라도 흉내 내며 반성하는 척을 했더라면 그녀가 먹는 위장약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을 것이었다.

하여간 갸륵한 부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짐승 새끼 같으니. 가뜩이나 피곤해 뒤질 것 같은 상황에 어디서 감히 풀이 죽어? 제 허락 없이 꿈도 꿔서는 안 될 건방진 일이었다.

“사나래, 너 뭐 해 먹고살 거야.”

“나… 나 해령 사람인데, 반장… 내쫓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던전에서 나가면 뭐 할 건데.”

“반장이 주는 일 하고 살아야지… 나 버리면 안 돼.”

“그럼 시발 넌 대체 뭐가 문제니?! 내가 너 같은 새끼를 사회에 풀어둘 것 같아?!”

“…그치만….”

사나래는 멱살이 잡힌 채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 사람 아닌데.”

“원래 그랬다고, 짐승 새끼야.”

“짐승도 아닌데.”

“그럴 줄 알았지 이 망할 놈. 짐승도 패면 말을 들어요.”

“사람… 많이 죽였어.”

“우린 아닌 줄 알아?”

“…잡아먹었어….”

사나래의 뒤편에는 그의 ‘약한 점’이, 그의 ‘자부심’이 잔뜩 널려 있었다. 무고한 사람들의 피와 살점이 가득 널려 있는 시커먼 연구실 안에서 사나래는 멱살 잡친 채로 다시 말했다.

“나 몬스터잖아.”

만들어진 인간형 몬스터, 호문쿨루스. 사나래는 망할 5등급 시민들끼리 모여 만들어낸 열화 버전의 호문쿨루스였다. 다시 말해 불법 실험을 받은 몬스터라는 것이다.

그는 처음에 도플갱어로 그 탄생을 시작했으며, 불법 연구원들이 던져주는 인간을 먹고 성장했고, 또 실험을 통해 거의 완벽한 인간을 흉내 내는 개체로 성장했다. 그의 안에는 실험으로 희생당한 영혼이 득실거렸다.

“그래도 괜찮아?”

그런 그를 데려와 인간으로 길러준 것이 해령의 길드장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대부분의 길드원은 몰랐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까발려지고 말았다. 몬스터로서는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본성이 들킨 것이다.

몬스터는, 사나래는 인간의 고통에 흥분했다. 그들의 괴로운 모습을 즐기며 폭력에 자부심을 느끼는 괴물이었다. 아니라고 쳐줘도 쓰레기겠지. 그토록 인간도 몬스터도 아닌 애매한 존재.

그리고 이에 대한 반장의 답변은 한결같았다.

“내 말 또 귓등으로 듣지 새끼야.”

뻐억—!!!

너무 한결같았다.

“……!!”

거대한 고통에 사나래가 머리를 감쌌다.

“…끄아악…!”

“내가 너 지금 감동시켜 주려고 이러는 줄 알아? 혹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나대는 거니?”

“으어, 아니야…??”

“반장인 나에겐 너를 최소한 사람 흉내는 내도록 만들 의무가 있다.”

“나 잘 내는데…?”

“사나래야, 뭘 잘못 배웠구나. 사람은 너처럼 안 살아.”

반장이 따듯한 미소를 지었다.

“넌 그냥 인간 덜된 새끼야.”

“아하.”

“그러니까 그만 처울고 일이나 하렴, 이게 화병을 통해 해령의 공략 실패를 유도하려는 너의 고도의 전략이 아니라면 말이야.”

“넵, 반장님.”

“어머, 세상에나. 이렇게 대답도 잘하고 얼마나 예쁘니?”

“나 예뻐?”

“새끼가 퍼뜩하면 지랄 나네.”

“응악!!”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두 사람의 모습에 길드원들의 긴장도 풀어졌다.

“…조장이 사람 새끼가 아니긴 했어.”

“그건 맞지… 사람이었으면 기자를 그 지경으로 패지는 않겠지….”

“어쩐지 숨만 쉬어도 사람 속 터지게 만들더라고.”

“그게 정말 인간이 아니라서 그랬구나… 정말 몰라서 그랬던 거였어.”

“진짜 인간이 되다 만 거였네. 공부 덜 됐나 보다.”

“쌈박질하느라 바빠서 공부 그까짓 좀 못했을 수도 있지.”

“그래, 그 말이 맞다. 우리가 이해해 주자.”

어처구니없는 결론이었지만 이게 해령의 해답이었다. 그들에게 감동적인 위로나 연설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다.

원래부터 사회에 적응 못 하는 싸움닭들이 모인 곳이다. 짐승들이 모인 곳에 사람 흉내 잘 내는 몬스터가 있다면 그 인간성은 해령 길드원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셈이었다. 그러니까 사나래가 조장인 것이겠지.

그렇게 주먹으로 다져진 우정, 뭐, 아무튼 그 비슷한 무언가로 해령은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었다. 조장의 정체가 몬스터

건 인간이건 사실 크게 알 바는 아닌 것 같았다.

“그럼 반장님, 저희 이제 뭐 해요?”

“남들 하나씩 다 찾았다는 세이프존이나 찾아와 이 밥버러지들아.”

“예엡.”

그렇게 해령은 답을 찾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그들만의 방식을 찾기 시작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50)

350

제350화

해령은 '아 맞지 우리 짐승 새끼지'하는 방법을 택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추악한 밑바닥을 순순히 인정했다는 것이다. 물고기가 물에 산다고 익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해야 하나.

이는 원래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 못해 마이너스였던 해령이기에 가능했던 방법이었다. 그들은 '너 쓰레기임'이라고 비난받아도 '? 알 빠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령의 길드원들은 자기 객관화가 나름 잘되어 있는 편이었다.

물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으므로, 달님교는 지식과 연구를 택했다.

"해, 해, 해냈어요...!!"

아직 앳된 여인의 목소리가 정원을 뒤흔들었다.

"성공적으로 작동합니다!!!"

"와아아아악!!"

"역시 우리의 달님이십니다!!"

"그녀를 찬양하라!!!"

달님교의 새로운 달님, 이제는 신체적으로도 조금 성장한 아람이 찬란하게 빛나는 달을 들고 외치자 사제들이 함성을 질렀다. 그들의 환호성은 가히 하늘에 닿을 수준인 듯했다.

한때 성녀였던 주교 아람은 자부심으로 가득 찬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드디어 공식이 나왔습니다! 역시 선배님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는 정리해 내지 못할 공식이 없어요! 그 복잡하고 난해한 신비를 정리해 낸 우리 선배님들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역시 달님교의 역대 성자와 성녀이십니다!"

"그 빈약했던 달님에 뇌와 마음이라는 것을 만들어주신 분들답습니다!"

"아아 고귀하고 지혜로우신 달님교의 성인들이시여!"

달님교의 사제들은 사실상 학자에 가까웠다. 그리고 사회성이 비교적, 좀, 많이 낮았다. 그런 그들은 해령처럼 단순무식하고 나사 빠진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할 엄두를 내진 못했다.

결국 그들은 정원사의 힘을 흉내 낼 방법을 연구했다. 다른 팀에 비해 유독 시간이 더 많이 왜곡된 덕분이 컸다. 거의 넉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달님교의 사제들은 머리를 맞대고 '정원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제대로 된 탐사도 전에 전멸할 테니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

“이거면 헌터도 사제도 정원의 힘을 흉내 낼 수 있다고요!”

환희에 가득 찬 아람이 또 한 번 울먹였다.

“이 정신 나간 실험에도 끝은 있구나…!”

“제481043번째 최종 실험은 성공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1년이 넘지 않는 단시간 안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니, 이게 바로 기적이겠죠. 성인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달님이 빠릿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손발을 따듯하게 데워주었던 우리 어린 용들의 도움 또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주교님…!!”

사실 이에 대한 연구는 ‘정원’과 ‘정원사’가 세상에 드러난 시점부터 시작되어 왔다. 그들은 스킬, 던전, 몬스터 등 그 모든 기초에 ‘신비’가 깔려 있음을 알고 그 힘을 연구해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난처한 상황 속에서 달님교는 기어코 실험에 성공했다. ‘정원 공식’을 만들어낸 그들은 신성력을 이용해 이 정원의 심한 왜곡을 물리쳐 낼 수 있었다.

“확실히 신성력보다 효과가 좋기는 합니다, 그려.”

“교단의 봉문을 풀게 되면 반드시 정원사의 자질이 있는 사제부터 영입합시다….”

“그래도 그간 정원사들이 꾸준히 지원해 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참 감사한 분들이었죠.”

“나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당연히도 진또배기 정원사만큼은 못했다. 이 공식은 정원 내에서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는데, 그들 자신이 머무르는 정원의 힘을 빌리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심신을 소비하는 속도가 빨랐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나마 이 정원의 색으로 그 자신들을 물들이니 정신 공격의 강도가 없다시피 된 것이다. 자기 자신의 장기가 스스로를 공격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를 응용했다.

“그럼 이제 이 공식을 모두에게 알리죠! 통신 장비들이 엉망이 된 상황이라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걸 저희만 알고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주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마지막 통신에서 들었던 사망자의 수가 아직도 귀에서 맴도는 기분이에요. 공식을 쓰면 통신 장비의 왜곡도 덜해질 테니…!”

들뜬 사제들에게 또 다른 사제가 말을 얹었다.

“그런데 이 공식, 다른 분들이 활용할 수는 있는 겁니까?”

“…아?”

“아….”

“아앗….”

달님교의 신성력에만 특화된 공식은 아니었다. 그들은 이번 토벌전 참가자들의 최대한 많은 생존을 목적으로 공식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사용 대상자가 헌터나 다른 교의 사제라는 점이 아니었다.

“이거… 우리 달님교를 제외하면 알아나 듣겠느냐는 겁니다.”

남들이 달님교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다.

“…….”

“…….”

“…강의를 하면….”

“이런 빈약한 통신 장비로 헌터들에게 강의를요?”

“아무나 쓸 수 있을 만큼 공식을 단순화하는 게 빠르겠네요.”

아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생각하기에도 이 처참한 통신 장비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공식을 주입할 자신이 없었다. 아주 기초적인 공식부터 이해하지 못할 확률이 높았다.

협회 직원이나 사제들은 좀 괜찮다만 대부분의 헌터는 평균적으로, 좀, 공부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강했다. 불특정 다수의 지능이 단기간에 상승하기를 기도하느니 차라리 공식을 제작한 그들 지식인이 조금 더 힘을 쓰는 게 현실적인 것 같았다.

“다들 다시 모이세요, 공식을 간략하게 줄여보도록 하죠.”

“아… 그 무지렁이들을 이해시키려면 과연 얼마나 줄여야 할지….”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달님교는 이렇게 그들만의 대항 방법을 찾았다.

또한 이들만 상황에 적응해 가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죽기 싫다면 이 정신 공격에, 손에 잡히지 않는 낯선 신비에 적응해야 하는 건 토벌전의 참가자 모두가 같았으니 말이다.

“어, 어어….”

“? 뭐냐.”

“야, 나 이거 된 것 같은데.”

“뭐가 됐냐고.”

“그 정원인지 뭔지 느낌이 와!”

“술 마셨냐? 짜식, 예전에 알콜 중독자였다더니 진짜….”

“아 아니라니까?! 계속 아픈 곳 찌를래?!”

일부 헌터는 이전 ‘시스템 오류 사태’ 때 부지런히 움직였던 덕택을 보고 있었다. 시스템이 없던 시기를 겪은 은퇴 헌터나 잘 드러나지 않는 정원사들에게 꾸준히 접촉하고 배움을 구했던 보람이 있었던 것이다.

“미쳤네, 어케 함? 현실에서는 드럽게 안 되더니?”

“아… 뭔가 좀 달라, 지구에서랑은 느낌이 완전 다르다고. 지구랑 환경이 달라져서 성공한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다른 거야?”

“조금 더 숨이 쉬어지는 느낌? 왜 뭐냐, 물 계열 마법 쓰려면 물 많은 곳에서 쓰는 게 좋잖아. 딱 그런 느낌이야.”

“시발 마법사가 아닌 딜러는 뭘 어떻게 알아들으라는 거임.”

“아니 생각을 해봐, 그럼 너는 산소 없는 곳에서 숨 쉬어져?!”

“그거랑 이게 같냐?!”

그 비법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소란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나름 성과를 보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들은 난생처음으로 시스템에 의존한 스킬이 아닌 ‘신비’ 그 자체를 직접 느껴보고 있었다.

“…이게 신비라는 거구나.”

“스킬이랑 비슷한 면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새 감각이 생긴 것 같아.”

이런 상황을 맞게 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다. ‘시스템 오류 사태’ 때 어떻게든 새로운 배움을 구하고자 했던 사람은 적지 않았고, 이번 참가자 중 그랬던 헌터의 수가 아주 적지 않았던 덕분이었다.

“야, 야, 이거 봐라.”

“너 평소에 자주 쓰던 스킬이잖아. 뭘 보라는 거야?”

“아니야, 뭔가 달라.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만들어낸 그런 느낌이라고.”

“하여간 해괴한 짓 하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어?”

“시, 시스템이…!”

“뭐야, 이거 왜 이래?!”

성공적으로 ‘신비’를 느끼고 다룰 수 있게 된 헌터들의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망가진 글자나 기호를 잔뜩 띄우기 시작하더니, 이내 지직거리며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다. 한참의 이상 끝에 시스템은 완전히 암전이 되며 결국에는 몇 문장만을 띄웠다.

변수 확인

기초 계산을 이탈했습니다

오류 발생

그러고는 이내 멈춰버렸다.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 이, 이거 왜 이래…?!”

“야, 나 시스템 꺼짐.”

“아니 뭔 서버 터진 예약 창도 아니고….”

그중 일부는 이 현상을 해석해 내기도 했다.

“…진짜 그건가?”

“뭐가?”

“서버 터진 거 아니야?”

“? 내가 뭘 했다고.”

“여기에 기초 계산이라고 되어 있잖아.”

머뭇거리던 헌터가 이런 가설을 내놓았다.

“일종의, 그… 게임 튜토리얼이 끝났다던가. 기초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그 이상의 계산이 안 되는 거지.”

“…시스템이 게임이라고?”

“아니, 그런 형식의 게임은 지구에 내내 있었잖아. 대재앙 이전에도 있었고. 솔직히 좀 비슷하지 않냐? 나만 이렇게 생각해?”

“그럼 시스템이 그 게임 형식을 빌렸던 거야?”

“나도 그냥 가정이긴 한데….”

그 비슷한 가정은 선발대 중 하나였던 협회의 수장, 단해라도 하고 있었다.

“…….”

“협회장님, 이건….”

“…튜토리얼이었어.”

그녀는 오랜만에 크게 웃었다.

“아하, 하하하…!”

“…….”

“세상에… 정말 게임이었구나, 이거. 게임의 형식을 따왔던 거야.”

그 혼란스러웠던 대재앙 직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말이다. 과연 ‘선생님’이라더니 참 친절하지 않은가.

단해라는 시스템의 존재 의의와 그에 관련된 현 사태의 이유를 알아차렸다. ‘서지오 선생님’은 정말 인류의 생존과 그들의 교육을 위해 시스템이 되었고, 사람들이 시스템의 도움 없이 ‘신비’를 느끼고 나서야 그 기초 교육을 마치게 된 것이었다.

그 정도 수준이 되었다면 이제는 시스템이 없어도 최소한 죽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 실장님, 시스템이 종료되었는데도 스킬을 쓰실 수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저와 비슷한 경우도 다수 파악되었고요.”

“시스템이 종료되는 정확한 시점은 언제였죠?”

“스킬의 기초가 되는 신비를 감지하고, 그 감지된 신비로 자신의 스킬을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 시스템의 도움 없이도 스킬을 쓸 수 있음을 확신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시스템이 종료되었다는 것이겠군요. 내 말이 맞습니까?”

“예,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마음에 들어.”

눈을 깜박이던 단해라가 이내 짙게 웃었다.

“…역시 시스템은 계속 있어 주어야겠는데.”

이것은 활용할 용도가 무궁무진했다.

‘정해운은 이 힘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이 힘이 속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 즉 약속의 주인인 내가 그 산물인 시스템에 어느 정도 관여할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의미일 터….’

이번에는 기초 교육이었다고 하니, 다음에는 심화 교육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 그게 가능하다면 영원의 상징이 계획했던 미래는 더욱 빨리 다가올 수 있게 될 것이었다.

단해라는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검은 망토’의 교육은 꽤 효과적이었다. 국가가 흔들리고 사망자가 제법 나왔지만 그 정도는 이번 성과에 비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희생이었다.

‘시스템을 유지해야 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너무나도 많아. 시스템의 본질에 대해 이해했으니 그 활용도도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겠지. 위험한 무력을 언제 어디서든 행사할 수 있는 헌터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기에 이만한 교보재가 또 있을까.’

그녀의 목적은 달라졌지만, 결과적으로 해야 할 일은 비슷했다. 단해라는 ‘제오르제’를 공략하고 ‘지오의 초상화’를 설득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낼 것이었다.

‘설득되지 않는다고 하면 약속을 해야겠지.’

그 많은 신성이 지구에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약속’했던 것처럼, 단해라의 힘은 거대한 신비에게마저 통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단해라는 아주 많은 ‘대가’를 준비해야 했다.

“앞으로는 나 혼자, 개별적으로 움직이도록 할게요.”

“하지만 협회장님…!”

“내가 나 하나 간수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닐 테고. 혹시 여러분은 내 관리 없이는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곳은 던전임과 동시에 정원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혼자 탐사할 때에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더 많은 기억을, 더 많은 감정을 쌓아두어야 했다. 그 많은 것을 모으고 모아 머지않은 날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낼 수 있도록 말이다.

“나중에 보죠.”

그렇게 단해라가 개별 행동을 시작했다.

* * *

그리고, 며칠 뒤.

“…과, 광대….”

“뭐?”

“광대가 나타났어요.”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50)"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51)

351

제351화

반박할 사람이 없지는 않겠으나, 확실했다. 지금까지 정원의 '공격'은 수동적이었다.

그들은 단지 존재하고 매혹하여 사람의 정신을 망가트릴 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점차 '신비'의 존재에 적응한 뒤에 참가자들이 보인 행보가 트리거를 건드린 게 분명했다.

"자세히 말해봐, 광대라니? 여기에도 설마 광대가 있다고?"

"생긴 건 비슷했지만 지, 지구에서 봤던 거랑은 전혀 달랐어요! 직접 공격해 오는데 심지어 그게 전염되기까지 해서...! 서영이가 광대가 되어서 제가 죽여 버렸다고요!!"

"진정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내가 제대로 보고 받을 수가 없잖아. 정확히 뭘 하고 있었는데 광대가 나타난 거야? 탐사하라고 보냈더니 어디서 뭘 하고 있었어, 너희."

"그, 그, 계단 가장자리로 빠져서...."

이곳 '쾌락의 정원'은 여러모로 평범한 던전과는 달랐다.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된 여느 던전과 다르게 정말 자연 그 자체였다.

마치 초현실주의 작가의 작품처럼 시공간이 꼬여 있는 이곳은 '계단 가장자리' 같은 단어로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저희가 이걸 찾자마자 광대가, 쫓아왔어요...."

"...이건...."

여자가 눈을 찌푸리며 웬 장신구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기만 한 이 던전에서 나왔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흐려지고, 깨지고, 망가진 보석 장신구였다.

길드장이 중얼거렸다.

"팔찌, 인가...?"

그에 다른 길드원이 길드장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 말했다.

"아... 그거 발찌 같은데요."

"발찌라고? 발?"

“발목에 거는 곳이 있고, 발가락에 거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큰 쪽이 발목에 거는 거고 작은 쪽이 발가락에 거는 거겠네.”

“네, 물론 손도 그런 식으로 착용하는 형태의 아이템이 있기는 한데....”

길드원이 장갑 낀 손으로 망가진 장신구를 살피고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길드로 들어오는 모든 아이템을 검수하고 관리하는 역할인지라 이런 장신구에 대해서도 아는 게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 길이면 발찌가 맞아요. 낮은 연령대의 대상이 착용했던 건지 좀 큰 사람은 손에도 걸 수 있을 만큼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손에 걸기에는 이 중간부가 너무 길잖아요. 발에 착용하는 겁니다.”

“애가 뭐 이런 발찌를 차? 냉증 걸리겠네. 보온이나 방어 버프 들어간 아이템도 아닌 것 같고.”

“그러게요, 그건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 중이었어요. 이런 형태의 발찌는 그... 슬리퍼나 쪼리 같은 거라서, 이걸 차고 신발을 신을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보통 이런 발찌는 저주가 걸려 있는 아이템이 많죠.”

“긍정적인 느낌의 물건은 아닐 거라고 본다는 건가? 흠, 저주라고 하면....”

“우리 길드에는 거의 없는 종류의 아이템이긴 한데요.”

장신구에 알알이 맺힌 보석은 많이 손상되었지만 여전히 크고 반짝였다. 무엇보다 그 형태가 무척이나 화려했다. 절대 신발로 감출 수 있는 크기와 생김새가 아니었다.

“왜 보통 아이템이라는 게, 인간이 만든 물건에 여러 가지 효과가 겹쳐지는 거잖아요? 특히 장신구 같은 종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더 특별한 아이템이 되기도 하고요.”

“이건 딱히 아이템 같지는 않지만... 대충 용도는 알겠다는 거지?”

“아이템처럼 보이지는 않으니 용도보다는 의미에 가깝죠. 크기가 작은 걸 보니 어린애 전용이고, 화려한 걸 보니 보여주기 용인데 그럼 신발은 못 신고. 둘 중 하나예요. 구속하는 용도거나, 전시하는 용도거나.”

“어... 좀, 어느 쪽이든 변태 같지 않아?”

“사용했던 흔적이 남은 걸 보면 그냥 허공에서 뚝 떨어진 아이템은 아닌 것 같고. 보통 이런 식으로 다른 차원에서 아이템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은 변태 같은 사연이 많아요, 길드장님. 이 정도면 무난한 수준이죠.”

길드원은 능숙하게 장신구에 엮인 이야기를 읽어냈다.

“아마 신분이 낮은 아이가 대상이었겠네요. 신분이 높았다면 신발도 못 신게 만들지는 않았겠지. 아니면 신분과는 상관없는 환경이었다거나.”

“신분과는 상관없는 환경... 아, 납치라던가?”

“그것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착용자의 건강과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물건이잖아요, 심지어 상대가 쉽게 다치는 어린이인데도.”

“그리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구속하기 위함이나 보여주기 용이에요. 전자는 신발을 신지 못하니 멀리 도망갈 수 없게 하기 위함이고, 후자는... 이런 게 어울릴 정도로 보기 예쁜 아이였다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감상용으로 만들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어우, 변태 같아. 페도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흔히 말하는 새장 속의 새였겠네요, 이런 휘황찬란한 장신구를 줄 정도면 나름 대접은 받았겠지만 그 고운 대접 받으며 도망칠 수는 없었겠어.”

그런 둘의 대화에 혼이 나간 듯했던 길드원이 제 길드장을 붙잡았다.

“...기, 길드장님, 서영이 어떻게 해요....”

“이상한 소리를 하네? 뭐 어떻게 해, 네가 죽여 놓고서는.”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애를 부활시켜 주리? 미안한데 나는 그거 못 한다?”

“…아….”

“아무튼 좋은 거 알았네, 스토리가 읽히는 걸 보면 공략에 도움이 되겠어. 나중에 인센티브 얹어줄게.”

“…….”

“이거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찾은 거야? 스토리가 중요한 던전이라면 이런 물건을 찾는 것에도 명확한 조건이 있을 텐데?”

“…….”

“쯧… 정신 나갔구만.”

길드장은 혀를 차며 기꺼이 자비를 베풀었다. 아무래도 입을 열기까지 휴식이 필요한 모양이었다. 이런 성과를 냈으니 그 정도 편의는 봐줄 수 있었다. 그녀는 목격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추측해 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이 정원이 수동적이지 않은 공격을 보였다. 그리고 이 던전과 영 어울리지 않는 낡고 망가진 장신구, 또한 이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여러 이야기. 거기까지 다 합쳐 생각을 해본다면….

“던전 주인의 이야기겠지, 이거?”

“음… 최소한 연관은 있겠네요.”

“좋아, 이런 거 몇 개만 더 찾아보자. 공략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녀가 특별히 나쁜 길드장은 아니었다. 최소한 현시대의 시점으로 보자면 그랬다.

여자는 꼬박꼬박 월급 밀리지 않고 주는 수장이었고, 추가 근무나 특별히 더 잘한 일이 있으면 그 이상의 보상도 얹어주었다. 길드원 관리에 소홀하거나 민간인과 짐꾼을 던전에 방치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본디 주관적이며, 절친한 친구를 잃은 슬픔은 참 개인적인 것이라.

“…서영아….”

이 팀은 꼬박 3일에 걸쳐 전멸했다.

광대의 소행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 * *

“…굳이 따지자면 이번에는 방어전의 형식이려나?”

“방어전이요?”

“아, 차은혁 씨는 잘 모르지.”

“대략 방어하는 전투라는 건 알겠습니다.”

“사실 그게 다기는 해.”

연락 가능한 모든 팀과 정보를 공유한 유성운이 차은혁에게 설명해 주었다.

“던전 공략은 가장, 진짜 가장 기초적인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해. 하나는 탐색전이고 다른 하나는 방어전이지. 전자는 찾아가는 거고 후자는 찾아오는 거야.”

“어… 몬스터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맞아. 이건 정원을 던전의 형식으로 재구성한 공간이니 몬스터가 나올 법도 하지. 아무래도 지구에서 봤던 그 광대가 등장하는 모양인데… 이놈들이 어디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

“심지어 알아서 찾아온다고도 했고요.”

“트리거가 있으면 그걸 계기로 급습해 오는 것 같아. 아니면 꽤 음습하게 돌아서 접촉하든가. 팀 내부에서부터 갈등을 일으켜 전멸시키는 솜씨가 아주 일품이라더라.”

그에 차은혁이 한 번 더 물었다.

“그럼 그 트리거라는 것만 안 건드리면 평화로운 거 아닙니까?”

“평화롭게 여기서 평생 살 수는 없잖아….”

“아….”

“공략은 하고 봐야지.”

그쯤에서 비사벌이 웃으며 말했다.

“차은혁 씨의 경우에는 동생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단서를 찾기 위해 와보기는 했어도… 이렇게 된 상황에 대체 뭘 해야 할지….”

“이렇듯 저희에게 세이프존을 제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상상 이상의 일을 해주고 계시죠. 수집상은 거래가 확실합니다, 차 헌터님을 찾는 것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방금 전 길드장에게만 온 연락인데.”

정확히는 던전 바깥, 지구에서 온 연락이었다.

“첫 번째 트리거… 발찌라고 했던가요?”

“네, 그랬죠. 애가 찰 수 있을 만큼 작은 발찌라고요.”

“아마도 그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구에 있던 광대들이 모습을 감춘 것 같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광대의 특성상 확실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협회와 유스티티아가 확인하기에는 그렇다네요.”

“…….”

유성운이 목을 쓸고는 물었다.

“전부 여기로 온 걸까요?”

“가능성이 적지는 않겠지요? 축하합니다, 차은혁 씨. 운이 좋으면 이 던전에서 동생분을 만날 수도 있겠군요.”

“길드장님 제발.”

유성운이 침착하게 기겁하고 다른 직원들이 말없이 기겁했다. 지금 비사벌의 말은 ‘네 동생 광대 됐잖아?’라고 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가뜩이나 연약한 물주를 더 예민하게 만들어서 어쩌자는 것이냐 말이다.

하지만 비사벌은 놀랍도록 당당했다.

“흠, 어쨌든 실종된 동생 중 한 명이라도 되찾을 가능성이 커졌으니 다행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물까?”

“부탁드려요.”

수집상은 최대한 티 나지 않게 차은혁의 상태를 살폈다.

“…….”

그렇다, 며칠 전 그의 동생 차이솔마저 실종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탓이었다.

“…저 괜찮습니다.”

“이건 저희 길드장님이 나쁜 게 맞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아, 예….”

“정말… 하….”

결국 차은혁이 울었다.

수십상 직원들의 시선이 비사벌에게로 몰렸다. ‘그 나이 먹고 젊은 친구 울리고 싶냐’라는 시선이었으나 비사벌의 낯은 대단히 두꺼웠다.

차마 외부인 앞에서 제 수장을 까 내리는 말을 하기에도 문제가 있어 수집상은 그저 손짓 눈짓으로 그를 비난할 뿐이었다.

‘아 길드장님 제발.’

‘가족들 챙기겠다고 열심히 사는 청년한테 왜 그러세요.’

‘차은혁 씨 울잖아요…!’

사건의 발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선발대로 진입 후 태양교 팀에 내부 갈등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두어 번 전해졌었고, 결국 다른 팀에서 태양교의 흔적만 남은 난장판을 목격했다 알린 것이다.

그 ‘흔적’의 정황상 거의 대부분의 사제는 죽었다고 봐야 한단다. 자리를 피해 도망친 사제가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일단 작고 어려서 눈에 안 보일 수가 없는 예비 사제의 시체나 그 조각은 보지 못했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희망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괜찮을 겁니다.”

“그, 그럼요, 잘 도망쳤을 거예요.”

“강서담 사제님께서도 거의 전담해서 봐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강서담 사제님 유명하시죠, 태양교 엘리트 사제님이시잖아요. 그런 분께서 도맡아 주셨다면 분명 일이 생기기 전에 자리를 피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호흡을 마친 차은혁의 눈가가 붉었다. 그는 최근 멍하니 있다가 울 때가 잦았다. 그 탓인지 차은혁의 눈가는 짓물러져 있었다. 처음 마주쳤을 때에 비해 상당히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비사벌 길드장님의 말씀도 맞고요.”

그는 애써 침착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다. 상대의 발언에 아니꼬운 부분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비사벌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다. 그걸 인정해야 했다.

“차라리 한곳에 모여 있는 편이 찾기도 더 쉽겠죠. 차아라의 경우는 협회 직원분들도 찾지 못했을 정도로 깔끔하게 실종되어 버렸으니까, 그냥… 정말 광대라도 되어 있는 편이, 몸이라도 온전할 수 있을 거잖아요.”

“차은혁 씨….”

“차이솔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시체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신체가 보전된 정도면 선방한 거죠. 저도 알아요. 압니다.”

차아라가 F급으로 각성하고, 그녀가 짐꾼이 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차은혁은 몇 번이고 동생의 죽음에 대비해 와야 했다. 사제로 각성한 차이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헌터가 되면, 그리고 현장직 사제가 되면 시신이 훼손되는 것 정도는 우습다. 머리카락 한 올도 함께 나오지 못할 만큼

끔찍한 현장도 많았다. 그에 비해 시체가 광대 분장 당하는 정도면 우스운 일일지 몰랐다. 최소한 그건 사지라도 다 붙어 있지.

"그냥…."

그래, 사실, 조금씩 기대를 내려놓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가뜩이나 민간인이 함께하는 거라 불편하실 텐데."

"차은혁 씨의 세이프존 덕분에 얼마나 덕을 보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정신 차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라리 기대가 없는 편이 나았다.

'이대로 더 깊게 생각하면 누군가를 원망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원망의 대상은 뻔했다. S급인 비사벌과 신성인 검은망토였다. 눈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내 동생들은 안 찾아주나. 신이라면서 내 착한 동생들을 왜 그렇게 두었나.

하지만 그게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았다. 마음은 그랬지만, 이성만큼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않아야 했다. 감히 누구를 원망한단 말인가.

'그래서야 인어 던전 때의 사람들과 내가 뭐가 달라.'

지금 그의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서지오 헌터'가 겪은 일은 암암리에 유명했다. 왜 자신들을 더 빨리 구하러 오지 않았냐며 민간인들이 그를 비난한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들을 대신해 '서지오 헌터'가 인어에게 납치되었다던가.

강자라고 해서 약자를, 제 동생들을 구해줘야 하는 의무는 어디에도 없었다. 호의와 자비를 베풀어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을 먼저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서지오 헌터'는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었다. 신이고, 신비였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의 문제였다. 다양한 부분에서 그랬다. 무엇보다 이는 양심과 윤리 이전에 큰 손실을 불러올 태도였다.

'이런 내 생각도… 뻔히 알고 있을 사람들인데.'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뭐 되지도 않는 놈이 그들의 의무도 아닌 일을 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있으니 말이다. 차은혁은 의식적으로 동생들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으려고 노력 중이었다.

그래야 최소한, 내 동생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좋은 사후 세계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려면 그를 지켜보고 있는 신성에게는 잘 보여야 하니까.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었다.

"차은혁 씨."

"…아, 네."

"감사합니다."

"……."

그때 갑자기 들려온 감사에 차은혁이 눈을 껌벅였다.

"…네?"

"노력해 주시는 게 고마워서요."

"아뇨, 그냥… 하는 거죠. 노력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역시 들켰나?

‘…신 정도 되면 내 속내 읽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나? 돌려서 혼내는 건가? 네 건방진 생각 따위 다 알고 있다고?’

차은혁은 ‘서지오 헌터’의 얼굴을 보았다. 바다처럼 푸르게 빛나는 눈도,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입도 보았다. 그 어디에도 비난과 혐오는 없었다. 물론 그 정도 얼굴 근육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존재겠지만 말이다.

기이한 적막함이 흘렀다. 차은혁은 본능적으로 수집상의 직원들이 가급적 말을 삼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차은혁은 왜인지 ‘서지오 헌터’의 모든 말과 그 순간의 적막이 마치 어떠한 의식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그리고 까마득히 거대한 존재가 그를 ‘칭찬’했다.

“착하시군요.”

“…….”

그리고, 그때였다.

“—…어, 어어! 어어어!!”

멀리에서부터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다.

“혀엉!!”

“…….”

“형형형!! 혀엉! 형!!”

“…….”

“형 나 배고파!!!”

이루다와 강서담을 곁에 두고 있는, 차이솔이었다.

“나 밥 좀 줘어어…!!”

그러며 빼앵 울어버리는 모습.

보석 창고의 저 너머에서 달려오고 있는 차이솔은 그가 알던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 부상이 있는지 붕대를 감고 발도 절기는 했지만, 사지 전부 멀쩡히 달려 있는 그의 동생이었다. 이게 환각이 아니라면 말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가 차은혁의 동생이 맞다면.

“…허.”

…검은 망토는 ‘착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던데.

정말 그런가 보다.

* * *

“……!”

맙소사, 천지신명이시여.

‘세상에 이런 일이?’

참고로 지오도 몰랐던 등장이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351)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51)"

4.7 13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52)

352

제352화

동생을 껴안은 채로 넋이 나가버린 듯한 차은혁의 모습에, 유성운이 지오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속삭여 물었다.

"뭐야, 선물 준 거야?"

"? 아뇨?"

"이게 선물이 아니라고?"

"사람을 선물 취급 하면 씁니까?"

"오...."

유성운이 묘한 눈으로 지오를 보았다. '아무튼 웬일로 자기가 한 일이라고 시인하는 건가'라는 눈빛이었다. 그것을 확인한 지오가 제 딴에는 적극적으로 부정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아 그렇겠지, 네가 아니라 검은망토님이 하신 일이시겠지. 그분의 은혜가 참 대단하시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지오는 억울해졌다. 차씨 집안 가족이 감동적인 재회를 하게 된 건 참 다행인 일이다만, 그걸 왜 제가 한 일로 취급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타이밍? 역시 이 기막힌 타이밍 때문인 걸까?

'하필 이솔이 이야기를 할 때 당사자가 등장해서?'

그건 지오도 놀랐다. 연이은 동생의 실종으로 힘들어하는 차은혁의 모습이 안쓰러워 말을 건 순간에 등장한 차이솔이라니. 역시 착한 사람에게는 복이 오는구나 싶을 정도였다.

"굳이 따지자면 운명의 신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너 그런 것도 키우니?"

"예?"

"일단 참고할게."

"뭘요?"

안 키우는데요.

'정확히 이게 무슨 질문이었던 거지.'

뭔진 몰라도 안 키우는 게 분명했다. 지오는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싶었으나 유성운의 시선은 이미 제 길드장에게로 이동한 뒤였다. 반박할 타이밍을 놓친 지오는 여전히 찝찝함이 남은 상태로 그런 그를 지켜보았다.

유성운은 비사벌에게도 비슷한 것을 물었다.

"차이솔 군 오는 거 알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겁니까?"

"그런 식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차은혁 씨를 상당히 긁으시지 않았던가요. 동생과 곧 만날 것을 알고 누가 봐도 난감하게 반응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조금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를 그런 식으로 모함하다니 정말 너무하시는군요."

"아하, 제가 오해한 거라고요?"

"저는 그저 순수한 의도로 한 말이었습니다."

비사벌이 뱀을 닮은 얼굴로 샐쭉 웃었다.

"딱히 차이솔 군이 오는 것도 몰랐고요."

"......."

유성운은 무언가 알아서 납득한 얼굴이었다. 모르긴 몰라도 비사벌 길드장의 인성에 관련한 납득일 것이라고 지오는 생각했다. 마침 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으니까.

지오의 귀신 들린 초상화라는 특성도 포용해 주었던 유성운에게서 저런 반응을 이끌어 내다니, 그것도 재능이긴 했다. 그런 유성운을 즐거운 낯으로 충분히 감상한 비사벌이 한 박자 늦게 말을 덧붙였다.

"차이솔 예비 사제는 저도 나름 관심을 가진 인재라 눈에 담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상할 정도로 이 던전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더군요."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부러 보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니었죠."

"길드장님의 눈을 막을 정도의 방해라니, 놀랍네요."

"아마 서지오 헌터님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아, 정말로?"

유성운이 놀란 얼굴로 지오를 돌아보았다. 그 얼굴에서 해명의 기회를 느낀 지오가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지오반니 특유의 침착한 행동거지 덕분에 영 티가 나지는 않았지만 나름 필사적인 끄덕임이었다.

"네,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어... 오해해서 미안해...?"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눈들이 다 막히다니, 여기에 무슨 액이라도 낀 건가."

"제 눈이 그렇게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눈가를 만지작거린 지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글쎄요, 아무래도 정신이 사나운 공간이다 보니 여러모로 힘에 부치는 것이 있습니다."

차씨 집안은 지오도 참 좋아하는 가족이었다. 이 삭막한 사회에 한 줄기 빛이라고 해야 할까. 보기 드문 선량하고 성실한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른다.

그는 세상의 모든 착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주의는 아니었지만, 그와 별개로 차씨 가족과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지 않던가. 그래서 동생들의 실종에 풀이 죽은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 안에서는 그림도 안 그려지더군요. 저희 집과 달리 재료가 없는 탓도 있겠지만요.”

“.......”

잠시 멍해 있던 유성운이 눈을 깜박였다.

“...? 잠깐만, 그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드문 사태라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귀신 들린 초상화가 그림을 못 그린다니. 그야말로 정체성이 흔들리기 직전이었다. 여차하면 그림을 그려서 사심이 잔뜩 들어간 식량을 보급하려고 했는데 다 글러먹어 버린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저희 집으로 가는 문도 엉켰습니다.”

“문이 닫힌 게 아니라 엉켰다? 그, 엉켰다는 건 무슨 의미야?”

“기존에 그리고자 했던 그림이 아니라 엉뚱한 액자가 끌려온다는 의미였습니다.”

“어... 하긴 이 던전의 특성상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겠네.”

선의와 정의조차 비꼬아 버리는 던전이지 않던가.

“하지만 네가 그린 그림들은 대체로 안전하잖아.”

“착한 아이들이긴 하죠.”

“그럼 원래 열고자 했던 문이 나올 때까지 계속 끌고 오면 되지 않겠어? 확률적이라고는 해도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

“음, 그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안 되는 이유가 있나 보네.”

“왜인지 제 자식들이 전부 화가 났습니다.”

“.......”

유성운이 잠시 말을 잃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화가 났다니.”

“화가 난 건지 흥분한 건지, 좀처럼 제 말도 들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 혹시 지구가 위험한 상황인 건가?”

“그 점도 대비해서 일단 그림의 문을 전부 닫아놓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 그건 다행이네. 고마워.”

“아무튼 이런 상황에 제 자식들을 불러오는 건 역효과일지도 몰라 일단은 그만두었습니다.”

“그것도 고마워.”

고개를 끄덕인 유성운이 잠깐의 침묵 뒤에 물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짐작 가는 거라도 있어?”

“아마 제오르제 씨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수작을 부렸다든가?”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꼭 바이러스를 처단하려는 항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건 네 자식들이 ‘제오르제’를 이물질로 판단했다는 뜻이야?”

“예, 그래서인지 설득이 어려울 것 같네요. 저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보니 오히려 설득이 힘듭니다. 아무래도....”

오류 발생

오류 발생

오류 발생

오류 발....

“...제 손을 떠났다는 느낌이 강해서.”

평소 그토록 말을 잘 듣던 자식들이다. 말은 자식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지오’ 자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존재라는 것은 그 역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 왔다.

이는 즉 또 다른 영향이 미쳤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지오는 그 ‘또 다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마 시스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서지오’ 씨 말이다.

‘예전부터 느꼈던 거지만 서지오 씨는 감정이 없는 건가...?’

기본적으로 그들은 비슷한 성향과 관점을 지녔지만, 이따금 지오는 시스템이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을 느꼈다. 아마 시스템에게 ‘제오르제’는 처단되어야 마땅한 존재인 듯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정이 들어 버렸는데. 미운 21살의 망나니라고는 해도 어떻게 한번 잘 두드리고 빨아 써볼 법해서....’

그래서 지오는 시스템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탓에 지오 본인은 멀쩡하지만 유달리 자식들만 화가 나버렸다. 마치 ‘지오가 느껴야 할 거부감’까지 전가된 듯한 반응들이었다.

“아무튼 진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대략 어느 정도...?”

“아,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던전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으로서는 예전에 그려두었던 그림들의 도움을 받기는 좀 어렵겠군요.”

“뭐, 그런 식의 편법을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조금 불안하기는 하네. 그거 때문에 네가 크게 상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제가 무능한 편은 아니니 걱정하실 만큼 크게 다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신성력은 ‘지오반니’의 특성으로, 신체 능력은 ‘아르지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었다. 서지오로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별다른 문제가 생길 성싶지는 않았다.

“다만 아무래도 저희 허니가....”

“어이쿠.”

지오의 양손에 동그랗게 말려 있는 허니는 잔뜩 씨근덕대고 있었다.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정도로 열이 난 모습이었는데, 그런 허니의 위로 다른 손을 덮어 가려주며 지오가 말했다.

“많이 예민해졌습니다.”

“하긴 허니도 네 자식이었지.”

정확히는 ‘지오가 그린 자식’에 포함되었다. 그가 그리지 않은 가족인 곰인형 아버지나 다나의 경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지만, 글쎄, 퍽 안전하다고 하긴 어려운 상황이긴 했다.

지오가 손 안쪽의 기묘한 감촉에 잠시 말을 잃었다.

“.......”

“왜 그래?”

“모르시는 편이 나을지도.”

“내가 뭔가를 물었었던가?”

“아, 현명하시군요.”

왜인지 그의 양손에 갇힌 허니의 형태가 들쑥날쑥하는 게 느껴졌다. 지오의 장남은 유독 그에게 귀여운 모습만 보여주고자 했는데, 시야가 가려지니 그 형태가 변하고 있었다.

‘귀여움받고 싶어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강박이었을 줄은 몰랐는데.’

아무래도 허니는 시야 안에 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허니, 어깨 위에 있을래?”

“꾸루룩….”

“우리 아드님께서 왜 이렇게 심통이 났을까?”

“꿍꿍.”

“귀엽기는.”

그렇게 아빠와 아들의 소소한 대화가 이어지는 사이.

시간이 지나도 차은혁이 제 동생을 놓아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강서담이 비사벌과 지오에게로 다가왔다. 그 역시 일이 많았는지 상당히 너덜너덜해진 모습이었다.

“잠시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오, 물론입니다. 오랜만에 뵙는군요.”

“이런 모습으로 뵙게 되어 민망하지만 보시다시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잔뜩 피로해진 모습과 달리 강서담은 여전히 책임감 강한 성격이었다. 그는 차은혁에게 안겨 눈치만 살살 살피고 있는 차이솔과 그 옆에서 쩔쩔매는 이루다를 보고선 다시 말을 이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선발대 중 태양교 팀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사건 당시 도망친 인원이 없던 건 아니지만 전부 흩어져 다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부 갈등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저희 교단은 원래부터 세대 갈등이 심한 편이기도 했죠. 그걸 비롯한 여러 작은 갈등도 크게 번진 탓에 결국에는 이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예상했던 바입니다만, 설마 태양교쯤 되는 교단이 전멸까지 갈 줄이야.”

“다행히도 변명할 부분이 아주 없지는 않겠습니다.”

강서담이 곧 귀걸이 하나를 보여주었다.

“광대의 습격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이었다.

* * *

자세한 정보 공유는 잠시 뒤로 미루고, 수집상은 던전에 들어와 처음으로 마주친 다른 헌터를 케어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들의 상태가 썩 좋지만은 않은 탓이었다.

"원하신다면 귀걸이의 보관은 저희 수집상이 맡을 수 있습니다."

"수집상의 아이템 관리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제가 아직 왜곡 상태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확신할 길이 없어서 말입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은 푹 쉬도록 하시고요."

비사벌은 굳이 강서담을 재촉하지 않았다.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최소한의 확신은 있으신 것일 테니까요."

"…예, 뛰어난 사제와 정원사가 있는 팀이지 않습니까. 왜곡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았겠죠. 다만 제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 환각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강서담은 고개를 끄덕였다. 애초에 '서지오 헌터'가 있는 팀이니 그들의 말과 행동이 왜곡되었으리라 보지는 않았다. 문제는 수집상 팀의 존재 자체가 왜곡된 경우일 텐데 그건 시간을 두고 더 살펴야 할 일이었다.

그런 강서담의 조심스러움에 지오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럼 식사도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

잠시 머뭇거리던 강서담이 자세를 고치고는 정중하게 답변했다.

"…제가 두 예비 사제의 책임자입니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가능한 모든 변수에서 벗어나 있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변고를 입으면 예비 사제들의 안위도 보장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인솔자가 가장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것. 악용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만, 만약 어린 헌터를 책임져야 할 경우 이루어져야 할 암묵적인 규칙이었다. 비행기 사고 시 어른이 먼저 조치를 취하고 다음에 아이를 챙기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물론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면 제가 먼저 확인할 겁니다."

"음식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먹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예비 사제들은 먹여야죠."

"흠,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야겠네요."

"…너무 힘을 주시지는 말아 주셨으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잠깐, 휴식 시간이 찾아왔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352)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52)"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53)

353

제353화

강서담이 처음부터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건 아니다.

“야, 강서담.”

당연하다. 인간은 나이를 먹으며 성장하는 생물이다. 일부 나이를 허투루 처먹은 놈들도 있기 마련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 강서담도 그렇게 자라온 평범한 인간 중 하나였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이따금 불공평함을 느낄 때가 있었다. 누구에게 항의해야 할 불공평인지조차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아주 조금 억울했다. 그냥 스쳐 가듯이 그랬다.

“뭐 그렇게 생각이 많아.”

“…….”

“이 새끼 또 내 말 무시하네.”

다만 세상의 모든 상처는 어느 날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흉터가 남는다고 해도 매일 그것만 보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던가. 살아오며 그렇게 자연히 잊어버린 흉터가 몇 개 있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던가.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 잊을 수 있다면 잊는 편이 좋았다. 인간은 성장하는 만큼 미래를 보고 살아야 하는 생물이니 말이다.

“내 말 씹는 게 아주 일상이지.”

“…….”

“뭔데, 출장 명령이야? 또 윗대가리들이 꼽 주디?”

“…….”

“그거 다 흘려들으라니까?”

하지만 늘 그래왔듯 스쳐 지나가는 음성이라 하기에는 너무 선명해서, 강서담은 먹먹한 제 귀를 문질렀다. 마음 같아서는 귀를 뜯고 고막을 찢고 싶으나 그런다고 들리지 않을 소리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늙은이들이 다 그런 거지. 하루 이틀 된 일도 아니잖아, 안 그래? 아니면 또 너 외국인이라고 지랄했어? 진짜 노망난 새끼들이라니까?”

“…….”

“너 한국인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새끼야. 이번에 불려 가더니 무슨 소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하게 굴지 말고 뭐라도 말을 좀 해봐. 그래야 이 형님이 술이라도 먹여주지.”

이건 뇌에서 들리는 소리다. 아니, 듣는다고 착각하는 환청에 불과하다. 그러니 잊자. 하지만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음성도 잊어버릴 수 있던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

“너, 그 뭐냐. 알지? 어? 태양교의 미래는 우리가 접수한다.”

“…접수하기는 뭘 접수해.”

“넌 진짜 내가 꼭 헛소리를 해야 대답을 해주더라.”

“미친놈….”

“나 같은 미친개 하나 키우니까 얼마나 든든해.”

너 대신 지랄해 줄 친구 있으니 인생이 행복하지 않냐며 물어온다.

강서담은 대답 대신 손으로 제 얼굴을 문질렀다. 어르신들이 이따금 말하는 ‘토종 한국인’과는 거리가 먼 얼굴 골격이 손바닥으로 만져졌다. 그래서 문득 이 목소리의 주인이 어떤 얼굴이었는지를 떠올린다.

염색으로 물들인 금발에 짙은 다갈색 눈. 양아치 같으니 머리 물 좀 빼고 오라던 사제님들의 말은 귓등으로 안 듣던 멍청이.

“…뭐래, 토종닭이.”

“아 왜 이렇게 까칠해, 나 뭐 잘못함?”

“조용히 좀 해봐.”

그러니 놀랍게도 조용해진다.

“…….”

이 망할 놈의 환청은 조용히 하라면 조용해지기까지 했다.

‘빌어먹을.’

개같은 상황이다.

‘차라리 일반적인 환청이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이 환청은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이제는 거의 잊어가던 그 음성을 빌려 그 성격에 따라 대답하고 또 반응한다. 상태가 좀 심각해 보이니 눈치를 살피듯 입을 다무는 것도 정말 그 녀석을 닮았다.

다시 한번 생각한다. 귀를 뜯고 싶다고. 고막을 찢고 싶다고. 뇌에서 울리는 소리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라도 이 알 수 없는 충동을 해소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민폐겠지.’

지금 강서담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었다. 책임져야 할 예비 사제도 둘이나 있었다. 나이 허투루 먹어 정신 나간 태양교의 그 버러지들만 아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 그 잘난 면상들 앞에서 차라리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이라도 쳐볼 걸 그랬다.

애초에 ‘예비 사제’를 이런 던전에 파견한다는 생각부터가 틀렸다는 거다.

“…강서담.”

“…….”

“네 탓 아니야.”

제발 닥쳐줬으면 좋겠다.

‘공격이면 공격답게 굴어.’

그런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차라리 원망하는 말이었으면 했다.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넌 위선자 새끼라고 욕해주길 바랐다. 그럼 이게 나를 시험하는 적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확신했겠지.

하지만 이 음성은 정말로 그의 옛 파트너를 그대로 흉내 내고 있었다.

‘아니, 애초에 흉내는 맞을까? 만약 정말로 그 녀석의 영혼이 그대로 온 거라면?’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이 던전의 공격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 거부하고 모르는 척해야 옳았다. 그래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래, 이런 목소리였지. 그래, 이런 말투였지. 그래, 이런 사람이었지. 나 살기에 바쁘다고 하나둘 잊어갔던 기억들이 떠오른다. 그건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

“우리처럼 잘생긴 멋쟁이는 자책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다.”

“…….”

정정한다, 조금 유쾌하긴 했다.

“강서담 사제님?”

“…서지오 헌터님.”

“피곤하신가요?”

“…….”

“그 목소리.”

자비로운 음성이 웃으며 말한다.

“계속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비인지 무관심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보통 환청을 듣고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치료해 주지 않던가요?”

“표정을 보니 그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럼에도 말입니다.”

“나에게 옳고 그름을 묻는 거라면, 내가 심판관은 아니라는 말밖에는 해줄 수가 없겠네요.”

“저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질문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강서담이 귀를 문질렀다.

“당신께서 말을 거니 잠잠해지는군요.”

“흠, 딱히 건드린 적은 없는데.”

“존재만으로도 악령을 물리치신 건 아닙니까?”

“전보다 농담 실력이 느셨네요.”

옅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흡족함? 기특함?’

까마득한 어른의 애정이 담긴 웃음에 강서담은 귀를 문지르던 손을 내렸다. 조금 멋쩍은 기분에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가늘어진다.

“…즐거우신가 봅니다.”

“평소보다 저를 편하게 대해 주시기에 즐거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신이 해이해진 탓입니다, 좋아하실 일은 아닐 테죠.”

“나 자신의 즐거움은 나 스스로 정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제게 하는 말씀이신지요?”

아마 편리한 생각일 테지만, 신께서는 이 음성을 계속 들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잠깐 과거의 향수에 취해 있어도 괜찮다고 말이다.

“그러다 이 미천한 자가 사고라도 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넘어지실 분은 아닌 것 같아서.”

“기대가 크신 듯한데, 저는 생각보다 자주 넘어집니다.”

“늘 일어서 계신 모습만 봐서 그러신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 능숙하시다는 거겠죠.”

“그런가요, 제가 그래도 꽤 나쁘지 않은 어른이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제 형의 품 안에서 잠이 든 차이솔 예비 사제가 보였다. 그의 파트너인 이루다 예비 사제도 그 바로 옆에 누워 있었다. 오랜만에 얻은 이 휴식이 아주 달가운 모습들이었다.

“…….”

그렇게 잠들어 버린 아이들의 얼굴에서 어떠한 위안이라도 찾아낸 것일까. 평소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문득 남아 있던 이성마저 녹아내렸다. 결국 강서담이 다시 신을 보았다.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태양. 너무나 커서 바다마저 품은, 거대한 불.

“…잠시 제 이야기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정말로 평소였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이었다. 그 어디에도 신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경우는 없었다. 신성과의 긴밀한 교류는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게 전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렇게 부작용을 겪게 된다 해도 뭐가 어쨌다고. 강서담은 제 맞은편에 앉는 ‘서지오 헌터’를 보았다. 보기 좋은 얼굴과 미소다.

“사제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진부한 이야기였다.

“저에게도 예전에는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태양교는 가장 처음, 그런 식으로… 예비 사제들의 적응을 도우니까요.”

그의 이야기는 정말로 진부했다.

성격이 많이 달랐으나 능력의 조합만큼은 훌륭했던 페어. 싸운 적도 많았으나 결국에는 친해졌고, 서로를 신뢰하며 의지해 갔으나, 그중 한 명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사회의 불합리함으로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해버린 이야기.

악신을 부르려다가 거기에 오염된 제 파트너를 강서담은 직접 죽였다.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래서 태양교에, 세상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다. 그러나 친구의 영혼까지 구할 수는 없었다… 고.

“…….”

“…좀, 뻔한 이야기였으려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주의 깊게 경청하기는 했습니다.”

“감상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제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답변이었습니다.”

하긴 신성이니 정말로 그게 가능할지도 모른다. 검은 망토가 사후 세계를 그려냈다고 하던가. 가넷처럼 반짝이는 그의 사자가 선하고 어린 영혼을 직접 인도한다고도 들었다.

“하지만 제 친구 놈이, 당신 마음에 들 정도로… 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서담 사제님께서 이렇게 좋아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착하지 않겠습니까?”

“악신을 부르려다가 그 사달을 내버린 놈인데도요.”

“인간은 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하죠.”

“서지오 헌터님께서 말씀하시니 더 와닿는 이야기군요.”

“그냥, 궁금합니다.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서.”

“…정신 나간 놈이긴 했죠.”

세상의 모든 원리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던 강서담과 전혀 달랐다. 이런 놈이 사제인가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던 녀석.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도 없는 듯이 굴었던 양아치 자식.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자면.

“…예, 재밌긴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워낙 좀 웃기는 놈이라서.”

“지금도 말을 거나요?”

“뭐라고 구시렁거리기는 하네요. 비웃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잘 키워봐요.”

“환청도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그거야 본인 재량이죠.”

과연 신성이라 그런지 발상이 대단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환청을 키워보라니, 그것도 던전의 ‘공격’이 분명한 녀석을 말이다. 하지만 서지오 헌터는 꽤 상쾌하게 답변했다.

“술도 주정 부리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말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이걸… 술로 취급하시는군요. 하지만 술은 몸에 별로 좋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알아서 자제한다면야 뭐 어떤가요, 결국 기호품인데. 무엇보다 강서담 사제님께서 술주정을 부리는 모습은 상상이 안 가네요.”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어째서죠?”

“술을 별로 즐기지 않아서 거기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좋은 습관이네요.”

“.......”

잠시 귓가를 꾹 누르던 강서담이 서지오에게 물었다.

“...두 예비 사제를 아껴주시는 것을 압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아이는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까지 후련해지는 걸 보면, 역시 그도 어른이 덜 된 모양이었다. 최소한 제 파트너보다는 낫다고 위안 삼을 게 아닌 것 같았다.

“광대가 되어버리면 죽는 걸까요?”

“그걸 바라십니까?”

“그렇게 되면, 그놈을 한번 찾아볼까 싶어서....”

“아하,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길 바라시는군요.”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막 들었습니다.”

“그럼 저를 찾아와 주세요, 나와 친구가 되어요.”

서지오 헌터가 즐거운 낯으로 웃었다.

“나도 귀신 들린 초상화니까.”

“...그러죠.”

강서담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조금 웃어버렸다.

“귀신 친구라....”

“괜찮습니까?”

“네, 그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쉴 만큼 쉬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내 삶을 살아야지.

* * *

“그런 의미에서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강서담 사제님.”

차분한 얼굴의 유성운이 손을 들며 말했다.

“질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대체 어디에서 ‘그런 의미’가 나온 거죠?”

“그게 중요합니까?”

“아, 중요하지는 않지.”

확실히 지금 중요한 건 던전의 공략이었다.

“계속해 주세요.”

“예, 그럼….”

크흠, 목을 한번 가다듬은 강서담이 특유의 무뚝뚝한 낯으로 말을 이었다.

“저와 두 예비 사제의 시간으로는 대략 5주 전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잠시 질문 가능하겠습니까?”

“예, 차은혁 선생님. 편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 애가 5주가량 부랑자 신세였다는 겁니까?”

“아주 정확했습니다.”

“일단 애들 먼저 던전 밖으로 내보내고 이야기 진행할 수 없나요?”

“그게 되면 제가 먼저 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는 차은혁을 뒤로한 채 강서담은 다시 이야기를 진행했다.

“태양교 선발대 팀은 이전에도 워낙 잦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마 통신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다들 어느 정도는 정보 공유가 된 상황일 텐데, 요약하자면 불씨만 안 붙은 화약 더미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예, 바로 이거였습니다.”

강서담이 화려한 귀걸이 하나를 들어 보였다. 조금 낡고 망가졌지만 보석이 잔뜩 달린 커다란 귀걸이. 아마 처음 막 만들어졌을 때는 조명처럼 빛을 산란하는 장신구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보석이 잔뜩 달렸음에도 왜인지 볼품없었다. 최소한 주인의 애정 어린 관리를 받지 못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는 몰골이었다.

“문제는 이것을 차이솔 예비 사제가 발견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그에 산발이 된 차은혁은 말없이 제 동생을 보았고, 차이솔은 말없이 그 시선을 피했다. 형제간의 미묘한 대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서담은 보고를 이어갔다.

“태양교 팀 전체가 환청 증세를 호소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감각까지 좀먹었습니다.”

“팀 전체가 말입니까?”

“예, 아마 이것이 트리거가 된 모양이죠.”

“비슷한 보고가 다른 팀에서도 몇 번 오기는 했습니다. 그쪽은 목걸이를 찾았는데, 광대의 등장은 둘째 치고라도 내뱉는 말이 심각하게 왜곡되었다고….”

“그 말처럼 이러한 던전의 공략 포인트를 찾으면 디버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신구를 장착하는 신체 부위와 관련된 디버프인가 보죠?”

“지금으로서는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 뒤는 뻔했다. 가뜩이나 독이 오를 대로 올랐던 태양교 팀은 본격적으로 내부 분열이 시작됐고, 그 사이를 광대들이 비집고 들어왔다.

“광대라면… 공격을 해온 겁니까? 물리적인 공격인가요?”

“그것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로 정신적인 공격이었다고 봐야겠군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슬그머니 저희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온갖 유언비어를 퍼트렸습니다. 정신력이 낮아진 사제들은 쉽게 광대에게 홀렸고,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죽어버릴 때까지 말이다.

“저는 다행히도 광대에게 홀리지 않은 상황이라 두 예비 사제를 데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팀을 이탈하는 건 훌륭한 행동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 난장판에 휘말렸을 테니 제때 나온 게 현명한 판단이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린다고 말려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태양교 선발대 팀의 공략은 전멸 형태의 실패이리라 직감한 저는 예비 사제들과 함께 다른 팀을 찾아 나섰습니다.”

“귀걸이를 가지고?”

“이미 발동된 트리거는 그 이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론 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처음 발견되었을 때만 한번 팡 터지고 마는 것 같았습니다. 공략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챙겼죠, 다른 팀에게도 보여줘야 할 테고.”

“그게 바로 저희 수집상이었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여러분은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조용히 이야기를 듣던 비사벌이 물었다.

“광대가 사람을 어떤 식으로 홀립니까? 지구에서와 비슷한 느낌이려나?”

“예,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더군요. 저도 광대의 등장이 이상하다는 것을 피를 좀 본 다음에야 알아차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태양교 사제들이 그 정도로 무능하진 않을 텐데. 이전의 내부 갈등이 제법이었나 봅니다. 얼마나 상당했으면 그 지경까지 갔을지….”

“이 던전은 어느 개인의 취약한 점을 컨셉으로 해서 작은 던전을 만들어내는 식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와닿는 것이 확실히 컸죠. 정원사의 힘이 아닌 신성력만으로는 견디는 데 한계가 있었고요. 게다가….”

머뭇거리던 강서담이 헛기침을 한번 한 뒤에 말을 이었다.

“…태양교 내부의 비리가 몇 번 그런 식으로 터져버려서, 서로를 믿으려고 해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 저런.”

“지금까지 수집상은 던전이 만들어진 적이 없었나 봅니다?”

“우리야 뭐 훌륭한 인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사벌이 자부심 가득한 얼굴로 서지오 헌터와 유성운을 가리켰다. 대뜸 지목을 당한 지오는 유성운에게 따듯한 꽃차를 건네주다가 눈을 동그랗게 떴고, 유성운은 담요를 고쳐 덮다가 비사벌을 보았다.

유성운이 떨떠름한 얼굴로 말했다.

“왜요, 뭐요.”

“앙탈이 는 것 좀 봐.”

“추워 죽겠다고요.”

“보시다시피 유성운 씨의 희생이 크긴 하죠.”

그에 강서담이 끄덕였다.

“확실히 정원사가 있으니 던전의 변형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군요. 던전이라고 말은 해도 이곳의 본질은 정원이니, 아무래도 그러한 정원의 변형과 유지를 관리하던 정원사의 힘은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추워 죽으려고 하기는 합니다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부럽습니다, 팀 내에 정원사가 있다는 것이.”

“정원사가 없으면 대단히 불리한 싸움이기는 해요.”

지오반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감했다. 이 악랄한 던전은 하여간 사람을 좀 편하게 쉬도록 두는 법이 없었다. 역시 사교성만 좋고 사회성은 없는 제오르제의 정원다운 행태였다.

“다른 팀들의 피해도 많이 클까요?”

“흠, 글쎄요....”

턱을 쓸던 비사벌이 이내 눈을 깜박이며 대답했다.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흠은 있었다.

아주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말이다.

* * *

“어머.”

또다시 변형된 정원.

단해라가 제 뺨을 쓸며 중얼거렸다.

“꽤 익숙한 곳이네.”

이번에는, 어느 날의 학교를 닮은 모양새였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353)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53)"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54)

354

제354화

과연 이 정원은 어떤 식으로 개인의 취약한 점을 특정하는가?

'이런 식이라면 최소한 기억에 의거하지는 않았겠는데.'

단해라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

우거진 나무의 틈으로 보이는 학교.

많이 비틀리고 변형되기는 했으나 이 정원이 그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는 명백했다. 이곳은 단해라의 모교였다. 아직 불에 타기 전, 폐교가 아닌 그전의 모습을 흉내 내고 있었다.

'대체 기준이 뭐지?'

개별 행동을 하며 지금껏 단해라는 이 정원의 특성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전까지 없던 유형의 던전이라 그런지 진행 방식이 상당히 특이했다.

이곳은 던전 내부에 또 다른 던전을 생성하며 참가자들을 괴롭혔다. 그 작은 던전은 누군가의 '행복'을 주제로 형성되며 또한 비틀린 방식으로 선보여진다.

'이것이 이 정원의 가장 일차적인 공격.'

차라리 선발대의 수가 적었다면 공략이 한결 수월했을 법한 특성이었다.

'그다음은 역시 광대의 등장인가.'

지금까지 발견된 사례는 모두 장신구 형태의 트리거.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해당 팀에게는 장신구의 착용 부위에 따른 저주가 발생한다. 그와 동시에 광대들이 스며들어 지구에서와 같이 사람의 혼을 빼놓는다.

'단순히 행복을 사악한 형태로 이루어줬던 지구에서와 달리 조금 더 직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에 보임에도 그 이질감을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은 확실히 곤란한 부분이야….'

발찌라면 걸음을 왜곡하고, 목걸이라면 내뱉는 말을, 귀걸이라면 듣는 소리를 왜곡한다. 거기에 광대들의 수작까지 곁들여지니 어지간히 마음이 단단하지 않고서야 견딜 수 없으리라.

여기까지 보면 이 정원의 공격 방식은 참으로 명확했다.

“…흐음….”

다만 아직도 궁금한 점은, 이 작은 던전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개인’을 설정하느냐 것이다.

‘가장 분란을 일으키기 적합한 사람으로?’

어쩌면 완전히 랜덤일 수도 있었다. 이쪽도 꽤 가능성이 높았다. 그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고, 남들 보여주기 민망한 행복이야 한둘쯤 가지고 있는 세상이지 않던가.

단해라가 기계 같은 미소를 지었다.

“폭로전은 확실히 폭로전이야.”

개별 행동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 정도 되는 위치의 사람의 ‘취약한 점’이 폭로되면 함께 행동하는 동료들도 쉽게 망가지고 무너진다. 아직은 그래선 안 됐다.

단해라는 주변을 천천히 살피며 그녀만의 던전을 보았다. 꼭 던전 주인이 된 기분이라 신기했다. 그녀는 최근 얼마간 ‘약속’한 적이 없어 꽤 다양한 감상을 맛볼 수 있었다.

“조금 재밌는걸.”

“오, 그래?”

“최소한 지루한 기분은 아니니까.”

“지루한 게 아니면 재밌는 거다?”

학교 정문 계단에 앉아 정해운이 픽 웃었다.

“그거참 그럴싸하네.”

“오랜만에 보자마자 시비를 걸다니, 너는 심심했나 봐.”

“워낙 심란해서 심심할 틈도 없더라.”

“뭐가 그렇게 심란했을까, 내 친구는?”

“너 언제 인간 만드나 싶어서.”

정해운이 엉덩이를 털고 일어났다.

“구경이나 해볼래?”

“뭘?”

“이 학교 말이야.”

“하긴 이걸 공략하기 전까지 다른 곳을 살펴볼 수는 없으려나.”

“그냥 즐겨, 어차피 여긴 정원이야. 일반적인 던전처럼 깊이 들어간다고 보스가 나오는 식이 아니란 말이지.”

“그다지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네.”

이전에도 정원에 대한 보고는 자주 들었다. 정해운 혼자 도맡아 하는 작업이었으니까. 끝없는 자연에 가까운 이미지였던 것 같은데 아마 이 던전도 그와 같은 모양이었다.

“정원이라는 것을 공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혀.”

“아무래도 정원 그 자체를 때려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지.”

“때려잡을 수 있는 것이었던가, 자연이라는 것이?”

“나는 자주 그랬어. 그 왜, 최소한 산불이 나면 민둥산이 되기는 하잖아.”

“그래도 나무나 풀은 계속해서 자라는 법이야.”

“아예 밀어버리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짓든가. 바다는 쓰레기장으로 만들 수 있고, 하늘에는 오존층을 세울 수도 있지.”

“그것도 나름 말이 되네.”

단해라가 눈웃음을 그렸다.

“내가 정말로 공략하면 어쩌려고 이런 조언을 다 해줄까?”

결국 이 던전을, 정원을 없애려면 근원 자체에 영향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장신구를 보아하니 그게 어떻게 해야 가능할지도, 대략 감은 오는 것이다.

“제오르제 씨와는 아군이 된 게 아니었어?”

“어… 좀 복잡한 관계라서 말이야.”

“그래서 언젠가는 죽어도 된다?”

“죽긴 누가 죽어?”

“너, 혹은 제오르제 씨가. 어느 쪽이든 영 미련이 없어 보이네.”

“글쎄,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지.”

정해운이 이내 씩 거친 미소를 지었다. 그가 제 친구들에게 늘 짓던 미소였다.

“나는 정원이 날뛰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야.”

“…지금 그 얼굴 잘 어울려.”

“이제는 굳이 사람들 사이에 섞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정해운의 얼굴은 20대에서 30대 정도의 얼굴이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더는 늙지 않았던 시점의 그 얼굴. 단해라는 꽤 오랜만에 보는 그 얼굴이 조금 낯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학교와는 아주 잘 어울렸다.

“그러고 있으니까 꼭 학생 같다, 해운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정해운은 낄낄 웃으며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뒤를 단해라가 따라 들어갔다. 이 영악한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녀를 만나러 온 건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

학교 안은 꽤 조용했다.

“…예전에는 좀 더 떠들썩했던 것 같은데.”

“그랬었지.”

“확실히 기억에 따라 구성되는 건 아닌가 봐?”

“그럴 수도 있고.”

정해운은 딱히 안내해 줄 생각은 없는지 그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만 했다. 아마 이곳이 단해라에 의해 만들어진 곳이니 정해운에게도 흥미를 유발하는 장소인 듯 보였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닌 단해라가 물었다.

“뭘 원해?”

“머리 박고 뒤지는 거.”

“흠, 낭만 있네.”

“네가 낭만이 뭔지는 아냐?”

“알 수도 있지.”

“선생님 좋은 사람이었어.”

“나도 알아.”

“모를걸....”

정해운은 어느 교실 앞에서 멈춰 섰다.

“.......”

“미술실이었던가?”

“그랬지.”

“저건 뭘까나.”

햇살이 어렴풋이 들어오는 오후의 어느 날을 흉내 낸 교실 안으로는 따듯한 그림자가 지고 있었다. 단해라는 그저 멈춰서 있는 정해운을 지나쳐 반 안으로 들어갔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멀대 같은 것이 눈에 들어온 탓이었다.

그건 볏짚 인형이었다.

“.......”

키가 꽤 크고 체격이 있지만, 얼굴이 그려져 있거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다. 단지 봉제 인형처럼 허여멀건 가죽 안에 볏짚을 가득 채웠을 뿐인, 아주 엉망인 인형에 불과했다.

그것을 가만히 보던 단해라가 고개를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저주 인형?”

“미쳤냐.”

“대충 누굴 형상화한 건지는 알겠어, 서지오 선생님이겠지?”

“그 잘난 얼굴을 이렇게밖에 못 만든 너도 참 대단하다.”

“기억나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니.”

단해라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천 얼굴을 쓰다듬었다.

“어라.”

인형이 단해라를 바라보았다.

“움직이네?”

“.......”

“말은... 못 하겠지만.”

입이 없지 않던가.

“잘라보면 입으로 쳐주지 않을까?”

“제발 그러지 마라, 진짜.”

“어차피 인형인걸.”

“보는 내 기분이 다 이상해.”

“그냥, 입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져서.”

“그건 좀 놀랍네.”

정해운이 단해라를 보며 물었다.

“꽤 됐어?”

“‘약속’하지 않은 기간을 묻는 거라면, 아마도.”

단해라는 정해운을 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인형의 얼굴을 매만졌다. 옷조차 입지 않은 이 엉성한 인형이 뭐라고 손이 갔다.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즐거운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했다.

그녀가 아마도 입이 있을 법한 부근을 매만지며 말했다.

“말하지 못하는 걸까?”

그에 인형이 움직였다.

딱히 공격 의사가 없는 듯 보여 단해라가 눈을 깜박였다. 인형은 그녀를 지나쳐 미술실을 걸었다. 그러고는 공용 미술 도구가 모여 있는 곳에서 가위 하나를 꺼냈다.

“…아.”

그렇게 자신의 얼굴을 잘랐다.

“입이 생겼네.”

“해라야.”

“이제는 말도 하고.”

단해라는 저도 모르게 정해운을 돌아보았다. 그는 왜인지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었다.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그보다는 끔찍하게 역겨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문득 새삼스러운 의문이 들어 단해라가 물었다.

“여긴 왜 온 거야?”

“네가 뭘 하려나 보려고.”

“그럼 뭐가 달라져?”

“잘 모르겠다….”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좀 질리네.”

“이해했어.”

정해운은 잠시 스쳐 가는 구경꾼이었다. 무언가 행동을 할 수도, 그저 보고만 떠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영원의 상징’ 자리로 돌아와 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 성격에 순순히 그러진 않겠지.

‘언젠가 정해운도 다시 잡아 와야겠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야.’

그의 약속이 깨졌다고 해도, 괜찮다. 분명 어떻게든 원래대로 되돌릴 방법이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단해라가 시선을 돌렸다. 왜인지 애착이 가는 이 인형에게로 말이다.

그녀는 무식한 방법으로 생긴 인형의 입을 응시하며 말했다.

“뭘 위해 이렇게 했나요, 선생님?”

“네가 나와 대화하기를 원했으니까.”

“학생이 원한다면 뭐든 해주실 건가요?”

“내가 할 수 있고, 해선 안 될 이유가 없다면.”

“헌신적이시군요.”

이런 사람이 왜 그토록 시스템을 없애려 할까.

‘어쩌면 할 수 없고, 해선 안 될 이유가 있다는 걸지도.’

아니면 인간 아닌 무언가로 변질되며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다.

‘그런 경우가 적은 건 아니고.’

애초에 인간이 신비가 되는 일 자체가 드물기는 하다만, 그렇게 변질된 경우 사고방식이 바뀌는 건 흔한 일이었다. 그러니 ‘서지오 선생님’도 그런 것일까? 자기 보전을 위해 이런 헌신적인 사고방식을 버렸나?

단해라는 인형의 입가를 손가락으로 느릿하게 쓸었다.

“…….”

…아니, 글쎄.

‘딱히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

이유는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든, 이유가 없었다.

* * *

열심히 이동하던 중 대뜸 지오가 미간을 좁혔다.

“엇.”

“응? 갑자기 왜 그래.”

“어디선가 올려치기를 당한 느낌이.”

“그런 것도 알 수 있어?”

“아뇨, 그냥 느낌만 그렇습니다.”

지오가 드물게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뭐지?”

이 좋고 나쁜 기분은?

* * *

어느 순간 정해운은 사라져 버렸다.

“정원사라는 이름값을 하네.”

과연 정원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던 정원사라는 것일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정해운의 빈자리에 묘한 아쉬움을 느끼기도 잠시, 단해라가 제 곁의 길쭉한 인형을 보았다.

“선생님은 저와 함께해 주시리라 믿어요.”

“영원할 수는 없을 거다.”

“어쩌면 영원할 수도 있지.”

그녀는 제 뺨을 쓸고서는 말했다.

“…우리가 친하긴 했나 봐요?”

역시 그간 소비하지 않고 비축해 둔 감정 덕분일까. 이 엉성한 인형을 향한 애착이 선명했다.

‘약속으로 기억이 지워진다고 해서 영혼에 새겨진 친애까지 지워지진 않는 법이지.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일 텐데, 이런 것도 꽤 재미있네.’

아마 이것이 ‘서지오 선생님’을 흉내 낸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따지자면 이것은 몬스터에 가까우니 애착을 가질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랬다. 마음이 가고 손이 갔다.

단해라는 이 볼품없는 인형의 손목을 그러쥐고 있었다.

“당신이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어.”

“시스템을 말하는 걸까? 비밀이 많으시네요.”

“내가 만든 비밀은 아니었을 거야.”

“그럼 내가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정을 좀 하자면, 단해라는 이 인형이 꽤 탐이 났다. 그런 욕구가 어린아이의 탐욕을 닮았다는 것을 단해라는 인지하지 못했다. 기억과 감정을 버리고 산 세월이 꽤 된 탓이었다.

그녀가 욕심을 부려 한동안 기억과 감정을 비축하지 않았다면 이런 욕망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단해라는 억지를 부리듯이, 그러나 정교하게 웃으며 물었다.

“어떻게 해야 나와 함께 가겠어요?”

이 던전이 무너지면 결국 이 인형도 사라져 버릴 것이다.

“버리고 싶지 않은데 말이지.”

“날 먹으면 돼.”

“…….”

그 순간.

“…먹으라고?”

단해라는 아주 낯선 감정을 느꼈다.

“날 먹으면 돼.”

“…무슨….”

“날 먹으면 돼.”

“…….”

“나를.”

하지만 그 감정을 정의하지는 못했다.

이게… 무슨 감정이었지?

“…….”

“먹어.”

잘 기억나지 않았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354)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54)"

4.7 13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55)

355

제355화

오랜만의 통신에 잠시 정지한 수집상은,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협회장님께서 개별 행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래서야 영원의 상징 전부 믿음직스럽지 못한 상황이네요.”

지오는 사제의 얼굴을 한 채로 무표정하게 제 턱을 쓸었다. 감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반응에 그 곁에 있던 유성운이 슬그머니 물었다.

“기분이 안 좋은가?”

“딱히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최소한 웃는 얼굴은 아니잖아, 지금.”

“저라고 늘 웃지는 않아요. 음, 아뇨, 사실….”

“사실?”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어이쿠.”

유성운의 엄살에 지오가 다시 사제의 미소를 지었다.

“하하, 심각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심이니까요.”

“일단 영원의 상징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심각하지 않다고 보긴 어렵지….”

“단지 걱정이 될 뿐입니다.”

“그래도 이름값에 걸맞은 경험들이 있으시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만.”

지금까지 정리한 통신의 정보가 사실이라면, 일단 정해운은 실종 혹은 배신을 한 상태였다. 유스티티아의 길드장은 던전 바깥에 있고, 단해라는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니 그녀가 먼저 연락해 오지 않는 한 그 소식을 알 수 없었다.

“어디 보자….”

그렇게 말한 지오가 잠시 눈을 굴려 위를 쳐다보았다. 사실 본다기보다는 무언가를 계산하는 시늉에 가깝다고 유성운은 생각했다. 저 입에서 무슨 예언이 나올지 불길해졌다.

이내 지오가 입을 열었다. 처음으로 나온 건 질문이었다.

“저희가 공략을 시작한 지 꽤 되었지요?”

“어, 글쎄. 시간이 워낙 왜곡되어 있는 상태라 명확하게 대답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이었겠지?”

“공략을 준비하던 지구에서의 시간까지 합친다면요?”

“아, 그러면 그건 정말로 적지 않은 시간일 거야. 물론 시간의 많고 적음은 사람마다 느끼는 편차가 크긴 할 텐데, 그걸 감안해도? 아마?”

“제 생각에 협회장님께서 그동안 ‘약속’을 자제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나?”

유성운이 제 목을 쓸었다.

“그렇겠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 초상화의 말이 맞았다.

이런 중요한 공략에 직접 참가한다는 의사를 진작에 밝혔던 협회장이다. 그녀의 능력은 기억 혹은 감정을 연료로 써야 하니, 심각한 사태에 쓰기 위해 가능한 비축해 뒀을 가능성이 높았다.

마력이나 체력 따위와 다르게 그런 연료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게 왜?”

“저만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

“그게…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겠다.”

“그렇죠?”

이 던전이 서브 던전을 만들어내는 기준은 아직 잘 모른다. 누군가의 것은 주관적인 기억에 의거해 만들어졌고, 누군가의 것은 실제 객관적인 과거를 토대로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집단이 크면 클수록 던전 대상자로 당첨될 확률은 낮아진다. 지금까지 서브 던전은 한 팀 앞에 하나씩만 나타나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개별 행동을 하게 되면 거의 필연적으로 본인 컨셉의 서브 던전을 마주치게 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단해라는 현재 드물게도 기억과 감정이 풍부한 상태일 터였다.

“지오 너는 협회장님이 감정에 휘둘릴까 봐 걱정하는 거야?”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면역이 낮지 않겠습니까?”

“협회장님이 이런 식으로 기억과 감정을 비축한 사례는 이전에도 몇 번이나 있었어. 그동안 아무런 문제도 발생한 적이 없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놓고 싶습니다만, 이 던전은 개인의 취약한 부분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협회장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악신과도 여러 번 상대해 보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 악신도 인간의 취약한 점을 찌르는 것으로는 만만치 않아.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모든 고난과 과제를 공략해 오셨어. 걱정을 조금 덜어도 되지 않으려나?”

“글쎄요.”

조금 더 고민하는 시늉을 하던 초상화가 이내 말을 덧붙였다.

“이전보다 훨씬 더 취약한 상태가 되어 버린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취약한 상태라?”

“예를 들어 거대한 ‘약속’ 하나가 깨진다든가.”

“어우.”

“그러지 않아도 이미 그 기미는 보이고 있었죠.”

“시스템의 종료를 말하는 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헌터들의 모든 시스템이 종료된 건 아니잖아. 아마 던전 바깥의 지구는 여전히 ‘약속’이 작동 중일 텐데?”

“그냥 걱정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지오도 잘은 모른다. 그가 알기는 뭘 알겠는가, 제 몸 하나 챙기기도 바쁜 이 세상에 말이다. 하지만 ‘서지오’와 얽힌 네 제자들의 과거사가 결코 평범하지는 않으리라 확신했다.

‘모르긴 몰라도 사고 하나 거하게 쳤을 것 같던데.’

상황 돌아가는 스케일을 보아하니 감이 영 좋지 않았다.

‘애초에 우리 은혜가 그렇게까지 지레 겁을 먹어버렸던 걸 떠올려 보면 그때 정말 심상치 않은 사고를 친 걸 테고. 내 성격 알면서도 혼나고 버려질까 그렇게 걱정했으니….’

지오라고 그 언젠가의 기억이 있는 건 아니었다. 떠오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알아도 좋고 잊은 채로 지내도 상관없겠지만 중요한 건 그의 제자들이었다.

‘최소한 제정신 박혀 있으면 본인이 잘못한 줄은 알고 벌벌 떨게 될 정도의 기억이라는 거잖아. 은혜 성격 자체가 말랑한 편이라 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게 해라라고 크게 다를까?’

글쎄, 아닐 것 같았다.

“…느낌이 안 좋네요.”

“좋아, 예언으로 쳐도 될까?”

“저는 예언을 할 줄 모릅니다, 유성운 씨. 유언비어를 남발하지 말아 주세요.”

“일단 그런 걸로 알아둘게.”

“과연 알아둔 걸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너스레를 떠는 유성운의 모습에 지오가 어깨를 으쓱였다.

“어떻게든 되겠죠.”

“최근 네가 한 말 중에 제일 무서웠어, 지오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될 대로 되라는 심정입니다.”

“혹시 우리한테 정떨어졌니?”

“그건 또 무슨 모함이죠? 저는 억울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다행인 일이지만, 손을 놓아버린 것 같아서.”

“다 큰 어른이 되었으면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니 뭐, 맞기는 한데. 혹시 그 ‘다 큰 어른’이 협회장님인가?”

“이것저것 포함해 아마도요.”

대통령이 되어버린 옛 제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부터 지오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 정도 반응이면 정말

어지간히 잘못한 게 있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런 감상이 전부였다.

지오는 상상력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그 상상력으로 최악의 최악까지 떠올려 보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화가 나진 않을 것 같았다. 다시 말해 정말 아무 상관도 없다는 뜻이다.

'못난 과거에 괴로워하는 건 내 몫이 아니지.'

우리 똑똑한 해라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 * *

"……."

"해라야."

"…아."

잠시 멍을 때렸나.

"…이게 무슨 감정이더라?"

"선생님에게 묻는 거니?"

"글쎄요, 아마도… 그렇지 않나 싶네요."

"무서워하고 있구나."

"그렇군요, 이게 공포였어."

손을 들어 제 이마를 가볍게 쓸었다. 단해라는 그 작은 행동에서 제 손끝이 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호흡과 행동을 평소처럼 제어해 보려고 했지만 영 쉽지가 않았다.

미약한 현기증이 이는 것 같기도 했고, 귀와 뇌를 관통하는 희미한 이명이 들리는 것도 같았다. 공포, 공포라. 단해라는 반사적으로 이 감정의 가치를 계산했다.

'약속에 있어 꽤 괜찮은 대가가 되겠는데,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니….'

그렇듯 자연스럽게 계산하다가도 생각이 턱 막혔다. 계속해서 비슷한 생각만 머릿속에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이게 아마 공포의 무게일 것이라, 그걸 체감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이 궁금하니?"

"왜 당신을 먹으라고 했지?"

"너희가 그렇게 했잖아."

"……."

단해라가 헛웃음을 지었다. 평소의 '협회장님'에게선 찾아볼 수 없던, 더없이 나약하고 불안정한 웃음이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지할 새도 없이 말이 튀어나갔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네."

신을 먹는다.

"자주 있는 방식이기는 해, 아주 고전적이고."

"나는 언제나 여기에 있어."

"야만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효과는 확실했겠죠. 어느 신비의 역사에서든 섭취 행위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마련인지라."

“늘 여기에 있을 거야.”

“최소한 선생님의 살점을 뜯어먹는 것처럼 고상하지 못한 방식은 아니었길 바라요. 그래, 하지만 여태껏…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는 못했었어. 왜일까?”

나름 뻔하다면 뻔한 정답이었다. 정해운에게 이미 한 차례 ‘서지오 선생님’을 취해 S급의 능력을 얻게 된 것이라 언질 받은 바가 있지 않던가.

‘그런데도 그 고전적인 방법을 떠올리지 못했다니.’

무의식적인 선택이었을까? 내가 이미 버렸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의 존엄성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왜인지 본능적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배제하고 있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고?”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하긴 그것도 그래.”

거짓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실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단해라는 손을 들어 볏짚 인형의 얼굴을 쓸었다. 그건 이전과 달리 거부감이라도 느끼는 듯 옅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뭘….”

무어라 질문하려던 단해라의 입이 이내 닫혔다.

“…….”

“해라야.”

“정신이 없네.”

감정, 감정, 감정.

아, 이 번거로운 것. 단해라는 감정에 휘둘리는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던 제 몸에 기생충이 기어들어 온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이제 그 기생충이 내장을 휘젓다 못해 뇌로 기어들어 온다. 그래서 이렇게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벌레를 꺼내 죽여버리고 싶었다. 없애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쓸모가 있는 대가잖아.’

내 소중한 연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괴물의 능력. 누군가는 이 능력을 보며 신의 힘에 달했다고 이야기했다. 신이라는 그 단어에 단해라는 문득 언젠가 본 낯을 떠올렸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창백한 남자의….

“…….”

그는 한때 인간들의 신이었을까?

‘별로 재밌는 일은 아니었을 거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지워버렸다.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그동안 미리미리 비워두지 않고 쌓인 감정의 여파가 이토록 컸다. 그 짧은 순간 사이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태로 변해버리고 만다.

하지만 저의 작동을 무디게 만드는 것에 대해 별로 궁금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곱씹고 싶지도 않았다. 이렇게까지 말 몇 마디에 휘둘리는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못마땅했다.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빨리 여기를 나가야겠네."

인간들에게 시스템은 좋은 교보재가 되어줄 것이다. 단해라는 제 욕심을 위해, 협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위해 시스템을 얻을 것이다.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 이 이상 '과거'를 알아선 안 됐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볼품없는 모습이 된 것은 설마 이렇게까지 면역이 없을 줄은 몰랐던 탓이다.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

"떠날 거니?"

"그래야겠네요, 선생님."

영원의 상징에게 '선생님'은 불필요한 존재다.

그러니 이대로 모른 척 벗어나면, 그러면….

* * *

"서서희 새끼도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정해운이 여기저기 널브러진 광대들을 보았다. 생명이라곤 한 톨도 없는 인형처럼 쌓인 모습들에 미안한 감정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저 시선을 돌렸다.

당장 정해운에게 중요한 건 인간으로서의 도리나 양심 따위가 아니었다.

"…애초에 우리 같은 놈들이 누군가를 이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

의식적으로 말을 뱉으면서도 누구를 향한 말인지 명백하진 않았다. 제 정신 나간 친구들을 향한 것일 수도 있었고, 미련하게 그들을 믿는 국민들을 향한 것일 수도, 아니면 저 자신을 향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이었잖아."

문득 샘물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다.

"……."

20대에서 30대 정도. 어느 순간 노화가 멈춰버린, 그야말로 전성기의 모습. 정해운은 이보다 그들이 조금 더 어렸던 시기를 떠올렸다. 잘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떠오르긴 했다.

학생이었을 때의 모습이 떠올라 정해운이 턱을 괴었다.

'…과거를 돌이킬 방법은 없겠지.'

사실 정해운 자신도 지금 그가 정확히 무얼 위해 이러고 있는지 몰랐다. 그냥 그대로 영원의 상징이라 불리며 칭송받으면, 아주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러고 있었다.

어쩌면 제오르제와 같은 목적일 수도 있었다. 최대한 내 본성대로 쓰레기처럼 굴고, 그렇게 인류의 배신자로서 이곳에 남아 죽어버리는 거지. 비리 많고 말도 많던 최초의 정원사로서 그다지 나쁘지만은 않은 결말이었다.

"그래. 그래요, 그렇다 치고…."

조용히 샘물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던 정해운이 이내 걸어 어느 광대 앞에 섰다.

"어디 봅시다."

"……."

"그래요, 예쁘네. 아주 잘 어울려."

"……."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긴 한가 봅니다."

정해운이 빙글 웃었다.

“우리가 구면은 아니죠, 차 헌터님?”

그녀가 가야 할 곳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56)

356

제356화

각 장신구에는 얽힌 이야기가 있었다.

"선생님, 강녕하셨는지요?"

"아람이도 많이 컸구나."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낸 건 달님교의 사제들이었다.

일명 '정원 공식'을 단순화시키는 것에는 실패했다. 아니, 정확히는 뒤로 미뤄뒀다. 아무리 단순하게 만들어도 헌터들이 못 알아들을 거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탓이다. 사제인 그들이 신성력을 다루는 탓에 공식을 더 쉽게 이해하는 탓도 있을 것이고 말이다.

그래서 달님교가 선택한 것은 본격적인 탐색이었다.

"덕분에 이렇게 선생님의 얼굴을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수집상 내부에서 휴식을 취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또 이런 큰일에 끌려오게 되셨다니...."

"나야 이런 기회에 산책이라도 하게 되면 좋지. 그보다 이렇게 우리를 쉽게 찾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것 덕분인가? 정원 공식이라고 부르는 그거?"

"맞습니다. 사실 선생님이나 수집상 여러분을 찾았다기보다는 던전의 장신구 위치를 쫓아온 거지만요. 태양교가 분열된 이유가 장신구 탓이었다는 것은 아직도 놀랍네요. 하도 머리채를 잡아 뜯길래 순수한 내부 분열로 해체되었을 줄 알았습니다만."

"그리고 그 귀걸이가 강서담 사제님의 손에 들어가 우리에게까지 온 것도 놀라운 일이겠고."

"그렇습니다, 저희처럼 이 정원의 공식을 읽지 않는 이상 다른 참가자를 만나기는 정말 어려울 텐데 말이에요. 자애로우신 태양의 여신께서 강서담 사제님을 돌보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신이 내린 운빨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안 될 만큼, 이 던전에서 아무 조치도 없이 다른 생존자를 만나는 일이 어렵다는 뜻이었다.

"물론 이 던전의 주인에게 배려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미묘한 표정으로 그녀의 시선을 피하는 강서담에 이해한다는 듯 아람이 다시 지오를 보았다.

"그럼 마저 설명해도 될까요?"

“오랜만에 보니 여러모로 후진이 없어졌구나.”

“짧게나마 봉문을 했던 동안 뭐라도 성장한 부분이 있다니 참 다행이지요.”

“자신감이 커진 것은 인간에게 있어 무척이나 좋은 성장이지, 아무렴.”

참고로 아람은 수집상 일행과 마주치자마자 ‘귀걸이—!!!!’부터 외쳤다. 처음부터 생존자가 아닌 귀걸이를 쫓아 움직이고 있었다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반응이긴 하다만. 여러모로 예전보다 얼굴이 두꺼워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아무튼 아람은 아예 제대로 시간을 할애할 생각인지 진지한 얼굴로 설명을 이었다.

“이 던전의, 그러니까 이 정원에서 발견되는 장신구는 특별합니다. 일반적인 던전이었다면 파괴 시 공략이 가능할 정도로 중요도가 높아요.”

“딱히 파괴가 되지는 않는 것 같던데.”

“그야 그것들이 이 정원의 일부인 탓이죠. 정원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장신구들도 부수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덕분에 저희가 이곳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거고요.”

“다른 장신구는 찾아내기 힘들었던 건가?”

“아뇨, 좀 약은 생각입니다만… 장신구를 발견하면 그와 동시에 광대의 습격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님교에서는 이미 발견된 장신구부터 찾아가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귀걸이가 ‘이미 발견된 장신구’라고 판단했던 건… 아무래도 직접 귀걸이를 들고 떠돌던 강 사제님 덕분이려나?”

“정확합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장신구는 현재로서 이 귀걸이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발찌와 목걸이는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다. 해당 장신구를 보관하고 있던 팀이 그 장신구를 두고 떠났든가, 아니면 전멸했다는 의미일 것이었다. 그리고 정황상 후자의 확률이 더 높았다.

제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장신구로 추정되는 물건’이라는 것을 제외한 세부적인 형태는 알 수가 없어서, 결국 달님교는 굳이 도박을 하기보다는 명백히 산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쪽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게 귀걸이의 형태일 줄은 저희도 몰랐지만요.”

“하지만 우리를 처음 봤을 때 분명….”

“예, 귀걸이를 부르짖었죠. 여기서 방금 언급한 ‘이야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달님교가 단순히 장신구의 뒤를 쫓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공식을 세운 뒤에는 한결 여유도 생겼겠다, 이 복잡한 정원에 신비가 어떻게 흐르는지도 보이겠다, 달님교는 이동 과정에 확인할 수 있는 특이점을 꼼꼼히 짚어가며 움직였다. 진리를 보고자 하는 학자 특유의 지독한 탐구심이 한몫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편지인가?”

“아마 사랑의 편지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오의 곁에 가만히 있던 유성운이 슬쩍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 아예 처음 보는 언어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해석’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군.”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토록 낯선 문자를 쌩으로 해석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뭐라도 자료가 넉넉했으면 또 모르겠다만, 지금 아람이

들고 있는 편지는 고작해야 3개였다.

대충이라도 해석은 했다는 걸 보면 언어에 규칙성은 있는 모양이다만… 유성운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기예였다.

그런 유성운의 모습에 아람이 뿌듯한 얼굴로 뒤의 사제들이 소중히 안고 있는 달님을 가리켰다. 공손하면서도 어딘가 자부심이 넘치는, 팔불출 보호자의 모습이었다.

“저희 달님이 큰 역할을 해주었죠.”

“역시 달님의 위엄이 어디로 가지 않는가 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으로 돌아오자면.

“이 편지는 각각 연결되는 장신구가 있습니다. 장신구 혹은 그에 준하는 물건의 존재감은 여기저기서 느껴지는 데에 반해 편지의 존재감은 고작 3개인 것을 보니, 아마 장신구가 발견되면 그다음에 편지가 나타나는 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귀걸이와 연결된 편지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지? 구분이 가능하니?”

“네, 물론이에요. 일단 보시다시피….”

지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아람이 편지를 보여주었다.

“둘의 색이 같아요.”

“오.”

“귀걸이도 파란 보석이고 편지도 파란색이죠. 물론 이런 일차원적인 부분만 보고 세트 취급을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 달님교는 명백히 둘에게서 같은 입자와 색깔의 신비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요.”

“그 정원 공식이라는 거 대단하네, 색도 보고.”

“선생님께서 감탄하실 정도라니 기쁩니다. 아무튼 저희는 편지의 내용도 해석을 마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가 파란색 귀걸이의 형태이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유성운이 턱을 쓸며 비음을 흘렸다.

“흐음….”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게.”

아람의 질문에 유성운이 조금 멋쩍은 낯으로 말했다.

“정말 여기서 비롯된 모든 것은 신비일 뿐이라는 걸 새삼 깨달아서 말입니다.”

“최소한 저희는 사람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좀 허탈해진 것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동할 때마다 세상의 모습은 변하며 그것을 구성하는 물건과 배경도 달라진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휘황찬란한 샹들리에나 호화로운 저택도 그저 신비의 입자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혹은 허상이라 생각하니 좀 우스워진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한 유성운이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런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정작 정원사인 저도 못 보는 걸 보고 말이죠.”

“사실 본다기보다는 계산에 더 가깝기는 합니다. 허공 위에 떠도는 입자들의 상태를 기억하고 공식에 대입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귀걸이 색깔이 파란색인 것도 알았다는 겁니까? 거의 기적에 가까운 계산법인데.”

“분명 사전에 파란색일 것이라 계산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얼추 짐작은 했을 겁니다. 편지의 색깔이 너무 선명해서 분명 이 색도 힌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파랑, 초록, 노랑. 유치해 보일 정도로 쨍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확실히 일반적인 편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편지의 색깔에 무언가 의미를 담았음이 훤히 보이는 분명한 색감이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아람이 편지를 곱게 열며 말했다.

“꽝을 고르셨습니다.”

“세상에.”

이 몹쓸 정원이 하다 하다 사행성 행위에 손을 대었단 말인가.

지오는 못된 것만 배우는 제오르제의 학습력을 한탄했다. 하필 지구에서 무언가를 배워도 확률 게임을 배울 줄은 몰랐다. 그의 내면에서 ‘지오반니 씨’가 말없이 욕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꽝이라니? 설마?”

“이거… 정답이 따로 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아람이 고개를 돌려 강서담을 바라보았다.

“귀걸이는 어디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까?”

“…제가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만, 숨겨진 보석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겨진 작은 보석함이었는데 그 안에 있던 것을 가져왔다고 하더군요.”

“마치 귀한 것을 숨겨둔 것처럼 위장해 두었단 말씀이시군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전혀 귀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애초에 그런 식으로 숨겨져 있던 것이 인간의 사고를 반영한 함정이었다고요?”

“함정보다는 사기에 가깝겠네요, 귀한 것처럼 보이도록 꾸민 것이니까.”

아람이 고개를 숙여 자신이 들고 있는 파란색 편지지를 폈다. 그녀는 그사이 별다른 이상이 생기진 않았는지 확인하더니, 이내 끄덕이고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건 던전 주인으로 추정되는 자를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살펴보니 던전 스토리용으로 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편지 같더군요. 언어야 그렇다 쳐도 편지 안에 등장하는 여러 관용어와 물건, 건물은 정확히 공통적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어서….”

“크흠, 주교님.”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편지들의 주인을 스토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은 납치범이나 노예 상인 정도겠네요. 거의 홀린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절대 상대가 달가워할 애정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집착인 듯 보였죠.”

“맞아요, 솔직히 읽으면서 소름 끼쳤어요.”

달님교가 불쾌하다는 듯이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아람과 끼어든 사제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다. 학자이며 사제 이전에 평범한 인간인 만큼 이런 종류의 끈적한 감정에 거부감이 드는 건 당연했다.

“그리고 아마 편지를 받는 대상도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았나 봅니다. 아니,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확실한 건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큰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었다, 라.”

“그건 귀걸이의 관리 상태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정말 소중한 사람이 준 소중한 선물이었다면, 지금 이곳이 일종의 던전이라고는 해도… 과연 저런 너덜너덜한 상태로 존재했을까요?”

심지어 실제 현실의 물건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신비의 입자로 재현, 혹은 재구성된 물건이다. 사심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재현 과정에 의지를 불어넣었을 던전 주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면 반짝반짝하게 관리를 해줄 만큼 큰 애정이 없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 역시 함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 던전, 이 정원의 기본 방향이 ‘폭로전’인 것을 생각해 보면 이마저도 속임수일 확률은 비교적 낮아진다. 특히나 이곳은 검은 망토가 정원을 던전 형식으로 바꾸어 그린 곳이 아니던가. 인간들이 영향을 받는 만큼 던전 주인도 영향을 받고 있다 생각해야 옳았다.

이곳의 참가자들의 ‘행복’을 컨셉으로 서브 던전이 생겨났듯이, 이 공간은 던전 주인의 ‘행복’을 컨셉으로 한 게 거의 확실해 보였다.

“그러니 일단 속임수가 아니라고 쳐보자는 거죠. 그럼 확실히 큰 애정이 없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하, 그래서 꽝이라고?”

“사실 꽝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음, 글쎄요. 최소한 이런 종류의 장신구와 편지가 던전 주인의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발견 즉시 광대의 공격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던전 주인이 약점을 들켜 뭔가를 더 알아내기 전에 막아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치기에 광대들은 딱히 장신구를 회수하지도 않는다. 심지어는 장난을 치듯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한다.

“저희는 그런 광대의 등장이 일종의 벌칙이 아닐까 추정 중입니다. 꽝이라고 말한 것도 그 탓이었고요. 던전 주인에게 큰 가치는 없지만 발견한 사람에게는 재난을 불러일으키니 꽝이라고 말할 법도 하죠.”

“그렇다면 그 반대인 ‘정답’의 경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가?”

“…….”

눈을 깜박인 아람이 이내 지오의 질문에 대답했다.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신비의 입자 흐름이 이런 장신구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더 유순한 곳이 있어요.”

“유순하다는 건…?”

“단순히 재현되었을 뿐인 이런 편지와 같은 정원의 일부가 아닌, 실제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던전의 주인이 아끼고 아끼는 물건이라는 뜻이겠죠. 다만 그 탓인지 영 위치를 잡기가 힘듭니다.”

“존재감이 흐린가 보네.”

“공백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음, 잡초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그 존재감이 확 드러나지는 않죠. 오히려 섞여 있어서 굳이 찾아내기 어렵다고 해야 할까요. 광대들을 실질적으로 인지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그 엇비슷한 원리이지 않을까 추측 중입니다.”

“그럼 우선은 그것부터 찾아야겠구나.”

“그래야 정말로 ‘정답’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셀 수 없는 시간이 지난 지금, 드디어 목표가 생겼다.

(다음 편에서 계속)

Chapter (356)

Prev
Next

Comments for chapter "Chapter (356)"

4.7 13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Connect with

Login
Notify of
new follow-up comments
Email
›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The Artist Who Paints Dungeon RAW novel - Chapter (357)

357

제357화

던전 공략의 키포인트가 그 주인에 의해 숨겨진 것.

"전형적이죠."

"그렇기는 한데…."

아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유성운이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너무 전형적이라 오히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던전이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정원이었고, 그 정원을 검은 망토의 힘으로 던전화시켰을 뿐이다. 이런 식의 공략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진입 전 회의 때 말이 나온 적은 있었으나 대부분 거기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진입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익숙한 구조의 던전이 아니다 보니까… 진입한 이후에 느끼기로는 더욱 그랬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애초부터 '던전'의 개념으로 생각하길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저희도 흐름에 대해 파악한 다음에야 확신했습니다, 그전까지도 단지 수많은 가정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토록 왜곡이 많은 상황에서라면야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달님교 최대 사교성을 지닌 아람이 자연스럽게 유성운을 위로했다. 한동안 수집상과 함께 이동할 것을 생각해 가능한 한 말을 붙여보려는 것이 느껴졌다.

그즈음 지오가 슬그머니 모습을 보였다. 달님교와의 짧은 회의를 마치고 출발한 이후로 줄곧 차은혁과 대화를 나누는 듯 싶더니, 이제는 이쪽에 흥미를 가진 모양이었다.

"무슨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까?"

"아, 던전 공략에 대한 이야기."

"확실히 그런 방식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

유성운은 평소처럼 '정말 몰랐던 걸까?'라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옆에 있는 달님교의 새로운 주교께서는 '서지오 헌터'를 인간 선생님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던가.

그가 세간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상당히 장난스럽고 의뭉스러운 존재라는 걸 알려봤자 좋을 게 없었다.

'인간 선생님 놀이를 하며 한창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던데... 큐레이터로서 그걸 방해하면 안 되는 일이지.'

거기까지 생각한 유성운이 그저 웃었다.

"다행이지 않아? 덕분에 뭐라도 해볼 수 있게 됐네. 사실 이대로면 일부를 제외한 선발대는 전부 낙오될까 봐 걱정하고 있었거든. 솔직히 이 정도 상황이면 전멸도 가능할 것 같아서...."

"설마 전멸까지 갔을까 싶습니다만, 아무래도 좋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아람이와 달님교가 정말 큰일을 해주었어요."

그렇게 말한 지오가 빙긋 눈웃음을 지으며 아람의 품에 안긴 달님을 보았다.

"우리 달님께서도."

그 순간 달님이 반짝거렸다.

"......."

"어...? 달님이...."

"흠."

"제 말에도 이렇게 밝은 반응은 보여준 적이 없으신데,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나중에 달님과 선생님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보아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보고 대답해도 되겠니?"

"아, 물론입니다. 제가 잠시 흥분했네요. 이런 반응은 워낙 드물어서...."

"하하."

나름 능숙하게 웃음으로 흘려 넘기는 지오의 모습을 유성운이 묘한 눈으로 보고 있었다.

'...달님교의 새 주교님께서 절대 멍청한 사람이 아닐 텐데 이걸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고.'

아람의 굳건한 편견 덕분에 슬며시 넘어가기는 했다만, 이 녀석은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정말 숨길 생각은 있는지 알 수 없는 모습들을 한 번씩 보여주고는 했다.

"그나저나 궁금한 게 있는데."

주제를 돌리려는 것인지 지오가 아람에게 질문했다.

"편지의 정확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교님?"

"선생님께 주교님이라고 불리니 기분이 조금 이상하네요...."

"능숙해 보이던데 엄살은."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소연하지 않고서는 못 배길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돌아가서 하고, 음, 아무튼."

처음부터 어른으로 의지하던 지오와의 대화라서 그런 것일까. 이전보다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의 아람이었지만, 그녀는 한결 긴장이 풀어진 아이처럼 지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동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성별에 대해서는?"

"남성이 드레스를 입는 세계가 아니었다면 아마 편지의 주인은 여성일 겁니다. 본인이 입을 드레스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드레스라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값이 제법 나갈 텐데, 귀족이었으려나?"

“아마 그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그보다 신분이 낮은 듯했어요. 신분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아람이가 그렇게 파악했다면 그게 맞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에 관해서라면, 글쎄요.”

잠시 고민하던 아람이 이내 말을 이었다.

“편지의 주인은 그것을 받는 상대를 ‘내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

“아니면 ‘내 꽃’이라든가, ‘나의 어린 새’라든가 하는 식이었네요. 그래서 편지를 받는 대상의 연령대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혀가 꽤 달콤한 걸 보니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나이가 좀 있는 편이 아니었을까?”

“최소한 어린아이는 아니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수신인이에요. 편지에서는 그 대상을 아주 어리게도 묘사하고 점잖은 어른으로도 대했으니까요.”

“그거참… 이상한 일이네.”

“개인적으로는 성인이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주인이 소아 성애자일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비위가 상해서.”

편지는 꽤 두툼했다. 만약 짧은 편지였다면 제아무리 달님교라고 해도 내용을 해석하는 건 무리였을 것이다. 덕분에 언어도 해석할 수 있었고, 내용도 더 풍성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어쩌면 정말로 편지를 받는 사람이 모습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저희는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을 던전 주인, 혹은 그와 관계가 깊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존재가 인간 시절부터 다양한 권능을 지니고 있었다 해도 이상할 건 없으니까, 그렇지? 나도 이해가 되네.”

“아니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정신에 무언가 이상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랄까, 집착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신인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며 반응을 살폈던 것 같아요.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며 찬양하기도 했죠.”

편지의 내용이 너무 달콤하고 무거웠던 나머지 징그러움마저 느껴졌다. 그가 사용한 언어는 꽤 고상한 종류일 것이라 판단했지만, 아무리 곱게 포장해도 징글징글한 그 집착을 지울 수는 없었다.

“꼭 홀린 사람 같았습니다만… 이게 누구의 탓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원래부터 편지를 쓴 사람이 그토록 큰 욕심을 보였던 건지, 아니면 수신인 쪽에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버린 건지.”

어느 쪽이든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였다. 세상에는 그토록 ‘사랑’에 집착하는 다양한 정신 이상자들이 존재했고, 또 한편으로 이 던전은 무척이나 쉽게 사람을 홀렸다. 어쩌면 둘 모두였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저희가 찾은 3개의 편지는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미사여구에서 시대상이나 문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얽힌 이야기의 정확한 흐름을 알아내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역시 다른 단서가 더 필요한 걸까?”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던전 주인이라도 한번 등장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뭐. 일단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여기까지네요.”

“고생이 많았네.”

고맙다는 듯이 웃은 아람이 이내 제 동료들을 돌아보았다. 달님교의 사제들은 그녀와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무언가를 감지, 아니, 계산해 낸 반응들이었다.

“슬슬 ‘정답’으로 추정되는 것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말대로, 주변의 풍경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이곳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군요.”

“…아!”

수집상의 누군가가 탄성을 뱉었다.

“보석의 수맥!”

확실히 그곳을 닮아 있었다.

* * *

“보석의 수맥이라면….”

차은혁의 중얼거림에 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차은혁 씨가 생각하는 그곳이 맞을 겁니다.”

“보통 정원에 지구의 던전이 등장하기도 합니까?”

“굳이 따지자면 그곳과 동일한 곳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정말로 그저 닮은 수준?”

“이유가 분명 존재하겠지만, 같은 형식의 다른 장소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차아라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차은혁이 묘한 눈으로 지오를 보았다.

“그때 정말 무서우셨다고.”

“그것뿐이었나요?”

“밥이 맛있었다고 했죠.”

“아, 마음이 너무나 좋군요.”

“그러십니까.”

서로 검은 망토의 존재를 안다고 시인한 이후, 차아라와 차은혁은 꽤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를 처음 마주쳤던 ‘보석의 수맥’ 역시 그중 하나였다.

“사실 제 눈에는 뭐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만….”

“그래도 보석들은 확실하게 보이죠?”

“네, 신기하네요. 보석이랑 그 바로 근처까지만 뭐가 보여서요.”

“공중에 빼곡히 자생하는 일종의 몬스터가 있는 탓입니다.”

지오가 손을 가볍게 휘둘렀다.

“다행히 태양의 빛은 어느 정도 통하네요.”

옅게 빛나는 그의 손 주변으로 시야가 훤해졌다.

“달님교의 사제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저희의 힘은 잘 통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달은 태양과 달리 스스로 빛날 수 없었다. 아람이 대표로 고개를 저었다.

“실제로 ‘보석의 수맥’을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거기보다 공기가 조금 더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중에서는 기껏해야 달님께서나 힘을 조금 쓰는 느낌이랄까.”

그 말대로 달님과 그것을 품에 안은 아람, 그 바로 지척까지는 시야가 훤했다. 시야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달님이 자진해서 빛을 내기 시작한 듯 보였다.

그럼에도 주변이 다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지구와 같은 형식이라도 확실히 그보다 높은 등급의 던전, 혹은 까다로운 정원다운 깐깐함이었다. 쉽게 무언가를 내어주는 법이 없었다.

“…….”

그리고 지오는 말없이 눈을 껌벅였다.

‘…또 나만 보이나?’

몬스터들이 둥둥 떠다니는데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없었다.

‘예전에 다나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르네.’

일단 ‘보석의 수맥’은 기본적으로 부정의 기운이 강한 곳이었다. 사실 강한지 잘 모르겠지만 하늘 같은 유성운 씨가 그렇다고 했으니 그런 거겠지. 아무튼 ‘보석의 수맥’에는 유령 형태의 몬스터들이 조금 있는 편이었다.

‘여기도, 조금 비슷한가….’

형태가 뭉그러진 유령들이 일부 보였다.

‘정말로 나만 보는 것 같지만.’

지오는 남들도 보기 전까지 입을 다물지, 아니면 미리 말해줄지를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이곳은 무시무시한 던전 내부. 인명 피해가 나기 전에 고지해 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보석의 수맥과 동일하게 유령 형태의 몬스터가 관찰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구의 던전과 비슷한 건지 이곳의 몬스터도 크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 이 또한 어떤 식으로 왜곡될지 모르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행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언데드형 몬스터에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는 사제들과 온갖 저주 및 이상 현상에 능숙한 수집상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비교적 순조롭게 탐색을 진행했다.

“흠, ‘쾌락의 정원’과 ‘보석의 수맥’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지구에서는 그리 인지도가 높은 던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뭐어, 속되게 말해서 맛이 없는 던전으로 유명하기는 합니다, 주교님.”

유성운이 특유의 무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공략으로 인정되는 탈출을 하기는 어려운데 특별히 떨어지는 보상은 적죠. 들인 공에 비해 얻는 것이 적으니 대부분의 헌터들이 기피하는 곳입니다. 그래도 불법적으로나마 돈이 되는 게 있다면 안티캣 정도일 것이고요.”

“유성운 큐레이터님은 ‘보석의 수맥’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군요? 혹시 진입해 보신 적이 있는 걸까요? 안티캣 이외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까?”

“아, 딱히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제 파트너인 서지오 헌터님께서 관심을 보이시기에 조금 조사를 해 바친 게 전부였던 터라.”

“선생님께서…?”

지오가 웃으며 제 어깨 위의 동글동글한 물새를 매만졌다.

“우리 집 장남이 보석을 워낙 좋아한 덕분이죠.”

“아하, 이해했습니다.”

물새의 습성에 대해 전부 외워둔 아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알기로 다나 씨를 ‘보석의 수맥’에서….”

“맞습니다. 데려와서 키우고 보니 쑥쑥 성장하는 것이 참 기특했죠, 애교도 많고요.”

“안티캣이 애교가 많다는 말은 정말 처음 들어보네요.”

그즈음이었다.

“아, 저쪽에서 입자의 이상이….”

“…….”

“…누가 있군요.”

얼굴을 굳힌 아람의 말에 유일하게 시야가 확보된 지오가 입을 열었다.

“광대입니다.”

조금 익숙한 모습의, 광대 말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